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txt

제목: 바로 서는 언론을 보는 게 최고의 항암제  
날짜: 2016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30193850001  
본문: 호젓한 산길이었다. 여름 한철 붐볐을 펜션의 현수막이 빛바랜 채 나부끼고, 대목이 지난 음식점은 문을 닫았다. 도심 광장에서 주말을 보내는 몇 주 사이, 가을은 소리 없이 저물었나 보다. 마른 잎을 떨군 나무들은 단단한 속살 속에 정기를 모으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앙상하지만 강인한 나목 숲 사이로 계곡이 깊었다. 수량이 많지 않아 물소리는 잔잔하지만, 얼지 않은 계곡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축령산 기슭의 한 요양원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입구에 도착해 전화를 걸자, 그가 현관문 바깥으로 나와 손을 흔들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적적하실 텐데, 여기 인터넷은 되나요? “그럼요. 촛불집회도 열심히 보지요. 요즘 최고의 항암제예요. 하하하~.” 그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이용마(47) 기자는 해직 언론인이다. 2012년 엠비시(MBC) 파업 때 노조 홍보국장이란 이유로 첫 번째 해고자가 되었다. 해고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회사는 그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1년8개월째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복막암 진단을 받았다. 그에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 쌍둥이와 아내가 있다. 요양원에는 팔순 노모가 와서 그의 식사수발을 하고 있다. 그를 만난 지 이틀 후, 박근혜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주류언론과 종편은 일제히 ‘촛불민심의 승리’를 선언했다. 같은 시간, 이용마 기자는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다. “탄핵안 가결 이후가 더 문제다. 국회에서 탄핵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국가와 사회의 중추기관을 장악한 자들이 쉽게 권력을 내놓지 않기 위해 앞으로 온갖 술수를 다 쓸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기득권의 목소리만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현재의 언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반하는 세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한다. 시민혁명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이용마 페이스북. 12월9일 오후 5시 56분)2012년 MBC 파업 당시 첫 해고자해고무효소송 1·2심 승소했으나복직거부로 최종심 기다리던 중지난 9월 갑자기 복막암 진단자연요법·항암식품으로 몸 다스려 ‘강자에 약한’ 현실의 기자들삼성 비판하는 기사 쓰고 나면삼성·지인·회사 돌아가며 압력사내게시판에 ‘삼성공화국’ 글 쓰자 라디오방송 편집부로 전보발령 ‘아빠가 좀 아프단다’ “곰보배추차예요. 이게 염증에 좋대요.” 그가 찻물을 끓여 찻잔에 따라주며 말했다. 쌉싸름하면서 뒷맛이 개운했다. -항암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술은 안 했어요. 따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진 않아요.” -정말요? 10월 중순에 수술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9월초에 복강경 수술로 조직검사 받고 난 뒤에, 요로결석이 와서 응급실에 두 번이나 실려 갔어요.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1~2주 만에 체중이 6킬로나 빠져서 체력이 바닥나다시피 했어요. 그 상태로 수술을 받는다는 게 겁나더라고요.” -원래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긴 한 거예요? “처음 간 병원에선 수술 못한다고 했어요. 복강경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콩을 쫘르르 뿌려놓은 것처럼 종양이 솟아 있다고…. 복막암에 권위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그분은 한번 수술을 해보자 하더라고요. 근데 얘길 들어보니까 수술 규모가 굉장히 커요. 복막을 다 뜯어내야 하고, 소장도 거의 다 잘라내야 하고, 대장도 일부…. 수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술시간만도 12시간쯤 걸린다고.”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이었다. 복막암이 원체 희귀암인데다가 말기가 되기까진 자각증상도 거의 없어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다. 수술을 한다 해도 12개월 생존율이 50%라는데 일상생활을 거의 포기한 채 긴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한다는 데 회의가 들었다. 수술 대신 자연치유에 의지해 보기로 하고 경북 영천의 농가에서 한 달쯤 요양을 한 뒤 남양주로 장소를 옮겨 규칙적인 생활과 식단, 자연요법과 항암식품으로 몸을 다스리는 중이다.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운동부터 해요. 아침 먹고 조금 쉬었다가 10시경부터 항암식품을 먹어요. 아까 내 방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게 다 항암식품들이에요. 종류가 많아서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먹다 보면 오전이 금방 지나가죠. 오후에는 밥 먹고 등산을 갑니다. 처음엔 조금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하루 1~2시간은 거뜬해요. 등산 후엔 샤워하고 항암식품들 먹고, 시간 나면 스스로 뜸을 뜨기도 하고, 저녁식사 후엔 족욕을 한 시간 정도 하고요.” -완전히 풀케어로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남들은 저더러 무료하고 심심하겠다고 하는데,(웃음) 그렇지 않아요. 하루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아이들은 자주 보세요? “여기 온 지 한 달 반쯤 되는데 그사이 두 번 왔나? 원래 우리 집이 서울인데, 판교 청계산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공기 좋은 곳으로. 오늘 잔금 보내는 날이라고, 나더러 하라네요. 마누라가 자기가 하면 되는데 꼭 그런 건 나를 시켜요.(웃음)” 그 아내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았다. 공기 좋은 동네의 새집이 당신 집이니 얼른 쾌차해서 돌아오라는 뜻이 아닐지. -애들은 아빠가 왜 여기 있는지 아나요? “알아요. 얘기했어요. 국립암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보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숨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뭐라던가요? “작은놈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아빠 아픈 거 함께 아팠으면 좋겠대요. ‘왜?’ 하니까 ‘아프면 아빠랑 여기 함께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대한민국은 삼성장학생의 나라 이용마는 남원에서 2남1녀의 막내로 태어나 전주에서 자랐다. 전주고를 졸업하고 1987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했고 같은 과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문화방송에 입사한 것은 96년. 해직되던 2012년까지 그는 남들이 꺼려하는 재벌 비리, 특히 삼성 비리에 대한 보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바람에 미운털이 박혔다. -원래 꿈이 기자였어요? “아뇨. 기자 되겠단 생각은 기자시험 볼 때 처음 했어요.(웃음) 아버지가 지방공무원이셨는데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집안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행정고시 보고 입신양명, 관료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정치학과에 갔군요. 근데 왜 고시를 안 봤어요? “그게… 87년에 대학에 입학했잖아요.(웃음) 87년 6월항쟁을 겪으면서 사회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고시를 봐도 군사정부에 복무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길이냐 회의가 들었어요. 뭘 할지 결정하기보다 우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사회과학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89년 독일이 통일되고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석사를 하고 군대를 마칠 때쯤부터 뭘 할지 고민하다가 택한 게 기자였어요. 기자는 적당히 공부도 하면서 현실을 발로 뛰면서 접하니 좋겠다 싶었죠. 나중에 보니 잘못 알았던 거지만.(웃음)” -해보니 어떻던가요? 기자가 적성에 맞았어요? “저는 기자의 가장 큰 장점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서 서장실 발로 박차고 들어가고 큰소리치지만, 관공서 경비원이나 길거리 환경미화원에게는 기자라고 큰소리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겸손해야죠.” -현실은 반대 아닌가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무관심한 기자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김영삼 정권 말기고,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았죠. 지금처럼 정치권력이 재벌을 대변하면서 공영방송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재벌이 직접 나서서 언론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4년이던가, 삼성 이재용의 불법 상속문제에 대한 고발이 공소시효 7년이 다 돼가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마침 검찰 출입 기자일 때라 그걸 가지고 계속 기사를 썼죠. 근데 다른 기자들은 스트레이트 기사도 안 쓰는 거예요.” -왜요? “나도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언론사 검찰 출입 기자한테 ‘왜 안 쓰냐’고. 그랬더니 ‘다 알면서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쓰면 삼성에서 전화 오고 지인한테서 전화 오고, 회사에 가면 부장이 따지고 들고, 이래저래 기사가 빠지는데 뭐하러 쓰냐고….” -실제로 그렇던가요? “일단 쓰게 되면 삼성이 제일 먼저 전화해요.(삼성 불법상속 고발 건을 방치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니까 삼성이 전화해서 ‘왜 검찰을 비판하냐?’고 항의하고, 그다음엔 삼성이 제 지인들을 동원해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엔 회사 선배들이 또 찾아오고.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영화 보면 검사가 선배 검사 부름을 받고 모임에 가보면 재계 당사자가 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술 먹고 어울리다 보면, 10개 쓸 것을 7~8개로 줄이고, 다시 5~6개로, 그러다가 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가 재벌을 위해 로비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요. 언론이나 검찰, 정부에 ‘삼성장학생’이 있단 얘기가 나오는 건 허튼 말이 아니에요.” 분통이 터져서 사내 보도국 게시판에 ‘삼성공화국’이라고 몇 차례 글을 쓰기도 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모두가 함구했고 돌아온 것은 라디오뉴스 편집부로의 전보발령이었다. -근데 계속해서 삼성 관련 보도를 했지요. 왜 그렇게 삼성 문제에 매달린 거예요? “내가 매달린 게 아니라 삼성이 날 쫓아다녔어요.(웃음) 처음엔 내가 경제부 기자여서 썼고 그 후 금융팀에 있었으니 썼고, 그 후 삼성 불법상속 문제가 검찰에 고발되었을 때는 내가 또 검찰 출입이라서…. 기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부처를 두루 돌았는데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건 대한민국 핵심 부처가 모두 삼성에 장악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게 겉으로 보면 정치권력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삼성의 힘이라고요. 어차피 대통령은 5년 가는 건데, ‘권불5년’에 재벌은 3대, 4대 세습을 하잖아요. 재벌은 무소불위의 권력, 대한민국의 가장 굳건한 기득권 세력이죠. 그 핵심에 삼성이 있고요.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의 개혁이라는 건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나라고 왜 억울함이 없을까마는…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긴 인터뷰가 그의 체력에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웠다. 점심식사를 하고 좀 쉰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는 잠시 차를 몰아 밖으로 나왔다. 이제 나는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려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다.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170일간에 걸친 파업 이야기. 이명박의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은 참담한 패배로 끝났다. 6명이 해고되고 총 250여명이 정직, 징계,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다. 파업을 시작한 건 이명박 때문이었으나 파업을 패배로 마무리 지은 건 박근혜 때문이었다. 유능한 기자와 피디들은 비제작부서로 발령이 났고, 바른말 하는 조합원은 승진에서 누락되었으며, 한때 30%대이던 엠비시 뉴스의 시청률은 2~3%대로 떨어졌다. 박근혜가 물러난다고 해서, 몰락한 공영방송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이용마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복귀해서 재벌 비리를 파헤치는 보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식사 잘 하셨어요? 원래 산행하실 시간인데. “괜찮아요.” -2012년 파업 이야기를 여쭤보려고요. “네.” -투병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분과 억울함, 한편으론 죄책감과 미안함의 복합적인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2012년 억울하게 해직당하고 그 모진 고초를 겪지만 않았어도 이런 병마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잠시 침묵)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발병 소식 전해지면서 후배들이 문자나 전화를 많이 보냈어요. 첫 번째 감정이 억울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버티는데, 거기다가 암까지 생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감정들….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한편으론, 그간 너무 빡빡하게 쉼 없이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잠깐 쉬어 가라는 뜻인가 보다.” -제일 견디기 힘든 괴로움은 뭐예요? “사실 제일 큰 어려움은 후배들 보기 미안한 거죠. 우리들이야 상관없지만 후배들은 한참 일해야 하는데 그 많은 숫자가 현업에서 배제되었으니까. 우리가 파업에서 이겼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MB 낙하산 김재철 퇴진 외친 파업대선 앞둔 박근혜 후보 쪽에서 연락 와‘파업 풀면 순리대로 해결하겠다’ 약속파업 중단한 날, 파업참가자들에겐‘MBC아카데미’ 전보 인사발령 떨어져간부들은 ‘정권 바뀌면 죽는다’ 생각“선거 다가올수록 편파방송 더 기승”최근 다시 시작한 트위터에 올린 글“기득권 세력에게 또 뺏길 순 없다”2012년 파업 때 쓰라린 경험 반영 -이번 촛불집회에서 엠비시나 케이비에스(KBS) 취재진의 경우 ‘꺼져라!’ ‘차 빼라’ 같은 야유를 받고 철수하거나, 회사 로고도 못 단 채 옥상에 올라가서 멀찍이 리포팅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한때 엠비시는 공정보도 조항에 관한 한 가장 진보적인 단체협약안을 가진 모범사례로 꼽혔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가슴 아프고 안타깝죠. 우리가 2012년 파업을 할 때도 그랬어요. 당시 파업을 했던 여러 계기 중의 하나가, 2011년 하반기에 한-미 에프티에이(FTA) 반대 시위를 하는데 엠비시 로고를 달고 못 나갔어요. 하도 욕을 먹어서.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 쏘는 거에 대해 아무 비판도 안 하고, 김문수 도지사가 119 전화해서 논란이 되었을 때도 엠비시는 보도 안 하고. 이명박 사저 관련된 보도 하는데 우린 청와대에서 주는 대로 받아쓰기나 하고. 그런 건들이 몇 차례 누적되다가 확 터진 거죠.” -그래서 2012년 1월30일날 파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별 소득 없이 170일 만인 7월17일 파업을 접었지요. 파업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나 보죠? “파업자 수가 줄진 않았어요. 오히려 파업 끝날 때 참가자 수는 최고조에 달했죠. 처음 500여명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 800여명까지 갔으니까. 근데, 회사는 막무가내로 ‘배 째라’ 식이었거든요. 이 정도 왔으니까 대선(12월) 때까지 가보자 하는 분위기.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에서 ‘이참에 엠비시의 디엔에이(DNA)를 싹 바꾸자’고 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170일 파업을 했어요. 근데 엠비시 사측은 대체인력을 계속 보강해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입장이고, 그때까지 6개월간 조합원들은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대선까지 가면 또 6개월을 그렇게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때마침 우리한테 출구를 제공해준 것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였죠. 박근혜 쪽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박근혜의 은밀한 약속, 그리고 기망(欺罔) -어떤 약속이었죠? “지금 국민의당에 간 이상돈 교수가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잖아요. 그분을 통한 전언은 ‘노조가 먼저 파업을 풀어라. 그럼 내가 순리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믿죠? “우리도 그게 박근혜 당시 후보의 생각인지 확인을 해야 했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엠비시 문제가 해고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참 유감이다’ 같은 멘트를 해달라고 했어요.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는데, 여하튼 우리가 원한 걸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틀 뒤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발언한 거예요. 그다음에도 연이어서 이상돈 교수를 통해 ‘노조가 명분을 걸고 들어오면 나중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같은 시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도 ‘김재철 사장 해임’의 뜻을 밝히고, 국회도 ‘언론 관련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엠비시 노조는 7월17일 파업을 중단했다. 그날 밤 11시쯤, 파업참가자 상당수를 ‘엠비시 아카데미’에 교육을 보낸다는 인사발령이 떨어졌다. 1, 2, 3기에 걸쳐서 100여명의 조합원을 현업에서 떼어놓기 위해 만든 명목상의 교육이었다. 급하게 짜느라 ‘브런치 만들기’ 같은 황당한 교육프로그램들로 시간을 때웠다. -김재철 사장의 해임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죠? “파업을 접고 8월에 새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문화방송 대주주) 이사진이 선임되었는데, 10월에 김재철 해임안이 논의될 때 김무성(당시 박근혜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이랑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문진 여당 인사에게 전화해서 해임안을 부결시켰어요.” -사기당했군요.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뒤, 11월14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 사실(박근혜 약속과 배신)을 조목조목 폭로했죠. 이상돈 교수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고요. 근데 아무런 반향이 없었어요.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존 언론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고요. 우리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대선 전이었는데도요? 야당은 왜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린 야당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 가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언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한숨)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걸 내놓으면서 국민 지지를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여당이 잘못하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시소게임만 하고 있으니….” 그 이후 원조친박은 진박, 비박, 탈박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탄핵 가결 이후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으로 갈라졌지만 공영언론의 역사에 큰 변곡점은 없었다. 일직선의 추락. 언론의 ‘흑역사’를 부른 부역세력들은 지금도 각 언론사의 수장으로 굳건하다. 특권 타파 없이는 개혁도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확정되면 공영방송의 기조에도 변화가 올까요? “현재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뀌는 그 순간까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방송사 간부들은 정권 바뀌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당이 재집권하도록 기를 쓸 테니까요. 그래서 선거 국면이 다가올수록 편파보도가 더 기승을 부릴 거라고 봐요.” -정권이 바뀐다면요? “야당이 집권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해가지곤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동안 공정방송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 사람이 그중에 몇 명이나 되나요? 이번 탄핵 과정처럼,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치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용마는 해고된 후,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한편 국민라디오에서 를 진행했다. 정치학 전공자로서 그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이번 겨울은 무척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봄쯤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지금은 누구도 예측불가입니다. 알량한 지식인의 예측, 다 필요 없어요.” -개헌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개헌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다 자기들 권력 연장 위한 술수일 뿐이죠. 나눠먹기 하자고. 왜 제왕적 대통령이 나왔느냐? 대통령이 여당과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동원해서 통제하니까. 그럼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은 왜 대통령한테 휘둘리느냐? 대통령이 인사권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한테서 그런 기관 인사권을 뺏으면 돼요. 국민들이 뽑도록 하면 돼요. 전 공영언론도, 국민배심원제처럼 그렇게 성별 연령별 균형 맞춰서 심사단 구성해서, 사장 후보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고 뽑게 하면 좋겠어요. 대통령 뽑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듯 언론사 사장 뽑는 데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8월30일자로 멈춰 있던 트위터를 최근(12월5일) 재개하셨더군요. “이번 시민혁명이 갈 방향. 가진 자와 없는 자들 간에 또다시 벌어진 건곤일척의 승부! 기득권 세력에게 또 권력을 뺏길 수는 없다”고 쓰셨던데요. 2012년 파업 때 기득권 세력에게 이용당한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얘기처럼 들렸어요. “2012년 대선 때 야당에서 ‘박정희냐 노무현이냐?’ 이런 황당한 구도를 내세운 적이 있는데 그건 절대 맞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득권 대 비기득권’ 구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누가 그런 구도로 갈 것이냐. 야당에 그럴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야당조차도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돼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도를 펼치지 못한다면,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기존의 세력과 대결하는 구도로 가야 실질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어요. 단순히 대통령 하나 몰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득세해온 기득권 구조를 깨고 국민적 요구를 정치적 요구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의 마지막날. 해직된 지 1763일째인 이용마는 여전히 출근을 저지당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에 5개월째 계류 중이다. 녹취 심지연▶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txt

제목: [장흥배,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날짜: 2016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28183902002  
본문: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탄핵 소추된 대통령 박근혜가 임기 전체를 통틀어 일관되고 정열적으로 옹호한 한 가지 경제적 신념이 있었으니 그것은 규제 완화였다. 그에게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나 “암 덩어리”로 은유되고,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하거나 “모두 물에 빠뜨리고 필요한 것만 건지는” 대상이었다. 만천하에 드러난 그의 지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관한 그의 깊은 적대감은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약 80년 전에 에서 묘사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의 사고는 그것이 옳을 때나 틀릴 때나 모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적인 영향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미 고인이 된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일 뿐인 경우가 보통이다. 권좌에 있는 미치광이는 허공에서 목소리를 듣지만, 그 광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학구적인 난문으로부터 증류되어 나오는 것이다.” 최순실이 만약 주술적 힘을 가져 죽은 경제학자의 목소리를 박근혜에게 전해주었다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2006년 사망한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이었으리라. 그는 사인의 특정한 능력을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는 모든 제도들, 즉 인가제, 면허제, 등록제 등에 반대했다. 시장의 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만인의 상식에 과감히 도전했다. 그는 의료면허제도를 공격했다. 시장은 결국 돌팔이를 도태시키고 명의를 부자로 만들어 각자의 능력에 따른 정의를 실현할 것이었다.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에 비례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신, 이것이야말로 프리드먼이 대변하고자 했던 규제 완화 사상의 요체이다. 그런데 박근혜 게이트의 거의 모든 스캔들에서 확인되는 국가의 타락상에 깜짝깜짝 놀라는 마음들은 국가의 힘을 줄이고 시장에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에 솔깃해질 수 있다. 사실 규제 완화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정부의 일관된 흐름이었다. 또 국가 청렴도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역사적 추세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 자체의 논리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가 재벌들의 노골적인 뇌물 거래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잠시 제쳐둘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법은 규제 완화를 사고할 수 있는 예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제 파견 대상 확대 등으로 사용자의 비정규직 사용의 자유를 더 확대하고자 했다. 또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 가능했던 합법 해고의 범위를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까지 확대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더 낮추고자 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44년 채택한 필라델피아 선언의 첫번째 조항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노동시장 선진화법은 노동력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여러 규제들을 최대한 없애겠다는 것이다. 노동권이 잘 보호되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도 1990년대 이후 해고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사용자들은 “오늘의 해고가 내일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런데 오늘날 프랑스에서 고용이 늘었다는 소식은 없다.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가 된 한국에서도 기업 투자는 내리막길이고 실업률은 유례없이 높다. 박근혜가 프리드먼의 사상을 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규제 완화가 재벌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일 요술 지팡이라는 사실은 귀신처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재벌들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은 규제 완화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규제 완화 일변도 국정 운영 속에서 재벌과 부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쌓았지만 노동자와 가계는 더 가난해졌다. 규제 완화는 공익을 해하는 사익 추구의 논리이다. 재벌들이 규제청정지역법으로 부르는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당과 자칭 진보 시민단체의 찬성을 받는 공청회까지 거쳐 2017년 어느 때쯤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규제를 아예 말살하겠다는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들도 총선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그대로 재발의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감옥에 갇히고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그들이 재벌들로부터 주문제작 의뢰받아 만들어진 규제 완화 법안들은 건재하다. 촛불 시민항쟁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해하는 사익 추구의 체제가 건재하다는 말이기도 하다.[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txt

제목: 반올림, 삼성전자·엘시디 노동자 5명 집단 산재신청  
날짜: 20161227  
기자: 박태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27154826001  
본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디스플레이 공장 등에서 근무했던 백혈병·뇌종양 사망 노동자 유족과 유방암·난소암·림프종을 앓고 있는 전직 노동자들이 노동건강권 관련 시민단체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도움을 받아 집단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와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반올림이 대리한 집단 산재신청으로는 2008년 이후 12번째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41살의 나이로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사망자 2명과 환자 3명에 대한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199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라인과 3라인의 오퍼레이터(생산직)로 일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퇴사 뒤 넉달만에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한달도 안된 지난해 7월 숨졌다. 앞서 백혈병으로 숨져 산재 인정을 받은 황유미씨와 이숙영씨를 포함하면, 기흥공장 3라인에서 백혈병 사망자가 확인된 것만 3명에 이르는 셈이다. 앞서 숨진 2명은 법원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 엘시디(LCD)사업부 엔지니어로 입사해 천안·아산공장과 중국 소주공장에서 일하다 2013년 뇌종양 판단을 받은 뒤 투병하다 47살의 지난해 숨진 김아무개씨와 삼성에스디아이 천안공장 피디피(PDP)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지난해 악성림프종이 발병한 신아무개(35)씨도 함께 산재신청을 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퇴사 후 10년만에 유방암이 발병한 김아무개(36)씨와 삼성전자 구미·수원공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이 발병한 위아무개(51)씨도 신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반올림’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 이들은 현재까지 모두 84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았고, 46명은 공단의 심사나 법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txt

제목: 차병원 제대혈은행 국가지정 취소…복지부, 차광렬 수사 의뢰  
날짜: 20161227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27152844001  
본문: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불법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차 회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불법 제대혈 주사를 놓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그동안 받은 5억여원의 예산도 토해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27일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연구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회장과 그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에게 9차례 제대혈 주사를 맞도록 했다며, 제대혈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차병원 제대혈은행과 제대혈은행장인 강아무개씨(진단검사의학과 의사)를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도 제대혈을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차 회장은 지난해 1월과 6월, 올해 8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냉동혈장과 냉동제대혈 주사를 맞았다. 또 그의 부인은 지난해 1월과 올해 8월, 차 회장의 아버지는 올해 3월과 4월, 5월, 8월에 각각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탯줄에서 나오는 혈액인 제대혈은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각종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등이 풍부하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기증 제대혈로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중이었는데, 차 회장과 부인, 그의 아버지는 모두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아니었다. 황의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0'>이들에게 의사 강아무개씨가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제대혈 시술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제대혈의 항노화 효과를 어느정도 확신하고 있는) 차 회장이 암 투병중인 부인과 고령인 아버지에게 시술을 하려 했으나 둘다 연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게 됐고 두사람에게 투여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맞아서 안전성을 체크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대혈 불법 사용에 대해 차 회장의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의수 과장은 “<span class='quot1'>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왜 차 회장이 맞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 회장이 연구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직접 맞아보고 싶어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는데 나중에 시술한 강아무개씨의 경우, ‘본인이 먼저 건의를 했고 차 회장이 수용을 했다’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span>”고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주사를 맞은 차 회장은 아무런 처벌이 없지만, 만일 차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부여했던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해부터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대혈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환자 유인 혐의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원장 및 두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할 것을 강남보건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txt

제목: 32년 골초의 회한…“혀의 3분의 1을 잃었어요”  
날짜: 20161222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22182854001  
본문: “혀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32년 흡연으로 구강암에 걸렸어요.” 22일 저녁부터 지상파 텔레비전 등에서 방영되는 ‘증언형 금연광고’의 주인공 임현용(55·가명)씨의 이야기다. 그는 어눌한 발음으로 “담배가 생각날 때 기억하세요”라며 자신의 사연을 읊조린다. 증언형 금연광고란 흡연 피해자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직접 밝히는 것을 말한다. 2002년 코미디언 고 이주일씨가 나와서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라고 말하는 공익광고가 방영된 이후 14년만에 처음 제작됐다. 임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32년간 하루 한갑반씩 줄담배를 피워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됐다는 우월감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이후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올라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담배에 손이 갔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었고 고된 노동을 계속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3년 전 심한 어지러움증을 겪으면서 금연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올해 4월부터 목소리가 갈라지는 등 목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을 찾은 그는 구강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지난 6월 혀의 3분의 1을 잃고 말았다. 허벅지살을 떼어다 붙였지만, 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잘 먹을 수도, 발음을 제대로 할수도 없었다. 암이 전이되면서 목의 임파선도 절제해야 했다. 항암치료를 거쳐,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임씨는 “<span class='quot0'>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체중이 빠지면 위험하다고 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었다</span>”며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 이빨을 다 뽑았고 수술로 혀를 절제한 상태이다보니, 음식을 목안으로 억지로 밀어넣으면서 식사를 해야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보험을 미리 들어놓지 못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병원비로 다 썼다</span>”며 “<span class='quot0'>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광고를 찍게 된 계기를 묻자, 임씨는 “한 사람이라도 더 금연을 하게 만들어 나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이 광고를 보고나서 끊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증언형 광고를 제작한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만큼, 광고에 나올 출연자 발굴에 신중을 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10월 금연광고 출연자 모집을 통해 10월말에 1차로 26명의 후보를 걸렀고, 이후 해당 질병과의 연관성, 적정성 및 중증도, 캠페인 적합성, 광고 효과성 등 4가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로 임씨를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다. 파격적 티브이 금연 광고에 이어, 23일부터는 서울 용산구 ‘지에스25 서울역점’ 등 편의점 5곳을 시작으로,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가 판매된다. 담배공장에서 23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표기되기 때문에 기존 담배 재고가 소진된 이후인 1월 중순부터 편의점 등에 본격적으로 깔리게 된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1'>담배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도입한 이래 현재 101개국에서 시행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경고그림을 도입한 주요국의 제도 도입 전후 흡연율 변화 추이를 보면 평균 4.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배 판매점들이 진열을 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txt

제목: 4대 중증질환 수면내시경 검사·치료 건보 적용  
날짜: 201612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20192914001  
본문: 내년 2월부터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또 수면 상태에서 내시경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을 때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수면상태에서 내시경을 이용해 검사 또는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천~10만3천원에서 4만3천~4만7천원으로 줄어든다. 수면 위내시경 검사는 약 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면상태에서 내시경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4대 중증질환자뿐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 환자도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수면 내시경을 통해 종양을 절제할 때 환자가 내는 돈은 현재 20만4천~30만7천원에서 4대 중증질환자는 6만3천원으로, 일반 환자는 7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검사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심장 수술 뒤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줄이고자 받는 심장 재활치료(교육 1회, 평가 1회, 치료 12회 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한달 평균 약 49만4천원에서 31만8천~37만원으로 줄어든다.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txt

제목: 내년 4월부터 기본+특약 실손보험 나온다  
날짜: 20161220  
기자: 이정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20163816001  
본문: 내년 4월부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싼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도수치료 등 추가 보장을 원하면 특약으로 선택해 추가 비용을 내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를 손본 것이다. 새로 출시될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과 특약 세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40살 남성 기준으로 매월 실손의료보험비로 1만9429원을 냈다면, 앞으로 나올 상품은 기본형(1만4309원), 특약①(1394원), 특약②(834원), 특약③(1565원) 등으로 나뉘어 원하는 가입자가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약①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는 비급여 주사제, 특약③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MRI)로 구성된다. 기본형만 선택할 경우 1만4309원만 내면 돼 기존보다 26.4% 싸진다. 또 특약 세가지를 모두 선택하더라도 총 보험료가 1만8102원으로 6.8% 저렴하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병원별로 달랐던 자기부담액은 2만원으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3만원의 진료비를 보상받을 경우 30%인 9천원과 자기부담액 2만원 가운데 많은 금액인 2만원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100만원의 진료비의 경우 30%인 30만원과 자기부담액 2만원 가운데 더 많은 30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 횟수와 한도가 설정된다.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350만원까지,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연간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새 상품에 가입한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span class='quot0'>보험금 미청구자에게 할인을 제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간 형평성도 높일 것</span>”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들은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에 끼워팔지 못한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2% 수준으로 높고, 판매수당이 적은 실손보험을 사망·암보험 등과 함께 팔아 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는 간소화된다. 내년 중 모든 보험사가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 서비스를 시작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에선 회원가입 절차 없이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맞춰 내년에 새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하지만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양식화 등 의료계 쪽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txt

제목: 신규 암 환자 수 2년 연속 감소  
날짜: 201612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20140801001  
본문: 새로 암을 진단 받은 환자 수가 2012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에 걸린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은 암 진단 뒤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4년 암 발생률 및 생존율 현황’자료를 보면, 2014년 새로 암으로 진단된 환자 수는 21만7057명으로 이전 해인 2013년의 22만7188명에 견줘 1만131명이 줄었다. 신규 암환자 수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10만1032명에서 해마다 늘어나 2012년에는 두 배가 넘는 22만621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암 환자 증가 영향을 감안해 인구 10만명당 암 환자 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2011년 324.2명에서 2012년 323.3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314.1명, 2014년에는 289.1명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 암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갑상선암 발견이 크게 감소한 것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실제 신규 갑상선암 환자 수는 2013년 4만2823명에서 2014년 3만806명으로 1만2천여명이 줄었다. 갑상선암의 경우 2014년 3월 몇몇 의대 교수들이 중심이 돼 갑상선암의 과잉진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활성화된 암 검진 효과로 암을 조기에 많이 발견한 영향도 있으며, 금연·절주 등 암 예방 습관이 확산된 점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암은 남성은 위암이 가장 많아 전체의 17.8%를 차지했고, 이어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여성은 암 환자 4명 가운데 1명 꼴인 전체의 23.6%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이었다. 암을 치료한 뒤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인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010~2014년 기준 70.3%로 통계를 낸 뒤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5년 생존율은 2001~2005년에는 53.9%에서 약 10년이 지나 16.4% 포인트 높아졌다. 암 종류별로는 갑상선암이 10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립선암(93.3%), 유방암(92%), 대장암(76.3%), 위암(74.4%) 순이었다. 갑상선암의 경우 암에 걸린 뒤 건강관리에 주의하다보니,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1%로 크게 낮았고, 폐암(25.1%), 담낭 및 담도암(29.2%)도 낮은 편에 속했다. 한편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2014년 기준 약 146만5천명으로, 우리 국민 35명당 1명 꼴로 암을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 치료 뒤 생존하고 있는 암 경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통합지지체계를 구축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txt

제목: 무덤과 꽃의 공존, 노소동락의 세계  
날짜: 20161215  
기자: 최재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15192808003  
본문: 생오지 눈사람문순태 지음/오래·1만2000원 소설가 문순태가 전남 담양군 남면 생오지 마을에 정착한 것은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2006년이었고 그곳에서 쓴 단편 여덟을 모은 열번째 소설집 를 낸 것은 2009년이었다. 그로부터 7년 뒤, 단편 열편을 모아 낸 소설집 의 머리말에서 작가는 이 책이 이후 4년 만이라고 밝혔는데, 아마도 착오에 의한 잘못으로 보인다. 같은 머리말에서 그는 또 “이번이 내 생의 마지막 창작집이 될 것 같다”고도 썼지만, 이 역시 언젠가 잘못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 원로 작가의 지혜와 경륜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작가 또래 노인들이다. 이 책에서 노인들은 누군가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 오길 목 빠지게 기다리거나(‘휴대폰이 울릴 때’), 손주를 데리고 오기로 했던 아들이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됐다는 연락에 낙담하는가 하면(‘돌담 쌓기’), 피차 홀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유년 시절 여자친구와 외식 한번 하는 소원을 품기도 한다(‘자두와 지우개’). 요컨대 노인들은 외롭다. ‘시소 타기’의 주인공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조소래 할머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뒤로는 라디오를 켜 놓고 외출하며 밤에도 불을 켠 채 자는 것으로 외로움과 싸운다. 가게 물건을 훔치거나 노인들 지갑을 빼앗는다는 소문이 있는 불량 초등생과 놀이터에서 마주친 할머니가 우연히 그 아이와 시소를 타게 된다. 고아원에서 이 아파트 부부에게 입양되었던 아이는 부부의 이혼 뒤 버림받다시피 된 상태에서 파양을 기다리는 처지. ‘시소 타기’라는 제목은 피차 외롭고 막막한 노인과 아이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상보적 관계를 상징한다. 주로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상보적 관계는 소설집 속 여러 작품에 거푸 등장한다. ‘은행잎 지다’에는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젊은이와 그를 간병하는 마흔아홉살 여성이 등장한다. 간병인인즉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열다섯 나이에 이모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필두로 성적으로 거듭 착취를 당했으며 아들을 어린 나이에 사고로 잃고 자신도 암에 걸려 자궁을 들어낸 아픔을 지닌 인물. 준수한 외모임에도 그 나이까지 성 경험이 없었다는 젊은 환자가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날 밤 꿈결에서인 듯 간병인의 몸을 더듬고 그것을 엄마뻘 여자가 받아들여 두사람이 합환할 때, 그들 사이에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은 없었다. ‘흐르는 길’에는 죽음을 결심한 남녀가 나온다. 상처한 뒤 낙담한 나머지 아내의 뒤를 따르고자 마지막 여행 삼아 차를 몰고 나온 초로의 남자, 그리고 몸 파는 일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뒤 죽기로 한 젊은 여자. 예기치 않게 동행이 된 두사람이 여행 과정에서 서로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시키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 표제작 역시 노년과 청년의 상보적 관계를, 작가의 거주지인 생오지를 배경 삼아 그린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젊은 남녀 동수와 혜진은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이. 그러나 혜진이 동수의 아이를 배면서 일단 출산 이후로 ‘결행’을 늦추고,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을 찾아 서울에서 생오지까지 오게 된 것. 마을 노인들은 낯선 젊은 커플을 따뜻하게 맞아 주고, 동수는 노인들 힘에 부치는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후의에 보답한다. 사흘째 큰눈이 내려 밖으로 통하는 길이 끊긴 어느 날 오래 앓던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그 부인 역시 농약을 먹고 남편 뒤를 따르고, 그 소식에 놀란 또 다른 할머니 역시 돌아가시면서 마을에는 졸지에 줄초상이 난다. 눈으로 길이 막혀 구급차도 제설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임시로 눈 무덤을 만들기로 한다. 죽은 이들의 마당가 배롱나무 아래 눈 무덤을 쓴 뒤 한 노인이 중얼거린다. “<span class='quot0'>꽃이 필 때까지 눈이 녹지 않았으면 좋겄구먼.</span>” 소식을 들은 혜진 역시 배롱꽃을 보고 싶다고 동수에게 말한다. “<span class='quot0'>그때쯤이면 우리 아기 백일도 지나서인데… 그래도 배롱꽃을 보고 싶어.</span>” 무덤과 꽃의 공존. 이 소설집의 주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txt

제목: ‘술 1~2잔쯤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날짜: 2016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15090814001  
본문: 50대 이후에 주로 걸리는 부정맥의 문제는 자칫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지 않고 매우 빠르게 또는 느리게 박동하면서 뇌나 심장 근육 등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합병증이 나타난다. 부정맥의 치료에는 대체로 약물 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관련 전문의들의 도움말로 부정맥 발생 현황과 평소 일상생활에서 부정맥을 예방 및 관리하는 요령을 알아본다. ■ 50대부터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보면 부정맥 환자 3명 가운데 2명가량은 50대 이상이다. 선천적 이상 등으로 10대 이하에서도 환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환자 수는 크게 증가한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 다른 심장질환을 앓으면서 그 합병증으로 부정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50대부터 부정맥 외의 다른 심장질환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 나이대의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30~40대에서도 인구 10만명당 88~101명이 생기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성별로는 지난해 전체 환자 수인 6만6979명 가운데 여성 환자 수가 3만7731명으로 남성보다 20%가량 많다. ■ 소량의 음주도 피해야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은 흡연, 음주 등이다. 이 가운데 술은 하루 1~2잔 정도는 혈액순환이나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부정맥의 예방에서는 이도 피하는 것이 좋다. 1~2잔이라도 지속적으로 마시면 심장 박동이 정상보다 빨라지는 부정맥의 한 종류인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량의 음주라도 여러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술은 피하는 것이 권고된다. 커피의 경우 부정맥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평소 커피를 즐긴다면 하루 1~2잔은 허용되나, 체질에 따라 커피에 아주 민감한 사람은 커피를 마신 뒤 부정맥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담배는 부정맥은 물론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므로 금연은 필수다. 비만은 그 자체로 심장질환 발생의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을 통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혈관 건강에 이로운 채소나 과일을 꼭 섭취하도록 하되, 지방이 많이 포함된 육식은 줄이는 것이 좋다. 일부에서는 약초나 한약,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난 뒤 부정맥이 심해지거나 생겼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근력 운동도 권장돼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져 부정맥에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은 부정맥 예방 및 심장 건강을 위해 필수다. 다만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해 심장에 부담을 주면 곤란하다. 운동 종류는 유산소운동인 걷기나 산책을 비롯해 빨리 걷기나 달리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권장된다. 관절 건강이 좋지 않으면 수영을 하거나 물속에서 걷는 운동이 좋다.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과거에는 심장에 부담을 준다며 금기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 심각한 심장질환이 아니라면 큰 상관이 없다. 비만을 해결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유산소운동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육량이 남성에 견줘 적은 여성의 경우 근력운동을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일주일에 날을 잡아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매일 하되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1번에 30분 이상 해야 한다. 강도는 몸에 땀이 촉촉이 젖을 정도로 하면 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오래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운동이 없다면 평소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만 걸어도 운동의 효과는 누릴 수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txt

제목: 몸속의 ‘보이지 않는 손’ 암도 잡는 착한 바이러스  
날짜: 20161214  
기자: 오철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14103831002  
본문: 【인체와의 전쟁과 평화】 ‘바이러스가 면역계를 자극해 암세포 공격을 돕는다.’ 무서운 독감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하는 요즘에, 바이러스가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니 뜬금없는 얘기 같다. 감염병의 주범인 바이러스가 오히려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의 힘을 키워준다는 주장은 언뜻 엉뚱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영국 리즈대학 연구진은 최근 의생물학 저널 에 이런 논문을 냈다.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긴 하지만 정식 발표된 실험 결과다. 기특한 일을 해낸 이 바이러스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바이러스와는 다르다. 인플루엔자나 지카, 에이즈 바이러스와 달리, 실험에 쓰인 레오바이러스는 면역계가 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나 면역력이 약해진 노약자에겐 감기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지만 보통 성인에겐 감염돼도 별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연구진은 이 온순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쥐에서 면역물질인 ‘인터페론’이 더 많이 분비되었으며, 그래서 면역세포인 ‘엔케이(NK) 세포’가 더 활성화해 암세포 공격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우리 몸을 감염시키고도 별 증상을 일으키지 않은 채 머물다가 갖가지 방식으로 해로움이나 이로움을 주는 이른바 ‘인체 공생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인체와 바이러스의 상호작용, 즉 감염, 면역, 질병에 관한 새로운 발견을 국내 연구자의 도움말과 해외 과학매체의 보도를 통해 살펴본다. 질병-면역-건강의 재인식 기초과학연구원(IBS) 면역미생물공생연구단에서 장내 박테리아와 면역체계를 연구하는 김광순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장내 박테리아가 우리 몸과 사실상 공생하며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많이 밝혀졌죠. 그런 관심이 점차 우리 몸 안팎에서 함께 기거하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같은 다른 미생물 연구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는 “노벨생리의학상(1958)을 받은 조슈아 레더버그가 인간을 정의하면서 ‘슈퍼오거니즘, 즉 ‘초개체’라 했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과 건강은 우리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와 상호 작용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흔히 바이러스는 병원체로 여겨진다. 실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바이러스는 그동안 동식물에 심각한 감염병을 일으켜 퇴치해야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나오는 물음들은 새롭다.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전부일까? 이런 물음이 나오는 건 무엇보다 최근 바이러스 연구에서 별다른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채 건강한 사람한테서도 검출되는 바이러스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거의 모든 성인의 피에서 검출되는 아넬로바이러스는 일부 변종이 질병을 일으키지만 대부분은 증상 없이 우리 몸에서 그냥 기거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체에서 보통의 면역계에 의해 억눌려 있다가 면역계가 흐트러질 때 증식하는 경향을 띤다는 걸 알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인은 이런 바이러스들에 ‘만성적으로 감염된’ 상태에 놓이곤 한다. 연구자들은 “<span class='quot0'>모든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이제 사라지고 훨씬 더 복잡하게 생물학 현상이 설명돼야 한다</span>”고 말한다. 박테리아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역할 이런 바이러스들이 행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활약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학계에 보고된 새로운 발견 중에서는 놀랍게도 이런 바이러스의 만성적 감염이 다른 질병의 증상을 억제하기도 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후천적 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의 증식을 억제하는 구실을 한다고 알려진 ‘시형 지비 바이러스’(GBV-C)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는 그렇지 않은 에이즈 환자보다 수명이 더 길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학자들은 인체에 상주하는 이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을 억제하는 구실을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메커니즘이 상세히 밝혀진 건 아니다. 또한 박테리아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가 인체에 끼치는 역할도 자세히 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장내 미생물 연구에선 장내 박테리아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인체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잇따랐는데,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국에 사람 몸에도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미국 연구진은 생물학저널 에 박테리오파지가 장내에 증식할 때 장내 박테리아의 종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바이러스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불균형을 일으켜 질병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큰 관심은 암세포만을 골라 감염시키는 이른바 ‘항암 바이러스’다. 김광순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1'>자연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중 몇 종은 암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증식하며 암세포 사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전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골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빠르게 분열하는 특성을 지닌 암세포가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되는데 암세포는 게다가 바이러스 대항 체계도 잘 갖추지 못해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채옥 한양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연구실은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삼아 사멸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연구하는 연구실들 중 한 곳이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2'>암세포에만 감염, 증식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다양한 종양 살상 바이러스가 개발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일부 암종의 치료제로 지난해부터 시판되기 시작됐다</span>”며 “<span class='quot2'>국내에서도 우리 연구실을 비롯해 여러 회사들이 종양 살상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span>”이라고 전했다. 균형 깨질 때 생기는 게 질병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기거하는 바이러스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 면역계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걸까? 인체의 또 다른 동거자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관계는 어떠할까? 아직 이런 물음들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 추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온순한 바이러스들이 아기의 정상적인 면역체계 발달을 돕는 구실을 하며, 뚜렷한 증상 없이 약한 염증을 일으켜 평시에 면역계를 자극하고 활성화해 다른 질병을 억제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또한 기나긴 생명진화 과정에서 인체의 디엔에이(DNA) 안에 ‘화석’처럼 자리를 차지한 오래된 바이러스 염기서열 흔적들은 인체가 질병과 싸우는 면역 전쟁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체 미생물과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 몸이 거대한 생명복합체임을 보여준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2'>우리 몸은 2만4000여개의 유전자, 수십조개의 세포, 1000억개의 뉴런(신경세포) 등으로 복잡하게 이뤄지는데 무수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도 더해져 우리 몸은 짐작하기 힘들 정도의 복잡한 초거대 복합체</span>”라며 “<span class='quot2'>유기적으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초거대 복합체의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1'>우리의 디엔에이, 단백질, 세포가 이뤄내는 생명현상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현상이 인체 안팎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와 인체 면역계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span>”고 전했다. 오철우 선임기자 cheolwoo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txt

제목: “소외 계층 위한 비만 전담 주치의 필요하다”  
날짜: 2016121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13114853001  
본문: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소외 계층에게 비만 전담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2014년부터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시행한 ‘소외계층 비만 환자 의료지원 사회공헌 사업’ 결과를 13일 공개하고 이들의 비만 해결을 위해 전담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연구의사회에 소속된 의료진의 재능기부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이면서 체질량지수가 27 이상인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키(ｍ)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비만연구의사회는 조사 대상자의 몸무게·키·체질량지수·복부 둘레·혈압·우울증·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했고,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통해 식습관 및 운동 등의 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다. 그 결과 14주가 지난 뒤 몸무게는 평균 10.8%(10.64㎏) 줄었고, 체질량지수는 10.6%(3.95) 감소했다. 추적조사가 마무리된 26주 뒤에는 몸무게는 16.9%(17.72㎏), 체질량지수는 16.6%(6.51)가 줄어 전담 주치의 제도가 소외계층 비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 가운데 11명은 약을 먹지 않거나, 임신, 연락 두절 등으로 진료를 계속 받지 않은 점은 이번 사업의 한계로 남았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 비만 유병률은 30%를 웃돌아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 비만연구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몸무게, 체질량지수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증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공공의료의 한 정책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만 전담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txt

제목: 클러치, 연말 파티룩의 완성  
날짜: 2016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07195838001  
본문: 아직도 2016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느새 12월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얼굴 보자는 안부 인사를 더 미룰 수도 없는 12월로 접어들면서 개인적인 모임이나 업무 관련된 약속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해 중에서 사람들이 옷차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가 이맘때다.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내년에도 함께 일을 해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눈에 띄는 인상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다. 문제는, 매일 벗고 다닌 것도 아닌데 평소에 입던 옷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장만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 이럴 때에는 단 하나로 전체 의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가방, ‘클러치 백’을 추천한다. 클러치 백은 ‘쥐다’(Clutch)라는 뜻에서 유래한, 멜 수 있는 끈이나 들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형태의 가방을 말한다. 손에 쥐고 다니기에 무리가 없도록 크기가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지갑처럼 평평한 디자인은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가방이라는 뜻으로 ‘언더 암 백’으로 불리기도 한다. 클러치 백이나 언더 암 백 모두 격식을 차려야 하는 저녁 자리에서 주로 착용하기 때문에 ‘이브닝 백’에 속한다. 클러치 백의 대표는 1963년 미국에서 론칭한 디자이너 브랜드 ‘주디스 리버’로, 반짝이는 크리스털로 만든 꽃이나 과일, 동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작은 가방을 선보였다. 여성스러운 드레스나 우아한 정장 차림에 투박한 가죽 가방 대신 립스틱 정도가 들어가는 앙증맞은 크기의, 보석처럼 빛나는 이 가방은 할리우드 스타들과 각국의 영부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한때 엄마나 이웃집 아주머니의 장롱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구슬이나 금속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손가방’들이 사실은 그녀의 클러치 백을 따라 했던 디자인이었다. 최근에는 크리스털이나 진주와 같은 고가의 장신구 소재가 아닌 일반 가죽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클러치 백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가죽에 금박이나 은박을 덧입힌 클러치 백은 가벼우면서도 은은한 광택을 지녀, 평범한 의상을 단숨에 파티 의상으로 변신시켜 줄 수 있다. 탈부착이 가능한 체인 어깨끈이 있는 디자인이라면 출근 시에는 숄더백으로, 퇴근 후 모임에서는 끈을 떼고 클러치 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로 활용 가능하다. 밍크, 렉스 등 자연모부터 페이크퍼(인조털)까지 여러 종류의 퍼로 만든 클러치도 이번 겨울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방의 앞면만 퍼로 장식하거나 가방 전체를 퍼로 만들어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도 착용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느낌을 준다. 연말연시용 가방을 새로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퍼 참(가방, 옷 등에 매다는 장신구)이 대안이다. 가지고 있는 미니백에 퍼로 만든 참 장식을 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개성 있는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 단, 평소보다 과감한 가방을 착용하는 만큼 의상은 단일 색상으로 통일하거나 블랙 드레스 등으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지만 큰 효과를 내는 클러치 백으로 어떤 장소와 모임에서든 가장 빛나는 나만의 연말 스타일을 완성해보자. 권은주 제이에스티나 핸드백 마케팅팀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txt

제목: 지난해 태어난 여자아이 85살까지 산다  
날짜: 20161202  
기자: 김경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202152801001  
본문: 지난해 태어난 우리 아이는 몇 살까지 살까. 올해 봄 환갑잔치를 하신 옆집 어르신에게 남은 인생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궁금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에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1970년부터 해마다 발표하는 생명표에는 기대수명과 기대여명 등의 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다. 2일 발표된 ‘2015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의 기대수명은 79년, 여자아이는 85.2년이다. 한해 전에 태어난 남자아이보다는 0.4년(약 5개월), 여자아이는 0.1년(약 1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 0살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추정한 기대수명은 통계가 작성된 이래 추세적으로 늘어났다. 1970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62.3년(남녀 평균)에 그쳤다. 불과 46년만에 기대수명이 20년 남짓 늘어난 셈이다.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7년이 넘었지만 지난해엔 6년 정도로 좁혀졌다. 통계청 쪽은 “남자의 기대수명 개선 속도가 (여성에 견줘) 상대적으로 매우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정 연령에 있는 사람이 향후 얼마나 더 생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기대여명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마흔이 된 남성은 앞으로 40.1년을, 여성은 46.0년을 평균적으로 더 살 수 있다. 한해 전보다는 남자는 0.3년(약 4개월), 여성은 0.1년(약 1개월) 기대여명이 더 늘었다. 지난해 60살 남성은 앞으로 22.2년, 여성은 27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1970년에 60살인 남성의 기대여명이 12.7년(약 73살 사망)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지난해 60살 남성은 그 남성보다는 10년 가까이 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기대수명이나 기대여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장수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대수명과 여명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이기 때문이다. 생명표엔 생존확률도 보여준다. 예컨대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가 80살까지 살 확률은 56.5%이며 여자아이는 77.7%이다.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 10명 중 절반은 80살 전에 사망한다는 뜻이다. 모두가 ‘100세 시대’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기대수명과 여명이 늘어나는 것은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생명표에는 특정 질병을 인류가 극복할 경우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따져본 통계도 담겨 있다. 가령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사라진다면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의 기대수명은 5.1년, 여자아이는 2.9년 늘어나고 지난해 현재 65살인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도 각각 4.3년과 2.1년씩 늘어난다. 김경락 기자 sp96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txt

제목: 남성은 30대, 여성은 70대가 가장 뚱뚱하다  
날짜: 20161127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27140825003  
본문: 지난해 남성은 30대, 여성은 70대에서 비만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새 흡연율이 감소 추세인데 비해 비만율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당뇨병과 고혈압 판정을 받은 비중도 5년전보다 더 늘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 1735만7천명 가운데 1321만3천명(76.1%)이 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5년 전인 2010년(68.2%)와 비교하면 7.9%포인트 늘었다. 암검진은 대상자 2018만명 중 974만9천명(48.3%)이 검진을 받았다. 문진결과를 보면 지난해 비만율(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인 비중)은 전체 수검자의 34.1%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대별로는 남성은 30대가 44.7%로 비만율이 가장 높았고 40대(43.5%)가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70대와 60대가 각각 39.3%와 37.9%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비만율은 2010년 32.1%에서 2015년 34.1%로 높아졌다. 흡연율은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뚝 떨어졌다. 2010년 43.2%였던 남성 흡연율은 2014년 40.6%였고 지난해에는 37.9%였다. 30대 남성의 흡연율은 46.9%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 1차 판정 비율을 보면, 정상 판정이 42.8%로 2011년(49.4%)보다 6.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에 2011년에 견줘 질환 의심자와 유질환자의 비율은 각각 3.0%포인트와 3.6%포인트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span class='quot0'>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span>”고 설명했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2차 검진대상 인원은 47만9천명이며, 이 중 17만9천명이 당뇨병 검사를, 30만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당뇨병 판정을 받은 이들은 2차 검진을 받은 인원의 50.1%인 9만명이었고, 고혈압은 검사 인원의 51.4%인 15만4천명이 판정을 받았다. 2차 검진을 받은 이들 중 질환 판정비율을 2010년과 비교하면, 당뇨병은 9.9%포인트, 고혈압은 3.7%포인트가 각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당뇨병·고혈압 판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보연 기자 whynot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txt

제목: 주인공 51명이 엮어가는 아픔과 기쁨  
날짜: 20161124  
기자: 안창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24194907002  
본문: 피프티 피플 정세랑 지음/창비·1만2000원 사전 정보가 없는 독자라면, 약간 혼란스러울 것이다. 단편집인가? 아니, 책 표지엔 ‘장편소설’이라 했는데…. 은 50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다. 각 장의 제목은 모두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이 그 장의 주인공이다. 처음, 말기 암을 앓는 엄마를 위해 결혼식을 서두르는 ‘송수정’이 등장하고(1장), 병원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이기윤’의 이야기(2장)가 이어진다. ‘콩트’라고도 하는 ‘장편(掌篇)’인가 싶은데, 무심코 작가의 글을 따라가 보면, 이들이 모두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안팎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임을 알게 된다. 소설의 매력은 당연히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갖가지 사연이다. 병원 보안요원 ‘김성진’은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제압하면서 자신의 속 깊은 상처를 확인한다. 병원 근처 재즈카페의 주인 ‘조희락’은 “좋은 4년”이 지나 가게를 접었다. 세상을 버리려는 엄마를 발견해 119에 연락한 꼬마 ‘정다운’은 다급한 김에 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건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삶이 있겠나.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 이어진다. 소설의 다른 매력은 ‘뒤얽힘’이다. 어느 지점에서 주인공을 스쳐 지나간 인물인데, 조금 지나면 다른 장에서 주인공으로 독자를 찾아온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느슨하게, 때로 단단하게 얽혀 있구나. 책을 두고 “주인공이 50명쯤 되는 소설”이라고 한 작가(정세랑·사진)의 말에 동의하게 된다. 지난 1월부터 5달 동안 창비 블로그 연재를 거쳐 책으로 묶어냈다. 실제 주인공은 “어쩌다 보니” 51명이 됐다. 간혹 소설책에 줄을 치면서 읽는 독자라면, 각 장의 마지막 몇 줄에 줄을 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도 데려가.”(한규익) “다음 주 수요일엔 모자를 사야겠군, 계범은 마음 먹었다.”(하계범) “괜찮아, 예뻐. 스스로 말해본 건 처음이었다.”(문영린) 각각의 사연을 알고 나서 듣는 이 말들은 마음속에 수채화 붓질처럼 번진다. 물론, 한계도 없지 않다. 짤막한 이야기의 연쇄인 까닭에 각각의 깊은 접근은 애초부터 힘겨울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화물연대, 복지 등 사회적 주제도 등장하지만, 계몽적이라는 느낌을 남긴다. “<span class='quot0'>가장 경멸하는 것도 사람, 가장 사랑하는 것도 사람</span>”(이설아)이라고 할 때, 작가의 그 따뜻한 시선이 좋지만 삶은 그보다 좀 더 복잡할 것이다. 제목 ‘피프티 피플’(fifty people)엔 ‘ㅍ’이 너무 많아 숨이 차다. 안창현 기자 blu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txt

제목: 실손보험금 최다 질병은 ‘허리 디스크’  
날짜: 20161122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22222812001  
본문: 국민의 60%인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금이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간 질병 항목은 허리디스크로 약 1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3~2015년까지 3년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전체의 실손보험금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1593개 질병에 대해 12조98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코드별(단일 질병)로 구분할 때,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허리디스크(추간판장애)로, 3년간 9439억원이 지급됐다.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등 통증(4359억원·3.3%), 어깨병변(3340억원·2.6%), 요추·골반 탈구와 염좌·긴장 등 척추외상(3194억원·2.4%), 목디스크(3157억원·2.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지급보험금의 25.7%인 3조3419억원이 상위 10대 질병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금 지급이 일부 항목에 집중된 셈이다. 실제 이를 다시 A-Z코드의 25개 질병군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M코드)에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3조5532억원으로 가장 많은 27.4%를 차지했다. 외상(S코드)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은 1조8360억원(14.1%)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악성 암(C코드)이 전체의 8.6%인 1조1162억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실손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질병군 진료에선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이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2013~2014년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중 비급여 청구정보가 입력된 자료의 비급여 기록 71만9248개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청구금액 중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86.9%에 이르렀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매년 급등하는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를 안정화 하려면,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span>”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duck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txt

제목: 강남3구·분당, 유방암 발생률 높아  
날짜: 20161122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22184823002  
본문: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분당에 사는 여성들은 유방암에 걸린 비율이 높고, 경북 군위군과 충북 보은군에선 폐암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단위로 15년치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했다.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발생률은 ‘주민 10만명당 암진단자 수’로 산출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암관리 사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 24종류의 암 중에서 갑상선암이 지역별 암발생률에서 가장 격차가 컸다. 2004~2008년 구간의 경우, 남성 갑상선암 발생률이 전남 여수시는 37.7명인 데 견줘 강원 동해시는 2.6명에 그쳤다. 지역에 따라 14.5배나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담낭 및 기타 담도암(6배)과 전립선암(5.8배)도 지역 간 차이가 큰 편이었고, 위암(2.2배)과 폐암(2.2배), 대장암(2.3배)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간 차이가 적었다. 유방암(여성 기준)은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분당구에서 15년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서초구의 경우, 1999~2003년 구간과 2009~2013년 구간에서 여성 유방암 발생률이 각각 41.1명(10만명당)과 65.1명으로 모두 1위였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서울 강남 3구와 경기 분당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초경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이 낮으며 출산연령도 늦어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설명했다. 위암은 충북과 경북, 전북의 경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북 옥천군은 지속적으로 2~3위를 기록할만큼 남성 위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5년 주기별로 충북 괴산군과 경북 영양군, 경북 울진군에서 위암발생률 1위였다. 또 남성 대장암 환자는 대전 유성구와 충북 증평군에서, 여성 대장암 환자는 충남 금산군과 청양군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주로 대전시와 충청도 지역에서 대장암 환자가 많이 생긴 편이다. 폐암의 경우, 남성은 전남 화순군과 경북 군위군에서, 여성은 경북 청도군과 충북 보은군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하지만 위암과 대장암, 폐암 등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왜 발생률이 높은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진 못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은 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데, 길게는 30~40년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까지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성 간암은 경북 울릉군과 전남·경남의 남부지역(고흥, 밀양 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B형 및 C형 간염의 높은 항체유병률(간염 항체를 가진 비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됐다. 대도시에 견줘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담도암 환자가 낙동강 유역을 따라 많이 발생한 것은 인근지역에서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간흡충증 유병률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은 검진율이 암발생률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암연구소는 2003~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여성은 90%, 남성은 45%가 과잉진단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txt

제목: 실손보험금 3년간 13조원 지급…허리디스크에만 약 1조  
날짜: 20161122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22172833001  
본문: 국민의 60%인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금이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간 질병 항목은 허리디스크로 약 1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3~2015년까지 3년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전체의 실손보험금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1593개 질병에 대해 12조98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코드별(단일 질병)로 구분할 때,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허리디스크(추간판장애)로, 3년간 9439억원이 지급됐다.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등 통증(4359억원·3.3%), 어깨병변(3340억원·2.6%), 요추·골반 탈구와 염좌·긴장 등 척추외상(3194억원·2.4%), 목디스크(3157억원·2.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지급보험금의 25.7%인 3조3419억원이 상위 10대 질병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금 지급이 일부 항목에 집중된 셈이다. 실제 이를 다시 A-Z코드의 25개 질병군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M코드)에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3조5532억원으로 가장 많은 27.4%를 차지했다. 외상(S코드)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은 1조8360억원(14.1%)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악성 암(C코드)이 전체의 8.6%인 1조1162억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실손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질병군 진료에선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이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2013∼2014년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중 비급여 청구정보가 입력된 자료의 비급여 기록 71만9248개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청구금액 중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86.9%에 이르렀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매년 급등하는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를 안정화 하려면,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span>”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duck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txt

제목: 강남·서초·분당 ‘유방암’, 대전 유성 ‘대장암’ 위험지역  
날짜: 20161122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22110900002  
본문: 유방암은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분당에서 발생률이 높고 대장암은 대전 유성구와 충북 증평군 등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며, 시군구별로 최대 15배나 차이가 벌어졌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단위로 15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했다.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가 나온 것은 1999년 국가암등록 통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를 보면 갑상선암이 지역별 암발생률(거주민 10만명당 암 진단자)에서 가장 차이가 컸다. 2004~2008년 구간의 경우, 남성 기준으로 14.5배에 이른다. 이어 담낭 및 기타 담도암(6배)과 전립선암(5.8배)도 차이가 큰 편이고, 위암(2.2배)과 폐암(2.2배), 대장암(2.3배) 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았다. 여성 유방암은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분당구에서 15년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서초구의 경우, 1999~2003년 구간과 2009~2013년 구간에서 여성 유방암 발생률이 각각 41.1명(10만명당)과 65.1명으로 모두 1위였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서울 강남 3구와 경기 분당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초경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이 낮으며 출산연령도 늦어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통계(2010년)를 보면, 12살 이하에 초경을 경험한 비율이 서울시가 46%로 가장 높았으며, 출산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도 서울이 9.3%로 가장 높았다. 위암은 남성의 경우 충북 옥천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높았고 여성은 경북 영양군과 울진군 등에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대장암은 대전 유성구와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군 등에서 발생률이 높고 폐암은 전남과 경북, 충북에서 많이 생겼다. 위장암과 폐암, 위암의 경우 특정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녀 모두에서 감상선암 및 대장암의 발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남성의 위암, 폐암 및 간암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남성 전립선암과 여성 유방암 및 폐암 발생률은 증가하는 모양새다. 지역간 격차가 가장 큰 남성 갑상선암의 경우, 2009~2013년 발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남구로 5년간 인구 10만명당 47.7명의 환자가 나왔다. 여성 환자 최대 발생지는 광양시로 발생률이 185.1명(10만명당)에 이른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사가 증가한 때문이고 상당수는 과잉진단으로 볼 개연성이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역별 암발생 특성에 맞는 암관리 사업 수립 근거로 이번 통계가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txt

제목: 박 대통령 혈액검사 왜? “태반주사 등 부작용 가능성”  
날짜: 2016111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16180851002  
본문: 보건당국 조사 결과 전 차움의원 의사인 김상만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영양제주사를 대리처방한 것은 물론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도 최순실씨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건강정보는 국가기밀사항인데 일개 민간병원으로 혈액샘플을 보내 검사한 것도 문제지만, 단순한 영양제주사를 놓으면서 혈액검사를 할 필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지적이다. 또 김씨가 박 대통령에게 피하주사는 직접 놓았다고 밝혀 이 방식으로 놓는 태반주사 등 다른 주사를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강남구 보건소의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는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 2013년 8월 29일과 9월 2일에 안가(검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span class='quot0'>강남구 보건소의 조사에서 김씨는 (청와대의)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박 대통령 혈액을 최순실씨 이름으로 검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span>”고 밝혔다. 김씨는 보건소 조사에서 “<span class='quot1'>8월 29일에는 대통령의 혈액이 오지 않아 검사를 못했고, 9월2일에야 혈액이 와서 검사를 했다</span>”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혈액검사에서 어떤 내용을 검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span>”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비타민 주사 등 단순한 영양주사를 놓을 때는 혈액검사를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첫 진료를 한 뒤 혈액 속에 이온이나 미네랄 등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계속 주사를 맞다가 중간에 검사를 할 이유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3'>강남구 보건소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이미 2012년 3월부터 한두달에 한번씩 김씨에게 영양제주사를 맞았는데, 1년반쯤 지나 새삼스럽게 혈액검사를 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span>”고 말했다. 의사들이 제기한 한가지 가능성은 김씨가 놓은 주사가 부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4'>비타민 등 단순 영양주사라면 부작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 태반주사 같은 것이었다면 감염이나 호르몬 과다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혈액검사까지 한 것을 보면 단순 영양제주사가 아니어서 부작용이 생겼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간 피부를 젊고 하얗게 만든다며 태반주사, 성장호르몬 주사 등이 유행한 바 있다. 태반주사는 감염을 일으키거나 여성호르몬이 과다투여돼 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장호르몬주사는 몸이 붓거나 고지혈증, 당뇨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김씨가 놓았다는 주사에 대해 복지부나 차움의원 쪽은 기록에 ‘IVNT’(정맥영양주사)로만 돼 있어 그 성분까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강남구 보건소 조사 때 박 대통령에게 직접 피하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는데, 피하주사는 비타민 등 영양주사뿐만 아니라 태반주사를 놓는 방식이기도 하다. 피부미용 진료를 하는 한 의사는 “<span class='quot5'>태반주사는 보통 배 쪽 피부 밑에 주사한다</span>”며 “<span class='quot5'>피부미용 등의 효과가 있어 강남 부유층을 중심으로 거의 전국에 유행한 적이 있다</span>”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건강관리는 대통령 주치의-청와대 의무실-대통령 자문의사단(3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창석(현 서울대병원장) 전 대통령 주치의는 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6'>박 대통령은 주치의가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이었을 때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나였을 때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span>”고 말한 바 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는 당뇨, 고지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이나 감염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혈액검사가 포함되고, 좀더 고가의 검진에는 암 여부 등까지 확인하는 혈액검사가 포함된다. 굳이 별도의 혈액검사를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txt

제목: ‘아임 유어 맨’ 레너드 코언 사망  
날짜: 20161111  
기자: 조기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11213836001  
본문: ‘아임 유어 맨’(I’m Your Man) 같은 노래로 유명한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언이 숨을 거뒀다. 향년 82. 코언의 아들인 아담은 10일 “<span class='quot0'>아버지가 로스엔젤레스 집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span>”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중저음의 음색과 문학적인 가사로 ‘음유 시인’으로 불린 코언은 음악가이기 이전에 시인이었다. 코언은 “<span class='quot1'>시만 써서는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다</span>”고 말했다. 1934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코언은 맥길대학 재학 시절인 1956년 ((Let Us Compare Mythologies)라는 시집을 펴낼 만큼 문학적 재능이 있었다. 1960년대 문인과 예술가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한 그리스 이드라섬에 머물며 시집을 펴냈으며, 제임스 조이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잇는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은 (Beautiful Losers)를 1966년 펴냈다. 코언은 10대 시절 컨트리 뮤직 밴드에서 활동할만큼 음악적 재능도 있었으나 가수 활동은 33살이던 데뷔 앨범 ‘레너드 코언의 노래들’(Songs of Leonard Cohen)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밥 딜런, 존 바에즈. 조니 미첼 같은 가수들과 같은 무대에 섰는데, 코언은 “<span class='quot1'>나는 나보다 최소한 10살은 어린 사람들과 무대에 섰다</span>”고 말할만큼 동료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사랑과 종교, 우울, 자살, 정치 같은 주제로 2000곡이 넘는 노래의 가사를 썼으며 섬세한 가사 때문에 노벨문학상 수상자 후보로 오랫동안 거론됐다. 200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는 코언에게 노벨문학상을 받게 하자는 캠페인도 있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은 올해 와의 인터뷰에서 코언의 노래들이 “깊고 신뢰감이 있고 다면적”이라며 “놀랍게도 멜로디가 풍부하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2'>사람들이 레너드(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멜로디를 빼놓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레너드 노래는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에 엄청난 천재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 코언은 한국에서도 ‘할레루야‘(Hallelujah), ‘버드 온 더 와이어’(Bird On The Wire), ‘수잔’(Suzanne) 같은 노래로도 유명하다. 불교에도 심취한 코언은 자신을 유대인이자 불자라고 말해왔다. 코언은 ‘비관주의자아니냐?’ 질문에 “나는 비관주의자는 아니다. 비관주의자는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나는 피부속까지 비에 젖은 사람이다”고 말했다. 코언은 자식은 있었으나 결혼은 하지 않았다. 코언은 그리스 이드라섬에서 만난 여자친구 노르웨이 출신 마리안느 일렌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올해 7월 일렌에게 편지를 썼다. “마리안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신이 서로 떨어질 시기가 왔어. 내가 곧 당신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라고 썼다. 편지를 쓴 며칠 뒤 마리안느는 숨을 거뒀고, 이번엔 코언이 그 뒤를 따라갔다. 조기원 기자 garde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txt

제목: ‘그 사건’을 저지하면 ‘지금’이 나아질까  
날짜: 2016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11192853001  
본문: 고등학교 영어 교사 제이크 에핑(제임스 프랭코)은 단골식당 주인이자 오랜 지인 앨 템플턴(크리스 쿠퍼)으로부터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듣게 된다. 그의 식당 뒤 벽장 속에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타임 포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전 참전의 상처를 지닌 앨은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추종자였다. 만약 그가 암살당하지 않았더라면 베트남전은 일찍 종식되고 더 좋은 세상이 왔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닌 채 암살 저지를 위해 홀로 과거 여행을 거듭해왔다. 후유증 탓인지 암을 얻게 된 앨은 죽기 직전 제이크에게 비밀을 밝히고 자신의 뒤를 이어 케네디 암살을 저지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1963년 11월22일, 역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 대통령 가운데 하나인 존 에프 케네디가 댈러스 거리행진 도중 총탄에 쓰러졌다. 은 2016년의 주인공을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다. 케네디 대통령 서거 50주년이 가까워오던 때 호러 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이 발표해 화제를 모은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제이 제이 에이브럼스가 제작을, 제임스 프랭코가 주연을 맡아 더 관심을 모았고, 기존의 케네디 암살 소재 작품들과 달리 시간여행을 결합한 대체역사물이라는 형식의 신선함도 돋보였다.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만약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라고 여기는 지점으로 돌아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현재의 세상은 좀더 나아질까? 적어도 앨은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의 시간여행도 그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이 질문은 제이크가 이어받은 여행에서 회의에 부딪힌다. 그가 무언가를 바꾸려 할 때마다 지속적인 ‘과거의 방해’를 만나기 때문이다.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나타나 ‘절대 여기 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던지고, 간발의 차이로 지나간 자리에서 급작스러운 화재나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제이크는 힘이 닿는 대로 과거의 비극을 수정하고자 노력한다. 끔찍한 존속살해로 가족을 잃은 제자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케네디 암살에 대한 단서에도 점점 접근해 들어간다. 그는 과연 성공했을까? 역사는 바뀌고 세상은 더 좋아졌을까? 의 질문은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뒤바뀐 역사’야말로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상상이다. 드라마가 그리는 풍경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 주제는 아마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 당선 소감 속 한 문장과 제일 가까울 것이다. 오바마는 “<span class='quot0'>미국이 걸어온 길은 일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여러 굴곡을 거친 역사</span>”라고 말했다. 퇴보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이다. 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결말은 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김선영 티브이 평론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txt

제목: 얼굴 전체에 혹…10살 여진이의 표정을 찾아주세요  
날짜: 20161110  
기자: 정대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10102859588  
본문: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사는 김여진(10)양은 선천성 녹내장과 불치병인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다. 얼굴 전체에 퍼진 혹 때문에 안경을 쓸 수도 없다. 학교에서 놀다가 친구들의 손이 닿기라도 하면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주저앉고, 제대로 볼 수 없어 넘어지거나 부딪히기 일쑤다. <br/><br/> 광산구가 “여진이의 얼굴을 찾아달라”고 주변에 호소하고 나섰다. 신경섬유종은 계속 자라는 혹을 주기적으로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더욱이 여진이의 한쪽 혹이 귀를 덮을 정도로 자라나 지금은 청력마저 위협하는 수준까지 악화하고 있다. 몸속 신경을 보존하면서 종양만 제거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어서 비용도 수백만원을 넘어선다.<br/><br/> 그런데 지체장애(4급) 아버지는 1년 전 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다. 어머니가 틈틈이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이다. 광산구 쪽은 “기초생활수급세대지만 정부 지원만으로는 여진이네 가족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br/><br/> 광산구는 지난해 8월부터 희망복지과 드림스타트팀을 중심으로 여진이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광산구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에 사연을 전달해 도움을 청했고,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같이가치 with kakao’도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모금에는 9일까지 65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together.kakao.com)에서 ‘여진이’를 검색하면 성금을 보낼 수 있다. <br/><br/> 이동근 광산구 드림스타트 팀장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노는 여진이의 꿈은 요리사다. 장애를 딛고 훌륭한 요리사가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062)960-8390.<br/><br/> 광주/정대하 기자 daeha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txt

제목: [나는 역사다] 11월8일의 사람, 엑스선 발견한 빌헬름 뢴트겐(1845~1923)  
날짜: 2016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07191004408  
본문: 유리관을 진공으로 만들고 양쪽 끝에 전기를 걸면, 그 안에 음극선(전자의 빔)이 흐른다. 독일의 과학자 빌헬름 뢴트겐은 이 음극선관을 검은 종이로 덮어두었다. 빛이 새어나올 리 없는 상황. 그런데 어두운 실험실에 있던 형광물질이 빛나더란다. 빛과 비슷한 무언가가 검은 종이를 뚫고 나왔다는 뜻. 엑스선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1895년 11월8일의 일.<br/><br/> 뢴트겐은 신중한 사람. 이 사실을 바로 발표하지 않고 실험을 거듭하며 자신의 발견이 맞나 확인했다. 엑스선은 두꺼운 책도 나무판자도 뚫고 지나갔다. 사람의 몸은 어떨까. 아내 안나 베르타의 손을 엑스선 사진으로 찍어보았다. 살은 그대로 통과하고 뼈와 반지의 그림자는 남았다. “나의 죽음을 보았어!” 안나 베르타는 놀라 소리쳤다.<br/><br/> 1901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 엑스선 발견을 과학계는 환영. 의학계가 특히 반겼다. 부러진 뼈도 몸에 박힌 총알도 심지어 암 덩어리도 엑스선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인류에게 큰 혜택이다. 정작 뢴트겐은 이익을 본 것이 없다. 특허를 내어 떼돈을 벌라는 권고를 물리쳤다. 자기는 엑스선의 발명자가 아니라 단지 발견자일 뿐이라나. 말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니 안타깝다. <br/><br/> 글 김태권 만화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txt

제목: 한해 3600여명이 자궁경부암 걸려…“예방접종 챙겨야”  
날짜: 2016110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06153954114  
본문: 국내에서 한해 약 3600명이 자궁경부암에 걸리며 900여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2003~2004년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들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챙기도록 권장했다. <br/><br/> 6일 질병관리본부의 자궁경부암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3600여명이 새로 자궁경부암에 진단돼 기존의 환자까지 합치면 모두 5만5000명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또 지난해 자궁경부암으로 967명이 숨져 하루 평균 2~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대부분인 96.1%는 30대 이상이지만 30대 미만 진료인원도 지난해 2209명으로 해마다 2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정기검진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 발병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챙기도록 권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2004년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 46만4932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지원하고 있다.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올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에 2차 접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 6월부터 실시된 12살 여성 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13만명이 접종을 받아 참여율이 28%</span>”라며 “<span class='quot0'>그동안 접종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접종부위 통증, 발열 등 가벼운 이상반응만 13건이 접수돼 백신에 대해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span>”고 밝혔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txt

제목: 성인 3명 가운데 1명 비만…원인은 운동부족·지방·탄산음료  
날짜: 2016110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06142919407  
본문: 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량이 부족하고 지방이나 탄산음료 등을 많이 먹고 마시기 때문으로 보인다. <br/><br/> 6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9살 이상 성인 가운데 비만에 해당되는 비율은 33.2%였다. 비만은 몸무게(㎏)를 키(ｍ)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만율이 높아 10명 가운데 4명꼴인 39.7%이었으며, 여성은 26%였다. 여성은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할 때 비만율이 1.3%포인트 줄었지만 남성은 5%포인트 높아졌다. <br/><br/> 비만율이 다소 높아지는 데에는 운동량은 줄고 지방이나 탄산음료 등의 섭취는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은 전체의 41.2%로 10년 전 60.7%에 견줘 약 20%포인트 낮아졌다. 또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 활동을 2시간30분 이상 하는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은 52.7%로 2014년의 58.3%에 견줘 낮아졌다. 중등도 운동은 땀이 나며 숨이 차지만 운동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이다. <br/><br/> 반면 지방 섭취율(총 에너지 섭취량 중 지방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은 2007년 18.4% 이후 계속 높아져 지난해 21.8%를 기록했다. 1인당 하루 평균 지방 섭취량은 2005년 45.2ｇ에서 지난해 51.1ｇ으로 늘었다. 탄산음료 등 음료류 1일 섭취량은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92.3ｇ이었다. 특히 19∼29살은 하루 324.4ｇ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운동량이 줄고 지방 섭취 등이 늘어나면서 비만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비만은 뇌졸중, 심장마비 등 심장혈관질환과 대장암 등 몇몇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txt

제목: [안선희의 밑줄 긋기] 재벌들이 피해자라고?  
날짜: 20161103  
기자: 안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03182914921  
본문: 안선희사회정책팀장 <br/><br/>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벌기업들로부터 800억원을 받아낸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수사가 한창이다. 수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우리도 피해자”라고 우는소리를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br/><br/> 박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응축돼 있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건 덕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단어가 박 대통령의 연설과 발언에서 사라지는 데는 취임 뒤 1년도 걸리지 않았다. 대신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br/><br/> 2014년 3월10일 그 유명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암덩어리” 발언이 나오고, 그달 20일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7시간 생중계까지 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손을 봐야 하지만, 많은 규제는 전체 사회의 안전, 환경, 기본권 등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 지켜야 할 ‘규칙’이다.<br/><br/>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노후선박 연령 연장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원인 중 하나로 꼽혔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 미르 사건의 모금창구이기도 한 전경련은 대통령의 ‘암덩어리’ 발언에 고무돼 628개, 821쪽에 걸친 ‘규제개혁 개선과제 종합건의’를 4~6월 정부에 제출했다. 같은해 11월에는 153개의 ‘규제기요틴(단두대) 과제’를 냈고, 이를 받아 정부는 12월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연다.<br/><br/> 박근혜 정부가 “<span class='quot0'>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 해고를 부추길 것</span>”이라는 비판에도 강력 추진한 ‘노동개혁’ 정책은 모두 전경련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들어 있다. 파견 가능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저성과자 해고 기준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br/><br/> “<span class='quot1'>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이전 수준까지만 되돌리자</span>”는 야당의 제안에도 정부는 일관되게 법인세 인상 반대를 고수했다. 2014년 하반기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을 높이겠다”며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을 때 대기업들은 살짝 긴장했지만 곧 별게 아닌 걸로 드러났다. 4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 ‘헬조선’ ‘금수저’론이 온 사회를 휩쓸고 있다.<br/><br/> 재벌기업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든 최순실 대통령이든 큰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준다면 누가 대통령이든 무슨 상관이랴. 다소 귀찮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그깟’ 800억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br/><br/>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경련 회장을 지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span class='quot2'>정부가 주도한 경제정책은 대부분 최종 결정 전에 대기업과 협상해 결정됐다</span>”고 말했다. “<span class='quot1'>박정희 대통령에게 해마다 2억원씩 정치자금을 제공했다</span>”는 말도 했다.(김윤태 ) 최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씨는 “<span class='quot1'>영애(박근혜)께서 필요로 하는 일</span>”이라며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냈다고 한다. 박 대통령도 최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 것이다.<br/><br/> 20대의 박근혜 ‘영애’가 최씨와 새마음봉사단 놀이를 하고 돌아다닐 때, 더 어린 ‘여공’들은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한달 2만원 정도를 벌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씨가 “아직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니”라고 걱정했던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공주 승마’를 하고 있을 때, 그보다 한살 어린 김군은 월급 144만원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결국 구의역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겉모습이 바뀌어도 끈질기게 지속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하야해도 변하는 것은 없을지 모른다. <br/><br/>sha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txt

제목: 30대에 많은 ‘살과의 전쟁’…“술 권하는 사회 원망스러워”  
날짜: 2016110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03143858173  
본문: “2년 전쯤 여섯달 만에 20㎏을 감량한 적이 있어요. 일단 저녁은 굶다시피 하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등 먹는 것을 줄였고 운동도 걷기 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기는 했는데, 잠시 방심했더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br/><br/>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다니는 박아무개(40)씨는 2년여 전에 6개월에 걸쳐 몸무게 감량에 도전해 96㎏에서 76㎏으로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키가 176㎝였는데, 스스로 75~76㎏이 적절하다고 여기고 목표치에 도달하자 더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박씨는 “<span class='quot0'>대학 1학년 때만 해도 60㎏대 초반으로 축구 등 운동을 하면 날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때 수준으로 다시 줄여볼까도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 너무 살을 빼면 늙어 보인다는 얘기에 그 정도에서 멈췄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그가 몸무게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부터입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데다 야근도 잦았습니다. 야근 때는 주변 동료들과 피자, 치킨 등을 시켜 먹으면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또 야근이 없는 날에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곧잘 술자리를 찾았습니다.<br/><br/>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내면서 주말에는 테니스나 등산 등을 했기 때문에 몸무게는 2~3㎏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뒤에 아이를 기르면서 운동은 덜 하게 되고, 먹는 양은 더 늘어났습니다. 직장에서도 술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씨는 “<span class='quot0'>직장 경력이 쌓이면서 점차 스트레스를 받는지 야근할 때 먹는 양도 더 늘어났다</span>”며 “<span class='quot0'>4~5년 사이에 15㎏ 이상 몸무게가 증가했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35살쯤 됐을 때 건강검진에서 비만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받고도 그는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비만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또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복부비만으로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남성은 90㎝ 이상 여성은 85㎝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씨의 경우 이미 이전에 산 바지의 허리둘레가 맞지 않게 됐는데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무게 10㎏ 정도야 금방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배 나왔다’고 놀릴 때도 ‘금방 예전 몸매를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br/><br/> 하지만 직장에서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다 마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다시 잦은 야근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내니 대학 1학년 때인 15~16년 전보다 25㎏이 불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도 혈액검사에서 고지혈증이 진단됐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지방간 소견이 나왔습니다. 고지혈증은 핏속에 나쁜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동맥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후 뇌혈관이나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자칫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br/><br/>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세포에 지방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방간은 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비만이 더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감소 추세이고 비만 등이 이유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술을 많이 마셔 지방간이 돼 병원을 찾은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지난해 3만3903명으로 2011년의 4만3734명에서 22%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1년 1만3429명에서 2015년 2만8865명으로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강재헌 교수는 “비만 환자 상당수는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 남아도는 열량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간에 쌓이기 때문이다. 비만 때문에 온 지방간은 비만이 치료되면 같이 치료된다”고 설명합니다.<br/><br/> 박씨는 다행히 고혈압이나 당뇨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씨는 “<span class='quot0'>지방간과 고지혈증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는 사실 믿기지가 않았다</span>”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그 당시 무릎 관절에서도 다소 통증이 느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운동할 때 무릎 관절이 다소 아팠는데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다. 몸무게가 크게 늘어나 생길 수 있는 통증임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br/><br/> <br/><br/> 30대때 비만 달고 산 40살 박씨 2년전엔 96㎏으로 정점 찍어 지방간·고지혈증 합병증도 진단<br/><br/> <br/><br/> 약과 수술은 부작용 있다는 말에 식사 조절과 금주, 운동 여섯달 20㎏ 감량 성공했지만…<br/><br/> <br/><br/> 이직뒤 술자리 등 겹쳐 ‘원위치’ “잠깐 방심하면 몸무게 확 늘어 이번에도 약 도움없이 뺄겁니다”<br/><br/> <br/><br/> 사실 비만은 그 자체로 특별한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매가 망가지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주변으로부터 놀림감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비만이 지속되면 각종 합병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입니다. 최영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비만이 되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뇌졸중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중병과 함께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등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span>”며 “<span class='quot1'>여기에 무릎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이나 위식도 역류 등 소화기계 질환에도 더 취약하게 된다</span>”고 설명합니다.<br/><br/> 정기 건강검진에서 비만은 물론 고지혈증과 지방간까지 나왔다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1'>살 빼는 약에 대한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하고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 치료제를 먹는다는 사람들도 많던데 약을 처방받는 것이 어떻겠느냐</span>”고 물었습니다.<br/><br/> 예전 박씨의 몸매를 대충 기억하고 있기에 20㎏이 불은 모습은 상상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만 비만 치료제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크게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한 종류는 식욕을 억제해 많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종류는 소장 등에서 지방 흡수를 막아서 많이 먹어도 몸무게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 몸무게 감소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부작용 또한 없을 수 없으므로 식사 조절이나 운동부터 시작해 보기를 권장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간 독성이나 신장(콩팥) 등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br/><br/> 다른 치료법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치료제나 식사 조절 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비만인 경우 수술을 하기도 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물론 박씨가 받을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도비만은 아시아에서는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김용진 순천향대의대 외과 교수는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것은 위를 일정 부분 절제해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많게는 원래 위 용량의 80%까지 제거하기도 하는데, 위 용량이 줄어 많이 먹을 수 없으니 식욕 감소 효과가 뚜렷한 반면 감염·출혈 등 수술에서 오는 일반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수술 뒤 위식도역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br/><br/> 비만 때문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나이대별로 분석해 보면 박씨처럼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성별 나이대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30대가 전체 환자 수의 30%를 차지합니다. 직장 또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비만에 빠져들고, 아직 20대의 몸매를 잊지 못하다 보니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추정이 있습니다.<br/><br/> 박씨는 비만 치료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고지혈증 치료제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30대 초반의 몸매를 찾겠다며 저녁밥 굶기와 술자리 가지 않기를 실천에 옮겼다고 했습니다. 박씨는 “친구들은 물론 주변 동료들에게 간이 좋지 않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실제 지방간이 있으니 이는 거짓말도 아니었다. 그 덕분에 술자리에 빠지거나 어쩔 수 없이 갈 때도 술을 먹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5일쯤 지나자 3㎏가량 빠졌습니다. 직장 업무의 특성상 같은 팀이라도 점심을 먹으러 다 같이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는 아침을 다소 든든히 먹고, 점심은 거른 채 오후 3~4시쯤 별도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밤에는 물이나 아주 소량의 과일 등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3㎏ 정도만 줄었는데도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무릎에 부담이 없었다. 그래서 평소 가끔 하던 테니스에 더해 시간을 별도로 내서 무턱대고 빠르게 걷기, 달리기 등을 했다. 빠르게 걷기는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퇴근길에 1~2시간 걸어서 집에 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br/><br/> 이런 생활을 두 달쯤 하니 12~13㎏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네 달 동안에는 7㎏가량만 줄었습니다. 그는 “<span class='quot1'>여섯달 동안 20㎏을 줄인 것이 뿌듯해 그동안 술자리와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괴로움도 다 잊을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사실 사람들과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 술자리인데 그 자리를 못 가니 그사이 담배가 좀 늘었다</span>”고 말하기도 했습니다.<br/><br/> 20㎏이 줄어 76㎏이 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그는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비만에서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고지혈증, 지방간 등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치도 모두 정상이어서 예전의 건강을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긴 뒤가 문제였습니다. 같은 업종이었지만 직급이 하나 더 올라 여러 명의 부하 직원과 함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외부 협력사와 만나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결국 술자리를 가지 않을 수 없었고, 저녁식사를 하지 않던 습관도 일주일에 2~3번밖에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운동은 한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퇴근 뒤 걷기 등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시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85㎏까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박씨는 “한번 20㎏을 줄여보니 언제든지 다시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다. 그런데 술 권하는 사회가 날 돕지 않는다. 그래도 다섯달 뒤를 기대해도 좋다. 또 10㎏ 줄인 75㎏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br/><br/> 비만은 방심하면 다시 따라붙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평생 적절한 식사와 운동을 챙기면 비만 탈출은 물론 건강도 따라오겠죠.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txt

제목: ‘원정진료’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 있는 종로구  
날짜: 2016110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02122847763  
본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원정 진료’를 많이 다닌 곳은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br/><br/>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진료비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들이 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로 93.6%에 이르렀다. 이어 대구 중구(93%), 광주 동구(87%), 부산 서구(86.8%) 등이었다. 서울 종로구에는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이, 대구 중구에는 경북대병원이 있어 이들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린 결과로 추정된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가 쓴 진료비 비율 평균은 51.5%였다. <br/><br/> 통계연보를 보면 또 시군구별 1인당 한달 평균 진료비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전북 부안(19만3천원)이 수원 영통(7만1천원)보다 2.7배나 많았다. 부안 다음으로는 전북 고흥(19만1천원), 전북 고창(18만5천원), 경남 의령(18만4천원), 전남 신안(18만1천원), 전남 함평(18만원) 순이었는데, 이들 지역은 65살 이상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다. 부안, 고흥, 고창의 노인 인구 비중은 각각 28.5%, 36.4%, 30%로 전국 평균치인 12.9%보다 크게 높았다. 수원 영통구에 이어 충남 계룡(7만6천원), 경기 화성(7만9천원), 용인 수지(8만원), 서울 강남(8만원), 성남 분당(8만1천원)도 1인당 진료비도 적은 편에 속했다.<br/><br/>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주요 암 환자 수는 위암이 30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방암(285.2명), 대장암(272.4명), 폐암(150.9명), 간암(137.5명), 자궁경부암(54명) 순으로 집계됐다.<br/><br/>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보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5203만명이었다. 전체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2014년에 견줘 7% 늘어난 64조8300억원이었고, 1인당 한달 평균 진료비는 약 10만4천원으로 2014년보다 6.4% 늘었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txt

제목: 세포 안 나쁜 물질 체포…극한상황 땐 ‘살신성인’  
날짜: 20161102  
기자: 오철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02095856585  
본문: “세포 하나는 또 하나의 우주이고 세계입니다. 인간 사회의 일이 세포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공장, 운전사, 경찰도 있고 도둑, 갱단 같은 것도 있고…. 온갖 일이 일어나죠. 불필요한 물질이 생기면 찾아서 분해하는 ‘자가포식’ 현상은 일종의 청소꾼입니다.”<br/><br/> 세포가 제 몸 일부를 분해해 영양소로 다시 활용하는 이른바 ‘자가포식’, 또는 ‘오토파지’(오토는 ‘자신’, 파지는 ‘먹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 현상을 연구하는 정용근 서울대 교수(생명과학부·오토파지연구회장)는 “<span class='quot0'>오토파지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재활용이자 청소 활동</span>”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br/><br/> ‘세포의 자가포식’이라는 신기한 현상은 1990년대 초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71) 교수(현 도쿄공과대학 명예교수) 연구진에 의해 관련 유전자들과 메커니즘이 처음 밝혀졌다. 2000년대 이후엔 세포를 연구하는 기초연구 분야뿐 아니라 사람의 질병과 치료술 연구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오스미 교수는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br/><br/> <br/><br/> 세포에서 무슨 일이? <br/><br/> 세포는 왜, 어떻게 제 몸 일부를 먹어치울까? 세포 안의 미시세계에서 펼쳐지는 이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은 오스미 교수 실험실의 끈질긴 물음이었다.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기초과학의 연구 주제였지만 이들은 1992년 이후 잇따라 자가포식을 일으키는 여러 유전자를 찾아내어 발표했다. 오토파지 연구자인 정희선 국립암센터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1'>이후에 세포가 낡은 단백질이나 불필요한 소기관 같은 것을 분해해 세포 건강을 지키고, 게다가 거대 분자들을 분해해 영양소를 재활용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자세히 밝혀져 왔다</span>”고 말했다.<br/><br/> 세포 안에서 청소와 재활용의 분해작업은 어떻게 벌어질까?<br/><br/> 세포엔 분해공장 구실을 하는 소기관들이 있다. ‘리소좀’이라 불린다. 일종의 ‘재활용’ 공장이다. 예를 들어 세포 안엔 ‘에너지 공장’으로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망가지면 활성산소 같은 나쁜 물질도 생성된다. 이뿐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망가진 단백질은 세포 사회의 건강을 해친다. 작디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도 있다. 이런 물질들을 붙잡아 분해하고서 거기에서 오히려 세포 건강에 필요한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같은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리소좀이다.<br/><br/><br/><br/>그물로 붙잡아 분해공장인 리소좀 넘겨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로 재활용<br/><br/> <br/><br/> 영양소 공급 끊기거나 스트레스 오면덜 필요한 것부터 분해해 자체생존<br/><br/> <br/><br/> 발암물질 막는 건강 지킴이지만암 생기면 협력자로 돌변 ‘두 얼굴’<br/><br/> <br/><br/> 비만 알츠하이머 당뇨에도 관계다른 조직엔 역할·활성 저마다 달라<br/><br/> <br/><br/> 암세포 안 자가포식 억제 약물이나노화한 자가포식 기능 복원 등 관심<br/><br/> <br/><br/> “<span class='quot2'>세포 하나는 또 하나의 우주이고 세계공장, 운전사, 경찰도 있고 도둑도…</span>”<br/><br/><br/><br/> 그런데 리소좀 분해공장에다 분해할 물질을 찾아서 붙잡아 가져다주는 구실은 누가 할까? 이런 물음을 풀어준 것이 바로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이다. 인간 세포에서 분해할 물질이 생기면, 유전자 40여개가 연쇄로 작용해 그 주변을 감싸는 일종의 ‘주머니’(소포체)를 만든다. 포획하는 그물이다. 분해 대상을 포획한 주머니는 분해공장인 리소좀과 융합해 한 몸이 된다. 이어, 리소좀 안에 대기하던 여러 분해 효소들이 나서 물질을 영양소로 분해한다.<br/><br/> 그런데 오토파지는 망가진 물질만을 분해하는 게 아니다. 세포 외부에서 영양소 공급이 끊기면 세포는 정상적인 제 몸의 일부마저 분해해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로 사용한다. 정희선 선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3'>영양소 결핍이나 스트레스 같은 신호가 오는 극한 상황에서 세포는 오토파지를 더욱 활성화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제 몸 일부를 분해해 영양소를 얻는다</span>”고 말했다. <br/><br/> 예컨대, 사람 세포엔 미토콘드리아가 1500개가량 있는데 세포의 생존 환경이 나빠지면 세포는 수많은 미토콘드리아 중 일부를 분해해 영양소를 자체조달 한다는 것이다. 정용근 교수는 “<span class='quot4'>우리가 단식을 해 영양소를 몸에 공급하지 않는데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세포의 오토파지 작용 덕분</span>”이라고 말했다.<br/><br/> <br/><br/> 실험실 발견의 빅뱅<br/><br/> 단세포인 효모를 대상으로 한 오스미 교수 실험실의 끈질긴 연구 결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세계 각지의 연구실로 퍼져 갖가지 의생물학 분야로 성장했다. 정용근 교수는 “<span class='quot4'>오토파지가 암이나 알츠하이머, 당뇨 같은 질환이나 비만과도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근래 크게 늘고 있다</span>”고 전했다.<br/><br/> 암 질환과 관련해 자가포식은 ‘두 얼굴’을 지닌다. 발암물질인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를 찾아내어 먹어치우는 오토파지는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유지해 암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일단 암세포가 생긴 뒤엔 오히려 암세포 생존에 큰 도움을 주는 협력자가 된다. 암과 오토파지의 관계를 연구하는 정희선 선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3'>암덩어리의 안쪽에 있는 암세포는 혈관에서 멀리 떨어져 영양소 결핍의 상태에 놓이는데, 이때 암세포 안의 오토파지 기능이 최대로 작동해 세포 안 물질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암세포의 생존을 돕는다</span>”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암세포 안의 자가포식 작용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이 분야에서 뜨거운 관심사이다.<br/><br/> 퇴행성 신경질환 분야에서도 자가포식의 역할이 밝혀져왔다. 자가포식이 더 활발한 쥐가 더 오래 산다는 실험 결과를 냈던 정용근 교수는 요즘 신경질환과 자가포식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3'>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을 일으키는 원인 단백질들의 덩어리만을 찾아내어 분해하는 오토파지가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3'>노화하며 오토파지 기능이 떨어질 때 이런 덩어리 물질이 더욱 쌓여 퇴행성 신경질환이 생길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당연히 노화한 자가포식 기능을 복원해 신경질환을 치료하려는 약물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br/><br/> 비만이나 다른 대사질환과 관련한 여러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자가포식 기능이 활발한 실험동물에선 비만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명식 연세대 의대 교수(의생명과학부)는 “<span class='quot5'>비만뿐 아니라 당뇨, 지방간, 동맥경화 같은 여러 대사질환이 오토파지와 연관된다고 알려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5'>특히나 간, 췌장처럼 서로 다른 조직에서 오토파지의 역할이나 활성도 저마다 달라 그런 특성을 밝혀 치료에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span>”고 전했다.<br/><br/> 정희선 선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3'>오토파지 연구분야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던 기초연구의 큰 성과가 전에 없던 새로운 분야를 창출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span>”라고 말했다.<br/><br/> 오철우 선임기자 cheolwoo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txt

제목: 현실 예언? 드라마 속 ‘최순실’들  
날짜: 20161101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01172945024  
본문: 역대급 캐릭터가 등장했다. 기업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가 하면, “내가 누군지 아냐”며 교수와 교사, 세신사와 안마사에게 갑질을 일삼는다. ‘사이비 종교’, 무당, 빙의 같은 오컬트 요소도 갖췄다. ‘호스트바’ ‘출생의 비밀’ 같은 막장 요소는 기본이다. 욕하면서 보는 맛이 백배는 더해진 덕에, 그가 등장하면 시청률이 치솟는다. 그를 쫓던 (제이티비시)은 시청률 8%가 나왔다. 작가들은 “<span class='quot0'>이보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는 못 쓸 것 같다</span>”며 우스갯소리로 절필을 선언하고, 제작사들은 입맛을 다신다. “<span class='quot1'>드라마로 만들면 역대급 시청률이 나오겠는걸.</span>” 등 자막 패러디도 넘쳐난다. 의문을 부른다. 그간 긴가민가했던 드라마 속 암 유발 캐릭터들이 알고 보면 이 실존 인물의 모사본은 아니었던 걸까? 드라마가 먼저 보여줬던 ‘드라마 속 최순실’ 캐릭터를 돌아본다.<br/><br/> 부정입학? 호빠? 백 선생 정성주 작가는 돗자리 깔아야 한다. 2014년 방영한 (제이티비시)는 알고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모녀 사이가 최순실씨와 똑 닮았다. 드라마 속 백 선생은 홀로 딸을 애지중지 키워 예체능 특기자로 대학에 보낸다. 백 선생의 딸 이름은 정유라. 현실의 승마와 달리 피아노를 전공한다. 백 선생 직업은 역술인. 서한예술재단 이사장의 투자 자문을 맡는 등 상류층에 투자 흐름을 코치해준다. 이사장과의 돈독한 관계를 빌미로 정유라를 서한음대에 부정입학시킨다. 그 딸도 현실 판박이다. 출석도 하지 않고 그룹 과제도 매번 빠지는데 학점을 받는다. 백 선생이 지도교수를 찾아가 학점 특혜를 부탁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백 선생이 좀 낫다.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며 폭언을 일삼았다는 최순실씨와 달리, 예의를 갖춘다.<br/><br/> 극중 예술재단 딸 서영우는 최순실 캐릭터의 또 다른 분신 같다. 호스트바 출신 남성을 만나 그를 사업파트너로 둔갑시켜 상위 1%를 위한 수입의류매장을 차려준다. ‘최순실 막장 드라마’를 사실상 기획한 이의 이름도 잠시 등장한다. 수시 지원자 예비소집일에서 조교가 출석을 부른다. 125번 정유라. 126번 최태민.<br/><br/> <br/><br/> 국정농단? 정난정 등 최순실 사태는 ‘과연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나?’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드라마에서도 최고 권력자를 꼭두각시 삼아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들이 많다. 방영 중인 (문화방송)의 정난정이 대표적이다. 조선 왕후로서는 최고의 권력을 누린 문정왕후를 등에 업고 20년간 전횡을 저지른다. 안보부터, 청와대 인사, 경제정책까지 주무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처럼, 정난정도 외교와 국가안보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개입한다.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처럼, 조선 중기도 정난정으로 위기를 맞는다.<br/><br/> (2014년·에스비에스)의 재벌 총수 김도진은 미국 무기회사 팔콘의 컨설턴트 이동휘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비선실세가 된다. 1998년 아이엠에프 당시 미국의 무기를 한국에 팔려고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을 계획한 김도진 일당은 이동휘가 대통령이 된 뒤 국정을 좌지우지한다. (2013년·문화방송)의 왕비 기승냥과 신하 백안은 유약한 왕 타환 뒤에서 권력을 놓고 암투를 벌인다. (2015년·문화방송)에서 왕족의 종친이고 고려 왕조를 꿈꿔왔던 개국공신 왕식렴은 호족들 대표와 개국공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 나라를 폐하와 함께 세운 개국공신들 아닌가? 앞으로 고려의 모든 일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언니 옆에서 의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고 있잖아”라고 말했다는 최순실씨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br/><br/> <br/><br/> 흑주술로 왕실을 조종하다 속 무당 주술(미신)의 힘을 빌려 권력을 주무른 점에서는 (2009년·문화방송)의 미실도 떠오른다. 최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은 기독교·천도교·불교를 합친 ‘영혼합일설’을 주창한 기이한 인물로 알려진다. 그 아버지는 최순실씨가 꿈을 통해 자신의 예지력을 이어받았다고 여겼단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하며 우주, 혼, 기운을 자주 언급한 것이 그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미실은 색공술을 무기로 진흥왕을 휘어잡은 뒤, 진흥왕이 죽자 꼭두각시 왕을 앉혀놓고 ‘미실의 시대’를 선언한다. (2012년·문화방송)에서 조선 최고의 무당은 흑주술로 왕세자비를 죽이려 하는 등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했고, (2006년·문화방송)에서 부여의 왕과 왕자들은 국가 대소사를 신녀에게 물어왔다. 대한민국은 2000년 전으로 회귀한 것일까?<br/><br/> 드라마 속 최순실들의 최후…현실은? 드라마 속 최순실들은 나름의 응징을 당한다. 세상의 권세와 부를 모두 가진 것처럼 행동한 대가를 달게 받았다. 의 백 선생과 정유라는 비자금 조성이 발각되자 해외로 도피한다. 김도진은 폭탄이 터져 죽는다. 정난정은 독을 먹고 자살한다. 국정 농단을 공모하거나 그들한테 놀아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최고권력자도 책임을 진다. (2014년·에스비에스)의 대통령 김남준은 측근인 비서실장 이명한과 영부인이 자식의 살인혐의를 벗기려고 무고한 시민을 이용한 사실을 알고 책임을 통감하고 하야한다. (2013년·에스비에스)에서는 검찰이 비리의 온상 청와대를 당당하게 압수수색한다. 현실의 그들은 어떤가? <br/><br/> 남지은 기자 myviollet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txt

제목: 유병자보험을 아시나요?  
날짜: 20161101  
기자: 이정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01161835969  
본문: 김기철(가명)씨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 최근 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충격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혈압약 복용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br/><br/> 금융감독원은 김씨처럼 당뇨병, 고혈압 등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을 1일 소개했다. 소비자가 질병이나 수술, 입원 등의 병력이 있으면 아예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10월 현재 만성질환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 52개를 보험사 32곳에서 팔고 있다. 대신 보험료가 비싸다. <br/><br/> 유병자보험은 간편 심사보험, 고혈압·당뇨 특화보험, 무심사 보험 등이 있다. 간편 심사보험은 최근 2년(암은 5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계약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해 만성질환 보유자는 물론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오래전에 수술·입원한 적이 있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2배가량 비싸다. <br/><br/> 고혈압·당뇨 특화 보험은 고혈압·당뇨에 한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한 상품이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1.1배다. 무심사 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으로, 보험료를 일반 보험상품보다 5배 더 내야 한다.<br/><br/> 금감원은 “유병자보험은 가입 요건을 완화한 대신에 보험료가 비싸고 갱신 때 오를 수 있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은 불필요하게 유병자보험에 들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br/>이정훈 기자 ljh9242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txt

제목: 병 걸렸을때 가장 큰 걱정은 ‘의료비’  
날짜: 2016110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101112922435  
본문: 우리나라 국민이 가까운 미래에 질병에 걸린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삶의 질 저하’나 ‘생활 불편’보다 의료비 부담을 꼽았다. 또 이를 해소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답변했다.<br/><br/>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부터 두달 동안 국민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항목에 ‘의료비 부담’을 전체의 36.7%가 꼽아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간병 부탁에 대한 부담감(15.3%) 순이었다. 이 때문에 미래 걱정 질환 대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68.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개인 여유자금 마련(18.2%), 의료시설 지속 확충(4.9%)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공적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로 민간보험, 개인저축을 추가로 가입해 질병에 대비하고 있다는 답변은 81.5%나 됐다.<br/><br/>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까 봐 우려하는 빈도는 ‘가끔 한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안 한다’(21.9%), ‘매일 또는 자주한다’(15.0%) 순이었고, 미래 걱정 질병의 주요 원인에 대해 복수 답변으로 물은 결과 스트레스(44.3%), 불규칙한 생활습관(34.7%), 가족력(34.7%), 식습관(30.3%), 음주(11.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 미래에 걸릴 질병으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응답자의 13.6%가 암을 꼽았고, 이어 관절염(10.2%), 고혈압(10%), 치매(9.9%)가 뒤를 이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4%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답했으며 과거·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없다’(62.8%)고 말했다. 질병을 앓았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에는 비만(11.6%), 치과 질환(8.9%) 순으로 많았다. 질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설문 항목에는 건강검진(51.2%)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운동(36.9%), 문화생활 등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29.1%) 순이었다. 이밖에 질병 정보는 응답자의 64.8%가 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으며 이어 의료인(16.5%), 주변인(7.9%), 정부·공공기관(6.7%), 신문·잡지(4.2%) 순으로 조사됐다.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txt

제목: 70년대 풍미한 쌍둥이 듀엣의 언니 먼저 떠나다  
날짜: 20161031  
기자: 김경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31202858456  
본문: 1970년대 사랑받은 쌍둥이 여성듀오 바니걸스의 언니 고정숙(왼쪽)씨가 31일 오전 3시3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2.<br/><br/> 고정숙·재숙(오른쪽) 쌍둥이 자매로 구성된 바니걸스는 ‘독일병정’ 별명을 얻을만큼 카리스마가 강했던 어머니의 권유로 1971년 신중현 사단에 합류해 '하필이면 그 사람'으로 데뷔했다. <br/><br/> 부산에서 태어나 국악예고를 나란히 나온 자매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컸던 눈과 미국의 성인잡지 의 마스코트인 토끼에서 착안한 ‘바니걸즈’로 등장해, 귀엽고 섹시발랄한 이미지로 70~80년대 맹활약했다. 가야금에 창도 소화하는 폭넓은 가창력과 원색 타이즈·미니스커트 등 톡톡 튀는 패션감각까지 갖춰 인기 스타로 사랑받았다.<br/><br/> 70년대 중반 유신시절 한때 외래어 사용 금지에 따라 우리말 이름 '토끼자매'로 활동하기도 했다.<br/><br/> 70년대말 바카라의 노래를 번안한 곡 ‘쏘리 아이 엠 어 레이디’(빨간장미)를 비롯해, '검은장미', '개구리 노총각', '옛날 이야기', '그냥 갈수 없잖아' ‘워털루’ 등이 대표곡이다.<br/><br/> 일란성으로, 어머니조차 구별이 어려울 때가 많아 갖가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동생이 키가 1cm정도 컸고 콧등에 점이 있었으며, 무대에서 항상 언니가 왼쪽, 동생이 오른쪽에 서서 구별했다.<br/><br/> <br/><br/> 80년대 후반 결혼으로 조용히 은퇴했던 이들은 89년 컴백했었고, 언니는 2005년 49살에 솔로 '바니'로 앨범 을 내고 단독 활동을 하기도 했다.<br/><br/> 유족들은 31일 “고인이 올들어 암 투병을 해왔으며, 동생 재숙씨가 특히 힘들어 하고 있다”고 언론에 전했다.<br/><br/> 유족으로는 딸 우사라씨, 동생 재숙씨가 있다. <br/><br/>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다. (02)2019-4000.<br/><br/> 김경애 기자 ccandori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txt

제목: 60년간 뒤집어쓴 ‘비만 주범’ 누명…지방은 정말 억울할까  
날짜: 20161030  
기자: 권은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30095931860  
본문: ▶ 지방은 1950년대부터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20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는 비만은 물론 심장질환, 뇌질환의 원인으로 주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지방을 마음껏 먹으며 살을 뺀다는 고지방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이어트의 범주 밖에 있는 이 방법은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검은 백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버터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등 반향도 큽니다. 지방의 누명을 풀었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우려도 나옵니다. 7조원이 넘는다는 다이어트 시장에 검은 백조가 등장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검은 백조’(블랙 스완)가 한국에 나타났다. 미국처럼 금융계가 아니라 식품산업계가 무대다. 바로 버터 같은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LCHF: Low Carbohydrate High Fat)다. 검은 백조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18세기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 간 백인들이 검은 백조를 발견하면서 ‘백조=희다’라는 경험칙이 무너진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예언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뉴욕대 교수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고지방 다이어트를 검은 백조에 비교하는 것은 지금까지 비만의 주범으로 불리던 지방을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방식의 다이어트는 삼겹살과 버터 품귀현상처럼 강력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2009년 닭가슴살 등 육류를 주로 먹어 살을 빼는 ‘황제 다이어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과 비교할 만큼은 못 됐다. 이 정도면 다이어트의 한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대체 다이어트계의 검은 백조는 왜 등장했을까? 다큐 방송 뒤 고지방식 품목 매출 늘어 원래 지방은 음식의 역사가 아니라 미식의 역사에 더 적합하다. 거위에게 곡식을 억지로 먹여 지방간을 만들어 먹는 프랑스의 푸아그라가 세계 3대 진미로 꼽히고, 중국에서 지방이 주성분인 원숭이 뇌를 고급 푸딩처럼 먹었던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가난한 자의 음식이 ‘생존’이라면 부자의 음식은 구분지어지는 것이었다. 여기에 지방만큼 유용한 존재는 없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온 지방 숭배에 주홍글씨를 찍은 것은 1956년 미국에서였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빠르게 늘자 미국 정부는 1950년대 대규모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동물성(포화) 지방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때까지 미국은 ‘고기=힘’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던 육식의 제국이었다. 미국은 1830년대 오하이오 등에서 남는 옥수수를 소에 먹여 살찌운 뒤 철도를 이용해 전국으로 판매하는 자본주의적인 유통망을 갖춘 최초의 나라였다. 고기는 미국인들에게 부의 원천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런 나라에서 지방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고지방 다이어트는 비만과 질병의 주범으로 몰렸던 지방을 60년 만에 사면복권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심지어 이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쪽에선 지방을 70% 이상 섭취하고, 대신 탄수화물 섭취는 10% 미만(하루 반공기)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설탕을 비롯한 과일 등 당도 먹지 않아야 한다. 삼겹살, 연어, 버터, 달걀처럼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곡물이나 과일, 설탕 등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 몸이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서 지방을 쓴다는 것이다. 먹는 지방은 쌓이지 않을뿐더러 몸 안에 쌓여 있던 체지방이 빠지면서 체중이 줄어든다. 거기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므로 당뇨병의 위험도 감소한다. 이 다이어트법이 국내에 알려진 건 과학저널리스트인 니나 타이숄스의 이란 책이 4월 출간되면서부터다. 미국 예일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그는 1960년대부터 지방을 모든 질병의 주범으로 몰아온 영양학에 도전장을 냈다. 그의 생각을 9월 중순 이 ‘지방의 누명’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면서 고지방 다이어트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먼저 시장이 움직였다. 이마트가 8~10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8월19일부터 9월18일까지만 해도 버터 -19.2%, 치즈 -11%, 삼겹살 -7.9%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였던 고지방식 품목의 매출은 다이어트 관련 방송이 나온 9월 중순부터 반전됐다. 9월19일부터 10월12일까지 이마트의 버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1.4%, 치즈는 10.3%, 삼겹살은 7.6%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버터가 동나기도 했다. 2013년 기준 7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다이어트 시장의 위력을 실감하게 만든 현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로그램 방영 한달 뒤인 지난 26일 대한비만학회·한국영양학회 등이 이 다이어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지방 다이어트가 단기간에는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지만 영양 불균형과 몸의 염증반응을 불러일으켜 결국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지방 다이어트 지지자는 즉각 반발했다. 과학적 논거를 통해 우려를 표시한 비만학회 등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일부 의사들이 곡물 소비가 줄자 관련 단체와 짜고 이미 스웨덴 등 외국에서도 공식인정한 이 다이어트를 공격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 살을 많이 뺐다. 흔들림없이 나가겠다”는 다짐도 많았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 등장해 유행처럼 퍼질 때마다 으레 벌어지곤 했다. 고지방 다이어트 이전에도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저인슐린 다이어트 등 온갖 다이어트 방식이 등장했다. 찬반양론도 무성했다. 이 때문에 획기적인 다이어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돈방석에 앉지만, 이를 따라한 사람은 병원에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공공의 적’ 지방으로 다이어트를?1일 열량 중 지방 70~75% 먹으면살이 빠진다는 역설적 ‘광풍’ 불어버터·삼겹살 고지방 제품 품귀도전문가 우려에 ‘로비 탓’ 불신 기현상다이어트는 사실상 전국민의 관심사잊을 만하면 도발적 방법 등장질병에 미시적 접근 하는 의학 관행 탓비만과의 전쟁 벌이는 미국 건강식단버터·고기 제한, 통곡물 섭취 권장 찬반양론 모두 근거 있어 더 혼란 특정 다이어트 찬반양론이 유행처럼 등장하는 까닭을 환원론에 사로잡힌 현대의학의 구조적 모순 탓으로 꼽는 사람도 많다. 환원론(환원주의)은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을 세부적 요인의 관찰 등으로 설명하려는 서구의 실증주의적 경향을 말한다. 질병의 원인을 한 영양소의 문제로 파악하는 경향이 대표적인 환원론이다. 하지만 건강은 전자현미경을 통해 미시적으로 파악한 어느 한 영양소로만 오롯이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 코넬대의 류루이하이 교수는 사과를 예로 들어 환원론의 맹점을 보여줬다. 사과 100㎎의 비타민C는 5.7㎎에 불과하지만 100g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C의 200배가 넘는 1500㎎에 해당했다. 류 교수는 사과 한 개에는 비타민C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산화물질인 카테킨 등의 물질을 비롯해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있고 그 각각이 별도의 대사 시스템을 일으키는 것을 입증했다. 2000년 에 실린 이 논문은 인체가 사과를 먹을 때처럼 영양소를 이용하는 과정이 종합적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처럼 어떤 현상을 한 요소가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나눠 설명하는 방법론이 총체론이다. 질병을 영양소 부족으로 설명하는 환원론과 달리, 총체론은 식습관으로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 사과 한 개에 수천 가지의 대사작용이 일어난다는 총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방 역시 살만 빼주고 다른 영향은 없는 걸까? 이의철 대전 유성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과장은 “<span class='quot0'>환원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고지방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 지방을 먹는데도 지방이 빠지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몸 전체를 놓고 보면 당분이 사라지는 위기 상황에서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우리 몸이 지쳐갈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그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장기적으로 경험할 경우 사망 위험이 3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지방 다이어트의 핵심인 고기와 버터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미국 제초제의 80%가 육우와 다른 가축 사료에 뿌려지고 있으며 가축이 섭취한 제초제는 고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축적된다고 지적했다. 전미과학아카데미연구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미국에서 쇠고기는 살균제 오염 탓에 암을 유발하는 전체 원인 가운데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육식 등이 원인인 대장암 환자가 미국에서는 급증하고 있다. 대장암은 미국에서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다. 한국도 위험을 피해갈 수 없다. 한국은 대장암 발병률 1위 국가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45.0명으로 조사 대상 18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1980년에 견줘 4배 가까이 소비가 늘어난 육류 중심의 식생활 변화로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암뿐만이 아니다. 지방 등이 원인인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률은 대장암보다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임달오 교수 연구팀은 198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13개 주요 암의 사망률 추이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Cancer Epidemi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1983년과 2012년의 연령별 표준화사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이 30년간 10.5배가 늘어 암사망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2위 대장암(3.7배)보다 3배쯤 높았다. 고지방 다이어트는 한국인의 질병통계 흐름과 역행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에 열광하는 것은 일종의 의도된 착시라는 지적도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황성수힐링스쿨의 황성수 박사는 “고지방 다이어트는 콜레스테롤 증가, 혈압 상승 등 많은 이유로 몸에 좋을 수 없다.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외국의 흐름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비만인 미국은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심혈관질환의 주범인 마가린 같은 트랜스지방을 퇴출시켰고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와 미 농무부가 2011년 건강식단표인 마이플레이트(내 접시란 뜻)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식단표는 채소와 과일을 곡식(탄수화물)과 단백질만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지방 다이어트와 전혀 다르다. 버터는 쓰지 말고 붉은 고기는 1주일에 한번 정도만 먹도록 권한다. 대신 정제되지 않은 통밀과 현미를 하루 칼로리의 30%를 섭취하라고 권한다. 미셸 오바마와 미 농무부가 한국의 고지방 다이어트 추종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곡물 관련 협회의 로비에 당해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 식단의 이론적 바탕이 된 것은 2005년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선보인 음식 피라미드다. 이 피라미드를 한눈에 보기 편리하게 만든 것이 마이 플레이트다. 이 학교는 1980년대부터 12만명의 간호사 집단과 5만명의 남성을 상대로 조사를 해 신뢰도가 높다. ‘모델보다 경험을 믿어라’ 하버드대는 이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지방은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으로, 탄수화물은 정제된 것과 통곡물로 나눴다. 그때까지 지방과 탄수화물을 하나로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하버드대는 동물성 지방은 여러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식물성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며 섭취를 권장했다. 통밀과 현미 역시 섭취할수록 당뇨병·심장병·변비 등이 개선돼 장기적으로 건강에 이롭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는 매년 피라미드와 접시 모양의 건강 식단을 업데이트하는데 올해도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유행하는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이런 구분이 빠져 있다. 대한비만학회 이사인 오상우 동국대 교수(가정의학과)는 “<span class='quot1'>고지방 다이어트의 핵심은 지방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관리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탄수화물의 전체적인 양은 줄이되 몸에 좋은 탄수화물의 비율을 높여주는 다이어트가 돼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다이어트 방식에 고지방 다이어트 같은 검은 백조가 나타난 것은 의학의 발전보다는 다이어트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자기와의 싸움인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지은이의 말처럼 상시적으로 검은 백조를 만날 수 있는 설탕과 고기를 즐기는 극단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상체중을 유지하며 건강할 수 있을까? 의 지은이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델보다 경험을 믿어라’ ‘부정적 조언에 주목하라’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라’고 충고했다. 마법 같은 다이어트 방식을 경계하고 적게 먹고 부지런히 운동하라는 과거의 경험을 믿으라는 뜻으로 들린다. 권은중 기자 details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txt

제목: 10명 중 7명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하겠다”  
날짜: 2016102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27115921505  
본문: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말기질환 상태이거나 임종 과정에 있다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거의 100%가 이용에 찬성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증 및 증상 완화 치료 등과 같은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br/><br/> 27일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이근석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지난 9월 한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일반인 1241명과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은 전체의 73%, 의사는 99%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의 경우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31%)였고, 의사들은 ‘삶을 품위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46%)로 나타났다. <br/><br/>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한 답으로는 일반인은 ‘통상적 치료를 가능한 끝까지 하려는 환자 및 가족의 태도’(2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의사들은 ‘호스피스기관 및 인력의 부족’(26%)으로 답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 암이나,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한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일반인의 76%와 의사의 81%가 이런 답을 내놨다. <br/><br/> 현재 말기 상태라면 선호하는 임종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인은 전체의 38%가 상급종합병원을, 의사는 전체의 45%가 호스피스기관을 꼽았다. <br/><br/> 연명의료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양식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의사들의 인지 비율도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사전의료계획서’에 대해 일반인은 16%만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의사는 6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연명의료결정과 연명의료계획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일반인은 전체의 10%로 매우 낮았고, 의사도 48%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txt

제목: 루게릭병·다발경화증 등 ‘중대한 질병’ 포함시켜  
날짜: 2016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27112837051  
본문: 교보생명이 최근 출시한 ‘교보프리미어CI보험’은 보장을 늘리면서도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를 대폭 낮춘 신개념 CI보험이다.<br/><br/> ‘교보프리미어CI보험’은 사망 보장은 물론,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과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LTC. Long Term Care)상태를 평생 보장한다. 기존 상품보다 주계약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CI와 연관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보장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중증세균성수막염·루게릭병·다발경화증 등 4가지 질환을 새롭게 CI에 추가했다. 또한 그 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갑상선암 중 예후가 안 좋은 일부암에 대해 중대한 갑상선암으로 분류해 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br/><br/> 기존 CI보험의 보장공백을 최소화시키는 소액보장도 확대했다. 뇌출혈, 뇌경색처럼 CI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질환이나 CI와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질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CI 발생시 선지급률도 80%(기본형)와 100%(보장강화형)로 확대하여 넉넉한 치료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장강화형의 경우 100% 선지급 후 사망시에는 가입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br/><br/> 이처럼 보장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오히려 큰 폭으로 내렸다.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보증해주지 않는 대신 공시이율로 적립해 보험료를 10~ 20% 가량 낮췄다. 해지환급금이 기존 방식보다 다소 적어질 수 있지만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혜택에 초점을 맞춰 저렴한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속적인 저금리로 예정이율이 인하되고 각종 보증비용 부담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br/><br/>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주계약 1억 원 이상 가입 시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3.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 기본형 1억 가입시 30세 남자 20년납 기준 월보험료는 236,000원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txt

제목: ‘해고·암투병’ 이용마 기자 “자유언론 되찾자” 절절한 편지  
날짜: 2016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24164007607  
본문: 2012년 방송파업으로 해고당한 뒤 최근 희귀암으로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진 이용마 전 (MBC) 기자가 ‘자유언론’을 되찾기 위한 호소를 편지 형식의 글로 밝혔다.<br/><br/> 24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대신 배포한 편지에서, 이용마 해직기자는 “<span class='quot0'>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파괴됐고, 선배들이 피를 통하며 쟁취한 언론의 자유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저 역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며, 말 그대로 속이 썩어내린다</span>”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170일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고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희귀암인 복막암 투병 중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24일은 그가 해고당한 지 1695일째 되는 날이다.<br/><br/> 이 전 기자는 언론·시민단체들이 24일 발표하는 ‘2016 자유언론실천 시민선언’을 언급하며, 현직 언론인들에겐 “<span class='quot1'>과거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길 기대한다</span>”고, 시민들에겐 “<span class='quot1'>언론인들에게 비판과 함께 올곧게 저항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달라</span>”고 호소했다.<br/><br/> 군사독재 시절인 1974년 10월24일, 정권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했던 언론인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며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오늘(10월24일) 언론·시민단체들은 42년 전 선배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2016 자유언론실천 시민선언’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현업 언론인들에게는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을 실천하는 과업에 매진하기를 촉구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공정·편파 보도와 왜곡 보도에 대한 감시운동을 더 널리 확산하겠다는 것을 다짐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6 자유언론실천 언론노동자 시국선언’을 채택했다.<br/><br/> 이용마 전 기자의 편지와 ‘2016 자유언론실천 시민선언’, 그리고 ‘2016 자유언론실천 언론노동자 시국선언’의 전문을 옮긴다. 최원형 기자 circl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txt

제목: “비만 남성 암환자 다른 암에 또 걸릴 가능성 높아”  
날짜: 2016102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24141831685  
본문: 비만이 심한 남성 암 환자는 암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암에 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 24일 이은숙 국립암센터 박사·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중앙암등록본부 암등록자료와 건강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암으로 진단된 남성 약 24만명을 8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암 환자의 경우 정상 몸무게를 가진 일반인보다 암에 걸릴 위험이 40% 이상 높았다. 고도비만은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연구 결과 또 체질량지수가 25이상으로 비만에 해당되는 암 환자는 정상 몸무게를 가진 일반인에 견줘 암 발생률이 23% 더 높았다. 연구팀은 “암에 걸린 적이 있는 암 환자가 비만하면 다른 암에 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대장암, 신장암, 간암, 림프종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br/><br/> 비만한 암 환자가 다른 암에 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비만 등 나쁜 건강행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 또는 암과 관련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또 암 치료 과정 중에 노출된 약이나 방사선이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이은숙 박사는 “<span class='quot0'>국가암관리사업에서 암에 걸린 적이 있는 환자를 위한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학술지인 최근호에 실렸다.<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txt

제목: 죽은 자의 망막에 맺힌 나의 시간  
날짜: 2016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21205911071  
본문: , 도미야마 이치로 지음, 임성모 옮김, 이산, 2002<br/><br/> 나는 ‘우아한’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편견에 시달려온 여성, 여성주의자로서 자기 검열이다. 이런 내가 절대로 입 밖에 낼 리 없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기사화되었다.(10월7일 온라인판 ‘“민주공화국은 인간쓰레기가 없어진 사회”’) 인터뷰 당시 기억이 가물했지만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인터넷을 찾다가 “격하게 공감”한다는 여론에 당황했다.<br/><br/> 며칠 전 여성인권영화제에서 를 관람한 젊은 여성은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중인데 선생님은 이제까지 어떻게 버티셨냐”며 눈물을 쏟았다. 어제는 지방에 다녀오느라 택시를 네 번 탔는데, 세상에 대한 기사들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과 짜증을 들었다. 지역에서 만난 여성들은 “지진이 난 경주와 가까워 이곳도 뒤숭숭하다, (정부가) 대책이 없다”며 성토가 이어졌다.<br/><br/> 지금 이곳은 어디인가. 친구가 ‘최순실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길래, 내 스트레스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내 일상은 그보다 더한(?) 일들의 연속이다. 어쨌거나 그들은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대세인 사회다. 나는 그저 “살아지지 않는 인생”,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인간만 없어도”…, 이런 타령에 그치는 부류다.<br/><br/> 언제부터인가 “인생 한순간”, “한 번에 훅 간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나의 해석은 일상적으로 폭력을 당할 것 같은 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회의 도래다. 이것이 ‘헬 대한민국’의 의미다. 나의 목표는 주변에 민폐 안 끼치고 살아남는 것이다. 내가 나를 잡아두지 않으면 사고가 날지 모른다. 하긴, 사고도 생각하기 나름. 사고는 이미 여러 번 쳤고 나는 번번이 무너졌다. 이후 내 마음을 매달아 둘 주문(呪文)을 절실하게 찾아다녔다.<br/><br/>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체 옆에 있다. 우리는 시체와 일체화될 수도, 신들린 망령에게서 도망칠 수도 없다. (…) 총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선 줄에 앞서간 자가 있고 다음은 내 차례다. 죽은 자의 마지막 시간, 그의 눈 망막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포착되어 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12~13쪽)<br/><br/> 10년 전부터 나는 이 구절과 함께 산다. 분노가 내 몸을 패대기칠 때 ‘일’을 저지르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서 기진할 즈음 이 구절을 생각한다. 삶이란 죽은 자의 망막에 맺힌 나의 시간이다. 그래서 인생이 짧은 것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은 짧지만 최선의 저항(복수)을 모색한다. 나는 ‘총’이 없으므로 복수는 결국 맹렬하게 일상을 사는 것, 책상 앞에 앉는다. 다른 방식으로 ‘인간×레기’들을 살해하기 위해서다.<br/><br/> 정치는 시끄럽고 일상은 편안하다는 희망을 버리면 오히려 담담한 마음이 찾아온다. 나는 ‘인생 이모작’보다 ‘하루살이 인생’에 관심이 있다. 하루가 지옥인 이들에게, 언젠가는 끝난다(죽는다)는 사실만큼 위로는 없다. 내가 ‘자연의 법칙’을 사랑하는 이유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지만 끝에도 순간이 있으며 그 순간은 제법 길다. 끝(죽음)은 무섭거나 슬픈 일이 아니다. 분노를 간직하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 악취를 껴안을 때, 더러운 인간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에 절대로 기죽지 않을 때, 나도 더럽다는 것을 인정할 때 승부를 볼 수 있다.<br/><br/> 위 구절은 서른아홉에 암으로 사망한 일본의 소설가 다카하시 가즈미(1931~1971)와 “<span class='quot0'>저항이란, 투쟁을 타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지금 자신의 일상에서 실현하는 것</span>”이라는 도미야마 이치로(1957~)의 문장을 합친 것이다.<br/><br/> 좌절을 피할 수는 없다. 분노는 그 형태다. 삶을 행복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사고한다면, 죽은 자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다. 다음에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무지가 판치거나 전가할 희생자를 찾아나서는 사회가 바로 지옥이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현실을 부정할 때, 헛된 희망이 찾아오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된다. ‘저들이’ 바라는 바다.<br/><br/>정희진 평화학 연구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txt

제목: 남은 삶의 본전 찾기  
날짜: 2016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20202836697  
본문: 사는 게 뭐라고 -시크한 독거 작가의 일상 철학 사노 요코 지음, 이지수 옮김/마음산책(2015) 미아 한센-러브 감독의 영화 〈다가오는 것들〉의 이야기는 주인공 나탈리(이자벨 위페르)의 평온하던 일상에 여러 균열이 생기면서 시작된다. 영혼의 동반자인 줄 알았던 남편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요양원에 모셨던 엄마는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 되뇐다. 비로소 온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물론 다시 혼자가 되어 삶을 꾸려가는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다. 단순히 그녀가 혼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나이 든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이전에 집필한 책들은 퇴물 취급을 받는다. 그녀가 물러선 중심에 서서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는 청년들에게 이미 예전에 다 해본 것이라고 냉소하지 않고 마냥 응원을 보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녀는 복잡한 감정들을 훌훌 털고 다가오는 삶을 향해 기꺼이 몸을 던진다. 나탈리의 모습에서 ‘사노 요코’가 겹쳐 보이는 건 그 때문이다. 등으로 유명한 일본의 그림책 작가 사노 요코는 에세이 를 통해 ‘나이 든 여자’로서 홀로 살아가는 일상을 유쾌하게 펼쳐나간다. 예순이 훌쩍 넘은 그녀에게 이미 많은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 요의가 있어 화장실로 달려가면 졸졸졸 정말 ‘기나긴’ 오줌이 끊임없이도 나온다. 조금만 무리하면 다음 날 근육통에 시달린다. 치매가 의심될 정도로 기억도 깜빡깜빡해서 냉장고 속에 커피 잔을 넣어두는가 하면, 이미 갖고 있는 물건인 줄도 모르고 친구에게 선물해달라고 졸랐다가 민망해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자연의 섭리인 노화 과정을 어찌할 수 있을까. 그저 늙으면 다들 이렇게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불평이나 할 수밖에. 책 속의 ‘나이 든 여자’들은 하나같이 유쾌하고 활기 넘친다. 40대 중반부터 희귀 난치병에 걸린 친구 노노코는 약이 없으면 몸에 마비가 올 정도인데도 성질머리가 장난이 아니다. 왜 그렇게 성질을 부리냐고 물으면 그녀는 당당히 말한다. 내가 못된 게 아니라, 병이 못된 거라고. 보험회사에 다니며 혼자 사는 사촌 모모 언니는 정년의 그날을 기다리며 달력에 가위표를 친다. 사노 요코 본인은 뒤늦게 한국 드라마와 잘생긴 배우들에 푹 빠져 대형 텔레비전까지 마련했다. 예순여덟 살 먹은 여자를 찾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그녀는 전혀 외롭지 않다. 얼마 남지 않은 살날을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을 생각하고 싶다고 한다.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면서도 그녀는 오히려 “암은 덤 같은 것”이라고 여긴다.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말에 오히려 우울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자유’의 획득이나 다름없다며, 그녀는 영화 속 나탈리보다 더 화끈하게 다가오는 삶에 자신을 던진다. 노후 대비용으로 모아뒀던 돈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바로 시원하게 재규어 한 대를 뽑는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가 화두인 요즘, 나는 이 책만큼 ‘어떻게 남은 삶의 본전을 제대로 찾을 것인가’를 속 시원히 일러주는 책을 아직 보지 못했다. 박혜미 알마 편집부 과장 ※이번주부터 박혜미 알마 편집부 과장이 집필합니다. 4주 간격으로 세 권의 책을 소개하되, 그중 한 권은 자사 책을 씁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txt

제목: 실험동물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유전체 해독  
날짜: 2016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20035922498  
본문: 국내 연구진이 포함된 국제 공동연구팀이 100여년 동안 실험동물로 애용돼온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유전체(게놈)를 해독해 에 보고했다.<br/><br/> 울산과학기술대(UNIST) 생명과학부의 박태준 교수 연구팀은 19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개국 60여명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7년 연구 끝에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유전체를 완전 해독하고 4만여개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했다. 인간 유전자 기능을 찾아내거나 암 등 인간 질병을 연구하는 새로운 모델로 활용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 교수가 3명의 논문 제1저자 가운데 하나로 등록된 논문은 과학저널 19일(현지시각)치에 실렸다.<br/><br/>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체외 수정으로 한번에 지름 1㎜의 큰 알을 수백개씩 얻어 번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 조절도 수월해 척추동물의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유전자를 연구하는 발생학, 세포생물학, 생화학 등 여러 분야 연구에 널리 쓰여왔다. 진화적으로도 가장 널리 쓰이는 실험쥐와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제브라피쉬 사이를 채워줄 중요한 네발동물 모델로 쓰이고 있다. 2012년에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로 체세포 핵치환 실험을 해 “성세포가 다시 배아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한 존 고든 경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br/><br/> 그러나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유전체 해독은 쉽지 않았다. 인간 등 동물들은 부모한테서 염색체 그룹을 하나씩 물려받아 2개의 염색체 그룹(2배체)을 갖는 반면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부모한테서 2개씩 염색체 그룹을 받아 염색체 그룹이 4개(4배체)여서 유전체 분석이 까다롭다. 논문이 나오는 데 7년이나 걸린 이유다.<br/><br/>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크기가 큰 L염색체 1쌍과 크기가 작은 S염색체 1쌍 등 모두 4개 그룹으로 된 9개의 염색체(아래 그림 참조)를 갖고 있는데, 연구팀이 염색체의 디엔에이 반복서열을 분석한 결과 L염색체 9개와 S염색체 9개가 각각 다른 종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디엔에이 반복서열은 종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또 염색체 안에 흔적만 남아 있는 유사유전자를 분석해 2배체인 서양발톱개구리와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조상이 4800만년 전에 분화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2배체를 이루던 두 종의 유전체가 1700만년 전에 합쳐져 지금의 아프리카발톱개구리가 탄생했다는 것도 밝혀냈다.<br/><br/> 권태준 교수는 “그동안 식물에서만 볼 수 있었던 4배체 유전체를 동물에서 최초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진화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거나 암·선천성 기형처럼 배체수 변화가 흔히 나타나는 질병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txt

제목: ‘암 집단발병’ 남원 역학조사 결과 쉬쉬  
날짜: 20161018  
기자: 박임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18153904375  
본문: 암 집단발병으로 문제가 된 전북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내기마을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br/><br/>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전북도·남원시 등은 18일 “질본에서 최근 도와 시에 책자 400쪽가량에 이르는 남원 내기마을의 중앙암역학조사반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고안에는 △내기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권고1) △마을주민들이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실내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교육·홍보 시행(권고2) △해당 지역 주민의 흡연현황 파악 및 금연 지원(권고3) 등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 아스콘 공장 주변을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 검토조처도 담겨 있다.<br/><br/> 그러나 권고문의 배경이 된 역학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과를 밝히면 마을 주변 아스콘 공장과 주민들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저하는 것이다. 도와 시는 추가연구 검토조처도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br/><br/> 질본은 “지난 5월 주민에게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사주체인 남원시가 (모두) 공개하면 된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내용이 (집단발병) 의심을 해소하는 데 명확하지 않다. 과거에 발생한 일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사사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본은 추가조사로 보완을 권유했다.<br/><br/> 남원보건소 관계자는 “오래 전 일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방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명확한 사항이 없고 종합적으로 권고안만 냈다. 1, 2권고안은 시 환경부서에서, 3안은 시보건소에서 곧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역학조사 결과는 ‘이상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상 없다’라는 것도 아니다. 권고안은 성격상 도가 아닌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br/><br/> 남원 내기마을 집단발병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도는 2013년 3월, 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이 마을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다. 하지만 46개 수질항목에는 방사성 물질이 빠져 있어 문제가 된 라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2013년 10월부터 약 3년간 비용 6억5천만원(국비 70%)을 들여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txt

제목: 입원 암 환자 지난해 첫 감소…진료비는 늘어  
날짜: 2016101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12182943043  
본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 수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에 대한 과다검진이 줄어든 점,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 조기검진으로 초기수술이 늘어난 점, 암 예방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2012년부터 신규 암환자 발생이 줄기 시작한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br/><br/>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2015년 한해 동안 입원해 암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35만2145명으로 2014년 44만9014명보다 약 10만명 정도 줄었다. 이는 2000년 이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입원 암환자 수는 2009년 30만1995명, 2010년 32만3053명, 2011년 33만5198명, 2012년 36만4596명, 2013년 37만9724명 등으로 해마다 2만~3만명씩 증가세를 보여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14년 숫자에는 지난 2011년에 인하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의료공급자들이 승소해 2011년 5~10월 검사비가 일괄청구된 요인이 반영돼있기는 하지만, 이 변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입원 암환자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암 종류별로 보면 가장 감소폭이 큰 암은 2014년 초부터 과다 검진 논란이 일었던 갑상선암으로, 2013년 입원 환자 수는 5만3737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만153명으로 무려 44%나 감소했다. 갑상선암의 경우 2014년 3월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몇몇 의사들이 갑상선암에 대한 과다검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성 기자회견을 연 뒤 과다검진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결장암이나 직장암)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환자 수도 감소했다. 이에 견줘 유방암을 비롯해 전립선암, 췌장암, 방광암은 다소 증가했다. <br/><br/> 이에 앞서 새로 암에 걸리는 환자 수는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신규 암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324.2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322.3명, 2013년에는 311.6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등이 확산된 덕분으로 해석됐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span class='quot1'>신규 암 환자 수 감소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13년까지 이어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신규 암 환자가 주로 수술 등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입원 암 환자 수 감소는 자연스러운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 갑상선암 과다검진 감소, 조기검진 확산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안형식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갑상선암에 대한 과다검진이 줄어든 것이 입원 암 환자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 조기검진으로 초기에 발견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재입원이 줄어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br/> 입원 암 환자 수는 줄었지만, 건강보험 암 입원 진료비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암 입원 진료비는 총 2조9085억원으로 2014년의 2조7413억원, 2013년의 2조6582억원에 견줘 각각 6.1%, 8.6% 증가했다. 지난해 암 입원 진료비가 가장 많은 암은 폐암으로 총 3229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간암(3107억원), 위암(2788억원)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2013~2014년 암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각종 고가의 항암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커진 측면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txt

제목: 나는 외롭지 않은 유방암 환자입니다  
날짜: 2016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08132948804  
본문: ▶우리나라 유방암 증가율은 세계 1위입니다. 지난해 유방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4만명입니다. 환자는 40~50대가 많지만 20~30대도 적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상징하는 가슴에 생기는 암은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환우들은 이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오래전부터 뭉쳐왔습니다. 서울대병원 환우회인 비너스회는 지난 8월 지방 환우들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쉼터를 서울 명륜동에 마련했습니다. 10년 만의 전세살이 끝에 어렵게 마련한 비너스 쉼터는 아늑했습니다. <br/><br/> <br/><br/> <br/><br/> 4일 오전 서울대 병원 본관 지하 1층 방사선종양내과. 이른 시간 많은 환자들 사이에서 40대인 김정희(43)씨를 찾기란 어렵지 않았다. 다른 환자에 견줘 젊은 여성이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방암 환자는 다른 암과 달리 비교적 젊은 연령인 40대가 가장 많이 걸린다.<br/><br/> 김씨는 6개월간 계속된 항암 치료 탓에 머리카락이 빠져 모자를 쓸 수밖에 없었다. 수술 후 머리카락이 다시 나고 있다지만 그 길이는 1㎝ 남짓했다. 50만원을 주고 가발을 맞췄지만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탓에 한번밖에 쓰지 않았다. 여덟달 동안 계속된 항암 치료와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탓에 그의 얼굴은 검고 부어 있었다.<br/><br/> 그의 집은 충북 청주다. 고속버스를 타면 터미널까지 1시간30분이 걸린다. 17차례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가 서울까지 매일 통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민하던 그는 병원의 소개로 비너스 쉼터를 알게 됐다. 이곳은 1박에 2만원이면 족했다. 숙박 비용이 저렴한 것은 이곳이 서울대병원 유방암 환우 모임인 비너스회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br/><br/> 김씨는 쉼터에 오기 전부터 비너스회를 알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살고 있던 그는 가슴에 멍울이 만져져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급히 귀국해 친정인 청주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유방암 3기. 종양이 23개나 가슴에 퍼져 있었다. “왜 내가” 확진을 받은 뒤 그가 했던 첫마디였다. <br/><br/> <br/><br/> 서울대병원 유방암환우회 20평 규모 빌라 구입해 쉼터로 장기 항암 방사선 치료받는 지방 환우에 하루 2만원 제공 김치·과일은 물론 가발까지 갖춰 선배들의 알짜 경험담은 덤 2006년 시작한 ‘비너스 쉼터’ 서로 보듬는 공동체 역할 톡톡<br/><br/> <br/><br/>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다. 특히 여성성을 상징하는 가슴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크다. 중1, 초등 5학년 두 아이의 엄마인 김씨도 다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투병 관련 카페를 클릭했다. 이 과정에서 비너스회를 알게 됐지만 이런 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몰랐다.<br/><br/> “고마웠죠. 청주에서 서울로 17번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해 단기 월세를 얻을까 고민했어요.”<br/><br/> 20여분간의 방사선 치료를 끝마친 김씨는 옆 건물인 소아별관 2층에 있는 유방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매주 화요일 치료 상황을 담당 의사와 상의한다. 김씨와 함께 간 센터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수십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20대 여성도 보였다.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률은 낮은 편이지만 증가율은 세계 최고라는 통계를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실제 지난해 유방암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14만1379명에 달한다. 2011년 10만4293명에 견줘 35.6% 늘었다.<br/><br/> 대기인원이 많은 탓에 김씨는 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때 유경희(61) 회장을 비롯해 총무 강성초(58)·이경희(53)씨, 회계 정주현(가명·54)씨 등 임원들이 한두명씩 모이기 시작했다. 유 회장은 김씨와 인사를 나눈 뒤 김씨 머리를 보더니 머리카락이 새로 났느냐고 물었다. 김씨가 “<span class='quot0'>항암 끝나고 머리가 나기 시작했다</span>”고 답하자 유 회장은 “<span class='quot0'>짧은 머리가 아주 예쁘니까 조금만 자라면 가발 안 써도 된다</span>”고 친근하게 말했다. 옆에 있던 회원들도 “<span class='quot1'>우리도 항암 할 때는 다 빡빡 밀었다</span>”고 거들었다. 아침 내내 긴장했던 김씨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br/><br/> <br/><br/> 10년 전세살이 끝에 내집 같은 쉼터 마련<br/><br/> 진료를 마친 뒤 이들과 함께 도착한 비너스 쉼터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조용한 주택가의 빌라였다. 병원까지 천천히 걸으면 20분 거리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이 한양에 살던 집터 근처다. 명륜동은 재개발의 광풍이 미치지 않아서 골목이 옛 모습 그대로여서 정겨웠다.<br/><br/> 비너스회는 빌라를 지난 8월 서울대병원과 함께 구입했다. 자신들만의 쉼터를 갖는 것은 2000년 창립한 비너스회의 오랜 바람이었다. 2006년 마련한 첫 쉼터는 전세였다.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줘야 했고 몇년 전부터는 월세 전환 요구도 거세졌다. 중간에 전세도 옮겨야 했다. 첫 전세는 5층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거실도 있어 괜찮았으나 두 번째 집은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시공도 정교하지 않아 계단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기진맥진한 환우들이 걸어서 올라가다 놀라기 일쑤였다.<br/><br/> 게다가 주인이 집을 매물로 내놓은 터라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자주 왔다. 항암 치료로 탈모가 진행된 암환자들이 대부분이던 쉼터 이용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모자나 가발을 쓰고 낯선 매수 의향자를 기다려야 했다. 눈물나는 전세살이였던 셈이다.<br/><br/> 하지만 막상 집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번거로웠다. 올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 쾌적한 집을 알아보고 모자라는 자금을 융자받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신경쓸 일도 적지 않았다. 마침내 지난 8월26일 새 쉼터로 이사를 하고 ‘비너스 쉼터’ 현판을 걸었다. 유 회장은 “<span class='quot2'>오랜 고생 끝에 내 집을 구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span>”고 말했다.<br/><br/> 어렵사리 구한 쉼터는 거실과 방 3개의 20평 규모다. 처음 마련한 ‘우리 집’인 만큼 거금 600만원을 들여 쉼터를 싹 수리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창틀도 바꾸고 페인트칠도 했다. 쉼터는 신혼집처럼 깔끔했다. 안방은 넓었고 화장대와 장을 갖추고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머리가 빠지는 환우를 위한 가발이 놓여 있었다. 거실의 크림색 가죽 소파는 서울대병원 환우였던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가 기증한 것이다. 주방에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과일이 칸마다 있었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놓은 것이다. 매년 쉼터에서 환우들을 위해 김장을 담근다.<br/><br/> 쉼터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화장실 문 앞에 놓인 발걸레였다. 빨강 하얀색의 걸레 대여섯장이 하늘색 플라스틱 통에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이 느껴졌다. 2011년부터 쉼터 살림을 맡아온 박정화(64)씨의 노고다. 박씨는 “<span class='quot3'>쉼터에 17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묵었던 때도 있었다</span>”고 회상했다. 북적북적했지만 신명났다고 한다.<br/><br/> 2002년 수술을 받은 박씨는 회원 중에서도 고참 격이다. 그는 쉽지 않은 일인 쉼터 회계를 6년을 맡아왔다. 일주일에 한번씩 쉬는 날 들른다고 하지만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는 “<span class='quot3'>생명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으로 봉사한다</span>”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환우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br/><br/> 비너스회 임원들은 쉼터에서도 쉬지 않았다. 떡·김밥·도시락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곳저곳에 전화해 견적을 내보던 중이었다. 맛이냐 배달이냐를 논의하다가 갑자기 절편(가래떡)이냐 증편(찐떡)이냐로 주제가 휙휙 넘어갔다. 목소리는 컸고 활력이 넘쳤다. 이달 있을 캠페인·마라톤대회·바자회 등 무려 3가지 행사를 준비중이었다.<br/><br/> 10월에 행사가 몰린 것은 이달이 유방암에 대한 정보와 자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유방암 의식 함양의 달(핑크리본의 달)이기 때문이다. 핑크리본은 유방암의 상징이다. 1991년 미국의 한 유방암 환자 달리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핑크색 리본을 나눠주면서 시작됐다.<br/><br/> 간부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이는 이경희씨였다. 그는 2014년 유방암 수술을 받고 지난 8월말 갑상선암 수술을 했다. 3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암이 공포스러울 법도 하지만 그는 암 수술 뒤 4주 만인 9월27일 건국대에서 열린 핑크리본 페스티벌에 합창단원으로 참여했다.<br/><br/> 목 부위의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면 성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수술 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씨는 수술 후에도 매주 월요일 연습에 빠지지 않았다. 3년 만에 유방암에 갑상선암까지 걸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환하냐고 물었더니 이씨가 웃으며 답했다. “<span class='quot4'>회원들과 함께 봉사하고 노래해서 그런가 봐요.</span>”<br/><br/> <br/><br/> <br/><br/> 비너스 쉼터에 흰나팔꽃이 피었습니다<br/><br/> 유방암은 환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암이다. 환자 절반 이상이 중증의 압박감을 느낄 정도다. 한국유방암학회가 2014년 유방암 환자 54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중증 스트레스로 분류하는 4점 이상(10점 만점)의 스트레스 지수가 나타난 환자가 50.7%(275명)였다. 특히 12.7%(69명)는 8점 이상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꼈으며 이런 성향은 나이가 젊을수록 뚜렷했다. 외모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탓으로 분석됐다.<br/><br/> 하지만 이들은 통계의 예외처럼 보였다.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 2008년 암 수술을 받았던 유 회장은 “암 수술로 인생이 바뀌었다”고도 말했다. 수학 교사였던 그는 학교를 퇴직한 뒤 몇달 만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 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도 까맣게 돼 잔뜩 위축됐던 2009년 여름 비너스회에 가입했다. 가입 동기는 단순했다. 똑같은 암을 앓았다는 선배 회원들의 얼굴이 너무 편안하게 보였고 그것 하나만 보고 들어왔다. 그는 이후 봉사단과 합창단에서 왕성하게 활동했고 가입 5년 만인 2014년 회장이 됐다. 그는 “비너스회 활동은 놀라운 신세계였다.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 암 대신 우울감과 싸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 이경희씨도 갑상선 수술로 자신도 자기 목소리가 낯선 상황에서 합창대회에 참여했다. 지휘자와 회원들은 이씨가 합창에 꼭 필요한 알토라며 격려했다. 주변에서 무슨 합창이냐고 큰일난다고 만류했지만 그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집에 있으면 뭐 낫나요. 합창대회에 나가서 오히려 목소리가 더 빨리 트인걸요.” 동병상련의 환우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약이 된 듯했다.<br/><br/> 암은 발병 뒤 완치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암 치료는 마라톤에 비유된다. 완주하는 데 여러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가족과 친구의 도움도 중요하다.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 치료 기간도 길고 심리적 충격도 더 크다. 노동영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장은 “3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죽지만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아 장기 투병자가 많다. 환우들이 여성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데 환우회와 쉼터는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는 생활건강 공동체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서 1만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를 수술해온 유방암 권위자인 그는 비너스회와 쉼터 마련의 산파 역할을 했다.<br/><br/> 유 회장 역시 자기가 언젠가 환우에게 받았을 격려를 쉼터를 찾은 김정희씨에게 하고 있었다. “유방암 생존율은 90%가 넘어요. 3년만 지나면 정희씨도 예전과 똑같아져요. 제일 어렵다는 항암도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br/><br/> 김씨는 ‘투병 선배’인 이들의 조언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일단 암이란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불안하고 힘들어요. 투병수기를 읽고 책도 읽지만 막상 실감나지 않아요. 담당 선생님에게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선생님 앞에만 가면 머리가 하얗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생생한 경험담이 용기가 돼요.”<br/><br/> 회의가 대략 갈무리되자 유 회장은 김씨에게 쉼터 근처 서울성곽길을 함께 걷자고 권했다. 수술 후 운동이 부족했던 김씨는 선뜻 이들을 따라나섰다. 쉼터를 구할 때 산책로도 고려의 대상이었다. 쉼터 뒤로 5분쯤 올라가보니 사진으로만 봤던 서울성곽길이 나왔다. 성곽길로 올라가니 북쪽으로는 잘생긴 북한산 보현봉이, 남쪽으로는 서울대병원과 도심이 보였다. 탁 트인 풍광에 감탄하고 있는 사람들을 덤불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한 유 회장이 불렀다.<br/><br/> 흰나팔꽃이었다. 보랏빛 나팔꽃의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작고 앙증맞았다. 실처럼 가는 연둣빛 넝쿨이 플라스틱같이 억센 사철나무 잎들을 아슬아슬 타고 나무 끝까지 올라가 꽃을 피워놓았다.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니 흰나팔꽃 꽃말은 ‘넘치는 기쁨’이었다. 암과 맞선 환자들이 다른 환자를 돕는 공간인 비너스 쉼터에 어울리는 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br/><br/> 권은중 기자 details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txt

제목: 피 한방울 안 나는 주사바늘·인공 번개 발전기 개발  
날짜: 20161006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06114026228  
본문: □ 출혈없는 주사바늘<br/><br/>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연구팀이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주사바늘을 만들었다. 울산과기원(유니스트) 연구팀은 번개처럼 전기를 만드는 ‘인공 번개 발전기’를 개발했다.<br/><br/> 카이스트 화학과 이해신 교수 연구팀은 6일 “<span class='quot0'>홍합이 가진 접착 기능을 모방한 생체 재료를 이용해 찔러도 출혈이 없는 주사바늘을 개발했다</span>”고 밝혔다. 논문은 3일(현지시각)치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 의료 처치로 주사를 놓으면 보통 3분 가량 피부를 눌러 지혈을 하지만 장기입원 암환자나 혈우병, 당뇨병 환자 등은 정상적인 지혈이 어렵다. 이들 환자를 위해 주사바늘에 지혈 재료를 코팅해 사용하는데 재료가 혈관 내부나 피부에 잘 붙어야 한다.<br/><br/> 연구팀은 홍합이 섬유 형태의 족사(어패류의 몸에서 나오는 경단백질의 강인한 섬유다발)로 파도가 치는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는 원리를 모사해 지혈재료를 제작했다. 홍합 족사 구조에 존재하는 카테콜아민 성분을 넣은 접착성 키토산을 이용해 주사바늘 위에 만든 지혈기능성 필름은 혈액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하이드로젤 형태로 바뀌어 지혈을 일으켰다.<br/><br/> 이해신 교수는 “<span class='quot1'>혈우병 모델 동물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강선웅·김기석 박사 연구팀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br/><br/><br/><br/> □ 인공 번개 발전기<br/><br/> 유니스트 신소재공학부 백정민 교수는 이날 “<span class='quot2'>번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리를 본딴 ‘인공 번개 발전기’를 개발했다</span>”고 밝혔다. 연구 성과는 5일(현지시각)치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 번개는 구름 안에 있는 수증기 분자가 얼음 결정과 마찰하는 과정에 생기는데, 두 물질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전하들이 분리되고 축적됐다 엄청난 에너지를 지표면에 방출한다. 연구팀은 전하가 분리·축적되는 과정을 본따 ‘전하펌프’라는 개념을 고안하고, 수증기 분자와 얼음처럼 마찰시킬 신소재를 만들고 3층 구조의 마찰전기 발전기를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전하까지 마찰전기 발전기로 퍼올릴 수 있어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br/><br/> 백정민 교수는 “일반적인 2개 층의 발전기에서 마찰로 생성된 전하가 외부 회로로 이동할 때 전하를 잃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 접지층을 삽입해 3층 구조로 만들었더니 16배 이상 출력 전력이 높아졌다. 인공 번개 발전기는 건물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자동차의 전력 생산,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충전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종린왕 미국 조지아공대 교수, 김상우 성균관대 교수, 강종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 책임연구원, 최덕현 경희대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br/><b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txt

제목: 서천석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절망적”  
날짜: 20161004  
기자: 박유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04102827953  
본문: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 교수가 고인의 사망 책임을 유가족에게 돌린 것에 대해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인 서천석 행복한아이연구소장이 “<span class='quot0'>절망적</span>”이라며 “의사가 하라는 대로, 현대 의학이 가능한 한 끝까지 치료를 따라 하지 않으면 이제 모든 사고사는 병사가 되는 거냐”고 말했다.<br/><br/> 백남기씨의 주치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지난 2일 “가족들이 체외투석치료 등에 반대해 최선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 만약 최선의 치료를 하고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나도)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br/><br/> 서 소장은 이날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언론 브리핑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가적인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를 가족이 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망했으니 병사라니, 백선하 교수의 견해는 <span class='quot0'>절망적</span>”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현대 의학이 가능한 한 끝까지 치료를 따라 하지 않으면 이제 모든 사고사는 병사가 된다. 말기암에선 대개 합병증이 와서 사망하는데 이때도 끝까지 연명치료를 안 하면 이 사람은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교수에 대해 “<span class='quot1'>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고,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대적 추세에 대한 어떤 식견도 없다</span>”고 비판했다.<br/><br/> 그는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한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없다고 굽히지 않은 것은 “<span class='quot1'>창피한 과거를 덮으려 무리하고만 억지 논리</span>”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 의학에서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당부했다. “어쨌든 당신이 죽을 때는 의식이 있건 없건 모든 도구와 약물, 기계를 사용해서 최대한 생명을 유지하시길. 그게 좋은 죽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니. 혹시 시간이 나면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장인 백선하 교수와) 같은 (전공의) 신경외과 의사인 아툴 가완디가 썼고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아름다운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한번 읽어 보시길”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br/><br/> 는 연명치료로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순간일지, 현대의학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 가지 치료에 집중하느라 전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묻는 책이다.<br/><br/> <br/><br/> 박유리 기자 nopimuli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txt

제목: ‘기초 과학’의 일본, 3년 연속 노벨상 수상  
날짜: 20161003  
기자: 길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03214900283  
본문: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게 내 신념이었습니다. 특히 분해라는 게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선 늘 분해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거죠.”<br/><br/>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오스미 요시노리(71)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는 3일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NHK) 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수상 배경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손을 대는 자신의 신념을 꼽았다.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물질의 생성 등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을 연구할 때, 그는 한발 떨어져 생명의 또다른 중요한 현상인 분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br/><br/>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3일 오스미 교수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단독 수상자로 선정하며 “<span class='quot0'>세포 조직의 분해와 재활용이라는 기본적 과정인 ‘오토파지’라는 현상의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span>”고 설명했다. 노벨위원회는 “<span class='quot0'>오스미 교수의 발견은 세포가 어떻게 세포 내 물질을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의 발견은 감염에 대한 반응 등 여러 생리과정에서 오토파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길을 열었다</span>”고 평가했다.<br/><br/> 오토파지는 자신의 불필요한 성분을 스스로 잡아먹는 것으로 ‘자가포식(자식) 작용’이라 부른다. 이를 이용하면 실제 정상 세포와는 다른 암 세포를 잡아먹는 치료제를 만드는 등 여러 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 백찬기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자식작용은 최근 암, 근육기능 이상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감염질환, 노화 등 다양한 질병에 관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국내에서도 이런 작용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항암제 및 신경질환 치료약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하면 환자들이 겪는 부작용과 이상 반응을 최소화하면서 질병은 치료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오스미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2'>최근 오토파지를 통해 단백질의 재활용(리사이클)뿐 아니라 우리 몸의 위험한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파괴해 세포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span>”고 말했다. 한 예로 신경세포에서 유해한 단백질이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면 파킨슨병 등이 발병한다는 사실이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br/><br/>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큰 기쁨에 빠졌다. 이로써 일본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일본 언론들은 “1980~90년대에 일본에서 이뤄진 여러 과학적 성취가 많아 올해도 (의학상 외에도) 물리학상·화학상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일본인의 단독 수상은 29년 만”이라며 이번 수상을 한층 더 반겼다. <br/><br/> 과학 분야뿐 아니라,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올해 일본인으로 세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 평화상 분야에서도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시민들’의 수상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br/><br/> 오스미 교수는 1945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1967년 도쿄대 교양학부를 졸업한 뒤 미국 록펠러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오토파지 현상을 집중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8년 도쿄대 조교수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로 재직해 왔다. 그는 이날 밤 요코하마의 도쿄공업대 연구실로 찾아온 기자들에게 “기초 생물학 연구를 이어온 나같은 사람이 이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스미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인으로서 긍지를 느낀다”며 축하했다.<br/><br/> 도쿄/길윤형 특파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charisma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txt

제목: 노벨의학상,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  
날짜: 20161003  
기자: 정의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03192917557  
본문: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가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br/><br/> 노벨위원회는 3일 요시노리 교수가 아사 상태의 세포가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해 영양원으로 삼는 ‘오토파지’(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공로로 노벨의학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일본의 오무사 사토시 기타사토대 교수가 이 상을 공동수상했다.<br/><br/>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서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분해하는 현상으로, 이 기전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신경난치병이 발생한다.<br/><br/> 위원회는 성명에서 “<span class='quot0'>오스미의 발견은 세포가 그 내용물을 어떻게 재생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었다</span>”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span class='quot0'>그의 발견은 아사에 대한 적응이나 감염에 대한 대응 등 많은 생리적 과정에서 오토파지의 근본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길을 열었다</span>”고 덧붙였다.<br/><br/> 후쿠오카 출생인 올해 71살의 오스미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도쿄공업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오스미 교수는 1980년대 현미경 관찰로 세포 내에서 오토파지 현상을 발견했으며 이후 연구를 통해 오토파지의 구조를 규명했다. 그는 이날 수상 발표 이후 “전혀 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매우 영광스러울 뿐이다”고 말했다.<br/><br/> 정의길 선임기자 Egil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txt

제목: [왜냐면] 폐암 환자들 마지막 희망 ‘신약’ 보험 적용되길 / 김소정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03181922723  
본문: 김소정폐암환자 가족<br/><br/> 최근 국내에 들어온 폐암 신약 타그리소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하나의 약이고 처리해야 할 과제겠지만,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지친 폐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의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용기내어 전달하려고 한다. <br/><br/> 폐암 환자인 어머니는 2014년 진단 이후 표적치료제로 치료받으면서 약 2년간 함께 일상생활을 보냈다. 폐암 진단 당시 아버지도, 나도, 동생도 어머니가 폐암 환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울기만 했다. 되돌아보면 그때는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기였다. 표적치료제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어머니가 암에 적응이 될 때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족을 할퀴고 지나갔다.<br/><br/> 작년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엄마는 한평생 함께했던 배우자를 잃고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올해 폐암이 재발하고 말았다. 알지만 외면했던 상황, 표적치료제로 치료받는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내성이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나와 동생은 겁에 질렸다.<br/><br/> 어머니는 재발 후 폐 기능이 너무 약해져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다. 그때 내성이 생긴 폐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 신약인 타그리소로 치료받지 않았다면 나와 내 동생은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무사히 약이 잘 들어 퇴원한 엄마를 집으로 모시면서 신약을 쓴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약값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워졌다.<br/><br/> 다른 환자들은 임상이라도 가능하다는데, 어머니는 임상도 불가능했다. 결국 천만원이라는 고가의 약값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아버지 없이, 이 모든 짐을 다 감당해야 하기에는 20대 후반인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서 더 두려웠다.<br/><br/> 약국에서는 고가 약이라고 해도 마진이 없다며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했다. 조부모님과 주변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첫달은 해결했다. 현금 천만원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나니 어머니와 함께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함께할 수 있다. 그런데 28일 뒤에는, 또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br/><br/> 이 신약만 먹으면 어머니의 암은 70~80% 사라질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머니가 어떻게든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고,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플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어머니와 같은 폐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txt

제목: [야! 한국 사회] 고칠까, 엎을까? / 이정렬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03180959638  
본문: 이정렬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전 부장판사<br/><br/> 3년 전이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가 부친상을 당했다. 조문을 갔더니 문상객들이 많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다. 기다린 지 30분 정도 되었을까? 어디서 본 듯한 중년 남성 한 사람이 장시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빈소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다.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사람 누구지?’ ‘몰라서 물어? 헌법기관의 장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기다리는 사람들 안 보이나? 헌법기관의 장이면 다야? 저렇게 새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니 그 기관 못 믿겠군.’ 필자의 귓가에 이런 말들이 들려왔다.<br/><br/>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되었다. 이 법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게재된 신문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ㅁ일보의 기사다. 제목은 이렇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폐업 속출, 서빙직 줄줄이 쫓겨나… 서민 일자리 직격탄’. 내용을 보니,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관가, 언론사, 주요 기업이 밀집한 곳의 음식점들이 폐업을 하거나, 직원의 수를 줄이고 있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br/><br/> 법제처 누리집(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되어 있다. 법의 내용을 보면, 금지되는 것은 ‘모든 청탁’이 아니다. ‘부정한’ 청탁만이 금지 대상이다. 즉, 이 법은 ‘부정청탁금지법’이라 불려도 무방한 법이다. 또한 이 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br/><br/> 다시 아까의 기사로 되돌아가 본다. 기사의 제목에 나타난 ‘김영란법’을 ‘부정청탁금지법’이라 바꾸어 읽어 본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당폐업 속출, 서빙직 줄줄이 쫓겨나… 서민 일자리 직격탄’….<br/><br/> 놀랍다.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더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법을 마련했더니,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을 만들었더니, 폐업하는 식당이 속출하고, 서민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단다. 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단다.<br/><br/> 실망을 넘어서 충격적이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부정한 청탁을 막으면 서민의 삶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반칙이 일상적인가? 정말로 우리나라는 반칙이 없으면 안 되는 사회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를 가지면 안 되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인가?<br/><br/> 이렇게 썩어버린 사회라면 고쳐 쓰기보다는 엎어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헌법기관, 관가, 언론계, 주요 기업이라는,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이른바 사회의 상층부가 이렇게 반칙이 없이는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썩었다면 말이다. 비록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악취가 진동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고쳐 쓸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일까? 엎어야 하나, 고칠 수 있나? 선택하기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br/><br/> 고쳐 쓰든, 엎어 버리든 반드시 솎아내야 할 자들이 있다. 거리낌없이 반칙을 저지르는 자, ‘부정청탁금지법’을 폄훼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다. 이들은 우리 공동체의 암적 존재다.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아 보고 싶다. 고쳐진 나라든, 엎어져서 새로 세워진 나라든 간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txt

제목: 암 치료 대신 여행 선택한 노마 할머니의 위대한 1년  
날짜: 20161003  
기자: 황금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03161934317  
본문: “진짜 크다!”<br/><br/> 그랜드캐니언을 본 노마 할머니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루 종일 사우스림 주변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지난해 11월8일,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br/><br/> 할머니는 지질학에 관심이 많아요. 온천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네요.(7월28일,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매머드 핫스프링스)<br/><br/> 할머니와 팀이 대서양 바닷물에 발가락을 담가봤어요.(8월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섬)<br/><br/> <br/><br/> 지난달 28일, 1년여간 미국 횡단 여행 소식을 올린 노마 바우어슈미트(91) 할머니의 페이스북 페이지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span class='quot0'>‘안녕’이라 말하기 힘든 누군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지.</span>”<br/><br/> 앨런 밀른의 동화 ‘곰돌이 푸’에 등장한 이 대사와 함께 올라온 사진에서 노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아들 팀을 보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는 할머니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누리꾼들은 “당신의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응원과 기도를 보낸다”는 글을 올리며 노마 할머니를 응원했다.<br/><br/> <br/><br/> 지난해 7월, 미시간주 프레스크아일에 살던 노마 할머니는 정기검진을 받던 중 자신이 자궁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왔다. 암 선고 2주 전 사랑하는 남편 레오 바우어슈미트가, 그보다 한 달 전에는 아들 랄프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 수술, 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 차근차근 자궁암의 치료 과정을 설명하던 의사에게 할머니가 말했다. “난 이제 90살이에요. 여행을 떠날 겁니다.”<br/><br/> 그해 8월24일, 노마 할머니는 아들 팀과 며느리 래미 리들, 반려견 링고와 함께 미국 자동차 횡단 여행을 떠났다. 암 선고를 받은 지 5주만의 일이었다. 이후 13개월간 할머니와 가족들은 미국 32개주, 75개 도시를 방문했다. 주행거리만 2만1000㎞, 시간변경선을 9차례 넘나드는 여정이었다. 노마 할머니는 열기구를 타고 플로리다 상공을 날았고, 애리조나에서는 반려견 링고와 함께 그랜드캐니언을 굽어봤다. 사우스다코다에서는 차 안에 앉아 떼지어 지나가는 버팔로를 지켜봤고, 콜로라도주의 한 양조장에서는 수제 맥주를 맛봤다. 아들 팀은 “어머니께서 맥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독일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br/><br/> <br/><br/> 아들 내외가 할머니의 여행 소식과 사진을 올리기 위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 ‘드라이빙 미스 노마’가 알려지면서, 노마 할머니는 유명인사가 됐다. 미 해군, 미 프로농구(NBA) 애틀랜타 호크스 팀을 비롯해 미국 각지에서 모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초대를 받았다.<br/><br/> 리들은 페이지를 팔로우하는 45만여명의 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이야기가 그 대화를 시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노마 할머니의 삶이 끝날 때까지’ 여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한 가족들은 할머니의 뜻에 따라 여행 내내 인위적인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br/><br/> 1일(현지시각), 노마 할머니의 가족은 페이스북에 “인생은 붙잡는 것과 놓아주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한 뒤 “오늘 우리는 놓아드렸습니다”라며 그의 부음을 알렸다. 올해 91살, 여행을 시작한 지 1년1개월만이었다.<br/><br/> 여행을 하면서 배려와 사랑,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는 노마 할머니는 ‘지금까지 여행에서 어디가 가장 좋았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항상 똑같이 답했다.<br/><br/> “바로 이 곳입니다.”<br/><br/> 황금비 기자 withbe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txt

제목: 빛을 공진기에 1천배 이상 오래 가두는 기술 개발  
날짜: 20161003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03120901074  
본문: 국내 연구진이 공진기에 빛을 1천배 이상 오래 가둬 레이저용 초정밀 빛을 생성할 수 있는 공진기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br/><br/> 최무한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와 민범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3일 “투명망토 연구분야의 이론적 토대인 변환광학을 이용해 초소형 레이저의 핵심소자인 고품질의 방향성 빛을 내보내는 광-공진기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9월26일(현지시각)치에 표지 주요논문으로 실렸다.<br/><br/> 중국 베이징 인근 천단공원의 회음벽이나 영국 세인트바울성당 돔에서 작은 소리를 내면 벽을 따라 멀리 떨어진 맞은 편에까지 들리는 원리처럼, 빛도 원형의 공진기에서 경계면을 따라 오랜 시간 갇혀 있는 현상이 생긴다. 이를 ‘속삭임의 회랑 모드’라 하는데, 바울성당의 돔 주위에 그림을 전시한 갤러리(회랑)에서 유래했다. 빛이 공진기에 오래 갇혀 있으면 품질 곧 분해능이 높아진다. 문제는 원형 공진기에서는 빛이 계속 반사돼 빼내오지 못하고, 찌그러뜨린 공진기에서는 빛이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해 고품질의 빛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br/><br/> <br/><br/> 연구팀은 변환광학을 이용해 찌그러진 공기진에서도 빛이 기존보다 1000배 오랜 시간 머물도록 하고, 품질이 높아진 빛을 한쪽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한 광-공진기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 변환광학은 빛이 굴절하는 정도를 조작해 빛의 경로를 조절하는 메타물질 연구의 한 분야이다. 이런 메타물질을 이용하면 투명망토를 만들 수 있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으나 연구를 주도해오던 논문의 공동 제1저자인 이수영 경북대 교수가 2014년 뇌졸중으로 사망하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최무한 교수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공진기를 연구하던 이수영 교수 등이 참여해 마이크로 공진기 분야의 오랜 난제를 풀 수 있었다. 광-공진기 설계 기술은 혈액 속의 표적분자를 추적한다든지, 초정밀 가스센서, 암 분자 검출기 등에 응용되는 등 초소형 단방향 레이저 설계의 핵심 원천기술이다”라고 말했다.<br/><b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txt

제목: 암선고 받고 미국 횡단 여행한 노마 할머니 별세  
날짜: 20161003  
기자: 황금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1003094912021  
본문: 자궁암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대신 미국 대륙 자동차 횡단 여행을 선택한 노마 진 바우어슈미트 할머니가 13개월의 여행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br/><br/> 노마 할머니의 가족들은 1일(현지시각) 페이스북 페이지인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 페이지에 부고를 알렸다. 이들은 “인생은 붙잡는 것과 놓아주는 것 사이의 균형잡기”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우리는 놓는다”라고 전했다.<br/><br/> 노마 할머니와 반려견 링고, 아들 내외는 지난해 8월24일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 자궁암 진단을 받은 지 5주만에 내린 선택이었다. 할머니와 가족들이 방문한 도시는 지난 1년간 미국 32개주, 75개 도시에 이른다. 주행 거리만 약 2만1000㎞고, 시간변경선을 넘나든 것만 9차례다.<br/><br/> 아들인 팀 슈미트가 노마 할머니의 여행 사진을 올리기 위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 ‘드라이빙 미스 노마’를 통해 노마 할머니는 일약 스타가 됐다. 약 45만명의 팬들이 이 페이지를 팔로우하면서 노마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치료가 아닌 여행을 선택한 노마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자, 할머니는 초대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전역의 많은 단체에서 초대를 받기도 했다.<br/><br/> <br/><br/> 지난 8월24일, 여행 1주년을 맞았을 당시 한 인터뷰에서 노마 할머니는 지난 1년간 여행을 하면서 배려와 사랑, ‘지금 이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다면서, ‘지금까지 여행에서 어디가 가장 좋았냐’라는 질문에 “바로 이곳”이라고 답했다.<br/><br/> 할머니의 가족들도 여행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대한 대화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전했다. 며느리인 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면서도 “우리의 이야기가 그 대화를 시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뜻에 따라 여행 내내 인위적인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br/><br/> 누리꾼들은 노마 할머니의 부고 소식에 “오랫동안 당신의 소식을 들으며 즐거웠고, 슬펐고, 행복했다”, “지난 1년간 당신의 여행을 볼 수 있었던 건 너무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등의 글을 올리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br/><br/> <br/><br/> <br/><br/> <br/><br/> 황금비 기자 withbe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txt

제목: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사망 4배 많아  
날짜: 20160928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8155926997  
본문: 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열악해 전체 인구보다 입원 일수는 약 8배, 사망은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와 건강 통계’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장애인의 경우 2012년 기준 2164명으로 전체인구의 530.8명에 견줘 4배에 달했다. 나이대별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장애인 사망자 수가 10살 미만은 580명, 10대 308.3명, 20대 358.1명으로 전체 인구의 사망자 수보다 각각 38배, 16배, 8배 높았다. <br/><br/> 또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더 많이 받았는데, 장애인 1명의 한해 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18일로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른 전체 인구의 한해 평균 입원일수인 2.3일의 약 8배에 달했다. 입원이나 외래로 병원을 찾는 날수를 모두 합친 ‘입내원일수’는 장애인의 경우 66.9일로 전체 인구의 평균 입내원 일수인 19.2일의 약 4배였다. 병원비도 많이 들여야했는데 장애인 한 명의 한해 평균 진료비는 391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97만원의 약 4배였다. <br/><br/> 장애인들은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50.1%로 전체 인구의 수검률인 72.2%보다 22.1%포인트 낮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수검률이 50.1%에 그쳤으며, 장애 종류별로는 신장 장애(37.8%), 정신장애(40.3%) 등의 수검률이 매우 낮았다. <br/><br/> 사망원인의 경우 장애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1∼3위는 각각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1∼3위와 같았다. 하지만 장애인은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0.1%에 달해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전체 인구 비율인 9.6%와 큰 차이가 있었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txt

제목: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10~30대는 ‘자살’…40대 이상은 ‘암’  
날짜: 20160927  
기자: 노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7223908659  
본문: 지난해 10~30대 청년층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중장년층부터는 암이 가장 잦은 사망원인으로 떠올랐다.<br/><br/>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27만5895명 가운데 자살로 숨진 사망자 수는 1만3513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측정하는 자살률은 26.5명(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 25.8명)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2.2명을 2배 이상 넘어서는 압도적인 1위였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br/><br/> 연령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인구 10만명 당 83.7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는 62.5명, 60대 36.9명 등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10~30대 청년층에서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고, 40~50대는 사망원인 2위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1.2~3.7배 높았다.<br/><br/> 사망원인을 순위로 따지면 1위는 암이었다. 이어서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 사고, 고혈압성 질환 순이었다. 10대 사인은 전체 사망원인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암·심장 질환·뇌혈관 질환 등 3대 사망원인으로 숨진 비율이 전체의 47%에 달했다. 10대 사망원인은 10년 전인 2005년과 동일했는데, 2005년 10위였던 폐렴이 2015년 4위로 뛰어올랐고, 당초 4위였던 자살은 5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폐렴의 사망률이 높아진 것은 대기오염 등 환경적 요인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암은 2005년부터 줄곧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br/><br/> 암 가운데는 폐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34.1명꼴이었다. 이어 간암(22.2명), 위암(22.2명), 대장암(16.4명), 췌장암(10.7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폐암(-0.6%), 간암(-2.6%), 위암(-4.7%), 대장암(-0.6%) 사망률은 줄었지만, 췌장암(5.9%) 사망률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 위암이, 40~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2015년 한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8000명 이상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가 늘었고,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심장 질환과 폐렴 등이 증가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노현웅 기자 golok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txt

제목: ‘아수라’ 폭력의 새로운 해석, 뺨 맞은듯 얼얼한 리얼함  
날짜: 2016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7135859548  
본문: ‘조금 나쁜’ 것은 지는 것이다. 극악해야 한다. 극악한 것이 더 극악한 것들과 경주를 한다. 아수라판이다. 김성수 감독은 “<span class='quot0'>왜 똘마니들은 보스에게 충성을 다할까, 무슨 사정이 있을까를 따라가보고 싶</span>”었던 데서 영화 가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 똘마니가 정우성(한도경)이다. 김성수 감독과 와 를 함께한 뒤의 네 번째 합작이다. <br/><br/> 한도경이 ‘권력의 개’가 된 것은 약점이 많아서다. 아내는 말기 암에 걸렸다. 가늠할 수 없는 병원비는 아내의 이복오빠이자 안남시 시장 박성배(황정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대가는 크다. 박성배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았다. 2심 전 도경은 정보원 작대기(김원해)를 시켜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을 사라지게 한다. 작대기에게 대가를 건네는 현장에 황 반장(윤제문)이 나타난다. 작대기는 마약 주사기를 꽂고 미쳐 돌아다니고 황 반장은 사건 냄새를 맡고 쫓아오고 도경과 형님동생 하는 사이인 경찰 후배 선모(주지훈)는 사정을 모른 채 치달린다. 도경은 “씨발”거리며 패닉에 빠진다. 결국 5만원권 지폐가 뿌려진 옥상, 도경이 철조망에 밀어붙인 황 반장은 2층에서 떨어져 즉사한다. 도경의 또 하나의 약점이 생긴다. <br/><br/> 안남시는 재개발이 한창이고 누가 더 크게 먹을 건가를 두고 두 패로 갈려 싸우는 중이다. 박 시장의 반대편에 재개발위원회가 있고, 2심에서 물을 먹은 검찰도 한통속이다. 검사 김차인(곽도원)은 도경의 약점을 잡고 육박해온다. 시장은 또 다른 약점을 잡고 한결같은 충성심을 요구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등바등하는 ‘조금 나쁜 놈’ 도경은 영화를 여는 내레이션처럼 “살기 참 힘들다”.<br/><br/> 아수라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가는 곳 중 하나다. 환경으로는 살 만하다지만 모이기만 하면 싸움질을 해대니 못 살겠는 곳이 된다. 탐욕으로 지옥이 되는 곳이다. 영화는 현실의 아수라를 세분화된 권력관계를 통해 재정의한다. 지방대 출신 검사는 부장검사에게 비굴해지는 한편에서 젠틀하게 검찰 수사관의 충성심을 조종하고 변덕부린다. 서열이 정리가 안 된 조무래기들은 정리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충성 경쟁을 벌인다. 시장은 폭력의 판을 만들고는 ‘스토리’로 가공해낼 수 있기에 권력자다. 영화는 권력의 요체를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으로 세분화해 다가간다. <br/><br/> 폭력의 아수라는 여러 장치를 통해 현실감을 극장 안으로 전달한다. 카메라는 시선을 피하거나 클로즈업 없이 때린 데 또 때리는 액션을 묵묵히 보여준다. 때리는 소리는 조용한 가운데 낮게 깔린다. 비주얼 효과에서도 피가 많아서가 아니라 ‘피의 구성 성분’ 때문에 놀라게 된다. 피는 심장 박동과 함께 뿜어져 나오고 몸속 하얀 액체들이 함께 솟구친다. 이런 묘사들이 감각을 얼얼하게 만든다.<br/><br/> 리얼한 폭력 묘사에 거부감을 느낄 관객들도 많을 법하다. 20자평에도 “지치고 질린다”(박평식), “투 머치”(한동원), “진귀하면서도 피곤한”(송경원) 등의 평이 올라와 있다. <br/><br/> 김성수 감독은 ‘얼얼함’을 노렸다고 말한다. “폭력에 물든 세계가 궤멸하는 이야기인데, 멋지게 묘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액션의 통쾌함보다 통렬함을 그리려 했다. 맞은 도경을 향해 ‘많이 괴롭고 아프죠’라고 할 때 도경처럼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도록 하고 싶었다.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도경의 심정으로 악에 대항해야겠다는 생각에 동감하리라 생각했다.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색다르게 묘사하려고 노력했다.”<br/><br/> 도경과 폭력단 무리의 차 추격 장면은 함께 달리는 듯한 속도감을 극대화해 보여준다. 차체를 훑고 차 안과 밖을 관통하는 카메라 워킹은 잊지 못할 장면을 만든다. 이런 리얼함이 기존의 역들을 한번 더 반복한 주요 배역들을 새롭게 보이게끔 한다. 18살 관람가. 28일 개봉.<br/><br/> 구둘래 기자 anyon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txt

제목: 의료계·법조계 “백남기 농민의 사인, 법적·의학적 논쟁 대상 아니야…부검 불필요해”  
날짜: 20160927  
기자: 허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7124903281  
본문: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이 “<span class='quot0'>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span>”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백남기 투쟁본부’는 “<span class='quot0'>경찰의 무리한 부검 시도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면책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한 것</span>”이라고 비판했다.<br/><br/>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27일 오전 11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 전부터 서울대병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입구를 막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의문”이라며 “부검을 해서, 백남기 농민에게 다른 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 자신들의 혐의를 면책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br/><br/> 조 변호사는 “만약 A라는 사람이 건물에서 B라는 사람을 밀어 추락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상황에서, A가 자신의 살인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B의 부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부검 결과 B에게서 기저 질환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A가 살인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에게 설사 다른 질환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사실과 병원의 의무기록만 보더라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살수다. 이것이 명백한 이상 부검의 필요성은 없다”고 못박았다.<br/><br/> 의료계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온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span class='quot1'>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큰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1'>암 환자가 마지막에 폐렴으로 사망해도 사망원인은 폐렴이 아니라 암이고, 교통사고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해도 원사인은 장기부전이 아닌 교통사고</span>”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의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왜 의학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의사들이 기자회견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br/><br/>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경일 전 동부시립병원 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은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찍은 씨티(CT)와 소견서를 소개하며 “당시 백남기 농민의 오른쪽 뇌 부분에 급성경막하출혈이 있는데 매우 심각해 뇌의 중심선을 반대쪽으로 밀어냈다. 그뿐 아니라 뇌를 감싼 경막 전체와 아래 지주막에서도 출혈이 보였다. 질긴 막이라는 뜻의 경막이 심하게 찢어진 증거로 여기저기에 공기방울이 보인다. 두개골 전체와 눈을 둘러싼 협골에도 금이 가 있고, 안와골절도 나타난다”며 “이 씨티 소견서만 보더라도, 이 분은 즉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울대병원이 수술을 했고 10달이 넘는 연명 치료를 했던 것이다. 그 이후 나타난 진단명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br/><br/>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가해자인 경찰이 고인의 시신을 부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br/><br/> 허승 기자 raiso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txt

제목: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40대 이후엔 암이 1위  
날짜: 20160927  
기자: 노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7120908887  
본문: 지난해 10~30대 청년층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중장년층부터는 암이 가장 잦은 사망원인으로 떠올랐다.<br/><br/>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27만5895명 가운데 자살로 숨진 사망자 수는 1만3513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측정하는 자살률은 26.5명(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 25.8명)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2.2명을 2배 이상 넘어서는 압도적인 1위였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br/><br/> 연령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인구 10만명 당 83.7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는 62.5명, 60대 36.9명 등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10~30대 청년층에서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고, 40~50대는 사망원인 2위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1.2~3.7배 높았다.<br/><br/> 사망원인을 순위로 따지면 1위는 암이었다. 이어서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 사고, 고혈압성 질환 순이었다. 10대 사인은 전체 사망원인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암·심장 질환·뇌혈관 질환 등 3대 사망원인으로 숨진 비율이 전체의 47%에 달했다. 10대 사망원인은 10년 전인 2005년과 동일했는데, 2005년 10위였던 폐렴이 2015년 4위로 뛰어올랐고, 당초 4위였던 자살은 5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폐렴의 사망률이 높아진 것은 대기오염 등 환경적 요인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암은 2005년부터 줄곧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br/><br/> 암 가운데는 폐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34.1명꼴이었다. 이어 간암(22.2명), 위암(22.2명), 대장암(16.4명), 췌장암(10.7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폐암(-0.6%), 간암(-2.6%), 위암(-4.7%), 대장암(-0.6%) 사망률은 줄었지만, 췌장암(5.9%) 사망률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 위암이, 40~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2015년 한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8000명 이상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가 늘었고,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심장 질환과 폐렴 등이 증가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노현웅 기자 golok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txt

제목: ‘미니 인공장기’는 실험실의 쥐와 원숭이를 구할까  
날짜: 2016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6140957993  
본문: 드라마에 임신의 메타포로 여전히 헛구역질(입덧)이 등장하지만 화장실에서 임신키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훨씬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느껴진다. 20세기 초라면 어땠을까? 임신부의 소변에서 ‘융모 생식샘자극’(hCG) 호르몬이 발견된 것은 1920년대였다. 태반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을 이용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은 쉽지 않았다. 임신 여부를 알려면 살아 있는 토끼의 귀에 소변을 주사한 뒤 해부를 해서 토끼의 난소에 항체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지금이야 약국에서 몇천원이면 임신키트를 살 수 있지만, 토끼를 쓰지 않고 hCG 호르몬을 검사하는 법을 알아낸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였다. 그동안 수많은 토끼들이 인간의 임신을 확인하느라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br/><br/>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때 하는 발열성 실험이라는 것이 있다. 의약품 생산 과정에 세균에 오염되면 내독소가 쌓여 사용한 사람에게서 열이 난다. 현재도 발열성 실험에 토끼가 사용된다. 하지만 지금은 ‘생물학적 내독소 시험’(LAL시험)이라는 동물대체시험법이 함께 쓰인다. 투구게의 혈액에 의약품을 섞었을 때 굳으면 내독소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이 방법은 197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이 났다.<br/><br/> 동물대체시험법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한해 몇억마리의 실험동물들이 희생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험실에서 숨져간 동물만 250만7천마리다. 2012년 183만4천마리보다 37%가 늘었다. 해마다 1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화장품’은 수입·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13년 3월 화장품에 대한 모든 동물실험이 금지되고 있다. 국내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표준화한 13개 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이 등록돼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험동물 수가 줄어들지 미지수다.<br/><br/> 동물실험의 대안은 실험에 쓰이는 동물 전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분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이다. 1959년 영국의 동물학자 윌리엄 러셀과 미생물학자 렉스 버치는 이라는 책을 발간해 이른바 ‘3R’ 원칙을 주창했다. 할 수 있는 한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고(Reduction), 실험 전 대체방법이 없는지 찾으며(Replacement), 실험 중 동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실험 절차를 명료하게 해야 한다(Refinement)는 것이다.<br/><br/> 동물실험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됐다. 2세기 로마 의사인 갈레노스가 염소·돼지·원숭이를 해부한 이래 동물은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돼왔다. 19세기 중반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는 ‘어떤 병이 동물에게서 재현될 수 없다면 그 병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동물실험 지상론을 폈다. 그는 남의 집 애완동물을 훔쳐다 실험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였을까, 그의 부인과 딸 심지어 그의 제자까지 동물실험 반대 단체 설립에 뛰어들었다. 20세기 독성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37년 당시 새로운 항생제(설파닐아마이드)를 복용한 107명이 사망하자 동물에게 이 약물을 시험했고 동물들이 죽었다. 이 사례로 모든 약물검사에 동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br/><br/> <br/><br/> 인간-동물 공유질병 단 2%뿐<br/><br/> 하지만 인간의 질병 3만여 가지 가운데 동물과 공유하는 건 단 2%도 안 되는 350여개에 불과하다. 약품이 종간 다른 효과를 보인 사례는 적지 않다. 1957년에 입덧 같은 메스꺼움을 없애는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신부가 팔다리 발달이 결여된 해표지증 기형아를 낳는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쥐, 토끼, 개, 햄스터, 영장류, 고양이, 돼지 등 동물들에서는 기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1962년에야 탈리도마이드는 리콜됐다. 그사이 1만2천명의 신생아들이 물갈퀴를 가지거나 사지가 전혀 없이 태어났다.<br/><br/> 반면 페니실린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 살아남았다. 1929년 플레밍은 페니실린이 세균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토끼에게 실험을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달리 해볼 일 없는 위중한 환자에게 투여한 뒤 페니실린의 효능이 입증됐다. 플레밍이 만약 기니피그나 햄스터를 대상으로 실험했다면 페니실린은 역사에서 사라졌을지 모른다. 페니실린은 기니피그나 햄스터를 죽이고 쥐에게는 기형을 유발한다. 진통제 타이레놀은 고양이에게 부신기능부전을 일으키고, 아스피린은 생쥐에게 선천성 기형을 야기하며, 애드빌은 개에게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사람과 동물은 유사하지만 결코 같지 않은 것이다.<br/><br/> 의약품 검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임상시험이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에 약물에 독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돼야 가능하다. 나치의 유대인 생체실험, 일제의 731부대 인체 실험, 미국 터스키기 매독 실험처럼 인간을 마루타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br/><br/> 동물대체시험법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거나 배양세포와 장기배양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인 실리코(in silico)라 불리는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은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검색해보면 70% 정도의 정확도로 독성 스크리닝이 된다. 배양한 세포에 약물을 투여해 얼마나 많은 세포가 죽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또 한마리 동물에서 적출한 많은 각종 장기로 많은 수의 동물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br/><br/>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체와 닮은 조직을 만들어 실험하는 것이다. 3차원 인공피부는 이런 측면에서 주목받는 방법이다. 포경수술 뒤 남은 포피의 상피세포를 2주일 동안 배양하면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인공피부가 만들어진다. 다만 이 피부를 계속 재생해 쓸 수가 없어 포경수술 뒤 남은 피부 조각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br/><br/> 약물은 사람 몸속에서 흡수-분포-대사-배설의 네가지 과정을 거친다. 입으로 약을 먹으면 식도와 위, 십이지장, 소장을 거치면서 혈관으로 흡수된다. 간과 심장을 거쳐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 약물은 간과 신장(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되거나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배설된다. 주사를 맞거나 피부에서 흡수된 약물은 혈관을 통해 직접 간과 심장에 배달된다. 약물은 이 과정에 약효를 보이기도 하고 독성을 나타내기도 한다.<br/><br/> 인체를 빼닮은 아바타를 만들어 약물을 실험한다면 좋겠지만, 설령 과학적 현실이 된다 해도 여전히 인권과 윤리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9년 네덜란드 연구팀은 해답을 내놓는다. 생명과학연구소(휘브레흐트연구소)의 한스 클레버르스 박사는 생쥐의 직장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배양해 내장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오가노이드는 인간 장기의 기능을 지닌 유사체를 말한다. 미니장기라 불리기도 한다. 2013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매들린 랭커스터 박사가 대뇌피질 등 인간 뇌 속성을 일부 보유한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다. 뇌를 닮은 오가노이드는 소두증이 지카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좋은 시험관 모델로 활용됐다. 지금까지 배양된 오가노이드는 15가지가 넘는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몸 밖(인 비트로)에서 약물이 마치 몸 안(인 비보)에서처럼 작용하듯이 실험을 할 수 있다.<br/><br/><br/><br/> 국내 동물실험 대체연구 세계서도 주목받아<br/><br/>‘러쉬 프라이즈’ 전부문 후보 올라 “<span class='quot0'>한국팀 신진연구자 수상 가능성</span>”<br/><br/><br/><br/> 지난달 말 찾은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의 줄기세포연구센터에서는 여느 생화학실험실에서처럼 약물이 담긴 시험관들이 자동 장치에 놓여 회전을 하고 있었다. 옅은 붉은색의 액체 속에 기포 말고도 지름이 몇㎜에 불과한 하얀 부유물들이 떠다녔다.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정초록 박사는 “<span class='quot1'>얼핏 보면 하얀 찌꺼기 같지만 간 세포들이 서로 뭉쳐 오가노이드를 형성하고 있는 중</span>”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간세포의 체외 배양은 평평한 배양접시에 영양분인 배지를 깔고 그 위에 세포주를 넣어 자라게 하는 2차원적인 방법을 썼다. 하지만 이렇게 배양한 세포는 간세포의 고유 대사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연구팀은 좀더 기능을 잘하는 간세포를 만들기 위해 간 세포주와 혈관세포, 이들을 지지해주는 기저세포(섬유아세포)를 섞어 3차원으로 배양해 간 스페로이드(덩어리)를 제작했다. 간은 뼈에 비해 부드럽고 쫀득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간세포는 이런 환경에서 생존 및 기능이 좋아진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생명연 정경숙 박사 연구팀은 하이드로젤을 재료로 간과 유사한 스캐폴드(세포 사이의 지지체)를 제작하고, 3차원 간 오가노이드를 완성했다. 연구팀에 의해 탄생한 간 오가노이드는 유전체적으로 실제 간과 70% 가까이 일치했다.<br/><br/> <br/><br/> 몸 밖에서 몸 안처럼 독성 실험<br/><br/> 정초록 박사는 ‘실험동물 대체용 인공실험체(NOCS) 구현 사업’을 이끌고 있다. 사업의 출발은 운명적으로 시작됐다. 생명연은 2012년 대내외적으로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당시 같은 연구팀의 임정화 연구원이 “<span class='quot2'>동물실험을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자</span>”는 아이디어를 내 응모를 했고 최우수상을 받아 소규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연구원 고유사업으로 채택됐다. 정 박사가 동물실험 대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국인의 암 유전자를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투-이피에프 유비퀴틴 캐리어’(UCP)라는 긴 이름의 단백질이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 ‘에니그마’라는 세포 안 단백질이 암세포 증식에 영향을 줘 항암제 내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런 단백질들을 타깃으로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동물실험 단계에서 독성 때문에 실패했다. 정 박사는 “실험실에서 세포주로 효능과 독성을 검사하는 인 비트로 검사와 동물 체내에서 보는 인 비보 검사 결과가 차이가 있었다. 또 동물에서 보이는 효과가 과연 사람한테 정확하게 나타날까 궁금증도 생겼다”고 말했다. 비용도 적지 않았다. 화합물 1개의 독성 여부를 보는 데만 화합물 투입군, 대조군, 비교군, 세포주 실험군 등 네 그룹에 1마리에 6만원씩 하는 마우스 6마리씩을 배정하면 140만원이 든다. 화합물 10개면 1천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했을 때 얘기다. 동물실험 전문업체에 맡기면 배로 뛴다. 이런 경험들은 정 박사로 하여금 실험동물을 대체하는 좀더 획기적인 생체모사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br/><br/> 인공실험체 사업의 목표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 비임상시험 또는 전임상시험이라 불리는 동물실험 단계를 실제 장기를 가지고 몸 밖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간 오가노이드처럼 여러 장기를 모사한 유사장기들로 구성된 ‘생체모사 비교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흡수를 담당하는 장 오가노이드와 대사를 담당하는 간 오가노이드를 주축으로 하고, 독성의 대상이 되는 심장, 뇌, 신장 오가노이드를 서로 연결해 우리 몸과 비슷한 생리작용이 체외에서 실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br/><br/> 갖가지 장기 오가노이드는 만드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장 오가노이드는 유도만능(IPS) 줄기세포에 특정 단백질을 넣어주면 장처럼 꼬불꼬불한 모양의 세포덩어리들이 만들어진다. 긴 대장이나 소장 전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장의 기능을 갖춘 장 한 조각을 만드는 것이다. 오가노이드는 1~2㎜밖에 되지 않는다. 김장환 생명연 줄기세포연구센터장은 “신경, 곧 뇌 오가노이드는 실험실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독성 실험을 하려면 브레인블러드배리어(BBB)라는 딴딴한 막을 만들어 약물이 이것을 뚫고 들어오는 과정을 모사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심장도 유도만능 줄기세포에서 심장 근육세포를 분화시킨 다음 특정 스캐폴드에 넣어 만든다. 심장 세포를 공처럼 뭉쳐 만들어서는 심방과 심실이 나뉘어 있고 판막까지 있는 진짜 심장을 모사할 수 없다. 심실 안에 혈액을 넣어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2~5㎜ 크기의 미니 심장을 만드는 게 목표다. 생명연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강선웅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심장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은 심장세포 표면에 있는 통로(채널)를 통해 칼슘이나 포타슘을 흡수했다 배출하는 걸 반복해서다. 심장 오가노이드 표면에 ‘심혈관계에 대한 영향 평가시험용 채널’(HERG채널)을 만들어 약물 후보 물질의 반응 여부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br/><br/> 신장(콩팥)은 재흡수와 배출 두 기능이 있다. 신장은 대사 작용이 끝난 찌꺼기를 오줌으로 배출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모세혈관이 털뭉치처럼 꼬여 있는 사구체를 통해 재흡수한다. 사구체를 모사하기가 쉽지 않아 신장 오가노이드는 아직 개발중이다.<br/><br/> <br/><br/> “<span class='quot3'>인공실험체로 동물 희생 20% 줄일 것</span>”<br/><br/> 정초록 박사는 “2020년까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동물실험의 20% 정도를 대체하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화하면 생체모사 배양장비를 400만~500만원 정도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합물 1개의 독성 동물실험에 들어가는 비용 절반 수준이다. 생체모사 배양장비는 오가노이드만 바꿔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연구팀은 2025년까지 환자 맞춤형 비임상시험 평가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정 박사는 “암 환자에게서 적출한 암세포를 체외에서 평가해 어떤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환자 생전에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지금처럼 장시간·고비용이 드는 마우스 기반의 평가 시스템으로는 암 환자 생존기간에 치료법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br/><br/>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태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연구관은 “지난 4월 오이시디 국가조정자회의에 국내에서 개발한 대체시험법이 ‘업무계획’으로 채택됐다. 업무계획은 가이드라인 채택 전에 진행되는 국가간 자문과 의견 수렴 단계를 의미하는데 최종 결정되기까지 1~2년 걸린다. 오이시디 위원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국내 3개 기관이 연구개발한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 시험법’은 면역세포에서 림프구가 증식하는 정도를 계량화해 면역독성을 시험하는 방법이다.<br/><br/> <br/><br/> 올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국제상인 ‘러쉬 프라이즈’ 5개 부문 수상자 후보에 한국팀이 모두 포함된 것은 국내의 동물실험 대체에 대한 관심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러쉬 프라이즈는 영국 수제화장품 업체가 2012년부터 과학·교육·홍보·로비·신진연구자 등 5개 부문에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공로가 있는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올해 22개국에서 55개 팀이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 상금은 총 35만파운드(약 5억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경민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과학 부문에, 최병인 가톨릭대 교수와 이귀향 박사가 교육 부문, 실험동물 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홍보 부문, 화장품법 개정안을 제출한 문정림 전 의원이 로비 부문, 김미주 연세대 치대 연구조교수가 신진연구자 부문에 후보로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10월말 결정되며 시상식은 11월초부터 캐나다와 영국을 거쳐 11월18일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열린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수상자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 김경민 교수는 “<span class='quot4'>올해 시상식이 한국에서 열리는 등 러쉬 프라이즈 쪽이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신진연구자 지원을 선포한 터여서 우리나라 젊은 연구자의 수상 가능성이 높다</span>”고 말했다.<br/><br/> 글 이근영 선임기자 kyle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txt

제목: 9월 24일 본방사수  
날짜: 2016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3143859896  
본문: 모르모트 PD에게 펜싱 교습<br/><br/> 마이 리틀 텔레비전(문화방송 토 밤 11시15분) <br/><br/>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김정환과 펜싱 선수이자 스포츠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최병철이 ‘펜싱’을 콘텐츠로 방송을 진행한다. 둘은 어려서부터 함께 펜싱을 배워온 30년지기다. 김정환은 걸그룹 라붐의 ‘솔빈’과 모르모트 피디를 초대해 펜싱 동작을 가르친다.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강성태는 수능을 앞두고 모든 시험에 적용 가능한 공부법을 전수한다.<br/><br/><br/><br/>스웨덴에 간 장애청년드림팀<br/><br/> 사랑의 가족(한국방송1 토 오전 11시)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을 가다!?스웨덴’편. 매년 장애, 비장애 청년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해온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이 올해 12회째를 맞아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네팔로 떠났다. 그 중 부산경상대학교팀이 찾은 스웨덴 탐방기를 방송한다. 장애인의 건강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목표로 삼고 있는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을 들여다본다.<br/><br/><br/><br/>감정이 소멸된 사회 특수요원의 고뇌<br/><br/> 세계의 명화-이퀼리브리엄(교육방송 토 밤 10시45분) 21세기의 첫 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살아남은 이들은 모든 전쟁의 원인이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 때문이라 판단하고 감정을 없애는 방법을 개발한다. 특수요원 클레릭 존 프레스턴(크리스천 베일)은 감정을 소멸시키는 물약 프로지움 투약을 거부하는 ‘반역자’들을 숙청하던 중 동료 에롤(숀 빈)과 아내가 반역 혐의로 사살당한 일을 계기로 감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커트 위머 감독.<br/><br/><br/><br/> 호반의 운치 그윽한 가평 호명산<br/><br/> 영상앨범 산(한국방송2 일 아침 7시30분) ‘고향의 산에 안기다?가평 호명산, 운악산’편. 경기도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4%가 산으로 이루어진 ‘산의 고장’이다.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1468m)과 명지산(1267m) 등 이름난 산은 물론이거니와 유명세는 덜하지만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산들이 즐비하다. 그 가운데 호반의 운치를 담은 산 호명산(632m)과 ‘경기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운악산(935m)으로 가평 출신 ‘율백 산악회’ 회원들이 떠난다.<br/><br/><br/><br/>100살 시어머니와 81살 며느리의 제주여행기<br/><br/>다큐 공감(한국방송1 일 저녁 8시5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여행’편. 지난 여름 생애 첫 고부여행에 나선 용감한 시골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00살 시어머니 이기순 할머니와 81살 며느리 이종섭 할머니가 그 주인공. 암을 3번이나 이겨낸 며느리가 생애 첫 제주여행에 도전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충주 산골마을 떠나 바다 건너 제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txt

제목: 저커버그 “금세기 안에 모든 질병 통제…30억달러 출연”  
날짜: 20160922  
기자: 조일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2140834036  
본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세상의 모든 질병 퇴치’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30억달러(약 3조3500억원)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br/><br/> 저커버그와 부인 프리실라 챈은 2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페이스북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세기 안에 모든 질병을 치료·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기금은 저커버그 부부가 지난해 12월 창설한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는 자선재단으로 출연된다.<br/><br/> 저커버그는 “<span class='quot0'>지난 50여년 동안 과학과 의료계는 천연두를 박멸하고 소아마비를 거의 퇴치하는 등 급속히 발전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추세를 지속할 수 있다면 금세기 안에 암·심장병·감염 질환 등 사망률이 높은 질병들의 치유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span class='quot0'>이건 단지 책에서 읽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 저커버그 부부는 질병 퇴치 구상의 3대 원칙으로, 의료 관련 과학자와 기술 엔지니어들의 공동 작업, 심화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과 기술 개발, 세계적 범위에서 (의료) 과학 분야에 기금 증대 운동 등을 제시했다.<br/><br/> 소아과 의사이기도 한 프리실라 챈은 이날 눈물 섞인 연설에서 “<span class='quot1'>우리가 인체와 질병을 이해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능력의 한계에 부닥치는 순간들이 있다</span>”며 “그런 한계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바이오 허브’라는 연구소 설립에 이미 6억달러를 출연했으며, 엔지니어와 컴퓨터 과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등 혁신적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허브의 첫 과업은 인체의 주요 장기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들의 유형을 파악하는 ‘세포 지도’ 만들기와, 에이즈·에볼라·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 질병들의 백신 개발 등 2가지 프로젝트부터 시작할 계획이다.<br/><br/>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최근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인류 보건 분야의 공헌에 부쩍 관심을 키우는 흐름을 소개했다.<br/><br/>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암 퇴치법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암을 비롯한 생물학적 변화가 ‘(생체의) 정보전달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프로그램 언어, 데이터 처리 등 컴퓨터 정보 기술을 질병 분석과 치료에 접목하려는 시도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span class='quot2'>이건 매우 과감하고 야심찬 계획이지만 우리는 이런 과학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span>”고 말했다.<br/><br/> 영국에 본부를 둔 구글의 인공지능기술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는 영국 국민건강보험(NHS)과 공동으로 컴퓨터를 활용해 더 정밀한 질병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아이비엠(IBM) 연구소도 20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뇌·신경 연구팀과 손잡고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년층과 지체장애 환자 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료·보건 연구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br/><br/> 조일준 기자 ilju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txt

제목: ‘오월의 사제’ 조비오 몬시뇰 선종  
날짜: 20160921  
기자: 정대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1173936010  
본문: 오월의 햇살처럼 따스하면서도, 강직한 사제였다. 21일 선종한 조비오(본명 조철현) 신부는 ‘자신에겐 엄격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겐 온화하게 다정한’ 사제였다. 그러나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행동하는 신부였다. 조 신부는 이날 새벽 3시20분 췌장암으로 선종했다. 향년 78.<br/><br/> 조 신부는 지난 9일 조카 신부인 조영대 광주 용봉동 주임 신부 앞에서 ‘병자 성사’를 했다. 2008년 1월16일에는 국내에서 28번째로 교황의 명예 사제인 '몬시뇰'에 임명됐다. 고인은 조카 신부 앞에서 “주여, 나약한 인간으로서 과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고통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조 신부는 미리 작성한 유언서를 통해 “책과 유품을 소화자매원에 기증해달라. 몸 안 장기는 아픈 환자를 위해 기증해달라”고 당부했다.<br/><br/> 조 신부는 “5월의 사제”다. 고인은 80년 5월26일 오전 9시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엄군을 저지하기 위해 광주 지역 민주인사들과 함께 “<span class='quot0'>총 맞아 죽을 각오로 나섰던</span>” 이른바 ‘죽음의 행진’에 참여했다. 80년 5·18 당시 온건 수습파로 불린 고인은 ‘광주 시민들의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선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며 총을 든 시민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도 했다. 80년 5월 이후 조 몬시뇰은 구속 기소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음모 사건에 엮여 넉달간 옥고를 치렀다. <br/><br/> 이후 그는 5월 진상규명 투쟁에도 동행했다. 초대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1989년 열린 5·18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 나와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며 신군부의 시민학살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span class='quot1'>당시 신군부가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것을 본 조 신부님은 주변의 민감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증언하셨다</span>”고 회고했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진상규명 투쟁에도 힘을 보태주셨다. 5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특유의 엄격함으로 정의와 원칙을 강조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오월과 광주는 조 신부님께 빚을 졌다”고 말했다.<br/><br/> 그가 남긴 통장 잔고는 0원이다. 유품이라곤 “닳아빠진 낡은 양복과 이부자리, 책장 2개” 정도다. 400여권의 책은 조 신부가 이사장을 맡아온 소화자매원에 기증된다. 하지만 조 신부의 유언과 달리 그의 장기는 다른 이에게 기증할 수 없게 됐다. 온 몸에 암이 퍼진 탓이다. 조 신부는 4년 전부터 몸에 이상증상을 느낀 주변에서 “병원에 가보자”고 권유할 때마다 “호들갑 떨지말라”며 병원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7월 처음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고인은 2주 전께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br/><br/> 고인은 생전에 “80년 5월 우리가 어려울 때 광주를 도왔던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도움을 기억해야 한다”며 5월 정신의 실천을 강조했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span class='quot2'>조 신부님은 꼬깃꼬깃한 현금을 모아 3차례에 걸쳐 2000만여원을 광주인권평화재단에 기부하셨다</span>”고 말했다. 조 신부는 5·18을 왜곡·폄하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span class='quot3'>저런, 저런, 저런 어떻게 5월을…</span>”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광주의 앞날을 걱정”했다. 친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span class='quot4'>우리 광주도 숭고한 5월 정신을 잊지 않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많이 반성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조 신부는 ‘늦깎이’로 사제가 됐다. 1938년 광주 광산구 본량동에서 6남5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1962년 늦은 나이에 광주가톨릭신학교에 1기로 입학한 그는 영어와 독일어, 라틴어에 능통했다. 1969년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전남 나주성당에서 첫 주임신부를 맡았다. 지인들은 “70년대 나주 성당 주임신부 때부터 민주화운동에 힘을 보태셨다”고 말했다. <br/><br/> 2006년 8월 31일 38년간의 사목 생활을 끝낸 뒤에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울타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198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의 이사장을 맡아 정신지체장애인 200여 명을 돌보는 수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또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를 맡으며 한반도 평화운동에 힘을 보탰다. <br/><br/>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 않았다.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는 “목놓아 우셨다”고 한다. 옥현진 광주대교구 주교는 “아프고 상처받은 이웃들에겐 사비를 털어 돕고 고민을 들어주던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사제였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회고했다.<br/><br/> 이날 고인의 빈소는 광주 임동성당 지하강당에 마련됐다. 고인은 영정 속에서 편안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께 300여명의 신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모 미사에서 참석자들은 고인의 영면을 기도했다. 소화자매원의 한 수녀는 “일이 생기면 울타리 역할을 해주셨다.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으셨고, 자애로운 사제이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은 23일 전남 담양군 천주교공원묘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날 빈소엔 쌀 조화가 많았다. 장의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조화 대신 쌀 조화를 받았다.<br/><br/> 광주/정대하 기자 daeha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txt

제목: ‘겨울아이’ 이종용 목사, “뮤지컬 때문에 예수 흉내내려다 그 마음에 닿은거죠”  
날짜: 20160921  
기자: 권태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1173933748  
본문: 그를 만나기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토런스로 향하는 차 안,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br/><br/> 다만 그를 알지 못해도 겨울이 생일인 사람들은 종종 청아한 하이톤의 ‘겨울아이’라는 축하 노래를 몇 번은 들어봤을 법하다. ‘이종용’(사진)을 짧게 설명하자면, 1975년 데뷔곡 ‘너’로 단숨에 가요계 정상에 올라 가요순위 프로그램 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그해 가요 시상식에서 1등상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시상식 당일 연예인 대마초 사건으로 신중현, 이장희, 윤형주, 김추자 등과 함께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그때 이종용은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26살 스타는 그렇게 스러지는 것 같았다. 4년이 지나 1980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겨울아이’ 등을 발표하며 복귀했다. 그리고 뮤지컬 에서 ‘예수’ 역을 맡는 등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그는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곤 했다. <br/><br/> 마주앉고 보니, 후덕하고 넉넉한 모습에서 오래전 앨범에서 본 70~80년대 장발 통기타 가수의 모습을 찾아내긴 힘들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만 들으면 명확한 발음과 맑고 높은 톤의 턴테이블에 남아 있던 그 목소리 그대로다. 수십번 반복했을 이야기를 물었다. ‘그때 왜 떠났느냐?’고.<br/><br/> “79년부터 81년 12월까지 뮤지컬 249회 공연을 마쳤습니다. 당시 빌라도 역은 유인촌(박상원), 막달라 마리아는 윤복희, 헤롯은 곽규석, 유다는 추송웅 김도향, 예수는 저였죠. 뮤지컬이란 개념도 분명하지 않던 시절, 가수·코미디언·연극배우·탤런트 등 모두 당대 최고의 인물들로 배역을 채웠습니다. 하루 2회 공연에 2회 연습, 똑같은 대사와 노래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역에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신인 예수를 연기하니, 인간인 제가 그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4복음서를 수없이 읽고, 산상수훈-배신-재판-고문-승천 등의 순간순간마다 ‘그때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온종일 생각하며 그 마음에 다가가려 애를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만 거죠.”<br/><br/> 그는 말을 이었다.<br/><br/> “20대에 기사 딸린 고급차에 보디가드에 매니저에, 누구나 다 날 좋아해 주고, 그러니 남이 나를 사랑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었죠. 그런데 뮤지컬에서 예수 흉내를 제대로 내보기 위해 예수를 알아가다 나와는 정반대로 남에게 모든 걸 다 내주는 그 마음에 닿은 것이지요.”<br/><br/> 그는 예정된 뮤지컬 공연이 막을 내리자, 보름 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로 신학 공부를 위해 떠난다. 난리가 났다. 는 한국 뮤지컬 사상 최초의 흑자 공연이었다. 앵콜 순회공연, 새 음반, 텔레비전 쇼프로그램 등 앞으로 계획된 일이 줄을 서 있었다.<br/><br/> 샌안토니오에는 당시 군사언어학교가 있었고, 한국의 장교들이 줄줄이 9주간 교육을 받고 돌아가곤 했는데, 그 수가 연간 1200명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이들을 차로 데려다주고, 한국 음식 대접하고, 그리고 9주 뒤에 떠나보냈다. 한국에서 대접만 받던 인기 절정 가수가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다.<br/><br/> 8년 반을 그렇게 보내고, 93년 로스앤젤레스로 왔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머물렀는데, 그대로 주저앉았다. 청년 8명과 거실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br/><br/> 인생 스토리를 끝낸 뒤, 이런 질문을 던졌다. “<span class='quot0'>한국에서 기독교는 언젠가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span>”<br/><br/> “네. 압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형 교회 들어서면 주일마다 교통 막히지, 새벽마다 기도회 한다고 시끄럽지, 가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 하지, 세상엔 관심도 없고 ‘우리만 구원받고 복 받고 잘 살자’는 것처럼 보이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국의 성장 신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교인 수로 목회의 성패 여부를 보는 잘못된 믿음관 때문인 듯합니다. 교회 성장학 세미나에 가면, 인구가 늘고 중산층 이상이 사는 곳에 교회를 세울 것을 권합니다.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크레타 섬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 디도를 남겨두는데, 당시 크레타는 거짓말쟁이에 타락한 곳의 대명사였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지, 돈 많고 신실한 신자 많은 곳에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지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교회-가정-세상이란 균형점이 깨진 듯 보입니다. 오직 교회만 강조한 게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진실된 크리스천이 되어야겠지요.”<br/><br/> 인터뷰 뒤, 인사치레로 물었다. “건강은 어떠세요?”라고. “<span class='quot0'>3년 전 전립선암 선고받고 ‘1년 반밖에 못 산다’ 했는데 여지껏 큰 탈 없으니 감사하지요</span>”라 한다. 암은 현재 더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완치되진 않았다. <br/><br/> 로스앤젤레스/글·사진 권태호 기자<br/><br/> 이종용의 (1980)<br/><br/> ho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txt

제목: 장내 미생물의 ‘두 얼굴’…병 되기도, 약 되기도  
날짜: 20160920  
기자: 오철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0230008216  
본문: ‘좋은 학점을 받으려면 자기 똥 속 미생물을 잘 배양하고 관찰해야 한다.’<br/><br/> 실제로 있는 일이다. 미국의 한 대학에선 생물학 수업으로 학생들한테 자기 똥을 받아 거기에 든 장내 미생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최근 라는 미국 매체에 보도됐다. 학생들은 미생물 연구 과정을 배우고, 수업을 이끄는 연구진은 다양한 대변 시료를 얻어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장내 미생물 분포의 변화를 살피는 일석이조 프로젝트라 한다.<br/><br/> 대학가의 똥 연구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14년 고광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학생 40여명의 똥을 받아 장내 미생물을 연구했다. 그는 “대변 시료를 모은다는 낯선 일이 당시엔 흥밋거리가 됐지만 사실 대변의 장내 미생물을 추출하고 배양하고 분석하는 것은 많은 연구실에서 이뤄지는 정식 연구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의료기관과 함께 유전자가 같거나 매우 비슷한 일란성·이란성 쌍둥이 600여명의 똥을 모아 장내 미생물과 인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여러 편의 논문을 수년째 내고 있다. <br/><br/> <br/><br/> 파스퇴르 이후 ‘세균’ 인식의 대전환<br/><br/> 국내외에서 장내 미생물 연구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 “<span class='quot0'>지금은 세균에 대한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span>” 미생물 유전체와 생물정보학을 연구하는 김지현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19세기 중반 프랑스 루이 파스퇴르의 세균 발견 이후에 세균은 감염병을 일으키는, 항생제로 퇴치해야 하는 병원체로만 여겨지다가 숙주와 공생하는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불과 10여년</span>”이라며 이렇게 말했다.<br/><br/> 사실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세균에 대한 인식이 생긴 지는 오래됐다. 프랑스에서 활동한 러시아 미생물학자 메치니코프는 19세기 후반에 장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산균이 유익한 구실을 한다는 데 주목했다. 그 영향으로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처럼 ‘몸에 좋은 세균’이라는 뜻의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 전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진 못했다.<br/><br/><br/><br/>아토피·천식·당뇨·암·정신질환까지 대부분의 만성질환 연관 가능성 인체가 못 만드는 비타민 만들고 영양소 분해하는 등 이로운 역할도 항생제로 퇴치해야 할 병원체에서 ‘인체와의 공생’으로 연구 초점 수십조 개 미생물 장내 생태계에서 여러 종들의 세력분포 영향 관심 10년 전 비만한 쥐똥 이식하니 무균 쥐가 비만해진 연구가 ‘영감’ 최근 대변 미생물 이식 시술 주목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효과 내분비, 류머티즘 치료로 확산 전망 미생물 신약도 5년 안 등장 예고<br/><br/><br/><br/> 초파리를 이용해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이원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span class='quot1'>달리 말하면 항생제로 감염균 퇴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2000년대 이후에 숙주와 공존, 공생하는 장내 미생물에 새로운 관심이 쏠리는 중</span>”이라고 풀이했다.<br/><br/> 미국 생물학자 제프리 고든의 연구가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계기가 됐다. 특히 2006년에, 그는 장내 무균 상태인 쥐에다 비만 쥐의 똥을 이식했더니 무균 쥐가 비만해졌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장내 미생물과 숙주 건강이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입증해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장내 미생물을 막연하게 이해하던 많은 연구자들한테 큰 영감을 준 이 연구 이후에 다른 이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쏟아지면서 지금은 장내 미생물이 숙주 건강에 폭넓게 영향을 준다는 게 분명해졌다</span>”고 말했다. 김지현 교수는 “<span class='quot2'>세균, 즉 미생물 없는 위생 환경이 좋다고만 여기던 데에서 벗어나 미생물과 숙주의 공존, 공생을 인식하게 된 것이 150여년 만의 큰 변화</span>”라고 말했다.<br/><br/> <br/><br/> 뇌에 영향 끼친다는 연구도 나와<br/><br/> 장내에 사는 무수한 미생물 종들은 숙주인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10여년 동안 쏟아진 갖가지 연구들에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숙주의 면역, 대사, 신경계에 관여하며, 그래서 장내 생태계의 변화가 숙주의 질병과도 연관성을 지닌다는 게 잇따라 보고됐다. 똥 속 장내 미생물 전체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 종의 분포를 식별하거나, 특정 미생물 종을 배양해 연구하거나,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살피거나, 사람들의 건강 기록을 비교하는 갖가지 기법의 연구들에서 이런 상관성이 입증돼왔다.<br/><br/> 쌍둥이 사례를 연구해 당뇨병을 비롯해 여러 만성질환과 장내 미생물의 상관관계를 밝혀온 고광표 교수는 “<span class='quot3'>이제는 갖가지 만성질환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span>”라고 말했다. 아토피, 천식 같은 면역질환, 심장병, 당뇨, 비만 같은 대사질환, 그리고 일부 암질환이나 정신질환까지, 질병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일 가능성이 제시돼왔다.<br/><br/> 미생물은 우리 몸에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인체가 생산하지 못하는 일부 비타민을 만들어주거나 일부 영양소를 분해해 인체에 공급하며, 또한 인체의 생리대사에서 신호 구실을 하는 여러 대사산물을 분비하기에, 이런 공생의 균형이 깨질 때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br/><br/> 장내 미생물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최근엔 자주 나온다. 일례로, 지난 6월 미국 베일러 의대 연구진은 자폐 행동을 보이는 무균 쥐에다 건강한 쥐의 분변을 이식했더니 그 행동이 완화됐으며 특히 특정 미생물 종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이런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실험연구를 생물학술지 에 보고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이 인체의 특정 호르몬 분비와 신경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r/><br/> <br/><br/> 사람마다 달라 섣부른 일반화 경계<br/><br/> 개별 미생물 종들이 주목받지만, 수많은 장내 미생물 종들이 이루는 생태계의 세력 분포가 미생물 연구자들한테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떤 종들이, 또는 어떤 하위 변종들이 우세한 세력인지, 서로 다른 미생물 종들과 어떤 비율로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며 분포하는지는 장내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연구자들은 “<span class='quot4'>당뇨병 환자에게선 이런저런 세균 종들이 우세하고 비만 환자에게선 이런저런 세균 종이 우세하고, 이런 식으로 세력 분포의 특징이 왜 나타나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려는 게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span>”라고들 말한다.<br/><br/>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주목받는 ‘대변 미생물 이식(FMT)’ 시술이다. 이 시술은 치료하기 까다로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술로 발전해왔다. 항생제 때문에 환자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면 특정 미생물이 급증해 세력이 커질 때 심각한 장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때 항생제로도 치료하기 힘든 장질환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의 대변 미생물을 이식하면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천재희 연세대 의대 교수(소화기내과)는 “<span class='quot3'>이식할 대변에 다른 병원체가 섞여 있거나 이식 과정에서 외부 병원체에 오염될 수도 있어 정해진 검사와 보존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현재로선 난치성 장질환에 대한 보조 시술로 사용된다</span>”고 말했다. 이처럼 균형을 이룬 장내 미생물 생태계 전체가 장질환 치료의 효과를 낼 수 있다.<br/><br/> 장내 미생물 연구가 활발해지고 일부 효과가 보고되면서 의학계의 관심도 커졌다. 천 교수는 “<span class='quot3'>앞으로 염증성 장질환뿐 아니라 내분비, 류머티즘 같은 여러 질환 분야에서도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span>”고 내다봤다. 고광표 교수는 “<span class='quot3'>미생물 신약 같은 의약품도 5년 뒤쯤엔 등장할 수 있다</span>”고 전망했다.<br/><br/> 하지만 현재의 연구 수준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내 미생물 분포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갖가지 요인에 의해 역동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언제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는 것이다. 이원재 교수는 “<span class='quot5'>장내 미생물 종들이 어떠한 ‘블렌딩’(혼합)을 이룰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그런 블렌딩은 또 어떻게 생기며 유지되는지와 같은 기초적인 물음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span>”라며 “<span class='quot5'>장내 미생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었으나 여전히 연구자는 복잡한 미생물 세계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김지현 교수는 “<span class='quot2'>지금까지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살피는 일종의 ‘센서스’ 연구였다면 이젠 그 영향의 인과관계와 메커니즘을 밝혀야 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br/><br/> 오철우 선임기자 cheolwoo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txt

제목: 인천시, 유정복 시장 일가 땅 포함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재추진  
날짜: 20160920  
기자: 김영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0182855013  
본문: 인천시가 특혜시비로 유보됐던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땅이 포함된 월미도 일대에 대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br/><br/> 더민주 인천시당은 20일 “시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높이를 14층 정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 시장 일가만 최소 13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양이가 생선가게 주인 노릇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br/><br/> 더민주는 이날 논평에서 “시가 재추진하면서 들고나온 명분이 10여년 매입한 땅으로 전임시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니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이는 안상수 시장 때 추진된 유정복 일가의 기획 부동산 사업을 유정복 시장 때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월미도 토호세력인 김홍섭 구청장까지 가세하며 벌인 재발한 암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br/><br/> 더민주는 새누리당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공동토론회를 제안하며 “<span class='quot0'>특혜 논란이 되는 유 시장 일가와 김 구청이 매입한 땅을 시 또는 산하 공기관에 넘기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먼저 당사자에게 강권해 달라</span>”고 요구했다.<br/><br/> 인천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9층 높이에서 최고 50m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월미도 일대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br/><br/> 그러나 월미도 일대에 유 시장 일가 땅이 대거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자 유 시장은 행정절차를 유보했다.<br/><br/> 당시 더민주당은 “<span class='quot1'>월미도 일대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2배 이상 지가가 상승해 유 시장 일가 땅은 200억원 이상 가격을 형성해 시세차익이 최소 13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span>”이라며 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br/><br/> 한편 인천시는 지난 19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에 들어가는 등 유보했던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br/><br/> 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거쳐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span>”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txt

제목: 욕심부리면 물속에서 맞는 죽음 해녀 삶이 우리네 인생 말하는듯  
날짜: 20160920  
기자: 박민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0150937271  
본문: 끝 모르게 깊고 짙푸른 바닷속으로 여자들이 맨몸으로 뛰어든다. 물안경 말곤 변변한 장비도 없이 숨을 멈추는 것만으로 버텨내면서 전복, 문어, 소라, 우뭇가사리를 건져낸다. 하루 8시간 물 한모금 먹지 않고 수백번씩 바다로 자맥질해 들어가 따온 것들은 가족의 밥이 되고 아이들의 학비가 된다.<br/><br/> 29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은 제주도 우도 해녀들의 삶을 담고 있다. ‘물숨’이란 해녀들이 물속에서 쉬는 숨,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물질을 하다 전복이나 값진 해물을 보면 꼭 캐고 싶어지지만 욕망에 홀려 타고난 숨의 능력보다 조금만 더 바다에 머물러도 물숨을 먹게 된다. 해녀들은 “바다 가면 욕심내지 마라,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와라”라고 가르치고 다짐한다. 해녀들은 “숨은 하늘이 주고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더 값비싼 해물을 캘 수 있지만, 타고난 숨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바다의 깊이는 다 다르다.<br/><br/> 땅은 척박하고, 곡식은 키우기 힘들고, 자란 곡식도 태풍이 다 휩쓸어가버리는 제주에서 여인들은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바다로 들어갔다. 매일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수압의 고통을 이기려 빈속에 독한 약을 털어넣으며 고된 노동을 하지만, 한평생 물질하며 살아온 해녀 할망들은 씩씩하고 강인하다. 숨을 참고, 욕심을 자르고, 욕망을 다스리며 바닷속에서 늙어간다. <br/><br/> 여든다섯, 여든여덟살 해녀 할망들은 육지에선 늙고 병들었지만, 푸른 바닷속에선 백발의 명사수가 되어 작살로 순식간에 물고기를 잡는다. 오십대 딸은 함께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 목숨을 잃은 팔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바다로 나간다. 바다가 원망스럽지 않으냐, 힘들지 않으냐는 물음에 이들은 말한다. “바다가 내 밥이고 일터야” “<span class='quot0'>내가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바다는 공짜로 다 준다</span>” “바다에 나가면 그냥 좋아”라고, 그리고 “<span class='quot0'>다시 태어나도 해녀가 되고 싶다</span>”고.<br/><br/> 4·3의 고통 어린 땅, 이제는 관광객의 떠들썩함과 투기 광풍에 뒤덮인 제주의 한켠에서, 꿋꿋하게,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해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인생의 비밀을 조금은 알 것도 같다. 두렵고 휘청거리고 힘겹지만 매일 용감하게 삶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고.<br/><br/> “<span class='quot0'>내 고향 제주에는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span>”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고희영 감독의 삶과 해녀들의 삶이 만나 만들어졌다. 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고 감독은 바다에도, 해녀에도 관심이 없었다. 육지로 나와 일간지 사회부 기자로, 쟁쟁한 방송작가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능한 일벌레로 살았다. 마흔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해녀의 삶이 마음에 들어왔다. “<span class='quot0'>욕심만 부리고 살았던 게 후회되고 죽음이 두려운 그때 어떻게 해녀들은 두려움 없이 무덤이 될 수 있는 바다로 매일 뛰어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span>”했지만 처음에는 해녀들에게 말을 붙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조금씩 다가가 마음을 열고 함께 생활하며 7년간 촬영하고, 후반작업에 2년의 시간을 더 들였다. 고 감독은 그렇게 “<span class='quot1'>해녀들의 바다에서 내 인생의 바다를 발견했다</span>”고 말한다. 그의 작업에 공감한 재일 한국인 음악가 양방언이 음악을 더했고, 드라마 의 송지나 작가가 원고를 썼다. <br/><br/> 박민희 기자 minggu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txt

제목: 암환자에 ‘금 지푸라기’ 잡으라는 요양병원  
날짜: 201609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0100812554  
본문: 이아무개(59)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병원 쪽에서는 암세포가 폐뿐만 아니라 간, 척추뼈, 림프절 등 여러 곳으로 전이돼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항암제 치료를 두달 받았지만 암 크기는 줄지 않았다. 수술 대상이 아닌 탓에 입원도 되지 않았다. 지난달 이씨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 집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일단 진통제 처방을 통해 통증치료를 받은 이씨는 요양병원 의사와의 상담에서 “<span class='quot0'>면역치료제, 고주파열치료기, 겨우살이 추출물 등을 통해 암이 치료되거나 진행이 멈춘 환자가 있다</span>”는 말을 들었다. 이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역치료제와 겨우살이 추출물을 처방받았다. 한달에 입원비 외에도 300만원가량이 치료비로 나왔다. 이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덕에 이 중 60만원가량을 부담했다. <br/><br/> 19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며 일부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고액의 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요양병원이 초기엔 주로 뇌졸중,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요양·치료를 담당했는데, 최근에는 암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많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1'>환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span>”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전체 요양병원 수는 2003년 68개에서 2015년 1372개로 급증했다. <br/><br/> 박아무개(34)씨는 지난해 요관암(신장에서 소변이 모아져 나오는 요관에 생기는 암)에 걸린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5군데를 돌아다녔다. 박씨의 어머니는 2014년 요관암을 진단받아 수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재발한 상태였다. 박씨는 “아버지 혼자서 말기암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 것 같아 요양병원을 알아봤는데, 일부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나와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고주파열치료기 치료 등을 권했다. 옻나무 추출물을 권한 요양병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옻나무 추출물 치료는 한달에 300만원이나 했다. 비용도 문제였지만 사무장이 설명하는 게 믿음이 가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씨의 아들 김아무개씨도 “대학병원에서조차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요양병원에서 치료된 경우가 있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br/><br/> 요양병원에서 많이 권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법은 고주파열치료기 치료, 면역치료제, 겨우살이·옻나무 추출물, 고용량 비타민 요법 등이 꼽힌다. 면역치료제의 경우 악성흑색종 등 일부 암에만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인데, 나머지 암에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 암 덩어리에 전극을 삽입해 고주파에 의해 발생하는 열로 암을 치료하는 고주파열치료는 주로 간암에만 쓰이는데다 주변 조직에 열손상·천공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옻나무나 겨우살이 추출물, 고용량 비타민 요법은 암 치료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 국립암센터의 한 의사는 “<span class='quot2'>이런 치료법들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데다 비용은 한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암 환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span>”고 우려했다. <br/><br/>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이들 치료가 모두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장은 “<span class='quot3'>고주파열치료기나 면역치료제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거나 의약품이며, 겨우살이는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암 치료에 많이 쓰고 있는 대체치료법</span>”이라고 말했다. <br/><br/>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에는 수익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현행법을 피해가기 위해 의사 면허를 차용하거나 의사를 고용해 수익이 많이 남는 진료를 주로 하는 병원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최근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돼 적발된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이 크게 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지난해 상반기에만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102곳 가운데 32곳(31.4%)이 요양병원이었다</span>”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2008년 8개에서 2014년 43개로 5배 넘게 많아졌다. <br/><br/> 모든 요양병원이 고가 암 치료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말기 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식사, 통증 조절 등을 돕는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 김아무개(31·여)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8년에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곧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9개월 뒤 재발했고, 다시 수술을 받았다. 2010년에는 간으로, 2012년에는 소장이나 대장 등과 같은 장기를 감싸고 있는 복막으로 암이 전이됐다. 김씨는 그 뒤에도 두 차례 수술을 더 받았고 지금도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몸무게가 32㎏까지 줄어든 김씨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았다. 김씨가 이용한 포근한맘요양병원의 하태국 원장은 “<span class='quot4'>원래 치료를 받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로 항암제 처방을 받고 있어 우리 병원에서는 줄어든 몸무게를 회복하기 위한 영양치료와 함께 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라앉히는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2~3개월 머물다가 퇴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몸무게가 40㎏까지 올라왔고 심리적인 안정도 찾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적절한 식사와 심리치료 등이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에도, 기존의 의료체계는 직접적인 암 치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요양병원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span class='quot3'>환자들이 원하는 경우 면역치료제 등 값비싼 치료도 하지만, 통증 관리나 식사 조절 등을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사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료는 보상이 적어서 이 치료만 제공하다보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span>”고 말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5'>암 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흔히 겪는 통증 관리는 물론 재활을 위해 필요한 운동, 식이 조절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고, 말기 암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일각에서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은 대형병원이 맡고, 암 환자의 통증 관리나 재활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은 요양병원이 맡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평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span class='quot6'>현실적으로 종합병원이 암환자 치료의 모든 과정을 맡을 수 없는 만큼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하면 진료비를 보상해주듯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심리치료 등을 해도 진료비를 적절히 보상해 주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span>”고 주장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txt

제목: “암 경험자·말기암 환자 돌봄체계에 구멍”  
날짜: 201609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20100810602  
본문: “암에 걸린 뒤 완치판정을 받은 ‘암 경험자’가 벌써 130만명에 이르고 말기 암 환자 역시 늘고 있으나 이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를 받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라도 찾아서 치료를 받은 암 환자가 생겨나는 이유죠”<br/><br/> 2000년대 초반 국립암센터에서 일하던 때부터 국내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를 안착시키고 지난해에는 호스피스 국민본부의 실무를 맡아 연명의료 중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기도 했던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사진)의 말이다. <br/><br/> 그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암 환자를 입원시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게 된 데에는 현재 암 치료 체계의 구멍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 수술이나 항암제 등 암을 치료하는 데에는 열중하지만, 암 치료를 받은 뒤에 운동 및 식사 조절이 필요한 환자나 더 이상 치료가 힘든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br/><br/> 윤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 등에서 암 환자의 운동 및 식사 조절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를 하면 실제 사망 위험도 줄어드는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거의 없다</span>”고 지적했다. 실제 윤 교수팀이 암 완치 판정을 받은 폐암 환자 800여명과 자궁경부암 환자 860명을 5~6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 암 환자들은 암 치료 뒤에도 통증 관리, 정서적인 안정, 운동 등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br/><br/> 서울대병원의 경우 암통합케어센터에서 암 환자들이 겪는 불안, 불면, 우울, 피로, 식욕부진,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암 환자 및 경험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런 통합치료를 하는 곳은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 암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경험자는 암 치료 뒤 재발에 대한 조기진단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식사 조절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고 말기 암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span>”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txt

제목: [김종구 칼럼] 암에 걸린 후배 해직 기자를 바라보며  
날짜: 20160919  
기자: 김종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19182843983  
본문: 추석 연휴 마지막날 오후에 고등학교 후배 한 명을 만났다. 그는 최근 암 판정을 받았다. 그것도 ‘복막암’이라는 매우 희소한 암이다. 복막은 복강을 둘러싼 얇은 막 조직으로 복강 내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 병세가 악화할 때까지 자각증상도 별로 없는 고약한 병이다.<br/><br/> 우리나라에서 수술 잘하기로 첫손가락 꼽히는 대형병원에서는 수술 불가능 판정을 내렸다.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수술하기에는 늦었다는 판단에서다. 다행히 일산 국립암센터 쪽에서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나섰다. 다음달에 수술 날짜도 잡혔다. 하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수술이다. 복막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암세포가 전이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그는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문화방송 파업 당시 노조 홍보국장을 지내다 해고된 이용마 기자 이야기다.<br/><br/> 동네 한 커피숍에서 마주한 그는 예상외로 꿋꿋하고 침착했다. 자신의 증세와 상태, 수술 계획 등을 담담히 설명했다. 평소의 단단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변함이 없었다. “<span class='quot0'>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 선고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span>”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암 발병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꺼렸다. 어렵사리 그를 설득했다. “<span class='quot0'>병은 되도록 널리 광고해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span>”는 논리도 동원했다.<br/><br/> 복막암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의 암 발병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화병’이라고 말한다. “<span class='quot0'>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그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span>” 실제로 그의 친가나 외가 쪽 모두 암에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하니 일단 유전과는 무관해 보인다.<br/><br/> 그가 해고된 지도 어느덧 4년 6개월이 흘렀다. 그사이 해고무효 소송,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법정 다툼도 지루하게 이어졌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회사 쪽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해직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마지못해 복직을 시킨 적도 있었으나, 6개월 동안 건물 한구석 골방에 처넣고 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2심 판결이 나오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라”며 해직 상태로 되돌려버렸다.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버티자는 심산이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울화병에 걸릴 지경인데 본인들은 오죽했을까. 이용마 기자는 해직 뒤 대학원 공부를 계속해 정치학 박사 학위도 따고, 대학교 강의, 팟캐스트 진행자 등으로 열심히 살았으나 가슴속에서 시시때때로 솟구치는 불길을 쉽게 끄지는 못했으리라. ‘심화’는 사람을 태운다.<br/><br/> 그의 나이 이제 겨우 마흔여덟. 졸지에 직장을 잃은 남편을 대신해 직업 전선에 뛰어든 아내와 갓 초등학교 2학년인 귀염둥이 아들 쌍둥이를 남겨두고 떠나기에는 너무 원통하고 이른 나이다. 다시 치열한 언론 현장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여기서 꺾일 수도 없다. 게다가 그를 해고한 사람들은 여전히 희희낙락하며 잘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그런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된다.<br/><br/> 애초 칼럼을 통해 암 투병 소식을 알리겠다고 했을 때 그가 우려한 것은 자신의 개인 문제가 너무 부각되는 점이었다. “<span class='quot0'>해직된 뒤에도 공영언론이 잘만 굴러간다면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참담함</span>”, “<span class='quot0'>방송이 백주에 사실을 왜곡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span>”도 토로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자의 감정의 일렁임 탓에 그의 바람을 담아내지 못했다. 다만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다. 세상을 떠받치는 힘은 상식과 공감이며 언론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고. 그런데도 대다수 언론은 상식을 외면한 채 그들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고, 심지어 이념의 색깔을 씌워 모욕하는 언론마저 있었다. 이용마 기자의 암 발병은 언론의 이런 무관심, 적대감과 무관한 것일까.<br/><br/>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인의 윤리 문제가 언론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언론인의 윤리 준수는 실로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제대로 된 언론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공정언론을 가로막는 권력의 힘은 여전히 언론계의 하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인 한 젊은 후배 기자를 바라보며 언론계의 상식과 공감,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br/><br/>김종구 논설위원 kjg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txt

제목: “6.5 지진 덮치면 ‘액상화’로 부산·서울 등 큰 피해 우려”  
날짜: 20160918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18191909942  
본문: 경북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 내륙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지진동으로 지반이 물러지는 ‘액상화 현상’의 위험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br/><br/> 18일 서경대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의 최재순 교수 연구팀이 경남 양산에서 규모 6.5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작성한 액상화 발생 위험도를 보면, 진앙에서 가까운 부산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의 상당 구역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기 파주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모사해보니, 수백㎞ 떨어진 부산에서도 액상화가 위험 등급으로 표시됐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만 이런 연구 결과는 지진 전파를 예측하는 감쇠식의 부정확성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있어 국내부지 특성에 맞는 감쇠식을 연구해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 또 새만금·시화호·안동호 등 전국 12개 매립지와 자연 및 인공호수의 액상화가능지수(LPI)를 분석한 결 과, 간척지역인 새만금과 시화호 부근은 진앙지가 먼 양산이나 오대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액상화가능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자연호인 화진포·영랑호·경포호는 지수가 높은 반면 인공호인 안동호·소양호 등은 낮았다.<br/><br/> 최 교수는 “액상화는 지진으로 지반이 늪이 되는 것을 말한다. 지진으로 진동이 생기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흙이 마치 액체처럼 행동해 건물 등 구조물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액상화라는 말은 1953년 일본 학자가 처음 사용했지만 실제 사례는 1964년 일본 니가타현 지진(규모 7.5)과 미국 알래스카주 지진(규모 9.2) 때 발생했다. 두 지역에서는 기초 지반이 붕괴해 교량이 넘어지고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는가 하면 맨홀 등 땅속 구조물이 솟아올랐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통계상 규모 5.5 이상 지진이면 액상화가 나타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규모 6.0 이상 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진앙이 매립지나 해안가 등 연약지반일 경우 액상화 현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액상화는 느슨한 모래층(사질토) 지반, 얕은 지하수, 큰 지진동의 삼박자가 맞으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등이 위험하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남서쪽 효고현에 액상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도 액상화 현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음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br/><br/> 최재순 교수 연구팀이 국가지반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센터의 시추공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역의 액상화 위험도를 분석한 지도를 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액상화로 인한 지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서울 강남지역의 액상화 위험도를 평가한 자료를 보면, 액상화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한 52개 시추공의 데이터 분석 결과 액상화로 인한 피해 정도가 높은 경우(액상화가능지수 5~15)가 14곳, 매우 높은 경우(액상화가능지수 15 이상)가 12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액상화가능지수가 43.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br/><br/> 경주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산단층 지대인 부산은 해안가에 연약지반이 많아 액상화 위험이 특히 크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는 “울산 지진 때 부산지역의 싱크홀 현상과 상수도관 파열이 액상화 때문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해안가와 낙동강 주변의 연약지반 깊이는 100m 이상 되는 곳도 있어 연약지반 분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태성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양산단층대를 조사해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액상화처럼 보이는 흔적들이 눈에 띈다. 연약지반에서는 액상화뿐만 아니라 진동 증폭 효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5년 멕시코 지진(규모 8.1) 때 400㎞ 떨어진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멕시코 시티에 큰 피해를 입힌 건 충적토(물에 의해 운반돼 쌓인 흙) 기반의 도시로 지진동이 증폭돼 전달됐기 때문이다.<br/><br/> 최재순 교수는 “액상화 대비는 얼마짜리 암보험에 들어야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슷하다. 내진설계 코드가 제시되지 않았던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진단해 어느 수준에서 내진 보강공사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txt

제목: 드라마속 조정석처럼....남성도 유방암에 걸리냐고요?  
날짜: 2016091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17120813784  
본문: 최근 방영중인 SBS의 드라마 에서 배우 조정석이 맡은 남성주인공이 유방암에 걸린 것으로 나오면서, 남성 유방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방암이라고 하면 여성만 걸린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시청자들이 남성도 유방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관련 전문의의 도움말로 남성 유방암에 대해 알아본다.<br/><br/> 국내에서 남성 유방암의 역사는 꽤 오래 됐는데, 문헌상으로는 1923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첫 남성 유방암 환자가 보고된 바 있다. 남성 유방암의 역사는 국내에서만 벌써 100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br/><br/> 우선 우리나라 암 환자의 통계를 가장 잘 집계하는 국가암센터와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국내 유방암 환자는 새로 1만7292명이 생겼다. 이는 그해 전체 암 발생의 7.7%로 많이 생기는 암에서 5위를 차지했다. <br/><br/> 그렇다면 남성 유방암 환자 수는? 그해에 6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거의 절대 다수가 여성 유방암 환자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유방암에 걸린 남성 주인공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해 100명 가량으로 극히 소수인데 그 심정을 아느냐’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수의 남성이 유방암에 걸리는 것이다. 드라마 작가가 꽤 소상하게 취재를 해 대사를 썼다고 평가할 수 있다. <br/><br/> 남성은 여성처럼 젖을 만드는 조직과 지방이 발달하지 않아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방 조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박형석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 유방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내에서는 남성 유방암 환자가 전체 유방암의 1% 미만으로 매우 드물긴 하지만, 2012년 미국에서는 2000명 이상의 남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보고도 있다</span>”고 말했다.<br/><br/> 남성 유방암도 여성처럼 유방에서 무엇인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 여성처럼 유두(젖꼭지)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와 병원을 찾기도 한다. 만약 양쪽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유방이 여성처럼 다소 커진 ‘여성형 유방’인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40~50대 이상이면서 한쪽에만 만져지면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가능성은 높아진다. 박형석 교수는 “<span class='quot1'>남성의 경우 유방에서 무엇인가 만져져도 창피하다며 병원 방문을 꺼리기도 하는데, 한쪽 유방에만 발생한 덩어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거나 계속 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찰을 받아봐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유방암센터의 환자들 대부분이 여성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형 유방처럼 유방 질환을 가진 남성 환자의 방문도 아주 드물지는 않다</span>”고 설명했다. <br/><br/> 남성 유방암이라도 치료는 여성 유방암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 등의 치료로 비교적 좋은 예후를 보이지만,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 부족으로 많이 진행된 뒤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예후가 나쁘다는 보고도 있다. 치료는 수술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을 하게 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txt

제목: 하루 한갑씩 30년 피운 ‘골초’, 폐암검진 무료로 받는다  
날짜: 2016091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12110915442  
본문: 정부가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무료 검진을 하기로 했다. 또 암 치료 뒤 생존자에 대해 암의 재발을 막고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통합지원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br/><br/>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년) 암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시티·CT)’ 검사를 하기로 했다. 고위험 흡연자는 55~74살이면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사람과 30갑년 이상 흡연 뒤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갑년’이란 하루에 피운 담배양에 흡연 기간을 곱한 것(1갑년=365갑)으로, 30갑년이면 하루 한갑씩 30년을 피우거나 하루 1.5갑씩 20년을 피운 것이다. 저선량 시티는 일반 시티보다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방사선 노출량이 5분의 1이다. 암 덩어리 등 종양을 발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고위험 흡연자 가운데 8000명을 선별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무료 폐암 검진은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전국 8개 지역암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span class='quot0'>2012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에 대해 저선량 시티를 이용한 폐암 검진을 했더니,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폐암 사망 위험을 20%가량 낮출 수 있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시범사업 대상자는 금연프로그램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고위험 흡연자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폐암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자 가운데 1위(22.8%, 1만7177명)인 암으로, 암 진단 뒤 5년 이상 살 가능성(5년 생존율)이 췌장암에 이어 2번째로 낮다. <br/><br/> 이번 종합계획에는 암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암을 치료해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존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센터를 만들어 암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식이요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적인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학적인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1'>내년 2∼3개 지역에서 시작해 5년 안에 전국 12개 지역 암센터에 통합지지센터를 세울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 성인과는 다른 암 후유증을 겪고 사회로의 복귀가 더 쉽지 않은 만큼 통합지지센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약 1500명이 암에 걸리며, 현재 2만5천명이 암 생존자로 추정되고 있다. <br/><br/>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의 통증 등을 완화해 암 환자가 겪는 고통을 줄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하게 만들고, 국공립 종합병원은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를 본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암 관리종합계획은 정부가 암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txt

제목: [유레카] 9·11 후유장애 / 조일준  
날짜: 20160911  
기자: 조일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11174902690  
본문: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난 지 15년이 흘렀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의 상징적 심장부들이 외부 적대세력의 공격을 받은 이 테러는 세계의 군사·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베트남전 이후 최장기이자 최대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 공영방송 (NPR)는 “9·11이 미국을 가장 크게 바꿔 놓은 것은 (평범한 미국인에게는) ‘평화’가 일상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항구적인 전쟁’ 상태에 갇힌 나라로 보인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는 현재 전쟁 중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br/><br/> 그러나 9·11이 남긴 내상은 깊고도 길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미국의 직접적 보복 공격을 받은 나라들에선 지금까지 미국 동맹군의 공습과 내전, 무장단체들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만 최소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들 나라의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겪고 있을 고통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다.<br/><br/> 반면 미국의 전사자와 민간인 희생자 통계와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는 정확하게 집계되고 관찰된다. 9·11 테러의 직접 사망자만 2996명이었다. 그뿐 아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난 7월 집계를 보면, 테러 현장에서 응급 구조와 복구 작업을 했거나 테러 순간을 목격한 충격으로 70여종의 암이나 심장질환, 정신질환, 공황 발작 등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미국인이 40만명에 이른다. 뚜렷한 이유 없이 심박수가 위험수치로 치솟고 악몽에 가위눌린다. 미군 예비역 대령인 앤드루 베이서비치 보스턴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올해 출간한 에서 “<span class='quot0'>마약과의 전쟁이나 빈곤과의 전쟁처럼, 확대중동권 전쟁이 미국인의 삶에 영속적인 고착물이 됐다</span>”고 지적했다. 테러와 전쟁의 또 다른 악마적 속성이다. <br/><br/>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txt

제목: 췌장암이 소화기계 암 가운데 통증 가장 심해  
날짜: 2016091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11151855100  
본문: 위장이나 간, 췌장 등 소화기계 암 가운데 췌장암에 걸린 환자들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11일 대한소화기암학회 통증위원회가 지난 8~10일 열린 ‘제26차 세계소화기암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췌장암 환자는 전체의 82.4%가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답해 통증 호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지난 7월1일~8월 21일 동아대, 부산대, 고려대 등 국내 7개 대학병원 소화기암 환자 173명을 대상으로 국제통증기준을 이용해 환자들의 통증에 대해 조사한 데에서 나왔다. 췌장암에 이어 담도암(간의 담도에 생긴 암)이 81.3%로 뒤를 이었고, 위암 74.4%, 식도암 72.7%, 대장암 60%, 간암 48% 등의 순이었다. <br/><br/> 소화기계에 생긴 암은 종류별로 통증 양상이 다른데 췌장암 환자는 보통 칼로 도려내는 듯한 심한 통증과 등 쪽으로 뻗치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위암 환자는 명치 주변이 욱신거리거나 짓누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 상대적으로 통증을 덜 느끼는 대장암의 경우 변비가 생기거나 배가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고, 담도암은 얼굴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br/><br/> 이처럼 통증을 겪는 환자 비율이 높지만 통증 관리를 통해 제대로 개선되는 비율은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증이 생겨 진통제를 처방 받은 환자 가운데 통증이 완화된 경우는 3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위원회는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통증은 두통, 치통 등과는 다른 수준인데도 마약성 진통제 대신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효과가 약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 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txt

제목: 김양중 보고  
날짜: 201609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09093928944  
본문: #암 전문 요양병원 취재<br/><br/> <br/><br/> #다음 건강면 취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txt

제목: 잠든 면역력 깨워 췌장암 치료한다  
날짜: 2016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08163852758  
본문: 우리 몸의 면역력을 활성화해 암을 퇴치하는 의약품이 임상실험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여 주목된다. 영국 런던대학교 세인트조지 의대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면역치료 신약 실험을 한 결과, 전이 췌장암 환자들의 여명이 늘어났으며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 결과는 영국의 암 전문지 최신호에 발표됐다고 영국 이 6일 보도했다. <br/><br/> 이번 임상실험 환자의 85%는 이미 암세포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된 중증 환자들이었다. 그들 중 일반적인 화학요법 치료만 받은 환자들의 생존기간 중간값은 4.4개월에 불과했지만, 연구팀의 면역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은 평균 7개월로 생존기간이 길어졌다. 일부 환자들은 1년 이상 생존했으며, 3년 가까이 산 환자도 한 명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br/><br/> ‘IMM­-101’로 명명된 이 신약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 종양 세포를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원리다. 지금의 여러 암 치료법이 다른 건강한 세포들까지 파괴하는 것과 달리, 이번 신약은 치료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br/><br/> 우리 몸은 병원균이 침투하거나 암세포가 생기면 면역 세포인 ‘T-세포’가 이를 식별해 제거하는 자기치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암세포는 자신을 정상세포로 위장하거나 T-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그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면역체크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특히 췌장암은 전이가 빠르고 치료가 까다로워 주요 암 중에서도 생존률이 가장 낮다.<br/><br/> 기존의 면역치료제인 ‘체크포인트 반응 억제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 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이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이번 신약은 무력화된 면역 기능을 ‘잠에서 깨워’ 암세포를 잡는 생체친화적 방식이다. 연구팀을 이끈 앵거스 덜글리시 박사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발병하면 죽은 거나 다름 없다는 췌장암을 면역치료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br/><br/> 영국 종양백신·면역치료 연구소의 해리 코터럴 박사는 에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는 흥미로울 뿐 아니라 미래에는 면역치료가 수많은 암들에 대한 치료법으로 일반화하고 환자들의 생존률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란 희망에 힘을 실어준다</span>”고 평가했다.<br/><br/> 그러나 이번 연구 성과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다. 영국 암연구소의 저스틴 앨퍼드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초기단계 실험의 결과는 면역치료와 화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병행 치료가 안전하며 일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준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환자의 생존률을 실제로 개선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선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br/><br/> <br/><br/>바로 잡습니다.<br/><br/> 9월8일치 16면에 ‘면역력 활성화 신약, 췌장암 전이 억제효과’ 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이 기사에서, “1년 뒤 암이 진전된 환자는 불과 18%, 5년 뒤에는 4%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은 “전이 환자의 1년 생존률이 18%, 5년 생존률은 4%로 떨어졌다”의 오역입니다. 온라인 기사에서 바로 잡은 것처럼, 면역치료 환자들은 화학요법 치료 환자들과 견줘 생존기간이 3개월에서 1년까지 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txt

제목: “자궁에 종양이 있다니 불안하지만…일단 지켜봐야죠”  
날짜: 20160908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08092905138  
본문: “일단 두고 보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몸속에 혹 덩어리가 자라고 있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네요.”<br/><br/> 자궁근종(자궁 근육에 생기는 양성종양) 때문에 한동안 고민하던 김아무개(37·경기 안양시)씨의 말입니다. 김씨는 2014년 말에 다니던 회사에서 직장 건강검진을 하다가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하는 혈압이나 혈당 등과 같은 검진 항목 외에 몇몇 검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초음파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생리(월경)를 시작한 뒤부터 종종 생리를 하다가 양이 많을 때가 있었고, 또 생리 기간이 평소에는 5~6일이었는데 열흘 가까이 계속되기도 해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김씨는 “고등학교나 대학 다닐 때에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최근 3~4년전부터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검사를 받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에 2.5㎝ 정도인 자궁근종으로 보이는 혹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자궁근종 의심’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자궁근종을 검색해 보니 암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에 안심했다고 합니다. 이인호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근종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매우 크고 빨리 자라는 경우 약 0.1%에서 악성으로 변하기도 한다. 많은 여성들이 자궁근종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암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합니다. 김씨는 산부인과를 찾아서 추가로 검사를 더 해볼까 고민도 했지만, 혼자 가기도 겁이 나 그냥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저에게 “아는 사람 가운데 자궁근종이 진단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묻길래,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리 때 출혈이 너무 많거나 혹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관찰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성훈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 4~5명 가운데 1명이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편인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정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궁근종은 대개 30~45살에 많이 생기며, 사춘기 전이나 폐경이 된 뒤에는 새로운 자궁근종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br/><br/> 김씨는 인터넷 정보에서 본 대로 다른 여성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악성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에 기회가 되면 검사를 더 받아보기로 하고 그냥 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씨는 1년쯤 지난 지난해 말 석 달 연속 눈에 띄게 생리량이 평소보다 많고, 생리 기간도 2~3일 정도 길어졌습니다.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br/><br/> “<span class='quot0'>자궁근종의 경우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이 그때 떠올랐습니다</span>”<br/><br/> <br/><br/> 그때까지 한반도 산부인과를 찾아본 적이 없는 김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고,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자궁근종이 여전히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검사에서 자궁근종 크기는 2.5~3㎝ 정도로 나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크기는 거의 커지지 않은 셈입니다. 의사는 “<span class='quot1'>자궁근종이 있으면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는데, 마침 근종이 자궁의 근육층 안에 있어 그런 증상은 좀 덜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생리가 더 심해지면 약물치료나 수술 등을 고려해 보자는 말을 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br/><br/> 이후 그는 자궁근종의 치료에 대해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 등의 누리집에는 주로 약물치료와 수술치료에 대한 설명이 많았는데, 블로그 등에 들어가보니 한방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광고에서 하이푸 치료(고강도 초음파 집속술)를 보게 됐고,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미혼인 상태였지만, 나중에라도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궁에 칼을 대어 수술하거나, 여성호르몬 등을 억제하는 약물치료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br/><br/> 이 당시에 제게 다시 연락을 해 와 그동안 자궁근종이 생긴 것을 알게 된 뒤 고민했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이푸 치료에 대해 물었습니다. <br/><br/>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니 자궁근종 때문에 자궁을 떼어내는 수술도 한다고 들어서 사실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수술하지 않는 치료라고 하는데 하이푸는 안전한지 해서 물어보려고요. 앞으로 결혼이나 임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br/><br/> 우선 제가 아는 의학상식으로도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자궁적출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임신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런 수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김대연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아이를 낳아야 할 여성의 경우는 자궁을 전부 제거하는 자궁적출술을 할 수 없으므로 수술을 하더라도 근종만 제거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크기가 그리 크지 않으면 제거하기가 쉽다”고 설명합니다.<br/><br/> 임신을 한 상태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자궁근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고 자궁근종을 제거한 뒤 다시 임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대연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자궁근종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에 자궁근종이 발견돼도 일단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근종이 더 커지기도 하고 변성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도 몇몇 경우만 제외하면 자연분만이 가능합니다. 자궁근종이 태아가 나오는 길인 산도를 막는 경우에는 제왕절개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br/><br/> <br/><br/> 김씨가 인터넷 등에서 알아본 하이푸 치료는 고주파 열에너지를 자궁근종에 모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조필제 청담산부인과 원장은 “마치 햇볕을 돋보기로 모아 온도를 올려 종이 등을 태우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된다. 고강도의 초음파를 발사시켜 자궁근종과 같은 종양에 모아 순간적으로 종양의 온도를 65~100도 올려 종양을 죽여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출혈, 빈혈,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 자궁근종을 가졌으면서 폐경 전인 여성이 대상인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임신부에게는 쓰지 못하고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7월15일 하이푸 치료에 대한 진료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 치료를 받은 뒤 임신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쓰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치료를 받은 뒤 임신했다가 자궁이 파열돼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가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조필제 원장은 “<span class='quot2'>최근 2~3년 동안 하이푸 시술을 하는 병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과장 및 허위 광고로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향도 보인다</span>”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br/><br/> 김씨에게 임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이푸 시술은 오히려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면 자궁근종이 원인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궁근종을 절제하는 수술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훈 교수는 “<span class='quot3'>자궁근종이 수정란의 착상 등을 방해하고 있어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데, 절제술 뒤 절반 정도에서는 임신이 가능하다</span>”고 설명합니다.<br/><br/> 결국 김씨는 치료를 받으려면 약물치료나 수술치료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자궁근종이 마침 자궁의 표면에만 있는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도 가능합니다. 약물치료의 경우 여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인공적으로 일정 기간만 폐경 상태를 만듭니다. 하지만 3번 정도 약물치료를 해서 자궁근종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으면 약물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자궁근종의 경우 수술을 해도 10명 가운데 3명에게서는 다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발이 되면 수술을 받은 10명 가운데 1명은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br/><br/> 김씨는 당장 결혼이나 임신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빈혈 검사 등에서도 정상 범위보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약간 낮을 뿐 큰 이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span class='quot4'>다행히 생리 기간에 생리통이 심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은 주기적으로 관찰만 하고 지켜보기로 했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그러면서 그는 자궁근종이 여성호르몬의 영향이라면 혹시 자신이 결혼이나 임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궁근종이 생긴 것은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관련 전문의들의 설명을 들으면, 여성호르몬이 자궁근종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난소의 기능이 활발한 시기에 근종의 크기도 커지고, 폐경 이후에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김대연 교수는 “<span class='quot5'>평소 비만하거나 아기를 낳은 적이 있던 여성에게서 자궁근종은 더 잘 생기고, 피임약을 먹으면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이 설명에 대해 “<span class='quot4'>한편으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는 아니구나’란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혹시 임신을 하면 더 커지거나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이런 모든 걱정이 정말 기우이지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결혼이나 하고 나서 생각해보든지 해야죠. 아무튼 지금 당장 무슨 치료를 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관찰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의사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txt

제목: 생리통·출혈 등 증상 심할 때만 치료  
날짜: 2016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08085917812  
본문: 자궁의 근육에 생기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 4~5명 가운데 1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하다. 하지만 5명 가운데 1~2명만 생리 때 출혈량이 많은 증상이나 통증 등이 나타날 뿐이다. 이 때문에 평소에 모르고 지내다가 정기건강검진이나 임신 뒤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자궁근종은 별다른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으면 주기적인 관찰을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한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br/><br/> 가임기 여성에 흔하지만 <br/> 20%미만에서 자궁출혈 등 나타나 <br/> 별 증상 없다면 6달 주기로 관찰 <br/> 불임 원인땐 근종 제거술 받아야<br/><br/> <br/><br/> ■ 주기적인 관찰 자궁의 근육에 생긴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이 자궁암으로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크기가 매우 크고 빨리 자라는 경우 약 0.1%에서 암으로 변하기도 한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서 자궁근종이 갑자기 커지면서 출혈을 동반할 때에는 암의 한 종류인 자궁육종을 의심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종종 자궁출혈이나 골반통이 나타날 수 있다. 자궁출혈은 월경량이 많거나 월경 기간이 긴 것을 말하는데, 자궁 점막에 가까운 곳에 근종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날 수 있다. 자궁근종이 커지면 아랫배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며, 자궁의 앞뒤쪽에 있는 방광과 대장을 눌러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변비가 생기기도 한다. 또 크기가 매우 커지면 골반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이런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그리 불편하지 않다면 수술 등을 하기보다는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해 별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한다.<br/><br/><br/><br/> ■ 수술치료 자궁근종은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임신이 된 뒤에 유산이나 조산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먼저 자궁근종이 불임을 일으키는 경우는 자궁근종이 난소에서 자궁으로 이어지는 나팔관을 막고 있거나 자궁 점막에 생긴 근종이 너무 커서 수정란이 착상되는 자궁내막을 대부분 차지할 때다. 이런 경우에도 임신이 되기도 하나, 초기에 유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궁근종 때문에 불임이 되는 경우에는 자궁근종 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다. 보통 근종을 절제하면 절반 정도에서 임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근종이 매우 큰 경우에는 근종의 크기를 줄이는 호르몬 주사 치료를 한 뒤 수술을 할 수도 있다.<br/><br/>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궁적출술을 한다. 최근에는 이 적출술 뒤 성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궁경부만 보존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술 뒤에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0.3~1.7%가량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이 잘 발생하는 곳만 제거하면서 자궁경부를 보존하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br/><br/> 수술은 아니지만 하이푸(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치료도 최근 나와 있는데, 생식기 염증·중증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임신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br/><br/><br/><br/> ■ 약물치료 자궁근종은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자란다. 폐경이 되면 새로 자궁근종이 거의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이런 호르몬 분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약물치료는 폐경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 원리인데, 한달에 한번 약물 주사를 맞는다. 보통 2~3번 정도 맞으면 자궁근종은 그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 치료를 받으면 첫달에는 생리(월경)를 하지만, 두세번째 달에는 생리를 하지 않게 된다. 또 얼굴이 화끈거리는 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6번 이상 주사를 맞으면 골다공증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약물치료를 한 뒤에도 자궁근종이 재발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궁출혈로 빈혈이 심한 경우나 폐경기가 가까운 여성, 다른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br/><br/> 약물치료 외에도 황체호르몬을 분비해 자궁근종의 성장을 억제하는 자궁내 장치(루프)도 있다. 황체호르몬을 5년 동안 서서히 분비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자궁근종은 물론 자궁내막이 증식되는 자궁내막증을 막는 효과도 있다. 또 주사로 맞는 치료와는 달리 전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 도움말: 김성훈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이인호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 조필제 청담산부인과 원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txt

제목: “면역력 활성화한 신약췌장암 전이 억제효과”  
날짜: 20160907  
기자: 조일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07223952478  
본문: 우리 몸의 면역력을 활성화해 암을 퇴치하는 의약품이 임상실험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여 주목된다. 영국 런던대학교 세인트조지 의대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면역치료 신약 실험을 한 결과, 1년 뒤 암이 진전된 환자는 불과 18%, 5년 뒤에는 4%까지 떨어졌다. 이번 실험 결과는 영국의 암 전문지 최신호에 발표됐다고 영국 이 6일 보도했다. <br/><br/> ‘IMM-101’로 명명된 이 신약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 종양 세포를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원리다. 현재의 암 치료법이 다른 건강한 세포들까지 파괴하는 것과 달리, 이 신약은 치료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우리 몸은 병원균이 침투하거나 암세포가 생기면 면역 세포인 ‘T-세포’가 이를 식별해 제거하는 자기치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암세포는 자신을 정상 세포로 위장하거나 T-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그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면역체크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특히 췌장암은 전이가 빠르고 치료가 까다로워 주요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가장 낮다.<br/><br/> 기존 면역치료제인 ‘체크포인트 반응 억제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죽이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이번 신약은 무력화된 면역 기능을 ‘잠에서 깨워’ 암세포를 잡는 생체친화적 방식이다. 연구팀을 이끈 앵거스 덜글리시 박사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췌장암을 면역치료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br/><br/>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txt

제목: [세상 읽기] 모든 것의 ‘의료화’, 트럼프와 사드의 경우 / 김창엽  
날짜: 2016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07184851123  
본문: 김창엽 <br/>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br/><br/> 첫째 사례. 8월24일 의 김남일 기자가 쓴 글에서 따왔다. “입만 열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능력, 자기 당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억지… 미국에서는 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트럼프가 아홉 가지 기준에 따른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의심된다며….”<br/><br/> 막말과 기행을 일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 혹시 ‘비정상’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미국정신의학회가 윤리적 이유를 들어 개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반대했다지만, 또 누가 알겠는가, 경쟁이 심해지면 어디선가 감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상대방은 그러자고 덜컥 받아들일지.<br/><br/> 과연 정신감정을 할 것인지,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따위는 먼 나라 구경꾼의 호기심이라 치자. 내가 가진 관심은 ‘정상성’의 위기를 만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곤혹스러움과 사회의 대응 방식이다. 트럼프가 비정상이라고? 그럼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클린턴 지지자에 버금가는 다수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혼란스럽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국의 정치는 비정상을 판별하는 데 실패(또는 포기)했고, 그 책임을 의학으로 미루고자 한다. 정치적 정상성이 의학적 정상성으로 전화하는(그리고 환원되는), 말하자면 정치의 ‘의료화’.<br/><br/> 둘째 사례. 새누리당이 며칠 전 대구에서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 토론회를 열었다. “<span class='quot0'>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군이 설정한 안전 펜스 밖에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span>”는 주장, 그리고 “<span class='quot0'>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만큼 건강상 유해하지 않다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데는 반대한다</span>”는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 건강이 주인 노릇을 한 보기 드문 토론회였다.<br/><br/> 마치 연극 무대와 같은 비현실성.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암이 생길까 걱정돼서가 아니다. 한국 땅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이 압도적 주장이지만, 새누리당 토론회는 다른 답을 했다. 안보와 평화체제의 본질을 묻는 말에 건강 유해성을 호출한 것이다. 모른 것이 아니라 의도한 것이리라. 건강과 질병이라는 이해관계는 정치공동체 전체에서 눈을 돌려 나와 우리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강력하다. 그렇다면 벌어진 일을 건강 문제가 된 사드 배치 또는 사드의 ‘의료화’라 불러야겠다.<br/><br/> 비슷한 말을 붙일 데가 여럿이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온 수산물, 밀양의 고압 송전탑,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 장시간 야간 근무와 비정규 노동, 그리고 가난도 포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가족들은 특히 잊을 수 없다. 이 모든 곳에서 건강과 질병이 기준이 되는, 농후한 의료화의 기운을 읽는다. 고혈압이나 중풍, 암, 우울증으로 진단받기 전에는 위험과 고통은 자격 미달이다.<br/><br/> 의료화가 꼭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처럼 때로 교묘한 아픔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은 것일 터. 하지만 순기능은 일부일 뿐, 유동하는 위험과 고통을 은폐하는 것이 더 큰 역할이다. 질병이 생기는 데에 ‘역치’가 있다면, 의료화는 그 이전의 삶 또는 그 이하의 고통을 지워버린다. 폭발하기 전까지의 그 많고 오랜 상처와 고단함은 있었지만 없는 것,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br/><br/> 트럼프의 정신감정 결과는, 사드 전자파가 건강에 유해한 것은,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유족에게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가장 나중 결과다. 거기에 이르는 동안, 또 그 이전에 켜켜이 쌓이는 생명과 삶의 파괴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병이 나면 그때는 늦다는 말은 본디 이 뜻이리라. 그러니 드러나기 전의 삶을 의료에 미루지 말라.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txt

제목: 잠든 면역력 깨워 췌장암 치료한다  
날짜: 20160907  
기자: 조일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07163914475  
본문: 우리 몸의 면역력을 활성화해 암을 퇴치하는 의약품이 임상실험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여 주목된다. 영국 런던대학교 세인트조지 의대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면역치료 신약 실험을 한 결과, 1년 뒤 암이 진전된 환자는 불과 18%, 5년 뒤에는 4%까지 떨어졌다. 이번 실험 결과는 영국의 암 전문지 최신호에 발표됐다고 영국 이 6일 보도했다. <br/><br/> ‘IMM­-101’로 명명된 이 신약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 종양 세포를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원리다. 현재의 암 치료법이 다른 건강한 세포들까지 파괴하는 것과 달리, 이 신약은 치료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br/><br/> 우리 몸은 병원균이 침투하거나 암세포가 생기면 면역 세포인 ‘T-세포’가 이를 식별해 제거하는 자기치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암세포는 자신을 정상세포로 위장하거나 T-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그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면역체크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특히 췌장암은 전이가 빠르고 치료가 까다로워 주요 암 중에서도 생존률이 가장 낮다.<br/><br/> 기존 면역치료제인 ‘체크포인트 반응 억제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 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이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이번 신약은 무력화된 면역 기능을 ‘잠에서 깨워’ 암세포를 잡는 생체친화적 방식이다. 연구팀을 이끈 앵거스 덜글리시 박사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췌장암을 면역치료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br/><br/>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txt

제목: 근대로 가는 길을 놓친 뒤에야 다산을 알았네  
날짜: 20160902  
기자: 김종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02192926026  
본문: ▶ 다산 정약용과 그의 형 손암 정약전은 사회 변화와 개혁을 고민하고 모색했던 조선 후기 지식인이었다. 조선을 지배했던 주자학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학문을 추구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아 전남 강진과 흑산도에서 긴 유배생활을 했다. 고난 속에서도 실사구시를 실천했으며, 사회개혁안을 담은 경세서를 썼다. 그러나 형제가 집대성했던 실학은 당시의 집권세력 등 사회 주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두 형제의 유배지를 찾아 그들의 꿈은 좌절되고 조선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데 실패했던 아픈 과거를 떠올려봤다.<br/><br/><br/><br/> 괜히 난바다가 아니었다. 방파제처럼 목포 앞바다를 둘러싼 비금도와 도초도를 지나자마자, 양처럼 잔잔했던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황소로 변했다. 바람이 거의 없는데도 거친 파도가 뱃전을 때렸다. 처음에는 놀이기구를 탄 듯 신나는 함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이내 선내는 조용해졌다. 검은 봉지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는 이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br/><br/> 뭍에서 온 자들에게 바다의 쓴맛을 보여준 뒤에야 흑산도는 모습을 드러냈다. 잠깐의 뱃멀미는 200여년 전 손암 정약전(1758~1816년)이 겪었을 고통을 상기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쾌속선으로 목포에서 두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조선시대 뱃길로는 보름에서 한달이 걸렸다. 함께 간 다산 정약용(1762~1836)의 7대 종손인 정호영(58·EBS정책기획센터장)씨는 “이렇게 빠르고 큰 배로도 힘든데 당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손암 선생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왔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br/><br/>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가 주관하는 ‘2016 실학기행’ 답사단은 지난달 26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도착했다. 일행은 다산의 형인 손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사리 마을부터 찾았다. 사리는 흑산도에서도 가장 외진 동네다. 흑산항이 있는 예리나 번화한 진리의 반대편이다.<br/><br/> 손암이 기거하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복성재(復性齋)는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정확한 위치인지 알 길이 없지만, 복원한 복성재의 초가지붕은 예전의 마을 모습을 짐작하게 해줬다. 복성재 처마 밑에 걸린 ‘사촌서당’(沙村書堂)이라고 쓴 현판도 반가웠다. 손암과 다산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사촌서실이라는 단어가 여러차례 나온다.<br/><br/> “정약전, 약종, 약용 등 다산 3형제는 조선의 3대 천재였어요. 시대를 앞서간 학자들이었지요. 또, 손암과 다산은 눈물겨울 정도로 형제간 우애가 좋았어요..” 박석무 이사장의 목소리가 복성재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br/><br/> <br/><br/> 외국서도 인정한 다산의 근대성<br/><br/> 그랬다. 다산 형제는 근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던 조선의 몇 안 되는 지식인이었다. 천주교와 서학 등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으며, 꽉 막혀 시대적 역할을 다한 주자학 대신 실사구시의 학문을 추구했다. 다산의 근대성은 외국에서도 인정한다. 동시대 중국과 일본의 학문과 다산의 저작을 비교 연구한 대만대학의 차이전펑 교수는 최근 저서(‘다산의 사서학: 동아시아의 관점에서’)에서 “<span class='quot0'>다산의 사서학은 근대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span>”고 말했다.<br/><br/> 손암과 다산은 계몽군주 정조가 아끼는 신진 학자였다. 똑똑한 젊은 학자들로만 구성한 일종의 싱크탱크인 초계문신에 둘 다 뽑혔다. 그러나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숨지면서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형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천주교를 한때 믿었다는 죄목으로 1801년(신유박해) 손암은 전라도 신지도로, 다산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당했다. 천주교를 고수했던 약종은 아들들과 함께 사형당했다. 권력을 잡은 노론 벽파가 정조가 발탁했던 남인을 몰아내기 위해 벌인 정치적 박해 성격이 강했다. 형제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다. 이해 10월 황사영이 천주교 박해 실상을 알리고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요청하는 서신(황사영 백서)을 중국의 천주교 신부에게 보내려다가 붙잡히면서 형제는 다시 서울로 끌려와 국문을 받았다. 황사영은 다산의 큰형인 약현의 맏사위였다. 황사영 백서와 관계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정치적으로 미운털이 박힌 형제는 흑산도와 강진으로 쫓겨갔다.<br/><br/> 손암은 처음에는 소흑산도로 불리는 우이도에 정착했다가 1807년 흑산도로 거처를 옮겼다. 좁은 우이도보다는 넓은 흑산도가 그래도 양식을 구해 살아가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손암은 다산보다 성격이 활달하고 봉건질서에도 덜 얽매였던 듯하다. 다산이 쓴 손암의 묘지명에는 “공(정약전)이 바다 가운데 들어온 때부터는 더욱 술을 많이 마셨는데 상스러운 어부들이나 천한 사람들과 패거리가 되어 친하게 지냈다. 귀한 신분으로서 교만 같은 것을 부리지 않았다”고 표현돼 있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손암의 생활 속의 진보가 불후의 명작인 (玆山魚譜)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다는 뜻의 글자(玆)를 ‘자’라고 읽을지 ‘현’이라고 부를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이번 답사에서도 정명현 임원경제연구소장은 자산어보론을 주장했으나, 박 이사장은 현산어보론을 지지했다. 이에 중·고교 교과서에 기록된 대로 자산어보로 적는다.) 물고기들의 습성과 쓰임새 등에 관한 자세한 관찰 내용의 대부분은 흑산 주민인 장창대(일명 장덕순)한테서 얻었다. 1814년 우이도로 이사가려던 손암을 주민들이 쫓아가서 붙잡아올 정도로 그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다산이 곧 유배에서 해제되면 나를 찾아올 텐데 동생을 이곳까지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하소연한 뒤에야 겨우 우이도로 나갈 수 있었다.<br/><br/> 손암이 자주 찾았을 흑산도 주변 바다는 맑고 깨끗했다. 원래 섬에 자라는 동백과 후박나무가 멀리서 보면 검푸른색이어서 흑산으로 불렸다는 게 정설인데도, 섬을 일주하는 배의 선장은 푸르다 못해 검은색을 띤 바다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러면 어떤가. 자산어보에 나오는 226종의 바다 생명이나 만나고 싶었다. 흑산도의 명물인 홍어나 전복, 조기는 안 보이고, “머리와 꼬리가 없다. 얼굴도 눈도 없다. 몸은 연하게 엉켜 있어 타락죽과 같고, 모양은 중이 삿갓을 쓴 것과 같다”고 손암이 묘사한 해파리만 눈에 띄었다.<br/><br/>주자학 굴레 벗어나려 고민한 <br/> 손암 정약전 다산 정약용 형제 <br/>정치 박해로 흑산도·강진 유배 <br/> 무지렁이들과 잘 어울렸던 손암 <br/> 불후의 명작 ‘자산어보’ 남겨<br/><br/> 다산은 아전 자식 제자로 받아 <br/> 조선후기 최고의 시인으로 키워 <br/> 경세유표, 목민심서에 담긴 지혜 <br/> 다산 사후 100년 뒤에야 빛봐 <br/> 생각 다양성 막은 조선 이미 패망 <br/><br/> <br/><br/> 다산의 학문적 스승이었던 손암<br/><br/> 건널 수 없는 바다를 사이에 뒀지만, 학문적 동지로서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다산은 공부하다가 막히거나 책을 쓸 때는 손암의 의견을 묻거나 점검받았다. 다산이 쓴 음악이론서 ‘악서고존’(樂書孤存)을 본 손암이 몇가지 논평을 하자, 다산은 곰곰이 생각한 뒤 “<span class='quot1'>지난번 원고를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공(손암)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다.</span>” 손암의 자산어보는 반대로 다산이 자신의 제자 이청에게 이론적 지식을 보완하게 해서 완성했다. 다산은 이런 손암을 “유일한 지기”라고 표현했다.<br/><br/> 일년에 한두차례 오가는 고깃배에 부치는 편지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었다. 한번은 살생을 금하는 바닷가 풍습 탓에 육고기를 못 먹어 피골이 상접했다는 손암의 소식을 들었다. 다산은 산에 돌아다니는 개라도 잡아서 드시라면서 형님에게 개를 포획하는 방법과 조리법을 자세하게 적어 보냈다. 박제가가 알려준 레시피였다. 그러고 보면 실학자들이야말로 요리하는 남자의 원조인 듯하다.<br/><br/> 손암은 우이도에서 동생을 기다리며 2년여를 더 살았다. 거기서는 배가 표류하는 바람에 3년 동안 오키나와와 필리핀, 중국을 떠돌았던 홍어장수 문순득을 만났다. 그가 겪은 이국의 모습을 ‘표해시말’(漂海始末)에 기록했다. 19세기 초 동아시아 문화사와 교류에 관한 소중한 자료다. 손암은 1816년 58살의 나이로 그리던 동생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올해가 타계 200주년이다.<br/><br/> 27일 흑산도를 나온 일행은 다산의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 강진으로 갔다. 강진 시내에 있는 사의재(四宜齋)부터 찾았다. 1801년 겨울 중죄인 다산이 도착하자, “<span class='quot1'>가는 곳마다 문을 부수고 담장을 무너뜨리고 달아나는</span>” 등 사람들의 박대가 심했다. 그때 동문 밖 샘터 옆에서 밥을 팔던 주막집 노파가 다산에게 방 한 칸을 내줬다. 다산은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무겁게, 행동은 신중하게’ 하자는 뜻에서 방문 위에 사의재라고 쓴 현판을 달았다. 4년간 사의재에 머물 때 다산은 아전의 아이들을 기꺼이 제자로 받아들였다. 조선 후기 최고의 시인 중 하나였던 황상, 다산의 저작을 도왔던 이청 등이 그들이다. 사의재 주변에는 저잣거리 조성 등 공원화 사업이 한창이어서 요란하긴 해도 민초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br/><br/>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의 야산 중턱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다산이 1808년부터 유배생활이 끝나는 1818년까지 10년간 거처했던 곳이다. 초가가 아니라 기와로 복원한 탓에 소박한 느낌은 없지만, 눈 감고 가만히 귀 기울이니 다산초당에서는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또 다산이 기거했던 동암의 방에서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 실학을 집대성한 책을 쓰는 다산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그가 ‘정석’(丁石)이라고 새긴 집 뒤쪽 바위, 차를 마시던 초당 마당의 평평한 돌(다조), 차 끓일 때 썼던 샘(약천), 잉어를 길렀던 연못, 혜장선사를 만나러 다녔을 백련사로 가는 산길에서도 다산의 숨결이 전해져오는 듯했다.<br/><br/> <br/><br/> “<span class='quot2'>다산초당의 계단 밭 복원해야</span>”<br/><br/> 다산은 글로만 실학을 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 그는 연못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 초당 아래에 계단밭을 일궜다. 밭에는 무, 부추, 상추, 미나리 등을 직접 심어서 내다팔기까지 했다. 17년간의 유배가 끝났을 때 강진에는 다산이 소유한 농토 열여덟마지기가 있었을 정도로 생활력도 강했다. 고향인 남양주 마재에 있는 아들들에게도 “시골에 살면서 원포를 가꾸지 않으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보리농사와 마늘과 파 심기를 권했다. 맏아들 학연은 마늘 판 돈으로 여비를 마련해 아버지를 만나러 오기도 했다. “초당 아래의 계단밭이 흔적도 없어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밭을 복원해서 다산이 실사구시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박 이사장의 말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br/><br/> 다산은 강진에서 제자들과 유지들의 도움으로 생활이 안정된 뒤에도 서울에서 기별이 올 때마다 혹시 사약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 또, 막내아들(농아)과 그가 아꼈던 조카 학초(손암의 아들), 그리고 형님 손암의 죽음을 유배지에서 들어야 했다. 이러한 고난의 삶 속에서도 다산은 나라의 제도개혁 방안(경세유표), 공직자의 자세(목민심서) 등에 대한 책을 짓거나 초고를 완성했다. 유배를 마치고 강진을 떠날 때 책이 수레 하나에 가득 싣고도 넘쳤다. 정호영씨는 “<span class='quot3'>다산 선생의 공부는 나만을 위하거나 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span>”라고 말했다.<br/><br/> 다산 형제가 살았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서구사회는 이미 산업혁명과 정치혁명(1776년 미국 독립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쳐 근대사회로 치닫던 시기였다. 하지만 은둔의 나라 조선의 주류는 새로운 사회를 상상했던 다산 형제를 철저하게 내치고는 외면했다. 혜안을 가진 다산의 저작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뒤(1936)에야 출간됐다. 이미 책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은 다했으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뒤였다. 김태희 다산연구소장은 “다산에 대한 정치적 복권도 망국 직전에야 이뤄졌지요. 그의 저작들이 제때에 널리 읽혔더라면 조선의 운명도 달라졌을지도 모르죠”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br/><br/> 21세기 대한민국의 사회나 학계는 어떤가, 사상적 편협함이 없으며, 학문적 개방성은 충분한가. 상경길 버스 속에서 꼬리를 무는 질문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박석무)와 ‘삶을 바꾼 만남-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정민)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덕일) ‘현산어보를 찾아서’(이태원) 등을 참고했습니다.) <br/><br/> 흑산도·강진/글·사진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txt

제목: 확 바뀐 경고문구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날짜: 2016090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02110815413  
본문: 1995년 이후 21년만에 바뀐 음주 경고 문구가 3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문구는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태아의 기형 등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br/><br/>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 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 시행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주류 용기에 음주가 임신부 및 태아에게 미치는 건강 위협을 담은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고 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총 3가지다. 주류회사는 3가지 경고 문구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주류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txt

제목: ‘입으로 숨 쉬는’ 돌고래 뉴질랜드에서 발견  
날짜: 2016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902060950650  
본문: ‘입으로 숨 쉬는 돌고래’가 발견됐다. 돌고래는 원래 수면 위로 뛰는 찰나에 머리 뒤에 있는 숨구멍인 ‘분수공’(분기공)으로 숨을 쉰다. <br/><br/> 뉴질랜드 오타고대학의 스티븐 도슨 박사 등 연구팀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인근의 고들리 곶에서 뉴질랜드에서만 사는 멸종위기종인 ‘헥터돌고래’ 모니터링 중에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다. 수면 위로 뛰는 돌고래의 분수공은 닫혀있는데, 입은 벌리고 있는 장면이었다. 2015년 12월30일 49분 동안 38차례 수면 위로 뛰는 행동에서, 이 돌고래는 분수공은 꽉 닫은 채 입은 3~8센티미터 여는 행동을 보였다. 분수공 주변에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다른 돌고래에서 자주 보이는 정도의 흔적이었다. <br/><br/> 그동안 돌고래는 호흡기와 식도가 분리돼 있어서 호흡기가 연결된 분수공을 통해서만 숨을 쉰다고 알려져 왔다. 사람처럼 사레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구팀이 이 돌고래를 관찰한 동영상을 보면, 돌고래는 물 위에 올라올 때마다 입을 벌린다. 돌고래가 입으로 숨을 쉬는 장면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br/><br/> 이 돌고래는 왜 입으로 숨을 쉬고 있었을까? 이렇게 하려면 돌고래가 기관 내의 후두부를 움직여야 한다. 스티븐 도슨 박사는 커다란 이물질을 식도에서 꺼내는 수술을 할 때 돌고래가 입으로 숨쉬는 경우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분수공 통로의 장애로 인해 돌고래가 숨을 쉬는 다른 방법을 개발한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입으로 거품을 만드는 행동도 수족관 돌고래에서 관찰된 바 있어, 돌고래가 후두부를 움직이면 입에 공기의 통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연구팀은 소개했다. 이 돌고래의 경우 분수공을 여닫는 근육을 다쳤거나, 암이나 종양, 인두 근육의 이상, 분수공 주변 기관의 폐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추정했다.<br/><br/> 연구팀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 이 같은 행동을 포착했다며, 학술지인 최신호에 연구 결과를 실었다. 사진 분석 결과, 이 가운데 3차례는 적어도 이 돌고래와 같은 돌고래였다. 현재까지로는 신체 장애에 맞닥뜨린 돌고래가 대체 수단으로서 입을 호흡기관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헥토돌고래를 비롯해 돌고래의 호흡기, 식도 구조는 똑같아 이렇게 호흡하는 돌고래가 추가로 존재할 개연성도 있다. <br/><br/> 뉴질랜드돌고래라고도 불리는 헥터돌고래는 뉴질랜드 연안 수심 100미터 미만에서만 발견되는 참돌고래과 동물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의 멸종위기종(EN)으로 등록돼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br/><br/> 스티븐 도슨 박사 연구팀의 동영상을 영국 과학전문지 가 편집한 유튜브 동영상.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txt

제목: [김병익 칼럼] 엑스트라의 얼굴들  
날짜: 2016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25191906583  
본문: 김병익 <br/> 문학평론가<br/><br/> 그들은 떼를 지어 죽는 역할만 할 엑스트라들이기에 그들의 존재감은 무시될 정도였으며 거기에 어울리게 말도 없고 연기도 아닌, 대부분 어색한 모습들이었다. 그런데 그 엑스트라들의 무심한 얼굴들이 뜻밖에 앳되고 천진한, 그래서 오히려 더욱 싱싱한 표정들로 확대되어 다가왔다.<br/><br/> 알파고의 여진으로 그 방면 책 두어권 더 읽고 나서 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멈추었다. (피터 노왁)과 (클라우스 슈밥)의 세상은 다가오는 중이겠지만, 내가 바라지 않는, 적어도 내 생애 이후에나 오기를 바라는 세계이고 그 세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곤혹스러웠기 때문이다. 피터 노왁이 인용한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많은 것을 제거했지만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말에서 편안을 대가로 행복을 단념해야 하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비평가 김주연이 호그와트의 환상과 알파고의 인공지능을 보며 “환상과 기계는, 말하자면, 새로운 리얼리즘이다”()라고 문학에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그 새 현실주의에의 이질감을 버리지 못한 때문이다. 어차피 나는 ‘보수꼴통’이어서 내 주책없는 돈키호테식 독서를 버리고 ‘현재진행의 미래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했다.<br/><br/> 그 미래 대신 든 것이 거꾸로 관중의 였다. 읽은 게 아니라 디브이디로 보았다. 28장의 중국제 화면은 밝지 않았고 자막의 고유명사들은 우리가 익힌 한자 아닌 중국어 발음이어서 줄거리를 자주 놓치기도 했지만 소년 시절에 읽은 삼국지의 기억에 맞추어 무불통지한 제갈공명의 전략에 다시 감탄하며 몇 주의 밤을 즐겼다. 한 장에 두 시간짜리 그 디브이디에서 나는 “이 디지털 시대에 누가 톨스토이의 같은 대서사를 읽을 것인가”라던 미국 지식인의 말을 겸연쩍게 씹으면서, 그러나 책에서 볼 수 없었던 뜻밖의 실감나는 장면에 신선감을 느꼈다. 소설이라면 가령 적벽에서 조조가 몇만명의 병력을 잃었다는 숫자로 넘겼을 대목의 화면에서 나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의 살아 있는 얼굴들을 보았던 것이다. 화살과 창으로, 불길과 물살로 곧 목숨을 잃을 그들은 말과 연기가 필요하지 않고 떼를 지어 죽는 역할만 할 엑스트라들이기에 그들의 존재감은 무시될 정도였으며 거기에 어울리게 말도 없고 연기도 아닌, 대부분 어색한 모습들이었다. 그런데 그 엑스트라들의 무심한 얼굴들이 뜻밖에 앳되고 천진한, 그래서 오히려 더욱 싱싱한 표정들로 확대되어 다가온 것이다.<br/><br/> 영화 속의 장면에서나 역사의 실제에서나, 그들은 분명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이름이나 개성은 필요 없는, 숫자 속의 하나로 포함시켜도 그만일 존재감 없는 인간들이었다.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지워질 그 클로즈업된 얼굴들은, 그런데 내게 오히려 그 숱한 무명인들의 ‘유구한 역사’들을 새삼 실감시켰다. 이 민중들에 의해 역사가 이루어졌으리라, 그들의 삶과 죽음이 거대한 역사의 덩어리를 쌓았으리라. 이름 없는 그 모두는 얼마나 애틋한 사연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을까. 그 숱한 사람들이 지녔을 뜻밖의 그 존재감을 김경욱의 에서 다시 확인했다. ‘묻지 마 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이 장편은 1982년 경남 의령의 한 경관에게 피살된 55명의 주민들이 이유 없이 목숨을 잃기까지 그들 나름의 아기자기한 삶의 생기를 피우고 있었다. 그 발랄한 생애들이 이렇게 덧없이 무고한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밀려나 역사에서 잊힌 ‘장삼이사의 잉여인간’으로 실종되고 말았구나. 그 냉혹한 사실이 참으로 억울했다.<br/><br/> 이 울울해진 판에 유종호의 를 보았다. 저자가 소년 시절에 겪은 66년 전의 한국전쟁기 회고였다. 이 책을 유심히 본 것은 나와 비슷한 세대로 같은 충청도의 지방도시에서 골육상쟁의 전쟁을 어떻게 겪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란을 당한 자리와 사정에 따라 6·25는 매우 다르게 치르게 될 것이지만, 당시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주먹 쥐고 추파를 던지며 무섭게 달려든다는 느낌”을 가진 그와 나의 차이는 세 살 차이 이상으로 뜻밖에 컸다. 그는 중학생이었고 생활에 대한 약간의 책임감과 강제입대당할 우려를 지고 있었지만 나는 책임질 것 없는 막내며 초등생이었다. 모두가 공포와 궁핍으로 겪은 가장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그 시절을 내가 낭만적으로 회상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사실이 그랬다. 그해 7월, 반동도 부역도 할 겨를 없는 자영업자인 부모님의 다행한 결정으로 우리는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큰누님을 바라 일찍 부산행 기차를 탔고 덕분에 공습도 전투도 못 보고 인민군가도 모르는 대신, 초량 언덕바지 셋방에서 창밖으로 낮에는 멀리 오륙도가 점점이 찍힌 수평선을 바라보고 밤에는 참전국 선박들의 아름다운 선등으로 환상적인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 대가를 치르듯이, 전쟁에 큰형님이 전사한 것은 2년 반 후였고 내 낭만적인 회상에 책임 없는 자책감으로 함부로 말 못할 멍자국이 찍힌 사건은 10여년 후에 겪는다.<br/><br/> 전방의 군단사령부 공보실 사병으로 근무하는 중 6·25 몇주년 특집 취재차 일본 신문 기자 두엇이 방문했다. 최전방을 보지 못한 나는 이참에 ‘구경’ 삼아 따라갔고 오피(OP·전방관측소)에서 멀리 남방한계선 너머의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 저쪽 땅의 산과 들판에도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것을 아득한 마음으로 눈 속에 담으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안타까운 경외감을 실감하고 귀대하는 지프차 라디오에서 “포 사격훈련장 인근 주민 여럿이 때아닌 실제 사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들었다.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일본 기자들을 위해 이미 끝난 훈련이 다시 실시되었고 금지된 탄피 수집에 나선 주민들이 이 과외의 사격으로 희생된 것이다. 이 참담한 뉴스에 대해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감히 할 수 없었다.<br/><br/> 한 해 후, 수습기자로 경찰서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어느 오후 나는 서울 부암동 어느 집에 가서 사진을 구해 오라는 데스크 지시를 받았다. 겨우 찾아 들어간 한옥의 그 댁 마루에서 아주머니 몇 분이 뭔가를 나눠 보며 즐거운 목소리들로 수선스러웠다. 그 밝은 자리에 슬며시 끼어들며 보니, 하필 막 배달된 아들의 편지와 사진들을 읽고 보는 중이었다. 내가 사진 두어장을 주머니에 챙기자 누구냐,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나는 움츠러든 개미 목소리로 “월남파병 국군의 첫 전사자…”라고 채 맺지 못한 말로 뺑소니치면서 그 어머니이지 싶은 분이 댓바람으로 마당으로 몸을 던지며 통곡을 터트리는 장면을 등 뒤로 보았다. 몇 주 후 유가족에게 그 사진을 돌려드릴 때 나는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의 뜻을 드릴 수 없었다.<br/><br/> 맏아들 발터는 수용소행을 피해 피레네 산맥을 넘다가 다량의 모르핀을 먹고 자살했고, 아우 게오르크는 빈민가 의사로 봉사하다 수용소 철망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여동생 도라는 뛰어난 사회학자였지만 스위스에서 청소부로 일하다가 암으로 죽은, 유태인 세 남매가 40대로 수명을 다했던 을 추적한 헤예는 예술철학자 발터의 말을 인용한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억은 유명한 사람들의 기억보다 존중받기 어렵다. 그러나 역사의 구조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억들에 바쳐진다.” 포 사격장 주민들, 월남전의 첫 전사자를 회상하며 든 내 무력한 자책감은 구의역의 젊은 노동자, 정희진이 지목하는 ‘전단지 돌리는 사람’ 등 “개돼지”로 취급당하며 그 존재감이 찢기고 있는 오늘의 숱한 루저들과 엑스트라들 얼굴로 번지며, 그분들과 그분들이 일군 역사에, 아무 말 못 드리고 기억의 무모한 부끄러움만 바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txt

제목: 암선고 받고 미국 횡단 여행에 나선 할머니의 ‘위대한 1년’  
날짜: 20160825  
기자: 황금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25110816800  
본문: 자궁암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대신 미국 대륙 자동차 횡단 여행을 선택한 91살 할머니의 여행이 24일로 1주년을 맞았다. 미국 등 외신은 아들 내외와 함께 미국 대륙 곳곳을 여행하고 있는 노마 바우어슈미트(91) 할머니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각) 전했다. <br/><br/> 노마 할머니는 지난해 8월24일 아들인 팀 바우어슈미트와 며느리 래미 리들, 그리고 애완견인 링고와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 자궁암 진단을 받은 지 5주만에 내린 선택이었다. 자궁암 진단을 받고 2주 뒤엔 남편인 레오 바우어슈미트도 세상을 떠났다. 노마 할머니는 남은 여생을 치료에 전념하기보다, 자동차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br/><br/> 노마 할머니와 가족들은 지난 1년간 미국 32개주, 75개 도시 곳곳을 방문했다. 주행 거리는 약 2만1000km에 달한다. 시간변경선을 넘나든 것만 9차례다.<br/><br/> 여행을 시작하면서 노마 할머니는 일약 스타가 됐다. 아들 내외가 노마 할머니의 사진을 올리기 위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인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는 약 42만명의 팬들이 팔로우하고 있다.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자 미 해군, 미프로농구(NBA) 애틀랜타 호크스 팀을 비롯해 미국 전역의 많은 단체에서도 초대도 받았다. 매일같이 들어오는 초대에 응대를 다 하지 못할 정도다.<br/><br/> 노마 할머니는 지난 1년간 여행을 하면서 배려와 사랑, ‘지금 이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다면서, ‘지금까지 여행에서 어디가 가장 좋았냐’라는 질문에 항상 “바로 이곳”이라고 답한다.<br/><br/> 할머니의 가족들도 여행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대한 대화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전했다. 며느리인 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면서도, “우리의 이야기가 그 대화를 시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전했다.<br/><br/> 자궁암 진단을 받고 시작한 여행이지만, 가족들은 노마 할머니가 지난 1년간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병원도 1년 전 자궁암 첫 진단을 받은 뒤로 방문한 적이 없다. 리들은 “할머니는 여행 내내 꼭 자신의 나이에 맞게 지냈다”며 “가끔씩은 피곤해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는게 어떻냐는 말에 할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다”고 했다. 가족들은 필요하다면 의료진을 여행에 합류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노마 할머니는 인위적인 생명 유지 장치를 원하지 않는다.<br/><br/> 노마 할머니와 가족들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은 ‘견디기 힘든 날씨를 피해, 원하는 곳으로 떠나기’ 뿐이다. 여행은 노마 할머니의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br/><br/>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txt

제목: 정윤회 문건 ‘항명 사퇴’ 김영한 전 민정수석 사망  
날짜: 20160824  
기자: 김지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24202903532  
본문: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으로 ‘항명 사퇴’를 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59.<br/><br/>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김 전 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3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암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평소 암을 앓고 있었으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알리지 않다가 임종 직전 “<span class='quot0'>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span>”고 유언을 남겼다고 바른은 밝혔다. 그의 장례는 23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br/><br/>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끝까지 거부해 파문을 일으킨 뒤 사퇴했다. 김 수석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이후에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을 지휘해, 야당에선 그에게 강압 조사 여부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그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함께 출석 대상으로 지목됐던 정호성 1부속실장과 안봉근 2부속비서관 등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데 대한 ‘항명’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사실상 이끌었던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그의 사퇴 이후 민정수석비서관 자리에 올랐다. <br/><br/> 김 전 수석은 경북 의성에서 출생해 경북고를 나온 정통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 2과장을 지낸 ‘공안통’이다. 수원지검장과 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고, 민정수석을 마친 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대구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아내 변지은(54)씨와 딸 두 명이 있다. <br/><br/>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txt

제목: 폭염에 식중독·콜레라까지…음식물 ‘주의보’  
날짜: 2016082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24173856024  
본문: 찌는 듯한 무더위의 여파로 콜레라와 집단 식중독 등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br/><br/> 24일 현재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은 약 800여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예년에도 여름방학 직후 개학철에 식중독 사고는 많았지만, 올해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음식이 빨리 상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2011~2015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217건 가운데 월별로는 9월과 5월에 31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방학 기간이 포함된 8월에도 21건이 발생해 주로 여름방학 뒤 개학철에 학교 식중독 사고가 많았다. 식약처는 새달 9일까지 전국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br/><br/> 학교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우선 급식 공급자가 유의할 점이 많은데, 급식 환경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고, 설사 증상이 있으면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경우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교육이 필요하다.<br/><br/>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물에 의해 옮기는 콜레라의 경우 수돗물 등의 보급으로 깨끗한 식수원이 공급되면서 2002년 이후로는 국내에서 집단 발병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하수를 쓰면서 이곳이 콜레라균에 오염돼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닷물 온도가 다소 높아져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어 감염될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1'>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되는 9월에도 콜레라 등에 걸릴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물과 음식물을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먹고 식사 전과 배변 뒤에는 철저히 손을 씻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br/> 지속되는 폭염으로 쌀, 옥수수, 땅콩 등에 곰팡이 독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곰팡이 독소는 아플라톡신, 파툴린, 푸모니신 등인데, 특히 아플라톡신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인 가열 및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곰팡이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2'>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하려면 습도는 60% 이하, 온도는 10~15도 이하에서 곡물을 보관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쌀이나 콩 등은 알갱이가 손상되면 내부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깨진 알갱이는 버리는 것이 좋다</span>”고 밝혔다. 또 쌀을 씻을 때 파란색 또는 검은색 물이 나오면 곰팡이 오염을 의심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txt

제목: 너무 더운 날씨에…쌀·옥수수·땅콩 ‘곰팡이 독소’ 주의보  
날짜: 2016082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24095821238  
본문: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되면서 쌀, 옥수수, 땅콩 등에 곰팡이 독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br/><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쌀 등 곡류나 콩류, 견과류 등에 곰팡이가 번식하면 아플라톡신, 파튤린, 푸모니신 등과 같은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많이 섭취하면 암 등 치명적인 질환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아플라톡신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인 가열 및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곰팡이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br/><br/> 식약처는 쌀이나 콩 등은 알갱이가 손상되면 내부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깨진 알갱이는 제거하도록 조언했다.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하려면 습도는 60% 이하, 온도는 10∼15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땅콩과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개봉한 뒤에 보관할 때에는 밀봉해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쌀을 씻을 때 파란색 또는 검은색 물이 나오면 곰팡이 오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곰팡이 독소는 열에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곰팡이가 생겼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또는 냄새가 변한 식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txt

제목: 전단지 돌리는 사람  
날짜: 201608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19204939114  
본문: , 복거일 지음, 문학과지성사, 1996<br/><br/> 지난 총선 즈음 관련 기사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은 3월쯤 에 김종엽이 쓴 “<span class='quot0'>총선 캠페인 하나를 제안합니다</span>”였다. 그의 요지는 택배 기사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일 이후로 온라인 구매를 미루자는 것이다. 작은 아이디어지만 큰 생각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감동받은 기억이 난다. 선한 마음이 낳은 상상력이다. 대개 상상력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br/><br/> 군대 문제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20년 전 출간된 복거일의 산문집 를 읽게 되었다. 그의 지성으로 왜 이런 글들을 쓸까 하는, 새삼스런 아쉬움이 없지 않았지만 매년 ‘비명(碑銘)을 찾아서’를 쓸 수 있는 작가는 없을 것이다. 내 인생 목표 중 하나는 복거일의 와 박상륭의 를 ‘완전정복’하는 일이다. ‘보수 논객’ 복거일에 대한 평가는 훌륭한 후대에 의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br/><br/> 나를 포함, 한때(?) 그는 많은 이들을 설레게 했다. “<span class='quot1'>내 마음은 늘 소수에게로 끌린다</span>”(작가 후기)는 그를 생각하며, 대한민국에도 ‘보수 사상가’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은 것이다. 예전에 한 매체에서 그를 보았는데 여전히 단정하였다. 두 가지 이야기가 그답다고 생각했다. “<span class='quot1'>세월호 선장의 ‘탈출’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선장이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면 자신은 인간에 대해 절망했을 것</span>” 그리고 현재 암 투병 중인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br/><br/> 이 책에 실린 다양한 이야기 중에 “혼잡한 거리에 문득 피는 꽃”(35~37쪽)이라는 전단지 돌리는 노동에 관한 글이 있다. 1920년대 서구 사회에서도 간판을 몸에 두른 ‘인간 광고판 샌드위치맨’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단지 돌리는 사람을 부러워했다고 한다. 임금은 같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전단지 받은 일의 귀찮음을 “<span class='quot2'>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덮였다</span>”는 서양 격언에 비유한다. 우리는 그 작은 선행조차 지옥인 세상에 살고 있다.<br/><br/> 우리 집에서 전철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재래시장과 상가가 메우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거만하게 말하면, 긴장과 짜증, 죄의식이 나를 괴롭힌다.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 때문이다. 아직도 현금 오만 원을 펄럭이며 신문 구독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전도, 창고 대개방 세일, 헬스클럽 광고, 음식점 개업…. 전단지를 빨리 없애야 그들의 노동도 일찍 끝날 텐데, 의외로 내게는 전단지를 주지 않는 사람도 꽤 있다. 두 손에 든 물건과 내 행색이 잠재 고객조차 될 수 없는 아줌마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기분은 나쁘지만 성실한 노동자다.<br/><br/> 쓰레기통이 없어서 주고받은 전단지가 바로 앞에서 뒹구는 민망함, 안 받으려고 걸음을 재촉할 때의 긴장, 내 갈 길을 방해한다는 피해의식이 들 때의 짜증, 전철역에 도착해서야 두 장씩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라는 뒤늦은 죄의식…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왜 사소한 일로 머리가 아픈가. 성격 탓까지. 전단지는 은근한 가시다.<br/><br/> 거리에서의 노동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단지 아르바이트와 피시(PC)방 밤샘 일은 저임금 알바 중 하나다. 가출한 이후 ‘원조교제’와 성산업에서(‘도’) 외면당한 10대 소녀를 상담한 적이 있다. 그녀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알바가 꿈이다. 나더러 길거리에서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수십 장을 그냥 버리고 싶은 유혹,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 춥고 더운 날씨의 어려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귀찮아한다는 비참함이 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다.<br/><br/> 상상력은 지구 밖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았던 곳을 생각하려는 마음이다. 전단지를 기꺼이 받아주는 작은 선행은, 그들의 노동 상황에 대한 큰 상상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span class='quot1'>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상력이다.</span>”(37쪽)<br/><br/>정희진 평화학 연구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txt

제목: 병든 서울서 늦게 핀 무죄를 보았네  
날짜: 201608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19191940588  
본문: 수선화　이광웅<br/><br/> 내 생애에서의 영원이란 <br/>그 해 봄 <br/>내게 머나먼 압록의 강물같이나 바라뵈던 복직이 <br/>명절같이나 찾아와 <br/>떠나야 했던 교직에 또 몸담아 살면서 <br/>귀여운 소년 소녀들에게 평화로이 우리 국어를 가르치던 <br/>그 학교 <br/>그 교정 <br/>그 화단 가운데 <br/>수선화 피인 <br/>갠 날이다.<br/><br/> 수선화같이 <br/>혀끝으로 봄을 핥으려는 <br/>꼭이나 수선화의 생리를 지니인 사람을 흠모하기 비롯한 <br/>그 해 봄 <br/> 그 갠 날이다. <br/> 내 생애에서의 영원이란 <br/> 달리 마련이나 있을 것이 아니어서…….<br/><br/> 빈 운동장 끝 <br/> 그 해 봄 <br/> 바람 많아 섧게도 꽃대 흔들려쌓는 <br/>한결 감옥에서 그리울, 한결 지옥에서 새로울…….<br/><br/> 수선화 피인 갠 날이다.<br/><br/> - 수록-<br/><br/><br/><br/><br/><br/><br/><br/> 대학 시절이었다. 1993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경희대에서 제1회 창작곡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 우연처럼 필연처럼 학과 선후배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했다. 농촌 봉사활동을 계기로 우리 과와 자매결연을 맺은 당진군의 농민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 문제로 대규모 상경 투쟁을 준비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약간의 활동비가 있으면 좋은 상황이었다. 대회의 상금은 솔깃한 유혹이었다. <br/><br/> 출전곡은 같은 과 친구의 자작곡이었다. 과외를 해주던 고등학생이 성적 비관으로 세상을 떠난 후 맘고생을 하며 만든 노래였기에 허투루 부를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결과를 말하자면, 우리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 다음이었다. 상금으로 맞춘 단체 티를 상경한 농민들과 함께 입고 청계천을 행진했다. <br/><br/> 대회 당일에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운 마음이었다. 전북 대표로 참가한 어느 선생님이 불렀던 ‘수선화’라는 노래 때문이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이광웅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그분의 시에 곡을 붙였다고 들었다. 낯익은 이름.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듣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더욱 믿기 어려웠다. <br/><br/> 그 두 해 전 전주에서 재수를 할 때, 100명의 학생들이 뒤엉킨 창고 같은 교실에서 이광웅 선생님을 뵈었다. 가을쯤 갑작스럽게 교단에 선 선생님의 문학 수업은 족집게 정리로 현란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마치 꼭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처럼 당신이 아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이어나갔다. 정지용의 ‘향수’를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과 함께 시인의 마을을 답사하는 기분이었다. 분명 재수생의 현실과 동떨어진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딴짓하는 학생들이 있긴 했는데, 누구도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선생님은 요양 중이라고 느껴질 만큼 작고 힘들어 보이셨지만 눈이 맑고 말씨가 정갈하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잊을 수가 없는 이름. 그분의 진면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재수생의 눈에도 범상치 않은 분이었다. 한 주에 한 번이 고작인 그분의 수업을 치유처럼 여행처럼 기다리는 낙으로 지리멸렬한 시간을 버텼다. <br/><br/> 노래 대회 후 선생님의 시집을 구해 읽었다. 군산 제일고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하던 1982년, 전형적인 용공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온갖 고문과 험한 옥살이를 겪었던 시대의 희생양. 그분의 죄목은 이적단체 ‘오송회’를 결성해 학생들에게 불온사상을 전파했다는 것이었다. 1987년 사면되어 복직되었으나 전교조 활동으로 다시 해직을 겪어야 했다. ‘수선화’는 사면 후 학교로 다시 돌아간 날의 평화로움과 그리움을 담은 시였다.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들이 드디어 무죄를 입증받은 건 2008년, 고문의 후유증과 암 투병으로 이미 세상과 작별한 선생님에게는 너무 늦은 소식이었다. <br/><br/> 지난해 전북 진안의 계남정미소를 개조해 공동체 박물관을 운영하는 김지연 관장이 평소 가장 마음이 통하는 분의 시집이라며 김영춘 시인의 을 선물했다. 시집을 들추다 ‘이광웅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라는 부제가 붙은 시 한 편을 발견했다. 선생님은 아직도 그렇게 불쑥 내 앞에 나타난다. 오송회 사건의 발단은 선생님이 필사본으로 지니고 있던 오장환의 시집 이었다. 동명의 시에서 오장환은 해방 직후 여전히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서울을 한탄한다. 선생님을 만난 건 25년 전이지만, 그 후 오히려 선생님과 조금씩 더 친해지는 기분이다. 여전히 오작동하는 병든 서울에서. <br/><br/>송수정 사진기획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txt

제목: [삶의 창] ‘우리나라 사람’, 코다를 만나다 / 이길보라  
날짜: 201608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19181926714  
본문: 이길보라 <br/>영화감독, 작가<br/><br/> 아빠는 농인 국제 교류에 관심이 많았다. 미국 농인이 세계 곳곳을 수어로 소개하는 내용의 비디오를 보며 외국의 농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건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빠는 한국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인이 아니라,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여겼다. 나라마다 사용하는 수어가 다르더라도 말이다.<br/><br/> 그런데 그건 나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었다. 영국의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 캠프에 들어서자 100명 남짓한 코다들이 우리를 반겼다. 우리는 영어와 영국 수어, 국제 수어와 한국 수어를 섞어 소통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지닌 코다였다.<br/><br/> 저녁 프로그램은 탤런트 쇼였다. 누가 영국 아니랄까 봐 해리 포터 분장을 한 아이가 있었고, 옆에는 헤르미온느도 있었다. 줄무늬 옷을 입은 월리도 있었고, 호나우두 가면을 쓴 소년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농인의 소리가 들렸다. ‘이 캠프에 농인이 있었나?’ 하고 쳐다보니 아까 음성언어를 사용하던 남학생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농인이 수어를 할 때 내는 소리를 냈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암 데프”(I’m Deaf)라고 말하며 검지와 중지를 펴 귀와 입에 댔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깔깔 웃으며 수어로 대답했다. 마치 농인들처럼 말이다. 당황한 우리가 지금 뭐하는 거냐고 묻자, 그는 탤런트 쇼에서 입을 옷을 가져오지 않아 ‘농인인 척’을 하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그 흉내가 얼굴 표정, 유창한 수어, 문장의 내용, 발음까지 어디 하나 어색한 곳이 없었다. 놀라웠던 것은 아무도 그 행위를 장애인 ‘조롱’이나 ‘비하’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역할 놀이’였다. 친구와 대화하다 갑자기 부모를 흉내 내고 농인인 척하는 일. 그것을 나쁜 의미의 ‘장애인 흉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누군가를 흉내 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br/><br/> 나도 종종 부모의 흉내를 낸다. 아빠가 나를 혼낼 때 쓰는 “뻡!”이라는 소리를 가성을 섞어 내고, 농인이 주로 사용하는 문장을 따라한다. 하지만 오로지 동생과 나 사이에서만 가능했다. 부모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역할 놀이’인 것이다.<br/><br/> 캠프 이후, 코다 언니와 런던의 거리를 걸었다. 우리는 수어가 모어고, 두 번째로 음성언어를 배운 이중 언어 사용자였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언니에게 손을 흔들어 수어로 말했다. 또한 음성언어로 긴 문장을 만들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이유에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수어와 음성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며 눈을 보고 대화했다. 목 아프게 계속 음성언어로 대화할 필요가 없었고, 상황에 따라 훨씬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를 바꿔가며 사용했다. 그 놀이에 재미가 들린 우리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문장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br/><br/> “짧게 수어 얼굴 표정 입 사용 좋아. ‘아’(청인)들 맨날 말 길게 불편”<br/><br/> “맞다구 정말 입 왜... 손 하다면 편하고 재밌고 좋아”<br/><br/>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하고 싶었다. 내가 가진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는 이를 만나는 것,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소통. 그것이 나에게는 ‘코다와의 만남’이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그랬듯, 이제야 ‘우리나라 사람’을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txt

제목: 폐암 완치 후 삶의 질 떨어지면…사망위험 2배 높아  
날짜: 2016081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19160920568  
본문: 폐암으로 진단돼 치료를 받은 뒤 삶의 질이 떨어진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2001~2006년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완치 판정을 받은 폐암 환자 809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신체 기능이 떨어졌거나 불안감 등을 느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견줘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br/><br/>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809명 가운데 11.9%에 해당하는 96명이 해당 기간에 숨졌으며, 이들의 사망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우선 신체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사망 위험이 2.4배 높았다. 또 호흡곤란이 있으면 1.6배, 불안감을 느끼면 2.1배, 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는 내적 역량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2.4배 높아졌다. 아울러 수술 뒤 몸무게가 정상범위보다 낮으면 1.7배, 운동 부족도 1.5배 사망 위험이 높아졌다. <br/><br/> 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사망 위험 사이의 관련성을 오랜 기간에 걸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폐암 치료 뒤 암의 재발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운동·식이요법 등 삶의 질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진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br/><br/>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txt

제목: 국제사회 눈 밖에 난 ‘나쁜 놈’들만 모여라  
날짜: 2016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12190958056  
본문: 2010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한 극장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이 작품은 2007년 4월16일 3시간 만에 61명(사망 32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조승희가 2006년 가을 학기 과제로 쓴 희곡이다. 개념미술가 요나스 스탈은 로테르담시 극단과 함께 그의 희곡을 그대로 재연해 두 차례 공연했는데, 한 번은 관객들과 어울려 무대 위에서, 한 번은 객석에서 진행했다. 두 번의 공연 사이에 요나스 스탈은 관람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공연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br/><br/> 조승희는 사건이 일어나기 한 해 전 쓴 이 희곡을 바탕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한 적도 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의 영상을 보면,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한 남자 맥비프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맥비프는 양아들 존과 함께 아내 수와 살았다. 맥비프는 보트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양아들 존에게 끝없이 모욕을 당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듣는다. 존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도 맥비프의 탓이라고 돌리고 그가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맥비프는 이 모욕을 견디면서 아내 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내조차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아들만 감쌌다. 결국 맥비프는 자신을 향해 욕설을 계속해대는 존을 후려치고 만다.<br/><br/> ‘국가 없는 정치 운동’ 확산에 주력<br/><br/> 8살에 미국으로 이민 간 가난한 조승희는 소극적이고 비사회적인 성격 탓에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영화 속 맥비프는 평소 발음 문제로 놀림을 당하고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았던 조승희의 모습과 흡사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결국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궁지에 몰린 존재가 되었다. 분노의 복수를 다짐한 조승희는 오랜 시간 치밀하게 사건을 준비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유언장과도 같은 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녹화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버지니아공대의 기숙사와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과 교수들을 향해 분노의 총격을 퍼부었다. 순식간에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중에는 조승희와 같은 다수의 외국계도 포함돼 있었다. 조승희가 사건을 벌인 직후 엔비시(NBC) 방송국에 보낸 동영상 속에서 이 청년은 “너희는 나를 괴롭히면서 즐거워했다.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 나는 머리에 암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아팠으며 심장은 갈가리 찢어졌고 아직도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br/><br/> 오늘날 세계는 예전보다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흐려졌으나, 실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에서는 끝없는 충돌과 갈등을 낳고 있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인종갈등은 테러와 동일한 문제로 다루어야 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세계 테러리즘 인덱스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리아 등 5개국에 78%가 집중됐다. 게다가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테러는 이제 이들 지역을 넘어서 서유럽 국가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종교적,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던 소수자 계층은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암 덩어리처럼 존재하다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br/><br/>네덜란드 출신 작가 요나스 스탈 테러·폭력 다룬 작품 두드러져 예술?정치 묶는 ‘뉴월드서밋’ 설립 ‘버지니아 사건’ 조승희 희곡 공연도<br/><br/> 그가 기획한 2012년 베를린 비엔날레에서 첫선 “현실 변화에 기여하는 예술” 고민 시리아 쿠르드 지역 등 6차례 진행<br/><br/> 개념미술과 퍼포먼스 작가 요나스 스탈은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와 폭력을 주제로 삼은 작업을 지속해왔다. 그는 네덜란드의 엔스헤데와 미국 보스턴에서 기념비 예술을 전공하고 예술과 민주주의 그리고 프로파간다의 관계에 대해 매달리고 있다. 그는 예술과 정치를 하나로 묶는 조직인 의 설립자이기도하다. 은 ‘국가 없는 정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안 의회’로서 기능한다. 그의 작업은 사회참여, 전시, 극장에서의 공연, 그리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이런 종류의 작업으로 스탈은 베를린 비엔날레(2012), 베네치아(베니스) 비엔날레(2013), 상파울루 비엔날레(2014) 등 주요 국제행사에 초대받았고, (2009), (2010) 등에 이어 시리아 문화혁명을 다룬 (2015)에 이르기까지 여러 저작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시리아 서부 쿠르드 지역의 자율정부와 함께 지역의회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r/><br/> 민주주의 근간이 파괴되고 있다<br/><br/> 요나스 스탈의 작품 활동에서 특히 흥미로운 게 2012년 7회 베를린 비엔날레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뒤 국가 및 종교 간 갈등의 원인과 이를 둘러싼 내전, 테러 등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행사인 이다. 은 지금까지 베를린, 네덜란드, 인도, 브뤼셀,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 로자바 등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회의에는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힌 단체의 관계자들이 초청됐는데, 그 면면만 보더라도 쿠르드 여성운동 단체, 바스크 독립운동 단체, 아자와드 민족해방 운동 단체, 필리핀 국가민주주의 운동 단체 등의 대표나 단체의 변호사,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자문 등에 이른다. 이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만든 테러방지법인 ‘미국의 애국법’에 따라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된 사람들에게 행해진 비정상적인 체포 및 구금행위 등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들은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예외상태’는 테러와 관련해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게 의 메시지다.<br/><br/> 가장 정치적인 성향의 비엔날레로 세계 미술계를 놀라게 했던 2012년 베를린 비엔날레는 ‘오큐파이(점령) 월스트리트’ 시위대가 내건 정치적 구호를 비엔날레에 접목하면서 전시장을 시위 현장으로 만들었던 것으로도 꽤 유명하다. 이 행사에는 토플리스 시위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우크라이나 여성 퍼포먼스 그룹 페멘이나 정치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을 논의하는 전시를 선보인 바 있다. 전시장 입구에는 “여기는 미술관이 아니다, 이곳은 당신이 행동하는 공간이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또한 “분배가 없으면 정의도 없고 정의가 없이는 평화도 없고 평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비엔날레의 입장료는 무료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까지 제공했다. 이 행사를 기획한 폴란드 출신의 작가 아르투르 주미예프스키는 “<span class='quot0'>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예술을 찾고 있다</span>”고 말하면서 정치적 현실에 맞대응하는 작가와 정치적 활동가들을 소개한 바 있다. 이 비엔날레에서 가장 주목받은 행사를 꼽으라면, 단연 요나스 스탈의 이라 할 만하다.<br/><br/>▶ 백기영 홍익대학교 회화과, 독일 뮌스터 쿤스트아카데미 영상미디어 석사 졸업. ㈔미술인회의 사무처장, 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을 거쳐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으로 일한다. 뉴디스코스 아카데미 등에서 현대미술을 주제로 강의한다.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속성을 정치·경제·사회적 배경과 함께 전달하고 싶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txt

제목: 정부 “정밀의료로 건강수명 3년 더 늘린다”  
날짜: 20160810  
기자: 이창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10113948846  
본문: 정부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1조6천억원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밀의료를 내세웠다.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진료·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br/><br/> 보건복지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정밀의료와 관련해 별도 자료를 내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br/><br/> 복지부는 우선 “<span class='quot0'>정밀의료 기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 10만명의 유전정보와 진료정보, 생활환경·습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하겠다</span>”고 밝혔다. 병원에서 정밀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병원 의료정보시스템도 개발한다. <br/><br/> 이와 함께 폐암·위암·대장암 등 한국인 3대 암 환자 1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맞춤형 항암 진단 치료법을 개발하는 한편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도구에 적응력이 강한 50~60대 인구를 뜻하는 ‘디지털 시니어스(신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프로그램 및 첨단 모바일 기기도 개발키로 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진단·치료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br/><br/> 복지부는 나아가 정밀의료 기술이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밀의료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이들 기술이 해외 신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적 지원체계인 정밀의료 특별법도 제정하며, 정밀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도 설립할 방침이다. <br/><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이런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통해 2025년에는 현재 73살인 건강수명을 76살로 3년 더 늘릴 수 있고, 해마다 평균 8%로 늘어가는 의료비 증가율도 4%로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설명했다. 또 “3대 암의 5년 생존율도 현재 8.4%에서 6% 더 높여 2025년에는 14.4%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향후 1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정밀의료시장의 7%를 점유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10조3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약 12만명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추정했다.<br/><br/> 하지만 원격의료나 해외진출 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 시민단체나 야당이 의료영리화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br/><br/>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txt

제목: ‘닥터 인공지능’, 의사가 놓친 결핵을 찾아내다  
날짜: 20160808  
기자: 음성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08102851508  
본문: technology\_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인 루닛은 엑스레이 영상으로 결핵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은 97%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결핵을 진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지치지도,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 컴퓨터는 인간 의사를 대체하게 될 것인가. 의료 진단 분야에서 컴퓨터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봤다.<br/><br/> <br/><br/>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명우빌딩 7층에 있는 루닛의 사무실을 김양중 의료전문기자와 함께 찾았다. 루닛은 의료영상을 판독하는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기업이다. 최근 루닛은 엑스레이 영상을 바탕으로 결핵 여부를 판독하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해 소프트뱅크벤처스라는 투자업체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받는 등 가능성을 인정 받으며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br/><br/> 의사인 김 기자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루닛의 영상판독 기술 수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루닛 쪽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서범석 의료 담당 이사가 백승욱 대표와 함께 나와 시연을 벌였다.<br/><br/> 루닛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썼던 데이터인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결핵 관련 영상 478장 중 무작위로 골라 컴퓨터에 입력해 결핵을 진단해보고, 와 루닛의 의사가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검증결과를 내놓기 위해 이미 한 차례 분석해본 영상이긴 하지만, 이날 새로 진행하는 분석작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연의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br/><br/> 미국 국립보건원의 영상에는 파일 이름을 통해 결핵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병변의 위치는 나타나 있지 않아 결핵 전문의가 표시한 병변의 위치를 참고했다. 컴퓨터는 영상을 본 뒤 결핵 가능성을 퍼센트로 알려주는 동시에 병변의 위치와 ‘히트맵’ 형태로 영상 위에 표시해준다. 히트맵은 심각할수록 빨간색, 심각하지 않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된다.<br/><br/> <br/><br/> 정확도 92.7%의 인공지능<br/><br/> 일단 500번이란 번호가 붙은 영상을 컴퓨터에 입력해봤다. 루닛 프로그램의 프로세싱 바가 움직였다. 1~2초 정도 걸렸다. 컴퓨터는 ‘비정상 점수’(abnormality score)로 결핵 가능성을 표시한다. 이 영상의 비정상 점수는 100%였다. 영상 위에 병변의 위치도 표시됐다. 서 이사와 김 기자 두 의사 역시 병변의 위치를 쉽게 찾아냈다. 결핵 전문의가 표시한 병변 위치와도 일치했다. 서 이사가 설명했다. “영상에 이 정도까지 나타날 정도면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을 것 같아요. 열이 펄펄 나고 치료도 오래 받아야 하는 상태예요.”<br/><br/> 이런 식으로 수차례 진행해보니 컴퓨터의 진단 결과는 500번 영상에서처럼 결핵 전문의의 진단 결과와 대부분 일치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에서 봤듯 인공신경망 기술의 진화한 한 형태인 ‘딥러닝’ 기술 덕이다. 컴퓨터는 입력된 이미지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함수(은닉층)에 통과시켜 특징을 찾아내고, 그 과정을 반복해 일반화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 은닉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다’(딥·deep)고 표현한다. 루닛의 기술은 은닉층을 20~30층 쌓았다는 점에서 ‘딥러닝’이라 부른다. 루닛은 또 ‘약지도(weakly supervised) 학습’ 방식을 썼다. 학습할 때 영상마다 결핵인지 아닌지만 알려줬다는 점에서 ‘지도(supervised) 학습’의 측면이 있지만, 병변의 위치는 알려주지 않은 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특징을 찾아 분류하는 ‘비지도(unsupervised) 학습’이 가미돼 ‘약지도’란 표현을 쓴다.<br/><br/> 루닛은 이런 방식으로, 결핵협회가 제공한 1만장의 영상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학습시켰고, 결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 데이터로 검증했다. 검증 결과는 놀라웠다. 결핵 여부를 확인하는 능력을 산술적으로 따져보니 정확도가 92.7%에 달했다. 정확도를 평가하는 또 다른 중요한 통계인 곡선화면적(AUC)은 97.6% 수준으로 평가됐다.<br/><br/> 백 대표는 “이 결과는 결핵 환자의 영상만으로 학습시킨 것이지만, 폐암과 폐렴 등 모든 폐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할 수 있도록 별도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 유방암 선별 검사에 쓰는 유방 촬영술 영상에 대한 연구도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루닛은 서울의 7개 대형병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br/><br/> 컴퓨터는 영상판독과 같은 ‘숨은그림찾기’ 같은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김 기자는 “<span class='quot0'>대략 30살 정도면 몸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5년마다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달라진 부분을 찾는 일은 정말 잘할 것 같다</span>”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서 이사는 “그런 쪽으로도 개발을 진행하려고 한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항암제 투여 이후의 반응을 영상으로 확인해 수치화해서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 이날 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시연에서 루닛의 컴퓨터는 수많은 영상들에 대해 전문의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br/><br/> <br/><br/> 환자 생명 살린 ‘왓슨’<br/><br/> 하지만 328번 영상에 대해서는 달랐다. 결핵 전문의는 이 영상에 병변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았다. 결핵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다. 서 이사 역시 병변을 찾아내지 못했다. 진단 실패다. 이 영상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결핵 환자의 것이라고 제시한 것이다.<br/><br/> 반면, 루닛의 컴퓨터는 이 영상을 본 뒤 결핵 가능성을 33.66%로 제시했다. 컴퓨터가 내놓은 영상에는 왼쪽(바라보는 사람 기준) 쇄골 위쪽에 약한 수준의 병변 표시가 나타나 있었다. 서 이사는 컴퓨터가 표시한 병변의 위치를 참고한 뒤 다시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다.<br/><br/> “다시 보니 뼈(쇄골)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다른 음영이 나타나는 걸 찾을 수 있네요. 뭔가 결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상 뼈에 가려져 있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병변이네요.”<br/><br/> 인간은 실수를 한다. 2013년 발표된 논문 를 보면, 인간 의사의 진단 오류는 5.08%에 달했다. 이는 미국에서 매년 1200만명의 성인이 잘못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br/><br/> 인공지능 의사의 장점은 많다. 컴퓨터는 인간 의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모든 결정에 근거가 있고, 인지편향과 같은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다. 무엇보다 일관성이 있다. 술 먹고 뻗지도 않으며, 화가 나 있거나, 이혼을 한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일도 없다.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인공지능 의사를 처음 만들 때 비용은 크겠지만, 일단 만들어 두고 진단을 하기 시작하면 복제를 위한 한계비용은 0에 가깝다.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이든 기꺼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컴퓨터 진단 의사는 곧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미국의 티브이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서 우승하며 화제를 일으켰던 아이비엠의 ‘왓슨’은 이미 미국의 유명한 암 치료기관인 엠디앤더슨 병원에서 암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왓슨의 진단 정확도는 9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퀴즈쇼를 통해 인간의 말(자연어)을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왓슨은 이제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 배우는 단계에 와 있다. 내과의가 증상과 이외의 연관 인자들을 입력하면 왓슨은 이 정보들 가운데 핵심 요소를 찾아내고 가족력에 관련 요인이 있는지 데이터를 찾아본다. 왓슨은 이렇게 모인 모든 정보와 병원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조합해 가설을 확인하고, 진단을 내리게 된다.<br/><br/> 이 방식으로 왓슨은 일본에서 한 환자의 생명을 구해내기도 했다고 (NHK)가 지난 4일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는 왓슨에게 논문을 학습하도록 한 뒤,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은 60대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했다. 엔에이치케이에 따르면, 10여분 동안의 분석을 마친 왓슨은 이 여성의 병이 ‘2차성 백혈병’이라는 또 다른 질환에 가깝다며 기존에 투여하던 항암제를 변경할 것을 제시했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일본 인공지능학회장 야마다 세이지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span class='quot1'>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은 국내 첫 사례</span>”라고 말했다.<br/><br/>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의사를 돕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마치 영화 에서 주인공 과학자를 돕는 인공지능 컴퓨터 ‘자비스’처럼 말이다. 서 이사는 “영상 판독은 의사 혼자서 할 경우 실수가 생길 수 있어 ‘세컨드 리더’라 부르는 또 다른 의사와 함께 판독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루닛의 기술이 그런 일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 이날 루닛의 기술을 지켜본 김 기자는 “<span class='quot0'>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위협을 받을 것 같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사실 동네의원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으니까, 이 기술을 활용하면 동네의원에서도 결핵에 대한 일차적인 체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br/><br/> 인공지능 영상판독 기술이 발전할수록 1차 진단의 영역에서 영상의학 전문의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두 명의 영상의학 전문의가 해야 할 일을 컴퓨터와 함께 혼자서 하기만 해도 그만큼 인간 의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의사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영상의학 분야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손쉽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 되었다.<br/><br/> 의 공동 저자인 앤드루 맥아피 엠아이티 교수는 2014년 3월 미국의 아이티 전문매체인 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2'>아직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곧 세계 최고의 진단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span>”고 밝혔다.<br/><br/> 인공지능의 발전과 직업의 종말에 관한 책 의 저자 마틴 포드도 2011년 미국의 신문사인 에 기고한 칼럼에서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그는 “<span class='quot2'>의학전문대학원(메디컬스쿨)을 가지 않은 저임금 의료 전문직이 생겨서 일차적으로 환자에게 증상을 듣고,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을 하게 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 <br/><br/> <br/><br/> 의사는 사라질 것인가<br/><br/> 다만 ‘직업의 종말’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야 하고, 그 이후에도 각종 법적·제도적·윤리적 문제를 모두 극복해야 한다. 사람들은 인간 의사의 실수보다도 컴퓨터의 실수에 대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사망사고를 낸 데 대한 반응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기자는 “<span class='quot0'>만약 인공지능이 진단에 실패할 경우 우리 사회가 어느 수준으로 용인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인공지능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날 루닛의 인공지능은 결핵협회 전문의가 ‘양성’으로 판정한 472번 영상에 대해 사실상 ‘음성’ 판정을 내렸다. 인공지능은 결핵 가능성을 3.1%로 표시했다. 물론 전체적인 정확도를 고려하면 이런 일은 확률상 나타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분명 벌어질 수 있고, 사회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br/><br/> 앞서 인간 전문의가 실수한 328번 영상 역시, 거꾸로 보면 컴퓨터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30%대 초반의 확률로 진단을 내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가 해석을 내리고,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br/><br/> 오히려 가까운 미래에는 직업의 종말보다는 격차 문제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유신 카이스트 교수(전산학)는 “<span class='quot3'>(루닛과 같은 영상판독 컴퓨터) 기술을 쓸 수 있는 병원(의사)과 그렇지 못한 병원 간의 격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br/><br/>당장은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순기능이 더 커 보이는 측면도 있다. 김희진 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원장은 루닛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br/><br/> “결핵 검진사업을 한다고 할 때 검진버스 안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순간 의심 환자가 분류되고, 곧바로 객담(가래)을 받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검진버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시간을 기다려 판독 결과가 나오면 의심환자를 불러 객담을 수집하게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겠지요.”<br/><br/> 아울러 컴퓨터는 의료진이 거의 없는 저개발국에서도 손쉽게 진단을 내리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br/><br/>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인포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txt

제목: 도핑의 진화? 유전자 바꿔 금메달 딴다면…  
날짜: 20160808  
기자: 권오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08091932540  
본문: 약물로 신체 기능을 일상적으로 조정하는 시대가 온다면, 스포츠는 어떻게 재정의될까?<br/><br/><br/><br/><br/><br/>19세기 말 유럽과 미국에선 달리기나 사이클 선수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였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스웨덴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다이너마이트의 주 성분이다. 당시 유럽에선 장거리 달리기나 자전거 경주가 대유행이었다. 영국의 스포츠 역사학자 레스 우드런드는 책 에서 이런 시합에 “<span class='quot0'>매일 2만명의 관람객이 몰려들곤 했다</span>”고 기록했다. 시합은 길게 일주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코치가 선수를 옆에서 보좌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좌역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선수가 잠들거나 탈진하지 않도록 각종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니트로글리세린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실제 심장마비 대응 약물이기도 했던 니트로글리세린은 선수의 호흡을 원활하게 했다. 현대 스포츠의 형성 초기 이런 약물의 투여는 흔한 일로 받아들여져서, 1904년 올림픽 마라톤에선 한 선수가 너무 많은 약물과 독주를 마신 나머지 골인 뒤 기절하기도 했다.<br/><br/>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도핑이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러시아는 나라가 앞장선 조직적인 도핑이 적발되면서 104년 만에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우리나라에선 수영 스타 박태환 선수가 과거 금지약물 사용으로 올림픽 출전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컸다. 니트로글리세린으로 시작됐던 이런 인위적인 기록 향상 기법들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는 선수의 몸을 아예 바꾸는 유전자 조작까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백년 넘게 끝없이 선수들을 유혹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br/><br/> <br/><br/> 적은 노력으로 근육 키우는 꼼수<br/><br/> 대표적인 도핑 약물은 두 가지 그룹을 꼽을 수 있다. 진영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위원장은 5일 와 한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흥분제(스티뮬런트)와 근육 강화제(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두 군이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들</span>”이라고 말했다. 흥분제는 정신에 작용하는 약물로, 암페타민이 대표적이다. 암페타민을 섭취하면 지각이 강화되고 지구력이 향상되며 움직임이 빨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유는 이 물질이 몸의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이런 물질들이 우리 뇌 안에 풍부해진다는 뜻이다. 이 경우 뉴런과 뉴런 사이를 잇는 정보 전달의 화학적 연결이 빨라지면서 몸의 기능이 놀랍게 증대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합성 마약인 ‘히로뽕’의 정확한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다.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인 것이다.<br/><br/> 신체향상 약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했던 스포츠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규제를 도입하게 한 계기도 암페타민이었다. 김건열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의무위원은 그의 책 에서 1960년 로마올림픽을 “<span class='quot2'>스포츠계가 도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span>”로 꼽았다. 사상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이 올림픽의 첫날 사이클 경기에서 덴마크 선수가 경기 중 쓰러져 숨지고 만다. 부검 결과 다량의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br/><br/>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흥분제에 비해 근육강화제는 비교적 느슨하다. 그만큼 선수들이 손을 대기도 쉽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육상 100m 금메달리스트였던 벤 존슨이 복용한 약물도 스테로이드였다. 그는 2006년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2'>스포츠계 사람들 가운데 40%는 여전히 약물을 쓰고 있을 것</span>”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태환 선수가 맞았던 ‘네비도’도 대표적인 스테로이드계 약물 가운데 하나다.<br/><br/> 이들 약물은 공통적으로 ‘스테로이드’라 불리는 고리 모양의 분자구조를 지니는데, 지용성이라 몸의 세포막을 통과해 단백질을 활발하게 생성하도록 직접 작용한다. 쉽게 말해 이 약을 먹으면 적은 노력으로도 빠르게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몸짱’이 되고 싶은 일반인 가운데에도 이 약을 구해 쓰는 이들이 많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구글 등에 검색하면 쉽게 업자들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로, 이런 약품들은 모두 불법이다. 윤정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교육홍보팀 대리는 “일반인의 사용 규모는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br/><br/> 근육강화제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유발 등과 함께 성 기능의 변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체제 간 경쟁이 심했던 냉전시절 동독은 선전을 위해 자국 체육 선수들에게 몰래 스테로이드를 먹였다. 당시 여자 투포환 선수였던 하이디 크리거 역시 18살부터 이 약을 먹었는데, 체격이 좋아진 것뿐 아니라 목소리가 굵어지고 몸에 털이 많아지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독일 통일 뒤 크리거는 성 전환 수술을 받아 남성이 되었고 이름도 안드레아스로 바꿨다. 남성의 경우도 과도한 남성 호르몬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자 수가 감소하고 여성형 유방이 자라는 등의 증세가 관찰된 바 있다.<br/><br/> <br/><br/> ‘유전자 도핑’은 적발 힘들어<br/><br/> 기술 발전과 함께 도핑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현대 도핑의 대명사 하면 미국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꼽히는데, 그는 스테로이드 등 전통 약물뿐 아니라 자신의 피를 뽑았다가 경기 전 주입하는 ‘수혈 도핑’ 등 다양한 방법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검사관을 따돌린 것이 드러난 바 있다.<br/><br/>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01년부터 ‘유전자 도핑’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경계해오고 있다. 유전자 도핑은 유전자 치료로부터 온 개념이다. 유전자 치료란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 특정 세포의 유전 정보를 변형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변형시킬 유전 정보를 담은 바이러스나 디엔에이(DNA)를 환자에게 적절히 주입하면 해당 세포가 변형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병의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의 강화를 위해 유전 정보를 변형시키면 유전자 도핑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적혈구가 늘면 근육으로 공급되는 산소도 늘고 그만큼 강한 지구력을 얻는다. 지금까지 도핑은 이런 효과를 노리고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주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관장하는 유전자를 조작하면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적혈구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도핑이 갖는 무서움은 외부 물질의 투입 없이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집계를 보면 지난해까지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를 받은 이들의 수는 2300명이 넘었다. 아직까지 유전자 도핑이 적발된 사례는 없다.<br/><br/> 진영수 위원장은 “현대 스포츠 스타의 성공에 걸린 부와 명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둠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약물과 기법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그만큼 이를 탐지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도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영원한 경쟁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공정한 스포츠가 공정한 사회를 견인할 수 있다’는 선수와 대중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0.txt

제목: 길 위에 있다 길이 될 갤러리  
날짜: 20160806  
기자: 박유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06114913943  
본문: ▶ 2009년 5월 첫 전시를 시작으로 문을 연 부산 해운대구 중동 바나나롱갤러리는 기차가 지날 때마다 집이 떨릴 만큼 작은 14평 규모입니다. 이제 기차는 다니지 않습니다. 80년의 밤과 낮을 달린 동해남부선 기차는 2013년 12월1일 마지막 운행을 하였고 갤러리는 오는 20일 철거돼 길의 한 자락이 됩니다. 갤러리 뒤로 국내 최고층 101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br/><br/><br/><br/>기차도 바나나도 길다는 <br/>노래서 딴 바나나롱갤러리 <br/> 해운대 철길에 문을 열었다 <br/> 재개발지역 텅 빈 상가 옆에서 <br/> 그림을 걸고 음악을 들었다<br/><br/>지지 않은 동백이 툭 떨어지듯 <br/>끝나지 않은 갤러리가 철거된다 <br/>국내 최고층 101층 아파트 인근 <br/>길이 될 갤러리는 길 위에 있다 <br/> 그림은 이웃과 어떤 이별 할까<br/><br/><br/><br/> 세상 모든 것은 어느 한때의 적분이다. 여름 과일에는 뜨거운 계절의 햇살이, 천년을 살아온 나무에는 한때의 바람과 천년의 기상도가, 닳고 더러운 신발에는 걸어온 길이. 잊힌 한때를 지나 또 다른 시절을 거쳐 지금 여기에 닿으면 기억은 미분을 하여 지나온 한때를 손짓한다. 예술은 아름다웠거나, 슬퍼서 아름다웠던 한때를 이곳에 불러내는 어느 여름밤의 술이다. 술에서 깨어 기억의 조각을 털고 다시 적분으로 쌓인 지금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삶이다. 그리하여 시간은 소멸을 향해 일방향으로 달려가지만 시계추처럼 조금 뒤로 갔다 돌아오고 다시 뒤돌아갔다 돌아서는 나선을 그리며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닿는다. 매일 닿고 있지만 떠나고 있으며, 출발하지만 도착하고, 알고 있지만 모르게 되어 정답을 제시하는 일보다 질문을 제기하는 겸허함을 알기 전에. <br/><br/><br/><br/> 80년 낮밤 달린 동해남부선 철길 <br/><br/> 예측하지 못한 어느 때 닫게 될 걸 알면서 길 위에 문을 연 집이 있다. 동해남부선 철길 바로 옆에 자리한 바나나롱갤러리. 재개발 지역이라 사람이 떠난 가게들 사이에 홀로 선 14평의 노란 집은 기차가 달릴 때마다 진동으로 함께 떨렸다. <br/><br/> 심리치료사이자 작가인 강문주(44) 대표는 2008년 설치미술 ‘새장’을 만들었다. 관람객들은 새장에 들어가 울거나 커튼을 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실크로 된 천을 새장에 덮었다. 전시가 끝난 그해 겨울 철길 옆에 빈 가게를 얻어 알고 지내는 건축가와 함께 공사를 시작했다. 이듬해 5월 첫 전시를 연 바나나롱갤러리는 새장에서 위로받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새장-2’였다. <br/><br/> 부산 해운대구 중동 바나나롱갤러리를 지난 2일 찾았다. 8월12~15일 부산 우동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사진페어 대표이사이기도 한 강문주 관장은 해가 저물 즈음 갤러리에 들어왔다. 상담한 청소년과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동시에 부산국제사진페어를 준비하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 5년 전 한 번 만났을 뿐인데 나눈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때 암 투병 중이었으나 다 나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말하는 여자이기도 하다.<br/><br/> 부산에서 포항으로 80년의 낮과 밤을 달린 동해남부선 기차는 2013년 12월1일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바나나롱갤러리 뒤로 부호들의 세컨드하우스이자 신개념 거주공간인 호텔형 아파트 엘시티 더 레지던스 101층을 건설 중이다. 부산지검동부지청은 지난달 21일 엘시티의 시행사가 사업 과정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 <br/><br/> -8월20일, 바나나롱갤러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내려고요?<br/><br/> “7월20일인가 와서 7월30일에 비켜달라고 하더라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사도 두 달, 한 달 전에 와서 이야기해야 상식이잖아요. 뜯으라고, 모르겠다고. (부산국제사진페어 열리기) 그 전에 일할 시간이 없다고 했지. 나중에 8월20일로 통보를 받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8월11일에 부산국제사진페어 브이아이피(VIP) 오픈이고 15일에 끝나는데 남은 5일간 내가 어떤 마지막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겠노. 달집 태우듯이 바나나(롱갤러리) 훌훌 태워서 사진 페어 잘 만들면 좋겠는데, 벡스코에서 ‘우리동네시민전’을 바나나의 마지막 전시로 하는 거지.”<br/><br/> -처음부터 계속할 수 없는 걸 알았잖아요.<br/><br/> “그걸 좋아했지. 죽음이 예약된 것처럼, 짧은 시간에 삶을 축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꽃이 만개한 상태에서 똑똑 떨어지는 걸 보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꽃을 보면 아… 꽃이 지지 않아도 때가 되지 않아도 떨어져서 끝이날 수 있구나. 비교적 안전한 틀에 있던 나임에도 신체적인 고통을 견뎌내면서 죽을 수 있겠구나에 대한 생각이 들었으니까. 여기 길에서, 통로 한가운데 앉아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기차도 사람도 버스도 다니고. 뭔가 지켜보려면 흘러가는 것들 속에 정지돼 있어야 하거든. 나는 여기 정지되어서 그들을 매일 바라보고 그들이 들어오면 말을 건네는 거지. 기차가 갈 때 땡땡땡땡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철로 앞에) 멈추고 우리가 서로 보는 것. 그게 예술적 행위잖아요. 예술가란 이 공간처럼, 섬이 아니라 섬인 것처럼 서서 삶의 흐름, 사람을 보는 거잖아. 나는 미술가로서 이름 갖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작업에 좀 더 집중하길 원했고 좀 더 소통되길 바랐고 많은 사람 만나길 바랐지.”<br/><br/><br/><br/> 부산의 새로운 예술 잉태 공간<br/><br/> 바나나롱갤러리의 초창기인 2011년 6월13일 그를 처음 만났다. 그날 오래 이야기를 하고 청사포에서 조개와 장어구이를 먹다 마지막 케이티엑스(KTX)를 타러 가느라 급하게 헤어졌다. 그사이 갤러리는 부산의 새로운 예술을 잉태하는 공간이자 해운대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국 잡지 ‘더 컬처 트립’이 2014년 부산에서 꼭 가봐야 할 갤러리 10선에 선정했고, 2015년은 10개 갤러리 가운데 우승 갤러리로 꼽았다. 그는 2013년 또 다른 실험 공간으로 ‘살롱 드 바나나’를 열었다. 그림이 갤러리를 벗어나 집에 걸릴 때의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 인근 아파트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2015년 10월, 80평의 복층 오피스텔로 옮겨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바나나 컨템퍼러리’를 만들었다. <br/><br/> 갤러리는 동네 사람과 지역 문화를 담는 그릇이기도 했다. 밤새 미술관에서 미술 이야기를 즐기는 바나나 봄밤, 연주회, 한 사람의 인생을 읽는 사람 책 도서관 프로젝트, 작은 영화제, 미술 교육, 시 읽는 행사 등을 열었다. 전시회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현수막에서 작가 이름을 없애는 해프닝도 겪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다니며 사진을 찍는 화덕헌 해운대구의원의 전시회 때문. 당시 노동당 구의원이던 작가는 2014년 2월, 전국 집값 상승률 2위인 부산 철거 지역 문패를 찍은 사진 3000여장을 바나나롱갤러리 외관에 붙였다. 해무가 자주 끼는 지역에 자리한 14평 갤러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으로 철거된 사람의 이름을 펄럭였다. 노란 갤러리 뒤로 전국 최고층, 초고가 엘시티 더 레지던스 건설 현장의 크레인은 제 할 일을 했다. 전시회 제목은 ‘흔들리는 집’.<br/><br/> -7년간 몇 번의 전시를 했어요?<br/><br/> “셀 수 없죠. 일주일, 이주, 삼주일 단위로 계속했으니. 작년엔 언제 뜯길지 몰라 거의 못했어요. 행복한 장례식이 내 꿈이었거든요. 갤러리가 5년이 된 2014년에 그만두려 했어요. 누구나 미련이 남고 끊어내는 연습도 하는 편이니까. 그해 부산아트페어 열릴 때 바나나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나눠주고 문 닫겠다 했는데 부산아트페어 오픈 전날인 4월16일 세월호가 가라앉았어요. 바나나 나눠주는 계획을 취소했죠. 5월에 위로의 바나나 1825개를 갤러리 앞에서 나눠줬어요. 이웃 맺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별할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것, 나는 나를 얼마나 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을 실험할 기회이기도 했어요.”<br/><br/> -기억에 남는 이웃들이 많죠?<br/><br/> “많아요. 거의 모든 사람을 기억해. 여기서 내가 꽤 이야기할 것 같지 않아요? 다 해봐야 열네평인데. 늘 주변인으로 사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것, 그게 사이코드라마잖아. 청소년들이 거리를 막 걸어요, 나만 본다고 생각하면서. 어른은 다르죠. 자기가 보잘것없는 걸 알죠. 외로울 때 엄마한테 가요. 왜 가요? 엄마한테 가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아이구, 내 새끼지. 그게 집의 힘이에요. 그걸 대신하고 싶었어요, 갤러리가. (나는) 어서오세요(라고 말해요). 상대가 예의만 갖추면. 여기는 한두 사람만의 갤러리예요. 익명성이 필요하면 시립미술관으로 가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한테는 작품을 이야기하죠.”<br/><br/> -갤러리에 들렀다가 자기 살아온 시간을 말하는 사람도 많죠?<br/><br/> “(질문하자마자 웃으며 곧바로) 백만명이요. 사실 여긴 사람 우선 지역이었어요. (갤러리에) 그림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시피 하고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예술이 왜 필요해요? (갤러리에 늘 앉아 있는 개) 콜라를 위해서? 사람 위한 것 아니에요? 저는 심리 치료가 따로 필요 없길 바랐고 치료받으려는 생각 없이 받길 원했고 고장 나기 전에 받길 바라고 받는 줄 모르고 받았음 해요. 말할 사람 말했고, 들을 사람 들었고, 자기 이야기 하고. 뭔가를 하고 나갔는데 (깊게 숨을 내쉬며) ‘하…’ 이렇게.”<br/><br/> <br/><br/> 누가 더 높은 건물 짓나 경쟁<br/><br/> 갤러리는 철길에서 동네 주민, 여행객들과 이웃을 맺었다. 그는 이웃을 ‘괜찮은 담’이라고 표현했다. 2013년 12월1일 바나나롱갤러리 옆으로 마지막 동해남부선 기차가 지나갔다. 강 대표는 그날의 일을 블로그에 적었다.<br/><br/> ‘이웃 철도 관리소 아저씨도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그래도 (노견인) 콜라가 죽기 전에 헤어져서 맘이 덜 아프다고 하시네요. 바나나를 흔드는 기차를 느낄 마지막입니다. 기차가 지나가기 위해 땡땡 할 때 저희는 달려나가서 그때마다 포즈를 취하고 바나나와 함께 촬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밤 12시경 마지막 지나는 기차를 만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날은 바나나가 12시까지 문을 엽니다.<br/><br/> 며칠째 철도 관리 아저씨들이 자꾸 바나나 앞을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1조 야간팀과 인사를 나누고 바나나를 나왔습니다. 찾아오셨더라고요. 5년간의 이웃이었는데 마지막 근무날이시라고. 이제 다정한 바나나 이웃 여섯 분과 이별입니다. 작년 5월 이별한 아저씨까지 총 일곱 분이시네요. 콜라야, 이제 넌 누구하고 놀고 언제 나가니. 네가 가장 심심하겠구나.’<br/><br/> -10년 가까이 길 위에 있어보니 길이 무엇인 거 같아요?<br/><br/> “누구나 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자리에 점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어요. 내가 길로 구성돼 있는 거지. 지나온 것들로, 그리고 지나온 것과 이어서 지나갈 곳으로. 모든 것이 과정이잖아. 흘러가고 있고. 시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난 많은 것들 중에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첨단에 설 것이냐, 최고에 설 것이냐, 가운데 설 것이냐, 가장자리에 설 것이냐. 제일 많이 느껴지는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요.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요. 재밌는 것은 서 있는 현재에선 현재가 안 보여요. 참 재미있어요. 모든 것이 느껴지는 이 순간이 망점이래요.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삶의 두 면, 매일 시작과 끝이 있죠. 매일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길을 정해놓고 가는 거겠지요.”<br/><br/> -아, 아쉽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갤러리 격자무늬 창밖으로 수많은 차와 사람들이 스쳐갔다. 힐끔 들여다보는 사람도 많았다.)<br/><br/> “그렇죠. 좋았던 우리 할머니도 사라지고 다정했던 이웃 아줌마도 이사 가고. 만나고 헤어지고 아쉬울 때도 있고 반가울 때도 있고.”<br/><br/> -그 말을 들으니 기억나네요.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세탁기 앞에서 만났다 헤어지고 높아졌다 낮아지는 게 인생이라던데?<br/><br/> “같은 말을 해도 해본 사람이 말하면 힘이 다르잖아요. 그 말이 들렸잖아. 그 진실이 위로가 됐잖아. 자기도 살아보니까 안 거지.”<br/><br/> 어릴 때 놀던 놀이터는 53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매일 종을 울리던 철로가 사라진 관광지 해운대. 해운대는 매년 한국에서 누가 더 높은 건물을 짓는지 경쟁한다.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부산도 이젠 ‘어디 사세요?’가 중요한 질문이 됐다.<br/><br/> “<span class='quot0'>벤츠 타든 길에 테제베(초고속열차)가 놓이든 삶의 질은 거기 있지 않은 거지.</span>” 강문주 대표가 인터뷰를 마치고 갤러리 불을 끄며 말했다. 바나나롱갤러리가 철거돼도 오피스텔에서 전시를 하는 ‘바나나 컨템퍼러리’ 등은 이어간다. 다음에 왔을 때 바나나롱갤러리는 101층 아파트 주변의 넓어질 길이 돼 있을 것이다. 길 위에 있다가 길이 된다.<br/><br/> 부산/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1.txt

제목: 8월 5일 인사  
날짜: 2016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04191946101  
본문: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최훈<br/><br/> ⊙ 인사혁신처 ◇과장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기획협력과장 윤미경 △〃 글로벌교육부 글로벌교육과장 안보홍 ◇과장급 △윤리복무국 복무과장 정지만<br/><br/> ⊙ 국회사무처 ◇이사관 임명 △방송국장 안연길 <br/><br/> ⊙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기획취재부장(중기벤처부장 겸) 하만주<br/><br/> ⊙ 동의대 △인문대학 부학장 강태중 △대학원 행정지원실장(동의언론사 행정지원실장 겸) 김재곤 △한의과대학 행정지원실 과장 김용암<br/><br/> ⊙ 한국외대 ◇부장대우 △대학원사무1팀장 탁경구 △인사혁신〃 홍순혁 ◇차장급 △국제학생지원 오세권 △원스톱서비스센터팀장(서울) 김태문 △평가감사 정용호 ◇과장급 △사업본부 운영1팀장 권윤기 ◇차장급 △산학총괄 임종훈 △산학기획(산학지원팀장 겸) 김옥범 △진로·취업지원센터(글로벌) 겸 현장실습지원센터(글로벌) 윤일 ◇과장 △HUFS Dorm 학사운영팀장 배준형<br/><br/> ⊙ 한양사이버대 △교무처장 김지현 △학습지원센터장 김남희<br/><br/> ⊙ 부산외대 △특성화사업관리실장 권오경 △산학협력단장 지정규 △국제교류처장 변기찬 △혁신창업지원센터장 황귀연 △글로컬마케터양성〃 조재형<br/><br/> ⊙ FN자산평가 △평가서비스본부장 이재욱 △금융공학연구소장 김용식<br/><br/> <br/><br/><br/><br/> <br/><br/><br/>■ 성주 주민들의 마음 울린 표창원의 연설 <br/><br/>■ [뉴스AS] 내 차가 급발진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r/><br/>■ 박정희·이승만·노덕술…친일파들의 뻔뻔한 ‘훈장’ 잔치 전말 <br/><br/>■ [카드뉴스] 올림픽 앞둔 국가대표들의 ‘징크스’ 엿보기 <br/><br/>■ [화보] 사진으로 보는 1910년대의 한반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2.txt

제목: 결혼 안 하면 왜 정자 기증 못받나요  
날짜: 2016080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02135903144  
본문: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가임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러다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니냐는 생각에….”<br/><br/> 40대 후반인 이지연(가명)씨는 미혼이다. 다들 부러워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세칭 ‘골드미스’다. 20년 이상 일만 바라보며 살다 혼기를 놓쳤다. 그는 몇 해 전부터 ‘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온통 휩싸여 있다. 경제적인 여건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쌓았다.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양육할 자신도 있었다. 유일한 걸림돌은 ‘남성과 결혼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br/><br/> “내가 직접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죠.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상의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죠.”<br/><br/> <br/><br/> 고민하던 이씨는 올해 초 한 병원을 찾았다.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했다. 병원에서는 현행법상 배우자가 없으면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독신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건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성의 문제로 불임인 부부들은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아 기르잖아요. 육아 능력이 충분한데 단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막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br/><br/> ■ 법적 남편 동의 필수 결혼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미혼여성, 이른바 ‘미스맘’들이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건 불법이다. 2005년 말 ‘황우석 사태’ 이후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 이전까지 미혼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데에는 별다른 법 규정이 없었다. 이후 현재의 생명윤리법은 난자의 채취 및 기증은 물론 정자의 기증 역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 즉 법적인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에게 무정자증이 있거나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정자를 기증받는 과정도 까다롭다. 정자를 기증하는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고, 혹시 이 남성이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의료인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결국 미혼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셈이어서, 자신의 아이를 낳으려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br/><br/>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span class='quot0'>현재 관련 법률에서 난자와 마찬가지로 정자도 돈을 받고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가 아닌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는 경우 남성 쪽 원인으로 불임부부가 된 이들이 주된 대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미국이나 영국 등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배우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일은 금지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체외수정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보조생식학회의 윤리지침에서도 법률적인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정자 기증을 통해 인공임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자은행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정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김수웅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백혈병 등 여러 암에 걸렸을 때 항암치료 과정 중에 정자가 망가질 우려가 있는 남성의 경우 미리 정자를 보관한 뒤 치료 뒤 임신을 원할 때 사용하거나 무정자증 등이 있는 남편을 둔 여성이 임신할 때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에는 제공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br/><br/> ■ 영국, 스웨덴 등은 허용 이지연씨는 외국에서 정자를 기증받는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미혼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이 허용된다. 일본의 경우 자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지만 외국인의 시술을 막지는 않고 있다. 이씨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 저출산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혼자 산다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영화 으로 잘 알려진 미국 배우 조디 포스터는 1998년과 2001년 독신 상태에서 인공수정으로 두 아이를 출산해 키우고 있다. 그는 훗날 자신이 성소수자(레즈비언)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방송인 허수경씨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출산한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낳은 적이 있는데, 미혼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 관련 법규가 강화되기 이전 일이었다. 이후 미혼여성에게 정자를 제공한 의료인의 행위를 처벌하지만, 수요자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로 가서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br/><br/>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다. 체외수정 등 시술비가 비싼 것도 문제지만 의료사고 등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인공임신 시술을 받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마취사고는 물론 난소 조직이 망가지거나 출혈로 인한 각종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 자궁외 임신, 다태아 임신 등으로 산모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br/><br/> <br/><br/> ■ 새로운 가족 도입 논란 ‘남편 없는 아이’를 원하는 미스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갈린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양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우호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정자와 난자가 매매되거나 대리모 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강연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대변인은 “법적인 부부만 정상으로 보는 견해와 제도가 지금도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 등의 아이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느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아이를 직접 낳아 기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정상 부부’보다 더 부모에게 필요한 준비와 자격이 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이 아이를 잘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최근 나경원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2'>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미혼모나 동거가족 등의 출산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법적 혼인으로 출생한 아이와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위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span>”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딸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결혼으로만 맺어지는 기존 가족 개념의 틀을 깨고 각자의 결정권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br/><br/>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정자·난자의 매매 가능성과 함께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리모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과장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것을 악용하면 자칫 가난한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리모를 하게 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아이를 직접 낳아 키우겠다는 ‘미스맘’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3.txt

제목: 작은 암살자  
날짜: 2016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01141934355  
본문: 1.<br/><br/> “간밤에 모기가 있었어요.”<br/><br/> “그래서 오늘 퀭하시군요.”<br/><br/> “원래 퀭하게 생겼어요.”<br/><br/> “그렇긴 하지만.”<br/><br/> “<span class='quot0'>자려고 누웠는데 머리 위에서 엥 소리가 나더라고요.</span>”<br/><br/> “짜증나죠, 그 소리?”<br/><br/> “왜 그렇게 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내고 조용히 피만 빨고 가면 나도 잘 자고 모기도 잘 먹고 서로 윈윈일 텐데.”<br/><br/> “그럼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모기 잘못 물려서 죽는 사람도 더 많았을 거고.”<br/><br/> “모기 입장에서야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사람 유전자가 모기를 진화시킨 것도 아닌데. 모기 입장에서야 소리가 안 나는 편이 훨씬 생존에 유리했겠죠.”<br/><br/> “<span class='quot0'>그걸 감수하고라도 소리가 나는 방식으로 비행하는 게 더 유리한가 보죠.</span>”<br/><br/> “맞아요.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모기가 어떻게 날더라. 소리가 덜 나는 방식으로 나는 곤충들은 뭐뭐가 있었더라. 그게 더 느린가. 소리가 그렇게 요란하게 난다는 건 공기를 훨씬 더 강하게 움켜쥐거나 뿌리친다는 뜻일 거니까 확실히 살아남는 데는 더 유리하겠지, 뭐 그런 생각.”<br/><br/> “<span class='quot0'>또 머릿속에 풍동실험실 지으시느라 잠이 달아나셨겠네요.</span>”<br/><br/> “결국 그렇게 됐죠.”<br/><br/> “어쩐 일로 밤을 새우셨나 했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불 켜고 일어나실 분은 아닌데. ‘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하필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별 대책 없이 잠이 드실 스타일이시잖아요.”<br/><br/> “후, 좀 부끄럽네요.”<br/><br/>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도 건지셨어요? 아침부터 남의 나라 요원 불러내신 걸 보면 그냥 심심해서 연락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팔아넘기실 거라도.”<br/><br/> “하룻밤 사이에 생겼겠어요?”<br/><br/> “하긴.”<br/><br/> “원래 하던 거 팔려고요.”<br/><br/> “아, 그거요. 그건 안 살 건데요. 너무 순수학문 분야여서요. 계속 하다 보면 파급효과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요즘이 무슨 냉전 때처럼 가능성만 보이면 아무 연구나 일단 연구비부터 쏟아붓고 보는 시대도 아니고.”<br/><br/>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눈 감고 막 뿌리시는 것 같던데.”<br/><br/> “하하, 네, 사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꽤 까다롭게 굴기는 하거든요.”<br/><br/> “보증인이 있다면요?”<br/><br/> “호오, 그런 게 있나요? 그 분야 전문가는 은경씨 본인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보면 알아볼 사람이나 있을까요?”<br/><br/> “들어보세요.”<br/><br/> “그러죠.”<br/><br/> “<span class='quot0'>말씀처럼 가만히 누워서 머릿속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젯밤에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span>”<br/><br/> “무슨 소리가요?”<br/><br/> “날개 소리 사이에 뭔가 잡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생각이나 좀 하다가 잠이 들었을 텐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말이죠.”<br/><br/> “어떤 잡음이었죠?”<br/><br/> “티딕, 하는 짧은 소리였어요. 날개 소리라 패턴이 말로 설명은 잘 안되지만, 모기가 어떤 방식으로 날다가 다른 방식으로 날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티딕 하는 소리가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br/><br/> “모기 소리에요?”<br/><br/> “네, 모기 소리 사이에요. 한참 기다려서 세 번이나 더 들었는데, 분명히 똑같은 소리가 끼어 있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뭐랄까.”<br/><br/> “인공적이었군요.”<br/><br/> “맞아요. 그러고 보니 모기 소리 자체도 자연스럽지 않게 들리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br/><br/> “그래서 일어나셨군요.”<br/><br/> “결국 일어났죠.”<br/><br/> “위대한 모기네요. 자는 은경씨를 일으켜 세우다니. 불도 켜셨나요?”<br/><br/> “<span class='quot0'>불도 켰고 심지어 잡기도 했어요.</span>”<br/><br/> “저런! 그런데 잡아서 어쩌시게요?”<br/><br/> “당연히 관찰을 해야죠.”<br/><br/> “모기를요? 잡아다 묶어놓고 그 소리가 날 때까지 날게 만드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거 맞나요?”<br/><br/> “녹화하고 기록하고 필요하면 해부도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모기를 죽이지 않고 잡아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쌩쌩한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로 바꾸는 것 말고는 모기를 잡는 행위가 상상이 잘 안되는데, 실은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운동신경으로만 따지면 저보다는 모기가 훨씬 고등문명에 속해 있는 존재라.”<br/><br/> “<span class='quot0'>다시 불 끄고 누울까 고민하셨겠네요.</span>”<br/><br/> “와! 아니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결국 희나씨도 정보국 요원이어서 그런가?”<br/><br/>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아무튼, 결국 잡긴 잡은 거죠? 안 그랬으면 아침부터 저한테 연락할 일도 없었을 거니까.”<br/><br/> “맞아요. 결국 포획을 했는데, 제가 뭘 한 건 아니에요. 불 켜고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게 벽에 가만히 붙어 있더라고요.”<br/><br/> “‘그게’요?”<br/><br/> “네, ‘그게’요. 일단 안경부터 쓰고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br/><br/> “무슨?”<br/><br/> “모기가 아니었어요.”<br/><br/> “그럼요?”<br/><br/> “초소형 비행체였어요. 모기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작은 기계장치였어요. 아주 작은 드론이라고 하면 되려나. 날개 모양은 딱 곤충 같았지만요.”<br/><br/> <br/><br/>“<span class='quot0'>유리컵으로 들여다봤는데모기보다 작고 일체형이었어요</span>”<br/><br/><br/><br/> 2.<br/><br/>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 쪽에 연락을 했는데, 더 들어보라는군요. 그래서 그 초소형 비행체를 넘기실 생각인가요?”<br/><br/> “필요하면. 그런데 그뿐이었으면 굳이 남의 나라 요원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쪽이야 벌써 기술 축적이 꽤 돼 있을 거고, 남들은 어쩌고 있나 참고하는 정도 말고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을 거고. 다른 데 파는 게 낫죠.”<br/><br/> “위에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계속해 보세요. 포획한 이야기부터.”<br/><br/> “네, 포획. 잡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고장이 난 모양인지 벽에 가만히 붙어 있더라고요. 일단 유리컵으로 덮어놓고 들여다봤는데, 크기는 실제 모기보다 약간 작고 몸체가 일체형이었어요. 쓸데없이 머리-가슴-배 구조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리라기보다는 작은 갈고리가 달린 고정식 착륙장치 같은 걸로 벽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착륙장치 모양을 보니 아마도 전체 무게가 그만한 크기의 곤충보다는 무거운 것 같았어요. 그걸 서재에 가져가서 해부를 했는데요.”<br/><br/> “집에서요?”<br/><br/> “기계손 달린 현미경이 있거든요. 손이 꽤 정교해서 쓸 만해요. 일단, 날개는 의외로 특이하지는 않았어요. 가느다란 뼈대에 얇은 막에. 뼈대가 뻗어 있는 패턴이 낯설긴 했지만 상상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구조 같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같은 재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구조를 누군가가 찾아낸 건지도 모르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건 나중에 전문가들이 연구해보면 알 문제고, 우선 분해를 했죠. 내부구조가 간단했어요. 통신장치처럼 보이는 뭔가, 전지, 날개를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뾰족한 무언가.”<br/><br/> “뾰족한 뭔가?”<br/><br/> “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순서대로요. 통신장치처럼 보이는 뭔가부터. 솔직히 이게 정확히 뭔지 알 수는 없었는데요, 통신장비는 맞고, 그중에서도 수신장치로 보이긴 했어요. 송신장치일 수도 있지만 본체 안에 다른 처리장치가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있다면 역시 수신장치일 거니까. 송신장치든 저장장치든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냥 신호를 받는 대로 바로 처리한다고 할까요. 뇌가 밖에 있는 거예요. 누가 밖에서 조종을 하겠죠.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본체가 작아지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를 관찰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센서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br/><br/> “한 대가 더 있는 거군요.”<br/><br/> “아마도요. 열감지기 장착한 애가 하나가 더 있거나, 아무튼 무슨 방법으로든 집 안을 감시하고 있었겠죠.”<br/><br/> “가능한 구상이에요. 작게만 만들 수 있다면 기능을 여러 대에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것도 잡으셨나요?”<br/><br/> “못 찾았어요. 나중에 제 침실 뒤져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모르는 구멍으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만 급한 대로 스파크를 여기저기 터뜨려 놨으니까 그런 정교한 장비면 회로가 나갔을 수도 있죠.”<br/><br/> “손상됐으면 아깝겠네요. 그래도 그쪽에 저장장치 같은 게 있는 거면 벌써 어떤 정보를 입수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잘하셨어요. 그다음은요?”<br/><br/> “그다음은 전지. 사실 이것도 정체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전지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전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른 장치에 다 병렬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기도 했고요. 정보 처리장치일 수도 있지만, 동력원과 뇌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역시 동력원이니까.”<br/><br/> “동력원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특이하던가요?”<br/><br/> “특이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진짜 미궁이더라고요. 정말정말 희한한 제조사에서 만들었거나 아니면,”<br/><br/> “아니면?”<br/><br/> “지구 물건이 아니거나.”<br/><br/> “에이, 설마요. 찾아보면 나오겠죠.”<br/><br/> “맞아요, 찾아보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닐지도 몰라서요.”<br/><br/> “왜죠? 이상한 게 더 있었나요?”<br/><br/> “날개요. 날개를 움직이는 부분. 자세 제어하는 부분이 자동인 것 같긴 했어요. 기체 크기에 비하면 좀 큰 장치가 부착돼 있었거든요. 조종하는 사람이 자세 제어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쪽이 아니죠.”<br/><br/> “진동 장치!”<br/><br/> “맞아요. 역시 그게 핵심 부품이라. 들여다본 지 꽤 됐는데, 요즘도 그렇죠?”<br/><br/> “기본개념은 똑같죠. 날개 움직임 하나하나에 다 동력을 소모할 수는 없으니까, 탄성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날개가 파르르 떨리게 하는 거. 그 스프링 역할 하는 소재 찾아내는 게 아직도 숙제고요.”<br/><br/> “그건 여전하네요. 가볍고, 탄성 좋고, 수없이 반복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해도 재료 자체가 노화돼서 끊어지지 않는. 나름 제2전공 정도는 되는 분야라, 발견하자마자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br/><br/> “어? 자르셨군요.”<br/><br/> “한쪽만요. 반대쪽은 안 건드렸어요.”<br/><br/> “두 개가 있었군요! 두 개가 따로 움직이면 하나로 둘을 연결했을 때보다 자세 제어가 훨씬 어려울 텐데요, 비행능력은 향상되겠지만. 그걸 실현하다니, 우리 연구팀이 좌절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들여다보니 뭐가 나오던가요?”<br/><br/> “유기체요.”<br/><br/> “역시! 생명이 개입하는 수밖에 없군요!”<br/><br/>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br/><br/> “<span class='quot0'>네, 그쪽은 진짜로 전공이신데요.</span>”<br/><br/>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전지는 전문이 아니라 확언을 못하겠는데,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구 물건이 아니에요.”<br/><br/> “네? 지구 물건이 아니라는 건?”<br/><br/> “물론 외계에서 보낸 비행기라는 뜻이겠죠. 외계 암살자. 아까 맨 뒤에 이야기하려고 남겨둔 장치가 하나 있었죠? 뾰족한 무언가. 이건 비교적 알아보기 쉬웠어요. 몸체 밖으로 가느다란 바늘이 사출되는 구조더군요. 그 반대쪽에는 무슨 액체가 연결돼 있고요. 그 이상은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br/><br/> “그렇겠네요. 하지만 왜죠? 외계인은 뭐고, 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왜 하필 김은경씨를 노린다는 거죠?”<br/><br/> “그야 저는 모르죠. 그쪽에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요즘 우주에서나 쓸 만한 무기에 눈먼 돈 막 뿌리시던데. 그쪽에 적이 새로 생긴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윗분들 취미생활? 그럼 제가 잘못 짚은 거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 초소형 비행체의 핵심부품 중에 지구생명체가 아닌 무언가의 생체조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br/><br/> “<span class='quot0'>정확히 뭘 보고 확신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span>”<br/><br/> “그건 당연히 비밀이죠, 계약 성사될 때까지. 성사가 안 될 일은 없다고 보지만. 아시겠죠? 제 연구 말이에요, “■■■■ ■■■ ■■ ■■”. 희나씨네 본부에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기술이 분명해요. 어때요? 이쯤 되면 매입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엔 꽤 괜찮은 보증서 같은데. 기술 감정하는 거 솔직히 귀찮고 어렵잖아요. 잘 안되면 추진한 사람 입장도 난처해지고. 그런데 그 귀찮은 걸 남이 해 주다니, 얼마나 좋아요!”<br/><br/> “그거야 그렇지만.”<br/><br/> “그냥 덥석 무세요. 조건은, 지금 당장 잠적하게 해 주시고 보수는 어제까지 생각하시던 것의 스무 배. 평소에 얼마를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연구비 별도에, 법률 문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숙식제공에 안전보장. 어때요? 윗분들도 아까부터 희나씨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어차피 결정권자들도 다 모여 계실 것 같은데 더 끌 거 있나요. 연락하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br/><br/> “아니 저기, 흠.”<br/><br/> “왜요?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br/><br/> “아니, 좋아요.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이쪽으로도 꽤 치밀하시네요. 이런 일을 이렇게 잘 처리하실 줄은 몰랐는데.”<br/><br/> “당연하죠. 저요, 간밤에 모기에 물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건 부탁이기도 해요. 희나씨,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br/><br/><br/><br/>미래; 소설에는 미래사회를 통찰하는 작가들의 신작 단편소설이 매달 실립니다. <br/><br/><br/><br/> <br/><br/> 배명훈은 2005년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에서 로 단편 부문을 수상하며 데뷔한 과학소설(SF) 작가다. 단편집 <타워>(2009), <안녕 인공존재>(2010) 등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데뷔 10년인 지난해 펴낸 장편 <첫숨>이 최근작으로, 인간 계층 간 갈등과 화해의 가능성을 그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4.txt

제목: 림프절 암세포 전이, 조기 발견 영상 기술 개발  
날짜: 2016080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801120947048  
본문: 국내 연구팀이 암 세포가 림프절을 침범한 것을 현재보다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는 영상기술을 개발했다. 환자들에게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r/><br/> 보건복지부는 전용현·이재태 경북대병원 교수와 임동권 고려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대학원 교수팀이 공동으로 림프절에 암이 전이돼 있는지를 지금보다 이른 시기에 발견하는 영상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술은 안정돼 있으면서도 암 세포에 민감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조영제를 쓰는데, 이를 활용해 조기에 암 세포의 림프절 전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복지부가 지원하는 선도형특성화사업단 과제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나노학술지인 온라인판에 지난달 21일 실렸다. <br/><br/> 의학계에서는 암이 림프절이나 주변 조직으로 전파됐는지 확인할 때에는 보통 ‘감시 림프절’을 진단해 찾아낸다. 감시 림프절은 가장 먼저 암 세포가 전이되는 림프절을 말한다. 현재는 암 조직에 염색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 감시 림프절을 찾아낸 뒤 직접 떼어 내어 전이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암 세포를 더 돋보이게 하는 새로운 조영제를 개발해 이를 투여한 뒤 1시간 안에 감시 림프절을 탐지할 수 있도록 했다. <br/><br/>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조영제가 사람의 몸 안에서 부작용과 독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10년 안에 임상 현장에서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의 림프절 전이 여부를 영상검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조영제를 잘 활용하면 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다른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5.txt

제목: 아이유처럼 되고 싶었던 9살 아이, 머리를 밀고 엉엉 울었다  
날짜: 20160731  
기자: 김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31162806950  
본문: “예은(가명·9)이는 항암치료 받으면서 한번도 힘들다,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아픈 내색도 잘 안 해요. 그런 아이가…마취 풀릴 땐 (비몽사몽 상태에서) 속마음을 막 얘기해요. ‘엄마, 내가 아파서 미안해. 근데 나도 힘들어’라고요.”<br/><br/>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만난 예은 엄마 김혜진(가명·40)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span class='quot0'>다 마른 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요.</span>” 예은 엄마는 연신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예은이는 세 딸 중 막내다.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에, 언니들보다 자기가 더 예쁘다며 외모에 자신감도 넘치는 아이다. 그런 예은이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건 올해 1월이다. 열나고 기침을 하길래 겨울 감기인 줄 알고 동네 이비인후과를 다녔지만 차도가 없었다. 내과에서 피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결과를 본 의사는 병명도 말해주지 않은 채 소견서를 써주며 큰 병원에 가볼 것을 권했다. “<span class='quot0'>오늘은 둘째 애 치과를 데려가야 하니 내일 가보겠다</span>”고 하자 의사는 당장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재촉했다. 집 근처 인천한림병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국립암센터로 갈 것을 권했다. “병명이 뭐냐고 물으니 좋은 경우 악성 빈혈, 최악의 경우 백혈병일 수 있대요. 좋아야 악성 빈혈이라니…. ‘오진 아니냐’고 물으며 그길로 당장 국립암센터 응급실로 달려갔어요.”<br/><br/> 제발 아니길 바랐지만, 예은이는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았다. 백혈병은 혈액 세포 중 백혈구에 발생하는 암이다. 예은이 머리에 백혈병 세포가 있다고 했다. 즉각 무균실로 들어가 격리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면회사절’이란 팻말이 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엄마는 매일 울었다. “첫날 무균실 들어갈 때 문을 6개를 통과하더라고요. 예은이랑 단둘이 그렇게 있는 동안 ‘어쩌다 여기 이렇게 있어야 하나’ 싶어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싶고….”<br/><br/> 1차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예은이의 긴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어 자꾸 엉키고 빠졌다. 결국 머리를 정리하러 미용실에 갔다. “묶은 머리를 잡고 가위로 숭덩 잘랐어요. 누더기 강아지 털 벗겨내듯 머리카락을 쓱 밀어내는데 예은이도 울고 저도 울고…긴 머리를 좋아하던 아이가 충격을 받았지요.”<br/><br/> 무균실에 들어갈 때 걸어 들어갔던 예은이는 나올 땐 휠체어를 타야 했다. 근육이 다 빠진 터라 걷지를 못했다. 2차 항암치료 땐 약품 부작용이 왔다. 약을 바꿔야 한다는데 주사 한 대 값이 200만원이었다. 약은 돈을 먼저 내야 구할 수 있었다. 무균실 치료를 받으며 주사 9대를 맞았다. 병원비가 금세 몇천만원대로 불어났다.<br/><br/> 예은이가 힘든 치료를 잘 견딘 덕에 회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암세포가 뇌척수로 전이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다. 3~4일 치료받고 퇴원할 줄 알았다가 뇌척수액과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인 두 딸을 데려와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받았다. 모두 불일치였다. 공여자를 찾아야 했다. 수술을 받으려면 피도 필요하다. 예은이의 혈액형은 희귀한 ‘아르에이치 마이너스 비(Rh-B)’형이다. 희귀혈액 사이트, 동호회 모임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br/><br/> “공여자 검사비와 이식비용은 다 제 몫이에요. 맞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검사비를 입금하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 검사비를 입금하고 기다리는 일을 반복해야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은이는 2번 만에 공여자를 찾았어요. 그분이 제발 이식 날까지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br/><br/> 예은이는 앞으로 항암치료를 한번 더 받고 이달 말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예정이다. 예은이의 담당의사인 박현진 국립암센터 소아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1'>이식을 하고 나면 감염 등 문제가 많아 수술 뒤 3개월은 집중관찰이 필요하고, 적어도 5년 동안 재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문제는 병원비다. 인천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예은이 아빠는 설날과 추석 명절 하루씩밖에 쉬지 않고 매일 아침 8시 반에 나가 새벽 1시에 들어오며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한달 소득이 200만원에 불과하다. 다섯 식구 생계비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횟집은 계절을 타다 보니 여름인 지금은 수입이 더 줄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예은이 병원비로 약 7000만원이 들었다. 한달 치료비가 1000만원꼴이다.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과 민간 후원기관으로부터 받은 소정의 후원금은 없어진 지 오래다. 앞으로 골수구득료로만 690만원이 필요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 최소 2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거기에 가게 운영비와 주거마련 대출금, 생계비,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진 빚이 벌써 9000만원이다.<br/><br/> “치료비 2000만원과 약값 800만원, 공여자 비용 700만원 등을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앞으로 예은이 상태에 따라 희귀약품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막막하죠. 백혈병 아이를 둔 엄마들이 ‘돈 없으면 죽겠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br/><br/> 다행히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근심을 아는지 다들 속이 깊다. 중학생인 큰아이는 백혈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컴퓨터를 찾아보며 혼자서 훌쩍훌쩍 울었다.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땐 둘째 동생의 아침밥을 빼놓지 않고 챙긴다. 둘째는 ‘예은이 바라기’다. 맛있는 게 생기면 집에 가져와 동생부터 챙겼다. 사춘기라 평소 까칠했던 큰언니가 친절해지자 예은이는 “엄마, 큰언니가 내가 아파서 그런지 친절해졌어”라며 웃었다.<br/><br/> 아이유와 수지를 좋아하고, 아이돌 가수를 꿈꾸던 예은이는 푸르스름한 민머리를 창피해한다. 한번은 몸 컨디션이 좋아 놀이터에 나간 적이 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논다고 한껏 들떠 있었는데 그만 그네를 타다 가발이 훌렁 벗겨졌다. 예은이는 “친구들이 봤다”며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 엄마는 “아픈 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하며 예은이를 달랬다.<br/><br/> 항암치료가 잠시 중단된 지금 예은이 머리카락은 4㎝가량 자랐다. 엄마는 그 머리가 밤톨처럼 예뻐서 자주 쓰다듬는다. 그래도 예은이는 남들 앞에서 모자를 잘 벗지 않는다. 이날 기자와 만나서도 예은이는 빨간 모자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자라난 머리를 좀체 보여주지 않았다. 약품 부작용으로 달처럼 부어오른 얼굴도 마스크로 가렸다. 핏기 없이 하얀 얼굴에서 보이는 건 쌍꺼풀 진 눈뿐이다. 외모에 자신 있어 하던 아이는 얼굴을 가려야 밖에 나온다.<br/><br/> 반년 넘게 집과 병원만 오가는 생활을 하는 예은이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놀이공원에 가는 걸 꼽았다. 어서 빨리 학교에도 가고 싶다. 아침마다 언니들이 등교 준비를 할 때마다 여간 부러운 게 아니다. 예은 엄마는 이 더운 여름날 감염 위험 때문에 수영장에 한번 가질 못하는 딸이 안타깝다. 목욕탕이라도 가봤으면 하는 게 엄마 마음이다.<br/><br/> 활달한 성격으로 체육 수업을 좋아하는 예은이는 엄마에게 종종 묻는다. “<span class='quot0'>엄마, 나 다시 달리기 할 수 있어?</span>” 엄마는 대답한다. “그럼, 얼마든지.” <br/><br/>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br/><br/> <br/><br/>▶ 한겨레 나눔캠페인 참여하려면<br/><br/>이예은양과 가족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KB국민은행 762301-04-198569, 예금주: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해주세요. 예은양에게 필요한 돈은 치료비와 경제지원비 2000만원입니다. 모금액은 모두 예은양과 가족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작은 정성을 모으면 예은양의 치료와 더불어 가족이 함께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은양에게 또다른 방식의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1544-1415)로 연락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누리집(www.soaam.or.kr)에서도 배너를 클릭해 모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br/><br/><br/><br/><br/><br/><br/><br/> 보도이후<br/><br/>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한 ‘2016 나눔꽃 캠페인’을 통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소년보호 6호 시설인 효광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박진웅(16)군의 사연이 소개된 뒤, 297명이 후원에 동참해 모두 527만5000원(7월31일 기준)의 정성이 모였다. 바보의나눔은 “당초 모금 목표액(2500만원)의 약 25%가 모금됐다”며 “보호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웅군과 조부모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보내주신 약사와 효광원 퇴소 뒤 진웅군의 생활을 걱정하며 마음을 보내주신 분이 많아 감사드린다”고 전해왔다. 박군의 뜻에 따라 금액은 박군 조부모 치료비 지원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다. 목표액이 달성되지 못했지만, 바보의나눔을 통해 박군을 도울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 정기적인 후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바보의나눔(02-727-2506~8)에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날 믿어준 선생님은 없었지만…형 같은 선생님 되고 싶어요”<br/><br/>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6.txt

제목: 2018년부터 5대암·고혈압·당뇨 확진검사 무료  
날짜: 20160728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28175836697  
본문: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 등 5대암과 고혈압, 당뇨가 의심된다고 나올 경우, 이들 질환을 확진하는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br/><br/> 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2016∼2020년)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는 위암과 대장암에 대해 1차 검사에서 의심 판정이 나오면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의심 판정 환자가 포함된다. 확진검사는 검진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받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br/><br/> 복지부는 또 고혈압이나 당뇨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무료로 받고 이들 질환에 대한 관리를 곧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 검진에서 암 의심판정을 받은 뒤 확진검사를 받으면서 수십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확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span>”고 말했다. <br/><br/> 이번 종합계획에는 현재 40살과 66살 때 의사에게 받는 ‘생활습관상담 서비스’를 앞으로는 40살부터 10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아울러 비(B)형간염 검사나 골다공증과 우울증 검사 등도 기존보다 더 이른 나이부터 받도록 할 방침이다. <br/><br/> 검진 결과와 건강관리를 연계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결과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고, 같은 나이대 사람들에 견줘 자신의 건강수준과 앞으로의 건강상태도 알아볼 수 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7.txt

제목: 건강보험 유방암 진료비, 지난해 평균 422만원  
날짜: 2016072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24141932312  
본문: 최근 5년새 유방암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환자 1인당 평균 42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내면 되지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br/><br/>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2015년 유방암에 대한 진료비 지급자료를 보면, 유방암 진료 인원은 2011년 10만4293명에서 2015년 14만1379명으로 35.6% 늘었다. 그 사이 유방암 환자 1인당 유방암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평균 423만원에서 422만원으로 1만원 가량 줄었다. 하지만 수술 등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같은 기간 625만원에서 657만원으로 증가했다. 환자 수 증가 등으로 유방암에 대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4414억원에서 5962억원으로 35.1% 뛰었다.<br/><br/> 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도 같은 기간 207명에서 280명으로 늘었는데, 나이대별로 보면 50대가 6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587명), 40대(419명) 순이었다. 유방암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20대가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636만원)와 40대(489만원) 순이었다. 허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20~30대 환자들에게서 진료비가 더 드는 이유는 다른 기관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고, 다른 나이대보다 항암치료 등을 더 적극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술 뒤에 곧바로 유방재건술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br/><br/> 유방암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완전한 예방법은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출산과 수유는 유방암 위험을 줄여준다. 비만은 폐경 뒤 여성의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며, 운동은 유방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8.txt

제목: 짐승의 시간, ‘사람’을 만나 행복했어요  
날짜: 2016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22200856768  
본문: “<span class='quot0'>너한테서 썩은 내 나는 거 알아?</span>”<br/><br/>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유니폼처럼 검은 바지와 셔츠를 걸친 용역깡패들이 찌푸린 얼굴로 아가씨들을 콕콕 찌르고 다니면서 말했다. <br/><br/> “좀 씻고 다녀라. 더러운 년들!”<br/><br/> 그때 오석순(50)은 30대 미혼 여성이었다. 한여름 땡볕 아래 농성하느라 한뎃잠을 자고, 땀에 절어 초췌해진 여성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건, 모멸에 찬 폭언과 폭행이었다.<br/><br/> 애당초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다. 2005년 7월5일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사쪽은 노조와 협상을 거부했다. 8월3일 노동부는 기륭전자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벌금 500만원 물고 그만이었다. 불법파견된 인력으로 공장을 돌리고 휴대전화 문자 한 통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불법에 항의하고 협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죄인이었다. 조합원 전원은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당했고 54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도 떠맡아야 했다. <br/><br/> 대한민국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히 개돼지가 되었다. 그로부터 11년간 세 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이들은 복직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은 여전히 ‘정규 사람’이 아니다. 아무 때나 쓰고 버릴 수 있는 1회용 인력자판기이다. <br/><br/> 후회요? 천만번도 더 했어요!<br/><br/> 서울 봉천동의 기륭전자 분회 사무실. 그가 알려준 주소는 6층짜리 원룸 빌라의 2층 셋방이었다. 세 평 남짓한 원룸에는, 컴퓨터 책상 하나와 앉은뱅이 탁자가 놓여 있고 작은 책장에는 각종 노동단체나 인권단체에서 기륭전자에 수여한 상패가 빼곡했다. <br/><br/> “많이 좁지요?”<br/><br/> 오석순과 그의 오랜 단짝인 유흥희(46) 기륭전자 분회장이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권했다. 탁자 위에 사진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기륭전자 투쟁을 기록한 정택용의 사진집 (2010년 발간)였다. <br/><br/> “<span class='quot0'>여기 내민 손이 저예요.(웃음)</span>” <br/><br/> 쑥스러운 미소로 사진집 표지를 가리키며 오석순이 말했다. 회사 정문 밑단의 철창 사이로 간신히 내뻗은 팔 하나가 손가락을 쫙 편 채 바깥을 향하고 있었다. 겨우 한 뼘 남짓한 바닥의 철창 구멍으로 사력을 다해 내뻗은 손바닥 하나로 그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듯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라고. <br/><br/> 사진집에는 그들의 고단한 11년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밤샘농성과 출근투쟁, 삭발, 삼보일배, 고공농성, 장기단식…. 그 거친 시간 속에서 권명희 조합원처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지병으로 세상을 뜬 이도 있었다. 처음 노조를 결성할 때 200여명이던 조합원 가운데 단 열명이 남았다. 왜 이들 열명은 싸움을 접지 않았을까?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자리도 아니고, 그저 그런, 어디에나 널려 있을 것 같은 공장 생산직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목숨까지 걸고 매달려왔을까? 11년을 싸우고도 끝내 기륭 조합원들은 돌아갈 직장을 잃었다. 복직을 약속했던 사장은 은밀하게 자산을 매각처분하고 종적을 감췄다. 그럼 이들은 패배한 것일까? 기륭전자 오석순을 만나 묻고 싶었다. 당신에겐 무엇이 남았느냐고, 그렇게 산 것 후회하지 않느냐고. <br/><br/> 그런데 막상 얼굴을 대하고 보니 질문을 던지기 망설여졌다. 그는 투병 중이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3월초에 수술을 받았다. 나는 그의 솔직한 답변을 정말 원하는 걸까? 그가 너무 솔직해질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 가슴이 묵직했다. 그의 손을 이끌어 주변의 시원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한 건, 좁은 방 안의 후덥지근한 공기 탓만은 아니었다. <br/><br/>2005년 기륭전자 노동자 노조 결성 <br/>노동부, 사쪽 불법파견 판정했으나 <br/>사쪽, 고작 벌금 500만원 물었을 뿐 <br/>휴대전화로 직원에 해고 통고하고 <br/>업무방해혐의 들어 54억 손배소<br/><br/>충주 외곽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br/>초등 1학년 때 아버지 여읜 슬픔 <br/>주야 교대 일하며 미대 진학 꿈 키워 <br/>고된 일 잊으려 풍물강습소 갔더니 <br/>회사는 ‘나쁜 사상 물든다’ 권고사직<br/><br/> -차가운 것 드시면 안 되지요?<br/><br/> “전 따뜻한 것 아무거나….”<br/><br/> 동행한 유흥희 분회장과 나는 냉커피를, 그는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br/><br/> -오늘 이야기가 길어질지도 몰라요. 얘기하다 힘들면 중단했다가 다음에 하셔도 돼요.<br/><br/> “괜찮아요. 저 내일은 제주에 내려가봐야 해서.”<br/><br/> 오석순은 오래전부터 제주에 사는 게 소망이었다. 남편은 그가 암수술을 받은 뒤, 제주로 이주하는 걸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맑은 공기를 쐬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두 부부를 위한 아담한 집 한 채를 지으려는 참이다. <br/><br/> -식사는 잘 하세요?<br/><br/> “식욕을 좀 조절해야 하는데, 예전에 단식(투쟁)한 이후부터 폭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전에는 군것질을 즐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식 세 차례 하고 나선, 눈앞에 먹을 게 보이면 습관적으로 자꾸 손이 가요. 단식해서 못 먹은 걸 채우겠다고 아귀아귀 먹는 것 같아요.(웃음)”<br/><br/> 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2005년에 30일간, 2008년에 47일간, 2010년에 다시 20일간 단식투쟁을 한 바 있다. 2008년 오석순은 긴 단식 끝에 신장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김소연 분회장은 단식을 계속하다가 94일 만에 조합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기도 했다. <br/><br/>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br/><br/> “그렇죠…. (생각에 잠겨서) 식구들도 ‘왜 네가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말렸어요. 나도 외면하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 싶었어요. 후회도 수천, 수만번은 한 것 같아요.”<br/><br/> -근데 왜….<br/><br/>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정만 내놓으면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했으니, ‘이제 다 시정되겠지. 조금만 더 가보자’ 한 거죠. 그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정치인도, 행정기관도, 경찰도, 그 누구라도 우리한테 ‘미안하게 되었다. 당장은 해결 못 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진정성 있게 말해주었더라면, 저도 ‘외면하고 싶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진심을 다해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거나 사과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갈수록 억울한 일이 자꾸자꾸 쌓이니까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br/><br/> 평범한 여공에서 ‘불온한 빨갱이’로<br/><br/> 처음부터 해고노동자가 되기를 작정하는 사람은 없다. 어릴 적부터 투사가 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도 없다. 오석순의 어린 시절 꿈은 미대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미술반 선생님은 그에게 그림에 자질이 있다며 미대에 진학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형편이 허락지 않았다. 오석순은 충주 외곽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6년을 앓다가 “온 동네에 빚을 너울너울 남겨놓고” 석순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근처 담배공장에서 16시간씩 일을 했다. 늦은 일을 끝내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막내를 낳아, 갓난아이를 안고 허청허청 걸어 들어오던 어머니를 그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br/><br/> 오석순이 처음 취직한 곳은 인천의 새한미디어였다. 아침이 되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나와 무표정하게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다시 꾸역꾸역 지쳐서 돌아가는” 생활. 그것이 오석순이 처음 경험한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span class='quot0'>기계 부속품, 나사못처럼 사는 게 두려워서</span>” 두 달 만에 그만뒀지만, 언제까지 집안에 얹혀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제대로 돈을 벌어서 미대를 가자’ 작정하고 다시 취직한 곳이 삼양라면이었다. 그의 나이 스무살 때였다. <br/><br/> -다른 데보다 임금이 높았나요?<br/><br/>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를 했으니까요. 보통 1주 단위로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근무하는데, 교대 없이 야간만 3주 한 적도 있어요. 야간 3주 하고 나면 하늘이 노래지죠.”<br/><br/> -그러면서 미대 갈 준비를 한 거예요?<br/><br/> “처음엔 주야 교대로 일하면서 기숙사 옆에 미술학원을 부지런히 다녔어요. 근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수강료 부담 때문에 좀 쉬다가, 우연히 전봇대에 붙은 ‘무료 풍물 교습’ 전단을 보게 됐어요. 회사의 친한 언니, 동생들이랑 같이 다녔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대동놀이’라는 게 혼자 소리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모으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 배움의 과정이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회사에선 그걸 엄청나게 나쁜 일처럼….”<br/><br/> -불온한 일이라고요?<br/><br/> “네, 맞아요. ‘나쁜 사상에 물든다’고 못 하게 했어요. 풍물 배우면서 회사일 힘든 걸 잊을 수 있고, 회사 다니는 원동력을 얻는데 왜 이걸 나쁘게 여길까? 난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함께하는 걸 배우는 게 뭐가 위험하냐고요?”<br/><br/> 회사는 납득 못 하는 그를 권고사직 형식으로 해고했다. 그게 억울해서 동료들한테 서명운동을 받고 노조에 제출했지만, 노조는 인사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를 외면했다.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아니었다. 그 뒤 취업한 동양트랜스에서는 삼양라면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애’라는 이유로 잘렸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했다. <br/><br/>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과 연계가 있었나요?<br/><br/> “아뇨. 전혀요. 나중에 회사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 하는 걸 들었는데 ‘오석순이란 애가 빨갱이라 해고됐다. 빨갱이는 말을 잘해서 너희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걔가 연락해도 절대로 만나지 마라!’ 하더군요. 전 그때까지 빨갱이는 북한에서 내려보낸 사람들인 줄만 알았어요. ‘빨갱이’가 나같이 힘없는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요.”<br/><br/> 가지 말라는 풍물교실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는 ‘불온한 노동자’가 되었고, 그것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그런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빨갱이’가 되었다. <br/><br/> <br/><br/> 함께 일손을 놓는 것의 힘<br/><br/> -그러다가 구로공단의 대성전기에 입사한 게 91년이지요? 거기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또 해고되셨어요. 20대 중반에 이미 해고 경험이 두번이나 있는데, 또 그런 일에 휘말리는 게 두렵지 않던가요?<br/><br/> “저는 항상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요. 대성전기도 입사하고 나니까 동생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나더러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난 못 해. 너희들끼리 해’ 할 수가 없었어요.”<br/><br/>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가는 데마다 그럴 수 있죠?<br/><br/> “글쎄요…. 제가 삼양에 있을 때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어요. 뉴스에 맨날 파업 소식이 나오는데, 우리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도 똑똑한 위장취업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송부 아저씨들이 대형 트럭으로 정문을 딱 막아놓고 ‘기계 끄세요. 파업합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웃음) 그때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다 같이 일손을 놓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br/><br/>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나요?<br/><br/> “4박5일 파업으로 월급도 꽤 올랐고 상여금도 올랐어요. 우리가 파업을 한 더 큰 이유는 사실, ‘라면 먹기 싫다’는 거였는데 그것도 바꿨지요. 회사에서 점심에 라면을 주는데 정상적인 라면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공장에 전기가 나가서 타거나 덜 익은 라면, 일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지고 밟힌 거, 그런 거를 포대 자루에 주워 담으면 식당에 가져와 끓여줬거든요.” <br/><br/> -그걸 사람이 먹어요?<br/><br/> “직원이 3천명인데 그걸 한꺼번에 끓이면 불어터져서 우동처럼 돼요. 라면을 먹을 때면 무슨 개죽을 먹는 느낌. 어릴 때는 라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라면은 정말 쓰레기 개죽을 받는 것처럼 역겨웠어요.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파업을 했죠. 월급이나 상여금 오른 것보다 점심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밥’을 쟁취한 삼양라면의 ‘전사’들이었어요.(웃음)”<br/><br/> 같은 라면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끓여 내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다. 가난한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준 라면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노동자 식대를 아끼기 위해 꿀꿀이죽처럼 삶아낸 라면은 인격적 폭력이다. 한 끼 식사에도 예의가 있다. 평범하게 살기 원했던 오석순이 노동현장에서 찾고자 한 것도 그것이었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예의’, ‘노동에 대한 존중’. 짐승의 적자생존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등급으로 환산하는 이들은 그것이 무언지 알지 못한다.<br/><br/> 잘리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br/><br/> 대성전기에서 나온 뒤 오석순은 한동안 새 진로를 모색했다. 보육교사 과정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지냈다.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엄마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은 더없이 행복했으나, 장삿속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어서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새 직장을 알아보다가 기륭전자에 입사한 게 2005년 2월이었다. <br/><br/> 기륭전자는 당시 디지털 셋톱박스와 디지털 위성라디오, 내비게이터 등을 생산해서 2005년 1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할 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이었다. 매일 기륭전자 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기륭전자 생산라인에서 일했지만, 오석순의 소속은 기륭전자가 아니라 ‘휴먼닷컴’이라는 인력파견업체였다. 기륭전자 300여명 가운데 250여명이 그런 파견직이었고 정규직은 10명 내외, 계약직은 40~50명에 불과했다. <br/><br/>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남긴 교훈 <br/>‘다 함께 일손 놓는 것의 힘’ 절감 <br/>깨지고 밟힌 라면만 먹으라던 회사 <br/>“<span class='quot0'>실은 라면 먹기 싫어서 파업했죠</span>”<br/><br/>‘인간에 대한 예의’ 원했을 뿐 <br/>“<span class='quot0'>투쟁하는 노동자들 한뎃잠 자요</span>” <br/>비정규직노동자 위한 쉼터 세울 터 <br/>대장암 3기 진단받고 3월엔 수술 <br/>치유 위해 제주살이 선택했으나 <br/>“<span class='quot0'>제주집 지으면 꿀잠2호점 내줄 것</span>”<br/><br/> -왜 기륭전자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휴먼닷컴을 거친 거죠?<br/><br/> “구인공고가 안 나왔으니까요. 옛날에는 공단마다 ‘어느 회사가 몇명 뽑고 얼마 준다’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인력파견회사 구인공고밖에 없는 거죠. 휴먼닷컴에 이력서를 써서 가니까, 기륭은 6개월 넘으면 정규직이 된다고, 그럼 상여금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br/><br/> -그래서 선택하셨군요. 근데 왜 정규직이 못 됐어요?<br/><br/>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들어가기 2년쯤 전부터 정규직 전환이 없어졌대요. 파견을 써보니까 편한 거예요. 바로바로 잘라도 그만이고. 그때 우리 월급이 64만1850원이었어요. 최저임금보다 10원 더 받은 거죠.”<br/><br/> -최저시급에서 10원씩 더 줬다고요?<br/><br/> “아니요. 한 달 기본금 총액에서 10원을 더 줬다고요. 최저임금으로 하면 64만1840원인데 10원 더 붙여서 64만1850원.” <br/><br/> -한 달에 10원… 참!<br/><br/> “입사해보니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정기적으로 사람 자르니까 조심하라고. 그래도 ‘내가 잘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가나 손이 빠르고 일 잘한다고 인정받았던 터라,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나를 자르진 않을 거야’ 믿었죠.”<br/><br/> 그러나 오산이었다. 입사하고 두 달 반이 되던 어느 토요일, 공장 청소까지 마치고 퇴근한 저녁이었다. ‘낼부터 회사에 출근치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전화주세요.--휴먼닷컴.’<br/><br/> 해고 통보는 그렇게 휴대전화 문자 한 통으로 날아들었다. <br/><br/> -왜 잘린 거예요?<br/><br/> “나중에 들으니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반장들한테 ‘자를 사람 명단 적어 내라’고 했대요. 그때 회사 매출이 연 1700억 할 땐데, 사람을 항상 뽑고, 잔업에 철야까지 시켰어요.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안 잘리고 다니려면 특근이든 철야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가 입원하고 수술해도 못 가보고, 제사가 있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했어요. 잘리지 않기 위해서.”<br/><br/> 2005년 7월5일, 기륭전자에 노동조합 분회가 결성되고 뒤이어 8월3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다. 그때 모든 게 바로잡혔다면 오석순과 기륭 조합원들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이다. 싸움은 지루했고 치열했다. <br/><br/> 2005년 8월24일 시작된 파업농성은 1865일 만인 2010년 11월2일, 기륭전자 최동열 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조와 합의문 조인식을 함으로써 마침내 매듭을 짓는 듯 보였다. 사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으로 모두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최동열은 2013년 12월30일 밤 회사 집기를 모두 빼돌린 채 종적을 감췄다. <br/><br/> -그럴 걸 왜 국회까지 가서 합의문에 사인을 했을까요?<br/><br/> “국회에서 조인식을 하기로 한 건 회사 쪽이 요구한 거였어요. 사회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던 거죠.”<br/><br/> -왜요?<br/><br/> “<span class='quot0'>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식 가격을 확 올리고, 기륭전자 구사옥 부지를 처분하기 용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span>”<br/><br/> 기륭전자 조합원들은 최동열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최동열을 배임과 사기혐의로 고발했지만 그는 무혐의로 풀려나왔다. 국가권력은 비정규직의 편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인력 파견을 전면 허용하도록, 파견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br/><br/> -임금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데, 왜 정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을까요? <br/><br/> “인수위원회 앞에 피켓 들고 1인시위 하러 가면, 전경들이 나를 둘러싸서 보이지 않게 해요. 거기 가는 목적은, 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보게 하려는 건데. 내가 어떤 적법한 행위를 해도 차단을 해서 날 보이지 않게 해요. 그래서 (고공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막으니까. 저희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씻지도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허리도 아프고, 내려와선 잘 걷지도 못해요.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얘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얘길 좀 들어달라고.”<br/><br/> -비록 합의가 이행되진 않았지만 기륭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게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br/><br/> “저희는 단 한번도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계절별 성수기가 있는 업체들, 아이스크림 업체는 상시적으로 노동자를 쓰는 게 어렵겠지요. 그런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일에 왜 비정규직을 쓰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br/><br/>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꿀잠’에 힘을!<br/><br/> 오석순은 기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요즘 그가 가장 관심을 갖는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쉼터 건립운동이다. 쉼터의 이름이 ‘꿀잠’이라고 했다.<br/><br/> -좀 편하게 잘 수 있게 하자는 뜻인가요?<br/><br/>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한뎃잠을 자요. 거리에 은박지 깔고 어떨 땐 천막도 침낭도 없이. 기업 본사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자다 보면 경찰도 오고 항의하고 협박하는 사람도 오고, 별별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서 잠깐 벗어나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br/><br/> -그런 시설이 지금까지 없었단 말인가요? <br/><br/> “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장기투쟁 노동자들한테는 마음의 병이 있거든요. 저도 검은 옷 입은 용역깡패 수십명한테 뭇매를 맞고 한 달간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검은 옷 입은 사람만 보면, 소름이 돋고 머리가 쭈뼛거려서 그 사람 피해 멀리 길을 돌아가곤 해요. 항상 두려움과 공포, 긴장이 꽉 차 있어서 평소에도 무장해제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병을 치유해줄 곳. 잠시라도 맘 편히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br/><br/> 그는 건립모금운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고 제주로 이주하는 게 못내 아쉽고 미안하다고 했다. 제주에 집을 지으면 다락방을 만들어서 ‘꿀잠 2호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며 그는 해맑게 웃었다. 나는 아직 그에게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다. <br/><br/> <br/><br/> -지난 30년간 치열하게 노동운동 하고 살아오면서 인간 오석순에게 남은 게 뭡니까?<br/><br/> “내가 이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스스로 반문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 길을 선택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난 행복했어요. 아이러니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에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우리더러 힘내라고 하고, 팔고 남은 과일 갖다주며 먹으라고 하고. 옛날 생각을 할 때마다 목울대가 막혀서 말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나는 불행하진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시간이었고, 그 해결을 염원하는 시간이었으니까. 따뜻한 세상은 누가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br/><br/> 녹취 김성희<br/><br/> ▶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09.txt

제목: 유전자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등장 3년 반…생물·의학은 격동중  
날짜: 20160720  
기자: 오철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20141933551  
본문: ■ ‘유전자 가위’ 흐름 따라잡기<br/><br/> 지구촌의 수많은 연구물 중에서 언론매체에 알리고 싶은 성과들이 모이는 영문 보도자료 사이트가 있다. 이곳 ‘유레카 얼러트’(eurekalert.org)에서, 이미 ‘혁신적인 생물학 실험 기법’으로 알려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용어설명 참조)에 관한 글을 검색해봤다. 그 응용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하고 있었다. “<span class='quot0'>망가진 유전자 교정해 질병 치료하기</span>”, “<span class='quot0'>더 빠르고 효율적인 생쥐 유전자 편집 기법</span>”, “<span class='quot0'>유전자 편집으로 바꾼 나비 날개의 무늬 패턴</span>”….<br/><br/> “관련 논문들이 날마다 쏟아집니다. 지난해 수백 편 나온 걸로 보이는데 올해엔 천 편을 훨씬 넘겠죠. 세계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험과 연구는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는 국내 최대 연구그룹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의 김진수 단장은 “생물학 기초연구에서, 임상시험, 질환 연구, 농작물 개발,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연구 주제까지, 놀라울 정도로 응용 분야의 폭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법의 탄생 이후, 불과 3년반 만에 달라진 풍경이다. 이젠 대중매체에서도 유전자 가위는 점차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br/><br/> <br/><br/><br/><br/>유전자 기능 조절 새로운 유전공학 기법 <br/> 2013년 1월 등장 이후 급속한 발전<br/><br/> 유전자 기초연구 새로운 주제 만발하고 <br/> 인간질환 모델 동물 만들기도 잇따라<br/><br/>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 강화 <br/>첫 임상시험 올해 말 시작돼 주목<br/><br/> 얼룩 양, 미니 돼지, 뿔 없는 소… <br/> 갖가지 크리스퍼 동물 출현도 잦아<br/><br/> 낯선 변화와 시도에 기대도 크지만 <br/> 우려도 일어, 더 많은 소통과 논의 필요<br/><br/><br/><br/> ■ 크리스퍼 임상시험, 질병연구 활발해질듯<br/><br/>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은 난치병 치료에 적용할 유전자 가위 기법에 쏠렸다. 지난달 미국국립보건원(NIH) 자문위원회는 유전자 가위로 편집해 원하는 유전 형질을 갖춘 면역세포를 만든 뒤 이를 암 환자에게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미국 연구진의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시행된다면 ‘유전자 가위 임상시험 1호’다.<br/><br/> 구상은 이렇다. 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 유전자를 체외에서 편집한다. 유전 형질이 바뀐 면역세포는 여러 환자들한테 면역거부 반응 없이 쓸 수 있는데다 암세포를 쉽게 찾아내 싸울 수 있어 면역치료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 단장은 “<span class='quot1'>본심인 식품의약국(FDA)의 심사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큰 뉴스로 다뤄진 건 새 기법의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준다</span>”고 풀이했다. 임상시험은 승인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 임상시험은 앞으로 더 늘 것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임상 전 단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span class='quot1'>희귀 실명증이나 에이즈 같은 난치병에 ‘유전자 수술’을 적용하는 전임상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 중</span>”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 연구진은 에이즈 치료에 관심을 쏟고 있다.<br/><br/> 이전 방식에 비해 ‘더 값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기에, 새 기법은 여러 질병 연구에도 빠르게 사용되고 있다. 연구 주제인 질병에 맞춘 실험용 모델동물은 이전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김 단장은 “<span class='quot1'>예전엔 유전자 한두 개 기능을 탐색하는 연구조차 엄두를 내기 어려웠는데 이젠 많은 유전자를 동시에 바꿔 살피고, 더욱이 인간 유전체(게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연구도 가능해져, 의료나 질병 연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 ■ 유전자 기초연구 활기…유전자 편집 동식물들♣<br/><br/>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이 이전에 좀체 하기 어려웠던 연구 주제로 나아가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모델생물인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해 유전자를 연구하는 김준 서울대 대학원생(생명과학부)은 “유전자 하나를 다루는 일도 이전엔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크리스퍼 등장 이후에 유전자를 켜고 끄거나 변형하는 조작 기법이 손쉬워져 전세계 연구실에선 이를 활용하려는 여러 경쟁적인 노력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마우스, 초파리, 선충 같은 전통적인 모델생물을 중심으로 이뤄진 연구에서 더 나아가 개별 생물종의 유전자를 다양한 주제로 다루는 연구물도 자주 등장한다. 최근만 해도, 유전자 가위 기법으로 알려지지 않은 나비 유전자들을 조작해, 유전자가 바뀔 때 나타나는 나비 형태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나비 날개의 무늬 패턴을 좌우하는 특정 유전자를 발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br/><br/> 유전자 편집 동식물의 출현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애완용으로 기를 만한 작은 돼지가 만들어졌고 얼룩무늬를 한 양이 개발됐으며 근육량이 두 배나 되는 슈퍼 돼지, 뿔을 없앤 소가 발표됐다. 이런 낯선 동물의 출현을 일러 ‘크리스퍼 동물원’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br/><br/> 유전자 편집 농작물은 또다른 유전자 변형 농작물, 지엠오(GMO)일까? 연구자들은 다른 종의 외래 유전자를 집어넣어 만드는 지엠오와 달리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이식 없이 편집만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 단장은 “<span class='quot1'>유전자 가위는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을 자르고서 사라지는 복합체를 사용하며, 내부 유전자에는 육종법과 구별되지 않는 변이를 만들기에 지엠오와는 원리가 다르다</span>”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에선 농작물 세포 내 유전자에 외래 디엔에이가 삽입되지 않는다면 유전자 가위 기법으로 만들어진 동식물을 기존 지엠오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br/><br/> <br/><br/> ■ 유전자 드라이브, 생물무기 ‘우려’도<br/><br/> 기초연구와 의학 분야에서 기대를 모으지만, 당장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분야도 있다. 새로운 유행어가 된 ‘유전자 드라이브’는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말라리아나 지카 같은 질병의 병원체를 옮기는 모기 같은 생물종 전체의 유전자를 유전자 편집으로 바꾼다면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유전자 드라이브의 기본 구상이다. 표적이 되는 생물종에다 스스로 유전되어 작동하도록 ‘유전자 가위 유전자’를 넣어 후세대로 이어지게 하면, 세대를 거듭하며 생물종 전체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br/><br/> 이런 구상은 생태계에 끼칠 영향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또한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론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과학아카데미(NAS) 산하 위원회는 유전자 드라이브를 감염병 퇴치에 사용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며 엄격하고 제한된 야외시험과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br/><br/> 유전자 가위를 악용한 ‘생물무기’의 출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근 과학저널 에 실린 한 칼럼은 유전자 가위가 생물무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국제 생물무기협약 논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생명과학과 의학계에 일으키는 혁신의 속도는 연구실 바깥에서 나타나는 관심과 논의의 속도를 한참 앞지르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생명윤리학회장을 지낸 전방욱 강릉원주대 교수(생물학)는 “<span class='quot2'>유전자 가위의 등장 이후에 전에 없던 새로운 이슈들이 빠르고 폭넓게 등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나 입법화는 뒤처진 형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특히 인간 생식세포 대상 연구, 유전자 드라이브, 유전자 편집 작물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절실하다</span>”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세계의 연구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크리스퍼 의학을 연구하는 김형범 연세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3'>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실이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오철우 선임기자 cheolwoo@hani.co.kr<br/><br/> <br/><br/> <br/><br/>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란?<br/><br/>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바이러스 공격에 대항하는 박테리아의 면역체계를 따와 만든 유전공학 기법입니다.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일은 박테리아의 생존에 중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박테리아는 잘 짜인 면역체계를 진화 과정에서 발전시켜왔습니다. 전에 침입한 적 있는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정보 일부를 자신의 디엔에이 염기서열에다 기록해두는 거죠. 마침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미 갖고 있는 염기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곧바로 식별합니다. 뒤이어 박테리아 안에선 이렇게 식별된 외부 침입자의 염기서열을 절단하는 공격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 디엔에이 염기서열을 절단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기본 구성이지요. 박테리아의 이런 독특한 면역 시스템을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이라 부릅니다.<br/><br/> 2013년 과학자들은 이런 기본 모형을 이용해 박테리아 안이 아니라 다른 생물 세포에서도 작동하는 크리스퍼/카스9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한국 연구진도 이런 발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표적으로 삼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를 기록해둔 ‘안내자 아르엔에이(RNA)’라는 분자와 △찾아낸 표적 염기서열을 절단하는 분해효소 ‘카스9’ 분자, 이렇게 둘을 결합한 ‘유전자 가위’ 복합체를 만든 거죠. 이제 안내자 아르엔에이를 잘 설계해 카스9에다 붙이면 이 복합체는 세포핵 안에서 절단하려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찾아 결합하고 이어 그곳을 절단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거나 증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라낸 유전자 염기서열 부분을 미리 준비해둔 다른 염기서열로 교체해 유전자 기능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법을 써서 지식과 응용 분야를 넓히려는 여러 연구가 세계 각지의 연구실에서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0.txt

제목: “블랙코미디 소재로 삼으려다 ‘인간 강기훈’ 발견했죠”  
날짜: 20160719  
기자: 강성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19192932722  
본문: 강기훈씨가 ‘유서대필’ 누명을 벗는 데 24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검찰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신 써주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확정했다.<br/><br/> 국가가 ‘한 줌의 법률기술자들’을 앞세워 선량한 시민을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건엔 희비극적 요소가 뒤섞여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는 것이 바로 웃기는 일 아닌가? 내년 초 개봉을 목표로 를 만들고 있는 권경원(44) 감독이 애초 주목한 것도 이런 ‘웃김’이었다.<br/><br/> 그는 2009년 이 사건을 소재로 블랙코미디로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그 뒤 7년이 흘렀고, 코미디는 음악다큐가 됐다. 지난 15일 한겨레신문사에서 권 감독을 만났다.<br/><br/> <br/><br/>‘유서대필 조작사건’ 지켜본 ‘91학번’ <br/>2011년 강씨 처음 만나 ‘매력’ 끌려 <br/>3년전 암투병 강씨 ‘기타연주’ 보고 <br/>음악다큐 ‘강기훈 말고 강기타’ 찍어<br/><br/> <br/><br/> “<span class='quot0'>영혼 팔아서라도 많이 보여주고파</span>” <br/>후원 1만명 모아 ‘극장 개봉’ 기대<br/><br/><br/><br/> 코미디가 다큐가 된 데는 곡절이 있었다. 그는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2011년 9월 강기훈씨를 처음 만났다. ‘마음씨 곱고 평범한’ 한 인간이 보였다. 강씨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사이 암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한 강씨가 2013년 7월 친구들 앞에서 기타 연주회를 열었다. 권 감독은 이 모습을 찍었다. 강씨는 ‘카메라 때문에 미치겠다’고 했지만 영화보다 멋진 장면이 나왔다. ‘강기훈씨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2014년 3월 권 감독에게 500만원의 제작비를 모아주며 ‘강기훈 다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재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br/><br/> “촬영은 90%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강기훈씨가 연주하는 9~10개의 기타곡을 배경으로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1991년의 만인보’가 되겠네요.”<br/><br/> ‘강기훈 다큐’이지만 주인공 강씨 인터뷰는 그동안 딱 한 차례 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교토였다. “무죄가 확정된 뒤 저와 촬영감독이 강씨의 교토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강씨는 교토를 자주 갑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짧은 망명’ ‘내 몸이 갈 수 있는 최대치의 반경’이라고 하더군요.”<br/><br/> 강씨는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이 다큐보다는 극영화이길 바랐다고 한다. “사건이 아니라 인물을 그려 달라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이번 음악다큐를 두고도 ‘당신 영화이니 마음대로 하시오. 난 터치 안 한다’고 하더군요.” 강씨는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사건이 묻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음악다큐가 되느냐. 결국은 음악을 핑계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영화를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굳게 했지요.”<br/><br/> 강씨는 재작년 말 다큐의 1차 편집본을 시사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시사회 참석자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반반이었어요. 이야기를 늘 하던 방식대로 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br/><br/> 권 감독은 서울대 윤리교육과 91학번이다. 96년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두 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구속 전날 여동생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학과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대신 영화를 찍겠다. 사건을 해석하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는 곳에 있고 싶다.”<br/><br/> 대학을 마친 뒤 영화아카데미에 들어갔다. 연출전공 16기로 2001년 졸업했다. 졸업 작품인 가 도쿄국제영화제 초청을 받았고, 조감독을 한 것 등이 영화 무대의 주요한 이력이다. “(러시아 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예술) 영화를 즐겨 보는데, 현실은 같은 영화를 만들어야 했죠. 상업영화 질서에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br/><br/> ‘영화가 평생의 업이 될 수 있나’를 두고 숙고할 무렵 ‘강기훈’이 다가왔다. 그리고 ‘영화로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겠다’는 그의 소망도 슬쩍 나래를 펴게 됐다. “91년의 기억, 대학 1학년 때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영화화하고 싶었어요.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화가 났었죠. 어떤 영화사도 받지 않을 시놉시스를 전 국민이 받아준 셈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24년 동안 광장의 밀실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br/><br/> 그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람들이 이번 다큐를 많이 보게 하고 싶다”고도 했다. 지난 5월부터 포털 다음에서 스토리펀딩을 하고 있다. 19일 현재 1156명이 후원해 3584만원의 약정을 받았다. “서울시 지원금 3천만원까지 포함해 사실 제작비는 다 모았어요. 하지만 후원자가 1만명쯤 되면 좋겠어요. 그 정도면 일반 상영관 진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술전용관 확보도 영화진흥위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앞서 영화진흥위에 두 차례 제작 지원을 신청했으나 다 떨어졌다.<br/><br/> “극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전보다 커졌어요. 지금 상영 중인 을 만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다큐를 찍다 극영화를 만들었지요.”<br/><br/> 권 감독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뜨락에서 다큐 후원자들과 만나는 행사를 연다. <br/><br/>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br/><br/> <br/><br/><br/>■ “형, 내가 대통령 뜻 알잖아”…친박 윤상현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 <br/><br/>■ 사드가 안전하다고 말해선 안되는 이유 <br/><br/>■ “님의 몸을 탐닉하듯…” 헉! 내 페친도 SNS 바바리맨 <br/><br/>■ [화보] 일제 초기, 조선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1.txt

제목: “중년 문턱서 사랑하는 이들 떠나보내며 쓴 노래 편지”  
날짜: 20160718  
기자: 김보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18203857303  
본문: 첫 음반 낸 언더그라운드 가수 이순이씨<br/><br/> 30년 넘게 언더그라운드 무대에서 활동해온 가수 이순이(52)씨가 최근 ‘동네언니’ 이름으로 첫 음반 를 냈다.<br/><br/> “<span class='quot0'>저 자신을 비롯해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을 지닌 모든 이에게 보내는 ‘안부편지’를 노래로 전하고 싶었어요.</span>”<br/><br/> 특히 표제곡 ‘잘 지내요’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헌정한 노래로, 음원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세월호가족협의회에 직접 전달했다. ‘여름밤’ ‘벗 하나 있었으면’ ‘사랑쯤이야’ ‘꿈찾기’ ‘시든 꽃’ 등 모두 6곡의 수록곡은 삶과 죽음, 사랑과 헤어짐,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담백한 가사와 재즈풍 멜로디에 담고 있다. ‘동네언니’는 이런 삶의 이야기를 이웃집 언니처럼 편안하게 선율에 실어 들려주겠다는 뜻에서 만든 예명이다.<br/><br/> <br/><br/> 김보근 기자<br/><br/> 실제로 노래는 ‘동네언니’ 자신의 삶을 관통하며 유지해준 가장 큰 힘이다. 고등학교 때 ‘참새와 동그라미’라는 통기타 그룹을 만들어 공연을 시작한 이래 그의 삶에서는 늘 “노래가 쉬지 않고 흘러다녔다.”<br/><br/> 선생님이 되고 싶어 교대에 들어가서는 벨칸토 발성의 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음악교육을 부전공으로 이수해 성악으로 졸업 연주를 하기도 했다. 또 대학 내내 명동성당 가톨릭합창단과 전통 탈춤, 풍물·민요를 연구하는 모임인 가톨릭민속연구회에서 민요를 부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음악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내공을 쌓은 것이다.<br/><br/> 교직에 몸담았던 2007년까지 그는 전교조 서울교사노래모임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해웃음)에서 솔로로 활약했다. 건강 이상으로 퇴직한 뒤 2008년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꾸린 시민노래운동모임인 ‘평화의나무 합창단’ 창단에 참여해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지인과 프로젝트 듀오 ‘일년에 한번'을 결성해 신촌·홍대·망원동 등지의 공연장에서 1년에 한차례씩 작은 규모의 콘서트를 열고 있다.<br/><br/> “<span class='quot0'>문득 내 노래는 무얼까, 의문이 들었어요.</span>” 2012년 암이 발병해 두번 수술을 한 이후였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면서 “내 이야기를 내 목소리, 내 숨결로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암 치료 과정에서 남은 보험금을 털어 음반을 내기로 결심했다.<br/><br/> 음반 작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꼬박 일년 동안 이어졌다. “<span class='quot0'>내 숨결이 담긴 노래들을 만들면서 결국 내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죠.</span>” <br/><br/> 음반에는 ‘벗 하나 있었으면’(도종환 시, 주현신 곡)과 ‘꿈찾기’(손호준 글·곡)같이 해웃음 시절부터 불러온 노래도 있지만, 나머지 4곡은 그가 틈틈이 써놓았던 가사에 작곡가 신희준·복인웅씨가 곡을 붙여주었다. 녹음에 앞서 지난해 연말 ‘일년에 한번’ 공연에서는 직접 만든 새 노래 ‘여름밤’과 ‘사랑쯤이야’를 대중 앞에서 첫선을 보였다. 녹음 때는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동료 단원들이 코러스로 참여해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다.<br/><br/> 특히 노랫말에는 아픈 상처를 가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거나 일상을 관조하는 아름다움을 담고자 했다. 표제곡 ‘잘 지내요’가 대표적이다. ‘잘 지내요’ 한 어구가 다양한 선율로 되풀이된다. “억양에 따라 묻고 대답하고 다짐하고 권유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지인들에게 ‘잘 지내요’라고 묻고 ‘잘 지내요’라는 답을 듣는 식이죠.” 그 자신도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올 들어 치매가 악화돼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드려야 했던 어머니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합창단 동료 등을 떠올리게 되고, 결국 차분한 선율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br/><br/> ‘동네언니’는 “50대에 늦깎이로 앨범을 내기 위해 보낸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존재했던 ‘노래’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선율을 붙이고 직접 부르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동료들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span class='quot0'>행복한 기운을 담은 노래들이 마음 허전한 많은 이의 가슴에도 따뜻하게 전해졌으면 합니다.</span>” <br/><br/> tree21@hani.co.kr, 사진 동네언니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2.txt

제목: 7월 19일 동정  
날짜: 2016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18202931628  
본문: ⊙ 김정희 비올리스트는 20일 오후 8시 서울 종로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br/><br/> ⊙ 김희준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는 지난 달 호주 아델레이드에서 열린 2016 세계 암 보존치료학회에서 논문 ‘항암치료 중인 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도와주는 모바일 게임'으로 젊은 의학자상을 받았다. <br/><br/> ⊙ 홍석봉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18차 국제제올라이트학술대회에서 국내학자로는 처음으로 국제제올라이트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3.txt

제목: 길냥이 번식 막기 수술 대신 주사로  
날짜: 20160717  
기자: 최우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17155855526  
본문: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정부가 길고양이용 중성화 백신 개발에 나섰다. 지금까지 고양이들은 배를 갈라 자궁을 빼내거나 고환을 잘라내는 외과수술인 티엔아르(TNR·중성화 수술)를 받았는데, 연구가 성공하면 주사만 맞으면 된다. 전국 지자체가 지출하고 있는 수십억원의 중성화 수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br/><br/> 농림축산식품부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양이 불임 백신 개발 및 실용화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2016년 5월~2018년 말)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8억원의 정부 출연금 가운데 2억원은 집행했고, 6억원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br/><br/> 개발 중인 중성화 백신은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다. 고양이의 시상하부에서는 성 성숙을 돕는 호르몬(GnRH)이 나오는데, 이를 재조합하고 양을 늘려 ‘변형 호르몬’을 만든다. 이를 고양이 몸에 투입하면 고양이는 변형 호르몬을 침입자(항원)로 인식해 항체를 만든다. 항체가 생긴 고양이는 기존의 성 성숙을 돕는 호르몬(GnRH) 기능을 차단하게 되고, 성 성숙을 유도하는 호르몬(LH, FSH)의 분비가 억제돼 결국 난소와 고환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원리다. <br/><br/> 이 연구는 서울시가 적극 요청했다. 서울에는 16만~20만마리의 고양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둔촌동, 청담동, 종로5·6가동 등 12개 지역에서 표본조사를 해보니, 1㎢당 359~440마리의 길고양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티앤아르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70%는 돼야 하는데 포획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성화 수술을 받은 비율이 평균 10%에 불과했다.<br/><br/> 연구가 성공한다면, 길고양이 포획과 수술, 방사 등 중성화 사업에 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쓴 예산은 10억210만원(7777마리)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합치면 31억3900만원(2만6306마리)이고, 반려·유기 고양이 등 민간 비용까지 합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br/><br/> 일부 수의사는 외과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다, 백신이 호르몬 이상을 불러 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인 최인수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개체마다 면역학적 반응이 달라 100% 성공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외과수술보다는 고양이에게 덜 괴로운 방법</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수컷 쥐를 상대로 한 실험까지 마쳤다. 사람과 달리 배란기 계산이 어려운 고양이 암컷 대상 실험과 항체 유지 기간이 관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연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br/><br/>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티엔아르를 실시하고 있지만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여전하다. 주사만으로 중성화를 할 수 있다면 길고양이 관리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br/><br/>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4.txt

제목: 7월 15일 알림  
날짜: 2016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14194930218  
본문: ◇ 중앙대언론동문회는 13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임광기 보도본부 논설위원을 선임했다.<br/><br/>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규명 등을 위해 ‘정의기억재단'에 모금액 1625만원을 전달했다. <br/><br/> ◇ 서울여대는 18일부터 새달 12일까지 교내 50주년기념관 3층 상담실에서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상담실을 운영한다. 누리집(aotest.swu.ac.kr/counsel/counsel\_write.php) 참조.<br/><br/> ◇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는 최근 열린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장인경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제박물관협의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br/><br/> ◇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14일 2016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홍성천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을 이사로 선임한 뒤 이사장으로 뽑았다.<br/><br/> ◇ 인사혁신처·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과장급)으로 나지원 변호사를 임용했다. 나 담당관은 공정거래 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민원콜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업무 등을 한다.<br/><br/> ◇ 국제건축가연맹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금난새 뉴월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나경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김종성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명예사장·강석원 그룹가건축도시연구소 대표·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등 6명을 명예위원으로 위촉했다. <br/><br/> ◇ 계간지 은 23일 제1회 김광협문학상에 이하석 시인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시집 ‘연애 間’(문학과지성사, 2015)이다. 시상식은 10월29일 제주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한다.<br/><br/> ◇ 포스코에너지는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 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한 기부금 3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인 ‘에너지드림'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br/><br/> ◇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3일 청년 신도들이 모은 성금 3천만원을 세브란스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한다. <br/><br/> ◇ 대구대는 지난달 암으로 별세한 이갑숙 명예교수 유족으로부터 13일 1억원을 기부받았다. 대학은 고인이 몸담았던 학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줄 예정이다.<br/><br/> ◇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br/><br/> ◇ 한국감정원은 12일 시흥시와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지원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br/><br/> ◇ 한동대 링크사업단은 12일 교내 소회의실에서 포항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산학협력 및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br/><br/> ◇ 오렌지컴퍼니는 9월4일까지 서울 효자동 경복궁아트홀에서 전통 가족 뮤지컬 을 공연한다. (02)305-0525.<br/><br/> ◇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세월호 희망의<br/><br/> 길찾기 시민대화마당'을 열어 세월호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추모<br/><br/> 를 위한 그간의 활동을 돌아본다. 화쟁위는 또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순례길 조성 등을 포함한 활동 계획을 모색한다.<br/><br/> ◇ 기후변화센터는 새달 16일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일상 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누리집(clinatechangecenter.kr) 참조.<br/><br/> ◇ 아산나눔재단은 21일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비영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 융합을 통해 비영리의 미래를 모색한다'를 주제로 ‘2016<br/><br/> 엔 포럼'을 연다. <br/><br/>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3일 2016학년도 인문 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60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br/><br/> ◇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는 16일부터 유진경 소목장과 함께 한옥에 어울리는 전통 목가구를 이해하고 전통 도마를 직접 만들어보는 소목교실을 연다. 가구체험전시도 9월10일까지 연다.<br/><br/> ◇ CJ그룹은 ‘꿈키움창의학교' 4기를 8월 초부터 5개월간 운영한다. 음악, 뮤지컬, 패션, 요리, 영화 등 5개 분야에 꿈을 가진 200명의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에게 업계 전문가와 외부 인사들의 멘토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은 17일까지 누리집(donorscamp.org)에서. <br/><br/> ◇ 노웅래 국회의원실·녹색소비자연대·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선정성 광고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 <br/><br/> ◇ 한반도평화연구원은 16일 오전 9시 서울 대신동 필름포럼에서 `제17회 KPI 평화 씨네토크'를 연다. 이달의 영화는 이다. 070-8611-7109.<br/><br/>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14일 ‘2016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회의’를 열었다. <br/><br/> <br/><br/><br/>■ 속초로 갔다, 포켓몬 잡으러, 정말 잡혔다! <br/><br/>■ 홍준표 지사, 도의원에 “깜도 안되는 무뢰배” 또 막말 <br/><br/>■ 나 우간다 대통령이야~이 사진에 패러디 봇물 <br/><br/>■ [화보] 1960년 미군이 찍은 한국의 모습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5.txt

제목: 온열기를 “암 예방 한다” 속여 팔아  
날짜: 2016071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14154944843  
본문: 암 예방에 좋다거나 간 기능을 재생시킨다는 허위광고를 하면서 60~70대 노인들에게 온열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br/><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의료기기 업체 809곳을 단속한 결과 허위 광고 등으로 불법 판매를 한 업소 7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대구 달서구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노인들에게 ‘조합 자극기’와 ‘온열기’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다. 업체는 이 기기들이 ‘암 예방’, ‘간 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근육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몸에 열을 더해주는 기능밖에는 없었다. 의료기기 값도 높여 폭리를 취했는데 노인들이 산 가격은 각각 298만원, 48만원이었으나, 업체는 조합 자극기는 135만원, 온열기는 17만원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br/><br/> 또 안양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서 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일반식품을 치매, 당뇨, 혈압 등을 개선하는 데 효능이 있다고 속여 30만원에 팔았다. 이들은 이 제품을 16만5천원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br/><br/> 식약처는 “<span class='quot0'>여러 곳에서 체험방을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업체들은 단순한 식품과 의료기기가 뇌졸중,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만큼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 ‘떴다방’은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1577-1255), 전국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6.txt

제목: MLB, 암 극복을 위한 캠페인 'Stand Up To Cancer'  
날짜: 2016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13184846769  
본문: ■ 나 우간다 대통령이야~이 사진에 패러디 봇물 <br/><br/>■ 문재인이 히말라야에서 ‘팔보채’ 찾은 까닭 <br/><br/>■ [단독] 법원 “이정현-김시곤 녹취록, 청와대 입장 밝혀라” <br/><br/>■ [화보] 1960년 미군이 찍은 한국의 모습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7.txt

제목: 7월 2일 인사  
날짜: 2016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01180931774  
본문: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권태성<br/><br/>⊙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장 기술서기관 배종근<br/><br/>⊙ 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중앙전파관리소 강릉전파관리소장 정규연 △〃 대구〃 이상철 △융합기술 최미정 △〃신산업 이재형 △정보화기획 최준호 △정보보호지원 박준국 △디지털방송정책 최승만 △국립전파연구원 지원 최은호 △〃 전파환경안전 김신겸 △중앙전파관리소 지원 최현호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 유성완<br/><br/>⊙ 문화재청 ◇국장급 △기획조정관 이경훈 △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과장급 △조선왕릉관리소장 권석주 △운영지원 이종희 △무형문화재 이길배 △국립해양문화재 해양유물연구 곽유석<br/><br/>⊙ 기초과학연구원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공동연구단장 이수종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부연구단장 최원식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그룹리더 유종희<br/><br/>⊙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정구봉 △필드로봇〃 최영호 △경북의료서비스 로봇융합지원센터장 민정탁<br/><br/>⊙ 한국재정정보원 ◇본부장 △경영 황순구 △디브레인 윤유석 ◇팀장 △사이버안전센터 유달영 △감사 이철 △전략기획 권태상 △인재개발 홍학의 △재무회계 박성용 △정보전략 유근필 △예산정보 박충열 △집행〃 우광일 △자산〃 김명자 △결산〃 이재정 △인프라운영 김경수<br/><b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통일정책자문국장 김점준 ◇과장급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담당관 조희래<br/><br/>⊙ 에너지경제신문 ◇부국장급 △경제산업부장 고현석<br/><br/>⊙ TBN 광주교통방송 ◇국장급 △편성제작부장 김창용<br/><br/>⊙ 충남대 ◇서기관 △교무처 교무과장 박기원 △자연과학대학·약학대학·군사학부 행정실장 김남우<br/><br/>⊙ 고려대 △공학대학원장(공과대학장·테크노콤플렉스원장 겸) 정진택 △기술경영전문〃(그린스쿨대학원장 겸) 이관영 △학술정보지원팀 부장 최영목<br/><br/>⊙ 경일대 △기획처장 김현우 △학술정보원장 윤은준 △보건복지대학원장 양인숙 ◇학장 △자동차IT융합대 우현구 △사회과학대 성기중 ◇학부장 △자율전공 신재기 △사진영상 최종성 ◇사업단장 △아이디어팩토리 강형구 △기계·IT융합 자동차부품인력 강우종 △첨단 ICT 융합 생애주기 시설물 성능개선인력 하기주 △목표지향형 소방안전〃 제갈영순 △범죄피해 CARE 전문가 김재민 △베이비부머 라이프 디자이너 엄태영 ◇연구소장 △도시문제 김재석 △정보융합보안 김현성 △3D콘텐츠 김호권 △신재생에너지 박진남 △광디스플레이 강광선 △경산학 성기중 ◇센터장 △독도·간도교육 이범관 △지구관측 이영진 △자동차부품 RIC 김정현 <br/><br/>⊙ DGIST △행정처장 한주탁 △기획조정실장 한상철 △기획팀장 정인완<br/><br/>⊙ 단국대병원 △진료부원장 조종태 △기획조정실장 이명용<br/><br/>⊙ 분당서울대병원 △방사선안전관리실장 이원우 ◇센터장 △폐 윤호일 △관절 진섭 △소화기 김나영 △암 김형호 △권역심뇌혈관(신경과장 겸) 배희준 ◇과장 △내과 이종석 △외과 이태승 △흉부외과 김관민 △성형외과 허찬영 △소아청소년과 최창원 △피부과 윤상웅 △가정의학과 이기헌 ◇내과분과장 △감염(감염관리실장 겸) 김의석 △혈액종양 이근욱 △내분비 임수 △신장 진호준 ◇부장 △수술 도상환 △중환자진료 임청 △특수검사 조구영<br/><br/>⊙ 메트라이프생명 ◇상무 △Customer Marketing/경영전략 담당 한영호 ◇상무 △대표계리인 함승우<br/><br/>⊙ 한화생명 △부사장 윤병철 △고객지원팀장 성윤호 ◇ 지역단장 △서울 이진수 △안산 권봉섭 △부천 김정수 △남인천 한상욱 △일산 이은석 △용인 홍재욱 △경북 석상환 △둔산 장덕보 △울산 안성훈 △부산김해 성종헌 △TRI중앙 김영일 △TRI서울 김남수<br/><br/>⊙ 한화손해보험 △혁신사무국장 변동헌 △신채널사업본부장 최기진 △기획관리팀장 최종훈 ◇지역단장 △경기북부 김영복 △제주 김현용 △부평 국봉근 △부천 손길례 △인천 정호석 △포항 이선호 △부산SLC 최봉근 ◇파트장 △장기업무기획 황정연 △장기계약관리 이영주 △신채널사업본부마케팅 김종옥 △방카〃 이광용<br/><br/>⊙ ING생명 △투자관리팀 팀장(부장) 이애랑<br/><br/>⊙ 하나금융투자 △자본시장본부장 심재만<br/><br/>⊙ 하이투자증권 △Sales & Trading본부장 서영석 ◇지점장 △압구정 박미숙 △통영 권철종 △김해 이돈근 △진주 류병기 △대구 황용섭 △잠실역 김영민 △구서 이정선<br/><br/>⊙ KTB투자증권 △경영혁신실 전무 김정수 △경영혁신실장 안태우 △커뮤니케이션〃 장정욱 △홍보팀장 김진호 △스타트업금융〃 전형덕<br/><br/>⊙ 세정 △부사장 박이라<br/><br/>⊙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컨슈머사업본부 부사장 정성미 △서비스〃 전무 박동배 △공공〃 상무 김현정<br/><br/>⊙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과장 △건강기능식품정책 홍헌우 △식품정책조정 한상배 △식품관리총괄 김명호 △연구기획조정 김미정 △식품위해평가 구용의 △첨가물포장 김미경 △영양기능연구팀장 윤혜성 △화장품심사 최보경 △생물의약품연구 정자영 △생약연구 이효민 △독성연구 손수정 △특수독성 이종권 △수입관리 장경애 △유해물질분석 김도훈 △운영지원 최숙자 △식품안전관리 정의한 △수입관리 송성옥 △시험분석센터장 강태석 △식품안전관리 송인환 △의료제품안전 이윤제 △수입관리 홍영표 △운영지원 이제선<br/><br/>⊙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박정승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김욱한 △〃 농식품자원〃 김행란 ◇과장급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오관석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장 박기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 이용민 ◇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김상학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심규선 △농촌지원국역량개발과 이한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김선진 ◇과장급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이상호 △운영지원 전경성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 김종배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수확후이용 김선림<br/><br/>⊙ 부산대 ◇과장 △학생처 학생 이종필 △도서관 정보개발 유경종 △산학협력단 행정지원 김강호 △〃 연구회계 김광룡 ◇행정실장 △미래인재개발원 고원복 △교양교육원 오성진 △평생교육원 이기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구자수 △인문대학 ◇통합행정실장 △경제통상대학·경영대학·국제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경제통상대학원 이남숙 △간호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김재식<br/><br/> <br/><br/> <br/><br/> <br/><br/> <br/><br/><br/>■ 대통령 비서실장,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통상업무” <br/><br/>■ [카드뉴스] 막장드라마보다 더 막장…종편의 선정적 방송들 <br/><br/>■ “세상에 대통령이 KBS 봤네”는 이정현이 지어낸 얘기?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8.txt

제목: 400년 전 셰익스피어 ‘손에 잡힐듯’  
날짜: 2016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701144935357  
본문: 걸어서 세계 속으로(한국방송1 토 오전 9시40분) ‘셰익스피어 서거 400돌 추모, 영국문화 애(愛) 빠지다’ 편.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서거 400돌을 기념해 그의 출생지인 중부의 작은 도시 스트랫퍼드어폰에 간다. 지난 4월 열린 추모 행사를 소개한다. 셰익스피어의 숨결이 느껴지는 생가와 그가 잠들어 있는 홀리 트리니티 교회도 찾는다. 13세기에 지어진 교회에는 아내와 딸, 사위의 무덤도 같이 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인 룰워스 코브와 영국인이 사랑한 가상 인물 셜록 홈스 박물관에도 간다. 1990년 개관한 곳으로 셜록 홈스의 모든 것이 전시돼 있다.<br/><br/>드라마와 예능 접목 궁금하네 <br/><br/> 연극이 끝나고 난 뒤(티브이엔 토 밤 9시45분) 첫 방송. 드라마와 리얼리티를 결합한 독특한 포맷의 예능프로그램이다. 8부작. 에서 만든 웹드라마 와 연계해 촬영이 끝나고 난 뒤 배우들의 실제 모습을 담는다. 에 출연하는 하석진, 윤소희, 걸스데이 유라 등이 나온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배우들의 미묘한 감정 등이 기대를 높인다. 한 작품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뽑아낸 아이디어가 새롭다.<br/><br/>수학자 존 내쉬의 일대기<br/><br/>세계의 명화-뷰티풀 마인드(교육방송 토 밤 11시45분) 미국 수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쉬(1928~2015)를 조명한 2001년 미국 영화. 세상을 수학적 사고로 바라보는 천재였지만, 사람과의 교류에는 서툰 괴짜 장학생. 균형 이론 논문을 발표하고 국방부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등 천재로서의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를 조명한다. 드라마에 스릴러적 요소를 접목해 몰입을 돕는다. 러셀 크로우, 제니퍼 코넬리 주연. <br/><br/>조승우와 고고열풍 고고!<br/><br/>한국영화특선-고고70(교육방송 일 밤 11시) 1970년대 고고 열풍에 빠진 청춘들의 이야기. 2008년 개봉 당시 조승우와 신민아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상규(조승우)는 대구 왜관의 한 기지촌 클럽에서 컨츄리 음악을 연주하며 하루하루 보낸다. 그러다 강렬한 기타 사운드에 매료되고, 만식(차승우) 등과 6인조 밴드 ‘데블스’를 결성한다. 서울의 한 그룹사운드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팝 칼럼니스트의 눈에 띄어 고고클럽 무대에 선다. <br/><br/> 50년 역사 대구 오토바이 동네<br/><br/>다큐 3일(한국방송2 일 밤 10시40분) ‘대구 오토바이 골목 72시간’편. 대구 인교동은 50년 넘은 오토바이 골목이다. 말이 주요 교통 수단이던 시절 마장이 열렸던 이곳에 1960년대부터 오토바이 상점이 들어섰다. 소형 스쿠터부터 명품 오토바이 등 없는 게 없다. 라이딩 소품만 전문으로 제작하는 가죽 공방, 낡은 시트를 새 것으로 환골탈태 시켜주는 시트 전문점도 있다. 10대부터 이곳을 찾았다는 ‘백발의 라이더’, 형제 라이더 등의 삶을 오토바이를 매개로 들여다본다. <br/><br/> 최종회는 또 다를까<br/><br/>디어 마이 프렌즈(티브이엔 토 밤 8시20분) 마지막회로 80분 특별편성한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조희자(김혜자), 암에 걸린 장난희(고두심)는 어떻게 될까. 문정아(나문희)-김석균(신구)은 화해할까. 박완(고현정)과 서연하(조인성)의 사랑은? 궁금한 것 투성이인데 우리네 인생처럼 예측할 수 없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실망하지 않는 최종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인들을 중심에 세워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아닌 그들 인생 자체를 들여다보며 화제를 모았다.<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br/>■ 대통령 비서실장,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통상업무” <br/><br/>■ [카드뉴스] 막장드라마보다 더 막장…종편의 선정적 방송들 <br/><br/>■ “세상에 대통령이 KBS 봤네”는 이정현이 지어낸 얘기?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19.txt

제목: [서양사람] 어떤 투사 / 조한욱  
날짜: 2016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30182949242  
본문: 조한욱 <br/>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br/><br/> 질 아일랜드는 영국 출신의 영화배우였다. 단역으로만 출연하며 빛을 보지 못하던 그는 데이비드 매컬럼과 결혼한 뒤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매컬럼은 1960년대의 텔레비전 시리즈물 에서 러시아계 첩보원 일리아 쿠리아킨의 배역으로 당대의 섹스심벌로 떠오르며 인기몰이를 하던 중이었다. 이후 아일랜드는 그 프로그램에 네 번 출연했다. 그들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사내아이 하나를 더 입양했다.<br/><br/> 아일랜드는 매컬럼과 이혼한 뒤 찰스 브론슨과 결혼했다. 아일랜드는 브론슨이 출연한 영화에서 브론슨의 상대역을 맡음으로써 배우의 명맥을 유지했다. 브론슨은 주로 냉혹한 킬러의 배역을 맡았는데, 어떤 여배우도 그의 상대역을 하지 않으려 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br/><br/> 그 변변치 못한 영화계의 경력을 말하려고 질 아일랜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다. 영화배우로서 어떤 역할보다 실제 삶 속의 그가 훨씬 빛나고 감동적이었다. 아일랜드는 1984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그는 암과 싸운 투병기를 두 권의 책으로 펴냈다. ‘미국 암 협회’의 대변인으로 그 위험성을 널리 홍보했고, 국회에서 암의 치료비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br/><br/> 그런 그에게 1989년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3년 만에 재발한 암이 이번에는 폐로 전이되었던 것이다. 기껏해야 2년 연명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최후의 선고였다. 낙담했지만 그는 남은 기간을 소중하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입양한 아들도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사경을 헤맸다. 그는 자신보다 여섯 달 먼저 사망한 그 아들의 투병도 상세하게 기록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세 번째 투병기를 미완으로 남겨놓고 사망했다.<br/><br/> “내 장례식장엔 풍선과 샴페인을 갖추세요. 모두 밝고 환하게 내 삶을 기념하는 축제를 즐기도록 해요.” 그는 끝까지 암의 희생자가 아니라 암에 저항하는 투사였다. <br/><br/><br/>■ 이정현, 세월호 보도 KBS국장에 “해경 비판 나중에” 압박 <br/><br/>■ [영상] 조응천 “예우받은 전관 있는데 예우해준 현관 어딨냐” <br/><br/>■ “‘교육부가 EBS 통제’ 한선교 발언, 기념비적 망언”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0.txt

제목: 유방암 의심 판정 받은 날, 그녀가 내게 전화를 했다  
날짜: 2016063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30103850464  
본문: 어느 유방암 환자와의 상담기/<br/><br/> 의료전문기자가 돼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지 벌써 15년가량 됐지만 그래도 의사 면허를 가졌다고 주변에서 진료 상담을 해 오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은 물론 각종 사회 모임에서도 적지 않게 시달리는데요. ‘이럴 때에라도 다른 삶에 도움이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능력 되는 대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br/><br/> 때로는 상당히 난감한 사례도 많은데요. 바로 유방암과 같은 경우입니다. 남성이 아예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 대부분이 여성인데다가 민감한 얘기들이 오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암이나 폐암의 경우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나은 치료법인데, 유방암은 초기라도 유방에 칼을 대 일부 또는 전체를 잘라내는 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닙니다.<br/><br/> 유방암 검사에서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이아무개(42)씨는 저에게 두 번 도움을 요청한 경우인데요. 이씨는 지난해 11월쯤 건강검진을 받다가 유방암 검진을 위한 유방촬영검사에서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4년 전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같은 검사에서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아 ‘암에 걸렸다’는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의심 판정이 나오던 날 밤에 곧 죽을 사람처럼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 오던 기억이 납니다.<br/><br/> “한밤중이라 미안한데, 혼자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드려요. 이제 30대 후반인데 벌써 암에 걸려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br/><br/> “아직 의심일 뿐이에요. 또 암이라고 해도 유방암은 워낙 생존율이 높아 그렇게 겁낼 것까지는 없어요.”<br/><br/> “가슴에 가는 주삿바늘 같은 관을 찔러 넣어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 검사는 해야 하겠죠?”<br/><br/> “유방촬영검사에서 유방암 의심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암이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조직검사는 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떼어내어 암세포인지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여기에서 양성으로 나와야 암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그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br/><br/> 사실 유방암 검진에서 하는 유방촬영검사는 정확성이 높은 검사는 아닙니다. 2011년 5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등이 주최한 ‘암정복포럼’에서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1999년부터 유방촬영검사로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실제 암 환자는 0.6%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방촬영검사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나온 1000명 가운데 6명 정도만 진짜 암이지, 나머지 994명은 유방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암세포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고 결국엔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br/><br/><br/><br/>의심판정 받고 공포에 떨던 그녀 <br/>100여만원짜리 정밀검사에서 <br/>다행히 ‘안도의 한숨’ <br/>4년뒤 또다시 의심 판정 <br/>이번엔 암세포 나왔지만 담담했다<br/><br/><br/><br/> 유방조직 떼내고 보형물 삽입 <br/>상실감이나 충격을 줄였다 <br/>인생 밑바닥 갔다온 기분이긴 하지만 <br/>5년 생존율 91.5%, 10년은 85.4% <br/>충분히 이겨낼수 있는 병이기에…<br/><br/><br/><br/> 이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 여성 2000명이 10년 동안 유방촬영검사를 받으면 1명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명 가운데 10명은 유방암이 없는데도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뒤 이후 추가 검사에서도 유방암이 있는 것으로 나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2000명의 10%인 200명은 유방촬영검사에서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뒤, 이후 추가 검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밝혀지기까지 검사비를 들인 것은 물론 암이라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br/><br/> 너무 걱정 말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씨는 암이라는 불안감에 그날 밤을 거의 새웠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이씨는 결국 며칠 뒤 한 종합병원을 찾아 암세포인지 확진하는 맘모톰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쯤 지나 암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하더니, 나중에는 괜한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맘모톰 검사에 100만원 넘는 돈을 들여야 했기에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br/><br/><br/><br/> 이렇게 4년 전 유방암이 아닌데도 의심 판정으로 시달렸던 이씨는 지난해 11월에는 그리 놀라지도 않았고, 추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걱정이 되었는지 며칠 뒤 또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br/><br/> “<span class='quot0'>이번에도 또 아닌 것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검사를 받아야겠죠?</span>”<br/><br/> “<span class='quot0'>유방암 의심이라는 결과에서 받을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다면 확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span>”<br/><br/> 물론 최종 결정은 이씨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이씨는 4년 사이에 가까운 친구를 비롯해 직장에서도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어 유방암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며, 맘모톰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알려 왔습니다.<br/><br/> “<span class='quot0'>검사비는 암이 아니라는 안도를 위한 비용으로 여기기로 했어요</span>”라고 말하더군요.<br/><br/> 그런데 검사 결과에서 이번에는 정말 암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4년 전에 겪었던 ‘가짜 유방암’에 놀란 탓인지, 정작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리 겁나지 않았어요. 주변의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 등을 받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 크게 겁이 나지는 않네요”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유방이나 겨드랑이에서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두가 함몰되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으로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씨처럼 유방암 검진에서 찾습니다. <br/><br/>이씨는 이후 몇 가지 검사를 더 한 결과 유방암 1기로 진단됐고,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국립암센터와 중앙암등록본부의 최근 자료를 보면 유방암의 경우 진단 뒤 5년 이상 살 가능성이 91.5%에 이를 정도이고, 1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 역시 85.4%나 돼 생존율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게다가 유방암 1기는 5년 이상 생존율이 98%에 이릅니다. 폐암이나 췌장암의 경우 진단 및 치료 뒤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각각 23.5%, 9.4%밖에 되지 않는 것에 견줘보면 유방암의 생존율은 엄청나게 높은 셈입니다.<br/><br/> 다만 이씨의 경우 암세포가 확인된 암 덩어리가 크지 않았지만, 암이 의심되는 매우 작은 혹이 몇 개 더 있어 수술 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칫 한쪽 유방 전체가 수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씨는 인터넷 등에서 암세포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보고 몇달 관찰해볼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성 배우인 앤절리나 졸리 사례를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씨는 “<span class='quot1'>예방을 위해 수술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발견된 유방암에 대해 치료는 하고 봐야겠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참고로 유전적으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던 앤절리나 졸리는 2013년 5월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방을 절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유방 절제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손병호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모든 여성이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앤절리나 졸리는 유전자 이상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60% 이상으로 아주 높아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단순히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고 해서 유방을 절제하는 것은 과한 치료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br/> 이씨의 경우 항암제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여 수술을 하거나, 수술 뒤 항암제 치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유방 조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씨는 유방 조직이 남아 있으면 유방암 검진도 받아야 하고, 유방암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한쪽 유방 전체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로 결정했습니다.<br/><br/> “<span class='quot0'>유방암 수술 뒤에도 유방촬영검사 등에서 자꾸 유방암 의심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귀찮으니 유방 조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유방의 모양을 갖추도록 하는 유방재건술을 받기로 했습니다.</span>”<br/><br/> 1990년대만 해도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유방을 전부 제거한 뒤 동시에 유방재건술을 하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대중목욕탕 등을 가기도 꺼려지는 등 여성으로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 뒤 곧바로 유방재건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서울아산병원의 이택종 성형외과 교수팀의 조사 자료를 보면 2010~2013년에 유방암 수술 뒤 곧바로 유방재건술까지 받은 환자 비율은 36.8%에 이르렀습니다. 유방암 수술 뒤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유방 절제로 인한 상실감이나 심리적 충격을 아예 겪지 않도록 차단하는 셈입니다. 이택종 교수는 “<span class='quot2'>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 곧바로 유방재건술을 받는 경우, 암이 나중에 혹시라도 재발할 때 발견이 늦어지거나 생존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사 결과 생존율이 낮아지지 않았고, 유방재건술의 안정성과 유효성 또한 확인됐다</span>”고 설명했습니다.<br/><br/> 유방재건술의 경우 자기 배의 근육 등을 떼어내어 활용하는 자가조직 재건술이나 보형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가조직 재건술을 받아도 수술 뒤 임신이나 분만이 가능합니다. 이씨는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br/><br/> 이씨는 “<span class='quot1'>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에 이전보다 조금 더 커진 유방의 모습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고민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술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span>”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유방 보형물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에는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또 다른 쪽 유방에도 암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크게 높다는 점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br/><br/> “우선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유방 전체 제거술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재건술까지 받으니 암 수술로 인한 상처는 크지 않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암까지 걸려 봤다는 생각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온 기분이기는 합니다.”<br/><br/> 이전에는 술을 즐겨 마셨던 이씨는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을 생각이라며 금주를 선언했습니다. 술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핏속 농도를 높여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며 헬스장에 등록해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br/><br/> 이씨는 “처음에는 왜 잘못도 없는 나에게 유방암이라는 악재가 생겼는지 원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암과 같이 중증질환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긍정의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씨가 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쪽 유방에는 암이 생기지 않아 더 이상 상담해줄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사를 맺었습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br/><br/> <br/><br/><br/><br/>흔히 걸리거나 평소 궁금했던 질환을 가리지 않고 다뤄 보자는 의미에서 ‘종합병원’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환자들이 진단과 치료를 받는 과정을 밀착취재하고 환자들이 느꼈던 아픔에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격주마다 2개면에 걸쳐 실립니다.<br/><br/><br/><br/><br/><br/> <br/><br/> <br/><br/> <br/><br/><br/>■ 박승춘 잡겠다고 ‘색깔론’ 들고나온 더민주 <br/><br/>■ 비박들, 박근혜 정부에 직격탄 “선거 망치려 작정” <br/><br/>■ [덕기자 덕질기] 나는 집에서 당구 친다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1.txt

제목: 술 멀리하고, 등푸른 생선 가까이  
날짜: 2016063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30103008221  
본문: 유방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유방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피함으로써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다. 유방암 발생에는 식사 등 생활습관, 출산 등 생물학적 요인이 중요한 구실을 하며,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초경이 과거보다 빨라졌고, 결혼과 출산이 늦어졌으며, 아이도 적게 출산해 유방암 위험요인이 많아졌다. 유방암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연료에 해당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이 영향을 줄이려면 식습관 개선과 운동이 필요하다.<br/><br/> ■ 식사 습관 <br/><br/>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줄이는 식사법은 일반적인 건강식이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선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알코올은 몸의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면 소량의 적포도주, 맥주, 과실주 등이 그나마 낫다. 식사 중에는 지방의 섭취 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선 동물성 지방이나 오메가6 지방을 피해야 한다. 이들 지방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수치를 높여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기름기가 많은 붉은 육류, 전지 유제품, 치즈 등이 대표적인 음식이다. 대신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 지방은 오메가6 지방의 영향을 차단하고 세포 안에서 에스트로겐의 상승 효과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연어, 고등어, 청어, 꽁치, 대구 등 등이 푸른 생선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섬유질이 많은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비만을 억제하고 장 속에서 에스트로겐의 재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황록색 채소, 과일, 콩, 곡물 등에 섬유질이 많다. 구체적으로는 마늘, 케일,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옥수수, 고구마 등의 채소들이나, 딸기, 자두, 오렌지, 적포도, 키위 등이다. 이들은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다.<br/><br/> 이와 함께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분 흡수가 늘어날수록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과 에스트로겐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때문이다. 쌀밥, 으깬 감자, 빵, 과자류, 시리얼 등 당분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대신 콩, 채소를 먹고, 시리얼의 경우 섬유질이 많고 당분이 적게 든 종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br/><br/> ■ 운동 <br/><br/>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의 양이 감소한다. 또 인슐린의 수치를 낮춰 유방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 이 때문에 유방암의 발병은 물론 유방암 환자의 암 재발을 예방하는 데에 운동은 큰 도움이 된다. 권장되는 운동은 유산소운동으로서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4일 정도 하면 된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 에어로빅, 등산 등과 같은 유산소운동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된다. <br/><br/>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복부 지방을 줄이면 몸속의 에스트로겐도 적게 만들어진다. 몸무게의 증가가 가장 위험한 시기는 폐경기 직후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이때 정상 몸무게에서 5㎏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br/><br/> ■ 정기검진 <br/><br/>유방촬영검사나 자가검진 등 정기검진을 통해 혹시 암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질병의 초기에 발견하는 검진은 흔히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식사습관 개선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유방암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br/><br/>도움말=정승필 고려대의대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고범석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정소연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 전문의<br/><br/> <br/><br/> <br/><br/> <br/><br/><br/>■ 박승춘 잡겠다고 ‘색깔론’ 들고나온 더민주 <br/><br/>■ 비박들, 박근혜 정부에 직격탄 “선거 망치려 작정” <br/><br/>■ [덕기자 덕질기] 나는 집에서 당구 친다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2.txt

제목: ‘잠 못 자는 한국인’…하루평균 6.3시간 ‘아태지역 최하위’  
날짜: 20160627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27104839964  
본문: ‘6.3시간.’<br/><br/> 한국인의 실제 평균 수면시간이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 27일 에이아이에이(AIA)가 아태지역 15개 국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실제 수면시간은 아태지역 평균 수면시간(6.9시간)보다 0.6시간 가량 적었다. 또 응답자가 희망하는 수면시간인 ‘기대 수면’ 시간도 7.5시간으로, 아태지역 평균 기대수면 시간(7.9)보다 적었다. <br/><br/> 자녀의 수면에 관한 질문에서도 국내 응답자의 53%는 ‘자녀가 충분히 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터넷 사용(복수응답 가능·39%)과 방과 후 학원 수업(30%) 등이 꼽혔다.<br/><br/> 수면과 체중, 식습관, 스트레스 지수 등 건강 수준을 종합한 건강생활지수는 61점으로 15개 국가 중 9위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57점으로 최하위였던 것에 견주면 그나마 점수와 순위가 올라갔다. 하지만 15개국 평균(64점)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태지역에서 건강생활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72점)이었고, 홍콩(57점)이 최하위였다. <br/><br/> 한국인들은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체중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 국내 응답자의 74%는 스스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아태지역 평균(48%)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치로 대만(76%)에 이어 2위였다. 성별로는 여성(81%)이 남성(66%)보다 불만족도가 높았다. 희망 체중 감량은 평균 7.2㎏이었다. 다이어트를 원하는 이유로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93%), ‘더 날렵한 느낌을 가지려고’(91%) 등을 꼽았다. 자녀의 체중 감량에 대한 질문에서도 자녀의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0%에 이르러 아시아 평균(16%)보다 3배나 높았다. 국내 응답자는 자녀 체중 감량 정도를 평균 5㎏이라고 답했다.<br/><br/> 식습관에서도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한국인은 31%로, 아태지역 평균(15%)보다 2배 높았다.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가?’ 질문에는 51%만 ‘그렇다’고 답해 아태지역 평균(68%)보다 현저히 낮았다. 체중감량을 위해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한국인도 40%에 불과해 아태지역 평균(60%)을 훨씬 밑돌았다.<br/><br/> 한국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6.6점으로 아태지역 평균(6.2점)보다 다소 높았고,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가계 재무상황(81%)과 회사 업무(80%), 사회생활(67%), 개인 건강(66%) 등이 꼽혔다. 개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암 발병(71%)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위암(44%), 간암(38%), 폐암(36%) 발병을 걱정했고, 여성은 위암(44%), 유방암(36%), 자궁경부암(31%) 등 여성 암 발병을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아태지역 15개 국가에서 18세 이상 성인 1만316명 (한국 75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인터뷰로 진행됐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br/><br/> <br/><br/> <br/><br/><br/>■ 교수님이 까라면 까야하는 ‘대학원생 삶’ 깠다 <br/><br/>■ “인공지능이 소설 썼다는 보도는 과장됐다” <br/><br/>■ 임은정 검사 “<span class='quot0'>스폰서 달고 놀던 간부, 저를 꽃뱀이라 욕해</span>”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3.txt

제목: 하이닉스는 이제 안전한 일터가 되었을까  
날짜: 20160625  
기자: 오승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25140828892  
본문: ▶2014년 7월 가 ‘하이닉스 직업병 문제’를 최초 보도한 직후, 하이닉스는 곧바로 실태조사와 보상에 나설 뜻을 알려 왔습니다. 신문 보도부터 검증위 구성까지 석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은 삼성전자의 태도와 견주게 됩니다. ‘반올림’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 반도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262일째(25일 현재)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공장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검증위 활동 이후를 취재했습니다. <br/><br/> “‘반도체 직업병’ 사안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직업병의 인과관계 규명이라는 과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갈등 또는 제도의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이런 성격을 감안하여 과학적 사실관계 규명이라는 논쟁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였습니다.”<br/><br/> 지난달 31일, 에스케이(SK)하이닉스산업보건검증위원회(검증위)가 펴낸 백서에서 위원장인 장재연 아주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검증위 활동의 의의를 이렇게 자평했다. 백서 발간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검증위는 2014년 하이닉스 반도체 작업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발병 현황과 작업환경 실태 등을 최초 보도한 심층리포트(7월28일치 1·4·5면, 8월4일치 1·4면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를 계기로 출범했다. 하이닉스의 지원 아래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한 검증위는 그해 10월부터 1년여간 작업환경 측정과 화학물질 관리실태 평가, 역학조사 등을 벌였다. <br/><br/> 지난해 11월, 검증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작업장과 직업병 의심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다”면서도 회사 쪽에 포괄적 지원·보상안과 127개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 개선안을 제안했고, 하이닉스는 이를 전격 수용했다. 언론의 문제 제기→회사의 대책 마련→외부 검증시스템 도입→보상안 및 산업보건과제 이행이라는 새로운 직업병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한 하이닉스는 검증위 활동 이후 ‘안전한 일터’가 되었을까?<br/><br/> <br/><br/> 2019년까지 3년 동안 접수<br/><br/> 2년 전 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하이닉스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노동자 가운데 최소 17명이 백혈병 등 림프조절기계 질환으로 숨졌고, 1995년부터 2010년까지 28명의 노동자가 림프조절기계 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림프조혈기계 질환의 사망·발병자 비율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 등 피를 만드는 뼛속 조직인 조혈 모세포가 정상적인 분화를 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군인 림프조절기계 질환은 대표적인 ‘반도체 직업병’으로 불린다.<br/><br/> 보도에서 확인된 최소 45명에 이르는 전·현직 노동자들은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이닉스는 올 1월, 검증위의 권고대로 독립기구인 ‘지원보상위원회’(www.ohscc.org)를 꾸려 반도체 직업병 의심 사례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1차 접수기간인 1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89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후 23일 현재까지 총 135건의 접수가 이뤄졌다. 질병으로 보면 갑상선암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유산이 26건, 유방암이 12건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백혈병 8건, 비호지킨 림프종 8건, 위암 8건, 폐암 등 기타 질병 16건의 질병이 접수됐다. <br/><br/> 지난 5월부터는 첫 지원보상금 지급도 이뤄지고 있다. 135건의 총 접수 건수 가운데 104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이뤄졌고 그중 53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나머지 50여건에 대해서 곧 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갈 예정</span>”이라고 했다. 검증위는 앞서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지원금 체계를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으로 다음의 3원칙을 세웠다. 첫째, 인과관계에 구속받지 않고 폭넓은 상관성에 기반을 두는 ‘인과관계 유보의 원칙’, 둘째, 노동자의 치료와 일상 유지에 필요한 기본 수준을 지원하는 ‘필요에 기반을 둔 지원의 원칙’, 셋째, 정당하고 합리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공평의 원칙’이 그것. 보상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증위 보고서를 보면 암의 경우 지원금액은 산재사망유족일시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소득은 2015년 생산직 10년 근무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백혈병의 경우 1억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br/><br/> 접수는 △1999년 10월 현대전자와 엘지(LG)반도체의 흡수합병 이후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임직원 △재직 중에 자연유산 등 생식질환이 발병한 임직원 △2세 기형 등 자녀질환은 부모 중 1인이 임신 3개월 전부터 출생 사이에 제조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19살이 되기 전에 발병한 자녀 등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br/><br/>▶▶‘하이닉스 반도체의 비극’ 기사 전체보기<br/><br/> 특히 반도체 노동자의 2세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한 것은 가 2014년 반도체 노동자들의 불임과 유산, 기형아 출산 등 생식독성 문제를 최초 보도(11월13일치 1·4·5면, 11월14일치 1·4·5면 ‘반도체 노동자 2세의 비극’)한 데 따른 것으로 반도체 직업병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당시 기사에는 삼성반도체 여성 노동자 2세들의 기형 사례와 더불어 하이닉스 사례도 포함됐다. 구미사업장에서 엔지니어와 오퍼레이터로 일한 장아무개(40)씨 부부의 아들(11)은 요도관 기형과 물고기 같은 입 모양을 보이는 거구증을 갖고 태어났다. 아이에겐 왼쪽 관자놀이뼈도 없었다.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장씨와 아내와 주로 다뤘다는 솔벤트류 유기화합물은 2세의 선천기형, 특히 구강·소화기·비뇨기계 기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이천 사업장에서 예방정비(PM) 업무를 하는 아빠 박아무개씨와 오퍼레이터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3)은 선천성 면역결핍증을 안고 태어났다. 당시 신생아였던 아이는 3주에 한 번씩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br/><br/> 가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다른 피해자들도 잇따라 신청을 하고 있다. 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2008년 11월 악성림프종으로 숨진 정철모씨의 부인 장영은(48)씨와, 하이닉스와 매그나칩(하이닉스 비메모리 사업부가 분리된 업체)에서 일하다 2011년 5월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숨진 김진기(당시 38살·14년차)씨의 부인 임진숙씨도 보상지원 신청을 마쳤다. <br/><br/> 그러나 2세 질환을 앓고 있는 두 가족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장씨는 아들의 선천성 기형이 아닌 2009년부터 자신이 앓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먼저 보상지원 신청을 했다. 박씨도 아이의 희귀성 질환에 대해 보상지원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보상이 이뤄질지도 회의적이고 자회사(에스케이하이닉스ENG) 직원인 까닭에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했다고 한다. <br/><br/> <br/><br/> 검증위도 못 막은 반도체 직업병?<br/><br/> 두려운 마음에 신청을 꺼리는 자회사 직원은 박씨만이 아니다. 박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최아무개(29)씨는 지난 4월 받은 특수건강검진에서 림프조혈기계질환의 일종인 재생불량성(무형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방사선과 벤젠 등의 노출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 2012년과 2013년 근로복지공단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최아무개(당시 32살)씨 등에게 잇따라 산재 인정을 한 바 있다.<br/><br/> 2013년 12월에 입사한 최씨는 박씨와 같은 예방정비 업무를 했다. 입사 3년차인 20대의 건장한 청년이 희귀병에 걸린 것이다. 올해 들어 하이닉스에서 림프조혈기계 질환자가 추가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장난 스크러버(유해가스 배출 정화장치)를 수리할 때 집중적으로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예방정비 업무는 고위험 작업군에 속한다. 그와 가까운 한 동료는 와 한 통화에서 “회사에 괜히 찍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망설이길래 ‘치료비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해 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2개월째 병가를 내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관계자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2년 동안 무급휴직이 가능하고 그 뒤 본인이 원하면 복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br/> 전문가들은 재직자의 경우 회사의 건강검진을 통해 발병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보상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공유정옥 박사(산업보건의)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직원들은 아무래도 회사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자회사나 협력사의 경우는 더 심할 것으로 본다. 보상 대상 질병으로 확정되면 자동신청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때”라고 했다. <br/><br/> 공교롭게도 최씨가 일을 배우기 시작한 시기는 보도 이후 회사가 최고 수준의 산업안전보건을 약속하고 검증위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시기와 고스란히 겹친다. 회사 쪽에서는 “발병 원인에 대해 면밀한 역학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증위 활동기간 중이던 지난해에도 이천사업장에서 가스 누출 등 두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4월에는 이천 신축공장 배기 스크러버에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를 사용해 스크러버 내부에서 작업하던 하이닉스 협력사 직원 3명이 질식·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를 사용한 것이 합당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하이닉스와 협력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하이닉스 상무 김아무개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r/><br/> 사고는 올해도 있었다. 지난달 23일 밤, 하이닉스 청주공장 4층 클린룸에서 질소가 누출돼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일부가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잦은 사고는 검증위를 통해 최고의 산업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하이닉스의 의지를 무색하게 했다. <br/><br/> 진상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재발 방지가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방만이 사후보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백 가지 유해화학물질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재발 방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화학물질 관리로 귀결된다. 검증위가 전체 127개 개선안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66개 과제를 화학물질 및 작업환경 분야에 집중한 이유다. 하이닉스는 “127개의 개선안 중 6월 말 현재 총 72개 과제를 달성해 5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br/><br/> <br/><br/> “<span class='quot1'>산재 관련 대응은 삼성과 똑같아</span>”<br/><br/>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청주사업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린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5월 산재 신청을 했다. 백혈병과 더불어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발병 빈도가 높은 비호지킨 림프종은 종양이 온몸에 나타날 수 있고 어디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악성 림프종으로 불린다. 지난 21일, 김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 소속 연구원과 법률 대리인인 이종란 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와 함께 산재 현장조사의 일환으로 청주사업장을 찾았다. 김씨가 예전에 근무했던 라인의 작업환경을 측정해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가늠하기 위함이었다. 양쪽 귀와 코, 왼쪽 눈으로 림프종이 재발해 청력과 후각, 왼쪽 시력까지 잃은 김씨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가스누출 지점을 찾기 어려워 회사 쪽에 이 노무사의 참관을 요청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의 현장조사 입회 관련 법규가 없다며 이 노무사의 동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노무사는 23일 와 한 통화에서 “현장 동행을 거부한 게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번째다. 산재로 악명이 높은 한국타이어도 노무사의 입회를 허용한다.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하이닉스지만 산재와 관련한 대응은 삼성전자와 같이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닉스 쪽은 “반올림 대표 격인 인물이라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모범 기업’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걸까.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br/><br/> <br/><br/><br/><br/> <br/><br/><br/>■ ‘꿈의 직장’의 두 얼굴…40대 간호사의 죽음 <br/><br/>■ 사진으로 본 브렉시트 ‘결정적 장면’ 9가지 <br/><br/>■ ‘박근혜 수호대’ 추선희의 운명은?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4.txt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선택해 무료 접종…“부작용 사례 보고 없어”  
날짜: 2016062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23155839379  
본문: 27일부터 두 종류의 자궁경부암 백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r/><br/>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이 먼저 공급됐고, 27일부터는 또 다른 자궁경부암 백신인 서바릭스도 공급돼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12살인 여성 청소년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이 두 가지 백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6개월 간격으로 2번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br/><br/>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은 21일 오후 6시 기준 모두 2090명이 접종받았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2억건 이상 접종된 안전한 백신이라며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 접종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뒤에는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접종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발열과 피로감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증상은 2~3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은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중증의 이상반응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암 예방이라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br/><br/> <br/><br/><br/>■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마저 돈받고 팔다니… <br/><br/>■ ‘지하철 여성전용칸·스벅 군인 무료커피’는 성차별? <br/><br/>■ 김성찬 의원 ‘무급’ 보조원 채용 공고…“그래도 지원자 많다” <br/><br/>■ [화보] 로이터가 기록한 세상의 모든 드라마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5.txt

제목: 과거와 현재의 평행이론 ‘6·25 특집 프로그램들’  
날짜: 20160622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22151934221  
본문: 전쟁영화를 많이 만든 올리버 스톤 감독은 라는 대담집에서 “<span class='quot0'>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과거의 일과 관련되어 일어난다</span>”고 했다. 분단의 아픔을 가져다 준 한국전쟁은 오늘의 어떤 지점과 연관되어 있을까. 방송사들이 흔히 6·25라 부르는 한국전쟁 발발 66돌을 맞아 현재와 과거를 잇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br/><br/>다큐멘터리 (한국방송1, 25일 토 밤 8시10분)는 오늘날 여군의 눈으로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전장에 뛰어든 여학생들을 조명한다. 내년 임관을 앞둔 고려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 배지성 후보생과 가천대 학군단 박혜린 후보생이 참혹한 전장 속 선배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참전 여군은 1700여명. 열여섯, 열입곱 꽃다운 나이에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여성들의 자원 입대 요청이 늘면서, 대구와 부산에서는 1950년 9월 ‘여자의용군’을 창설했다. 제주에서는 인천상륙작전 투입을 위해 한국 최초의 여성 해병대원 126명이 탄생했다. 제작진은 “당시 여자의용군 500명을 뽑는데 무려 2000명이 몰렸다”고 전했다. 키보다 더 큰 총을 들고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다. 어떤 마음으로 전장에 뛰어들었고, 무엇을 지키려고 했을까. 미래의 여군들이 ‘선배’들을 만나 그 뜻을 헤아려 본다. 열여섯에 자원입대해 여러 전투에 참전했던 박이숙 할머니 등이 증언에 나섰다. 제작진은 “66년이라는 세월을 뛰어 넘는 소통과 공감을 전하며 한국전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br/><br/>암울한 현실에서도 운명은 찾아와 미래를 바꿨다. 다큐멘터리 (한국방송1 25일 오후 5시10분)는 한국전쟁 당시 우연히 피아노를 접한 뒤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다. 부산의 한 여고 흙바닥에 텐트를 치고 ‘전국 국민학교 아동음악 콩쿠르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피난 온 아이들은 서툰 솜씨로 피아노를 쾅쾅 두드리며 꿈을 키웠다. 전쟁통에 피어난 한줄기 희망이었다. 당시 콩쿠르에 참가했던 한동일(75), 신수정(74), 이경숙(72)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됐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해방 이후 내려와 이 집 저 집 피아노를 찾아 돌아다니며 피아노를 배운 한동일, 선교사가 준 피아노로 꿈을 키운 이경숙, 조성진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신수정까지 전쟁에서 운명을 찾은 그들이 당시를 기억한다.<br/><br/>역사를 되짚으며 더 나은 오늘을 만들자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은 20일 방송한 ‘신병영 일기’를 24일 밤 1시10분 재방송한다. 열혈청춘들의 21개월 병영생활을 들여다본다. 어떤 군대여야 하고,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 곱씹게 한다. 다큐멘터리 (아리랑 티브이, 24일 오후 5시)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듣는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도 짚어본다. 이엑스아이디(EXID), 테너 임웅균 등이 나오는 (문화방송 24일 낮 12시20분), (교육방송 25일 밤 11시45분) (교육방송 26일 밤 11시) 등의 영화도 준비돼 있다. <br/><br/>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br/><br/> <br/><br/><br/>■ 박 대통령 대선때 발언 보니…“<span class='quot1'>부산 바라는 신공항 꼭 건설</span>” <br/><br/>■ [단독] ‘루이비통닭집’의 최후는? <br/><br/>■ "새누리, 청와대 조사 빼주면 세월호 특조위 기간연장 제안" <br/><br/>■ [화보] 외신기자가 본 6·25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6.txt

제목: 절박한 노동현실 ‘냉철한 해법' 누가 대신하리오  
날짜: 2016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21103838360  
본문: 뻐꾸기 우는 초여름, 윤진호 교수(사진)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다. 향년 63.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지난 15일 갑자기 부음을 들으니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br/><br/> 윤 교수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지닌 노동경제학자였다. 근대경제학의 아버지 앨프리드 마셜은 케임브리지대학 초대 경제학부장 취임사에서 경제학도는 모름지기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와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셜은 런던의 빈민가 이스트엔드에 가서 빈민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번영의 시대에 왜 그런 빈민이 존재하는지를 냉철한 머리로 분석하고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고 학생들에게 주문했다.<br/><br/> 윤 교수는 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온 경제학도였다.<br/><br/>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마치고 인하대에 부임한 윤 교수와 나는 노동경제학 연구자로서 학문적 교류를 시작했다. 임노동연구회를 만들어 경북대·인하대·서울대 대학원생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했다. 우리 둘은 이들 모두 제자로 생각하고 길러내었다. 그 시절 뜨거운 열정으로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윤 교수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br/><br/> 수많은 훌륭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며 윤 교수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진보적 노동경제학자가 되었다. 정부 노동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노동운동 발전에도 헌신했다. 경제노동연구회를 조직해 꾸준히 진보적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 연구를 주도했다. 학현 변형윤 선생께서 이사장으로 이끄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한국경제발전학회도 만들어 주류 경제발전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발전론 정립에 기여했다. 2012년에는 를 펴내기도 했다. <br/><br/> 윤 교수와 나는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방향,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적도 종종 있었다. 노동의 권리와 윤리를 동시에 추구해야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 그는 노동의 윤리를 강조하면 노동의 권리 문제를 부차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서 자본과 정부의 책임과 함께 정규직 책임도 강조한 나에 대해 그는 정규직 책임론이 자본의 책임을 희석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병마를 떨치고 돌아와 논쟁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주길 바랐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br/><br/> 고용·임금·복지 면에서 3중의 격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조직률 한자릿수의 노동운동, 주변적 정치세력으로 밀려난 진보, 이 엄중한 한국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윤 교수의 냉철한 머리가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그가 가고 없으니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br/><br/> 수명을 단축하면서까지 치열하게 연구해온 그는 이제 영원한 휴식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다 못한 일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해내야 한다. 노동자들을 사랑했던 경제학자 윤진호, 그의 명복을 빈다. <br/><br/>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br/><br/> <br/><br/><br/>■ 총선 코앞 터뜨렸던 ‘집단탈북’ 이젠 쉬쉬…뭐가 꼬였길래 <br/><br/>■ 국정원 “IS 테러 대상” 공개한 한국인, 테러 위험 없었다 <br/><br/>■ ‘동생 비서관 채용’ 서영교 의원, 이번엔 딸을 인턴으로 <br/><br/>■ [화보] 외신기자가 본 6·25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7.txt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우리딸 맞혀야하나”  
날짜: 20160620  
기자: 김미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20203026071  
본문: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키우는 김아무개(47)씨는 최근 딸아이 예방접종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초6~중1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 딸에게 접종을 받게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웠다. 학교에 전화해 문의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가정통신문 등 별도 안내도 오지 않았다. 김씨는 “초등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가 하면 다 같이 몰려가는 또래문화가 있다.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도 맞춰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br/><br/>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암 발병 원인 2위인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12~13살 여학생(2003~2004년 출생)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맞도록 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20일부터 시작했지만 학부모와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백신의 안전성 등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불안한 학부모들은 자궁경부암 백신을 제대로 알자는 모임을 꾸리기도 했다. <br/><br/> 20일부터 해당 학생들은 가다실·서바릭스 등 1회 15만~18만원짜리 백신을 인근 의원 등에서 두 차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몇년 전부터 준비한 정책으로 지난해 국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매해 230억원을 들여 실시하는 정책이다. 백신을 반대하는 소수 목소리는 전세계적으로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다수가 실시하는 정책이므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본다. 학부모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br/><br/>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21일 저녁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다룰 긴급 ‘번개 모임’을 결성하고 서울에서 1차 모임을 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의 문제점이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고, 학부모이자 시민으로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학부모 안아무개(56)씨는 “강제는 아니지만 해당 연령대 모든 여학생이 집단적으로 맞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지, 안전성과 효과는 검증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깜깜이 정책’이라는 것이다.<br/><br/> 전북교육청은 일률적인 예방접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해 확대간부회의에서 “백신에 대한 효과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국가정책으로 접종하는 것은 반대다. 학부모들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일률적인 접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아이들의 건강에 관련된 결정이라 조금의 의혹이라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옥시 사건을 보면 국가가 건강 문제에는 더욱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br/><br/> 의료계 역시 조심스런 태도다. 최은경 대한의사학회 총무이사는 “의료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이라며 “학부모 입장에서 자궁경부암 접종이 어린 자녀에게 필요한지, 백신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이 많을 수 있다. 정부가 공중보건 차원에서 접근해 불안과 혼란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br/>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br/><br/> <br/><br/> <br/><br/> <br/><br/><br/>■ 국정원 “IS 테러 대상” 공개한 한국인, 테러 위험 없었다 <br/><br/>■ “우리 딸 자궁경부암 백신 맞혀야 하나” 학부모 혼란 <br/><br/>■ 일본 초등 모의고사에 “다케시마 불법 점거한 나라는?” <br/><br/>■ [화보] 외신기자가 본 6·25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8.txt

제목: “실손보험 범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 높이자”  
날짜: 2016061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19103908006  
본문: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떤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할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건강보험에만 가입해도 의료비에 대한 큰 불안이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실손보험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결국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검사 항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임의대로 올리지 않도록 손해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제기된다.<br/><br/> <br/><br/> ■ 과잉진료 막으려면 현재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고 의학적 검증도 부족한 고가 치료나 검사를 부추기는 문제는 실손보험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척추 디스크 질환이 있을 때 굳이 수술할 정도도 아닌 초기에도 500만원 가까이 드는 척추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 감압술을 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시티(CT, 컴퓨터단층촬영)와 같이 고가이면서 방사선 노출량까지 많은 검사를 남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비급여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일부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성형이나 미용 목적의 치료만 제외돼 있다. 또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역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하고, 도수치료(손으로 하는 근육 마사지 치료)처럼 치료횟수를 과다하게 늘리는 경우가 많은 치료는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처럼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곳에서 심사를 한 뒤 보험금을 주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span class='quot0'>환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실손보험 적용 범위를 의료계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정하면 보험 가입자나 의료 공급자 모두가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함께 적정 보장 범위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br/><br/> <br/><br/> 보험료 과다인상도 문제다.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 계산은 계산 주체에 따라 제각각이다. 보험회사 쪽은 120%(보험료보다 보험금을 20% 더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산으로는 80%,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계산으로는 96.6%였다. 계산 방법도 서로 다르고, 근거로 사용할 정확한 자료도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손해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의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과장 광고가 많아 가입자가 제대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도 개선할 과제로 꼽힌다. <br/><br/> <br/><br/> ■ 건보 보장성 높여야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공보험 체계가 튼튼해, 보장 비율이 77~78%에 이른다. 민간보험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에 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보장 비율이 77%이긴 하지만, 이들 질환 외에도 병원비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질환이 많다. <br/><br/> <br/><br/>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은 “<span class='quot1'>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가야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민들은 이미 실손보험에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으로 옮겨오면 실손보험료보다 더 적은 의료 관련 보험료를 내고도 복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의료보장을 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br/>■ [영상] 숨진 잠수사 세월호 청문회 마무리 발언 ‘뭉클’ <br/><br/>■ ‘백남기 밀’ 수확하던 날, 콤바인도 부재를 알아차렸다 <br/><br/>■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흘간 단식한 진짜 이유 <br/><br/>■ [카드뉴스] 폐지줍는 노인 106원, 누가 뺏어갔나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29.txt

제목: 실손보험 쏠림 왜? “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하니까”  
날짜: 2016061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17010916471  
본문: 임아무개(49)씨는 2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큰 종양이 발견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대장내시경 검사,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을 거쳐 대장암 3기라고 판정했다. 이 병원에서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뒤 항암제 치료를 하자고 했다. 수술 뒤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려 열흘 정도 입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꽉 찼다고 해 1~2인실에 사흘 동안 입원했다. 퇴원할 때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할 병원비가 600여만원이나 됐다. 하지만 임씨는 가입해있던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450만원 가까이를 돌려받았다. 임씨는 “<span class='quot0'>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가입하길래 들어둔 실손보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다</span>”며 “<span class='quot0'>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면 건강보험이 많이 커버한다고 들었는데, 막상 진료비명세서를 보니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이 몇십만원씩 나오더라</span>”고 말했다. 임씨는 한달에 15만원 가까이를 실손보험료로 낸다.<br/><br/> <br/><br/> 국내에서 임씨와 같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014년말 기준 3082만명이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다. 암보험 같은 다른 질병보장형 보험을 다 합치면 이보다 더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발표한 ‘한국의료패널 분석보고서’를 보면 실손보험 포함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12년 기준 국민 10명당 8명꼴인 80.4%다. 한 가구당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개수는 4.64개이며, 보험료로 한달 평균 34만3천원가량을 내고 있었다. 2015년 기준 가구당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가 9만4천원인 것과 견줘 보면 3배 이상을 민간의료보험에 내고 있는 셈이다. <br/><br/> <br/><br/>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실제 큰 수술 등을 받아 혜택을 보는 일은 많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2명만 실제 보험금을 탄 적이 있다. 2014년말 기준 약 2500만명의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 회사들은 올해 초 보험금 지급이 너무 많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험료를 평균 20%에서 최대 48%까지 인상했다. 문제는 앞으로 보험료는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상품을 파는 한 생명보험의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의료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줄이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br/><br/> <br/><br/>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대거 가입하는 이유는 의료비 불안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다.<br/><br/> <br/><br/>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오이시디) 보건의료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등 공공분야에서 내는 의료비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54.5%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72.3%에 견줘 크게 낮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 등 3개국만 있을 뿐이다.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5년째 62~63%에 그치고 있다. 전체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38만원은 본인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항목이 많은 탓이다. 여전히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흔들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span class='quot1'>참여정부 등 많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다 보니 이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민간보험 가입이 대세로 굳어져 버렸다</span>”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2월 나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책연구자료인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 10명 가운데 8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br/><br/> <br/><br/> 민간보험이 점점 커지면서 이 자체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나 실손보험료나 모두 ‘의료보험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실손보험 확대→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국내에는 40개가 넘는 민간보험사가 있는데, 한해 보험료 수입이 이미 200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29조원)을 넘어섰다.<br/><br/> <br/><br/> 이진석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span class='quot2'>앞으로 민간보험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 민간보험 규모는 커지는 대신 건강보험은 재정규모나 보장비율이 더 낮아질 위험이 있다</span>”고 지적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마저 커지고 건강보험이 축소되면 의료의 상업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소득계층별 의료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의 진료 종류나 가격은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해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의 보장비율이 크게 개선된다면 현재의 악순환 구도를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다</span>”고 말했다.<br/><br/>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 <br/><br/> <br/><br/> <br/><br/> <br/><br/> <br/><br/><br/>■ 단식농성 이재명에 보수단체 “일개 시장이 감히 대통령에게…” <br/><br/>■ ‘임우재의 고백’을 왜곡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br/><br/>■ 핸드폰처럼…집에서 충전하는 자동차 나왔다 <br/><br/>■ [카드뉴스] 파렴치범도, 정부에 쓴소리한 사람도…‘징역 8년’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0.txt

제목: 일 히다치 “소변 검사만으로 암 진단법 개발한다”  
날짜: 20160615  
기자: 길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15153007144  
본문: 일본에서 소변 내의 특정 성분을 통해 건강한 사람과 유방암·대장암 등 일부 암 환자를 구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간단한 소변 검사로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br/><br/> <br/><br/> 일본 히다치제작소와 스미토모상사 등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변 내 대사물질의 양을 분석해 건강한 이들과 유방암·대장암 등을 식별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이 기술이 확립되면 혈액 검사 없이 간편한 소변 검사만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br/><br/> <br/><br/> 기술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다. 먼저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 유방암 환자, 대장암 환자 각각 15명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했다. 이어 이들의 소변에 포함돼 있는 1300여개의 노폐물(대사물질)을 추출해 건강한 이들과 암 환자들 사이에서 함유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10여개 물질을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들 10여개 물질을 함유량에 따라 신체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메이커’(biomaker)로 보고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히다치 등은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이들 물질과 암 사이의 관계를 상세히 조사해 소변을 이용해 간단히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법을 확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br/><br/> <br/><br/> 일본 언론들도 이번 발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은 “현재는 기초 연구 단계로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수일 정도가 걸리지만, 앞으로는 검사 키트를 통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게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카이리 미노루 히다치 기술고문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암 조기 발견뿐 아니라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br/><br/> <br/><br/><br/>■ [카드뉴스] 파렴치범도, 정부에 쓴소리한 사람도…‘징역 8년’ <br/><br/>■ 올랜도 테러범 아내 “범행 계획 알고 있었다” <br/><br/>■ 심각한 아동학대마저 예능이니 웃고 넘겨라?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br/><br/>■ [화보] 두 손 맞잡은 김대중-김정일…6·15 공동선언 16주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1.txt

제목: 기본형 판매? 현장에선 비싼 특약형 판촉 불보듯  
날짜: 2016061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15081830639  
본문: 실손보험상품을 파는 민간보험사들은 과잉진료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올해 초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일부 비급여 치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료를 낮춘 기본형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개편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나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사들이 과잉진료를 제한하는 방향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시장 규모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br/><br/> 민간보험사들은 지난 1월 “손해율이 2012년 109.9%, 2013년 119.4%, 지난해 상반기 기준 124.2%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를 20~40% 인상했다. 손해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 100%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하지정맥류 치료, 도수치료 등 몇몇 비급여 치료에 대해 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실손보험에 따른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보험료가 낮고 보장범위가 작은 ‘기본형’과 추가 보장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기본형+특약형’으로 나눠서 내년 4월쯤에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br/><br/> <br/><br/> 하지만 실손보험사들에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전체 실손보험 시장 규모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과 과잉진료 방치’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기본형 상품이 나와도 보험설계사들의 설득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특약형을 선택하게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은 “실손보험들이 당장 이익이 줄어드니까 몇몇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급여 진료 지급이 줄어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며 “결국 보험회사들은 과잉진료를 제한하기보다는 손해율을 과장되게 크게 보이게 하면서 보험료를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은 올해 초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도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br/><br/> <br/><br/> 또 이들은 우리나라 민간보험사들의 손해율 계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해 부가보험료는 사업이나 영업비 등에 쓴다는 이유로 보험료에서 제외시켰다”며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율을 계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국내 민간보험사들의 손해율이 80%로 나타나 보험사들이 지금도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br/><br/> <br/><br/> 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환자가 내야 할 병원비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말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들은 2013~2017년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말 감사원에 민간보험사들의 손해율 계산 방식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 <br/><br/><br/>■ [카드뉴스] 파렴치범도, 정부에 쓴소리한 사람도…‘징역 8년’ <br/><br/>■ 비행기 1등석 닮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직접 타보니… <br/><br/>■ 심각한 아동학대마저 예능이니 웃고 넘겨라?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br/><br/>■ [화보] 100년전 사람들이 상상했던 ‘21세기’ 모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2.txt

제목: 말기 암환자는 집에서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날짜: 2016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14163011469  
본문: 문: 아버님께서 말기 암환자인데 생의 마지막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십니다.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br/><br/> <br/><br/> 답: 가정호스피스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의 삶을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종교인·자원봉사자 등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우선 말기 암환자가 대상입니다. <br/><br/>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암환자라는 판정이 필요한데요. 이 판정은 외래 진료를 다니거나 입원 중인 병원이나 가정호스피스 전문기관 의사가 담당합니다. 신청은 의사 소견서와 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가정호스피스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환자 본인, 본인이 의식이 없으면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br/><br/> 가정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현재 21개로, 서울에는 서울성모병원, 고대 구로병원, 서울시 북부병원, 전진상의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는 아주대병원과 수원기독의원, 부천에는 부천성모병원, 안양에는 안양샘병원, 고양시에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가 해당 기관입니다. 아울러 모현센터의원(포천),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인천), 충남대병원(대전), 전북대병원(전주), 성가롤로병원(순천), 부산성모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대구의료원·계명대동산병원·칠곡경북대병원(대구)도 해당됩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br/><br/> <br/><br/> <br/><br/><br/>■ “죽여버려 이 ××” 윤상현, 김무성과 외통위서 ‘어색한 조우’ <br/><br/>■ 런던시장 “<span class='quot0'>비현실적 몸매 노출 광고는 안돼</span>” <br/><br/>■ 구미시, 이번엔 1억원 짜리 대형 새마을기 계획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br/><br/>■ [화보] 100년전 사람들이 상상했던 ‘21세기’ 모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3.txt

제목: [야! 한국사회] 은유로서의 질병 / 김현경  
날짜: 2016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13192826436  
본문: 은 수전 손태그가 유방암 판정을 받은 지 2년 뒤인 1978년에 펴낸 책이다. 암 투병을 계기로 그녀는 암이라는 질병이 죽음의 은유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암은 사형이 선고되듯 ‘선고’된다. 게다가 19세기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대표했던 결핵과 달리, 암이 초래하는 죽음은 더럽고 끔찍하다. 결핵에는 언제나 낭만적인 이미지가 따라다녔다. 결핵은 시인과 예술가들의 질병이자, 습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태양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보헤미안의 병이었다. 결핵 환자는 고뇌와 열정으로 스스로를 ‘소모한다’. 암에는 이런 고상함이 없다. 결핵이 (신체기관들의 위계에서 위쪽에 있는) 폐를 주로 침범한다면, 암은 자궁, 대장, 전립선 등 말하기도 부끄러운 온갖 부위로 퍼진다. 19세기에는 성격이 질병을 유발한다는 관념이 있었는데, 정열의 질병인 결핵과 반대로, 암은 냉담하고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주로 걸린다고 여겨졌다.<br/><br/> 하지만 병을 단순히 병으로 보지 않고 거기서 그 이상의 의미를 찾는 것은 투병으로 지친 환자들에게 병을 둘러싼 상징들과의 싸움이라는 또 다른 짐을 안긴다. 암과 결핵이 평범한 질병으로 바뀐 오늘날, 이러한 상징의 짐을 가장 무겁게 느끼는 이들은 아마 정신질환자들일 것이다. 대중의 상상 속에서 정신질환은 악 자체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평소에는 이성의 통제 아래 있었던 인간성의 어두운 면이 어떤 계기로 폭발하면서 정신질환이 된다는 식이다. 는 이러한 통속적 관념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이성이 악을 누르는 데 실패할 때마다 악의 힘은 점점 커진다.<br/><br/> 강남역 살인 사건은 이런 통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였다. 박경신 교수는 정신병자도 혐오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서, “<span class='quot0'>혐오는 두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당연히 두뇌에 문제가 생기면 혐오는 더 증폭된다</span>”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정신질환자는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혐오감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혐오감뿐 아니라 분노와 공격성 등, 우리의 무의식에 숨어 있던 다양한 악을 증폭된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두뇌 고장에 의해 증폭되는 것은 주로 인간성의 어두운 면일 테니 말이다. 한편 이나영 교수는 “<span class='quot1'>이 사건은 성차별 사회에서 여성을 일상 속에서 무시해온 남성들의 무의식적 식민지적 행위</span>”라고 단언하였다. 즉 정신질환자의 존재는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된 악을 표출하는 통로라는 것이다.<br/><br/> 이런 발언들은 정신병자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악을 유난히 많이 가진 사람이고, 정신병은 바로 그러한 과잉의 결과라는 생각, 즉 정신병은 악 자체라는 생각을 드러낸다. 질병은 여기서 은유로 바뀐다. 피의자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만이 아니라 병에 걸렸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 단, 예외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표본으로서, 모든 남자들을 대표해서 말이다.<br/><br/> 하지만 정신질환자는 망상이 심해져서 병이 난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망상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진짜 망상과 은유로서의 망상을 구별해야 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은 약을 먹으면 없어진다. 반면 혐오범죄의 원인인 “남성들의 집단적 망상과 분열증”(이나영)은 약물로 치유되지 않는다.<br/><br/> 뇌는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는 장소이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장기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뇌도 병에 걸린다. 정신병은 그저 병일 뿐이다. 거기에 너무 많은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br/><br/> 김현경 문화인류학자 <br/><br/><br/>■ 미 올랜도 총기난사 50명 사망…최악의 총기사고 <br/><br/>■ 정보위원장에 국정원 출신 이철우…“국정원 적극 대변” 우려 <br/><br/>■ [단독] 롯데-MB ‘밀월’ 이끈 장경작, 퇴임뒤 청계재단 재직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br/><br/>■ [화보] 100년전 사람들이 상상했던 ‘21세기’ 모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4.txt

제목: [사설] 성공하기 어려운 ‘노동 배제’의 구조조정  
날짜: 2016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09205354627  
본문: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8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달 안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에 거론돼온 여러 지원책을 두루 언급하긴 했으나 ‘암 환자한테 감기약 먹이는 꼴’이란 반응이 나올 정도로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내년 말까지 6만명이나 되는 실직자가 예상되는 상황의 절박성에 비해선 턱없이 미흡한 처방인데다 대책 마련 과정과 절차마저 정당성을 잃고 있는 탓이 크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이제라도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br/><br/> 정부 대책은 우선 순서부터 잘못됐다. 수년 전부터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음에도 정부와 경영진이 대책 마련에 실패한 원인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은 채 노동자와 국민에게만 그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나 비리를 넘어 무능경영과 정책실패까지 수사로 단죄하기는 어렵다.<br/><br/> 정부와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피해당사자인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앞으로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br/><br/> 내용 면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이나 직업훈련 강화 등의 방안만으론 벼랑에 선 노동자들을 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은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물량팀으로 불리는 재하청 계약직들이 대거 실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이미 2만명 정도가 일터를 잃었고 앞으로도 3만~4만명이 더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발표한 조처들만으로는 이들이 ‘안전그물도 없이 절벽 밧줄 위에 선 처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노동계는 우려한다.<br/><br/> 구조조정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 등의 대안, 물량팀 등 하청·재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세계 조선산업 전망 속에서의 중장기 산업·고용정책 등 숱한 논의 과제는 정부의 일방통행 속에 묻혀버렸다.<br/><br/> 9일 양대 노총과 세 야당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신원철 부산대 교수(사회학)를 비롯해 양대 노총과 야당 참가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제라도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사정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r/><br/> <br/><br/><br/>■ [카드뉴스] 종편 시사토크 ‘문제적 5인방’은 누구? <br/><br/>■ 서청원의 용단? 협상 지렛대? 의장직 치고빠진 새누리 <br/><br/>■ 최진기 tvN 미술특강, 엉뚱한 그림을 ‘장승업 작품’으로 소개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br/><br/>■ [화보] 100년전 사람들이 상상했던 ‘21세기’ 모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5.txt

제목: 죽어가는 생명들, 지워지지 않는 고통  
날짜: 2016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08110904394  
본문: “오빠, 빨리 와.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동생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급하게 차를 돌려 어머니께 달려갔다. 침상에 웅크린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헐떡이고 계셨다. 그건 말기암 선고를 받고도 담담하셨던 옛 얼굴이 아니었다. 이 년 반이나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디면서도 잃지 않으셨던 웃음은 사라졌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며 입원을 거부하시던 당당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메마른 손을 붙들고 치솟는 눈물을 억누르며 몸서리쳐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한 모습으로, 어머니는 하늘로 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당시 고통스러워하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그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내 마음의 가책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br/><br/> 지워지지 않는 또 다른 고통이 있다. 이 년 전 어느 날, 수학여행 떠난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들이 배에 갇혀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실시간 현장 중계로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국민들은 빨리 구조하라고 외쳤지만, 정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월호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듣는 고통도 크지만,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훨씬 더 크고, 가책과 함께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br/><br/> 지금도 누군가의 방치 속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죽어갔던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 가부장적인 성차별의 나라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칼에 찔리고 몽둥이로 얻어맞고 성적인 노리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죽어갔던 청년의 비명 소리도 들린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오빠, 누군가의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 몇 푼에 절절매는 돈 귀신 들린 나라에 태어난 죄로, 노예 같은 노동의 현장에서 알바생으로 인턴으로 비정규직으로 사람대접 못 받으며 일하다가 자존심도 인권도 목숨도 잃고 죽어가고 있다.<br/><br/> 죽어가는 자를 개인 탓이라며 바라보기만 할 뿐 손쓰지 못한 채 떠나보낸다면, 남은 자의 몫은 눈물과 가책,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일 수밖에 없다는 공포의 형벌이다. 이 공포의 세상에 구원은 어디 있는가? 일찍이 윤동주는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다. “<span class='quot0'>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span>” 예수의 비유에는 죽어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 그는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다. 그를 불쌍히 여겼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응급처치를 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치료했고, 이 일을 위해 비용을 감수했다. 예수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말했다.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이 윤동주가 말한 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닐까 싶다.<br/><br/> 남오성 목사(일산은혜교회)<br/><br/> <br/><br/><br/>■ [그래픽뉴스] 비행기 탈 때마다, 하필…박 대통령 순방 ‘문제의 8장면’ <br/><br/>■ 박원순 시장, 취임 5년만에…‘메트로 마피아’와 전쟁 선언 <br/><br/>■ ‘인턴 성추행’ 윤창중, 3년만에 활동 재개…첫 칼럼은 ‘억울하다’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br/><br/>■ [화보] 100년전 사람들이 상상했던 ‘21세기’ 모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6.txt

제목: 방사선 노출 심한 시티검사, 되도록 많이 하지 마세요  
날짜: 2016060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08110858529  
본문: 이제 일반 환자들도 방사선을 병원 등에서 적지 않게 접촉하게 되면서 그 이점과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방사선은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같은 질병 진단에 활용되거나 항암치료처럼 질병치료에 이용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방사선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펴낸 (증보3판)라는 책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방사선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br/><br/> ■ 미역은 방사선 피해 줄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뒤 한동안 다시마나 미역의 인기가 치솟았다. 다시마나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는데,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원자력 폭발 사고 뒤 누출되는 방사성 요오드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 때문이다. 실제 우리 몸속에 요오드가 충분히 들어 있으면, 공기를 마실 때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 있다고 해도 폐에서 이를 덜 흡수한다. 이 요오드제제는 원자력 발전소에나 그 주변 지역에 비치돼 있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오드제제는 유사시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루에 성인은 130㎎, 임신부나 아동은 50㎎ 정도를 2~3일 먹도록 하고 있다. 요오드가 충분히 든 음식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다시마다. 건조된 다시마에는 100g당 요오드가 130㎎ 정도가 들어 있어 요오드제제를 한 번 먹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미역에는 100g당 11.6㎎에 그쳐 요오드 함량이 크게 낮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시마를 먹어도 방사성 요오드가 아닌 다른 방사성 물질에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밖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방사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면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능 물질을 빨리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권장된다. <br/><br/> ■ 불필요한 시티 검사는 피해야 질병의 진단을 위해 병원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를 하지만, 이 검사에는 방사능 피해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특히 시티 등은 방사선 노출이 많은 만큼 꼭 필요할 때만 받는 것이 좋다. 의학계에서는 검사 등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이 1년에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시티 검사는 한번 찍을 때 1~10밀리시버트에 노출되며 특히 복부 시티 검사는 10밀리시버트로 매우 높다. 10밀리시버트에 노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암에 걸리는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럴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없는 다른 검사법이 있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서 촬영한 적이 있다면 시티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암의 조기발견이라는 이유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불필요한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시티 검사를 이용한 펫-시티(PET-CT)도 마찬가지이다. <br/><br/> ■ 임신부는 방사선 검사 피해야 하나? 임신부의 경우 태아의 기형 가능성 때문에 방사선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태아의 경우 세포 분열이 왕성해 방사선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일반적인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를 임신부가 받으면 다른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노출량이 보통 0.01밀리시버트 정도인데, 방사선에 더 민감한 태아가 받는 방사선량은 0.1밀리시버트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검사를 2~3번 받았다고 해도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질병 진단을 위해 임신부가 일반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태아의 기형을 걱정해 임신중절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br/><br/> 한편 어린아이들의 경우 같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성인보다 암 발생 등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3~5배는 높은 만큼 보호자가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 <br/><br/><br/>■ [그래픽뉴스] 비행기 탈 때마다, 하필…박 대통령 순방 ‘문제의 8장면’ <br/><br/>■ 박원순 시장, 취임 5년만에…‘메트로 마피아’와 전쟁 선언 <br/><br/>■ ‘인턴 성추행’ 윤창중, 3년만에 활동 재개…첫 칼럼은 ‘억울하다’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br/><br/>■ [화보] 100년전 사람들이 상상했던 ‘21세기’ 모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7.txt

제목: “목구멍의 하인두에 생긴 암, 방사선 및 항암제 요법이 효과적”  
날짜: 2016060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08110857651  
본문: 목구멍의 인두에 생긴 암 가운데 초기가 아닌 경우는 수술로 이를 제거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및 항암제 요법만으로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방사선 및 항암제 요법은 목소리를 내는 데 관여하는 후두의 기능을 수술까지 한 경우보다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 김준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은 ‘하인두암’ 3~4기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수술을 받지 않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비수술 환자군 34명과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수술 환자군 57명으로 나눠 수술 여부에 따른 생존율과 후두의 기능 보존율 등을 분석했다. 하인두는 입안과 식도 사이에 있는 인두의 뒤쪽 부분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호흡에 관여하는 후두 주변을 말한다. <br/><br/>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암 진단 및 치료 뒤 5년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후두의 기능 보존율은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만을 받은 환자 집단에서 88.2%로 수술까지 받은 환자 집단의 29.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두암을 수술할 때 주변 장기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결과로 주변 장기의 기능이 보존돼 치료 뒤 삶의 질이 높아진 셈이다. <br/><br/> 연구 결과 또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만 받은 환자는 암이 재발해 치료를 해야 할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미 수술까지 받은 환자보다 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암이 재발한 비수술환자 8명 가운데 7명은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수술을 받은 뒤 암이 재발한 환자 13명 가운데 추가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br/><br/> 김준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들의 생존율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발성과 삼키는 기능은 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 더 잘 보존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최근호에 실렸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br/><br/> <br/><br/><br/>■ [그래픽뉴스] 비행기 탈 때마다, 하필…박 대통령 순방 ‘문제의 8장면’ <br/><br/>■ 박원순 시장, 취임 5년만에…‘메트로 마피아’와 전쟁 선언 <br/><br/>■ ‘인턴 성추행’ 윤창중, 3년만에 활동 재개…첫 칼럼은 ‘억울하다’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br/><br/>■ [화보] 100년전 사람들이 상상했던 ‘21세기’ 모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8.txt

제목: [기고] 페놀에서 가습기살균제까지 / 염형철  
날짜: 2016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06194349807  
본문: 한국의 환경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991년 3월14일 있었던 두산 페놀 사고다. 경북 구미 두산전자 공장에서 유출된 30톤의 페놀은 40㎞를 흘러 대구시 수돗물 취수장에 도달했고, 살균을 위해 투입한 염소와 반응해 생긴 클로로페놀은 엄청난 악취를 일으켰다. 이 사태로 대구시에는 수돗물 공급이 이틀이나 중단됐고, 어느 산모는 기형아를 우려해 낙태를 하고 소송까지 벌였다.<br/><br/> 시민들은 분노했고, 두산맥주 불매운동이 크게 일었다. 대통령이 나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환경처 장차관이 경질되고,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이 물러나고, 낙동강 환경청 공무원 7명과 두산전자 임직원 6명 등 13명이 구속됐다. 두산 페놀 사고는 환경문제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기업의 탐욕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환경법규의 정비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었다.<br/><br/> 그리고 사회는 놀랍게 변했다. 수질오염, 쓰레기매립장 설치, 매연 발생 등 만연한 환경문제들에 사회의 관심이 모였고, 곳곳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기업, 정부까지 친환경을 내걸었고, 언론들이 캠페인을 벌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정부 운동으로 지목돼, 감시를 받던’ 공해추방운동은 갑작스런 변화가 얼떨떨했다. 울산의 온산공단 주민들, 남양주 원진레이온의 노동자들, 서울 상봉동 삼표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던 ‘반공해 운동’은 이렇게 갑자기 주류의 가치로 태어났다. 사회가 ‘우리 모두는 미래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마자 발생한 변화였다.<br/><br/> 한국 사회는 90년대, 동강댐 계획, 시화호 수질 개선, 새만금 갯벌 등을 두고 논란하면서 생태계와 국토의 보전에 대한 합의를 높였다. 2000년대에는 국가 계획에 환경의 가치와 보전을 포함시키자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도입했고, 환경단체들을 국가계획 수립에 참여시키는 등 ‘거버넌스’를 발전시켰다.<br/><br/> 하지만 2006년 이명박 후보가 70년대식 토목공사인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하고,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은 크게 엉클어졌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저항해 온 힘을 쏟았고, 정부는 환경단체들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고 관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쳐부수어야 할 암 덩어리’라면서 임기 내내 환경규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br/><br/> 21세기 들어 세계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온난화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핵을 위해, 생활 속의 녹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동안, 한국은 이들과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우리 사회가 부닥칠 위험을 대비하거나, 실현해야 할 새로운 가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했다. 국가의 목표가 기업 이윤이고, 정부의 정책이 규제 완화인 이상한 나라로 퇴행하고 말았다.<br/><br/> 올해 들어 폭로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25년 전 두산 페놀 사고보다도 훨씬 더 야만적이고,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유례없는 환경 참사다. 그런데도 환경부 장관은 사과를 거부하고, ‘기업과 개인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91년과 같이 가해 기업과 부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정부와 검찰도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나서야 하는가?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누가 주먹을 쥐어야 하는가? 그제 6월5일은 정부가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는 ‘환경의 날’이었다.<br/><br/>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br/><br/> <br/><br/><br/>■ “인공지능이 인간 위협땐 자폭하게”…구글, ‘킬 스위치’ 개발한다 <br/><br/>■ ‘위작 시비’ 이우환 작가 인터뷰…“경찰을 고발하고픈 심정” <br/><br/>■ 박지원 “안철수 대표도 손학규 전 고문 입당 간절히 원해”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br/><br/>■ [화보] 100년전 사람들이 상상했던 ‘21세기’ 모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39.txt

제목: ‘한명회 명연기’ 배우 정진씨 별세  
날짜: 20160602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02184127205  
본문: 1984년 드라마 에서 ‘한명회’ 역으로 화제를 모았던 원로 배우 정진(사진)씨가 2일 오후 2시50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 <br/><br/> 고인은 68년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해 79년 (TBC) 특채로 탤런트가 됐다. 등 수십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노련한 연기로 존재감을 알렸다. 2009년 를 마지막으로 무대로 돌아가 뮤지컬 등에 출연해왔다. 유작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진출했던 단편영화 . <br/><br/> 그는 최근 몇년 동안 암 투병을 해왔다. 연극배우 출신인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대단했다</span>”고 회상했다. 고인은 생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년 연기생활 동안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한명회 시절”이라고 말했다. <br/><br/> 유족으로는 한별(배우)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4일 오전 5시30분이다. (02)3010-2000.<br/><br/>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br/><br/><br/>■ 김부겸 “친노는 노무현의 열정을 가두지 말고 공유하라” <br/><br/>■ [단독] SKY는 S등급·외대는 B등급…로스쿨 ‘대학등급제’ <br/><br/>■ 사살된 ‘하람베’는 죽기 전 어떤 마음이었을까? <br/><br/>■ [화보] ‘나는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의 어린 시절 <br/><br/>■ [화보] 100년전 사람들이 상상했던 ‘21세기’ 모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0.txt

제목: 웹툰 한류, 나라별 선호 장르는?  
날짜: 20160601  
기자: 남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01210459678  
본문: 한국 웹툰이 새로운 문화 한류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2015년 한해 수출액만 2556만달러에 이른다. 다른 나라엔 거의 없었던 디지털 만화라는 형식을 퍼뜨리며 지난 4년 동안 해마다 수출액을 20%씩 늘려왔다. 한국 웹툰의 강점으론 다양성이 꼽힌다. 한 장르에 쏠림없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각 나라마다 현지 사정과 선호에 맞춰 한국 웹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다. 실제 대만은 러브 스토리, 일본은 역사극, 중국은 가족 드라마로 나라마다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가 다르듯 인기 웹툰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계 곳곳을 파고드는 웹툰 한류 대표주자들을 나라별로 살펴본다.<br/><br/> ■ 시작은 캠퍼스 로맨스로 <br/><br/>지난해 12월부터 미국 서비스를 시작한 레진코믹스에서 미국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웹툰은 고등학생 사촌남매의 미묘한 관계를 소재로 한 (윌로우 작가)다. 레진코믹스는 한국에선 성인물로 인지도를 높였지만 미국에선 소꿉친구로 지낸 두 친구의 대학생활을 그린 (3위, 팀해장 작가), 고교 액션물인 (4위, 병장 작가) 등의 학원물이 상위에 올랐다. 한국만화작가조합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영어로 서비스하는 스팟툰에서 가장 많이 본 무료 웹툰은 연예계를 배경으로 아이돌 권력의 내부를 묘사한 (박경란 작가), 가장 많이 팔린 유료 웹툰은 판타지 로맨스물 (마루 작가)다.<br/><br/> 캠퍼스 로맨스물이 특히 영어권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웹툰이라는 낯선 장르를 소비하는 외국 독자들의 연령이 주로 10~20대 초반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현철 레진엔터테인먼트 총괄피디는 “미국에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흡수가 활발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대만, 프랑스에 웹툰을 서비스하는 탑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탑툰에선 성인로맨스 (거북발 작가)가 여러 나라에서 고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낯선 장르를 접하면서 연애라는 가장 보편적인 소재를 먼저 택하는 추세</span>”라고 했다.<br/><br/> ■ 센 이야기 찾는 나라들 <br/><br/>국내 웹툰 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네이버는 어떨까? 네이버 계열 라인웹툰 서비스에서 아시아 독자들에게 인기있는 웹툰은 (코믹, 조석 작가) (로맨스, 석우 작가) (학원·드라마, 박태준 작가) (미스터리 스릴러, 오성대 작가)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국 시장에서 의 성공이다. 지난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국제만화축제에 설치된 체험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고 한다. 특히 살인과 신체 절단까지 그린 ‘성형수’편은 지난해 중국 제작사와 영화 판권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br/><br/> 탑툰 대만 서비스에선 신혼여행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이 복수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강우봉 작가)과 딸을 강간한 범인들을 직접 응징하는 아버지를 그린 (신진우·홍순식 작가) 등이 인기가 높다. 폭력묘사의 수위가 높은 이들 웹툰이 특별히 인기를 얻는 이유는 창작물의 성적 표현에는 관대하지만 폭력 표현은 엄격히 규제해온 나라들에서 잘 접하지 못했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r/><br/> ■ 만화강국들은 스토리 <br/><br/>아시아에선 만화의 변두리 장르 특성이 살아있는 엽기적이거나 기발한 만화들이 인기라면, 전통적 만화강국인 프랑스와 일본에선 이야기가 중요하다. 성인 독자들을 위한 개성있는 이야기가 주목받는 프랑스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독자 연령대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탑툰 프랑스 웹툰에선 좀비호러물 (3\_4 작가)와 30대 남자의 일상툰 (악어인간 작가)가 인기다.<br/><br/> 레진코믹스 일본 웹툰은 김보통 작가의 가 1위를 차지했다.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향해 가는 주인공의 현실과 마음을 생생하게 그린 는 일본 만화전문 출판사 가도카와와 단행본 계약을 맺었고 ‘다카라지마사’ 잡지가 선정하는 2016년 기대작으로 뽑히기도 했다. 출판만화 전통이 유지되어온 일본에서 웹툰으로 건너가 출판하는 한국 만화까지 생겨난 것은 웹툰의 현지화를 기대하게 한다. <br/><br/>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br/><br/><br/>■ ‘일베 조형물’ 훼손…나와 다른 생각 무너뜨릴 자유 어디까지 <br/><br/>■ 신기술의 역설…조용한 하이브리드차 사고 위험 1.6배 높다 <br/><br/>■ 경찰 “<span class='quot1'>스크린도어 사고 김군, 작업 중 전화통화 전혀 안 했다</span>” <br/><br/>■ [화보] ‘도시의 닌자’ 아찔한 인증샷 <br/><br/>■ [화보] 구의역에 19살 청년 추모 포스트잇 물결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1.txt

제목: “국내 대장암 환자는 수술 뒤 혈전증 발생 위험 낮아”  
날짜: 2016053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601102558669  
본문: 대장암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가운데 하나인 정맥혈전증이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에게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맥혈전증은 피가 굳은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노인 환자나 움직임에 불편이 있는 환자에게서 상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 주로 다리쪽 정맥에 생기지만 폐혈관을 막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그동안 예방적 치료를 해왔다. <br/><br/> 이근욱(혈액종양내과), 강성범·김덕우(외과), 최상일(영상의학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은 2011년 9월~2014년 3월 이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수술 뒤 5~14일에 정맥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정맥혈전증 발생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수술 합병증으로 정맥혈전증이 생긴 환자는 12명으로 전체의 3%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전이 생겼어도 대부분은 무릎 아래 정맥에 생겨, 생명을 위협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곳은 아니었다. 국내 환자의 혈전증 발생 비율인 3%는 서양의 15~40%에 견줘 크게 낮은 수치였다. 또 정맥혈전이 생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70살 이상이거나, 동반 질환 수가 많거나,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증가 소견이 있는 경우였다.<br/><br/> 그동안 대장암 수술 뒤 정맥혈전증의 발생 가능성이 서양보다 낮을 것이라는 의사들의 인식이 있었지만, 이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근욱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한국인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최초의 대규모 연구로, 서양에 견줘 수술로 인한 정맥혈전증의 발생 빈도가 한국인에게서는 매우 낮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 서양의 정맥혈전증 예방 가이드라인에 맞춰 암 수술 뒤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항응고제를 써왔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임상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제 학술지인 최근호에 실렸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br/><br/> <br/><br/><br/>■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4명 사망·8명 중경상 <br/><br/>■ [단독] 구의역 사고 용역업체, ‘2인1조’ 서류조작 의혹 <br/><br/>■ [타임랩스] 구의역 ‘추모의 장소’, 사람이 운다 <br/><br/>■ [화보] 구의역에 19살 청년 추모 포스트잇 물결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2.txt

제목: “엄마도 아빠처럼 아프다가…” 큰딸 말에 가슴 철렁  
날짜: 20160530  
기자: 이재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30213048708  
본문: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다. 슬하에 네 딸, 딸 부잣집이라는 것 빼곤 그저 평범하기만 했다. 정정양(39)씨는 “<span class='quot0'>적어도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랬다</span>”고 23일 말했다.<br/><br/><br/><br/>성실했던 남편 3년전 암으로 잃고 <br/>다섯 딸과 홀로서기 안간힘 <br/>갑상선암 이어 유방암까지 덮쳐<br/><br/><br/><br/>벌이 끊기고 전셋집은 월세로 <br/>기초수급 150만원으로 겨우 생활<br/><br/><br/><br/>냄새 역겨워 밥도 잘 못챙겨 <br/>아이들이 설거지·동생돌보기 <br/>얼른 몸 추슬러 일터 나가고파<br/><br/><br/><br/> 2010년이 다 끝나가던 겨울, 남편이 하혈을 하기 시작했다. 건강하기만 했던 남편이라 크게 걱정은 안 했다.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이미 간으로도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다. 의사는 정씨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잔병치레 한 번 안 한 남편은 처음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아들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컥해지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살아 있을 때, 제가 ‘우리집 하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족들을 위해 일에 매달렸어요. 집에서는 잠깐 잠만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갔죠. 애들이 많다 보니 좋은 것 하나라도 더 해주려는 마음에 그랬던 거죠.”<br/><br/> 아내와 네 딸을 위해 늘 희생하던 남편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미련스럽게 가족만을 생각했다. 남편은 치료를 거부했다. 어차피 완치할 수 없는 병, 그는 “<span class='quot1'>병원비라도 아껴 아이들 좋은 옷이라도 사 입히라</span>”고 말했다. 굽힐 것 같지 않던 남편의 고집이 꺾인 건 순전히 ‘운명’이었다.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11년 초, 부부에게는 ‘새 생명’이 찾아왔다. 정씨가 다섯째 유리(5)양을 갖게 된 것이다. 녹록지 않은 부부의 삶에, 사실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신중절’을 결심했다. 중절수술을 위해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했고, 남편은 태어나 처음으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남편은 자신의 병에도 의연한 사람이었는데, 심장 소리를 듣더니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막내 때문에라도 살아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br/><br/>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남편의 병이 조금은 차도를 보였다. 병원에서 얘기했던 6개월의 시간을 넘어섰고, 남편은 결국 막내딸의 탄생도 지켜볼 수 있었다. “<span class='quot2'>이 무렵 남편은 어쩌면 치료받으면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span>”<br/><br/> 짙게 구름이 드리운 부부의 인생에 한 줄기 볕이 찾아온 것도 잠깐, 그 무렵 정씨에게도 암이 찾아왔다. 2012년 4월 정씨는 갑상선암 1기 판정을 받았다. 그나마 발병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해냈다. 완치의 기쁨도 잠시, 남편의 암이 폐까지 전이되고 항암제도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남편은 2013년 7월, 아내와 다섯 딸은 남겨둔 채 눈을 감았다.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은 ‘미안하다’였어요. 치료받으면서 딸들이랑 오래오래 살 수 있겠다는 마음에, 없는 돈 마련해가며 병원비로 썼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차라리 애들하고 먹고살게 해줄걸, 나 살겠다는 욕심에 돈 써서 미안하다’고….”<br/><br/> 남편을 잃고 다시 돌아온 자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나마 벌어놓았던 돈은 모조리 남편 병원비로 썼다. 살던 전셋집은 월셋집으로 변해 있었다. 3년이 좀 안 되는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다섯 아이들은 친정에 맡겨두고, 정씨는 남편 간호에만 매달려왔다. 벌이가 끊기자 생계가 막막해졌다. 또 다른 불행은 정씨를 향해 찾아오고 있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겨드랑이 쪽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찾아갔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왜 내게 불행은 끊이질 않고 찾아오는지. 하늘을 많이 원망했었죠.” 정씨의 목소리가 떨렸다.<br/><br/> 정씨도 8개월 가까이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과정을 견뎌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항암주사를 보기만 해도 몸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 방사선 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폐렴을 앓았다. 몸이 지친 터라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일어서 아이들에게 온전한 밥 한 끼 해주기도 힘들었다. “<span class='quot2'>엄마도 아빠처럼 그러다 죽는 거 아니지?</span>” 항암치료 탓에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자, 항암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짧았던 아빠 생각이 난 큰딸 지혜(10)양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정씨는 짧게 자른 머리카락을 만지며 “<span class='quot3'>큰딸이 이렇게 물어 올 때면 숨이 덜컥 멎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span>”고 말했다.<br/><br/> 아픈 부모를 지켜봐온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 일찍 철이 들었다. 지혜양과 둘째 지현(9)양은 설거지와 동생 돌보기 등 집안일을 거든다. 다섯 딸은 엄마의 머리가 짧은 이유를 더는 묻지도 않고, 창피해하지도 않는다. “동네 어른들이 ‘딸들 참 의젓하고 어른스럽다’고들 하세요.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죠. 한창 부모의 사랑만을 받기도 모자랄 때인데, 오히려 엄마 걱정을 하고 있는 딸들을 보면 가슴 아프죠.”<br/><br/> 정씨네 여섯 식구는 기초생활수급비 150여만원과 남편의 유족연금 12만원을 합한 돈으로 매달 생활해 나간다. 56㎡ 크기의 임대주택 월세 15만원과 공과금, 정씨와 간질로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지현양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쓰기에는 빠듯한 액수다. 정씨는 “지혜가 학교에서 성적도 괜찮고, 스스로도 ‘학원을 좀 다녔으면 좋겠다’며 부쩍 공부 욕심을 내지만, 형편이 안 돼 나중에 엄마가 돈 벌어 시켜준다는 말만 하고 있다. 셋째 예리(7)도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생활비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놀이동산에 놀러 간다고 해 정씨는 다섯 아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나들이를 다녀왔다. “<span class='quot2'>건강과 형편이 허락해주면 아이들과 더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이 작은 소원이죠.</span>”<br/><br/> 투병중인 정씨에게 다섯 딸은 녹록지 않은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는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커나가는 것을 보면 더 힘을 얻는다. 빨리 나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암은 보통 진단을 받고 1년 뒤 예후가 가장 중요하다. 정씨는 다음달에 검사를 앞두고 있다. “그래도 몸이 많이 나아져, 산책도 다니는 등 가벼운 운동은 할 수 있게 됐어요. 다음달 검사에서 좋은 결과 받으면 몸 추슬러서 다시 일터로 나가고 싶어요. 애들 학원도 보내고 공주같이 예쁜 옷도 입혀야 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은 찾아오지 않겠죠?” 정씨는 그의 곁에서 잠든 넷째 다현(6)양과 유리양을 꼭 껴안았다. <br/><br/>전주/이재욱 기자 uk@hani.co.kr<br/><br/><br/><br/><br/><br/><br/><br/>한겨레 나눔캠페인 참여하려면<br/><br/><br/><br/>부부에게 연이어 찾아온 암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정정양씨와 다섯 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다면 계좌이체(기업은행 060-709-1004, 예금주: 대한적십자사)를 하시거나 후원전화(060-709-1004, 한 통화 5000원)를 거시면 됩니다.<br/><br/> 모금 목표액은 모두 1050만원입니다. 여섯 식구의 생계비로 300만원, 정양씨와 둘째 딸의 치료비로 36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모금액은 학원에 가고 싶은 지혜양 등의 교육비(300만원)와 주거지원비(90만원)에 쓰입니다. 정양씨는 모금 목표액이 넘는다면 자신보다 더 어려운 다른 위기가정 지원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양씨와 다섯 딸을 정기후원하실 분은 대한적십자사(1577-8179)에 연락해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양씨가 하루빨리 완쾌되고, 다섯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br/><br/>이재욱 기자<br/><br/><br/><br/><br/><br/><br/><br/>목타는 에티오피아 아이들 돕기 <br/>227명이 소중한 정성 580만원<br/><br/><br/><br/>보도 이후…<br/><br/><br/><br/>와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한 ‘2016 나눔꽃 캠페인’을 통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의 사연( 4월29일치 10면)이 소개된 뒤, 227명이 후원에 동참해 모두 580만5000원(26일 기준)의 정성이 모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span class='quot4'>해외 먼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한 후원이 이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4'>모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span>”고 전해왔다.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돕는 나눔꽃 캠페인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모금은 계좌이체(하나은행 379-910002-02705, 예금주: 세이브더칠드런)나 전화(ARS 060-700-0322, 한 통화 5000원)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누리집(www.sc.or.kr)을 통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또다른 방식으로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의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은 세이브더칠드런(02-6900-4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br/><br/>이재욱 기자 <br/><br/><br/>■ 구의역 사고 김군 어머니 “<span class='quot5'>책임감있게 키운 것 미칠듯 후회</span>” <br/><br/>■ 반기문과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팽목항 <br/><br/>■ 지하철 1~4호선만 죽어나가는 이유 <br/><br/>■ [화보] 구의역에 19살 청년 추모 포스트잇 물결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3.txt

제목: ‘흡연 피해자 증언’ 금연광고 나온다  
날짜: 20160529  
기자: 이창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29200917665  
본문: “결국 두 다리를 모두 잘라내야 했습니다. 다 담배 때문이에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티브이(TV) 금연 광고에는 담배를 피운 탓에 질병을 얻거나 장애가 생긴 피해자가 직접 나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올 12월부터 이런 식의 ‘증언형 금연 캠페인 광고’를 티브이 등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br/><br/> 보건복지부는 29일 “<span class='quot0'>국내 여건에 맞는 증언형 금연광고를 (담뱃값 상단에)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때인 12월에 맞춰 준비하겠다</span>”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서울 충무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 특별국제세미나’에서 이런 방침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br/><br/> 대한금연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최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2년부터 시작한 ‘과거 흡연자의 조언(Tips)’이라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광고에 출연한 숀 라이트씨가 참석해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그는 40대에 흡연으로 인해 인후암에 걸린 뒤, 후두를 제거하고 인공후두를 삽입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흡연 때문에 암, 뇌졸중 등의 질병을 얻은 이들이 광고에 출연해 금연을 말하는 이런 식의 광고를 한 이래, 금연시도 비율이 12% 높아졌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 권고 비율도 2배로 늘어났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지금껏 1만7천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했다는 분석도 있다. <br/><br/>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br/><br/><br/>■ 반기문, 충효당에 ‘나무 중의 제왕’ 주목 심은 사연은? <br/><br/>■ 김외현 베이징 특파원의 100일 노트 “이게 코끼리인지…” <br/><br/>■ ‘후배’ 칼날 앞에 선 ‘정치 검사’ 홍만표 <br/><br/>■ [화보] 폭포를 차오르는 열목어의 힘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4.txt

제목: [편집국에서] 후회와 자책, 엄마를 부탁해요 / 신승근  
날짜: 20160529  
기자: 신승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29191541343  
본문: ‘엄마가 곁에 있을 땐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일들이 아무데서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통에 너는 엄마 소식을 들은 뒤 지금까지 어떤 생각에도 일분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기억 끝에 어김없이 찾아드는 후회들,….’ 신경숙 작가의 장편소설 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칠순의 늙은 엄마가 실종된 뒤 기억을 통해 ‘엄마 박소녀’를 되짚는 가족들의 뒤늦은 후회와 가슴 치는 자책이 담겼다.<br/><br/> 비슷한 ‘후회’와 ‘자책’을 한다. 지난 5월7일, 토요일이었다. 모처럼 어머니, 아버지와 한 밥상에 앉았다. 곧 다가올 며느리 생일을 미리 챙기겠다고, 어머니가 먼저 연락해왔다. “그런데 요즘 내가 자꾸 숟가락을 떨군다. 다리도 허공을 딛는 듯하고.” 어머니의 이 말에, 홍삼 건강식품을 챙기지 못한 게 못내 미안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모가 몇해 전부터 땅에 눕고 싶을 만큼 피곤을 느낄 때면 나에게 하는 거의 유일한 부탁이었다. 물론, 홍삼 가격보다 많은 돈을 항상 내 손에 쥐여줬고, 씻은 듯 피곤이 가신다며 또 몇달을 활기차게 생활했다.<br/><br/> 이틀 뒤, 어머니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 왔는데, 생각보다 안 좋단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입원 뒤 많은 검사가 이뤄졌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 남의 일로만 생각했다. 이제야 암 환자나 그 가족이 많았다는 걸 깨닫는다. 회사 선배, 출입처에서 만난 기자 등 알고 지내던 여섯이 암으로 세상을 떴다. 한 후배는 일과 뒤 가끔 병실을 찾곤 했다. 아버지가 투병 중이라 했다. 대체 인력이 없는 출입처라, 밤에 병실로 향하던 그에게 기사를 고쳐쓰라 지시한 일이 생각나 마음이 불편하다.<br/><br/>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암 발생자는 22만5343명이다. 남성이 11만3744명, 여성은 11만1599명이다. 평균수명 81살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3%다. 평생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다.<br/><br/> 겪어보니 그들의 고통을 알겠다. 일단 심리적으로 버겁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에게 당부한다. “<span class='quot0'>그냥 어머니에겐 큰 혹이 있다고만 해주세요.</span>” 50대 중반 누나가 “눈치채신 듯하다”며 어머니께 병명을 말씀드리기로 했지만, 아직 입을 떼지 못했다.<br/><br/> 가족의 삶도 영향을 받는다. 병수발에,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생업이 있는 다섯 자식들, 그 누구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하루는 내가, 어떤 때는 남동생이…. 그마저 어려우면 팔순을 앞둔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간다. 병상 옆 간이침대를 밤새 지키는 것도 늙은 아버지다. 일을 마친 뒤 밤늦게 병실을 찾지만 “내 평생, 이렇게 자식들을 번거롭게 할 줄은 몰랐다. 네가 집에 가는 게, 회사 일에 영향을 안 주는 게 나는 더 편하다”는 어머니에게 떼밀려 번번이 돌아온다.<br/><br/> 암병원을 드나들 때면 눈이 벌겋게 충혈된 다른 환자의 자식들과 자주 마주친다. 그들도 비슷한 심정일 게다. 당혹, 후회, 두려움, 먹먹함…. 아버지가 암투병 중인 다른 후배는 “그래도 암은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병”이라 위로한다. 치료를 잘하면 완치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정리할 기회를 주는 질병이니, 옛일을 추억하고, 미처 못다 한 고마움은 표현하고, 맺힌 감정은 풀어내며 가족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라는 뜻일 게다. 5월이 이틀 남았다. 어머니와 얽힌 애잔한 기억을 되새김질한 한 달이었다. ‘아직 곁에 있을 때’, ‘그래도 뭔가 챙겨줄 수 있을 때’, 그때 가족이 필요하다. 조금 잔인한 가정의달을 보내며, 이런 생각을 한다.<br/><br/>신승근 라이프 에디터 <br/><br/><br/>■ 반기문, 충효당에 ‘나무 중의 제왕’ 주목 심은 사연은? <br/><br/>■ 김외현 베이징 특파원의 100일 노트 “이게 코끼리인지…” <br/><br/>■ ‘후배’ 칼날 앞에 선 ‘정치 검사’ 홍만표 <br/><br/>■ [화보] 폭포를 차오르는 열목어의 힘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5.txt

제목: ‘검은 연기가 국가의 희망’이던 그 시절처럼  
날짜: 2016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28150812221  
본문: “환경부 장관 해임촉구 기자회견 잡혀 늦어질 듯요. 2시 반에 뵙죠. 미안합니다.”<br/><br/> 인터뷰를 위해 그와 만나기로 한 날, 그가 갑작스레 약속시간을 늦추자는 문자를 보내왔다. 거두절미하고 짤막한 용건만 담은 메시지에서 그의 다급한 사정이 느껴졌다. 7일간의 영국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항의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부터 그는 연일 거의 모든 미디어의 집중세례를 받으며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br/><br/>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은 잠겨 있었다. 사무실을 지킬 유휴인력도 없는, 상근자 2명의 작은 시민단체다.<br/><br/> “이리 앉으세요. 이사하고 짐 정리를 아직 못해서.”<br/><br/>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달려온 그는 책상 사이에 쌓인 잡동사니를 주섬주섬 치우고, 의자 하나를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겸연쩍게 웃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자료실 한쪽을 빌려 쓰다가 2주 전 광화문에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 이주했는데, 보따리 풀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br/><br/> 최예용(51) 소장은 지난 5년간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부단히 제기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공론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날마다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고, 화학약품이 들어간 일상용품을 사용하며, 방사능 오염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그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지난 15년간 800여만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팔렸다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2의 옥시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할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 내 질문은 비관적이었지만, 그의 대답은 호쾌하고 활달했다. 문명의 저주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무력감을 질타하듯, 세 시간이 넘는 인터뷰 내내 그는 활기차게 이야기를 이어갔다.<br/><br/> <br/><br/> 왜 지금, 왜 옥시인가?<br/><br/> -오늘 기자회견은 미리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닌가 보죠? 갑자기 일정을 바꾸신 걸 보면.<br/><br/> “엊그제(11일) 열린 19대 마지막 상임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한 얘기 들으셨어요? ‘피해자들을 만나봤냐?’고 물으니까 ‘내가 왜 만나야 되나? 의사가 있는데’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저희도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서 원래 다음주쯤 환경부 장관 경질하라는 기자회견 시간을 잡아놨는데, 타이밍이 이렇게 일찍 온 거예요. 어젯밤에 환경연합, 참여연대 바로 연결해서 ‘다음주까지 갈 것 없이 내일(13일)이라도 바로 합시다’ 해서 부랴부랴 성명서 쓰고 오늘 바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br/><br/> -기자들은 많이 왔습니까?<br/><br/> “많이 왔어요. 최근 2~3개월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 관심이 급증하게 된 데는, 언론사 간의 특종 경쟁이 분명히 큰 역할을 했어요. 많은 정보를 검찰이 다 핸들링하고 이것저것 정보를 준 게 언론에 계기를 제공한 건데,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뛰어다녔어도 잠잠하던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장족의 발전을 한 셈이지요.”<br/><br/> -언론이 이제 와서라도 보도하는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불만스럽단 말씀이시네요.<br/><br/> “의 성한표씨가 칼럼(‘언론은 왜 옥시만 때리나’ 5월3일치)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언론은 검찰이 주는 거 다 받아쓰는 분위기잖아요. ‘언론의 기본 역할은 심층적으로 추적해서 고발하는 거를 해야 한다’고 쓰셨던데, 제대로 지적하고 있단 생각이 들어요. 기자라면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어디가 어떻게 빈 부분이 있는지, 검찰이 알면서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일지 파악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만나는 기자들은 다 법조계 담당이에요. 그게 넘치면 사회부에서 커버하는 식이에요. (기사가) 검찰발 소식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br/><br/>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2011년 정부 역학조사가 발표된 때인데 그동안 미온적이던 검찰이 최근 새삼 칼을 빼든 이유가 뭘까요?<br/><br/>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이 사건처럼 사람 많이 죽은 사건을 다뤄야 검찰의 위신이 선다’고 강조하면서 전담팀을 꾸린 것이 주효했다는 게 그간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통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뜻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시스템에 의한 제도라는 건 뭐죠? 지난 4년 동안 그 자리를 거쳐 간 전임자가 여러 명인데 누가 오면 되고 누가 오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제도가 있고, 누가 앉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br/><br/> -그런데 왜 옥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이 제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광고를 시작한 게 에스케이(SK)케미칼인데, 왜 그쪽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하지 않죠? 국내 대기업이라 못 건드리고, 옥시는 해외 기업이라 이러는 건가요?<br/><br/> “에스케이가 처음 만든 건 맞아요. 근데 일반시민들이 에스케이 제품을 사서 썼느냐? 그렇진 않아요. 전체 시장점유율에서 80%를 차지하고, 전체 피해자의 80%를 차지하는 건 옥시거든요. 지난 5년간 옥시가 나서서 부인하니까 다른 기업은 옥시 뒤에 숨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옥시가 다 하니까.”<br/><br/> -에스케이도 소송에 포함되어 있나요?<br/><br/> “고발되어 있습니다. 옥시만큼이나 큰 비중을 가진 게 에스케이란 지적은 옳아요. 그동안 타깃이 옥시에 집중되어 왔지만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다른 기업들 문제도 끄집어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br/><br/><br/><br/>5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도와 <br/>유독성 공론화에 결정적 역할 <br/>“언론은 검찰발 정보에 갇혀 있고 <br/>검찰 수사는 시스템 없이 요동 <br/>SK 등 다른 기업도 책임 물을 때”<br/><br/>석면·초미세먼지·환경호르몬·핵 등 <br/>상근자 2명이 매달려 씨름 <br/>‘공해병’과 싸우며 오직 한길 걸어 <br/>“환자들은 얘기 들어줄 사람 절실 <br/>환경운동서도 소홀히 다뤄진 경향”<br/><br/> <br/><br/> 증언하지 않고 함구하는 죄<br/><br/>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한쪽 벽면엔 ‘옥시불매’라는 구호와 함께 다양한 옥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문득 최예용 소장의 등 뒤로, 낯익은 ‘옥시싹싹’ 용기가 눈에 들어왔다. 실물 제품을 다시 대면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도 이 제품을 사서 썼다. 유학 시절, 미국 가게에서는 팔지 않는 제품이라 일부러 멀리 한인마트까지 가서 사왔다. 정성스레 정수한 물에 조심스레 용량을 재서 부을 때 ‘또르르~’ 떨어지던 물소리…. 아이는 소아천식을 앓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천식환자용 흡입기를 몇 년간 들고 다녔다.<br/><br/> -800만통이 팔렸다니 저 같은 사람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피해자 신고를 할 수 없었어요. 오래전 일이라 증거도 대기 어렵고, 이미 많은 분들이 큰 희생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 대열에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양심상 찔리기도 하고요.<br/><br/> “그런 경우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제조회사 도와주는 일이 되니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내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열 명이 앉아 얘기하면 최소한 두세 명은 이 제품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전체 규모가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br/><br/> -피해자 가족과 저 같은 사람의 차이는 저희 가족이 요행히 운이 좋았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 손으로 타서 아이 머리맡에 놓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꾸 피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닐지도 몰라’ 하고 자기를 세뇌하고 싶어지고요.<br/><br/> “4살짜리 아이를 보낸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가습기를 쓰면서 찝찝했는데 슈퍼마켓 갔더니 ‘100% 살균, 인체 무해’라고 쓰인 살균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물건 만들었대? 노벨상 줘야 해!’ 하면서 샀대요. 누가 의심을 했겠어요?”<br/><br/> -그래서 이걸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고 부르는 거겠죠.<br/><br/> “2000년대 초, ‘환경성 질환’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얘기되었던 세 가지가 천식, 비염, 아토피였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3~5살 아이 중에 천식, 비염, 아토피 없는 아기가 드물 정도로. ‘설마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환경성 질환일까?’ 연구자들조차도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죠. 피해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합니다.”<br/><br/>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거죠?<br/><b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br/><br/> -10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를 썼단 걸 어떻게 증명해요?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요?<br/><br/> “저희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게 왜 피해자 책임이죠? 이 제품의 특징이 3천~4천원 주고 사서 쓰고 버리는 건데, 영수증을 찾아내지 못하면 소비자 잘못이냐고요? (피해 신고자가) 사용했다는 걸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면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조사하는 사람들한테 저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br/><br/> 최예용 소장과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지난 18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무기한 접수받을 수 있도록 신고 마감기간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피해자들 스스로도 믿기 힘들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후대의 역사가 더욱 믿기 힘들어할 일은, 이토록 치명적이고 명백한 재앙 앞에서 어떻게 그리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함구하고 있었을까 하는 점일지도 모른다. 피해자가 증언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은폐된다.<br/><br/> <br/><br/> 교통순경이 사고 현장에 있는 게 당연하듯이<br/><br/> -지난 5년간 포기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파고든 단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거의 유일합니다. 어떤 계기로 이 문제에 매달리게 된 겁니까?<br/><br/> “우리가 센터를 만든 기본 취지가 환경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만든 단체니까 이런 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교통경찰이 달려가는 게 당연하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웃음) 그냥 주어진 자기 임무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여기만 하느냐?’ 그런 질문은 어폐가 있어요.”<br/><br/> 2010년 창립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이외에도 석면과 초미세먼지, 환경호르몬, 핵과 방사능 문제 등을 다뤄왔다. 하나같이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한 묵직한 주제들, 그러나 방치할 경우 치명적 폐해를 몰고 온다는 공통점이 있다.<br/><br/> -정부나 국공립 기관에서도 안 하는 일을 상근자 2명의 시민단체에서 해왔다는 게 아이러니 같습니다. 지금 센터의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시죠?<br/><br/> “<span class='quot0'>170명의 회원들 회비로 운영하고요, 백도명 교수나 임종환 교수처럼 예방의학이나 산업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시는 것도 재정 규모 이상의 성과를 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span>” <br/><br/>-상근 소장으로 생활은 되십니까?<br/><br/> “저 혼자 살면 될지도 모르죠. 우리 센터의 임흥규 팀장이 그 박봉으로 버티는 걸 보면…. 저는 애가 셋입니다.(웃음) 와이프가 직장에 다녀요.”<br/><br/> -어이쿠! 충성하며 사셔야 하겠어요.(웃음)<br/><br/> “그렇죠. 어제도 와이프가 ‘유럽 출장 다녀온 건 좋은데, (집안일은) 아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당신 너무 당당하게 바뀐 거 아냐?’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침에 성명서 잽싸게 쓰고 설거지랑 청소 하고 나왔습니다.(웃음) 그래도 예전에 노동운동하고 고생했던 다른 동료들에 비하면 저야…. 지난달 28일이 김세진·이재호(1986년 반전평화를 주장하며 분신·당시 서울대 4학년) 30주년 추모일이었어요. 꼭 가야 하는데 못 가서 진짜 미안했어요. 시간 될 때 (산소에) 한번 다녀오려고요.”<br/><br/> 김세진, 이재호가 분신하던 때 최예용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2학년이었다. 서울 서라벌고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들어간 대학이라 학년은 달랐지만 나이는 그들과 동갑이었다. 부채의식을 느끼며 공해문제를 연구하는 대학생 서클에서 활동했다. 1987년부터 ‘공해추방청년협의회’라는 공개조직을 만들면서 그는 환경운동 활동가로 첫발을 내디뎠다.<br/><br/> -원래 공해문제에 관심이 많았나요?<br/><br/> “서클 들면서 알게 되었죠. 과학기술인이 될 사람으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모토가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럼 공부를 하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br/><br/> 제 몸을 불살라 죽음을 택하거나 기득권을 버리고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다른 친구들만큼 용감하지는 못해도, 배운 지식을 가지고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그에겐 큰 위안이었다. 졸업 후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퇴근 후 군복을 입은 채 ‘공해추방운동연합’(의장 최열) 사무실로 거의 매일 나가 살다시피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읽는 환경/공해 책들을 불살라 버리고 사무실로 찾아와 선배들을 붙잡고 따귀를 때리기도 했지만, 최예용은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1994년 최예용이 1년 동안 울산지역에 내려가 공해병 현장조사를 벌일 때 아버지는 그를 대신해 환경관련 집회에 나갈 만큼 신실한 후원자가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일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br/><br/><br/><br/>살균제 관련 국가 손배소 1심 패소 <br/>국가는 여전히 기업 이익 비호 <br/>“세월호처럼 부작위 살인 적용해야 <br/>흡입검사만 했어도 출시 막았을 것 <br/>239명 죽음에서 무엇을 배울 텐가”<br/><br/>“신고 안 하면 제조사만 돕고 <br/>증언 않으면 가해자는 은폐돼 <br/>피해 규모 밝히는 게 첫째 과제 <br/>옥시 불매운동부터 참여하자” <br/>신고 전화번호 (02)380-0575<br/><br/> <br/><br/> 환경보건 위해 반달곰 풀어주자고?<br/><br/> -환경보건운동이 뭡니까? 환경운동은 알겠는데 환경보건운동이라고 하니 생소하게 들립니다.<br/><br/> “하하하, 그렇죠? 10년 전쯤,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얘길 나누는데 제가 ‘환경보건’이라고 하니까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자꾸 반달곰 풀어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길 하셔서, 왜 이리 핀트가 안 맞나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환경보건’을 ‘환경복원’으로 들으신 거더라고요.(웃음)”<br/><br/> -하하하, 환경복원!<br/><br/> “한국의 환경운동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70년대에 영산강 보호운동 같은 것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운동은 8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공해추방운동이라고 했죠. 온산 지역에서 주민들이 공해로 집단 발병했는데, 명백한 책임 소재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온산병’에 대해서 원죄의식 같은 게 깊이 마음에 새겨졌죠.”<br/><br/> -원죄의식이요?<br/><br/> “예전에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공해병 환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들어주고 자신을 위해서 얘기해줄 전문가 한 사람을 애타게 찾았어요. 그런데 없었거든요. 공해추방운동 자체가 초창기였기도 하고, ‘공해병’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혼쭐이 나던 시절이었어요. 대학교수가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공해병에 대해 얘기했다고 해서 잡혀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다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고 피부병이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밝혀져야 하는 거지.”<br/><br/> 온산병은, 1985년 전후로 울산광역시 온산 일대의 공업단지 부근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심각한 신경통과 전신마비, 피부병 등의 증상을 집단으로 호소한 공해병이다. 공장 폐수가 토양과 하천, 바닷물을 오염시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역학조사나 원인 규명은 되지 못했고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은 주변 지역으로 이주 조치되었다.<br/><br/> -3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군요.<br/><br/> “그 이후, 공해추방운동이 시민운동과 결합되면서 환경운동으로 발전했는데, 이때는 동강댐 반대, 갯벌 보호, 새만금 반대, 페놀사건이나 원전 문제 같은 생태계 보호운동으로 주제가 옮겨갔죠. 요즘엔 더 나아가 동물권 보호에도 관심이 깊어졌고요. 그런데 환경운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온산병과 같은 공해병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었어요. 저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석면으로 암에 걸리는 사람들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걸 환경보건운동이라고 규정하고 피해자와 전문가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자고 출발한 겁니다.”<br/><br/> <br/><br/> 239명의 죽음이 가르치는 것<br/><br/> “제2차 산업의 우렁찬 건설의 수레 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울산 공업도시의 건설이야말로 혁명정부의 총력을 다할 상징적 웅도이며 그 성패는 민족 빈부의 판가름이 될 것이니, 온 국민은 새로운 각성과 분발 그리고 협동으로서 이 세기적 과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분기 노력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1962년 2월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 대장 박정희,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치사문 중에서)<br/><br/> <br/><br/> 한때 ‘검은 연기’는 ‘국가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국가는 공단에서 ‘세기적 과업의 성공적 완수’를 해내는 기업의 강력한 후견인이었고, 거기서 파생되는 공해의 후유증은 온산 지역 주민처럼 가진 것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었다.<br/><br/> 반세기가 흐른 지금, 유해산업과 오염물질의 독성은 이제 특정 지역, 특정 계급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역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이고 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기업의 이익을 비호하고 방어하는 데 더 열심이다. 작년 1월,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피해자 쪽은 패소했다.<br/><br/>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br/><br/> “사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 경우가 흔치 않아요. 특히 정부가 안 한 일, ‘부작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안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우리는 이번 경우에도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깨져버린 거죠.”<br/><br/>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요?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br/><br/> “환경과학원이 과거에 흡입테스트를 하지 않은 채 독성물질인 피지에이치(PGH)를 인가했다는 자료를 찾아냈어요. 이 테스트 한 가지만 제대로 했어도 제품 자체가 출시가 안 되었을 텐데…. 저도 2심 판결은 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br/><br/> -환경보건에 대해서 좀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자욱한 미세먼지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해양오염도 걱정이고, 산성비에 토양오염까지, 환경의 안전지대가 없다 보니 오염물질이고 독성물질이고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산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남들도 다 저러고 사는데, 나 혼자 걱정한다고 달라질까 싶어서 ‘에잇,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진걸’ 하고 짐짓 모른 체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br/><br/>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를 공급한 ‘케톡스’란 기업은 덴마크 회사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자기 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일도 없는데, 사용중지, 판매중지, 강제회수의 결정을 내리고 회수가 안 되면 벌금을 때렸어요. 그 여파 때문에 그 회사는 문을 닫은 겁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안전한 테스트를 거쳐 안전하다는 증거를 가졌을 때만 팔도록 하자.’ 우리가 그걸 못 배우면 대대손손 그냥 아프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239명의 사망자들이 우리한테 준 교훈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고도 안 배울 건가요?”<br/><br/> -평범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br/><br/> “우선 옥시 불매운동부터 참여해 주세요. 지난 30년 사이 불매운동으로 기업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대로 흐지부지되면 이 끔찍한 사고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허망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눈앞의 편리함만 좇다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건 바보나 하는 일이잖아요.”<br/><br/> 국민이 바보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못하면, 검은 연기를 국가의 희망으로 아는 이들에게 나와 가족의 생명을 또다시 저당 잡히고 말 것이다. ‘의사도 아닌데 피해자를 왜 만나냐?’고 반문했던 장관은 여전히 환경부의 수장으로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br/><br/> “<span class='quot0'>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pan>”(헌법 제35조) <br/><br/>녹취 김성희 <br/><br/>▶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br/><br/><br/>■ 생일 하루 앞두고…고장난 안전문에 앗긴 ‘19살의 꿈’ <br/><br/>■ “반기문 집권 시나리오 있었다” <br/><br/>■ 생리대 살 돈 없어요…말할수 없었던 고백 <br/><br/>■ [화보] 폭포를 차오르는 열목어의 힘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6.txt

제목: 여성들이 다시 쓴 천문학의 역사  
날짜: 2016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28113615253  
본문: ▶ 전세계의 유명 천문학자들 중 여성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교육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학자로 고용되기 거의 불가능했던 여성들은 싼 임금을 받거나 무급으로 고용돼 일종의 ‘계산 기능인’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그랬던 여성들이 천문학자로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꽤 최근의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 천문학자들이 등장해 활약하고 있지만 ‘유리천장’은 아직 공고합니다. 아직도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천문학의 역사에서 여성들은 어떤 활약을 해왔을까요?<br/><br/>요즘 천문학자들에게 망원경 이야기를 물어보면 무안당하기 일쑤다. “제가 망원경 보는 시간보다는 컴퓨터 화면 보는 시간이 더 많아서요. 아니, 사실상 거의 모든 시간을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지내죠.” <br/><br/> 관측장비를 통해 정밀하게 우주를 관찰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천문학자들이 연중 몇 차례씩 칠레나 미국 하와이 등 세계 곳곳의 망원경을 순례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 밖의 시간은 관측 결과로 얻은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데 오롯이 바칠 수밖에 없다. 천문학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로 유명하다. 몇 년 전 빅데이터라는 말이 유행할 때 가장 먼저 활용 분야로 꼽힌 분야도 천문학이었다.<br/><br/> <br/><br/> 월가에서 모셔가는 천문학자<br/><br/> 천문학자가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당대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 해결하는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최고의 전문가이며(데이터 분석에 주목하는 미국 월가의 금융회사가 천문학자들을 ‘모셔’간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를 위해 어떤 수단이든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시간을 100년 이상 되돌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가보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br/><br/> 이때의 천문학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블랙홀, 팽창하는 우주, 외부 은하 등 새롭고 낯선 개념이 탄생했다. 하나같이 우주에 대한 인류의 기존 상식을 부정하고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주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롭고 충격적인 개념이라도 관측을 통해 증명되지 않으면 한갓 가설에 불과하다. 다행히 이 무렵에는 실력과 열정을 지닌 많은 천문학자들이 등장해 드넓은 우주 공간을 샅샅이 관측하며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사실로 증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니, 부수적인 문제인 계산하기 까다로운 관측 데이터의 존재 때문이었다.<br/><br/><br/><br/> 미국 하버드대 천문대장을 맡고 있던 에드워드 피커링은 이런 방대한 천문 관측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골치를 썩은 사람 중 하나였다. 천문대의 직원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자료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피커링이 골치만 썩고 두 손 들고 말았다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일이 별로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특이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고 오늘날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다. 바로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다. ‘아니, 컴퓨터는 요즘 천문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라며?’라고 반문한다면, 오해다. 이때는 19세기 말로 아직 최초의 컴퓨터도 만들어지기 전이었다. 피커링의 컴퓨터는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수리천문학자였다. ‘계산에 능한 직원을 고용한 게 뭐가 대수라고?’ 역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피커링이 고용한 직원들은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피커링은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정식으로 학자로 고용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의 여성들을 싼 임금을 주고(혹은 무급으로) 고용해 일종의 계산 기능인으로 활용했다. 시작은 자신의 집 가정부였던 윌리어미나 플레밍이었다. 이후 애니 캐넌, 헨리에타 리비트 등이 컴퓨터의 일원으로 활약했고, 이들 중 일부는 천문학 역사에 전설적인 흔적을 남겼다. 피커링의 여성 컴퓨터들은 큰 화제가 됐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커링의 하렘’이라고 불렀는데, 일부다처제 사회의 여성 거처를 일컫는 이 말은 모욕적이었고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다.<br/><br/><br/><br/>방대한 자료 처리해야 하는 <br/>천문학자들은 빅데이터 전문가 <br/>19세기엔 교육받은 여성들이 <br/>컴퓨터 대신 ‘계산기능인’ 활약 <br/>첫주자 플레밍은 가정부 출신<br/><br/>항성분류법 등 천문학 기초 닦고 <br/>‘걸물’ 리비트는 외부은하 밝혀내 <br/>능력 빛나도 망원경 조작조차 금지 <br/>아직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br/>여성 천문학자 유리천장은 ‘여전’<br/><br/> <br/><br/> ‘드림팀’ 하버드 컴퓨터들<br/><br/> 컴퓨터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플레밍의 개인사는 요즘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극과 닮았다. 플레밍은 영국에서 공립학교를 나와 십대 때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활을 해왔다. 결혼을 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고 아이도 가졌지만 남편은 곧 가족을 버렸고,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 플레밍은 가정부 일을 시작했다. 그가 일을 하게 된 곳이 피커링의 집이었다. 관측소의 직원들이 데이터 처리를 잘 하지 못해 낙담해 있던 피커링은 플레밍에게 계산을 시켜봤는데, 놀랍게도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후 플레밍은 피커링 아래에서 일평생 컴퓨터로 활약했다.<br/><br/> 플레밍은 단순히 계산만 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쓰이는 항성의 분류법을 만드는 등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닦는 데에도 큰 공을 세웠다. 나중에는 자신처럼 계산 능력이 뛰어나거나, 대학을 나왔지만 천문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지 못했던 여성들을 불러모아 ‘드림팀’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바로 하버드 컴퓨터들이었다. 플레밍은 천문학에 미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왕립천문학회의 회원이 됐고 1911년 죽기 직전까지 활발히 연구했다.<br/><br/> 하버드 컴퓨터 가운데 또 한 명의 걸출한 인물은 헨리에타 리비트였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천문학자가 될 수 없었던 리비트는 1893년부터 컴퓨터로 일하며 밤하늘을 촬영한 사진 건판을 확인하고 찍힌 별들의 밝기를 분석하는 일을 했다. 처음엔 자원봉사였고, 나중엔 당시 면화 노동자보다 약간 많은 시급(25센트)을 받고 일했다. 깨알 같은 별이 찍힌 건판을 일일이 확인하고 재고 계산하는 중노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료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 <br/><br/> 리비트는 그 와중에서 빼어난 발견을 해내기 시작했다. 리비트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의 밝기 변화 주기와 광도 사이의 정교한 규칙성을 발견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별의 외부에 있는 헬륨이 이온화됐다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밝기가 극적으로 변하는 별이다. 밝기 변화 주기는 하루에서 수십 일까지 다양한데, 리비트는 밝기 변화 주기가 긴 별은 광도(절대등급) 역시 증가한다는 특성을 발견했다. 별의 절대등급과 겉보기등급을 비교하면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변광성은 우주에서 성단이나 은하의 거리를 잴 때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일종의 우주 ‘자’인 셈이다. <br/><br/> 리비트의 발견은 당대에는 높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꾼 역사적 발견의 토대가 됐다. 1920년대에는 두 명의 저명한 천문학자 할로 섀플리와 히버 커티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다. M31(안드로메다)이라는 천체가 하늘에 있는데, 이 천체가 우리은하 안에 있는지(이 경우 M31은 안드로메다 ‘성운’이며 우리은하가 우주 전체가 된다) 혹은 밖에 있는 다른 은하인지(이 경우 안드로메다 ‘은하’이며 우리은하는 우주의 일부가 된다)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천체까지의 거리를 잴 수 없어 무의미한 공론에 그치고 있었다. 미국 윌슨산 천문대에 근무하던 관측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M31 안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를 이용해 거리를 재는 데 성공했고, 이 천체가 우리은하 밖에 위치한 외부 은하임을 밝혔다. 우주가 우리은하 바깥까지 넓게 펼쳐져 있음을 처음 알게 된 데에는 컴퓨터 리비트의 공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리비트는 허블의 연구 결과를 보지 못하고 192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br/><br/> 빼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고 놀라운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리비트는 생전에 큰 인정을 받지 못했고 정식 천문학자로 불리지도 못했다. 하버드 천문대의 컴퓨터들은 독자적으로 연구 주제를 정하거나 발표할 수 없었다. 망원경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였다. 리비트가 발견한 내용도 피커링의 이름으로 발표된 글을 통해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1912년 3월의 하버드 관측소 회보는 “소마젤란은하(당시에는 성운) 안의 변광성 25개의 주기에 대한 다음 진술은 리비트 양이 준비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리비트의 공을 인정하는 듯한 대목이지만, 글 작성자가 피커링으로 돼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 리비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었다. 리비트를 다룬 전기 에 따르면, 피커링은 리비트가 계산 이외의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게 다른 프로젝트에 묶어두는 등 은근히 방해하기도 했다.<br/><br/> <br/><br/> 플레밍과 리비트는 어디에<br/><br/> 하버드 천문대의 컴퓨터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빼어난 천문학 이론을 세워 우주를 혁신했지만,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천문학자’로 대접받지 못했다.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다.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 학계는 많이 달라졌을까. 수많은 여성 천문학자들이 등장해 활약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면도 많다.<br/><br/> 지난해 12월말 과학 저널 에 실린 미국 예일대 천문학·천체물리학센터 메건 어리 교수(미국천문학회장)의 기고문을 보면, 여전히 유리천장은 공고하다. 허블우주망원경을 사용하려고 제안서를 내도 여성 천문학자는 남성 학자보다 배정받는 비율이 낮고, 상을 받을 때도 후보에 덜 오른다(그냥 느낌이 아니라, 모두 논문으로 연구돼 있다). 급료를 적게 받는 경우도 여전히 있고 교육이나 봉사활동, 멘토링 활동 등 연구 외에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해야 하며, 심지어 그렇게 봉사해도 “딴 일도 많은데 용케 연구했네” 식의 빈정거리는 평가를 감수해야 한다. <br/><br/> 미국천문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천문학과 정교수 중 여성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대학원생 때는 35%였던 여성 비율이 조교수, 박사후 연구원, 부교수 등으로 올라가며 점점 줄어들어 열에 한두 명이 됐다. 메건 어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이 단순히 육아 등 가정생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박사 학위를 받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한국의 젊은 여성 천문학자들을 떠올려 본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용감하게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도 언젠가 보이지 않는 천장에 부딪히게 될까. 그리고 묻게 된다. 그 많던 여성 천문학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현대판 플레밍과 리비트는. <br/><br/>윤신영 편집장 <br/><br/><br/>■ ‘특수통 검사’가 탐욕스런 ‘전관 변호사’ 되기까지 <br/><br/>■ ‘핏빛 광주’ 그날 여대생 “총탄이 등에 박혀…” 일기 공개 <br/><br/>■ 박태환과 너무 다른 샤라포바 <br/><br/>■ [화보] 폭포를 차오르는 열목어의 힘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7.txt

제목: 소아 암환자 성인보다 지원 많아  
날짜: 2016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25105614072  
본문: Q: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혹시 소아 암환자는 성인과 달리 별도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는지요?<br/><br/><br/><br/>A:정부는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5가지 암에 대해 한 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살 이하 소아 암환자의 경우 지원을 받는 암의 종류, 지원 기간, 지원액 등에 있어 더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소아 암환자의 경우 모든 암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소아 암환자 가운데 올해 18살이 되는 1998년생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므로,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2016년 기준 한 달 소득이 1인 가구 194만9796원, 2인 가구 331만9926원, 3인 가구 429만4824원, 4인 가구 526만9722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약 2억875만원, 2인 가구는 약 2억4161만원, 3인 가구는 약 2억6499만원, 4인 가구는 약 2억8837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br/><br/> 지원액은 백혈병인 경우 한 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다른 암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한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br/><br/> 국민건강보험공단 <br/><br/><br/>■ 오늘 귀국, 반기문…찬사와 폄하, 우리가 몰랐던 ‘민낯’ <br/><br/>■ 이명박근혜 8년, 휘청거리는 충청도 <br/><br/>■ 최강희 감독 “<span class='quot0'>심판 뒷돈 파문 감독으로서 막중한 책임</span>”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8.txt

제목: 척추 골절 수술, 주사요법으로 대체되나  
날짜: 2016052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25104557683  
본문: 척추뼈에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 척추뼈는 외부 충격으로 부러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골다공증으로 뼈가 단단하지 못해 생길 수도 있다. 척추뼈가 부러지면 허리 부분 통증이 심해 상당수는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여태까지는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본 뒤 척추뼈 안에 단단히 굳는 물질을 넣어 척추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골절이 생긴 척추뼈 주변에 주사를 놓아 통증을 감소시키면 상당수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척추 골절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br/><br/><br/><br/>노인층 척추 골절은 합병증 위험 <br/>척추주사로 환자 절반 통증 줄고 <br/>4명 중 1명은 수술 필요 없기도 <br/>낙상 주의하고 골다공증 막아야<br/><br/><br/><br/> 현재 치료법 척추가 눌려 척추뼈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를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부른다. 척추뼈 골절은 목이나 가슴, 허리 부위의 척추뼈에 모두 다 생길 수 있으며, 외부 충격 이외에도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있을 때에도 생길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다른 부위에 생긴 암이 척추뼈를 파괴할 때에도 척추 골절이 나타날 수 있다. 골절이 생기면 해당 척추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기지만, 대부분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석달 안에 통증은 가라앉는다. 부러진 척추가 내려앉으면서 골절 부위가 아물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뼈는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되지 않아 척추 성형술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 흔치는 않지만 부러진 척추뼈가 척추관 안의 신경을 누르거나 손상시킬 경우에는 신경마비로 걷지 못하거나 주로 다리 쪽에 감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노인 환자에게서 척추 골절이 생기면 잘 움직이지 못해 폐기능이나 근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종종 정맥에 혈액이 굳는 혈전이 생겨 자칫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 같은 증상도 일으킬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br/><br/> 현재 초기에 생기는 심한 통증에는 잘 쉬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을 쓰거나 보조기를 착용하게 한다. 2주 정도 지난 뒤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척추뼈가 골절된 부위에 굵은 바늘을 이용해 뼈와 같은 성분을 넣어주는 척추 성형술을 해왔다. 2주 정도 지켜보는 이유는 척추 성형술을 곧바로 하면 골절된 척추뼈 주변의 다른 척추뼈가 추가적으로 부러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br/><br/> 치료법 바뀌나? 이영준·이준우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팀은 2011~2014년 척추 성형술이 의뢰된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에 척추 관절에 주사를 주입하는 보존적 치료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 또 전체 환자 4명 가운데 1명꼴인 23%는 통증이 크게 감소해 척추 성형술을 아예 취소했다. 척추 주사는 주사침이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에 직접 닿지 않게 하면서 척추 관절에 약을 넣는 치료인데, 그동안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 효과법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이준우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척추질환에 대한 치료 경향이 수술보다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 보존요법으로 나아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척추 성형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생각해보면, 약 23%의 환자가 이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span>”라고 설명했다. <br/><br/> 척추 골절 예방법 척추 골절은 대부분 낙상 등 심한 외부 충격을 받아 생기지만, 골다공증이 심하면 가벼운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다 척추 골절이 생길 수 있다. 골다공증의 경우, 여성은 주로 50대 후반부터, 남성은 70대부터는 생기므로, 이 나이대에 이르면 골다공증 검사를 받는 것도 추천된다. 골다공증 자체를 예방하려면 젊은 시절 적절한 운동으로 뼈의 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좋다. 노인이라면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낙상하는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드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척추 골절을 예방하는 등 척추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도움말: 분당서울대병원 이준우(영상의학과)·이영준(척추센터) 교수 <br/><br/><br/>■ 오늘 귀국, 반기문…찬사와 폄하, 우리가 몰랐던 ‘민낯’ <br/><br/>■ 이명박근혜 8년, 휘청거리는 충청도 <br/><br/>■ 최강희 감독 “<span class='quot1'>심판 뒷돈 파문 감독으로서 막중한 책임</span>”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49.txt

제목: [야! 한국사회] 과학 복덕방 / 김우재  
날짜: 2016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23194549449  
본문: 당대의 기준으로도 찰스 다윈은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박사학위도, 소속 대학도 없는 아마추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그의 이론이 혁명이 된 데에는 그가 평생 2000여명의 학자들과 1만4500여통의 서신교환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가 있다. 다윈은 위대한 과학자 이전에 위대한 커뮤니케이터였다. 다윈만이 아니다. 근대과학의 탄생 자체가 과학자 네트워크에 기대고 있다. 과학혁명의 시기는 과학이 제도화되던 시기와 겹치며 그 제도화의 첫 시작이 과학학회의 탄생이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초반부터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과학자들의 학회가 시작되었고 이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영국 왕립학회에서 뉴턴이 등장했다. 뉴턴이 근대과학을 이끈 것이 아니라, 왕립학회가 뉴턴이라는 거인을 등장시킨 셈이다. 근대과학의 승리는 과학자 네트워크라는 제도의 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br/><br/> 과학의 본질은 그 보편성에 있고, 보편성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재현되는 실험 결과들에 의해 지지된다. 그런 이유로 과학자들의 학회는 다른 학문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바로 자연스러운 국제적 협력관계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과학자들은 작업의 보편성 덕분에 국제적 교류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과학은 그 시작부터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탄생했고 유지되어 왔다. 생명과학 분야의 네트워크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다. 1890년 설립된 이곳은 유전학, 분자생물학, 암생물학에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설 연구소 중 하나다. 하지만 정말 이곳을 유명하게 만드는 건 1년 내내 열리는 다양한 소규모 학회들이다. 세계적 학자들 수백명이 모여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치열하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활동은 정보의 교환을 넘어 엄청난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바로 그런 장소에서 세계적 수준의 과학이 탄생한다. 2010년, 바로 이 미팅의 아시아 지부가 중국 쑤저우에서 시작되었다. 상하이에서 차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이 휴양지에서 1년 내내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학회가 개최되고 있다.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중국에 앞섰던 선취권들을 모조리 빼앗기는 중이다. 조선업의 불황은 그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학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중국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입해 세계 과학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한국 과학의 위치는 무엇이어야 할지 고민할 시기가 왔다.<br/><br/>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뛰어난 운영방식으로 국제적 허브 공항이 되었다. 송도는 실패한 도시일지 모르나, 적어도 인천공항을 인프라로 계획된 국제도시다. 미국과 중국의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는 공항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고, 교통편도 매우 불편하다. 하지만 송도엔 그런 단점이 없다. 게다가 송도엔 외국 유명대학들의 캠퍼스가 들어서는 중이다. 이곳에 국제적 과학 교류의 중심이 될 센터를 건설해볼 여지가 있다.<br/><br/> 언젠가 도올은 한국은 유교 복덕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한국은 강대국일 수 없고, 주변 강대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도덕적 순결성의 구심점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 유학의 길을 거기서 찾았다. 한국의 과학도 그런 운명일지 모른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한국 과학의 길이란 과학 복덕방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태어나 처음으로 방문한 중국에서 세계의 석학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중국 대학생들을 지켜보며 든 고민은 깊기만 하다.<br/><br/>김우재 초파리 유전학자 <br/><br/><br/>■ 봉하에 간 김원기의 가슴을 치는 추도사 <br/><br/>■ 폭염 대치 이렇게…“물 많이 마시고 외출 때 모자 꼭 쓰세요” <br/><br/>■ [영상] ‘봉하마을’ 간 안철수 대표에 시민들 ‘거센 항의’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0.txt

제목: 운명이다  
날짜: 2016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20193421714  
본문: ‘개인 노무현’이 불가능한 언설임을 안다. 그에 대한 모든 기억과 판단은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분명한 사실이, 나는 가장 안타깝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자명한 역사가, 나를 좌절케 한다. 어느 세월에나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가능할까.<br/><br/> 자살과 다른 죽음의 차이점은 자살이 개인적이며 생물학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이라는 사실이다. 한 가지도 빠뜨릴 수 없다. 유언과 유서는 어떻게 다를까.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살은 특별해진다. 자살은 교통사고, 사고사 등으로 숨겨진 신고가 많아 정확한 통계가 어렵지만 4명 중 1명꼴로 유서를 남긴다고 알려져 있다(). 10%라는 이론도 있다. 유서가 자살의 증거처럼 여겨지는 통념에 비하면, 낮은 비율 같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울증 환자도 다른 질병처럼(예를 들면, 말기 암환자) 사망 직전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와중에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br/><br/> 유서의 길이와 내용은 다양하다. “용서하세요”, “(화장실에)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버텼습니다”…“메리 크리스마스”도 있다. 가짜 유서(인구학적 표본에 따라 유서를 쓰게 함)와 진짜 유서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진짜 유서는 현실적이고 전형성을 띤다. 목적이 분명한 글이기 때문이다.<br/><br/> 나는 자살 관련 책에서 많은 유서를 읽었다. 일천한 독서 경험이지만 노무현의 유서는 상당한 명문에 속한다. 담백하다. 완벽하게 지쳐서 미련이 남지 않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다. 전체적인 균형, 깔끔한 표현력, 감정과 사유가 잘 조화되어 있다. 증상의 전형성(“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다”), 호소(“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구체적 이유(“너무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 성숙한 자세(“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타인에 대한 배려(“너무 슬퍼하지 마라. 미안해하지 마라”), 소박한 요구(“화장”, “작은 비석”). 그가 겪었을 고통을 감안하면 놀라운 정신력이 아닐 수 없다.<br/><br/> 가장 해석을 요하는 부분은 “운명이다”(노무현 자서전 격인 동명의 책도 있다). 당일 (BBC) 뉴스는 “It is fate”라고 보도했다. 이 단어는 주로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한다. 오역이라고 생각한다. 운명은 인간의 의지와 역행하는 불가항력으로 팔자, 숙명, 운, 초월적 힘, 심지어 미신으로 간주된다. 운명론은 순응, 허무 등으로 오해받는다. 반대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지나친 도전론도 만연해 있다. <br/><br/> “운명이다”는 두 경우 모두 아니다. 그는 구조적 문제와 본인의 캐릭터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물론 당시 상황은, 이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정세였지만 그는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불행한 미래를 확신했다. 그 요약이 “운명이다”다. 질병으로서 우울증은 교통사고나 암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책임감이 높고 뻔뻔스럽지 않으며 타인에게 분노를 전가하지 않는 성격에서 흔하다.<br/><br/> 운명은 우주 혹은 세속의 힘이고, 개인의 삶은 그 힘에 종속되는가? 그렇지 않다. 운명은 권력을 탈정치화시킨 표현에 불과하다. 운명은 구조의 힘에 대한 나의 대응(re/action)이다. 그것이 균형인 경우는 드물다. 극단으로 기울어질 때 개인은 생사의 기로에 선다. 자살, 타살 여부는 부차적이다. 즉 모든 자살은 사회적(타살)이다. 대개 구조가 개인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팔자를 타령한다. ‘운명을 극복’한 경우는 복잡한 세상의 우연 덕분이다. 이 과정에서 ‘승패’와 무관하게 악의 그물에 걸려 몸이 헌신(獻身)될 수 있는데, 소위 “역사의 밀알”이 되는 것이다.<br/><br/> “운명이다”는 구조, 당시 정권에 대한 그의 답이었다. 그는 구조주의자(운명론)도 개인주의자(의지론)도 아닌 구조를 넘어서고자 했다. 아무리 그래도 죽지 말아야 했다? 우리는 생사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삶과 죽음 모두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다. <br/><br/>정희진 평화학 연구자 <br/><br/><br/>■ 전두환, 80년 광주 발포 다음날 공수부대장에 격려금 <br/><br/>■ 강남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 이유 <br/><br/>■ 사탕처럼 먹던 항생제 ‘죽음의 경고’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1.txt

제목: 굽이굽이 산길·물길 완행버스 따라 청춘도 흘러가네  
날짜: 20160518  
기자: 이병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19104504401  
본문: 이병학 기자의 완행버스 여행 <br/>화천 사내면 사창리~삼일리~화천읍<br/><br/><br/><br/>“승객은 다 군인이죠. 95% 이상 될걸요.”<br/><br/> 동서울버스터미널과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직행버스 운전기사의 말이다. 말하자면, 휴가 나온 군인과 부대 복귀하는 군인들의 전용 버스인 셈이다. 그렇다. 경기·강원 북부 지역이 다 그렇듯이, 화천군도 군인들의 고장이다. 20대 초반 푸르디푸른 청춘의 사내들이 모여, 먹고 자고 훈련하며 단결도 하고 충성도 하는 이 지역은, 청춘들 못지않게 자연경관도 맑고 깨끗하고 푸른 곳이다. 푸른 산과 물 맑은 계곡이 기다리는 고장으로 떠나는 완행버스 여행이다.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버스터미널에서 마을버스로 출발해 삼일계곡 화음동정사 터를 둘러본 뒤, 계곡 따라 이어지는 경관 ‘곡운구곡’ 일부를 거쳐 화천읍내로 이동해, 북한강 물길 따라 자전거를 즐기는 여정이다.<br/><br/> <br/><br/> 삼일리행 버스 하루 4회, 시간 잘 맞춰야<br/><br/> 사내면 사창리. 버스터미널에도 식당에도 다방에도 군인들이 깔렸다. 해마다 8월 초 토마토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유학자 김수증(1624~1701)이 머물던 ‘화음동정사지’(華陰洞精舍址)로 가기 위해 삼일리행 버스를 기다렸다. 삼일리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지만, 운행은 하루 네번뿐이다. <br/><br/> 대합실에서 10시30분 차를 기다리는데, 삼일리 사신다는 할머니 한 분이 물으신다. “<span class='quot0'>거기 정자(화음동정사지를 지칭) 사진 찍으러 가나배.</span>” 그렇다고 하니 친절하게도 “<span class='quot0'>버스가 거기 내려주고 양어장까지 올라갔다가 돌려 내려오는 동안 찍으면 돼유</span>” 하신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무려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니, 후딱 찍고 다시 그 버스 타고 돌아오라는 말씀이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근처의 고찰 법장사까지 둘러보며 4시간을 기다릴 작정으로 버스에 올랐다.<br/><br/> 아담한 크기의 푸른색 24인승 마을버스(태흥운수)다. 손님은 할머니 한 분뿐, 운전기사는 “통학생들 타는 아침·저녁 빼곤, 빈 차일 때도 많다”고 했다. 부대 앞 지나 물길 따라 신록 우거진 산길을 달린다. “저, 거기서 내려줘유.” 운전기사는 할머니 내릴 곳을 안다. 정류소도 아니다. “<span class='quot0'>법규대로 정류소 정차를 고집하면,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해 원하는 곳 어디든지 내려 드린다</span>”고 했다. 한마디 덧붙인다. “<span class='quot0'>사고라도 나면 몽땅 운전사 책임이지만….</span>”<br/><br/><br/><br/>터미널에도 식당에도 군인들 북적 <br/>24인승 푸른색 마을버스엔 어르신뿐 <br/>바위에 정자 올린 화음동정사지와 <br/>곡운구곡 암반엔 김수증 발자취 <br/>읍내에선 강변·붕어섬 자전거 한바퀴<br/><br/> <br/><br/> 벼슬 버리고 은둔 김수증의 ‘화음동정사지’ <br/><br/> 화음동정사지는 조선 중기 성리학자 곡운 김수증이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들어와, 계곡 물가에 초당 등 주거공간을 만들고 은둔해 살던 터를 말한다. 화악산(1468m) 북쪽 자락, 암반계곡인 삼일계곡의 중하류다.<br/><br/> 마을에서 운영하는 천막 방갈로들 옆으로 ‘화음동정사지’를 알리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거대한 암반을 따라 흐르고 쏟아지며 부서지는 물길이 매우 깨끗한데, 물길 양쪽 암반들과 물 가운데의 바위 등이 모두 정자가 들어섰던 유적지다. 바위 위엔 송풍정을 복원했고, 산 밑 바위자락 옆엔 삼각 정자인 삼일정도 복원해 세웠다. 붕당정치로 밀려난 사대부의 은둔생활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생활공간이자 건축양식이라고 한다. 삼일정 옆 암반엔 태극도·팔괘 등 당시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을 나타낸 다양한 석각이 새겨져 있다.<br/><br/> 화음동정사지에서 찻길 따라 상류 쪽으로 올라 다리 앞에서 오른쪽 지류를 따라 30분쯤 오르면 아담한 절 법장사를 만난다. 기도원 못미처 오른쪽 산자락이다. 본디 신라 때 미륵사란 절이 있었고, 이 터에 곡운 김수증이 한 스님에게 반수암이란 암자를 짓게 한 뒤, 화음동정사와 반수암을 오가며 지냈다고 한다. 법장사는 반수암 터에 다시 지은 절이다.<br/><br/><br/><br/> 대웅전 뒤쪽 산신각 위 거북바위 틈에 뿌리내리고 자란 노송이 참 아름다웠다고 한다. 하지만 산신각에 불이 난 3년 전 불타 사라지고 뿌리만 안쓰럽게 남아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절 들머리 바위절벽에 남은 커다란 글씨 석각 흔적이다. 법장사 주지 스님은 “<span class='quot1'>김시습의 글씨인데, 전에 있던 한 스님이 ‘유교의 산물’이라며 불로 지져 쪼아내버렸다</span>”고 했다. 석 자의 큰 글씨와 두 자의 작은 글씨가 흔적만 남아 있다. 이 절에 남은 옛것은 들머리 밭 안쪽의 커다란 부도 1기가 유일하다.<br/><br/> <br/><br/> ‘곡운구곡’ 지나 북한강 본류 따라 화천읍내로<br/><br/> 네 시간여 뒤에 다시 들어온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 사창리 버스터미널에서 화천읍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역시 24인승 마을버스, 승객은 어르신 두 분뿐이다.<br/><br/> 삼일계곡 하류인 용담계곡(지촌천)의 암반 위를 흐르는 물줄기엔 김수증이 이름붙인 아홉 경치 ‘곡운구곡’이 이어진다. 버스편이 뜸해(사창리~화천버스터미널 버스 하루 6회 왕복) 버스에서 내려 감상하긴 부담스럽다. 아홉개의 암반 경치 중에서 볼만한 것은 3곡 ‘신녀협’과 4곡 ‘백운담’ 등이다. 김수증의 의뢰를 받은 당시 화가 조세걸이 아홉 경치를 답사해 실경을 그린 가 전해온다. 조선 실경산수화의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림이라고 한다.<br/><br/> 버스는 용담샘터를 지나 물길 따라 굽이치는 56번 국도를 달린다. 지촌삼거리 거쳐 5번 국도를 따라 북한강 물줄기를 오른쪽에 두고 달려 화천읍내로 든다. 화천은 북한강 물길에서 벌이는, 겨울 산천어축제와 여름 쪽배축제로 유명한 ‘물의 고장’이다. 버스 타기는 이쯤 하고, 자전거로 강변 경치를 즐겨보기로 했다. 읍내에서 상·하류 쪽으로 강변 양쪽에 ‘산소길’이라 이름붙인 근사한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다.<br/><br/> <br/><br/> 자전거로 달리는 북한강 ‘수상 데크’ 환상적<br/><br/> 붕어섬 들머리 대여소에서 자전거(1만원, 5천원은 상품권으로 반환)를 빌려준다. 상류 쪽으로 달려 미륵바위~숲으로다리~수상 나무데크길~산길~화천대교~뜬다리로 돌아오는 2시간 코스(약 4.8㎞)를 탔다. ‘파로호 산소 100리길’의 일부 구간이다. 아카시아꽃·애기똥풀꽃 들이 반겨주고, 뻐꾸기·꾀꼬리 들이 우지짖는 아름다운 자전거길이자 산책 코스다.<br/><br/> 가장 매혹적인 구간은 부교(뜬다리)인 ‘숲으로다리’(숲으로 드는 다리라는 뜻)를 건너, 하류 쪽으로 1㎞나 이어지는 ‘수상 데크’ 길이다. 밑이 평평한 작은 배 모형들을 띄우고 나무를 깔아 만든 ‘물 위의 산책로’다. 강변의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수상 데크 풍경이 그림 같다. 데크길이 끝나면 15분쯤 숲속 흙길을 거쳐야 하지만, 자전거를 끌고 가는 데는 큰 부담이 없다. 더덕 향기 맡고 새소리 들으며 걷는 울창한 숲길이다.<br/><br/> 자전거 반납 시간은 5시까지다. 여유가 되면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놀이동산인 붕어섬도 자전거로 탐방해볼 만하다. 다리로 연결된 이 섬 안에서 수상자전거·카누·카약·다인승자전거·전통스쿠터·레일바이크 등도 즐길 수 있다. <br/><br/> 화천/글·사진 이병학 선임기자 leebh99@hani.co.kr<br/><br/>화천 완행버스여행 정보<br/><br/><br/><br/>대중교통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면소재지) 버스터미널까지 직행버스가 하루 24회 20분~1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2시간 소요, 1만1200원. 사창리~삼일리(화음동정사지) 시내버스(마을버스·24인승)는 하루 4회(07시30분, 10시30분, 14시50분, 16시) 운행. 15분 소요, 1200원. 버스를 놓쳤다면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삼일리까지 미터기로 6천원 안팎. 사창리 버스터미널 옆에 택시 승차장이 있다. 사창리~화천읍은 시내버스가 하루 6회(08시, 08시50분, 10시50분, 13시20분, 16시, 19시10분) 운행한다. 30여분 소요, 3910원. 자주 운행하는 춘천행 버스를 타고 어리고개(지촌삼거리)에서 내려, 춘천~화천 버스를 타도 된다. 화천공영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까지는 하루 28회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2시간30분 소요. 무정차(춘천만 경유) 직행은 2시간 소요. 1만3900원.<br/><br/>먹을곳·묵을곳 화천읍내 화천시장 안에 소머리곰탕·국밥·순댓국 등을 내는 식당이 많다. ‘황해식당’의 소머리국밥, ‘옛골식당’의 닭도리탕 등. 화천경찰서 옆 골목의 ‘화천순두부’는 허름한 식당이지만 매일 순두부를 만드는 곳. 다 팔리면 문을 닫는다. 읍내에서 북한강 상류 쪽 대붕교에 이르는 도로(평화로·자전거길 옆)변에도 막국수·두부전골 등을 잘하는 식당들이 많다. ‘화천막국수’의 동치미막국수·비빔막국수 등. 오골계를 즉석에서 잡아 요리해주는 ‘웰빙오계가든’(화천읍 가손이길)도 있다. 사내면 사창리에선 터미널 옆 ‘삼대막국수’의 소머리국밥과 막국수가 먹을 만하다.<br/><br/>화천읍에 덕성파크·로터스모텔 등 모텔들이 있다. 북한강변 평화로를 따라 파로호 쪽으로 펜션·민박집들이 많다. 한옥펜션도 있다. 사창리에도 모텔·여관이 10여곳 있다.<br/><br/>화천 시티투어 버스 춘천역에서 출발해 화천의 볼거리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가 있어 이용할 만하다. 코스마다 다르지만 대개 민속박물관·산소길·화천시장·평화의댐·감성마을 등이 포함된다. 평일 춘천 출발 1만5천원, 화천 출발 1만1천원, 주말(토·일) 춘천 출발 1만9천원, 화천 출발 1만5천원. 2일 전 예약 필수. 사내면 쪽 코스는 없다.<br/><br/>화천 여행문의 화천군 관광안내소(시티투어버스 예약) (033)440-2575, 자전거대여소 (033)442-7570, 화천 시외버스터미널 (033)442-2902, 화천 시내버스터미널 (033)442-2092, 사내면 사창리 버스터미널 (033)441-4718.<br/><br/> <br/><br/><br/>■ ‘곡성’의 흥행과 사이코패스 사회의 상관관계 <br/><br/>■ “전두환, ‘광주 발포 결정’ 회의 참석”…보안사 자료 확인 <br/><br/>■ “여성 살해, 사회가 답해야”…강남역 ‘포스트잇 추모물결’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2.txt

제목: 검진에서 암 찾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어  
날짜: 2016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18094039227  
본문: Q: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을 받는 중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br/><br/><br/><br/>A: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 사업에 따라 검진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원요건에 맞는 대상자는 암관리법 제13조에 규정된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암검진을 통해 새로 암이 발견된 환자나 지난해에 검진을 한 뒤 올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되는데요,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8만8천원, 직장 가입자는 8만9천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 이전에 받은 암검진에서 암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안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건보료가 같은 기준 이하일 때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br/><br/>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 암검진 사업을 시행하는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지원이 되는데, 의료비가 지원되는 범위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의 검사비, 암 최종 진단 뒤 암 치료비입니다. 또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나, 이후 전이된 암이나 재발암에 대한 치료비 등도 지원됩니다.<br/><br/> 의료비 지원 금액은 한해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최대 연속 3년까지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등록 신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br/><br/> <br/><br/><br/>■ 전두환 “5·18 발포? 대통령 되려다 안 된 어떤 사람의 모략” <br/><br/>■ “우릴 간첩으로 몰아야 쓰냔 말여?” <br/><br/>■ 새누리 한치앞 안보이는 ‘공황상태’…분당위기 치달아 <br/><br/>■ [화보] 원폭으로 폐허가 된 1945년 일본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3.txt

제목: 인문학 위기? 인문학 위축·통제의 전략이다!  
날짜: 2016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17193620229  
본문: 약 반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학술회의 참석차 몇명의 러시아인 동료와 같이 서울에서 머물렀다. 숙소에서 회의 장소로 이동할 때에 다 같이 소형버스를 탔는데, 운전대 옆에 놓여 있는 라는 책을 봤다. 러시아 동료들에게 운전사가 약 2천년 전의 중국 사가의 저서를 즐겨 읽는다는 말을 하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었다. 러시아 같으면 운전사가 고대사를 탐독하는 것은 소련 시절에는 있을 법도 한 일이었겠지만 현재 같으면 거의 상상하기가 어렵다. 인문학 교양을 읽을 여유가 점차 증발해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한국 대중이 지니는 인문학에 대한 애정은 세계에서 거의 독보적이다. 내가 사는 노르웨이만 해도, 인문학 학도 이외에 내가 아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유명한 ‘바이킹 시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 중세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며, 관심이 가는 게 있다면 현재성이 강한 현대사 정도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같은 중세사 교양서가 거의 200만부나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매부수를 기록하는 것은, 북유럽 같으면 오로지 추리소설과 아동물이기 때문이다.<br/><br/><br/><br/>자본의 이념가들까지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념선전을 ‘인문학’이라고 포장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인문학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위기”인가? 인문학에 “경쟁력이 없다”고 하지만 인문학이 자연과학과 ‘경쟁’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머리와 손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br/><br/><br/><br/> 조상들의 ‘못 배운 한’ 덕인지, 집단의식의 상당 부분을 역사 담론들이 차지해서인지, 한국인의 인문·교양 열풍은 대단하다. 문제가 있다면 자본과 친자본 지식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거야말로 문제다. 서점가에서 늘 베스트셀러 코너를 점령한다 싶은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이거야말로 인문학의 탈을 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선전이라는 생각은 든다. 자기계발서의 대부분은, 근대 초기에 일본과 조선에서 개화론자들 사이에서 히트를 친 새뮤얼 스마일스(1812~1904)의 의 아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핵심 주장은 대체로 여전하다. “<span class='quot0'>노력하면 다 된다, 사회를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까 자신부터 바꾸라, 감정을 조절하여 긍정적으로 사고하기만 하면 길이 열린다….</span>” 취업 포기자나 취업 준비자까지 포함하는 체감 청년 실업률이 이미 34%를 넘은 참극 같은 상황에서 ‘노력 만능론’은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은 어법은 심히 반사회적이며 비도덕적이다. 청춘들까지 포함해서 납세자들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국가가 청년고용 대책 등을 통해서 시장이 불가피하게 끼칠 ‘아픔’을 완화라도 해야 하기 때문은 아닌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어법은, 국가의 책임 유기에 대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멈추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하고, 아무리 “내 안에서의 분노를 조절하기” 하고, 아무리 “마음 비우기”를 잘해도 가장 영적인 개인도 청년실업이나 ‘열정페이’ 등 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개인적 해결을 권고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대중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물론 노력도 의지력도 명상도 욕망을 줄일 줄 아는 지혜도 개개인에게 필요하지만 이런 한 명 한 명의 자기 조절이 사회 속에서 다수의 비극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로환으로 암을 치료해보는 시도와 같다.<br/><br/><br/><br/>한국은 대졸자의 30% 이상이 이공계다. 노르웨이는 15%밖에 안 되고, 미국은 아예 그 이하다. 브라질은 10%보다 약간 높다. 정부가 3년간 2012억원을 투입해 “<span class='quot1'>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정원을 이공계열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span>” 프라임 사업을 한다. 이미 소수인 집단을 돈 들여 더 줄일 정도로 인문학이 두려운가?<br/><br/><br/><br/> 자본의 이념가들까지 편승하여 자신들의 이념 선전을 ‘인문학’이라고 포장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인문학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위기”인가? 인문학에 “경쟁력이 없다”고 하지만 인문학이 예컨대 자연과학과 ‘경쟁’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머리와 손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그저 서로 기능이 다른 두 분야이며, 정상적인 사회에서라면 상호 보완하면 된다. “경쟁력 부족” 이야기는, 결국 “인문대 출신 취업률 저조”로 귀결되곤 한다. “취업률 저조”라는 말을 보다 직설적이며 현실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대기업부터 솔선수범하여 인문학 전공자들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소위 ‘4대 그룹’의 신입사원 채용 정보를 분석해보면 70~80% 정도는 이공계 출신들이다. 다른 기업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재벌기업들의 관행을 따르는 추세이니 인문학 전공자들은 한국 사회의 수많은 피차별 집단 중의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좀더 솔직한 서술일 것이다.<br/><br/>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들은 사실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는- 각종의 국고 지원금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받고 이런저런 세제 혜택을 받는- 대기업들에 신입사원 공정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별한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순수기술직이 아닌 이상, 기업이 각 계열의 전공자들을 균형등용하는 것도 사회정의 구현의 방법이 아닐까? 이와 동시에 인문대 출신에 대한 고용대책 마련을, 인문대 출신들을 포함해서 모두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다. 사실 내가 재직하는 오슬로대 인문학부의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학사 졸업자의 43%, 그리고 석사 졸업자의 59%는 공공부문에 취직한다. 인문학 전공자들은, 각종 박물관이나 아카이브, 공공 평생교육센터나 공공연구기관에서 필요하기에 인문학부 취업률은 80%에 달한다. 그러니까 취업률 저조가 “위기”의 내용이라면 인문학도에 대한 국가적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투쟁을 벌이는 것은 맞을 것이다.<br/><br/> 한데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그 세금을 받아먹으면서도 아무런 차별 해소 대책도 취하지 않는 국가에 항거하는 것은 정상적 사회의 이야기이지 대한민국의 사정은 그 정반대다. 인문학 전공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면 한국에서는 그 해소 대책은 피차별 집단을 더더욱 위축시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이미 대졸 중에서 이공계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대단히 높다. 30% 이상이나 되는데, 내가 사는 노르웨이는 15%밖에 안 되고, 한국인들이 그렇게도 우러러보는 미국은 아예 그 이하다. 굴지의 제조업 국가인 브라질은 10%보다 약간 높다. 이처럼 자본의 확대재생산, 그리고 기업의 이윤 뽑아내기와 직결되는 전공들의 비율이 이미 높은데도, 국가부터 앞장서서 인문학을 더 위축시킨다. 최근에 정부가 3년간 2012억원을 투입해 “<span class='quot1'>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정원을 이공계열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span>” 프라임이라는 사업을 한다. 21개 대학을 선정하여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시켜 2626명의 인문사회계열 정원을 포함하여 각종 “비경제적인” 학과 정원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인문학 특유의 반란성은, 이 국가로서 이미 소수인 집단을 돈 들여 더 줄일 정도로 그렇게도 두려운가?<br/><br/> 같은 돈을 사회적인 인문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서, 신진기예 인문학도들에게 예컨대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각종 아동 과외교육 기관, 인문학 동아리 등에서 아이들에게 인문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었다면 되지 않았을까? 나만 해도 평생 역사와 인연을 맺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어렸을 때에 5년 동안이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고학 동아리에서 매주 2회에 걸쳐서 국립대학 역사학부를 나온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역사 공부의 흥미에 푹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훨씬 가난한 북한만 해도,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릴 때부터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준다. 국내 보수는 소련이나 북한을 통상 ‘전체주의’라고 매도하지만, 모든 교육기관들을 고시원이나 취업학원처럼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거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은 아닌가?<br/><br/>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비케이’(BK·두뇌한국)나 ‘에이치케이’(HK·인문한국) 사업처럼 주로 비정규직 자리를 양산하면서 인문학도들을 철저한 통제를 받는 논문 생산 기계로 만드는 것은 “인문학 위기”의 해소가 아니고 인문학을 관의 통제 밑에 두어서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일 뿐이다. 거듭 이야기하자면, “인문학 위기”는 없으며, 정부의 정책들이 계획적으로 심화시키는 인문학에 대한 관·기업의 차별이 있을 뿐이다. 인문학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여 인문학의 공공가치에 중점을 두어서 “인문학 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할 때다. <br/><br/>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br/><br/> <br/><br/><br/>■ “전두환, ‘광주 발포 결정’ 회의 참석”…보안사 자료 확인 <br/><br/>■ AOA 소속사, 이번엔 ‘안중근’ 금칙어 설정 논란 <br/><br/>■ [포토] “전두환 비석, 짓밟아주세요”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br/><br/>■ [화보] 007 본드걸들의 과거와 현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4.txt

제목: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사설 비교해보기  
날짜: 2016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16210858094  
본문: 와 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br/><br/>[한겨레 사설]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도 수사해야 <br/><br/><br/><br/>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제조업체인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연구자의 행태도 놀랍지만, 역학조사 결과를 뒤집겠다고 뇌물도 서슴지 않은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에 거듭 아연하게 된다. 엄히 조사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br/><br/> 피해의 책임이 기업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피해 발생과 확산의 큰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응당 해야 할 예방조처를 하지 않고, 피해 발생 뒤에도 본격 수사와 피해 구제를 미루고, 책임을 서로 떠넘긴 것이 바로 정부다. 직무 태만인지, 아니면 기업의 접근 따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br/><br/> 정부는 초동 조처부터 실패했다. 2006년 첫 어린이 사망자가 보고된 뒤 2007년 여러 대학병원 의료진이 관심을 촉구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소관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었다. 감염병이 아니라면 유해 화학물질 노출을 의심하는 게 당연하고 폐 섬유화 등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는데도 2011년 이전까지는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4~5년을 그냥 흘려보낸 셈이다.<br/><br/>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은 “2003년 무렵에는 유독물질에 해당할 정도의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란 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했던 위험물질이었다. 그런데도 1996년 이 물질이 처음 생산됐을 당시 정부는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분류했다. 2001년 옥시가 이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을 때도 안전 인증이나 검사는 없었다. 옥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할 때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10년 뒤인 2011년 환경부 역학조사로 PHMG 등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정부가 이를 유해물질로 지정한 것은 2014년이었다.<br/><br/>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감독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업체에 독성검사 자료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 확인 뒤 신속한 조처를 미적댄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지금이라도 규명돼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밝히는 일은 제조사에 대한 수사 못지않게 중요하다.<br/><br/> <br/><br/> <br/><br/><br/><br/><br/><br/>[중앙일보 사설]생활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나라인가<br/><br/><br/><br/>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생활화학물질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과학적으로 볼 때 ‘살생물제(Biocide)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에 해당한다. 살생물제는 생활환경에서 인간이 원치 않는 미생물·곤충 등을 제거하는 생활화학물질이다. 위생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선 필수품이다. 생활화학물질의 30% 정도를 살생물제가 차지하는 이유다.<br/><br/> 살생물제는 저농도로 사용되지만 인체에 직접 노출되는 데다 노출 빈도가 잦다. 이에 따라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용 유독물질 못지않게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물질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위생적으로 생활하려고 사용한 가습기소독제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도 이런 허술한 관리에서 벌어진 인재였다고 볼 수 있다. 바닥 청소에 쓰는 살생물제를 안전성 확인도 없이 가습기소독제로 전용하다 폐에 문제를 일으켜 결국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닌가.<br/><br/>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생물제를 비롯한 생활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위해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물질은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시장 진입을 막는 등 생활화학물질 안전을 확보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br/><br/>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국내에 살생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적·제도적 생활화학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일찌감치 간파해 1998년 2월 ‘살생물제 관리지침’을 도입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모든 살생물질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뒤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2013년부터는 살생물제관리법을 발효해 발암성·생식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등 인체나 환경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생산과 유통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br/><br/> 하지만 국내에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내용만 입법예고됐을 뿐이다. <span class='quot1'>살생물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span>.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일부 살생물제만 제한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이 생활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별도의 ‘살생물제관리법’이 절실하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살생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부터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 살생물제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 주는 일이기도 하다.<br/><br/><br/><br/> <br/><br/><br/><br/>[논리 대 논리]<br/><br/>한겨레 “정부 관리·감독 외면한 이유 규명돼야”…중앙 “유해물질 생산 등 정부 엄격히 관리해야”<br/><br/><br/><br/>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br/><br/><br/><br/>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전말을 요약해보자. <br/><br/>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는 SK케미칼(당시 유공)이 1996년 카펫 항균제로 제조하겠다며 환경부에 신고했다. 당시 환경부는 이를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았다. 2001년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PHMG를 첨가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다. 2011년까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453만개 판매한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 중증폐렴에 걸린 임산부 환자가 급증해 질병관리본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그해 8월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 요인이라고 추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1월에는 1차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PHMG,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의 흡입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6종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미 사망자와 피해자는 양산된 상황이었다. 2013~2015년 정부의 두 차례 조사에서 옥시 제품을 쓴 103명을 비롯해 143명이 숨지는 등 모두 221명이 살균제와의 인과관계가 높은 피해자로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사망자 239명, 피해자 1528명으로 보고 있지만 잠재적 피해자까지 합친다면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br/><br/>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당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위’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 5일, “<span class='quot0'>새누리당ㆍ국민의당과 협조해서 국회에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관련 정부기관을 소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span>”고 밝히며, 2012년 피해자 고소 이후 검찰이 이 사건을 그동안 방치한 이유와 서울대·호서대 교수의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 산업통상자원부의 제품 안전관리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살균제 성분(CMIT·MIT) 동물흡입실험 결과 발표 관련 사안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br/><br/> 이미 수차례에 걸친 사설을 통해 중앙과 한겨레, 두 신문은 모두, 제조사와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에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월6일자 두 신문사의 사설은 이번 사태를 어떤 식의 해법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의미 있는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중앙은 이번 사건을 ‘살생물제(Biocide)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규정짓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사설에서 주를 달아 놓고 있듯, 살생물제는 생활환경에서 인간이 원치 않는 미생물·곤충 등을 제거하는 생활화학물질을 가리킨다. 인체에 직접 노출되는 데다 노출 빈도가 잦은 살생물제는, 인체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앙은 살생물제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주문한다.<br/><br/><br/><br/>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br/><br/><br/><br/> 중앙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살생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적·제도적 생활화학 ‘안전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중앙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유럽연합(EU)의 ‘살생물제 관리지침’을 예로 들며, 유해물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을 정부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감독하고 통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겨레의 사설은 ‘제조업체인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교수를 긴급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기업과 정부의 도덕성 해이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옥시가 서울대 수의과대에 의뢰한 실험에서 임신한 쥐의 새끼 15마리 중 13마리가 죽은 결과를 은폐하고, 추가 실험으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연구진을 매수했다는 의혹은 큰 충격이다. 여타의 대형사고들이 ‘검은돈’과 관계가 있었음을 볼 때, 한겨레의 이런 지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비도덕성의 일면을 언급한 것이다. 한겨레는 “2001년 옥시가 이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을 때도 안전 인증이나 검사는 없었”으며 “2011년 환경부 역학조사로 PHMG 등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정부가 이를 유해물질로 지정한 것은 2014년이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관리·감독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관리감독의 소홀은 단순한 업무상 나태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정부의 느슨한 도덕성에 대한 추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br/><br/> “<span class='quot1'>살생물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span>”라는 구절을 볼 때, 중앙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문제를 철저하게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부재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 당연히 시스템의 도입이 중앙의 해법이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살생물제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앙의 지적이다. 법은 곧 국민들에게 안정망을 제공하는 것이고, 법이 부재하는 곳에 도덕적인 누수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앙이 제시하는 해법은 가볍게 볼 수 없다.<br/><br/><br/><br/>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br/><br/><br/><br/> 한겨레의 이번 사설의 제목은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도 수사해야’이다. 중앙의 사설이 문제의 해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한겨레의 사설은 사태의 원인 규명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제조사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똑같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 한겨레의 입장이다. 왜 2012년 피해자 고소 이후 검찰이 이 사건을 그동안 방치했는지, 서울대·호서대 교수의 유해성 실험보고서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의제품 안전관리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살균제 성분의 동물흡입실험 결과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따지고 묻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일이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다. 해법도 중요하지만 규명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br/><br/>김보일(배문고 국어교사) <br/><br/><br/><br/><br/><br/>[추천 도서]<br/><br/> 침묵의 봄 <br/><br/>레이첼 카슨, 에코리브르 펴냄, 2011년 <br/><br/> <br/><br/>이 책은 환경 생태학 분야의 고전이며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중의 하나다. 이 책은 환경운동이 모든 나라의 사회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자극한 책이기도 하다. 디디티(DDT·살충제)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이 어떻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녹색식물을 고사시키고, 이 잎에 붙어사는 곤충을 무차별 살육하고, 이 곤충을 먹고사는 새들을 죽게 하는가, 수생 생물을 떼죽음 당하게 하고, 인간의 건강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를,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증언하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생태학적 연관관계에 무지한 전문가들, 정책당국자, 그리고 산업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고발한다.<br/><br/><br/><br/> <br/><br/><br/><br/>[키워드로 보는 사설]<br/><br/><br/><br/>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br/><br/><br/><br/>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집단소송제도는 공통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송을 수행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미치는 특수한 민사소송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실제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최근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난소암 환자와 유가족에게 620억원의 징벌적 성격의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br/><br/><br/>■ [단독] 박 대통령의 메스르병동 ‘살려야 한다’, 연출 맞다 <br/><br/>■ 김영란법에 한숨 쉬는 분들께…“공짜 밥이 어딨냐?” <br/><br/>■ 제창과 합창의 차이…박 대통령은 보훈처 방침 어겼다? <br/><br/>■ [화보] 막 오른 제69회 칸 영화제 <br/><br/>■ [화보] 원폭으로 폐허가 된 1945년 일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5.txt

제목: “1800원짜리 장갑 아끼라는 의료체계, ‘제2 메르스’ 못막아”  
날짜: 2016051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16200925400  
본문: “감염 예방법에 대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해 우리가 감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고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경영진은 1800원짜리 보호장갑을 아끼라고 지시하더군요. 우리가 소모품보다 천대받는다는 생각에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엉엉 울었습니다.”<br/><br/> 12일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최은영(47) 간호사는 메르스 유행이 한창이던 1년 전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했다. 2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일해왔지만, 메르스 파동은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다. 당시 격리 음압병상이 있던 서울대병원 감염병동에는 메르스 환자들이 잇따라 입원했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다가 수십명에게 메르스를 옮겼던 이른바 ‘슈퍼전파자’라 불리던 환자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의사(박원순 서울시장과 논쟁을 벌였던 의사)나 지난해 국내 메르스 마지막 환자도 그의 간호를 받았다.<br/><br/><br/><br/>환자·슈퍼전파자·감염의사까지 <br/>밀려드는 환자·밤낮없는 격무 <br/>전쟁같던 1년 전 어제처럼 생생<br/><br/><br/><br/>가족 걱정할까 말도 못하고 <br/>미역국 끓여놓고 짐싸서 나와 <br/>병원 간이침대·돗자리서 야전생활<br/><br/><br/><br/>생일맞은 마지막 환자 눈물의 파티 <br/>슈퍼 전파자 괴로울까 댓글 못보게 <br/>감염보다 두려운 건 정부·병원 무심함<br/><br/><br/><br/>감염병 예방 프로토콜 훈련 필요한데 <br/>시설·장비·인력 등 지원하기보다 <br/>병원은 성과급제 등 수익에만 골몰 <br/><br/><br/><br/> 국내 마지막 메르스는 환자는 결국 사망했고, 최 간호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메르스 환자로 남았다. “입원 뒤 석달 만에 퇴원했다가 열흘가량 지나 재입원을 했는데, 재입원한 다음날이 그분 생일이었어요. 격리치료를 받던 중이라 생일을 축하해줄 가족마저 볼 수 없어, 우리 간호사들이 조각케이크를 놓고 생일축하 파티를 해줬는데 함께 눈물만 흘렸습니다.”<br/><br/> 이 환자는 림프종이라는 암을 앓고 있어 항암 치료와 메르스 치료가 모두 힘들어 결국 숨지고 말았다. 재입원했을 때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 환자는 사망할 때까지 격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최 간호사는 “지금도 감염력이 없다는 마지막 환자를 끝까지 격리해 어린 자녀는 물론 부인 등도 제대로 만나볼 수 없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당시에는 격리치료를 해제해, 즉 의료진이 보호복 없이 이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돼 다른 환자나 의료진에게 감염을 전파시키지 않는다는 장담을 당국, 의료진 누구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br/><br/>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불렸던 환자는 메르스로 인한 폐렴이 심해져 인공호흡기는 물론 에크모(체외혈액순환기)까지 달아야 했다. 처음에는 본인이 수십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뒤 뉴스를 통해 슈퍼전파자가 본인임을 알아차리게 됐다. 최 간호사는 “환자가 너무 괴로워해서, 의료진이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지 못하게 했다”며 “이 환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당신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피해자, 치료받는 환자일 뿐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격려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환자는 무사히 퇴원한 뒤 감염병동에 들러 간호사들에게 간식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한다.<br/><br/> 그가 돌본 환자 중에는 격리치료에 두려움을 느끼고 ‘500만원을 줄 테니 탈출시켜달라’는 환자도 있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해 정신이 들어보니 우주복 같은 옷(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자신이 ‘감금돼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산소 흡입 치료 등도 거부하면서 의료진을 위협한 환자도 있었다. 최 간호사는 “<span class='quot0'>누구나 메르스로 격리 치료를 당했다면 보일 수 있는 반응들이었다</span>”고 말했다.<br/><br/> 메르스 유행이 한창이던 시절, 메르스 환자가 있던 병원에서 일하던 의료진의 자녀는 학교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메르스 의료진 역시 사회에서 격리를 당한 것이다. 실제 메르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가운데 환자와 접촉이 많았던 간호사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됐다. 최 간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 가운데에는 가족에게 감염시킬까봐 짐을 싸서 집을 나온 이도 있었다. 그 간호사는 병원에 잘 곳이 없어 사무실로 쓰던 공간의 집기를 들어내고 간이침대와 돗자리로 숙소를 만들었다. 또다른 동료 간호사는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며칠치 미역국을 잔뜩 끓여놓고 새벽에 나왔다. “<span class='quot1'>아이들 얼굴을 보면 차마 집을 나서지 못할까봐 아이들을 보지 않고 나왔다 하더군요.</span>”<br/><br/> 의료진 역시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그들을 괴롭힌 것은 정부와 병원이, 의료진이 충분한 보호장비 없이 환자를 돌보게 했다는 것이다. 보호복을 비롯해 보호안경, 보호장갑을 어떻게 착용하고 벗어야 하는지, 음압시설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면 감염으로부터 더 안전해지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메르스 치료에 투입됐다. 환자들에게 나온 검체(피, 가래 등)나 그들이 입었던 옷, 폐기물 등의 처리 방침도 교육받지 못했다. 게다가 보호장비도 아껴야 했다. 최 간호사는 “메르스 유행 초기에는 보호복 장비를 소독해 재사용하려 했는데, 소독하면 장비 등이 망가져 사용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다른 장갑보다 조금 비싼 1800원짜리 보호장갑을 아끼라고 했다. 감염 예방에 투자하지 않는 정부와 병원이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메르스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의료장비 사정은 나중엔 좀더 나아졌다고 한다.<br/><br/> 메르스 등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을 비롯해 결핵, 장티푸스 등 모든 감염병 환자가 그가 돌봐야 하는 환자다. 최근에도 메르스 의심 환자나 지카 감염 환자가 입원했다. 최 간호사는 “감염병은 각각마다 감염 경로와 감염력에 차이가 있다. 진료나 간호의 각 과정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이를 반복해서 훈련해야 실제 감염병 현장에서 쓸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br/><br/> 최 간호사는 감염병은 다른 어느 치료보다 ‘병원의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감염 관리를 하지 않아 감염병 유행 사태가 나면 많은 환자나 의료진에게 피해가 번지기 때문이다. 최 간호사는 “시설, 장비, 인력, 재정 등 감염관리에 따른 지원을 하기보다는, 국립대병원마저 최근 경영평가제가 도입되고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제를 강요하는 등 수익 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보호장갑마저 아끼라고 했던 수익 중심의 사고로는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 글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br/><br/><br/>■ [단독] 박 대통령의 메스르병동 ‘살려야 한다’, 연출 맞다 <br/><br/>■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축가…‘임을 위한 행진곡’ 들어보실래요? <br/><br/>■ 청와대 출입기자가 들려주는 ‘대통령 순방’의 비밀 <br/><br/>■ [화보] 막 오른 제69회 칸 영화제 <br/><br/>■ [화보] 원폭으로 폐허가 된 1945년 일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6.txt

제목: 2016년 5월, 정운영의 ‘경제민주화’를 다시 읽다  
날짜: 2016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14114100704  
본문: 1988년 5월15일. 창간호 18면에는 ‘경제민주화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글쓴이는 마르크스주의 연구로 이름을 날리던 경제평론가 정운영. 그로부터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말끔히 해결했을까? 누구도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한다. “<span class='quot0'>분배가 반대하는 것은 소수를 행한 독점이지 결코 전체를 위한 성장이 아니다.</span>” 28년이 지난 2016년,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과제를 고민했던 정운영의 칼럼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br/><br/><br/><br/>경제민주화. 2012년 연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열쇳말 가운데 하나다. ‘1원1표’가 원칙인 자본주의 경제와 ‘1인1표’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따위의 온갖 야유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으나, 국민들은 과감한 복지 확충과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내건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골목상권 보호 정도의 문제로 축소됐고,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아예 빠져버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과제는 이미 완성된 것인가?<br/><br/> 여기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다. 지금부터 28년 전인 1988년 5월15일, 역사적인 창간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대정신을 더덜없이 담아내겠다는 굳은 다짐이 지면 구석구석에 스며 있다. 정치·경제·사회·언론 등 각 분야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는 내용이 창간호 36개 면을 빼곡히 채웠다.<br/><br/><br/><br/>1988년 창간호 실린 정운영 칼럼 <br/>경제민주화 스펙트럼 폭넓던 시절 <br/>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주장 <br/>독점자본과 권력 결탁 깨자는 개념 <br/>“근원적 질문 제기해야” 촉구<br/><br/><br/><br/>노골적 탄압과 고된 노동 희생 위에 <br/>경제발전으로 자유·정의 확대됐으나 <br/>최저임금 지키지 않을 ‘자유’와 <br/>무분별한 해고의 ‘정의’ 새롭게 등장 <br/>경제민주화는 우리 시대 핵심 과제 <br/><br/><br/><br/> 이 가운데 18면은 경제 분야를 다뤘는데, ‘국민이 주인되는 경제로 전환하자’라는 큼직한 문패와 함께 눈길을 잡아끄는 이름이 하나 보인다. 정운영. 벨기에 루뱅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1987년 초 학내 사태로 사직한 뒤 창간 때부터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창간호에 실린 정운영 칼럼의 제목은 ‘경제 민주화 방향과 과제’. 독자들의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자극하며 꽤나 두터운 ‘팬덤’을 형성했던 정운영 칼럼의 첫번째 주제가 경제민주화였다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 크다.<br/><br/> 그렇다면 당시 정운영이 머릿속에 그리던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28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동안 사그라들었던 경제민주화의 불씨가 4·13 총선 이후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창간호에 실렸던 정운영 칼럼 ‘경제 민주화 방향과 과제’를 다시 읽으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자. 그의 칼럼에 담긴 핵심 대목 몇 가지를 추려봤다.<br/><br/><br/><br/>“<span class='quot0'>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는 사회 전체에 제기해야 한다.</span>”<br/><br/><br/><br/> 가 창간호에서 경제민주화를 다뤘다는 점도, 그리고 그 글을 쓴 이가 적어도 당시엔 자타가 공인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정운영이었다는 점도 오늘의 기준에서 보자면 다소 의외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현재 경제민주화를 우리 사회의 주된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큰 구실을 한 인물이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br/><br/> 이에 반해, 정운영은 마르크스의 이윤율 개념을 가지고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이론가였다. 1980년대 후반 사회운동 진영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변혁 전망을 확립하기 위한 ‘사회구성체 논쟁’이 한창이었는데, 정운영은 자신의 장기를 살려 해외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 관련 최신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는 데 열정을 바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이력에 비춰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참여하고 국회의원도 지냈던 김종인 대표 같은 인물이 옹호하는 경제민주화는 다소 ‘온건한’ 의제로 여겨질 만도 하다.<br/><br/>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980년대 후반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스펙트럼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넓었고, 그 내용도 한결 풍부했다. 진보적 경제학계의 ‘대부’ 격인 변형윤 교수,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을 지낸 조순 교수(이상 서울대), 훗날 가장 ‘독립적인’ 한국은행 총재였다는 평가를 받는 전철환 교수(충남대) 등이 경제민주화를 가장 활발하게 설파했던 대표 논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애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센터로 출발해 1981년 정식 출범한 한국경제연구원(당시 원장은 선경그룹 회장 등을 지낸 최종현이다) 역시 경제민주화 논의의 한 축을 담당했다. 오늘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유경제원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반대 논리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면, 1980년대 후반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의 포용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br/><br/> 다양한 성향의 논자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폭도 매우 넓었다. 가장 온건하게는 군사독재정권의 통제 아래 있던 경제를 민간 주도로 이행하자는 주장(여기에는 재벌도 어느 정도 동의했다)에서부터, 현재 김종인 대표가 강조하는 독점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나아가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익분점권 인정, 산별노조 설립의 권장 등에까지 뻗어 있었다. 한국은행의 독립, 세제의 누진성 강화, 복지제도의 과감한 확충, 농가부채 해소와 부재지주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주제들도 두루 포괄했다. 요컨대 1980년대 후반에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총체적인 시각이었던 셈이다.<br/><br/>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김종인 대표는 중요한 일원이기는 했을지언정 전체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말해야 공정할 것이다. 김 대표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119조 2항)도 당시 경제민주화라는 거대 우산 아래 분출됐던 다양한 요구들을 오직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좀 더 ‘왼쪽’에서는 윤소영(한신대), 박현채(조선대), 안병직(서울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해석과 실천의제들이 제시됐고, 급진적인 실천운동도 존재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정운영이 칼럼에서 쓴 대로,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국가독점자본주의’조차도 결국엔 거대 독점자본과 국가의 결탁을 가리키는 개념일뿐더러 경제민주화가 군사독재 아래 온존된 그 결탁을 깨자는 것이라면, 이 둘은 크게 다른 게 아니다. 그만큼 경제민주화는 나름대로 당대 한국 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할 잠재력을 품고 있는 주제였다.<br/><br/><br/><br/>“자유가 숨쉬고 정의가 흐르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바라고 세워야 할 사회이다. 그 과정을 당분간 ‘경제의 민주화’라고 불러도 좋다.”<br/><br/><br/><br/> 정운영이 정의하는 경제민주화 개념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그러나 정당한 요구를 하는 시위 군중을 마구잡이로 때려잡는 ‘정의’와 “각성제를 먹고 제 살을 찔러가며 재봉틀을 돌려야 하는 ‘자유’”가 판을 치던 시대에, 자유와 정의를 새롭게 확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br/><br/> 수많은 희생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헌법을 갖게 됐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게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유가 숨쉬고 정의가 흐르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공공연한 매질은 사라졌을지언정 선량한 시민에게 조준사격에 가깝게 물대포를 쏴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게 우리 사회의 여전한 ‘정의’다. 정운영은 칼럼에서 1988년 3월25일 새벽 안양의 한 봉제공장의 불법 기숙사에서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여공들의 사례를 언급한다. 대개 10대 후반~20대 초반인 22명의 여성 노동자 중에는 “<span class='quot1'>빚 3만원을 갚을 길이 없어 국민학교조차 중단한 채 이태 전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15세의 나이로 숨진 ‘우리의 딸’</span>”이 있었음을 나중에 고통스럽게 회상했다((까치, 1989) 24쪽).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국내 재계 서열 1위의 글로벌 기업에서 각종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가 76명이나 되는데도 그 기업은 한사코 업무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안팎의 압력에 못 이겨 지난해 ‘자체보상안’을 내놓았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8년 반이 지나서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지난 28년간의 정의 신장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br/><br/> 그뿐만이 아니다. 계속된 경제발전으로 우리는 자유와 정의의 새로운 차원에 이르게 됐다. 그 목록에는 이를테면, 회사가 법률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와, 무분별한 해고와 경영진의 전횡에 항의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의’가 새롭게 등재됐다. <br/><br/>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자유와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왜곡되고 뒤집힌 것임을 인정한다면, 정운영이 말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과정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부인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br/><br/><br/><br/>“<span class='quot0'>다수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수가 인간 이상답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span>”<br/><br/><br/><br/> 다수의 빈곤과 소수의 손에 소득과 부가 집중되는 문제는, 세계인의 이목을 끈 토마 피케티의 표현을 빌리면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이다. 피케티뿐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불평등 심화가 낳는 폐해를 고발하고 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져 그간 이뤄놓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대가로 치러야 함을 경고하기도 했다. 정운영이 암시하듯이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한다면, 불평등의 심화, 곧 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퇴행을 낳는다는 얘기다.<br/><br/> 피케티 등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2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 불평등이 완화되었던 반면 1980년대 이후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서의 추세가 반전됐다고 분석한다. 한국과 같은 후발국은 반전의 시기가 좀 늦다. 정운영이 칼럼을 쓴 1988년은 그간 쌓인 불만과 갈등이 한꺼번에 폭발하던 ‘대투쟁’의 한복판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한껏 고양된 노동운동 등의 덕분으로 분배 상황이 다소 좋아지고 있던 시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피케티의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불평등 추이를 연구한 김낙년 교수(동국대)에 따르면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진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1980년대 내내 7% 초반대에 머물던 최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1990년대 말부터 급속히 증가해, 2012년엔 12.2%에 이르렀다. 최상위 10%의 소득점유율도 1980년대에는 대체로 20% 미만이었으나 2012년에는 44.9%까지 치솟는다.<br/><br/><br/><br/>다수의 빈곤과 소수의 소득·부 집중 <br/>정치적 민주주의의 퇴행 불러와 <br/>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 <br/>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의 핵심 원인 <br/>‘인간다운 삶’ 회복이 ‘민주경제’<br/><br/><br/><br/>분배가 성장을 해친다는 생각은 <br/>“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 <br/>그릇된 신화 깨뜨리자 주문 <br/>금융위기·저성장 현실 부딪히며 <br/>소득주도성장론 등 논의 봇물<br/><br/><br/><br/> 그런데 정운영이 불평등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피케티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석이 있다. 후자는 1970년대 말 이후 선진 자본주의권에서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을 세제의 누진성 약화에서 찾고, 따라서 소득 및 재산세제의 누진성을 높이는 것을 불평등 완화의 핵심 대책으로 제시한다. 불평등 문제를 주로 재분배 영역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운영은 경제학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생산-분배라는 경제의 두 영역에서 자본주의의 ‘양대 계급’인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태를 파악한다. 즉 그에게 불평등이란 본질적으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와 ‘인간 이상답게 사는’ 소수의 자본가 간의 분배상의 불평등이고, 그 뿌리는 양자 간의 생산관계에 박혀 있다. 따라서 이 불평등의 해소 내지 완화의 결정적 열쇠는 생산관계를 좀 더 정의롭게 재편하는 데 있다.<br/><br/> 물론 이러한 재편은 “한쪽에서의 애걸과 다른 한쪽의 동정”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우리 노동자들은 정운영이 칼럼을 쓰던 저 시기에 이를 결정적으로 자각하고 스스로 뭉쳐 노조를 만들고 “강인한 투쟁”에 열을 올렸다. 의 창간 역시 그러한 움직임의 명백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야간노동을 위해 각성제를 먹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까? 적어도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분배 실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1980년대 후반에 다소 상승한 것은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br/><br/> 1997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낳은 핵심 원인은 비정규직의 확대다.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은 총 고용인구의 45%에 이를 정도다. 비정규직의 일반화는 전통적인 노동자 세력 약화의 결과로서, 임금수준을 ‘밑에서’ 잡아당기는 효과를 낸다. 비정규직 증가와 더불어,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12% 안팎인데, 2014년 기준 정규직의 미만율은 6.4%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23.9%에 이른다는 점은 우리가 두고두고 그 시정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안 될 뼈아픈 현실이다(오상봉,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5, 11쪽).<br/><br/> 이렇듯 오늘날 불평등은 가 창간되던 1988년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심각성도 결코 전보다 덜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노동자와 그를 고용한 자본가 간의 분배뿐 아니라 노동자집단 내부의 격차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치솟는 주거비와 1200조원을 훌쩍 넘은 가계부채가 이 땅의 다수를 ‘인간다움’의 한계선상으로 내몰고 있다. 정운영은 이를 시정하는 것을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민주경제’ 건설</span>의 길</span>”이라고 불렀다.<br/><br/><br/><br/>“<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분배가 반대하는 것은 소수를 향한 독점이지 결코 전체를 위한 성장이 아니다</span>.</span>”<br/><br/><br/><br/> 그런데 혹시 이런 분배 양상을 시정하는 일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을까? 정운영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라고 못박는다. 특히 “<span class='quot0'>분배가 반대하는 것은 소수를 향한 독점이지 결코 전체를 위한 성장이 아니다</span>”라는 구절은 성장과 분배에 관한 그릇된 신화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세계 경제를 휩쓴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고 나서야,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침체를 겪으면서야 비로소 경제학자들은 소득(임금) 주도 성장론과 같이 분배의 공정성 제고가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span class='quot0'>경제의 민주화는 밀알을 키우는 노력을 중지하지 않으면서, 그 수확이 모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분배되도록 규제하는 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pan>”<br/><br/><br/><br/>“<span class='quot0'>국민이 원하는 정부</span>만이 국민이 원하는 소비재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실로 확고한 것이라면, 그 소망을 성취시키려는 작업이 바로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민주경제’ 건설</span>의 길</span>이 된다.”<br/><br/><br/><br/> 앞서 말했듯이 정운영이 28년 전 첫 칼럼에서 염두에 두었던 경제적 정의, 곧 공정한 분배란 기본적으로 경제영역 자체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본원적 성격의 분배였다. 이는 경제영역에서 대립되는 세력들 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만약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다수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분배 양상을 교정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힘을 북돋워주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12%의 노동자들이 법률에 뻔히 명시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언제나 중요한 과제다.<br/><br/> 다만 정운영이 당시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게 하나 있다. 바로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이다. 어쩌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정운영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span class='quot0'>국민이 원하는 정부</span>”란 자본주의 질서 바깥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는 형식적인 정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는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권좌엔 ‘그때 그 사람들’이 앉아 있던 당시로서는 “<span class='quot0'>‘민주경제’ 건설</span>”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거나 촉구하기는 무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 다시 말해 정치권력을 군사독재세력의 손아귀에서 빼앗아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 민주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의 지난 28년의 경험은 잘 일깨워준다.<br/><br/> 조세·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나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실시, 그리고 그 비용의 마련을 위한 증세와 같은 문제들에서부터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해운업에 대한 국가 개입의 형태와 범위를 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은 단순히 국가의 몇몇 특정 기능을 결정하는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요컨대 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다. 바로 그 성격에 따라 여러 사회세력들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국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조정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면, 결국 정치권력의 민주적 재편조차도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민주경제’ 건설</span>의 길</span>”의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br/><br/> 최근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대국민 사찰이나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 등을 접하며 많은 이들이 지난 30년간 어렵게 이뤄낸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그간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망한 것이었느냐는 탄식도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퇴행이 줄잡아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경제 민주주의의 꾸준한 뒷걸음질의 결과임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 민주주의의 내실은 경제 민주주의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0'>자유를 신장시키는 정치 행위와 정의를 확보하려는 경제 행위가 전혀 별개의 사항이 아니다.</span>” <br/><br/>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g@hani.co.kr <br/><br/><br/><br/>[한겨레 창간호] 정운영,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과제’ <br/>출처: 창간호(1988년 5월 15일) 18면.<br/><br/>영국의 경제학자 모리스 돕은 언젠가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국민이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쓴 적이 있다. 사실 원하는 정부를 세우고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사회를 ‘이상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최초의 기본적 요구마저 쉽사리 수락되지 않는 현실의 온갖 갈등 때문에 그것을 이상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습관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br/><br/>여기서 ‘원하는 정부’라는 뜻 안에는 유권자의 의사가 완벽하게 개진되고 전달되는 과정,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의 신장이라는 항목이 가장 중요한 몫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상, 정치, 문화 등 사회의 상부 구조에 속하는 여러 영역에서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제일차적 지표가 되어야 한다.<br/><br/><br/><br/>‘원하는 상품’의 의미 역시 사회의 재생산에 필요한 소비재의 질과 양이 사회 전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소비재의 질에 대한 판단은 예컨대 추위를 가릴 서민의 집과 한가함을 달래기 위한 호화로운 별장 가운데 무엇을 먼저 지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벽돌을 찍느냐 아니면 대리석을 수입하느냐는 토론은 단순히 비용이나 효율성의 측면이 아닌 사회의 양식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와 직결된다.<br/><br/>소비재의 양이 결정되는 방법도 한 개인의 근면이나 한 개인의 자비심에 맡길 일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불과 몇 장의 지폐를 봉급 봉투에 보태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얻어터지고, 잡혀 다니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목숨을, 단 하나뿐인 그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어째서 다른 한편에서는 수억원이 선거마당으로 풀려나가고, 수십억원이 나라 밖으로 도망나가고 수백억원의 돈이 성금이란 이름으로 호기롭게 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느냐는 <span class='quot0'>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는 사회 전체에 제기해야 한다.</span><br/><br/>자유의 보완 개념인 평등은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댓가인 생산물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나누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사회의 양식 또는 공정한 분배를 사회의 정의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다면, 원하는 정부와 원하는 상품에 대한 강조는 한마디로 자유와 정의에 대한 요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요컨대 자유가 숨쉬고 정의가 흐르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바라고 세워야 할 사회이다. 그 과정을 당분간 ‘경제의 민주화’라고 불러도 좋다.<br/><br/>실제로 <span class='quot0'>자유를 신장시키는 정치 행위와 정의를 확보하려는 경제 행위가 전혀 별개의 사항이 아니다.</span><br/><br/>우선 사회의 재물이 몇몇 선택된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치권력이 필요하며, 반대로 권력은 자신이 수행한 경호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독점된 이익의 일부를 떼어주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정경유착이니 국가독점 자본주의니 하는 어려운 이론을 끌어댈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축적된 재산을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도, 합의된 본래의 궤도로부터의 이탈을 예방하고 바른 진행방향을 꾸준히 일깨우는 정치 세력의 존재가 요청되기 때문이다.<br/><br/>그러므로 경제는 앞서 가고 있으나 정치는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현실을 잘못 진단한 실수이거나 사실의 한 면을 고의적으로 가리려는 음모일 수밖에 없다. 되풀이하자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정치가 발전했다고 말하거나 정치가 낙후된 만큼 경제도 불안하다고 말해야 정확하게 그 뜻이 전달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전자의 주장에 흔쾌하게 찬표를 던질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span class='quot0'>다수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수가 인간 이상답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span><br/><br/>추방된 니카라과의 독재자가 훔쳐 달아난 재산이 그 나라의 성장과 관계가 없었고, 폐위된 이디오피아의 황제가 마차 밖으로 뿌리고 다녔던 동전 역시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듯이, 정녕 경제에서의 성장이 정의라는 내실을 갖출 때에만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경제는 바로 이 점에서 실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br/><br/>“<span class='quot0'>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span>”는 약속은 1961년 5월 총을 들고 한강을 넘어 온 사람들이 내건 명분 가운데 하나였다. 그 당시 그들이 하나의 밀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먹지 말고 더 불려서 나누자는 논리를 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제 그 밀알은 15곱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각성제를 먹고 제 살을 찔러가며 재봉틀을 돌려야 하는 ‘자유’와 밖으로 닫아건 방 속에서 불이 나면 고스란히 타죽을 수밖에 없는 ‘정의’가 절망과 기아선상을 대신했을 뿐이라면, 그 밀알을 키우는 데 쏟았던 우리의 노동과 애정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br/><br/>역사가 가르치는 바가 그렇고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도 그러하듯이, 비록 그 밀알이 1백50배로 켜져도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지 않으리라는 점만은 분명할 것 같다. 그러므로 <span class='quot0'>경제의 민주화는 밀알을 키우는 노력을 중지하지 않으면서, 그 수확이 모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분배되도록 규제하는 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pan><br/><br/>이 과정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의 하나는 분배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그릇된 믿음이다.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분배가 반대하는 것은 소수를 향한 독점이지 결코 전체를 위한 성장이 아니다</span>.</span> 우리는 여기서 정의가 성장의 적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br/><br/>그러나 정의는 한쪽에서의 애걸과 다른 한쪽의 동정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인한 투쟁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span class='quot0'>국민이 원하는 정부</span>만이 국민이 원하는 소비재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실로 확고한 것이라면, 그 소망을 성취시키려는 작업이 바로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민주경제’ 건설</span>의 길</span>이 된다.<br/><br/><br/><br/><br/><br/>정운영은 누구?<br/><br/>1944년 충남 온양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뒤, 온양으로 돌아와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1972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벨기에로 유학을 떠나 1981년 루뱅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의 핵심인 이윤율 저하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귀국해 한신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일하다가 학내 민주화투쟁에 연루돼 1987년 초 해직됐다. 1988년 창간 때부터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2000년부터는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100분 토론’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05년 9월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993) 등 경제학 이론서와 (1989), (2006) 등 여러 권의 칼럼집을 남겼다.<br/><br/><br/><br/> <br/><br/><br/>■ “비키니 강요하고 기습 키스”…NYT, ‘트럼프의 여인들’ 보도 <br/><br/>■ ‘100억 수임’ 전관·브로커…법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 <br/><br/>■ 청와대 출입기자가 들려주는 ‘대통령 순방’의 비밀 <br/><br/>■ [화보] 막 오른 제69회 칸 영화제 <br/><br/>■ [화보] 원폭으로 폐허가 된 1945년 일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7.txt

제목: 면역항암제, 3세대 항암제로 주목…부작용·고비용은 문제  
날짜: 2016051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11095240738  
본문: 최근 3세대 항암제로 부르는 면역항암제가 국내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제약회사 오노와 비엠에스(BMS)가 공동으로 만든 옵디보와 엠에스디(MSD)의 키트루다가 그 주인공이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지만 정상 세포마저 파괴하는 단점이 있었고,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작용하기는 하지만 암세포가 이 항암제에 견디는 성질 즉 내성이 생겨 치료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를 통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해 치료를 돕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흑색종을 앓았던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에서는 치료 효과가 별로 없고 부작용만 겪는 사례도 있어 치료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 면역항암제는 1년에 약 1억원이 들기 때문에 효과에 견줘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br/><br/><br/><br/>암세포 직접 죽이는 기능 대신 <br/>우리 몸의 면역력 높여 암 치료 <br/>치료 대상 명확하지 않고 <br/>면역계 부작용과 고비용이 문제 <br/><br/><br/><br/> 면역계가 암세포 알아보게 만들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우리 몸에 없었던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등이 들어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을 한다. 비록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도 이 싸움에서 면역계가 이기면 아무런 증상 없이 치유가 되는 것이다. 물론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알아차리지는 못한다. 정상 세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암세포도 마찬가지이다. 면역계는 거의 정상 세포처럼 생겼지만 성질이 다른 이 암세포를 우리 몸과는 다른 세포로 여기고 공격하여 없앤다. 그런데 암세포는 특정 물질을 내보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비유하자면 가면이나 복면을 쓰고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변장하는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이 가면이나 복면을 벗겨내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만드는 구실을 한다. 기존 항암제처럼 암세포나 정상 세포에 직접 독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토, 탈모, 소화장애 등과 같은 항암제 부작용이 덜 나타난다는 효과가 있다.<br/><br/> 10명 중 2~3명 효과…수년 이어져 면역항암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앓고 있던 흑색종이 치료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흑색종은 피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동양 사람보다는 백인들에게 흔한 암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면역항암제 치료를 4개월 동안 받은 시점에 흑색종 세포가 더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진형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세계적으로 2~3가지 암에 대해 사용이 허가됐지만, 여러 암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사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암 환자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는 흑색종과 일부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2~3명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며, 이 치료 효과는 수년 동안 이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어느 환자가 이 항암제에 반응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 폐암의 경우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견줘 4배가량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암 환자에게 쓸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br/><br/> 자가면역질환 부작용·고비용 단점 모든 치료법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것처럼 면역항암제도 부작용이 있다. 우리 몸의 면역계가 활발하게 작용할 터전을 만들어주다 보니, 면역세포들이 정상 세포마저 공격해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김범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면역항암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갑상선질환, 간염, 폐렴, 설사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폐렴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사망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값이 기존 항암제보다 너무 비싼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주 치료에 거의 900만원이 들기 때문에, 1년 치료비는 1억원에 이른다. 김범석 교수는 “<span class='quot1'>고액의 치료비 부담 때문에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항암제에 견줘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 <br/><br/><br/>■ [영상] “발명가 되고 싶다”는 초등생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br/><br/>■ 안철수 쪽 “물병 맞더라도 노 전 대통령 추도식 가야” <br/><br/>■ 가습기 살균제 ‘침묵의 살인 공모자들’ 공개합니다 <br/><br/>■ [화보] 세계 여성들, 오늘도 이렇게 싸우고 있다 <br/><br/>■ [카드뉴스] 돈되면 OK…‘김앤장’의 무분별한 변론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8.txt

제목: 26년간 고압전선 만졌던 노동자 장씨 백혈병 사망, 왜?  
날짜: 20160510  
기자: 정대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11084158674  
본문: 장상근(지난해 사망 당시 54살)씨는 26년 동안 전신주를 탔다. 배전설비 보수를 했다. 살아 있는 전기(활선)를 만지는 전기 노동자였다.<br/><br/> 그는 병원 한 번 가본 적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말 치질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 피 검사를 했다가 깜짝 놀랐다.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말에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갔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불과 4개월 만인 5월31일 그는 생을 마감했다. <br/><br/> 장씨의 유족은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장씨의 아내(51·전남 순천시)는 “전남대병원 담당 의사가 ‘저주파에 의한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해 산재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전기 노동자가 “<span class='quot0'>전자기파(전자파와 전기파)때문에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다</span>”며 산재를 신청한 것은 장씨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연구원에 의뢰해 장씨의 발병과 사망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br/><br/>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에서 일을 하는 전기 노동자들이 암과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발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br/><br/>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지부의 집계(표 참조)를 보면, 노조 쪽이 장씨 사망 이후 접수한 전기 노동자의 암 발병 사례가 26명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망했다. <br/><br/> 활선 전선로에서 15년 동안 전기 노동자로 일하는 천아무개(41)씨는 2014년 이상증세가 처음 나타나 통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밖에 뇌경색(5명), 갑상선암(4명), 간암(3명), 심근경색(1명) 등이 발병했다. 지난해 말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도 3명의 백혈구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br/><br/> 한국전력의 하청업체로 배전 공사 등을 하는 전국 470여곳에서 일하는 전기 노동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기가 한 순간이라도 끊기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점 때문에, 전기 노동자들은 2만29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채로 낡은 전선 교체 같은 작업을 하면서 감전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br/><br/> 전기 노동자들은 감전 사고 뿐만 아니라 고압 전기 노출에 따른 발병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전력 등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철갑 조선대 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일본은 전기 노동자들이 전기봉으로 작업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전기를 끊지 않고 고무장갑을 낀 채 작업을 해 감전 사고와 전자기파 등에 노출돼 있다. 외국에선 1980년대까지 전자기파와 백혈병 등 암의 발병에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br/><br/>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지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전국 전기 노동자 1500여명이 참여해 건강상담(역학조사)을 한다. 이날 건강상담엔 이철갑 교수 등 의사 4명과 간호사 16명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채혈할 예정이다. 송성주 전기원지부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1'>한국전력이 나서서 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로 작업을 하는 활선 작업을 폐지하고, 전기 노동자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이 신설되도록 해 달라</span>”고 말했다.<br/><br/> 한국전력 쪽은 “이들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선 작업 금지나 특수건강검진 제도 도입 등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기원지부 쪽과 면담해 요구 사항을 듣고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br/><br/>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br/><br/><br/><br/>▶디스팩트 시즌3 방송 듣기 바로가기<br/><br/><br/><br/><br/><br/><br/><br/><br/><br/> <br/><br/><br/>■ [영상] “발명가 되고 싶다”는 초등생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br/><br/>■ 안철수 쪽 “물병 맞더라도 노 전 대통령 추도식 가야” <br/><br/>■ 가습기 살균제 ‘침묵의 살인 공모자들’ 공개합니다 <br/><br/>■ [화보] 세계 여성들, 오늘도 이렇게 싸우고 있다 <br/><br/>■ [카드뉴스] 돈되면 OK…‘김앤장’의 무분별한 변론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59.txt

제목: 급성 중증 뇌경색 등 5개 희귀질환 7월부터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  
날짜: 2016051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10211605561  
본문: 급성 중증 뇌경색과 윌리엄스 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도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br/><br/>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성기 중증 뇌경색과 희귀질환 5종에 대한 산정 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산정 특례 제도는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은 뒤 나온 병원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을 낮춘 제도로,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인 20~60%보다 훨씬 낮은 5~10%만 내도록 하고 있다.<br/><br/> 이에 따라 7월부터 증상이 생긴 뒤 24시간 이내에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이 산정특례제도에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도 포함된다.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또 현재 정액인 입원환자 밥값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br/><br/><br/>■ [영상] “발명가 되고 싶다”는 초등생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br/><br/>■ 이상돈 “어버이연합 뿌리는 MB 정권” <br/><br/>■ 박 대통령 임기 후반 소리없이 내리꽂는 ‘스텔스 낙하산’ <br/><br/>■ [화보] 세계 여성들, 오늘도 이렇게 싸우고 있다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0.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담배와 가습기 살균제 / 김양중  
날짜: 2016051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10194353704  
본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아예 몰랐다. 건조한 날씨에 실내 습도를 높여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자 가습기를 썼다. 또 이 가습기에 세균이 살면 오히려 각종 감염병에 걸린다고 해 살균제를 사용했을 뿐이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고자 사용했는데, 오히려 심각한 폐 손상과 죽음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제품을 정부가 허가할 때에는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 작은 부작용만 있어도 이를 제대로 알리거나 아예 사용하지 말도록 조처했어야 한다. 위험한 물질이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사명이기 때문이다.<br/><br/> 최근 담뱃갑에 넣는 경고그림의 위치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흡연이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질환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을 담뱃갑에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되자 보건복지부는 시안을 만드는 등 경고그림 도입을 추진했다. 경고그림의 목적은 흡연자가 이를 잘 보고 담배를 덜 피우게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상단에 넣을 계획이었다. 담뱃갑 하단에 경고그림을 넣으면 담배를 팔기 위해 진열대에 놓을 때 경고그림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경고그림은 상단에 넣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br/><br/>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어 담뱃갑의 상단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한 안을 삭제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담뱃갑 경고그림이 혐오스럽다거나 경고그림을 자주 보는 일반인의 경우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심지어는 금연교육을 받은 어린 학생이 흡연에 대해 병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신적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내놓은 반대 논리와 유사하다.<br/><br/> 이런 결정이 나오는 데에는 규개위 위원들 일부가 담배회사와 가깝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조사한 바를 보면 규개위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은 2012~2015년 담배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7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적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담배회사 사장직에 응모하기도 했다. 규개위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속한 로펌이 담배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흡연 피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담배회사와 직간접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이들이 속한 규개위가 담뱃갑 경고그림을 규제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무력화하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br/><br/> 우연의 일치겠지만 규개위 위원장이 속한 로펌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회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을 앓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회사와 이 로펌은 황사와 꽃가루 때문에 폐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담배회사들도 역대 흡연 피해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것은 대기오염 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br/><br/>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증명된 사실이다. 담배회사가 아예 담배를 팔지 않으면 좋겠지만, 팔더라도 경고그림이 잘 보이도록 해 건강을 해치는 상품임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규개위도 13일 열리는 재심의에서 담배회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개위가 담배회사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 <br/><br/><br/>■ [영상] “발명가 되고 싶다”는 초등생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br/><br/>■ 이상돈 “어버이연합 뿌리는 MB 정권” <br/><br/>■ 박 대통령 임기 후반 소리없이 내리꽂는 ‘스텔스 낙하산’ <br/><br/>■ [화보] 세계 여성들, 오늘도 이렇게 싸우고 있다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1.txt

제목: 암 보험 사망비율, 1차산업 종사자 높아  
날짜: 20160509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09205246315  
본문: 암보험 가입자의 사망 비율이 남성은 기능직, 여성은 생산직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전체를 기준으로는 농림·어업·광업·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사망 비율이 가장 높았다.<br/><br/> 9일 보험개발원이 펴낸 ‘생명보험 통계자료집’을 분석했더니, 2014년을 기준으로 농림·어업·광업·축산업 관련 분야에서 남녀 모두 암보험 보유계약 건수 대비 사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종에서 남성의 암보험 가입 건수는 10만2782건, 사망 건수는 628건으로 사망 비율이 0.61%였고, 여성의 암보험 가입 건수는 7만2806건, 사망 건수는 158건으로 사망 비율이 0.22%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보험개발원이 보험 가입자의 직업군을 12가지로 분류해 보유한 보험 계약과 사망자 수 등을 조사한 것이다.<br/><br/> 농림·어업·광업·축산업 분야 외의 다른 직종에서는 성별에 따른 사망 비율이 각각 달랐다. 남성은 건설·운송 등 기능직에서 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능직의 암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28만5528건, 사망 건수는 1153건으로 사망 비율은 0.40%였다. 이어 음식·숙박·여행 등 서비스 종사자의 사망 비율이 0.35%로 높게 나타났다. 화학·섬유·식품·설비·기타제조 등 생산직 분야의 사망 비율이 0.32%로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광업·축산업을 제외한 분야 중 생산직의 사망 비율이 0.15%로 가장 높았다. 이 직종의 여성이 보유한 암보험 계약 건수는 7만8590건, 사망 건수는 114건이다. 판매직(0.12%)과 주부·학생 등 비경제 인구(0.12%)가 뒤를 이었다.<br/><br/> 한편, 2014년에 전체 직종 중 암보험의 사망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행정·금융·사무관리·법률 관련 분야로 1387건이었다. 다만, 이 직종은 암보험 가입자 수가 76만2762건으로 타 직종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사망 건수의 비율은 0.18%로 낮은 편이었다. <br/><br/>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br/><br/><br/>■ 흉악범 얼굴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br/>■ [영상] “발명가 되고 싶다”는 초등생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br/><br/>■ 세월호-옥시 유족들, 유럽에서 서로 ‘가슴아픈 응원’ <br/><br/>■ [화보] 숨바꼭질에 ‘진짜’ 재능이 없는 아이들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2.txt

제목: “친구들 ‘입양 파일’ 보면서 서럽게 울며 결심했죠”  
날짜: 20160509  
기자: 김경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09194002097  
본문: “제 친구 호영이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한국 경찰을 통해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80년 한국사회봉사회의 입양 서류에 적힌 친부모(아버지 최덕만, 어머니 김학명)의 인적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고 언론의 도움을 청합니다.”<br/><br/> 지난달 한 독자가 전자우편으로 보내온 다급하고 간절한 사연이다. 암 투병 중인 덴마크 한인 입양인 최호영(40·작은 사진 왼쪽)씨의 마지막 소원인 혈육 찾기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최씨는 2013년 발병해 그동안 6차례나 수술을 받았으나 암이 전신으로 퍼져 현재 런던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br/><br/> 편지를 보내온 독자 김유리(44·사진)씨가 지난 5일 직접 를 찾아왔다. 자신도 프랑스 한인 입양인이라고 밝힌 그는 최씨만이 아니라 한국 가족을 찾는 덴마크 친구들의 서류를 한아름 가지고 왔다.<br/><br/><br/><br/>7살때 프랑스로…21살에 가족찾아 <br/>고학하며 대학서 ‘한국어’ 전공 <br/>“<span class='quot0'>손잡아준 선생님들 덕분에 정착</span>”<br/><br/><br/><br/>덴마크 입양 최호영씨 암 투병 사연 <br/>우연히 알고 ‘마지막 소원’ 돕기 나서 <br/>“<span class='quot0'>한국인의 정으로 ‘한’ 풀어주세요</span>”<br/><br/><br/><br/> “덴마크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에는 1970년대초~90년대초 집중적으로 보내져 한인 입양인들이 가장 큰 아시안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들 낳게 되면서 부쩍 뿌리찾기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가족에 대해 자꾸 물어보니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11일이 입양의 날이라고들 하던데, 평생 단 한번도 “엄마! 아빠!”라는 단어들을 써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에 한번 와보고 싶어도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꿈만 꾸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br/><br/> 하지만 김씨는 입양인 단체나 기관에서 활동한 적도 없는 자신에게 이처럼 도움 요청이 몰려와 “솔직히 겁이 났다”고 했다. “호영이만 해도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인데, 서로 입양인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덴마크 한인 입양인 사이트에 호영이가 사연을 올려 깜짝 놀랐어요. 스웨덴인 남편과 결혼해서 남매 낳고 몰타에서 사업으로 성공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투병을 하면서 애타게 혈육이 그리워진 거였어요.” 김씨가 이 사이트에 쓴 답글을 보고, 다른 입양인들도 그에게 ‘입양 파일’을 보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br/><br/> “사실 전 운이 좋은 편이어서 93년 21살 때 귀국하자마자 2주 만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7살 때 입양이 된 까닭에 친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 정릉의 집까지 기억이 뚜렷했으니까요.”<br/><br/> 김씨는 17살 때 프랑스인 양부모에게서 독립해 고학으로 파리 국립동양어대에서 한국어·한국문학을 전공했다. 그때 사귄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가족도 손쉽게 찾을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로 한국 언론의 취재를 도운 인연으로 2002년부터 국내에 정착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파리에서 마침 홍세화 선생님의 따님과 알바를 같이 했어요. 덕분에 지금껏 좋은 선생님들이 손을 잡아주셔서 정체성 혼란이나 상처에서 비교적 잘 벗어날 수 있었죠.”<br/><br/> 영문으로 단편소설을 써서 발표한 적도 있다는 그는 요즘은 프리랜서로 영상제작 프로듀서 작업과 통역 활동을 하고 있다. “<span class='quot0'>80년대엔 한국에 관한 기사만 한 줄 나오면 오려서 오랫동안 간직하며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랬다</span>”는 그는 최근 올림픽축구대표팀과 알제리의 친선경기 때 통역을 맡았을 때 한국인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br/><br/>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얘기보다는 덴마크 한인 친구들의 사연을 더 널리 알려달라고 몇번이나 다짐을 했다. 현재 국내 입양인 단체는 미국계, 기독교계가 주도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유럽계 입양인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나 기관들도 있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한 탓인지 입양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r/><br/> “친구들이 보내온 입양 파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막막해서 혼자 서럽게 울기도 했어요. 친부모를 찾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해도, 같이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한이나마 풀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br/><br/> 김씨는 “<span class='quot1'>한국인에게는 ‘한’을 ‘흥’으로 바꾸는 특유의 정이 있다는 라종일 선생님 말씀을 체험으로 공감한다</span>”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기회가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제보를 받을 전자우편 주소(kimyooree@gmail.com)도 공개했다. <br/><br/>글·사진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br/><br/><br/>■ 흉악범 얼굴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br/>■ [영상] “발명가 되고 싶다”는 초등생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br/><br/>■ 세월호-옥시 유족들, 유럽에서 서로 ‘가슴아픈 응원’ <br/><br/>■ [화보] 숨바꼭질에 ‘진짜’ 재능이 없는 아이들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3.txt

제목: 영화의 모습을 한 초상화…침묵을 관람하라  
날짜: 2016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07094443150  
본문: 솔직히 말하자. 은 페로몬 하늘 가득 흩날리는 이 화창한 계절에 관람을 함부로 권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주인공은 중증 환자들을 주로 돌보는 전문 간병인이다. 그가 돌보는 환자들은 중증 에이즈 환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괴팍한 노건축가, 말기암 환자 등 죽음을 대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콧김을 들이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br/><br/> 더구나 감독인 미셸 프랑코가 전작인 에서 취했던 고정된 카메라와 롱테이크 위주의 화면 구성, 그리고 배경음악을 철저히 배제하는 원칙 등은 이 영화 에 와서 더더욱 엄격해졌다. 왕년(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도그마 선언’이라는 타이틀 아래 ‘영화의 예술적 순수함을 회복하자’라는 취지의 운동(또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런 기법들을 순수영화의 절대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는데, 최근 다르덴 형제나 미하엘 하네케 등의 감독에게 영향을 받은 젊은 감독들이 정작 그 자신은 폐기한 지 오래인 이런 원칙들을 일종의 유행처럼 공유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자못 궁금한 가운데, 여튼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불편한 소재 및 주제들을 치장이나 설교 없이 천천히 드러내주는 원칙 덕분에 이 화사하지 못한 소재들은 더욱 무뚝뚝하게 다루어진다.<br/><br/> 그런데 롱테이크와 고정카메라와 배경음악 배제라는 원칙은 무조건 ‘옳은’ 걸까? 그런 원칙들이 영화를 자동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줄까? 그리고 그런 기법들로 관객의 ‘참여와 해석’을 요구하고 독려한다는 의도는 그대로 관객들에게 작동해줄까?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기법도 그 자체로 ‘옳은’ 것은 없다. 기법상의 원칙들은 그것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조응할 때만 오로지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다지 새롭지도 충격적이지도 않은 미셸 프랑코의 원칙들은 얼마든지 공허한 허세에 머물 수도 있었다. 그것을 막아준 것이 이 영화의 시나리오다.<br/><br/> 의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기에 적힌 대사보다 적히지 않은 대사다. 그 침묵과 여백 동안 영화는 지극히 세밀하고도 회화적인 장면 구성을 통해 침묵에 무게를 얹는다.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인 ‘사라’의 집 현관에서, 휠체어에 앉은 ‘사라’에게 주인공 ‘데이빗’이 식사를 떠먹여주는 장면을 보자. 이 장면은 근경(정원의 나무와 관엽식물들), 중경(현관으로 통하는 아치가 있는 하얀 벽), 원경(‘사라’와 ‘데이빗’이 앉은 현관)이라는 지극히 고전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데이빗’은 중세 성화에서 흔히 사용되던 프레임인 아치형 프레임 속에서 마치 성모 앞에 무릎을 꿇은 예수 같은 자세로 음식을 떠주고 있다. 이들의 머리 위로 비스듬히 비쳐드는 부드러운 햇빛은 이들의 관계가 세속적인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를 넘어서 있음을 한껏 강조하고 있다. 만일 이 장면이 없었다면, ‘사라’가 죽은 뒤 ‘데이빗’이 다른 사람들에게 태연히 자신을 에이즈로 아내를 잃은 남자로 소개하는 장면은, 미묘한 이중성 없이 그저 섬뜩한 장면으로 그쳤을 것이다.<br/><br/> 한 가지만 더 짚자면, 은 뭔가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 뭔가를 강조하는 수단으로서 어둠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렘브란트적인 빛 사용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예컨대 ‘데이빗’이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해고된 뒤 어둠 속에 말없이 앉아 있는 장면을 보자. ‘데이빗’의 앞에는 흰색으로 환하게 빛나는 문이 빛이 가득한 밖을 향해 열려 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어슴푸레하게 떠오른 ‘데이빗’의 실루엣은 미동도 않고, 팀 로스의 웅크린 몸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윽고 ‘데이빗’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그가 향해 사라지는 곳은 문밖이 아닌 어둠 속 더 깊은 어딘가이다. 이 장면은 영화의 제목 ‘크로닉’(만성적인)을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의 배경, 또는 기능에 지나지 않는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데이빗’ 역시 엄연히 한 명의 사람이고, 내면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어둠의 막들이 만성적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br/><br/> 이렇게 영화가 말하지 않은 것들은 저마다의 무게를 지닌 채 쌓여간다. 차곡차곡 쌓여간 침묵의 무게는 몇 마디 되지 않는 무덤덤하고 무뚝뚝한 대사들 위에 고스란히 실린다. 그렇게 이 영화의 대사들은 힘을 얻게 된다.<br/><br/> 종종 에드워드 호퍼의 터치까지도 느껴지는 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관람 전에 호흡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은 ‘영화를 본다’는 호흡보다는 ‘미술관에 왔다’는 호흡이 훨씬 어울리는 영화다. 또는 영화의 모습을 한 초상화다. 은 ‘사라’, ‘존’, ‘마르타’ 그리고 ‘데이빗’ 그 자신이라는 네 명의 환자들을 주제로 한 네 개의 전시실이다. 필자는 각 전시실에 성자, 박해, 악마, 심판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지만, 그 이름은 관람객들에 따라 제각기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감독 미셸 프랑코가 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거의 성공했다. 영화가 열어놓은 모든 가능성들의 문을 단번에 닫아버리는 그 ‘충격적’ 엔딩 전까지는.<br/><br/> 90여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가능성을 기껏 10초짜리 충격효과와 맞바꾼 이 엔딩에 대해서는 끝내 동의할 수 없었지만, 은 분명 극장의 어둠에 파묻힌 채 볼 만한 영화, 아니, 관람할 만한 초상화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난무하는 요즘의 미술관보다 차라리 훨씬 더 미술관스런 극장에서 말이다. <br/><br/>한동원 영화 칼럼니스트 <br/><br/><br/>■ 농성장 시멘트 바닥에 둔 도시락은 금방 식었다 <br/><br/>■ [영상] 드론으로 펼치는 환상 ‘매직쇼’ <br/><br/>■ 돌변한 트럼프 “나는 히스패닉이 좋아요”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4.txt

제목: 이것이 정녕 사랑이고 해피엔딩인가  
날짜: 201605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05201302866  
본문: (문화방송) ‘엄앵란과 신성일’ 편이 전파를 탔다. 11년째 감동적인 사연으로 가족애를 일깨워온 프로그램이 40년 별거부부의 사연을 담다니 뜻밖이었다. 문화방송(MBC)은 지난 2월부터 이 부부에게 관심을 보였다. 설 특집 은 엄앵란의 암 진단을 계기로 달라진 신성일의 태도를 담았다. 이 인터뷰를 통해 신성일의 입장을 주로 담은 반면, 은 내레이션을 통해 엄앵란의 입장을 담는다. <br/><br/> 엄앵란·신성일은 당대 톱스타로 1964년에 호화 결혼식을 올렸다. 1남2녀를 두었지만, 신성일의 외도로 1977년부터 별거 상태였다. 이혼 없이 가까운 곳에 따로 살면서 행사 때는 다정하게 등장했다. 1980년부터 신성일은 두 번의 총선 낙선과 영화 제작으로 큰 빚을 졌다. 2000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이때 저지른 비리로 2005년부터 2년간 수감됐다. 이후 혼자 지방에 살면서 자신의 외도를 담은 자서전을 내기도 하고, 이란 영화를 찍기도 했다. 여든 살에도 여전히 멋진 스타일을 유지한 신성일은 최고의 한량이자 풍운아로 산 셈이다.<br/><br/> 반면 최초의 대졸 여배우이자 신세대 여성 배역을 도맡던 엄앵란은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됐다. 배우의 길은 시어머니로 인해 막혔다. 그 뒤 남편의 외도에도 이혼하지 않는 배포 큰 아내이자, 남편이 망친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았다. 지방에서 식당을 하였고, 환갑에 방송으로 복귀하여 출연료와 모델료를 벌었다. 예전 미모를 찾기 힘들 정도로 투박한 할머니가 된 엄앵란이 방송에서 하는 말은 ‘여자가 참아야 한다. 이혼해선 안 된다. 남자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는 등의 조언이었다. 이런 ‘구린’ 조언은 그의 삶과 겹치며 기묘한 연민과 울화를 자아냈다.<br/><br/> 부부 사이엔 남모르는 감정이 있어서, 밖에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은 이들에게서 원하는 교훈을 추출하기 바쁘다. 은 “떨어져 지냄으로써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백세시대의 대안적인 부부상”이라며 설레발을 치고, 에서는 뒤늦은 합가를 원하는 신성일의 심정과, 신성일에게 품은 엄앵란의 정을 전한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대안적인 부부상이란 말에 수긍하기도 어렵고, 이들의 합가를 응원하기도 힘들다.<br/><br/> 젊은 시절 밖으로 돌던 신성일이 뒤늦게 조강지처 품에 안기는 서사야말로 가부장적 미담의 결정판이고, 엄앵란이 느끼는 애틋함도 극심한 억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엄앵란에게 모진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던진 신성일의 한마디나, 수감 중 건넨 장미 한 송이가 애틋한 건 엄앵란의 삶이 그만큼 척박했기 때문이다. 별거 중인 남편에 대해 “집밥에서 해방시켜주었다”는 엄앵란의 말은 남편과의 삶이 속박이었다는 토로다. 지금도 신성일은 엄앵란 집에 손님처럼 와서 지적을 해대고, 엄앵란은 여든이 넘어서도 집안의 유일한 소득원으로 이혼한 딸과 손주들을 위해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br/><br/> 엄앵란의 삶은 발랄했던 엘리트 여성이 가부장제에 의해 어떻게 짓눌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 시절 여배우들의 삶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김지미는 숱한 염문을 뿌리며 네 번 결혼하고 네 번 이혼했다. 윤정희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결혼하고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다 67살에 영화 를 찍었다. 윤여정은 조영남과 이혼 후 배우로서 빛나는 경력을 쌓고 있다. 윤여정은 결혼생활에 미련 없음을 누차 밝혔지만, 여전히 조영남에게 윤여정과의 재결합을 권하는 농지거리가 전파를 탄다.<br/><br/> 엄앵란에게 결혼생활의 조언을 듣고 재결합을 권하는 방송이 보편적인 정서의 반영일까. 아니면 가부장적인 편향의 반영일까. 신성일이 조강지처 품에 안기는 걸 해피엔딩이라 믿는 이에게 묻고 싶다. 만일 신성일처럼 산 여배우가 있었다면 노년에 남편 품에 안기는 서사가 가능했을까. 아니 나혜석처럼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사는 여배우가 존재할 수나 있었을까.<br/><br/>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br/><br/><br/><br/>▶디스팩트 시즌3 방송 듣기 바로가기<br/><br/><br/><br/><br/><br/><br/><br/> <br/><br/><br/>■ 해외로 떠날까봐?…닥쳐서 예고한 임시휴일 <br/><br/>■ 전경련 자진해산할 때가 됐다 <br/><br/>■ [홍세화 기고] 정당의 우클릭과 기회주의자들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5.txt

제목: 암 조직 남아 있으면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날짜: 201605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04102815632  
본문: Q:암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암이 생긴 부위에 후유증이 있어 병원에서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br/><br/> <br/><br/>A:병원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질환을 앓는 경우 막대한 병원비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치료를 위해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여드립니다. <br/><br/> 암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등록한 의료기관은 물론 그 이외의 의료기관에서도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돼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의 5%만 환자가 내면 됩니다. <br/><br/> 암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된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혜택도 끝납니다. <br/><br/> 다만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암이 일부 남아 있거나, 전이된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 암 조직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투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등록 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발 및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후유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br/><br/><br/>■ 어린이 200여명이 설계 아이디어 낸 ‘기적의 놀이터’ <br/><br/>■ 무학산 살인범 DNA, 국과수는 왜 2번이나 놓쳤나 <br/><br/>■ ‘이란과 42조원 경협’ 부풀리기…신기루 아니냐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6.txt

제목: 생애의료비 절반 넘게 쓰는데…65살 이상 보험가입률 9.3%뿐  
날짜: 20160503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03201239602  
본문: 65살 이상 고연령층은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쓰지만 의료보장성보험(상해·질병·건강·암 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생애 의료비의 9~12%가량을 쓰는 20살 미만은 의료보장성보험 가입률이 2%에 그쳤다. <br/><br/>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남자는 평생 의료비로 1억1774만원을, 여자는 1억2331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유아·아동·청소년(0~19살) 시기에 쓰는 평균 의료비는 남자가 1301만원, 여자는 1141만원이었다. 생애 전체에 사용하는 의료비 가운데 남자는 12.8%를, 여자는 9.3%를 19세 이하일 때 쓰고 있는 것이다. 또 65살 이상의 경우, 남자는 5137만원, 여자는 6841만3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의료비 중 남자는 50.4%, 여자는 55.5%를 고연령 시기에 쓰는 셈이다. <br/><br/> 이는 보건복지부 통계로도 증명된다. 복지부의 2013년 환자조사 결과를 보면, 1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가운데 외래환자는 302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16.8%가 19살 이하였고, 27.6%는 65살 이상 환자였다. 입·퇴원 환자 83만2000명 중에서는 19살 이하가 14.2%, 65살 이상이 27.2%에 이르렀다. <br/><br/> 그러나 이들 연령대의 의료보장성보험 보유 건수는 다른 연령대에 견줘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의 조사 결과, 2014년을 기준으로 19살 이하의 의료보장성보험 보유 건수는 80만6000건으로 전체 계약의 2.0%에 불과했다. 65살 이상 고연령대는 379만3000건으로 전체 계약의 9.3% 수준이다. 이는 생애 의료비의 10% 미만을 쓰는 청년층(20~39살)의 보험 보유 건수가 전체의 24.5%, 생애 의료비의 30% 미만을 쓰는 중장년층(40~64살)의 보험 보유 건수가 64.2%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br/><b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br/><br/><br/>■ “가습기살균제는 ‘안방의 세월호’… 피해자 최대 227만명” <br/><br/>■ MBC 이상호 기자 또 6개월 정직…해고하려다 눈치?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br/><br/>■ 극우꼴보수 명계남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7.txt

제목: 국과수는 왜 두번 검사하고도 범인 DNA 놓쳤을까  
날짜: 20160503  
기자: 최상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03194230048  
본문: “아내는 숨지는 순간 자신의 죽음을 밝혀줄 결정적 단서를 손에 남겨뒀는데, 경찰과 국과수가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과학수사입니까?”<br/><br/> 지난해 10월 ‘마산 무학산 살인사건’으로 숨진 여성의 남편은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울부짖었다.<br/><br/>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산을 즐겨 찾는 등산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마산 무학산 살인사건’ 피해자는 범인을 붙잡을 결정적 단서를 자신의 등산장갑에 남기고 숨을 거뒀다. 장갑에 묻은 피의자 유전자(DNA)는 결국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하지만 연인원 90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수사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찾지 못했다.<br/><br/> 마산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정아무개(47·무직)씨는 지난해 10월28일 아침 8시께 “힐링을 하기 위해” 무학산 등산에 나섰다. 오후 1시20분께 무학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던 정씨는 꼭대기에서 마주쳤던 ㅇ(51·여)씨가 산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하려고 1.8㎞가량 따라갔다. ㅇ씨는 2014년 암 수술을 받고 지난해 10월초 항암치료를 마친 뒤,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등산을 하던 인근 주민이었다.<br/><br/> 등산로는 평일 낮이라 한산했고, ㅇ씨는 일행 없이 혼자였다. 정씨는 갑자기 ㅇ씨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며 등산로 옆 숲으로 끌고 들어갔다. ㅇ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정씨는 ㅇ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낙엽과 흙으로 ㅇ씨 주검을 덮어 숨긴 뒤 달아났다.<br/><br/>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ㅇ씨 남편(54)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작업을 벌여 다음날 ㅇ씨 주검을 발견했다. 경찰은 10월30일 장갑·가방·옷 등 ㅇ씨 소지품과 현장 주변에서 확보한 담배꽁초 등 증거물 163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감정의뢰했다.<br/><br/> 국과수는 의뢰받은 당일 검사를 마쳤으나 용의자 유전자 등 수사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11월8일 또다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br/><br/> 경찰은 11월7일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간 앞뒤로 무학산 꼭대기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남성 등산객 110명 등 4180여명을 조사했다. 또 무학산 주변 폐회로텔레비전 512대를 조사하고, 사건 현장을 11차례 감식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용의자를 추렸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엉뚱한 사람들이었다. 무학산은 경남 창원에서 가장 높고 대표적인 산이지만,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등산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숨진 ㅇ씨의 남편은 엉뚱한 소문 때문에 또다른 고통에 시달렸다.<br/><br/> 지난달 18일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ㅇ씨 소지품 17점을 보내 재감정을 의뢰했다.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대검 과학수사과는 ㅇ씨 오른쪽 등산장갑 약지 부분 섬유질에서 정씨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검사 결과를 보내왔다. ㅇ씨가 정씨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정씨 얼굴의 땀이 장갑에 묻은 것으로 추정됐다.<br/><br/> 확인 결과, 정씨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7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사는 등 전과 6범이며, 범행 이후인 지난 1월5일 경북 영천에서 절도를 저질러 1년4개월 징역형을 받아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뒤늦게 경찰은 무학산 꼭대기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다시 분석해 정씨를 찾아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범행 발생 6개월 만이었다.<br/><br/> 김정완 ‘마산 무학산 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남 마산동부경찰서장)은 3일 마산동부경찰서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학산을 등산하던 ㅇ씨를 살해한 피의자 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br/><br/> ㅇ씨의 남편은 “아내가 장갑에 남긴 단서를 6개월 동안이나 발견 못한 것에 대해 경찰과 국과수는 실수라고 설명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br/><br/> 이에 대해 경찰과 국과수는 ‘아쉽다’거나 ‘안타깝지만 정해진 방법으로 검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br/><br/>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번처럼 대검 과학수사과에 재검 의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건 초기 국과수가 결정적 단서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사건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br/><br/> 국과수 관계자는 “사건 초기 용의자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과수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검사했으나, 증거물 훼손을 막기 위해 비파괴 검사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대검 과학수사과는 증거물 훼손과 상관없이 장갑을 잘라서 내부까지 검사했기 때문에 유전자를 발견한 것으로 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과수도 중요 사건의 경우 파괴적 검사까지 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br/><br/>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br/><br/><br/>■ “가습기살균제는 ‘안방의 세월호’… 피해자 최대 227만명” <br/><br/>■ MBC 이상호 기자 또 6개월 정직…해고하려다 눈치? <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br/><br/>■ 극우꼴보수 명계남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8.txt

제목: 웃어보다·버텨보다·해보다…청춘이 그리는 청춘  
날짜: 20160501  
기자: 구둘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01231226576  
본문: 청춘은 대부분 ‘객관적 기술’이다. “<span class='quot0'>당신과 내가 젊었던 때와 같은 옛 시대는 이젠 없다</span>”는 격언이 있지만, 어른들은 청춘을 추측·상상하거나 그들을 향해 ‘지적질’을 한다. 책 에서 차우진은 “<span class='quot1'>대중음악이 청춘으로 수렴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힘껏 겨누는 곳이 청춘</span>”이라고 했다. 그걸 마케팅이라고 하든 국가정책이라고 하든 청춘은 언제나 ‘대상’이다.<br/><br/><br/><br/>영화 ‘초인’ 속 도현 <br/><br/>알츠하이머 엄마 위해 꿈 포기 고민 <br/>그럼에도 밝은 에너지로 상황 버텨<br/><br/><br/><br/>웹툰 ‘청춘극장’<br/><br/>헤어진 애인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br/>현실에선 해보지 못한 일을 ‘맘껏’ <br/><br/><br/><br/>밴드 ‘전기뱀장어’ <br/><br/>뮤직비디오 각본·감독 모두 스스로 <br/>캡틴코리아 등장 “재미있겠지” 깔깔 <br/><br/><br/><br/> 푸릇푸릇한 초록이 눈부신 날,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있지만 계절을 닮은 젊은 목소리는 없는 계절,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서은영 감독의 장편 데뷔작 은 청춘을 힘들게 살고 있는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가는 이야기다. 영화에서 고등학생 체조 선수로 나온 배우 김정현은 기대주다. 영화는 5월5일 개봉해 미국 초인()과 한판 대결을 벌인다. <br/><br/> 다음웹툰공모전 대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한 만화가 이은재는 다음웹툰에 을 연재했다. ‘누구나 청춘을 산다’는 말을 내세우면서 특정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 청춘을 그렸지만, 취업준비생이나 고등학생 등 이 시대 청춘의 고민이 묻어난다. 그리고 밴드 전기뱀장어는 청춘의 구체성을 소재로 청춘의 조바심을 닮은 빠른 비트를 보여줘 왔다. 오는 4일 신곡 ‘이별 순간’을 미리 공개하는 데 이어 19일 2집 앨범을 발표한다. <br/><br/> ■ 팔 하나로 중력을 버텨보다 “감독님과 저의 고민이 같았어요. 도현이는 밝은 성격인데 저는 진지하고 심각한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정현은 관객들을 잘도 속인 셈이다. 의 고등학생 도현은 ‘선천적’인 수준에서 밝은 에너지를 주변에 전한다. 알츠하이머가 많이 진행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 아버지는 재혼해 다른 여자와 산다. 그래도 도현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속에서 행복하니까, 화가인 아버지가 다시 좋은 웃음을 보이는 것이 좋다.<br/><br/> 영화 속 도현과 같이 정현도 열아홉 살 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부모님이 일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내는 바람에 작은 자취방에서 밥을 해 먹어야 했다. “<span class='quot0'>매일 먹는 밥도 못해 먹다니, 나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span>”라는 생각을 했다. 자취방에서 연기 입시를 준비했다. “<span class='quot0'>좋은 배우가 되고 싶은데 왜 똑같이 대학이 목적인 사람처럼 사는 거지</span>” 하는 물음도 떠올랐다. 군대 있을 때는 아버님의 암 소식을 들었다. 어차피 못 올 것이라며 부모님은 그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는 야위어가는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에 힘들었다.<br/><br/> 도현은 기계체조 선수다. 이를 연기하기 위해 정현은 2개월간 하루 4시간씩 체조를 했다. 손 안 짚고 뒤로 도는 것도 가능해졌다. 무리하다 팔꿈치를 다치기도 했다. 도현의 그 일을 정현은 이렇게 표현한다. “<span class='quot0'>팔 하나로 중력을 버티는 것.</span>” 아슬아슬한 청춘들은 그렇게 팔 하나로 지구를 버티고 있다. 그런 게 ‘초인’일까. <br/><br/> ■ 하고 싶은 것을 하다 의 ‘청춘’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오버액션맨’의 남자는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다. 여자친구는 절교를 선언했고, 회사 상사는 엄청 쪼아댄다. 그는 창고에 있던 기타를 꺼낸다. 그러고는 여자친구 방문 앞에서 옛날의 노래를 부른다(‘오버액션맨’). 우등생인 아이는 공부가 너무 쉽다. 그런데 엄마가 자랑할 만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교실의 맘에 들지 않는 친구를 따라가보니 복싱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게 없던 아이는 복싱하는 친구도 이겨보겠다며 복싱에 매달린다(‘날아라 병아리’). <br/><br/> 은재는 의 청춘들에게 자신이 해보지 못한 것을 마음껏 시켰다. “어린 시절에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부모님 말 무시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할 순 없잖아요.”<br/><br/> 청춘에게 기회는 기다려도 오지 않거나 딱 마지막 순간에 당도하는 것이다. 3년간 다음과 네이버의 신인만화 코너에 만화를 올렸지만 연재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만둔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일반 직장에도 이력서를 보내면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다음웹툰공모전에 응모했다.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대상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예선 통과하면 연재를 하는 거였거든요.” <br/><br/> 2014년 다음웹툰공모전 대상 수상작 은 종말이 온 세상을 그린다. 집 안에서 감기를 앓다가 밖으로 나가보니 세상은 좀비로 가득 찼다. 주인공은 종말 전 약속을 기억해낸다. 좋아하는 아이 혜정이를 만나러 지하철 1호선을 죽 따라간다. 무턱대고 도전한다는 점에서 의 청춘들과 비슷하다. <br/><br/> 을 연재하면서 몇 가지를 깨달았다. 매번 작품 배경과 인물을 바꾸어야 하는 단편이 장편보다 더 고되다는 것. 단편 연재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은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줄거리까지 정해진 학원물을 연재할 예정이고, 언젠가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작품을 그리고 싶다. “<span class='quot0'>아직 아무도 안 그렸더라고요.</span>”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빈 캔버스가 그의 앞에 놓여 있다.<br/><br/><br/><br/> ■ 청춘은 즐겁다 청춘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새로운 궁리로 깔깔거린다. 전기뱀장어는 인터뷰 다음날 정규 2집 앨범의 선공개곡 ‘이별 순간’의 뮤직비디오를 찍을 예정이다. “<span class='quot0'>제작비는 잘해봤자 10만원이거든요.</span>” 인경(보컬·기타)이 예전부터 찍고 싶었던 시나리오가 있었다. 민혁(드럼)이 ‘캡틴 코리아’로 나오는데, 혜지(베이스)가 여자친구다. 혜지가 “<span class='quot2'>히어로 일이나 하려면 그만 만나</span>”라면서 뺨을 때리는 바람에 민혁은 캡틴 코리아를 그만둔다. 그런데 혜지가 블랙터틀(예슬)에 납치되고…, 이런 특촬물이다. “<span class='quot0'>재미는 있지만 볼품은 없을 것 같다.</span>”(인경) <br/><br/> 2집 앨범 역시 “너의 송곳니가 좋아, 너가 잘라주는 돈가스가 좋아”(송곳니) “내가 더 괜찮은 놈이었다면 넌 날 좋아했을까”(별똥별) 같은 직설적인 곡들로 가득 차 있다. “3년만 젊었어도”라며 민혁이 드럼으로 쫓아가기 바쁜 빠른 비트의 곡들이다. 하지만 이전 노래가 사랑의 찬란한 순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앨범의 곡들은 이별도 들여다본다. “<span class='quot0'>곡의 편성도 라이브와 흡사하고 단순했는데 좀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감을 했다.</span>”(인경) 2년 전 “<span class='quot0'>야매, 사파, 스트리트 출신</span>”에 실용음악과 출신의 혜지가 합류한 것도 이들 음악의 진화에 큰 힘이 됐다. <br/><br/> 예슬은 싸이월드 미니홈피 시절, 배경음악이 ‘청춘’이었다. “<span class='quot0'>너는 그 나이에 청춘 속에 있지 않고 관조하냐.</span>” 예슬 “<span class='quot0'>그거 청춘 안에 있는 노래야.</span>” 이들은 2:2로 나눠서 싸우기 일쑤다. 인경이 “우리 음악은 일기장에 쓸 법한, 소소한 얘기와 잡담이다. 그래서 곡 자체가 우리인 것 같다”고 하면, 예슬이 “곡의 특성상 긴 구조라기보다는 한 장면에 대한 느낌이나 사건의 이미지다. 실제의 나는 뒤죽박죽 살고 있다”고 의견을 낸다. 청춘은 티격태격한다. 부산스런 이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다.<br/><br/>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br/><br/> <br/><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br/><br/>■ “꽃 피면 간다 했는데…” 326일째 ‘하늘 감옥’에 갇힌 아빠 <br/><br/>■ 알바 여러분~ 노동절 시급 2.5배 받았나요? <br/><br/>■ ‘손가락 없는 아내’ 음 읽으면 ‘시력 없는 남편’ 건반 치고…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69.txt

제목: ‘손가락 없는 아내’ 음 읽으면 ‘시력 없는 남편’ 건반 치고…  
날짜: 20160501  
기자: 이길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501193306264  
본문: 소록도 성당의 십자가는 붕대를 감고 있다. 붕대를 감은 십자가에서는 눈물이 난다.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큰 눈물방울이 되어 바다에 펑펑 떨어진다. 한센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여준다. 감아도 감아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육체의 고통은 치유될 수 있어도 정신적 고통은 치유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눈물을 흘린다. 전염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도 사회적으로 단절됐다. 소록도 성당 천장의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에 그려진 십자가의 붕대는 한센인들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소록도 성당의 전자오르간 반주자는 한센인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톨릭 성가 580곡을 모두 외워서 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한센병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자유롭지 못한데다, 실명인 상태에서 오르간을 뒤늦게 배웠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한센병과 실명을 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르간을 배웠다. 그런 정봉업(71)씨 옆에는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내 이공순(74)씨가 있다. 한센인인 이씨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 지난 26일 소록도 신생리 정씨 자택 앞에서 부부를 만났다.<br/><br/><br/><br/>한센병으로 29살부터 소록도 생활 <br/>수녀 중매로 아내 이공순씨와 결혼 <br/>이씨도 양손 뭉그러진 한센인<br/><br/><br/><br/>오르간 입문 14년만에 성당서 연주 <br/>연습으로 망가진 녹음기만 10여대 <br/>“<span class='quot0'>내 연주가 한센인에게 용기 주길</span>”<br/><br/><br/><br/>어린 시절 학교 다니며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할 만큼 평범하게 살다가 한센병이 발병한 정씨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소록도에 왔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보다 한센병 증세로 온몸이 지독하게 아픈 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 신경통 약을 달고 살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다. 한때는 암 증세를 의심해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실망했다고 했다. 진통이 심해서 차라리 암에 걸려 세상을 뜨기 바랐다고 한다.<br/><br/>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두 눈을 못 보게 된 것이다. 독한 진통제를 끊은 지 사흘 만에 눈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염 우려가 있는 양성 한센병을 앓는 도중이어서 안과 수술을 하지 못해 끝내 시력을 잃고 말았다.<br/><br/> 세상은 암흑천지였다. 희망의 불씨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매일 자살을 생각했다. 그런 그를 도와준 이가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와서 봉사 중인 수녀 마리안느 스퇴거였다. 수녀의 극진한 도움으로 32살 나이에 세례를 받고 새 인생을 시작했다. “사람 목숨은 하느님께 달려 있고, 제가 겪는 고통도 하느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였어요. 무의미하게 살아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당시 심한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던 마리안느 수녀는 진통제도 먹지 않고 버티며 봉사를 했다. 그런 수녀의 모습을 보면서 정씨는 세상을 위해 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성당에 오르간 반주자가 없었다. 전에 그는 어떤 악기도 배워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반주를 하고 싶었다.<br/><br/> 소록도를 방문한 수녀에게서 우연히 아코디언을 선물받은 정씨는 학교 때 배운 음악 이론을 기초로 아코디언을 혼자 연습했다. 그때 눈이 되어준 이가 아내 이씨였다. 이씨는 이미 결혼해서 아들까지 있었다. 몇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한센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마리안느 수녀가 중매를 섰다. 주변에서는 모두 이들의 결혼을 반대했다. “저에게 모두 미쳤냐고 이야기했어요. 앞도 보지 못하는 이와 왜 재혼을 하냐구요. 하지만 저는 하느님의 축복에 보답하는 길은 앞을 못 보는 그이의 눈이 돼 남은 인생을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br/><br/> 정씨는 아내에게 악보 읽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음악 이론을 모르는 아내에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음표를 그려가며 가르쳤어요. 양손이 모두 뭉그러져 손가락이 없는 아내가 건반을 짚을 수 없어 입으로 ‘도, 미, 솔’ 음계를 읽어주면, 저는 건반을 짚어 한 음 한 음 녹음기에 녹음해 곡 전체의 멜로디를 익혔어요.”<br/><br/> 수없이 되돌리기를 반복해 망가진 녹음기만 10대가 넘는다. 정씨는 38살 때부터 오르간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센병 후유증으로 엄지, 검지, 약지만 쓸 수 있어 화음을 넣기는커녕 멜로디마저 끊어지기 일쑤였다. 소록도 성당을 찾아온 방문객들을 만날 때마다 “오르간 연주를 하실 줄 아는 분이 있느냐”고 물어 그들에게 연주를 배웠다. 소록도를 잠시 방문한 신경숙 수녀에게 화음을 배웠다. 7년 동안 매일 전화로 배웠다. 작곡을 전공한 신 수녀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연주법을 묻는 정씨에게 “<span class='quot1'>이제 그만 전화해도 성가 반주를 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정씨는 오르간 연주를 익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몇 달씩 아예 오르간을 쳐다보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아내 이씨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다.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오르간에 매달린 정씨는 오르간 입문 14년 만에 처음으로 성당 반주자가 됐다. 그리고 이 연주는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br/><br/> 가톨릭 성가곡 ‘자애로운 예수’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정씨는 “<span class='quot2'>세상의 모든 고난과 장애 역시 하느님의 섭리이기에 결코 슬퍼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span>”고 말한다. 또 정씨는 “<span class='quot2'>자신의 성가 반주가 소록도 주민에게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 것</span>”이라고 말한다. 소록도 성당 김연준 주임신부는 “<span class='quot3'>이 부부의 사랑과 노력이 바로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표</span>”라고 말한다. 정씨 부부가 키우는 강아지는 부부를 유난히 따른다. 이씨가 이야기한다. “강아지들은 인간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한센인이라도 이렇게 좋아해요. 인간들보다 나아요.”<br/><br/>소록도/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br/><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br/><br/>■ “꽃 피면 간다 했는데…” 326일째 ‘하늘 감옥’에 갇힌 아빠 <br/><br/>■ 알바 여러분~ 노동절 시급 2.5배 받았나요? <br/><br/>■ [영상] 미국판 삼포세대 절반, 자본주의 지지 안한다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0.txt

제목: 사람도 가축도 타들어가는 마을…취재진에 “물, 물 좀 주세요”  
날짜: 20160428  
기자: 김미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28222548588  
본문: “매일 알라께 기도해요. 먹고 쉴 자리를 내려 달라고요.”<br/><br/>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주 북부 디레다와시에서 차로 4시간여를 달리면 인구 3000명의 다렐레 마을이 나온다. 지난 15일(현지시각) 이곳에서 만난 하와 호시(33)는 이날도 기르던 염소 한 마리를 잃었다. 염소가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한 그는 염소 다리를 직접 손으로 잡아끌어다가 마을 어귀에 버렸다. 마을에는 이미 말라비틀어진 염소 사체가 곳곳에 쓰러져 있다.(사진) 머리에 보라색 히잡을 두른 하와 호시의 표정은 태연했다. “<span class='quot0'>이젠 (가축이 죽어도) 인내심이 생겼어요.</span>” 그는 지난 8개월 동안 기르던 가축 500마리를 버렸다. 지난 한 주 사이 180마리가 죽고 이제 남은 건 20마리뿐이다. 가축의 고기와 우유로 생계를 꾸리는 그는 이제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br/><br/> 같은 마을에서 만난 모하메드 아뎀(7)은 가뭄으로 부모님을 잃었다. 아직 어린 아뎀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은 “혹독한 가뭄으로 기르던 가축이 죽자 아뎀의 부모가 생계에 대한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고 전했다.<br/><br/><br/><br/> 한국전쟁에 6000여명의 군인을 한국에 보낸 아프리카 동부의 혈맹국 에티오피아는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소말리주 북부의 상황이 심각하다. 엘니뇨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사막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지역에선 작물 50~90%가 사라지고, 6만마리의 가축이 죽었다는 게 구호단체의 통계다. 이곳엔 ‘초록색 사막’(그린 그라운드)이 펼쳐져 있다. 초록색 식물이 대지를 뒤덮고 있지만,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은’들만 무성하다.<br/><br/><br/><br/>다렐레 마을 곳곳에 염소 사체 <br/>“<span class='quot0'>기르던 가축 다 죽어 살길 막막</span>”<br/><br/>그나마 초등학교서 석달전부터 ‘급식’ <br/>“<span class='quot0'>콩죽 한끼 먹으려 아이들 모여</span>” <br/>200명이던 마을인구, 2년새 3천명<br/><br/>보건소 없는 마을엔 의료차량이 와 <br/>영양실조 아이들에 옥수수죽 공급 <br/>구호단체 “더많은 도움의 손길 필요”<br/><br/><br/><br/> 지난 16일 마을에는 오랜만에 비가 내렸다. 연초 찾아왔어야 할 ‘소우기’가 늦게 당도한 것이다. 화려한 색깔의 히잡을 두른 마을 아낙들이 비를 반기며 시냇가로 나와 온통 황톳빛(사진)인 그 물에 그릇을 씻었다. 이 마을 식당들은 인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끓인 뒤에야 음식 만드는 데 사용한다. 길어온 물통에는 돌멩이와 흙, 나뭇가지가 잔뜩이다. 취재진을 태운 차량이 사막 한복판을 지나자 유목민 아이 두 명이 “하일란드! 하일란드!”라고 외치며 차를 향해 달려왔다. ‘하일란드’는 생수 브랜드 이름이다. 물을 달라는 뜻이다.<br/><br/><br/><br/> 마을 한켠에 나뒹굴고 있는 가축 사체. 그래도 수도 시설을 갖춘 초등학교(사진)가 있어 다렐레 마을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아브리 무지(15)네 가족이 8개월 전 이 마을로 이주한 것도 물을 얻기 위해서다. 무지네 가족은 350마리의 가축을 키우며 살았지만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가축을 모두 잃었다.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마실 물이나마 길어 쓸 수 있게 되면서 무지네 가족은 삶의 희망을 새로 쓰고 있다.<br/><br/><br/><br/> 다렐레 초등학교에선 3개월 전부터 전교생에게 ‘급식’을 시작했다. 고작 콩죽 한 그릇이지만, 쇠약해진 아이들의 영양실조를 막기 위해서다. 등교 뒤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가 되면 159명의 전교생은 죽을 먹는다. 이 학교의 급식을 책임지는 학부모회 회장 마얀 알리(45)는 “학교에서 밥과 물을 주니 아이들이 모인다. 학교가 지어진 뒤 각지에서 유목민들이 모여들면서 150~200명이던 마을 인구가 2년 새 3000여명까지 불어났다”고 말했다. 학교 옆에 위치한 작은 보건실은 주민들의 건강도 돌본다. 매일 5~6명의 환자가 찾아온다. 보건소 직원 아덴 하센은 “대개 설사나 폐렴, 말라리아로 이곳에 찾아온다. 간단한 약을 주고 처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 학교를 짓고 마을을 일군 것은 민간의 힘이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6월부터 소말리주 북부에서 구호 사업을 시작했다. 학교가 없는 곳에는 이동식 보건 시스템을 만드는 등 현재까지 약 900만달러(103억여원) 넘게 지원했다.<br/><br/> 4500명이 사는 이웃 마을 말카셰카 마을엔 보건소가 없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마을로 찾아오는 이동식 의료차량을 기다린다. 마을에 의료차량이 방문한 16일엔 아침부터 갓난아기를 업고, 양손에 아이 손을 잡은 주민 등 80여명이 몰려왔다. 5남매를 둔 아사 누르(25)는 이날 두 살 된 딸이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하루에 3번, 일주일을 먹일 수 있는 옥수수 영양식을 받았다”며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일주일치 영양식으로는 아이가 완쾌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눈치다.<br/><br/> 더 많은 영양식을 나눠주고 싶지만, 세이브더칠드런에티오피아가 확보한 예산은 그리 넉넉지 않다. 이동식 의료차량 팀장 키파는 “<span class='quot1'>말카셰카 주민 절반가량이 영양실조 환자였는데, 그나마 올해 1월 이 이동식 의료차량이 생긴 뒤로 그 수가 20%가량으로 줄었다</span>”며 “<span class='quot1'>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티오피아의 찰리 메이슨 인도적지원국장은 “상황이 열악하지만, 계속 노력해 결국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돈의 절반밖에 모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도 혹독한 가뭄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약 60만달러(7억4000만원)를 보냈다. 하지만 더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한국의 지원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br/><br/>디레다와(에티오피아)/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br/><br/>한겨레 나눔캠페인 참여하려면<br/><br/>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어린이에게 식량과 식수,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계좌이체(하나은행 379-910002-02705, 예금주 세이브더칠드런)하거나 전화(ARS 060-700-0322, 한 통화 5000원)를 걸어주세요. 세이브더칠드런 누리집(www.sc.or.kr)을 통해서도 모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금액은 모두 에티오피아의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에게 또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길 원하시는 분은 세이브더칠드런(02-6900-44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금에 참여한 뒤 세이브더칠드런으로 연락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r/><br/>김미향 기자<br/><br/><br/><br/><br/><br/>보도 이후… ‘골육종’ 앓는 19살 민철군에 온정 이어져<br/><br/>와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가 함께 한 ‘2016 나눔꽃 캠페인’을 통해 뼈에 암이 생기는 골육종을 앓고 있는 한민철(가명·19)군의 사연( 4월20일치 12면)이 소개된 뒤, 123명이 후원에 동참해 894만6560원(27일 기준)의 정성이 모였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한 주 만에 목표 금액 2000만원 중 반액에 가까운 금액이 모였다. 계속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모금은 계좌이체(국민은행 762301-04-198569, 예금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나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누리집(www.soaam.or.kr)에서 배너를 클릭해 참여할 수 있다. 민철군에게 또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1544-1415)로 문의하면 된다. <br/><br/>김미향 기자 <br/><br/><br/>■ [화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8년 만에 일반 공개 <br/><br/>■ 5년만의 옥시 사과…유가족 “애가 얼마나 고통…” 절규 <br/><br/>■ 박태환, 무릎 꿇고 ‘큰절’…“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br/><br/>■ “아버지가 법관”…로스쿨 합격생 24명 ‘신상 기재’ 확인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1.txt

제목: 가족, 그리고 사랑…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온다  
날짜: 20160428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28213513153  
본문: “<span class='quot0'>엄마, 난 시간이 천천히 가면 좋겠어.</span>” <br/><br/> 봄날 벚꽃처럼 환한 얼굴로 아이가 말했다. “왜?”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래야지. 당연히 그럴 거야.” 먹먹해진 가슴을 부여잡고 엄마는 웃었지만, 눈시울은 이미 붉어졌다. <br/><br/>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인생의 시곗바늘이 남들보다 8배는 빠른 원기한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원기는 다 자라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소아 조로증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유일한 환자라고 한다. 생의 마지막을 17살 정도에 맞게 되는데, 올해 원기는 11살이 됐다. 104㎝ 키에 몸무게 14㎏. 부러질 듯 가는 팔과 다리에 피부는 노인의 살갗처럼 얇고 주름져 있다. <br/><br/> 그러나 원기는 너무 즐겁고 밝다. 함께 막춤을 추고 동영상도 찍으며, 매일 웃으며 산다. 불행할 거란, 눈물로 세월을 보낼 거란, 세간의 선입견을 부끄럽게 만든다. 원기네 가족은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고, 즐거운 시간과 기억을 만드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이런 원기네 모습은 5월2일 시작하는 (문화방송)에서 소개된다. 은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전하는 다큐멘터리로, 2006년부터 매년 5월 찾아왔다. 올해는 원기네 가족을 담은 ‘시간을 달리는 소년’(4부 23일 밤 11시10분) 외에도 유방암 수술을 계기로 달라진 부부 ‘엄앵란과 신성일’(1부 2일 밤 11시10분), 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 ‘러브 미 텐더’(2부 9일 밤 11시10분), 탈북자 엄마가 입양 보낸 딸을 찾는 ‘내 딸, 미향이’(3부 16일 밤 11시 10분), 25년 만에 재회한 쌍둥이의 ‘사랑하는 엄마에게’(5부 30일 밤 11시10분)를 선보인다. 김진만 책임피디(시피)는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콘셉트로 100여가지 사연 중에서 추렸다”고 했다. ‘엄앵란과 신성일’ 편은 나중에 추가됐다고 한다. <br/><br/><br/><br/> 초창기 은 암 환자가 죽기 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까지 담으며 충격을 줬다.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슬픔은 컸지만, 그게 때론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11년째인 올해는 슬픔을 밝게 담아낸 점이 눈에 띈다. 치매 노부부 이야기인 ‘러브 미 텐더’가 특히 그렇다. 예전 같으면 노부부의 가혹한 현실을 강조했겠지만, 올해는 누구보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는 부부가 마지막 소원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미소 속에 눈물을 삼키게 한다. 조성현 피디는 “이 방송이 나가면 전국의 남편들이 아내한테 많이 혼날 것”이라며 웃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년 원기’에서는 카메라 앞에서는 짝사랑하는 소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춘기 소년 원기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다큐는 지난 11년 동안 약 40가지의 소재를 다뤘다. 회를 거듭했지만 촬영과 편집은 여전히 쉽지 않다. 대부분 편당 5~8개월 정도 촬영하는데, 마음을 여는 기간이 필요하고 진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김 시피는 “촬영하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많고 알아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아무리 화제가 될 것 같아도 방송이 나간 뒤 당사자들이 불편해할 부분은 편집한다고 했다. 조 피디는 “편집하면서 많이 우는데, 그게 가장 힘들다”고 한다. 올해는 더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카메라 등 장비도 바꿨단다. 김 시피는 “가족과 사랑의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r/><br/>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br/><br/><br/>■ [김의겸의 우충좌돌] 김종인, 당신은 ‘계몽절대군주’가 아니오 <br/><br/>■ 구미시, 박정희 뮤지컬 이어 ‘박정희 테마밥상’ <br/><br/>■ 아빠들이 육아에 소극적인 이유? 답은 뇌에 있다 <br/><br/>■ 몰카 뺨치게 걸그룹 촬영…위문열차 ‘직캠’ 너무하네!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2.txt

제목: 삼성화재 ‘뉴 엄마맘에 쏙드는 보험’  
날짜: 2016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27195912292  
본문: 삼성화재는 기존 자녀보험을 개정한 ‘뉴(NEW)엄마맘에쏙드는 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임신질환 실손입원 의료비’ 담보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 진통 등으로 입원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br/><br/> 선천성 발달장애 중 뇌성마비·다운증후군 진단 시 10년 동안 매년 양육자금을 지원하는 보장도 추가할 수 있다. 또 유치 또는 영구치의 충치 등으로 인한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존치료지원금’은 물론 암 진단·수술·입원·항암 방사선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암 보장도 가능하다. 특히 암 입원 일당의 경우, 입원 1일째부터 지급한다. 여기에 출산용품 지원, 포토북 제작, 문화체험 등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1회에 한해 제공한다. <br/><br/><br/>■ 원유철, 미국 전직 관료 앞에서 ‘핵무장론’ 꺼냈다가 ‘되치기 망신’ <br/><br/>■ 김복동 할머니 “야당 대표라는 분이…속이 상한다” <br/><br/>■ ‘야쿠르트 아줌마 어디 계세요?’… 위치 찾기 앱 화제 <br/><br/>■ 경북 구미시, 이번에는 28억짜리 박정희 전 대통령 뮤지컬?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3.txt

제목: 복수는 나의 힘, 다만 미움이 사랑이 될 때까지  
날짜: 20160426  
기자: 이길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27113206338  
본문: 달빛이 비스듬하게 바다 위를 비춘다. 파도는 방파제를 세게 때린다. 가슴에 품었던 10개의 표창을 하나씩 꺼내 바다 위에 내던졌다. 그동안 품었던 표창의 독기가 허허롭게만 느껴졌다. 긴 세월 복수를 꿈꾸던 표창이었다. 하루아침에 자신을 불구자로 만들고 인생의 꿈조차 날려버린 원수를 만났지만, 차마 그의 가슴에 표창을 날릴 수 없었다.<br/><br/> 그는 이미 죄를 받았다. 굳이 표창을 쓸 필요도 없었다. 폐인이 된 그는 쓰레기가 널려 있는 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아내는 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오래전에 가출했고,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두 아이는 겁에 질려 그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꿈꾸던 복수의 순간이 왔지만 그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사는 그렇게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br/><br/> <br/><br/>뺑소니 사고로 외발이 됐다 <br/>표창을 만들어 독기를 품었다 <br/>마침내 원수를 만났으나 <br/>그는 이미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br/><br/><br/><br/>회사서 잘려 술로 지내다 노숙 2년 <br/>지쳐 고향에 가 수면제 털어넣었지만 <br/>죽는 것도 맘대로 안됐다 <br/><br/><br/><br/>악착같이 살기로 했다 <br/>110번째 도전 끝에 보험회사 들어가 <br/>보험왕이 되고 명강사도 됐지만 <br/>우울증이 찾아왔다<br/><br/><br/><br/>다시 자살을 꿈꾸다 신학을 공부했다 <br/>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덮쳤다 <br/>편도암 4기 <br/>지옥 같은 항암제·방사선·수술…<br/><br/><br/><br/>“<span class='quot0'>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span>” <br/>일주일에 한번씩 노숙인 무료급식<br/><br/> <br/><br/> 목발로 면접장 들어서니 “지금 장난해?”<br/><br/> 그날은 야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스물일곱의 나이였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검정고시를 치러 대학까지 나오고 취직도 했다. 사법고시를 목표로 공부도 하고 있었다. 하숙집이 보이는 골목에서 그는 차에 치였다. 공중에 붕 떴다가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진 그를 그냥 두고 차는 사라졌다. 과다출혈로 사선을 넘나들다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오른발은 제구실을 못했다. 차마 고향집에는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며 나가달라고 했다. 유일한 도피처는 술이었다. 하루에 소주 7~8병을 마셨다. 노숙인이 됐다. 영등포역에서 걸식을 하며 2년을 살았다. <br/><br/> 걸인 생활에 지쳐 집으로 갔다.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목발을 짚고 나타나자 어머니는 혼절했다. 술에 취해 시간을 보냈다. 대장간에 가서 표창을 주문했다. 그리고 표창을 던지는 연습을 했다. 언젠가는 만날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표창을 던졌고, 목표물에 정확히 박혔다. 그러나 점차 지쳐갔다. 수면제 82알을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식구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 3일 만에 깨어났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다. 악착같이 살기로 마음먹었다.<br/><br/> 지체장애 3급에 목발을 짚고 다니니 취직도 어려웠다. 109번째 넣은 보험회사 영업소장직에 면접 보러 갔다. 면접관이 목발 짚고 면접장에 들어선 그를 보고 짜증을 냈다.<br/><br/> “누가 이런 사람 서류 받았어? 빨리 내보내고 다음 사람 들여보내. 지금 장난해?” 면접관은 그의 입사 서류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다. 그는 분노를 누르며 면접관을 향해 또박또박 이야기했다.<br/><br/> “저는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장님께서는 제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br/><br/> <br/><br/> 슈퍼마켓 여주인의 15년 전 목격담<br/><br/> 마침내 110번째 도전한 손해보험회사 대리점에 취직했다. 자전거를 익혔다. 한쪽 다리로만 자전거를 타니 수없이 쓰러지고 다쳤다. 마침내 익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명함 50장과 도시락 2개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다. 교통사고가 난 곳엔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 해결했다. ‘외다리 보험사’는 3년 반 만에 보험왕이 됐다. 그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 보험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장애인이라고 이력서를 팽개치던 보험사에서도 오라고 했다. 그 회사에 스카우트됐다. 면접관은 그에게 사과했다.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는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 “<span class='quot0'>그때 저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span>”<br/><br/> 하지만 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지점장 자리를 주지 않았다. 경쟁 보험회사로 옮겼다. 특유의 영업 능력을 발휘해 승승장구했다. 뺑소니 사고가 난 지 15년이 흘렀다. 옛 친구와 만나 사고가 난 지점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맥주를 한잔했다. 슈퍼마켓 여주인이 물었다. “<span class='quot0'>다리가 어쩌다 그렇게 됐나요?</span>” 그가 15년 전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여주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곤 “사실 제가 그날 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근처 국수공장 차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어요. 차마 한동네 사람이 사고를 내 경찰에 알려주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br/><br/> 그는 국수공장에 가서 당시 운전기사의 주소를 알아내고, 택시를 대절해 목포까지 갔다. 하지만 이미 그 운전기사는 폐인이 된 상태였다. 그 운전기사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마지막날까지 사람답게 살다 가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생활비도 부쳐주었다. 용서를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br/><br/> 그는 보험왕에서 명강사로 변신해 이름을 날렸다. 10년 동안 기업체 6천여곳에서 강연을 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의 인생 스토리는 책으로 엮였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도 벌고 유명해졌으나 심한 우울증이 왔다. 다시 자살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던 그는 60살을 앞두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br/><br/>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에 편입해 공부를 시작했다. 우울증은 사라졌다. 성경 공부에 한창이던 그에게 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몸이 계속 피곤하고 목이 자주 잠겨서 병원에 갔다. 편도암 4기라는 통보를 받았다. 거의 사형선고였다. <br/><br/><br/><br/> “<span class='quot0'>내가 1등 하는 동안 다른 이는 큰 피해</span>”<br/><br/> 다행히 전이는 안 됐다.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했다. 치료받는 동안 입과 목이 타서 물 한모금 마시기 어려웠다. 차라리 먹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성경 공부를 놓지 않았다. <br/><br/> 목사가 됐다. 이제 2년차. 암 수술의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다. 대형교회에서 부흥회도 인도했다. <br/><br/> “늘 불안했어요. 1등을 하고, 1등을 지키려고 그러니 마음에 안식이 없었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1등을 하는 동안 큰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는 것을….”<br/><br/> 조용모(63) 목사는 자신이 보험왕을 하며 박수를 받을 때 경쟁사에 있던 6명이 사표를 써야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이제라도 용서를 빌 것입니다. 사랑하기도 바쁜 날인데 미워하며 살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br/><br/> 최근 자신의 인생을 담은 에세이집 (다산북스)을 펴낸 조 목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 행사에 나선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지난날의 지독한 절망을 이야기한다. “저는 <span class='quot0'>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span> 옮겼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br/><br/> 인천 부평/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br/><br/><br/>■ 박 대통령 “파견법은 일자리”…통닭집 대신 파견직 해라? <br/><br/>■ 5월6일 공휴일? 당신이 서둘러야할 7가지 <br/><br/>■ [단독] 옥시 납품업체 대표 “옥시, 유해성 알았을 것” <br/><br/>■ [카드뉴스] 학생들에 게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4.txt

제목: 저소득층 중증질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날짜: 2016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27113205086  
본문: Q:어머님께서 지난 1월부터 암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br/><br/> <br/><br/>A: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세대의 가계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복권기금 예산으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부에서 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가구는 입원한 때부터 퇴원 뒤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에 속하면 애초 지원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도 됩니다. 기준은 4인가구이면 직장 건강보험료는 10만856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는 11만9440원 이하입니다. 또 기준중위소득의 80%를 넘긴 세대라도 소득에 견줘 의료비가 과다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r/><br/> 지원액은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 의료급여·차상위계층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 50%까지 지원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료비 부담 수준별로 50~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br/><br/> <br/><br/><br/>■ 박 대통령 “파견법은 일자리”…통닭집 대신 파견직 해라? <br/><br/>■ 5월6일 공휴일? 당신이 서둘러야할 7가지 <br/><br/>■ [단독] 옥시 납품업체 대표 “옥시, 유해성 알았을 것” <br/><br/>■ [카드뉴스] 학생들에 게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5.txt

제목: 암보다 무서운 병, 손놀이로 막는다  
날짜: 20160426  
기자: 곽윤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27113202451  
본문: “고운 치매와 나쁜 치매가 있어요. 나쁜 치매는 폭력적으로 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 너무 힘들게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br/><br/> 조희정(놀이문화연구소 터 공동대표) 강사가 22일 인천중구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금빛브레인’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br/><br/> 할머니들은 강사와 보조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지곤지 박수, 제기 만들기, 제기 주고받기, 실뜨기, 실뜨기하면서 ‘실겅달겅’ 노래하기, 실뜨기로 고양이수염, 나비넥타이와 리본 만들기, 단동치기 등을 실습했다. <br/><br/> 조희정 강사가 숙달된 말솜씨와 몸짓으로 이끌어간 덕분에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참가한 할머니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몸과 손을 사용해 놀이에 적응했다.<br/><br/> 금빛브레인 집단 상담 놀이프로그램은 전래놀이에서 나온 것이다. 혼자 하는 놀이도 있지만 주로 짝꿍이나 모둠과 함께하는 놀이가 많다. 같이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다. 조 강사는 “치매를 막기 위해선 손놀이가 최고다. 손을 쓰려면 뇌로 연결되고 손을 움직이면 소 근육 훈련이 된다. 어르신들은 손이 마비가 되면서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 인지능력도 향상된다. 설명을 듣고 실행을 한다. 실뜨기가 처음엔 쉽지 않다. 몇 번 시도 끝에 해내게 되면서 성취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놀이문화연구소 ‘터’는 예술체험, 창의음악, 미술치료, 합창 난타 지도, 교육연극 등 다양한 창의예술융합교육을 하고 있다. 약 7년 전에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다. 그사이의 변화에 대해 조씨는 “예전엔 복지관 같은 기관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지금은 먼저 제안이 들어올 정도다. 또 참가하는 어르신들도 큰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뭘 배우겠다는 의식이 강했으나 지금은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향유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다. 예술이 곧 놀이이니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br/><br/> 인천시 송현동에서 온 김순진(75)씨는 “우리 아저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뭐라도 배워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왔다. 여러 프로그램 중에 치매를 골랐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암보다도 치매가 더 무섭더라. 오늘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고 물었다. “연지곤지, 실뜨기도 재미있었다. 제기차기도 좋았다. 이제 우리 아저씨와 같이 실습할 것이다. 손 하나 움직이는데 머리도 쓰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니 치매 예방이 절로 되는 것 같다.” 라고 답했다. <br/><br/>글·사진 곽윤섭 선임기자 <br/><br/><br/>■ 박 대통령 “<span class='quot0'>반값 등록금 실현…파견법은 일자리</span>” <br/><br/>■ 5월6일 공휴일? 당신이 서둘러야할 7가지 <br/><br/>■ [단독] 옥시 납품업체 대표 “옥시, 유해성 알았을 것” <br/><br/>■ [카드뉴스] 학생들에 게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 <br/><br/>■ [화보] 여행하면서 찍은 북한 여성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6.txt

제목: 4월 21일 알림  
날짜: 2016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20185031856  
본문: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일 중앙대병원 영상의학과 최병인 교수를 초대 국제협력위원장에 선임했다.<br/><br/>◇ 한국세무사회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직 부회장에 이재학 세무사를 임명했다.<br/><br/>◇ 한국어문회는 20일 ‘제1회 난정학술상’ 본상 수상자로 이현희 서울대 교수, 우수상 수상자로 황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국어학자 난정 남광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상으로,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 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중견 학자에게 수여한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다.<br/><br/>◇ 선경최종건재단(이사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20일 경기도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9개 고등학교 학생 104명에게 ‘선경 최종건재단’ 장학금을 전달했다.　　<br/><br/>◇ 강남대는 19일 ‘개교 70돌 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했다.<br/><br/>◇ 한성대 노동조합은 19일 장학금 226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2011년 5억원 기부를 약정한 뒤 2015년까지 1억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br/><br/>◇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권리를 높이기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br/><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시청각이사회(CAC·회장 루제 로빠헤르)와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br/><br/>◇ 경기도시공사는 20일 대한적십자사가 누적기부금 5억원 이상인 법인과 개인에게 주는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 대한적십자사와 자원봉사·기부문화확산·긴급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봉사활동과 함께 총 5억 3천여만 원을 기부했다.<br/><br/>◇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8돌 기념식’을 연다.<br/><br/>◇ 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삼성전자는 공동연구진이 2013년 발표한 논문 ‘모바일 데이터 오프로딩’으로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윌리엄 베네트상의 2016년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새달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IEEE 국제통신학회에서 수상한다.　<br/><br/>◇ 한불모터스는 20일 연세대 경영대학 경영관에 강의실 ‘푸조 랩’을 만들어 기부했다.<br/><br/>◇ 서울 강서교육지원청은 21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애 올밥(아침식사)’ 기금 2억원을 전달한다. 전교 어린이회장단의 모금과 학생의 저금통·용돈 기부, 아시아나 항공 임직원의 기부,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의 정기 후원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23개 학교 학생 333명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한다.<br/><br/>◇ 에스오일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회도 열었다.<br/><br/>◇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부산시교육청에 교육복지 지원금 2억 2천만원을 기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받은 지원금을 방과후 배움터 운영 등 저소득층학생 교육복지에 사용할 계획이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은 19일 인제대 해운대백병원과 함께 부산시 남구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하고, 학교 측에 시청각용 TV 등 물품을 기증했다.<br/><br/>◇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취약계층의 물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가득 수 프로젝트’의 2016년도 업무협약을 맺었다.<br/><br/>◇ 교육부는 스승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 방송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는 ‘내 마음의 선생님’ 사업을 시작한다. 새달 9∼31일 공모 누리집에 스승에 얽힌 사연을 응모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 사례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를 통해 9월부터 방송할 예정이다.<br/><br/>◇ 서울연탄은행은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연탄사용 세대를 중심으로 6월까지 지붕 수리 사업을 한다. 현재 약 40세대가 신청했고, 긴급한 4세대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10세대를 추가로 공사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서울연탄은행으로 하면 된다. (02)934-4933.<br/><br/>◇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일본 소아암 비영리단체인 CCAJ(재단법인 암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와 함께 22~24일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제9회 백혈병소아암 완치자·서포터즈 한·일 교류회’를 연다. 양국 소아암 가족 간 친교 행사로 90여명의 소아암 완치자, 부모, 의료진이 참석한다. <br/><br/>◇ 서울서부지법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사 4층 미술관인 ‘서부공간’에서 지난 18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장애인 작가 11명의 그림 전시회를 연다. <br/><br/><br/>■ “‘초대형 위기’ 새누리, 박 대통령부터 버려야 산다” <br/><br/>■ 박 대통령 ‘태후앓이’영향… 끝내 세트장 재건 강행 <br/><br/>■ 세월호 리본, 컴퓨터 문자로 영원히 남는다 <br/><br/>■ [카드뉴스] 5번의 여소야대…그때마다 대통령들은… <br/><br/>■ [화보] 일본 구마모토 지진…잇단 강진에 열도 ‘공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7.txt

제목: 빚더미 가정의 19살 아들 골육종…“얼른 나아 돈벌고 싶어요”  
날짜: 20160419  
기자: 방준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19201231548  
본문: 병원 가는 길, 봄바람이 상쾌했다. 한민철(가명·19)군은 차창을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이런 날 자전거 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전거 타기’는 한군이 가장 좋아했던 취미다. 매일 30분씩 등하굣길을 자전거로 다녔고, 주말에도 호수공원을 질주했다. 내달리는 상상을 하면 절룩거리는 다리, 물 한 모금 넘기기 어려울 만큼 부어버린 식도, 힘겨운 가정 형편은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머릿속으로 자전거를 내달리는 동안 차는 어느새 병원에 도착했다. <br/><br/><br/><br/>아버지 사업실패뒤 두번째 불행 <br/>고3때 다리서 시작해 척추 전이 <br/>대학 진학 부푼 꿈마저 무너져 <br/>집안 빚 아직 1억…벌이 130만원뿐 <br/><br/><br/><br/>그래도 희망 잃지 않는 긍정맨 <br/>“저는 정말 곧 나을 거에요” <br/>병상에서 가족 걱정하는 효자 <br/>“<span class='quot0'>부모님 고생 덜게 일하고 싶어</span>”<br/><br/><br/><br/> “<span class='quot0'>저는 정말 <span class='quot0'>곧 나을 거라</span>니까요.</span>” 골육종 치료를 위해 지난 6일 다시금 항암치료를 시작한 한군이 말했다. 그는 의사 선생님도 인정하는 “<span class='quot0'>병원 안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속 깊은</span>” 환자다. ‘골육종’. 어머니 강혜선(가명·56)씨가 한군이 앓고 있다는 이름도 생경한 이 병명을 동네 정형외과에서 처음 듣게 된 건 지난해 9월이었다. 아들을 진료실에서 내보낸 뒤 강씨는 “그게 무엇이냐”고 의사에게 되물었다. “뼈에 생기는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주저앉아 울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뒤 가족에게 두번째로 찾아온 불행이었다. 눈물을 훔치고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다. “정말로 그때는 끝까지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국립암센터로 와서 확진을 받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어렵게 말을 건넸는데 민철이가 의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강씨가 아들의 어깨를 쥐며 말했다. <br/><br/> 치료가 시작된 뒤 약을 먹고, 구토를 하고, 갑자기 열이 올라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한군은 여전히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병”일 거라고, “<span class='quot0'>곧 나을 거라</span>”고 자신과 엄마를 다독인다. 강씨는 “<span class='quot1'>아프기 전에도 ‘손목 안 좋은데 무거운 짐 들지 말라’며 장바구니를 늘 들어주던 아들</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지금도 민철이는 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span>”이라고 말했다. <br/><br/> ‘다 자란 아들’의 마음은 엄마보다도 굳셌지만, 몸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 다리에서 시작된 골육종이 이미 척추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한군의 담당 의사인 박병규 국립암센터 교수는 “골육종의 경우 전이가 되면 위험해진다. 암이 시작된 다리 부분은 수술을 진행해 암세포를 제거했지만, 문제는 암이 옮겨간 척추”라며 “척추의 경우 뼈가 무너질 염려가 있어 직접 수술을 할 수 없어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치료가 이어지는데, 그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병의 예후를 살펴야 한다. “<span class='quot0'>방사선 치료 등이 이어지는 ‘지금’이 한군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span>”라고 박 교수가 강조했다.<br/><br/> 병을 알기 전까지 한군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었다. 다리에 불편함을 느낀 건 지난해 5월이었지만, 그저 운동하다 삐끗한 것으로만 여기고 수능 생각에 검진을 미뤘다. 어머니 강씨는 “<span class='quot1'>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보내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 때, 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국가장학금이라도 받아 대학만은 가고 싶다며 열의를 불태웠다</span>”고 말했다. 한군이 대학에 가기로 마음먹은 건 “<span class='quot2'>부모님 고생을 끝장낼 만한 번듯한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span>”였다. 전공도 ‘취업이 잘된다’는 컴퓨터 관련 학과를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에 가려던 꿈은 같은 해 가을 골육종 진단을 받으며 무너졌다. “결국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3D 그래픽 자격증 공부를 해볼까 해요. 그쪽 업계는 학벌이나 배경 같은 것 보지 않고 열심히 하면 돈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고 해서요.” 한군은 병상에서도 부모님을 위해 얼른 돈을 벌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br/><br/>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한군의 ‘돈 걱정’은 8년여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 뒤부터 시작됐다. 가족은 극한까지 내몰렸다. 집과 차가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에도 채 갚지 못한 빚 탓에 채무자들이 집 대문을 두드렸다. 급하게 일을 시작한 어머니도, 친구의 회사로 적으나마 돈을 벌러 나간 아버지도 없는 집에서 한군과 누나는 귀를 막고 아빠를 찾는 채권자들이 내는 소란을 견뎠다. 강씨는 “정말 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선 안 되지만, 그때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극한에 몰려 있었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기까지 했다”며 울었다. 한군이 묵묵히 당시 이야기를 꺼내는 어머니를 바라봤다.<br/><br/> 지금도 가족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다. 아직 남은 빚은 1억여원, 한군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소득은 아버지가 벌어오는 한 달 130만원이 전부다. 어머니는 한군을 간병하기 위해 일을 그만뒀다. 벌이는 줄었지만 돈 들어갈 곳은 늘었다. 7개월 동안 한군의 치료비로만 2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1500만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 한군네 다섯 식구가 사는 임대아파트에도 다달이 53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생활비도 든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전엔 보건소에서 진료비 지원이 나왔었는데, 이제 민철이가 어른이 돼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아픈 아이들도 많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겠지만요.” 강씨는 막막한 와중에도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을 떠올렸다.<br/><br/>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으며 85㎏이던 체중이 68㎏까지 내려가는 등 한군은 말라갔다. 최근에 가장 힘든 건 방사선치료로 식도가 부어오른 것이다. 식도에 생기는 염증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밥은 물론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하루 종일 우유와 병원에서 처방한 영양바 2개 정도만 먹으며 한군은 한 달여를 버티고 있다. <br/><br/> 봄이 왔고 친구들은 저마다 대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한군은 병상에 남았다. 그래도 그는 “괜찮다”고 했다. “<span class='quot0'>친구들이 자주 찾아와주니까 괜찮고, 제가 원래 운동을 많이 해서 치료가 독해도 잘 버틸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span>” 한군이 엷게 웃었다. 그는 “<span class='quot0'>내 힘으로 돈을 벌어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는 꿈</span>”을 새기며 다시 한번 항암치료에 들어갔다. <br/><br/>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br/><br/><br/><br/><br/><br/>한겨레 나눔캠페인 참여하려면<br/><br/><br/><br/>한민철군과 가족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국민은행 762301-04-198569, 예금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해주세요. 민철군에게 필요한 돈은 치료비(1500만원)와 경제지원 자금(500만원) 등 2000여만원입니다. 모금액은 모두 민철군과 가족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작은 정성을 모으면 민철군이 골육종을 딛고 꿈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r/><br/> 민철군에게 또다른 방식의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1544-14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누리집(www.soaam.or.kr)에서도 배너를 클릭해 모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금에 참여한 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로 연락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br/><br/>방준호 기자 <br/><br/><br/>■ 박근혜의 7시간, 아베의 26분…참사에 대처하는 태도 <br/><br/>■ 유시민 돗자리 깔고, 노회찬 촌철살인…‘노유진’ 굿바이 <br/><br/>■ 손학규 “새판짜기 우리 모두 나서자” 측근 대규모 회합 <br/><br/>■ [화보] 56년 전 민주주의 되찾은 그날 <br/><br/>■ [화보] 일본 구마모토 지진…잇단 강진에 열도 ‘공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8.txt

제목: 2014년 건보 보장률 63.2%…‘1.2%포인트’ 상승  
날짜: 2016041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19163639598  
본문: 2009년 이후 낮아지기만 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에 다소 높아졌다. 정부가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 덕분으로 풀이된다.<br/><br/>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자료를 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 13곳 등 전국 총 1413개 병·의원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에 63.2%로 2013년에 견줘 1.2%포인트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내야 할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내 주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br/><br/>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14년 8~9월에 이른바 특진비라 부르는 선택진료비 규모를 줄였고,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늘려 특실료라고 부르는 상급병실료가 줄어든 덕분</span>”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쪽의 추계를 보면 2014년 기준 선택진료비에서는 약 5434억원, 상급병실료는 1893억원을 환자들이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이 약 2169억원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추계됐다. 2014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77.7%로 2013년의 77.5%와 견줘 0.2% 포인트 높아졌다. <br/><br/>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의료기관의 규모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3년 59.2%에서 2014년 60.5%로 1.3%포인트, 병원급 이상은 같은 기간 59%에서 60.8%로 1.8%포인트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2015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br/>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보장률은 80%를 넘기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쌓여있는 17조원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br/><br/><br/>■ 김종인에게 세월호를 묻다 <br/><br/>■ 한겨레도 예외 없던 ‘야권민심 오판’…총선보도 반성합니다 <br/><br/>■ 살균제 날벼락에…5살 나원이는 목에 호스 달고 산다 <br/><br/>■ [화보] 56년 전 민주주의 되찾은 그날 <br/><br/>■ [화보] 일본 구마모토 지진…잇단 강진에 열도 ‘공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79.txt

제목: 갑상선암 10~20%는 더이상 암 아니다  
날짜: 2016041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17201933143  
본문: 미국에서 전체 갑상선암 가운데 10~20%를 차지하는 갑상선암의 한 종류를 암 분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 종류는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양성 종양처럼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2년여 전부터 갑상선암 진단이 불필요하게 많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미국에서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과다진단 논란도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br/><br/> ■ “갑상선암 일부는 암 분류에서 제외” 17일 국내 갑상선암 관련 학회와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의 갑상선암 관련 위원회가 지난 14일(현지시각) 암 분야의 세계적인 논문집인 을 통해 “갑상선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아 생존율이 높았던 유두암의 한 종류인 ‘여포성 변형이 있는 유두암’을 ‘여포 모양의 비침습적인 갑상선 종양’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학계에서 암으로 부르던 병명을 암이 아닌 것으로 개정한 첫 사례다. 이 위원회는 미국 피츠버그 의대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국제적으로 저명한 병리학자와 갑상선 분야 전문가 수십명으로 구성했다.<br/><br/> 위원회는 ‘여포성 변형이 있는 유두암’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처럼 보이지만 갑상선 주변이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거나 침범하지 않아 일반적인 암과 같은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이되지 않는 이유는 암세포처럼 보이는 세포들이 갑상선 안에 있는 섬유조직 형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span class='quot0'>이런 종류의 갑상선암환자도 그동안 불필요하게 갑상선 전체나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이후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일단 ‘암’이라고 진단하면 환자들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과 함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암이라는 말을 바꾸기로 했다</span>”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span class='quot0'>미국에서 한 해 갑상선암으로 진단받는 환자 6만5천명 가운데 약 1만명이 이번 병명 재분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갑상선암 치료비가 2013년 한 해 16억달러로 추계돼, 이번 병명 재분류로 수술비 등 관련 비용이 크게 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갑상선암에 이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일부도 암이라는 분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br/><br/> ■ 세계 평균 10배…국내 과다진단 논란에도 영향? 국가암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갑상선암 환자 수는 1999년 3325명에서 2013년에는 4만2541명으로 15년 사이 12.8배가 됐다. 그사이 전체 암 환자 수는 10만1천여명에서 22만5천명으로 2.2배로 늘어났을 뿐이다. 갑상선암은 2009년부터 줄곧 암 발생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갑상선암 환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를 정도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갑상선암 환자 수는 이미 2008년 기준 세계 평균의 10배나 된다.<br/><br/> 국내에서는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원자력발전소의 폭발과 같이 갑상선암 발생을 대폭 늘릴 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갑상선암의 과다진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나라에 견줘 검사 비용이 낮고 설치 대수 역시 많은 탓에 초음파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생명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발견한 탓이라는 것이다.<br/><br/> 게다가 갑상선암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1명 이하이며, 5년 이상 상대생존율은 2009~2013년 기준 100%를 넘기고 있어 갑상선암의 상당수가 암이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2014년 3월에는 예방의학 전문의와 종양학 전문의 등이 모인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이하 의사연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br/><br/> 의사연대 쪽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며 국내에 적용된다면 미국과 비슷하게 갑상선암 환자의 10~20%는 암 환자 분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갑상선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실제로 임상에 적용되더라도 그동안의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 과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기욱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홍보이사는 “<span class='quot1'>이번에 문제된 종류는 크기가 매우 크거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예후가 좋아 이번 결정은 바람직해 보인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하지만 환자의 암이 이 종류인지 확인하려면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조직검사와 제거수술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연대 쪽의 이용식 건국대 의대 교수는 “2015년에 나온 미국 갑상선학회 권고안에서도 갑상선에 생긴 1㎝ 이하의 혹(종양)은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말라고 나온다. 암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수술보다는 시간을 두고 관찰해보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br/><br/><br/>■ [영상] ‘광화문 등장’ 표창원 당선자 “약속 지키고 싶었다” <br/><br/>■ 종편이 새누리당을 침몰시켰다?…정치부 기자들이 본 4·13총선 <br/><br/>■ 가까이 하기엔 너무 독한 당신, 설탕 <br/><br/>■ [화보]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잊지 않는 이들의 ‘발걸음’ <br/><br/>■ [화보] 일본 구마모토 지진…잇단 강진에 열도 ‘공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0.txt

제목: [사설] 갑상선암 과잉진료 해소 계기돼야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17190828213  
본문: 그동안 나라 안팎에서 과잉진료 논란을 빚어온 갑상선암 가운데 한 종류에 대해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꾸려진 외국의 한 위원회가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아직 국내에서의 검증 과정은 남아 있지만 진단과 치료의 적정성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br/><br/> 미국 피츠버그의대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7개 나라의 병리학자와 임상의사 수십명으로 꾸린 위원회는 그동안 ‘유두 모양 갑상선암 피포성 소포 변형’이라고 불리던 여포성 변형 유두암을 ‘유두 모양 세포핵을 지닌 비침습적 소포 모양의 갑상선 종양’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최근 미국의학협회 종양학 학술지에 발표했다. 암에서 제외해 종양으로 분류한 것이다.<br/><br/>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세계 평균의 10배나 된다. 그만큼 과잉진단이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2014년엔 의사들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초음파 검진을 통해 불필요하게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고 난 뒤 평생 방사성 요오드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의 경우도 적잖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7대 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를 통한 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br/><br/> 미 피츠버그의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갑상선암 이외에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서도 암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암과 관련한 과잉진단이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처가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등은 암과 관련한 과잉진료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제외에 따른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br/><br/> <br/><br/><br/>■ [영상] ‘광화문 등장’ 표창원 당선자 “약속 지키고 싶었다” <br/><br/>■ 하늘도 눈물 펑펑…“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br/><br/>■ [르포] 여의도 의원회관 902호의 4월14일 <br/><br/>■ [화보]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잊지 않는 이들의 ‘발걸음’ <br/><br/>■ [화보] 일본 구마모토 지진…잇단 강진에 열도 ‘공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1.txt

제목: 11년 만에 돌아온 소록도 한센인들의 천사 ‘할매수녀’  
날짜: 2016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15143543708  
본문: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이 추진되고 있는 80대 오스트리아 수녀가 11년 만에 한국 소록도로 돌아왔다.<br/><br/>전남 고흥군과 소록도성당은 15일 한센인 전문치료 시설인 소록도병원에서 40여년 동안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홀연히 귀국했던 오스트리아인 수녀 마리안느 스퇴거(82)가 돌아왔다고 밝혔다.<br/><br/>마리안느 수녀는 다음달 17일 열리는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초대됐다. 그는 외부 활동을 삼간 채 한동안 소록도에 머물다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까지 암 투병을 해왔으나 최근 상태가 호전돼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소록도성당 김연준 신부는 “<span class='quot0'>연로하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묵상하며 계시다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 같다</span>”고 전했다.<br/><br/>마리안느 수녀와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될 예정인 오스트리아인 수녀 마가렛 피사렛(81)은 건강이 나빠 오지 못했다.<br/><br/>이들은 1960년대 초 인스브룩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20대 때 소록도에 들어와 40여년 동안 사랑과 봉사를 실천했다. 한센인들은 다정하고 검소했던 이들을 ‘할매 수녀’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br/><br/>이들은 초기 천막 생활을 하며 누구도 다가서려 하지 않는 한센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폈다. 평생을 소록도에 바친 이들은 70대에 이른 지난 2005년 11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편지를 남기고 훌쩍 떠나버렸다. 이들은 편지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을 때가 오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던 약속을 지키겠다. 부족한 외국인한테 큰 사랑과 존경을 베풀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br/><br/>소록도에선 두 수녀의 숭고한 인류애를 기리는 선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받은 지원금으로 지은 결핵병동을 기념관으로 만들어 사진과 편지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들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이 머물렀던 사택은 병사성당·치료유적 등과 더불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br/><br/>고흥군도 “두 수녀가 절망의 섬을 희망의 섬으로 바꾸었다”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br/><br/>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br/><br/> <br/><br/><br/>■ 광주 민심 “김종인 셀프공천 보고 더민주를 포기했다” <br/><br/>■ 표창원, 부인과 ‘격정 키스’ 영상 화제 <br/><br/>■ ‘야권분열=필패’ 공식 깨졌다 <br/><br/>■ [화보] 4.13 총선 지켜볼 얼굴들, 기억할 얼굴들 <br/><br/>■ [화보] 북, 선전물과 현실의 차이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2.txt

제목: 의사가 환자 되어 진료 받아보았더니…  
날짜: 20160414  
기자: 이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14203244892  
본문: 나는 왜 늘 아픈가 <br/>크리스티안 구트 지음, 유영미 옮김/부키·1만4800원 <br/><br/>환자가 된 의사들-고장난 신들의 생존에 관한 기록 <br/>로버트 클리츠먼 지음, 강명신 옮김/동녘·1만9000원<br/><br/>“쉰이 내일모레라니!” 독일의 까칠한 신경과 의사 크리스티안 구트는 중년의 관문, 건강검진을 하기로 한다. 마뜩지 않지만 ‘예방이 최선’이라는 현대 의학의 신조와 의학 저널이라는 ‘경전’의 가르침에 굴복한 것이다. 병원에서 온갖 힘든 검사를 마친 뒤, 해방감에 와인을 들이키며 그는 생각한다. 오래 살려고 맛있는 음식 먹기, 게으른 쾌락 같은 생활을 포기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서 는 출발한다. <br/><br/> 지은이는 ‘건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깨부수기로 작정한 사람 같다. 예컨대 ‘달리기 신화’를 보면, 35년간 일주일에 2시간 반을 조깅해서 늘어나는 수명은 남성 평균 6.2년, 여성은 5.6년이다. 달리는 데 드는 총 시간은 합하면 꼬박 반년이나 된다. 6년을 더 살려고 인생의 반년을 지루하게 뛰면서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물론 재미있어 달렸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br/><br/> 2009~2010년 신종플루(H1N1) 유행 당시 독일 사망자는 253명. 매년 일반독감으로 사망하는 환자수 5000여명에 견주면 5% 수준이다. 신종플루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2009년 올린 수익은 63억 유로, 전년도보다 20%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방접종은 실효성이 과장되어있고, 청결 강박이나 감염에 대한 걱정 또한 비이성적으로 과열 되어있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br/><br/> 건강검진과 과잉 진료도 도마 위에 오른다. 50대 3명 중 1명이 이미 몸 속에 암세포가 있지만 ‘미니 암’은 대부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건강검진 때문에, 자궁경부에서 천천히 자라는 암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서 “절제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건강에 대한 쓸 데 없는 염려와 강박은 줄이고, 노화와 죽음을 인정한 뒤 주어진 삶부터 충분히 누리자는 제안이다.<br/><br/> 현행 의료체계를 비꼬는 냉소적인 표현이 통쾌하지만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남성’이란 지은이의 한계 탓일까, 동성애자·여성을 ‘과잉 풍자’하는 것을 넘어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툭툭 불거지는 생물학적 결정론도 독자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일 요소로 잠복해 있지만, 이 점을 ‘백신’ 삼는다면 건강 강박에 대한 신선한 처방으로 유쾌하게 읽을 수 있겠다.<br/><br/> 또한 정신과 교수인 지은이 로버트 클리츠먼이 겪은 ‘환자’ 경험담에서 시작한다. 9·11테러로 여동생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린 지은이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우울증에 처박히는 경험을 말로 표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 때 처음으로 알았다</span>”고 말한다. 그는 카를 융의 ‘상처 입은 치유자’ 패러다임을 설명하며 ‘아픈 의사’들이 고통을 겪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할지 살핀다. 무려 70명의 ‘의사-환자’를 심층 인터뷰한 이 질적 연구는 전례 없는 의료인류학 보고서다.<br/><br/> 푸코의 지적처럼, 의사들은 다년간 지독한 수련과 사회화를 거치며 ‘권위주의 에토스(집단의 특유한 관습)’를 강화해왔다. 의사가 환자가 되자, “갑자기 한 계단 내려가는” 경험을 하며 위계가 바뀌었다. 에이치아이브이(HIV) 환자인 동성애자 의사는 주치의의 편견을 걱정하며 낙인과 차별에 직면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는 환자가 되는 일을 더 강력하게 거부했다. <br/><br/> 환자에게는 교환수를 거쳐야 하는 전화통화도 병원의 장벽 가운데 하나였다. 의료보험이 관료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경험많은 의사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는 의사-환자들도 있었다. 몇주씩 조직검사를 애타게 기다리거나 병원에서 ‘대기’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점을 실감했다. 의료과실도 더 많이, 예민하게 인지했다.<br/><br/> 의료 시스템 내부인으로, 환자가 된 의사들의 진술은 현재 의료화 양상에 대한 생생한 비판과 죽음 앞에 선 전문가들이 겪는 실존적 고통을 동시에 증명한다. 환자와 주변에 헌신적이던 의사-환자 몇몇은 인터뷰가 끝난 뒤 결국 세상을 떴다. 지은이는 ‘아픈 의사’들이 ‘상처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스템의 변화를 제안하며 말한다. “<span class='quot1'>우리 모두 언젠가는 환자가 될 것이다.</span>”<br/><br/> 의사들의 ‘의료 체계 고발’은 이렇게 의료화된 삶 자체가 최선일 수 없다는 성찰과 맞닿아 있다. ‘3분 진료-고가 검진 쌍끌이’로 악명 높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점을 후련하고 솔직하게 보여줄 국내 전문가 저자들의 탄생도 기대하게 된다. <br/><br/>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br/><br/><br/>■ 광주 민심 르포 “국민의당 예뻐서 찍은 것 아니다” <br/><br/>■ 여도 야도 독주말라는 ‘마법의 167’ <br/><br/>■ ‘야권분열=필패’ 공식 깨졌다 <br/><br/>■ [화보] 20대 총선 투표 현장 <br/><br/>■ [화보] 북, 선전물과 현실의 차이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3.txt

제목: 유상무 성급한 ‘옹호 발언’…‘장동민 논란’ 다시 키우나  
날짜: 20160411  
기자: 이재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11111351668  
본문: 개그맨 장동민씨가 ‘한부모 가정’ 자녀 조롱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br/><br/>장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 ▶ 바로 가기 ) 을 통해 “<span class='quot0'>이번 일로 상처 입으시고 마음 상하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뜻으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무대인 ‘코미디빅리그’를 하차하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 장씨는 “<span class='quot0'>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상처를 모두 씻을 수는 없겠지만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길 바란다</span>”고 덧붙였다.<br/><br/>장씨는 이어 “<span class='quot0'>송구스럽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span>”며 “<span class='quot0'>저를 믿고 함께 무대에 서며 따라줬던 후배 황제성군과 조현민군, 그리고 제가 코미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tvN(티브이엔) 대표팀과 관계자 분께는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선배 개그맨으로서, 그리고 무대를 꾸민 주인공으로서 제가 한번 더 생각하고 사려깊게 판단하지 못한 것과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span>”고 했다.<br/><br/>장씨는 지난 1일 방영된 ‘코미디빅리그’의 코너 ‘충청도의 힘’에서 극중 친구가 아버지가 사준 고가의 장난감을 자랑하자 “오늘 며칠이냐?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라는 대사를 하며 친구가 한부모 가정 자녀임을 강조하는 연기를 했다. 장씨는 또 동생으로 출연한 조현민씨와 “아휴 듣겄수. 쟤 땜에 갈라선 걸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애 들어요”, “니는 얼마나 좋냐. 생일 때 선물을 양짝에서 받자녀. 이게 재테크여” 등의 대사를 주고받으며 한부모 자녀를 희화화했다.<br/><br/>이에 한부모 가정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은 지난 7일 장씨와 tvN 대표, 제작진 등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br/><br/>(▶ 관련 기사 : 장동민, 한부모 가정 자녀 비하 개그로 ‘피소’)<br/><br/>하지만 동료 개그맨 유상무씨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은 되레 확대됐다. 유씨는 “한부모 가정인 나와 세윤이가 힘들 때 돌봐주고 늘 함께해주고 사랑해준 건 그런 단체가 아니라 장동민 그 사람이었다”며 “부모님 이혼하시고 30년 만에 처음 알았네, 그런 단체가 있는 줄. 울 어머니 암 걸리시고 6평짜리 판잣집에서 살 때 좀 나타나 주시지”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어 지난해 여름 한부모 가정 자녀들과 여행 간 사진을 올리며 “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서로 꿈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 나누고, 이때 스케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며 펜션비를 내준 게 그 사람(장동민)”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br/><br/>이에 누리꾼들은 “재미있는 논리다. ‘날 도와준 사람→남을 괴롭혀도→좋은 사람’, ‘날 안 도와준 사람→옳은 일을 해도→쓸모없는 사람’인가. 만 3세야?”, “유세윤 유상무가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고 그 옆을 묵묵히 지켜온 게 장동민이면 그런 개그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br/><br/><br/><br/>이재훈 기자 nang@hani.co.kr<br/><br/> <br/><br/><br/>■ [단독] ‘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br/><br/>■ 문재인, 승부수 통했나?…오늘 다시 ‘호남행’ <br/><br/>■ 이만기, 김경수에 철 지난 ‘색깔론’ 트집…누리꾼들 “천박하다” <br/><br/>■ [카드뉴스] 거리의 변호사 총선 출마 배후는 ‘대법원’ <br/><br/>■ [화보] 북, 선전물과 현실의 차이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4.txt

제목: 임재준 서울대병원 교수 ‘3분 진료’ 깨기 1년…“초진환자 보려면 15분도 짧아요”  
날짜: 2016041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10201639226  
본문: “외래를 찾은 환자가 자신의 질환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것을 충분히 묻고 이에 대해 의사는 자세히 설명하는 진료, 즉 ‘정상적인’ 진료를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환자는 의사를 더 신뢰하게 되고 저 역시 환자의 만족도가 커졌다는 느낌이 들어 진료 뒤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br/><br/> 지난 8일 오후 서울대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임재준(사진)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외래진료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 서울대병원을 처음으로 찾은 초진환자를 적어도 15분 동안은 진료하고 있다. 임 교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명의 초진환자를 2시간에 걸쳐 진료한다. 지방의 몇몇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주요 대학병원의 외래진료 시간이 보통 3~4분인 것에 견줘 4~5배 긴 셈이다. 나머지 진료시간대에는 임 교수 역시 80명에 가까운 환자를 보기 때문에 환자 1명당 4~5분씩만 진료하고 있다. 임 교수는 “부산에서 올라온 한 환자는 ‘케이티엑스를 타고 왕복 5시간 넘게 걸려 왔다. 차비도 수만원이다. 15분 진료도 짧다’고 말하더라”며 “사실 환자의 병력이나 기존의 검사 이력, 영상검사 등을 모두 보고 신체검진과 청진을 하는 등 기본적인 진찰만 해도 15분이 짧다”고 말했다. <br/><br/> 그를 찾는 환자는 진단이 어렵고 잘 낫지 않는 호흡기 분야 만성질환으로 주로 비결핵성항산균증이나 만성기침을 앓는 환자들이다. 비결핵성항산균증은 1년 넘게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를 한 뒤에도 절반가량은 재발한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소문난 ‘명의’나 ‘비방’을 찾아 돈과 시간을 헛되이 쓰기도 한다. 의사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환자가 이 질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잘못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겪지 않고 의료비 낭비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0'>지방의 동네의원이나 병원은 물론이고 다른 대학병원을 다니다가 온 환자들이 대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많은 경우 복사해 온 진료기록만 수십장이고 여기에 영상검사기록까지 있기 때문에 3분 진료로는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span>”고 말했다.<br/><br/> 짧은 진료시간은 환자에게도 불만이지만 의사에게도 집중력 저하나 감정 상태 악화를 가져온다. 지난해 나온 논문을 보면 평균 4.7분마다 환자 한명씩 진료하는 46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의 의사는 외래진료 뒤 감정 상태가 악화됐고, 의사 3명 가운데 1명이 진료 뒤 집중력이 떨어졌다.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 자칫 오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br/><br/> 임 교수의 ‘15분 진료 실험’은 별도 진료비 체계를 갖추거나 병원 차원에서 제도화된 게 아니다. 자칫 다른 의사들의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다. 임 교수는 “충분한 설명에 대한 보상이 없고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는 병원 경영이 되지 않는 현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 짧은 진료시간을 개선할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의사의 진찰은 대학병원의 경우 원가에 견줘 보상받는 비율(원가보존율)이 50~60% 수준으로 오히려 손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급여 진료)는 이 비율이 150%를 넘는다.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1인당 외래환자를 더 늘리고, 비급여 진료를 더 많이 해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br/><br/> 임 교수의 실험은 아직 미약하지만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서울대 암병원에서도 암맞춤치료센터를 열고 위암, 대장암, 간암 등 몇몇 암 환자를 대상으로 15분 진료를 시작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뒤 외래진료를 찾으면 15분가량 진료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br/><br/> 임 교수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등 다른 나라 의사들이 한국의 진료시간을 보면 너무 짧다며 놀란다. 환자나 의사 모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고가의 검사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가 변할 수 있고 동시에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병원의 많은 의사들은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을 더 듣고 싶어 하는 환자들을 진료실 밖으로 내보내는 데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병원의 진료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br/><br/> 글·사진/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br/><br/>▶관련기사: ‘뚝딱 진료-비싼 검사’ 날로 심해져 <br/><br/><br/>■ [만화] 한 주의 그림판 몰아보기 <br/><br/>■ 국민의당 호남 돌풍 이유는 <br/><br/>■ ‘존영’…얼굴에도 계급 있다고 믿는 대통령들의 시대 <br/><br/>■ [뉴스AS] 조훈현은 되고, 남진은 안되는…선거법 적용 ‘이중잣대’ <br/><br/>■ [화보] 북, 선전물과 현실의 차이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5.txt

제목: ‘대장암’ 수술 환자 10명 중 9명이 50대  
날짜: 2016041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10140525250  
본문: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환자가 여성보다 1.5배 많았다. 대장암은 암 가운데 사망률이 4번째로 높은 암으로, 통계청의 2014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대장암 사망자 수는 16.5명이다. <br/><br/>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개한 ‘4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2014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1만7600명의 환자 가운데 50대 이상은 89.6%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1.5배 많았다. 대장암은 생긴 부위에 따라 항문 쪽에 가까운 직장암과 나머지 대장 부위에 생기는 결장암으로 구분되는데, 결장암 환자가 전체의 73.1%로 직장암보다 2.7배였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시점은 상당히 진행된 3기인 경우가 3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기는 28.4%, 1기는 21.2%, 4기는 14.1% 순이었다. 대장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 1~4기로 나누는데, 1기가 초기이고 4기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미 진행된 단계인 3~4기 환자가 전체의 50.4%로 절반이나 되는 셈이다.<br/><br/> 또 심평원은 대장암 수술을 10건 이상 실시한 의료기관 135곳을 대상으로 수술의 적정성 평가를 한 결과 전국 114개 의료기관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대장암 수술 전문인력을 구성했는지,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를 시행했는지, 수술이 완전하게 시행됐는지,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해 수술 뒤 항암화학요법을 했는지 등을 평가했다. 1등급 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에 63곳으로 절반 가량이 서울 경기권에 분포했으며, 나머지는 경상권(27곳), 충청권(10곳), 전라권(7곳), 강원권(4곳), 제주권(3곳) 등이었다. 의료기관별 평가등급은 심평원 누리집(hira.or.kr)의 ‘병원평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br/>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br/><br/><br/>■ [만화] 한 주의 그림판 몰아보기 <br/><br/>■ [뉴스AS] 조훈현은 되고, 남진은 안되는…선거법 적용 ‘이중잣대’ <br/><br/>■ ‘존영’…얼굴에도 계급 있다고 믿는 대통령들의 시대 <br/><br/>■ 대구에 야당의원 탄생?…김부겸, 김문수 갑절로 따돌려 <br/><br/>■ [화보] 북, 선전물과 현실의 차이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6.txt

제목: 이 물, 당신 자식에게도 먹이겠습니까?  
날짜: 20160408  
기자: 오승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09130912921  
본문: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바닷물을 담수처리해 기장군 3개 읍·면에 수돗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처리시설은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11㎞가량 떨어진 곳에 완공됐다. 기장 주민들은 “<span class='quot0'>핵발전소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span>”며 “<span class='quot0'>결국 원전 바닷물을 수돗물로 주겠다는 것</span>”이라고 거세게 반발한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신은 몰라도 자식들에게는 이 수돗물을 결코 먹일 수 없다고 매일 거리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말 ‘물’을 먹어야 할 사람은 핵발전소와 멀지 않은 곳에 일종의 취수장을 지은 사람들이 아닐까? <br/><br/>“수돗물은 틀면 나오는 거잖아요. 수돗물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밥 짓고 음식 해 먹는 수돗물을 원전 바닷물로 만들어서 줄 테니 먹으라고요? 왜 우리가 그 물을 마셔야 되죠? 기장군민에겐 안전한 물을 먹을 권리도 없는 건가요?”<br/><br/> 6일 오전, 부산시 기장읍에서 만난 주부 우미정(41)씨는 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 불신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바닷물을 담수처리해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등 기장군 3개 읍·면에 수돗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담수화 처리 플랜트인 ‘부산기장해양정수센터’가 고리 핵발전소에서 11㎞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핵발전소에서 방류되는 물질의 양과 종류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수돗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br/><br/>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우씨는 “나 같은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장기의 아이들은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노출이 되면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물을 어느 엄마가 먹이고 싶겠냐?”고 했다.<br/><br/> 5일과 6일 이틀 동안 가 만난 기장군 주민들도 대부분 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반영하듯 기장읍 건물 곳곳에는 ‘해수담수 공급 반대’라는 작은 펼침막이 걸려 있었고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은 일찌감치 ‘해수담수 공급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br/><br/> <br/><br/> “동네 식당 다 망할 거다” 소문<br/><br/> 일광면에 산다는 한 30대 여성은 “가뜩이나 원전 가까이 살고 있어서 불안한데 이젠 물도 못 먹게 생겼다”며 “원전에서 11㎞밖에 안 떨어진 곳에 취수장을 지은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1'>여러 후보지 중 기장군 대변리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가 가장 적게 나오는 등 수질이 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 핵발전소는 담수화 처리 시설 입지조건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이다.<br/><br/> 주민들의 불안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방류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정수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 커졌다. 자신을 교사라고만 밝힌 한 남성은 “<span class='quot2'>삼중수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내부피폭을 당하는 게 아니냐</span>”며 “<span class='quot2'>서병수 부산시장은 안전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span>”고 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삼중수소가 담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은 맞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삼중수소는 동식물·흙·공기·물 등 자연 속에도 존재하는 아주 흔한 물질로 설령 바닷물에 함유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출량이 극히 적어 인체에 무해하다</span>”고 설명했다. <br/><br/> 그러나 환경보건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의 설명은 다르다. “자연 속에서는 미량으로 존재하는 삼중수소가 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겐 눈에 띄게 많은 양이 발견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분명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다.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 디엔에이(DNA) 구성 물질이 되면 어느 순간 자연 붕괴되면서 다른 원자구조들을 깨뜨린다. 이때 전혀 다른 세포가 생성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암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고리 핵발전소 1~4호기의 연간 온배수(냉각수) 배출량은 약 44.6억톤에 이른다.(‘발전소 냉각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연구’, 맹준호 외,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br/><br/> 고리 원전에 대한 불신도 담수화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한 원인인 듯했다. 기장읍에서 도매업을 하는 신아무개(38)씨는 “납품비리 등으로 곪아터진 고리 원전이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원전이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된다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주변에 사는 어민들과 주민들에게 왜 막대한 보상금을 줬겠느냐”고 꼬집었다.<br/><br/> 한편, 주민들 사이에선 수돗물이 공급되면 그 물로 장사를 하는 기장군의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장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아무개(45)씨는 “원전 바닷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면 나라도 먹기 꺼림칙할 것 같다. 식당 주인들 사이에선 담수화 수돗물이 들어오면 이 동네 식당들은 다 망할 거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했다. 실제 대표적인 관광지인 인근 송정지역은 수돗물 공급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요식업협회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담수화 공급 반대운동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읍에 산다는 박아무개(49)씨는 “우리 동네는 공급 대상지가 아직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기장군 전체와 나아가 부산으로도 수돗물 공급이 확대될 거라는 예상이 많다”며 “부산 시민들도 자기랑 상관없다고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장안읍에 사는 ㄴ씨는 “원전 바닷물로 기르고 키운 기장의 농수산물이 결국 전국으로 출하된다고 할 때, 담수화 문제는 비단 기장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짚었다.<br/><br/> 지역사회로 불안감이 번져가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기장고등학교에 다닌다는 박아무개양은 “친구들끼리 ‘빛과 물의 도시 기장’을 말할 때 빛은 고리 원전의 방사능 공기고 물은 방사능 수돗물이 아니겠냐며 농담했다”며 “원전 바닷물까지 먹으라는 거 보면 기장은 정말 버림받은 도시 같다”고 씁쓸해했다. 방사능 공포가 커지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을 내놓은 주민들도 속속 늘고 있다.<br/><br/> 물론 기장 주민들 모두가 담수 공급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기장읍에 산다는 한 50대 남성은 “<span class='quot2'>이미 2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지어놨는데 그걸 이제 와서 없애라고 하는 건 무리</span>”라며 현실론을 들어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 60대 할아버지는 “기장 미역과 멸치가 유명한데 자꾸 원전 어쩌고 하면 기장 특산물만 안 팔린다.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경제가 망하게 생겼다”고 비난했다.<br/><br/>부산시, 고리 핵발전소 11㎞ 지점 <br/>해수담수시설서 수돗물 공급 추진 <br/>기장 주민들 방사능 불안감 팽배해 <br/>자영업자 “누가 관광 오겠냐” 한숨 <br/>“이미 2000억 들어갔다” 현실론도<br/><br/>반대쪽 “삼중수소 등 정제 안 돼” <br/>상수도사업본부 “방사능 미검출” <br/>해수담수화 사업, 물 민영화 일환 <br/>주민들 스스로 일궈낸 주민투표 <br/>89.3% 반대 넘어 민주주의 체험<br/><br/> 공공재인 물을 기업 이윤 도구로?<br/><br/> 담수화 공급 찬반으로 지역사회가 나뉘게 된 연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봉대산 자락 바닷가 4만5845㎡에 역삼투압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4만5000t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담수화 처리 플랜트를 준공했다. 인근 해변 10~15ｍ 수심의 바닷물을 끌어와 해조류와 염분을 걸러낸 뒤 무기질 성분을 넣어 수돗물을 만드는 원리로 낙동강 수질 악화와 수질오염 사고 등을 대비한 대체상수원 확보, 원거리 공급체계 개선, 미래 물 산업 메카 도시 육성 등이 목적이었다. 국비 823억원, 시비 424억원, 민자 706억원 등 모두 1954억원이 들어갔다. 건설은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1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맡았다.<br/><br/> 반대를 하는 쪽에선 애초의 사업목표 수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기존에 낙동강 수질이 깨끗하다고 주장해온 상수도사업본부가 말을 바꾼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원거리 공급체계를 개선한다면 인근의 명장정수장을 이용하면 된다는 점, 방사능 오염의 오명을 뒤집어쓴 상황에서 미래 물 산업 메카 운운은 빛을 잃었다는 것이다.<br/><br/> 그렇다면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성 논란이 불가피한 해수담수화 사업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걸까?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올해 1월 에 기고한 칼럼에서 “<span class='quot3'>2010년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는 함께 ‘물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span>”면서 그 육성전략에 따라 “<span class='quot3'>이미 수십개의 지자체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단계를 밟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이를 강요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담수 공급의 강행은 물 민영화 실현 계획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해수담수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재인 물을 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이 되도록 허용해주는 민영화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br/><br/> 같은 해 11월, 상수도사업본부는 본격적인 해수담수의 수돗물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고리 원전에서 11㎞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센터가 세워진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원전 바닷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즈음(4일) 갑상샘암 발병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한수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받은 이진섭(50) 기장해수담수 반대대책협의회 대표의 소송 결과와 이로 인한 고리와 월성 등 원전 인근 주민들 100여명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는 반대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 주민들이 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자 수돗물 공급 계획은 잠시 보류됐다.<br/><br/> 지난해 12월 초 수돗물 공급 통보 해프닝을 겪은 뒤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19~20일 해수담수에 대한 민간 주도 찬반 주민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유권자 5만9931명 가운데 1만6014명이 참여해 1만4308명이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의 비율은 89.3%에 달했다.<br/><br/><br/><br/> 대책협의회 김세규 집행위원장은 “선거인단 명부가 없어서 약 6주간 주민 300명이 3개 읍·면을 돌면서 1만7683명의 주민투표 동의서명을 받았다. 투표 진행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도 6000만원이 넘는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다. 우미정씨는 해수담수화 반대운동을 통해 “<span class='quot4'>집안일밖에 모르던 아줌마들이 시의회에 가서 방청도 하고 경찰서 가서 집회신고도 하는 등 배짱이 두둑해졌다</span>”며 “<span class='quot4'>운동을 통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생긴 것도 행복한 경험이었다</span>”고 했다.<br/><br/> 반면 정작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라는 반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상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투표자가 유권자의 3분의 1이 안 되는 이번 주민투표는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br/><br/> <br/><br/> “<span class='quot5'>담수화 철회 안하면 군수 소환</span>”<br/><br/> 이진섭 공동대표는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의견수렴도 없이 시설을 지어놓고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도 “취수구를 핵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28㎞ 부근에 설치하면 담수화를 동의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취수구를 멀리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사 시점부터 최근까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다.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br/><br/>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책협의회는 해수담수 공급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이 계속 해수담수화 사업을 강행한다면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민심을 기반으로 오규석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br/><br/> 주부 이아무개씨는 말했다. “기장은 공원도 많고 문화행사도 다채로워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였는데 이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도시가 돼가고 있다. 이 도시에서 계속 아이를 키우게 해 달라. 엄마들의 요구는 그뿐이다.” <br/><br/>기장/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br/><br/><br/>■ 문재인 “호남이 지지 거두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불출마” <br/><br/>■ [뉴스AS] 조훈현은 되고, 남진은 안되는…선거법 적용 ‘이중잣대’ <br/><br/>■ 변희재 2년 전 댓글 단 누리꾼에 ‘보복 소송’ <br/><br/>■ 대구에 야당의원 탄생?…김부겸, 김문수 갑절로 따돌려 <br/><br/>■ [화보] 북, 선전물과 현실의 차이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7.txt

제목: [포토] 대한암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날짜: 2016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08153725986  
본문: 암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추구하고 국민보건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대한암협회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암 예방과 극복을 소망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br/><br/><br/>■ 강남의 ‘을’에서 야당의원 나오나 <br/><br/>■ 문재인 “호남이 지지 거두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불출마” <br/><br/>■ 새누리, 싸늘한 민심에 돌연 읍소작전…이번에도 먹힐까 <br/><br/>■ [화보] 북, 선전물과 현실의 차이는? <br/><br/>■ [화보] 프로야구 역사를 한눈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8.txt

제목: 대한암협회 창립 50주년 행사…‘암이 없는 그날까지’ 선포  
날짜: 2016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08152529623  
본문: (사)대한암협회 창립 50주년 행사가 8일 낮 1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암 환자와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암 인식조사’ 보고서가 발표됐고, 미래비전으로 ‘암이 없는 그날까지’를 선포했다. 대한암협회(회장 노동영·사진 맨 앞줄 왼쪽 6번째)는 행사를 마친 뒤 암 극복을 소망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가졌다.<br/><br/> <br/><br/><br/>■ 강남의 ‘을’에서 야당의원 나오나 <br/><br/>■ 문재인 “호남이 지지 거두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불출마” <br/><br/>■ 새누리, 싸늘한 민심에 돌연 읍소작전…이번에도 먹힐까 <br/><br/>■ [화보] 북, 선전물과 현실의 차이는? <br/><br/>■ [화보] 프로야구 역사를 한눈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89.txt

제목: 삶의 끝에서 손잡아줄 단 한사람  
날짜: 20160405  
기자: 남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05191524936  
본문: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그를 만날 것이다. 14일 개봉하는 영화 의 주인공은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다. 보통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자신의 일을 “<span class='quot0'>끝이 막힌 터널로 들어가는 일</span>”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의 주인공인 간호사 데이비드(팀 로스)는 그 어두운 터널을 몇번이고 기꺼이 들어서는 사람이다. <br/><br/> 영화에선 에이즈에 걸린 세라, 건축가였지만 갑자기 쓰러진 뒤 움직이지 못하는 존, 암이 직장까지 번진 마사 등 회생불가능한 환자들이 나온다. 데이비드는 그들을 차례대로 돌보다가 그들이 죽음을 맞으면 다음 환자를 맡는다.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몸은 장단점을 따져가며 모두 다르게 평가하면서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육체는 그저 매한가지로 추하게 여긴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끝까지 존중하는 데이비드의 손길을 거치면서 병든 육신 각각은 개별자로서 의미를 찾는다. 데이비드는 아프기 전엔 틀림없이 아름다웠을 세라를 정성스럽게 단장해준다. 혼자서는 돌아눕지도 못하면서 성욕에 집착하는 존과는 함께 포르노를 본다. 죽어가는 인간의 욕망과 질병은 존중받는 한 추하지 않다. 영화의 각본을 쓰기도 한 미셸 프랑코 감독은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곁을 지키며 할머니의 정서적인 지지자가 됐던 한 호스피스 간호사를 보며 이 영화를 구상했다고 한다. <br/><br/> 데이비드는 환자들을 먹이고 씻기고 통증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것도 모자라 환자의 일부가 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가 세라의 남편, 존의 동생이 되려고 할 때 관객들은 그가 무슨 다른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환자의 진짜 가족들은 그런 그의 태도를 수상쩍게 여기고 고소하기도 하지만 그는 환자와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거나 분리하지 않으려 한다. <br/><br/> 영화의 핵심은 이것이다. 의 호스피스 간호사는 침대에 묶여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의지를 대신한다. 그 증거로 영화는 데이비드가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단련하는 모습을 비추지만 혼자서 운동할 때 그의 표정은 환자들과 있을 때보다도 공허해보여 그는 지금 육체만을 움직일 뿐 영혼은 이미 다른 사람과 나눈 존재처럼 보인다. 만약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신세에 처한 사람이 시간과 건강을 거꾸로 되돌려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 씻고 단장하고, 자신에게 아직 성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건축가로서 지었던 집을 돌아보며, 심지어는 더 큰 고통을 겪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런지.<br/><br/> ‘만성질환’(크로닉)이란 뜻의 제목처럼 죽음은 모든 인간이 가진 불치의 병이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자신이 고유한 존재임을 주장하며 남에게도 그런 존재로 존중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 4명이 결국 죽음을 맞는 영화 속 시간이 더없이 평화로운 것은 그때문이다. 15살 이상 관람가. <br/><br/>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br/><br/><br/>■ 알바당 혜리도 모르는 최저임금 진실 ‘7가지’ <br/><br/>■ [단독] “응모작 저작권도 갖겠다”…유명 커피브랜드 공모전 ‘갑질’ <br/><br/>■ ‘현대판 팥쥐 엄마’ 의붓딸 CCTV로 감시하고 학대한 계모 <br/><br/>■ [화보] 북, 선전물과 현실의 차이는? <br/><br/>■ [화보] 프로야구 역사를 한눈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0.txt

제목: 유방암 재발 막으려면 ‘밤에 먹지 말아야’  
날짜: 20160401  
기자: 황금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01145954030  
본문: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은 늦게 먹는 생활 습관이 유방암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br/> 영국 등 외신은 31일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암센터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유방암 재발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사협회의 ‘종양학’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 연구진들은 식사 시간이 유방암 재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기 유방암 환자 2413명의 식사 시간과 생활 습관을 조사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환자 한 명당 평균 7.3년을 지켜봤다. 그 결과 저녁 식사와 다음 날 아침 식사 사이의 간격이 최소 13시간 이상인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재발률이 3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위험도 21% 정도 낮았다.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늦게 먹으면서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유방암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연구진들은 야간 공복 시간이 2시간 늘어날 때마다, 약 3개월 간의 장기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A1c) 수치 역시 떨어져 고혈당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br/><br/> 연구를 이끈 캐서린 매리낙 박사는 “<span class='quot0'>이전 연구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식사 시간처럼 신진대사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span>”고 했다. <br/><br/> 이전에도 금식이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억제시켜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고혈당이나 염증 등은 모두 암 예후에 좋지 않은 위험 인자들로 알려져 있다.<br/><br/> 한편, 유방암은 매우 복잡한 질병이고 재발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방암 치료 전문가인 리차드 버크스는 “<span class='quot1'>식사 시간이 유방암 재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span>”라면서도, “<span class='quot1'>환자들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확증할만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br/><br/><br/>■ 녹색당 “우리 ‘녹생당’ 아니야” <br/><br/>■ 서울 풍항계 ‘천변벨트’…이번엔 바람 어디로 불까 <br/><br/>■ ‘촬영 방해된다’ 금강송 자른 사진가 전시회가 예술의전당에서? <br/><br/>■ [카드뉴스] 폐스티로폼 파쇄기가 그를 삼켰다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1.txt

제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설계자 하디드 별세  
날짜: 20160401  
기자: 노형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401101332106  
본문: 우주선 모양의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2014년 완공)를 설계한 이라크 출신 영국 건축거장 자하 하디드(사진)가 3월31일(현지시각) 세상을 떠났다. 향년 65.<br/><br/> 방송 등 외신들은 하디드가 이날 미국 마이애미 병원에서 기관지염 치료를 받다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195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태어난 하디드는 영국 건축학교에서 유학했으며 80년 건축사무소를 세운 이래 규칙적 형태를 버리고 유기적인 곡선이 휘몰아치는 파격적인 건축작품과 설계 드로잉들을 내놓으며 세계적 명성을 쌓았다. 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유선형 몸체나 날카로운 예각, 급경사의 사선구도 등 기존 현대건축과는 전혀 다른 조형요소들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하디드 건축의 도드라진 특징이다. 이런 비정형적 건축 디자인은 해체주의, 미래주의 건축으로 명명되면서 세계 건축 디자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br/><br/> 그는 여성으로는 처음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프리츠커상(2004)과 영국왕립건축가협회상(2015)을 받았다. 첫 완성작인 독일 바일 암 라인의 비트라 소방서(1994)를 시작으로 20여년간 독일 라이프치히의 베엠베(BMW) 자동차 공장(2005), 중국의 베이징 왕징 소호 업무빌딩단지(2014), 한국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세계 곳곳의 명품 건축물들을 설계했다. <br/><br/> 건축거장 리처드 로저스는 영국일간지 에 “경이로운 여성이자 멋진 사람이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그 누구도 하디드 만큼 영향을 끼친 건축가는 없었다”고 애도했다. 프리츠커상을 후원해온 하얏트 재단의 톰 프리츠커 회장도 추도성명을 내어 “프리츠커상의 가장 높은 열망을 상징한 인물이었다. 안주하지 않고 영속적인 힘으로 자신의 비전과 지성을 결합시켰다”고 헌사를 보냈다. <br/><br/>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br/><br/><br/>■ 녹색당 “우리 ‘녹생당’ 아니야” <br/><br/>■ 안철수의 억지, 새누리의 엄살…선거 결과는 뻔하다 <br/><br/>■ ‘촬영 방해된다’ 금강송 자른 사진가 전시회가 예술의전당에서? <br/><br/>■ [카드뉴스] 폐스티로폼 파쇄기가 그를 삼켰다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2.txt

제목: 인공지능이 바둑 두는 시대의 에스에프  
날짜: 2016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31202929168  
본문: 옆집의 영희 씨정소연 지음/창비 펴냄(2015)우주여행의 아버지라 불리는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를 과학자로 만든 건 쥘 베른의 라는 책이었다. 나사(미국항공우주국)가 이름을 빌려 ‘고더드 우주비행센터’를 만들기도 한 근대 로켓의 아버지 로버트 고더드도 허버트 웰스의 같은 에스에프(SF·공상과학소설)를 탐독했다. 오늘날 우주여행의 문을 연 사람은 쥘 베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벗어날 즈음, 아이들은 색다른 책으로 관심을 뻗어간다. 오싹오싹하고 괴기스러운 이야기나 지저분하고 역겨운 이야기를 즐긴다. 추리소설이나 과학소설에 관심이 싹트는 것도 이 무렵이다. 치올콥스키, 고더드 같은 과학자도 모두 십대 시절 에스에프를 읽었다. 아마 특목고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들 모두 과학자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에스에프의 전통이 약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과학소설의 개척자인 한낙원을 기리는 문학상이 제정되는 등 장르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소연 작가의 에스에프는 상당히 독특한 감수성을 보여준다. 서정적이고 섬세하며 다정하기까지 하다. 에스에프 영화에 길들여진 독자라면 하나의 장르 안에서 작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란 얼마나 다양한지 적잖이 놀랄 것이다. 선입견 없이 누구나 읽어볼 만한 단편들이 에 담겨 있다. 작가들이 손꼽는 에스에프를 쓰는 큰 즐거움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든다’는 점이다. 독자들의 즐거움도 그렇다. 단편 ‘앨리스와의 티타임’은 이런 구절로 시작된다. “세계는 줄지어 선 작은 방과 같다.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하나의 긴 공간 같을, 투명한 유리벽으로 나뉜 작고 네모난 방들을 상상해 보라. 보이지 않는 손잡이만 비틀어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들이 바로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하나의 계다.” 국방부 직원인 앨리스는 ‘다세계연구소’에 근무한다. 업무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곳과 겹쳐 존재하는 다른 세계, 즉 평행우주 속으로 들어가 다른 세계를 훔쳐보고 돌아오는 일이다. 앨리스는 그동안 앤디 워홀이 없는 세계, 파블로 피카소가 무명으로 일생을 마치는 다른 세계를 보았다.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워홀과 피카소의 빈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채우기 마련이었다. 암의 완치율이 높아지면 또 다른 병으로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삶이란 그저 우연인 걸까. 우리는 이 세계에 살며 그런 공상을 할 때가 있다. 그때 선택을 달리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떨까. 작가는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과거와 미래, 그로 인한 인간의 운명과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 설혹 그 선택 때문에 평범하게 산다 해도 이 삶이 화려한 다른 삶보다 하찮은 것은 아니며,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세계를 힘써 살아갈 뿐이다. 작가가 만든 세계에 공명하고, 그 공명으로 잠시나마 이 세계가 아닌 저 세계를 꿈꾸어 보는 시간 혹은 하찮은 인간사를 비웃고 우주적 고민에 머리를 싸매는 일, 이 모두가 에스에프가 주는 선물이다. 호연지기를 원천봉쇄당한 십대들에게 에스에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청소년. 한미화 출판칼럼니스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3.txt

제목: 4월 1일 알림  
날짜: 2016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31191502871  
본문: ◇ 전주방송(JTV)은 31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제1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택곤(66)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전주 출신으로, 사장을 거쳐 2005~2011년에도 대표이사를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5월9일 이후 공식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br/><br/>◇ 서울과기대는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폐자원 에너지화 특성화 대학원 사업 대상으로 재선정돼 2019년까지 3년간 9억원을 지원받는다.<br/><br/>◇ 대한민국학술원은 31일 총회를 열어 권숙일 서울대 명예교수를 회장으로, 김동기 고려대 명예교수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br/><br/>◇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제2대 소장에 31일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 한 소장은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물리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br/><br/>◇ 환경운동연합은 31일 ‘제4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석면·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해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을, 특별상 수상자로 ‘천수만 철새 먹이나누기’를 실천한 김신환 동물병원장을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1일 오후 6시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한다.<br/><br/>◇ 동국대는 24일 부산 정수사 주지를 지낸 비구니 지인 스님(80)에게 5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받았다. 지인 스님은 전국의 군부대와 교도소에서 봉사를 하는 등 평생 자비를 실천해오다 최근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에 전재산을 정리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박희진시인기념사업회는 31일 박 시인 1주기를 맞아 추모 문집 (황금마루)를 펴냈다. 책 제목인 ‘영원한 지금에’는 고인이 1955년 9월에 쓴 초기작 ‘늘 끊임없는’의 마지막 행에서 따왔다. 모두 110명의 필자가 박 시인에게 바치는 115편의 작품을 기고했다. 7일 오후 6시 서울 원서동 바움아트갤러리에서 ‘수연 박희진 선생 1주기 추모회’를 연다.<br/><br/>◇ 두산연강재단(두산의 장학학술재단·이사장 박용현)은 31일 서울시 교육청 추천으로 선발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중학생 120명에게 2억 1천여만원의 장학금과 9천만원 상당의 학습자료를 지원했다. 두산연강재단은 2010년부터 총 660명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함께 학습지, 동영상 강의, 사전 등을 지원해 왔다.<br/><br/>◇ 한성대는 이상한 총장이 지난달 10일 열린 총장 취임식 때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 820㎏(시가 약 200만원 상당)을 서울 성북구 삼선동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지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br/><br/>◇ 에스오일 31일 여의도 경일주유소에서 ‘에스오일 주유소 나눔 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 2억6천만원을 전달했다.　<br/><br/>◇ 금호타이어는 31일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6’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공명음 저감 타이어’와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 ‘로드벤처 MT51’ 2개 제품이 수상했다.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br/><br/>◇ 한화·한화탈레스·한화테크윈은 31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사랑의 독서카페’ 기증식을 했다. 한화는 10개 부대에 각 1개 동씩 총 10개 동의 독서카페를 지원한다. 1개 동의 독서카페에는 1천여권의 도서를 비치하며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br/><br/>◇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0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소회의실에서 캠코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고객 자녀 179명에게 장학금 4억원을 전달했다.<br/><br/>◇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제18기 해외 교환 장학생 250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2016년 가을학기 해외 교환 학생 선발을 위한 것이다. 모집기간은 5~12일이다. 누리집(foundation.miraeasset.com) 참조.<br/><br/>◇ KB생명보험은 KB투자증권과 함께 30일 여의도 KB금융타워 본사에서 임직원 50여명이 참가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br/><br/>◇ 서울강서교육지원청은 미술·음악 등 예능학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교육기부 사업을 한다. 학교로부터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학습 의욕이 높은 학생을 추천받아 교육기부를 희망하는 학원과 연결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br/><br/>◇ 국민체육진흥공단 1일부터 8월31일까지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체육유물을 기증받는다. 고조선에서 현대에 이르는 체육과 관련한 대회 성과물·문서 기록물·기념 인쇄물·기념 영상물·운동 장비·기념 조형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02)410-1395.<br/><br/>◇ 자연의벗연구소는 14일 오후 6시 하자센터 허브 1층 흙공방에서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획하려는 교사·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교 텃밭 워크숍’을 연다. 현직 교사의 텃밭활용 사례를 들을 수 있다. (02)3144-7877.<br/><br/>◇ 한양대는 31일 성동구청·한양여대와 함께 ‘도전숙’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전숙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공 임대주택이다.<br/><br/>◇ 건국대는 3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학술, 인재개발, 국제교류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br/><br/>◇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농협은행과 학교·성·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피해 청소년들은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의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모의주식투자, 핀테크 체험 등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br/><br/>◇ 유넵한국위원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달 21일까지 ‘환경오염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바다, 하늘, 숲을 보호하자’를 주제로 환경그림 공모전을 연다. (02)720-1011.<br/><br/>◇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1~12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16년도 세계연구대학총장포럼’을 연다. 전 세계 65개 대학 총장·부총장급 인사가 참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교육혁신에 대해 논의한다.<br/><br/>◇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일 오전 10시 일산 본원에서 건설산업혁신센터 개소식을 한다. 건설산업혁신센터는 우수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br/><br/>◇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연구소는 1일부터 미야지마 히로시 석좌교수와 함께하는 ‘동아시아사 산책’ 교양 강좌를 연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까지 ‘제6회 건강정보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국민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와 동영상, 카툰 등이다. 누리집(hira.or.kr) 참조. <br/><br/><br/>■ 유승민 “당에 돌아가 대통령 주변 간신들 다 물리치겠다” <br/><br/>■ ‘안철수 힘내라’…새누리, 야권 ‘이간질’ 응원전 진풍경 <br/><br/>■ ‘촬영 방해된다’ 금강송 자른 사진가 전시회가 예술의전당에서? <br/><br/>■ [카드뉴스] ‘최고 존엄’과 ‘존영’…조선은 하나다?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4.txt

제목: 4월 1일 인사  
날짜: 2016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31191458253  
본문: ⊙ 국토교통부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이태호 ◇과장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해안권발전지원과장 김형철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 김계범<br/><br/>⊙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김진진<br/><br/>⊙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현완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민병찬<br/><br/>⊙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일홍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정책관 김봉수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정삼 △디지털콘텐츠과장 김영문<br/><br/>⊙ 여성가족부 △장관정책보좌관 최철규<br/><br/>⊙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나급 △통일교육원 교수부장 정승훈 △〃 개발협력〃 서정배 ◇부이사관 △통일정책실 정책총괄 이종주 △남북회담본부 회담1 황정주 △〃 〃지원 배윤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 이병원 ◇서기관 △대변인실 백동룡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서한교 △〃 통일문화과 김난영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김인호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이종철 △통일교육원 지원관리과 유재윤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김시운 △남북회담본부 회담2〃 최용석<br/><br/>⊙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이수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여윤덕 △인재개발국 시험출제과 정찬우 △인사혁신국 혁신기획과 김정곤 양태원 △〃관리국 인사정책과 이영인 △윤리복무국 복무과 김창주 △〃 윤리과 진재훈<br/><br/>⊙ 국세청 ◇고위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한재연 △〃 조사1〃 안홍기 ◇세무서장 △제천 이상철 △공주 장신기 △영덕 박달영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성학 ◇고위공무원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신동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명준 △중부〃 조사2〃 윤상수 ◇부이사관 △본청 운영지원과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판우 △〃 첨단탈세방지〃 이준오 △성동세무서장 김동일 ◇서장급 △정책보좌관 유재준 ◇담당관 △감사 최재봉 △국제협력 박재형 △국제세원관리 이상우 ◇과장 △징세 심욱기 △원천세 오덕근 △조사기획 이동운 △조사1 최시헌 △〃2 김운섭 △국제조사 이호석 ◇과장 △운영지원 류택희 △개인납세2 고점권 △법인납세 현석 △송무1 김성환 △조사2국 조사2 오태환 △〃4〃 〃 오상훈 △조사4국 조사1과장 박광수 △조사1국장 김성후 △〃2〃 문희철 △송파 최영준 △ 잠실 김상윤 △동안양 김길용　<br/><br/>⊙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안형준<br/><br/>⊙ 방위사업청 ◇과장급 △법률소송담당관 나욱진<br/><br/>⊙ 국립암센터 △특수암센터장 강현귀 △병리과장 유종우 △교육훈련부장 유헌<br/><br/>⊙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기획전략실장 겸) 김승택 △동향분석실장 오상봉 ◇연구실장 △인적자원 오계택 △지역고용 이규용 △패널데이터 윤자영<br/><b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이전센터장 배성수<br/><br/>⊙ 코스닥협회 △상무(회원서비스본부장) 정진교 △차장(연구정책본부 법제팀장) 김구<br/><br/>⊙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김동춘 ◇실장급 △대구지역본부장 신현화 △경기지사장 송재준 △전남〃 함광호 △광주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장 박병영<br/><br/>⊙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김영후(예비역 중장)<br/><br/>⊙ 해양환경관리공단 ◇실·원장급 △감사실장 박창현 △해양환경교육원장 이재곤 △부산지사장 염홍준 ◇부서장급 △비서팀장 김지원<br/><br/>⊙ KBS △편성본부 아카이브관리부장 김종길 △정책기획〃 정책기획국 계열사정책〃 김용수 △보도〃 보도국(국제) 일본지국장 윤석구　<br/><br/>⊙ KBS미디어 △부사장 권순우 △뉴미디어본부장 장두희<br/><br/>⊙ KBS 엔 △정책기획본부장 한희원 △마케팅〃 권창중<br/><br/>⊙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발행인 방성훈 △〃 전무 이성관 △고문 방준식 △편집국장(스포츠본부장 겸) 백문기 △스포츠본부 부본부장 신창범 △웰니스본부장 이동혁 △경영지원〃(경영기획실장 겸) 박진형 △총무판매팀장 이영덕 ◇팀장 △스포츠1 민창기 △〃2 정현석 △경제산업 전상희 △엔터테인먼트 이재훈 △e-테크 박진열 △온라인마케팅 김영하 △모바일 전영지<br/><br/>⊙ 아주경제 △산업부장(부국장) 김종수 △경제〃 김태균<br/><br/>⊙ 아시아엔 △총괄고문 구명수 △보건영양 논설위원 박명윤 ◇전문기자 △중동지역 라드와 아시라프 △터키·코카서스·러시아〃 메흐멧 F 오즈타르수<br/><br/>⊙ 이투데이 △편집국 대기자 최영진 △〃 러시아 주재기자 전명수<br/><br/>⊙ 전자신문 ◇편집국 △편집부 최희재 △통신방송부 김원배 △SW콘텐츠부 이호준 ◇미디어인쇄센터 △전산제작팀 부장대우 강봉기 ◇광고마케팅국 △마케팅2팀 부장대우 봉기녕<br/><br/>⊙ 경일대 △창업지원단장 강형구 △예체능대학장 김영숙<br/><br/>⊙ 배재대 △대학일자리창조본부 본부장 이채현 △입학학생처장 김우승 △한국어교육원장 지현숙 △대덕밸리캠퍼스 IPP사업단장 채순기 ◇센터장 △장애학생지원(입학학생처부처장·입학사정관실장 겸) 최웅재 △건강증진 김윤정 △배재인권 김동건 △나섬인성교육 심혜령<br/><br/>⊙ 신라대 △재무처장 이영식<br/><br/>⊙ 호원대 △입학처장(대외협력처장 겸) 장병권<br/><br/>⊙ 하나카드 △채널영업본부장 손창석 △경영지원〃 송종근 ◇팀장 △마케팅기획 권경택 △영업〃 우종수 △전략〃 한경호 △개인정보보호 정상돈 △소비자〃 고경자 △CRM마케팅 장순곤 △가맹점〃 변영규 △법인영업 박노진 △핀테크사업 황인성 △재무관리 홍윤기 △인사총무 김성주 △업무 강종근 △IT 김병섭 △준법지원 홍상석 ◇지점장 △대구 김상현 △부산 박현경 △인천 한준<br/><br/>⊙ 알리안츠생명 △강남지역단장 신한식 △대전〃 탁정근 △AA영업교육부장 박경수 ◇지역단장 △수원 신일용 △서부 신완섭 △경기 조성국 △북부 김완일 △동래 황재복 △창원 오재근 △전주 강희순 △AA영업기획부장 조경섭<br/><br/>⊙ IBK투자증권 △SME금융팀장 윤일승<br/><br/>⊙ 동국제약 △수석부사장 박목순 △연구개발 〃 유병기 △헬스케어 전무 이종진 ◇전무보 △전략기획 송준호 △메디컬마케팅 박희순 △I&I〃 박재원 △중앙연구소장 김정훈 △생산지원 상무보 이규진 △구매 〃 구재성 △I&I영업 이사 양희성 △생산 이사대우 윤덕중 임일호 △재경 〃 김홍기<br/><br/>⊙ 대신정보통신 ◇인프라사업본부 △전무이사 최성철 △상무이사 양시영 △〃 박학증 △SI5사업본부 이사 박명렬 △이사대우 장동환 유재호 강현 이훈상 김상환 박희형 추교진 강훈모 최정문 박세준<br/><br/>⊙ 미래엔 ◇상무보 △본사 교과서개발본부 본부장 김훈범 △〃 미래전략실장 배수영 ◇전무 △미래엔인천에너지 경영기획실장 최영태 ◇이사 △미래엔서해에너지 경영기획본부장 송민섭<br/><br/>⊙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경영관리본부장 정기숙 △주식운용〃 김흥직 △법인영업본부 법인영업2팀부장 장민철<br/><br/>⊙ 태평양물산 △프라우덴 사업부 본부장 서정균<br/><br/>⊙ 화성산업 △재무이사 장복태 △이사 신동훈 정종수 이남호 △부장 이영철 박상일 권기준 김진철 최병일 정필재 홍영암<br/><br/>⊙ BGF리테일 △상품·마케팅부문장(상품본부장 겸) 류왕선 △SCM실장 오세준 △대표 배본직 △경영지원팀장 박종호 △운영〃 이호일 ◇센터장 △용인 이명환 △강화 이제영 △화성 김준구 △수지 이정로 △인천 홍선 △대표 오정후 △PS지원팀장 정동환<br/><br/>⊙ KR선물 △부사장 오성만 △이사 김대준　 <br/><br/><br/>■ 유승민 “당에 돌아가 대통령 주변 간신들 다 물리치겠다” <br/><br/>■ ‘안철수 힘내라’…새누리, 야권 ‘이간질’ 응원전 진풍경 <br/><br/>■ ‘촬영 방해된다’ 금강송 자른 사진가 전시회가 예술의전당에서? <br/><br/>■ [카드뉴스] ‘최고 존엄’과 ‘존영’…조선은 하나다?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5.txt

제목: [세상 읽기] 청년, 아프니까 걱정이다 / 김창엽  
날짜: 2016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30203545965  
본문: 청년의 건강을 걱정하는 시대. 어디를 봐도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지금껏 청년은 건강과 동의어였다. 건강보험이 하라는 검진도 40살이 하한선이 아닌가. 내가 일하는 보건 분야에서는 아예 ‘문제’도 아니었다.<br/><br/> 그 익숙한 생각을 고쳐야 할 모양이다. 청년이 온갖 건강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소식이 매일 이어진다. 최근 기사 몇 가지다. ‘청년 세대, 격차 확대’, ‘몸 둘 데 없는 독서실서 살아봤나요’, ‘청년, 빈곤층 내몰려’…. 건강이나 보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다. 모두 질병 ‘폭탄’이다. 빈곤, 비정규노동, 야간노동, 식사, 주거, 사고….<br/><br/> 올해 초 한 청년단체가 내놓은 조사 결과는 더 생생하다. 밤에도 일하는 청년의 잠 부족, 불규칙한 식사, 휴식 부족이 심각했다. “<span class='quot0'>새벽 5시쯤이면 멍한 기분이 들었고,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이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span>” 이쯤 되면 건강을 운운하는 것도 사치다. 교대노동이 발암물질이나 마찬가지라지만, 새벽 5시 (나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비하면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br/><br/>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멀쩡하지 않으냐고. 건강위험은 그냥 ‘위험’일 뿐, 병은 아니지 않으냐고. 암도 적고 중풍도 덜 걸리니,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청년의 건강지표가 더 좋은 것이 사실이다. 위험을 견디는 청년 고유의 회복 능력도 작동할 것이다.<br/><br/> 반론에 답하기 전에,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부터 하고 싶다. 건강 능력 또는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땅히 성취해야 할 수준에 모자라는 ‘부족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청년은 당연히 덜 아플 권리가 있다.<br/><br/> 그들의 건강 문제를 과장이라 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더 해명해야 한다. 첫째는 누구나 아는 엄청난 사고와 자살. 한국의 20, 30대가 목숨을 잃는 핵심 이유이니 길게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온갖 새로운 사고까지 더해야 한다. 음식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청소년 중 산재가 승인된 교통사고 부상자만 한 해 500명에 가깝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한 해 평균 10명꼴이라고 한다. 그 많은 ‘알바’와 열악한 노동을 떠올리면 전모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br/><br/> ‘예정된’ 질병이 더 걱정스럽다. 최근의 건강 연구에서는 평생을 놓고 질병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데, 어떤 병은 ‘생애과정’ 내내 위험이 누적되어 발병한다고 한다. 심장병이 그렇고 중풍도 마찬가지다. 청년의 미래 건강이 어찌 아슬아슬하다 하지 않을까.<br/><br/> 위험의 원인이 ‘사회적’이라는 것이 더 안타깝다. 수면 부족과 배달 사고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빈곤과 노동, 열악한 식사와 주거 또한 사회적인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불평등 그 자체가 건강위험이라면?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정설이 된 지 오래다. 흙수저, 금수저라 말하는 사회 불평등이 몸과 마음에 새겨지고, 곧 아픔의 불평등으로 ‘증언’할 것이다.<br/><br/> 청년의 건강을 말하는 이유는 건강이 곧 정의이기 때문이다. 건강이 인적 ‘자본’을 보태고, 그래야 경제가 유지된다는 이유가 아니다. 훗날 노인 의료비가 걱정되기 때문은 더욱 아니다. ‘건강 정의’는 한 시점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공평함을 따진다. 그 평생에 청년의 ‘생애과정’을 빼놓을 수 없다.<br/><br/> 다쳤거나 앓고 있는 청년, 건강위험을 몸과 마음에 쌓고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 정의다. 병과 위험이 사회적인 것에 닿아 있다면, 그 정의는 또한 사회 정의다.<br/><br/>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br/><br/><br/>■ [카드뉴스] ‘최고 존엄’과 ‘존영’…조선은 하나다? <br/><br/>■ ‘탈박’중인 대구…“‘대통령 꼬붕’ 의원 사라져야죠” <br/><br/>■ 밀린 임금 달랬더니…10원짜리로 준 식당 사장의 ‘갑질’ <br/><br/>■ 여객기 납치범과 셀카 찍은 ‘황당’ 인질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6.txt

제목: 차보험, 실손보험 이어 보장성 보험까지…규제 풀린 보험료 줄줄이 인상  
날짜: 20160323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3195835093  
본문: 올해 들어 시작된 보험료 인상 릴레이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가 대폭 오른 데 이어 보장성보험료도 잇따라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료 자율화 조처가 결국 보험료 인상의 명분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br/><br/> 23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종신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0~15% 인상할 계획이다. <br/><br/> 이들 보험사는 이르면 4월1일부터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 이율’을 0.25~0.5%포인트까지 내리기로 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만기까지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결국 오르게 된다. 대체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5~10% 정도 오른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br/><br/>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은 현재 3.0%인 예정이율을 2.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 흥국생명도 현재 3.25%인 예정이율을 2.9%로 0.3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아직 예정이율 인하 폭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3.0%에서 2.7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들도 비슷한 폭으로 예정이율을 낮출 계획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이미 지난해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나 예정이율을 인하한 바 있다. <br/><br/> 고삐가 풀린 건 보장성보험만이 아니다. 앞서 ‘준조세’나 다름없는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2~8%씩 올랐으며,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 역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인상됐다. <br/><br/> 보험사들은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악화와 초저금리로 인한 수익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해 보험사가 거둔 막대한 순이익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모두 6조279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br/><br/> 이렇게 보험료들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금융당국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이 결국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자율화 조처를 발표할 때 보험사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br/><br/>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상이 억제됐던 보험료가 일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자동차보험이 속속 출시되는 등 가격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 상품 다양화와 함께 가격 경쟁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b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br/><br/><br/>■ 김무성 “유승민 공천 얘기했다”… 조해진 “면피용 한 마디” <br/><br/>■ 더민주, ‘알파고가 박경미 교수 비례 1번 시켜’? <br/><br/>■ 아이와 함께 가면 좋은 한강시민공원 4곳 <br/><br/>■ ‘인간’ 배트맨, ‘신’ 슈퍼맨 이길 수 있을까?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7.txt

제목: 병원 규모, 입원 일수 등에 따라 입원비 달라져요  
날짜: 2016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2191248328  
본문: Q: 어머니가 관절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해 놓았나요? 또 입원료는 입원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br/><br/><br/><br/>A: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시행령 등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입원과 퇴원 결정, 입원 기간은 질병의 종류 및 치료 경과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 입원료는 입원하는 병원의 규모, 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따라 다르고, 같은 병원의 규모라도 일반병실, 격리실, 중환자실 등 병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한 병실에 병상 수가 몇 개 있느냐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수 등도 입원비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하루당 기준 비용이 결정됩니다. <br/><br/> 이처럼 여러 요소를 고려한 입원료 기준 비용에 따라 결정된 입원료는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조정됩니다. 입원료는 입원 기간이 1~15일에는 입원료 기준 비용의 100%로, 입원 기간이 16~30일이면 입원료 기준 비용의 90%로 산정됩니다. 또 입원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는 입원료 기준 비용의 85%로 정해집니다. 수술 뒤 회복 단계에 이르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료서비스가 줄어들고,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방식으로 산정된 입원료 가운데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체 입원료의 20%이고, 암 등 중증질환은 부담 비율이 더 낮습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br/><br/><br/>■ 문재인, 김종인 사퇴 만류…“비례대표, 노욕 아니다” <br/><br/>■ 백남기 농민 가족, 국가에 2억4000만원 손배소 <br/><br/>■ [카드쏙 칼럼] 우리가 ‘세월호 유족’에 느꼈던 것은 그저 동정이었나 <br/><br/>■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1순위는 ○○?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8.txt

제목: 초등학교 우레탄트랙에서 납 허용치 최고 100배 검출  
날짜: 20160322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2143635602  
본문: 초등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의 절반 이상에서 중금속인 납이 허용 기준치의 최고 100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30곳에 불과해 우레탄트랙이 깔린 초등학교 1323곳 모두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br/><br/> 환경부는 22일 “<span class='quot0'>지난해 5~12월 수도권의 초등학교 30곳에 있는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에 대해 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레탄트랙 25개 가운데 13개가 한국산업표준(KS) 납 기준치 9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밝혔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조사는 납·카드뮴·크롬·아연·수은·비소 등 6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7종을 대상으로 했다. 한 초등학교 우레탄트랙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07배인 최고 9585㎎/㎏이 나왔다. 납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신경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금속이다.<br/><br/> 또 우레탄트랙에서 프탈레이트 7종 가운데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1종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는 없으나,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는 완구는 회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가소제인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는 독성을 지녀 간·신장·심장·폐·혈액에 유해하고 수컷 실험쥐의 정자수 감소를 일으키거나 정자 디엔에이를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30개 학교에 모두 설치된 인조잔디나 충진재에서는 기준치를 넘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br/><br/> 조사활동을 맡은 임영욱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30개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을 이용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해보니, 납과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위해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span>”고 말했다.<br/><br/> 어린이의 평균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발암위해도는 0.329×10-⁴로 분석됐다. 이는 평생 노출됐을 때 10만명 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발암위해도)을 3.29배 초과한 것이다. 납 위해도는 1.24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허용량보다 1.24배 많이 노출됐다는 의미다.<br/><br/> 환경부는 “어린이들이 우레탄트랙에서 활동하다 유해물질이 묻은 손을 입으로 가져갈 때 가장 많이 몸속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어린이들이 우레탄트랙 바닥에 앉지 않도록 하고 야외활동 뒤에는 손씻기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6011곳 가운데 인조잔디가 설치된 곳은 795개교,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곳은 1323개교이다.<br/><br/>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교육부에 조사 내용을 알려 어린이 예방활동과 추가 조사 등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 대상 학교 가운데 유해물질이 검출된 곳에 조사 결과를 알리는 문제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br/><br/><br/>■ 문재인, 김종인 사퇴 만류…“비례대표, 노욕 아니다” <br/><br/>■ 백남기 농민 가족, 국가에 2억4000만원 손배소 <br/><br/>■ [카드쏙 칼럼] 우리가 ‘세월호 유족’에 느꼈던 것은 그저 동정이었나 <br/><br/>■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1순위는 ○○?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199.txt

제목: 노답 세대-80대 할머니 이어주려 ‘시간을 잡은 소녀들’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1194035588  
본문: “선생님이 나더러 ‘노답’이래요. 진짜 ‘발암’이네요. 그냥 ‘개샹 마이웨이’ 할래요.”<br/><br/>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말짓’하지 말고 ‘개로우’니까 ‘싸게’ 여기나 좀 긁어봐.”<br/><br/> 요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은어와 어르신들이 쓰는 옛날 전라도 사투리를 손녀와 할머니의 대화 형식으로 기자가 지어낸 것이다. 둘 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br/><br/> 이 대화에 나온 단어들은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고 여학생 네 명이 만든 (이하 시잡소)에 실린 것이다. 애늙은이과면서 4차원인 문은혜, 귀여운 소녀지만 입이 다소 거친 편인 권오영, 셀카 여신이자 부모님을 잘 돕는 주부 9단 심소희, 고전적 머리스타일을 한 ‘조선시대 여인’ 임예빈양은 지난 1월 시잡소를 창간했다. <br/><br/> “잡지를 어르신이나 청소년들 모두 볼 텐데 누가 봐도 공감이 가야 재미있어 하고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했다. 모두의 이야기를 아우르면서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었다.”<br/><br/><br/><br/>하교 후 집으로 가는 버스 기다리며 <br/>친분 쌓은 완주 고산고 학생들 <br/>지역 공동체 물품 가게 주인장 제안해 <br/>‘세대 간 격차 줄이자’ 뜻 담은 잡지 창간<br/><br/><br/><br/>은어풀이 사전·할머니 비녀 속 사연 등 <br/>노년세대·청소년 소통 돕는 내용 담아<br/><br/> <br/><br/> 잡지를 들여다보니 여고생들만의 발랄함이 돋보인다. 노란색 표지는 캘리그라피로 직접 쓴 제목과 독특한 포즈의 단체사진으로 꾸몄다. 실제 찍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윤곽만 따낸 것이다. 각 페이지 숫자 옆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뜻을 담아 직접 그린 깜찍한 모래시계 그림이 있다. 표지 뒷면에는 ‘이 잡지는 디지털세대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든 300부 한정판-2000냥’이라고 써 있다. <br/><br/> 지난 14일 만난 소녀들은 인터뷰 자체를 신기해하면서도 왁자지껄 자신들의 색깔을 마음껏 드러냈다. 예빈양은 “시잡소는 과거와 현재를 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 시간의 간극을 줄여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를 위해 ‘은어풀이 사전’ 꼭지를 만들고 일명 ‘요즘 것들의 말’과 ‘구수한 말’(일명 전라도 어르신들의 언어)의 뜻풀이를 실었다. 언어의 벽을 허물고 세대를 엮어보자는 시도였다. 사전에 나온 설명 대로 앞에 나온 대화의 뜻풀이를 정확히 해보자면 이렇다. <br/><br/> “선생님이 나더러 답이 안나온다고 했어요. 진짜 암 걸릴 것처럼 답답하네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어요.”<br/><br/>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말썽 부리지 말고 가려우니까 빨리 여기나 좀 긁어주라.”<br/><br/> 여고생 4인방은 처음 우연한 계기로 뭉쳤다. 시골이다 보니 학교와 집까지의 거리가 멀었다. 집에 가는 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꼴.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근처 고산미소시장 안 ‘널리널리 홍홍’(이하 홍홍)에 모여들었다. 지역 창업공동체들의 물건을 모아서 판매하는 가게였다. 이곳 주인장은 아이들과 영상, 미디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장미경씨. 그는 ‘마을 사랑방’ 구실을 하는 홍홍에 모인 아이들에게 잡지 제작을 제안했다. 하릴없이 와서 수다만 떨다 가느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벌여보자 했던 것.<br/><br/> 아이들은 장씨의 말에 재미삼아 잡지 제작을 시작했다. 제호를 정하고 콘셉트를 잡고 세부 꼭지를 구성했다. 표지 디자인도 직접 했다. 각자 글쓰기나 삽화, 디자인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자연스레 맡았다.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한 은혜양은 “도서관에서 ‘인디자인 프로그램’ 관련 책을 찾아 독학했는데 너무 어려웠다”며 “마을소식지를 만드는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디자이너에게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직접 배웠다”고 말했다. <br/><br/> 옛것을 바라보는 소녀들의 시선은 다양했다. 특히 예빈양의 외할머니를 인터뷰한 기사 ‘할머니의 비녀’는 참신했다. 평생 엉덩이까지 기른 머리를 비녀로 쪽진 채 살아오신 윤옥례 할머니(85). “밭일하다 귀한 금비녀를 잃어버려 젓가락을 찌르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큰딸이 은비녀를 사가지고 왔더라. 아직도 그 비녀를 쓰고 있다.”<br/><br/> 소녀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은 뒤 말린 동백꽃 기름을 짜서 발랐다. 그렇게 해야 반질반질 해지기 때문이다”라는 당시의 머리카락 관리법도 알게 됐다. 오영양은 “할머니가 이야기하면서 직접 비녀로 내 머리카락 쪽을 지어줬는데 길이도 짧고 머릿결이 너무 부드러워서 잘 안됐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녀를 사용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제목의 팁도 실었다. ‘기름기가 없어야 머리가 뻣뻣해 비녀가 흘러내리지 않는다’, ‘머리가 길어야 여러번 꼬아서 비녀를 꽂기 적당하다’는 내용이었다.<br/><br/> 이들은 과거의 물건인 필름카메라로 고산읍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일명 ‘과거로 찍은 현재’ 꼭지다. 마을 어른들이 기증한 펜탁스, 미놀타 토크맨 등의 카메라를 사용했다. 평소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마구 찍고 확인한 뒤 바로바로 쉽게 지웠다. 하지만 필름카메라를 든 뒤 어떤 장면을 담을지 찬찬히 생각했다. 동네사진관에 현상을 맡긴 뒤 기다리는 것도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붙드는 일이었다. <br/><br/> 은혜양은 “수정을 못하니까 사진 찍을 때마다 긴장했다. 한 번 찍고 필름이 몇 컷 남았는지 세어 보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하며 셔터를 눌렀다”고 말했다. <br/><br/> 장씨는 아이들이 최대한 주도적으로 나서 즐기게 하려고 닦달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은 마을 주민들에게 소문을 내는 거였다.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잘했다고 응원해달라고 부탁했다”. <br/><br/>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입시와 관련한 진로활동에만 치중하며 스펙 쌓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시잡소 여고생들은 학교에 알리지 않고 순수하게 ‘재미와 자율’로 잡지를 제작했다. <br/><br/> “학교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며 우리더러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한다. 하지만 잡지를 만들면서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친구들로부터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들도 접하게 됐다. 친구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좋아하는 걸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동료라는 걸 느꼈다.” 이들은 예상외의 뜨거운 반응 속에 현재 2호를 준비 중이다. <br/><br/>최화진 기자 lotus57@hanedui.com<br/><br/> <br/><br/><br/>■ 김종인 “DJ 돈 없어 12번 받았지만 난 그런 식으로 안해” <br/><br/>■ [단독] 황교안 총리 승용차, 서울역 플랫폼 직행 논란 <br/><br/>■ 유승민 공천 결정 또 미뤄…“22일 밤 9시에” <br/><br/>■ 박근혜 대통령, “<span class='quot0'>본인 정치 위해 나라 멈추지 않도록</span>”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0.txt

제목: 18년간 말기암환자 돌보다…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1193040860  
본문: 18년간 형편이 어려운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배웅해온 의사 정미경(사진)씨가 봉사상을 받기 1주일 전 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향년 57.<br/><br/> 전진상의원의 의사인 정씨는 ‘제3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 14일 별세해 21일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상은 보령제약과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한국의 슈바이처’를 발굴하고자 제정했다.<br/><br/> 1985년 이화여대 의대를 나와 89년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가정의학 전문의 자격을 딴 정씨는 용인정신병원 가정의학과장을 거쳐 95년 세화의원 원장으로 일했다. 96년 국제가톨릭형제회에 가입한 그는 이듬해부터 전진상의원에 상주하면서 호스피스 담당 의사로서 말기 환자 300여명을 보살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제안으로 74년에 문을 연 의료복지기관인 전진상의원은 ‘온전한 봉헌, 참사랑, 늘 기쁨’(全眞常)의 뜻을 지니고 있다.<br/><br/> 고인은 2008년 암 진단을 받았으나 스스로 의사가 된 이유였던 ‘봉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은 배동한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천안병원 산부인과), 박관태 몽골국립의대 교수(이식혈관외과), 박영환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 정성헌 광주 선한병원장, 국군의무사령부, 경기도 광주시 외국인의료봉사회가 받았다.<br/><br/>김경애 기자 <br/><br/><br/>■ 김종인 “DJ 돈 없어 12번 받았지만 난 그런 식으로 안해” <br/><br/>■ [단독] 황교안 총리 승용차, 서울역 플랫폼 직행 논란 <br/><br/>■ 유승민 공천 결정 또 미뤄…“22일 밤 9시에” <br/><br/>■ 박근혜 대통령, “<span class='quot0'>본인 정치 위해 나라 멈추지 않도록</span>”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1.txt

제목: 주력 수출기업 80% “주력 제품, 성숙·쇠퇴기 진입”  
날짜: 20160321  
기자: 곽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1145756793  
본문: 수출 주력 산업에 속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은 주력 제품의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성숙기나 쇠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br/><br/>대한상의(회자 박용만)는 21일 가전·휴대폰·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13대 주력 수출 산업에 속한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신사업 추진 실태와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3%가 주력 제품의 매출 확대가 더디고 가격과 이익이 점점 떨어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기업은 12.2%였다. 성숙기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응답한 기업을 합치면 78.5%에 달한다.<br/><br/>반면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높은 이익을 거두는 ‘성장기’라고 응답한 기업은 21.5%에 그쳤다. 새로운 시장이 태동하는 ‘도입기’라는 곳은 아예 없었다. <br/><br/>업종별로 보면 성숙기라고 답한 업체는 컴퓨터(80%), 섬유(75%), 평판디스플레이(72.2%), 휴대폰(무선통신기기ㆍ71.4%)에서 많았다. 자동차(50%), 반도체(41.7%)는 비교적 적었다. 쇠퇴기라는 응답은 선박(26.1%), 섬유(25%), 평판디스플레이(22.2%) 순으로 많았다. <br/><br/>대한상의는 “섬유·조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뿐 아니라 시장이 포화하고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된 정보기술(IT)산업까지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도 후발국의 추격과 시장 변화가 빨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br/><br/>이런 주력 제품의 성장 둔화에 대응해 응답 기업의 86.6%는 “신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47.9%), 신소재·나노(28.6%), 에너지 신산업(26.1%), 서비스산업 결합(9.7%), 바이오헬스(5.9%)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사물인터넷과·스마트홈(43.9%), 드론 및·무인기기(30%), 3D 프린팅(12.3%), 인공지능 및 로봇(11.5%), 가상·증강현실 시스템(4.3%)을 들었다.<br/><br/>그러나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초기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가능성 검토 단계’(56.6%)와 ‘구상 단계’(9.3%) 등 시작 단계에 있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 등 착수 단계’(23.2%)와 ‘출시 단계’(10.5%), ‘마무리 단계’(0.4%)에 있는 기업보다 훨씬 많았다. <br/><br/>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신산업시장의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느끼고 있다. 규제를 풀어 투자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노동개혁과 규제 정비 등의 노력을 강조했다. <br/><br/>곽정수 선임기자jskwak@hani.co.kr<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아버지 뭐하시노’…대입 학생부 전형의 현실 <br/><br/>■ 박종희 “유승민은 경선 어렵다, 조윤선은 용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2.txt

제목: 화성 농수로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날짜: 20160321  
기자: 김기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1142740906  
본문: 경기도 화성시 한 농수로에서 속옷만 입은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주검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을 들어 ‘사고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사고를 위장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br/><br/> 21일 화성서부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께 화성시 장안면 한 수로에서 김아무개(47·여)씨가 엎드려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br/><br/> 발견 당시 김씨는 속옷 하의만 입고 있었으며, 몸에 멍 자국이나 긁힌 상처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돼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보도 옆에 있는 수로는 깊이 2ｍ50㎝, 폭 4ｍ40㎝ 가량이지만, 당시에는 깊이 50㎝가량의 물이 차 있던 상태였다.<br/><br/> 경찰은 21일 김씨에 대한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span class='quot0'>직접적인 사인이 된 (주검의)손상은 없고, 익사 가능성이 있다</span>”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앞서 검안 당시 주검에서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주검에 나타나는 반점)이 관찰됐는데, 이는 익사나 저체온증,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발견된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80대 어머니와 사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랫동안 정실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br/><br/> 경찰은 주검 발견 직후 수색 과정에서 김씨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 등을 발견해 확인 중이며,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집 밖으로 외출하는 장면이 근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에 찍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경찰 관계자는 “김씨 몸에 난 멍 자국이나 긁힌 자국은 수로에 떨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사일 가능성이 크지만, 주검이 속옷만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이 석연치 않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김씨 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관련 약이 발견돼 의료기록 등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br/><br/><br/><br/>화성/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br/><b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아버지 뭐하시노’…대입 학생부 전형의 현실 <br/><br/>■ 박종희 “유승민은 경선 어렵다, 조윤선은 용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3.txt

제목: 인터뷰 빌미 여성 신체 촬영…아프리카TV 진행자 2명 기소  
날짜: 20160321  
기자: 정환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1113553140  
본문: 인터넷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진행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br/><br/>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받지 않고 촬영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이른바 ‘헌팅 방송’을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아프리카 티브이(TV) 방송 진행자 김아무개(2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br/><br/>김씨는 지난해 4월13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이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아프리카 티브이에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10대 여성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같은 방식으로 방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br/><br/>김씨 등은 아프리카 티브이에서 인기를 끌어 시청자들이 선물하는 ‘별풍선 아이템’(1개당 60원)을 받고 이를 환전해 돈을 벌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r/><br/>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아버지 뭐하시노’…대입 학생부 전형의 현실 <br/><br/>■ 박종희 “유승민은 경선 어렵다, 조윤선은 용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4.txt

제목: ‘포스코 비리’ 기소 정준양, “한자 공부 하겠다” 중국행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1113552001  
본문: 회사에 1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재판 도중 한자 공부를 하겠다며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br/><br/>21일 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는 최근 정 전 회장에게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정 전 회장은 18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칭다오로 여행을 떠나겠다며 지난 10일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냈고,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이를 허가했다. 정 전 회장은 한자 공부를 이유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정 전 회장이 국외여행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닷새간 휴가차 라오스로 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br/><br/>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판준비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꼭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가족이 국외에 거주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국외여행을 허가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다.<br/><br/>정 전 회장은 위험 부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상득 전 의원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청탁을 한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배임)로 지난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br/><br/>현소은 기자 soni@hani.co.kr<br/><br/> <br/><b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아버지 뭐하시노’…대입 학생부 전형의 현실 <br/><br/>■ 박종희 “유승민은 경선 어렵다, 조윤선은 용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5.txt

제목: 피자배달 로봇 첫선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1094350500  
본문: 로봇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피자 배달원도 포함시켜야 할까? 배달 드론에 이어 배달 로봇까지 모습을 드러냈다.<br/><br/> 도미노피자 오스트레일리아 법인은 세계 처음으로 피자 배달용 로봇 ‘드루(DRU=Domino Robotic Unit)’를 개발해 시험중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드루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위산업체 마라톤 로보틱스(Marathon Robotics)와 함께 군 훈련용 이동표적 로봇을 개조해 만들었다. 이동표적 로봇은 이 회사가 개발해 2008년부터 군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다.<br/><br/>드루는 네바퀴가 달린 자율주행차량으로, GPS 장치를 이용해 배달 목적지를 찾아간다. 차도가 아닌 인도나 오솔길, 자전거 도로를 다니도록 설계돼 있다. 속도는 최대 시속 20㎞다. 따라서 원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의 배달에 적합하다. 한 번 충전에 최대 20킬로미터까지 오갈 수 있다.<br/><br/>드루는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라이더 시스템과 센서를 갖추고 있어, 장애물이 나타나면 이를 감지해 피한다. 드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고객은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보안코드를 로봇에 입력하고 피자를 꺼내면 된다. 피자와 콜라는 각각 따뜻하고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온장고와 냉장고 속에 분리 보관된 상태로 배달된다. 최대 피자 10판까지 배달 가능하다.<br/><br/>▶동영상<br/><br/>도미노는 지난 몇달간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와 협의 아래 준자율주행 상태로 피자 시범배달 테스트를 해왔다. 돈 메이지(Don Meij) 도미노 시이오는 “드루는 앞으로 일어날 피자주문배달 시스템 혁명의 첫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br/><br/> 드루가 당장 피자 배달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도미노는 드루를 실제 배달 현장에 투입하려면 2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몇가지 기술적 문제와 도로 주행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br/><br/> 도미노는 그러나 드루가 배달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피자배달원 일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지 시이오는 “도미노는 현재 전기자전거, 오토바이,차량 등 세 가지 형태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 드루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br/><br/> 곽노필 기자 nopil@hani.co.kr<br/><br/><br/><br/> ▶곽노필의 미래창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진영 더민주행…청 “대통령을 계파 수장으로 깎아내려” 격앙 <br/><br/>■ 빠지면 답도 없는 ‘중년파탈’, 그 치명적 매력 비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6.txt

제목: 부모가 알레르기면 자식도?  
날짜: 20160320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1113550859  
본문: 부모가 알레르기면 자식도?<br/><br/>알레르기는 면역글로불린-E(IgE)가 오리나무 꽃가루 등 특정 알레르기 항원에 오인 반응해 생긴다. 따라서 주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성 질환이지만 많은 경우 유전적 요인의 영향도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알레르기 환자면 자식이 알레르기 환자가 될 확률을 60%로 보고 있다. 부모가 모두 알레르기 환자면 확률이 80%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알레르기 발생만 같을 뿐 알레르기 종류는 다를 수 있다. 아빠는 집먼지 알레르기가 있고 엄마는 돼지풀 알레르기인데 아이는 자작나무 알레르기 증세를 보일 수 있다.<br/><br/> 오재원 한양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 갈수록 알레르기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식구라도 증세를 일으키는 항원이 다른 것은 알레르기 유전자는 같은데 다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전자 염기 1000개당 1개꼴로 달라지는 단일유전자변이(SNP)는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더라도 면역글로불린-E가 결합하는 항원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서다.<br/><br/> 평소 괜찮다가 알레르기 항원이 겹칠 때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고양이와 강아지 모두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던 사람이 두 동물을 한꺼번에 기를 때 두 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br/><br/><br/><br/>소나무 알레르기는 없나?<br/><br/>우리나라 수목의 50%는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천식 환자의 7.3%, 알레르기성 비염 및 결막염 환자의 16.9%가 소나무류 꽃가루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br/><br/> 하지만 삼나무가 70%인 일본 국민이 봄철마다 알레르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소나무 꽃가루 알레르기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기상청은 꽃가루농도위험지수를 소나무와 참나무, 잡초류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송홧가루가 참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를 자극해 증세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소나무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알레르기 환자들이 괴로워하지만 원인은 송홧가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br/><br/> 이근영 선임기자<br/><br/><br/><br/>생활 속에 숨은 과학 원리가 궁금하시면 전자우편을 보내주십시오. 성심껏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kylee@hani.co.kr<br/><b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아버지 뭐하시노’…대입 학생부 전형의 현실 <br/><br/>■ 박종희 “유승민은 경선 어렵다, 조윤선은 용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7.txt

제목: 카카오 앱택시 1년 만에 8천만 ‘콜’  
날짜: 20160320  
기자: 김재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1104441082  
본문: 이용자들은 에스케이텔레콤(SKT)·카카오·네이버의 생활가치 서비스 경쟁이 마냥 반갑다. 덕분에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들이 ‘오투오’(O2O)란 이름으로 각 분야에 진출하는 모습에 ‘문어발 확장’이란 경계심도 갖지만, 그러면서도 반긴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 등 후발 사업자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경쟁에 가세하려 하고 있다.<br/><br/>당장 일부 서비스는 일상 모습을 크게 바꾸었다. ‘카카오택시’와 에스케이플래닛(SKP)의 ‘티맵택시’의 콜택시 서비스가 대표적 사례다. 이전에는 택시를 이용할 때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거나 전화로 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이용하는 문화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br/><br/>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콜택시의 위치와 소요시간, 요금까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또 사업자들이 ‘검증된’ 택시 운전사만 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안심도를 높였다. 오는 31일로 만 1년이 되는 카카오택시만 해도, 지난 2월22일 현재 기사 회원이 21만명에 달하고, 누적 호출 건수가 8천만건을 넘었다. 티맵택시를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br/><br/>‘카카오 선물하기’와 에스케이플래닛의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도 생활 속으로 자리잡고 있다. 친구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때 이 서비스를 통해 케이크를 선물하고, 커피 한잔으로 부담 없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문화가 익숙해졌다. 네이버 지도는 행인을 붙들고 길을 물어보는 문화를 바꾸었다. 젊은층은 길을 몰라도 스마트폰 네이버 지도 서비스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헤어샵’, ‘반려동물포털’, ‘모바일헬스케어’ 등도 마찬가지로 생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br/><br/>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진영 더민주행…청 “대통령을 계파 수장으로 깎아내려” 격앙 <br/><br/>■ 빠지면 답도 없는 ‘중년파탈’, 그 치명적 매력 비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8.txt

제목: SKT-카카오-네이버가 맞붙는다…‘생활가치’가 뭐길래?  
날짜: 20160320  
기자: 김재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1104439875  
본문: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올해 초 조직을 개편하면서 핵심 부서인 ‘마케팅 부문’의 이름을 ‘생활가치 부문’이라고 바꿨다. 또한 ‘티-밸리’란 팀을 신설해 “생활가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이 업체는 이어 지난 2일에는 자회사인 에스케이플래닛(SKP)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부를 분리해 ‘에스케이테크엑스’라는 이름의 또다른 자회사로 만들면서 “생활가치 플랫폼의 핵심 구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느닷없이 ‘생활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꼴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생활가치를 “<span class='quot0'>고객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치</span>”라고 정의했다. 생활가치 플랫폼은 “생활가치 서비스를 개방형 생태계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반려동물 전용 포털 서비스, 중고 패션 아이템 거래 서비스, 자녀 또래 친구를 묶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미용실 이용 서비스 등을 들었다. 빠른 길을 찾아 안내해주는 ‘티맵’ 내비게이션, 인터넷은행, 간편결제 등도 생활가치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br/><br/>이동통신·포털·메신저 1위 기업 <br/>품질·가격경쟁 한계서 출구 찾기 <br/>‘일상 편리’ 연동한 서비스서 해답<br/><br/>“<span class='quot1'>생활가치 서비스 플랫폼 선점하라</span>” <br/>내비·모바일 상품권·간편결제서 출발 <br/>택시호출·미용실 예약 등 무한 확장<br/><br/>성숙한 시장서 경쟁 촉진 선순환 <br/>생활변화 이어 새 산업 생태계 창출 <br/><br/>앞서 카카오도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와 합병하면서 ‘생활가치’를 내세웠다. ‘모바일 라이프’라는 영어 표현을 썼을 뿐 실체는 같다. 이후 카카오는 관련 서비스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 타게 하는 ‘카카오택시’, 스마트폰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빠른 길을 찾아 안내해주는 ‘카카오내비’,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스마트폰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 있게 하는 ‘카카오드라이버’, 스마트폰으로 미용실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하는 ‘카카오헤어샵’도 상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는 “<span class='quot2'>분기마다 한두 가지씩 새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이로써 에스케이텔레콤과 카카오가 맞붙는 시장 면적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두 기업이 각각 이동통신과 메신저(카카오톡) 사업에 집중할 때는 서로 거리가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똑같이 생활가치 서비스에 힘을 기울이면서 곳곳에서 맞붙는 일이 벌어진다. 이미 모바일 상품권, 내비, 모바일 택시, 간편결제 등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밌는 사실은 대기업인 에스케이텔레콤이 번번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 모바일 상품권과 모바일 택시 등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 에스케이플래닛이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나 신고할 정도로 신경전도 치열했다.<br/><br/>생활가치 서비스는 네이버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모바일 지도 앱에 내비 기능을 추가했다. 도시 소비자가 농산물을 산지에 직접 주문해 받아 먹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내놨다. 이 업체는 지난 10~11일 강원도 춘천 연수원(네이버 커넥트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가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네이버 핵 데이(Hack Day) 2016’을 열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사용자 가치에 초점을 둔 행사</span>”라며 “<span class='quot3'>이용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평가받은 프로젝트들을 선정해 사업화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이처럼 ‘생활가치’가 정보통신기술(ICT) 1등 기업들의 화두가 된 상황에 대해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고객 서비스’를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고객 이탈을 막으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전략으로 생활가치를 내세운다. 생활가치 서비스가 피자 위에 녹아든 끈적한 치즈 구실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피자를 만들 때 도(반죽) 위에 고기나 채소 토핑을 올린 뒤 그냥 구우면 먹을 때 다 떨어져나간다. 하지만 고기나 채소 위로 치즈 가루를 뿌려 구우면, 치즈가 고기와 채소 토핑을 붙잡으면서 피자 맛의 풍미도 키워준다.<br/><br/>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이 50%에 이른다. 매출과 영업이익 점유율은 이보다도 높다. 하지만 남다른 고민이 있다. 우선 가입자 점유율을 더는 늘리기 어렵다. 능력은 되지만 할 수 없다. 정부가 유효 경쟁체제 악화를 이유로 시퍼런 규제의 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씨제이(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합병하겠다고 하자 난리가 난 것도 이런 맥락이다.<br/><br/>카카오는 더 절박하다.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대박을 치고 ‘국민 메신저’란 칭송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카카오 경영진 쪽에서 보면, 이용자들을 믿을 수 없다. 언제 ‘배신’하고 떠날지 모른다. 2014년 10월 이른바 ‘카톡 감청’ 논란이 일었을 때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메신저 망명’ 사태가 벌어졌던 게 대표적이다. 최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또다시 메신저 망명 사태 조짐이 나타났다.<br/><br/>이런 고민은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막강한 검색과 이메일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지만, 언제 한 방에 훅 갈지 모른다. 이미 공안 정국이 조성될 때마다 구글 ‘지메일’로 ‘이메일 망명’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에 네이버는 정보·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을 재개할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앞서 네이버는 이용자 동의 없이 경찰 요청에 응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끝에 최종 승소하긴 했다. 하지만 자료 제공을 재개하자니 이용자 눈치가 보이고, 재개 거부를 선언하자니 정보·수사기관의 ‘심기’를 건드릴까 우려가 크다. 그래서 영장을 제시할 때만 요청에 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공식 발표도 못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통신자료 제공을 재개할지 고민중”이란 말만 되풀이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br/><br/>결국 이용자의 변심과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이들 기업의 처지에선 ‘생활의 편리’라는 끈끈한 치즈를 듬뿍 뿌려두는 게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는 셈이다.<br/><br/>게다가 생활가치 서비스는 이미 성숙한 시장에서도 새로운 경쟁수단으로 작용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 창출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span class='quot4'>통화 품질과 요금 수준이 비슷해진 상황인데다 사업자 간 칸막이도 거의 사라진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고객을 유인하고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을 방법은 생활가치 서비스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이 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span class='quot5'>경쟁업체 가입자들이 우리의 생활가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옮겨오고, 기존 가입자들은 이탈하면 익숙해진 서비스를 쓸 수 없어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자는 게 목표</span>”라고 설명했다.<br/><br/>카카오 역시 생활가치 서비스로 ‘카카오톡’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를 위해 ‘문어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생활가치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택시와 카카오 선물하기 등 일부는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 택시 이용자들이 “카카오택시가 없을 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이다. 카카오 선물하기로 커피 한잔과 케이크 한 조각 등 가벼운 호의를 주고받는 모습도 일상화했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카카오드라이버와 카카오헤어샵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던 무보험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br/><br/>업계 거물 간에 경쟁이 이뤄지다 보니, 생활가치 서비스의 종류가 빠르게 늘어나고, 기존 서비스의 이용 편리성이 좋아지는 순기능도 나타난다. 내비는 카카오가 김기사를 인수해 카카오내비를 내놓고, 네이버까지 가세해 에스케이텔레콤의 티맵과 함께 ‘3파전’이 벌어지면서 품질이 빠르게 좋아졌다. 안내 화면의 그래픽과 부가 정보 제공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는 상황이다. 모바일 상품권 역시 카카오가 뛰어들면서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을 사업자가 삼켜버리던 ‘낙전’ 문제가 해결됐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카카오와 기존 업체 간에 운전기사 처우 개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br/><br/>생활가치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인수합병 활성화로 신생 벤처기업들의 활로가 넓어지는 것도 주목된다. 카카오는 김기사와 멜론 등 굵직한 인수합병을 잇따라 진행해 관련 산업에 활력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span class='quot2'>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있다</span>”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span class='quot0'>생활가치 서비스 발굴을 위해 외부 업체와 제휴하거나 협업을 강화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진영 더민주행…청 “대통령을 계파 수장으로 깎아내려” 격앙 <br/><br/>■ 빠지면 답도 없는 ‘중년파탈’, 그 치명적 매력 비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09.txt

제목: 2년전 이사회 비판 성명서 냈다고… 건국대, 원로교수 ‘보복해임’ 논란  
날짜: 20160320  
기자: 최우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222307305  
본문: 건국대가 학교법인 이사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는 이유로 원로교수를 해임했다. 동료 교수들과 함께 낸 2년 전 성명을 이유로 해임한 것을 두고 학교가 보복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br/><br/> 20일 건국대와 해임된 안아무개(61) 교수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학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안 교수를 해임했다. 사유는 안 교수가 2014년 6월 건국대 원로교수모임 65명이 낸 성명서에 이름을 올려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학교가 문제삼은 성명서는 김경희 이사장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안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은 이 성명서에서 당시 김 이사장의 비리를 문제제기했다가 해임된 장영백 전 교수협의회 회장과 김진석 동문교수협의회장의 복직을 요구했으며, 또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송희영 건국대 총장의 사퇴를 주장했었다. 같은 해 1월 교육부는 김 이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br/><br/> 안 교수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이 쓴 성명서를 상경대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동참할 사람은 답장을 해달라는 것에 불과했는데 해임까지 당했다”며 “30년 이상 봉직한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황당하다. 학교가 2년이나 지난 일을 왜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br/><br/> 안 교수의 해임조처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보복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대학의 한 교수는 “<span class='quot0'>학생들에게 평도 좋고 학교를 위해 헌신한 교수를 학교가 느닷없이 징계했다</span>”며 “보복성 징계”라고 말했다. 응용통계학과 학생들은 지난 14~16일 안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해 이날까지 8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4일에는 이 대학 총동문회가 안 교수의 해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안 교수는 2013년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토대로 학교에서 뽑은 ‘베스트 티처’에 선정된 바 있다. <br/><br/>박태우 최우리 기자 ehot@hani.co.k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0.txt

제목: 특목고·자사고 입시, 꼭 안 가더라도 준비하라?  
날짜: 20160320  
기자: 진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210147382  
본문: “어머님들, 서울대가 좋아하는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과목, 이런 교과 수업 하는 데가 특목고·자사고예요. (현재 중2가 대학을 가는)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도 90점만 넘으면 다 A를 받는 성취평가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무조건 특목고·자사고 가는 게 답이에요.”<br/><br/> 지난 4일 저녁 대구에서 열린 한 입시업체의 ‘특목고·자사고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400여명은 대형 스크린에 중학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항목 등 주요 자료가 뜰 때마다 연신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을 찍었다.<br/><br/> “중학교 학생부 관리의 성공의 열쇠는 어머님이 학생과 한편이 돼서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특(세부능력·특기사항)에는 반드시 수학·과학 선생님들의 좋은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문 따고 들어가야 할 선생님이 되게 많구나 싶으시죠?” 학생부 관리에 있어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이 계속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엄마들은 성격도 좋아야 해”라는 자조가 터져나왔다.<br/><br/> 이날 설명회에 중1 아들과 함께 참석한 한 학부모는 2시간여의 설명회가 끝난 뒤 “방향을 못 잡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7살 때부터 원소기호를 외우고 화학 쪽에 특기를 보여온 아들의 과학고 진학을 위해 중학교 입학과 함께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그는 “초등학교 때 내가 일하느라 영재교육원 같은 데 신경을 못 써줬다”며 “소질이 있는 것하고 입시 결과랑은 별개라 엄마가 모르면 안 되는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다.<br/><br/> 소위 ‘명문대’ 입학에 특목고·자사고가 유리하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정설’로 자리잡으면서, 입시경쟁은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특목고·자사고의 소위 ‘자기주도학습전형’은 비교과 스펙을 중심으로 학생부를 반영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상당히 유사하다. 일종의 대입 ‘예비고사’인 셈이다.<br/><br/> ■ 사교육 스펙쌓기, 중학교부터 시작 서울 강남구의 ㅇ중은 ‘제니’(GENY·세계화교육문화재단 청소년단체)단을 운영한다. 모의유엔총회 3회, 청와대 견학 및 테이블매너 교실에서부터 비보잉·마임 등의 예체능 활동까지 모두 7가지 비교과 활동을 패키지로 묶어 단원들에게 제공한다. ㅇ중 학부모 ㄱ(46)씨는 “학부모들이 선행학습뿐 아니라 이런 비교과 스펙을 쌓는 데도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br/><br/> 특히 ㅇ중은 고등학생들이 대입을 위해 ‘과제연구’(R&E)를 하는 것처럼 방학 때 학생들에게 과학탐구보고서나 소논문을 쓰는 숙제를 내주기도 한다. ㄱ씨는 “대학생도 못 쓰는 소논문을 중학생이 쓴다”며 “학원에 가면 주제를 대여섯 개 정도 주고 아이가 고르면 일대일 맞춤으로 완성까지 도와준다. 학원에서 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ㅇ중이 스펙에 신경을 쓴다는 소문이 난 뒤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ㅇ중에 가려는 학부모들도 생겨나고 있다.<br/><br/> 강남구 학부모 ㄴ(44)씨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이과로 갈 애들은 과학이나 수학 학원을 추가하고 문과로 갈 애들은 전국 영어토론대회 준비를 위해 토론학원을 추가로 다닌다”며 “학생부에 외부 대회 수상 실적을 적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시사 내용을 접할 수 있어서 해본 애가 안 해본 애보다 면접에서 유리하다고 한다”고 말했다.<br/><br/> ■ “입시제도 바뀌면서 초등학생이 직격탄” 송파구 학부모 ㄷ(47)씨의 자녀는 6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중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을 시작했다. “애가 학교에 가서 ‘나 중학교 1학년 수학 한다’고 했더니 반 애들이 다 웃더래요. ‘이제야 그거 하냐’는 거죠.” ㄷ씨는 “함께 모임을 하는 한 학부모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도 수학·과학 선행을 시작했는데, 밤 10시에 학원 수업이 끝나면 새벽 1~2시까지 독서실에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새끼 과외를 붙여서 자습을 시키더라”며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들 하는 거 보면 정말 괴담 수준”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특목고·자사고 유리→특목고·자사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br/><br/> 선행학습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각종 경시대회 등 비교과 ‘스펙’ 때문이다. 학생부에 외부 대회 입상 경력을 적을 수 없음에도,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특목고·자사고 면접 볼 때 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준비하면서 뭘 느꼈다는 건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학부모 ㄷ씨는 “특목고에 못 가더라도 중학교 때 특목고·자사고 입시를 한번 준비해보면 입시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입을 준비하기 훨씬 수월하다고 학원에서 말하더라”며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홀린 듯이 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br/><br/>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아버지 뭐하시노’…대입 학생부 전형의 현실 <br/><br/>■ 박종희 “유승민은 경선 어렵다, 조윤선은 용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1.txt

제목: 학생부 전형, 현실은 ‘학생배경 전형’  
날짜: 20160320  
기자: 진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210146155  
본문: “<span class='quot0'>학생부 비교과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제가 흙수저 출신이란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span>”<br/><br/> 올해 경기도의 한 일반고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입학한 유시열(가명·19)군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한부모가정 출신이다. 과학고를 지망했지만 실패해 일반고에 진학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수시모집 일반전형에 지원했지만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탈락했다.<br/><br/> 중3 때 시작한 대학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만난 친구들 중 상당수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진학했다. 부유한 집안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각종 대회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구걸하다시피 할 때가 많았어요. 국제고 친구들은 과제 연구를 위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기도 했어요. 3학년 때는 자개소개서, 학생부 등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서류 준비를 패키지로 몇백만원 주고 하는 경우도 봤어요.” 유군은 “한국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이런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span class='quot0'>그런데 그 친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써서 대학 가는 게 이상한 일이냐’고 하더라고요.</span>”<br/><br/> 학교의 뒷받침도 달랐다.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과학경시대회에 나갈 때 과학 선생님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야 했어요. 제가 서류를 좀 늦게 제출했더니 선생님이 약간 힘들어하시면서, 선생님이 ‘네 일 말고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다’며 업무 목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일반고에서는 대회 나가고 이런 게 중시되지 않잖아요. 그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그때 알았죠.” 학생 스스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하며 논문까지 쓰는 과학고를 벤치마킹해 ‘과제 연구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지만 학교 예산이 부족해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직접 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받은 적도 있다.<br/><br/> 대부분의 주요 대학 입시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동아리·봉사·진로·독서 활동 같은 비교과 활동이 주요한 요소로 들어간다. 애초에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비교과 활동에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출신 고교는 이제 큰 변수가 되어버렸다. 사교육업계의 새로운 사업영역이기도 하다.<br/><br/><br/><br/>“<span class='quot0'>다 돈으로 만든 스펙인데 대학이 실정 너무 모른다</span>”<br/><br/><br/><br/>동아리·봉사·진로·독서활동 등 <br/>비교과,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요소 <br/>사회경제적 배경·출신고가 변수로<br/><br/><br/><br/>특목고 학부모들 사이 ‘정보경쟁’ <br/>교내경시대회에도 개인과외 붙여 <br/>‘비교과 코칭’ 2시간에 20만원<br/><br/><br/><br/>강남 3구 일반고 ‘교내비교과활동’ <br/>전문가 학부모 섭외 과제연구 진행 <br/>일반고에서는 따라하기 힘들어<br/><br/><br/><br/> ■ 정보가 생명…부모들의 ‘장외경쟁’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학부모 ㄱ씨의 딸은 올해 외고를 졸업하고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그는 딸의 외고 재학 시절, 동료 학부모와 팀을 꾸려 아이가 다닐 학원의 ‘커리큘럼’을 짰다. 아이를 서울대에 보낸 선배 엄마가 팀장 구실을 하며 자신이 검증한 교과·비교과의 사교육 정보를 전수했다. ㄱ씨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명령하면 다 따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했다”고 말했다.<br/><br/>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으로 입시 제도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부모의 ‘정보력’은 점점 당락을 가르는 주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의 ‘정보전’도 함께 치열해지고 있다.<br/><br/> 학부모 ㄴ씨(대치동)는 “특목고에 조카가 다닌다. 엄마들이 팀을 짜서 레슨을 돌리는데, 전화번호를 다른 학부모한테 노출한 엄마가 매장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ㄷ씨(대치동)는 “엄마들이 낮에 왜 바쁘겠냐. 누가 대학 잘 갔다는 얘기가 들리면, 직접 연락해서 정보를 얻는다. 학원에서 얻는 정보보다 실질적으로 진학에 성공한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진솔하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자식들을 대학에 다 보내고 ‘손을 턴’ 집이면 관계가 없는데, 아직 보낼 아이가 남아 있으면 중요한 정보는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br/><br/> ■ 비교과 스펙도 사교육 딸이 서울의 한 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모 ㄹ씨는 이번 새 학기부터 자녀가 참가를 원하는 교내 경시대회가 있으면 개인과외를 붙이기로 했다. 중간·기말고사 대비를 위해 월평균 200만원을 쓰는데, 추가 항목이 생기는 것이다. “아이 혼자 준비해서는 입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철학 경시대회라면 철학 개인과외를 붙여서 준비를 해요.” ㄹ씨는 “학교에서 학생부도 애들한테 써오게 해요. 그러면 사교육 컨설팅을 받아서 쓴 다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한 자도 안 틀리게 (나이스 등에) 올라가요. 다 돈으로 만든 스펙인데, 대학이 고등학교 실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돈을 써서 좋은 대학에 간들, 그게 내 능력이지 얘 능력이냐”며 한숨을 쉬었다. 학부모 ㄱ씨는 “우리 아이도 3명이 팀을 짜서 어학사전을 만드는 교내활동을 했는데 학원에서 150만원 정도 받고 도와줬다”며 “비교과는 교과보다 금액이 세다”고 덧붙였다.<br/><br/> 대치동에 있는 ‘ㄷ입시전략연구소’라는 이름의 학원은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프로그램’을, 3학년을 대상으로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기록부 프로그램은 비교과 코칭, 독서 코칭, 학습법 코칭의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비교과 코칭은 120분에 20만원으로 ‘학생부 구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 서술식 기재항목 평가요소와 기준, 진로에 맞는 활동 정리와 기재 연습, 학교별 교내 대회 조사, 희망 대학·학교 부교재’ 등으로 구성된다. 대치동에서 10년째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span class='quot1'>요즘 학원업계는 (영어 절대평가 등의 영향으로) 영어학원은 다 망하고, 수학학원과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학원으로 재편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학생부 컨설팅은 학생부 작성부터 교내 경시대회 준비, 소논문 작성까지 다 한다. 소논문 하나를 지도하고 완성하는 데 편당 800만원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br/><br/> ■ 금수저 학교만 가능한 고급 스펙 학교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이나 양도 큰 차이가 난다. 특히 고소득계층 출신이 많은 강남 3구 일반고나 특목고·자사고는 일반고에서는 따라 하기 힘든 프로그램도 만든다.<br/><br/> 강남구에 있는 일반고인 ㅇ고는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소논문을 쓰는 과제연구(R&E: 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을 ‘교내 비교과 활동’으로 운영한다. 연구를 지도해줄 전문가들을 구하는 데 큰 힘이 들지 않는다. 재학생 학부모나 동문 가운데 섭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ㅇ고는 매년 학기 초 ‘대학, 정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전문가적 역량을 가지신 학부모’를 모집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지난해엔 17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도교수로 참여해 ‘빅데이터 분석 사례 연구’ ‘폐암 진단을 위한 흉부 시티(CT)에서 대사증후군 여부 예측’ 등의 주제를 학생들과 연구했다. 이런 활동은 ‘교내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부의 ‘세부능력·특기사항’에 학생의 학업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과제연구는 학생부에 기록될 경우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수험생들이 믿고 있는 ‘고급 스펙’ 가운데 하나다.<br/><br/> 하지만 학교의 역량만으로 지도교수를 섭외할 수 없는 대다수 일반고의 학생들은 전교에서 경쟁을 통과한 한두 명만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대회에 나가 과제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마저도 ‘교외 활동’으로 간주돼 학생부에 수상 경력은 못 쓰고 참가 사실 정도만 기록할 수 있다. 올해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ㅇ고 출신 조현재(가명·19)군은 “원래 동대문구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부모님이 내 교육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를 하셨다”며 “학원 같은 다른 요소보다 과제연구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일 좋았다”고 말했다. <br/><br/>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br/><br/><br/><br/>[관련기사] <br/>▶특목고·자사고 입시, 곡 안 가더라도 준비하라? <br/>▶[단독] ‘금수저 고교’ 서울대 독식 더 심해졌다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2.txt

제목: [이번주엔] 바이올린 김수연+피아노 현영경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203141037  
본문: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피아니스트 현영경과 함께 연주회를 연다. 연주곡은 모차르트, 야나체크,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함께 바흐 무반주 파르티타 3번이다. 오는 25일 저녁 8시 서울 대학로 제이시시(JCC)아트센터 콘서트홀. (02)2138-7373~4.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3.txt

제목: [이번주엔] 박명수·뮤지·유재환의 ‘취한 하루’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203140663  
본문: 개그맨 박명수와 가수 뮤지, 유재환이 3월 마지막 금요일밤을 이태원에서 불태운다. 맥주를 마시며 신나게 음악을 즐기는 ‘취한 하루’ 콘셉트의 두 번째 공연으로 가수 윤종신이 큐레이터를 맡았다. 25일 저녁 8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진행된다. (02)3445-7881.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4.txt

제목: [이번주엔] 술탄오브더디스코+이디오테잎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203139785  
본문: 디스코 밴드 술탄오브더디스코와 일렉트로닉 그룹 이디오테잎이 합동콘서트 ‘에스오디(S.O.D) 스핀오프! #1’을 펼친다. 45분씩 공연한 뒤 15분간 두 밴드의 콜라보가 이루어진다. 26일 서울 홍대 앞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티켓 경매 m.allwin.co.kr, 문의 (02)508-0505. <br/><b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5.txt

제목: 조선 ‘한국 빅3’ 아성 깨졌다…일, 3위 진입  
날짜: 20160320  
기자: 김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202136028  
본문: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주도하던 세계 조선시장 구도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가뭄에 허덕이는 사이 일본 조선업체는 세계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br/><br/> 20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선그룹 기준으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그룹은 지난 2월 말 수주 잔량이 각각 882만5천CGT(표준화물 환산톤수, 204척)과 844만CGT(139척)으로 1위와 2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3위 삼성중공업그룹(508만1천CGT, 101척)은 일본의 이마바리조선그룹(696만4천CGT, 244척)에 자리를 물려주고 4위로 밀려났다. 일본의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도 세계 10위로 올라섰다. 수주 잔량은 조선업체가 확보한 일감의 양으로, 조선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다.<br/><br/> 과거 일본은 세계 최대 조선 강국으로 군림했으나 고임금과 비효율적인 생산 체제가 심화하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사양길을 걸었다. 그 틈을 한국 조선산업이 파고들어 불과 5년 전만 해도 국내 대형 조선 3사는 전세계 수주 시장의 70%를 장악했다. 10년 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됐던 일본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체력을 보강한 뒤 엔저를 앞세워 수주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현재 세계 조선 시장은 중국이 40%, 한국과 일본이 각각 30%를 점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이끌었던 세계 조선 ‘빅3’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해 한국 조선업체들이 해양플랜트 악재 등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일본 업체들이 수주를 쓸어담으며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span>”고 말했다.<br/><br/> 클락슨은 이번 평가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조선 상황을 우려하며 “<span class='quot1'>한국의 조선 3사가 지난해 7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으며 성동조선 또한 막대한 손실을 내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span>”고 짚었다.<br/><br/> 국내 조선산업의 입지는 중국 업체의 추격으로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말 수준 잔량 기준 5위는 양쯔쟝 홀딩스(331만1천CGT, 130척)였고 7위는 상하이 와이가오치아오(283만9천CGT, 74척), 9위는 후둥 중화(260만8천CGT, 55척)였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안정적인 수주를 받고 있어 일본 이마바리조선그룹처럼 한국 업체를 밀어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나온다.<br/><br/> 한국 업체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6위(297만9천CGT, 136척), 에스티엑스(STX)조선이 8위(261만2천CGT, 68척)로 10위권에 포진했으나 수주 경쟁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이다. <br/><br/>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6.txt

제목: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눈앞  
날짜: 20160320  
기자: 진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194020378  
본문: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가운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대다수 시·도 교육청이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정하는 등 사실상 직권면직 절차에 돌입했다. <br/><br/> 20일 교육부는 “<span class='quot0'>애초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라고 정한 시점인 18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한 시·도 교육청은 없다</span>”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사립학교 교원 1명이 직권면직을 당했으나, 이는 학교법인의 결정이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법외노조 판결 이후 89명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교육부의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인원은 서울 12명 등 모두 34명이다.<br/><br/> 교육부가 정한 1차 시한을 맞추지 못했지만 직권면직을 거부하는 시·도 교육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전남 교육청 등은 교육부에 직권면직 명령을 따르되 관련 절차를 4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각각 오는 29일과 31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수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br/><br/>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전교조 전임자가 미복귀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기간제 교사 충원도 할 수 없는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안타깝지만 소속 학교의 교원 충원 문제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 절차를 회피하기 어렵다</span>”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에는 직권면직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br/><br/>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7.txt

제목: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날짜: 20160320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194016630  
본문: ‘암을 예방하려면, 하루 한두 잔의 술도 안 됩니다.’<br/><br/> 보건복지부가 암 예방을 위해선 적은 양의 음주도 피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담은 ‘암 예방 수칙’을 20일 발표했다.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던 음주 관련 항목을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한 것이다.<br/><br/> 복지부는 음주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량의 음주로도 구강암과 식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탈리아 밀라노대학 빈센초 바그나르디 교수의 연구 결과(2012년)를 보면, 하루 한 잔(알코올 섭취량 12g 이하)에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증가했다. 미국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2011년)에서도 일주일에 3~6잔(하루 알코올 섭취량 5~10g)의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나 늘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암 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 항목을 기존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2003년)에서 ‘암 예방을 위해 음주하지 말 것’(2014년)으로 변경한 바 있다.<br/><br/> 2013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74%, 여성의 43%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다. 이 중 고위험 음주 유형이 14%를 차지하고, 남성이 여성에 견줘 3배 이상 높다. 한 해 3천명 이상이 음주로 인해 암에 걸리고, 1천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br/><br/> 또 복지부는 11~12살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암 예방 수칙에 추가했다. 대부분 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에이치피브이 감염은 성생활을 하는 여성 대부분이 평생 한 번 이상 감염되는데,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 없이 자연 소멸되지만 감염이 반복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br/><br/> 암 예방 수칙에는 이밖에도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br/><br/>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챌린저호 폭발 경고’ 기술자 “30년간 우울증…자책했다”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8.txt

제목: “세월호 특조위 활동, 결국 국민 위한 것인데…”  
날짜: 20160320  
기자: 박태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194015811  
본문: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미수습자 포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밤, 경기도 수원에서 활동하던 오지원(39·사진) 변호사의 꿈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나왔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오 변호사의 집 앞에 찾아와 웃고 있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컸던 오 변호사는 그길로 안산으로 달려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해 피해자 법률 지원에 나섰다. 그해 여름, 예정돼 있던 미국 연수를 떠났지만 일정을 두 달가량 앞당겨 귀국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그의 마음을 잡아끌었다.<br/><br/> 지난해 7월부터 오 변호사는 특조위에서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이란 새 직책으로 불리고 있다. 특조위 직원 9명과 함께 안산과 전남 진도, 인천, 제주 등을 돌며 아직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그의 일이다.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자리에선 눈물을 꾹 참았다가, 헤어지고 난 뒤 펑펑 운 날이 숱하다고 한다.<br/><br/> 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비롯해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2003년) 등 대형 참사가 많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재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에서 작성한 참사 백서를 보면 공무원의 시각으로 나열돼 있을 뿐 피해자의 시각으로 참사를 정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국가의 대응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 관련 매뉴얼과 교육훈련 방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 과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br/><br/> 특조위는 현재 △단원고 희생자 가족 △단원고 생존 학생과 가족 △일반인 승객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등 피해자군별로 나눠, 연구용역을 맡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내용을 만들어, 제대로 된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조위의 역할이다.<br/><br/> 오 과장 등은 특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밖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주검 수습에 참가했던 민간 잠수사들이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손실을 입은 진도 어민에 대한 보상 현황과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직권조사도 개시했다.<br/><br/> 이처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조위가 제 모양을 갖춘 건 지난해 7월 말이고, 예산은 6월 말까지만 배정된 상태다. 4명으로 시작한 피해자지원점검과 직원은 아직도 10명뿐이다. 정부는 보내주겠다던 파견 공무원을 넉 달째 보내지 않고 있다. 오 과장은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1년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활동의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쉽다”고 말했다.<br/><br/> 오 과장은 특히 특조위가 여야의 정치적 시빗거리로만 부각되면서, 특조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언제든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참사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자는 특조위 활동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b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진영 더민주행…청 “대통령을 계파 수장으로 깎아내려” 격앙 <br/><br/>■ 빠지면 답도 없는 ‘중년파탈’, 그 치명적 매력 비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19.txt

제목: 4살딸 암매장 “친엄마가 욕조서 가혹행위”  
날짜: 20160320  
기자: 오윤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194015165  
본문: 네살배기 딸 살해 암매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당시 욕조에서 가해 행위가 있었고, 주검을 방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부모의 가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br/><br/> 충북 청원경찰서는 20일 욕조에서 숨진 딸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안아무개(38)씨를 구속했다. 청주지법은 이날 열린 안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br/><br/> 이날 곽재표 청원경찰서 수사과장은 중간수사발표에서 “피의자 안씨가 ‘딸이 오줌을 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몇차례 머리를 물속에 담갔다는 말을 아내가 했다’는 진술을 했다. 또 딸의 주검을 이틀 정도 베란다에 방치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1·2차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세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 안씨는 2011년 12월께 아내 한아무개(36)씨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욕조에 가둔 딸 ㅇ(4)양이 숨지자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한 야산에 ㅇ양의 주검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안씨는 19일 ㅇ양의 주검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으며, 21일 다시 현장 수색에 나설 참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가해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지만 친모인 한씨가 지난 18일 밤 “<span class='quot0'>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span>”라고 쓴 유서를 남기고 숨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br/><br/> 장기 결석·미취학 어린이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2014년 한씨는 이미 숨진 ㅇ양을 입학시키겠다며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학적에 이름을 올렸다. 이 학교는 전화·문자 등으로 등교 요청을 하다 이들 부모가 “홈스쿨(가정학습)로 키우겠다”고 하자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준 충북교육청 장학관은 “당시엔 적극적으로 조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 결석 학생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의무 취학 유예 신청을 할 때는 학부모가 아이를 동반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br/><b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0.txt

제목: “청년한테 한 약속은 안 지켜도 되나요”  
날짜: 20160320  
기자: 허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193004438  
본문: “<span class='quot0'>청년에게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span>”<br/><br/> 지난 15일, 전화기 너머 유영현(24)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1% 확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유씨는 “정부가 말로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교육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만 있다.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건 청년 유권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들이 뭉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br/><br/><br/><br/>“고등교육예산 GDP 1% 공약 안지켜 <br/>청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탓 <br/>총선때 뭉칠 것…청년을 두려워하라”<br/><br/><br/><br/>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 교육부 예산 53조원 중 고등교육예산은 9조2938억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조4351억달러(약 1700조원)의 0.54%에 불과하다. 다른 부처의 관련 예산을 포함해도 대통령 약속 1%에는 못 미친다. 지난해(8조9823억원)보다 3115억원 늘었지만, 그나마 증액분의 대부분(2362억원)은 산업수요 중심의 대학 정원 구조조정 계획인 ‘프라임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고등교육예산 안에 국가장학금 예산(4조원)과 국립대 운영지원금(2조34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예산 규모는 3조원에 불과하다는 게 유씨의 주장이다.<br/><br/> “대학들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뒷받침하느라 다른 교육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 결과, 기숙사를 확충 못하니 수많은 학생들은 값비싼 월세를 내고 원룸에 들어가거나 열악한 고시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대 학생들만 해도 매년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는데, 에어컨도 난방도 안 되는 강의실에서 공부하죠. 학교에는 노후화한 석면 건물이 넘쳐납니다. 이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유씨가 목소리를 높였다.<br/><br/> 그는 “<span class='quot0'>정부가 그나마 있는 예산으로 대학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재정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대학에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프라임사업 등을 빗댄 말이다. 대학들은 최근 3년간 최대 4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라임사업을 위해 앞뒤 재지 않고 인문·사회·예술계열 정원을 공대로 보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학내 갈등을 빚고 있다. 성신여대의 학과 통폐합 논란이 대표적이다. 부산대의 경우 예산을 틀어쥔 정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압박하면서 지난해 8월 고현철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상처도 겪었다. “<span class='quot0'>정부가 장기적으로 대학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사업비를 미끼로 정부 입맛에 맞춰 대학을 취업전문학교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span>”<br/><br/> 유씨를 비롯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 등은 이번 4·13 총선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조조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청년 유권자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점을 좀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br/><br/>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1.txt

제목: 혈액 줄기세포 활용 백혈병 신약 개발 길열어  
날짜: 20160320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191954955  
본문: 국내 연구진이 적혈구, 백혈구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상인 혈액 줄기세포를 마음대로 깨우고 재울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br/><br/> 20일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대 의대 김효수 교수팀이 가장 젊고 분화능력이 뛰어난 최상의 혈액 줄기세포에 ‘카이-원’ 분자가 발현된다는 점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김 교수팀은 또 카이-원이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의 다크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최상의 혈액 줄기세포를 활동 없이 잠들어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 기존 연구에선 골수 내에서 잠자고 있는 혈액 줄기세포를 깨운 뒤 그 수를 증폭시킬 수는 있었지만, 증폭 과정에서 최상의 혈액 줄기세포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혈액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br/><br/> 이번 연구가 목표대로 5년 이내 상용화될 경우 줄기세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하게 줄기세포를 공여하는 ‘혈액 줄기세포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백혈병, 악성빈혈과 같은 골수기능부전증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골수이식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span>”고 밝혔다. <br/><br/>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2.txt

제목: “왜 유연근무? 시간 빡빡하면 일·가정 양립 힘들어요”  
날짜: 20160320  
기자: 김영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185924580  
본문: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뉴질랜드(1894년)에 이어 1902년 세계에서 두번째로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국가다. 110여년이 흐른 지금, 호주는 다시 양성평등과 관련해 ‘대담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해외개발원조액의 80%를 양성평등 향상에 쓰도록 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내적으론 로지 배티라는 여성이 2014년 전남편의 폭력으로 11살 아들을 잃은 뒤 가정폭력추방 운동가로 변신하며 가정폭력 문제를 주요 이슈로 끌어올렸고, 4년 전 설치된 양성평등청은 남녀 임금격차 줄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호주 정부 초청으로 지난 6~12일 방문한 캔버라와 시드니에서 게리 퀸란 외교통상부 북아시아담당 차관보와 리비 라이언스 양성평등청장을 각각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br/><br/><br/><br/>호주 양성평등 정책 주역 <br/>퀸란 차관보· 라이언스 평등 청장<br/><br/><br/><br/>외교부 지난해 유연근무 채택 <br/>해외원조에 양성평등 향상 조건 <br/>남녀 임금격차 줄이기도 이슈 <br/>시이오 90여명, 차별철폐 활동도 <br/><br/><br/><br/>“<span class='quot0'>만약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span>”<br/><br/> 북아시아담당 차관보이자 외교부 내 양성평등 정책 실천을 북돋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 ‘변화를 위한 남성 챔피언’(Male champion of Change)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게리 퀸란 차관보는 외교부가 지난해부터 근무유연성 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외교부에 근무중인 모두 6만1000명 직원 가운데 여성이 57%다. 그런데 최고 시니어 단계의 여성 비율은 25%, 다음 시니어 단계는 36%, 대사급은 27%에 그쳤다”며 “왜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가를 찾다 보니 자연스레 일하는 시간이 빡빡하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달했다. 그건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안을 요하는 업무가 많은 외교부인지라, 정책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 전용 태블릿 피시 등을 나눠줬다. 호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실제 외교부에서 근무유연성 제도가 확산되면서 ‘○요일은 근무지에 없습니다’ 같은 문구가 들어간 업무 메일이 늘었다고 전했다. 호주 외교부는 2020년까지 여성의 비율을 최고 시니어에서 40%, 주니어시니어에서 43%, 대사급에서 35% 정도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왜 양성평등인가라는 질문에 퀸란 차관보는 “양성평등이 잘될수록 성과가 좋은 건 모든 지표로 확인돼왔다. 갈등조정이나 평화구축 과정에서도 여성의 개입이 클수록 평화로웠던 것도 모든 데이터가 설명한다”고 답했다.<br/><br/> 호주는 이제 이런 정책을 외교노선에도 이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해외개발원조액의 8할을 가정폭력 추방이나 여성의 지위 향상에 쓰이도록 한다고 줄리 비숍 외무장관이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발표문에서 호주는 ‘정책결정, 리더십과 평화구축에 여성들의 목소리 강화’ ‘여성의 경제적 상황 증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근절’을 주요 포인트로 삼았다.<br/><br/> 호주 국내적으론 가정폭력 근절과 함께 남녀간의 임금격차 줄이기가 주요 이슈다. 호주의 남녀 임금격차는 24%로 한국(36.7%)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만족하지 않는다. 직장 내 양성평등법의 집행기구로 2012년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양성평등청의 리비 라이언스 청장은 “100명 이상 고용 기업에선 1년에 한번씩 양성평등 관련 데이터를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이 청이 운영중인 사이트 ‘당신의 손에’(inyourhands.org.au)를 보면 특정 회사가 얼마나 평등한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즉각 검색해볼 수 있다. 요즘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구조 등의 문제점뿐 아니라, 같은 매니저급도 왜 퇴직연금 등이 달라지는지 같은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br/><br/> “사실 고위급의 임금격차는 정해진 연봉보다 보너스 등에서 많이 온다. 남성 시이오들이 남성 매니저들의 성과를 더 쳐주고 보너스를 더 준다는 거다.” 라이언스 청장의 설명이다. 양성평등청은 이와 관련해 시이오 중 93명을 ‘임금차별철폐 홍보대사’로 임명해 이들이 다른 시이오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극을 주도록 하고 있다. “<span class='quot0'>이것은 여성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여정이자 인권과 차별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span>”라고 라이언스 청장은 강조했다.<br/><br/> 일찌감치 여성참정권을 도입했던 호주에서도 왜 남녀 격차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광산업 등 남성 중심적 산업구조의 비중이 컸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일 게다. 보다 흥미로운 의견은 남성인 퀸란 차관보가 들려줬던 말이다. “나도 참 이상하고, 패러독스라고 생각한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에선 여성참정권을 얻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데 비해 신생국인 호주는 그걸 그냥 좋은 제도로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 그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주어진 제도만으로 평등은 쟁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br/><br/> 캔버라 시드니/글·사진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3.txt

제목: 3월21일 궂긴 소식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185921873  
본문: ◆ 전남선씨 별세: 장채구(전 SK케미칼 노무담당) 희구(코오롱플라스틱 대표이사) 부구 충구 순희씨 모친, 진승호씨 장모=18일 오후 2시 울산영락원. 발인 21일 오전 9시. (052)272-1111.<br/><br/>◆ 조옥자씨 별세: 이선윤(항운노동조합 조합원) 선호(울산 남구청 체육지원계장) 선영(티에스케이워터 과장씨 모친=19일 오전 5시 울산영락원. 발인 21일 오전 7시30분. (052)272-1111. <br/><br/>◆ 심방우씨 별세: 최종배(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씨 모친=20일 오전 5시43분 포항의료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54)247-0551.<br/><br/>◆ 손종률(전 유한대학 학장)씨 별세: 성철(전 TSC 시스템 사장) 성모(현대모비스 상무) 성애 성희씨 부친, 박종우(삼성 SDI 상담역 사장)씨 장인=20일 오전 3시34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2)3410-3151. <br/><br/>◆ 백우영(전 한국일보 국차장 겸 문화부장)씨 별세: 박미혜씨 남편, 준(파란컴퓨터 차장) 연(삼성중공업 주임) 윤씨 부친, 최연호(양평병원 정형외과 과장)씨 장인=19일 오후 8시3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3010-2251.<br/><br/>◆ 박두용(전 노량진초 교장)씨 별세: 세환(하이테크생활건강 사장) 세철(수서경찰서 근무) 미숙씨 부친, 정진섭(비케이바이오 이사)씨 장인, 유혜경 임수향씨 시부=19일 오후 3시4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3410-3151.<br/><br/>◆ 윤봉순씨 별세: 이준형( 아주스타 국장)씨 모친=20일 오전 6시50분 이대목동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2650-2747.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4.txt

제목: “쿠폰 말고 현금 보상하라”  
날짜: 20160320  
기자: 김재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20145514082  
본문: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음성통화·데이터 무료 이용권(쿠폰)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안’(▶‘무제한요금제’ 속은 3244만명…데이터 제공·요금 환불로 보상)에 대해 신고 당사자인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span class='quot0'>별 제재효과 없이 이통사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span>”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허위·과장광고로 금전적인 이득을 봤으니, 보상도 쿠폰이 아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br/><br/>이통사 금전적 이익 얻어놓고 <br/>쿠폰으로 때우기에 반대 확산 <br/>“공정위, 기업에 면죄부” 비판 <br/>이통사 “현금보상 안된다” 맞서 <br/><br/><br/><br/>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동의의결안에 담긴 보상 내용이 소비자의 피해에 크게 못 미친다. 아무런 제재 효과 없이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span class='quot1'>동의의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이통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팔면서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 무제한’이라고 선전하는 게 허위·과장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br/><br/> 공정위가 사실 확인을 거쳐 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이통사들은 자체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음성통화·데이터 무료 이용권(쿠폰)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7일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통 3사의 자체 집계 결과, 피해 보상 대상자는 총 3244만명(중복 포함)이고, 보상안의 경제적 가치는 2679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br/><br/>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와 시정 방안을 만들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는 장점이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오는 4월26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br/><br/> 참여연대는 동의의결안 가운데 먼저 전국 대표번호와 가상번호 등에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부가통화와 영상통화는 무료 사용시간 제한이 있는데도 “음성통화 무제한 공짜”라고 해서 통화를 유발시켜 요금을 받아놓고 보상은 최대 1시간의 무료 통화 쿠폰으로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는 “<span class='quot2'>소비자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통사들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피해 보상을 때우겠다는 처사</span>”라고 비판했다.<br/><br/> 참여연대는 이어 동의의결안에 담긴 소비자 피해 보상안의 경제적 가치가 지나치게 뻥튀기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데이터 제공량이 3.5GB에서 6.5GB로 늘어나는 밴드데이터47과 밴드데이터51 요금제의 월 요금 차이는 4천원(1GB당 1333원)밖에 안 되는데, 동의의결 피해 보상안에는 데이터 1GB의 가치가 1만5천원으로 산정돼 있다는 것이다. 심현덕 간사는 “무려 10배 이상 뻥튀기한 꼴이다. 게다가 데이터 쿠폰 보상 대상은 모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이라 쿠폰을 받아도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br/><br/> 이동통신 가입자들도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이용자 포털 ‘뽐뿌’의 게시판과 카카오톡·밴드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배재현씨는 “<span class='quot3'>데이터 쿠폰이 아니라 요금할인으로 보상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사랑씨앗’이란 이름을 쓰는 누리꾼은 “쿠폰 사용기한이 석달로 정해져 있어 대부분 사용되지 못하고 없어질 게 뻔하다.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시판 등에는 공정위 동의의결 제도가 ‘제재 피난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글도 올라온다.<br/><br/> 이통사들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한다. 한 이통사 홍보팀장은 “동의의결안은 위법 판정을 받아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성격이 짙다.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보상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br/><br/>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br/><b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5.txt

제목: 대한항공, 어디까지 추락해봤니?  
날짜: 20160318  
기자: 김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9115333769  
본문: ▶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첫승을 거둔 지난 1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부기장 김아무개씨의 페이스북 글에 적은 댓글이 논란이 됐다. 조종사가 하는 업무를 소개한 김씨의 글에 조 회장은 이렇게 적었다. “비행기 조종이 자동차 운전보다 쉬운데 힘들다고? 개가 웃어요.” 조종사에게 ‘버럭’ 한 아버지 이야기는 1년 전 승무원에게 ‘버럭’ 했던 딸을 떠오르게 한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br/><br/>“<span class='quot0'>여객기 조종사들은 비행 전에 뭘 볼까요?</span>”<br/><br/> 김아무개 대한항공 부기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종사의 비행 전 업무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한달에 100시간도 일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시선에 대한 나름의 해명 글이었다. 이 글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댓글을 달았다. 조 회장은 “전문용어로 잔뜩 나열했지만 99%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운항관리사가 다 브리핑해주고, 기상 변화는 오퍼레이션센터에서 분석해준다. 조종사는 가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는데 힘들다고요?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파일럿(자동조종장치)으로 가는데”라고 썼다. 그는 이어 “아주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죠. 과시가 심하네요. 개가 웃어요. 마치 대서양을 최초로 무착륙 횡단한 린드버그 같은 소리를 하네요. 열심히 비행기를 타는 다수 조종사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였다.<br/><br/><br/><br/> 지난해 외국계 등 항공사 이직 조종사 122명<br/><br/> 회장님의 댓글에 조종사들은 분노했다. 한 조종사는 “오너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종사들에게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난하고 나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운항관리사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조종사는 노조 게시판에 “자동차 운전보다 쉬운 비행기 조종이라니… 난 왜 이 쉬운 걸 못해서 대학 4년, 군 11년, 그리고 민항 10년을 안전비행 하느라 공부하고 연구했을까”라고 적었다.<br/><br/> 노조는 “조 회장이 엉터리 지식을 갖고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땅콩회항’ 사건이 있은 지 1년 만에 또 입길에 오르면서 회사 이미지가 더 나빠질까봐 대응을 하기도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br/><br/><br/><br/> 조 회장이 일개 직원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은 임금협상 결렬로 11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조종사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조 회장의 급여 인상률이 37%라는 기사를 보고 이에 맞춰 똑같이 임금인상을 해줄 것을 사쪽에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가 참고한 기사는 숫자 오류가 있었다. 실제로 조 회장의 임금은 계열사 전체를 합해 6.2% 인상됐고, 대한항공 급여 인상분만 따지면 1.6% 올랐다. 노조는 이 같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십수년간의 임금 인상률, 외국 항공사 조종사의 임금 수준 등을 비교하며 37% 인상안을 굽히지 않았다.<br/><br/> 이에 대한항공 사쪽은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맞섰다. 협상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가방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기 시작했다. 사쪽은 지난달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달 초에는 ‘24시간 이내 연속 12시간 근무 제한’ 규정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조종사 박아무개씨를 파면했다. 이어 쟁의 관련 스티커를 가방에 붙인 조종사 20여명에 대한 징계에도 나섰다.<br/><br/> 조종사 노조와 사쪽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배경엔 사실 항공사들이 처한 위기가 있다. 외국계와 저비용 항공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한항공은 조종사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다른 항공사로 이직한 조종사 수는 122명으로 2013년(21명), 2014년(16명)과 견줘 6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직후인 지난해부터 기장은 물론 부기장들까지 회사를 떠나는 사례가 증가했다. 중국 항공사가 한국인 조종사를 선호하면서 항공사마다 조종사 이탈 현상이 심각해졌다. 대한항공 이직 현황을 보면 국내 저비용 항공사로 옮긴 조종사가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2~3배의 연봉을 주는 중국 항공사로 이직한 조종사도 46명에 달했다.<br/><br/> 조종사 이탈이 늘면서 채용도 매년 증가 추세다. 대한항공은 2013년 161명, 2014년 182명에 이어 지난해 237명의 조종사를 새로 채용했다. 그러나 빠져나간 인력보다 채워지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난해 이직자는 전년 대비 662% 증가했지만 신규채용은 30% 증가에 그쳤다. 대한항공은 모자라는 조종사 수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기장 채용도 늘리고 있다. 2013년 44명이던 외국인 조종사 신규채용 인원을 지난해 77명까지 확대했다.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 조종사끼리 팀을 이루는 일도 생겨 기장이 하는 기내 방송을 승무원 사무장이 대신 하는 일도 벌어진다.<br/><br/> 근속연수 및 비행시간 등에 따른 기장 승급 기준이 달라 조종사 노조가 반대했던 저비용 항공사 출신의 조종사 채용도 지난해 처음 이뤄졌다. 대형 항공사와 달리 저비용 항공사는 짧은 기간에 기장 승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노조는 더 오랜 경력을 갖고도 기장이 되지 못한 조종사들과의 형평성 및 안전 등을 이유로 채용을 반대했었다. 그러나 사쪽은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 출신 조종사 4명을 채용하는 등 이들을 채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br/><br/> 대한항공이 처한 인력부족 상황은 비단 조종사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진 승무원들의 처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 승무원은 “연차가 100일 넘게 쌓여도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를 쓰기가 어렵다. 땅콩회항 사건이 떠들썩했지만 승무원들을 사내 소모품으로 여기는 기업문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br/><br/> 조 회장의 댓글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은 한국과 미국에서 조종 교육을 받기도 하는 등 조종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댓글을 달게 된 실제 의도는 오토파일럿(자동조종장치) 시스템의 발달과 회사에서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조종 근무환경이 과거보다 개선되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적절치 못한 표현은 문제다”라고 말했다.<br/><br/>“<span class='quot0'>비행기 조종, 자동차 운전보다 쉬워</span>” <br/>직원 페북에 댓글 단 조양호 회장 <br/>파업 돌입한 조종사 노조와 갈등 <br/>회사, 쟁의행위 직원 징계에 나서 <br/>외국·저가 항공사 조종사 이직 붐<br/><br/>신규 채용 적어 인력부족 호소도 <br/>‘땅콩회항’ 이후 소통 늘었지만 <br/>이미지 회복 더디다는 평가 나와 <br/>여객점유율도 매년 떨어져 ‘위기’ <br/>또다시 등장한 오너리스크 악재<br/><br/>1위 항공사 자리도 아시아나에 내줘<br/><br/> 회사의 변화를 못 느끼겠다는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많지만 땅콩회항 사건 이후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시무식 때 사내 소통위원회를 만들어 기업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다만 소통위원회 대신 소극적인 조처로 사내 익명게시판인 ‘소통광장’이 생겼다. 이달로 개설된 지 1년이 된 소통광장은 지난 1월 기준 1천여건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직원 복지, 시설장비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의 안건이 주를 이룬다. 한 조종사는 “한때 소통광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br/><br/>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이 소통광장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 지시도 하고 직접 댓글도 다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땅콩회항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결과, 보수적이었던 조직문화를 깨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 그러나 대한항공의 이미지 회복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14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1위였던 대한항공은 땅콩회항 사건 여파로 지난해 9위로 추락했다.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도 종합 6위였던 순위는 39위로 추락했고, 항공사 1위 자리도 아시아나항공(종합 18위)에 내줬다.<br/><br/> 떨어진 신뢰만큼 회복이 시급한 건 재무구조다. 저비용 항공사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대형 항공사들의 여객 점유율은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 국제선 실적이 4.9% 늘어난 데 비해 국적 저비용 항공사 실적은 37.6% 증가했다. 국제선 분담률도 매년 떨어지는 등 실적 악화로 인해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000%를 넘겼다.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경영 악화에 따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노사 갈등부터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 조 회장은 지난달 열린 임원세미나에서 ‘위기’와 ‘혁신’ 등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span class='quot2'>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특히 중점을 뒀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의 에스엔에스에 ‘비행기 조종이 운전보다 쉽다’는 댓글을 단 조 회장의 행동은 그동안 외쳤던 소통의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조종사들이 과장한 부분이 있더라도 직원들의 힘든 점을 다독이며 다시 이야기해보자 했으면 얼마나 품위있는 대화였겠나. 조 회장의 댓글은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마저 팽개친 것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몸과 욕설로 갑질을 했다면 조 회장은 말과 영혼으로 갑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재벌 기업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가진 오너리스크는 크나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한진그룹은 재무구조나 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노사 간의 성실한 대화를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땅콩회항 사건과 이번 댓글 논란 등을 보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지배구조 문제가 결국 표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br/><br/><br/> 오너 일가는 얼마나 달라졌을까?<br/><br/> 한진그룹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3남매가 각각 호텔, 대한항공, 진에어 등 그룹 내 관련사업을 나눠 맡고 있어 그동안 승계 구도가 불분명했다. 그러다 지난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맡은 직무에서 모두 사임하면서 장남인 조원태 부사장에게 책임과 역할이 쏠리고 있다. 여객·화물영업 및 기획부문을 담당했던 조원태 부사장은 지난 1월 대한항공 전 부문을 관장하는 총괄부사장에 선임됐다. 이어 이달 18일에는 대한항공 대표이사로 선임돼 한진그룹 3세 경영 승계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br/><br/> 조 대표이사는 한진해운신항만 이사, 한진칼 대표이사, ㈜한진의 사내이사를 맡는 등 한진그룹의 육해공 부문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인하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어 조 대표이사의 승계를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게다가 현재까지 뚜렷이 드러난 경영 성과가 없어 우호적인 평가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br/><br/> 1년 전 땅콩회항 사건은 오너리스크가 어떻게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일례였다. 사건 초기 대한항공은 오너 일가가 반성과 사과 대신 변명과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을 반면교사 삼아 위기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재벌들이 늘었다. 메르스 국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 그 예다.<br/><br/> 그러나 재벌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사건의 주체인 대한항공의 변화는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span class='quot3'>불신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대한항공이 사건 직후 반성하는 모습으로 기업문화를 바꾸겠다고 해 기대를 걸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듯하다</span>”고 말했다. <br/><br/>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진영 더민주행…청 “대통령을 계파 수장으로 깎아내려” 격앙 <br/><br/>■ 빠지면 답도 없는 ‘중년파탈’, 그 치명적 매력 비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6.txt

제목: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 88%…월 30만원 지출  
날짜: 20160318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8194847706  
본문: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88.1%가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달 평균 30만8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계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br/><br/> 1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8일까지 전국 시도 16곳의 만 20~69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구는 88.1%(1762명)로 나타났다. 또 한달에 얼마의 민간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응답자 1160명은 월평균 30만8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같은 조사(1500명 대상)에서는 85.9%의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25만9천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해 사이 가입률과 보험료가 더 높아진 것이다.<br/><br/>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가입비율은 92.5%인 데 견줘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가입비율은 61.3%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1.9%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77.8%였다. 응답자들이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외에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14만5천원(납부액을 알고 있는 1145명 기준)이었다.<br/><br/> 미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혹은 아플 때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서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한 답변이 69.2%로 가장 많았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비율은 45.6%, ‘운동, 저염식, 소식, 술·담배 줄이기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비율이 45.3%, ‘아플 때 쓰도록 저축하고 있다’는 17.1%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율이 10.4%,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은 6.4%였다. <br/><br/>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br/><br/><br/>■ 경찰대 졸업식에 박수치러 가야 하는 경찰들 <br/><br/>■ 강남 학부모들 “서울대에는 ‘금수저 학교’ 쿼터가 있다” <br/><br/>■ [정훈이 만화] 갓 오브 코리아 <br/><br/>■ [카드뉴스] 지워지고 은폐당한 세월호 진실 ‘10가지’ <br/><br/>■ [영상] 새누리당 배경판에 김무성 대표가 사라졌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7.txt

제목: [그래픽뉴스] 기간제 노동자 100명 가운데 8명만 정규직 전환  
날짜: 20160317  
기자: 조승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7153448391  
본문: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미생’이 ‘완생’의 꿈을 이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br/><br/>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개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를 보면, 2015년 4분기에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4만2288명이다.<br/><br/> 이 가운데 3만3478명(79.2%)은 ‘계약 종료’로 실업 위기에 내몰렸다. 5302명(12.5%)은 ‘계약 연장’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 처지를 이어갔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한 기간제 노동자는 3463명(8.2%)에 그쳤다.<br/><br/><br/><br/> 글·그래픽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br/><br/><br/>■ 표절 교수·종북몰이 인물… 김종인표 ‘막장 비례공천’ <br/><br/>■ ‘아버지 뭐하시노’…대입 학생부 전형의 현실 <br/><br/>■ 박종희 “유승민은 경선 어렵다, 조윤선은 용산?”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8.txt

제목: [사설] 사는 곳 따라 사망률 춤추는 ‘건강 불평등’ 사회  
날짜: 2016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6193757605  
본문: 사는 지역에 따라 사망률이 크게 차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팀의 ‘우리나라 지역사회 건강 수준의 종합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강원도가 인구 10만명당 391명으로, 서울의 314.3명에 견줘 25%나 높다. 지역마다 다른 노인 인구 비율을 보정한 수치다. 즉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죽음의 확률이 높고 낮아진다는 뜻이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주요 질환별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지역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br/><br/>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수명이 격심한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그것도 불가피한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교정 가능한 사회·정책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팀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공무원 중 보건소 인력 비율 등 정책적 요인 △인구 1인당 공원 면적, 운동시설 접근율 등 물리환경적 요인 △인구 1천명당 의원 수, 암 검진율 등 보건의료 자원과 서비스 요인 등을 들었다. 흡연·음주·운동 등 개인의 생활습관도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지역별 인적·물적 자원의 불균형과 정책적 특성들이 지역별 격차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것이다.<br/><br/>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수명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천편일률적인 정책보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긍정·부정적 요인들이 지역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뿐 아니라 계층에 따른 건강 격차에도 주목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면 모든 계층의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외국 연구 결과도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더욱 면밀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br/><br/><br/>■ 원영군 계모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범행” <br/><br/>■ [복기] 문자 중계로 보는 ‘이세돌 vs 알파고 5국’ <br/><br/>■ 이세돌 일문일답, “알파고 집중력, 사람이 이기긴 어렵다” <br/><br/>■ 교수가 강의 중 “<span class='quot0'>세월호 학생들, 생각하는 습관 없었다</span>” <br/><br/>■ [화보] 100년 전 양반가 여인들…조선시대엔 무슨 일이?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29.txt

제목: [편집국에서] 인간으로 살고 싶다 / 박민희  
날짜: 20160316  
기자: 이천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6193754657  
본문: 알파고의 능력을 지켜본 한 선배의 소감. “<span class='quot0'>알파고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한국 사회가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아.</span>” 인터넷을 살펴보니 이 의견에 공감하는 이들이 꽤 많다. ‘정치인이 알파고로 대체될 수 없는 게 제일 유감’ 같은 글들.<br/><br/> 지난 일주일 인공지능에 대해 ‘딥러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저마다 복잡한 생각을 하며 세기의 대결을 지켜봤다. 생각하는 기계가 인간 바둑 최고수를 이긴 2016년 3월9일, 우리는 영화 속 얘기라고 여겼던 인공지능 시대가 훨씬 전에 와 있었음을 깨닫고 당황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고 막강한 기계 전사에 맞서 고독하게 분투하는 인간 이세돌 9단의 투혼에 많은 이들이 감정이입하며 인류의 미래를 고민했다.<br/><br/> 공상과학영화에서처럼 인간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지게 되고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은 아직은 한참 뒤 일이거나 쓸데없는 걱정일지 모른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간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br/><br/>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는 몇년 안에 알파고를 스마트폰에 장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과학원의 천윈지 교수 연구팀도 약 5년 안에 알파고급의 인공지능을 휴대전화에 장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5년쯤 뒤에는 휴대전화가 알파고급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니….<br/><br/> 알파고가 대통령이 되는 날보다는 대통령이 알파고급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날이 훨씬 먼저 올 것 같아 우울해진다.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청와대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국정원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조지 오웰의 나 올더스 헉슬리의 에서처럼 권력자가 모든 시민을 감시하고, 사상과 감정까지 통제·조종하는 세상이 아닐까.<br/><br/>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퀴즈쇼에서 인간 최고수를 꺾었던 아이비엠의 인공지능 왓슨은 지난해 미국 암 전문병원에 암 진단 수련의로 투입됐다. 인공지능은 정교하게 진단하고 수술하는 의사, 실수 없이 수익률을 계산하는 투자분석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병사 등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도래할 것이다. 영화 (Her)에 나오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매력적으로 소통하는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에 깔리고, 인간이 인공지능과 연애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br/><br/> 결국 이세돌-알파고 대국이 남긴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고유함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이다. 우리가 끔찍한 불평등과 감시사회를 막아낼 사회적 합의와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권력자들은 시민을 점점 더 교묘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기업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인간을 대량해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익을 늘려갈 것이다.<br/><br/> 그런데 지금 인간이란 무엇일까? 사이버문화 전문가인 크리스 그레이는 에서 인류가 이미 사이보그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생물과 무생물이 결합된 자기조절 유기체’라는 사이보그의 정의에 따르면 인공장기나 보철물을 넣은 이들, 뇌 기능과 소통 능력의 상당 부분을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우리는 이미 일종의 사이보그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려 하기 전에, 인류는 페북·카톡에 의존해야만 소통하는 기계, 소비하는 기계 등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비싸고 성능 좋은 인공지능 칩을 장착한 인간이 더 많은 권력과 재산을 차지하는 암울한 미래는 막을 수 있을까. <br/><br/> 박민희 문화·스포츠 에디터 minggu@hani.co.kr <br/><br/><br/>■ 원영군 계모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범행” <br/><br/>■ [복기] 문자 중계로 보는 ‘이세돌 vs 알파고 5국’ <br/><br/>■ 이세돌 일문일답, “알파고 집중력, 사람이 이기긴 어렵다” <br/><br/>■ 교수가 강의 중 “<span class='quot1'>세월호 학생들, 생각하는 습관 없었다</span>” <br/><br/>■ [화보] 100년 전 양반가 여인들…조선시대엔 무슨 일이?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0.txt

제목: 미국 예비선거 현장의 ‘외눈박이’ 거인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4224141120  
본문: 요즘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에서 외모 논쟁이 한창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지지를 받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하자, 위기감을 느낀 라이벌 마코 루비오가 트럼프의 ‘작은 손’을 꼬투리잡았고, 이에 맞서 트럼프는 루비오의 상대적으로 작은 키와 몸집을 꼬집어, ‘경량급 루비오’ ‘소인 루비오’로 지칭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한술 더떠 지난 3월 3일 디트로이트의 공화당 대선토론회에서 아예 직격탄을 날렸다. 청중들에게 자신의 두 손을 들어 보이며, 그의 손이 과연 작은 것인지, 만약 작다면 ‘다른 무엇’도 작아야 하는데, 그 물건의 크기에 관한 한 “아무 문제 없다”고 누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청중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든 것 말고 그 직격탄의 효과는 별로 없는 듯하고, 정작 그 피해 당사자가 루비오가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건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 초등학교 5학년생들의 공화당 대선토론에 대한 반응을 담은 비디오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짧은 비디오에서 어린이들은 트럼프를 또래들을 힘으로 누르고 협박하는 ‘골목대장(bully)’에 비유한 뒤, 막말이 난무하는 TV 토론회에서 자신들이 배울 게 없다며, 이제 그만 어른이 되시라고 점잖게 충고한다. <br/><br/><br/><br/> 말 그대로 이전투구, 진흙탕의 개싸움을 연상시키는 공화당 예비선거 현장을 지켜보면서 흔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에 등장하는 인물, ‘시티즌 (the Citizen)’이 떠오르는 건 우연일까? 그리스 신화나 호머의 『오디세이아』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를 알고 있을 테지만, 조이스는 이 키클롭스를 20세기 초, 식민지 상황에 놓인 고국 아일랜드의 정치, 사회 현실에 맞춰 시티즌이라는 인물로 재창조했다. 조이스는 술집 한 구석에 온종일 붙어 앉아 공짜 술을 얻어 마시며 격렬한 정치 논쟁을 일삼는 시티즌의 모습을 동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키클롭스로 비유하여 희화화한다. 한때 포환던지기 전국 챔피언답게, 시티즌은 거구이다. 그의 떡벌어진 어깨,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몸, 불그레한 얼굴, 거센 털로 뒤덮인 사지, 우뚝 솟은 큰 키 등 거인의 풍모와 사나운 기질은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자칭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로 게일릭(Gaelic) 문화부흥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그는 전통 의상인 튜닉을 입고 허리끈을 질끈 동여맨 모습으로 묘사된다. <br/><br/>실제로 시티즌과 도널드 트럼프는 외모에 있어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작은 키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키가 컸지만, 트럼프는 190cm에 육박하는 장신으로 토론 무대에서 다른 후보들의 머리 위로 우뚝 솟아 위용을 자랑한다. 한때, ‘소인 마코’ 대 ‘거인 도널드’의 치고받는 격전과 더불어 트럼프의 ‘오렌지색’ 불그레한 얼굴을 둘러싸고 그 연원이 무엇인지, 선탠용 침대에서 일부러 태워 그렇게 된 건 아닌지 등의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걸 보면, 게일릭 혈통의 발현으로 시티즌과 트럼프가 그들의 먼 조상을 공유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어, 인터넷 도처에 그의 찡그린 얼굴이 한층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범람하고 있지만, 조이스가 묘사하는 시티즌의 불만에 찬 성난 모습도 두 인물이 공유한 속성임에는 틀림없겠다. <br/><br/>그러나 정작 외모보다 더 닮은 건 시티즌과 트럼프의 이데올로기이다. 게일릭 순수 혈통주의를 주창하는 시티즌은 헝가리 이민의 후손이자 유대인인 작품의 주인공 리오폴드 블룸을 대놓고 민족의 순수성을 좀먹고 나라를 오염시키는 이방인으로 매도하면서, 매사에 ‘우리’ 대 ‘그들,’ ‘친구’와 ‘적’으로 선을 가르고 벽을 쌓는다. 아버지 대에 아일랜드로 이민 와, 아일랜드에서 낳고 자라 아일랜드의 국민이 된 블룸과 같은 이들을 배격하는 시티즌의 모습을 조이스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으로 포장된 편협한 외눈박이 국수주의자로 희화화하고 있지만, 시티즌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타자에 대한 증오와 배타주의를 선동하는 데마고그가 비단 소설 속에 존재하는 악한일 뿐 아니라, 21세기 미국에서 열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대통령 후보라는 건 현대판 아이러니다. <br/><br/>잘 알려져 있다시피 트럼프는 미국 사회의 이민자들을 미국 사회의 암적 존재로 몰아세우고, 1,100만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를 본국으로 즉시 송환하겠다고 공약하며, 마약과 불법이민의 원흉으로 멕시코를 지목하여, 멕시코와의 국경에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장벽을 멕시코 부담으로 세울 것을 주장하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며, 이슬람교도의 이민이나 방문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테러리스트의 가족까지 모두 죽여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 전쟁범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br/><br/>시티즌과 트럼프의 유사점은 앞에서 언급한 트럼프의 성기의 크기에 대한 암시에서도 발견된다. 시티즌과 그의 패거리들은 블룸과 같은 사회의 타자나 약자들을 남성성이 부족한 중성(中性)이라고 모욕한 뒤, 아일랜드의 애국자 조 브래이디가 처형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성기가 처형자들을 향하여 부지깽이처럼 불끈 서 있었다는 소문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애국자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대영제국의 식민통치에 저항한다고 주장한다. 애국심과 남성성을 동일시하는 이 논리에 대해 블룸은 밧줄에 목이 졸리는 순간 피가 아래로 몰리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나름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선동자의 열띤 애국주의에 침식당하고, 이성의 논리는 성난 군중들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br/><br/>남성성과 민족주의 혹은 애국심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조이스가 창조한 소설 속의 인물들과 닮아 있다. 트럼프가 자신의 성기의 크기를 공개적으로 자랑했을 때, 그것은 자신이 강력한 지도자이며, 따라서 자신이 약속한 난제들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힘의 소유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티즌과 그의 패거리들이 내면화한 남성성과 힘센 지도자에 대한 맹신의 이면에 늘 따라 다니는 여성혐오증은 트럼프가 경선에 나선 뒤, 거듭 여성 혐오 내지 경멸적 발언을 일삼은 행태에서 그 유사성이 잘 드러난다. 트럼프는 토론장에서 지금은 퇴진한 공화당 후보 칼리 피오리나에게 “<span class='quot0'>저 여자는 왜 언제나 남의 발언 도중에 끼어드냐</span>”는 황당한 발언으로 청중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어려운 질문들로 자신을 당황시킨 폭스뉴스 앵커 메건 켈리를 매력은 있으나 머리가 빈 ‘빔보 (bimbo)’라는 극단적인 언어로 매도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br/><br/>문제는 상식 이하의 발언과 극단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이 외눈박이 거인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상 외로 많다는 것인데, 상식을 뒤엎는 이 기묘한 미국 사회의 현상은 따지고 보면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2008년 대통령 선거전에 갑자기 나타나,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라 페일린과 티 파티 현상도 트럼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재의 미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전통적 가치의 약화와 우중사회의 천박한 민낯을 백일하에 드러낸 예비선거의 기현상은 최근 정치학자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미국 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성향과 공화당 우파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깊숙한 이데올로기적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종래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누렸던 헤게모니의 쇠퇴와 테러의 위협, 경제적 침체와 실업, 그리고 미국 사회 내의 다민족, 다문화주의의 가속화 등, 미국 사회의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런 면에서 트럼프는 ‘징후’일 뿐이라는 학자들의 진단은 새겨들을만하다.<br/><br/>거의 100년 전,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식민지 상황과 더불어 반유태주의와 파시즘을 불러왔던 유럽의 위기 상황을 통찰하여 『율리시즈』의 ‘키클롭스’ 챕터로 재현했지만, 1세기가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조이스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떠올라 타자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설파하여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선동자들을 식별하는 혜안을 가질 필요를 우리 모두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br/><br/>이종임<br/><br/><br/><br/>이종임은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위스콘신주 매디슨 소재)에서 20세기 영미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위스콘신대, 네브래스카대, 고려대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한국문화와 미국 흑인문화의 접점을 밝히는 책을 쓰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br/><br/><br/><br/>　<br/><br/>　 <br/><br/>　 <br/><br/><br/>■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맞으면 전화하세요”...목사 사용설명서 화제 <br/><br/>■ ‘시그널’처럼…장르드라마, 이미 미래는 바뀌었다 <br/><br/>■ 이세돌 일문일답, “알파고 집중력, 사람이 이기긴 어렵다” <br/><br/>■ “유승민 팔다리 다 짤랐고 이제 우예 되는 거고?” <br/><br/>■ [화보] 100년 전 양반가 여인들…조선시대엔 무슨 일이?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1.txt

제목: ［기고］ 반도체 소녀의 귀향 / 은유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4192546478  
본문: 영화 <귀향>을 보는 동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다. 일본군의 (성)폭력으로 인한 비명과 무자비한 총성이 길고 셌다. 무구한 소녀와 잔인한 일본군의 선악 대비, 그 단순한 서사의 프레임은 생각을 몰수하고 통증을 일으켰다. 이런 궁금증이 남았다.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범하고 죽이게 되었는가. 존재를 침범당한 인간은 또 어떻게 존엄을 추스르고 일상을 살아갔는가.<br/><br/> 극장을 나와 핸드폰을 켜니 문자가 와 있었다. 내일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고 황유미씨의 9주기 추모제가 열린다는 내용이다. 아, <귀향>은 끝나지 않았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악이 있고, 또 하나의 기막힌 죽음이 있고, 귀향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소녀상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묵직했다. <br/><br/> 이튿날,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본사 앞을 찾아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150일째 농성 중이었다. 기나긴 풍찬노숙엔 이유가 있다. 지난 1월 언론에선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 마침내 마무리’라는 기사가 쏟아졌으나, 겉과 속이 다르다. 삼성전자는 독립된 사회적 기구가 아닌 독자적 사내 보상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곤 가해자인 자기들이 직접 보상을 진두지휘했다. 산정기한을 정해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라는 각서를 발송했다. 사과도 형식적이다. 삼성의 부실한 안전관리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조정권고안의 내용은 쏙 빼고 “<span class='quot0'>아픔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span>”는 말로 얼버무렸다. 한마디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다니 유감이다’라는 식이다.<br/><br/>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의문부호다. 삼성은 왜 저 푸르스름한 건물 유리처럼 차가운 얼굴을 갖게 되었나. 직업병 사망자 76명과 암환자 223명이 나왔는데도 왜 눈물 흘리지 않는가. 죽음의 공장인 삼성이 어떻게 세계 일류 기업의 칭호를 누리는가. 삼성은 아는 것 같다. 영화 <귀향>의 일본군처럼 삼성은 한국 사회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독한 화학약품의 생산라인에 사람을 방치하여, 죽이지 않고 죽게 내버려둔다. 돈 몇 푼 쥐여주고 조용히 죽음의 흔적을 치워버린다. 언론은 삼성 편이다. 대학생이 들어가기 원하는 1위 기업의 위상은 굳건하다.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저항에도 부딪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폐쇄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 체질을 만들었으리라. <br/><br/> 황유미는 열아홉에 속초에서 관광버스 타고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에 들어갔다가 백혈병을 얻어 스물셋에 세상을 떠났다. ‘생전의 고인은 왜 아파야 하는지 몰랐다’는 기자회견문에서 영화 <귀향>의 소녀의 대사가 겹친다. 트럭 타고 일본군에 끌려온 열다섯 소녀도 몰랐다. 그래서 묻는다. ‘여기가 어디예요?’ 일본군은 질문하는 소녀의 입을 후려쳤다. 황유미 추모제가 열리는 날 삼성전자는 본사 앞에 펜스를 쳤다. 말하는 자, 감히 알려고 하는 자를 저들은 몹시도 겁낸다.<br/><br/> 9년 사이, 말이 쌓여 질문이 되고 진실이 드러났다. 황유미의 산업재해가 행정법원에서 인정됐다. “<span class='quot1'>왜 네가 병에 걸렸는지 원인을 밝혀내겠다</span>”던 약속을 아버지 황상기씨는 지켰다. 세상으로 나온 또 다른 유미들이 매일 강남역 삼성전자 앞에서 이어 말하고 있다. 삼성이라는 악에 대한 증언에서 나아가 저들의 비열한 횡포에 맞서 어떻게 분투했는지, 일상을 파괴하는 고통과 분노에 익사당하지 않고 타인에게 관심을 넓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고통이 알 수 있는 고통이 되기까지 어떻게 싸웠는지…. 오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붙들어 세우는 그 뜨거운 이야기들은, 반도체 소녀들의 ‘귀향’이다.<br/><br/> 은유 작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2.txt

제목: “최저임금 1만원, 청년엔 생존의 문제”  
날짜: 20160311  
기자: 최우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1192148440  
본문: “<span class='quot0'>아르바이트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집회에 나와라’ ‘투표해라’ ‘놀자’는 말 쉽게 못 하죠.</span>”<br/><br/> ‘알바 간다’는 말은 힘이 세다. 단순 용돈벌이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야 생존이 가능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만난 김보미(24·소비자아동학부) 총학생회장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건, “<span class='quot1'>그 정도는 돼야 먹고살 수 있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 어떤 학생들에게 ‘알바’와 ‘생존’은 같은 의미다.<br/><br/> 김씨의 한 대학 친구는 졸업을 앞둔 4학년이지만 주말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교 앞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야근수당 따로 없이 최저시급(6030원)보다 1000원가량 많은 시급 7000원을 받는다. 그래 봐야 한 달에 40만원이 채 안 된다. 교통비·통신비 등을 내고 생활비로 쓰면 끝이다. 월세도 따로 벌어야 하니 또다른 알바를 하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고선 살 수가 없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자료를 보면, 한 달 식비·교통비·통신비 합계 평균이 38만원(2013년 기준)이다. <br/><br/> 여기에 평균 집세 50만원(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4년 기준)과 등록금 55만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년 기준, 1개월치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면 한 달에 최소 143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은 꿈꾸기 어렵다.<br/><br/><br/><br/><br/><br/><br/><br/>대학생 한달 최소 143만원 필요 <br/>“동아리 활동·교환학생·어학 공부… <br/>알바 탓 포기하면 건강사회 아냐”<br/><br/> 저성장 시대를 맞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최저임금이 경제적 약자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보루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10.10달러(약 1만20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독일은 최저임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시급 8.5유로(약 1만1900원)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도 전국 최저임금 평균을 1000엔(약 1만500원)까지 올려 불안정·장시간 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가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장시간 노동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저임금이다. 이는 청년과 학생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br/><br/> 김씨는 자신을 포함한 20대 초·중반 대학생들이 ‘알바’를 덜 할 수 있길 바란다. 대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과 돈을 바꾸면서 눈물짓는 20대 시절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세상이란 걸 잘 알고 있다. “알바비 받으면 한번쯤은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 할 수 있어야죠. 동아리 활동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이나 어학 공부도 알바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걸 못 하고 돈 버느라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 않나요?” 김씨가 되물었다.<br/><br/> 김씨는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청년·대학생의 진짜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할 수 있는 때라고 믿는다.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는 그만큼 정치가 청년이 느끼는 삶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최저임금 1만원은 아르바이트가 일상인 대학생·청년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권에 꼭 요구하고 싶어요.” <br/><br/>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3.txt

제목: 우주물리학 전문가의 ‘암 탐사’  
날짜: 20160310  
기자: 권은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0203842964  
본문: 암연대기 <br/>조지 존슨 지음, 김성훈 옮김 <br/>어마마마·1만7000원<br/><br/>암은 왜 암일까? 암이 ‘캔서’(cancer)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그리스에서 기원한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스 히포크라테스는 이 고약한 병을 ‘게’(그리스어로는 karkinos로 부른다)로 지칭했다. 그는 장기에 한번 발생하면 떨어지지 않는 괴이한 종양덩어리를 물면 놓지 않는 집게를 가진 게에 비유했다. 이 단어가 로마로 건너가 ‘캔서’가 된 것이다.<br/><br/> <암연대기>는 제목에 걸맞게 암의 역사가 빼곡하다. 지은이는 미국 피츠버그 자연사박물관에 보존된 1억5000만년 전 쥐라기 공룡의 화석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의 흔적부터 암연구협회 연례학회에서 발표된 최신 정보까지 훑고 있다. 대단한 부지런이다. ‘천재 중의 천재’들만이 연구한다는 우주물리학 전문인 과학 저널리스트의 내공이 느껴진다. 우주의 역사가 138억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작 1억여년인 암의 역사는 가벼워 보이는 걸까? 실제 이 책에서는 그가 고기와 담배가 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대목이 곳곳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br/><br/> 그러나 그는 암이 우주물리학과는 다른 방향의 ‘복잡계’라고 혀를 내두른다. 모든 것이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진 물리학과 달리 암의 회로도는 집약적인데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암의 물리학’이란 말이 모순형용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br/><br/> 그렇다면 우주물리학 책을 써온 지은이는 왜 암에 꽂혔을까? 아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내 낸시는 폐경이 된 지 1년 만에 자궁내막에서 암이 발견됐다. 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돼 생존율이 15%에 불과했다. 아내가 암을 진단받고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까지 받고 항암치료를 하는 과정을 묘사한 ‘투병의 연대기’는 독자의 흡입력을 높이는 꽤 괜찮은 장치다. <br/><br/> 낮은 생존율에도 아내는 완치됐지만 아내는 그와 이혼했다. 이혼 뒤엔 막내 동생을 암으로 잃었다. 객관성을 중시하는 저널리스트인 그가 “현미경으로 암세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암이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던 대목에서 환자 가족으로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br/><br/>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4.txt

제목: 보험가입자 사망원인 1위는 ‘암’  
날짜: 20160310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0201821003  
본문: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급된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3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br/><br/> 생명보험업계 1위 업체인 삼성생명이 지난 2006~2015년까지 10년 동안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16만6224건을 분석한 결과, 암에 의한 사망이 41.5%(6만9000건)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종류 별로 자세히 보면, 간암(1만3215건), 폐암(1만2025건), 위암(9056건) 차례로 많았다. 암을 포함해 심장·뇌혈관 질환 등 전체 ‘질병 사망’은 77.8%(12만9309건)였다. 교통사고 등 재해 사망이 13.2%(2만1972건)로 그 뒤를 이었고, 자살 등 고의적 자해는 9.0%(1만4943건)로 나타났다. <br/><br/> 같은 기간 지급된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2926만원이었다. 재해 사망에는 평균 6796만원이 지급됐지만, 질병 사망에는 2220만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926만원은 지난해 3분기 국내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액수(3108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질병은 장기간 투병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데 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br/><br/> 사망보험금이 낮은 이유는 선진국에 견줘 사망보험금 가입 금액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윤원아 연구원은 “<span class='quot0'>보험을 설계할 때는 현재 납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필요 금액을 꼼꼼히 따져 설계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b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5.txt

제목: “2045년 기계가 인간한계 초월”…천국일까 지옥일까  
날짜: 20160310  
기자: 권오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0195743996  
본문: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은 극과 극을 달린다. 한쪽 끝에는 온갖 난제들을 풀고 인류를 구원하는 유토피아가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터미네이터가 상징하는 디스토피아가 있다.<br/><br/>명<br/><br/>10년쯤 뒤면 초등학생도 <br/>알파고 갖고 놀 수 있어<br/><br/>알파고 개발자 <br/>“수명연장·재생산 에너지 등 <br/>수많은 문제 해결방법 찾아내 <br/>인류의 삶 증진시킬 것”<br/><br/>지금도 금융·의료계·페이스북 <br/>‘인간 위한’ 능력활용 톡톡<br/><br/>“<span class='quot0'>소프트웨어가 ‘인간 두뇌’를 눌렀다.</span>”<br/><br/> 알파고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5월13일 아이비엠(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 개리 카스파로프에게 승리한 다음날 한 신문을 장식한 제목이다. 인간이 기계에 정복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br/><br/> 당시 딥블루의 연산속도는 지금의 스마트폰보다도 떨어진다. 딥블루가 11.4지플롭(Gflops·초당 몇 회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는지 나타내는 단위)이었는데, 갤럭시S6는 34.8지플롭이나 된다. 이런 혁신 속도라면 앞으로 10년쯤 뒤엔 초등학생도 ‘알파고’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된다.<br/><br/><br/><br/> 인공지능 연관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누구인지 인식해 꼬리표를 추천해 주는데, 세계 10억명 이용자의 사진을 일일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 덕이다.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도입한 금융 분석 프로그램 ‘켄쇼’는 연봉 35만~50만 달러의 애널리스트가 40시간 걸릴 일을 몇분만에 처리한다. 아이비엠은 자사의 인공지능 ‘왓슨’을 의료 분석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지난해 시작했다.<br/><br/><br/><br/> 활용 방안은 앞으로 무궁무진해질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컴퓨터가 사람 말을 알아듣게 되면 모든 운영체제를 대체할 것이다.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은 의사가 처리하지 못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병을 진단할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디시(IDC)는 2017년엔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1650억달러(약 200조원)에 이르리라 전망했다.<br/><br/>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의 유토피아를 전망한 선구자적 인물이다. 그는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기술부문 이사이기도 하다. 그는 2005년 쓴 책 <특이점이 온다>에서 기계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둘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점을 ‘특이점’으로 정의했다. 컴퓨터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는 순간 스스로 자신을 개조해 지적 능력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커즈와일은 이 존재가 수명 연장과 재생산 에너지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 인류의 삶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시점을 2045년으로 추정했다.<br/><br/> 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는 “알파고의 승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성장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빅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우리의 합리적 판단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br/>암<br/><br/>“인간이 모르는 사이 <br/>자의식 형성할 위험”<br/><br/>“처음에 목표 잘못 설정하면 <br/>무서운 결과 이뤄질 수 있어”<br/><br/>세계경제포럼 <br/>“인공지능이 지식노동자 대체 <br/>4년안 5백만개 일자리 사라질 것”<br/><br/><br/><br/>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해 장미빛 전망의 반대 쪽엔 인류 종말의 암울한 미래가 있다. <터미네이터> 같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영향을 끼친 탓도 있지만, 진지하게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들도 많다.<br/><br/> 먼저 기계가 육체노동자를 대체했듯이 인공지능이 지식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과학 등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5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반면 7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br/><br/><br/><br/>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해온 닉 보스트롬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는 지난해 세계적 강연회인 ‘테드’(TED)에서 컴퓨터가 우리보다 똑똑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관한 추론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은 주어진 목표를 극도의 효율성으로 달성하는 기계다. 따라서 처음에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간을 웃게 만들어라’라는 목표를 설정할 경우, 초월적인 인공지능은 사람 얼굴에 전극을 꽂고 웃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 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스트롬 교수는 “<span class='quot1'>윤리와 도덕 같은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정교하게 정의해서 기계에 가르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창업자 등도 보스트롬 교수의 저서를 트위터 등으로 추천하면서 “<span class='quot2'>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에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span>”고 지적한다.<br/><br/> 물론 딥블루가 그랬듯이 알파고의 승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인간 수준의 컴퓨터 개발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세돌 9단을 꺾어 인간의 ‘직관’을 흉내내는 놀라운 진보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바둑을 잘 두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동근 아주대 교수(전자공학과)는 “<span class='quot3'>특정 분야에서 인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을 뿐이지 자의식까지 갖춘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어려운 문제</span>”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여러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인간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형성할 위험은 있다.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세계 철학계에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br/><br/>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6.txt

제목: 3월 11일 인사  
날짜: 2016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10190537587  
본문: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수출입 이민우 △산업인력 박영삼 △입지총괄 신용민 △중동아프리카통상 최진혁 △홍보지원팀장 김창희 <br/><br/>⊙ 외교부 <국장급> △조정기획관 이헌 △인사˝ 조구래 ◇국장 △동북아시아 정병원 △북미 여승배 △중남미 임기모 △국제법률 박철주 △문화외교 최영삼 △재외동포영사 김완중 △기후변화환경외교 이형종 △평화외교기획단장 김용현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이명렬 △˝ 기획부장 유혜란 ◇심의관 △동북아시아국 배종인 △북미국 김준구 △중남미국 허태완 △국제법률국 유기준<br/><br/>⊙ 한국광물자원공사 <승진> ◇본부장 △기획관리(상임이사) 이정기 △경영˝(1급) 남윤환 △자원기반(1급) 김상길 <전보> △자원개발본부장(1급) 이무영 △운영사업˝(1급) 신기흠<br/><br/>⊙ MBC ◇국장 △감사국 김풍철 △관계회사국 성보영 △심의국 김지은 △드라마1국 박성수 △˝2˝ 이창섭 △영상미술국 정찬래 △논설위원실장 김상운 △매체전략국 미래방송연구소장 정성후 ◇부국장 △감사국 류시준 △경영인프라국(총무부장 겸) 이재명 △드라마1국 이주환 △제작기술국 양광춘 △영상미술국 홍종완 ◇부장 △감사국 감사1 최기현 △˝ ˝2 김판영 △심의국 TV심의 이효동 <드라마1국> △드라마1 김도훈 △˝2 김승모 △˝3 신현창 <드라마2국> △드라마기획제작1 김상호 △˝2 박성은 △드라마해외제작 박홍균 △제작기술국 종합편집 김현섭 △영상미술국 영상2 길창우 △˝ 미술 박용국 △광고국 광고영업 김영진 △자산개발국 테마투어사업 최윤희 △경인지사 지사장(문화사업제작센터장 겸) 김석창 △˝ 고양의정부총국장(부장) 이종태<br/><br/>⊙ 울산MBC △보도국 뉴스취재부 부장 이상욱 △˝ ˝ 선임기자 한창완 △경영기술국 디지털기술부 부장 노경섭 △˝ ˝ UHD추진담당 김기홍 △UMX 파견 마동철 <br/><br/>⊙ 건국대 △대학교육혁신원장 강황선 △창업지원단장 이철규 △상허교양대학 기초교육센터장 정의준 ◇센터장 △상허고양대학 연구평가 김용운 △교육성과관리 유병민 △산학협력단 실험동물연구 서한극 △기업장기현장실습 강민형<br/><br/>⊙ 청주대 △교육혁신본부장 최미나 △교양교육˝ 한대균 △미래전략부장 류기문 △기업창업보육센터장 차형우<br/><br/>⊙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총지배인 진승재<br/><br/>⊙ LG그룹 ◇LG전자 △연구위원 강동우 김기문 박종욱 박태환 송재욱 양정휴 엄동기 우승균 이성규 임선경 최송 최인환 하재훈 홍성룡 홍언표 △전문위원 배권일 이건식 이중학 ◇LG디스플레이 △연구위원 고태운 김관수 김성기 김철세 유장진 유준석 장경근 △전문위원 김동선 문교호 임경남 진경종 ◇LG이노텍 △연구위원 배석 홍정하 △전문위원 유영빈 ◇LG실트론 △연구위원 조용준 ◇LG화학 △연구위원 구자훈 김건수 박민수 성주환 신정규 신준호 양두경 이광주 이동훈 정병준 △전문위원 허양현 ◇LG하우시스 △연구위원 이종훈 ◇LG생활건강 △연구위원 송영숙 안재현 진무현 ◇LG생명과학 △연구위원 박희동 △전문위원 이구 <br/><br/>⊙ KNN <연임> △대표이사 사장 문혁주 <승진>△서부경남본부장 김석호 <전보> ◇본부장 △경영사업 이성림 △방송 조승완 △경남 김병근 △서울 최용부<br/><br/>⊙ 길병원 ◇실장 △기획조정(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 겸) 임정수 △의료정보 김동영 △의료질관리 김홍순 △홍보 오진규 ◇부장 △진료기획(전산정보본부장 겸) 조용균 △진료1 이경천 △진료2 이주강 △교육수련 정우경 △연구지원(내과부장 겸) 이상표 △연구기획단장 최철수 △산학협력지원〃 김선태 ◇센터장 △VIP건강증진 권광안 △암 신동복 △심혈관 안태훈 △임상시험 박연호 △여성암센터 소장 박흥규 △응급 겸 진료협력센터 소장 겸 응급의학과장 양혁준 △소화기 김연수 △치매예방 연병길 △피험자보호 이주강 △장기이식 이현희 △유헬스케어 겸 소화기내과장 박동균 △바이오뱅크 하승연 △임상의학연구소장 정성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7.txt

제목: “몸둘 바 없는 독서실서 살아봤나요”  
날짜: 20160309  
기자: 방준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9194851011  
본문: ‘몸 둘 바를 모르겠다.’<br/><br/>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올해 진행하는 학생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이름이다. “<span class='quot0'>집을 구하기 전 상담을 받으려고 학생회실을 찾아오는 학우들이 대학가의 좁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몸 둘 바’를 몰라하고, 평당 월세로 따지면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보다 대학가 월세가 비싸 부모님 앞에서 ‘몸 둘 바’를 몰라한다</span>”는 데서 착안해 지은 이름이라고 박세훈(22·자유전공학부·사진)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설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집 구하기 상담과 동행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학기부터는 고려대 주변 방들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누리집을 열 계획이다. “솔직히 이런 작업을 왜 총학생회나 청년단체들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의 주거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서 개선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박씨는 총학생회가 이런 사업을 그만두는 세상을 바란다. <br/><br/>‘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박씨는 9일 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span>”라고 강조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20대들이 가장 열악한 공간에 살고, 불공평한 주거 비용을 강요받고 있어요. 사회 전체의 주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년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br/><br/>대학가 평당 월세 강남보다 비싸 <br/>주거빈곤 청년수 서울서만 52만명 <br/>“<span class='quot0'>싼 기숙사·공공임대 공급 늘려야</span>”<br/><br/> 2014년 민주정책연구원은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에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옥탑방, 주택 이외의 거처에 머무는 서울의 주거 빈곤 청년 수가 52만명(22.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1인 청년가구만 놓고 보면 서울시 청년의 36.2%가 이런 환경에서 산다. 주거 빈곤층 비율은 유독 청년 세대에서만 늘어나는 추세다. 박씨는 “학교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기묘한 집들이 많다. ‘독서실’로 용도 분류된 건물을 원룸인 줄 알고 살고 있던 친구도 있고, 집이 너무 좁아 친구 한 명이라도 놀러 오면 옆으로 누워 자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br/><br/> 공동행동은 특히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불공평한 민간 임대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현재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이 1% 수준, 박씨는 “<span class='quot1'>거리로 몰려나온 만만한 수요인 대학생들이 조물주인 건물주가 부르는 게 값인 임대료를 내고 열악한 집에 들어간다</span>”고 비판했다.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46개 대학가의 원룸 표본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대학가 원룸의 평당 월 임대료는 10만9000원(2012년 기준) 수준이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아파트보다도 4만원 정도나 비싼 수준이다.<br/><br/> 기숙사 역시도 저렴한 보금자리가 아니다. 박씨는 “<span class='quot1'>고려대 기숙사 비용은 1명당 한 달 40만원(신축 내국인 기숙사 기준)에 가까운데, 2명이 한방을 쓰고 있으니 방 하나에 80만원인 셈</span>”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 민자기숙사가 확대되면서 ‘원룸보다 비싼 기숙사’란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그나마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4%(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br/><br/> 공동행동 쪽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렴한 기숙사를 확대하라”고 20대 국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의 토론회, 각 대학이 소재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과의 면담 등을 준비하고 있다. <br/><br/>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박씨가 답했다. “침대와 책상을 놓고도 팔굽혀펴기 정도는 할 수 있는 크기의 집이요. 그리고 (청년들이 자신의 수입으로) 조금이나마 저축을 해 자립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임대료면 될 것 같아요.” <br/><b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8.txt

제목: 하루 햇볕 20분 쬐어 뼈 건강 챙기세요  
날짜: 20160308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9114758437  
본문: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다.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질환이나 유방암 등 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몸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보통 봄철에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필요한 비타민 D의 양도 많아지는데, 이때 햇볕을 쬐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거나 기분이 우울해지는 등과 같은 비타민 D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관련 전문의들은 하루 20분가량 실외에서 걸으면서 햇볕을 쬐는 것을 권장했다.<br/><br/><br/><br/>2~3월이 몸속 비타민 D 농도 최저 <br/>부족해지면 뼈 건강, 정신 건강 해쳐 <br/>고등어 등에 많으나 음식은 섭취 한계 <br/>특히 아이들은 햇볕 쬐며 실외활동 해야<br/><br/><br/><br/> ■ 부족하면 뼈 건강, 인지 기능 해쳐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몸 곳곳의 기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우선 비타민 D는 소장 등에서 칼슘 섭취를 돕는데, 부족하면 칼슘이 든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뼈가 휘거나 약해져 외부 충격에 잘 부러지거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년층 이상에서는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면 골다공증까지 생기게 된다. 비타민 D는 또 근육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근력이 약해지거나 근육통, 잦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br/><br/>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의 예방에도 적절한 비타민 D는 도움이 된다. 보통 겨울에 혈압이나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혈압을 올리는 물질의 분비를 막지 못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덜 생성되는 것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 햇볕을 덜 쬐면 유방암이나 대장암, 전립선암과 같은 암 발생 위험도 다소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호르몬 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부족하면 우울해지거나 인지 기능 및 기억력이 감소하기도 한다.<br/><br/> ■ 음식으로는 부족 비타민 D는 식물성 및 동물성 식품 모두에 들어 있기는 하며, 연어, 고등어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간, 난황이 대표적으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다. 하지만 이런 음식을 매일 챙겨 먹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섭취 열량도 만만치 않아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행히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볕을 받으면 생성된다. 자외선 B를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주의할 점 하나는 자외선 B는 옷이나 유리창을 통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은 화장품 등을 발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햇볕을 쬘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옷을 많이 껴입는 겨울에는 피부에서의 비타민 D 생성이 최저에 이른다. 보통 2~3월에 몸속 비타민 D 농도가 최저치에 이르는 이유이기도 하다.<br/><br/> ■ 소매 걷고 하루 20~30분 산책 봄철 햇볕은 비타민 D 생성 및 보충에 ‘무료 처방전’인 셈이다. 햇볕을 쬐는 요령도 간단하다. 하루 20분 정도 실외로 나가 햇볕을 쬐고, 이를 일주일에 3번 정도 챙기면 된다. 햇볕을 쬐기 좋은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정도여서 직장인들의 경우 점심 식사 뒤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때 윗옷의 경우 소매나 팔은 걷어 올리면 비타민 D 생성에 더 유리하다. 다만 한여름에는 강한 햇볕으로 오히려 피부질환이나 일사병 등에 걸릴 수 있으므로 오전이나 오후 늦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변이나 운동장 등에서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될 때에는 15분 정도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을 쬐고, 이후 차단제를 발라 햇볕 화상을 입거나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br/><br/>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뼈가 제대로 발육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고, 천식 등 자가면역질환의 증상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 역시 봄철에 실외에서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생성은 충분하며, 게다가 실외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면서 뼈 성장도 자극한다는 점에서 권장된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도움말: 최희정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형무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39.txt

제목: “고지서에 찍힌 등록금을 반값으로”  
날짜: 20160308  
기자: 최우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8213333387  
본문: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신다고 해도 용돈까지 받아 쓰기 죄송하니까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하느라 바빠요. 성적장학금을 받아도 언제 놓칠까 늘 불안해하죠.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전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느라 바쁩니다.”<br/><br/><br/><br/>일부를 위한 국가장학금만으론 <br/>학비 걱정에서 탈출 못해 <br/>‘교육받을 권리’ 느끼고 싶다<br/><br/><br/><br/><br/><br/> 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만난 오규민(24·사학과) 총학생회장은 비싼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한양대는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500만원(2014년 기준,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34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2011년 9월 ‘국가장학금제도’를 마련해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의 시작을 알렸다. 성적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정액제로 장학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한 학기에 최소 33만원(소득 8분위)에서 최대 260만원(1분위·기초생활수급가정)을 받는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발표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소득 3분위(195만원)까지는 반값 등록금이 되지만 그 이상은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 특히 소득기준에 자산과 부채까지 환산해 적용하다 보니 소득 없이 집만 있거나 자영업자 가정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기도 한다. 오씨는 “<span class='quot0'>정부가 진정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려면, 예산 증액을 통해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오씨는 지난 1월 등록금 문제로 한달여 동안 천막농성을 하며 학교 쪽과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깊게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한양대는 학교의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국가장학금 규모가 결정(인센티브 형식의 재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해당된다. 학생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한 건, 학교 쪽이 자체 장학금 예산을 줄이면서 국가장학금마저 삭감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설 연휴 때 집에 가지도 못하고 농성을 벌인 끝에 ‘학교장학금과 국가장학금 합계 총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학교 쪽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는 “<span class='quot0'>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학교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는 학교에, 학교는 다시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의 책임을 학교 쪽에만 물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 공동행동 쪽은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를 벌여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3·26 청년 공동행동’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오씨는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팔이’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댁네 아들딸 고생하는 거 다 안다’는 식이다. 진짜 청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br/><br/> 글·사진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br/><br/> <br/><br/><br/>■ 더민주 ‘비례 1번’ 박경미, 제자 논문 베껴 학술지 게재 전력 <br/><br/>■ TK 지역, ‘진박’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 <br/><br/>■ 김종인 더민주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br/><br/>■ “하루 한두잔 술도 안돼” 달라진 암 예방 수칙 <br/><br/>■ [화보] 한국 걸그룹 변천사 ‘70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0.txt

제목: ‘FBI, 당신들 틀렸어’ 펜타곤·NSA의 반기  
날짜: 20160307  
기자: 정의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7200917760  
본문: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아이폰 잠금 해제 요구에 국가 안보 최고 부서인 미국 국방부와 국가안보국(NSA)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br/><br/>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요구하는 아이폰 잠금 해제를 위한 암호 해독 프로그램 제공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사용한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는데 애플이 협조하도록 강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는 이견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암호화가 제기하는 더 큰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이견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br/><br/><br/><br/>암호 해제 백도어 구축하면 <br/>중국·해커 등 사용 가능성 우려<br/><br/><br/><br/>잠금 해제 입법적 해결 움직임엔 <br/>국방장관 “올바른 해답 아니다” 반대 <br/>국방·정보쪽은 암호 강화에 더 관심 <br/>대통령위원회도 ‘암호 해제’ 반대<br/><br/><br/><br/> 연방수사국은 수사를 위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원하지만, 국방부와 정보 계통 관리들은 그런 기술들이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전화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려는 외국이나 해커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미국의 수사 당국에게 제공된 것과 같은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br/><br/>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컴퓨터 보안회의에서 “<span class='quot0'>암호화를 포함한 데이터 보안은 국방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데이터 보안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은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이폰 잠금 해제 등과 관련된 암호 해독을 입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분노와 슬픔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span>” 법은 “<span class='quot0'>올바른 해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span>”고 말했다. 그는 회의 뒤 대화에서 데이터를 엿보기는 것보다 보호하는데 더 관심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br/><br/> 카터 장관의 이런 입장은 하루 전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입장과 대비된다. 코미 국장은 암호화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든지간에 수사 당국에 접근권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수사 분야 쪽은 암호화 해독에, 국방과 정보 분야 쪽은 암호 강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보국, 국토안보부, 국방부 관리들의 회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br/><br/> 지난 2014년 국가안보국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국가안보국의 도감청 사건과 관련해 구성된 대통령위원회는 암호 해제를 위한 백도어 구축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span class='quot1'>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업 소프트웨어들을 전복하거나, 잠식하거나, 약화 혹은 취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span>”고 권고했다.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 해제 방지 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br/><br/> 도감청이 핵심업무인 국가안보국이 암호 해제를 위한 백도어 설치 등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기관이 누구보다도 앞선 암호화 기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가안보국은 이미 내부에 지니고 있는 이 능력이 확산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선진연구프로젝트청의 선임과학자인 에이치 티 고란손은 <프로젝트 신디게이트>에 투고한 칼럼에서 연방수사국이 잠금 해제를 원하는 신형 아이폰에 장착된 칩들은 국가안보국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 칩은 이스라엘 쪽에서 설계됐다고 전했다.<br/><br/> 국무부와 상무부 쪽은 암호화 문제에 더욱 민감하다. 힐러리 클린턴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무부는 2011년 아랍의 봄 때 현지 활동가들에게 통신을 돕고 검열을 회피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터넷 장치들을 제공했다. 이 시스템은 특히 중국 보안 당국과 이집트 비밀경찰의 사찰을 회피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애플에 암호화를 해제하라고 강제하면, 이런 기술은 중국에 그대로 복사되어 전해질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말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br/><br/>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1.txt

제목: 내일도 스물여덟, 영원히 위대한 서정시의 탄생  
날짜: 20160304  
기자: 박유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5112126827  
본문: ▶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진 윤동주의 장례가 1945년 3월6일 뒤늦게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윤동주 서거 71주기입니다.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이 지난 2월24일~3월1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고,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저예산 영화 <동주>도 조용한 흥행몰이 중입니다. 몰락한 시대, 끝없이 부끄러워했던 윤동주의 시가 어깨 곁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의 시가 다시 불어오는 것은 부끄러움을 잊고 사는 탓일까요. <br/><br/>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금에서 <br/>하루 종일 시든 귀를 기울이면 <br/>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br/><br/>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br/>나는 총명했던가요.<br/><br/>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br/>오래 마음 깊은 속에 <br/>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br/>하나둘 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br/>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br/>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br/><br/> 흰 그림자들 <br/>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br/><br/>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br/>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br/>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br/><br/>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羊)처럼 <br/>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br/><br/> -‘흰 그림자’, 1942.4.14.-<br/><br/><br/><br/> 이름 잃은 사내가 빛 잃은 거리를 서성이다 모퉁이 속으로 사라지는 흰 그림자를 바라본다. 사랑하는 그림자를 어둠 속에 소리 없이 보내고 뒷골목을 돌아 찾아온 방. 시들어간 귀를 안고 황혼으로 물드는 작은 방에 앉는다. 양처럼 풀포기를 뜯자. 그제야 소리 없이 중얼거린다. 이름 잃은 사내는 히라누마 도주(25). 시인 윤동주.<br/><br/>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역 근처에 자리한 릿쿄대학 영문과 선과(先科) 1학년 윤동주는 1942년 4월14일 일본인들 사이를 서성이다 돌아와 시를 쓴다. 12일 전 입학한 신입생은 어쩐지 괴롭고 그립다.<br/><br/>태극기 날리는 간도 명동소학교 <br/>잃어버린 조국 밖의 조국 <br/>윤동주, 송몽규, 문익환은 <br/>나라 잃은 설움에도 꿋꿋했다 <br/>몽규와 동주는 문학을 사랑했다<br/><br/>열일곱 몽규가 신춘문예 등단 <br/>동주는 시에 날짜를 적기 시작했다 <br/>몽규는 열여덟에 무장투쟁 위해 <br/>중국으로 떠나고 동주가 남았다 <br/>‘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이 그립다<br/><br/><br/><br/> 흐르는 거리<br/><br/> 윤동주는 1942년 1월29일 이름을 잃었다.<br/><br/> 조선총독부는 1939년 11월10일 총독부 제령 19호로 ‘창씨개명’을 공포하고 참여가 저조하자 소설가 이광수 등을 동원해 1940년 8월 창씨율을 79.3%로 끌어올린다. 1941년 11월 개명을 거부한 조선인에게 제재조치를 공표한다. ‘자녀는 학교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행정기관은 모든 민원 사무 취급을 안 한다. 비국민·불령선인으로 단정해 경찰 수첩에 기입해 철저히 사찰한다….’ 윤동주는 1942년 1월29일 창씨개명계를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에 제출한다.<br/><br/> 유학을 결심한 윤동주와 고종사촌 송몽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선 일본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 창씨개명계를 제출하기 닷새 전 그는 한 편 시를 원고지에 적는다.<br/><br/>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br/>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br/>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br/>이다지도 욕될까.<br/><br/>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br/>-만 이십사년 일개월을 <br/>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br/><br/>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br/>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br/> -그때 그 젊은 나이에 <br/>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br/><br/>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br/>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br/><br/>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br/>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br/>거울 속에 나타나온다.<br/><br/> -‘참회록’, 1942.1.24.-<br/><br/><br/><br/> 그가 ‘참회록’을 쓰고 원고지 아랫부분 왼쪽에 끄적거려본다. ‘詩人의 告白’(시인의 고백). 연필이 쉬이 그를 놓지 않는다. 그 아래 적는다. ‘渡航 證明’(도항 증명). 일본으로 떠나는 도항을 증명한다. 시는 길을 일러주지 않는다. 그가 종이 위에 답한다. ‘詩란 不知道’(시란 부지도). ‘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br/><br/> 동주는 1942년 고종사촌 송몽규와 일본행 배를 탔다.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교토제대 사학과에 입학한 송몽규, 릿쿄대 영문학과생 윤동주는 미리 유학와 있는 당숙 윤영춘을 만난다. “나는 둘의 손목을 잡고 우에노 공원과 니혼바시를 내 집 뜨락처럼 쏘다녔다. 문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 시와 조선이라는 이름은 말버릇처럼 동주의 입에서 자주 튀어나왔다.”(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나라사랑> 23집 1976년 여름호)<br/><br/> 넉넉한 집안의 아들 동주는 대학노트를 끼고 강의실에 들어간다. 어느 밤 바닥에 그려진 낯선 그림자처럼 부끄러움이 그를 길게 따라다닌다. 그런 밤 동주는 잠이 들지 않고 원고지에 자신을 써내려갔다. 창밖으로 밤비가 속살거린다.<br/><br/>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br/>육첩방(六疊房)은 남의 나라,<br/><br/>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br/>한 줄 시를 적어볼까.<br/><br/>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br/>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br/><br/> 대학 노-트를 끼고 <br/>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br/><br/>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br/>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br/><br/> 나는 무얼 바라 <br/>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br/><br/>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br/>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br/>부끄러운 일이다.<br/><br/> 육첩방은 남의 나라 <br/>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br/><br/>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br/>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br/><br/>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br/>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br/><br/> -‘쉽게 쓰여진 시’, 1942.6.3.-<br/><br/><br/><br/> 일본으로 건너오기 전 윤동주와 송몽규는 1938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 원한경이 교장으로 재직하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일본의 탄압 정책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며 자유로운 학풍 가운데 공부하고자 했다. 윤동주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새로운 길’)을 잠시 그려보지만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다시 수난의 시간을 맞는다. 1941년 3월 조선어가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194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된 데 이어 이듬해 4월 문학잡지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된다. 윤동주가 존경한 한글학자 최현배 교수는 1938년 11월 강제 해직됐다가 도서관 직원으로 복직된다. 연희전문은 이제 수탈된 조국에서 숨을 트는 호흡기가 아니다. 대학 4학년 가을, 시인은 잃어버린 길 위에 섰다.<br/><br/> 잃어버렸습니다. <br/>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br/>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br/>길에 나아갑니다.<br/><br/>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br/>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br/><br/>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br/>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br/><br/>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br/>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br/><br/>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br/>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br/><br/>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br/>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br/><br/> 내가 사는 것은, 다만, <br/>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br/><br/> -‘길’, 1941.9.31.-<br/><br/> 꿈은 깨어지고<br/><br/>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br/>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br/><br/>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br/>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br/><br/>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br/>백골을 들여다보며 <br/>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br/>백골이 우는 것이냐 <br/>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br/><br/> 지조 높은 개는 <br/>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br/>어둠을 짖는 개는 <br/>나를 쫓는 것일 게다.<br/><br/> 가자 가자 <br/>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br/>백골 몰래 <br/>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br/><br/> -‘또 다른 고향’-<br/><br/><br/><br/><br/><br/>윤동주는 중국 만주 간도의 명동마을에서 자랐다. 1917년 12월30일 명동마을에서 태어나 1945년 2월16일 일본에서 옥사하기까지 그는 본토를 떠나 타지로 갔다. 만주 간도에서, 경성으로, 다시 일본으로. 그가 태어나고 자란 명동마을을 고 문익환 목사는 1976년 4월 <월간중앙>에서 이렇게 기억한다.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은 1925년 명동소학교에 입학했다.<br/><br/> “안수길의 ‘북간도’를 읽어보면, 한국인들은 북간도에서 중국인들에게 행패를 당해 망국민의 설움을 톡톡이 당한 것처럼 되어 있다. 물론 그런 곳도 적지 않았고 그런 사건도 있었다. 명동만은 그렇지 않았다. 명동에서 이야기된 일이 밖으로 새는 일이 없을 정도로 전 주민이 민족애로 뭉쳐 있었다. (…) 동주와 내가 졸업하던 1931년까지 명동학교는 행사 때마다 태극기를 걸고 애국가를 불렀다. 작문시간에는 어떤 제목이 나오든 조선독립으로 결론을 끌고 가지 않으면 제대로 점수를 못 받았을 정도였다. 망국의 울분을 짓씹으면서도 우리는 조국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느낌이었다. 거기는 우리 선조들이 쌓았던 성터가 남아 있었고 땅속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쓰던 활촉들이 무더기로 나왔고 절구 같은 생활도구들이 땅을 가는 보습에 걸려 나왔다. 거기는 남의 나라가 아니었다. 거기만은 조국이 살아 있었다.”<br/><br/> 윤동주의 아버지는 중국 베이징에 유학을 다녀온 명동학교 교원이었다. 그의 외삼촌은 김약연 목사. 김약연 목사는 1918년 한일병합 이후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무오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9인 중 한 명이다. 천주교 신부들로부터 협조를 거부당한 안중근이 명동마을 뒷산에서 권총 사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br/><br/>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에 두 명의 주인공이 출연한다. 동갑내기 고종사촌 송몽규와 윤동주. 둘은 명동소학교, 은진중학교, 연희전문학교, 일본 유학,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까지 함께했다. 시인과 무장투쟁 독립운동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달랐지만 그 길 끝은 죽음이었다. 둘은 문학을 사랑했다. 명동소학교 동급생인 시인 김정우의 기억에 따르면 윤동주와 송몽규는 5학년 때 잡지 <새 명동>을 몇 호 발간했다. 몽규는 동주보다 먼저 두각을 드러냈다. 1934년 12월 은진중학교 3학년, 열일곱 나이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콩트 부문에 ‘술가락’으로 당선된 것. 몽규가 당선된 그해 12월24일부터 동주는 시에 날짜를 기록한다. “동주는 ‘대기(大器)는 만성(晩成)이지’라는 말을 가끔했다. 몽규를 의식하는 말이었다.”(고 문익환 목사, 1976년 4월 <월간중앙>)<br/><br/> 송몽규, 윤동주, 문익환. 세 사람은 은진중학교에서 한 명의 은사를 만난다. 동경제대에서 동양사를 전공한 명희조 선생. 명희조 선생은 유학 시절 일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 전차를 타지 않았다. 명희조 선생은 몽규를 눈여겨봤다. 민족주의 정신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은진중학교는 교실마다 태극기를 걸고 삼일절과 단군 기념일을 지켰다.<br/><br/> “명 선생이 몽규를 중국으로 보낸 일이 있었다. 그것이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끝내 그가 무슨 사명을 띠고 중국으로 갔었는지 묻지 못하고 말았다. 그 일로 해서 몽규는 몹시 고생했고 기어이 은진중학교를 못 마치고 같은 용정에 있는 대성중학교를 마치고 연전(연희전문)으로 올라온다. 일본 경찰은 동주보다 몽규를 주목하고 있었으리라.”(문익환)<br/><br/> 송몽규는 1935년 4월 4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난징에 있는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의 한인반으로 떠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김구 선생이 반일 민족독립전쟁에 나서려는 군사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였다. 명희조 선생의 소개였다. 몽규는 신춘문예 당선으로 열린 출세의 길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br/><br/> “1935년 은진중학교에 다니던 윤동주, 문익환, 송몽규는 각기 다른 선택을 한다. 3월에 윤동주는 용정중앙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유년부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문익환은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해 5년제인 평양숭실중학교로 먼저 편입했다. 당시 연희전문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해야 했다. 4년제 중학교를 나오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불리했다. 송몽규는 중국으로 떠났다.”(김응교, <처럼>, 문학동네, 2016)<br/><br/> 윤동주는 문익환보다 늦은 1935년 9월 편입시험을 보고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한다. 민족애국주의 학교를 다녔던 두 사람은 침략된 조국의 좌절을 처음 맞닥뜨린다. 당시 기독교는 신사 참배파와 반대파로 갈등을 겪었고 1935년 12월4일 숭실중학생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해산했다.<br/><br/> “학생들은 모두 와카마쓰 신학교 앞에 모였다. 서울 남산의 조선신궁 다음으로 크고 장엄하게 지었다는 평양신궁은 모란봉 산정 부근에 위치했다. 신궁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파른 돌계단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했다. 돌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이미 참배를 마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찡그린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숭실학교는 참배 대열의 맨 꼴찌였다. 계단의 한가운데쯤 올라갔을 때였다. 당시 5학년이었던 학생장 임인식 형이 갑자기 ‘제자리에서’ ‘뒤로돌아’ 고함쳤다. 학생들은 마치 일시에 전류가 통한 듯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그대로 돌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말았다. 그것은 이심전심의 무서운 결속이었다. 이 일로 숭실학교의 조지 S. 매퀸 교장(한국명 윤산온)은 다음해인 1936년 1월20일 파면됐다. 그 며칠 후 2월 초였다. 윤 교장의 파면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두 명씩 세 명씩 교정에 모여들었다. 새로 학생장이 된 유성복 형의 인솔로 교장을 내놓으라며 데모가 시작됐다. (줄임) 이 일로 인해 숭실학교는 무기 휴교가 되고 나를 포함한 주동 학생들이 피검되었다. 당시 급우였던 애국 시인 윤동주는 광명학교로 옮겨야 했다.”(김두찬, ‘혹독했던 신사참배 강요’, <동아일보> 1982년 8월16일)<br/><br/> 열아홉 윤동주는 깊은 겨울밤 불 꺼진 화독을 품에 안았다. 재만 남은 가슴으로, 문풍지 소리에 떠는 가슴으로 시를 쓴다.<br/><br/> 소리 없는 북 <br/>답답하면 주먹으로 뚜드려보오<br/><br/> 그래 봐도 후- <br/>가-는 한숨보다 못하오. <br/>-‘가슴 1’, 1936.3.25.-<br/><br/> 불 꺼진 화독을 <br/>안고 도는 겨울밤은 깊었다.<br/><br/> 재만 남은 가슴이 <br/>문풍지 소리에 떤다 <br/>-‘가슴 3’, 1936.7.24.-<br/><br/><br/><br/> 윤동주와 문익환은 1936년 3월 평양 숭실중학교를 자퇴하고 간도의 용정으로 돌아온다. 둘은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일본인에게 매각된 광명학원 중학부에 입학한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퇴한 학생들이 조선인의 황국화를 위해 세워진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고 문익환 목사는 “<span class='quot0'>솥에서 뛰어내려 숯불에 내려앉은 격</span>”이라고 회고한다. 한달 뒤 중국 산둥성 지난(濟南)에서 지난 주재 일본 영사관 경찰부에 체포된 송몽규는 일본 경찰 블랙리스트에 기록된다. 함경북도의 어느 교도소에 투옥된다. ‘이런 날에는/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부르고 싶다.’(‘이런 날’, 1936.6.10)<br/><br/>자유로운 학풍, 연희전문에 입학 <br/>곧 조선어 교육이 금지되고 <br/>암흑의 시기에 오래 침묵한다 <br/>시인은 창씨개명계를 내고 <br/>‘참회록’ 시로 부끄러워한다<br/><br/>동주는 시집을 출간하려다 <br/>원고를 후배 정병욱에게 맡긴다 <br/>후배는 시집을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br/>땅속 항아리에서 기다린 시집 <br/>‘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br/><br/> 무서운 시간<br/><br/> 1938년 윤동주와 송몽규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다. 윤동주는 기숙사와 하숙 생활을 번갈아 했는데 1940년 두 학년 아래인 정병욱을 기숙사에서 만난다. 윤동주가 4학년, 정병욱이 2학년으로 진급하던 1941년 봄, 기숙사를 떠나기로 하고 누상동 마루터기에 있는 하숙방을 구했다. 한 달이 지나고 하숙집 사정으로 떠나야 할 신세가 되어 새 하숙을 구하러 길을 나선다.<br/><br/> “누상동에서 옥인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목 전신주에 우연히 ‘하숙 있음’이라는 광고 쪽지를 발견했다. 누상동 9번지였다. 그길로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집주인의 문패는 김송이라 씌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설마 하고 대문을 두들겨 보았더니 과연 나타난 집주인은 소설가 김송씨 바로 그분이었다. 1941년 5월 그믐께 우리는 소설가 김송씨의 식구로 끼어들어 새로운 하숙 생활이 시작되었다. 김송씨의 부인 조성녀 여사는 성악가로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에게 가끔 들려 주셨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대청마루에서 홍차를 마시며 음악을 즐기고 문학을 담론하기도 했었다.<br/><br/><br/><br/> 동주의 시집 제1부에 실린 많은 작품들이 1941년 5월과 6월에 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비록 쓸모는 없어도 마음을 주고받는 글벗이 곁에 있었고 우울한 세태 속에서 환대하는 하숙집 주인 내외분을 만난 기쁨 가운데 시를 쓸 수 있었다. (…) 빈틈없고 알찬 일상생활에 난데없는 횡액이 닥쳐왔다. 당시에 요시찰 인물로 되어 있었던 김송씨가 함흥에서 서울로 옮겨온 지 몇 달이 지난 후인지라 일본의 고등계(지금의 정보과) 형사가 거의 저녁마다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숙집 주인이 요시찰 인물인데다가 그 집에 묵고 있는 학생들이 연희전문학교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무시로 찾아와서는 서가에 꽂혀 있는 책 이름을 적어가고 고리짝을 뒤지고 편지를 빼앗아가는 법석을 떨었다.”(정병욱, <바람을 부비고 서 있는 말들>, 집문당, 1980)<br/><br/>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br/>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br/><br/>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br/>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br/><br/>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br/>이제 다 못 헤는 것은 <br/>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br/>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br/>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br/><br/> 별 하나에 추억과 <br/>별 하나에 사랑과 <br/>별 하나에 쓸쓸함과 <br/>별 하나에 동경과 <br/>별 하나에 시와 <br/>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br/><br/><br/><br/>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br/><br/>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br/>별이 아슬히 멀 듯이.<br/><br/> 어머님, <br/>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br/><br/>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br/>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br/>내 이름자를 써 보고, <br/>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br/><br/>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br/>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br/><br/> -‘별 헤는 밤’, 1941.11.5.-<br/><br/><br/><br/> 두 사람은 1941년 가을학기가 시작될 때 소설가 김송씨의 집을 나와 북아현동의 하숙집에 살았다. ‘별 헤는 밤’은 이때 쓰인 시다. 윤동주는 정병욱에게 시를 보였다. “<span class='quot1'>어쩐지 끝이 좀 허한 느낌이 드네요.</span>” 윤동주는 정병욱의 말을 듣고 마지막 네 줄을 썼다.<br/><br/>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br/>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br/>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br/>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br/><br/><br/><br/> “현재 시집의 제1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고를 정리하여 ‘서시’까지 붙여서 나에게 한 부를 주면서 ‘지난번 정형이 별 헤는 밤의 끝부분이 허하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끝에다가 덧붙여 보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넉 줄을 더 넣어주는 것이었다. 내 말을 듣고 이 마지막 넉 줄을 덧붙인 것이 과연 이 시를 살렸는지 사족이 되게 하였는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려니와 나의 하찮은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 존중할 줄 아는 태도란 시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동주의 너그러운 아량에 다시금 머리가 수그러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새삼스레 우러나게 된다.”(정병욱, 위의 책)<br/><br/> 윤동주는 연희전문을 졸업하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엮은 자필 시고 3부를 만들었다. 한 부는 이양하 선생에게, 한 부는 정병욱에게 주고 나머지 한 부를 본인이 가졌다. 이 시집의 이름은 ‘병원’으로 지으려다 바뀐 것이다.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여서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이다. 이양하 선생은 검열에 통과할 수 없다며 출판 보류를 권했다.<br/><br/> 윤동주가 1942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고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된 후 반년이 지나 정병욱도 학병으로 끌려갔다. 정병욱은 어머니에게 시집을 맡기며 “<span class='quot2'>나나 동주가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소중히 잘 간수</span>”해 달라고 부탁한다. 혹시 다 죽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조국이 독립되면 시집을 연희전문학교로 보내 세상에 꼭 알려달라는 유언이었다. 정병욱의 어머니는 전남 광양시 망덕리 집 마루 아래에 흙을 파내 명주 보자기로 겹겹이 싼 시집을 묻었다. 땅속에 오래도록 묻힌 시집은 1948년 정음사에서 출간된다.<br/><br/> <br/><br/> 슬픈 족속<br/><br/> 윤동주는 릿쿄대학을 자퇴하고 1942년 10월1일 교토의 도시샤대학에 입학한다. 송몽규와 윤동주의 집은 걸어서 4~5분 거리. 1942년 겨울 윤동주를 만난 당숙 윤영춘의 기억이다.<br/><br/>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밤이 깊도록 시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했다. 독서에 너무 열중해서 얼굴이 파리해진 것을 퍽이나 염려했다. 6조 다다미방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새벽 두시까지 읽고 쓰고 구상하고. 이것이 거의 그날그날의 과제인 모양이다.”(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br/><br/> 이듬해 여름 일본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했다. 체포된 시기는 송몽규 1943년 7월10일, 윤동주 7월14일. 둘을 포함해 같은 공부 모임에 있던 학생 7명이 체포됐다. 죄명은 재경도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책동. 체포된 윤동주는 교토경찰서 형사의 지시로 자신의 원고를 일어로 번역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됐다. 판결은 이러하다.<br/><br/> “<span class='quot1'>소무라 무케이(송몽규)와 소화 18년(1943) 4월 중순경 같은 사람의 하숙집으로부터 교토시 사교쿠 시타시라가와 히가시히라이초 60번지 시미즈 에이치 댁에서 회합을 하고 같은 사람에겐 조선 만주 등에 있는 조선 민족에 대하여 차별 압박의 근황을 청취하면서 서로 교환하며 논쟁과 비난을 격렬히 하면서 함께 조선에서의 징병제도에 관하여 민족적 입장에서 서로 비판하며(…) 위 사람과 찬드라 보스를 지도자로 하는 인도 독립운동의 대두에 대해 논의하고….</span>”<br/><br/> 윤동주의 독립운동 혐의가 어느 층위의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송몽규와 주도한 것인지, 몽규의 모임에 참석만 한 것인지는. 해방을 앞둔 1945년 2월16일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한다. 당숙 윤영춘이 형무소를 찾아갔다.<br/><br/> “죽은 동주는 후에 찾기로 하고 산 사람부터 먼저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몽규를 먼저 찾았다. (…) 몽규가 반쯤 깨어진 안경을 눈에 걸친 채 내게로 달려온다. 피골이 상접이라 처음에는 얼른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떻게 용케도 이렇게 찾아왔느냐고 여쭙는 인사의 말소리조차 저세상에서 들려오는 꿈같은 소리였다. 입으로 무어라고 중얼거리나 잘 들리지 않아서 왜 그 모양이냐고 물었더니 ‘저놈들이 주사를 맞으라고 맞았더니 이 모양이 되었고 동주도 이 모양으로 하고’ 말소리가 흐려졌다. 물론 이때는 우리말로 주고받은 것이다. (…) 일본 청년 간수 하나가 따라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동주가 죽었어요. 참 얌전한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나 외마디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운명했다’며 동정하는 표정을 보였다.”(윤영춘, 위의 책)<br/><br/>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943년 64명, 1944년 131명, 1945년 259명이 옥사했다. 윤동주가 죽은 열흘 뒤인 3월7일 송몽규도 숨졌다.<br/><br/>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일경(일본 경찰)은 이 남의 나라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물었을 테고 동주는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이고 죽은 것이 아닐까? ‘너는 유태인의 왕이냐?’ 하고 묻는 빌라도의 물음에 ‘네 말이 맞다’고 하고 십자가를 진 예수의 모습이다. 빌라도가 예수의 대답에 담긴 깊은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듯 일경도 동주의 말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동주가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는 일차원적인 고향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 텐데.”(고 문익환 목사)<br/><br/> 윤동주의 장례는 1945년 3월6일에 치러진다. 윤동주는 가장 몰락한 시대에 서정시를 썼다. “<span class='quot1'>서정시는 가장 외소할 때 가장 거대하고 가장 무력할 때 가장 위대하다.</span>”(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시인 윤동주의 죄는 끝없이 부끄러워했다는 것이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서시’)<br/><br/><br/><br/>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br/><br/>\*기사는 <처럼>(김응교, 문학동네, 2016), <바람을 부비고 서 있는 말들>(정병욱, 집문당, 1980), <월간중앙>(1976년 4월호)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제목은 윤동주의 시 제목을 차용하였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2.txt

제목: 아픈 사람을 위한 나라는 있나요  
날짜: 20160303  
기자: 허미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3204921416  
본문: 아픈 몸, 더 아픈 차별 <br/>김민아 지음/뜨인돌·1만3000원<br/><br/><아픈 몸, 더 아픈 차별>은 질병을 이유로 한 차별을 사유한 국내에선 보기 드문 책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인권활동가 김민아씨가 지은이다.<br/><br/> 인권위에 2001~2015년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 가운데 장애에 따른 차별이 45%로 가장 많고, 질병(병력)에 따른 차별 진정 건은 1.7%라고 한다. 지은이는 더러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이들을 포함해 아픈 사람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몸뚱이를 괴롭히는 병도 무섭지만 더 두려운 것은 아무 때나 나타나 괴롭히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br/><br/> 병이나 병을 앓은 이력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거나, 보험 가입과 요양원 입소를 거부 당하는 절박한 사례를 수없이 책은 품고 있다. 한 20대 여성은 대기업 면접까지 합격한 뒤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비(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결국 신체검사를 요구 않는 다른 기업(중소기업)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한 40대 남성은 건축기사 경력을 바탕으로 항공사 경력 건축직에 1차 합격했으나, 신체검사 문진표 병력 문항에 4년 전 방광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적었다 불합격했다. 그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가 자문을 구한 결과 대학병원과 관련 학회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병력을 이유로 삼은 차별이므로 채용 거부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 ‘대한민국에서 질병과 장애는 어떻게 죄가 되는가’라는 부제에서 보듯, 책은 질병에 따른 차별을 주된 테마 삼지만, 장애에 따른 차별도 함께 사유한다. 병과 장애의 경계는 그만큼 흐릿하기 때문이다. <br/><br/> 차별은 취업 현장만의 일이 아니다. 보험사는 더 공공연히 질병 경력자와 장애인을 배제한다. 어느 아버지는 지적장애 아이에게 암보험을 들어주려다 단번에 거절당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만삭의 여성은 뱃속 아기를 위해 태아보험을 들려 했지만, 보험설계사는 “보험은 태아와 산모를 한몸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도 장애가 있는 걸로 판단한다”며 거절했다. 아기가 건강히 태어나길 바라던 엄마는 깊은 내상을 입었다. <br/><br/> 비형간염은 재채기나 입맞춤, 악수 같은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어머니와 신생아의 ‘수직감염’ 외에는, 감염자 혈액에 손상된 피부가 노출됐을 때만 감염된다고 한다. 자식 셋에게 간염을 수직감염으로 대물림하게 된 50대 여성은 “장성한 자식들만 보면, 이 죗값을 어찌 다 치러야 하나, 캄캄하다”고 했다. 학교 교장은 그의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지 말라고 했다. 지인들과 식사하다 누군가 먹던 음식 덜어주며 “나 간염 없다” 할 땐 가슴이 철렁한다 했다.<br/><br/> 지은이는 입사·입학에서 병력을 묻는 것 자체를 질병·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처벌하는 유럽·미국 사례를 들려주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순응”이라고 말한다. 속도와 효율성이 최상의 가치인 사회에선 피해자 스스로, 차별받는 원인을 자신한테 돌리는 내재된 차별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건 차별입니다”라고 맞서야 한다는 얘기. <br/><br/> 허미경 선임기자 carme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3.txt

제목: 제방 쌓은 협동정신이 자유와 관용의 뿌리  
날짜: 20160303  
기자: 최재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3200946935  
본문: 세상에서 <br/>가장 자유로운 도시, <br/>암스테르담 <br/>러셀 쇼토 지음, 허형은 옮김 <br/>책세상·2만3000원<br/><br/>‘네덜란드’(Netherlands)는 어원상 ‘낮은 땅’이라는 뜻이다. 이 나라를 비롯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까지 포함하는 북해 연안 저지대는 유럽 북부 지대를 흐르는 큰 강들이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길목이다. 초기 인류는 1100년 무렵부터 이 일대 질퍽한 늪지에 제방을 쌓고 토탄 습지에 수로를 파는 식으로 땅과 물을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한 세기 뒤에는 해수의 범람을 막고자 암스털 강에 댐을 건설했으니, 오늘날 암스테르담의 중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된 ‘암스텔레담머’(Amstelredamme)였다.<br/><br/> <데카르트의 사라진 유골>로 한국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미국 역사 저술가 러셀 쇼토의 2013년작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은 암스테르담의 이런 출발에 주목한다. 마리화나가 허용되고 성매매가 합법이며 세계 최초로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린 이 도시가 자랑하는 자유정신의 바탕에 바다와의 싸움이라는 기원이 자리한다는 것이다.<br/><br/> 중세 유럽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었던 장원제도가 네덜란드에서는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땅 대부분이 바다나 늪지를 개간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힘을 모아 제방을 쌓고 수로를 만든 농민들은 그렇게 해서 생긴 육지를 공평하게 나누었다. 토지의 개인 소유 개념이 일찍부터 발달한 것이다. 유럽 다른 나라에서는 귀족이나 교회가 땅을 소유하고 관리한 반면, 1500년 무렵 암스테르담이 포함된 홀란트주에서는 “<span class='quot0'>단 5퍼센트의 땅만 귀족이 소유했고 농민 소유의 땅이 무려 45퍼센트에 달했다.</span>”<br/><br/> <…암스테르담>은 1100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암스테르담의 역사를 종으로 훑어 내려오면서 이 도시의 표지와도 같은 자유주의 정신의 연원과 흐름을 좇는다. 가톨릭 신부의 사생아로 면죄부를 비롯한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공격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뮈스(1469~1536), 초상화와 자화상에서 새로운 차원을 열어젖힌 화가 렘브란트(1606~69),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고 신은 조물주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 주장한 스피노자(1632~1677), 동인도 식민지 경험을 담아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을 이끌고 피식민지 주민들의 독립 투쟁을 촉발한 소설 <막스 하벨라르>(1860), <안네의 일기>로 세계인을 울린 안네 프랑크(1929~45) 그리고 성매매와 동성 결혼,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시킨 2000년의 법안 통과까지 1000년 가까운 역사가 포괄된다.<br/><br/> 지은이는 딱딱한 연대기식 기술을 피하고 인물과 스토리 중심 서술로 책읽기의 재미를 돋운다. 가령 렘브란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는 렘브란트의 가정부이자 나중에 불륜 상대가 되는 헤이르티어 디르크스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튈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의 주인공 니콜라스 튈프 박사 이야기로 한껏 우회한다. 번역본으로 500쪽이 넘는 이 두툼한 책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한다기보다는 흥미로운 옛이야기를 듣는 심정으로 느긋하게 읽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br/><br/> “<span class='quot1'>한때 바다였던 지대에 세운 집들이 다시 물에 잠기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했고 그래서 협동의 윤리가 뼛속까지 박힌, 다름에 대한 관용이 이데올로기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의 태도</span>”가 암스테르담 자유주의의 기원을 이루었음은 분명한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관용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 얻고 지켜야 하는 가치라는 사실 또한 지은이는 강조한다. 흔히 하는 오해와 달리 “네덜란드 사람들은 원래 뼛속 깊이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관용과 자유가 보장되는가. ‘헤도헌’(gedogen)이라는 개념에 지은이가 주목하는 까닭이다. “<span class='quot1'>엄밀히는 불법이지만 공식적으로 용인되는 것</span>”을 뜻하는 이 말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하자는 생각과 관련이 있다.<br/><br/> 지은이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며 쓴 이 책은 어린 아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동네를 한바퀴 돈 다음 아들을 보모에게 맡기고 프리다 멘코라는 할머니를 만나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프리다는 안네 프랑크의 소꿉친구였으며 안네와 마찬가지로 나치 치하 암스테르담에서 2년가량 숨어 지내다 발각되어 수용소로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은 인물이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물론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세계인에게 일깨웠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오히려 이 책이 나치에 대한 협조라는 어두운 역사를 덮는 구실을 한다며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암스테르담에 1년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빈센트 반 고흐는 이 책에 짧은 삽화처럼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그의 동생 테오의 증손자가 이슬람 문제에 눈감는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단편영화를 만들었다가 이슬람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죽은 2004년 사건은 자유와 관용의 복잡한 맥락에 다시금 눈길을 주게 한다.<br/><br/>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4.txt

제목: 말기 암환자 75%가 병원서 사망  
날짜: 20160303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3194916058  
본문: 우리나라의 말기 암환자들은 어느 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을까? <br/><br/>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보면, 2014년에 숨진 26만7692명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이 7만6611명(28.6%)으로 가장 많다. 암 사망 중에서는 폐암과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등의 차례로 사망률(남성 기준)이 높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해마다 약 20만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나타나는데 5년 이내 생존하는 비율이 68.1%(2012년 기준) 정도다. 나머지는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암에 걸려 사망한다. <br/><br/>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모두 어디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가 국내에는 아직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와 사망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암 사망자 중에서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이들이 75.3%(2013년 기준)에 이른다. 입원 중에 사망한 이들은 69.4%, 외래 치료나 응급실을 이용하던 중에 사망한 이들은 5.6%였다. 24.7%는 사망 당일에 병원에 간 기록이 없는 ‘가정 사망’이었다. 공단 쪽은 “병원 사망 환자의 상당수는 임종 직전까지 수술 및 처치, 각종 검사 등을 받느라, 생애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br/><br/> 노인의 경우 말기암 진단 이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는 경우가 있지만 적절한 선택은 아니다. 말기 암환자들은 통증과 증상 조절이 필요한데, 간병 위주의 요양원은 물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조차 마약성 진통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최영심 충남대병원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는 “다니던 병원에서 더 이상 적극적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집으로 갔다가 거동이 어려워지고 잘 못먹어서 힘드니까 요양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통증 조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호스피스 서비스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br/>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정부가 말기 암환자들이 어디에서 지내는지부터 면밀히 실태분석에 나서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황보연 기자 <br/><br/><br/><br/>▶관련기사<br/><br/>▶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 “두려움·통증 잊게 해줘요”<br/><br/>▶죽기 한달 전 암치료비 ‘임종 전 2년’ 평균의 5~6배<br/><br/>▶집에서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는 말기암 할머니<br/><br/>▶가정 호스피스 비용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5.txt

제목: 죽기 한달 전 암치료비 ‘임종 전 2년’ 평균의 5~6배  
날짜: 20160303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3194915811  
본문: 수술과 항암치료 등을 해도 더 이상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면 의료진은 ‘말기암’ 진단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안에 사망이 예상되는 암환자가 해당된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기존의 치료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환자와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용도 급증한다.<br/><br/>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기 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의료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암환자 중 2010년 사망한 7만6574명의 사망하기 석달 전 의료비가 7012억원으로, 사망 전 1년간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이르렀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각종 검사를 비롯해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기도삽관(입에 튜브를 꽂아 기계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 중환자실 및 응급실 치료 등이 주요 내역이다. 사망하기 전 2주 동안에만 102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 전체 환자 1인당 지출비도 사망 직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년 사망자 기준) 연구에 따르면, 사망하기 2년 이전의 월평균 진료비는 남성이 48만원, 여성이 51만원인 데 견줘 사망 한달 전 월평균 진료비는 각각 306만원(남성)과 257만원(여성)으로 늘었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암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임종 전 한달 동안 지출된다.<br/><br/> 통증 조절 등에 무게를 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이용한 암질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항암수술과 항암요법, 각종 검사 등 적극적 항암치료를 한 그룹의 평균 1일당 진료비가 통증완화치료만 한 그룹에 견줘 약 2.4배 정도 더 높았다. 사망 전 입원해서 30일을 병원에서 보낸 적극적 항암치료 그룹은 진료비가 1400만원가량인 데 비해 같은 기간에 통증완화 치료만 받은 그룹은 530만원 정도였다.<br/><br/>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3곳을 분석한 결과(2009~2013년)에서 일반 병동 그룹이 입원 기간 동안 각종 검사를 평균 78.4회나 하는 동안 호스피스 병동 그룹은 19회에 그쳤다.<br/><br/>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br/><br/><br/><br/>▶관련기사<br/><br/>▶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 “두려움·통증 잊게 해줘요”<br/><br/>▶말기 암환자 75%가 병원서 사망<br/><br/>▶집에서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는 말기암 할머니<br/><br/>▶가정 호스피스 비용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6.txt

제목: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 “두려움·통증 잊게 해줘요”  
날짜: 20160303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3192849602  
본문: 인천 부평구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5호실에는 4명의 말기암 환자가 함께 지낸다. 지난달 26일 오전 음악치료사 한영섭씨가 기타와 에그셰이커(달걀 모양 악기)를 들고 김현규(77·바터팽대부암 환자)씨의 병원침대 앞에 앉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한 치료사가 “가족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고 묻자, 김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그는 “남산공원이 집 앞인데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한번도 아이들을 못 데리고 갔다. 그게 참 많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아빠와의 추억을 노래한 동요 ‘꽃밭에서’를 불렀다.<br/><br/><br/><br/> 김씨는 호스피스 병동에 42일째 입원중이다. 5년 전 수술을 받았지만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면서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해도 회복이 어려운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병동 의료진은 김씨가 심한 구토 증상을 가라앉히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통증을 줄이는 일 외에도 심리상담, 음악·미술치료 등으로 생애 마지막 시기를 평안하게 지내도록 돕고 있다.<br/><br/> 다른 암환자들처럼 김씨도 호스피스 병동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런 만큼 거부감도 강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인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와서 지내다보니 기분이 가라앉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엔 요리교실(쿠킹 클래스)에 가서 단호박 머핀도 만들었다.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김데레사 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보호자)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교육도 한다. 임종을 준비하면서 걸어온 인생을 잘 정리해야 할 시기인데, 가족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br/><br/>이용자 85% “통증 완화 등 만족” <br/>사망 석달전엔 호스피스 이용 권장 <br/>“<span class='quot0'>다른 환자 임종 보며 두려움 가셔</span>”<br/><br/>이용률 14%뿐…영국의 1/7 수준 <br/>“치료 포기하는 것” 부정적 인식 탓 <br/>간병도우미제 도입 적은 것도 한몫<br/><br/>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말기 암환자에 대한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암 사망자 7만6611명 가운데 13.8%(2014년 기준)에 그치고 있어, 갈 길이 한참 멀다. 영국(95%)과 미국(43%), 대만(30%) 등의 말기암 환자 이용률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 의료계와 환자, 보호자 등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br/><br/> 김씨와 같은 병실의 심동수(60·위암 환자)씨도 국립암센터에서 호스피스를 권했을 때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원에나 들어가라는 얘기로 들리더라.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격리되는 건 줄 알았다”고 말했다. 몇 차례 상담 끝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그도 막상 와보니 마음이 달라졌다. 심씨는 “원예치료를 받다 보면 통증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br/><br/> 호스피스 병동은 입원실과 거실, 실내정원, 상담실, 목욕실, 임종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일반 병동과 다르게, 벽지를 카페식으로 꾸며 편안한 느낌을 주는가 하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환자를 대하는 호스피스 의료진의 말투도 친근감을 준다. 심씨가 머무는 병실에서 몇 발짝만 걸어가면 ‘해밀방’이라는 이름의 임종실이 있다. 심씨의 부인 오연자(57)씨는 “남편이 평소 마지막 순간의 통증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의 임종을 옆에서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br/><br/>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현재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의 근간은 전용병동이나 시설을 두고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66개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 병동 혹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br/><br/> 김씨와 심씨처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일반 병동에서처럼 각종 검사와 항암치료 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통증 조절에 더 신경을 기울여주기 때문이다. 국립암센터 자료(2011년)를 보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땐 입원 1주일 만에 통증 정도가 크게 완화된 것(통증도 2.8→2.1)으로 나타났다. 치료 만족도 역시 기존 의료기관(63.9%)에 비해 호스피스 기관(84.7%)에서 더 높았다.<br/><br/>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도 어느 정도 덜었다. 말기암 환자가 입원해서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올해 기준으로 하루에 약 2만1000원(의원급)~2만5000원(종합병원급, 식대·간병비 포함)꼴로 내면 된다. 오연자씨는 “일반 병원에서는 암수술로 열흘 입원했을 때 470만원을 냈고 항암치료를 받을 때마다 3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했다. 그에 비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는 게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br/><br/><br/><br/> 이런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우선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죽으러 가는 장소’에서 ‘말기 환자에게 최선의 돌봄 장소’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도 환자·보호자도 “<span class='quot1'>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span>”는 인식이 강해 호스피스로 전환하길 꺼린다. 의사는 ‘치료의 실패’로 여기고, 보호자는 ‘효 사상에 어긋나는 일’로 여기는 탓이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평균 23일에 그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기간은 사망 전 석달이다.<br/><br/>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까지 인구 100만명당 50병상을 둔 영국 기준으로 국내에 2500병상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가, 2020년까지 1378병상으로 줄여 잡았다. 현재는 1108병상 정도인데다, 기존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곳은 주로 공공병원이나 종교적 이념이 강한 의료기관뿐이었다. <br/><br/>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span class='quot2'>대부분 암환자들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으로 몰려가고 있지만 가톨릭 계열인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하면 호스피스 병동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다</span>”고 말했다. 호스피스 병동이 일반 병상에 견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필수 설치 조항을 넣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이와 함께 대형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일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부 제공받을 수 있는 자문형 호스피스팀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40여군데 지방공사의료원이 비어 있는 병상을 호스피스 병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span>”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의료계가 ‘존엄한 죽음’ 혹은 ‘임종시 돌봄’에 대해 더 책임의식을 느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br/><br/><br/><br/> 전문인력 양성도 과제다.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환자가 속이 메슥거린다고 할 때 항암치료 환자와 호스피스 이용이 권장되는 말기암 환자에게 쓰이는 요법이 다르다. 호스피스에 나설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 양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는 호스피스 병동을 갖춘 병원 중에서 간병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곳만 간병비가 하루 4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나머지는 하루 7만~9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해야 한다. <br/><br/>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br/><br/> <br/><br/>[관련 기사]<br/><br/>▶ 바로가기 : 죽기 한달 전 암치료비 ‘임종 전 2년’ 평균의 5~6배 <br/> ▶ 바로가기 : 말기 암환자 75%가 병원서 사망 <br/> ▶ 바로가기 : 집에서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는 말기암 할머니 <br/> ▶ 바로가기 : 가정 호스피스 비용은? <br/><br/><br/><br/>▶ 바로가기 : (상) ‘홈다잉’을 아시나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7.txt

제목: 새달부터 서울 대학병원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날짜: 2016030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3093149446  
본문: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포괄간호 서비스)를 하는 병원이 4월부터 서울의 병원·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현재 지방 중소병원 89곳과 공공병원 23곳 등 112곳에서 시행되고 있다.<br/><br/>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병원협회,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등과 ‘2016년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하는 간담회에서 올해 4월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에 있는 병원·종합병원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애초에는 2018년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상급종합병원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문안을 줄이는 개선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span>”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br/><br/>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입원하면 환자가 별도로 간병인을 구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하루 약 2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 산정특례를 받기 때문에 4천원가량으로 부담이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입원하면 병실비가 하루 1만5천원(6인실)에서 2만3천원(4인실) 더 드나, 보통 8만원가량 하는 간병비에 견줘 보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유행 때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 보호자 등이 많이 감염됐다.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예정보다 더 빨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총 400개 병원이 참여한다면 환자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8.txt

제목: 바람을 가르며 ‘쉭쉭’…견자단, 타이슨과 한판  
날짜: 20160301  
기자: 안창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301185927392  
본문: 전쯔단(견자단)의 ‘엽문’이 6년 만에 관객들을 찾는다. 영춘권의 위력은 여전하고, 이번에는 인간적으로 더욱 깊어진 쿵푸 고수를 만날 수 있다. <br/><br/> <엽문3: 최후의 대결>(감독 예웨이신)에서 엽문(전쯔단)은 홍콩에 정착해 최고수의 대우를 받으면서 평화롭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겸손하면서도 올곧은 성품으로 이웃들의 존경도 한몸에 받는다. <br/><br/> 그런 엽문 앞에 두 적수가 연달아 나타난다. 암흑가의 우두머리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프랭크’(마이크 타이슨)는 학교 부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이에 엽문은 마을 아이들을 위해 학교 지키기에 나선다. 이어 인력거꾼으로 일하는 숨은 고수 ‘장천지’(장진)는 영춘권의 정통을 계승했다면서 엽문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엽문은 두 사람의 도전을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와 자신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당연히 지킨다. <br/><br/> 앞서 엽문은 <엽문>(2008)에서 1937년 일제 강점기를 무대로 일본의 가라테 고수와 승부를 다퉜고, <엽문2>(2010)에서 훙진바오(홍금보)와 원탁 위에서 인상적인 대결을 펼치면서 홍콩에 정착한 바 있다. 1, 2편 모두 전쯔단과 감독 예웨이신(엽위신) 감독이 호흡을 맞췄는데, 이번 3편은 엽문 시리즈의 완결판이라고 한다. <br/><br/> 영화는 중반부, 엽문이 홍콩의 건달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대목은 그동안 이 영화 시리즈가 걸어왔던 길을 되밟는다. <엽문2>에서도 서양 권투선수와 한판 붙는데, 이번에는 타이슨으로 업그레이드된 셈이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외세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에서 중국식 애국주의가 느껴진다. 상대와 바짝 붙어 좁은 공간에서 빠른 손과 발로 위력적인 타격을 가하는 영춘권의 묘미를 다시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무술영화 애호가라면 와이어액션 없는 사실적 타격감에 푹 빠져들겠지만, 일부 관객은 기시감이나 단순함을 느낄 수 있다. 영화의 무술감독은 <매트릭스>, <와호장룡>, <킬 빌> 등의 위안허핑(원화평)이 맡았다. <br/><br/>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영화는 엽문의 인간적인 면모를 표나게 앞세웠다. 아름다운 아내(슝다이린)가 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엽문은 세상이 뭐라 하든 아내의 곁을 지킨다. 엽문 시리즈를 보면서 나이를 먹어온 30~40대 관객이라면,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엽문의 인간적인 모습에 더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특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악당에 맞서 아내를 보호하는 장면은 엽문 시리즈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것이다. 악당을 물리치는 화려한 무술 실력보다, 병에 걸린 아내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화면 가득 담겼다. <br/><br/> 첫 장면과 후반부에 잠깐 ‘리샤오룽’(이소룡)이 등장해 엽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나서는 장면은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일 것이다. 엽문(1893~1972)은 이소룡의 실제 스승이며, 이소룡의 절권도는 그의 영춘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엽문의 무술을 현대에 살려낸 전쯔단은 ‘제2의 이소룡’이 되고자 했단다. 황비홍과 함께 중국 무협영화의 최고 캐릭터인 엽문은 이렇게 배우들의 삶에도 깊은 흔적을 새겨놓은 셈이다. 10일 개봉. 12살 이상 관람. <br/><br/>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49.txt

제목: 집에서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는 말기암 할머니  
날짜: 20160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9123106667  
본문: 지난 24일 오전 말기 폐암을 앓고 있는 오덕진(83) 할머니가 대전시 동구 토천길에 있는 집 안의 의료용 침대에 누워 있다. 서너평 남짓한 방은 링거걸이, 이동식 변기, 목욕의자 등 환자용품들로 가득했다. 그는 2013년 처음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애 마지막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 <br/><br/> 오전 10시께, 그가 갑자기 여러 차례 눈을 끔벅거리며 수인사를 건넨다. 충남대병원 김삼용 교수(혈액종양내과 전문의)와 김은숙 간호사가 방문을 여는 걸 보고 반가움을 표시한 것이다. 두 사람은 충남대병원이 운영하는 가정호스피스팀의 의료진이다. 오 할머니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매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br/><br/>오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보청기를 써봤지만 신통치 않았다. 의료진이 글씨판에 질문을 써주면, 오 할머니가 대답하는 식으로 소통을 한다. 글씨판을 집어든 김 간호사의 손놀림이 점차 바빠졌다.<br/><br/> “<span class='quot0'>할머님, 불편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span>”<br/><br/> “괜찮아. 좀 좋아졌어.”<br/><br/> 오 할머니 옆을 지키던 며느리 송행순(55)씨가 “<span class='quot1'>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토가 심하고 호흡도 안 좋으셨는데 고비를 넘기신 것 같다</span>”고 거든다. 청진기를 꺼내 진찰을 시작한 김 교수는 혈압과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하고 아침식사로 뭘 드셨는지부터 세심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챙겼다. 그는 “<span class='quot1'>환자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데 주력한다</span>”고 말했다.<br/><br/> 일반적으로 말기 암환자들은 암세포가 뼈와 신경 등을 침범하거나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통증을 달고 산다. 호흡곤란이나 기침·가래, 구토, 변비 등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호스피스팀의 가장 큰 역할은 처치와 약물처방으로 이런 통증을 줄여주는 일이다.<br/><br/>오 할머니와 같은 말기 암환자가 집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새달 2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은 충남대병원 등 일부 병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으로 제공해왔을 뿐, 법적 근거나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한달 5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br/><br/><br/>현행 암관리법은 ‘말기 암환자’를 ‘적극적 치료를 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몇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로 정의한다. 이런 말기 암환자가 병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도 괜찮은 걸까?<br/><br/>오 할머니는 “병원에서 지내는 대신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다. 2년여 전 암진단을 받은 오 할머니는 “수술이 어렵다”는 병원 쪽의 통보를 받은 이후 항암치료에 매달렸다. 하지만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약물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리다 여러차례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고통이 컸다. 송씨는 “연세가 있으신데 약이 너무 독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 차라리 집에서 계피나 생강을 넣어서 차를 끓여드리며 안정을 취하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항암치료를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통적 개념의 치료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갈라진다. 전자가 어떤 여건에서라도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각종 치료를 계속 시도하는 반면, 호스피스는 일정 단계가 넘어서면 현대 의학의 치료가 무의미해진다고 보고 통증 조절 등을 통해 환자를 돌보는 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br/><br/>오 할머니는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했다.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으로 치료효과는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았다. 연명의료 중단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일명 ‘웰다잉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연세대 의료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br/><br/>의료진이 와 통증 줄여줘…할머니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br/><br/>항암치료 중단 이후 오 할머니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 머무를 것인지였다. 당시에는 오 할머니도 가족들도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다. 그는 결국 요양병원에 두달여를 머무르게 됐다. 대상포진 치료를 겸해 입원하게 됐는데, 의식이 또렷한 오 할머니에게 요양병원은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송씨는 “노인들이 넘어지면 치료가 어렵다며, 걸어다닐 수 있는 노인들도 침대에서 못 내려오게 하더라.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셨다. 어머님이 이곳에서 받은 충격으로 ‘섬망’(과다행동과 환각, 떨림 등이 나타나는 신경정신질환) 증상까지 보이셨다”고 전했다.<br/><br/>며느리 송씨가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충남대병원 호스피스팀과 연락이 닿았다. 오 할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대신 가정 호스피스를 받는 쪽을 선택했다. 충남대병원 가정 호스피스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덕에 현재는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모든 이들이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 할머니의 경우, 며느리가 간병을 맡아준데다 집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가정 호스피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족 중에 간병을 맡아줄 이들이 없는 경우엔 간병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이 간병을 맡는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간병노동 탓에 가족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다행히 송씨는 가정 호스피스에 만족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2'>병원이 아닌 곳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돼서 구세주를 만난 심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무의미한 항암치료 중단하고 집으로 <br/>인근에 호스피스 시행 병원 알게돼 <br/>의료진이 찾아와 통증조절·말동무<br/><br/><br/><br/>1시간반 진료·상담 받은 할머니 <br/>“다음주엔 언제 올거야?”<br/><br/>통증 완화 외에도 호스피스팀이 오 할머니를 돌보는 데 신경을 기울이는 것은 심리적 안정이다. 김 간호사는 “귀가 잘 안 들리시다 보니 뉴스를 보기도 어려우셔서,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해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올봄에 본인이 직접 기르신 외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며칠 새 많이 좋아지셨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도 목표가 생기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 할머니는 매주 미술치료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나 떠오르는 일을 그림으로 그리고 장식물로 만든다. 미술치료는 간병을 맡는 며느리와 함께 받는다. 보호자가 간병으로 심신이 지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r/><br/>김 교수는 “일본에서는 호스피스팀에 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특히 암환자들은 우울증을 동반하기 쉽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저서 <죽음과 죽어감>에서 시한부 환자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부정과 고립→분노→협상→우울→수용’의 다섯 단계를 겪는다고 제시했다. 수용에 이르기까지 환자가 겪는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가족들부터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한다. 충남대병원의 최영심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는 “때로는 가족들은 환자에게 병명을 숨기고 환자는 혼자 추정만 하고 있어, 우리가 자세히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환자에게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결정권을 주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한다.<br/><br/>집에서 임종을 맞기로 한 오 할머니의 경우, ‘마지막 순간’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오 할머니와 가족들은 호스피스팀의 방문을 통해 임종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배워가는 중이다. “<span class='quot0'>임종 직전에 응급실에 가더라도 별로 좋을 게 없다</span>”는 의료진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등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와 가족들이 나누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집에서 임종을 맞게 되면 보호자가 환자의 호흡정지를 확인하고, 장례식장으로 운구해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같은 효력)를 받게 된다. 미리 교육을 받더라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 의료진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도 한다.<br/><br/>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죽음을 맞길 원하는 장소로 절반 이상인 57.2%가 가정(자택)을 택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19.55)과 병원(16.3%), 요양원(5.2%)에 견줘 훨씬 비중이 높았다.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중은 2005년 49.8%에서 지난해 74.7%로 늘어난 데 비해 자택 사망은 35.3%에서 15.6%로 감소했다. 김 교수는 “예전에는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90년대 이후 병원에서 맞는 쪽으로 바뀌어왔다. 핵가족화의 영향, 가족들의 두려움 등으로 임종 때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으면 집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br/><br/> 한시간 반여의 진료 및 상담이 끝난 뒤, 오 할머니가 의료진에게 물었다.<br/><br/> “다음주에는 언제 올 거야?”<br/><br/> “<span class='quot0'>월요일에 올게요, 할머님~.</span>” <br/><br/> 오 할머니의 달력에는 또 하나의 동그라미가 그려졌고, 다시 기다림이 시작됐다. <br/><br/><br/><br/> <br/><br/>가정 호스피스 <br/><br/>호스피스는 주치의가 약물·수술 등 병원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치료중단을 결정하면 통증완화·심리상담 등 환자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은 수명이 6개월인 것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이런 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받는 것이 가정 호스피스다.<br/><br/><br/><br/><br/><br/>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br/><br/> <br/><br/>[관련 기사]<br/><br/>▶ 바로 가기 :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 “두려움·통증 잊게 해줘요” <br/> ▶ 바로 가기 : 죽기 한달 전 암치료비 ‘임종 전 2년’ 평균의 5~6배 <br/> ▶ 바로 가기 : 말기 암환자 75%가 병원서 사망 <br/> ▶ 바로 가기 : 가정 호스피스 비용은? <br/><br/><br/><br/>▶ 바로가기 : (하) 호스피스 활성화되려면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0.txt

제목: 집에서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는 말기암 할머니  
날짜: 20160229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9113024466  
본문: 지난 24일 오전 말기 폐암을 앓고 있는 오덕진(83) 할머니가 대전시 동구 토천길에 있는 집 안의 의료용 침대에 누워 있다. 서너평 남짓한 방은 링거걸이, 이동식 변기, 목욕의자 등 환자용품들로 가득했다. 그는 2013년 처음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애 마지막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br/><br/> 오전 10시께, 그가 갑자기 여러 차례 눈을 끔벅거리며 수인사를 건넨다. 충남대병원 김삼용 교수(혈액종양내과 전문의)와 김은숙 간호사가 방문을 여는 걸 보고 반가움을 표시한 것이다. 두 사람은 충남대병원이 운영하는 가정호스피스팀의 의료진이다. 오 할머니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매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br/><br/> 오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보청기를 써봤지만 신통치 않았다. 의료진이 글씨판에 질문을 써주면, 오 할머니가 대답하는 식으로 소통을 한다. 글씨판을 집어든 김 간호사의 손놀림이 점차 바빠졌다.<br/><br/> “<span class='quot0'>할머님, 불편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span>”<br/><br/> “괜찮아. 좀 좋아졌어.”<br/><br/> 오 할머니 옆을 지키던 며느리 송행순(55)씨가 “<span class='quot1'>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토가 심하고 호흡도 안 좋으셨는데 고비를 넘기신 것 같다</span>”고 거든다. 청진기를 꺼내 진찰을 시작한 김 교수는 혈압과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하고 아침식사로 뭘 드셨는지부터 세심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챙겼다. 그는 “<span class='quot1'>환자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데 주력한다</span>”고 말했다.<br/><br/> 일반적으로 말기 암환자들은 암세포가 뼈와 신경 등을 침범하거나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통증을 달고 산다. 호흡곤란이나 기침·가래, 구토, 변비 등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호스피스팀의 가장 큰 역할은 처치와 약물처방으로 이런 통증을 줄여주는 일이다.<br/><br/> 오 할머니와 같은 말기 암환자가 집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새달 2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은 충남대병원 등 일부 병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으로 제공해왔을 뿐, 법적 근거나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한달 5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면으로 이어짐<br/><br/><br/><br/>대전/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1.txt

제목: 집에서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는 말기암 할머니  
날짜: 20160228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8222320048  
본문: 지난 24일 오전 말기 폐암을 앓고 있는 오덕진(83) 할머니가 대전시 동구 토천길에 있는 집 안의 의료용 침대에 누워 있다. 서너평 남짓한 방은 링거걸이, 이동식 변기, 목욕의자 등 환자용품들로 가득했다. 그는 2013년 처음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애 마지막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 <br/><br/> 오전 10시께, 그가 갑자기 여러 차례 눈을 끔벅거리며 수인사를 건넨다. 충남대병원 김삼용 교수(혈액종양내과 전문의)와 김은숙 간호사가 방문을 여는 걸 보고 반가움을 표시한 것이다. 두 사람은 충남대병원이 운영하는 가정호스피스팀의 의료진이다. 오 할머니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매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br/><br/>오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보청기를 써봤지만 신통치 않았다. 의료진이 글씨판에 질문을 써주면, 오 할머니가 대답하는 식으로 소통을 한다. 글씨판을 집어든 김 간호사의 손놀림이 점차 바빠졌다.<br/><br/> “<span class='quot0'>할머님, 불편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span>”<br/><br/> “괜찮아. 좀 좋아졌어.”<br/><br/> 오 할머니 옆을 지키던 며느리 송행순(55)씨가 “<span class='quot1'>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토가 심하고 호흡도 안 좋으셨는데 고비를 넘기신 것 같다</span>”고 거든다. 청진기를 꺼내 진찰을 시작한 김 교수는 혈압과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하고 아침식사로 뭘 드셨는지부터 세심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챙겼다. 그는 “<span class='quot1'>환자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데 주력한다</span>”고 말했다.<br/><br/> 일반적으로 말기 암환자들은 암세포가 뼈와 신경 등을 침범하거나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통증을 달고 산다. 호흡곤란이나 기침·가래, 구토, 변비 등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호스피스팀의 가장 큰 역할은 처치와 약물처방으로 이런 통증을 줄여주는 일이다.<br/><br/>오 할머니와 같은 말기 암환자가 집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새달 2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은 충남대병원 등 일부 병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으로 제공해왔을 뿐, 법적 근거나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한달 5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br/><br/><br/>현행 암관리법은 ‘말기 암환자’를 ‘적극적 치료를 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몇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로 정의한다. 이런 말기 암환자가 병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도 괜찮은 걸까?<br/><br/>오 할머니는 “병원에서 지내는 대신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다. 2년여 전 암진단을 받은 오 할머니는 “수술이 어렵다”는 병원 쪽의 통보를 받은 이후 항암치료에 매달렸다. 하지만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약물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리다 여러차례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고통이 컸다. 송씨는 “연세가 있으신데 약이 너무 독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 차라리 집에서 계피나 생강을 넣어서 차를 끓여드리며 안정을 취하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항암치료를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통적 개념의 치료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갈라진다. 전자가 어떤 여건에서라도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각종 치료를 계속 시도하는 반면, 호스피스는 일정 단계가 넘어서면 현대 의학의 치료가 무의미해진다고 보고 통증 조절 등을 통해 환자를 돌보는 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br/><br/>오 할머니는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했다.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으로 치료효과는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았다. 연명의료 중단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일명 ‘웰다잉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연세대 의료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br/><br/>의료진이 와 통증 줄여줘…할머니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br/><br/>항암치료 중단 이후 오 할머니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 머무를 것인지였다. 당시에는 오 할머니도 가족들도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다. 그는 결국 요양병원에 두달여를 머무르게 됐다. 대상포진 치료를 겸해 입원하게 됐는데, 의식이 또렷한 오 할머니에게 요양병원은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송씨는 “노인들이 넘어지면 치료가 어렵다며, 걸어다닐 수 있는 노인들도 침대에서 못 내려오게 하더라.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셨다. 어머님이 이곳에서 받은 충격으로 ‘섬망’(과다행동과 환각, 떨림 등이 나타나는 신경정신질환) 증상까지 보이셨다”고 전했다.<br/><br/>며느리 송씨가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충남대병원 호스피스팀과 연락이 닿았다. 오 할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대신 가정 호스피스를 받는 쪽을 선택했다. 충남대병원 가정 호스피스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덕에 현재는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모든 이들이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 할머니의 경우, 며느리가 간병을 맡아준데다 집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가정 호스피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족 중에 간병을 맡아줄 이들이 없는 경우엔 간병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이 간병을 맡는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간병노동 탓에 가족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다행히 송씨는 가정 호스피스에 만족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2'>병원이 아닌 곳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돼서 구세주를 만난 심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무의미한 항암치료 중단하고 집으로 <br/>인근에 호스피스 시행 병원 알게돼 <br/>의료진이 찾아와 통증조절·말동무<br/><br/><br/><br/>1시간반 진료·상담 받은 할머니 <br/>“다음주엔 언제 올거야?”<br/><br/>통증 완화 외에도 호스피스팀이 오 할머니를 돌보는 데 신경을 기울이는 것은 심리적 안정이다. 김 간호사는 “귀가 잘 안 들리시다 보니 뉴스를 보기도 어려우셔서,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해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올봄에 본인이 직접 기르신 외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며칠 새 많이 좋아지셨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도 목표가 생기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 할머니는 매주 미술치료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나 떠오르는 일을 그림으로 그리고 장식물로 만든다. 미술치료는 간병을 맡는 며느리와 함께 받는다. 보호자가 간병으로 심신이 지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r/><br/>김 교수는 “일본에서는 호스피스팀에 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특히 암환자들은 우울증을 동반하기 쉽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저서 <죽음과 죽어감>에서 시한부 환자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부정과 고립→분노→협상→우울→수용’의 다섯 단계를 겪는다고 제시했다. 수용에 이르기까지 환자가 겪는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가족들부터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한다. 충남대병원의 최영심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는 “때로는 가족들은 환자에게 병명을 숨기고 환자는 혼자 추정만 하고 있어, 우리가 자세히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환자에게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결정권을 주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한다.<br/><br/>집에서 임종을 맞기로 한 오 할머니의 경우, ‘마지막 순간’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오 할머니와 가족들은 호스피스팀의 방문을 통해 임종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배워가는 중이다. “<span class='quot0'>임종 직전에 응급실에 가더라도 별로 좋을 게 없다</span>”는 의료진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등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와 가족들이 나누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집에서 임종을 맞게 되면 보호자가 환자의 호흡정지를 확인하고, 장례식장으로 운구해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같은 효력)를 받게 된다. 미리 교육을 받더라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 의료진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도 한다.<br/><br/>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죽음을 맞길 원하는 장소로 절반 이상인 57.2%가 가정(자택)을 택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19.55)과 병원(16.3%), 요양원(5.2%)에 견줘 훨씬 비중이 높았다.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중은 2005년 49.8%에서 지난해 74.7%로 늘어난 데 비해 자택 사망은 35.3%에서 15.6%로 감소했다. 김 교수는 “예전에는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90년대 이후 병원에서 맞는 쪽으로 바뀌어왔다. 핵가족화의 영향, 가족들의 두려움 등으로 임종 때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으면 집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br/><br/> 한시간 반여의 진료 및 상담이 끝난 뒤, 오 할머니가 의료진에게 물었다.<br/><br/> “다음주에는 언제 올 거야?”<br/><br/> “<span class='quot0'>월요일에 올게요, 할머님~.</span>” <br/><br/> 오 할머니의 달력에는 또 하나의 동그라미가 그려졌고, 다시 기다림이 시작됐다. <br/><br/><br/><br/> <br/><br/>가정 호스피스 <br/><br/>호스피스는 주치의가 약물·수술 등 병원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치료중단을 결정하면 통증완화·심리상담 등 환자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은 수명이 6개월인 것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이런 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받는 것이 가정 호스피스다.<br/><br/>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2.txt

제목: 가정 호스피스 비용은? “시범사업뒤 결정…한달 환자부담 대략 5만원 예상”  
날짜: 20160228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8211121971  
본문: 3월2일부터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호스피스란 개념조차 낯설어하는 이들이 많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년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80개국 가운데 18위다. 5년 전인 2010년(40개국 중 32위)보다 전체 순위가 올랐지만, 연간 사망자 가운데 완화의료(호스피스)를 받은 비율은 5.6%(33위)에 그친다.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비롯한 결과로 풀이된다.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br/><br/><br/><br/>호스피스는 무엇인가? 어떤 형태가 있는가?<br/><br/> 수술과 항암치료로는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통증 및 증상 완화, 심리적 안정, 임종에 대한 준비 등을 함께 하는 완화의료를 가리킨다. 주로 여명이 6개월 이내인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와 간호사 외에도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한 팀을 이룬다.<br/><br/> 크게 입원형 호스피스와 가정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로 구분된다. ‘입원형’은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서 지내는 것을 말하며, ‘자문형’은 일반 병동의 환자들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는 방식이다. ‘가정형’은 환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자택 외에 요양시설 등 환자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받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br/><br/> 가정 호스피스의 장점은 무엇인가?<br/><br/> 가정은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식사시간, 수면시간 등 공동생활에 따른 일과를 따라야 하는 병원과 달리, 환자가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조용히 잘 수 있기 때문이다. 간병인 없이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경우, 가족 입장에서도 병원에서 쪽잠을 자는 대신 집에서 간병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 20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말기 및 진행 암환자 465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75.9%가 가정에서 지내고 싶어했다.<br/><br/> 시범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br/><br/>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등 시범사업을 하는 전국 17개 의료기관(표 참조)을 통해서 등록하면 된다. 대상은 말기암 환자다.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한 ‘웰다잉법’(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부터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과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까지 확대된다.<br/><br/> 비용은 얼마나 드나?<br/><br/> 1년간 시범사업을 해본 뒤 수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한달 환자 부담료를 대강 5만원 정도로 제시했다. 의료진 1회 방문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 시)~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시)이다. 한달 5만원은 전담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가정 방문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는 간호, 처치, 의사진료·처방, 심리치료·상담, 의료장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주 2회가 기본이지만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집에서 통증 조절이 어려울 때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할 수도 있다. 의사가 환자의 임종을 직접 볼 때는 방문료의 30%가 가산된다.<br/><br/> 가정 호스피스의 단점이나 주의할 점은?<br/><br/> 방이 너무 좁거나 환기가 잘 안되는 등 환자를 돌보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가정 호스피스를 받기 곤란하다. 간병을 누가 할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하루종일 환자를 돌볼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맡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간병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집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경우도 제약이 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br/><br/>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br/><br/>(도움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br/><br/><br/><br/>▶관련기사<br/><br/>▶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 “두려움·통증 잊게 해줘요”<br/><br/>▶죽기 한달 전 암치료비 ‘임종 전 2년’ 평균의 5~6배<br/><br/>▶말기 암환자 75%가 병원서 사망<br/><br/>▶집에서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는 말기암 할머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3.txt

제목: 알파고, 사만다처럼 진화…이세돌 5번 모두 다른 상대와 싸운다  
날짜: 20160228  
기자: 구본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8203020007  
본문: 3월9일 오후 1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5차례 연속 대국 첫판이 시작된다. 2500년 바둑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대결로 불리는 대국이다. 22일 홍익동 한국기원에서 이세돌 9단과 알파고를 개발한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최고경영자가 언론브리핑을 했다. 이번 대국이 바둑계와 인공지능, 그리고 바둑계 너머에 대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br/><br/><br/><br/>2500년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바둑판’ <br/>이세돌 “진다면 체스처럼 인기 소멸” <br/>“<span class='quot0'>4개월전 실력 보면 내 상대 못돼</span>” <br/>알파고 “계속 학습…밀리지 않을 것” <br/><br/><br/><br/> ■ 알파고는 특별한가<br/><br/> 그동안 컴퓨터와 사람의 대결은 여러 영역에서 진행돼왔지만, 바둑은 예외였다. 한국의 돌바람, 일본의 젠, 프랑스의 크레이지스톤과 같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등장하며 승률을 높여오긴 했지만, 세계 정상급 프로기사와는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 바둑계는 10년 안에 컴퓨터가 ‘인간 대표’를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지난해 10월 유럽 챔피언인 판후이 2단을 5전승으로 꺾으면서 국면이 달라졌다.<br/><br/> 그동안 컴퓨터의 강점은 뛰어난 연산능력이었다. 1997년 체스 세계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꺾은 아이비엠의 슈퍼컴퓨터 딥블루도,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서 역대 최강의 우승자 켄 제닝스를 누른 슈퍼컴퓨터 왓슨도 연산력이 승리 비결이다. 하지만 바둑 한 판에서 가능한 수는 우주의 원자보다 많다. 최고의 슈퍼컴퓨터도 상대가 안 된다고 본 근거다. 딥마인드가 채택한 인공지능은 다르다. 알려주지 않은 길을 스스로 찾아서 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딥마인드의 인공지능(DQN)은 최소한의 규칙을 사람에게 배운 뒤 스스로 게임하는 법을 터득해 금세 프로게이머 수준이 됐다는 걸 입증했다.<br/><br/> 알파고는 사람 두뇌처럼 신경망 구조로 작동한다.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연산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통해 중요한 것만 걸러내 판단한다. 딥블루는 카스파로프와의 체스 대결에서 한 수마다 2억개의 수를 검토했다. 바둑 한 수는 체스보다 10배 이상 경우의 수가 많지만 알파고가 한 번 둘 때 검토하는 수는 10만개다. 프로기사가 한 수에 1000가지를 검토하는 것에 비하면 많지만, 컴퓨터로서는 엄청나게 걸러낸 것이다. 체스 선수이자 바둑 아마 1단인 허사비스는 “<span class='quot1'>알파고가 프로기사의 기법을 모방하도록 가르쳤고, 이후 스스로 3000만건의 기보를 훈련시켰다</span>”고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br/><br/><br/><br/> ■ 바둑의 미래<br/><br/> “나는 새로운 세대의 생각하는 기계에 밀려난 최초의 지식산업 노동자입니다. 퀴즈쇼 참가는 컴퓨터 왓슨에게 밀려난 첫 일자리가 아닐까요? 내가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2011년 왓슨과의 대결에서 패한 켄 제닝스가 한 말이다.<br/><br/> 이 9단이 “이번에는 4-1이나 5-0으로 내가 이길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 이기더라도 다음번 승부를 기대하기는 불안한 상황이다. 만약 이세돌이 진다면 바둑계는 어떻게 될까? 박치문 한국기원 부총재는 “<span class='quot2'>사람 대표가 기계에 진다면 바둑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span>”고 말했다. 이 9단은 “바둑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라는 신비감이다. 그게 무너진다면 바둑계는 큰 타격을 입는다. 체스도 컴퓨터에 패한 뒤 인기가 몰락했다”고 말했다.<br/><br/> 이 9단의 자신감은 알파고의 과거에 기반한다. 이 9단은 “판후이와의 대국을 보건대 알파고가 나와 승부를 논할 정도의 기력은 못 된다. 이후 4개월 동안 계속 개선되었겠지만, 나와 승부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사비스는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대국 이후 빠른 속도로 자기학습을 진행해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 이세돌에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br/><br/> 인공지능에게 4개월은 어떤 의미일까. 알파고는 100만번의 대국을 학습하는 데 4주 걸린다. 사람은 1000년 걸린다. 알파고는 영화 <그녀>의 사만다처럼 계속 진화한다. 이세돌이 상대하는 첫 대국의 알파고와 세번째, 다섯번째 대국의 알파고는 사실상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span class='quot0'>알파고 알고리즘이 대국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변화하는가</span>”라고 구글에 질문했더니, 구글은 “<span class='quot0'>모든 경기에는 학습이 적용된다</span>”고 답변해왔다. 계속 진화한다는 말이다. 이세돌도 “대국 때마다가 아니라 매순간 알파고가 진화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도 전날 기보를 복기하지만, 사만다처럼 진화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날마다 스트레스와 컨디션의 영향을 받는다.<br/><br/> <br/><br/> ■ 바둑판 너머<br/><br/> 바둑은 지금 유례없는 조명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는”이라는 이세돌의 말처럼 앞날은 어둡다. 구글은 왜 100만달러나 걸고 인간 대표를 꺾고, 뭇 애호가들이 즐기는 인간의 영역을 없애버리겠다고 덤비는 것일까. 동기는 바둑판 바깥에 있다. 인간 최후의 영역으로 여겨진 경기마저 컴퓨터가 능가한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와 활용 범위는 무한해진다.<br/><br/> 왓슨은 인간 퀴즈왕을 꺾은 뒤 유사한 퀴즈대결이 아닌 암치료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입됐다. 왜 바둑을 인공지능의 상대로 택했는지에 허사비스는 “알파고 개발에 적용한 방법론은 범용도구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들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과학의 난제, 기후변화 모델링, 질병치료를 위한 분석 작업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br/><br/> ‘닥치고 연산’ 대신 중요한 것을 걸러내며 판단할 줄 아는 신경망 기반의 기계학습을 장착한 인공지능은 바둑판의 승패를 넘어선다. 사람의 사고방식을 모방할 뿐 아니라 더 뛰어난 결과를 내놓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뛰어나도 의식 없는 똑똑한 기계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도 못 된다. 튜링상을 받은 네덜란드의 컴퓨터과학자 엣스허르 데이크스트라는 “<span class='quot3'>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잠수함이 항해를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span>”고 말했다.<br/><br/> 다섯 판의 대국에서 호모사피엔스 대표가 이긴다고 해도 환호할 게 못 된다. 이미 인간 고유영역이 압도당하는 생존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회와 개인의 삶 많은 부분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 경기가 바둑팬만의 게임이 아닌 이유다. <br/><br/>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4.txt

제목: 아잔브람 명상 즉문즉답…“명상이 주는 행복 두려워마세요”  
날짜: 2016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7131524256  
본문: “아침에 떠오른 따스한 햇살을 밤새 오무렸던 연꽃을 활짝 피게 합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br/><br/>명상의 효과와 마음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연꽃이 등장한다.<br/><br/>아잔브람 스님의 차분하고 친절한 설명에 1천여 관중을 숨을 죽인다.<br/><br/>“햇살이 비추면 가장 바깥에 있는 거친 연꽃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따스한 햇살은 속에 있는 두번째 꽃잎을 열게 만듭니다. 또 세번째 꽃잎이 열립니다. 속으로 갈수록 향기가 짙고 얇고 섬세한 꽃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할일은 연꽃을 열어 마음 한 중앙에 있는 나를 찾아 가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햇살의 따스함은 자비와 친절입니다. 빛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br/><br/>스님은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도 친절해야 한다고 한다. “부처님도 자신의 몸에 친절했습니다. 강가의 편안한 자리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몸이 편해지고, 긴장이 풀리면 몸을 못 느끼게 됩니다. 몸에 대해 걱정을 하면 생각이 돌아 갑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멈추기 어렵습니다.”<br/><br/>스님은 “<span class='quot0'>명상을 하며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면 굳이 끼어들지말고 그대로 두라</span>”고 충고한다.<br/><br/>잡념을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라지지않고 오히려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런 잡념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친절’ ‘자비’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점차 가라앉는다는 것이다.<br/><br/>그리고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span class='quot1'>여러분이 생각을 멈출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정적과 고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span>”<br/><br/>마음속의 고요를 두려워하나? 마음속의 고요를 느껴본 적이 있었나? <br/><br/>스님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정중앙에 들어가 고요를 느끼면 남는 것은 ‘호흡’이라고 했다. <br/><br/>“호흡을 알아차리리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환희에 찬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이 깊고 기뻐서 오랫동안 즐거운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런 행복에 집착하는가 하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부처도 이야기 했습니다. 명상의 즐거움을 두려워말라고…”<br/><br/>아! 명상의 즐거움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br/><br/>스님의 명상의 단계를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br/><br/>깊은 명상에 들어가 나타나는 첫번째 단계는 오감이 사라진다고 한다. 보고,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곤 마음 깊은 곳에서 밝은 빛이 비친다고 한다.<br/><br/>그러면 마음은 완전한 고요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굉장한 행복감이 느껴진다고 한다.<br/><br/>마음속의 빛은 다른 단계로 이동시킨다고 한다. 거의 깨달음의 단계이다.<br/><br/>너무 고요해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 마음이 마치 바위나 산과 같이 느껴진다.<br/><br/>더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의지의 결정과 행동도 사라진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저 큰 고통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고 한다.<br/><br/>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요해지며 어떤 것도 알아차릴수 없게 된다고 한다.<br/><br/>바로 공(空)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음을 알게되는 단계가 명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아잔브람 스님은 설명한다.<br/><br/>28일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컨벤션 호텔에서 진행된 세계명상대전 둘째날 밤, 중앙 무대에서는 아잔브람 스님의 법문과 즉문즉답이 진행됐다. 영국 옥스포트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스님은 우선 명상의 방법과 효과를 설명하곤 관중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시작했다. 질문은 관중들이 쓴 질문서를 이번 대전을 준비한 각산 스님이 읽었고, 질문이 끝나자마자 아잔브람 스님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 어떤 질문도 끝나자마자, 답변이 줄줄 나온다. 신기할 정도이다.<br/><br/>-석가모니와 부처는 어디에 있나요?<br/><br/>=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바로 부처를 느낄수 있다. 굳이 부처가 살았던 인도에 가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부처를 볼 수 있다.<br/><br/>-깨달음에 이르면 신통력이 생기나요?<br/><br/>=깨달음에 이르면 번뇌가 없다. 만약 깨달은 이가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하면 당신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그리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마치 실험실의 쥐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br/><br/>-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어떻하면 그렇게 될까요?<br/><br/>=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것도 욕망이다. 그런 욕망이 다시 태어나게 만들 것이다. 정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비구나 비구니가 되라<br/><br/>-몸이 약해도 성불할 수 있나요?<br/><br/>=당연히 가능하다. 깨달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다. 내가 아는 120살에 스님이 된 분은 출가한지 몇달만에 아라한이 됐고, 몇달후 열반했다.<br/><br/>-남방불교에서는 윤회가 없다고도 이야기 합니다.<br/><br/>=윤회가 있다,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대학교 1학년에겐 뉴튼의 중력을 이야기 하지만 2~3학년이 되면 아인쉬타인의 상대성원리를 이야기한다.<br/><br/>대상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진짜 깨달은 분은 윤회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br/><br/>-암이 발생해 의사가 6개월 남았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완쾌가 됐다. 어찌 설명할 수 있나?<br/><br/>=의사 말을 믿지마라. 내 의사 친구는 의대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50%는 틀린 것이라고 실토했다. 그나마 50%도 무엇이 틀린 것인지 모른다고 한다. 한 암 환자는 이제 2주 남았다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진료비를 마련하려면 4주가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그 의사는 앞으로 4주 남았다고 말을 바꾸었다.<br/><br/>-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도 명상과 수행으로 치료가 가능한가?<br/><br/>=가능하다.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열증 외의 다른 부분을 키우면 된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없다. 다만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이가 있을 뿐이다. 다른부분에 관심을 갖고, 키워주면 정신분열증은 치료된다.<br/><br/>-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br/><br/>=멋진일 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처럼 죽은 이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가 없으면 나도 없다.<br/><br/>-삼매에 들어가면 저절로 통찰력이 생기나?<br/><br/>=자동으로 통찰력이 생긴다. 산속의 호수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이르면 호수 수면에 비치는 상이 일그러진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br/><br/>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5.txt

제목: 포스코청암상에 조윤제 교수  
날짜: 2016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5185950625  
본문: 포스코청암재단은 25일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을 기리는 ‘2016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조윤제 포스텍 교수·금오공고·라파엘클리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br/><br/> 과학상 수상자인 조 교수는 암과 같은 종양을 억제하는 단백질과 단백질복합체의 구조를 규명 한 공로다. 교육상을 받는 금오공고는 1973년 개교한 이래로 산업 발전의 기초인 기계·정밀·가공·측정 부문 기술과 기능인을 양성해왔다. 봉사상에 선정된 라파엘클리닉은 97년부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해왔다. <br/><br/> 시상식은 새달 30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며, 각각 2억원을 수여한다. <br/><br/>박현정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6.txt

제목: 작년 암 입원 ‘위암’ 최다…치료비 ‘췌장암’ 1위  
날짜: 2016022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4195129755  
본문: 지난해 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위암 환자가 약 4만6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체 건강보험 입원진료비가 가장 많은 암은 폐암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입원진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암은 췌장암이었다.<br/><br/>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5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암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35만2천명이며, 암 종류별로는 위암 환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폐암(약 3만8400명), 간암(3만5600명), 유방암(3만2200명), 갑상선암(3만200명) 순서였다.<br/><br/> 암 치료에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 한 해 약 2조9천억원이었는데, 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32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암(3107억원), 위암(2788억원), 결장암(2239억원), 유방암(2055억원) 차례였다. <br/><br/> 암 환자가 입원해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암은 췌장암으로 평균 92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결장암(885만원), 간암(873만원), 폐암(859만원), 직장암(832만원) 순이었다. 이 액수는 실제 환자가 내는 암 치료 비용과는 다르다. 암 환자가 실제 내는 돈은 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5% 정도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을 합친 것이다.<br/><br/> 지난해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은 폐렴(약 28만4천명)이었으며, 이어 디스크질환(26만6천명), 백내장(25만9천명) 순서였다. 외래진료는 급성 기관지염(약 1499만명), 치주질환(1343만명), 급성 편도염(650만명) 순이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평균 115만원으로 집계됐다. 나이대별로는 노인층에서 1인당 진료비가 높았는데, 70대 이상은 1인당 평균 진료비가 392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4배나 됐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8조원으로 2014년에 견줘 6.4% 증가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7.txt

제목: “비타민C 보충제, 암 예방 효과 없어”  
날짜: 2016022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3191638096  
본문: 비타민C를 보충제나 영양제로 먹으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암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몇몇 의료계 인사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br/><br/>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암관리정책학과 교수는 오승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등과 함께 최근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비타민C 보충제와 암 예방의 관련성을 조사한 임상시험 7편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2015년 11월호에 실렸다.<br/><br/> 명승권 교수팀은 세계적인 의학데이터베이스에서 비타민C에 대한 효과를 다룬 논문을 검색해 최종적으로 7편의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한 6만2619명의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음식이 아닌 보충제의 형태로 비타민C를 복용한 군과 그러지 않은 군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또 비타민C 보충제를 단독으로 먹었거나 다른 보충제와 함께 먹어도 비타민C의 용량이나 복용 기간과 관계없이 암 발생률 또는 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울러 성별, 흡연 유무, 국가, 암종별로 나눠 세부적으로 분석해도 역시 비타민C와 암 예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 명승권 교수는 “천연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암 발생률이 낮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 결과는 많다. 하지만 음식이 아닌 보충제의 형태로 비타민C를 먹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현재까지 이 주제로 발표된 모든 임상시험을 종합하는 연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명승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일각에서는 비타민C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암이나 심장·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바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span>”고 덧붙였다.<br/><br/> 참고로 한국영양학회가 하루 권장하는 비타민C 섭취 기준은 100㎎인 데 견줘,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은 평균 104㎎, 여성은 109㎎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고 있었다. 명승권 교수는 “<span class='quot1'>채소, 과일 등 음식을 통해 비타민C 섭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8.txt

제목: 췌장암·백혈병 등에 쓰는 항암제에 건보 적용 확대  
날짜: 2016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3191627702  
본문: Q :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2월부터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항암제가 이에 해당하는지요?<br/><br/> <br/><br/>A : 이달부터 몇몇 항암제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거의 없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근육 등 연부조직에 생기는 암처럼 환자 수가 적어 건강보험 지원 순위에서 뒤로 밀릴 우려가 있는 암 질환에 대한 항암제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우선 다른 조직으로 암 세포가 전이된 췌장암에 대해서는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 요법(제품명: 아브락산주)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제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사용될 때에 다른 항암제를 써본 뒤 효과가 없을 때에만 2차 치료제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처음 사용할 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연부조직에 생긴 암에 대해서는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 요법이, 면역계통의 암인 비호지킨림프종의 한 종류인 비(B)세포림프종에 대해서는 ‘리툭시맙’(제품명: 맙테라주) 병용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브렌툭시맙’(제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포함됐고, 비호지킨림프종의 일부나 역시 면역계통의 암인 호지킨림프종을 앓는 환자 가운데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끝으로 항암치료를 받다가 생기는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을 예방하는 약인 ‘리페그필그라스팀’(제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습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59.txt

제목: 누구에겐 약, 어쩔 땐 독…알쏭달쏭 커피의 건강학  
날짜: 2016022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3152700302  
본문: 커피가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980~90년대에만 해도 커피가 유방암 등 암이나 불면증, 고혈압, 위염 등 위장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암을 예방하거나 뼈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br/><br/> 23일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은 폐경 여성 4066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골다공증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하루 1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폐경 여성의 골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인 <플로스원>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 결과를 보면 커피를 하루에 1잔 마시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21%, 2잔 마시면 33%, 3잔 마시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커피에 든 카페인 성분이 뼈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 뼈 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3잔 정도까지는 오히려 폐경 여성의 뼈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커피에는 여성호르몬 성분인 에스트로겐, 항산화 효과가 있는 클로겐산, 항 염증효과를 발휘하는 디테르펜 등이 있어 뼈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상민 교수는 “<span class='quot0'>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카페인 양은 하루 330㎎ 이상으로 커피로 치면 하루에 600㎖를 마셔야 하는 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루 3잔 이하 커피는 골절을 예방하고 뼈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이 연구 결과에 앞서 스웨덴의 카롤린스카의대 연구팀이 50~74살 여성 59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커피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33~57%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일본의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40~60대 남녀 9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관찰해 분석한 결과,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에 견줘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50% 이상 낮아졌다. 남성들의 대장암과는 별 관계가 없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미국 남성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1986년부터 2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커피를 하루 6잔 이상 마시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평균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커피를 하루 1~3잔 마시는 남성도 전립선암 가운데 사망 위험이 높은 종류에 걸릴 위험이 30% 정도 낮아졌다. 이처럼 커피가 여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커피에 든 항산화물질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r/><br/>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미국 네바다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임신 가능성이 25%가량 줄었다. 연구팀은 커피에 든 카페인이 난자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정했다. 커피에 든 카페인이 잠을 방해해 결국 비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 또 위장관계 질환으로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높이며, 어린이의 뼈 성장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br/><br/> 연구 결과대로 다 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결과들을 잘 종합해 보면 40대 이상 중년은 커피를 마시면 암 예방 등 건강에 이로울 수 있으나, 비만하거나 과민성대장증후군, 위식도역류질환, 불면증 등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0.txt

제목: ‘한글날 공휴일 복원’ 고 김혜선 과장에 ‘대한민국 공무원상’  
날짜: 20160222  
기자: 김진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2204538273  
본문: 4년 전 한글날을 공휴일로 되찾는 데 크게 기여했던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가 그 공을 돌리는 공무원이 있다. 김혜선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다. “<span class='quot0'>그가 (국어정책과 과장으로) 오고 나서야 한글날 공휴일, 공공언어 쉽게 쓰기, 한글박물관 개관, 언어문화 개선 범국민 운동…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한 국어정책이 자리를 잡고 성과를 거뒀다.</span>”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김 과장을 “<span class='quot0'>단연코 내가 만난 진정한 대한민국 공무원이었다</span>”고 했다.<br/><br/> 김 과장은 22일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뽑혔지만 직접 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9월 암 투병 끝에 42살로 세상을 떴다. 생전 김 과장은 ‘일벌레’로 통했다. 2014년 10월 병가 직전까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으로 영화 상영·배급 시장의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 체결, 표준계약서 도입, 현장 제작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이행 협약’ 체결 등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br/><br/> 그는 지방행정고시 출신으로 2004년 강원도 관광정책과에서 당시 문화관광부로 파견 나온 뒤 2005년 직원으로 발탁됐다. 김 과장을 떠나보낸 이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한다. “<span class='quot0'>일할 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매의 눈이었고 이야기할 때 눈빛은 새색시 초승달처럼 방긋 미소지었던 분</span>”이라 기억한다.<br/><br/>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는 모두 93명이다. 정호균(46)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은 한쪽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한쪽 눈 시력장애인에 대한 1종 운전면허 취득 제한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는 여러 연구자료까지 분석해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내 시정권고 16건과 정책권고 3건을 이끌어냈다. 그 역시 하반신마비 중증장애를 안고 있다. <br/><br/> 영화로도 만들어진 여성 수용자 합창단 ‘하모니’를 창단해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설옥희(54) 청주여자교도소 교위, 사회지도층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처음 도입해 체납징수 최고 실적(2013년 1879억원)을 낸 서울시 권해윤(60) 민생사법경찰단장, 2003년부터 북한산 경찰산악구조대장으로서 800명을 구조한 김창곤(47) 서울 강북경찰서 경위도 상을 받았다. <br/><br/>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1.txt

제목: 천국으로 떠난 ‘살아있는 도서관’  
날짜: 20160221  
기자: 이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1194940415  
본문: 소설 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두고 있는 이탈리아 작가이자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20일 오전 6시30분(한국 시각)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4. <br/><br/> 1932년 이탈리아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이자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일컬어졌다. 2005년 영국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함께 선정한 ‘최고의 지식인 100인’ 가운데 2위에 오르기도 했다. 1위는 노엄 촘스키였다. <br/><br/> 에코는 평생 기호학자, 중세사학자, 미학자, 비평가, 소설가로 맹활약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열정적인 저술 활동을 펼쳤다. 20대 시절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평생 관심사였던 저널리즘과 미디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만 22살이 채 되기도 전에 토리노 대학에서 받은 철학 박사 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첫 책 를 1956년 출간했다. <br/><br/> 1960년대부터는 토리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 강단에 섰다. 1971년 최초의 국제 기호학 학회지 의 편집자를 맡았고 같은 해 볼로냐 대학 부교수로 임명되면서 미학, 기호학, 문학적 층위로 나눠진 이론의 기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한다. 1975년 볼로냐 대학 정교수로 임명되었고, 최근까지 같은 대학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미국과 유럽 대륙을 오가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 <br/><br/> 주말에는 소설을 쓰면서 작가로서 활동했다. 14세기 중세 이탈리아 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첫 소설 (1980)은 에코의 해박한 지식이 총동원된 결정체로,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3000만부 이상 팔려나갔다. 1986년에는 장 자크 아노 감독과 숀 코너리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br/><br/> 대중에게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친숙한 그였지만, 스스로는 소설가보다 철학자로 기억되길 원했다. 1959년 발간한 두번째 책인 (개정판 )은 그가 중세 연구가로 학계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뒤 자타 공인 중세 철학과 기호학계의 거물이 돼 후학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를 읽을 줄 알던 ‘언어 천재’였으며 양피지, 종이, 텔레비전, 컴퓨터 등 인류가 발명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모조리 섭렵하고 활용한 ‘미디어 잡식가’이기도 했다. <br/><br/> 일생을 통틀어 중세에 관심을 갖던 그는 기호학을 징검다리 삼아 중세와 현대를 오갔다. 2000년 들어서 ‘유럽 문명 프로젝트’를 기획해 수백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시리즈(전 4권, 2010~2011)의 기획과 편집을 맡았다. 이 책은 ‘중세 대백과’격으로 중세가 암흑기라는 고정관념에 균열을 냈다. 이후 (전3권) (전5권)를 연달아 기획·발간해 고대부터 근대까지 서구 문명 전체를 통괄하려는 필생의 작업을 시도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발간한 소설 (Numero Zero)는 그의 마지막 소설이 되었다. <br/><br/> 에코의 평전을 쓴 이탈리아 철학자 다니엘 살바토레 시페르는 과거를 복원하고 현재와 연결하는 에코의 지적 작업을 일컬어 “<span class='quot0'>수천년에 걸쳐 쌓여 내려온 서구 문명 지식들에 대한 방대하고도 눈부신 종합</span>”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br/>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br/><br/><br/>■ [단독] ‘이승만 찬양시’ 최우수작, 세로로 읽으니 ‘기막힌 풍자’ <br/><br/>■ [정치BAR] 심판이 갑자기 슛을? 선관위의 오버 액션 <br/><br/>■ “노태우 장남 재헌씨,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 3개” <br/><br/>■ [화보] 북, 선전물과 현실의 차이는? <br/><br/>■ [화보] 프로야구 역사를 한눈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2.txt

제목: ‘장미의 이름’ 작가 움베르토 에코 별세  
날짜: 20160220  
기자: 이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20115356429  
본문: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국내에서도 이름이 높은 이탈리아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19일 저녁 이탈리아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가 보도했다. 향년 84. <br/><br/> 1932년 이탈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호학자, 중세사학자, 미학자, 비평가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열정적인 저술 활동을 펼쳤다. 20대 시절 밀라노의 한 방송국에서 일하던 그는 토리노대학에서 받은 자신의 철학 박사 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첫 저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문제>를 1956년 출간했다. <br/><br/> 그뒤 이탈리아 토리노대, 밀라노대, 피렌체대 강단에 섰으며 1971년부터는 최초의 국제 기호학 학회지 <베르수스>의 편집자를 맡고 같은 해 볼로냐 대학 문학 및 철학 학부 기호학 부교수로 임명되면서 그의 이론을 튼실하게 다져나갔다. 1974년 밀라노에서 제1회 국제기호학회를 조직하고, 이후 1980년대까지 미국 뉴욕대와 콜롬비아대 방문교수 등 미국과 유럽 대륙을 오가며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문학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1993년과 2003년 프랑스 레종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br/><br/> 주중에 연구하고 후학들을 기르는 가운데, 주말에는 소설을 쓰면서 작가로서도 활동했다. 14세기 중세 이탈리아 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추리소설 <장미의 이름>(1980)은 에코의 해박한 지식이 총집결된 결정체로, 40여개국에 번역돼 300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프랑스 메디치상과 이탈리아 스토레가상 등 각종 문학상을 휩쓸며 에코는 세계적 작가로서 널리 이름을 알렸다. <br/><br/> 베스트셀러 작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소설가보다 철학자로 불리길 원했다. 젊은 시절부터 철학에 몰두했으며 1959년 <중세 미학의 발전>(개정판 <중세의 미학>)을 출간해 중세 연구가로 인정받았고 자타 공인 기호학계의 거물이었다.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를 읽을 줄 알던 언어 천재이기도 했다. <br/><br/> 중세는 일생을 통틀어 그의 관심사였다. 2000년 들어서는 ‘유럽 문명 프로젝트’를 기획해 이탈리아를 비롯한 수백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중세> 시리즈(전 4권, 2010~2011)의 기획과 편집을 맡았다. 이 책은 ‘중세 대백과’격으로 중세가 암흑기라는 편견어린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고자 한 도전이었다. 이후 <고대>(전3권) <근대>(전5권)를 연달아 기획·발간해 고대부터 근대까지 서구 문명 전체를 통괄하려는 필생의 작업을 시도했다. 그의 평전을 쓴 이탈리아 철학자 다니엘 살바토레 시페르는 “<span class='quot0'>에코의 지식은 수천년에 걸쳐 쌓아올린 서구 문명 지식들에 대한 방대하고도 눈부신 종합</span>”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br/>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3.txt

제목: 썰렁해도 반복하면 언젠가 빵 터진다  
날짜: 20160217  
기자: 이정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18145956747  
본문: “<span class='quot0'>이야~, 여긴 회를 먹고 있으니 진짜 회식이네요.</span>”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던진 말이다. 반응은 어땠을까? 본인도 민망했는지 “하하~, 아휴 썰렁해라”라고 덧붙였지만, 분위기는 좋았다고 한다.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한 기자는 “농담 안 할 것 같은 정치인이 한마디 하니, 다들 웃음이 터졌다. 분위기 전환이 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 뒤 ‘모범생 안철수가 변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br/><br/>이렇듯 정치인까지 동참할 정도로 ‘아재개그’(아저씨 개그)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일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재개그는 천대와 조롱의 대상이었다. 등산 모임에서 아저씨들이나 할 법한 썰렁한 개그라는 뜻의 ‘등산회 개그’, 재미가 없어 암에 걸릴 것 같다는 의미를 담은 ‘발암 개그’,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던진 썰렁한 농담에 속으론 화가 나도 겉으론 웃어야 했던 직장인의 애환이 서린 ‘부장님 개그’ 등으로 불려온 것이다. 이랬던 아재개그의 위상이 변한 이유는 뭘까? 사람들은 왜 아재개그에 빠져드는 걸까?<br/><br/><br/><br/>원조는 역사 오래된 언어유희<br/><br/>아재개그를 단순히 재미없는 개그로만 볼 건 아니다. 아재개그는 핵심은 ‘말장난’으로 일종의 언어유희다. 주로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진 낱말로 장난을 친다. 다른 나라에도 있다. 영어권에선 ‘펀’(Pun)이라 부르고, 일본에도 ‘다자레’라고 하는 말장난이 존재한다.<br/><br/>그 역사도 유구하다. 성경에도 나온다. 마태복음에는 “너는 베드로이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구절이 있다. ‘베드로’(Petros)와 ‘반석’(Petro)의 음가가 비슷한 데서 착안한 언어유희다.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br/><br/>중국에서는 ‘시씨가 사자를 먹었다’(施氏食獅史)는 시가 유명하다. 언어학자 자오위안런이 지은 것으로, ‘시씨 성을 가진 시인이 사자 열 마리를 먹는다’는 게 내용이다. 꽤 긴 길이의 시인데, 재밌는 건 ‘시’(shi)로 발음되는 글자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시를 낭독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시시시~” 하다 끝난다. “시”만 90번 넘게 이어진다. 읽는 이 또한 웃음을 억지로 참는 모습에 배꼽을 잡게 된다.<br/><br/>한국에선 아재개그의 원조로 조선시대 방랑시인 ‘김삿갓’ 김병연이 꼽힌다. 그는 언어유희를 통해 수많은 풍자시를 남겼는데, 뜻과 음이 다른 한자 특성을 잘 활용한 고품격 아재개그였다. 어느 날 방랑중인 김삿갓이 한 서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뒤 지은 시는 말장난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br/><br/>‘내 일찍이 서당인 줄은 알았지만(書堂乃早知)/ 방 안에는 모두 귀한 분들일세(房中皆尊物)/ 생도는 모두 열명도 못 되고(生徒諸未十)/ 선생은 와서 인사조차 않는다(先生來不謁)’는 이 시를 한문 그대로 읽으면 ‘서당내조지/ 방중개존물/ 생도제미십/ 선생내불알’이다.<br/><br/><br/><br/>언어유희 역사 성경까지 거슬러가 <br/>요즘 아재개그는 말장난 문답 위주 <br/>한번 들으면 아무도 안 웃지만 <br/>계속 듣다 보면 중독되고 만다<br/><br/><br/><br/>반복을 통해 웃음 이끌어내기<br/><br/>최근의 아재개그는 과거의 풍자로부터 멀어졌다. 말 자체만의 장난을 즐기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문답식이 유행이다. 예컨대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하고 묻는 식이다. 답은 ‘딸기 시럽’. ‘시럽’과 ‘실업’의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한 사례다.<br/><br/>아재개그는 한 편만으로 웃음을 터뜨리기 힘들다는 특징도 지닌다. 인터넷 공간에선 수없이 많은 아재개그들이 반복·재생산되고 있다. 단순히 텍스트만으로 이뤄진 것도 있지만, 일본 만화나 유명인 사진에 텍스트를 합성한 ‘짤방’도 많다. 이들 가운데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무리수’도 많다. 하지만 아재개그의 매력은 ‘반복’에 있다. 무리수 아재개그를 한번 들으면 아무도 웃지 않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언젠가 터지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일종의 ‘아재개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셈인데, 웹툰 작가 이말년은 네이버에 연재중인 웹툰 <이말년 서유기>를 통해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br/><br/>“① 들으면 짜증나는데, 듣다 말면 궁금해진다. → ② 들었던 쓰레기 같은 개그가 자꾸 떠올라 지속적으로 내상을 입게 된다. → ③ 그렇게 증오했던 개그를 구간 반복으로 계속 상상하다 보면 웃기기 시작한다.”<br/><br/>안 웃기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고, 결국 웃음이 터진다는 논리다. 반복되는 아재개그를 통해 스타가 된 경우도 있다. ‘셰프테이너’(셰프+엔터테이너)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오세득 셰프다. 그는 <마이리틀텔레비전>, <냉장고를 부탁해> 등 방송에 출연해 아재개그를 반복적으로 던졌다. 처음엔 같은 출연자들조차 그를 질타했지만, 이젠 그의 아재개그에 중독됐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오세득 아재개그만을 모아 올린 블로그도 여럿 된다. 지난해 <마이리틀텔레비전>에 배우 여진구와 함께 출연해 남긴 아재개그는 유명한 짤방이 됐다. “<span class='quot0'>명절 때 남은 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span>” 답은 “전전긍긍”이다.<br/><br/><br/><br/>안 웃겨도 웃어주는 사회로<br/><br/>최근 각광받는 아재개그가 왜 그동안 천대를 받았을까? 웃음을 경시하던 사회 풍조의 반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평소 웃음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작은 숨통이라도 트이게 하려고 아재개그라도 하면, 웃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span class='quot0'>한국처럼 개그 하기 힘든 나라가 없다</span>”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다. 개그 프로그램 녹화장에선 방청객들이 ‘어디 한번 웃겨봐라’ 하는 식으로 팔짱을 끼고 출연자들을 째려본다. 녹화 시작 전 웃음을 트이게 하고 많이 웃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잡이’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아재개그를 무시했던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얘기다.<br/><br/>최근 들어 아재개그로 상징되는 ‘작은 유머’들이 각광받는 건 그만큼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웃음에 대한 관용과 여유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아재개그가 그 선봉장 구실을 하고 있다. 에스비에스 개그 프로그램 <웃찾사>의 최항서 작가는 “아재개그의 매력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꼭 웃기지 않아도 된다. 살짝 미소 짓게 하면 된다. 크게 웃기지 않았다고 해서 창피해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직업 개그맨이 아니어도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웃기면 좋고 안 웃겨도 그만인 ‘생활 속 개그’, 그게 바로 아재개그의 본질이다.<br/><br/>이제 재미없는 아재개그를 들었을 때 웃기지 않는다고 정색할 게 아니라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는 상대방의 노력에 가볍게 미소 지어주는 건 어떨까. 우리의 표정을 만드는 건 남이 아닌 우리 자신이고, 그 웃음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이니 말이다. <br/><br/>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4.txt

제목: 교보생명 ‘생활 맞춤형 보장보험’  
날짜: 2016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17202458491  
본문: 교보생명은 ‘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디아이와이(DIY, 두 잇 유어셀프)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사망을 비롯해 각종 재해나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데, 보험 가입자의 나이, 라이프 스타일, 경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보장을 실속있게 고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생활보장특약 4종, 일반특약 7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입자는 이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조립해 본인에게 딱 맞는 보험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생활보장특약은 상해, 암, 2대 질병, 간병 플랜 중 1개 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최대 100살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갱신형(20년) 계약으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꼭 필요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처음 가입 때는 순수보장형과 100% 및 70% 만기환급형 중 선택할 수 있고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과 생활보장특약의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5.txt

제목: 이름처럼 ‘정의로운 행동’ 앞장섰던 평화활동가  
날짜: 20160217  
기자: 정대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17185424703  
본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세월호 진실 알리기에 힘써왔던 평화활동가 정의행(본명 정철) 호남평화인권사랑방 의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58.<br/><br/> 정씨는 지난해 9월 발병한 급성 백혈구암으로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밤 숨을 거뒀다. <br/><br/>고인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상주모임’에 참여해 진상규명 운동과 희생자 가족 지원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왔다. 지난해 4월 참사 1주기에 맞춰 진도 팽목항, 광주 충장로, 마을촛불 마당 등 세월호 진상규명의 현장에서 느낀 단상을 담은 시 작품을 모은 <노란 리본>(문학들 냄)을 내기도 했다.<br/><br/> 고인은 평생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 정의로운 행동(의행)을 몸소 실천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그는 광주일고 재학 때부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1978년 경기도 봉선사 조실 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의행’(義行) 법명을 얻었다. 이듬해 환속해 노동운동과 야학에 헌신했던 그는 80년 5월항쟁에 참여했다가 투옥됐고, 진상규명 투쟁을 하다가 또 한번 옥살이를 했다.<br/><br/> 그는 불교 교육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84년 광주불교운동의 시초인 무등민족문화회에 참여한 데 이어,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와 ‘평화행동 한걸음더’를 설립해 평화운동에 전념해 왔다. 87년 6월항쟁 이후 ‘이바지출판사’를 운영한 그는 <한국불교통사> 등 20여권을 출간했다. <br/><br/> 장례는 의행 법사 장례 민주시민장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진다. 빈소인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들머리에서 18일 저녁 8시 상주모임 문화·예술인들이 추모의 밤을 연다. 19일 오전 9시 발인식, 오전 10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노제를 거쳐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br/><br/> 유족으로 부인 전소연씨, 아들 자주(한국철도공사 근무)·한길(KS병원 근무)씨가 있다. (062)231-8901. <br/><br/>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6.txt

제목: 유방암 4기 치료뒤 평균 3년 더 산다  
날짜: 2016021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16200918063  
본문: 다른 조직으로 암 세포가 전이된 ‘4기 유방암’ 환자는 치료 뒤 평균 약 3년 넘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998~2002년, 치료 뒤 평균 19개월 생존했던 것과 견줘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br/><br/> 16일 문형곤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팀은 “<span class='quot0'>1998∼2010년 뇌나 폐 등 이미 다른 조직으로 암 세포가 전이돼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은 뒤 치료받은 환자 547명을 조사한 결과 생존 기간은 평균 31개월로 나타났다</span>”고 밝혔다. 또 시기별로 분석해 본 결과 2007~2010년대 말에는 치료 뒤 39개월을 생존해, 1998~2002년에 견줘 2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암의 전이는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 이외의 다른 장기로 옮겨 자라는 것으로, 보통 전이가 발생하면 완치가 쉽지 않은 4기암으로 받아들여진다. 유방암의 경우 특히 전이가 잘 되는 암 가운데 하나인데, 연구팀은 국내 유방암 치료 수준의 향상으로 생존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럽종양학회가 발간하는 국제 암학술지 온라인판에 최근 실렸다. <br/><br/>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7.txt

제목: 삼성 백혈병 3주체, 첫 공개 토론…사과·보상 이견 팽팽  
날짜: 20160216  
기자: 노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16190859386  
본문: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의 협상 주체인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세 주체가 공개 토론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br/> 이들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아시안아메리칸 언론인협회(AAJA)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백혈병 피해자와 삼성 관계자들의 작업장 안전에 대한 토론회’(Debate on workplace safety with leukemia victims & Samsung reps)에 참석해, 삼성 백혈병 논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조정위원회 2차 권고안에 따라 합의한 ‘옴부즈만 위원회 설립 등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사과’와 ‘보상’ 의제에 대해서는 팽팽한 의견차를 드러냈다.<br/><br/>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했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뒤 9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 2013년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교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힘겨루기’ 국면에 들어섰고, 이후 가대위 제안에 따라 2015년 초 조정위가 설립됐다. 조정위는 지난해 7월 1000억원 규모 공익재단 설립을 뼈대로 한 1차 조정 권고안을 내놨지만, 삼성전자 쪽은 공익재단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며 독자 보상위원회를 꾸려 보상절차에 들어섰다. 이어 조정위는 지난 1월12일 보상절차 등을 제외한 2차 조정 권고안을 냈고, 이들은 옴부즈만 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br/><br/> 삼성전자는 지금껏 피해자 150여명이 보상위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 이 가운데 110여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보상’과 ‘사과’, ‘재해예방대책’ 등 삼성 백혈병 논란의 3대 의제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올림 쪽은 조정 권고안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한 ‘재해예방대책’ 부분에 대해서만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는 차별없는 보상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br/><br/> 이날 토론회에는 반올림 쪽 황상기 대표와 회원인 김시녀씨, 가대위 송창호 대표와 김은경씨,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와 김선범 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기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겨레>는 국내 참관 언론사로 선정됐다. 아래는 이날 토론 내용 전문이다.<br/><br/> <br/><br/> <br/><br/> -삼성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자. 반올림은 직업병 피해자가 200명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신청자 가운데 소송 등을 통해 인정받은 건 4명 뿐이라고 한다. 진실은 무엇인가?<br/><br/> <br/><br/> ○반올림 황상기 대표 : 우리 유미가 백혈병에 걸려서 2007년 6월 처음 산재 신청서를 냈다. 2007년 9월 유미가 일했던 기흥 반도체공장 3라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됐다. 당시 역학조사 참관했는데, 삼성 관계자 한 분이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 대가로 10억원을 준다고 했었다. 또 산재 신청을 못하게 따라 다니면서 방해를 했다.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삼성 직원 3명이 따라 다니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 해주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서울에 집을 얻어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집으로 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지키고 있는 등의 행동을 했다. 반올림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또 삼성이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막은 사례가 있다. 삼성 반도체와 LCD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또 역학조사 내용을 통해 드러난 삼성 반도체 작업장에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저 인과관계가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 삼성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모두 223명이 암과 백혈병에 걸렸다고 신고해 왔다. 또 삼성이 그렇게 막아왔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사람도 56명이나 된다. 그중에 산재 인정 받은 사람이 9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백혈병, 유방암, 난소암 등등 질병 종류도 다양하다. 법원에서도 산재 인정하는 폭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br/><br/> <br/><br/> ○가대위 송창호 대표 : 법원에서 산재 인정 받은 사람 숫자는 맞는데, 피해자 200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화 제보를 받거나, 혹은 주위 사람한테 전해 들었거나 한 사례를 모두 모아서 200명이라고 말씀 중인 것 같다. 저희도 반올림에 같이 있다가 나온 상황에서, 피해자 200명이 진짜 존재한다면 저희한테도 좀 주셨음 좋겠다. 그 분들이 보상 절차 등 몰라서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 연락처나 명단을 주시면 우리가 (보상) 의사를 묻고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반올림에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어떤 원인에서건 본인이나 가족 분이 병을 얻으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 드린다. 그러나 피해자 감금했거나 산재 신청을 막으면서 10억원 제시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만약 그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사유다. 황상기씨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까지 반올림에서는 직업병 피해자 200명 넘는다 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다. 저희가 반올림 카페나 지지자 명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3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황상기씨 말씀처럼 산재 신청자는 대략 50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재 승인은 3명, 산재 불승인 뒤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우는 4명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반올림이 단순한 제보 전화 만을 가지고,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까지 모아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br/><br/> <br/><br/> ○반올림 황상기 대표 : 반올림에 신고 들어온 사람만 223명인데,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 왜냐면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에서 반올림에 신고를 못하게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반올림이 근거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라는 것인가. 또 삼성 보상위에 보상 신청한 사람이 150여명이라고 하는데,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br/><br/> <br/><br/> ○가대위 송창호 대표 : 가대위도 피해 제보를 받았는데, 예컨대 관절염에 걸린 분이 제보를 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보상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반올림에도 그런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정보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삼성에 내용을 주면, 아니면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시면, 비밀을 보장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묻고, 보상 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까지는 할 수 있을텐데 아쉽다. 그냥 그렇게 숨겨 놓으시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다. 보상 주체인 회사는 피해자 명단을 알아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개 않는 이유 의문스럽다. 피해 보상 뿐만 아니라, 예방 절차 진행을 위해서도 삼성이 정확한 피해자 명단과 직업병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 싶다. 그리고 어떤 질환이 직업병인지 여부는 회사나 당사자 주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에 의해 판정될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 지금껏 어떤 국내 기관에서도 반올림이 주장하는 질병과 삼성전자의 작업장 환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적 없다는 점 상기해 주시길 바란다.<br/><br/> <br/><br/> ○반올림 김시녀씨 :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기 보다, 저도 삼성 쪽에서 회유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올림에서 피해자한테 보상 받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다. 힘들다고 말하는 피해자 분께 일단 산재 신청하고 그 뒤에 다시 싸우자고 말한 경우가 있다. 삼성 스스로도 지금껏 보상 신청한 사람이 150명 넘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관절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말도 안된다.<br/><br/> (사회자 추가질문 : 공개를 하면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인가?)<br/><br/> 저희한테 온 신고는 거의 대부분 암 질환이다. 관절염 등 제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삼성이 진행하는) 보상위 보상도 ‘받으려면 받아라’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 제보도 또 반올림으로 들어오고 있다. <br/><br/> <br/><br/> ○가대위 김은경씨 :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산재 신청을 제일 처음 했었던 당사자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삼성에서 산재 신청 못하게 방해한 부분은 있었다. 그건 사실인데. 이번 예방대책 합의문 보면 산재 신청 시에 삼성이 노무사도 붙여주고 도와주기로 합의한 항목이 들어있다. 앞으로는 좀 다를 것으로 본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어떤 반도체 사업장에서도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나 그 물질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고, 거기에서 어긋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업무와 인과관계를 가진 질환에 대해서는 산재라는 공적인 보상 제도와 소송이라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 드린다. <br/><br/> <br/><br/> -조정위 2차 권고안을 통한 예방 대책 합의 뒤에 삼성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3대 의제에 대한 논쟁 마무리 됐다고 말하고 있다.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는 반올림과 입장이 엇갈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br/><br/> <br/><br/> ○가대위 송창호 대표 : 보상 이야기 이전에, 조정위를 가대위가 먼저 제안해서 만들었다. 조정위 만들게 된 이유는 세 주체가 대화 하다보니 너무 논쟁적이 되고, 교섭 장소에 가면 말 한마디 못하고 나올 때가 많았다. 그래서 조정위를 꾸리면 중간에서 논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갈등 해결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정 권고안이 나왔는데, 실망을 했다. 세 주체가 만족할만한 안건이 나와야 하는데, 한쪽에 너무 편향적으로 쏠린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1차) 조정 권고안에는 피해 당사자가 배제돼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정 권고안을 거부했는데, 반올림은 다음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보상위를 설립하게 됐다. 보상위가 주도하는 보상이 진행되는 중에 (가대위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가 딱 한마디 했다. 6년여 산재 소송을 하면서 승소를 2명 밖에 못했는데, 4~5개월 동안 100명 넘는 분들이 보상을 받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보상은 99%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질병들은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 7년여를 팽팽히 맞서왔다. 질병 원인을 밝히는 것은 주장과 요구만으로 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다 2014년에야 대화를 시작했고, 서로 입장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가대위가 반올림으로부터 분리 독립돼 나오면서 조정위 제안했고, 조정 통해 조정 권고안 만들게 됐다. 저희 입장에서 반올림이 주장하시는 배제없는 보상은 산재 신청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무조건 보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된다. 현재 보상 상황은 150명 넘게 신청하셨고, 110여명 가까이 보상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수령하셨다. 반올림은 배제없는 보상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보상을 받지는 않고 있고, 그쪽 보상위가 결정을 해서 구분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은 김시녀, 황상기씨처럼 아직 보상 신청 않은 분들에게도 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란다.<br/><br/> <br/><br/> ○반올림 황상기 대표 : 삼성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병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삼성이 화학약품과 방사선에 대한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면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삼성이 보상안 내놨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떤 암 환자는 10년여 동안 투병 생활에 1억원이 넘는 돈이 치료비에 들었다고 하는데, 돈 2000만원 주면서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고 했다고 한다. 또 어떤 종양 환자는 당신은 보상 대상이 안되므로 4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했단다. 서류 만든 비용과 교통비 명목이다. 삼성에 잘 보이면 보상 좀 더주고, 밉보이면 안주는 식으로는 안되고. 반올림이 요구하는 것은 기준치 만들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더 억울한 사람 없도록 공정한 보상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br/><br/> <br/><br/> ○가대위 송창호 대표 : 1차 조정 권고안 나왔을 때 가대위는 큰 실망을 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그런 안을 반올림은 환영했고, 조정 권고안에 (보상 기준) 1, 2, 3군 나눴는데, 그건 조정위가 나눈 것이다. 그런 부분 따져보지도 않고 환영하는 것에 실망했다. 반올림이 원하는 바는 보상이 아니라 재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실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위를 만들기로 했다. 물론 저희는 피해자로서 보상위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br/><br/> (사회자 추가질문 : 보상 부분 합의는 타결된게 맞다는 뜻인가?)<br/><br/> 그렇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관련 규정과 법규에 따라 삼성전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부나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그 정보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특히 회사의 영업비밀인 경우 심사 당국을 제외한 곳에 정보가 가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이해해달라. 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액과 보상 기준 등에서 보상위 절차에 따르고 있다. 조정 권고안에 기초한 보상 기준에 따르면, 보상은 기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로금과 미취업으로 인한 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원칙없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br/><br/> <br/><br/> ○반올림 황상기 대표 : 삼성은 가해자다. 가해자가 스스로 사람들을 지목해서 보상위를 만들어서, 보상 신청을 받고 보상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삼성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보상안을 만들고, 보상 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삼성이 자기 맘에 드는 사람들로 보상위를 꾸려서 진행하면 보상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보상 범위도 매우 협소한 상황이다. 필요한 경비와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보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반올림에 있는 저희들한테는 삼성이 보상 이야기 꺼낸 적 없고, 사과 한마디 한 적도 없다. 보상과 사과, 이뤄지지 않았다. <br/><br/> <br/><br/> -보상 절차와 관련된 쟁점이 좀 있다. 예컨대 지난해 말일까지 보상 신청 마감 정한 것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떤 상황인가?<br/><br/> <br/><br/> ○가대위 송창호 대표 : 당초 시한을 12월 말로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조정위 협상 과정에 12월말 넘어서 접수된 보상 신청도 받아달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맞다. 확인 드린 것처럼 당초 1차 보상 신청 받을 때 12월 말이 신청 마감이었지만, 아직 신청 않은 분들 있을 것이라 해 마감 기한 연장해서 보상 신청 계속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조정위가 권고안에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부조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상 신청과 동시에 산재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힌다.<br/><br/> <br/><br/> ○반올림 김시녀씨 : 보상위 절차 개시할 때 반올림과 협의한 바 없다. 12월31일에 신청 기한 만료한다는 것도 반올림 쪽에 말한 바 없다. (피해자들한테) 12월31일이 신청 기한이니까 그때까지 신청하라고 협박 전화나 하고. (보상 부분) 조정 권고안 나왔을 때 재논의하고 수정하자는 제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까지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사과와 보상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br/><br/> <br/><br/> ○가대위 송창호 대표 : 가대위도 피해 당사자다. 반올림이 삼성이랑 대화하기 힘들면 우리와라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하고 싶다.<br/><br/> <br/><br/> ○반올림 김시녀씨 : 반올림 배제하고 보상위 만든 것도 가대위와 삼성이었다. 반올림은 철저히 배제됐다. 우리는 삼성과 대화하겠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반올림은 보상 절차에 대해 3자가 합의하지 않은 보상 절차를 실행하는 점에 대해 말씀 하시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그렇다면 3자가 합의하면 보상 당사자가 원치않는 보상을 강요할 수 있는지, 또 3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받은 보상까지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물론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진 뒤에는, 보상 절차는 당사자 주체 간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한다.<br/><br/> <br/><br/> ○반올림 황상기 대표 : 삼성에서는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합의안이 만들어진 바 없다. 보상안을 만들지 때 반올림 쪽 주체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일부 가대위 사람들과만 대화해서 보상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심지어 당시 가대위 간사는 삼성이 일방적으로 보상안 몰아붙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 삼성과 반올림 대화를 통해 아직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 사과 의제는 법원에서도 (딸) 유미가 화학물질과 독극물에 의해 살해됐다고 인정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명확히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 <br/><br/> ○가대위 김은경씨 : 반올림은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조차 없다. 예전에 보상에 대한 전략을 물어봤더니, 그냥 싸우겠단다. 그렇게 싸우는 동안 피해자들은 죽어간다. 싸움 만이 능사가 아니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3자가 합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보상은 이미 150명 넘게 신청하고 110여명이 보상 받았고, 사과문도 수령했다. 가대위가 회사를 찾아 대표이사한테 직접 사과문도 수령했다. 황상기 대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질환이 다르고, 질환의 정도도 다르고, 피해자들의 소득도 다르고, 피해 사실도 다르다. 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원칙이 조정 권고안에 따라 마련됐다. 조정 권고안에서 나온 기준과 원칙은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상 실행을 위한 기준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br/><br/> <br/><br/> ○반올림 황상기 대표 : 동일한 보상을 요구한 바 없다. 병이 걸린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지 그 기준치를 말한 것이다. 병에 걸린 사람, 치료하는 기간도 다르고, 생존 여부도 다르다. 그 기준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다. 반올림에 신고온 피해 사망자만 76명, 암에 걸렸다는 사람만 223명인데, 삼성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주면 각자 보상 받는 금액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또 삼성은 반올림과는 사과 문제에 대해 어떤 것 하나 이야기 한 바 없다.<br/><br/> <br/><br/>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린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해결 방안 두갈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산재와 직업병 판단은 공적인 영역이다. 개별 기업이나 시민단체가 판정할 일 아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판정받는게 당연하다. 다만 오랜시간 논쟁으로 옴부즈만 위원회라는 전문적인 기구 설립키로 한 만큼, 합의정신 존중해서 옴부즈만 위원회가 내놓는 답 기다리는게 순서라고 본다. 회사는 옴부즈만 위원회 검증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 제시되면 철저히 이행하겠다. 반올림도 만약 옴부즈만 위원회 통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나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br/><br/> <br/><br/> ○반올림 김시녀씨 : 삼성에 묻고 싶은데, 반올림과 사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반올림 농성에 따라 예방대책 등 어느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사과와 보상까지 마무리 했다는 삼성 이야기는, 가대위 소속 몇몇과의 이야기다. 반올림과는 여전히 아무 진전이 없다. 사과와 보상에 대해 반올림과 대화할 의향이 없으신가. 또 반도체 제조 과정에 화학물질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안전교육과 방지대책 완벽하게 해달라.<br/><br/> <br/><br/> ○가대위 송창호 대표 : 다시 한번 가대위와 반올림의 차이를 느낀다. 농성을 통해 재해예방대책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보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 마무리를 위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합의가 됐다고 본다. 사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방식이 되면, (산재와 소송 등에 쓰일 수 있어서) 어렵다고 삼성 쪽에서 이야기 한 바 있다. 우리도 그 부분 아쉽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그 부분 양보를 통해 사과문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br/><br/> <br/><br/> <br/><br/> <질의 응답><br/><br/> -반도체 시장 세계 무대에서 경쟁이 매우 심한데, 작업장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질문에 상당한 오해가 있다.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법규정이 분명히 있고, 화학물질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그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데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업장 안전 다룬다는 것은 질문자의 인식에 오해가 있다. 만약 그런 법규를 어긴다면 규제와 행정조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분명히 하고 싶다. 근로자에 대해서도 물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br/><br/> <br/><br/> ○반올림 황상기 대표 : 과거에 유미한테 물었을 때 안전교육 등은 한번도 받은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은 또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뜻을 표하려고 할 경우 바로 해고를 당한다. 이견을 제시하거나 말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화학약품 쏟을 경우 맨손으로 걸레 가져와서 닦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황유미씨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안전교육 받은 바 없다고 이야기 하셨다. 이 메모까지 꺼내게 돼, 가슴 아프다. (황유미씨 수첩 메모 사본 제시) 황유미씨가 작성한 메모를 보면, 각 공정이 그려져 있고, 공정마다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이 적혀 있다. 이는 회사 쪽에서 제조 공정과 각각 사용된 화학물질 등을 교육했다는 증거다.<br/><br/> <br/><br/> -삼성 반도체 논란의 3대 쟁점이 모두 해결됐다고 보시는지? 또 공개 사과하실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8년 넘게 끌어온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월 예방대책 합의하고, 보상 신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보상신청을 시작한 첫주에 60명이 신청했다. 그 다음주에 20명, 9월 한달 동안에만 80여명이 신청했다. 1월 이후로 보상 신청 늘지 않고 있다. 반올림 농성이 계속된다는 이유 만으로 보상 문제 등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판단이다. 또 가장 어려운 논란인 재해예방대책이 합의를 통해 타결됐다. 하지만 명백히 황상기, 김시녀 두분은 아직 보상 문제 등 해결이 안되고 있다. 그 부분도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사과는 2014년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한 바 있다. 또 가대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개별적으로 사과문 전달하고 사과했다. 어떤 사과가 더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br/><br/> <br/><br/> ○반올림 황상기 대표 : 삼성에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의 내용은 없다. 삼성은 가해자다. 암에 걸린 사람들도 암에 걸린 사람 나름이다. 김시녀씨 딸은 화장실도 혼자 못간다. 유미도 죽었고, 유미 엄마도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만 다니고 있다. 나는 8년째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아무런 직업도 이렇게 살고 있다. 삼성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사과하고, 그 토대 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br/><br/> <br/><br/> ○가대위 송창호 대표 : 피해자 가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사자인 우리는 모든 걸 인정하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서, 사과문을 받았겠느냐. 가대위가 그 사과문을 받지 않았다면, 100명이 넘는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과를 받은 것은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어떤 이유에서건 고통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모든 대상에 대해 조건없이 보상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사과 역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과를 하라는 것 받아들이기 어렵다. 황유미씨 산재 불승인, 그 뒤 법원에서 이겨서 산재 보상 받으셨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김시녀씨 따님 산재 불승인, 법원에서도 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황상기씨는 계속해서 삼성이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시는데, 황유미씨의 언니도 10년동안 회사에 다녔다. 또 사위분 계속해서 삼성 반도체에 근무하고 있다. 죽음의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br/><br/> <br/><br/> -삼성반도체 사건만 뉴스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또 삼성이 안전조치 한게 있는지?<br/><br/> <br/><br/> ○삼성전자 백수하 상무 : 전 세계 반도체 생산라인 580개가 넘는다. 국내에만 6개 업체, 30개 생산 라인이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외에 중국 시안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도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있다. 삼성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23년 이상 1위 업체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는다. 바꿔 말하면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에 있다는 것이고,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삼성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독특한 지위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해 1~9월말까지 삼성전자 앞에 신고된 집회·시위가 500여건이나 된다. 하루에 2건이 넘는 셈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 활동과는 큰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종합하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동일한 안전기준으로 생산라인 관리 운용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유독 삼성전자에서만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런 문화적인 환경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한다.<br/><br/> 두 번째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언제나 삼성의 우선순위 1번이다. 그것은 국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인식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정부와 입법기관이 마련한 규제와 법규에 의해 통제 받고, 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서 반도체 라인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계속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br/><br/> <br/><br/> ○반올림 황상기 대표 : 삼성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는 이유는 삼성이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잘못이 그만큼 누적돼 있기 때문이다.<br/><br/> <br/><br/>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8.txt

제목: 책임감은 먹는 감인가? 제대로 삐딱선 타는 영웅의 등장  
날짜: 20160211  
기자: 안창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11190821337  
본문: 엑스맨으로 대표되는 미국 만화 ‘마블 코믹스’의 영웅들 가운데 아주 독톡한 ‘놈’이 영화 관객을 찾아온다. 그동안 보아왔던 ‘모범생 영웅’이 조금 지겹다면 제대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시라. ‘조금’ 질이 떨어지는 화장실 농담이 가득하다. 영화 <데드풀>(감독 팀 밀러)은 시작과 함께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 위 액션 장면이 곧바로 펼쳐진다. 총알 단 12발로 악당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공중제비로 솟구쳐 올라 악당 셋을 총알 한 방으로 한꺼번에 쓰러뜨리는 등 갖가지 묘기를 부린다. 빨간색 쫄바지에 두건을 쓴 ‘데드풀’의 이색적인 스크린 등장이다. 영화는 이어 데드풀의 탄생 사연을 풀어낸다. 전직 특수부대원 ‘웨이드 윌슨’(라이언 레놀즈)은 푼돈을 받고 일하는 찌질이 해결사이다. 거리의 여자 ‘바네사 칼리슨’(모레나 바카린)과 사랑에 빠지는데,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는다. 암 치료를 위해 비밀 실험에 참여했다가, 강력한 신체능력을 갖게 된다. 다만, 초능력을 얻는 대신 얼굴이 아주 흉칙하게 변한다. <br/><br/> 데드풀도 헐리우드의 다른 초능력 영웅과 마찬가지로 악당들을 통쾌하게 물리치지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 먼저 데드풀은 책임감이나 정의감은 손톱만큼도 없다. 악당을 쫓는 것도 개인적 복수의 일종일 뿐이다. 마지막까지 영웅의 길을 거부하고, 그냥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알콩달콩 살고 싶어할 뿐이다. <br/><br/> 또 데드풀은 바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저질’이다. 웨이드 윌슨 시절부터, 데드풀이 되고 나서도 온갖 성적 농담이 넘쳐난다. 영어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그가 입에 달고 사는 미국식 저질 유머에 킥킥 웃음이 나올 것이다. 우리말 자막으로 옮긴 사람이 대견할 정도다. 영화가 끝나고 데드풀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짧게 흐르는데, 유니콘이 등장하고 이어 무지개가 뜨는 장면은 영화 전체를 한 장면으로 압축한 듯 하다. 이런 사정 탓인지 영화는 기획된 뒤 실제 완성까지 11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라이언 레놀즈는 새로운 캐릭터 창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찌질한 해결사에서 거리의 여자를 사랑하는 로맨틱 가이로, 말기암에 고통스러워하는 젊은이로, 드디어 수다쟁이 초능력 인간까지 계속 변신한다. 영화에서 음악은 데드풀의 캐릭터 완성을 돕는데,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2015)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정키 엑스엘(XL)’의 솜씨다. <br/><br/> 다만, 캐릭터 만들기에 힘을 쏟은 탓인지 전체 이야기는 단순함의 함정을 피하지 못했다. 액션도 처음 도로 장면과 마지막에 악당을 물리치는 장면 두 부분이 사실상 전부이다. 악당 ‘아약스’(에드 스크레인)도 별 매력이 없다. 17일 개봉, 19살 이상 관람. <br/><br/>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69.txt

제목: 영화 24일 개봉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날짜: 2016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09164757946  
본문: 끌고 간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고향으로 찾아갈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온 10대의 소녀들이 있다.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숨지거나 버려졌고, 극히 일부가 돌아와 상처를 안은 채 살아왔다. 조정래 감독의 <귀향>은 1943년 15살 전후에 위안소로 끌려간 소녀들의 과거를 비추고, 1991년을 사는 어린 무녀가 타국에서 숨진 위안부 피해 소녀들의 넋을 고향으로 데려오는 내용의 영화다. 15살 관람가다.<br/><br/>이 영화가 구상된 지 14년 만에 개봉을 앞뒀다. 7만5270명의 시민이 11억6122만원의 제작비를 후원해 <귀향>을 일으켰다. 시민 후원자 수는 세계 영화 사상 최대 규모다. <한겨레21>도 18개월간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하고, 제작비 마련을 위한 온라인 펀딩을 진행해 <귀향>의 개봉에 힘을 보탰다. 여기 <귀향>을 만든 사람들을 소개한다. 역사적·문화적 증거로 남기려고 이 영화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_편집자<br/><br/><br/><br/>지난 1월19일, 영화 <귀향>팀의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케이크 위에 ‘2.2.4’라고 적힌 3개의 숫자가 꽂혔다. 조정래(43) 감독이 촛불을 껐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한마음으로 박수를 쳤다. 그날은 전국 개봉 날짜(2월24일)가 찍힌 포스터가 언론에 공개된 날이었다. 2월24일이란 날짜를 받아들기까지 14년이 걸렸다. 감독은 “<span class='quot0'>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우면서도 개봉의 바다로 나가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기분</span>”이라고 말했다. <br/><br/>2002년 고수를 흔든 한 장의 그림 <br/><br/>14년의 출발점은 하나의 그림이었다. 대학 시절(중앙대 연극영화과) 국악동아리에서도 활동했던 조 감독은 창작 소리꾼 ‘바닥소리’의 전속 고수(북 치는 사람)였다. 바닥소리의 일원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있는 ‘나눔의 집’에 찾아가 공연과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다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이란 그림을 2002년에 보았다.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이 산속 구덩이에서 불타는 것을 목격한 기억, 그곳에서 죽기 직전 갑자기 교전이 벌어져 가까스로 탈출해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숨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br/><br/>“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막연히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어디선가 살아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소모품처럼, 물건처럼 취급하다가 간단히 죽여버린 것에 경악했어요.”<br/><br/><br/><br/>그는 이상한 꿈까지 꾸게 됐다.<br/><br/>“충격을 받아서인지 몸도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새벽에 꿈을 꿨죠. 구덩이에서 불에 타 죽은 소녀들이 어느 순간 일어났는데 피로 얼룩진 옷들이 흰옷으로 바뀌고 상처도 없어진 거예요. 발을 살짝 들더니 소녀들이 하늘을 나는데, 뭐랄까 장관이었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고향으로 너무 돌아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걸 영화로 구현하고 싶었습니다.”<br/><br/>그 결심이 감독으로서 그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꿈을 꾼 이후 그는 타국에서 숨진 어린 소녀들이 나비가 되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의 큰 골격을 써내려갔다. <br/><br/>넋의 귀향을 바라면서 제목을 귀신 ‘귀’(鬼), 고향 ‘향’(鄕)으로 정했다. 이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다듬은 뒤 2008년부터 투자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인이건 낯선 사람이건 영화를 얘기할 기회가 되면 <귀향>의 내용을 소개했고, 이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br/><br/>조 감독을 아는 영화 관계자들은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류했다. “<span class='quot1'>위안부 소재는 한국 영화계에서 마지막 남은 금맥 같은 소재이지만 흥행성이 떨어져 많은 감독들이 영화로 만들지 않았던 것</span>”이라고 조언했다. “<span class='quot1'>이 영화 만들고 (망한 뒤에) 감독 생활을 끝내려는 거냐</span>”고 걱정하기도 했다.<br/><br/>투자자들의 반응은 더 차가웠다. 그가 내민 시나리오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감독이 마이너에만 있어서 모르나본데 아이돌 가수라도 배우로 쓰든지. 소재도 마이너이고. 이 영화 100% 안 된다”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br/><br/><br/><br/>“감독 생활 끝내려는 거냐” 만류<br/><br/>“<span class='quot1'>전쟁이 나면 어차피 여성은 당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span>”는 험한 말도 들었다. “젊은 사람이 이런 거 하지 마라. 위안부 할머니들 가짜란 걸 몰라? 몸 팔러 간 여자들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수도권 지역 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있었다. 조 감독은 화를 누르다 “할머니에게 사과하세요”란 말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 <br/><br/>고비는 2013년에 찾아왔다. 투자 의향이 있다는 중국 쪽 사람과 연결되면서 감독은 중국인 배역을 넣어 시나리오를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중국 여성도 위안부로 동원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귀향>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투자 가능성이 무르익어 계약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까지 갔다. 하지만 그쪽에서 “주인공을 중국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갑자기 들고나왔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br/><br/>중국 쪽의 큰 투자가 물 건너가면서 이 영화를 함께 준비한 사람들도 많이 떠나갔다. 그때 감독은 “ 이건 안 되는 영화인가” 자문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죄송했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 피해) 소녀들의 영령을 모시지 못해 죄송스러웠다. 모든 출구가 닫힌 듯해 자신감이 없어졌고 우울증도 왔다”고 떠올렸다. 당시 그를 본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감독의 눈빛이 꺼져 있을 만큼 의욕이 없었다</span>”고 했다. <br/><br/>하지만 차근차근 둘러보니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2009년 처음 만나 무턱대고 일본군 배역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준 뒤 <귀향>팀에 합류한 친동생 같은 동반자(임성철씨)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다시 힘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br/><br/><br/><br/>마음 복잡해지면 ‘나눔의 집’ 찾아<br/><br/><br/><br/>이후 그는 “<span class='quot2'>더 몸을 숙여 ‘도와달라’고 얘기하며 다녔다</span>”고 했다. ‘도와달라’는 말은 나중에 <귀향>의 스태프로 합류한 이들도 감독한테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라고 입을 모은다. <br/><br/>“‘도와달라’고 했던 것은 그 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저에게 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일이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죠.”<br/><br/>그는 마음이 복잡해지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있는 ‘나눔의 집’을 찾았다. 그곳엔 그가 생전에 뵈었으나 이제는 세상을 떠나 ‘나눔의 집’ 입구에 동상으로 세워진 할머니들도 있다. 동상 앞에서 “나의 생이 끝나 할머니들을 다시 뵐 때 웃음을 지으며 달려갈 수 있게 저를 일으켜주세요”라고 기원했다. <br/><br/>연로한 할머니들을 대신해 이 영화가 국내외를 누비는 “문화적 증거”가 되기를 바랐던 감독은 더 이상 제작을 늦출 수 없었다. 생을 마감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늘어나고 있었다. <br/><br/>투자자의 외면을 받던 그를 일으킨 건 시민들이었다. 그는 <귀향>의 대략적 줄거리와 영화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를 본 시민들이 조금씩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그 후원금을 종잣돈 삼아 2014년 10월 경남 거창 서덕들에서 <귀향>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찍었고, 인터넷에 공개한 이 영상이 다시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br/><br/><br/><br/> <br/><br/> ‘나눔의 집’ 동상 앞에서 “나의 생이 끝나 할머니들을 다시 뵐 때 웃음을 지으며 달려갈 수 있게 저를 일으켜주세요”라고 기원했다.<br/><br/> <br/><br/><br/><br/><한겨레21>도 이 영화의 제작비 마련에 동행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카카오와 협력해 ‘뉴스펀딩’(현 스토리펀딩)을 시작했다. 2014년 12월18일부터 44일간 진행한 이 펀딩에서 2억원 남짓 모였고, <귀향> 제작진 후원 계좌로도 시민의 후원금이 밀려들었다. 저금통에 모은 돈을 엄마와 함께 후원했다는 유치원생, 하루에 1천원씩 365일간 36만5천원을 모아 후원한 가족도 있었다. <br/><br/>감독은 이런 후원금과 일본군 역을 겸했던 임성철 PD가 끌어온 시민 투자금을 합해 2015년 6월 촬영을 마무리했다. “스태프들이 도와주러 왔다가 이 영화의 주인으로 변해갔다. 이런 영화는 잘 찍어야 한다며 더 좋은 장비를 싸게 가지고 오기도 했다”며 조 감독은 고마워했다. 배우 손숙씨 등도 “출연료는 필요 없다”며 촬영에 동참했다.<br/><br/>하지만 컴퓨터그래픽, 색보정, 사운드 보강 등 후반작업을 위한 제작비 부족에 다시 직면했다. <한겨레21>은 2차 뉴스펀딩을 시작했고, 시민들은 약 3억원을 모아주었다. <br/><br/><br/><br/>“일본 국민도 봐야 할 영화” <br/><br/><br/><br/>해외의 관심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는 소속 기자를 직접 한국에 보냈다. 위안부 소재의 영화가 국민 후원 방식으로 제작되는 과정을 지난해 3월 1개면을 털어 보도했다. 개봉하지도 않은 한국 영화를 이렇게 크게 보도한 건 이례적이다. <br/><br/>미국 연방의회에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의원이 지난해 7월 말 결의안 통과 8주년 행사에 <귀향>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의원회관에서 상영하도록 도왔다. 영상을 본 혼다 의원은 “굉장한 힘을 가진 영화다. 일본 국민도 봐야 할 중요한 영화”라고 말했다. <br/><br/>감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국내 후원자를 위한 1차 전국 시사회를 진행했다. 시민 후원으로 영화를 완성하고, 그 후원금으로 전국의 극장을 대관해 상영회를 연 것은 영화계에서 처음이다. 1월29일 현재, 이 영화를 후원한 시민은 7만5270명이다. 시민 후원금 총액은 11억6122만원에 달한다. 시민 후원자의 규모는 세계 영화 사상 최다 기록이다. <br/><br/><br/><br/> <br/><br/> “<span class='quot1'>이 영화를 집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벽돌 한장 한장을 모아준 것이죠.</span>”<br/><br/> <br/><br/><br/><br/>후원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엔딩 크레디트의 긴 행렬을 보고 “울컥했다”는 관객이 많았다. 이 영화의 배급사는 포스터에 ‘국민이 만든 영화’라는 글귀를 새겼다. <br/><br/>먼저 영화를 만난 이들의 평도 호의적이다.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본 어떤 관객은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후원했는데 진짜 완성돼서 놀랐고,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아서 또 놀랐다”는 글을 온라인에 남겼다. 다른 관객은 “보통 영화들은 극장에서 나오면 그 감흥이 날아가는데 <귀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이 파고든다”는 평을 남겼다.<br/><br/>중간에 주저앉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14년간 아내도 “근근이 이어가는 생활”을 견뎌주었다. 감독의 아버지는 촬영 기간에 배우들을 태워 이동시키는 ‘수송 스태프’로 참여했다. 감독의 어머니는 영화 편집이 완료될 즈음 암 수술을 받았다. 지금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고 있다. <br/><br/>“대형 제작사도 아니고, 유명 감독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가 이 영화를 선한 의도로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span class='quot1'>이 영화를 집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벽돌 한장 한장을 모아준 것이죠.</span>”<br/><br/>감독은 “<span class='quot0'>영화가 1회 상영될 때마다 타지에서 숨진 한 분의 영혼이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span>”고 했다. “<span class='quot1'>그래서 이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의식을 치르는 기분</span>”이라고 했다. <br/><br/>영화는 최근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이뤄진 직후에 개봉하게 됐다. 그는 “<span class='quot1'>(위안부) 피해자가 공감하지 못하는데 합의를 이쯤에서 이해하라고 하는 건 폭력</span>”이라고 했다. 그를 아끼는 영화인들은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극장들이 스크린을 많이 열어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려한다.<br/><br/>관객의 열망만큼 스크린 열리길 <br/><br/>조정래 감독의 소망이 있다.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만큼, 그리고 이 영화의 개봉을 기다렸던 관객들의 열망만큼 극장의 스크린이 합당하게 열리기를 그는 바라고 있다.<br/><br/> <br/>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br/><br/>※카카오톡에서 <한겨레21>을 선물하세요 :) ▶ 바로가기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0.txt

제목: 어느 홈리스의 죽음  
날짜: 2016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09163706984  
본문: 수의를 입은 아저씨의 낯빛은 한 달 전 ‘홈리스 추모제’ 날 서울역에서 보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저씨의 둥근 얼굴은 고단함으로 곳곳이 패었지만 익살스러운 웃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span class='quot0'>아이고 양호야, 이게 무슨 꼴이야.</span>” 얼마 전 암 수술을 받았다는 형님의 흐느낌이 죽음을 새삼 일깨웠다. <br/><br/>수십 년 쪽방에서만 살아온 그는 몸을 뒤척일 수도 없는 좁은 나무 관 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좁아터졌어도 쪽방이 관은 아니다. 내일 갈아입을 옷가지 몇 벌, 말라붙은 밥이 든 밥솥과 버너, 남의 세상 떠들어대는 텔레비전. 비좁은 거처는 차가운 시선과 말들에 부대낀 몸을 누일 유일한 안식처. 오늘의 삶은 가라앉고 내일의 삶이 태어나는 곳이었고 그가 세상과 맺은 관계 자체였다.<br/><br/>관보다 넓은 쪽방이 안식처 <br/><br/> 남대문5가 253번지. 11년 살던 건물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란 이름의 개발에 묶였다. 집주인은 추석 무렵부터 노후건물 안전진단을 핑계로 나가라고 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개발사업에 관한 보상·이주 대책에 앞선 일종의 꼼수였다. 압박용으로 단전 단수를 해버렸다. ‘똑똑한 사람들’ 말고는 모두 찍소리 못하고 거처를 옮겨갔다. 인근 쪽방, 여인숙, 고시원, 거리로. 억울했던 아저씨는 춥고 캄캄한 건물에 홀로 남아 버텼다. 밥을 먹지 않고 술만 먹는 ‘단식투쟁’을 하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집주인을 찾아가 욕을 한바가지 퍼붓고는 거리로 나와 버렸다. 20년 만에 다시 노숙을 했다. 또다시 쫓겨난 인생, 처음 쫓겨날 때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쫓겨날 곳 없는 거리로 나온 것이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아저씨는 아는 사람에게 몇만원을 빌려 중림동의 쪽방으로 들어갔다. <br/><br/>2015년 11월, 한 쪽방 주민의 강제퇴거에 맞선 투쟁 이야기이다. 아저씨가 홀로 벌인 외로운 싸움은 못 가진 사람의 일상으로 보였겠지만, 당뇨에 협심증을 앓던 예순 넘은 그의 몸과 마음에는 또 한 번의 추방이 어떤 깊은 상처로 남았을까. 가난한 사람이 저마다 품은 삶의 증거는 그저 그런 일상으로 넘기기에는 가혹하다. <br/><br/>2016년 1월16일 아침,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밥 잡숴요.” 주방장 출신인 그는 여전히 요리를 잘했지만 새로 이사 간 집 할머니는 국도 끓여 나누며 쪽방 사람들을 잘 챙겼다고 한다. 대답 없는 방문을 열었을 때 아저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고 한다. 사인은 원인 불상. 불쌍하다고 불상인지 알 수가 없다. 방바닥에 몸의 절반만 뉘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떠나버린 아저씨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br/><br/>쫓겨난 사람들이 가는 곳 <br/><br/>1955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아저씨는 6남매 중 셋째였다. 가난한 형편 탓에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스무 살에 서울로 올라와 주방 보조 일을 하다 삼 년 만에 주방장이 되었다. 20년 동안 주방장 경력은 화려했다. 태원, 명보성, 다보성, 중국관, 남광…. 한번쯤은 배달을 시켜본 적 있을 법한 이름들이다. 사람 좋고 술 좋아하는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일한 중국집에서 오랫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짜장면, 짬뽕, 탕수육, 깐풍기를 만들었다. 매일 열두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며 지지고 볶고 끓였다. <br/><br/> IMF. 외환위기. 몰랐다. 달러가 부족하다는데 달러 한번 만져본 적 없는 아저씨는 달러가 부족한 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국집이 폐업했다. 수년 밀린 월급도 날아갔다. 곡절이 많은 어린 시절 탓일까,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형제들은 모두 가난했다. 순식간에 허허벌판에 내동댕이쳐졌다. 중화요리만 만들던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일도 일자리도 없었다. 갑작스레 실직한 사람을 위한 복지도 없었다. <br/><br/>노숙인이 넘쳐났다. 당장 갈 곳이 없으니 노숙이라도 해보자 했다. 회현역에 터를 잡았다. 동료가 생겼다. 절망 속에 갇혀 사느니 드넓은 거리를 집 삼아 새로운 벗들을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춥고 고단했다. 집이 있었으면 했다.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먹을 공간이 필요했다.<br/><br/>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실로 오랜만에 소득이 생겼다. 월 20만원, 수급비의 3분의 2를 내면서 쪽방에 살기 시작했다. 일을 해야 수급을 준다며 자활사업에 참여하래서 했다. 그런데 분명 일을 하는데 한 푼도 모을 수 없었다. 아니 돈을 모으면 수급이 잘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더구나 일을 하나 안 하나 받는 돈은 똑같았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무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이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가게 이름을 ‘호돌이 분식’이라 지어 창업을 하려 했다. 사회연대은행에 대출신청서를 냈지만 헛일이었다. 형님이 그리워 늦은 밤에 전화를 하면서도 말은 꼭 헛나간다. “술 좀 줄여라” 하면 “니가 술 사줬냐” 하는 식이다.<br/><br/>2004년, 거리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활동가들을 알게 되었다. <노실사>(<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홈리스행동>의 전신)는 달랐다. 전에 알던 복지사들과 쉼터 상담 직원들 같지 않게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더러 조직을 만들자 했다.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를 만들었다. 서울역에서 알던 사람, 영등포에서 알던 사람 몇몇이 복작복작 모임을 만들어 여기저기 함께 다녔다. 영등포 쪽방을 철거한다고 해서 데모를 했다. 서울역 공안이 아픈 노숙인을 짐수레에 실어 방치하다 죽게 했다. 또 데모를 했다. 영등포역에서 자던 노숙인이 방화셔터에 압사를 당했다. 또 데모를 했다.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으니 함께 올리자고 또 데모를 했다. 1-2종으로 나뉜 의료급여를 혜택이 확 깎이는 2종으로 무더기 강제전환한 용산구청 앞에 가서 또 데모를 했다. 더 이상 쫓겨나기 싫으니 막무가내 개발은 안 된다고 데모를 했다. 데모를 하다하다 이제는 연대를 하자고 세계 빈곤 철폐의 날 데모를 하지 않나, 국제 행동의 날을 함께 조직하지 않나, 세상에 국제적인 데모꾼이다. 어려움을 겪는 동료의 상담사 역할은 기본이었다.<br/><br/>요리사 윤양호 아저씨, 열무 윤양호 아저씨<br/><br/><br/><br/>배움이 적은 게 늘 한이었다. 교실도 얻지 못해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노실사>의 주말배움터를 함께 했다. ‘열무’라는 별칭도 갖고 있었다. 뭐니 뭐니 해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하는 소풍과 모꼬지는 정말 신났다. 술을 기분 좋게 마시고 좋아하는 노래를 실컷 부를 수 있으니 말이다. <홈리스행동>의 아랫마을야학이 시작되면서는 조금 소원해졌다. 수년을 그렇게 데모하고 함께 배워도, 세상도 내 처지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사자모임 원년 멤버로서 이제는 노인 축에 속하니 새롭게 모여드는 홈리스 후배들 앞에서 예전에 이랬다고 꼰대질 할까 저어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다. <br/><br/>1월22일 영등포 신화병원에 빈소가 차려졌다. 지하 장례식장 일곱 개 방 중 유일하게 손님이 들었다. 6년 전 이맘때 국립의료원에서 치른 동자동 주민 최성우 아저씨의 장례가 떠올랐다. 비싼 음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노실사> 사람들이 육개장을 끓여와 몰래 보온통에 채워 넣었다. 양호 아저씨 빈소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냉장고에 든 음료수에는 웬만해선 손도 대지 않지만 당당하게 밥도 국도 떠다 먹고 소주도 마음껏 꺼내 마셨다. <br/><br/>기초생활수급자가 마지막으로 받는 장제급여가 그땐 50만원이던 것이 75만원으로 올라서는 아니다. <나눔과나눔>이라는 사회단체가 장례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이었다. 아저씨를 처음 모셨던 백병원에서 벌써 100만원이 들었다. 사체검안을 하고 법의관이 서류 한 장 작성해주는 데 25만원이 들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어도 말이다. 상주가 된 <홈리스행동>은 그 흔한 모금 한 푼 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후 52만원이나 남았다고 감사편지를 돌렸다, 그들은.<br/><br/>가난한 이들의 장례 <br/><br/>작년 ‘홈리스 추모제’ 날 양호 아저씨는 양호한 모습으로 아시바 철골을 열심히 날랐다. 그날 모신 영정 중에는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시절 회장을 지냈던 송주상 형의 사진도 있었다. 용산참사 추모 집회에 함께하며 눈물을 흘렸던 주상이 형은 2009년 어느 날 집회 도중 중간에 빠져 밥을 먹으러 가는 동료들을 보며 “이게 운동이야!” 버럭 하고는 사라졌고 그 뒤로 맑은 정신상태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미 2011년에 사망하여 무연고사로 화장되었다는 소식을 추모제 직전에 접했다. 동자동, 서울역 어귀에 포스터 한 장만 붙었어도 아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왔을 터다. 법적, 혈연관계의 가족은 없지만 이웃이 그렇게나 많던 사람이다. 세상 모든 길이 자신의 집이고 세상 모든 이가 벗이었던 이들이 무연고자가 되어 위로 한마디 건네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은 슬프고 화나는 일이다.<br/><br/>다음날 아저씨는 벽제의 유택동산에 뿌려졌다. 사후에 돌봐줄 이가 없는, 그래서 한데 섞여 뿌려진 사람들의 장지이다. 아저씨 가신 날, 용산참사 현장에서 추모제가 있었다. 모였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곧 저 포클레인이 갈아엎을 이 땅 역시 유택동산 아니 백조일손(제주 섯알오름 4·3학살터)의 묘 아닌가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의 비명과 눈물이, 죽음이 흩뿌려져 있다. <br/><br/>최예륜 제7회 손바닥문학상 당선자<br/><br/>※카카오톡에서 <한겨레21>을 선물하세요 :) ▶ 바로가기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1.txt

제목: 한국인 핏속 납 농도 증가 ‘미스터리’  
날짜: 20160204  
기자: 김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04193936563  
본문: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우리 국민의 핏속 납 농도가 지난 2012~2014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납은 인체에 축적돼 신경·인지 발달을 저해하고 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대표적 중금속이다.<br/><br/>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해 4일 발표한 ‘제2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핏속 납 농도 평균은 피 1dL에 1.94㎍(마이크로그램·백만분의 1g)로 제1기(2009~2011년) 조사 때의 1.77㎍/dL와 견줘 9.6% 높아졌다. 1.94㎍/dL는 미국인 평균인 1.38㎍/dL(2007~2008년 미국 건강영양조사 결과)보다는 높지만, 독일인 평균인 3.07㎍/dL(1998년 독일 환경조사 결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농도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2005년 환경부 조사에서 2.66㎍/dL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98㎍/dL, 2009~2011년 1.77㎍/dL로 감소하던 추세가 중단되고 다시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br/><br/> 감소세를 이어오던 핏속 납 농도가 증가한 것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체의 중금속 축적은 주로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3년 사이에 국민의 식습관이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다. 또 다른 경로인 공기 중 노출에도 용의점을 두기 힘들다는 것이 과학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대기 중 납 농도는 1998년 1㎥에 0.0959㎍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표본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6478명이나 돼 오차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br/><br/>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백용욱 연구사는 “국민의 식습관이나 대기 중 납 농도 상태를 볼 때 어디에서도 상관성을 두기 어려워 국민 혈중 납 농도 감소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조금씩 변동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br/><b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2.txt

제목: “초기 위암은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보다 합병증 덜 발생해”  
날짜: 2016020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03105528061  
본문: 초기 위암의 경우 복강경을 이용해 암이 있는 위장을 절제하는 수술이 수술칼을 이용한 개복 수술보다 합병증이 덜 발생하는 등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양한광·이혁준·공성호·서윤석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팀은 국내 13개 병원 교수팀과 함께 위암 1기로 진단된 환자 1416명을 대상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절제술과 개복 수술의 결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를 보면 2006년 1월~2010년 8월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환자는 705명,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는 711명이었다. 복강경 수술을 받은 뒤 출혈, 감염 등 합병증 발생률은 전체의 13%로 집계돼, 개복 수술에서 나타난 합병증 비율인 20%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게 나왔다. 수술 뒤 출혈 등 합병증은 주로 수술 상처에서 비롯됐는데, 복강경 수술의 경우 수술 상처에서의 합병증 비율이 3.1%로 개복 수술의 7.1%보다 절반에 못 미쳤다. 수술 뒤 사망률은 복강경 수술과 개복 위절제술이 각각 0.6%와 0.3%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br/><br/> 의료계에서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치료에 복강경 수술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번 연구처럼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복 수술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이혁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초기 위암에 대한 복강경 위절제술이 개복 수술에 견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으로 관찰 기간을 통해 두 수술법의 생존율에 차이가 없다면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조기 위암의 표준 치료로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br/><br/>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임상암학회에서 발표됐으며, 최근에는 외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논문집인 <외과학회연보> 1월호에 실렸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3.txt

제목: [왜냐면] 암환자가 일본을 부러워하는 이유 / 전정일  
날짜: 2016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201190832834  
본문: <한겨레> 1월27일치 “일본, ‘암 환자 일·치료 병행’ 팔걷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태어나서 처음 일본이 부러웠다. 우리나라는 암환자가 있으면 막대한 치료비로 집안 경제가 휘청거린다. 고가 항암제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치료비 때문에 암 치료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은 치료와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단계다. ‘선진국은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br/><br/> 필자는 30년간 교육 공무원으로서 살아왔다. 늦은 나이에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더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재직 중에 희귀 혈액암인 ‘다발골수종’ 판정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과 함께,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모두 그러하듯 ‘당연히’ 직장도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표를 내고 재산 정리에 무덤까지 준비했었다.<br/><br/> 고맙게도 좋은 의료진과 효과적인 치료 덕분에, 지난 5~6년간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간에 재발이 되었다. 꼭 필요한 신약이 있음에도 치료을 못 받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암제’였기 때문이다. 환우회 모임에 가보면 경제적 파탄이 두려워 항암 신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정부 지원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이들이 정말 많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치료도 못 해보고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다.<br/><br/> 며칠 전 보건복지부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내용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도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고가 항암제가 포함되어 있어 기쁘고 기대도 되지만, 솔직히 걱정도 된다. 과연 저 200여개 항목 중 항암제는 얼마나 포함돼 있을까? 정부는 2013년부터 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올해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말하지만, 최근 항암제 신약 중 급여율은 20%가 되지 못한다. 내가 앓고 있는 다발골수종은 항암 신약 중 단 1개만이 어렵게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br/><br/> 암은 가장 흔한 병 가운데 하나가 됐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생존 이후를 걱정하는 것은 먼 나라의 사치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에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고, 당장 내일 약값을 어찌 마련할까 생각하며 밤잠을 설친다. 꼭 필요한 항암 신약에 대한 전향적인 건강보험 적용과 치료가 시급한 이유이다. <br/><br/> 나아가 우리나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위상에 맞게 암환자의 ‘일·치료 선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암환자들도 잘 치료받으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암환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로 건강도 되찾고, 능력을 발휘해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br/><br/>전정일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사무총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4.txt

제목: 1월 30·31일 본방사수  
날짜: 2016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9201932458  
본문: 장윤정도 무명시절 출연해 연기<br/><br/>신비한 티브이 서프라이즈(문화방송 일 오전 10시45분) 2002년 4월7일 시작해 700회를 맞았다. 김하영, 박재현 등 자주 출연하는 배우들이 진행을 맡고 특집으로 꾸린다. 지금껏 선보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청자가 뽑은 베스트3’를 선정한다. 방송했던 이야기 중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다시 소개하는 ‘서프라이즈 그후’도 선보인다. 무명 시절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연기를 했던 가수 장윤정이 특별출연해 연기를 한다. 장윤정은 “<span class='quot0'>내게 연기할 수 있는 첫 기회를 준 <서프라이즈>가 친정 같다</span>”고 700회 소감을 전했다. <br/><br/>무한도전서 몸개그 선보인 잭 블랙<br/><br/>무한도전(문화방송 토 오후 6시20분) 미국 헐리우드 배우 잭 블랙이 출연한다. 영화 <쿵푸팬더 3> 홍보차 한국에 왔다. <브링크>(2015) 등 다양한 영화에서 재미있는 연기를 많이 한 그는 <무한도전>에서 한국 예능을 배운다며 거침없이 망가졌다. 파란 트레이닝복과 쫄쫄이 스타킹을 신고 몸개그도 선보였다고 한다. 27일(현지시각) 미국 <엔비시>(NBC) 토크프로그램인 <엘렌 드제너러스쇼>에 출연한 그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베개싸움도하고 머시멜로우도 한번에 14개나 입에 넣었다”며 즐거웠다고 말했다. <br/><br/>살인범으로 몰린 검사의 투쟁기<br/><br/>세계의 명화-의혹(교육방송 토 밤 11시5분) 소설 <무죄추정>이 원작인 법정 스릴러 영화다. 검사 러스티 사비치가 동료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린다. 러스티는 자신이 정치적 음모에 휘말렸다고 생각하고 결백을 밝히려고 하지만 맘처럼 쉽지 않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의심스런 부분이 계속 발견된다. 진범이 누구인지 종잡을 수 없다. 기소인 쪽과 변호인 쪽의 수싸움과 예상을 뛰어넘는 심문 방식이 색다른 재미를 준다. 1990년 미국 개봉작. 앨런 제이 파큘라 감독. 해리슨 포드, 브라이언 데니히, 라울 줄리아 출연. <br/><br/>피시통신으로 만나는 두 남녀<br/><br/>한국영화특선-접속(교육방송 일 밤 11시) 보고 또 봐도 가슴을 보듬는 한국영화. 1997년 개봉했다. 피시통신으로 서로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다. 한석규가 갑자기 떠난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남자 동현으로, 전도연이 친구의 애인을 짝사랑하는 홈쇼핑가이드 수현으로 나온다. 전국 150만 관객을 동원하며 1997년 한국영화 중 가장 흥행했다. 대종상 작품상, 신인 감독상, 신인여우상, 청룡영화제 최고흥행상, 신인여우상 등 상도 많이 받았다. 장윤현 감독, 한석규, 전도연 주연. <br/><br/>청학동 서당을 찾은 아이들 사연<br/><br/>다큐공감(한국방송1 토 오후 7시15분) 지리산 삼신봉 동쪽 기슭에 있는 청학동 마을의 서당을 찾는다. 사내 아이 스무명이 훈장 부부와 함께 살면서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까지 서당에서 공부한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부모 손에 이끌려 왔다. 엄마가 암에 걸렸고, 아빠가 간호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형제 등이다. 12년째 서당을 가꿔온 훈장 부부의 노력 덕에, 하루 10시간 컴퓨터 게임만 하던 아이도, 반항심 많던 사고뭉치도 예의바른 아이로 돌아왔단다. <br/><br/>‘캣츠걸’은 뮤지컬 배우 차지연일까<br/><br/>일밤-복면가왕(문화방송 일 오후 4시50분) ‘캣츠걸’은 6연승에 성공할까. ‘우리동네 음악대장’, ‘노래 덕후 능력자’, ‘각진 인생 네모의 꿈’, ‘엄마찾는 철이’가 캣츠걸에 도전한다. 서로 맞붙어 최종 우승자가 캣츠걸과 가왕의 자리를 놓고 만난다. 지난주 여행스케치의 ‘운명’을 불러 ‘메텔’을 누르고 가왕전에 오른 ‘엄마찾는 철이’는 감미로운 음색으로 화제를 모았다. 캣츠걸이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라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도전자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5.txt

제목: 삼성화재 유병자도 가입 쉬운 상품  
날짜: 2016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7200404086  
본문: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층과 유병자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 ‘간편하게 건강하게’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험은 계약자의 ‘알릴 의무 사항’을 간소화해 고령층이나 유병자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더라도 따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 상해·질병 사망 때 최고 3천만원,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때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수술비(상해, 암)와 입원일당(상해, 질병, 암)도 선택이 가능하다. 가입 연령 범위를 기존 65살에서 75살로 확대했으며, 10년 만기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살까지 보장을 받는다. 다만 질병 사망은 80살까지다. 고령층과 유병자에게 필요한 △전문 의료진의 전화 상담 △3차 병원 진료 예약 대행 △본인과 배우자 사망 때 장례 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6.txt

제목: “갑자기 ‘글쓰는 의사’로 소문나 상까지 받으니 신기해요”  
날짜: 20160127  
기자: 박수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7191333896  
본문: 모든 죽음엔 저마다 사연이 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을 매일 매순간 맞닥뜨리고 살려내야 하는 그에게 그 죽음의 사연들은 끊임없이 글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다.<br/><br/> 지난 21일 서울 이태원에서 만난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33·사진)씨는 ‘글 쓰는 의사’로 소문나 있다. 대부분 죽음에 관한 글이다. 현재 충남 홍성의 소방본부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는 그는 앞서 수련의 시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경험한 죽음들을 글감으로 삼고 있다. 흔한 ‘의사의 글’은 전문 의학용어로 채워져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편견이 있지만, 긴박한 응급실에서 의사가 바라본 죽음과 삶에 관한 갖가지 빛깔의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br/><br/>홍성 소방본부 복무중인 공중보건의 <br/>수련의 시절 응급실 ‘죽음의 사연들’ <br/>2013년부터 ‘페북’에 공개해 입소문<br/><br/>‘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선정 <br/>출판사 제안으로 올봄 첫 책도 출간 <br/>“<span class='quot0'>죽음처럼 알 순 없지만 글쓰기 계속</span>”<br/><br/> “신기해요.” 고교 때부터 문학회에서 활동하며 습관적으로 글을 써왔다는 남궁씨는 지난해 부쩍 자신의 글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 얼떨떨하다고 했다. ‘직업적 글쓰기’도 아닌 그의 글이 퍼지는 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큰 몫을 했다.<br/><br/> 혼자 습작만 하던 그는 2013년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처음엔 친구들과 지인만 보던 글이 ‘좋아요’와 ‘공유’를 타고 점점 넓게 퍼졌다. 좋은 글은 사람들이 알아봤다. 지난해엔 인터넷 매체 <ㅍㅍㅅㅅ>와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도 글이 게재되면서 더 널리 읽히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친구가 5천명을 넘어 더는 받을 수도 없게 됐고, 올린 글마다 수백건의 ‘좋아요’가 올라가는 ‘페북 스타’가 됐다.<br/><br/> 활자가 인기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그의 글에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의사지만 문필가로서 효과적인 시선 처리나 장면 전환 등을 고민하면서 글을 썼다. 그런 부분이 사람들 마음에 와닿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머쓱해하며 분석했다. “<span class='quot0'>평생 책 한 권 내보는 게 소원</span>”이었는데 기대보다 빨리 이루게 됐다. 지난여름 페북에 올린 글을 유심히 본 출판사 편집자가 출간을 제안해 왔다. 올봄 문학동네에서 그의 첫 책이 나온다.<br/><br/> 그가 주력하는 글의 장르는 ‘팩션’이다. 자신이 응급실에서 겪은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보다는 극적인 장치도 더하고 구성도 새롭게 짠다. 환자나 가족들의 구체적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뜻도 있다.<br/><br/> 그는 ‘좋아요’를 넘어 공식적인 ‘상’도 연이어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보령의사수필문학상’ 금상에 이어 지난 7일 이전에 썼던 글을 손봐서 투고한 ‘한미수필문학상’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대상 수상작 제목 역시 ‘죽음에 관하여’. ‘죽음이 멀지 않은 말기암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루 만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그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다. 사고로 앞차의 중년 여성 운전자는 응급실에 실려가지만 결국 사망한다. 사고를 낸 가해자를 비난해야 하는가? 환자를 돌려보낸 의사인 나의 탓인가?’ 중간에서 두 환자를 모두 겪은 의사는 ‘생명과 우연’에 대해 성찰하며 죽음에 관하여 “<span class='quot1'>앞으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span>”이라고 글을 맺는다. 정호승 시인을 비롯한 심사위원회는 “<span class='quot2'>이야기를 진행하는 능력이 안정돼 있고 설득력 있는 문장이 돋보인 작품</span>”이라고 평했다.<br/><br/> 그의 글감 가운데 ‘자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한 갈래였다. 지난해 12월 그는 “목을 매면 인간은 죽는다. 이것은 가장 성공률이 높은 자살 방법이다. 목이 매어진 인간은, 기적이 오지 않는 이상 조용히 죽는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목을 맨 인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첫 문단에 의학적 사실에 기반해 건조한 문장으로 써내려갔다. 누군가는 페북 댓글에 ‘죽음의 방법을 너무 상세히 썼다’고도 지적했지만 그는 “<span class='quot2'>부정확한 정보 대신 의사로서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span>”고도 강변했다.<br/><br/> 하지만 그가 꼽은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글은 재미삼아 쓴 ‘군대 간 의사들’ 얘기였다. 갓 전문의 자격증을 딴 수백명의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기 전 훈련을 받기 위해 모인 논산훈련소에서는 환자가 나오더라도 이들보다 수련을 덜 받은 일반의 군의관이 진료를 해야 한다. 진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군의관들이 직접 진료를 보는 대신 아픈 전문의들끼리 서로 진찰하도록 하는 풍경을 재밌게 그려낸 글이다. 지난해 5월에 올린 이 글은 ‘오늘의 유머’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유머글’ 형태로 인터넷을 떠돈다.<br/><br/> “<span class='quot0'>쓰면 쓸수록 글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게 스스로 즐겁다</span>”는 그는 앞으로 다른 소재의 글도 다양하게 쓰고, 본격 소설도 쓰고 싶다고 했다. 모바일 등 다른 플랫폼으로 독자들과 만날 기회도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내년 4월 공중보건의 복무를 마치는 그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선 “<span class='quot0'>지난해 있었던 일들도 예측 못했듯 아직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 글은 꼭 쓸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b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7.txt

제목: 한걸음에 20억년 시간여행…그 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날짜: 20160126  
기자: 조홍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7141653421  
본문: 산꼭대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모래가 바다 밑에 쌓여 굳은 뒤 땅 위로 솟아 다시 산 위의 사암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까. 까마득한, 적어도 수천년이 걸릴 것은 분명하다.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박물학자 제임스 허턴(1726~1797)은 18세기 말 이런 통찰을 했다. 당시로서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주류 세계관에 따르면, 지구는 기원전 4004년 탄생했고 생물 화석은 대홍수의 증거였을 뿐이다.<br/><br/><br/><br/>단세포 생물이 주인이던 원생대 <br/>공룡 포효가 울려 퍼지던 백악기 <br/>편암과 역암 두 지층 맞붙어<br/><br/><br/><br/>20억년 오르내리던 원생대 지층 <br/>수억년 전 마지막 융기해 <br/>그 위 모든 지층들 침식돼 사라져<br/><br/><br/><br/>백악기 때 다시 가라앉아 <br/>그 위에 돌 쌓여 역암으로 굳고 <br/>다시 땅위로 솟아올라<br/><br/><br/><br/>역암층에 박힌 녹색편암 조각 <br/>두 지층이 만났던 증거<br/><br/><br/><br/> “<span class='quot0'>까마득한 시간의 심연에 현기증</span>”<br/><br/> 허턴은 땅덩어리가 한순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장구한 세월에 걸쳐 순환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다녔다. 바로 부정합이었다. 전혀 다른 시기에 형성된 지층이 서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여기라면 지층이 깎이고, 가라앉고, 휘고, 꺾이고, 솟아오른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허턴이 1788년 답사한 에든버러 동쪽 64㎞ 지점에 있는 시커(Siccar) 포인트는 그런 부정합 가운데 하나였다. 답사에 동행한 수학자 플레이페어는 “<span class='quot1'>까마득한 시간의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현기증이 났다</span>”고 당시의 감동을 적었다. 이곳에는 6500만년 격차를 둔 고생대의 두 지층이 맞닿아 있다.<br/><br/> 우리나라에서 시커 포인트보다 시대 간격이 수십배 더 큰 부정합이 발견됐다. 지구에 단세포생물이 주인이든 원생대 지층과 공룡의 포효가 울려 퍼지던 중생대 백악기 지층이 20억년 이상의 세월을 건너뛰어 맞붙어 있다. 경상북도의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동해안 4개 시·군이 지난달 26일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신청한 동해안권 지질공원의 명소 가운데 하나인 ‘24억년 부정합’이 그곳이다.<br/><br/><br/><br/>당시 한반도는 여러 조각 나뉘어<br/><br/> 14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해안도로에서 바닷가로 내려서자 모래 대신 암반이 펼쳐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두 종류의 지층이다. 하나는 크고 작은 자갈과 암석이 콘크리트를 비벼놓은 것 같은 역암이고 다른 나라는 푸른 기를 띤 오래돼 보이는 변성암이다.<br/><br/> 두 지층을 나누어 디딘 장윤득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가 “<span class='quot2'>한 발은 중생대 역암층, 다른 발은 원생대 녹색편암층에 서 있으니 20여억년을 시간여행하고 있는 셈</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국내에서 이렇게 연대 차이가 많이 나고 생생하게 드러난 부정합은 보기 힘들다</span>”고 말했다.<br/><br/>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북한의 낭림육괴와 경기육괴, 영남육괴인데 이곳의 녹색편암은 영남육괴의 동북쪽 끄트머리에 해당한다. 20억년은 얼마나 먼 시기였을까. 지구가 46억년 전 탄생한 뒤 바다는 44억년 전, 최초의 대륙은 30억년 전에 비로소 출현했다. 대기에 산소가 거의 없었던 시생대가 끝나고 25억년 전 원생대에 접어들자 단세포생물인 남세균이 산소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20억년 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포핵을 가진 진핵생물이 바다에 퍼지기 시작했다.<br/><br/> 당시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한반도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다른 대륙의 일부였다. 그러나 영덕의 녹색편암을 조사하면 20억년 동안 어떤 풍상을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경북도 지질공원 담당자인 김정훈 박사는 “<span class='quot3'>당시 영덕은 지금의 일본처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드는 섭입대에 가까웠는데 화산활동과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암석이 여러 차례 지각변동을 받아 변형돼 편암이 된 뒤 땅 위에 솟아 드러나면서 세월의 칼날에 침식돼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br/><br/> 원생대 편암 위에 쌓인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 역암이다. 약 1억년 전 한반도는 현재와 비슷한 꼴을 이뤘다. 대륙충돌 등 지각변동과 가까이 있던 섭입대의 영향을 받아 영남 일대에는 화산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분지가 형성됐다. 영덕은 이 경상분지의 북쪽에 위치한다.<br/><br/><br/><br/>주변은 경사 급한 골짜기였을 것<br/><br/> 그렇다면 원생대 지층이 왜 중생대 지층과 붙어 있는 걸까. 그 사이에 낀 20여억년의 역사는 어디로 갔나. 장 교수는 “땅의 역사는 소멸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 과정을 장 교수는 이렇게 추정한다. 지층은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긴 시간대를 고속촬영한 필름처럼 돌려보면 서서히 오르내린다. 올랐을 때는 물과 바람에 깎여 나가고 가라앉으면 그 위에 퇴적물이 쌓인다. 원생대 편암층도 몇 차례 침강과 융기를 거듭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수억년 전에 마지막 융기가 일어났다. 가장 밑의 원생대 편암층을 빼고 그 위의 모든 지층이 침식돼 사라졌다.<br/><br/> 마침내 중생대 백악기 때 이 지층은 가라앉았다. 아마도 주변은 경사가 급한 골짜기였을 것이다. 홍수 때마다 크고 작은 돌멩이가 쏟아져 편암층 위에 쌓였다. 오랜 세월 쌓인 돌들은 역암으로 굳었고,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땅 위로 올라왔다.<br/><br/> <br/><br/>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는 10억년<br/><br/> 흥미롭게도 역암층에는 녹색편암 조각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다. 녹색편암 기반암이 땅 위에 드러나 여기저기 그 돌조각이 굴러다니던 중생대 백악기 때 다른 돌들과 섞여 쌓였던 흔적이다. 원생대와 중생대가 만났던 증거인 셈이다.<br/><br/> 부정합이 위치한 사진리의 녹색편암과 역암이 원생대와 백악기 지층인 것은 맞지만 정확히 언제 형성됐는지는 아직 모른다. 부정합층 지점의 절대연령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교수팀은 원생대와 백악기 시작 지점의 연대 차를 들어 ‘24억년 부정합’으로 표기하고 있다.<br/><br/> 장 교수는 “<span class='quot2'>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동하면 시간상으로는 10억년 이상 과거로 여행하는 셈인데 이곳에서는 한 발짝으로 20억년도 전의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지구 역사의 광대함을 실감할 수 있는 곳</span>”이라고 말했다.<br/><br/> 영덕/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br/><br/><br/><br/>※공동기획: 한겨레, 대한지질학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 한국지구과학교사협회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8.txt

제목: “간 전이된 직장암, 항암제·방사선 치료 뒤 수술하면 효과 좋아”  
날짜: 2016012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7092208042  
본문: 간에 전이된 직장암을 치료할 때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한 뒤 수술을 하면 치료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 김남규(대장항문외과)·신상준(종양내과)·금웅섭(방사선종양학과) 연세암병원 교수팀은 “<span class='quot0'>간에 암세포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은 직장암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를 한 결과 25명에 대해 수술을 할 수 있었다</span>”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럽방사선종양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방사선 치료와 암>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 진행된 직장암 환자의 15~20%는 진단 당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직장에 생긴 암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 수술이 가능하도록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간에 전이된 경우 항암제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쓰기 때문에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미 간에 전이된 직장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br/><br/> 이에 이번 연구팀은 간에 암이 전이돼 4기 직장암을 진단받은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항암제 치료를 했다. 항암제는 전이된 직장암에 흔히 쓰이는 3가지 약을 혼합해 썼다. 1주일 뒤에는 직장암이 있는 부위에 5일 동안 단기 방사선 치료를 했고, 다시 1주일 뒤 항암제 치료를 4차례 했다. 그 결과 전체의 54%인 17명에게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고, 78%인 25명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김남규 교수는 “간에 전이됐을 정도로 진행된 직장암 치료에서, 먼저 항암제 치료를 한 뒤 단기 방사선 치료로 종양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고 암 축소에 확실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뚜렷한 표준 치료 지침이 없는 ‘간에 전이된 직장암’ 치료에 하나의 좋은 치료 방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79.txt

제목: 올해 건강검진 제도가 달라진다는데…  
날짜: 2016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7092207319  
본문: A: 간암 검진 1년에 1번에서 2번으로, 자궁경부암은 20살부터<br/><br/> <br/><br/>올해부터 암 검진 가운데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 나이가 기존 만 30살에서 만 20살 이상으로 바뀝니다. 또 간암 검진 실시 주기가 한 해 1번에서 한 해 2번(1~6월에 1번, 7~12월에 1번)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아야 하거나 암 검진 가운데 대장암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2단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40살과 66살에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올해 안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 건강진단은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 21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결과에서 이상이 나오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3개 만성질환의 확진을 위해 6개 항목의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생활습관 평가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br/><br/> 일반건강검진은 직장인이라면 회사로 연초에 일반검진 대상자가 통보됩니다. 그 외인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안내됩니다. 대상인 경우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br/><br/> 암 검진은 위암은 만 40살부터 2년마다, 대장암은 만 50살부터 1년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만 40살과 만 20살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1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간암의 경우 간염바이러스 보균자 등 간암 발생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만 40살부터 6개월 주기로 받습니다. 각 암 검진은 전체 비용의 10%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기준 지역보험료가 8만6000원 이하이거나 직장보험료가 8만7000원 이하이면 본인 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검진은 연말에 많이 몰리므로 가급적 연초나 휴가철 등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0.txt

제목: 일본, ‘암 환자 일·치료 병행’ 팔걷었다  
날짜: 20160126  
기자: 길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6200937187  
본문: 일본 오사카시에 사는 한 40대 프로그래머는 지난해 겨울 회사를 퇴직했다. 1차 원인은 암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암 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었다.<br/><br/> 그가 암에 걸린 것은 10년 전이다. 암 치료는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이 문제였다. 암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피로가 쌓일 경우 쉽게 감염증에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에서 2개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고 있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이 이어졌다. 견디다 못해 회사에 업무량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의 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최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업무를 줄이려면 정사원으로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길 듣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병원과 기업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웠다면 다른 결론이 났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br/><br/> 일본 후생노동성이 암에 걸린 직장인들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br/><br/> 일본에선 암에 걸릴 경우 사직하는 이들의 비율이 30%를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면서 생존율이 극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쿠나가 신야 오사카시립종합의료센터 의사는 “<span class='quot0'>(암의) 조기 발견이나 의료의 진보에 의해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어, (암 환자의) 사회 복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이번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병원과 직장이 의사소통을 강화해 암 치료를 받은 환자가 최대한 배려를 받으면서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즉, 기업은 의사에게 환자의 업무 내용을 전달하고, 병원은 기업에 환자의 상태를 전해 환자가 치료와 근무를 병행하는 데 최대한 배려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br/><br/>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업과 병원이 주고받는 정보를 ‘서식화’해 표준화해 갈 계획이다. 또 기업 쪽에는 환자들이 휴가제도나 단기간 근무를 활용해 환자가 정상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줄여주거나 휴가 등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물론 기업과 병원이 주고받는 환자의 의료 정보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br/><br/> 일본에선 환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환자들이 치료와 근무의 병행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r/><br/> 도쿄도가 2013년 암 환자·가족·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암 환자의 취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암 환자의 절대 다수인 80.5%가 병에 걸린 뒤에도 생계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 흥미로운 것은 기업들의 반응이었다. 기업들도 절대 다수인 86%가 ‘치료와 근무의 병행이 가능한 직장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병 때문에 일을 그만두면 “<span class='quot1'>그 직원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잃기 때문</span>”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br/><br/> 신문은 “이번 정부 지침은 (암뿐 아니라) 일반적인 병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2월께 주의할 점 등을 모은 팸플릿을 만들어 전국의 노동국(노동사무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권고안으로 기업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br/><br/>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1.txt

제목: [유레카] 존엄사의 새 조건 / 구본권  
날짜: 20160125  
기자: 구본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5190442366  
본문: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통과돼 2년 뒤 시행된다. 존엄한 삶은 존엄한 죽음을 요청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는 한국인의 삶이 존엄함과 대척점에 있음을 말해준다. 벨기에·네덜란드에선 안락사와 존엄사를 허용하고 스위스 안락사 전문 병원엔 존엄한 죽음을 택하려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조력 자살’로 불리는 안락사와 존엄사는 논쟁이 치열하지만,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확산되고 있다.<br/><br/> 지난 10일 숨진 영국 팝가수 데이비드 보위는 존엄사의 새 조건을 알려준다. 18개월 동안 암 투병을 해왔지만, 이튿날 가족이 사망 사실을 알리기까지 아무도 세계적 뮤지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발설하지 않았다. 보위는 숨지기 이틀 전 69살 생일을 기념한 새 앨범 <블랙스타>를 발표했다. 보위는 충격에 빠진 전세계 음악팬들의 추모를 받으며 자신이 바라던 방식으로 세상과 이별했다.<br/><br/> 개인정보를 자산으로 삼는 구글,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갔다”고 말한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유명인의 프라이버시는 더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보위의 이별 방식은 프라이버시 소멸 시대에 어떻게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 가족과 친지, 의료진은 물론이고 마지막 활동 과정에서 만난 음반제작자, 영화인, 사업가 등 숱한 사람들 중 누구도 보위의 건강 상태를 누설하지 않은 덕분이다. 프라이버시 소멸 시대의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br/><br/> 2011년 병세가 악화한 스티브 잡스는 건강 상태를 공개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았다. 잡스는 병가를 떠나며 “<span class='quot0'>나와 내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기를 간곡히 희망한다</span>”고 요청했고, 이후 춤추던 루머성 보도도 사라졌다. 프라이버시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가치이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프라이버시 요청과 보호라는 새 과제가 던져졌다. <br/><br/>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2.txt

제목: 신영복 교수 녹취록 다시 보니…“청년시절만은 잃지 마라”  
날짜: 20160122  
기자: 오승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3163924838  
본문: <한겨레> 토요판은 지난해 4월24일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이진순의 열림’ 인터뷰(▶‘담론’ 펴낸 신영복 “<span class='quot0'>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아픔을 견디게 해줘요</span>”)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어였던 이진순(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씨가 녹취록을 뒤져 기사에 못 담았던 이야기를 보내왔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개인적인 바람, 수형생활 동안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사회운동과 거리를 두게 된 이유, 진보진영에 보내는 당부 등 시대의 지성을 넘어 인간 신영복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늘 희망의 메타포였던 선생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생에서 청년 시절이 갖는 의미는 막강하다. 당장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조언은 못하지만 적어도 청년 시절은 잃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날 선생은 암투병중인 환자답지 않게 안색은 맑았지만 집 밖으로 나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건 힘겨워했다고 한다. 가난한 아이들과의 우정을 그린 ‘청구회 추억’이라는 글에서 “언젠가 먼 훗날 서오릉으로 봄철의 외로운 산책을 하고 싶다”던 선생은 육신의 고통과 이승의 근심을 벗고 길고 긴 산책을 떠났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br/><br/>“<span class='quot1'>진보, 정말 우리부터 잘해야 합니다</span>”<br/><br/>지난해 4월 신영복 선생의 목동 자택을 찾아간 날, 봄볕이 투명하고 따스했다. 물오른 신록의 이파리를 투과한 연둣빛 햇살이 거실 창으로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화사한 봄 햇살 때문일까, 선생은 투병중인 환자답지 않게 안색이 맑아 보였다. 피부암이 여러 군데로 전이되어 한차례 혹독한 위기를 겪었는데, 임상실험중인 표적치료제를 투약한 뒤 상당히 진정된 상태라고 했다. <br/><br/> ‘힘들면 언제든 인터뷰를 중단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선생은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두 시간 동안 차분하게 내 질문에 응하셨다. 그래서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다. 곧 털고 일어나실 줄 알았다. 암은 파란만장한 그분 생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시련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br/><br/> 그분이 떠나신 뒤, 추억의 앨범을 뒤지듯 그날의 인터뷰 녹취록을 꺼내 찬찬히 읽고 또 읽었다. 많은 이들이 우러르는 시대의 지성, 당대의 스승이기에 앞서, 자신의 불민함을 직시하고 자기 안의 틀을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인간 신영복의 뒷모습이 거기 있었다. 지난 기사에서 못다 한 그분의 이야기를 뒤늦게 옮겨 적는다.<br/><br/> <br/><br/>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br/><br/>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삶을 다시 보게 된다고 하던데요.<br/><br/> “그렇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본인이 겪는 질병이나…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br/><br/> -아! 그렇죠. 사형선고를 받은 게 만 27살이니….<br/><br/> “이번에도 (암 선고 후 투병 과정을) 겪으면서 대단히 익숙한 기시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인가, 주변 분들보다 비교적 담담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br/><br/> -호전되신 모습 뵈니 좋습니다. 그간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br/><br/> “그래서 부랴부랴 그동안 강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런 책(<담론>)도 만든 거죠. 새 약을 복용하고 난 뒤 건강이 훨씬 좋아져서 출판사에 원고를 도로 달라고 해서 교정을 한 번 더 봤습니다.(웃음)”<br/><br/> -처음엔 교정도 못 보고 원고를 넘길 만큼 위급하셨단 얘기군요. 이만하기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에 내신 책 <담론>의 부제가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고 되어 있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 강의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때, 마음에 걸리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요?<br/><br/> “<span class='quot1'>너무 늦게까지 강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span>”<br/><br/> -너무 오래 하셨다고요?<br/><br/> “너무 오래 했어요. 전 어려서부터 늘 누군가의 어떤 요구나 심부름을 하고 산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어릴 땐 할아버지 심부름을 도맡아서 하고, 학생 땐 선생님 심부름… 그러다 우리가 60년대 소위 독서운동(통혁당 사건에 휘말리게 된 학회활동)을 시작할 때 그것도 무슨 심부름 같은, 해야 된다는 주변의 어떤 요구 때문에 한 거였고요. 출소 후에도 그렇고, 학교에서 일정하게 자기 공간 지키고 있을 때마저도요…. 그래서 아, 이제 핑계도 있으니까 강의도 그만하고, 얼마나 더 남았을지 모르지만 좀 편하게 자유롭게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br/><br/> -강의 말고 주어진 시간 동안 꼭 하고 싶으셨던 건 뭔데요?<br/><br/> “특별히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br/><br/> 그는 2006년 정년퇴임을 한 이후에도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대학 강의를 계속하고, 전국을 돌며 토크콘서트를 하고, 독자들과 만나고, 강연을 청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의 그림과 글씨를 원하는 이들의 요청에 답했다. 그가 암 진단을 받고 몸져눕기 직전인 2014년 가을까지도 그는 대학 강의를 쉬지 않았다.<br/><br/> -원고 교정을 다시 보셨다고 했는데, 애초에 담고 싶었던 얘기는 다 담으셨나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담은 이야기는 없습니까?<br/><br/> “너무 많죠. 강의에 비해서 이 <담론>에서는 고전의 여러 예시문이나 그 내용들을 많이 취급하지 못했고요. 특히 뒷부분에서는 인간 문제를 다루는 얘기들, 특히 감옥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 못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시절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소개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생각을 정리한다는 건 더 많은 정보를 수평적으로 자꾸 플러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평적 사유를 자꾸 확장하기보다는 그걸 수직화해서 깊이있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고, 그건 어차피 독자들 개인이 할 몫이겠죠.”<br/><br/> <br/><br/> 역모와 종북은 마법 같은 정치용어<br/><br/> -이번 책에는 선생님의 인간적 고백이 많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신영복’ 이름 석 자를 견고한 절제와 치열한 사유의 상징으로 떠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존경하고 숭배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막상 함부로 어깨동무를 하긴 어려운 대상으로….<br/><br/> “<span class='quot1'>허허허… 나를 가까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요.</span>”<br/><br/> -그래도 대부분의 독자는 ‘근본적으로 나하곤 노는 물이 다르실 거야’ 생각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술 먹고 주정 부리거나 여자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br/><br/> “그런 적 거의 없죠. 술 체질도 아니고요. 대학 다닐 때는 그냥 어울려서 먹기도 했는데, 그 후에 20년간 술을 연습할 기간도 없었고. 이후에도 체질에 잘 안 맞더라고요.”<br/><br/> -아, 좀 실망입니다. 전 선생님이 모범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환상이길 바랐는데. 지금 보니 모범생 맞는 것 같네요.(웃음)<br/><br/> “아마 20년간 어려운 상황을 견뎠던 그런 내면의 자세 같은 것도 영향이 없지 않겠죠. 20년의 감옥이라는 게… 보통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섬뜩할 거예요. 사실 내가 오랜 수형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과 만날 때는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이걸 내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알았을 때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하고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건 아닐까….”<br/><br/> -더구나 선생님은 소위 “간첩사건” 출신이라….<br/><br/> “그렇죠.”<br/><br/> -감옥에 있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건 엄청난 사회적 낙인이었을 텐데요. 가족들이 겪은 고초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br/><br/> “힘들었죠.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형이나 동생의 이름을 피해서 형수, 계수한테 보냈던 것도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를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게, 국가보안법 1조 2항인데,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항목이에요. 내가 노동당 가입한 사람도 아니고, 학생 서클운동을 지도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간첩’이라는…. 조선시대에도 노론 지배권력이 정치를 딱 한 개 아이템으로 해요. ‘역,모!’ 역모라고 하면 상당히 비판적인 개혁사림들도 잠잠해져요. 지금 우리에게 ‘종북’이 그런 거죠. 대단히 교조적인 사회의 연장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하면 바로 조용해져요.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안 돼요. 종북이 뭔지, 뭐가 나쁜지, 빨갱이가 대체 뭘 주장하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가 뭔지, 그런 논의가 절대 없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논의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아주 마법 같은 정치용어가 역모, 종북, 이런 거거든요.”<br/><br/> -그런데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 글을 즐겨 읽는 사람들의 폭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워낙 깊이와 넓이, 스케일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br/><br/> “공감하는 좌우의 폭이 넓다고 하지만, 우파의 핵심적인 세력들은 바로 그 점에서 저를 굉장히 경계할 거예요. 자기 세력을 뺏긴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위험시하고…. 여전히 제가 종북 좌파의 배후 같은 그런 강한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저도 그 부분을 일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시민운동 하는 젊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 달라고 불러낼 때에도 저로선 굉장히 조심스럽죠.”<br/><br/> -88년 출소하셨을 때부터 일관되게 그런 자세를 유지하셨죠. 사회운동권과 일정 거리를 두고.<br/><br/> “네, 맞습니다.”<br/><br/> -88년 같은 시기는 지금보다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이 훨씬 고양되어 있던 때라,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께 다양한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요.<br/><br/> “<span class='quot1'>제가 출소해서 후배들 몇을 만났는데, 같은 공간에서 나하고만 얘기하지, 자기들끼리는 말을 안 해요.</span>”<br/><br/> -아, 그 시절엔 노선 차이 때문에 인간적인 상처까지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지요.<br/><br/> “민주화투쟁이 열어놓은 공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정파들이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무주공산에 자기네가 먼저 깃발 꽂으면 선점할 수 있겠다’ 하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사고로…. 막강한 보수구조에 참담하게 패배했죠. 그래 놓고 패배를 합리화하는 데 난 아주 경악했어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면서. 합의해서 역량을 모을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들의 기회주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 대신,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니… 이딴 얘기가 어딨어? 근데 그걸 또 비슷한 사람들이 쉽게 동의를 하네. ‘아, 얘들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일찌감치 했어요.”<br/><br/>“어릴 땐 할아버지 심부름 <br/>학생 땐 선생님 심부름 <br/>60년대엔 소위 독서운동 심부름 <br/>아, 이제 (아프단) 핑계 있으니 <br/>좀 편하게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br/><br/>“청년시절 꿈과 이상 불태운 사람과 <br/>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엄청나요 <br/>제가 젊은이들에게 당장 역경을 <br/>헤쳐갈 조언을 하지 못하지만 <br/>적어도 그건 잃지 마시라”<br/><br/> “<span class='quot1'>우리 집안엔 ‘선생 DNA’가 있어</span>”<br/><br/> -그래서 대학으로 가신 건가요?<br/><br/> “미리 계획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특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작할 만큼 계획적이지도 않고요. 세상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다가, 하다가 물처럼 흘러가는 거지.”<br/><br/> -여러가지 길 중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br/><br/> “<span class='quot1'>옛날부터(통혁당으로 체포되기 전 육사 교관으로 일할 때부터) 하던 일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집안에 ‘선생 디엔에이(DNA)’가 있는지도 몰라요.(웃음) 할아버님, 아버님, 다 그런 경향이 있었으니까.</span>” <br/><br/>그의 조부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후학을 가르친 시골 선비였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다.<br/><br/> -그 유전자가 아드님한테도 이어지나요?<br/><br/> “허허허… 뭔가를 설명하는 걸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좋아하고.”<br/><br/> -지금 대학원 다니지요? 주변 친구들 얘길 들으니 ‘반듯함의 상징’이라고 하던데요.(웃음) 선생님을 많이 닮았나요?<br/><br/> “내가 워낙 늦게 아들을 둬서(그는 출소 후 48살에 결혼해 49살에 외아들 지용씨를 얻었다) 아이와 오래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자라는 동안 최대한 관여를 안 하려고 했죠. 고등학교도 제가 찾아보고 원하는 데로 가고 자기 전공도 그렇게 정했습니다.”<br/><br/> 신영복 선생의 표정이 눈에 띄게 환해졌다. 그에겐 아들뿐 아니라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 청년들이 늘 희망의 메타포다. 사형선고를 받고 육군 교도소 좁은 감방에서 죽음 같은 나날을 마주할 때, 서오릉에서 만난 ‘청구회’ 꼬마들과의 동화 같은 추억으로 마음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br/><br/> -요즘 청년세대들이 많이 힘듭니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br/><br/> “청년들은 정규직에 취업하더라도 5년을 머물기가 힘들고, 비정규직이 거의 상시화되어 있죠. 그래도 어떻게든 ‘청년시절만은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일생에서 청년시절이 갖는 의미는 막강한 거거든요. 청년시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br/><br/> -선생님의 청년시절은요?<br/><br/> “음. 그래도 우리에겐 외부로부터 억압이 없는 자유와 이상을 꿈꿨던 청년시절이 있었죠.”<br/><br/> -사형수가 되고 무기수가 되었는데도요?<br/><br/> “그런 청년시절이 없는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누구라고 사람을 거론하긴 어렵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청년시절이 나중에 인생의 세속적 성공과 연결이 되든 안 되든, 꿈과 이상을 불태운 청년시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난 젊은 사람들에게 당장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조언은 못하지만 적어도 그건 잃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br/><br/>“진보의 질 추락했다는 거 인정해요 <br/>이명박, 박근혜 욕하면서 자위하고 <br/>자기 내부에서 강인한 진보성을 <br/>발견하는 건 소홀히 하거든요 <br/>정말 우리부터 잘해야 합니다”<br/><br/>“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데 <br/>그 사람이 세속적 가치에서 <br/>뭘 이뤄냈느냐도 중요하지만 <br/>그 사람의 인생에 시대가 얼마나 <br/>들어와 있는가도 참 중요합니다”<br/><br/>더러는 그의 등 뒤에 침을 뱉고 <br/>악담을 퍼부었지만, 그는 담담한 <br/>미소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 <br/>증오하는 자들의 증오에 물들지 <br/>않았느니 영원히 그의 승리다<br/><br/> 비수 같은 시대가 삶을 조각낼지라도<br/><br/> -선생님은 <담론>에서, 음과 양, 화(和)와 동(同), 이론과 실천, 좌와 우가 원형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맞닿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 세계는 서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고 조화 속에서 서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가 진보의 질을 퇴보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지양하고 조화를 이뤄야 할 파트너가 너무 격이 떨어져요. 이들이랑 조금만 다르면 자신이 진보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br/><br/> “진보 자체가 이명박하고 같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하하하, 맞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br/><br/> -선생님 강의나 책에서, 시민운동, 민중운동이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고 꼬집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살살 꼬집으세요.(웃음) 따끔하게 아픈 맛이 잘 안 느껴집니다.<br/><br/> “저로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 약자니까. 약자들에 대한 비판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선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해야지. 저도 따로 만나면 여러가지 이야길 합니다.”<br/><br/>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br/><br/> “진보의 질이 많이 추락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욕하는 걸로 자위하고 자기 내부에서 강인한 진보성을 발견하는 건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난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흔히 ‘너나 잘해’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부터 잘해야 되는 시기거든요.”<br/><br/>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우리부터 잘하기’ 위해서.<br/><br/> “뭔가 개혁을 하려면 정치권력의 탈취가 가장 빠르다,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20세기 최고로 가장 강력한 정치권력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나치 권력, 다른 하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근데 이 두 개의 막강한 정치권력이 사회변혁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불가역적으로 그런 사회변화를 탄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롭게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변혁은 사상투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학이라는 공간공동체가 아니어도, 곳곳에 ‘작은 숲’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요.”<br/><br/> -작은 숲이란 뭡니까?<br/><br/> “숲은 그냥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합이 아니에요. 작은 나무, 큰 나무, 늘 푸른 나무, 낙엽 지는 나무가 서로 거름도 하고 의지도 하면서 땅을 지키고 바람을 잠재우고 생명을 품어나갑니다. 요즘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이 그런 사유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대학 바깥에서 만드는데, 그걸 또 장사꾼들이 금방 상품화해요. 그런 작은 단위를 진지화하고 역량화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br/><br/>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었다. 선생은 금식을 한 채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해서 같이 점심을 할 수 없다고 아쉬워하셨다.<br/><br/> -빨리 쾌차하셔서 말씀하신 일들 20년만 더 책임져주세요.(웃음) 끝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br/><br/> “음…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데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세속적 가치에서 얼마나 뭘 이뤄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시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br/><br/> -‘시대가 들어와 있다’는 게 뭡니까?<br/><br/> “<span class='quot1'>그 시대를 정직하게 호흡하고, 시대의 아픔에 함께하는 삶,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span>”<br/><br/> 날카로운 시대의 비수가 그의 삶을 조각낼 때에도 그는 시대를 기꺼이 심장에 품었다. 인간의 유한성과 불민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완전한 것들의 총화가 빚어내는 역동적 조화를 그는 가슴 벅차게 희구했다. 더러는 그의 등 뒤에 침을 뱉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는 담담한 미소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증오하는 자들의 증오에 물들지 않았으니 영원한 그의 승리다. 그의 유해는 화장 후 수목장으로 숲에 묻힐 거라 했다. 그는 여전히 ‘더불어숲’에 우리와 함께 있다. <br/><br/>녹취 함규원 <br/><br/><br/><br/>▷▷그는 본디 붉은 경제학자였다<br/><br/><br/><br/>▶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3.txt

제목: “헌법은 구시대의 이상 담은 연못이 아니다”  
날짜: 20160121  
기자: 강희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2102241916  
본문: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br/>-위대한 이름 불행한 인간 <br/>안경환 지음/라이프맵·2만2000원<br/><br/>“법이란 말장난의 과학”이라는 어느 아일랜드 배우의 조소는, 그래도 약과다. 그 자신 대법관이었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 법률가는 아예 없다고 했고, 성경의 누가복음은 “<span class='quot0'>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span>”라는 점잖지만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있다. 가장 강렬한 저주는 셰익스피어한테서 나왔다. “<span class='quot1'>첫번째로 할 일은 모든 법률가를 죽이는 것이다.</span>”(<헨리6세>)<br/><br/> 고래로, 법률가는 환영받지 못했다. 법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대체로 권력자와 부자들의 편이라는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헌법이란 법관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찰스 휴스 전 미국 대법원장)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헌법 해석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연방대법관들은 흔히 ‘아홉 현인’으로 불리지만, 기성 사회질서를 온존시키는 ‘아홉 늙은이들’이라고 비난받기도 한다.<br/><br/> 그렇다면, 윌리엄 더글러스(1898~1980)는 어느 범주에 속하는 인물일까. 남겨진 판결문은 취임선서를 한 1939년 4월17일부터 36년 7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어떤 대법관이었는지를 보여준다.<br/><br/> 닉슨이 집권하고 있던 1972년 육군정보부대가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반전운동가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헌법 수정 제1조 위반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들은 군의 감시행위가 ‘연방 의회는 (…)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열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한, 1791년 ‘권리장전’의 첫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는 사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이들 단체에 ‘원고 적격’(standing·당사자 적격)이 있는가를 놓고 논전이 벌어졌다.<br/><br/> 더글러스의 의견이다. “이 사건은 우리 몸의 암과 같은 존재를 다룬다. 군의 감시행위는 수정 제1조에 대한 전쟁행위다. (…) 권리장전은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신앙과 표현,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육군의 감시만큼 우리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없다.”<br/><br/> 같은 글에서 더글러스는 “<span class='quot2'>헌법은 ‘정부를 국민의 몸에서 떼어내기 위해’ 제정된 것</span>”이라고 선언한다. 헌법은 막강한 정부에 맞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합의이자 최고의 가치다. 그러나 헌법은 경전이 아니다. “<span class='quot1'>헌법은 시대의 영고성쇠를 순간순간 반영하는 살아 있는 문서이지, 이미 썩어 온갖 잡충이 들끓는 구시대의 이상을 담은 연못이 아니다.</span>”<br/><br/> 그런 소신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비전시에 간첩죄가 인정돼 사형 판결을 받은 로젠버그 부부의 형집행을 중지시킨 결정, 가난해 소득세를 내지 못한 사람의 투표권을 몰수하거나 백인에게만 예비투표권을 부여한 주법은 위헌이라는 판단, “공산주의자는 그들의 반사회적 ‘행동’ 때문에 기소될 수 있으나 세상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공표’했다고 해서 기소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타났다.<br/><br/> 더글러스는 법전에 새겨진 문언의 경계를 넘지 않기로 작정하고 “선판례의 면전에서 겸손”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법소극주의’(사법자제론)를 경멸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의 기능 수행이라는 ‘법익’,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심판의 저울에 나란히 올리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본 것이다. 상반된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건들에서 국가가 법익의 최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약자의 대변인’으로 불린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자리와 함께 ‘사법적극주의자’의 정신까지 승계했다.<br/><br/>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갔다. 52년 ‘폴락’ 판결에 이어 65년 ‘그리스월드’ 판결을 통해 그는 헌법에 없는 ‘프라이버시권’을 창안해냈다. “<span class='quot1'>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span>” 72년 시에라클럽 사건 판결 반대의견에서는 기왕 원고 적격을 인정받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span class='quot1'>산과 들, 물과 바람 같은 환경보호 대상물은 스스로의 보전을 위해 개발 계획에 대해 법적 구제를 신청할 (원고) 적격이 있다</span>”고 썼다.<br/><br/> 그렇다고 그 긴 세월에 걸쳐 반대의견만 개진한 것은 아니다. 주의 경계를 넘어 이동할 자유 인정(58년), 화이트칼라의 횡령은 배제한 채 단순 절도범만 거세로 처벌하던 주법 위헌(42년), 극빈 형사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임(63년), 출생지(48년)·혼인 중 출생 여부(68년)·국적(71년)을 이유로 차별하는 ‘의심의 대상이 되는 분류’ 철폐 등에서 더글러스는 다수의견을 주도했다.<br/><br/><br/><br/> 그럼에도 더글러스는, ‘후배’ 대법관 해리 블랙먼의 말처럼 ‘외로운’ 반대자로 기억된다. 당대와 불화하고 시대를 앞서가며 그는 연방대법원 역사상 가장 많은, 3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그로 인해 얻게 된 ‘위대한 반대자’(Great Dissenter)라는 별칭에는 대체로 용감하고 때때로 무모했던 이 ‘극단적 사법적극주의자’의 36년이 압축돼 있다.<br/><br/> 그를 평생의 화두로 붙들고 있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책<윌리엄 더글라스 평전>을 통해 미국 서쪽 끝 워싱턴주의 인디언 마을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단돈 6센트를 들고 뉴욕에 도착한 애송이 청년이 진보적 대법관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기까지 전 생애를 공들여 재구성했다. 책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의 사법관, 특히 사법적극주의자의 긍정적 면모를 드러내는 데 상당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직관과 통찰을 사변과 논리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동료 대법관들을 설득하기보다 혼자 저지르는 ‘아웃사이더’로 만족했으며, 세번의 이혼과 네번의 결혼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실망시킨 더글러스의 인간적 한계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균형감으로 평전의 약점을 극복했다.<br/><br/> 더글러스가 보여준 사법적극주의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일까? 이 책은 해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텍스트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br/><br/>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4.txt

제목: 친구가 살맛 찾게 해줘 저세상 못간다고 전해라  
날짜: 20160121  
기자: 이창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1194809851  
본문: 경기도 시흥에 사는 일흔 넷의 할머니 정아무개씨는 몇년간 외톨이로 지냈다. 지난 2012년 남편이 암으로 죽은 뒤로 살맛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식들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서 그는 누구와도 접촉을 피했다. 마침내 극단적인 생각까지 자주 하게 됐다. 서울 강북에 사는 예순 여덟의 김아무개씨도 자살 고위험군에 속한 노인이었다. 결혼생활을 두차례나 실패했고, 3년 전에는 친오빠가, 1년 전에는 노모마저 잇따라 세상을 떴다. 디스크 수술로 걷기조차 힘들어지자 절망한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았지만 다행히 실패했다.<br/><br/> 정씨와 김씨는 이제는 더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했을까? 바로 ‘친구’였다. 새로 알게 된 나이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들은 우울과 자살충동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씨는 “<span class='quot0'>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고, 그들과 이것저것 만들어도 보고, 나들이도 떠나게 되면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span>”고 말했다. 김씨도 더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까지 나서게 됐다고 한다.<br/><br/> 이들이 마음을 나눌 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데는 복지프로그램의 도움이 있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다. 우울과 자살충동에 빠지기 쉬운 독거노인을 발굴해 심리 상담치료를 제공해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표방한 복지사업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전국 80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전국 56개 도시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br/><br/> 이들 복지관에서는 고독사 및 자살 위험군의 노인들을 은둔형(사회관계를 맺지않는 형), 활동제한형(관계는 맺으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형), 우울형(우울증 등으로 자살위험이 매우 높은 형)으로 분류해, 이들이 요리나 문화체험, 건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친구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 <br/><br/>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사업을 평가해본 결과, 사업 참여 이전 노인들의 평균 친구 수는 0.57명에 그쳤는데, 사업 참가 이후 1.65명으로 늘어났다. 자살 생각도 사업참여 이전에는 38점 만점에 18.26점으로 꽤 높았는데 사업 참여 뒤에는 9.94점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도 총 40억원의 규모로 68개 도시지역에서 80개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br/><br/> 경기 시흥 소재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의 이상현 사회복지사는 “<span class='quot1'>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친구 1명만 있어도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돼 고독사나 자살을 줄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사업 특성상 1명의 사회복지사가 60여명 이상의 노인들을 담당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인력이 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br/><br/>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5.txt

제목: [왜냐면] ‘웰다잉’은 의료가 아니라 돌봄이다 / 조무성  
날짜: 2016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0190543797  
본문: 지난 8일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좋은 죽음의 선택을 통해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하지만 나는 몇 가지 점에서 이 법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한다.<br/><br/> 우선, 법의 명칭부터 그렇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다. 여기서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라는 개념이다. 이 명칭은 영어의 ‘hospice and palliative care’를 번역한 것이다. 암 관리법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오랫동안 써온 이 개념이 문제시되는 건 실체적·학문적 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br/><br/> ‘호스피스·완화돌봄’으로 해야 맞다. 환자의 수요를 담은 실체적 진실과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기 때문이다. 여기 죽음에 직면한 말기암 환자가 있다고 치자. 그가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증을 낮추어주는 의료행위가 필요하다. 이것이 완화의료다. 하지만 말기 환자는 통증보다 더 치명적인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 그에게 필요한 건 심리적 돌봄이다. 말기 환자는 빈곤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에도 처하기 십상이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또한 그가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기 위해선 영적 돌봄이 절실할 때도 많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개념은 신체적 돌봄보다 어쩌면 더 절실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포괄하지 못한다.<br/><br/> 이번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해 호스피스·완화돌봄의 개념을 오도하고 있다. 심리적·사회적 영역은 심리상담가나 사회복지사의 영역이다. 삶의 의미를 다루는 영적 영역은 성직자를 비롯한 영적 돌봄가(Carer)의 영역이다. 이들 영역은 결코 의료 영역에서 대신할 수 없다. 호스피스는 전인적 돌봄이다.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가 다학제적 팀으로 이뤄지는 이유다. 정책 입안자들이 한번이라도 ‘내가 말기 환자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환자와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명칭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법안은 수요 중심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공익에서 멀어졌다.<br/><br/> 이번 법의 또다른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영적 돌봄가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호스피스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암 환자를 위한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를 훈련해서 하는 것보다, 10~20년 봉사한 경험을 지닌 자원봉사자가 하는 게 훨씬 더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더 경제적인 운영 형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아예 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영적 돌봄가의 역할에 대해 언급이 없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다.<br/><br/> 다행스런 것은 이 법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18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라도 고칠 시간은 충분하다. 오는 4월 총선 뒤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이 반드시 실체적이고 학문적인 진실에 맞게 고쳐지길 기대한다. <br/><br/>조무성 고려대 교수·생활행정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6.txt

제목: “과체중인 위암 환자가 정상체중인 경우보다 오래 살아”  
날짜: 2016011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0105552585  
본문: 같은 위암 환자라 해도 과체중인 경우가 표준 몸무게인 환자보다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근경색, 치매, 뇌졸중과 같은 질병에서도 이런 ‘비만의 역설’은 확인된 바 있다.<br/><br/> 박재명(소화기내과)·송교영(위장관외과)·이한희(소화기내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팀은 2000~2008년 위장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 1905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와 생존율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수술 전 과체중에 해당되는 위암 환자는 5년 생존율이 84.7%로 가장 높았다고 최근 밝혔다. 반면 저체중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5년 생존율이 69.1%, 정상체중군은 74.2%로 나타났다. 암이 진단되고 치료를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의학계에서는 암이 완치됐다고 판정한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키(ｍ)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대로 25㎏/㎡ 이상인 경우를 과체중, 18.5~24.9㎏/㎡는 정상체중, 18.5㎏/㎡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분류했다.<br/><br/> 연구 결과에서는 또 위암 수술 뒤 1년이 지났을 때 과체중인 환자들은 수술을 받은 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93.6%로, 정상체중군의 83.6%나 저체중군의 67.5%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위장은 음식물을 잘게 부순 뒤 소장으로 내려보내 소화와 흡수를 돕는데, 위장 절제술을 받으면 수술 전보다 많이 먹지 못하고 먹는다 해도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부분 급격한 몸무게 감소를 경험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위암 환자는 수술 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영양학적인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과체중 등 체질량지수가 높으면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위암 환자의 수술 전뿐만 아닌 수술 뒤 적극적인 영양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 환자는 흔히 수술 이후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고통일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 공급하되,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면서 환자가 평소 좋아하고 즐겨 먹던 음식을 먹도록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이 좋다</span>”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암학회지> 2015년 10월호에 실렸다. <br/><br/>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7.txt

제목: ‘건강’ 원한다면 거창한 운동계획보다 평소 부지런히 움직이자  
날짜: 2016011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0083531605  
본문: 건강하려면 ‘말’이 아니라 ‘움직임’이 필요하다. 운동, 즉 신체활동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운동이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꾸준한 실천은 쉽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국민이 운동을 하기 힘든 장애 요인을 알아보고, 꾸준한 실천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운동은 암, 심장혈관질환 예방에 도움 <br/>헬스장, 수영장 등록이 운동실천 아니야 <br/>집과 회사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운동 <br/><br/><br/><br/> 유방암 등 암 예방에도 효과 <br/><br/>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15년 2월 전국 20~59살 성인 남녀 2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인식조사에서 ‘건강’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나 이미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20.2%가 ‘운동’을 꼽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활력/활기/에너지/힘’(14.7%), ‘정신적 건강’(13.6%) 차례였다. 또 지난달 직장인 54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신년 건강 계획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67.8%가 ‘운동(신체활동)’을 선택했다. 우리 국민은 건강과 운동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br/><br/> 실제로 운동은 비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각종 만성질환의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 등을 감소시켜 정신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또 대장암, 유방암 등 여러 암의 발병 가능성도 낮춘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의료비 절감이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겠다.<br/><br/><br/><br/> “<span class='quot0'>거창한 운동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 커</span>”<br/><br/> 하지만 우리 국민의 운동 실천율은 낮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헬스 플랜 2020)에서 운동 실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국민의 운동 실천율은 2008년 14.5%에서 2013년 6.8%로 감소했다. 결국 2020년까지의 목표인 운동 실천율 20%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운동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에 직장인 59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신체활동 현황 및 장애요인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운동 계획 실천 방법으로 헬스장, 수영장 등 비용이 드는 스포츠 시설이나 어느 특정 장소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어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응답자가 43.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런 유료 스포츠 시설에 등록하고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우리 국민은 운동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운동 계획의 잦은 실패로 운동 실천 의지는 더욱 약해진다.<br/><br/><br/><br/> 일상에서 신체활동 늘리자<br/><br/> 여러 전문가들은 고강도의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건강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집안일, 직장 업무, 출퇴근(이동)길, 여가시간 등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자는 말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인 ‘일상이 운동이 되다’를 통해 집, 직장,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실천 수칙을 제시했다. 이 수칙을 실천하기를 권고해 본다. <br/><br/>나세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임연구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8.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신영복 교수님과 곡기 / 김양중  
날짜: 2016011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9190239542  
본문: “<span class='quot0'>선생님은 어떻게 연애를 하셨나요?</span>” 1992년 겨울 성공회대에서 만난 신영복 교수님에게 내가 던진 질문이다. 몇몇 선배들과 함께 만났는데, 선배들은 제일 후배였던 나에게 질문을 하게 했다. 여러 선배들은 감옥 생활을 비롯해 신 교수님의 철학 등 거창한 질문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지,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들이었다. 당시 대학생의 필독서였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은 뒤라, 신 교수님이 오랜 감옥 생활 뒤 50살에 가까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사연이 궁금했다. 신 교수님의 답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꽤 긴 시간에 걸쳐 연애와 사랑에 대해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 이어 의과대학에 다닌다고 소개하니 감옥에서 만난 이구영 선생 얘기를 길게 하셨다. 어떤 책의 290페이지에 바늘을 하나 꽂아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아픈 이들에게 침을 놓았다는 회고담이었다. 그분도 장기수였는데, 감옥에서 침술을 연마하신 모양이다. 이 선생의 침술 실력이 대단해 고문을 받아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수들의 많은 질병을 고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자들에게 좋은 의사가 되라는 말씀도 해주셨다.<br/><br/> 이후에 잊고 지내다가 신 교수님을 다시 만난 것은 10여년이 흐른 2003년이었다. 성공회대 교수들이 주축이 된 축구팀과 경기를 했는데, 당시 신 교수님은 60살을 넘긴 나이에도 열심히 뛰셨고 축구 실력도 뛰어나셨다. 상대편으로 맞서면서 축구에 열중하다 보니 10여년 전에 뵈었다는 얘기도 못 나눴지만, 감옥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갖은 고문까지 당했던 신 교수님의 건강이 괜찮아 보여서 다소 안심이 됐던 기억이 난다.<br/><br/>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남아 계실 줄만 알았던 신 교수님이 지난 주말 별세했다는 얘기를 듣고 적지 않게 놀랐다. 또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듯 허탈함마저 생겼다. 신 교수님의 영결식 기사를 보니,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신 교수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 뿐이다.<br/><br/> 신 교수님의 별세 소식을 기사로 읽다 보니, 악성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양인들이 잘 걸리는 피부암의 한 종류인데,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이라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교수님은 암의 가장 심각한 증상인 통증이 너무 강해 무척 시달렸고, 가장 효과가 크다는 마약성 진통제를 썼는데도 통증을 가라앉히지 못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이후 스스로 곡기를 끊고 운명을 달리하신 것이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가며, 삶을 마감하는 방식마저 선택하신 것 같다. 신 교수님답다고 느꼈다.<br/><br/>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던 김 할머니에 대해 인공호흡기 장착 등과 같은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009년 나온 뒤 연명치료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하는 인공호흡기 장착이나 심폐소생술은 연명치료 범주에 들어 중단할 수 있지만 물이나 영양분 공급은 계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암 분야 몇몇 전문의들은 영양분을 공급하면 암세포가 이를 흡수해 더 빨리 자라나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논의는 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 우리 사회에 큰 깨달음을 주신 신 교수님이 선택한 죽음의 방식을 고민해보도록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89.txt

제목: 신영복 선생, ‘고교생들이 세운 소녀상’ 위해 투병중 손글씨 선물  
날짜: 20160118  
기자: 박수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8115701032  
본문: “<span class='quot0'>고등학생이 함께 세우는 평화비</span>”<br/><br/>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투병 중임에도, 고등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손수 글씨를 써 보낸 사연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br/><br/>지난해 11월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앞에는 고등학생들이 만든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이날은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br/><br/>이화여고 학생들과 서울지역 고등학생 1만6000명이 2014년부터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1년 만에 세워진 결과물이다. 소녀상에는 ‘<span class='quot0'>고등학생이 함께 세우는 평화비</span>’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귀를 쓴 이가 바로 고 신영복 교수다. 신 교수는 2014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하다 암이 전이되면서 지난 15일 별세했다.<br/><br/>성환철 이화여고 교사는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1'>지난해 5월쯤 소녀상 제작을 준비하면서 뜻있는 분이 평화비 문구를 새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신영복 교수님의 이메일 주소로 취지를 설명하는 메일을 드리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바로 다음날 ‘학생들이 뜻있는 걸 하는데, 써줘야 되지 않겠냐’는 교수님의 답메일을 받게 됐다</span>”고 전했다.<br/><br/>당시 투병 중이던 신 교수는 동료 교수를 통해 글씨를 전달했다. 신 교수는 “<span class='quot2'>평화비에 어떤 형태로 글씨를 쓰면 좋을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판본 8개를 적어 보낸다</span>”며 “<span class='quot2'>판본을 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다</span>”고 당부했다.<br/><br/>성 교사는 “<span class='quot1'>취지는 동의하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거절하는 분들도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신영복 교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글씨를 써서 보내주셨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1'>건강이 나쁘지 않으면, 소녀상 제막식에도 참석하고 싶다는 얘기도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1'>마지막까지 학생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신영복 교수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15일 밤 학생들이 먼저 연락을 해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span>”고 밝혔다.<br/><br/>끝으로 성 교사는 고인에 대해 “<span class='quot1'>전해 듣기만 했을 뿐인데도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바른 길이라면 흔쾌히 자신을 포개어 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학생들에게 신 교수님이 남긴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것보다 뿌리가 될텐데, 소녀상에 남겨진 글씨로 신 선생님의 삶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br/>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0.txt

제목: 역사의 스승, 시대의 지성, 석과불식의 교훈 / 이재정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7200348038  
본문: 선생님, 며칠 전 찾아뵈었을 때 몸에 약간의 부기는 있었지만 여전히 맑고 고운 모습으로 흑색종의 투병을 해 오신 말씀을 해주셨지요. 암의 기운이 이미 척수까지 파고들었고 몸은 점차 마비되어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더 이상 연명하려는 것보다 차분하고 아름답게 삶을 정리하시려는 말씀에 숙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단호함 속에서도 저는 선생님께서 그동안 굴곡진 삶의 과정에서 얻으신 ‘깨달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시절 어떤 불의에도 어떤 폭력에도 어떤 강압에도 자신의 진실과 진리를 지켜내셨던 지성의 양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br/><br/> 그날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생님의 작품인 새해 서화달력 첫 장의 글을 읽고 문득 죽음에 대한 예감을 느꼈습니다.<br/><br/> “<span class='quot0'>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거듭되는 곤경이 아니라/ 거듭거듭 곤경을 당하면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어리석음은 반복입니다/그러나 거듭되는 곤경이/비록 우리들이 이룩해 놓은 달성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다만 통절한 깨달음 하나/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곤경은 결코 절망일 수 없습니다/이제부터 그것은/ 새 출발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span>” <br/><br/> 이 글 옆에 선생님은 암흑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작은 등잔의 빛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언처럼 느꼈습니다. <br/><br/> 선생님은 1968년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의 느낌을 한마디로 공허였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시의 공소장으로는 그 혐의가 설령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었을 것이 사형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언도로 둔갑을 하였지만, 선생님은 그 시간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청구회라고 불렀던 동네 어린이들과 장충체육관 앞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자고 나누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br/><br/> 죽을 수 있다는 미래를 놓고도 선생님은 “언약(言約)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과의 약속은 결코 한 청년의 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느 날 꽃처럼 피어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이 조작하고 기획한 재판으로 짊어져야 했던 그 억울했던 ‘곤경’에서, 처절한 절망 속에 홀로 버려진 선생님은 고통이나 분노를 넘어 새로운 역사에서 맞게 될 ‘새 출발’의 깨달음을 가슴 속에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긴 어둠과 폭력의 역사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을 ‘작은 등불’로 그리신 것 같습니다. <br/><br/> 선생님의 대표작처럼 되어버린 ‘처음처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처럼’은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결연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처럼’에서 시작된 선생님의 인문학은 변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변화의 열정과 움직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역사의 변화가 중앙이 아니라 변방에서부터 새로운 바람으로 불어 왔다는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변방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주셨습니다. <br/><br/> 그 인문학은 선생님이 곳곳에 여러 모양으로 남기신 서화를 통하여 때로는 새로운 역사인식을, 때로는 삶의 희망을, 그리고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혁명의 불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란 실수와 결함을 보완하고 배려하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기에, 선생님은 서화작품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여 감싸주는 다사로운 인정이 무르익는” 아름다움으로 이 시대 우리들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br/><br/> 마지막 저서 <담론>에서 선생님은 이런 글을 남겨 주셨지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그 사회를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른 가치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끝’입니다. (…) 욕망과 소유의 거품, 성장에 대한 환상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을 그 근본에서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뼈대를 튼튼히 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 이것이 석과불식(碩果不食)의 교훈이고 희망의 언어입니다.”<br/><br/> 선생님은 이제 긴 여행을 떠나십니다. 어떤 장벽도 없는 그리고 어떤 폭력도 없는 그런 평화의 영원한 세계로 떠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여전히 역사의 스승으로, 시대의 지성으로 우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br/><br/> 선생님,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부디 아름답고 평화로운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br/><br/>이재정 경기도교육감·성공회대학교 초대총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1.txt

제목: 20년 옥살이…모진 비극을 넘어 ‘시대의 촛불’로  
날짜: 20160117  
기자: 한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7195359367  
본문: 잘 나가던 대학 강사요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었다가 어느날 뜻밖에 사형수가 되고, 20년의 감옥생활 뒤 10여권 저서와 명강의로 ‘시대의 스승’이라는 찬사를 받은 신영복 교수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 드라마는 그러나 그 자신이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 아니라 식민과 분단, 전쟁, 이념대립으로 점철된 우리 근현대사 모순이 응축된 무대 위에 올려진 비극으로 시작됐으되, 그가 그 비극을 끝내 또다른 장대한 서사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극적이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시대의 아픔을 겪어내야 했고, 그 의미를 진정어린 명문장으로 날선 화두처럼 세상을 향해 던졌던 그의 삶은 교훈이요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다.<br/><br/><br/><br/>대학강사 시절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 <br/>감옥생활 20년간의 글 출간한 <br/>‘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반향 일으켜<br/><br/><br/><br/>1989년부터 성공회대 강의 시작 <br/>‘인문학 스승’ 돼 사회에 큰 울림 <br/>암투병중인 작년말까지도 강단에<br/><br/><br/><br/> 1941년 밀양에서 태어나 1959년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에 진학한 그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학생 서클의 구심점이었다.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던 1968년 27살의 그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20년 동안 영어의 몸이 됐다. 이 엄청난 ‘운명’에 대해 그는 2008년 인터뷰에서 “통일혁명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통혁당은 정식으로 결성되지도 않았다. 서울시당 준비모임이 꾸려져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야 들었다. 나는 학생운동 차원에서 대학선배가 주도한 모임에 적극 참여했는데, 그 선배 삼촌이 북한에도 갔다 온 모양이었다. 당시 <청맥>이란 잡지에 진보적 소장학자들이 글을 많이 썼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운동 차원이었다.”<br/><br/>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한 그가 평범할 수 없었던 체험과 깊은 성찰을 특유의 문장에 담아낸 엽서 글들을 담아 출간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신영복의 탄생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담론들에 대한 폭발적인 대중적 반응은 ‘87년 체제’가 만들어낸 세상 변화를 실감하게 만든 하나의 징표이기도 했다.<br/><br/> 그는 1989년부터 성공회대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1998년 사면복권된 뒤 교수로 정식 임명돼 2006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이 학교 사회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퇴임 뒤에도 지난해 말까지 그는 암투병 중에도 인문학 특강을 계속했다.<br/><br/> 지난해 마지막 저서 <담론>에서 그는 깨달음과 공부를 ‘살아가는 이유’로 꼽았다. 그는 “공부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요,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의 존재형식”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는 성찰이며, 그것을 토대로 현실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실천이라고 했다. 그런 ’세상 바꾸기’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인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변방성)”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존재로부터 관계로 나아가는 탈근대 담론”을 그 무기로 벼뤘다. 이 ‘관계’야말로 그가 만년까지 지니고 간 평생의 화두였다. 그는 “관계 없이 인식 없다”며 관계를 통해 자신과 주변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br/><br/> 이 관계론의 연장에서 그는 <논어>의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을 이렇게 고쳐 읽었다. “<span class='quot0'>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며,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며 공존하지 못한다.</span>” 이 독특한 화동(和同) 담론에 입각해, 남북통일도 정치적 통일(統一)이 아니라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폭넓게 소통하고 함께 변화하는 화화(和化)로서의 통일(通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에게 이것은 한민족만의 과제가 아니라 “21세기의 문명사적 과제”였다.<br/><br/> 그는 우리 사회를 ‘불철저한 민주화’ ‘뿌리 깊고 완고한 보수적 구조’ ‘국제금융자본의 진입과 수탈’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인조반정 이후 지금까지 서인-노론으로 이어진 정치적 지배그룹의 교체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는 끝까지 희망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역사의 장기성과 굴곡성을 생각하면, 가시적 성과나 목표 달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자부심 있게, 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 작은 숲(공동체)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작은 약속도 하고, 그 ‘인간적인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 <br/><br/>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2.txt

제목: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신영복 선생을 애도하며…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7171335688  
본문: 역사의 스승, 시대의 지성 그리고 석과불식(碩果不食)의 교훈<br/><br/><br/><br/>선생님, 며칠 전 목동으로 찾아뵈었을 때 몸에 약간의 부기는 있었지만 여전히 맑고 고운 모습으로 흑색종의 투병을 해 오신 말씀을 거침없이 해 주셨지요. 암의 기운이 이미 척수까지 파고들었고 몸은 점차 마비되어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더 이상 연명하려는 것보다 차분하고 아름답게 삶을 정리하시려는 말씀에 숙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단호함 속에서도 저는 선생님께서 그동안 굴곡진 삶의 과정에서 얻으신 ‘깨달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의 군사정권시절 어떤 불의에도 어떤 폭력에도 어떤 강압에도 자신의 진실과 진리를 지켜내셨던 지성의 양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br/><br/> 그날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와서 2016년 선생님의 작품인 새해 서화달력 첫 장의 글을 읽고 문득 죽음에 대한 예감을 느꼈습니다.<br/><br/> “<span class='quot0'>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거듭되는 곤경이 아니라/ 거듭거듭 곤경을 당하면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반복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곤경이 / 비록 우리들이 이룩해 놓은 달성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다만 통절한 깨달음 하나/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곤경은 결코 절망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은/ 새 출발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span>” <br/><br/> 이 글 옆에 선생님은 암흑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작은 등잔의 빛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언처럼 느꼈습니다. <br/><br/> 선생님은 1968년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의 느낌을 한마디로 공허였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시의 공소장으로는 그 혐의 사실이 설령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었을 것이 사형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언도로 둔갑을 하였지만, 선생님은 그 시간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청구회라고 불렀던 동네 어린이들과 장충체육관 앞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자고 나누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br/><br/> 죽을 수 있다는 미래를 놓고도 선생님은 “언약(言約)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과의 약속은 결코 한 청년의 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느 날 꽃처럼 피어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이 조작하고 기획한 재판으로 짊어져야 했던 그 억울했던 ‘곤경’에서, 처절한 절망 속에 홀로 버려진 선생님은 고통이나 분노를 넘어 새로운 역사에서 맞게 될 ‘새 출발’의 깨달음을 가슴 속에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긴 어둠과 폭력의 역사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을 ‘작은 등불’로 그리신 것 같습니다. <br/><br/> 선생님의 대표작처럼 되어버린 ‘처음처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처럼’은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결연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처럼’에서 시작된 선생님의 인문학은 변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변화의 열정과 움직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역사의 변화가 중앙이 아니라 변방에서부터 새로운 바람으로 불어 왔다는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변방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주셨습니다. 변방은 자유롭고 새롭게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가고 그 길들이 어울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곳이고 변화의 원동력이었습니다. <br/><br/> 그 인문학은 선생님이 곳곳에 여러 모양으로 남기신 서화를 통하여 때로는 새로운 역사인식을, 때로는 삶의 희망을, 그리고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혁명의 불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란 실수와 결함을 보완하고 배려하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기에, 선생님은 서화작품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여 감싸주는 다사로운 인정이 무르익는” 아름다움으로 이 시대 우리들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br/><br/> 선생님이 1988년 20년의 긴 형기를 마치고 가석방된 뒤 이룩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는 성공회대학교였습니다. 서울의 끝자락 ‘변방’에 있던 당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였던 작은 신학교에서 선생님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공회신학교는 1993년 서울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으로 발전하였고 1994년에는 성공회대학교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젊은 대학’이라는 기치 아래 다른 대학들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과 다른 대학을 만들려는 노력이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대하게 기르기보다, 열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으로 기르는 교육”을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회대학교를 사람이 만들어가는 ‘더불어 숲’으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br/><br/> 마지막 저서 <담론>에서 선생님은 이런 글을 남겨 주셨지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그 사회를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른 가치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끝’입니다. (…) 욕망과 소유의 거품, 성장에 대한 환상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을 그 근본에서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뼈대를 튼튼히 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 이것이 석과불식(碩果不食)의 교훈이고 희망의 언어입니다.”<br/><br/> 선생님은 이제 긴 여행을 떠나십니다. 어떤 장벽도 없는 그리고 어떤 폭력도 없는 그런 평화의 영원한 세계로 떠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여전히 역사의 스승으로, 시대의 지성으로 우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br/><br/> 선생님,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부디 아름답고 평화로운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미루셨던 자유로운 여행길을 즐겁게 떠나시기를 기원합니다.<br/><br/>이재정 경기도교육감/성공회대학교 초대 총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3.txt

제목: 신영복 교수 “햇빛 오래 못받아 발병 가능성” 언급  
날짜: 2016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6160935830  
본문: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다른 장기로 전이돼 투병을 하다 별세한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br/><br/> 16일 신 교수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웹진 <다들>과 지난해 10월 한 인터뷰를 보면, 그는 “지난해 가을 암 판정을 받았다. 이미 그때 여러 군데 전이가 돼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며 중증 암 환자 대상 임상실험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받고 있다고 근황을 말했다. <br/><br/> 신 교수는 이어 병명을 밝히면서 “햇빛이 귀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암이라고 했다. 햇빛을 오래 못 받으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br/><br/> 1968~88년까지 20년간 감옥에서 지내면서 햇빛을 제대로 쬐지 못한 것을 발병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신 교수는 2015년 출간한 <담론>에 수감 생활에서 햇빛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썼다. 그는 스물일곱 살에 사형수가 됐으나 감옥에서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햇볕 때문이라며 “겨울 독방에서 만나는 햇볕은 (…) 길어야 두 시간이었고 가장 클 때가 신문지 크기였다. (…) 신문지 크기의 햇볕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손해가 아니었다”고 했다.<br/><br/>■ 신영복 교수 <다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br/><br/> 흑색종은 피부색이 밝은 서양인들에게 비교적 많이 생기고 한국인들한테는 드물게 발병한다. <br/><br/> 디지털뉴스팀<br/><br/> <br/><br/> [관련 기사]<br/><br/>▶고 신영복(申榮福) 교수 연보 <br/>▶신영복의 그림 사색 보기 <br/><br/>▶신영복 교수 누구? 삶 자체가 드라마…“서로 위로하는 ‘작은 숲’ 되라” <br/>▶생명·평화·공존의 참의미 전달한 교육자이자 저술가 <br/>▶신영복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아픔을 견디게 해줘요”(2015.05.09) <br/>▶“모두에게 큰 스승이자 등대” 신영복 교수 별세 소식에 SNS 추모 물결 <br/>▶딴따라 출신 탁현민씨와 그의 10년지기 스승 신영복 교수와 젊은 대화(2007.10.03) <br/>▶한홍구 교수, 신영복의 60년을 사색하다(2006.05.11)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4.txt

제목: 신영복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아픔을 견디게 해줘요”  
날짜: 2016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6104908906  
본문: ※ 이 기사는 2015년 5월 9일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에 실렸던 신영복 교수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담론’ 펴낸 신영복<br/><br/><br/><br/>스물일곱의 신영복(74)은 육군 중위로,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관이었다. 1968년 8월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후, 그는 “간첩”이 되었다. 대학의 독서회와 연합서클 세미나를 지도한 이력이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구성”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무기형으로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20년 20일 동안 그는 수인(囚人)이었다. 스물일곱 음력 생일날 잡혀 들어간 그는, 마흔일곱 음력 생일이던 88년 광복절에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같은 날, 그가 썼던 옥중서신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제목을 달고 출간되었다. 고대설화 속의 바리데기 공주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살리려고 저승길에서 생명수를 구해 왔듯이, 신영복은 자신을 유폐한 세상의 메마른 영혼들을 촉촉이 적셔줄 정화수(井華水)를 들고 돌아왔다.<br/><br/>2006년 성공회대에서 정년퇴직을 한 뒤에도 석좌교수로 강의를 계속해온 그가 최근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가 붙은 책 <담론>을 펴냈다. 그의 고전 해설을 묶은 <강의>를 펴낸 지 10년 만이다. 오랜만의 신간이 반가우면서도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투병중이라는 소식도 들렸다. 2014년 겨울학기를 끝으로 강단에 서지 않는다는 그를 어떻게든 꼭 만나고 싶었다. 신영복 선생의 서울 목동 자택으로 찾아간 날, 화창한 햇살 아래 철쭉이 눈부셨다. 그는 단정하게 재킷을 갖춰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br/><br/><br/><br/>암 선고받고 낸 책 <담론>에 담은 고백<br/><br/><br/><br/>-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는데 안색도 좋으시고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br/><br/>“담당 의사의 말로는, 어떤 경로로 진행될지 아직 자기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조심스럽긴 합니다.”<br/><br/>지난해 말 암 진단을 받았다. 몇 군데 전이가 된 상태라고 했다. 다행히 최근에 투약하기 시작한 약이 효과를 발휘해 기력도 회복되고 병세도 많이 호전된 상태다.<br/><br/>-많이 놀라셨겠습니다.<br/><br/>“그래서 부랴부랴 그동안의 강의 자료들을 모아서 이런 책도 만들었죠. 그 약을 복용하고 난 후에 건강이 훨씬 좋아져서 다시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돌려받아서 교정을 한 번 더 봤어요.”(웃음)<br/><br/>그렇게 출간된 <담론>은 성공회대학 강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다. 1부에서는 동양고전을 통해 본 세계 인식, 2부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데, 사형수 시절의 절망과 막막함, “반목과 불신, 언쟁과 주먹다짐”으로 “하루가 팔만대장경” 같았던 무기수 시절의 이야기 등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진솔한 고백들이 많이 실렸다.<br/><br/>남한산성(육군교도소)에서 만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사형수 중 다섯 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한 사람은 그곳에서 타살되었습니다. 나도 물론 사형수였습니다.(210쪽)<br/><br/>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만을 바라던 사형수가 막상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나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로 들어서는 막막함에 좌절했습니다.(218쪽)<br/><br/>-그간 신영복이라는 어른의 아우라가 너무 커서 ‘이분은 우리 같은 세인들하곤 바탕부터가 다를 거야’ 하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span class='quot0'>나의 20년 수형생활은 실수와 방황,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span>”는 대목을 읽으니 왠지 안도가 되던데요.(웃음)<br/><br/>“이 책에서 내 편지글이 그렇게 반듯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조금 밝혔죠. 본의 아니게 그런(늘 반듯하고 정제된 사람이라는) 선입관을 주게 되어 그간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어요.”<br/><br/>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긴 징역살이에서 어쩌면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한 번 없이 반듯할 수 있었냐?’고 의아해하지만, 실제 그의 징역살이가 편지글처럼 차분하고 평화로웠던 건 아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애달프고 괴로운 사정을 곧이곧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편지를 검열하는 교도소나 국가권력 앞에,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일체의 필기도구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나마 글을 적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엽서를 쓸 때뿐이다 보니, 한 달 내내 머릿속에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다듬은 글들이었다.<br/><br/>-감옥에서 후회한 적 없으세요? ‘난 통혁당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나 회한 같은 건?<br/><br/>“처음엔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취조받을 때까진 경황이 없더니, 며칠 뒤 서대문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중앙’(사동 가운데 로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간수부장 발을, 재소자 하나가 씻기고 있더라구요.”<br/><br/>-(놀라며) 재소자가 교도관 발을요?<br/><br/>“노예지 뭐. 교도소 특유의 그 묵직한 악취, 회색 벽과 나이 많은 간수의 발을 씻기는 젊은 재소자. 그 옆에 내가 쪼그려 앉아 있으면서, ‘역사가 썩는 듯한 교도소 냄새, 이 끔찍한 풍경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나!’ 그런 암담함을 느꼈죠. 그때는 이게 내 ‘대학시절’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br/><br/>“계몽주의 노인권력 바탕에 둔 <br/>그런 글쓰기는 지양돼야 해요 <br/>‘멘토’에 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br/>사표나 스승은 당대에 없어요 <br/>집단지성 같은 게 필요해요”<br/><br/>“역사의 장기성·굴곡성 생각하면 <br/>목표달성에 과도한 의미 부여 말고 <br/>과정 자체를 아름답고 자부심 있게 <br/>그 자체를 즐겁게 만들어야 해요 <br/>왜냐면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br/><br/><br/><br/>나도 어쩔 수 없는 먹물이구나! 참혹한 반성<br/><br/>신영복은 감옥생활 20년을 “나의 대학시절”이라고 표현한다. 감옥은 그에게 ‘사회학’과 ‘역사학’과 ‘인간학’을 가르친 교실이라는 것이다. 24시간 모든 것이 공개되는 감옥은 “목욕탕처럼 적나라하게” 서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공간이며, “메끼(도금) 벗겨진” 인간의 민낯을 “어항 속 붕어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속에서 첫 5년여간 신영복은 물 위의 기름처럼 겉도는 존재였다. 그의 눈에 비친 다른 재소자들은 노동 의욕도 변화 의지도 없는 ‘룸펜 프롤레타리아’일 뿐. 신영복은 최대한 친절하게 그들을 대했지만 동료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낌새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도 같이 있는 재소자들이었다. 신영복은 자신만 모르는 ‘왕따’인 채로 5년을 보냈다.<br/><br/>-5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br/><br/>“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고 그들 얘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그렇게 단선적이진 않아요. 방황하고 실패하고 우회도 하고…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 또래, 마흔한 살짜리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누가 접견을 왔다는 거예요. 모두 깜짝 놀랐죠. 3~4년간 아무도 온 일이 없었는데.”<br/><br/>-누가 왔는데요?<br/><br/>“누가 왔냐고 물으니, ‘웬 재수없는 녀석이 왔다’고만 하고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자기를 삼촌네 맡겨놓곤 도시로 돈 벌러 나갔대요.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얘기론 ‘너희 엄마 시집갔다’고 했다고. 근데 오늘 접견 온 남자가, 재가한 엄마가 키운 (의붓)아들이라고 그러더래요. 기분이 나빠서 ‘근데 여기 왜 왔냐? 남 징역살이하는 거 확인하러 왔냐?’고 고함을 지르니까 ‘당신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내가 거기 있고 당신이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죄송해서 왔다’고 하더래요. 아, 감동이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나도 쟤와 같은 부모, 그런 환경에서 컸다면 지금쯤 같은 죄명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반성, 아주 참혹한 반성이 들었어요.”<br/><br/>이후 신영복은 교도소 안에서 금지된 내기축구를 하다가 다른 재소자들과 ‘빠따’를 맞았고, 예배 후에 나눠주는 떡 위문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능청스런 ‘떡신자’가 되었다. 가르치려 드는 인텔리의 완고함에서 벗어나니 도처에 스승이 있고 친구가 있었다. 그는 이 변화를 “<span class='quot1'>머리에서 가슴으로의 긴 여행</span>”이라고 말한다.<br/><br/><br/><br/>-그래서인가요? 언제나 쉽고 편안한 구어체나 서간체를 즐겨 쓰시는 이유가? 선생님 글은 여느 교수들처럼 딱딱하거나 현학적이지 않고, 동네 할아버지가 느티나무 아래서 들려주는 얘기처럼 물 흐르듯 편안합니다. 그런 문체도 감옥에서 갈고닦은 노력의 산물인가요?<br/><br/>“어려서 대학신문에 글 쓰고 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식인의 글쓰기에 대해서 반성 많이 했지요. 글 쓰는 필자들은 독자를 배려해야 해요. 자기 글을 쉬운 글에 담아서 공유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br/><br/>신영복은 낮은 곳으로 다가가 말을 건네고 소통하는 방법을 부단히 고민하고 실험해 왔다. 서화(書畵)는 많은 사람과 깊이있게 교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였다. 그의 서화는 책으로도, 달력으로도 나왔고 손수건이나 티셔츠, 우산으로도 만들어졌다. 그가 직접 그린 삽화에 그가 개발한 어깨동무체 혹은 민체(民體)라 불리는 글씨, 그리고 짧고 강렬한 우화와 잠언들은, 심오한 사상이 아름답고 친근한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고 일상의 실용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원효는 법당에 앉아 경전을 외는 대신, 마을마다 표주박을 두드리고 춤을 추며 불가의 가르침을 담은 노래를 퍼뜨리고 다녔다. 필요한 곳에 서화와 글씨를 헌사하고 토크콘서트로 전국을 돌아다닌 사상가 신영복의 족적도 그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br/><br/>-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지만 선생님처럼 대중과 직접 소통할 줄 아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br/><br/>“본인들이 깨닫고 꾸준히 노력해야겠지요. 앞으로 계몽주의적인 노인 권력이 바탕에 깔린, 그런 글쓰기는 지양될 거라고 난 생각해요.”<br/><br/>-계몽주의가 왜 나쁩니까?<br/><br/>“허허, 그게 잘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계급적 편견이라고 봐야 되죠. 자기 가치를 기준으로 타자(他者)를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몽주의 프레임은 허물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전 ‘멘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br/><br/>-왜요? 요즘 멘토와 힐링의 시대라는데요.<br/><br/>“멘토가 계몽주의의 변형이잖아요. 멘토라는 게 대개 연배가 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를 전하는 건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20~30년 후에 살아갈 세계에 대해서 20~30년 전의 경험을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진보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br/><br/>-많은 이들이 선생님을 ‘이 시대의 대표적 스승, 대표적 멘토’라고 부르는데요.<br/><br/>“거대담론도 사라지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추락도 많이 보고 하니까 뭔가 사표(師表)로 삼을 만한 대상을 성급하게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사표나 스승이라는 건 당대에는 존립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인격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간 사표가 있다면 공부하긴 참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낡은 생각이에요. 집단지성 같은 게 필요하고 집단지성을 위한 공간을, 그 진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앞으로의 지식인들이 핵심적으로 고민할 과제예요.”<br/><br/><br/><br/>한번도 안 바뀐 노론 권력<br/><br/>-이번 책에서 제시하신 ‘원형 인식모델’은 우리 사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토대와 상부구조를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음과 양, 화(和)와 동(同), 이상과 현실, 좌와 우를 둥근 원 안의 대칭선상에 놓으셨지요. 대비되는 것들은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 말씀엔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카운터파트가 격이 너무 떨어져요.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상호보완이고 뭐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탐욕과 독선이 도를 넘은 지 오랩니다.<br/><br/>“차이라는 건 단순히 공존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변화의 시작으로 삼아야 해요. 차이를 자기 변화의 학습교본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에 이은 ‘가슴에서 발(실천)로의 긴 여행’이지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좌-우, 남-북, 진보-보수, 이런 대비 관계가 과연 상생적인 대비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너무나 비대칭적이어서 도대체 지양(止揚)을 할 수 있는 상생의 파트너가 아니지 않으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 역사에도 그렇게 이상적인, 완벽한 평형을 유지하는 대비 관계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분단과 외세, 그리고 임란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노론 권력의 오래된 지배구조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해 왔잖아요.”<br/><br/>-노론 권력이라고요?<br/><br/>“예, 임란 이후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몰아내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배권력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노론 세력이 한일합방 때도 총독부에서 합방 은사금을 제일 많이 받았지요. 노론이 56, 소론이 6명, 대북이 한 사람. 압도적인 노론이 한일합방의 주축이거든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행정부만 일부 바뀐 거지, 통치권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그렇게 해왔지요. 대학, 대학교수, 각종 재단, 무슨 시스템 이런 것들 쫙 다 소위 말하는 보수진영이 장악하고 있어요.”<br/><br/>-그러니 어떻게 합니까?<br/><br/>“어쩌겠어요?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자기를 강화하고 군림하는 집단은 다 자기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중심부 집단은 그게 또 약점이 돼요. 중심부는 변방의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류문명의 중심은 부단히 변방에서 변방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변화는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장기성과 굴곡성을 생각하면, 가시적 성과나 목표 달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자부심 있게, 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 작은 숲(공동체)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작은 약속도 하고, 그 ‘인간적인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br/><br/>-그 말씀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네요.(웃음)<br/><br/>“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이 선생보다 더 속상할걸요, 속으로는.(웃음) 근데 엄청난 아픔이나 비극도 꼭 그만한 크기의 기쁨에 의해서만 극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기쁨에 의해서도 충분히 견뎌져요. 사람의 정서라는 게 참 묘해서,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지요.”<br/><br/>큰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소소한 기쁨을 같이 나눌 이웃 만들기, 그게 신영복이 주장해온 ‘더불어숲’의 정신이다. 그 숲 속, 그의 너른 나무그늘 안에 우리 모두 오래오래 머물 수 있기를!<br/><br/>이진순. 녹취 함규원(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5.txt

제목: “우리 모두의 ‘마음의 스승’, ‘시대의 스승’이 떠나셨다”  
날짜: 20160116  
기자: 박수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6092819425  
본문: “참 올바르게, 자기 신념에 충실하게 사셨다 느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셨는데, 일찍 떠나셨다.”<br/><br/>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가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15일 밤 10시께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밤새 고인을 추모하는 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고인이 남긴 말과 글을 온라인 공간에서 옮겨 적어 공유하며 고인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다.<br/><br/>교수의 제자이자 방송인 김제동씨는 페이스북에 “‘여럿이 함께’, ‘처음처럼’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란 분별이 없어져야 함을 따뜻한 눈빛으로 늘 알려주셨던. 맞담배를 늘 권하시며 아래에서 위를 알려주셨던 고마운 우리 선생님”이라고 돌이켰다. 김씨는 “(고인의 저서인)<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시고 가신 분.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로. 우리 선생님의 가시는 길에 글 놓습니다. 따뜻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빈다”고 추도했다.<br/><br/>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람이 ‘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뵐 때마다, 늘 그 깊고 따뜻한 눈으로 부족한 저 자신을 비추어 주시곤 했다”며 “혼돈과 좌절의 시대에 선생님의 고요하고 엄숙한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br/><br/>문정현 신부는 자신의 트위터(@munjhj)에 “신영복 선생의 영면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통 받는 사람을 입으로 말하면서 긴 영어의 몸을 단 한 번도 면회하지 못했습니다. 헛살았다는 자책에 통회의 눈물을 흘린다”며 애통해했다.<br/><br/>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트위터(@Dr Pyo)에서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겪으신 참 지성인, 신영복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 편 세상에서는 부디 편히 쉬소서”라며 고인을 기렸다.<br/><br/>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트위터(@patriamea)에 “<span class='quot0'>통일혁명당 사건 연루 정도에 비하여 무기징역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는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고독한 성찰로 들어갔다</span>”며 “<span class='quot0'>그가 구축한 넓고 깊은 인문의 세계에 우리 모두는 빚지고 있다</span>”고 고인을 추모했다.<br/><br/>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span class='quot1'>스승이 없는 사회라며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후배에게 민폐 끼칠까봐 자신의 병환도 밝히지 않은 채 소리 소문 없이 생을 정리한 참 어른의 부음 때마다 통탄한다</span>”면서 이 시대 참 어른 면모를 드러낸 고인의 삶을 기렸다.<br/><br/>작곡가 김형석씨도 트위터(@kimhs0927)에 고인의 저서 <더불어 숲>에 나온 구절 “나는 인간이 그 개인이 이룩해 놓은 객관적 ‘달성’보다는 주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향’을 더 높이 사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부단히 성장하는 책임 귀속적 존재이기 때문이다”를 인용한 뒤, “항상 희망은 사람이었던 신영복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br/><br/>고인과 인연이 깊다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은 “<span class='quot2'>‘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완성하고 응용편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를 볼 때마다 신영복 선생님 생각이 났었다</span>”며 “<span class='quot2'>신영복 선생님께서 ‘더불어 숲’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큰 선물 ‘더불어’를 주고 가신 것 같다</span>”고 했다.<br/><br/>신 교수의 타계 소식에 누리꾼들은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라는 신영복 선생님 단정한 글귀는 옆 사람을 증오하게 만드는 여름 징역 같은 에피소드부터 삶에 대한 통찰까지, 많은 이야깃거리를 많은이에게 남기셨다”, “돈과 이윤, 권력과 야만이 아닌 오직 인간과 생명을 위한 세상을 꿈꿨던 우리 모두의 스승님이 떠났다”, “마음의 스승, 시대의 스승이 가셨네요. 이 허전함은 뭘까요. 선생의 책을 꼼꼼히 읽지 않은 죄책감은 또 뭘까요. 뵌 적은 없지만 항상 연모했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라는 등 애도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br/><br/>고인의 장례는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성공회대학교 학교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16일 오후 1시, 이 대학 대학성당에 마련된다. 17일 밤 10시까지 조문이 가능하며 영결식과 발인은 18일 오전 11시에 엄수된다.<br/><br/>신 교수는 2014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해오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끝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학자로 활동해온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대학원을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교관으로 복무하던 중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8년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감옥에서 20년 20일을 복역한 신 교수는 민주화 이후인 1988년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며, 1998년 사면·복권을 받았다. 신 교수는 오랜 수감 생활 동안 주고받은 편지와 글 등 230여편을 담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1998년 출간해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br/><br/>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br/><br/>[관련기사]<br/><br/>▶[2015년 5월 인터뷰] 신영복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아픔을 견디게 해줘요” <br/>▶신영복 교수 누구? “<span class='quot3'>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작은 숲’ 되라</spa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6.txt

제목: “모두에게 큰 스승이자 등대” 신영복 교수 별세 소식에 SNS 추모 물결  
날짜: 20160115  
기자: 김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6001726438  
본문: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불리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인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5일 밤 10시10분께 별세했다. 향년 75.<br/><br/>신 교수는 2014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해오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끝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학자로 활동해온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대학원을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교관으로 복무하던 중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8년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감옥에서 20년 20일을 복역한 신 교수는 민주화 이후인 1988년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며, 1998년 사면·복권을 받았다.<br/><br/>신 교수는 오랜 수감 생활 동안 주고받은 편지와 글 등 230여편을 담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1998년 출간해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 밖에도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1·2> <강의-나의 동양 고전 독법> <처음처럼> <변방을 찾아서> 등 깊은 사색을 담은 6권의 책을 남겼다. 1989년부터 성공회대에서 정치경제학·사회과학입문·중국고전강독 등의 강의를 해 온 신 교수는 2006년 정년퇴직을 한 뒤에도 석좌교수로 강의를 계속해 왔으나, 암 진단을 받은 뒤 그해 겨울 학기를 끝으로 강단에서 내려왔다.<br/><br/>강단을 떠난 신 교수는 강연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2006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를 지냈고, 2009년에는 국내 첫 민간 주도의 사회적 기업가 양성 기관인 ‘사회적기업가학교’의 초대 교장을 맡기도 했다. 또 2008년 8월에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출간 20주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도 열었다. 책 등을 통해 알려진 신 교수의 글씨체인 이른바 ‘신영복체’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의 상표와 기업·공공기관의 건물 현판 등에 널리 쓰였다. 지난해 4월 고전 해설을 묶어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가 붙은 책 <담론>을 펴내면서 신 교수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br/><br/>신 교수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추모와 애도의 글들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신 교수의 책 귀절 등을 공유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기사를 접한 한 누리꾼(아이디 지\*\*)은 “저희 모두에게 큰 스승이자 등대셨다”고 했으며 또다른 누리꾼(아이디 \*\*보이)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다. 고개 숙여 조의를 표한다”고 아쉬워 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8일 전 하직 인사 드리러 갔을 때 제게 말씀하셨죠. ‘걱정마세요. 더 건강해질께요’ 그날 이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비보를 접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며 슬퍼했다. 서해성 작가도 페이스북에 “글자 이전에 점 하나로도 삶이고 우주이고 역사였던 신영복 선생이 가셨다. 선생이여, 저승에도 ‘처음처럼’ 그 글자 획에 취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가 봅니다. 잉크로 붓으로 쓴 모든 글자들이 무릎 꿇어 당신과 여윕니다”며 조의를 표했다. <br/><br/>신 교수의 장례는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지며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순(68)씨와 아들 지용(26)씨가 있다. <br/><br/>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br/><br/>[관련기사]<br/><br/>▶[2015년 5월 인터뷰] 신영복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아픔을 견디게 해줘요” <br/>▶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작은 숲’ 되라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7.txt

제목: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교수 별세  
날짜: 20160115  
기자: 김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5231703274  
본문: 신영복(사진)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5일 밤 10시10분께 별세했다. 향년 75. <br/><br/> 신 교수는 2014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경제학자로 활동해온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대학원을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교관으로 복무하던 중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인 1968년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두 20년 20일을 복역한 신 교수는 민주화 이후인 1988년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신 교수는 1989년부터 성공회대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20년 넘는 수감 생활에서 겪은 서신·이야기 등을 담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1990년 출간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br/><br/>장례는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지며 유족은 부인 유영순(68)씨와 아들 지용(26)씨가 있다. <br/><br/>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br/><br/><br/><br/>[관련기사]<br/><br/>▶[2015년 5월 인터뷰] 신영복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아픔을 견디게 해줘요” <br/>▶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작은 숲’ 되라 <br/>▶“모두에게 큰 스승이자 등대” 신영복 교수 별세 소식에 SNS 추모 물결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8.txt

제목: 인간답게 떠나고 싶지만…말기암환자 13%만 호스피스 이용  
날짜: 20160114  
기자: 이창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5090517744  
본문: 이아무개(53·인천시 계양구)씨는 아내와 사별한 2년 전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어느 날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40대의 아내는 느닷없이 닥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내 원망을 쏟아내고 항암치료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보다못한 이씨는 아내의 편안한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전문 의료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span class='quot0'>지금도 후회스러운 게 그때 무리를 하더라도 인간답게 갈 수 있도록 호스피스를 받도록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가까운 병원에 좀체 자리(병상)가 나지 않았고, 치료비와 엄청난 간병비까지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span>” 아내는 그로부터 한 달 뒤 눈을 감았다.<br/><br/> 지난 8일 이른바 ‘웰다잉(좋은 죽음)법’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로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는 통증과 신체적·심리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치료해 죽음 직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행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말기 암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 비율은 말기 암 환자의 15%도 안 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웰다잉법’ 지난주 통과했지만 <br/>호스피스 병상 전국 1천여개뿐 <br/>건보 적용도 지난해서야 이뤄져<br/><br/>“노인요양서비스와의 연계 등 <br/>다각적 활성화 전략 필요” 지적<br/><b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정수 박사팀이 14일 공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말기 암 환자는 2008년 5046명(7.3%)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4년 현재 1만559명(13.8%)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영국(95%), 미국(43%) 등 선진국에 견줘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br/><br/>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원병상 수를 확대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는 등 갈 길이 멀다. 특히 보고서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노인들이 원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이나 요양시설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r/><br/> 최 박사팀은 이와 관련해 2015년 9월부터 한 달간 노인 장기요양 시설 종사자들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시설 종사자의 38.9%는 정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고, 6.3%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응답자의 44.6%가 잘 모른다고 답했고, 26%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말기 암 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식은 서비스 이용률 저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민간 차원에서는 일찍이 도입됐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 법제화 이후 지난해 7월에야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됐다.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64곳, 1053병상인데 이는 2015년까지 2500병상을 확보한다던 애초 계획에 한참 뒤떨어진 수치다. 정부는 가정호스피스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br/><br/>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299.txt

제목: 야경 속으로 뛰어드는 ‘밤바리’의 쾌감  
날짜: 2016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4094131201  
본문: “<span class='quot0'>북한산 간다더니, 북한에 있는 산 가는 줄 알았잖아요.</span>” <br/><br/> 누군가의 웃음 섞인 푸념이 흘러나왔다. 지난달 크리스마스이브 날 새벽 1시, 바이크를 탄 친구들 8명은 어쩌다 보니 북한을 향해 달리고 달렸다. 원래 서울 시내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타고 팔각정에 들러 야경을 본 뒤 내려와 다시 북한산 쪽으로 난 도로를 향해 달리자는 두루뭉술한 계획이 있을 뿐이었다. 북한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싶었는데 몇 번의 좌회전을 거치니 곧 도로 이정표에는 ‘통일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고양·일산·파주 방향이라는 표시가 나왔다. ‘파주… 그 옆에 문산… 개성으로 통하는 육로….’ 재미있는 상상은 주행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러다 진짜로 북한 코앞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번졌다. 무리를 이끌고 선두에서 달리던 ‘묻지마 바이크 주행 가이드’ 친구는 크리스마스를 북한에서 맞이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다행히 추위와 체력의 한계 등을 호소하는 친구들의 제지에 새벽 3시께 각자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떠난 ‘묻지마 밤바리’는 이렇게 끝났다.<br/><br/> 밤.바.리! 친구들이 찬양해 마지않던 밤 나들이를 바이크를 본격적으로 탄 지 한달 만에야 실행에 옮겼다. ‘밤바리’는 라이더들이 쓰는 용어인데, 밤에 바이크를 타고 나들이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어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바리’의 뜻 중에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이 있다. 오늘날에 와서 경운기나 오토바이에 잔뜩 실은 짐 역시 ‘바리’라 일컫기도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 유래한 것 아니냐는 추측 정도만 있을 뿐이다.<br/><br/> ‘밤바리’라 이름짓고 떠난 서울 시내 및 근교 라이딩은 또다른 묘미가 있더랬다. 묻지마 밤바리 전날 난생처음으로 팔각정을 반환점으로 하는 밤바리를 감행했다. 북악산 위 팔각정 아래 풍경은 자동차로 가던 때와 당연히 다르지 않다. 한강도 제자리에, 남산도 제자리에, 동대문의 쇼핑센터들도 제자리에…, 모두들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달라질 리 없는 풍경이다. 다만, 시속 30~40㎞의 속도를 내는 바이크로 살살(시속 40㎞가 제한속도다) 즈려밟고 오르내린 북악스카이웨이 아래의 풍경을 마주한 느낌은 크게 다르다. 멋진 풍경을 담은 그림을 구경하는 것과 그 그림 속 멋진 풍경 안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것 정도의 차이랄까. 그림 같은 풍경 속에 폭 뛰어든 느낌이다. 밤바리 때 ‘야경’은 ‘보는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야경이 펼쳐진 곳의 공기를 (미세먼지로 괴로울 때도 있지만) 맡고, 바람을 (추위로 괴로울 때도 있지만) 맞는다. 도로 아래 다닥다닥 붙은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빛들은 하늘 위 별만큼이나 예쁘다. 땅 위의 별무리 사이를 가르며 달리는 즐거움에 짜릿하다.<br/><br/> 크리스마스이브 날 ‘묻지마 밤바리’ 가이드는 조금 더 내달리지 못해 아쉬웠던지 “조금 더 달리면 기가 막힌 국도가 있는데…”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추위와 졸음을 이겨내느라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던 중에도 그 ‘기가 막힌 길’이 너무 궁금했다. 몸을 녹이려 들렀다가 그날 밤바리의 반환점이 된 편의점 사장님의 한마디는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 왕년에 바이크 좀 타셨다는 사장님은 “조금만 더 가면 길이 차~암 괜찮은데. 나 ‘오도바이’ 탈 적엔 그쪽으로 새 차 엔진 길들이기 한다고 왔다 갔다 했지”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체력의 한계에 굴복했지만, 그 길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하다. 아마 ‘바이크로 가보지 못한 모든 길이 궁금하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당장엔 좀더 다양한 밤바리 코스를 짜봐야겠다. <br/><br/>바이크에 빠진 MOLA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0.txt

제목: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살자  
날짜: 2016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20103554239  
본문: 새해가 되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각종 계획을 세우곤 하나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금연, 운동, 비만 퇴치 등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건강증진정책을 개발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새해 지키면 좋을 세가지 건강 목표-금연, 운동, 다이어트-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글을 받아 싣는다.<br/><br/><br/><br/>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원하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과 함께 생각했던 금연 결심은 이미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의 유혹에 넘어가 새해에 또다시 금연 결심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은은한 담배 향과 한 모금에 담긴 긴 한숨에 굴복해 해마다 단골 결심인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는 왜 자꾸 실패하는 것일까? 금연은 ‘한번 해보자’는 막연한 생각으로 도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목표는 한가지이지만 방해하는 요인은 수십가지여서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016년 새해에는 속는 셈 치고 다시 도전해보자. 칠전팔기라 하지 않았는가?<br/><br/><br/><br/>스스로 금연 성공, 결심자의 3% <br/>담배는 중독이라는 사실 깨달아야 <br/>금연치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br/><br/><br/><br/> ■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개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금연 캠페인은 충격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일부 흡연자들은 당장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또는 흡연이 ‘개인의 선택권’이란 이유로 이런 광고를 반대하고 있다. 또는 ‘국가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느냐’는 논리나 ‘왜 흡연자들을 죄인 취급 하느냐’는 반론으로 스스로의 건강과 간접흡연의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담배 판매인들은 심지어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이나 폐암이 발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금연 캠페인 광고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br/><br/>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69종의 발암물질과 7000여종의 유해물질은 암, 심장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금연의 길로 들어서기 어려워하거나 금연을 결심했다가 실패하는 자신에게 의지박약이란 이름을 부여하지 말자.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니코틴 중독’이란 굴레를 벗어나 일상을 살아갈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 캠페인 슬로건에 쓰였던 말처럼 셀프(Self) 하지 말고, 헬프(Help)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혼자 하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br/><br/> ■ 니코틴 중독 테스트부터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필요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자신이 얼마나 담배에 의지하고 있는지 ‘니코틴 중독 테스트’로 파악해보자. 자신의 상태를 파악했다면 이제 결심하는 일만 남았다. 중독성 때문에 끊기 어렵다는 이유로 흡연량을 줄이기로 결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담배는 줄이는 ‘절연’이 아니라 한번에 끊는 ‘금연’이 바른 방법이기 때문이다.<br/><br/> 이제 금연 결심이 섰다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금연일을 정하고, 니코틴 의존도의 단계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결심을 다지고 자신을 믿어보자. 날짜를 정했다면 담배와 재떨이, 라이터 등 흡연 관련 물품을 버리고 주위 사람에게 널리 알려 응원도 받고 금연 성공을 위한 지지자로 삼자. 또 금연에 성공하면 자신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 행동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아서 언제든지 당장 즐거운 것에 넘어가기 쉽다. 금연을 유지하면 ‘아낀 담뱃값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오겠다’ 등 단기적인 보상을 하나씩 정하는 것이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보상을 배우자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이 해주면 더 좋다.<br/><br/> ■ 셀프 하지 말고 헬프 받자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경우 혼자 힘으로 담배를 끊는 것이 가능하지만 금연할 가능성은 겨우 3% 정도에 그친다. 그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바로 금연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전문가에게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이 50% 이상 높아진다. 왜냐하면 흡연자들은 ‘니코틴’이란 물질에 의존적이다. 다시 말하면 담배에 ‘중독’돼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금연 결심을 하고도 자꾸 결심이 흔들리고 금단증상이 발생해 금연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온다. 이때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금연 치료를 하는 병·의원, 지역금연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면 좋다.<br/><br/> 또 금연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용할 만하다. 우선 가까운 동네 보건소에는 전국 어디에나 금연클리닉이 있다.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단계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고 성공하면 금연 성공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금연 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에서도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 기간은 8~12주이며, 올해부터 3회 이상 방문 때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참여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중증 흡연자라면 지역 금연지원센터에서 좀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서 지정한 전국 18개 지역별 금연지원센터에서는 1박2일 또는 4박5일 금연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금연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건강보험 하위 20%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금연을 위한 진찰 상담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금연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여성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br/><br/>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정책연구부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1.txt

제목: 9분58초짜리 대작 ‘★’ 남기고 ★로 떠난 데이비드 보위  
날짜: 20160111  
기자: 구둘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1194201456  
본문: “<span class='quot0'>그는 여러 번 죽은 뒤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다.</span>” 미국 음악비평지 <피치포크>는 데이비드 보위의 25번째 앨범 <★>(‘블랙스타’라고 읽음) 앨범에 대한 평을 이렇게 시작한다. 보위가 지난 8일 자신의 69번째 생일에 내놓은 이 앨범이 유작이 되었다. 11일 오전 6시20분(현지시각) 보위의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span class='quot1'>1월10일 데이비드 보위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18개월간의 암 투병 끝에 평화롭게 죽었다</span>”고 공식 발표했다. <br/><br/> 지난 10여년간 일체의 인터뷰도 하지 않고 2006년 이후에는 공연도 하지 않고 있지만, 보위는 최근 어느 때보다도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절정이 지난 8일 나온 앨범 <★>였다. 영국 음악비평지 <롤링스톤>은 “70년대 이후 최고의 앨범”, <피치포크>는 “신화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라고 상찬했다. <br/><br/><br/><br/>8일 69살 생일에 ‘블랙스타’ 발표 <br/>앨범 낸 이틀 뒤 암투병끝 떠나 <br/>“70년대 이후 최고 앨범” 잇단 호평 <br/>글램록 창시…‘위대한 영국인 29위’ <br/>캐머런 총리 “커다란 손실” 추모<br/><br/><br/><br/> 타이틀곡 ‘★’는 지난해 11월27일 싱글로 나오면서 앨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린 바 있다. 9분58초짜리 대작이다. 애초 11분인 곡을 아이튠즈의 원칙에 따라 10분 미만으로 조정했다. ‘★’ 뮤직비디오는 여러 기괴한 이미지들이 나오는 초현실영화 같다. 보위가 제안했다는 꼬리 달린 여인 외에도 우주에서 죽은 비행사의 해골, 하늘에서 흔들리는 세 개의 허수아비 등이 곡의 몽환적인 느낌을 이미지로 강화한다. 보위는 단추 눈을 한 장님 예언자로 나온다. <br/><br/> ‘★’는 앨범 전체가 ‘재지’해졌다. ‘티스 어 피티 시 워즈 어 호어’(Tis A Pity She Was A Whore)나 ‘슈’(Sue)는 재즈 쿼텟인 도니 매캐슬린 밴드와 함께했던 2014년 편집앨범의 곡을 다시 녹음했다. ‘아이 캔트 기브 에브리싱 어웨이’에 재즈 기타리스트 벤 몬더가 참여했고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가 빅밴드 사운드를 들려준다.<br/><br/>심장 수술을 받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앨범에 참여한 누구도 그의 건강을 의심하지 않았다.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매캐슬린 밴드의 마크 줄리아나는 “<span class='quot2'>때때로 일곱 시간씩 지속되는 녹음을 했고 그동안 내내 보위가 목청껏 노래했다</span>”고 회상했다. <br/><br/> 일부 팬들은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다른 별에서의 생’과 ‘부활’을 연결짓기도 한다. 그의 그간의 행적과 연관된 반응이라 하겠다. 1969년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노래 ‘스페이스 오디티’(Space oddity)로 스타덤에 오른 보위는 1970년대 ‘글램록’을 창시하며 시대를 풍미했다. 1972년 <지기 스타더스트>(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Spiders from Mars) 콘셉트 앨범을 발표하면서 ‘스파이더스 프롬 마스’(Spiders From Mars) 밴드를 이끌고 기이한 화장과 복장으로 무대에 섰으며, 1973년 마지막 무대에서 ‘지기 스타더스트’를 영원히 매장하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br/><br/> 지난해 보위는 앨범에 실리기도 한 ‘래저러스’(나자로)가 삽입된 동명의 뮤지컬 각본에 참여하기도 했다. <래저러스>는 1976년 보위가 주연을 맡은 영화 <더 맨 후 펠 투 어스>(The Man Who Fell to Earth)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뉴욕씨어터에서 막을 올린 뮤지컬은 1월20일까지 대부분 회차에서 매진을 기록했다. ‘나자로’는 죽은 지 나흘 뒤 예수에 의해 부활한 성경 속 인물이다. <br/><br/> 보위는 2002년 영국 <비비시>가 선정한 100명의 위대한 영국인 중 29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2004년 <롤링스톤>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에서는 39번째에 위치했다. 1996년에는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앨범은 세계적으로 1억장이 팔렸으리라고 추산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난 팝의 천재인 데이비드 보위를 듣고 보면서 자랐다. 그는 재창조의 마스터로 (그의 죽음은) 커다란 손실이다”라고 추모했다.<br/><br/>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2.txt

제목: 한번 주사로 하루만에 ‘2가지 암’ 동시 진단  
날짜: 20160111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1194154851  
본문: 한·미 공동연구진이 한번의 주사로 유방암과 대장암 2가지 암을 단시간에 동시 진단할 수 있는 나노캡슐을 개발했다.<br/><b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지원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11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및 예일대 공동연구팀과 함께 특정 빛을 받으면 형광을 내는 특수 물질에 암세포를 탐지하는 탐침을 붙여 만든 암 진단용 나노캡슐을 생체에 집어넣어 2가지 암을 24시간 안에 동시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동물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권오석 생명연 전임연구원과 송현석 기초지원연 선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나노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에이시에스 나노>(ACS Nano) 7일치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 일반적인 형광물질은 받은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의 빛을 내는데, 연구팀은 받은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나노사이즈로 만든 뒤 유리계열의 실리카로 감싸 인체에 무해한 캡슐을 만들었다. 이 유기물질은 구조에 따라 녹색과 파란색 두 가지 빛을 낸다. 두 종류의 캡슐에는 각각 유방암과 대장암을 찾아내는 항체 펩타이드를 붙였다. 연구팀이 유방암과 대장암에 걸린 실험쥐 꼬리에 주사로 이 나노캡슐을 주입하자 1시간 만에 캡슐들이 암세포 주변에 몰려들었다. 긴 파장의 붉은색 레이저(낮은 에너지)를 쬐면서 특수 필터 안경을 쓰고 보니 나노캡슐에서 파란색(유방암)과 녹색(대장암)의 빛이 나오는 것이 관찰됐다. 붉은색 레이저를 쬐면 장기 깊숙이 도달하면서도 전달하는 에너지가 적어 피부 손상 등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br/><br/> 권오석 전임연구원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기존 암진단 장비는 전문가가 촬영 화면을 해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나노캡슐 방식은 암의 존재 여부를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노캡슐 표면에 그래핀으로 감싼 치료제를 부착한 뒤 암세포가 발견되면 적외선을 쬐어 그래핀을 녹여 치료제를 방출하는 새로운 진단·치료 기술(테라그노시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b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3.txt

제목: 한번 주사로 2가지 암 24시간내 진단 나노캡슐 개발  
날짜: 20160111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1150804315  
본문: 한·미 공동연구진이 한번의 주사로 2가지 암을 단시간에 동시 진단할 수 있는 나노캡슐을 개발했다.<br/><b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지원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11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및 예일대 공동연구팀과 함께 특정 빛을 받으면 형광을 내는 특수 물질에 암 세포를 탐지하는 탐침을 붙여 만든 암 진단용 나노캡슐을 생체에 집어넣어 2가지 암을 24시간 안에 동시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동물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권오석 생명연 전임연구원과 송현석 기초지원연 선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나노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에이시에스 나노>(ACS Nano) 7일치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 일반적인 형광물질은 받은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의 빛을 내는데, 연구팀은 받은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나노사이즈로 만든 뒤 유리계열의 실리카로 감싸 인체에 무해한 캡슐을 만들었다. 이 유기물질은 구조에 따라 녹색과 파란색 두가지 빛을 낸다. 두 종류의 캡슐에는 각각 유방암과 대장암을 찾아내는 항체 펩타이드를 붙였다. 연구팀이 유방암과 대장암이 걸린 실험쥐 꼬리에 주사로 이 나노캡슐을 주입하자 1시간 만에 캡슐들이 암세포 주변에 몰려들었다. 긴 파장의 붉은색 레이저(낮은 에너지)를 쬐면서 특수 필터 안경을 쓰고 보니 나노캡슐에서 파란색(유방암)과 녹색(대장암)의 빛이 나오는 것이 관찰됐다. 붉은색 레이저를 쬐면 장기 깊숙이 도달하면서도 전달하는 에너지가 적어 피부 손상 등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br/><br/> 권오석 전임연구원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기존 암진단 장비는 이 걸리는 데 비해 나노캡전문가가 촬영 화면을 해독하는 데 상당한 시간슐 방식은 암의 존재 여부를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노캡슐 표면에 그래핀으로 감싼 치료제를 부착한 뒤 암세포가 발견되면 적외선을 쬐어 그래핀을 녹여 치료제를 방출하는 새로운 진단·치료 기술(테라그노시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4.txt

제목: 지금도 송전탑·송전선로 이렇게 많은데 “또 철탑 짓겠다니…”  
날짜: 20160110  
기자: 송인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11105729611  
본문: “흐리면 짜랑짜랑하다 비 오면 찌릉찌릉하쥬. 비바람이라도 불면 우어엉우어엉 황소개구리 우는 소리를 하는디 정말 겁나유.”<br/><br/> 지난 6일 오후 충남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 양지말에서 만난 안장환(70)씨는 송전선로가 무섭다고 했다. 이 마을은 74가구 170여명이 사는 농촌이다. 1㎞ 남짓한 정미로를 따라 크고 작은 송전철탑이 16개나 줄지어 서 있다.<br/><br/> 1997년 신당진변전소가 들어선 뒤 사관리 마을 하늘은 거미줄처럼 고압전선이 얽혔다. 당시만 해도 국가사업이고, 철탑 부지를 보상받아 별말이 없었다. 정미면은 107개의 철탑이 세워지고 송전선로 7개가 개통돼 전기가 사통팔달하는 교차로가 됐다.<br/><br/><br/><br/>흐리면 짜랑짜랑·비오면 찌릉찌릉 <br/>비바람 불 땐 우어엉우어엉… <br/>“<span class='quot0'>이젠 소리만 들어도 정말 겁나유</span>”<br/><br/><br/><br/>송전탑 200m 17가구 6명 암 등 질환 <br/>당진에 변전소 6개 철탑은 526개<br/><br/><br/><br/>시민들 “정부, 20년간 우리 속였다” <br/>경기도 구간은 지중화에 배신감 <br/>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br/>한전 “업무방해”…21일 법정다툼<br/><br/><br/><br/> 주민들이 하나, 둘 쓰러졌다. 최상국(69·사관리)씨는 “송전탑 200m 안 17가구 가운데 기중씨, 성익이 모친, 치호 할머니, 종숙씨, 응돈씨, 건묵씨 등 6명이 암 등에 걸렸다”고 말했다. 이원석(57) 정미면 개발위원장은 “사관리와 신시리에서만 42명이 암 등 중병으로 숨지거나 병을 앓고 있고, 철탑 아래 선하지와 주변의 땅은 평당 2만~3만원에도 안 팔린다. 철탑이 들어온 뒤 건강 잃고 재산도 잃었다”고 한탄했다.<br/><br/> 서울대 안준복 교수팀이 1999~2003년 전국 154㎸ 및 345㎸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암 환자에 대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송전선로 인근 지역은 그 외 지역보다 위암은 1.2~1.3배, 간암은 1.3~1.6배 발병률이 높았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사관리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최고 22mG(밀리가우스)로 나타났다. 스웨덴 2mG, 네덜란드 4mG, 스위스 10mG 등 다른 나라 권고 기준을 2~10배 웃도는 수치다. 우리나라 권고 기준은 833mG나 된다. 충남연구원은 2013년 충남지역 송전선로 선하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된 땅)와 잔여지(토지수용으로 일부 남은 땅)의 땅값을 조사해 최소 389억원의 피해가 있다고 추산했다.<br/><br/> ■ 변환소 건축허가 공방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1일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를 반려한 행정조처가 정당한지 가리는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br/><br/> 당진시가 허가를 반려한 이유는 송전철탑 신설을 막기 위해서다. 변환소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는 시설이다. 시는 한전의 변환소 예정지가 변전소 부지여서 사실상 변전소 건설로 판단했다. 변전소는 전기를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가지치기 시설이므로 새로운 송전선로가 필요해 철탑 신설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br/><br/> 소송을 낸 한전은 법적 조건을 갖췄고 지역주민과 합의했으며, 국가사업이므로 당진시가 반려한 것은 행정을 잘못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현재 신당진변전소~현대제철~북당진변환소 구간에 345㎸ 송전선로가 있어 새 송전선로를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진화력~북당진변환소 구간의 예비 송전선로 계획은 천재지변 등으로 당진화력~신서산변전소~신안성변전소 송전선이 끊기면 수도권에 심각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현재 당진에는 변전소 6개와 총길이 189㎞의 송전선로 15개, 철탑 526개가 있다.<br/><br/> ■ 약속 안 지켜 불신 자초 당진시의 반려 조처에는 시민들의 불신이 숨어 있다. 그동안 국가사업이라며 정보를 속이거나 숨기고, 반대하면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워 강제집행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원석 위원장은 “신당진변전소 공사 당시 땅주인 1명이 끝까지 반대했는데 한전은 땅값을 공탁 걸고 공사를 강행했다. 철탑도 꼭 필지 경계지점을 입지로 정한 뒤 협조적인 지주의 땅에 세우고 보상하는 수법을 써서 반대하던 땅주인들이 골탕 먹는 일이 잦았다”고 귀띔했다. 당진화력도 애초 정부와 한전은 6호기까지만 짓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10호기까지 증설했다.<br/><br/> 류종준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1'>20여년간 당하다 보니 시민들은 정부가 앞으로 석문간척지에 발전소를 더 짓고 변환소는 변전소, 예비선로는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로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span>”고 전했다. <br/><br/> 특히 한전이 당진화력~북당진변환소(34㎞)는 철탑, 변환소~경기도(33㎞) 구간은 지중화 방식으로 송전하기로 하자 “수도권 시민만 사람이냐”며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이장단협의회·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당진지역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면을 보내 △송전선로 추가 건설 백지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겠다는 약속 △일방적인 전원개발촉진법,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송주법), 전기사업법 개정 △한전의 당진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br/><br/> 이광진 대전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위원은 “국가사업은 주민·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r/><br/>당진/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5.txt

제목: “삶의 마지막에 떠오른 모든 생각이 고마운 생각이길”  
날짜: 20160107  
기자: 강희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8102609510  
본문: 온 더 무브 <br/>올리버 색스 지음, 이민아 옮김 <br/>알마·2만2000원<br/><br/>역시 그는 자화자찬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br/><br/>거의 틀림없이, 노벨의학상을 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저명한 의사였던 올리버 색스(1933~2015)는 암으로 작고하기 4개월 전인 지난해 4월 이런 고해까지를 담은 두툼한 자서전을 냈다.<br/><br/>“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UCLA의 환자들에게 헌신했다. 그러나 모터사이클을 타지 않는 주말이면 가상 여행(대마초나 나팔꽃씨나 LSD로 떠나는 마약 여행)에 몰두했다. (…) 어느 날 한 친구가 ‘특별한’ 대마초라면서 한 대 주었다. 보통 대마초로는 절대 느끼지 못할 효과였다. 오르가슴에 가까운 너무나 강렬하고 음탕한 기분 말이다. (…) 내가 아는 것은 그날 밤 암페타민을 흠뻑 적신 대마초 한 대로 앞으로 4년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뿐이다.”<br/><br/>친구인 시인 톰 건의 시 ‘온 더 무브’에서 제목을 따온 이 책에서 그는 어쩌면 평범한 의사일 수 있었던 자신이 왜, 어떻게 작가의 길로 이끌리게 되었는지를 정담을 나누듯 털어놓는다. 비탄에 잠기거나 절망에 빠질 법한 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그는 자신의 ‘몽블랑’을 가볍고 유쾌하게 움직여 진솔하면서도 온기로 가득한 회고록을 완성해냈다. 거기엔 자신이 이룬 직업적·지적 성취만이 아니라 마약 투약의 경험과 동성애 편력, 직업적 오판과 치명적 실수 같은, 은글슬쩍 가리고 싶었을 기억까지도 재현돼 있다.<br/><br/><br/><br/>‘주중 의사-주말 마약중독자’라는 ‘이중생활’은 애초 남자 파트너와 헤어진 뒤 보상 차원에서 시작한 일탈이었지만, 뜻밖에 창조적 다짐으로 귀결된다. “1967년 2월에 한 번 더 약에 취해 조증 상태가 되었다. 이번의 황홀경은 창조적인 쪽으로 향해,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었다. 편두통에 관한 제대로 된 책을 쓰고 어쩌면 그 다음으로 다른 책들도 써보자고.” 그길로 그는 암페타민을 끊었다. 올리버 색스라는 작가의 이름을 최초로 알린 저작 <편두통>(1970)은 이런 곡절 끝에 세상에 나왔다.<br/><br/>부모, 삼촌, 형에다 사촌 셋까지가 의사인 집안에서 자라 옥스퍼드 의대를 나온 그는 그냥 의사의 길을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군에 징집되길 원치 않은데다 영국 특유의 계급적 완고함 혹은 불통에 거부감을 가졌던 터라 캐나다를 거쳐 좀 더 자유로워 보이는 미국으로 향한다. 거기서 모터사이클에 심취한 레지던트로, 역도에 매료된 신경과 의사로 지내는 동안 그는 기존 이론으로는 진단도 처방도 어려운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마약에 빠져 든 것도 이 무렵이다. “<span class='quot0'>나는 직업이 신경의라는 이유로 모든 종류의 뇌 상태, 정신 상태에 관심이 있지만 무엇보다 약물이 유발하는 또는 약물로 조절된 뇌와 정신의 상태가 궁금했다.</span>”<br/><br/><br/><br/>그리고 서른 다섯이 되던 1968년, 자신의 인생행로를 바꿔놓을 한 권의 책과 운명적으로 만난다. 소련의 신경심리학자 루리야(1902~1977)의 저작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를 읽은 것이다. “(루리야의 책은) 내가 읽어본 어떤 것보다 심오하고 상세한 병례사(病例史)였다. (…) 이 저서는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어 내가 쓴 모든 책의 원형이 되었다.” 의대생이던 10년 전 런던 강연에서 “경이로운 관찰력과 이론적 깊이에 인간적 온기까지 한 데 결합된 계시와도 같은 경험을 주었던” 그 루리야였다.<br/><br/>그러나 색스를 만든 것은 결국 색스 자신이었다. 수많은 의사들이 그저 난치병의 하나로 보아 넘겼을 뇌염후증후군(수면증) 환자들의 증상과 살아남기 위한 분투를 그는 <깨어남>―훗날 <사랑의 기적>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의 영화로 국내에도 소개된―에 썼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통해서는 의미가 제거된 지각 또는 착각 증상을 앓는 실인증 환자들의 실상을 알렸다. 대다수 의사들은 침묵으로 질시를 표현했지만, 세상은 그런 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br/><br/>“나는 내가 다룬 병례들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았다. 다만 이례적인 중증 사례를 기술함으로써 신경계 이상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다. 더불어 뇌의 구조와 작용에서 중대한 측면, 어쩌면 뜻밖의 측면이 뚜렷이 밝혀지기를 희망했다.”<br/><br/>색스에게 ‘의학계의 계관시인’이라는 상찬을 안겨준 저작들은 뛰어난 필력 못지 않게 예민한 관찰과 철저한 기록의 소산이기도 했다. 열 네살 이후 1000여권의 일기를 쓴 색스는 그만한 분량의 임상일지도 별도로 갖고 있었다. 그는 아무 곳에서나, 심지어 달리는 트럭 위에서도 생각이 떠오르면 끄적이는 메모광이었다. 또한 그는 착상의 여유와 몸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수영을 평생 좋아했고, 모차르트의 <미사 C단조>와 <레퀴엠>을 듣고 또 들었으며, 생의 마지막까지 손에 들려 있던 몽블랑을 사랑했고, 관절이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할 때까지 피아노를 쳤다.<br/><br/>색스는 열 세번째 저작인 이 책에서 “나 자신의 전기에세이집을 쓰고 싶다”고 했던 열 여덟, 대학 1학년 때의 그 푸릇한 생각을 여든 한살에 비로소 실천에 옮겼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팔십 평생 ‘온 더 무브’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의 헌사를 건네고 있다. 늘 되뇌곤 했던 “삶의 마지막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고마운 생각이게 하라”는 위스턴 휴 오든의 시구처럼.<br/><br/>아흔이 넘어서도 왕진을 다녔던 아버지, 왼손 몰래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했던 어머니는 삶과 직업적 소명뿐 아니라 이야기꾼의 자질도 물려줬다. 늘 ‘열렬하게’ 그의 편이 되어준 레니 이모, 수줍은 완벽주의자 색스가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며 출판을 주저할 때 결단으로 길을 열어준 편집자 콜린 헤이크래프트, 대학 때 만난 평생지기 에릭 콘과 조너선 밀러,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톰 건, 이 자서전을 바친 ‘마지막 사랑’ 빌리 헤이스 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색스가 있을 수 있을까.<br/><br/>그는 암 발병 사실을 알린 지난해 2월19일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도 이렇게 적었다. “두렵지 않다고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나는 사랑했고 또 사랑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고, 일부는 되돌려주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의식 있는 존재, 생각하는 동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내게는 크나 큰 특권이자 모험이었습니다.”<br/><br/>그가 세상을 뜬 뒤에 나온 열 네번째 책의 제목 또한 <그래티튜드>(Gratitude), 감사였다.<br/><br/>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6.txt

제목: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화천 산천어 기생충 없어요”  
날짜: 20160106  
기자: 박수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6212446107  
본문: 세계 4대 겨울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에 사용될 산천어의 안전성이 확인됐다.<br/><br/>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화천 산천어축제’에 납품될 산천어의 말라카이트그린과 멜라민 검출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또 인체에 유해한 간흡충 등 장내 기생충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br/><br/> 화천 산천어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는 모두 18개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으며, 축제에 앞서 인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br/><br/> 말라카이트그린과 멜라민은 섭취량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간흡충 같은 장내 기생충도 날것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br/><br/> 최금종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납품업체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아 해당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2015년에 이어 올해 축제에 제공되는 산천어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추억이 가득한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 한편, ‘2016 화천 산천어축제’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br/><br/>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7.txt

제목: 위암환자, 남자가 여자의 두배  
날짜: 20160106  
기자: 이창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6200423716  
본문: 우리나라 위암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두배 이상 많고, 남자는 60대에 여자는 7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위암 환자를 수술한 전국 2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암 환자는 남성이 68.7%로 여성 31.3%에 견줘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니 남녀 모두 위암 환자는 50~70대에 많이 걸쳐 있는데, 특히 남성은 60대(31.7%)에, 여성은 70대(24.1%)에 가장 많았다. 위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2013년 기준)이다.<br/><br/> 수술 사망률은 0.88%로 집계됐다. 사망 환자는 △응급 수술 등으로 수술 전 진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한 경우 △암 병기가 4기인 경우 △수술 전 환자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75살 이상 고령인 경우에 발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의 201개 의료기관에서 2014년 7~12월 여섯달 동안 위암 진단을 받고 위절제술과 내시경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수술 건수는 모두 9969건이었다. 이 가운데 75%가 암 병기 1기로 집계돼, 위암이 꽤 조기에 진단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으며, 치료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br/><br/> 심평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자 남성 암 발병률 1위인 위암의 진단과 수술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국내 최초로 평가한 작업의 일환</span>”이라고 말했다. <br/><br/> 한편, 201개 의료기관이 위암에 잘 대처했는지를 따진 평가에서는 서울대병원 등 85곳의 대형병원이 5등급 중 최고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10곳의 종합병원에는 2~5등급이 부여됐다. 심평원은 진단과 수술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적기에 항암 치료를 실시했는지 등 19개 지표를 통해 위암 치료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자신의 주소지 근처에 1등급 병원이 어딘지 알아보려면 7일부터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 접속해 살펴보면 된다. <br/><br/>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8.txt

제목: 오산리 ‘범바위’ 구상편마암 19억년 전 비밀 박힌 ‘꽃돌’  
날짜: 20160105  
기자: 조홍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6093140319  
본문: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왕정마을 한 야산 중턱에 오르면 마치 표범이 산등성이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바위가 있다. 동네 주민들이 ‘꽃돌’이라 부르는 천연기념물 제249호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이다.<br/><br/> 화강암 안에 지름 5~10㎝의 짙은 회색 또는 녹색의 둥근 무늬가 촘촘히 박혀 있다. 이런 암석은 미관상 아름다울뿐더러 세계적으로 워낙 드물어 희소가치가 높다. 게다가 무주 구상편마암은 까마득하고 극적인 형성 기원이 밝혀져 있다.<br/><br/> 오창환 전북대 교수 등의 2013년 <암석학회지> 논문을 보면, 이 암석의 기원은 19억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왕정리 지역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드는 섭입 지역 근처였는데 18억7500만년 전 대륙 충돌이 일어났다. 그 바람에 퇴적암은 땅속 깊이 파묻혀 고온과 고압을 받아 변성암이 됐다.<br/><br/> 대륙 충돌로 벌어진 지각 틈으로 마그마가 침입했다. 마그마가 지표로 나오는 과정에서 왕정리 변성퇴적암 조각을 집어삼켰다. 18억6700만년 전 일이었다. 온도는 약 700도, 압력은 6000기압이었다. 마그마에 뜬 변성퇴적암 조각들이 부분적으로 녹은 상태에서 지표에 올라와 굳었다. 마그마 속에서 암석 조각이 모두 녹았다면 구상암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br/><br/> 오창환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른 구상암이 화성암인 데 견줘 이곳 구상암은 변성암이어서 특별하다</span>”고 말했다. <br/><br/> 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09.txt

제목: [왜냐면] 새해, 림프종 신약 급여혜택 받았으면 / 김순규  
날짜: 2015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28191243382  
본문: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살고 있는 50대 농부입니다. 제 직업이 ‘농부’라고 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소개할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식같이 키우던 소들을 뒤로한 채 폐업신고를 한 지 몇해가 지나고 말 그대로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겠다고 작은 밭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br/><br/> 제가 생계 수단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암 때문입니다. 저는 림프종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외투세포림프종’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투병 기간이 5년이지만 저는 그사이에 암이 세번이나 재발했습니다. <br/><br/> 암 진단을 받고 몇달간 독한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첫 치료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제 몸 안에 다시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절망’이란 단어를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저에게 자주 찾아오더군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서도 재발하여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또다시 이식했지만 결국 올해 다시 림프종이 재발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말에 저는 산에서 한달을 기거하며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 왔습니다. <br/><br/>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려면 계속해서 독한 항암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과 퇴원, 독성 항암치료와 수술을 반복하던 저는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지금 손과 발 저림이 심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구토는 언제부턴가 일상이 되었고 밥도 몇달째 먹지 못하는 등 비참한 투병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한 항암제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져, 항암제뿐 아니라 다른 약들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복용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만큼이나 독성 항암치료가 싫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도 여럿 본 터라, 더 이상은 항암치료를 견뎌낼 몸도 마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br/><br/>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들어준 것일까요? 지난 9월부터 저는 재발한 외투세포림프종에 치료 효과가 있는 임브루비카라는 신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몸 안에는 암 덩어리가 있지만, 빠르게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어 저와 가족은 다시 한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할 수 있을 만큼은 제 신장 기능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br/><br/> 그러나 웬만큼 경제력이 있지 않고서는 신약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신약이 나왔다는 소식은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효과 좋은 신약인데, 언제까지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br/><br/> 신문에는 암 보장성 확대를 위해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애쓴다고 하는데 저희같이 희귀한 암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전혀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선고를 받으며 삶의 끝자락에 내몰린 림프종 환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신약이 보험 급여에 적용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처럼 다른 외투세포림프종 환자들도, 독성 항암제로 몸이 망가지기 전에 하루빨리 이 신약의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디 신약의 급여 소식이 곧 전해져 우리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br/><br/>김순규 강원도 철원군 서면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0.txt

제목: 지난 여름 4대강 녹조 독성 “수돗물 기준 넘길 정도로 강했다”  
날짜: 20151228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28161118618  
본문: 지난 여름 4대강에 확산됐던 녹조의 독성이 수돗물 기준을 넘길 정도로 강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br/><br/> 환경운동연합 등과 지난 8월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낙동강·영산강·금강·한강 등 4대강에서 물을 떠 녹조(남조류)의 독성을 분석한 일본 국립신슈대의 박호동 교수(물질순환학)는 28일 “4대강에서 조사 지점에 따라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의 농도가 최고 400ppb가 넘었다. 이 농도의 물이 수돗물의 원수로 사용되면 정수 시설을 통과한다 해도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기준치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br/><br/>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기능 손상을 일으키고 암 발생 환경을 만드는 조암작용을 하는 독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먹는물 1리터당 1마이크로그램(1ppb)을 허용 기준치로 설정했다. 브라질에서는 혈액투석에 이 독소가 든 물이 사용돼 5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br/><br/> 마이크로시스틴은 90여종이나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아르아르(RR), 마이크로시스틴-엘아르(LR), 마이크로시스틴-와이아르(YR) 등 세가지가 많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 낙동강은 20~400ppb, 영산강 200ppb, 금강 300ppb, 한강 50~400ppb 등 분포의 농도가 조사됐다.<br/><br/> 마이크로시스틴은 활성탄에 의해 잘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수시설과 기술로는 제거율이 99%에 이른다. 하지만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400ppb에 이르면 이론적으로 잔량이 4ppb이나 돼 세계보건기구 기준치 1ppb를 4배나 넘길 가능성 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마이크로시스틴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환경부의 수질 검사 방법은 녹조를 제거하고 남은 용수만 가지고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녹조 세포 안에 있는 독소는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br/><br/> 박호동 교수는 “<span class='quot0'>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에 염소를 사용하면 남조류 세포가 파괴돼 독소가 세포 바깥으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 분석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박 교수 연구팀은 녹조를 채취해 수분을 제거하고 건조시켜 전체 독성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한번의 조사로 녹조의 위험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수치를 상한으로 삼아 녹조 발생 원인과 독성 생산의 상관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정밀하게 조사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br/><b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1.txt

제목: ‘이런 시급’ 6030원…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날짜: 20151227  
기자: 김경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28100915269  
본문: 내년에 여러 금융상품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때 은행이 이전보다 깐깐하게 심사를 한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6030원(하루 8시간 기준 일급 4만8240원)이 적용된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6개 학기 중 1개 학기를 ‘자유 학기’로 선택해 보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 210건을 담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간추려 소개한다. <br/><br/><br/><br/>경제<br/><br/>금융상품 한 계좌에 ‘만능통장’ <br/>저소득층 근로장려금 확대 <br/>예적금·대출 정보 통합 누리집<br/><br/><br/><br/>교육·보육<br/><br/>중 ‘1학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br/>로스쿨 야간과정 첫 신입생 모집 <br/>시간제 보육반 230곳 → 380곳<br/><br/><br/><br/>노동·복지<br/><br/>시급 전년도에 비해 450원 찔끔인상 <br/>‘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3개월로 <br/>간암고위험군 1년에 2번 무료검사<br/><br/><br/><br/> ■ 만능통장 도입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다. 총수익이 200만원 이하일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근로·금융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는 수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9%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가입 뒤 5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청년(15~29살)이거나 급여·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는 계좌 의무유지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근로·사업소득자 외에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다. <br/><br/> ■ 회사 차량 과세 강화 내년부터 ‘무늬만 회사차’를 몰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회사차 인정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회사차 유지 비용이 1000만원이 넘을 땐, 반드시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추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주행거리 가운데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을 따져 세금을 매기거나 덜어주기 때문이다. 다만 유지 비용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을 땐 전액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면 유지 비용의 크기와 상관 없이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반 법인은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체 과세 강화 조처가 적용되고, 일반 개인사업자는 한 해 뒤에 적용된다. <br/><br/> ■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올해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살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단독가구 지급 대상 연령이 50살 이상으로 낮아진다. 나머지 조건은 올해와 동일하다.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총소득이 1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기타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7년부터는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10살 더 내려가 40살이 넘는 단독가구는 부대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br/> ■ 요금 한도 초과 고지 확대 내년 6월부터 휴대전화 음성·문자 메시지도 요금 한도를 넘어서면 에스케이(SK)·엘지(LG)·케이티(KT) 등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한도 초과 고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데이터 서비스가 약정 한도를 넘을 때만 고지를 받는다. 또 저소득층은 내년 1월부터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요금을 감면받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자격이 없는 가구원도 동일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br/><br/> ■ 계좌 이동 서비스 확대 현재 페이인포 누리집(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 이동 신청을 내년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돼 계좌 이동이 더 쉬워진다. 올해 10월 말부터 이동통신비·보험료·카드대금에 대해 출금 계좌 변경이 가능해졌는데, 내년 6월 말부터는 자동납부하는 모든 요금에 대해 출금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자동납부뿐 아니라 자동송금(고객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이체금액·이체주기 등의 이체 조건에 따른 출금)에 대해서도 계좌 변경서비스를 할 수 있다. <br/><br/> ■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 강화 상환 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3000만원 이상을 빌리려면 소득 자료가 있어야 한다. 주택 구입용 신규 대출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신규 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까지만 가능)해야 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대출 한도를 유지하려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수도권은 2월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적용된다.<br/><br/> ■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 관련 협회 누리집에서 일일이 찾아봐야 했던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내년 1월부터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정기예·적금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가 확대된다. 현재 은행권에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내년 1분기 중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br/><br/> ■ 적조 피해 어민과 소음 피해 주민 지원 내년부터 태풍이나 적조 같은 재해 피해나 수산 질병과 유류 오염 등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이 제공된다. 운전자금 용도로 1년에 한해 연 1.8% 금리로 모두 300억원 한도로 지급된다. 또 내년 6월부터 여름철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도 열기 어려운 ‘소음 대책 지역’에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주민도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r/><br/>■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2016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4만8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달라진 최저임금은 상용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시간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정신·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3개월차 미만 수습사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br/><br/>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3개월로 확대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동일자녀 두번째 육아휴직급여(‘아빠의 달’ 육아휴직)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했으나, 2016년 1월부터는 지급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확대된 동일자녀 육아휴직급여는 2016년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만 지급받을 수 있다.<br/><br/> ■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내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중학교 6개 학기 가운데 1개 학기를 ‘자유학기’로 보내게 된다. 교육부는 중학교 전반 세 학기(1학년1학기~2학년1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지난 11월 확정했다. 자유학기는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이 없는 학기로, 국·영·수·사·과 등 교과수업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학기와 달리 진로 탐색이나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체험과 실습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br/><br/>■ 로스쿨 야간과정 첫 신입생 모집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야간 과정을 개설하는 방침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정원 조정 등과 같은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 수업 방식만 변경하는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2017학년도 첫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2009년 개교한 로스쿨은 그동안 주간 과정만 운영돼 왔으나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육부에 ‘로스쿨 진입장벽 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야간 과정 개설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br/><br/>■ 간암 무료검사 1년에 두차례 1월부터 간암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간암고위험군인 ‘40살 이상 비(B)형 또는 시(C형) 간염 보균자’는 1년에 여섯달마다 두차례 무료로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행속도가 빠른 간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처다. 복지부는 내년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자궁경부암의 검진을 시작하는 나이도 현재 30살에서 20살로 낮춘다.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만 12살 이하 어린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br/><br/>■ 시간제 보육반 전국 380곳으로 확대 필요한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기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어린이집 등의 시간제 보육반이 현재 전국 17개 시도 230곳에서 380곳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150개 반이 문을 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급히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해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br/><br/>■ 110번에서도 날씨 서비스 국가권익위원회가 운용하는 정부민원콜센터 110번에서도 날씨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콜센터의 기상정보 및 상담서비스 전화번호 131번과 연계해 서비스된다. 또 날씨가 급변하면 알려주는 기상예보 변경 콜백서비스 지역을 4월부터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관광객에게 휴일에도 국내 기상상황을 제공한다. 지금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영어와 중국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br/><br/>세종/김경락 기자, 김수헌 기자 sp96@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2.txt

제목: “우리는 ‘웃음교’ 중독시키는 열렬 전도사랍니다~♪”  
날짜: 20151224  
기자: 박수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24185949236  
본문: 22일 오전 11시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본관 7층 병동에 어울리지 않는 ‘뽕짝풍’의 노랫소리가 울렸다. 병동 복도를 지나가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노래가 흘러나온 곳을 곁눈질하거나 뭘 하느냐며 묻기도 했다. 흥겨운 노래보다 병원과 더 어울리지 않는 큰 웃음 소리도 새어나온다. <br/><br/>서울대병원의 웃음치료교실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움찔’한다. 환자들이 발을 구르고 박수치고 기합을 넣으며 참을 수 없다는 듯 웃기 때문이다. 마치 종교집단의 부흥회를 방불케한다. 그러다 혀를 쑥 내민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소리 내 웃는 ‘사자 웃음’을 짓다보면 결국 누구나 웃음보가 터지며 분위기에 동화되고 만다.<br/><br/><br/><br/>전문간호사 이임선씨와 수제자 6명 <br/>지난해 10월부터 매주 2회이상 ‘봉사’ <br/>모두 ‘웃음’으로 암 이겨낸 환자 출신<br/><br/>“<span class='quot1'>나도 아파봐서 안다</span>” 가족보다 공감 <br/>우울증에 웃음 잃은 환자들 서로 위로 <br/>“<span class='quot0'>무보수지만 지각 한번 하지 않는 열성</span>”<br/><br/><br/><br/>이날은 외과계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동의 한 회의실에 모여 30분 동안 웃음치료를 받았다. 이임선 웃음치료 전문간호사와를 비롯 모두 7명인 웃음치료봉사단은 이 ‘웃음교’의 열렬한 전도사들이다. 6명의 봉사자들은 모두 암과 싸워 이겨낸 환자들이기도 하다. <br/><br/> 이날 웃음치료 봉사를 한 박종숙(55)씨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환자들과 함께 박장대소를 할 때에도 목소리가 가장 컸다. 그 자신 아직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면서도 봉사에 나선 이유는 분명했다. “<span class='quot0'>웃음으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었다</span>”는 것이다. 박씨는 “맨 처음 우연히 웃음치료를 받으러 갔을 땐 우울해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 그렇게 서너번 더 가면서 점점 웃게되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에 ‘중독’됐다”고 했다. 암 환자가 된 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달고 살았다는 그는 “<span class='quot0'>웃음치료 뒤 수면제도 자연스레 끊게 됐다</span>”고 ‘간증’했다. <br/><br/> 박씨를 비롯한 6명의 환자들이 ‘서당개 풍월’을 쌓아 웃음치료 봉사자로 나선 건 지난해 10월부터다. 번갈아가며 일주일에 2번 이상씩은 병원으로 출근해 다른 환자들한테 웃음치료를 알리며 함께 웃는다. 홀로 바쁘게 웃음치료를 진행하던 이 간호사가 “<span class='quot1'>언젠가 웃음치료봉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span>”고 흘리듯 한 말에, 가장 적극적으로 웃음치료를 받던 이들이 봉사를 하겠다며 먼저 나선 것이다. <br/><br/> 평소 수줍음이 많아 말수가 적은 박씨도 웃음치료교실에선 다른 환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박수를 치며 몸소 ‘꺄르르’ 웃는 모습을 보인다. 30분 수업이 끝나면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그는 “환자들한테 ‘<span class='quot1'>나도 아파봐서 안다</span>’는 공감대는 가족한테도 얻을 수 없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얼마 전 관절수술을 받고 이날 웃음치료에 참여한 환자 김아무개(68)씨는 “처음엔 웃음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따라하다보니 금세 웃음이 났다. 또 한번 와야겠다”고 했다.<br/><br/> 또 다른 봉사자 김경옥(60)씨도 우울증에 시달리던 평범한 암 환자였다. 2011년 11월 건강검진에서 위암 2기를 진단받은 뒤 이듬해 1월 수술로 위 3분의2를 절제했다. 힘든 항암치료를 1년 동안 거치며 그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지다시피했다. 김씨는 “웃음치료를 한 뒤부터 마음도 건강해졌지만 운동이 되니 몸도 가벼워지고 체력이 좋아졌다”며 “환자들끼리 ‘나도 그랬다’고 하면서 서로 껴안고 다독인다. 그렇게 입원하면서 웃음치료를 경험한 분들은 퇴원한 뒤에도 꾸준히 병원에 나와서 웃음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br/><br/> 이 간호사는 “<span class='quot1'>돈도 한푼 드리지 못하는 일인데도, 지금까지 봉사자들이 결석은 물론 지각도 한 번 하지 않으셨다</span>”며 “<span class='quot1'>오히려 천천히 나와달라고 부탁드릴 정도였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한테 저는 건강한 간호사지만 봉사자들과는 동지라는 의식이 있으니 이분들을 보고 더 열심히 참여하는 이들도 많아 봉사자들께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마음을 전했다. <br/><br/>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3.txt

제목: 암 환자 70% 5년 넘게 산다  
날짜: 2015122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23090730097  
본문: 국내 암 환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암 진단 및 치료 뒤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에서는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하면 완치로 판단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암 환자 수도 2년 연속 감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조기발견이 늘고 흡연 감소 등 생활습관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br/><br/>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암 발생률·생존율·유병률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최근 5년 동안(2009~2013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하 5년 생존율)은 69.4%로 나타나 2001~2005년의 53.8%보다 15.6%포인트 높아졌다. 상대 생존율은 같은 나이대의 일반인에 견줘 암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으로, 상대 생존율이 100%이면 일반인과 똑같이 5년 동안 생존했다는 의미다.<br/><br/> 암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로는 검진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기 이전인 초기 단계의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꼽힌다. 또 생존율이 100%인 갑상선암이나 90%가 넘는 유방암 환자가 전체 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br/><br/>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2.5%), 유방암(91.5%), 대장암(75.6%), 위암(73.1%) 순이었다.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은 암 진단 뒤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생존율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높았다. 5년 생존율이 가장 나쁜 암은 췌장암으로 9.4%를 기록했으며, 이어 폐암(23.5%), 담낭암·담도암(29.0%), 간암(31.4%) 순이었다. 2013년 기준 가장 많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으며, 이어 위암(13.4%), 대장암(12.3%), 폐암(10.3%), 유방암(7.7%) 순이었다.<br/><br/> 인구 10만명당 신규 암 환자 수는 2013년 311.6명으로 이전 해의 322.3명보다 11명가량 줄었다. 2011년 이후 2년 연속 암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암 발생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중앙암등록본부는 “<span class='quot0'>암 검진을 통해 아직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발전할 가능성이 큰 양성종양을 미리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흡연율 감소 등 생활습관이 개선됐기 때문</span>”이라고 추정했다. 또 비(B)형 간염 예방접종 대중화로 간암 등의 발생이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4.txt

제목: 암살과 베테랑, 내부자들 ‘응징’에 뜨겁게 응답했다  
날짜: 20151220  
기자: 안창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21082851291  
본문: “<span class='quot0'>복수극으로 가자고, 화끈하게.</span>”(영화 <내부자들>의 대사)<br/><br/> 2015년, 우리 영화관에 복수와 응징, 정의 실현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영화 <암살><베테랑><내부자들>등이 대중적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이들 상업영화에 대중이 호응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br/><br/><br/><br/>기득권 형성·유지 구조 파헤쳐 <br/>현실에선 힘든 정의실현에 열광<br/><br/><br/><br/> 현재 상영중인 <내부자들>(감독 우민호)은 개봉 30일째인 18일까지 628만8639명의 관객을 모으며, 올해 흥행 순위 3위에 올랐다. 19살 미만 관람불가 영화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서로 상극인 정치깡패와 검사가 손을 잡고 거대한 불의에 맞서 사회정의를 회복한다는 내용이다. 지난여름 극장가에선 <암살>(감독 최동훈)이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투쟁과 득세한 친일파에 대한 응징을 그려내 1000만 관객 고지를 밟았고, <베테랑>(감독 류승완)에선 한 형사가 안하무인인 재벌 3세를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격투 끝에 붙잡으면서 역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br/><br/> 이들 영화는 시대적 배경과 인물 설정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예전에도 <부당거래><도가니><변호인>등 ‘사회적 발언’으로 여겨지는 영화는 많았지만, 올해는 유난히 많이 개봉됐고 차례로 흥행에 성공했다. ‘한국형 사회비판 장르’가 생겼다고 말할 정도다.<br/><br/> 영화는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문제들을 각각 상징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린다. <베테랑>이 요즘은 손자(3세)한테까지 세습되고 있는 재벌 체제를, <내부자들>은 재벌과 유력 정치인, 거대 보수언론 등 정·경·언 유착의 구조를 파헤친다. <암살>도 친일 잔재 청산 실패 문제를 다룬다. 기득권층이 친일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재벌 체제 속에서 부를 축적한 뒤, 정치인과 언론으로 강력한 보호막을 완성한 우리 현실을 반영한다.<br/><br/> 특히 재벌이 ‘악인’으로 스크린 중앙에 자리잡은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으로 동시대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까지는 특정 정치인(<26년>, 드라마 <추적자>)이나 부패한 검사(<부당거래>), 공안기관(<변호인>) 등이 악인으로 등장했으나, 이제는 재벌이 주요 악역이 됐다.<br/><br/> 이는 ‘맷값 폭행’과 ‘땅콩 회항’ 등에서 드러난 재벌의 오만한 행태가 사회적 공분을 쌓아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쪽에선 정리해고의 칼바람과 비정규직의 설움이 넘쳐나는데 반대쪽에선 갓난아이에게 수십억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행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졌다.<br/><br/> 재벌의 세습 행태는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베테랑>은 그냥 재벌이 아니라 ‘재벌 3세’(유아인)의 오만함에 카메라를 들이댔다.<br/><br/> 심보선 경희사이버대 교수(문화예술경영학과)는 “<span class='quot1'>명퇴와 정리해고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어린 재벌 3세한테 굽실거리는 대기업 직원들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span>”라고 말했다.<br/><br/> 사회학자들은 이 대목을 ‘중산층 붕괴 현상’과 연결해 해석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81%)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이는 2013년 같은 조사(75.2%)보다 5.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30대 젊은층과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비관적이었다고 한다.<br/><br/> 이쪽은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인데, 저기 반대편에선 재벌들이 대물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 다수 구성원의 생각이다. <내부자들>에 나오는 “잘하든가 아니면 잘 태어나든가”라는 대사에 많은 이들이 주목한 이유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span class='quot2'>최근 몇년 사이 한국 사회가 중산층 붕괴와 함께 양극화하면서 신분 또는 계급 사이의 벽이 높아지고 있음을 영화는 지진계처럼 민감하게 포착한 것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 <br/><br/> ‘저런 놈은 당해야 돼’…잠시나마 후련했다<br/><br/><암살>, <베테랑>, <내부자들>등 올 한해 크게 흥행한 이른바 ‘사회비판 영화’들은 모두 상업영화이다. 대형 영화제작사들이 티켓 파워가 있는 인기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만들었다. 세 작품 모두 재벌과 부패 정치인 등 대중의 불만이 맺혀 있는 지점을 잘 포착했고, 이를 속시원하게 응징함으로써 크게 흥행했다.<br/><br/><br/><br/>암살·베테랑·내부자들<br/><br/>기득권부패 현실직시, 통쾌한 응징 <br/>분노의 상품화 지적 있지만 <br/>사람들 체념에서 건져내는 효과도<br/><br/><br/><br/>‘장그래’와 ‘이수인’의 현실<br/><br/>노동자 권리찾기 등 방법 제시 <br/>응징영화가 생략한 ‘현실적 길찾기’<br/><br/><br/><br/> ■ ‘안전밸브’인가, ‘군불’인가 이들 사회비판 영화들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담아냈지만, 결말은 ‘비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암살>은 뒷골목 저격으로 친일파를 응징하고, <베테랑>은 주부도박단 단속을 위장해 마약파티 현장을 덮친다. <내부자들>은 더 많은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문란한 섹스파티의 동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쓴다. 이런 결말에 대해 영화 <베테랑>에선 “판 뒤집혔다”고 말한다.<br/><br/> 사회학자들은 이 영화들이 현실은 잘 보여줬지만, 해법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영화 속에서 문제 해결은 모두 개인 영웅의 특별한 용기와 비상한 행동으로 가능했고, 시민들은 관객으로서 구경만 하면 된다. 이 영화들을 ‘정의 판타지’라고도 부르는 이유다.<br/><br/> 영화 자본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도가니>(2011)에 이어 <레 미제라블>(2012), <변호인>(2013) 등이 흥행하는 것을 보면서, 대형 영화제작사들이 일제히 사회비판 영화 제작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형마트 노동자들을 그린 <카트>(2014, 관객 81만명)와 여러 독립영화들이 고전하는 걸 보면서, 결국 판타지를 그리는 방식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교수(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학 전공)는 “<span class='quot3'>상업영화는 대중의 분노를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3'>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독립영화는 현실 개선을 위한 ‘계단 한 칸’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그래도 사회비판 영화의 긍정적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효과는 분명 크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과)는 이런 이중적 평가를 이렇게 정리했다. “<span class='quot0'>이들 영화는 불만의 증기를 조금씩 빼줘 사회가 지금처럼 돌아가게 하는 안전밸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무기력증과 체념에 계속 빠지지 않도록 군불을 때는 것일 수도 있다.</span>”<br/><br/> ■ ‘장그래’와 ‘이수인’ 이들 ‘정의 판타지’는 영웅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간다. 영화<암살>처럼 총을 들어 쏠 수도, <내부자들>처럼 수억원을 들여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을 찍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미생>의 장그래와 <송곳>의 이수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태호와 최규석 작가의 웹툰이 원작인데, 둘 다 티브이 드라마로 제작돼 안방극장에서 주목받았다.<br/><br/> 두 작품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다. 노동자들이 매일 살아가는 공간인 직장이 주요 무대이다.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기, 노조를 통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찾기를 그린다.<br/><br/> 시민이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획득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고 한다. 먼저 일상생활의 괴로움이 ‘나’의 게으름이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나 때문인지 사회 때문인지, ‘해석투쟁’이 벌어지고, <미생>과 <송곳>은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한다고 해도, 다음 단계로서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 집회를 나갈까, 정당이나 노조에 가입할까. 어떤 식이든 움직일 선택지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회 참여나 노조 가입의 비용이 낮은 정치제도적 환경이 자리잡아야 한다. 2015년 현재 우리 사회에선 집회에 참여하면 경찰이 찾아오고, 노조에 가입하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br/><br/>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span class='quot4'><내부자들>등 세 영화는 첫번째 해석투쟁 단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 장벽인 중간 단계를 모두 생략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현실의 중간 단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송곳>과 비정규직의 실상을 함께 아파하는 <미생>이 더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5.txt

제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그러나 소금 같은 변호사 박준영  
날짜: 2015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19094941015  
본문: “변호사님, 10년을 선고받아 3년이 되어갑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매일매일 바쁘시고 도와줄 사람들도 많으시겠지요. 저는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br/><br/>“전화드렸던 아이 엄마입니다. 제 아이가 2년 전에 사고 냈는데 지금까지 재판 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친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칼에 먼저 찔려 쓰러졌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해칠 수 있나요?”<br/><br/>“삼가 글을 올립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소연하고 눈물로써 간절히 매달려야 이 애절하고 피 터지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겠는지요. 어찌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부족하고도 가여운 이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겠는지요.”<br/><br/>편지지에 꼭꼭 눌러쓴 사연마다 간절하고 필사적인 아우성이 가득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재소자나 그 가족들한테서 받은 편지가 나란히 줄지어 붙어 있다. 저마다 무고함을 주장하며 도움을 간청하는 사연들이다.<br/><br/><br/><br/>-이런 편지들은 왜 붙여놓으셨어요?<br/><br/>“지금 판단으론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오며 가며 다시 보고 한번 더 생각하려고요.”<br/><br/>내가 편지를 들추는 동안 느슨해진 압정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그가 말했다. 히터를 켜지 않아 썰렁한 사무실엔 그 혼자뿐이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한 지 서너 달째라고 했다. 박준영(41) 변호사는 이른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재심이란, 이미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다시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2007)으로 기소된 7명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김신혜 친부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을 재조사해서 재심을 청구했다.<br/><br/>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재심을 통해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드문 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형사사건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몇 년씩 매달려야 하는 일,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일,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는 왜 그리 열심일까? 유명 세력가나 시국사범도 아니고 가출 청소년, 노숙자, 정신박약자 같은 이들이 연루된 사건, 피의자들 스스로 제 입으로 “죽였다”고 자백한 사건에, 그는 뭘 믿고 뛰어드는 것일까? 2015년의 세밑,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다섯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었다.<br/><br/>　<br/><br/>아무도 그들 얘길 들어주지 않았다<br/><br/>-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재소자들한테서 편지를 많이 받으시나 봅니다. 너나없이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원문 그대로 100% 다 믿을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사연을 선별하시나요? 진실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br/><br/>“저만의 경험에 의한 직관 같은 게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긴 한데, 절박함이 강하게 느껴지는 편지들이 있습니다.”<br/><br/>-예를 들면?<br/><br/>“수원 노숙소녀 사건으로 기소된 아이들의 경우, 억울하다는 얘기를 최초로 밖에다 전한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들을 돌봐줬던 청소년상담센터의 선생님이었거든요. 센터 선생님한테 한 아이가 보낸 네장짜리 편지는 누가 봐도 억울함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지를 들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요.”<br/><br/>그때 박준영은 그들 사건의 국선변호인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국선변호인을 믿지 않았다. “국선변호사는 검사 편”이라는 헛소문에 아이들이 먼저 마음의 벽을 닫아버린 탓도 있지만, 박준영 변호사도 그때까지는 이 사건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7명의 피고가 모두 범행을 자백한 터라 유무죄를 다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br/><br/>사건의 개요는 이랬다. 2007년 5월 경기도 수원고 화단에서 10대 소녀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수원역을 배회하던 20대 노숙인 두명을 검거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해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서 이듬해인 2008년 1월, 10대 가출 청소년 5명을 추가 검거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가정파탄과 생활고로 가출한 청소년들에겐 그들을 대신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도 없었다.<br/><br/>당시 박준영은 고졸 학력의 ‘끗발 없는’ 변호사로, 수입이나 착실히 올리자는 생각에 건당 20만원씩 하는 국선변호를 한 달에 70건 많게는 100건씩 맡아 하던 속칭 ‘국선재벌’이었다. 한자리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재판에, 때로는 자신이 변호하는 피고의 이름을 헛갈릴 정도로 당시 그는 ‘박리다매형’ 영업자에 가까웠다. 그런 박준영의 변호사 인생에 큰 경종을 울린 것은, 수원 사건으로 기소된 아이가 쓴 한통의 편지였다.<br/><br/>“참 암울해요. 쌤(상담센터 선생님)은 내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해요? … 내가 아무리 가출해서 양아치처럼 살았지만 쌤만은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했다고 난리쳐도 검사가 몰아붙여서, 난동 피우면 없던 죄도 생길까봐, 막장이다 생각하고 인정했어요. 선생님과 했던 약속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설마 제가 사람을 죽였을까요?”<br/><br/>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진심이 거기 담겨 있었다. 이후 1년여간 박준영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다. 상담센터 선생님들과 현장을 수십차례 답사하고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과 검찰의 진술영상도 꼼꼼히 확인했다. 아이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변호사 앞에서조차 “자신들이 죽였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하나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br/><br/>아이들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범행과 무관했다. 경찰과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판단력이 미숙하고 겁 많은 아이들이 거짓자백을 했음이 드러났다. 결국 2010년 7월 가출청소년 전원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먼저 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노숙인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을 몰라 죄 없이 징역살이를 하던 노숙인을 찾아가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먼저 나선 것도 박준영 변호사였다. “<span class='quot0'>스스로 목소리를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걸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span>”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했다.<br/><br/><br/><br/>수원 노숙소녀살인 무죄 이끌고 <br/>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br/>김신혜 친부살인 재조사해 재심 청구 <br/>약자들 연루사건마다 뛰어드는 그 <br/>그것도 ‘하늘 별 따기’라는 재심에<br/><br/>고졸 학력의 ‘끗발 없는’ 변호사 <br/>수입이나 올리자며 시작한 국선변호 <br/>한달에 많게는 100건씩 맡아 하다 <br/>수원사건 기소된 아이의 편지 한통 <br/>변호사 인생에 경종을 울리다<br/><br/><br/><br/>‘너만 빼고 자백했대’ 검사의 기망<br/><br/>-이 사건을 보면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이렇게 조작될 수 있을까 의문이 가요. 기소된 아이들이나 노숙인의 경우, 변호사님이 찾아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처음엔 모두 자기들이 죽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br/><br/>“흔히들 고문, 폭행이나 협박. 자기한테 가해지는 참을 수 없는 폭압적 상황에서 허위자백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을 놓고 봅시다. 미성년자에다가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고, 내가 여기서 자백을 해야 그나마 혜택이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누가 놓여봤냐고요? 그러니까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백의 문제는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허위자백이란 것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일이거든요. 허위자백 문제는 경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합리적 사고론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br/><br/>-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br/><br/>“예.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합리적 틀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검사는 계속 추궁을 하고 ‘너 죽였잖아?’ 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해도, ‘다른 애들은 다 말했는데 왜 너만 아니라고 해?’ 하니깐 넘어간 거예요. 검사가 기망(欺罔)을 한 거죠.”<br/><br/>-‘기망’이라면… 검사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br/><br/>“그렇죠. 사실은 안 그런데, ‘너만 빼고 다 자백했다’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듣는 사람은, ‘쟤네들이 왜 그랬을까?’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다들 죽였다고 했다는데 나만 혼자 부인했을 때 나한테 가해질 불이익을 생각하는 거고… ‘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 그러면 사람 심리는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br/><br/>사회적 약자는 심리적으로도 약자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목소리 높여 다그치면 진실이 무엇이든 일단 주눅 들고 수그린다. 박준영은 그런 왜소한 자들의 비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br/><br/>　<br/><br/>가출, 자퇴, 비행으로 얼룩진 청소년기<br/><br/>그는 1974년 전남 완도 옆의 노화도란 작은 섬에서 태어나 자랐다. 목포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다가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평소에는 더없이 유순하고 마음 넓은 사람이었지만 술만 먹으면 180도 달라졌다. 아버지가 술 먹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새벽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소년은 아침에 뇌선(두통약)과 파스를 사러 나가야 했다.<br/><br/>중2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술을 끊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중학교를 1등으로 입학한 박준영은 되도록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싶단 생각에 아버지를 졸라 광주로 유학을 갔고, 고1이 돼서는 바로 자퇴를 하고 서울로 인천으로 떠돌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프레스공장, 정비공장에서 막일을 하기도 하고 배달일도 하면서 또래 친구들과 주먹질을 하고 몰려 다녔다.<br/><br/>-그땐 뭐가 될 생각이었어요?<br/><br/>“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웃음)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날마다 술 먹고 놀고 담배 피우고….”<br/><br/>-더 나쁜 짓은 안 하셨어요?<br/><br/>“<span class='quot0'>했죠.(웃음) 남의 물건 훔치기도 하고 사람도 패고….</span>”<br/><br/>-그래도 어떻게 전과는 없으세요?<br/><br/>“그게 안 걸렸으니까요. 하하하….”<br/><br/>-그래서인가요? 가출 청소년이나 노숙자에 대해서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예비범죄인 보듯 하잖아요.<br/><br/>“난 그렇게는 안 봐요. ‘너도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지.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낙인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죠.”<br/><br/>가출 청소년인 박준영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든 힘은, 그가 끝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던 어머니의 유서였다.<br/><br/>　<br/><br/>너희 셋이 지금처럼 공부하고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다. 엄마가 없다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그것같이 불쌍하고 불행한 것 없다. 그 점을 언제나 머리 숙여 염두해라. 어린 너희를 놔두고 가는 내 마음을 헤아려다오. 기가 막혀서 통곡을 한다.(어머니의 유서 중에서)<br/><br/>　<br/><br/>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종합고 취업반으로 졸업하고 94년 목포대 전자공학과에 동기들보다 1년 늦게 입학했다. 군에 다녀와 복학하려 했으나 기대했던 장학금을 못 받게 돼서 포기하고 군대 선임을 따라 97년부터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span class='quot0'>네가 무슨 사법시험을 보냐?</span>”고 친척들조차 면박을 줬지만 “넌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늘 용을 본 태몽을 얘기했던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악착같이 공부한 덕에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br/><br/>그가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는 그가 법조인이 되는 걸 보지 못한 채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가 ‘개천에서 난 용’으로 승천하는 길은, 배경 좋은 색시 만나고 좋은 로펌 들어가서 한몫 잡는 길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벌도, 집안도, 인맥도 없이 부양할 형제들만 잔뜩 있는 그를 불러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br/><br/>-처음부터 변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군요.<br/><br/>“소명의식이 어딨어요?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시험 되면 불쌍한 사람들 돕고 이 사회를 위해 산다’고 거창하게 합격 수기를 쓰지만, 그런 게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영감’이라고 대우해주고, 연수원 가서 양복 입고 다니면서 코스요리 먹고 바에서 술 한잔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안 돼서 수원까지 온 거지. 살다 보니 그게 내 인생의 큰 행운이었지만.”<br/><br/>-이젠 대기업이나 로펌 못 간 거에 아쉬움이 없나 보죠?<br/><br/>“전혀요! 여기 온 덕에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이라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그걸 했겠어요.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인데.”<br/><br/>　<br/><br/>나서지 못할망정 주저앉히지는 말아야<br/><br/>-지금 맡고 있는 재심 사건의 피고는 대개 지적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 탈북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자기방어권이 미약한 이런 사람들에겐 재심제도가 그나마 한줄기 구원의 빛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재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된 게 언제부터입니까?<br/><br/>“원래부터 있었어요.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국사건 같은 경우엔 재심이 많았고,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 사건처럼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재심이 돼요. 근데 일반 형사사건 중범죄의 경우엔 지금까지 재심이 된 건 제가 알고 있는 한, 단 두건뿐입니다.”<br/><br/>-한건은 방금 말씀하신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고, 또 한건은 뭐예요?<br/><br/>“그 이전에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해 사건’이라고.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프가 됐던 사건입니다. 1972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게 된 거지요.(누명을 쓰고 15년 복역한 정원섭씨는 2008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원회 같은 공권력의 개입 없이 재심으로 무죄가 난 중범죄 사건은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 유일한 것 같아요.”<br/><br/>-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진범은 안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br/><br/>“익산의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둘 다 형이 확정돼서 복역하고 있는 가운데 진범이 나타났어요. 근데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다 풀어줬죠. 무혐의로.”<br/><br/>-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br/><br/>“검사가 자기들 잘못이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아주 더러운 일을 한 거예요. 자기들 보신하려고.”<br/><br/>-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법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br/><br/>“법조인 모임에 가보면, ‘사건 수임 얼마나 했냐?’, ‘어디랑 파트너 됐냐?’… 대화 주제가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안타까운 사건 있는데 도와줄 사람 없을까? 뭘 좀 바꿔볼 수 있을까?’ 그런 대화는 거의 오고 가지 않아요. 물질만능으로 물질이 ‘만고땡’인 것처럼 지내다 보니 사람 중심의 가치가 무너진 거죠. 남을 돕는다고 의미있는 결심을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대개 그러잖아요. ‘야, 니 처자식 간수부터 해라’ 하고….”<br/><br/>-하하하,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br/><br/>“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조언을 하는 사람 자체가 용기를 못 내니까 상대방까지 같이 주저앉혀 버리려고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용기가 안 난다고 남까지 주저앉혀서는 안 되잖아요. 먼저 용기를 내는 사람한테 ‘그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그래야 맞죠.”<br/><br/>-그런데 정말 식구들은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재심 사건 맡아서는 큰돈이 안 될 텐데.<br/><br/>“재심 사건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수원 노숙소녀 사건은 무죄판결까지 5년이 걸렸고 다른 익산 사건이나 삼례 사건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손대기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br/><br/>-수임료는 어떻게 받으세요?<br/><br/>“수원 노숙소녀 사건의 경우에는 수임료를 아예 안 받았어요. 무죄판결 난 뒤 받은 배상금의 10%는 청소년센터에 기부하라고 했지요.”<br/><br/>-그러면 사무실 유지는 어떻게 하시죠? 다른 변호사나 직원들도 모두 내보냈다고 하셨는데.<br/><br/>“수원 노숙소녀 사건 무죄판결 나고 여기저기서 불티나게 연락이 왔고요. 변호사 두명, 직원도 서너명으로 사무실을 키우는 중이었어요. 그러곤 오랜만에 식구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올림픽대로에서 장경욱 변호사 전화를 받았어요. 전 장경욱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탈북자 허위자백 사건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해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승낙했죠. 그길로 사무실 와가지고 ‘장경욱’ 쳐보니까 ‘어이쿠! 큰일 났네!’ 싶었죠.(웃음)”<br/><br/>-‘간첩조작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떴겠네요. 하하하.<br/><br/>“엄청 후회했어요.(웃음) 저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도 안 들고 국가보안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무척 경계했지요. 근데 점점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탈북자의 실상을 보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하나원 가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2만7천명이라는 사람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개칭)에 가서 그렇게 반인권적 심문을 받는 줄 몰랐어요. 그분들이 남한 와서 자기 신분을 조선인으로 숨기고 경제활동 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들이 혈혈단신 자유 찾아 왔다가 저러고 산다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내가 거기(북한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br/><br/><br/><br/>술 취한 아버지에 대한 악몽 <br/>완도서 광주로 왔지만 고1 자퇴 <br/>막일, 배달일, 친구들과 주먹질 <br/>어머니의 유서가 바꾼 인생 <br/>대학 포기하고 사법시험 도전<br/><br/>“흔히들 고문이나 협박을 받아 <br/>허위자백했다 보는데 아니에요 <br/>허위진술이나 허위자백 문제는 <br/>합리적 상황서 절대 이해 안돼요 <br/>합리적 사고로는 절대로, 절대로”<br/><br/>　<br/><br/>집주인이 월세도 안 올려요!<br/><br/>-하지만 변호사가 무슨 사회운동가나 종교인도 아니고, 수임료를 갖고 생활해야 하는데.<br/><br/>“당연히 개인생활에는 타격이 있죠. 지금 집중하고 있는 세건의 재심 사건을 저는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성공하면 우리 사법제도나 재심제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질 텐데, 지금 이 순간 돈을 못 벌고 힘들더라도 한번 가볼 만한 인생은 아닌가 생각했어요. 사람이 얍삽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잘되고 유명해질 건 빤히 보이거든요.(웃음) 그럼 어찌 됐든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br/><br/>-정치 말씀입니까?<br/><br/>“제안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건 안 해요. 재심 사건이 한두 해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다 말고 손 뗄 수 없어요. 체질에도 안 맞고요.”<br/><br/>-그럼 뭘로 먹고살아요?<br/><br/>“내년에는 학원 강사를 할까 생각도 하고요. 형사소송법이나 재심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많으니.(웃음) 책을 써서 강연을 다닐 수도 있겠고요. 뭐, 구체적인 건 없지만, 굶어 죽진 않겠다 생각해요. 올해 변협(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는 공익대상도 받고 노근리 평화상도 받았는데 각각 상금이 천만원씩이었거든요.”<br/><br/>-아,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br/><br/>“<span class='quot0'>(웃음) 돈 떨어질 때마다(웃음) 사람 또 얄팍한 게 또 어디서 주지 않을까 하고….</span>”<br/><br/>-하하하….<br/><br/>“신문에, 법률신문에 밑에 무슨 공고 나면, 무슨 문화상, 무슨 법률상 있으면 사람이 또 괜히 솔깃하게 되고 상금 보게 되고. 하하하….”<br/><br/>-식구들은 뭐라 안 하세요?<br/><br/>“가족들 배곯게 하면서 공익활동을 할 만한 배짱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전 (변호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제가 돈 벌겠다고 마음먹으면 벌 수 있어요. 그런 비굴한 상황이 되면 너무 서글플 것 같긴 하지만요. 지금 우리 집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인데요. 원래 시세가 월 70만~80만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우리 집주인이 월세를 안 올려요. 월세 안 올리고 중문도 달아줬고요. 작년엔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도 갈아줬어요. 엊그제는 직접 만든 효소도 바리바리 보내주시고. 그러니 뭐, 저는 어떻게든 살 거라고 봐요.(웃음)”<br/><br/>-낙관적이시네요.<br/><br/>“올해 재심 청구 중인 사건 세개를 ‘다음 스토리펀딩’에 올렸는데, 함께 분노하고 댓글로 응원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고 하고, 정말 정의롭고 훌륭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익산 사건의 경우에도 진범을 잡았던 경찰이 나서서 증언해주고, 삼례 사건에선 피해자들이 저 사람들 범인 아니라고 나서주고. 내 얘기는 ‘침묵하지 말자’는 거죠. 침묵하지 않고 잘못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나서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엔 의미있는 발전이 있을 거예요.”<br/><br/>‘침묵하지 말자’고 박준영은 말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잘난 사람들의 호령이 아니라 작고 왜소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라고, 특별히 거룩하진 않으나 세상을 지키는 소금들의 힘이라고.<br/><br/>녹취 이돈섭<br/><br/>이진순<br/><br/>▶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6.txt

제목: 올해 과학기술계 최대 화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날짜: 20151218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18090120196  
본문: 올해 과학기술계 최대 화두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꼽혔다.<br/><br/>세계 양대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와 <네이처>는 17일(현지시각) 각각 ‘올해의 10대 획기적 과학 연구 성과’와 ‘과학계 뉴스인물 10명’을 발표하면서 1순위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와 크리스퍼로 인간 게놈 편집 실험을 해 논란을 일으킨 준쥬황 중국 중산대학 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br/><br/>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크리스퍼라는 아르엔에이(RNA)가 표적 유전자를 찾아가면 그곳에서 ‘카스9’라는 효소가 디엔에이 염기서열 부위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존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아주 쉽게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어 ‘제3세대 유전자 가위’로 불리며 최근 생명과학 연구실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준쥬황 등 중산대 연구팀은 올해 초 인공 수정란의 빈혈 유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꿔치기했다고 발표해 일부 과학자가 ‘크리스퍼 연구 모라토리엄(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등 논쟁을 일으켰다.<br/><br/> 지난 1~3일 미국과학아카데미와 영국 로열소사이어티, 중국과학아카데미 등이 주관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인간유전자교정 국제정상회의는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유전자가 교정된 세포가 임신에 사용돼서는 안된다</span></span>”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2016년말까지 공동보고서를 낼 계획이다.<br/><br/> 우리나라는 이 연구 분야에서 상당히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수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span class='quot1'>카스9(Cas9) 디엔에이가 아닌 단백질을 직접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 연구팀이 제안해 현재 거의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생명윤리법이 여전히 유전자 교정 연구를 암·에이즈 등 유전병이면서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점은 이 분야 연구 영역을 폭넓게 허용하는 국제 추세와 맞지 않는다 </span>”고 주장했다.<br/><br/> 다음은 <사이언스>가 뽑은 10대 과학 연구 성과와 <네이처> 편집진이 선정한 과학계 10대 뉴스인물이다.<br/><br/> <br/><br/> □ <사이언스> 10대 획기적 과학 연구 성과<br/><br/> 1.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br/><br/> 2. 세레스와 명왕성 탐사<br/><br/> 지난 3월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의 무인탐사선 ‘던’이 왜소행성(행성과 소행성의 중간단계) 세레스의 궤도에 진입했다. 던은 지구를 떠난 지 7년8개월 만에 48억㎞ 떨어진 세레스에 도착해 16개월 동안 세레스를 탐사할 예정이다. 나사는 또 지난 7월14일 무인탐사선 ‘뉴호라이즌’이 명왕성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뉴호라이즌은 9년여 동안 56억㎞를 날아 명왕성에서 1만2500㎞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다.<br/><br/> 3. 미국 인디언의 조상 케네딕트맨<br/><br/> 지난 1996년 미국 워싱턴주 케네딕트의 콜럼비아강변에서 발견된 케네딕트맨 뼈의 디엔에이를 분석한 결과 현존 미국 인디언의 조상은 1만5천년 전에 베링해(당시는 육지로 연결)로 건너온 아시안인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br/><br/> 4. 심리학의 재현성<br/><br/> 270명의 국제 공동연구진이 2008년 이후 발표된 심리학 분야 논문 100건의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를 재현한 결과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만 성공했다고 <사이언스>에 보고했다.<br/><br/> 5. 300만년 전 새 인류 호모 날레디 발견<br/><br/> 국제 공동연구진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동굴에서 300만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새 인류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화석에는 남아공 세소토어로 ‘별’이라는 뜻의 ‘호모 날레디’(Homo Naledi)라는 이름이 붙었다.<br/><br/> 6. 맨틀지도 만들기<br/><br/> 미국 연구팀이 지진 데이터를 분석해 움직이는 맨틀 구조의 지도 작성에 나섰다. 이미 28개의 맨틀 융기를 발견했으며, 맨틀 지도를 깊이 3000㎞까지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맨틀 지도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지각판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줄 수 있고 지표로 올라와 화산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마그마의 위치도 밝힐 수 있다.<br/><br/> 7. 에볼라 백신<br/><br/> 세계를 전염병 공포에 몰아넣었던 에볼라의 백신 개발에 희망이 생겼다. 캐나다 국립보건원은 자신들이 개발해 제약회사 머크가 진행한 에볼라 백신 임상시험에서 발병을 75~100%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랜싯> 7월31일치에 보고했다.<br/><br/> 8. 이스트로 만든 진통제<br/><br/> 미국 생명과학자들이 이스트가 설탕을 진통제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들은 양귀비, 황련, 박테리아와 심지어 쥐 등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합성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모르핀’을 제작했다.<br/><br/> 9. 뇌와 면역체계의 연결<br/><br/> 미국 신경과학자들이 뇌와 면역체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림프계는 몸의 모든 기관계와 연결돼 있지만 두개골 아래쪽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돼왔다. 과학자들은 실험쥐 세포막에서 림프관을 발견했으며, 인체도 같은 구조일 것으로 추정했다.<br/><br/> 10. 양자 불가사의 현상 발견<br/><br/> 네덜란드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양자이론 가운데 기이한 특성인 ‘양자 얽힘’ 현상이 실재 존재한다는 실험에 성공했다. 양자 얽힘은 멀리 떨어진 두 개체가 즉각적으로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1964년 아일랜드 물리학자 존 스튜어트 벨이 발표했다. 이는 입자가 오직 즉각적인 주위 환경에 의해서만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표준 물리학의 ‘국소성의 원칙’에 위배돼, 아인슈타인도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네덜란드 델프트대학 안 1.3㎞ 떨어진 거리에 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배치하고 각각의 다이아몬드 전자에 자기적 속성인 ‘스핀’을 갖도록 했다. 이후 마이크로파 펄스와 레이저 에너지가 ‘스핀’을 측정한 결과 1.3㎞ 사이의 두 개의 전자가 얽힌 결과가 도출됐다.<br/><br/><br/><br/><br/><br/> <br/><br/> □ <네이처> 과학계 뉴스인물 10명<br/><br/>1. 준쥬황(Junjiu Huang)<br/><br/> 준쥬황 등 중국 중산대학(Sun Yat-sen University)의 연구진은 지난 4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인간 게놈 편집을 시행한 논문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구팀은 인간 수정란에서 중증빈혈 질환과 관련한 유전자를 게놈 편집해 정상 유전자로 바꿔치기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투고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들의 연구로 생명과학계 일각에서는 ‘크리스퍼’ 연구의 모라토리엄(중단) 선언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과학아카데미와 영국 로열소사이어티, 중국과학아카데미 등이 주관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인간유전자교정 국제정상회의는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유전자가 교정된 세포가 임신에 사용돼서는 안된다</span></span>”는 내용의 성명(http://www8.nationalacademies.org/onpinews/newsitem.aspx?RecordID=12032015a)을 발표했다. 성명은 그러나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인간배아 및 생식세포 교정과 체세포의 유전자 교정 임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br/><br/>2. 크리스티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br/><br/>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95개국이 참가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려 “<span class='quot2'>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2도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구 온도를 낮추되,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span>”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네이처는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당사국총회의 개최와 합의문 도출에 5년 동안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br/><br/>3. 앨런 스턴(Alan Stern)<br/><br/> 지난 7월14일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의 무인탐사선 뉴호라이즌이 명왕성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나사 책임연구원 앨런 스턴은 “<span class='quot3'>공상 과학처럼 들리겠지만 미국의 탐사선이 명왕성 근처를 날 것이고, 역사를 만들 것이다</span>”라고 말했다. 명왕성은 애초 추정보다 약간 더 크고 밀도는 낮으며 내부에 얼음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뉴호라이즌은 9년여 동안 56억7천만㎞를 날아 이날 시속 4만9900㎞의 속도로 명왕성에서 1만2500㎞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다.<br/><br/>4. 제난 바오(Zhenan Bao)<br/><br/> 미국 스탠퍼드대 화학공학과 제난 바오 교수는 로봇 손에 사람 같은 촉감을 전해주는 전자피부를 개발해 지난 10월16일치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했다. 탄소나노튜브로 만든 센서와 메모리 등으로 전자회로를 얇게 만들어 장애인용 로봇 팔의 손가락 끝에 피부처럼 붙여 촉감을 느끼게 했다.<br/><br/>5. 미카일 에레메츠(Mikhail Eremets)<br/><br/> 독일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 미카일 에레메츠 박사는 “<span class='quot4'>영하 70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관측했다</span>”고 <네이처> 8월17일치에 발표했다. 금속에서 전기저항이 없이 전류가 흐르는 초전도 현상은 1911년 절대온도(K) 0도 근처의 극저온 환경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상온 근처에서 작동하는 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다. 에레메츠 박사 연구팀은 대기압보다 150만배 강한 압력으로 황화수소를 압축해 초전도체 금속을 만들었다.<br/><br/>6.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Ali Akbar Salehi)<br/><br/>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는 지난 7월15일 이란 핵협상의 역사적 타결을 이끈 주역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원자력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살레히는 이란 외무장관을 지냈으며, 13년 동안 끌어온 이란 핵협상에서 6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네이처는 평가했다.<br/><br/>7. 크리스티나 스몰케(Christina Smolke)<br/><br/> 미국 스탠퍼드대 크리스티나 스몰케 교수는 지난 8월13일 <사이언스>에 식물, 포유동물, 세균, 이스트 등 6개 생물 23개 유전자를 섞어 진통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스몰케는 최근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벌어져온 모르핀 합성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로 꼽혔다. <br/><br/>8. 데이비드 라이시(David Reich)<br/><br/> 미국 하버드대 유전학자인 데이비드 라이시 교수 연구팀은 7000년~8500년 전 터키 지역에서 유입된 무리가 유럽에 농업을 처음으로 전파했음을 디엔에이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고 <네이처> 11월23일치에 논문을 발표했다. 라이시는 서유럽과 터키 지역에서 살았던 고대인 273명 유골의 디엔에이지도를 작성해 분석한 결과 2000년 뒤인 청동기시대에 또다른 무리가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인들의 신체가 커지는 등 디엔에이 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결과도 내놓았다.<br/><br/>9. 브라이언 노섹(Brian Nosek)<br/><br/> 브라이언 노섹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진은 2008년 이후 발표된 심리학분야 논문 100건의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를 재현한 결과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 정도만 논문에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난 8월28일치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270여명으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은 3대 유명 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 100건을 선정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들 연구의 재현을 시도했다.<br/><br/>10. 조안 슈멜츠(Joan Schmelz)<br/><br/> 지난 10월14일 유력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제프리 마시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가 교내 성희롱 문제로 사직했다. 대학은 학생 4명의 문제제기로 시작한 조사를 6개월 동안 진행하고도 단순히 마시에게 경고조처만 했다가, 10월9일 소셜미디어 <버즈피드>에 기사가 실리고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마시에게 권고사직하도록 했다. 여성 우주인인 조안 슈멜츠 미국천문학회 여성우주인지위위원회 위원장은 마시 스캔들의 처리 과정에 깊이 관여해왔다.<br/><br/><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7.txt

제목: 한국타이어 30대 노동자 또 사망, 발병 원인 조사 촉구  
날짜: 20151216  
기자: 송인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16202839154  
본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또 숨졌다.<br/><br/> 노동계는 업무 연관성과 발병 원인 등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br/><br/> 16일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박아무개(38)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박씨는 14년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물차용 타이어 생산라인(LTR Sub)의 성형(가류)공정에서 근무하다 지난달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성형 공정은 고무 복합체로 만들어진 타이어 형태(그린케이스)에 압력과 열을 가해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이다. 박씨가 발암 물질에 노출돼 혈액암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는 박씨 사망 원인에 대한 업무 연관성 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br/> 이 협의회의 박응용씨는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숨지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연관성 등 실태를 조사하고 작업환경 개선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한국타이어 쪽은 “박씨가 고열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병원 쪽의 사인은 바이러스성 희귀혈액질환으로 알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회사 쪽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007~2008년 암·심장질환으로 노동자 8명이 숨져 당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했으며 1394건의 위법 사안이 적발됐다.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1996~2007년 사이 한국타이어에서 각종 암과 심장질환으로 40여명 등 모두 9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고 공개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8.txt

제목: 불덩이와 얼음이 8500만년 동안 빚은 ‘어머니 산’  
날짜: 20151215  
기자: 조홍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16111406348  
본문: 눈보라가 잠시 멈춘 4일 오전 무등산은 포근했다. 굴곡 없는 둥근 산체에 눈이 덮여 ‘어머니 산’이란 말이 실감났다. 바위강을 이룬 수많은 너덜도 윤곽을 감췄다. 대신 거대한 바위기둥인 주상절리가 도드라졌다.<br/><br/> 무등산은 흙산이지만 불의 산이기도 하다. 주상절리는 뚜렷한 그 증거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결과 무등산은 용암이 잠시 흐르다 굳은 흔한 화산지대가 아니란 사실이 분명해졌다. 대폭발을 동반한 대규모 화산활동이 장기간 계속됐다. 무등산은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화산이었다. 광주와 화순, 담양에 걸친 거대한 규모의 화산지대가 격렬하게 화산재와 용암을 뿜어냈다. 그 화산활동이 남긴 흔적의 고갱이가 주상절리로 서 있다.<br/><br/><br/><br/>입석·서석·광석대 등 주상절리 <br/>육각 바위기둥이 병풍처럼<br/><br/><br/><br/>대폭발 동반한 대규모 화산활동 <br/>장기간 지속된 흔적의 고갱이 <br/>최고 7m 폭 바위기둥 11㎢ 이어져<br/><br/><br/><br/>드물게 해안이 아닌 고산지대에 <br/>수㎞ 깊이 화산재가 굳어 <br/>신생대 현무암 아닌 중생대 응회암<br/><br/> <br/><br/>공원 면적 3%에 이르는 너덜 <br/>빙하기 주상절리서 떨어진 암석 <br/>미끄러져 흘려내려 긴 행렬<br/><br/><br/><br/>최대 길이 600m 폭 250m <br/>덕산너덜 등 10여개 화석 지형<br/><br/><br/><br/> 30~40m 돌기둥 100여개 줄줄이<br/><br/> 광주광역시와 전남 화순·담양 일대에 걸쳐 있는 무등산(해발 1187m)은 대도시에 있는 1000m가 넘는 유일한 고산으로 201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도 했다. 북한산 다음으로 탐방객이 많은 사랑받는 산이지만 산의 비경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최근의 연구로 비로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br/><br/> 규봉암은 무등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800m쯤 떨어진 해발 850m 높이에 위치한 암자이다. 들머리에 들어서자 거대한 돌기둥이 압도한다. 무등산에서 가장 커다란 주상절리대가 있는 광석대다. 공중에서 보면, 너비 2~5m, 높이 30~40m인 돌기둥 100여개가 늘어서 있는 한가운데 규봉암이 제비둥지처럼 매달려 있다. 절 건물 바로 옆에는 밑동이 1m만 남은 돌기둥의 잔해가 있는데, 너비가 7m에 이른다.<br/><br/> 무등산에서 널리 알려진 주상절리는 입석대와 서석대, 그리고 최근 공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확정한 정상 3봉에 펼쳐져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주상절리대의 면적은 11㎢에 이르는데, 점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돼 있다. 그 분포는 신선대~누에봉~천왕봉~지왕봉~인왕봉~서석대~입석대~광석대~동화사 터~중봉~장불재~낙타봉~촛대봉~안양산 정상부로 이어진다.<br/><br/>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고생물학)는 “<span class='quot0'>무등산의 주상절리대는 규모가 세계적일뿐더러, 국내 다른 주상절리대가 대부분 신생대에 형성된 현무암인 데 비해 중생대 응회암이며, 해안이 아닌 고산지대에 위치한다는 게 특징</span>”이라고 말했다.<br/><br/> <br/><br/> 당시 세계적인 화산지대의 하나<br/><br/> 그렇다면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어떻게 생겨 현재의 모습이 됐을까. 최근 무등산의 지질과 지형의 형성사를 집중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과정을 짚어보자.<br/><br/> 먼저, 중생대 백악기 초부터 신생대 제3기 초까지 한반도 남부에는 격렬한 화산활동이 벌어졌다. 이창열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지구조학)는 “<span class='quot1'>현재는 일본 근처에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들어가는 섭입대가 위치해 근처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하지만 중생대 말에는 섭입대가 한반도에 더 가까웠다</span>”며 “<span class='quot1'>섭입대에서 기원한 물질이 검출되는 것이 그 증거</span>”라고 말했다.<br/><br/> 무등산 주상절리를 이루는 암석은 화산재가 굳어 생긴 응회암이다. 화산재가 압축돼 생긴 응회암의 두께는 드러난 것만 400m이고 전체는 600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암석으로 굳기 전 화산재 깊이는 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무등산 일대는 당시 세계적인 화산지대의 하나였다.<br/><br/> 무등산 일대에는 큰 화산이 재와 용암을 뿜어냈다. 지하 깊숙한 곳에는 이 용암의 원천인 마그마 방이 있었다. 맨틀로부터 다량의 마그마가 흘러들어와 마그마 방은 팽창했다. 그러나 분출이 계속되면서 차츰 마그마 방이 비어갔고, 어느 시점에 이르자 거대한 화산체의 꼭대기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무너져 내렸다. 백두산에 칼데라 호수가 생성된 것도 이런 화산의 함몰 과정을 통해서였다.<br/><br/> 무등산 화산에서는 함몰 이후 화구 안에 화산재가 쌓였다. 두껍게 쌓인 화산재는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녹은 뒤 차츰 식어 암석이 됐다. 이 과정에서 5~7각기둥 모양의 암석이 생겼는데, 바로 주상절리다. 안건상 조선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의 연구를 보면, 용암이나 화산재는 표면부터 식으면서 수축되는데 이때 가장 안정한 형태인 육각형으로 굳는다. 말라 갈라진 논이나 식은 풀이 육각형으로 갈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br/><br/><br/><br/> 독립적인 3번의 화산폭발로 생겨<br/><br/> 임충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박사(화산학) 등은 국제학술지 <지구, 행성 및 우주>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무등산 주상절리가 서석대·입석대·광석대는 중생대 백악기인 8500만년 전, 촛대봉은 8700만년 전, 정상의 천왕봉과 지왕봉의 주상절리는 그 후에 생겼으며, 이들은 모두 화학성분이 동일해 같은 마그마 방에서 기원했다고 밝혔다. 임 박사는 또 “<span class='quot2'>같은 시기라고는 하지만 독립적인 세 번의 화산폭발로 서석대·입석대·광석대가 생겼으며 깊은(해발고도가 낮은) 곳의 주상절리일수록 천천히 식어 기둥의 너비가 크게 자랐다</span>”고 설명했다.<br/><br/> 공룡시대에 절정을 맞았던 무등산의 화산활동은 멈췄지만 돌의 윤회는 계속됐다. 8500만년 전 형성된 주상절리대는 깊숙한 땅속에 묻혀 있었다. 이 거대한 바위기둥이 햇빛을 처음 본 것은 11만5000년 전이다. 눈에 보이는 형태의 주상절리가 나타난 시기는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인 셈이다. 입석대 암석에 우주 기원 원소가 얼마나 생성됐는지를 측정해 이런 값을 계산했다.<br/><br/> <br/><br/> 얼고 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br/><br/> 빙하기는 주상절리대가 너덜로 변신하게 했다. 무등산에는 공원 면적의 3%를 차지할 정도로 너덜이 많다. 길이 600m, 최대 폭 250m인 덕산너덜 등 10여개의 너덜이 주상절리로부터 사면을 향해 ‘흐른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너덜이 많은 산도 보기 힘들다.<br/><br/> 지상에 나와 풍화와 침식을 받던 주상절리는 5만년 전 빙하기 때 기둥에서 떨어져 나와 너덜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빙하기에 우리나라는 빙하에 덮이지는 않았지만 한랭한 기후였다. 여름에 녹은 토양이 겨울엔 얼어붙었다. 주상절리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은 얼고 녹으면서 사면을 조금씩 미끄러져 내렸고, 그 행렬이 너덜을 이뤘다. 북사면보다 남쪽과 서쪽 사면에 너덜이 발달한 것도 이곳에 동결과 용해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빙하기가 끝난 현재 너덜의 암석은 움직임을 멈춘 ‘화석 지형’이 됐다.<br/><br/> 결국,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거대한 화산폭발의 불덩어리와 빙하의 찬 기운이 8500만년 동안 빚어낸 조각품인 셈이다.<br/><br/><br/><br/> 지질공원이란?<br/><br/>경관이 뛰어날 뿐 아니라 지구과학적 보전가치가 높고 교육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만한 곳으로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곳을 가리킨다. 유네스코는 제주도, 중국 태산, 말레이시아 랑카위 등 32개국 111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를 비롯해 청송, 울릉도·독도, 부산, 강원 비무장지대 일원, 무등산권 등 6곳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임진·한탄강, 무주·진안, 동해안권 등이 신청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고 청송은 신청 중이다. 지질공원은 보전, 교육, 관광을 모두 이룰 수 있어 기존 자연공원보다 융통성이 있고 유네스코 인증이 지역의 지명도와 관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지자체들이 인증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br/><br/> 광주/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br/><br/><br/><br/>공동기획: '한겨레', 대한지질학회, 국립공원관리공단 <br/><br/> 국가지질공원사무국, 한국지구과학교사협의회 <br/><br/><br/><br/> “<span class='quot3'>알고 보니 보통 산 아니었지만, 아는 게 거의 없어</span>”<br/><br/><br/><br/>이창열 교수가 말하는 무등산<br/><br/>전국의 명산에 수많은 탐방객이 찾지만 기암괴석의 비경을 놓고 “어떻게 이런 모양이 생겼느냐”고 물을 때 답변이 준비된 곳은 거의 없다. 무등산도 마찬가지다. 화산활동으로 주상절리가 산꼭대기에 병풍처럼, 기둥처럼 서 있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이다.<br/><br/> 이창열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도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초연구 과정에서 비로소 무등산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무등산은 보통 산이 아니더군요. 광주, 화순, 담양에 걸친 거대한 화산지대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전라도 전체가 화산과 관련된 땅입니다.”<br/><br/> 입석대·서석대·광석대 등 주상절리가 화산의 정상이 무너져 내린 화산재 속에서 생겼다면, 화산의 몸체(화산체)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지진파와 중력파를 이용한 탐사를 하면 8000만~9000만년 전 지금의 일본 이상으로 격렬한 화산활동을 하던 화산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span>”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산에 마그마를 공급한 뒤 비어 버린 마그마 방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 이제까지 용암이 굳어 생긴 것으로 알려진 무등산의 주상절리대가 사실은 화산재가 굳은 응회암이란 것도 최근의 연구 성과 가운데 하나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입자가 아주 작아 용암이 굳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암석의 조직을 자세히 조사하니 재가 엉겨붙었음이 분명해졌다</span>”고 말했다. “사실 무등산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거대한 화산으로서 이 산은 무궁무진한 연구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br/><br/>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br/><br/> <br/><br/> <br/><br/><br/><br/>“<span class='quot3'>공룡시대 실제 보듯 생생…지구비밀 찾는 재미 쏠쏠</span>”<br/><br/>현장 동참한 고교생 김영진군 <br/><br/>지질공원은 교육장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지질공원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질 명소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한다. <한겨레>의 지질공원 기획에 한국지구과학교사협의회가 공동기획에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답사에 참가한 화순고 학생 6명 가운데 김영진(18·화순고 3년)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br/><br/> “8300만년 전 우리 고향이 이런 모습이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현장에 와보니 교과서나 사진으로 본 것보다 웅장하고 멋있습니다.”<br/><br/> 김군은 지질 명소 가운데 특히 중생대 호숫가에 화산재 등이 쌓여 형성된 퇴적층인 적벽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span class='quot3'>공룡시대에 이곳에 큰 호수가 있었고 커다란 육식공룡과 작은 공룡이 돌아다니고 멀리 보이는 산에서는 화산분화가 일어났던 모습이 마치 눈에 보이듯 생생해요.</span>”<br/><br/> 김군 등은 적벽 퇴적층과 같은 시기에 퇴적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도 둘러봤다. 그곳에서 다수의 육식공룡이 남긴 발자국 화석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다.<br/><br/> “<span class='quot3'>지질학을 공부하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지구의 비밀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더욱 재미가 쏠쏠하다</span>”는 김군은 “<span class='quot3'>지구의 과거가 어땠는지 과학적인 단서를 통해 상상하던 것을 증명해 나가는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든다</span>”고 말했다.<br/><br/> 또 그는 “<span class='quot3'>대학에 가서 교육학을 전공할 생각이지만 지질답사를 해보니 지구과학을 복수전공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span>”고 말했다. <br/><br/>조홍섭 환경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19.txt

제목: 진주의료원 눈물 위에 서는 경남도 청사  
날짜: 20151215  
기자: 최상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1940857  
본문: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시설에 1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문을 연다. 대다수 진주시민들은 “떠났던 경남도청이 90년 만에 돌아온다”며 반기고 있지만,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경남도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진주의료원 노조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재판을 받는다.<br/><br/>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 업무를 총괄지휘한 최구식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전국 6대 낙후지역의 한곳이다. 서부청사 개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결정으로, 전체 경남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옛 진주의료원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본관,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는 호스피스병동, 장례식장 등 3개 건물로 이뤄져 있었다. 본관 1층엔 지난 7일 진주시보건소가 입주했다. 박유동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span class='quot0'>진주시보건소 직원들은 예전보다 근무환경이 매우 좋아져 입이 귀에 걸려 있다</span>”고 말했다.<br/><br/> 본관 2층과 3층엔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농정국·환경산림국 등 1본부 2국이 들어간다. 도지사실과 서부부지사실은 진주의료원장실이 있던 2층에 나란히 마련됐다. 도지사실엔 홍준표 경남지사가 1996년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받은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구제한다는 뜻의 축하글 ‘의자제세’와 모든 즐거움을 경남도민과 함께 나누겠다며 홍 지사가 올해 도정 기본방침으로 내세운 ‘여민동락’ 액자가 걸렸다.<br/><br/> 본관 4~6층엔 공무원 교육기관인 경남도 인재개발원이 들어간다. 노인요양병원으로 사용됐던 본관 7층과 8층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입주한다. 본관 지하엔 식당, 매점, 기계실 등이 배치됐다. 옛 호스피스병동은 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의 숙소로 이용된다. 옛 장례식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으로 바뀌었다. 서부청사엔 보건소 직원 130여명을 포함해 모두 4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진주시는 17일 서부청사를 거쳐가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변경할 예정이다.<br/><br/> 경남도는 17일 오후 2시 서부청사 광장에서 개청식을 연다. 본행사에 앞서 오후 1시30분엔 길놀이, 진주시립교향악단 공연, 대북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미 경남도청 서부청사 주변 곳곳엔 ‘경상남도의 큰 선물 감사합니다’ ‘경남도청 90년 만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등 펼침막이 내걸려, 서부청사 개청 축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br/><br/> 하지만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식을 하는 동안 창원지방법원에선 경남도청 별관 옥상 송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경남도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들 가운데 5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미혜 변호사는 “이들이 왜 점거를 했는지, 왜 시위를 벌였는지 등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이들의 행위만 따져서 법정까지 왔다는 것이 안타깝다. 법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br/><br/> 2013년 강제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진주의료원 직원 대부분은 여전히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지부장 등 조합원 4명은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로 노조사무실을 옮겨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br/><br/> 박 지부장은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되고, 그 시설에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씁쓸하다. 진주의료원이 당장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도 역사 속에서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머지않아 진주지역에 옛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경남도청은 1896년 경남 진주시에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25년 부산으로 옮겨갔다가, 1983년 경남 창원시로 옮겨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경남도청 서부청사의 진주 개설을 공약했다. <br/><br/>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br/>SQ: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0.txt

제목: 진주의료원 눈물 위에 서는 경남도 청사  
날짜: 20151215  
기자: 최상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15215530936  
본문: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시설에 1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문을 연다. 대다수 진주시민들은 “떠났던 경남도청이 90년 만에 돌아온다”며 반기고 있지만,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경남도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진주의료원 노조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재판을 받는다.<br/><br/>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 업무를 총괄지휘한 최구식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전국 6대 낙후지역의 한곳이다. 서부청사 개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결정으로, 전체 경남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옛 진주의료원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본관,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는 호스피스병동, 장례식장 등 3개 건물로 이뤄져 있었다. 본관 1층엔 지난 7일 진주시보건소가 입주했다. 박유동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span class='quot0'>진주시보건소 직원들은 예전보다 근무환경이 매우 좋아져 입이 귀에 걸려 있다</span>”고 말했다.<br/><br/> 본관 2층과 3층엔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농정국·환경산림국 등 1본부 2국이 들어간다. 도지사실과 서부부지사실은 진주의료원장실이 있던 2층에 나란히 마련됐다. 도지사실엔 홍준표 경남지사가 1996년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받은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구제한다는 뜻의 축하글 ‘의자제세’와 모든 즐거움을 경남도민과 함께 나누겠다며 홍 지사가 올해 도정 기본방침으로 내세운 ‘여민동락’ 액자가 걸렸다.<br/><br/> 본관 4~6층엔 공무원 교육기관인 경남도 인재개발원이 들어간다. 노인요양병원으로 사용됐던 본관 7층과 8층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입주한다. 본관 지하엔 식당, 매점, 기계실 등이 배치됐다. 옛 호스피스병동은 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의 숙소로 이용된다. 옛 장례식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으로 바뀌었다. 서부청사엔 보건소 직원 130여명을 포함해 모두 4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진주시는 17일 서부청사를 거쳐가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변경할 예정이다.<br/><br/> 경남도는 17일 오후 2시 서부청사 광장에서 개청식을 연다. 본행사에 앞서 오후 1시30분엔 길놀이, 진주시립교향악단 공연, 대북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미 경남도청 서부청사 주변 곳곳엔 ‘경상남도의 큰 선물 감사합니다’ ‘경남도청 90년 만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등 펼침막이 내걸려, 서부청사 개청 축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br/><br/> 하지만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식을 하는 동안 창원지방법원에선 경남도청 별관 옥상 송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경남도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들 가운데 5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미혜 변호사는 “이들이 왜 점거를 했는지, 왜 시위를 벌였는지 등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이들의 행위만 따져서 법정까지 왔다는 것이 안타깝다. 법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br/><br/> 2013년 강제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진주의료원 직원 대부분은 여전히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지부장 등 조합원 4명은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로 노조사무실을 옮겨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br/><br/> 박 지부장은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되고, 그 시설에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씁쓸하다. 진주의료원이 당장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도 역사 속에서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머지않아 진주지역에 옛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경남도청은 1896년 경남 진주시에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25년 부산으로 옮겨갔다가, 1983년 경남 창원시로 옮겨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경남도청 서부청사의 진주 개설을 공약했다. <br/><br/>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1.txt

제목: 원주 봉천, 무위당의 길  
날짜: 20151215  
기자: 곽병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1915469  
본문: 그의 집엔 거지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인기척이 나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아가, 손님 오셨다.’ 정부가 토지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침을 발표하자, 소작인들에게 부쳐먹던 땅을 무상으로 나눠준 할아버지였다. ‘땅값은 그동안 받은 소작료로 충분했다.’<br/><br/><br/><br/>선생의 사유는 인간에 의한 자연과 생명 파괴의 문제로 확장됐다. 그 결과로 태어난 게 1983년 10월 농산물의 도농직거래 조직인 한살림이었다. 평생 수천 점의 서화를 쓰고 그리고도 돈 받고 판 적이 없는 그였지만, 한살림의 밑돈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br/><br/><br/><br/>원주역 플랫폼에 들어서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이가 있다. 역사 허름한 창고 회벽에서 밝게 웃고 있는 무위당 장일순이다. 선생을 기리는 이 지역 대학생들이 그린 벽화 속에서 선생은 언제나 그랬듯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다.’ <br/><br/> 역사 왼쪽 해가 잘 비치는 자리였을 것이다. 노점상, 지게꾼, 행상, 건달 등 역에 터잡고 살아가는 이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이다. 언젠가 선생은 그곳에 자리를 깔았다. 노점에서 소주를 시켜놓고 아침부터 그곳 사람들과 술자리를 벌였다. 영락없는 노숙자였다. 기행은 계속됐다. 자초지종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다. …한 시골 아낙이 선생을 불쑥 찾아왔다. 딸 혼수 비용을 마련해 원주로 내려오다가 기차 안에서 몽땅 소매치기당했다는 것이다. 아낙은 선생에게 매달렸다. 찾아달라고. 선생이 역전에 자리를 깐 것은 아낙을 돌려보내고 나서였다. <br/><br/> 선생의 노숙생활은 사흘이고 나흘이고 계속됐다. 그런 어느 날 한 남자가 조용히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돈뭉치를 건넸다. 쓰고 남은 돈이었다. 선생은 그 돈에 당신의 것을 보태 원금을 채워 아낙에게 전했다. 그 뒤에도 선생은 가끔 역전에 갔다. 스리꾼에게 위로의 술을 건네려는 것이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 영업을 방해했어. 자 한잔 받으시고, 날 용서하시게.” <br/><br/> ‘원주의 아버지’. 김지하는 선생을 이렇게 묘사했다. “<span class='quot0'>하는 일 없이 안 하시는 일 없으시고/ …밑으로 밑으로만 기시어 드디어는/ 한 포기 산속 난초가 되었다.</span>”<br/><br/> 그의 말마따나 선생은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서울공대 전신인 경성공업전문학교를 다니다 국대안 반대데모 때 제적당하고 다시 서울대 미학과를 입학했으나 중도에 귀향해 고등공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학교 살림이 어렵게 되자 아예 인수해 대성중고등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원주엔 고등학교가 없었다. 선생은 손수 교실을 짓고 교사 겸 재단 이사장 노릇을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5·16 군사정권에 의해 반공법 위반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서 쫓겨났다.<br/><br/> 원주 봉산동 자택엔 10명의 대가족이 살았다. 한 지붕 아래 안방엔 부모님, 옆방엔 동생들, 문간방엔 선생 내외가 기거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방 앞에 무릎 꿇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 ‘밤새 평안하시었습니까.’ 내어놓은 요강을 뒷간에 비우고, 깨끗이 씻은 뒤 물을 가득 부어놓았다. 한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 일은 사실 집안 어른의 가르침을 몸에 새기는 과정이었다.<br/><br/> 그의 집엔 거지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인기척이 나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아가, 손님 오셨다.’ 어머니는 바가지를 들고 온 이들에겐 밥과 반찬을 가지런히 담아 보냈고, 빈손인 손님에게는 건넌방에 상을 차려주었다. 해방이 되고 정부가 토지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침을 발표하자, 소작인들에게 부쳐 먹던 땅을 무상으로 나눠준 할아버지였다. ‘땅값은 그동안 받은 소작료로 충분했다.’ 어머니는 선생이 옥살이하는 동안 단 하루도 이불을 깔고 주무시지 않았다. <br/><br/> “<span class='quot0'>쥐를 위해 늘 밥을 남겨 놓는다/ 모기를 염려해 등불을 붙이지 않는다/ 절로 돋아나는 풀을 위해/ 계단을 함부로 밟지 않는다.</span>” 선생이 즐겨 소개한 묵암선사의 선시는 그런 가풍을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br/><br/> 석방된 이후 선생은 보안관찰 대상으로 묶였다. 골목 어귀에 파출소도 들어섰다. 선생은 그때 다시 붓을 들고, 할아버지(여운 장경호)와 차강 박기정 선생에게서 배운 글씨와 난을 다시 쓰고 치기 시작했다. 유홍준 교수가 훗날 조선의 마지막 문인화라며 ‘민초도’로 명명한 장일순 난은 이때 잉태했다.<br/><br/> 언젠가 정현경 전 이화여대 교수가 물었다. “<span class='quot0'>사람들은 흔히 선생님을 도인이라고도 하는데, 언제 수련하시나요.</span>” “방축을 걷는 것이죠.” 자택에서 시내까지는 20여분 거리. 파출소를 지나 둑보다 낮은 동네를 가로질러 방축에 오르면 봉천이다. 개봉교를 지나 쌍다리에 이르면 건너가 시내다. 방축 밑 노천시장을 따라 중앙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밝음신협이 나온다. <br/><br/> “<span class='quot0'>땅에 뿌리를 박고 밤낮으로 해와 달을 의연히 맞아들이는</span>” 방축의 풀들이나, 가난한 노점상, 이발소, 구멍가게, 식당 사람들은 그를 일깨우는 스승이었다. 대성학원 설립자 시절부터 그가 선 주례만 2천여건. 서민들에게 그는 좋은 주례였다. 때문에 대개 인연이 닿는 이들이었다. ‘잘 지내셨느냐’ ‘건강하신가’ 따위의 인사가 오가고, 아이들 소식, 살림살이, 작황, 벌이 등으로 이야기가 넘어갔다. 그러다 보면 20분 거리가 두어시간 걸리기 일쑤였다. 선생은 그렇게 ‘물속을 천리라도 기어’ 갔다.<br/><br/> 방축을 따라 돌아가는 길. ‘저 산 보이지.’ ‘치악산이요?’ ‘모월산이야.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안 하는 일이 없는 게 없는 어머니 달 같은 산이지.’ 그가 꿈꾸고 닮으려 한 것은 그런 산이었다. ‘오늘 또 내가 허튼소리를 많이 했구나.’ ‘이 못난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구나.’ 반성이 뒤따랐다.<br/><br/> 1968년부터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싹은 그 속에서 돋아났다. 농민이나 도시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리의 융자와 남은 돈을 유익하고 안전하게 맡길 곳이었다. 지학순 주교와 함께 시작한 원주의 신협운동은 강원도 일대 농촌과 어촌 광산촌으로 퍼져나갔다.<br/><br/> 1972년 남한강 지역을 휩쓴 대홍수 때 독일의 가톨릭 구호단체에서 가톨릭 원주교구에 거금 187억원을 보내왔다. 선생은 지 주교를 설득해 그 돈을 좀더 근본적인 사회 개혁에 쓰기로 하고, 기금은 각 지역의 농민회, 노동자회, 어민회, 영세시민회 등 풀뿌리 조직의 싹을 틔우는 데 썼다. 그 결과 유신시대, 원주는 반유신 민주화운동의 실질적 구심점이 되었다.<br/><br/> 유신체제가 말기로 접어들면서 선생의 사유는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서 인간에 의한 자연과 생명 파괴의 문제로 확장됐다. 그때 함께 고민한 이들이 김지하, 박재일, 김영주, 최혜성, 서정록 등이었고 그 결과로 태어난 게 1983년 10월 농산물의 도농직거래 조직인 한살림이었다. 평생 수천점의 서화를 쓰고 그리고도 돈 받고 판 적이 없는 그였지만, 한살림의 밑돈 마련을 위해 그는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었다.<br/><br/> 그의 좁은 문간방은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전국의 활동가들이 충전이 필요하면 그곳을 찾아왔다. 1군사령부의 별 단 군인들도 왔고, 그를 회유하려던 5공 실세도 있고, 상지대의 김문기도, 교수협의회 교수들도 찾아왔다.<br/><br/> 그런 그의 집에는 스승이 또 한 분 있었다. 하는 일 없이 바쁜 그를 오롯이 지켜준 부인 이인숙이었다. 서울대를 나온 재원이었지만 그와 살면서 밤낮없이 북적대는 손님들에게 따듯한 밥상을 내어놓았다. 뜰에는 꽃다지, 냉이, 제비꽃이 피고 지고, 배추와 푸성귀가 넘쳐났다. 뒷간에서 나온 거름을 먹고 잘도 자랐다. ‘찬은 없었지. 그저 된장찌개에 마당에 있는 질경이 뜯어 볶아내고, 울타리의 아네모네 이파리를 수도 없이 무쳐서 냈지.’ 선생이 옥살이를 할 때는 영치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화시장에 납품하는 봉제공장에서 시다 노릇을 했던 아내였다. <br/><br/> 그런 아내에게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었다. 남향의 문간방은 여름이면 몹시 더웠다. 더위를 많이 타는 아내는 잠 못 드는 날이 많았다. 선생은 부채질로 아내의 더위를 쫓아 잠들게 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br/><br/> 선생이 떠나고 집은 쇠락했다. 동생(화순)네와 함께 쓰던 마당이 중간에 길이 나는 바람에 더욱 옹색해졌다. 미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내는 집을 혼자 지키고 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만큼 다리도 불편하다. “힘들지 않으세요?” 빙그레 웃기만 한다. 또 묻는다. “<span class='quot0'>나처럼 앞뒤 꼭 막힌 여자가 아니라 좀더 똑똑한 사람 만났으면 좀더 편하셨을 텐데….</span>” 이번엔 딴소리다. “<span class='quot0'>깊은 골 사람이 없다 하여 난은 그 향기를 그치지 않는다.</span>”(幽蘭不以無人息其香) 이 화제와 난은 필경 선생이 부인을 그리며 쓰고 친 것 같았다. <br/><br/> 선생은 1994년 예순일곱에 ‘제 몸 안으로 찾아온 손님’(위암)과 함께 세상을 떴다. 지인들은 병명을 사리암이라고 했다. 술을 못 하는 선생이 저희를 생각해 마신 술이 사리(암)가 되었다는 것이다.<br/><br/>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br/>SQ: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2.txt

제목: 원주 봉천, 무위당의 길  
날짜: 20151215  
기자: 곽병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15192354532  
본문: 그의 집엔 거지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인기척이 나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아가, 손님 오셨다.’ 정부가 토지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침을 발표하자, 소작인들에게 부쳐먹던 땅을 무상으로 나눠준 할아버지였다. ‘땅값은 그동안 받은 소작료로 충분했다.’ <br/><br/><br/><br/>선생의 사유는 인간에 의한 자연과 생명 파괴의 문제로 확장됐다. 그 결과로 태어난 게 1983년 10월 농산물의 도농직거래 조직인 한살림이었다. 평생 수천 점의 서화를 쓰고 그리고도 돈 받고 판 적이 없는 그였지만, 한살림의 밑돈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br/><br/><br/><br/>원주역 플랫폼에 들어서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이가 있다. 역사 허름한 창고 회벽에서 밝게 웃고 있는 무위당 장일순이다. 선생을 기리는 이 지역 대학생들이 그린 벽화 속에서 선생은 언제나 그랬듯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다.’ <br/><br/> 역사 왼쪽 해가 잘 비치는 자리였을 것이다. 노점상, 지게꾼, 행상, 건달 등 역에 터잡고 살아가는 이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이다. 언젠가 선생은 그곳에 자리를 깔았다. 노점에서 소주를 시켜놓고 아침부터 그곳 사람들과 술자리를 벌였다. 영락없는 노숙자였다. 기행은 계속됐다. 자초지종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다. …한 시골 아낙이 선생을 불쑥 찾아왔다. 딸 혼수 비용을 마련해 원주로 내려오다가 기차 안에서 몽땅 소매치기당했다는 것이다. 아낙은 선생에게 매달렸다. 찾아달라고. 선생이 역전에 자리를 깐 것은 아낙을 돌려보내고 나서였다. <br/><br/> 선생의 노숙생활은 사흘이고 나흘이고 계속됐다. 그런 어느 날 한 남자가 조용히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돈뭉치를 건넸다. 쓰고 남은 돈이었다. 선생은 그 돈에 당신의 것을 보태 원금을 채워 아낙에게 전했다. 그 뒤에도 선생은 가끔 역전에 갔다. 스리꾼에게 위로의 술을 건네려는 것이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 영업을 방해했어. 자 한잔 받으시고, 날 용서하시게.” <br/><br/> ‘원주의 아버지’. 김지하는 선생을 이렇게 묘사했다. “<span class='quot0'>하는 일 없이 안 하시는 일 없으시고/ …밑으로 밑으로만 기시어 드디어는/ 한 포기 산속 난초가 되었다.</span>”<br/><br/> 그의 말마따나 선생은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서울공대 전신인 경성공업전문학교를 다니다 국대안 반대데모 때 제적당하고 다시 서울대 미학과를 입학했으나 중도에 귀향해 고등공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학교 살림이 어렵게 되자 아예 인수해 대성중고등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원주엔 고등학교가 없었다. 선생은 손수 교실을 짓고 교사 겸 재단 이사장 노릇을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5·16 군사정권에 의해 반공법 위반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서 쫓겨났다.<br/><br/> 원주 봉산동 자택엔 10명의 대가족이 살았다. 한 지붕 아래 안방엔 부모님, 옆방엔 동생들, 문간방엔 선생 내외가 기거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방 앞에 무릎 꿇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 ‘밤새 평안하시었습니까.’ 내어놓은 요강을 뒷간에 비우고, 깨끗이 씻은 뒤 물을 가득 부어놓았다. 한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 일은 사실 집안 어른의 가르침을 몸에 새기는 과정이었다.<br/><br/> 그의 집엔 거지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인기척이 나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아가, 손님 오셨다.’ 어머니는 바가지를 들고 온 이들에겐 밥과 반찬을 가지런히 담아 보냈고, 빈손인 손님에게는 건넌방에 상을 차려주었다. 해방이 되고 정부가 토지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침을 발표하자, 소작인들에게 부쳐 먹던 땅을 무상으로 나눠준 할아버지였다. ‘땅값은 그동안 받은 소작료로 충분했다.’ 어머니는 선생이 옥살이하는 동안 단 하루도 이불을 깔고 주무시지 않았다. <br/><br/> “<span class='quot0'>쥐를 위해 늘 밥을 남겨 놓는다/ 모기를 염려해 등불을 붙이지 않는다/ 절로 돋아나는 풀을 위해/ 계단을 함부로 밟지 않는다.</span>” 선생이 즐겨 소개한 묵암선사의 선시는 그런 가풍을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br/><br/> 석방된 이후 선생은 보안관찰 대상으로 묶였다. 골목 어귀에 파출소도 들어섰다. 선생은 그때 다시 붓을 들고, 할아버지(여운 장경호)와 차강 박기정 선생에게서 배운 글씨와 난을 다시 쓰고 치기 시작했다. 유홍준 교수가 훗날 조선의 마지막 문인화라며 ‘민초도’로 명명한 장일순 난은 이때 잉태했다.<br/><br/> 언젠가 정현경 전 이화여대 교수가 물었다. “<span class='quot0'>사람들은 흔히 선생님을 도인이라고도 하는데, 언제 수련하시나요.</span>” “방축을 걷는 것이죠.” 자택에서 시내까지는 20여분 거리. 파출소를 지나 둑보다 낮은 동네를 가로질러 방축에 오르면 봉천이다. 개봉교를 지나 쌍다리에 이르면 건너가 시내다. 방축 밑 노천시장을 따라 중앙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밝음신협이 나온다. <br/><br/> “<span class='quot0'>땅에 뿌리를 박고 밤낮으로 해와 달을 의연히 맞아들이는</span>” 방축의 풀들이나, 가난한 노점상, 이발소, 구멍가게, 식당 사람들은 그를 일깨우는 스승이었다. 대성학원 설립자 시절부터 그가 선 주례만 2천여건. 서민들에게 그는 좋은 주례였다. 때문에 대개 인연이 닿는 이들이었다. ‘잘 지내셨느냐’ ‘건강하신가’ 따위의 인사가 오가고, 아이들 소식, 살림살이, 작황, 벌이 등으로 이야기가 넘어갔다. 그러다 보면 20분 거리가 두어시간 걸리기 일쑤였다. 선생은 그렇게 ‘물속을 천리라도 기어’ 갔다.<br/><br/> 방축을 따라 돌아가는 길. ‘저 산 보이지.’ ‘치악산이요?’ ‘모월산이야.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안 하는 일이 없는 게 없는 어머니 달 같은 산이지.’ 그가 꿈꾸고 닮으려 한 것은 그런 산이었다. ‘오늘 또 내가 허튼소리를 많이 했구나.’ ‘이 못난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구나.’ 반성이 뒤따랐다.<br/><br/> 1968년부터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싹은 그 속에서 돋아났다. 농민이나 도시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리의 융자와 남은 돈을 유익하고 안전하게 맡길 곳이었다. 지학순 주교와 함께 시작한 원주의 신협운동은 강원도 일대 농촌과 어촌 광산촌으로 퍼져나갔다.<br/><br/> 1972년 남한강 지역을 휩쓴 대홍수 때 독일의 가톨릭 구호단체에서 가톨릭 원주교구에 거금 187억원을 보내왔다. 선생은 지 주교를 설득해 그 돈을 좀더 근본적인 사회 개혁에 쓰기로 하고, 기금은 각 지역의 농민회, 노동자회, 어민회, 영세시민회 등 풀뿌리 조직의 싹을 틔우는 데 썼다. 그 결과 유신시대, 원주는 반유신 민주화운동의 실질적 구심점이 되었다.<br/><br/> 유신체제가 말기로 접어들면서 선생의 사유는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서 인간에 의한 자연과 생명 파괴의 문제로 확장됐다. 그때 함께 고민한 이들이 김지하, 박재일, 김영주, 최혜성, 서정록 등이었고 그 결과로 태어난 게 1983년 10월 농산물의 도농직거래 조직인 한살림이었다. 평생 수천점의 서화를 쓰고 그리고도 돈 받고 판 적이 없는 그였지만, 한살림의 밑돈 마련을 위해 그는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었다.<br/><br/> 그의 좁은 문간방은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전국의 활동가들이 충전이 필요하면 그곳을 찾아왔다. 1군사령부의 별 단 군인들도 왔고, 그를 회유하려던 5공 실세도 있고, 상지대의 김문기도, 교수협의회 교수들도 찾아왔다.<br/><br/> 그런 그의 집에는 스승이 또 한 분 있었다. 하는 일 없이 바쁜 그를 오롯이 지켜준 부인 이인숙이었다. 서울대를 나온 재원이었지만 그와 살면서 밤낮없이 북적대는 손님들에게 따듯한 밥상을 내어놓았다. 뜰에는 꽃다지, 냉이, 제비꽃이 피고 지고, 배추와 푸성귀가 넘쳐났다. 뒷간에서 나온 거름을 먹고 잘도 자랐다. ‘찬은 없었지. 그저 된장찌개에 마당에 있는 질경이 뜯어 볶아내고, 울타리의 아네모네 이파리를 수도 없이 무쳐서 냈지.’ 선생이 옥살이를 할 때는 영치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화시장에 납품하는 봉제공장에서 시다 노릇을 했던 아내였다. <br/><br/> 그런 아내에게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었다. 남향의 문간방은 여름이면 몹시 더웠다. 더위를 많이 타는 아내는 잠 못 드는 날이 많았다. 선생은 부채질로 아내의 더위를 쫓아 잠들게 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br/><br/> 선생이 떠나고 집은 쇠락했다. 동생(화순)네와 함께 쓰던 마당이 중간에 길이 나는 바람에 더욱 옹색해졌다. 미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내는 집을 혼자 지키고 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만큼 다리도 불편하다. “힘들지 않으세요?” 빙그레 웃기만 한다. 또 묻는다. “<span class='quot0'>나처럼 앞뒤 꼭 막힌 여자가 아니라 좀더 똑똑한 사람 만났으면 좀더 편하셨을 텐데….</span>” 이번엔 딴소리다. “<span class='quot0'>깊은 골 사람이 없다 하여 난은 그 향기를 그치지 않는다.</span>”(幽蘭不以無人息其香) 이 화제와 난은 필경 선생이 부인을 그리며 쓰고 친 것 같았다. <br/><br/> 선생은 1994년 예순일곱에 ‘제 몸 안으로 찾아온 손님’(위암)과 함께 세상을 떴다. 지인들은 병명을 사리암이라고 했다. 술을 못 하는 선생이 저희를 생각해 마신 술이 사리(암)가 되었다는 것이다.<br/><br/>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3.txt

제목: 들불과 비구름 된 언어들, 구두 소리에 밟히고…  
날짜: 20151211  
기자: 박유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1642551  
본문: ▶ 광장은 언어가 쏟아지는 공간입니다. 광장은 세탁되지도, 다듬어지지도 않은 언어를 받아들이는 테두리입니다. 언어는 광장을 넓히기도 축소하기도 하는, 떠도는 말들의 혼입니다. 언어는 광장 안에 쌓인 고체 덩어리들이 아닙니다. 언어는 광장의 본질이며 질료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언어일 수도, 언어의 광장이라 부를 수도 있을 테지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걷어내면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린답니다. 벽보에서, 하늘에 걸린 펼침막에서, 바닥에서 언어가 싸우고 노래합니다.<br/><br/><br/><br/>이순신 동상 양옆으로 흐트러짐 없이 뻗은 왕복 12차선으로 자동차 바퀴가 굴러간다. 일요일인 지난 6일 오전 11시. 이순신 동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한 세종문화회관과 교보빌딩 앞으로 무표정한 얼굴들이 지나간다. 하루 전 오만여명의 분노, 절망, 조롱, 규탄, 함성, 절규, 탄식, 비통, 슬픔, 야유가 떨어진 광화문 길을 밟고 지나간다. 전날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 여기에서, 분노의 언어가 불붙어 광화문 대로에서 시청으로, 서울대병원으로 번졌다.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노동개악 분쇄하자!” “노동개혁은 노동자 삶을 짓밟는 노동개악임을 압니다!” “공정보도 쟁취하자! 공정보도 쟁취하자!” “서울대병원에서 백남기 어르신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박근혜 정부, 비판합니다.” “국가 폭력 중단하라! 국가 폭력 중단하라! 와아아아아!”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분노의 언어가 땅에 떨어진다. 광화문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시민들이 행진 대열을 이루며 걸어갈 때 언어는 길을 따라 활활 타올라 잿빛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공기로 흩어진 화난 언어는 검고도 무거운 구름이 되어 하늘을 떠돌다 눈물로 떨어졌다. “정부는 고용 활성화를 위해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4년간 마음껏 비정규직 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고용 활성화 법입니까?” 사람들은 축축한 말의 눈물을 밟으며 걸어나갔다.<br/><br/> <br/><br/> 일요일 오전 광화문<br/><br/> 언제 그러했냐는 듯이. 그런 일이 있긴 했냐는 듯이. 다음날 광화문은 말간 얼굴을 하고 있다. 일요일 오전이라 사람도, 차량도 적다. 고요하다.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광화문의 평일은 다시 언어의 광장이다. 일상을 뚫고 어떤 언어가 새어나온다. 암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듣기 귀찮은 언어, 외면하고 싶은 언어, 소음 같은 언어, 침묵하는 언어들이다. 누군가 손글씨로 써서 버스정류장에 붙은 종이, 나무 사이에 걸린 현수막, 거리에 튀어나온 입간판, 건물 옥상에 붙은 전광판, 호소하고 규탄하는 사람들의 몸이다. <br/><br/> 화요일인 8일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구세군 종소리가 울린다. 헐거운 수도꼭지에서 새는 물방울처럼 같은 간격으로 종이 울린다.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와 또각또각 걸어가는 구두 소리는 지상보다 더 크게 울린다. 구두 소리 사이로 벽보에 붙은 대자보, 현수막이 조그맣게 입을 열어 중얼거린다. 언어는 귀로 전달되지 않고 지하철 바닥에 툭 떨어졌다. 구두 굽들이 언어를 밟는다. <br/><br/> “통화기록에 아들이 있다고 부양의무자라는 거예요. 이혼한 지 20년이 넘어서 해준 것도 없는 자식인데. 아들한테 담당 공무원이 전화해서 네가 부양의무자라고 했대요. 아들이 이제 전화를 안 받는대요. 나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 나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br/><br/> 암 투병 중에 수급 신청을 한 50대 독신 여성이 수술 전 관계가 끊어진 아들을 보려고 전화했는데 자녀와의 통화기록이 남아 수급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벽에 붙은 종이 위의 다른 입들도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br/><br/> “함께 살아요, 우리.”<br/><br/>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입은 200만원으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두 자녀를 키우고 경기도 광명에 5500만원 전셋집에 사는 형편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손녀딸들과 같이 방을 쓰는 것도 아들 부양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친구 집에 가 있겠다고 3년 전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어 노숙생활을 1년 반 동안 하였습니다.”<br/><br/> “23년 동안 부모님을 만난 적도 연락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여섯살에 시설로 보내지면서 부모님이 그곳에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br/><br/> 종이 위의 입들이 저마다의 소리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종은 끝없이 울리고 사람들은 또각또각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낸다. 지하철 5번 출구로 빠져나오면 동아일보가 보인다. 투명한 유리건물 밖으로 채널에이(A) 방송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광화문 사거리에선 청년 두 명이 전단지를 내민다.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받는다 한들 손에 쥐기만 한다. 보지 않는다. “<span class='quot0'>사시 폐지 4년 유예는 청년들과의 약속을 유예하는 것입니다.</span>” 로스쿨 학생들의 입장을 쓴 전단지였다. <br/><br/><br/><br/>11월14일, 12월5일 두차례 <br/>민중총궐기 일어난 광화문 <br/>분노한 언어 들불처럼 타오른다 <br/>“<span class='quot0'>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수 없다</span>” <br/>“국가폭력 중단! 대통령 사과하라”<br/><br/>12차선 대로에 자동차가 달리는 <br/>평일 광화문에서도 언어는 <br/>일상을 뚫고 나와 규탄하고 <br/>화내며 광장에서 치고받는다 <br/>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다<br/><br/> <br/><br/> 비틀거리는, 웅변하는, 소리치는 벽보들<br/><br/> 같은 자리에서 조끼를 입은 노인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마다 건너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외쳤다. “<span class='quot0'>크리스마스가 데이트하는 날이 아닙니다.</span>” 드르릉드르릉, 왕복 12차선을 일제히 달리는 육중한 자동차들과 아스팔트가 마찰하는 소리들, 덜컹거리는 차 기계 소리,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나는 소리에 휩싸여 노인의 말은 굉음 속에 기어 나오다 말았다. “남에게 좀 나눠줘봐. 인생 살아봐. (무어라 했지만 차 지나가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요즘 사람들 너무너무 한가해.”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소서.’ 노인의 노란 조끼에 적힌 글자가 말했다. 같은 자리에 검은 모자를 쓴 한 남자는 흰 피켓을 들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피켓은 말이 짧았다. 단호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남자는 표정도 움직임도 없었다. 남자의 등 뒤로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다. <br/><br/> 광화문 한복판 광장에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분다. ‘사람과 증거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팽목항에 아직 기다림이 있습니다.’ 노란 리본 밑에 걸린 팻말이 애처로이 말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단원고 학생들.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었던 단체사진도 광장에 걸렸다. 손으로 브이(v) 모양, 하트 모양을 그린 환한 얼굴이다.<br/><br/> 동화면세점 앞에 걸린 입간판에서 일그러진 얼굴의 해고자들이 소리쳤다. “흑자 해고, 공장 폐쇄. 대만 기업에는 대한민국이 호구인가.” “노숙투쟁 195일차, 먹튀 대만 그룹과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1000억의 흑자를 내고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강행했습니다.” “돈 안 되는 사람은 버리고 돈 되는 특허기술만 먹고 튀려 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고 외면한 우리는 해고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해고자들의 입간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사람들이 줄을 서 버스를 기다린다. 외침은 버스정류장까지 닫지 못했다. <br/><br/> 대만 기업에서 해고됐다는 노동자들의 낮은 목소리 옆으로 감사의 웅변이 반복됐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이를 도운 미국을 드높였다. “4대 개혁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생명을 향한 6·25전쟁 사진전’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도와준 67개국 정부와 국민께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유엔, 특히 미국의 인류애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5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대한민국. 그러나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오늘날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br/><br/> 광화문 우체국 맞은편에선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나가는 이들에게 지구를 살리자고 설득했다.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사이로 환경단체 소속 직원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자고 말했다. “지구가 더워져서 얼음이 녹고 있는데 곰들이 떠돌아다니거나 탈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음이 녹는데 천연자원을 각 기업에서 개발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석유 시추 문제가 있어요. ‘셸’이라는 석유회사가 활발하게 석유를 채취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했어요. 실제 시추는 채산성이 높은 곳에서만 하고 나머지 뚫어놓은 부분으로 원유가 새어나오고 있어요. 검은 바다가 되었어요. 기름은 물 위에 뜨니 얼음과 섞이지 않고 기름 제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극에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셸이라는 회사는 시민분들의 힘으로 북극에서 올해 철수했습니다. 남극처럼 북극도 국제보호구역으로 유엔에서 묶어 보호하자고 시민분들에게 알려 드려요. 참여 요청을 부탁드려요.” 그린피스 직원 뒤로 애국당 창당을 알리는 소리가 바람에 펄럭인다. ‘이승만의 자유정신과 박정희의 자주정신을 승계 발전시키겠습니다.’<br/><br/> 광화문에서 시청 방향으로 가는 중간에 프레스센터가, 프레스센터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쓴 종이 두 장이 버스정류장 유리 벽면에 붙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한다. 단어들의 조합이었을 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깟 댓글 200만개에 감동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줄 아십니까. 자꾸 댓글로 대선 불복의 모습 보이시는데 그럼 교사들이 술집에서 술 마실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를 찍으면 독재정치가 되니 부모님께 누구 찍어라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 윗글 4편이, 제가 전파 고문을 받은 이유입니다. 위의 글 4장은 전부 다 무기명으로 돌렸는데 무기명 때문에 죽이는 거랍니다.”<br/><br/> <br/><br/> 언어의 재를 밟고 지나가는 행진<br/><br/> 시청광장으로 걸어갔다. 전날 사람 5만여명의 함성이 떨어진 바닥은 스케이트장 공사로 덮여 있었다. 우리카드 홍보 광고판이 붙은 공사현장은 곧 스케이트장이 될 것이다. 쏟아낸 분노의 언어 위로 아이와 엄마, 연인과 친구들이 씽씽 얼음을 가르며 웃을 것이다. 서울시청 앞으로 거리에 빈 의자가 하나 놓였다. 주인 없는 의자 옆으로 태극기 깃발 하나 꽂혔다. ‘대한민국 영토 대마도 반환하라.’ 깃발 위의 글자가 말했다. 서울시청 문 앞에는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겨울 파카를 입은 남자는 옷에 달린 모자로 머리를 가린 채 서울시청 앞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휴대전화만 본다. 남자 옆에 대형 입간판이 무한반복 말한다. ‘박주신(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아, 한 시간이면 되는 것을 무엇이 두려워 공개 신검을 피하는가. 박원순은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br/><br/> 시청 맞은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꼭대기에 두 남자가 보인다. 저 멀리 손가락 마디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두 남자는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저들의 눈에도 시청과 광장, 광화문이 조그맣게 보일까. 두 남자는 5일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때도 저 멀리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추워서 다리를 몇 번이나 털면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노동자들이다. 두 남자는 입을 열어 소리 내 말하지 않았다. 아니다. 그들이 말했다. ‘기아차를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br/><br/> 인권위원회 맞은편 인도에 두 남자의 동료들이 텐트를 쳤다. 텐트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글자가 적혀 있다. ‘최명정 한규협 힘내라!’ 텐트에 붙은 종이들이 말했다. ‘불법파견 10년 법원 판결 전원 승소.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국가인권위 고공농성 181일째.’ 말들은 슬픈데 슬픔을 감추려 결연했다. <br/><br/> 11월14일, 12월5일 두 차례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 광화문. 집회가 없을 때도 들리지 않는 언어들은 일상을 뚫고 나와 광장에서 치고받았다. 어떤 언어는 고용자와 정부를 규탄하고, 다른 언어는 정부를 옹호했다. 신이 떠난 세상에서 신에게 돌아가라 외치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의 조합을 쏟아내고, 저 멀리 북극곰이 사는 곳을 생각하라 하고, 가라앉는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말하고,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철폐를 요구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광화문에도 질과 색이 다른 언어들이 대결한다. 들리지 않을 뿐이다. 벽보,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의 몸에서 언어들이 추락해 광화문 거리에 떨어지면 구두 소리가 밟고 지나간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br/><br/> 광장에 비로소 수만의 사람들이 외칠 때 언어는 바닥에 떨어져 들불이 되어 번지고 타올라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빗물이 되어 눈물이 되어 머리로 가슴으로 심장으로 마음으로 떨어져 적신다. 보아라. 가로막으려는 차벽 위로 언어가 피어올라 하늘로 상승하는 말의 연기를, 말의 그을음을, 말의 분노를. 재가 되어 떨어진 언어의 광장을. 재를 밟고 지나가는 행진을. 차벽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br/><br/>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br/>SQ: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4.txt

제목: 들불과 비구름 된 언어들, 구두 소리에 밟히고…  
날짜: 20151211  
기자: 박유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12111220772  
본문: ▶ 광장은 언어가 쏟아지는 공간입니다. 광장은 세탁되지도, 다듬어지지도 않은 언어를 받아들이는 테두리입니다. 언어는 광장을 넓히기도 축소하기도 하는, 떠도는 말들의 혼입니다. 언어는 광장 안에 쌓인 고체 덩어리들이 아닙니다. 언어는 광장의 본질이며 질료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언어일 수도, 언어의 광장이라 부를 수도 있을 테지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걷어내면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린답니다. 벽보에서, 하늘에 걸린 펼침막에서, 바닥에서 언어가 싸우고 노래합니다.<br/><br/><br/><br/>이순신 동상 양옆으로 흐트러짐 없이 뻗은 왕복 12차선으로 자동차 바퀴가 굴러간다. 일요일인 지난 6일 오전 11시. 이순신 동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한 세종문화회관과 교보빌딩 앞으로 무표정한 얼굴들이 지나간다. 하루 전 오만여명의 분노, 절망, 조롱, 규탄, 함성, 절규, 탄식, 비통, 슬픔, 야유가 떨어진 광화문 길을 밟고 지나간다. 전날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 여기에서, 분노의 언어가 불붙어 광화문 대로에서 시청으로, 서울대병원으로 번졌다.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노동개악 분쇄하자!” “노동개혁은 노동자 삶을 짓밟는 노동개악임을 압니다!” “공정보도 쟁취하자! 공정보도 쟁취하자!” “서울대병원에서 백남기 어르신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박근혜 정부, 비판합니다.” “국가 폭력 중단하라! 국가 폭력 중단하라! 와아아아아!”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분노의 언어가 땅에 떨어진다. 광화문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시민들이 행진 대열을 이루며 걸어갈 때 언어는 길을 따라 활활 타올라 잿빛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공기로 흩어진 화난 언어는 검고도 무거운 구름이 되어 하늘을 떠돌다 눈물로 떨어졌다. “정부는 고용 활성화를 위해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4년간 마음껏 비정규직 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고용 활성화 법입니까?” 사람들은 축축한 말의 눈물을 밟으며 걸어나갔다.<br/><br/> <br/><br/> 일요일 오전 광화문<br/><br/> 언제 그러했냐는 듯이. 그런 일이 있긴 했냐는 듯이. 다음날 광화문은 말간 얼굴을 하고 있다. 일요일 오전이라 사람도, 차량도 적다. 고요하다.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광화문의 평일은 다시 언어의 광장이다. 일상을 뚫고 어떤 언어가 새어나온다. 암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듣기 귀찮은 언어, 외면하고 싶은 언어, 소음 같은 언어, 침묵하는 언어들이다. 누군가 손글씨로 써서 버스정류장에 붙은 종이, 나무 사이에 걸린 현수막, 거리에 튀어나온 입간판, 건물 옥상에 붙은 전광판, 호소하고 규탄하는 사람들의 몸이다. <br/><br/> 화요일인 8일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구세군 종소리가 울린다. 헐거운 수도꼭지에서 새는 물방울처럼 같은 간격으로 종이 울린다.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와 또각또각 걸어가는 구두 소리는 지상보다 더 크게 울린다. 구두 소리 사이로 벽보에 붙은 대자보, 현수막이 조그맣게 입을 열어 중얼거린다. 언어는 귀로 전달되지 않고 지하철 바닥에 툭 떨어졌다. 구두 굽들이 언어를 밟는다. <br/><br/> “통화기록에 아들이 있다고 부양의무자라는 거예요. 이혼한 지 20년이 넘어서 해준 것도 없는 자식인데. 아들한테 담당 공무원이 전화해서 네가 부양의무자라고 했대요. 아들이 이제 전화를 안 받는대요. 나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 나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br/><br/> 암 투병 중에 수급 신청을 한 50대 독신 여성이 수술 전 관계가 끊어진 아들을 보려고 전화했는데 자녀와의 통화기록이 남아 수급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벽에 붙은 종이 위의 다른 입들도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br/><br/> “함께 살아요, 우리.”<br/><br/>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입은 200만원으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두 자녀를 키우고 경기도 광명에 5500만원 전셋집에 사는 형편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손녀딸들과 같이 방을 쓰는 것도 아들 부양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친구 집에 가 있겠다고 3년 전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어 노숙생활을 1년 반 동안 하였습니다.”<br/><br/> “23년 동안 부모님을 만난 적도 연락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여섯살에 시설로 보내지면서 부모님이 그곳에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br/><br/> 종이 위의 입들이 저마다의 소리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종은 끝없이 울리고 사람들은 또각또각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낸다. 지하철 5번 출구로 빠져나오면 동아일보가 보인다. 투명한 유리건물 밖으로 채널에이(A) 방송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광화문 사거리에선 청년 두 명이 전단지를 내민다.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받는다 한들 손에 쥐기만 한다. 보지 않는다. “<span class='quot0'>사시 폐지 4년 유예는 청년들과의 약속을 유예하는 것입니다.</span>” 로스쿨 학생들의 입장을 쓴 전단지였다. <br/><br/><br/><br/>11월14일, 12월5일 두차례 <br/>민중총궐기 일어난 광화문 <br/>분노한 언어 들불처럼 타오른다 <br/>“<span class='quot0'>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수 없다</span>” <br/>“국가폭력 중단! 대통령 사과하라”<br/><br/>12차선 대로에 자동차가 달리는 <br/>평일 광화문에서도 언어는 <br/>일상을 뚫고 나와 규탄하고 <br/>화내며 광장에서 치고받는다 <br/>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다<br/><br/> <br/><br/> 비틀거리는, 웅변하는, 소리치는 벽보들<br/><br/> 같은 자리에서 조끼를 입은 노인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마다 건너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외쳤다. “<span class='quot0'>크리스마스가 데이트하는 날이 아닙니다.</span>” 드르릉드르릉, 왕복 12차선을 일제히 달리는 육중한 자동차들과 아스팔트가 마찰하는 소리들, 덜컹거리는 차 기계 소리,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나는 소리에 휩싸여 노인의 말은 굉음 속에 기어 나오다 말았다. “남에게 좀 나눠줘봐. 인생 살아봐. (무어라 했지만 차 지나가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요즘 사람들 너무너무 한가해.”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소서.’ 노인의 노란 조끼에 적힌 글자가 말했다. 같은 자리에 검은 모자를 쓴 한 남자는 흰 피켓을 들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피켓은 말이 짧았다. 단호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남자는 표정도 움직임도 없었다. 남자의 등 뒤로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다. <br/><br/> 광화문 한복판 광장에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분다. ‘사람과 증거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팽목항에 아직 기다림이 있습니다.’ 노란 리본 밑에 걸린 팻말이 애처로이 말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단원고 학생들.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었던 단체사진도 광장에 걸렸다. 손으로 브이(v) 모양, 하트 모양을 그린 환한 얼굴이다.<br/><br/> 동화면세점 앞에 걸린 입간판에서 일그러진 얼굴의 해고자들이 소리쳤다. “흑자 해고, 공장 폐쇄. 대만 기업에는 대한민국이 호구인가.” “노숙투쟁 195일차, 먹튀 대만 그룹과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1000억의 흑자를 내고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강행했습니다.” “돈 안 되는 사람은 버리고 돈 되는 특허기술만 먹고 튀려 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고 외면한 우리는 해고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해고자들의 입간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사람들이 줄을 서 버스를 기다린다. 외침은 버스정류장까지 닫지 못했다. <br/><br/> 대만 기업에서 해고됐다는 노동자들의 낮은 목소리 옆으로 감사의 웅변이 반복됐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이를 도운 미국을 드높였다. “4대 개혁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생명을 향한 6·25전쟁 사진전’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도와준 67개국 정부와 국민께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유엔, 특히 미국의 인류애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5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대한민국. 그러나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오늘날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br/><br/> 광화문 우체국 맞은편에선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나가는 이들에게 지구를 살리자고 설득했다.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사이로 환경단체 소속 직원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자고 말했다. “지구가 더워져서 얼음이 녹고 있는데 곰들이 떠돌아다니거나 탈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음이 녹는데 천연자원을 각 기업에서 개발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석유 시추 문제가 있어요. ‘셸’이라는 석유회사가 활발하게 석유를 채취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했어요. 실제 시추는 채산성이 높은 곳에서만 하고 나머지 뚫어놓은 부분으로 원유가 새어나오고 있어요. 검은 바다가 되었어요. 기름은 물 위에 뜨니 얼음과 섞이지 않고 기름 제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극에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셸이라는 회사는 시민분들의 힘으로 북극에서 올해 철수했습니다. 남극처럼 북극도 국제보호구역으로 유엔에서 묶어 보호하자고 시민분들에게 알려 드려요. 참여 요청을 부탁드려요.” 그린피스 직원 뒤로 애국당 창당을 알리는 소리가 바람에 펄럭인다. ‘이승만의 자유정신과 박정희의 자주정신을 승계 발전시키겠습니다.’<br/><br/> 광화문에서 시청 방향으로 가는 중간에 프레스센터가, 프레스센터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쓴 종이 두 장이 버스정류장 유리 벽면에 붙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한다. 단어들의 조합이었을 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깟 댓글 200만개에 감동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줄 아십니까. 자꾸 댓글로 대선 불복의 모습 보이시는데 그럼 교사들이 술집에서 술 마실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를 찍으면 독재정치가 되니 부모님께 누구 찍어라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 윗글 4편이, 제가 전파 고문을 받은 이유입니다. 위의 글 4장은 전부 다 무기명으로 돌렸는데 무기명 때문에 죽이는 거랍니다.”<br/><br/> <br/><br/> 언어의 재를 밟고 지나가는 행진<br/><br/> 시청광장으로 걸어갔다. 전날 사람 5만여명의 함성이 떨어진 바닥은 스케이트장 공사로 덮여 있었다. 우리카드 홍보 광고판이 붙은 공사현장은 곧 스케이트장이 될 것이다. 쏟아낸 분노의 언어 위로 아이와 엄마, 연인과 친구들이 씽씽 얼음을 가르며 웃을 것이다. 서울시청 앞으로 거리에 빈 의자가 하나 놓였다. 주인 없는 의자 옆으로 태극기 깃발 하나 꽂혔다. ‘대한민국 영토 대마도 반환하라.’ 깃발 위의 글자가 말했다. 서울시청 문 앞에는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겨울 파카를 입은 남자는 옷에 달린 모자로 머리를 가린 채 서울시청 앞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휴대전화만 본다. 남자 옆에 대형 입간판이 무한반복 말한다. ‘박주신(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아, 한 시간이면 되는 것을 무엇이 두려워 공개 신검을 피하는가. 박원순은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br/><br/> 시청 맞은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꼭대기에 두 남자가 보인다. 저 멀리 손가락 마디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두 남자는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저들의 눈에도 시청과 광장, 광화문이 조그맣게 보일까. 두 남자는 5일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때도 저 멀리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추워서 다리를 몇 번이나 털면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노동자들이다. 두 남자는 입을 열어 소리 내 말하지 않았다. 아니다. 그들이 말했다. ‘기아차를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br/><br/> 인권위원회 맞은편 인도에 두 남자의 동료들이 텐트를 쳤다. 텐트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글자가 적혀 있다. ‘최명정 한규협 힘내라!’ 텐트에 붙은 종이들이 말했다. ‘불법파견 10년 법원 판결 전원 승소.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국가인권위 고공농성 181일째.’ 말들은 슬픈데 슬픔을 감추려 결연했다. <br/><br/> 11월14일, 12월5일 두 차례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 광화문. 집회가 없을 때도 들리지 않는 언어들은 일상을 뚫고 나와 광장에서 치고받았다. 어떤 언어는 고용자와 정부를 규탄하고, 다른 언어는 정부를 옹호했다. 신이 떠난 세상에서 신에게 돌아가라 외치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의 조합을 쏟아내고, 저 멀리 북극곰이 사는 곳을 생각하라 하고, 가라앉는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말하고,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철폐를 요구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광화문에도 질과 색이 다른 언어들이 대결한다. 들리지 않을 뿐이다. 벽보,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의 몸에서 언어들이 추락해 광화문 거리에 떨어지면 구두 소리가 밟고 지나간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br/><br/> 광장에 비로소 수만의 사람들이 외칠 때 언어는 바닥에 떨어져 들불이 되어 번지고 타올라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빗물이 되어 눈물이 되어 머리로 가슴으로 심장으로 마음으로 떨어져 적신다. 보아라. 가로막으려는 차벽 위로 언어가 피어올라 하늘로 상승하는 말의 연기를, 말의 그을음을, 말의 분노를. 재가 되어 떨어진 언어의 광장을. 재를 밟고 지나가는 행진을. 차벽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br/><br/>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5.txt

제목: [꿈꾸는 모두] 10년 뒤에도 맑음! 미래 유망 직업 BEST 7  
날짜: 2015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1508658  
본문: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뜰까? 사물인터넷 개발자, 홀로그램 전문가, 소셜미디어 전문가 등 사람들이 예측하는 직업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앞으로 10년 동안 일자리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직업을 소개한다. 더불어 관련 학과도 살펴보자.<br/><br/><br/><br/>01 환경공학 기술자<br/><br/>어떤 일을 할까?<br/><br/>환경공학 기술자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부터 생태계, 폐기물 등 환경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사람이다.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학 원리를 활용해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쓰인다. 관리 분야 및 연구 영역에 따라 대기환경 기술자, 수질환경 기술자, 토양환경 기술자, 소음진동 기술자, 폐기물처리 기술자, 환경영향평가원 등으로 구분한다.<br/><br/>주요 근무지는 환경 전문 용역업체,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체, 폐기물 처리 회사, 건설업체 등 산업체와 각종 환경 관련 연구소, 정부투자기관, 학교 등이다.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 및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환경직 공무원(7급, 9급) 채용시험에 응시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평소 환경에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 기본, 통계 및 수학 계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수리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오랜 시간 한 가지 주제를 반복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와 인내심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는 소명감이다. 소각로 및 화학약품을 취급할 때는 소음, 폭발, 냄새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br/><br/><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대학에서 환경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된다.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해양환경공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과학과, 환경정보과 등을 전공하는 것이 도움된다.<br/><br/>여긴 어때?<br/><br/>성신여대 청정융합과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성신여대 청정융합과학과는 자연, 에너지, 환경 분야를 인문?사회과학과 연계한 학과다. 기본적으로 물리학, 화학, 환경학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책임, 생태관광, 지속가능 보고서, 환경법, 환경과 국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 관련 특강을 진행한다.<br/><br/>이래서 좋아!<br/><br/>다른 대학과 달리 자연과학 분야를 공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과 경제가 상호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에너지 자원 보존,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환경친화성 진단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환경, 나노 등 미래의 유망한 융합기술을 연구한다.<br/><br/>02 전자공학 기술자<br/><br/>어떤 일을 할까?<br/><br/>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TV, 냉장고, 컴퓨터, 휴대전화까지 우리 생활에서 전자제품은 필수품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향후 10년 뒤에도 전자제품 장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전자공학 기술자의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 전자공학 기술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반도체,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전자 시스템에 활용되는 각종 전자회로와 전자 부품을 설계?개발하는 일을 한다. 또 전자기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br/><br/>전자제품을 설계?개발하려면 가장 먼저 소비자의 의견을 모으는 시장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의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업체 제품과 기술 경향 및 변화 등을 분석하는 것도 전자공학 기술자의 몫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디자인과 생산 가능성 등에 대해 제품 디자이너와 협의하고, 제품단가와 시장성 등을 고려해 신제품에 적합한 부품, 부속품, 회로 등을 설계한다. 설계도가 완성되면 시제품을 만들어 진동이나 충격에 강한지 등 성능을 확인한다. 검사 후에는 기존의 생산 시스템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생산라인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의한 뒤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 대량으로 생산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과 불량품 생산 여부를 검사한다. 연구?개발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할 때도 있으며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한다.<br/><br/>전자공학 기술자는 대개 가전제품 제조업체, 반도체 생산업체, 전자의료기 생산업체, 사무자동화기기 생산업체, 기업체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한다.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벤처 업체를 창업하기도 하며 기술 컨설팅, 기술 영업 같은 분야로 옮기거나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전자공학 기술자는 전자 소재 부품의 개발?생산 및 조립 단계부터 최종 전자 시스템의 연구?개발과 생산?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분석적 사고와 탐구적인 성격의 사람에게 적합하다. 기술 설계와 분석, 품질관리 분석 등의 능력이 요구되며, 컴퓨터와 전자공학, 공학과 기술 등의 지식도 갖춰야 한다. 컴퓨터 활용능력과 수학, 물리학 등 이과 과목에 대한 이해와 실용적 사고 등을 키우는 것도 좋다.<br/><br/>제품 생산을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근무하지만, 대부분 연구소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 기업과 공동으로 작업하면 해외 출장을 가거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서 일하기도 한다. 연구?개발을 위해 초과근무를 할 때가 많으며, 연구 성과가 미진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전기공학, 통신공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에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들이 대부분이다.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등의 전공을 이수하면 된다.<br/><br/>여긴 어때?<br/><br/>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는 전자, 통신, 네트워크와 정보기술에 대해 배운다. 교과목은 크게 반도체 및 파동, 회로 및 시스템, 통신 및 신호처리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에 맞줘 수준 높은 공학 교육을 제공하는 경희대는 컴퓨터공학 등 다른 전공과 결합한 교육과정으로 설계 능력이 뛰어난 창의적인 IT 시스템 전문가를 길러낸다.<br/><br/>이래서 좋아!<br/><br/>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는 지난해 세계대학평가 전자공학분야 100위권에 진입하며 성장 중이다.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80% 이상이 전공 분야로 진출한다. 특히 정부,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KT장학금, 이건수장학금, 포항제철장학금 등 다른 학과에는 없는 다양한 외부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한다.숙명여대 IT공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숙명여대 IT공학과는 발전된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학과다. ‘스마트 기기 솔루션’ 과정에서는 각종 모바일과 웨어러블 장치에 대해 공부하며, ‘데이터 공학’ 과정에서는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분석해 나아가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또 ‘감성 컴퓨팅’에서는 인체의 특징과 감성을 기계나 프로그램에 최대한 반영하는 법을 연구한다. 6개월의 실무 인턴, 졸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다.<br/><br/>이래서 좋아!<br/><br/>새로 신설한 공과대학에 소속된 IT공학과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2016학년도 입학생 모두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장학금 혜택도 마련돼 있다. 포항공대, 싱가포르 난양공대, 미국 UC버클리, MIT 등 명문 공대와도 교류하며 협업을 진행 중이다.한국산업기술대 나노?광공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한국산업기술대 나노?광공학과는 LED,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IT 제품에 들어가는 광 관련 기술을 주로 배운다. 광학물리, 재료공학, 기계공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습 과정이 병행된다. LED, 디스플레이, 디지털 융합가전, 광의료기기, 나노 첨단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br/><br/>이래서 좋아!<br/><br/>나노?광공학과는 기초?설계, 가공?공정, 측정?평가의 단계를 거쳐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교수진, 실무 연구진과 연계한 수업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한다. 반도체 제조 시설을 갖춘 LED 센터, 미래융합기술연구소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03 청소년 지도사<br/><br/>어떤 일을 할까?<br/><br/>청소년 지도사는 성격, 적성, 지능, 진로 및 신체적?정서적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에 놓인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의뢰를 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상담, 집단상담, 기록상담, 위기상담, 인터넷 상담, 자기 성장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한다.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것도 청소년 지도사의 중요한 업무이며, 각종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한다.<br/><br/>특히 청소년상담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진로?적성?흥미?인성 등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나 심리 상담을 해주는 청소년 지도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계획을 세우고 관리?조정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인간의 심리 및 성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며, 타인에 대한 포용력과 집중력, 통찰력이 요구된다. 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해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과 자신의 감정 및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인내심과 성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 아동학과, 청소년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과 등의 전공을 추천한다. 심리학과, 상담심리과 등 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좋다.<br/><br/>여긴 어때?<br/><br/>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교육학, 심리학, 사회교육학에 평생교육 과정까지 청소년에 특화된 지도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 발달 조사, 청소년 지도 상담 등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 졸업 후에는 청소년지도학, 사회교육학, 청소년 지도행정 등 여러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br/><br/>이래서 좋아!<br/><br/>법무부, 한국청소년연맹 등 여러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평가를 도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학과 자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활발한 청소년 활동 사업도 전개한다. 본교의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시 청소년 지도사 2급 국가자격증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2급, 복수전공으로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도 취득할 수 있다.04 사회복지사<br/><br/>어떤 일을 할까?<br/><br/>사회복지사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심리적?정서적 지원, 생활 지원, 교육?훈련, 대인관계 기술 훈련, 건강관리, 법률 지원 등을 한다.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기도 한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투철한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해심, 사회성이 요구되며, 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직관적인 대처 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도 있어야 한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수업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14과목)와 현장실습(120시간)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별도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공 학과로는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노인복지학과, 노인보건복지과, 실버보건학과, 가족복지과, 산업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도시복지학과 등을 추천한다.<br/><br/>여긴 어때?<br/><br/>대진대 사회복지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대진대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력을 기르고 있다. 사회복지학,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자원봉사론 등의 수업을 바탕으로 기초지식 및 사회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br/><br/>이래서 좋아!<br/><br/>일반적으로 공학 교육에 사용되는 ‘캡스톤 디자인’ 과정을 사회복지학에 도입해 복합적인 업무 역량을 키운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설정하고 창의적인 해결법을 제시해야 한다. 교재교구 개발, 웹?모바일 앱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되고, 국가시험을 통해 1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05 경영 컨설턴트<br/><br/>어떤 일을 할까?<br/><br/>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듯, 기업도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경영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 경영 컨설턴트는 기업체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에 관한 상담과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진단해야 할 부분은 경영전략, 인사 및 조직 관리, 재무 및 회계, 마케팅, 고객관리, 제품개발, 생산 및 품질 관리, 정보 및 전산시스템, 물류, 설비, 환경 등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산업 분야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다. 담당하는 전문영역에 따라 전략 컨설턴트, 조직 컨설턴트, 재무 컨설턴트, 마케팅 컨설턴트, 생산품질 컨설턴트, IT 컨설턴트, 환경 컨설턴트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경영 컨설팅의 업무는 문제 파악을 위한 조사와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 자문, 지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업무의 범위는 경영 진단이나 사업체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성과 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하고 실제 수행하는 단계까지 포함한다.<br/><br/>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공개 입찰을 통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경영 및 진단 전문가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컨설팅 비용, 조사 내용과 방법, 컨설팅 인원 및 소요기간, 컨설팅 수행 실적 등을 담은 관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적합한 사람들로 팀을 꾸려 팀장의 총괄 아래 조사를 실시하며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점과 주요 이슈를 파악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과 대안을 설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제안서를 가지고 고객 회사의 경영진, 실무자와 함께 세부적인 토론과 대안 평가를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독창성 등이 요구된다.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판단력도 필요하다. 또한 업무가 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워크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교성과 의사소통 능력도 필수적이다.<br/><br/>기업 자료 분석,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는 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의뢰 업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하므로 의뢰인의 사무실을 빈번히 이동하며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출장이 잦은 편이다. 또 프로젝트 마감일에 임박하거나 기존 고객을 위한 컨설팅 등으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통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된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3년 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학사 학위로도 채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많고 특히 경영학 석사(MBA) 출신자가 많다. 입사 초기에는 연구 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자로 활동하면서 업무를 익히고, 내부의 자체 교육을 통해 차츰 전문가로 성장해나간다. 컴퓨터활용능력과 외국어 능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하며 세미나, 학회, 학술서적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전문 분야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경영학과, 산업공학과, 경제학과, 컴퓨터 및 정보 관련 학과, 기계공학과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br/><br/>여긴 어때?<br/><br/>단국대 국제경영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단국대 국제경영학과는 국제경영학 관련 이론과 실제를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다. 입학 후 경영학, 심리학, 통계학 등의 과목으로 전공 기반을 다지고 2학년 2학기부터 세계지역 연구, 국제관계, 국제 마케팅 등 심층적으로 공부한다. 유학생, 교환학생 등 외국인 학생과 함께 수업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전공과목을 100% 영어로 강의한다. 4학년 때는 국내와 해외인턴십,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실무 경험을 쌓는다.<br/><br/>이래서 좋아!<br/><br/>국제경영학과는 교환학생, 해외 유명 교수 초청 강연, 글로벌기업인턴십 등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해외 자매 대학에서 공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국대에서 2년간 공부하고 미국 서던오리건 대학에서 2년간 수강하는 ‘2+2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두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다.서울시립대 경영학부<br/><br/>무엇을 배울까?<br/><br/>서울시립대 경영학과는 실무 중심의 경영 교육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성과 트랙’은 재무, 회계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 각종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 실제 2012년 48명의 학생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수업 이외에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특강을 개최한다. 경영 분야에서 현재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경영 실무 및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준다.<br/><br/>이래서 좋아!<br/><br/>글로벌에 초점을 맞춰 학생 활동을 지원한다. 전 세계 41개국 193개 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어 인턴십,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선진도시 탐방 등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한다. 과목 이수, 수강, 진로와 관련해 매 학기 학생과 교수 사이에 정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06 간호사<br/><br/>어떤 일을 할까?<br/><br/>우리에게 친숙한 직업 중 하나인 간호사는 10년 뒤에도 일자리 수가 폭넓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등으로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전망이다. 또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다.<br/><br/>담당하는 업무는 비슷하지만 근무지에 따라 보건간호사, 보험심사간호사, 간호장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간호사는 주로 의료기관에서 일하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험심사 간호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청구 및 심사관리,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이 비용 대비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장교는 전국의 국군병원에서, 산업간호사는 사업장 건강관리실에서 근무한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기본적으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며 환자 치료나 사물, 도구, 기계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작 능력도 갖춰야 한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이 이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간호사가 되려면 정규대학 간호학과(4년제)나 간호전문대학(3년제)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국공립병원, 사립병원, 결핵요양소, 정신병원 등의 전문병원에서 임상간호를 하거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보건간호사로 근무한다.<br/><br/>여긴 어때?<br/><br/>삼육대 간호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삼육대 간호학과는 현장 연결 교육을 중시해 간호학 이론부터 실습까지 교육과정이 잘 짜여 있다. 간호 업무는 물론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와 정책, 의료 법규에 대해 배운다. 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을 길러내고 있다.<br/><br/>이래서 좋아!<br/><br/>삼육대는 장학생에게 미국 자매 대학에서 1년간 유학을 지원한다. 간호학과에는 교직 과정이 운영되며 보건교사, 보건교육사 등 관련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간호학과에서 함께 전공할 수 있는 중독연계전공은 국내 최초의 중독 특성화 교육이 가능한 과정이다. 해외 중독 관련 기관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중독연구기관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전문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br/><br/>07 수의사<br/><br/>어떤 일을 할까?<br/><br/>최근 1인 가구,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서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관련 규제와 의무가 증가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치료, 분만, 건강관리,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의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r/><br/>수의사는 동물의 질병과 상해를 예방하고 진단, 치료한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물론 소나 돼지 등의 가축, 호랑이나 사자 등의 동물원 동물 그리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꿀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 등에서 동물에 대한 연구나 생명공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 개발에 참여한다. 농장에 있는 동물이나 실험동물을 관리하기도 한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동물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든 동물은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자칫 동물의 돌발적 행동으로 다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또 광견병이나 브루셀라처럼 사람에게 전염되는 동물 질병도 있기 때문에 진료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수의사는 관찰력이 있는 꼼꼼한 사람이 유리하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침착성과 인내심, 끈기가 필요하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수의예과 2년, 수의학과 4년, 총 6년 체제인 수의학을 전공해야 한다. 1~2학년 때 수의예과에서 기본적 교양과 수의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 수의본과에서 4년간 수의학을 공부한 뒤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내에는 국립대 9곳 외에 사립대학교인 건국대학교까지 총 10개 대학에 수의학과가 있다.<br/><br/><br/><br/>여긴 어때?<br/><br/>건국대 수의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건국대 수의학과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연구 및 관련된 학문을 배운다. 기본적으로 수의학과 함께 유전공학, 의학, 공중보건학 등 여러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건국대는 미국수의학교육인증(AVMA)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도부터 건국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수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br/><br/>이래서 좋아!<br/><br/>수의학과는 건국대 내에서 ‘프라이드 리딩 그룹(PRIDE Leading Group)’에 선정되어 학교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건국대 수의학과는 특히 동물백신 기술에 뛰어나며 암치료 센터와 줄기세포 치료센터를 설립해 국내 동물병원을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용 백신 연구개발센터, 기술회사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캠퍼스 씨네21 MODU 뉴스팀<br/>SQ: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6.txt

제목: [꿈꾸는 모두] 10년 뒤에도 맑음! 미래 유망 직업 BEST 7  
날짜: 2015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10174922598  
본문: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뜰까? 사물인터넷 개발자, 홀로그램 전문가, 소셜미디어 전문가 등 사람들이 예측하는 직업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앞으로 10년 동안 일자리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직업을 소개한다. 더불어 관련 학과도 살펴보자.<br/><br/><br/><br/>01 환경공학 기술자<br/><br/>어떤 일을 할까?<br/><br/>환경공학 기술자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부터 생태계, 폐기물 등 환경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사람이다.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학 원리를 활용해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쓰인다. 관리 분야 및 연구 영역에 따라 대기환경 기술자, 수질환경 기술자, 토양환경 기술자, 소음진동 기술자, 폐기물처리 기술자, 환경영향평가원 등으로 구분한다.<br/><br/>주요 근무지는 환경 전문 용역업체,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체, 폐기물 처리 회사, 건설업체 등 산업체와 각종 환경 관련 연구소, 정부투자기관, 학교 등이다.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 및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환경직 공무원(7급, 9급) 채용시험에 응시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평소 환경에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 기본, 통계 및 수학 계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수리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오랜 시간 한 가지 주제를 반복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와 인내심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는 소명감이다. 소각로 및 화학약품을 취급할 때는 소음, 폭발, 냄새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br/><br/><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대학에서 환경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된다.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해양환경공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과학과, 환경정보과 등을 전공하는 것이 도움된다.<br/><br/>여긴 어때?<br/><br/>성신여대 청정융합과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성신여대 청정융합과학과는 자연, 에너지, 환경 분야를 인문•사회과학과 연계한 학과다. 기본적으로 물리학, 화학, 환경학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책임, 생태관광, 지속가능 보고서, 환경법, 환경과 국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 관련 특강을 진행한다.<br/><br/>이래서 좋아!<br/><br/>다른 대학과 달리 자연과학 분야를 공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과 경제가 상호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에너지 자원 보존,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환경친화성 진단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환경, 나노 등 미래의 유망한 융합기술을 연구한다.<br/><br/>02 전자공학 기술자<br/><br/>어떤 일을 할까?<br/><br/>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TV, 냉장고, 컴퓨터, 휴대전화까지 우리 생활에서 전자제품은 필수품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향후 10년 뒤에도 전자제품 장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전자공학 기술자의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 전자공학 기술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반도체,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전자 시스템에 활용되는 각종 전자회로와 전자 부품을 설계•개발하는 일을 한다. 또 전자기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br/><br/>전자제품을 설계•개발하려면 가장 먼저 소비자의 의견을 모으는 시장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의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업체 제품과 기술 경향 및 변화 등을 분석하는 것도 전자공학 기술자의 몫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디자인과 생산 가능성 등에 대해 제품 디자이너와 협의하고, 제품단가와 시장성 등을 고려해 신제품에 적합한 부품, 부속품, 회로 등을 설계한다. 설계도가 완성되면 시제품을 만들어 진동이나 충격에 강한지 등 성능을 확인한다. 검사 후에는 기존의 생산 시스템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생산라인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의한 뒤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 대량으로 생산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과 불량품 생산 여부를 검사한다. 연구•개발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할 때도 있으며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한다.<br/><br/>전자공학 기술자는 대개 가전제품 제조업체, 반도체 생산업체, 전자의료기 생산업체, 사무자동화기기 생산업체, 기업체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한다.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벤처 업체를 창업하기도 하며 기술 컨설팅, 기술 영업 같은 분야로 옮기거나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전자공학 기술자는 전자 소재 부품의 개발•생산 및 조립 단계부터 최종 전자 시스템의 연구•개발과 생산•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분석적 사고와 탐구적인 성격의 사람에게 적합하다. 기술 설계와 분석, 품질관리 분석 등의 능력이 요구되며, 컴퓨터와 전자공학, 공학과 기술 등의 지식도 갖춰야 한다. 컴퓨터 활용능력과 수학, 물리학 등 이과 과목에 대한 이해와 실용적 사고 등을 키우는 것도 좋다.<br/><br/>제품 생산을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근무하지만, 대부분 연구소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 기업과 공동으로 작업하면 해외 출장을 가거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서 일하기도 한다. 연구•개발을 위해 초과근무를 할 때가 많으며, 연구 성과가 미진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전기공학, 통신공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에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들이 대부분이다.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등의 전공을 이수하면 된다.<br/><br/>여긴 어때?<br/><br/>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는 전자, 통신, 네트워크와 정보기술에 대해 배운다. 교과목은 크게 반도체 및 파동, 회로 및 시스템, 통신 및 신호처리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에 맞줘 수준 높은 공학 교육을 제공하는 경희대는 컴퓨터공학 등 다른 전공과 결합한 교육과정으로 설계 능력이 뛰어난 창의적인 IT 시스템 전문가를 길러낸다.<br/><br/>이래서 좋아!<br/><br/>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는 지난해 세계대학평가 전자공학분야 100위권에 진입하며 성장 중이다.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80% 이상이 전공 분야로 진출한다. 특히 정부,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KT장학금, 이건수장학금, 포항제철장학금 등 다른 학과에는 없는 다양한 외부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한다.숙명여대 IT공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숙명여대 IT공학과는 발전된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학과다. ‘스마트 기기 솔루션’ 과정에서는 각종 모바일과 웨어러블 장치에 대해 공부하며, ‘데이터 공학’ 과정에서는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분석해 나아가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또 ‘감성 컴퓨팅’에서는 인체의 특징과 감성을 기계나 프로그램에 최대한 반영하는 법을 연구한다. 6개월의 실무 인턴, 졸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다.<br/><br/>이래서 좋아!<br/><br/>새로 신설한 공과대학에 소속된 IT공학과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2016학년도 입학생 모두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장학금 혜택도 마련돼 있다. 포항공대, 싱가포르 난양공대, 미국 UC버클리, MIT 등 명문 공대와도 교류하며 협업을 진행 중이다.한국산업기술대 나노•광공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한국산업기술대 나노•광공학과는 LED,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IT 제품에 들어가는 광 관련 기술을 주로 배운다. 광학물리, 재료공학, 기계공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습 과정이 병행된다. LED, 디스플레이, 디지털 융합가전, 광의료기기, 나노 첨단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br/><br/>이래서 좋아!<br/><br/>나노•광공학과는 기초•설계, 가공•공정, 측정•평가의 단계를 거쳐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교수진, 실무 연구진과 연계한 수업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한다. 반도체 제조 시설을 갖춘 LED 센터, 미래융합기술연구소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03 청소년 지도사<br/><br/>어떤 일을 할까?<br/><br/>청소년 지도사는 성격, 적성, 지능, 진로 및 신체적•정서적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에 놓인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의뢰를 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상담, 집단상담, 기록상담, 위기상담, 인터넷 상담, 자기 성장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한다.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것도 청소년 지도사의 중요한 업무이며, 각종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한다.<br/><br/>특히 청소년상담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진로•적성•흥미•인성 등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나 심리 상담을 해주는 청소년 지도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계획을 세우고 관리•조정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인간의 심리 및 성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며, 타인에 대한 포용력과 집중력, 통찰력이 요구된다. 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해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과 자신의 감정 및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인내심과 성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 아동학과, 청소년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과 등의 전공을 추천한다. 심리학과, 상담심리과 등 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좋다.<br/><br/>여긴 어때?<br/><br/>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교육학, 심리학, 사회교육학에 평생교육 과정까지 청소년에 특화된 지도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 발달 조사, 청소년 지도 상담 등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 졸업 후에는 청소년지도학, 사회교육학, 청소년 지도행정 등 여러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br/><br/>이래서 좋아!<br/><br/>법무부, 한국청소년연맹 등 여러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평가를 도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학과 자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활발한 청소년 활동 사업도 전개한다. 본교의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시 청소년 지도사 2급 국가자격증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2급, 복수전공으로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도 취득할 수 있다.04 사회복지사<br/><br/>어떤 일을 할까?<br/><br/>사회복지사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심리적•정서적 지원, 생활 지원, 교육•훈련, 대인관계 기술 훈련, 건강관리, 법률 지원 등을 한다.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기도 한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투철한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해심, 사회성이 요구되며, 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직관적인 대처 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도 있어야 한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수업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14과목)와 현장실습(120시간)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별도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공 학과로는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노인복지학과, 노인보건복지과, 실버보건학과, 가족복지과, 산업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도시복지학과 등을 추천한다.<br/><br/>여긴 어때?<br/><br/>대진대 사회복지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대진대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력을 기르고 있다. 사회복지학,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자원봉사론 등의 수업을 바탕으로 기초지식 및 사회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br/><br/>이래서 좋아!<br/><br/>일반적으로 공학 교육에 사용되는 ‘캡스톤 디자인’ 과정을 사회복지학에 도입해 복합적인 업무 역량을 키운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설정하고 창의적인 해결법을 제시해야 한다. 교재교구 개발, 웹•모바일 앱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되고, 국가시험을 통해 1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05 경영 컨설턴트<br/><br/>어떤 일을 할까?<br/><br/>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듯, 기업도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경영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 경영 컨설턴트는 기업체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에 관한 상담과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진단해야 할 부분은 경영전략, 인사 및 조직 관리, 재무 및 회계, 마케팅, 고객관리, 제품개발, 생산 및 품질 관리, 정보 및 전산시스템, 물류, 설비, 환경 등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산업 분야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다. 담당하는 전문영역에 따라 전략 컨설턴트, 조직 컨설턴트, 재무 컨설턴트, 마케팅 컨설턴트, 생산품질 컨설턴트, IT 컨설턴트, 환경 컨설턴트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경영 컨설팅의 업무는 문제 파악을 위한 조사와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 자문, 지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다. 업무의 범위는 경영 진단이나 사업체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성과 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하고 실제 수행하는 단계까지 포함한다.<br/><br/>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공개 입찰을 통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경영 및 진단 전문가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컨설팅 비용, 조사 내용과 방법, 컨설팅 인원 및 소요기간, 컨설팅 수행 실적 등을 담은 관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적합한 사람들로 팀을 꾸려 팀장의 총괄 아래 조사를 실시하며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점과 주요 이슈를 파악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과 대안을 설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제안서를 가지고 고객 회사의 경영진, 실무자와 함께 세부적인 토론과 대안 평가를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독창성 등이 요구된다.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판단력도 필요하다. 또한 업무가 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워크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교성과 의사소통 능력도 필수적이다.<br/><br/>기업 자료 분석,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는 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의뢰 업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하므로 의뢰인의 사무실을 빈번히 이동하며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출장이 잦은 편이다. 또 프로젝트 마감일에 임박하거나 기존 고객을 위한 컨설팅 등으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통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된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3년 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학사 학위로도 채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많고 특히 경영학 석사(MBA) 출신자가 많다. 입사 초기에는 연구 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자로 활동하면서 업무를 익히고, 내부의 자체 교육을 통해 차츰 전문가로 성장해나간다. 컴퓨터활용능력과 외국어 능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하며 세미나, 학회, 학술서적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전문 분야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경영학과, 산업공학과, 경제학과, 컴퓨터 및 정보 관련 학과, 기계공학과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br/><br/>여긴 어때?<br/><br/>단국대 국제경영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단국대 국제경영학과는 국제경영학 관련 이론과 실제를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다. 입학 후 경영학, 심리학, 통계학 등의 과목으로 전공 기반을 다지고 2학년 2학기부터 세계지역 연구, 국제관계, 국제 마케팅 등 심층적으로 공부한다. 유학생, 교환학생 등 외국인 학생과 함께 수업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전공과목을 100% 영어로 강의한다. 4학년 때는 국내와 해외인턴십,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실무 경험을 쌓는다.<br/><br/>이래서 좋아!<br/><br/>국제경영학과는 교환학생, 해외 유명 교수 초청 강연, 글로벌기업인턴십 등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해외 자매 대학에서 공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국대에서 2년간 공부하고 미국 서던오리건 대학에서 2년간 수강하는 ‘2+2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두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다.서울시립대 경영학부<br/><br/>무엇을 배울까?<br/><br/>서울시립대 경영학과는 실무 중심의 경영 교육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성과 트랙’은 재무, 회계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 각종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 실제 2012년 48명의 학생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수업 이외에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특강을 개최한다. 경영 분야에서 현재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경영 실무 및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준다.<br/><br/>이래서 좋아!<br/><br/>글로벌에 초점을 맞춰 학생 활동을 지원한다. 전 세계 41개국 193개 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어 인턴십,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선진도시 탐방 등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한다. 과목 이수, 수강, 진로와 관련해 매 학기 학생과 교수 사이에 정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06 간호사<br/><br/>어떤 일을 할까?<br/><br/>우리에게 친숙한 직업 중 하나인 간호사는 10년 뒤에도 일자리 수가 폭넓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등으로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전망이다. 또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다.<br/><br/>담당하는 업무는 비슷하지만 근무지에 따라 보건간호사, 보험심사간호사, 간호장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간호사는 주로 의료기관에서 일하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험심사 간호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청구 및 심사관리,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이 비용 대비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장교는 전국의 국군병원에서, 산업간호사는 사업장 건강관리실에서 근무한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기본적으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며 환자 치료나 사물, 도구, 기계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작 능력도 갖춰야 한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이 이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간호사가 되려면 정규대학 간호학과(4년제)나 간호전문대학(3년제)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국공립병원, 사립병원, 결핵요양소, 정신병원 등의 전문병원에서 임상간호를 하거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보건간호사로 근무한다.<br/><br/>여긴 어때?<br/><br/>삼육대 간호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삼육대 간호학과는 현장 연결 교육을 중시해 간호학 이론부터 실습까지 교육과정이 잘 짜여 있다. 간호 업무는 물론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와 정책, 의료 법규에 대해 배운다. 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을 길러내고 있다.<br/><br/>이래서 좋아!<br/><br/>삼육대는 장학생에게 미국 자매 대학에서 1년간 유학을 지원한다. 간호학과에는 교직 과정이 운영되며 보건교사, 보건교육사 등 관련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간호학과에서 함께 전공할 수 있는 중독연계전공은 국내 최초의 중독 특성화 교육이 가능한 과정이다. 해외 중독 관련 기관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중독연구기관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전문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br/><br/>07 수의사<br/><br/>어떤 일을 할까?<br/><br/>최근 1인 가구,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서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관련 규제와 의무가 증가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치료, 분만, 건강관리,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의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r/><br/>수의사는 동물의 질병과 상해를 예방하고 진단, 치료한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물론 소나 돼지 등의 가축, 호랑이나 사자 등의 동물원 동물 그리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꿀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 등에서 동물에 대한 연구나 생명공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 개발에 참여한다. 농장에 있는 동물이나 실험동물을 관리하기도 한다.<br/><br/>이건 꼭 알아둬!<br/><br/>동물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든 동물은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자칫 동물의 돌발적 행동으로 다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또 광견병이나 브루셀라처럼 사람에게 전염되는 동물 질병도 있기 때문에 진료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수의사는 관찰력이 있는 꼼꼼한 사람이 유리하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침착성과 인내심, 끈기가 필요하다.<br/><br/>어떻게 준비할까?<br/><br/>수의예과 2년, 수의학과 4년, 총 6년 체제인 수의학을 전공해야 한다. 1~2학년 때 수의예과에서 기본적 교양과 수의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 수의본과에서 4년간 수의학을 공부한 뒤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내에는 국립대 9곳 외에 사립대학교인 건국대학교까지 총 10개 대학에 수의학과가 있다.<br/><br/><br/><br/>여긴 어때?<br/><br/>건국대 수의학과<br/><br/>무엇을 배울까?<br/><br/>건국대 수의학과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연구 및 관련된 학문을 배운다. 기본적으로 수의학과 함께 유전공학, 의학, 공중보건학 등 여러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건국대는 미국수의학교육인증(AVMA)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도부터 건국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수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br/><br/>이래서 좋아!<br/><br/>수의학과는 건국대 내에서 ‘프라이드 리딩 그룹(PRIDE Leading Group)’에 선정되어 학교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건국대 수의학과는 특히 동물백신 기술에 뛰어나며 암치료 센터와 줄기세포 치료센터를 설립해 국내 동물병원을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용 백신 연구개발센터, 기술회사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캠퍼스 씨네21 MODU 뉴스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7.txt

제목: ‘송년의례’ 베토벤의 합창, 얼마나 아시나요?  
날짜: 2015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1300641  
본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연주가 ‘송년의례’로 정착된 지 오래다. 이달 내내 ‘합창’ 연주가 릴레이처럼 이어진다.<br/><br/>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케이비에스(KBS)교향악단(10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시작으로, 리신차오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도쿄 필하모닉 연합악단(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및 서울시향(27, 30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레오 크레머가 지휘하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옛 서울바로크합주단·29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의 연주다.<br/><br/> 같은 곡이 여러 차례 연주되지만, 동어반복은 아니다. 악단에 따라 음악적 어법과 연주 규모 등이 달라 각기 다른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이 작품은 사전 정보가 감상에 큰 도움이 된다. 베토벤 삶의 질곡과 시대적 배경, 작품의 예술적인 파격성 등을 이해하면 단순히 4악장 ‘환희의 송가’ 선율로만 알았던 이 곡이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br/><br/><br/><br/>벼랑끝 삶속 생애 마지막 교향곡 <br/>암울한 시대의 서정·격정도 담겨 <br/>‘환희의 송가’ 4악장으로 유명 <br/>반목·갈등 해소 의미 즐겨 연주돼 <br/>악단 규모 등 달라 올해도 기대감<br/><br/><br/><br/> ■ 절망을 넘어선 환희의 노래 <br/><br/> 1824년 5월7일 오스트리아 빈 케른트너토어 궁정 오페라 극장. 베토벤 생애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이 초연됐다. 관현악과 성악이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교향곡이 처음 울려 퍼진 순간, 정작 작곡가 본인은 듣지 못했다. 심한 귓병의 후유증으로 청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베토벤은 초연 지휘를 맡아 무대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그의 옆에 선 궁정악장인 미하엘 움라우프가 대신 지휘했다. 베토벤은 연주가 끝난 뒤 청중의 환호 소리조차 듣지 못해, 알토 독창자였던 카롤리네 웅거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끌어 뒤돌아 세웠다고 전해진다. <br/><br/> 이 곡을 창작할 무렵 베토벤의 삶은 벼랑에 선 듯 위태로웠다. 빈 음악계는 베토벤 특유의 파격적이고 심각한 음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자극적인 줄거리와 귀에 꽂히는 아리아로 무장한 이탈리아 오페라가 유행했다. 조카 카를의 양육권 문제와 귀족의 후원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지병과 강박적 성격에 따른 스트레스도 베토벤을 옥죄었다. <br/><br/> 당대의 정치사회적 여건도 그에게서 희망을 앗아갔다. 프랑스혁명 이후 전제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리라 믿었던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했고, 나폴레옹 몰락 후엔 메테르니히의 보수·철권통치와 시민운동 탄압이 이어졌다. 베토벤이 지지하던 공화주의와 정반대 방향이었다. 그는 극심한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br/><br/>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이 모든 암울함 가운데 탄생했다. 현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의 기원에 가 닿은 듯 신성(神聖)을 품은 음악이었다. 1악장의 도입부터 기존 교향곡들과는 전혀 다르다. 처음 들으면 ‘이것이 교향곡의 시작인지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인지’ 헷갈릴 만큼 모호하다. 이 독특한 도입부는 우주의 빅뱅을 연상시키는 장대한 합주로 나아간다. 2악장에서는 포악과 익살, 서정과 격정이 무시무시한 진폭으로 널뛴다. 소요와 소강을 반복하는 인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평화로운 3악장을 지나 4악장에 이르러 인성(人聲)이 오케스트라와 결합하면 ‘합창교향곡’은 다른 차원에 들어선다. 4명의 독창자(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바리톤)는 처음부터 합창단과 함께 무대 위에 자리하기도 하고 2악장이 끝난 뒤 입장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독창자들이 오케스트라 앞에 자리하기도 했으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독창자들이 악단의 뒤편에 합창단원들과 함께 자리한다. 너무나 유명한 4악장의 ‘환희의 송가’는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가 1785년에 지은 시 ‘자유 찬가’를 베토벤이 번안해 가사를 붙였다. “모든 인간은 한 형제”라며 전 인류의 우애와 단결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최대 2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전체가 한마음으로 부르는 장엄한 합창은 청중의 가슴을 깊이 울린다. 이 때문에 한 해 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연말에 즐겨 연주한다.<br/><br/> ■ 초연 편성 vs. 현대적인 대편성 <br/><br/>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는 1824년 초연 당시의 편성으로 연주한다. 올해 창단 50주년을 기점으로 현악합주단에서 관악·타악을 포함한 실내관현악단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베토벤 교향곡 9번은 첫 도전이다. 지휘는 독일 슈파이어 대성당 오르간 연주자이자 고음악 전문가인 레오 크레머가 맡는다. 김민 음악감독은 “<span class='quot0'>초연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50여명 규모의 오케스트라와 약 60명의 합창단원(고양시립합창단), 4명의 독창자(신지화, 추희명, 정의근, 전승현)가 무대에 선다</span>”고 밝혔다. 이어 “고악기를 사용하거나 당시의 주법을 재현하는 식의 원전 연주는 아니지만, 대편성으로 연주되는 현대적인 ‘합창교향곡’ 연주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리라 기대된다”며 “화려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레오 크레머의 음악적 개성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 서울시향은 2008년부터 ‘합창교향곡’을 송년의례로 정착시킨 장본인이다. 올해는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도쿄 필과의 연합 연주, 단독 연주를 합쳐 총 3번 공연이다. 규모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의 2배다. 초연 당시의 편성을 더블링(2배 편성)해 97명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4명의 독창자(홍주영, 백재은, 김석철, 박종민), 132명의 연합 합창단(국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이 출연한다. 케이비에스교향악단 역시 103명 규모의 오케스트라와 130명의 연합 합창단(고양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의정부시립합창단), 4명의 독창자(캐슬린 김, 이아경, 니콜라이 슈코프, 노대산)가 출연한다. <br/><br/>김소민 객원기자 somparis@naver.com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8.txt

제목: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내 몸의 암이 사라졌다”  
날짜: 20151207  
기자: 정의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1214784  
본문: 암 판정을 받았던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암이 치료됐다고 밝혔다.<br/><br/> 카터 전 대통령은 6일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열린 자신의 성경공부모임 참석자들에게 ‘뇌 검사 결과 암이 치료됐다’고 말했다고 <엔비시>(N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올해 91살인 그는 지난 8월 간에서부터 뇌까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퍼진 것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다.<br/><br/> 카터는 최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뇌에 퍼진 4군데의 암이 치료됐음을 보여줬다고 이날 전했다. 그는 “이번주 들어서, 의료진으로부터 어떠한 암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좋은 뉴스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성명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암과 싸우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단련하는 새로운 약물 치료제인 ‘펨브롤리주마브’의 정기적 투약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 ‘키트루다’라는 이 면역치료제는 머크앤코 제약사의 제품으로 투약 환자의 약 30% 정도가 암의 뚜렷한 감소 효과를 보았고, 약 5%가 완치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면역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의 생명 연장 효과를 봤다.<br/><br/> 카터는 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운명은 ‘신의 손에 있다’고 밝히면서도, 대외 활동을 계속해왔다. <br/><br/>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29.txt

제목: 우리가 탑승한 ‘팽창풍선’의 끝은 어디인가  
날짜: 2015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1019283  
본문: ▶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것도 점점 빠른 속도로. 이 영원한 팽창의 비밀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우린 천동설과 지동설을 두고 논란을 벌였던 과거 우주론의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우주 ‘밖’에 무엇이 있는지, 우주가 왜 팽창하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지구와 태양계,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는 우주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강환 박사의 우주론 세번째이자 마지막 글이다.<br/><br/>　<br/><br/>우주는 138억년 전 빅뱅으로 탄생해 지금까지 팽창을 계속한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의문은 팽창의 중심이 어디이며 바깥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주의 팽창에는 중심도 없고 바깥도 없다.<br/><br/>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이 팽창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흔히 2차원 평면인 풍선의 표면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br/><br/>풍선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명심해야 할 것은 풍선의 표면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풍선의 표면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겐 풍선 표면이 우주 전체이며 풍선의 안이나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 풍선 표면에 점을 찍은 상태에서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진다. 풍선 표면의 생명체에겐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다.<br/><br/>이 풍선 우주에서 팽창하는 것은 점과 점 사이의 공간(여기서는 평면)이다. 공간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지 어떤 존재하는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팽창하는 바깥이라는 것은 없다. 풍선 위의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다른 모든 점들은 그 점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마찬가지다. 모든 점이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점도 중심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팽창의 중심도 없다. 2차원 표면의 생명체가 풍선 표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없듯 3차원 공간에 사는 우리는 우주 공간 전체가 팽창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br/><br/>다시 한번 2차원 표면에 사는 생명체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자. 풍선 표면의 한 점에 위치한 생명체가 주위 다른 점을 본다면 모든 점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점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모두 다를 것이다. 가까이 있는 점은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점들은 빠르게 멀어진다. 더 멀리 있는 점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질 것이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 관측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br/><br/>우주의 미래, 세가지 시나리오<br/><br/>허블의 관측 이후 우주의 팽창은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의 기본 전제가 됐다.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없다.<br/><br/>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우주가 점점 커진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다는 의미다. 과거로 갈수록 우주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우주가 한 점이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우주가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빅뱅 이론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발견에서 나온 것이다. 1940년대에 등장한 빅뱅 이론은 1964년 우주배경복사의 발견으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는 우주론의 정설이 됐다.<br/><br/>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해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팽창 속도가 아주 조금씩 느려지면서 영원히 팽창을 계속하느냐, 팽창을 계속하지만 속도가 느려져 거의 0에 가깝게 되느냐, 아니면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 결국 멈춰진 다음 다시 수축하느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다. 빅뱅에 의해 팽창하는 우주는 내부 물질이나 에너지의 중력 때문에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br/><br/>세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 알아내면 된다. 팽창 속도가 과거에 비해 천천히 줄어든다면 영원히 팽창할 것이고, 빠르게 줄어든다면 팽창을 멈추고 수축할 것이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알아내려면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와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를 구해 서로 비교해보면 된다.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는 가까이 있는 은하를 관측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br/><br/>우주에서 과거를 본다는 것은 먼 곳을 본다는 의미다.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면 사실은 그 은하의 10억년 전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와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은하들의 스펙트럼만 분석하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었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원래 밝기’가 똑같은 별을 찾아야 한다. 별이 밝게 보이면 가까이 있는 은하이고 어둡게 보이면 멀리 있는 은하다. 한데 원래 밝기가 똑같은 별을 찾기가 어렵다.<br/><br/>우리는 풍선 표면의 한 점에 탔다 <br/>풍선은 부푼다, 안과 바깥은 없다 <br/>표면의 다른 점과 멀어진다 <br/>이것이 우주팽창의 원리 <br/>우주물리학 기초가 됐다<br/><br/>다른 점인 초신성 폭발 관측해 <br/>우주의 팽창 속도 구했다 <br/>놀랍게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br/>엔진은 수수께끼의 암흑에너지 <br/>여기까지가 과학이 아는 바다<br/><br/>초신성이 중요한 이유<br/><br/>1990년대가 되면서 특정 형태의 초신성이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데 적합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초신성은 질량이 큰 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폭발하는 것으로, 폭발 때 밝기가 그 초신성이 포함된 전체 은하의 밝기와 맞먹을 정도로 밝아서 먼 은하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별은 질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밝기도 달라서 그대로는 거리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다행히도 초신성 가운데 폭발 때 밝기가 거의 일정한 초신성이 있었다.<br/><br/>질량이 큰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지만 태양과 같이 질량이 작은 별은 폭발하지 않고 백색왜성이 되어 서서히 식어간다. 그런데 만일 이 백색왜성이 혼자가 아니라 이웃에 다른 별이 있다면 그 별에서 방출되는 물질이 백색왜성으로 끌려들어가 질량이 커지게 된다. 이웃별에서 끌려온 물질이 백색왜성에 계속 쌓여 백색왜성의 질량이 특정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해 폭발하는데 이것을 ‘Ia형 초신성’이라 한다. Ia형 초신성은 특정 한계를 막 넘은 상태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폭발 때 질량이 거의 일정하다. 당연히 밝기도 거의 일정해서 그 초신성이 속한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br/><br/>1990년대 초반부터 두 팀의 과학자들이 이 Ia형 초신성을 이용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관측하기 시작했다. 서로 경쟁하던 두 팀은 1998년, 독립적으로 관측 결과를 발표했다. 사용한 초신성과 분석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두 팀의 결론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두 팀의 과학자들도 모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관측 결과는 너무나 명백했다. 이대로라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팽창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br/><br/>우주의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추는 중력을 이기고 공간을 밀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자들은 정체불명의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암흑에너지’(dark energy)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다.<br/><br/>이 이름은 그 이전에 이름이 붙여져 있던 ‘암흑물질’(dark matter)과 연관돼 지어진 것이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질은 서로 정반대다. 암흑물질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중력 작용으로만 존재를 알 수 있는 물질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와는 반대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우주의 역사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사이 세력 싸움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주 초기에는 암흑물질의 힘이 더 강해서 팽창 속도가 느려졌다. 암흑에너지는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작았던 초기에는 그 역할이 크지 않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빈 공간이 커질수록 점점 커지게 돼 결국 암흑물질을 이기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게 됐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줄다리기에서 암흑에너지는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br/><br/>이 새로운 발견으로 우리는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게 됐다. 우주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것이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미래를 알 수 있게 해준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낸 두 팀의 과학자들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우주 가속 팽창의 발견으로 우리는 우주 탄생과 진화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했다. 우주는 138억년 전 빅뱅으로 탄생해 지금까지 팽창을 계속해오고 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처음에는 암흑물질 때문에 느려졌지만 암흑에너지의 세력이 커지면서 지금은 가속 팽창하고 있다. 앞으로 우주는 점점 빠른 속도로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것이다.<br/><br/>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암흑<br/><br/>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우주의 전체적 그림을 이해하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 우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아직 모른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주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br/><br/>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란 개념을 도입해 설명하는 우리는 어쩌면 과거 프톨레마이오스가 행성들의 움직임을 천동설에 끼워 맞추기 위해 ‘주전원’을 도입한 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가장 엄격하면서도 가장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주 가속팽창을 발견한 것도 과학자들이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관측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만일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 지금까지의 관측 결과를 모두 설명해준다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밝히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들의 정체가 밝혀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br/><br/>이강환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전시팀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0.txt

제목: 우리가 탑승한 ‘팽창풍선’의 끝은 어디인가  
날짜: 2015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04142706030  
본문: ▶ 성경에서 신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든다. 정설로 굳어진 빅뱅 이론에서도 빛은 우주의 탄생과 형성 초기인 ‘우주력’ 38만년께에 만들어졌다. 이 ‘태초의 빛’은 아직도 우주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떠돌고 있다. 오늘날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빛 중에도 이 태초의 빛이 섞여 있다. 우주의 비밀에 관한 실마리가 이 빛에 담겼다. 빅뱅 이론을 설명한 첫 회, 우주배경복사에 관한 지난 회에 이어 우주 팽창론과 암흑에너지에 관한 이강환 박사의 우주론 세번째 글이다.<br/><br/>　<br/><br/>우주는 138억년 전 빅뱅으로 탄생해 지금까지 팽창을 계속한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의문은 팽창의 중심이 어디이며 바깥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주의 팽창에는 중심도 없고 바깥도 없다.<br/><br/>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이 팽창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흔히 2차원 평면인 풍선의 표면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br/><br/>풍선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명심해야 할 것은 풍선의 표면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풍선의 표면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겐 풍선 표면이 우주 전체이며 풍선의 안이나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 풍선 표면에 점을 찍은 상태에서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진다. 풍선 표면의 생명체에겐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다.<br/><br/>이 풍선 우주에서 팽창하는 것은 점과 점 사이의 공간(여기서는 평면)이다. 공간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지 어떤 존재하는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팽창하는 바깥이라는 것은 없다. 풍선 위의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다른 모든 점들은 그 점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마찬가지다. 모든 점이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점도 중심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팽창의 중심도 없다. 2차원 표면의 생명체가 풍선 표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없듯 3차원 공간에 사는 우리는 우주 공간 전체가 팽창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br/><br/>다시 한번 2차원 표면에 사는 생명체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자. 풍선 표면의 한 점에 위치한 생명체가 주위 다른 점을 본다면 모든 점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점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모두 다를 것이다. 가까이 있는 점은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점들은 빠르게 멀어진다. 더 멀리 있는 점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질 것이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 관측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br/><br/>우주의 미래, 세가지 시나리오<br/><br/>허블의 관측 이후 우주의 팽창은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의 기본 전제가 됐다.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없다.<br/><br/>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우주가 점점 커진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다는 의미다. 과거로 갈수록 우주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우주가 한 점이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우주가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빅뱅 이론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발견에서 나온 것이다. 1940년대에 등장한 빅뱅 이론은 1964년 우주배경복사의 발견으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는 우주론의 정설이 됐다.<br/><br/>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해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팽창 속도가 아주 조금씩 느려지면서 영원히 팽창을 계속하느냐, 팽창을 계속하지만 속도가 느려져 거의 0에 가깝게 되느냐, 아니면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 결국 멈춰진 다음 다시 수축하느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다. 빅뱅에 의해 팽창하는 우주는 내부 물질이나 에너지의 중력 때문에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br/><br/>세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 알아내면 된다. 팽창 속도가 과거에 비해 천천히 줄어든다면 영원히 팽창할 것이고, 빠르게 줄어든다면 팽창을 멈추고 수축할 것이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알아내려면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와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를 구해 서로 비교해보면 된다.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는 가까이 있는 은하를 관측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br/><br/>우주에서 과거를 본다는 것은 먼 곳을 본다는 의미다.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면 사실은 그 은하의 10억년 전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와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은하들의 스펙트럼만 분석하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었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원래 밝기’가 똑같은 별을 찾아야 한다. 별이 밝게 보이면 가까이 있는 은하이고 어둡게 보이면 멀리 있는 은하다. 한데 원래 밝기가 똑같은 별을 찾기가 어렵다.<br/><br/>우리는 풍선 표면의 한 점에 탔다 <br/>풍선은 부푼다, 안과 바깥은 없다 <br/>표면의 다른 점과 멀어진다 <br/>이것이 우주팽창의 원리 <br/>우주물리학 기초가 됐다<br/><br/>다른 점인 초신성 폭발 관측해 <br/>우주의 팽창 속도 구했다 <br/>놀랍게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br/>엔진은 수수께끼의 암흑에너지 <br/>여기까지가 과학이 아는 바다<br/><br/>초신성이 중요한 이유<br/><br/>1990년대가 되면서 특정 형태의 초신성이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데 적합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초신성은 질량이 큰 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폭발하는 것으로, 폭발 때 밝기가 그 초신성이 포함된 전체 은하의 밝기와 맞먹을 정도로 밝아서 먼 은하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별은 질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밝기도 달라서 그대로는 거리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다행히도 초신성 가운데 폭발 때 밝기가 거의 일정한 초신성이 있었다.<br/><br/>질량이 큰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지만 태양과 같이 질량이 작은 별은 폭발하지 않고 백색왜성이 되어 서서히 식어간다. 그런데 만일 이 백색왜성이 혼자가 아니라 이웃에 다른 별이 있다면 그 별에서 방출되는 물질이 백색왜성으로 끌려들어가 질량이 커지게 된다. 이웃별에서 끌려온 물질이 백색왜성에 계속 쌓여 백색왜성의 질량이 특정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해 폭발하는데 이것을 ‘Ia형 초신성’이라 한다. Ia형 초신성은 특정 한계를 막 넘은 상태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폭발 때 질량이 거의 일정하다. 당연히 밝기도 거의 일정해서 그 초신성이 속한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br/><br/>1990년대 초반부터 두 팀의 과학자들이 이 Ia형 초신성을 이용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관측하기 시작했다. 서로 경쟁하던 두 팀은 1998년, 독립적으로 관측 결과를 발표했다. 사용한 초신성과 분석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두 팀의 결론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두 팀의 과학자들도 모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관측 결과는 너무나 명백했다. 이대로라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팽창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br/><br/>우주의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추는 중력을 이기고 공간을 밀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자들은 정체불명의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암흑에너지’(dark energy)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다.<br/><br/>이 이름은 그 이전에 이름이 붙여져 있던 ‘암흑물질’(dark matter)과 연관돼 지어진 것이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질은 서로 정반대다. 암흑물질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중력 작용으로만 존재를 알 수 있는 물질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와는 반대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우주의 역사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사이 세력 싸움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주 초기에는 암흑물질의 힘이 더 강해서 팽창 속도가 느려졌다. 암흑에너지는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작았던 초기에는 그 역할이 크지 않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빈 공간이 커질수록 점점 커지게 돼 결국 암흑물질을 이기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게 됐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줄다리기에서 암흑에너지는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br/><br/>이 새로운 발견으로 우리는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게 됐다. 우주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것이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미래를 알 수 있게 해준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낸 두 팀의 과학자들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우주 가속 팽창의 발견으로 우리는 우주 탄생과 진화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했다. 우주는 138억년 전 빅뱅으로 탄생해 지금까지 팽창을 계속해오고 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처음에는 암흑물질 때문에 느려졌지만 암흑에너지의 세력이 커지면서 지금은 가속 팽창하고 있다. 앞으로 우주는 점점 빠른 속도로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것이다.<br/><br/>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암흑<br/><br/>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우주의 전체적 그림을 이해하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 우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아직 모른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주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br/><br/>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란 개념을 도입해 설명하는 우리는 어쩌면 과거 프톨레마이오스가 행성들의 움직임을 천동설에 끼워 맞추기 위해 ‘주전원’을 도입한 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가장 엄격하면서도 가장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주 가속팽창을 발견한 것도 과학자들이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관측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만일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 지금까지의 관측 결과를 모두 설명해준다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밝히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들의 정체가 밝혀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br/><br/>이강환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전시팀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1.txt

제목: 여성이 6.5년 더 살지만 아픈 기간도 5.5년 더 길어  
날짜: 20151203  
기자: 김소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927231  
본문: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평균 82.4년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해 전보다 0.5년 늘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6.5년 더 오래 살고,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의 기대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br/><br/>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은 2000년 76년에서 14년 만에 6.4년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 <br/><br/> 여성이 85.5년으로 남성(79년)보다 6.5년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1985년 8.4년을 정점으로 2000년 7.3년, 2013년 6.5년으로 감소 추세다. 남성에게 높았던 간 질환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기대수명 차이도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br/><br/> 여성이 오래 살긴 하지만, 아픈 기간이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기대수명 85.5년 가운데 19.6년을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남성은 기대수명 79년 중 아픈 기간이 14.1년으로 예측됐다. 즉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기대수명이 여성은 65.9년, 남성은 64.9년이란 얘기다.<br/><br/> 지난해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높아졌다. 남성은 28.4%, 여성은 16.9%로 전년보다 각각 0.3%포인트씩 늘었다.<br/><br/> 한국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각각 1.2년, 2.4년 길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성의 경우 스위스(80.7년), 여성은 일본(86.6년)이다.<br/><br/> 지역별로 기대수명을 보면, 서울이 83.6년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82.9년)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81.3년)과 강원(81.4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전남이 8.3년으로 가장 격차가 컸고, 5.1년인 울산이 가장 적었다. 지난번 조사 때인 2011년과 견주면 충북과 경북에서 기대수명이 1.6년씩 늘어 최고 수준을 보였다.<br/><br/>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서울이나 대도시지역에서 기대수명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수준도 높고 건강을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사회경제적 차이가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주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2.txt

제목: 여성이 6.5년 더 살지만 아픈 기간도 5.5년 더 길어  
날짜: 20151203  
기자: 김소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03200134694  
본문: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평균 82.4년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해 전보다 0.5년 늘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6.5년 더 오래 살고,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의 기대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br/><br/>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은 2000년 76년에서 14년 만에 6.4년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 <br/><br/> 여성이 85.5년으로 남성(79년)보다 6.5년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1985년 8.4년을 정점으로 2000년 7.3년, 2013년 6.5년으로 감소 추세다. 남성에게 높았던 간 질환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기대수명 차이도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br/><br/> 여성이 오래 살긴 하지만, 아픈 기간이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기대수명 85.5년 가운데 19.6년을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남성은 기대수명 79년 중 아픈 기간이 14.1년으로 예측됐다. 즉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기대수명이 여성은 65.9년, 남성은 64.9년이란 얘기다.<br/><br/> 지난해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높아졌다. 남성은 28.4%, 여성은 16.9%로 전년보다 각각 0.3%포인트씩 늘었다.<br/><br/> 한국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각각 1.2년, 2.4년 길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성의 경우 스위스(80.7년), 여성은 일본(86.6년)이다.<br/><br/> 지역별로 기대수명을 보면, 서울이 83.6년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82.9년)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81.3년)과 강원(81.4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전남이 8.3년으로 가장 격차가 컸고, 5.1년인 울산이 가장 적었다. 지난번 조사 때인 2011년과 견주면 충북과 경북에서 기대수명이 1.6년씩 늘어 최고 수준을 보였다.<br/><br/>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서울이나 대도시지역에서 기대수명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수준도 높고 건강을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사회경제적 차이가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주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3.txt

제목: 12월 3일 인사  
날짜: 2015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815221  
본문: ⊙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산림보호국장 최병암<br/><br/>⊙ 뉴스1 △글로벌경제부 부장 겸 글로벌모니터 편집장 안근모<br/><br/>⊙ 강원대 △수의과대학장 겸 동물병원장 이은송 △경영경제연구소장 한정희 △의생명과학연구˝ 홍효정 △올림픽연구센터장 홍석표<br/><br/>⊙ 경희대 △감사행정원장 김종호<br/><br/>⊙ 조선대 △언어교육원장 정규영 △민주화운동연구˝ 문석우<br/><br/>⊙ 한국마사회 <승진> ◇실·처장급 1급을 △커뮤니케이션실장 박진국 △말보건원장 안계명 △서울고객지원처장 김종필△부산경마˝ 윤각현 △테마파크추진단장 송정석 <전보> ◇실장 △전략기획 강충석 △감사 최원일 △커뮤니케이션 박진국 <br/><br/>⊙ 코오롱그룹 <승진> 코오롱플라스틱 △대표이사 부사장 장희구 코오롱△전무 윤광복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 주성락 김상태 △상무 유병진 한경애 코오롱글로벌 △전무 안효상△상무 임성균 코오롱글로텍 △전무 노춘식 △상무 최지철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상무보 하명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전무 임추섭 코오롱플라스틱 △전무 김종문 △상무 서진철 박상봉<br/><br/>⊙ KG그룹 <승진> KG ETS △대표이사 겸 부사장 엄기민 KG 제로인 △대표이사 겸 전무 김병철 KG 써닝라이프 △대표이사 겸 상무 여민규 KG 케미칼 △사장 신영기 KG 이니시스 △전무 류승용 <br/><br/>⊙ KBS ◇부사장 △전진국 조문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4.txt

제목: 12월 3일 인사  
날짜: 2015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02191603186  
본문: ⊙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산림보호국장 최병암<br/><br/>⊙ 뉴스1 △글로벌경제부 부장 겸 글로벌모니터 편집장 안근모<br/><br/>⊙ 강원대 △수의과대학장 겸 동물병원장 이은송 △경영경제연구소장 한정희 △의생명과학연구˝ 홍효정 △올림픽연구센터장 홍석표<br/><br/>⊙ 경희대 △감사행정원장 김종호<br/><br/>⊙ 조선대 △언어교육원장 정규영 △민주화운동연구˝ 문석우<br/><br/>⊙ 한국마사회 <승진> ◇실·처장급 1급을 △커뮤니케이션실장 박진국 △말보건원장 안계명 △서울고객지원처장 김종필△부산경마˝ 윤각현 △테마파크추진단장 송정석 <전보> ◇실장 △전략기획 강충석 △감사 최원일 △커뮤니케이션 박진국 <br/><br/>⊙ 코오롱그룹 <승진> 코오롱플라스틱 △대표이사 부사장 장희구 코오롱△전무 윤광복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 주성락 김상태 △상무 유병진 한경애 코오롱글로벌 △전무 안효상△상무 임성균 코오롱글로텍 △전무 노춘식 △상무 최지철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상무보 하명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전무 임추섭 코오롱플라스틱 △전무 김종문 △상무 서진철 박상봉<br/><br/>⊙ KG그룹 <승진> KG ETS △대표이사 겸 부사장 엄기민 KG 제로인 △대표이사 겸 전무 김병철 KG 써닝라이프 △대표이사 겸 상무 여민규 KG 케미칼 △사장 신영기 KG 이니시스 △전무 류승용 <br/><br/>⊙ KBS ◇부사장 △전진국 조문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5.txt

제목: 암보험금 모호한 기준에 지급금도 제각각  
날짜: 20151201  
기자: 이재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728415  
본문: 50대 남성 박아무개씨는 암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8월 후두암 진단을 받아 1차 수술을 받고 재수술이 필요해 2∼3차례 추가로 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암 수술비 및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추가로 받은 수술이 ‘암의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일부만 주겠다고 했다.<br/><br/><br/><br/>‘직접적 치료 목적’ 문구에 <br/>보험사-소비자분쟁 잇따라<br/><br/><br/><br/> 모호한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br/><br/>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별로 지급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암 수술 뒤 암 요양병원에서 30일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유사한 사례에서 한 보험사는 30일 입원비 중 15일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한 사유가 아니라며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br/><br/> 이는 모호한 암 보험금 지급 기준 탓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 지급 사유를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라는 문구의 모호함이 분쟁을 부른다는 것이다.<br/><br/> 보험사는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가입자들은 암으로 입원·수술하는 모든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서다.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208건(92.5%)으로 가장 많았다.<br/><br/> 소비자원은 암 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하고, 직접적인 치료 외에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치료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br/><br/>이재욱 기자 u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6.txt

제목: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올해 말까지 받으세요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750119  
본문: Q:올해 초에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아직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br/><br/><br/><br/>A: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검진과 암 검진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아야 하거나 암 검진 가운데 대장암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내년 1월31일까지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40살과 66살에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역시 올해 말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 21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상이 나오면 2차 검진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3개 만성질환의 확진을 위해 6개 항목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br/><br/> 일반검진 요령은 직장은 회사에서 통보가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우편 등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 받으면 됩니다. 암 검진은 위암은 만 40살부터 2년 주기로, 대장암은 만 50살부터 1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만 40살과 만 30살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한번씩 받습니다. 간암의 경우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등 간암 발생 가능성이 큰 질환자를 대상으로 만 40살부터 1년 주기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암 검진은 전체 비용의 10%를 낼 수 있습니다.<br/><br/> 검진을 받기 전 검진기관에 예약을 한 뒤 방문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생활습관을 묻는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 내야 합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7.txt

제목: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올해 말까지 받으세요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02154321209  
본문: Q:올해 초에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아직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br/><br/><br/><br/>A: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검진과 암 검진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아야 하거나 암 검진 가운데 대장암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내년 1월31일까지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40살과 66살에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역시 올해 말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 21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상이 나오면 2차 검진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3개 만성질환의 확진을 위해 6개 항목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br/><br/> 일반검진 요령은 직장은 회사에서 통보가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우편 등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 받으면 됩니다. 암 검진은 위암은 만 40살부터 2년 주기로, 대장암은 만 50살부터 1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만 40살과 만 30살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한번씩 받습니다. 간암의 경우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등 간암 발생 가능성이 큰 질환자를 대상으로 만 40살부터 1년 주기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암 검진은 전체 비용의 10%를 낼 수 있습니다.<br/><br/> 검진을 받기 전 검진기관에 예약을 한 뒤 방문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생활습관을 묻는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 내야 합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8.txt

제목: 암보험금 모호한 기준에 지급금도 제각각  
날짜: 20151201  
기자: 이재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01204028996  
본문: 50대 남성 박아무개씨는 암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8월 후두암 진단을 받아 1차 수술을 받고 재수술이 필요해 2∼3차례 추가로 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암 수술비 및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추가로 받은 수술이 ‘암의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일부만 주겠다고 했다.<br/><br/><br/><br/>‘직접적 치료 목적’ 문구에 <br/>보험사-소비자분쟁 잇따라<br/><br/><br/><br/> 모호한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br/><br/>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별로 지급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암 수술 뒤 암 요양병원에서 30일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유사한 사례에서 한 보험사는 30일 입원비 중 15일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한 사유가 아니라며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br/><br/> 이는 모호한 암 보험금 지급 기준 탓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 지급 사유를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라는 문구의 모호함이 분쟁을 부른다는 것이다.<br/><br/> 보험사는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가입자들은 암으로 입원·수술하는 모든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서다.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208건(92.5%)으로 가장 많았다.<br/><br/> 소비자원은 암 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하고, 직접적인 치료 외에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치료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br/><br/>이재욱 기자 u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39.txt

제목: SK하이닉스 “반도체 직업병 포괄적 보상·지원”  
날짜: 20151125  
기자: 이정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237886  
본문: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반도체 작업장 노동자의 직업병 의심질환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년간 하이닉스 반도체 작업장의 산업보건 실태를 점검한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br/><br/> 에스케이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위원장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pan class='quot0'>반도체 작업장과 직업병 의심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다</span>”면서도 회사 쪽에 포괄적 지원·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span class='quot1'>검증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 검증위는 지난해 <한겨레>가 하이닉스 반도체 작업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의심질환 발병 사실을 보도(<한겨레> 2014년 7월28일치 1면, 8월4일치 1면)한 뒤 그해 10월 하이닉스로부터 독립된 외부전문가 7명으로 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br/><br/> 검증위는 작업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860종) 가운데 에틸벤젠 등 발암성이나 독성 물질(18종)이 있지만 노동자에게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생산직 노동자들은 사무직보다 대사증후군 발생 확률이 2.4~3.2배 높았다. 갑상선암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남성은 2.6배, 여성은 1.3배 발생 확률이 높았고, 여성 노동자는 평균보다 자연유산(1.3배)이나 방광염(1.1배) 등이 많았다.<br/><br/> 하지만 검증위는 일부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것과 직접 연관시키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발생 기전이 복잡한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 발병률은 10~20년 추적 관리해야 하는데, 인과관계를 따지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강 손상 근로자들의 치료와 일상 유지에 필요한 기본 수준을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보상 체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br/><br/> 검증위는 지원 대상에 협력업체 재직자와 퇴직자 및 자녀 등을, 지원 대상 질병에 반도체 산업과 조금이라도 상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암과 자연유산,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직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렸다면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증위의 판단</span>”이라고 말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기반해 의심 사례로 나타난 모든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겠다. 이른 시일 안에 노사와 사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지원·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지원·보상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br/><br/> 하이닉스에서 일하다 악성림프종으로 숨진 정철모씨의 부인 장영은(47)씨는 “<span class='quot2'>산재 신청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회사가 늦게라도 보상과 지원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span>”이라고 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하이닉스에서 일하다 ‘반도체 직업병’ 의심질환에 걸린 사람은 39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은 숨졌다. <br/><br/>이정훈 오승훈 기자 ljh9242@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0.txt

제목: 세월호·메르스에 ‘사업 휘청’…강도 전락한 가장  
날짜: 20151125  
기자: 서영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245311  
본문: 경기도에서 학교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이아무개(52)씨는 관련 특허권을 40여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능력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학교 관련 사업이 무더기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집을 팔고 3.3㎡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재기를 모색했다. 부인과 이혼했지만 두 자녀를 위한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줬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백혈병에 걸린 형의 병원 치료비도 그의 몫이었다. 그래도 이씨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br/><br/>다시 일어서겠다는 이씨의 바람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앞에 완전히 꺾였다. 많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연기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착실했던 50대 가장은 극심한 생활고 앞에서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지난 7월5일 저녁 8시30분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조아무개(61·여)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혼자 벤츠에 타는 걸 발견하고, 조수석에 따라 탔다. 그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운전석 문으로 뛰쳐나가 주변에 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r/><br/>그는 5일 뒤 컨테이너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실패하자 ‘부자들에게 하소연해서 돈을 좀 빌려보자’는 마음으로 무작정 강남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백화점 개장 시간에 맞춰 매장 안으로 들어가 손님 2~3명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500만원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애걸하기도 했다. <br/><br/>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차량의 경적을 울려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큰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씨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고 일주일 내에 치유된 점 등을 고려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특수강도미수죄를 적용했다. <br/><br/>서영지 기자 y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1.txt

제목: 메르스 마지막 환자 숨져…유족들 “격리탓 항암치료 못받아”  
날짜: 2015112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220441  
본문: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째 메르스 환자가 결국 숨졌다. 악성 림프종을 앓고 있던 이 환자의 유족들은 장기간 격리 상태여서 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80번째 메르스 환자(35·남)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5일 오전 3시께 숨졌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악성 림프종이라는 면역 계통 암을 앓고 있었는데, 지난 5월 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후 다섯달 동안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이다 10월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나 열흘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재입원한 뒤 환자의 가족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격리 병실 입원 중 암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숨지기 이틀 전인 23일에는 ‘메르스 마지막 환자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메르스로 인한 격리 때문에 제대로 된 항암 치료도 못 받고 (형이) 죽습니다. (중략)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님들 축하드립니다. 메르스 결국 종식되네요. 그토록 바라던 마지막 환자 죽음으로요”라고 썼다. 이 환자의 한 지인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항암치료를 하면 림프종이 줄어들면서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메르스 음성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결국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 항암치료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암 치료에 필요한 검사와 항암 치료도 모두 진행했다. 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과 같은 치료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환자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 유족들께는 죄송하지만 메르스 때문에 암 치료를 등한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의 사망으로 국내 메르스 사망자는 모두 38명이 돼,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 20.4%로 최종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애초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확진 검사에서 음성으로 최종 판정된 날로부터 28일(최대 잠복기인 14일의 2배)이 지난 시점을 메르스 종식 시점으로 잡았으나, 마지막 환자가 숨졌기 때문에 언제 종식 선언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2.txt

제목: 메르스 마지막 환자 “격리 탓 항암치료 못받아” 논란  
날짜: 2015112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243035  
본문: 지난 5월20일부터 시작된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에서 마지막 환자였던 80번째 환자는 25일 오전 3시 숨졌다. 악성 림프종이라는 면역계통의 암에 걸렸던 이 환자는 끝내 서울대병원의 격리병실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치료를 받는 동안에 가족들과의 접촉도 쉽지 않았다.<br/><br/> 이 환자는 지난 1일 메르스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치료에서 벗어났지만, 열흘 뒤 양성 판정이 나와 격리병실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다시 입원한 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 환자의 부인과 동생 등 가족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격리병실 입원 중 암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숨지기 이틀 전인 23일에는 ‘메르스 마지막 환자 동생입니다’라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 글에는 “메르스로 인한 격리 때문에 제대로 된 항암치료도 못 받고 (형이) 죽습니다. (중략)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님들 축하드립니다. 메르스 결국 종식되네요. 그토록 바라던 마지막 환자 죽음으로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앞으로 전염병 걸리면 자살 추천 드립니다. 아니면 질본이 죽일 거니까요”라고 써, 보건당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br/><br/> 이 환자의 한 지인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span class='quot0'>이 환자의 부인과 연락해 봤는데,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이 이 환자를 격리만 한 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span>”고 말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항암치료를 하면 림프종이 줄어들면서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고 항암치료를 하지 않으면 메르스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 항암치료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span>”는 의혹을 제기했다.<br/><br/> 이런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서울대병원 쪽은 의료계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격리치료를 6달 가까이 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환자 치료는 전적으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맡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대병원에 환자 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이를 듣는 의료진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검사는 물론 항암치료도 모두 진행했다. 또 조혈모세포이식수술과 같은 치료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환자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방호복을 입고 환자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결국 숨지게 돼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메르스 종식만을 위해 환자 치료를 등한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3.txt

제목: [왜냐면] “헬조선이 노답”이라고 포기한 친구에게 / 이소영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231551  
본문: 우리 나이 스물아홉살. 올해가 지나면 서른이 되겠네. (너무 싫다!!!) 서른이 되면 뭔가 조금 나아진 삶, 내 앞길이 보이는 삶일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 먼 것 같아. 넌 잘 살고 있니?<br/><br/> 난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다녀왔어. 10만명이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온통 차벽에 막혔고, 캡사이신 때문에 광화문 일대 공기가 너무 매워서 끔찍했어. 그리고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한 농민이 쓰러지셨고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셔. 너도 그걸 보고 페이스북에 ‘헬조선이다. 우리나라 노답이다’라며 분노의 글을 올렸더라. <br/><br/> 그런데 같은 날 프랑스에서 테러로 사람들이 죽었고, 내 페북 타임라인의 많은 사람들이 프사(프로필 사진)를 프랑스 국기로 바꿨더라구. 너의 프사에도 프랑스 국기가 달렸더라. 너는 물대포를 맞은 농민을 보면서 헬조선에 분노하고, 이 현실은 안 바뀔 거라며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프랑스 테러를 보고 네가 바로 프사를 바꾼 것을 보면서 기분이 이상했어. 먼 나라의 일에 작지만 그래도 행동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는 노답이라 했던 모습에 고민이 되더라. <br/><br/> 그래서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혹시 너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일상의 폭력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니?<br/><br/> 청년 일자리 만든다면서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말하는 정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종북’이라고 막말하는 정치인, 선거 때마다 공약을 내놓지만 지키지 않는 정치인, 비리를 저질러도 다시 당선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말 암 걸릴 것만 같지. 나는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가해진 일상적 폭력이라 생각해. 네가 말한 대로 정말 노답이지. 정말 오랫동안 해결되는 것도 없으니 너의 감정이 이해돼. 하지만 그렇게 포기한 순간 우리는 영원히 헬조선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나는 진짜 이민 갈 돈도 없어서 곧 죽어도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해.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아직 청춘이 많이 남았는데 말야!<br/><br/> 너무 끔찍하게도, 우리가 포기한다면 웃는 사람들은 헬조선을 만드는 장본인들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더 심한 헬조선에서 살게 되겠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라고 생각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라난 우리들이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이고, 절대적이고, 확실한 무기는 내가 가진 표라는 것을 폭력을 저지르는 저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어. 우리가 헬조선이라며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자. 친구야, 내가 민중총궐기에 나간 것은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어. 함께하자. 나의 이 바람이 너에게 반드시 닿았기를 간절히 바라. 우리 포기하지 말자! <br/><br/>이소영 서울 노원구 상계3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4.txt

제목: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활용하세요  
날짜: 2015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214739  
본문: Q: 아버님이 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중이신데,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병원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br/><br/><br/><br/>A: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보장강화 계획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제도개선이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복권기금 예산 가운데 300억원을 활용해 2013년 8월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4대 중증질환이나 중증화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은 애초 지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또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를 넘으나 300% 이하인 가구 가운데 병원비가 소득에 견줘 너무 많아 내기 곤란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낸 병원비가 200만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은 병원비가 100만원만 초과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입원할 때부터 퇴원 뒤 60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 수준은 환자가 내야 할 병원비 규모별로 다른데, 병원비가 100만~200만원이면 100만원 초과 금액을 지원하고 2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50%,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이면 60%, 1000만원을 넘기면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5.txt

제목: 죽음은 누구나 서툰 항해…당하지 말고 맞이해야  
날짜: 20151124  
기자: 이길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215166  
본문: “<span class='quot0'>스님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span>”<br/><br/>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스님이다. 평균 사흘에 한 번씩 죽음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가 지켜본 죽음은 대부분 ‘비참한 죽음’이다. 행려병자들이나 말기 암환자들의 죽음이다. 누구의 따뜻한 위로도 없이 홀로 고독하게 죽어가는 행려병자, ‘혼절’할 만큼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말기 암환자들의 죽음이 일상사였다. 그러면 죽음에 익숙할까? 익숙하다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지는 않을까? 오랫동안 수행했기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스스로 근원으로 돌아갈 수행력을 갖춘 스님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br/><br/><br/><br/>이 세상 들여놓았던 몸 떠나는데 <br/>어찌 아프고 힘들지 않을 수 있나 <br/><br/><br/><br/>엄마 뱃속 태아도 7달째면 <br/>자궁 밖 삶을 준비하듯 <br/><br/><br/><br/>그 너머의 또 다른 삶 위해 <br/>일상 속에서 죽음을 <br/>얘기하고 배우고 사랑해야 <br/><br/><br/><br/>한 해 15만㎞씩 돌아다니며 모금 <br/>108개 병상 ‘자재병원’ 짓고 <br/>해마다 120여명 죽음 함께 살아 <br/><br/><br/><br/>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31살에 출가 <br/><br/>스님의 얼굴에 언뜻 어둠이 비친다. “처음엔 엄청 두려웠어요. 때때로 죽음이 너무나 낯설고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두렵고 막막해서 죽음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스님은 “고통의 한계에서 이를 꽉 물고 마지막 생을 버티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들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나 하는 고민만 남아요”라고 말한다. <br/><br/> 능행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유일한 호스피스 병동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31살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법정 스님처럼 살고 싶어 출가했다고 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불교는 책을 통해 접했다. 그냥 법정 스님이 좋았다. 하지만 그는 출가 후에 한 번도 법정 스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조용한 산사에서 수행을 하기보다는 행려병자가 나뒹구는 병원에서 그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5~6년 하니 그런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2004년 인도에 가서 달라이 라마의 강연을 듣고 ‘발심’이 생겼다. 출가한 뒤 처음이었다. “<span class='quot0'>일체중생의 죽음과 고통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고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어요.</span>” <br/><br/><br/><br/>남편 품에서 맞은 아름다운 이별<br/><br/> 스님은 1999년부터 정토마을 호스피스 센터를 지어 운영하고 있었다. 한 해 15만㎞를 돌아다니며 병원을 짓기 위해 일반인들과 불자들에게 호소를 했다. 지난해까지 쉼 없이 모금하고 후원받아서 울산에 새로 땅을 사고, 현대식 병원을 지었다. 108개 병상이 있는 ‘자재병원’은 7천여명의 후원자가 매달 1만~3만원씩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br/><br/> 한 해 스님이 보는 임종은 120명 정도. 그들의 임종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스런 마지막 이승에서의 삶도 함께한다. “응급환자를 위해 개발된 첨단 의료기술이 응급환자가 아닌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되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온갖 기계와 호스에 의지한 채 생명을 유지하니, 기계가 인간의 장기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대부분 환자들이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숨을 거둬요.” <br/><br/> 스님에게 “혹시 아름다웠던 죽음은 없었나?” 물었다. 스님은 한 부부의 이별 장면을 이야기해줬다. 7년 전이다. 부부는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내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3년간의 투병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삶을 정리하려고 정토마을로 왔다.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몸을 놓고 훌훌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날마다 “아프더라도 같이 살자. 떠나지 마라”고 속삭이는 남편을 두고 갈 수 없었다. <br/><br/> 어느 날 아내는 꿈을 꾸었다. 아름다운 소녀가 다가와 같이 가자고 해서 뒤를 따라갔더니, 깨끗한 물이 흐르고 수많은 꽃이 피어 있는 곳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문득 남편에게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꿈에서 깨어났다. 아내는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여보, 그곳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몸이 하나도 안 아팠어. 아마 그곳이 극락세계인 것 같아. 나중에 당신도 와.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다. “그렇게 좋으면 가야지.”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내에게 떠나도 좋다고 허락을 했다. 부인은 남편 품에 안겨서 잠자듯 떠났다. <br/><br/> 스님은 이제는 ‘품격있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에만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도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스님은 “태어날 때도 7개월 정도 되면 태아가 자궁 안에서 자궁 밖의 독립된 삶을 준비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또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태아가 자궁 밖에 존재하는 밝은 빛과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모르듯이 누구도 죽음 너머에 대해 모르지만 분명히 밝은 빛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br/><br/><br/><br/>90%가 주민증 사진을 영정으로 <br/><br/>스님은 품격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배우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는 첫번째 방법은 죽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에 담아두면 더 큰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니까요.” <br/><br/> 스님은 죽음을 당하지 말고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세상에 들여놓았던 몸이 떠나는데 어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것조차 견뎌야 하는 것이 이생을 받는 대가입니다.” <br/><br/> 스님은 영정사진을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확대해 사용하는 이들이 아직도 90%가 넘는다고 한다. 그만큼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한 해를 넘길 때마다 사진과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훌쩍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이 당황을 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 학교에서도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곳에서 죽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삶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지’에 대해 확실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br/><br/><br/><br/>언제 어디서 부를지라도 선뜻 <br/><br/> 스님은 최근 말기 침샘암으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선생님에게 내일은 없어요.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요. 단 하루만 잘 살자고 다짐해봐요.”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과 하루하루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다고 한다. 의사들은 한 달을 못 버틸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석 달이 지났고, 병세도 크게 좋아졌다고 한다. <br/><br/> “법정 스님은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곤 밀려오는 거대한 죽음의 파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삶이라는 배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서툰 항해사들입니다.” 스님은 최근 자신의 호스피스 경험을 통해 겪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담은 <숨>(마음의숲)을 펴냈다. <br/><br/>울산/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6.txt

제목: 중학교 입학날 백혈병 날벼락…가족이 무너졌다  
날짜: 20151123  
기자: 방준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20115402  
본문: 이서연(가명)양은 13살, 포켓몬스터와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을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나이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진료실에서 약병을 단 채 앉아 있던 서연이는 피카추, 냐옹이 같은 포켓몬스터 캐릭터 인형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도 좋아하는 책을 묻는 질문에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답했다. 사춘기 소녀 서연이가 백혈병과 싸운 지 9개월이 넘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2~3년 정도의 치료가 더 남았다.<br/><br/><br/><br/>치료 확률 40%에 불과한 고위험군 <br/>조혈모세포 이식뒤 부작용 나타나 <br/>재발·합병증 우려 2~3년 치료해야<br/><br/><br/><br/>실직 아버지 대신 엄마가 생계 책임 <br/>여기저기 빌려 쌓인 빚만 5천만원 <br/>정부 지원 없는데 실비보험도 만기<br/><br/><br/><br/>의료진은 “완치 가능” 장담하지만 <br/>가족들 치료비·생계비 걱정 태산<br/><br/><br/><br/> 지난 3월2일,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서연이는 학교 계단을 오르다 주저앉았다. 입학식 내내 헛구역질이 치밀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았다.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에 암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서연양의 어머니 김현숙(가명·46)씨는 “‘수백만명 가운데 서너명이라는데 설마…’ 하며, 감기 증상이려니 생각했다.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도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미용실에 들러 반곱슬인 서연이 머리를 곱게 펴주고 머리핀도 사줬는데 친구들한테 그 예쁜 모습을 딱 하루 보여주고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다”고 말했다. 서연이의 달라진 머리 스타일을 보며 “서연이, 대박!”을 외치던 친구들은 각자 학교생활에 적응해갔고, 서연이는 입원해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서연이는 또래 친구들이 그렇듯 머리카락 꾸미기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 고운 머리카락은 2주 만에 독한 약기운을 못 이기고 뽑혀나가기 시작했다. <br/><br/> 서연이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가운데서도 고위험군에 속했다. 담당의사인 강형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백혈병 가운데서도 치료 확률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축에 속했다. 고위험군이었던 만큼 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했고,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 지금은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 서연이가 착하게 버텨줬다”고 덧붙였다. <br/><br/> ‘착하게 버텼’지만 항암치료를 받는 단계마다 서연이의 몸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1차 항암치료 과정에서는 서연이의 간 수치가 정상인의 30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간 해독제를 먹고 금식하며 항암치료를 멈춰야 했다. 치료를 겪으며 43㎏이었던 서연이의 몸무게는 33㎏까지 줄었다. 다리 근육이 약해져 걷기가 힘들어지자 휠체어를 탔다. 2차 항암치료를 받다가는 뇌졸중 증세가 나타나 팔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도 했다. 하루치를 모으면 한줌이나 되는 약을 한 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하는 매일매일이 반복됐다. 김씨는 “<span class='quot0'>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자는 아이를 깨워서 약을 먹여야 할 때였다</span>”고 했다. <br/><br/> 그사이 엄마의 마음에도 병이 깃들었다. 김씨는 지난 5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아이의 고통이 내 탓’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워킹맘이었던 김씨는 “일을 하느라 주말에는 잔소리만 하는 나쁜 엄마였다. 내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아이가 고통을 겪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했다. 김씨는 서연이가 산을 오르며 힘들다고 했던 일, 침대에 자주 눕던 일 등 하나하나를 되짚으며 “<span class='quot0'>그때 내가 세심하게 아이가 힘든 걸 눈치채지 못했다</span>”고 자책했다. 결국 김씨도 지난 7월부터는 일을 쉬기로 했다. 아버지도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가족의 소득은 김씨가 휴직한 뒤 받는 월급 100여만원이 전부다.<br/><br/> 또래 친구들의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서연이는 부럽다. ‘반톡’(반 친구들 카카오톡)을 보다가도 걸핏하면 속상해졌다. 서연이는 “친구들의 생일 파티 얘기, 자기들끼리 겪은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나는 참여하지 못하니까 화가 난다. 그런 날이면 화장실에 가서 엄마와 울었다”고 했다. 면역이 약한 서연이는 적어도 3년 동안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틀 입은 교복만 방에 그대로 걸려 있다.<br/><br/> 지난 10월, 서연이는 친오빠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고 퇴원했지만 치료는 앞으로도 2~3년 동안 이어진다. 언제 병이 재발할지, 합병증이 생길지 알 수 없어서다. 서연이는 현재 오빠에게 이식받은 조혈모세포에 몸이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면역력을 강제로 줄여놓은 상태다. 면역력이 약해진 서연이의 몸은 하찮은 병균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서연이는 최근에도 갑자기 드세진 바이러스 반응을 진정시키기 위해 매일 병원을 찾고 있다. 병원에 한번 올 때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70만~80만원 정도가 든다. 병원 쪽에서는 “앞으로 3000만원 정도의 치료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했다.<br/><br/> 서연이가 이식 수술을 마친 뒤에야 김씨는 돈 문제를 깨달았다. 김씨는 “서연이가 아프고 나서 급한 마음에 이래저래 돈을 빌려썼다. 그렇게 쌓인 빚이 지난해 5000만원 정도가 됐고, 이자만 한 달에 60만원 이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연이 어머니가 직장이 있는 상황이라 이렇다 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도움이 됐던 민간 보험회사의 실비보험 보장기간은 내년 3월 끝난다. 김씨는 “치료비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 큰아이 부양도 걱정이다. 지금은 가족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1'>남은 치료만 잘 버티면 완치가 가능한 아이인데 치료비 문제가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서연이의 지금 소원은 “<span class='quot2'>몸이 나아 친구들이랑 분식집 떡볶이를 먹는 것</span>”이다. 면역이 약한 서연이는 아직 엄마가 직접 만든 음식만 먹을 수 있다. “<span class='quot3'>언어감각이 좋은 문과형 체질이었다</span>”던 서연이의 꿈은 투병을 거치며 어느새 의사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이는 “특히 소아과 의사가 돼서 나 같은 아이들을 치료해 주고 싶다”고 수줍게 꿈을 이야기했다. <br/><br/>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br/><br/><br/><br/>▶나눔꽃 지원하시려면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7.txt

제목: 나는 공장독재 국가에 살고 있다  
날짜: 20151120  
기자: 허재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914904  
본문: 1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자택에서 주민 김의균(53)씨가 마당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김씨가 걸어나오는 모습을 투명천막 안에서 촬영했다. 인근 공장에서 날아온 분진에 더럽혀진 천막이 카메라 렌즈를 가려 김씨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 김포시 거물대리 마을은 막개발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암으로 숨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환경오염이 일어나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통제를 못 해왔다. 거물대리 토박이인 김의균씨는 1990년대부터 농촌마을이 어떻게 공장단지처럼 변해가는지 목격하고 환경오염에 맞서 싸웠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정부와 지자체는 번번이 김씨를 좌절하게 했고, 주민들 사이에서 되레 김씨는 ‘지역발전 방해자’로 낙인찍혔다. 김씨는 유엔 누리집에 직접 ‘헬프 미, 헬프 김포 거물대리’라고 글을 써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이 지난달 김포시를 다녀갔다. 정부와 지자체, 공장들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개인은 무슨 일을 겪게 될까.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김포 거물대리 인근은 공장의 천국이 되어갔다. 주민들에겐 지옥처럼 변했다.<br/><br/><br/><br/>“헬프 거물대리”<br/><br/><br/><br/>▶ 김포 거물대리 마을의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보도는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건이 넘는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이곳의 환경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형 개구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맞서온 거물대리 주민 김의균씨를 만나 개발지상주의의 덫에 빠진 한 농촌도시 마을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br/><br/><br/><br/>마을에 한쪽 눈동자가 사라진 개구리가 발견됐다. 하천에서 노닐던 왜가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유독물질인 불산 등이 섞인 폐수가 하천에 방류됐다. 논에 모를 심으면 마치 타들어가는 듯 말라 죽어갔다. 주민들이 하나둘 암으로 죽어갔다. 마을에 재앙이라도 닥친 것일까. ‘죽음의 마을’로 불리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의 이야기다. 언론의 보도도 수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곳의 재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거물대리 옆마을 초원지리에서 지난달 또 한 주민이 갑작스런 암 발병으로 숨졌다.<br/><br/>언론의 보도가 이어진 이 마을에선 그러나 언론을 더 필요로 했다. 환경 문제 고발이 아니라 환경 문제의 원인과 비리를 생산하는 지역 사회의 총체적 구조를 파헤쳐 달라는 요청이었다. 거물대리에선 주민 김의균(53)씨가 이 문제에 맞서 오랜 싸움을 이어오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그의 집을 찾았다.<br/><br/>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곳곳에 공장들이 보였다. 농촌 마을이라기보다는 흡사 산업단지의 입구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산업단지 한복판 같은 곳에 2층짜리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들이 덮쳤다. 김씨는 청주김씨 21대손으로 김포에서 살아왔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이곳에서 평생 살 집을 지었다고 했다. 기자를 건물 2층 거실로 안내했다.<br/><br/><br/><br/>주민 150명, 공장 153개<br/><br/>“<span class='quot0'>여기가 도로가도 아닌데 무슨 먼지가 이렇게 많지요?</span>” 바닥은 시커먼 먼지로 가득했다. 사람이 한동안 살지 않은 듯 보였다. 김씨가 자석 하나를 가져왔다. 먼지에 자석을 대어보라고 했다. 바닥 위 먼지가 자석에 척 하고 달라붙었다. “집으로 날아든 먼지에 철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 주변 공장들에서 날아온 게 틀림없어요. 2층에 세입자를 두었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가 버렸어요.”<br/><br/>김씨는 건물 1층에서 거주한다. 거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목소리가 칼칼하다. “2012년 1월 두통이 오고 갑자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가래침을 뱉으면 노란 가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선지 덩어리 같은 게 나왔어요.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집 주변에 대체 뭐가 있느냐고 물어요. 공장에서 뭔가 이상한 게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더니 의사가 혹시 거기에 주물공장 같은 게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시티(CT) 촬영을 해보니 폐 속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천식과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어요.”<br/><br/>김포시 거물대리 마을을 언론이 본격적으로 주목한 건 2012년부터다. 지역 언론이 이곳에서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최근까지 100건을 웃도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김포시의 환경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다.<br/><br/>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지난 2월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공장을 집중단속했다. 주물, 도장, 금속 가공, 접착제 제조 등 86개 사업장 중 62곳에서 환경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무려 72%에 이르는 공장이 김포시에서 법을 위반해가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단속반의 평균 적발률이 7%라고 발표했다. 환경부 특별단속반이 뜨자 10배 넘게 단속률이 증가한 것이다. 발암물질인 벤젠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br/><br/>김포시는 201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1차 역학조사를 벌였다. 주물공장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 주변 13곳 토양 중 일부에서 비소·구리·니켈·아연이 환경부에서 정한 토양오염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주민 39명을 대상으로 한 혈액·소변 검사에서는 망간 18건, 니켈 3건, 코발트 5건 등 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나타났다. 2004~12년 이 지역 암 사망자는 다른 지역의 3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환경오염과 사망률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150여명이 사는 거물대리 마을에는 주민 수보다 많은 153개 공장이 입주해 있다. 공장 근로자 등을 제외한 순수 마을 주민은 70명 남짓이라고 김의균씨는 설명했다.<br/><br/>김씨 집 약 20m 앞에도 2011년 10월부터 ㄷ기공이라는 공장이 들어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뒤 공장 입구에는 ‘박근혜 대통령 힘내세요. 창조경제를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박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내걸렸다. 공장주는 김씨를 찾아와 스테인리스 특수강을 다루는 업체라고만 소개했을 뿐 주물공장(금속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도 설마 위험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이 주거지 옆에 허가받고 들어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폐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자 김씨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br/><br/>김씨가 집 앞의 ㄷ기공이 주물공장임을 안 것은 한참 뒤였다.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농촌 마을에 어떻게 독성물질을 내뿜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을까. 공장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감독을 받을 텐데….’ 김씨는 이해가 안 됐다.<br/><br/><br/><br/>개구리의 한쪽 눈동자가 사라지고 <br/>하천 왜가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br/>논의 모도, 사람도 하나둘 죽었다 <br/>수없는 언론 고발에도 현재진행형 <br/>원인과 비리의 사슬 추적할 때다<br/><br/>유엔 누리집에 50차례 글 올려 <br/>“국제사회가 도와주세요” 호소 <br/>정말로 유엔조사관이 올 줄이야 <br/>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br/>못 들은 이야기를 그들이 해줬다<br/><br/><br/><br/>산업단지가 된 마을들<br/><br/>김포시 공무원이 업자들을 봐주어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김씨는 생각했지만 실제 공장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니 합법적이었다. 2004년 당시 산업자원부가 고시했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5조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 규정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조처에 따라 2008년 이후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여전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1조 등에 의해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이 김씨가 살고 있는 계획관리지역(국토계획법상 농촌과 도시의 중간 단계로 구분된 지역)에 들어서려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과 동식물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은·비소 등 법으로 정해진 35개 물질을 말한다. ㄷ기공은 김포시에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공장으로 신고했고 김포시는 인허가를 내주었다.<br/><br/>공장들은 산업단지보다 마을 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좋아한다. 산업단지 입주비용은 3.3㎡당 200만~300만원이지만 마을 주변은 3.3㎡당 70만~80만원이면 된다. 산업단지에 비해 관리감독도 허술하다. 2009년 12월 말 3984개였던 김포시내 공장은 올해 10월 말까지 5488개로 늘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은 785개에 불과하다.<br/><br/>김포시 태반의 공장들이 지자체의 부실한 검증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엉성한 환경 관련법, 김포시청의 관리감독 소홀, 공장주들의 비윤리적 경영, 경제발전 논리에 매몰된 지역민의 이해관계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벌어진 일이다.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장들이 규제를 피해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죽음의 거물대리 사건’은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규제 완화의 폐해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부상했다. 환경부는 최근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큰 공장들의 계획관리지역 입주를 더 쉽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br/><br/>김씨와의 대화는 계속됐다.<br/><br/>-ㄷ기공이 입주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니 불법은 아니던데요.<br/><br/>“공장이 김포시에 낸 시험성적서가 있었어요. 그걸 구해서 살펴보니 각종 중금속이 모두 불검출로 되어 있더군요. 시험성적서 발급한 곳에 전화해 물어보니 그냥 물질 전기용해 할 때 그거 측정해준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조사 제대로 하면 굴뚝(공장 배기시설)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엉터리 서류를 갖고 김포시가 허가를 내줬더라고요.”<br/><br/>-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포시가 조사를 안 나왔어요?<br/><br/>“나왔지요. 근데 그러면 공장이 가동을 멈춰요. 공무원은 ‘공장이 가동을 안 하던데요’ 하고 그냥 돌아가요. 제가 그 공장 전기 사용내역을 뽑아다 주면서 이래도 공장이 가동 안 한 거냐고 따지니까 하는 말이 ‘거기 정식으로 허가받은 공장이에요’ 하고 말아요. 주물공장이 문 다 열어놓고 대형 선풍기 열대씩이나 돌리고 있는데 그 분진이 어디로 가겠어요.”<br/><br/>-공장 쪽에선 뭐라던가요?<br/><br/>“술만 먹으면 거기 공장 직원들이 우리 집에 무단침입해서 돌을 던져요. 그러면 꽝꽝 소리가 나고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한테 ‘한번만 더 김포시 공무원 오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하고.”<br/><br/>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제기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ㄷ기공 사장 등 3명에게 ‘김의균씨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으로 100만~15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r/><br/><br/><br/>김의균씨는 2013년 2월 자비를 들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자신의 집에 쌓이고 있는 먼지에 대한 중금속 포함 여부를 분석했다. 알루미늄·카드뮴·납·아연 등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서울의 지하철 터널 내 먼지보다 중금속 함량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김포시도 조사를 했는데 김씨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했다. 김씨는 김포시 공무원이 공장들을 감싸고돈다는 의심을 굳혀갔다.<br/><br/>김의균씨의 오해일 수도 있고 또는 김포시의 부정확한 해명 탓이기도 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관계자는 <한겨레>에 “<span class='quot1'>김포시가 시행한 것은 ㄷ기공이 배출한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출시험을 한 것이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진행한 것은 토양 등의 중금속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전함량 분석</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김의균씨의 의심과 불신은 좀 과해 보이기도 한다. 사법·행정 당국이 모두 공장주들의 편에 서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환경 문제를 고발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행정 당국이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의심만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br/><br/>다만 김씨가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들에 둘러싸였을 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장치나 행정 당국의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억울함이 반복되면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주물공장협회는 김포복지재단(이사장 유영록 김포시장)에 명절 때마다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쌀을 기증하고 있다. 김의균씨 눈에는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다.<br/><br/><br/><br/>유엔 특별보고관이 알려준 것<br/><br/>-김포시 말고 다른 곳에 도움을 빌려보지 그랬어요.<br/><br/>“맨날 청와대에도 전화해 아침저녁으로 울면서 호소했어요. 저는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내 적은 김일성인데 지금 내 주적이 김포시청이 되어 있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청와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했대요. 근데 조사 나온 공무원이 ‘공장 지붕에 천막 씌우면 되겠네요’ 그러고 말아요. 천막이 바람에 찢어지면 어째요? 홍철호 국회의원(지역구 김포)도 찾아가봤는데 환경 문제는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그래버리고. 시의원 한 사람은 오히려 내가 하도 민원제기 해서 공무원이 스트레스 받아서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식으로 말하고. 제가 그래서 결국 유엔 누리집에다 글을 올리기로 했어요. ‘헬프미 김포 시티. 헬프미 코리아. 김포시청이 불법으로 농경지에 공장 인허가 해주고 있다. 국제사회가 도와주세요’라고 썼어요. 구글 영어번역기 활용해서 한 50차례 올렸어요.”<br/><br/>유엔 특별보고관은 거물대리 등 공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살펴보러 정말 찾아왔다. 환경단체가 김씨와 상의한 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해물질 및 폐기물 피해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러 한국에 오는 유엔 보고관의 거물대리 방문을 추진한 것이었다. 바슈쿠트 툰자크 유엔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8일 주민들을 만났다.<br/><br/>-유엔 특별보고관이 와서 뭐라던가요?<br/><br/>“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집 옆에 어떤 공장이 들어서고 무슨 물질을 사용하는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몰랐다고 하니까 보고관은 놀라는 표정으로 매우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한국은 유엔인권협약 가입국이라서 그런 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유엔인권협약(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1966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협약. 우리나라는 1990년 가입) 가입국이란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청와대에 전화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도 나왔었는데, 한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유엔 조사관한테 듣다니….”<br/><br/>바슈쿠트 툰자크 보고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에게 당국이 공장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영상은 김포시에서 활동하는 독립언론인 민찬홍씨(KYG 방송 취재본부장)가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김의균씨가 기자와 대화를 나눌 때 민씨가 김씨 집을 방문했다. 민씨에게 김포시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공무원은 민씨에게 하소연했다. ‘김포시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니 동영상 좀 잘 처리해달라’고.<br/><br/><br/><br/>김씨 집 앞의 주물공장은 2013년 6월 크롬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되어 김포시로부터 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포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ㄷ기공은 지난해 10월까지 계속 가동됐다. ㄷ공장은 올해 9월 공장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철수했다. 김씨는 유영록 김포시장 등 공장 인허가 부서 관련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br/><br/>-김포시 환경 문제를 언론이 100차례 이상 보도했어요. 근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br/><br/>“이상할 정도로 김포시청이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그다음날이면 또 공장들은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중앙 언론사 기자들이 잠깐씩은 왔다 가는데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br/><br/>-지역언론들도 있잖아요?<br/><br/>“<span class='quot0'>거기도 다 한통속인데 뭘 보도해요.</span>”<br/><br/>김포 지역 언론인들을 통해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김포의 지역기자 ㄱ씨는 “김포는 타지역에 비해 현지 토박이들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비율이 높다. 60~70%가 그런 것 같다. 서로 동네 형 아우 관계이거나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다. 비리를 보고도 눈감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지역 언론인들도 김포시청과 광고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br/><br/>또 다른 기자 ㄴ씨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몇년 전에 김포시장 비판 보도를 하니까 시청에서 ‘딜’(거래)이 들어왔어요. 한 200만원 광고 준다면서. 김포시내 공장들에 명함을 뿌리면 사장들이 기름값 등으로 돈을 줘요. 그런 거 받아서 언론사들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명함 하나 파서 공장들 돌아다녀봐요. 사장들이 아마 밥 먹자고 할걸요? 여기는 이장들이 공장주들과 한통속인 경우가 많아요. 동네행사 할 때 공장들이 내놓는 돈이 많거든. 얼마 전에는 어떤 이장이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더라고. 기자한테 이장이 왜 돈을 주려고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br/><br/><br/><br/>집에서 20m 앞에 공장이 생긴 뒤 <br/>두통·숨막힘에 폐에서 이물질까지 <br/>주물공장으로 밝혀진 그 공장을 <br/>소송 끝에 폐쇄시켰지만 끝 아냐 <br/>김포 시내 공장은 5488개로 늘었다<br/><br/>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인 김포시청 <br/>주민들 중 일부는 쌀값·아파트값 <br/>떨어진다며 오히려 김씨를 원망 <br/>2차 환경역학조사 진행중인데 <br/>석연찮은 압력 정황도 드러나<br/><br/><br/><br/>인터뷰를 거절한 제보자<br/><br/>김의균씨는 자신에게 도착한 문자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다. 한 주민이 “<span class='quot2'>인간사 과유불급이고 흐르는 장강의 물을 어찌 막으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동네가 발전이 되겠느냐?</span>”라고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이런 주민들이 원망스럽다.<br/><br/>“나 때문에 김포시 쌀이 안 팔린다고 원망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김포시 토양을 오염시키는 공장을 원망해야죠. 마을회관에는 이전에 공장들이 갖다놓은 라면 박스들이 있었어요. 이젠 나 때문에 그거 안 갖다준다고 노인들이 화를 내요. 그거 먹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촌로들은 그렇다 쳐도 젊은 사람들은 좀 낫겠거니 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람들도 찾아가서 같이 싸우자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환경 문제 불거져봤자 아파트값 떨어지니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더러 빨갱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같이 국가관 투철한 사람한테. 허허허. 내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br/><br/>다만 김의균씨만 홀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주민들이 또한 김씨를 응원하기도 한다. 김씨에게 몰래 환경오염 제보도 해온다. 하지만 나서지는 못한다. 거물대리의 한 주민은 “<span class='quot2'>대체로 조그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함부로 나섰다가 김포시의 보복성 행정단속에 걸릴까봐 걱정된다</span>”고 말했다. 김씨는 20대 중반까지 평범한 농민이었다. 이후 작은 개인사업을 해왔다. 지금은 컨테이너 대여업을 하고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이지만 그는 불의를 그냥 넘기는 성격이 못 된다.<br/><br/>지난 2일 김의균씨는 김포시 곳곳의 오염 현장들을 살펴봤다. 김씨와 함께 김포 월곶면 고양리 석정천을 찾았다. 개천 바로 옆에는 커다란 공장 담벼락이 마주하고 있었다. 개천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었는데 표면에 기름이 둥둥 떠다녔다. 석정천 양옆으로 너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고양리의 한 주민은 “<span class='quot2'>이 논밭에서 자라는 작물은 공장에서 유입된 하천물로 재배된다</span>”고 말�다. 김씨는 올봄 이 논에 심은 모가 말라서 죽어버렸다고 전했다.<br/><br/>“석정천 옆에 있는 공장 노동자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 동료가 저와 아는 사이라 알려준 건데 숨겨둔 정화조가 있었대요. 공무원이 단속 나오면 멀쩡한 정화조 보여주고 다른 정화조로 질산을 배출했다고 해요.” 석정천에서는 왜가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그전에 폐수를 배출했다는 게 김씨에게 도착한 제보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제보자는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도 이제 사업을 해야 한다.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br/><br/>김포시 통진읍의 한 공장지대로 자리를 옮겼다. 역시 계획관리지역이라 주거지와 공장들이 혼재돼 있었다. 공장 굴뚝에서는 알 수 없는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공장 문은 활짝 열려 있고 흡사 용광로 같은 것에서 뿜어내는 불이 멀리서 보였다. 공장 옆의 야트막한 야산에 있는 나무의 잎들을 살펴보니 은색 먼지 따위가 잎사귀마다 묻어 있었다. 산에서는 나무 냄새 대신 악취가 진동했다. 한 지역 주민은 “<span class='quot2'>공장들이 집진시설 용량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가동해서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공장 옆에는 군부대가 있었다. 김의균씨가 말을 이었다.<br/><br/>“군부대에서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와요. 자기들이 오염 때문에 죽겠다고. 대체 공장에서 무슨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건지 김포시에 물어봐도 안 알려준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대체 공장들 뒤를 누가 봐주고 있길래 군도 꼼짝 못하는 거죠?”<br/><br/>알 권리의 박탈. 김포시에서 공장과 관련한 정보는 주민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대곶면 쇄암리를 방문했다. 역시 셀 수 없는 많은 공장들이 도처에 있었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공장들 한가운데 생뚱맞게 전원주택 한 채가 있었다. 신아무개(45)씨의 집이었다. 신씨는 두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서 살고 싶어 수년 전 이곳에 집을 지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가로운 농촌 마을이었는데 집 주변으로 하나둘 공장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마치 산업단지처럼 변해버렸다. 신씨는 김포시에 환경오염 신고를 수차례 했지만 김포시는 신씨에게 점검 일정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안내문만 받을 뿐이에요. 김포시가 주민 편에 서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인 기관이 맞는 건지 알고 싶어요.”<br/><br/><br/><br/>왜 같은 시료인데 두배 차이 나나<br/><br/>기자가 직접 신고를 해봐도 비슷했다. 17일 오전 김포시 양촌읍의 한 금속공장의 열린 문 쪽에서 환풍기가 강한 바람과 함께 먼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포시청에 신고를 했다. 김포시청은 오후에 단속을 나와 조처를 마쳤다고 연락을 해왔다. 시청 관계자는 해당 공장이 환경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확인해주었지만, 영업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br/><br/>김포 거물대리 옆 초원지리 마을에서는 지난달 65살 주민이 암으로 숨졌다. 이 마을에서만 최근 5년간 8명이 암으로 죽고 4명이 심장질환 등으로 숨졌다. 18일 오후 숨진 주민이 살던 집을 찾았다. 집 주변으로 불과 100m 근방에 공장 세 동이 입주해 있었다. 낡은 건물의 굴뚝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를 뿜어냈다. 고인의 아들이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라 했다.<br/><br/>“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갑자기 쓰러져서 담도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암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다고 해서 속단할 순 없지만 저는 공장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공장이 밤 11시 넘게까지 가동됐어요.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김포시청의 단속에 걸려서 벌금도 맞았지만 공장 운영은 계속됐어요. 단속 나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또 그때는 공장 가동을 안 해요.”<br/><br/>김포시 주민들은 김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2차 환경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9월 토양과 대기 등에 대한 시료 채취를 마쳤는데 아직까지 김포시는 발표를 미루고 있다. 확인 결과, 김포시가 역학조사를 의뢰한 인하대 연구팀에 최종 조사 결과 산정을 앞두고 석연찮은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났다.<br/><br/>김포시는 인하대 연구팀과 별도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도 분석을 맡겼다. 같은 샘플을 두고 교차분석을 해야 한다는 게 김포시의 논리였다. 인하대 연구팀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양쪽은 열배에 가까운 중금속 오염수치 차이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쪽의 분석 결과는 거물대리 일대 토양이 매우 깨끗한 것으로 나왔고 인하대 연구팀의 결과는 정반대였다. 같은 시료를 놓고 분석했는데 상식 밖의 다른 결과가 나와 인하대 연구팀은 전문가 분석을 한번 더 갖자고 김포시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김포시 공문과 김포시청 및 주민 등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포시는 ‘양쪽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해 결과를 발표하라’고 연구팀에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용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인하대 연구팀은 ‘과학적인 영역에 지자체가 개입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br/>김의균씨는 김포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초원지리 등에서 나온 주민 서넛이 함께했다. 17일 만난 김씨가 말했다. “어떻게 같은 토양 시료를 분석한 건데 두 기관에서 중금속 분석 차이가 열배에 이를 수 있지요? 누군가 시료를 바꿔치기한 게 아니라면.”<br/><br/>김포시청 환경관리팀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양쪽 기관이 분석한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내어 발표하는 건 전문가들끼리 합의한 것이다. 평균을 내더라도 양쪽 데이터 모두 공개할 것이다. 용역 계약 취소를 압박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과 공장 업자들의 유착관계는 없다. 김포시가 산업단지를 제외한 개별 입지 공장 수로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시다. 공무원 인력에 비해 공장 수가 많아 관리 감독이 힘든 측면이 있었다. 지난 9월 환경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어 감독 강화에 나섰다”고 말했다.<br/><br/>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당연히 산업발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왜 집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게 하냐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서 발전시켜야죠. 왜 정부가 주민들 대신 공장 편에만 서나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독재국가예요. 군인이 독재하는 게 아니라 공장들이 독재를 해요.” <br/><br/>김포/글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8.txt

제목: 내년부터 암·난치 질환 ‘유전자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51120  
기자: 이창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856199  
본문: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br/><br/>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에는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적잖았으나, 이번 조처로 희귀질환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천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4만4천명의 환자에게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만큼 환자부담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br/><br/>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49.txt

제목: 천녀가 새긴 대흥사 북암 미륵불  
날짜: 2015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833403  
본문: “대흥사 스님들은 북미륵암을 줄여서 북암이라고 부른다. 처음 지어진 연대는 대흥사와 같다니 아마도 신라 말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고려 초기인 11세기라는 설도 있는 걸 보면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길이 없다.<br/><br/>(…) 하늘에서 쫓겨난 하늘처녀(천녀)와 하늘청년(천동)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불상을 조각해야 하였다. (…) 이윽고 하늘처녀는 ‘앉은 미륵불’을 완성하고는 하늘로 먼저 올라가고픈 욕심에 하늘청년의 조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해를 매단 끈을 잘라버렸다. 그리하여 하늘처녀는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청년은 남쪽 바위에 ‘선 미륵불’을 완성하지 못한 채 지상에 머물고 말았다는 얘기이다.”<br/><br/>　<br/><br/>암자로 가는 길 <br/>정찬주 글, 백종하 사진/열림원·1만5000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0.txt

제목: 주말 파주·연천에서 장단콩·김치 축제  
날짜: 20151119  
기자: 박경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744755  
본문: 경기도의 대표적 농산물 축제 가운데 하나인 파주 장단콩 축제가 20일부터 사흘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다.<br/><br/>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청정지역인 장단반도에서 재배된 파주 장단콩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과 단백질이 풍부해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 파주 장단지역은 물 빠짐이 좋은 토양조건과 일교차가 커 콩 재배에 적합해 1913년 한반도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백목’의 시원지로 이름이 높다. <br/><br/> 올해는 가뭄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30~40% 가량 줄었지만 축제에서는 지난해 판매량에 맞춰 장단콩 6000여 가마(1가마 70㎏)를 내놓았다. 가격은 백태만 지난해와 견줘 ㎏당 500원이 인상됐으며 올서리태, 늦서리태, 쥐눈이콩 등은 지난해 수준으로 시중보다 10∼15% 싸게 판매된다. <br/><br/> 1997년부터 해마다 장단콩 수확 시기인 11월에 축제를 열고 있는 파주시는 콩의 파종부터 수확, 선별까지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봉인작업을 엄격하게 실시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br/><br/> 축제장에는 지역 농특산물과 된장·간장·청국장 등 콩 가공식품 판매장도 들어서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꼬마메주 만들기, 도리깨 콩 타작, 전통장 담그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장단콩 주부 가요대전, 장단콩 요리 전국 경연대회,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등도 열린다. 축제 기간에 서울역과 문산역을 오가는 축제 전용열차가 하루 2차례 운행된다.<br/><br/> 인근 연천에서는 21∼22일 청산면 초성리 김치마을에서 ‘제1회 청산 율무·홍삼 김치축제’가 열린다. 보쌈김치, 두부김치, 녹두 빈대떡, 돼지고기 볶음, 율무막걸리 등 5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br/><br/> 축제장에서는 연천문화원의 국악공연, 육군 5사단 군악대 공연, 전곡읍 주민들로 꾸려진 에어로빅·밸리댄스 공연과 미산면 주민들의 록밴드 공연 등도 선보인다. 축제현장에서 별도의 준비 없이 포기김치와 겉절이 등 김치 담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담근 김치는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참가비는 용량에 따라 1.5㎏은 1만원, 2㎏ 1만3천원, 3㎏ 1만8천원, 4.5㎏ 3만원, 10㎏ 6만원, 40㎏ 20만원이다. 배추·고춧가루·새우젓·마늘 등 김치의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한 것을 제공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1.txt

제목: 화장품도 다이어트가 필요해  
날짜: 20151118  
기자: 조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730152  
본문: “세안은 꼭 이중세안으로 꼼꼼하게 하세요. 물기를 닦아낸 뒤엔 건조해지지 않도록 바로 부스팅 에센스를 바르고,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아이크림을 순서대로 발라주세요.” 방송, 잡지, 인터넷에 넘쳐나는 ‘뷰티 팁’의 핵심은, 좋은 피부를 가지려면 이렇게 많이 ‘바르라’는 것이다.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 등의 대가를 받고 만들어지는 내용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진다. 그래서일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의료기기·화장품 제조·유통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기초화장품을 11개 이상 사용한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22.3%로, 5~10개를 쓴다는 사람(34.9%)의 뒤를 이어 둘째로 많았다.<br/><br/> 흥미로운 건 ‘도자기 피부’를 자랑하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피부 관리 비법을 물으면 “적게 쓴다”고 답한다는 점이다. 아역 때와 다름없는 ‘동안 미인’ 배우 김민정은 최근 한 방송에서 세안 뒤 기초화장품을 딱 2개만 바른다고 해 화제가 됐고, 피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 고현정도 피부가 숨쉴 틈을 줘야 한다며 때때로 베이비로션 하나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겠지만, 일상생활에선 최소한의 화장품만으로 피부를 관리한다는 것이다.<br/><br/><br/><br/>절반 이상 “기초화장품 5개 넘게 써” <br/>‘도자기 피부’ 연예인은 “적게 쓴다” <br/>유해성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br/>안 쓸 화장품 골라낼 때 유용<br/><br/><br/><br/> 패션잡지에서 오랫동안 뷰티 에디터로 일했던 피현정 브레인파이 대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들어보면, 제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화장품도 많이 바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임상실험에서 주름이 없어졌다는 제품, 미백 성분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제품 등 좋다는 신제품인데도 실제로 써보면 별 차이가 없어서 늘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클렌징 제품을 비롯해 기초화장품은 10여개를 사용했고요. 그런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임신을 하고 나선 발라도 발라도 피부가 까칠해지고, 붉어지고, 건조해지면서 트러블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약산성 클렌저와 토너, 크림 타입 모이스처라이저 세 가지만 쓰기 시작하면서 주름이 눈에 덜 띄고 피부 탄력도 높아졌어요. 그게 10년 전인데, 요즘은 세안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발라도 피부가 안 땅겨요.”<br/><br/> 왜 그럴까? 그가 찾아낸 문제는 바로 화장품에 들어 있는 과도한 화학성분이었다. 화장품 하나에 들어가는 화학성분은 적어도 30가지, 많게는 100가지가 넘는다.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도 있지만, 단순히 화장품의 향을 좋게 하거나 보존 기한을 늘리려고 넣은 성분도 있다. 이런 성분이 피부에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면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인 임이석 임이석테마피부과 원장은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극과 화학성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화장품은 아무리 많이 발라도 흡수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모공을 막아 여드름 등이 악화될 수 있다”며 “피부 타입에 맞게 꼭 필요한 화장품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br/><br/> 화장품을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살이 찌면 음식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 것처럼, 화장품을 바르는 데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매 끼니 식당에서 사먹는 음식이나 마트에서 사온 적지 않은 식재료에도 엄청난 양의 인공조미료와 방부제 등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아예 ‘끊고’ 살 순 없잖은가. 기본적인 영양 섭취를 하려면 먹어야 하되, 되도록이면 나쁜 첨가물을 줄여 먹으려 애쓰는 것처럼 화장품을 바를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br/><br/> 기초화장품이 크게 세안제,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의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는 점만 기억한다면 ‘화장품 다이어트’는 그리 어렵지 않다. 무조건 클렌징 오일 뒤 클렌징 폼으로 닦아낼 게 아니라, 비비크림 정도만 발랐다면 클렌징 폼 하나로도 충분하다. 클렌징을 잘 했다면 각질 제거 기능을 하는 토너도 매번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엔 에센스, 로션, 크림 가운데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것으로 하나만 골라 바른다. 지성 피부라면 워터 에센스나 젤 타입 로션, 건성 피부라면 크림을 바르는 식이다.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묽기 등 제형만 다를 뿐, 보습이라는 기능은 같기 때문에 여러 개를 바르는 것보단 하나를 골라 피부에 충분히 흡수시켜주는 게 낫다. 부분적으로 땅기는 곳이 있다면 그 위에만 같은 제품이나 오일을 조금 덧발라주면 된다. 주름이나 미백 등 특별히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기능성 화장품 한 가지 정도는 추가해도 좋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건 자외선 차단제다. 자외선 차단제에도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 있지만, 자외선을 직접 받아 피부가 손상되는 것보다는 차단제를 바르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br/><br/> 그래도 전면적인 ‘화장품 다이어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우선 ‘간헐적 뷰티’를 실천해보라는 게 피현정 대표의 조언이다. 저녁에는 평소 바르던 대로 충분히 바르는 대신 아침에는 단계를 줄여본다든가, 주 5일은 그대로 바르고 주말 이틀 동안엔 두세 개만 발라보는 식으로 천천히 습관을 바꿔보라는 것이다. 그는 “피부는 습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품 20개를 쓰다가 2개로 줄인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다. 최소한 2주에서 한달은 해봐야 피부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 화장대에서 덜어낼 화장품을 고르는 법도 어렵지 않다. 발랐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자극이 심한 제품을 피하면 된다.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화장품을 고를 때 뒷면에 쓰인 ‘전성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LES) 같은 합성계면활성제, 파라벤류의 방부제, 성기능 장애와 암 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벤조페논, 인공향료 등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면 된다. 이걸 언제 다 외우냐고?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된다. 무료 앱인 ‘화해’, ‘화장품멘토’ 등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전성분을 분석해 화학성분 가운데서도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br/><br/>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2.txt

제목: 매일 줄줄이소시지 6개면 경고…10대 섭취량 50살 이상의 7배  
날짜: 2015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627932  
본문: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의 섭취는 건강한 식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18%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가공육 50g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br/><br/>환경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조사한 결과, 50g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br/><br/>편의점에서 파는 간식 대용 소시지 반 개에다 한 입만큼 더 먹으면 50g이다. 아이들 간식으로 자주 먹는 줄줄이 소시지 6개가 50g 분량이다. 얇게 썬 구이 햄 3~4장 먹으면 50g이 된다. 아이들이 자주 먹는 피자나 각종 음료수 등에 포함된 화학조미료 등을 고려한다면, 섭취량이 적다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햄·소시지·베이컨을 줄 상황은 아니다. <br/><br/>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연령별 가공육 섭취량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의 가공육 섭취량은 이미 상당하다. <br/><br/>2013년 10~19살 아이들은 하루 평균 14.9g의 가공육을 섭취했고, 1~9살에 아이들마저도 하루 평균 11g의 가공육을 섭취했다. 이것은 50대 이상 성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2g 이하인 것과 견주면 상당한 양이다. 특히 10~19살 남자아이들은 2013년 하루 평균 18.2g의 가공육을 섭취했다. <br/><br/>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한다. 가급적 가공육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먹어야 한다면 조리법 등을 신경 쓰라고 말한다. 김정선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영양학 전공)는 “<span class='quot0'>가공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질산나트륨이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span>”이라며 “무첨가 제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br/><br/> 또 햄이나 소시지를 먹더라도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는 것도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 장내에서 빨리 배출시킬 수 있도록 채소, 과일 등을 더 섭취할 것을 권했다. <br/><br/>동물성 단백질 자체가 나쁘다는 주장도 있다. 40년 이상 영양학을 연구하고 식이요법과 암에 대해 연구해온 콜린 캠벨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는 저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좋은 식습관만큼 질병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없다</span>”고 말했다. <br/><br/>양선아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3.txt

제목: “정부 말 진짜 믿어? 우리 아이 몸 우리가 지켜야지”  
날짜: 20151117  
기자: 양선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628265  
본문: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의 공동체 주택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1호 씨실방에는 엄마 6명이 모였다. 최근 <독성 물질 잡는 해독 엄마>를 펴낸 출판사 나무발전소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엄마 6명과 환경정의에서 식생활 강연을 꾸준히 해온 남희정씨를 초대해 ‘우리 아이 몸에 쌓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br/><br/> 엄마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최근 소시지·햄·베이컨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한 뒤였기 때문이다. 엄마들은 “햄·소시지 섭취량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마들의 동의를 얻어 엄마 6명과 나무발전소 대표, 남희정 강사를 포함한 8명이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다.<br/><br/> 참가자 소개<br/><br/>쌍둥맘(35): 4살 쌍둥이 키우는 직장맘.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 갖게 됨.<br/><br/>무딘맘(37): 4살, 2살 아이 키움. 지나치게 원칙 지키는 것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겠다는 생각.<br/><br/>왕유난(37): 4살, 2살 아이 엄마. 왕년엔 보육 교사였음. 천기저귀 쓰고 모유수유하고 된장도 직접 담가 먹음. 주변에서 유난 떤다는 소리 들음.<br/><br/>모여맘(35): 6살, 4살 아이 엄마로 생협 엄마들 모임 이끔. 친환경 먹거리부터 사교육 반대까지 원칙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br/><br/>까칠맘(40): 7살, 5살, 1살 세 아이 엄마. 어린이집 친구들이 아이에게 사탕·과자 주어 불만이지만 까칠맘으로 비칠까봐 끙끙 앓고 있음.<br/><br/>허덕맘(36): 3살 아이 키우는 번역가. 안전한 먹거리를 지금까지는 허덕허덕하며 고수했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무참히 무너지는 중.<br/><br/>늦둥맘(48): 둘째 아이 40살에 출산. 성미산 마을로 이사 와 밥공동체에 들어가 직장 생활이 가능해짐.<br/><br/>밥상맘(57): 환경정의에서 식생활 교육 10년째 하다 채식 위주의 식당 차림.<br/><br/><br/><br/><br/><br/>매주 3~4번…죄책감 들었어 ㅜㅜ <br/>WHO 발표 이제야 나오네 했네 <br/>오늘 처음 들었어. 부끄부끄 <br/>남편은 맛없다, 유별나다, 그냥 좀…<br/><br/>교육 제대로 시켜주면 안 되나 <br/>허용치 정해놨다고 안심 못해 <br/>습관 확 바꾸기 힘들어 좀 편하게 <br/>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소비자뿐<br/><br/><br/><br/>늦둥맘: 친구들~ 아이 키우면서 화학물질 신경 많이 써왔어? 책 읽어보니 어땠어?<br/><br/>쌍둥맘: 나 죄책감 엄청 들었어. TT. 매주 3~4번은 햄·소시지 넣어 볶음밥 만들어 애들 먹였거든. 솔직히 난 안전한 먹거리 큰 관심 없었어. ‘안 좋은 거 알지만 뭐 어떡하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컸지. 이번에 햄·소시지 문제 터졌을 때도 정부·언론 다 괜찮다고 했잖아.<br/><br/>모여맘: 정부 말 진짜 믿어? 난 세계보건기구 발표 보면서 ‘당연한데 이제야 나오네’ 했어. 얼마나 몸에 안 좋으면 자본의 논리를 뚫고 발표됐나 했지. 식품첨가물 가운데 위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특히 햄·소시지에 붉은색 내기 위해 첨가하는 아질산나트륨은 많이 먹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낮아져. 우리 아이들 이제까지 안 먹였는데 잘했다 싶더라.<br/><br/>왕유난: 나름 왕유난 여사인데, 햄·소시지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 부끄부끄. 애 키운다고 언론에 귀 닫고 살았네.<br/><br/>허덕맘: 자기 왕유난 여사 맞아? 난 독박 육아라 허덕이지만, 그래도 뉴스는 본다고~. 유난맘은 당연히 햄·소시지는 아이들 안 먹였겠지?<br/><br/>왕유난: 당연하지. 거의 안 먹였어. 김밥 쌀 때 필요하면 생협 햄 사용했어. 남편은 “맛이 없다, 유별나다, 그냥 좀 먹자” 했지. 남편만 그러나? 천기저귀 쓰는 것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구석기 사람 취급을 했어. 그래서 조금 힘들고 불편했어. 솔직히 천기저귀 불편해. 질질 새고 집에서 냄새나고.<br/><br/>늦둥맘: 맞아. 나도 성미산 마을로 이사 오기 전엔 건강한 먹거리 정보를 잘 못 접했어.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이 당연했지. 우리 애 콜라 엄청 좋아했어.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 온 뒤 보니까 콜라 먹는 아이는 우리 아이뿐이더라. 여기에서 생활하면서는 내가 유난 떨지 않아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좋은 먹거리 찾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느꼈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생협 제품 많이 이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정말 필요해.<br/><br/>쌍둥맘: 그런데 말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켜주면 안 되나? “<span class='quot0'>사탕에는 안 좋은 색소가 많아요</span>” “<span class='quot0'>햄·소시지 먹으면 암 걸릴 가능성 높아져요</span>” 이런 교육 말이야. 아침마다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우는 아이에게 사탕 쥐여주는 나 같은 엄마 많아. 아이가 그런 엄마한테 어린이집에서 배워서 “<span class='quot1'>엄마, 사탕은 내 몸에 안 좋아</span>”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br/><br/>밥상맘: 좋은 지적이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식생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무는 아냐. 유럽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먼저 발생했지. 텃밭 교육, 식생활 교육이 중요시되고 지금은 일상화됐대.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의 힘이 커. 먹거리 시장이 커서 정부가 기업 입장 무시 못하지. 햄·소시지 괜찮다고 하는 것 봐. 화학물질들의 부작용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잖아. 허용치 정해놨다고 안심할 수 없어. 정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생각 오산이지.<br/><br/>허덕맘: 그러니까. 괜찮다는 정부한테 화가 나. 제발 정부가 국민 건강에 책임 있는 자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br/><br/>밥상맘: 그래도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알아? 소비자야. 소비자들이 나쁜 제품 안 사니까 기업이 바뀌더라. 하얀 딸기우유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색소 많이 쓰는 제품 불매 운동 벌이니까 기업이 바뀌더라고.<br/><br/>무딘맘: 우리 맘들 대단해. 대단해. 나 같은 경우 들은 것은 많은데 생활 습관은 한번에 바꾸기 힘들더라고. 종이기저귀나 물티슈 안 쓰기? 그게 인간한테 가능해? ㅋㅋㅋ 난 그런 건 아예 시도조차 안 했어. 나는 그냥 조금 편하게 실천해.<br/><br/>까칠맘: 어떻게 하는데? 궁금궁금.<br/><br/>무딘맘: 외식을 일주일에 세번 할 것을 한번만 하고, 아이에게 토요일날만 사탕을 주고 그래. 요구르트 사 먹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은 그냥 고맙게 먹게 해. 원칙 지키려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옳은 소리 하는 것에 귀 닫는 사람 많이 봤거든. 즐겁게 실천하기도 중요한 것 같아.<br/><br/>까칠맘: 난 솔직히 아이 엄마 친구들이 생일파티날 사탕이나 초콜릿 줄 때면 참 곤란하더라고.<br/><br/>왕유난: 나도 그래. 햄·소시지 안 먹는데 선물받으면 처치 곤란. TT<br/><br/>쌍둥맘: 솔직히 난 이런 생각 한번도 못 해보고 살았어. 나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실천해야겠어. 우리 아이들이 좀 폭력적인데, 난 혹시 음식 탓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br/><br/>왕유난: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 동네 엄마들 몇몇이 모여 식생활 강사를 불러서 함께 강연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야. 비용 부담 크지 않아. 그것도 부담되면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그런 교육 해달라고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이지.<br/><br/>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4.txt

제목: 외래에서의 안전한 항암제 투여 위해 비용 다소 올라  
날짜: 2015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626419  
본문: Q: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찾아 항암제를 투여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br/><br/><br/><br/>A: 올해 9월부터 암 환자가 병·의원의 외래에서 항암제를 투여받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병원이 외래 항암제 투여와 부작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 항암주사관리료’와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를 신설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올렸습니다.<br/><br/> 우선 외래 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으로 투여받는 환자를 최소 30분 이상 집중적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루에 1만8280원으로 결정돼 암 환자는 이의 5%인 910원만 내면 됩니다.<br/><br/> 또 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때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항암제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실제 나타난 항암제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를 만들었는데요. 이의 가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2만9630원으로 암 환자는 1480원만 내면 됩니다.<br/><br/> 항암제는 세균이 없는 환경에서 조제한 뒤 환자에게 투여되어야 안전합니다. 이 때문에 병·의원이 무균조제를 위해 필요한 보호장비를 쓸 때 등의 관리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100%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항암제를 무균조제할 때 투여 횟수와 관계없이 하루에 1670원만 산정했습니다. 이제는 항암제 무균조제 이후 주사제가 환자에게 최종 투여되는 형태의 단위(팩, 시린지, 병 등)에 따라 2310~4380원으로 정해져, 조제된 항암제의 투여 때마다 내도록 했습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5.txt

제목: 사망률 높은 췌장암, 흡연과 과도한 육류 섭취 피해야  
날짜: 2015111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626615  
본문: 암 가운데 가장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으로 국내에서 매일 11명이 사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12명이 매일 새로 진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대한췌담도학회가 한국췌장외과연구회, 한국췌장암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최근 낸 자료를 보면 췌장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 순위에서 8위, 암 사망은 5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한해 5천명에 가까운 환자가 생겨 이 가운데 8%만이 생존한다. 이처럼 낮은 생존율은 지난 20여년 동안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 췌장암의 치료 성적이 낮은 이유는 초기에 환자가 느낄 만한 특징적인 증상이 없고, 여러 검사 방법으로도 초기에 진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췌담도학회의 분석자료를 보면 국내 췌장암 환자 5명 가운데 4명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돼 수술 치료가 쉽지 않은 단계에서 진단되고 있다.<br/><br/> 췌장암은 아직 효과적인 항암제가 없어 수술 치료가 최선인데,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1~2기)에 진단돼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은 20%대로 올라간다. 최근에는 췌장암 치료에 항암제나 방사선 요법을 도입하는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br/><br/> 췌장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흡연이며, 50살 이상의 나이와 췌장암을 앓은 가족이 있는 경우가 꼽힌다. 또 만성 췌장염이나 당뇨를 앓았거나, 공해물질·화학물질 노출도 위험요인에 속한다. 췌담도학회는 췌장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자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췌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주나 과음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것을 권고했다. 식사 습관에서는 과도한 육류 섭취는 피하고,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이나 가공식품도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신 현미나 잡곡,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김호각 췌담도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많은 국민들이 췌장암을 걸리면 사망하는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는 만큼 피해갈 수 있다</span>”며 췌장암 예방과 조기 진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6.txt

제목: 11월 18일 알림  
날짜: 2015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607659  
본문: ◇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영란법 입법과정 고찰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심석태 <에스비에스> 뉴미디어부장의 사회로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김재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채명성 변호사가 토론을 벌인다.<br/><br/>◇ 한국정책재단(이사장 임태희)은 19일 오후 2~5시 분당 정자동 한국잡월드에서 ‘베이비붐 세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02)6385-7006.<br/><br/>◇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총동문회(회장 금교돈)는 ‘2015 자랑스러운 한양언론인상’수상자로 박광성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총장, 이경형 <서울신문> 주필 겸 이사, 김주하 특임이사 겸 앵커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25일 서초구 더팔레스호텔 서울에서 ‘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br/><br/>◇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상명대는 16일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br/><br/>◇ 한류문화인진흥재단은 16일 김경상 사진작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br/><br/>◇ 해월인문포럼은 23일부터 10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8시30분 서울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미방에서 윤석산 한양대 명예교수 겸 문학박사가 동학과 인문학을 주제로 무료 공개 강의를 연다. 문의 haeworl1@naver.com<br/><br/>◇ AIA생명은 17일 이화여대 의료원 여성암병원에서 여성암 환자들의 암극복을 위한 기부금 1억8천만원을 전달했다.<br/><br/>◇ 서울대는 17일 ‘2015학년도 교육상’ 수상자로 윤영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상묵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신완균 약학과 교수·서경호 자유전공학부 교수 등 4명을, 학술연구상에는 김명호 국어국문학과 교수·장경섭 사회학과 교수·박충모 화학부 교수·박병국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오유경 제약학과 교수·김지수 의학과 교수 등 6명을 선정했다.<br/><br/>◇ 대성그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5 그린 애플 어워즈’에서 국제 그린 애플 환경 어워즈 수상자로 선정됐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7.txt

제목: 올바른 검진법은  
날짜: 2015111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428304  
본문: ‘싼 게 비지떡’이니 값비싼 검사를 많이 받는 게 건강검진의 왕도다?<br/><br/> 검진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비용은 둘째 치고라도 값비싼 검사라고 암 등 중증 질환을 모두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또 검사 자체의 부작용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예를 들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흔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지만,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이 검사를 받다가 대장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1만명당 3.8명가량이다. 또 대장에서 양성 종양인 용종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다가 대장에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대장암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으면 방사선 노출량이 10밀리시버트로 단순 방사선촬영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인 0.02밀리시버트보다 훨씬 많다.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나 펫시티(PET-CT·양성자단층촬영) 등의 검사는 가격이 100만~200만원으로 너무 비싼데다, 펫시티 경우 방사선 피폭량이 많고 조기 암 진단에는 효과가 떨어진다.<br/><br/>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국민 검진 체계는 아니며, 암 검진에서도 시티나 엠아르아이 등을 권고하지 않는다. 암 검진 분야도 대부분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으로 우리나라에 견줘 종류도 적다.<br/><br/> 전문가들은 자신의 생활습관, 과거 질병,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걸린 병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을 권고한다.<br/><br/> 우선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국가암검진이나 최근 국립암센터가 내놓은 7대 암 검진 권고안을 좀 더 이른 나이부터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대장암이나 유방암 등 유전 가능성이 높은 암은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5~10년 정도 일찍부터 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br/><br/> 나이대별로 중점을 둬야 하는 검진 항목도 다르다. 20~30대는 노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견에 중점을 둬야 하고 40대 이후부터는 이들 만성질환과 함께 암 검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검진 결과는 자신의 건강습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암 검진 등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평소처럼 술·담배 등 몸에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하다가 검진에서 놓친 암이 빠르게 악화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br/><br/> 평소 당뇨나 고혈압 등 자신의 지병을 진료받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재호 가톨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도 주치의 제도를 들여와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지만, 주치의 제도 도입 전까지는 평소 만성질환을 관리받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br/> 건강검진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싸지만, 필요한 검사만 받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피검사와 소변검사의 경우 내과 의사에게 가서 몸 상태가 안 좋아 검사받고 싶다고 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심전도,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검사도 마찬가지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8.txt

제목: 환갑잔치 대신하는 수백만원 종합검진…효도일까요  
날짜: 2015111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429335  
본문: 박아무개(33)씨는 최근 전남 곡성군에 사는 어머니가 환갑을 맞이해, 가족들과 의논한 끝에 환갑잔치 대신 종합건강검진 상품을 선물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다른 진료와 마찬가지로 역시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검진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였다. 아버지도 함께 검진을 받도록 했으며,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은 물론 각종 암을 조기검진한다는 종양표지자 검사 등이 모두 포함된 검진상품으로 예약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검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을 합쳐서 약 350만원이 들었다.<br/><br/> 박씨는 “병원에 문의해 보니 숙박을 하고 검사 내용이 더 많은 또 다른 검진상품은 한 사람당 400만~500만원까지 한다고 했다. 처음으로 비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라 더 비싼 상품을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형편에서 최대한인 이 정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진 뒤 박씨의 아버지는 대장 용종을 2개 떼어냈다. 용종이 악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했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20만원 가까이 냈다. 박씨는 “값비싼 검진에서 암 등 중증질환이 나오지 않아 부모님도 매우 만족해하신다. 한 5년 뒤에 또 검진을 시켜드리기로 형제들끼리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br/><br/><br/><br/>효심강한 자녀들 유혹하는 병원들 <br/>상품만 수십종에 가격은 천차만별 <br/>노인특화 상품 대신 가격맞춰 구입해<br/><br/><br/><br/>고가 상품일수록 선호도 높지만 <br/>소비자 의료비도 턱없이 높아져 <br/>“<span class='quot0'>병원들 환자 건강보다 수익만 좇아</span>”<br/><br/><br/><br/> 검진상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박씨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검진상품은 병원에 따라 다르고 또 검사 항목에 따라 수십만원대부터 수백만원대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다. 실제 주요 대학병원들의 검진 프로그램을 보면 암, 뇌혈관질환, 치매, 폐질환 등 여러 질환에 특화된 검진상품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몇몇 검사가 첨가된 검진상품이 나열돼 있다. 검진상품만 수십종에 이르며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결국 어떤 상품이 부모님의 중증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적절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박씨처럼 대부분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검진센터 관계자는 “상담을 하다 보면 치매나 암, 뇌졸중, 디스크 질환 등 노인들이 흔히 걸리는 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진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가격으로 결정한다. 대체로 가격이 높은 상품일수록 선호한다”고 말했다.<br/><br/> 이처럼 병원들이 검진상품을 일반 상품처럼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 안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쪽의 심사 등이 있어 의료기관이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검진은 그야말로 상품이다.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등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검사가 포함된 상품을 파는 것은 의료윤리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요즘 대학병원들이 천만원에 이르는 검진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환자들을 호객하고 있다. 값비싼 검진 장비와 시설을 갖춰 검진 사업을 하면서 환자들의 건강보다는 수익을 남기고 있다. 그 어느 영역보다 의료의 상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며, 이 때문에 국민들 의료비만 턱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59.txt

제목: 유방암 의심환자 암판정 0.6%…고가검진 필수일까요  
날짜: 2015111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427702  
본문: # 최아무개(42)씨는 최근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따라 만 40살부터 2년에 한번씩 유방촬영술을 받고 있는데, 지난여름 검사에서 유방암 의심 소견으로 보이는 혹이 1㎝ 미만으로 2~3개가 발견됐다. 담당 의사는 2년 전에는 없었던 소견이라며 추가로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 조직검사 소견에서 유방암으로 판정돼 결국 수술까지 받았다. 최씨는 “유방암이 없었던 다른 쪽 유방에도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 앞으로도 검진을 꾸준히 받을 생각이다. 어머니나 가까운 친척도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검진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 # 김아무개(36)씨는 지난해 회사의 복지 혜택으로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유방촬영술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 1㎝ 정도의 혹인데 방사선 촬영으로는 단순한 혹인지 암인지 알 수 없어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좀더 큰 종합병원을 찾아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검사에 이어 유방암이 의심되는 혹을 떼어내어 암인지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받았다. 모두 100만원가량이 들었다. 일주일 뒤 최종 검사 결과는 암이 아닌 단순한 혹으로 나왔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처음에는 암이 아니라고 하자 너무 좋은 나머지 의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만 계속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건강검진 때문에 고생만 하고 돈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br/><br/> 최씨와 김씨 사례처럼 검진의 효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그런데 국내에서 검진을 받는다면 두 사례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될 가능성이 클까?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검진을 받은 이들 3598만건을 대상으로 검진의 정확도를 평가해 2011년 발표한 ‘국가 암검진사업의 비용과 효과’ 보고서를 보면, 유방촬영술에서 암으로 의심돼 최종 확진 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는 비율은 0.6%로 매우 낮다. 최씨보다는 김씨에 해당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다.<br/><br/>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유방암의 경우 자궁경부암과 함께 다른 많은 나라들도 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는데, 상황은 비슷하다. 2014년 1월 국제 학술지인 <코크런 리뷰>에는 여성 2000명이 10년 동안 유방촬영술을 받으면 그 가운데 1명꼴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 조기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논문이 실렸다. 문제는 2000명 가운데 10명꼴로 암이 의심되는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받았고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도 수술·방사선치료·항암치료까지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2000명 가운데 200명꼴로 유방촬영술에서 암이 의심됐고 최종 검사에서 아닌 것으로 판정되기는 했지만 많은 비용이 들었고 암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이 때문에 유방암 검진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나온다.<br/><br/>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갑상선암의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한 검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의료계에서 나온 바 있다. 지난해 3월 몇몇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중심이 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 연대’는 국내 갑상선암이 해마다 2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엔 불필요한 과잉검진이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 비율은 세계 평균의 10배에 이르지만, 갑상선암은 흔히 암의 완치 기준이 되는 ‘5년 생존율’(암을 진단 또는 치료한 뒤 5년까지 살 가능성)이 다른 암에 비해 월등히 높은 100%로 나타나기도 한다. 저지연대는 “<span class='quot1'>갑상선암 검진을 통해 환자 발견은 많이 했지만 실제 갑상선암 사망률을 조사해보니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결국 국립암센터가 지난 9월 낸 7대 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갑상선암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0.txt

제목: 대형병원의 ‘황금알’…8조 건강검진 시장  
날짜: 2015111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428654  
본문: “개인적으로 받으면 60만~70만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단체검진은 한꺼번에 수백명이 받으니까 할인폭이 크죠. 요즘 700명 규모의 한 업체 임직원들이 검진을 받고 있는데, 단가는 1인당 45만원가량입니다.”<br/><br/> 해마다 이맘때면 대형병원의 건강검진센터는 직장인들로 북적인다. 기업 차원에서 하는 단체 건강검진이 몰리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서울 한 대형병원의 건강검진센터 관계자는 “보통 봄부터 9월까지는 개인 단위 고객들이 검진을 많이 한다. 올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으로 6월부터 9월까지 검진 고객 수가 예년보다 30% 이상 크게 줄었었다. 10월부터 직장인 단체검진이 시작돼 요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했다.<br/><br/><br/><br/>건강에 대한 관심·불안 커진데다 <br/>병원 무분별 수익추구 맞물려<br/><br/><br/><br/>건강검진 뒤 추가 검사 비용만 <br/>4조6000억~14조6000억 추산 <br/>건강보험 암 치료 지출액이나 <br/>심장·뇌혈관 질환 지출액보다 많아<br/><br/><br/><br/>서울대병원·삼성서울 등 빅5 검진센터 <br/>값비싼 검진상품 ‘명품 마케팅’ 방불<br/><br/><br/><br/> 단체검진은 통상 봄부터 병원과 기업 인사팀이 검진 항목과 가격을 두고 협상을 해 계약을 맺는다. 개인 단위 검진보다 많게는 30%까지 할인이 된다. 서울 한 대학병원 검진센터 영업 담당자는 “검진 상품의 가격과 검진 항목은 해당 직장의 근로 환경 등에 맞춰 조금씩 달라진다.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되도록 많은 검사를 넣어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br/><br/> 국내 건강검진 시장이 공룡처럼 커지고 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불안, 병원들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가 맞물려 한해 수조원대의 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국가에서 해주는 국가 건강검진부터 회사에서 해주는 단체 건강검진, 개인 스스로 하는 개인 건강검진까지 다양한 건강검진이 넘쳐난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검진이 많아 개인적·국가적으로 의료비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br/><br/>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한해 건강검진 관련 의료비용으로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8조5천억원을 쓰는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건강검진 사업(건강보험공단,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민에게 해주는 각종 검진) 1조924억원, 개인 건강검진 1조1387억원, 단체 건강검진 1조391억~1조6814억원, 건강검진 후 이상 소견을 받고 추가로 검사·검진을 해서 생기는 ‘건강검진 유발 의료비용’ 4조6천억~14조6천억원으로 추정했다. 한해 건강보험 지출액 가운데 암 치료에 4조4천억원, 심장·뇌혈관질환 등에 쓰이는 비용이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규모는 매우 큰 편이다.<br/><br/>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검진기관도 2010년 1만5346곳, 2011년 1만6441곳, 2012년 1만7302곳, 2013년 1만8243곳, 2014년 1만9151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검진센터의 경우 고객이 2010년 약 6만4천명에서 지난해 9만3천명으로 4년 사이 45%가 늘었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병원’의 검진센터에서는 한해 4만~7만명가량이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병원들한테 건강검진 상품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펴낸 병원경영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병원들의 기타 의료수익 가운데 검진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68.7%에 이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규모의 281개 병원 가운데 3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를 보면 800병상 이상 병원은 2013년 기준 국가 건강검진으로 39억7천만원, 민간 건강검진(단체·개인)으로 38억3천만원의 평균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특히 대형병원일수록 건강검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은 100병상당 검진 수익이 2011년 2억7007만원에서 2013년 12억4010만원으로 네 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병원)은 1억8907만원에서 5억7223만원으로, 전체 병원은 2억2601만원에서 5억4017만원으로 늘었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검진 수익이 많아진 셈이다. 이는 병원 규모가 클수록 값비싼 검사 기계를 많이 보유하면서 값비싼 검진상품을 많이 팔고, 소비자들도 이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구조에서 대학병원이라도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 공공병원인 만큼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검진센터 등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어린이병원 등의 적자 등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br/><br/> 건강검진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현상은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이었다. 이는 국가 건강검진 체계가 구축되는 것과 맞물린다. 2005년부터 국민건강검진제도 개선사업이 실시돼 정부가 2007년 만 40살·66살 생애전환기 검진사업과 영유아 검진을 도입하면서, 민간병원이 공급하는 건강검진 서비스 시장도 커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검진사업을 확대하자 민간병원들이 여기에 값비싼 검사를 추가해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국가 건강검진에는 2013년 기준 전체 대상자 1578만명의 72%에 해당되는 1138만명이 참여했다.<br/><br/>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span class='quot0'>정부는 어떤 검진 항목이 필요하냐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 없이 제도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강제하고 있고, 기업은 노동환경 개선은 도외시한 채 사원 복지라는 명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span class='quot0'>엄청나게 커진 검진시장은 첨단 검진장비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불러와 앞으로 원격의료 등 의료를 산업화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1.txt

제목: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날짜: 2015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325655  
본문: 흔한 일이건만, 최몽룡씨의 기자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 각별한 불쾌감이 밀려왔다. 가해자가 나이 든 남성이기 때문일까. 게다가 “국사를 쓰겠다”고 나선? 여러가지 혐오감이 겹쳤지만 내가 ‘노추’(老醜)의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 듦에 대한 혐오는 근원적으로 죽음의 공포 때문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력, 속도주의는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간주한다.<br/><br/> 최근 한국 사회 외모주의의 가장 큰 피해 집단은 노인이 아닐까. 노동시간은 짧아지고 평균 연령은 길어진 고령화 사회. 모두가 “곱게 늙자”고 외치고 있다. ‘곱게 늙음’은 성형외과 문전성시부터 “인생 이모작”, “꼰대 되지 않기” 등 노인형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동안 만들기는 온 나라의 운동이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일, 운동, 인간관계를 성실히 가꿔가자는 총체적인 ‘웰 에이징’이 제시되고 있다. 여든이 넘어서도 수없는 걸작을 내는 예술가들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 나 역시 클린트 이스트우드(86살)의 팬이다.<br/><br/> 그러나 다른 삶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스스로 죽을 시기를 정하고 곡기를 끊거나(스콧 니어링, 100살) 아파트에서 투신하거나(질 들뢰즈, 70살) 작가 복거일씨처럼 암 진단을 받았지만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자살은 생명 경시고 철학자의 자살은 실존적 고뇌인가. 논점은 자살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나이다. 노년과 10대의 자살은 다른 연령대만큼 비난받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선택해도 되는 것이다’.<br/><br/> 어쨌든 장수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과 지향도 변화하고 있다. 이 책은 1989년 일본의 석학, 나카무라 유지로와 우에노 치즈코의 왕복서간집이다. 원서(‘人間’を超えて)는 ‘인간’을 강조한다. 부제는 “이동과 착지”. 나이 듦을 중심으로 인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다. 공부를 좋아하는 비판적 지식인의 지적 여정이 잘 드러나 있다.<br/><br/> 연령주의적 표현이지만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절정기’였다. 그러나 젠더는 명확했다. 1948년생 여성이 25년생 남성보다 나이 듦, 죽음, 치매, 돌봄에 대한 염려와 사유가 훨씬 깊다. “여자의 정년”은 생물학적 나이인 마흔, 남자의 정년은 사회적 일을 그만두는 시기다. 다시 읽으니 절절하다. 정말 내 문제가 된 것이다.<br/><br/> 공감 가는 구절. “<span class='quot0'>개인으로 존재하기 위해 투쟁해온 여성이 마침내 개인의 함정을 알아채고 이를 넘어서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더군요</span>”, “<span class='quot0'>비판적인 것은 ‘여기에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을 부여해줍니다</span>”, “<span class='quot0'>의식적으로 포스트모던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왜 내가 포스트모던의 화신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span>”, “<span class='quot0'>예순에 접어들면서 무언가 미지의 차원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span>”, “<span class='quot0'>여성들의 영원한 로망, 노라의 방주</span>”, “<span class='quot0'>(전공투를 회고하며) 가는 길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서도 ‘해방’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span>”<br/><br/> 내가 가장 지지하는 내용은 유명 소설가 아리요시 사와코의 인터뷰다.(194쪽) “<span class='quot1'>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타인에게 귀찮은 존재가 될지라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span>” 정갈함, 의존에 관한 상식을 깨뜨리는 놀라운 선언이다.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는 일본 문화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체액이 통제되고 주름이 없고 머리숱은 풍성하고 허리는 곧으며…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꿈꾸는 몸이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뚱뚱한’ 여성, 성적 소수자, 이들에 대한 차별은 바로 몸에 대한 비현실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br/><br/> 우리는 육체적 고통, 신체의 비참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도 (마음속으로는) 우아한 몸가짐을 요구한다. “몸 밖의 대소변”을 수용할 때 살아 있는 이웃들의 다양한 몸도 존중할 수 있다. 인간이 사망하기까지 평균 투병 기간은 10년. 그 취약하고 ‘못생긴’ 시절도 소중한 삶의 일부다. 어린 미모가 최고 가치인 사회에서, 나이 듦과 그에 따른 미추 관념을 바꾸는 것은 혁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년만의 과제가 아니다. <br/><br/>정희진 평화학 연구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2.txt

제목: 매일 열심히 걷는 당신, 보험료 깎아 드립니다  
날짜: 20151112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5212307  
본문: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주연(39)씨는 최근 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 중이다.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키·체중·성별·나이 등을 입력하면, 권장 1일 섭취 칼로리를 알려주고 식단에 따른 열량도 알아서 계산해준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운동량이나 음식 섭취량 등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일정 포인트가 넘으면 보험료도 깎아주니 1석2조 아니냐</span>”며 “<span class='quot0'>이 회사의 보험 가입을 고민 중</span>”이라고 말했다.<br/><br/> ‘당신의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하세요. 보험료를 깎아드립니다!’<br/><br/>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상태 점검, 생활 습관 개선 등의 총체적인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br/><br/> 국내 보험사들이 내놓은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부분 보험 가입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동시간·식사량·수면습관 등을 기록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씨가 가입한 알리안츠생명 ‘올라잇 페이백’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에이아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준비 중이다.<br/><br/>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엔 의료비와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수밖에 없기에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헬스케어는 결국 보험사와 고객 양쪽에 이득이 된다”며 “자동차 보험업계가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br/><br/> 그러나 ‘의료비 증가 억제’라는 명분만이 전부는 아니다. 보험업계의 속내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헬스케어 분야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br/><br/> 일부 국가에선 이미 보험사가 헬스케어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 대표 보험사인 시그나는 기업에 의료전문가를 파견해 직장 헬스케어 센터를 운영하며 체중감량·당뇨병 관리·암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판매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건강 관련 물품 구입, 피트니스센터 등록 등과도 연결시켜 또다른 시장을 개척하기도 한다. <br/><br/>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 규모를 약 5조 달러, 이 가운데 보험사가 진출 가능한 ‘예방·사후관리’ 부문은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br/><br/> 하지만 국내 시장 활성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행위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가 자칫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br/><br/>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말 헬스케어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를 국회에 건의했다. <br/><br/>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3.txt

제목: [왜냐면] 국민안전보다 원전 입장 중시하는 식약처 / 전선경  
날짜: 2015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912814  
본문: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교육’ 강의를 찾은 적이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소비자에게 방사능 교육을 하려는 목적으로 ‘방사능과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식품 중 방사능 안전성 평가’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세 부문에 세 명의 전문가가 배치된 강의였다.<br/><br/> 우선, 수많은 식품방사능 강의와 책, 국제 추세 등을 보고 들어온 필자로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메시스 이론(저선량은 이롭고 미량의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내용) 강의였다. 이 이론은 이미 국제적으로 사이비 이론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원전 찬성론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가 주장하는 이론이다.<br/><br/> “<span class='quot0'>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반핵주의자들은 방사능의 건강 영향에 과장적이다</span>” “전문가에게 맡겨라” “예민하게 살 필요가 없다” “<span class='quot0'>방사능이 나왔다고 집을 팔고 이사 갈 수 있느냐</span>” 하는 불편한 발언을 내내 들어야 했다. 필자가 그동안 방사능 안전활동을 하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부 관련 부처 등에서 무수히 들어왔던 말과도 너무 비슷했다.<br/><br/>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똑같은 강사,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놀라서 식약처 담당 부서에 항의했다. 호메시스 이론은 이번 교육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내용은 조금 달라졌더라도, 강연자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터다.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면서 강연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가. <br/><br/> 지난해 12월 정부가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호메시스 이론을 주로 얘기하는 대학교수가 위원장이 되었다. 필자는 여러 번 식약처에 관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지, 회의 자료는 있는지를 물었다. 식약처 담당자는 매번 전화기 너머로 “<span class='quot1'>회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span>”는 말만 해왔다. <br/><br/>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내산 녹차의 방사능 검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다. 산지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녹차의 원산지 공개를 거부했다.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하고, 소비자보다 생산자 입장을 우선시하는 모습과 비밀주의, 국민 건강은 뒷전인 모습이 매우 씁쓸하다. <br/><br/> 지난해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교육의 마지막 강연자였던 식약처 관련자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했다.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교육으로는 신뢰는커녕, 원전을 편들기 위한 교육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br/><br/> 얼마 전 유럽방사선리스크연구회(ECRR)의 크리스토퍼 버즈비 의장이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법정 증언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강연한 일이 있다. 저선량 피폭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제 논문이 여러 편 나와 있고,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br/><br/> 그런데도 식약처는 아직 저선량 피폭에 대한 확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사람이 죽고 나서, 이미 건강을 잃은 뒤에 저선량은 위험했다고 한들 사태를 되돌릴 수 없다. 식약처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 건강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br/><br/>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대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4.txt

제목: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전 투약 추진 ‘논란’  
날짜: 2015110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741660  
본문: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 의약품의 경우 보건 당국의 인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시민단체 쪽은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환자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br/><br/> 보건복지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현재는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줄기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위급한 환자에게는 허가를 받기 전에도 쓰는 방안이 도입된다. 대신 병원 안에서 의사의 책임 아래 제한적으로 쓰도록 ‘병원 내 신속적용제도’를 만들 계획이다.<br/><br/> 또 환자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적은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기존의 검사법과 핵심 원리가 같으면 평가를 면제한다. 현재는 환자에게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따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평가에 최대 280일이 걸린다. 이밖에 유전자 검사의 경우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하는 등 쓰임새가 늘고 있는 유전자 분석 시술을 암이나 산전 태아기형검사 등에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br/><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바이오헬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1'>세계적으로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줄기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등을 함부로 사용하고 새로운 검사법을 평가도 없이 도입하는 것은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격</span>”이라고 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5.txt

제목: 허용기준 이하라 괜찮다고?  
날짜: 20151105  
기자: 조홍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652408  
본문: 호메시스-건강과 질병의 블랙박스 <br/>이덕희 지음/엠아이디·1만5000원<br/><br/> <br/><br/>오늘도 우리 아이 급식 반찬에 햄과 소시지가 들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공육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섭취량이 적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가공육뿐 아니다. 미세먼지, 직화구이 삼겹살, 전자담배 등 암을 일으킨다는 물질은 생활 속에 넘친다. 이런 화학물질이 해로운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br/><br/> 경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인 지은이는 암뿐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치매, 비만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만성질환의 핵심 원인이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라고 본다. 우리 몸의 지방조직에 축적돼 좀처럼 배출되지 않는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은 허용기준 이내의 낮은 농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br/><br/> 이들은 또 높은 농도에서 해롭지만 낮은 농도에서는 오히려 이로운 이른바 호메시스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논란 많은 이 현상은 ‘적은 양의 독은 약’이란 말처럼 저농도의 화학물질이 우리 몸을 자극해 대응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미묘해 방사선이나 화학물질로 호메시스를 작동시키겠다는 원자력계 등의 주장은 “기름통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그가 제안하는 호메시스 작동 비결은 적게 먹기, 간헐적 단식, 운동, 현미·과일·채소 많이 먹기 등이다. 흔한 건강서적보다 의학 저널리즘 글쓰기에 가깝다. <br/><br/>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6.txt

제목: ‘사람책’ 빌려드립니다  
날짜: 20151104  
기자: 오윤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550007  
본문: “<span class='quot0'>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span>”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나무>의 ‘황혼의 반란’에 나오는 말이다. 노인 또는 한 사람의 소중한 경험은 도서관의 책처럼 여럿에게 귀감이 된다는 뜻이다.<br/><br/> 충북엔지오(NGO)센터는 오는 7일 엔지오어울림도서관에서 ‘사람책을 빌려 드립니다: 사람을 읽다, 휴먼라이브러리’ 행사를 한다. 책이 된 사람은 그의 경험과 살아온 이야기를 시민 독자들에게 나눠줄 참이다.<br/><br/> 시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대출을 신청하면 사람책은 몸과 마음과 지식과 경험을 한시간 남짓 유쾌하게 읽힌다. 이날 ‘장서’는 20권이다. 작가, 의사, 변호사, 요리사, 화가, 시의원, 여행가, 건축사, 엔지오 활동가, 사회적 기업가 등 다양한 지식·경험이 켜켜이 쌓인 20명이 서재에 꽂혀 있다. 도서관 책장의 책을 뽑듯 누구나 바라는 사람책을 골라 볼 수 있다.<br/><br/> 김진호 청담이엘의원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18년차의 외도’를 주제로 성형시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비법을 전수하고, 권희돈 시인은 ‘문학을 통한 치유와 소통’을 주제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진정한 목적을 이야기한다. 손순옥 화가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발견’을 주제로 자아를 그릴 참이다.<br/><br/> 다양한 경험들도 읽을 수 있다. 철당간 부부 떡볶이 장수로 유명한 최돈철·안해영씨는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실패한 인생에서 떡볶이 장사로 일어서기까지 파란만장한 삶 속에 스며 있는 행복 레시피를 공개한다.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은 인도, 산티아고 등에서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25년째 시민운동가로 살고 있는 송재봉 충북엔지오센터장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참이다. 암환자를 돌보다 암환자를 위한 요리를 하고 있는 요리사 신서옥씨는 암환자 식이요법뿐 아니라 암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도 들려줄 계획이다.<br/><br/> 김유정 충북엔지오센터 간사는 “사람책의 주제와 제목을 정하긴 했지만 독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경험·지식·이야기를 유도해 꺼내볼 수 있다. 분야에선 나름 내공이 쌓인 책들이어서 접하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7.txt

제목: 김보통, 웹툰 작가 최초로 트위터 블루룸 팬미팅  
날짜: 20151104  
기자: 임지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456999  
본문: <한겨레> 토요판에 ‘헌병 군탈 체포조’가 탈영병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 를 연재 중인 김보통 작가가 웹툰 작가 최초로 트위터 코리아 ‘블루룸’에서 팬미팅을 연다. 트위터 코리아는 오늘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김보통 작가의 실시간 팬미팅 ‘농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명인과 트위터 이용자의 소통을 위해 설치한 ‘블루룸’에 웹툰 작가가 초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br/><br/>‘농담회’는 김보통 작가가 직접 고른 이름이라 한다. 작가에게 건네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해시태그 ‘#보통’과 함께 질문을 올려 참여할 수 있다. 팬미팅 시간이 끝난 뒤에도 김 작가의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간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br/><br/>김보통 작가는 “<span class='quot0'>평소에도 많은 독자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트위터를 자주 이용하는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주제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솔직한 답변을 전할 예정이니 많은 질문을 부탁한다</span>”고 밝혔다. 그는 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span class='quot0'>내일 오후 4~5시 트위터 코리아 #BlueRoom에 농담하러 갑니다</span>”라는 공지글을 올리기도 했다.<br/><br/>2013년 아버지를 간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기 암환자의 이야기를 그린 ‘아만자’로 작가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4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5년 부천만화대상 부천시민만화상을 수상했다. 독자들의 실제 고민을 받아 웹툰으로 상담해주는 ‘내 멋대로 고민 상담’을 운영해 트위터 구독자가 5만3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br/><br/> 이번 팬미팅에서 질문을 보내 채택된 이들에게는 김 작가의 단행본 <아만자>, , <금요일엔 돌아오렴>, <연애소설이 필요한 시간> 등의 사인본을 선물할 계획이다. <br/><br/>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그림 트위터 코리아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8.txt

제목: 60대 여성의 30여년간 암 투병기  
날짜: 20151103  
기자: 원낙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446292  
본문: 30살부터 10년 동안 내가 한 일은 병원을 드나든 것뿐이었다. 암을 이겨내기 위해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후유증으로 따라오는 온갖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지나가는 바람 한줄기에도 독감을 앓았고, 10분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힘이 부족했다. 한여름 솜버선과 솜이불 속에서도 손발 냉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번씩 의식을 잃을 정도여서 이웃 친구가 수시로 다녀갔다.<br/><br/> 주치의가 내 삶의 기간을 3년이라고 선포했기에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3년이 지나며 ‘어, 괜찮으려나?’, 5년이 지나니 ‘살아날 수가 있나 보다’, 7년이 지나자 ‘휴, 안정권에 들어선 것 같다’며 그제야 서로 눈길을 마주칠 수 있었다.<br/><br/> 우린 차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밖 외출이란 건 생각할 수도 없었고 내가 움직이려면 언니가 차를 보내줘야 했다. 하루는 언니가 남편에게 미안해하며 하던 말을 들었다. “윤 서방, 젊은 남자가 어찌 이렇게 살아가겠나? 이제 내 동생 버리게.” 우리 부부는 동갑내기로 대학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양가 부모님의 고향이 같아 문화의 공통점이 많았다. 하지만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목 윗부분만 살아도 좋으니 꼭 살아야 해”라고 해 둘이 참 많이 울었다.<br/><br/>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에게 떼를 쓴 적이 한번도 없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엄마 또 아파서 병원 가게 된다”고 말했다. 어른들은 한번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수십번 들었을 테니 얼마나 기죽어 지냈을까. 큰아이 장가보내면서 착한 아이로 자라준 게 고마운 마음보다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들었다.<br/><br/> 이제 아들은 39살, 딸은 37살이 되었다. 30~40살 10년 동안의 투병기간과 40~50살 10년 동안의 회복기간을 지나 60살이 넘은 요즘 맘과 몸이 편안해져 주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길가에 보자기 펴놓고 손수 농사지어 가지고 나오신 할머니의 나물이랑 고추, 당근을 보며 새삼 인생의 끝없는 배움을 느끼게 된다. <br/><br/>한흥옥(65) 시니어블로거협회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69.txt

제목: [김종구 칼럼] 국정화의 ‘부스러기’를 탐하는 자들  
날짜: 2015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258189  
본문: 성군, 명군, 폭군, 혼군(昏君, 판단이 흐린 임금), 암군(暗君,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해당할까.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인사들에게야 하늘이 내린 성군이고 명군이겠지만 과연 그럴까. 폭군까지야 아니겠지만(무자비한 권력행사를 보면 그런 면모도 다분하긴 하다), 국정 운영 곳곳에서 나타나는 판단력 결여와 사리 분별의 어두움은 혼군이나 암군이라는 칭호가 더 어울린다.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려고 해보니 고민스럽다. 잘못된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면 혼군이 더 적절한 것 같고, 듣는 이의 복장을 터지게 하는 유체이탈식 어법으로 많은 국민이 암에 걸릴 지경인 것을 생각하면 암군이 더 맞는 표현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인지라 구별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고민을 접었다.<br/><br/> 혼군·암군이 통치하는 나라의 비극은 간신배와 아첨꾼들을 통해 완성된다. 여왕께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칭하자, 지금까지 말(국정교과서)이 아니라 사슴(검인정 강화)가 옳다고 수군대던 신하들이 일제히 부복해 외친다. “<span class='quot0'>전하의 혜안에 그저 탄복할 따름입니다!</span>” 심지어 왕 주변의 환관들은 “<span class='quot0'>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은 북쪽 흉노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니 엄히 처단하심이 마땅한 줄 아뢰오</span>”라고 목소리를 높인다.<br/><br/> 생사여탈권을 왕에게 저당 잡힌 신하들이야 그렇다 치고 시대의 간관(諫官)을 자처하는 자들의 행동은 더욱 괴이쩍다. 검인정 강화가 정답이라던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은 최고권력자의 굳센 고집이 확인되자 자신들이 발행한 신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태도를 바꿨다. 이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구호가 개방과 경쟁이요, 만날 개탄하는 것이 글로벌 흐름에 둔감한 국민의 우물 안 개구리 식 사고였는데, 갑자기 역사교과서만은 폐쇄와 독점만이 살길이라며 스스로 반글로벌리즘의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으니 도대체 어인 일인가.<br/><br/> 최근 한 보수신문사 사주는 국정화 찬성 논조를 밀고 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일보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논리를 펼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말의 진위야 확인하기 어렵지만 결과를 보면 그 신문과 저 신문 사이의 논리의 엉성함과 허접함의 우열을 재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한 언론계 인사는 흥미로운 진단을 했다. “<span class='quot0'>사주가 그런 말을 했다면 신문사 내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귀에 들어가라고 한 말일 것이다.</span>” 권력 비위 맞추기를 바탕으로 삼고 견강부회를 무기로 내세워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성향은 보수언론의 생래적 유전인자인지도 모른다. 평소에는 곧잘 권력에 쓴소리를 하는 듯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br/><br/>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을 선포했을 때도 그랬다. “<span class='quot0'>민주제도의 향상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탈각</span>”(조선)이라느니, “<span class='quot0'>대통령의 충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span>”(중앙)느니 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10월 유신 반대를 “일부 몰지각한 정상배들의 철없는 언동”으로 몰았다. 현재 진행중인 ‘역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분단 상황의 특수성인데, 유신쿠데타를 뒷받침했던 ‘한국적 민주주의론’이나 지금의 ‘한국적 역사교육론’의 허구성이 판박이인 점도 기막히다.<br/><br/>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중요한 목적이 주류 기득권 세력의 공은 부각시키고 과는 가리는 데 있다면 보수언론들은 확실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은 묻히고 이른바 민족신문으로서의 활약상만 부각될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미화되면, 유신체제를 찬양했던 부끄러운 과거도 덩달아 희석될 수 있다. 권력의 사랑도 받고 자신들의 과거 미화라는 덤까지 챙기는데 왜 국정화 찬성에 적극 발벗고 나서지 않겠는가.<br/><br/>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일제를 찬양하고 유신을 옹호했던 과거의 글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로 남아 있듯이 지금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는 글들도 또다른 오점으로 길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span class='quot0'>사람들이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span>”이라는 경구를 남긴 올더스 헉슬리의 혜안에 다시금 경의를 표한다.<br/><br/>김종구 논설위원 kj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0.txt

제목: “햄·고기 평균 섭취량 한국인, 우려 수준 아냐”  
날짜: 2015110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317792  
본문: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이나 붉은 색을 띠는 고기(적색육)가 발암물질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br/><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span class='quot0'>세계보건기구의 발표 내용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하루 평균 6ｇ 수준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span>”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7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가공육을 50ｇ섭취할 때마다 대장암 등 암 발생율이 18%씩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또 가공육에 들어가는 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의 섭취량도 우려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혔다. 2009~2010년 기준 우리 국민의 아질산나트륨 1일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허용량인 몸무게 1㎏당 0.06㎎의 11.5% 수준이었다. <br/><br/> 식약처는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붉은 색을 띠는 고기를 매일 100ｇ 섭취할 때 암 발생률이 17% 증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61.5ｇ이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권고 기준과 비교해도 섭취량이 많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가공육과 적색육을 67.5g 먹는 데 견줘 영국의 섭취권장량 기준인 70ｇ이하보다 낮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65~100ｇ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다만 가공육이나 적색육 섭취를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를 줄이고 대신 채소와 과일을 더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1.txt

제목: ‘엄마’ 김혜자 “살인하는 엄마까지 했죠”  
날짜: 20151102  
기자: 손준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348457  
본문: “<전원일기>는 인생을 가르쳐준 드라마에요. 한국 여자들이 살아야 할 도리를 알려줬어요. 그러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하는 엄마들을 연기했죠.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엄마를 하다가, 가출·이혼·탈선하는 엄마도 하고, 하다 하다 아들을 위해 살인하는 엄마까지 했죠.”<br/><br/> <전원일기>의 현모양처에서 영화 <마더>의 아들을 위해 살인하는 엄마까지, 배우 김혜자(74)에겐 늘 ‘어머니’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1년 만에 서는 연극무대 <길 떠나기 좋은 날>에서도 어머니이자 아내 역할을 맡았다. 최근 서울 대학로 인근 연습실에서 그를 만났다. <br/><br/><br/><br/>1년만에 다시 서는 연극무대서 <br/>가족 버팀목 되는 어머니역 맡아 <br/>공연 앞두고 하루 6시간씩 연습 몰두 <br/>손때 묻은 대본엔 고쳐쓴 흔적 빼곡 <br/>“<span class='quot0'>연구 못하는 쪽대본으론 연기 못해</span>” <br/><br/><br/><br/> 이 작품은 절망에 빠진 남편 서진, 남편에게 희망이 돼주는 아내 소정, 두 사람의 딸 고은이라는 세 가족의 애환을 시적인 언어로 그렸다. 김혜자는 어떤 불행도 이겨내며 남편과 딸의 버팀목이 돼주는 소정 역을 맡았다. “축구 선수 하다 다친 서진을 간호사로서 격려해, 꽃 사진작가로 만들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소정은 암이 걸려 임종을 맞기 위해 수녀원으로 갑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걸 남편이 보면 힘들어 할까 봐 그런 거죠.”<br/><br/> 대본과 연출을 맡은 하상길(67)은 1969년 실험극장에서 연극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를 본 뒤 김혜자의 열렬한 팬이 됐다. 김혜자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바쁜 와중에도 연극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해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때는 하루 10시간씩 연습했다. 2시간을 혼자 끌고 가는 모노드라마로, 10살에서 70대까지 11개 역할을 소화했다. 요즘은 <길 떠나기 좋은 날> 무대를 코앞에 두고 하루 6시간씩 연습에 몰두한다. <br/><br/> “연극은 늘 공부가 돼요. 한 대본을 끊임없이 석 달은 볼 수 있잖아요. 박사학위 받는 것이나 같아요. 논문 한 편 쓰는 것처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겠어요. 극중 인물과 동화해 그 인물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무대에 서나요?”<br/><br/> 대본을 석 달 숙성시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배우다 보니, 쪽대본(촬영 당일 급하게 나온 대본)으론 절대 연기를 못 한다.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이 썼어도, 저는 그거 못해요. 배우한테 연구할 시간을 줘야지. 그런 드라마 잘되는 거 못 봤어요. 그게 용인되는 시대가 됐지만, 그건 사람들이 무뎌져서 그래요. 드라마만 그러나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br/><br/> 텔레비전과 달리, 연극 대본은 배우의 의견을 반영해 ‘공연 대본’이 되기도 한다. “자기가 쓴 것을 연출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연출한테 의견을 말하면 그분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아름답고 희망적인 얘기로 고쳐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극이 좋아요.” 김혜자의 대본엔 붉은 펜과 검은 펜으로 고쳐쓴 흔적이 빼곡하다. 닳고 손때 묻은 대본은 맡은 배역 ‘소정’과 일심동체가 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또한 배우 김혜자의 자존심이기도 하다.<br/><br/> 배우로서 평생 행복했지만, 개별 작품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연기가 잘 안 될 때는 지옥이에요. 텔레비전의 경우 내가 잘 못한 날엔 ‘오늘 밤 정전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못 보게’라고 할 정도였어요. 텔레비전에선 나 때문에 자꾸 다시 찍어달라고 못 하잖아요.”<br/><br/> 배우 김혜자는 ‘국민 엄마’이지만 ‘아프리카 어린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1992년부터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고 있다. 그 활동을 기록한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2004년)는 30만부 이상 팔렸다. 10억원에 이르는 인세는 고스란히 월드비전 통장으로 입금된다. 연극 <길 떠나기 좋은 날>은 오는 4일~12월20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에서 공연한다. (02)765-8880. <br/><br/>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2.txt

제목: 수만년전 몽골 알타이 암각화는 누가 그렸을까  
날짜: 2015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117589  
본문: ▶ 박하선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지난 9월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앙아시아 알타이, 고비 등을 다녀와 사진과 글을 보내왔다. 낯선 땅에서 만난 벽화를 통해 그의 작업 주제 중 하나인 한국 고대사와의 연관성을 탐구했다. 박하선 사진가는 외부인이 접근하기 힘든 티베트의 장례의식을 담은 ‘천장’ 작업으로 2001년 세계적인 월드프레스포토 상을 수상했다. 지금도 아시아의 오지를 돌아다니며 삶과 죽음, 역사와 시원을 담고 있다.<br/><br/><br/><br/>‘알타이’(Altai)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인지 낯설지가 않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알타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에겐 아직 생소하다.<br/><br/> 알타이 산맥은 몽골과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고지대 오지이다. 요즘 들어 이곳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설화나 민속 등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원류 중 하나인 ‘부여족’의 뿌리가 이곳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조금씩 입증되고 있다. 특히 ‘알타이’는 ‘황금(金)’이라는 뜻으로 ‘신라’의 지배층이었던 경주 ‘김(金)’씨가 이곳 알타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천마총 발굴 자료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br/><br/> <br/><br/> 생생한 고대문명의 흔적<br/><br/>의 흔적 세계 곳곳의 고대 인류가 살았던 곳에는 그 흔적들이 여러 형태로 남아 있다. 알타이의 암각화도 그중의 하나다. 특히 몽골 알타이의 암각화들이 시대성과 다양성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이번 취재의 목적은 몽골 북부 알타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암각화들을 찾아 기록 촬영하는 것이었다.<br/><br/> 몽골 알타이 산맥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은 서쪽 끝인 ‘홉드 아이막’(Hovd aimag: 아이막은 한국의 행정단위인 ‘도’에 해당)과 ‘바양얼기 아이막’(Bayan-ulgii aimag)이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프로펠러가 달린 항공편을 이용해 3시간 정도 날아가 도착한 곳이 ‘홉드’다. 유네스코에 지정된 암각화군이 있는 곳은 바양얼기 쪽이지만, 그보다 먼저 동남쪽의 고비 알타이 아이막의 ‘바양 올’이라는 마을 주변 일대에 흩어져 있는 또 다른 암각화군을 찾았다.<br/><br/><br/><br/>몽골 북부 알타이 지역에 흩어진 <br/>암각화들을 찾아 기록·촬영 작업 <br/>사진이나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br/>손짓 발짓으로 물으며 현장 찾아 <br/>넓은 저수지에서 바늘찾기 형국<br/><br/>초원·사막 지나고 산 넘어 만나는 <br/>암각화들은 그야말로 보물찾기 <br/>염소와 양, 사슴, 소, 사람 그려져 <br/>마치 현대의 회화를 보는 듯 <br/>남녀가 성행위 하는 장면까지<br/><br/><br/><br/> 이곳은 수년 전 국내의 학자들이 답사를 하고 난 뒤 알려진 곳이다. 일단 그 보고서의 정보에 의존해 찾아 나서기는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길다운 길이 없고, 안내판 하나 없으며,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막성 지형물들이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말은 잘 통하지 않는데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손짓 발짓으로 물어보고 싶어도 사방 천지 어디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그야말로 넓은 저수지에 빠진 바늘 찾기를 하는 형국이었다. 한참을 헤매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관공서에서 한 노인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며 그 노인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에 차를 타고 10여㎞ 초원길을 달리니 그 노인이 사는 ‘게르’가 나왔다. 향토 사학자인 듯한 파슨 도르처라는 그 노인은 일전에 국내 학자들이 왔을 때도 안내를 맡았다고 하면서 길 안내에 흔쾌히 응해줘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했다.<br/><br/> 초원과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어 만나는 암각화들은 그야말로 보물찾기였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는 그것들은 보석처럼 다가왔다. 염소와 양, 사슴, 소, 그리고 사람 등등이 그려져 있는 암각화들은 마치 현대의 회화를 보는 듯했다. 수천년 전의 목동들에 의해 그려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주로 산 아래쪽 어두운 색깔의 판판한 바위에 분포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바위그림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다. 사냥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수레바퀴도 등장하고, 남녀 성행위 하는 장면까지도 등장한다. 고대 목동들이 그냥 심심해서 낙서하듯 그렸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짜임새도 있고 예술성도 있어 보이는 고대 예술가들의 작품이라 해야 할 듯하다. 어떤 바위에는 집단적으로 그려져 있으면서 내용 또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해 문자가 없는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카메라를 다루는 손끝이 가볍게 떨려왔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수직 바위’라는 뜻의 ‘하난 하드’라는 곳인데, 일부는 오랜 세월을 견디다 못해 무너져 내렸지만 위아래, 좌우 곳곳에 빽빽하게 그려져 있어 당시에 제사터를 비롯한 어떤 특정한 장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br/><br/>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이라 하루해가 무척 짧다. 마을까지는 너무 먼 곳이기에 캠핑을 하기도 했지만 밤에는 눈까지 내려 너무 춥다. 다행스럽게도 어느 유목민의 게르에서 그 식구들과 함께 하룻밤 신세를 졌는데 난데없는 손님맞이에도 부담없어하는 그들의 표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br/><br/> <br/><br/> “여기는 금지구역, 돌아가라”<br/><br/>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암각화군들은 바양얼기 아이막에 속해 있는데 ‘차간 살라’와 ‘차간 골’, 그리고 ‘아랄 톨고이’라는 곳이다. 국립공원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이 인접해 있는 서쪽 끝 고지대의 오지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국경수비대의 특별 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차량 수배였다. 고비 알타이 지역에서 함께했던 운전수가 그쪽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계절에는 너무 위험해 갈 수 없다고 한다. 할 수 없이 다른 차량을 수배하게 되었고, 몽골어가 통하지 않는 카자흐족들이 사는 곳이라 길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카자흐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에 더 많은 정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진 한 장 구경하지 못한 무지의 상태에서 그 깊숙한 오지로 찾아 나섰다. 안내판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길조차 없어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되었다.<br/><br/> 먼저 ‘차간 살라’와 ‘차간 골’을 찾아 나섰다. 어쩌다 유목민 게르가 하나씩 보이는 것이 고작이고 주변의 산에는 벌써 눈이 쌓여 하얗게 빛나고 있는 오지다. 하지만 운이 좋았는지 도중에 만난 노인 한 명이 그쪽을 잘 알고 있어 동행했다. 알고 보니 그 일대의 ‘이장’쯤 되는 분으로 암각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산을 넘고 넘어 도착한 ‘차간 살라’의 암각화는 러시아 국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하긴 그 옛날 이 암각화를 그린 당사자들은 국경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지역의 암각화들과는 사뭇 달랐다. 먼저 널찍한 바위들의 형태가 달라 보였고, 집단적으로 그려져 있으며 내용이 좀더 풍부하였다. 거기다가 연조가 좀더 오래되어 보이는 것으로 봐서 과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어느 한 바위에는 동물들 사이에 사람의 옆모습이 크게 그려져 있어 마치 현대미술을 연상케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동물들도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적어도 3500년 이상 된 것이라는데 그 많은 세월을 견디고 지금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 시원찮은 도구만으로 그린 고대 유목민 예술가들의 작품이다. 지금 누구에게 그리게 한다고 해도 예술적 감각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br/><br/><br/><br/>‘큰 산’이란 뜻 ‘아랄 톨고이’엔 <br/>화살 맞은 채 도망가는 동물들 <br/>거대한 뿔 사슴은 단연 압권 <br/>유네스코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br/>이곳의 그림은 12000년 되었다<br/><br/>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지만 <br/>안내판과 특별 보호장치 없이 <br/>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워 <br/>암각화 표면의 코팅처리가 고작 <br/>유목민과 가축이 밟고 지나다녀<br/><br/><br/><br/> 마지막으로 찾아 나선 곳이 ‘큰 산’이라는 뜻의 ‘아랄 톨고이’의 암각화다. 이곳은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는 오지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험한 곳이다. 도중에 만난 군인들은 허가를 받고 왔음에도 금지구역이라며 길을 막고 돌아가라고 한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 물러날 수 없는 일, 통사정도 하고 억지 세금도 더 내며 위기를 넘기다 보니 암각화를 찾기도 전에 산간에서 밤이 되었다. 텐트도 챙겨 가고 먹을 식량도 있었지만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야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깊숙한 오지에 다행스럽게도 유목민 집이 하나 있었다. 몽골족도 아니고, 카자흐족도 아닌 ‘투바족’ 내외가 밤늦게 난데없이 나타난 이방인들에게 서슴없이 잠자리를 내주었다.<br/><br/> <br/><br/> 운주사 석인상과 흡사한 ‘쿠누 초도’<br/><br/> 두 군데로 나뉘어 있는 아랄 톨고이의 암각화는 또 달랐다. 널찍한 바위에 집중적으로 갖가지 동물들과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사냥하는 모습에서 날아가는 화살들과 화살을 맞은 채 도망가는 동물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거대한 뿔을 가진 큰 사슴 그림이 단연 압권이다. 이곳이 예사로운 자리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암각화들은 놀랍게도 1만2000년 전쯤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 암각화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평지에 고대 묘지군이 있었다. ‘키릭수르’라 말하는 수십개의 돌무지와 ‘쿠누 초도’라 말하는 사람 모양의 돌비석이 서 있는 곳이다. ‘쿠누 초도’는 마치 전남 화순 운주사의 석인상과 아주 흡사하다. 이 무덤들은 기원전 ‘훈족’들의 지배층 무덤이라 알려져 있다. 특이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보그트’라 말하는 여러 개의 돌비석들이 각각의 무덤과 무덤 사이를 1열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돌무지 무덤들이 별자리를 의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아무튼 독특한 장례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암각화의 주인들이 기원전의 훈족들이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 1만2000년 전의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이곳의 원주민이었다는 ‘알타이 부여족’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남긴 흔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br/><br/><br/><br/>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암각화들이지만 안내판은 물론이고 특별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암각화 표면에 코팅처리한 것이 고작일 것이다. 그래서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일까. 유목민들이나 가축들이 거리낌 없이 밟고 지나다닌다. 어쩌면 수천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지금에 와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닐 성싶다. 알타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br/><br/> 고비 알타이·홉드·바양얼기/박하선 사진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3.txt

제목: 메르스 종식선언 늦추기로  
날짜: 2015102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4013129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종식 선언이 연기됐다.<br/><br/>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로 예정됐던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r/><br/>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26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자문회의를 연 결과 현재 메르스가 국내에서 추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80번째 확진자가 양성과 음성을 오가는 현재 상태를 감안해 메르스 상황의 종식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방역과 감시 조치를 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br/><br/> 이에 따라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 시점은 80번째 메르스 환자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는 때부터 28일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환자는 지난 1일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열흘 만에 다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 12일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이후 현재도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 환자가 앓고 있는 림프종이라는 면역계통 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4.txt

제목: WHO, 햄·소시지 가공육 1군 발암물질 분류  
날짜: 20151027  
기자: 조기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3724669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시지와 햄, 핫도그,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br/><br/>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CRC)는 26일 가공육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키운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담배와 석면과 같은 분류군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붉은 고기’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제한된 근거가 있어 제초제와 같은 분류군인 2군(2A) 발암물질로 규정한다고 밝혔다.<br/><br/>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으면 대장암 발병율이 18% 커진다고 밝혔다. 가공육는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 등의 방식으로 가공해 향미를 높인 고기로, 말린 고기 등도 포함된다. <로이터> 통신은 50g은 소시지 1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라며, 미국인의 경우 2011년 조사에서 매일 평균 가공육을 21.7g 섭취한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전했다.<br/><br/> 국제암연구소 보고서의 책임자인 쿠르트 스트라이프 박사는 “개개인이 가공육을 섭취해서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크지 않다. 다만, 위험성은 먹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며 “많은 사람이 가공육을 섭취하고 있어서 공중보건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 섭취로 발병 위험이 커지는 암으로 대장암을 특정했지만, 위암의 경우에도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이 담배와 함께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가공육 섭취가 흡연만큼 암 발병율을 높인다는 뜻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br/><br/> 국제암연구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말고기 등 포유류의 고기를 뜻하는 붉은색 고기 섭취도 주로 대장암 발병 위험성을 높이지만, 췌장암과 전립선암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를 이끄는 크리스토퍼 와일드 박사는 “이번 발표는 고기 섭취를 제한하라는 (기존) 공중보건 권고들을 뒷받침한다”며 “붉은 고기는 영양적 가치도 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사람들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 국제암연구소는 붉은 고기를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이 없냐는 데 대해서는 “<span class='quot0'>바베큐와 팬에 굽는 것처럼 고온이나 직화 방식의 조리 방법이 발암 화학물질을 더 배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특정 조리 방법이 발암 위험을 더 높이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span>”고 밝혔다. 또한, 어떤 종류의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의 고기 섭취가 발암 위험에서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론은 없다고 밝혔다.<br/><br/> 국제암연구소는 이번 발표가 세계 10개국 22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800여개 연구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로 암이 발병해 숨진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국제 컨소시엄 연구인 ‘세계 질병 부담 프로젝트’(GBD: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추정치를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 섭취가 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공육 섭취 연관성이 있는 암 발병으로 해마다 세계적으로 3만4000명, 그리고 붉은 고기의 경우에는 5만명이 숨진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는 해마다 100만명, 음주로는 60만명, 대기오염으로는 20만명이 숨진다.<br/><br/> 국제암연구소 발표에 대해서 육류 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캐나다육류협회는 국제암연구소 발표가 문제를 너무 단순화했다고 평가했고, 북미육류협회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br/><br/> 학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육류 섭취를 일정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보건 권고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환경단체인 미국자원보존협회(NDRC)의 데이비드 왈링가는 “아무도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적게 그리고 제대로 생산된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할 뿐이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br/><br/>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5.txt

제목: “햄·소시지·붉은색 육류 등 발암물질 분류” WHO 발표 파장  
날짜: 20151027  
기자: 이재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3741685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햄과 소시지, 소고기 육포 등 가공육과 붉은색 육류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뒤, 소비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연구소도 이런 육류 섭취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할지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일단 우리 국민의 1인당 햄·소시지 소비량은 연구소가 대장암 유발률을 높인다고 경고한 수준의 4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지난 26일 국제암연구소는 햄·소시지를 비롯한 가공육을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붉은색 육류를 발암 가능성이 큰 ‘2군(Group 2A)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가 800건 이상의 연구를 검토해 이 품목들이 대장암을 유발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연구소는 날마다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확률이 18% 증가한다고 덧붙였다.<br/><br/> 소비자와 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주부 김지영(35)씨는 “아이들이 좋아해서 햄을 많이 구워 주는 편이라서 놀랐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도 발암물질이라니 고기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가공육 생산업체 홍보 담당자는 “<span class='quot0'>가공육 매출이 타격을 입는 건 아닐지 걱정</span>”이라고 말했다. 한국육가공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span class='quot1'>날마다 가공육 50g을 섭취할 경우 연간 18.3㎏의 분량인데,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햄·소시지의 연간 소비량 4.4㎏의 네배가 넘는다</span>”고 밝혔다.<br/><br/> 국제암연구소가 특정 물질을 발암물질 1군이나 2군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물질과 인체의 암 발생 연관성이 얼마나 ‘입증’되어 있는지에 근거한다. 발표 관련 ‘질의응답자료’(Q&A)를 보면 ‘발암물질 분류는 물질이나 약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의 명확성을 나타낸다. 이는 암 발생의 위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 등급 분류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 연관성이 얼마나 입증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란 얘기다. 이를테면, 같은 1군 발암물질에는 담배와 술(alcoholic beverages), 핵물질인 플루토늄 등이 함께 묶여 있지만, 가공육이 담배나 술, 플루토늄과 동일하게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정 물질이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1군에 속하며,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입증되면 2군에 포함된다.<br/><br/> 그렇다면 우리는 육류 섭취를 아예 중단해야 할까. 국제암연구소는 육류 섭취를 멈춰야 하냐는 질문에 “<span class='quot2'>많은 국가 보건기구에서 심장질환 등을 유발하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를 제한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span>”고 하면서도 “<span class='quot2'>연구 결과에서 안전한 육류 섭취량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span>”고 밝혔다. <br/><br/>이재욱 기자 u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6.txt

제목: [편집국에서] 나는 페스코 채식주의자다 / 권은중  
날짜: 20151025  
기자: 권은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3606977  
본문: 고백하자면 나는 대학에 가서 돈가스를 처음 먹어봤다. 1988년 봄에 한 미팅 때 서울 신촌의 한 여대 앞 돈가스집에서였다. 미팅 상대의 이름과 생김새는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먹음직스럽던 돈가스의 모습은 또렷이 기억한다. 생일 때나 먹을 수 있는 짜장면과 탕수육이 외식의 전부였던 시절이었다.<br/><br/>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식중독에 시달렸다. 나는 음식의 재료나 조리 과정을 의심하기보다 1925년 서양의 돼지고기 요리인 포크커틀릿을 일본식으로 바꾼 돈가스 하나 처리 못하는 내 소화기관의 무력함을 탓했다. ‘돈가스의 저주’ 탓인지 미팅의 결과도 좋지 않았다.<br/><br/> 졸업 후 취직을 해서 돈가스보다 고급스러운 소고기 요리를 접하게 됐다. 나는 독특한 맛의 소혀와 대창구이를 좋아했다. 하지만 30대 후반에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다. 40대 후반에 이미 암으로 대장을 모두 절제한 선배의 거듭된 충고를 따른 덕분이었다. 심지어 떼어낸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악성이었다. 병원에서는 용종의 원인을 육식과 유전이라고 말했지만 친가나 외가 쪽에 대장암을 앓은 사람은 없었다.<br/><br/> 그제야 대학 시절 돈가스를 못 먹은 게 단순히 촌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재료인 고기와 이를 튀긴 기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어쩌면 그때 돈가스가 생고기가 아니라 가공육에 화학첨가제를 뿌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 커피맛 음료가 진짜 커피보다 향기롭듯이 가공육은 첨가제 덕분에 고기보다도 먹음직스럽다. 그 뒤 나는 서서히 고기를 멀리하게 됐고 결국 고기 가운데 생선 정도를 먹는 페스코 채식을 하게 됐다.<br/><br/> 물론 고기가 건강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질 좋은 단백질 섭취원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인간과 같은 영장류인 원숭이도 다람쥐 같은 동물을 잡아먹는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고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집착은 생명을 무슨 농축원료 공급원쯤으로 여기는 착시로 이어진다.<br/><br/> 현대식 도축 시스템의 비윤리성을 폭로한 제러미 리프킨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육식의 종말>을 보면, 미국 소의 95%에 몸집을 키우기 위해 각종 성장호르몬을 투약한다. 미국 사용 제초제의 80%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와 콩에 뿌려진다. 사육단가를 낮추기 위해 좁은 공간에 많은 가축을 키우다 보니 병을 막기 위해 항생제와 살충제도 뿌려진다. 전미과학아카데미 연구위원회(NRC)의 자료를 보면, 쇠고기는 전체 식품 가운데 항생제와 살충제 오염으로 소비자들의 암을 유발하는 원인의 11%를 차지한다.<br/><br/> 우리나라도 ‘육식의 습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조사 결과, 2012년 우리나라 사람의 대장암 발생률은 185개국 가운데 3위였고 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기 중심의 식단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공급량은 1980년 13.9㎏에서 2013년 49.2㎏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유방암 환자도 15년 동안 4배나 늘어났으며 이런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br/><br/>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고기=힘’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강하다. 잦은 회식의 메뉴도 주로 삼겹살이다. 하지만 잘 구워진 고기는 이두박근을 키우기는커녕 혈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1977년 미국 상원의 국가영양문제특별위원회는 미국인의 높은 심장병과 암 사망률의 원인으로 고기 중심 식생활을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그 대안으로 통곡물, 야채, 어패류를 주식으로 하는 일본 에도시대의 식단을 제시했다. 바로 피시 베지테리언으로 불리는 페스코 채식이다. <br/><br/>권은중 라이프에디터 details@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7.txt

제목: 식도가 녹아내린 남편…“다시 살고 싶어요”  
날짜: 20151025  
기자: 김미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3604059  
본문: 김진수(57·가명)씨는 지난 1년8개월 동안 ‘밥’을 넘기지 못했다. 불고기가 먹고 싶을 땐 입에 고기 한 점을 넣고 한참 씹다가 그냥 뱉어야한다. 침도 삼키지 못한다. 작은 통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30분에 한 번씩 종이컵 반 분량의 침을 뱉어낸다. 모든 음식은 분쇄기로 갈아 액체로 만든 뒤 주사기로 관을 통해 배(소장)에 넣는다. 80㎏이었던 김씨의 몸무게는 50㎏까지 내려갔다. “<span class='quot0'>어릴 적 어머니가 된장 넣고 끓여주신 짜글이 찌개가 제일 먹고 싶어요.</span>”지난 22일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만난 김씨가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br/><br/><br/><br/>2년전 사업 잘못돼 전재산 잃고 <br/>신발 외판원 등 안해본 일 없어<br/><br/><br/><br/>“<span class='quot0'>남편이 좌절감에 양잿물 마셔</span>” <br/>암도 이겨냈던 아내, 눈물 떨궈<br/><br/><br/><br/>물도 음식도 못넘기는 고통속 삶 <br/>수차례 식도확장 등 입퇴원 반복 <br/>“<span class='quot0'>수천만원대 병원비 앞에 막막</span>” <br/><br/><br/><br/> 지난해 2월 무척 추웠던 날, 김씨의 아내 이희순(57·가명)씨는 오후 8시께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미안하다, 화장시켜라. 여기 천안 그 공용주차장이다.” 문자를 본 아내 이씨는 깜짝 놀라 공용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차 안에서 쓰러져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차 시트는 토사물로 엉망이 돼있고, 남편의 입 주변은 흘러내리는 검은 액체로 새카맣게 타버렸다. 음독자살을 시도한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얼어붙었다. <br/><br/>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씨의 가족은 여유롭진 않았지만 행복했다. 목사가 꿈인 아들은 전액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뇌병변 3급 장애인인 딸도 비관하지 않고 바르게 컸다.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한 딸은 12살 때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지만 복지관에 취업해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전도사인 아내 이씨는 2009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수년간 투병생활 끝에 결국 이겨냈다. “남편이 자살을 기도한 사실을 알고 정말 막막했죠. 딸의 장애도, 내 몸의 암도 이겨냈는데 또 다시….” 눈시울을 붉히는 아내 희순씨의 두 손을 김씨가 꼭 잡았다. <br/><br/> 김씨 가족의 행복이 무너져내린 건 2년 전 김씨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으면서부터다. 고물상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이 번창하자 비닐공장을 차리기로 마음 먹고 새 기계들을 들여놓았다. 하지만 기계 중간상에게 잘못된 기계를 넘겨받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고 말았다. 김씨는 ‘재기하겠다’며 건강신발 외판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외판원 등 안 해 본 일 없이 열심히 뛰었다. “원래 남편은 낙천적인 사람이라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놔도 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이 그리 된 뒤 살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공장에 쥐잡으려고 놔둔 양잿물을 한순간 좌절감으로 마셔버린 거예요.” 아내 이씨가 말했다.<br/><br/> 자살 시도로 김씨는 응급 처치와 8차례의 식도 확장 시술을 받으며 입·퇴원을 반복했다. 물도 음식도 목으로 넘길 수 없었다. 눈에 띄게 야윈 김씨는 1년 전 소장에 관을 뚫는 수술을 받았다. 배에 직접 액체로 된 음식물을 주입할 수 있게 됐다. 그 사이 가세는 나날이 기울었다.<br/><br/> 일용직 노동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잘 풀리지 않았다. “액체로 만든 즙을 병에 담아 주사기와 함께 큰 배낭에 넣고 특수용접 용역일을 나갔죠. 하루 나가면 15만원이니까요.” 김씨는 2시간에 한번씩 남몰래 물과 즙을 배에 주입하면서 일을 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다. 김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터에서 눈총을 받았다. 집에 오면 탈진하기 일쑤였다. “그 시절 밤에 자다가 많이 울었어요. 뭐든 일하고 싶은데 몸은 망가져있고… 살아있지만 감옥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김씨가 말했다.<br/><br/>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결심한 김씨는 지난 8월 순천향대 부천 병원에 찾아갔다. “나 살고 싶으니까 수술 좀 시켜달라고 애원했어요. 한순간 일을 저질렀지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김씨는 지난달 식도절제술과 식도-위 문합술(식도재건술)을 받았다. 김씨의 수술을 집도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흉부외과 최창우 교수는 “<span class='quot1'>환자의 식도가 모두 녹아 없어진 상태라 연결할 곳이 없어 수술이 쉽지는 않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경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회복이 잘 되고 있는 편</span>”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식도를 넓히는 시술을 계속 받으며 경과를 살피고 있다. 14㎜까지 식도를 넓힌 김씨는 이제 목으로 물을 넘기는 연습을 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br/><br/> 문제는 ‘수술비’다. 아내 이씨는 “‘죽겠다는 용기로 살았어야지’라는 욕도 먹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일(자살 기도)이라 뭐라 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다시 잘 살아보고 싶어요. 먹고 사는거야 어떻게 해보겠는데 수천만원대의 병원비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딸이 복지관에서 벌어오는 약간의 소득과 아내가 일하는 교회에서 받은 급여로는 병원비 갚기에도 빠듯하다. 매달 나가는 월세 30만원과 김씨의 각종 약값, 대출 상환금 등으로 돈이 모일 틈이 없다. 아내 이씨가 수년간 꼬박꼬박 돈을 납부해온 민간 생명보험은 무용지물이었다. 자살기도로 인한 의료비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br/><br/> 아내 이씨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죽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살아난 것에 너무 감사하지만 남편의 고통을 보는 것은 저 역시 너무 힘이 듭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생명은 하나더라고요.” 이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br/><br/> 이씨에겐 지금 소원이 하나 있다. 생활고로 중단해버린 기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암투병을 하던 2009년 이씨는 티브이(TV)로 먼 아프리카 케냐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삼형제 아이들을 봤다. “만원이면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는다 하기에 한 달에 3만원씩 보냈죠. 남편이 이렇게 되고 나서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3만원씩 보내줄 날이 다시 올까요.” 불현듯 찾아온 자신의 고통에도 아내 이씨는 타인의 고통을 걱정하고 있었다. <br/><br/> 부천/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br/><br/><br/><br/>▶한겨레 나눔캠페인 참여하려면 <br/>▶비닐하우스 사는 할머니와 손자…‘조립식 주택 짓게 됐어요’<br/><br/><br/><br/> 한겨레 나눔캠페인 참여하려면<br/><br/>김진수씨와 그의 가족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기업은행 060-700-1226, 예금주: 바보의 나눔)를 하거나 전화(ARS 060-700-1226, 한통에 5000원)를 걸어 주세요. 진수씨에게 필요한 돈은 지난 수술비와 입원비 1500여만원,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입니다. 모금액은 모두 진수씨와 가족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작은 정성을 모으면 진수씨가 가족과 함께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br/><br/>진수씨에게 또다른 방식의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02-727-2506~8)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사회사업팀(032-621-6429, 담당 이경인 사회복지사, 전자우편 swlin@schmc.ac.kr)으로 연락해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br/><br/>•계좌이체 (예금주 바보의 나눔) : 기업은행 060-700-1226 <br/>•전화 (한통에 5000원) : ARS 060-700-1226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8.txt

제목: “쓰디쓴 환상이라도 진실을 알고싶다”  
날짜: 20151022  
기자: 이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3438422  
본문: 신을 찾아서: <br/>어느 무신론자의 진리를 향한 여정 <br/>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전미영 옮김 <br/>부키·1만4800원<br/><br/><br/><br/>제목부터 배신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노동의 배신> <긍정의 배신> <희망의 배신>을 읽고 현실에 눈뜬 독자들은 어쩌고 이제 와 신을 찾는 것인지. 그러나 그가 썼다면, 단순한 ‘신앙 고백’은 아닐 터. <br/><br/> <신을 찾아서>의 지은이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1941년 미국에서 태어난 탐사작가이자 사회운동가다. 대표작인 <노동의 배신>(Nickel and Dimed, 2001)을 쓰기 위해 그는 3년간 식당 웨이트리스, 호텔 객실 청소부, 월마트 매장 직원 등으로 ‘위장 취업’했다. 노동 위계 맨 밑바닥에서 중년 여성노동자로 일하며 자본주의의 이면을 낱낱이 고발한 덕에 이 책은 미국 600여개 대학 필독서로 지정되었고 ‘생활 임금’ 운동에도 불을 붙였다. <br/><br/> 나머지 책들의 위엄 또한 ‘바닥’을 치밀하게 탐사한 결과였다. <긍정의 배신>에서는 그 자신 암에 걸린 여성 환자로서 치료 문화에 만연한 긍정 메시지 전략, 대형교회와 자기계발서의 문제들을 분석했다. 그는 맹렬한 운동가, 선동가였다. “<span class='quot0'>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현실적이며, 자기몰입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서 행동을 취해야만 없앨 수 있다.</span>” 그랬던 그가 이제 늙고 병약해져 정신이 흐려진 나머지 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가? <br/><br/> 이 책은 회고록 형태를 띤다. 2001년 유방암에 걸린 그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14살이던 1956년부터 시작하는 일기를 살펴본다. 그 일기에는 “너무도 기묘하고 엄청난 사건”이 쓰여 있었다. ‘신비체험’ 비슷한 것이었는데 이는 “합리주의자, 무신론자, 훈련된 과학자”인 본인이 생각해도 “신과 요정의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분석을 미뤄두었지만, 끝내 쓰고야 만다. 16살의 자신이 과거에서 보내는 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0'>이 글을 쓴 이후 너는 무엇을 배웠니?</span>” 지은이는 어물쩍 피하지 않고 자기 삶의 엄중한 관찰자가 되어 체험담을 써내려간다. <br/><br/> 그의 혈관에는 노동계급, 반골의 피가 흘렀다. 할아버지는 철도 노동자, 아버지는 광부 출신, 어머니는 청소부였다. 친증조할머니는 종부성사를 하러 온 신부 앞에서 십자가를 패대기친 무신론자였고, 부모 또한 비슷했다. 어린 시절은 위태위태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거의 학대를 당했다. 지식인이었지만 알코올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편애”와 결국 세번째 자살시도에서 뜻을 이뤘던 어머니의 “암흑 에너지” 사이를 탁구공처럼 오갔다. 분노와 경멸에 차 있던 부모 아래였지만 “왜?”라는 질문만큼은 철저히 배웠다. 부모는 책을 가까이하며 논쟁을 즐겼기 때문이다. 명석하나 유약한 부모 밑에서 그는 일찍이 우주적 지식 탐색에 몰두한다. <br/><br/> 14살 무렵, 그는 ‘해리 현상’이라고 할 만한 일을 겪게 된다. 나무를 보다가 갑자기 세상이 지워지며 모든 단어와 의미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평생 반복되었다. 하지만 “신비주의 냄새를 풍기는 건 딱 질색”하는 자칭 경험론자 아닌가. 남들이라면 성전으로 달려갔을 테지만 그는 유일신 종교와 화해할 수 없었다. <br/><br/> 1965년 이후, 에런라이크는 반전운동을 벌이며 운동가로 첫발을 내딛는다. 사회운동, 원고 집필, 출산, 육아, 심지어 페미니스트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른바 ‘내조’까지 병행했다. 두번의 이혼, 중년 이후 맞닥뜨린 우울증과 유방암 투병은 “아이 때의 탐색”으로 자신을 돌려놓았다. 고생물학, 고고학, 심리학 책을 보며 공부했고 우울증을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br/><br/> 50대가 되어 그는 자연 속에 푹 잠겨 동물, 미풍, 빛 한줄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애니미즘, ‘신들’, 정령들, 외계인들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은이는 고양감, 충만감 등 ‘신비체험’을 조사하는 편이 외면하는 것보다 바른길이라고 여긴다. “생물체” “(인간)존재” 바깥의 잠긴 문을 여는 것이, “야생의 타자”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br/><br/> 세포생물학 박사 출신인 그는 훈련된 과학자로서 신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단, 인간이 모르는 것에 대한 탐사만큼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인간종이 몇세기 동안 쌓아올린 지식의 한계, 전능한 유일신 이외의 신성과 정령을 모조리 폐기해온 세계관의 해악을 비판하는 것이다. “회의를 품는 게 맞다. 내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비록 추악하고 환상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며 그는 거침없이 미궁 속으로 걸어들어간다. <br/><br/>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수수께끼를 응축시켜 감지 가능한 타자 내지 타자들로 요약하는 것, 그것이 내 정신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며, (…) 내 정신에 본래 부여된 기능인 것 같다. 당신의 정신 또한 분명 마찬가지일 것이다.” <신을 찾아서>는 또 하나의 탐사보고서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과학자이고, 이 책은 ‘배신 3부작’의 외전이라 할 수 있겠다. <br/><br/>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79.txt

제목: 갑상선암 과잉 수술…보험사·의사 ‘부채질’  
날짜: 20151021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3319486  
본문: 올 초 건강검진에서 ‘1㎝짜리 갑상선 혹’이 발견된 김아무개(36)씨는 의사의 권유로 암 여부를 판단하는 ‘미세침흡인검사’(세포추출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에서 김씨는 1~6단계 가운데 5단계(암일 확률 60~75%)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었고, 의사는 “<span class='quot0'>수술로 조직을 떼어내 검사하면 암일 확률이 90% 이상</span>”이라며 수술을 권했다. 하지만 때마침 ‘갑상선암 과잉 수술 논란’이 벌어진 터라, 김씨는 수술 대신 병을 ‘관리’하기로 결정했다.<br/><br/> 문제는 김씨가 10년 가까이 납부한 보험을 통해 ‘암 진단금’(암 진단 즉시 지급되는 목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받으려 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미세침검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가 적힌 ‘확진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보험금을 받으려면 결국 선택의 여지 없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span>”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br/><br/> 보험사들이 갑상선암 진단의 한 방법인 ‘미세침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수술 후 확진진단서’를 요구하면서 보험금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일고 있다. 특히 갑상선암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되던 때 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진단금만 수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br/><br/> 최아무개(52)씨도 ‘미세침검사 인정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다툼을 하다 결국 수술을 택했다. 최씨는 “<span class='quot1'>미세침검사는 의학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한 일종의 조직검사 아니냐</span>”며 “<span class='quot1'>결과가 5단계 이상에 해당하면 의사도 암일 확률이 높다며 빠른 수술을 권하는 마당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span>”고 주장했다. <br/><br/> 일부 보험사는 갑상선암이 ‘소액암’으로 분류된 뒤, 약관에 ‘의사가 미세침흡인검사 등을 통해 암 진단을 내린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무용지물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미세침검사만으로는 ‘암 확진(암 확진 코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수술’부터 권하는 게 현실이다. <br/><br/> 보험사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그 책임을 의사한테 떠넘기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의사가 미세침검사만으로 암 진단서를 발급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span>”이라면서도 “<span class='quot2'>하지만 의사들이 (미세침검사로는) 확진을 해주지 않아 환자 대부분이 수술을 택하는 것으로 안다</span>”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갑상선암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span>”고 전망했다. <br/><br/> 유영준 강원대 병원병리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소신에 따라 수술을 권하는 의사도 있지만, 병원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4'>보험사와 의사가 갑상선암 과잉 수술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데 한몫을 하는 셈</span>”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갑상선암 환자는 2010년 17만2153명에서 2014년엔 30만2014명으로 늘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되는 갑상선암 진료비도 2009년 1224억원에서 2013년 2211억원으로 4년 새 81%가량 증가했는데 의료계 안팎에선 과잉 진단과 치료를 원인으로 꼽는다. <br/><b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0.txt

제목: 후쿠시마 원전 수습 피폭…일본 정부 “산재”  
날짜: 20151021  
기자: 조기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3249969  
본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수습작업에 참여했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수습과정에서 피폭당해 암(백혈병 포함)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br/><br/> 일본 후생노동성은 20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1년 이상 일했던 41살 남성 노동자가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렸다며 낸 산업재해 신청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1일 보도했다. 이 노동자는 용접공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자로 근처에 쓰러진 크레인을 절단하는 작업 등을 했다. 이 노동자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입은 누적 피폭량은 15.7밀리시버트였으며, 후쿠시마 원전 이외의 원전에서 일하다가 당한 피폭량까지 합치면 19.8밀리시버트에 이르렀다. 남성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돌아온 지난해 몸에 이상을 느껴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br/><br/> 후생노동성이 이 노동자가 입은 피해가 산재가 맞다고 인정한 근거 중 하나는 1976년 일본 정부가 정한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이다. 이 기준에는 “연간 5밀리시버트 이상 피폭을 당하는 작업을 했으며 최초 작업 시작일에서 1년 이상 지난 뒤 백혈병이 발병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인의 영향이 없을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 후생노동성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입은 피폭이 백혈병 발병의 큰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치료비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이번 산재 인정은 산재보험 정신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는 배려가 있다”며 “과학적으로 피폭과 건강 영향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br/><br/> 남성은 백혈병 판정 뒤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한때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물 한모금만 마셔도 토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기도 했다. 남성은 산재 인정 뒤 “나는 운이 좋았다. 암에 걸린 다른 원전 노동자도 산재 인정을 받았으면 기쁘겠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br/><br/> 후쿠시마 원전 피폭으로 인한 산업재해자 수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고 수습과정에서 연간 5밀리시버트 이상 피폭을 당한 노동자 숫자만 약 2만1000명에 이른다. <br/><br/>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1.txt

제목: ‘연명의료’에 대한 말기암 환자 태도 계속 달라져 “주기적인 확인 필요”  
날짜: 201510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3157177  
본문: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환자 스스로 결정을 했더라도 이 결정이 계속 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br/><br/>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이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말기암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10월호에 발표됐다.<br/><br/> 이번 연구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의사 표현을 ‘중환자실에의 입원 여부’로 물었다. 즉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받으면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평가했는데, 처음 조사에서는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응답이 전체 141명 가운데 71명(50.4%),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명(49.6%)이었다. 하지만 2개월 뒤 조사에서는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71명에서 48명으로 줄었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70명에서 46명으로 감소했다. 즉 전체 말기암 환자 141명 가운데 94명인 66.7%는 연명의료 수용에 대한 처음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나머지 47명인 33.3%는 이런 결정을 중간에 바꿨다.<br/><br/> 연명의료 결정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신체기능의 변화 등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먼저 배우자가 있으면 없는 경우에 견줘 연명의료 수용은 12.4배, 거부는 7.9배 더 많이 변했다. 또 신체기능이 좋은 환자는 연명의료 수용 쪽으로 더 많이 바뀌었고, 신체기능이 좋지 않거나 삶의 질이 나빠진 환자는 연명의료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이동했다.<br/><br/> 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0'>말기암 환자는 임종할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많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채 연명의료가 시행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span>”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말기암 환자에 대해 완화의료를 하는 경우 말기암 환자의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를 함께 논의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2.txt

제목: 정부, 노인 나이 ‘70살 이상’으로 상향 추진  
날짜: 2015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2904713  
본문: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노인 나이 기준을 70살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br/><br/>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2014년 2인가구 189만원) 이하에서 70%(265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span class='quot0'>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의 80% 이상을 기혼가구의 보육 지원에 썼는데 앞으로는 결혼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주거·고용 문제 해결에 힘쓰기로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2014년 1.2명)까지 올릴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검사비의 20~3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2017년에 암환자 수준인 5%로 낮추는 한편, 2018년에는 본인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중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br/>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65살인 노인 기준을 70살로 올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거나 지하철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를 받는 연령이 65살부터인데,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이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연간 2000호 규모로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월세 12만원)을 공급하기로 했다.<br/><br/>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3.txt

제목: 신혼부부 전세 대출 한도 높인다  
날짜: 2015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2845268  
본문: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높아진다.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190만원에서 266만원으로 완화되고,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는 입주자 선정 때 가점이 부여된다.<br/><br/>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나온 시안에 대해 19일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중으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br/><br/>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보육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주거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종전보다 2000만원 올려주고,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2인 가구 190만원)에서 70% 이하(266만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늦게 결혼하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높은 가점이 부여된다. <br/><br/> 결혼 이후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임신·출산 관련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검사에서 20~30%인 본인부담을 2017년에 암환자 수준인 5%로 완화하고 2018년에는 사실상 본인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초음파 검사(비급여 비용의 35.1% 차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br/> 또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이 20%가 될때까지 아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 쓴 뒤 아빠가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첫달치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늘려줬는데 내년에는 석달치를 100%로 줄 계획이다. <br/><br/> 노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기위한 조처에 나서는 한편, 이혼 때 국민연금에만 인정되던 연금분할청구권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65살로 정하고 있는 고령자(노인) 기준을 다시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노인 기준이 70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br/><br/>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span class='quot0'>8개월 간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20개 관계부처가 참가해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span>”고 밝혔다. <br/><br/>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4.txt

제목: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로 원자 크기 금속 틈 제작  
날짜: 2015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2604883  
본문: 국내 연구진이 원자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틈을 제작해 새로운 물리현상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br/><br/> 서울대의 김대식 물리학부 교수와 아주대의 이상민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14일 “<span class='quot0'>세계 최초로 원자 크기인 0.1㎚(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너비와 최장 1㎝의 길이를 가진 금속 틈을 제작해 밀리미터(㎜) 크기 파장의 빛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span>”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틈을 이용해 파장이 긴 빛인 테라헤르츠파를 집속한 결과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투과율이 줄어드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관찰해냈다. 연구성과는 물리학 분야 권위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실렸다.<br/><br/> 광원 중에 파장이 긴 밀리미터 영역에 있는 테라헤르츠파는 가시광선이나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을 투과하면서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 더욱이 숨겨져 있는 위험물질 탐지, 포장 이후의 제품 검수, 피부 내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의 구별 등을 좀더 쉽게 할 수 있어 보안장비·전자기기·의료기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엑스레이는 단단한 물질만 탐지하고, 전자기파 기술은 금속성 물질만, 광학적 분석법은 눈에 보이는 영역만을 분석할 수 있는 데 비해 테라헤르츠파는 액체 물질도 탐지할 수 있다. 가령 엑스레이로 수상한 가루가 든 편지봉투 안에 들어 있는 물질을 분석하려면 봉투를 열어 가루를 꺼내야 하지만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하면 봉투를 뜯지 않고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패턴을 인식해 탐지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테라헤르츠의 탐지 능력을 이용하려면 테라헤르츠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br/><br/> 연구팀은 우선 평행하게 배열된 두 금속(구리) 필름 사이에 이차원 탄소 원자층인 그래핀을 수직으로 세워 금속 틈 사이에 끼워넣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 틈은 원자 크기인 1Å(옹스트롬=0.1㎚) 두께밖에 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틈을 최장 1㎝까지 길게 만들어 테라헤르츠파를 그 틈에 집속하는 데 성공했다.<br/><br/>연구팀이 테라헤르츠파를 틈에 쬐자 마치 바닷물이 수도관만한 작은 깔대기로 빨려 들어가듯 집속이 되면서 투과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때 테라헤르츠파의 세기를 증가시키자 전자가 두 금속 벽 사이에 형성된 에너지 장벽(포텐셜 장벽) 뛰어넘는 ‘전자 터널링’ 현상이 나타났다. 이 터널링 현상은 다시 테라헤르츠파의 전기장 집속률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투과율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연구팀은 알아냈다.<br/><br/> 김대식 교수는 “테라헤르츠파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전자의 터널링 현상이 우세해지면서 투과율이 줄어드는 새로운 양자역학적 비선형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광학적 현상을 다루는 옹스트롬 광학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양자 효과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바이오화학, 분자전자소자, 광학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5.txt

제목: 체내 남은 메르스 바이러스 검출…전염 가능성 낮지만 61명 격리  
날짜: 2015101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2438313  
본문: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던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지난 11일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메르스가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재감염된 것은 아니며 주변 감염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진화에 나서면서도, 이 환자와 접촉한 61명을 격리조처했다. 메르스 종식 선언은 다시 연기되게 됐다.<br/><br/><br/><br/>양성·음성 여러차례 오가 <br/>대책본부 “자체 증식 없다” 판단 <br/><br/><br/><br/>메르스 종식 시기 늦춰질듯 <br/>WHO와 논의 거쳐 결정 방침<br/><br/><br/><br/> ■ 전파 가능성 있나? 면역계의 암인 림프종을 앓던 80번째 환자는 지난 11일 새벽 발열과 구토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메르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메르스 환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주요 증상인 기침이나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은 없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2일 밤 기자회견에서 “이 환자를 진찰한 결과 기침·가래 등은 없었고 폐렴 역시 새로 생기지 않았다. 검사 소견으로는 앓던 림프종이 악화돼 발열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span class='quot0'>현재까지 지식으로는 이 환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메르스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0%에 가깝다</span>”고 덧붙였다. 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환자 가족, 의료진, 병원 직원 등 61명을 자가격리, 68명은 능동감시자로 포함시켰다.<br/><br/> ■ 양성으로 바뀐 이유는? 이 환자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기까지 여러 차례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을 반복했다. 대책본부와 이 환자를 진료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1'>이 환자의 몸속에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했다면 계속 양성이 나왔을 것이지만 이 환자는 양성과 음성을 오갔기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 가능성은 없다</span>”고 판단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이 환자 사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회의의 전문가들과 토론한 끝에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이 몸속에 있다가 떨어져나와 호흡기로 배출돼 유전자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해석을 들었고 우리 병원 의료진도 이에 동의했다</span>”고 설명했다. 80번째 환자는 입원 당시에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나 음성으로 판명됐을 때에도 그 수치가 기준점에 근접해 있었다.<br/><br/> 그렇다면 대책본부 등이 이달 초 너무 서둘러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책본부와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1'>국제 기준에 따라 일정 간격을 둔 유전자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 판정이 나와 최종 음성 판정을 했고, 퇴원 뒤에도 이 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왔다</span>”고 답했다.<br/><br/> ■ 종식선언은 가능? 마지막 메르스 양성 환자였던 80번째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메르스 종식 시점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환자는 지난 1일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 이달 29일이 종식 선언 시점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의 2배인 28일이 지날 때까지 어떤 환자도 양성이 나오지 않으면 종식 선언을 하기 때문이다.<br/><br/> 대책본부는 80번째 환자가 메르스 음성과 양성을 반복하지만 바이러스 증식은 관찰되지 않아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다. 종식 선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span class='quot3'>종식 선언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세계보건기구와도 추가로 논의한 끝에 결정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6.txt

제목: [사설] 안이한 대응에 대한 ‘메르스의 재반격’  
날짜: 201510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2425204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악몽은 질기기도 하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인 80번째 환자가 이달 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11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에 들어갔다. 그와 접촉한 가족과 의료진 등 60여명이 격리조처됐다. 28일로 예정됐던 메르스 종식 선언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퇴치 국면으로 접어들어 종식 선언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돌발 사태가 발생하니 다시 보건당국의 타성과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br/><br/> 면역계통 암인 림프종을 앓고 있는 이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 메르스 감염이 잘 치료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마지막 환자로 남아 있었다. 퇴원 전에도 메르스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을 오갔다. 최종 완치 판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특이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퇴원 당시 폐렴 증상이 없고 두 차례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완치로 판정했으며 이는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초기에도 감염 경로에 대한 외국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다가 급속한 확산을 막지 못했다. 80번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완치 판정에서 최대한 조심스런 접근을 했어야 하고, 이는 메르스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하다.<br/><br/> 삼성서울병원도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80번째 환자가 고열과 구토 등 증상으로 11일 새벽 병원을 찾았을 때 메르스 병력을 밝혔고 처음에는 응급실과 별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 쪽은 진료 뒤 이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 다른 환자·보호자와 접촉하도록 방치했다. 이 환자에게 메르스의 핵심 증상인 기침·가래 등은 없었다고 해도 그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메르스 환자라는 점에 비춰보면 병원 쪽의 대처는 안이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내놓았던 대대적인 응급실 개편 등 감염병 대응책이 정작 실제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br/><br/> 정부는 지난달 1일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킨 것 말고는 인상적인 대목이 없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없이 오히려 잔칫상만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새 방역체계에서도 어이없는 실패가 반복됐다. 방역당국의 체질과 시스템을 전면 개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어떻게든 메르스 종식 선언을 앞당기려는 성과주의만 작용했을 수도 있다. 정말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정부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7.txt

제목: 이달말 ‘메르스 종식 선언’ 연기 불가피…최종환자 음성 뒤 양성 판정  
날짜: 2015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2329595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검사에서 지난 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메르스 종식 선언은 다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방역당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종식 선언일을 결정할 방침이다.<br/><br/> 보건복지부 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2일 밤 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확진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은 80번째 메르스 환자가 지난 11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 환자는 메르스 바이러스 음성 판정으로 퇴원한 뒤 11일 새벽 다시 열이 나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을 찾았고, 이후 검사한 결과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또다시 격리치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이 환자가 퇴원하고 난 뒤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 등 61명은 자가격리, 68명은 능동감시 조처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음성에서 다시 양성으로 전환된 이유는, 퇴원 전 두달 동안의 상태와 비슷하게 환자 몸속에 잠복해 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다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 이 환자가 지난 1일 음성 판정을 받아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지난 이달 말에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자문을 한 뒤 종식선언 일자를 결정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br/><br/> 이 환자는 원래 림프종이라는 면역계통 암을 앓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지난 6월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116일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격리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이 잘 치료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메르스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이 반복되다가 지난 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3일 퇴원했지만 몇주 뒤 림프종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할 계획이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8.txt

제목: 암 탐지 전자코 나올까?…국내 연구진, 인공후각 재현기술 개발  
날짜: 2015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2244032  
본문: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고성능 바이오나노 전자코 기술을 개발했다.<br/><br/>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과학연),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12일 “그래핀으로 만든 전자회로와 여러 종류의 인간 후각 수용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냄새를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인공후각 재현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br/><br/> 인간의 감각 가운데 후각은 수많은 후각 신경세포에 의해 발생한 신경신호의 조합에 의해 이뤄지는 매우 복잡한 원리로 작동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냄새 물질 분자가 몸속의 특정 후각 수용체와 결합하고, 이 정보가 후각신경세포에서 신경신호로 바뀌어 인간 뇌의 후각신경구에 모인 뒤 대뇌로 보내지면 우리는 냄새를 인식한다.<br/><br/> 연구팀은 우선 그래핀을 이용해 실리콘 기판 위에 아주 미세한 채널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 또 인간 후각 수용체를 대장균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 생산했다. 보통 후각 수용체는 세포막에 발현돼 있는 막 단백질로 소수성(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 강해 대장균을 이용한 생산이 어렵다. 하지만 연구팀은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복제해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장균 시스템에서도 대량 발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생산된 후각 수용체를 분리 정제한 뒤 그래핀 트랜지스터와 결합해 전자코를 만들었다.<br/><br/> 연구팀은 이번 연구성과가 유독가스처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냄새물질을 감지하고 암 등 질병에 걸린 사람의 호흡이나 소변에 포함된 특정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인지해 질병을 검진하거나 식품·향수를 감별하고 마약·생화학무기를 검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에는 인간 후각의 코드화를 통한 향기 나는 영상 등 첨단 기술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br/><br/> 연구팀의 연구성과는 나노과학 분야의 유명 학술지 <나노레터스> 최근호에 실렸다. 이번 연구에는 생명연의 권오석 전임연구원과 기초과학연의 송현석 선임연구원, 삼성전자의 박선주 책임연구원, 서울대 장정식·박태현 교수 등이 참여했다.<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89.txt

제목: ‘자유언론 농성’ 격려하러 갔으나 가로막혀 메시지만…  
날짜: 2015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011104901001  
본문: 육영수의 죽음을 부른 8·15 사건 일주일 뒤인 1974년 8월22일 신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8월의 전당대회는 넉 달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총재 유진산의 빈자리를 메우는 행사이자 유신체제와 타협으로 얽힌 낡은 정치의 종말을 기약하는 마당이었다. 신민당 총재 자리를 놓고 다섯 명의 후보가 나와 각축을 벌였다. “그때 남편은 연금당하고 있던 터라 후보로 나서지 못했어요. 남편은 가까운 분들에게 김영삼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지요.” 당시 김영삼은 당내에서 가장 선명하게 박정희 정권과 맞서고 있었다. 2차까지 가는 혼전 끝에 김영삼이 새 총재로 뽑혔다. 46살 최연소 야당 총재가 탄생했다. 박정희는 김영삼의 당선을 막으려고 심복 차지철을 시켜 공작을 폈지만 먹히지 않았다. 승리한 김영삼은 공약대로 개헌 추진 원외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br/><br/> 신민당 새 총재가 뽑히고 한 달이 지난 뒤 가톨릭 사제 300여명이 참여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결성됐다. 주교 지학순 구속이 직접적 계기였다. 원주교구에서 민주화 투쟁을 이끌던 지학순은 1974년 7월 ‘유신헌법은 진리에 반하므로 무효다’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일로 구속된 지학순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바른말이 철창에 갇히자 전국에서 기도회가 열렸다. 9월26일 원주 원동성당에서 젊은 사제들이 모여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첫발을 내디뎠다. 정의구현사제단의 탄생은 반유신 민주화 투쟁의 새로운 구심이 생겼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어 11월18일에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문인들이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결성했다. 문인들은 시인 고은을 대표간사로, 신경림·염무웅·박태순·황석영·조해일을 간사로 뽑고 광화문 앞 세종로에서 ‘문학인 101인 선언’을 발표했다. 문인 일곱 명이 그 자리에서 잡혀갔다.<br/><br/><br/><br/>19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회의결성 대회에 참석한 김대중은처음 재야인사들과 인사 나눴다<br/><br/><br/><br/>동아일보·방송을 시작으로기자들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고김대중 인터뷰도 신문에 실었다<br/><br/><br/><br/> 11월27일에는 종교계·학계·정계·언론계·법조계를 망라한 각계 인사 71명이 종로5가 기독교회관 강당에 모여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했다. 함석헌·이병린·천관우·김홍일·강원용·이희승·이태영으로 7인위원회를 구성했다. “남편도 이 모임에 고문으로 참여했지요. 이때 가택연금이 잠시 풀려 결성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 주로 정치권 인사들과 만났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재야인사들과 관계를 맺었지요.”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정부가 곧 국가라는 전제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정부는 반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반정부 활동으로 복역·구속·연금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를 사면·석방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한 달 뒤 12월25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발족했다.<br/><br/> 박정희 정권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성명에 서명한 경기공업전문대 교수 김병걸이 권고사직을 당했고 서울대 교수 백낙청이 교육공무원 신분에 어긋나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변호사 이병린도 구속됐다. 1975년 1월14일 박정희는 새해기자회견에서 민주회복국민회의의 반정부 활동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 “<span class='quot0'>유신체제는 독재체제이며 부정체제이며 부패체제이며 특권체제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탈권체제</span>”라고 규정하고 “<span class='quot0'>우리는 개헌에 앞서 비인간적인 권력집단의 퇴진을 먼저 요구한다</span>”고 밝혔다. 유신체제 한가운데서 터뜨린 말의 폭탄이었다.<br/><br/> 민주회복국민회의가 힘을 얻어나가자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에게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시국수습방안으로 건의했다. 1월22일 박정희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투표 결과에 대통령 신임을 걸겠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김대중은 신민당 총재 김영삼과 만나 ‘국민투표 거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국민투표일인 2월12일 이희호는 김대중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금식기도를 드렸다. 김대중은 그 자리에서 “<span class='quot1'>우리 국민은 결단코 발표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span>”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정부는 투표율이 79.89%, 찬성률이 73.1%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공포통치 아래서 반강제로 벌인 투표의 결과였으니 믿을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는 수치의 나열이었다.<br/><br/> 앞서 1974년 10월에 언론자유를 되찾으려는 기자들의 일대 항거가 시작됐다. 중심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0월23일 ‘서울대 농대 학생 300명 시위’ 기사를 내보냈다. 유신체제 반대운동에 침묵하던 지면이 조그맣게 소리를 낸 것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이 보도를 문제 삼아 편집국장 송건호를 비롯해 간부들을 연행했다. 유신체제에 재갈이 물려 굴욕감을 느끼던 기자들은 더 참지 못했다.<br/><br/> 10월24일 오전 동아일보사 편집국·출판국·방송국 기자 180명이 3층 편집국에 모여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기자들은 외부 간섭, 기관원 출입, 언론인 불법연행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동아일보사 기자들의 선언은 즉각 다른 언론사로 번져 24일 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동참하고 이어 이틀 사이에 전국의 신문·방송·통신 31곳의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br/><br/><br/><br/>박정희가 광고탄압으로 협박하자시민들은 격려광고로 맞대응했다김대중도 익명으로 광고를 냈다100만원을 마련해 직접 문안을 썼다<br/><br/><br/><br/>기자들 격려하려 신문사 찾았지만경찰 벽에 막혀 번번이 돌아섰다권력에 굴복한 동아일보 사주는결국 기자 113명을 해고했다<br/><br/><br/><br/> 언론인들의 선언과 행동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희호와 김대중도 자유언론 투쟁을 예사롭지 않은 일로 보고 주시했다. 기자들이 재갈을 벗고 투쟁에 나서자 꽉 막혔던 신문 지면에도 숨구멍이 트였다. 그해 연말에 <동아일보>가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제하의 연속 인터뷰를 기획하여 가장 먼저 김대중을 만나러 동교동을 방문했다. “정말 내 이름이 나가는 거요? 그러다가 잡혀가든지 사장이 혼이 나든지 하는 거 아니오?” 김대중은 취재하러 온 기자가 걱정돼 그렇게 물었다. “1973년 10월 마지막 기자회견 이후 신문들이 남편에 관해서는 한 줄도 보도를 하지 못했거든요. 남편 소식이 없으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느니 정신이상이 되었다느니 하는 헛소문이 돌기도 했어요.”<br/><br/> 김대중 인터뷰는 <동아일보> 12월9일치 1면에 실렸다. 이 인터뷰에서 김대중은 “<span class='quot1'>국민에 대한 한없는 신뢰심과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큰 역경 속에 있지만 실망도 불행도 느끼지 않는다</span>”고 밝히고 “<span class='quot1'>6·25 전시 중에도 (대통령) 직접선거를 한 국민인데 지금 그런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span>”고 유신정권을 비판했다. 김대중은 장기 연금이 주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1년 넘게 갇혀 지내니 때로 좌절감도 들고 욱하는 감정도 치받고 합니다. 자기 억제가 안 되고 예민해집니다. 저 사람들이 집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가 하면 협박전화가 오기도 하고….”<br/><br/> 그 인터뷰는 김대중의 소식에 목이 말랐던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날 <동아일보> 가판이 10만부가 나갔는데, 평소의 6~7배나 됐다고 해요.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 하야 보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기획 인터뷰는 윤보선·유진오·정구영·백낙준·함석헌·윤제술·장준하·천관우로 이어졌다.<br/><br/> 기자들의 투쟁이 열어젖힌 자유언론의 공간이 반독재 인사들을 매일같이 등장시키자 유신정권이 받는 압박감도 커졌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에 “<동아일보>를 혼내주라”고 지시했다. <동아일보>의 투쟁 의지를 꺾어버릴 방책을 찾던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들을 불러들여 협박했다. 광고탄압이었다. 반독재 인사 인터뷰가 연재되고 있던 12월16일부터 광고 해약이 시작됐다. 광고가 들어오지 않자 동아일보사는 12월26일부터 광고란 일부를 백지로 비워두고 신문을 발행했다. 한 달 뒤에는 상품광고 대부분이 지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br/><br/> 광고란이 백지가 되어가자 시민들이 나서서 격려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언론인 홍종인은 12월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신문 하단 광고란에 개인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글을 실었다. 김대중도 새해 첫날 지면에 익명으로 광고를 냈다. “남편은 1975년 신년호 8면에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격려문을 냈어요. 여유가 없었지만 100만원가량을 마련해 친필로 문안을 써서 김옥두 비서에게 대신 다녀오게 했지요.”<br/><br/> 김대중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자’라는 제하의 격려문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 없이는 인권도 사회정의도 학원과 종교의 자유도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가 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 자유는 민주 국민의 혼이요 모든 소망의 근원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 의무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동아일보> 백지광고란은 권력의 음모와 오만의 단적인 증거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김대중은 이 격려문에서 “모든 민주시민은 언론자유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동아 매스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자”는 제안도 했다.<br/><br/> 이 광고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언론탄압에 즈음한 호소문’,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항의문, 경동교회 교인 일동의 격려문과 함께 실렸다. 그 뒤로 시민들의 격려광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3월8일치에도 ‘동아일보를 지킵시다’라는 격려광고를 1면 하단을 털어 실명으로 내고 ‘동아의 수난은 우리의 수난’이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라고 역설했다.<br/><br/> 당시 동교동 비서였던 김형국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 이렇게 증언했다. “김대중 선생님과 사모님이 김옥두·한화갑 비서와 나에게 <동아일보>를 도와야 하니 용돈을 아껴서든 친척에게 부탁을 해서든 단 한 줄이라도 광고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사람이 친구들, 선후배들을 찾아다니며 격려광고를 내도록 했지요. 정신없이 다녔는데, 그렇게 모은 광고가 100건이 넘었어요. 광고는 실명으로 낼 수 없어 대개 동창회, 4·19회, 월요회 같은 이름으로 실렸습니다.” <동아일보> 광고란은 유신 치하의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면의 아고라였다. 시민들의 격려광고는 3월25일까지 9223건에 이르렀다.<br/><br/> 이희호는 동아일보사 기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광화문 본사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그때 <동아일보> 기자들을 격려하려고 두 번인가 세 번 현장으로 갔어요. 목요기도회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갔던 것 같아요. 새벽에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경찰들이 정문 앞에서 막고 있어서 결국 한 번도 사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희호와 함께 간 김형국은 농성장에 진입해 이희호의 뜻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경찰들이 사모님 얼굴을 아니까 막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사모님이 나한테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피해 잽싸게 정문으로 들어가 기자들이 농성하는 곳으로 갔지요. 사모님이 경찰 제지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투쟁을 다 하겠다는 뜻을 대신 전했지요.”<br/><br/> 박정희 정권은 시민들의 분노가 격려광고로 폭발하자 동아일보사 사주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1975년 3월8일 광고탄압에 굴복한 사장 김상만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어 사원 18명을 해고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기자 장윤환과 박지동에게도 해고로 대응했다. 앞서 3월6일 <조선일보> 기자들도 한국기자협회 분회(분회장 정태기)의 주도로 “<span class='quot2'>진실에 투철해야 하는 기자로서의 열과 성을 다해, 언론자유에 도전하는 외부권력과의 투쟁은 물론이고 언론 내부의 패배주의와도 싸우려 한다</span>”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기자들은 제작거부에 들어가 먼저 해고된 두 기자 백기범·신홍범을 복직시키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6일째인 3월11일 조선일보사 사장 방우영과 경영진은 편집국에서 농성하던 기자들을 끌어내 32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기자들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br/><br/> 동아일보사 기자들도 3월12일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23명은 공무국을 점거해 단식투쟁을 벌였다. 농성 엿새째인 17일 새벽 3시 회사 쪽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 200여명이 들이닥쳐 기자·피디·아나운서·엔지니어 160여명을 닥치는 대로 폭행하며 농성장에서 끌어냈다. 사회부 기자 정연주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다쳤다. 동아일보사는 모두 113명을 해고했다. 편집국장 송건호는 “<span class='quot3'>동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span>”이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신문사를 떠났다. 다음날 오전 축출된 기자들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해직기자들은 끝을 알 수 없는 투쟁의 가시밭길로 들어섰다. <동아일보>의 격려광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7월16일부터 다시 기업 광고가 광고란을 채우기 시작했다. <br/><br/> 글·인터뷰 고명섭 논설위원 michael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0.txt

제목: ‘자유언론 농성’ 격려하러 갔으나 가로막혀 메시지만…  
날짜: 20151011  
기자: 고명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2214502  
본문: 육영수의 죽음을 부른 8·15 사건 일주일 뒤인 1974년 8월22일 신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8월의 전당대회는 넉 달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총재 유진산의 빈자리를 메우는 행사이자 유신체제와 타협으로 얽힌 낡은 정치의 종말을 기약하는 마당이었다. 신민당 총재 자리를 놓고 다섯 명의 후보가 나와 각축을 벌였다. “그때 남편은 연금당하고 있던 터라 후보로 나서지 못했어요. 남편은 가까운 분들에게 김영삼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지요.” 당시 김영삼은 당내에서 가장 선명하게 박정희 정권과 맞서고 있었다. 2차까지 가는 혼전 끝에 김영삼이 새 총재로 뽑혔다. 46살 최연소 야당 총재가 탄생했다. 박정희는 김영삼의 당선을 막으려고 심복 차지철을 시켜 공작을 폈지만 먹히지 않았다. 승리한 김영삼은 공약대로 개헌 추진 원외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br/><br/> 신민당 새 총재가 뽑히고 한 달이 지난 뒤 가톨릭 사제 300여명이 참여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결성됐다. 주교 지학순 구속이 직접적 계기였다. 원주교구에서 민주화 투쟁을 이끌던 지학순은 1974년 7월 ‘유신헌법은 진리에 반하므로 무효다’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일로 구속된 지학순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바른말이 철창에 갇히자 전국에서 기도회가 열렸다. 9월26일 원주 원동성당에서 젊은 사제들이 모여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첫발을 내디뎠다. 정의구현사제단의 탄생은 반유신 민주화 투쟁의 새로운 구심이 생겼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어 11월18일에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문인들이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결성했다. 문인들은 시인 고은을 대표간사로, 신경림·염무웅·박태순·황석영·조해일을 간사로 뽑고 광화문 앞 세종로에서 ‘문학인 101인 선언’을 발표했다. 문인 일곱 명이 그 자리에서 잡혀갔다.<br/><br/><br/><br/>19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회의 <br/>결성 대회에 참석한 김대중은 <br/>처음 재야인사들과 인사 나눴다<br/><br/><br/><br/>동아일보·방송을 시작으로 <br/>기자들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br/>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고 <br/>김대중 인터뷰도 신문에 실었다<br/><br/><br/><br/> 11월27일에는 종교계·학계·정계·언론계·법조계를 망라한 각계 인사 71명이 종로5가 기독교회관 강당에 모여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했다. 함석헌·이병린·천관우·김홍일·강원용·이희승·이태영으로 7인위원회를 구성했다. “남편도 이 모임에 고문으로 참여했지요. 이때 가택연금이 잠시 풀려 결성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 주로 정치권 인사들과 만났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재야인사들과 관계를 맺었지요.”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정부가 곧 국가라는 전제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정부는 반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반정부 활동으로 복역·구속·연금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를 사면·석방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한 달 뒤 12월25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발족했다.<br/><br/> 박정희 정권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성명에 서명한 경기공업전문대 교수 김병걸이 권고사직을 당했고 서울대 교수 백낙청이 교육공무원 신분에 어긋나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변호사 이병린도 구속됐다. 1975년 1월14일 박정희는 새해기자회견에서 민주회복국민회의의 반정부 활동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 “<span class='quot0'>유신체제는 독재체제이며 부정체제이며 부패체제이며 특권체제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탈권체제</span>”라고 규정하고 “<span class='quot0'>우리는 개헌에 앞서 비인간적인 권력집단의 퇴진을 먼저 요구한다</span>”고 밝혔다. 유신체제 한가운데서 터뜨린 말의 폭탄이었다.<br/><br/> 민주회복국민회의가 힘을 얻어나가자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에게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시국수습방안으로 건의했다. 1월22일 박정희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투표 결과에 대통령 신임을 걸겠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김대중은 신민당 총재 김영삼과 만나 ‘국민투표 거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국민투표일인 2월12일 이희호는 김대중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금식기도를 드렸다. 김대중은 그 자리에서 “<span class='quot1'>우리 국민은 결단코 발표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span>”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정부는 투표율이 79.89%, 찬성률이 73.1%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공포통치 아래서 반강제로 벌인 투표의 결과였으니 믿을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는 수치의 나열이었다.<br/><br/> 앞서 1974년 10월에 언론자유를 되찾으려는 기자들의 일대 항거가 시작됐다. 중심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0월23일 ‘서울대 농대 학생 300명 시위’ 기사를 내보냈다. 유신체제 반대운동에 침묵하던 지면이 조그맣게 소리를 낸 것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이 보도를 문제 삼아 편집국장 송건호를 비롯해 간부들을 연행했다. 유신체제에 재갈이 물려 굴욕감을 느끼던 기자들은 더 참지 못했다.<br/><br/> 10월24일 오전 동아일보사 편집국·출판국·방송국 기자 180명이 3층 편집국에 모여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기자들은 외부 간섭, 기관원 출입, 언론인 불법연행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동아일보사 기자들의 선언은 즉각 다른 언론사로 번져 24일 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동참하고 이어 이틀 사이에 전국의 신문·방송·통신 31곳의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br/><br/><br/><br/>박정희가 광고탄압으로 협박하자 <br/>시민들은 격려광고로 맞대응했다 <br/>김대중도 익명으로 광고를 냈다 <br/>100만원을 마련해 직접 문안을 썼다<br/><br/><br/><br/>기자들 격려하려 신문사 찾았지만 <br/>경찰 벽에 막혀 번번이 돌아섰다 <br/>권력에 굴복한 동아일보 사주는 <br/>결국 기자 113명을 해고했다<br/><br/><br/><br/> 언론인들의 선언과 행동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희호와 김대중도 자유언론 투쟁을 예사롭지 않은 일로 보고 주시했다. 기자들이 재갈을 벗고 투쟁에 나서자 꽉 막혔던 신문 지면에도 숨구멍이 트였다. 그해 연말에 <동아일보>가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제하의 연속 인터뷰를 기획하여 가장 먼저 김대중을 만나러 동교동을 방문했다. “정말 내 이름이 나가는 거요? 그러다가 잡혀가든지 사장이 혼이 나든지 하는 거 아니오?” 김대중은 취재하러 온 기자가 걱정돼 그렇게 물었다. “1973년 10월 마지막 기자회견 이후 신문들이 남편에 관해서는 한 줄도 보도를 하지 못했거든요. 남편 소식이 없으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느니 정신이상이 되었다느니 하는 헛소문이 돌기도 했어요.”<br/><br/> 김대중 인터뷰는 <동아일보> 12월9일치 1면에 실렸다. 이 인터뷰에서 김대중은 “<span class='quot1'>국민에 대한 한없는 신뢰심과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큰 역경 속에 있지만 실망도 불행도 느끼지 않는다</span>”고 밝히고 “<span class='quot1'>6·25 전시 중에도 (대통령) 직접선거를 한 국민인데 지금 그런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span>”고 유신정권을 비판했다. 김대중은 장기 연금이 주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1년 넘게 갇혀 지내니 때로 좌절감도 들고 욱하는 감정도 치받고 합니다. 자기 억제가 안 되고 예민해집니다. 저 사람들이 집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가 하면 협박전화가 오기도 하고….”<br/><br/> 그 인터뷰는 김대중의 소식에 목이 말랐던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날 <동아일보> 가판이 10만부가 나갔는데, 평소의 6~7배나 됐다고 해요.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 하야 보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기획 인터뷰는 윤보선·유진오·정구영·백낙준·함석헌·윤제술·장준하·천관우로 이어졌다.<br/><br/> 기자들의 투쟁이 열어젖힌 자유언론의 공간이 반독재 인사들을 매일같이 등장시키자 유신정권이 받는 압박감도 커졌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에 “<동아일보>를 혼내주라”고 지시했다. <동아일보>의 투쟁 의지를 꺾어버릴 방책을 찾던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들을 불러들여 협박했다. 광고탄압이었다. 반독재 인사 인터뷰가 연재되고 있던 12월16일부터 광고 해약이 시작됐다. 광고가 들어오지 않자 동아일보사는 12월26일부터 광고란 일부를 백지로 비워두고 신문을 발행했다. 한 달 뒤에는 상품광고 대부분이 지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br/><br/> 광고란이 백지가 되어가자 시민들이 나서서 격려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언론인 홍종인은 12월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신문 하단 광고란에 개인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글을 실었다. 김대중도 새해 첫날 지면에 익명으로 광고를 냈다. “남편은 1975년 신년호 8면에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격려문을 냈어요. 여유가 없었지만 100만원가량을 마련해 친필로 문안을 써서 김옥두 비서에게 대신 다녀오게 했지요.”<br/><br/> 김대중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자’라는 제하의 격려문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 없이는 인권도 사회정의도 학원과 종교의 자유도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가 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 자유는 민주 국민의 혼이요 모든 소망의 근원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 의무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동아일보> 백지광고란은 권력의 음모와 오만의 단적인 증거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김대중은 이 격려문에서 “모든 민주시민은 언론자유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동아 매스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자”는 제안도 했다.<br/><br/> 이 광고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언론탄압에 즈음한 호소문’,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항의문, 경동교회 교인 일동의 격려문과 함께 실렸다. 그 뒤로 시민들의 격려광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3월8일치에도 ‘동아일보를 지킵시다’라는 격려광고를 1면 하단을 털어 실명으로 내고 ‘동아의 수난은 우리의 수난’이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라고 역설했다.<br/><br/> 당시 동교동 비서였던 김형국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 이렇게 증언했다. “김대중 선생님과 사모님이 김옥두·한화갑 비서와 나에게 <동아일보>를 도와야 하니 용돈을 아껴서든 친척에게 부탁을 해서든 단 한 줄이라도 광고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사람이 친구들, 선후배들을 찾아다니며 격려광고를 내도록 했지요. 정신없이 다녔는데, 그렇게 모은 광고가 100건이 넘었어요. 광고는 실명으로 낼 수 없어 대개 동창회, 4·19회, 월요회 같은 이름으로 실렸습니다.” <동아일보> 광고란은 유신 치하의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면의 아고라였다. 시민들의 격려광고는 3월25일까지 9223건에 이르렀다.<br/><br/> 이희호는 동아일보사 기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광화문 본사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그때 <동아일보> 기자들을 격려하려고 두 번인가 세 번 현장으로 갔어요. 목요기도회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갔던 것 같아요. 새벽에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경찰들이 정문 앞에서 막고 있어서 결국 한 번도 사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희호와 함께 간 김형국은 농성장에 진입해 이희호의 뜻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경찰들이 사모님 얼굴을 아니까 막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사모님이 나한테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피해 잽싸게 정문으로 들어가 기자들이 농성하는 곳으로 갔지요. 사모님이 경찰 제지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투쟁을 다 하겠다는 뜻을 대신 전했지요.”<br/><br/> 박정희 정권은 시민들의 분노가 격려광고로 폭발하자 동아일보사 사주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1975년 3월8일 광고탄압에 굴복한 사장 김상만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어 사원 18명을 해고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기자 장윤환과 박지동에게도 해고로 대응했다. 앞서 3월6일 <조선일보> 기자들도 한국기자협회 분회(분회장 정태기)의 주도로 “<span class='quot2'>진실에 투철해야 하는 기자로서의 열과 성을 다해, 언론자유에 도전하는 외부권력과의 투쟁은 물론이고 언론 내부의 패배주의와도 싸우려 한다</span>”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기자들은 제작거부에 들어가 먼저 해고된 두 기자 백기범·신홍범을 복직시키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6일째인 3월11일 조선일보사 사장 방우영과 경영진은 편집국에서 농성하던 기자들을 끌어내 32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기자들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br/><br/> 동아일보사 기자들도 3월12일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23명은 공무국을 점거해 단식투쟁을 벌였다. 농성 엿새째인 17일 새벽 3시 회사 쪽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 200여명이 들이닥쳐 기자·피디·아나운서·엔지니어 160여명을 닥치는 대로 폭행하며 농성장에서 끌어냈다. 사회부 기자 정연주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다쳤다. 동아일보사는 모두 113명을 해고했다. 편집국장 송건호는 “<span class='quot3'>동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span>”이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신문사를 떠났다. 다음날 오전 축출된 기자들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해직기자들은 끝을 알 수 없는 투쟁의 가시밭길로 들어섰다. <동아일보>의 격려광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7월16일부터 다시 기업 광고가 광고란을 채우기 시작했다. <br/><br/> 글·인터뷰 고명섭 논설위원 michael@hani.co.kr<br/><br/> 인터뷰 녹취정리 유선희 인턴기자<br/><br/>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br/><br/>[길을 찾아서] ‘고난의 길, 신념의 길’ 이희호 평전<br/><br/>제3부 유신의 암흑-6회 긴급조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1.txt

제목: 10월 9일 알림  
날짜: 20151008  
기자: 박지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1945409  
본문: ◇안양대는 5~7일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2015 마젤란 익스체인지’ 정기 컨퍼런스를 열었다.<br/><br/>◇국민대(총장 유지수)는 12일 오후 2시 교내 법학관 106호에서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초빙해 법학 특강을 연다.<br/><br/>◇한국이주여성연합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광장에서 ‘아시아 음식 페스티벌’을 연다.<br/><br/>◇롯데카드는 8일 클래식 공연 ‘기돈 크레머&앙상블 디토’의 입장권 판매 수익금 전액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 <br/><br/>◇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은 8~11일 일본 텐리시 청사를 방문해 야나기모토군 비행장 역사 설명 안내판 재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서명지를 전달한다.<br/><br/>◇한국인도협회(대표 송재성)는 11~17일 ‘인도 인민당’의 중진 국회의원이자 ‘인도 노동자단체 총괄연맹’ 회장인 우디뜨 라지 박사를 초청해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br/><br/>◇제주서중은 고지연·임송이·박고은 학생이 어린이 암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발을 잘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에 기부했다.<br/><br/>◇쇼박스는 이준익 감독의 사극 영화 <사도>가 새달 12일 열리는 ‘제35회 하와이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br/><br/>◇국립무형유산원은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와 ‘제40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을 13~27일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연다.<br/><br/>◇신한은행은 8일 저소득·독거노인 140명에게 명성황후 생가와 세종대왕릉 탐방 등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했다.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만원씩을 모아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신한가족만원 나눔기부’ 사업의 하나다.<br/><br/>◇배달의민족은 누적 다운로드 2천만건 돌파를 기념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이천쌀 2천㎏을 기부한다.<br/><br/>◇하나카드는 새달 30일까지 심장병,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돕는 ‘하나카드 더블나눔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신용·체크카드나 포인트로 기부한 금액만큼 하나카드도 같은 금액을 후원한다. 고객은 하나카드 누리집(hanacard.co.kr)에서 한국심장재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소아암재단 중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다.<br/><br/>◇IBK기업은행은 14일 서울 퇴계로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은퇴설계 콘서트’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노후준비 방법과 소상공인의 마케팅 노하우 강의 등이 진행된다.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br/><br/>◇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와 9~12일 ‘한·일 대학생 토론회 및 지도자 세미나’를 일본 도쿄와 시즈오카현에서 연다.<br/><br/>◇한국에너지공단은 자사 양새리 대리가 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에너지 어워드에서 ‘에너지 관리 분야 우수자’로 선정돼 수상했다.<br/><br/>◇한화손해보험 재난봉사단은 8일 화재로 집이 전소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도봉구 기초수급자들에게 이불, 주방용품 등 구호물자와 위로금을 전달했다.<br/><br/>◇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13일부터 4회에 걸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복 70년 국가 미래전략 종합 학술대회’를 연다. 참가신청은 누리집(futures.kaist.ac.kr)에서 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br/><br/>◇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서울 은평구청과 8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br/><br/>◇숙명여대는 8일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2.txt

제목: 내발산동 숨진 일가족 생활고…‘암 투병 아내 빚 많아’  
날짜: 2015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1931024  
본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이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렸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br/><br/>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내발산동 자신들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이 올해 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왔다고 8일 밝혔다. 집 임대료를 내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에스에이치(SH)공사의 긴급주거비 지원을 받은 기록 또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br/><br/> 전날 경찰은 이아무개(58)씨 부부와 딸(16)이 집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생활고 탓에 자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씨는 얼굴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무릎·발목·목이 묶인 채로, 아내 김아무개(49)씨와 딸은 각각 안방 바닥과 침대에서 천장을 향해 누운 채로 발견됐다. 집 안 책상 위에서는 가족이 쓰던 카드, 임대차 관련 서류들도 정리된 상태로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br/><br/> 이씨가 처조카인 김아무개(28)씨에게 사망 전날 등기우편으로 보낸 유서에는 ‘처가 부채가 많은데 남은 사람들이 처리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경찰과 이웃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인 김씨는 암이 상당히 진행돼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br/><br/> 한편 이날 1차 부검결과 이씨의 사망원인은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김씨와 딸의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약물검사 등 추가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br/><b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3.txt

제목: 심장 소리가 쿵, 쿵, 쿵…당신 얼굴이 떠오릅니다  
날짜: 20151007  
기자: 김회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1835530  
본문: 와이에이치(YH)무역 여성 노동자 김경숙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공장 폐업에 반대하며 1979년 8월9일 신민당 당사 농성에 들어갔다. 이틀 뒤 김씨는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21살 짧은 생을 마쳤다.<br/><br/> 김씨의 흔적을 찾아다닌 성효숙 작가는 7일부터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시작한 ‘보고 싶은 얼굴’ 기획특별전(11월30일까지)에 멸종위기종인 혹고니를 안고 있는 김씨의 모습과 함께 20~60대 여성 노동자·활동가를 그린 나무판을 걸었다. 성 작가는 이들의 심장 뛰는 소리를 녹음한 뒤 스피커를 통해 관객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br/><br/> 성 작가는 작품 구상을 위해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당시 와이에이치 노동조합에서 김씨와 함께 활동한 동료들을 만났다. 김씨의 일기장과 편지, 생전 사진도 꼼꼼히 살폈다고 한다. “김씨가 농성에 들어가기 직전 어머니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서 ‘돈 없는 자들의 착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흔한 말에도 이런 진심이 담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났다”고 했다. 성 작가는 “<span class='quot0'>이런 마음이 이어져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노동운동, 환경운동 등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과 심장 소리를 모았다</span>”고 했다.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할 청진기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인천의 한 병원 원장이 당시 김씨가 다녔던 야학의 교사였다는 ‘뭉클한 우연’도 만났다고 한다. 이 청진기는 관객이 자신의 심장 고동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전시됐다.<br/><br/> 장유진 작가는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45살 나이에 암으로 숨진 고 이지현씨를 작품에 담았다. “<span class='quot1'>투사가 아닌 평범한 내 언니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작품을 만들었다</span>”고 했다. 장 작가 역시 이씨의 부모와 동료들을 만나 이씨의 삶을 더듬었다. 장 작가의 작품은 뜻밖에도 개미가 들끓는 해골에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힌 모습이다. “<span class='quot1'>그의 가장 예쁜 모습을 만들어주고 싶어 웨딩드레스를 입혔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끔찍한 모습을 돌아보자는 취지를 형상화했다</span>”고 했다.<br/><br/> 두 사람 외에도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하재완씨, 시국사건으로 복역한 뒤 1988년 실종된 서울대생 안치웅씨, 1996년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서 숨진 연세대생 노수석씨, 2012년 1급 장애로 집 안에 번지는 불길을 보고도 피할 수 없어 죽음을 맞은 장애인권운동가 김주영씨 등 각 시대를 상징하는 희생자들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된다. 이경란 이한열기념관장은 “작가들이 이들의 삶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만든 작품이다. 관람객도 이들을 멀리 있는 열사라기보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br/><br/>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4.txt

제목: 노벨화학상 ‘DNA 복구원리’ 밝힌 3명 공동수상  
날짜: 20151007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1901588  
본문: 생명의 원천인 디엔에이(DNA)의 복구 원리를 밝혀낸 스웨덴과 미국, 터키 과학자 3명에게 2015년 노벨 화학상이 돌아갔다.<br/><br/>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스웨덴의 토마스 린달(77) 영국프랜시스크릭연구소 명예연구원과 미국의 폴 모드리치(69) 듀크대 교수, 터키 태생의 아지즈 산자르(69)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등 3명을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br/><br/> 노벨위원회는 “세 과학자는 세포가 자외선이나 활성산소, 독성물질 등에 의해 손상된 디엔에이를 어떻게 복구하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밝혀냈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인간 생명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암 치료 등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 개발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br/><br/> 디엔에이는 세포의 모든 작용을 관장하는 생명의 핵으로, 네 가지 염기가 쌍을 이루는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다. 애초 안정화된 분자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구조적으로 취약해 염기서열 정보들이 쉽게 손상된다는 게 1970년대에 밝혀졌다. 세 과학자는 생체가 손상된 디엔에이를 스스로 복구하는 다양한 원리 가운데 대표적인 3가지를 규명했다. 린달은 손상된 염기 하나하나를 뜯어내 수선하는 염기절제복구(BER) 원리를 발견했다. 지퍼가 고장났을 때 지퍼 한조각 한조각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모드리치는 세포분열의 디엔에이 복제 과정에 손상된 디엔에이를 고치는 부정합복구(MMR) 방식을 발견했다. 지퍼가 손상돼 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찾아 수선하는 것에 빗댈 수 있다. 산자르는 자외선 등에 의해 망가진 디엔에이를 복구하는 뉴클레오티드절제복구(NER) 원리를 찾아냈다. 뉴클레오티드는 염기와 당, 인산 등으로 이뤄진 분자를 말한다. 말하자면 일부 망가진 지퍼를 통째로 바꾸는 방식이다.<br/><br/> 조규봉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세포는 스스로 디엔에이를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70살쯤엔 세포당 손상된 디엔에이가 2000개 이상에 이른다. 세 과학자의 연구성과는 분자 차원에서 질병을 연구하는 데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에게는 800만크로나(약 11억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br/><br/>이근영 선임기자, 조일준 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5.txt

제목: 서울 강서구 한 가정집에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날짜: 2015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1800180  
본문: 서울의 한 빌라에서 손발이 묶인 남성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br/><br/>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라 1층에서 이아무개(58)씨 부부와 딸(16)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망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br/><br/> 경찰과 강서소방서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이씨는 얼굴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손목과 무릎·발목·목이 묶인 채 거실에서 발견됐다. 이씨의 부인 김아무개(49)씨와 딸은 각각 안방의 바닥과 침대에서 누운 채로 숨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해달라’는 내용의 메모지와 가족이 쓰던 카드, 임대차 관련 서류들이 발견됐다고 한다.<br/><br/> 경찰은 전날 이씨가 처조카인 김아무개(28)씨에게 에이(A)4 용지 6장 분량의 유서가 담긴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부쳤다고 전했다. 유서에는 ‘처가 부채가 많은데 남은 사람들이 처리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김씨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br/><br/> 경찰은 이씨가 아내와 딸을 먼저 숨지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타살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태봉 강서경찰서 형사과장은 “부검을 진행해 사망 시각을 밝히겠지만 주검의 상태를 볼 때 아내와 딸이 먼저 숨진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6.txt

제목: 10월5일 알림  
날짜: 2015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1426250  
본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위탁·운영을 맡게 될 아시아문화원 초대 원장에 4일 김병석(51) 씨제이이앤엠(CJ E&M) 자문역이 임명됐다. 전남 장흥 출신인 김 원장은 광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단 공연사업,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장과 씨제이엔터테인먼트 및 씨제이이앤엠의 공연사업 부문 대표 등을 지냈다.<br/><br/><br/><br/>◇ 안양대(총장 김석준)는 4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제 8회 안양대 총장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를 연다.<br/><br/>◇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는 ‘한국기독교 선교 130돌’을 기념하여 7~30일 한국기독교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근대의 기억, 신앙의 기록’ 특별전을 연다.<br/><br/>◇ 충북대 공자학원은 충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과 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br/><br/>◇ 한양대병원은 8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심장 돌연사 예방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건강 강좌를 연다.<br/><br/>◇ 세계상상환경학회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동관 오정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국제학술회의를 연다.<br/><br/>◇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는 2일 ‘제10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척동성당을 선정했다. 장려상에는 살레시오수녀회 성미유치원과 전주교구 용머리성당의 김정철씨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6일 오후 2시 서울 면목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다.<br/><br/>◇ 건국대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소장 신인섭 교수)는 6∼16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교내 상허기념도서관 특별전시장에서 광복 70돌 기념 일본 고려박물관 초청 특별기획전 ‘재일의 민족교육을 묻다!’를 연다. 개막일인 6일에는 야마다 사다오 고려박물관 전이사장, 하라다 교코 고려박물관 이사장, 일본의 민족교육 관계자들과 한국 연구자들이 모여 조선학교의 의의와 역할을 짚어보는 특별 기념 포럼을 연다.<br/><br/>◇ 신한은행은 ‘따뜻한 가구 나눔’ 행사를 통해 업무용 가구 1300여 점을 전국 21곳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 ‘따뜻한 가구 나눔’ 행사는 영업점의 이전·통합이나 인테리어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탁자, 의자, 책상 등을 깨끗하게 정비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br/><br/>◇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제9회 농촌경관 사진공모전 대상으로 이진환씨의 ‘시골의 정취’를 선정했다. 입상작으로 뽑힌 사진 59점은 새달 3일까지 서울메트로미술관 2관이나 농촌관광 웰촌누리집(welchon.com)에서 볼 수 있다.<br/><br/>◇ 포니정재단은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포니정재단과 함께하는 제3회 영창뮤직콩쿠르’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30명에 장학금을 수여했다.<br/><br/>◇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천사의 날’을 맞아 4~5일 에버랜드에 전국의 백혈병·소아암 가족 800명을 초청해 제15회 천사의 날 대축제 ‘내 생애 최고의 날’ 행사를 연다.<br/><br/>◇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는 2일 육군 22사단에서 5천여 권의 책 전달식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서를 전달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br/><br/>◇ 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 봉사단은 노인의 날인 2일 종로구 청운양로원 어르신들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의 체험형 목장 ‘팜랜드’에서 가을 나들이를 했다. 봉사단은 견학 이후 기념품으로 양말 100세트를 양로원에 선물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7.txt

제목: [속보] 메르스 최종환자 음성…29일 자정 종식 선언  
날짜: 2015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1304409  
본문: 이달 29일이면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선언이 이뤄질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이던 환자가 1일 오후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메르스 종식은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바이러스 확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뒤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의 2배인 28일 지났을 때 선언하도록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해놨다.<br/><br/>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던 마지막 환자가 지난달 30일과 1일 바이러스 확인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환자는 80번째 확진환자로 면역계통의 암인 림프종이 있어 면역계가 약화돼 거의 넉달 동안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으로 남아 있었던 환자다. 이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은 “<span class='quot0'>환자가 가진 면역 이상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제거하는데 지장이 생겨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다</span>”고 말했다. 이로서 국내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메르스 유행은 이제 이달 말이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음성이지만 관련 후유증 등으로 치료 중인 5명의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br/> 한편 첫번째 메르스 환자(68·남)도 지난달 25일 퇴원했다. 이 환자는 지난 4~5월 바레인에서 농업 관련 일을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을 거쳐 귀국했다. 입원 초기 메르스 합병증으로 폐렴이 심해진 이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 한때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 폐렴이 호전되고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아 입원 한달여만인 지난 6월29일 일반병상으로 옮겼다. 하지만 메르스를 치료하는 동안 생긴 욕창이나 근육쇠약 등에 대한 재활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퇴원이 늦어졌다.<br/><br/> 이 환자의 퇴원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뒤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5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3명은 안정적인 상태지만 2명은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8.txt

제목: 사망자 20%가 심장·뇌혈관 질환 탓  
날짜: 2015093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1050934  
본문: 국내 사망자 5명 중 1명은 심근경색·뇌졸중 같은 심장·뇌혈관질환 탓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인 음주·흡연 행태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심장·뇌혈관질환 사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br/><br/> 30일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세계 심장의 날’(9월29일)을 맞아 국내 심장·뇌혈관질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 한해에만 5만803명이 이 질환으로 숨졌다. 전체 사망자의 20%가량이다. 특히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1명)보다 높다. 사망 원인으로는 암에 이어 2~3위이지만, 심장·뇌혈관질환에 쓰이는 진료비는 한해 6조1억원 규모로 암(4조1천억원)보다 49%나 많다. <br/><br/> 이런 상황이 개선될 조짐도 없다. 2007년 25.3%이던 흡연율은 몇년째 제자리 걸음이다(2013년 24.1%). 한자리에서 소주 7잔(여성은 5잔) 넘게 마시는 고위험음주율도 2007년 이후 줄곧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심장·뇌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한번에 30분·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4.7%에서 47.2%로 오히려 줄었다. <br/><br/> 심장·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담배를 끊고 술도 하루 한두잔 이하로 줄이는 게 좋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되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몸무게를 유지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좋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심근경색은 증상 발현 뒤 2시간 안에, 뇌졸중은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사망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심장·뇌혈관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399.txt

제목: 온갖 병에 시달리니 남은 세월도 반갑지 않아…  
날짜: 2015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0933938  
본문: Q : 젊었을 때 누구 못지않게 건강했고, 제 몸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어가자 여러 질환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프니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월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반갑지가 않습니다.<br/><br/><br/><br/>A :일본노인병학회 회장을 지낸 도호쿠대의 사사키 히데타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70대의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70대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심각한 질환은 대부분 장기입원을 하며 고가의 약재와 입원비 등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년에는 한번 병에 걸리면 회복까지 기간이 깁니다.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아쉬울 여생에 아프고 병든 시간이 대부분이라면 그 고통은 감내하기 힘들 것입니다. <br/><br/> 이처럼 노년에는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께 건강해야 하는 이유를 딱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아프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다”며 건강해야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장수를 할 수 있을까요? 히포크라테스는 “<span class='quot0'>인체에서 기능을 가진 모든 부분은 평상시에 적당히 사용하고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제대로 발달하며 노화도 서서히 진행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 성장에 문제가 생기며 노화도 빨리 진행된다</span>”고 하였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 60, 70대를 무사히 넘기면 80대 이후에는 오히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관리와 관련해 무조건 의사와 병원을 찾는 것보다 자가 면역력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우섭 오뚝이의원 원장은 <의사의 반란>에서 “불치병은 없습니다. 다만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br/><br/>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요인은 대부분 20세기 이후 변화된 식습관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유전자와 성별 등 고정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과 위생,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른 영양, 몸으로 들어오는 술, 담배, 고기, 스트레스 등의 관리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식습관만 일단 바꿔도 생각보다 빨리 몸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그 원인을 먼저 자신의 생활습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다음이 치료입니다. <br/><br/>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네오(Neo)50연구소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0.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17조원과 민간보험 / 김양중  
날짜: 2015092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0924463  
본문: 명절이다 보니 오랜만에 친척을 비롯해 친구들을 보게 됐다. 나이 드신 친척분들은 물론 40대 중반에 들어선 친구들도 건강 문제를 화제에 올렸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을 앓고 있으면서 ‘약을 타다 먹는다’는 친척이나 친구도 있었고, 맥주를 많이 마셔 통풍에 걸려 소주만 마신다는 친구도 있었다. 이 친구는 술을 줄이라고 했더니, 의사가 맥주만 마시지 말라고 했다며 술을 사실상 목구멍으로 들이붓고 있었다. 피부암에 걸렸는데 민간보험에 가입해 놔서 보험금을 톡톡히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암수술을 받았는데, 말만 ‘4대 중증질환(암·심장혈관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100% 보장’이지 병원비가 1천만원 가까이 나왔다는 친구도 있었다.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친구도 있었다. 나보고는 의사라서 질병 걱정 없어서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br/><br/> 친구들과의 술자리의 결론은 평소 운동 등 건강 생활도 해야 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민간보험 하나쯤은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모두 가입하고 있었다. 한 친구가 ‘어떤 보험이 좋으냐’고 나에게 묻길래,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답을 하니 다들 웃었다. ‘의료전문기자가 헛똑똑이’라고 비웃기까지 했다. 어쩔 수 없이 민간보험의 지급률이라는 어려운 용어까지 들어 설명했다. 보건복지 분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현직 의사인 김종명 선생이 썼던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라는 책을 보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40% 정도다.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보험금으로 40만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에 견줘 건강보험의 지급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소득 수준별로 5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이들은 2014년 기준 100만원을 내면 110만원, 소득 하위 20%는 100만원을 내면 510만원의 보험 혜택을 누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에는 세금에서 일정 정도를,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받게 돼 있다고 술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게 설명했다.<br/><br/> 하지만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받는다는 말에 조금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여전히 건강보험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들이었다. 이 불만족을 부정하기는 힘들었다. 낸 보험료보다야 많이 돌려받지만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떤 질병 치료에 1천만원이 나왔다면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됐다고 해도 약 380만원의 병원비를 내야 한다. 한해 1억원이 나오는 중병에 걸렸으면서 몇 해 치료해야 한다면 해마다 3800만원을 몇 년 동안 내야 해 의료비 부담으로 전세금을 내놓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r/><br/> 건강보험공단에 약 17조원의 누적 흑자가 쌓여 역대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에도 관심이 많았다. 당장 보험료를 깎아주든지 아니면 병원비를 적게 들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이 가운데 일부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쓰인다 쳐도, 공공병원을 확충하거나 아이들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돈이라고 주장한다.<br/><br/> 절호의 기회다. 현재 쌓여 있는 17조원을 잘 활용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족을 털어버릴 수 있다. 추석에 고향에서 느꼈던 공동체 정신도 회복할 수 있다. 아픔과 질병은 사회가 함께 나눈다는 그 마음 말이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1.txt

제목: ‘직녀에게’ 등 통일 노래한 문병란 시인 별세  
날짜: 20150925  
기자: 안관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0836231  
본문: ‘직녀에게’로 통일을 노래했던 문병란(사진) 시인이 25일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0.<br/><br/> 문 시인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던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문 시인은 민족 분단의 아픔을 연인의 이별에 빗댄 대표시 ‘직녀에게’로 일찍이 명성을 얻었다. 1970년대 중반에 쓴 이 작품은 90년 가수 김원중이 통일노래로 만들어 불러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br/><br/> 35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문 시인은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62년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70년부터 시집 <죽순 밭에서>와 <땅의 연가>를 비롯해 시집과 저서 20여권을 잇따라 내는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그는 작품을 통해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토속적 낱말과 목가적 서정으로 통일과 민족을 노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평생 이어진 창작의 열정으로 요산문학상, 금호예술상, 한림문학상, 박인환시문학상, 문예시대문학상 등을 받았다. 또 자유실천문인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문인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민중문학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br/><br/> 시민단체들은 문 시인의 장례를 민주시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br/><br/> 유족으로는 딸 명아·정아(조선대 중앙도서관 사서)·현화(무용가)씨, 아들 찬기(광주경희한의원 한의사)씨, 사위 김종두(시사만화가)·오영일(서양화가)·김안섭(무용가)씨, 며느리 박수진(광주중 교사)씨가 있다. 빈소는 조선대병원, 발인은 29일 오전 8시, 노제는 오전 10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치른다. 5·18 당시 구속됐던 그는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062)220-3352. <br/><br/>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2.txt

제목: 15살 은주 “저는 탈북자도 못되는 무국적자예요”  
날짜: 2015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0751226  
본문: “<span class='quot0'>학교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span>”<br/><br/>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만난 은주(가명·15)가 말했다. 은주는 또래들이 모두 입는 교복을 자기만 입지 못하는 게 부끄럽다고 했다. 그런 손녀를 박현순(가명·70) 할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봤다.<br/><br/> 한창 배울 나이에 은주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 통장도 만들지 못하고 아이돌 가수 콘서트 인터넷 예매도 못한다. 아파도 끙끙 앓을 뿐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무국적 상태의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다.<br/><br/> 은주는 탈북자인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 할머니는 먼저 북한을 탈출한 여섯 딸을 따라서 2000년 중국으로 탈북했다. 큰딸이 조선족과 결혼해 낳은 아이가 은주다. 은주 엄마는 2006년 자신의 두 동생과 함께 한국행을 시도하다 행방불명됐다. 아빠는 이듬해 사고로 숨졌다. 중국에서 어린 손녀를 맡아 키우던 할머니는 다른 두 딸마저 북한으로 잡혀가거나 행방불명되고, 한국행에 성공한 막내딸마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2012년 자신도 한국행을 결심했다. 은주를 남의 집에 맡겨놓고 라오스와 타이를 거쳐 어렵게 한국에 왔다. 박 할머니는 “핏덩이 같은 애를 남겨두고 한국으로 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br/><br/>조선족 아빠 숨지고 탈북 엄마 행방불명 <br/>먼저 한국 온 할머니가 지난해 밀입국 <br/>부모 없인 국적취득 안돼 ‘불법체류’ 신세 <br/>학교는커녕 아파도 병원조차 못가 <br/>유전자 검사까지 했지만 소용 없어 <br/>“<span class='quot0'>비슷한 사례 적지 않을 것…제도 개선 시급</span>”<br/><br/>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은주를 데려왔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 400만원 중 300만원을 브로커에게 줬다. 생때같은 손녀를 시커먼 배 밑바닥에 숨겨 밀입국시켰다. 일주일 항해 끝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span class='quot0'>그때 울지 않으려고 최대한 밝게 웃기만 했어요.</span>” 은주는 그때만 해도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다.<br/><br/> 그러나 지금, 은주의 ‘존재’는 한국 땅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탈북자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무국적자일 뿐이다. 할머니는 은주에게 한국 국적을 만들어주려고 구청과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쫓아다녔지만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조모만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들어야 했다. “내 손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유전자검사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br/><br/> 은주는 최근 감기에 걸렸는지 열이 나고 말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목이 아팠다. 약국에서는 꼭 병원에 가보랬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그저 앓고 있을 뿐이다. “<span class='quot0'>지난봄에도 3주나 앓아누울 정도로 심하게 아팠지만 집에 누워만 있었다</span>”고 했다.<br/><br/> 스튜어디스도 되고 싶고 배우도 되고 싶다는 꿈 많은 은주는 정말 학교에 다니고 싶다. 서울북부하나센터의 도움으로 대안학교에서 공부하지만 검정고시를 볼 자격조차 없다. 은주는 “다른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하다”고 담담히 말했지만, 할머니는 “은주만큼은 꼭 잘 가르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br/><br/> 장복희 선문대 교수(법학)는 “<span class='quot1'>탈북민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숨져 무국적 상태인 자녀를 조부모 등 친인척이 거두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span>”고 했다.<br/><br/> 은주는 곧 한국에서 두 번째 추석을 맞는다. 앞으로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둡지만은 않다.<br/><br/> “<span class='quot0'>중국에 있을 때는 명절에 주인집 눈치가 보여서 더 싫었는데, 지금은 할머니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span>” 은주가 웃었다. 그런 손녀를 보며 할머니가 말했다. “은주 없이 명절을 쇨 때는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다 잘될 거라고 믿어요.”<br/><b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3.txt

제목: 자살률 6년만에 최저…20~30대 남성은 늘어  
날짜: 20150923  
기자: 김소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0526404  
본문: 지난해 20·30대 남성의 자살률이 한 해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br/><br/>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만3836명으로 1년 전보다 591명(4.1%)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한 사람의 비율인 자살률은 27.3명으로, 2008년(26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04년 23.7명이던 자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지는 추세다.<br/><br/> 이처럼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감소했지만 유독 20·30대 남성은 늘었다. 20대 남성 자살률은 21.8명으로 1년 전보다 0.9명, 30대 남성은 36.6명으로 0.2명 증가했다. 자살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사망 원인 1위였다. 일부에선 취업난 등으로 인한 절망감이 20·30대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30대 남성의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4년 27.2명이던 것이 차츰 증가해 2011년에는 38.7명까지 솟았다가 2012년 34.6명으로 떨어진 뒤 2013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다.<br/><br/>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1위는 지난해에도 암이었다. 사망 원인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32년째다.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은 150.9명에 이르러 2위인 심장질환(52.4명)의 3배 수준이다. 3위는 뇌혈관 질환(48.2명), 4위는 자살(27.3명)이었다.<br/><br/>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4.txt

제목: [2030 잠금해제] 화학물질은 사회적이다 / 희정  
날짜: 201509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0147264  
본문: 집 근처에 국숫집이 생겼다. 꽤 저렴하다. 하지만 가지 않는다. 구인광고에 제시한 임금이 최저시급을 한참 못 미쳤다. 노동자를 싼값에 부려서 안 가냐고? 아니다. 내가 먹을 음식이 걱정돼서다. 눈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처우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장이 과연 손님 건강까지 챙길까. 임금도, 재료비도, 위생비용도 결국 돈이다.<br/><br/> 공업품도 마찬가지. 노동환경이 기준미달이면, 그곳에서 생산한 상품도 기준미달이다. 불량이 나면 차라리 다행.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미달일 경우가 있다. 재료비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눈에 결코 보이지 않는 부분, 화학물질.<br/><br/> 툭하면 임금체불에 철야인 회사가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구성성분을 꼼꼼히 살필까. 뭐가 들었는지 사장도 모른다. 그냥 싸면 쓰는 거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한해 국내에 유통되는 1억5천만톤의 발암물질은 어디로 갈까. 그것들이 몇몇 공장에 얌전히 머물러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br/><br/> 일부 영세사업장만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정부의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를 보면, 수백 종의 유해물질과 1급 발암성 물질들이 확인된다. 최근에도 이런데, 십년 전에는 어땠을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이들이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릴 만하다.<br/><br/> 병에 걸린 이들은 8년을 싸웠다. 결국 반도체 회사 삼성에 보상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이 보상 절차가 피해자들도, 함께한 사회단체도 배제된 채 이뤄져 또다시 문제다. 직업병 보상 문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 중이었다. 이미 권고안도 나온 상태.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시됐다. 삼성이 단독으로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한 것이다. 거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피해를 축소하긴 쉽다. 그럴 여지를 없애고 사회적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는 ‘공익법인’ 설립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이 택한 것은 자신들의 통제하에 놓인 보상위원회다.<br/><br/> 피해자 다수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역사적 교훈이 있다. 15년 전, 미국 아이비엠 노동자들도 직업병 인정 싸움을 했으나 개별보상으로 마무리됐다. 그로써 작업환경과 질병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중단됐다. 증거 자료는 아이비엠 손에 들어갔다. 사건은 묻히고, 그 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 반도체 노동자들은 같은 원인, 같은 질병으로 죽고 병든다.<br/><br/> 입막음 식 개별보상은 사건 은폐의 다른 말이다. 재발 방지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발암물질은 공장 안에 얌전히 머물지 않는다. 기업은 문제를 담장 안으로 가두지만, 발암물질은 사회적이다. 지역으로 퍼진다. 삼성전자 공장 굴뚝 옆 나무만 노랗게 마른다고 했다. 2013년 불산 유출로 노동자 한명이 죽었을 때, 삼성전자는 불산을 송풍기로 배출시켰다. 외부로, 그러니까 학교와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말이다.<br/><br/> 보상 문제를 대하는 삼성의 태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다. 사람보다 이윤이다. 제품을 생산할 때 드러나는 무자비한 이윤추구 본성이 상품을 팔 때는 사라질까. 생산자가 위험하다면 소비자도 위험하다. 우리는 바람 불고 물 흐르고, 화학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br/><br/> 이윤을 벌어들인 이는 삼성 혼자지만, 그 피해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재발 방지를 요구할 권리, 작업환경을 감시할 권리는 우리의 몫이다. 삼성은 돈으로 입막음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br/><br/>희정 기록노동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5.txt

제목: 태화강 둔치 ‘웰빙축제’ 18일 개막  
날짜: 2015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0024370  
본문: 울산시는 18~20일 태화강 둔치에서 건강, 먹거리, 의약, 친환경 생활 등 웰빙 분야의 폭넓은 정보 교류와 체험을 위한 ‘2015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를 연다.<br/><br/> ‘건강한 울산시민의 행복한 축제한마당’을 주제로 태화강 에코마켓 테마 전시관, 웰빙음식 체험관, 웰빙 이벤트관, 건강 캠페인관, 의약체험관, 영양체험관, 팔도 특산물관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된다.<br/><br/> ‘태화강 에코마켓’은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친환경 먹거리를 전시·판매함으로써 자연을 지키는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웰빙음식 체험관’은 지역의 향토·전통음식과 특색 있는 음식을 판매한다.<br/><br/> ‘웰빙 이벤트관’에선 울산시 조리사회와 제과지회가 각각 전국요리경연대회와 제과·제빵 경연대회를 연다. ‘건강캠페인관’에선 암·고혈압·당뇨예방홍보관, 심장살리기홍보관, 식품영양과 음식문화개선홍보관 등을 운영하면서 건강상담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한다. ‘의약체험관’에선 울산시 의사회와 한의사회가 고혈압, 당뇨, 치매 예방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 건강강좌·상담을 한다. <br/><br/>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6.txt

제목: 유병자보험 보장, 모든 질병으로 확대  
날짜: 20150917  
기자: 김수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10016414  
본문: 고혈압·당뇨병·간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전용보험 상품의 보장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된다. 만성 질환자가 계약 전에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줄어든다.<br/><br/>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병자 전용보험 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국민이 11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과 보장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실제 보험사 25곳에서 유병자 대상 보험을 팔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어 정작 보장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유병자 전용보험’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유병자의 수술률이나 입원율 등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런 점을 반영해 보험개발원이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과거 13년 동안의 유병자 질병 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 안에 보험업계에 제공하기로 했다. <br/><br/> 만성질환자의 보험 계약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줄이고,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 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줄인다. 현재 대부분 60살까지인 보험 가입 가능 나이도 75살 이상으로 늘린다. <br/><br/> 모든 질병을 보장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도 대폭 줄인 신유병자전용보험은 현대해상, 케이비(KB)손해보험, 에이아이에이(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4개 보험사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5개사, 내년 1분기에 8개사가 개선안을 반영한 신유병자전용보험을 새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br/><br/>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조처로 유병자가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보험료가 일반보험의 1.5~2배이므로 보험사가 건강한 일반인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br/>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7.txt

제목: 지자체의 빈곤층 건보료 지원까지 발목잡는 정부  
날짜: 2015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5823219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회보장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마저 중앙정부가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 대상’에 올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br/><br/>국무조정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5891개 가운데 1496개가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지난 8월11일 의결했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비 대상 사업 1496개 가운데 저소득·취약계층 건보료 지원 사업이 163개(10.9%)로 확인됐다. <br/><br/>지자체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저소득·취약계층 건보료 지원 사업’은 대부분 월 1만~1만5천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건보료를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현재 22만1300여가구가 저소득·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지자체에서 건보료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br/><br/>사보위는 건보공단에서 저소득층·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건보료 경감 제도를 시행하는데, 남은 건보료를 지자체에서 대납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면 ‘중복 지원’인데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보위의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은 “<span class='quot0'>모든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모르겠지만 지원 수준의 차이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소액 보험료 지원은 융통성 있게 협의할 방침이지만 과도한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본인부담금까지 대신 내주는 부분은 폐지하라고 권고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하지만 지자체 쪽은 계속 지원이 옳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 중랑구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대상자가 구에서 600~7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들은 의료급여 대상도 아니고 이미 받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지원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삼척시청 관계자도 “<span class='quot1'>내부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지원 대상이 대부분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로 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span>”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니 얼마 되지 않는 지원 금액도 그분들한텐 클 수 있다. 복지가 시작하긴 쉬운데 중단하기 어려워 받다가 못 받게 되면 민원이 많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br/><br/>이와 관련해 지역복지운동네트워크는 “장애인 활동 보조,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한테 주어지는 지역 복지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의 관련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br/><br/>한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앞에서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 선포식을 열어, 건보 흑자를 시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누적흑자 17조원이면 1년간 암 등 중증질환을 비롯해 모든 환자의 무상진료가 가능하며, 17조원의 이자만으로도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7개를 세울 수 있다고 운동본부는 추산했다. <br/><br/>박수지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8.txt

제목: [전문] 이재용에게 ‘유학 동문’이 보내는 공개 편지  
날짜: 2015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5841929  
본문: 재용씨에게<br/><br/>우리가 (일본) 케이오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MBA 프로그램에서 함께 공부한 지 이십 년이 지나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재용씨가 일본어 사전을 찾아가며 매번 주의 깊게 수업 준비를 하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교실에서 토론을 할 때면 재용씨는 명료하고 직설적이면서도 솔직하고 반짝이는 의견을 내곤 했지요. 그리고 재용씨는 친절하기도 하고 공정하면서도 다가서기 쉬운 사람이었어요.<br/><br/>한번은 도서관에서 재용씨랑 수다를 떨다가 제가 장학금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재용씨도 신청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적 있었죠. 재용씨가 장학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웃음으로 얼버무린 기억이 나요. 나중에 다른 동급생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비웃으면서 “재용이가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이고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뭐, 사실, 그만큼 제가 무심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만큼 재용씨가 자신을 요란하게 내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br/><br/>재용씨는 “누군가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전 재용씨가 삼성전자에서 눈부신 경력을 쌓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용씨의 동급생이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케이오 대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친 교수님들이나 우리의 “M16” 동기들 역시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br/><br/>그렇지만 재용씨에 대해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재용씨의 회사에서 너무도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나 다른 병에 걸린 직원들이나 병으로 죽어간 이들의 유족들에게 재용씨네 회사가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재용씨도 그런 회사의 태도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br/><br/>케이오 대학교 시절, 경영 전략 수업 시간에 모리나가사에서 비소로 오염된 우유 때문에 생긴 사건을 토론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하세요? <br/><br/>후루가와 교수님은 우리에게 독성물질로 망가진 어린이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마침 우리 동급생 중에 모리나가 직원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윤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보라고 하자 부끄러워했죠. 그 모습에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수업은 제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br/><br/>저는 나중에 치소 화학 회사와 미나마타 병이라는 또 다른 극적인 산업 질병을 저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다뤘거든요. 삼성전자 전직 노동자들과의 논쟁이 어떻게 되어왔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영어로 읽을 수 있었던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재용씨네 회사는 모리나가나 치소 화학이 경험했던 것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br/><br/>저는 대만에서 RCA라는 전자 회사와 그 모기업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프랑스의 테크니컬러(톰슨 전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켜보아왔어요. 여러 종류의 암, 유산, 기타 질병에 걸린 529명의 전직 노동자들이 소송을 한 것이지요. 이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삼성보다 더 복잡해요. 그런데도 지난 4월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이분들의 건강 문제가 직장에서 노출된 유기용제와 기타 독성물질 때문이라고 인정했어요. 이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940명이 넘는 원고들이 더 추가되었어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은 변호사 비용이나 보상금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형 소송이지요.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회사의 브랜드에 무척 나쁜 인상을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안 좋구요. 저는 지금 삼성의 행동이 삼성의 세계적인 명성을 변색시키고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br/><br/>올해 초 삼성전자는 협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에 대해 최근 삼성이 보이는 모습에는 정당성이 부족해 보여요. 재용씨가 2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반올림과의 사회적 대화를 가능한 빨리 재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투명하게 대화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들과 삼성전자 사이의 분쟁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만일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면 회사 브랜드에 더욱 큰 손상이 생길 거예요.<br/><br/>이런 문제는 “경영 전략”에서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재용씨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재용씨가 오래 전 모리나가 사건을 두고 교실에서 토론하던 때, 후루가와 교수님이 정당하고 윤리적인 대처에 어떤 걸 생각해보라고 권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재용씨가 이 교섭에 대해 얼마나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그토록 공정하고 총명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니, 재용씨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윤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겪으신 그분들과 재용씨를 위해 기도할게요.<br/><br/>폴 조뱅 드림<br/><br/>　<br/><br/>폴 조뱅 디드로 대학교 동아시아학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09.txt

제목: 9월 17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50916  
기자: 이정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5841012  
본문: 1년여 암투병…안치환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br/><br/>EBS스페이스공감(교육방송 밤 12시10분) 시대를 향해 위로와 공감을 노래해온 싱어송라이터 안치환이 암 투병을 하며 겪은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담은 새 음반의 곡들을 들고 무대를 찾는다. 대학시절 교내 노래패로 음악 생활을 시작한 안치환은 ‘새벽’,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거치며 뛰어난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았고, 그 뒤로도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올해 쉰이 된 그는 지난 1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며 10집 음반 <50>을 만들어냈다. ‘나는 암환자’, ‘병상에 누워’, ‘길지 않으리’ 등의 곡들에 이런 과정이 담겼으며, 타이틀곡 ‘희망을 만드는 사람’에는 시련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희망을 품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인 9월의 ‘헬로루키’로 선정된 ‘해일’은 실험적인 성격의 록 밴드로, 최근 첫 음반 <세계관>을 발표했다. 포스트록, 슈게이징, 모던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다. 또다른 9월의 헬로루키인 ‘Room306’은 음원 심사 때 강렬한 노이즈와 신디사이저 연주, 둔탁한 타악기 소리가 어우러진 일렉트로닉 음악을 들려줬으나 라이브 심사 때에는 재즈 팝 버전의 편안한 연주를 선보였다. <br/><br/> <br/><br/>중국발 경제위기, 돌파구는 뭘까<br/><br/>명견만리(한국방송1 밤 10시) ‘대륙의 딜레마, 중국 경제 위기론’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중국 경제 위기론’을 면밀히 짚어본다. 지난 8월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단행한 데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까워 옴에 따라,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발 경제 위기론’을 말하고 있다. 중국 현지 취재를 다녀온 성 교수는 중국 경제에 대해 “<span class='quot0'>과잉생산과 급속도로 증가하는 부채가 가장 큰 딜레마</span>”라고 분석한다. 고속성장의 축이었던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가 부메랑이 되어 중국 경제에 위기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호황에 기대던 기업들이 위기로 내몰리는 현상을 짚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본다.<br/><br/> <br/><br/>남다른 요리실력 뽐내는 학생들<br/><br/>학교요리왕(교육방송 밤 9시50분) 새로운 급식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 요리왕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전국 20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315명이 참가했으며, 9명만이 본선 요리캠프에 진출한다. 오세득 셰프, 요리 실력이 뛰어난 배우 서태화, 자연주의 살림전문가 이효재 등이 심사위원이 되어 학생들의 요리를 평가한다.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한 고등학생은 타이식 꼬치구이에 소고기 샐러드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을 놀래키고, 제주 우도에서 참가한 한 학생은 우도표 청정 식재료인 뿔소라와 보말을 들고 나타나 다른 참가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학생 요리 고수들의 남다른 실력을 만나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0.txt

제목: 위암 74살, 대장암 80살…암 검진 ‘은퇴 나이’ 생겼다  
날짜: 2015091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5637007  
본문: 국립암센터(암센터)가 최근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7대 암’에 대해 검진 권고안을 내놨다.<br/><br/>기존의 5대 암(위·대장·간·자궁경부·유방암)에 갑상선암과 폐암 검진법을 추가해 발표했다. 기존 5대 암의 검진 내용도 다소 달라졌다. 갑상선암은 일상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폐암은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적합하다고 권고했다. 기존에 없던 검진 나이 상한선도 발표했다.<br/><br/> 이번 권고안이 정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으려면 보건복지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암 관리법 시행령’을 바꿔야 가능하다. 다만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당장이라도 암검진 때 참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br/><br/>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는 권고 안해 <br/>하루 한갑씩 30년 흡연자에 저선량 시티 <br/>위암은 위장내시경이 1차 검사 <br/>대장내시경보다는 채변검사가 우선 <br/><br/> ■ 갑상선암 검진 위해 초음파 필요없어 이번 검진 권고안은 암센터가 국내 관련 학회한테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2013년 7월부터 꾸린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가 암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었다. 위원회는 암검진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검진의 효과와 위해를 평가했고, 여기에 국내 실정을 반영해 권고안을 제·개정했다. 우선 그동안 불필요하게 과다 검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던 갑상선암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들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다면 아무런 검진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 갑상선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진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br/><br/> 새로 권고안에 담긴 폐암은 검진 대상이 제한적이다. 오랜 세월 담배를 피운 이들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에 이들이 대상인데, 55~74살이자 ‘30갑년’(하루 한갑 30년 흡연) 이상인 사람이다. 하루 두갑을 피웠으면 15년 이상 피워도 해당된다. 다만 금연 뒤 15년이 지났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검사법은 방사선 노출이 보통의 시티보다 적은 저선량 시티 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다. 폐암 검진법으로 시중에 많이 쓰이는 종양표지자 검사는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br/><br/> ■ 위암은 내시경, 대장암은 채변검사 현재 위암 검진 방법은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검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위내시경 검사를 1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위내시경 검진에 숙련된 의료진 수가 대폭 늘어 이 검사를 받다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사례가 많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위내시경 검사를 잘못 하면 위장 점막에 상처가 나거나 구멍이 뚫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위점막 주름 등에 숨은 이상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위장조영술은 조영제를 먹어야 하는 불편과 검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br/><br/> 대장암은 채변검사를 통해 대장암 증상인 출혈 등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기존 검진안을 유지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출혈이 생기거나 대장에 구멍이 나는 등과 같은 부작용 사례가 아직은 많아서다.<br/><br/> ■ 검진 은퇴 나이도 새로 권고 이번 권고안에는 암마다 검진 은퇴 나이를 뒀다. 현재는 나이 상한선이 없다. 예컨대 위암은 만 74살, 대장암은 80살, 유방암은 69살, 폐암은 74살까지 받도록 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검진을 해도 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대신 몇몇 암 검진은 대상 나이를 낮췄다. 대장암은 현재 안보다 5살 낮은 45살부터, 간암은 간경화증을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자궁경부암은 검진 주기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다. 김열 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이번에 나온 암검진 권고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진 안의 효과와 위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온 것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한두 나라만 없던 검진 상한 나이를 정한 부분이 새롭다. 이번 안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이 되려면 비용 대비 효과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1.txt

제목: 9월16일 알림  
날짜: 2015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5631185  
본문: ◇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 산하 평생교육원은 12월까지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교내 이냐시오 강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1돌 영성특강을 진행한다. 21일은 제병영 원장 신부가 ‘프란치스코 교황 누구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02)705-8718.<br/><br/>◇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오후 6시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1회 독서문화상’ 시상식을 연다. 대통령 표창은 김수연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와 김을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장이 받는다.<br/><br/>◇ 한국선주협회는 15일 한국해양대 개교 70돌 기념 ‘역사 미래관’ 건립에 5억원을 쾌척했다.<br/><br/>◇ 지구촌공생회는 네팔 대지진으로 학업이 중단된 어린이를 돕고자 2018년까지 학교 20개 설립하기로 했다.<br/><br/>◇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15일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을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br/><br/>◇ 국립국어원은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민에게 생물 관련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새달 개통하는 ‘우리말샘’에서 생물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 정보를 제공한다.<br/><br/>◇ 경북매일신문은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윤채 현 사장을 18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br/><br/>◇ 이화여대는 14일 세계적인 유전체 연구소 잭슨랩(JAX)과 교내에 ‘이화-잭슨랩 항암면역치료 연구센터’를 2017년에 설립하기로 했다.<br/><br/>◇ 고려대와 연세대는 18∼19일 정기 친선 종합 스포츠 대회인 고연전(짝수해는연고전)을 연다.<br/><br/>◇ 경희대는 새달 2~4일 서울 교정과 경남 하동 이병주문학관에서 ‘2015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를 연다.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수상자는 전상국 소설가가 선정됐다.<br/><br/>◇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는 22일 출판 불황 타개를 위해 출판사와 독자와의 접점 확대 모색을 주제로하는 ‘제1회 출판 포럼’을 연다.<br/><br/>◇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16~18일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43명을 초청해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한다.<br/><br/>◇ 병무청은 새달 4일까지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제안’을 공모한다. 응모는 국민신문고 누리집(epeople.go.kr)에서 하면 된다.<br/><br/>◇ 통계청은 15일부터 창업지역 찾기, 상권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SGIS플러스’를 시작했다. 누리집(sgis.kostat.go.kr)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br/><br/>◇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정부의 지방인구정책 현황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제133회 지역정책연구포럼을 연다.<br/><br/>◇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PISA 2012 상위국 결과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의 현안 분석’ 세미나를 연다.<br/><br/>◇ 이화여대는 세계적인 유전체 연구소 잭슨랩(JAX)과 교내에 ‘이화-잭슨랩 항암면역치료 연구센터’를 2017년에 설립한다고 14일 밝혔다. 1929년 설립된 잭슨랩은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료 등을 위한 동물질환모델과 치료법 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둔 연구소다.<br/><br/>◇ 고려대와 연세대는 18∼19일 정기 친선 종합 스포츠 대회인 고연전(짝수해는연고전)을 연다. 18일 잠실야구장에서 야구경기를 시작으로 잠실실내체육관, 목동 아이스링크, 목동주경기장 등에서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경기 등이 치러진다. 올해는 고연전 50돌 이벤트로 19일 오후 1시 목동주경기장에서 양교 올스타축구경기가 열린다.<br/><br/>◇ 경희대는 새달 2~4일 서울 교정과 경상남도 하동 이병주문학관에서 나림 이병주 선생을 기리는 ‘2015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를 연다.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헌영 문학평론가 등이 참석하는 심포지엄, 나림 선생 23주기 추모식,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시상식 등이 순서대로 열린다. 문학상의 경우 이번 수상자로는 전상국 소설가가 선정됐다.<br/><br/>◇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연구센터는 16일 오전 7시40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우리 에너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이란 에너지경제협력 강화 세미나를 연다.<br/><br/>◇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은 1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혁신과 융합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를 주제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KT 스카이라이프 이남기 대표가 ‘한국 방송의 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미디어 CEO 특강을 한다.<br/><br/>◇ 상명대는 25일까지 교내 디자인대학 갤러리에서 특성화사업 글로벌 연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의 동경예술대학과 국제 교류전을 연다.<br/><br/>◇ KB생명은 14일 서울지역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자녀 2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br/><br/>◇ NH농협금융지주(회장 김용환)은 15일 아이러브아프리카(국제구호개발NGO)에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케냐 지역의 식수개발사업, 환경개선 및 교육개발사업 등에 사용된다.<br/><br/>◇ 흥사단(시민단체)은 광복 70돌을 맞아 새달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시민역사강좌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끈 인물들’을 무료로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순서대로 다룬다.<br/><br/>◇ 바른경제동인회는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별관 예인홀에서 ‘회사와 임직원의 이익공유제 공개 세미나’를 연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2.txt

제목: [왜냐면] 혐오의 시대를 넘어 / 권태현  
날짜: 201509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5508047  
본문: 언어가 가지는 힘은 강력하다. 무언가 언어로 규정되면, 부유하던 현상들은 그 언어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조직된다. 새로운 어휘는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확대되며 더 많은 현실의 모습들이 그 어휘의 범주로 들어오게 된다. 반대로 현실에서는 그 ‘말’의 현상들이 재생산되기도 한다. 새로운 현상은 언어로 규정되었을 때에야 뭔가 파악되는 실존으로 다가온다.<br/><br/> ‘일베충’에서 나아가 ‘맘충’ ‘급식충’까지, 신조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이런 말들은 요즘 정말 잠깐만 인터넷을 둘러보아도 쉽게 볼 수 있는 말들이다. 인터넷 은어나 비속어에 익숙한 나에게도 이런 말들은 불편하고 충격적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말들이 모두 새로운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잘못된 육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모들은 예전부터 있었고, 나도 학창시절에 공부시간보다는 급식시간이 즐거웠다. 그냥 존재하던 것들이 저런 혐오의 언어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br/><br/> 또 요즘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충’ 접미사 말고도 ‘암 걸리겠다’라는 말이 있다. 왜 이런 표현이 생겼을까? 전통적으로 쓰여온 질병에 빗댄 비속어 ‘지랄’의 현대화일까? 부모님이 암 투병중인 나의 친구는 농담처럼 쉽게 오르내리는 그 표현에 자꾸만 표정이 굳는다. 인간의 가치는 너무 가벼운 것이 되었고 혐오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br/><br/> 주목할 만한 건 ‘-충’이라는 접미사만큼 ‘갓-’ 접두사나 ‘-느님’ 접미사도 많이 쓰인다는 점이다. ‘치느님’으로 대표되는 아주 노골적인 물신주의가 우리 사회의 기저에 있다. 물신과 찬양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혐오의 극단에서 우린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br/><br/> 처음에 이야기했듯 언어는 그냥 ‘말’ 그 이상이다. 그 사회에서 쓰이는 말들을 보면 그 사회의 문화와 성격을 알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언어는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현상을 포착한다. 요즘 쓰이기 시작한 저런 말들이 비추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장난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br/><br/> 이건 모두 저런 이상한 말을 쉽게 사용하는 젊은 누리꾼들의 잘못일까. 저것들도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세계에서 인간의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 하루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청년들은 이제 토익 점수로는 모자라 외국어를 두 개씩 공부하고 온갖 스펙으로 무장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어 불안하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의 문제를 어머니 아버지 세대 탓이라 한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그 일자리마저 더 불안해지고 있다. 절로 패배자가 무수히 양성된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자존을, 우리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br/><br/> 서로를 벌레로 칭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농담처럼 주고받는 ‘헬조선’에서 우린 살아간다. 녹록지 않은 세계이지만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서로를 껴안고 버텨도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는 안 된다. 구태의연한 결론이지만 혐오의 시대를 넘어 인간의 가치를 모색하고 회복할 때다. 천천히 주변부터 돌아보자. 이제 헬조선엔 사계절도 없어지고 있다. 요즘처럼 좋은 날씨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오늘은 이번에도 이력서 서류 탈락을 했다는 친구에게 조용히 맥주 한잔을 권해야겠다. 가을로 가는 환절기의 시원한 바람과 약간은 어색한 공기, 무엇보다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 온기를 나누고 싶다. <br/><br/>권태현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3.txt

제목: “부자나라 더러운 빨랫감 가난한 나라 떠넘기기 막아야”  
날짜: 20150908  
기자: 김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5003056  
본문: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행들, 우울증과 마약중독, 자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를 한 걸음 물러서서 지구적 시각에서 보면 그 핵심에 세계화된 경제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이런 문제들이 자신들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행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파괴적인 소비문화를 강요하는 주장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반면, 환경과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바로 옆 나라까지도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br/><br/> 세계화의 대안으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지역화를 주창하는 국제단체 ‘로컬 퓨처스’의 설립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3일 전주 팔달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span class='quot0'>이처럼 규제를 받지 않는 자본이 전세계를 넘나들며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듯이 수조 달러의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위한 국제 연대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해 주길 희망한다</span>”고 말했다. 환경 분야 고전의 하나가 된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의 지은이로 잘 알려진 그는 4~5일 전주에서 열린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전주시와 공동 주최하려고 방한했다. 이 국제회의는 인간과 생태가 조화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려면 세계화에서 벗어나 지역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로컬 퓨처스가 여는 행사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를 시작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인도 등에서 열렸으며, 이번 전주 회의가 7번째다.<br/><br/><br/><br/>“지구촌 다양한 환경·사회 문제엔 <br/>세계화 추구 경제 구조가 밑바탕 <br/>지역화 통해 행복한 경제 전환을”<br/><br/><br/><br/>“파괴적 소비문화 강요 넘치는데 <br/>환경·사회보호 목소리 전파 안돼 <br/>방향 수정 위한 국제연대 동참을” <br/><br/><br/><br/> 40년 전 영국 런던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던 스물아홉살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티베트고원 지대에 위치한 북인도의 라다크를 찾았다. 지정학적으로는 인도의 일부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티베트에 속해 ‘작은 티베트’로 알려진 라다크의 언어를 연구하려는 목적이었다.<br/><br/> 뛰어난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진 그는 라다크 체류 1년여 만에 라다크말을 불편 없이 구사하게 됐고, 라다크 사람들한테 매료됐다. 그들은 ‘여름에는 탈 듯이 뜨겁고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 8개월 동안 온 지역이 얼어붙는’ 혹독한 환경의 오지에서 ‘범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는 건강하고 튼튼하며, 십대 소년이 극히 자연스럽게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사회’를 이루어 세상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라다크는 그가 처음 발을 디딘 1975년부터 인도 정부의 개방 정책으로 개발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그 뒤 16년 동안 라다크가 변화해간 과정의 관찰 기록에 해당하는 것이 <오래된 미래>다.<br/><br/> 라다크가 세계화 경제 시스템에 편입돼 붕괴돼 가는 것을 지켜보던 노르베리호지는 1980년 지역에 기반을 둔 생태적 개발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라다크 프로젝트’를 조직했다. ‘로컬 퓨처스’는 이 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다.<br/><br/> 37년 전 결혼한 영국 출신 남편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그는 일흔이 된 지금도 1년에 4개월가량은 국외 여러 곳을 돌며 로컬 퓨처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경제학은 다국적 거대 기업들과 은행, 규제를 받지 않는 자본이 세계 시장을 넘나들며 일으키는 사회·환경 파괴 등 불행을 해소하려면 세계화에 저항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한다.<br/><br/>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즉 젊은 사람과 노인, 가족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 사이에 더 행복감이 넘쳐흐른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화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br/><br/> 행복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지역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달하느라 에너지 사용과 쓰레기가 늘어나고, 암 유발,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다품종 소량으로 재배해 소비하는 것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증대, 물 이용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br/><br/> 그는 “노르웨이에서 잡은 생선이 중국으로 보내져서 뼈가 발라진 뒤에 다시 노르웨이로 오고, 영국에서 잡은 새우는 타이로 가서 껍질이 벗겨진 다음 다시 영국으로 와서 판매된다. 그런 운송과 그 과정에서의 냉장·포장의 필요가 지구 온난화를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구가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는 부유한 나라가 자신의 더러운 빨랫감을 가난한 나라에 전가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이전하는 것을 막는 정책적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br/><br/> 40년 전 라다크와의 만남이 이후 그의 삶을 결정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라다크에서 늘 활기에 넘치고 유머 감각 있고, 즐겁게 살던 사람들이 개발 압력에 밀려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을 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좀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후 40년 동안 그는 거의 해마다 라다크를 찾았다. 이번에 방한하기 직전에도 3주 동안 라다크에서 머물다 온 길이었다.<br/><br/>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하며 현장에서 뛰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교육을 위해서 갑니다. 현지 엔지오들과 협력해 워크숍이나 강연 등을 진행하는 것 외에 라다크를 찾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보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지요.”<br/><br/> 그는 “<span class='quot0'>라다크의 중심 도시인 레를 가보면 엄청난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질병들이 나타나고, 예전에는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있던 자살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상황에서 점점 많은 라다크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라다크가 나아가는 방향을 선회시킬 때가 됐다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br/> 전주/글·사진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4.txt

제목: 만성질환 등 면역력 약한 사람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챙겨야  
날짜: 20150908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4920730  
본문: Q: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의 예방접종 시기와 해당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br/><br/><br/><br/>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자연치유되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폐렴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들한테는 해마다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나라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대상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이들이 권장 대상입니다. 폐·심장 질환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뇨 등 대사질환, 신장질환, 만성 간 질환, 암 등 면역저하자 또는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요양 중인 사람, 50살 이상의 노인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환자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이나 환자 가족도 권장 접종 대상입니다.<br/><br/>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2주 뒤에 면역력이 생겨 6개월 정도 지속되므로 독감 유행 2주 전까지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시기는 대체로 9~11월초입니다.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9살 미만 소아는 최초 접종을 받을 때 한달 간격으로 2번 접종하고 다음해부터는 1번만 맞으면 됩니다. 달걀에 중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급성 열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접종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맞은 자리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부을 수 있으며, 드물게 고열·불쾌감·근육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br/><br/>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기가 예방된다고 믿는 이들도 많은데, 인플루엔자는 감기와는 다른 질환이라 감기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예측한 인플루엔자가 아닌 다른 종류가 유행하면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5.txt

제목: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공개  
날짜: 20150904  
기자: 구본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4511633  
본문: ■ 우수상 건심평/병원평가정보 <br/><br/>병원평가정보 사이트는 건강보험료가 사용되는 진료비와 적정성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다.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과 자원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결과를 충실히 공개해 의료선택권과 의료 서비스 개선, 의료비용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다.<br/><br/> 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관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는 의료 소비자의 정보 이해와 선택을 돕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항목·소재지·병원명칭·병원종 등의 카테고리별로 의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병원간 세부 평가 결과까지 검색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2~5개로 등급화해서 공개하고 평가항목별로 설명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평가 지표별 결과를 그래프와 표로 제시하고 있다.<br/><br/> 특히 의료기관 정보의 공개 및 비교를 통해 의료 품질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서비스 실시 이후 감기에 항생제 처방과 외래 주사제의 사용이 감소하고,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 의료 품질이 높아졌다. 항생제 투약이 높거나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병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제공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자율적으로 의료 질과 진료행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하는 계기로도 기능한다.<br/><br/> 병원평가정보 사이트는 2005년 정보공개를 개시해 고혈압·당뇨·천식 등 7개 질병 정보와 제왕절개분만, 유방암, 암수술사망률 등 8개 수술 관련 정보, 그리고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등 5개 약 처방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6.txt

제목: 뭐야, 자네 이런 곳에 있었나?  
날짜: 20150903  
기자: 최재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4357361  
본문: 읽는 인간 <br/>오에 겐자부로 지음, 정수윤 옮김/위즈덤하우스 펴냄(2015) <br/><br/><br/><br/>일본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는 자신의 전 인생을 총정리하는 의미로 가장 아끼는 소설 세권을 묶어서 특별 소장판을 만들었는데, 이 삼부작의 타이틀은 ‘수상한 이인조’였다. 이때의 수상한 이인조란 어떤 것일까?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기까지 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듯도 한, 어쨌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인조’다. 수상한 이인조의 반쪽은 오에 겐자부로 자신이고 나머지 반쪽은 그가 영향을 받은 소중한 친구다. 오에 겐자부로는 인생의 시기마다 이인조를 이루었던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사는 태도, 소설의 작법을 만들고 자기 자신이 되어갔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과 맺었던 인연이 바로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부작의 제목을 ‘수상한 이인조’로 한 것이다. ‘수상한 이인조’의 말미에 오에 겐자부로는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리틀 기딩’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엘리엇의 시에서 한 사람이 런던의 밤거리를 걷는다. 그리고 이상한 얼굴을 본다.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전에 알았지만 이제는 잊어버린 얼굴 같기도 하다. 그 얼굴은 자기 인생에서 만났던 소중한 한 사람을 혹은 여러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br/><br/> “나는 멀어지는 밤의 어둠 속에서 고개 숙인 얼굴을 보았다./ 낯선 사람 보듯 날카롭게 쏘아보는 동안/ 불현듯 내가 아는 죽은 선생을 닮았다는 걸 깨달았다./ 잊어버렸으나 어렴풋이 떠오르는 하나의 얼굴인 동시에 수많은 얼굴이다./ 그리하여 나는 일인이역을 하며 소리쳤다. /그리고 상대방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 / 뭐야, 자네 이런 곳에 있었나?”<br/><br/> 이 시에 이어서 오에겐자부로의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br/><br/> “‘그렇다. 나는 이런 곳에 있다.’라는 마음을 담아 오랜 우정을 쌓아온 그리운 분들에게 (…) 이 책을 보냅니다.” 이 마지막 글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 오래 전에 아주 좋아했으나 까맣게 잊고 지냈던 (인생의 한 시기 나의 수상한 2인조 반쪽이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잘 지내냐고 물었다. 잘 지내라는 말에는 수많은 다른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잘 지내?” 이 말이 엘리엇의 시에 나오는 “뭐야, 자네 이런 곳에 있었나?”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에 겐자부로처럼 “그렇다. 나는 이런 곳에 있다”라고 대답할 때 그 곳은 어떤 곳일까? 과연 그리운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담아서 이야기할 만한 곳일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지?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무엇에 감탄하고 무엇에 환호성을 지르고 무엇에 기쁨을 느끼고 무엇에 고통을 느끼고 무엇에 기꺼이 코웃음을 날리지? <br/><br/>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있는 곳은 말이야. 가파른 오르막길이야. 암호랑이가 돌기둥 위에 있어. 고통을 변화의 기회로 삼을 줄 알고 두 다리로 당당하게 버티고 서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려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진 멋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나도 그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저 높은 산꼭대기 까만 독수리 한 마리가 나는 곳까지. 이제 네 이야기를 들려줘. 너는 어떤 곳에 있니? 놀랍지 않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겠지? 놀랍지 않은 순간이 없는 것처럼 말이야. 자, 이제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사이에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들려줘.” <br/><br/> 정혜윤 <시비에스(CBS)> 피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7.txt

제목: 9월 3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50902  
기자: 이정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4231265  
본문: 몸의 역사와 문명의 진화…미래 인류 모습은?<br/><br/>글로벌대기획-넥스트휴먼(한국방송1 밤 10시) 4부작 가운데 1편 ‘돌연변이의 탄생’과, 2편 ‘마지막 크로마뇽인-종의 위기’가 3~4일 같은 시간에 방송된다.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인 영국의 파이어니어와 공동으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다. <개미><뇌>등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해설가로 등장한다.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해온 인류의 몸이 21세기 첨단 의학과 유전자 기술로, 더 이상 자연선택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진화를 스스로 디자인하는 존재’, 곧 ‘넥스트 휴먼’이 된 것을 주제로 다룬다. 과거 다윈의 진화론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 진화에 대한 질문들과 미래 인류의 진화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다. 우리 몸의 역사와 문명의 진화를 다루는 1편과 2편에서는, 인간이 두 발로 서서 달릴 수 있게 했던 ‘큰 엉덩이 유전자’, 검은 피부였던 인류가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게 된 이유, 척박한 환경에서 인류를 살린 돌연변이가 되레 인간을 병들게 한 이야기 등을 담는다. 또 조로증, 고도비만, 암, 냉동인간 지원자 등의 사례를 통해 21세기 질병을 파헤치고, 유전자 맞춤 치료로 이를 극복하는 미래 인류의 모습을 들여다본다.<br/><br/>척박한 고원에서 만난 낙타 유목민 <br/><br/>세계테마기행(교육방송 저녁 8시50분) ‘중앙아시아 고원 기행’ 시리즈 가운데 네번째인 ‘하늘 위의 산, 톈산으로 가는 길’편. 톈산은 중앙아시아 고원 기행의 종착점이다. 여름이 오면 톈산이 이고 있던 만년설과 빙하가 물이 되어 흐른다. 신선한 물을 받은 초원을 지나던 가운데 우연히 낙타 유목민들을 만나, 그들의 마을에 들른다. 카자흐스탄 최대 호수인 ‘캅차가이’ 뒤로 보이는 톈산 산맥은 희뿌연 안개에 싸여 구름처럼 보인다. 척박한 고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말을 타고 유목의 삶을 선택했다. 과거를 호령했던 기마병들은 이제 없지만, 후손들은 ‘콕보루’라는 기마놀이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br/><br/>의사가 말하는 면역력 강화 마사지<br/><br/>비타민(한국방송2 저녁 8시55분) ‘면역력’을 주제로, 대상포진, 폐렴, 암 등 면역력과 관련된 질병들을 살펴본다. 가수 이지현, 배우 이의정 등이 출연한다. “<span class='quot0'>연년생 아이를 둘 낳고 키우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span>”는 이지현에게, 전문의들은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 마사지를 소개한다. 9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이의정은 건강한 모습으로 스튜디오를 찾았지만, 검사를 받아보니 면역세포 수치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다. 전문의들은 면역세포의 균형이 깨지면 앞으로 수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리를 권유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8.txt

제목: 호스피스 이야기  
날짜: 2015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4127521  
본문: 내가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한 건 1994년이다. 결혼하고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우연히 호스피스 교육을 나흘 동안 받았다. 서울 미아삼거리에 있는 성가복지병원 간호과장 수녀님의 권유로 간호 봉사와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되었다.<br/><br/>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비용이 워낙 비쌌다. 암 말기면 땅 팔고 집 팔고 나서 사망한다고 할 정도였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도 몇 군데 되지 않았다. 성가복지병원은 무료 병원인데다 호스피스 병동까지 있어 병실 침대가 비는 날이 거의 없었다.<br/><br/>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셔서 통증도 완화되고 병원비 부담이 없어지니 삶의 기간이 더 길어지기도 했다.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면 삶의 말기에는 보통 가족도 없는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기계를 연결해 삶을 유지하게 된다. 적극적인 치료가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망하기 전 1개월 동안 전체 의료비의 절반을 지출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환자는 성가복지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재산이 있어 무료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던 환자는 오히려 그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임종을 했던 것이다.<br/><br/>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생겨나면서 중증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용도 많이 줄어들었다. 시범 사업과 법 제정을 거쳐 편안한 임종을 할 수 있는 호스피스 건강보험도 최근 실시됐다. 호스피스 환자가 하루 부담하는 비용은 1만5000원, 간병인 비용을 포함해도 2만원이 채 안 된다. 말기 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줘 가족도 환자의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br/><br/> 환자나 가족에게 호스피스를 설명하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상황을 부정하기도 한다. 요즘은 완화의료보다 증상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생명을 약간이나마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환자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더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해 호스피스 병동에서 질적인 삶을 완성하셨으면 좋겠다.<br/><br/> <br/><br/>김점옥(56·성가복지병원 호스피스팀장) 시니어블로거협회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19.txt

제목: “치아 누렇게 변하고 싶어요?”…청소년이 던지는 흡연 경고  
날짜: 2015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4014743  
본문: “술, 담배요? ‘노는 애들’만 한다는 건 오해예요.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많이 해요.”<br/><br/> 흡연·음주에 대해 물으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청소년 흡연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데는 가까운 곳에 흡연자들이 많은 탓도 크다. 8월17일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부모 모두가 흡연자일 때 청소년 흡연율은 1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내 건물 밖에서 교사 또는 학교 직원의 흡연을 본 적 있는 경우’의 흡연율이 8.9%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4.4%보다 2배가량 높았다. 또 청소년 흡연율은 친한 친구가 흡연자일 때 13.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0.8%에 비해 16.9배나 높아 친구 집단의 흡연 여부가 흡연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r/><br/><br/><br/>서울 구로구 ‘건강멘토’ 프로그램의 <br/>건강 분야 전공 대학생-고교생들 <br/>동네 돌며 흡연 관련 조사 <br/>이달중 신도림역서 캠페인 예정 <br/>10대 눈높이서 재미·의미 더한 <br/>‘금연송’ ‘유시시’ 사례도 나와 <br/><br/><br/><br/> 서울시 구로구 구일고등학교(교장 윤용수) 2학년 원유진, 김희라, 오인빈양은 오는 11일 오후 3시께 신도림역 근처에서 ‘금연 약속 캠페인’이라는 특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흡연을 하는지 묻고, 흡연할 경우 그 사람한테서 “앞으로는 금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가 누군가에게 똑같은 약속을 받아낼 수 있도록 활동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을 위해 오양은 평소 그림 실력을 뽐내 포스터도 제작했다. <br/><br/> 세 학생 곁에는 두 명의 대학생 멘토인 이인혜(차의과대학 보건복지전공학과 2학년)씨, 안예찬(신구대학교 방사선과 2학년)씨가 함께할 예정이다. 각각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두 대학생과 세 청소년은 지난 7월22일 ‘유진희라인빈’이라는 이름의 팀으로 하나가 됐다. <br/><br/> 두 달 전만 해도 서로를 모르던 이들을 엮어준 건 구로구(구청장 이성)였다. 구로구는 관내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 분야 전공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손잡게 하고, 흡연·음주 등 유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활동, 상담 등을 펼칠 수 있는 ‘건강멘토’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학습과 관련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건강’을 주제로 멘토-멘티가 만난 사례는 흔치 않다. 구로구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 장은진 주무관은 “<span class='quot0'>지난해까지는 담당 주무관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방식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덜 나는 대학생 선배들과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마침 보건의료계열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이런 활동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서 관련 분야 대학생들로 팀을 꾸렸다</span>”고 설명했다. 현재 이 팀을 비롯해 멘토 대학생 6명, 청소년 12명 등이 총 다섯 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중이다. 지난해에는 구로구 내 학교들과 연계해 동아리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올해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지원해 활동하는 방식이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br/><br/> 이들의 활동은 흡연·음주 등과 관련해 구청 쪽에서 마련한 교육을 받고, 팀별로 주제를 정한 다음 실태 및 설문조사, 계도 활동 등을 기획 및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여름 방학에는 9월25일부터 개정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중 ‘19살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홍보하러 다녔다. 김희라양은 “청소년 흡연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청소년이 길거리, 음식점 등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음주탈출넘버원’ 팀은 주변 자료조사 등을 통해 “술을 권하는 광고에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등장하는 데 반해 음주 금지 포스터 등은 참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포스터도 잘 만들어야 할 거고, 이를 보다 잘 보이는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다니니 이를 낯설어하는 이들도 꽤 있었다. ‘다슬기’ 팀의 멘티 장이슬(고척고 1학년)양은 “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들분이 ‘구로구보건소에서 나온 것 맞냐’며 까칠하게 하셨던 기억도 난다”며 웃었다. <br/><br/> 보건의료 분야 전공 대학생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이어준 덕분에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스레 진로·진학교육도 되고 있다. 김희라양은 “언니는 의료행정 분야 전공이고 오빠는 방사선 관련 학과인데 각 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다”고 했다. 건강멘토들의 활동은 오는 11월 중에 마무리되는데 활동을 통해 나온 모니터링 내용,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 분석 결과 등은 내년도 구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br/><br/> 일반적으로 흡연·음주 예방 교육은 ‘암 유발’ 등 질병 위주로 그 문제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대부분이 “이런 방식은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인다.<br/><br/> “골목길에서 담배를 태우고 술을 마시던 고교생들. 이 무리에 속해 늘 줄담배를 태우던 한 남학생은 어느 날 폐질환으로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된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문병을 오지만 남학생은 누런 이에 지독한 입냄새로 여자친구를 맞이한다. 이 모습에 여자친구는 실망을 하고….”<br/><br/> 인천 삼산고 2학년 박하얀양은 영상제작반 동아리를 운영하며 평소 생각해왔던 청소년 흡연·음주 문제를 이런 내용의 사용자제작콘텐츠(UCC)로 제작해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제2회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유시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김양은 “<span class='quot1'>아이들이 금연교육을 받아도 계속 담배에 손을 대는 이유가 지루하고, 가깝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폐암 유발’ 등 너무 멀고 뻔한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누런 이’, ‘입냄새’ 등 아이들 처지에서 현실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요소를 고민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지난 7월 중순. 강원도 속초 설악고 체육관에서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는 후미진 공간에선 이 학교 힙합동아리 학생들의 춤과 노래 공연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펼쳐졌다. 힙합동아리 스웨그 소속 학생들은 빈지노, 이센스의 노래 등을 금연송으로 개사해 부르며 게릴라 콘서트를 펼쳤다. 강원도교육청 지정 금연실천운영학교인 이 학교는 금연 관련 자존감캠프 참여 등을 비롯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금연 캠페인을 마련했다. 공연을 펼친 장소는 평소 학생들이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던 장소로 잘 알려진 곳. 2학년 최정규군은 “나도 흡연자였는데 이제는 담배를 끊었다”며 “어른들이 진행하는 일반적인 강의는 애들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지루했는데 학생들이 즐겨 부를 만한 노래 등 금연을 일종의 문화로 만들어볼 기회가 생기니 좋다”고 했다. <br/><br/>김청연 기자 carax3@hanedui.com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0.txt

제목: 독일 현대무용축제에 간 한국춤 /불쌍, 베를린의 토요일밤을 적시다  
날짜: 20150831  
기자: /손준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31100000042  
본문: “<span class='quot0'>브라보, 코레아니셔 탄츠(한국 춤)!</span>” 베를린의 토요일 밤, 다섯 번의 커튼콜이 울렸다. 객석을 꽉 채운 800명의 눈과 입과 손은 14명의 춤꾼에게 바쳐졌다. 무용수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환호는 멈추지 않았다. 춤꾼 예효승(41)의 눈이 젖었다. 베를린 거주 경험이 있는 그는 이곳이 얼마나 큰 무대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각)에 이어 29일 국립현대무용단(예술감독 안애순)의 이 독일 최대의 현대무용축제인 ‘탄츠 임 아우구스트’(Tanz Im August) 무대에 섰다. 이들이 공연한 극장 ‘폴크스뷔네’(Volksbhne)는 독일을 대표하는 공연장이다. 로 유명한 독일의 극작가 하이너 뮐러(1929~1995)가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번 무용축제에서는 국립현대무용단뿐 아니라, 또 다른 두 개의 한국 참가작들도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안무가 이재영을 주축으로 하는 ‘시나브로 가슴에’의 과 안무가 정금형의 이다. 베를린의 8월, 한국 춤바람이 불었다. 세계 20개국 공연단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지난 13일 개막해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진다. <br/><br/><br/>■ ‘인민극장’ 사로잡은 ‘불쌍’ <br/>　밤 9시부터 1시간 남짓한 공연 내내 관객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춤꾼의 강렬한 움직임은 때로는 ‘스타카토’처럼 분절적이다가도, 때로는 예효승과 한상률의 2인무처럼 유머러스했다. 춤꾼의 섬세한 몸짓은 때로는 강한 비트로, 때로는 몽환적인 음악에 실려 관객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공연에는 모두 1000개의 바구니가 사용됐다. 빨강, 하양, 파랑 등 색색 바구니를 쌓고, 허물고, 던지며 파괴적 현대사회를 은유했다. 플라스틱 바구니와 스티로폼을 통해 현대사회의 일회성 소모품이라는 물성(物性)을 드러냄으로써, 소외되고 파괴된 인성(人性)을 상대적으로 극명하게 돋을새김하기도 했다. <br/>　은 종교적 상징인 불상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불상이 신의 얼굴이 아닌 우리의 얼굴임을 역설한다. 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주목한 안애순 감독은 에서도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성스러움과 속된 것의 경계를 어김없이 담아냈다.<br/>　공연 뒤 관객들은 한국의 전통을 넘어 현대성에 주목했다. 베를린 시민 베른트 포이흐트너는 “한국의 전통춤을 보지는 못했지만,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춤으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녔다”고 호평했다. 인도 출신 여성 사비트리처린은 “던지고 파괴하는 혼란스러운 장면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조언을 던진 관객도 있었다. 프랑스 출신의 조명 전문가 피퐁은 “매우 환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span class='quot1'>구성과 움직임이 좀더 자유로웠으면 어땠을까</span>”라는 의견을 냈다. 2009년 초연된 은 지난 6월과 7월 이탈리아와 몰타에서도 공연했다. 노르웨이에서도 내년 초청 의사를 밝혔다. <br/> ■ 춤꾼의 눈은 왜 젖었을까<br/>　“이런 엄청난 무대에 서려니까 긴장이 됐어요. 부담이 컸어요. 공연을 잘 마치고 나니 울컥한 것이죠. 한국 현대무용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 듯해요.” 춤꾼 예효승이 ‘자신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다. 다른 춤꾼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다. <br/>　베를린 도심의 폴크스뷔네로 가려면 먼저 옛 동독 지역이었던 ‘로자 룩셈부르크 광장’부터 찾아야 한다. 폴란드 태생의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1871~1919)는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다. 급진적인 혁명파의 중심에 있던 그는 로마시대 노예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 스파르타쿠스단(독일 공산당의 전신)을 결성하고 급진적 혁명 활동을 벌였다. 이 광장은 그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 <br/>　이 광장에 우뚝 솟은 폴크스뷔네는 설립 목적이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연극 공연’이다. 윤종석 주독일한국문화원장은 “<span class='quot2'>하이너 뮐러 등이 활동한 매우 중요한 극장으로, ‘인민극장’으로 부른다</span>”고 했다. 이런 무대에서 커튼콜을 받은 춤꾼들의 눈시울이 약간 붉어진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다.<br/> ■ ‘시나브로 가슴에’와 정금형의 공연도 매진<br/>　이재영이 이끄는 ‘시나브로 가슴에’와 정금형의 베를린 공연도 한국 스태프가 표를 구하지 못할 정도였다. 지난 27~29일 ‘헤벨 암 우퍼’에서 두 공연이 잇달아 열렸다. 몸의 특징을 강조하는 안무로 주목받고 있는 시나브로 가슴에는 을 통해 균형-불균형, 작용-반작용의 관계를 탐색하며 관객의 눈과 귀를 잡아챘다. 두 춤꾼이 키재기 시늉을 하자 객석에선 웃음보가 터졌다. 관객과 소통하는 안무다. <br/>　정금형의 은 여러모로 독특한 작품이었다. 7개의 오브제와 움직임으로 사람과 기계의 섹스를 표현했다. 무용이라기보다는 퍼포먼스에 기까웠다.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큐레이터는 “<span class='quot3'>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표현되는 유머러스한 에로티시즘이 흥미로웠다</span>”고 평가했다. 성적인 코드가 민망했는지 한 노부인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도 했다. <br/>　축제 관계자들이 ‘한국 현대무용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가 전했다. 정금형과 시나브로 가슴에의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공연 지원사업(센터스테이지코리아)으로 이뤄졌다. <br/> 베를린/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1.txt

제목: ‘불쌍’, 베를린의 주말 밤을 적시다  
날짜: 20150830  
기자: 손준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3859825  
본문: “<span class='quot0'>브라보, 코레아니셔 탄츠(한국 춤)!</span>” 베를린의 토요일 밤, 다섯 번의 커튼콜이 울렸다. 객석을 꽉 채운 800명의 눈과 입과 손은 14명의 춤꾼에게 바쳐졌다. 무용수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환호는 멈추지 않았다. 춤꾼 예효승(41)의 눈이 젖었다. 베를린 거주 경험이 있는 그는 이곳이 얼마나 큰 무대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각)에 이어 29일 국립현대무용단(예술감독 안애순)의 <불쌍>이 독일 최대의 현대무용축제인 ‘탄츠 임 아우구스트’(Tanz Im August) 무대에 섰다. 이들이 공연한 극장 ‘폴크스뷔네’(Volksb<00FC>hne)는 독일을 대표하는 공연장이다. <햄릿 기계>로 유명한 독일의 극작가 하이너 뮐러(1929~1995)가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번 무용축제에서는 국립현대무용단뿐 아니라, 또 다른 두 개의 한국 참가작들도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안무가 이재영을 주축으로 하는 ‘시나브로 가슴에’의 <이퀼리브리엄>과 안무가 정금형의 <7가지 방법>이다. 베를린의 8월, 한국 춤바람이 불었다. 세계 20개국 공연단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지난 13일 개막해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진다.<br/><br/>■ ‘인민극장’ 사로잡은 ‘불쌍’ <br/><br/> 밤 9시부터 1시간 남짓한 공연 내내 관객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춤꾼의 강렬한 움직임은 때로는 ‘스타카토’처럼 분절적이다가도, 때로는 예효승과 한상률의 2인무처럼 유머러스했다. 춤꾼의 섬세한 몸짓은 때로는 강한 비트로, 때로는 몽환적인 음악에 실려 관객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공연에는 모두 1000개의 바구니가 사용됐다. 빨강, 하양, 파랑 등 색색 바구니를 쌓고, 허물고, 던지며 파괴적 현대사회를 은유했다. 플라스틱 바구니와 스티로폼을 통해 현대사회의 일회성 소모품이라는 물성(物性)을 드러냄으로써, 소외되고 파괴된 인성(人性)을 상대적으로 극명하게 돋을새김하기도 했다. <br/><br/> <불쌍>은 종교적 상징인 불상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불상이 신의 얼굴이 아닌 우리의 얼굴임을 역설한다. <이미아직>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주목한 안애순 감독은 <불쌍>에서도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성스러움과 속된 것의 경계를 어김없이 담아냈다.<br/><br/> 공연 뒤 관객들은 한국의 전통을 넘어 현대성에 주목했다. 베를린 시민 베른트 포이흐트너는 “한국의 전통춤을 보지는 못했지만,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춤으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녔다”고 호평했다. 인도 출신 여성 사비트리처린은 “던지고 파괴하는 혼란스러운 장면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조언을 던진 관객도 있었다. 프랑스 출신의 조명 전문가 피퐁은 “매우 환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span class='quot1'>구성과 움직임이 좀더 자유로웠으면 어땠을까</span>”라는 의견을 냈다. 2009년 초연된 <불쌍>은 지난 6월과 7월 이탈리아와 몰타에서도 공연했다. 노르웨이에서도 내년 초청 의사를 밝혔다. <br/><br/> ■ 춤꾼의 눈은 왜 젖었을까<br/><br/> “이런 엄청난 무대에 서려니까 긴장이 됐어요. 부담이 컸어요. 공연을 잘 마치고 나니 울컥한 것이죠. 한국 현대무용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 듯해요.” 춤꾼 예효승이 ‘자신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다. 다른 춤꾼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다. <br/><br/> 베를린 도심의 폴크스뷔네로 가려면 먼저 옛 동독 지역이었던 ‘로자 룩셈부르크 광장’부터 찾아야 한다. 폴란드 태생의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1871~1919)는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다. 급진적인 혁명파의 중심에 있던 그는 로마시대 노예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 스파르타쿠스단(독일 공산당의 전신)을 결성하고 급진적 혁명 활동을 벌였다. 이 광장은 그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 <br/><br/> 이 광장에 우뚝 솟은 폴크스뷔네는 설립 목적이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연극 공연’이다. 윤종석 주독일한국문화원장은 “<span class='quot2'>하이너 뮐러 등이 활동한 매우 중요한 극장으로, ‘인민극장’으로 부른다</span>”고 했다. 이런 무대에서 커튼콜을 받은 춤꾼들의 눈시울이 약간 붉어진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다.<br/><br/> ■ ‘시나브로 가슴에’와 정금형의 공연도 매진<br/><br/> 이재영이 이끄는 ‘시나브로 가슴에’와 정금형의 베를린 공연도 한국 스태프가 표를 구하지 못할 정도였다. 지난 27~29일 ‘헤벨 암 우퍼’에서 두 공연이 잇달아 열렸다. 몸의 특징을 강조하는 안무로 주목받고 있는 시나브로 가슴에는 <이퀼리브리엄>을 통해 균형-불균형, 작용-반작용의 관계를 탐색하며 관객의 눈과 귀를 잡아챘다. 두 춤꾼이 키재기 시늉을 하자 객석에선 웃음보가 터졌다. 관객과 소통하는 안무다. <br/><br/> 정금형의 <7가지 방법>은 여러모로 독특한 작품이었다. 7개의 오브제와 움직임으로 사람과 기계의 섹스를 표현했다. 무용이라기보다는 퍼포먼스에 기까웠다.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큐레이터는 “<span class='quot3'>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표현되는 유머러스한 에로티시즘이 흥미로웠다</span>”고 평가했다. 성적인 코드가 민망했는지 한 노부인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도 했다. <br/><br/> 축제 관계자들이 ‘한국 현대무용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가 전했다. 정금형과 시나브로 가슴에의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공연 지원사업(센터스테이지코리아)으로 이뤄졌다. <br/><br/><br/><br/> <br/><br/><br/><br/>“<span class='quot0'>최고 무대서 커튼콜 통했구나 싶어 눈물</span>”<br/><br/><br/><br/>감동이 전파되듯, 눈물도 전파된다. <불쌍> 공연에서 춤꾼의 젖은 눈을 보자,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도 눈물을 비쳤다. “증명받음의 눈물이랄까, 내 작업이 전혀 다른 문화인 독일에서도 감동을 줄 수 있을지 걱정했거든요. 세계 예술가들이 선망하는 ‘가장 핫한 무대’ 베를린에서 잇단 커튼콜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눈물입니다.” <br/><br/> 공연 전에 단원들은 모두 긴장했다. “김건중 무용수가 네덜란드에서 같이 춤을 췄던 친구들이 구경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눈에 자기가 어떻게 비칠지, 잔뜩 긴장을 하더라고요.” <br/><br/> 안 감독은 무용수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석고 데생을 하면서 표현이 굳어지는 것처럼, 학습된 몸이나 테크닉에 길들여진 몸보다는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만의 자유로운 몸짓이 있어야 하고, 안무가와 소통하는 공감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br/><br/> 안 감독은 내년 해외공연을 앞두고 이번에 독일 관객들과 피드백을 듬뿍 받았다고 생각한다. “관객의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라는 피드백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지속적인 레퍼토리의 바탕이 되거든요.” 안 감독의 말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레퍼토리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프랑스 샤요국립극장에서 <이미아직>을 올린다. 또 노르웨이 무용축제 ‘단센스 후스’에는 <불쌍>을 들고 갈 예정이다. <br/><br/><br/><br/> 베를린/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2.txt

제목: 고혈압 치료 음료로 둔갑한 수돗물  
날짜: 20150828  
기자: 최상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28100000081  
본문: 맹물이 질병 치료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값비싼 혼합음료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r/>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식품첨가물을 섞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다양한 효능을 가진 혼합음료로 속여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혼합음료 제조업체 23곳을 적발해, 제조업자 9명과 전국 판매책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먹기 부적합한 제품 등 문제가 있는 혼합음료 5만여병을 폐기했다.<br/>　ㅂ사는 지하수에 소량의 미네랄을 섞은 혼합음료를 고혈압·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의학적 효능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세균 수가 허용치의 최고 1700배나 초과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다.<br/>　ㅇ사는 지하수에 타우린을 섞은 혼합음료를 암과 혈관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의학적 효능은 전혀 없으며, 세균 수는 허용치의 최고 39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ㅇ사는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혼합음료 제품을 광고했으나, 검사 결과 그저 수돗물에 불과했다. ㄱ사는 칼슘 함유량이 0.1%에 이르러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혼합음료 제품을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실제 칼슘 함유량은 0.0003%에 불과했다.<br/>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위장질환·아토피·변비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합음료 제품을 광고했으며, 일부 업체는 시험성적서·인증서 등을 첨부했으나 모두 과장광고이거나 거짓으로 드러났다.<br/>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의 허술한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원수와 생산제품 모두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쳐야 하고,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제조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혼합음료는 7~8개 항목만 검사받으면 되며, 취수능력 300t 이하 업체는 환경영향조사와 수질개선부담금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적발된 업체들은 매우 적은 양의 식품첨가물을 수돗물이나 지하수에 섞은 혼합음료를 만들거나, 아예 맹물을 혼합음료인 것처럼 속여, 먹는 샘물의 2~5배 가격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br/>　경찰은 “<span class='quot0'>적발된 업체들을 행정처분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3.txt

제목: 고혈압 치료 음료로 둔갑한 수돗물  
날짜: 2015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3716875  
본문: 맹물이 질병 치료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값비싼 혼합음료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r/><br/>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식품첨가물을 섞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다양한 효능을 가진 혼합음료로 속여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혼합음료 제조업체 23곳을 적발해, 제조업자 9명과 전국 판매책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먹기 부적합한 제품 등 문제가 있는 혼합음료 5만여병을 폐기했다.<br/><br/> ㅂ사는 지하수에 소량의 미네랄을 섞은 혼합음료를 고혈압·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의학적 효능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세균 수가 허용치의 최고 1700배나 초과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다.<br/><br/> ㅇ사는 지하수에 타우린을 섞은 혼합음료를 암과 혈관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의학적 효능은 전혀 없으며, 세균 수는 허용치의 최고 39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또 다른 ㅇ사는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혼합음료 제품을 광고했으나, 검사 결과 그저 수돗물에 불과했다. ㄱ사는 칼슘 함유량이 0.1%에 이르러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혼합음료 제품을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실제 칼슘 함유량은 0.0003%에 불과했다.<br/><br/>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위장질환·아토피·변비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합음료 제품을 광고했으며, 일부 업체는 시험성적서·인증서 등을 첨부했으나 모두 과장광고이거나 거짓으로 드러났다.<br/><br/>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의 허술한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원수와 생산제품 모두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쳐야 하고,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제조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혼합음료는 7~8개 항목만 검사받으면 되며, 취수능력 300t 이하 업체는 환경영향조사와 수질개선부담금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적발된 업체들은 매우 적은 양의 식품첨가물을 수돗물이나 지하수에 섞은 혼합음료를 만들거나, 아예 맹물을 혼합음료인 것처럼 속여, 먹는 샘물의 2~5배 가격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br/><br/> 경찰은 “<span class='quot0'>적발된 업체들을 행정처분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4.txt

제목: 한국 남녀 기대수명 격차 6.6년…OECD 5위  
날짜: 20150825  
기자: /김소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25100000118  
본문: 한국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비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이 다른 나라 남성들과 견줬을 때 짧다는 얘기다.<br/>　24일 오이시디의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에 태어난 한국 아이의 기대수명은 81.8년이다. 한국 남성은 기대수명이 78.5년으로 여성(85.1년)보다 6.6년 짧았다. 한국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격차는 오이시디 34개국 가운데 프랑스(6.6년)와 함께 5번째로 컸다. 기대수명이란 연령별·성별 사망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됐을 때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수치다.<br/>　한국보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가 큰 나라는 에스토니아(8.9년), 폴란드(8.2년), 슬로바키아(7.2년), 헝가리(6.9년) 등 4개국뿐이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영국이 각각 3.7년으로 격차가 작은 편에 속했고, 아이슬란드(3.2년)가 가장 작았다. <br/>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86.6년)이다. 스페인(86.1년), 프랑스(85.6년), 이탈리아(85.2년)는 2~4위에 올랐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5.1년으로 5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국 남성(78.6년)의 순위는 16위로 중간 정도다. <br/>　한국 남성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으로는 높은 흡연율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이 꼽히고 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대체로 흡연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5살 이상 남성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43.7%)였고 터키(37.3%)가 다음 순위였다.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36.2%로 에스토니아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흡연 남성 비율이 높은 터키(73.7년)와 에스토니아(72.8년)의 기대수명 순위는 각각 28위, 31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흡연율이 가장 낮은 스웨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2년으로 5위였다. <br/>　여성의 경우(15살 이상) 한국이 4.3%의 흡연율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 남녀의 흡연율 차이가 기대수명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흡연 말고도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장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흡연, 음주는 물론 암, 자살률 등도 기대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사회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고 위험도 커지는 측면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세종/김소연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5.txt

제목: 한국 남-여 기대수명 격차 6.6년…OECD 5위  
날짜: 20150824  
기자: 김소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3243438  
본문: 한국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비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이 다른 나라 남성들과 견줬을 때 짧다는 얘기다.<br/><br/> 24일 오이시디의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에 태어난 한국 아이의 기대수명은 81.8년이다. 한국 남성은 기대수명이 78.5년으로 여성(85.1년)보다 6.6년 짧았다. 한국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격차는 오이시디 34개국 가운데 프랑스(6.6년)와 함께 5번째로 컸다. 기대수명이란 연령별·성별 사망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됐을 때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수치다.<br/><br/> 한국보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가 큰 나라는 에스토니아(8.9년), 폴란드(8.2년), 슬로바키아(7.2년), 헝가리(6.9년) 등 4개국뿐이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영국이 각각 3.7년으로 격차가 작은 편에 속했고, 아이슬란드(3.2년)가 가장 작았다. <br/><br/>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86.6년)이다. 스페인(86.1년), 프랑스(85.6년), 이탈리아(85.2년)는 2~4위에 올랐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5.1년으로 5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국 남성(78.6년)의 순위는 16위로 중간 정도다. <br/><br/> 한국 남성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으로는 높은 흡연율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이 꼽히고 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대체로 흡연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5살 이상 남성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43.7%)였고 터키(37.3%)가 다음 순위였다.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36.2%로 에스토니아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흡연 남성 비율이 높은 터키(73.7년)와 에스토니아(72.8년)의 기대수명 순위는 각각 28위, 31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흡연율이 가장 낮은 스웨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2년으로 5위였다. <br/><br/> 여성의 경우(15살 이상) 한국이 4.3%의 흡연율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 남녀의 흡연율 차이가 기대수명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흡연 말고도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장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흡연, 음주는 물론 암, 자살률 등도 기대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사회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고 위험도 커지는 측면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세종/김소연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6.txt

제목: 환경부는 금수강산 지킬 수 있는가  
날짜: 20150822  
기자: 조홍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22100000016  
본문: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을 하늘이 가장 파랗고 사계절이 뚜렷한 금수강산이라고 배웠다. 산삼을 비롯해 약초의 효능도 세계 제일이란 얘기도 자주 들었다. 이렇게 키운 한반도 자연에 대한 자부심은 난개발과 함께 어느새 스러져 버렸다.<br/>　그런데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 열린 세계식물원총회에서 만난 외국 식물전문가들과 이야기하다 ‘한반도에 살아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2010년부터 국제 느티나무 보전 사업을 벌이고 있던 이들이었다. 느티나무 종류는 유라시아 전역에 분포하다가 공룡시대 이후 기후가 차츰 서늘하고 건조해지면서 남쪽으로 피난해 살아남은 ‘고대 나무’다. 현재는 지중해 주변의 시칠리아, 크레타, 캅카스 등에 극소수가 살아남았고 동아시아에는 제법 많다. 유럽에서 멸종위기인 느티나무를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 부럽다는 얘기였다. 보호종도 아니고 일반인의 눈길도 끌지 않는 이 나무가 인류 탄생 이전부터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br/>　느티나무 말고도 진달래, 밤나무, 주엽나무(쥐엄나무) 등이 그런 고대 나무다.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북부 등 동북아는 고대 나무가 살아남은 세계 5대 피난처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이 많고 생물다양성도 풍부하다. 한반도가 금수강산이란 자랑은 빈말이 아니었다.<br/>　그리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거듭된 빙하기 동안 직접 얼음에 덮이지 않아 춥고 건조한 날씨를 피해 이동해온 많은 생물의 피난처 구실을 했다. 우리나라의 산악지대가 바로 그런 북방계 식물의 피난처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라산 정상의 바위에 붙어 자라는 떨기나무인 돌매화나무(암매)이다. 극지 가까운 툰드라지역에서나 볼 수 있고 백두산에도 없는 고위도 식물이 한라산에 산다.<br/>　암매처럼 자연사 유산의 가치를 지닌 나무는 이 밖에도 많다. 설악산에는 100여종의 북방계 식물이 산다. 키가 작아 누운 것 같은 눈잣나무는 만주, 사할린, 캄차카 등 고위도 지방에 널리 분포하는데 남한에선 유일하게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봉 일대에서 자란다. 백두산의 수목한계선 위쪽 사면을 수놓는 노랑만병초도 설악산 정상 부근에서 발견됐다.<br/>　지리산, 덕유산 등도 고산식물의 보고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악지역에서도 북방계 희귀식물이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중부지방 석회암 지대가 그곳이다. 기껏 시멘트 원료가 나는 곳 정도로만 알려진 이곳 산에서 함경도 고산 초원에서나 볼 수 있는 나도여로와 너도개미자리가 확인되기도 했다.<br/>　이처럼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 없는 국토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었나. 지난 20년 동안 산림의 2.1%가 사라졌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10년 동안 줄어든 산림면적은 530㎢로, 여의도 183개 면적의 숲이 도로나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베어졌다. 지나친 규제로 산지가 방치됐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육상 보호지역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는 물론이고 생물다양성협약이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목표 17%에 턱없이 모자란다.<br/>　오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용 여부를 심의한다. 그 결정에 시민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설악산뿐 아니라 모든 명산과 나아가 국토의 64%인 산지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연을 관광자본에 내맡길 것인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발표한 회칙에서 “<span class='quot0'>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span>”라고 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의 책무를 위임받은 정부기관이다. 4대강 사업을 방조한 데 이어 국립공원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문을 닫으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7.txt

제목: 동료 흠집내기 독려…휴가는 언감생심…암환자에겐 낮은 고과 /아마존닷컴 성장비결은 ‘쥐어짜기 경영’  
날짜: 20150818  
기자: 이용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8100000083  
본문: 미국 최대의 소매 유통업체인 아마존닷컴(아마존)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던 보 올슨에겐 직원들이 우는 장면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다. 아마존에선 회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뜯도록’ 독려한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거의 모든 직원들은 얼굴을 가리고 책상에 앉아 울었다. 아마존의 ‘살벌하고 공격적인’ 기업 문화가 직원들을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는 초고속 성장과 혁신적 사업 방식이라는 갈채 속에 가려져 있던 아마존의 비인간적인 무한경쟁 문화를 16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br/>　아마존 직원들은 장시간 노동과 야근에 시달린다. 자정이 넘어서 전자우편이 도착하고, 회신이 없으면 왜 답장을 하지 않는지 채근하는 문자메시지가 곧이어 도착한다. 일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아마존 직원들에게 휴가는 빛 좋은 개살구다. 아마존 직원과 결혼을 앞둔 약혼자는, 플로리다주로 휴가를 갔는데도 결혼 상대자가 매일 스타벅스에 앉아 무선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br/>　아마존의 내부 전화번호부는 상사에게 비밀스러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종종 다른 동료들을 흠집내고 훼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실제 안내 책자에는 “동료가 사소한 일로 공개적으로 불평하고, 융통성도 없어 걱정이다”라는 예시문이 적혀 있다.<br/>　암이나 불임, 다른 개인적인 위기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은 회복할 시간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되레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리에서 밀려난다. 갑상선 암에 걸렸던 한 직원은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뒤 낮은 인사등급을 받았다. 그녀가 없는 동안 동료가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직원은 다음날 출장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br/>　이런 쥐어짜는 기업 문화 때문에 신입사원 가운데 몇년 뒤에도 아마존에 남아 있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회사의 ‘승자’들은 2억500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주가 상승에 따른 재산을 축적한다. 하지만 ‘패자’들은 떠나거나 아니면 연례평가를 통해 해고된다. 인사부장 출신의 전직 직원은 적자생존만이 통하는 “다윈주의”라고 잘라 말했다.<br/>　1994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가 창립한 아마존은 올해 2분기에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올리면서 기업 시장가치에서 월마트를 앞질러 세계 최대의 소매 유통업체가 됐다. 베조스는 이 선정한 세계 5번째 부자다.<br/>　그러나 그동안 내부 경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상당 부분 비밀에 가려져 있었다. 는 아마존이 드론(무인기) 배달 등 혁신적 사업을 실험하고 있지만, “<span class='quot0'>화이트칼라 직원들을 얼마나 혹사시킬 수 있는지도 실험하고 있다</span>”고 꼬집었다. <br/>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8.txt

제목: 이맹희 CJ 명예회장 주검 국내로 /법원, 이재현 회장 상주 참석 허가  
날짜: 20150818  
기자: 김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8100000007  
본문: 이맹희 씨제이(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씨제이 인재원에서 열린다.<br/>　씨제이그룹은 이 명예회장의 빈소가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되며 장례는 7일장으로 치러진다고 17일 밝혔다. 조문은 18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고, 발인은 20일 오전 7시에 있을 예정이다. 씨제이그룹은 “<span class='quot0'>가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아 장지는 밝힐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　앞서 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이 명예회장의 주검 운구는 중국에서부터 차남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2012년 말에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이어왔다.<br/>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이재현 회장은 부친 빈소를 찾아 입관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입원병동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이 회장은 지번이 다른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이날 법원에 주거지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 회장은 20일까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씨제이그룹 쪽은 “이 회장이 감염 우려가 커서 사람이 많은 장례식장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29.txt

제목: 이맹희 CJ 명예회장 주검 국내로…법원, 이재현 회장 상주 참석 허가  
날짜: 20150817  
기자: 김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2503367  
본문: 이맹희 씨제이(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씨제이 인재원에서 열린다.<br/><br/> 씨제이그룹은 이 명예회장의 빈소가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되며 장례는 7일장으로 치러진다고 17일 밝혔다. 조문은 18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고, 발인은 20일 오전 7시에 있을 예정이다. 씨제이그룹은 “<span class='quot0'>가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아 장지는 밝힐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br/> 앞서 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이 명예회장의 주검 운구는 중국에서부터 차남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2012년 말에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이어왔다.<br/><br/>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이재현 회장은 부친 빈소를 찾아 입관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입원병동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이 회장은 지번이 다른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이날 법원에 주거지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 회장은 20일까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씨제이그룹 쪽은 “이 회장이 감염 우려가 커서 사람이 많은 장례식장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br/><br/>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0.txt

제목: 알짜만 보고 싶다면  
날짜: 20150817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7100000087  
본문: “<span class='quot0'>출품작 52편을 언제 다 챙겨보나</span>”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맹수진 프로그래머와 김훈석 피디가 꼭 봐야 할 5편을 추천했다. 경쟁부문 출품작(페스티벌 초이스)은 제외했다. 국제다큐영화제는 경쟁 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와 비경쟁 부문인 포커스, 월드 쇼케이스, 아시아의 오늘, 한국 다큐멘터리 파노라마로 나뉜다. 경쟁 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는 영화제 마지막날 심사를 거쳐 대상 등을 선정한다.<br/><br/>세상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br/>로라 포이트러스 감독. 2014년. 독일 외.<br/>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국가안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다. 스노든이 홍콩에 건너가 호텔에 숨어 지내면서 영국 일간 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한테 국가안보국의 행태를 폭로하는 상황을 그린다. 거대 미국 정부에 작은 돌을 던지는 스노든의 용기가 큰 울림을 준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극장에서만 상영)<br/><br/>무기력하다면 <br/>앰버 파레스 감독. 2015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br/>팔레스타인 여성 5명으로 구성된 중동 최초의 여성 카레이싱팀 ‘스피드 시스터즈’의 도전을 그린다. ‘스피드 시스터즈’는 2009년 창단 당시 비난의 목소리도 컸지만, 지금은 이들을 보려고 수백명이 모일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아이콘이 됐다. 남성 중심의 팔레스타인 사회와 이슬람 문화에서 금발머리에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그들에게 열광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 열광의 이면에는 눈물과 땀이 있다.그들의 도전이 나태해진 나를 돌아보게 한다.(극장에서만 상영)<br/><br/> <br/>영상미가 돋보여 <br/>가이 리드 감독. 2015년. 영국.<br/>지구를 담은 다큐는 많았다. 김훈석 피디는 “내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느낄 수 있는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한다. 인간의 미래를 생물학적 종의 관점에서 탐구한 내용이 신선하다. 모든 생물은 서로 이어져 있고, 인간 역시 행성의 일부이니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한다.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나의 존재를 새삼 곱씹게 한다.(29일 저녁 8시20분)<br/><br/>가상+현실 형식 <br/>말리카 주할리 워럴 감독. 2015년. 미국.<br/> 김훈석 피디는 “게임이라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결합한 시도가 좋았다”고 했다. 컴퓨터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인 아빠 라이언은 한살배기 아들 조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자 아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을 만든다. 아빠와 아들 등 실제 가족이 게임 캐릭터로 나와 가족이 처한 상황을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과 병마와 싸우는 조엘, 그리고 가족의 모습 등이 뭉클하고 짠하다.(30일 오후 2시10분)<br/><br/>‘먹방’보다 먼저! <br/>그랜트 볼드윈 감독. 2014년. 캐나다.<br/>‘먹방’이 유행인 요즘, 요리 프로그램에 군침 삼키기에 앞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을 꼬집는다. 재료든 만들어진 요리든 음식의 50%가 폐기된다는 것이다. 다큐에 나오는 두 인물, 젠과 그랜트는 식료품 구매를 중단하고 대신 농장과 소매점에서 버려질 처지에 놓인 음식으로 생활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낭비되는 음식물의 이미지는 충격적이면서도 강렬하다고 한다.(30일 오후 4시55분) 남지은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1.txt

제목: 휴가는 언감생심, 암환자에 낮은 고과…아마존 성장 비결은 ‘쥐어짜기’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710018269004  
본문: 미국 최대의 소매 유통업체인 아마존닷컴(아마존)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던 보 올슨에겐 직원들이 우는 장면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다. 아마존에선 회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뜯도록’ 독려한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거의 모든 직원들은 얼굴을 가리고 책상에 앉아 울었다. 아마존의 ‘살벌하고 공격적인’ 기업 문화가 직원들을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뉴욕 타임스>는 초고속 성장과 혁신적 사업 방식이라는 갈채 속에 가려져 있던 아마존의 비인간적인 무한경쟁 문화를 16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br/><br/> 아마존 직원들은 장시간 노동과 야근에 시달린다. 자정이 넘어서 전자우편이 도착하고, 회신이 없으면 왜 답장을 하지 않는지 채근하는 문자메시지가 곧이어 도착한다. 일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아마존 직원들에게 휴가는 빛 좋은 개살구다. 아마존 직원과 결혼을 앞둔 약혼자는, 플로리다 주로 휴가를 갔는데도 결혼 상대자가 매일 스타벅스에 앉아 무선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br/><br/> 아마존의 내부 전화번호부는 상사에게 비밀스러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종종 다른 동료들을 흠집내고 훼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실제 안내 책자에는 “동료가 사소한 일로 공개적으로 불평하고, 융통성도 없어 걱정이다”라는 예시문이 적혀 있다.<br/><br/> 암이나 불임, 다른 개인적인 위기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은 회복할 시간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되레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리에서 밀려난다. 갑상선 암에 걸렸던 한 직원은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뒤 낮은 인사등급을 받았다. 그녀가 없는 동안 동료가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직원은 다음날 출장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br/><br/> 이런 쥐어짜는 기업 문화 때문에 신입사원 가운데 몇년 뒤에도 아마존에 남아있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회사의 ‘승자’들은 2억500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주가 상승에 따른 재산을 축적한다. 하지만 ‘패자’들은 떠나거나 아니면 연례평가를 통해 해고된다. 인사부장 출신의 전직 직원은 적자생존만이 통하는 “다윈주의”라고 잘라 말했다.<br/><br/> 1994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가 창립한 아마존은 올해 2분기에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올리면서 기업 시장가치에서 월마트를 앞질러 세계 최대의 소매 유통업체가 됐다. 베조스는 <포천>이 선정한 세계 5번째 부자다.<br/><br/> 그러나 그동안 내부 경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상당부분 비밀에 가려져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아마존이 드론(무인기) 배달 등 혁신적 사업을 실험하고 있지만, “<span class='quot0'>화이트칼라 직원들을 얼마나 혹사시킬 수 있는지도 실험하고 있다</span>”고 꼬집었다. <br/><br/>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2.txt

제목: 이맹희 CJ 명예회장 주검 국내로…법원, 이재현 회장 상주 참석 허가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710018256258  
본문: 이맹희 씨제이(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씨제이 인재원에서 열린다.<br/><br/> 씨제이그룹은 이 명예회장의 빈소가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되며 장례는 7일장으로 치러진다고 17일 밝혔다. 조문은 18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고, 발인은 20일 오전 7시에 있을 예정이다. 씨제이그룹은 “<span class='quot0'>가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아 장지는 밝힐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br/> 앞서 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이 명예회장의 주검 운구는 중국에서부터 차남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2012년 말에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이어왔다.<br/><br/>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이재현 회장은 부친 빈소를 찾아 입관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입원병동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이 회장은 지번이 다른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이날 법원에 주거지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 회장은 20일까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씨제이그룹 쪽은 “이 회장이 감염 우려가 커서 사람이 많은 장례식장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br/><br/>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3.txt

제목: 드라마·예능에선 볼 수 없는, 진짜 사람들의 진짜 삶  
날짜: 20150816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2352233  
본문: <교육방송>(EBS)의 <국제다큐영화제>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영국의 영화감독 존 그리어슨이 주목한 것은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책임”이었다. 그는 “<span class='quot0'>다큐멘터리는 교회와 학교를 대신해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달팽이의 별>을 만든 이승준 다큐멘터리 감독은 다큐의 교육적 유익함을 이렇게 말한다. “다큐는 계몽적이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다. 시의성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자료로 활용될 여지도 크다.”<br/><br/><br/><br/>32개국 52개 작품 24일~30일 <br/>EBS·극장 등서 출품작 볼 수 있어 <br/>올해는 ‘노년 삶’ 다룬 작품 많아 <br/><br/><br/><br/>일회성 지원 벗어나 다큐 활성화 <br/>참가국 늘며 출품작 수준 높아져 <br/>“<span class='quot1'>5년 뒤 보는 장기계획 수립 필요</span>” 교육방송이 다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04년부터 한해도 빠지지 않고 국제다큐영화제를 이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올해는 24~30일 열린다. 81개국 805편 중에서 선정한 32개국 52개 작품이 티브이와 극장 5곳(이비에스 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미로스페이스, 아트하우스 모모1·2관)에서 상영된다. 총 5개 섹션(경쟁 1개, 비경쟁 4개)으로 나뉜다.<br/><br/> 신용섭 교육방송 사장은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올해 주제는 ‘세상과 통하다’이다. 다큐멘터리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파편화돼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다큐멘터리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 12년 다큐 변화가 오롯이 국제다큐영화제는 지난 12년 다큐 양식의 속살을 오롯이 반영해왔다. 다큐가 주목해온 관심사와 제작방식의 변화가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다. 올해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29일 밤 9시50분), <노인들의 계획>(24일 오후 2시40분) 등의 작품이 노년의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특히 3D 프린터 혁명이 가져올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그린 <3D 프린팅: 전설을 만들다>(29일 밤 11시25분)나, 최근 활용 폭이 커진 드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드론>(30일 오후 3시30분)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국제다큐영화제>를 담당한 권혁미 프로그래머는 당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2'>특히 다큐 제작 장비와 소재, 접근법의 변화 등이 국제다큐영화제를 통해 드러난다</span>”고 말했다. 지난해 <포인트 앤 슛>은 몸에 장착하는 카메라인 ‘고 프로’(Go Pro)를 사용해 지금껏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뛰었던 촬영 방식과의 차이를 보여줬다. 올해는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의 틀을 깨고 타 매체와 융합하는 시도가 늘었다. 애니메이션과 다큐를 접목한 <홀로코스트의 아이들>(25일 낮 12시10분), 픽션과 논픽션을 오가는 <퀸 오브 사일런스>(27일 낮 1시35분) 등이 눈길을 끈다.<br/><br/> ■ 될까? 우려 딛고 우뚝… 질도 양도 업! 1회 때 129편에 그친 출품작은 올해 800편을 넘어섰다. 초창기엔 인지도가 낮아 담당자들이 필름페스티벌 등 각종 영화제를 찾아다니고, 다른 나라 영화제에 출품한 명단을 입수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작품을 수소문했다. 지금은 자발적인 출품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 2회 27개국이었던 참가 나라도 82개국으로 늘었다. 미국 등 다큐 강국 외에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br/><br/> 작품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해 시리아 내전을 담은 <홈스는 불타고 있다>가 화제를 모았는데, 올해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시티즌포>도 소개된다. 다큐 유망주로 주목받는 마이테 알베르디 감독의 <티타임>(25일 밤 11시5분)도 기대를 모은다. <트루맛쇼> 등을 만든 김재환 다큐멘터리 감독은 “<span class='quot3'>다큐영화제는 티브이 채널을 돌리다 다양한 다큐를 접하고, 이에 매력을 느낀 이들이 예술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게 하는 통로 구실을 해왔다</span>”고 평가했다.<br/><br/> ■ 다큐 시장 활성화도 나선다 올해부터는 영화제가 끝난 뒤 영화제에서 제작비 지원을 받은 작품들은 <교육방송>의 다큐프로그램인 <다큐프라임>에서도 출품작을 방영한다. 또 지난 7월 국내 최초의 다큐멘터리 전용 브이오디 서비스인 ‘디-박스’(D-BOX)를 만들어 다큐영화제에서 소개된 다양한 다큐를 다시 내보내고 있다. 영화제에서 일회성 상영에 그쳤던 것을 모바일 등에서 계속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맹수진 프로그래머는 “52편 정도가 서비스되고 있고, 영화제가 끝나면 37편이 추가된다. 누적되다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큐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이 다큐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영화제 쪽 설명이다. 다큐 영상 관련학과 학생들한테 실무 제작 과정을 교육하는 ‘독 캠퍼스’, 세계적인 다큐 전문가들의 강연과 서울역사박물관 야외광장 등에서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br/><br/> 이승준 감독은 “외국 영화제에 가서 이야기하면 방송사가 주축이 되어, 티브이와 영화관을 연계한 다큐영화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놀라고 신선해한다. 그러나 국제다큐영화제가 방송사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다. 더 발전하려면 인력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5년 후 등을 바라보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br/><br/>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br/><br/> <br/><br/><br/><br/>알짜만 보고 싶다면<br/><br/><br/><br/>“<span class='quot1'>출품작 52편을 언제 다 챙겨보나</span>”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맹수진 프로그래머와 김훈석 피디가 꼭 봐야 할 5편을 추천했다. 경쟁부문 출품작(페스티벌 초이스)은 제외했다. 국제다큐영화제는 경쟁 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와 비경쟁 부문인 포커스, 월드 쇼케이스, 아시아의 오늘, 한국 다큐멘터리 파노라마로 나뉜다. 경쟁 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는 영화제 마지막날 심사를 거쳐 대상 등을 선정한다.<br/><br/><br/><br/>세상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시티즌포> <br/>로라 포이트러스 감독. 2014년. 독일 외. <br/><br/><br/><br/>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국가안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다. 스노든이 홍콩에 건너가 호텔에 숨어 지내면서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한테 국가안보국의 행태를 폭로하는 상황을 그린다. 거대 미국 정부에 작은 돌을 던지는 스노든의 용기가 큰 울림을 준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극장에서만 상영) <br/><br/><br/><br/>무기력하다면 <스피드 시스터즈> <br/>앰버 파레스 감독. 2015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br/><br/><br/><br/><br/><br/>팔레스타인 여성 5명으로 구성된 중동 최초의 여성 카레이싱팀 ‘스피드 시스터즈’의 도전을 그린다. ‘스피드 시스터즈’는 2009년 창단 당시 비난의 목소리도 컸지만, 지금은 이들을 보려고 수백명이 모일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아이콘이 됐다. 남성 중심의 팔레스타인 사회와 이슬람 문화에서 금발머리에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그들에게 열광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 열광의 이면에는 눈물과 땀이 있다.그들의 도전이 나태해진 나를 돌아보게 한다.(극장에서만 상영)<br/><br/><br/><br/>영상미가 돋보여 <행성, 지구> <br/>가이 리드 감독. 2015년. 영국.<br/><br/><br/><br/>지구를 담은 다큐는 많았다. 김훈석 피디는 “내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느낄 수 있는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한다. 인간의 미래를 생물학적 종의 관점에서 탐구한 내용이 신선하다. 모든 생물은 서로 이어져 있고, 인간 역시 행성의 일부이니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한다.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나의 존재를 새삼 곱씹게 한다.(29일 저녁 8시20분)<br/><br/><br/><br/>가상+현실 형식 <지금이라는 이름의 선물> <br/>말리카 주할리 워럴 감독. 2015년. 미국.<br/><br/><br/><br/>김훈석 피디는 “게임이라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결합한 시도가 좋았다”고 했다. 컴퓨터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인 아빠 라이언은 한살배기 아들 조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자 아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을 만든다. 아빠와 아들 등 실제 가족이 게임 캐릭터로 나와 가족이 처한 상황을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과 병마와 싸우는 조엘, 그리고 가족의 모습 등이 뭉클하고 짠하다.(30일 오후 2시10분)<br/><br/><br/><br/>‘먹방’보다 먼저! <먹을래? 먹을래!><br/><br/> <br/>그랜트 볼드윈 감독. 2014년. 캐나다.<br/><br/><br/><br/>‘먹방’이 유행인 요즘, 요리 프로그램에 군침 삼키기에 앞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을 꼬집는다. 재료든 만들어진 요리든 음식의 50%가 폐기된다는 것이다. 다큐에 나오는 두 인물, 젠과 그랜트는 식료품 구매를 중단하고 대신 농장과 소매점에서 버려질 처지에 놓인 음식으로 생활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낭비되는 음식물의 이미지는 충격적이면서도 강렬하다고 한다.(30일 오후 4시55분) <br/><br/>남지은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4.txt

제목: 알짜만 보고 싶다면  
날짜: 20150816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2354197  
본문: 세상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시티즌포><br/><br/>로라 포이트러스 감독. 2014년. 독일 외. <br/><br/><br/><br/>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국가안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다. 스노든이 홍콩에 건너가 호텔에 숨어 지내면서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한테 국가안보국의 행태를 폭로하는 상황을 그린다. 거대 미국 정부에 작은 돌을 던지는 스노든의 용기가 큰 울림을 준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극장에서만 상영) <br/><br/><br/><br/>무기력하다면 <스피드 시스터즈><br/><br/>앰버 파레스 감독. 2015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br/><br/><br/><br/><br/><br/>팔레스타인 여성 5명으로 구성된 중동 최초의 여성 카레이싱팀 ‘스피드 시스터즈’의 도전을 그린다. ‘스피드 시스터즈’는 2009년 창단 당시 비난의 목소리도 컸지만, 지금은 이들을 보려고 수백명이 모일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아이콘이 됐다. 남성 중심의 팔레스타인 사회와 이슬람 문화에서 금발머리에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그들에게 열광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 열광의 이면에는 눈물과 땀이 있다.그들의 도전이 나태해진 나를 돌아보게 한다.(극장에서만 상영)<br/><br/><br/><br/>영상미가 돋보여 <행성, 지구><br/><br/>가이 리드 감독. 2015년. 영국.<br/><br/><br/><br/>지구를 담은 다큐는 많았다. 김훈석 피디는 “내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느낄 수 있는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한다. 인간의 미래를 생물학적 종의 관점에서 탐구한 내용이 신선하다. 모든 생물은 서로 이어져 있고, 인간 역시 행성의 일부이니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한다.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나의 존재를 새삼 곱씹게 한다.(29일 저녁 8시20분)<br/><br/><br/><br/>가상+현실 형식 <지금이라는 이름의 선물><br/><br/>말리카 주할리 워럴 감독. 2015년. 미국.<br/><br/><br/><br/>김훈석 피디는 “게임이라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결합한 시도가 좋았다”고 했다. 컴퓨터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인 아빠 라이언은 한살배기 아들 조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자 아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을 만든다. 아빠와 아들 등 실제 가족이 게임 캐릭터로 나와 가족이 처한 상황을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과 병마와 싸우는 조엘, 그리고 가족의 모습 등이 뭉클하고 짠하다.(30일 오후 2시10분)<br/><br/><br/><br/>‘먹방’보다 먼저! <먹을래? 먹을래!><br/><br/>그랜트 볼드윈 감독. 2014년. 캐나다.<br/><br/><br/><br/>‘먹방’이 유행인 요즘, 요리 프로그램에 군침 삼키기에 앞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을 꼬집는다. 재료든 만들어진 요리든 음식의 50%가 폐기된다는 것이다. 다큐에 나오는 두 인물, 젠과 그랜트는 식료품 구매를 중단하고 대신 농장과 소매점에서 버려질 처지에 놓인 음식으로 생활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낭비되는 음식물의 이미지는 충격적이면서도 강렬하다고 한다.(30일 오후 4시55분) <br/><br/>남지은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5.txt

제목: 알짜만 보고 싶다면  
날짜: 2015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610018245005  
본문: 세상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시티즌포><br/><br/>로라 포이트러스 감독. 2014년. 독일 외. <br/><br/><br/><br/>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국가안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다. 스노든이 홍콩에 건너가 호텔에 숨어 지내면서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한테 국가안보국의 행태를 폭로하는 상황을 그린다. 거대 미국 정부에 작은 돌을 던지는 스노든의 용기가 큰 울림을 준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극장에서만 상영) <br/><br/><br/><br/>무기력하다면 <스피드 시스터즈><br/><br/>앰버 파레스 감독. 2015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br/><br/><br/><br/><br/><br/>팔레스타인 여성 5명으로 구성된 중동 최초의 여성 카레이싱팀 ‘스피드 시스터즈’의 도전을 그린다. ‘스피드 시스터즈’는 2009년 창단 당시 비난의 목소리도 컸지만, 지금은 이들을 보려고 수백명이 모일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아이콘이 됐다. 남성 중심의 팔레스타인 사회와 이슬람 문화에서 금발머리에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그들에게 열광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 열광의 이면에는 눈물과 땀이 있다.그들의 도전이 나태해진 나를 돌아보게 한다.(극장에서만 상영)<br/><br/><br/><br/>영상미가 돋보여 <행성, 지구><br/><br/>가이 리드 감독. 2015년. 영국.<br/><br/><br/><br/>지구를 담은 다큐는 많았다. 김훈석 피디는 “내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느낄 수 있는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한다. 인간의 미래를 생물학적 종의 관점에서 탐구한 내용이 신선하다. 모든 생물은 서로 이어져 있고, 인간 역시 행성의 일부이니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한다.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나의 존재를 새삼 곱씹게 한다.(29일 저녁 8시20분)<br/><br/><br/><br/>가상+현실 형식 <지금이라는 이름의 선물><br/><br/>말리카 주할리 워럴 감독. 2015년. 미국.<br/><br/><br/><br/>김훈석 피디는 “게임이라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결합한 시도가 좋았다”고 했다. 컴퓨터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인 아빠 라이언은 한살배기 아들 조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자 아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을 만든다. 아빠와 아들 등 실제 가족이 게임 캐릭터로 나와 가족이 처한 상황을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과 병마와 싸우는 조엘, 그리고 가족의 모습 등이 뭉클하고 짠하다.(30일 오후 2시10분)<br/><br/><br/><br/>‘먹방’보다 먼저! <먹을래? 먹을래!><br/><br/>그랜트 볼드윈 감독. 2014년. 캐나다.<br/><br/><br/><br/>‘먹방’이 유행인 요즘, 요리 프로그램에 군침 삼키기에 앞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을 꼬집는다. 재료든 만들어진 요리든 음식의 50%가 폐기된다는 것이다. 다큐에 나오는 두 인물, 젠과 그랜트는 식료품 구매를 중단하고 대신 농장과 소매점에서 버려질 처지에 놓인 음식으로 생활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낭비되는 음식물의 이미지는 충격적이면서도 강렬하다고 한다.(30일 오후 4시55분) <br/><br/>남지은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6.txt

제목: 드라마·예능에선 볼 수 없는, 진짜 사람들의 진짜 삶  
날짜: 2015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610018245004  
본문: <교육방송>(EBS)의 <국제다큐영화제>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영국의 영화감독 존 그리어슨이 주목한 것은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책임”이었다. 그는 “<span class='quot0'>다큐멘터리는 교회와 학교를 대신해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달팽이의 별>을 만든 이승준 다큐멘터리 감독은 다큐의 교육적 유익함을 이렇게 말한다. “다큐는 계몽적이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다. 시의성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자료로 활용될 여지도 크다.”<br/><br/><br/><br/>32개국 52개 작품 24일~30일 <br/>EBS·극장 등서 출품작 볼 수 있어 <br/>올해는 ‘노년 삶’ 다룬 작품 많아 <br/><br/><br/><br/>일회성 지원 벗어나 다큐 활성화 <br/>참가국 늘며 출품작 수준 높아져 <br/>“<span class='quot1'>5년 뒤 보는 장기계획 수립 필요</span>” 교육방송이 다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04년부터 한해도 빠지지 않고 국제다큐영화제를 이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올해는 24~30일 열린다. 81개국 805편 중에서 선정한 32개국 52개 작품이 티브이와 극장 5곳(이비에스 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미로스페이스, 아트하우스 모모1·2관)에서 상영된다. 총 5개 섹션(경쟁 1개, 비경쟁 4개)으로 나뉜다.<br/><br/> 신용섭 교육방송 사장은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올해 주제는 ‘세상과 통하다’이다. 다큐멘터리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파편화돼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다큐멘터리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 12년 다큐 변화가 오롯이 국제다큐영화제는 지난 12년 다큐 양식의 속살을 오롯이 반영해왔다. 다큐가 주목해온 관심사와 제작방식의 변화가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다. 올해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29일 밤 9시50분), <노인들의 계획>(24일 오후 2시40분) 등의 작품이 노년의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특히 3D 프린터 혁명이 가져올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그린 <3D 프린팅: 전설을 만들다>(29일 밤 11시25분)나, 최근 활용 폭이 커진 드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드론>(30일 오후 3시30분)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국제다큐영화제>를 담당한 권혁미 프로그래머는 당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2'>특히 다큐 제작 장비와 소재, 접근법의 변화 등이 국제다큐영화제를 통해 드러난다</span>”고 말했다. 지난해 <포인트 앤 슛>은 몸에 장착하는 카메라인 ‘고 프로’(Go Pro)를 사용해 지금껏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뛰었던 촬영 방식과의 차이를 보여줬다. 올해는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의 틀을 깨고 타 매체와 융합하는 시도가 늘었다. 애니메이션과 다큐를 접목한 <홀로코스트의 아이들>(25일 낮 12시10분), 픽션과 논픽션을 오가는 <퀸 오브 사일런스>(27일 낮 1시35분) 등이 눈길을 끈다.<br/><br/> ■ 될까? 우려 딛고 우뚝… 질도 양도 업! 1회 때 129편에 그친 출품작은 올해 800편을 넘어섰다. 초창기엔 인지도가 낮아 담당자들이 필름페스티벌 등 각종 영화제를 찾아다니고, 다른 나라 영화제에 출품한 명단을 입수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작품을 수소문했다. 지금은 자발적인 출품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 2회 27개국이었던 참가 나라도 82개국으로 늘었다. 미국 등 다큐 강국 외에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br/><br/> 작품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해 시리아 내전을 담은 <홈스는 불타고 있다>가 화제를 모았는데, 올해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시티즌포>도 소개된다. 다큐 유망주로 주목받는 마이테 알베르디 감독의 <티타임>(25일 밤 11시5분)도 기대를 모은다. <트루맛쇼> 등을 만든 김재환 다큐멘터리 감독은 “<span class='quot3'>다큐영화제는 티브이 채널을 돌리다 다양한 다큐를 접하고, 이에 매력을 느낀 이들이 예술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게 하는 통로 구실을 해왔다</span>”고 평가했다.<br/><br/> ■ 다큐 시장 활성화도 나선다 올해부터는 영화제가 끝난 뒤 영화제에서 제작비 지원을 받은 작품들은 <교육방송>의 다큐프로그램인 <다큐프라임>에서도 출품작을 방영한다. 또 지난 7월 국내 최초의 다큐멘터리 전용 브이오디 서비스인 ‘디-박스’(D-BOX)를 만들어 다큐영화제에서 소개된 다양한 다큐를 다시 내보내고 있다. 영화제에서 일회성 상영에 그쳤던 것을 모바일 등에서 계속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맹수진 프로그래머는 “52편 정도가 서비스되고 있고, 영화제가 끝나면 37편이 추가된다. 누적되다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큐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이 다큐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영화제 쪽 설명이다. 다큐 영상 관련학과 학생들한테 실무 제작 과정을 교육하는 ‘독 캠퍼스’, 세계적인 다큐 전문가들의 강연과 서울역사박물관 야외광장 등에서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br/><br/> 이승준 감독은 “외국 영화제에 가서 이야기하면 방송사가 주축이 되어, 티브이와 영화관을 연계한 다큐영화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놀라고 신선해한다. 그러나 국제다큐영화제가 방송사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다. 더 발전하려면 인력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5년 후 등을 바라보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br/><br/>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br/><br/> <br/><br/><br/><br/>알짜만 보고 싶다면<br/><br/><br/><br/>“<span class='quot1'>출품작 52편을 언제 다 챙겨보나</span>”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맹수진 프로그래머와 김훈석 피디가 꼭 봐야 할 5편을 추천했다. 경쟁부문 출품작(페스티벌 초이스)은 제외했다. 국제다큐영화제는 경쟁 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와 비경쟁 부문인 포커스, 월드 쇼케이스, 아시아의 오늘, 한국 다큐멘터리 파노라마로 나뉜다. 경쟁 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는 영화제 마지막날 심사를 거쳐 대상 등을 선정한다.<br/><br/><br/><br/>세상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시티즌포> <br/>로라 포이트러스 감독. 2014년. 독일 외. <br/><br/><br/><br/>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국가안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다. 스노든이 홍콩에 건너가 호텔에 숨어 지내면서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한테 국가안보국의 행태를 폭로하는 상황을 그린다. 거대 미국 정부에 작은 돌을 던지는 스노든의 용기가 큰 울림을 준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극장에서만 상영) <br/><br/><br/><br/>무기력하다면 <스피드 시스터즈> <br/>앰버 파레스 감독. 2015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br/><br/><br/><br/><br/><br/>팔레스타인 여성 5명으로 구성된 중동 최초의 여성 카레이싱팀 ‘스피드 시스터즈’의 도전을 그린다. ‘스피드 시스터즈’는 2009년 창단 당시 비난의 목소리도 컸지만, 지금은 이들을 보려고 수백명이 모일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아이콘이 됐다. 남성 중심의 팔레스타인 사회와 이슬람 문화에서 금발머리에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그들에게 열광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 열광의 이면에는 눈물과 땀이 있다.그들의 도전이 나태해진 나를 돌아보게 한다.(극장에서만 상영)<br/><br/><br/><br/>영상미가 돋보여 <행성, 지구> <br/>가이 리드 감독. 2015년. 영국.<br/><br/><br/><br/>지구를 담은 다큐는 많았다. 김훈석 피디는 “내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느낄 수 있는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한다. 인간의 미래를 생물학적 종의 관점에서 탐구한 내용이 신선하다. 모든 생물은 서로 이어져 있고, 인간 역시 행성의 일부이니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한다.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나의 존재를 새삼 곱씹게 한다.(29일 저녁 8시20분)<br/><br/><br/><br/>가상+현실 형식 <지금이라는 이름의 선물> <br/>말리카 주할리 워럴 감독. 2015년. 미국.<br/><br/><br/><br/>김훈석 피디는 “게임이라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결합한 시도가 좋았다”고 했다. 컴퓨터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인 아빠 라이언은 한살배기 아들 조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자 아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을 만든다. 아빠와 아들 등 실제 가족이 게임 캐릭터로 나와 가족이 처한 상황을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과 병마와 싸우는 조엘, 그리고 가족의 모습 등이 뭉클하고 짠하다.(30일 오후 2시10분)<br/><br/><br/><br/>‘먹방’보다 먼저! <먹을래? 먹을래!><br/><br/> <br/>그랜트 볼드윈 감독. 2014년. 캐나다.<br/><br/><br/><br/>‘먹방’이 유행인 요즘, 요리 프로그램에 군침 삼키기에 앞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을 꼬집는다. 재료든 만들어진 요리든 음식의 50%가 폐기된다는 것이다. 다큐에 나오는 두 인물, 젠과 그랜트는 식료품 구매를 중단하고 대신 농장과 소매점에서 버려질 처지에 놓인 음식으로 생활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낭비되는 음식물의 이미지는 충격적이면서도 강렬하다고 한다.(30일 오후 4시55분) <br/><br/>남지은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7.txt

제목: 구글이 500살까지 살게 해준다고요?  
날짜: 20150815  
기자: 조기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5100000046  
본문: 안녕하세요? 친절한 기자들에 처음 인사를 드리는 국제부 조기원입니다. 국제부에서 국제경제와 동남아시아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만, 부서 사정에 따라서는 가끔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br/>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계기는 구글 때문입니다. 구글이 10일 ‘알파벳’이라는 이름의 지주회사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하자, 전세계 언론에서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었지요. 지주회사 명칭을 ‘○○홀딩스’처럼 상투적으로 짓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재치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자체로는 대단한 뉴스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회사가 커지고 계열사가 늘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일은 한국에서도 있는 일이니까요.<br/>　그런데 구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알파벳을 세운 이유가 “<span class='quot0'>남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일</span>”을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요. 기존 구글에서 다른 신사업 추진 회사들을 분리해서, 신사업들에 더 힘을 싣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자신과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구글 사장이 각각 알파벳 최고경영자와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기존 구글의 일상적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br/>　구글 하면 ‘검색엔진 회사’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만, 최근 구글은 검색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몇몇 재벌들처럼 중소기업이 할 만한 사업에까지 숟가락을 얹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은 유전자 연구를 통해 인간의 수명 연장을 꾀하고 있으며, 팔에 차는 밴드를 통해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 안에는 인간 수명이 길어질 거라고 장담하는 괴짜들이 꽤 있습니다. 2012년 구글이 학습하는 기계 등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고용한 레이 커즈와일은 영생을 위해 하루 30알 넘는 영양제를 먹고 스스로 짠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구글이 설립한 벤처 투자회사인 구글벤처스의 빌 메리스 대표는 “<span class='quot1'>인간은 500살까지 살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개발될 암 치료법에 비하면 현재 암 치료법은 원시적인 수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벤처스는 유전자를 통한 암 치료를 연구하는 등 건강 관련 신생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구글은 착용하고 있으면 혈당 수치를 자동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제약회사 노바티스와 함께 지난해 개발했는데, 앞으로 이 스마트 콘택트렌즈에 오토포커스 기능까지 넣는다고 합니다. 착용만 하면 시력에 따라 자동으로 도수가 조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론(무인기)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오지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실험을 지난해 실시했으며, 열기구를 띄워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작업을 스리랑카에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 회사인 디프마인드를 인수해 인공지능과 로봇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정도의 연구는 그리 괴팍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br/>　물론 구글의 이런 엉뚱한 연구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구글의 연구소인 구글엑스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인 ‘구글 글라스’는 지난 1월 판매 중단 선언이 발표되면서 ‘폭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연동 안경인 구글 글라스는 한때 1500달러에 판매됐지만 프라이버시 문제와 함께 아름답지 못한 모양새 때문에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br/>　구글의 매출 89%는 구글 검색과 유튜브에 연동된 광고에서 발생합니다. 막대한 투자금액이 구글 신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span class='quot0'>남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일</span>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사는 익숙한 일들을 하는 데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혁명적 사고가 성장을 이끄는 기술 산업에서 안주하는 것을 불편해해야 한다.”<br/>　구글은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까요? 구글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검색엔진으로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시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성장했지만 최근 모바일 시장 경쟁에서 뒤처져 고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구글이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합니다. 래리 페이지가 “<span class='quot2'>인류의 가장 주요한 혁신 중 하나인 언어를 상징하기 때문</span>”에 ‘알파벳’을 지주회사 이름으로 삼았다고 했을 만큼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구글은 ‘미친 일’을 계속할 것 같네요. 조기원 국제부 기자 garde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8.txt

제목: 한수산이 만난 합천 원폭 피해자 /엄마는 다리를 못 썼고 아들은 뇌성마비였다  
날짜: 2015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5100000017  
본문: ▶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노동과 이후 원폭 피해의 역사를 담은 대하소설 의 한수산(69) 작가가 5~6일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 다녀왔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원폭 피해 1세는 2584명이 남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세들이다. 2002년 숨진 김형률씨의 분투로 만들어진 한국원폭2세환우회의 여러 노력에도 한·일 양국 정부는 여전히 2세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br/><br/><br/>합천 시내를 끼고 흐르는 황강이 물소리도 없이 어둠 속에 싸여가고 있었다. 8월5일 저녁이었다. 황강 강변공원에서는 피폭 70년을 기념하고 비핵·평화를 열망하는 공연이 열리고 있었다.<br/>　이른 아침 합천으로 떠나면서 바라본 광화문 거리에는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당신이 역사이고 미래입니다’ 하는 걸개들이, 빌딩 벽을 뒤덮은 대형 태극기와 함께 일렁이고 있었다. 휴가철인데도 고속도로는 막힘없이 뚫려 있었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위대한 여정’이 아니었다. ‘70년의 망각’을 찾아, 지난 70년을 가장 뼈저린 고난으로 견뎌낸 한국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br/>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한국인 4만명이 폭사하고, 3만명이 중경상을 입고 귀국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몇만명이라는 이 숫자 또한 일본의 시민단체나 인권운동가들이 내놓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수만명의 제 나라 제 민족이 목숨을 잃었는데 0000뿐, 천 자리 숫자도 백 자리 숫자도 없다.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아니 하지 않은 채 우리는 70년을 보냈다.<br/>　지난 5일, 4시간 남짓 합천으로 향하며 동행한 사진작가에게 해인사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해인사는 88고속도로를 타고 고령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 때부터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라고 외우며 합천읍내 어디쯤에 해인사가 있으리라고 믿으며 자란 나는 뭐란 말인가.<br/><br/> 피폭 2세, 일반인보다 심장계통 질환 89배<br/>　해인사가 없는 합천에서 나를 맞은 건 팔팔 끓는 더위였다. 해맑은 햇살이 살갗을 태울 듯 내리쬐고 있었다. 복지회관을 둘러보며 피폭자들을 만나는 첫발을 내디뎠다.<br/>　1996년 한·일 양국 정부가 기금을 지원해 설립된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도 어느새 스무해를 넘긴다. 긴 침묵을 깨고 한·일 양국 정부가 각 40억엔을 출연해 한국 원폭 피해자 복지사업에 합의한 것이 1990년 5월이었다. 그러나 기금관리를 대한적십자사가 맡고 이 복지회관이 문을 열기까지는 또 6년이 흘러야 했다.<br/>　숲 속에 자리한 복지회관은 외관도 내부도 정갈했다.<br/>　‘모든 게 편하고, 집안이나 똑같아. 더 좋아.’<br/>　93살의 유국자 할머니는 그런 말로 감사를 대신했다. 부모를 따라 히로시마에 가서 살다 18살에 결혼한 할머니는 피폭 당시 4살배기 아기의 엄마였다.<br/>　아흔셋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이 할머니는 정정했다. 꽃이 수놓인 하얀 모시적삼을 입고 계시는 할머니는, ‘참 고우세요’ 하는 내 말에 소리 내어 웃었다. 이렇게 예쁜 옷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할머니는 칼칼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샀지. 장에 가서 내가 골랐어.’ 요양원에서 시내까지 하루 세번 셔틀버스가 다닌다고 했다.<br/>　양국 정부가 이뤄낸 결실이다. 그러나 아쉽다. 110명 정원의 복지회관에는 현재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또 110명에 이른다.<br/>　합천읍을 끼고 흐르는 황강변 야외공연장에서 열리고 있는 비핵·평화 한마당으로 향했다.<br/>　예루살렘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은 희생자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뜻의 야드 바??이다. 이번 행사도 ‘원폭 피해자,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br/>　깊어가는 여름밤, ‘만들어요, 핵 없는 세상’ 난장판에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반핵의 노래가 황강변의 하늘로 퍼져나가고 있었다.<br/>　독일 바이마르 시 외곽 부헨발트 유대인 수용소로 연합군이 진입할 때 동행했던 지의 여성 사진기자 마거릿 버크화이트가 찍은 사진 속에는 참새구이 같은 앙상한 몸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다. 침상 둘째 칸 왼쪽에서 여섯째에 누워 있는 사람, 그가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루마니아 태생의 미국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다. 그는 말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그렇기에 묻게 된다.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두번이 아니라 70년 동안 피폭자를 죽여오고 있지 않은가.<br/>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피폭자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생존자는 2584명이다. 평균연령이 82살인 이들은 오늘도 방사능 후유증을 등에 업고 살아간다.<br/>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원폭 피해자의 기초 현황과 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 피폭 1, 2세가 열악한 건강상태와 사회적 소외 속에 있으며, 입법대책과 정밀조사가 절실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놀랍게도 피폭 1세에게 일반인보다 우울증 93배, 조혈계통의 암 70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br/>　피폭 2세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심장 계통 질환 89배, 빈혈 88배, 백혈병 13배를 앓고 있다고 했다.<br/>　이 얼마나 경악할 수치인가. 짧은 기간의 조사가 이러한데도,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나 의료지원이 전무한 채 피폭자들은 고통을 대물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br/>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은 2012년부터 4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자동폐기로 물거품이 되었다. 19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번 국회에서 또 자동폐기 된다면 이 통한을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br/>　2003년부터 원폭 피해자 1세들이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원호수당이 있다. 이것조차 징병 1기생으로 히로시마에 끌려가 피폭당한 곽귀훈 선생이 오랜 세월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다. 과거사 투쟁에 한 획을 그으며 승소를 이끈 곽 선생의 노고는 위대했다. 그가 길고 피나는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나 도움은 전무했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br/>　현재 국내 중고교 역사교과서 29종 가운데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었다는 사실뿐, 한국인 피폭자를 언급한 교과서는 두산동아가 출판한 단 하나라고 한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 피폭자들이 살아낸 ‘참혹한 여정 70년’이다.<br/><br/>　“<span class='quot0'>생활 속 핵에 대해서도 경각심을</span>”<br/>　피폭 2세 환우 한정순(59살)씨. 그녀는 올해도 광복절이 기쁘지 않다. 그녀에게 일제 강점기의 고통은 살아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녀가 들려준 사연, 그 절절함과 기구함은 듣는 내내 그랬듯이 옮겨 적기에도 힘겹다.<br/>　일제 강점기의 수탈로 삶의 기반을 잃고 히로시마로 건너갔던 부모는 히로시마에서 원폭을 만난다. 그때 임신 중이던 어머니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 목숨을 구한 부모는 다시 고향 합천으로 돌아왔지만, 피폭의 고통은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br/>　“제가 2남 4녀의 다섯째입니다. 첫째 오빠는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다리의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피폭 후유증이 저에게도 나타난 거죠.”<br/>　병명도 알 수 없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증상 때문에 직장생활도 접어야 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며 태어난 첫아들이 뇌성마비였다.<br/>　이어서 4형제 모두에게 홍반이라는, 살이 달걀만큼 부어오르는 병고가 덮쳤다. 그 뒤를 이어 ‘대퇴부무혈성괴사증’이라는 기이한 병이 그녀를 산산이 부숴나갔다. 대퇴부의 관절이 무너져 내리며,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뇌성마비 아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다. 걸을 수가 없으니 집안에서도 두 손으로 몸을 끌며 꿈틀거려야 했다. 뇌성마비 아들을 위해 라면을 끓였지만,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방 안에 묻혀 가며 몸을 끌고 다니느라 어느새 불어터진 라면을 보며 통곡하기는 얼마였던가.<br/>　더 어떻게도 삶을 이어갈 여력이 없던 절망의 늪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 93년이었다. 인공관절을 한 몸이 놀랍게도… 일어서고, 걷고, 뛸 수도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의 내 삶은 덤이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살자.<br/>　“정말 내가 아팠기에 나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지요.”<br/>　‘아픈 사람’을 위해 살기로 한 그녀가 찾아 나선 길은 병원의 간병인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아팠기에 나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안다’는 성찰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자신과 같은 피폭 2세 환우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합천을 진원지로 하는 ‘반핵운동’에도 동참했다.<br/>　89살의 몸으로 합천 복지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는 귀국하며 낳은 첫아이가 원폭 때문에 죽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br/>　“원폭 때문이 아니다. 아기는 굶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가슴의 피눈물을 나는 압니다. 피해를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그 피눈물을.”<br/>　피폭자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의 회장을 맡아 동분서주했다. 이 조직은 피폭 2세의 대책을 절규하며 35살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형률씨가 2002년 설립했다.<br/>　그녀는 말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고리원전과 밀양 송전탑, 중국에 증설되는 핵발전소 등을 보면 또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타날까봐 두렵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속의 핵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br/>　육체적인 고통과 장애인 아이를 둔 처절한 삶을 모성애로 함께 극복하고, 개인의 비극과 절망을 넘어서 ‘함께한다’는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갔던 한정순씨. 고통받는 자들끼리 고통을 나누는 것도 치유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절절한 목소리로 묻고 있다. 피폭 2세의 문제를 개인의 비극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br/>　그녀는 지금도 거동이 불가능한 서른살의 아들을 돌보며 살아간다. 합천의 밤이 그렇게 깊어갔다.<br/><br/>　‘망각으로 봉인’된 무관심의 70년<br/>　귀가 멍한 더위 속을 뚫고 자지러지듯 울어대는 매미 소리만이 살아 있는 듯 느껴졌다. 1945년 그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도 매미는 그렇게 울어댔다고 했다.<br/>　‘70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가 복지회관 옆 위령각 앞에서 시작되었다. 위령각에는 1057위의 원폭 희생자 위패가 모셔져 있다. 추모식장 옆으로는 피폭 1세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 그림들이 내걸려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br/>　조촐한 추모제가 진행되는 내내 위령각에 내걸린 ‘해원을 넘어 평화의 언덕으로’라는 슬로건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 위안이 된다. 우리의 뜻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염원이기 때문이다.<br/>　추모제를 마치고 합천을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합천평화의집’으로 향했다. 원폭 피해자를 위한 쉼터로 출발한 이곳은 비핵·평화운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 스님의 열정과 노고가 일궈낸 결실이다.<br/>　2세 환우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사이 이곳 사무총장 이남재씨가 여성 팀원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에 힘이 부친다는 그녀에게 이남재씨는 말하고 있었다.<br/>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힘내시고!’<br/>　그렇다. 냉대와 외면 속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것이 희망의 불씨가 아닌가.<br/>　‘우리들의 망각’과 함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저들의 왜곡’이다. 멸실되기 전에 정확한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해 영원히 남겨야 한다. 합천군이 주도하는 원폭기념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것도 희망의 불씨 아닌가.<br/>　일제 강점기를 다룬 내 소설 의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면면히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 온갖 역사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피폭 1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의 비극을 이어가고 있는 2세들에게, ‘망각으로 봉인’된 냉대와 무관심의 70년을 깨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힘차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한수산/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39.txt

제목: ‘삼성가 비운의 장남’ 이맹희 전 회장 별세  
날짜: 20150814  
기자: 유신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2306583  
본문: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오전 9시39분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폐암 등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씨제이(CJ)그룹이 전했다. 향년 84세.<br/><br/>1931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본과 미국 유학을 거쳐 1962년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에 입사해 삼성물산 부사장, 중앙일보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1967년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자 그룹 총수 역할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은퇴 선언 뒤 1년3개월 만에 삼성그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 회장은 자서전 <호암자전>에서 “<span class='quot0'>맹희에게 그룹 일부를 맡겼는데 6개월도 채 못 돼 그룹이 혼란에 빠졌다</span>”고 썼다.<br/><br/>1970년엔 ‘한국비료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온 차남 고 이창희(전 새한미디어 회장)씨가 아버지가 외화 밀반출, 탈세 등을 저질렀다는 투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이른바 ‘모반사건’이 일어났다. 고인은 1993년 발간한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모반 사건은 동생 창희가 투서한 일인데, 투서에 나도 같이 개입했다고 아버지가 오해한 듯하다. 하지만 나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썼다. 장남과 차남이 아버지 눈밖에 난 상황에서 1976년 삼남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후계자로 지목됐다. 고인은 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해 재기를 노렸으나 실패했고, 1980년대부터는 계속 국외에 체류하며 삼성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br/><br/>2012년 고인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가 남긴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유산분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2월 상고를 포기했다. 민사소송이 한창이던 2012년 말 폐암 판정을 받아 폐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암이 두 차례 재발해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br/><br/>유족으로는 아내인 손복남(82) 씨제이그룹 고문과 슬하에 이재현(55) 씨제이그룹 회장·이미경 부회장, 그리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가 있다. <br/><br/>장남 이재현 회장은 1657억원 탈세 등의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고 있는데다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은 이 회장은 오는 11월까지 주거지가 현재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되는 구속집행정지 상태다.<br/><br/>씨제이그룹은 이날 “<span class='quot1'>고 이맹희 ‘씨제이 명예회장’에 대한 장례식은 씨제이그룹장으로 치를 것이며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의 운구 절차 협의 문제로 장례 시기 및 발인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br/><br/>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0.txt

제목: 엄마는 다리를 못 썼고 아들은 뇌성마비였다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2311404  
본문: ▶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노동과 이후 원폭 피해의 역사를 담은 대하소설 <까마귀>의 한수산(69) 작가가 5~6일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 다녀왔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원폭 피해 1세는 2584명이 남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세들이다. 2002년 숨진 김형률씨의 분투로 만들어진 한국원폭2세환우회의 여러 노력에도 한·일 양국 정부는 여전히 2세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br/><br/><br/><br/>합천 시내를 끼고 흐르는 황강이 물소리도 없이 어둠 속에 싸여가고 있었다. 8월5일 저녁이었다. 황강 강변공원에서는 피폭 70년을 기념하고 비핵·평화를 열망하는 공연이 열리고 있었다.<br/><br/>이른 아침 합천으로 떠나면서 바라본 광화문 거리에는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당신이 역사이고 미래입니다’ 하는 걸개들이, 빌딩 벽을 뒤덮은 대형 태극기와 함께 일렁이고 있었다. 휴가철인데도 고속도로는 막힘없이 뚫려 있었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위대한 여정’이 아니었다. ‘70년의 망각’을 찾아, 지난 70년을 가장 뼈저린 고난으로 견뎌낸 한국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br/><br/>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한국인 4만명이 폭사하고, 3만명이 중경상을 입고 귀국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몇만명이라는 이 숫자 또한 일본의 시민단체나 인권운동가들이 내놓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수만명의 제 나라 제 민족이 목숨을 잃었는데 0000뿐, 천 자리 숫자도 백 자리 숫자도 없다.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아니 하지 않은 채 우리는 70년을 보냈다.<br/><br/>4시간 남짓 합천으로 향하며 동행한 사진작가에게 해인사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해인사는 88고속도로를 타고 고령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 때부터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라고 외우며 합천읍내 어디쯤에 해인사가 있으리라고 믿으며 자란 나는 뭐란 말인가.<br/><br/>해인사가 없는 합천에서 나를 맞은 건 팔팔 끓는 더위였다. 해맑은 햇살이 살갗을 태울 듯 내리쬐고 있었다. 복지회관을 둘러보며 피폭자들을 만나는 첫발을 내디뎠다.<br/><br/>1996년 한·일 양국 정부가 기금을 지원해 설립된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도 어느새 스무해를 넘긴다. 긴 침묵을 깨고 한·일 양국 정부가 각 40억엔을 출연해 한국 원폭 피해자 복지사업에 합의한 것이 1990년 5월이었다. 그러나 기금관리를 대한적십자사가 맡고 이 복지회관이 문을 열기까지는 또 6년이 흘러야 했다.<br/><br/>숲 속에 자리한 복지회관은 외관도 내부도 정갈했다.<br/><br/>‘모든 게 편하고, 집안이나 똑같아. 더 좋아.’<br/><br/>93살의 유국자 할머니는 그런 말로 감사를 대신했다. 부모를 따라 히로시마에 가서 살다 18살에 결혼한 할머니는 피폭 당시 4살배기 아기의 엄마였다.<br/><br/>아흔셋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이 할머니는 정정했다. 꽃이 수놓인 하얀 모시적삼을 입고 계시는 할머니는, ‘참 고우세요’ 하는 내 말에 소리 내어 웃었다. 이렇게 예쁜 옷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할머니는 칼칼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샀지. 장에 가서 내가 골랐어.’ 요양원에서 시내까지 하루 세번 셔틀버스가 다닌다고 했다.<br/><br/>양국 정부가 이뤄낸 결실이다. 그러나 아쉽다. 110명 정원의 복지회관에는 현재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또 110명에 이른다.<br/><br/><br/><br/>피폭 2세, 일반인보다 심장계통 질환 89배<br/><br/>합천읍을 끼고 흐르는 황강변 야외공연장에서 열리고 있는 비핵·평화 한마당으로 향했다.<br/><br/>예루살렘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은 희생자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뜻의 야드 바��이다. 이번 행사도 ‘원폭 피해자,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br/><br/>깊어가는 여름밤, ‘만들어요, 핵 없는 세상’ 난장판에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반핵의 노래가 황강변의 하늘로 퍼져나가고 있었다.<br/><br/>독일 바이마르 시 외곽 부헨발트 유대인 수용소로 연합군이 진입할 때 동행했던 <라이프>지의 여성 사진기자 마거릿 버크화이트가 찍은 사진 속에는 참새구이 같은 앙상한 몸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다. 침상 둘째 칸 왼쪽에서 여섯째에 누워 있는 사람, 그가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루마니아 태생의 미국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다. 그는 말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그렇기에 묻게 된다.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두번이 아니라 70년 동안 피폭자를 죽여오고 있지 않은가.<br/><br/>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피폭자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생존자는 2584명이다. 평균연령이 82살인 이들은 오늘도 방사능 후유증을 등에 업고 살아간다.<br/><br/>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원폭 피해자의 기초 현황과 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 피폭 1, 2세가 열악한 건강상태와 사회적 소외 속에 있으며, 입법대책과 정밀조사가 절실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놀랍게도 피폭 1세에게 일반인보다 우울증 93배, 조혈계통의 암 70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br/><br/>피폭 2세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심장 계통 질환 89배, 빈혈 88배, 백혈병 13배를 앓고 있다고 했다.<br/><br/>이 얼마나 경악할 수치인가. 짧은 기간의 조사가 이러한데도,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나 의료지원이 전무한 채 피폭자들은 고통을 대물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br/><br/>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은 2012년부터 4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자동폐기로 물거품이 되었다. 19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번 국회에서 또 자동폐기 된다면 이 통한을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br/><br/>2003년부터 원폭 피해자 1세들이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원호수당이 있다. 이것조차 징병 1기생으로 히로시마에 끌려가 피폭당한 곽귀훈 선생이 오랜 세월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다. 과거사 투쟁에 한 획을 그으며 승소를 이끈 곽 선생의 노고는 위대했다. 그가 길고 피나는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나 도움은 전무했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br/><br/>현재 국내 중고교 역사교과서 29종 가운데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었다는 사실뿐, 한국인 피폭자를 언급한 교과서는 두산동아가 출판한 단 하나라고 한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 피폭자들이 살아낸 ‘참혹한 여정 70년’이다.<br/><br/><br/><br/>한국 피폭자 수는 세계서 두번째 <br/>현재 생존자 2584명, 평균연령 82살 <br/>70년을 뼈저린 고난으로 견뎌낸 <br/>그들을 70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가 <br/>열린 합천의 복지회관에서 만났다<br/><br/>대퇴부무혈성괴사증이라는 병으로 <br/>인생 부서진 피폭2세 한정순씨 <br/>뇌성마비 아들까지 돌보는 이중고 <br/>절망 늪에서 수술받아 일어선 뒤 <br/>다른 피폭2세 환우 위한 활동 시작<br/><br/><br/><br/>“<span class='quot0'>원폭 때문이 아니다, 굶어 죽었다</span>”<br/><br/>피폭 2세 환우 한정순(59살)씨. 그녀는 올해도 광복절이 기쁘지 않다. 그녀에게 일제 강점기의 고통은 살아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녀가 들려준 사연, 그 절절함과 기구함은 듣는 내내 그랬듯이 옮겨 적기에도 힘겹다.<br/><br/>일제 강점기의 수탈로 삶의 기반을 잃고 히로시마로 건너갔던 부모는 히로시마에서 원폭을 만난다. 그때 임신 중이던 어머니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 목숨을 구한 부모는 다시 고향 합천으로 돌아왔지만, 피폭의 고통은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br/><br/>“제가 2남 4녀의 다섯째입니다. 첫째 오빠는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다리의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피폭 후유증이 저에게도 나타난 거죠.”<br/><br/>병명도 알 수 없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증상 때문에 직장생활도 접어야 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며 태어난 첫아들이 뇌성마비였다.<br/><br/>이어서 4형제 모두에게 홍반이라는, 살이 달걀만큼 부어오르는 병고가 덮쳤다. 그 뒤를 이어 ‘대퇴부무혈성괴사증’이라는 기이한 병이 그녀를 산산이 부숴나갔다. 대퇴부의 관절이 무너져 내리며,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뇌성마비 아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다. 걸을 수가 없으니 집안에서도 두 손으로 몸을 끌며 꿈틀거려야 했다. 뇌성마비 아들을 위해 라면을 끓였지만,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방 안에 묻혀 가며 몸을 끌고 다니느라 어느새 불어터진 라면을 보며 통곡하기는 얼마였던가.<br/><br/>더 어떻게도 삶을 이어갈 여력이 없던 절망의 늪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 93년이었다. 인공관절을 한 몸이 놀랍게도… 일어서고, 걷고, 뛸 수도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의 내 삶은 덤이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살자.<br/><br/>“정말 내가 아팠기에 나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지요.”<br/><br/>‘아픈 사람’을 위해 살기로 한 그녀가 찾아 나선 길은 병원의 간병인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아팠기에 나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안다’는 성찰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자신과 같은 피폭 2세 환우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합천을 진원지로 하는 ‘반핵운동’에도 동참했다.<br/><br/>89살의 몸으로 합천 복지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는 귀국하며 낳은 첫아이가 원폭 때문에 죽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br/><br/>“원폭 때문이 아니다. 아기는 굶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가슴의 피눈물을 나는 압니다. 피해를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그 피눈물을.”<br/><br/>피폭자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의 회장을 맡아 동분서주했다. 이 조직은 피폭 2세의 대책을 절규하며 35살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형률씨가 2002년 설립했다.<br/><br/>그녀는 말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고리원전과 밀양 송전탑, 중국에 증설되는 핵발전소 등을 보면 또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타날까봐 두렵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속의 핵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br/><br/>육체적인 고통과 장애인 아이를 둔 처절한 삶을 모성애로 함께 극복하고, 개인의 비극과 절망을 넘어서 ‘함께한다’는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갔던 한정순씨. 고통받는 자들끼리 고통을 나누는 것도 치유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절절한 목소리로 묻고 있다. 피폭 2세의 문제를 개인의 비극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br/><br/>그녀는 지금도 거동이 불가능한 서른살의 아들을 돌보며 살아간다. 합천의 밤이 그렇게 깊어갔다.<br/><br/><br/><br/>‘망각으로 봉인’된 무관심의 70년<br/><br/>귀가 멍한 더위 속을 뚫고 자지러지듯 울어대는 매미 소리만이 살아 있는 듯 느껴졌다. 1945년 그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도 매미는 그렇게 울어댔다고 했다.<br/><br/>‘70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가 복지회관 옆 위령각 앞에서 시작되었다. 위령각에는 1057위의 원폭 희생자 위패가 모셔져 있다. 추모식장 옆으로는 피폭 1세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 그림들이 내걸려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br/><br/>조촐한 추모제가 진행되는 내내 위령각에 내걸린 ‘해원을 넘어 평화의 언덕으로’라는 슬로건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 위안이 된다. 우리의 뜻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염원이기 때문이다.<br/><br/>추모제를 마치고 합천을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합천평화의집’으로 향했다. 원폭 피해자를 위한 쉼터로 출발한 이곳은 비핵·평화운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 스님의 열정과 노고가 일궈낸 결실이다.<br/><br/>2세 환우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사이 이곳 사무총장 이남재씨가 여성 팀원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에 힘이 부친다는 그녀에게 이남재씨는 말하고 있었다.<br/><br/>‘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힘내시고!’<br/><br/>그렇다. 냉대와 외면 속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것이 희망의 불씨가 아닌가.<br/><br/>‘우리들의 망각’과 함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저들의 왜곡’이다. 멸실되기 전에 정확한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해 영원히 남겨야 한다. 합천군이 주도하는 원폭기념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것도 희망의 불씨 아닌가.<br/><br/>일제 강점기를 다룬 내 소설 <까마귀>의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면면히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 온갖 역사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피폭 1세, 아직도 끝나지 않은 <까마귀>의 비극을 이어가고 있는 2세들에게, ‘망각으로 봉인’된 냉대와 무관심의 70년을 깨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힘차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br/><br/>한수산/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1.txt

제목: ‘삼성가 비운의 장남’ 이맹희 전 회장 별세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410018243843  
본문: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오전 9시39분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폐암 등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씨제이(CJ)그룹이 전했다. 향년 84세.<br/><br/>1931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본과 미국 유학을 거쳐 1962년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에 입사해 삼성물산 부사장, 중앙일보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1967년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자 그룹 총수 역할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은퇴 선언 뒤 1년3개월 만에 삼성그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 회장은 자서전 <호암자전>에서 “<span class='quot0'>맹희에게 그룹 일부를 맡겼는데 6개월도 채 못 돼 그룹이 혼란에 빠졌다</span>”고 썼다.<br/><br/>1970년엔 ‘한국비료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온 차남 고 이창희(전 새한미디어 회장)씨가 아버지가 외화 밀반출, 탈세 등을 저질렀다는 투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이른바 ‘모반사건’이 일어났다. 고인은 1993년 발간한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모반 사건은 동생 창희가 투서한 일인데, 투서에 나도 같이 개입했다고 아버지가 오해한 듯하다. 하지만 나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썼다. 장남과 차남이 아버지 눈밖에 난 상황에서 1976년 삼남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후계자로 지목됐다. 고인은 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해 재기를 노렸으나 실패했고, 1980년대부터는 계속 국외에 체류하며 삼성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br/><br/>2012년 고인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가 남긴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유산분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2월 상고를 포기했다. 민사소송이 한창이던 2012년 말 폐암 판정을 받아 폐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암이 두 차례 재발해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br/><br/>유족으로는 아내인 손복남(82) 씨제이그룹 고문과 슬하에 이재현(55) 씨제이그룹 회장·이미경 부회장, 그리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가 있다. <br/><br/>장남 이재현 회장은 1657억원 탈세 등의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고 있는데다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은 이 회장은 오는 11월까지 주거지가 현재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되는 구속집행정지 상태다.<br/><br/>씨제이그룹은 이날 “<span class='quot1'>고 이맹희 ‘씨제이 명예회장’에 대한 장례식은 씨제이그룹장으로 치를 것이며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의 운구 절차 협의 문제로 장례 시기 및 발인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br/><br/>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2.txt

제목: 엄마는 다리를 못 썼고 아들은 뇌성마비였다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410018243851  
본문: ▶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노동과 이후 원폭 피해의 역사를 담은 대하소설 <까마귀>의 한수산(69) 작가가 5~6일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 다녀왔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원폭 피해 1세는 2584명이 남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세들이다. 2002년 숨진 김형률씨의 분투로 만들어진 한국원폭2세환우회의 여러 노력에도 한·일 양국 정부는 여전히 2세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br/><br/><br/><br/>합천 시내를 끼고 흐르는 황강이 물소리도 없이 어둠 속에 싸여가고 있었다. 8월5일 저녁이었다. 황강 강변공원에서는 피폭 70년을 기념하고 비핵·평화를 열망하는 공연이 열리고 있었다.<br/><br/>이른 아침 합천으로 떠나면서 바라본 광화문 거리에는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당신이 역사이고 미래입니다’ 하는 걸개들이, 빌딩 벽을 뒤덮은 대형 태극기와 함께 일렁이고 있었다. 휴가철인데도 고속도로는 막힘없이 뚫려 있었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위대한 여정’이 아니었다. ‘70년의 망각’을 찾아, 지난 70년을 가장 뼈저린 고난으로 견뎌낸 한국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br/><br/>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한국인 4만명이 폭사하고, 3만명이 중경상을 입고 귀국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몇만명이라는 이 숫자 또한 일본의 시민단체나 인권운동가들이 내놓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수만명의 제 나라 제 민족이 목숨을 잃었는데 0000뿐, 천 자리 숫자도 백 자리 숫자도 없다.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아니 하지 않은 채 우리는 70년을 보냈다.<br/><br/>4시간 남짓 합천으로 향하며 동행한 사진작가에게 해인사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해인사는 88고속도로를 타고 고령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 때부터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라고 외우며 합천읍내 어디쯤에 해인사가 있으리라고 믿으며 자란 나는 뭐란 말인가.<br/><br/>해인사가 없는 합천에서 나를 맞은 건 팔팔 끓는 더위였다. 해맑은 햇살이 살갗을 태울 듯 내리쬐고 있었다. 복지회관을 둘러보며 피폭자들을 만나는 첫발을 내디뎠다.<br/><br/>1996년 한·일 양국 정부가 기금을 지원해 설립된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도 어느새 스무해를 넘긴다. 긴 침묵을 깨고 한·일 양국 정부가 각 40억엔을 출연해 한국 원폭 피해자 복지사업에 합의한 것이 1990년 5월이었다. 그러나 기금관리를 대한적십자사가 맡고 이 복지회관이 문을 열기까지는 또 6년이 흘러야 했다.<br/><br/>숲 속에 자리한 복지회관은 외관도 내부도 정갈했다.<br/><br/>‘모든 게 편하고, 집안이나 똑같아. 더 좋아.’<br/><br/>93살의 유국자 할머니는 그런 말로 감사를 대신했다. 부모를 따라 히로시마에 가서 살다 18살에 결혼한 할머니는 피폭 당시 4살배기 아기의 엄마였다.<br/><br/>아흔셋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이 할머니는 정정했다. 꽃이 수놓인 하얀 모시적삼을 입고 계시는 할머니는, ‘참 고우세요’ 하는 내 말에 소리 내어 웃었다. 이렇게 예쁜 옷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할머니는 칼칼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샀지. 장에 가서 내가 골랐어.’ 요양원에서 시내까지 하루 세번 셔틀버스가 다닌다고 했다.<br/><br/>양국 정부가 이뤄낸 결실이다. 그러나 아쉽다. 110명 정원의 복지회관에는 현재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또 110명에 이른다.<br/><br/><br/><br/>피폭 2세, 일반인보다 심장계통 질환 89배<br/><br/>합천읍을 끼고 흐르는 황강변 야외공연장에서 열리고 있는 비핵·평화 한마당으로 향했다.<br/><br/>예루살렘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은 희생자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뜻의 야드 바��이다. 이번 행사도 ‘원폭 피해자,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br/><br/>깊어가는 여름밤, ‘만들어요, 핵 없는 세상’ 난장판에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반핵의 노래가 황강변의 하늘로 퍼져나가고 있었다.<br/><br/>독일 바이마르 시 외곽 부헨발트 유대인 수용소로 연합군이 진입할 때 동행했던 <라이프>지의 여성 사진기자 마거릿 버크화이트가 찍은 사진 속에는 참새구이 같은 앙상한 몸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다. 침상 둘째 칸 왼쪽에서 여섯째에 누워 있는 사람, 그가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루마니아 태생의 미국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다. 그는 말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그렇기에 묻게 된다.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두번이 아니라 70년 동안 피폭자를 죽여오고 있지 않은가.<br/><br/>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피폭자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생존자는 2584명이다. 평균연령이 82살인 이들은 오늘도 방사능 후유증을 등에 업고 살아간다.<br/><br/>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원폭 피해자의 기초 현황과 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 피폭 1, 2세가 열악한 건강상태와 사회적 소외 속에 있으며, 입법대책과 정밀조사가 절실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놀랍게도 피폭 1세에게 일반인보다 우울증 93배, 조혈계통의 암 70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br/><br/>피폭 2세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심장 계통 질환 89배, 빈혈 88배, 백혈병 13배를 앓고 있다고 했다.<br/><br/>이 얼마나 경악할 수치인가. 짧은 기간의 조사가 이러한데도,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나 의료지원이 전무한 채 피폭자들은 고통을 대물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br/><br/>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은 2012년부터 4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자동폐기로 물거품이 되었다. 19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번 국회에서 또 자동폐기 된다면 이 통한을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br/><br/>2003년부터 원폭 피해자 1세들이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원호수당이 있다. 이것조차 징병 1기생으로 히로시마에 끌려가 피폭당한 곽귀훈 선생이 오랜 세월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다. 과거사 투쟁에 한 획을 그으며 승소를 이끈 곽 선생의 노고는 위대했다. 그가 길고 피나는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나 도움은 전무했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br/><br/>현재 국내 중고교 역사교과서 29종 가운데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었다는 사실뿐, 한국인 피폭자를 언급한 교과서는 두산동아가 출판한 단 하나라고 한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갔다. 피폭자들이 살아낸 ‘참혹한 여정 70년’이다.<br/><br/><br/><br/>한국 피폭자 수는 세계서 두번째 <br/>현재 생존자 2584명, 평균연령 82살 <br/>70년을 뼈저린 고난으로 견뎌낸 <br/>그들을 70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가 <br/>열린 합천의 복지회관에서 만났다<br/><br/>대퇴부무혈성괴사증이라는 병으로 <br/>인생 부서진 피폭2세 한정순씨 <br/>뇌성마비 아들까지 돌보는 이중고 <br/>절망 늪에서 수술받아 일어선 뒤 <br/>다른 피폭2세 환우 위한 활동 시작<br/><br/><br/><br/>“<span class='quot0'>원폭 때문이 아니다, 굶어 죽었다</span>”<br/><br/>피폭 2세 환우 한정순(59살)씨. 그녀는 올해도 광복절이 기쁘지 않다. 그녀에게 일제 강점기의 고통은 살아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녀가 들려준 사연, 그 절절함과 기구함은 듣는 내내 그랬듯이 옮겨 적기에도 힘겹다.<br/><br/>일제 강점기의 수탈로 삶의 기반을 잃고 히로시마로 건너갔던 부모는 히로시마에서 원폭을 만난다. 그때 임신 중이던 어머니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 목숨을 구한 부모는 다시 고향 합천으로 돌아왔지만, 피폭의 고통은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br/><br/>“제가 2남 4녀의 다섯째입니다. 첫째 오빠는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다리의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피폭 후유증이 저에게도 나타난 거죠.”<br/><br/>병명도 알 수 없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증상 때문에 직장생활도 접어야 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며 태어난 첫아들이 뇌성마비였다.<br/><br/>이어서 4형제 모두에게 홍반이라는, 살이 달걀만큼 부어오르는 병고가 덮쳤다. 그 뒤를 이어 ‘대퇴부무혈성괴사증’이라는 기이한 병이 그녀를 산산이 부숴나갔다. 대퇴부의 관절이 무너져 내리며,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뇌성마비 아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다. 걸을 수가 없으니 집안에서도 두 손으로 몸을 끌며 꿈틀거려야 했다. 뇌성마비 아들을 위해 라면을 끓였지만,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방 안에 묻혀 가며 몸을 끌고 다니느라 어느새 불어터진 라면을 보며 통곡하기는 얼마였던가.<br/><br/>더 어떻게도 삶을 이어갈 여력이 없던 절망의 늪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 93년이었다. 인공관절을 한 몸이 놀랍게도… 일어서고, 걷고, 뛸 수도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의 내 삶은 덤이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살자.<br/><br/>“정말 내가 아팠기에 나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지요.”<br/><br/>‘아픈 사람’을 위해 살기로 한 그녀가 찾아 나선 길은 병원의 간병인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아팠기에 나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안다’는 성찰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자신과 같은 피폭 2세 환우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합천을 진원지로 하는 ‘반핵운동’에도 동참했다.<br/><br/>89살의 몸으로 합천 복지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는 귀국하며 낳은 첫아이가 원폭 때문에 죽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br/><br/>“원폭 때문이 아니다. 아기는 굶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가슴의 피눈물을 나는 압니다. 피해를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그 피눈물을.”<br/><br/>피폭자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의 회장을 맡아 동분서주했다. 이 조직은 피폭 2세의 대책을 절규하며 35살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형률씨가 2002년 설립했다.<br/><br/>그녀는 말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고리원전과 밀양 송전탑, 중국에 증설되는 핵발전소 등을 보면 또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타날까봐 두렵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속의 핵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br/><br/>육체적인 고통과 장애인 아이를 둔 처절한 삶을 모성애로 함께 극복하고, 개인의 비극과 절망을 넘어서 ‘함께한다’는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갔던 한정순씨. 고통받는 자들끼리 고통을 나누는 것도 치유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절절한 목소리로 묻고 있다. 피폭 2세의 문제를 개인의 비극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br/><br/>그녀는 지금도 거동이 불가능한 서른살의 아들을 돌보며 살아간다. 합천의 밤이 그렇게 깊어갔다.<br/><br/><br/><br/>‘망각으로 봉인’된 무관심의 70년<br/><br/>귀가 멍한 더위 속을 뚫고 자지러지듯 울어대는 매미 소리만이 살아 있는 듯 느껴졌다. 1945년 그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도 매미는 그렇게 울어댔다고 했다.<br/><br/>‘70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가 복지회관 옆 위령각 앞에서 시작되었다. 위령각에는 1057위의 원폭 희생자 위패가 모셔져 있다. 추모식장 옆으로는 피폭 1세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 그림들이 내걸려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br/><br/>조촐한 추모제가 진행되는 내내 위령각에 내걸린 ‘해원을 넘어 평화의 언덕으로’라는 슬로건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 위안이 된다. 우리의 뜻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염원이기 때문이다.<br/><br/>추모제를 마치고 합천을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합천평화의집’으로 향했다. 원폭 피해자를 위한 쉼터로 출발한 이곳은 비핵·평화운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 스님의 열정과 노고가 일궈낸 결실이다.<br/><br/>2세 환우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사이 이곳 사무총장 이남재씨가 여성 팀원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에 힘이 부친다는 그녀에게 이남재씨는 말하고 있었다.<br/><br/>‘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힘내시고!’<br/><br/>그렇다. 냉대와 외면 속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것이 희망의 불씨가 아닌가.<br/><br/>‘우리들의 망각’과 함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저들의 왜곡’이다. 멸실되기 전에 정확한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해 영원히 남겨야 한다. 합천군이 주도하는 원폭기념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것도 희망의 불씨 아닌가.<br/><br/>일제 강점기를 다룬 내 소설 <까마귀>의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면면히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 온갖 역사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피폭 1세, 아직도 끝나지 않은 <까마귀>의 비극을 이어가고 있는 2세들에게, ‘망각으로 봉인’된 냉대와 무관심의 70년을 깨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힘차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br/><br/>한수산/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3.txt

제목: ‘영혼없는 지식’ 주입해선 실천하는 지성 못 키워  
날짜: 20150812  
기자: 진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1634986  
본문: ‘질소과자 뗏목’으로 한강 건너기, 생맥주 도량형 바로잡기, 국어사전 어의 정정, 한국음식사전 만들기.<br/><br/> 다소 엉뚱한 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관심과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질소과자 뗏목’의 경우 과대포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흥미롭고 엉뚱한 시도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들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경희대가 약 5년 전에 개설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이다. <br/><br/> 시민교육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다듬어온 교육과정의 꽃이다.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활동에 나선다. 앞서 열거한 ‘질소과자 뗏목’ 등도 현장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익힌다. 시민교육 수업을 들었던 최지웅(무역학과 12학번)씨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때 비로소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고 말했다.<br/><br/> 시민교육에는 교양교육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다. 유정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서울캠퍼스 학장은 “<span class='quot0'>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는 교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여기서 말하는 교양은 대학 졸업 후에도 평생 자신을 지켜주는 무형의 지적 자산</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 “교양교육은 ‘영혼 없는 지식’을 전수해 ‘똑똑한 양떼’를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이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br/><br/> 2011년 출범한 이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대학사회 안팎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국내 많은 대학들이 미뤄왔던 교양교육 개편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교양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교양교육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br/><br/> 후마니타스칼리지 과정은 크게 중핵교과·배분이수교과·자유이수교과·기초교과로 구성돼 있다. 중핵교과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를 추구한다. 배분이수교과를 통해서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예술 및 체육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교과에는 시민교육을 비롯해 글쓰기·영어 등이 포함돼 있다. <br/><br/> 이밖에도 ‘아레테’, ‘이스탄불 프로젝트’ 등이 후마니타스칼리지 프로그램의 보폭을 넓혀주는 중이다. 아레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터디그룹이다. 중핵교과를 좀더 깊이 있게 학습하기 위해 나왔다. 학생들은 스스로 글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법을 배운다. 에세이 공모전, 북콘서트,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자체 행사도 펼친다. 이스탄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세계 문명 충돌의 현장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br/><br/>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출범 5년을 맞아 ‘후마니타스칼리지 2020’이라는 이름의 발전계획을 짜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축적해둔 교양교육 혁신 모델을 교과과정, 교수학습, 사회적 공유의 관점에서 계승,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시작한 일이다. 학교 쪽은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양교육 모델을 만들어 21세기 지구공동사회를 이끌어갈 실천적·공생적·창조적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 최용락 객원기자 edu@hanedui.com <br/><br/> <br/><br/><br/><br/>의학·인문학 손잡고 ‘사람 위한’ 병원 만든다<br/><br/><br/><br/>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br/><br/><br/><br/>“<span class='quot1'>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문화</span>”라는 말이 있다. 의학은 보편타당성을 추구하는 학문이지만, 의료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환자가 완치를 하기까지는 그가 겪고 있는 인간적·사회적 갈등은 물론이고 때로는 의사의 태도나 병원의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학과 인문학이 만나야 하는 이유다.<br/><br/>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이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설립에 나서며 이런 만남을 주선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등을 통해 경희대가 쌓아온 인문학적 역량을 암치료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병원을 만든다는 게 목표다.<br/><br/>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암을 넘어선 삶’을 목표로 ‘인간적인 의학’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환자 개인에게 최적의 진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가족 관계 및 사회적 능력을 강화하는 진료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br/><br/> 이를 위해 진료프로그램에 더해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유프로그램은 △상담(직업 및 인생 상담) △관광(박물관 및 힐링투어길) △자가관리(건강마사지, 암환우 네트워크) △뷰티클래스(이미지 강화) △마음치유(기공, 명상, 웃음치료, 치유동물) △예술치료(표현심리치료, 음악치료, 마술치료, 힐링댄스, 영화치료) △영양 관리 및 교육(쿠킹클래스, 식이요법)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음악대학, 체육대학 등의 학술 역량을 치료와 결합한 ‘다학제 협진 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br/><br/> 이와 더불어 환자 가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 센터’도 설립한다. 정밀의학을 위한 ‘정밀 암 치료센터’와 ‘정밀 종양학 연구센터’도 세운다. 또한 최소 침습적 수술과 유전적 소인 확인을 위한 정밀 진단 및 치료법을 병행한다. 치료 전 모든 과정을 7일 안에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진료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옆에 자리할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800평 규모의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br/><br/> 최용락 객원기자 <br/><br/><br/><br/> <br/><br/><br/><br/>‘슬라보이 지제크’ 등 세계 석학 함께하기도<br/><br/><br/><br/>우수 교원 적극 유치 <br/><br/><br/><br/>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교원’이다. 교원의 역량이 연구·교육 등 핵심 기능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경희대는 그간 세계적 명문사학으로의 도약과 탁월한 학술문화 조성을 목표로 우수교원 채용에 힘을 기울여왔다.<br/><br/><br/><br/>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채용 규모다. 경희대의 2015년 교원 수는 서울캠퍼스 945명, 국제캠퍼스 476명으로 총 1421명이다. 2007년에 비해 20% 정도 증가했다. 지난 8년간 매년 평균 100여명, 총 834명의 교원을 채용한 결과다.<br/><br/> 올해도 서울 및 국제 캠퍼스 56개 학과에서 정년트랙 51명, 비정년트랙 5명, 총 56명의 교원을 충원한다. 채용 관련 원서 접수는 오는 9월1일부터 8일까지 한다. 향후 10년 동안 연계협력 클러스터 등 전략 분야에서도 꾸준히 교원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br/><br/> 경희대는 그간 외국 유명 석학 초빙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에미넌트 스칼라’(ES: Eminent Scholar)와 ‘인터내셔널 스칼라’(IS: International Scholar)를 통해서다. 에미넌트 스칼라는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학술활동과 국제교류 증진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학자 또는 실천가를 초빙하는 제도다. 존 아이켄베리, 김의신, 폴 케네디, 슬라보이 지제크 등이 에미넌트 스칼라를 통해 경희대를 거쳐 갔다.<br/><br/> 인터내셔널 스칼라는 공동연구, 학생교육, 연계협력 및 국제교류 증진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학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초빙된 교원은 경희대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와 논문 지도를 수행한다.<br/><br/> 최용락 객원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4.txt

제목: 열나고 목에 멍울 잡히면 림프절염 의심  
날짜: 2015081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2100000001  
본문: 30대 중반 여성인 김아무개씨는 최근 감기몸살 증상처럼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다. 그동안 업무가 많아 수면량이 부족했고 스트레스도 심했던 탓에 감기려니 하고 며칠 쉬는 데 그쳤다. 그 뒤 목에 멍울이 잡혔다. 혹시 갑상선암은 아닌가 하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았다. 이 질환은 한해 약 67만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편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특히 20~30대 여성이 잘 걸린다. 관련 전문의의 도움말로 급성 림프절염에 대해 알아본다.<br/>　■ 환자 5명 중 1명은 20~30대 여성 병원에서 흔히 ‘임파선(림프절)이 커졌다’는 설명을 하면 대개 면역 기능을 하는 림프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부은 것이다. 림프절이 커진 건 림프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암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감별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흔한 경우인 급성 림프절염은 나이대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약 40만2천명의 여성 환자와 26만5천명의 남성 환자가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5배쯤 많은 셈이다. 특히 젊은 여성 환자가 많아 20~30대 여성이 지난해 전체 환자의 22%를 차지했다. 하지만 림프절염이 여성에게 더 자주 생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급성 림프절염의 원인균은 각종 바이러스와 결핵균이 대부분이다.<br/>　■ 젊은 여성 동양인에게 많이 생기는 기쿠치병 비교적 접촉하기 쉬운 바이러스인 헤르페스바이러스나 엡스타인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뒤 목 주변의 림프절이 부으면 기쿠치병을 의심할 수 있다. 이 질환은 1970년대 초반 일본인 의사 기쿠치가 의학계에 최초로 보고해 명명됐다. 이 질환 역시 30살 이하 젊은 동양인에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4배쯤 더 많다. 주된 증상은 감기와 같은 발열·피로감·관절통이며,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거나 밤에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구토나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해당 림프절을 일부 떼어낸 뒤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발열이 있으면 이를 낮추는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치료를 하게 된다. 대부분 한달 안에 좋아지지만 몇 달씩 지속되기도 한다.<br/>　■ 결핵균도 림프절염의 원인 림프절염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결핵균이다. 이른바 ‘결핵성 림프절염’인데, 통증이 없는 멍울이 천천히 커지면서 미열을 동반하는 증상이 대부분이다. 역시 림프절을 일부 떼어내 시행하는 조직검사가 필수다. 다만 일부 환자는 폐결핵을 동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사도 요구된다. 결핵성 림프절염도 폐결핵과 마찬가지로 항결핵제 치료를 여섯달 이상 받아야 한다. 결핵성 림프절염은 기쿠치병과 달리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염증이 심해져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장기로 결핵이 퍼지기도 한다. 결핵균은 폐는 물론이고 뇌나 골수 등으로도 퍼질 수 있는 탓에 조기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다.<br/>　■ 드물지만 암 때문에 림프절 커질 수 있어 목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커졌을 때 드물지만 암이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암세포가 림프계를 통해 전이되면서 림프절이 부을 수 있어서다. 목에 림프절염이 생기면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이 퍼지면서 생길 수 있고, 쇄골 부분의 림프절이 부었으면 폐암이나 식도암·위암·췌장암 등이 원인일 수 있다. 역시 흔하지는 않지만 림프계 자체의 악성종양인 림프종도 림프절 비대의 원인이다. 암이 원인이 돼 림프절이 발생하면 크기가 보통 2㎝ 이상으로 커지며 단단한 멍울이 한달 이상 나타나게 된다. 염증이 아니어서 열은 없으며 만져도 아프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젊은층보다는 노인이나 흡연자한테 림프절 비대가 나타났을 때 암일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 이 역시 림프절을 떼어내 조직검사를 해서 진단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도움말: 이재갑 한림대의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5.txt

제목: ‘영혼없는 지식’ 주입해선 실천하는 지성 못 키워  
날짜: 2015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210018220042  
본문: ‘질소과자 뗏목’으로 한강 건너기, 생맥주 도량형 바로잡기, 국어사전 어의 정정, 한국음식사전 만들기.<br/><br/> 다소 엉뚱한 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관심과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질소과자 뗏목’의 경우 과대포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흥미롭고 엉뚱한 시도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들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경희대가 약 5년 전에 개설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이다. <br/><br/> 시민교육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다듬어온 교육과정의 꽃이다.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활동에 나선다. 앞서 열거한 ‘질소과자 뗏목’ 등도 현장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익힌다. 시민교육 수업을 들었던 최지웅(무역학과 12학번)씨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때 비로소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고 말했다.<br/><br/> 시민교육에는 교양교육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다. 유정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서울캠퍼스 학장은 “<span class='quot0'>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는 교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여기서 말하는 교양은 대학 졸업 후에도 평생 자신을 지켜주는 무형의 지적 자산</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 “교양교육은 ‘영혼 없는 지식’을 전수해 ‘똑똑한 양떼’를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이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br/><br/> 2011년 출범한 이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대학사회 안팎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국내 많은 대학들이 미뤄왔던 교양교육 개편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교양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교양교육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br/><br/> 후마니타스칼리지 과정은 크게 중핵교과·배분이수교과·자유이수교과·기초교과로 구성돼 있다. 중핵교과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를 추구한다. 배분이수교과를 통해서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예술 및 체육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교과에는 시민교육을 비롯해 글쓰기·영어 등이 포함돼 있다. <br/><br/> 이밖에도 ‘아레테’, ‘이스탄불 프로젝트’ 등이 후마니타스칼리지 프로그램의 보폭을 넓혀주는 중이다. 아레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터디그룹이다. 중핵교과를 좀더 깊이 있게 학습하기 위해 나왔다. 학생들은 스스로 글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법을 배운다. 에세이 공모전, 북콘서트,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자체 행사도 펼친다. 이스탄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세계 문명 충돌의 현장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br/><br/>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출범 5년을 맞아 ‘후마니타스칼리지 2020’이라는 이름의 발전계획을 짜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축적해둔 교양교육 혁신 모델을 교과과정, 교수학습, 사회적 공유의 관점에서 계승,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시작한 일이다. 학교 쪽은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양교육 모델을 만들어 21세기 지구공동사회를 이끌어갈 실천적·공생적·창조적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 최용락 객원기자 edu@hanedui.com <br/><br/> <br/><br/><br/><br/>의학·인문학 손잡고 ‘사람 위한’ 병원 만든다<br/><br/><br/><br/>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br/><br/><br/><br/>“<span class='quot1'>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문화</span>”라는 말이 있다. 의학은 보편타당성을 추구하는 학문이지만, 의료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환자가 완치를 하기까지는 그가 겪고 있는 인간적·사회적 갈등은 물론이고 때로는 의사의 태도나 병원의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학과 인문학이 만나야 하는 이유다.<br/><br/>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이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설립에 나서며 이런 만남을 주선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등을 통해 경희대가 쌓아온 인문학적 역량을 암치료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병원을 만든다는 게 목표다.<br/><br/>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암을 넘어선 삶’을 목표로 ‘인간적인 의학’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환자 개인에게 최적의 진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가족 관계 및 사회적 능력을 강화하는 진료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br/><br/> 이를 위해 진료프로그램에 더해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유프로그램은 △상담(직업 및 인생 상담) △관광(박물관 및 힐링투어길) △자가관리(건강마사지, 암환우 네트워크) △뷰티클래스(이미지 강화) △마음치유(기공, 명상, 웃음치료, 치유동물) △예술치료(표현심리치료, 음악치료, 마술치료, 힐링댄스, 영화치료) △영양 관리 및 교육(쿠킹클래스, 식이요법)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음악대학, 체육대학 등의 학술 역량을 치료와 결합한 ‘다학제 협진 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br/><br/> 이와 더불어 환자 가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 센터’도 설립한다. 정밀의학을 위한 ‘정밀 암 치료센터’와 ‘정밀 종양학 연구센터’도 세운다. 또한 최소 침습적 수술과 유전적 소인 확인을 위한 정밀 진단 및 치료법을 병행한다. 치료 전 모든 과정을 7일 안에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진료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옆에 자리할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800평 규모의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br/><br/> 최용락 객원기자 <br/><br/><br/><br/> <br/><br/><br/><br/>‘슬라보이 지제크’ 등 세계 석학 함께하기도<br/><br/><br/><br/>우수 교원 적극 유치 <br/><br/><br/><br/>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교원’이다. 교원의 역량이 연구·교육 등 핵심 기능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경희대는 그간 세계적 명문사학으로의 도약과 탁월한 학술문화 조성을 목표로 우수교원 채용에 힘을 기울여왔다.<br/><br/><br/><br/>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채용 규모다. 경희대의 2015년 교원 수는 서울캠퍼스 945명, 국제캠퍼스 476명으로 총 1421명이다. 2007년에 비해 20% 정도 증가했다. 지난 8년간 매년 평균 100여명, 총 834명의 교원을 채용한 결과다.<br/><br/> 올해도 서울 및 국제 캠퍼스 56개 학과에서 정년트랙 51명, 비정년트랙 5명, 총 56명의 교원을 충원한다. 채용 관련 원서 접수는 오는 9월1일부터 8일까지 한다. 향후 10년 동안 연계협력 클러스터 등 전략 분야에서도 꾸준히 교원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br/><br/> 경희대는 그간 외국 유명 석학 초빙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에미넌트 스칼라’(ES: Eminent Scholar)와 ‘인터내셔널 스칼라’(IS: International Scholar)를 통해서다. 에미넌트 스칼라는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학술활동과 국제교류 증진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학자 또는 실천가를 초빙하는 제도다. 존 아이켄베리, 김의신, 폴 케네디, 슬라보이 지제크 등이 에미넌트 스칼라를 통해 경희대를 거쳐 갔다.<br/><br/> 인터내셔널 스칼라는 공동연구, 학생교육, 연계협력 및 국제교류 증진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학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초빙된 교원은 경희대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와 논문 지도를 수행한다.<br/><br/> 최용락 객원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6.txt

제목: 열나고 목에 멍울 잡히는 젊은 여성, 혹시 림프절염?  
날짜: 2015081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201608892  
본문: 30대 중반 여성인 김아무개씨는 최근 감기몸살 증상처럼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다. 그동안 업무가 많아 수면량이 부족했고 스트레스도 심했던 탓에 감기려니 하고 며칠 쉬는 데 그쳤다. 그 뒤 목에 멍울이 잡혔다. 혹시 갑상선암은 아닌가 하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았다. 이 질환은 한해 약 67만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편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특히 20~30대 여성이 잘 걸린다. 관련 전문의의 도움말로 급성 림프절염에 대해 알아본다.<br/><br/><br/><br/>20~30대 여성에게 흔한 림프절염 <br/>증상치료로 대부분 한달 안에 호전 <br/>결핵이나 드물게 암도 원인 가능성 <br/><br/><br/><br/> ■ 환자 5명 중 1명은 20~30대 여성 병원에서 흔히 ‘임파선(림프절)이 커졌다’는 설명을 하면 대개 면역 기능을 하는 림프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부은 것이다. 림프절이 커진 건 림프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암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감별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흔한 경우인 급성 림프절염은 나이대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약 40만2천명의 여성 환자와 26만5천명의 남성 환자가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5배쯤 많은 셈이다. 특히 젊은 여성 환자가 많아 20~30대 여성이 지난해 전체 환자의 22%를 차지했다. 하지만 림프절염이 여성에게 더 자주 생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급성 림프절염의 원인균은 각종 바이러스와 결핵균이 대부분이다.<br/><br/> ■ 젊은 여성 동양인에게 많이 생기는 기쿠치병 비교적 접촉하기 쉬운 바이러스인 헤르페스바이러스나 엡스타인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뒤 목 주변의 림프절이 부으면 기쿠치병을 의심할 수 있다. 이 질환은 1970년대 초반 일본인 의사 기쿠치가 의학계에 최초로 보고해 명명됐다. 이 질환 역시 30살 이하 젊은 동양인에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4배쯤 더 많다. 주된 증상은 감기와 같은 발열·피로감·관절통이며,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거나 밤에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구토나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해당 림프절을 일부 떼어낸 뒤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발열이 있으면 이를 낮추는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치료를 하게 된다. 대부분 한달 안에 좋아지지만 몇 달씩 지속되기도 한다.<br/><br/> ■ 결핵균도 림프절염의 원인 림프절염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결핵균이다. 이른바 ‘결핵성 림프절염’인데, 통증이 없는 멍울이 천천히 커지면서 미열을 동반하는 증상이 대부분이다. 역시 림프절을 일부 떼어내 시행하는 조직검사가 필수다. 다만 일부 환자는 폐결핵을 동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사도 요구된다. 결핵성 림프절염도 폐결핵과 마찬가지로 항결핵제 치료를 여섯달 이상 받아야 한다. 결핵성 림프절염은 기쿠치병과 달리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염증이 심해져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장기로 결핵이 퍼지기도 한다. 결핵균은 폐는 물론이고 뇌나 골수 등으로도 퍼질 수 있는 탓에 조기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다.<br/><br/> ■ 드물지만 암 때문에 림프절 커질 수 있어 목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커졌을 때 드물지만 암이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암세포가 림프계를 통해 전이되면서 림프절이 부을 수 있어서다. 목에 림프절염이 생기면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이 퍼지면서 생길 수 있고, 쇄골 부분의 림프절이 부었으면 폐암이나 식도암·위암·췌장암 등이 원인일 수 있다. 역시 흔하지는 않지만 림프계 자체의 악성종양인 림프종도 림프절 비대의 원인이다. 암이 원인이 돼 림프절이 발생하면 크기가 보통 2㎝ 이상으로 커지며 단단한 멍울이 한달 이상 나타나게 된다. 염증이 아니어서 열은 없으며 만져도 아프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젊은층보다는 노인이나 흡연자한테 림프절 비대가 나타났을 때 암일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 이 역시 림프절을 떼어내 조직검사를 해서 진단한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br/><br/>도움말: 이재갑 한림대의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7.txt

제목: 열나고 목에 멍울 잡히는 젊은 여성, 혹시 림프절염?  
날짜: 2015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110018219344  
본문: 30대 중반 여성인 김아무개씨는 최근 감기몸살 증상처럼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다. 그동안 업무가 많아 수면량이 부족했고 스트레스도 심했던 탓에 감기려니 하고 며칠 쉬는 데 그쳤다. 그 뒤 목에 멍울이 잡혔다. 혹시 갑상선암은 아닌가 하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았다. 이 질환은 한해 약 67만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편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특히 20~30대 여성이 잘 걸린다. 관련 전문의의 도움말로 급성 림프절염에 대해 알아본다.<br/><br/><br/><br/>20~30대 여성에게 흔한 림프절염 <br/>증상치료로 대부분 한달 안에 호전 <br/>결핵이나 드물게 암도 원인 가능성 <br/><br/><br/><br/> ■ 환자 5명 중 1명은 20~30대 여성 병원에서 흔히 ‘임파선(림프절)이 커졌다’는 설명을 하면 대개 면역 기능을 하는 림프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부은 것이다. 림프절이 커진 건 림프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암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감별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흔한 경우인 급성 림프절염은 나이대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약 40만2천명의 여성 환자와 26만5천명의 남성 환자가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5배쯤 많은 셈이다. 특히 젊은 여성 환자가 많아 20~30대 여성이 지난해 전체 환자의 22%를 차지했다. 하지만 림프절염이 여성에게 더 자주 생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급성 림프절염의 원인균은 각종 바이러스와 결핵균이 대부분이다.<br/><br/> ■ 젊은 여성 동양인에게 많이 생기는 기쿠치병 비교적 접촉하기 쉬운 바이러스인 헤르페스바이러스나 엡스타인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뒤 목 주변의 림프절이 부으면 기쿠치병을 의심할 수 있다. 이 질환은 1970년대 초반 일본인 의사 기쿠치가 의학계에 최초로 보고해 명명됐다. 이 질환 역시 30살 이하 젊은 동양인에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4배쯤 더 많다. 주된 증상은 감기와 같은 발열·피로감·관절통이며,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거나 밤에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구토나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해당 림프절을 일부 떼어낸 뒤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발열이 있으면 이를 낮추는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치료를 하게 된다. 대부분 한달 안에 좋아지지만 몇 달씩 지속되기도 한다.<br/><br/> ■ 결핵균도 림프절염의 원인 림프절염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결핵균이다. 이른바 ‘결핵성 림프절염’인데, 통증이 없는 멍울이 천천히 커지면서 미열을 동반하는 증상이 대부분이다. 역시 림프절을 일부 떼어내 시행하는 조직검사가 필수다. 다만 일부 환자는 폐결핵을 동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사도 요구된다. 결핵성 림프절염도 폐결핵과 마찬가지로 항결핵제 치료를 여섯달 이상 받아야 한다. 결핵성 림프절염은 기쿠치병과 달리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염증이 심해져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장기로 결핵이 퍼지기도 한다. 결핵균은 폐는 물론이고 뇌나 골수 등으로도 퍼질 수 있는 탓에 조기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다.<br/><br/> ■ 드물지만 암 때문에 림프절 커질 수 있어 목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커졌을 때 드물지만 암이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암세포가 림프계를 통해 전이되면서 림프절이 부을 수 있어서다. 목에 림프절염이 생기면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이 퍼지면서 생길 수 있고, 쇄골 부분의 림프절이 부었으면 폐암이나 식도암·위암·췌장암 등이 원인일 수 있다. 역시 흔하지는 않지만 림프계 자체의 악성종양인 림프종도 림프절 비대의 원인이다. 암이 원인이 돼 림프절이 발생하면 크기가 보통 2㎝ 이상으로 커지며 단단한 멍울이 한달 이상 나타나게 된다. 염증이 아니어서 열은 없으며 만져도 아프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젊은층보다는 노인이나 흡연자한테 림프절 비대가 나타났을 때 암일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 이 역시 림프절을 떼어내 조직검사를 해서 진단한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br/><br/>도움말: 이재갑 한림대의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8.txt

제목: 의학·인문학 손잡고 ‘사람 위한’ 병원 만든다  
날짜: 20150810  
기자: 최용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10100000008  
본문: “<span class='quot0'>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문화</span>”라는 말이 있다. 의학은 보편타당성을 추구하는 학문이지만, 의료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환자가 완치를 하기까지는 그가 겪고 있는 인간적·사회적 갈등은 물론이고 때로는 의사의 태도나 병원의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학과 인문학이 만나야 하는 이유다.<br/>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이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설립에 나서며 이런 만남을 주선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등을 통해 경희대가 쌓아온 인문학적 역량을 암치료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병원을 만든다는 게 목표다.<br/>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암을 넘어선 삶’을 목표로 ‘인간적인 의학’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환자 개인에게 최적의 진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가족 관계 및 사회적 능력을 강화하는 진료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br/>　이를 위해 진료프로그램에 더해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유프로그램은 △상담(직업 및 인생 상담) △관광(박물관 및 힐링투어길) △자가관리(건강마사지, 암환우 네트워크) △뷰티클래스(이미지 강화) △마음치유(기공, 명상, 웃음치료, 치유동물) △예술치료(표현심리치료, 음악치료, 마술치료, 힐링댄스, 영화치료) △영양 관리 및 교육(쿠킹클래스, 식이요법)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음악대학, 체육대학 등의 학술 역량을 치료와 결합한 ‘다학제 협진 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br/>　이와 더불어 환자 가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 센터’도 설립한다. 정밀의학을 위한 ‘정밀 암 치료센터’와 ‘정밀 종양학 연구센터’도 세운다. 또한 최소 침습적 수술과 유전적 소인 확인을 위한 정밀 진단 및 치료법을 병행한다. 치료 전 모든 과정을 7일 안에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진료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옆에 자리할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800평 규모의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br/>　 최용락 객원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49.txt

제목: 아무것도 안 한 자의 힘  
날짜: 20150806  
기자: 이우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06100000082  
본문: 김풍과 커피를 마셨다. 아니, 나는 치아시드가 들어간 요거트를 먹었고, 김풍은 골든키위 주스를 마셨다. 김풍이 계산했다. 그 전에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것도 김풍이 계산했다. ‘형, 돈 많이 벌었구나’라고 말하려다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다. 벌었겠지, 그럼 안 벌었겠어. 티브이에도 나오고, 광고도 찍었는데. 김풍이 커피 말고 골든키위 주스를 시켜서 기분이 좋았다. 아는 형이니까. 친한 형이라고 적고 싶지만 스타가 돼 버려서 그렇게 적는 게 싫다. 아는 형이 몇 달 새 바빠졌다. 살도 더 쪘고. 저 형은 당연히 부인이 없고, 현재는 애인도 없다. 혼자 산다. 건강해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나는 말한다.<br/>　‘좋아서 하는 인터뷰’를 꾸준히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두 달 전에 에 출연한 박준우 셰프를 인터뷰했다. 그때 ‘김풍은 너무 바빠서 인터뷰하기 힘들다’고 적었다. 김풍이 그 기사를 읽고 메시지를 보냈다. ‘날 잡자.’ 그렇게 오랜만에 김풍을 만났다. 바빠도 너무 바쁜 풍이 형을.<br/>　김풍을 만났으니까 요리라든가, 에 출연하면서 일어난 일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뻔하지만. 그런데 김풍은 웹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 시즌2 봤지? 나는 이 만화가 정말 좋아. 누구나 찌질했던 자신의 역사가 있잖아. 그걸 고백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저 쿨한 척,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는 척 구는 사람도 있지.” 나는 이 웹툰을 보면서 내 찌질의 역사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도 그것이 나만의 역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로받은 건가?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난 후자야. 쿨한 척, 나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니까 형도 웹툰을 그렸겠지. 다행스런 일이잖아. 형이 고백하고 극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웹툰을 안 그렸을 거야. 사람들은 이 웹툰을 보지 못했겠지. 형, 우리 모두 다행이다. 이 글 읽고 있지?<br/>　나는 웹툰 작가 김풍을 좋아한다. 나는 그가 몇 년 동안 웹툰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웹툰 작가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면 속이 확확 탔어. 나는 연재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작가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 기분이 어땠겠냐? 나만 너무 초라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작품을 그린 것도 아니야. 엄청난 웹툰을 그려서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포부도 없어. 그냥 부러워하고, 누워서 에스엔에스나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간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김풍이 부러웠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한창 무엇인가 해야 하는 나이다. 대부분 그때 무엇이라도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br/>　그러나 이 시기를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나온 나로서는, 갈수록 내 안이 점점 텅 빈다는 느낌이 든다. 고갈되는 것이다. 그때 김풍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을 것이다. 에서 그는 요리를 한다기보다 ‘요리 쇼’를 한다. 우스꽝스럽다. 그러나 김풍은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 김풍은 더 창피한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 과장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그는 다만 아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한 자의 힘이라고 나는 믿는다. 김풍은 ‘찌질함’의 바닥을 보고 온 사람이다. 김풍은 그 바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거기 누워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멍하니. 게을러서 그렇지, 뭐. 움직여 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아주 작은 시도들을 했을 거야. 하지만 시동이 걸릴 정도는 아니었지. 시동이 걸리려면 순간적으로 큰 힘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아주 작은 힘으로도 어느 순간 시동이 걸릴 때가 있나봐.” 나는 이 말을 오래 생각했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이 말을 떠올렸다. 무엇이었을까, 김풍을 일어서게 한 것은. 그리고 나는 혼자 결론 내렸다. 비로소 자기 안의 것들이 온전히 채워진 거라고. 아침이 와서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잠을 잤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이다. 지금 김풍은 충전돼 있다.<br/>　김풍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는 독자에게 ‘암 유발 웹툰’으로 불린다. 주인공이 찌질한 행동을 너무 절묘하게 잘해서 보는 사람들이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옛 애인에게 전화를 건다. 울면서 현재 애인의 욕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찌질한데,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현재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아, 미치겠네’라는 말을 안 하고 이 웹툰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 독자들은 주인공을 훈계하는 댓글을 적는다. 하지만 독자들 역시 모두 우리 시대의 찌질한 친구들일 것이다. 그들도 아마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br/>　“형, 독자들이 댓글을 달잖아. 주인공의 어떤 행동 때문에 암 걸리겠다고. 그러면 형은 그 댓글을 읽고, 독자들을 더 암 걸리게 만드는 설정을 일부러 더 해?”<br/>　“당연하지. 그게 내가 하는 역할이야. 이건 일종의 심리 싸움이야. 작가가 지면 안 돼. 이기려면 독자들의 감정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한다고.”<br/>　김풍은 그의 웹툰 속에 있다. 그곳에서 김풍은 주인이다. 안에는 김풍이 없다. 김풍은 셰프가 아닐 것이다. 그저 특이하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오두방정 떨고, 엉뚱한 요리를 아무렇지 않게 만든다. 그는 요리로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는 존재의 욕구를 웹툰으로 채운다. <br/> “인터뷰할 때 나는 웹툰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해. 특히 는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거야.” 왜 아니겠는가. 그것은 김풍의 이야기다. 그리고 아이엠에프(IMF) 시기를 지나, 가까스로 현재를 살고 있는 어떤 시기 청춘들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김풍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직장을 갖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라고 호통치던 시대를 ‘잉여’로 산, ‘잉여’를 온전히 체득한 저 제대로 된 ‘잉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는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김풍은 9월쯤 선보일 파일럿 예능 의 촬영을 마쳤다. 건강해라, 형.<br/>이우성 시인 <br/>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0.txt

제목: 냉장고 안엔 없다, 웹툰 속엔 있다…제대로 된 ‘잉여’ 김풍  
날짜: 20150805  
기자: 이병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195001590  
본문: 김풍과 커피를 마셨다. 아니, 나는 치아시드가 들어간 요거트를 먹었고, 김풍은 골든키위 주스를 마셨다. 김풍이 계산했다. 그 전에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것도 김풍이 계산했다. ‘형, 돈 많이 벌었구나’라고 말하려다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다. 벌었겠지, 그럼 안 벌었겠어. 티브이에도 나오고, 광고도 찍었는데. 김풍이 커피 말고 골든키위 주스를 시켜서 기분이 좋았다. 아는 형이니까. 친한 형이라고 적고 싶지만 스타가 돼 버려서 그렇게 적는 게 싫다. 아는 형이 몇 달 새 바빠졌다. 살도 더 쪘고. 저 형은 당연히 부인이 없고, 현재는 애인도 없다. 혼자 산다. 건강해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나는 말한다.<br/><br/> ‘좋아서 하는 인터뷰’를 꾸준히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두 달 전에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박준우 셰프를 인터뷰했다. 그때 ‘김풍은 너무 바빠서 인터뷰하기 힘들다’고 적었다. 김풍이 그 기사를 읽고 메시지를 보냈다. ‘날 잡자.’ 그렇게 오랜만에 김풍을 만났다. 바빠도 너무 바쁜 풍이 형을.<br/><br/> 김풍을 만났으니까 요리라든가,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일어난 일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뻔하지만. 그런데 김풍은 웹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찌질의 역사> 시즌2 봤지? 나는 이 만화가 정말 좋아. 누구나 찌질했던 자신의 역사가 있잖아. 그걸 고백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저 쿨한 척,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는 척 구는 사람도 있지.” 나는 이 웹툰을 보면서 내 찌질의 역사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도 그것이 나만의 역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로받은 건가?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난 후자야. 쿨한 척, 나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니까 형도 웹툰을 그렸겠지. 다행스런 일이잖아. 형이 고백하고 극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웹툰을 안 그렸을 거야. 사람들은 이 웹툰을 보지 못했겠지. 형, 우리 모두 다행이다. 이 글 읽고 있지?<br/><br/> 나는 웹툰 작가 김풍을 좋아한다. 나는 그가 몇 년 동안 웹툰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웹툰 작가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면 속이 확확 탔어. 나는 연재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작가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 기분이 어땠겠냐? 나만 너무 초라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작품을 그린 것도 아니야. 엄청난 웹툰을 그려서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포부도 없어. 그냥 부러워하고, 누워서 에스엔에스나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간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김풍이 부러웠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한창 무엇인가 해야 하는 나이다. 대부분 그때 무엇이라도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br/><br/><br/><br/>무엇일까 <br/>찌질했던 그를 일어서게 한 건 <br/>나는 혼자 결론 내렸다 <br/>자기 안의 것들이 <br/>온전히 채워진 거라고 <br/>아침이 와 잠에서 깬 게 아니라 <br/>충분히 잤기에 눈이 떠진 것이다 <br/>지금 김풍은 충전돼 있다<br/><br/><br/><br/> 그러나 이 시기를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나온 나로서는, 갈수록 내 안이 점점 텅 빈다는 느낌이 든다. 고갈되는 것이다. 그때 김풍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을 것이다.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그는 요리를 한다기보다 ‘요리 쇼’를 한다. 우스꽝스럽다. 그러나 김풍은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 김풍은 더 창피한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 과장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그는 다만 아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한 자의 힘이라고 나는 믿는다. 김풍은 ‘찌질함’의 바닥을 보고 온 사람이다. 김풍은 그 바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거기 누워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멍하니. 게을러서 그렇지, 뭐. 움직여 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아주 작은 시도들을 했을 거야. 하지만 시동이 걸릴 정도는 아니었지. 시동이 걸리려면 순간적으로 큰 힘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아주 작은 힘으로도 어느 순간 시동이 걸릴 때가 있나봐.” 나는 이 말을 오래 생각했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이 말을 떠올렸다. 무엇이었을까, 김풍을 일어서게 한 것은. 그리고 나는 혼자 결론 내렸다. 비로소 자기 안의 것들이 온전히 채워진 거라고. 아침이 와서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잠을 잤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이다. 지금 김풍은 충전돼 있다.<br/><br/> 김풍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찌질의 역사>는 독자에게 ‘암 유발 웹툰’으로 불린다. 주인공이 찌질한 행동을 너무 절묘하게 잘해서 보는 사람들이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옛 애인에게 전화를 건다. 울면서 현재 애인의 욕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찌질한데,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현재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아, 미치겠네’라는 말을 안 하고 이 웹툰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 독자들은 주인공을 훈계하는 댓글을 적는다. 하지만 독자들 역시 모두 우리 시대의 찌질한 친구들일 것이다. 그들도 아마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br/><br/> “형, 독자들이 댓글을 달잖아. 주인공의 어떤 행동 때문에 암 걸리겠다고. 그러면 형은 그 댓글을 읽고, 독자들을 더 암 걸리게 만드는 설정을 일부러 더 해?”<br/><br/> “당연하지. 그게 내가 하는 역할이야. 이건 일종의 심리 싸움이야. 작가가 지면 안 돼. 이기려면 독자들의 감정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한다고.”<br/><br/> 김풍은 그의 웹툰 속에 있다. 그곳에서 김풍은 주인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안에는 김풍이 없다. 김풍은 셰프가 아닐 것이다. 그저 특이하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오두방정 떨고, 엉뚱한 요리를 아무렇지 않게 만든다. 그는 요리로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는 존재의 욕구를 웹툰으로 채운다. <br/><br/> “인터뷰할 때 나는 웹툰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해. 특히 <찌질의 역사>는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거야.” 왜 아니겠는가. 그것은 김풍의 이야기다. 그리고 아이엠에프(IMF) 시기를 지나, 가까스로 현재를 살고 있는 어떤 시기 청춘들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김풍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직장을 갖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라고 호통치던 시대를 ‘잉여’로 산, ‘잉여’를 온전히 체득한 저 제대로 된 ‘잉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찌질의 역사>는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김풍은 9월쯤 선보일 파일럿 예능 <주먹 쥐고 소림사>의 촬영을 마쳤다. 건강해라, 형.<br/><br/>이우성 시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1.txt

제목: 냉장고 안엔 없다, 웹툰 속엔 있다…제대로 된 ‘잉여’ 김풍  
날짜: 2015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0510018157192  
본문: 김풍과 커피를 마셨다. 아니, 나는 치아시드가 들어간 요거트를 먹었고, 김풍은 골든키위 주스를 마셨다. 김풍이 계산했다. 그 전에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것도 김풍이 계산했다. ‘형, 돈 많이 벌었구나’라고 말하려다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다. 벌었겠지, 그럼 안 벌었겠어. 티브이에도 나오고, 광고도 찍었는데. 김풍이 커피 말고 골든키위 주스를 시켜서 기분이 좋았다. 아는 형이니까. 친한 형이라고 적고 싶지만 스타가 돼 버려서 그렇게 적는 게 싫다. 아는 형이 몇 달 새 바빠졌다. 살도 더 쪘고. 저 형은 당연히 부인이 없고, 현재는 애인도 없다. 혼자 산다. 건강해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나는 말한다.<br/><br/> ‘좋아서 하는 인터뷰’를 꾸준히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두 달 전에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박준우 셰프를 인터뷰했다. 그때 ‘김풍은 너무 바빠서 인터뷰하기 힘들다’고 적었다. 김풍이 그 기사를 읽고 메시지를 보냈다. ‘날 잡자.’ 그렇게 오랜만에 김풍을 만났다. 바빠도 너무 바쁜 풍이 형을.<br/><br/> 김풍을 만났으니까 요리라든가,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일어난 일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뻔하지만. 그런데 김풍은 웹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찌질의 역사> 시즌2 봤지? 나는 이 만화가 정말 좋아. 누구나 찌질했던 자신의 역사가 있잖아. 그걸 고백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저 쿨한 척,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는 척 구는 사람도 있지.” 나는 이 웹툰을 보면서 내 찌질의 역사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도 그것이 나만의 역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로받은 건가?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난 후자야. 쿨한 척, 나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니까 형도 웹툰을 그렸겠지. 다행스런 일이잖아. 형이 고백하고 극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웹툰을 안 그렸을 거야. 사람들은 이 웹툰을 보지 못했겠지. 형, 우리 모두 다행이다. 이 글 읽고 있지?<br/><br/> 나는 웹툰 작가 김풍을 좋아한다. 나는 그가 몇 년 동안 웹툰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웹툰 작가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면 속이 확확 탔어. 나는 연재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작가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 기분이 어땠겠냐? 나만 너무 초라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작품을 그린 것도 아니야. 엄청난 웹툰을 그려서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포부도 없어. 그냥 부러워하고, 누워서 에스엔에스나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간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김풍이 부러웠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한창 무엇인가 해야 하는 나이다. 대부분 그때 무엇이라도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br/><br/><br/><br/>무엇일까 <br/>찌질했던 그를 일어서게 한 건 <br/>나는 혼자 결론 내렸다 <br/>자기 안의 것들이 <br/>온전히 채워진 거라고 <br/>아침이 와 잠에서 깬 게 아니라 <br/>충분히 잤기에 눈이 떠진 것이다 <br/>지금 김풍은 충전돼 있다<br/><br/><br/><br/> 그러나 이 시기를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나온 나로서는, 갈수록 내 안이 점점 텅 빈다는 느낌이 든다. 고갈되는 것이다. 그때 김풍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을 것이다.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그는 요리를 한다기보다 ‘요리 쇼’를 한다. 우스꽝스럽다. 그러나 김풍은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 김풍은 더 창피한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 과장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그는 다만 아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한 자의 힘이라고 나는 믿는다. 김풍은 ‘찌질함’의 바닥을 보고 온 사람이다. 김풍은 그 바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거기 누워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멍하니. 게을러서 그렇지, 뭐. 움직여 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아주 작은 시도들을 했을 거야. 하지만 시동이 걸릴 정도는 아니었지. 시동이 걸리려면 순간적으로 큰 힘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아주 작은 힘으로도 어느 순간 시동이 걸릴 때가 있나봐.” 나는 이 말을 오래 생각했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이 말을 떠올렸다. 무엇이었을까, 김풍을 일어서게 한 것은. 그리고 나는 혼자 결론 내렸다. 비로소 자기 안의 것들이 온전히 채워진 거라고. 아침이 와서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잠을 잤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이다. 지금 김풍은 충전돼 있다.<br/><br/> 김풍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찌질의 역사>는 독자에게 ‘암 유발 웹툰’으로 불린다. 주인공이 찌질한 행동을 너무 절묘하게 잘해서 보는 사람들이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옛 애인에게 전화를 건다. 울면서 현재 애인의 욕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찌질한데,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현재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아, 미치겠네’라는 말을 안 하고 이 웹툰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 독자들은 주인공을 훈계하는 댓글을 적는다. 하지만 독자들 역시 모두 우리 시대의 찌질한 친구들일 것이다. 그들도 아마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br/><br/> “형, 독자들이 댓글을 달잖아. 주인공의 어떤 행동 때문에 암 걸리겠다고. 그러면 형은 그 댓글을 읽고, 독자들을 더 암 걸리게 만드는 설정을 일부러 더 해?”<br/><br/> “당연하지. 그게 내가 하는 역할이야. 이건 일종의 심리 싸움이야. 작가가 지면 안 돼. 이기려면 독자들의 감정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한다고.”<br/><br/> 김풍은 그의 웹툰 속에 있다. 그곳에서 김풍은 주인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안에는 김풍이 없다. 김풍은 셰프가 아닐 것이다. 그저 특이하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오두방정 떨고, 엉뚱한 요리를 아무렇지 않게 만든다. 그는 요리로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는 존재의 욕구를 웹툰으로 채운다. <br/><br/> “인터뷰할 때 나는 웹툰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해. 특히 <찌질의 역사>는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거야.” 왜 아니겠는가. 그것은 김풍의 이야기다. 그리고 아이엠에프(IMF) 시기를 지나, 가까스로 현재를 살고 있는 어떤 시기 청춘들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김풍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직장을 갖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라고 호통치던 시대를 ‘잉여’로 산, ‘잉여’를 온전히 체득한 저 제대로 된 ‘잉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찌질의 역사>는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김풍은 9월쯤 선보일 파일럿 예능 <주먹 쥐고 소림사>의 촬영을 마쳤다. 건강해라, 형.<br/><br/>이우성 시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2.txt

제목: 건강검진 대기시간 줄이려면 /여름휴가철등 비수기에 받으세요  
날짜: 2015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05100000071  
본문: Q<br/>건강검진을 대체로 연말에 받고 있는데요. 이때는 업무가 바빠 시간을 내기 힘든데, 이 불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br/><br/>A<br/>건강보험에서는 1~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을 받는 시기를 각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여행과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비수기에 받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강검진을 연말에 받아, 검사를 받을 때 대기시간이 길고 검사 결과도 늦게 나오는 등 여러 불편 사항을 겪게 됩니다. 검진의 특성상 대부분 12시간 가까운 금식이 필요한데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금식시간도 함께 길어지니 짜증이 더 증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b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해보니,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연말로 미루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10월 이후에는 전체 검진 대상자의 40% 이상이 몰려 검진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 검진기관에서도 검진 인력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5월부터 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탓에 해당 시기에 검진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많아 올해 연말에는 매우 혼잡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br/> 따라서 되도록이면 검진을 덜 받는 9월까지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검진을 많이 받지 않는 여름휴가철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암·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3.txt

제목: 건강검진 대기시간 줄이려면 여름휴가철등 비수기에 받으세요  
날짜: 2015080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194729145  
본문: Q: 건강검진을 대체로 연말에 받고 있는데요. 이때는 업무가 바빠 시간을 내기 힘든데, 이 불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br/><br/><br/><br/>A: 건강보험에서는 1~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을 받는 시기를 각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여행과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비수기에 받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강검진을 연말에 받아, 검사를 받을 때 대기시간이 길고 검사 결과도 늦게 나오는 등 여러 불편 사항을 겪게 됩니다. 검진의 특성상 대부분 12시간 가까운 금식이 필요한데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금식시간도 함께 길어지니 짜증이 더 증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해보니,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연말로 미루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10월 이후에는 전체 검진 대상자의 40% 이상이 몰려 검진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 검진기관에서도 검진 인력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5월부터 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탓에 해당 시기에 검진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많아 올해 연말에는 매우 혼잡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검진을 덜 받는 9월까지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검진을 많이 받지 않는 여름휴가철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암·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br/> 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4.txt

제목: 고령자도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건강보험 간편 가입  
날짜: 20150804  
기자: 홍석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04100000111  
본문: 보험 취약계층인 만성질환 고령자들이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국내 3대 질병에 대해 진단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br/>　현대해상은 간편 심사로 입원일당, 수술이나 사망보장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질병 진단까지 보장하는 ‘모두에게 간편한 건강보험’ 판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br/>　이 상품은 50~75살의 고령자들이 가입 이전 5년 동안 암진단이나 암치료,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 소견 등 세 가지가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입 문턱을 최소화했다. 특히 종전 간편 심사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던 국내 3대 질병의 ‘질병 진단’까지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의료 이력에 별도 서류 제출이나 건강검진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가입자가 의료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특약에 따라, 교통사고를 대비한 운전비용(벌금 등)과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br/>　보험기간은 5년, 10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고, 최대 100살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60살 남자, 계약기간 10년, 갱신종료 100살 기준으로 월 6만원 수준이다.<br/>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부장은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60대 이후 지출하고 고령자의 90%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데도, 국내 고령층 보험가입률이 32.5%에 불과하다. 가입절차가 복잡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자들이 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br/>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5.txt

제목: 건강검진 대기시간 줄이려면 여름휴가철등 비수기에 받으세요  
날짜: 2015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0410018137904  
본문: Q: 건강검진을 대체로 연말에 받고 있는데요. 이때는 업무가 바빠 시간을 내기 힘든데, 이 불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br/><br/><br/><br/>A: 건강보험에서는 1~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을 받는 시기를 각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여행과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비수기에 받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강검진을 연말에 받아, 검사를 받을 때 대기시간이 길고 검사 결과도 늦게 나오는 등 여러 불편 사항을 겪게 됩니다. 검진의 특성상 대부분 12시간 가까운 금식이 필요한데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금식시간도 함께 길어지니 짜증이 더 증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해보니,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연말로 미루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10월 이후에는 전체 검진 대상자의 40% 이상이 몰려 검진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 검진기관에서도 검진 인력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5월부터 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탓에 해당 시기에 검진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많아 올해 연말에는 매우 혼잡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검진을 덜 받는 9월까지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검진을 많이 받지 않는 여름휴가철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암·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br/> 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6.txt

제목: 고령자도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건강보험 간편 가입  
날짜: 20150803  
기자: 홍석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60107194534557  
본문: 보험 취약계층인 만성질환 고령자들이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국내 3대 질병에 대해 진단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br/><br/> 현대해상은 간편 심사로 입원일당, 수술이나 사망보장 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질병 진단까지 보장하는 ‘모두에게 간편한 건강보험’ 판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br/><br/> 이 상품은 50~75살의 고령자들이 가입 이전 5년 동안 암진단이나 암치료,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 소견 등 세 가지가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입 문턱을 최소화했다. 특히 종전 간편 심사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던 국내 3대 질병의 ‘질병 진단’까지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의료 이력에 별도 서류 제출이나 건강검진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가입자가 의료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특약에 따라, 교통사고를 대비한 운전비용(벌금 등)과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br/><br/> 보험기간은 5년, 10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고, 최대 100살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60살 남자, 계약기간 10년, 갱신종료 100살 기준으로 월 6만원 수준이다.<br/><br/>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부장은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60대 이후 지출하고 고령자의 90%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데도, 국내 고령층 보험가입률이 32.5%에 불과하다. 가입절차가 복잡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자들이 보험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br/><br/>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7.txt

제목: 고령자도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건강보험 간편 가입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80310018124795  
본문: 보험 취약계층인 만성질환 고령자들이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국내 3대 질병에 대해 진단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br/><br/> 현대해상은 간편 심사로 입원일당, 수술이나 사망보장 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질병 진단까지 보장하는 ‘모두에게 간편한 건강보험’ 판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br/><br/> 이 상품은 50~75살의 고령자들이 가입 이전 5년 동안 암진단이나 암치료,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 소견 등 세 가지가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입 문턱을 최소화했다. 특히 종전 간편 심사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던 국내 3대 질병의 ‘질병 진단’까지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의료 이력에 별도 서류 제출이나 건강검진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가입자가 의료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특약에 따라, 교통사고를 대비한 운전비용(벌금 등)과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br/><br/> 보험기간은 5년, 10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고, 최대 100살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60살 남자, 계약기간 10년, 갱신종료 100살 기준으로 월 6만원 수준이다.<br/><br/>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부장은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60대 이후 지출하고 고령자의 90%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데도, 국내 고령층 보험가입률이 32.5%에 불과하다. 가입절차가 복잡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자들이 보험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br/><br/>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8.txt

제목: 피할 수 없는 고독을 이해받고 싶은 이들에게  
날짜: 20150730  
기자: 김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30100000105  
본문: 몇 달 전, 새벽 세시의 라디오에서 너무나 평범한 목소리가 흘러나와 놀란 적이 있었다. 대학가의 카페에 앉아 있노라면, 옆 테이블에서 들려올 만한 보통의 연애담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이야기. 유명인의 멋진 사랑 이야기라면 그냥 꺼버렸을 텐데, 대단찮은 이야기라 오히려 더 솔깃했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도 시간이 흐르면서 차분해졌고, 이야기도 점점 진솔해졌다.<br/>　방송이 끝나갈 즈음에야 그게 일반인이 일일 디제이(DJ)로 참여하는, ‘심야 라디오 디제이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됐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던, 오히려 그래서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그 뒤로 계속 들어보니 교사, 만화가, 회사원, 대학생, 주부 등이 날마다 마이크 앞에 앉아서는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누군가를 추억했다. 어쩌면 이뤄질 수 없는 꿈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남들에게 들려주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사소한 이야기여서, 사랑했던 사람을 영영 잃어버린 이야기여서 그들의 목소리는 때로 한없이 낮아졌다.<br/>　새벽 세시가 아니었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송출되는 일은 없었으리라. 일산 호수로 교차로가 보이는 내 책상에서 바라볼 때, 새벽 세시는 세상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면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 파도소리처럼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자동차들의 소리가 뜸해진다. 시끄럽고 북적대는 세상의 대척지에 와 있는 것과 같으니 글을 쓰기에는 가장 좋다. 글쓰기 가장 좋을 때의 나는 가장 고독한 나다. 작가를 꿈꾼다면, 피할 수 없는 고독이다.<br/>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다. 작가가 아닌 다른 것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고독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미래든, 더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한때든. 새벽 세시에 라디오를 켜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다고 해도 심야 라디오는 방송되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듣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심야 라디오의 본질이리라. 한 사람을 위한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것. 그래서 그 목소리가 나보다 더 고독하게 느껴진다는 것.<br/>　최근에 출간된 소설 에는 나치 시절 독일의 고아 소년 베르너가 쓰레기장에서 주운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서 여동생과 몰래 듣는 장면이 나온다. 라디오를 켜자 단파대로 누군가 ‘즈’와 ‘스’가 잔뜩 들어간 생경한 언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베르너는 헝가리어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span class='quot0'>헝가리는 여기서 얼마나 멀어?</span>” 여동생의 물음에 베르너는 말한다. “수천 킬로미터쯤?” 둘은 그렇게 라디오에서 들리는 낯선 도시의 이름을 받아 적는다. 베로나, 드레스덴, 런던, 로마, 파리, 리옹. “야밤의 단파대. 길을 거니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 미친 사람과 고함치는 사람들의 세상.”<br/>　그 장면을 읽으며 나는 1980년대 중반, 내 방에 놓여 있던 라디오를 떠올렸다. 이 세상에 내가 듣지 못한 음악이 그토록 많다는 것에 무한한 기쁨을 느끼며 나는 새벽 1시부터 하는, 전영혁씨가 하던 프로그램에 빠져 있었다. 한국 노래 아니면 영어 노래 일색이던 낮 방송과 달리 그 시간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서 만든 음악이 흘러나왔다. 도저히 제목을 받아적을 수 없어 들리는 대로 한글로 받아 적으며 나는 그 먼 나라들을 떠올렸다. 제스로 털의 ‘엘러지’를 배경으로 전영혁씨가 한편의 시를 읽어주며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먼 곳을 향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느껴졌다.<br/>　그다음에는 경직된 목소리의 남자가 나와서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라든가, 뭐 그런 멘트와 함께 애국가를 들려줬다. 그렇지만 그 밤에 혼자 일어나 경례를 하는 일 따위는 없었다. 나는 기껏해야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었고, 눈만 감으면 언제든 잘 수 있었으니까. 때로는 애국가까지 듣지도 못하고 잠드는 날도 있었다. 그러면 아침에 다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깨곤 했다. 아침 라디오에서는 늘 맨손체조에 구령을 붙이는 체육 선생님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심야 라디오와 아침 라디오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송출되는 듯했다.<br/>　때로는 애국가가 끝나고 백색 소음이 시작되고 난 뒤까지도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있었다. 그런 밤이면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내 마음이 검은 밤 위를 둥둥 떠다녔다. 그런 밤이면 나는 모든 방송이 끝났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라디오를 켜고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목소리를 찾았다. 새벽에는 낮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많이 잡혔다.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목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해서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방송은 북한에서 송출되는 것이었다. 방해 전파는 중국 방송이나 일본 방송에는 관대했다. 우리 쪽에서 북쪽을 향해 송출하는 방송에는 ‘흑룡강성’이니 ‘길림’이니, 그런 낯선 지명에 사는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흘러나왔다.<br/>　그날도 아마 잠 못 드는 밤 중 하나였을 것이다.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듣고 있었다. 그 순간, 베르너에게 헝가리어가 들리듯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그건 러시아어였다. 물론 나는 러시아어를 단 한마디도 몰랐으나 그 말만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아마 라디오 속 목소리의 주인공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남자인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br/>　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상상했다. 무엇도 상상할 수 없었다. 무엇도 상상할 수 없는 도시에 사는 한 남자의 목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단지 그는 말하고 나는 듣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라도 나 역시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다. 깊은 밤, 떠다니는 마음이란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 심야 라디오는 바로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향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방송이다.<br/>　소설 속 베르너와 같은 시기를 살았던 스위스의 민담학자 막스 뤼티는 1960년대 초반 베로뮌스터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반 청취자들에게 유럽 민담들의 특징을 설명했다. “<span class='quot0'>아직 라디오도 없고 책도 없는 옛날에는 저녁때면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다</span>”라고 말할 때, 그는 이야기가 지닌 치유의 힘을 믿고 있었고, 이제는 책과 더불어 라디오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라디오로 방송된 일련의 강연은 라는 책으로 출판됐다.<br/>　그 책 199쪽을 펼치면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던 1960년대 초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던 노학자의, 다음과 같은 말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광경이 떠오른다. “암흑 속의 빛(Lux in tenebris). 이것이 세상에서 기적이 갖는 의미다. 기적은 어둠 속의 빛으로서 민중과 작가의 표상 속에 살아 있다. 왜 우리는 성탄절 밤에 촛불을 켜는가? 우리는 그 빛을 그 밤에 일어났던 기적의 상징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의 종교와 문학은 빛의 상징을 알고 있다.”<br/>　암흑 속의 빛. 그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빛이다. 그렇기에 기적이다. 의 베르너처럼 깊은 밤, 심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목소리에 단 한번이라도 귀를 기울여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이다. 김연수 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59.txt

제목: 울산, 세계 3대 산악영화제 꿈꾼다  
날짜: 20150729  
기자: 신동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9100000027  
본문: “또 하나의 영화제가 아닙니다. 기존 영화제와 다른,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산악영화제가 될 것입니다.”<br/>　박재동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이렇게 소개했다. 울산 울주군은 내년부터 해마다 상북면 가지산과 신불산 등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영화제를 열기로 하고, 올해 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을 연다.<br/>　다음달 28일부터 9월1일까지 닷새 동안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프레페스티벌에선 모두 13개국의 산악 관련 영화 43편을 ‘산+끌림’, ‘산+누림’, ‘산+울림’, 네팔특별전, 울주서밋 등으로 나눠 상영한다. 네팔특별전은 지난 4월 대지진으로 슬픔에 빠진 네팔 국민과 카트만두 산악영화제를 응원하는 행사이고, 울주서밋에서는 영화제의 사전지원 프로젝트로 제작된 영화를 소개한다. 각종 전시·공연과 야영 및 인공암벽장 체험, 하늘억새길 트레킹, 별 사진 촬영 등의 딸림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br/>　박재동 추진위원장은 “뒷동산도 산이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구호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어 가겠다. 올해 초등학생 대상 영화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중고생과 일반인에게까지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신장열 울주군수는 “<span class='quot0'>이탈리아 트렌토 영화제, 캐나다 밴프 산악영화제 등에 버금가는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 발전시켜 가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0.txt

제목: 울산, 세계 3대 산악영화제 꿈꾼다  
날짜: 2015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810018064373  
본문: “또 하나의 영화제가 아닙니다. 기존 영화제와 다른,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산악영화제가 될 것입니다.”<br/><br/> 박재동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이렇게 소개했다. 울산 울주군은 내년부터 해마다 상북면 가지산과 신불산 등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영화제를 열기로 하고, 올해 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을 연다.<br/><br/> 다음달 28일부터 9월1일까지 닷새 동안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프레페스티벌에선 모두 13개국의 산악 관련 영화 43편을 ‘산+끌림’, ‘산+누림’, ‘산+울림’, 네팔특별전, 울주서밋 등으로 나눠 상영한다. 네팔특별전은 지난 4월 대지진으로 슬픔에 빠진 네팔 국민과 카트만두 산악영화제를 응원하는 행사이고, 울주서밋에서는 영화제의 사전지원 프로젝트로 제작된 영화를 소개한다. 각종 전시·공연과 야영 및 인공암벽장 체험, 하늘억새길 트레킹, 별 사진 촬영 등의 딸림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br/><br/> 박재동 추진위원장은 “뒷동산도 산이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구호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어 가겠다. 올해 초등학생 대상 영화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중고생과 일반인에게까지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신장열 울주군수는 “<span class='quot0'>이탈리아 트렌토 영화제, 캐나다 밴프 산악영화제 등에 버금가는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 발전시켜 가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br/><br/>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1.txt

제목: 백남준 부인이자 전위미술가 구보타 시게코 별세  
날짜: 2015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7100000078  
본문: 비디오아트 거장 고 백남준(1932~2006)의 부인으로 일본 출신의 전위미술가였던 구보타 시게코(78·사진)가 23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지병인 암으로 타계했다. 향년 78.<br/>　백남준아트센터는 25일 “<span class='quot0'>뉴욕에 있는 구보타의 지인이 이날 오전 메일을 보내와 그가 병원에서 지병으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span>”고 밝혔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국내 미술계 한 인사는 이와 관련해 “<span class='quot1'>구보타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해왔으며, 최근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입원한 뒤 외부인과 접촉을 끊고 치료를 받아왔다</span>”고 전했다.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구보타는 소장작가로 활동하던 1964년 당시 일본 도쿄 소게쓰홀 공연장에서 백남준을 처음 만나 그의 영향으로 비디오아트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백남준과 함께 전위예술 유파인 플럭서스 운동을 펼쳤으며, 77년 결혼했다. 생전 백남준의 가장 가까운 작업동료였으며, 96년 백남준이 뉴욕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는 타계할 때까지 병수발을 하며 그를 돌봤다. 구보타는 남편의 명성에 가려지긴 했지만, 60~70년대 세계 전위예술운동과 비디오아트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br/>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자료사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2.txt

제목: 백남준 부인이자 전위미술가 구보타 시게코 별세  
날짜: 201507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610018036121  
본문: 비디오아트 거장 고 백남준(1932~2006)의 부인으로 일본 출신의 전위미술가였던 구보타 시게코(78·)가 23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지병인 암으로 타계했다. 향년 78.<br/><br/> 백남준아트센터는 25일 “<span class='quot0'>뉴욕에 있는 구보타의 지인이 이날 오전 메일을 보내와 그가 병원에서 지병으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span>”고 밝혔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국내 미술계 한 인사는 이와 관련해 “<span class='quot1'>구보타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해왔으며, 최근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입원한 뒤 외부인과 접촉을 끊고 치료를 받아왔다</span>”고 전했다.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br/> 구보타는 소장작가로 활동하던 1963년 당시 일본 도쿄 쇼게쓰홀 공연장에서 백남준을 처음 만나 그의 영향으로 비디오아트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백남준과 함께 전위예술 유파인 플럭서스 운동을 펼쳤으며, 77년 결혼했다. 생전 백남준의 가장 가까운 작업동료였으며, 96년 백남준이 뉴욕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는 타계할 때까지 병수발을 하며 그를 돌봤다. 구보타는 남편의 명성에 가려지긴 했지만, 60~70년대 세계 전위예술운동과 비디오아트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br/><br/>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3.txt

제목: 백남준 부인 구보타 시게코 별세  
날짜: 2015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510018033029  
본문: 비디오아트 거장 고 백남준(1932~2006)의 부인으로 일본 출신의 전위 미술가였던 구보타 시게코(78)가 23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지병인 암으로 타계했다. 향년 78.<br/><br/> 백남준아트센터는 25일 “<span class='quot0'>뉴욕에 있는 구보타의 지인이 이날 오전 메일을 보내와 그가 병원에서 지병으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span>”고 밝혔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국내 미술계 한 인사는 이와관련해 “<span class='quot1'>구보타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해왔으며, 최근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입원한 뒤 외부인과 접촉을 끊고 치료를 받아왔다</span>”고 전했다. 구체적인 장례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br/> 구보타는 소장 작가로 활동하던 63년 당시 일본 도쿄 쇼게츠홀 공연장에서 백남준을 처음 만나 그의 영향으로 비디오아트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백남준과 함께 전위예술 유파인 플럭서스운동을 펼쳤으며, 77년 결혼했다. 생전 백남준의 가장 가까운 작업동료였으며, 96년 백남준이 뉴욕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는 타계할 때까지 병수발을 하며 그를 돌봤다. 구보타는 남편의 명성에 가려지긴 했지만, 60~70년대 세계 전위예술운동과 비디오아트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뉴욕모마미술관, 구게하임 미술관 등에서 전시했으며 대표작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등의 비디오아트 작품들이 서구 미술관들에 소장돼 있다. 백남준의 생전부터 한국을 자주 방문해 백남준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등의 전시와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조언하는 등 국내 미술계와 친밀한 인연을 맺어왔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한겨레>자료 사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4.txt

제목: 황석정의 생애 첫 건강검진 결과는?  
날짜: 2015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4100000056  
본문: 나 혼자 산다(문화방송 밤 11시15분) 40대인 배우 황석정은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 “40대가 암 발생률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 긴장했던 황석정은 검진을 마친 뒤 의사에게서 정밀검사를 권유받고 놀란다. 올해로 49살이 된 배우 김광규는 의 무지개 회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올해 안으로 결혼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옥탑방에 홀로 사는 음악인 육중완은 더위 탈출을 시도한다.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 위해 냉동실에 머리를 들이밀고, 냉동식품들을 끌어안고 공포 웹툰을 보고, 전복과 낙지 등 각종 보양식품들을 구입해 보양식을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5.txt

제목: 보상질병 범위 28종으로…재직기간 요건도 완화  
날짜: 20150724  
기자: 김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4100000105  
본문: 조정권고안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사회적 해결’이다.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발표한 조정권고안의 핵심은 삼성전자 등의 기부로 설립할 공익법인이 피해자 보상을 맡고 ‘재해 예방 대책’ 마련·실행도 삼성 쪽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사과 방식도 삼성전자 쪽의 개별·공식 사과뿐 아니라 “노동건강권은 기본적 인권”이라는 ‘노동건강인권 공동선언’을 권고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0'>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span>”며 ‘사회적 사과·책임·의제’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br/>　■ 보상 대상 조정위는 핵심 쟁점인 보상 대상 노동자와 질병을 삼성전자의 애초 제안보다 넓게 설정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span class='quot0'>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 그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나누겠다는 게 보상의 원칙</span>”이라고 밝혔다. <br/>　조정위는 보상 대상자를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엘시디(LCD) 사업장에서의 반도체 및 엘시디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정비 및 수리 등 업무에 2011년 1월1일 이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근로자’로 명시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을 명시하지 않아 삼성전자 쪽이 난색을 표해온 협력업체 노동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br/>　조정위는 보상 대상 질병을 업무상 연관성이 입증된 정도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눠 넓게 설정했다. 1군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등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학술연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된 질병이다. 2군은 뇌종양, 유산·불임 같은 생식질환으로 산재로 인정된 적은 없지만 인과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질환이다. 3군은 선천선 기형 등 차세대 질환,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질환, 희귀암, 난소암이다. 업무 연관성이 입증된 적은 없지만 당사자가 받는 고통과 피해가 큰 질병들이다.<br/>　이는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 등 7종의 질병만 보상하겠다고 제시한 삼성전자 쪽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과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등 피해자·가족 쪽의 의견이 더 반영됐다. 다만 반올림이 파악한 직업병 피해자 가운데 유방암·난소암·희귀암 이외의 암도 있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가 발생할 수 있다.<br/>　■ 보상 기간 보상의 원칙과 기준의 또 다른 축은 ‘기간’이다. 조정위는 ‘2011년 1월1일 이전에 일하기 시작해 최소 1년 이상 일한 노동자’라는 최소한의 재직 기간 요건을 두었다. 퇴직 뒤 질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최대 잠복기간도 생식질환 등은 1년, 희귀질환은 5년, 난소암 등은 10년, 백혈병 등은 14년으로 조정위는 제안했다. 조정위가 권고한 재직기간·퇴직 뒤 잠복기간 요건도 삼성전자가 애초 제시한 안보다 폭이 넓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입사 6개월 만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숨진 윤슬기씨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br/>　■ 재발방지 대책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밝힌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의 원칙은 △지속가능성 △쌍방향성 △균형과 조화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공익법인의 역할 모두를 강조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애초 제안한 기존 보건관리 조직에 전문인력을 보강해 화학제품 조사, 진단·치료 지원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공익법인이 환경·안전·보건·관리 분야 등의 전문가 3인을 옴부즈맨으로 임명해, 삼성전자 사업장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권고하도록 했다.<br/>　■ 사과의 방식 조정위는 “사업장에 내재한 건강 유해 인자로 인한 위험에 대해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등의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읽고, 피해자·가족한테 개별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조정위의 조정권고안에 세 주체가 합의하면, 이들이 공동으로 ‘노동건강인권 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1회성 사과가 아닌 지속성을 지닌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6.txt

제목: 보상질병 범위 28종으로…재직기간 요건도 완화  
날짜: 2015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310018017514  
본문: 조정권고안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사회적 해결’이다.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발표한 조정권고안의 핵심은 삼성전자 등의 기부로 설립할 공익법인이 피해자 보상을 맡고 ‘재해 예방 대책’ 마련·실행도 삼성 쪽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사과 방식도 삼성전자 쪽의 개별·공식 사과뿐 아니라 “노동건강권은 기본적 인권”이라는 ‘노동건강인권 공동선언’을 권고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0'>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span>”며 ‘사회적 사과·책임·의제’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br/><br/> ■ 보상 대상 <br/><br/>조정위는 핵심 쟁점인 보상 대상 노동자와 질병을 삼성전자의 애초 제안보다 넓게 설정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span class='quot0'>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 그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나누겠다는 게 보상의 원칙</span>”이라고 밝혔다. 이런 원칙 아래 조정위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나 업무 연관성 유무를 엄격하게 따지기보다 ‘당사자의 고통’을 중시했다.<br/><br/> 조정위는 보상 대상자를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엘시디(LCD) 사업장에서의 반도체 및 엘시디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정비 및 수리 등 업무에 2011년 1월1일 이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근로자’로 명시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을 명시하지 않아 삼성전자 쪽이 난색을 표해온 협력업체 노동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br/><br/> 조정위는 보상 대상 질병을 업무상 연관성이 입증된 정도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눠 넓게 설정했다. 1군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등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학술연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된 질병이다. 2군은 뇌종양, 유산·불임 같은 생식질환으로 산재로 인정된 적은 없지만 인과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질환이다. 3군은 선천선 기형 등 차세대 질환,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질환, 희귀암, 난소암이다. 업무 연관성이 입증된 적은 없지만 당사자가 받는 고통과 피해가 큰 질병들이다.<br/><br/> 이는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 등 7종의 질병만 보상하겠다고 제시한 삼성전자 쪽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과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등 피해자·가족 쪽의 의견이 더 반영됐다. 다만 반올림이 파악한 직업병 피해자 가운데 유방암·난소암·희귀암 이외의 암도 있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가 발생할 수 있다.<br/><br/>업무연관성 따라 질병 3개군 나눠 <br/>2011년 1월1일 이전에 입사 <br/>최소 1년 이상 근무자로 규정 <br/>협력업체 노동자도 보상 길 열려 <br/>삼성에 기자회견·개별 사과 권고 <br/>조정위 “사회 구조적 해결” 강조<br/><br/><br/><br/> ■ 보상 기간 <br/><br/>보상의 원칙과 기준의 또 다른 축은 ‘기간’이다. 조정위는 ‘2011년 1월1일 이전에 일하기 시작해 최소 1년 이상 일한 노동자’라는 최소한의 재직 기간 요건을 두었다. 퇴직 뒤 질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최대 잠복기간도 생식질환 등은 1년, 희귀질환은 5년, 난소암 등은 10년, 백혈병 등은 14년으로 조정위는 제안했다. 조정위가 권고한 재직기간·퇴직 뒤 잠복기간 요건도 삼성전자가 애초 제시한 안보다 폭이 넓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입사 6개월 만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숨진 윤슬기씨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br/><br/> ■ 재발방지 대책 <br/><br/>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밝힌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의 원칙은 △지속가능성 △쌍방향성 △균형과 조화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공익법인의 역할 모두를 강조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애초 제안한 기존 보건관리 조직에 전문인력을 보강해 화학제품 조사, 진단·치료 지원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공익법인이 환경·안전·보건·관리 분야 등의 전문가 3인을 옴부즈맨으로 임명해, 삼성전자 사업장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권고하도록 했다.<br/><br/> ■ 사과의 방식 <br/><br/>조정위는 “사업장에 내재한 건강 유해 인자로 인한 위험에 대해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등의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읽고, 피해자·가족한테 개별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조정위의 조정권고안에 세 주체가 합의하면, 이들이 공동으로 ‘노동건강인권 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1회성 사과가 아닌 지속성을 지닌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뜻이다.<br/><br/>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7.txt

제목: 7월 24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5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310018016804  
본문: 런던 시내 정전…경찰은 테러 용의자 뒤쫓는데<br/><br/><br/><br/>고전영화극장 <사보타지>(교육방송 밤 10시45분) 조셉 콘라드의 소설 <비밀요원>을 원작으로 삼아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이 감독한 영화. 1936년작으로 히치콕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발판이 된 영화 가운데 하나다. 어느날 영국 런던 시내가 정전이 되고, 이 정전이 사고가 아니라 테러라고 추정한 경찰은 영화관 사장인 칼 벌록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다. 경찰은 테드 스펜서 형사를 영화관 옆 청과물 가게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증거를 찾으려 하지만, 테드는 벌록의 부인과 부인의 어린 남동생 스티브에게 호감을 느낀다. 테러 집단은 벌록에게 피카디리 광장에 폭탄을 갖다두라는 임무를 맡기지만, 벌록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며 주저한다. 테드의 감시를 눈치챈 벌록은 자신이 폭탄을 직접 배달하면 발각될까 우려해, 폭탄을 필름으로 위장하고 스티브에게 대신 배달을 맡긴다. 그러나 스티브는 길거리에서 한눈을 파는 바람에 그만 배달 시간을 놓치고,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고 만다. 벌록은 아내에게 사실을 고백하며 스티브가 죽은 원인을 경찰에게 돌리지만, 동생을 잃은 슬픔에 휩싸인 벌록 부인은 우발적으로 벌록을 죽이고 도망친다.<br/><br/><br/><br/>황석정의 생애 첫 건강검진 결과는?<br/><br/><br/><br/>나 혼자 산다(문화방송 밤 11시15분) 40대인 배우 황석정은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 “40대가 암 발생률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 긴장했던 황석정은 검진을 마친 뒤 의사에게서 정밀검사를 권유받고 놀란다. 올해로 49살이 된 배우 김광규는 <나 혼자 산다>의 무지개 회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올해 안으로 결혼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옥탑방에 홀로 사는 음악인 육중완은 더위 탈출을 시도한다.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 위해 냉동실에 머리를 들이밀고, 냉동식품들을 끌어안고 공포 웹툰을 보고, 전복과 낙지 등 각종 보양식품들을 구입해 보양식을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본다.<br/><br/><br/><br/>방파제서 들리는 의문의 울음소리<br/><br/><br/><br/>VJ특공대(한국방송2 저녁 8시30분) 강원도 강릉의 영진항 방파제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의문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자세히 들어보면 ‘도미파레 라파미도’의 규칙적인 음계가 확인된다는데, 그 원인이 뭔지 추적해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핑의 메카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의 진화된 모습도 카메라에 담는다. 동대문 시장은 신진 디자이너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매장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 남대문 시장은 불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 등의 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단다. 또 1년 내내 화려한 원색의 ‘커플룩’을 맞춰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유순례·박섭 부부의 ‘별난 인생’도 따라가 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8.txt

제목: 비싼 항암제 약값 /자료 제출뒤 일부 환급  
날짜: 2015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2100000073  
본문: Q<br/>폐암을 진단받고 항암제인 잴코리 캡슐을 먹고 있습니다. 약값이 비싸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큰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은 없나요?<br/>　<br/><br/>A<br/>폐암 치료에 쓰이는 잴코리 캡슐은 약값 일부를 환자한테 돌려주는 조건으로 올해 5월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보험 적용이 되는 약입니다. 위험분담제는 2014년 1월부터 운영중인데요.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의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으로 지정할 때, 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에 끼치는 영향 등의 불확실성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잴코리 캡슐은 약값 전액을 부담한 환자한테 약값 일부를 제약사가 돌려주도록 건보공단과 제약사 사이에 계약이 됐습니다.<br/>　약값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 제도는 올해 7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약제별 환급처로 직접 연락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잴코리 캡슐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위험분담약제 환급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br/>　이밖에 대장암 치료에 쓰이는 어비턱스주, 각각 다발성골수종과 전립선암에 사용되는 레블리미드 캡슐과 엑스탄디연질 캡슐도 환급이 되는 위험분담약입니다. 잴코리 캡슐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면 약값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진단서·의사소견서 등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잴코리 캡슐은 (02)317-2162, 어비턱스주는 (02)2263-5110, 레블리미드 캡슐은 (02)3469-7834, 엑스탄디연질 캡슐은 (02)3448-0501로 연락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69.txt

제목: 젊은 노인 늘어나는데 호칭도 세분화했으면 /미국-시니어 시티즌, 일본-실버… 세계가 고민중  
날짜: 2015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2100000062  
본문: Q<br/>65살인데 노인이라 불리기엔 너무 젊다고 고민하는 지난 8일치 ‘2막 상담실’을 읽었습니다. 저도 노인으로 불리는 게 어색하지만,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노년이 길어진 만큼 노인 호칭도 더욱 세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br/><br/><br/>A<br/>노인이라는 호칭을 어색해하는 이유는 지금 60대가 예전보다 훨씬 젊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지공 세대’도 실제 지하철을 이용하면 가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65~74살은 젊은 노인, 75~84살은 보통 노인, 85살 이상은 늙은 노인으로 구분해 부를 수도 없는 일입니다.<br/>　다른 나라에서는 노인을 어떻게 부를까요? 한국노년학회가 쓴 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신체적 노화를 의미하는 올드 피플(old people), 에이지드 퍼슨(aged person) 호칭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니어는 로마시대에 경험이 많은 훌륭한 병사를 지칭한 용어입니다. 시니어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부르기에 어색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존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모든 분들께 다 사용하는 것에 거부반응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br/>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을 고령자로 부르고,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희어짐과 지혜를 상징하는 실버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또 50, 60대를 인생의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의미로 실년(實年)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50대를 숙년(熟年), 60대를 장년(長年), 70대 이상은 존년(尊年)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건강하고 젊은 노인이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노인 호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br/>　그러나 모든 노인이 다 건강하고 젊은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통계를 보면 60대 중반에 만성질환과 암 발생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축적된 노화가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신체·정신적 노화 현상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평온하고 참을성 있게 지켜보려면 영웅적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100살 장수시대를 살게 된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건강 수명이 길어 젊은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네오(Neo)50연구소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0.txt

제목: 비싼 항암제 약값 자료 제출뒤 일부 환급  
날짜: 2015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110017988413  
본문: Q: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제인 잴코리 캡슐을 먹고 있습니다. 약값이 비싸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큰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은 없나요?<br/><br/> <br/><br/>A: 폐암 치료에 쓰이는 잴코리 캡슐은 약값 일부를 환자한테 돌려주는 조건으로 올해 5월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보험 적용이 되는 약입니다. 위험분담제는 2014년 1월부터 운영중인데요.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의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으로 지정할 때, 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에 끼치는 영향 등의 불확실성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잴코리 캡슐은 약값 전액을 부담한 환자한테 약값 일부를 제약사가 돌려주도록 건보공단과 제약사 사이에 계약이 됐습니다.<br/><br/> 약값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 제도는 올해 7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약제별 환급처로 직접 연락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잴코리 캡슐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위험분담약제 환급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대장암 치료에 쓰이는 어비턱스주, 각각 다발성골수종과 전립선암에 사용되는 레블리미드 캡슐과 엑스탄디연질 캡슐도 환급이 되는 위험분담약입니다. 잴코리 캡슐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면 약값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진단서·의사소견서 등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잴코리 캡슐은 (02)317-2162,어비턱스주는 (02)2263-5110, 레블리미드 캡슐은 (02)3469-7834, 엑스탄디연질 캡슐은 (02)3448-0501로 연락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br/><br/><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1.txt

제목: ‘젊은 노인’ 늘어나는데 호칭은 세분화 안되나…  
날짜: 2015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2110017987699  
본문: Q: 65살인데 노인이라 불리기엔 너무 젊다고 고민하는 지난 8일치 ‘2막 상담실’을 읽었습니다. 저도 노인으로 불리는 게 어색하지만,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노년이 길어진 만큼 노인의 호칭도 더욱 세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br/><br/>A: 노인이라는 호칭을 어색해하는 이유는 지금 60대가 예전보다 훨씬 젊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지공 세대’도 실제 지하철을 이용하면 가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65~74살은 젊은 노인, 75~84살은 보통 노인, 85살 이상은 늙은 노인으로 구분해 부를 수도 없는 일입니다.<br/><br/> 다른 나라에서는 노인을 어떻게 부를까요? 한국노년학회가 쓴 <노년의 아름다운 삶>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신체적 노화를 의미하는 올드 피플(old people), 에이지드 퍼슨(aged person) 호칭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니어는 로마시대에 경험이 많은 훌륭한 병사를 지칭한 용어입니다. 시니어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부르기에 어색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존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모든 분들께 다 사용하는 것에 거부반응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br/><br/>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을 고령자로 부르고,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희어짐과 지혜를 상징하는 실버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또 50, 60대를 인생의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의미로 실년(實年)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50대를 숙년(熟年), 60대를 장년(長年), 70대 이상은 존년(尊年)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건강하고 젊은 노인이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노인 호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br/><br/> 그러나 모든 노인이 다 건강하고 젊은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통계를 보면 60대 중반에 만성질환과 암 발생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축적된 노화가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신체·정신적 노화 현상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평온하고 참을성 있게 지켜보려면 영웅적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100살 장수시대를 살게 된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건강 수명이 길어 젊은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br/><br/>김현기 신한금융투자 네오(Neo)50연구소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2.txt

제목: 더(THE) 친절한 기자들 /-국정원 해킹사건 총정리 /음지의 국정원 /카톡 해킹 /들켰다 /야, 이제 불어! /대국민 사찰했지?  
날짜: 20150718  
기자: 정유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18100000052  
본문: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래 최대 규모 ‘스캔들’입니다. 한국도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br/>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속속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정보기술(IT) 용어가 복잡하기만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기사를 파악하기도 버겁습니다. 가 핵심만 쏙쏙 추려 ‘국정원 해킹 사건 총정리판’을 싣습니다.<br/><br/><br/>■ 악명 높은 해킹업체, 도리어 해킹을 당하다 지난 5일(현지시각) 늦은 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아이티기업 ‘해킹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군가 내부정보를 통째로 해킹해 인터넷에 올려버린 겁니다. 트위터 계정까지 탈취해 ‘해킹당한 팀’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조롱했습니다.<br/>　해킹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다수 국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는 해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프로그램 설계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각국 고객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음성 파일, 직원들이 쓰는 암호도 송두리째 노출됐습니다.<br/>　“<span class='quot0'>국제기구에 반인권 정부로 지목된 정부와는 거래하지 않는다</span>”던 해킹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유엔의 ‘무기 금수 조처’를 받은 수단은 이 프로그램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을 해킹하려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사서 비판적인 언론인과 활동가를 사찰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도청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등도 고객이었습니다.<br/> ■ 국정원도 빠질 순 없지 한국 국정원도 고객이었습니다. ‘육군 5163부대’라는 고객명을 썼는데, 국정원의 위장용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 때 1961년 5월16일 새벽 3시 한강을 넘었던 걸 ‘기념’해서 붙인 이름이랍니다.<br/>　7월7일과 8일 아이티 전문지가 외신을 인용해 정보 유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9일 온라인매체 에 개발자 이준행씨가 상세한 의혹을 소개했습니다. 9일치 , 10일치 등 일간지들도 ‘국정원이 구입처로 보인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는 아이티 담당 기자가 유출된 자료를 분석해 국정원이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영수증을 확인했고 11일치 1면에 실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즈음 ‘국외용·대북용’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br/>　정말 그럴까요? 가 지난 주말 분석에 매달린 결과,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13일치 “국정원이 ‘카톡 검열’ 기능 요구했다”는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로 국내에서 쓰는 카카오톡을 공격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국내 인사를 사찰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br/> ■ 대체 무슨 프로그램이길래? 우선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시에스(RCS), 즉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해킹 프로그램은 감시 대상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듣고 교류하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감시자에게 보여줍니다. 컴퓨터에 웹캠이 달려 있다면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스마트폰 통화 내용을 녹음해 전송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용자 몰래 이뤄집니다. 백신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리눅스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의 아이오에스(iOS) △블랙베리 △심비안 등 모든 운영체제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br/>　암호화된 메신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키보드 입력 단계에서 정보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역시 입력하는 순간 노출됩니다.<br/>　다만 이 프로그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시 대상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해킹팀이 쓰는 방법은 △감시 대상자의 무선공유기를 조작해 아르시에스를 설치한다 △문서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설치 파일을 보낸다 △일반 웹사이트로 보이는 변조된 설치 링크를 보낸다 등입니다.<br/> ■ 국정원의 감시 대상은 누구였나? 이 프로그램으로 국정원은 뭘 하려고 했을까요? 이병호 국정원장은 14일 “<span class='quot1'>북한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span>”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까지의 보도를 종합하면, 그럴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br/>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 국정원은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원했습니다. 2014년 3월 해킹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br/>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 국내용 모델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 국내 모델을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합니다. ‘맞춤 해킹’을 의뢰한 겁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릅니다. 국정원이 타깃으로 삼은 감시 대상자가 국내용 모델을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후로도 국정원은 갤럭시 최신형이 나올 때마다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미국 스마트폰 메신저인 바이버를 해킹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바이버는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사찰을 피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신 쓴다는 메신저입니다.<br/>　셋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br/>　넷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br/>　다섯째, 국정원이 해킹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메르스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6월에는 ‘메르스 정보 링크’를 위장한 악성코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애니팡2 △모두의 마블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인기 애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를 심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br/> ■ 대북 정보활동에 썼다면 합법? 국정원의 해명대로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해킹이었다면, 북한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연구해야 맞습니다. 북한은 ‘붉은별’이라는 컴퓨터 운영체계와 ‘아리랑’이란 휴대전화 운영체계를 쓰고 있습니다.<br/>　하지만 국정원은 “<span class='quot2'>남파 간첩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span>”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이슬람국가(IS)와 같은 반국가단체 등이 ‘슈어스팟’ 등의 암호화된 메신저를 쓰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설득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폰은 아이폰 운영체계에 견줘 해킹에 취약한데 남파 간첩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카톡으로 접선했을지는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br/>　백번 양보해서 간첩이 국내에서 카톡을 썼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간첩 의심자에게 접근할 필요도 없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카카오톡 서버를 통째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카카오톡 ‘해킹 기술’까지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일종의 ‘사전 감청영장’을 신청하면, 휴대전화와 인터넷망을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br/>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간첩과 같이 국가에 중차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대통령의 서면 승인만으로도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해킹을 시도한 걸 보면,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대’를 도청하려 한 것이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br/> ■ ‘뻔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 그런데 국정원이 “대북용”이라는, 속이 빤히 보이는 해명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대북용” 혹은 “남파 간첩 대응용”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무슨 행동을 하든 이해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생깁니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활동이나 국외 첩보활동이 주 업무지요.<br/>　결국 관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입니다. 정황상 북한 거주자에 대한 공격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국내에서 활동하는 남파 간첩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를 심어 감청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외국 국적자가 대상이라면 영장 없는 도청도 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스파이웨어를 썼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br/>　그런데 심지어 감시 대상자가 야당 정치인이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활동가 혹은 언론인이라면? 국정원의 업무는 대국민 감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파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br/>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국민 누구를 감시해 왔는가에 대해선 아직까지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인물이 변호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키리크스’가 15일 트위터에 “<span class='quot3'>‘해킹팀’이 한국군(SKA·국정원을 지칭)의 변호사 컴퓨터 해킹을 도왔다</span>”고 주장하며 증거 이메일을 첨부했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면, 해킹팀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2013년 9월 국정원(SKA)과 모아카(MOACA·몽골 정보기관)의 요구 사항을 담은 메일을 보내며 “<span class='quot4'>고객의 목표 대상은 변호사이지 기술자가 아니다</span>”라고 썼습니다. 감청 사실을 들킬 수 있으니 문제가 된 감시 회선을 삭제하라는 해킹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국정원 혹은 모아카 쪽에서 이 해킹팀 직원에게 ‘감청 대상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야를 잘 모를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span class='quot2'>그 변호사는 우리 쪽이 아닌 몽골 쪽</span>”이라고 해명했습니다.<br/> ■ 왜 영장 받지 않고 ‘스파이웨어’ 구입 택했나 그렇다면 국정원은 왜 몰래 ‘원격 감시 프로그램’을 구매했을까요?<br/>　첫째, 감시 대상이 민간인이어서 적법한 영장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입니다.<br/>　둘째, 장비와 편의성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영장에 따른 모든 전자통신기기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span class='quot2'>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이 없어 영장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span>”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br/>　만약 이동통신사에서 어떤 이의 휴대전화든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를 미리 갖추고 있다면, 국정원은 영장 집행을 통해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통신사가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빅브러더’ 사회를 전제로 한 것이겠지요. 이런 사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상대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이 국외 첩보시장에서는 널리 사용돼 왔습니다.<br/> ■ 국정원의 들통난 ‘거짓 해명’ 국정원은 14일 해명에서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은 두 차례 10개 회선씩, 총 20명분에 불과(해 대국민 감시용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br/>　14일까지의 언론 보도에서는 발견된 감시 프로그램 판매 기록이 20건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시 대상자가 20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정한 수의 감시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만으로도 해킹 공격의 대상을 바꿔가며 계속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 대상이 무한정 커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br/>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2012년 12월6일 대통령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30개 추가 주문했습니다. 총선을 한달 앞둔 2012년 3월에도 35개 라이선스를 추가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해킹팀의 내부 메일에서는 “동시에 많은 타깃들을” 성공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언급도 발견됐습니다.<br/>　국정원은 위기를 ‘기회’로 돌파할 기세입니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을 강조하면서 이동통신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감청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는 15일치 사설에서 “이동통신사에 감청장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습니다.<br/>　바야흐로 국가의 합법적인 ‘디지털 감시 시대’ 서막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br/>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3.txt

제목: 흡연자 폐암 80~90%가 ‘담배 때문’ /22년 통계로 확인됐다  
날짜: 20150717  
기자: 박수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17100000008  
본문: 한국인의 흡연과 폐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22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 흡연자인 폐암 환자 10명에 8~9명꼴로 암의 원인이 ‘담배’로 확인됐다. 이 분석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해온 ‘담배 소송’에서 핵심 논거의 하나로 쓰일 예정이다.<br/>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역학건강증진학)는 1992~2013년 22년간 건보공단과 국립암센터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담배를 피우는 남성 폐암 환자는 10명에 8명(소세포폐암 82.5%, 편평상피세포폐암 84.1%)꼴로 암의 원인이 담배였다고 16일 밝혔다. 흡연한 여성 폐암 환자는 10명에 9명(소세포폐암 88.2%, 편평상피세포폐암 94.4%)꼴로 담배가 암의 원인이었다. 지 교수는 “<span class='quot0'>여성의 폐 조직이 작고 음주나 사회생활 등으로 인한 다른 위험요인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폐 중심부의 기도에서 발병하는 ‘소세포폐암’과 폐의 기관지 점막을 구성하는 편평상피세포가 변성해서 생기는 ‘편평상피세포폐암’은 흡연과 상관성이 높은 폐암으로 알려져 있다. <br/>　지 교수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하여’에서 처음 공개했다.<br/>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케이티앤지(KT&G), 한국필립모리스, 비에이티(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01~2010년 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폐암·후두암 환자 가운데 ‘30년 넘게 흡연하고 20년 이상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운 환자’ 3484명한테 건보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부담한 진료비를 토대로 결정됐다. 재판은 5차 변론까지 진행됐다.<br/>　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span class='quot0'>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의 대상 암인 소세포폐암과 편평상피폐암, 후두암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가장 우세한 원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루 한갑씩 20년 넘게 흡연한 사람이 소송 대상 암 종류에 걸린 경우에는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4.txt

제목: 우주는 유령이 지배한다, 암흑물질이라는 유령이…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1710017954768  
본문: ▶ 우주의 시공은 끝없이 광활합니다. 광활한 우주를 지배하는 물질은 인류가 지금까지 접한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다른 물질과는 섞이지도, 반응하지도 않고 빛도 그냥 통과합니다. 단지 중력만 있는 이 물질을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라 부릅니다.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할 때도 등장하는 이 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주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지배하는 걸까요? <br/><br/><br/><br/>지금 당신 옆에 어떤 존재가 다가와 있다고 해보자. 전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분명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한다. 옷이나 머리카락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돌려봐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br/><br/> 우리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를 하나 알고 있다. 유령이다. 하지만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므로 유령은 답이 아니다. 놀랍게도 답은 우주에 있으며, 유령과 달리 과학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br/><br/> 우리 은하를 예로 들어보자. 빛의 속도로 10만년을 달려야 끝에서 끝에 다다를 수 있는, 납작하고 둥근 계란 프라이 형태를 하고 있다. 가운데에는 비교적 도톰한, 계란 프라이로 치면 노른자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 은하는 태양을 비롯한 1000억개 이상의 별과 거기에 딸린 행성, 위성, 기타 소천체와 가스로 이뤄져 있다. 가장 가까운 은하는 빛의 속도로 250만년 가야 도달하는 안드로메다은하이며, 두 은하는 서로를 향해 맹렬히 다가가 약 40억년 뒤에는 충돌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잘 알려진 은하의 모습이다.<br/><br/> <br/><br/> 눈에 보이지 않는 ‘초밀집 왜소은하’<br/><br/> 그런데 우리 은하의 모습이 최근 많이 변하고 있다. 우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유령’을 여럿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래 은하 주변에는 크기가 작은 은하인 왜소은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천체사진가들의 단골 촬영 대상인 대마젤란은하와 소마젤란은하다. 우리 은하 주위에는 이런 왜소은하가 20~30개 있다. 그런데 이런 왜소은하 중에, 마치 유령처럼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은하가 있다. ‘초밀집 왜소은하’(ultracompact dwarf galaxy)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크기가 우리 은하의 1만분의 1 이하로 아주 작고 어둡다. 흥미로운 것은 성분인데, 별이 별로 없는 대신 관측이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물질로 내부가 꽉 차 있다.<br/><br/> 이 물질은 인류가 지금까지 지구와 우주에서 접해온 어떤 물질과도 성질이 다르다. 물질과는 섞이지 않고, 만나도 소 닭 보듯 스쳐 지나간다. 둘 사이에는 어떤 ‘케미’(화학반응)도 없다. 보이지도 않는다. 과학자들은 이 미지의 물질에 은유적으로 ‘암흑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br/><br/> 사실 암흑물질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암흑이라는 말은 어둡거나 검다는 뜻이다. 어둡거나 검은 물질은 대부분 빛을 잔뜩 흡수한다. 빛을 반사하지 않으니 어둡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밀집된 왜소은하를 메우고 있는 미지의 물질은 이런 성질이 없다. 흡수나 반사는커녕 마치 투명인간처럼(혹은 유령처럼) 빛을 그냥 통과시킨다. 한마디로, 빛을 완전히 무시한다(중력에 의한 효과로 빛이 휘긴 하지만 그건 물질과 빛 사이의 반응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자).<br/><br/>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우주의 어떤 물질과 만나도 거의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암흑물질이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스르륵 통과해 지나쳐 버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흑물질이 우리 몸을 통과해 유유히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유령처럼.<br/><br/> 우리의 머리로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미지의 물질에 놀랐다면, 놀라움의 규모를 좀더 키워보자. 암흑물질은 은하의 뒤꼍이나 조그마한 ‘미니’ 은하의 그늘에 숨어 있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거대한 은하의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암흑물질이다. 별, 가스 등을 다 합친 것보다 대략 10배 정도 많은 암흑물질이 우리 은하를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초밀집 왜소은하는 이 비율이 대략 100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다). 이 암흑물질 덩어리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부르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 속 별과 가스는 그 속에 콕 박힌, 마치 단팥빵에 든 단팥 같은 존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팥 부분만 보고 그게 빵(은하)의 전체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br/><br/> 단팥빵 모양의 은하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천체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먼저 우주에 거대한 암흑물질 덩어리가 모였다. 암흑물질은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잘 뭉친다. 일단 뭉치고 나면 중력은 더 강해지고, 별과 가스 등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물질이 그곳으로 모인다. 이것은 움푹 파인 땅에 빗물이 흘러들어와 고이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다. 강한 중력을 내는 암흑물질이 몰려 있으니 우주에 일종의 ‘중력의 구덩이’가 만들어졌고, 거기로 물질이 흘러들어와 고인 것이다.<br/><br/><br/><br/>우리 은하 주변엔 ‘유령’이 여럿 <br/>유령은 물질과 반응 않는 암흑 <br/>보이지도, 섞이지도 않는다 <br/>암흑물질 모여 만든 구덩이로 <br/>별 같은 물질 모여 우주를 형성<br/><br/>암흑물질은 존재 자체가 가설 <br/>도입 안해도 된다는 이도 있지만 <br/>많은 관측·이론이 지지한다 <br/>암흑물질은 물질의 5배 이상 <br/>보이지 않는 세상, 존재할까?<br/><br/><br/><br/> 그러나 아직 정체를 모른다고?<br/><br/> 이쯤 되면 암흑물질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 정체를 모른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존재 자체도 아직은 가설이다. 암흑물질은 1960~70년대에,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연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루빈은 은하의 회전 속도를 계산하고 관측했는데, 이론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론대로라면 은하 중심에서 먼 곳은 중력이 약하므로 회전 속도가 느려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두 결과가 일치하려면 은하에 중력을 강하게 만드는 물질이 많이 숨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제안된 게 암흑물질이다. 관측되지 않았다는 게 이 가설의 가장 큰 약점인데, 행인지 불행인지 이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빛이나 물질과 반응하지 않고 따라서 관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br/><br/>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설명하기 위해 미지의 존재를 도입한다. 그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요약하면 이런데, 어딘가 익숙하다. 일상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유령이 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물론 암흑물질을 도입하는 과정이 그리 허무맹랑한 일은 전혀 아니었지만,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긴 하다. 이들은 암흑물질이 없어도 은하의 회전 속도 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은하 규모의 먼 우주에서는 태양계 내에서와 중력이 아주 다르게 작용한다는 가설이 있다. 뉴턴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중력(자유낙하 등)과 태양계 천체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중력은 근본적으로 같은 힘이다. 이른바 ‘만유인력’이다. 하지만 만약, 그보다 훨씬 먼 은하 규모에서는 뉴턴역학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뉴턴역학을 통해 계산한 은하의 회전 속도와 실제 속도가 다른 게 당연해진다. 학자들은 뉴턴역학을 수정했고, 이를 ‘수정뉴턴역학’이라고 불렀다. 이런 과학자들이라면 암흑물질에 대해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br/><br/> 하지만 암흑물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선 수많은 천체물리학의 관측 결과와 이론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도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세워졌다. 입자물리학도 암흑물질을 위한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그 후보 입자를 제안하고 있다. 2012년에 힉스 입자의 존재를 관측하면서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이론이라는 표준모형이 완성됐다. 당시 연구를 주도한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롤프디터 호이어 전 소장을 인터뷰했는데, 이야기의 절반은 새로운 업적인 힉스 입자 관측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미 힉스 입자 다음으로 암흑물질을 지목하고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다.<br/><br/> <br/><br/> 우주 팽창시키는 암흑에너지<br/><br/> 이제 규모를 더 키워보자. 우주 전체다. 암흑물질은 은하의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지배자다. 각종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우리 우주에는 물질보다 암흑물질이 5배 이상 많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약 6분의 1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암흑물질보다 다시 두세배 많은 양의 미지의 에너지가 우주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 에너지에도 은유적인 이름을 붙였다. ‘암흑에너지’다. 암흑물질은 강한 중력원으로 물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암흑에너지는 반대로 우주를 지속적으로 밀어 점점 빠르게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br/><br/> 가장 최근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물질 4.9%, 암흑물질 26.8%, 그리고 암흑에너지 68.3%로 이뤄져 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용하는 모든 물질들, 생명들, 생각, 사랑, 그리고 밤하늘을 가득 메운 무수한 별과 은하는 다 합쳐도 전체 우주의 5%도 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머지 95%의 우주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보다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br/><br/> 여기까지는 현대과학이 알려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관여할 수도 없는 미지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상상의 영역으로 이끈다. 혹시 미지의 물질로 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별과 은하가 존재하지는 않을까. 우리 은하와 중첩된 채 나름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암흑의 별과 은하 말이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빛으로 충만하고, 그들만의 화학규칙에 따라 몸을 이룬 생명체로 소란스러운 곳일지도 모른다. 우리와는 영원히 만날 수도, 포옹할 수도 없는 존재들의 세상이다. 영원한 불통과 어긋남은 서로 다른 두 물질계에 사는 우주적 존재의 속성이자 숙명일 것이다. 허황된 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니 자못 서글퍼진다.<br/><br/> 윤신영 <과학동아> 편집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5.txt

제목: 흡연자 폐암 80~90%가 ‘담배 탓’…22년 통계로 확인  
날짜: 2015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1610017946704  
본문: 한국인의 흡연과 폐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22년 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 흡연자인 폐암 환자 10명에 8~9명꼴로 암의 원인이 ‘담배’로 확인됐다. 이 분석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해온 ‘담배 소송’에서 핵심 논거의 하나로 쓰일 예정이다.<br/><br/>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역학건강증진학)는 1992~2013년 22년간 건보공단과 국립암센터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담배를 피우는 남성 폐암 환자는 10명에 8명(소세포폐암 82.5%, 편평상피세포폐암 84.1%)꼴로 암의 원인이 담배였다고 16일 밝혔다. 흡연한 여성 폐암 환자는 10명에 9명(소세포폐암 88.2%, 편평상피세포폐암 94.4%)꼴로 담배가 암의 원인이었다. 지 교수는 “<span class='quot0'>여성의 폐 조직이 작고 음주나 사회생활 등으로 인한 다른 위험요인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폐 중심부의 기도에서 발병하는 ‘소세포폐암’과 폐의 기관지 점막을 구성하는 편평상피세포가 변성해서 생기는 ‘편평상피세포폐암’은 흡연과 상관성이 높은 폐암으로 알려져 있다. <br/><br/> 지 교수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하여’에서 처음 공개했다.<br/><br/>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케이티앤지(KT&G), 한국필립모리스, 비에이티(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01~2010년 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폐암·후두암 환자 가운데 ‘30년 넘게 흡연하고 20년 이상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운 환자’ 3484명한테 건보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부담한 진료비를 토대로 결정됐다. 재판은 5차 변론까지 진행됐다.<br/><br/> 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span class='quot0'>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의 대상 암인 소세포폐암과 편평상피폐암, 후두암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가장 우세한 원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루 한갑씩 20년 넘게 흡연한 사람이 소송 대상 암 종류에 걸린 경우에는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6.txt

제목: 아들아, 토종엔 이 땅의 영혼이 담겨 있단다  
날짜: 20150715  
기자: 곽병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15100000103  
본문: 5월10일 마르셰 토종씨앗 나눔 행사엔 79종의 씨앗이 꼬마봉투 1231개에 담겨 있었다. 김혜영 농부가 ‘어깨가 뻐근하고 검지가 아리고 눈이 침침하도록’ 일일이 봉투를 접고 씨앗을 담아 가져온 것이었다. 꼬마단수수, 몽당수수, 까치수수, 점쟁이동부, 야생동부, 흰동부, 검은동부, 갓끈동부, 어금니동부, 개발동부, 그리고 단두, 강낭콩, 작두콩, 메주콩, 서리태, 땅콩, 팥, 옥수수, 기장, 조, 수수, 호박, 박, 여주, 아욱~. 6, 7월에 심을 작물들이었다.<br/>　씨앗을 나누는 날 그는 토종 찰쌀에 토종 팥고물을 얹은 시루떡과 토종 장콩 고물을 묻힌 인절미도 가져왔다. 집에서 손수 프라이팬으로 볶고 껍질을 벗긴 뒤 곱게 갈아 만든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빈손, 맨입으로 와 떡도 먹고 씨앗도 받고 파종 요령도 배워 갔다. 그의 바람은 하나. “씨앗과 함께 봉투에 담긴 건 토종 씨앗이 널리 널리 퍼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시집보낸 씨앗들이 자라는 사진을 이곳에 올려주시면 행복할 것입니다.” 선의와 헌신, 겸손과 신뢰, 사랑과 아름다움 등 따듯한 말들이 떠올랐다.<br/>　엊그제(7월12일)에도 씨앗나눔이 있었다. 씨앗 봉투 앞에는 산지와 채종한 농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완두 고양 맹추네농장, 재래중파 삼층거리파 청주 홍진희, 쌀귀리 호밀 시흥 강종은, 쪽파 시금치 장흥 김혜련…. 김장거리와 늦가을 뿌려 내년에 거둘 씨앗들이었다. “몬산토 씨를 구매하면 서약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채종하지 않는다, 거둔 씨를 나누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도 서약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채종하고, 씨앗은 반드시 나누고, 팔지 않는다.’ 이건 제 사부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br/>　그런 그에게 ‘싸부’가 있다니….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마을 약다산 기슭으로 이영동 농부를 찾아간 것은 순전히 그 때문이었다. 농장은 작고 볼품없었다.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살림집, 스무 이랑 정도의 텃밭, 창고 겸 그늘막, 비닐하우스, 다시 텃밭, 그리고 집과 밭을 에워싼 논 2천여평. 그저 작은 체구의 깡마르고 검게 그을린 이 땅의 농부였고, 가난한 농가였다.<br/>　탁자엔 술빵, 고추, 상추, 더덕, 장아찌, 멸치젓과 막걸리 1병이 있었다. “이건 앉은뱅이밀로 빚은 술빵.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주시곤 했죠. 밑에 깐 양하 잎은 어머니의 필수품이었고, 붕어초와 수비초, 청치마상추는 어머니의 밥상에 빠지지 않던 것이고….” 말끝마다 어머니의 기억이 따라나왔다.<br/>　‘저기 앞 고랑부터….’ 붕어초, 수비초, 사근초, 청치마상추, 조선가지, 그 너머에 흰고구마, 물고구마, 토종 당근, 그리고 양하…. 청치마상추는 당당한 풍채가 근위병 닮았다. 잎도 넓고 향기 맛 식감도 좋고 장마도 견디고, 숙면을 유도하고 스트레스와 암을 이기는 성분(시니그린, 락투신)도 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있다. 잎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조선가지는 개량종과 달리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날것으로 먹어도 맛있다. 토종 물고구마는 찌면 솥 바닥에 꿀이 진득하게 눌어붙을 정도로 달다. 저장도 쉬워 방구석에 놓아두면 봄까지 먹을 수 있다. 꽃이 핀 토종 당근은 어른 키보다 더 컸다.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 양하를 심어두고, 된장국 끓일 때나 빵을 찔 때, 떡이나 밥을 쌀 때 썼다.<br/>　그의 텃밭에서 자라는 것은 어머니의 맛과 기억이었다. “<span class='quot0'>언제나/ 엄니손 곁엔/ 씨앗들이 있었고/ 봄이 되면 씨앗들은/ 울엄니 희망이었네/ 가을엔 수확의 기쁨/ 또는 한숨이었네/ 그리고 씨앗에는/ 우리들의 명이/ 달려 있었네.</span>”(‘엄니의 보물’)<br/>　비닐하우스는 채종용으로 쓴다. 콩 조 기장 수수 보리 밀 옥수수 율무 깨 벼 토마토 등이 종류별로 한두 포기씩 자란다. 비닐하우스 너머 텃밭엔 앉은뱅이강낭콩, 남도장콩, 금두, 노랑준줄리, 그리고 꼬투리째 삶아 먹는 태두가 있고, 검은땅콩, 토종 땅콩도 자란다. 토종 땅콩은 알이 작아 콩나물용으로 쓰인다. 5월이면 어머니가 모래밭에 심고 시루를 엎어 놓은 뒤 사나흘 물만 주면 콩나물이 되어 나물도 국도 되는 것이었다. 참외도 개똥참외, 개구리참외, 쇠뿔참외, 호박참외, 수통참외, 깐치참외, 사과참외 등 열 종류 가까이 자란다.<br/>　그늘막 한켠은 작은 창고. 선반과 두 대의 냉장고가 있다. 씨앗 보관소이다.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선반엔 이듬해 심거나 나누게 될 것들이 보관돼 있고, 큰 냉장고는 1차 예비용 씨앗, 그리고 작은 냉장고는 2차 예비용 씨앗 저장고다. 크고 작은 병에는 28작물 150여종 씨앗이 담겨 있다. 벼가 35종, 콩이 58종, 팥이 13종, 조가 7종, 기장 4종, 수수 9종, 열무 3종, 보리가 5종, 밀이 2종, 들깨가 5종, 참외가 10종, 호박이 3종, 박이 5종이다. 오이 가지 무 배추 갓 부추 상추 마늘 시금치 쑥갓 파 생강 마늘…. 2013년 전남농업기술원은 이곳에서 원예작물 22점, 동부 등 두류 58점, 깨 등 특용작물 8점, 벼 등 식량작물 33점 등 총 28작목 121점을 받아갔다.<br/>　농부는 장흥에서 6남매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집안에선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나왔기에 지독하게 가난했던 부모님은 그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객지로 나가고 불과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개떡 밀죽 등 어머니의 맛이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씨앗 17가지만 남기고 돌아가셨다. 게다가 이씨는 경황 중에 그 씨앗마저 잃어버렸다.<br/>　‘어부는 혹돔 비늘 한 장 보고 백리를 가고, 농부는 씨앗 한 립 보고 천리를 간다’(김혜영 농부)고 했던가. 그는 틈틈이 강진 보성 영암 해남 등 남도지방을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씨앗을 찾아다녔다. 장터에서 콩 너덧 개 들고 나오다가 면박을 당하기도 했고, 강원도에선 농가를 기웃거리다가 간첩으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를 아는 이들이 씨앗을 보내오고, 그의 씨앗을 받아간다. 이제 그는 논과 밭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교잡종을 선택해 안정화시키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인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적토미나 반달미도 그렇게 탄생했다.<br/>　토종이란 특정 지역에서 수십 수백년에 걸쳐 생긴 변이종 가운데 농부가 선택하고 안정화시켜 얻은 종자다. 그런 농부의 노력은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머리처럼 반질반질하다고 중조, 개발을 닮았다고 개발조, 노란색이라고 황금조, 은색이라고 은차조, 청색이라고 청차조, 북실을 닮았다고 북실조. 선비가 그 맛에 반해 과거시험을 포기했다는 남도선비잡이콩, 쥐눈을 닮았다고 조생속청쥐눈이, 다산쥐눈이, 속노랑쥐눈이, 우산쥐눈이콩, 키가 작다고 앉은뱅이강낭콩, 앉은뱅이밀이다. 색깔로는 흰깨 검은깨 누렁깨 청목깨 붉은깨 네줄박이깨가 있다. 양생꽈리참외 등 참외는 주로 모양과 무늬로 나뉜다.<br/>　누대에 걸친 안정화 과정에서 씨앗은 지역의 풍토와 기후에 적응한다. 병충해에 강하고, 잡초에 이기고, 가뭄 등 기후변화에 잘 견디는 건 그 때문이다. 토종 벼가 까락이 길고 잎이 뾰족하며 자연색을 띠는 건 동물들로부터 저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토종 콩이 무광택에 넝쿨지는 건 새나 잡초로부터 저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토종 밀이 키가 작은 건 바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다.<br/>　지난 2월 그가 회장으로 있는 남도토종자원보존연구회 회원들이 토종 씨앗 유료화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안한 쪽은 “그래야 귀한 줄 알고 제대로 키운다”는 것이었다. 사실 씨앗을 받아가고는 제대로 심어 채종하고 나누는 이는 드물었다. 격론이 계속됐다. 회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씨앗은 내가 받았어도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조상이 물려주고 땅과 하늘이 길러준 것이다. 팔아선 안 된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내가 죽은 뒤 그렇게 하시든가…”라고 잘라 말했다.<br/>　장흥 방문 때 김혜영 농부가 밥을 내왔다. 흑미, 적미, 녹미, 현미(황), 백미에 선비잡이콩, 선비콩, 동부를 얹어 지었다. 밥은 차지고 고소하고 구수했다. “<span class='quot0'>아들아, 씨앗엔 이 땅의 영혼이 담겨 있단다.</span>” 그러시던 어머니의 향기가 배어나왔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7.txt

제목: 친일파 암살단 겨눈 /또 다른 총구  
날짜: 20150715  
기자: 안창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15100000074  
본문: ‘1000만 영화’ (2012)의 최동훈 감독이 을 들고 22일 관객들을 찾아온다. 180억원 이상의 순제작비에 전지현, 하정우, 이정재 등이 주연한 한국판 블록버스터로 관객들의 기대감도 높다. 과연 상반기 한국 영화의 전반적인 부진을 씻고 올해 첫 1000만 영화가 나올까. <br/>　배경은 1933년 중국과 조선. 조국은 사라지고, 상해 임시정부는 조선주둔군 사령관과 친일파 ‘강인국’(이경영)을 암살하는 작전을 꾸민다. 백범 김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임정 경무국 대장 ‘염석진’(이정재)은 이 작전을 위해 일본 쪽에 노출되지 않은 대원 세명을 차례로 불러 모은다. 한국 독립군 제3지대 저격수 ‘안옥윤’(전지현)과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조진웅), 폭탄전문가 ‘황덕삼’(최덕문) 등이 그들이다. <br/>　암살단은 경성으로 잠입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span class='quot0'>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리는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span>” 암살단 대장을 맡은 안옥윤은 이렇게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의 작전은 의외의 암초를 만나게 되니,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일본의 밀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 밀정은 이미 암살작전의 전모를 일본군 헌병대에 알렸을 뿐 아니라, 급기야 경성으로 직접 들어와 이들한테 총구를 겨눈다. <br/>　여기까지 ‘독립군 대 친일파(일본군)’의 대립 구도에 충실한 듯한데, 감독은 또 하나의 변수를 영화에 추가했다. 상하이의 전설적인 살인청부업자 ‘하와이 피스톨’(하정우)과 그의 충복 ‘영감’(오달수)의 등장이다. 염석진은 하와이 피스톨에게 거액을 건네면서 암살단의 제거를 의뢰하고, 하와이 피스톨과 영감은 경성으로 향한다. <br/>　영화는 ‘배우들의 잔치’라 부를 만큼 유명 배우들이 잇달아 등장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에서 김윤석, 김혜수, 김수현 등을 빼고, 대신 조진웅이 새로 들어간 셈이다. 이 여러 배우들의 앙상블과 김윤석과 김혜수의 로맨스를 기둥으로 삼았다면, 이번 은 전지현이 사실상 원톱으로 영화를 마지막까지 끌고 나간다. 최동훈 감독은 13일 시사회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을 끝내고 이번 작품에 매달렸다. 1년 동안 쓴 시나리오를 폐기하는 등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번 작품이 나에겐 새로운 전환점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br/>　그러나 배우들을 많이 보여주려는 감독의 욕심 때문일까. 영화는 전지현, 하정우, 이정재 등 주요 배우에 대한 설명에 각각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러다 보니 상영시간이 139분(2시간 19분)으로 길어졌다. 영화가 결정적인 인물의 정체를 초반부에 ‘너무 쉽게’ 드러내는 바람에 극적 긴장감이 떨어진 상황이라, 상영시간이 더욱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정우의 마지막 장면은 왜 영화 주인공은 총을 맞아도 쉽게 죽지 않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영화 후반부에 안옥윤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것이 영화를 끌고 나가는 주요 추진력이 되는데, 억지스럽게 느낄 관객도 많을 듯하다. 총격전 위주인 액션 장면은 차에 매달려 기관단총을 쏘는 장면 등에서 1930~40년대 배경의 미국 마피아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데 그친다.<br/>　반면, ‘생계형 독립군’이라고 하는 조진웅은 이제껏 나온 독립군 영화 가운데 처음 나오는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span class='quot0'>독립운동이라는 것도 배가 불러야 한다</span>”고 하는 닳고 닳은 인물처럼 보이지만, 가슴속 깊은 곳엔 진정한 분노와 용기를 갖고 있다. 영화 출연 분량이 너무 적은 게 아쉬울 정도다. 하정우가 연기한 하와이 피스톨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릴 듯하다. 하와이 피스톨은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를 언뜻 떠올리게 하는데, 애국심과는 거리가 멀고 바람둥이 느낌까지 주지만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해낸다. 그가 쓰는 소음기 달린 권총은 제임스 본드가 쓰는 총과 동일한 기종이다. 좋은 의미에서 영화 전체의 무게를 줄여주는 구실을 하지만, 나머지 인물들과 홀로 ‘족보’가 달라 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br/>　사회주의 계열의 약산 김원봉이 백범 김구와 합동으로 암살작전을 준비한다는 설정이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등장한 것은 기존의 독립군 영화에서 한걸음 나아간 장면들로 꼽힌다. <br/>　은 22일 개봉으로 영화판의 성수기인 여름 시장의 포문을 처음 연다. 한 주 뒤인 30일 이 개봉하지만, 적어도 한 주 동안은 독무대인 셈이다. 또다른 기대작인 (감독 류승완)도 개봉일이 다음달 5일로 잡혀 있다. 전작 의 좋은 성적(1298만여명)에 인기 배우들이 ‘총출동’한 이 어떤 성적을 거둘까.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600만~700만명 수준이다. 15살 이상 관람. <br/>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사진 ㈜쇼박스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8.txt

제목: 아들아, 토종엔 이 땅의 영혼이 담겨 있단다  
날짜: 2015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1410017907055  
본문: 엊그제 씨앗나눔이 있었다. “몬산토 씨를 구매하면 서약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거둔 씨를 나누지 않는다.’ 이 자리도 서약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채종하고, 씨앗은 반드시 나누고, 팔지 않는다.’ 이건 제 사부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br/><br/>장흥의 이영동 농부가 그 사부다. 그는 틈틈이 남도지방을 돌며 어머니의 씨앗을 찾아다녔다. 이제 그는 논과 밭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교잡종을 선택해 안정화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적토미나 반달미도 그렇게 탄생했다.<br/><br/>5월10일 마르셰 토종씨앗 나눔 행사엔 79종의 씨앗이 꼬마봉투 1231개에 담겨 있었다. 김혜영 농부가 ‘어깨가 뻐근하고 검지가 아리고 눈이 침침하도록’ 일일이 봉투를 접고 씨앗을 담아 가져온 것이었다. 꼬마단수수, 몽당수수, 까치수수, 점쟁이동부, 야생동부, 흰동부, 검은동부, 갓끈동부, 어금니동부, 개발동부, 그리고 단두, 강낭콩, 작두콩, 메주콩, 서리태, 땅콩, 팥, 옥수수, 기장, 조, 수수, 호박, 박, 여주, 아욱~. 6, 7월에 심을 작물들이었다.<br/><br/> 씨앗을 나누는 날 그는 토종 찰쌀에 토종 팥고물을 얹은 시루떡과 토종 장콩 고물을 묻힌 인절미도 가져왔다. 집에서 손수 프라이팬으로 볶고 껍질을 벗긴 뒤 곱게 갈아 만든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빈손, 맨입으로 와 떡도 먹고 씨앗도 받고 파종 요령도 배워 갔다. 그의 바람은 하나. “씨앗과 함께 봉투에 담긴 건 토종 씨앗이 널리 널리 퍼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시집보낸 씨앗들이 자라는 사진을 이곳에 올려주시면 행복할 것입니다.” 선의와 헌신, 겸손과 신뢰, 사랑과 아름다움 등 따듯한 말들이 떠올랐다.<br/><br/> 엊그제(7월12일)에도 씨앗나눔이 있었다. 씨앗 봉투 앞에는 산지와 채종한 농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완두 고양 맹추네농장, 재래중파 삼층거리파 청주 홍진희, 쌀귀리 호밀 시흥 강종은, 쪽파 시금치 장흥 김혜련…. 김장거리와 늦가을 뿌려 내년에 거둘 씨앗들이었다. “몬산토 씨를 구매하면 서약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채종하지 않는다, 거둔 씨를 나누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도 서약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채종하고, 씨앗은 반드시 나누고, 팔지 않는다.’ 이건 제 사부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br/><br/> 그런 그에게 ‘싸부’가 있다니….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마을 약다산 기슭으로 이영동 농부를 찾아간 것은 순전히 그 때문이었다. 농장은 작고 볼품없었다.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살림집, 스무 이랑 정도의 텃밭, 창고 겸 그늘막, 비닐하우스, 다시 텃밭, 그리고 집과 밭을 에워싼 논 2천여평. 그저 작은 체구의 깡마르고 검게 그을린 이 땅의 농부였고, 가난한 농가였다.<br/><br/> 탁자엔 술빵, 고추, 상추, 더덕, 장아찌, 멸치젓과 막걸리 1병이 있었다. “이건 앉은뱅이밀로 빚은 술빵.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주시곤 했죠. 밑에 깐 양하 잎은 어머니의 필수품이었고, 붕어초와 수비초, 청치마상추는 어머니의 밥상에 빠지지 않던 것이고….” 말끝마다 어머니의 기억이 따라나왔다.<br/><br/> ‘저기 앞 고랑부터….’ 붕어초, 수비초, 사근초, 청치마상추, 조선가지, 그 너머에 흰고구마, 물고구마, 토종 당근, 그리고 양하…. 청치마상추는 당당한 풍채가 근위병 닮았다. 잎도 넓고 향기 맛 식감도 좋고 장마도 견디고, 숙면을 유도하고 스트레스와 암을 이기는 성분(시니그린, 락투신)도 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있다. 잎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조선가지는 개량종과 달리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날것으로 먹어도 맛있다. 토종 물고구마는 찌면 솥 바닥에 꿀이 진득하게 눌어붙을 정도로 달다. 저장도 쉬워 방구석에 놓아두면 봄까지 먹을 수 있다. 꽃이 핀 토종 당근은 어른 키보다 더 컸다.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 양하를 심어두고, 된장국 끓일 때나 빵을 찔 때, 떡이나 밥을 쌀 때 썼다.<br/><br/> 그의 텃밭에서 자라는 것은 어머니의 맛과 기억이었다. “<span class='quot0'>언제나/ 엄니손 곁엔/ 씨앗들이 있었고/ 봄이 되면 씨앗들은/ 울엄니 희망이었네/ 가을엔 수확의 기쁨/ 또는 한숨이었네/ 그리고 씨앗에는/ 우리들의 명이/ 달려 있었네.</span>”(‘엄니의 보물’)<br/><br/> 비닐하우스는 채종용으로 쓴다. 콩 조 기장 수수 보리 밀 옥수수 율무 깨 벼 토마토 등이 종류별로 한두 포기씩 자란다. 비닐하우스 너머 텃밭엔 앉은뱅이강낭콩, 남도장콩, 금두, 노랑준줄리, 그리고 꼬투리째 삶아 먹는 태두가 있고, 검은땅콩, 토종 땅콩도 자란다. 토종 땅콩은 알이 작아 콩나물용으로 쓰인다. 5월이면 어머니가 모래밭에 심고 시루를 엎어 놓은 뒤 사나흘 물만 주면 콩나물이 되어 나물도 국도 되는 것이었다. 참외도 개똥참외, 개구리참외, 쇠뿔참외, 호박참외, 수통참외, 깐치참외, 사과참외 등 열 종류 가까이 자란다.<br/><br/> 그늘막 한켠은 작은 창고. 선반과 두 대의 냉장고가 있다. 씨앗 보관소이다.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선반엔 이듬해 심거나 나누게 될 것들이 보관돼 있고, 큰 냉장고는 1차 예비용 씨앗, 그리고 작은 냉장고는 2차 예비용 씨앗 저장고다. 크고 작은 병에는 28작물 150여종 씨앗이 담겨 있다. 벼가 35종, 콩이 58종, 팥이 13종, 조가 7종, 기장 4종, 수수 9종, 열무 3종, 보리가 5종, 밀이 2종, 들깨가 5종, 참외가 10종, 호박이 3종, 박이 5종이다. 오이 가지 무 배추 갓 부추 상추 마늘 시금치 쑥갓 파 생강 마늘…. 2013년 전남농업기술원은 이곳에서 원예작물 22점, 동부 등 두류 58점, 깨 등 특용작물 8점, 벼 등 식량작물 33점 등 총 28작목 121점을 받아갔다.<br/><br/> 농부는 장흥에서 6남매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집안에선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나왔기에 지독하게 가난했던 부모님은 그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객지로 나가고 불과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개떡 밀죽 등 어머니의 맛이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씨앗 17가지만 남기고 돌아가셨다. 게다가 이씨는 경황 중에 그 씨앗마저 잃어버렸다.<br/><br/> ‘어부는 혹돔 비늘 한 장 보고 백리를 가고, 농부는 씨앗 한 립 보고 천리를 간다’(김혜영 농부)고 했던가. 그는 틈틈이 강진 보성 영암 해남 등 남도지방을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씨앗을 찾아다녔다. 장터에서 콩 너덧 개 들고 나오다가 면박을 당하기도 했고, 강원도에선 농가를 기웃거리다가 간첩으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를 아는 이들이 씨앗을 보내오고, 그의 씨앗을 받아간다. 이제 그는 논과 밭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교잡종을 선택해 안정화시키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인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적토미나 반달미도 그렇게 탄생했다.<br/><br/> 토종이란 특정 지역에서 수십 수백년에 걸쳐 생긴 변이종 가운데 농부가 선택하고 안정화시켜 얻은 종자다. 그런 농부의 노력은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머리처럼 반질반질하다고 중조, 개발을 닮았다고 개발조, 노란색이라고 황금조, 은색이라고 은차조, 청색이라고 청차조, 북실을 닮았다고 북실조. 선비가 그 맛에 반해 과거시험을 포기했다는 남도선비잡이콩, 쥐눈을 닮았다고 조생속청쥐눈이, 다산쥐눈이, 속노랑쥐눈이, 우산쥐눈이콩, 키가 작다고 앉은뱅이강낭콩, 앉은뱅이밀이다. 색깔로는 흰깨 검은깨 누렁깨 청목깨 붉은깨 네줄박이깨가 있다. 양생꽈리참외 등 참외는 주로 모양과 무늬로 나뉜다.<br/><br/> 누대에 걸친 안정화 과정에서 씨앗은 지역의 풍토와 기후에 적응한다. 병충해에 강하고, 잡초에 이기고, 가뭄 등 기후변화에 잘 견디는 건 그 때문이다. 토종 벼가 까락이 길고 잎이 뾰족하며 자연색을 띠는 건 동물들로부터 저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토종 콩이 무광택에 넝쿨지는 건 새나 잡초로부터 저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토종 밀이 키가 작은 건 바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다.<br/><br/> 지난 2월 그가 회장으로 있는 남도토종자원보존연구회 회원들이 토종 씨앗 유료화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안한 쪽은 “그래야 귀한 줄 알고 제대로 키운다”는 것이었다. 사실 씨앗을 받아가고는 제대로 심어 채종하고 나누는 이는 드물었다. 격론이 계속됐다. 회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씨앗은 내가 받았어도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조상이 물려주고 땅과 하늘이 길러준 것이다. 팔아선 안 된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내가 죽은 뒤 그렇게 하시든가…”라고 잘라 말했다.<br/><br/> 장흥 방문 때 김혜영 농부가 밥을 내왔다. 흑미, 적미, 녹미, 현미(황), 백미에 선비잡이콩, 선비콩, 동부를 얹어 지었다. 밥은 차지고 고소하고 구수했다. “<span class='quot0'>아들아, 씨앗엔 이 땅의 영혼이 담겨 있단다.</span>” 그러시던 어머니의 향기가 배어나왔다. <br/><br/>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79.txt

제목: 국정원 구매 의혹 ‘해킹 프로그램’, SNS까지 ‘손바닥 보듯’  
날짜: 2015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1010017872979  
본문: 국가정보원이 외국 도·감청 프로그램 판매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들여 컴퓨터·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런 정황이 포착된 과정과 이 업체가 판매한 해킹 도구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r/><br/> 광범위한 온라인 사찰 길을 열어줄 강력한 기능의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구매했다는 의혹은 지난 6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이 외부의 공격을 받은 뒤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제기됐다. 현재 무려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자료가 피투피(P2P) 방식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비트토렌트’(BitTorrent)에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국정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거래한 정황이 담긴 영수증들도 포함돼 있다. 이 영수증들엔 이 업체의 대표 상품인 해킹 프로그램 ‘아르시에스’(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 관련 거래 명세가 담겨 있다. <br/><br/> ‘해킹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에는 이 업체와 거래한 세계 각국 고객 명단과 함께 2011년부터 4년 동안의 영수증, 고객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겨레>가 보안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니, 한국 말고도 미국, 멕시코, 터키, 폴란드 등 여러 국가는 물론 미국 연방수사국(FBI), 카자흐스탄 국가안보부(KNB) 등 정보기관이 ‘해킹팀’과 거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수증 자료가 확인됐다.<br/><br/><br/><br/>안드로이드폰·아이폰 모두 뚫려 <br/>원격 조종으로 파일 삭제 <br/>암호화 된 문서까지 볼 수 있어<br/><br/>이탈리아업체 자료 추정 400GB에 <br/>‘한국부대서 구입’ 영수증 나와<br/><br/><br/><br/> 이와 관련해 ‘해킹팀’은 9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해커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고객 명단 등의 자료가 노출된 것은 사실이며 자신들이 제작한 도·감청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밝혔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업체는 현재 자신들의 도·감청 도구를 테러리스트 등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고객들에게도 이 시스템의 사용을 일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br/><br/> 실제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는 고객 정보와 관련한 문건 외에 해킹팀이 제작해 판매하던 도·감청 프로그램의 일부 소스코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보보호 회사인 엔시에이치시(NSHC) 시큐리티는 지난 8일 ‘긴급 이슈 공유’ 보고서를 내어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이들이 판매하던 공격코드가 유출됐으며, 이는 플래시 취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경고하기도 했다.<br/><br/> 이에 따라 ‘해킹팀’의 대표 상품으로 우리 국정원이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해킹 프로그램 ‘아르시에스’가 얼마나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눈길이 쏠린다. 이 프로그램은 ‘감시 대상’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듣고 교류하는 모든 내용을 눈으로 보듯 ‘감시자’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해킹 도구로 알려져 있다. 제작사인 ‘해킹팀’은 누리집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감시 대상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문서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국경을 넘을 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구글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 스카이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국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도 감시가 쉽지 않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도 손쉽게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가 누리집에 밝힌 감시 가능 대상만 해도 스카이프를 비롯해 각종 보이스콜, 사회관계망서비스, 각종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 등 광범위하다. 심지어 운영체제와 플랫폼도 가리지 않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리눅스,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의 아이오에스(iOS), 블랙베리와 심비안 등 모든 체제에서 해킹할 수 있다.<br/><br/> 이 강력한 해킹 도구 앞에선 암호화도 소용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전문가는 “<span class='quot0'>해당 프로그램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시스템 관리자가 열어둔 문인 ‘백도어’를 통해 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라 아무리 암호화를 해두었다 해도 키보드 입력 값을 대부분 그대로 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0.txt

제목: 의사들은 왜 ‘치사량의 약물’을 주입했을까  
날짜: 20150710  
기자: 이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10100000101  
본문: 재난, 그 이후<br/>셰리 핑크 지음, 박중서 옮김<br/>알에이치코리아·2만2000원<br/><br/>이 책을 읽기로 했다면 심호흡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700쪽(각주 포함)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500차례가 넘는 인터뷰를 통해 수확한 조밀한 ‘사실’들이 가득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박사 출신의 의학전문기자인 지은이 셰리 핑크는 2005년 8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를 2007년 2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메모리얼 병원이었다. <br/>　뉴올리언스에서만 1000여명(루이지애나 전체로는 1만여명)이 사망한 초특급 재난을 맞아 한 병원에서 45구의 주검이 발견된 것이, 6년의 세월을 들여 취재할 만큼 중요한 일일까. 이 병원의 사례가 지은이에게 각별했던 이유는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뜨거운 주제인 ‘안락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카트리나가 들이닥친 2005년 8월28일 일요일부터 9월1일 목요일까지 닷새 동안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br/>　첫날인 일요일에는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긴 했지만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뉴올리언스를 보호하던 제방이 터지면서 화요일부터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1920년대 서던 뱁티스트(침례교)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메모리얼 병원은 이 도시 가장 낮은 지대에,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수요일 아침에는 비상 발전기마저 고장나 병원 전체가 어둠에 잠겼고, 환자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던 기계에도 전력 공급이 끊겼다. 병원 밖으로는 총성이 들렸고, 방송은 폭도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언론이 전했던 약탈 소식은 나중에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br/>　“사람들은 양동이 변기에다 용변을 보았다. (…) 오물 냄새가 진동했다. (…) 작동 중이던 극소수의 인공호흡기 가운데 하나도 중단되었는데, 하필 취약한 골수 이식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서였다. 이제는 그 기계에서 뜨거운 공기만 흘러나왔다.” 나중엔 간호사들이 수동으로 인공호흡기를 조작해야 했다.<br/>　당시 메모리얼 병원에는 200여명의 환자가 있었고, 의료진이 데려온 애완동물의 숫자도 대략 이와 맞먹었다. 어떤 의사는 진작에 환자를 버리고 병원을 떠난 상태였고, 어떤 의사는 환자보다 자기 고양이 걱정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특히 병원 7층에 세들어 있던 중환자병동 ‘라이프케어-뱁티스트’에는 55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를 책임질 의사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br/>　메모리얼 간호부장이자 재난대비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멀더릭은 혼자 힘으로 병원을 빠져나갈 수 없는, 나가도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환자들을 안락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용기있는 태도로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던 두경부 외과 암 전문의 애나 마리아 포가 멀더릭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 이들은 목요일 저녁까지 모두 병원을 빠져나가기로 결정한 마당에 인공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환자들이 편안히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치사량의 약물”을 주입하기로 결정한다. 주로 모르핀 같은 진정제였다. 환자들을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것보다 인도적인 조처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 (CNN)을 비롯한 언론이 안락사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br/>　그러나 검찰은 결국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메모리얼의 소유주인 병원재벌 ‘테닛’이 지역 정치인의 돈줄이기도 했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 여론은 애나 포 등을 영웅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대배심도 “기소 부적절” 의견을 냈다. 연방검찰과 달리 기소권을 갖고 있는 지방검찰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당연해 보였다. <br/>　지은이가 ‘정부의 실패’ 혹은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니다. 책임을 떠넘기느라 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친 정부 기관들, 업무를 맡은 지 4개월밖에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력했던 연방의 재난관리조정실장, 비용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 공사를 포기한 병원, 대통령의 행차로 구조가 늦어진 점, 메모리얼이 비상태세 점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아이러니 등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병원의 의사들이 아니라 차라리 부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했다. 폭풍 때 혼자 남아서 일한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야만 했다. (라이프케어 간호부장) 이스벨이 보기에, ‘타이타닉’호의 침몰 상황에다가 전쟁 상황을 합친 것과 다름없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준 의사는 악당이 아니라 오히려 영웅으로 간주해야 했다.”<br/>　그러나 지은이는 안락사를 택한 의료진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테면 공립 채리티병원의 사례는 메모리얼과 매우 대조적이다. 채리티 역시 전력이 끊어지고 컴퓨터와 전화,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았다. 환자 수는 메모리얼의 두배였고, 환자 대비 직원 비율은 메모리얼보다 더 낮았는데도, 이들은 끝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이곳에서 사망한 환자는 겨우 3명이었다. 비결은 민주주의와 상호 신뢰였다. “이곳 지도자들은 네시간에 한번씩 로비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이때는 의사부터 미화원까지 모두가 참석했다. 이들은 플래시 불빛을 이용해 장기자랑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분장을 하고 웃기도 했다. (…) 직원들이 각자의 승용차에서 기름을 뽑아와 이동식 소형 발전기 열대에 연료를 공급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인공호흡기와 심장 박동 측정기에 동력을 공급했고, 결국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과 미숙아들을 살아 있게 만들었다. (…)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채리티의 지도자들이 환자들 가운데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구조가 불가능한 부류를 굳이 골라내지 않았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가장 위중한 환자는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처음 내보냈다.” 메모리얼과 정확히 반대로 행동한 것이다.<br/>　카트리나 사태는 메르스와 세월호라는 재난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병원은 물에 잠겼고 헬리콥터와 보트로 탈출해야 하는 상황, 누구도 전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의 길이었을까.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과연 메르스나 세월호 때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br/>　지은이는 2009년 ‘메모리얼의 치명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와 에 동시에 실어 2010년 퓰리처상을 받았고, 추가 취재를 통해 2013년 (원제: Five Days at Memorial, 2013)를 냈다. 이 책은 2013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았다. 미국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면 이런 저널리즘의 존재 덕분일 것이다. <br/>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1.txt

제목: ‘세월호+메르스’ 메모리얼 병원은 왜 재난관리에 실패했나  
날짜: 2015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910017865198  
본문: 재난, 그 이후 <br/>셰리 핑크 지음, 박중서 옮김 <br/>알에이치코리아·2만2000원<br/><br/><br/><br/>이 책을 읽기로 했다면 심호흡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700쪽(각주 포함)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500차례가 넘는 인터뷰를 통해 수확한 조밀한 ‘사실’들이 가득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박사 출신의 의학전문기자인 지은이 셰리 핑크는 2005년 8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를 2007년 2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메모리얼 병원이었다. <br/><br/> 뉴올리언스에서만 1000여명(루이지애나 전체로는 1만여명)이 사망한 초특급 재난을 맞아 한 병원에서 45구의 주검이 발견된 것이, 6년의 세월을 들여 취재할 만큼 중요한 일일까. 이 병원의 사례가 지은이에게 각별했던 이유는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뜨거운 주제인 ‘안락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카트리나가 들이닥친 2005년 8월28일 일요일부터 9월1일 목요일까지 닷새 동안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br/><br/> 첫날인 일요일에는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긴 했지만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뉴올리언스를 보호하던 제방이 터지면서 화요일부터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1920년대 서던 뱁티스트(침례교)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메모리얼 병원은 이 도시 가장 낮은 지대에,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수요일 아침에는 비상 발전기마저 고장나 병원 전체가 어둠에 잠겼고, 환자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던 기계에도 전력 공급이 끊겼다. 병원 밖으로는 총성이 들렸고, 방송은 폭도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언론이 전했던 약탈 소식은 나중에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br/><br/> “사람들은 양동이 변기에다 용변을 보았다. (…) 오물 냄새가 진동했다. (…) 작동 중이던 극소수의 인공호흡기 가운데 하나도 중단되었는데, 하필 취약한 골수 이식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서였다. 이제는 그 기계에서 뜨거운 공기만 흘러나왔다.” 나중엔 간호사들이 수동으로 인공호흡기를 조작해야 했다.<br/><br/> 당시 메모리얼 병원에는 200여명의 환자가 있었고, 의료진이 데려온 애완동물의 숫자도 대략 이와 맞먹었다. 어떤 의사는 진작에 환자를 버리고 병원을 떠난 상태였고, 어떤 의사는 환자보다 자기 고양이 걱정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특히 병원 7층에 세들어 있던 중환자병동 ‘라이프케어-뱁티스트’에는 55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를 책임질 의사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br/><br/> 메모리얼 간호부장이자 재난대비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멀더릭은 혼자 힘으로 병원을 빠져나갈 수 없는, 나가도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환자들을 안락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용기있는 태도로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던 두경부 외과 암 전문의 애나 마리아 포가 멀더릭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 이들은 목요일 저녁까지 모두 병원을 빠져나가기로 결정한 마당에 인공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환자들이 편안히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치사량의 약물”을 주입하기로 결정한다. 주로 모르핀 같은 진정제였다. 환자들을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것보다 인도적인 조처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 <시엔엔>(CNN)을 비롯한 언론이 안락사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br/><br/> 그러나 검찰은 결국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메모리얼의 소유주인 병원재벌 ‘테닛’이 지역 정치인의 돈줄이기도 했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 여론은 애너 포 등을 영웅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대배심도 “기소 부적절” 의견을 냈다. 연방검찰과 달리 기소권을 갖고 있는 지방검찰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당연해 보였다. <br/><br/> 지은이가 ‘정부의 실패’ 혹은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니다. 책임을 떠넘기느라 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친 정부 기관들, 업무를 맡은 지 4개월밖에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력했던 연방의 재난관리조정실장, 비용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 공사를 포기한 병원, 대통령의 행차로 구조가 늦어진 점, 메모리얼이 비상태세 점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아이러니 등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병원의 의사들이 아니라 차라리 부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했다. 폭풍 때 혼자 남아서 일한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야만 했다. (라이프케어 간호부장) 이스벨이 보기에, ‘타이타닉’호의 침몰 상황에다가 전쟁 상황을 합친 것과 다름없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준 의사는 악당이 아니라 오히려 영웅으로 간주해야 했다.”<br/><br/> 그러나 지은이는 안락사를 택한 의료진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테면 공립 채리티병원의 사례는 메모리얼과 매우 대조적이다. 채리티 역시 전력이 끊어지고 컴퓨터와 전화,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았다. 환자 수는 메모리얼의 두배였고, 환자 대비 직원 비율은 메모리얼보다 더 낮았는데도, 이들은 끝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이곳에서 사망한 환자는 겨우 3명이었다. 비결은 민주주의와 상호 신뢰였다. “이곳 지도자들은 네시간에 한번씩 로비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이때는 의사부터 미화원까지 모두가 참석했다. 이들은 플래시 불빛을 이용해 장기자랑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분장을 하고 웃기도 했다. (…) 직원들이 각자의 승용차에서 기름을 뽑아와 이동식 소형 발전기 열대에 연료를 공급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인공호흡기와 심장 박동 측정기에 동력을 공급했고, 결국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과 미숙아들을 살아 있게 만들었다. (…)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채리티의 지도자들이 환자들 가운데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구조가 불가능한 부류를 굳이 골라내지 않았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가장 위중한 환자는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처음 내보냈다.” 메모리얼과 정확히 반대로 행동한 것이다.<br/><br/> 카트리나 사태는 메르스와 세월호라는 재난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병원은 물에 잠겼고 헬리콥터와 보트로 탈출해야 하는 상황, 누구도 전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의 길이었을까.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과연 메르스나 세월호 때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br/><br/> 지은이는 2009년 ‘메모리얼의 치명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프로퍼블리카>와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동시에 실어 2010년 퓰리처상을 받았고, 추가 취재를 통해 2013년 <재난, 그 이후>(원제: Five Days at Memorial, 2013)를 냈다. 이 책은 2013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았다. 미국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면 이런 저널리즘의 존재 덕분일 것이다. <br/><br/>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2.txt

제목: “셰프! ‘갈색거저리 애벌레’ 1인분 추가요”  
날짜: 2015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810017845862  
본문: 식용 애벌레를 이용한 음식과 음식 재료가 130여가지나 개발됐다.<br/><br/>8일 농촌진흥청은 식용 벌레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일명 고소애)를 이용한 음식과 음식 재료 130여가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갈색 거저리는 딱정벌레의 일종으로 애벌레는 영양 성분이 많아 주로 애완동물의 먹이로 사용돼 왔다. 갈색 거저리는 단백질의 함량이 53%에 이르고 철과 인 성분도 풍부하며 새우와 비슷한 맛을 갖고 있어 식품으로의 가능성이 크다. 농진청은 지난해 갈색 거저리와 흰점박이꽃무지의 애벌레, 올해 장수풍뎅이의 애벌레를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 이들이 특별한 문제 없이 3년 동안 식품으로 사용되면 일반 식품으로 전환 등록된다.<br/><br/>이번에 농진청은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를 이용해 간장양념장 등 요리용 소스 15종, 주먹밥 등 한식 23종, 양식 21종, 일식·중식 16종, 후식·음료 17종 등을 만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음식 재료들은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를 가루나 다짐, 국물 등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애벌레를 통째로 요리하는 데서 오는 거부감을 줄이는 데 신경을 썼다.<br/><br/>또 건강과 체력을 회복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음식으로 어묵채소볶음 등 암 환자 고단백식 33종, 쌀 미음 등 위장관 질환식 6종, 그밖의 6종 등을 개발했다. 갈색 거저리 애벌레는 작은 양으로도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공급할 수 있어 환자 음식용으로 특히 적합하다. 예를 들어 8g의 단백질의 얻기 위해서는 갈색 거저리 애벌레는 15g만 먹으면 되지만, 소·돼지 고기는 40g, 생선과 달걀은 50g을 먹어야 한다.<br/><br/>강필돈 농진청 곤충산업과장은 “애벌레를 이용한 음식을 가정이나 식당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소개 책자를 만들고 제품으로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환자들을 위한 식품들은 임상 실험을 통해 그 우수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br/>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3.txt

제목: “필리핀 아픈 아이들 살릴 ‘상금 100만원’ 포기한 이유는”  
날짜: 2015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810017848547  
본문: ‘한국 1세대 다큐사진가’로 꼽히는 최민식(1928~2013년)의 이름을 내건 ‘제2회 최민식사진상’ 수상작이 선정돼 7일 시상식이 열렸다. 최민식사진상은 전업 사진가를 대상으로 하는 본상과 아마추어 사진가 부문 특별상으로 나뉜다. 그런데 일부에서 대상작의 적합성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특별상 수상자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인 양철수(64·사진)씨는 수상의 영예를 거부했다. 상금 100만원은 누군가에겐 대단치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그에겐 꼭 필요한 큰돈이기도 했다. 그 사연이 궁금해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그와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로 인터뷰했다.<br/><br/> 양씨는 1999년 필리핀으로 건너가 빈민촌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번 최민식사진상에 출품한 포트폴리오 <아, 필리핀>도 그곳에서 만난 수술이 시급한 아이들의 아픔과 꿈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핀이 배경이고, 비교적 최근이란 시점이 다를 뿐, 최민식의 사진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최민식에게 바치는 오마주’라는 느낌이 매우 강하다.<br/><br/><br/><br/>1999년부터 필리핀 빈민촌 봉사 기록 <br/>심장병·한센병 환자 치료비 보태고자 <br/>‘최민식에 바치는 오마주’ 사진집 출품<br/><br/>‘최민식사진상’ 특별상 뽑혔지만 거부 <br/>“<span class='quot0'>선생의 사진 정신에 맞지 않는 선정</span>” <br/>암 발병해 귀국…기초생활수급자 처지<br/><br/><br/><br/> 양씨는 어릴 때부터 사진을 좋아하긴 했으나 형편이 어려워 미루던 중, 71년 군에 입대해 스쿠버다이빙을 익히면서 수중사진을 배웠다. 제대한 뒤 88년부터 잠수업체에서 일했고 수상 인명구조, 주검 인양 등을 줄곧 했다. 98년 부산 영도에서 바다에 빠진 택시를 건져낸 공로로 ‘부산시장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무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다. 인명을 구조하고 주검을 인양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한데다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어 불행한 개인사를 겪기도 했다. 그러다 99년 전세계 다이버들이 몰리는 필리핀의 네그로스섬으로 건너가 바콜로드라는 작은 섬에서 스쿠버숍을 열고 남을 돕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2011년 임파선암이 발병해 수술하러 귀국한 그에 이어 가족들도 들어와 지금은 형편 닿는 대로 필리핀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br/><br/> －왜 수상을 거부했는가?<br/><br/> “사진전에 응모해본 것이 난생처음이다. 아마추어 부문 대상에 선정되면 상금이 500만원인데 그 돈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메리조이(12)의 수술비에 보태고 싶어서 응모했던 것이다. 대상이 아닌 장려상이라 100만원이지만 우리에겐 큰돈이다. 지난달 22일 수상 소식을 들었고 28일께 내 작품을 비롯해 전체 수상작이 실린 사진잡지가 집으로 배달되었기에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펼쳐 봤다.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다. 본상도 그렇고 특별상의 일부도 그랬다. 내가 사진평론가도 아니니 일일이 ‘사진이 어떻다…’라고 시비할 일은 아니다. 생전에 최민식 선생을 직접 만난 적도 있는데, 최 선생은 특히 ‘몸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지론을 갖고 계셨다. 자기 체험, 경험, 직접적인 상황을 승화하는 사진이어야 하는데 이번 수상작들은 최 선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주최 쪽인 협성문화재단에 수상을 거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평소 최 선생을 흠모했고, 어려운 이들과 15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온몸으로 틈틈이 찍어온 사진이다. 사진 속 사람들의 고통을 내 가슴에 묻어 표현한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특별상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br/><br/>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서 상금 100만원이라도 좋은 일에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br/><br/> “수상 거부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날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최민식사진상 선정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이 들려왔다. 외국에서 활동해 국내 사진계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실상을 알게 되었다. 주변의 지인들도 한국 사진계가 원래 그러니 그냥 상금을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이 상을 받는다면 평소 존경해온 최민식 선생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보잘것없지만 나 하나라도 이 상을 거부하는 것이 사진계가 조금이라도 맑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br/><br/> －생계도 어려운데 필리핀 빈민 돕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br/><br/> “현지에 살 때는 스쿠버숍 수익으로 현지인 목사인 아내와 처남과 함께 마을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회도 짓고 아픈 아이들 수술을 도왔다. 사실 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다.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옷·가방 등을 모아 보내고 있다.”<br/><br/> －수술을 기다리는 필리핀 아이들은 어떤 상태인가?<br/><br/> “메리조이는 심장에 구멍이 3개 난 상태다. 수술비로 2천만원이 필요한데 밀알선교센터에서 1500만원을 내기로 했고 내가 500만원을 모으기로 했다. 알비나는 2차 수술을 해야 하고, 제리코는 한센병 환자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8월6일 바콜로드섬으로 건너가는데 우선 100명분의 한센병 약을 들고 간다. 현지에 수천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한국 정부나 창원시 차원에서 필리핀과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br/><br/> －이번 최민식사진상 파문을 겪은 소회가 어떤가?<br/><br/>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사진가도 아니고 사진가가 될 생각도 없다. 오직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사진을 찍을 뿐이다. 그 사진을 보고 모금활동이 더 잘되면 좋다고 생각할 뿐이다. 최민식 선생의 정신을 따라 사진을 찍을 뿐이다.” <br/><br/>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4.txt

제목: 메르스 뒤 복지부 신뢰도 ‘뚝’…믿는 건 ‘친구·가족’  
날짜: 20150707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7100000043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와중에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를 얻은 대상은 정부도 전문가도 언론도 아닌 친구와 가족으로 나타났다. 방역 책임을 맡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위기관리 소통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br/>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우리나라 건강 위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언론·전문가 집단 등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메르스 사태 이전이나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신뢰도는 메르스 사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연구소는 4월16일~5월6일 전국 성인 3317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했으며, 메르스 사태가 진행 중인 6월18~25일 1026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했다. 응답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신뢰도를 1~7점으로 매기는 질문에서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 4.01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으나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2.95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 반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새로 넣은 항목인 ‘친구·가족’의 점수는 4.71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았다.<br/>　초기 방역 실패에서 비롯된 정부 불신은 메르스 정보에 대한 신뢰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제공받은 메르스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텔레비전(4.58), 세계보건기구(4.51), 가족·친구(4.43), 전문가(4.38)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부기관(3.25), 병원협회·의사협회(3.91) 등의 점수는 낮았다.<br/>　가장 걱정되는 공중보건 문제를 묻는 설문에서 암·비만·대기오염·기후변화 등 대부분의 항목은 선택 비율이 메르스 발발 앞뒤로 비슷했지만 독감(돼지·조류·유행 등)은 2.7%에서 32.7%로 폭증했다. 병원 안 감염도 1.4%에서 5%로 높아졌다.<br/>　메르스 전염의 위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10명에 7명꼴로 병원(69.0%)을 선택해, 대중교통(15.8%), 식당·극장 등 밀집장소(12.2%)보다 월등히 많았다.<br/>　“<span class='quot0'>공중보건 위험요소로 인한 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과 관리 책임은 사회에 있다</span>”고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흡연·음주·미세먼지 등 다른 항목들은 메르스 사태 전·후 조사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신종플루(2차 조사 메르스 포함)는 메르스 사태 전 4.58점에서 사태 뒤에는 5.81로 크게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가장 위험하며, 사회적 파장이 가장 큰 공중보건 문제로 신종플루·메르스를 꼽았다.<br/>　조사연구 책임자인 김경희 고려대 의대 연구기획조정실장(연구교수)은 “보건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설명할 때 위험의 크기와 발생 확률을 계산해 발표하지만 시민들은 위험의 크기를 정서·신념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통제 가능하지도 않으면 부당하다고 생각해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가 전문가적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시민의 시선으로 위기관리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b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5.txt

제목: 미국 대법원의 오바마케어 합헌 결정  
날짜: 20150706  
기자: 딘베이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6100000036  
본문: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킹 대 버웰 소송’에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정부보조금 지급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종식됐고, 건강보험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br/>　‘킹 대 버웰’ 소송은 900여쪽에 이르는 건강보험개혁법 중 단 한 구절인 ‘주에 의해 설립된’이란 문구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위헌 논란을 낳으며 오바마케어에 최대 도전이 됐었다.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36개 주는 세금 크레디트 형태로 지급되는 주 단위의 보험거래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연방 정부는 이들 주에 대해선 연방거래소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6개 주의 민간보험 시장도 망가지게 될 것이다.<br/>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이러한 사태는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했다. 미 의회나 오바마 정부에서 단 한 사람도 주 거래소의 보조금 지급 유지로 이득이나 손해를 봤다는 기록은 없다. 다시 말해, 그들 중 누구도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개혁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번 소송은 결코 법률의 효력에 문제가 될 게 없는, 단순한 문구 표현의 문제였다.<br/>　건강보험개혁법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젠 이 법의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중 최우선은 다양한 종류의 암 환자들을 진단하고 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암 진단은 매우 비싸지만, 보험공제율(본인부담금)이 높은 보험계약 상품을 가진 환자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놔야 한다. 많은 암 환자들은 일자리도 잃게 되는데, 수천달러에 이르는 진단비는 그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부담이다. 암 진단이야말로 오바마케어가 강조하는 ‘예방적 검진’의 진정한 핵심이므로,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전면 보장돼야 한다.<br/>　일반적으로, 최저비용 보험 계약에서 일인당 최대 6000달러나 되는 공제액(자기부담)은 보험의 유용성을 제한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선을 낮추지 못한다. 보험 혜택으로 되돌려받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다. 공제액을 1000달러만 낮춰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br/>　같은 맥락에서, 중간소득 계층도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의 바로 위에 있는 이들이 많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특히 노년층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큰 돈이 들지는 않는다.<br/>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오바마케어 첫 2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은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피해 보험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마다 의사 네트워크와 보장의 질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건강이 악화된 이들에게 보험사 변경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다.<br/>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한도에는 제한을 둬야 한다. 만일 어떤 보험사의 보험료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 새 가입자들에게는 좀 더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br/>　이 문제는 민간보험사들과 경쟁할 공공 방안을 갖추는 문제로 돌아간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이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사에 대해 정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메디케어가 민간보험들과 경쟁할 보험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방안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좀더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도해 볼 수도 있다.<br/>　오바마케어가 더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 혜택을 누리게 하고 보험과 관련해 고용주에게 덜 의존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진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다른 부유한 국가들의 국가의료보험 시스템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 아마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 것인지라는 질문만 남았다는 생각을 납득시킬 것이다. <br/>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6.txt

제목: 삼성서울병원서 2명 또 확진…당국 “메르스 진료 손 떼라”  
날짜: 2015070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6100000093  
본문: 지난 주말(4~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1명과 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로 암 치료를 받는 환자 1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전원(15명)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 조처했다. <br/>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6월29일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32번째 환자의 배우자(50·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186번째 환자가 됐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 메르스 환자 확진은 6월25일 180번째 환자 이후 열흘 만이다. <br/>　앞서 4일에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 900여명 모두를 대상으로 한 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에서 이 병원 의사(전공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메르스 환자 진료에 참여했으나, 발열 등 증상은 없었다. 나머지 의료진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발열 등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r/>　대책본부는 186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보다는 앞서 감염된 남편(132번째 확진자)한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자세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은경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186번째 환자는 132번째 환자의 확진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지만, 항암치료를 받느라 면역력이 약해져 다른 환자보다 늦게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32번째 환자는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14번째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으며 6월1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2일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이대로라면 186번째 환자의 잠복기가 최소 22일을 넘기는 셈이다. <br/> 정은경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186번째 환자의 동선을 분석해보니 183·184·185번째 환자 등 메르스에 감염된 다른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선을 그었지만,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186번째 환자가 6월29일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끊이지 않자 대책본부는 지난 3일 기저질환 치료를 이유로 애초 이송 대상에서 뺐던 환자 2명을 포함해 이 병원의 메르스 환자 15명 모두를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시보라매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만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격리 중인 의료진 50여명은 이 병원에 남아 있어 추가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 결국 초일류병원이라 부르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진료에서는 완전히 배제됐다는 오명은 벗을 수 없게 됐다. <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7.txt

제목: [세계의 창] 미국 대법원의 오바마케어 합헌 결정 / 딘 베이커  
날짜: 2015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510017808911  
본문: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킹 대 버웰 소송’에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정부보조금 지급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종식됐고, 건강보험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br/><br/> ‘킹 대 버웰’ 소송은 900여쪽에 이르는 건강보험개혁법 중 단 한 구절인 ‘주에 의해 설립된’이란 문구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위헌 논란을 낳으며 오바마케어에 최대 도전이 됐었다.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36개 주는 세금 크레디트 형태로 지급되는 주 단위의 보험거래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연방 정부는 이들 주에 대해선 연방거래소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6개 주의 민간보험 시장도 망가지게 될 것이다.<br/><br/>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이러한 사태는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했다. 미 의회나 오바마 정부에서 단 한 사람도 주 거래소의 보조금 지급 유지로 이득이나 손해를 봤다는 기록은 없다. 다시 말해, 그들 중 누구도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개혁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번 소송은 결코 법률의 효력에 문제가 될 게 없는, 단순한 문구 표현의 문제였다.<br/><br/> 건강보험개혁법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젠 이 법의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중 최우선은 다양한 종류의 암 환자들을 진단하고 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암 진단은 매우 비싸지만, 보험공제율(본인부담금)이 높은 보험계약 상품을 가진 환자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놔야 한다. 많은 암 환자들은 일자리도 잃게 되는데, 수천달러에 이르는 진단비는 그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부담이다. 암 진단이야말로 오바마케어가 강조하는 ‘예방적 검진’의 진정한 핵심이므로,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전면 보장돼야 한다.<br/><br/> 일반적으로, 최저비용 보험 계약에서 일인당 최대 6000달러나 되는 공제액(자기부담)은 보험의 유용성을 제한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선을 낮추지 못한다. 보험 혜택으로 되돌려받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다. 공제액을 1000달러만 낮춰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br/><br/> 같은 맥락에서, 중간소득 계층도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의 바로 위에 있는 이들이 많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특히 노년층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큰 돈이 들지는 않는다.<br/><br/>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오바마케어 첫 2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은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피해 보험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마다 의사 네트워크와 보장의 질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건강이 악화된 이들에게 보험사 변경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다.<br/><br/>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한도에는 제한을 둬야 한다. 만일 어떤 보험사의 보험료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 새 가입자들에게는 좀 더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br/><br/> 이 문제는 민간보험사들과 경쟁할 공공 방안을 갖추는 문제로 돌아간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이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사에 대해 정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메디케어가 민간보험들과 경쟁할 보험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방안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좀더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도해 볼 수도 있다.<br/><br/> 오바마케어가 더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 혜택을 누리게 하고 보험과 관련해 고용주에게 덜 의존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진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다른 부유한 국가들의 국가의료보험 시스템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 아마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 것인지라는 질문만 남았다는 생각을 납득시킬 것이다. <br/><br/>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8.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2명 또 확진…정부 “메르스 진료 손 떼라”  
날짜: 2015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510017809241  
본문: 지난 주말(4~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1명과 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로 암 치료를 받는 환자 1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전원(15명)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 조처했다.<br/><br/>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6월29일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32번째 환자의 배우자(50·여)가 메스르 확진 판정을 받아 186번째 환자가 됐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 메르스 환자 확진은 6월25일 180번째 환자 이후 열흘 만이다. <br/><br/> 앞서 4일에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 900여명 모두를 대상으로 한 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에서 이 병원 의사(전공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메르스 환자 진료에 참여했으나, 발열 등 증상은 없었다. 나머지 의료진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발열 등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r/><br/> 대책본부는 186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보다는 앞서 감염된 남편(132번째 확진자)한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자세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은경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186번째 환자는 132번째 환자의 확진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지만, 항암치료를 받느라 면역력이 약해져 다른 환자보다 늦게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32번째 환자는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14번째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으며 6월1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2일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이대로라면 186번째 환자의 잠복기가 최소 22일을 넘기는 셈이다. <br/><br/> 정은경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186번째 환자의 동선을 분석해보니 183·184·185번째 환자 등 메르스에 감염된 다른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선을 그었지만,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186번째 환자가 6월29일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br/>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끊이지 않자 대책본부는 지난 3일 기저질환 치료를 이유로 애초 이송 대상에서 뺐던 환자 2명을 포함해 이 병원의 메르스 환자 15명 모두를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시보라매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만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격리 중인 의료진 50여명은 이 병원에 남아 있어 추가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 결국 초일류병원이라 부르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진료에서는 완전히 배제됐다는 오명은 벗을 수 없게 됐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89.txt

제목: 종신보험 변천 과정  
날짜: 2015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3100000077  
본문: 종신보험 변천 과정시기 및 배경특징1세대 종신보험1990년대. 외국계 보험사의 틈새시장과 외환위기.전통적 개념의 종신보험. 보장기한을 명시한 정기보험과 달리 기한 없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장금을 받을 수 있음.2세대 종신보험2000년대 초반. 암 발병률 등의 증가.중대질병(CI)보험. 가입자가 암이나 뇌질환 등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 일부(50~80%)를 미리 받을 수 있음.3세대 종신보험2015년. 평균수명 증가와 노인빈곤율 문제 확산.연금 받는 종신보험. 치료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0.txt

제목: 지금 당장 사랑해야 하는 이유  
날짜: 20150703  
기자: 이춘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3100000001  
본문: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br/>김여환 지음, 박지운 그림<br/>쌤앤파커스·1만4000원<br/><br/>젊은 말기암 환자가 어느 날 호스피스 의사한테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소원이 있어요.” 환자의 아내는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내를 안고 자고 싶어요.” 의사는 아차 싶었다. 왜 이들이 젊은 부부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의사는 특별 처방을 내렸다. ‘2인실로 전실. 보호자 간이침대를 치우고 빈 침대 하나를 환자 침대와 나란이 놓을 것. 문 앞에 천 가리개를 설치하고 들어갈 때 반드시 노크할 것.’ 방을 옮긴 날 의사가 살며시 병실 문을 열어보니,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 손을 잡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었을까.<br/>　호스피스 환자들의 죽음은 울림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호스피스 의사인 지은이는 “<span class='quot0'>지금 당장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더 아껴주라</span>”고 말한다. 확실치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절대 미루지 말라고 한다. 호스피스 병동은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삶과 죽음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말기 환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곳의 사연은 살아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힌트를 준다. 저자가 들려주는 사연에 가슴이 먹먹해져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가족의 죽음을 경험해 본 이들은 더욱 그렇다. <br/>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1.txt

제목: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  
날짜: 20150703  
기자: 김명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3100000066  
본문: 어떻게 죽을 것인가<br/>아툴 가완디 지음, 김희정 옮김/부키(2015)<br/><br/>미국 소설가 코맥 매카시는 말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당신에게, 내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도 죽음에 관해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br/>　동의한다. 나는 죽음에 관심이 있다. 남들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대화 중에 이런 주제를 꺼내면 사람들은 대개 질색한다. 뭘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 왜 그렇게 비관적이냐는 말도 들어봤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사실이다. 죽음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아지진 않는다고 장난스럽게 응수하고 싶을 때도 있다.<br/>　그래서 죽음은 주로 책으로 배운다. 과학책도 철학책도 꽤 읽었다. 그런데 아툴 가완디의 는 내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초기화해버렸다. 미국 외과의사이자 유명 필자인 가완디가 죽어가는 여러 노인들과 환자들을 관찰하고 치료한 경험을 기록한 이 책 덕분에, 나는 노화의 의학적, 생물학적 현상을 살피지 않고서 철학적으로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해 아무 소용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br/>　그것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겪을 죽음은 과거의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두 세대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서 죽었다. 더 이전에는 대개 전쟁이나 사고,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다. 수십년간 몸의 장기가 하나씩 고장나다가 결국 임계를 넘어 노령으로 죽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런 경우라도 요즘처럼 몸에 관을 꽂고 호흡과 섭식을 기계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경우는 없었다. “의학적 경험으로서의 죽음”은 우리 세대가 인류 최초로 하는 경험이다. 죽음에 관한 오래된 통찰들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요양병원 문 앞에서 멈추는 듯하다.<br/>　그래서 가완디는 우리가 새로운 “죽음의 기술”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백한다. 그 점에서 현대 의학은 실패했다고. 의학은 한 시간에 7천달러짜리 수술, 한 달에 1만2천 달러짜리 화학요법으로 죽음을 미루는 데 능하고, 아무리 위중한 사람에게도 늘 더 제안해볼 처치법을 안다. 그러나 의학은 언제 치료를 멈춰야 하는지 모른다. 의사들은 “<span class='quot0'>여기 몇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 고르세요</span>”라고 할 뿐, 환자와 노인에게 죽음을 대비시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의사에게도 고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들도 피한다.<br/>　해법은 어디 있을까? 가완디는 의사인 자신도 잘 몰랐던 호스피스 간호에서 실마리를 본다.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 연명이 아니다. 입을 옷을 스스로 고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통제력, 불투명한 치료법에 현재를 양보하는 대신 최대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존엄이다. 호스피스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br/>　가완디가 역시 의사였던 아버지의 노화, 투병, 죽음을 곁에서 지키면서 써내려간 글은 직업인으로서 자기반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인생관의 전환을 기록한 에세이다. 나는 가완디가 안다면 기뻐할 방식으로 독후감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늙어가는 부모님에게 이 책을 권하는 것이다. 너무 냉정한가. 그렇더라도 나는 이것이 장차 부모님의 의학적 의사결정 대리인이 될 내게는 물론이고 그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임을, 이것은 우리가 꼭 시작해야 할 대화임을 확신한다. 　김명남 과학책 번역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2.txt

제목: 왜 침팬지나 돌고래가 아닌 인류만이 똑똑해졌을까  
날짜: 20150703  
기자: 한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3100000035  
본문: 부정 본능<br/>아지트 바르키·대니 브라워 지음<br/>노태복 옮김/부키·1만8000원<br/><br/>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나? 어디로 갈 것인가?<br/>　폴 고갱도 말년의 대작에 비슷한 제목을 붙였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의과대학 석좌교수로 ‘인류 기원론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교육센터(CARTA)’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아지트 바르키와 대니 브라워 공저 (원제: DENIAL)은 인류의 이 영원한 화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br/>　인류의 기원과 특성을 탐구하는 많은 진화생물학 분야 책들 중에서 이 책은 몇 가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두뇌나 유전자 변이 같은 물적 조건의 특이성이 아니라 심리적 특성에서 찾는다. 접근방법도 다르다. 인간의 특성을 입증하는 진화상의 흔적 규명보다는 왜 다른 동물들은 인간만큼 똑똑해지지 못했는지, 그 진화 억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br/>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든 것, 다른 동물들이 수천만년 동안 그 직전까지는 거듭 도달했으나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진화의 장벽, 그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었던 ‘부정하는 능력’이었다고 이 책은 얘기한다. <br/>　동물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개체성 인식 능력 여부를 조사하는 ‘거울 검사’ 결과, 기본적인 자기인식 능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 동물은 침팬지 외에 오랑우탄, 돌고래, 범고래, 코끼리, 제비(까마귀) 정도였다. <br/>　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마음의 이론’이란 개념을 통해 단계별로 나누어 살핀다.<br/>　1단계는 동물들이 자신의 개체성을 인식하는 단계다. 거울 검사 등에서 대다수 동물들이 자기인식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포유류와 조류가 이 단계(1차 상호주관성)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됐다. <br/>　2단계는 자신의 개체성을 인식하는 동물들 중에 다른 개체들도 그들 자신만의 지각과 행동목표를 지닌 ‘의도적 행위자’임을 알아차리는 단계다. 아직은 다른 개체들의 자기인식 능력을 완전하게 알지는 못한다. 초보적인 2차상호주관성 단계.<br/>　3단계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들도 자신과 같은 독립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는 단계로, 오직 인간만이 도달한 단계다. 즉 타인들도 완전한 자기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는 단계. 완전한 2차상호주관성 단계. 아울러 타자도 자신도 사실이 아닌 잘못된 믿음(자기기만)을 지닐 수 있다.<br/>　4단계는 자신 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인지하고 이해하는 3차(또는 다차)상호주관성 단계.<br/>　이 4단계 중 오직 인간만이 3단계 이후로 나아갔다는 게 지은이들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br/>　애리조나대 분자세포생물학과장이었던 대니 브라워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른 단계로 진화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인간 두뇌나 신체적 변이 특성에서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인간처럼 되지 못하도록 진화를 억제한 장벽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장벽이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것’이라는 ‘결정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필요한 연구자료들을 남겼다. 이 책을 쓰기 전에 세상을 떠난 그가 공저자가 된 이유다. <br/>　다른 동물들을 가로막은 진화 장벽은 무엇인가?<br/>　바르키 교수는 전통적 주장인 뇌 변이 특성 등에서 그 답을 찾을 순 없다고 본다. 현생인류가 아프리카를 나온 것은 약 10만년 전으로, 당시 5000~1만명 정도였던 그들은 그 직전에 오늘날과 다름없이 탁월하게 똑똑한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인간의 뇌 크기는 그보다 훨씬 앞선 30만~40만년 전에 이미 지금과 비슷한 크기가 돼 있었고, 코끼리나 고래는 인간보다 더 큰 뇌를 갖고 있다.(신체 대비 뇌 크기 비중은 인간이 조금 더 크다) 도구도 인간만이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극히 최근에 만들어진 문자를 비롯한 언어나 협력양육, 유전자 특성도 인간에게 탁월성을 안겨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바르키 교수는 설명한다.<br/>　그 결정적 요인은 바로 자기인식뿐만 아니라 다른 개체들도 각자 완전한 자기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는 것, 즉 3단계 이후 단계로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 바르키 교수에 따르면 다른 동물들 중에도 이 3단계까지 간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단계에 도달한 동물들은 다른 개체들의 죽음을 목격·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죽음, 필멸성도 깨닫게 된다. 문제는 그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맞닥뜨린 그들은 자원과 짝을 얻기 위한 위험한 경쟁조차 회피한다. 그 단계의 개체들은 종 전체의 생존보다 자신의 생존, 즉 개체 생존을 우선하게 된다. 그 결과 자손 번식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뿐 아니라 짝짓기 상대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립 끝에 소멸된다. <br/>　결국 다른 동물들을 2단계 진화에 눌러앉힌 진화의 장벽은 이 죽음의 공포라는 ‘심리적 장벽’이었다는 것이다.<br/>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이 심리적 장벽을 뛰어넘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순간 인간의 능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다른 동물들과의 간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벌려갔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부정하는 능력’이다.<br/>　바르키 교수는 심리학 개념을 빌려 부정을 이렇게 정의한다. “<span class='quot0'>부정이란 의식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사고, 감정 또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누그러뜨리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다.</span>”<br/>　현실부정(denial of reality)에 가깝다. 예컨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동차 안전띠를 매지 않고 오토바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고 육식을 하며 음주운전이나 운전 중 문자 보내기를 한다. 죽을 가능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전쟁터에 나가고 암벽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을 감행한다. 현실·필멸성을 부정하는 이런 자기기만은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진화론 자체를 거부하고 절대자의 지적설계론에 집착하게 한다. 종교도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무의식적 방어기제의 연장이다. 현실정치나 사회의 양극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br/>　하지만 이 부정 능력이 현실에서 부정적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암 투병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불가능할 것이라던 간디의 비폭력 저항과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가능케 했고, 체코의 육상 영웅 자토페크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외부현실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하는 명상도 현실부정이며 불교의 좌선이나 열반도 완벽한 현실부정이라고 볼 수 있단다.<br/>　인간의 현실·필멸성 부정이 유전적 흔적을 남기고 신경학적 메커니즘으로 정착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던진 능력자의 출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다 복수의 그런 개체들이 동시에 출현해 자손을 남길 확률은 훨씬 더 낮다. 그래서 저자들은 “<span class='quot1'>지구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span>”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그 사건의 자식들인 셈이다. <br/>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3.txt

제목: ‘굴뚝 농부’가 된 노동자  
날짜: 20150703  
기자: 홍세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3100000074  
본문: 그의 이름은 차광호. 경북 구미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대표인 그가 45미터 높이 굴뚝에 오른 지 오늘로 403일째다. 1년을 넘긴 그의 하늘살이 경험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보다 태풍이 더 두렵다고 말한다. 그 태풍의 계절이 다시 다가오지만,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늘에 올랐는데 바뀐 것 없이 내려가면 땅조차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의 말에 비추어 아직 땅에 내려올 때가 되지 못한 듯하다.<br/>　저 굴뚝 위에서 양팔을 활짝 펴 보이는 차광호의 상반신 모습은 21세기 초 한국 사회를 절개한다면 오롯이 드러나야 하는 단면의 하나다. ‘슬픈’ 단면이라고 말하려니 겸연쩍어지는데 그만큼 더 슬퍼지는 단면이다. 이 땅에서 고공농성은 1931년 지붕 위에 올라간 평양의 고무공장 노동자 강주룡이 처음 시작했다는데, 하늘이 노동자들의 삶터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경제위기의 칼날이 할퀴고 지나간 뒤 2000년대 들어서였다. 경제위기라고 했지만 타격, 조정된 곳은 경제계가 아니라 노동계였다. 땅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노동자들은 도심의 폐회로(CC) 카메라탑에, 한강다리 고공난간에, 타워크레인에, 건물 옥상 망루에, 교통 관제탑과 철탑에, 광고탑과 공장 굴뚝에 이르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올라 둥지를 틀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갈수록 고공 상황은 농성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혹해졌다. 이미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으니 자본의 위력 앞에서 정치는 실종되었고 사회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이웃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갔다.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나쁜 것에 익숙해지면 더 나쁜 것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고공농성 기간이 김진숙의 309일 기록을 훌쩍 지나 400일을 넘기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조차 대부분은 데면데면하게 대한다. 하기야 세월호 사건에 피로를 말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싶긴 하다.<br/>　지난여름 동료들이 올려준 화분에 콩과 ‘그의 친구들’을 심어 키우는 차광호는 콩을 볼 때마다 동료들을 떠올린다면서 “<span class='quot0'>살아 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가꿀 때 나도 삶의 의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span>”고 말한다. 삶의 의지! 그에게 가까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곤 콩과 ‘그의 친구들’뿐이니 그가 ‘굴뚝 농부’가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동료를 떠올리면서 생명을 가꾸는 차광호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회를 향해 ‘생명에 대한 예의’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동시대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은 그가 기필코 살아서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차광호들도 살아서 싸우며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안간힘처럼 전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br/>　차광호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절개한 단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체계상의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한 삼성 재벌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다. 다른 땅에서 오래 산 탓일까, 고개 숙인 이재용의 모습이 내 눈에는 희한하게 다가왔다. 국가적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서 재벌 부회장이 사과를 한다? 대통령이 아니고? 백혈병 등 희귀병으로 생명을 잃은 삼성전자 노동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그가 병원의 최고책임자라는 점도 희한한 일이었지만, 일개 병원에 지나지 않는 삼성병원이 국가적 병난에 책임진다는 것도 희한하긴 마찬가지였다. 미필적 고의에 속할 테지만,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국가의 부재를 선언하면서 자본독재의 시대라는 점을 재확인시키려는 게 아니었을까? 삼성병원이 웅변하듯 공공성을 찾기 어려운 국가이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차광호는 이재용과 함께 자본독재 시대의 양극단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반생명의 자본독재 체제가 강화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암 덩어리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일념밖에 남아 있지 않은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가 보여주듯 국가는 공공성을 보장, 강화하는 대신 자본에 종속되어갔고 언론과 지식인들도 자본이 던져주는 떡고물에 포섭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br/>　그러나 자본독재 체제의 강화를 오로지 국가의 책임 방기나 배신의 정치 탓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노동이 분화되면서 자본에 포섭당한 노동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엔 어용노조 때문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어려웠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엔 거꾸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복수노조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기본 고정급은 낮고 잔업을 해야 생활급을 보장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헤집은 자본의 회유 공작에 유성기업 등 민주노조가 어렵게 마주쳐야 했고 지금도 마주치고 있다면,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무더기로 고용한 갑을오토텍은 노골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적인 노조였던 사업장이 점차 욕망의 포로로 변질되어 갔다는 점이다. 사내 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힘쓰는 대신 일부 노동자만을, 그것도 단계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사측의 편법에 부응한 현대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경우는 조합원들의 소비와 소유 욕망에 밀려 연대 정신을 팔아버린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란 “강자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법의 판결도 외면하는 노동조합이라니! 노동이 노동을 무시하면서 자본의 횡포에 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br/>　우리에겐 내 부모처럼 나도 노동자이고 따라서 내 자식도 노동자가 되리라는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 주력부대가 정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1848년 2월 혁명으로 앙시앵레짐이 그 체제의 특권계급이었던 귀족들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유산자계급과 무산자계급이 확연히 분리되고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진 역사과정을 밟은 유럽과 다른 점이다. 노동자들은 많으나 노동자의식이 드문 곳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그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기 어렵고 연대의식의 토대 또한 탄탄하기 어려운 배경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차광호와 차광호들은 오늘 우리 노동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사람 사는 세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 땅의 정치와 사회는, 언론과 지식인은 차광호와 차광호들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작은 손짓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br/>　2007년에 파산한 한국합섬을 인수한 스타케미칼 자본은 2011년에 공장을 재가동한 지 1년8개월 만인 2013년 적자와 경기침체를 이유로 철수하면서 당시 권고사직을 거부한 29명을 해고했다. 지금 11명이 남아 한국합섬 때부터 ‘청춘을 바친 공장’의 재가동과 함께 고용승계,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해고자들에게 사측은 ‘제3의 법인 설립을 통한 고용’ 안을 내놓았지만 자본의 ‘먹튀’ 의혹을 떨치지 못한 해고자들의 ‘새 법인 해산 때 고용보장’ 요구를 거부한 상태에 있다.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일까,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우리가 관심과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굴뚝 농부’가 다시 노동자로 이 땅을 밟는 일이. 홍세화 장발장은행 대표·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4.txt

제목: 노인 사망 건수 급감…70대 이상 60% 줄어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210017789938  
본문: 평균 수명이 늘고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등 종신보험이 진화하게 된 배경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br/><br/> 2일 보험개발원이 2003년과 2012년 생명보험 통계와 국민 암발생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3년에 비해 2012년의 60세 이상 고령층 사망 빈도가 크게 줄었다. 2012년 70대 이상의 10만건 당 사망건수는 2988건으로, 2003년(7465건)에 견줘 60% 감소했다. 2012년 60대 사망건수는 854건으로, 2003년(1690건)에 비해 49.5% 줄었다. 이는 10대 29.7%, 20대 29.5%, 30대 30.3% 등 저연령층의 사망건수 감소율에 비해 매우 높다. 고령층이 예전보다 오래 살면서, 은퇴 뒤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br/><br/> 사망원인별로 살펴봤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 비중은 남녀 모두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2012년 간암이 10만건 당 13.8건으로 가장 높았다. 폐암과 위암이 각각 9.6건과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2년에도 간암이 16.9건으로 1위였고, 위암이 9건, 폐암이 8.4건으로 2012년과 비교해 2, 3위 순위만 바뀌었다. 여성의 경우 2012년에 4.4건으로 폐암이 가장 높았고, 유방암과 위암이 모두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2년에는 위암이 5.8건으로 가장 높았고 유방암이 3.4건, 심장정지가 3.4건이었다.<br/><br/> 2012년 전체 암 발병률은 2003년에 비해 156.5%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5.4% 감소했을 뿐, 10대 26.9%, 20대, 111.9%, 30대 128.2%, 40대 77.4%, 50대 42.7%, 60대 18.2%, 70대 이상 9%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특히 20~40대 연령층에서 암 발병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br/><br/>이재욱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5.txt

제목: “악역 전문? 난 확신범”  
날짜: 20150702  
기자: 안창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2100000060  
본문: 대중적인 스타는 아니지만, 연기로 인정받는 배우들이 있다. 배우 김의성(50)도 그런 배우다. 김의성은 , , 등에서 뛰어난 악역 연기로 영화의 한 축을 든든하게 떠받쳐왔다. 최근 개봉한 (감독 김성제)에서도 ‘유일한 악역’인 홍재덕 검사를 맡았다. 26일 오후 서울 삼청동의 한 찻집에서 그를 만났다.<br/>　김의성은 에서 홍 검사 역을 직접 골랐다. 여러 법조인 가운데 한 사람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홍 검사라는 인물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홍 검사가 철거민의 편에 선 ‘윤진원 변호사’(윤계상)한테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그 대사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촬영 당일 제가 직접 그 대사를 고친 뒤 감독의 허락을 받아 연기했어요.”<br/>　왜 그렇게 악역을 자처하는 걸까. “악역은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연기는 인물의 동기가 중요한데, 악역은 동기가 뚜렷하죠.” 착한 역할은 길이 정해져 있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상해지는데, 악역은 표현할 방법이 많고 택할 길도 다양하다는 게 김의성의 설명이다. 그는 (2008년 개봉)의 괴물 ‘안톤 시거’(하비에르 바르뎀)와 같은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고 했다. <br/>　악역이면서도 그는 사회성 짙은 영화에서 경찰, 검사, 국정원 간부 등 권력을 휘두르는 쪽에 선다. “배우라는 직업은 수동적입니다. 고르는 게 아니라 골라지는 겁니다. 사회적 의미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span class='quot0'>물론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영화라면 결코 하지 않겠지만….</span>” <br/>　김의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응원하는 광화문 1인시위를 벌여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배우도 자연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다만, 배우는 발언 방식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br/>　김의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무언가 말하고 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총연극회에서 연극을 했고, 졸업 뒤 (1996년)의 주인공으로 그 당시까지 한국영화에선 전혀 낯선 문법이었던 ‘홍상수 세계’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배우로서 늙어갈 용기가 없어” 연기판을 떠났고, 베트남에서 10년 넘게 사업에 매달렸다. 그러다 2011년 다시 홍상수 감독의 을 통해,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배우의 삶으로 되돌아왔다. “을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왜 안 했을까 싶었다. 젊어서는 연기로 내 삶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연기로 밥을 먹고 살려 한다.” 오랫동안 불화를 겪었던 아버지와 화해하면서 들은 한마디가 컸다. “야, 재미있게 살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기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6.txt

제목: 지금 당장 사랑해야 하는 이유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210017796147  
본문: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 <br/>김여환 지음, 박지운 그림 <br/>쌤앤파커스·1만4000원<br/><br/><br/><br/>젊은 말기암 환자가 어느 날 호스피스 의사한테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소원이 있어요.” 환자의 아내는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내를 안고 자고 싶어요.” 의사는 아차 싶었다. 왜 이들이 젊은 부부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의사는 특별 처방을 내렸다. ‘2인실로 전실. 보호자 간이침대를 치우고 빈 침대 하나를 환자 침대와 나란이 놓을 것. 문 앞에 천 가리개를 설치하고 들어갈 때 반드시 노크할 것.’ 방을 옮긴 날 의사가 살며시 병실 문을 열어보니,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 손을 잡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었을까.<br/><br/> 호스피스 환자들의 죽음은 울림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호스피스 의사인 지은이는 “<span class='quot0'>지금 당장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더 아껴주라</span>”고 말한다. 확실치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절대 미루지 말라고 한다. 호스피스 병동은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삶과 죽음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말기 환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곳의 사연은 살아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힌트를 준다. 저자가 들려주는 사연에 가슴이 먹먹해져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가족의 죽음을 경험해 본 이들은 더욱 그렇다. <br/><br/>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7.txt

제목: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210017789559  
본문: 어떻게 죽을 것인가 <br/>아툴 가완디 지음, 김희정 옮김/부키(2015)<br/><br/><br/><br/>미국 소설가 코맥 매카시는 말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당신에게, 내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도 죽음에 관해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br/><br/> 동의한다. 나는 죽음에 관심이 있다. 남들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대화 중에 이런 주제를 꺼내면 사람들은 대개 질색한다. 뭘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 왜 그렇게 비관적이냐는 말도 들어봤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사실이다. 죽음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아지진 않는다고 장난스럽게 응수하고 싶을 때도 있다.<br/><br/> 그래서 죽음은 주로 책으로 배운다. 과학책도 철학책도 꽤 읽었다. 그런데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초기화해버렸다. 미국 외과의사이자 유명 필자인 가완디가 죽어가는 여러 노인들과 환자들을 관찰하고 치료한 경험을 기록한 이 책 덕분에, 나는 노화의 의학적, 생물학적 현상을 살피지 않고서 철학적으로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br/><br/> 그것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겪을 죽음은 과거의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두 세대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서 죽었다. 더 이전에는 대개 전쟁이나 사고,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다. 수십 년간 몸의 장기가 하나씩 고장나다가 결국 임계를 넘어 노령으로 죽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런 경우라도 요즘처럼 몸에 관을 꽂고 호흡과 섭식을 기계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경우는 없었다. “의학적 경험으로서의 죽음”은 우리 세대가 인류 최초로 하는 경험이다. 죽음에 관한 오래된 통찰들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요양병원 문 앞에서 멈추는 듯하다.<br/><br/> 그래서 가완디는 우리가 새로운 “죽음의 기술”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백한다. 그 점에서 현대 의학은 실패했다고. 의학은 한 시간에 7천 달러짜리 수술, 한 달에 1만2천 달러짜리 화학요법으로 죽음을 미루는 데 능하고, 아무리 위중한 사람에게도 늘 더 제안해볼 처치법을 안다. 그러나 의학은 언제 치료를 멈춰야 하는지 모른다. 의사들은 “<span class='quot0'>여기 몇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 고르세요</span>”라고 할 뿐, 환자와 노인에게 죽음을 대비시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의사에게도 고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들도 피한다.<br/><br/> 해법은 어디 있을까? 가완디는 의사인 자신도 잘 몰랐던 호스피스 간호에서 실마리를 본다.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 연명이 아니다. 입을 옷을 스스로 고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통제력, 불투명한 치료법에 현재를 양보하는 대신 최대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존엄이다. 호스피스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br/><br/> 가완디가 역시 의사였던 아버지의 노화, 투병, 죽음을 곁에서 지키면서 써내려간 글은 직업인으로서 자기 반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인생관의 전환을 기록한 에세이다. 나는 가완디가 안다면 기뻐할 방식으로 독후감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늙어가는 부모님에게 이 책을 권하는 것이다. 너무 냉정한가. 그렇더라도 나는 이것이 장차 부모님의 의학적 의사결정 대리인이 될 내게는 물론이고 그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임을, 이것은 우리가 꼭 시작해야 할 대화임을 확신한다. <br/><br/>김명남 과학책 번역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8.txt

제목: 왜 침팬지나 돌고래가 아닌 인류만 똑똑해졌을까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210017795901  
본문: 부정 본능 <br/>아지트 바르키·대니 브라워 지음 <br/>노태복 옮김/부키·1만8000원<br/><br/><br/><br/>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나? 어디로 갈 것인가?<br/><br/> 폴 고갱도 말년의 대작에 비슷한 제목을 붙였지만,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의과대학 석좌교수로 ‘인류 기원론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교육센터(CARTA)’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아지트 바르키와 대니 브라워 공저 <부정 본능>(원제: DENIAL)은 인류의 이 영원한 화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br/><br/> 인류의 기원과 특성을 탐구하는 많은 진화생물학 분야 책들 중에서 이 책은 몇 가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두뇌나 유전자 변이 같은 물적 조건의 특이성이 아니라 심리적 특성에서 찾는다. 접근방법도 다르다. 인간의 특성을 입증하는 진화상의 흔적 규명보다는 왜 다른 동물들은 인간만큼 똑똑해지지 못했는지, 그 진화 억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br/><br/>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든 것, 다른 동물들이 수천만년 동안 그 직전까지는 거듭 도달했으나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진화의 장벽, 그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었던 ‘부정하는 능력’이었다고 이 책은 얘기한다. <br/><br/> 동물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개체성 인식 능력 여부를 조사하는 ‘거울 검사’ 결과, 기본적인 자기인식 능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 동물은 침팬지 외에 오랑우탄, 돌고래, 범고래, 코끼리, 제비(까마귀) 정도였다. <br/><br/> <부정 본능>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마음의 이론’이란 개념을 통해 단계별로 나누어 살핀다.<br/><br/> 1단계는 동물들이 자신의 개체성을 인식하는 단계다. 거울 검사 등에서 대다수 동물들이 자기인식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포유류와 조류가 이 단계(1차 상호주관성)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됐다. <br/><br/> 2단계는 자신의 개체성을 인식하는 동물들 중에 다른 개체들도 그들 자신만의 지각과 행동목표를 지닌 ‘의도적 행위자’임을 알아차리는 단계다. 아직은 다른 개체들의 자기인식 능력을 완전하게 알지는 못한다. 초보적인 2차상호주관성 단계.<br/><br/> 3단계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들도 자신과 같은 독립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는 단계로, 오직 인간만이 도달한 단계다. 즉 타인들도 완전한 자기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는 단계. 완전한 2차상호주관성 단계. 아울러 타자도 자신도 사실이 아닌 잘못된 믿음(자기기만)을 지닐 수 있다.<br/><br/> 4단계는 자신 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인지하고 이해하는 3차(또는 다차)상호주관성 단계.<br/><br/> 이 4단계 중 오직 인간만이 3단계 이후로 나아갔다는 게 지은이들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br/><br/> 애리조나대 분자세포생물학과장이었던 대니 브라워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른 단계로 진화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인간 두뇌나 신체적 변이 특성에서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인간처럼 되지 못하도록 진화를 억제한 장벽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장벽이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것’이라는 ‘결정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필요한 연구자료들을 남겼다. 이 책을 쓰기 전에 세상을 떠난 그가 공저자가 된 이유다. <br/><br/> 다른 동물들을 가로막은 진화 장벽은 무엇인가?<br/><br/> 바르키 교수는 전통적 주장인 뇌 변이 특성 등에서 그 답을 찾을 순 없다고 본다. 현생인류가 아프리카를 나온 것은 약 10만 년 전으로, 당시 5000~1만 명 정도였던 그들은 그 직전에 오늘날과 다름없이 탁월하게 똑똑한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인간의 뇌 크기는 그보다 훨씬 앞선 30만~40만 년 전에 이미 지금과 비슷한 크기가 돼 있었고, 코끼리나 고래는 인간보다 더 큰 뇌를 갖고 있다.(신체대비 뇌 크기 비중은 인간이 조금 더 크다) 도구도 인간만이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극히 최근에 만들어진 문자를 비롯한 언어나 협력양육, 유전자 특성도 인간에게 탁월성을 안겨 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바르키 교수는 설명한다.<br/><br/> 그 결정적 요인은 바로 자기인식뿐만 아니라 다른 개체들도 각자 완전한 자기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는 것, 즉 3단계 이후 단계로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 바르키 교수에 따르면 다른 동물들 중에도 이 3단계까지 간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단계에 도달한 동물들은 다른 개체들의 죽음을 목격·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죽음, 필멸성도 깨닫게 된다. 문제는 그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맞닥뜨린 그들은 자원과 짝을 얻기 위한 위험한 경쟁조차 회피한다. 그 단계의 개체들은 종 전체의 생존보다 자신의 생존, 즉 개체 생존을 우선하게 된다. 그 결과 자손 번식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뿐 아니라 짝짓기 상대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립 끝에 소멸된다. <br/><br/> 결국 다른 동물들을 2단계 진화에 눌러앉힌 진화의 장벽은 이 죽음의 공포라는 ‘심리적 장벽’이었다는 것이다.<br/><br/>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이 심리적 장벽을 뛰어넘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순간 인간의 능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다른 동물들과의 간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벌려갔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부정하는 능력’이다.<br/><br/> 바르키 교수는 심리학 개념을 빌어 부정을 이렇게 정의한다. “<span class='quot0'>부정이란 의식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사고, 감정 또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누그러뜨리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다.</span>”<br/><br/> 현실부정(denial of reality)에 가깝다. 예컨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동차 안전띠를 매지 않고 오토바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고 육식을 하며 음주운전이나 운전중 문자 보내기를 한다. 죽을 가능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전쟁터에 나가고 암벽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을 감행한다. 현실·필멸성을 부정하는 이런 자기기만은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진화론 자체를 거부하고 절대자의 지적설계론에 집착하게 한다. 종교도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무의식적 방어기제의 연장이다. 현실정치나 사회의 양극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br/><br/> 하지만 이 부정 능력이 현실에서 부정적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암 투병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불가능할 것이라던 간디의 비폭력 저항과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가능케 했고, 체코의 육상 영웅 자토펙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외부현실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명상도 현실부정이며 불교의 좌선이나 열반도 완벽한 현실부정이라고 볼 수 있단다.<br/><br/> 인간의 현실·필멸성 부정이 유전적 흔적을 남기고 신경학적 메커니즘으로 정착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던진 능력자의 출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복수의 그런 개체들이 동시에 출현해 자손을 남길 확률은 훨씬 더 낮다. 그래서 저자들은 “<span class='quot1'>지구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span>”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그 사건의 자식들인 셈이다. <br/><br/>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499.txt

제목: [특별기고] ‘굴뚝 농부’가 된 노동자 / 홍세화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210017789338  
본문: 그의 이름은 차광호. 경북 구미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대표인 그가 45미터 높이 굴뚝에 오른 지 오늘로 403일째다. 1년을 넘긴 그의 하늘살이 경험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보다 태풍이 더 두렵다고 말한다. 그 태풍의 계절이 다시 다가오지만,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늘에 올랐는데 바뀐 것 없이 내려가면 땅조차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의 말에 비추어 아직 땅에 내려올 때가 되지 못한 듯하다.<br/><br/> 저 굴뚝 위에서 양팔을 활짝 펴 보이는 차광호의 상반신 모습은 21세기 초 한국 사회를 절개한다면 오롯이 드러나야 하는 단면의 하나다. ‘슬픈’ 단면이라고 말하려니 겸연쩍어지는데 그만큼 더 슬퍼지는 단면이다. 이 땅에서 고공농성은 1931년 지붕 위에 올라간 평양의 고무공장 노동자 강주룡이 처음 시작했다는데, 하늘이 노동자들의 삶터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경제위기의 칼날이 할퀴고 지나간 뒤 2000년대 들어서였다. 경제위기라고 했지만 타격, 조정된 곳은 경제계가 아니라 노동계였다. 땅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노동자들은 도심의 폐회로(CC) 카메라탑에, 한강다리 고공난간에, 타워크레인에, 건물 옥상 망루에, 교통 관제탑과 철탑에, 광고탑과 공장 굴뚝에 이르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올라 둥지를 틀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갈수록 고공 상황은 농성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혹해졌다. 이미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으니 자본의 위력 앞에서 정치는 실종되었고 사회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이웃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갔다.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나쁜 것에 익숙해지면 더 나쁜 것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고공농성 기간이 김진숙의 309일 기록을 훌쩍 지나 400일을 넘기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조차 대부분은 데면데면하게 대한다. 하기야 세월호 사건에 피로를 말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싶긴 하다.<br/><br/> 지난여름 동료들이 올려준 화분에 콩과 ‘그의 친구들’을 심어 키우는 차광호는 콩을 볼 때마다 동료들을 떠올린다면서 “<span class='quot0'>살아 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가꿀 때 나도 삶의 의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span>”고 말한다. 삶의 의지! 그에게 가까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곤 콩과 ‘그의 친구들’뿐이니 그가 ‘굴뚝 농부’가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동료를 떠올리면서 생명을 가꾸는 차광호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회를 향해 ‘생명에 대한 예의’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동시대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은 그가 기필코 살아서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차광호들도 살아서 싸우며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안간힘처럼 전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br/><br/> 차광호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절개한 단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체계상의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한 삼성 재벌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다. 다른 땅에서 오래 산 탓일까, 고개 숙인 이재용의 모습이 내 눈에는 희한하게 다가왔다. 국가적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서 재벌 부회장이 사과를 한다? 대통령이 아니고? 백혈병 등 희귀병으로 생명을 잃은 삼성전자 노동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그가 병원의 최고책임자라는 점도 희한한 일이었지만, 일개 병원에 지나지 않는 삼성병원이 국가적 병난에 책임진다는 것도 희한하긴 마찬가지였다. 미필적 고의에 속할 테지만,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국가의 부재를 선언하면서 자본독재의 시대라는 점을 재확인시키려는 게 아니었을까? 삼성병원이 웅변하듯 공공성을 찾기 어려운 국가이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차광호는 이재용과 함께 자본독재 시대의 양극단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반생명의 자본독재 체제가 강화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암 덩어리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일념밖에 남아 있지 않은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가 보여주듯 국가는 공공성을 보장, 강화하는 대신 자본에 종속되어갔고 언론과 지식인들도 자본이 던져주는 떡고물에 포섭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br/><br/> 그러나 자본독재 체제의 강화를 오로지 국가의 책임 방기나 배신의 정치 탓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노동이 분화되면서 자본에 포섭당한 노동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엔 어용노조 때문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어려웠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엔 거꾸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복수노조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기본 고정급은 낮고 잔업을 해야 생활급을 보장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헤집은 자본의 회유 공작에 유성기업 등 민주노조가 어렵게 마주쳐야 했고 지금도 마주치고 있다면,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무더기로 고용한 갑을오토텍은 노골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적인 노조였던 사업장이 점차 욕망의 포로로 변질되어 갔다는 점이다. 사내 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힘쓰는 대신 일부 노동자만을, 그것도 단계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사측의 편법에 부응한 현대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경우는 조합원들의 소비와 소유 욕망에 밀려 연대 정신을 팔아버린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란 “강자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법의 판결도 외면하는 노동조합이라니! 노동이 노동을 무시하면서 자본의 횡포에 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br/><br/> 우리에겐 내 부모처럼 나도 노동자이고 따라서 내 자식도 노동자가 되리라는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 주력부대가 정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1848년 2월 혁명으로 앙시앵레짐이 그 체제의 특권계급이었던 귀족들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유산자계급과 무산자계급이 확연히 분리되고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진 역사과정을 밟은 유럽과 다른 점이다. 노동자들은 많으나 노동자의식이 드문 곳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그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기 어렵고 연대의식의 토대 또한 탄탄하기 어려운 배경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차광호와 차광호들은 오늘 우리 노동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사람 사는 세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 땅의 정치와 사회는, 언론과 지식인은 차광호와 차광호들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작은 손짓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br/><br/> 2007년에 파산한 한국합섬을 인수한 스타케미칼 자본은 2011년에 공장을 재가동한 지 1년8개월 만인 2013년 적자와 경기침체를 이유로 철수하면서 당시 권고사직을 거부한 29명을 해고했다. 지금 11명이 남아 한국합섬 때부터 ‘청춘을 바친 공장’의 재가동과 함께 고용승계,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해고자들에게 사측은 ‘제3의 법인 설립을 통한 고용’ 안을 내놓았지만 자본의 ‘먹튀’ 의혹을 떨치지 못한 해고자들의 ‘새 법인 해산 때 고용보장’ 요구를 거부한 상태에 있다.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일까,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우리가 관심과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굴뚝 농부’가 다시 노동자로 이 땅을 밟는 일이. <br/><br/>홍세화 장발장은행 대표·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0.txt

제목: “악역 전문? 난 확신범”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70110017775521  
본문: 대중적인 스타는 아니지만, 연기로 인정받는 배우들이 있다. 배우 김의성(50)도 그런 배우다. 김의성은 <관상>, <용의자>, <26년> 등에서 뛰어난 악역 연기로 영화의 한 축을 든든하게 떠받쳐왔다. 최근 개봉한 <소수의견>(감독 김성제)에서도 ‘유일한 악역’인 홍재덕 검사를 맡았다. 26일 오후 서울 삼청동의 한 찻집에서 그를 만났다.<br/><br/> 김의성은 <소수의견>에서 홍 검사 역을 직접 골랐다. 여러 법조인 가운데 한 사람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홍 검사라는 인물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홍 검사가 철거민의 편에 선 ‘윤진원 변호사’(윤계상)한테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그 대사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촬영 당일 제가 직접 그 대사를 고친 뒤 감독의 허락을 받아 연기했어요.”<br/><br/><br/><br/>“너무 매력적” 홍 검사역 직접 골라 <br/>‘26년’ 등 그동안 악역 전문 자처 <br/>“<span class='quot0'>악역은 동기 뚜렷…다양한 연기 가능</span>”<br/><br/><br/><br/> 왜 그렇게 악역을 자처하는 걸까. “악역은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연기는 인물의 동기가 중요한데, 악역은 동기가 뚜렷하죠.” 착한 역할은 길이 정해져 있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상해지는데, 악역은 표현할 방법이 많고 택할 길도 다양하다는 게 김의성의 설명이다. 그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8년 개봉)의 괴물 ‘안톤 시거’(하비에르 바르뎀)와 같은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고 했다. <br/><br/> 악역이면서도 그는 사회성 짙은 영화에서 경찰, 검사, 국정원 간부 등 권력을 휘두르는 쪽에 선다. “배우라는 직업은 수동적입니다. 고르는 게 아니라 골라지는 겁니다. 사회적 의미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span class='quot0'>물론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영화라면 결코 하지 않겠지만….</span>” <br/><br/> 김의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응원하는 광화문 1인시위를 벌여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배우도 자연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다만, 배우는 발언 방식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br/><br/> 김의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무언가 말하고 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총연극회에서 연극을 했고, 졸업 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년)의 주인공으로 그 당시까지 한국영화에선 전혀 낯선 문법이었던 ‘홍상수 세계’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배우로서 늙어갈 용기가 없어” 연기판을 떠났고, 베트남에서 10년 넘게 사업에 매달렸다. 그러다 2011년 다시 홍상수 감독의 <북촌방향>을 통해,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배우의 삶으로 되돌아왔다. “<북촌방향>을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왜 안 했을까 싶었다. 젊어서는 연기로 내 삶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연기로 밥을 먹고 살려 한다.” 오랫동안 불화를 겪었던 아버지와 화해하면서 들은 한마디가 컸다. “야, 재미있게 살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기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br/><br/>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br/><br/><br/><br/>[관련 영상] 우여곡절 <소수의견> …“국가란 게 뭐요” / 잉여싸롱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1.txt

제목: 지병 없고 고령 아닌데 3번째 사망 /강동경희대 간호사 증상없이 확진  
날짜: 20150629  
기자: 박수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29100000082  
본문: 고령(65살 이상)도 아니고 기저질환(지병)도 없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또 나왔다. 3명째다.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된 사례도 처음으로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증상 환자’가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평소 암이나 심장·폐·신장질환 등 지병이 없던 104번째 환자(남·55)가 27일 사망했다”고 28일 밝혔다. 104번째 환자는 5월27일 14번째 환자가 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숨졌다. 대책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04번째 환자 진료 과정에서 병력이 아니지만 당뇨가 발견됐다”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병 여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br/>　대책본부는 메르스 발생 초기 “고위험군이 아니면 사망에 이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시민을 안심시키려 해왔다. 하지만 65살 미만으로 지병이 없는데 사망한 메르스 환자가 벌써 3명째다. 앞서 14일 81번째 환자(62)는 진료 과정에서 호흡 곤란과 폐렴이 악화돼 숨졌다. 이튿날 98번째 환자(58)도 치료를 받다 신장 기능이 나빠져 숨을 거뒀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주로 기저질환 있는 사람이 사망하기 쉽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중동에서도 50살 이하, 무기저질환 사망 사례가 많았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려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br/>　대책본부는 이날 “181번째 확진자인 강동경희대병원 간호사(27·여)는 ‘무증상 또는 경한 증상’을 보였는데 의료진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된 간호사는 평소 있던 잔기침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증상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대책본부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감염력은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명돈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중동에서도 증상 없이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전염력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밝혀진 것은 이 의료진한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것뿐이라 일단 전염력이 있다고 가정해 격리 조처 등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br/>　한편 대책본부는 28일 기준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59명으로 전날보다 2명 줄었고, 퇴원자는 91명으로 1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32명으로 1명 늘었고, 격리 대상자는 2562명으로 95명 늘었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2.txt

제목: 지병 없고 고령 아닌데 3번째 사망…강동경희대 간호사 증상 없이 확진  
날짜: 2015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2810017731142  
본문: 고령(65살 이상)도 아니고 기저질환(지병)도 없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또 나왔다. 3명째다.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된 사례도 처음으로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증상 환자’가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평소 암이나 심장·폐·신장질환 등 지병이 없던 104번째 환자(남·55)가 27일 사망했다”고 28일 밝혔다. 104번째 환자는 5월27일 14번째 환자가 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숨졌다. 대책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04번째 환자 진료 과정에서 병력이 아니지만 당뇨가 발견됐다”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병 여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br/><br/>104번째 환자 <br/>삼성응급실서 노출 30일만에 숨져 <br/>대책본부 “병력 아니나 당뇨 발견”<br/><br/>181번째 환자 <br/>의료진 전수조사서 발견…전염력 논란 <br/>“<span class='quot0'>무증상은 중동서도 전염력 거의 없어</span>” <br/><br/> 대책본부는 메르스 발생 초기 “고위험군이 아니면 사망에 이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시민을 안심시키려 해왔다. 하지만 65살 미만으로 지병이 없는데 사망한 메르스 환자가 벌써 3명째다. 앞서 14일 81번째 환자(62)는 진료 과정에서 호흡 곤란과 폐렴이 악화돼 숨졌다. 이튿날 98번째 환자(58)도 치료를 받다 신장 기능이 나빠져 숨을 거뒀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주로 기저질환 있는 사람이 사망하기 쉽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중동에서도 50살 이하·무기저질환 사망 사례가 많았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려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br/><br/> 대책본부는 이날 “181번째 확진자인 강동경희대병원 간호사(27·여)는 ‘무증상 또는 경한 증상’을 보였는데 의료진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된 간호사는 평소 있던 잔기침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증상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대책본부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감염력은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명돈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중동에서도 증상 없이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전염력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밝혀진 것은 이 의료진한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것뿐이라 일단 전염력이 있다고 가정해 격리 조처 등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br/><br/> 한편 대책본부는 28일 기준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59명으로 전날보다 2명 줄었고, 퇴원자는 91명으로 1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32명으로 1명 늘었고, 격리 대상자는 2562명으로 95명 늘었다고 밝혔다. <br/><br/>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3.txt

제목: 여동생 위해 산악회 만든 오빠들  
날짜: 2015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27100000061  
본문: 영상앨범 산(한국방송2 일 아침 7시40분) 다섯 남매가 경상남도 거창의 우두산(1046ｍ)과 비계산(1130ｍ)에 오른다. 몇 해 전 여동생이 암 수술을 받고 우울증을 앓자 오빠들이 산악회를 만들었다. 동생을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가족애도 키워가고 있다. 첫 여정은 우두산 주차장을 시작으로 장군봉을 거쳐 의상봉, 상봉까지 주요 봉우리를 밟는다. 다음날은 산제치에서 출발해 비계산 정상에 오른 후 마장재 방향으로 걷는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4.txt

제목: 너 아니면 울지도 못할 뻔했어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2410017709314  
본문: 벌써 4년 전 이야기다. 그때 우리가 “쥐, 쥐” 하고 부르던 쥐는 아니고 진짜 쥐가 죽었다. 주인 잃은 집이 점점 을씨년스러워진다 하더니 급기야 쥐가 나왔다. 같이 살고 있던 나이 든 푸들이 쥐를 발견했다. “찍찍” 소리에 징그럽고 무섭고 이런 것보다 일단 깜짝 놀라 꼬리를 잡아채 보니 작은 쥐였고, 나에게 낚아채일 정도니 건강하지도 않은 쥐였다. 처음에는 죽었나 보다 싶어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변기에 넣고 내릴 셈으로 퐁당 빠뜨렸는데, 아뿔싸, 쥐는 맹렬하게 헤엄치기 시작했다. 얼른 다시 건져냈다. 쥐의 몸통에 조그만 벌레들이 바글바글했다. 이게 쥐벼룩인가 보다 싶어 갑자기 가엾어져 벌레를 잡아주려 했지만, 하나하나 잡다 보니 끝이 없었다. 일단 세면대에서 쥐를 씻겼다. 좀 전에 찐 작은 고구마를 하나 주었더니 그 고구마보다도 작은 쥐는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앞발로 고구마를 끌어안았다. 춥지 말라고 이불 삼아 쥐를 두루마리 휴지로 둘둘 말고 신문지를 꼼꼼하게 깐 종이 상자에 눕혔다. 일단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쥐를 두었다. 키울 생각이야 없었지만 길에 버릴 수도, 변기에 내릴 수도 없어서 일단 상자에 잘 두었는데, 한나절 지나고 보니 쥐는 뻣뻣하게 죽어 있었다.<br/><br/> 그해 바로 전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직 오십대였다. 헬스장 같은 곳에서 신체 나이를 재면 삼십대로 나올 만큼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암이 발전해서 치료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 배우자 없는 딸 하나밖에 없었으니 남들 보기에는 초라한 장례식장이었을 테지만, 나는 너무 울지 않아서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가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울고 싶어도 울 틈이 없었다. 아버지가 임종 판정을 받자마자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 거냐, 화장이냐 매장이냐, 장례식장에서 쓰는 장식은 뭐뭐 할 거냐, 관은 얼마짜리 있는데 뭘로 할 거냐, 온갖 처리해야 할 잡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슬퍼할 틈이 없었다. 그야말로 ‘불꽃 네고’의 향연이었다. 살면서 뭔가를 그렇게 깎아본 적이 있을까. “안 사요, 안 해요”를 연발했다. 꽃도 필요 없다, 양초도 필요 없다, 상복도 안 입겠다, 온갖 장식 다 필요 없다, 돈을 줄이려고 갖은 애를 쓰다가 급기야 녹즙 배달할 때 쓰는 스쿠터를 타고 집에 가서 아버지 생전에 입으시던 양복을 꺼내 왔다. 장례지도사가 한숨을 쉬더니 “목사님이시니까” 하면서 충고해준 거였다. 병원에서 성산대교를 넘어 집에 갔다 오는 동안 몇 번이나 한강에 들이박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울기에는 너무 분주했다. 발인이 끝나자마자 도로 하고 있던 녹즙 배달을 재개했고, 불평하는 손님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두번 돌아가시진 않을 테니 걱정 말라며 못 끊게 했고, 그래도 몇 명은 끊었으며, 어머니는 자매들이 있는 대구로 가서 지냈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던 개 한마리를 묻었고, 빈집에는 나와 늙은 개만 있었다. 그러다가 쥐가 나타난 거였다.<br/><br/> 그때 눈을 감고 빳빳해져 있는 조그만 쥐를 보니 어찌나 가엾던지, 앞으로 이명박을 쥐라고 부르는 것도 삼가야 할 것 같았다.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은 교회 화단을 팠다. 워낙 작은 쥐는 죽으니까 더 작아져서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파도 이 하찮은 죽음에는 충분했다. 조그마한 구덩이에 쥐를 눕혔다. 저승 가서 배고프지 말라고 아까 눈도 못 뜨면서 쥐가 바둥대며 껴안고 있던 고구마도 같이 묻었다. 혹시 동네 길고양이가 파내갈까봐 위에 묵직한 돌을 얹고 나서 쥐가 누워 있던 그 상자를 버리다 말고 갑자기 주저앉아 한참 울었다. 아버지 죽었을 땐 안 울던 년이 쥐가 죽었다고 울다니 별일이었다. 그렇지만 다 가엾어서. 평생 목회만 하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도 불쌍하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초라하게 산 엄마도 불쌍하고, 이럴 때 기댈 형제자매 하나 없는 나도 갑자기 서럽고, 뭐 찾아먹을 게 있다고 이런 집구석까지 기어들어왔다가 죽은 쥐도 불쌍하고, 온 세상이 다 가엾은 일 천지였다. 죽으면 빳빳해진다. 사람도 그렇고 쥐도 그랬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쥐가 왔다 가서, 비로소 울었다. 너 아니면 울지도 못할 뻔했다. 안녕, 쥐. 그 후로도 매년 연약한 것들은 모두 봄에 떠나갔다. 나는 앞으로 몇 번의 장사를 더 지내야 멈출 수 있을까. 사랑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br/><br/>김현진 에세이스트, 팟캐스트 진행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5.txt

제목: 주말농장서 재회한 동지, 같은 뜻을 다시 품다  
날짜: 20150624  
기자: 원낙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24100000058  
본문: 성남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983년이었다. 1년 전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수배가 떨어졌다. 전국을 돌며 숨어 지내는 ‘도바리’ 끝에 경기도 성남시까지 흘러갔다. 공단과 빈민 지역의 야학에서 노동자와 청년을 가르쳤다. 그해 보안사에 검거돼 옥살이를 시작했지만, 야학에서 점화된 노동자 의식은 1987년 성남산업단지 제2공단 파업으로 이어져 노동자 대항쟁의 신호탄 구실을 했다.<br/>　옥살이 반년 만에 사면복권으로 풀려났고, 경남의 노동현장으로 내려갔다. 노동단체에서 만난 후배와 결혼도 했다. 아내가 과외로 벌어오는 10만~20만원으로 한달을 살았지만 부족함을 몰랐다. 그런데 본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1992년 일자리를 찾아 성남으로 이사했다. 전교조 출신 선배의 소개로 학원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학원 강의 기법도 배우고 각종 인맥, 학생까지 소개받으면서 짧은 시간에 스타강사로 부상할 수 있었다. 영어강사 3년 만에 한달 수입이 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돈이 생기자 간이 부었는지 학원, 유학원 등 각종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부족한 자금은 주위에서 빌리고 대출까지 받았다. 그러나 경영자로서 자질과 감각이 훈련되지 않았던 탓에 결국 부도를 냈다. 일부 사업체를 헐값에 매각했지만 남은 건 수억원대의 빚이었다.<br/>　학원강사로 다시 일하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대부업체의 독촉은 끔찍했다. 자고 일어나면 전화가 쉼 없이 울렸다. 받으면 쌍욕이 쏟아졌다. 집에 수시로 찾아와 문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가족과 이웃에게 볼 낯이 없었다. 가족 사이도 멀어지며 우울증까지 생겼다. 친구가 야탑동에 있는 주말농장에 놀러가자고 했다. 별빛을 보며 막걸리나 한잔 하자는 것이었다. 가보니 예전에 노동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도 몇 명 있었다. 같이 술잔을 기울이다 내년에 주말농장 분양을 받으라는 권유에 그러겠다고 했다. 2005년 봄에 분양을 받아 삽질을 시작하자 어릴 때 맡았던 흙냄새가 났다. 퇴비 냄새도 좋았다. 맨발로 흙을 느끼며 텃밭에 서서히 빠져들었다. 농사를 시작한 지 두세달 만에 우울증세가 사라졌다. 강의가 없는 낮에도 가서 농사를 지었다.<br/>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했다. 암처럼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다. 분당의 기업체에 다니는 회사원은 삽질을 하며 머리를 식혔다. 도시의 일상생활에 찌든 사람들이 텃밭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 농사를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많았다. 특히 자녀 교육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공통이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은 금토동으로 함께 옮겼다 2012년 고등동 등자리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유기농 생태 농법을 원칙으로 농약, 비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직접 지은 농산물로 발효와 숙성을 제대로 시켜 음식을 만들어 먹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개별 분양자가 짓는 자족적 농사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주말농장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는 농사공동체의 그림을 그렸다. 지난해 봄 13가구가 의기투합해 텃밭공동체 ‘공터회’를 만들었다. 물, 전기, 농기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당 14만원씩 분양비를 내서 충당하기로 했다.<br/>　매달 두번씩 전체가 모여 공동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공동의 터전 약 660㎡(200평)에 처음 도전한 작물은 콩이었다. 메주콩을 지어 된장과 간장까지 직접 만들자는 목표였다. 40, 50대 남자 10여명이 모였으니 웬만한 농사일은 가뿐하리라 여겼다. 그러나 농기계 사용이 금지된 땅이라 맨손과 삽으로 개간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삽질을 하느라 모두가 땀을 한 바가지씩 흘렸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나누는 점심식사와 막걸리 한잔에 다시 기운을 차렸다.<br/>　겨우 콩을 심고 나니 예상치 못한 난관이 나타났다. 솟아나는 콩순을 산비둘기와 까치들이 골라 먹어댔다. 여름 잡풀은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2주에 한번씩 모여서는 잡풀 자라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긴급히 잡풀정리조를 가동해 겨우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어설픈 농부들은 수확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11월 초에는 콩을 거뒀어야 했는데 12월이 다 되어서야 수확했던 것이다. 건조 2주 뒤 주변 농가에서 빌려온 대형 선풍기로 콩을 털어내 수확량을 달아보니 겨우 10㎏ 남짓이었다. 메주를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 다들 허탈했다. 그래도 부족한 콩은 더 사서 올해 초 메주 쑤기에 도전했다. 하필이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전날 불린 40㎏의 콩에서 돌을 골라낸 뒤 가마솥에 넣어 3시간을 끓였다. 전기장판 위에 짚을 깔고 메주를 올린 뒤 집에서 가져온 헌 이불을 덮어씌웠다.<br/>　콩 농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달 24일 마침내 메주에서 된장과 간장을 갈라냈다. 미리 소금물에 숯, 고추와 함께 담가두었던 메주에서 된장을 뜨고 간장을 달였다. 앞으로 1년은 발효시켜야 한다. 된장은 아직 많이 짰지만, 간장은 그동안의 고생을 잊게 할 만큼 감동적인 맛이었다. 비록 양이 적어 나눠 갖지는 못하고 농장에 두고 공동식사 때 먹기로 했다. 어느덧 20가구로 늘어난 공터회 식구들은 고추장, 막장, 장아찌까지 도전할 포부에 부풀어 있다.<br/>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br/><br/>>>> 도시에서 텃밭공동체를 시작하려면<br/>• 주말농장에서 공동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세요<br/>• 음식, 허브, 약초, 교육 등 다양한 주제가 가능합니다<br/>• 개별농사와 공동농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의논하세요<br/>• 개별·공동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규칙을 정하세요<br/>• 공동재배 작물을 먼저 선정하고, 연간 계획을 세우세요<br/>• 매번 모이기 전에 흘리는 땀의 의미를 미리 공유하세요<br/>• 모임마다 꼭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와 고민을 나누세요<br/>　자료: 신재근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6.txt

제목: 주말농장서 재회한 옛 동지, 삽질로 다시 한뜻을 품다  
날짜: 2015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2310017695525  
본문: 성남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983년이었다. 1년 전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수배가 떨어졌다. 전국을 돌며 숨어 지내는 ‘도바리’ 끝에 경기도 성남시까지 흘러갔다. 공단과 빈민 지역의 야학에서 노동자와 청년을 가르쳤다. 그해 보안사에 검거돼 옥살이를 시작했지만, 야학에서 점화된 노동자 의식은 1987년 성남산업단지 제2공단 파업으로 이어져 노동자 대항쟁의 신호탄 구실을 했다.<br/><br/> 옥살이 반년 만에 사면복권으로 풀려났고, 경남의 노동현장으로 내려갔다. 노동단체에서 만난 후배와 결혼도 했다. 아내가 과외로 벌어오는 10만~20만원으로 한달을 살았지만 부족함을 몰랐다. 그런데 본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1992년 일자리를 찾아 성남으로 이사했다. 전교조 출신 선배의 소개로 학원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학원 강의 기법도 배우고 각종 인맥, 학생까지 소개받으면서 짧은 시간에 스타강사로 부상할 수 있었다. 영어강사 3년 만에 한달 수입이 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돈이 생기자 간이 부었는지 학원, 유학원 등 각종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부족한 자금은 주위에서 빌리고 대출까지 받았다. 그러나 경영자로서 자질과 감각이 훈련되지 않았던 탓에 결국 부도를 냈다. 일부 사업체를 헐값에 매각했지만 남은 건 수억원대의 빚이었다.<br/><br/>학생·노동운동하다 성남서 학원강사 <br/>3년만에 월수입 7000만원 스타강사로 <br/>학원·유학원 사업 마구 벌이다 파산 <br/>끔찍한 빚 독촉에 우울증, 가정 흔들　<br/><br/>우연히 시작한 주말농장서 생기 찾아 <br/>비슷한 도시민 만나 고민·정서 공감 <br/>개별농사 넘어 음식공동체 의기투합 <br/>지난해 13가구 모여 메주콩 농사 시작 <br/>온갖 시행착오 끝 된장 뜨고 간장 달여<br/><br/> 학원강사로 다시 일하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대부업체의 독촉은 끔찍했다. 자고 일어나면 전화가 쉼 없이 울렸다. 받으면 쌍욕이 쏟아졌다. 집에 수시로 찾아와 문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가족과 이웃에게 볼 낯이 없었다. 가족 사이도 멀어지며 우울증까지 생겼다. 친구가 야탑동에 있는 주말농장에 놀러가자고 했다. 별빛을 보며 막걸리나 한잔 하자는 것이었다. 가보니 예전에 노동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도 몇 명 있었다. 같이 술잔을 기울이다 내년에 주말농장 분양을 받으라는 권유에 그러겠다고 했다. 2005년 봄에 분양을 받아 삽질을 시작하자 어릴 때 맡았던 흙냄새가 났다. 퇴비 냄새도 좋았다. 맨발로 흙을 느끼며 텃밭에 서서히 빠져들었다. 농사를 시작한 지 두세달 만에 우울증세가 사라졌다. 강의가 없는 낮에도 가서 농사를 지었다.<br/><br/>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했다. 암처럼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다. 분당의 기업체에 다니는 회사원은 삽질을 하며 머리를 식혔다. 도시의 일상생활에 찌든 사람들이 텃밭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 농사를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많았다. 특히 자녀 교육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공통이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은 금토동으로 함께 옮겼다 2012년 고등동 등자리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유기농 생태 농법을 원칙으로 농약, 비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직접 지은 농산물로 발효와 숙성을 제대로 시켜 음식을 만들어 먹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개별 분양자가 짓는 자족적 농사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주말농장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는 농사공동체의 그림을 그렸다. 지난해 봄 13가구가 의기투합해 텃밭공동체 ‘공터회’를 만들었다. 물, 전기, 농기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당 14만원씩 분양비를 내서 충당하기로 했다.<br/><br/> 매달 두번씩 전체가 모여 공동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공동의 터전 약 660㎡(200평)에 처음 도전한 작물은 콩이었다. 메주콩을 지어 된장과 간장까지 직접 만들자는 목표였다. 40, 50대 남자 10여명이 모였으니 웬만한 농사일은 가뿐하리라 여겼다. 그러나 농기계 사용이 금지된 땅이라 맨손과 삽으로 개간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삽질을 하느라 모두가 땀을 한 바가지씩 흘렸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나누는 점심식사와 막걸리 한잔에 다시 기운을 차렸다.<br/><br/> 겨우 콩을 심고 나니 예상치 못한 난관이 나타났다. 솟아나는 콩순을 산비둘기와 까치들이 골라 먹어댔다. 여름 잡풀은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2주에 한번씩 모여서는 잡풀 자라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긴급히 잡풀정리조를 가동해 겨우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어설픈 농부들은 수확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11월 초에는 콩을 거뒀어야 했는데 12월이 다 되어서야 수확했던 것이다. 건조 2주 뒤 주변 농가에서 빌려온 대형 선풍기로 콩을 털어내 수확량을 달아보니 겨우 10㎏ 남짓이었다. 메주를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 다들 허탈했다. 그래도 부족한 콩은 더 사서 올해 초 메주 쑤기에 도전했다. 하필이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전날 불린 40㎏의 콩에서 돌을 골라낸 뒤 가마솥에 넣어 3시간을 끓였다. 전기장판 위에 짚을 깔고 메주를 올린 뒤 집에서 가져온 헌 이불을 덮어씌웠다.<br/><br/> 콩 농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달 24일 마침내 메주에서 된장과 간장을 갈라냈다. 미리 소금물에 숯, 고추와 함께 담가두었던 메주에서 된장을 뜨고 간장을 달였다. 앞으로 1년은 발효시켜야 한다. 된장은 아직 많이 짰지만, 간장은 그동안의 고생을 잊게 할 만큼 감동적인 맛이었다. 비록 양이 적어 나눠 갖지는 못하고 농장에 두고 공동식사 때 먹기로 했다. 어느덧 20가구로 늘어난 공터회 식구들은 고추장, 막장, 장아찌까지 도전할 포부에 부풀어 있다.<br/><br/>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7.txt

제목: “중증 환자들 기침 잦은 병원서는 공기로도 전파 가능”  
날짜: 20150622  
기자: 박수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22100000034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환자가 확진된 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일반인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근저엔 메르스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이 깔려 있다.<br/>　메르스는 치사율이 높은 반면 감염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유의미한 유전자 변이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병원 안 감염’이 두드러지는 한국적 특성에 기대어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한다. 는 이 분야 전문가 5명에게 전자우편과 전화 통화 등으로 메르스의 감염 경로, 잠복기, 치사율, 감염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대체로 “지역사회 전염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병원 안 공기전파 가능성은 높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br/><br/>① 공기전파냐 비말전파냐<br/>메르스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 등에 감염돼 생긴다.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콧물이나 침, 가래)에 묻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질병관리본부(질본)가 ‘2m 이내, 한시간 이상’이라는 범위를 정한 이유다. 그러나 이런 감염 경로는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대규모 환자 발생을 설명하지 못한다. <br/> 오명돈 서울대 의대 교수 “어떤 사람이 2m 이내에서 기침하는 환자가 배출한 침방울로 전염되면 비말전파, 이 환자가 퇴원한 병실의 옆방에서 두 손을 쓸 수 없는 환자가 감염되면 공기전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 둘이 딱 부러지게 구분되지 않는다.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통상 침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밖에서도 한동안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다.” <br/>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미세 ‘에어로졸’(작은 물방울이나 고체)이나 비말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멀다. 3㎛(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크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며 가라앉지 않는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20~30m를 날아갈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난해 12월 환자한테 직접 노출되지 않은 의료진이 감염되고, 낙타 목장에서 채취한 공기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된 걸 근거로 방역 기준을 ‘비말’(droplet)에서 ‘공기운반입자’(airborne)로 수정했다.”<br/> 강철인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특수한 환경에서는 공기감염 형태로 전파될 수 있다. 심한 폐렴 발생 직전 등 바이러스가 많은 상태에서 기침을 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 마치 공기전파처럼 감염될 수 있다.” <br/>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공기감염 가능성은 전혀 없다. 병원은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오염된 환경이다. 따라서 비말이 응급실 손잡이 등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다른 사람이 만져서 전염(간접 접촉에 의한 전염)된 것으로 봐야 한다.”<br/> 채윤태 한전병원 감염내과장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입원병실 환경과 비슷한 기온 20도, 습도 40%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72시간까지 생존했다. (공기를 통한 감염이라기보다) 여기저기 묻어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에 접촉해 감염이 이뤄졌을 수 있다.”<br/><br/>② 치사율과 기저질환 상관관계<br/>사우디에서 메르스 치사율이 40%로 알려져 시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21일 현재 국내 메르스 환자의 치사율은 15%에 이른다. 방역 초기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로 사망하는 경우가 만성신부전·천식·폐렴 등 기저질환자들한테서 주로 일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건강했던 사람들이 숨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br/> 오명돈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를 분자와 분모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정확한 치사율이 나오지 않는다. 오늘 확진받은 사람이 10명이라도 그 사람이 살지 죽을지는 퇴원한 뒤에야 알 수 있다. 현재 방식으로는 치사율이 낮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 보정하려면 확진 뒤 2주일 정도면 사망할 만한 사람이 사망한다는 가정 아래 2주 전 확진자 수를 분모로 잡는 방법이 있다. 위기소통의 원칙에 ‘지나치게 안심시키기 금지’가 있다. (보건당국이 의도적으로) 치사율을 낮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 <br/> 이재갑 “지금은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이 있어도 메르스로 다 잡힌다. 하지만 암에 걸린 상태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 암 치사율로 잡힌다. 현재의 치사율은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경향성을 보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중동에서도 기저질환이 없고 50살 이하인데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기저질환자는 사망하기 쉽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보건당국이) 얘기했어야 한다.”<br/> 강철인 “건강한 사람도 많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중증 폐렴으로 발전한다. 감염 당시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14번째 환자에게 노출된 35번째 환자(삼성서울병원 의사)도 14번째 환자 옆에 있던 환자를 30분가량 진료했는데 그때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br/><br/>③ 지역사회 감염 여부<br/>메르스는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사람 간 밀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와 격리 대상자가 예상을 넘어서면서 ‘병원 밖 감염은 없을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설명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br/> 강철인 “지역사회 감염은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 메르스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아직까지 이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br/> 이재갑 “사스·신종플루도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능력이 있다. 메르스 환자가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때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시기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br/> 오명돈 “병원 안 감염은 공간 중심 개념만이 아니라 행위 중심 개념으로도 확장해봐야 한다. (민간구급대 운전자 감염 사례처럼) 병원 밖이라도 의료행위 도중에 감염이 일어나면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봐야 한다.”<br/> 채윤태 “사우디 사례를 보면 가족 간 밀접한 접촉에 의한 감염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메르스의 지역사회 감염 범위는 학교, 직장, 공공장소 등으로 봐야 한다.”<br/><br/>④ 잠복기<br/>보건당국의 메르스 대응 지침에 메르스 잠복기는 5일(2~14일)로 돼 있다. 사우디에서도 환자의 95%가 이 잠복기 안에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대 잠복기(14일)를 지나 증세가 나타난 환자들이 잇따랐다. <br/> 오명돈 “잠복기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세계보건기구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원에 노출된 날짜, 발병한 날짜를 확인해 두 날짜가 확실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 정한다.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메르스 잠복기는 중동에서 진단된 환자 1000명 이상에게서 검증된 수치다. 만약에 우리나라 환자 중 노출과 발병 날짜가 분명한 환자가 노출 16일 만에 발병했다면 이 사람의 잠복기는 16일이 된다. 잠복기 계산은 산수다. 다만 증상이 나타난 날짜는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br/> 이재갑 “보통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감염병 잠복기를 정규분포 곡선으로 95% 이내로 잡는다. 예외는 나올 수 있다. 99%까지 잡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 않다.”<br/> 채윤태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에 따르면 호흡기 증상 전 피로감이나 식욕 저하 증상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현재의 사례만으로 잠복기를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br/> 이근영 선임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8.txt

제목: 땅 속의 사과, 감자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2210017670198  
본문: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식재료로 생각해 제철개념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감자는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가 제철이라 이 시기는 특히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 감자하면 포테이토칩이나 프렌치프라이를 떠 올려 간식거리로 생각하지만 쌀, 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4대 식량작물이며 건강하게 잘 먹는 것이 필요하다.<br/><br/><br/><br/>감자는 약 7천 년 전 페루 남부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안데스 산맥에서 잉카인들의 식량이었다. 그 후에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현재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작물이 됐다. 처음 유럽 사람들은 이 감자를 관상용의 정원 식물로 키웠으며 심지어는 최음제로 오인하기도 했다. 또한 악마의 식물이라 하여 심한 배척을 받기도 했다.<br/><br/><br/><br/>그러나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고 풍부한 탄수화물성분으로 인해 감자는 곧 유럽의 기근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작물이 됐다. 특히 18~19세기 즈음 세계적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부양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감자는 싸고 실용적인 농작물로 자리 잡았다. 아마도 감자라고 하면 고흐의 어두운 배경의 ‘감자 먹는 사람들 The Potato Eater’(1885)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 당시 감자는 가난한 소작인들의 주식이자 생명줄이었다. 감자는 16세기경 네덜란드의 상인들에 의해 중국에 전래됐고, 국내에는 1824년경 만주의 간도 지방으로부터 전래됐다고 보고 있다.<br/><br/><br/><br/>‘감자(甘藷)’는 '북방에서 온 고구마'라는 뜻인 북방감저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고, 감자를 들어 올리면 '말에 달린 방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이 생겼다'하여 ‘마령서(馬鈴薯)’라고도 불렸다. 이렇게 감자와 고구마는 생긴 모양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작물이다. 감자는 고추, 가지, 토마토, 담배와 함께 가지과(Solanaceae)에 속하는 작물이다. 감자에서 식용하는 부위를 흔히 고구마처럼 ‘뿌리’부분인 것으로 여기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 줄기가 변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고구마의 뿌리와는 근본적으로 생성 원인이 다르다.<br/><br/><br/><br/>감자는 알고 보면 영양과 효능도 좋은 편이다. 우선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감자는 수분 75%, 녹말 13~20%, 단백질 1.5~2.6%, 무기질 0.6~1%, 환원당(reducing sugar) 0.03mg, 비타민C 10~30mg을 함유하고 있다. 감자의 주성분은 전분, 즉 탄수화물이다. 사람들에게 주로 에너지를 준다. 또 철분, 칼륨과 같은 중요한 무기성분 및 비타민C,· B1,·B2, 나이아신과 같은 인체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br/><br/><br/><br/>감자는 밀가루보다 더 많은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감자에는 특히 비타민C가 많은데 고혈압이나 암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권태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다른 채소들은 불을 가해 조리를 하면 대부분 파괴되는 데 비해, 감자의 비타민C는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감자에는 수박이나 사과에 다량 들어 있다는 칼륨이 4배 이상 많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우리들에게 유익하며,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br/><br/><br/><br/>또한 당뇨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금기를 몸 밖으로 없애는 역할을 한다. 소금기 있는 음식을 금방 줄이기 힘든 당뇨환자들이 감자를 다른 음식과 병행해서 먹는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물성 섬유질인 펙틴이 들어있어 변비에 특효가 있다. 감자는 염증 완화, 화상, 고열, 편도선이나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br/><br/><br/><br/>실제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효과들은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감자의 생즙을 관절염 및 통증을 억제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했다. 감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본 결과,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우수한 환원력 등으로 감자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br/><br/><br/><br/>감자의 폴리페놀 성분이 흰쥐의 생체 내 과산화지질(lipid peroxid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을 투여한 흰쥐의 간장에서 과산화지질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br/><br/><br/><br/>또한 ‘유색감자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고혈압 활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적색과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고, 항산화 및 항고혈압 활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유색감자는 시각적인 맛을 증대시키고 또한 기능성이 증대된 식용감자로서의 이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았다.<br/><br/><br/><br/>그럼, 어떤 감자를 구입해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감자는 표면에 흠집이 적고 눈이 얇으며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고 무거우면서 단단한 것이 좋다.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이 도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감자의 싹이 돋는 부분은 솔라닌이 있으므로 싹이 나거나 빛이 푸르게 변한 감자는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자에 싹이 올라 있으면 씨눈을 깊이 도려내고 사용해야 한다.<br/><br/><br/><br/>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고, 검은 봉지나 신문지,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껍질을 까놓은 감자는 갈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에 넣어 놓아야 한다. 찬물에 담가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봉지나 랩에 싸서 냉장 (1~2℃)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감자 보관온도는 7~10℃가 적당하며, 적정 온도에서는 몇 주 간 저장 가능하다. 집에서 상온에 보관할 경우에는 1주일 안에 먹는 것이 좋다.<br/><br/><br/><br/>감자는 어떻게 조리해 먹는 것이 좋을까? 감자는 삶아서 주식 또는 간식으로 하고, 굽거나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한다. 볶음, 전, 탕, 국, 범벅, 서양요리 등 다양한 음식에 쓰이고 있다. 감자는 희석식 소주의 원료와 알코올의 원료로 사용되고, 감자녹말은 당면 원료로도 이용되고 있어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감자를 많이 섭취하고 있다. 감자는 설탕으로 간을 하는 경우, 감자의 비타민 B1이 설탕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소비되어 영양학적으로는 좋지 않다.<br/><br/><br/><br/>요즘 같이 감자가 제 철인 때에는 맛이 좋은 생감자를 쪄서 그대로 먹으면 감자 맛과 영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잘 붓거나, 평소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감자를 간 즙이나 감자수프, 감잣국 등을 섭취하면 더욱 좋다. 또한, 가능하다면 기름에 튀기는 조리방법은 피하는 것이 감자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br/><br/><br/><br/>\*자유라디칼 : 자유라디칼이란 외곽 전자각에 단일 홀전자를 갖고 있는 원자나 분자를 말한다. 노화에 관한 자유라디칼 이론에서는 세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이 축적되면서 노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자유라디칼을 제거한다는 것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세포 손상을 억제 시키는 것이다.<br/><br/><br/><br/>글 :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br/><br/><br/><br/>\*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있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09.txt

제목: 메르스 한 달, 여전히 궁금한 네 가지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2110017671275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환자가 확진된 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일반인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근저엔 메르스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이 깔려 있다.<br/><br/> 메르스는 치사율이 높은 반면 감염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유의미한 유전자 변이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병원 안 감염’이 두드러지는 한국적 특성에 기대어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한다. <한겨레>는 이 분야 전문가 5명에게 전자우편과 전화 통화 등으로 메르스의 감염 경로, 잠복기, 치사율, 감염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대체로 “지역사회 전염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병원 안 공기전파 가능성은 높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br/><br/>① 공기전파냐 비말전파냐<br/><br/>메르스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 등에 감염돼 생긴다.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콧물이나 침, 가래)에 묻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질병관리본부(질본)가 ‘2m 이내, 한시간 이상’이라는 범위를 정한 이유다. 그러나 이런 감염 경로는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대규모 환자 발생을 설명하지 못한다. <br/><br/> 오명돈 서울대 의대 교수 “어떤 사람이 2m 이내에서 기침하는 환자가 배출한 침방울로 전염되면 비말전파, 이 환자가 퇴원한 병실의 옆방에서 두 손을 쓸 수 없는 환자가 감염되면 공기전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 둘이 딱 부러지게 구분되지 않는다.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통상 침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밖에서도 한동안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다.” <br/><br/>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미세 ‘에어로졸’(작은 물방울이나 고체)이나 비말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멀다. 3㎛(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크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며 가라앉지 않는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20~30m를 날아갈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난해 12월 환자한테 직접 노출되지 않은 의료진이 감염되고, 낙타 목장에서 채취한 공기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된 걸 근거로 방역 기준을 ‘비말’(droplet)에서 ‘공기운반입자’(airborne)로 수정했다.”<br/><br/> 강철인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특수한 환경에서는 공기감염 형태로 전파될 수 있다. 심한 폐렴 발생 직전 등 바이러스가 많은 상태에서 기침을 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 마치 공기전파처럼 감염될 수 있다.” <br/><br/>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공기감염 가능성은 전혀 없다. 병원은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오염된 환경이다. 따라서 비말이 응급실 손잡이 등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다른 사람이 만져서 전염(간접 접촉에 의한 전염)된 것으로 봐야 한다.”<br/><br/> 채윤태 한전병원 감염내과장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입원병실 환경과 비슷한 기온 20도, 습도 40%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72시간까지 생존했다. (공기를 통한 감염이라기보다) 여기저기 묻어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에 접촉해 감염이 이뤄졌을 수 있다.” <br/><br/><br/><br/>② 치사율과 기저질환 상관관계 <br/>“<span class='quot0'>정부 계산방식은 치사율 낮게 보이는 착시 불러</span>”<br/><br/>사우디에서 메르스 치사율이 40%로 알려져 시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21일 현재 국내 메르스 환자의 치사율은 15%에 이른다. 방역 초기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로 사망하는 경우가 만성신부전·천식·폐렴 등 기저질환자들한테서 주로 일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건강했던 사람들이 숨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br/><br/> 오명돈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를 분자와 분모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정확한 치사율이 나오지 않는다. 오늘 확진받은 사람이 10명이라도 그 사람이 살지 죽을지는 퇴원한 뒤에야 알 수 있다. 현재 방식으로는 치사율이 낮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 보정하려면 확진 뒤 2주일 정도면 사망할 만한 사람이 사망한다는 가정 아래 2주 전 확진자 수를 분모로 잡는 방법이 있다. 위기소통의 원칙에 ‘지나치게 안심시키기 금지’가 있다. (보건당국이 의도적으로) 치사율을 낮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 <br/><br/> 이재갑 “지금은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이 있어도 메르스로 다 잡힌다. 하지만 암에 걸린 상태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 암 치사율로 잡힌다. 현재의 치사율은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경향성을 보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중동에서도 기저질환이 없고 50살 이하인데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기저질환자는 사망하기 쉽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보건당국이) 얘기했어야 한다.”<br/><br/> 강철인 “건강한 사람도 많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중증 폐렴으로 발전한다. 감염 당시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14번째 환자에게 노출된 35번째 환자(삼성서울병원 의사)도 14번째 환자 옆에 있던 환자를 30분가량 진료했는데 그때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br/><br/><br/><br/>③ 지역사회 감염 여부 <br/>“<span class='quot0'>사우디에선 병원 밖 가족 접촉 감염 다수 보고</span>”<br/><br/>메르스는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사람 간 밀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와 격리 대상자가 예상을 넘어서면서 ‘병원 밖 감염은 없을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설명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br/><br/>강철인 “지역사회 감염은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 메르스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아직까지 이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br/><br/> 이재갑 “사스·신종플루도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능력이 있다. 메르스 환자가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때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시기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br/><br/> 오명돈 “병원 안 감염은 공간 중심 개념만이 아니라 행위 중심 개념으로도 확장해봐야 한다. (민간구급대 운전자 감염 사례처럼) 병원 밖이라도 의료행위 도중에 감염이 일어나면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봐야 한다.”<br/><br/> 채윤태 “사우디 사례를 보면 가족 간 밀접한 접촉에 의한 감염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br/><br/><br/><br/>④ 잠복기 <br/>“<span class='quot0'>증상 나타난 날짜는 주관적이라는 문제 있어</span>”<br/><br/>보건당국의 메르스 대응 지침에 메르스 잠복기는 5일(2~14일)로 돼 있다. 사우디에서도 환자의 95%가 이 잠복기 안에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대 잠복기(14일)를 지나 증세가 나타난 환자들이 잇따랐다. <br/><br/> 오명돈 “잠복기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세계보건기구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원에 노출된 날짜, 발병한 날짜를 확인해 두 날짜가 확실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 정한다.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메르스 잠복기는 중동에서 진단된 환자 1000명 이상에게서 검증된 수치다. 만약에 우리나라 환자 중 노출과 발병 날짜가 분명한 환자가 노출 16일 만에 발병했다면 이 사람의 잠복기는 16일이 된다. 잠복기 계산은 산수다. 다만 증상이 나타난 날짜는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br/><br/> 이재갑 “보통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감염병 잠복기를 정규분포 곡선으로 95% 이내로 잡는다. 예외는 나올 수 있다. 99%까지 잡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 않다.”<br/><br/> 채윤태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에 따르면 호흡기 증상 전 피로감이나 식욕 저하 증상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현재의 사례만으로 잠복기를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br/><br/> 이근영 선임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0.txt

제목: 메르스 확진 줄어들고 있지만 /집중관리 병원들 여전히 ‘불씨’  
날짜: 201506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20100000022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그동안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물론 메르스 환자가 투석치료를 받은 강동경희대병원 등도 여전히 유행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br/>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19일 “삼성서울병원 환자의 가족 1명이 전날 추가로 확진돼 환자 수는 모두 16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새로 발생하는 메르스 환자 수는 15일 4명, 16일 8명, 17일 3명 등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환자 발생 추이로 보면 메르스 유행은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집중관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강동경희대병원·아산충무병원 등에서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br/>　이날까지 82명의 메르스 환자가 나온 삼성서울병원은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다. 대책본부는 14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나 새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지만, 14번째 환자와 접촉해 확진 환자가 된 의료진이나 3차 감염 환자가 4차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137번째 환자가 그런 사례다. 이 병원 이송요원인 이 환자는 지난 2일 증상이 나타난 이후 10일 격리되기까지 9일 동안 병원에서 근무했다.<br/>　실제로 이날 발표된 166번째 환자(62)는 삼성서울병원 암 병동에 5월25일부터 입원하고 있던 환자 보호자로 137번째 환자한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166번째 환자가 간병하던 환자가 응급실 옆 영상의학과 촬영실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때 응급실 중앙통로 등 공간에서 전염됐을 수도 있지만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가 166번째 환자가 있던 병동을 다녀간 사실이 있어 그때 전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br/>　여전히 메르스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지난달 27~29일, 지난 2~10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환자·방문자 등은 모두 4만19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본부는 이날 이들한테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 메르스 증상 발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br/>　강동경희대병원 역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5번째 환자가 지난 6~13일 이 병원 투석실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부터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이 환자와 함께 투석치료를 받은 환자는 109명이나 된다.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는 메르스에 더욱 취약해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지난 17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아산충무병원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이 병원은 경기도 평택경찰서 경찰관인 119번째 환자가 지난 5~9일 입원했다. 입원 당시 메르스 증상이 있었지만 격리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의료진 등과 접촉했다. 이 때문에 이 병원 간호사(163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의료진과 주변 환자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적지 않다.<br/>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76번째 환자(사망)가 머문 건국대병원 접촉자들도 최대 잠복기가 27일이어서 추가 환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대전 대청병원과 이 병원에서 전염된 환자가 입원했던 좋은강안병원 등 부산지역 병원, 삼성서울병원 외래에서 치료를 받다 감염된 환자가 입원했던 창원에스케이(SK)병원도 마찬가지다.<br/>　한편 대책본부는 “첫번째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동물과 접촉한 적은 없고 현지 바이어들과 회의를 하는 등 밀접한 접촉을 했다고 말해 그 과정에 메르스에 전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1.txt

제목: 암투병 안치환,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날짜: 20150619  
기자: 남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9100000064  
본문: 나이 오십, 인생의 셈이 시작될 나이다. 가수 안치환(사진)은 지난해 직장암을 선고받고 혹독한 셈을 치렀다. “<span class='quot0'>나는 암환자 한동안 멍 때렸지만 이젠 담담해 케모포트를 심고 항암을 처음 맞던 날 눈물이 났어.</span>” 그가 2014년 5월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침대에서 쓴 노래 ‘나는 암환자’다.<br/>　안치환이 투병 1년 동안 만든 노래들을 모아 11집 앨범 을 냈다. “<span class='quot0'>낯선 상황과 육체적 고통, 그 불안함</span>”이 노래가 됐다는 그를 17일 서울 연희동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는 딴따라니까 출근하듯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척했지만 밝았다.<br/>　10집 를 낸 것이 2010년. 계획대로라면 그는 포크송 계열의 노래로 채워진 11집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고 뜻하지 않았던 음반을 냈다. ‘사랑이 떠나버려 나는 울고 있어’로 시작해 ‘나는 암환자’나 ‘병상에 누워’를 거쳐 ‘천국이 있다면’ ‘레테의 강’으로 이어지는 이번 음반은 삶과 죽음에 관련된 1년의 기록이다. 하지만 결코 슬프거나 애잔하지만은 않다. 보컬이 기타와 드럼 소리를 누르며 “<span class='quot1'>내 목숨 주인은 암이 아니라 널 이겨낼 나</span>”라고 선언하는 노래 ‘나는 암환자’나, 피아노와 함께 “<span class='quot1'>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난 머물지 않는 바람의 영혼</span>”이라고 노래하는 ‘바람의 영혼’은 장중하고 당당하다.<br/>　“<span class='quot0'>‘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의 진짜 뜻을 알았다</span>”는 그는 시인 정호승의 시에 곡을 붙인 ‘희망을 만드는 사람’에서 트럼펫, 색소폰, 트롬본 등의 브라스밴드와 함께 신나게 불고 두드리며 리듬을 타기도 한다. “<span class='quot0'>꿈의 소풍을 떠나 부디 행복하라</span>”고 당부하는 ‘천국이 있다면’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에게 바치는 노래기도 하지만 수술받기 전 자신의 마음도 들어간 듯하다고 했다. 약속과 다짐, 좌절과 허무함, 너의 슬픔과 나의 고통, 안치환의 은 나이 오십처럼 갖가지 정서가 겹쳐 있다.<br/>　가수는 음반 마지막에 돌연히 주먹을 쥔다. 노래 ‘셰임 온 유’에서 위정자들의 이름을 대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부르짖는다. “<span class='quot0'>담배도 끊고 먹을거리, 생활습관 다 바뀌었는데, 단 하나 성질은 안 바뀌더라고요.</span>” <br/>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사진 테이크노트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2.txt

제목: 남편 떠난지 보름만에…메르스 첫 부부 사망  
날짜: 20150619  
기자: 송인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9100000110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80대 부부가 보름 새 잇따라 숨졌다. 자식들은 부모의 임종을 두 번 모두 지키지 못했다.<br/>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18일 “31번째(69)·42번째(54)·77번째(64)·82번째(82) 환자가 사망했다. 모두 결핵·고혈압·췌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br/>　이들 가운데 충남대병원에서 숨진 82번째 환자는 지난 3일 숨진 36번째 환자(82)의 부인이다. 국내에서 부부가 메르스로 숨지기는 처음이다. 이 환자는 지난달 28~30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다 16번째 환자한테서 남편과 함께 메르스에 걸렸다. 충남대병원 쪽은 “이 환자가 이날 새벽 1시10분께 지병인 고혈압과 폐렴 증세가 악화돼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며칠 전부터 상태가 악화됐으며, 환자와 가족들은 산소호흡기 등의 사용을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들은 이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하고, 병동 간호사가 연결해준 전화로 짧게 통화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남편인 36번째 환자는 천식과 세균성 폐렴 등을 앓다 지난 3일 건양대병원에서 숨졌으며, 당시에도 자녀를 포함한 가족 대부분이 자가격리 상태여서 임종 순간을 지키지 못했다. 36번째 환자는 숨진 다음날인 4일 메르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한편, 이날 대책본부는 82번째 환자를 포함해 메르스 사망자가 하루 새 4명이 늘어 전체 사망자는 23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치사율도 14%까지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치사율인 40%에 견줘 낮은 편이지만 메르스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br/>　대책본부는 23명 가운데 기저질환 없이 숨진 사람이 2명이라고 밝혔지만, 평소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은 5명이나 된다. 대책본부는 이들도 모두 50대 후반 이상이라며 고령자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평소 중증질환을 앓고 있지 않거나 50대 이하에서도 숨진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를 먼저 겪은 중동의 사망 사례를 보면 60살 이상이 60~70%를 차지하지만, 사망자 가운데에는 50살 이하이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많았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br/>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들 중에는 위암·폐암·간암 등 암 환자는 6명이고, 결핵이나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도 많았다. 오명돈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메르스에 감염되고 폐렴 등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1~2개월 이내에 숨진 암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의 사망 원인은 메르스 감염이라고 판정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가 국민이 불안해할까봐 안심하라고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지나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실대로 알려 대비하도록 해야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송인걸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3.txt

제목: 메르스 확진 줄어들고 있지만 집중관리 병원들 여전히 ‘불씨’  
날짜: 2015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910017652757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그동안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물론 메르스 환자가 투석치료를 받은 강동경희대병원 등도 여전히 유행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br/><br/>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19일 “삼성서울병원 환자의 가족 1명이 전날 추가로 확진돼 환자 수는 모두 16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새로 발생하는 메르스 환자 수는 15일 4명, 16일 8명, 17일 3명 등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환자 발생 추이로 보면 메르스 유행은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집중관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강동경희대병원·아산충무병원 등에서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 이날까지 82명의 메르스 환자가 나온 삼성서울병원은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다. 대책본부는 14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나 새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지만, 14번째 환자와 접촉해 확진 환자가 된 의료진이나 3차 감염 환자가 4차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137번째 환자가 그런 사례다. 이 병원 이송요원인 이 환자는 지난 2일 증상이 나타난 이후 10일 격리되기까지 9일 동안 병원에서 근무했다.<br/><br/> 실제로 이날 발표된 166번째 환자(62)는 삼성서울병원 암 병동에 5월25일부터 입원하고 있던 환자 보호자로 137번째 환자한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166번째 환자가 간병하던 환자가 응급실 옆 영상의학과 촬영실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때 응급실 중앙통로 등 공간에서 전염됐을 수도 있지만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가 166번째 환자가 있던 병동을 다녀간 사실이 있어 그때 전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br/><br/> 여전히 메르스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지난달 27~29일, 지난 2~10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환자·방문자 등은 모두 4만19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본부는 이날 이들한테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 메르스 증상 발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br/><br/> 강동경희대병원 역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5번째 환자가 지난 6~13일 이 병원 투석실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부터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이 환자와 함께 투석치료를 받은 환자는 109명이나 된다.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는 메르스에 더욱 취약해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지난 17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아산충무병원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이 병원은 경기도 평택경찰서 경찰관인 119번째 환자가 지난 5~9일 입원했다. 입원 당시 메르스 증상이 있었지만 격리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의료진 등과 접촉했다. 이 때문에 이 병원 간호사(163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의료진과 주변 환자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적지 않다.<br/><br/>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76번째 환자(사망)가 머문 건국대병원 접촉자들도 최대 잠복기가 27일이어서 추가 환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대전 대청병원과 이 병원에서 전염된 환자가 입원했던 좋은강안병원 등 부산지역 병원, 삼성서울병원 외래에서 치료를 받다 감염된 환자가 입원했던 창원에스케이(SK)병원도 마찬가지다.<br/><br/> 한편 대책본부는 “첫번째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동물과 접촉한 적은 없고 현지 바이어들과 회의를 하는 등 밀접한 접촉을 했다고 말해 그 과정에 메르스에 전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4.txt

제목: 암 투병 안치환,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날짜: 2015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810017641161  
본문: 나이 오십, 인생의 셈이 시작될 나이다. 가수 안치환은 지난해 직장암을 선고받고 혹독한 셈을 치렀다. “<span class='quot0'>나는 암환자 한동안 멍 때렸지만 이젠 담담해 케모포트를 심고 항암을 처음 맞던 날 눈물이 났어.</span>” 그가 2014년 5월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침대에서 쓴 노래 ‘나는 암환자’다.<br/><br/> 안치환이 투병 1년 동안 만든 노래들을 모아 11집 앨범 <50>을 냈다. “<span class='quot0'>낯선 상황과 육체적 고통, 그 불안함</span>”이 노래가 됐다는 그를 17일 서울 연희동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는 딴따라니까 출근하듯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척했지만 밝았다.<br/><br/> 10집 <오늘이 좋다>를 낸 것이 2010년. 계획대로라면 그는 포크송 계열의 노래로 채워진 11집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고 뜻하지 않았던 음반을 냈다. ‘사랑이 떠나버려 나는 울고 있어’로 시작해 ‘나는 암환자’나 ‘병상에 누워’를 거쳐 ‘천국이 있다면’ ‘레테의 강’으로 이어지는 이번 음반은 삶과 죽음에 관련된 1년의 기록이다. 하지만 결코 슬프거나 애잔하지만은 않다. 보컬이 기타와 드럼 소리를 누르며 “<span class='quot1'>내 목숨 주인은 암이 아니라 널 이겨낼 나</span>”라고 선언하는 노래 ‘나는 암환자’나, 피아노와 함께 “<span class='quot1'>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난 머물지 않는 바람의 영혼</span>”이라고 노래하는 ‘바람의 영혼’은 장중하고 당당하다.<br/><br/> “<span class='quot0'>‘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의 진짜 뜻을 알았다</span>”는 그는 시인 정호승의 시에 곡을 붙인 ‘희망을 만드는 사람’에서 트럼펫, 색소폰, 트럼본 등의 브라스밴드와 함께 신나게 불고 두드리며 리듬을 타기도 한다. “<span class='quot0'>꿈의 소풍을 떠나 부디 행복하라</span>”고 당부하는 ‘천국이 있다면’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에게 바치는 노래기도 하지만 수술받기 전 자신의 마음도 들어간 듯하다고 했다. 약속과 다짐, 좌절과 허무함, 너의 슬픔과 나의 고통, 안치환의 <50>은 나이 오십처럼 갖가지 정서가 겹쳐 있다.<br/><br/> 가수는 음반 마지막에 돌연히 주먹을 쥔다. 노래 ‘셰임 온 유’에서 위정자들의 이름을 대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부르짖는다. “<span class='quot0'>담배도 끊고 먹을거리, 생활습관 다 바뀌었는데, 단 하나 성질은 안 바뀌더라고요.</span>” <br/><br/>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5.txt

제목: 남편 떠난지 보름만에…메르스 부부 끝내 숨져  
날짜: 2015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810017642500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80대 부부가 보름 새 잇따라 숨졌다. 자식들은 부모의 임종을 두 번 모두 지키지 못했다.<br/><br/>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18일 “31번째(69)·42번째(54)·77번째(64)·82번째(82) 환자가 사망했다. 모두 결핵·고혈압·췌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br/><br/> 이들 가운데 충남대병원에서 숨진 82번째 환자는 지난 3일 숨진 36번째 환자(82)의 부인이다. 국내에서 부부가 메르스로 숨지기는 처음이다. 이 환자는 지난달 28~30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다 16번째 환자한테서 남편과 함께 메르스에 걸렸다. 충남대병원 쪽은 “이 환자가 이날 새벽 1시10분께 지병인 고혈압과 폐렴 증세가 악화돼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며칠 전부터 상태가 악화됐으며, 환자와 가족들은 산소호흡기 등의 사용을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들은 이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하고, 병동 간호사가 연결해준 전화로 짧게 통화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r/><br/> 남편인 36번째 환자는 천식과 세균성 폐렴 등을 앓다 지난 3일 건양대병원에서 숨졌으며, 당시에도 자녀를 포함한 가족 대부분이 자가격리 상태여서 임종 순간을 지키지 못했다. 36번째 환자는 숨진 다음날인 4일 메르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br/> 한편, 이날 대책본부는 82번째 환자를 포함해 메르스 사망자가 하루 새 4명이 늘어 전체 사망자는 23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치사율도 14%까지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치사율인 40%에 견줘 낮은 편이지만 메르스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br/><br/> 대책본부는 23명 가운데 기저질환 없이 숨진 사람이 2명이라고 밝혔지만, 평소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은 5명이나 된다. 대책본부는 이들도 모두 50대 후반 이상이라며 고령자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평소 중증질환을 앓고 있지 않거나 50대 이하에서도 숨진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를 먼저 겪은 중동의 사망 사례를 보면 60살 이상이 60~70%를 차지하지만, 사망자 가운데에는 50살 이하이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많았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br/><br/>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들 중에는 위암·폐암·간암 등 암 환자는 6명이고, 결핵이나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도 많았다. 오명돈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메르스에 감염되고 폐렴 등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1~2개월 이내에 숨진 암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의 사망 원인은 메르스 감염이라고 판정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가 국민이 불안해할까봐 안심하라고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지나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실대로 알려 대비하도록 해야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송인걸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6.txt

제목: 165명 중 23명…메르스 치사율 14%로 높아져  
날짜: 2015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810017641162  
본문: 18일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 사망자가 하룻새 4명이 늘었다. 전체 환자 165명 가운데 23명이 숨져 치사율이 14%까지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치사율인 40%에 견줘 낮은 편이지만 메르스 위험성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애초 국민 불안만 의식해 ‘질환 없는 사망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br/><br/>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이날 “31번째(69)·42번째(54)·77번째(64)·82번째(82) 환자가 사망했다. 모두 결핵·고혈압·췌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82번째 환자는 지난 3일 숨진 36번째 환자(82)의 부인으로, 국내에서 부부가 메르스로 숨지기는 처음이다. 이 환자는 지난달 28~30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다 16번째 환자한테서 남편과 함께 메르스에 걸렸다.<br/><br/> 대책본부는 23명 가운데 기저질환 없이 숨진 사람이 2명이라고 밝혔지만, 평소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은 5명이나 된다. 대책본부는 이들도 모두 50대 후반 이상이라며 고령자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평소 중증질환을 앓고 있지 않거나 50대 이하에서도 숨진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를 먼저 겪은 중동의 사망 사례를 보면 60살 이상이 60~70%를 차지하지만, 사망자 가운데에는 50살 이하이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많았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br/><br/>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들 중에는 위암·폐암·간암 등 암 환자는 6명이고, 결핵이나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도 많았다. 오명돈 서울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메르스에 감염되고 폐렴 등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1~2개월 이내에 숨진 암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의 사망원인은 메르스 감염이라고 판정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가 국민이 불안해할까봐 안심하라고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지나간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실대로 알려 대비하도록 해야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송인걸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7.txt

제목: 집 그리고, 허기진 돼지 한마리에 대해  
날짜: 20150618  
기자: 이주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8100000067  
본문: 고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았다. 문과와 이과, 무엇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따져보고 며칠 내로 선택해 오라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 종이 하나가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만 같아 초조했다. ‘문과/이과’ 사이에 그어진 선이 평생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도 보였다. 그렇게 문과를 택한 뒤로 이과계열에 대한 사고가 퇴보했다. 철저히 교실을 나눠놓은 교육과정과 거기에 편승한 수험생이 만든 결과였다. 물리 시간엔 국사책을 폈고 좋아하던 수학보단 관심 없던 영어책을 오래 붙들고 앉아 있었다. 그때는 과학이 내 삶에 필요치 않을 거라 확신했다.<br/>　요즘 그 생각에 고개를 갸웃한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사회과학과 기초과학(자연과학)은 학계에서도 서로 교류하는 중이다. 기초과학 이론이 사회과학에 적용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br/>　나는 경제에도 자연 논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그 죽음은 또 다른 탄생의 거름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순환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인데, 거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예가 암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지만, 암은 죽지 않는 세포 덩어리다. 요즘 부동산을 보면 죽지 않는 세포, 암 덩어리를 보는 것만 같다.<br/>　‘잉여’가 생겨나고 ‘축적’이 시작된 뒤로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땅의 재화가 무한하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애석하게도 재화는 한정돼 있다. 고로 필요한 만큼만 얻고, 나머지는 내버려두는 게 맞다. 그럼에도 우리는 ‘잉여’분을 ‘축적’하길 원한다. 한때 축적이란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겨울을 지나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내 세대를 넘어 자식에게, 그 너머의 자식에게 대를 이어갈 축적분을 쌓아두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br/>　무엇이 이 끝없는 축적 경쟁으로 우리를 이끌었나 되짚어보면, 허기진 돼지 한 마리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이미 배가 부른데, 내 앞에서 꿀꿀대는 녀석이 자꾸만 손을 뻗어 열매를 꾸역꾸역 삼켜대니깐. 이랬다간 남는 게 없겠다 싶어 나도 서둘러 삼키고 보는 식이 아닌가. 그렇게 너도나도 허기진 돼지에 홀려 그 비슷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다.<br/>　이를 두고 몇몇 사람들은 제 곳간에 쌓인 쌀더미를 옹호하려 허황된 논리를 펼친다. 재화에 한정이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된다. 그런 논리에 잠깐 혹한 적도 있지만, 나는 미국의 모기지 사태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던 투자은행의 파생상품들이, 그들 논리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br/>　집을 더는 집이라 부르지 않는 시점부터, 집이 부동‘산(産)’이 된 이후로, 그러니까 거주지가 움직이지 않는 재산으로 변질된 그때부터 사람들은 축적의 잣대를 여기에까지 들이댔다. 한 채보단 두 채, 두 채보단 세 채. 그들은 자꾸 소유하고 축적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뒤늦게 내 집 마련에 뛰어드는 세대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br/>　그 시작엔 분명 허기진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있었을 테다. 녀석은 지금쯤 또 다른 먹이를 찾아 이미 부동산에서 눈을 뗐는지도 모른다. 가난한 내 부모와 내 부모의 부모들은,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 배까지 불려야 한다며 곳간에 썩지 않는 부동산을 채워 넣는다. 그렇게 온몸에 퍼져나가는 암세포처럼, 죽지 않는 부동산으로 뒤덮인 경제는 이미 시한부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부동산이 다시 집이 되지 않는 한, 이 광란의 레이스는 계속될 것이다.<br/>　내 자식을 위해 부동산을 쌓는 일이, 내 자식의 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고로, 집은 말 그대로 집이어야만 한다. 집은 그저 집일 뿐이고 우리는 그곳에 잠시 머물다 가는 객일 뿐이다.<br/>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에서 저자는 집 한 채 구하고자 평생 일만 하는 사람들을 한탄하며 숲속 오두막의 삶을 설파한다. 여기서 그의 삶이 행복했는지를 따지고 싶진 않다. 그보단 그가 도심의 삶을 한탄하던 그 시기가 1835년이란 말을 하고 싶다. 그때부터 이미 축적의 저주는 집에까지 뿌리뻗었는지 모르겠다. 부동산은 세대 싸움이 아니다. 이미 죽고 없어진, 혹은 또 다른 먹이에 눈을 돌린, 허기진 돼지가 만든 환영과의 싸움이다. 내가, 그래서 내 새끼가 배부르고자 쌓아 놓은 곳간은 결국 내 새끼가 삼키기도 전에 썩어 문드러지고 만다. 이 땅의 과학이 제아무리 진일보했다 한들 과실을 천년만년 보존할 수단은 없다.<br/>　과실이란 본래 썩어 순환되는 본질을 지녔다. 커다란 곳간보다 조그만 텃밭이 보기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마당 한켠에 반듯한 사과나무가 심겨 있는, 그런 집 한 채가 그립다.<br/>이주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8.txt

제목: [왜냐면] 집 그리고, 허기진 돼지 한마리에 대해 / 이주현  
날짜: 2015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710017627059  
본문: 고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았다. 문과와 이과, 무엇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따져보고 며칠 내로 선택해 오라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 종이 하나가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만 같아 초조했다. ‘문과/이과’ 사이에 그어진 선이 평생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도 보였다. 그렇게 문과를 택한 뒤로 이과계열에 대한 사고가 퇴보했다. 철저히 교실을 나눠놓은 교육과정과 거기에 편승한 수험생이 만든 결과였다. 물리 시간엔 국사책을 폈고 좋아하던 수학보단 관심 없던 영어책을 오래 붙들고 앉아 있었다. 그때는 과학이 내 삶에 필요치 않을 거라 확신했다.<br/><br/> 요즘 그 생각에 고개를 갸웃한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사회과학과 기초과학(자연과학)은 학계에서도 서로 교류하는 중이다. 기초과학 이론이 사회과학에 적용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br/><br/> 나는 경제에도 자연 논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그 죽음은 또 다른 탄생의 거름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순환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인데, 거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예가 암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지만, 암은 죽지 않는 세포 덩어리다. 요즘 부동산을 보면 죽지 않는 세포, 암 덩어리를 보는 것만 같다.<br/><br/> ‘잉여’가 생겨나고 ‘축적’이 시작된 뒤로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땅의 재화가 무한하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애석하게도 재화는 한정돼 있다. 고로 필요한 만큼만 얻고, 나머지는 내버려두는 게 맞다. 그럼에도 우리는 ‘잉여’분을 ‘축적’하길 원한다. 한때 축적이란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겨울을 지나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내 세대를 넘어 자식에게, 그 너머의 자식에게 대를 이어갈 축적분을 쌓아두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br/><br/> 무엇이 이 끝없는 축적 경쟁으로 우리를 이끌었나 되짚어보면, 허기진 돼지 한 마리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이미 배가 부른데, 내 앞에서 꿀꿀대는 녀석이 자꾸만 손을 뻗어 열매를 꾸역꾸역 삼켜대니깐. 이랬다간 남는 게 없겠다 싶어 나도 서둘러 삼키고 보는 식이 아닌가. 그렇게 너도나도 허기진 돼지에 홀려 그 비슷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다.<br/><br/> 이를 두고 몇몇 사람들은 제 곳간에 쌓인 쌀더미를 옹호하려 허황된 논리를 펼친다. 재화에 한정이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된다. 그런 논리에 잠깐 혹한 적도 있지만, 나는 미국의 모기지 사태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던 투자은행의 파생상품들이, 그들 논리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br/><br/> 집을 더는 집이라 부르지 않는 시점부터, 집이 부동‘산(産)’이 된 이후로, 그러니까 거주지가 움직이지 않는 재산으로 변질된 그때부터 사람들은 축적의 잣대를 여기에까지 들이댔다. 한 채보단 두 채, 두 채보단 세 채. 그들은 자꾸 소유하고 축적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뒤늦게 내 집 마련에 뛰어드는 세대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br/><br/> 그 시작엔 분명 허기진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있었을 테다. 녀석은 지금쯤 또 다른 먹이를 찾아 이미 부동산에서 눈을 뗐는지도 모른다. 가난한 내 부모와 내 부모의 부모들은,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 배까지 불려야 한다며 곳간에 썩지 않는 부동산을 채워 넣는다. 그렇게 온몸에 퍼져나가는 암세포처럼, 죽지 않는 부동산으로 뒤덮인 경제는 이미 시한부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부동산이 다시 집이 되지 않는 한, 이 광란의 레이스는 계속될 것이다.<br/><br/> 내 자식을 위해 부동산을 쌓는 일이, 내 자식의 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고로, 집은 말 그대로 집이어야만 한다. 집은 그저 집일 뿐이고 우리는 그곳에 잠시 머물다 가는 객일 뿐이다.<br/><br/>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에서 저자는 집 한 채 구하고자 평생 일만 하는 사람들을 한탄하며 숲속 오두막의 삶을 설파한다. 여기서 그의 삶이 행복했는지를 따지고 싶진 않다. 그보단 그가 도심의 삶을 한탄하던 그 시기가 1835년이란 말을 하고 싶다. 그때부터 이미 축적의 저주는 집에까지 뿌리뻗었는지 모르겠다. 부동산은 세대 싸움이 아니다. 이미 죽고 없어진, 혹은 또 다른 먹이에 눈을 돌린, 허기진 돼지가 만든 환영과의 싸움이다. 내가, 그래서 내 새끼가 배부르고자 쌓아 놓은 곳간은 결국 내 새끼가 삼키기도 전에 썩어 문드러지고 만다. 이 땅의 과학이 제아무리 진일보했다 한들 과실을 천년만년 보존할 수단은 없다.<br/><br/> 과실이란 본래 썩어 순환되는 본질을 지녔다. 커다란 곳간보다 조그만 텃밭이 보기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마당 한켠에 반듯한 사과나무가 심겨 있는, 그런 집 한 채가 그립다. <br/><br/>이주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19.txt

제목: 지병없던 4명 사망…독한 바이러스 탓? 약한 면역력 탓?  
날짜: 2015061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7100000005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려 사망한 환자 19명 중 4명은 평소 암이나 당뇨·호흡기질환·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지병)이 없었는데도 숨졌다. 40대 사망자(49)도 처음 나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아직 사례가 적어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다고 밝혀, 메르스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br/>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6일 “<span class='quot0'>기존 확진자 가운데 38번째 환자(49)와 98번째 환자(58), 123번째 환자(65)가 15~16일 새 숨져 전체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었다</span>”고 밝혔다. 19명 중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지병이 있던 환자는 15명(79%)이다. 반면, 이날 사망자로 발표된 98번째·123번째 환자와 앞서 사망한 81번째 환자(61), 51번째 환자(72)는 평소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br/>　중증질환 탓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던 환자는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적어도 감염 가능성이 높다. 또 감염 뒤에도 바이러스의 번식 속도가 빨라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아무런 질환이 없었는데도 사망한 경우, 의료계에선 원인이 ‘숙주’(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이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br/>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사망자가 모두 5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통상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 16일 숨진 123번째 환자는 65살, 지난 15일 숨진 98번째 환자는 58살이다. 81번째 환자와 51번째 환자 역시 각각 62살과 72살이다.<br/>　대책본부 관계자는 “평소 중증질환이 없었던 4명의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또 123번째 환자는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며 “이들은 메르스에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윤태 한전병원 감염내과 과장도 “50대 이상은 감염질환의 위험군에 속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98번째 환자(58살)의 사망은 다소 뜻밖”이라며 “아직 충분한 정보나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어떤 이유로 상황이 악화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br/>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들이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설에 불과하다</span>”고 말했다. <br/>　첫 40대 사망자가 된 38번째 환자는 평소 간질환과 당뇨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망자는 16번째 환자와 대전 대청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다가 지난 5일 확진됐다.<br/>　메르스 환자 가운데 여전히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째 환자와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119번째 환자를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경찰관은 둘 다 30대이고 평소 중증질환이 없었는데도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역력을 떨어뜨릴 만한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의 과도한 면역반응이 오히려 폐 등을 망가뜨렸다는 추정도 나온다. 나머지 102명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0.txt

제목: 지병 없던 4명 사망…독한 바이러스 탓? 약한 면역력 탓?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610017620085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려 사망한 환자 19명 중 4명은 평소 암이나 당뇨·호흡기질환·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지병)이 없었는데도 숨졌다. 40대 사망자(49)도 처음 나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아직 사례가 적어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다고 밝혀, 메르스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br/><br/>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6일 “<span class='quot0'>기존 확진자 가운데 38번째 환자(49)와 98번째 환자(58), 123번째 환자(65)가 15~16일 새 숨져 전체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었다</span>”고 밝혔다. 19명 중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지병이 있던 환자는 15명(79%)이다. 반면, 이날 사망자로 발표된 98번째·123번째 환자와 앞서 사망한 81번째 환자(61), 51번째 환자(72)는 평소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br/><br/> 중증질환 탓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던 환자는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적어도 감염 가능성이 높다. 또 감염 뒤에도 바이러스의 번식 속도가 빨라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아무런 질환이 없었는데도 사망한 경우, 의료계에선 원인이 ‘숙주’(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이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br/><br/>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사망자가 모두 5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통상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 16일 숨진 123번째 환자는 65살, 지난 15일 숨진 98번째 환자는 58살이다. 81번째 환자와 51번째 환자 역시 각각 62살과 72살이다.<br/><br/> 대책본부 관계자는 “평소 중증질환이 없었던 4명의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또 123번째 환자는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며 “이들은 메르스에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윤태 한전병원 감염내과 과장도 “50대 이상은 감염질환의 위험군에 속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98번째 환자(58살)의 사망은 다소 뜻밖”이라며 “아직 충분한 정보나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어떤 이유로 상황이 악화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br/><br/>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들이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설에 불과하다</span>”며 “<span class='quot1'>폐렴 등 다른 감염 질환에서도 평소 건강하던 20~30대가 숨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다</span>”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사우디아라비아의 통계 자료를 보면 메르스 사망자의 30%는 평소 지병이 없던 사람들이었다</span>”고 말했다.<br/><br/> 첫 40대 사망자가 된 38번째 환자는 평소 간질환과 당뇨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망자는 16번째 환자와 대전 대청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다가 지난 5일 확진됐다.<br/><br/> 메르스 환자 가운데 여전히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째 환자와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119번째 환자를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경찰관은 둘 다 30대이고 평소 중증질환이 없었는데도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역력을 떨어뜨릴 만한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의 과도한 면역반응이 오히려 폐 등을 망가뜨렸다는 추정도 나온다. 나머지 102명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1.txt

제목: 각자도생은 불가능하다  
날짜: 20150616  
기자: 이명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6100000068  
본문: 드디어 ‘각자도생의 국가’라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관련 행보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실감하는 속마음이다. 이제 이곳에선 제 목숨 하나 부지하는 일이 난제가 됐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정의에 따른다면 완벽하게 막장 국가다.<br/>　이 정부는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사고보다 이후의 대처가 늘 문제다. 화를 키우면서 모르쇠와 무능으로 일관한다.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해도, 살인강도가 침입했다고 소리를 질러도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니 입을 다물라는 격이다. 상황이 다급해져 비명을 지르면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하겠다 윽박지른다. 실제로 잡아 가두기도 했다.<br/>　세월호 참사 이후 유리창을 깨부술 손도끼 하나는 가지고 여행길에 올라야 그나마 안심이 된다는 것처럼 현 메르스 상황에서도 내 목숨 지킬 방도를 제각기 찾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학적 재난은 컨트롤타워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가 정보를 장악하고 있어서 일반인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가 살 방향’이라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뢰를 스스로 깨버렸다. 그런 정부의 우왕좌왕과 무책임을 목도하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br/>　신뢰 인프라가 무너져버린 공동체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각자도생이다. 각자도생의 또다른 이름은 지옥도다. 혼자서는 입에 넣을 수 없는 긴 숟가락으로 혼자 밥을 먹겠다고 낑낑대는 아수라장이다.<br/>　2003년 사스의 맹렬한 기세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신자유주의 홍콩에서 각개약진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무능을 뼈저리게 실감한 동시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각자도생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각개전투는 치열한 전투현장에서 각 개인이 각자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해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술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쓰는 극한의 전술이다. 그런 상황이 한시적이고 특수한 게 아니라 상시적이고 일상적이라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이라크 같은 특수지역에서는 수색대 뒤편에서 일련의 저격수들이 그 부대를 보호한다. 고도로 훈련된 전투부대원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br/>　철학적 명제로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공포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다. 인류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공포다. 말기암 환자는 자살하지 않지만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에이즈 환자나 왕따 피해자들은 자살하기도 한다. 혼자 고립된 채 살아내야 해서 그렇다. 각자도생은 모든 관계를 단절한 채 다른 이의 모든 고통을 외면한 채 제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다.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다.<br/>　극한의 땅 툰드라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번째 법칙은 조난당한 사람은 설령 그것이 원수처럼 지내는 상대라 할지라도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언제든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서 각자도생은 자살행위다.<br/>　메르스 사태에서 이 정부는 국민들 마음속에 각자도생의 절박한 인식을 화인처럼 심고 있다. 그렇게 국가공동체의 신뢰 인프라가 무너지면 구성원들의 삶은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다. 각자 죽든가, 함께 살길을 모색하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해진다. 국민은 각자도생의 지옥에 있는데 정권만 홀로 살아남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도 컨트롤타워라는 게 있다면 그 사실을 꼭 환기시켜주고 싶다. 이명수 ‘치유공간 이웃’ 대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2.txt

제목: ‘일류 병원’의 구멍난 방역 시스템 /통제불능 우려 커지자 ‘두손’ 들어  
날짜: 20150615  
기자: 김지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5100000001  
본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췄다고 자부해온 삼성서울병원이 이 병원 환자이송요원(137번 환자)이 확진 전 응급실 외 병동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분폐쇄 조처를 단행했다.<br/>　자칫하다 삼성서울병원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그 책임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데다, 여기서 감염된 환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3차 유행’을 일으킬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추가 감염자가 속출한 뒤에도 특별히 환자 진료를 제한하지 않던 삼성서울병원의 태도가 바뀐 건 이 환자 때문이다.<br/>　이 환자가 병원 내 입원환자·의료진을 감염시키는 ‘4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두하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민관합동태스크포스 즉각대응팀은 지난 13일 밤 “병원 내 메르스 감염 확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 병원에 지시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2시간 뒤 ‘병원 부분폐쇄’를 결정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span class='quot0'>새로 응급실 이송요원이 확진돼 기존 방법으론 대처가 어렵다고 생각해 조처를 했다</span>”고 설명했다.<br/>　삼성서울병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신규 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을 받지 않는다. 재진 환자들에겐 24일 이후로 예약을 미룰 것을 권하고 있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암환자 등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은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한다. 입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길 원하면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24일 이후엔 대책본부와 협의해 운영 정상화를 논의할 계획이다.<br/>　불똥은 주변 병원으로 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1'>삼성서울병원에서 오는 환자의 감염 여부를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작정 환자를 받을 수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했던 환자는 진료하지 않는 게 최선</span>”이라고 말했다. 자칫 환자들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자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이날 ‘진료거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은 하루 응급실 이용 환자 200여명, 외래환자는 8000여명에 이르는 ‘빅5’ 대형병원으로, 1959개의 병상이 있고 14일 기준 829명이 입원해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3.txt

제목: [이명수의 사람그물] 각자도생은 불가능하다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510017599880  
본문: 드디어 ‘각자도생의 국가’라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관련 행보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실감하는 속마음이다. 이제 이곳에선 제 목숨 하나 부지하는 일이 난제가 됐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정의에 따른다면 완벽하게 막장 국가다.<br/><br/> 이 정부는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사고보다 이후의 대처가 늘 문제다. 화를 키우면서 모르쇠와 무능으로 일관한다.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해도, 살인강도가 침입했다고 소리를 질러도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니 입을 다물라는 격이다. 상황이 다급해져 비명을 지르면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하겠다 윽박지른다. 실제로 잡아 가두기도 했다.<br/><br/> 세월호 참사 이후 유리창을 깨부술 손도끼 하나는 가지고 여행길에 올라야 그나마 안심이 된다는 것처럼 현 메르스 상황에서도 내 목숨 지킬 방도를 제각기 찾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학적 재난은 컨트롤타워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가 정보를 장악하고 있어서 일반인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가 살 방향’이라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뢰를 스스로 깨버렸다. 그런 정부의 우왕좌왕과 무책임을 목도하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br/><br/> 신뢰 인프라가 무너져버린 공동체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각자도생이다. 각자도생의 또다른 이름은 지옥도다. 혼자서는 입에 넣을 수 없는 긴 숟가락으로 혼자 밥을 먹겠다고 낑낑대는 아수라장이다.<br/><br/> 2003년 사스의 맹렬한 기세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신자유주의 홍콩에서 각개약진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무능을 뼈저리게 실감한 동시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각자도생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각개전투는 치열한 전투현장에서 각 개인이 각자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해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술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쓰는 극한의 전술이다. 그런 상황이 한시적이고 특수한 게 아니라 상시적이고 일상적이라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이라크 같은 특수지역에서는 수색대 뒤편에서 일련의 저격수들이 그 부대를 보호한다. 고도로 훈련된 전투부대원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br/><br/> 철학적 명제로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공포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다. 인류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공포다. 말기암 환자는 자살하지 않지만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에이즈 환자나 왕따 피해자들은 자살하기도 한다. 혼자 고립된 채 살아내야 해서 그렇다. 각자도생은 모든 관계를 단절한 채 다른 이의 모든 고통을 외면한 채 제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다.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다.<br/><br/> 극한의 땅 툰드라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번째 법칙은 조난당한 사람은 설령 그것이 원수처럼 지내는 상대라 할지라도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언제든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서 각자도생은 자살행위다.<br/><br/> 메르스 사태에서 이 정부는 국민들 마음속에 각자도생의 절박한 인식을 화인처럼 심고 있다. 그렇게 국가공동체의 신뢰 인프라가 무너지면 구성원들의 삶은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다. 각자 죽든가, 함께 살길을 모색하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해진다. 국민은 각자도생의 지옥에 있는데 정권만 홀로 살아남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도 컨트롤타워라는 게 있다면 그 사실을 꼭 환기시켜주고 싶다. <br/><br/>이명수 ‘치유공간 이웃’ 대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4.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파장…‘일류 병원’의 구멍난 방역 시스템  
날짜: 2015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410017593432  
본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췄다고 자부해온 삼성서울병원이 이 병원 환자이송요원(137번 환자)이 확진 전 응급실 외 병동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분폐쇄 조처를 단행했다.<br/><br/> 자칫하다 삼성서울병원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그 책임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데다, 여기서 감염된 환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3차 유행’을 일으킬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추가 감염자가 속출한 뒤에도 특별히 환자 진료를 제한하지 않던 삼성서울병원의 태도가 바뀐 건 이 환자 때문이다.<br/><br/> 이 환자가 병원 내 입원환자·의료진을 감염시키는 ‘4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두하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민관합동태스크포스 즉각대응팀은 지난 13일 밤 “병원 내 메르스 감염 확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 병원에 지시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2시간 뒤 ‘병원 부분폐쇄’를 결정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span class='quot0'>새로 응급실 이송요원이 확진돼 기존 방법으론 대처가 어렵다고 생각해 조처를 했다</span>”고 설명했다.<br/><br/> 삼성서울병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신규 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을 받지 않는다. 재진 환자들에겐 24일 이후로 예약을 미룰 것을 권하고 있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암환자 등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은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한다. 입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길 원하면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24일 이후엔 대책본부와 협의해 운영 정상화를 논의할 계획이다.<br/><br/> 불똥은 주변 병원으로 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1'>삼성서울병원에서 오는 환자의 감염 여부를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작정 환자를 받을 수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했던 환자는 진료하지 않는 게 최선</span>”이라고 말했다. 자칫 환자들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자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이날 ‘진료거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은 하루 응급실 이용 환자 200여명, 외래환자는 8000여명에 이르는 ‘빅5’ 대형병원으로, 1959개의 병상이 있고 14일 기준 829명이 입원해 있다.<br/><br/>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5.txt

제목: 원주에서 ‘메르스 자택 격리’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날짜: 2015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410017584953  
본문: 강원 원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자택 격리 중이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br/><br/>강원도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새벽 5시께 원주시 단계동에서 ㄱ(48)씨가 숨져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 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암환자인 ㄱ씨는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을 진료차 방문한 이력이 있어 자택 격리 중이었다. <br/><br/>ㄱ씨는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지난 10일과 12일 두차례 실시된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ㄱ씨를 격리 대상자에서 해제해 일반 주검으로 처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망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br/>한편, 원주와 속초에 이어 춘천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자 춘천지역 일부 학교가 15~17일 휴업에 들어간다. 춘천에서는 지난달 27~28일 투병 중인 아내(49)의 보호자로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남성(55)씨가 지난 1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br/>도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원주지역 2개 중·고교도 오는 19일까지 휴업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 메르스 확진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속초지역 고등학교 1곳도 15~16일 휴업한다. <br/><br/>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춘천에서 추가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와 춘천의 일부 학교가 휴업하지만 지난 12일 144곳에 이르던 휴업 학교수는 12곳으로 줄었다. 속초에서도 추가로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r/><br/>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6.txt

제목: 메르스 사망자 14명으로 늘어…사망률 10% 기록  
날짜: 2015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310017581728  
본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3일 평소 갑상선 질환 등으로 치료받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118번째 환자(67·여)가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 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다. 13일 숨진 환자는 지난달 25~27일 평택굿모닝병원에서 14번째 환자와 접촉했으며 지난 9일부터 아주대병원 격리 병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이날 오전 3시30분께 사망했다.<br/><br/> 현재까지 14명의 사망자는 모두 암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이며, 사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57살이다. 즉 고령자이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 폐렴 등이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있다. 이날까지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138명 가운데 14명이 숨져 사망률은 10%를 기록하고 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7.txt

제목: 너 메르스니?  
날짜: 2015061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3100000048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에 2주 연속 ‘친절한 기자들’에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기사를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 자기 소개를 하자면 의료전문기자로 일하고 있고 매일 메르스 기사를 쓰는 김양중입니다. 메르스, 말만 들어도 많이 겁나시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그렇고, 백화점에 쇼핑 가기도 그렇고, 웬만큼 아프지 않다면 병원 가기도 망설여지고요. 저도 메르스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 ‘메’ 소리만 들어도 이제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라니 바로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 등교를 거부당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해서 참고 쓰기로 했습니다.<br/>　일주일 사이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가 84명이 늘어 12일 오전 기준 총 126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10명을 돌파했고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 간 사람들 가운데 메르스 환자가 60명이나 나오고요. 가볍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네요. 물론 메르스에 걸렸어도 별탈 없이 퇴원한 사람도 7명이고 앞으로 이 수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주 ‘친기자’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되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메르스 바이러스에게 보내는 답장으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br/>　어쩌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된 메르스 바이러스야! 그사이 참 많이들 번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지? 많은 사람들을 숙주 삼아 한국에 눌러앉을 생각에 즐겁기도 할 것이고. 중동 지역이 아닌 한국에서 유행한다고 이름을 ‘코르스’로 개명한다는 소문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는지는 잘 알지? 너희들이 어떤 사람에게 옮겨 살고 있는지 찾으러 다니는 역학조사관들이 숙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고생하는지도 잘 알 것이고. 첫번째 유행 병원이던 평택성모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퍼져 추적하기가 그나마 나았는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격리 대상자 선정하기도 힘들었단다. 결국 격리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서 또 너희들을 전파시켰단다. 이런 전파가 어느 병원에서 일어나고 또 얼마나 계속 반복될지 너희들이 답을 주면 좋으련만. 사실 국내 최고 의료 수준이라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런 감염 전파가 나타난 것은 국내외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라서 말을 꺼내고 싶지는 않구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옮은 사람들은 이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국에 퍼져 있는 다른 병원들로 간 너희들을 추적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가 돼 버렸다. 이제 전국 여러 곳으로 너희들이 분산해 이사 간 소식을 계속 전해야 할 처지가 될지도 모르겠다.<br/>　그 와중에 너희들과 만나 벌써 10명 넘게 숨지기도 했는데, 이 수도 계속 늘겠지? 숨진 사람이 암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등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들이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만나 삶이 단축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란다.<br/>　너희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니 억울하다고? 그래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다. 너희들을 막는 방역체계가 안이했거나 구멍이 크게 난 문제나 너희들을 쉽게 퍼지게 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꼭 고쳐야겠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통 같은 응급실, 좁은 병실에서 입원해 있는 환자, 자신의 생업도 쉬고 의료진 대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등이 되겠구나. 병원이 감염을 예방하는 등의 환자 안전보다는 수익을 더 걱정하는 것도 꼭 바뀌어야겠고. 좀더 나가면 너희들을 만나 걸리는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방치한 사회도 바꿔야겠더구나.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누리집에 쓴 ‘전염병에 정치를 처방한 의학자’라는 글을 보니, 루돌프 피르호라는 독일의 의사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소개돼 있더구나. 백혈병을 발견하기도 하고 혈전을 처음으로 설명해낸 그는 19세기 독일 슐레지엔 지방에 발진티푸스가 유행해 그곳에 가서 조사를 했단다. 그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도 문제지만 극빈층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했더구나. 극빈층이 생기지 않도록 전면적인 민주주의, 보편적인 학교 교육, 세금 제도 개편 등을 대책으로 내놨더구나. 우리는 이번에 너희들을 만나 방역이라는 국민 안전의 기본도 제대로 못 지켜낸 정부의 무능을 보고 나니, 이런 대책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여러 과제를 던져준 너희들이지만 이제 너무 많이 봤으니, 앞으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서로 소식을 전하지 말도록 하자꾸나. 김양중 사회정책부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8.txt

제목: ‘감염’ 삼성서울병원 의사, 폐렴 크게 악화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110017568937  
본문: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30대 외과의사(35번째 메르스 환자)의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다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사는 이후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br/><br/> 11일 서울대병원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의사는 최근 폐렴이 악화돼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날은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뒤 의료장치(체외막산소화장치·ECMO·에크모)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몸속으로 순환시키는 치료를 받고 있다.<br/><br/> 서울대병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당 환자가 폐렴이 심해져 에크모를 달고 있다고 들었다. 이 장치를 달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폐렴이 악화됐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젊은 나이지만 평소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이 환자는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 이날 현재 국내에선 10명의 메르스 환자가 숨졌지만 모두 암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 메르스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선 40대 이하가 전체 사망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확진된 전체 메르스 환자의 치사율은 40%가량이지만, 0~14살은 18%, 15~29살은 18.5%로 조사돼 젊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29.txt

제목: ‘감염’ 삼성서울병원 의사, 폐렴 크게 악화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110017569178  
본문: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30대 외과의사(35번째 메르스 환자)의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다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사는 이후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br/><br/> 11일 서울대병원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의사는 최근 폐렴이 악화돼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날은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뒤 의료장치(체외막산소화장치·ECMO·에크모)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몸속으로 순환시키는 치료를 받고 있다.<br/><br/> 서울대병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당 환자가 폐렴이 심해져 에크모를 달고 있다고 들었다. 이 장치를 달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폐렴이 악화됐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젊은 나이지만 평소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이 환자는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 이날 현재 국내에선 10명의 메르스 환자가 숨졌지만 모두 암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 메르스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선 40대 이하가 전체 사망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확진된 전체 메르스 환자의 치사율은 40%가량이지만, 0~14살은 18%, 15~29살은 18.5%로 조사돼 젊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0.txt

제목: 6월 11일 알림  
날짜: 2015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1010017550475  
본문: ◇ 국민대(총장 유지수)는 최근 ‘2015 자랑스런 국민대학교 광고인상’ 수상자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을 선정했다. 수상식은 11일 국민대 광고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br/><br/>◇ 오지필름은 영화 <밀양 아리랑>(감독 박배일)은 새달 2일 예정이었던 개봉일을 16일로 연기했다. 이 작품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매일 새벽 산을 오르며 맨몸으로 765kV 송전탑을 막아냈던 ‘밀양 할매 할배’들의 모습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6·11밀양 행정대집행 1돌 기억 문화제’도 새달 18일 밀양송전탑반대 200회 촛불문화제 행사로 늦췄다. <br/><br/>◇ 제로투세븐은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네팔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의류 4만 7천점(판매가 18억원)을 기부했다.<br/><br/>◇ 현대자동차 노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0일 울산지역 보훈단체와 가족들에게 사회공헌기금 5900만원을 전달했다.<br/><br/>◇ 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봉사단은 10일 1사1촌 자매마을인 인천 강화군 연촌마을을 방문해 가뭄 피해농가에게 양수기 10대와 마을발전기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br/><br/>◇ 리치커뮤니케이션즈, 글로벌텍스프리, 나눔스토어는 10일 대한적십자사 본사를 방문해 네팔 지진피해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br/><br/>◇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10일 서울대병원에 암 연구 활성화를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전달했다. 연구비는 외과 김선회, 내분비내과 박도준,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 등 3명의 암 치료 연구과제에 쓰일 예정이다. <br/><br/>◇ 금호타이어는 10일 국제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인 미국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3개 제품이 본상을 받았다.<br/><br/>◇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는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청소년적십자(RCY) 사업후원회 고문으로 위촉했다.<br/><br/>◇ 교보교육재단은 10일 신임 이사장으로 김대영 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를 선임했다.<br/><br/>◇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박찬재)는 11일 강원도 지회에 이어 두 번째 지회인 전북지회 창립발대식을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1.txt

제목: ‘메르스 초긴장’ 대형병원 응급실…119요원들도 바깥에서 환자 인계  
날짜: 2015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810017510802  
본문: 메르스 환자들이 거쳐간 대형병원들이 응급센터 폐쇄, 의료진 격리, 환자 줄퇴원 등 날벼락을 맞고 있다.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 건국대병원 응급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일부 폐쇄되자, 8일 메르스에 아직 노출되지 않은 서울의 다른 대형병원 응급센터들은 호흡기질환자 방문에 대비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특히 메르스에 직간접으로 노출된 의료진 수십명이 한꺼번에 격리되면 진료 차질마저 불가피해 외부인 출입을 몇 겹으로 통제하고 있다.<br/><br/> ■ 초긴장 대형병원 <br/><br/>서울대병원은 직원들은 물론 건물 밖 주차요원까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다. 하루 수백명씩 드나들던 응급실 통제는 특히 심했다. 가이드라인을 치고 보안요원이 일일이 출입자를 점검했고, 환자 1명당 보호자 1명에게만 출입증을 내줬다. 한 보안요원은 “<span class='quot0'>기존에도 ‘환자당 보호자 1명’ 원칙은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했는데, 오전에 철저히 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span>”고 했다.<br/><br/> 고려대병원 응급실도 비슷했다. 응급실 밖에서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방문했는지와 발열 상태, 호흡기질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응급환자들을 들여보냈다. 보안요원은 환자 1인당 보호자 1명으로 출입을 제한했다. 평소와 달리 119구급대원들도 응급실 안이 아닌 바깥에서 환자를 인계해야 했다.<br/><br/>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취재진이 응급실에 접근하자 마스크를 쓴 보안요원이 “무슨 일로 왔느냐”며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였다. 이 병원은 응급실 밖에 텐트를 치고 열이 나거나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따로 진료하는데, 텐트 접근은 철저히 차단됐다.<br/><br/> ■ 응급실 어떻기에 <br/><br/>전문가들은 상급 종합병원(‘빅5’ 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쏠리는 ‘한국적 특성’이 병원 내 호흡기질환 감염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빅5에 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만 8일 오후까지 34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2012년까지 응급의학과장을 지낸 송형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재직 시절 하루 200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다. 대부분 진짜 응급환자라기보다는 입원 대기를 하려는 만성질환자들이다. 보통 이틀까지 체류하다 병동으로 올라가는데,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까지 나와 있고, 모든 과 의료진이 섞여 있어 감염에 취약하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송 센터장은 “질환에 따라 응급실 구획을 나눌 필요가 있다. 외국은 외상·감염·심혈관 질환 등으로 환자별 출입구를 달리하기도 한다”고 했다.<br/><br/> 임승관 아주대 감염내과 교수는 “유명 대형병원 응급실의 특징은 ‘밀고 들어가서 며칠 기다린다’이다. 2~3일씩 기다리다 지쳐서 다시 지역병원으로 내려오는 일이 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응급실 환자와 보호자들의 감염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격리실이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응급실로 오니 그들을 모두 격리실에 수용한다는 것은 미국 메디컬드라마에나 나오는 달나라 얘기다. 지금 의료수가를 유지하면서 1인실 위주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했다.<br/><br/> 채윤태 한일병원 감염내과 과장은 “<span class='quot1'>병실 문병 오듯 응급실로 가족과 친척이 문병을 오는 것도 문제</span>”라고 지적했다. 병문안 자체가 병원 내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span class='quot2'>감염학회 차원에서 ‘호흡기질환자 선제 격리’가 가능한 응급실 리모델링을 논의중</span>”이라고 전했다.<br/><br/> 곽영호 대한응급의학회 학술이사는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응급환자보다 암 환자가 응급실을 거쳐 오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응급실이 진짜 응급환자들을 위한 곳이 되려면 수익과 관계없이 운영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특정 병원 쏠림 현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 허승 박태우 오승훈 김양중 기자 raiso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2.txt

제목: “사우디선 가족 전염률 4% 그쳐”  
날짜: 20150605  
기자: 김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5100000124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대유행’에 대한 우려와 달리 오명돈(사진) 서울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메르스는 지난 3년간 전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역사회(병원 밖 감염)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span>”고 말했다. 오 교수는 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로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국내 감염내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br/> -왜 메르스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나?<br/>　“병원 안에서 환자에게 노출된 사람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하고 있다. 초기대응 실패로 의료기관 안에서 확산이 지속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초기 2차 감염자와 밀접 접촉해서 격리 대상이 됐던 사람들 중 확진 환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중국에 간 메르스 환자가 탔던 비행기 승객 중 확진 환자가 나오는지, 우리나라 메르스 환자 때문에 중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견될지 등이 앞으로 메르스의 확산 여부를 판단할 징후들이다.”<br/>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곧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와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 생존율이 낮아져 메르스 확산 속도도 낮아질 거란 얘기도 있는데, 메르스가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확산돼 대유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br/>　“현재 의료기관 전염이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기침이나 내시경검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배출할 위험이 높아 어떤 전염병이라도 확산이 잘 일어난다. 진료 중에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와 밀접한 거리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가장 전파되기 쉬운 장소다.<br/>　또 그동안 중동 여행 중 메르스에 걸린 상태로 비행기를 탔던 사람은 있지만 함께 비행기를 탄 사람에게 전파된 적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26건 있었는데 280명의 가족 중 전염된 사람은 12명(4%)뿐이었다. 기존의 메르스 바이러스와 현재 우리나라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같다면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차분히 대응해도 된다고 본다.”<br/>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메르스를 처음 발견한 이집트 바이러스 학자 알리 무함마드 자키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공기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span>”고 했다. 공기 중 감염 확률은 정말 없는가?<br/>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발표한 자료는 (메르스가) 비말(침 또는 콧물 등 공기 중으로 퍼지는 액체) 형태로 전파된다고 본다. 병원 안에서 2m 이상 먼 거리까지 전파된 사례도 있지만 이는 병원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 공기 중 전파라고 말하지 않는다. 공기 중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이라면 메르스가 지난 3년간 전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br/> -메르스 치사율이 40%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병인가?<br/>　“의료기관에서 메르스에 걸린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할 때 지닌 병(기저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하다. 그러나 2차 감염으로 걸리거나 건강한 사람들의 치사율은 훨씬 더 낮다.”<br/>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br/>　“의료기관을 공개하면 메르스 의심환자를 어느 병원에서 진료할까? 그러면 메르스 의심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의료기관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업무가 마비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암환자 등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큰 의료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br/>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3.txt

제목: 6월 5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5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410017478462  
본문: ‘부끄러움이 키우는 병’ 생식기 질환 대처법<br/><br/>명의 (교육방송 밤 9시 50분) 남녀 모두 밝히기 꺼리는 병인 ‘생식기 질환’을 다룬다. 생식기 질환은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특성상 ‘부끄러움이 키우는 병’이란 별명까지 있을 정도다. 전문의들은 감기가 걸리면 쉽게 병원을 찾듯 생식기 질환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비뇨기 질환인 전립선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한다. 부인과 질환도 마찬가지다.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자궁경부암까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더 큰 병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특히 부인과 질환은 30살 이상 가임연령의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경험하는 질환이다. 환자 수는 해마다 늘고 발병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부인과 질환의 흔한 증상은 생리통과 출혈이며 만성 복통, 골반통 등을 경험한다. 남성 비뇨기 질환 역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데다 웬만큼 심각하지 않은 이상 병원을 찾지 않으려 하는 남성 특유의 고집 때문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br/><br/>팽현숙 입맛 사로잡은 단골집은?<br/><br/>해피투데이 (에스비에스 저녁 6시 20분) ‘스타의 맛있는 이야기’ 코너에서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개그우먼 팽현숙이 추천하는 맛집을 찾는다. 팽현숙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단골 맛집은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는 햄버그스테이크집이다. 햄버그스테이크를 넉넉한 소스와 함께 따끈한 뚝배기에 담아 양과 맛이 더 풍부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각종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된 사연과 개그우먼으로 주가를 올리던 시절, 남편 최양락과의 몰래 데이트를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팽현숙은 ‘내 인생의 한 그릇’을 얘기하는 도중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br/><br/>육중완의 눈물겨운 성공 스토리<br/><br/>나 혼자 산다 (문화방송 저녁 6시 20분) 밴드 장미여관의 보컬 육중완이 강연을 위해 대학교로 향한다. 뮤지션을 꿈꾸는 학생들 앞에서 특강을 진행하게 된 육중완은 미리 강의 내용을 구상하고,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는 등 강의 준비에 열심인 모습을 보인다. 그는 강의를 위해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큰 체구에 비해 작은 옷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영어와 사자성어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육중완이 강연을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도 볼거리다. 하지만 뮤지션으로 성공하게 된 그의 눈물겨운 상경 이야기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밖에 래퍼 치타, 트레이너 예정화, 셰프 맹기용의 싱글라이프도 공개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4.txt

제목: ‘알로하 마음’ 담은 우쿨렐레의 고향 /음악밴드 ‘마푸키키’ 이동걸과 함께 떠난 하와이 음악 축제 여행·우쿨렐레 공장 탐방기  
날짜: 20150604  
기자: 이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4100000018  
본문: 하와이 최고의 음악축제인 ‘나 호쿠 하노하노’(영광의 별)는 ‘하와이의 그래미’로 일컫는다. 올해 38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음악행사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다. 이 큰 행사에 우리나라 음악인의 앨범이 처음 후보에 올랐다고 했다. 2013년 결성한 밴드 ‘마푸키키’의 하와이 음악 앨범 다. 마푸키키의 멤버 이동걸(39)씨, 음악잡지 을 발행하는 ‘유크매니아’ 김상철(36) 대표와 함께 하와이를 다녀왔다. 두 사람은 최근 한국하와이문화협회를 창립하며 ‘하와이 문화 전도사’를 자임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우리는 “수상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br/>　<br/>　노인도 소년도 보드 들고 바다로<br/>　“하와이를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자연환경도 좋고, 사람들은 느긋하고 이방인을 환대해요.” 베이시스트 출신으로 5~6년 전부터 매년 한번 이상 하와이에 다녀갔다는 김 대표가 말했다. 지역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하와이안항공부터가 환대 문화가 남달랐다. 우리를 본사로 초청한 항공사 관계자는 회사의 상징이라며 하와이의 자연과 여성의 얼굴 이미지를 소개했다. 케빈 임 시니어 디렉터는 말했다. “비행기 꼬리에 그려넣은 하와이 여성 얼굴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턱이 날렵하게 깎여 있어요. 하하!” 유머 또한 하와이의 상징이다.<br/>　하와이는 카우아이, 오아후, 몰로카이, 라나이, 마우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6개 주요 섬으로 이뤄져 있다. 오아후는 ‘하와이의 심장’으로, 그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이 있다. 현대적 서핑의 발상지인 와이키키에서는 파도타기(서핑)를 배울 수도 있다. 전설의 서퍼 듀크 카하나모쿠 동상이 두 팔을 벌려 맞이하고 있으며, 그의 목에는 꽃목걸이 ‘레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서핑을 하는 이들 가운데는 노인도 적지 않았고, 해변 옆으로 하프 마라톤 대회가 한창이었다.<br/>　호놀룰루 시내를 벗어나 동쪽 72번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시내에서 16㎞ 정도 떨어진 곳에 ‘할로나 블로홀’이 있다. 파도가 치면 물이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인근 ‘할로나 비치’ 또는 ‘이터니티 비치’는 영화 (1953)에서 버트 랭커스터와 데버러 커의 키스신 장소로 유명하며 와이키키보다 훨씬 호젓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길게 늘어선 모래사장 ‘샌디 비치’에는 원래 서핑보드의 절반 길이인 ‘바디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았다. 하와이 인사법으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치켜든 ‘근육질 소년’이 자기를 사진 찍으라며 불러세웠다. “내 사진, 메일로 보내줘!”<br/>　하와이 시내에는 1893년까지 하와이의 마지막 두 군주가 살았던 미국 유일의 왕궁이 있다. ‘이올라니 궁전’을 마지막으로 지킨 이는 8대 여왕 릴리우오칼라니였다. 실질적 통치권이 없던 비운의 여왕은 ‘알로하 오에’(Aloha ‘oe)를 작사·작곡했다. “<span class='quot0'>그늘진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매력적인 그대여, 소중한 그대여, 당분간 안녕,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까지.</span>” <br/>　<br/>　대를 잇는 우쿨렐레 공장 　<br/>　이번 여행에 동행한 ‘마푸키키’ 이동걸씨는 2009년 미국 인디애나에서 유학생활 중 우쿨렐레를 만나게 돼 하와이주립대로 옮겨 박사학위를 시작했다.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음악인으로 변모한 그가 최고로 꼽는 우쿨렐레 제조사 코알로하를 방문했다. 올해로 회사 설립 20년을 맞은 코알로하는 하와이의 대표적인 3대 우쿨렐레 제조사 가운데 하나로서 세계 12개국에 수출한다. 국내 기준으로 가격대는 70만~500만원선. 공명이 뛰어나고 음 지속성이 독보적이라 이곳의 악기를 고집하는 음악인이 많다. 기자 일행이 찾은 날도 하와이의 유명한 ‘기타 신동’이라는 이든 카이(16)가 아버지와 함께 공장을 방문해 악기를 구입하고 우쿨렐레 연주를 들려주었다.<br/>　이 회사는 1995년 일본계로 ‘파파’라는 별칭의 앨빈 오카미(71)와 ‘맘스’ 퍼트리샤 오카미(68)가 창립했다. 대표이사인 앨런 오카미(46)는 큰아들, 수제작자 폴 오카미(38)는 작은아들이다. 음악인 출신인 앨빈 오카미는 “<span class='quot1'>1981년부터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하다가 함께 밴드를 하던 우쿨렐레 음악계의 전설 허브 오타(오타상)의 권유로 미니어처 우쿨렐레를 만들기 시작했고, 1995년 아내의 제안으로 이 회사를 창립했으니 아내가 창립주</span>”라며 웃었다. 최근 값비싼 코나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로 만든 우쿨렐레를 개발했다며 연주를 해주었다. “처음 만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소리 좋고, 치기 쉽고, 저렴해서 누구나 쓸 수 있다니까!”<br/>　이 회사는 11명의 직원들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유명한데, 사회공헌사업에 힘을 기울여 매년 전체 직원이 온갖 장비를 들고 하와이 빈곤 지역인 몰로카이섬의 아이들을 찾는 등 이웃을 돕는다.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묻자 앨런 오카미 대표는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며 금세 눈시울을 붉히고 울먹였다. “어릴 때 부모님은 돈이 없더라도 항상 누군가를 도왔어요. 뭐라고 딱히 설명은 못하지만 두 분의 마음이 이 회사에 녹아들어 있고, 그것이 ‘알로하’의 마음이라고 할밖에요.” 동생 폴 오카미도 거들었다. “코알로하는 ‘당신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인에게 ‘한’이란 단어가 여러 뜻이듯, ‘알로하’에도 많은 뜻이 들어 있어요. 사랑은 정의하기 힘든 것이니까요.” 가끔 우쿨렐레 주문제작이 들어오면 그는 오래 고객과 얘기 나누며 숙고한 뒤 악기를 깎는다. 한 70대 주문제작 손님과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대화를 하다 보니 그냥 문득 악기를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는 말기 암 환자였고 자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대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득했다.<br/>　<br/>　최고의 음악축제 나 호쿠 하노하노 <br/>　드디어 ‘그날’이 왔다. 하와이 최고의 음악축제 ‘나 호쿠 하노하노’다. 과연 ‘하와이의 그래미’라고 할 법하게 무대가 근사했다. 몇시간 전부터 리셉션장에서 많은 음악인들과 관계자들이 한껏 멋을 낸 옷차림을 한 채 목에 꽃목걸이 ‘레이’를 걸어주며 수상을 기원했다. 한복 차림의 여성이 있어 말을 거니, 딸이 하와이대학에서 방문연구(비지팅 스칼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정(40·판사), 김주희(68) 모녀는 “<span class='quot2'>하와이에서도 본격적인 하와이 음악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적어 일부러 행사 티켓을 구매했다</span>”고 말했다.<br/>　본식 이전의 ‘프리 쇼 어워드’ 시상식만 11개, 본식의 시상식 부문은 록, 재즈, 인터내셔널 앨범 등 무려 22개였다. 생방송 카메라가 어지럽게 오가는 가운데 많은 음악인들이 상을 받으며 울먹였다. 마푸키키가 후보에 오른 ‘인터내셔널 앨범’ 부문의 상은 아깝게 일본 음악인 쓰시마 겐타로에게 돌아갔다. 우리 일행은 다소 실망했지만, 그날 밤 준비했던 수상소감을 듣는 것으로 다음을 기약했다. “하와이 음악을 하기 위해 모인 이유는 하와이를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티제이(조태준·기타·보컬), 영진아(김영진·베이스·보컬), 우리 대박이야!” 이미 대박은 난 것이나 다름없다. 아름다운 ‘알로하’의 정신을 배우지 않았는가! <br/> 하와이/글·사진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br/> 사진 한국하와이문화협회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5.txt

제목: “격리 대상 중 ‘확진’ 얼마 나오냐가 앞으로 중요”  
날짜: 2015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410017483261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대유행’에 대한 우려와 달리 오명돈(사진) 서울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메르스는 지난 3년간 전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역사회(병원 밖 감염)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span>”고 말했다. 오 교수는 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로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국내 감염내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br/><br/> -왜 메르스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나?<br/><br/> “병원 안에서 환자에게 노출된 사람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하고 있다. 초기대응 실패로 의료기관 안에서 확산이 지속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초기 2차 감염자와 밀접 접촉해서 격리 대상이 됐던 사람들 중 확진 환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중국에 간 메르스 환자가 탔던 비행기 승객 중 확진 환자가 나오는지, 우리나라 메르스 환자 때문에 중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견될지 등이 앞으로 메르스의 확산 여부를 판단할 징후들이다.”<br/><br/>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곧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와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 생존율이 낮아져 메르스 확산 속도도 낮아질 거란 얘기도 있는데, 메르스가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확산돼 대유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br/><br/> “현재 의료기관 전염이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기침이나 내시경검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배출할 위험이 높아 어떤 전염병이라도 확산이 잘 일어난다. 진료 중에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와 밀접한 거리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가장 전파되기 쉬운 장소다.<br/><br/> 또 그동안 중동 여행 중 메르스에 걸린 상태로 비행기를 탔던 사람은 있지만 함께 비행기를 탄 사람에게 전파된 적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26건 있었는데 280명의 가족 중 전염된 사람은 12명(4%)뿐이었다. 기존의 메르스 바이러스와 현재 우리나라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같다면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차분히 대응해도 된다고 본다.”<br/><br/>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메르스를 처음 발견한 이집트 바이러스 학자 알리 무함마드 자키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공기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span>”고 했다. 공기 중 감염 확률은 정말 없는가?<br/><br/>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발표한 자료는 (메르스가) 비말(침 또는 콧물 등 공기 중으로 퍼지는 액체) 형태로 전파된다고 본다. 병원 안에서 2m 이상 먼 거리까지 전파된 사례도 있지만 이는 병원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 공기 중 전파라고 말하지 않는다. 공기 중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이라면 메르스가 지난 3년간 전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br/><br/> -메르스 치사율이 40%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병인가?<br/><br/> “의료기관에서 메르스에 걸린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할 때 지닌 병(기저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하다. 그러나 2차 감염으로 걸리거나 건강한 사람들의 치사율은 훨씬 더 낮다.”<br/><br/>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br/><br/> “의료기관을 공개하면 메르스 의심환자를 어느 병원에서 진료할까? 그러면 메르스 의심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의료기관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업무가 마비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암환자 등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큰 의료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br/><br/>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6.txt

제목: 6월 5일 교양 새책  
날짜: 2015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410017478527  
본문: 아주 특별한 생물학 수업<br/><br/>생물학자인 장수철 연세대 교수가 친구인 이재성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를 상대로 일대일 생물학 강의를 한다. “<span class='quot0'>포화지방은 뭐가 포화됐다는 거죠?</span>” “<span class='quot0'>우성이 좋은 거예요, 열성이 좋은 거예요?</span>” 무식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질문이 특별한 대답을 이끌어 낸다. /휴머니스트·2만2000원.<br/><br/> <br/><br/><br/> <br/><br/><br/> <br/><br/><br/>언어의 정원 <br/><br/>프랑스 고고인류학자와 언어학자, 소아과 의사와 저널리스트가 모여 언어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탐색하는 대화록. 원숭이의 언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아기는 어떻게 말을 배울까,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언어는 어떻게 변해 왔나 등. 파스칼 피크 외 지음, 조민영 옮김/알마·1만3000원.<br/><br/> <br/><br/><br/> <br/><br/><br/> <br/><br/><br/>여성의 남성성 <br/><br/>퀴어 이론가 주디스 핼버스탬이 지난해 국내 출간된 <가가 페미니즘>에 이어 “자기가 남성적이라고 느끼는 여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왔다. 남자 아니면 여자가 돼야 하는 젠더 이원론과 이성애주의에 맞서 역사와 문학, 대중문화 속에 감춰진 남성적 여성 퀴어들의 삶을 찾아낸다. 유강은 옮김/이매진·2만3000원.<br/><br/> <br/><br/><br/> <br/><br/><br/> <br/><br/><br/>심사일기 <br/><br/>암행어사의 체험을 담은 <서수일기>의 지은이 박래겸이 50살에 서장관으로 심양에 다녀온 견문록이다. 태평거라는 수레의 제작과 운용에 대한 칭찬, 장사꾼에게 몸을 파는 창녀들의 모습, 원숭이의 재주 등 심양의 이국적인 풍경이나 풍속을 놀란 눈으로 전한다. 조남권·박동욱 옮김/푸른역사·2만5000원.<br/><br/> <br/><br/><br/> <br/><br/><br/> <br/><br/><br/>비트겐슈타인의 반철학 <br/><br/>이론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며 철학이론이란 특정한 언어적 실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反)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이 책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생전에 출간한 유일한 책 <논리-철학 논고>를 분석해 반철학의 구조와 한계를 보여준다. 박성훈·박영진 옮김/사월의책·1만4000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7.txt

제목: 김제 40년전 미군기지터 여전히 오염 심각  
날짜: 20150604  
기자: 박임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4100000044  
본문: 40여년 전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던 전북 김제시 황산동 주변 땅이 아직도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br/>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은 3일 “<span class='quot0'>옛 군부대가 있었던 김제시 황산동 덕조마을 주변 농경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지난달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토양오염을 분석한 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500㎎/㎏(농경지)의 7배가 넘는 3594㎎/㎏으로 조사됐다</span>”고 밝혔다.<br/>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토양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토양이 등유·경유·제트유·벙커C유 등의 기름에 의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오염물질이다. 이 물질에 오염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2012년 환경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정밀조사 결과 1곳을 제외한 22곳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br/>　이 지역은 1970년대 초까지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고, 이후 2008년까지 한국 공군포대가 주둔하다 철수해 지금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4월 이곳에 주민 쉼터를 조성하려고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해 8월 “<span class='quot1'>미발견 지뢰지역으로 사고 위험이 항시 내재된 위험지역이어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span>”고 답변했다.<br/>　주민 최성식(58)씨는 “1년 전 밭을 파다 땅속에서 기름 잔해물을 많이 발견했다. 지금도 집 근처 20~30m가량 떨어진 곳을 삽으로 조금만 파면 심한 기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br/>　통장 이경한씨도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1970년대 초반에도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많았다. 심할 때는 웅덩이에서 기름을 퍼다가 주유소에 팔았을 정도였다. 마을 전체가 얼마나 심하게 오염됐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기름 냄새가 나서 10여년 전 식수원을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바꾸기도 했다. 주민 불안을 덜기 위해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부터 당장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br/>　정 의원은 “<span class='quot0'>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로 인해 주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촉구했다.<br/>　국방부는 “김제시가 민관군 합동조사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미사일 기지가 있었던 이 지역은 앞으로 공군이 사용할 계획이 있어 개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b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8.txt

제목: 6월 4일 동정  
날짜: 2015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310017469487  
본문: ⊙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1일부터 2박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제67차 세계신문협회 총회’에 참석했다.<br/><br/>⊙ 차광선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총재는 4일 오후 6시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77돌 기념식을 하고, 우수지도자 및 모범단원에게 여성가족부장관 및 한국본부 총재 표창식을 한다.<br/><br/>⊙ 최승복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최근 정확한 암 부위 제거 수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햅틱마스터’를 개발했다. 관련 내용 논문은 SCI국제학술지인 ‘스마트재료 및 구조물 학술지’ 6월호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br/><br/>⊙ 임남기 동명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건축시공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39.txt

제목: ‘알로하 마음’ 담은 우쿨렐레의 고향  
날짜: 2015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310017472617  
본문: 하와이 최고의 음악축제인 ‘나 호쿠 하노하노’(영광의 별)는 ‘하와이의 그래미’로 일컫는다. 올해 38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음악행사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다. 이 큰 행사에 우리나라 음악인의 앨범이 처음 후보에 올랐다고 했다. 2013년 결성한 밴드 ‘마푸키키’의 하와이 음악 앨범 <섈 위 훌라?>다. 마푸키키의 멤버 이동걸(39)씨, 음악잡지 <우쿨렐레 매거진>을 발행하는 ‘유크매니아’ 김상철(36) 대표와 함께 하와이를 다녀왔다. 두 사람은 최근 한국하와이문화협회를 창립하며 ‘하와이 문화 전도사’를 자임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우리는 “수상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br/><br/> <br/><br/> 노인도 소년도 보드 들고 바다로<br/><br/> “하와이를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자연환경도 좋고, 사람들은 느긋하고 이방인을 환대해요.” 베이시스트 출신으로 5~6년 전부터 매년 한번 이상 하와이에 다녀갔다는 김 대표가 말했다. 지역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하와이안항공부터가 환대 문화가 남달랐다. 우리를 본사로 초청한 항공사 관계자는 회사의 상징이라며 하와이의 자연과 여성의 얼굴 이미지를 소개했다. 케빈 임 시니어 디렉터는 말했다. “비행기 꼬리에 그려넣은 하와이 여성 얼굴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턱이 날렵하게 깎여 있어요. 하하!” 유머 또한 하와이의 상징이다.<br/><br/> 하와이는 카우아이, 오아후, 몰로카이, 라나이, 마우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6개 주요 섬으로 이뤄져 있다. 오아후는 ‘하와이의 심장’으로, 그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이 있다. 현대적 서핑의 발상지인 와이키키에서는 파도타기(서핑)를 배울 수도 있다. 전설의 서퍼 듀크 카하나모쿠 동상이 두 팔을 벌려 맞이하고 있으며, 그의 목에는 꽃목걸이 ‘레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서핑을 하는 이들 가운데는 노인도 적지 않았고, 해변 옆으로 하프 마라톤 대회가 한창이었다.<br/><br/> 호놀룰루 시내를 벗어나 동쪽 72번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시내에서 16㎞ 정도 떨어진 곳에 ‘할로나 블로홀’이 있다. 파도가 치면 물이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인근 ‘할로나 비치’ 또는 ‘이터니티 비치’는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1953)에서 버트 랭커스터와 데버러 커의 키스신 장소로 유명하며 와이키키보다 훨씬 호젓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길게 늘어선 모래사장 ‘샌디 비치’에는 원래 서핑보드의 절반 길이인 ‘바디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았다. 하와이 인사법으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치켜든 ‘근육질 소년’이 자기를 사진 찍으라며 불러세웠다. “내 사진, 메일로 보내줘!”<br/><br/> 하와이 시내에는 1893년까지 하와이의 마지막 두 군주가 살았던 미국 유일의 왕궁이 있다. ‘이올라니 궁전’을 마지막으로 지킨 이는 8대 여왕 릴리우오칼라니였다. 실질적 통치권이 없던 비운의 여왕은 ‘알로하 오에’(Aloha ‘oe)를 작사·작곡했다. “<span class='quot0'>그늘진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매력적인 그대여, 소중한 그대여, 당분간 안녕,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까지.</span>” <br/><br/>우쿨렐레 3대 제조사 코알로하 <br/>음악인들이 찾는 명가 <br/>‘알로하’의 마음으로 <br/>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음악 전파 <br/><br/> 대를 잇는 우쿨렐레 공장 <br/><br/> 이번 여행에 동행한 ‘마푸키키’ 이동걸씨는 2009년 미국 인디애나에서 유학생활 중 우쿨렐레를 만나게 돼 하와이주립대로 옮겨 박사학위를 시작했다.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음악인으로 변모한 그가 최고로 꼽는 우쿨렐레 제조사 코알로하를 방문했다. 올해로 회사 설립 20년을 맞은 코알로하는 하와이의 대표적인 3대 우쿨렐레 제조사 가운데 하나로서 세계 12개국에 수출한다. 국내 기준으로 가격대는 70만~500만원선. 공명이 뛰어나고 음 지속성이 독보적이라 이곳의 악기를 고집하는 음악인이 많다. 기자 일행이 찾은 날도 하와이의 유명한 ‘기타 신동’이라는 이든 카이(16)가 아버지와 함께 공장을 방문해 악기를 구입하고 우쿨렐레 연주를 들려주었다.<br/><br/> 이 회사는 1995년 일본계로 ‘파파’라는 별칭의 앨빈 오카미(71)와 ‘맘스’ 퍼트리샤 오카미(68)가 창립했다. 대표이사인 앨런 오카미(46)는 큰아들, 수제작자 폴 오카미(38)는 작은아들이다. 음악인 출신인 앨빈 오카미는 “<span class='quot1'>1981년부터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하다가 함께 밴드를 하던 우쿨렐레 음악계의 전설 허브 오타(오타상)의 권유로 미니어처 우쿨렐레를 만들기 시작했고, 1995년 아내의 제안으로 이 회사를 창립했으니 아내가 창립주</span>”라며 웃었다. 최근 값비싼 코나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로 만든 우쿨렐레를 개발했다며 연주를 해주었다. “처음 만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소리 좋고, 치기 쉽고, 저렴해서 누구나 쓸 수 있다니까!”<br/><br/> 이 회사는 11명의 직원들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유명한데, 사회공헌사업에 힘을 기울여 매년 전체 직원이 온갖 장비를 들고 하와이 빈곤 지역인 몰로카이섬의 아이들을 찾는 등 이웃을 돕는다.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묻자 앨런 오카미 대표는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며 금세 눈시울을 붉히고 울먹였다. “어릴 때 부모님은 돈이 없더라도 항상 누군가를 도왔어요. 뭐라고 딱히 설명은 못하지만 두 분의 마음이 이 회사에 녹아들어 있고, 그것이 ‘알로하’의 마음이라고 할밖에요.” 동생 폴 오카미도 거들었다. “코알로하는 ‘당신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인에게 ‘한’이란 단어가 여러 뜻이듯, ‘알로하’에도 많은 뜻이 들어 있어요. 사랑은 정의하기 힘든 것이니까요.” 가끔 우쿨렐레 주문제작이 들어오면 그는 오래 고객과 얘기 나누며 숙고한 뒤 악기를 깎는다. 한 70대 주문제작 손님과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대화를 하다 보니 그냥 문득 악기를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는 말기 암 환자였고 자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대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득했다.<br/><br/> <br/><br/> 최고의 음악축제 나 호쿠 하노하노 <br/><br/> 드디어 ‘그날’이 왔다. 하와이 최고의 음악축제 ‘나 호쿠 하노하노’다. 과연 ‘하와이의 그래미’라고 할 법하게 무대가 근사했다. 몇시간 전부터 리셉션장에서 많은 음악인들과 관계자들이 한껏 멋을 낸 옷차림을 한 채 목에 꽃목걸이 ‘레이’를 걸어주며 수상을 기원했다. 한복 차림의 여성이 있어 말을 거니, 딸이 하와이대학에서 방문연구(비지팅 스칼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정(40·판사), 김주희(68) 모녀는 “<span class='quot2'>하와이에서도 본격적인 하와이 음악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적어 일부러 행사 티켓을 구매했다</span>”고 말했다.<br/><br/> 본식 이전의 ‘프리 쇼 어워드’ 시상식만 11개, 본식의 시상식 부문은 록, 재즈, 인터내셔널 앨범 등 무려 22개였다. 생방송 카메라가 어지럽게 오가는 가운데 많은 음악인들이 상을 받으며 울먹였다. 마푸키키가 후보에 오른 ‘인터내셔널 앨범’ 부문의 상은 아깝게 일본 음악인 쓰시마 겐타로에게 돌아갔다. 우리 일행은 다소 실망했지만, 그날 밤 준비했던 수상소감을 듣는 것으로 다음을 기약했다. “하와이 음악을 하기 위해 모인 이유는 하와이를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티제이(조태준·기타·보컬), 영진아(김영진·베이스·보컬), 우리 대박이야!” 이미 대박은 난 것이나 다름없다. 아름다운 ‘알로하’의 정신을 배우지 않았는가! <br/><br/> 하와이/글·사진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사진 한국하와이문화협회 제공 <br/><br/> 하와이 여행 정보<br/><br/>● 호놀룰루 국제공항은 오아후섬에 위치한 하와이의 주공항. 대부분 방문객은 이곳으로 입국한다. 하와이안항공의 경우 인천~호놀룰루 상설 직항편이 매주 월·목·금·토·일요일 하루 한번 있다. 인천에서 밤 9시30분께 출발하며 당일 오전 11시(현지시각)에 도착한다. 소요시간은 인천~호놀룰루 9시간, 호놀룰루~인천 11시간30분. 하와이안항공을 이용하면 빅아일랜드, 마우이, 카우아이, 라나이섬에 매일 각 20여편씩 운항하는 국내선을 탈 수 있다. 각 섬 40~45분 정도 걸린다.<br/><br/><br/><br/>● 하와이는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철 기온이 높고 건조해 평균 섭씨 23~31도다. 요즘 날씨는 무척 뽀송뽀송하다.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은 조금 더 기온이 낮아 섭씨 20~27도. 무역풍의 영향 덕에 연중 날씨가 쾌적하고 해변의 날벌레가 많지 않다.<br/><br/><br/><br/>● 오아후섬의 호놀룰루 시내는 출퇴근과 주말 교통정체로 유명하다. 하지만 호놀룰루 인근을 두루 둘러보고 싶다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회사마다 제각각이지만 세금을 포함해 호놀룰루 수령·반납의 경우 스포츠실용차(SUV) 기준 하루 80~90달러대, 주말에는 100달러대면 빌릴 수 있다. 오아후섬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인 ‘더 버스’로 섬 전역을 연결한다. 35달러로 4일 무제한 승차권을 구입하면 섬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다.<br/><br/><br/><br/>● 하와이 관광청 누리집(www.gohawaii.com/kr), 더 버스 누리집(www.thebus.org) 참조.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0.txt

제목: 김제 40년전 미군기지 터 여전히 오염 심각  
날짜: 2015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310017469578  
본문: 40여년 전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던 전북 김제시 황산동 주변 땅이 아직도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은 3일 “<span class='quot0'>옛 군부대가 있었던 김제시 황산동 덕조마을 주변 농경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지난달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토양오염을 분석한 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500㎎/㎏(농경지)의 7배가 넘는 3594㎎/㎏으로 조사됐다</span>”고 밝혔다.<br/><br/>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토양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토양이 등유·경유·제트유·벙커C유 등의 기름에 의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오염물질이다. 이 물질에 오염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2012년 환경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정밀조사 결과 1곳을 제외한 22곳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br/><br/> 이 지역은 1970년대 초까지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고, 이후 2008년까지 한국 공군포대가 주둔하다 철수해 지금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4월 이곳에 주민 쉼터를 조성하려고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해 8월 “<span class='quot1'>미발견 지뢰지역으로 사고 위험이 항시 내재된 위험지역이어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span>”고 답변했다.<br/><br/> 주민 최성식(58)씨는 “1년 전 밭을 파다 땅속에서 기름 잔해물을 많이 발견했다. 지금도 집 근처 20~30m가량 떨어진 곳을 삽으로 조금만 파면 심한 기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br/><br/> 통장 이경한씨도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1970년대 초반에도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많았다. 심할 때는 웅덩이에서 기름을 퍼다가 주유소에 팔았을 정도였다. 마을 전체가 얼마나 심하게 오염됐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기름 냄새가 나서 10여년 전 식수원을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바꾸기도 했다. 주민 불안을 덜기 위해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부터 당장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 정 의원은 “<span class='quot0'>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로 인해 주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촉구했다.<br/><br/> 국방부는 “김제시가 민관군 합동조사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미사일 기지가 있었던 이 지역은 앞으로 공군이 사용할 계획이 있어 개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br/><b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1.txt

제목: 찬 계곡물에 발 담그니 이게 바로 신선놀음  
날짜: 2015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60310017478586  
본문: 오뉴월은 계곡 여행에 알맞은 시기다. 신록은 우거질 대로 우거지고, 암반 타고 흐르는 물은 차고도 맑은데 인적은 비교적 뜸하다. 산 좋아하고 물 좋아한 우리 선인들도 오뉴월 계곡 여행을 즐겼다. 바위계곡 내리뻗고 폭포 물줄기 흩어지는 곳마다 정자 짓고 글귀 새기며 족적을 남겼다.<br/><br/> 경남 서북부 끝자락 거창·함양 일대의 산길·물길에도 선인들 발자취가 즐비하다. 덕유산 남쪽 줄기 금원산 자락과 주변의 깨끗한 골짜기들이 품은 옛 정자들과 크고 작은 폭포들을 만나고 왔다. 한 시절 나대며 살던 고관대작도, 은둔해 유유자적하던 선비도 앞다퉈 탐방하며 자연을 즐기던 곳이다. 물길을 따라가면 읊고 마시던 선비들 행각이 드러나고, 선비들 발자취를 뒤적이면 그 물길의 최고 경관이 펼쳐진다. 오랜 가뭄에도 아랑곳없이 상류 쪽으론 깨끗한 물길과 수량 풍부한 폭포들이 이어진다. 바위 자락에 날아갈듯 올라앉은 정자 바라보며 시린 물살에 발을 담그고 쉬어가기 좋은 곳들이다.<br/><br/><br/><br/> 물길 따라 옛 선비 머물다 간 흔적 빼곡<br/><br/> 덕유산 남쪽, 함양군 북부 안의면 일대와 거창군 서부 마리·위천면 지역은 조선말까지 안의현(안음현)에 속했던 곳이다. 바위 자락을 타고 흐르는 계곡이 즐비해 선인들은 이 지역 곳곳에 정자를 짓고 경관을 즐겼다. 낙동강 물줄기인 남강의 상류 지역이다. 특히 이 일대에서도 경관이 빼어난 세 곳을 ‘안의삼동’(안의현의 3대 동천)으로 부르며 탐방을 즐겼다. 농월정 등 정자가 아름다운 화림동과 용추폭포가 있는 심진동, 그리고 수승대 경관으로 이름난 원학동이 그곳이다. 함양 남덕유산 남쪽 자락(화림동)과 거창 금원산 자락(원학동), 그리고 그 사이쯤에 자리한(심진동) ‘동천’(경관 빼어난 골짜기)들이다.(최석기 지음 <조선 선비들의 답사일번지 원학동> 참조)<br/><br/> 산 타기 좋아하는 이들이야, 계곡 따라 오르내리는 다양한 코스의 산행을 즐기며 금원산·거망산 일대 명소들을 찾겠지만, 가족여행자라면 차를 몰고 이동하며 옛 원학동 주변의 골짜기 물길과 정자들을 둘러보는 1박2일 여행 일정을 짜볼 만하다.<br/><br/> 이 일대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경관이 거창 위천면 위천 물길의 수승대다. 월성계곡과 유안청계곡 탐방의 길목에 자리잡은 명승이다. 물길 가운데 거북을 닮은 거대한 바위섬을 가리키는데, 이를 칭송하는 시문과 선비들의 이름이 바위에 빼곡히 새겨져 있다. 새긴 이름 중 가장 많은 것이 주변 마을에 세거해 살던 신씨·임씨 이름들로, 퇴계 이황과 교유하던 학자 임훈과 신권의 후손들이다. 퇴계는 본디 ‘수송대’라 부르던 이 거북바위 이름을 ‘수승대’로 바꾼 인물이다. 수송대는 신라와 백제가 사신(또는 중국 사신)을 전송하던 장소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직접 와보지도 않고 오래된 명승 이름을 마음대로 바꿨으니 당시 퇴계의 권세를 짐작해볼 수 있다. 신권은 개명을 환영했지만, 임훈은 옛 이름 바꾸는 것을 마땅찮게 여겼다고 한다.<br/><br/><br/><br/> ‘소금강’으로도 불린 월성계곡의 바위경치<br/><br/> 월성계곡은 남덕유산에서 흘러내려 거창 북상면소재지까지 이어지는 12㎞ 길이의 물길을 말한다. 거대한 암반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길이, 용암정·강선대·분설암·사선대 등 빼어난 경치와 정자들을 곳곳에 품고 있다. 북상면소재지에서 황점마을까지 37번 도로를 타고 물길 따라 오르며 크고 작은 소와 바위 경치, 정자들을 감상할 수 있다.<br/><br/> 북상면소재지 부근 위천변의 정자 용암정은 주변 물길의 바위 경치가 탄성을 자아내는 곳이다. 하류 지역인데다 가뭄이 이어져 물빛은 맑지 않으나 암반을 타고 흐르는 물길에 펼쳐진 거대한 바위들이 ‘명승’으로 지정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상류로 오르면서 월성계곡 물길은 차츰 깨끗해진다. 보기 좋기로는 월성마을 물길의 바위 경치 사선대(송대)다. 여러개의 커다란 바윗덩이를 쌓아올린 듯 우뚝 솟은 바위와 암반을 타고 굽이쳐 흐르는 물길이 아름답다. 남명 조식, 동춘당 송준길 등이 여기서 소요했다고 전해온다. 바위 밑에 조선말 경상도관찰사 김양순이 썼다는 ‘사선대’ 각자가 있다.<br/><br/> 월성계곡 상류 황점마을엔 을사늑약 때 처절한 의병투쟁을 펼쳤던 박화기·박수기·박민기 삼형제의 항일정신을 기리는 사적비가 있다. 사적비 내용을 읽어볼 만하다. 최고미라는 친일 첩자의 밀고로 삼형제가 희생되는 과정이 아프게 기록돼 있다.<br/><br/>금원산 유안청 계곡 <br/>빨치산 500명 목욕했다고 <br/>소설 <남부군>서 묘사한 곳 <br/>용추계곡엔 15m 높이 폭포 <br/>암반 타고 이어진 물웅덩이들도 볼만<br/><br/> 금원산휴양림 유안청계곡에도 볼거리 즐비<br/><br/> 위천면소재지에서 금원산휴양림으로 오르면 울창한 숲과 깨끗한 물길, 그리고 아담한 폭포들이 이어지는 유안청계곡에 이른다. 마을 유생들이 공부하던 유안청이 있었던 곳이라는데, 유안청폭포의 본디 이름은 ‘가섭동폭’이다. 소설 <남부군>에서 빨치산 500명이 목욕했다고 묘사된 곳이다. 유안청 제2폭포는 길고 완만한 바위 자락을 물살이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와폭이고, 제1폭포는 비스듬히 걸린 비교적 경사진 폭포다. 아담한 자운폭포 거쳐 유안청 제2·제1폭포까지 계곡 탐방도 해볼 만하지만, 곁가지 계곡인 지재미계곡에도 볼거리가 있다.<br/><br/> 휴양림관리소 앞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면 물길 옆에 거대한 바윗덩어리 하나가 보인다. 옛 암자 가섭암의 일주문 구실을 했다는 문바위다. 3~4층 건물 크기로, 단일 바윗덩어리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 바위 너머 산자락에 18세기 후반까지 있었다는 가섭암 터가 있다. 암자처럼 보이는 작은 집이 한채 들어서 있는데, 집 뒤 산비탈에 거대한 바위들이 포개져 이룬 동굴이 있다. <br/><br/> 동굴 안 벽면에 새겨진 ‘가섭암지마애삼존불상’(보물)이 눈부시다. 정교한 선각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아름다운 고려시대 조각 작품이다. 동굴로 스며드는 빛이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br/><br/><br/><br/> 거창~함양 물길 따라 정자 탐방 해볼만<br/><br/> 금원산 서쪽 함양 땅 옛 심진동엔 용추폭포로 이름난 용추계곡과 용추자연휴양림이 있고, 남덕유산 자락에서 발원한 남강 상류 물길(옛 화림동계곡)엔 거연정·동호정 등 옛 정자들이 즐비하다. 앞서 월성계곡 끝 황점마을 못미처 월성마을에서 왼쪽 내계마을로 들어서면, 좁은 시멘트길이 내계폭포 쪽으로 이어진다. 어둑한 숲 안 바위에 걸린 내계폭포(제1·2폭포)는, 크기도 모습도 아담한 형태다. 내계폭포 지나 거창 쪽 금원산과 함양 쪽 월봉산 사이에 걸린 수망령을 넘어 내려가면 용추계곡이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검푸르고 널찍한 소로 떨어지는 15m 높이의 용추폭포와 용소·꺽지소·요강소 등 멋진 암반을 타고 이어지는 크고 작은 물웅덩이들을 감상할 수 있다. 계곡 하류 안심마을(물레방아 떡마을)은 조선말 안의현감을 지낸 연암 박지원이 물레방아를 설치했었다는 마을이다.<br/><br/> 안의면소재지에서 남강 상류 물줄기 따라 육십령 쪽으로 오르면, 농월정 터(2003년 불타 현재 복원공사가 진행중이다)와 동호정·군자정·거연정 등 정자들이 차례로 나타난다. 크기와 유래는 달라도, 거대한 바위 위에 올라앉은 모습이 한결같고, 감상할 만한 물길과 바위 경치가 펼쳐진 것 또한 매한가지다. 가뭄 탓에 물빛은 좋지 않다. <br/><br/> 거창 함양/글·사진 이병학 선임기자 leebh99@hani.co.kr<br/><br/> 거창·함양 여행 정보<br/><br/>가는 길 수도권에서 경부·중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 대전 비룡분기점에서 대전~통영 고속도로로 갈아타고 함양 서상나들목에서 나간다. 26번 국도 타고 서상면에서 안의면소재지 쪽으로 물길 따라가며 거연정·군자정·동호정·농월정터 등을 만날 수 있다. 안의면 북쪽에 용추계곡이 있고, 3번 국도 타고 거창 마리면 지나면 위천면소재지에서 금원산휴양림 갈림길을, 수승대 지나 북상면소재지에선 월성계곡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br/><br/><br/><br/>먹을 곳 함양 안의면은 한우 갈비탕·갈비찜이 유명하다. 면소재지에 두툼한 한우 갈빗살을 넣어 끓이는 갈비탕집이 즐비하다. 거창읍내엔 거창추어탕·구구식당 등 추어탕·어탕국수를 내는 식당들이 많다.<br/><br/><br/><br/>묵을 곳 금원산자연휴양림과 용추계곡휴양림의 산막 등은 주말엔 대개 예약이 꽉 차 있지만, 평일 이용은 가능하다. 월성계곡·금원산휴양림·용추계곡 등에 크고 작은 캠핑장들이 마련돼 있다. 거창읍내 버스터미널 부근에 모텔들이 모여 있다. 위천면 전통한옥마을인 황산마을의 고택들에서 묵을 수도 있다.<br/><br/><br/><br/>여행 문의 거창군청 (055)940-3000, 함양군청 (055) 960-5555. <br/><br/><br/><br/><br/><br/> 여행공책<br/><br/>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이 전철로 떠나는 자전거여행 ‘아빠와의 여행을 부탁해’ 참가 응모를 받는다. 아빠와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연을 6월11일까지 누리집(www.ktoleports.com)에 올리면 응모된다. 100명을 추첨해 6월20일(토) 춘천 소양호·의암호 자전거길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청한다.<br/><br/><br/><br/>한화리조트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군인 등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가유공자에게 전국 10개 한화리조트 사우나 무료 혜택(본인 한정)을 주고, 군인과 국민안전처 임직원에겐 설악 워터피아 입장료를 동반 4인까지 45% 할인해 준다. 신분증 제시 필수. 1588-2299.<br/><br/><br/><br/>부천 웅진플레이도시가 야외 워터파크 ‘써니파크’를 6월5일 개장한다. 대형 가족형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등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 수영장, 30㎝ 수심의 유아 수영장, 바데풀과 허브를 테마로 한 5개의 노천 스파 등을 갖췄다. 개장 기념으로 6월 말까지 국가유공자 무료 입장 및 동반 2인 50% 할인, 대학생 ‘1+1’ 행사도 벌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2.txt

제목: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폭력에 맞서기  
날짜: 20150529  
기자: 최재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9100000069  
본문: 길, 저쪽<br/>정찬 지음/창비·1만2000원<br/><br/><br/>정찬은 역사와 폭력, 양심과 슬픔의 문제를 천착해 온 작가다. 그의 새 장편 역시 그 연장선에 놓인다. 2012년 말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우울한 논평으로 문을 연 소설은 주인공들이 “눈부시게 푸른 청춘이었”던 1970년대 초로 독자를 데려간다. 화자인 윤성민과 그의 학교 선배이자 운동권 동료였던 김준일, 성민의 연인 강희우, 김준일을 흠모한 술집 여성 차혜림 등이 그들이다.<br/>　가시 철조망과 진흙 웅덩이로 이루어진 한국 현대사를 통과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준일은 90년대 중반 러시아에서 명을 달리했고 희우는 그보다 더 전에 성민의 곁을 떠났음을 독자는 소설 도입부에서 알게 된다. <br/>　성민이 준일과 함께 수배와 구속을 불사하며 운동에 매진하던 80년대 후반 어느 날 까닭 없이 사라졌던 희우가 27년 만에 편지를 보내 성민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고백한다. 말기 암에 걸린 희우와 재회하면서 성민은 자신과 희우의 청춘과 인생을 잡아먹은 역사의 악의적 농담을 확인하지만, 죽음을 앞둔 희우는 분노가 아닌 슬픔과 화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분노를 껴안으면서, 분노를 넘어서는 감정이 슬픔이에요. 슬픔은 분노가 또다른 폭력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고귀한 감정이지요.” 이것을 작가 정찬의 말로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최재봉 기자 b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3.txt

제목: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폭력에 맞서기  
날짜: 2015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810017423672  
본문: 길, 저쪽 <br/>정찬 지음/창비·1만2000원<br/><br/>정찬은 역사와 폭력, 양심과 슬픔의 문제를 천착해 온 작가다. 그의 새 장편 역시 그 연장선에 놓인다. 2012년 말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우울한 논평으로 문을 연 소설은 주인공들이 “눈부시게 푸른 청춘이었”던 1970년대 초로 독자를 데려간다. 화자인 윤성민과 그의 학교 선배이자 운동권 동료였던 김준일, 성민의 연인 강희우, 김준일을 흠모한 술집 여성 차혜림 등이 그들이다.<br/><br/> 가시 철조망과 진흙 웅덩이로 이루어진 한국 현대사를 통과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준일은 90년대 중반 러시아에서 명을 달리했고 희우는 그보다 더 전에 성민의 곁을 떠났음을 독자는 소설 도입부에서 알게 된다. <br/><br/> 성민이 준일과 함께 수배와 구속을 불사하며 운동에 매진하던 80년대 후반 어느 날 까닭 없이 사라졌던 희우가 27년 만에 편지를 보내 성민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고백한다. 말기 암에 걸린 희우와 재회하면서 성민은 자신과 희우의 청춘과 인생을 잡아먹은 역사의 악의적 농담을 확인하지만, 죽음을 앞둔 희우는 분노가 아닌 슬픔과 화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분노를 껴안으면서, 분노를 넘어서는 감정이 슬픔이에요. 슬픔은 분노가 또다른 폭력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고귀한 감정이지요.” 이것을 작가 정찬의 말로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br/><br/>최재봉 기자 b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4.txt

제목: 자라섬에 나비 3천여마리  
날짜: 20150528  
기자: 박경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8100000059  
본문: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변 자라섬 인근에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나비생태체험관이 문을 열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br/>　지난 24일, 꽃과 과일나무 등이 작은 숲을 이룬 나비생태체험관에는 들신선나비·은판나비 등 희귀종 5~6종을 포함해 호랑나비(사진)·암끝검은표범나비·제비나비·배추흰나비·부전나비 등 50여종의 나비 3000여마리가 관람객을 맞고 있었다. 특히 북방계 나비인 들신선나비는 국내에서 처음 인공번식에 성공해 500마리가 활동 중이라고 한다.<br/>　나비생태체험관은 자라섬 입구 식물원인 이화원의 아열대 온실(3100㎡)에 지난달 1000㎡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다음달 중순께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가을부터는 매일 5000마리씩, 연간 150종 20만마리의 살아 있는 나비를 전시한다는 계획이다.<br/>　관람객들은 체험관 곳곳에서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나비로 탄생하기까지 40여일의 신비로운 과정을 관찰하며 탄성을 자아냈다. 정식 개장 뒤엔 나비 이야기 해설과 동영상, 세계 나비 표본 전시, 나비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br/>　나비 연구가인 심은산(41) 이화원 대표는 “국내 200여종의 나비 가운데 멸종위기 보호종 30여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나비를 1년 내내 볼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곳이다. 일상의 스트레스나 우울증·행동발달장애 등을 겪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비가 꽃의 꿀을 빠는 모습을 보고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　가평군 관계자는 “아열대 온실은 나비가 살기에 최적 환경이다. 열대식물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식지 파괴로 급감하는 나비를 보전하기 위해 나비체험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가평군이 53억원을 들여 2009년 조성한 이화원(3만4920㎡)은 2개 온실에 213종 1만5천여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있으며 지난해까지 관광객 46만여명이 방문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5.txt

제목: 15년간 장병 무료이발 홍문표씨 /화순대대 ‘사랑의 가위손’ 선행  
날짜: 20150527  
기자: 박병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7100000054  
본문: 15년 동안 장병들의 머리를 깎아준 ‘사랑의 가위손’이 있다. 전남 화순 능주면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는 홍문표(61·사진)씨는 매주 화요일 육군 31사단 예하 화순대대를 방문해 무료로 장병들의 이발을 해주고 있다. <br/>　홍씨는 2000년 배에 복수가 차올라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span class='quot0'>만약 암이 낫게만 된다면 죽는 순간까지 봉사하며 살겠다</span>”고 다짐했다. 다행히 암 판정이 오진으로 밝혀졌고, 마침 이발관 단골이던 화순부대 간부로부터 ‘부대에 이발병이 부족하니 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주 부대를 방문하게 됐다. 또 홍씨는 유격 훈련과 혹한기 훈련 마지막 행군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장병들 앞에 나타나 떡과 어묵, 사탕 등 간식을 나눠준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 장병들도 모두 한창 젊은 시절에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span>”며 “<span class='quot0'>힘든 일을 겪어보니 세상을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 나누며 사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6.txt

제목: 자라섬에 나비 3천여마리  
날짜: 2015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710017396522  
본문: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변 자라섬 인근에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나비생태체험관이 문을 열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br/><br/> 지난 24일, 꽃과 과일나무 등이 작은 숲을 이룬 나비생태체험관에는 들신선나비·은판나비 등 희귀종 5~6종을 포함해 호랑나비·암끝검은표범나비·제비나비·배추흰나비·부전나비 등 50여종의 나비 3000여마리가 관람객을 맞고 있었다. 특히 북방계 나비인 들신선나비는 국내에서 처음 인공번식에 성공해 500마리가 활동 중이라고 한다.<br/><br/> 나비생태체험관은 자라섬 입구 식물원인 이화원의 아열대 온실(3100㎡)에 지난달 1000㎡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다음달 중순께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가을부터는 매일 5000마리씩, 연간 150종 20만마리의 살아 있는 나비를 전시한다는 계획이다.<br/><br/> 관람객들은 체험관 곳곳에서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나비로 탄생하기까지 40여일의 신비로운 과정을 관찰하며 탄성을 자아냈다. 정식 개장 뒤엔 나비 이야기 해설과 동영상, 세계 나비 표본 전시, 나비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br/><br/> 나비 연구가인 심은산(41) 이화원 대표는 “국내 200여종의 나비 가운데 멸종위기 보호종 30여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나비를 1년 내내 볼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곳이다. 일상의 스트레스나 우울증·행동발달장애 등을 겪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비가 꽃의 꿀을 빠는 모습을 보고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 가평군 관계자는 “아열대 온실은 나비가 살기에 최적 환경이다. 열대식물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식지 파괴로 급감하는 나비를 보전하기 위해 나비체험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가평군이 53억원을 들여 2009년 조성한 이화원(3만4920㎡)은 2개 온실에 213종 1만5천여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있으며 지난해까지 관광객 46만여명이 방문했다. <br/><br/>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7.txt

제목: 15년간 장병 무료이발 홍문표씨, 화순대대 ‘사랑의 가위손’ 선행  
날짜: 2015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610017377581  
본문: 15년 동안 장병들의 머리를 깎아준 ‘사랑의 가위손’이 있다. 전남 화순 능주면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는 홍문표(61)씨는 매주 화요일 육군 31사단 예하 화순대대를 방문해 무료로 장병들의 이발을 해주고 있다.<br/><br/> 홍씨는 지난 2000년 배에 복수가 차올라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span class='quot0'>만약 암을 낫게만 된다면 죽는 순간까지 봉사하며 살겠다</span>”고 다짐했다. 다행히 암 판정이 오전으로 밝혀졌고, 마침 이발관 단골이던 화순부대 간부로부터 ‘부대에 이발병이 부족하니 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주 부대를 방문하게 됐다. 홍씨는 또 유격 훈련과 혹한기 훈련 마지막 행군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장병들 앞에 나타나 떡과 어묵, 사탕 등 간식을 나눠준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 장병들도 모두 한창 젊은 시절에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span>”며 “<span class='quot0'>힘든 일을 겪어보니 세상을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 나누며 사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8.txt

제목: ‘삼시세끼’의 그 거북손에게 정말 미안하다  
날짜: 2015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610017373351  
본문: 거북손이라는 게 있다. 거북손과의 따개비류이다.<br/><br/>손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오봉이 나란히 서 있다. 바깥쪽 두 봉은 낮고 작으나 안쪽 두 봉은 크다. 황록색이다. 뿌리둘레는 껍질이 있다. 유자와 같으며 습하다. 살에도 붉은 뿌리와 검은 수염이 있다. 맛이 달다’고 나와 있다. 우리나라 바닷가 어디를 가나 갯바위 틈에 오밀조밀 붙어 있는, 마치 자그마한 산(山)처럼 생긴 녀석이다. 우리 마을에서는 보찰이라고 한다. 대감 감투라는 별칭도 있다. 감투처럼 생겼기 때문인데 거북손 이름도 거북이 발 모양이라 해서 붙은 것이다. <br/><br/><br/><br/>미안하다, 니 동료들에게도 전해주기 바란다<br/><br/>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웬만한 분들은 ‘아, 그 거북손’ 이러실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잘 알았지만 요즘은 통 모르는 게 제법 많은데 반대로 이렇게 몰랐던 것을 최근에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거북손처럼 먹는 거면 특히 그렇다. <br/><br/>나는 요즘 이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진심이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갯바위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대표나 위원장, 하다못해 이장 또는 반장도 안 뽑아놓았다. 그래서 사과하려면 우리나라 바닷가나 섬마을 모든 갯바위를 찾아다니며 해야 할 판이다. 그렇게 한다면 100년쯤 걸리지 않을까 싶다. 비타500이라도 사가야 한다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댈 것인가. <br/><br/>그래서 어제는 갯것(바닷가에서 이런저런 해초와 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갔다가 바위틈에 있는 애들 중 큰 놈 몇몇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니 동료들에게도 이 말을 전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고둥과 해삼만 몇 개 잡아왔다. 왜 갑자기 패류 따위에게 사과를 하지? 싶으실 것이다. 하지만 살다보면 발에 걸린 돌멩이에게 쌍욕을 하거나 느닷없이 수선화에게 사랑 고백도 하게 되며 재수 없으면 뜨물에 애가 서고 지렁이한테 귀두도 물린다는데 거북손에게 사과 정도 못하겠는가.<br/><br/>사과문을 쓰게 된 당장의 동기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한 아가씨 때문이다. 일전에 그녀가 거제도 쪽으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거북손을 먹었다며 문자를 해왔다.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먹었냐고 묻자 종이 봉지에 담아 팔더라는 답이 왔다. 예전 번데기나 다슬기처럼 말이다. 나는 약간 멍해졌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걸 이렇게 팔고 사먹고 있는 거지? <br/><br/>이리저리 물어보고 나서야 짐작이 되었다. 최근에 ‘삼식이 새끼’ 비슷한 발음의 프로그램을 보셨을 테다. 졸라 유명했다니까. 거기서 이것 먹는 장면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 덕에 유명세를 탔다는 것. 인터넷에서 보니 냉동 포장해서 택배로 판매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 호황의 근원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 <br/><br/>2010년 가을에 나는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라는 책을 냈다(그땐 이게 부제였다). 30가지 해산물(하나는 인어라서 해산물로 부르기 어색하지만)에 관련된 사람들 사연과 간단한 채취 방법, 요리법 같은 것을 써놓은 것이다. 설명은 여기서 스톱. 마치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 같으니까. <br/><br/>암튼 당시 방송에서는 ‘하루 자고 이틀’이란 이름의 코너가 잘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책이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 그 팀원들이 갑자기 만재도에 찾아간다. 가서 거북손을 삶아 먹는다. 나중에 들어보니 내 담당 에디터가 내 책을 그 방송팀에 보냈다는 것. <br/><br/>우연일 수도 있지만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다. 더군다나 그 책에는 자연산 돌김을 말려 팔고 있는 어떤 할머니를 배경으로 만재도가 나온다. 내 책에서 아이템을 얻은 방송작가가 연출을 맡고 있는 나아무개 PD에게 말하고 이거 그림 되겠다, 가보자, 했을 거라는 게 일단의 추측이다. <br/><br/><br/><br/>바닷가에서 노는 방식으로 알려주려 했던<br/><br/>추측이 맞는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북손에 대해 알기 시작했고 그 나아무개 PD가 방송국 옮긴 다음 다시 연예인들을 만재도로 보내 또 거북손을 등장시킴으로써 본격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유명해지면 죽는다는 명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자책 때문에 이렇게 사과문을 쓰고 있다. <br/><br/>물론 나도 채취해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책을 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닷가에 놀러갔을 때 그저 회나 사먹고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는 모습이 측은해서, 가족끼리 이런 것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다고 소개한 거였다. 바닷가에서 노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전국적 열풍이 일어나 택배로 받아먹으라는 게 아니었다. <br/><br/>문제는 거북손이 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한겨레21>을 보게 될 확률은 -3300%이다. 한 200만 년 지나 거북손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잡지를 읽는 조개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말이다(하다보니 참 턱도 없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br/><br/>사실 이런 쏠림 현상은 오래되었다. 일전에 쇠비름의 효능이 방송에 나온 모양이다. 이거 흔한 풀이다. 시골에서는 흔하고 별 소용 없는 풀을 싸잡아 지심이라고 한다. ‘지심매러 간다’ 하면 밭에 풀 뽑으러 간다는 소리다. 쇠비름은 지심이다. 그런데 좋다고 하자 잔뜩 뜯어먹고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도 있었단다. 쪽팔리는 짓도 참 다양하다. <br/><br/>우리 섬도 마찬가지다. 겨우살이가 좋다고 하니 시도 때도 없이 산을 타서 이제 구경조차 어렵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변의 이런 행태를 비난하지만 그 사람 집에 가면 예외 없이 겨우살이 담근 술 몇 병씩 있다. 오래전 어떤 박사가 비타민C를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1초라도 늦으면 큰일 날 것처럼 달려들어 약국에서 동이 나게 만든 것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br/><br/>그래서 우리끼리 말하곤 한다. 여름 수온이 올라가면 해파리가 잔뜩 불어난다. 어민들이 이놈들 때문에 죽어난다. 해파리를 없애는 방법은? TV에서 몸에 이롭다고 한 번만 나오면 된다. 적조 현상도 마찬가지다. 적조 바닷물을 조금씩 장복하면 만병이 사라지고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방송 타면 된다. 그러면 바닷물이 아주 맑아질 것이다. <br/><br/>남해 독일인 마을이 소개되자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어 그곳 교통이 마비된 적이 있다. 주민들 원성이 자자했단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불안한, 이른바 센터 콤플렉스. 예전에는 이런 거 종교가 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들어 말씀을 듣고 전했으며 그의 지시대로 동으로 가고 서로도 갔다. 경전을 얻어와 베끼기도 했다.<br/><br/><br/><br/>태래비전, 새로운 신의 등장 <br/><br/>지금은 새로운 신이 등장한 시대다. 이름 하여 怠來卑電(태래비전).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고 뭐가 몸에 좋다고 강설하면 우르르 달려가 ‘아작’을 내버린다. 그래서 거실 벽 중앙에 태래비전님을 모셔놓고 제사까지 그분께 지내는 것이다. 심지어 저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그분을 통해 남들이 노는 것을 구경한다. <br/><br/>신(神)은 터미널 앞 식당 메뉴처럼 많을수록 좋다고 칠조 박상륭 선생께서 말씀하신 바 있다. 인도에서는 신의 수가 자그마치 10억 명이나 된단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의 새로운 신도 갈수록 늘어 버튼만 누르면 새로운 존재들이 나와 가르침을 전한다. <br/><br/>그중 대표적인 게 먹을 것 관련이다. 이 채널에서 성인병 예방을 위해 과식을 금하고 운동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다음 채널에서는 이것 먹어봐라, 저것은 더 맛있다, 설파한다. 이른바 먹방이다. 언젠가 음식 관련 채널이 너무 많은 것을 한탄하자 모 방송국 PD는 이렇게 대답했다. “<span class='quot0'>먹는 거 하면 기본 시청률은 나오거든요.</span>” <br/><br/>이거 좀 심하다. 다큐멘터리 <트루맛쇼> 관련 자료를 보면 2010년 3월 셋쨋 주 지상파 TV에 나온 식당이 모두 177곳인데 1년 동안 그 추세가 계속됐다고 보면 1만여 곳이 ‘맛집’으로 전파를 탔다는 계산이다. 대한민국은 맛집 공화국이며, 그 집들은 모두 ‘최고’이고 ‘상상도 못한’ 맛을 끌어내며 ‘무뚝뚝하지만 인심은 좋은’ 사장님들이 운영한단다. <br/><br/>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정보에 의한 쏠림 현상. 이거 어떡할 것인가. 하이데거인지 야스퍼스인지 헷갈리지만 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100년 뒤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실제 누가 말했는지 알 게 뭔가. 그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br/><br/>지금은 몰골이 이 따위로 돼버렸지만 나는 20대 초반 음악감상실 DJ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종종 튼 곡 중 하나가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Epitaph)인데 그 노래 가사에 대략 이런 게 있다.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끔찍한 친구일 뿐이야.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운명은 바보들의 손에 달려 있게 되는 거지.’<br/><br/><br/><br/>많이 샀다니 이유가 있겠지 <br/><br/>당시는 막연한 관념적인 표현으로 보였는데 요즘 세태에 맞춰보면 살 떨릴 지경이다. 유명한 음식점에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흥행 1위 영화는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이 한 것은 뒤늦게라도 해야 안심되는 이들, 남 노는 것 구경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대로 따라 하는 족속들. 한 가지에서만 정보를 얻는 무지. 이게 바보 아니고 뭔가. <br/><br/>책도 그렇다.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만 찾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샀다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럼 나도’ 하지 말고 제발 직접 읽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내 책을 산다면 이 소리만큼은 안 할 텐데). 창의성은 고사하고 스스로 판단도 못한다면 국가와 사회가 통제하기 가장 좋은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 미디어에 의해 사육당하고 조종당하는 무기력한 존재들. <br/><br/>어쨌든 다시 거북손. <br/><br/>물론 나는 어릴 때부터 먹어왔다. 그러니까 이 글은 내가 하는 것은 되고 남이 하는 것은 나쁘다는, 못된 생각의 고백이기도 하다. 단지, 날름 받아만 먹지 말고 바닷가 놀러갔을 때 직접 해보라는 것뿐이다.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 그나저나 이거 읽고 사람들이 더 먹어 조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br/><br/>한창훈 소설가<br/><br/><br/><br/>▷ 한겨레21 기사 더보기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49.txt

제목: 공포탄 훈련때 실탄 발사돼 /작년에도 예비군 총기사고  
날짜: 20150522  
기자: 김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2100000037  
본문: 서울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다른 예비군훈련장에서도 총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포탄 훈련에서 실탄 탄두가 발사된 이 사건은 20여년 전 ‘세종대생 예비군 사망’ 같은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br/>　6년차 예비군 김병창(30)씨는 지난해 3월19일 경북 안동시 녹전면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예비군훈련에 참가했다. 훈련은 참가자 4명이 적군 역할을 맡은 김씨에게 암구호(암호)를 물어본 뒤 M16 소총으로 공포탄을 쏘는 내용이었다. 경계근무자 역할을 맡은 예비군이 총구를 겨눈 순간, 김씨는 왼쪽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총알이 스쳐간 자리에 피가 솟았다. 2㎝ 길이의 녹슨 탄두(사진)가 전투복을 뚫고 들어가 옷자락 안에서 발견됐다. 왼팔 뼈 골절과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다.<br/>　사고 뒤 김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홉달 동안 깁스를 했고, 두 번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사고 뒤 석 달이 지나도록 군으로부터 수사 내용과 보상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 김씨는 “군부대에 두 차례 민원을 넣은 뒤 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수사 설명회가 열렸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왜 탄두가 총에 남아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육군은 사고 뒤 1년이 더 지난 이달에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 휴업 보상금 13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br/>　육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과거 실탄 사격 과정에서 총기가 고장났는데 탄피만 제거하는 바람에 탄두가 총강(탄환이 통과하는 총열 내부)에 남아 있었다</span>”고 했다. 남아 있던 실탄 탄두가 공포탄의 압력에 밀려 발사됐다는 것이다. 육군은 총기 관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대대장·면대장에게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br/>　1994년에는 경기도 구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공포탄을 이용한 시가지전투 훈련을 하던 세종대생 장덕수(당시 23)씨가 실탄을 맞고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때도 총기에 남아 있던 실탄이 사고 원인이었다. 김씨는 “훈련 전에 ‘공포탄은 하늘을 향해 안전하게 발사하라’고 알려만 줬더라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br/>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0.txt

제목: 공포탄 훈련 때 실탄 발사돼…작년에도 예비군 총기 사고  
날짜: 2015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110017357603  
본문: 서울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다른 예비군훈련장에서도 총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포탄 훈련에서 실탄 탄두가 발사된 이 사건은 20여년 전 ‘세종대생 예비군 사망’ 같은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br/><br/> 6년차 예비군 김병창(30)씨는 지난해 3월19일 경북 안동시 녹전면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예비군훈련에 참가했다. 훈련은 참가자 4명이 적군 역할을 맡은 김씨에게 암구호(암호)를 물어본 뒤 M16 소총으로 공포탄을 쏘는 내용이었다. 경계근무자 역할을 맡은 예비군이 총구를 겨눈 순간, 김씨는 왼쪽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총알이 스쳐간 자리에 피가 솟았다. 2㎝ 길이의 녹슨 탄두가 전투복을 뚫고 들어가 옷자락 안에서 발견됐다. 왼팔 뼈 골절과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다.<br/><br/> 사고 뒤 김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홉달 동안 깁스를 했고, 두 번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사고 뒤 석 달이 지나도록 군으로부터 수사 내용과 보상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 김씨는 “군부대에 두 차례 민원을 넣은 뒤 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수사 설명회가 열렸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왜 탄두가 총에 남아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육군은 사고 뒤 1년이 더 지난 이달에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 휴업 보상금 13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br/><br/> 육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과거 실탄 사격 과정에서 총기가 고장났는데 탄피만 제거하는 바람에 탄두가 총강(탄환이 통과하는 총열 내부)에 남아 있었다</span>”고 했다. 남아 있던 실탄 탄두가 공포탄의 압력에 밀려 발사됐다는 것이다. 육군은 총기 관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대대장·면대장에게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br/><br/> 1994년에는 경기도 구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공포탄을 이용한 시가지전투 훈련을 하던 세종대생 장덕수(당시 23)씨가 실탄을 맞고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때도 총기에 남아 있던 실탄이 사고 원인이었다. 김씨는 “훈련 전에 ‘공포탄은 하늘을 향해 안전하게 발사하라’고 알려만 줬더라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br/><br/>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1.txt

제목: 피부암, 백인만? 우리나라도 급증 추세  
날짜: 201505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0100000061  
본문: 주로 백인들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피부암 환자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새로 피부암에 걸린 환자는 14% 증가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자외선 노출이 잦은 얼굴·목·팔 등에서 피부암 발생 빈도가 높다. 대한피부과학회는 갑자기 없던 점이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점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질 경우 한번쯤 피부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br/>　피부암 진료 환자 4년새 44% 급증<br/> 2009년 6739명이던 피부암 환자는 4년 새 13.9%(938명)가 늘어 2013년엔 767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피부암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2009년 1만980명에서 2013년 1만5826명) 44% 증가했다. 특히 피부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악성흑색종 환자는 2009년 2819명에서 2013년 3761명으로 33.4%나 늘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3명이 악성흑색종에, 12명은 기저세포암 등 다른 피부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준영 피부과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은 “눈으로 봐서는 보통의 점과 피부암을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얼굴·목·팔 등 자외선에 노출되는 피부라면 어디든지 피부암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갑자기 점이 생기거나 있던 점의 형태와 크기에 변화가 있다면 한번쯤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br/>　50대 이상, 여성에서 악성흑색종 많아 <br/>악성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내는 멜라닌 색소 세포가 암세포로 변성돼 생기는 피부암이다. 전이가 잘되는데, 뇌와 척수로 전이되면 사망 가능성이 커진다. 악성흑색종 환자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3년 기준 40대는 5.1%에 그치지만, 50대는 13.9%, 60대는 24.8%, 70대 이상은 37.4%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55%)가 남성보다 근소하게 많다.<br/>　악성흑색종은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고 평범한 검은 반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암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40대 이상에서 검은 점이 새로 나타나거나, 이미 있었던 검은 점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변하면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원래 있던 점 근처에 새로이 작은 점들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손발에 이런 점이 나타나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br/>　피부암 전단계인 광선각화증도 조기 치료해야 <br/> 광선각화증은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생기는 증상으로 피부암에 앞서 나타나는 질환 가운데 하나다. 광선각화증 환자 수 역시 2009년 6547명에서 2013년 1만1522명으로 4년 새 76%나 급증했다. 광선각화증도 피부암처럼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 대부분 습진처럼 보여서다. 이석종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경북대의대 피부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광선각화증도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피부암의 80%는 햇빛 차단으로 예방 가능<br/> 피부암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어떤 인종이든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피부암의 80%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햇빛이 강해지는 봄부터 외출 전에는 양산이나, 모자, 긴 옷 그리고 선글라스 등을 준비해 가능한 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햇빛을 차단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오후 4시에는 되도록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br/>　구름이 낀 날에는 자외선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구름은 기온을 낮춰 주기는 하지만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까지는 막지 못한다. 또 햇빛은 물이나 모래, 콘크리트, 눈 등에 반사되며, 이런 반사광 때문에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어린이는 되도록 그늘에서 놀도록 하고, 자외선차단제를 2~3시간마다 정기적으로 발라줘야 한다. 하지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이는 자외선차단제도 쓰지 않는 게 좋다. 대신 그늘에 두고 천 등으로 자외선을 가려주는 게 낫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2.txt

제목: 무서운 언니들, 공룡도 잡을까  
날짜: 20150520  
기자: 유선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0100000089  
본문: ‘누가 할리우드 클래식 시리즈의 흥행 질주를 견제할 것인가?’<br/>　600만명을 동원한 ‘비(B)급 스파이 영화’ 부터 ‘1000만 클럽’에 가입한 까지 상반기 한국 영화계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1~5월 개봉한 한국 영화 흥행 톱10의 관객수는 178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로 관객이 크게 줄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톱10 관객 2351만명보다도 25%나 줄었다. ‘할리우드 클래식 시리즈’가 속속 개봉할 예정이기에,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충무로에서는 지난 4년 연속 외화를 압도했던 한국 영화 점유율이 올해는 50%를 밑돌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맞설 한국 영화의 무기는 무엇일까?<br/>　■ ‘할리우드 클래식 시리즈’의 향연 외화는 지난 14일 개봉한 가 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1979년 개봉한 멜 깁슨 주연의 1편, (1980), (1985) 이후 30년 만이다. 조지 밀러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고 톰 하디가 주연을 맡은 4편은 ‘아날로그 액션의 진수’로 불리며, 개봉 첫 주말 80만명을 끌어모았다. <br/>　다음달 11일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총괄을 맡은 가 돌아온다. ‘쥬라기 공원’이 문을 닫은 지 22년,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쥬라기 월드’의 하이브리드 공룡이 높은 지능과 공격성으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공원’(1993)에서 ‘월드’로 리부트 된 만큼 스펙터클의 강도도 더 세졌다는 평가다. 7월2일에는 가 개봉한다.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과 용광로에 빠지고 폭탄에 맞아도 죽지 않는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있는 한 이야기는 계속된다. 리부트 3부작 중 1편인 이번 영화에는 배우 이병헌이 액체 로봇 T-1000으로 출연한다. 이미 공개된 티저와 스틸 사진으로 화끈한 볼거리를 예고한 도 7월30일 개봉한다. 에단 헌트(톰 크루즈)와 팀원들이 그들을 파괴하려는 국제적인 테러 조직에 맞서는 과정을 담았다. 이 밖에 첩보물의 바이블 ‘007’의 24번째 시리즈 , 의 새로운 에피소드인 도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br/>　■ 충무로에 ‘무서운 언니들’이 떴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대항하는 한국 영화의 첫번째 무기는 ‘언니 파워’다. 에 맞서 선전하며 140만 관객을 동원한 의 김혜수를 필두로 전도연·임수정·엄지원·엄정화 등 ‘충무로 여제들’이 속속 귀환한다. <br/>　전도연은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진출한 (27일 개봉)으로 복귀한다. 살인자인 남자친구를 잡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나타난 경찰(김남길)과 사랑에 빠지는 변두리 룸살롱 마담 역을 맡아 ‘농익은 연기’를 펼친다. 그는 또 , 공유와 함께 출연하는 정통멜로 등을 통해 올해 잇따라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br/>　임수정은 이후 2년 만에 (6월4일)으로 스크린 나들이를 한다. 인생을 뒤바꿀 제안을 받는 여자의 이야기로, 카트린 아를레의 를 원작으로 한 범죄 멜로물이다. 엄지원은 후배 여배우 박보영과 함께 로 돌아온다. 1938년 경성의 기숙학교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담은 공포영화다. 엄정화는 명품족 싱글 변호사에서 교통사고 이후 한달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살게 된 여자의 좌충우돌기를 다룬 코믹물 로 복귀한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0'>최근 몇 년 여배우 기근 현상이 심각했는데, 올해엔 여배우들의 활약이 충무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　■ ‘돌아온 명장들’ 제 몫을 할까? ‘흥행 감독’의 복귀도 희소식이다. 먼저 의 곽경택 감독이 만든 (6월18일)가 포문을 연다. 197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실화 유괴사건을 바탕으로, 사주로 아이를 찾겠다고 나선 형사와 도사가 벌이는 33일간의 추적기를 담는다. 김윤석·유해진이 주연을 맡았다. <br/>　여름 성수기인 7~8월엔 의 최동훈 감독이 만든 과 의 류승완 감독 신작 이 찾아온다. 180억 규모의 블록버스터 은 최 감독의 장기인 케이퍼 무비(범죄 모의·실행)에 1930년대 독립운동사를 접목시킨 작품이다. 하정우·전지현·오달수·조진웅 등 최강 캐스팅을 자랑한다. 순제작비 60억 규모의 은 황정민·유아인 주연으로,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때려잡는 형사들의 이야기다. 씨제이이앤엠 쪽은 “류 감독 특유의 액션이 제대로 살아난 영화로, 비주얼과 스토리 면에서 모두 통쾌함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br/>　추석 즈음엔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사극 가 찾아온다. 쇼박스 최근하 홍보팀장은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왕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였던 ‘영조’의 드라마틱힌 이야기”라며 “송강호씨가 영조 역에 강한 의지를 보여 캐스팅됐다. 사극에 강한 이준익 감독의 면모도 잘 살아난 작품”이라고 자랑했다. <br/>　연말엔 100억 규모의 대작 가 기다린다. 의 이석훈 감독 작품이다. 본격 산악영화를 표방한 블록버스터로, 산악 대원들 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우정을 담았다. 제작진은 엄홍길 대장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는데, 히말라야와 알프스 몽블랑 등 배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함에 감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3.txt

제목: 타살의 조력자들  
날짜: 20150520  
기자: 곽병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20100000086  
본문: 대법원이 유서대필에 대해 무죄 선고하던 날, 강기훈은 재판정에 나오지 못했다. 그는 어딘가에서 시시각각 찾아오는 죽음과 힘들게 싸우고 있었다. 유서대필이라는 기상천외의 조작 사건은 그의 영혼을 갈가리 찢어놓았고, 악성 종양까지 불러들여 몸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24년 동안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타살되고 있었다.<br/>　이제 와 결백이 드러나고 반인륜 패륜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일까. 저 처절한 말기암의 고통을 손톱만큼이나 줄일 수 있을까. 자살을 조종당한 것으로 조작된 고 김기설씨도 마찬가지다. 지난 24년 그의 의분은 개죽음으로 외면당했고, 그는 패륜 집단의 하수인이라는 낙인 속에서 지워져야 했다.<br/>　반면 유서대필 조작을 통해 정권은 그 야만적 폭력과 인권유린, 음흉한 거짓과 사기를 묻어버렸다. 사건의 인화점이었던 1991년 4월 백주대낮에 도로에서 경찰특공대 백골단이 강경대씨를 쇠파이프로 두들겨패 죽인 사건도 묻어버렸다. 대학생 강씨의 꿈과 열정도 휴지 조각처럼 구겨 버릴 수 있었고, 유족들의 참담한 고통도 간단히 치워버릴 수 있었다. 도대체 무죄 확정이 고통만 남은 그들의 삶에 무엇을 보상할 수 있을까.<br/>　강씨가 무참하게 타살된 뒤 전남대 박승희씨를 시작으로 안동대 김영균씨, 경원대 천세용씨가 분신했다. 공권력의 살인은 박종철씨에 대한 고문살해, 이한열씨에 대한 최루탄 피살이 일어났던 1987년 이전으로의 회귀를 알리는 것이었고, 그것은 6월 민주항쟁에 대한 타살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잇따른 분신과 투신은 그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었다. 그것을 반인륜 집단의 기획자살로 몰아가는 데 물꼬를 튼 것은 적지 않은 그 타살의 조력자들이었다.<br/>　김지하씨는 죽음이 있고 난 뒤 기고문을 통해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호통을 쳤다.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인간 생명을 제물로 삼아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졸지에 정권의 폭력에 대한 싸움은 죽음의 굿판이 되었고, 희생자들은 기획된 제물이 되었고, 재야 인사들은 죽음의 기획자가 되었다. 병색이 완연한 글 한 편이 그들의 진정성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불과 4년 전 전두환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박정희로부터 이어져온 폭력의 시대에 일단락을 지었던 6·10항쟁과 시민들의 헌신을 정권이 타살하는 빌미가 되기엔 충분했다. <br/><br/>▶5면으로 이어짐<br/>▶1면에서 이어짐<br/><br/>김씨의 글에 용기백배했던 정권은 5월8일 김기설씨가 투신하자, 이른바 “조직적 배후세력”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했다. 6월항쟁의 타살에 대해 절망한 이들의 죽음을 그들은 죽음의 기획자가 조종한 정치적 사건으로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서대필 조작은 그렇게 김씨의 붓끝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덮어씌운 ‘시체 장사’라는 매도 역시 그 연원을 따지면 이 조작 사건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br/>　이 글을 게재했던 신문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진실은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투로 사설에서 썼다. 무슨 말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뒤틀고 빈정거리는 것만은 분명했다. 대법원은 23년 만에 저희들 판결은 뒤집었지만, 이렇게 저 조력자들의 후안무치를 바꿀 순 없었다. 하긴 저희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데, 주범인 검찰과 그 조력자들 누가 참회할 것인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 조력자들의 빈정거림만 들릴 뿐.<br/>　유서대필 조작은 언제든 무엇이든 조작될 수 있다는 대중적 기만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었다. 23년이 지난 지금, 누가 거짓말을 잘하는가의 게임으로 바뀐 정치는 그 결과였다. 믿게끔 거짓말만 하면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권력도 쥘 수 있고, 거짓말만 잘하면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남용, 국정 농단, 권력의 집단적 부패도 용인되는 세상이 되었다. 거짓말에 능숙하면 유능이 되고, 거짓말에 미숙하면 무능이 되었으며 원칙에 충실하면 바보가 되고, 변칙에 충실하면 현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권력이건 매체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었고, 정치는 쇼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별은 빛난다는 진술은 거짓이 되었고, 진실은 승리한다고 진술하는 자는 바보가 되었다.<br/>　그러다 보니 세월호 참사를 두고는 온갖 거짓말 경연이 펼쳐졌다. 공적 연금 개혁 논란은 숫자 조작으로 점철됐다. 선거부정은 거짓말의 유무능에 의해 정치적 유무죄가 판결났다. 진실은 언제 어디서나 거짓에 의해 타살을 당했다. 그나마 이 나라의 작은 자존심이었던 부산영화제마저, 그 얄팍한 거짓말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br/>　조력자는 그들만이 아니었다. 야당 정치인들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당이 집권을 포기하고, 정치인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순간 야당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집권 의지를 가질 때 견제도 가능하고, 감시도 가능하고, 정책 대안의 생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의 야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집권 의지를 포기했다. 생존 본능, 공천받아 다시 재선하는 것에만 몰두한다. 이들이 동원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자멸을 재촉하는 거짓말. 그사이 유서대필을 포함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과 생명, 진실과 희망의 타살은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다. 그들 또한 타살의 조력자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4.txt

제목: 피부암, 백인만? 우리나라도 급증 추세  
날짜: 2015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1910017339862  
본문: 주로 백인들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피부암 환자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새로 피부암에 걸린 환자는 14% 증가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자외선 노출이 잦은 얼굴·목·팔 등에서 피부암 발생 빈도가 높다. 대한피부과학회는 갑자기 없던 점이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점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질 경우 한번쯤 피부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br/><br/> 피부암 진료 환자 4년새 44% 급증<br/><br/> 2009년 6739명이던 피부암 환자는 4년 새 13.9%(938명)가 늘어 2013년엔 767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피부암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2009년 1만980명에서 2013년 1만5826명) 44% 증가했다. 특히 피부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악성흑색종 환자는 2009년 2819명에서 2013년 3761명으로 33.4%나 늘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3명이 악성흑색종에, 12명은 기저세포암 등 다른 피부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준영 피부과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은 “눈으로 봐서는 보통의 점과 피부암을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얼굴·목·팔 등 자외선에 노출되는 피부라면 어디든지 피부암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갑자기 점이 생기거나 있던 점의 형태와 크기에 변화가 있다면 한번쯤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br/><br/> 50대 이상, 여성에서 악성흑색종 많아 <br/><br/>악성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내는 멜라닌 색소 세포가 암세포로 변성돼 생기는 피부암이다. 전이가 잘되는데, 뇌와 척수로 전이되면 사망 가능성이 커진다. 악성흑색종 환자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3년 기준 40대는 5.1%에 그치지만, 50대는 13.9%, 60대는 24.8%, 70대 이상은 37.4%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55%)가 남성보다 근소하게 많다.<br/><br/> 악성흑색종은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고 평범한 검은 반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암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40대 이상에서 검은 점이 새로 나타나거나, 이미 있었던 검은 점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변하면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원래 있던 점 근처에 새로이 작은 점들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손발에 이런 점이 나타나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br/><br/> 피부암 전단계인 광선각화증도 조기 치료해야 <br/><br/> 광선각화증은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생기는 증상으로 피부암에 앞서 나타나는 질환 가운데 하나다. 광선각화증 환자 수 역시 2009년 6547명에서 2013년 1만1522명으로 4년 새 76%나 급증했다. 광선각화증도 피부암처럼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 대부분 습진처럼 보여서다. 이석종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경북대의대 피부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피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광선각화증도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피부암의 80%는 햇빛 차단으로 예방 가능<br/><br/> 피부암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어떤 인종이든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피부암의 80%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햇빛이 강해지는 봄부터 외출 전에는 양산이나, 모자, 긴 옷 그리고 선글라스 등을 준비해 가능한 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햇빛을 차단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오후 4시에는 되도록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br/><br/> 구름이 낀 날에는 자외선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구름은 기온을 낮춰 주기는 하지만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까지는 막지 못한다. 또 햇빛은 물이나 모래, 콘크리트, 눈 등에 반사되며, 이런 반사광 때문에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어린이는 되도록 그늘에서 놀도록 하고, 자외선차단제를 2~3시간마다 정기적으로 발라줘야 한다. 하지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이는 자외선차단제도 쓰지 않는 게 좋다. 대신 그늘에 두고 천 등으로 자외선을 가려주는 게 낫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5.txt

제목: 무서운 언니들, 공룡도 잡을까  
날짜: 2015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1910017333177  
본문: ‘누가 할리우드 클래식 시리즈의 흥행 질주를 견제할 것인가?’<br/><br/> 600만명을 동원한 ‘비(B)급 스파이 영화’<킹스맨>부터 ‘1000만 클럽’에 가입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까지 상반기 한국 영화계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1~5월 개봉한 한국 영화 흥행 톱10의 관객수는 178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로 관객이 크게 줄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톱10 관객 2351만명보다도 25%나 줄었다. ‘할리우드 클래식 시리즈’가 속속 개봉할 예정이기에,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충무로에서는 지난 4년 연속 외화를 압도했던 한국영화 점유율이 올해는 50%를 밑돌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맞설 한국 영화의 무기는 무엇일까?<br/><br/>20년 만에 돌아온 쥬라기월드 <br/>터미네이터·미션 임파서블 등 <br/>할리우드 클래식 시리즈 개봉<br/><br/>한국 영화 점유율 위기감 속 <br/>충무로 여제들 연달아 귀환 <br/>곽경택·최동훈 감독도 지원사격<br/><br/> ■ ‘할리우드 클래식 시리즈’의 향연 <br/><br/> 외화는 지난 14일 개봉한 <매드맥스4: 분노의 도로>가 <어벤져스>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1979년 개봉한 멜 깁슨 주연의 1편, <매드맥스2: 워리어>(1980), <매드맥스3: 썬더돔>(1985) 이후 30년 만이다. 조지 밀러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고 톰 하디가 주연을 맡은 4편은 ‘아날로그 액션의 진수’로 불리며, 개봉 첫 주말 80만명을 끌어 모았다. <br/><br/> 다음달 11일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총괄을 맡은 <쥬라기 월드>가 돌아온다. ‘쥬라기 공원’이 문을 닫은 지 22년,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쥬라기 월드’의 하이브리드 공룡이 높은 지능과 공격성으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공원’(1993)에서 ‘월드’로 리부트 된 만큼 스펙터클의 강도도 더 세졌다는 평가다. 7월2일에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가 개봉한다.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과 용광로에 빠지고 폭탄에 맞아도 죽지 않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있는 한 이야기는 계속된다. 리부트 3부작 중 1편인 이번 영화에는 배우 이병헌이 액체 로봇 T-1000으로 출연한다. 이미 공개된 티저와 스틸 사진으로 화끈한 볼거리를 예고한 <미션 임파서블5: 로그네이션>도 7월30일 개봉한다. 에단 헌트(톰 크루즈)와 팀원들이 그들을 파괴하려는 국제적인 테러 조직에 맞서는 과정을 담았다. 이 밖에 첩보물의 바이블 ‘007’의 24번째 시리즈 <007 스펙터>, <스타워즈>의 새로운 에피소드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도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br/><br/> ■ 충무로에 ‘무서운 언니들’이 떴다 <br/><br/>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대항하는 한국 영화의 첫 번째 무기는 ‘언니 파워’다. <어벤져스>에 맞서 선전하며 140만 관객을 동원한 <차이나타운>의 김혜수를 필두로 전도연·임수정·엄지원·엄정화 등 ‘충무로 여제들’이 속속 귀환한다. <br/><br/> 전도연은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진출한 <무뢰한>(27일 개봉)으로 복귀한다. 살인자인 남자친구를 잡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나타난 경찰(김남길)과 사랑에 빠지는 변두리 룸살롱 마담 역할을 맡아 ‘농익은 연기’를 펼친다. 그는 또 <협녀: 칼의 기억>, 공유와 함께 출연하는 정통멜로 <남과 여> 등을 통해 올해 잇따라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br/><br/> 임수정은 <내 아내의 모든 것> 이후 2년 만에 <은밀한 유혹>(6월4일)으로 스크린 나들이를 한다. 인생을 뒤바꿀 제안을 받는 여자의 이야기로, 카틀린 아를레의 <지푸라기 여자>를 원작으로 한 범죄 멜로물이다. 엄지원은 후배 여배우 박보영과 함께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로 돌아온다. 1938년 경성의 기숙학교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담은 공포영화다. 엄정화는 명품족 싱글 변호사에서 교통사고 이후 한 달동안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살게 된 여자의 좌충우돌기를 다룬 코믹물 <미쓰 와이프>로 복귀한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0'>최근 몇 년 여배우 기근 현상이 심각했는데, 올해엔 여배우들의 활약이 충무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br/> ■ ‘돌아온 명장들’ 제 몫을 할까? <br/><br/> ‘흥행 감독’의 복귀도 희소식이다. 먼저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만든 <극비수사>(6월18일)가 포문을 연다. 197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실화 유괴사건을 바탕으로, 사주로 아이를 찾겠다고 나선 형사와 도사가 벌이는 33일간의 추적기를 담는다. 김윤석·유해진이 주연을 맡았다. <br/><br/> 여름 성수기인 7~8월엔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이 만든 <암살>과 <베를린>의 류승완 감독 신작 <베테랑>이 찾아온다. 180억 규모의 블록버스터 <암살>은 최 감독의 장기인 케이퍼 무비(범죄 모의·실행)에 1930년대 독립운동사를 접목시킨 작품이다. 하정우·전지현·오달수·조진웅 등 최강 캐스팅을 자랑한다. 순제작비 60억 규모의 <베테랑>은 황정민·유아인 주연으로,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때려잡는 형사들의 이야기다. 씨제이이엔엠 쪽은 “류 감독 특유의 액션이 제대로 살아난 영화로, 비주얼과 스토리 면에서 모두 통쾌함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br/><br/> 추석 즈음엔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사극 <사도>가 찾아온다. 쇼박스 최근하 홍보팀장은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왕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였던 ‘영조’의 드라마틱힌 이야기”라며 “송강호씨가 영조 역에 강한 의지를 보여 캐스팅 됐다. 사극에 강한 이준익 감독의 면모도 잘 살아난 작품”이라고 자랑했다. <br/><br/> 연말엔 100억 규모의 대작 <히말라야>가 기다린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댄싱퀸>의 이석훈 감독 작품이다. 본격 산악영화를 표방한 블록버스터로, 산악 대원들 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우정을 담았다. 제작진은 엄홍길 대장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는데, 히말라야와 알프스 몽블랑 등 배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함에 감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br/><br/>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6.txt

제목: 가깝고도 먼 부모·자녀…TV, 소통의 문을 열다  
날짜: 2015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1910017333524  
본문: 아이와 소통을 잘하기는 쉽지 않다. <10대와의 공감과 소통의 결정적 한마디>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 상위 1%를 만든다> 등 자녀와의 대화법이 책으로 나올 정도다. 부모가 먼저 화를 다스리고 아이와의 소통 방식을 공부해야 하는 등 어른이 나서야 할 게 많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절반 이상이 하루에 부모와 채 1시간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br/><br/> 텔레비전이 소통의 창구로 나섰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br/><br/>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스비에스 토 저녁 8시45분·이하 <동상이몽>)가 대표적이다. 10대 자녀와 부모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온다. 자녀와 부모 입장에서 각각 촬영한 영상물을 보면서 속마음을 들어보고, 패널들과 얘기를 나누는 식이다. 욕을 섞어 말하는 아이 때문에 속상한 부모, 살을 빼라며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엄마가 이해 안되는 딸 등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고민할 법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갈등이 등장한다. <br/><br/> 각자의 입장만 생각했지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곱씹어 보지 않았던 부모와 자녀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결과 갈등의 절반은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일부 사례는 학교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에스비에스>에 따르면 일부 고교의 반에선 이 프로그램에 나온 욕으로 고민하는 10대의 이야기를 시청한 뒤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br/><br/> 교양 프로그램 <이비에스(EBS) 리얼극장>(화 밤 10시45분)은 부모와 자녀가 치유 여행으로 소통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담는다. 성전환 수술로 아들에서 딸이 된 자녀를 둔 아버지, 딸이 무당이 된 것도 가슴 아픈데 암에 걸리자 억장이 무너지는 엄마 등 어떤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가 솔직하게 그려진다. 특히 4월 28일 방송한 ‘내 딸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입니다’ 편은 화제가 됐다. 딸이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수치스러워 딸과의 외출조차 꺼렸던 아버지의 이야기는 같은 경험을 겪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솔직한 민얼굴이었다. <br/><br/> <고교 10대 천왕>(티브이엔 수 밤 11시)은 10대들이 패널로 출연해 취업, 집값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는 토크쇼다. 마냥 어리게만 봤던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등 10대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돕는다. <엄마가 보고 있다>(제이티비시 토 밤 11시)는 엄마들이 관찰카메라로 자녀의 하루를 지켜보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br/><br/> 기존에도 <붕어빵>(에스비에스) 등 부모와 자녀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오롯이 그들의 소통과 화해에 주목한 경우는 드물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거의 없는 현실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반영됐다. 부모 자식이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가 가족의 따뜻함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상이몽>의 가장 최근 방송 시청률이 6.3%(닐슨코리아 집계)로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청률이 높지 않다. 그러나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더 쉽게 상처를 주는 존재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춰왔던 속마음을 듣고 소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마치 내 이야기 같다’는 공감이 크다. <br/><br/>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사진 각 방송사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7.txt

제목: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대량 처리  
날짜: 20150514  
기자: 김영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14100000075  
본문: 반환을 앞두고 있는 인천 부평미군기지 안에서 1980년대 말 맹독성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 등을 다량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br/>　인천녹색연합은 1991년 미공병단 내 건설연구소가 외부 용역을 통해 펴낸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 최소화 방안’을 13일 공개했다. 미군은 1987~89년 3년 동안 부평미군기지 안 폐기물처리장(DRMO)에서 폴리염화비페닐 448드럼(9만ℓ)을 비롯해, 수은폐기물 10파운드, 석면 2580파운드, 배터리산 118캔, 솔벤트슬러지 82드럼, 하이포솔루션 77드럼 등 맹독성 물질을 처리했다고 기록돼 있다. 부평미군기지 안 폐기물처리장은 4년 전 폐쇄될 때까지 60년 넘게 미군부대에서 나온 특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br/>　폴리염화비페닐은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태계에 잔류하는 유기오염물질이다. 신경계 손상, 돌연변이 유발뿐 아니라 피부와 뇌, 췌장 등에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장석구 인천녹색연합 집행위원장은 “<span class='quot0'>반환된 미군기지에서 기름과 중금속 오염이 논란이 됐는데, 맹독성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이 기지 내에서 처리됐다는 기록은 처음</span>”이라고 말했다.<br/>　폴리염화비페닐을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실제로 부평미군기지 주변 다이옥신 수치가 전국 공단의 평균치보다 무려 24배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r/>　인천 부평구의 2012년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조사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전국 공단 평균치보다 24배 높게 나왔고, 표토뿐 아니라 심토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지난해 2월 환경부 2차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미군기지 반환기지와 사용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미군에 책임이 있다.<br/>　장 위원장은 “부평미군기지는 다이옥신과 폴리염화비페닐, 석면, 수은 등 치명적인 인체 위해 물질들로 매우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됐다. 불평등하다고 평가받는 소파 협정을 적용하더라도 부평기지 오염 정화의 책임은 분명히 미군에 있다”며 “기지 반환에 앞서 한-미 양국은 물론 민관 합동의 철저한 조사와 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8.txt

제목: “사망률 높고 치료비 많이 드는 심부전 대비해야”  
날짜: 20150513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13100000074  
본문: 노인의 가장 흔한 입원 원인 가운데 하나인 심부전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심부전은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해 충분한 양의 혈액을 몸속 장기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입원 뒤에도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이다.<br/>　유럽 등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심부전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약 2600만명이 심부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심부전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5년 뒤인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빨라 앞으로 심부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동주 대한심부전연구회 정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은 지난 10일 유럽심장학회가 정한 ‘심부전 인식 제고의 날’을 맞아 “<span class='quot0'>국내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 노인 질환인 심부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 대비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　심부전이 심각한 질환인 이유는 사망률이 높은 것과 함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점이 꼽힌다. 우선 심부전은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등 여러 심장 관련 질환이 진행되면서 생긴다.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인데, 처음에는 운동을 하는 등 움직일 때 나타나지만 악화되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 깨기도 하고 가만히 숨을 쉬고 있을 때에도 숨이 가빠진다. 아울러 몸이 붓거나 심한 피로감 등과 같은 증상도 나타난다. 이러다 보니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의 6.4%가 입원 중에 사망하고, 진단 1년 뒤 사망률은 15%, 4년 뒤 사망률은 30%에 이른다는 국내 조사 결과도 있다. 폐암을 뺀 대부분의 암보다 더 높은 사망률이다.<br/>　치료비도 많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심부전으로 입원하면 평균 77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가 가장 높은 암 가운데 하나인 폐암의 평균 입원 비용 216만원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심부전 환자 10명 가운데 3~4명꼴(37.4%)로 1년 안에 재입원한다. 최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심부전은 암보다 환자들의 예후가 나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span>”고 지적했다.<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59.txt

제목: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대량 처리  
날짜: 2015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1310017276064  
본문: 반환을 앞두고 있는 인천 부평미군기지 안에서 1980년대 말 맹독성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 등을 다량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br/><br/> 인천녹색연합은 1991년 미공병단 내 건설연구소가 외부 용역을 통해 펴낸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 최소화 방안’을 13일 공개했다. 미군은 1987~89년 3년 동안 부평미군기지 안 폐기물처리장(DRMO)에서 폴리염화비페닐 448드럼(9만ℓ)을 비롯해, 수은폐기물 10파운드, 석면 2580파운드, 배터리산 118캔, 솔벤트슬러지 82드럼, 하이포솔루션 77드럼 등 맹독성 물질을 처리했다고 기록돼 있다. 부평미군기지 안 폐기물처리장은 4년 전 폐쇄될 때까지 60년 넘게 미군부대에서 나온 특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br/><br/> 폴리염화비페닐은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태계에 잔류하는 유기오염물질이다. 신경계 손상, 돌연변이 유발뿐 아니라 피부와 뇌, 췌장 등에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장석구 인천녹색연합 집행위원장은 “<span class='quot0'>반환된 미군기지에서 기름과 중금속 오염이 논란이 됐는데, 맹독성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이 기지 내에서 처리됐다는 기록은 처음</span>”이라고 말했다.<br/><br/> 폴리염화비페닐을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실제로 부평미군기지 주변 다이옥신 수치가 전국 공단의 평균치보다 무려 24배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r/><br/> 인천 부평구의 2012년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조사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전국 공단 평균치보다 24배 높게 나왔고, 표토뿐 아니라 심토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지난해 2월 환경부 2차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미군기지 반환기지와 사용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미군에 책임이 있다.<br/><br/> 장 위원장은 “부평미군기지는 다이옥신과 폴리염화비페닐, 석면, 수은 등 치명적인 인체 위해 물질들로 매우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됐다. 불평등하다고 평가받는 소파 협정을 적용하더라도 부평기지 오염 정화의 책임은 분명히 미군에 있다”며 “기지 반환에 앞서 한-미 양국은 물론 민관 합동의 철저한 조사와 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0.txt

제목: “사망률 높고 치료비 많이 드는 심부전 대비해야”  
날짜: 2015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1210017261337  
본문: 노인의 가장 흔한 입원 원인 가운데 하나인 심부전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심부전은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해 충분한 양의 혈액을 몸속 장기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입원 뒤에도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이다.<br/><br/> 유럽 등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심부전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약 2600만명이 심부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심부전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5년 뒤인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빨라 앞으로 심부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동주 분당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지난 10일 유럽심장학회가 정한 ‘심부전 인식 제고의 날’을 맞아 “<span class='quot0'>국내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 노인 질환인 심부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 대비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 심부전이 심각한 질환인 이유는 사망률이 높은 것과 함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점이 꼽힌다. 우선 심부전은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등 여러 심장 관련 질환이 진행되면서 생긴다.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인데, 처음에는 운동을 하는 등 움직일 때 나타나지만 악화되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 깨기도 하고 가만히 숨을 쉬고 있을 때에도 숨이 가빠진다. 아울러 몸이 붓거나 심한 피로감 등과 같은 증상도 나타난다. 이러다 보니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의 6.4%가 입원 중에 사망하고, 진단 1년 뒤 사망률은 15%, 4년 뒤 사망률은 30%에 이른다는 국내 조사 결과도 있다. 폐암을 뺀 대부분의 암보다 더 높은 사망률이다.<br/><br/> 치료비도 많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심부전으로 입원하면 평균 77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가 가장 높은 암 가운데 하나인 폐암의 평균 입원 비용 216만원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심부전 환자 10명 가운데 3~4명꼴(37.4%)로 1년 안에 재입원한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1'>심부전은 암보다 환자들의 예후가 나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span>”고 지적했다.<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1.txt

제목: [한 장의 지식] 데드암  
날짜: 2015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1210017256310  
본문: 뉴스와 이슈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들이 이해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겨레>는 중요한 이슈에 담긴 핵심 지식을 하나씩 꺼내 그 지식의 개념을 그래픽 한 장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한 장의 지식’을 디지털에서 연재합니다. ■ 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br/><br/>• 류현진이 ‘데드 암’이라고? 근거는 없고 추측만 난무한다 <br/>http://www.hani.co.kr/arti/sports/baseball/690627.html<br/><br/>• [일문일답] 류현진 “멈췄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br/>http://sports.mk.co.kr/view.php?no=451091&year=2015<br/><br/> <br/><br/><br/>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2.txt

제목: 러브모텔 축제 어떻습니까, 중계 곁들인…  
날짜: 2015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1210017257654  
본문: 먼저 ‘산다이’가 도대체 뭔 소린가 하시겠다. 뜬금없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말이지. 아무 설명 안 하면 ‘남쪽 바다 먼 섬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소리를 전라도 사투리로 한 거겠지’ 싶으실 것이다. 은근슬쩍 그런 의도도 있기는 하다. 거기에다, 어쨌든 살아간다는 뜻도 슬그머니 끼어 있다. 유용주의 산문집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식으로.<br/><br/> <br/><br/>저것들이 왜 며칠에 한 번씩 저럴까<br/><br/><br/><br/>물론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전부라면 안 죽었다는 소리밖에 더 되겠는가. 손가락 자유로운 자, ‘산다이’를 검색해보시길 권한다. 뜻밖의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 이 용어는 전라남도 섬 지방에서 ‘여흥’ ‘축제’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다. 그러니까 또래들끼리 어울려 한바탕 신나게 논다는 말로 내가 살고 있는 거문도에서도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다. 근데 이 단어, 어원이 애매하다. 얼핏 일본어로 오해하기 쉽지만 아니다. <br/><br/>‘선데이’(Sunday)에서 유래했다고,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일명 ‘거문도 사건’이 있었다. 1885년 초부터 1887년까지 2년 동안 영국군이 이곳을 점령한 사건이다. 그 시절 우리 섬은 얼떨결에 ‘포트 해밀턴’이 되어버렸다. 해밀턴은 거문도를 처음 발견했다는 영국 사람의 이름이다. 참나, 훨씬 이전부터 살고 있던 우리 할머니·할아버지들은 뭐란 말인가. <br/><br/>한국 사람 한국말 쓰고 영국 사람 영어 쓴다. 두 언어는 하나도 안 닮았다. 물론 여러 외국어들이 들어와 섞여 쓰이고는 있다. 글로벌 시대니까. 어제도 나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한 단어씩 붙여서 이렇게 말했다. “핸들 이빠이 꺾어.” 핸들이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는 내버려두고 그림 하나 그려보자.<br/><br/><br/><br/>‘산다이’란, 거문도가 포트 해밀턴이던 시절 ‘선데이’에서 나왔다 주장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음… 잘 논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위정자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장 무서워하니 <br/><br/><br/><br/>영국 수병들의 일과가 있었다. 군가를 부르고 포대진지 경계근무 서고 국기 하강식 하고 점호를 받았을 것이다. 이건 기록에도 남아 있고 이야기로도 내려온다. 일손이 필요했던 그들은 주민들을 노무자로 고용했다. 일당으로 담배와 술, 말린 고기, 통조림 따위를 주었다. 파운드는 줘봤자 이상한 종이에 불과했으니까. 덕분에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공식적으로 거문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전깃불을 밝히고 당구대가 놓였으며 테니스 코트를 만든 곳이다. 물론 주민들은 구경만 했다.<br/><br/>그런데 어떤 날이 되면 수병들이 술 마시고 춤추며 논다. 주기적으로 그런다. 주민들은 궁금했다. 저것들이 왜 며칠에 한 번씩 저럴까. 한 명이 물어봤을 것이다. 왜 근무 안 서고 노는가? 보디랭귀지로(중요한 대화는 이곳 유학자와 그들이 데리고 온 청나라 통역사를 통해 필담으로 진행됐다). <br/><br/>질문의 요지를 알아차린 수병이 대답했다. “선데이.” 주민들은 그 단어가 재미있게 노는 것을 뜻한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갑자기 노래 부르며 놀고 있으면 ‘아, 그 선데이라는 것을 하는구나’ 했다. 그 선데이가 변형되어 산다이가 됐다는 추측.<br/><br/>나도 어느 정도는 맞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점령군의 제국언어를 물려받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배알이 꼴리기도 했다. 배알이 꼴리는 거 이야기하자면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2세가 방한했을 때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멀쩡한 남의 나라에 깃발을 꽂은 주제에 여왕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우리 정부도, 언론도 문제제기를 안 했다. 여왕이 경북 안동에 갔는데 신발 신은 채 방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귀엽다니, 유럽 문화가 어떻다니 따위의 기사만 내보냈다. 신발 신고 남의 방 안에 들어간 거, 이거 어째 거문도 사건과 비슷하다. <br/><br/><br/><br/>러브모텔 축제는 어떤가, 중계 곁들인<br/><br/><br/><br/>언젠가 평론가 황현산 선생이 당신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산다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얼래, 거기도 산다이가? 거문도와 비금도는 너무 멀고 교류도 없다. 알아보니 섬마을마다 이 단어를 써왔던 것이다. 그래서 선데이 유래설은 한 방에 설득력을 잃는다. 공부 좀 한 사람은 ‘산대희’(山臺戱)에서 왔을 것이라고 본다. 산대놀이라는 탈춤놀이가 있잖은가. <br/><br/>암튼 산다이다. <br/><br/>원래 이 꼭지는 ‘낚시터에서 보낸 편지’로 하려고 했다. 날씨만 좋으면 나는 날마다 낚시를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낚시보다 중요한 게 어울려 노는 것이니까.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서운하시려나. 안 그러셔도 될 것이다. 앞으로 낚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종종 하게 될 테니까. <br/><br/>산다이는 연대의식을 높이며 묵은 감정을 배설하는 놀이문화다. 잘 논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의 모든 페스티벌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장치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여 참가한다. 달리고 악쓰고 뭔가를 마구 던지기까지 한다. 그러고 나야 말끔해진 얼굴로 집에 돌아가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br/><br/>우리에게도 온갖 지역축제가 있긴 하다. 이름 대기도 귀찮을 정도인데 모두 관이 주도하는, 보여주기 형식이다. 몇 곳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가수들 노래 듣고 먹거리 장터에서 취한 다음 돌아간다. 이게 무슨 축제인가. 축제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br/><br/>예전에, 하도 이런저런 축제가 생겨나자 이름에 시옷이 복수로 들어 있는 아무개 소설가는 러브모텔 축제를 기획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기회에 러브모텔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숨어서 해야 할 만큼 섹스가 나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국민 대가리 수 증가에 이바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어차피 기회만 되면 다들 그 짓을 해대니까. 듣고 있던 내가 물었다. <br/><br/>“축제는 지역방송에서 중계를 하던데 그렇다면 MC가,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모두 붙어먹세’ 캐치프레이즈 아래 막 개막한 러브모텔 페스티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모란장 201호는 이제 막 입실했고 그 옆 퀸모텔 203호는 본격적인 애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호라, 도로시모텔 305호 쌍은 생각지도 못한 체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로 보아 가산점을 부여해야겠는데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씨랜드모텔 403호 커플 돌연 앞질러나갑니다….”<br/><br/>그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다며 웃었다. <br/><br/>산다이는 보통 명절 뒤끝이나 만선했을 때, 심지어 초상을 치르고 나서도 했지만 사람들 수만 충분하면 충동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나쁜 짓만 아니라면 충동, 이거 매력 있는 행위다. 느닷없는 것. 술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은 길에서 반가운 사람과 우연히 만나 충동적으로 마시는 거 아니던가. <br/><br/><br/><br/>사람 수만 충분하면 충동적으로<br/><br/><br/><br/>요즘 젊은이들은 당최 이런 맛이 없다. 우선 씩씩하지가 않다. 이해는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공포의 대마왕처럼 우리 모두를 뒤덮고 있으니까. 특히 청년들이 엄청 시달린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나아가 취업, 내 집 마련까지 자포자기의 영역을 넓혀나간다. 주로 서울 노량진이나 고시원을 배경으로 말이다. <br/><br/>이른바 ‘살아남으려는 자’는 친구도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동기의 커닝 행위도 신고한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아사족’이라는 것도 생겨났단다(지구 반대편에서는 무슨 무슨 족(族)들이 소멸해가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족이 생긴다). 자발적 아웃사이더족. 밥도 혼자 먹고 수업도 혼자 듣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프렌드 렌털’도 생겼다던가. 돈 받고 친구 노릇을 대신해준단다. 그렇다면 우리도 곧 생길 것이다. 인간이 세상에 산 이래 이런 경우는 없었다. <br/><br/>불안에 떠는 무기력함. 이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뭐한단 말인가. 예전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다. 생기는 대로 새끼들 싸질러놓고 각각 제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여겼다.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행태가 뚜렷한 불행인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는 내 편의 유무다. 내 편은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br/><br/>내 편이 되어주는 가장 큰 존재는 친구다. 친구 없으면 외롭다. 외로우면 괴롭다. 이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 맺는 법을 연습하지 못한 사람이 갖는 불안정. 이거 큰 문제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성공하더라도 여차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촉이 무뎌졌기 때문. 이른바 명문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판검사를 하는 사람 중에 풍부한 인성을 갖춘 이가 몇이나 될까. 개중에는 정치권으로 가서 국민을 괴롭히는 이도 적잖다. <br/><br/>노는 애들이 있기는 하다. 주말 서울 홍익대 앞. 그나마 있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곳은 향락과 소비가 패턴화되어 상대적으로 음습하며 비밀스럽고 새로운 장소와 정보를 찾아 끝없이 이동하는 피곤이 있다. 쫓기듯 노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좀 불쌍하다는 느낌이다. <br/><br/> <br/><br/>자유롭게 노는 영혼이 제일 무섭다 <br/><br/><br/><br/>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대사회 최고의 상품이다. 국가와 회사는 불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부려먹고 빨아먹는다. 거기에 대항하는 최고의 방법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바둑을 둘 줄 모르지만 이세돌 9단의 가장 큰 장점이 상대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거라고 들었다. 멋진 자세다. <br/><br/>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합격, 승진, 새로운 연애, 이딴 거? 뭐든지 조금만 지나면 별것 아닌 게 된다. 같은 수만큼 발생하는 불합격과 탈락, 진부함은 또 어쩌라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행복감을 주는 것은 좋은 날씨다. 제기랄, 그게 다다. 최고의 에너지는 그것이다. 그러기에 날씨를 즐길 줄 모르면 이미 어긋난 상태다. 따뜻한 햇살 아래 우울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 청년. 참 꼴 좋다. <br/><br/>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무당도 신부도 스님도 목사도, 심지어 신(神)도 모른다. 모르는 것 가지고 벌벌 떠는 것처럼 찌질한 짓도 없다. 인생 알 수 없는 덕에 우리는 산다. 그리고 어울려 어기차게 기운을 발산하는 것이 생명력이다. 강한 생명력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로운 영혼. 이거 멋지지 않은가. 위정자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들을 무서워한다. 그들이 무서워할 젊은이가 많은 것, 그게 정상적인 국가다. 그러니 놀자, 좆도, 놀아도 내일 해는 또 뜨니까 겁내지 말고. 이상 산다이에 대한 설명 끝. 소설가 <br/><br/><br/><br/>\*‘한창훈의 산다이’에서는 걸쭉한 입담에 걸출한 입맛까지 갖춘 소설가 한창훈이 먹을것들에 대한 ‘산다이’를 펼쳐갈 예정입니다. 격주 연재.<br/><br/><br/><br/> 한겨레21 바로가기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3.txt

제목: 오수관에 ‘싹둑’ 반토막난 고분…포클레인에 뭉개진 토성 처참  
날짜: 2015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1110017246453  
본문: 국가사적 고분군 코앞에서 참혹한 풍경이 펼쳐졌다. 콘크리트 도로를 절개하고 파들어간 땅속에 육중한 서너개의 오수관 파이프가 뻗어나가며 1500여년 전 고분바닥의 묘실과 인골을 짓누르고 있었다. 1500여년 전 당당한 권력자였을 무덤 주인 인골은 도로에 의해 허리 부분이 잘려 나갔다. 조사원들은 수도 공사하듯 발굴을 했다. 오수관 위아래, 사이의 흙을 털어가며 짜부라진 유골과 유물들을 조금이라도 노출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br/><br/>‘압독국’ 후계자 무덤으로 추정 <br/>암광목곽묘 등 유적 가치 높아 <br/>10여년전 도로공사 등에 훼손된듯 <br/>최근 주택 신축터 조사중 발견 <br/>시쪽 “당시 관련기록 찾기 힘들어” <br/>고분군 위쪽 토성도 역사적 가치 <br/>시, 성 주변 정비공사 과정서 파괴 <br/><br/> 최근 원룸주택 신축 터에서 발견한 삼국시대 수장급 무덤인 경북 경산시 임당동 57-11번지 고분 발굴 현장(<한겨레> 4월27일치 10면)의 참상이다. 바로 뒤편에 사적 516호 임당동 고분군이 있는 보호지역이지만, 시 쪽은 사유지를 기부채납받은 뒤 고고학자 입회 없이 도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무지가 결국 소중한 희귀 고분을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다. 고분은 4~5세기 신라권에 들어간 경산 지역 소국 압독국 후계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임당동 고분군과 구조, 출토 토기 양상이 비슷하다. 주인을 따라 묻힌 순장자 인골만 5구가 나왔고, 금동관 일부 부재와 은제 허리띠 금공장식 등도 쏟아져 임당고분군의 노른자위 유적으로 보고 있다. 바위층에 무덤을 판 암광목곽묘는 다른 지역에 전혀 없어 역사적 가치 또한 높다. 이처럼 경주 왕경급의 가치가 지대한 고분인데도 도로와 오수관 탓에 내부가 잘리는 참상이 빚어진 것이다. 시 쪽은 “원래 사유지여서 공사 관련 기록을 찾기 힘들다. 당시 고고학 전문가가 입회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만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로와 오수관 상태 등으로 미뤄 최근 10년 사이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br/><br/> 발굴을 맡은 진흥문화재연구원은 3월 한달간 발굴할 예정이었지만, 부장품과 인골이 쏟아지자 전문가회의를 거쳐 조사를 연장했다. 무엇보다 국가사적범위의 확대 지정과 도로·오수관 이설이 시급한데, 논의는커녕 발굴 비용 지원조차 못 받고 있다. 청은 경산시 공공시설이니 시 쪽 지원을 받으라고 하고, 시는 예산이 없다고 책임을 피하는 형편이다. 결국 이달부터는 연구원이 도로 쪽을 자체 비용으로 발굴중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문화재청이 꼭 조사해야 할 중요 유적이라면서도 비용은 자체 해결하라고 하더라</span>”며 “<span class='quot0'>재원이 없다고 하니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웠다</span>”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현장 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청규(영남대), 강봉원(경주대) 교수는 건물을 짓지 말고 무덤방을 현지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br/><br/> 도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뒤편의 국가사적 임당고분군 1호분(<한겨레> 4월18일치 10면)도 긴급점검만 했을 뿐 세부 현황 조사와 정비는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1곳의 함몰구덩이와 2곳의 도굴갱이 드러났는데도 복원 정비 예산 협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관련 예산은 시에서 신청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최소 서너달을 기다려야 한다. 유적을 맡은 한빛문화재연구원이 우선 사비를 들여 조사에 착수할 참이다. 문화재청과 시는 “최근이 아니고 30여년 전 도굴된 듯하다”는 면피성 해명만 냈을 뿐 도굴 경위 조사와 책임 규명 등은 외면하는 눈치다. 주민들 사이에는 과거 도굴범과 유물을 어떻게 꺼냈는지 대화를 나눴다는 말들까지 돌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규정된 현장 정기 점검은 비전문가인 문화재돌봄이사업 자원봉사자에게 떠넘기고, 순찰 및 정기조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바뀐 것이라고는 당국이 쳐놓은 출입통제 금줄뿐이었다.<br/><br/> 고분군 위 언덕배기로 가면 임당토성이 있다. 압독국 통치자의 거처로 짐작되는 이 토성은 올해 초 시가 유적 정비공사를 하면서, 포클레인이 성벽 한가운데를 잘라 뭉개버렸다. 사적은 아니지만,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고 인근 고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유적이어서 사적 지정과 보호책 등이 절실하다. 현장 부근에는 토성절개 당시 삐져나온 각종 토기조각이 흙더미 사이로 나뒹굴고 있었다. 시 쪽의 정비 과정에서 파괴됐는데도, 이곳 역시 발굴기관이 자비로 유적 단면조사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정책이 겉도는 이 땅 문화유산의 현실이다. <br/><br/>경산/글·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4.txt

제목: <담론> 펴낸 신영복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아픔을 견디게 해줘요”  
날짜: 20150509  
기자: 이진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09100000017  
본문: 스물일곱의 신영복(74)은 육군 중위로,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관이었다. 1968년 8월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후, 그는 “간첩”이 되었다. 대학의 독서회와 연합서클 세미나를 지도한 이력이 “반국가 단체 구성죄”로 “구성”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무기형으로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20년 20일 동안 그는 수인(囚人)이었다. 스물일곱 음력 생일날 잡혀 들어간 그는, 마흔일곱 음력 생일이던 88년 광복절에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같은 날, 그가 썼던 옥중서신이 이란 제목을 달고 출간되었다. 고대설화 속의 바리데기 공주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살리려고 저승길에서 생명수를 구해 왔듯이, 신영복은 자신을 유폐한 세상의 메마른 영혼들을 촉촉이 적셔줄 정화수(井華水)를 들고 돌아왔다.<br/>　2006년 성공회대에서 정년퇴직을 한 뒤에도 석좌교수로 강의를 계속해온 그가 최근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가 붙은 책 을 펴냈다. 그의 고전 해설을 묶은 를 펴낸 지 10년 만이다. 오랜만의 신간이 반가우면서도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투병중이라는 소식도 들렸다. 2014년 겨울학기를 끝으로 강단에 서지 않는다는 그를 어떻게든 꼭 만나고 싶었다. 신영복 선생의 서울 목동 자택으로 찾아간 날, 화창한 햇살 아래 철쭉이 눈부셨다. 그는 단정하게 재킷을 갖춰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br/>　<br/>　암 선고받고 낸 책 에 담은 고백<br/>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는데 안색도 좋으시고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br/>　“담당 의사의 말로는, 어떤 경로로 진행될지 아직 자기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조심스럽긴 합니다.”<br/>　지난해 말 암 진단을 받았다. 몇 군데 전이가 된 상태라고 했다. 다행히 최근에 투약하기 시작한 약이 효과를 발휘해 기력도 회복되고 병세도 많이 호전된 상태다.<br/>　-많이 놀라셨겠습니다.<br/>　“그래서 부랴부랴 그동안의 강의 자료들을 모아서 이런 책도 만들었죠. 그 약을 복용하고 난 후에 건강이 훨씬 좋아져서 다시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돌려받아서 교정을 한 번 더 봤어요.”(웃음)<br/>　그렇게 출간된 은 성공회대학 강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다. 1부에서는 동양고전을 통해 본 세계 인식, 2부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데, 사형수 시절의 절망과 막막함, “반목과 불신, 언쟁과 주먹다짐”으로 “하루가 팔만대장경” 같았던 무기수 시절의 이야기 등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진솔한 고백들이 많이 실렸다.<br/>　<br/>　남한산성(육군교도소)에서 만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사형수 중 다섯 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한 사람은 그곳에서 타살되었습니다. 나도 물론 사형수였습니다.(210쪽)<br/>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만을 바라던 사형수가 막상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나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로 들어서는 막막함에 좌절했습니다.(218쪽)<br/>　<br/>　-그간 신영복이라는 어른의 아우라가 너무 커서 ‘이분은 우리 같은 세인들하곤 바탕부터가 다를 거야’ 하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span class='quot0'>나의 20년 수형생활은 실수와 방황,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span>”는 대목을 읽으니 왠지 안도가 되던데요.(웃음)<br/>　“이 책에서 내 편지글이 그렇게 반듯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조금 밝혔죠. 본의 아니게 그런(늘 반듯하고 정제된 사람이라는) 선입관을 주게 되어 그간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어요.”<br/>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긴 징역살이에서 어쩌면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한 번 없이 반듯할 수 있었냐?’고 의아해하지만, 실제 그의 징역살이가 편지글처럼 차분하고 평화로웠던 건 아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애달프고 괴로운 사정을 곧이곧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편지를 검열하는 교도소나 국가권력 앞에,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일체의 필기도구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나마 글을 적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엽서를 쓸 때뿐이다 보니, 한 달 내내 머릿속에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다듬은 글들이었다.<br/>　-감옥에서 후회한 적 없으세요? ‘난 통혁당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나 회한 같은 건?<br/>　“처음엔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취조받을 때까진 경황이 없더니, 며칠 뒤 서대문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중앙’(사동 가운데 로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간수부장 발을, 재소자 하나가 씻기고 있더라구요.”<br/>　-(놀라며) 재소자가 교도관 발을요?<br/>　“노예지 뭐. 교도소 특유의 그 묵직한 악취, 회색 벽과 나이 많은 간수의 발을 씻기는 젊은 재소자. 그 옆에 내가 쪼그려 앉아 있으면서, ‘역사가 썩는 듯한 교도소 냄새, 이 끔찍한 풍경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나!’ 그런 암담함을 느꼈죠. 그때는 이게 내 ‘대학시절’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br/>　<br/>　나도 어쩔 수 없는 먹물이구나! 참혹한 반성<br/>　신영복은 감옥생활 20년을 “나의 대학시절”이라고 표현한다. 감옥은 그에게 ‘사회학’과 ‘역사학’과 ‘인간학’을 가르친 교실이라는 것이다. 24시간 모든 것이 공개되는 감옥은 “목욕탕처럼 적나라하게” 서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공간이며, “메끼(도금) 벗겨진” 인간의 민낯을 “어항 속 붕어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속에서 첫 5년여간 신영복은 물 위의 기름처럼 겉도는 존재였다. 그의 눈에 비친 다른 재소자들은 노동 의욕도 변화 의지도 없는 ‘룸펜 프롤레타리아’일 뿐. 신영복은 최대한 친절하게 그들을 대했지만 동료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낌새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도 같이 있는 재소자들이었다. 신영복은 자신만 모르는 ‘왕따’인 채로 5년을 보냈다.<br/>　-5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br/>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고 그들 얘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그렇게 단선적이진 않아요. 방황하고 실패하고 우회도 하고…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 또래, 마흔한 살짜리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누가 접견을 왔다는 거예요. 모두 깜짝 놀랐죠. 3~4년간 아무도 온 일이 없었는데.”<br/>　-누가 왔는데요?<br/>　“누가 왔냐고 물으니, ‘웬 재수없는 녀석이 왔다’고만 하고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자기를 삼촌네 맡겨놓곤 도시로 돈 벌러 나갔대요.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얘기론 ‘너희 엄마 시집갔다’고 했다고. 근데 오늘 접견 온 남자가, 재가한 엄마가 키운 (의붓)아들이라고 그러더래요. 기분이 나빠서 ‘근데 여기 왜 왔냐? 남 징역살이하는 거 확인하러 왔냐?’고 고함을 지르니까 ‘당신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내가 거기 있고 당신이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죄송해서 왔다’고 하더래요. 아, 감동이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나도 쟤와 같은 부모, 그런 환경에서 컸다면 지금쯤 같은 죄명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반성, 아주 참혹한 반성이 들었어요.”<br/>　이후 신영복은 교도소 안에서 금지된 내기축구를 하다가 다른 재소자들과 ‘빠따’를 맞았고, 예배 후에 나눠주는 떡 위문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능청스런 ‘떡신자’가 되었다. 가르치려 드는 인텔리의 완고함에서 벗어나니 도처에 스승이 있고 친구가 있었다. 그는 이 변화를 “<span class='quot1'>머리에서 가슴으로의 긴 여행</span>”이라고 말한다.<br/>　-그래서인가요? 언제나 쉽고 편안한 구어체나 서간체를 즐겨 쓰시는 이유가? 선생님 글은 여느 교수들처럼 딱딱하거나 현학적이지 않고, 동네 할아버지가 느티나무 아래서 들려주는 얘기처럼 물 흐르듯 편안합니다. 그런 문체도 감옥에서 갈고닦은 노력의 산물인가요?<br/>　“어려서 대학신문에 글 쓰고 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식인의 글쓰기에 대해서 반성 많이 했지요. 글 쓰는 필자들은 독자를 배려해야 해요. 자기 글을 쉬운 글에 담아서 공유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br/>　신영복은 낮은 곳으로 다가가 말을 건네고 소통하는 방법을 부단히 고민하고 실험해 왔다. 서화(書畵)는 많은 사람과 깊이있게 교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였다. 그의 서화는 책으로도, 달력으로도 나왔고 손수건이나 티셔츠, 우산으로도 만들어졌다. 그가 직접 그린 삽화에 그가 개발한 어깨동무체 혹은 민체(民體)라 불리는 글씨, 그리고 짧고 강렬한 우화와 잠언들은, 심오한 사상이 아름답고 친근한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고 일상의 실용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원효는 법당에 앉아 경전을 외는 대신, 마을마다 표주박을 두드리고 춤을 추며 불가의 가르침을 담은 노래를 퍼뜨리고 다녔다. 필요한 곳에 서화와 글씨를 헌사하고 토크콘서트로 전국을 돌아다닌 사상가 신영복의 족적도 그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br/>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지만 선생님처럼 대중과 직접 소통할 줄 아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br/>　“본인들이 깨닫고 꾸준히 노력해야겠지요. 앞으로 계몽주의적인 노인 권력이 바탕에 깔린, 그런 글쓰기는 지양될 거라고 난 생각해요.”<br/>　-계몽주의가 왜 나쁩니까?<br/>　“허허, 그게 잘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계급적 편견이라고 봐야 되죠. 자기 가치를 기준으로 타자(他者)를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몽주의 프레임은 허물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전 ‘멘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br/>　-왜요? 요즘 멘토와 힐링의 시대라는데요.<br/>　“멘토가 계몽주의의 변형이잖아요. 멘토라는 게 대개 연배가 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를 전하는 건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20~30년 후에 살아갈 세계에 대해서 20~30년 전의 경험을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진보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br/><br/>↗<br/>↘<br/><br/>-많은 이들이 선생님을 ‘이 시대의 대표적 스승, 대표적 멘토’라고 부르는데요.<br/>　“거대담론도 사라지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추락도 많이 보고 하니까 뭔가 사표(師表)로 삼을 만한 대상을 성급하게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사표나 스승이라는 건 당대에는 존립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인격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간 사표가 있다면 공부하긴 참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낡은 생각이에요. 집단지성 같은 게 필요하고 집단지성을 위한 공간을, 그 진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앞으로의 지식인들이 핵심적으로 고민할 과제예요.”<br/>　<br/>　한번도 안 바뀐 노론 권력<br/>　-이번 책에서 제시하신 ‘원형 인식모델’은 우리 사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토대와 상부구조를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음과 양, 화(和)와 동(同), 이상과 현실, 좌와 우를 둥근 원 안의 대칭선상에 놓으셨지요. 대비되는 것들은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 말씀엔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카운터파트가 격이 너무 떨어져요.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상호보완이고 뭐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탐욕과 독선이 도를 넘은 지 오랩니다.<br/>　“차이라는 건 단순히 공존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변화의 시작으로 삼아야 해요. 차이를 자기 변화의 학습교본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에 이은 ‘가슴에서 발(실천)로의 긴 여행’이지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좌-우, 남-북, 진보-보수, 이런 대비 관계가 과연 상생적인 대비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너무나 비대칭적이어서 도대체 지양(止揚)을 할 수 있는 상생의 파트너가 아니지 않으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 역사에도 그렇게 이상적인, 완벽한 평형을 유지하는 대비 관계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분단과 외세, 그리고 임란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노론 권력의 오래된 지배구조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해 왔잖아요.”<br/>　-노론 권력이라고요?<br/>　“예, 임란 이후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몰아내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배권력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노론 세력이 한일합방 때도 총독부에서 합방 은사금을 제일 많이 받았지요. 노론이 56, 소론이 6명, 대북이 한 사람. 압도적인 노론이 한일합방의 주축이거든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행정부만 일부 바뀐 거지, 통치권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그렇게 해왔지요. 대학, 대학교수, 각종 재단, 무슨 시스템 이런 것들 쫙 다 소위 말하는 보수진영이 장악하고 있어요.”<br/>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br/>　“어쩌겠어요?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자기를 강화하고 군림하는 집단은 다 자기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중심부 집단은 그게 또 약점이 돼요. 중심부는 변방의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류문명의 중심은 부단히 변방에서 변방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변화는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장기성과 굴곡성을 생각하면, 가시적 성과나 목표 달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자부심 있게, 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 작은 숲(공동체)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작은 약속도 하고, 그 ‘인간적인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br/>　-그 말씀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네요.(웃음)<br/>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이 선생보다 더 속상할걸요, 속으로는.(웃음) 근데 엄청난 아픔이나 비극도 꼭 그만한 크기의 기쁨에 의해서만 극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기쁨에 의해서도 충분히 견뎌져요. 사람의 정서라는 게 참 묘해서,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지요.”<br/>　큰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소소한 기쁨을 같이 나눌 이웃 만들기, 그게 신영복이 주장해온 ‘더불어숲’의 정신이다. 그 숲 속, 그의 너른 나무그늘 안에 우리 모두 오래오래 머물 수 있기를! <br/>　 녹취 함규원(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br/><br/>신영복을 만든 시간들<br/>1942년 누나, 형과 함께<br/>두 살 때 출생지인 경남 밀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로 누님 둘, 형님 한 분이 있고 동생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제 손엔 만년필이 들려 있었답니다.<br/> <br/> <br/>1966년 육사 교관 시절<br/>한 해 전 대학원 경제학과를 나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의 아이들을 만난 때이기도 합니다. 2년 뒤 통혁당 사건으로 수감됐습니다.<br/><br/>1988년 8월14일 출소<br/>20년 20일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이날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전주교도소로 마중 나온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가는 길에 충북 청주 죽암휴게소에 들렀습니다.<br/><br/>2006년 더불어숲 모임<br/>제 책을 읽고 고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한 독자들이 ‘더불어숲’이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996년 ‘목동 파리공원 모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br/><br/>2011년 해남 서정분교<br/>전남 해남 땅끝마을의 서정분교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도서관 현판은 제가 직접 써서 선물한 것입니다. 제가 쓴 글씨를 매개로 사람들을 만난 일을 글로 썼습니다.<br/> <br/> <br/> ▶ 이진순 언론학 박사. 전직 교수.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럿거스대 커뮤니케이션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했고 그 전에는 등 다큐멘터리 작가로 다양한 인물을 취재했다. 세상의 새 지평을 여는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5.txt

제목: ‘담론’ 펴낸 신영복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아픔을 견디게 해줘요”  
날짜: 2015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22151559397  
본문: 스물일곱의 신영복(74)은 육군 중위로,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관이었다. 1968년 8월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후, 그는 “간첩”이 되었다. 대학의 독서회와 연합서클 세미나를 지도한 이력이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구성”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무기형으로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20년 20일 동안 그는 수인(囚人)이었다. 스물일곱 음력 생일날 잡혀 들어간 그는, 마흔일곱 음력 생일이던 88년 광복절에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같은 날, 그가 썼던 옥중서신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제목을 달고 출간되었다. 고대설화 속의 바리데기 공주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살리려고 저승길에서 생명수를 구해 왔듯이, 신영복은 자신을 유폐한 세상의 메마른 영혼들을 촉촉이 적셔줄 정화수(井華水)를 들고 돌아왔다.<br/><br/> 2006년 성공회대에서 정년퇴직을 한 뒤에도 석좌교수로 강의를 계속해온 그가 최근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가 붙은 책 <담론>을 펴냈다. 그의 고전 해설을 묶은 <강의>를 펴낸 지 10년 만이다. 오랜만의 신간이 반가우면서도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투병중이라는 소식도 들렸다. 2014년 겨울학기를 끝으로 강단에 서지 않는다는 그를 어떻게든 꼭 만나고 싶었다. 신영복 선생의 서울 목동 자택으로 찾아간 날, 화창한 햇살 아래 철쭉이 눈부셨다. 그는 단정하게 재킷을 갖춰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br/><br/>암 선고받고 낸 책 <담론>에 담은 고백<br/><br/>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는데 안색도 좋으시고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br/><br/> “담당 의사의 말로는, 어떤 경로로 진행될지 아직 자기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조심스럽긴 합니다.”<br/><br/> 지난해 말 암 진단을 받았다. 몇 군데 전이가 된 상태라고 했다. 다행히 최근에 투약하기 시작한 약이 효과를 발휘해 기력도 회복되고 병세도 많이 호전된 상태다.<br/><br/> -많이 놀라셨겠습니다.<br/><br/> “그래서 부랴부랴 그동안의 강의 자료들을 모아서 이런 책도 만들었죠. 그 약을 복용하고 난 후에 건강이 훨씬 좋아져서 다시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돌려받아서 교정을 한 번 더 봤어요.”(웃음)<br/><br/> 그렇게 출간된 <담론>은 성공회대학 강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다. 1부에서는 동양고전을 통해 본 세계 인식, 2부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데, 사형수 시절의 절망과 막막함, “반목과 불신, 언쟁과 주먹다짐”으로 “하루가 팔만대장경” 같았던 무기수 시절의 이야기 등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진솔한 고백들이 많이 실렸다.<br/><br/> <br/><br/> 남한산성(육군교도소)에서 만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사형수 중 다섯 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한 사람은 그곳에서 타살되었습니다. 나도 물론 사형수였습니다.(210쪽)<br/><br/>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만을 바라던 사형수가 막상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나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로 들어서는 막막함에 좌절했습니다.(218쪽)<br/><br/> <br/><br/> -그간 신영복이라는 어른의 아우라가 너무 커서 ‘이분은 우리 같은 세인들하곤 바탕부터가 다를 거야’ 하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span class='quot0'>나의 20년 수형생활은 실수와 방황,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span>”는 대목을 읽으니 왠지 안도가 되던데요.(웃음)<br/><br/> “이 책에서 내 편지글이 그렇게 반듯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조금 밝혔죠. 본의 아니게 그런(늘 반듯하고 정제된 사람이라는) 선입관을 주게 되어 그간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어요.”<br/><br/>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긴 징역살이에서 어쩌면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한 번 없이 반듯할 수 있었냐?’고 의아해하지만, 실제 그의 징역살이가 편지글처럼 차분하고 평화로웠던 건 아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애달프고 괴로운 사정을 곧이곧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편지를 검열하는 교도소나 국가권력 앞에,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일체의 필기도구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나마 글을 적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엽서를 쓸 때뿐이다 보니, 한 달 내내 머릿속에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다듬은 글들이었다.<br/><br/> -감옥에서 후회한 적 없으세요? ‘난 통혁당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나 회한 같은 건?<br/><br/> “처음엔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취조받을 때까진 경황이 없더니, 며칠 뒤 서대문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중앙’(사동 가운데 로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간수부장 발을, 재소자 하나가 씻기고 있더라구요.”<br/><br/> -(놀라며) 재소자가 교도관 발을요?<br/><br/> “노예지 뭐. 교도소 특유의 그 묵직한 악취, 회색 벽과 나이 많은 간수의 발을 씻기는 젊은 재소자. 그 옆에 내가 쪼그려 앉아 있으면서, ‘역사가 썩는 듯한 교도소 냄새, 이 끔찍한 풍경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나!’ 그런 암담함을 느꼈죠. 그때는 이게 내 ‘대학시절’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br/><br/>“계몽주의 노인권력 바탕에 둔 <br/>그런 글쓰기는 지양돼야 해요 <br/>‘멘토’에 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br/>사표나 스승은 당대에 없어요 <br/>집단지성 같은 게 필요해요”<br/><br/>“역사의 장기성·굴곡성 생각하면 <br/>목표달성에 과도한 의미 부여 말고 <br/>과정 자체를 아름답고 자부심 있게 <br/>그 자체를 즐겁게 만들어야 해요 <br/>왜냐면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 <br/><br/> 나도 어쩔 수 없는 먹물이구나! 참혹한 반성<br/><br/> 신영복은 감옥생활 20년을 “나의 대학시절”이라고 표현한다. 감옥은 그에게 ‘사회학’과 ‘역사학’과 ‘인간학’을 가르친 교실이라는 것이다. 24시간 모든 것이 공개되는 감옥은 “목욕탕처럼 적나라하게” 서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공간이며, “메끼(도금) 벗겨진” 인간의 민낯을 “어항 속 붕어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속에서 첫 5년여간 신영복은 물 위의 기름처럼 겉도는 존재였다. 그의 눈에 비친 다른 재소자들은 노동 의욕도 변화 의지도 없는 ‘룸펜 프롤레타리아’일 뿐. 신영복은 최대한 친절하게 그들을 대했지만 동료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낌새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도 같이 있는 재소자들이었다. 신영복은 자신만 모르는 ‘왕따’인 채로 5년을 보냈다.<br/><br/> -5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br/><br/>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고 그들 얘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그렇게 단선적이진 않아요. 방황하고 실패하고 우회도 하고…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 또래, 마흔한 살짜리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누가 접견을 왔다는 거예요. 모두 깜짝 놀랐죠. 3~4년간 아무도 온 일이 없었는데.”<br/><br/> -누가 왔는데요?<br/><br/> “누가 왔냐고 물으니, ‘웬 재수없는 녀석이 왔다’고만 하고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자기를 삼촌네 맡겨놓곤 도시로 돈 벌러 나갔대요.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얘기론 ‘너희 엄마 시집갔다’고 했다고. 근데 오늘 접견 온 남자가, 재가한 엄마가 키운 (의붓)아들이라고 그러더래요. 기분이 나빠서 ‘근데 여기 왜 왔냐? 남 징역살이하는 거 확인하러 왔냐?’고 고함을 지르니까 ‘당신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내가 거기 있고 당신이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죄송해서 왔다’고 하더래요. 아, 감동이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나도 쟤와 같은 부모, 그런 환경에서 컸다면 지금쯤 같은 죄명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반성, 아주 참혹한 반성이 들었어요.”<br/><br/> 이후 신영복은 교도소 안에서 금지된 내기축구를 하다가 다른 재소자들과 ‘빠따’를 맞았고, 예배 후에 나눠주는 떡 위문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능청스런 ‘떡신자’가 되었다. 가르치려 드는 인텔리의 완고함에서 벗어나니 도처에 스승이 있고 친구가 있었다. 그는 이 변화를 “<span class='quot1'>머리에서 가슴으로의 긴 여행</span>”이라고 말한다.<br/><br/> -그래서인가요? 언제나 쉽고 편안한 구어체나 서간체를 즐겨 쓰시는 이유가? 선생님 글은 여느 교수들처럼 딱딱하거나 현학적이지 않고, 동네 할아버지가 느티나무 아래서 들려주는 얘기처럼 물 흐르듯 편안합니다. 그런 문체도 감옥에서 갈고닦은 노력의 산물인가요?<br/><br/> “어려서 대학신문에 글 쓰고 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식인의 글쓰기에 대해서 반성 많이 했지요. 글 쓰는 필자들은 독자를 배려해야 해요. 자기 글을 쉬운 글에 담아서 공유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br/><br/> 신영복은 낮은 곳으로 다가가 말을 건네고 소통하는 방법을 부단히 고민하고 실험해 왔다. 서화(書畵)는 많은 사람과 깊이있게 교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였다. 그의 서화는 책으로도, 달력으로도 나왔고 손수건이나 티셔츠, 우산으로도 만들어졌다. 그가 직접 그린 삽화에 그가 개발한 어깨동무체 혹은 민체(民體)라 불리는 글씨, 그리고 짧고 강렬한 우화와 잠언들은, 심오한 사상이 아름답고 친근한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고 일상의 실용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원효는 법당에 앉아 경전을 외는 대신, 마을마다 표주박을 두드리고 춤을 추며 불가의 가르침을 담은 노래를 퍼뜨리고 다녔다. 필요한 곳에 서화와 글씨를 헌사하고 토크콘서트로 전국을 돌아다닌 사상가 신영복의 족적도 그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br/><br/>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지만 선생님처럼 대중과 직접 소통할 줄 아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br/><br/> “본인들이 깨닫고 꾸준히 노력해야겠지요. 앞으로 계몽주의적인 노인 권력이 바탕에 깔린, 그런 글쓰기는 지양될 거라고 난 생각해요.”<br/><br/> -계몽주의가 왜 나쁩니까?<br/><br/> “허허, 그게 잘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계급적 편견이라고 봐야 되죠. 자기 가치를 기준으로 타자(他者)를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몽주의 프레임은 허물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전 ‘멘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br/><br/> -왜요? 요즘 멘토와 힐링의 시대라는데요.<br/><br/> “멘토가 계몽주의의 변형이잖아요. 멘토라는 게 대개 연배가 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를 전하는 건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20~30년 후에 살아갈 세계에 대해서 20~30년 전의 경험을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진보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br/><br/>-많은 이들이 선생님을 ‘이 시대의 대표적 스승, 대표적 멘토’라고 부르는데요.<br/><br/> “거대담론도 사라지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추락도 많이 보고 하니까 뭔가 사표(師表)로 삼을 만한 대상을 성급하게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사표나 스승이라는 건 당대에는 존립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인격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간 사표가 있다면 공부하긴 참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낡은 생각이에요. 집단지성 같은 게 필요하고 집단지성을 위한 공간을, 그 진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앞으로의 지식인들이 핵심적으로 고민할 과제예요.”<br/><br/> <br/><br/> 한번도 안 바뀐 노론 권력<br/><br/> -이번 책에서 제시하신 ‘원형 인식모델’은 우리 사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토대와 상부구조를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음과 양, 화(和)와 동(同), 이상과 현실, 좌와 우를 둥근 원 안의 대칭선상에 놓으셨지요. 대비되는 것들은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 말씀엔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카운터파트가 격이 너무 떨어져요.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상호보완이고 뭐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탐욕과 독선이 도를 넘은 지 오랩니다.<br/><br/> “차이라는 건 단순히 공존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변화의 시작으로 삼아야 해요. 차이를 자기 변화의 학습교본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에 이은 ‘가슴에서 발(실천)로의 긴 여행’이지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좌-우, 남-북, 진보-보수, 이런 대비 관계가 과연 상생적인 대비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너무나 비대칭적이어서 도대체 지양(止揚)을 할 수 있는 상생의 파트너가 아니지 않으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 역사에도 그렇게 이상적인, 완벽한 평형을 유지하는 대비 관계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분단과 외세, 그리고 임란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노론 권력의 오래된 지배구조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해 왔잖아요.”<br/><br/> -노론 권력이라고요?<br/><br/> “예, 임란 이후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몰아내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배권력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노론 세력이 한일합방 때도 총독부에서 합방 은사금을 제일 많이 받았지요. 노론이 56, 소론이 6명, 대북이 한 사람. 압도적인 노론이 한일합방의 주축이거든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행정부만 일부 바뀐 거지, 통치권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그렇게 해왔지요. 대학, 대학교수, 각종 재단, 무슨 시스템 이런 것들 쫙 다 소위 말하는 보수진영이 장악하고 있어요.”<br/><br/>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br/><br/> “어쩌겠어요?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자기를 강화하고 군림하는 집단은 다 자기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중심부 집단은 그게 또 약점이 돼요. 중심부는 변방의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류문명의 중심은 부단히 변방에서 변방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변화는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장기성과 굴곡성을 생각하면, 가시적 성과나 목표 달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자부심 있게, 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 작은 숲(공동체)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작은 약속도 하고, 그 ‘인간적인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br/><br/> -그 말씀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네요.(웃음)<br/><br/>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이 선생보다 더 속상할걸요, 속으로는.(웃음) 근데 엄청난 아픔이나 비극도 꼭 그만한 크기의 기쁨에 의해서만 극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기쁨에 의해서도 충분히 견뎌져요. 사람의 정서라는 게 참 묘해서,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지요.”<br/><br/> 큰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소소한 기쁨을 같이 나눌 이웃 만들기, 그게 신영복이 주장해온 ‘더불어숲’의 정신이다. 그 숲 속, 그의 너른 나무그늘 안에 우리 모두 오래오래 머물 수 있기를! <br/><br/> 녹취 함규원(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br/><br/>▶ 이진순 언론학 박사. 전직 교수.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럿거스대 커뮤니케이션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했고 그 전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다큐멘터리 작가로 다양한 인물을 취재했다. 세상의 새 지평을 여는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6.txt

제목: ‘담론’ 펴낸 신영복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아픔을 견디게 해줘요”  
날짜: 2015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0810017230313  
본문: 스물일곱의 신영복(74)은 육군 중위로,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관이었다. 1968년 8월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후, 그는 “간첩”이 되었다. 대학의 독서회와 연합서클 세미나를 지도한 이력이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구성”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무기형으로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20년 20일 동안 그는 수인(囚人)이었다. 스물일곱 음력 생일날 잡혀 들어간 그는, 마흔일곱 음력 생일이던 88년 광복절에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같은 날, 그가 썼던 옥중서신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제목을 달고 출간되었다. 고대설화 속의 바리데기 공주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살리려고 저승길에서 생명수를 구해 왔듯이, 신영복은 자신을 유폐한 세상의 메마른 영혼들을 촉촉이 적셔줄 정화수(井華水)를 들고 돌아왔다.<br/><br/> 2006년 성공회대에서 정년퇴직을 한 뒤에도 석좌교수로 강의를 계속해온 그가 최근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가 붙은 책 <담론>을 펴냈다. 그의 고전 해설을 묶은 <강의>를 펴낸 지 10년 만이다. 오랜만의 신간이 반가우면서도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투병중이라는 소식도 들렸다. 2014년 겨울학기를 끝으로 강단에 서지 않는다는 그를 어떻게든 꼭 만나고 싶었다. 신영복 선생의 서울 목동 자택으로 찾아간 날, 화창한 햇살 아래 철쭉이 눈부셨다. 그는 단정하게 재킷을 갖춰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br/><br/>암 선고받고 낸 책 <담론>에 담은 고백<br/><br/>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는데 안색도 좋으시고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br/><br/> “담당 의사의 말로는, 어떤 경로로 진행될지 아직 자기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조심스럽긴 합니다.”<br/><br/> 지난해 말 암 진단을 받았다. 몇 군데 전이가 된 상태라고 했다. 다행히 최근에 투약하기 시작한 약이 효과를 발휘해 기력도 회복되고 병세도 많이 호전된 상태다.<br/><br/> -많이 놀라셨겠습니다.<br/><br/> “그래서 부랴부랴 그동안의 강의 자료들을 모아서 이런 책도 만들었죠. 그 약을 복용하고 난 후에 건강이 훨씬 좋아져서 다시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돌려받아서 교정을 한 번 더 봤어요.”(웃음)<br/><br/> 그렇게 출간된 <담론>은 성공회대학 강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다. 1부에서는 동양고전을 통해 본 세계 인식, 2부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데, 사형수 시절의 절망과 막막함, “반목과 불신, 언쟁과 주먹다짐”으로 “하루가 팔만대장경” 같았던 무기수 시절의 이야기 등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진솔한 고백들이 많이 실렸다.<br/><br/> <br/><br/> 남한산성(육군교도소)에서 만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사형수 중 다섯 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한 사람은 그곳에서 타살되었습니다. 나도 물론 사형수였습니다.(210쪽)<br/><br/>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만을 바라던 사형수가 막상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나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로 들어서는 막막함에 좌절했습니다.(218쪽)<br/><br/> <br/><br/> -그간 신영복이라는 어른의 아우라가 너무 커서 ‘이분은 우리 같은 세인들하곤 바탕부터가 다를 거야’ 하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span class='quot0'>나의 20년 수형생활은 실수와 방황,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span>”는 대목을 읽으니 왠지 안도가 되던데요.(웃음)<br/><br/> “이 책에서 내 편지글이 그렇게 반듯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조금 밝혔죠. 본의 아니게 그런(늘 반듯하고 정제된 사람이라는) 선입관을 주게 되어 그간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어요.”<br/><br/>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긴 징역살이에서 어쩌면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한 번 없이 반듯할 수 있었냐?’고 의아해하지만, 실제 그의 징역살이가 편지글처럼 차분하고 평화로웠던 건 아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애달프고 괴로운 사정을 곧이곧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편지를 검열하는 교도소나 국가권력 앞에,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일체의 필기도구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나마 글을 적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엽서를 쓸 때뿐이다 보니, 한 달 내내 머릿속에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다듬은 글들이었다.<br/><br/> -감옥에서 후회한 적 없으세요? ‘난 통혁당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나 회한 같은 건?<br/><br/> “처음엔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취조받을 때까진 경황이 없더니, 며칠 뒤 서대문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중앙’(사동 가운데 로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간수부장 발을, 재소자 하나가 씻기고 있더라구요.”<br/><br/> -(놀라며) 재소자가 교도관 발을요?<br/><br/> “노예지 뭐. 교도소 특유의 그 묵직한 악취, 회색 벽과 나이 많은 간수의 발을 씻기는 젊은 재소자. 그 옆에 내가 쪼그려 앉아 있으면서, ‘역사가 썩는 듯한 교도소 냄새, 이 끔찍한 풍경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나!’ 그런 암담함을 느꼈죠. 그때는 이게 내 ‘대학시절’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br/><br/>“계몽주의 노인권력 바탕에 둔 <br/>그런 글쓰기는 지양돼야 해요 <br/>‘멘토’에 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br/>사표나 스승은 당대에 없어요 <br/>집단지성 같은 게 필요해요”<br/><br/>“역사의 장기성·굴곡성 생각하면 <br/>목표달성에 과도한 의미 부여 말고 <br/>과정 자체를 아름답고 자부심 있게 <br/>그 자체를 즐겁게 만들어야 해요 <br/>왜냐면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 <br/><br/> 나도 어쩔 수 없는 먹물이구나! 참혹한 반성<br/><br/> 신영복은 감옥생활 20년을 “나의 대학시절”이라고 표현한다. 감옥은 그에게 ‘사회학’과 ‘역사학’과 ‘인간학’을 가르친 교실이라는 것이다. 24시간 모든 것이 공개되는 감옥은 “목욕탕처럼 적나라하게” 서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공간이며, “메끼(도금) 벗겨진” 인간의 민낯을 “어항 속 붕어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속에서 첫 5년여간 신영복은 물 위의 기름처럼 겉도는 존재였다. 그의 눈에 비친 다른 재소자들은 노동 의욕도 변화 의지도 없는 ‘룸펜 프롤레타리아’일 뿐. 신영복은 최대한 친절하게 그들을 대했지만 동료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낌새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도 같이 있는 재소자들이었다. 신영복은 자신만 모르는 ‘왕따’인 채로 5년을 보냈다.<br/><br/> -5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br/><br/>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고 그들 얘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그렇게 단선적이진 않아요. 방황하고 실패하고 우회도 하고…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 또래, 마흔한 살짜리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누가 접견을 왔다는 거예요. 모두 깜짝 놀랐죠. 3~4년간 아무도 온 일이 없었는데.”<br/><br/> -누가 왔는데요?<br/><br/> “누가 왔냐고 물으니, ‘웬 재수없는 녀석이 왔다’고만 하고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자기를 삼촌네 맡겨놓곤 도시로 돈 벌러 나갔대요.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얘기론 ‘너희 엄마 시집갔다’고 했다고. 근데 오늘 접견 온 남자가, 재가한 엄마가 키운 (의붓)아들이라고 그러더래요. 기분이 나빠서 ‘근데 여기 왜 왔냐? 남 징역살이하는 거 확인하러 왔냐?’고 고함을 지르니까 ‘당신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내가 거기 있고 당신이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죄송해서 왔다’고 하더래요. 아, 감동이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나도 쟤와 같은 부모, 그런 환경에서 컸다면 지금쯤 같은 죄명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반성, 아주 참혹한 반성이 들었어요.”<br/><br/> 이후 신영복은 교도소 안에서 금지된 내기축구를 하다가 다른 재소자들과 ‘빠따’를 맞았고, 예배 후에 나눠주는 떡 위문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능청스런 ‘떡신자’가 되었다. 가르치려 드는 인텔리의 완고함에서 벗어나니 도처에 스승이 있고 친구가 있었다. 그는 이 변화를 “<span class='quot1'>머리에서 가슴으로의 긴 여행</span>”이라고 말한다.<br/><br/> -그래서인가요? 언제나 쉽고 편안한 구어체나 서간체를 즐겨 쓰시는 이유가? 선생님 글은 여느 교수들처럼 딱딱하거나 현학적이지 않고, 동네 할아버지가 느티나무 아래서 들려주는 얘기처럼 물 흐르듯 편안합니다. 그런 문체도 감옥에서 갈고닦은 노력의 산물인가요?<br/><br/> “어려서 대학신문에 글 쓰고 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식인의 글쓰기에 대해서 반성 많이 했지요. 글 쓰는 필자들은 독자를 배려해야 해요. 자기 글을 쉬운 글에 담아서 공유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br/><br/> 신영복은 낮은 곳으로 다가가 말을 건네고 소통하는 방법을 부단히 고민하고 실험해 왔다. 서화(書畵)는 많은 사람과 깊이있게 교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였다. 그의 서화는 책으로도, 달력으로도 나왔고 손수건이나 티셔츠, 우산으로도 만들어졌다. 그가 직접 그린 삽화에 그가 개발한 어깨동무체 혹은 민체(民體)라 불리는 글씨, 그리고 짧고 강렬한 우화와 잠언들은, 심오한 사상이 아름답고 친근한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고 일상의 실용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원효는 법당에 앉아 경전을 외는 대신, 마을마다 표주박을 두드리고 춤을 추며 불가의 가르침을 담은 노래를 퍼뜨리고 다녔다. 필요한 곳에 서화와 글씨를 헌사하고 토크콘서트로 전국을 돌아다닌 사상가 신영복의 족적도 그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br/><br/>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지만 선생님처럼 대중과 직접 소통할 줄 아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br/><br/> “본인들이 깨닫고 꾸준히 노력해야겠지요. 앞으로 계몽주의적인 노인 권력이 바탕에 깔린, 그런 글쓰기는 지양될 거라고 난 생각해요.”<br/><br/> -계몽주의가 왜 나쁩니까?<br/><br/> “허허, 그게 잘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계급적 편견이라고 봐야 되죠. 자기 가치를 기준으로 타자(他者)를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몽주의 프레임은 허물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전 ‘멘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br/><br/> -왜요? 요즘 멘토와 힐링의 시대라는데요.<br/><br/> “멘토가 계몽주의의 변형이잖아요. 멘토라는 게 대개 연배가 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를 전하는 건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20~30년 후에 살아갈 세계에 대해서 20~30년 전의 경험을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진보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br/><br/>-많은 이들이 선생님을 ‘이 시대의 대표적 스승, 대표적 멘토’라고 부르는데요.<br/><br/> “거대담론도 사라지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추락도 많이 보고 하니까 뭔가 사표(師表)로 삼을 만한 대상을 성급하게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사표나 스승이라는 건 당대에는 존립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인격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간 사표가 있다면 공부하긴 참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낡은 생각이에요. 집단지성 같은 게 필요하고 집단지성을 위한 공간을, 그 진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앞으로의 지식인들이 핵심적으로 고민할 과제예요.”<br/><br/> <br/><br/> 한번도 안 바뀐 노론 권력<br/><br/> -이번 책에서 제시하신 ‘원형 인식모델’은 우리 사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토대와 상부구조를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음과 양, 화(和)와 동(同), 이상과 현실, 좌와 우를 둥근 원 안의 대칭선상에 놓으셨지요. 대비되는 것들은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 말씀엔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카운터파트가 격이 너무 떨어져요.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상호보완이고 뭐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탐욕과 독선이 도를 넘은 지 오랩니다.<br/><br/> “차이라는 건 단순히 공존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변화의 시작으로 삼아야 해요. 차이를 자기 변화의 학습교본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에 이은 ‘가슴에서 발(실천)로의 긴 여행’이지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좌-우, 남-북, 진보-보수, 이런 대비 관계가 과연 상생적인 대비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너무나 비대칭적이어서 도대체 지양(止揚)을 할 수 있는 상생의 파트너가 아니지 않으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 역사에도 그렇게 이상적인, 완벽한 평형을 유지하는 대비 관계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분단과 외세, 그리고 임란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노론 권력의 오래된 지배구조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해 왔잖아요.”<br/><br/> -노론 권력이라고요?<br/><br/> “예, 임란 이후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몰아내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배권력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노론 세력이 한일합방 때도 총독부에서 합방 은사금을 제일 많이 받았지요. 노론이 56, 소론이 6명, 대북이 한 사람. 압도적인 노론이 한일합방의 주축이거든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행정부만 일부 바뀐 거지, 통치권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그렇게 해왔지요. 대학, 대학교수, 각종 재단, 무슨 시스템 이런 것들 쫙 다 소위 말하는 보수진영이 장악하고 있어요.”<br/><br/>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br/><br/> “어쩌겠어요?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자기를 강화하고 군림하는 집단은 다 자기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중심부 집단은 그게 또 약점이 돼요. 중심부는 변방의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류문명의 중심은 부단히 변방에서 변방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변화는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장기성과 굴곡성을 생각하면, 가시적 성과나 목표 달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자부심 있게, 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 작은 숲(공동체)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작은 약속도 하고, 그 ‘인간적인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br/><br/> -그 말씀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네요.(웃음)<br/><br/>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이 선생보다 더 속상할걸요, 속으로는.(웃음) 근데 엄청난 아픔이나 비극도 꼭 그만한 크기의 기쁨에 의해서만 극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기쁨에 의해서도 충분히 견뎌져요. 사람의 정서라는 게 참 묘해서,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지요.”<br/><br/> 큰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소소한 기쁨을 같이 나눌 이웃 만들기, 그게 신영복이 주장해온 ‘더불어숲’의 정신이다. 그 숲 속, 그의 너른 나무그늘 안에 우리 모두 오래오래 머물 수 있기를! <br/><br/> 녹취 함규원(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br/><br/>▶ 이진순 언론학 박사. 전직 교수.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럿거스대 커뮤니케이션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했고 그 전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다큐멘터리 작가로 다양한 인물을 취재했다. 세상의 새 지평을 여는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7.txt

제목: 귄터 그라스의 자서전과 자전소설  
날짜: 2015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08100000064  
본문: 양파 껍질을 벗기며<br/>귄터 그라스 지음<br/>장희창·안장혁 옮김<br/>민음사·2만5000원<br/>암실 이야기<br/>귄터 그라스 지음, 장희창 옮김<br/>민음사·1만3000원<br/><br/>지난달 13일 세상을 뜬 독일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귄터 그라스(1927~2015·사진)의 자서전과 자전소설이 함께 번역 출간되었다. 자서전 는 2006년에 나와 그라스의 ‘나치 친위대’ 복무 사실 고백을 둘러싸고 논란을 낳았으며, 2008년 작인 자전소설 는 공식 결혼 두 번과 두 연인 사이에서 낳은 여덟 아이에 대한 그라스의 미안함과 회한 그리고 화해의 손짓으로 읽힌다. 두 책 모두 그라스 자신이 그린 삽화를 담았다.<br/>　“회상은 누군가가 벗겨 주기를 원하는 양파와도 같다. (…) 양파는 껍질이 많다. 껍질을 여러 겹 가지고 있다. 벗겨지는가 싶으면 어느새 새로운 껍질이 드러난다. 양파를 썰면 눈물이 난다. 껍질을 까면 양파는 비로소 진실을 말한다.”<br/>　자서전을 쓰는 일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 진실이라는 핵심에 이르려면 그것을 감싼 여러 겹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그러자면 매운 눈물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치 친위대 복무 사실을 그토록 오랫동안 숨겼던 것이 노벨문학상 수상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아니냐는 비난은 차라리 부차적이다. 나치의 범죄적 본질을 알 수도 있었을 나이에 그토록 무지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괴로움이야말로 더 진한 눈물의 진원지다.<br/>　“무지해서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범죄에 가담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작아지지 않고, 앞으로도 없어지려 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그 때문에 내가 병을 앓고 있는 범죄였다.”<br/>　는 1930년대 후반 소년기부터 첫 소설 을 낸 1959년까지 20여년 세월을 다룬다. 나치의 광기가 몰락을 향해 치닫던 1940년대 전반기, 열아홉살 나이에 고향을 떠나 미술대학에 입학해 조각과 소조를 배우는 한편 청춘 특유의 방탕 속에 첫 아내를 만난 무렵, 처가 어른들한테 결혼 선물로 받아 지금도 쓰고 있는 이탈리아제 휴대용 타자기 올리베티 그리고 1955년 47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시를 낭독하면서 문단에 얼굴을 내민 이야기 등이 회고된다.<br/>　는 연로한 소설가 아버지가 이제 어른이 된 여덟 자식을 불러모아 각자의 기억을 끄집어내게 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소설의 원제 ‘Die Box’는 평생 아버지 곁에 머물며 가족의 일상을 포착했던 마리 아주머니의 박스 사진기를 가리킨다. 이 동화풍 소설에서 사진기는 과거의 순간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소원을 담아내기까지 한다. 유명한 소설가이자 적극적인 현실 참여주의자로서 가족에게 소홀했던 그라스는 자식들의 눈으로 가족사를 회상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화해를 시도한다. 최재봉 기자, 사진 AFP 연합뉴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8.txt

제목: “이중밀봉된 쇼핑백 받은 홍지사 /뭔지 안묻고 ‘알았다’는 말만”  
날짜: 20150507  
기자: 김원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07100000008  
본문: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시점은 2011년 6월이다. 비주류이던 홍 지사가 대세론을 업고 2012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직을 거머쥐기 직전이다. 홍 지사는 자기 혐의에 대한 부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화되면서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가 당시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고는 “이건 뭐냐”고 묻지 않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이미 아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윤아무개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돈 전달 상황을 재구성해봤다.<br/>　■ 쇼핑백을 또다른 쇼핑백으로 밀봉 2011년 6월, 윤씨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갔다.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주라고 부탁한 쇼핑백을 들고서다. 코팅을 해 반질반질한 쇼핑백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다른 쇼핑백으로 한겹 더 씌워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국회로 떠나기에 앞서 윤씨는 홍 지사의 측근으로 친분이 있던 강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span class='quot0'>언제 찾아가면 뵐 수 있는지</span>”를 물었다고 했다.(강씨는 5일 검찰에 소환돼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br/>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쇼핑백이 묵직해 돈이라고 직감은 했다. 하지만 내용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자신은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씨의 아내는 차를 몰고 의원회관과 가까운 국회 남문으로 들어섰지만 차량통제기를 통과하지는 않고 윤씨를 그 앞에서 내려준 뒤 돌아갔다고 한다. 윤씨는 방문증을 끊고 의원회관에 들어섰다고 했다.<b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씨가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홍 지사를 만나 돈을 건넸다’ ‘제3의 장소에서 돈을 줬다’ 등 엇갈리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의원회관 출입기록은 보관기한인 3년이 지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수사 방해 세력의 작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5일 “수사팀에서 나가는 말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협조를 넘어선 수사 방해 행위는 반드시 찾아서 엄단하겠다”고 했다.<br/>　홍 지사는 6일 출입기자들을 모은 뒤 “<span class='quot1'>윤씨가 자금 전달 장소에 대해 오락가락 진술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엇갈리는 보도를 근거로 ‘윤씨의 진술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윤씨는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4차례 정식 소환조사를 포함해 모두 7차례나 윤씨를 조사한 것은 일부 자세한 내용에서 윤씨의 기억이 흐릿했기 때문이라고 한다.<br/>　■ “쇼핑백 건네자 뭐냐고 묻지도 않아” 윤씨는 의원회관에서 쇼핑백을 건네받은 홍 지사가 아무 말 없이 “알았다”고만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는 또 홍 지사가 곧바로 당시 경선 캠프 재정업무를 총괄하던 나아무개 보좌관(현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불러 그 쇼핑백을 들고 나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수사팀 조사에서 당시 의원실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경위를 진술했다고 한다.<br/>　윤씨는 ‘홍 지사가 이미 쇼핑백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윤씨에게 쇼핑백을 배달시키기 전 홍 지사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엠호텔에서 만났고, 전달한 뒤에는 홍 지사에게 전화해 ‘한 장 잘 받으셨느냐’고 확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br/>　윤씨는 짐작만 하던 쇼핑백 속 물건이 돈이라는 것을 4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이틀 전인 지난달 7일 측근들과 함께 암 투병 중인 윤씨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윤씨에게 “그때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잘 전달했느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을 받았다. 윤씨는 성 전 회장에게 “<span class='quot0'>당시 홍 지사와 미리 얘기가 됐던 건가요</span>”라고 물었고, 성 전 회장은 “당연하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원철 정환봉 기자 wonchul@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69.txt

제목: 대장암 아시아 1위…해마다 5.2%씩 급증 ‘위험’  
날짜: 2015050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06100000089  
본문: 소화기계 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이지만 가파르게 증가하는 암은 대장암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184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은 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계적으로도 남성은 3위, 여성은 5위 수준이다. <br/>　대장암은 고기류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나 비만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이 그동안 서양인이 많이 걸리는 암으로 여겨진 이유다. 관련 전문의들은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대신 흡연·과음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중에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　<br/> 식생활 변화가 빠른 증가의 주요 원인 <br/> 국제암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 정도는 그동안 대장암 위험국가로 알려진 북미나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갑상선암 등에 이어 네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암이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1999~2012년 암 발생 통계를 보면, 대장암은 해마다 5.2%씩 늘어났다. <br/>　대장암의 가파른 증가는 식사 습관의 변화와 함께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큰 노인층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식습관의 경우 육류 섭취 비중이 커진 점이 대장암 발병을 늘렸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나, 육류 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 육류를 섭취하더라도 많이 먹지 말고,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대장암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br/>　<br/> 아무런 증상 없는 경우 많아 <br/> 대장암의 증상은 혈변, 빈혈, 변비나 설사 등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진행된다. 초기에 발견한 경우 암 진단 및 치료 뒤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5년 생존율)이 크게 높지만, 대장암 세포가 다른 암 세포에 견줘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말기에는 생존율이 크게 낮아진다. <br/>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은 75%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법이 추천된다. 현재 국가암검진에서는 50살부터 대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암에 걸린 가족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1~3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또 가족성 용종증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경우, 과거 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에 용종이 있었던 경우에도 주기별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 규칙적인 운동 및 채소·과일 섭취 늘려야 <br/>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2년엔 남성 10만명당 51.4명으로 2011년의 53.3명에서 1.9명이 줄었다. 여성은 같은 기간 27.9명에서 28명으로 0.1명이 늘었다.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줄어든 것은 신체활동의 증가, 음주율 및 비만율의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곧 운동량이나 채소·과일 섭취량을 늘리면 대장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채소와 과일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이런 음식에 풍부한 섬유소의 기능 때문이다. <br/>　섬유소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변비를 예방함으로써 대장의 점막이 발암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준다. 하지만 육류를 포함해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 등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평소 육류를 즐기는 사람은 전체적인 섭취 열량을 고려해 지방질이 많아 열량이 높은 육류의 섭식을 자제하라는 권고다. 물론 흡연이나 과음은 피해야 한다. 빠르게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운동도 대장의 기능을 돕는다. 결국 운동은 배변을 이롭게 해 대변에 포함된 발암물질과의 접촉 시간을 줄여주고 비만 예방에도 기여한다. <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도움말: 민병욱·오상철 고려대의대 구로병원 대장암센터 교수,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0.txt

제목: 대장암 아시아 1위…해마다 5.2%씩 급증 ‘위험’  
날짜: 201505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0510017175910  
본문: 소화기계 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이지만 가파르게 증가하는 암은 대장암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184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은 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계적으로도 남성은 3위, 여성은 5위 수준이다.<br/><br/> 대장암은 고기류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나 비만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이 그동안 서양인이 많이 걸리는 암으로 여겨진 이유다. 관련 전문의들은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대신 흡연·과음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중에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br/> <br/><br/> 식생활 변화가 빠른 증가의 주요 원인 <br/><br/> 국제암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 정도는 그동안 대장암 위험국가로 알려진 북미나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갑상선암 등에 이어 네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암이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1999~2012년 암 발생 통계를 보면, 대장암은 해마다 5.2%씩 늘어났다. <br/><br/> 대장암의 가파른 증가는 식사 습관의 변화와 함께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큰 노인층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식습관의 경우 육류 섭취 비중이 커진 점이 대장암 발병을 늘렸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나, 육류 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 육류를 섭취하더라도 많이 먹지 말고,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대장암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br/><br/> <br/><br/> 아무런 증상 없는 경우 많아 <br/><br/> 대장암의 증상은 혈변, 빈혈, 변비나 설사 등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진행된다. 초기에 발견한 경우 암 진단 및 치료 뒤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5년 생존율)이 크게 높지만, 대장암 세포가 다른 암 세포에 견줘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말기에는 생존율이 크게 낮아진다. <br/><br/>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은 75%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법이 추천된다. 현재 국가암검진에서는 50살부터 대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암에 걸린 가족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1~3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또 가족성 용종증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경우, 과거 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에 용종이 있었던 경우에도 주기별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br/><br/> <br/><br/> 규칙적인 운동 및 채소·과일 섭취 늘려야 <br/><br/>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2년엔 남성 10만명당 51.4명으로 2011년의 53.3명에서 1.9명이 줄었다. 여성은 같은 기간 27.9명에서 28명으로 0.1명이 늘었다.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줄어든 것은 신체활동의 증가, 음주율 및 비만율의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곧 운동량이나 채소·과일 섭취량을 늘리면 대장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채소와 과일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이런 음식에 풍부한 섬유소의 기능 때문이다. <br/><br/> 섬유소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변비를 예방함으로써 대장의 점막이 발암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준다. 하지만 육류를 포함해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 등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평소 육류를 즐기는 사람은 전체적인 섭취 열량을 고려해 지방질이 많아 열량이 높은 육류의 섭식을 자제하라는 권고다. 물론 흡연이나 과음은 피해야 한다. 빠르게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운동도 대장의 기능을 돕는다. 결국 운동은 배변을 이롭게 해 대변에 포함된 발암물질과의 접촉 시간을 줄여주고 비만 예방에도 기여한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도움말: 민병욱·오상철 고려대의대 구로병원 대장암센터 교수,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1.txt

제목: ‘늦깎이 작가’의 예술 투혼 오롯이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501100000125  
본문: 괄호 속의 시간<br/>이강숙 지음/현대문학·1만4000원<br/><br/><br/>서울대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거친 음악학자 이강숙(79·사진)이 소설가로 ‘제2인생’을 시작한 것은 2011년 단편 ‘빈병 교향곡’을 에 발표하면서다. 선례가 드문 ‘65살 등단’은 일찍부터 음악과 문학 양쪽에 두루 재능과 열정을 지녔으나 불가피하게 한쪽을 택하고 다른 한쪽을 포기했던 그가 교수 정년에 즈음해 ‘다른 한쪽’에 전념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br/>　그 뒤 장편 과 , 소설집 으로 만만찮은 필력을 과시한 그가 두번째 소설집 을 묶어 냈다. 500쪽이 넘는 두툼한 분량에 갈무리된 열다섯 단편은 거개가 음악 또는 문학에 들린 인물들을 통해 예술 창작과 현실 사이의 길항 관계를 다룬다. 음악과 문학이라는 두 분야 그리고 스스로도 어쩌지 못할 예술혼에 지핀 이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소설집 전체가 작가의 예술적 고민을 담은 ‘자전소설’처럼 읽힌다.<br/>　“소설다운 소설 하나만 쓰고 죽는 하루가 되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소설이 뭐기에 죽음과 맞바꿀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 등단 6년이 지났는데도 무명으로 남아 있을 만큼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바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소설이 그만큼 저에게 중요했던 건 사실이었던가 봐요.”<br/>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의 주인공 진오의 이런 고백은 그대로 작가 자신의 심경 토로로 들린다. 그가 지방의 문인 집필실에 입주하면서 주변 산을 향해 가슴속으로 외친 말은 사뭇 안쓰럽기까지 하다. “내가 소설을 쓰러 왔다.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냐, 산아, 비밀이 뭐냐. 날 좀 도와다오.” 같은 작품에서 점점 나빠지는 시력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 역시 같은 작품과 표제작 등에서 창작에 쏟아야 할 시간을 의례적인 인간관계에 할애해야 하는 데서 오는 갈등에서도 작가의 모습이 엿보인다.<br/>　2013년 제39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작인 단편 ‘반쯤 죽은 남자’는 대학 시절 이후 같으면서도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음악학자 지곡과 미학의 평생에 걸친 우정과 알력을 그린다. “<span class='quot0'>독일로 간 지곡의 관심은 작곡 기술에만 있었고, 미국으로 간 미학의 관심은 음악을 포함한 예술 전반에 대한 판단 능력에 있었다.</span>” 경쟁 속 우정으로 평생을 동행한 두사람은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한사람은 암환자로 병실에 누웠고 다른 한사람은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한다. 지곡을 먼저 보낸 미학이 곱씹는 상념은 예술과 인생에 대한 이 노작가의 결론처럼 다가온다.<br/>　“<span class='quot0'>너와 나의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가길 바랐듯이 하늘 사랑과 땅 사랑이 하나가 되길, 미학은 지곡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span>” 글 최재봉 기자, 사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2.txt

제목: ‘늦깎이 작가’의 예술 투혼 오롯이  
날짜: 2015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3010017170579  
본문: 괄호 속의 시간 <br/>이강숙 지음/현대문학·1만4000원<br/><br/>서울대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거친 음악학자 이강숙(79)이 소설가로 ‘제2인생’을 시작한 것은 2011년 단편 ‘빈병 교향곡’을 <현대문학>에 발표하면서다. 선례가 드문 ‘65살 등단’은 일찍부터 음악과 문학 양쪽에 두루 재능과 열정을 지녔으나 불가피하게 한쪽을 택하고 다른 한쪽을 포기했던 그가 교수 정년에 즈음해 ‘다른 한쪽’에 전념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br/><br/> 그 뒤 장편 <피아니스트의 탄생>과 <젊은 음악가의 초상>, 소설집 <빈병 교향곡>으로 만만찮은 필력을 과시한 그가 두번째 소설집 <괄호 속의 시간>을 묶어 냈다. 500쪽이 넘는 두툼한 분량에 갈무리된 열다섯 단편은 거개가 음악 또는 문학에 들린 인물들을 통해 예술 창작과 현실 사이의 길항 관계를 다룬다. 음악과 문학이라는 두 분야 그리고 스스로도 어쩌지 못할 예술혼에 지핀 이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소설집 전체가 작가의 예술적 고민을 담은 ‘자전소설’처럼 읽힌다.<br/><br/> “소설다운 소설 하나만 쓰고 죽는 하루가 되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소설이 뭐기에 죽음과 맞바꿀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 등단 6년이 지났는데도 무명으로 남아 있을 만큼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바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소설이 그만큼 저에게 중요했던 건 사실이었던가 봐요.”<br/><br/>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의 주인공 진오의 이런 고백은 그대로 작가 자신의 심경 토로로 들린다. 그가 지방의 문인 집필실에 입주하면서 주변 산을 향해 가슴속으로 외친 말은 사뭇 안쓰럽기까지 하다. “내가 소설을 쓰러 왔다.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냐, 산아, 비밀이 뭐냐. 날 좀 도와다오.” 같은 작품에서 점점 나빠지는 시력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 역시 같은 작품과 표제작 등에서 창작에 쏟아야 할 시간을 의례적인 인간관계에 할애해야 하는 데서 오는 갈등에서도 작가의 모습이 엿보인다.<br/><br/> 2013년 제39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작인 단편 ‘반쯤 죽은 남자’는 대학 시절 이후 같으면서도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음악학자 지곡과 미학의 평생에 걸친 우정과 알력을 그린다. “<span class='quot0'>독일로 간 지곡의 관심은 작곡 기술에만 있었고, 미국으로 간 미학의 관심은 음악을 포함한 예술 전반에 대한 판단 능력에 있었다.</span>” 경쟁 속 우정으로 평생을 동행한 두사람은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한사람은 암환자로 병실에 누웠고 다른 한사람은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한다. 지곡을 먼저 보낸 미학이 곱씹는 상념은 예술과 인생에 대한 이 노작가의 결론처럼 다가온다.<br/><br/> “<span class='quot0'>너와 나의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가길 바랐듯이 하늘 사랑과 땅 사랑이 하나가 되길, 미학은 지곡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span>” <br/><br/>최재봉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3.txt

제목: 연꽃 속에 숨어 반짝이는 보석 같은 암자들  
날짜: 20150430  
기자: 이병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30100000065  
본문: 산세가 다섯 개의 연꽃잎에 싸인 모습이라 해서 오대산이다. 평창·홍천·강릉 경계지역에 솟은, 산세가 수려하고 골짜기 깊은 산이다. “여긴 남쪽 지역보다 한달 이상 봄이 늦다. 보다시피 이제 막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됐다.”(월정사 두엄 스님) 도시 지역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던 지난 주말, 오대산은 슬슬 겨울에서 빠져나와 봄으로 치닫고 있었다. 산봉우리와 능선의 나무들은 아직 황량한 빛으로 찬바람에 시달리고 있었고, 중턱 산비탈에선 늦겨울, 이른 봄에 피어나는 바람꽃·노루귀 들이, 산자락 발치에선 진달래 무리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br/>　꽃 피고 새 우는 오대산의 이른 봄날, 산 이름의 연원이 된 다섯 암자 탐방길에 나섰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찾아볼 만한, 소박하면서 유서 깊고 아름다운 암자들이다. 암자 찾아가는 산길은 걸을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지천인 야생화들로 눈이 아득해지고, 한기 품은 산바람에 이마는 서늘해지는 숲길이다. 암자 오가는 길에는 울창한 전나무숲이 펼쳐지고, 암자마다 물맛 좋은 샘도 품고 있다.<br/>　고승들 발자취 서린 오대산 오대 암자 <br/> 오대산(1563m)이 연꽃잎 형상이란 이야기는, 다섯 산자락에 다섯 암자(대)가 자리잡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신라 고승 자장 율사가 중국 오대산(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와 모신, 상원사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다섯 암자가 동서남북과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동대 관음암, 서대 수정암, 남대 지장암, 북대 미륵암, 그리고 중대 사자암이 그것이다. 각 암자엔 각각 동서남북 방위를 상징하는 보살을 모시고 있다.<br/>　신라 신문왕의 두 아들, 보천·효명 승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에 전한다. 두 형제가 오대산에 들어 수도하던 중 형인 보천에게 왕위 계승 명령이 떨어진다. 하지만 보천은 사양하며 동생에게 넘겼고, 동생 효명은 이를 받아들여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그가 성덕대왕이다. 현재 상원사에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답다는 동종(국보 제36호)이 바로 성덕대왕 때(725년) 만들어졌다. 보천은 입적하기 전, 오대산의 다섯 대를 점지하고 암자를 짓게 했다고 한다. <br/>　아늑한 비구니 수행도량 남대 지장암 <br/> 남대 지장암은 오대천 물길의 지장교 건너 3분 거리다. 3분 거리 숲길에 ‘3분 거리’임을 강조하며 차를 두고 걸어 들어올 것을 권하는 안내판이 이어진다. 짧아도 전나무숲길 거니는 맛이 아주 좋다.<br/>　지장암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을 모신 암자다. 한강 이북에서 가장 규모 큰 비구니 도량이라고 한다. 본디 뒷산(기린산) 중턱에 있었으나, 조선 말 비구니 한분이 호랑이에게 희생되자 현 위치로 옮겼다. 비구니 도량답게 분위기는 조용하고 아늑하고 정갈하다. 선방 기둥의 한글 주련과 요사채의 한글 이름(넉넉당)이 이채롭다.<br/>　이 암자에서 빛을 발하는 곳이 두곳 있다. 법당 양쪽 산자락의 전나무(젓나무)숲이다. 오른쪽 길로 들어 넉넉당 지나면 곧바로 산책로가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숲이 나타난다. 스님들의 산책·휴식 공간이다. 지장암의 샘인 총명수 우물이 이곳에 있지만, 지금은 물이 말라 있다. 법당 왼쪽 해우소 지나 잠시 걸어 올라도 울창한 전나무숲이 펼쳐진다. 키다리 전나무들이 하늘을 가린 숲길은 어둡고, 짙푸른 이끼 덮인 물길은 눈부시다.<br/>　욕심 없는 노승이 15년 지켜온 동대 관음암<br/> 동대 관음암 가는 길은 가파른 시멘트길이다. 오대천 물길에서, 산괴불주머니들이 피어나 흔들리는 산길을 30~40분 걸어 오르면, 구원을 바라는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암에 닿는다. 이웃 할아버지 같은 온화한 얼굴의 노승이 손도끼로 나무를 다듬고 앉아 있다. <br/>　“처음 와보이 절집이 다 허물어져삐린 기라. 그래 고치고 짓고 다듬고 하다보이께네 10 한 5~6년 지난갑다.” 소탈한 성품과 선지식으로 존경받는 월정사의 어른 중 한분으로, 고승 한암, 탄허, 만화 스님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월면 스님이다. 이 암자엔 불전함이 없다. 차를 내다 준 보살(여성 불자)은, “딴 욕심은 없는데, 스님이 일 욕심이 많아 장작 패기부터 문짝 고치기까지, 암자의 모든 잡일을 손수 해결한다”고 귀띔했다. 욕심 없는 노승이 지키는 관음암 옆 산자락엔 산괴불주머니·현호색·제비꽃 들이 돋아나 소박한 암자를 환하게 비춰준다. 동대의 샘은 청계수다.<br/>　상원사 오르는 길에 오대산 사고 터와 사고 수호 사찰인 영감사도 만날 수 있다. 등에는 본디 오대산 남대가 영감사라는 기록이 전해온다고 한다.<br/>　이정표도, 반기는 이도 없는 서대 수정암 <br/> 오대 암자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절집과, 가장 멋진 숲길을 거느린 암자가 서대 수정암이다. 이정표도 없는 가파른 산비탈 오솔길을 40분쯤 걸어 오르면, 고색창연한 너와지붕 판잣집 암자에 닿는다. 40분 거리를 1시간쯤으로 늘려주는 게 산자락에 지천으로 깔린 노루귀·얼레지·제비꽃·현호색 등 이른 봄에 피어나는 야생화들이다. 흰 노루귀들이 가장 많고, 변종인 파란색 노루귀들도 자주 눈에 띈다.<br/>　‘참선 정진중’ 팻말이 붙은 산문 앞엔, 조선시대 한강 발원지로 꼽혀온 샘 우통수가 있다. 요즘은 태백 검룡소가 한강 발원지로 인정받았지만, 선조들은 우통수를 한강의 시원으로 여겨 신성시했다. 물맛이 묵직하고도 청량하다는, 조선시대 3대 샘물 중 하나다. 우통수 수곽(나무틀 우물)을 들여다보니, 도롱뇽이 낳은 알이 한껏 부풀어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br/>　서대 수정암은 온통 나무로 덮여 있다. 지붕도 벽도 문도 나무판자요, 담도 장작을 쌓아 만들었다. 굴뚝도 전나무 속을 파낸 나무굴뚝이다. 손바닥만한 마당과 발바닥만한 텃밭 주위로는 꿩의바람꽃·노루귀·제비꽃들이 해맑은 얼굴들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동대 관음암 쪽 능선 전망이 너와지붕 너머로 막막하게 펼쳐질 뿐이다.<br/>　오대산 중심, 중대 사자암과 적멸보궁 <br/> 가장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곳이 중대 사자암이다. 사자암 거쳐 적멸보궁을 찾는 탐방객이 많기 때문이다. 길도 훤하고 건물도 번듯하다. 사자암 안내판에서, 김홍도가 18세기 말에 그린 그림을 볼 수 있다. 오솔길로 이어진 중대 사자암과 적멸보궁이 운치있게 그려져 있다. 사자암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적멸보궁의 수호 암자다.<br/>　중대 적멸보궁은 자장 율사가 가져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5대 적멸보궁(양산 통도사, 영월 법흥사, 정선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중대) 중 한곳이다. 정면 세 칸의 소박한 법당 뒤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임을 알려주는 작은 마애탑이 하나 서 있다.<br/>　사자암에서 적멸보궁 오르는 산길엔 진달래가 한창이다. 적멸보궁 못미처 길옆에 용안수가 있다. 적멸보궁이 자리한 곳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용의 정수리이고, 샘물이 용의 눈에 해당한다고 한다. 물맛은 달고 개운하다.<br/>　야생화밭에 둘러싸인 북대 미륵암 <br/> 오대 암자 중 가장 멀고, 가기 어려운 곳이 북대 미륵암이다. 상원사 들머리에서 미륵암 거쳐 두로령 넘어 홍천 내면분소까지 이어지는 16.5㎞ 거리의 임도가 이어지지만, 차량 통행은 금지돼 있다. 게다가 해마다 3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 우려로 아예 입산이 금지되는 산길이다. 입산금지 기간이지만, 미륵암 덕행 스님의 배려로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었다.<br/>　오백 나한(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이)을 모신 북대 미륵암은 옛날엔 상두암·도솔암으로 불렀다. 덕행 스님은 “<span class='quot0'>상두암은 신성시하던 코끼리의 머리를 뜻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선인들은 북대를 특히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span>”고 말했다. 암자 뒤 산자락에 소박하게 자리잡은 차실에 앉아 오백 나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곳에 주석하던(머물던) 나옹선사가 오백 나한에게 상원사로 가라고 한 뒤 상원사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그런데 두 나한이 안 보여 찾아보니 칡덩굴에 걸려 못 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 뒤 나옹선사는 오대산에서 칡을 쫓아내, 지금도 칡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칡덩굴은 무엇일까. 칡덩굴처럼 얽힌 세상 인연이 수행을 가로막는 번뇌였을 것이다. 미륵암 앞 산자락엔 나옹선사가 적멸보궁을 바라보며 수행했다는 나옹대가 있다. <br/> 북대 미륵암 옆산·뒷산 자락엔 얼레지가 지천이고, 산등성이엔 노루귀가 찬바람을 견디며 흰 꽃송이들을 무수히 피워 올렸다. 북대엔 감로수가 있다. <br/> 오대산(평창)/글·사진 이병학 선임기자 leebh99@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4.txt

제목: 운동·금연·절주 대신 비타민제만 의존?  
날짜: 2015042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9100000063  
본문: 평소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고 흡연과 잦은 과음을 하지만 정작 운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알약 하나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의 이런 바람 덕에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는 게 비타민제 등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다. 하지만 효과가 없거나 되레 해롭다는 다른 한편의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br/>　특히 합성 종합비타민제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비타민제나 건강기능식품의 부풀려진 효과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던진 책이 국내에서 출간됐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교수가 펴낸 (사진)라는 책이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타민제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br/>　비타민제가 갖가지 질병을 치료했다?<br/>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고 고혈압·망막혈관질환·뇌졸중 후유증 등을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영양학회가 권장하는 하루 비타민C 섭취량은 100㎎이지만 고용량 요법은 이의 60배에 이르는 6000㎎을 먹는 것을 일컫는다.<br/>　그러나 명 교수가 올해 2월까지 나온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C 보충제가 뇌졸중 때문에 생긴 반신마비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은 발표된 바가 없다. 비타민C 보충제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 임상시험은 4건으로 모두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타민C 보충제는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막혈관질환의 치료 효과도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br/>　다만 고혈압의 경우 비타민C 보충제가 높은 쪽 혈압을 4.9㎜Hg 정도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 정도 효과는 운동을 하는 등 생활습관을 교정할 때 떨어지는 혈압 수치인 5㎜Hg보다 낮았다. 명 교수는 비타민C 보충제가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감소시킨다고 해도 생활습관 개선이나 고혈압치료제보다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br/>　비타민A, 베타카로틴제는 오히려 수명 단축시켜 <br/> 채소나 과일 등 비타민이나 천연항산화제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견줘 심근경색 등 심장·혈관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도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 400g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한다.<br/>　그렇다면 합성해서 만든 종합비타민제도 같은 효과를 낼까? 2007년 2월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에는 비타민제의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제의 효과에 대해 모두 18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7편의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그 신뢰성이 높게 평가됐다. 결과를 보면, 종합비타민제에 든 베타카로틴, 비타민A, 비타민E는 사망률을 되레 각각 7%, 16%, 4%씩 높이며, 비타민C와 셀레늄은 사망률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탓에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에서는 암이나 심장·혈관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br/>　오메가-3 보충제, 글루코사민의 효과도 증명되지 않아<br/>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와 같이 등이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으며, 이런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심장·혈관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메가-3 보충제로 먹으면 그렇지 않다. 효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생선으로 먹을 때에는 오메가-3 외에도 다른 영양성분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br/>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은 오메가-3를 추가로 먹어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오메가-3의 효과를 살펴본 대규모 연구는 없다. <br/>　게나 새우 등의 껍데기 구성 성분인 키틴을 높은 온도에서 분해해서 만드는 글루코사민은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0편의 논문을 종합분석한 결과 글루코사민의 효과는 가짜 약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0'>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절주, 금연, 적정 몸무게 유지, 규칙적인 운동, 과일과 채소 섭취 등을 실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5.txt

제목: 연꽃 속에 숨어 반짝이는 보석 같은 암자들  
날짜: 2015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910017148622  
본문: 산세가 다섯 개의 연꽃잎에 싸인 모습이라 해서 오대산이다. 평창·홍천·강릉 경계지역에 솟은, 산세가 수려하고 골짜기 깊은 산이다. “여긴 남쪽 지역보다 한달 이상 봄이 늦다. 보다시피 이제 막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됐다.”(월정사 두엄 스님) 도시 지역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던 지난 주말, 오대산은 슬슬 겨울에서 빠져나와 봄으로 치닫고 있었다. 산봉우리와 능선의 나무들은 아직 황량한 빛으로 찬바람에 시달리고 있었고, 중턱 산비탈에선 늦겨울, 이른 봄에 피어나는 바람꽃·노루귀 들이, 산자락 발치에선 진달래 무리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br/><br/> 꽃 피고 새 우는 오대산의 이른 봄날, 산 이름의 연원이 된 다섯 암자 탐방길에 나섰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찾아볼 만한, 소박하면서 유서 깊고 아름다운 암자들이다. 암자 찾아가는 산길은 걸을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지천인 야생화들로 눈이 아득해지고, 한기 품은 산바람에 이마는 서늘해지는 숲길이다. 암자 오가는 길에는 울창한 전나무숲이 펼쳐지고, 암자마다 물맛 좋은 샘도 품고 있다.<br/><br/><br/><br/> 고승들 발자취 서린 오대산 오대 암자 <br/><br/> 오대산(1563m)이 연꽃잎 형상이란 이야기는, 다섯 산자락에 다섯 암자(대)가 자리잡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신라 고승 자장 율사가 중국 오대산(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와 모신, 상원사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다섯 암자가 동서남북과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동대 관음암, 서대 수정암, 남대 지장암, 북대 미륵암, 그리고 중대 사자암이 그것이다. 각 암자엔 각각 동서남북 방위를 상징하는 보살을 모시고 있다.<br/><br/> 신라 신문왕의 두 아들, 보천·효명 승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한다. 두 형제가 오대산에 들어 수도하던 중 형인 보천에게 왕위 계승 명령이 떨어진다. 하지만 보천은 사양하며 동생에게 넘겼고, 동생 효명은 이를 받아들여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그가 성덕대왕이다. 현재 상원사에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답다는 동종(국보 제36호)이 바로 성덕대왕 때(725년) 만들어졌다. 보천은 입적하기 전, 오대산의 다섯 대를 점지하고 암자를 짓게 했다고 한다. <br/><br/>신라 성덕대왕이 형과 함께 <br/>수행하던 오대산 <br/>형 보천 스님이 입적하기 전 <br/>오대산 다섯 대 점지하고 <br/>암자 짓게 해<br/><br/> 아늑한 비구니 수행도량 남대 지장암 <br/><br/> 남대 지장암은 오대천 물길의 지장교 건너 3분 거리다. 3분 거리 숲길에 ‘3분 거리’임을 강조하며 차를 두고 걸어 들어올 것을 권하는 안내판이 이어진다. 짧아도 전나무숲길 거니는 맛이 아주 좋다.<br/><br/> 지장암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을 모신 암자다. 한강 이북에서 가장 규모 큰 비구니 도량이라고 한다. 본디 뒷산(기린산) 중턱에 있었으나, 조선 말 비구니 한분이 호랑이에게 희생되자 현 위치로 옮겼다. 비구니 도량답게 분위기는 조용하고 아늑하고 정갈하다. 선방 기둥의 한글 주련과 요사채의 한글 이름(넉넉당)이 이채롭다.<br/><br/> 이 암자에서 빛을 발하는 곳이 두곳 있다. 법당 양쪽 산자락의 전나무(젓나무)숲이다. 오른쪽 길로 들어 넉넉당 지나면 곧바로 산책로가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숲이 나타난다. 스님들의 산책·휴식 공간이다. 지장암의 샘인 총명수 우물이 이곳에 있지만, 지금은 물이 말라 있다. 법당 왼쪽 해우소 지나 잠시 걸어 올라도 울창한 전나무숲이 펼쳐진다. 키다리 전나무들이 하늘을 가린 숲길은 어둡고, 짙푸른 이끼 덮인 물길은 눈부시다.<br/><br/><br/><br/> 욕심 없는 노승이 15년 지켜온 동대 관음암<br/><br/> 동대 관음암 가는 길은 가파른 시멘트길이다. 오대천 물길에서, 산괴불주머니들이 피어나 흔들리는 산길을 30~40분 걸어 오르면, 구원을 바라는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암에 닿는다. 이웃 할아버지 같은 온화한 얼굴의 노승이 손도끼로 나무를 다듬고 앉아 있다. <br/><br/> “처음 와보이 절집이 다 허물어져삐린 기라. 그래 고치고 짓고 다듬고 하다보이께네 10 한 5~6년 지난갑다.” 소탈한 성품과 선지식으로 존경받는 월정사의 어른 중 한분으로, 고승 한암, 탄허, 만화 스님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월면 스님이다. 이 암자엔 불전함이 없다. 차를 내다 준 보살(여성 불자)은, “딴 욕심은 없는데, 스님이 일 욕심이 많아 장작 패기부터 문짝 고치기까지, 암자의 모든 잡일을 손수 해결한다”고 귀띔했다. 욕심 없는 노승이 지키는 관음암 옆 산자락엔 산괴불주머니·현호색·제비꽃 들이 돋아나 소박한 암자를 환하게 비춰준다. 동대의 샘은 청계수다.<br/><br/> 상원사 오르는 길에 오대산 사고 터와 사고 수호 사찰인 영감사도 만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 등에는 본디 오대산 남대가 영감사라는 기록이 전해온다고 한다.<br/><br/><br/><br/> 이정표도, 반기는 이도 없는 서대 수정암 <br/><br/> 오대 암자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절집과, 가장 멋진 숲길을 거느린 암자가 서대 수정암이다. 이정표도 없는 가파른 산비탈 오솔길을 40분쯤 걸어 오르면, 고색창연한 너와지붕 판잣집 암자에 닿는다. 40분 거리를 1시간쯤으로 늘려주는 게 산자락에 지천으로 깔린 노루귀·얼레지·제비꽃·현호색 등 이른 봄에 피어나는 야생화들이다. 흰 노루귀들이 가장 많고, 변종인 파란색 노루귀들도 자주 눈에 띈다.<br/><br/> ‘참선 정진중’ 팻말이 붙은 산문 앞엔, 조선시대 한강 발원지로 꼽혀온 샘 우통수가 있다. 요즘은 태백 검룡소가 한강 발원지로 인정받았지만, 선조들은 우통수를 한강의 시원으로 여겨 신성시했다. 물맛이 묵직하고도 청량하다는, 조선시대 3대 샘물 중 하나다. 우통수 수곽(나무틀 우물)을 들여다보니, 도롱뇽이 낳은 알이 한껏 부풀어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br/><br/> 서대 수정암은 온통 나무로 덮여 있다. 지붕도 벽도 문도 나무판자요, 담도 장작을 쌓아 만들었다. 굴뚝도 전나무 속을 파낸 나무굴뚝이다. 손바닥만한 마당과 발바닥만한 텃밭 주위로는 꿩의바람꽃·노루귀·제비꽃들이 해맑은 얼굴들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동대 관음암 쪽 능선 전망이 너와지붕 너머로 막막하게 펼쳐질 뿐이다.<br/><br/><br/><br/> 오대산 중심, 중대 사자암과 적멸보궁 <br/><br/> 가장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곳이 중대 사자암이다. 사자암 거쳐 적멸보궁을 찾는 탐방객이 많기 때문이다. 길도 훤하고 건물도 번듯하다. 사자암 안내판에서, 김홍도가 18세기 말에 그린 <오대산 중대> 그림을 볼 수 있다. 오솔길로 이어진 중대 사자암과 적멸보궁이 운치있게 그려져 있다. 사자암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적멸보궁의 수호 암자다.<br/><br/> 중대 적멸보궁은 자장 율사가 가져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5대 적멸보궁(양산 통도사, 영월 법흥사, 정선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중대) 중 한곳이다. 정면 세 칸의 소박한 법당 뒤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임을 알려주는 작은 마애탑이 하나 서 있다.<br/><br/> 사자암에서 적멸보궁 오르는 산길엔 진달래가 한창이다. 적멸보궁 못미처 길옆에 용안수가 있다. 적멸보궁이 자리한 곳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용의 정수리이고, 샘물이 용의 눈에 해당한다고 한다. 물맛은 달고 개운하다.<br/><br/><br/><br/> 야생화밭에 둘러싸인 북대 미륵암 <br/><br/> 오대 암자 중 가장 멀고, 가기 어려운 곳이 북대 미륵암이다. 상원사 들머리에서 미륵암 거쳐 두로령 넘어 홍천 내면분소까지 이어지는 16.5㎞ 거리의 임도가 이어지지만, 차량 통행은 금지돼 있다. 게다가 해마다 3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 우려로 아예 입산이 금지되는 산길이다. 입산금지 기간이지만, 미륵암 덕행 스님의 배려로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었다.<br/><br/> 오백 나한(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이)을 모신 북대 미륵암은 옛날엔 상두암·도솔암으로 불렀다. 덕행 스님은 “<span class='quot0'>상두암은 신성시하던 코끼리의 머리를 뜻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선인들은 북대를 특히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span>”고 말했다. 암자 뒤 산자락에 소박하게 자리잡은 차실에 앉아 오백 나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곳에 주석하던(머물던) 나옹선사가 오백 나한에게 상원사로 가라고 한 뒤 상원사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그런데 두 나한이 안 보여 찾아보니 칡덩굴에 걸려 못 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 뒤 나옹선사는 오대산에서 칡을 쫓아내, 지금도 칡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칡덩굴은 무엇일까. 칡덩굴처럼 얽힌 세상 인연이 수행을 가로막는 번뇌였을 것이다. 미륵암 앞 산자락엔 나옹선사가 적멸보궁을 바라보며 수행했다는 나옹대가 있다. <br/><br/> 북대 미륵암 옆산·뒷산 자락엔 얼레지가 지천이고, 산등성이엔 노루귀가 찬바람을 견디며 흰 꽃송이들을 무수히 피워 올렸다. 북대엔 감로수가 있다. <br/><br/> 오대산(평창)/글·사진 이병학 선임기자 leebh99@hani.co.kr<br/><br/> 오대산 여행 정보<br/><br/>가는 길 수도권에서 영동고속도로 타고 강릉 쪽으로 가다 진부나들목에서 나가 월정사로 간다. 먼저 월정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월정사와 남대 지장암, 동대 관음암을 차례로 둘러보도록 한다. 다시 차를 몰고 영감사, 오대산 사고 거쳐 상원사 주차장에 차를 댄 뒤 상원사와 서대 수정암, 중대 사자암, 적멸보궁을 둘러보면 된다. 북대 미륵암은 5월16일부터 걸어서 탐방할 수 있다. 임도 따라 걸어서 2시간 거리다.<br/><br/><br/><br/>먹을 곳 월정사 들머리 도로변으로 비로봉식당·오대산식당 등 산채정식을 내는 식당들이 즐비하다. 비로봉식당은 주인이 직접 나물을 채취해, 조미료를 쓰지 않고 제철 나물을 무쳐 낸다. 산채정식 1만2000원.<br/><br/><br/><br/>묵을 곳 오대산 들머리에 켄싱턴플로라호텔이 있고, 진부면소재지 주변에 하이야트모텔 등 모텔이 몇곳 있다.<br/><br/><br/><br/>주변 탐방할 곳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오대천 상류 물길 따라, 과거 스님들과 화전민들이 오고 가던 옛길을 다듬어 조성한 ‘선재길’(약 9㎞)이 있다. 선재는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지혜를 찾아 나선 동자)에서 따온 이름이다. 중간쯤에 있는 오대산장에선 차 한잔하며 정원에 심어 가꿔놓은 오대산 야생화들을 감상할 수 있다. 톡 쏘는 물맛을 지닌 방아다리 약수도 가볼 만하다. 들머리 울창한 전나무숲길도 운치 있다.<br/><br/><br/><br/>5월9일 ‘오대산 천년숲 선재길 걷기’ 행사 5월9일 월정사 들머리의 ‘한강시원지체험관’ 개관식과 함께 ‘오대산 천년숲 시원을 따라 선재길 걷기’ 행사가 월정사 주최로 펼쳐진다. 2004년부터 12회째 벌이는 걷기 행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강시원지체험관에선 <세종실록>에서 ‘한수(漢水)의 근원’이라 기록한 오대산 우통수에 대한 인문·지리적 가치를 조명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br/><br/><br/><br/>여행 문의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033)332-6417, 6494. 평창군 진부면사무소 (033)335-7301.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6.txt

제목: 운동·금연·절주 대신 비타민제만 의존?  
날짜: 2015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810017124903  
본문: 평소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고 흡연과 잦은 과음을 하지만 정작 운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알약 하나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의 이런 바람 덕에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는 게 비타민제 등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다. 하지만 효과가 없거나 되레 해롭다는 다른 한편의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br/><br/> 특히 합성 종합비타민제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비타민제나 건강기능식품의 부풀려진 효과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던진 책이 국내에서 출간됐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교수가 펴낸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사진)라는 책이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타민제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br/><br/><br/><br/> 비타민제가 갖가지 질병을 치료했다?<br/><br/>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고 고혈압·망막혈관질환·뇌졸중 후유증 등을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영양학회가 권장하는 하루 비타민C 섭취량은 100㎎이지만 고용량 요법은 이의 60배에 이르는 6000㎎을 먹는 것을 일컫는다.<br/><br/> 그러나 명 교수가 올해 2월까지 나온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C 보충제가 뇌졸중 때문에 생긴 반신마비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은 발표된 바가 없다. 비타민C 보충제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 임상시험은 4건으로 모두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타민C 보충제는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막혈관질환의 치료 효과도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br/><br/> 다만 고혈압의 경우 비타민C 보충제가 높은 쪽 혈압을 4.9㎜Hg 정도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 정도 효과는 운동을 하는 등 생활습관을 교정할 때 떨어지는 혈압 수치인 5㎜Hg보다 낮았다. 명 교수는 비타민C 보충제가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감소시킨다고 해도 생활습관 개선이나 고혈압치료제보다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br/><br/><br/><br/> 비타민A, 베타카로틴제는 오히려 수명 단축시켜 <br/><br/> 채소나 과일 등 비타민이나 천연항산화제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견줘 심근경색 등 심장·혈관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도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 400g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한다.<br/><br/> 그렇다면 합성해서 만든 종합비타민제도 같은 효과를 낼까? 2007년 2월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미국의학협회지>에는 비타민제의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제의 효과에 대해 모두 18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7편의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그 신뢰성이 높게 평가됐다. 결과를 보면, 종합비타민제에 든 베타카로틴, 비타민A, 비타민E는 사망률을 되레 각각 7%, 16%, 4%씩 높이며, 비타민C와 셀레늄은 사망률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탓에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에서는 암이나 심장·혈관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br/><br/><br/><br/> 오메가-3 보충제, 글루코사민의 효과도 증명되지 않아<br/><br/>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와 같이 등이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으며, 이런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심장·혈관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메가-3 보충제로 먹으면 그렇지 않다. 효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생선으로 먹을 때에는 오메가-3 외에도 다른 영양성분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br/><br/>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은 오메가-3를 추가로 먹어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오메가-3의 효과를 살펴본 대규모 연구는 없다. <br/><br/> 게나 새우 등의 껍데기 구성 성분인 키틴을 높은 온도에서 분해해서 만드는 글루코사민은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0편의 논문을 종합분석한 결과 글루코사민의 효과는 가짜 약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0'>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절주, 금연, 적정 몸무게 유지, 규칙적인 운동, 과일과 채소 섭취 등을 실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7.txt

제목: ‘막장’ 대명사 /임성한 /같은 이가 /또 나오랴 /싶겠지만  
날짜: 2015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5100000056  
본문: 임성한 작가의 은퇴 소식이 알려진 지난 23일 누군가 내게 물었다. “<span class='quot0'>막장 드라마의 효시 격이라고 볼 수 있나요?</span>” 순간 기분이 복잡미묘해졌다. 따지고 보면 임성한은 막장 드라마의 포문을 연 작가도 아니고, 그 장르의 제일 최신주자도 아니다. 굳이 효시를 꼽자면 1993년 에스비에스(SBS) 를 선보인 서영명이 있고, 최신주자를 찾자면 문화방송(MBC) (2012~2013), (2014)의 원영옥이 있다. 대중성으로 보면 에스비에스 (2008)과 문화방송 (2014)의 김순옥이 한 수 위고, 통속성으로 치면 한국방송(KBS) (2014)의 문영남을 이기긴 어렵다. 그러나 우린 ‘막장 드라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조건반사처럼 임성한을 떠올린다. 열 작품을 쓰고 나면 은퇴하겠노라고 말했다는 임성한 작가는, 그 열 작품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막장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br/>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 문화방송 일일드라마 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1998년만 해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다. 물론 그때도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겹사돈’ 설정이라거나, 자매 중 언니 금주(윤혜영)만 병적으로 편애하는 엄마(김창숙)의 존재, 기정(정보석)과 은주(김지수)가 처음 마주치는 장소로 등장하는 공연장 등 훗날 임성한 월드를 구축하는 요소의 단초가 보이긴 했다. 그래도 에는 분명한 줄거리라는 것이 있었다. 보수적인 양가 부모들, 뿌리깊은 편애, 형님이 동서가 되고 동생이 형님이 되는 배배 꼬인 겹사돈이라는 장애물들을 뚫고 이 젊은 두 커플이 가족을 이룬다는 중심 줄거리는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과정이야 어쨌든 무난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는 서사는 논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었다. 일일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 57.3%, 문화방송이 일일드라마로 한국방송을 이긴 최초의 순간이었다.<br/>　첫 장편 드라마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게 문제였던 걸까. 두번째 장편이던 문화방송 (2000)에서 임성한은 자극적인 서사의 강도를 높였다. 6명의 배다른 자식을 남기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린 아버지(변희봉)라거나, 힘겹게 세파를 헤쳐나가는 형제들 앞에 끼어드는 아버지의 후처들 같은 요소들은 전작의 겹사돈 논란 따위는 귀여워 보일 정도의 소재였다. 연출을 맡은 조중현 감독은 대놓고 “<span class='quot1'>이런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한 작품은 도저히 못 하겠다</span>”며 직접 대본에 손을 댔고, 이에 대고 임성한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르렁댔으며, 그 과정은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은 다시 한번 동시간대 한국방송 일일드라마를 이기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방송 또한 전남편의 친구와 재혼을 한 뒤에야 전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는 파격적인 전개를 선보였지만, 최후의 승자는 이었다.<br/>　자신의 각본을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하다며 임의로 고친 감독 탓에 자존심은 상처 입었지만, 그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한 각본으로 다시 한번 한국방송을 이긴 상황. 누구도 자기 작품에 토를 달지 못할 만큼 높은 시청률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문화방송 (2002)에서 여주인공 은아리영(장서희)의 직업이 ‘잘나가는 드라마 작가’라는 점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젊고 아름다우며 춤도 잘 추고 쓰는 드라마마다 흥행하는 작가 은아리영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의붓어미이자 톱탤런트인 심수정(한혜숙)의 뺨을 때리고 이복동생 예영(우희진)의 약혼남 주왕(김성민)을 빼앗는다. 은아리영은 분명 임성한의 페르소나였고, 임성한은 그의 입을 빌려 같은 방송사의 다른 드라마를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시청자들을 향해 “딸기는 칫솔로 박박 씻어야 한다”거나 “김치찌개는 2시간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 푹 끓여야 한다”는 식의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한 주장을 설파하기 시작했다.<br/>　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초창기 문화방송 에서 보여준 준수한 단막극을 닮은 드라마로 방향을 전환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순간 최고 시청률 47.9%를 찍은 이 드라마 이후 임성한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딸의 불임은 어머니의 업보 때문’이라는 식의 미신이 스멀스멀 드라마 안으로 기어들어왔고, 마마보이인 캐릭터의 이름을 ‘마마준’(정보석)이라고 짓는 기괴한 작명 방식도 이때 시작됐다. 그 모든 요소들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논란은 오히려 시청률 상승을 부추겼다. 세간의 비판과 손가락질에도 시청률은 40%를 넘나들었고, 96부작으로 기획되었던 드라마는 방송사 쪽의 요구로 246회로 마무리되었다. 시청률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br/>　지독한 서사와 더 독한 대사, 미신과 무속의 요소와 정체불명의 생활 상식, 의미없는 개그 장면이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뒷담화 같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몸을 섞은 임성한 드라마 고유의 작법은 이 무렵 탄생했다. 남자의 복근을 빨래판 삼아 빨래를 하는 꿈 시퀀스나 귀신에 빙의한 남자가 눈에서 레이저빔을 쏘는 장면(<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 에스비에스 , 2011)을 삽입하면 황당한 맛에 시청률이 오를 것이란 사실을, 서사와는 별개로 겉도는 은아리영의 춤 솜씨나 드럼 실력 따위를 전시하며 시청률을 올렸던 그 순간 간파했던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주인공 두 사람의 대화로 30분을 채우면서도 팽팽한 서스펜스를 유지할 수 있는 필력을 지녔으면서(문화방송 , 2014~ ), 임성한은 그 필력으로 탄탄한 서사를 완성하기보단 자신의 관심사(무속, 미신, 스포츠)나 주장, 편견을 최대한 자극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서사를 해체해버렸다.<br/>　정보석이나 허준호 같은 당대 톱스타 배우들을 주연으로 기용하던 임성한이 신인이나 중고 신인들을 주연으로 기용해 작품에 대한 통제력을 늘리기 시작한 것도 무렵이었다. 임성한은 방송사엔 시청률을 보장하는 스타 작가였고, 동시에 주연배우들에겐 오랜 무명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은인이 되었다. 그 은인이 쓴 대본이기에, 배우들은 어떤 대사라도 감히 거스르지 못한다. 문화방송 (2013)에서 “암도 생명체인데 같이 살아야죠”란 대사를 받고 5분간 말문이 막혔다는 서하준은, 그럼에도 임성한을 은인으로 꼽길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캐스트를 장악한 임성한은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려 다른 프로그램들을 흉보고, 입양아와 성 소수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무지를 과시했으며, 황당한 설정이나 대사에 항의하는 중견배우들을 임의로 하차시켜 버렸다.<br/>　작품 외적으론 좀처럼 노출을 꺼리는 임성한인지라, 그가 어떤 속내로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그 심사를 넘겨짚는 건 무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임성한은 연출자에게 ‘월권’을 당했다고 생각하자 다음 작품 주인공을 무소불위의 작가로 설정했고(), 등장인물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을 관철시키려다 방송사에 의해 하차당하자(문화방송 , 2004~2005) 바로 방송사를 바꿔 더 독한 드라마(에스비에스 , 2005~2006)를 선보였다. 무분별한 주조연급 배우 하차로 작품이 인기를 잃자, 아예 등장인물을 죽이는 것 자체를 엔터테인먼트 삼아 시청률을 끌어올리고는 방송사에 일방적으로 50회 연장을 요구했다(). 작가의 독선을 비판한 배우들을 향해선 극중 대사를 통해 “<span class='quot2'>자기 이미지 띄우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드라마를 찍으라</span>”고 비아냥댔다. 그 모든 순간, 임성한은 작가라기보단 시청률이 안겨주는 권력에 취한 폭군에 가까웠다. 시청률을 위해 서사를 해체하는 이를, 작가라 불러선 안 되니 말이다.<br/>　임성한은 가도 막장은 남는다. 이미 원영옥이나 문화방송 (2013), (2014)를 집필한 구현숙 등의 신예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말이다. 설마하니 임성한 같은 이가 또 나오랴 싶겠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런 작가는 아니었다.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 제3의 임성한을 용인할 것인가. 채널 선택은 리모컨을 손에 쥔 우리 몫이다. 이승한 티브이 칼럼니스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8.txt

제목: ‘로드스쿨러’ 이길보라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날짜: 2015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5100000047  
본문: 1990년대 중반쯤, 이큐(EQ) 열풍이 있었다. 지능지수(IQ)가 다가 아니고 감성지수(EQ)가 높아야 원만하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소개되면서, 웬만한 아동도서나 장난감에 ‘이큐를 높인다’는 광고문구가 삽입됐다. 이큐를 키워준다는 학원에서 하는 수업을 어쩌다 구경한 적이 있는데, 강사가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놓곤 “이게 무슨 느낌이지? 따사롭고 유쾌한 느낌!” 하면서 구구단 가르치듯 느낌을 암기시키는 걸 보고는 식겁한 적이 있다.<br/>　감성 개발 열풍은 이내 수그러들었지만, 교육이 ‘낱개로 포장된 완제품’으로 가공되고 판매되는 양상은 더 심해졌다. ‘자기주도학습’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그걸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고,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고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고난도 문제집이 쏟아져 나온다. 감성도, 자기주체성도, 사고력도 이제는 학원과 참고서에서 배우는 세상이다. 토막 내서 가공한 고등어 통조림을 따 먹듯이, 아이들은 패스트푸드 같은 교육을 사 먹고 자란다. 이런 세상에서 깡통에 담긴 교육을 거부하고, 싱싱한 ‘날것’의 배움과 탐험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br/>　이길보라(25) 감독은 날것의 가르침이 어떻게 인간을 성장시키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그는 고1 때 학교를 그만두고 8개월간 인도와 네팔, 타이와 베트남 등 아시아 8개국을 혼자 여행했다. 돌아와서는 자신과 같은 탈학교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중편 다큐 (2008)를 제작했고 자신의 여행기를 담은 (2009)를 출간했다. 이달에는 청각장애인인 부모님과 자신의 가족사를 소재로 한 장편 다큐멘터리 를 일반에 개봉한다. 책가방 대신 40리터짜리 배낭을 메고 말도 통하지 않는 오지의 빈촌을 찾아다니는 동안 그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고 배웠을까. 스스로를 “로드스쿨러’(road schooler)라고 칭하는 이길보라를 봄비 내리던 지난 13일 서울 홍대 앞 찻집에서 만났다.<br/>　<br/>　청각장애인 부부의 딸 “이 길을 보라!”<br/>　흰색 면바지에 찰랑이는 커트머리, 오래된 스포츠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녀가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다. 곧 개봉할 의 언론시사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br/>　-이 감독이라고 해야 하나? 이길 감독이라고 해야 하나?(웃음)<br/>　“감독이라고 불리는 건 좀 어색하고… 그냥 ‘보라’라고 불리는 게 편하다.(웃음)”<br/>　-본명이 이보라인데, 어머니 길경희씨의 성을 넣어 이길보라가 되었다. 언제부터 양 성을 썼나?<br/>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어머니 얘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사실 ‘이보라’는 너무 흔한 이름인데, ‘이길보라’라고 쓰니 ‘이 길을 보라’ 하는 것처럼 어감도 좋고.(웃음)”<br/>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이지만 일반 극장 개봉은 처음인데, 떨리지 않나?<br/>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되든 ‘그게 이 의 운명이겠지’ 생각한다. 실제로 영화가 완성된 건 작년 5월이라서 1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미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작업이 시대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궁금해하는 중이다.”<br/>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작업이라면?<br/>　“새 다큐를 준비중인데 우리 할머니가 기억하는 전쟁 얘기다. 할머니는 ‘전쟁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전쟁은 니 할아버지가 알지’ 하시지만 할아버지 역시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다. 전쟁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공적 기록이 되지 못하고 공적 역사가 되지 못하는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br/>　-할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군인이셨나?<br/>　“할아버지는 이혼비를 벌러 베트남에 갔었는데….”<br/>　-이혼비를 벌러?<br/>　“(끄덕끄덕) 할머니랑 이혼하려고. 젊고 잘생긴 할아버지는 못생긴데다 장애아를 둘이나 낳은 할머니를 데리고 사는 게 너무 싫었던 거다. 막상 돌아와서는 이혼하지 않고 교련 교사가 돼서 사셨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니 할아버지 덕에 내가 폐지 줍지 않고 사니 고맙다’고 하신다.”<br/>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나?<br/>　“고엽제 때문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br/>　-저런… 전쟁에서 돌아온 뒤 할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자식들과 관계를 회복하셨나?<br/>　“할아버지의 2남2녀 가운데 아빠와 작은아빠, 두 아들이 청각장애인데, 막상 공통된 언어가 없어서 대화를 거의 못하셨다고 한다.”<br/>　-할아버지가 수화를 못하셨나?<br/>　“못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br/>　-(놀라서) 그럼 어떻게 애들을 키우나?<br/>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엔 그게 당연한 거였다. 엄마, 아빠 모두 언어를 학습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수화는 나중에 특수학교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배우셨다. 특수학교 교사도 수화를 못하니까 선생님한텐 못 배우고.”<br/>　-특수학교 교사도 수화를 못한다고?<br/>　“지금 한국 교육에서는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다양한 장애아들을 통합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교사가 점자도 배우고 수화도 배우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는 거다. 선생님은 계속 입으로 가르치니까 (청각장애) 애들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글자를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른다.”<br/>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불편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일단 보고 다니는 데 별문제 없고 외견상으로도 표가 안 나니까.<br/>　“절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날 되면 장애 체험 같은 걸 하는데, 다른 장애와 달리 청각장애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애가 아니다. (귀 막는 시늉) 아무리 귀를 막아도 들리지 않나? 잠을 자면서도 우린 자명종 소리를 듣는데,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해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랑 농인(聾人·청각장애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이 박사까지 받는 경우는 여럿 있었지만, 청각장애는 한 명 있던가? 사회적 불만이나 요구가 있어도 언어가 다르니까 사회에 노출이 안 된다.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수화를) 못 알아들으니까.”<br/>　<br/>　 엄마 아빠가 당당했기에 밝게 자랐다<br/>　이길보라는 1990년 경기도 부천에서 청각장애인 이상국씨와 길경희씨의 첫아이로 태어났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엄마 아빠는 낮이나 밤이나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불침번을 서다시피 하며 그를 지켰다. 다른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수화의 손동작을 먼저 배웠던 보라는, 유치원에 가서야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부모가 사는 ‘침묵의 세계’와 자신이 속한 ‘소리의 세계’는 서로 겉돌고 때로는 충돌했다. 그 사이를 중재하고 통역하면서 보라는 남들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다. 수화를 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이번 추석에 뭐 가지고 오라셔” 하고 전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고, 은행에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새로 들어갈 집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전화로 알아보는 것도 아홉 살 난 그의 몫이었다.<br/>　아버지는 손재주 많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목수일 나가던 곳이 아이엠에프(IMF)로 주저앉자 호떡 장사, 풀빵 장사, 장난감 노점상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얼마 전부터는 안성시 농아인협회 지부장으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엔 오산 미군부대에서 나가 혁필(革筆) 그림을 그려 판다. 생계 때문에 이사를 수시로 다니는 곤궁한 살림이었지만, 보라는 공부 잘하고 친구 많은 밝은 아이로 커 나갔다. 안성 광덕초와 명륜여중에서 내리 전교 회장을 했고 당시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안산의 명문, 동산고로 진학했다.<br/>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별한 마음가짐이 있었나보다.<br/>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그런 거였다. ‘엄마 아빠가 장애가 있는데도 네가 이 상을 받았구나!’ 반면에 내가 어떤 꾸중 들을 일을 하면, ‘너는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니?’ 하고….”<br/>　-칭찬도, 꾸중도 가중치가 붙고.<br/>　“(고개 끄덕이며) 그걸 어릴 때부터 깨친 거다.”<br/>　-이번에 개봉하는 를 재밌게 봤다(수화로 ‘박수’는 양손을 펴 머리 높이로 올린 뒤 손목을 흔드는 동작이다). 남동생 광희가 학교에서 부모님 장애 때문에 왕따를 당했을 때, 그것에 항의하는 어머니 모습이 굉장히 단호하고 당당한 게 인상적이었다. 그럴 때 부모가 ‘나 때문에 미안하다’ 어쩌고 하면서 울고불고하면 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br/>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나랑 동생이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당당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면 길거리에서 나한테 수화를 통역하라고 시키지 않았겠지. 엄마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긴 했는데, 엄마 태도가 워낙 당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배우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장애 있는데 뭐가 어때서?’ 이런 식으로.”<br/>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모범생이 고1을 마친 뒤 학교를 그만뒀다. 무슨 일이 있었나?<br/>　“그때까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학교를 잠시 휴학한다’는 생각이었다. 1년 동안 어학연수로 미국에 가 있다가 1년 꿇고 돌아오는 언니들도 학교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잠시 다른 공부를 하러 떠나는 거라 여겼다.”<br/>　-무슨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br/>　“엔지오(NGO) 활동가나 다큐멘터리 피디가 되고 싶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아이들, 분쟁지역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피디가 되려면 그 전에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다. 입시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방송사에 입사하고, 그러고도 조연출 시절 몇 년 끝내야 비로소 피디가 될 수 있으니까. 난 단순히 피디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걸 위해서 별 연관 없는 공부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싫었다.”<br/>　-엔지오 활동가나 다큐 감독이 되고 싶단 생각은 언제부터 했나? 어떤 롤 모델이 있었나?<br/>　“그때는 당연히 ‘한비야’였다.(웃음) 그때 모든 아이들이 읽는 책은 한비야였으니까.”<br/><br/>↗<br/>↘<br/><br/>-한비야씨가 아주 큰일을 하셨네.(웃음)<br/>　만류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몇 달에 걸쳐 여행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주변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여행비를 후원받았다. 막상 부딪혀 본 바깥세상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았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 하우스’나 네팔의 티베트 난민촌에 자원봉사를 하며 머무를 때는, 같은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한국 젊은이들을 적잖이 만날 수 있었다. 배낭을 메고 길에 나서서 스스로 가난해진 모든 이들이 보라의 든든한 동반자였고 현지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보라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다. 8개월 동안 보라는 낯선 곳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가난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지어를 익히고 뛰어놀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br/>　<br/>　 “생은 너무 짧은데 벌써 지치면 안 되지”<br/>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보라는 학교로 돌아가기를 단념했다. “한 움큼 외롭지만 한 움큼 자유로운 배움”의 기쁨을 알아버린 그에게, 하자센터의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반 김현아 선생님을 만난 건 큰 행운이었다.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서 글을 쓰고 영상물을 만들면서 이길보라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행복하게 공부에 빠져들 수 있었다. 2009년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입학했지만 여전히 그의 배움은 길 위에서 계속된다.<br/>　-사춘기 10대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다.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졌어, 여행을 떠날 거야” 한다면 난 뭐라고 할까. 누구처럼 혼자 내버려둬도 공부 잘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어디 갖다놔도 쟤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믿음이 가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로서 흔쾌히 응원하기 어려울 것 같다.<br/>　“로드스쿨러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다. 자기주장이나 신념이 확고한 애들도 있지만, 그냥 학교가 싫어서 그만둔 애들도 많다. 학교를 그만두고 한 3개월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실컷 한다. 3개월 동안 게임만 하기도 하고 잠만 내리 자기도 하고. 근데 하다 보면 그것도 지쳐버린다. 그러곤 스스로 자기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아, 이제 학교도 안 다니는데 앞으로 벌이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아무도 날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하는 불안함이 그 아이를 더 성숙하게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새 길을 내게 만든다.”<br/>　-자기주장이 강렬하거나 아예 엇나가는 경우라면 오히려 결심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어중간하게 이도 저도 아니고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다.<br/>　“근데 그거는 당연하다.”<br/>　-당연하다고?<br/>　“경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경험하는 게 학교 학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꿈을 상상하고 경험하나? 난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교육이 변해야 하지만, 그 공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들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양한 대안학교도 많아져야 하고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아지고 공교육을 선택하는 애들도 여기저기 색깔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br/>　-지금까지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해 회의가 들거나 후회한 적은 없나?<br/>　“(단호하게) 없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내겐 선생이었다. 세상이 학교였다. 우리는 어려서 아이엠에프를 겪고 부모가 주저앉는 걸 보면서 자란 세대다. ‘저렇게 되면 우리가 밥을 굶는구나’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기성세대는 짱돌, 화염병이라도 던져본 연대의 경험이 있지만 우린 애당초 연대하는 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저 아이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고 배워왔다. 2008년 촛불집회에도 열심히 나갔는데 ‘세상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절감했다. 내가 길에서 배운 건,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우리의 생은 너무 짧은데 한 것도 없이 벌써 지치면 안 된다는 거, 친구들과 연대해서 우리가 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거다. 우리의 30대는 지금 세상과 달라야 한다.”<br/>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또박또박 그러나 차분하게 그가 말했다. 유리창에 빗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광화문광장에서 애태우는 누군가의 눈물처럼…. 배움을 포기한 건 학교를 그만둔 보라 같은 아이들이 아니고, 길에서 배우기를 멈췄던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생은 너무 짧은데 벌써 지치면 안 되는 걸.<br/>　 녹취 함규원(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br/><br/><br/>▶ 이진순 언론학 박사. 전직 교수.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럿거스대 커뮤니케이션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했고 그 전에는 등 다큐멘터리 작가로 다양한 인물을 취재했다. 세상의 새 지평을 여는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br/><br/><br/>이길보라를 만든 시간들<br/><br/>1990년 보라가 잉태되다<br/>청각장애인인 엄마 길경희씨와 역시 청각장애인인 아빠 이상국씨가 경기도 부천에서 살던 시절입니다. 엄마가 1남1녀 중 첫째 딸인 저를 임신중이었어요.<br/><br/>1993년 보라의 수화<br/>엄마와 함께 공원에서 걷고 있는 4살 보라입니다. 엄마한테 수화로 “옥수수”라고 말하는 모습이에요. 보라는 유치원에 가서야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br/><br/>2007년 봄 티베트 난민촌<br/>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의 난민촌. 티베트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 ‘록빠’의 탁아소에서 한달 동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록빠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에요.<br/><br/>2007년 가을 네팔 카트만두<br/>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길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18살 친구 태은이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태은이와는 이때 2주 정도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br/><br/>2013년 피치앤드캐치<br/>영상 산업 관계자들에게 영화 제작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는 ‘피칭’ 행사 때 모습입니다. 가 본상과 관객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79.txt

제목: ‘로드스쿨러’ 이길보라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날짜: 2015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22151557681  
본문: 1990년대 중반쯤, 이큐(EQ) 열풍이 있었다. 지능지수(IQ)가 다가 아니고 감성지수(EQ)가 높아야 원만하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소개되면서, 웬만한 아동도서나 장난감에 ‘이큐를 높인다’는 광고문구가 삽입됐다. 이큐를 키워준다는 학원에서 하는 수업을 어쩌다 구경한 적이 있는데, 강사가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놓곤 “이게 무슨 느낌이지? 따사롭고 유쾌한 느낌!” 하면서 구구단 가르치듯 느낌을 암기시키는 걸 보고는 식겁한 적이 있다.<br/><br/> 감성 개발 열풍은 이내 수그러들었지만, 교육이 ‘낱개로 포장된 완제품’으로 가공되고 판매되는 양상은 더 심해졌다. ‘자기주도학습’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그걸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고,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고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고난도 문제집이 쏟아져 나온다. 감성도, 자기주체성도, 사고력도 이제는 학원과 참고서에서 배우는 세상이다. 토막 내서 가공한 고등어 통조림을 따 먹듯이, 아이들은 패스트푸드 같은 교육을 사 먹고 자란다. 이런 세상에서 깡통에 담긴 교육을 거부하고, 싱싱한 ‘날것’의 배움과 탐험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br/><br/> 이길보라(25) 감독은 날것의 가르침이 어떻게 인간을 성장시키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그는 고1 때 학교를 그만두고 8개월간 인도와 네팔, 타이와 베트남 등 아시아 8개국을 혼자 여행했다. 돌아와서는 자신과 같은 탈학교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중편 다큐 <로드스쿨러>(2008)를 제작했고 자신의 여행기를 담은 <길은 학교다>(2009)를 출간했다. 이달에는 청각장애인인 부모님과 자신의 가족사를 소재로 한 장편 다큐멘터리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일반에 개봉한다. 책가방 대신 40리터짜리 배낭을 메고 말도 통하지 않는 오지의 빈촌을 찾아다니는 동안 그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고 배웠을까. 스스로를 “로드스쿨러’(road schooler)라고 칭하는 이길보라를 봄비 내리던 지난 13일 서울 홍대 앞 찻집에서 만났다.<br/><br/>고1때부터 학교 나와 길 위에서 <br/>세상을 배운 ‘로드스쿨러’ 개척자 <br/>첫 다큐와 여행기 이어 이번엔 <br/>청각장애 부모와 가족사 소재의 <br/>장편다큐 <반짝이는 박수소리><br/><br/>“요즘 아이들이 꿈을 모른다고? <br/>경험하는 게 학교와 학원뿐인데 <br/>상상할 꿈 없는 게 당연하지 <br/>더 많은 애들이 학교 그만두고 <br/>더 다양한 배움 기회들 허용돼야”<br/><br/> 청각장애인 부부의 딸 “이 길을 보라!”<br/><br/> 흰색 면바지에 찰랑이는 커트머리, 오래된 스포츠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녀가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다. 곧 개봉할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언론시사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br/><br/> -이 감독이라고 해야 하나? 이길 감독이라고 해야 하나?(웃음)<br/><br/> “감독이라고 불리는 건 좀 어색하고… 그냥 ‘보라’라고 불리는 게 편하다.(웃음)”<br/><br/> -본명이 이보라인데, 어머니 길경희씨의 성을 넣어 이길보라가 되었다. 언제부터 양 성을 썼나?<br/><br/>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어머니 얘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사실 ‘이보라’는 너무 흔한 이름인데, ‘이길보라’라고 쓰니 ‘이 길을 보라’ 하는 것처럼 어감도 좋고.(웃음)”<br/><br/>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이지만 일반 극장 개봉은 처음인데, 떨리지 않나?<br/><br/>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되든 ‘그게 이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운명이겠지’ 생각한다. 실제로 영화가 완성된 건 작년 5월이라서 1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미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작업이 시대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궁금해하는 중이다.”<br/><br/>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작업이라면?<br/><br/> “새 다큐를 준비중인데 우리 할머니가 기억하는 전쟁 얘기다. 할머니는 ‘전쟁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전쟁은 니 할아버지가 알지’ 하시지만 할아버지 역시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다. 전쟁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공적 기록이 되지 못하고 공적 역사가 되지 못하는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br/><br/> -할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군인이셨나?<br/><br/> “할아버지는 이혼비를 벌러 베트남에 갔었는데….”<br/><br/> -이혼비를 벌러?<br/><br/> “(끄덕끄덕) 할머니랑 이혼하려고. 젊고 잘생긴 할아버지는 못생긴데다 장애아를 둘이나 낳은 할머니를 데리고 사는 게 너무 싫었던 거다. 막상 돌아와서는 이혼하지 않고 교련 교사가 돼서 사셨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니 할아버지 덕에 내가 폐지 줍지 않고 사니 고맙다’고 하신다.”<br/><br/>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나?<br/><br/> “고엽제 때문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br/><br/> -저런… 전쟁에서 돌아온 뒤 할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자식들과 관계를 회복하셨나?<br/><br/> “할아버지의 2남2녀 가운데 아빠와 작은아빠, 두 아들이 청각장애인데, 막상 공통된 언어가 없어서 대화를 거의 못하셨다고 한다.”<br/><br/> -할아버지가 수화를 못하셨나?<br/><br/> “못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br/><br/> -(놀라서) 그럼 어떻게 애들을 키우나?<br/><br/>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엔 그게 당연한 거였다. 엄마, 아빠 모두 언어를 학습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수화는 나중에 특수학교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배우셨다. 특수학교 교사도 수화를 못하니까 선생님한텐 못 배우고.”<br/><br/> -특수학교 교사도 수화를 못한다고?<br/><br/> “지금 한국 교육에서는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다양한 장애아들을 통합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교사가 점자도 배우고 수화도 배우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는 거다. 선생님은 계속 입으로 가르치니까 (청각장애) 애들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글자를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른다.”<br/><br/>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불편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일단 보고 다니는 데 별문제 없고 외견상으로도 표가 안 나니까.<br/><br/> “절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날 되면 장애 체험 같은 걸 하는데, 다른 장애와 달리 청각장애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애가 아니다. (귀 막는 시늉) 아무리 귀를 막아도 들리지 않나? 잠을 자면서도 우린 자명종 소리를 듣는데,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해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랑 농인(聾人·청각장애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이 박사까지 받는 경우는 여럿 있었지만, 청각장애는 한 명 있던가? 사회적 불만이나 요구가 있어도 언어가 다르니까 사회에 노출이 안 된다.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수화를) 못 알아들으니까.”<br/><br/> <br/><br/> 엄마 아빠가 당당했기에 밝게 자랐다<br/><br/> 이길보라는 1990년 경기도 부천에서 청각장애인 이상국씨와 길경희씨의 첫아이로 태어났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엄마 아빠는 낮이나 밤이나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불침번을 서다시피 하며 그를 지켰다. 다른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수화의 손동작을 먼저 배웠던 보라는, 유치원에 가서야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부모가 사는 ‘침묵의 세계’와 자신이 속한 ‘소리의 세계’는 서로 겉돌고 때로는 충돌했다. 그 사이를 중재하고 통역하면서 보라는 남들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다. 수화를 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이번 추석에 뭐 가지고 오라셔” 하고 전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고, 은행에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새로 들어갈 집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전화로 알아보는 것도 아홉 살 난 그의 몫이었다.<br/><br/> 아버지는 손재주 많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목수일 나가던 곳이 아이엠에프(IMF)로 주저앉자 호떡 장사, 풀빵 장사, 장난감 노점상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얼마 전부터는 안성시 농아인협회 지부장으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엔 오산 미군부대에서 나가 혁필(革筆) 그림을 그려 판다. 생계 때문에 이사를 수시로 다니는 곤궁한 살림이었지만, 보라는 공부 잘하고 친구 많은 밝은 아이로 커 나갔다. 안성 광덕초와 명륜여중에서 내리 전교 회장을 했고 당시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안산의 명문, 동산고로 진학했다.<br/><br/>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별한 마음가짐이 있었나보다.<br/><br/>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그런 거였다. ‘엄마 아빠가 장애가 있는데도 네가 이 상을 받았구나!’ 반면에 내가 어떤 꾸중 들을 일을 하면, ‘너는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니?’ 하고….”<br/><br/> -칭찬도, 꾸중도 가중치가 붙고.<br/><br/> “(고개 끄덕이며) 그걸 어릴 때부터 깨친 거다.”<br/><br/> -이번에 개봉하는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재밌게 봤다(수화로 ‘박수’는 양손을 펴 머리 높이로 올린 뒤 손목을 흔드는 동작이다). 남동생 광희가 학교에서 부모님 장애 때문에 왕따를 당했을 때, 그것에 항의하는 어머니 모습이 굉장히 단호하고 당당한 게 인상적이었다. 그럴 때 부모가 ‘나 때문에 미안하다’ 어쩌고 하면서 울고불고하면 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br/><br/>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나랑 동생이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당당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면 길거리에서 나한테 수화를 통역하라고 시키지 않았겠지. 엄마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긴 했는데, 엄마 태도가 워낙 당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배우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장애 있는데 뭐가 어때서?’ 이런 식으로.”<br/><br/>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모범생이 고1을 마친 뒤 학교를 그만뒀다. 무슨 일이 있었나?<br/><br/> “그때까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학교를 잠시 휴학한다’는 생각이었다. 1년 동안 어학연수로 미국에 가 있다가 1년 꿇고 돌아오는 언니들도 학교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잠시 다른 공부를 하러 떠나는 거라 여겼다.”<br/><br/> -무슨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br/><br/> “엔지오(NGO) 활동가나 다큐멘터리 피디가 되고 싶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아이들, 분쟁지역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피디가 되려면 그 전에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다. 입시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방송사에 입사하고, 그러고도 조연출 시절 몇 년 끝내야 비로소 피디가 될 수 있으니까. 난 단순히 피디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걸 위해서 별 연관 없는 공부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싫었다.”<br/><br/> -엔지오 활동가나 다큐 감독이 되고 싶단 생각은 언제부터 했나? 어떤 롤 모델이 있었나?<br/><br/> “그때는 당연히 ‘한비야’였다.(웃음) 그때 모든 아이들이 읽는 책은 한비야였으니까.” <br/><br/>-한비야씨가 아주 큰일을 하셨네.(웃음)<br/><br/> 만류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몇 달에 걸쳐 여행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주변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여행비를 후원받았다. 막상 부딪혀 본 바깥세상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았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 하우스’나 네팔의 티베트 난민촌에 자원봉사를 하며 머무를 때는, 같은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한국 젊은이들을 적잖이 만날 수 있었다. 배낭을 메고 길에 나서서 스스로 가난해진 모든 이들이 보라의 든든한 동반자였고 현지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보라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다. 8개월 동안 보라는 낯선 곳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가난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지어를 익히고 뛰어놀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br/><br/> <br/><br/> “생은 너무 짧은데 벌써 지치면 안 되지”<br/><br/>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보라는 학교로 돌아가기를 단념했다. “한 움큼 외롭지만 한 움큼 자유로운 배움”의 기쁨을 알아버린 그에게, 하자센터의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반 김현아 선생님을 만난 건 큰 행운이었다.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서 글을 쓰고 영상물을 만들면서 이길보라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행복하게 공부에 빠져들 수 있었다. 2009년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입학했지만 여전히 그의 배움은 길 위에서 계속된다.<br/><br/> -사춘기 10대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다.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졌어, 여행을 떠날 거야” 한다면 난 뭐라고 할까. 누구처럼 혼자 내버려둬도 공부 잘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어디 갖다놔도 쟤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믿음이 가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로써 흔쾌히 응원하기 어려울 것 같다.<br/><br/> “로드스쿨러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다. 자기주장이나 신념이 확고한 애들도 있지만, 그냥 학교가 싫어서 그만둔 애들도 많다. 학교를 그만두고 한 3개월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실컷 한다. 3개월 동안 게임만 하기도 하고 잠만 내리 자기도 하고. 근데 하다 보면 그것도 지쳐버린다. 그러곤 스스로 자기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아, 이제 학교도 안 다니는데 앞으로 벌이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아무도 날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하는 불안함이 그 아이를 더 성숙하게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새 길을 내게 만든다.”<br/><br/> -자기주장이 강렬하거나 아예 엇나가는 경우라면 오히려 결심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어중간하게 이도 저도 아니고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다.<br/><br/> “근데 그거는 당연하다.”<br/><br/> -당연하다고?<br/><br/> “경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경험하는 게 학교 학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꿈을 상상하고 경험하나? 난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교육이 변해야 하지만, 그 공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들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양한 대안학교도 많아져야 하고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아지고 공교육을 선택하는 애들도 여기저기 색깔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br/><br/> -지금까지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해 회의가 들거나 후회한 적은 없나?<br/><br/> “(단호하게) 없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내겐 선생이었다. 세상이 학교였다. 우리는 어려서 아이엠에프를 겪고 부모가 주저앉는 걸 보면서 자란 세대다. ‘저렇게 되면 우리가 밥을 굶는구나’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기성세대는 짱돌, 화염병이라도 던져본 연대의 경험이 있지만 우린 애당초 연대하는 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저 아이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고 배워왔다. 2008년 촛불집회에도 열심히 나갔는데 ‘세상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절감했다. 내가 길에서 배운 건,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우리의 생은 너무 짧은데 한 것도 없이 벌써 지치면 안 된다는 거, 친구들과 연대해서 우리가 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거다. 우리의 30대는 지금 세상과 달라야 한다.”<br/><br/>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또박또박 그러나 차분하게 그가 말했다. 유리창에 빗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광화문광장에서 애태우는 누군가의 눈물처럼…. 배움을 포기한 건 학교를 그만둔 보라 같은 아이들이 아니고, 길에서 배우기를 멈췄던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생은 너무 짧은데 벌써 지치면 안 되는 걸.<br/><br/> 녹취 함규원(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br/><br/>▶ 이진순 언론학 박사. 전직 교수.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럿거스대 커뮤니케이션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했고 그 전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다큐멘터리 작가로 다양한 인물을 취재했다. 세상의 새 지평을 여는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0.txt

제목: 임성한은 가도 막장은 남는다  
날짜: 2015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410017083337  
본문: 임성한 작가의 은퇴 소식이 알려진 지난 23일 누군가 내게 물었다. “<span class='quot0'>막장 드라마의 효시 격이라고 볼 수 있나요?</span>” 순간 기분이 복잡미묘해졌다. 따지고 보면 임성한은 막장 드라마의 포문을 연 작가도 아니고, 그 장르의 제일 최신주자도 아니다. 굳이 효시를 꼽자면 1993년 에스비에스(SBS) <댁의 남편은 어떠십니까>를 선보인 서영명이 있고, 최신주자를 찾자면 문화방송(MBC) <사랑했나봐>(2012~2013), <모두 다 김치>(2014)의 원영옥이 있다. 대중성으로 보면 에스비에스 <아내의 유혹>(2008)과 문화방송 <왔다! 장보리>(2014)의 김순옥이 한 수 위고, 통속성으로 치면 한국방송(KBS) <왕가네 식구들>(2014)의 문영남을 이기긴 어렵다. 그러나 우린 ‘막장 드라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조건반사처럼 임성한을 떠올린다. 열 작품을 쓰고 나면 은퇴하겠노라고 말했다는 임성한 작가는, 그 열 작품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막장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br/><br/>며칠전 은퇴한 그는 <br/> 드라마 작가라기보단 <br/> 시청률이 안겨주는 <br/> 권력에 취한 폭군에 가까웠다<br/><br/>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 문화방송 일일드라마 <보고 또 보고>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1998년만 해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다. 물론 그때도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겹사돈’ 설정이라거나, 자매 중 언니 금주(윤혜영)만 병적으로 편애하는 엄마(김창숙)의 존재, 기정(정보석)과 은주(김지수)가 처음 마주치는 장소로 등장하는 <품바> 공연장 등 훗날 임성한 월드를 구축하는 요소의 단초가 보이긴 했다. 그래도 <보고 또 보고>에는 분명한 줄거리라는 것이 있었다. 보수적인 양가 부모들, 뿌리깊은 편애, 형님이 동서가 되고 동생이 형님이 되는 배배 꼬인 겹사돈이라는 장애물들을 뚫고 이 젊은 두 커플이 가족을 이룬다는 중심 줄거리는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과정이야 어쨌든 무난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는 서사는 논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었다. 일일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 57.3%, 문화방송이 일일드라마로 한국방송을 이긴 최초의 순간이었다.<br/><br/>첫 장편 드라마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게 문제였던 걸까. 두번째 장편이던 문화방송 <온달왕자들>(2000)에서 임성한은 자극적인 서사의 강도를 높였다. 6명의 배다른 자식을 남기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린 아버지(변희봉)라거나, 힘겹게 세파를 헤쳐나가는 형제들 앞에 끼어드는 아버지의 후처들 같은 요소들은 전작의 겹사돈 논란 따위는 귀여워 보일 정도의 소재였다. 연출을 맡은 조중현 감독은 대놓고 “<span class='quot1'>이런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한 작품은 도저히 못 하겠다</span>”며 직접 대본에 손을 댔고, 이에 대고 임성한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르렁댔으며, 그 과정은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온달왕자들>은 다시 한번 동시간대 한국방송 일일드라마를 이기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방송 <좋은 걸 어떡해> 또한 전남편의 친구와 재혼을 한 뒤에야 전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는 파격적인 전개를 선보였지만, 최후의 승자는 <온달왕자들>이었다.<br/><br/>자신의 각본을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하다며 임의로 고친 감독 탓에 자존심은 상처 입었지만, 그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한 각본으로 다시 한번 한국방송을 이긴 상황. 누구도 자기 작품에 토를 달지 못할 만큼 높은 시청률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온달왕자들>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문화방송 <인어아가씨>(2002)에서 여주인공 은아리영(장서희)의 직업이 ‘잘나가는 드라마 작가’라는 점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젊고 아름다우며 춤도 잘 추고 쓰는 드라마마다 흥행하는 작가 은아리영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의붓어미이자 톱탤런트인 심수정(한혜숙)의 뺨을 때리고 이복동생 예영(우희진)의 약혼남 주왕(김성민)을 빼앗는다. 은아리영은 분명 임성한의 페르소나였고, 임성한은 그의 입을 빌려 같은 방송사의 다른 드라마를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시청자들을 향해 “딸기는 칫솔로 박박 씻어야 한다”거나 “김치찌개는 2시간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 푹 끓여야 한다”는 식의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한 주장을 설파하기 시작했다.<br/><br/><인어아가씨>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초창기 문화방송 <베스트극장>에서 보여준 준수한 단막극을 닮은 드라마로 방향을 전환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순간 최고 시청률 47.9%를 찍은 이 드라마 이후 임성한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딸의 불임은 어머니의 업보 때문’이라는 식의 미신이 스멀스멀 드라마 안으로 기어들어왔고, 마마보이인 캐릭터의 이름을 ‘마마준’(정보석)이라고 짓는 기괴한 작명 방식도 이때 시작됐다. 그 모든 요소들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논란은 오히려 시청률 상승을 부추겼다. 세간의 비판과 손가락질에도 시청률은 40%를 넘나들었고, 96부작으로 기획되었던 드라마는 방송사 쪽의 요구로 246회로 마무리되었다. 시청률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br/><br/>지독한 서사와 더 독한 대사, 미신과 무속의 요소와 정체불명의 생활 상식, 의미없는 개그 장면이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뒷담화 같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몸을 섞은 임성한 드라마 고유의 작법은 이 무렵 탄생했다. 남자의 복근을 빨래판 삼아 빨래를 하는 꿈 시퀀스나 귀신에 빙의한 남자가 눈에서 레이저빔을 쏘는 장면(<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이상</span></span> 에스비에스 <신기생뎐>, 2011)을 삽입하면 황당한 맛에 시청률이 오를 것이란 사실을, 서사와는 별개로 겉도는 은아리영의 춤 솜씨나 드럼 실력 따위를 전시하며 시청률을 올렸던 그 순간 간파했던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주인공 두 사람의 대화로 30분을 채우면서도 팽팽한 서스펜스를 유지할 수 있는 필력을 지녔으면서(문화방송 <압구정 백야>, 2014~ ), 임성한은 그 필력으로 탄탄한 서사를 완성하기보단 자신의 관심사(무속, 미신, 스포츠)나 주장, 편견을 최대한 자극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서사를 해체해버렸다.<br/><br/>정보석이나 허준호 같은 당대 톱스타 배우들을 주연으로 기용하던 임성한이 신인이나 중고 신인들을 주연으로 기용해 작품에 대한 통제력을 늘리기 시작한 것도 <인어아가씨> 무렵이었다. 임성한은 방송사엔 시청률을 보장하는 스타 작가였고, 동시에 주연배우들에겐 오랜 무명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은인이 되었다. 그 은인이 쓴 대본이기에, 배우들은 어떤 대사라도 감히 거스르지 못한다. 문화방송 <오로라 공주>(2013)에서 “암도 생명체인데 같이 살아야죠”란 대사를 받고 5분간 말문이 막혔다는 서하준은, 그럼에도 임성한을 은인으로 꼽길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캐스트를 장악한 임성한은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려 다른 프로그램들을 흉보고, 입양아와 성 소수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무지를 과시했으며, 황당한 설정이나 대사에 항의하는 중견배우들을 임의로 하차시켜 버렸다.<br/><br/>그는 갔지만 막장은 남는다 <br/> 이미 원영옥 구현숙 등의 <br/> 신예들이 무섭게 치고 <br/> 올라오고 있으니<br/><br/>작품 외적으론 좀처럼 노출을 꺼리는 임성한인지라, 그가 어떤 속내로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그 심사를 넘겨짚는 건 무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임성한은 연출자에게 ‘월권’을 당했다고 생각하자 다음 작품 주인공을 무소불위의 작가로 설정했고(<인어아가씨>), 등장인물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을 관철시키려다 방송사에 의해 하차당하자(문화방송 <왕꽃선녀님>, 2004~2005) 바로 방송사를 바꿔 더 독한 드라마(에스비에스 <하늘이시여>, 2005~2006)를 선보였다. 무분별한 주조연급 배우 하차로 작품이 인기를 잃자, 아예 등장인물을 죽이는 것 자체를 엔터테인먼트 삼아 시청률을 끌어올리고는 방송사에 일방적으로 50회 연장을 요구했다(<오로라 공주>). 작가의 독선을 비판한 배우들을 향해선 극중 대사를 통해 “<span class='quot2'>자기 이미지 띄우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드라마를 찍으라</span>”고 비아냥댔다. 그 모든 순간, 임성한은 작가라기보단 시청률이 안겨주는 권력에 취한 폭군에 가까웠다. 시청률을 위해 서사를 해체하는 이를, 작가라 불러선 안 되니 말이다.<br/><br/>임성한은 가도 막장은 남는다. 이미 원영옥이나 문화방송 <백년의 유산>(2013), <전설의 마녀>(2014)를 집필한 구현숙 등의 신예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말이다. 설마하니 임성한 같은 이가 또 나오랴 싶겠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런 작가는 아니었다.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 제3의 임성한을 용인할 것인가. 채널 선택은 리모컨을 손에 쥔 우리 몫이다.<br/><br/>이승한 티브이 칼럼니스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1.txt

제목: ‘로드스쿨러’ 이길보라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날짜: 2015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410017086639  
본문: 1990년대 중반쯤, 이큐(EQ) 열풍이 있었다. 지능지수(IQ)가 다가 아니고 감성지수(EQ)가 높아야 원만하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소개되면서, 웬만한 아동도서나 장난감에 ‘이큐를 높인다’는 광고문구가 삽입됐다. 이큐를 키워준다는 학원에서 하는 수업을 어쩌다 구경한 적이 있는데, 강사가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놓곤 “이게 무슨 느낌이지? 따사롭고 유쾌한 느낌!” 하면서 구구단 가르치듯 느낌을 암기시키는 걸 보고는 식겁한 적이 있다.<br/><br/> 감성 개발 열풍은 이내 수그러들었지만, 교육이 ‘낱개로 포장된 완제품’으로 가공되고 판매되는 양상은 더 심해졌다. ‘자기주도학습’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그걸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고,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고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고난도 문제집이 쏟아져 나온다. 감성도, 자기주체성도, 사고력도 이제는 학원과 참고서에서 배우는 세상이다. 토막 내서 가공한 고등어 통조림을 따 먹듯이, 아이들은 패스트푸드 같은 교육을 사 먹고 자란다. 이런 세상에서 깡통에 담긴 교육을 거부하고, 싱싱한 ‘날것’의 배움과 탐험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br/><br/> 이길보라(25) 감독은 날것의 가르침이 어떻게 인간을 성장시키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그는 고1 때 학교를 그만두고 8개월간 인도와 네팔, 타이와 베트남 등 아시아 8개국을 혼자 여행했다. 돌아와서는 자신과 같은 탈학교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중편 다큐 <로드스쿨러>(2008)를 제작했고 자신의 여행기를 담은 <길은 학교다>(2009)를 출간했다. 이달에는 청각장애인인 부모님과 자신의 가족사를 소재로 한 장편 다큐멘터리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일반에 개봉한다. 책가방 대신 40리터짜리 배낭을 메고 말도 통하지 않는 오지의 빈촌을 찾아다니는 동안 그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고 배웠을까. 스스로를 “로드스쿨러’(road schooler)라고 칭하는 이길보라를 봄비 내리던 지난 13일 서울 홍대 앞 찻집에서 만났다.<br/><br/>고1때부터 학교 나와 길 위에서 <br/>세상을 배운 ‘로드스쿨러’ 개척자 <br/>첫 다큐와 여행기 이어 이번엔 <br/>청각장애 부모와 가족사 소재의 <br/>장편다큐 <반짝이는 박수소리><br/><br/>“요즘 아이들이 꿈을 모른다고? <br/>경험하는 게 학교와 학원뿐인데 <br/>상상할 꿈 없는 게 당연하지 <br/>더 많은 애들이 학교 그만두고 <br/>더 다양한 배움 기회들 허용돼야”<br/><br/> 청각장애인 부부의 딸 “이 길을 보라!”<br/><br/> 흰색 면바지에 찰랑이는 커트머리, 오래된 스포츠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녀가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다. 곧 개봉할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언론시사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br/><br/> -이 감독이라고 해야 하나? 이길 감독이라고 해야 하나?(웃음)<br/><br/> “감독이라고 불리는 건 좀 어색하고… 그냥 ‘보라’라고 불리는 게 편하다.(웃음)”<br/><br/> -본명이 이보라인데, 어머니 길경희씨의 성을 넣어 이길보라가 되었다. 언제부터 양 성을 썼나?<br/><br/>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어머니 얘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사실 ‘이보라’는 너무 흔한 이름인데, ‘이길보라’라고 쓰니 ‘이 길을 보라’ 하는 것처럼 어감도 좋고.(웃음)”<br/><br/>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이지만 일반 극장 개봉은 처음인데, 떨리지 않나?<br/><br/>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되든 ‘그게 이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운명이겠지’ 생각한다. 실제로 영화가 완성된 건 작년 5월이라서 1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미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작업이 시대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궁금해하는 중이다.”<br/><br/>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작업이라면?<br/><br/> “새 다큐를 준비중인데 우리 할머니가 기억하는 전쟁 얘기다. 할머니는 ‘전쟁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전쟁은 니 할아버지가 알지’ 하시지만 할아버지 역시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다. 전쟁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공적 기록이 되지 못하고 공적 역사가 되지 못하는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br/><br/> -할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군인이셨나?<br/><br/> “할아버지는 이혼비를 벌러 베트남에 갔었는데….”<br/><br/> -이혼비를 벌러?<br/><br/> “(끄덕끄덕) 할머니랑 이혼하려고. 젊고 잘생긴 할아버지는 못생긴데다 장애아를 둘이나 낳은 할머니를 데리고 사는 게 너무 싫었던 거다. 막상 돌아와서는 이혼하지 않고 교련 교사가 돼서 사셨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니 할아버지 덕에 내가 폐지 줍지 않고 사니 고맙다’고 하신다.”<br/><br/>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나?<br/><br/> “고엽제 때문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br/><br/> -저런… 전쟁에서 돌아온 뒤 할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자식들과 관계를 회복하셨나?<br/><br/> “할아버지의 2남2녀 가운데 아빠와 작은아빠, 두 아들이 청각장애인데, 막상 공통된 언어가 없어서 대화를 거의 못하셨다고 한다.”<br/><br/> -할아버지가 수화를 못하셨나?<br/><br/> “못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br/><br/> -(놀라서) 그럼 어떻게 애들을 키우나?<br/><br/>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엔 그게 당연한 거였다. 엄마, 아빠 모두 언어를 학습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수화는 나중에 특수학교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배우셨다. 특수학교 교사도 수화를 못하니까 선생님한텐 못 배우고.”<br/><br/> -특수학교 교사도 수화를 못한다고?<br/><br/> “지금 한국 교육에서는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다양한 장애아들을 통합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교사가 점자도 배우고 수화도 배우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는 거다. 선생님은 계속 입으로 가르치니까 (청각장애) 애들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글자를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른다.”<br/><br/>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불편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일단 보고 다니는 데 별문제 없고 외견상으로도 표가 안 나니까.<br/><br/> “절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날 되면 장애 체험 같은 걸 하는데, 다른 장애와 달리 청각장애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애가 아니다. (귀 막는 시늉) 아무리 귀를 막아도 들리지 않나? 잠을 자면서도 우린 자명종 소리를 듣는데,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해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랑 농인(聾人·청각장애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이 박사까지 받는 경우는 여럿 있었지만, 청각장애는 한 명 있던가? 사회적 불만이나 요구가 있어도 언어가 다르니까 사회에 노출이 안 된다.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수화를) 못 알아들으니까.”<br/><br/> <br/><br/> 엄마 아빠가 당당했기에 밝게 자랐다<br/><br/> 이길보라는 1990년 경기도 부천에서 청각장애인 이상국씨와 길경희씨의 첫아이로 태어났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엄마 아빠는 낮이나 밤이나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불침번을 서다시피 하며 그를 지켰다. 다른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수화의 손동작을 먼저 배웠던 보라는, 유치원에 가서야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부모가 사는 ‘침묵의 세계’와 자신이 속한 ‘소리의 세계’는 서로 겉돌고 때로는 충돌했다. 그 사이를 중재하고 통역하면서 보라는 남들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다. 수화를 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이번 추석에 뭐 가지고 오라셔” 하고 전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고, 은행에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새로 들어갈 집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전화로 알아보는 것도 아홉 살 난 그의 몫이었다.<br/><br/> 아버지는 손재주 많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목수일 나가던 곳이 아이엠에프(IMF)로 주저앉자 호떡 장사, 풀빵 장사, 장난감 노점상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얼마 전부터는 안성시 농아인협회 지부장으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엔 오산 미군부대에서 나가 혁필(革筆) 그림을 그려 판다. 생계 때문에 이사를 수시로 다니는 곤궁한 살림이었지만, 보라는 공부 잘하고 친구 많은 밝은 아이로 커 나갔다. 안성 광덕초와 명륜여중에서 내리 전교 회장을 했고 당시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안산의 명문, 동산고로 진학했다.<br/><br/>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별한 마음가짐이 있었나보다.<br/><br/>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그런 거였다. ‘엄마 아빠가 장애가 있는데도 네가 이 상을 받았구나!’ 반면에 내가 어떤 꾸중 들을 일을 하면, ‘너는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니?’ 하고….”<br/><br/> -칭찬도, 꾸중도 가중치가 붙고.<br/><br/> “(고개 끄덕이며) 그걸 어릴 때부터 깨친 거다.”<br/><br/> -이번에 개봉하는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재밌게 봤다(수화로 ‘박수’는 양손을 펴 머리 높이로 올린 뒤 손목을 흔드는 동작이다). 남동생 광희가 학교에서 부모님 장애 때문에 왕따를 당했을 때, 그것에 항의하는 어머니 모습이 굉장히 단호하고 당당한 게 인상적이었다. 그럴 때 부모가 ‘나 때문에 미안하다’ 어쩌고 하면서 울고불고하면 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br/><br/>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나랑 동생이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당당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면 길거리에서 나한테 수화를 통역하라고 시키지 않았겠지. 엄마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긴 했는데, 엄마 태도가 워낙 당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배우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장애 있는데 뭐가 어때서?’ 이런 식으로.”<br/><br/>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모범생이 고1을 마친 뒤 학교를 그만뒀다. 무슨 일이 있었나?<br/><br/> “그때까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학교를 잠시 휴학한다’는 생각이었다. 1년 동안 어학연수로 미국에 가 있다가 1년 꿇고 돌아오는 언니들도 학교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잠시 다른 공부를 하러 떠나는 거라 여겼다.”<br/><br/> -무슨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br/><br/> “엔지오(NGO) 활동가나 다큐멘터리 피디가 되고 싶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아이들, 분쟁지역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피디가 되려면 그 전에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다. 입시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방송사에 입사하고, 그러고도 조연출 시절 몇 년 끝내야 비로소 피디가 될 수 있으니까. 난 단순히 피디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걸 위해서 별 연관 없는 공부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싫었다.”<br/><br/> -엔지오 활동가나 다큐 감독이 되고 싶단 생각은 언제부터 했나? 어떤 롤 모델이 있었나?<br/><br/> “그때는 당연히 ‘한비야’였다.(웃음) 그때 모든 아이들이 읽는 책은 한비야였으니까.” <br/><br/>-한비야씨가 아주 큰일을 하셨네.(웃음)<br/><br/> 만류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몇 달에 걸쳐 여행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주변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여행비를 후원받았다. 막상 부딪혀 본 바깥세상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았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 하우스’나 네팔의 티베트 난민촌에 자원봉사를 하며 머무를 때는, 같은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한국 젊은이들을 적잖이 만날 수 있었다. 배낭을 메고 길에 나서서 스스로 가난해진 모든 이들이 보라의 든든한 동반자였고 현지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보라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다. 8개월 동안 보라는 낯선 곳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가난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지어를 익히고 뛰어놀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br/><br/> <br/><br/> “생은 너무 짧은데 벌써 지치면 안 되지”<br/><br/>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보라는 학교로 돌아가기를 단념했다. “한 움큼 외롭지만 한 움큼 자유로운 배움”의 기쁨을 알아버린 그에게, 하자센터의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반 김현아 선생님을 만난 건 큰 행운이었다.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서 글을 쓰고 영상물을 만들면서 이길보라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행복하게 공부에 빠져들 수 있었다. 2009년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입학했지만 여전히 그의 배움은 길 위에서 계속된다.<br/><br/> -사춘기 10대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다.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졌어, 여행을 떠날 거야” 한다면 난 뭐라고 할까. 누구처럼 혼자 내버려둬도 공부 잘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어디 갖다놔도 쟤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믿음이 가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로써 흔쾌히 응원하기 어려울 것 같다.<br/><br/> “로드스쿨러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다. 자기주장이나 신념이 확고한 애들도 있지만, 그냥 학교가 싫어서 그만둔 애들도 많다. 학교를 그만두고 한 3개월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실컷 한다. 3개월 동안 게임만 하기도 하고 잠만 내리 자기도 하고. 근데 하다 보면 그것도 지쳐버린다. 그러곤 스스로 자기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아, 이제 학교도 안 다니는데 앞으로 벌이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아무도 날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하는 불안함이 그 아이를 더 성숙하게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새 길을 내게 만든다.”<br/><br/> -자기주장이 강렬하거나 아예 엇나가는 경우라면 오히려 결심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어중간하게 이도 저도 아니고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다.<br/><br/> “근데 그거는 당연하다.”<br/><br/> -당연하다고?<br/><br/> “경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경험하는 게 학교 학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꿈을 상상하고 경험하나? 난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교육이 변해야 하지만, 그 공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들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양한 대안학교도 많아져야 하고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아지고 공교육을 선택하는 애들도 여기저기 색깔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br/><br/> -지금까지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해 회의가 들거나 후회한 적은 없나?<br/><br/> “(단호하게) 없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내겐 선생이었다. 세상이 학교였다. 우리는 어려서 아이엠에프를 겪고 부모가 주저앉는 걸 보면서 자란 세대다. ‘저렇게 되면 우리가 밥을 굶는구나’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기성세대는 짱돌, 화염병이라도 던져본 연대의 경험이 있지만 우린 애당초 연대하는 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저 아이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고 배워왔다. 2008년 촛불집회에도 열심히 나갔는데 ‘세상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절감했다. 내가 길에서 배운 건,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우리의 생은 너무 짧은데 한 것도 없이 벌써 지치면 안 된다는 거, 친구들과 연대해서 우리가 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거다. 우리의 30대는 지금 세상과 달라야 한다.”<br/><br/>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또박또박 그러나 차분하게 그가 말했다. 유리창에 빗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광화문광장에서 애태우는 누군가의 눈물처럼…. 배움을 포기한 건 학교를 그만둔 보라 같은 아이들이 아니고, 길에서 배우기를 멈췄던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생은 너무 짧은데 벌써 지치면 안 되는 걸.<br/><br/> 녹취 함규원(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br/><br/>▶ 이진순 언론학 박사. 전직 교수.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럿거스대 커뮤니케이션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했고 그 전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다큐멘터리 작가로 다양한 인물을 취재했다. 세상의 새 지평을 여는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2.txt

제목: 줄기세포 치료법, 승인 받았어도 부작용 배제 못해  
날짜: 20150422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2100000064  
본문: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휠체어를 타던 환자도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알려진 때가 있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뒤 이런 믿음은 많이 사라졌다. 요즘은 주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시행된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몇몇 치료제도 나와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술은 여전히 부작용 등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줄기세포학회 등 줄기세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펴낸 이라는 환자정보집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br/><br/>　 성체줄기세포, 임상시험에 많이 쓰여 <br/>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다른 조작을 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서 가장 활발하게 임상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성체줄기세포의 한 종류인 조혈줄기세포는 이미 백혈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을 정도다.<br/>　배아줄기세포는 다른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해 만들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윤리적인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분화 능력이 좋은 탓에 암 등으로 커 나가는 부작용도 극복해야 한다.<br/>　역분화줄기세포는 정자나 난자를 사용하지 않아 윤리적 논란은 없다. 환자의 세포를 이용한 것이라 면역거부반응도 없다. 문제는 배아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암 등이 생기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 등에서 역분화줄기세포의 효과를 알아보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치료에 이용되는 단계는 아니다.<br/><br/>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에도 부작용 있어 <br/> 완벽하게 안전한 의학적 치료 또는 치료제가 없듯이 줄기세포 치료도 마찬가지다. 같은 치료제라도 치료를 받는 사람에 따라 부작용 등 위험성도 달라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줄기세포치료 시술 또는 치료제라고 해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특히 줄기세포치료 시술 또는 치료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몸 안에서 없어지는 다른 의약품들과는 달리 몸에서 효과를 내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날 수 있다.<br/>　일반적으로 알려진 줄기세포 치료의 부작용은 감염, 면역반응, 이상 세포로의 변화 등이다. 안전한 제조 공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는 사람에게서 유래된다. 이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감염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투여받으면 감염 위험성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투여받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면역반응도 빼놓을 수 없는 부작용이다.<br/>　성체줄기세포는 분화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몸속에 투여된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나 암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투여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각막에서 뼈 세포가 자라나는 것처럼 몸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은 치료 즉시 발생하기보다 수개월에서 수년 뒤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br/>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다시 자신에게 투여하는 것도 100% 안전하지는 않다. 줄기세포를 채취해 증식시키는 등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줄기세포의 특성이 변하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변형되거나 감염된 줄기세포를 다시 자신에게 투입하면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br/><br/>　치료인지 임상시험인지 구분해야 <br/> 임상시험은 개발 중인 치료제나 치료술 등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연구다. 요컨대 아직 확증된 치료법이 아니다. 새로운 치료법은 기존 치료보다 효과가 높을 수도 반대로 낮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br/>　줄기세포 치료에도 많은 임상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연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구인 만큼 의사나 임상시험 관련자 등 어느 누구도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3.txt

제목: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나야  
날짜: 20150422  
기자: 안창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2100000087  
본문: 영화 후반부, ‘앨리스’와 또다른 ‘앨리스’가 컴퓨터 화면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 자신에게 보내온 영상편지가 흘러나온다. “안녕, 앨리스. 내가 너야. 너는 훌륭한 교수였고, 예쁜 세 아들딸이 있단다.” <br/>　화면 속 과거의 앨리스(줄리앤 무어)는 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로서 뛰어난 지성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50살 여성이다. 아이들도 변호사와 의사로 성장했다. 다만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막내딸 리디아(크리스틴 스튜어트)만 골칫거리다. <br/>　반면, 현재의 앨리스는 초점이 풀린 듯한 멍한 표정이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집 안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딸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유전성 알츠하이머병(치매)에 머릿속 모든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br/>　동명의 유명 소설을 영화화한 (30일 개봉)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고통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그렸다. 이 병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주로 환자 주위 사람의 고통에 초점을 맞췄다면, 는 환자가 겪는 고통을 깊게 들여다봤다. <br/>　누구든 불치병에 걸릴 수 있다. 이 영화가 빛나는 이유는 앨리스가 운명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사실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펼쳐 보였기 때문이다. 최고의 지적 능력을 갖췄지만, 병의 진행과 함께 지적 수준이 끝 간 데 없이 추락한다. 그 변화를 알기에 너무나 비참하다. 그래서 “차라리 말기 암이었으면 좋겠어”라며 흐느낀다. <br/>　앨리스는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초등학생처럼 단어 공부를 하더니, 증세가 심해지면서 자식들 이름을 아이폰에 적어두고 외우고 또 외운다. 앨리스가 아직 자신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을 무렵, 알츠하이머병 관련 협회에 강연자로 나서는 대목도 명장면이다. 앨리스는 말한다. “<span class='quot0'>나 자신으로 남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려 합니다.</span>” <br/>　영화는 줄리앤 무어였기에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그의 연기가 빛을 발한다. 그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다. 영화를 공동연출한 리처드 글래처 감독은 이 영화를 끝으로 세상을 등졌다. 그는 루게릭병 선고를 받은 뒤 이 영화에 혼신의 열정을 다했다고 한다. <br/>　치매는 영화의 단골 소재다. 기억을 잃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극적 재미’를 주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향은 조금씩 다르다. 현재 상영중인 (감독 강제규)는 가족의 사랑 쪽으로 물꼬를 텄다. 지난해 개봉한 (감독 장이머우)은 완전한 치매는 아니지만, 중국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과 부부의 사랑을 담았다. <br/>　2006년 (감독 세라 폴리)는 온전히 부부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 남편과 결혼한 기억조차 잃은 부인이 요양원에서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자,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아내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희생한다. 주디 덴치 등이 주연한 2001년 (감독 리처드 에어)는 유명 소설가가 말을 잃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와 유사한 설정이다. 이용철 영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1'>지식인한테 알츠하이머병은 자신의 존재 기반인 언어를 잃고 비참해지는 것이기에 말기 암 이상으로 공포스런 대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여기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족의 문제로 등장한 것이기에 일반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듯하다</span>”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4.txt

제목: ‘우주 이치’ 새긴 삶의 나침판…1500년 전통 면면히 잇는다  
날짜: 20150422  
기자: 이길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2100000062  
본문: 동양철학에서 태극은 우주의 시작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근본이 되는 원소인 태극이 움직여 양(陽)을 낳고, 그 움직임이 극에 이르면 고요해지며 음(陰)을 낳는다고 보았다. 또 고요함이 극에 닿으면 움직임으로 되돌아간다고 봤다. 양의 변화와 음의 조화는 만물을 만들었다. 음양오행설이다. 바람(風)은 기운을 움직인다. 물(水)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바람이 통하는 길이다. 풍수는 산천의 정기가 땅의 모양에 따라 형성되고 움직이는 기운이다.<br/>　옛사람들은 삶의 공간인 땅의 지세를 중심으로 삼라만상의 발산하는 기(氣)와 자연환경인 산천의 기운을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몸과 동일시했다. 그래서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땅을 만물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음양오행설과 풍수학을 결합해 체계적인 학문으로 만들었다. 살아 있는 동안 머물 집의 위치와 죽은 조상을 모실 묘지의 위치를 잡아 대자연의 혜택을 입어 운명을 개척하는 수단이 바로 풍수지리학이고, 그런 풍수지리학을 생활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이가 바로 지관이다. 지관에게 없어서는 안될 도구가 바로 윤도(輪圖)다.<br/>　한가운데 태극이 그려진 윤도는 남북을 가리키는 지남철이 있어 여행자들의 나침판으로도 쓰였다. 우주 질서를 새긴 윤도에는 여러 개의 동심원에 방위(方位)가 새겨져 있다. 음양(陰陽), 오행(五行), 팔괘(八卦),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 및 24절후(節侯)가 조합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br/>　중요무형문화재 110호인 윤도장 김종대(82)는 조선시대부터 최고의 윤도 산지로 이름을 얻은 전북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낙산마을에서 태어났다. 조선시대에는 흥덕현에 속했는데, 이곳에서 만든 윤도는 방향이 정확하고 견고해 ‘흥덕 패철’로 불리며 전국의 지관들이 애용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이곳에서 윤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마을에서 남쪽으로 1.5㎞가량 떨어진 제성산에 거북바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거북바위의 등에 쇠붙이를 올려놓으면 양 끝이 정남과 정북 방향을 가리킨다. 기록에는 350년 전부터 전씨 가문에서 시작해 한씨, 서씨를 거쳐 현재의 김씨 집안으로 윤도 제작 기술이 전승돼 왔다고 한다.<br/>　김종대의 할아버지 김권삼은 이 마을에서 윤도를 만들던 ‘한운장’이라는 분에게 기능을 물려받았다. 김권삼은 네 아들 중 손재주가 있던 둘째 아들 김정의 선생에게 윤도장 일을 물려주었다. 한학에도 밝았던 김정의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막내아우의 아들인 조카 김종대에게 윤도 계승을 부탁했다. 손재주가 남달랐기 때문이다.<br/>　“<span class='quot0'>돈이 되지 않더라도 가업이니 꼭 맥을 이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span>” 호롱불 아래서 책을 보며, 왕복 12㎞ 되는 길을 걸어 다니며 호남고를 졸업한 김종대는 군복무를 마친 뒤 농협에 근무하며 큰아버지로부터 윤도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큰아버지가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는 거의 독학으로 일을 익혀야 했다. 정식으로 기술을 전수받지 못해 어려서부터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내용과 대략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역과 한학을 익혔다. 마흔이 넘어서야 혼자 재료 준비에서 완성까지 자신있게 해낼 수 있게 되었다.<br/>　윤도의 제작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수백년 된 박달나무를 원통형으로 잘라 그 중심을 잡는다. 한번 잡아 놓은 중심점은 윤도가 완성될 때까지 기준점이 되며, 나중에 자침을 받쳐줄 받침대를 세울 곳이다. 윤도의 층수를 정하고, 분금 작업을 한다. 정확한 분금은 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윤도를 만드는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분금 작업이 끝나면 글자를 새긴다. 가장 큰 24층짜리 윤도에는 한자가 3500여자나 들어가는데 밑글씨를 따로 쓰지 않고 칼로 파낸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사포질로 모두 밀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한 층을 새기는 데는 보통 한나절이 걸리고, 글자 수가 많은 층은 꼬박 하루가 걸린다.<br/>　며칠을 걸려 글자를 새긴 다음엔 먹·옥돌가루·주사 등으로 분금과 글자에 선명하게 색을 입힌다. 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자침은 강철을 깎아 숯불로 단련해 초침처럼 가늘게 두드린다. 이 자침은 이 집안에서 300년 넘게 가보로 내려오는 천연 자석 위에 세 시간가량 올려놓으면 강한 자성이 입혀진다.<br/>　“이 검은 자석 원석은 한운장 선생이 만주에서 구했다는데 원래는 물속에 있던 것이라고 해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귀하게 보존하고 있어요.”<br/>　김종대의 맏아들 김희수(53)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윤도를 만들고 있으니 4대가 전통을 이어가는 셈이다. <br/> 고창/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5.txt

제목: 내 줄기세포로 나를 치료하면  
날짜: 2015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110017045421  
본문: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휠체어를 타던 환자도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알려진 때가 있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뒤 이런 믿음은 많이 사라졌다. 요즘은 주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시행된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몇몇 치료제도 나와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술은 여전히 부작용 등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줄기세포학회 등 줄기세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펴낸 <제대로 묻자! 제대로 알자! 줄기세포 치료의 모든 것>이라는 환자정보집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br/><br/><br/><br/> 성체줄기세포, 임상시험에 많이 쓰여 <br/><br/>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다른 조작을 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서 가장 활발하게 임상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성체줄기세포의 한 종류인 조혈줄기세포는 이미 백혈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을 정도다.<br/><br/> 배아줄기세포는 다른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해 만들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윤리적인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분화 능력이 좋은 탓에 암 등으로 커 나가는 부작용도 극복해야 한다.<br/><br/> 역분화줄기세포는 정자나 난자를 사용하지 않아 윤리적 논란은 없다. 환자의 세포를 이용한 것이라 면역거부반응도 없다. 문제는 배아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암 등이 생기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 등에서 역분화줄기세포의 효과를 알아보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치료에 이용되는 단계는 아니다.<br/><br/><br/><br/>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에도 부작용 있어 <br/><br/> 완벽하게 안전한 의학적 치료 또는 치료제가 없듯이 줄기세포 치료도 마찬가지다. 같은 치료제라도 치료를 받는 사람에 따라 부작용 등 위험성도 달라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줄기세포치료 시술 또는 치료제라고 해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특히 줄기세포치료 시술 또는 치료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몸 안에서 없어지는 다른 의약품들과는 달리 몸에서 효과를 내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날 수 있다.<br/><br/> 일반적으로 알려진 줄기세포 치료의 부작용은 감염, 면역반응, 이상 세포로의 변화 등이다. 안전한 제조 공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는 사람에게서 유래된다. 이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감염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투여받으면 감염 위험성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투여받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면역반응도 빼놓을 수 없는 부작용이다.<br/><br/> 성체줄기세포는 분화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몸속에 투여된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나 암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투여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각막에서 뼈 세포가 자라나는 것처럼 몸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은 치료 즉시 발생하기보다 수개월에서 수년 뒤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br/><br/>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다시 자신에게 투여하는 것도 100% 안전하지는 않다. 줄기세포를 채취해 증식시키는 등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줄기세포의 특성이 변하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변형되거나 감염된 줄기세포를 다시 자신에게 투입하면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br/><br/><br/><br/> 치료인지 임상시험인지 구분해야 <br/><br/> 임상시험은 개발 중인 치료제나 치료술 등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연구다. 요컨대 아직 확증된 치료법이 아니다. 새로운 치료법은 기존 치료보다 효과가 높을 수도 반대로 낮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br/><br/> 줄기세포 치료에도 많은 임상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연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구인 만큼 의사나 임상시험 관련자 등 어느 누구도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6.txt

제목: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나야  
날짜: 2015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110017037918  
본문: 영화 후반부, ‘앨리스’와 또 다른 ‘앨리스’가 컴퓨터 화면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 자신에게 보내온 영상편지가 흘러나온다. “안녕, 앨리스. 내가 너야. 너는 훌륭한 교수였고, 예쁜 세 아들딸이 있단다.”<br/><br/> 화면 속, 과거의 앨리스(줄리안 무어)는 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로서 뛰어난 지성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50살 여성이다. 아이들도 변호사와 의사로 성장했다. 다만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막내딸 리디아(크리스틴 스튜어트)만 골칫거리다. <br/><br/> 반면, 현재의 앨리스는 초점이 풀린 듯한 멍한 표정이다. 그는 이제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집안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딸를 알아보지 못한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유전성 알츠하이머병(치매)에 머리 속 모든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br/><br/> 동명의 유명소설을 영화화한 <스틸 앨리스>(30일 개봉)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고통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그렸다. 이 병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주로 환자 주위 사람의 고통에 초점을 맞췄다면, <스틸 앨리스>는 환자가 겪는 고통을 깊게 들여다봤다. <br/><br/> 누구든 불치병에 걸릴 수 있다. 이 영화가 빛나는 이유는 앨리스가 운명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 사실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펼쳐 보였기 때문이다. 최고의 지적 능력을 갖췄지만, 병의 진행과 함께 지적 수준이 끝간 데 없이 추락한다. 그 변화를 알기에 너무나 비참하다. 그래서 “차라리 말기 암이었으면 좋겠어”라며 흐느낀다. <br/><br/> 앨리스는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초등학생처럼 단어 공부를 하더니, 증세가 심해지면서 자식들 이름을 아이폰에 적어두고 외우고 또 외운다. 앨리스가 아직 자신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을 무렵, 알츠하이머병 관련 협회에 강연자로 나서는 대목도 명장면이다. 앨리스는 말한다. “<span class='quot0'>내 자신으로 남기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려 합니다.</span>” <br/><br/> 영화는 줄리안 무어였기에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그의 연기가 빛을 발한다. 그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다. 영화를 공동연출한 리처드 글랫저 감독은 이 영화를 끝으로 세상을 등졌다. 그는 루게릭병 선고를 받은 뒤 이 영화에 혼신의 열정을 다했다고 한다. <br/><br/> 치매는 영화의 단골 소재이다. 기억을 잃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극적 재미’를 주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향은 조금씩 다르다. 현재 상영 중인 <장수상회>(감독 강제규)는 가족의 사랑 쪽으로 물꼬를 텄다. 지난해 개봉한 <5일의 마중>(감독 장예모)은 완전한 치매는 아니지만, 중국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과 부부의 사랑을 담았다. <br/><br/> 2006년 <어웨이 프롬 허>(감독 사라 폴리)는 온전히 부부 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 남편과 결혼한 기억조차 잃은 부인이 요양원에서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자,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아내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희생한다. 주디 덴치 등이 주연한 2001년 <아이리스>(감독 리처드 이어)는 유명 소설가가 말을 잃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스틸 앨리스>와 유사한 설정이다. 이용철 영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1'>지식인한테 알츠하이머병은 자신의 존재 기반인 언어를 잃고 비참해지는 것이기에 말기 암 이상으로 공포스런 대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여기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족의 문제로 등장한 것이기에 일반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듯하다</span>”고 말했다.<br/><br/>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7.txt

제목: ‘우주 이치’ 새긴 삶의 나침판…1500년 전통 면면히 잇는다  
날짜: 2015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110017043404  
본문: 동양철학에서 태극은 우주의 시작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근본이 되는 원소인 태극이 움직여 양(陽)을 낳고, 그 움직임이 극에 이르면 고요해지며 음(陰)을 낳는다고 보았다. 또 고요함이 극에 닿으면 움직임으로 되돌아간다고 봤다. 양의 변화와 음의 조화는 만물을 만들었다. 음양오행설이다. 바람(風)은 기운을 움직인다. 물(水)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바람이 통하는 길이다. 풍수는 산천의 정기가 땅의 모양에 따라 형성되고 움직이는 기운이다.<br/><br/> 옛사람들은 삶의 공간인 땅의 지세를 중심으로 삼라만상의 발산하는 기(氣)와 자연환경인 산천의 기운을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몸과 동일시했다. 그래서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땅을 만물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음양오행설과 풍수학을 결합해 체계적인 학문으로 만들었다. 살아 있는 동안 머물 집의 위치와 죽은 조상을 모실 묘지의 위치를 잡아 대자연의 혜택을 입어 운명을 개척하는 수단이 바로 풍수지리학이고, 그런 풍수지리학을 생활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이가 바로 지관이다. 지관에게 없어서는 안될 도구가 바로 윤도(輪圖)다.<br/><br/> 한가운데 태극이 그려진 윤도는 남북을 가리키는 지남철이 있어 여행자들의 나침판으로도 쓰였다. 우주 질서를 새긴 윤도에는 여러 개의 동심원에 방위(方位)가 새겨져 있다. 음양(陰陽), 오행(五行), 팔괘(八卦),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 및 24절후(節侯)가 조합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br/><br/>땅의 지세 읽어 묘택잡는 지관의 필수품 <br/>통일신라시대부터 ‘흥덕 패철’로 유명한 <br/>전북 고창 낙산마을 장인집안으로 전승<br/><br/>조부 이은 백부 ‘손재주 좋은 조카’ 낙점 <br/>돌연 별세로 20대부터 기억살려 독학 <br/>“<span class='quot0'>만주서 온 ‘천연 자석’ 가보로 대물림</span>”<br/><br/> 중요무형문화재 110호인 윤도장 김종대(82)는 조선시대부터 최고의 윤도 산지로 이름을 얻은 전북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낙산마을에서 태어났다. 조선시대에는 흥덕현에 속했는데, 이곳에서 만든 윤도는 방향이 정확하고 견고해 ‘흥덕 패철’로 불리며 전국의 지관들이 애용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이곳에서 윤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마을에서 남쪽으로 1.5㎞가량 떨어진 제성산에 거북바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거북바위의 등에 쇠붙이를 올려놓으면 양 끝이 정남과 정북 방향을 가리킨다. 기록에는 350년 전부터 전씨 가문에서 시작해 한씨, 서씨를 거쳐 현재의 김씨 집안으로 윤도 제작 기술이 전승돼 왔다고 한다.<br/><br/> 김종대의 할아버지 김권삼은 이 마을에서 윤도를 만들던 ‘한운장’이라는 분에게 기능을 물려받았다. 김권삼은 네 아들 중 손재주가 있던 둘째 아들 김정의 선생에게 윤도장 일을 물려주었다. 한학에도 밝았던 김정의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막내아우의 아들인 조카 김종대에게 윤도 계승을 부탁했다. 손재주가 남달랐기 때문이다.<br/><br/> “<span class='quot0'>돈이 되지 않더라도 가업이니 꼭 맥을 이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span>” 호롱불 아래서 책을 보며, 왕복 12㎞ 되는 길을 걸어 다니며 호남고를 졸업한 김종대는 군복무를 마친 뒤 농협에 근무하며 큰아버지로부터 윤도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큰아버지가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는 거의 독학으로 일을 익혀야 했다. 정식으로 기술을 전수받지 못해 어려서부터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내용과 대략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역과 한학을 익혔다. 마흔이 넘어서야 혼자 재료 준비에서 완성까지 자신있게 해낼 수 있게 되었다.<br/><br/> 윤도의 제작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수백년 된 박달나무를 원통형으로 잘라 그 중심을 잡는다. 한번 잡아 놓은 중심점은 윤도가 완성될 때까지 기준점이 되며, 나중에 자침을 받쳐줄 받침대를 세울 곳이다. 윤도의 층수를 정하고, 분금 작업을 한다. 정확한 분금은 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윤도를 만드는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분금 작업이 끝나면 글자를 새긴다. 가장 큰 24층짜리 윤도에는 한자가 3500여자나 들어가는데 밑글씨를 따로 쓰지 않고 칼로 파낸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사포질로 모두 밀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한 층을 새기는 데는 보통 한나절이 걸리고, 글자 수가 많은 층은 꼬박 하루가 걸린다.<br/><br/> 며칠을 걸려 글자를 새긴 다음엔 먹·옥돌가루·주사 등으로 분금과 글자에 선명하게 색을 입힌다. 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자침은 강철을 깎아 숯불로 단련해 초침처럼 가늘게 두드린다. 이 자침은 이 집안에서 300년 넘게 가보로 내려오는 천연 자석 위에 세 시간가량 올려놓으면 강한 자성이 입혀진다.<br/><br/> “이 검은 자석 원석은 한운장 선생이 만주에서 구했다는데 원래는 물속에 있던 것이라고 해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귀하게 보존하고 있어요.”<br/><br/> 김종대의 맏아들 김희수(53)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윤도를 만들고 있으니 4대가 전통을 이어가는 셈이다. <br/><br/> 고창/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br/><br/><br/><br/> <br/><br/>윤도장이란<br/><br/>집터·묘택 찾는 풍수용 내비게이션 <br/> 24방위·12지·별자리 등 한눈에<br/><br/>윤도장(輪圖匠)은 24방위를 원으로 그려 넣은 풍수 지남침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윤도는 지관이 집터나 묏자리를 정하는 풍수를 볼 때 주로 쓴다. 바퀴 모양을 한 둥근 윤도는 12지와 별자리, 방위 등을 새겨 넣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으로 우주의 원리와 함께 산수의 흐름까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다. 주역의 이치와 천문학, 점술, 지리학이 담겨 있다. 이제는 풍수를 미신으로 여기고, 현대화된 나침판이 등장하며 윤도가 거의 사라진 형편이다.<br/><br/> 지관들이 흔히 사용하는 윤도는 9층짜리다. 1, 2층에는 묏자리나 집터의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정보를 넣고, 3층에는 오행을, 4층에는 산이나 능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담는다. 5, 6층은 산수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쓰이고, 7, 8층에는 입수와 득수의 길흉을 가늠하는 내용이, 9층에는 하관할 때 망자의 사주에 맞춰 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120분금을 새겨 넣는다. 분금을 잘 맞추면 집안의 발복과 후손에서 큰 인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금하는 것이 지관의 능력을 결정짓는 일이었다.<br/><br/> 윤도는 중국에서 이미 한대(漢代)에 실용화되어 점을 치는 데 사용됐고, 한민족은 신라 후기부터 실생활에 적용했다. 윤도는 고려 전기에는 풍수음양지리와 연결되어 땅의 형세를 보는 풍수가나 지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구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부터는 풍수가뿐 아니라 천문학자들에게는 정확한 남북을 가리키는 기구로 쓰였고, 여행자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방향을 잡는 데 사용됐다. <br/><br/> 이길우 선임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8.txt

제목: “일찍 깨야 성공” 성화로 주말 늦잠 자기 어려워요 /‘아침형’ ‘저녁형’ 인간은 유전적 요인 커…잠 잘 자야 건강  
날짜: 2015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1100000033  
본문: Q<br/>부모님은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말에 제가 늦잠 자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하십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br/>　<br/>A<br/>마이클 블룸버그는 미국의 거대 미디어기업가이자 정치가입니다. 그가 월가의 투자신탁회사인 샐러먼 브러더스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창업자 빌리 샐러먼이었고 다음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블룸버그였습니다. 출근한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 블룸버그가 빌리 샐러먼의 말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살 신입사원이 창업자와 친분을 쌓으며 좋은 조언을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카네기는 17살에 전신국 배달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통신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출근해서 전신기 사용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전보 치는 기술을 배워서 통신기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오른 것도 좋았지만 세계 각지에서 통신을 타고 들어오는 온갖 고급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은 다음 행보를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침잠을 줄여서 성공했다는 이런 성공담들은 늦잠 자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늦잠이 게으름이나 의지박약의 일종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br/>　그러나 아침형과 저녁형의 수면과 생활 패턴은 상당부분 유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영국 노섬브리아대학의 바클레이 박사 연구팀은 63쌍의 일란성 쌍생아와 674쌍의 이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아침형, 저녁형 수면 패턴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유전적 영향이 아침형, 저녁형 수면 패턴의 52%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적 노력이나 환경만큼 타고난 체질이 늦잠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br/>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케르크호프 교수는 자는 동안 뇌파를 측정해서 아침형·저녁형의 수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아침형은 초저녁에 깊은 잠을 자고 새벽으로 갈수록 깊은 잠의 뇌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녁형은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자야 편안한 저녁형인 사람들은 아침에 깊은 잠을 잡니다. 저녁형이 새벽마다 일어나면 숙면이 부족해 피로가 쌓입니다. 주말이라도 늦잠으로 잠을 보충해야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수면시간을 무리하게 거스르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탠퍼드대학 스피걸 교수 연구팀은 잠자는 시간을 무리하게 조정하는 경우 암의 진행이 빨라진다고 보고했습니다.<br/>　해와 달의 리듬에 따라 생활하던 원시시대에 비해 밝은 전기조명이나 디지털 기기들과 함께 사는 현대인은 새로운 수면과 생활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타고난 체질과 무관하게 잠자는 시간도 조절을 합니다. 저녁형이 새벽에 출근을 하기도 하고 아침형이 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타고난 체질도 노력에 의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균형이 중요합니다. 타고난 체질과 환경의 요구 사이에 균형을 갖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br/> 신동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89.txt

제목: 구조조정 전문가 ‘노년 개척자’로 삶을 구조조정하다  
날짜: 2015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110017045494  
본문: 지난 10일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관 1주년 기획전시인 ‘함께 36.5 디자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한 무리의 중학생이 입장하자 조용한 전시관이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전시 물품에는 별 관심 없는 양 돌아다니던 남학생들이 주목한 것은 탈것이었다. 휠체어 등 각종 보행기에 올라 전시장을 신나게 누볐다.<br/><br/> 이 전시회를 기획한 ㈔50플러스코리안의 한주형(56) 회장은 “<span class='quot0'>연령과 신체적 조건에 맞게 의지해온 탈것을 통해 인간의 성장과 여정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보행기→유모차→자전거→도시형 교통수단→특수이동수단→이동보조기구→시니어 이동기구가 원을 이루며 전시되어 있었다.<br/><br/> “여기 원의 시작에는 태어나서 혼자 걸을 수 없는 유아가 첫발을 디디도록 도와주는 보행기들이 있죠. 원의 마지막에는 나이가 들어 신체의 기능이 쇠퇴할 때 쉽게 일어서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시니어 이동기구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지만 탈것들 중에선 가장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원으로 배치해서 그 둘이 닿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br/><br/> 다른 쪽에는 각종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처음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도록 시작됐다. 지금은 나이·성별·국적·언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으로 확장돼 ‘보편적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 불린다.<br/><br/> “손이 떨리는 어르신에게 가벼운 숟가락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무거운 숟가락이 낫겠죠. 구글에서 개발한 스마트 숟가락(작은 사진)을 보세요. 수전증이 있는 사람을 위해 손떨림 방지 기술을 넣었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br/><br/>미국서 경영학 전공, 한국에 M&A 전도 <br/>기러기아빠로 살며 일에만 몰두<br/><br/>2004년 아내의 갑작스런 암 선고 <br/>수술날이 하필 결혼 20주년 기념일 <br/>‘삶의 하프타임’ 깨닫고 가족 곁으로<br/><br/>우연히 만난 교수 덕에 노년학 입문 <br/>한국은 노년층보다 50대 문제 더 심각 <br/>AARP 같은 50대 이상 커뮤니티 만들어 <br/>“<span class='quot1'>상처 딛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span>”<br/><br/>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회장은 국내의 대표적인 인수합병(M&A) 전문가였다. 1996년 뉴욕시립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엘지그룹의 인수합병 담당 팀장으로 스카우트됐다.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곳곳에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국외 인수합병 전문가들도 한국으로 몰려들었다. 정신없던 와중에 자녀는 다시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다. 2000년 아내와 자녀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기러기아빠 신세가 됐다.<br/><br/> 2004년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내가 잠시 귀국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암이 발견된 것이다. 급히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바쁜 업무로 그는 수술 현장도 지키지 못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수술을 마치고 잠들어 있었다. 문득 달력을 보았다. 12월21일,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다.<br/><br/> “스포츠용어 중에 하프타임이라고 있잖아요. 경기시간을 전후로 나눴을 때 중간의 휴식시간 말입니다. 하프타임을 알리는 경종이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겠다 생각했습니다.”<br/><br/>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의 가족 옆으로 돌아갔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친구도 만났다. 어느 날 “뭘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다.<br/><br/>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던 분인데, ‘뭘 할 거냐’가 아니라 ‘뭘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을 듣는데 멍한 겁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없다고 답하기도 뭐해서 즉흥적으로 어려운 아이나 어르신을 위한 일에 관심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색하며 좋은 분을 소개해 주겠다는 겁니다.”<br/><br/> 며칠 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노년학 교수이자 학과장을 만났다. 경영학을 전공한 뒤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 사업만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자 학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span class='quot1'>고령화는 비즈니스다.(Aging is business.)</span>” 학과장의 권고로 2006년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노년학은 다양한 학문분야가 어우러진 융복합 학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도 공부했다.<br/><br/>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진짜 시니어를 만나고 싶었어요. 현장을 보고 싶어 여러 시니어 기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원봉사자도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더군요. 몇 번 떨어진 뒤에야 겨우 합격했습니다.”<br/><br/> 어르신 쉼터(데이케어센터)와 호스피스 병동 등 여러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너싱홈이라 부르는 노인 전문 요양시설에서 옴부즈맨을 맡았을 때다. 세세한 것까지 점검하게 했다. 점심식사로 닭고기가 나온다면 닭고기를 안 먹는 노인을 위한 대용식은 나오는지, 걸음이 불편한 노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복도에 물기는 없는지, 치매를 앓는 노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소함 문은 닫혀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br/><br/> “한정된 인력으로 꾸려가다 보면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다른 시각으로 어르신의 삶을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자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업무까지 자원봉사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한다고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br/><br/> 노년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8년 교보생명의 노년 전문위원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속도가 더디고 계통이 복잡한 대기업이 답답해서 2010년 퓨처모자이크연구소라는 1인 연구소를 만들어 독립했다. 강연과 컨설팅을 다니면서 한국은 노년층도 문제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깨달았다.<br/><br/> “50대는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인생도 전환점입니다. 여성은 갱년기, 남성도 큰 신체적 변화를 겪을 시기죠.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제도도, 정책도, 방향성도 없이 온전히 소외된 상태였습니다.”<br/><br/> 그때 떠올린 게 4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은퇴자협회(AARP)였다. 한국에도 50대 이상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털어놓자 8명이 모였다. 1000만원씩 십시일반 모아 2013년 ㈔50플러스코리안을 발족했다.<br/><br/> “50대 이상의 권익보호도 있지만 우선 한을 풀자는 생각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배신감,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 뭘 할지 모르는 당혹감 등 상처가 많아요. 우리 사회는 노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노후에 수억원 없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와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는 50대 이상이 주역이 될 것입니다.” <br/><br/> 글·사진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0.txt

제목: “일찍 깨야 성공” 성화로 주말 늦잠 자기 어려워요  
날짜: 2015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2010017024810  
본문: Q: 부모님은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말에 제가 늦잠 자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하십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br/><br/> <br/><br/>A: 마이클 블룸버그는 미국의 거대 미디어기업가이자 정치가입니다. 그가 월가의 투자신탁회사인 샐러먼 브러더스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창업자 빌리 샐러먼이었고 다음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블룸버그였습니다. 출근한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 블룸버그가 빌리 샐러먼의 말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살 신입사원이 창업자와 친분을 쌓으며 좋은 조언을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카네기는 17살에 전신국 배달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통신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출근해서 전신기 사용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전보 치는 기술을 배워서 통신기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오른 것도 좋았지만 세계 각지에서 통신을 타고 들어오는 온갖 고급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은 다음 행보를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침잠을 줄여서 성공했다는 이런 성공담들은 늦잠 자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늦잠이 게으름이나 의지박약의 일종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br/><br/> 그러나 아침형과 저녁형의 수면과 생활 패턴은 상당부분 유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영국 노섬브리아대학의 바클레이 박사 연구팀은 63쌍의 일란성 쌍생아와 674쌍의 이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아침형, 저녁형 수면 패턴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유전적 영향이 아침형, 저녁형 수면 패턴의 52%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적 노력이나 환경만큼 타고난 체질이 늦잠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br/><br/>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케르크호프 교수는 자는 동안 뇌파를 측정해서 아침형·저녁형의 수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아침형은 초저녁에 깊은 잠을 자고 새벽으로 갈수록 깊은 잠의 뇌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녁형은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자야 편안한 저녁형인 사람들은 아침에 깊은 잠을 잡니다. 저녁형이 새벽마다 일어나면 숙면이 부족해 피로가 쌓입니다. 주말이라도 늦잠으로 잠을 보충해야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수면시간을 무리하게 거스르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탠퍼드대학 스피걸 교수 연구팀은 잠자는 시간을 무리하게 조정하는 경우 암의 진행이 빨라진다고 보고했습니다.<br/><br/> 해와 달의 리듬에 따라 생활하던 원시시대에 비해 밝은 전기조명이나 디지털 기기들과 함께 사는 현대인은 새로운 수면과 생활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타고난 체질과 무관하게 잠자는 시간도 조절을 합니다. 저녁형이 새벽에 출근을 하기도 하고 아침형이 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타고난 체질도 노력에 의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균형이 중요합니다. 타고난 체질과 환경의 요구 사이에 균형을 갖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br/><br/> 신동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1.txt

제목: 서울대-이스라엘 연구팀, 새 종양억제 원리 밝혀  
날짜: 2015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910017008172  
본문: 서울대가 지난해 초청해 석좌교수로 임용한 2004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시카노버(사진) 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종양억제 작동원리를 밝혀 내, 관련 논문이 유명저널 <셀>에 실렸다.<br/><br/> 서울대는 19일 “<span class='quot0'>의대 단백질대사연구센터 연구팀이 만성염증, 악성종양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엔에프 카파 B’(NF-kB) 전사인자의 대사과정을 밝히는 동시에 이 대사과정을 담당하는 ‘케이피시1’(KPC1) 유비퀴틴 리가제가 강력한 종양억제 단백질임을 알아냈다</span>”고 밝혔다. 시카노버 교수와 함께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의대 권용태 교수는 공동연구를 통해 이런 연구성과를 냈으며, 논문은 생물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셀> 10일(현지시각)치에 실렸다.<br/><br/> 만성염증과 악성종양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150년 전 루돌프 버쇼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를 매개하는 것이 전사효소인 엔에프 카파 B라는 것은 분자생물학이 발달한 최근에야 밝혀졌다.<br/><br/> 엔에프 카파 B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반응해 세포가 어려움을 이기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 세포의 생사와 성장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종류의 암에서 과발현돼 암세포의 생존, 전이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엔에프 카파 B의 단백질대사 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br/><br/> 연구팀은 엔에프 카파 B가 유비퀴틴화(작은 단백질 조각을 붙여 분해되는 현상)를 통해 생산과 분해가 조절되는 생화학적인 작동 원리를 자세히 밝혀냈다. 또 엔에프 카파 B NF-kB를 유비퀴틴화시키는 케이피시1 유비퀴틴 리가아제(두 분자를 결합시키는 효소)가 강력한 종양 억제제로 작용하는 것을 알아냈다.<br/><br/> 연구팀은 향후 엔에프 카파 B와 케이피시1을 타겟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케이피시1의 간암 모델 돌연변이 쥐를 생산해 이 단백질의 항암 작동원리를 연구할 예정이다.<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2.txt

제목: 선탠을 하면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된다?  
날짜: 2015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910017031999  
본문: 햇볕을 잠깐만 쬐어도 비타민 D는 충분히 생성된다?<br/><br/>미국피부암재단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에 10여분 노출하는 것도 반대한다. 반면 미국암협회는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필수영양소다. 피부 전문가들은 암이나 광노화 등을 무릅쓰면서까지 일부러 햇볕을 쬘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음식 섭취나 약 복용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서다. 백인은 평균적으로 하루 15~20분, 일주일에 사흘 정도 햇볕을 쬐면 충분한 비타민 D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일주일 내내 하루 8시간씩 야외에서 꼬박 근무한 사람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도 보고됐다.<br/><br/> 여름에 살갗을 태우면 겨울에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 속설도 근거가 없다.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된다 한들 태운 피부가 겨울까지 유지되지도 않는다.<br/><br/> <br/><br/>선탠을 하면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된다?<br/><br/>선탠을 하면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기는 한다.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 자외선 노출로 발생하는 피부노화나 피부암의 위험이 커진다. 영국암연구회는 선베드(일광욕 침대) 사용자 10명 가운데 8명은 피부암 발생이 75% 늘어난다는 보고를 내놓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선탠용 침대를 자외선과 마찬가지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br/><br/> <br/><br/>자외선차단제는 화장품이다? 약품이다?<br/><br/>많은 나라에서는 자외선차단제를 화장품으로 취급하지만 한국은 기능성 화장품(특정 기능이 있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으로 분류한다. 외국산 차단 제품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산 차단제를 팔려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차단제를 화장품 가게에서 살 수 있으나 그 제품은 화장품인 동시에 의약품이라는 뜻이다. 미국 식약국은 16가지 성분을 차단제 재료로 허가하는데 한국은 28가지를 인정한다. <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br/><br/><br/><br/>생활 속에 숨은 과학 원리가 궁금하시면 전자우편을 보내주십시오. 성심껏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3.txt

제목: “피로물질 ‘젖산’ 반응하는 암세포 성장 단백질 발견”  
날짜: 2015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710016995710  
본문: 국내 연구진이 피로물질 젖산과 반응하는 암세포 성장촉진 단백질을 발견했다. 젖산과 이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구조연구센터는 16일 “암이 잘 자라는 저산소 환경에서 암세포 성장과 신생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질(NDRG3)을 발견하고 이 단백질이 젖산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생물학 분야 최고권위지인 <셀> 이날(현지시각)치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 젖산은 급격한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이 분해될 때 생산돼 근육통증을 일으키는 피로물질로 알려져 있다. 젖산은 산소가 적은 상황에서 많이 생겨나는데 암세포가 활발하게 증식하는 저산소 환경에서도 다량으로 생성된다.<br/><br/>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세포 성장과 혈관 생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NDRG3 단백질이 젖산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선 NDRG3이나 젖산생성 효소가 결여된 실험쥐에서는 암세포주가 종양을 형성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해냈다. 반대로 젖산생성 효소가 결여된 간암세포에 NDRC3을 인위적으로 발현시키자 간암세포 종양이 크게 커졌다.<br/><br/> 연구책임자인 염영일 박사(생명공학연 오창분원장)은 “암세포 주변이 저산소 상태여서 많이 생기는 젖산이 NDRG3 단백질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커지고 암세포 주변에 새 혈관을 생기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젖산 생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효율적인 암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4.txt

제목: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표적항암제 보험 적용 확대  
날짜: 2015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5100000002  
본문: Q<br/>표적항암제 치료는 매우 비싸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건강보험이 많이 적용되나요?<br/>　<br/>A<br/>암은 우리 몸의 어떤 세포가 여러 원인으로 가파르게 자라나는 질환입니다. 항암제는 이런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거나 죽도록 만드는 약인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도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표적항암제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해치지 않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많은 연구비가 들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시장 독점으로 복제약의 개발이 어려워 가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br/>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2013~2016)’ 등을 추진해 암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중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법은 유방암·백혈병 등 20종류의 암에 모두 70개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 수는 2008년에 견줘 지난해에는 3.2배, 보험 적용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같은 기간 2.7배로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항암제 약제비 8300억원 가운데 표적항암제가 4000억원 정도로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br/>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항암제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장암·난소암·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표적항암제 요법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할지 검토중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은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도 월등히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5.txt

제목: 준비되지 않은 죽음  
날짜: 2015041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5100000087  
본문: 최근 에 켄 머리 남캘리포니아대 의대 교수가 실은 글을 보면 죽음이 소개돼 있다. 68살의 의사가 췌장암을 진단받은 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 이 의사는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수술은 물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이다. 암 진단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보냈다. 많은 의사들은 현대의학의 효과와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머리 교수는 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뇌로 전이된 폐암이 진단된 60살 사촌의 죽음이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3~5번의 항암제 치료 등을 받으면 넉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 사촌은 뇌 조직의 팽창을 막는 몇몇 알약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냈다. 평생 가 본 적이 없는 디즈니랜드에도 갔다. 이렇게 8개월을 지낸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흘 뒤 숨졌다. 8개월 동안 그가 쓴 의료비는 20달러에 불과했다. 머리 교수는 미국의 한 연구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자신에 대한 치료 방침에 대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족들에게 주문해 놓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등 많은 의사들이 죽는 과정을 미리 준비했다.<br/>　지난해 11월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29살 여성이 이른바 ‘존엄사법’이 발효된 미국의 한 주로 이사해 결국 안락사를 선택했다. 외신 기사를 요약해 공급하는 에 실린 글을 보면, 원래 의사들은 환자에게 해를 주면 안 되므로 조력 자살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이지만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의사 2만여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조력 자살 허용에 찬성한다고 답해, 4년 전 46%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조력 자살은 환자가 원해 의사들이 약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최선의 치료를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면 인공호흡기를 꽂은 채 사망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작별인사도 하고 죽고 싶은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는 것이다.<br/>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쓴 책인 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인공호흡기를 꽂아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이 환자가 죽음으로 가는 고통만 더 크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자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윤 교수는 최근 호스피스 관련 토론회에서 “<span class='quot0'>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환자가 연명치료 대신 질병의 고통을 덜고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시설, 인력 등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죽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다.<br/>　의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이별인 죽음은 모두 싫어한다. 하지만 맞아야 하는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 이렇듯 나이 들었고 또 준비하고 있어도 슬픈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바로 1년 전 오늘 세월호에 탄 많은 고등학생들과 승객들이 죽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었다. 그들은 ‘곧 구조될 거야’라는 믿음 속에 죽어갔다. 죽음을 준비하는 의사들과 이들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6.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준비되지 않은 죽음 / 김양중  
날짜: 2015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410016961702  
본문: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켄 머리 남캘리포니아대 의대 교수가 실은 글을 보면 죽음이 소개돼 있다. 68살의 의사가 췌장암을 진단받은 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 이 의사는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수술은 물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이다. 암 진단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보냈다. 많은 의사들은 현대의학의 효과와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머리 교수는 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뇌로 전이된 폐암이 진단된 60살 사촌의 죽음이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3~5번의 항암제 치료 등을 받으면 넉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 사촌은 뇌 조직의 팽창을 막는 몇몇 알약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냈다. 평생 가 본 적이 없는 디즈니랜드에도 갔다. 이렇게 8개월을 지낸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흘 뒤 숨졌다. 8개월 동안 그가 쓴 의료비는 20달러에 불과했다. 머리 교수는 미국의 한 연구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자신에 대한 치료 방침에 대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족들에게 주문해 놓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등 많은 의사들이 죽는 과정을 미리 준비했다.<br/><br/> 지난해 11월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29살 여성이 이른바 ‘존엄사법’이 발효된 미국의 한 주로 이사해 결국 안락사를 선택했다. 외신 기사를 요약해 공급하는 <뉴스 페퍼민트>에 실린 글을 보면, 원래 의사들은 환자에게 해를 주면 안 되므로 조력 자살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이지만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의사 2만여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조력 자살 허용에 찬성한다고 답해, 4년 전 46%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조력 자살은 환자가 원해 의사들이 약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최선의 치료를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면 인공호흡기를 꽂은 채 사망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작별인사도 하고 죽고 싶은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는 것이다.<br/><br/>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쓴 책인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인공호흡기를 꽂아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이 환자가 죽음으로 가는 고통만 더 크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자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윤 교수는 최근 호스피스 관련 토론회에서 “<span class='quot0'>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환자가 연명치료 대신 질병의 고통을 덜고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시설, 인력 등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죽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다.<br/><br/> 의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이별인 죽음은 모두 싫어한다. 하지만 맞아야 하는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 이렇듯 나이 들었고 또 준비하고 있어도 슬픈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바로 1년 전 세월호에 탄 많은 고등학생들과 승객들이 죽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었다. 그들은 ‘곧 구조될 거야’라는 믿음 속에 죽어갔다. 죽음을 준비하는 의사들과 이들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7.txt

제목: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표적항암제 보험 적용 확대  
날짜: 2015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410016961972  
본문: Q: 표적항암제 치료는 매우 비싸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건강보험이 많이 적용되나요?<br/><br/>A: 암은 우리 몸의 어떤 세포가 여러 원인으로 가파르게 자라나는 질환입니다. 항암제는 이런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거나 죽도록 만드는 약인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도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표적항암제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해치지 않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많은 연구비가 들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시장 독점으로 복제약의 개발이 어려워 가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2013~2016)’ 등을 추진해 암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중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법은 유방암·백혈병 등 20종류의 암에 모두 70개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 수는 2008년에 견줘 지난해에는 3.2배, 보험 적용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같은 기간 2.7배로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항암제 약제비 8300억원 가운데 표적항암제가 4000억원 정도로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항암제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장암·난소암·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표적항암제 요법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할지 검토중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은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도 월등히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8.txt

제목: ‘엄마 밥상’ 차리기 6개월…아침마다 아이들 웃음꽃  
날짜: 20150414  
기자: 박임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4100000037  
본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중학생(1학년) 최아무개양은 요즘 동생 3명을 챙겨야 한다.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지난 3일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최양은 전주시가 급식업체를 통해 배달해주는 도시락을 지난달부터 제공받고 있다. 차상위계층도 아닌데 주민지원센터에서 딱한 처지를 알고 배려했다. 13일에는 동생들이 좋아하는 닭간장조림, 베이컨과 계란부침, 돼지고기로 만든 동그란 강정 등이 나왔다.<br/>　전주시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 20일로 시행 6개월을 맞는다.<br/>　시가 지난해 10월20일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책을 시작할 당시의 지원 대상은 120가정, 183명이었으나 올해 2월부터 171가정, 260명으로 늘어났다.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는 게 아니라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로 발굴했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한끼당 비용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다. 사업비가 지난해 10월~올해 1월 9000만원이었으나,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4억7500만원으로 5배 넘게 뛰었다.<br/>　전주시와 계약을 맺은 급식업체가 월~토요일 밥과 국, 반찬 3개를 도시락으로 배달한다. 토요일에는 일요일치까지 더 준비해 제공한다. 새벽 4시부터 준비해 아침 7시 안에 배달을 완료해야 아이들이 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다. 새벽부터 일해야 하고 배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최은자 시 생활복지과장은 “<span class='quot0'>아이들이 그냥 수혜자가 아니라, 귀한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들도록 늘 신경을 쓴다</span>”고 말했다.<br/>　이런 차별성은 아이들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편지글로 확인된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추운데 맛있는 반찬을 집에까지 배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소고기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요. 송이버섯도 구워서요” 등의 글이 빈 도시락통에 넣어져 있다. 서로 소통을 하는 셈이다. 영양사 이문화(39)씨는 “보내준 손편지가 아줌마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었단다. ○○이 같은 친구들이 있어 새벽에 일하는 게 이제 힘들지 않다”고 답장했다. <br/>　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105명이 응답을 했는데 음식의 맛에 76.2%, 양에 65.7%, 식단에 84.8%, 영양상태에 7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후원금이 꾸준히 이어져 지금까지 1억7400여만원이 들어왔다. 한달에 2만~20만원씩 정액기부하는 사람도 10여명이 있다. <br/>　서울 서대문구와 충남 아산시가 방문하는 등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문의도 잇따른다. 지난 1월에는 자치분권 정책박람회에서 엄마의 밥상이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span class='quot1'>단 한명의 아이도 밥을 굶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599.txt

제목: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들과 사는 세상으로  
날짜: 2015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310016945617  
본문: 스마트폰 스크린 위로 힘겹게 와 닿은 뒤틀린 손가락에 닳아버린 액정, 남편의 무릎에 기댄 채 엉기고 뭉친 듯한 손을 부여잡고 다정하게 웃음짓는 아내, 온 몸의 에너지를 입으로 모아 불어제끼는 하모니카…. 아름답지 않다. 아니, 어쩌면 렌즈에 투사된 어떤 장면보다 아름답다, 엄숙하다.<br/><br/> 윤길중씨. 갑상선 암에 걸려 수술대에 누워있던 그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했단다. 회복기에 아내의 권유로 카메라도 없이 사진수업을 듣던 그는 김영갑갤러리에서 본 풍경 사진에 감동을 받아 아예 사진의 세계로 ‘깊숙히’ 발을 들였다. 그는 3년동안 중증장애인 50여 명의 일상을 기록했다. 그리고 세상에 내놓았다.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청 시민플라자에서 열리는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된 초대전이다. 장애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찍은 ‘홈 라이프’, 바깥나들이를 찍은 ‘아웃도어 라이프’, 그리고 뒤틀린 손과 발을 찍은 ‘핸드’와 ‘풋’으로 구성된 사진들은 과도한 감정개입 없이 절절한 감동을 준다. <br/><br/> 윤씨가 찾은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했다. 집이 하도 좁다보니 적절한 화각이 나오질 않아 주로 광각을 쓸 수밖에 없었다. “외부인이 자기 집 방문을 꺼리는 이유를 알겠더라. 사는 것이 누추하면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사실 사람 사는 모습이 특별히 다를 건 없다.” 작업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사진 찍히는 것을 싫어했던 이유도 알게 되었다. 카메라의 낯선 시선 앞에서 긴장하다 보니 몸이 더 뒤틀리고, 표정도 굳어져 평소보다 예쁘지 않게 나오곤 했으니 싫어했던 것이다. 문제를 알자, 답이 나왔다. “셔터에 손가락을 얹어두고 몇 시간 이야기하며 놀다 웃는 표정, 좋은 표정이 나오면 찍었다. 다음 방문 땐 꼭 사진을 인화해 줬고 다시 촬영하곤 했다.”<br/><br/> 윤씨 자신도 변했다. “장애인 사진을 찍으면서, 내 인생의 설계도가 바뀌었다. 사업한답시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그랬는데 사진 작업하면서 골프채를 버렸다.” 그는 “장애인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했다. 세상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해 편견이 많다. 장애인들에게 시선도 주지 않으려 하고 옆자리에서 밥이나 술을 마시면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나도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장애인들은 ‘봉사’나 ‘정상인’ 같은 단어를 싫어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하는 ‘친구’다.” 윤씨의 다음 작업은 장애인 누드다. “장애인 누드를 찍기 시작했는데 한참 더 해야 한다. 이들도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꿈이 있다.” <br/><br/>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0.txt

제목: ‘엄마 밥상’ 차리기 6개월…아침마다 아이들 웃음꽃  
날짜: 2015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310016945984  
본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중학생(1학년) 최아무개양은 요즘 동생 3명을 챙겨야 한다.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지난 3일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최양은 전주시가 급식업체를 통해 배달해주는 도시락을 지난달부터 제공받고 있다. 차상위계층도 아닌데 주민지원센터에서 딱한 처지를 알고 배려했다. 13일에는 동생들이 좋아하는 닭간장조림, 베이컨과 계란부침, 돼지고기로 만든 동그란 강정 등이 나왔다.<br/><br/> 전주시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 20일로 시행 6개월을 맞는다.<br/><br/> 시는 지난해 10월20일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책을 시작할 당시의 지원 대상은 120가정, 183명이었으나 올해 2월부터 171가정, 260명으로 늘어났다. 신청서를 통해 접수받는 게 아니라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로 발굴했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한끼당 비용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다. 사업비가 지난해 10월~올해 1월 9000만원이었으나,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4억7500만원으로 5배 넘게 뛰었다.<br/><br/> 전주시와 계약을 맺은 급식업체가 월~토요일 밥과 국, 반찬 3개를 도시락으로 배달한다. 토요일에는 일요일치까지 더 준비해 제공한다. 새벽 4시부터 준비해 아침 7시 안에 배달을 완료해야 아이들이 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다. 새벽부터 일해야 하고 배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최은자 시 생활복지과장은 “<span class='quot0'>아이들이 그냥 수혜자가 아니라, 귀한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들도록 늘 신경을 쓴다</span>”고 말했다.<br/><br/> 이런 차별성은 아이들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편지글로 확인된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추운데 맛있는 반찬을 집에까지 배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소고기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요. 송이버섯도 구워서요” 등의 글이 빈 도시락통에 넣어져 있다. 서로 소통을 하는 셈이다. 영양사 이문화(39)씨는 “보내준 손편지가 아줌마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었단다. ○○이 같은 친구들이 있어 새벽에 일하는 게 이제 힘들지 않다”고 답장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1'>어두운 새벽에 승강기 없는 연립주택 4~5층까지 신속해 배달하려다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span>”고 말했다.<br/><br/> 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105명이 응답을 했는데 음식의 맛에 76.2%, 양에 65.7%, 식단에 84.8%, 영양상태에 7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후원금이 꾸준히 이어져 지금까지 1억7400여만원이 들어왔다. 한달에 2만~20만원씩 정액기부하는 사람도 10여명이 있다. 이 후원금은 아이들을 위해 과일, 샌드위치, 김밥 등 특별 간식용으로 활용된다.<br/><br/> 서울 서대문구와 충남 아산시가 방문하는 등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문의도 잇따른다. 경기 안산시도 전주시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세월호 사고 1주기가 지나지 않아 아직 엄마의 밥상 현장을 찾지 못했다. 지난 1월에는 자치분권 정책박람회에서 엄마의 밥상이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이들이 먹는 밥상은 마음을 주고받는 교감의 밥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모두의 밥상이다. 단 한명의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1.txt

제목: 지리산에서 반달가슴 아기곰 5마리 태어나  
날짜: 2015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210016928461  
본문: 이번 봄 지리산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 아기곰 5마리가 태어났다.<br/><br/>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일대 야생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가운데 러시아 태생의 어미곰 아르에프(RF)-25가 암·수 각 1마리의 건강한 새끼를, 마찬가지로 러시아 태생인 아르에프-21이 수컷 1마리를 출산한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2004년 반달가슴곰 복원·증식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리산 야생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은 모두 24마리가 됐다.<br/><br/> 국립공원공단은 이와 별도로 2011년 중국에서 개체 증식용으로 들여온 어미곰 한 마리도 최근 지리산 반달가슴곰 자연적응훈련장에서 새끼 2마리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지리산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들에게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석해 이제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암컷 한 마리가 지리산에 더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br/><br/>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적응 훈련장에서 태어난 새끼 2마리까지 지리산에 풀어놓게 되면 지리산 야생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40마리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br/><br/>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2.txt

제목: 지리산에서 반달가슴 아기곰 5마리 태어나  
날짜: 2015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210016928462  
본문: 이번 봄 지리산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 아기곰 5마리가 태어났다.<br/><br/>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일대 야생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가운데 러시아 태생의 어미곰 아르에프(RF)-25가 암·수 각 1마리의 건강한 새끼를, 마찬가지로 러시아 태생인 아르에프-21이 수컷 1마리를 출산한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2004년 반달가슴곰 복원·증식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리산 야생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은 모두 24마리가 됐다.<br/><br/> 국립공원공단은 이와 별도로 2011년 중국에서 개체 증식용으로 들여온 어미곰 한 마리도 최근 지리산 반달가슴곰 자연적응훈련장에서 새끼 2마리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지리산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들에게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석해 이제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암컷 한 마리가 지리산에 더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br/><br/>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적응 훈련장에서 태어난 새끼 2마리까지 지리산에 풀어놓게 되면 지리산 야생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40마리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br/><br/>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3.txt

제목: 길, 균도(均道)  
날짜: 20150411  
기자: 정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1100000008  
본문: 이진섭 지음, 후마니타스, 2015<br/><br/>어떤 페미니스트들이 나를 “무식, 사이비, 제도권”, “교수도 아닌 사람이 여성주의 대표로 행세한다”고 비판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교수님’들의 제자인데. 어쨌든 딱히 틀린 말도 아닌 듯하여 필자 소개를 ‘평화학 연구자’로 바꾸었다. 이번에는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날아왔다. 애초부터 훼손할 순절(純節)도, ‘~주의자’를 자칭한 적도 없는데…. 아, 뭐라고 하지? 동생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주었다. “넌 귀가 얇아서 탈이야.”<br/>　당분간만이라도 크게 틀리지 않을 자기소개를 고민하다 보니, ‘건강 약자’가 적합한 듯했다. 나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고 장애도 있다. 몸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장애 관련 신간은 거의 구입하는 편이다. 이 책은 2011년 “발달장애 1급 자폐아” 이균도씨와 그의 아버지 이진섭씨가 부산시청을 출발해 서울 보신각에 이르기까지의 투쟁 기록이다. “KTX를 타니 두 시간 반. 그 거리를 39박 40일로 느리게 살았다.”(120쪽) 20대 중반의 청년이 왜 자폐‘아’일까. 자폐증 환자는 모두 ‘아이’에 머문다는 생각. 이 책이 널리 읽히기를 희망한다. 장애인 가족, 발달장애, 자폐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읽는다면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 단어들은 고정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독서에 실패하기 쉽다.<br/>　장애의 90% 이상은 후천적 이유로 발생한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균도씨 가족은 아버지는 직장암, 어머니는 갑상샘암, 외할머니는 위암을 앓았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피해 개연성을 인정받았다.(구자성, 215쪽) 이 정도면 후천적 사고가 아니라 국가폭력이다.<br/>　부자가 길을 나서자 사람들이 쳐다본다. 경적과 모래바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쏟아지는 환호와 갑작스런 시선(“<span class='quot0'>균도와 세상 걷기 경북도 같이합니다</span>”), 아들의 배낭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평생은 길과 삶이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br/>　삶과 실제 길은 다르다. 길을 인생에 비유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길이 있다는 착각을 준다. 가지 않은 길, 걸어온 길, 여정, 우회, 마이 웨이, 길을 잃다…. 정도(正道)는 바름을 의미하지만 ‘정도’(定道), ‘정상’ 개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 그의 이름처럼 균도(均道)가 맞다. 정도 때문에 장애가 문제가 된 것이다. 사는 길(‘살 길’이 아니다)이 없는, 길이 막힌 사람에게 길은 비유가 될 수 없다.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면 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된다. 길은 수단, 방법, 도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목적이 다른 이에게는 더욱 비현실적인 비유다. 비유는 종종 비윤리적이다. 수전 손태그는 자신의 암이 다른 것으로 은유될 때, 사회적 낙인과 실제 고통이 무시되는 현실을 썼다.<br/>　이처럼 인생=길이라는 통념은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상투성의 원단,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은 단지 선택하지 ‘않은’ 삶일 뿐이다. 선택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이미 삶이 아니다. 외출 준비에 한나절 이상 걸리는 장애인, 여성이 피하는 밤거리, 치매와 광장공포증 환자에게 길은 도전, 일상의 정치다. 비장애인의 걷기, 걷기 투쟁이 많지만 이균도씨 부자에게 길은 그들과 같지 않다. 이 책은 길의 의미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게 한다.<br/>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 화상 환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나라처럼 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든 사회도 드물 것이다. 구조적, 심리적으로 ‘총을 든 간수’가 곳곳에 완강하다. 성형 시술이 성별 이슈로 한정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몸의 외형과 기능 문제로 고통받는 장애인은 외모주의의 가장 큰 이해집단이다. 성형은 장애인 인권과 분야별 의료서비스 편중, 공중보건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br/>　길과 집이 메타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길이 안전하지 않으면 집도 안전하지 않다. 가정폭력은 ‘험한 세상’에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볼모로 작동한다. 안전한 집과 안전한 길. 장애인 복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일 뿐이다. <br/>정희진 평화학 연구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4.txt

제목: ‘암보다 무서운’ 치매 조기 진단과 치료법은  
날짜: 2015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0100000040  
본문: 명의 ‘치매, 고칠 수 없는 병인가’(교육방송 밤 9시50분) 치매는 노인들 사이에서 ‘암보다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육체와 정신의 모든 능력이 서서히 쇠퇴하는 위협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특히 가족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악명이 높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 가운데 약 4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하니,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치매의 대표적 초기 증상은 기억 장애다.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린다든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거나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하는 경우가 잦아진다. 두번째로는 언어 장애다.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떠오르지 않고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격 변화다. 온화하고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등 급격한 성격 변화를 보인다면 치매를 의심해봐야 한다. 혁신적인 치매 조기 진단법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김상윤 교수(신경과), 그리고 국내 최초 치매 클리닉과 치매협회를 창립한 이동영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span class='quot0'>초기에 잡는다면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span>”고 말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5.txt

제목: 노인 89% “연명치료 반대”…현실은 딴판  
날짜: 2015041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0100000087  
본문: 김아무개(74·서울 강북구)씨는 평소 자녀들한테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텔레비전 등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심폐소생술을 받는 환자를 보면 가족한테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던데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평소 살던 집에서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을 맞고 싶다.” <br/>　김씨처럼 대다수 노인은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전국 65살 이상 노인 1만452명 면접조사)를 보면, 열에 아홉명(88.9%)이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3.9%뿐이다. <br/>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연명치료 여부를 파악할 공식 통계 자료는 아직 없다. 다만 사망자의 사망 장소로 추정해볼 수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 장소’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4년엔 병원 안 사망자의 비율이 46.4%였으나 2014년엔 73.1%(잠정치)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중증 암 환자는 75.3%가 병원에서 숨졌다. 집에서 숨진 비율은 같은 기간 38.8%에서 16.6%로 줄었다. <br/>　현재의 법률과 의료 현실에 비춰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대부분은 연명치료를 받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병원 이용자 가운데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가 아닌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줘 삶의 질을 높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암관리법에 따라 암환자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암환자도 대부분 일반 병원에서 사망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3년 현재 12.7%다. 나머지 87.3%의 암환자는 사망할 때까지 병원 등에서 항암제 치료 등 연명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했을 확률이 높다. <br/>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연명치료를 대신해줄 호스피스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기존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올해 7월부터는 완화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은 줄게 됐지만 인력이나 시설이 크게 부족해 한계가 있다</span>”고 짚었다. 연명치료는 완화의료보다 진료비가 40% 정도 비싸다. <br/>　의사나 병원 쪽도 연명치료로 기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1997년 보라매병원은 환자 아내의 희망에 따라 환자의 귀가를 허용했는데 환자가 숨지자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한 2004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뒤 의사들은 회생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과장은 “<span class='quot1'>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는 병원 안에 판정위원회를 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 중</span>”이라고 밝혔다. <br/>　환자 보호자가 원해 이뤄지는 연명치료도 적지 않다.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전통적 효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결정이기도 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쏟아질지 모를 비난 시선을 우려한 탓도 크다. <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6.txt

제목: 길, 균도(均道)  
날짜: 2015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1010016923943  
본문: 어떤 페미니스트들이 나를 “무식, 사이비, 제도권”, “교수도 아닌 사람이 여성주의 대표로 행세한다”고 비판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교수님’들의 제자인데. 어쨌든 딱히 틀린 말도 아닌 듯하여 필자 소개를 ‘평화학 연구자’로 바꾸었다. 이번에는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날아왔다. 애초부터 훼손할 순절(純節)도, ‘~주의자’를 자칭한 적도 없는데…. 아, 뭐라고 하지? 동생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주었다. “넌 귀가 얇아서 탈이야.”<br/><br/> 당분간만이라도 크게 틀리지 않을 자기소개를 고민하다 보니, ‘건강 약자’가 적합한 듯했다. 나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고 장애도 있다. 몸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장애 관련 신간은 거의 구입하는 편이다. 이 책은 2011년 “발달장애 1급 자폐아” 이균도씨와 그의 아버지 이진섭씨가 부산시청을 출발해 서울 보신각에 이르기까지의 투쟁 기록이다. “KTX를 타니 두 시간 반. 그 거리를 39박 40일로 느리게 살았다.”(120쪽) 20대 중반의 청년이 왜 자폐‘아’일까. 자폐증 환자는 모두 ‘아이’에 머문다는 생각. 이 책이 널리 읽히기를 희망한다. 장애인 가족, 발달장애, 자폐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읽는다면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 단어들은 고정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독서에 실패하기 쉽다.<br/><br/> 장애의 90% 이상은 후천적 이유로 발생한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균도씨 가족은 아버지는 직장암, 어머니는 갑상샘암, 외할머니는 위암을 앓았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피해 개연성을 인정받았다.(구자성, 215쪽) 이 정도면 후천적 사고가 아니라 국가폭력이다.<br/><br/> 부자가 길을 나서자 사람들이 쳐다본다. 경적과 모래바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쏟아지는 환호와 갑작스런 시선(“<span class='quot0'>균도와 세상 걷기 경북도 같이합니다</span>”), 아들의 배낭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평생은 길과 삶이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br/><br/> 삶과 실제 길은 다르다. 길을 인생에 비유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길이 있다는 착각을 준다. 가지 않은 길, 걸어온 길, 여정, 우회, 마이 웨이, 길을 잃다…. 정도(正道)는 바름을 의미하지만 ‘정도’(定道), ‘정상’ 개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 그의 이름처럼 균도(均道)가 맞다. 정도 때문에 장애가 문제가 된 것이다. 사는 길(‘살 길’이 아니다)이 없는, 길이 막힌 사람에게 길은 비유가 될 수 없다.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면 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된다. 길은 수단, 방법, 도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목적이 다른 이에게는 더욱 비현실적인 비유다. 비유는 종종 비윤리적이다. 수전 손태그는 자신의 암이 다른 것으로 은유될 때, 사회적 낙인과 실제 고통이 무시되는 현실을 썼다.<br/><br/> 이처럼 인생=길이라는 통념은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상투성의 원단,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은 단지 선택하지 ‘않은’ 삶일 뿐이다. 선택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이미 삶이 아니다. 외출 준비에 한나절 이상 걸리는 장애인, 여성이 피하는 밤거리, 치매와 광장공포증 환자에게 길은 도전, 일상의 정치다. 비장애인의 걷기, 걷기 투쟁이 많지만 이균도씨 부자에게 길은 그들과 같지 않다. 이 책은 길의 의미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게 한다.<br/><br/>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 화상 환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나라처럼 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든 사회도 드물 것이다. 구조적, 심리적으로 ‘총을 든 간수’가 곳곳에 완강하다. 성형 시술이 성별 이슈로 한정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몸의 외형과 기능 문제로 고통받는 장애인은 외모주의의 가장 큰 이해집단이다. 성형은 장애인 인권과 분야별 의료서비스 편중, 공중보건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br/><br/> 길과 집이 메타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길이 안전하지 않으면 집도 안전하지 않다. 가정폭력은 ‘험한 세상’에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볼모로 작동한다. 안전한 집과 안전한 길. 장애인 복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일 뿐이다. <br/><br/>정희진 평화학 연구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7.txt

제목: 노인 89% “연명 치료 반대”…현실은 딴판  
날짜: 201504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0910016918040  
본문: 김아무개(74·서울 강북구)씨는 평소 자녀들한테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텔레비전 등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심폐소생술을 받는 환자를 보면 가족한테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던데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평소 살던 집에서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을 맞고 싶다.”<br/><br/> 김씨처럼 대다수 노인은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전국 65살 이상 노인 1만452명 면접조사)를 보면, 열에 아홉명(88.9%)이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3.9%뿐이다. <br/><br/>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연명치료 여부를 파악할 공식 통계 자료는 아직 없다. 다만 사망자의 사망 장소로 추정해볼 수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 장소’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4년엔 병원 안 사망자의 비율이 46.4%였으나 2014년엔 73.1%(잠정치)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중증 암 환자는 75.3%가 병원에서 숨졌다. 집에서 숨진 비율은 같은 기간 38.8%에서 16.6%로 줄었다. <br/><br/>현재의 법률과 의료 현실에 비춰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대부분은 연명치료를 받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병원 이용자 가운데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가 아닌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줘 삶의 질을 높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암관리법에 따라 암환자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암환자도 대부분 일반 병원에서 사망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3년 현재 12.7%다. 나머지 87.3%의 암환자는 사망할 때까지 병원 등에서 항암제 치료 등 연명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했을 확률이 높다. <br/><br/>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연명치료를 대신해줄 호스피스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기존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올해 7월부터는 완화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은 줄게 됐지만 인력이나 시설이 크게 부족해 한계가 있다</span>”고 짚었다. 연명치료는 완화의료보다 진료비가 40% 정도 비싸다. <br/><br/> 의사나 병원 쪽도 연명치료로 기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1997년 보라매병원은 환자 아내의 희망에 따라 환자의 귀가를 허용했는데 환자가 숨지자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한 2004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뒤 의사들은 회생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과장은 “<span class='quot1'>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는 병원 안에 판정위원회를 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 중</span>”이라고 밝혔다. <br/><br/> 환자 보호자가 원해 이뤄지는 연명치료도 적지 않다.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전통적 효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결정이기도 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쏟아질지 모를 비난 시선을 우려한 탓도 크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8.txt

제목: 4월 10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504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0910016911976  
본문: ‘암보다 무서운’ 치매 조기 진단과 치료법은<br/><br/>명의 ‘치매, 고칠 수 없는 병인가’(교육방송 밤 9시50분) 치매는 노인들 사이에서 ‘암보다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육체와 정신의 모든 능력이 서서히 쇠퇴하는 위협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특히 가족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악명이 높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 가운데 약 4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하니,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치매의 대표적 초기 증상은 기억 장애다.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린다든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거나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하는 경우가 잦아진다. 두번째로는 언어 장애다.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떠오르지 않고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격 변화다. 온화하고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등 급격한 성격 변화를 보인다면 치매를 의심해봐야 한다. 혁신적인 치매 조기 진단법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김상윤 교수(신경과), 그리고 국내 최초 치매 클리닉과 치매협회를 창립한 이동영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span class='quot0'>초기에 잡는다면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span>”고 말한다. <br/><br/> <br/><br/>아크로폴리스 가기 전 떡국 한그릇<br/><br/>꽃보다 할배 ‘그리스 편’(티브이엔 밤 9시 45분) 매회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할배들의 그리스 여행기 세번째 편이다. 이번 시즌에서 할배들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탤런트 최지우의 활약이 펼쳐진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각종 정보를 꼼꼼하게 적은 ‘지우 노트’와 할배들을 위한 각종 아이템들이 숨어있는 여행가방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마침 설날이었던 녹화날, 호텔방 안에서 떡국을 끓여 할배들에게 아침을 대접하고, ‘짐꾼’ 이서진 없이 홀로 가이드로 나선 최지우의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아테네의 상징 아크로폴리스와 근대 올림픽 경기장 등 신화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화려한 그리스의 풍경도 볼거리다. <br/><br/> <br/><br/>가수 육중완의 옥탑방 찾은 어머니<br/><br/>나 혼자 산다(문화방송 밤 11시 15분) 지난 2013년 3월 첫 방송된 ‘나 혼자 산다’가 100회를 맞았다. 출연자들이 100회를 맞아 부모님과 함께 한 하루를 공개한다. 가수 강남은 일본에서 온 어머니와 반가운 재회를 한다. 반가움도 잠시, 강남의 어머니는 아수라장으로 변한 집을 보고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했다고 한다. 아들이 사는 옥탑방을 처음 방문한 가수 육중완의 어머니는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아들에게 정성껏 집밥을 준비한다. 고향 선배 탤런트 김광규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밥을 먹으며 우정을 나눈 육중완은 부모님을 모시고 전통시장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09.txt

제목: 진짜 그래요?  
날짜: 20150406  
기자: 선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06100000016  
본문: Q<br/>술을 자꾸 마시면 주량이 늘어난다?<br/>주량은 유전적으로 타고난다.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효소(알코올탈수소효소와 아세트알데히드탈수소효소) 분비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술을 자주 마시면 약동학적 내성이 생겨 효소 분비가 활발해져 일시적으로 주량이 늘어난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효소 분비 능력 증대는 한계가 있어 타고난 분해 능력을 넘어가는 술은 간에 손상을 가져오기 쉽다. 간에 무리가 가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오히려 떨어져 주량도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알코올 의존도 유전적 원인이 40~60%에 이른다. 중독은 더 심해 60% 이상이다. 부모가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일 경우 자식의 위험도는 5배 늘어난다. <br/>　<br/>Q<br/>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주량이 적다?<br/>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얼굴이나 피부의 혈관을 팽창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아세트알데히드탈수소효소 분비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흔히 일어난다. 얼굴이나 피부가 빨개지는 사람은 한마디로 선천적으로 술에 약한 체질이다. 이런 경우 오히려 알코올 중독에 걸릴 위험이 적다. 가령 소주나 생맥주 한잔을 마셨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사람은 술을 마셔도 기분이 별로이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90배가 높다고 한다.<br/><br/><br/>Q<br/>적당한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br/>적정 음주는 과음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범위, 곧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음주를 말한다. 보통 남자의 경우 소주 기준 하루 2~3잔, 여자나 65살 이상 노인은 1~2잔 정도다. 여자나 노인의 적정 음주량이 적은 것은 제지방량이 적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알코올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뺀 제지방량이 많은 사람이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다. 적당한 술이 심혈관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암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데는 반론이 없다. 　이근영 선임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0.txt

제목: 술을 자주 마시다보면 주량이 늘어난다?  
날짜: 2015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0510016869647  
본문: 술을 자주 마시다보면 주량이 늘어난다?<br/><br/>주량은 유전적으로 타고난다.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효소(알코올탈수소효소와 아세트알데히드탈수소효소) 분비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술을 자주 마시면 약동학적 내성이 생겨 효소 분비가 활발해져 일시적으로 주량이 늘어난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효소 분비 능력 증대는 한계가 있어 타고난 분해 능력을 넘어가는 술은 간에 손상을 가져오기 쉽다. 간에 무리가 가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오히려 떨어져 주량도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 알코올 의존도 유전적 원인이 40~60%에 이른다. 중독은 더 심해 60% 이상이다. 부모가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일 경우 자식의 위험도는 5배 늘어난다. <br/><br/> <br/><br/>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주량이 적다?<br/><br/>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얼굴이나 피부의 혈관을 팽창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아세트알데히드탈수소효소 분비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흔히 일어난다. 얼굴이나 피부가 빨개지는 사람은 한마디로 선천적으로 술에 약한 체질이다. 이런 경우 오히려 알코올 중독에 걸릴 위험이 적다. 가령 소주나 생맥주 한잔을 마셨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사람은 술을 마셔도 기분이 별로이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90배가 높다고 한다.<br/><br/><br/><br/>적당한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br/><br/>적정 음주는 과음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범위, 곧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음주를 말한다. 보통 남자의 경우 소주 기준 하루 2~3잔, 여자나 65살 이상 노인은 1~2잔 정도다. 여자나 노인의 적정 음주량이 적은 것은 제지방량이 적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알코올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뺀 제지방량이 많은 사람이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다. 적당한 술이 심혈관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암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데는 반론이 없다. <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1.txt

제목: 존 레넌의 첫 부인 신시아 별세 /‘헤이 주드’ 주인공 줄리언의 모친  
날짜: 2015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03100000014  
본문: 비틀스의 리더 존 레넌(왼쪽)의 첫 부인인 신시아 레넌(오른쪽)이 1일(현지시각) 스페인 마요르카의 자택에서 암으로 숨졌다. 향년 75.<br/>　신시아의 아들 줄리언은 자신의 웹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직접 가사를 쓰고 부른 노래를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br/>　신시아는 1957년 리버풀의 음악학교에서 존 레넌을 만나 비틀스가 명성을 얻기 직전 결혼했지만, 당시 10대 우상이었던 비틀스의 이미지를 지키고자 결혼 사실을 숨겼다. 이들은 존이 오노 요코와 만나기 시작한 뒤 68년 이혼했다. 비틀스의 공식 전기를 쓴 헌터 데이비스는 신시아를 유명한 남편에게 학대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묘사했으며, 존과 달리 “<span class='quot0'>조용하고 말수가 적은데다 결코 히피가 아니었다</span>”고 말했다. 연합뉴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2.txt

제목: 삶의 문제를 통찰하는 다섯 가지 태도  
날짜: 20150403  
기자: 정상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03100000061  
본문: 태도에 관하여<br/>임경선 지음/한겨레출판·1만2000원<br/><br/>미래에 대한 희망과 좌절, 직장생활과 인간관계의 버거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삶의 문제들이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곤 한다. 글쓴이는 ‘어떻게 살 것’은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고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또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자산”이라고 조언한다.<br/>　책은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을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이라는 다섯가지 태도의 틀로 들여다보았다. 10년 전 암 수술을 받고 12년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프리랜서 작가로 나선 그가, 지난 11년간 라디오와 신문 등을 통해 ‘인생 상담’을 하며 가장 신뢰하게 된 삶의 가치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된다’거나 ‘꿈은 이뤄진다’는 식의 맹목적 긍정이나 훈계로 채워진 여느 성공 지침서나 자기계발서와는 다르다. 까칠하고 냉정하다. 이를테면 “거절을 할 때는 조금의 여지도 없이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좋다. 거절을 잘할 줄 아는 것이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다.” 또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대가는 엄정하게 치를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글쓴이는 상담의 최선은 “<span class='quot0'>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span>”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정상영 기자 chu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3.txt

제목: 삶의 문제를 통찰하는 다섯 가지 태도  
날짜: 2015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40210016837284  
본문: 태도에 관하여 <br/>임경선 지음/한겨레출판·1만2000원<br/><br/>미래에 대한 희망과 좌절, 직장생활과 인간관계의 버거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삶의 문제들이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곤 한다. 글쓴이는 ‘어떻게 살 것’은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고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또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자산”이라고 조언한다.<br/><br/> 책은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을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이라는 다섯가지 태도의 틀로 들여다보았다. 10년 전 암 수술을 받고 12년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프리랜서 작가로 나선 그가, 지난 11년간 라디오와 신문 등 ‘인생 상담’을 하며 가장 신뢰하게 된 삶의 가치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된다’거나 ‘꿈은 이뤄진다’는 식의 맹목적 긍정이나 훈계로 채워진 여느 성공 지침서나 자기계발서와는 다르다. 까칠하고 냉정하다. 이를테면 “거절을 할 때는 조금의 여지도 없이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좋다. 거절을 잘할 줄 아는 것이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다.” 또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대가는 엄정하게 치를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글쓴이는 상담의 최선은 “<span class='quot0'>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span>”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br/><br/> 정상영 기자 chu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4.txt

제목: ‘죽음학 전도사’ 정현채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날짜: 2015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8100000052  
본문: 예전에는 서울에도 군데군데 무덤이 흔했다. 내 어릴 적 뒷동산 소나무 숲에도 무덤 세 기가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 화장실에 나온다는 귀신 얘기에 꺅 소리를 지르며 옷도 못 추스른 채 도망갈 만큼 겁이 많았지만, 뒷동산 무덤들을 무서워하진 않았다. 그 시절엔 봉분이 지금보다 컸던 걸까, 우리가 워낙 작아서였을까. 세 개의 무덤을 각자의 레인 삼아 올라타고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미끄럼 내기를 하며 놀았다. 나중에 자라서 “북망이래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란 무덤들 외롭지 않으이…” 하는 박두진의 시 을 읽고는 어린 시절 나의 ‘무덤 놀이터’가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br/>　그러나 도시재개발과 함께 죽음도 수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무덤이 있던 곳엔 고층아파트가 들어섰고 이제는 아무도 대문에 조등(弔燈)을 달지 않는다. 도시는 번성하고 수명은 늘었지만 사람들은 기를 쓰고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며 산다. 죽을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은 황급히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호스를 주렁주렁 단 채 기계음과 함께 죽어간다. 죽음은 삶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싸워 이겨야 할 적(敵)이며 공포의 대상이다.<br/><br/>　임종기 환자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일들<br/>　죽음이 낯설어진 세상에서 다시 죽음을 생각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2005년 결성된 한국죽음학회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표어 아래 ‘잘 죽는 법’을 화두로 제기하고 (2010), (2013) 같은 책도 펴냈다. 그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 정현채(60) 교수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의사이다. 의대 강의 외에도 전국 방방곡곡 260회 이상 죽음에 대한 강연을 하러 다녀 ‘죽음학의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을까. 잘 죽기 위해선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난 16일 찾아간 그의 연구실은 병원 본관과 장례식장 사이,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했다는 아담한 2층 벽돌건물 안에 있었다. 소나무 아래 붉은 벽돌이 봄볕을 받아 따뜻했다.<br/>　1층 그의 연구실 앞에는 ‘간 연구소’란 현판이 붙어 있었다. 자료로 빽빽한 방 안은 언뜻 보아 여느 연구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의학 서적들과 별도로 나지막한 책꽂이에 죽음과 관련된 서적들이 2단으로 쌓여 있고, 죽음과 관련된 영화 디브이디(DVD)들이 차곡차곡 모아져 있는 걸 제외하고는. 자세히 보니 화이트보드에 이번달치 강연 일정이 촘촘했다. ‘영화를 통한 죽음 이해’, ‘웰빙과 웰다잉’, ‘근사체험’(近死體驗: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체험) 같은 강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br/>　-연구실이라고 해서 ‘죽음연구소’나 ‘웰다잉(Well-dying) 연구소’ 같은 곳에 계실 줄 알았는데 ‘간 연구소’여서 좀 의외였다.(웃음)<br/>　“소화기내과와 같은 건물 3층에 뇌신경센터가 있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한 것이, 그 입구에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반드시 죽는다’ 이런 간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다. 아예 병원 입구에 세우면 더 좋고. 내가 강의할 때는 그런 걸 만들어 세우자고 보여주곤 하는데, 실제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나? 집행부에서 바로 떼 가 버릴걸….(웃음)”<br/>　-그러니 여기다 ‘죽음연구소’ 이렇게 써 붙이면….<br/>　“<span class='quot0'>(손사래 치며) 아이고!(웃음)</span>”<br/>　-의사들부터 그렇게 죽음을 터부시하니, 일반인들은 더더욱 죽음이 낯설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죽음이 학문의 한 영역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br/>　“1960년대,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죽음학을 표방하고 처음 강의를 시작한 걸로 안다. 타나토스(thanatos)가 그리스어로 죽음이란 뜻인데 타나톨로지(thanatology)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생학(死生學) 혹은 생사학(生死學)이라고 불리는데 도쿄대학 같은 데는 ‘사생학연구소’가 따로 있다.”<br/>　-한국죽음학회 이사로 계시는데 학회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인가?<br/>　“<span class='quot0'>이화여대 최준식 교수(한국학과)가 회장을 맡고 있고 철학, 종교학, 의학, 간호학 등 회원들의 전공이 다양하다.</span>”<br/>　-죽음을 주제로 한 학문간 협동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학과 의학의 만남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br/>　“전례가 거의 없을 거다. 의학 하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지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종교학이나 철학은 죽음에 대해 얘긴 많이 하지만 실제 죽음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이론과 현장 사이의 괴리를 좁혀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자는 게 우리의 지향이다.”<br/>　-요즘 미디어에서 ‘명의’(名醫)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죽어가는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영웅으로… 환자의 기계장치에서 ‘삐~’ 하고 신호곡선이 끊기다가 다시 ‘뚜뚜뚜~’ 하고 바늘이 움직이면 와! 하면서 감동적인 음악이 좍 깔리고…(웃음) 그런데 그 이후 환자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 장면에서 끝나는 동화처럼.<br/>　“환자의 사망을 의료의 패배로 여기는 의료진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기도삽관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지고 성대나 인두를 다쳐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임종기 환자한테는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br/>　-환자 자신은 의사표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겠다.<br/>　“환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을 잃는 걸 자신의 실패로 여긴다. 얼마 전 지방에 있는 어느 의사가 내게 메일을 보냈는데 자기 어머니가 90살에 심근경색이 와서 부랴부랴 앰뷸런스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돌아가셨다고. 그 뒤 후회와 자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br/>　-왜 자책감을 느끼나?<br/>　“빨리 모시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다섯 장짜리 긴 답장을 써서 보냈다.”<br/>　-뭐라고 쓰셨나?<br/>　“죽음은 꽉 막힌 돌담 벽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열린 문이라고. 이게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죽음 근처까지 갔다 온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체험을 보면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br/>　-사후세계를 믿으시나?<br/>　“내 의대 2년 선배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건 실재할 뿐만 아니라 장엄하고도 장대한 세계입니다’라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기 곤란하다.”<br/>　그는 미리 복사해 둔 논문과 자료 몇 편을 우리 일행에게 한 부씩 건넸다.<br/>　<br/>　죽은 남편을 만난 할머니는 어디로 갔을까<br/>　정현채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88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내과의사로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는 여느 의사들처럼 생물학적 죽음관과 실증주의 과학교육에 충실한 의학자였다. 말기암 환자도 많이 봤지만 죽음을 자신과 연결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10여년 전, 나이 오십을 바라보며 문득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쳐들기 전까지는. 왜 딱히 그때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그 몇 해 전이니 그 때문이라 하기 어렵고,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다.<br/>　-종교적 관심은 아니었나?<br/>　“아니다. 종교적 교리나 문화적 전통에 의한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팩트가 뭔지, 죽음에 임박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아내가 내게 선물한 책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死後生)이라는 책이었다.”<br/>　취리히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한 퀴블러 로스 박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의 근사체험과 삶의 종말체험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20여권의 저서를 발표한 죽음학 연구의 대가이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에 꼽힐 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퀴블러 로스가 근사체험자들의 증언을 분석해 에서 주장하는 것은 “<span class='quot1'>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span>”이라는 것이었다.<br/>　-근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게 뭔가?<br/>　“정신과 전문의 김자성 선생이 번역해 소개한 (마이클 팀 저)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임종을 앞둔 어떤 할머니가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의식이 돌아와서는, 30년 전 죽은 남편이 아침에 와서 ‘오늘은 저승 갈 날이 아니나 사흘 뒤 떠난다’고 말했다는 거다. 그러곤 할머니를 돌봐주던 간호사의 죽은 남편이 전하는 말이라고, 부부만이 알던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줬다고 한다. 실제로 할머니는 이 말을 남기고 다시 혼수에 빠진 뒤 사흘 뒤 세상을 떠났다.”<br/>　근사체험은 이제 의학의 한 연구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위 있는 의학전문학술지 (Lancet)에 2001년에 실린 연구를 보면 네덜란드의 여러 병원에서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34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18%인 62명이 근사체험을 했는데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50%), 긍정적인 감정(56%), 체외이탈 경험(24%), 밝은 빛과의 교신(23%),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32%), 자신의 생을 회고함(13%) 등이 공통된 체험이었다고 한다.<br/>　-그렇게 떠나간 사후세계에선 어떤 일이 펼쳐진단 말인가?<br/>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벗어나면 진동하는 에너지체로 존재하는데 그 주파수에 따라 비슷한 에너지체끼리 모인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에너지체는 그것끼리, 증오와 질투로 살아온 에너지체는 또 그것끼리…. 절대적 심판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체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셈이다. 그러나 그 구분은 보상과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 진화를 도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br/>　-윤회를 인정하나?<br/>　“그렇다. 윤회론은 불교나 힌두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미국이나 서구에서 오히려 연구가 더 많이 됐다. 우리는 미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연구도 하지 않고 데이터도 없고. 아마 앞으로 미국 가서 윤회로 박사학위 받고 오는 사람도 생길 거다.”<br/>　-거듭되는 윤회에서 그럼, 이 생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br/>　“아주 빡센 신병훈련소라고 할 수 있다. 비물질계에서는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영혼들이 모이지만 지상에서는 주파수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봐야 하고, 그렇게 부딪히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이다.”<br/><br/><br/>↗<br/>↘<br/><br/><br/>-사후세계나 윤회를 인정한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컴퓨터가 이리저리 바이러스 먹고 자꾸 오작동하면 아예 리셋(reset)해서 초기값으로 돌려놓고 싶어지지 않나? 누군가가 ‘나는 이 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빨리 마감하고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고 한다면?<br/>　“우리의 삶을 ‘빡센 신병훈련소’라고 했는데, 그 과제가 힘들다고 그만두는 건, 학교에서 월담해서 뛰어나가는 거랑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 다시 들어와서 또 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 외다가 싫다고 나가버리면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또 구구단을 평생….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나? 다음 단계 올라가서 인수분해도 배우고 계속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br/>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이 확 온다.(웃음)<br/>　<br/>　인생은 빡센 신병훈련소, 사랑하고 감사하라<br/>　-이런 영적 세계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주목할 만한 학술논문들이 나왔다고는 해도 많은 부분은 여전히 신비가들의 주장으로 여겨지고 있다.<br/>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다 입증할 수 있을까? 현대과학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오히려 과학자로서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물질계를 측정하는 잣대를 비물질계에 들이대는 건 타당하지 않다.”<br/>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삶을 산다면 뭐가 달라질까?<br/>　“나 같은 경우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선 삶이 유한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니 늘 만나는 전공의나 자식들한테도 뭐 덕담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고 싶어지고. 아침마다 전공의들이 발표를 하는데 어떤 때는 암만 봐도 뭐 별로 잘한 게 없는 거 같은데….(웃음) 꼼꼼히 보면 장점은 늘 있더라.”<br/>　-예를 들면?<br/>　“슬라이드 바탕을 흰색으로 해서 아침에 조는 사람을 적게 했다든가…(웃음) 그리고 주변에 고맙다고 인사해야 하는데 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벌써 잊어버린 경우가 흔하지만.(웃음)”<br/>　정현채는 아직 정년이 5년 남았지만 4년 전부터 자신의 연구실 비품이나 자료를 학교의 의학역사문화원에 기증해 오고 있다. 매년 다섯 번 헌혈을 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강의노트를 복사해준다. 장기기증서약서와 유언장,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기도삽관이나 연명의료를 하지 말라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써두었다. 자신의 장례식에서 쓸 음악을 90여곡 모아놓고, 수의 대신 무명 평상복을 입혀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는 사전장례의향서도 써 두었다.<br/>　이란 책을 쓴 미국 의사 아이라 바이오크는, 죽기 전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제시한다.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말할 것,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할 것, 작별인사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기란 쉽지 않다. <br/> 2010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가 ‘죽음의 질’을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은 40개 나라 중 32위로 우간다보다 한 등수 위이다. 1위를 차지한 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시티(CT)나 엠아르아이(MRI) 같은 고가의 장비는 3~4배나 많으면서 임종기 환자의 진통 완화를 위한 모르핀 사용량은 영국의 10분의 1이다. 전국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900여개에 불과하다.<br/>　-내 가족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름다운 임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뭔가?<br/>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끝까지 유지되는 감각이 청각과 촉각이다. 의식이 없어 보이더라도 손을 꼭 잡고 할 얘기를 다 하는 게 좋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못다 한 이야기들.”<br/>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과 격리된 채 임종을 맞는다. 2013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아직 법안은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가족과 따뜻한 작별인사라도 하고 떠나려면 죽기 전 해야 할 일이 많다.<br/>녹취 함규원(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br/><br/><br/>▶ 이진순 언론학 박사. 전직 교수.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럿거스대 커뮤니케이션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했고 그 전에는 등 다큐멘터리 작가로 다양한 인물을 취재했다. 세상의 새 지평을 여는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5.txt

제목: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날짜: 2015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710016765988  
본문: 예전에는 서울에도 군데군데 무덤이 흔했다. 내 어릴 적 뒷동산 소나무 숲에도 무덤 세 기가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 화장실에 나온다는 귀신 얘기에 꺅 소리를 지르며 옷도 못 추스른 채 도망갈 만큼 겁이 많았지만, 뒷동산 무덤들을 무서워하진 않았다. 그 시절엔 봉분이 지금보다 컸던 걸까, 우리가 워낙 작아서였을까. 세 개의 무덤을 각자의 레인 삼아 올라타고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미끄럼 내기를 하며 놀았다. 나중에 자라서 “북망이래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란 무덤들 외롭지 않으이…” 하는 박두진의 시 <묘지송>을 읽고는 어린 시절 나의 ‘무덤 놀이터’가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br/><br/> 그러나 도시재개발과 함께 죽음도 수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무덤이 있던 곳엔 고층아파트가 들어섰고 이제는 아무도 대문에 조등(弔燈)을 달지 않는다. 도시는 번성하고 수명은 늘었지만 사람들은 기를 쓰고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며 산다. 죽을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은 황급히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호스를 주렁주렁 단 채 기계음과 함께 죽어간다. 죽음은 삶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싸워 이겨야 할 적(敵)이며 공포의 대상이다.<br/><br/><br/><br/> 임종기 환자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일들<br/><br/> 죽음이 낯설어진 세상에서 다시 죽음을 생각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2005년 결성된 한국죽음학회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표어 아래 ‘잘 죽는 법’을 화두로 제기하고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2010), <죽음맞이>(2013) 같은 책도 펴냈다. 그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 정현채(60) 교수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의사이다. 의대 강의 외에도 전국 방방곡곡 260회 이상 죽음에 대한 강연을 하러 다녀 ‘죽음학의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을까. 잘 죽기 위해선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난 16일 찾아간 그의 연구실은 병원 본관과 장례식장 사이,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했다는 아담한 2층 벽돌건물 안에 있었다. 소나무 아래 붉은 벽돌이 봄볕을 받아 따뜻했다.<br/><br/> 1층 그의 연구실 앞에는 ‘간 연구소’란 현판이 붙어 있었다. 자료로 빽빽한 방 안은 언뜻 보아 여느 연구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의학 서적들과 별도로 나지막한 책꽂이에 죽음과 관련된 서적들이 2단으로 쌓여 있고, 죽음과 관련된 영화 디브이디(DVD)들이 차곡차곡 모아져 있는 걸 제외하고는. 자세히 보니 화이트보드에 이번달치 강연 일정이 촘촘했다. ‘영화를 통한 죽음 이해’, ‘웰빙과 웰다잉’, ‘근사체험’(近死體驗: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체험) 같은 강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br/><br/> -연구실이라고 해서 ‘죽음연구소’나 ‘웰다잉(Well-dying) 연구소’ 같은 곳에 계실 줄 알았는데 ‘간 연구소’여서 좀 의외였다.(웃음)<br/><br/> “소화기내과와 같은 건물 3층에 뇌신경센터가 있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한 것이, 그 입구에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반드시 죽는다’ 이런 간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다. 아예 병원 입구에 세우면 더 좋고. 내가 강의할 때는 그런 걸 만들어 세우자고 보여주곤 하는데, 실제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나? 집행부에서 바로 떼 가 버릴걸….(웃음)”<br/><br/> -그러니 여기다 ‘죽음연구소’ 이렇게 써 붙이면….<br/><br/> “<span class='quot0'>(손사래 치며) 아이고!(웃음)</span>”<br/><br/> -의사들부터 그렇게 죽음을 터부시하니, 일반인들은 더더욱 죽음이 낯설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죽음이 학문의 한 영역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br/><br/> “1960년대,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죽음학을 표방하고 처음 강의를 시작한 걸로 안다. 타나토스(thanatos)가 그리스어로 죽음이란 뜻인데 타나톨로지(thanatology)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생학(死生學) 혹은 생사학(生死學)이라고 불리는데 도쿄대학 같은 데는 ‘사생학연구소’가 따로 있다.”<br/><br/> -한국죽음학회 이사로 계시는데 학회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인가?<br/><br/> “<span class='quot0'>이화여대 최준식 교수(한국학과)가 회장을 맡고 있고 철학, 종교학, 의학, 간호학 등 회원들의 전공이 다양하다.</span>”<br/><br/> -죽음을 주제로 한 학문간 협동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학과 의학의 만남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br/><br/> “전례가 거의 없을 거다. 의학 하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지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종교학이나 철학은 죽음에 대해 얘긴 많이 하지만 실제 죽음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이론과 현장 사이의 괴리를 좁혀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자는 게 우리의 지향이다.”<br/><br/> -요즘 미디어에서 ‘명의’(名醫)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죽어가는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영웅으로… 환자의 기계장치에서 ‘삐~’ 하고 신호곡선이 끊기다가 다시 ‘뚜뚜뚜~’ 하고 바늘이 움직이면 와! 하면서 감동적인 음악이 좍 깔리고…(웃음) 그런데 그 이후 환자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 장면에서 끝나는 동화처럼.<br/><br/> “환자의 사망을 의료의 패배로 여기는 의료진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기도삽관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지고 성대나 인두를 다쳐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임종기 환자한테는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br/><br/> -환자 자신은 의사표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겠다.<br/><br/> “환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을 잃는 걸 자신의 실패로 여긴다. 얼마 전 지방에 있는 어느 의사가 내게 메일을 보냈는데 자기 어머니가 90살에 심근경색이 와서 부랴부랴 앰뷸런스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돌아가셨다고. 그 뒤 후회와 자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br/><br/> -왜 자책감을 느끼나?<br/><br/> “빨리 모시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다섯 장짜리 긴 답장을 써서 보냈다.”<br/><br/> -뭐라고 쓰셨나?<br/><br/> “죽음은 꽉 막힌 돌담 벽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열린 문이라고. 이게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죽음 근처까지 갔다 온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체험을 보면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br/><br/> -사후세계를 믿으시나?<br/><br/> “내 의대 2년 선배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건 실재할 뿐만 아니라 장엄하고도 장대한 세계입니다’라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기 곤란하다.”<br/><br/> 그는 미리 복사해 둔 논문과 자료 몇 편을 우리 일행에게 한 부씩 건넸다.<br/><br/>2005년 결성 ‘한국죽음학회’ 주도 <br/>죽음 주제 전례없는 학문간 협동 <br/>“환자 사망은 의료 패배 아냐 <br/>죽음은 돌담벽 아닌 열린 문 <br/>장엄하고도 장대한 또다른 세계”<br/><br/>나이 오십 앞둔 10여년전 관심 <br/>죽음학 연구서 <사후생> 탐독 <br/>“육신 벗어나면 에너지체로 존재 <br/>이 생은 ‘윤회’의 신병훈련소 <br/>삶의 유한성 절감 긍정적 영향” <br/><br/> 죽은 남편을 만난 할머니는 어디로 갔을까<br/><br/> 정현채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88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내과의사로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는 여느 의사들처럼 생물학적 죽음관과 실증주의 과학교육에 충실한 의학자였다. 말기암 환자도 많이 봤지만 죽음을 자신과 연결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10여년 전, 나이 오십을 바라보며 문득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쳐들기 전까지는. 왜 딱히 그때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그 몇 해 전이니 그 때문이라 하기 어렵고,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다.<br/><br/> -종교적 관심은 아니었나?<br/><br/> “아니다. 종교적 교리나 문화적 전통에 의한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팩트가 뭔지, 죽음에 임박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아내가 내게 선물한 책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사후생>(死後生)이라는 책이었다.”<br/><br/> 취리히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한 퀴블러 로스 박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의 근사체험과 삶의 종말체험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20여권의 저서를 발표한 죽음학 연구의 대가이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에 꼽힐 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퀴블러 로스가 근사체험자들의 증언을 분석해 <사후생>에서 주장하는 것은 “<span class='quot1'>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span>”이라는 것이었다.<br/><br/> -근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게 뭔가?<br/><br/> “정신과 전문의 김자성 선생이 번역해 소개한 <사후세계의 비밀>(마이클 팀 저)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임종을 앞둔 어떤 할머니가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의식이 돌아와서는, 30년 전 죽은 남편이 아침에 와서 ‘오늘은 저승 갈 날이 아니나 사흘 뒤 떠난다’고 말했다는 거다. 그러곤 할머니를 돌봐주던 간호사의 죽은 남편이 전하는 말이라고, 부부만이 알던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줬다고 한다. 실제로 할머니는 이 말을 남기고 다시 혼수에 빠진 뒤 사흘 뒤 세상을 떠났다.”<br/><br/> 근사체험은 이제 의학의 한 연구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위 있는 의학전문학술지 <랜싯>(Lancet)에 2001년에 실린 연구를 보면 네덜란드의 여러 병원에서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34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18%인 62명이 근사체험을 했는데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50%), 긍정적인 감정(56%), 체외이탈 경험(24%), 밝은 빛과의 교신(23%),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32%), 자신의 생을 회고함(13%) 등이 공통된 체험이었다고 한다.<br/><br/> -그렇게 떠나간 사후세계에선 어떤 일이 펼쳐진단 말인가?<br/><br/>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벗어나면 진동하는 에너지체로 존재하는데 그 주파수에 따라 비슷한 에너지체끼리 모인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에너지체는 그것끼리, 증오와 질투로 살아온 에너지체는 또 그것끼리…. 절대적 심판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체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셈이다. 그러나 그 구분은 보상과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 진화를 도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br/><br/> -윤회를 인정하나?<br/><br/> “그렇다. 윤회론은 불교나 힌두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미국이나 서구에서 오히려 연구가 더 많이 됐다. 우리는 미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연구도 하지 않고 데이터도 없고. 아마 앞으로 미국 가서 윤회로 박사학위 받고 오는 사람도 생길 거다.”<br/><br/> -거듭되는 윤회에서 그럼, 이 생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br/><br/> “아주 빡센 신병훈련소라고 할 수 있다. 비물질계에서는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영혼들이 모이지만 지상에서는 주파수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봐야 하고, 그렇게 부딪히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br/><br/>-사후세계나 윤회를 인정한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컴퓨터가 이리저리 바이러스 먹고 자꾸 오작동하면 아예 리셋(reset)해서 초기값으로 돌려놓고 싶어지지 않나? 누군가가 ‘나는 이 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빨리 마감하고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고 한다면?<br/><br/> “우리의 삶을 ‘빡센 신병훈련소’라고 했는데, 그 과제가 힘들다고 그만두는 건, 학교에서 월담해서 뛰어나가는 거랑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 다시 들어와서 또 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 외다가 싫다고 나가버리면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또 구구단을 평생….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나? 다음 단계 올라가서 인수분해도 배우고 계속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br/><br/>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이 확 온다.(웃음)<br/><br/> <br/><br/> 인생은 빡센 신병훈련소, 사랑하고 감사하라<br/><br/> -이런 영적 세계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주목할 만한 학술논문들이 나왔다고는 해도 많은 부분은 여전히 신비가들의 주장으로 여겨지고 있다.<br/><br/>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다 입증할 수 있을까? 현대과학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오히려 과학자로서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물질계를 측정하는 잣대를 비물질계에 들이대는 건 타당하지 않다.”<br/><br/>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삶을 산다면 뭐가 달라질까?<br/><br/> “나 같은 경우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선 삶이 유한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니 늘 만나는 전공의나 자식들한테도 뭐 덕담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고 싶어지고. 아침마다 전공의들이 발표를 하는데 어떤 때는 암만 봐도 뭐 별로 잘한 게 없는 거 같은데….(웃음) 꼼꼼히 보면 장점은 늘 있더라.”<br/><br/> -예를 들면?<br/><br/> “슬라이드 바탕을 흰색으로 해서 아침에 조는 사람을 적게 했다든가…(웃음) 그리고 주변에 고맙다고 인사해야 하는데 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벌써 잊어버린 경우가 흔하지만.(웃음)”<br/><br/> 정현채는 아직 정년이 5년 남았지만 4년 전부터 자신의 연구실 비품이나 자료를 학교의 의학역사문화원에 기증해 오고 있다. 매년 다섯 번 헌혈을 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강의노트를 복사해준다. 장기기증서약서와 유언장,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기도삽관이나 연명의료를 하지 말라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써두었다. 자신의 장례식에서 쓸 음악을 90여곡 모아놓고, 수의 대신 무명 평상복을 입혀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는 사전장례의향서도 써 두었다.<br/><br/>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란 책을 쓴 미국 의사 아이라 바이오크는, 죽기 전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제시한다.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말할 것,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할 것, 작별인사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기란 쉽지 않다. <br/><br/> 2010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가 ‘죽음의 질’을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은 40개 나라 중 32위로 우간다보다 한 등수 위이다. 1위를 차지한 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시티(CT)나 엠아르아이(MRI) 같은 고가의 장비는 3~4배나 많으면서 임종기 환자의 진통 완화를 위한 모르핀 사용량은 영국의 10분의 1이다. 전국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900여개에 불과하다.<br/><br/> -내 가족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름다운 임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뭔가?<br/><br/>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끝까지 유지되는 감각이 청각과 촉각이다. 의식이 없어 보이더라도 손을 꼭 잡고 할 얘기를 다 하는 게 좋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못다 한 이야기들.”<br/><br/>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과 격리된 채 임종을 맞는다. 2013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아직 법안은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가족과 따뜻한 작별인사라도 하고 떠나려면 죽기 전 해야 할 일이 많다.<br/><br/> 녹취 함규원(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br/><br/>▶ 이진순 언론학 박사. 전직 교수.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럿거스대 커뮤니케이션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했고 그 전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다큐멘터리 작가로 다양한 인물을 취재했다. 세상의 새 지평을 여는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6.txt

제목: “광주항쟁 고문으로 얻은 간암 20년 넘게 안고 다스렸지만…”  
날짜: 20150326  
기자: /정대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6100000055  
본문: 평생 통일운동과 민족생활의학 교육에 힘써온 해관 장두석(사진)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이 25일 새벽 지병이 악화해 별세했다. 향년 77.<br/>　고인은 지난해 10월2일 남북민족정신선양회 회원 20명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평양 단군릉에서 단군제 봉행 행사를 열고 돌아와 건강에 이상 증세를 느낀 뒤, 석달 전께부터 걷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20여년 전부터 간암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고인은 암을 안고 다스리며 살아왔다고 한다. <br/>　유족들은 “80년 5월 광주항쟁 때 끌려가 혹사당한 뒤 병을 얻었다”고 말했다. 광주 양서조합에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했던 고인은 5월 항쟁 때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군사법원에서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1년 4월 사면·석방됐다. <br/>　38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고인은 ‘장두목’ 또는 ‘뿌리 깊은 느티나무’로 불렸다. 그는 평생 한복 차림을 고집하며 ‘민족생활의학’ 보급과 통일운동, 전통문화 살리기의 외길을 걸었다. 이승만 시절 진보당원으로 활동했고, 60년 3·15 부정선거 때 화순 이서면 지서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74년 유신 독재에 맞서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여했고, 76년 가톨릭농민회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79년엔 명동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사건으로 체포되는 등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2000년에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통일운동을 해왔다.<br/>　고인은 몸이 스스로 낫게 하는 자연치유에 기반을 둔 민족생활의학의 교육과 실천에 열정을 쏟았다. 75년 자연건강대학을 설립한 뒤 89년 민족생활학교로 개편해 4만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2011년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용당마을에 한옥형 민족생활교육원인 양현당을 완공한 뒤 민족생활의학 강습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문화·전통사상·역사·환경·예의범절·세시풍속 등 다양한 강좌도 열었다.<br/>　유족으로는 부인 김동례(75)씨와 아들 영철(광주시 사회복지 장애인취업지원센터장)씨가 있다. 장례는 민족통일장으로 치러진다. 화순 양현당에서 노제를 거쳐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 영결식을 할 예정이다. <br/>　빈소는 조선대병원, 발인은 28일 오전 7시다. (062)220-3352. <br/>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7.txt

제목: ‘유머 넘치고 팀워크 중시한 진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날짜: 2015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5100000039  
본문: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의 스티브 잡스(사진)가 아닌 유머가 넘치고 팀워크를 중시한 인간미 넘치는 인물로 소개한 새로운 자서전이 24일(현지시각) 출간된다. 제목은 (비커밍 스티브 잡스). 미국 잡지 의 전 편집장 브렌트 슐렌더가 썼다.<br/>　새 자서전에는 잡스의 동료인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이 2011년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직후 월터 아이작슨이 쓴 자서전 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23일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br/>　슐렌더는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자서전을 쓰면서) 크게 놀란 것은 잡스가 매우 유쾌하고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했다. 팀 쿡은 최근 “<span class='quot0'>아이작슨의 잡스 자서전은 그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span>”면서 새로 나올 자서전이 잡스의 진정한 면모를 담아냈다고 평가했다고 는 소개했다.<br/>　애플의 소프트웨어 담당 최고경영자 에디 큐도 지난주 트위터 등에 “<span class='quot1'>잡스를 가장 잘 묘사한 자서전 ‘스티브 잡스 되기’가 곧 나온다</span>”는 글을 남겼다.<br/>　잡스 동료들의 호평 속에 출간된 새 자서전에는 잡스가 평소 일하면서 서로 협력해 뛰어난 음악을 남긴 비틀스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팀워크를 중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암으로 투병 중인 잡스에게 팀 쿡이 건강한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일화도 들어 있다. 팀 쿡은 “<span class='quot0'>잡스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제안을 거절했겠느냐</span>”며 잡스가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다고 자서전에서 평했다. 팀 쿡은 “<span class='quot0'>잡스를 알고 지낸 13년간 잡스가 5번 정도 내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이 바로 간 이식을 제안했을 때</span>”라고 술회했다.<br/>　잡스는 2009년 3월21일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년 뒤 췌장암으로 사망했다.<br/>　새 자서전에는 잡스가 한때 야후 인수를 검토했으며, 절친한 친구인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의 구글 합류를 막은 일화도 상세히 실려 있다. 연합뉴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8.txt

제목: “광주항쟁 고문으로 얻은 간암 20년 넘게 안고 다스렸지만…”  
날짜: 2015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510016736820  
본문: 평생 통일운동과 민족생활의학 교육에 힘써온 해관 장두석(사진)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이 25일 새벽 지병이 악화해 별세했다. 향년 78.<br/><br/> 고인은 지난해 10월2일 남북민족정신선양회 회원 20명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평양 단군릉에서 단군제 봉행 행사를 열고 돌아와 건강에 이상증세를 느낀 뒤, 석달 전께부터 걷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20여년 전부터 간암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고인은 암을 안고 다스리며 살아왔다고 한다. <br/><br/> 유족들은 “80년 5월 광주항쟁 때 끝려가 혹사당한 뒤 병을 얻었다”고 말했다. 광주 양서조합에서 신용협동조합운동을 했던 고인은 5월 항쟁 때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군사법원에서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1년 4월 사면·석방됐다. <br/><br/> 38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고인은 ‘장두목’ 또는 ‘뿌리 깊은 느티나무’로 불렸다. 그는 평생 한복 차림을 고집하며 ‘민족생활의학’ 보급과 통일운동, 전통문화 살리기의 외길을 걸었다. 이승만 시절 진보당원으로 활동했고, 60년 3·15 부정선거 때 화순 이서면 지서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74년 유신 독재에 맞서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여했고, 76년 가톨릭농민회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79년엔 명동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사건으로 체포되는 등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2000년에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통일운동을 해왔다.<br/><br/> 고인은 몸이 스스로 낫게 하는 자연치유에 기반을 둔 민족생활의학의 교육과 실천에 열정을 쏟았다. 75년 자연건강대학을 설립한 뒤 89년 민족생활학교로 개편해 4만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2011년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용당마을에 한옥형 민족생활교육원인 양현당을 완공한 뒤 민족생활의학을 강습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문화·전통사상·역사·환경·예의범절·세시풍속 등 다양한 강좌도 열었다.<br/><br/> 유족으로는 부인 김동례(75)씨와 아들 영철(광주시 사회복지 장애인취업지원센터장)씨가 있다. 장례는 민족통일장으로 치러진다. 화순 양현당에서 노제를 거쳐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 영결식을 할 예정이다. <br/><br/> 빈소는 조선대병원, 발인은 28일 오전 7시다. (062) 220-3352. <br/><br/>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19.txt

제목: 시험관 시술, 윤리를 검토할 때다  
날짜: 20150324  
기자: 구인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4100000090  
본문: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이 시작된 지 30년째로 기술로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술로 태어난 아기에게 유발될 수 있는 장기적 영향 등에 관해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이제 불임이나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이 된 이 기술의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해볼 때이다.<br/>　시험관아기는 난자와 정자를 체외수정하여 2~6일간 시험관에서 키워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이 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시술 과정에서 생성된 배아는 착상 전 진단을 통해 유전적으로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온 배아만 선별적으로 이식하고, 발달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에 따라 자궁에 이식되는 배아가 있고, 동결 보존되는 배아가 있다. 그밖의 다른 배아는 연구에 이용되거나 버려지기도 한다.<br/>　2012년 보건당국이 집계한 시험관아기 시술 건수는 4만8238건으로 국비 지원 전인 2005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 이유는 비용이 일회 삼사백만원 정도여서 일부 병원은 자연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부까지 시술을 권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불임이 아닌데도 연이은 출산과 육아가 부담스러워 쌍둥이를 낳으려는 여성들과 독신자까지 시험관아기 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br/>　호르몬제를 이용한 과배란을 통해 한번에 10개 안팎의 난자를 채취하기 때문에, 과배란 과정에서 복수가 차고 소변이 안 나오는 등 여성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또한 배란유도제는 폐경을 촉진하며, 암을 발생시키고,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킨다는 경고도 있다.<br/>　한 국제 공동연구에 따르면 1개의 배아만 이식하도록 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같은 보조생식술로 임신된 아기들의 조산이나 사산, 조기 사망, 저체중 비율이 지난 20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선 시험관아기 시술 중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또는 부부가 쌍둥이를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배아를 여러개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 다태 임신의 경우 자연유산, 조산, 미숙아, 발육부전, 출산 전후의 산파적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태아 감수술을 감행하게 된다. 이는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여성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 여성의 몸은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br/>　시험관아기 시술은 불임부부들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로 시행하지만, 생명을 통제와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전락시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 더구나 시술과정에서 등급이 매겨지고, 연구에 이용되거나 버려지는 배아는 함부로 실험에 이용하거나 죽여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온전한 초기 인간 생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br/>　난자나 정자의 공여, 대리모를 통한 임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몸매 관리를 위해 혹은 사회 활동으로 시간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아기를 낳아줄 여성을 찾는 경우도 있다니, 인간 생명은 더 이상 하느님의 선물이 아닌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br/>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시험관 시술을 위한 국비 지원보다는 이제 불임과 난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난임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하는 스트레스와 심리 정서적 불균형을 없앨 수 있도록 상담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신생식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도 필요하다.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출산이 과연 진정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계몽해야 한다.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0.txt

제목: [기고] 시험관 시술, 윤리를 검토할 때다 / 구인회  
날짜: 2015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310016708206  
본문: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이 시작된 지 30년째로 기술로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술로 태어난 아기에게 유발될 수 있는 장기적 영향 등에 관해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이제 불임이나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이 된 이 기술의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해볼 때이다.<br/><br/> 시험관아기는 난자와 정자를 체외수정하여 2~6일간 시험관에서 키워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이 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시술 과정에서 생성된 배아는 착상 전 진단을 통해 유전적으로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온 배아만 선별적으로 이식하고, 발달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에 따라 자궁에 이식되는 배아가 있고, 동결 보존되는 배아가 있다. 그밖의 다른 배아는 연구에 이용되거나 버려지기도 한다.<br/><br/> 2012년 보건당국이 집계한 시험관아기 시술 건수는 4만8238건으로 국비 지원 전인 2005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 이유는 비용이 일회 삼사백만원 정도여서 일부 병원은 자연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부까지 시술을 권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불임이 아닌데도 연이은 출산과 육아가 부담스러워 쌍둥이를 낳으려는 여성들과 독신자까지 시험관아기 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br/><br/> 호르몬제를 이용한 과배란을 통해 한번에 10개 안팎의 난자를 채취하기 때문에, 과배란 과정에서 복수가 차고 소변이 안 나오는 등 여성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또한 배란유도제는 폐경을 촉진시키며, 암을 발생시키고,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킨다는 경고도 있다.<br/><br/> 한 국제 공동연구에 따르면 1개의 배아만 이식하도록 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같은 보조생식술로 임신된 아기들의 조산이나 사산, 조기 사망, 저체중 비율이 지난 20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선 시험관아기 시술 중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또는 부부가 쌍둥이를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배아를 여러개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 다태 임신의 경우 자연유산, 조산, 미숙아, 발육부전, 출산 전후의 산파적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태아 감수술을 감행하게 된다. 이는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여성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 여성의 몸은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br/><br/> 시험관아기 시술은 불임부부들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로 시행하지만, 생명을 통제와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전락시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 더구나 시술과정에서 등급이 매겨지고, 연구에 이용되거나 버려지는 배아는 함부로 실험에 이용하거나 죽여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온전한 초기 인간 생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br/><br/> 난자나 정자의 공여, 대리모를 통한 임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몸매 관리를 위해 혹은 사회 활동으로 시간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아기를 낳아줄 여성을 찾는 경우도 있다니, 인간 생명은 더 이상 하느님의 선물이 아닌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br/><br/>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시험관 시술을 위한 국비 지원보다는 이제 불임과 난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난임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하는 스트레스와 심리 정서적 불균형을 없앨 수 있도록 상담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신생식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도 필요하다.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출산이 과연 진정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계몽해야 한다. <br/><br/>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1.txt

제목: 황사·미세먼지 두려우면 마스크 쓰세요, 잘!  
날짜: 20150323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3100000040  
본문: 황사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지난 2월 하순 겨울 황사가 급습한 데 이어 지난 주말 황사가 다시 한번 전국을 휩쓸었다. 올해 몽골 지역의 기상이 황사가 발원하기에 좋은 조건이어서 언제 짙은 황사가 다시 닥칠지 알 수 없다. 잦은 미세먼지 주의보도 따뜻한 봄나들이를 헤살하는 방해꾼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황사·미세먼지에 불편해하면서도 ‘관대한’ 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2월 말 전국 성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75%)은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보됐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는 10명 가운데 3명(29%)뿐이다. 특히 60살 이상은 착용률이 51%인 데 비해 19~29살은 19%밖에 안 됐다.<br/>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한 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만성 폐쇄성질환, 급만성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졸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끼치며, 미세먼지의 농도 증가와 심장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 증가가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r/>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서울·제주·베이징·아라산(황사 발원지)의 초등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08년)를 보면, 이들 지역 대기 중 PM10(10㎛ 이하 크기 입자, 1㎛는 100만분의 1m)과 PM2.5의 토양 성분 금속이 증가한 뒤 아이들의 산화손상 생체지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손상은 금속이나 활성산소 등에 의해 세포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암과 퇴행성질환은 산화손상에서 시작된다. 신동천 연세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나 호흡기의 후각세포를 통해 직접 뇌에 도달한 미세먼지가 뇌를 먹여 살리는 지지세포에 미세 염증을 일으키면 감정의 안정화 기능을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신 교수는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우선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에 입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차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셔 호흡기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돼 여과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br/>　황사나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발령되면 장기간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장기간은 5~6시간 정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학교 체육시간을 실내에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가능한 한 실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낫다. 늘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airkorea.or.kr)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br/>　황사나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마스크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황사 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가 따로 분리돼 있었지만 보건용 마스크로 통일됐다. 황사 마스크는 앞으로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br/>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등급을 세 종류로 나누고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 저항 시험, 누설률 시험 등을 통과한 제품만 허가를 내준다. 올해 2월20일 현재 판매 허가를 받은 마스크는 94종에 이른다. 분진 포집 효율은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나타낸다. 우선 마스크를 영상 38도와 영하 38도, 습도 85%의 극한 상태로 24시간 방치한 뒤, 염화나트륨(소금) 에어로졸(평균 크기 0.6㎛)이나 파라핀오일 입자(평균 크기 0.4㎛)를 정해진 양과 속도로 마스크에 쬐어 통과한 양을 잰다. 황사 방지용으로 쓰이는 KF80 등급은 입자가 80% 이상 걸러졌음을 의미한다. KF94와 KF99는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까지 차단할 수 있는 방역용 마스크 등급이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다. 안면부 흡기 저항은 마스크를 썼을 때 숨을 얼마나 잘 쉴 수 있는지를 말한다. KF80 마스크는 섬유가 덜 촘촘해 KF94나 KF99에 비해 숨 쉬기가 쉽다. 신동천 교수는 “<span class='quot1'>고령자나 폐·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임신 후기 여성, 어린이들은 높은 사양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말했다.<br/>　중간에 새는 정도를 측정하는 누설률 시험은 깨끗하게 면도한 10명한테 마스크를 착용시킨 뒤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을 뿌리며 러닝머신 위에서 시속 6㎞로 2분 동안 걷게 하고 머리를 좌우, 위아래로 15번씩 움직이도록 한 다음 2분 동안 ‘가나다라마’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세 차례 거쳐 등급별 누설률(5~25%) 기준을 통과했는지를 평가한다. 한돈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누설률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실제 마스크가 사용자의 얼굴에 얼마나 밀착되는지가 중요하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얼굴 모양(면체)에 따라 마스크를 제작해야 밀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한국인 면체를 만들어 마스크 제조업체인 ㈜도부라이프텍과 함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KF80 마스크의 누설률 기준이 25%여도 사람들이 실제 착용했을 때 누설률은 40~50%에 이른다. 밀착도 검사를 하는 기계가 따로 있지만 값이 비싸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다. 마스크를 쓴 뒤 앞면을 막고 숨을 들이쉬었을 때 뺨이나 턱 부분이 잘 쭈그러드는지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수를 뿌려보는 것은 향수가 증기 형태라 밀착도 검사에 소용이 없다.<br/>　현재 시중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는 사실상 성인용밖에 없다. 어린이용으로 파는 제품도 성인용을 크기만 줄였을 뿐 어린이용 별도 시험을 통해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김현욱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현재의 어린이용 마스크는 어른 옷을 크기만 줄여 어린이에게 입힌 격이다. 어린이의 호흡량·호흡속도 등이 성인과 다르고 코 높이나 턱과 인중까지의 거리 등 얼굴 크기 비율이 달라 마스크 시험 기준과 표준 모양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b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2.txt

제목: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초제에 ‘발암물질’  
날짜: 2015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210016694027  
본문: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비롯해 범용 농약 3종이 인체에 암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발표했다.<br/><br/>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일 “<span class='quot0'>라운드업은 ‘거의 확실한 발암성’으로, 이미 사용이 금지된 다른 두 종류의 살충제인 말라티온과 다이아지논도 ‘발암 가능성’ 범주로 분류했다</span>”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또다른 살충제인 테트라클로르빈포스와 파라티온은 동물 실험으로 얻은 ‘확실한 증거’에 비추어 발암성 농약으로 분류했다.<br/><br/>이 연구소는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농약 살포 인근 지역에 살거나, 가내 경작 또는 음식물 섭취 등으로 ‘글리포세이트’(라운드업의 주성분) 제초제에 노출되지만 관측된 수준은 낮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이번 분류는 외부 전문가 그룹의 평가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며, (이 농약들에 대한) 규제나 합법화, 공공 보건당국의 개입 여부는 개별 국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br/><br/>국제암연구소는 화학물질의 발암 가능성 평가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그룹1은 ‘발암성’, 그룹2는 ‘거의 확실한 발암성’과 ‘발암 가능성’, 그룹 3은 ‘분류 불능’, 그룹4는 ‘거의 확실한 비(非)발암’ 등이다.<br/><br/>국제암연구소의 조심스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농가와 국제 곡물시장에 민감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br/><br/>라운드업은 세계 유전자변형작물(GMO)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몬샌토가 1974년 출시한 범용 제초제다.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이용해 만든 ‘글리포세이트’라는 물질이 주성분이다. 2000년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몬샌토의 독점권이 풀리면서, 지금은 다른 여러 농약 제조업체들도 이 물질 계열의 제초제를 양산 판매하고 있다.<br/><br/>특히, 몬샌토는 전세계 유전자변형작물의 대다수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독점하고, 자사의 종자들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갖도록 개발했다. 다시 말해, 몬샌토의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에는 글리포세이트 계열 제초제인 라운드업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의 이번 발표가 몬샌토의 종자 및 제초제 판매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br/><br/>몬샌토는 20일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어 “시판중인 글리포세이트 계열의 모든 제초체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제암연구소의 이번 발표가 “기존에 검토됐던 것들로 새로운 게 아니며, 신뢰할 만한 과학적 데이터가 빠져있고, 이번 분류가 글리포세이트와 암 발병 증가세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다.<br/><br/>앞서 1985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쥐 실험 결과를 토대로 글리포세이트를 암 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가 1991년 다른 실험 결과를 근거로 발암성 물질이 아니라고 재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로도 미국, 남미, 인도 등 대단위 농작물 재배지에선 글리포세이트 살포와 관련해 피부·호흡기·갑상선 질환 등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br/><br/>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br/><br/><br/><br/>▷ 관련 기사 : ‘GMO 독점’ 몬샌토, 유럽 식탁까지 넘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3.txt

제목: ‘대장암 씨앗’ 용종 진료 환자, 5년새 2배 늘어  
날짜: 2015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210016694030  
본문: 10개 가운데 1개 정도는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선종성 용종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 과거보다 진단받은 사람들이 늘고, 육류 섭취가 많아진 영향으로 추정된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2013년 선종성 용종의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분석해보니 선종성 용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8년 6만7742명에서 2013년 12만9995명으로 5년 사이 약 1.9배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처럼 선종성 용종이 발견돼 이를 떼어내는 치료를 받은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일이 많아진 데다가, 육류 섭취가 늘어난 식생활의 서구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br/><br/>조용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선종성 용종이 발견되면 검사 도중 이를 제거할 수 있고, 크기가 크거나 암으로 진행됐으리라 의심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선종성 용종을 제거해주면 대장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br/><br/>2013년 기준 선종성 용종 환자를 성별·나이대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50대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이어 60대, 40대 순이다. 성별로는 인구 10만명당 남성이 329명, 여성이 18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br/><br/>선종성 용종의 95% 정도는 뚜렷한 유전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신 식생활 등이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 섭취, 과음, 과체중, 흡연은 선종성 용종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탄수화물, 칼슘, 엽산, 비타민 디(D)의 섭취는 발생을 감소시킨다.<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4.txt

제목: 미세먼지는 우울증도 일으킬 수 있다  
날짜: 2015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210016693768  
본문: ‘황사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지난 2월 하순 급습 이후 황사는 소강상태이지만 올해 몽골 지역의 기상이 황사가 발원하기에 좋은 조건이어서 언제 짙은 황사가 다시 닥칠지 알 수 없다. 잦은 미세먼지 주의보도 따뜻한 봄나들이를 헤살하는 방해꾼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황사·미세먼지에 불편해하면서도 ‘관대한’ 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2월 말 전국 성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75%)은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보됐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는 10명 가운데 3명(29%)뿐이다. 특히 60살 이상은 착용률이 51%인 데 비해 19~29살은 19%밖에 안 됐다.<br/><br/>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한 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만성 폐쇄성질환, 급만성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졸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끼치며, 미세먼지의 농도 증가와 심장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 증가가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r/><br/>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서울·제주·베이징·아라산(황사 발원지)의 초등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08년)를 보면, 이들 지역 대기 중 PM10(10㎛ 이하 크기 입자, 1㎛은 100만분의 1m)과 PM2.5의 토양 성분 금속이 증가한 뒤 아이들의 산화손상 생체지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손상은 금속이나 활성산소 등에 의해 세포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암과 퇴행성질환은 산화손상에서 시작된다. 신동천 연세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나 호흡기의 후각세포를 통해 직접 뇌에 도달한 미세먼지가 뇌를 먹여 살리는 지지세포에 미세 염증을 일으키면 감정의 안정화 기능을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신 교수는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우선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에 입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차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셔 호흡기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돼 여과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br/><br/> 황사나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발령되면 장기간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장기간은 5~6시간 정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학교 체육시간을 실내에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가능한 한 실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낫다. 늘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airkorea.or.kr)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br/><br/> 황사나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마스크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황사 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가 따로 분리돼 있었지만 보건용 마스크로 통일됐다. 황사 마스크는 앞으로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br/><br/>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등급을 세 종류로 나누고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 저항 시험, 누설률 시험 등을 통과한 제품만 허가를 내준다. 올해 2월20일 현재 판매 허가를 받은 마스크는 94종에 이른다. 분진 포집 효율은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나타낸다. 우선 마스크를 영상 38도와 영하 38도, 습도 85%의 극한 상태로 24시간 방치한 뒤, 염화나트륨(소금) 에어로졸(평균 크기 0.6㎛)이나 파라핀오일 입자(평균 크기 0.4㎛)를 정해진 양과 속도로 마스크에 쬐어 통과한 양을 잰다. 황사 방지용으로 쓰이는 KF80 등급은 입자가 80% 이상 걸러졌음을 의미한다. KF94와 KF99는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까지 차단할 수 있는 방역용 마스크 등급이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다. 안면부 흡기 저항은 마스크를 썼을 때 숨을 얼마나 잘 쉴 수 있는지를 말한다. KF80 마스크는 섬유가 덜 촘촘해 KF94나 KF99에 비해 숨 쉬기가 쉽다. 신동천 교수는 “<span class='quot1'>고령자나 폐·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임신 후기 여성, 어린이들은 높은 사양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말했다.<br/><br/> 중간에 새는 정도를 측정하는 누설률 시험은 깨끗하게 면도한 10명한테 마스크를 착용시킨 뒤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을 뿌리며 러닝머신 위에서 시속 6㎞로 2분 동안 걷게 하고 머리를 좌우, 위아래로 15번씩 움직이도록 한 다음 2분 동안 ‘가나다라마’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세 차례 거쳐 등급별 누설률(5~25%) 기준을 통과했는지를 평가한다. 한돈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누설률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실제 마스크가 사용자의 얼굴에 얼마나 밀착되는지가 중요하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얼굴 모양(면체)에 따라 마스크를 제작해야 밀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한국인 면체를 만들어 마스크 제조업체인 ㈜도부라이프텍과 함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KF80 마스크의 누설률 기준이 25%여도 사람들이 실제 착용했을 때 누설률은 40~50%에 이른다. 밀착도 검사를 하는 기계가 따로 있지만 값이 비싸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다. 마스크를 쓴 뒤 앞면을 막고 숨을 들이쉬었을 때 뺨이나 턱 부분이 잘 쭈그러드는지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수를 뿌려보는 것은 향수가 증기 형태라 밀착도 검사에 소용이 없다. <br/><br/> 현재 시중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는 사실상 성인용밖에 없다. 어린이용으로 파는 제품도 성인용을 크기만 줄였을 뿐 어린이용 별도 시험을 통해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김현욱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현재의 어린이용 마스크는 어른 옷을 크기만 줄여 어린이에게 입힌 격이다. 어린이의 호흡량·호흡속도 등이 성인과 다르고 코 높이나 턱과 인중까지의 거리 등 얼굴 크기 비율이 달라 마스크 시험 기준과 표준 모양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br/><br/><br/><br/> <br/><br/>‘황사 마스크’, 진짜 그래요?<br/><br/>-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해서 써도 된다?<br/><br/>= 보건용 마스크는 서너 겹의 부직포로 만든다. 부직포는 가지런한 실로 짜는 직물과 달리 섬유를 얼기설기 얽어 만든다. 천의 일종이기에 세탁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는 단순히 기계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전기로 먼지를 걸러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포집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마스크는 제작할 때 약품을 뿌리며 바늘로 반복해 찔러 정전기를 일으킨다. ‘단일섬유여과이론’이라는 게 있다. 마스크에 입자가 섬유 사이 공극(구멍)을 통과할 때 걸리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는 공극보다 작아 숭숭 빠져나간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큰 입자는 섬유와 접촉할 때 붙잡힌다. 그보다 작으면 통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입자가 어느 정도 더 작으면 오히려 자유롭게 움직이다(브라운운동) 정전기력에 의해 섬유에 잡힌다. 마스크로 가장 잘 안 잡히는 입자의 크기는 0.3㎛(300나노미터)이다. 마스크가 정전기력을 잃으면 0.3㎛ 이하의 미세먼지를 잡는 능력이 떨어진다. 정전기력은 수분이나 기름입자(오일미스트)를 만나면 약해진다.<br/><br/><br/><br/>- 마스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br/><br/>= 시중에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에는 실온에 2~3년간 보관해도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과제(필터)를 교환해 쓰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마스크는 몇차례 이상 반복해 쓰기 어려워 유통기한의 의미가 적다. 마스크의 겉면을 손으로 만져 정전필터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쪽이 오염돼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br/><br/><br/><br/>- 마스크 안에 휴지나 부직포를 넣으면 효과가 더 좋다?= 마스크를 이중으로 쓰거나 부직포, 휴지 등을 안쪽에 덧대면 효과가 좋아질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틈을 만들어 먼지가 쉽게 들어올 위험이 있다. 마스크를 이중으로 쓰면 호흡하기가 곤란해져 건강에 더 나쁠 수 있다. 지난해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결과 손수건은 미세먼지 방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5.txt

제목: ‘암 예방’ 신해림씨 국민훈장 동백장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0100000056  
본문: 신해림(사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전문위원은 20일 ‘제8회 암 예방의 날(21일)’을 맞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br/>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유창식 서울아산병원 암센터소장에게 국민포장, 신동복 가천대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비롯해 기관 2곳을 포함한 93명에게 유공자 포상을 한다. <br/>　신 전문위원은 한국 암 관리 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암 등록 사업 수립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br/>　연예인 홍서범·조갑경씨 부부는 지난해에 이어 암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연합뉴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6.txt

제목: 매년 10만명 발병…뇌혈관 질환 예방은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20100000101  
본문: 명의(교육방송 밤 9시50분) ‘뇌혈관 질환’ 편.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암이 1위이고, 다음이 뇌혈관 질환이다. 그러나 단일 질환으로 따지면 뇌혈관 질환이 1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단다. 뇌혈관 질환은 응급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어 ‘소리 없는 저격수’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구토가 심하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뇌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뇌혈관 질환의 예방 대책은 없는 것일까. 두 명의 명의를 만나 답을 묻는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7.txt

제목: 3월 20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5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1910016674747  
본문: 배우로 변신한 데프콘…탈옥수 찾는 형사로<br/><br/>드라마 스페셜 2015(한국방송2 밤 9시30분) ‘바람은 소망하는 곳으로 분다’ 편. 36년 전 탈옥한 죄수들을 쫓는 형사 이야기. 액션과 스릴러가 섞인 복합 장르로,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퇴직 형사 조성기(김영철)는 36년간 미제로 남은 탈옥 사건을 남몰래 조사 중이다. 탈옥 당시 3명은 사살당했는데, 7명이 도망갔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의 중요한 보물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조성기는 탈옥 사건과 보물 도난이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명석한 두뇌의 현직 강력계 형사 양구병(데프콘)이 조성기를 돕는다. 성기는 도너츠를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구병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의 도움이 절실하다. 김영철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가 돋보이고, <해피선데이-1박2일>(한국방송2)로 예능에서도 활약하는 가수 데프콘의 배우 변신도 관심이다. 이원종이 보물의 존재를 눈치채고 탈옥한 뒤 대형 리조트 사장으로 신분을 감추고 살아온 유재만을 연기한다. <적도의 남자><칼과 꽃>등에서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였던 김용수 피디가 연출한다. 50분씩 1·2부로 나뉘어 총 100분간 방영한다. <br/><br/> <br/><br/>매년 10만명 발병…뇌혈관 질환 예방은<br/><br/>명의(교육방송 밤 9시 50분) ‘뇌혈관 질환’ 편.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암이 1위이고, 다음이 뇌혈관 질환이다. 그러나 단일 질환으로 따지면 뇌혈관 질환이 1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단다. 뇌혈관 질환은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어 ‘소리 없는 저격수’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팔,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구토가 심하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뇌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뇌혈관 질환의 예방 대책은 없는 것일까. 두 명의 명의를 만나 답을 묻는다.<br/><br/> <br/><br/>전국! 노래자랑~예심 현장부터 후끈<br/><br/>브이제이(VJ) 특공대(한국방송2 밤 8시 30분) 일반인들이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장수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의 전라남도 광양 예심 현장을 찾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물들인 참가자를 비롯해, 여러 참가자들이 저마다 매력을 뽐낸다.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의 사촌 동생도 예심장 문을 두드렸다고. 4전 5기의 정신으로 재도전한 할아버지, 40개월 된 드럼 신동도 ‘광양 노래왕’에 도전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용인의 ‘한국 민속촌 꿀알바’ 쟁탈전도 소개한다. 하루종일 민속촌에서 놀며 조선 시대 캐릭터를 연기하면 된단다. 일도 어렵지 않고, 에스엔에스 등으로 스타도 될 수 있어 경쟁률이 20대1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8.txt

제목: “천원 백반집 문닫지 말라” 유언 남기고…  
날짜: 2015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19100000023  
본문: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천원 백반집’을 운영해오던 김선자(사진 가운데) 할머니가 암투병 끝에 1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3.<br/>　고인이 전통시장인 대인시장에 백반집 문을 연 것은 2010년께다. 애초 죽집을 차리려 했다가 차라리 봉사하기로 마음먹고, 1천원 백반집 ‘해뜨는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br/>　김 할머니는 생전 “몇 차례 사업 실패 후 보험회사 일을 하다 은퇴하고 벌인 찜질방 사업마저 투자한 돈을 사기당했다”며 “빈털터리일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재래시장 한쪽에 천원 백반집을 어렵사리 열었다”고 손해만 보는 식당을 열게 된 사연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br/>　천원 백반집에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 하루 1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매달 쌀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연탄을 몇백장씩 가져다주거나 김치를 담가주는 등 도움이 끊이지 않았다. 밥값으로 만원짜리를 몇장 건네며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하다”는 손님도 있었다.<br/>　그러나 천원 식당은 김 할머니가 2012년께 대장암으로 쓰러지면서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의 암투병 소식에 주변 기업과 시장상인들, 시민들이 돕기에 나서 천원식당은 1년 만에 이들에 의해 다시 따뜻한 나눔의 밥상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암이 악화돼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는 그동안 먼발치에서 자신이 일군 천원식당의 기적을 지켜보다 이날 영면했다.<br/>　고인은 “천원식당을 계속 이어가달라. 주변분들이 적극 나서 식당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br/>　유족으로는 아들 김현철(회사원)·규태(˝)씨, 딸 난경·옥경(간호사)·현경·윤경(회사원)씨 등 2남4녀가 있다. 빈소는 광주 성요한병원이며 발인은 20일 오전 8시다. (062)510-3005. 연합뉴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29.txt

제목: 최우수 호스피스 14곳 선정  
날짜: 20150313  
기자: 박수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13100000035  
본문: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그 가운데 호스피스 전문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 등 14곳을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br/>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전용 입원실·임종실·목욕실 등의 시설을 병동에 갖추고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상근해야 한다고 암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일 평균 입원 환자 20명당 1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호스피스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담간호사는 환자 2명당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0.txt

제목: 최우수 호스피스 14곳 선정  
날짜: 2015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1210016562342  
본문: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를 평가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그 가운데 호스피스 전문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 등 14곳을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br/><br/>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전용 입원실·임종실·목욕실 등의 시설을 병동에 갖추고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상근해야 한다고 암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일 평균 입원 환자 20명당 1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호스피스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담간호사는 환자 2명당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1.txt

제목: 암·아토피·호흡기·심혈관 질환까지…미세먼지의 습격  
날짜: 2015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11100000060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보이지 않는 적, 미세먼지’ 편.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불어 닥친다는 뜻의 신조어 ‘삼한사미’.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매년 한반도는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름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인 미세먼지와 2.5㎛의 초미세먼지.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중국에선 31개 대도시에서 매년 25만7천여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비염, 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아토피 피부염과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내에서도 미세먼지를 피하긴 어렵다. 미국 환경청의 조사 결과, 실내 대기오염이 실외 대기오염에 비해 독성이 2~5배까지 높아 인체에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침구류부터 부엌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한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올바른 청소법과 안전한 실내 대기 환기 방법을 알아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2.txt

제목: 갑상샘 암 조사 1차 “이상 없음”→2차 1명 확진·7명 의심 판정 /후쿠시마 ‘제2의 체르노빌’ 우려 확산  
날짜: 20150310  
기자: 길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10100000032  
본문: “으아앙, 엄마 아파!”<br/>　“괜찮아, 하나도 아프지 않단다. 목을 조금 더 위로 올려보렴.”<br/>　지난달 14일 일본 이바라키현 모리야시의 ‘모리야시민교류플라자’. 침상에 누워 갑상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를 받던 이노우에 다테루(6)가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앞에 설치된 화면을 응시하던 다나카 유미코 쓰쿠바대 대학원 교수(응용방사선의학)가 달래자, 다테루는 이내 울음을 그치고 눈을 말똥말똥 뜬 채 정면을 보기 시작했다. 검사를 받는 아이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화면에선 만화영화 의 주제가가 흘러나왔다.<br/>　2011년 3·11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당시 유출된 대량의 방사선 물질은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일본에선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사고 당시 만 18살 이하였던 37만명을 대상으로 갑상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차 조사는 2011년 가을께 시작돼 지난해 3월 끝났고, 지난해 4월부터 2회째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참사 때도 사고 이후 4~5년이 지난 뒤부터 어린이들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많게는 20배까지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후쿠시마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갑상샘암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br/>　이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나온 보도를 보면 1차 조사 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아이들 가운데 1명이 갑상샘암 ‘확진’, 7명이 암으로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조사에서 이런 아이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면, 후쿠시마에서도 체르노빌처럼 ‘어린이 갑상샘암’의 증가라는 비극이 재확인되게 된다.<br/>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행중인 어린이 갑상샘암 검사가 후쿠시마현 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량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구름을 타고 주변으로 퍼져 이바라키현·도치기현·지바현 등 간토 지방의 일부에 비에 섞여 내렸다. ‘핫 스팟’으로 불리는 이런 지역들의 방사선 선량은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보다 더 높다.<br/>　그 때문에 간토지역의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모임들은 2013년 9월 ‘간토어린이건강조사 지원기금’을 설립해 돈을 모아 갑상샘 조사를 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기를 구입했다. 지원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268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올 들어서도 모리야시를 포함해 이바라키현과 지바현에서 3번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까지 검사를 받은 1818명의 어린이 가운데선 1명에게서 악성 종양 의심자가 발견됐고, 6명에게서 5.1㎜ 이상의 결절이 확인됐다. 그러나 원전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다.<br/>　검사를 진행한 다나카 교수는 “이날 검사를 받은 150명 가운데선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꾸준히 추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리야(이바라키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3.txt

제목: 3월 11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5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1010016537175  
본문: 암·아토피·호흡기·심혈관 질환까지…미세먼지의 습격<br/><br/>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보이지 않는 적, 미세먼지’ 편.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불어 닥친다는 뜻의 신조어 ‘삼한사미’.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매년 한반도는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름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인 미세먼지와 2.5㎛의 초미세먼지.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중국에선 31개 대도시에서 매년 25만7천여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비염, 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아토피 피부염과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내에서도 미세먼지를 피하긴 어렵다. 미국 환경청의 조사 결과, 실내 대기오염이 실외 대기오염에 비해 독성이 2~5배까지 높아 인체에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침구류부터 부엌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한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올바른 청소법과 안전한 실내 대기 환기 방법을 알아본다. <br/><br/><br/><br/>바리톤 최현수의 ‘날 잊지 말아요’<br/><br/>윤건의 더 콘서트(한국방송1 밤 11시40분) 바리톤 최현수, 소프라노 강혜정,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첼리스트 홍은선,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더 스트링스 등이 무대에 선다. 전국 순회공연을 이어가는데, 이번엔 대전이다. 방황하는 청춘에서 국민 성악가로, 바리톤 최현수가 청춘영화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축구와 싸움밖에 몰랐으나 독학으로 성악을 공부해 연세대 성악과에 수석 입학했다. 최현수는 1960년대 멜로 음악영화 <물망초>의 주제곡인 쿠르티스의 ‘날 잊지 말아요’ 등을 부른다. 클래식 기타계의 신성 박규희는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등을 연주해 관객을 사로잡는다. <br/><br/><br/><br/>한 켤레 만드는 데 7일 ‘수제 구두’<br/><br/>극한 직업(교육방송 밤 10시45분) ‘구두 제작’ 편. 중국산 저가 구두와 대량생산 기성화, 그리고 값비싼 수입 명품 구두의 홍수 속에서도 수작업을 고수하며 구두를 만드는 장인들을 만난다. 수제 구두는 한 켤레를 완성하는 데 평균 7일이 소요될 정도로 복잡한 공정을 거친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두공장에서는 수십년 경력의 기술자들이 수제화 제작에 여념이 없다. 온종일 거친 가죽을 만지고 망치질을 한다. 수십년을 일해, 손목과 어깨에는 만성 통증이 자리잡았다. 하지만 구두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만든 신발을 신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기쁘다고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4.txt

제목: 전자파 위험하지만…커피·김치<발암 가능물질 2B등급>와 동급  
날짜: 20150309  
기자: /이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9100000023  
본문: 10년 동안 노르웨이 여성 총리를 지낸 그로 할렘 브룬틀란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1998~200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다.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두통을 일으켰다고 믿어서다.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판명돼 브룬틀란은 현재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온갖 전파가 송수신되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전자파 과민증’을 불러오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인 50만명이 전자파 과민증 징후를 보이고 있다.<br/>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3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활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4.5%(매우 유해 28.5%, 조금 유해 66.0%)나 됐다. 전자파 방지용품이나 식물 등이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없음에도 이들 용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 넘고, 그중 2명은 지금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상이 “<span class='quot0'>조금이라도 전자파를 차단해줄 것으로 기대해서</span>”라고 응답해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br/>　전자파의 본명은 전기자기파다. 전자기장에 의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자기 에너지를 뜻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하면서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자파라고 부른다. 전자파도 방사선의 일종이지만 물질을 이온화시켜 기본 성분을 바꾸는 엑스선,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과 달리 이온화 능력이 없어 비전리방사선에 속한다. 하지만 인체에는 물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크게 열작용과 자극작용을 일으킨다. 전기(우리나라는 60㎐)나 가전제품 등에서 나오는 낮은 주파수(단위시간당 파동수)의 전자파는 유도된 전류에 의해 신경이나 근육에 자극을 가하는 반면, 휴대전화나 전자레인지처럼 주파수가 높은 전자파는 조직세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한 국내 연구팀이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뇌의 온도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컴퓨터로 모의실험한 결과 0.04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팀은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사람의 얼굴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1.7~4.5도 정도의 체온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br/>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의 세기는 보통 전자파흡수율(SAR)로 표시한다. 1998년 스웨덴 연구진이 휴대전화 사용자의 뇌종양 발생률이 미사용자보다 2.5배나 높다는 연구를 발표하는 등 전자파의 유해성과 관련한 연구 보고가 잇따르자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등은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기준을 정해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듬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ELF)를 발암인자 2B등급으로 분류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다. 2011년에는 휴대전화 등에서 사용하는 통신주파(RF)도 2B등급에 포함시켰다. 2B등급에는 커피와 김치(절인 채소) 등도 포함돼 있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제기되는 2A등급(배기가스나 적외선 등 암 유발 추정 물질)과 달리 발암성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전주의’ 차원에서 예방할 필요가 있는 물질이다.<br/>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태블릿 피시 등 사람 몸 가까이(20㎝ 이내)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전자파흡수율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2W/㎏)보다 좀더 강화된 1.6W/㎏이 기준이다. 우리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 전자파등급제를 도입했다. 0.8W/㎏ 이하면 1등급으로 표시된다. 자신의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은 국립전파연구원(rr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모델명 4SM-N916S)의 경우 0.506W/㎏, 애플의 아이폰6플러스(A1524)는 1.17W/㎏으로 등록돼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전자파 보호 기준 대상에 전기·전자기기까지 포함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br/>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관들은 노인·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파 영향 연구와 기준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16개국이 참여해 2009년부터 내년까지 8년 동안 진행하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어린이와 청소년(10~24살)의 중추신경계 발암(뇌암)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Mobi-Kids)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트리)이 참여하고 있다.<br/>　에트리는 임신부의 휴대폰 사용이 어린이 신경행동 발달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동안 임신부 1500명의 휴대폰 사용을 추적조사한 뒤 출생한 어린이들의 행동을 4년째 조사해오고 있다. 내년에 60개월 연구의 종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어린이의 행동과 임신 중 휴대전화 사용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트리는 또 전자파 숲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자파 다중 노출 환경에서 전자파가 동물이나 세포의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실험쥐에게 하루 45분씩 8주 동안 4W/㎏의 전자파를 쬔 뒤 부검을 한 결과 멜라토닌, 갑상선호르몬, 성호르몬 분비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했다.<br/>　최형도 에트리 전파기술연구부장은 “전자파 허용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해도 과도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갈등요소가 생겼을 때 이해 당사자가 모여 어떻게 극복할지 소통해 문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br/>　많은 이들이 전자파를 불안해하지만 오히려 의료기기 개발에도 쓰이고 있다. 에트리는 전자파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장치를 개발해 서울대 의대와 공동으로 임상연구를 하고 있다. 암이 발생하면 물이 많아져 전자파흡수율이 높아지는 점에 착안해 만든 이 장치는 방사선 진단기기와 달리 전자파 누적 위험 요인이 없고 유방을 압착하는 불편이 없어 유용한 진단기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 대덕연구단지/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5.txt

제목: 생활고 겪던 30대 여성, 두 자녀 살해 암매장  
날짜: 2015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910016517435  
본문: 생활고를 겪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암매장했다가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br/><br/>충남 아산경찰서는 2013년 4월과 지난해 8월 자신의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이아무개(3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br/><br/>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3년 4월 한 병원에서 딸을 낳고 1주일쯤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다음 집 근처 야산에 몰래 묻었다. 이후 지난해 8월에도 이씨는 아들을 집 옆 창고에서 낳은 뒤 그대로 두어 숨지자 역시 야산에 묻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br/><br/>2006년께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줄곧 친정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온 이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의 사정을 잘 아는 친구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br/><br/>경찰 관계자는 “숨진 두 아이가 이씨와 누구의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쉽지 않다. 이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입양이나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도 했는데 잘 안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br/><br/>아산/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6.txt

제목: MB시절 정부 지원금 거부하자 더 많은 후원금 들어와  
날짜: 2015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9100000077  
본문: 연재 회고록 ‘길을 찾아서’의 17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물이 아니라 한국작가회의다. 1974년 11월18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출범 이래 작가회의는 대표적인 진보 문인단체로 표현의 자유 쟁취와 민주화 운동을 통해 문학을 넘어 문화운동을 이끌어왔다. 작가회의 창립 40돌을 맞아 초기 결성 때부터 지금까지 참여해온 원로 문인 9명과 후배 문인 9명이 짝을 이룬 구술대담 형식으로 문인운동사의 의의와 숨은 일화들을 육성으로 들려준다.<br/>　아홉번째이자 마지막 주자인 문학평론가 구중서(오른쪽)와 시인 이은봉(왼쪽)이 80년대 참여문학운동을 회고하고 그 의미를 들려준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조계사 부근에서 만난 모습이다. <br/>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br/><br/><br/><br/><br/>이은봉 이시영 시인이 쓴 ‘1980년 여름 종로경찰서’(, 창비시선, 2013년)를 킥킥거리며 읽었는데, 당사자들은 그때 심각한 상황이었겠지요. 서대문교도소에서 얼마나 있었나요?<br/>　구중서 신경림 시인과 나는 두 달 남짓 만에 기소유예로 나왔어요. 조태일은 광주 출신이고 김대중 총재에게 인쇄물을 해준 것도 문제가 되어 몇 달 더 붙잡혀 있었고. 그 뒤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는 선언의 단계를 지나 조직의 단계로 나아갔어요. 1984년 12월 재창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교수도 참여했죠?<br/>　이 예. 저도 자실 재창립할 때는 준비단계부터 참여를 했지요. ‘삶의문학’ 동인을 대표해서요.<br/>　구 그 뒤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면서 87년 6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잖아요? 6월항쟁의 승리는 시민혁명의 승리였어요. 그 열기를 타고 87년 9월 자실도 민족문학작가회의로 개칭하고 회원도 늘어나 발전의 단계로 도약할 수 있었죠.<br/>　이 90년대 들어 선생님은 민족문학작가회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죠? 95년 기관지 를 창간할 때도 깊이 관여를 하셨구요.<br/>　구 그때 송기숙 회장에, 내가 부회장이었어요. 내게 기관지 발행과 사단법인 추진 작업이 맡겨졌어요. 문예지 를 계간으로 창간했고, 96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했죠. 본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람들은 좀 결벽스러워요. 누군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용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지원금은 소요예산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자체 조달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문민화’라는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 등이 구속되는 단계였지요. 출범 이래 줄곧 민주화운동을 해온 민족문학작가회의로서는 충분히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문예진흥원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br/>　이 사단법인화를 둘러싸고 우리 작가회의뿐만 아니라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차원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93년 가을호에서 선생님은 ‘문학·제도·역사’ 기고문을 통해 법인화 논의를 주도했지요.<br/>　구 2007년 민족문학작가회의는 문학운동의 내용도 보강하면서 ‘한국작가회의’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는 그 뒤의 얘기를 해야겠어요. 2010년 2월 한국작가회의 총회에서 내가 이사장을 맡게 됐잖아요. 그런데 전임 최일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인데, 하필 정부 쪽에서 ‘시국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라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야만 문광부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조건부였어요. 이사장 취임 총회에서 그 사실을 전했더니, 회원들 모두 그런 요구를 하는 이명박 정부한테서는 지원금을 받지 말자고 결의했어요. 만장일치였죠. 시위 참여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로 헌법적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작가회의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펴나가기로 했어요. 그 뒤 실제로 한동안 한국작가회의는 정부 지원금을 거부했구요.<br/>　이 그 무렵 제가 사무총장으로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br/>　구 맞아요. 2010년 2월 나와 함께 소설가 김남일이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해 5월 위암으로 수술을 하게 됐어요. 퇴원을 한 뒤에는 오랫동안 요양을 하느라 복귀가 어렵게 되자 사무총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2011년 2월 총회에서 이 교수에게 남은 임기 1년을 맡기게 된 거죠. 무보수 자원봉사로 참 수고가 많았어요.<br/>　이 마침 안식년이어서 기꺼이 도울 수 있었지요.<br/>　구 아무튼 2010년 총회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선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뜻밖의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 받았던 정부 지원금이 1년에 기껏 3400만원이었는데, 회원인 평론가 김병익이 혼자서 그만큼을 회비로 냈어요. 여의사인 김지영 내과원장은 문인도 아닌데 1000만원을 기부했고, 인사동 예술인들의 후원자를 자처해온 김명성 아라아트센터 대표도 1000만원을 내놓았어요. 그는 80년대부터 시인들과 함께 광화문 뒷골목에서 이라는 무크지(부정기 간행물)를 만들었고 시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5400만원이 모인 거예요.<br/>　이 회원들 사이에서도 ‘회비 내기’ 바람이 분 덕분에 은행자동이체(CMS) 납부 비율도 아주 높아졌구요. 그때 자동이체 회원이 600명에서 700명, 700명에서 800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아마 지금은 1000명이 넘을 거예요.<br/>　구 그렇게 작가회의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체제로 안정될 수 있었어요. 전화위복이었죠. 그때부터 내내 ‘저항의 글쓰기 운동’도 추진했어요. 지원금이 끊겨 기관지를 내지 못하는 대신 회원들이 글을 써서 거리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대학로의 한 공원에서 시낭송회를 여는 방식으로 ‘저항’과 ‘시위’를 한 거죠.<br/>　이 이듬해에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작가회의도 바빠졌지요?<br/>　구 2011년 봄부터 작가회의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각종 매체에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칼럼을 썼어요. 급기야 그해 12월에는 작가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임진각에서 출발해 서해 쪽 경로를 따라 제주도까지 걸어가는 도보순례를 했어요. 구간별로 교대를 해가며 릴레이식으로 연인원 500명의 작가들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동참한 거죠.<br/>　이 ‘생명평화걷기-글발글발 평화릴레이’ 때 사무총장으로 저 역시 임진각에서 출발할 때, 제 고향인 세종시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시에서 강정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참여했지요.<br/>　구 나는 임진각에서 출발할 때 참가했어요. 이어서 장정의 행렬이 계속됐는데, 멀리 동쪽 강원도 지역의 회원들도 기꺼이 달려왔어요. 작은 깃발은 배낭에 꽂고 큰 플래카드는 손으로 들고 걸었어요. 마침 겨울이라 눈이 많이 내린 날도 있었는데, 백설 위를 걷는 그 모습이 비장하면서도 장엄했어요. 그 뒤 개인적으로도 강정마을에 간 적이 있구요.<br/>　이 작가회의의 단결된 행보는 하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지요?<br/>　구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 문단의 유능한 작가들이 거의 다 한국작가회의 회원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기꺼이 특별회비 등을 내면서 작가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원들이 경조사 때마다 상부상조하는 미덕도 남다르지요. 김남일 사무총장의 투병을 위해 모금을 했을 때도 대단했어요. 공개적으로 모금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입소문을 전해듣고 2300만원이나 모였어요.<br/>　이 2011년에는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우영 시인이 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도 알음알음으로 모금이 이뤄져 치료비를 보탠 적이 있어요. 김해자 시인이 아팠을 때도, 송경동 시인이 다쳤을 때도 비공식적으로 모금해서 도울 수 있었구요.<br/>　구 송 시인은 2011년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동자 해직 철회 시위 때 ‘희망버스 운동’을 조직하고 투쟁에 앞장서느라 여러 차례 다치기도 했어요. 모금도 몇 차례 해서 2600여만원을 모았어요. 마침 내가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그 돈을 송 시인에게 전달했는데, 서로 끌어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꼈지요. 이 시대에도 작가회의가 인정과 의리와 순수한 창작 열정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구요.<br/>　이 얘기를 잠시 거슬러 올라가서, 71년 선생님이 김수환 추기경을 모시고 잡지를 만드실 때의 사건들도 자실의 전사(前史)가 아닐까 합니다.<br/>　구 ‘창조’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발행하던 월간지로 발행인이 김수환 추기경이었어요. 내가 편집주간을 맡아, 72년 4월호에 김지하의 담시 ‘비어’(蜚語)를 실어 문제가 됐었지요. ‘비어’는 김지하가 ‘오적’(五賊) 이후에 쓴 대작인데, 사실은 ‘오적’보다 작품성이 더 있었어요.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이십여일 시달림을 당했어요. 잡지는 물론 전부 회수되었고. 그런 일이 있고 난 직후 ‘10월 유신’이 터졌지요. 그래도 계속 잡지를 간행했는데 핍박이 심해져서 자진 정간을 하고 말았어요. 요즈음 작가회의 젊은 회원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초창기 작가회의 회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경찰서뿐 아니라 남산의 중정으로도 끌려가고, 심지어 군 보안사로 연행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는 쑥스럽지만, 나같이 온건한 사람도 여러 번 연행을 당했으니까.<br/>　이 74년 일본에서 간행된 잡지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으셨지요?<br/>　구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조작 발표했지요. 난 참고인으로 서빙고 보안사에 연행되었는데 수사관이 지하실에서 전기의자에 태우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차라리 교도소에 가겠다고 버텼지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문인들이 사회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역사의식을 바탕에 둔 리얼리즘 문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계속된 겁니다. 리얼리즘을 주류로 다른 경향의 문학을 포괄해야 걸작이 태어나는 겁니다.<br/>　이 50년대의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이 작가회의와 문학의 핵심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모더니즘이 다시 나와 작가회의 중심의 리얼리즘에 대해 반발을 하는 듯싶어요. ‘창비시선’도 그것을 수용하고 있고요. 이른바 미래파라는 것도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의 시단이 새로운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있지 않으냐는 거지요.<br/>　구 지금 우리 문학에 모더니즘이 중심이 될 당위성은 없어요. 좋은 의미의 리얼리즘을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리얼리즘은 끝이 없는 거니까. 리얼리즘이 문단의 주류가 되어야 해요. 리얼리즘의 총체성·전형성·전망, 이 세 가지를 견지하면 좋은 문학이 나올 수 있어요. ‘전망’ 안에 상상력과 이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리얼리즘이 주류를 견지하는 게 중요해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엇나가고 파괴하고 싶어하는 어떤 개성적 자유는 다양성으로 보고 말이죠.<br/>　이 선생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숙고하겠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7.txt

제목: 후쿠시마, ‘제2의 체르노빌’ 우려 확산  
날짜: 2015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910016521318  
본문: “으아앙, 엄마 아파!”<br/><br/> “괜찮아, 하나도 아프지 않단다. 목을 조금 더 위로 올려보렴.”<br/><br/> 지난달 14일 일본 이바라키현 모리야시의 ‘모리야시민교류프라자’. 침상에 누워 갑상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를 받던 이노우에 다테루(6)가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앞에 설치된 화면을 응시하던 다나카 유미코 쓰쿠바대 대학원 교수(응용방사선의학)가 달래자, 다테루는 이내 울음을 그치고 눈을 말똥말똥 뜬 채 정면을 보기 시작했다. 검사를 받은 아이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화면에선 만화영화 <겨울왕국>의 주제가가 흘러나왔다.<br/><br/><br/><br/>사고 때 만 18살 이하 37만 명 추적 <br/>주변 지역 제외 정부 대응 논란 <br/>간토지역, 자체적으로 검사 실시 <br/>체르노빌 4~5년 뒤 발병률 20배↑<br/><br/><br/><br/> 2011년 3·11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당시 유출된 대량의 방사선 물질은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일본에선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사고 당시 만 18살 이하였던 37만명을 대상으로 갑상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차 조사는 2011년 가을께 시작돼 지난해 3월 끝났고, 지난해 4월부터 2회째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참사 때도 사고 이후 4~5년이 지난 뒤부터 어린이들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많게는 20배까지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후쿠시마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감상샘암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br/><br/> 이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나온 보도를 보면 1차 조사 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아이들 가운데 1명이 갑상샘암 ‘확진’, 7명이 암으로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조사에서 이런 아이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면, 후쿠시마에서도 체르노빌처럼 ‘어린이 갑상샘암’의 증가라는 비극이 재확인되게 된다.<br/><br/>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행중인 어린이 갑상샘암 검사가 후쿠시마현 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량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구름을 타고 주변으로 퍼져 이바라키현·도치기현·치바현 등 간토 지방의 일부에 비에 섞여 내렸다. ‘핫 스팟’으로 불리는 이런 지역들의 방사선 선량은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보다 더 높다.<br/><br/> 그 때문에 간토지역의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모임들은 2013년 9월 ‘간토어린이건강조사 지원기금’을 설립해 돈을 모아 갑상샘 조사를 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기를 구입했다. 지원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268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올 들어서도 모리야시를 포함해 이바라키현과 치바현에서 3번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까지 검사를 받은 1818명의 어린이 가운데선 1명에게서 악성 종양 의심자가 발견됐고, 6명에게서 5.1㎜이상의 결절이 확인됐다. 그러나 원전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다.<br/><br/> 이날 검사를 진행한 다나카 교수는 “이날 검사를 받은 150명 가운데선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꾸준히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모리야(이바라키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8.txt

제목: 전자파 위험하지만…커피·김치와 동급  
날짜: 2015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810016503986  
본문: 10년 동안 노르웨이 여성 총리를 지낸 그로 할렘 브룬틀란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1998~200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다.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두통을 일으켰다고 믿어서다.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판명돼 브룬틀란은 현재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온갖 전파가 송수신되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전자파 과민증’을 불러오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인 50만명이 전자파 과민증 징후를 보이고 있다.<br/><br/>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3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활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4.5%(매우 유해 28.5%, 조금 유해 66.0%)나 됐다. 전자파 방지용품이나 식물 등이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없음에도 이들 용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 넘고, 그중 2명은 지금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상이 “<span class='quot0'>조금이라도 전자파를 차단해줄 것으로 기대해서</span>”라고 응답해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br/><br/><br/><br/>16개국 내년까지 청소년 유해 연구 <br/>임산부 휴대폰 영향 4년째 ‘이상무’ <br/>전파연, 휴대폰 흡수율 확인 가능 <br/>“<span class='quot1'>위험 정보 잘 알아야 과도한 불안 해소</span>” <br/>누적 영향 없는 전자파 ‘암 진단기’ 개발중전자파의 본명은 전기자기파다. 전자기장에 의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자기 에너지를 뜻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하면서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자파라고 부른다. 전자파도 방사선의 일종이지만 물질을 이온화시켜 기본 성분을 바꾸는 엑스선,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과 달리 이온화 능력이 없어 비전리방사선에 속한다. 하지만 인체에는 물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크게 열작용과 자극작용을 일으킨다. 전기(우리나라는 60㎐)나 가전제품 등에서 나오는 낮은 주파수(단위시간당 파동수)의 전자파는 유도된 전류에 의해 신경이나 근육에 자극을 가하는 반면, 휴대전화나 전자레인지처럼 주파수가 높은 전자파는 조직세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한 국내 연구팀이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뇌의 온도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컴퓨터로 모의실험한 결과 0.04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팀은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사람의 얼굴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1.7~4.5도 정도의 체온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br/><br/>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의 세기는 보통 전자파흡수율(SAR)로 표시한다. 1998년 스웨덴 연구진이 휴대전화 사용자의 뇌종양 발생률이 미사용자보다 2.5배나 높다는 연구를 발표하는 등 전자파의 유해성과 관련한 연구 보고가 잇따르자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등은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기준을 정해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듬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ELF)를 발암인자 2B등급으로 분류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다. 2011년에는 휴대전화 등에서 사용하는 통신주파(RF)도 2B등급에 포함시켰다. 2B등급에는 커피와 김치(절인 채소) 등도 포함돼 있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제기되는 2A등급(배기가스나 적외선 등 암 유발 추정 물질)과 달리 발암성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전주의’ 차원에서 예방할 필요가 있는 물질이다.<br/><br/>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태블릿 피시 등 사람 몸 가까이(20㎝ 이내)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전자파흡수율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2W/㎏)보다 좀더 강화된 1.6W/㎏이 기준이다. 우리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 전자파등급제를 도입했다. 0.8W/㎏ 이하면 1등급으로 표시된다. 자신의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은 국립전파연구원(rr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모델명 4SM-N916S)의 경우 0.506W/㎏, 애플의 아이폰6플러스(A1524)는 1.17W/㎏으로 등록돼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전자파 보호 기준 대상에 전기·전자기기까지 포함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br/><br/>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관들은 노인·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파 영향 연구와 기준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16개국이 참여해 2009년부터 내년까지 8년 동안 진행하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어린이와 청소년(10~24살)의 중추신경계 발암(뇌암)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Mobi-Kids)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트리)이 참여하고 있다.<br/><br/> 에트리는 임신부의 휴대폰 사용이 어린이 신경행동 발달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동안 임신부 1500명의 휴대폰 사용을 추적조사한 뒤 출생한 어린이들의 행동을 4년째 조사해오고 있다. 내년에 60개월 연구의 종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어린이의 행동과 임신 중 휴대전화 사용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트리는 또 전자파 숲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자파 다중 노출 환경에서 전자파가 동물이나 세포의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실험쥐에게 하루 45분씩 8주 동안 4W/㎏의 전자파를 쬔 뒤 부검을 한 결과 멜라토닌, 갑상선호르몬, 성호르몬 분비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했다.<br/><br/> 최형도 에트리 전파기술연구부장은 “전자파 허용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해도 과도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갈등요소가 생겼을 때 이해 당사자가 모여 어떻게 극복할지 소통해 문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br/><br/> 많은 이들이 전자파를 불안해하지만 오히려 의료기기 개발에도 쓰이고 있다. 에트리는 전자파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장치를 개발해 서울대 의대와 공동으로 임상연구를 하고 있다. 암이 발생하면 물이 많아져 전자파흡수율이 높아지는 점에 착안해 만든 이 장치는 방사선 진단기기와 달리 전자파 누적 위험 요인이 없고 유방을 압착하는 불편이 없어 유용한 진단기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br/>대덕연구단지/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39.txt

제목: [길을 찾아서] MB시절 정부 지원금 거부하자 더 많은 후원금 들어와  
날짜: 2015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810016508835  
본문: 연재 회고록 ‘길을 찾아서’의 17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물이 아니라 한국작가회의다. 1974년 11월18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출범 이래 작가회의는 대표적인 진보 문인단체로 표현의 자유 쟁취와 민주화 운동을 통해 문학을 넘어 문화운동을 이끌어왔다. 작가회의 창립 40돌을 맞아 초기 결성 때부터 지금까지 참여해온 원로 문인 9명과 후배 문인 9명이 짝을 이룬 구술대담 형식으로 문인운동사의 의의와 숨은 일화들을 육성으로 들려준다.<br/><br/> 아홉번째이자 마지막 주자인 문학평론가 구중서(오른쪽)와 시인 이은봉(왼쪽)이 80년대 참여문학운동을 회고하고 그 의미를 들려준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조계사 부근에서 만난 모습이다. <br/><br/> <br/><br/><br/><br/>1996년 사단법인 전환 작업 주도 <br/>‘어용’ 우려에 정부 지원 50%만 받아 <br/>당시 민예총서도 찬반 논란 뜨거워 <br/>‘실천문학’에 글 써 법인화 논의 주도<br/><br/>2007년엔 ‘한국작가회의’로 개명 <br/>정부 ‘시국집회 불참 서약’ 요구에 <br/>지원금 거부하고 저항글쓰기 나서 <br/>후원금에 ‘회비내기’ 바람 불어 <br/>한동안 자체예산으로 운영비 충당<br/><br/><br/><br/>이은봉 이시영 시인이 쓴 ‘1980년 여름 종로경찰서’(<은빛 호각>, 창비시선, 2013년)를 킥킥거리며 읽었는데, 당사자들은 그때 심각한 상황이었겠지요. 서대문교도소에서 얼마나 있었나요?<br/><br/> 구중서 신경림 시인과 나는 두 달 남짓 만에 기소유예로 나왔어요. 조태일은 광주 출신이고 김대중 총재에게 인쇄물을 해준 것도 문제가 되어 몇 달 더 붙잡혀 있었고. 그 뒤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는 선언의 단계를 지나 조직의 단계로 나아갔어요. 1984년 12월 재창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교수도 참여했죠?<br/><br/> 이 예. 저도 자실 재창립할 때는 준비단계부터 참여를 했지요. ‘삶의문학’ 동인을 대표해서요.<br/><br/> 구 그 뒤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면서 87년 6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잖아요? 6월항쟁의 승리는 시민혁명의 승리였어요. 그 열기를 타고 87년 9월 자실도 민족문학작가회의로 개칭하고 회원도 늘어나 발전의 단계로 도약할 수 있었죠.<br/><br/> 이 90년대 들어 선생님은 민족문학작가회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죠? 95년 기관지 <내일을 여는 작가>를 창간할 때도 깊이 관여를 하셨구요.<br/><br/> 구 그때 송기숙 회장에, 내가 부회장이었어요. 내게 기관지 발행과 사단법인 추진 작업이 맡겨졌어요. 문예지 <내일을 여는 작가>를 계간으로 창간했고, 96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했죠. 본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람들은 좀 결벽스러워요. 누군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용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지원금은 소요예산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자체 조달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문민화’라는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 등이 구속되는 단계였지요. 출범 이래 줄곧 민주화운동을 해온 민족문학작가회의로서는 충분히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문예진흥원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br/><br/> 이 사단법인화를 둘러싸고 우리 작가회의뿐만 아니라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차원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93년<실천문학>가을호에서 선생님은 ‘문학·제도·역사’ 기고문을 통해 법인화 논의를 주도했지요.<br/><br/> 구 2007년 민족문학작가회의는 문학운동의 내용도 보강하면서 ‘한국작가회의’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는 그 뒤의 얘기를 해야겠어요. 2010년 2월 한국작가회의 총회에서 내가 이사장을 맡게 됐잖아요. 그런데 전임 최일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인데, 하필 정부 쪽에서 ‘시국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라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야만 문광부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조건부였어요. 이사장 취임 총회에서 그 사실을 전했더니, 회원들 모두 그런 요구를 하는 이명박 정부한테서는 지원금을 받지 말자고 결의했어요. 만장일치였죠. 시위 참여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로 헌법적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작가회의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펴나가기로 했어요. 그 뒤 실제로 한동안 한국작가회의는 정부 지원금을 거부했구요.<br/><br/> 이 그 무렵 제가 사무총장으로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br/><br/> 구 맞아요. 2010년 2월 나와 함께 소설가 김남일이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해 5월 위암으로 수술을 하게 됐어요. 퇴원을 한 뒤에는 오랫동안 요양을 하느라 복귀가 어렵게 되자 사무총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2011년 2월 총회에서 이 교수에게 남은 임기 1년을 맡기게 된 거죠. 무보수 자원봉사로 참 수고가 많았어요.<br/><br/> 이 마침 안식년이어서 기꺼이 도울 수 있었지요.<br/><br/> 구 아무튼 2010년 총회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선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뜻밖의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 받았던 정부 지원금이 1년에 기껏 3400만원이었는데, 회원인 평론가 김병익이 혼자서 그만큼을 회비로 냈어요. 여의사인 김지영 내과원장은 문인도 아닌데 1000만원을 기부했고, 인사동 예술인들의 후원자를 자처해온 김명성 아라아트센터 대표도 1000만원을 내놓았어요. 그는 80년대부터 시인들과 함께 광화문 뒷골목에서 <시인통신>이라는 무크지(부정기 간행물)를 만들었고 시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5400만원이 모인 거예요.<br/><br/> 이 회원들 사이에서도 ‘회비 내기’ 바람이 분 덕분에 은행자동이체(CMS) 납부 비율도 아주 높아졌구요. 그때 자동이체 회원이 600명에서 700명, 700명에서 800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아마 지금은 1000명이 넘을 거예요.<br/><br/> 구 그렇게 작가회의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체제로 안정될 수 있었어요. 전화위복이었죠. 그때부터 내내 ‘저항의 글쓰기 운동’도 추진했어요. 지원금이 끊겨 기관지를 내지 못하는 대신 회원들이 글을 써서 거리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대학로의 한 공원에서 시낭송회를 여는 방식으로 ‘저항’과 ‘시위’를 한 거죠.<br/><br/><br/><br/>2011년부턴 강정 해군기지 반대 <br/>각종 매체에 연속 칼럼 게재 <br/>임진각서 제주까지 도보 순례도 <br/>겨울 칼바람 속 비장함 보여줘 <br/>작가회의 단결된 행동은 ‘전통’<br/><br/><br/><br/> 이 이듬해에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작가회의도 바빠졌지요?<br/><br/> 구 2011년 봄부터 작가회의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각종 매체에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칼럼을 썼어요. 급기야 그해 12월에는 작가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임진각에서 출발해 서해 쪽 경로를 따라 제주도까지 걸어가는 도보순례를 했어요. 구간별로 교대를 해가며 릴레이식으로 연인원 500명의 작가들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동참한 거죠.<br/><br/> 이 ‘생명평화걷기-글발글발 평화릴레이’ 때 사무총장으로 저 역시 임진각에서 출발할 때, 제 고향인 세종시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시에서 강정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참여했지요.<br/><br/> 구 나는 임진각에서 출발할 때 참가했어요. 이어서 장정의 행렬이 계속됐는데, 멀리 동쪽 강원도 지역의 회원들도 기꺼이 달려왔어요. 작은 깃발은 배낭에 꽂고 큰 플래카드는 손으로 들고 걸었어요. 마침 겨울이라 눈이 많이 내린 날도 있었는데, 백설 위를 걷는 그 모습이 비장하면서도 장엄했어요. 그 뒤 개인적으로도 강정마을에 간 적이 있구요.<br/><br/> 이 작가회의의 단결된 행보는 하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지요?<br/><br/> 구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 문단의 유능한 작가들이 거의 다 한국작가회의 회원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기꺼이 특별회비 등을 내면서 작가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원들이 경조사 때마다 상부상조하는 미덕도 남다르지요. 김남일 사무총장의 투병을 위해 모금을 했을 때도 대단했어요. 공개적으로 모금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입소문을 전해듣고 2300만원이나 모였어요.<br/><br/> 이 2011년에는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우영 시인이 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도 알음알음으로 모금이 이뤄져 치료비를 보탠 적이 있어요. 김해자 시인이 아팠을 때도, 송경동 시인이 다쳤을 때도 비공식적으로 모금해서 도울 수 있었구요.<br/><br/> 구 송 시인은 2011년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동자 해직 철회 시위 때 ‘희망버스 운동’을 조직하고 투쟁에 앞장서느라 여러 차례 다치기도 했어요. 모금도 몇 차례 해서 2600여만원을 모았어요. 마침 내가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그 돈을 송 시인에게 전달했는데, 서로 끌어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꼈지요. 이 시대에도 작가회의가 인정과 의리와 순수한 창작 열정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구요.<br/><br/> 이 얘기를 잠시 거슬러 올라가서, 71년 선생님이 김수환 추기경을 모시고 <창조>잡지를 만드실 때의 사건들도 자실의 전사(前史)가 아닐까 합니다.<br/><br/> 구 ‘창조’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발행하던 월간지로 발행인이 김수환 추기경이었어요. 내가 편집주간을 맡아, 72년 4월호에 김지하의 담시 ‘비어’(蜚語)를 실어 문제가 됐었지요. ‘비어’는 김지하가 ‘오적’(五賊) 이후에 쓴 대작인데, 사실은 ‘오적’보다 작품성이 더 있었어요.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이십여일 시달림을 당했어요. 잡지는 물론 전부 회수되었고. 그런 일이 있고 난 직후 ‘10월 유신’이 터졌지요. 그래도 계속 잡지를 간행했는데 핍박이 심해져서 자진 정간을 하고 말았어요. 요즈음 작가회의 젊은 회원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초창기 작가회의 회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경찰서뿐 아니라 남산의 중정으로도 끌려가고, 심지어 군 보안사로 연행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는 쑥스럽지만, 나같이 온건한 사람도 여러 번 연행을 당했으니까.<br/><br/> 이 74년 일본에서 간행된 잡지 <한양>사건으로도 조사를 받으셨지요?<br/><br/> 구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조작 발표했지요. 난 참고인으로 서빙고 보안사에 연행되었는데 수사관이 지하실에서 전기의자에 태우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차라리 교도소에 가겠다고 버텼지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문인들이 사회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역사의식을 바탕에 둔 리얼리즘 문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계속된 겁니다. 리얼리즘을 주류로 다른 경향의 문학을 포괄해야 걸작이 태어나는 겁니다.<br/><br/> 이 50년대의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이 작가회의와 <창비>문학의 핵심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모더니즘이 다시 나와 작가회의 중심의 리얼리즘에 대해 반발을 하는 듯싶어요. ‘창비시선’도 그것을 수용하고 있고요. 이른바 미래파라는 것도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의 시단이 새로운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있지 않으냐는 거지요.<br/><br/> 구 지금 우리 문학에 모더니즘이 중심이 될 당위성은 없어요. 좋은 의미의 리얼리즘을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리얼리즘은 끝이 없는 거니까. 리얼리즘이 문단의 주류가 되어야 해요. 리얼리즘의 총체성·전형성·전망, 이 세 가지를 견지하면 좋은 문학이 나올 수 있어요. ‘전망’ 안에 상상력과 이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리얼리즘이 주류를 견지하는 게 중요해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엇나가고 파괴하고 싶어하는 어떤 개성적 자유는 다양성으로 보고 말이죠.<br/><br/> 이 선생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숙고하겠습니다. <끝><br/><br/>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0.txt

제목: 인사  
날짜: 2015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7100000055  
본문: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개방형) 최진수<br/>⊙ 한전원자력연료 △생산본부장 김선두 <br/>⊙ JIBS 제주방송 △상무 송정일 <br/>⊙ 우석대 ◇대학장 △과학기술 이홍기 △식품과학 오석홍 △약학 이미경 △보건복지 조성길 △문화사회 김주석 △체육과학 조현철 △종합실습장 본부장 마상용 <br/>⊙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동훈<br/>⊙ 연세대의료원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박진오 △재활˝ 신지철 △심혈관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소장 장양수 △연세의생명연구원장 백순명 △송당암연구센터장 정현철 △연구지원부장 김승일 △실험동물˝ 남기택 △동은의학박물관장 여인석 ◇연구소장 △환경공해 신동천 △보건정책및관리 박은철 △열대의학 용태순 △소화기병 송시영 △알레르기 박중원 △인체조직복원 유대현 △세균내성 정석훈 △피부생물학 정기양 △척추신경 조용은 △관절경 최종혁 △연의-생공연 메디컬융합 허용민 △뇌전증 김흥동 △치주조직재생연구소장 조규성 △창의센터장 김진영 △내과부장 한광협 △외과˝ 김남규 △응급진료센터소장 박인철 △척추병원 진료부장 진동규 △적정진료관리실 감염관리실장 정석훈 △치과병원 원장 문익상 △암병원 ˝ 최승호 △진료부장 김형식 △교육수련˝ 정수윤 △적정진료관리실장 이정은 ◇센터장 △위암 형우진 △간암 최진섭 △대장암 안중배 △췌장담도암 박승우 △식도암 이용찬 △폐암 김대준 △갑상선암 정웅윤 △혈액암 정준원 △부인암 김영태 △비뇨기암 최영득 △두경부암 김세헌 △소아청소년암 유철주 △개인맞춤치료 백순명 △진료부장 김덕용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1.txt

제목: 친필 전시회  
날짜: 2015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6100000061  
본문: 친필 전시회 김윤희<br/><br/><br/><br/>가서 보았다<br/>수십 년 전 그때 청춘의 끓는<br/>피 찍어 써 보낸<br/>봉함 친전<br/>나만 알아볼 수 있는<br/>달필 건너<br/>초서체 훨씬 지나<br/>암호 악필<br/>일종의 극비 문서<br/>이제야 여겨 보니<br/>희귀체 아날로그<br/>취후통첩이던 것을<br/><br/><br/>- 시집 (황금알)에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2.txt

제목: 3월 7일 인사  
날짜: 2015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610016503920  
본문: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개방형) 최진수<br/><br/>⊙ 한전원자력연료 △생산본부장 김선두 <br/><br/>⊙ JIBS 제주방송 △상무 송정일 <br/><br/>⊙ 우석대 ◇대학장 △과학기술 이홍기 △식품과학 오석홍 △약학 이미경 △보건복지 조성길 △문화사회 김주석 △체육과학 조현철 △종합실습장 본부장 마상용 <br/><br/>⊙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동훈<br/><br/>⊙ 연세대의료원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박진오 △재활˝ 신지철 △심혈관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소장 장양수 <의대> △연세의생명연구원장 백순명 △송당암연구센터장 정현철 △연구지원부장 김승일 △실험동물˝ 남기택 △동은의학박물관장 여인석 ◇연구소장 △환경공해 신동천 △보건정책및관리 박은철 △열대의학 용태순 △소화기병 송시영 △알레르기 박중원△인체조직복원 유대현 △세균내성 정석훈 △피부생물학 정기양 △척추신경 조용은 △관절경 최종혁 △연의-생공연 메디컬융합 허용민 △뇌전증 김흥동 <치대> △치주조직재생연구소장 조규성 <세브란스병원> △창의센터장 김진영 △내과부장 한광협 △외과˝ 김남규 △응급진료센터소장 박인철 <강남세브란스병원> △척추병원 진료부장 진동규 △적정진료관리실 감염관리실장 정석훈 △치과병원 원장 문익상 △암병원 ˝ 최승호 <용인세브란스병원> △진료부장 김형식 △교육수련˝ 정수윤 △적정진료관리실장 이정은 <연세암병원> ◇센터장 △위암 형우진 △간암 최진섭 △대장암 안중배 △췌장담도암 박승우 △식도암 이용찬 △폐암 김대준 △갑상선암 정웅윤 △혈액암 정준원 △부인암 김영태 △비뇨기암 최영득 △두경부암 김세헌 △소아청소년암 유철주 △개인맞춤치료 백순명 <재활병원> △진료부장 김덕용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3.txt

제목: [시인의 마을] 친필 전시회 / 김윤희  
날짜: 2015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510016496128  
본문: 가서 보았다 <br/>수십 년 전 그때 청춘의 끓는 <br/>피 찍어 써 보낸 <br/>봉함 친전 <br/>나만 알아볼 수 있는 <br/>달필 건너 <br/>초서체 훨씬 지나 <br/>암호 악필 <br/>일종의 극비 문서 <br/>이제야 여겨 보니 <br/>희귀체 아날로그 <br/>취후통첩이던 것을<br/><br/>- 시집 <오아시스의 거간꾼>(황금알)에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4.txt

제목: 아버지는 말하셨지 “바나나 사줄까?”  
날짜: 2015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5100000082  
본문: 작가 김연수씨가 시간과 기억, 그리고 취향에 관한 산문을 격주로 연재합니다<br/><br/><br/>그 시절, 그는 내게 너무나 큰 사람이었다. 내 키는 작아서 옆에 서면 그의 허리춤 정도만 눈에 들어왔다. 거기 바지 벨트에는 늘 쓰고 다니던 ‘라이방’ 안경집이 부착돼 있었다.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면 겨우 그와 눈을 마주칠 수 있었다. “바나나 사줄까?” 그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러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 말을 취소할까 싶어서, 그의 팔에 매달려 빨리 사달라고 조른다. 오래전의 일이고, 이제 그 일은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고 있다.<br/>　내가 태어난 뉴욕제과점은 김천역전 앞(틀린 표현일지라도 내게 뉴욕제과점의 주소지는 언제까지나 ‘역전 앞’이다.)에 있었다. 지금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식품이 바로 옆 가게였다. 서울식품의 주인인 작은외삼촌은 그때 정육점처럼 두세 손의 바나나를 진열창 상단에 걸어놓고 손님이 찾으면, 하나씩 떼어서 팔았다. 하나에 얼마였을까? 한동안, 매일 아침마다 바나나를 사 먹었으니까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바나나 수입 파동 같은 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값이 쌌던 것일지도 모른다.<br/>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일이니까 아마도 1975년이나 1976년의 일일 테고, 그렇다면 그때 아버지는 꼭 지금의 내 나이였다. 늦둥이 막내였던 내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가 참나무처럼 젊고 늠름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유랑서커스단의 낯선 동물들처럼, 서울식품의 진열창에서 바나나는 곧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늠름했던 아버지 역시 내게는 상상동물과 다름없게 됐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 시간을 만든 건 우리다. 이 세계의 천변만화는 우리의 짓이다.<br/>　처음으로 먹은 바나나의 맛은 이미 다 잊어버렸다. 그럼에도 나는 바나나의 맛을 고스란히 기억한다. 그건 바나나의 시절이 끝난 뒤에도 바나나우유는 남아서 그 모든 변화에 맞섰기 때문이다. 바나나우유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부르고 싶다. 둥근 용기 속에 든 그 노란색 음료는 언제 마셔도 한결같이 달큼했다. 바나나의 속은 하얗다고 해서 하얀색 바나나우유도 나왔지만, 그 역시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 바나나우유의 본질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천변만화에 맞선다는 것.<br/>　젊고 늠름했던 아버지는 기차에 앉아서, 혹은 목욕탕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담배연기는 주광성을 띤 것처럼 형광등을 향해 파랗게 올라간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바나나우유를 마신다. 바나나우유는 인공적으로 색깔과 향을 조절했기 때문에 바나나와 우유만으로 만든 것처럼 맛이 들쑥날쑥할 리가 없었다. 그 상상의 맛은 내게 이 세계가 영원하리라는 환상을 심어줬다. 아버지는 영원히 젊고 늠름할 것이며, 나는 영원히 바나나우유를 마시고 있을 것처럼.<br/>　그러나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단정하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바나나마저도 “바나나가 제일 맛있어요!”라고 엄지손가락을 꼽던 순간부터 점점 맛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바나나 시절의 아버지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젊고 늠름했지만,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그는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몇십 년이 흐르자, 아버지는 내게 너무나 작은 사람이 돼 버렸다. 그날은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의 한 진료실에 같이 앉아 조직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다.<br/>　의사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암이세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아버지는 곧바로 환자가 될 터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환자가 되는 대신에 “지금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며 나를 쳐다봤다. 내 입으로 다시 말씀드렸다. 진료실을 나와서 추가검사를 받아야만 했는데, 아버지는 자꾸만 당신을 서울역에 데려달라고 말했다. 그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를 서울에 처음 데려간 사람은 아버지였고, 그런 그가 서울역까지 가는 길을 모를 리는 없었으니까. 게다가 막 확진을 받았는데, 진료를 거부하고 귀가한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br/>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암 같은 거 모르던 시절처럼 살고 싶다는 것, 그게 정상적이었다. 그렇게 나는 매우 비정상적이게도 매일 오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아버지를 옆좌석에 태우고 일산에서 세브란스병원을 오가며 2012년 봄을 보냈다. 1950~60년대 유행가가 담긴 시디들을 사서는 자동차 안에서 들었다. 말하자면, 그건 심층인터뷰를 위한 준비물이었다. 옛 노래가 흘러나오니 아버지는 의아스럽게 여겼다. 나는 노래 제목을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기억나는 노래냐고 물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음 곡으로, 하지만 기억난다면, “이 노래를 언제 어디서 들었어요?”라고 물었다.<br/>　아버지에게 어떤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고, 어떤 기억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 같았고, 어떤 기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남대문시장의 내장탕집, 을지로의 적산가옥, 종로3가의 댄스홀 등이 그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자유로가 끝나고 성산대교 북단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나왔다. 그 인터체인지의 주변에는 아직 개나리가 피어나지 않았을 때였다. 날이 더 따뜻해지면 거기가 개나리천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span class='quot0'>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span>”고 대답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변했기 때문에,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고, 우린 웃었다.<br/>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은 무척이나 복잡했다. 암센터에 접수한 뒤, 복도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좌회전, 또 쭉 걸어가서는 다시 좌회전,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그러면 구내식당이 나오는데, 그 식당을 끼고 우회전한 뒤에 왼쪽을 보면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 있었다. 그 문을 열고 쭉 내려가면 방사선 치료실이었다. 치료 시간은 15분 정도로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치료가 끝나고 나오면, 아버지는 힘든 일을 마친 사람처럼 기분이 좋았다. <br/>　그렇게 몇 달에 걸쳐서 아버지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의사에게서 암세포가 많이 줄었다는 말을 들었다. 의사가 돌려서 보여준 모니터 속의 폐 사진을 보니 정말로 하얀 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손을 꽉 움켜잡았다. 됐어요, 아버지. 의사가 듣거나 말거나 내가 소리쳤다. 아버지도 손에 힘을 줬다. 의사는 다시 두 달 뒤에 검사하자고 말했고, 우리는 암센터를 빠져나왔다. 걷다 보니 언젠가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빵을 먹으며 앉아 있던 매점이 보였다.<br/>　돌아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방사선 치료실에서 나와 조금 걸어가면 구내도로로 나가는 문이었다. 그 문 옆에 작은 매점이 하나 있었다. 기분이 좋으면 식욕이 생기는 것일까?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거기 들러 빵과 음료를 사 먹었다. 매점 냉장고 안에는 바나나우유도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바나나우유를 골라서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눈만 감는다면, 거기 암센터도, 그날의 방사선 치료를 막 끝낸 아버지도 사라지고 30여년 전으로 나를 되돌릴 그 맛이 느껴졌다. <br/>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 암병원이 들어서 있다.<br/>김연수 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5.txt

제목: 인사  
날짜: 2015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5100000114  
본문: ⊙ 행정자치부 ◇국장급 △국제행정협력관 정인균 <br/>⊙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체육관광정책실 국제관광과장 김근호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 이기정 △국립현대미술관 근무(과장직위) 노정동 △청와대비서실 박병우<br/>⊙ 관세청 ◇국장급 △기획조정관 정일석 △관심사통심사정책국장 이찬기 △서울 서윤원 △인천공항 박철구 △부산 정재열 △인천 차두삼 △대구 주시경 △차장 이돈현<br/>⊙ 농촌진흥청 △충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차선세<b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 △인증지원본부 인증심사센터 강호우 △경영지원본부 인사복지실 김선호 △의료헬스본부 의료기기심사센터 김정수 △시스템융합본부 응용기술센터 서노근 △˝ IT안전기술센터 이수연 △산업표준본부 전기전자표준센터 송상훈<br/>⊙ 한국임업진흥원 ◇본부장 △임업소득 변재경 △목재산업 도금현 △산림정보 김재성<br/>⊙ 세계일보 △비서실장 김희준<br/>⊙ 아주경제 △정치부 대기자 강성주 <br/>⊙ 가천대 △특임부총장 박승철 △평생교육원장 김용욱 △진단치료제연구센터장 이도 다츠오 △에너지나노소재˝ 최형욱 △아랍문화연구소설립추진위원장 김동억 △발전기금본부장 이인봉<br/>⊙ 고려대 ◇부처장 △총무처 겸 인력개발팀장 이석형 ◇부장 △미래전략실 한재호 △총무 겸 병무행정팀장 겸 상조회장 송인식 △정보대학 겸 정보통신대·대학원·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장 이상경 △법대·법무대학원 겸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 유원종 △국제교류˝ 조금생 △예산˝ 윤택상 <br/>⊙ 중원대 ◇처장 △기획정보 겸 인성교육원장 조용태 △학생역량개발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조민호 △대외협력 겸 홍보실장 김성호 △대학원장 한형서 ◇대학장 △인문사회 이세우 △이공 안정좌 △의료보건 장지홍 △항공 이호일 △학술정보원장 윤영걸 <br/>⊙ 서정대 △부총장 정훈 ◇처장 △기획 조남재 △교무 한상길 △연구 신덕상 △학생복지 겸 지역발전연구소장 염일렬 △산학협력단장 강용현 △평생교육원장 위상배 △전산소장 양경승 △자원봉사단 및 다문화연구˝ 조경자 △도서관장 현영렬 △신문방송 주간 송기영<br/>⊙ 계명대 동산의료원 ◇센터장 △응급의료 황재석 △진료협력 배기철 △암 겸 연구처장 조치흠 △교육수련부장 조용원 △심사실장 정우진 △응급˝ 직무대리 주명돈<br/>⊙ 무학 △부사장 이수능 △전무 홍순환 이종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6.txt

제목: ‘삼성 입사 좋아하던 내 딸도, 유미처럼 떠났습니다’  
날짜: 20150305  
기자: 김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5100000007  
본문: “<span class='quot0'>안녕하세요, 조은주 엄마 김경희입니다.</span>”<br/>　고 황유미씨의 8주기를 맞아 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열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가한 김씨는 “<span class='quot1'>여기서 딸 얘기를 하려니까 마음에 못을 박는 것 같네요</span>”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span class='quot0'>1992년생인 제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좋아했는데 만 3년도 안 돼 애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span>”라며 눈물을 쏟아냈다.<br/>　김씨의 딸 고 조은주씨는 2010년 7월 당시 삼성전자 충남 탕정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입사해 엘시디 텔레비전 불량 검사를 맡았다. “몸이 자꾸 아프다”던 조씨는 2013년 9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골수이식을 기다리며 1년5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2월10일 만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8년 전(2007년 3월6일)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도 그때 겨우 22살이었다.<br/>　김씨는 딸의 산업재해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는 “직업병인데 산재 처리 안 되냐고 했더니 회사가 ‘몇 천명이 되는 사원이 있는데 다 이렇게 병이 생겨야지’라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없고 그전에 병원 간 적도 없어 직업병이라고 확신해요”라고 말했다.<br/>　엘시디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는 2009년 3월 삼성전자 기흥의 엘시디 제조공장에서 일한 한혜경씨가 뇌종양에 걸려 산재 신청을 한 일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 뒤 지금까지 삼성 엘시디 노동자 31명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에 직업병을 제보했고, 이 가운데 6명이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는 없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2'>삼성 엘시디 공장 노동자들이 잇따라 병에 걸리고 숨지는데도 유해 요인이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반도체 공장과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조 공정이 비슷한 엘시디 공장도 유해성 조사가 필요하다</span>”고 짚었다. 삼성전자 쪽은 이와 관련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 <br/>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7.txt

제목: 아버지는 말하셨지 “바나나 사줄까?”  
날짜: 2015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410016482197  
본문: 작가 김연수씨가 시간과 기억, 그리고 취향에 관한 산문을 격주로 연재합니다.<br/><br/><br/><br/>그 시절, 그는 내게 너무나 큰 사람이었다. 내 키는 작아서 옆에 서면 그의 허리춤 정도만 눈에 들어왔다. 거기 바지 벨트에는 늘 쓰고 다니던 ‘라이방’ 안경집이 부착돼 있었다.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면 겨우 그와 눈을 마주칠 수 있었다. “바나나 사줄까?” 그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러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 말을 취소할까 싶어서, 그의 팔에 매달려 빨리 사달라고 조른다. 오래전의 일이고, 이제 그 일은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고 있다.<br/><br/> 내가 태어난 뉴욕제과점은 김천역전 앞(틀린 표현일지라도 내게 뉴욕제과점의 주소지는 언제까지나 ‘역전 앞’이다.)에 있었다. 지금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식품이 바로 옆 가게였다. 서울식품의 주인인 작은외삼촌은 그때 정육점처럼 두세 손의 바나나를 진열창 상단에 걸어놓고 손님이 찾으면, 하나씩 떼어서 팔았다. 하나에 얼마였을까? 한동안, 매일 아침마다 바나나를 사 먹었으니까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바나나 수입 파동 같은 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값이 쌌던 것일지도 모른다.<br/><br/>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일이니까 아마도 1975년이나 1976년의 일일 테고, 그렇다면 그때 아버지는 꼭 지금의 내 나이였다. 늦둥이 막내였던 내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가 참나무처럼 젊고 늠름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유랑서커스단의 낯선 동물들처럼, 서울식품의 진열창에서 바나나는 곧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늠름했던 아버지 역시 내게는 상상동물과 다름없게 됐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 시간을 만든 건 우리다. 이 세계의 천변만화는 우리의 짓이다.<br/><br/> 처음으로 먹은 바나나의 맛은 이미 다 잊어버렸다. 그럼에도 나는 바나나의 맛을 고스란히 기억한다. 그건 바나나의 시절이 끝난 뒤에도 바나나우유는 남아서 그 모든 변화에 맞섰기 때문이다. 바나나우유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부르고 싶다. 둥근 용기 속에 든 그 노란색 음료는 언제 마셔도 한결같이 달큼했다. 바나나의 속은 하얗다고 해서 하얀색 바나나우유도 나왔지만, 그 역시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 바나나우유의 본질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천변만화에 맞선다는 것.<br/><br/>눈만 감는다면, 거기 암센터도 <br/>그날의 방사선 치료를 막 끝낸 <br/>아버지도 사라지고 <br/>30여년 전으로 나를 되돌릴 <br/>그 맛이 느껴졌다<br/><br/> 젊고 늠름했던 아버지는 기차에 앉아서, 혹은 목욕탕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담배연기는 주광성을 띤 것처럼 형광등을 향해 파랗게 올라간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바나나우유를 마신다. 바나나우유는 인공적으로 색깔과 향을 조절했기 때문에 바나나와 우유만으로 만든 것처럼 맛이 들쑥날쑥할 리가 없었다. 그 상상의 맛은 내게 이 세계가 영원하리라는 환상을 심어줬다. 아버지는 영원히 젊고 늠름할 것이며, 나는 영원히 바나나우유를 마시고 있을 것처럼.<br/><br/> 그러나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단정하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바나나마저도 “바나나가 제일 맛있어요!”라고 엄지손가락을 꼽던 순간부터 점점 맛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바나나 시절의 아버지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젊고 늠름했지만,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그는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몇십 년이 흐르자, 아버지는 내게 너무나 작은 사람이 돼 버렸다. 그날은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의 한 진료실에 같이 앉아 조직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다.<br/><br/> 의사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암이세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아버지는 곧바로 환자가 될 터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환자가 되는 대신에 “지금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며 나를 쳐다봤다. 내 입으로 다시 말씀드렸다. 진료실을 나와서 추가검사를 받아야만 했는데, 아버지는 자꾸만 당신을 서울역에 데려달라고 말했다. 그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를 서울에 처음 데려간 사람은 아버지였고, 그런 그가 서울역까지 가는 길을 모를 리는 없었으니까. 게다가 막 확진을 받았는데, 진료를 거부하고 귀가한다는 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br/><br/>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암 같은 거 모르던 시절처럼 살고 싶다는 것, 그게 정상적이었다. 그렇게 나는 매우 비정상적이게도 매일 오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아버지를 옆좌석에 태우고 일산에서 세브란스병원을 오가며 2012년 봄을 보냈다. 1950~60년대 유행가가 담긴 시디들을 사서는 자동차 안에서 들었다. 말하자면, 그건 심층인터뷰를 위한 준비물이었다. 옛 노래가 흘러나오니 아버지는 의아스럽게 여겼다. 나는 노래 제목을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기억나는 노래냐고 물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음 곡으로, 하지만 기억난다면, “이 노래를 언제 어디서 들었어요?”라고 물었다.<br/><br/> 아버지에게 어떤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고, 어떤 기억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 같았고, 어떤 기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남대문시장의 내장탕집, 을지로의 적산가옥, 종로3가의 댄스홀 등이 그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자유로가 끝나고 성산대교 북단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나왔다. 그 인터체인지의 주변에는 아직 개나리가 피어나지 않았을 때였다. 날이 더 따뜻해지면 거기가 개나리천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span class='quot0'>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span>”고 대답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변했기 때문에,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고, 우린 웃었다.<br/><br/>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은 무척이나 복잡했다. 암센터에 접수한 뒤, 복도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좌회전, 또 쭉 걸어가서는 다시 좌회전,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그러면 구내식당이 나오는데, 그 식당을 끼고 우회전한 뒤에 왼쪽을 보면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 있었다. 그 문을 열고 쭉 내려가면 방사선 치료실이었다. 치료 시간은 15분 정도로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치료가 끝나고 나오면, 아버지는 힘든 일을 마친 사람처럼 기분이 좋았다. <br/><br/> 그렇게 몇 달에 걸쳐서 아버지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의사에게서 암세포가 많이 줄었다는 말을 들었다. 의사가 돌려서 보여준 모니터 속의 폐 사진을 보니 정말로 하얀 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손을 꽉 움켜잡았다. 됐어요, 아버지. 의사가 듣거나 말거나 내가 소리쳤다. 아버지도 손에 힘을 줬다. 의사는 다시 두 달 뒤에 검사하자고 말했고, 우리는 암센터를 빠져나왔다. 걷다 보니 언젠가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빵을 먹으며 앉아 있던 매점이 보였다.<br/><br/> 돌아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방사선 치료실에서 나와 조금 걸어가면 구내도로로 나가는 문이었다. 그 문 옆에 작은 매점이 하나 있었다. 기분이 좋으면 식욕이 생기는 것일까?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거기 들러 빵과 음료를 사 먹었다. 매점 냉장고 안에는 바나나우유도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바나나우유를 골라서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눈만 감는다면, 거기 암센터도, 그날의 방사선 치료를 막 끝낸 아버지도 사라지고 30여년 전으로 나를 되돌릴 그 맛이 느껴졌다. <br/><br/>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 암병원이 들어서 있다.<br/><br/>김연수 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8.txt

제목: 3월 5일 인사  
날짜: 2015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410016482118  
본문: ⊙ 행정자치부 <전보> ◇국장급 △국제행정협력관 정인균<br/><br/>⊙ 관세청 <전보> ◇국장급 △기획조정관 정일석 △관심사통심사정책국장 이찬기 <세관장> △서울 서윤원 △인천공항 박철구 △부산 정재열 △인천 차두삼 △대구 주시경　<br/><br/>⊙ 농촌진흥청 <승진> △충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차선세<br/><b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승진> ◇수석연구원 △인증지원본부 인증심사센터 강호우 △경영지원본부 인사복지실 김선호 △의료헬스본부 의료기기심사센터 김정수 △시스템융합본부 응용기술센터 서노근 △〃 IT안전기술센터 이수연 △산업표준본부 전기전자표준센터 송상훈 ◇책임연구원 △디지털산업본부 이동통신기술센터 곽필근 △시스템융합본부 응용기술센터 김경희 최용훈 △산업표준본부 기계역학표준센터 김동현 △인증지원본부 인증심사센터 김정환 △경영지원본부 총무자산실 김태영 △디지털산업본부 이동통신기술센터 서준석 △경기지역본부 장재화 <br/><br/>⊙ 한국임업진흥원 ◇본부장 △임업소득 변재경 △목재산업 도금현 △산림정보 김재성 ◇팀장 △전략기획 강승모 △운영지원 오왕수 △소득지원 선주남 △조사관리 여진기 △산업지원 박병수 △시험평가 강인애 △산림인증 손석규 △임업경제 서수안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장 이승학 <br/><br/>⊙ 한국남동발전 <선임> △사외이사 김종성 <br/><br/>⊙ 아주경제 △정치부 대기자 강성주 <br/><br/>⊙ 가천대 △특임부총장 박승철 △평생교육원장 김용욱 △진단치료제연구센터장 이도 다츠오 △에너지나노소재〃 최형욱 △아랍문화연구소설립추진위원장 김동억 △발전기금본부장 이인봉 <br/><br/>⊙ 중원대 ◇처장 △기획정보 겸 인성교육원장 조용태 △학생역량개발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조민호 △대외협력 겸 홍보실장 김성호 △대학원장 한형서 ◇대학장 △인문사회 이세우 △이공 안정좌 △의료보건 장지홍 △항공 이호일 △학술정보원장 윤영걸 ◇센터장 △국제교류 겸 한국어교육 전춘련 △이주다문화통합연구 김철수 ◇교육원장 △비행 정원길 △영어 박찬규 △평생 이태수 △생활관장 김진 박금숙 △스포츠단장 김은정 <br/><br/>⊙ 서정대 △부총장 정훈 ◇처장 △기획 조남재 △교무 한상길 △연구 신덕상 △학생복지 겸 지역발전연구소장 염일렬 △산학협력단장 강용현 △평생교육원장 위상배 △전산소장 양경승 △자원봉사단 및 다문화연구〃 조경자 △도서관장 현영렬 △신문방송 주간 송기영 ◇학부장 △호텔조리과 정수근 △뷰티아트과 현경화 △유아교육과 서의정 △아동청소년보육과 김예림 △사회복지행정과 이종모 △자동차과 정장만　<br/><br/>⊙ 고려대 <인사> ◇부처장 △총무처 겸 인력개발팀장 이석형 ◇부장 △미래전략실 한재호 △총무 겸 병무행정팀장 겸 상조회장 송인식 △정보대학학사지원 겸 정보통신대학·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장 이상경 △법과대학·법무대학원학사지원 겸 법학전문대학원학사지원 유원종 △국제교류팀장 조금생 △예산〃 윤택상 　<br/><br/>⊙ 계명대 동산의료원 ◇센터장 △응급의료 황재석 △진료협력 배기철 △암 겸 연구처장 조치흠 △교육수련부장 조용원 △심사실장 정우진 △응급〃 직무대리 주명돈 ◇연구소장 △의과학 서성일 △암 백원기 △간호과학 이경희 △뇌 김희철 △통증 조철현 △대외협력팀장 이성재 △건강증진〃 강한표　<br/><br/>⊙ 무학 <승진> △부사장 이수능 △전무 홍순환 이종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49.txt

제목: 흙 살리기로 기후변화 재앙에 맞선다  
날짜: 20150304  
기자: 김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4100000112  
본문: 올해는 유엔이 정한 ‘흙의 해’다. 유엔은 2년 전 매년 12월5일을 ‘흙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이 기념일을 지정한 대상은 난민·과부·항해자 등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서부터 암·에이즈·금연 등 건강 문제, 언론자유, 빈곤퇴치, 우편, 통계에 이르기까지 100가지가 넘는다. 1년에 하루만이라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지구 환경과 관련해선 물, 바다, 오존층 보호,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등이 이미 20여년 전 자신의 날을 헌정받았다. 뒤늦은 ‘흙의 날’ 지정은 흙에 대한 인류의 무관심을 방증하는 셈이다.<br/>　흙은 때로 더러운 오염물질 취급까지 받지만 지구 생태계에 공기나 물 못지않게 중요하다. 산소를 만드는 식물은 흙이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고 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인간이 먹는 식량의 95%가 직간접적으로 토양에 의존한다고 평가한다. 흙은 생태계에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빗물을 머금어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걸러 깨끗한 수자원을 보충해주며, 폐기물을 받아들여 처리하는 구실을 한다.<br/>　이처럼 지구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흙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식량농업기구가 지난달 펴낸 ‘흙의 해’ 홍보 자료를 보면, 지구 육지 3분의 1가량에서 토양의 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과도한 개발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유실, 양분 결핍, 산성화, 토양에 염분이 누적되는 염류화,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이 토양질 악화의 주범이다. 공기나 물과 달리 흙은 상태가 나빠져도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 유엔이 ‘흙의 날’과 ‘흙의 해’를 지정해 흙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br/>　흙은 풍화 작용에 의해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생성 속도가 느려 사실상 유한한 자원이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표토는 더욱 그렇다. 지표면에서 20~30㎝ 깊이까지의 표토는 유기물과 미생물이 풍부해 지구 생태계 유지와 물질 순환에 핵심적 구실을 하는 흙이다.<br/>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장용선 연구관은 “몬순기후에서 암석이 풍화해 1㎝의 토양이 형성되는 데 200년 이상, 이 토양이 식물 생육에 알맞은 비옥한 표토로 바뀌기까지 100~125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농경지 1㎝는 최소 300년 이상의 역사가 담긴 그릇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지금처럼 흙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0억명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인류의 식량 확보도 위험하게 된다는 게 식량농업기구의 경고다. 흙은 지구촌의 화두가 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수분의 흡수와 방출을 통해 직접 기후를 조절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만드는 탄소 순환에도 깊이 간여하고 있어서다.<br/>　지구의 흙 속에 함유돼 있는 탄소량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량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해마다 세계 화석연료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9.1Pg(페타그램·1000조그램)의 7~9배인 60~80Pg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고, 그 자리를 식물 잔여물 형태로 흙 속에 흡수되는 탄소가 보충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기물이 풍부한 표토의 유실을 막고 표토 속의 탄소 함유량을 높이는 일은, 토양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는 흡수원으로 바꾸는 일이 된다.<br/>　영국 옥스퍼드대의 ‘스미스 기업과 환경 스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농경지 흙 속의 유기탄소 함량을 증가시키는 토양 개량을 통해서만 2050년까지 지구 대기에서 해마다 이산화탄소 1.4~3.9Gt(기가톤·10억톤)을 추가로 제거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0.18~0.50ppm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2020년부터 2100년까지 제거 가능한 이산화탄소량은 토양 속 탄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시나리오에서도 104Gt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인류가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에서 억제하려고 할 경우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 900Gt의 10% 이상을 제거하며 토양의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br/>　우리나라는 국토의 73%가 경사지에 분포해 여름철 집중 강우에 따른 토양 유실에 취약하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국토에서 해마다 5200만t의 흙이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양 유실은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리라 예상된다. 장 연구관은 “우리나라 토양은 오래도록 몬순기후와 평형을 유지했으나 앞으로 기온 상승, 폭염일수 증가, 폭우의 빈도와 강도 증가 등으로 침식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br/>　우리나라 토양은 양분 함량 면에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과도한 비료 사용으로 영양분이 너무 많은 데 따른 부작용이다. 농경지에 과도하게 누적된 질소와 같은 영양분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의 발생원이 된다. 농촌진흥청이 1999년부터 4년 간격으로 해온 농경지 양분 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밭 토양과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에서 유기물 함량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한 토양 비율은 줄고 있으나 적정 수준보다 과다한 토양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덕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은 “<span class='quot0'>농지에 영양분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다해도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0'>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비만’의 문제가 생긴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우리나라에서 흙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보전을 위한 노력은 정부에 앞서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국회에는 3월3일을 흙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고, ‘2015 세계 흙의 해’를 맞아 범정부 차원의 흙 살리기 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0.txt

제목: ‘삼성 입사 좋아하던 내 딸도, 유미처럼 떠났습니다’  
날짜: 2015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410016482168  
본문: “<span class='quot0'>안녕하세요, 조은주 엄마 김경희입니다.</span>”<br/><br/>고 황유미씨의 8주기를 맞아 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열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가한 김씨는 “<span class='quot1'>여기서 딸 얘기를 하려니까 마음에 못을 박는 것 같네요</span>”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span class='quot0'>1992년생인 제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좋아했는데 만 3년도 안 돼 애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span>”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br/><br/>김씨의 딸 고 조은주씨는 2010년 7월 당시 삼성전자 충남 탕정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입사해 엘씨디 텔레비전 불량 검사를 맡았다. “몸이 자꾸 아프다”던 조씨는 2013년 9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골수이식을 기다리며 1년 5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2월10일 만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8년 전(2007년 3월6일)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도 그때 겨우 22살이었다. <br/><br/>김씨는 딸의 산업재해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는 “직업병이라고 산재 처리 안 되냐고 했더니 회사가 ‘몇 천명이 되는 사원이 있는데 다 이렇게 병이 생겨야지’라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없고 그 전에 병원 간 적도 없어 직업병이라고 확신해요”고 말했다. <br/><br/>엘씨디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는 2009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엘씨디 제조공장에서 일한 한혜경씨가 뇌종양에 걸려 산재 신청을 한 일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 뒤 지금까지 삼성엘씨디 노동자 31명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에 직업병을 제보했고, 이 가운데 6명이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는 없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2'>삼성 엘씨디 공장 노동자들이 잇따라 병에 걸리고 숨지는데도 유해 요인이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반도체 공장과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조 공정이 비슷한 엘씨디 공장도 유해성 조사가 필요하다</span>”고 짚었다. 삼성 쪽은 이와 관련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한겨레>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br/><br/>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1.txt

제목: 심현영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 별세  
날짜: 2015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3100000011  
본문: 심현영(사진) 전 현대건설 사장이 2일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6.<br/>　고인은 중앙대 상학과를 졸업한 뒤 1963년 현대건설 공채 1기로 들어가 ‘정주영 왕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평생 건설·철강맨으로 살았다. 현대중공업 전무, 한라건설 부사장, 인천제철 대표이사 부사장,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동양강철 명예회장 등을 지냈다. <br/>　유족으로는 부인 김복례씨와 아들 민수(천원샘씨앤알 전무)·건수(현대해상화재 과장)씨, 딸 은정씨가 있다.<br/>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5일 오전 7시 예정이다. (02)3010-2230. 연합뉴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2.txt

제목: 흙 살리기로 기후변화 재앙에 맞선다  
날짜: 2015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30310016463615  
본문: 올해는 유엔이 정한 ‘흙의 해’다. 유엔은 2년 전 매년 12월5일을 ‘흙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이 기념일을 지정한 대상은 난민·과부·항해자 등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서부터 암·에이즈·금연 등 건강 문제, 언론자유, 빈곤퇴치, 우편, 통계에 이르기까지 100가지가 넘는다. 1년에 하루만이라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지구 환경과 관련해선 물, 바다, 오존층 보호,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등이 이미 20여년 전 자신의 날을 헌정받았다. 뒤늦은 ‘흙의 날’ 지정은 흙에 대한 인류의 무관심을 방증하는 셈이다.<br/><br/> 흙은 때로 더러운 오염물질 취급까지 받지만 지구 생태계에 공기나 물 못지않게 중요하다. 산소를 만드는 식물은 흙이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고 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인간이 먹는 식량의 95%가 직간접적으로 토양에 의존한다고 평가한다. 흙은 생태계에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빗물을 머금어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걸러 깨끗한 수자원을 보충해주며, 폐기물을 받아들여 처리하는 구실을 한다.<br/><br/> 이처럼 지구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흙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식량농업기구가 지난달 펴낸 ‘흙의 해’ 홍보 자료를 보면, 지구 육지 3분의 1가량에서 토양의 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과도한 개발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유실, 양분 결핍, 산성화, 토양에 염분이 누적되는 염류화,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이 토양질 악화의 주범이다. 공기나 물과 달리 흙은 상태가 나빠져도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 유엔이 ‘흙의 날’과 ‘흙의 해’를 지정해 흙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br/><br/><br/><br/>공기·물 못잖게 중요한 흙의 가치 <br/>국제사회 무관심 끝 뒤늦은 조명 <br/>지구 육지 3분의1 토질 계속 악화 <br/>이대로는 미래 식량 확보도 위험 <br/>토양유실 막고 비옥하게 가꾸면 <br/>생산성 증대에 온실가스 감축까지 <br/><br/><br/><br/> 흙은 풍화 작용에 의해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생성 속도가 느려 사실상 유한한 자원이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표토는 더욱 그렇다. 지표면에서 20~30㎝ 깊이까지의 표토는 유기물과 미생물이 풍부해 지구 생태계 유지와 물질 순환에 핵심적 구실을 하는 흙이다.<br/><br/>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장용선 연구관은 “몬순기후에서 암석이 풍화해 1㎝의 토양이 형성되는 데 200년 이상, 이 토양이 식물 생육에 알맞은 비옥한 표토로 바뀌기까지 100~125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농경지 1㎝는 최소 300년 이상의 역사가 담긴 그릇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 지금처럼 흙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0억명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인류의 식량 확보도 위험하게 된다는 게 식량농업기구의 경고다. 흙은 지구촌의 화두가 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수분의 흡수와 방출을 통해 직접 기후를 조절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만드는 탄소 순환에도 깊이 간여하고 있어서다.<br/><br/> 지구의 흙 속에 함유돼 있는 탄소량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량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해마다 세계 화석연료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9.1Pg(페타그램·1000조그램)의 7~9배인 60~80Pg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고, 그 자리를 식물 잔여물 형태로 흙 속에 흡수되는 탄소가 보충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기물이 풍부한 표토의 유실을 막고 표토 속의 탄소 함유량을 높이는 일은, 토양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는 흡수원으로 바꾸는 일이 된다.<br/><br/> 영국 옥스퍼드대의 ‘스미스 기업과 환경 스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농경지 흙 속의 유기탄소 함량을 증가시키는 토양 개량을 통해서만 2050년까지 지구 대기에서 해마다 이산화탄소 1.4~3.9Gt(기가톤·10억톤)을 추가로 제거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0.18~0.50ppm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2020년부터 2100년까지 제거 가능한 이산화탄소량은 토양 속 탄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시나리오에서도 104Gt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인류가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에서 억제하려고 할 경우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 900Gt의 10% 이상을 제거하며 토양의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br/><br/> 우리나라는 국토의 73%가 경사지에 분포해 여름철 집중 강우에 따른 토양 유실에 취약하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국토에서 해마다 5200만t의 흙이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양 유실은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리라 예상된다. 장 연구관은 “우리나라 토양은 오래도록 몬순기후와 평형을 유지했으나 앞으로 기온 상승, 폭염일수 증가, 폭우의 빈도와 강도 증가 등으로 침식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우리나라 토양은 양분 함량 면에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과도한 비료 사용으로 영양분이 너무 많은 데 따른 부작용이다. 농경지에 과도하게 누적된 질소와 같은 영양분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의 발생원이 된다. 농촌진흥청이 1999년부터 4년 간격으로 해온 농경지 양분 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밭 토양과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에서 유기물 함량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한 토양 비율은 줄고 있으나 적정 수준보다 과다한 토양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덕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은 “<span class='quot0'>농지에 영양분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다해도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0'>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비만’의 문제가 생긴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우리나라에서 흙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보전을 위한 노력은 정부에 앞서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국회에는 3월3일을 흙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고, ‘2015 세계 흙의 해’를 맞아 범정부 차원의 흙 살리기 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br/><b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3.txt

제목: 호스피스도 건보 적용…환자부담<5인실 이용때> 하루 1만5000원  
날짜: 20150226  
기자: 최성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6100000056  
본문: 오는 7월부터 주로 말기암 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 등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정부가 건보 재정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뜻이다. ‘호스피스’란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증·증상 완화, 삶의 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가리킨다.<br/>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토론회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안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련된 호스피스 건보 수가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br/>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일반 의료서비스의 진료비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매겨진다. 일반 병원은 개별 의료서비스마다 각각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행위별 수가제)인데, 호스피스 진료비는 ‘일당 정액제’를 기본으로 한다. 노인요양병원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일당 정액제는 하루치 진료비를 미리 정한 뒤 그 안에서 환자한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복지부는 정액제로만 하면 ‘과소진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비싼 통증 관리나 상담 등에는 별도의 진료비를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br/>　7월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의 5인실을 이용한다면, 하루에 1만5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간병까지 받으면 이보다 4000원 많은 1만9000원을 내야 한다. 2011년 암으로 숨진 환자가 사망 1개월 전 일반병동에 머물며 낸 병원비가 하루 평균 10만원 안팎(비급여와 사적 간병비 포함)이고, 현재 호스피스 병동 이용료가 하루 15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이 지금의 20% 밑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br/>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호스피스 활성화가 이뤄지려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공급자가 적자는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런 문제는 다소 해소되리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 치매·말기암 환자 등의 호스피스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말기암 환자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한 이는 12.7%에 그친다. 이에 비해 64%가량은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 중 숨졌다. 그만큼 한국인의 죽음의 질은 낮다. <br/>　호스피스 지원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내놓은 것 자체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호스피스 활성화를 통해 ‘죽음의 질’을 높이려면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만이 아니라 가정 호스피스에도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복례 경북대 교수(간호학과)는 “<span class='quot1'>가장 편안한 집에서도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4.txt

제목: 2월 27일 동정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610016399890  
본문: ⊙ 곽영일 ‘팝스프리덤’ 디제이는 25일 고려대에서 응용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논문 주제는 ‘영화대사의 화행분석과 활용방안 연구’이다.<br/><br/>⊙ 인호진(가수·스윗소로우)씨는 27일 서초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매니저 김성현씨와 소속사 김인호 과장과 함께 감사장을 받는다. 세 사람은 19일 심야에 서초경찰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부부를 치고 달아나는 권아무개(28)씨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700여m를 추격한 끝에 권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br/><br/>⊙ 길환영 전 사장은 24일 백석대 부총장으로 임명됐다. <br/><br/>⊙ 김경호(가수)씨는 24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br/><b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4일 방위산업진흥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서 방위산업진흥회 제15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br/><br/>⊙ 전상용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25일 나노의학 학술지 <테라노스틱스>로부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상을 받았다. 2012년에 게재된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다기능성 나노입자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논문이다.<br/><br/>⊙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27일 캄보디아 프놈펜 호텔에서 ‘한·캄보디아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5.txt

제목: 암만큼 무서운 만성 콩팥병 조기진단이 중요  
날짜: 2015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5100000079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생명의 필터, 콩팥’ 편.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생명의 필터이다. 그러나 성인 7명 가운데 1명이 콩팥 질환을 앓고 있다. 만성 콩팥병 환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66%나 증가했다. 고혈압, 당뇨, 사구체신염이 만성 콩팥병을 불러일으키는 3대 주요 원인이다. 이 가운데 당뇨는 발병 원인의 50%를 차지한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 환자의 생존율은 암 환자보다도 낮다.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그럼에도 콩팥병은 평소 뚜렷한 증상이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적신호가 없는 건 아닌데 지속적인 거품요, 부종, 야간 다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콩팥이 보내는 경고로, 이를 무시하면 자칫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다행히 콩팥병은 간단한 혈액과 소변검사만으로 90%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 이어서 ‘착한 담배는 없다’ 꼭지에선,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을 짚었다. 전자담배를 피우고 내뱉는 연기를 ‘수증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알아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6.txt

제목: 호스피스도 건보 적용…환자 부담 하루 1만5000원  
날짜: 2015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510016388584  
본문: 오는 7월부터 주로 말기암 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 등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정부가 건보 재정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뜻이다. ‘호스피스’란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증·증상 완화, 삶의 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가리킨다.<br/><br/>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토론회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안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련된 호스피스 건보 수가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br/><br/>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일반 의료서비스의 진료비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매겨진다. 일반 병원은 개별 의료서비스마다 각각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행위별 수가제)인데, 호스피스 진료비는 ‘일당 정액제’를 기본으로 한다. 노인요양병원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일당 정액제는 하루치 진료비를 미리 정한 뒤 그 안에서 환자한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복지부는 정액제로만 하면 ‘과소진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비싼 통증 관리나 상담 등에는 별도의 진료비를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br/><br/> 7월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의 5인실을 이용한다면, 하루에 1만5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간병까지 받으면 이보다 4000원 많은 1만9000원을 내야 한다. 2011년 암으로 숨진 환자가 사망 1개월 전 일반병동에 머물며 낸 병원비가 하루 평균 10만원 안팎(비급여와 사적 간병비 포함)이고, 현재 호스피스 병동 이용료가 하루 15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이 지금의 20% 밑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br/><br/>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호스피스 활성화가 이뤄지려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공급자가 적자는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런 문제는 다소 해소되리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br/>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 치매·말기암 환자 등의 호스피스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말기암 환자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한 이는 12.7%에 그친다. 이에 비해 64%가량은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 중 숨졌다. 그만큼 한국인의 죽음의 질은 낮다. <br/><br/> 호스피스 지원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내놓은 것 자체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호스피스 활성화를 통해 ‘죽음의 질’을 높이려면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만이 아니라 가정 호스피스에도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복례 경북대 교수(간호학과)는 “<span class='quot1'>가장 편안한 집에서도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7.txt

제목: 3. 복지 교육 / “노인일자리 수당·연금 2배 준다더니…담뱃값만 2배” /비정규직 국민연금 100% 지원한다더니…‘잊혀진 공약’  
날짜: 20150225  
기자: 최성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5100000031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됐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으면 남은 3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관련기사 4·5면<br/>　김병국(78)씨가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열쇳말은 ‘지키지 않은 약속’이다. 차상위계층인 김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한테 기대가 컸다. 박 대통령의 노인 공약인 ‘노인일자리 수당 2배 인상’에 솔깃했다. 정부는 각 지역의 학교·병원·경로당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한테 1년에 최대 9개월간 월 20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은 2014년부터 그 수당을 최대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껏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소식이 없다. 김씨는 24일 “<span class='quot0'>박 대통령이 취임하면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자리 수당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담뱃값만 2배 가까이 올랐다</span>”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초연금이 10만원 올랐어도 담뱃값 인상분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br/>　‘지키지 않은 약속’은 박근혜 정부가 주요 성과로 꼽는 기초연금에도 해당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노인한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이를 현실화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선 공약과 사뭇 달랐다. 시행 과정에서 ‘모든 노인’은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월 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으로 각각 바뀌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 발생’도 문제로 불거졌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지급되는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사실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는 탓에,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급여가 기초연금만큼 깎인다. ‘(기초수급 노인한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br/>　이상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1'>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의 틀을 만든 것은 바람직했는데, 제도가 후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소득 상위 30%는 물론 134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자인 39만여명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span>”고 짚었다.<br/>　박 대통령의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복지공약 가운데 대선 이후 수정·폐기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에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을 100% 적용하겠다던 공약도 쪼그라들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8년이 돼도 80% 중반대에 머물 전망이다. 병원이 진료비로 100만원을 청구하면 이 가운데 80만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뜻이다. ‘임기 내 100% 보장’ 약속에 한참 못 미친다.<br/>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돈’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팀장은 “<span class='quot2'>건강보험 흑자가 13조원이나 쌓여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외에는 환자들한테 의미있게 다가올 보장성 확대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4대 중증질환 외의 다른 질환은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60%대 초반이다. <br/> ▶4면으로 이어짐<br/> ▶1면에서 이어짐<br/>건강보험 재정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건 병원비가 걱정돼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br/>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갈팡질팡 행보도 불신을 키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나 직장 은퇴자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손보겠다며 2013년 7월 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연말정산 파동 등이 이어지자 지난달 말 하루아침에 이를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층 45만명의 반발을 의식한 선택이다. 정부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결국 당정 협의를 거쳐 재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정책 혼선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br/>아예 ‘잊혀진 약속’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약이 그 하나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직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공약집을 보면, 그 대상은 한달 임금이 1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2013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로, 200여만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40% 수준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소득 노동자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25만원 이하 노동자한테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으나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됐지만, 정부는 이 공약을 실천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br/>　이 와중에 유독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사고 위험을 키우는 분야가 있다. ‘창조경제 활성화,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의 모토 아래 추진되는 의료 상업화다. 병원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해 6월부터 병원이 영리자법인(영리자회사)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단체와 야당 쪽이 병원의 영리 추구 행위를 법률(의료법)이 금지하는 만큼 위법하다고 반발하자, 정부는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해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br/>그러나 이마저도 꼼수를 부렸다.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기본 요건을 채우지 못한 두 곳의 의료법인에 지난해 12월 서둘러 ‘조건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복지부가 실적을 과시하려는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의 압력에 밀려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br/>　제주도 외국 영리병원 승인 추진은, 정부가 졸속으로 의료 상업화를 몰아붙이다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첫 외국 영리병원을 신청한 중국계 산얼병원을 승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산얼병원에 투자하는 모기업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속되는 등 투자자 자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언론 취재로 알려지자 결국 지난해 9월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최성진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8.txt

제목: 2월 25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410016377379  
본문: 암만큼 무서운 만성 콩팥병 조기진단이 중요<br/><br/>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생명의 필터, 콩팥’ 편.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생명의 필터이다. 그러나 성인 7명 가운데 1명이 콩팥 질환을 앓고 있다. 만성 콩팥병 환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66%나 증가했다. 고혈압, 당뇨, 사구체신염이 만성 콩팥병을 불러일으키는 3대 주요 원인이다. 이 가운데 당뇨는 발병 원인의 50%를 차지한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 환자의 생존율은 암 환자보다도 낮다.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그럼에도 콩팥병은 평소 뚜렷한 증상이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적신호가 없는 건 아닌데 지속적인 거품요, 부종, 야간 다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콩팥이 보내는 경고로, 이를 무시하면 자칫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다행히 콩팥병은 간단한 혈액과 소변검사만으로 90%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 이어서 ‘착한 담배는 없다’ 꼭지에선,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을 짚었다. 전자담배를 피우고 내뱉는 연기를 ‘수증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알아본다. <br/><br/><br/><br/>마술에 빠진 딸에게 아빠 “공부부터”<br/><br/>내 마음의 크레파스(에스비에스 오후 5시30분)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다큐로, 이번엔 ‘마술소녀 남경이의 특별한 소원’ 편. 소녀 마술사 김남경(13)양은 3년 전 마술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각종 마술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남경이는 요즘 빠른 손기술이 필요한 카드마술의 세계에 도전하고 있다. 남경이는 방학을 맞아 하루 5시간씩 맹연습을 하고 있는데, 마술사로서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아빠는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며 마술은 그저 취미로 끝내길 바란다. 과연 남경이의 특별한 소원은 마술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까. 26일 같은 시간에 2편을 방송한다.<br/><br/><br/><br/>기타콰르텟 ‘사랑하기 때문에’ 연주 <br/><br/>윤건의 더 콘서트(한국방송1 밤 11시40분) ‘사랑’을 주제로 연인들을 위한 달콤한 클래식 음악 선물을 준비했다.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12인의 현악 앙상블 ‘더 스트링스’를 결성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연주한다. 개성 넘치는 편곡으로 이름난 팝피아니스트 신지호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편곡한 피아노 독주곡 ‘블랙스완’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는 쇼팽의 ‘녹턴 20번’과 몬티의 ‘차르다시’를 연주하고,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셰에라자드 3악장 테마’를 선보인다. 남성 기타콰르텟 피에스타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등을 연주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59.txt

제목: “노인 일자리 수당·연금 2배 준다더니…담뱃값만 2배”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410016378869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됐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으면 남은 3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br/><br/> 김병국(78)씨가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열쇳말은 ‘지키지 않은 약속’이다. 차상위계층인 김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한테 기대가 컸다. 박 대통령의 노인 공약인 ‘노인일자리 수당 2배 인상’에 솔깃했다. 정부는 각 지역의 학교·병원·경로당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한테 1년에 최대 9개월간 월 20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은 2014년부터 그 수당을 최대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껏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소식이 없다. 김씨는 24일 “<span class='quot0'>박 대통령이 취임하면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자리 수당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담뱃값만 2배 가까이 올랐다</span>”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초연금이 10만원 올랐어도 담뱃값 인상분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br/><br/> ‘지키지 않은 약속’은 박근혜 정부가 주요 성과로 꼽는 기초연금에도 해당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노인한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이를 현실화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선 공약과 사뭇 달랐다. 시행 과정에서 ‘모든 노인’은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월 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으로 각각 바뀌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 발생’도 문제로 불거졌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지급되는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사실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는 탓에,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급여가 기초연금만큼 깎인다. ‘(기초수급 노인한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br/><br/> 이상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1'>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의 틀을 만든 것은 바람직했는데, 제도가 후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소득 상위 30%는 물론 134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자인 39만여명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span>”고 짚었다.<br/><br/> 박 대통령의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복지공약 가운데 대선 이후 수정·폐기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에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을 100% 적용하겠다던 공약도 쪼그라들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8년이 돼도 80% 중반대에 머물 전망이다. 병원이 진료비로 100만원을 청구하면 이 가운데 80만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뜻이다. ‘임기 내 100% 보장’ 약속에 한참 못 미친다.<br/><br/>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돈’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팀장은 “<span class='quot2'>건강보험 흑자가 13조원이나 쌓여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외에는 환자들한테 의미있게 다가올 보장성 확대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4대 중증질환 외의 다른 질환은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60%대 초반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건 병원비가 걱정돼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br/><br/>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갈팡질팡 행보도 불신을 키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나 직장 은퇴자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손보겠다며 2013년 7월 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연말정산 파동 등이 이어지자 지난달 말 하루아침에 이를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층 45만명의 반발을 의식한 선택이다. 정부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결국 당정 협의를 거쳐 재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정책 혼선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br/><br/>비정규직 국민연금 100% 지원한다더니…‘잊혀진 공약’<br/><br/>한달 임금 130만원 미만 200만명 <br/>‘고용보험 전액 국가부담’ 약속 외면 <br/>‘의료 상업화’는 졸속 밀어붙이다 <br/>부적격 중국계 병원 승인 망신도 <br/><br/> 아예 ‘잊혀진 약속’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약이 그 하나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직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공약집을 보면, 그 대상은 한달 임금이 1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2013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로, 200여만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40% 수준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소득 노동자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25만원 이하 노동자한테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으나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됐지만, 정부는 이 공약을 실천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br/><br/> 이 와중에 유독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사고 위험을 키우는 분야가 있다. ‘창조경제 활성화,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의 모토 아래 추진되는 의료 상업화다. 병원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해 6월부터 병원이 영리자법인(영리자회사)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단체와 야당 쪽이 병원의 영리 추구 행위를 법률(의료법)이 금지하는 만큼 위법하다고 반발하자, 정부는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해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꼼수를 부렸다.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기본 요건을 채우지 못한 두 곳의 의료법인에 지난해 12월 서둘러 ‘조건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복지부가 실적을 과시하려는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의 압력에 밀려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br/><br/> 제주도 외국 영리병원 승인 추진은, 정부가 졸속으로 의료 상업화를 몰아붙이다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첫 외국 영리병원을 신청한 중국계 산얼병원을 승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산얼병원에 투자하는 모기업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속되는 등 투자자 자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언론 취재로 알려지자 결국 지난해 9월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최성진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0.txt

제목: “남은 몇개월 어떻게 살지는 나한테 달려…최대한 생산적으로 살겠다” /죽음 앞둔 의학자가 쓴 ‘나의 인생’  
날짜: 20150223  
기자: 김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3100000044  
본문: “한달 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팔팔하다고까지 느꼈다. 여든한살에 나는 여전히 날마다 1마일(1.6㎞)씩 수영을 한다. 하지만 내 운은 다했다. 몇주 전 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을 알았다. 9년 전 안구 흑색종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았다. 방사선 치료 등을 했지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이 암이 전이될 확률은 무척 낮다. 내가 바로 그 불행한 2%에 속했다.”<br/>　평생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나이가 든 의사가 자신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br/>　‘의학계의 문인’으로 유명한 미국의 신경학 전문의 올리버 색스(사진) 박사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앞둔 심경을 담담하게 밝힌 글을 (NYT)에 지난 19일(현지시각) 기고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br/>　최초 암 진단 이후 9년 동안의 시간에 감사한다는 색스 박사는 “이제 죽음과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간의 3분의 1을 이미 차지한 암세포의 확산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나에게 남은 몇 개월을 어떻게 살지는 나한테 달렸다. 최대한 풍요롭고 깊이 있게 생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다.<br/>　인생의 끝자락에서 색스 박사는 평소 좋아했던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1711~1776)을 떠올렸다. 65살에 죽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흄은 1776년 4월의 어느 날, 하루 만에 짧은 자서전을 썼다. 제목은 ‘나의 인생’(My Own Life). 색스 박사의 기고문도 같은 제목이다. 그리고 그는 “<span class='quot0'>지금 이 순간보다 삶에서 더 초연해지기는 어렵다</span>”는 흄의 말을 인용하며, 지난 며칠간 인생을 한발 떨어져 조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삶의 끝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반대로 나는 살아 있음을 강렬하게 느낀다. 그 시간에 우정을 깊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하고, 더 많이 쓰고, 힘이 닿는다면 여행도 하고, 이해와 통찰력을 한 단계 높이게 되기를 희망한다.”<br/>　색스 박사는 “<span class='quot0'>나와 내 일, 친구들에게 집중하겠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을 것이며 정치와 지구 온난화 논쟁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span>”고 덧붙였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중동 문제와 지구 온난화, 불평등의 심화를 걱정하지만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후세들의 문제라고 한걸음 물러섰다.<br/>　색스 박사는 죽음이 두렵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썼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지각력 있는 존재였으며, 생각하는 동물이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특혜와 모험이었다”고 글을 맺었다.<br/>　색스 박사는 다양한 신경장애를 앓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 의 저자로 널리 알려졌다. 임상 사례도 소설처럼 엮어내는 이 신경학 전문의를 두고 는 “의학계의 계관시인”이라고 불렀다. 또 파킨슨병 환자 치료기를 담은 은 로버트 드니로와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에서는 자신이 병상에서 경험한 환자의 병원 생활을 신랄하게 담았으며, 이밖에도 여러 권의 책을 썼다.<br/>　영국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색스 박사는 옥스퍼드대학을 나와 미국 컬럼비아대학 의료센터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뉴욕대학 의과대학원에서 신경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br/>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1.txt

제목: 미국 홍역 확산은 엄마들 때문?  
날짜: 20150223  
기자: 김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3100000022  
본문: 2000년, 미국은 홍역의 종말을 선언했다. 1963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해마다 300만~400만명을 감염시켜 그중 400~500명의 목숨을 앗아가던 이 전염병이 퇴치됐다는 소식은 낭보였다. 미국은 더이상 홍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홍역은 제3세계 가난한 나라만의 질병인 양 미국인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br/>　<br/>　#지난 10일 7살짜리 소년이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육구 관계자들 앞에 섰다. “3년 반 동안 나는 나쁜 병균을 쫓아내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암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연설을 하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선 소년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소년은 “<span class='quot0'>나처럼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모두가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그것이 실현될 때 “<span class='quot0'>우리는 곧 홍역도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span>”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소년은 덧붙였다. “내 이름은 레트입니다. 그리고 내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br/>　3년 반에 걸친 화학요법 치료를 견딘 소년은 1년여 전에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오랜 항암치료로 홍역 등 다른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는 무너졌다. 그는 아직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다. 소년과 그의 가족들이 교육 관계자들에게 ‘개인적 소신에 의한 접종 면제권’을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강제하는 새 법안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까닭이다. 레트는 전체 유치원생의 84%만 예방접종을 받은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마린 카운티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소신에 의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20개 주 가운데 한곳이다.<br/> 미국의 새해는 홍역 집단감염과 확산 소식으로 떠들썩하게 시작했다. 한달 새 100여명의 발병자가 보고됐다. 진원지는 ‘어린이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놀이공원 디즈니랜드였다. 이곳에서 첫 홍역 감염 사례가 발견된 지 두달이 채 안 된 15일 현재 미국 17개 주에서 120명 이상이 홍역에 감염됐다고 미 보건당국은 집계했다.<br/>　‘국가 공인 퇴치 선고’를 받았던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시 미국인들의 삶 한복판으로 귀환했을까?<br/>　실마리는 지금 미국을 달구고 있는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수적인 의무인가,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 홍역 백신을 포함해 특정 백신을 맞으면 아이가 자폐증에 걸릴 수 있다고 믿는 부모들의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br/> #생후 4개월 된 모비어스 루프는 홍역 백신을 맞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렇다고 홍역이 그를 피해가지는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사는 크리스토퍼와 에어리얼 루프 부부의 악몽은 지난 1월31일 시작됐다. 루프 가족이 디즈니랜드에 다녀온 지 13일 만의 일이었다. 간호사인 엄마 에어리얼은 아이가 부쩍 자주 눈을 비비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곧 아이는 열이 펄펄 끓었다. 호흡 장애를 보이고 급기야 울긋불긋 발진이 돋았다. 병원에서 홍역 감염 판정을 받았다. “정말 끔찍했어요. 계속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아이가 평생 감내해야 하는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백신을 안 맞히는 부모들을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라고 아빠 크리스토퍼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모비어스는 다행히 큰 탈 없이 홍역을 이겨냈다. 하지만 모비어스가 감염된지 모른 채 돌아다닌 식당들과 상점들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을지 몰라 루프 부부는 가시방석이다.<br/>　홍역은 전염성이 강하기로 악명 높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감염될 수 있다. 홍역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면역이 없는 사람의 90%가 옮을 수 있다. 감염자가 떠난 공간에서도 병에 걸릴 수 있다. 보균자가 재채기·기침을 할 때 나온 홍역 바이러스는 공기 또는 물체의 표면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살아남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홍역에 감염되면 고열과 콧물이 나고 목이 부으며 눈이 충혈되고 온몸에 붉은 발진이 돋는다. 홍역 백신은 12~15개월 영아 때 한 차례, 4~6살에 한 차례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레트처럼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암 환자들, 백신 알레르기 환자들 등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에서 홍역에 감염된 1000명의 아동 가운데 1~3명이 숨진다고 집계했다. 합병증으로는 폐렴과 뇌손상 그리고 청력 상실이 있는데, 특히 백신을 맞지 못하는 영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면역 시스템을 갖추는 ‘집단 면역’(herd immunity)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피치 못할 이유로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까지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시디시는 92~94%의 집단면역이 유지돼야 이번 사태와 같은 집단 발병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홍역 예방접종률은 91%를 기록하고 있다.<br/> 왜 부모들은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것일까?<br/> 이야기는 1998년 영국에서 발표된 한편의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드루 웨이크필드 박사는 홍역·볼거리·풍진 혼합 백신(MMR)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적 의학학술지 에 발표했다. 그는 엠엠아르 백신을 맞은 환자들에게서 장내 이상을 동반하는 자폐증이 발견됐다며, 이 혼합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졌고, 소아 백신 접종률은 떨어졌다. 이후 엠엠아르 백신과 자폐증 관련성에 대한 수십건의 연구가 이어졌지만 과학자들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br/>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2008년 영국 일반의학위원회(GMC)는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2년 반의 조사 끝에 위원회는 웨이크필드의 의사 면허를 박탈했다. 도 그의 논문을 취소했다. 영국 언론은 웨이크필드가 논문에 게재한 환자 12명의 발병 시기와 엠엠아르 백신 접종 시기까지도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의학학술지 (BMJ)는 웨이크필드의 논문을 “사기”라고 규정했다. 그래도 웨이크필드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웨이크필드가 제약업계와 결탁한 정부·과학계로부터 탄압받는 양심적 지식인이라며 그를 떠받들었다.<br/>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또다른 백신 논란이 일었다. 몇가지 종류의 백신에 포함된 티메로살이라는 성분이 소아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메틸머큐리와 다른 성분이지만, 미국은 ‘수은(머큐리)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며 발칵 뒤집혔다. 미 소아학회는 1999년 티메로살과 소아 자폐증은 관련이 없으며 무해하다면서도 소아용 백신에 티메로살을 첨가하지 않도록 요구했다.<br/>　이 해묵은 논란에 할리우드 여배우 제니 매카시의 입담도 한몫했다. 2007년 자신의 아들이 엠엠아르 백신을 맞은 뒤 자폐증에 걸렸다고 공개한 뒤 그는 예방접종 거부 운동의 ‘아이콘’이 됐다. 그의 주장은 전염병처럼 전파됐다. 미 공중보건국에서 발행하는 공중보건리포트를 보면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자폐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접종을 미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국 내 소아 자폐증이 급증하고 있어, 부모들 사이에서 엠엠아르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굳어졌다고 분석했다. 시디시는 2000년 이후 2년마다 자폐증 조사를 시행하는데, 지난해 8살 어린이 68명 가운데 1명꼴로 자폐증을 앓는다고 발표했다.<br/>　실제 자폐증 등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는 크다.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에 사는 켈리 맥메니먼도 같은 이유로 8살짜리 아들에게 단 한 차례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가 사는 지역은 미국에서 소아 예방접종률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다. 맥메니먼은 과의 인터뷰에서 “내 선택이 다른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고 믿지 않는다”며 “아들이 다른 아이에게 병균을 옮길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리건주에 사는 4자녀의 엄마 제니퍼 마걸리스와 두 아이를 키운 린 바턴도 같은 입장이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내 아이의 안전을 희생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br/>　앞서 홍역 감염을 두려워하는 레트·모비어스 가족도, 홍역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맥메니먼도 모두 북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에서는 특정 지역 공동체 단위로 예방접종률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언론은 “부자일수록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위험한 새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부모들의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부자 동네’에서 아동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의 웨스트사이드 월도프스쿨에서는 권장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은 유치원생은 21%뿐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0개 학교에서 예방접종 면제 비율이 8% 이상 됐다. 모두 평균 가구 연수입 9만4500달러(약 1억400만원)에 달하는 지역 학교들로 미국 중간값보다 60% 높다고 가 지난해 보도했다.<br/>　홍역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도 가세했다. 리버테리언(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극단적 자유방임주의자)으로 유명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랜드 폴은 “<span class='quot1'>멀쩡히 걷고 말하던 아이들이 백신을 맞은 뒤 정신 장애를 겪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서 자녀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미뤘다</span>”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폴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직접 예방접종을 받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꼬리를 내렸다. 같은 당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span class='quot2'>예방접종 여부는 가족들이 선택할 문제</span>”라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br/>　미국을 뒤흔든 홍역 사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이번 홍역 사태는 필리핀을 방문했던 한 여성이 디즈니랜드에 가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미국 내 홍역 발생이 644건으로 급증한 것도 필리핀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홍역 감염자가 5만명 이상으로 보고됐는데, 2013년 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입어 4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필리핀에 이어 중국도 5만건 이상의 홍역 감염자가 확인됐고, 올 1월에만 2700건이 확인됐다고 가 전했다.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는 10만건이 넘는다. 국경을 넘나드는 홍역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까닭이다. <br/>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2.txt

제목: 죽음의 문턱에 선 의학자…“이것이 삶의 끝은 아니다”  
날짜: 2015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210016354891  
본문: “한달 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팔팔하다고까지 느꼈다. 여든한살에 나는 여전히 날마다 1마일(1.6㎞)씩 수영을 한다. 하지만 내 운은 다했다. 몇주 전 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을 알았다. 9년 전 안구 흑색종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았다. 방사선 치료 등을 했지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이 암이 전이될 확률은 무척 낮다. 내가 바로 그 불행한 2%에 속했다.”<br/><br/> 평생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나이가 든 의사가 자신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br/><br/> ‘의학계의 문인’으로 유명한 미국의 신경학 전문의 올리버 색스 박사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앞둔 심경을 담담하게 밝힌 글을 <뉴욕 타임스>(NYT)에 지난 19일(현지시각) 기고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br/><br/> 최초 암 진단 이후 9년 동안의 시간에 감사한다는 색스 박사는 “이제 죽음과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간의 3분의 1을 이미 차지한 암세포의 확산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나에게 남은 몇 개월을 어떻게 살지는 나한테 달렸다. 최대한 풍요롭고 깊이 있게 생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다.<br/><br/> 인생의 끝자락에서 색스 박사는 평소 좋아했던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1711~1776)을 떠올렸다. 65살에 죽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흄은 1776년 4월의 어느 날, 하루 만에 짧은 자서전을 썼다. 제목은 ‘나의 인생’(My Own Life). 색스 박사의 기고문도 같은 제목이다. 그리고 그는 “<span class='quot0'>지금 이 순간보다 삶에서 더 초연해지기는 어렵다</span>”는 흄의 말을 인용하며, 지난 며칠간 인생을 한발 떨어져 조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삶의 끝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반대로 나는 살아 있음을 강렬하게 느낀다. 그 시간에 우정을 깊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하고, 더 많이 쓰고, 힘이 닿는다면 여행도 하고, 이해와 통찰력을 한 단계 높이게 되기를 희망한다.”<br/><br/> 색스 박사는 “<span class='quot0'>나와 내 일, 친구들에게 집중하겠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을 것이며 정치와 지구 온난화 논쟁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span>”고 덧붙였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중동 문제와 지구 온난화, 불평등의 심화를 걱정하지만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후세들의 문제라고 한걸음 물러섰다.<br/><br/> 색스 박사는 죽음이 두렵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썼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지각력 있는 존재였으며, 생각하는 동물이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특혜와 모험이었다”고 글을 맺었다.<br/><br/> 색스 박사는 다양한 신경장애를 앓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저자로 널리 알려졌다. 임상 사례도 소설처럼 엮어내는 이 신경학 전문의를 두고 <뉴욕 타임스>는 “의학계의 계관시인”이라고 불렀다. 또 파킨슨병 환자 치료기를 담은 <소생>은 로버트 드니로와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웠다>에서는 자신이 병상에서 경험한 환자의 병원 생활을 신랄하게 담았으며, 이밖에도 여러 권의 책을 썼다.<br/><br/> 영국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색스 박사는 옥스퍼드대학을 나와 미국 컬럼비아대학 의료센터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뉴욕대학 의과대학원에서 신경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br/><br/>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3.txt

제목: 미국 홍역 확산은 엄마들 때문?  
날짜: 2015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2210016355143  
본문: 2000년, 미국은 홍역의 종말을 선언했다. 1963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해마다 300만~400만명을 감염시켜 그중 400~500명의 목숨을 앗아가던 이 전염병이 퇴치됐다는 소식은 낭보였다. 미국은 더이상 홍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홍역은 제3세계 가난한 나라만의 질병인 양 미국인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br/><br/><br/><br/>15년 전 ‘퇴치선고’ 받았던 홍역 <br/>필리핀 다녀온 여행자가 들여와 <br/>디즈니랜드 중심으로 전국으로<br/><br/>그 배경에는 엄마들 백신기피증 <br/>“백신 맞으면 자폐증 걸린다” <br/>불확실한 논문에 괴담까지 가세 <br/>부자일수록 주사 안 맞히는 흐름<br/><br/>접종률 뚝 떨어지며 엉뚱한 희생 <br/>면역 없는 신생아·소아암환자 <br/>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위험 노출<br/><br/> <br/><br/> #지난 10일 7살짜리 소년이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육구 관계자들 앞에 섰다. “3년 반 동안 나는 나쁜 병균을 쫓아내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암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연설을 하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선 소년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소년은 “<span class='quot0'>나처럼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모두가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그것이 실현될 때 “<span class='quot0'>우리는 곧 홍역도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span>”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소년은 덧붙였다. “내 이름은 레트입니다. 그리고 내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br/><br/> 3년 반에 걸친 화학요법 치료를 견딘 소년은 1년여 전에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오랜 항암치료로 홍역 등 다른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는 무너졌다. 그는 아직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다. 소년과 그의 가족들이 교육 관계자들에게 ‘개인적 소신에 의한 접종 면제권’을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강제하는 새 법안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까닭이다. 레트는 전체 유치원생의 84%만 예방접종을 받은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마린 카운티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소신에 의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20개 주 가운데 한곳이다.<br/><br/> 미국의 새해는 홍역 집단감염과 확산 소식으로 떠들썩하게 시작했다. 한달 새 100여명의 발병자가 보고됐다. 진원지는 ‘어린이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놀이공원 디즈니랜드였다. 이곳에서 첫 홍역 감염 사례가 발견된 지 두달이 채 안 된 15일 현재 미국 17개 주에서 120명 이상이 홍역에 감염됐다고 미 보건당국은 집계했다.<br/><br/> ‘국가 공인 퇴치 선고’를 받았던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시 미국인들의 삶 한복판으로 귀환했을까?<br/><br/> 실마리는 지금 미국을 달구고 있는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수적인 의무인가,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 홍역 백신을 포함해 특정 백신을 맞으면 아이가 자폐증에 걸릴 수 있다고 믿는 부모들의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br/><br/> #생후 4개월 된 모비어스 루프는 홍역 백신을 맞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렇다고 홍역이 그를 피해가지는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사는 크리스토퍼와 에어리얼 루프 부부의 악몽은 지난 1월31일 시작됐다. 루프 가족이 디즈니랜드에 다녀온 지 13일 만의 일이었다. 간호사인 엄마 에어리얼은 아이가 부쩍 자주 눈을 비비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곧 아이는 열이 펄펄 끓었다. 호흡 장애를 보이고 급기야 울긋불긋 발진이 돋았다. 병원에서 홍역 감염 판정을 받았다. “정말 끔찍했어요. 계속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아이가 평생 감내해야 하는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백신을 안 맞히는 부모들을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라고 아빠 크리스토퍼는 <시엔엔>(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모비어스는 다행히 큰 탈 없이 홍역을 이겨냈다. 하지만 모비어스가 감염된지 모른 채 돌아다닌 식당들과 상점들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을지 몰라 루프 부부는 가시방석이다.<br/><br/> 홍역은 전염성이 강하기로 악명 높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감염될 수 있다. 홍역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면역이 없는 사람의 90%가 옮을 수 있다. 감염자가 떠난 공간에서도 병에 걸릴 수 있다. 보균자가 재채기·기침을 할 때 나온 홍역 바이러스는 공기 또는 물체의 표면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살아남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홍역에 감염되면 고열과 콧물이 나고 목이 부으며 눈이 충혈되고 온몸에 붉은 발진이 돋는다. 홍역 백신은 12~15개월 영아 때 한 차례, 4~6살에 한 차례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레트처럼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암 환자들, 백신 알레르기 환자들 등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에서 홍역에 감염된 1000명의 아동 가운데 1~3명이 숨진다고 집계했다. 합병증으로는 폐렴과 뇌손상 그리고 청력 상실이 있는데, 특히 백신을 맞지 못하는 영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면역 시스템을 갖추는 ‘집단 면역’(herd immunity)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피치 못할 이유로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까지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시디시는 92~94%의 집단면역이 유지돼야 이번 사태와 같은 집단 발병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홍역 예방접종률은 91%를 기록하고 있다.<br/><br/> 왜 부모들은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것일까?<br/><br/> 이야기는 1998년 영국에서 발표된 한편의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드루 웨이크필드 박사는 홍역·볼거리·풍진 혼합 백신(MMR)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적 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했다. 그는 엠엠아르 백신을 맞은 환자들에게서 장내 이상을 동반하는 자폐증이 발견됐다며, 이 혼합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졌고, 소아 백신 접종률은 떨어졌다. 이후 엠엠아르 백신과 자폐증 관련성에 대한 수십건의 연구가 이어졌지만 과학자들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br/><br/>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2008년 영국 일반의학위원회(GMC)는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2년 반의 조사 끝에 위원회는 웨이크필드의 의사 면허를 박탈했다. <랜싯>도 그의 논문을 취소했다. 영국 언론은 웨이크필드가 논문에 게재한 환자 12명의 발병 시기와 엠엠아르 백신 접종 시기까지도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의학학술지 <비엠제이>(BMJ)는 웨이크필드의 논문을 “사기”라고 규정했다. 그래도 웨이크필드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웨이크필드가 제약업계와 결탁한 정부·과학계로부터 탄압받는 양심적 지식인이라며 그를 떠받들었다.<br/><br/>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또다른 백신 논란이 일었다. 몇가지 종류의 백신에 포함된 티메로살이라는 성분이 소아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메틸머큐리와 다른 성분이지만, 미국은 ‘수은(머큐리)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며 발칵 뒤집혔다. 미 소아학회는 1999년 티메로살과 소아 자폐증은 관련이 없으며 무해하다면서도 소아용 백신에 티메로살을 첨가하지 않도록 요구했다.<br/><br/> 이 해묵은 논란에 할리우드 여배우 제니 매카시의 입담도 한몫했다. 2007년 자신의 아들이 엠엠아르 백신을 맞은 뒤 자폐증에 걸렸다고 공개한 뒤 그는 예방접종 거부 운동의 ‘아이콘’이 됐다. 그의 주장은 전염병처럼 전파됐다. 미 공중보건국에서 발행하는 공중보건리포트를 보면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자폐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접종을 미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국 내 소아 자폐증이 급증하고 있어, 부모들 사이에서 엠엠아르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굳어졌다고 분석했다. 시디시는 2000년 이후 2년마다 자폐증 조사를 시행하는데, 지난해 8살 어린이 68명 가운데 1명꼴로 자폐증을 앓는다고 발표했다.<br/><br/> 실제 자폐증 등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는 크다.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에 사는 켈리 맥메니먼도 같은 이유로 8살짜리 아들에게 단 한 차례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가 사는 지역은 미국에서 소아 예방접종률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다. 맥메니먼은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내 선택이 다른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고 믿지 않는다”며 “아들이 다른 아이에게 병균을 옮길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리건주에 사는 4자녀의 엄마 제니퍼 마걸리스와 두 아이를 키운 린 바턴도 같은 입장이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내 아이의 안전을 희생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br/><br/> 앞서 홍역 감염을 두려워하는 레트·모비어스 가족도, 홍역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맥메니먼도 모두 북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에서는 특정 지역 공동체 단위로 예방접종률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언론은 “부자일수록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위험한 새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부모들의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부자 동네’에서 아동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의 웨스트사이드 월도프스쿨에서는 권장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은 유치원생은 21%뿐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0개 학교에서 예방접종 면제 비율이 8% 이상 됐다. 모두 평균 가구 연수입 9만4500달러(약 1억400만원)에 달하는 지역 학교들로 미국 중간값보다 60% 높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지난해 보도했다.<br/><br/> 홍역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도 가세했다. 리버테리언(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극단적 자유방임주의자)으로 유명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랜드 폴은 “<span class='quot1'>멀쩡히 걷고 말하던 아이들이 백신을 맞은 뒤 정신 장애를 겪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서 자녀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미뤘다</span>”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폴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직접 예방접종을 받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꼬리를 내렸다. 같은 당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span class='quot2'>예방접종 여부는 가족들이 선택할 문제</span>”라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br/><br/> 미국을 뒤흔든 홍역 사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이번 홍역 사태는 필리핀을 방문했던 한 여성이 디즈니랜드에 가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미국 내 홍역 발생이 644건으로 급증한 것도 필리핀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홍역 감염자가 5만명 이상으로 보고됐는데, 2013년 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입어 4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필리핀에 이어 중국도 5만건 이상의 홍역 감염자가 확인됐고, 올 1월에만 2700건이 확인됐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다.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는 10만건이 넘는다. 국경을 넘나드는 홍역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까닭이다. <br/><br/>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4.txt

제목: 부자 건강보험과 가난  
날짜: 20150218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18100000102  
본문: 어릴 때에는 설 명절이 마냥 좋았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을 명절 때 찾으면, 기쁘고 슬프고 때로는 노여웠던 많은 기억들이 난다. 삶을 살아가는 인지상정일 것이다. 명절 때 언론에서는 꼭 돌아보는 곳이 있다. 꼭 부유한 사람들인 것만은 아니지만 명절 연휴를 외국에서 보내기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조차 찾는 이 없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없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도 있다.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야 신풍속으로 다루는 뉴스겠지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소식은 좋은 날을 기쁘고 즐겁게 함께 지내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반성을 깨우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회에는 설 명절에도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br/>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최근 낸 논평인 ‘가난이 세습되는 사회’라는 글을 보면 의료비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소개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5가구 가운데 1가구가량인 20.6%에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도 4.7%에 이른다.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교육은 물론 의식주 등 생존에 필수적인 곳에 돈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br/> 연구 결과를 좀더 보면 의료비가 가계지출의 10%를 넘는 가정은 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18.6%에 이르렀다. 의료비를 이보다 적게 쓰는 가구와 비교하면 이 수치는 3.2배에 이른다. 의료비 부담만 줄여줘도 적어도 가난으로 설 명절을 슬프게 보내는 가구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br/>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안전망은 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밝힌 ‘201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립금은 12조8000억원이나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흑자가 4조6000억원으로 어느 해보다 많았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줄어든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05~2011년까지는 한해 평균 12%씩 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2~2014년 3년 동안은 한해 평균 5.5%씩으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고, 암 발생이 줄어들어 진료비가 덜 들어갔다는 추정도 있다. <br/> 하지만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아파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그해 아파서 치과를 제외한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2.2%나 된다. 다만 이 비율은 2011년 18.7%에 견줘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답 가운데 ‘돈이 없어서’라고 적어 낸 사람의 비율은 2013년 21.7%나 됐다. 이 수치는 2010년 15.7%, 2011년 16.2%, 2012년 19.7%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br/>　건강보험은 역대 최대 부자인데,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어느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또는 치료비를 대다가 빈곤층이 되고 있다. 이웃을 돌아보자는 설 명절에 떠오른 씁쓸한 통계들이 아닐 수 없다.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대신 있는 조금의 돈이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5.txt

제목: 동네의원 진료의뢰서 제출땐 /종합병원서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50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18100000096  
본문: Q<br/>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br/><br/>A<br/>보건복지부에서는 크게 2단계 진료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감기 등 증상이 가벼워 동네의원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암이나 뇌졸중 등 중증질환은 대학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br/> 이 때문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누리려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이 의뢰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작성합니다.<br/>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진료의뢰서 등이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응급환자나 분만을 하는 임신부 등은 동네의원이나 병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나,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운동 치료 등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나, 혈우병 환자가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6.txt

제목: 가명 뒤에 숨어야만 했던 /한 작가의 ‘13년 생존기’  
날짜: 20150218  
기자: 최재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18100000086  
본문: 은 인도 출신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가 쓴 자서전이다. 제목은 그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썼던 가명. 조지프 콘래드와 안톤 체호프 두 작가의 이름을 조합해서 만들었다.<br/>　루슈디가 가명을 써야 했던 것은 그의 소설 가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란 지도자 호메이니가 그에게 내린 사형선고 ‘파트와’ 때문이었다. 1989년 밸런타인데이(2월14일) 아침 그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기분을 묻는 방송 리포터의 질문에 그는 “기쁘진 않소”라고 짐짓 의연하게 대꾸했지만, 속마음은 격렬했다. ‘이젠 죽었구나. 앞으로 며칠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아마도 한 자릿수가 고작이겠지.’<br/>　(김진준·김한영 옮김, 문학동네 펴냄)은 그렇게 루슈디가 파트와와 더불어 산 날들의 기록이다. 당국의 조언에 따라 가명을 고르고 경찰의 철통 경호망 안에 머물러야 하며 그것도 모자라 수시로 이사를 다녀야 하는 것이 파트와 아래의 삶이었다. 이혼한 부인과 함께 사는 아들을 만나거나 마음에 드는 상대와 연애를 하기 위해서도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소동을 거쳐야 한다. 루슈디에 대한 위협은 실제적이며 엄혹했다. 일본 번역자가 살해당하고 이탈리아 번역자와 노르웨이 출판인은 각각 칼과 총에 맞아 중상을 입지 않았겠는가. 루슈디는 자신을 3인칭 ‘그’ 또는 ‘루슈디’로 일컬음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자신의 생각 및 행동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br/>　가 나름 이슬람교의 계시에 예술적으로 동참한 작품이라 생각했던 루슈디는 언론 기고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옹호하는 한편, 경찰 주선으로 영국 무슬림 유지들과 만나 굴욕적인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까지 호메이니와 무슬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기를 꿈꾸기도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도 바랐던 결과를 얻는 데에 실패하고, 그는 절망의 순간이면 무절제하게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가까운 이에게 신경질을 부리고는 한다. “<span class='quot0'>파트와 반대운동을 벌이느라 작가로서의 본분(글쓰기)을 포기하다시피 했</span>”다는 자괴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br/>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살해 위협과 책 화형식 같은 어둠의 맞은편에는 한줄기 희미한 빛과도 같은 우군이 있었다. 미국출판협회와 미국서점협회, 미국도서관협회는 파트와 선고 일주일여 뒤 미국판 출간에 맞추어 에 전면광고를 실었다. 이런 내용이었다.<br/>　“자유인은 책을 씁니다. 자유인은 책을 펴냅니다. 자유인은 책을 팝니다. 자유인은 책을 삽니다. 자유인은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민정신에 입각하여 독자 여러분이 전국 방방곡곡의 서점과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br/>　수전 손택, 노먼 메일러, 존 어빙,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저명 작가들은 물론 록밴드 유투(U2)의 보컬 보노 같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루슈디에 대한 위협에 제 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파트와의 표적으로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루슈디가 괴짜 은둔 작가 토머스 핀천과 통화를 하고 저녁을 같이 먹는가 하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프랑스어로 통화를 하고 첩보물 작가 존 르카레와 지상 논전을 벌이는 등의 일화들도 흥미롭다.<br/>　파트와 아래에서도 일상은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사이에 루슈디는 전처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 아이를 얻고 다시 결혼과 이혼을 하며 그 이혼의 빌미가 된 외도에 빠지기도 한다. 사춘기를 통과하는 아들 자파르가 크고 작은 말썽을 일으키는가 하면 그 어머니인 첫 부인 클래리사는 암에 걸렸다가 회복하는가 했지만 결국 재발되어 숨을 거두고 만다. 아들을 위해 쓴 책 를 비롯해 같은 작품을 쓴 것 역시 파트와 기간 중이었다.<br/>　1998년 9월24일 이란 외무장관과 영국 외무장관이 파트와가 끝났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영국 경찰이 루슈디에 대한 경호를 완전히 해제한 것은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02년 3월29일이었다. 조지프 앤턴은 살만 루슈디로 돌아왔다. 13년 만이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지키려 했던 문학의 가치는 무엇일까.<br/>　“문학은 우주를 조금 더 열어보려고 노력한다. 인류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의 총량을 조금이라도 증가시켜 결국 인간의 가능성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위대한 문학은 이미 알려진 세계의 변경까지 나아가 언어, 형식, 잠재력의 한계를 확장함으로써 세계가 전보다 더 크고 더 넓게 느껴지도록 한다. (…) 변경으로 나아가 한계에 도전하는 예술가들은 종종 막강한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설령 자신의 안락을, 때로는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br/>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7.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부자 건강보험과 가난 / 김양중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1710016342970  
본문: 어릴 때에는 설 명절이 마냥 좋았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을 명절 때 찾으면, 기쁘고 슬프고 때로는 노여웠던 많은 기억들이 난다. 삶을 살아가는 인지상정일 것이다. 명절 때 언론에서는 꼭 돌아보는 곳이 있다. 꼭 부유한 사람들인 것만은 아니지만 명절 연휴를 외국에서 보내기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조차 찾는 이 없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없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도 있다.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야 신풍속으로 다루는 뉴스겠지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소식은 좋은 날을 기쁘고 즐겁게 함께 지내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반성을 깨우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회에는 설 명절에도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br/><br/>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최근 낸 논평인 ‘가난이 세습되는 사회’라는 글을 보면 의료비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소개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5가구 가운데 1가구가량인 20.6%에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도 4.7%에 이른다.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교육은 물론 의식주 등 생존에 필수적인 곳에 돈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br/><br/> 연구 결과를 좀더 보면 의료비가 가계지출의 10%를 넘는 가정은 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18.6%에 이르렀다. 의료비를 이보다 적게 쓰는 가구와 비교하면 이 수치는 3.2배에 이른다. 의료비 부담만 줄여줘도 적어도 가난으로 설 명절을 슬프게 보내는 가구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br/><br/>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안전망은 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밝힌 ‘201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립금은 12조8000억원이나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흑자가 4조6000억원으로 어느 해보다 많았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줄어든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05~2011년까지는 한해 평균 12%씩 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2~2014년 3년 동안은 한해 평균 5.5%씩으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고, 암 발생이 줄어들어 진료비가 덜 들어갔다는 추정도 있다. <br/><br/> 하지만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아파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그해 아파서 치과를 제외한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2.2%나 된다. 다만 이 비율은 2011년 18.7%에 견줘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답 가운데 ‘돈이 없어서’라고 적어 낸 사람의 비율은 2013년 21.7%나 됐다. 이 수치는 2010년 15.7%, 2011년 16.2%, 2012년 19.7%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br/><br/> 건강보험은 역대 최대 부자인데,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어느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또는 치료비를 대다가 빈곤층이 되고 있다. 이웃을 돌아보자는 설 명절에 떠오른 씁쓸한 통계들이 아닐 수 없다.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대신 있는 조금의 돈이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8.txt

제목: 동네의원 진료의뢰서 제출땐 종합병원서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1710016343419  
본문: Q: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br/><br/><br/><br/>A: 보건복지부에서는 크게 2단계 진료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감기 등 증상이 가벼워 동네의원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암이나 뇌졸중 등 중증질환은 대학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br/><br/> 이 때문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누리려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이 의뢰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작성합니다.<br/><br/>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진료의뢰서 등이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응급환자나 분만을 하는 임신부 등은 동네의원이나 병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br/><br/>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나,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운동 치료 등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나, 혈우병 환자가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69.txt

제목: 가명 뒤에 숨어야만 했던 한 작가의 ‘13년 생존기’  
날짜: 2015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1710016343381  
본문: <조지프 앤턴>은 인도 출신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가 쓴 자서전이다. 제목은 그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썼던 가명. 조지프 콘래드와 안톤 체호프 두 작가의 이름을 조합해서 만들었다.<br/><br/> 루슈디가 가명을 써야 했던 것은 그의 소설 <악마의 시>가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란 지도자 호메이니가 그에게 내린 사형선고 ‘파트와’ 때문이었다. 1989년 밸런타인데이(2월14일) 아침 그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기분을 묻는 방송 리포터의 질문에 그는 “기쁘진 않소”라고 짐짓 의연하게 대꾸했지만, 속마음은 격렬했다. ‘이젠 죽었구나. 앞으로 며칠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아마도 한 자릿수가 고작이겠지.’<br/><br/> <조지프 앤턴>(김진준·김한영 옮김, 문학동네 펴냄)은 그렇게 루슈디가 파트와와 더불어 산 날들의 기록이다. 당국의 조언에 따라 가명을 고르고 경찰의 철통 경호망 안에 머물러야 하며 그것도 모자라 수시로 이사를 다녀야 하는 것이 파트와 아래의 삶이었다. 이혼한 부인과 함께 사는 아들을 만나거나 마음에 드는 상대와 연애를 하기 위해서도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소동을 거쳐야 한다. 루슈디에 대한 위협은 실제적이며 엄혹했다. <악마의 시> 일본 번역자가 살해당하고 이탈리아 번역자와 노르웨이 출판인은 각각 칼과 총에 맞아 중상을 입지 않았겠는가. 루슈디는 자신을 3인칭 ‘그’ 또는 ‘루슈디’로 일컬음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자신의 생각 및 행동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br/><br/> <악마의 시>가 나름 이슬람교의 계시에 예술적으로 동참한 작품이라 생각했던 루슈디는 언론 기고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옹호하는 한편, 경찰 주선으로 영국 무슬림 유지들과 만나 굴욕적인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까지 호메이니와 무슬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기를 꿈꾸기도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도 바랐던 결과를 얻는 데에 실패하고, 그는 절망의 순간이면 무절제하게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가까운 이에게 신경질을 부리고는 한다. “<span class='quot0'>파트와 반대운동을 벌이느라 작가로서의 본분(글쓰기)을 포기하다시피 했</span>”다는 자괴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br/><br/>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살해 위협과 책 화형식 같은 어둠의 맞은편에는 한줄기 희미한 빛과도 같은 우군이 있었다. 미국출판협회와 미국서점협회, 미국도서관협회는 파트와 선고 일주일여 뒤 <악마의 시> 미국판 출간에 맞추어 <뉴욕 타임스>에 전면광고를 실었다. 이런 내용이었다.<br/><br/> “자유인은 책을 씁니다. 자유인은 책을 펴냅니다. 자유인은 책을 팝니다. 자유인은 책을 삽니다. 자유인은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민정신에 입각하여 독자 여러분이 전국 방방곡곡의 서점과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br/><br/> 수전 손택, 노먼 메일러, 존 어빙,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저명 작가들은 물론 록밴드 유투(U2)의 보컬 보노 같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루슈디에 대한 위협에 제 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파트와의 표적으로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루슈디가 괴짜 은둔 작가 토머스 핀천과 통화를 하고 저녁을 같이 먹는가 하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프랑스어로 통화를 하고 첩보물 작가 존 르카레이와 지상 논전을 벌이는 등의 일화들도 흥미롭다.<br/><br/> 파트와 아래에서도 일상은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루슈디는 전처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 아이를 얻고 다시 결혼과 이혼을 하며 그 이혼의 빌미가 된 외도에 빠지기도 한다. 사춘기를 통과하는 아들 자파르가 크고 작은 말썽을 일으키는가 하면 그 어머니인 첫 부인 클래리사는 암에 걸렸다가 회복하는가 했지만 결국 재발되어 숨을 거두고 만다. 아들을 위해 쓴 책 <하룬과 이야기 바다>를 비롯해 <무어의 마지막 한숨> <분노> 같은 작품을 쓴 것 역시 파트와 기간 중이었다.<br/><br/> 1998년 9월24일 이란 외무장관과 영국 외무장관이 파트와가 끝났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영국 경찰이 루슈디에 대한 경호를 완전히 해제한 것은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02년 3월29일이었다. 조지프 앤턴은 살만 루슈디로 돌아왔다. 13년 만이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지키려 했던 문학의 가치는 무엇일까.<br/><br/> “문학은 우주를 조금 더 열어보려고 노력한다. 인류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의 총량을 조금이라도 증가시켜 결국 인간의 가능성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위대한 문학은 이미 알려진 세계의 변경까지 나아가 언어, 형식, 잠재력의 한계를 확장함으로써 세계가 전보다 더 크고 더 넓게 느껴지도록 한다. (…) 변경으로 나아가 한계에 도전하는 예술가들은 종종 막강한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설령 자신의 안락을, 때로는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br/><br/>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0.txt

제목: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건보료도 오르고…건보 ‘13조 흑자’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1610016334171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4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가입자한테 걷는 건강보험료(건보료) 수입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다. 누적 흑자는 약 13조원 규모다. 보건·복지 관련 시민단체는 10조원이 넘는 돈을 쌓아두기만 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br/><br/> 보건복지부는 16일 ‘201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 흑자가 4조5869억원이라고 밝혔다. 2010년 9592억원이던 누적 흑자 규모는 5년 만에 13배 넘게 늘어 12조8072억원까지 불었다. 특히 2012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3조원이 넘는 기록적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br/><br/>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지난해 총수입은 48조5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7.4%(3조3291억원)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한테서 걷은 건보료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41조2404억원) 덕분이다. 전년과 비교해 직장가입자의 수가 4% 많아졌는데, 보험료율(1.7%)과 보수월액(2.6%)까지 함께 오른 결과다. 보수월액이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을 가리킨다.<br/><br/> 반면 가입자의 진료비로 빠져나간 돈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지출은 43조9155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7%(2조3868억원) 느는 데 그쳤다. 과거(2005~2011년) 12% 수준이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5.5%를 넘지 못했다.<br/><br/> 건강보험 지출이 예전만큼 큰 폭으로 늘지 않는 일차적 원인은 2010년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의료비 지출의 증가세가 덩달아 꺾인 데 있다. 경기 불황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실제 가계소득이 늘어도 의료비 등 소비성 지출은 줄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다른 나라의 의료비 증가율도 2010~2011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떨어졌다.<br/><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경기적 요인(불황)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를 하지 않는 추세가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2010년까지 높던 의료 이용률이 갑자기 꺾인 이유도 마찬가지</span>”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무분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던 수요가 적정화한 측면도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 여기에 암 발생률이나 B형 간염의 유병률이 줄면서 진료비 지출이 감소하고, 음주율이나 흡연율이 떨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 행태가 과거에 견줘 개선된 점도 건보 지출 증가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꼽힌다.<br/><br/> 건강보험 재정의 기록적인 흑자 행진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행태와 관련이 있는 만큼, 누적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팀장은 “<span class='quot2'>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4.9%)에 한참 못 미치는 62.5%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실제 의료 이용이 필요해도 병원비가 두려워 참는 국민이 많아 누적 흑자 규모가 커졌다면, 이는 여전히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것이 맞다</span>”고 말했다. <br/><br/>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1.txt

제목: ‘자살’ 사회적 손실 6조5천억  
날짜: 2015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0910016274224  
본문: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한해 120조6532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8.8%에 이른다. 특히 각종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약 20조원에 육박했고, 그 가운데서도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조5000억원에 이른다.<br/><b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9일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의 연구 결과를 내고 각종 질병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소개했다. 이번 연구는 2008~2012년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의료비·교통비·간병비)와 간접비(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 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로 구분해 분석했다.<br/><br/> 우리나라 전체 질병을 20개의 대분류로 범주화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니,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2008년 97조1792억원에서 2012년 120조6532억원으로 4년새 24.2% 증가했다. 2012년 비용은 지디피의 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질병군별로는 손상 및 중독(16.2%), 주로 암을 일컫는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 정신 및 행동장애(6.9%)의 순서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br/><br/> 특히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비용 가운데 자살에 의한 비용은 6조4769억원으로 손상 및 중독 비용의 3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2.txt

제목: 직화구이 삼겹살, 담배만큼 해롭다!  
날짜: 2015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0610016246636  
본문: 흔히 대기오염을 이야기할 때 대형 공장과 높은 굴뚝 사진을 먼저 떠올리거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며칠 동안의 뿌연 도시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높은 대기오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br/><br/>더구나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생각지 못한 건강 피해를 입고 수명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생활 주변에서 대기오염으로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br/><br/>■ 디젤 매연 마시기<br/><br/>디젤 배기가스는 2012년 여름 세계보건기구(WHO)에 딸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우리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공식 발표한 발암물질입니다. 1) <br/><br/>디젤 엔진의 주요 오염물질인 디젤 미립자물질(particulate matter, PM,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은 화물차, 버스, 레저용(RV) 승용차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와 같이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와 여러 대형 장비에서 배출됩니다.2) <br/><br/>따라서 디젤엔진이 많이 사용되는 지역의 디젤 미립자물질 농도는 높을 수밖에 없으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지역, 교통 정체가 심각한 도심지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 정체가 심한 터널 안에서 차창을 열어 놓거나 도로상에서 노후 대형 화물차 뒤를 따라다니시면 더 많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br/><br/>디젤 미립자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최근 연구 중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위해성 연구결과(MATES III)를 살펴보면, 엘에이 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발암가능성이 100만명당 약 12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암 가능성이 100만명당 10명 이상이면 개선대책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하므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br/><br/>그런데 이 위해도에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별 기여 정도를 분석한 결과 디젤 미립자물질이 암 발생 위해성에 기여한 정도가 83.6%, 벤젠에 의한 기여도가 4.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3) <br/><br/>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쉽지만 우리는 아직 이러한 대기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할 준비자료와 조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디젤 자동차의 비중도 더 크므로 엘에이보다 디젤 매연을 쉽게 많이 흡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br/><br/> <br/><br/>■ 직화 구이 즐기기<br/><br/>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고기구이와 소주 한잔은 스트레스를 푸는데 최고라고 하지요. 텔레비전에서는 맛집을 추천하며 장작구이나 연탄구이를 소개하며 직화로 지글지글 굽는 고기구이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당에서는 스트레스와 함께 수명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br/><br/>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기를 즐기실 때 수육보다는 고기구이, 철판구이보다는 직화 구이를 즐기시면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마실 수 있습니다. <br/><br/>고기 종류별 구이방식에 따라 배출되는 미세먼지량을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표1>과 같이 철판구이보다는 직화 구이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습니다.4) <br/><br/>특히, 삼겹살을 숯불구이 방식으로 조리하면 다환방향성탄화수소(PAH)의 배출농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5) <br/><br/>이 물질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를 숯불 직화 구이로 즐기시면 많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마실 수 있습니다.<br/><br/>직화에 의하여 고기 표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들은 고기와 함께 입을 통하여 우리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고기가 구워지면서 불 위로 떨어지는 기름은 불에 타면서 일부 위해물질로 변화되어 식당 대기 중으로 퍼져 우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br/><br/>숯불, 연탄과 같은 직화를 이용하는 형태의 식당에서 테이블마다 설치되어 있는 배기장치가 부실하거나 식당 전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유해 대기오염물질 마시는 양은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br/><br/>환기와 배기가 잘 안 되는 직화 구이 식당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고기를 태우면서 식사를 하면 건강 수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담배까지 곁들이시면 수명 단축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br/><br/>■ 집안에서 조리 시 배기 팬 틀지 않기 <br/><br/>일반 가정 부엌에서 가스 오븐을 사용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연기와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한 배기 팬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기 팬에서 소음이 많이 나고 가정용 도시가스가 청정연료라는 광고를 많이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료는 연소 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므로 사실상 청정한 연료는 없습니다. <br/><br/>요즘에는 건물의 밀폐도가 높아졌고 일반 가정에는 사무실과 달리 별도의 환기 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창문을 모두 닫고 생활하는 겨울에 배기 팬을 통하여 부엌 오븐의 연소공기를 실외로 배출시키지 않으면 부엌뿐만 아니라 거실에 있는 다른 식구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br/><br/>또한 배기 팬 소리는 요란해도 부엌 후드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나 배기관에 문제가 있어 실제 배기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배기 팬을 틀어놓아도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마시게 됩니다. <br/><br/>부엌에서 조리할 때 배기 팬을 사용하지 않고 요리하면 식구들에게는 맛있는 요리와 함께 더러운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먹이는 셈입니다. 실외 대기질이 나빠질 때에는 정부에서 대기오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줍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실내 대기질이 나빠질 때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br/><br/>■ 배기관 없는 난로(가스, 석유) 사용하기<br/><br/>전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대부분 연탄 사용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는 연탄뿐만 아니라 대부분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연료는 100% 완전 연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br/><br/>따라서 도시가스, 석유(등유)를 사용하는 난로에서도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에 더하여 질소산화물과 같은 다른 오염물질도 발생합니다. 이때 배기관이 없는 난방기구를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실내는 오래지 않아 가스실이 되고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심한 대기오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br/><br/>특히 지하실이나 텐트와 같이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실내에서 이동식 난로나 버너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수명을 그날로 단축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는 좁은 실내주차장이나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가 영원히 못 깨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br/><br/>■ 쓰레기 노천 소각<br/><br/>쓰레기의 노천 소각은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농촌지역에서는 농업 잔재물이나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br/><br/>쓰레기의 노천소각은 연소효율이 낮고 연소온도가 낮아서 같은 양을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보다 수백배 많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태우는 쓰레기에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더 많아 집니다.<br/><br/>그런데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몰래 태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간에는 주간보다 대기가 안정해 잘 섞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몰래 노천소각을 한다면 당신은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주간보다 많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충분히 나누어 마시게 될 것입니다.<br/><br/>■ 담배 피우기<br/><br/>과거에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담배를 끊었지만 이제는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 독성물질은 분석기술의 증가와 함께 추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br/><br/>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명 줄이기를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br/><br/>또한 같은 대기오염에 노출되더라도 흡연을 하면 그 피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앞의 다섯 가지 수명 줄이기에 더하여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당신은 수명 줄이기에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br/><br/>장영기/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br/><br/>　<br/><br/>1)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Diesel engine exhaust carcinogenic, Press release number 213, 2012. <br/>2) 국립환경과학원의 CAPSS에서 제공하는 2010년 대기오염 배출량 자료에서 디젤엔진 사용으로 배출되는 PM10 배출량을 배출원별로 정리. <br/>3) South Coast Air Quality District, 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 in the south coast air basin, 2008. <br/>4) 박성규 외, 생물성 연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연구: 고기구이를 중심으로,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7권 4호, 2011. <br/>5) 김보원 외, 삼겹살구이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특성 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0권 3호, 2014. <br/><br/> <br/><br/>▷한겨레 환경 웹진 ‘물바람숲’ 바로가기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3.txt

제목: 화상·장기 이식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날짜: 2015020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04100000040  
본문: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 데 이어 2018년까지 화상이나 장기이식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일부 질환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 여전히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고, 보장성 확대 혜택이 환자보다 제약회사나 병원 등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br/>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중기(2014~2018년) 보장성 강화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까지 해마다 평균 350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br/>　정부는 지난해 2월 암 등 4대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병실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추가로 20여가지의 질환 및 치료에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환자 부담이 큰 장기이식 치료 때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자의 관리나 검사 등에 들어가는 간접비용(380만~500만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화상치료에 쓰는 수백만원대의 인공피부 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br/>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출산 때 이용하는 상급병실료 등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제왕절개 수술 때 지금은 산모가 전체 진료비의 20%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담비율을 5~10%로 낮출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인공임신 시술비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흔히 ‘언청이’라고 부르는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기형이나 청소년의 치아홈메우기 치료 등도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12년 기준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62.5%이지만 19~44살은 48.2%로 가장 낮다. 이 연령대의 임산부가 쓰는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br/>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맞춰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을 확대하다 보니 마찬가지로 진료비 부담이 큰 간이나 신장 질환 환자들은 소외되고 있다. 이들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청사진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가 12조원이나 되는 이유는 서민들이 아파도 진료비 부담 탓에 병원을 가지 못한 데 있다. 흑자를 계속 쌓아만 둘 게 아니라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약 가격을 낮추려는 협상을 생략하는 등 제약회사나 병원에 수익을 더 가져다주는 방안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4.txt

제목: ‘교대근무’ 호르몬 분비 교란하는 2급 발암원인  
날짜: 2015020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04100000077  
본문: 어릴 적부터 몸에 익은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자칫 무리하게 바꾸려 하면 그동안 만들어진 생체리듬을 뒤흔들 수 있다. 잠도 마찬가지다. 평소 낮 근무를 하다가 근무 형태가 바뀌어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수면리듬이 깨진다. <br/>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폭식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이 생겨 소화장애나 위식도역류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장기적으로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이나 암 등 중증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신홍범(작은 사진) 코슬립수면의원 원장(미국 수면전문의)이 쓴 라는 책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본다. <br/>　<br/>　교대근무자, 수면장애·중증질환 위험 높아 <br/> 신 원장의 책을 보면, 유럽과 북미에서는 직장인의 20%가량이 교대근무에 종사한다고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도 전체 직장인의 10~15%가 교대근무자다. 주로 운수업이나 제조업,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교대근무 비중이 높았다.<br/>　교대근무 종사자들한테 나타나는 건강 문제는 우선 수면장애와 우울증이다. 짜증이 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불규칙한 수면과 우울한 감정은 폭식이나 음주 등과 같은 나쁜 습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밤샘근무 뒤 쉽게 잠이 오지 않을 경우 보통 술이나 포만감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습관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결국 소화장애나 역류성식도염 같은 소화기계 질환,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간호사와 비행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여성에겐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였다. 야간에 오랜 시간 밝은 빛에 노출되면 수면 습관이 바뀌고 이와 관련된 호르몬 분비에도 변화가 생겨 빚어지는 일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교대근무를 2급 발암 원인(물질)으로 규정했다. 2급 발암 원인은 사람한테는 발암성의 근거가 제한적으로 존재하지만, 동물한테서는 그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 해당된다.<br/>　<br/> 맞교대근무가 수면장애 더 높여<br/> 국내에선 수면장애를 겪는 교대근무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없다. 외국의 조사자료를 보면 미국은 교대근무자의 10%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봤더니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만 하면 14%가, 순환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은 8%가 수면장애를 겪었다. 순환교대 근무도 유형에 따라 수면장애를 겪는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1주 동안은 12시간 주간근무를 하고 그 뒤 1주 동안은 12시간 야간근무를 하는 12시간 맞교대근무의 경우 수면장애 비율이 23%로 껑충 뛰었다. 일정 주기를 두고 밤과 낮을 순차적으로 바꿔 근무하는 행태가 건강에 가장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다.<br/>　<br/> 수면리듬에 맞게 교대근무 순서도 조율해야<br/> 수면장애와 같은 질환이 나타나면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몸은 평소보다 잠자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쉽지 않다. 적잖은 이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버티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서둘러 일어나는 건 힘들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3교대를 하더라도 ‘낮-저녁-밤’ 차례로 잠자는 시간을 늦추는 형태로 근무 방식을 정하면 수면장애를 줄일 수 있다. 야간근무 뒤 쉬는 날에는 4시간 정도 짧은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을 한 다음 그날 밤은 낮 근무 일정에 맞추면 적응이 잘된다. 밤 근무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도 많아지므로 업무시간을 낮보다 짧게 잡는 게 좋다. 12시간 맞교대근무처럼 근무시간대가 더 자주 바뀌는 경우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를 피해야 한다. 신홍범 원장은 “수면장애나 각종 소화기·심장·뇌혈관 질환 등이 교대근무에서 비롯된다는 걸 직장인 본인은 물론 사업주도 잘 모른다. 특히 맞교대근무는 건강에 더 해롭다. 직장인의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 회사가 교대근무자의 수면장애 등 각종 위험성을 알고 이를 예방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5.txt

제목: 화상·장기 이식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0310016190774  
본문: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 데 이어 2018년까지 화상이나 장기이식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일부 질환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 여전히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고, 보장성 확대 혜택이 환자보다 제약회사나 병원 등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중기(2014~2018년) 보장성 강화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까지 해마다 평균 350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br/><br/> 정부는 지난해 2월 암 등 4대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병실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추가로 20여가지의 질환 및 치료에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환자 부담이 큰 장기이식 치료 때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자의 관리나 검사 등에 들어가는 간접비용(380만~500만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화상치료에 쓰는 수백만원대의 인공피부 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br/><br/>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출산 때 이용하는 상급병실료 등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제왕절개 수술 때 지금은 산모가 전체 진료비의 20%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담비율을 5~10%로 낮출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인공임신 시술비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흔히 ‘언청이’라고 부르는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기형이나 청소년의 치아홈메우기 치료 등도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12년 기준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62.5%이지만 19~44살은 48.2%로 가장 낮다. 이 연령대의 임산부가 쓰는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br/><br/>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맞춰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을 확대하다 보니 마찬가지로 진료비 부담이 큰 간이나 신장 질환 환자들은 소외되고 있다. 이들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청사진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가 12조원이나 되는 이유는 서민들이 아파도 진료비 부담 탓에 병원을 가지 못한 데 있다. 흑자를 계속 쌓아만 둘 게 아니라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약 가격을 낮추려는 협상을 생략하는 등 제약회사나 병원에 수익을 더 가져다주는 방안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6.txt

제목: ‘교대근무’ 호르몬 분비 교란하는 2급 발암원인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20310016190497  
본문: 어릴 적부터 몸에 익은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자칫 무리하게 바꾸려 하면 그동안 만들어진 생체리듬을 뒤흔들 수 있다. 잠도 마찬가지다. 평소 낮 근무를 하다가 근무 형태가 바뀌어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수면리듬이 깨진다.<br/><br/>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폭식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이 생겨 소화장애나 위식도역류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장기적으로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이나 암 등 중증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신홍범 코슬립수면의원 원장(미국 수면전문의)이 쓴 <교대근무 수면장애 극복하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본다. <br/><br/><br/><br/> 교대근무자, 수면장애·중증질환 위험 높아 <br/><br/> 신 원장의 책을 보면, 유럽과 북미에서는 직장인의 20%가량이 교대근무에 종사한다고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도 전체 직장인의 10~15%가 교대근무자다. 주로 운수업이나 제조업,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교대근무 비중이 높았다.<br/><br/> 교대근무 종사자들한테 나타나는 건강 문제는 우선 수면장애와 우울증이다. 짜증이 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불규칙한 수면과 우울한 감정은 폭식이나 음주 등과 같은 나쁜 습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밤샘근무 뒤 쉽게 잠이 오지 않을 경우 보통 술이나 포만감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습관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결국 소화장애나 역류성식도염 같은 소화기계 질환,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 간호사와 비행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여성에겐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였다. 야간에 오랜 시간 밝은 빛에 노출되면 수면 습관이 바뀌고 이와 관련된 호르몬 분비에도 변화가 생겨 빚어지는 일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교대근무를 2급 발암 원인(물질)으로 규정했다. 2급 발암 원인은 사람한테는 발암성의 근거가 제한적으로 존재하지만, 동물한테서는 그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 해당된다.<br/><br/> <br/><br/> 맞교대근무가 수면장애 더 높여<br/><br/> 국내에선 수면장애를 겪는 교대근무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없다. 외국의 조사자료를 보면 미국은 교대근무자의 10%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봤더니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만 하면 14%가, 순환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은 8%가 수면장애를 겪었다. 순환교대 근무도 유형에 따라 수면장애를 겪는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1주 동안은 12시간 주간근무를 하고 그 뒤 1주 동안은 12시간 야간근무를 하는 12시간 맞교대근무의 경우 수면장애 비율이 23%로 껑충 뛰었다. 일정 주기를 두고 밤과 낮을 순차적으로 바꿔 근무하는 행태가 건강에 가장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다.<br/><br/><br/><br/> 수면리듬에 맞게 교대근무 순서도 조율해야<br/><br/> 수면장애와 같은 질환이 나타나면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몸은 평소보다 잠자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쉽지 않다. 적잖은 이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버티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서둘러 일어나는 건 힘들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3교대를 하더라도 ‘낮-저녁-밤’ 차례로 잠자는 시간을 늦추는 형태로 근무 방식을 정하면 수면장애를 줄일 수 있다. 야간근무 뒤 쉬는 날에는 4시간 정도 짧은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을 한 다음 그날 밤은 낮 근무 일정에 맞추면 적응이 잘된다. 밤 근무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도 많아지므로 업무시간을 낮보다 짧게 잡는 게 좋다. 12시간 맞교대근무처럼 근무시간대가 더 자주 바뀌는 경우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를 피해야 한다. 신홍범 원장은 “수면장애나 각종 소화기·심장·뇌혈관 질환 등이 교대근무에서 비롯된다는 걸 직장인 본인은 물론 사업주도 잘 모른다. 특히 맞교대근무는 건강에 더 해롭다. 직장인의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 회사가 교대근무자의 수면장애 등 각종 위험성을 알고 이를 예방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br/><br/> 글·사진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7.txt

제목: 건강이라는 질병  
날짜: 2015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31100000045  
본문: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영향력이 커진 주제가 바로 ‘건강’이다. 한국 사회의 미디어는 신문 방송을 가리지 않고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끝없이 양산해내는 중이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의사들을 부쩍 많이 보게 된다.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의사와 연예인을 함께 불러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토크’를 한다. 의학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특정 과일 값의 폭등과 품귀현상이 잘 보여준다. 방송을 보며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시청자는 방송 후에 이어지는 암보험, 생명보험 광고의 행렬을 맞이해야 한다. 불안해진 시청자들은 자신의 ‘건강하지 않은 삶’을 걱정하며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br/>　‘건강한 삶’에 대한 미디어의 강조는 이처럼 지식(의학)과 쾌락(연예인)과 비즈니스(보험)가 결합한 종합적인 담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건강담론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거의 유일한 정언명령이다. 이는 다시 한국의 언론을 장악한 다른 프로그램 형식들과도 기꺼이 조응하는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주제는 ‘성공’이다. 건강토크쇼는 ‘신체적 성공’, 힐링토크쇼는 ‘정신적 성공’, 막장드라마는 ‘경제적 성공’, 서바이벌 오디션 쇼는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한다. 그중에서도 건강토크쇼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을 건드리는데, 이는 ‘아프면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로 표현된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파서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건강 아니면 돈, 서로를 요구하며 서로를 갈구하는 이 두 요소는 우리 삶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지표이며, 대중문화는 이를 서사화하는 지배적 형식이다.<br/>　건강에 대한 집착은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한 배제를 동반한다. 예민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침범하는 것들을 미세하게 분류하기 시작하고 이 범위는 확장된다. 더러운 것, 표준에서 벗어난 것, 뚱뚱한 것, 약한 것, 위험한 것은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한다. 종이컵과 전자레인지와 담배 연기의 신체적 독성을 걱정하는 이들과 장애인, 성소수자, 비만 여성, 동남아 노동자, 전라도 출신, 진보좌파, 인문학 전공자들이 끼치는 정신적 독성을 걱정하는 이들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제거해야만 한다. ‘독소’, ‘암 덩어리’, ‘바이러스’, ‘수술’ 등의 용어는 의학을 넘어 박근혜 시대 들어 정치용어로 사랑받는다. 건강에 대한 집착은 배제와 혐오를 수반함으로써 공존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는 멀어진다. 이것의 극단화된 정치적 형식이 파시즘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br/>　무슬림 청년들의 테러를 보며 우리는 쉽게 ‘이슬람 근본주의’를 비판하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건강 근본주의’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근본주의가 가진 문제는 자신의 도그마 이외의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는 데 있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은 거의 하나의 도그마, 하나의 근본주의가 되었다. 건강, 힐링, 웰빙에 대한 강조가 넘쳐나지만, ‘무엇을 위해, 왜’ 건강해야 하고,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는 정지되어 있다. 건강, 그것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조건이기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은 점점 일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사유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변해간다. 내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황폐해진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죽음이 구원인 것처럼, 건강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이 황폐함이 곧 건강함의 표상이다. 건강담론의 역설이 바로 이것이다. 아도르노가 간파했듯, “<span class='quot0'>넘치는 건강은 그 자체로 이미 항상 병</span>”이라는 것.<br/>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8.txt

제목: 인사  
날짜: 2015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31100000014  
본문: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승이도 정치언 △헌법연구관보 이은선 유경민<br/>⊙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장 전요섭 △전자금융˝ 김동환 <br/>⊙ 법무부 ◇고위공무원 △인천구치소장 최강주 △국방대 파견 김명철 <br/>⊙ 해양수산부 ◇국장급 △국방대 교육파견 최완현<br/>⊙ 보건복지부 △국방대 안보과정 훈련파견 전병왕 손호준 <br/>⊙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유무영 ◇국장 △농축수산물안전 손문기 △의약품안전 김관성 △의료기기안전 강봉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조기원 △국방대 교육 파견 김영균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파견 한순영 <br/>⊙ 산림청 ◇고위공무원 △산림자원 이창재 △ 산림이용 박종호 △산림보호 이규태 △북부지방산림청장 김현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차장 최준석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최병암<br/>⊙ 문화재청 ◇과장급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 권석주 △˝ 정보화담당관실 강흔모<b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한성구 △규제개혁˝ 이흥권 △정책기획실장 오현환 △성장동력사업˝ 손석호 △전략연구팀장 진영현 <br/>⊙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교육원 파견 부이사관 이재성 △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은환<br/>⊙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대 교육훈련 파견 오영우<br/>⊙ 교육부 △국방대 파견 한상신 △안동대 사무국장 원기선 △통일부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장 이계영 △통일교육원 파견 오순문 △학교강사대책팀장 김태현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파견 신미경<br/>⊙ 한국방송(KBS) △편성본부 영상제작국 총감독 장용석 ◇부장 △시청자본부 시청자국 시청자사업 조성용 △정책기획본부 정책기획국 미디어정책 정철웅 △˝ 방송문화연구소 공영성연구 이건협 △보도본부 보도국 경인방송센터장 이동채 ◇CP △TV본부 교양문화국 이낙선 △˝ 기획제작국 임세형 △편성본부 콘텐츠창의센터 장성주<br/>⊙ 숭실대 ◇교무위원 △학사부총장 장범식 △자원˝ 김재철 △대학원장 윤철홍 △교목실장 조은식 △대외협력˝ 이태식 △기획조정˝ 류희욱 ◇처장 △교무 정달영 △학생 장경남 △총무 김비호 △관리 이철우 △지식정보 이수원 △연구·산학협력 신요안 △국제 강기두 △입학 이상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79.txt

제목: [크리틱] 건강이라는 질병 / 문강형준  
날짜: 20150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3010016125056  
본문: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영향력이 커진 주제가 바로 ‘건강’이다. 한국 사회의 미디어는 신문 방송을 가리지 않고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끝없이 양산해내는 중이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의사들을 부쩍 많이 보게 된다.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의사와 연예인을 함께 불러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토크’를 한다. 의학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특정 과일 값의 폭등과 품귀현상이 잘 보여준다. 방송을 보며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시청자는 방송 후에 이어지는 암보험, 생명보험 광고의 행렬을 맞이해야 한다. 불안해진 시청자들은 자신의 ‘건강하지 않은 삶’을 걱정하며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br/><br/> ‘건강한 삶’에 대한 미디어의 강조는 이처럼 지식(의학)과 쾌락(연예인)과 비즈니스(보험)가 결합한 종합적인 담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건강담론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거의 유일한 정언명령이다. 이는 다시 한국의 언론을 장악한 다른 프로그램 형식들과도 기꺼이 조응하는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주제는 ‘성공’이다. 건강토크쇼는 ‘신체적 성공’, 힐링토크쇼는 ‘정신적 성공’, 막장드라마는 ‘경제적 성공’, 서바이벌 오디션 쇼는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한다. 그중에서도 건강토크쇼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을 건드리는데, 이는 ‘아프면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로 표현된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파서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건강 아니면 돈, 서로를 요구하며 서로를 갈구하는 이 두 요소는 우리 삶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지표이며, 대중문화는 이를 서사화하는 지배적 형식이다.<br/><br/> 건강에 대한 집착은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한 배제를 동반한다. 예민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침범하는 것들을 미세하게 분류하기 시작하고 이 범위는 확장된다. 더러운 것, 표준에서 벗어난 것, 뚱뚱한 것, 약한 것, 위험한 것은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한다. 종이컵과 전자레인지와 담배 연기의 신체적 독성을 걱정하는 이들과 장애인, 성소수자, 비만 여성, 동남아 노동자, 전라도 출신, 진보좌파, 인문학 전공자들이 끼치는 정신적 독성을 걱정하는 이들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제거해야만 한다. ‘독소’, ‘암 덩어리’, ‘바이러스’, ‘수술’ 등의 용어는 의학을 넘어 박근혜 시대 들어 정치용어로 사랑받는다. 건강에 대한 집착은 배제와 혐오를 수반함으로써 공존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는 멀어진다. 이것의 극단화된 정치적 형식이 파시즘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br/><br/> 무슬림 청년들의 테러를 보며 우리는 쉽게 ‘이슬람 근본주의’를 비판하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건강 근본주의’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근본주의가 가진 문제는 자신의 도그마 이외의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는 데 있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은 거의 하나의 도그마, 하나의 근본주의가 되었다. 건강, 힐링, 웰빙에 대한 강조가 넘쳐나지만, ‘무엇을 위해, 왜’ 건강해야 하고,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는 정지되어 있다. 건강, 그것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조건이기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은 점점 일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사유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변해간다. 내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황폐해진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죽음이 구원인 것처럼, 건강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이 황폐함이 곧 건강함의 표상이다. 건강담론의 역설이 바로 이것이다. 아도르노가 간파했듯, “<span class='quot0'>넘치는 건강은 그 자체로 이미 항상 병</span>”이라는 것. <br/><br/>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0.txt

제목: 1월 31일·2월 1일 본방사수  
날짜: 20150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3010016125378  
본문: 조민기와 함께 찾아간 ‘파리포토’<br/><br/>SBS 특집다큐멘터리 ‘사진, 기록에서 예술까지’(에스비에스 토 밤 12시15분) 오늘날 사진과 카메라는 우리 일상 속 깊이 들어와 있다. 사진은 언제, 어떻게 예술이 되었고 우리는 카메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 기록을 위한 매체인 사진이 예술이 되기까지의 역사와 사진작가들의 이야기를, 사진작가이기도 한 배우 조민기가 전한다. 먼저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사진 전문 아트페어인 ‘파리포토’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를 찾았다. 20세기 사진의 거장으로 불리는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자취를 더듬는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선구자인 사진작가 구본창을 그곳에서 만난다. 유럽 각 도시를 순회하는 현대미술 비엔날레 ‘마니페스타’가 올해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장을 훑어본다. <br/><br/> <br/><br/>세상 떠난 연인에게 보낸 편지<br/><br/>세계의 명화 ‘러브 레터’(교육방송 토 밤 11시) 이와이 슌지 감독의 1995년 작품.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연인을 잊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고베의 와타나베 히로코. 연인 후지이 이츠키의 추모식 날, 히로코는 이츠키의 집에서 그의 졸업 앨범을 보던 중 우연히 그의 옛 집 주소를 본다. 히로코는 당연히 수신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고, 며칠 뒤 놀랍게도 후지이 이츠키에게 답장이 온다.<br/><br/> <br/><br/>암행어사 박문수를 둘러싼 진실 <br/><br/>역사저널 그날(한국방송1 토 밤 9시40분) ‘백성들의 슈퍼 히어로, 어사 박문수’ 편. 조선시대 활동한 암행어사는 600여 명이 넘는다는데 유독 박문수만 유명하다. 박문수는 과거에 급제해 정7품에서 5년 만에 지방 관찰사로 초고속 승진한다. 암행어사로만 알려진 박문수를 둘러싼 여려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파헤친다. 탕평정치를 추구하던 영조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한 신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문수였음도 확인한다.<br/><br/> <br/><br/>이탈리아 돌더미 산 ‘돌로미티’ <br/><br/>걸어서 세계속으로(한국방송1 토 아침 9시40분)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편.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탈리아 동북부의 거대한 돌더미 산, 돌로미티를 찾는다. 이곳에는 스키어들의 로망인 오베레겐 스키장과 웅장한 슬로프가 장관을 이루는 솔다 스키장이 있다. 솔다 트레킹코스는 산악스키를 타는 사람들에겐 돌로미티 바위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란다. 이어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볼자노 메라노 성탄야시장도 찾는다.<br/><br/> <br/><br/>연예인 길 들어서는 자녀 양육법<br/><br/>에스비에스 스페셜(에스비에스 일 밤 11시15분) ‘연예하는 아이, 불편한 부모’ 편. 공부보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 인생의 모든 것을 걸려는 십대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이야기를 담았다. 연예인의 길로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아이의 인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부모가 갖춰야 할 태도와 교육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원협이는 학교에선 이미 ‘프로’ 기타리스트로 통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타를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다.<br/><br/> <br/><br/>총선에서 급진좌파 선택한 그리스<br/><br/>특파원 현장보고(한국방송2 토 오전 8시20분) ‘그리스, 왜 ‘긴축 폐지’ 선택했나?’ 편에선, 그리스를 현지 취재했다. 그리스인들은 지난 총선에서 긴축 완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급진좌파연합을 선택했다. 새 정부는 빈민층에 대한 전기료 면제, 최저 임금과 연금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부유층에 대해 세금을 늘리거나 유럽 연합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어 ‘관광 대국 태국, 동물 학대 실태’ 편에선, 동물 관광의 실태를 짚어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1.txt

제목: 1월 31일 인사  
날짜: 20150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3010016125861  
본문: 　<br/><br/>⊙ 헌법재판소 <승진 임용> △헌법연구관 승이도 정치언 <신규 임용> △헌법연구관보 이은선 유경민<br/><br/>⊙ 금융위원회 <전보> △구조개선지원과장 전요섭 △전자금융〃 김동환 <br/><br/>⊙ 법무부 <전보> ◇고위공무원 △인천구치소장 최강주 △국방대 파견 김명철　<br/><br/>⊙ 해양수산부 ◇국장급 △ 국방대 교육 파견 최완현<br/><br/>⊙ 보건복지부 △국방대 안보과정 훈련 파견 전병왕 손호준　<br/><br/>⊙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유무영 ◇국장 △농축수산물안전 손문기 △의약품안전 김관성 △의료기기안전 강봉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조기원 △국방대 교육 파견 김영균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파견 한순영　<br/><br/>⊙ 산림청 ◇고위공무원 <국장> △산림자원 이창재 △ 산림이용 박종호 △산림보호 이규태 △북부지방산림청장 김현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차장 최준석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최병암<br/><br/>⊙ 문화재청 <전보> ◇과장급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 권석주 △〃 정보화담당관실 강흔모 <과장> △운영지원 이정훈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 김병기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 김연수 △한국전통문화대 총무 박희웅 △〃 교학처 교무 김동하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 도중필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 이상걸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 고기석 △경복궁관리소장 전기선 <br/><b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한성구 △규제개혁〃 이흥권 △정책기획실장 오현환 △성장동력사업〃 손석호 △전략연구팀장 진영현 <br/><br/>⊙ 기초과학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심시보 ◇팀장 △감사부 감사 박의서 △연구지원본부 안전시설장비 김상주 △정책기획본부 전략정책 허대녕 △〃 경영기획 김경훈 △〃 예산운영 김상래 △경영지원본부 총무복지 손덕 △〃 구매자산 한석훈 △〃 전산지원 윤영완<br/><br/>⊙ 전력거래소 <승진> ◇1직급(처장) △전력계획처 장기수급분석팀장 김홍근 △시장개발처 시장개발팀장 문경섭 ◇2직급(부장) △중앙전력관제센터 수급운영팀 김태선 △시장개발처 시장개발팀 박만근 △정보기술처 차세대시스템팀 심병철 △전력계획처 전원계획팀 옥기열 ◇3직급(차장) △전력계획처 장기수급분석팀 김광진 △중앙전력관제센터 중앙관제부 김기식 △〃 관제훈련팀 조재왕 △시장운영처 시장정산팀 김양일 △정보기술처 계통시스템팀 류수원 위성한 △수요예측실 박해수 △성과협력실 신재호 <br/><br/>⊙ 한국감정원 △상임감사위원 김한수<br/><br/>⊙ 한국방송(KBS) △편성본부 영상제작국 총감독 장용석 ◇부장 △시청자본부 시청자국 시청자사업 조성용 △정책기획본부 정책기획국 미디어정책 정철웅 △〃 방송문화연구소 공영성연구 이건협 △보도본부 보도국 경인방송센터장 이동채 ◇CP △TV본부 교양문화국 이낙선 △〃 기획제작국 임세형 △편성본부 콘텐츠창의센터 장성주<br/><br/>⊙ 숭실대 ◇교무위원 △학사부총장 장범식 △자원〃 김재철 △대학원장 윤철홍 △교목실장 조은식 △대외협력〃 이태식 △기획조정〃 류희욱 ◇처장 △교무 정달영 △학생 장경남 △총무 김비호 △관리 이철우 △지식정보 이수원 △연구·산학협력 신요안 △국제 강기두 △입학 이상은 ◇학장 △법대 최정식 △경제통상대 이윤재 △경영대 전규안 △IT대 서철헌 △베어드학부대 이제우 ◇특수대학원장 △중소기업 윤현덕 △정보과학 양승민 △교육 이경화 △경영 안승호 ◇기관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원철 △교육개발센터장 박삼열 △연구·산학협력처 부처장 직무대리 한철희 △글로벌교육센터장 전홍식 △입학사정센터장 문용 △한국기독교박물관장 권영국 △〃 부관장 최은주 △신문·방송국주간 박웅기 △생활관장 장창훈 △봉사센터장 우윤석 △사이버교육사업단장 정무성 △숭실평화통일연구원장 김성배 △ 〃 부원장 이정철 △ 평생교육원장 한재필 △아동청소년교육센터장 이경화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장 심성섭 △숭실통일리더십연수원 원장 조성기 △〃 부원장 이민근 △산학협력R&D지원센터장 김병기 <팀장 전보> △국제처 글로벌교육센터 글로벌교육 김도연 △지식정보처 출판 김용택 △학생처 학생서비스 겸 학생처 상담센터 상담 겸 학생처 상담센터 양성평등 류진호 △기획조정실 기획·평가 양귀섭 △지식정보처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 이정걸 △연구산학협력처 산학협력 및 산학협력단 파견 겸 연구산학협력처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지원 이형민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 최현관 △국제처 국제협력 홍종현 △대외협력실 비서 김문권 △경력개발센터 경력개발 김미숙 △기획조정실 예산 김범식 △〃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 한남희 △관리처 캠퍼스시설 겸 관리처 안전관리 신준하　 <br/><br/>⊙ 영남대 △교학부총장 박정학 △법무감사실장 최성근 ◇처장 △총무 임병덕 △시설관리 김철규 △대외협력 전정기 ◇센터장 △교육개발 겸직 학생상담 유국열 △중앙기기 석줄기 △여대생커리어개발 겸직 양성평등 이선화 △건축학부장 구본덕 ◇학장 △음악대 이현 △기초교육대 이재운 △경영대 박종무 ◇대학원장 △대학원장 겸직 특수 김석규 △경영 안승철 △공학 정현열 △디자인미술대학장 겸직 문화예술디자인 임경호 △도서관장 김경란 △신문방송사 주간 겸직 출판부장 김영수 ◇소장 △건강관리센터 원규장 △민족문화연구 이수환 △법학연구 배성호 △조형연구 임남수 △고시원장 문상혁 <br/><br/>⊙ 계명대 △동산도서관장 조현정 △신문방송국장 장옥관 △명교생활관장 정승학 △계명원격평생교육원장 이영 △생활체육지도자연수〃 김기진　　<br/><br/>⊙ 금오공대 △대학원장 김경훈 △컨설팅대학원장 김태성 ◇처장 △교무 이재원 △학생 방대석 △기획협력 이승희 ◇학부장 △전자공학 고지환 △산업공학 김경모 △에너지융합소재공학 권오형 △도서관장 임재권 △정보전산원장 정해 △신문방송사주간 이승희 ◇센터소장 △상담지도 방대석 △중소기업산학협력 최성대 △구미산업기술정보 임재권 ◇단장 △산학협력 곽호상 △BK21플러스공학디자인특화산업 김상호 △산학융합사업 곽호상<br/><br/>⊙ 대구대 △감사팀장 및 대구사이버대 사무처장 이기동 △취업역량개발센터 취업교육팀장 권건우 △장애학생지원센터 소장 김봉준 △대구캠퍼스관리센터 〃 권오현 ◇행정실장 △인문대 조기호 △법과대 이선우 △정보통신대학 은용한 △샘명환경대학 김상오 △대학원 종합 정진호 △언론출판문화원 이수찬 △평생교육원 이옥례 <br/><br/>⊙ 신용보증기금 <승진> ◇영업본부장 △부산경남 홍성호 △호남 윤헌기 ◇부서장 △경영관리부 심현구 △업무지원부 송동석 △보증심사부 류재현 △비서실 차재성 ◇영업점장 △송파 황석병 △부산 김동완 △창원 조일환 △사상 장왕순 △부산중앙 박운규 △구미 신준식 △광산 서정규 △동대문재기지원단 김완식 △부산재기지원단 김영우 △대구재기지원단 김대복 △광주재기지원단 윤영선 △대전재기지원단 박문규 <전보> ◇영업본부장 △특화사업 박국근 △서울서부 노용훈 △인천 한동안 △대구경북 성의경 △충청 박학양 ◇부서장 △신용보험부 한기정 △연구개발부 박용평 △IT전략부 전명호 △SOC보증부 한영찬 △기업지원부 오재택 △감사실 신황운 △홍보실 이태용 ◇영업점장 △마포지점 김진원 △영등포 남상종 △광화문 현창익 △가산디지털 곽성철△강서 박찬기 △고양 유인근 △삼성 이봉렬 △안양 최익경 △반월 조시영 △안산 김중열 △부천 최창석 △인천서 조종남 △대구 이동열 △천안 김형중 △대전중앙 전용재 △제주 이성주 △의정부 신영목 △김포 이희열 △춘천 송을호 △강릉 유정렬 △강동 김도영 △원주 이정균 △방배 이재경 △속초 허진행 △동해 이주승 △수원 경성배 △평택 성권모 △오산 송종태 △용인 지종환 △경기광주 이형태 △화성서 송태섭 △인천 김귀현 △남동 경주호 △시화 최명백 △송도국제 권창순 △진주 변성대 △울산 박상규 △마산 엄주원 △녹산 박용효 △울산북 염정인 △김해북 류충원 △포항 박호식 △대구혁신 우창훈 △대구북 변희정 △영주 정만섭 △경산 이상근 △안동 전용찬 △칠곡 김일원 △달성 장동환 △목포 최강대 △익산 김태정 △순천 문윤택 △광주첨단 윤도하 △정읍 정도영 △대전 배창수 △충주 이도영 △서산 한기욱 △대덕 이판기 △아산 윤담 △제천 조남기 △청주서 어순만 △당진 라상화 △마포재기지원단 이병호 △인천〃 손성욱 △영등포〃 고석우 △고양〃 김기현 △강남〃 이규호 △수원〃 정철화 △경남〃 이태용 △감사반장 오건수 김창현 박성근 △동부신용보험센터 이병복 △자본시장센터 김충배 <br/><br/>⊙ S&T모티브 <승진> △이사 김진영 김택성 김철호 △이사대우 곽명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2.txt

제목: MRI, 중증질환 진단 때 보험 적용  
날짜: 2015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8100000008  
본문: Q<br/>엠아르아이나 펫 검사 등 고가의 검사는 어떤 질환일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br/>　<br/>A<br/>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나 펫(PET·양성자단층촬영) 검사는 보통의 검사로는 질병의 확진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검사 장비가 수십억원으로 매우 비싸고 검사 비용도 많이 들어 꼭 필요할 때에만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4대 중증질환(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과 암)을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 이들 검사가 보험 혜택 대상이 돼 환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br/>　엠아르아이는 암을 비롯해 뇌혈관·심장질환 외에도 척추질환이나 크론병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뇌종양을 비롯해 위암 등 각종 암의 진단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뇌혈관질환이나 간질, 뇌염증성 질환, 치매의 진단도 마찬가지이며, 척추질환으로 척수 손상이나 척추 관절질환에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심장질환은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근질환으로 의심되거나 복잡한 선천성 심장기형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장이나 대장, 항문 쪽에 염증이나 궤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크론병의 진단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추가됐습니다. <br/>　펫 검사는 방사성 의약품을 주입한 뒤 기존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는 암세포가 있는지 살피는 고가의 검사입니다. 멀리 퍼진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경우나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장 근육의 생존능력을 평가해야 할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뇌질환의 경우 일부 간질에 적용됩니다. <br/>　두 검사 모두 질환이나 진단 단계별로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세부 인정 기준은 충분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br/> 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3.txt

제목: 손해볼까 정리 못하는 보험 12개…매달 60만원 부담 /상품들 분석한 뒤 중복 보험부터 차례로 해지  
날짜: 2015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8100000021  
본문: Q<br/>몇년 전 아내의 친한 친구가 보험 판매인으로 일했는데, 당시에 아내가 친구를 통해 하나둘 가입한 보험이 현재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60만원입니다. 아내는 모두 필요한 보험들이고, 정리를 하려 해도 손해가 너무 커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장에서 퇴직한 뒤 택시를 몰고 있는데 수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적습니다. 박봉을 쪼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네요.<br/>　<br/>A<br/>2011년 한국의료패널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마다 평균 3.8개의 민간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매월 23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가는 가구는 월 보험료가 30만~40만원에 이릅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민간 의료보험 가입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62%밖에 안 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불안이 민간보험 가입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보험료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당연히 정리를 하고 줄여야 하지만 중도에 해약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br/>　우선 보험 상품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한 12개 보험 상품을 분석해보니 실손보험 2개가 중복돼 가입되어 있고, 암보험이 3개, 일반 상해보험이 2개, 연금보험이 자녀까지 합쳐 3개, 생명보험이 2개입니다. 중복된 보험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긴다면 실손보험 하나와 연금보험 정도가 적절합니다. 암보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있는 암특약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확률이 낮은 사고에 보험금이 크게 설계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습니다. 생명보험도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 수준으로 다달이 부담하는 보험료 대비 가치가 떨어집니다.<br/>　손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크다면, 가장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을 우선 해지해 보세요.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2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실손보험 하나를 먼저 해지하신 뒤에 암보험과 생명보험, 상해보험과 연금보험 하나씩 차례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볼까 전전긍긍하던 분들도 환급금이 당장 손에 들어오면 여유가 생깁니다. 선생님께서 가입한 보험은 유지기간이 5년에서 7년 사이인 것들이 많아 환급률도 생각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렇게 환급금 목돈을 쥐고 나면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4.txt

제목: 국민 60% “과체중” 응답, 식단관리·운동 병행해야  
날짜: 20150128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8100000007  
본문: 최근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신을 ‘과체중’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가량(55%)이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고 밝혔다. 비만 정도가 심해질수록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장 및 혈관질환은 물론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적정 몸무게 기준을 두고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심한 비만은 피해야 한다. 전문의들은 평소 섭취하는 열량을 줄이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을 하면 비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br/>　<br/> 국민 절반 “현재 살 빼는 중”<br/>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인 닐슨이 최근 펴낸 ‘건강과 웰빙에 관한 글로벌 소비자 인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스스로를 과체중이라 여기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는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의 비만 인식도는 세계 평균치보다 높다.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등 60개 나라 3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3일~9월5일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였고 몸무게를 줄이려 노력 중이라고 답한 비율도 50%였다. 체중 조절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중복응답)은 식단관리(75%)와 운동(72%)이었다. <br/>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관리(57%)보다 운동(71%)을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br/>　<br/>　비만 줄이려면 평소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야<br/> 비만 치료의 가장 기본은 섭취 열량, 즉 먹는 양은 줄이고 쓰는 열량을 늘리는 것이다. 조비룡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유전적인 이유로 비만이 발생한 1% 이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두가지를 지킨다면 누구든 몸무게 조절에 성공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문제는 이 두가지 방법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 생활이 불규칙한데다 여기서 비롯되는 육체적 피로와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다. <br/>　비만 예방 및 관리에 이로운 생활 습관의 하나는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고 저녁을 적게 먹는 것이다. 규칙적인 식사, 지방 함량이 많은 중국음식과 서양식 줄이기, 식사 천천히 하기도 대표적이다. 약으로 한번에 비만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다. 비만치료제는 식욕을 줄이거나 지방의 흡수를 막아 적당한 식습관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다. 자칫 약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이 되기도 한다.<br/>　열량 소모에는 걷기나 달리기 등 운동도 좋지만 평소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 실제 하루 8~9시간가량 앉아 있으면 운동을 해도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망률을 낮추지도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 30분마다 일어나 최소한 정수기나 화장실까지라도 이동하는 습관을 기르고, 평소 출퇴근 때도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br/>　<br/>　젊은 시절부터 몸무게 관리해야<br/> 20~30대라도 몸무게가 갑자기 증가하면 심장 및 혈관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 같은 비만이라도 이에 도달하는 속도나 연령대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팀은 20대의 몸무게나 그 변화 속도가 심장 및 혈관질환의 위험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2007~2009년 병원을 찾은 1724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20대 때의 몸무게, 한평생 최대 몸무게에 도달한 나이, 당뇨 진단 당시 몸무게와 나이, 관상동맥질환이나 동맥경화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1년에 1.3㎏ 이상씩 몸무게가 증가한 집단은 관상동맥이 절반 이상 좁아져 있는 비율(14.4%)이 한해 몸무게가 0.15㎏씩 증가한 집단(9.5%)보다 1.5배가량 높았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으로 이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협심증으로 진단되고, 막히면 심근경색이 나타난다. 임수 교수팀은 “<span class='quot1'>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고지방·고칼로리로 분류되는 서구화된 식사 습관을 피하고 되도록 많이 움직여 특히 20~30대에 몸무게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5.txt

제목: 노벨상 수상 꿈꾸는 미래 과학도여 오라!  
날짜: 20150127  
기자: 최화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7100000066  
본문: 과학도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강연이 열린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카오스(CAOS)재단이 주최하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 2월5일과 6일 양일간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br/>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은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자 20년 넘게 공개강연을 열고 있다. 올해는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5일에는 김지환 교수(화학부)의 ‘빛으로 분자와 대화하기’, 전헌수 교수(물리천문학부)의 ‘빛, 광자, 그리고, 반도체’ 강연이 예정돼 있다. 6일에는 하승열 교수(수리과학부)가 ‘수학과 다 함께 차차차’, 우종학 교수(물리천문학부)가 ‘인터스텔라의 우주와 블랙홀’이란 제목으로 강연한다. 특히 5일에는 세포주기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의 팀 헌트 경의 강연도 열린다. 그는 세포분열 과정에서 핵심조절 인자를 발견해 암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br/>　우리 일상생활에는 수학·과학적 원리가 많이 쓰이지만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자연과학은 무조건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이 있다. 자연과학대학 공개강연도 그동안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에 비해 일반인의 접근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올해부터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준비했다. <br/>　강연 참가비는 3만원이며 인터파크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예매 가능하다. 각 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신입생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최화진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6.txt

제목: 98살 최고령 화가 하반영씨 별세 /암투병중에도 ‘백수전’ 준비  
날짜: 2015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7100000043  
본문: 국내 최고령 현역 작가이자 ‘동양의 피카소’로 불린 하반영(사진) 화백이 지난 25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8.<br/>　고인은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일곱살 때 서예와 수묵화를 통해 처음 붓을 잡고 1931년 13살에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조선미술전람회 최고상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중국 대륙을 떠돌다 광복 뒤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며 외길 인생을 걸었다. 90대에 귀향해 2012년 암 수술을 했지만 ‘백수전’ 준비를 하는 등 왕성한 창작열을 과시했다. 2006년에는 아시아 미술계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일본 ‘니카텐’(이과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5남3녀가 있다. 빈소는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은 27일 오전 9시다. (063)274-0763. 뉴시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7.txt

제목: MRI, 중증질환 진단 때 보험 적용  
날짜: 2015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710016080509  
본문: Q: 엠아르아이나 펫 검사 등 고가의 검사는 어떤 질환일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br/><br/>A: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나 펫(PET·양성자단층촬영) 검사는 보통의 검사로는 질병의 확진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검사 장비가 수십억원으로 매우 비싸고 검사 비용도 많이 들어 꼭 필요할 때에만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4대 중증질환(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과 암)을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 이들 검사가 보험 혜택 대상이 돼 환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엠아르아이는 암을 비롯해 뇌혈관·심장질환 외에도 척추질환이나 크론병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뇌종양을 비롯해 위암 등 각종 암의 진단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뇌혈관질환이나 간질, 뇌염증성 질환, 치매의 진단도 마찬가지이며, 척추질환으로 척수 손상이나 척추 관절질환에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심장질환은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근질환으로 의심되거나 복잡한 선천성 심장기형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장이나 대장, 항문 쪽에 염증이나 궤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크론병의 진단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추가됐습니다. 펫 검사는 방사성 의약품을 주입한 뒤 기존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는 암세포가 있는지 살피는 고가의 검사입니다. 멀리 퍼진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경우나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장 근육의 생존능력을 평가해야 할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뇌질환의 경우 일부 간질에 적용됩니다. 두 검사 모두 질환이나 진단 단계별로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세부 인정 기준은 충분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8.txt

제목: 손해볼까 정리 못하는 보험 12개…어찌하오리까  
날짜: 2015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710016080533  
본문: Q: 몇년 전 아내의 친한 친구가 보험 판매인으로 일했는데, 당시에 아내가 친구를 통해 하나둘 가입한 보험이 현재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만 60만원입니다. 아내는 모두 필요한 보험들이고, 정리를 하려 해도 손해가 너무 커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장에서 퇴직한 뒤 택시를 몰고 있는데 수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적습니다. 박봉을 쪼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네요.<br/><br/><br/><br/>A: 2011년 한국의료패널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마다 평균 3.8개의 민간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매월 23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가는 가구는 월 보험료가 30만~40만원에 이릅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민간 의료보험 가입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62%밖에 안 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불안이 민간보험 가입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보험료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당연히 정리를 하고 줄여야 하지만 중도에 해약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br/><br/> 우선 보험 상품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한 12개 보험 상품을 분석해보니 실손보험 2개가 중복돼 가입되어 있고, 암보험이 3개, 일반 상해보험이 2개, 연금보험이 자녀까지 합쳐 3개, 생명보험이 2개입니다. 중복된 보험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긴다면 실손보험 하나와 연금보험 정도가 적절합니다. 암보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있는 암특약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확률이 낮은 사고에 보험금이 크게 설계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습니다. 생명보험도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 수준으로 다달이 부담하는 보험료 대비 가치가 떨어집니다.<br/><br/>손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크다면, 가장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을 우선 해지해 보세요.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2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실손보험 하나를 먼저 해지하신 뒤에 암보험과 생명보험, 상해보험과 연금보험 하나씩 차례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볼까 전전긍긍하던 분들도 환급금이 당장 손에 들어오면 여유가 생깁니다. 선생님께서 가입한 보험은 유지기간이 5년에서 7년 사이인 것들이 많아 환급률도 생각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렇게 환급금 목돈을 쥐고 나면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br/>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89.txt

제목: 국민 절반 “현재 살 빼는 중”…이것만 지키면 몸무게 조절 OK  
날짜: 2015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710016080510  
본문: 최근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신을 ‘과체중’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가량(55%)이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고 밝혔다. 비만 정도가 심해질수록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장 및 혈관질환은 물론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적정 몸무게 기준을 두고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심한 비만은 피해야 한다. 전문의들은 평소 섭취하는 열량을 줄이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을 하면 비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br/><br/><br/><br/>한국인 비만 인식도는 <br/>세계 평균치보다 다소 높아 <br/>2명에 1명꼴로 다이어트중 <br/>심혈관 질환 예방하려면 <br/>규칙적 식사에 활동량 늘려야<br/><br/><br/><br/> 국민 절반 “현재 살 빼는 중”<br/><br/>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인 닐슨이 최근 펴낸 ‘건강과 웰빙에 관한 글로벌 소비자 인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스스로를 과체중이라 여기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는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의 비만 인식도는 세계 평균치보다 높다.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등 60개 나라 3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3일~9월5일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였고 몸무게를 줄이려 노력 중이라고 답한 비율도 50%였다. 체중 조절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중복응답)은 식단관리(75%)와 운동(72%)이었다. <br/><br/>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관리(57%)보다 운동(71%)을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br/><br/><br/><br/> 비만 줄이려면 평소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야<br/><br/> 비만 치료의 가장 기본은 섭취 열량, 즉 먹는 양은 줄이고 쓰는 열량을 늘리는 것이다. 조비룡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유전적인 이유로 비만이 발생한 1% 이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두가지를 지킨다면 누구든 몸무게 조절에 성공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문제는 이 두가지 방법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 생활이 불규칙한데다 여기서 비롯되는 육체적 피로와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다. <br/><br/> 비만 예방 및 관리에 이로운 생활 습관의 하나는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고 저녁을 적게 먹는 것이다. 규칙적인 식사, 지방 함량이 많은 중국음식과 서양식 줄이기, 식사 천천히 하기도 대표적이다. 약으로 한번에 비만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다. 비만치료제는 식욕을 줄이거나 지방의 흡수를 막아 적당한 식습관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다. 자칫 약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이 되기도 한다.<br/><br/> 열량 소모에는 걷기나 달리기 등 운동도 좋지만 평소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 실제 하루 8~9시간가량 앉아 있으면 운동을 해도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망률을 낮추지도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 30분마다 일어나 최소한 정수기나 화장실까지라도 이동하는 습관을 기르고, 평소 출퇴근 때도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br/><br/><br/><br/> 젊은 시절부터 몸무게 관리해야<br/><br/> 20~30대라도 몸무게가 갑자기 증가하면 심장 및 혈관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 같은 비만이라도 이에 도달하는 속도나 연령대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팀은 20대의 몸무게나 그 변화 속도가 심장 및 혈관질환의 위험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2007~2009년 병원을 찾은 1724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20대 때의 몸무게, 한평생 최대 몸무게에 도달한 나이, 당뇨 진단 당시 몸무게와 나이, 관상동맥질환이나 동맥경화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1년에 1.3㎏ 이상씩 몸무게가 증가한 집단은 관상동맥이 절반 이상 좁아져 있는 비율(14.4%)이 한해 몸무게가 0.15㎏씩 증가한 집단(9.5%)보다 1.5배가량 높았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으로 이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협심증으로 진단되고, 막히면 심근경색이 나타난다. 임수 교수팀은 “<span class='quot1'>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고지방·고칼로리로 분류되는 서구화된 식사 습관을 피하고 되도록 많이 움직여 특히 20~30대에 몸무게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0.txt

제목: 노벨상 수상 꿈꾸는 미래 과학도여 오라!  
날짜: 2015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610016065590  
본문: 과학도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강연이 열린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카오스(CAOS)재단이 주최하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 2월5일과 6일 양일간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br/><br/>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은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자 20년 넘게 공개강연을 열고 있다. 올해는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5일에는 김지환 교수(화학부)의 ‘빛으로 분자와 대화하기’, 전헌수 교수(물리천문학부)의 ‘빛, 광자, 그리고, 반도체’ 강연이 예정돼 있다. 6일에는 하승열 교수(수리과학부)가 ‘수학과 다 함께 차차차’, 우종학 교수(물리천문학부)가 ‘인터스텔라의 우주와 블랙홀’이란 제목으로 강연한다. 특히 5일에는 세포주기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의 팀 헌트 경의 강연도 열린다. 그는 세포분열 과정에서 핵심조절 인자를 발견해 암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br/><br/> 우리 일상생활에는 수학·과학적 원리가 많이 쓰이지만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자연과학은 무조건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이 있다. 자연과학대학 공개강연도 그동안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에 비해 일반인의 접근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올해부터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준비했다. <br/><br/> 강연 참가비는 3만원이며 인터파크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예매 가능하다. 각 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신입생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br/><br/>최화진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1.txt

제목: 98살 최고령 화가 하반영씨 별세…암 투병 중에도 ‘백수전’ 준비  
날짜: 2015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610016064762  
본문: 국내 최고령 현역 작가이자 ‘동양의 피카소’로 불린 하반영 화백이 지난 25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8.<br/><br/> 고인은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일곱살 때 서예와 수묵화를 통해 처음 붓을 잡고 1931년 13살에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조선미술전람회 최고상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중국 대륙을 떠돌다 광복 뒤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며 외길 인생을 걸었다. 90대에 귀향해 2012년 암 수술을 했지만 ‘백수전’ 준비를 하는 등 왕성한 창작열을 과시했다. 2006년에는 아시아 미술계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일본 ‘니카텐’(이과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br/><br/> 유족으로는 5남3녀가 있다. 빈소는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은 27일 오전 9시다. (063)274-0763. <br/><br/>뉴시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2.txt

제목: 당신은 할 수 있나?  
날짜: 20150123  
기자: 길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3100000104  
본문: 며칠 전 에 실린 칼럼 ‘두 말과 원전 이야기’를 읽다가 그야말로 “악!”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30년으로 정해진 설계 연한이 꽉 차 현재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사고가 났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칼럼에 따르면, 2009년 3월 사용후 핵연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핵연봉을 한데 묶는 이음매가 파손돼 두 개는 물에 빠지고 하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고 말았다.<br/>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span class='quot0'>어떻게 수습을 할 수 없으니</span>” 한국수력원자력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들여보내 “<span class='quot0'>폐연료를 집게로 직접 처리하게 했다</span>”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에선 너무 위험해 인간이 10만~100만년 동안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는 고선량의 방사능이 배출된다. 누가 그 작업원에게 그런 위험천만한 작업을 지시했으며, 그 작업원은 왜 그 일을 받아들였을까. 실제 그는 4년 전 검찰에서 “몸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이 이어졌다. 담배를 피울 줄 알았다면 두어갑 정도는 거뜬히 소진했을 것이다.<br/>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본에서 3·11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터진 뒤에도 나는 방사선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기자였다. 그래서인지 수증기 폭발로 천장이 날아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을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기분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당연하게도(!) 기자들의 현장 접근을 막았는데, 얼마나 무식했으면 ‘기자라면 굴하지 않고 현장에 접근해 생생한 기사를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br/>　그로부터 몇달 뒤 평소 알던 일본인 지인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방사선과 피폭의 위험에 대해 알기 쉽게 쓴 책을 최근 읽게 됐는데 이를 번역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였다. (朽ちていった命─被曝治療83日間の記錄)이라는 제목의 작은 문고판 책을 받아 들고 돌아와 밤새워 뜬눈으로 읽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두려움에 몸을 떨며 책 번역을 시작하게 됐다.<br/>　책에는 1999년 9월 핵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치사량을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제이시오(JCO) 임계사고’의 피폭자인 오우치 히사시가 83일 동안 치료를 받다 숨져가는 과정이 묘사돼 있었다. 피폭 직후 멀쩡해 보이던 오우치는 10여일이 지나자 정신을 잃었고, 20여일이 지나자 의식을 잃게 된다.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 세포 재생에 필요한 염색체가 갈가리 파괴됐기 때문이다. 염색체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오우치는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다. 치사량이 아니라도 방사선에 피폭되면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는 인간의 몸에 장기간에 걸쳐 암 등 다양한 형태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br/>　이미 후쿠시마 현장 작업원의 몸에서도 여러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원전 현장에서 4개월 정도 일했던 56살 작업원은 위·대장·방광 등 3곳에 암이 발견돼 산재를 신청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선 현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 작업원들이 피폭 허용치를 넘긴 탓에 신참들만 모아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매일같이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중이다.<br/>　우리는 이런 원자력 발전을 이어가야 할까. 당신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치사량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저 방에 들어가 ‘집게로 폐연료봉을 처리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싫다. 그래서 원전 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와 그 속에서 찾아내야 할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br/>길윤형 도쿄 특파원 charism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3.txt

제목: [특파원 칼럼] 당신은 할 수 있나? / 길윤형  
날짜: 2015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210016039038  
본문: 며칠 전 <한겨레>에 실린 칼럼 ‘두 말과 원전 이야기’를 읽다가 그야말로 “악!”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30년으로 정해진 설계 연한이 꽉 차 현재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사고가 났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칼럼에 따르면, 2009년 3월 사용후 핵연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핵연봉을 한데 묶는 이음매가 파손돼 두 개는 물에 빠지고 하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고 말았다.<br/><br/>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span class='quot0'>어떻게 수습을 할 수 없으니</span>” 한국수력원자력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들여보내 “<span class='quot0'>폐연료를 집게로 직접 처리하게 했다</span>”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에선 너무 위험해 인간이 10만~100만년 동안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는 고선량의 방사능이 배출된다. 누가 그 작업원에게 그런 위험천만한 작업을 지시했으며, 그 작업원은 왜 그 일을 받아들였을까. 실제 그는 4년 전 검찰에서 “몸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이 이어졌다. 담배를 피울 줄 알았다면 두어갑 정도는 거뜬히 소진했을 것이다.<br/><br/>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본에서 3·11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터진 뒤에도 나는 방사선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기자였다. 그래서인지 수증기 폭발로 천장이 날아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을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기분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당연하게도(!) 기자들의 현장 접근을 막았는데, 얼마나 무식했으면 ‘기자라면 굴하지 않고 현장에 접근해 생생한 기사를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br/><br/> 그로부터 몇달 뒤 평소 알던 일본인 지인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방사선과 피폭의 위험에 대해 알기 쉽게 쓴 책을 최근 읽게 됐는데 이를 번역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였다. <썩어버린 생명-피폭치료 83일의 기록>(朽ちていった命─被曝治療83日間の記錄)이라는 제목의 작은 문고판 책을 받아 들고 돌아와 밤새워 뜬눈으로 읽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두려움에 몸을 떨며 책 번역을 시작하게 됐다.<br/><br/> 책에는 1999년 9월 핵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치사량을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제이시오(JCO) 임계사고’의 피폭자인 오우치 히사시가 83일 동안 치료를 받다 숨져가는 과정이 묘사돼 있었다. 피폭 직후 멀쩡해 보이던 오우치는 10여일이 지나자 정신을 잃었고, 20여일이 지나자 의식을 잃게 된다.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 세포 재생에 필요한 염색체가 갈가리 파괴됐기 때문이다. 염색체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오우치는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다. 치사량이 아니라도 방사선에 피폭되면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는 인간의 몸에 장기간에 걸쳐 암 등 다양한 형태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br/><br/> 이미 후쿠시마 현장 작업원의 몸에서도 여러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원전 현장에서 4개월 정도 일했던 56살 작업원은 위·대장·방광 등 3곳에 암이 발견돼 산재를 신청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선 현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 작업원들이 피폭 허용치를 넘긴 탓에 신참들만 모아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매일같이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중이다.<br/><br/> 우리는 이런 원자력 발전을 이어가야 할까. 당신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치사량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저 방에 들어가 ‘집게로 폐연료봉을 처리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싫다. 그래서 원전 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와 그 속에서 찾아내야 할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br/><br/>길윤형 도쿄 특파원 charism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4.txt

제목: 13월의 보너스? 포기하고 함께 살자!  
날짜: 2015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2100000062  
본문: 한 집안의 가장이자 중견기업 과장인 A씨는 월평균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이다. 교육비,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사용했고 어지간한 지출은 신용 및 직불카드를 이용한다. 교회에 다니며 헌금도 상당히 했으며, 출마한 지인을 위해 정치자금 후원도 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사 연금보험 상품에도 매달 30만원씩 불입하고, 의료실비,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여럿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육비, 의료비, 연금보험 납입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고 국세청에서 200만원을 훌쩍넘는 돈을 환급받아 ‘13월의 보너스’를 톡톡히 누렸다.<br/>　조그만 기업체 간부로 일하는 B씨는 식대 10만원을 포함 250만원 월급을 받는다. 그 역시 아이 둘을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다가 어지간한 지출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한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없는 돈을 쪼개 여러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가 되는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족 전체적으로 20만원 이상 불입하고 있다. B씨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채 5만원이 되지 않았다. 둘 다 아이를 키우고 상당액의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며 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다.<br/>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지출은 비슷하지만 환급받는 세금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난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 해당되고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즉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공제에 해당되는 핵심 항목은 부양가족과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 및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보험, 기부금 등이다.<br/>　박근혜 정부가 기존 소득공제 중심체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꾸면서 그나마 고소득층에 유리한 규정이 다소 바로잡히긴 했지만, 13월의 보너스니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줄었느니 하는 불만의 목소리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급여생활자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들만의 ‘풍족한 불평’인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은 왜 하고 세금 환급은 왜 해주는가? 특히나 교육비, 의료비, 연금보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왜 해주는가? 사실 한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원 버는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교육비, 의료비 똑같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각종 보험이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상품 등에 가입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이 허다한데, 정부는 각종 사보험상품 납입액에 상당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한데, 세금을 통한 빈부격차 조정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br/>　이런 식의 각종 공제제도는 소득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다. 물론 기부금이나 거래투명성을 위한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등에 대한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을 꾸려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교육비와 각종 사보험 상품에 납입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는 소득간 격차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구실을 하며,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왜곡한다. 부양하는 아이가 있다고 세금공제 하지 말고 어린이 수당을 지급하라. 교육비 썼다고 환급해주지 말고 그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부터 시행하라. 병원비 많이 썼다고 세금 공제 말고 국민건강보험에 세금을 써라. ○○생명의 연금보험에 불입했다고 세금 깎아주지 말고 그 돈으로 기초연금을 올려라. ‘지출’했다고 ‘세금’을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세금’으로 ‘지출’ 자체를 줄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며 올바른 복지국가의 방향이다. 13월의 보너스, 포기하고 함께 살자!<br/>김형모 /청년유니온 조합원·회사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5.txt

제목: 삶이 버거울 때는 잡초를 보라  
날짜: 2015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1100000077  
본문: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죽는다더니 요즘 내 꼴이 꼭 그 형국이다. 소한이 지났지만 동장군의 기세는 여전하다. 그 기세에 눌려 죽은 듯 방콕(!)하고 지냈더니 몸이 찌뿌둥하다. 모처럼 날씨가 좀 풀려 두툼한 잠바를 걸치고 마을을 벗어나 논밭뙈기 사이로 난 농로로 걸음을 떼어놓는다. 사실 나는 지난해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 농로를 거의 매일같이 걸었다. 단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논밭두렁에 돋아난 잡초를 뜯어먹으러! 웬 잡초 타령이냐고? 나는 식재료비 0원의 잡초를 뜯어먹으면서 그 강한 생명력과 뛰어난 약성(藥性)에 반했고, 흔하디흔한 잡초야말로 미래 식량의 한 대안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덕분에 ‘흔한 것이야말로 귀하다!’는 깨침도 새겼다. 그렇지 않은가. 금화 같은 ‘흔치 않은 것’을 숭상한 결과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경제 체제는 이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만이 전지구적인 파국을 막을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br/>　야산에 둘러싸인 농로는 눈이 녹지 않아 미끄러웠다. 빨리 걸을 일도 없지만 얼어붙은 길 때문에 걸음은 더욱 느리다. 그렇게 걷다가 농로 곁의 논두렁을 살펴보니, 혹한 속에서도 살아남은 푸른빛 잡초들이 보인다. 미끄러질까봐 내 팔짱에 매달려 걷던 아내도 잡초들을 보고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뜬다. “어머, 저 퍼렇게 살아있는 것 좀 봐!” “그렇구려. 그런데 저런 식물들을 뭐라 부른다고 했지?” “아이 참, 또 잊었어요? 로제트 식물요.”<br/>　잎을 땅에 찰싹 붙이고 겨울을 나는 식물을 그렇게 부른다. 오늘 우리 눈에 띈 로제트 식물은 개망초, 민들레, 달맞이꽃, 곰보배추…. 저 식물들은 어쩜 저렇게 한껏 몸을 낮추고 겨울을 이겨낼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 가을에 종자를 뿌리는 이 식물들은 겨울을 견뎌야만 이듬해 봄에 싹을 틔운다. 혹한을 견뎌내는 로제트 식물뿐 아니라 실은 모든 잡초들이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래 잡초가 다른 식물들보다 강한 건 아니다. 잡초는 약한 식물이다. 약한데도 잡초가 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보다 더 강한 식물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이다. 잡초는 예측불가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력을 가졌다. 어떤 식물학자는 이런 잡초를 두고 “<span class='quot0'>예측불가능한 난세를 좋아하는 식물</span>”이라고 했다. 햐, 식물의 세계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웅숭깊다.<br/>　사실 ‘난세’란 말은 어지러운 인간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요즘 들어 모두들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하루 세끼 밥을 굶지 않기 위해 애면글면해야 하고, 세상 인심은 점점 각박해지고, 신용불량자는 점차 늘어나고, 국민을 위한다는 국가는 도리어 국민을 괴롭히는 ‘괴물’로 인식되고, 그러다 보니 하늘이 선물로 준 신성한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연 ‘난세’인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만큼? 잡초는 예측불가의 난세에도 잘 살아간다는데…. 그렇다.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잡초는 자살하지 않는다. 밟히고 또 밟히면서도 굳세게 살아가는 질경이를 보라. 본래 질경이는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에서는 약한 식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밟히며 살아가는 데는 질경이를 따라올 식물이 없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길바닥을 서식지로 삼는 것. 여린 잎 속에 강한 실 줄기가 들어 있어 사람들 발길에 밟혀도 다시 오뚝 일어나며, 씨앗 속에 젤리 모양의 물질이 있어 물에 닿으면 부풀어 오르며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씨앗을 퍼뜨린다고. 와우, 놀라워라! 사람의 신발이나 동물의 발, 심지어는 자동차의 바퀴에 붙어 자기 종족을 천지사방 퍼뜨린다나. 밟히고 또 밟히면서도 씩씩하고 늠름하게 살아가는 질경이를 볼 때마다 그 생존의 지혜로움에 짝짝짝^^^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br/>　길가에 서식하기 때문에 자주 밟히는 잡초 가운데는 민들레도 있다. 물론 밟히면서도 일어난다. 하지만 밟히면서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밟히면 민들레는 옆으로 자라는 기막힌 지혜를 발휘한다. 암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각광받는 애기땅빈대도 사람들의 통행이 붐비는 길 위에 납작 엎드려 짓밟히면서 생명을 영위한다. 길바닥에 붙어살기 때문에 꽃을 피워도 벌이나 나비의 눈에 띄지 못하지만, 개미와 파트너를 이루어 꽃가루받이를 하여 씨앗을 퍼뜨린다. 이런 지혜로운 생존전략을 보면, 잡초는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난세의 스승으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br/>　지난해 논에 모를 낼 무렵 중부지방에는 가뭄이 심했다. 나는 마을 농사가 걱정되어 농로를 걸으며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논밭을 살펴보았다. 식물들이 노랗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논밭두렁이나 길가에 서식하는 잡초들은 싱싱한 초록빛을 내뿜고 있었다. 사람들이 재배하는 식물들과 달리 잡초들이 가혹한 환경에서도 씩씩하고 늠름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뭘까. 그건 곧 깊게 뻗어 내린 ‘뿌리’. 물을 풍부하게 제공받는 수경재배 식물은 뿌리를 길게 뻗지 않는다. 뿌리를 뻗지 않아도 충분히 물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물이 수분이 부족할 때는 물을 찾느라 뿌리가 쭉쭉 길어진다. 그렇다면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 아이다 미쓰오의 시에 ‘생명의 뿌리’라는 작품이 있다. “<span class='quot1'>눈물을 참고 슬픔을 견뎠을 때/ 입으로 말하지 않고 고통을 견뎠을 때/변명을 하지 않고 잠자코 비판을 견뎠을 때/ 분노를 삭이고 굴욕을 견뎠을 때/ 당신의 눈빛은 깊어지고/ 생명의 뿌리는 깊어진다.</span>”(이나가키 히데히로, 에서 인용) <br/>　인간이 역경을 잘 견뎌낼 때 존재의 성숙에 이를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 어쩜 시인은 역경 속에서 더욱 깊게 뿌리내리는 잡초에게서 이런 삶의 지혜를 터득했는지도 모른다. 농작물을 키우는 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잡초로 쇠뜨기가 있다. 이 식물의 땅 위 줄기는 몇십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뿌리줄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땅속 깊이 종횡무진 뻗어나간다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일본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으로 인해 폐허가 된 후 가장 먼저 시퍼렇게 돋아난 식물이 바로 쇠뜨기였다고. 그래서 이 식물을 ‘지옥에서 살아난 잡초’라 부르기도 한다.<br/>　이처럼 가혹한 환경에서도 생명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잡초를 생각하면, 혹한의 겨울을 힘겹게 나면서도 도통 엄살을 부릴 수가 없다. ‘식물세계의 하층민’인 잡초, 인도식으로 말하면 ‘불가촉천민’쯤 되는 잡초지만, 언제나 향상의 의지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르며 살아가는 생명의 신비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잡초만 그런 것은 아니다. 얇은 판자때기 집에서 오들오들 떨면서도 까불까불 명랑하게 꼬리치는 우리집 흰둥이나 저 추운 설산에 갇힌 산짐승들을 비롯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난경(難境) 속에서도 지금보다 더 향상하려는 삶의 의지를 무량무량 불태우고 있다. 함석헌 선생이 말하셨던가. 생명은 문자 그대로, ‘살아라!’(生)라는 하늘의 명(命)이라고. 흔하디흔하기에 정말 귀한 잡초를 스승 삼고 난 후 나는 잡초를 통해 생의 존엄과 절대긍정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흰둥이가 꼬리치며 새해 선물로 준 ‘명랑’이라는 화두를 시와 노래와 춤으로 풀어 한껏 낭비하며 살아가려 한다. 　고진하 목사·시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6.txt

제목: 악마의 길을 걷는다, ‘참나’를 찾아  
날짜: 20150121  
기자: 서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1100000068  
본문: 작고 가냘픈 몸으로 자신의 몸집보다 큰 배낭을 짊어지고 길을 나선 26살 여인이 있다. 건장한 남자들도 좀처럼 완주하기 힘들다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CT)을 걷고 또 걷는다. 멕시코 국경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미국 서부를 종단하는 4200여㎞의 도보여행 코스. 거친 등산로와 눈 덮인 고산지대, 9개의 산맥과 사막, 광활한 평원과 화산지대까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자연환경을 거치고서야 완주할 수 있어 ‘악마의 코스’로 불린다. 중간중간에 있는 방명록에 그는 이런 글을 남긴다. “1일째, 몸이 그댈 거부하면 몸을 초월하라. ­-에밀리 디킨슨 그리고 셰릴 스트레이드.” “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 그렇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셰릴 스트레이드.” 그는 왜 이런 극한의 여행에 나선 걸까?<br/>　가난한 삶, 아빠의 폭력, 부모의 이혼….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엄마, 남동생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나 했더니, 기댈 수 있는 큰 산이자 유일한 희망인 엄마가 덜컥 암에 걸려 세상을 뜬다. 이후 엄청난 상실감에 젖어 마약과 섹스로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셰릴 스트레이드. 엉망진창의 나락에서 문득 정신을 차린 그는 슬픔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극한의 공간인 피시티를 걷기로 결심한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했던 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연간 125명가량만이 평균 152일 걸려 완주에 성공한다는 이 코스를 그는 94일 만에 걸어낸다. 그리고 그간의 경험을 짧은 자서전 형식의 에 담아낸다. 2012년 책은 출간과 동시에 논픽션 부문 1위에 오르고 각종 베스트셀러 차트를 휩쓴다.<br/>　비행기에서 를 읽은 할리우드 배우 리스 위더스푼은 눈물을 흘린다. 영화제작사를 차린 지 얼마 안 된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셰릴 스트레이드를 수소문해 영화 판권을 얻는다. 영화 등의 원작 작가인 닉 혼비도 를 읽고 크게 감동한 나머지 제작진에게 연락해 각본을 자청한다. 지난해 아카데미 3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의 후반 작업을 하던 장마크 발레 감독은 의 각본을 읽고 감독직을 수락한다.<br/>　리스 위더스푼은 셰릴 스트레이드 역을 맡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혼신의 연기를 펼친다. 발톱이 빠지고 커다란 배낭에 등과 허리가 파이는 고통이 보는 이에게 그대로 전해져온다. 지난날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끝내 이를 극복해내는 모습은 관객들 저마다의 상처까지 치유해주는 듯하다. 같은 로맨틱 코미디의 리스 위더스푼은 잊어도 좋다. 그는 로 다음달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영화 당사자인 셰릴 스트레이드는 촬영장에서 늘 리스 위더스푼과 함께하며 교감했다고 한다.<br/>　스크린에 담긴 대자연은 때론 공포와 고통의 대상이지만, 모든 걸 압도할 만큼 경이롭고 아름답다. 극중 셰릴 스트레이드는 힘들 때마다 엄마 바비(로라 던)가 생전에 좋아했던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철새는 날아가고’(엘 콘도르 파사)를 흥얼거리는데, 영화가 끝나고 원곡이 흐를 때의 벅찬 감동은 엔딩 자막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한다. 22일 개봉. 　<br/>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br/> 사진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7.txt

제목: 치핵 등 항문질환, 잦은 술과 추위로 악화된다  
날짜: 2015012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1100000076  
본문: 대변에서 출혈을 보면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치핵 등 치질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말연시에 잦은 술자리를 가진 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치질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 알코올과 추위는 치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의 하나여서다. 치핵 등 치질은 초기에는 생활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며 설혹 악화돼도 수술로 치료가 잘되지만, 평소 치질을 일으키는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높다. 가족 중에 대장암 등 대장질환의 병력이 있다면 출혈의 원인이 이들 질환에서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br/>　<br/> 연말연시 술과 추위는 항문질환의 독 <br/> 항문질환 가운데 가장 흔한 치핵은 항문 근처의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것이다. 변을 보다가 이 혈관이 터지면 출혈이 생긴다. 혈관 확장을 불러오는 환경에 처하면 그만큼 출혈 위험이 커진다. 술이 대표적인 악화 인자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항문 근처의 혈관도 예외가 아니다. 술을 마시면 치핵이 있는 곳의 점막과 혈관이 부풀어 올라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추위도 마찬가지다.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피부와 근육이 수축된다. 그 결과 항문 주변에 있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 압력을 견디려고 모세혈관이 부풀어 오른다. 이때 변을 보면 출혈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br/>　<br/>　식습관 등 생활습관 개선해야 재발 방지 <br/> 적은 양의 출혈 등 증상이 가벼운 치핵은 식습관 개선이나 좌욕 등으로도 증상이 호전되거나 치료될 수 있다. 우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변비 증상이 개선되며 출혈 증상이 상당히 줄어든다.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20~30분 정도 담그는 좌욕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화장실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며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의 혈관이 압력을 받아 그만큼 치핵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는 피해야 한다. <br/>　피로와 스트레스도 치핵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치핵이 심해져 대변을 볼 때마다 늘어진 점막이 항문 밖으로 나와 다시 들어가지 않거나 변을 보지 않을 때에도 출혈이나 통증이 계속되면,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요법만으로는 증상 개선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한 뒤에도 치핵을 일으키는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치질은 흔히 여성한테 더 잦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남성 환자가 더 많다. 다만 20대는 여성 환자가 더 많은데, 이는 변비나 임신 등이 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r/>　<br/>　 혈변은 치루·치열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도<br/> 변을 볼 때 출혈이 생기는 치질에는 치핵 이외에도 치열이나 치루도 포함된다. 치열은 항문이 찢어져 출혈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주로 변비가 있어 딱딱한 변을 볼 때나 설사가 계속될 때 생긴다. 치핵과 마찬가지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고 물을 자주 마셔 변비를 개선하면 좋아진다. 좌욕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항문이 찢어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며 항문 점막이 딱딱해지고 항문 공간이 좁아지는 만성 단계에 이르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성 치열은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br/>　치루는 항문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해 고름 주머니가 생기고 이 주머니가 밖으로 터진 상태를 말한다. 대장의 끝 부분이나 항문 주변 피부 사이로 피나 고름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 고름 주머니는 땀구멍이 피지에 막혀 생기는 여드름처럼 항문선의 입구가 막히며 염증이 생겨 만들어진다. 이 치루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방치하면 치료가 어려운데다가 항문의 괄약근을 망가뜨리는 복잡성 치루로 악화될 수 있어서다. 치질 이외에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혈변이 생길 수 있다. 50대 이상이나 가족 중에 대장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　<br/>도움말: 강상희 고려대 의대 구로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박선진 경희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홍영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8.txt

제목: [왜냐면] 13월의 보너스? 포기하고 함께 살자!  
날짜: 2015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110016030462  
본문: 한 집안의 가장이자 중견기업 과장인 A씨는 월평균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이다. 교육비,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사용했고 어지간한 지출은 신용 및 직불카드를 이용한다. 교회에 다니며 헌금도 상당히 했으며, 출마한 지인을 위해 정치자금 후원도 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사 연금보험 상품에도 매달 30만원씩 불입하고, 의료실비,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여럿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육비, 의료비, 연금보험 납입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고 국세청에서 200만원을 훌쩍넘는 돈을 환급받아 ‘13월의 보너스’를 톡톡히 누렸다.<br/><br/>조그만 기업체 간부로 일하는 B씨는 식대 10만원을 포함 250만원 월급을 받는다. 그 역시 아이 둘을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다가 어지간한 지출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한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없는 돈을 쪼개 여러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가 되는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족 전체적으로 20만원 이상 불입하고 있다. B씨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채 5만원이 되지 않았다. 둘 다 아이를 키우고 상당액의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며 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지출은 비슷하지만 환급받는 세금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난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 해당되고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즉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공제에 해당되는 핵심 항목은 부양가족과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 및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보험, 기부금 등이다.<br/><br/>박근혜 정부가 기존 소득공제 중심체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꾸면서 그나마 고소득층에 유리한 규정이 다소 바로잡히긴 했지만, 13월의 보너스니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줄었느니 하는 불만의 목소리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급여생활자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들만의 ‘풍족한 불평’인 경우가 많다. <br/><br/>연말정산은 왜 하고 세금 환급은 왜 해주는가? 특히나 교육비, 의료비, 연금보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왜 해주는가? 사실 한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원 버는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교육비, 의료비 똑같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각종 보험이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상품 등에 가입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이 허다한데, 정부는 각종 사보험상품 납입액에 상당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br/><br/>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한데, 세금을 통한 빈부격차 조정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식의 각종 공제제도는 소득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다. 물론 기부금이나 거래투명성을 위한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등에 대한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을 꾸려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교육비와 각종 사보험 상품에 납입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는 소득간 격차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구실을 하며,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왜곡한다.<br/><br/>부양하는 아이가 있다고 세금공제 하지 말고 어린이 수당을 지급하라. 교육비 썼다고 환급해주지 말고 그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부터 시행하라. 병원비 많이 썼다고 세금 공제 말고 국민건강보험에 세금을 써라. ○○생명의 연금보험에 불입했다고 세금 깎아주지 말고 그 돈으로 기초연금을 올려라.<br/><br/> ‘지출’했다고 ‘세금’을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세금’으로 ‘지출’ 자체를 줄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며 올바른 복지국가의 방향이다. <br/><br/>13월의 보너스, 포기하고 함께 살자!<br/><br/>김형모 청년유니온 조합원·회사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699.txt

제목: 치핵 등 항문 질환, 잦은 술과 추위로 악화된다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010016024163  
본문: 대변에서 출혈을 보면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치핵 등 치질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말연시에 잦은 술자리를 가진 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치질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 알코올과 추위는 치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치핵 등 치질은 초기에는 생활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며 설혹 악화돼도 수술로 치료가 잘되지만, 평소 치질을 일으키는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높다. 가족 중에 대장암 등 대장질환의 병력이 있다면 출혈의 원인이 이들 질환에서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br/><br/>연말연시 술과 추위는 항문질환의 독 <br/><br/> 항문질환 가운데 가장 흔한 치핵은 항문 근처의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것이다. 변을 보다가 이 혈관이 터지면 출혈이 생긴다. 혈관 확장을 불러오는 환경에 처하면 그만큼 출혈 위험이 커진다. 술이 대표적인 악화 인자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항문 근처의 혈관도 예외가 아니다. 술을 마시면 치핵이 있는 곳의 점막과 혈관이 부풀어 올라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추위도 마찬가지다.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피부와 근육이 수축된다. 그 결과 항문 주변에 있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 압력을 견디려고 모세혈관이 부풀어 오른다. 이때 변을 보면 출혈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br/><br/>식습관 등 생활습관 개선해야 재발 방지 <br/><br/> 적은 양의 출혈 등 증상이 가벼운 치핵은 식습관 개선이나 좌욕 등으로도 증상이 호전되거나 치료될 수 있다. 우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변비 증상이 개선되며 출혈 증상이 상당히 줄어든다.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20~30분 정도 담그는 좌욕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화장실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며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의 혈관이 압력을 받아 그만큼 치핵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는 피해야 한다. <br/><br/> 피로와 스트레스도 치핵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치핵이 심해져 대변을 볼 때마다 늘어진 점막이 항문 밖으로 나와 다시 들어가지 않거나 변을 보지 않을 때에도 출혈이나 통증이 계속되면,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요법만으로는 증상 개선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한 뒤에도 치핵을 일으키는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치질은 흔히 여성한테 더 잦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남성 환자가 더 많다. 다만 20대는 여성 환자가 더 많은데, 이는 변비나 임신 등이 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r/><br/>혈변은 치루·치열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도 <br/><br/>변을 볼 때 출혈이 생기는 치질에는 치핵 이외에도 치열이나 치루도 포함된다. 치열은 항문이 찢어져 출혈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주로 변비가 있어 딱딱한 변을 볼 때나 설사가 계속될 때 생긴다. 치핵과 마찬가지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고 물을 자주 마셔 변비를 개선하면 좋아진다. 좌욕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항문이 찢어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며 항문 점막이 딱딱해지고 항문 공간이 좁아지는 만성 단계에 이르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성 치열은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br/><br/> 치루는 항문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해 고름 주머니가 생기고 이 주머니가 밖으로 터진 상태를 말한다. 대장의 끝 부분이나 항문 주변 피부 사이로 피나 고름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 고름 주머니는 땀구멍이 피지에 막혀 생기는 여드름처럼 항문선의 입구가 막히며 염증이 생겨 만들어진다. 이 치루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방치하면 치료가 어려운데다가 항문의 괄약근을 망가뜨리는 복잡성 치루로 악화될 수 있어서다. 치질 이외에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혈변이 생길 수 있다. 50대 이상이나 가족 중에 대장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도움말: 강상희 고려대 의대 구로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박선진 경희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홍영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0.txt

제목: 삶이 버거울 때는 잡초를 보라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010016024162  
본문: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죽는다더니 요즘 내 꼴이 꼭 그 형국이다. 소한이 지났지만 동장군의 기세는 여전하다. 그 기세에 눌려 죽은 듯 방콕(!)하고 지냈더니 몸이 찌뿌둥하다. 모처럼 날씨가 좀 풀려 두툼한 잠바를 걸치고 마을을 벗어나 논밭뙈기 사이로 난 농로로 걸음을 떼어놓는다. 사실 나는 지난해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 농로를 거의 매일같이 걸었다. 단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논밭두렁에 돋아난 잡초를 뜯어먹으러! 웬 잡초 타령이냐고? 나는 식재료비 0원의 잡초를 뜯어먹으면서 그 강한 생명력과 뛰어난 약성(藥性)에 반했고, 흔하디흔한 잡초야말로 미래 식량의 한 대안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덕분에 ‘흔한 것이야말로 귀하다!’는 깨침도 새겼다. 그렇지 않은가. 금화 같은 ‘흔치 않은 것’을 숭상한 결과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경제 체제는 이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만이 전지구적인 파국을 막을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br/><br/>개망초·달맞이꽃·곰보배추 <br/>몸을 한껏 낮추고 <br/> 겨울을 지혜롭게 이겨낸다 <br/><br/>짓밟히며 강해지는 <br/> 질경이·민들레·애기땅빈대 <br/><br/>원자폭탄 투하로 <br/> 폐허가 된 일본 히로시마에서 <br/>가장 먼저 시퍼렇게 돋아나 <br/>‘지옥에서 살아난 잡초’로 불리는 쇠뜨기 <br/>이들을 보면 <br/>삶의 역경에 맞설 힘이 생긴다 <br/><br/> 야산에 둘러싸인 농로는 눈이 녹지 않아 미끄러웠다. 빨리 걸을 일도 없지만 얼어붙은 길 때문에 걸음은 더욱 느리다. 그렇게 걷다가 농로 곁의 논두렁을 살펴보니, 혹한 속에서도 살아남은 푸른빛 잡초들이 보인다. 미끄러질까봐 내 팔짱에 매달려 걷던 아내도 잡초들을 보고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뜬다. “어머, 저 퍼렇게 살아있는 것 좀 봐!” “그렇구려. 그런데 저런 식물들을 뭐라 부른다고 했지?” “아이 참, 또 잊었어요? 로제트 식물요.”<br/><br/> 잎을 땅에 찰싹 붙이고 겨울을 나는 식물을 그렇게 부른다. 오늘 우리 눈에 띈 로제트 식물은 개망초, 민들레, 달맞이꽃, 곰보배추…. 저 식물들은 어쩜 저렇게 한껏 몸을 낮추고 겨울을 이겨낼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 가을에 종자를 뿌리는 이 식물들은 겨울을 견뎌야만 이듬해 봄에 싹을 틔운다. 혹한을 견뎌내는 로제트 식물뿐 아니라 실은 모든 잡초들이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래 잡초가 다른 식물들보다 강한 건 아니다. 잡초는 약한 식물이다. 약한데도 잡초가 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보다 더 강한 식물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이다. 잡초는 예측불가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력을 가졌다. 어떤 식물학자는 이런 잡초를 두고 “<span class='quot0'>예측불가능한 난세를 좋아하는 식물</span>”이라고 했다. 햐, 식물의 세계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웅숭깊다.<br/><br/> 사실 ‘난세’란 말은 어지러운 인간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요즘 들어 모두들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하루 세끼 밥을 굶지 않기 위해 애면글면해야 하고, 세상 인심은 점점 각박해지고, 신용불량자는 점차 늘어나고, 국민을 위한다는 국가는 도리어 국민을 괴롭히는 ‘괴물’로 인식되고, 그러다 보니 하늘이 선물로 준 신성한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연 ‘난세’인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만큼? 잡초는 예측불가의 난세에도 잘 살아간다는데…. 그렇다.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잡초는 자살하지 않는다. 밟히고 또 밟히면서도 굳세게 살아가는 질경이를 보라. 본래 질경이는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에서는 약한 식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밟히며 살아가는 데는 질경이를 따라올 식물이 없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길바닥을 서식지로 삼는 것. 여린 잎 속에 강한 실 줄기가 들어 있어 사람들 발길에 밟혀도 다시 오뚝 일어나며, 씨앗 속에 젤리 모양의 물질이 있어 물에 닿으면 부풀어 오르며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씨앗을 퍼뜨린다고. 와우, 놀라워라! 사람의 신발이나 동물의 발, 심지어는 자동차의 바퀴에 붙어 자기 종족을 천지사방 퍼뜨린다나. 밟히고 또 밟히면서도 씩씩하고 늠름하게 살아가는 질경이를 볼 때마다 그 생존의 지혜로움에 짝짝짝^^^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br/><br/> 길가에 서식하기 때문에 자주 밟히는 잡초 가운데는 민들레도 있다. 물론 밟히면서도 일어난다. 하지만 밟히면서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밟히면 민들레는 옆으로 자라는 기막힌 지혜를 발휘한다. 암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각광받는 애기땅빈대도 사람들의 통행이 붐비는 길 위에 납작 엎드려 짓밟히면서 생명을 영위한다. 길바닥에 붙어살기 때문에 꽃을 피워도 벌이나 나비의 눈에 띄지 못하지만, 개미와 파트너를 이루어 꽃가루받이를 하여 씨앗을 퍼뜨린다. 이런 지혜로운 생존전략을 보면, 잡초는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난세의 스승으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br/><br/> 지난해 논에 모를 낼 무렵 중부지방에는 가뭄이 심했다. 나는 마을 농사가 걱정되어 농로를 걸으며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논밭을 살펴보았다. 식물들이 노랗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논밭두렁이나 길가에 서식하는 잡초들은 싱싱한 초록빛을 내뿜고 있었다. 사람들이 재배하는 식물들과 달리 잡초들이 가혹한 환경에서도 씩씩하고 늠름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뭘까. 그건 곧 깊게 뻗어 내린 ‘뿌리’. 물을 풍부하게 제공받는 수경재배 식물은 뿌리를 길게 뻗지 않는다. 뿌리를 뻗지 않아도 충분히 물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물이 수분이 부족할 때는 물을 찾느라 뿌리가 쭉쭉 길어진다. 그렇다면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 아이다 미쓰오의 시에 ‘생명의 뿌리’라는 작품이 있다. “<span class='quot1'>눈물을 참고 슬픔을 견뎠을 때/ 입으로 말하지 않고 고통을 견뎠을 때/변명을 하지 않고 잠자코 비판을 견뎠을 때/ 분노를 삭이고 굴욕을 견뎠을 때/ 당신의 눈빛은 깊어지고/ 생명의 뿌리는 깊어진다.</span>”(이나가키 히데히로, <도시에서, 잡초>에서 인용) <br/><br/> 인간이 역경을 잘 견뎌낼 때 존재의 성숙에 이를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 어쩜 시인은 역경 속에서 더욱 깊게 뿌리내리는 잡초에게서 이런 삶의 지혜를 터득했는지도 모른다. 농작물을 키우는 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잡초로 쇠뜨기가 있다. 이 식물의 땅 위 줄기는 몇십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뿌리줄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땅속 깊이 종횡무진 뻗어나간다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일본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으로 인해 폐허가 된 후 가장 먼저 시퍼렇게 돋아난 식물이 바로 쇠뜨기였다고. 그래서 이 식물을 ‘지옥에서 살아난 잡초’라 부르기도 한다.<br/><br/> 이처럼 가혹한 환경에서도 생명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잡초를 생각하면, 혹한의 겨울을 힘겹게 나면서도 도통 엄살을 부릴 수가 없다. ‘식물세계의 하층민’인 잡초, 인도식으로 말하면 ‘불가촉천민’쯤 되는 잡초지만, 언제나 향상의 의지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르며 살아가는 생명의 신비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잡초만 그런 것은 아니다. 얇은 판자때기 집에서 오들오들 떨면서도 까불까불 명랑하게 꼬리치는 우리집 흰둥이나 저 추운 설산에 갇힌 산짐승들을 비롯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난경(難境) 속에서도 지금보다 더 향상하려는 삶의 의지를 무량무량 불태우고 있다. 함석헌 선생이 말하셨던가. 생명은 문자 그대로, ‘살아라!’(生)라는 하늘의 명(命)이라고. 흔하디흔하기에 정말 귀한 잡초를 스승 삼고 난 후 나는 잡초를 통해 생의 존엄과 절대긍정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흰둥이가 꼬리치며 새해 선물로 준 ‘명랑’이라는 화두를 시와 노래와 춤으로 풀어 한껏 낭비하며 살아가려 한다. <br/><br/>고진하 목사·시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1.txt

제목: 악마의 길을 걷는다, ‘참나’를 찾아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010016023561  
본문: 작고 가냘픈 몸으로 자신의 몸집보다 큰 배낭을 짊어지고 길을 나선 26살 여인이 있다. 건장한 남자들도 좀처럼 완주하기 힘들다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CT)을 걷고 또 걷는다. 멕시코 국경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미국 서부를 종단하는 4200여㎞의 도보여행 코스. 거친 등산로와 눈 덮인 고산지대, 9개의 산맥과 사막, 광활한 평원과 화산지대까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거치고서야 완주할 수 있어 ‘악마의 코스’로 불린다. 중간중간에 있는 방명록에 그는 이런 글을 남긴다. “1일째, 몸이 그댈 거부하면 몸을 초월하라. -에밀리 디킨슨 그리고 셰릴 스트레이드.” “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 그렇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셰릴 스트레이드.” 그는 왜 이런 극한의 여행에 나선 걸까?<br/><br/> 가난한 삶, 아빠의 폭력, 부모의 이혼….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엄마, 남동생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나 했더니, 기댈 수 있는 큰 산이자 유일한 희망인 엄마가 덜컥 암에 걸려 세상을 뜬다. 이후 엄청난 상실감에 젖어 마약과 섹스로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셰릴 스트레이드. 엉망진창의 나락에서 문득 정신을 차린 그는 슬픔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극한의 공간인 피시티를 걷기로 결심한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했던 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연간 125명가량만이 평균 152일 걸려 완주에 성공한다는 이 코스를 그는 94일 만에 걸어낸다. 그리고 그간의 경험을 짧은 자서전 형식의 <와일드>에 담아낸다. 2012년 책은 출간과 동시에 <뉴욕타임스> 논픽션 부문 1위에 오르고 각종 베스트셀러 차트를 휩쓴다.<br/><br/> 비행기에서 <와일드>를 읽은 할리우드 배우 리즈 위더스푼은 눈물을 흘린다. 영화제작사를 차린 지 얼마 안 된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셰릴 스트레이드를 수소문해 영화 판권을 얻는다. 영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어바웃 어 보이> 등의 원작 작가인 닉 혼비도 <와일드>를 읽고 크게 감동한 나머지 제작진에게 연락해 각본을 자청한다. 지난해 아카데미 3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후반 작업을 하던 장 마크 발레 감독은 <와일드>의 각본을 읽고 감독직을 수락한다.<br/><br/> 리즈 위더스푼은 셰릴 스트레이드 역을 맡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혼신의 연기를 펼친다. 발톱이 빠지고 커다란 배낭에 등과 허리가 패이는 고통이 보는 이에게 그대로 전해져온다. 지난날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끝내 이를 극복해내는 모습은 관객들 저마다의 상처까지 치유해주는 듯하다. <금발이 너무해> <디스 민즈 워> 같은 로맨틱 코미디의 리즈 위더스푼은 잊어도 좋다. 그는 <와일드>로 다음달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영화 당사자인 셰릴 스트레이드는 촬영장에서 늘 리즈 위더스푼과 함께하며 교감했다고 한다.<br/><br/> 스크린에 담긴 대자연은 때론 공포와 고통의 대상이지만, 모든 걸 압도할 만큼 경이롭고 아름답다. 극중 셰릴 스트레이드는 힘들 때마다 엄마 바비(로라 던)가 생전에 좋아했던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철새는 날아가고’(엘 콘도르 파사)를 흥얼거리는데, 영화가 끝나고 원곡이 흐를 때의 벅찬 감동은 엔딩 자막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한다. 22일 개봉. <br/><br/>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사진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2.txt

제목: 근육희귀병에도 자활의지 강했는데…  
날짜: 20150120  
기자: 박태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0100000081  
본문: 온몸이 마비되며 심한 고통이 따르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으면서도 학업과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로 주변을 감동시켰던 남윤광(31·사진)씨가 18일 세상을 등졌다. 남씨는 근위축증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1주일 만에 숨졌다.<br/>　19일 오후 서울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의 남씨 빈소에서는 학사모를 쓰고 밝게 웃는 모습의 영정이 문상객을 맞았다. 남씨의 대학생활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것이 화제였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였지만 2003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서울대 사회과학부에 합격했다. 굽은 허리를 펴는 큰 수술을 세 차례나 받으면서도 7년 만인 2010년 졸업할 때는 전공인 경제학 외에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 학위까지 땄다.<br/>　하지만 뒷바라지하던 어머니가 2007년 암으로 세상을 뜨자, 남씨에게 세상은 더 높은 벽이 됐다. 얼굴 근육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부였지만, 장애인 시설에 머물다 ‘진정한 자활’을 위해 2013년 서울 마포구에 작은 월셋집을 구해 팍팍한 세상으로 과감히 나왔다.<br/>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일상을 도와줄 활동보조인이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월 500시간에 그쳤다. 남씨의 친구들과 은사들은 그에게 추가로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20시간을 채워주기 위해 ‘윤광이의 한시간’이라는 후원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남씨도 온라인 미디어 모니터링 업체에 취직해 재택근무를 하며 활동보조인 비용에 보탰다.<br/>　남씨는 지난해 7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는 연극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대학 친구인 김원영(33)씨는 “윤광이가 중증장애인 지원단체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았지만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 불편 없이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남씨가 2년 남짓 일했던 모니터링 업체의 박지현 과장은 “집에서 근무하면서 1주일에 한번씩 업무보고를 했다. 책임감도 있고 업무 성과도 좋았던 분”이라고 했다.<b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3.txt

제목: 기업들, 규제보다 행정조사가 더 부담  
날짜: 20150120  
기자: 조계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20100000093  
본문: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적 조사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행정적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규제 암덩어리’ 및 ‘규제 기요틴’ 표현을 써가며 대대적인 혁파에 나서고 있는 규제 부담은 뜻밖에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br/>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기업 56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내놓은 ‘2014년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총 12개 세부 부담항목 가운데 세무·노동·환경·공정거래 조사 등과 관련된 ‘행정조사’의 부담지수(보통수준=100)가 13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보험(127), 법인세(122), 가업승계 상속증여세(119, 중견·중소기업만 조사), 지방세(116)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행정조사(각각 148 및 141)를, 중소기업은 사회보험(136)을 가장 부담이 큰 항목으로 꼽았다. <br/>　대한상의가 2010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기업부담지수(BBI)는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의무에 대해 기업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매우 부담’ 200점, ‘부담’ 150점, ‘보통’ 100점, ‘부담되지 않음’ 50점, ‘전혀 부담 되지 않음’ 0점)이다. <br/>　세부항목들을 포함한 4개 상위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준조세(사회보험과 각종 부담금 등, 115), 행정조사와 행정지침 등 기타 기업부담(112), 규제(93) 순으로 부담지수가 높았다. 특히 ‘규제’ 부문의 경우 노동규제(113)만 다소 높을 뿐 환경규제(101), 진입규제(75), 입지 및 건축규제(83)는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게다가 2013년 조사에 견줘 진입규제(85→75), 입지 및 건축규제(95→83), 환경규제(105→101)에서 모두 부담지수가 낮아졌고, 결국 전체 규제부담지수는 100(2013년)에서 93(2014년)으로 떨어졌다. <br/>　이에 따라 규제개혁을 ‘기업 살리기’의 핵심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이 기업 현장의 요구와는 사뭇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조사에서 예상 밖으로 규제 항목에 대한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반면, 세무조사 등 각종 행정조사 부담을 기업이 크게 느끼고 있어,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span>”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4.txt

제목: ‘근육 희귀병’에도 ‘서울대 학업’ 감동 준 남윤광씨 세상 떠나…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1910016013825  
본문: 온몸이 마비되며 심한 고통이 따르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으면서도 학업과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로 주변을 감동시켰던 남윤광(31)씨가 18일 세상을 등졌다. 남씨는 근위축증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1주일 만에 숨졌다.<br/><br/> 19일 오후 서울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의 남씨 빈소에서는 학사모를 쓰고 밝게 웃는 모습의 영정이 문상객을 맞았다. 남씨의 대학생활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것이 화제였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였지만 2003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서울대 사회과학부에 합격했다. 굽은 허리를 펴는 큰 수술을 세 차례나 받으면서도 7년 만인 2010년 졸업할 때는 전공인 경제학 외에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 학위까지 땄다.<br/><br/> 하지만 뒷바라지하던 어머니가 2007년 암으로 세상을 뜨자, 남씨에게 세상은 더 높은 벽이 됐다. 얼굴 근육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부였지만, 장애인 시설에 머물다 ‘진정한 자활’을 위해 2013년 서울 마포구에 작은 월셋집을 구해 팍팍한 세상으로 과감히 나왔다.<br/><br/>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일상을 도와줄 활동보조인이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월 500시간에 그쳤다. 남씨의 친구들과 은사들은 그에게 추가로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20시간을 채워주기 위해 ‘윤광이의 한시간’이라는 후원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남씨도 온라인 미디어 모니터링 업체에 취직해 재택근무를 하며 활동보조인 비용에 보탰다.<br/><br/> 남씨는 지난해 7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는 연극 <프릭쇼>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대학 친구인 김원영(33)씨는 “윤광이가 중증장애인 지원단체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았지만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 불편 없이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남씨가 2년 남짓 일했던 모니터링 업체의 박지현 과장은 “집에서 근무하면서 1주일에 한번씩 업무보고를 했다. 책임감도 있고 업무 성과도 좋았던 분”이라고 했다.<br/><b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5.txt

제목: 삼성 ‘백혈병 보상안’에 피해자들 “그럼 나는…”  
날짜: 20150119  
기자: 김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19100000012  
본문: 18일 오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김미선(35)씨에겐 지난해 재개된 삼성 직업병 피해자 문제 교섭이 유일한 남은 희망이다. 김씨는 삼성전자 엘시디(LCD) 기흥공장에 3년째 다니던 2000년 다발성경화증에 걸려 퇴직했다. 시신경 염증·마비에 따른 병원비와 생활고는 그를 쉼없이 옥죈다. 16일 ‘삼성전자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삼성 쪽이 공개한 보상안은 그한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삼성이 보상 대상으로 밝힌 ‘백혈병 등 다섯 종류의 림프조혈기계암(혈액암), 뇌종양, 유방암’에 김씨의 병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열심히 일하다 몸이 망가졌는데 어떤 근거로 빠진 건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br/>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0'>삼성이 너무 협소하게 보상 대상을 정해 숱한 직업병 피해자들한테서 걱정하는 전화가 쏟아진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든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생식보건 문제까지 보상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조정위에 참여한 삼성 반도체·엘시디 직업병 피해자·가족 8명 외에 반올림에 제보한 피해자는 170명에 이른다. 삼성의 보상 대상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의 상당수가 배제된다. 실제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엘시디 노동자 51명 중 21명은 삼성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br/> 재직 기간 요건도 문제다. 삼성은 혈액암은 1년, 뇌종양·유방암은 5년 이상 일한 노동자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리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방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고 김도은씨도 근무기간이 4년8개월이라 삼성 쪽 기준으론 보상 대상이 아니다.<br/>　더구나 삼성은 근무기간 요건을 채운 발병자라도 ‘특수건강진단 이력’이 있어야만 보상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정 유해 인자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한다. 그러나 삼성 반도체·엘시디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아니며, 퇴직자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 실제 조정위에 참여한 직업병 피해자 8명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4명뿐이다. <br/>　이와 관련해 백수하 삼성전자 상무는 “<span class='quot1'>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할 경우 위궤양, 대장 용종까지 해당돼 수천 종류의 질병을 보상하라는 것이라서 무리한 요구다</span>”라며 “<span class='quot1'>의학적 검토를 거쳐 대상 질병 등 6가지 기준을 제시했지만 조정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6.txt

제목: 삼성 ‘백혈병 보상안’에 피해자들 “그럼 나는…”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1910016006783  
본문: 18일 오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김미선(35)씨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잘 보이지 않는 눈 탓에 힘들어 했다. 시신경 염증과 마비는 김씨가 걸린 희귀난치병 다발성경화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건강하던 김씨가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건 삼성전자 엘씨디(LCD) 기흥공장 근무 3년차인 2000년. 지금 김씨는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상태라 시력을 아예 잃을까봐 마음 졸인다.<br/><br/>그런 김씨한테 16일 ‘삼성전자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삼성 쪽이 공개한 보상안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삼성이 보상 대상으로 밝힌 ‘백혈병 등 다섯 종류의 림프조혈기계암(혈액암), 뇌종양, 유방암’에 김씨의 병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 탓에 2000년 퇴직 뒤 일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며 병원비에 힘겨워 하던 김씨한테 지난해 5월 재개된 삼성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는 교섭은 유일한 남은 희망이다. 그는 “열심히 일하다 몸이 망가졌는데 어떤 근거로 빠진 건지 모르겠다”며 “몸이 아파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0'>삼성이 너무 협소하게 보상 대상을 정하는 바람에 김씨뿐 아니라 숱한 직업병 피해자들한테서 걱정하는 전화가 쏟아진다</span>”고 말했다.<br/><br/>조정위에 참여한 삼성 반도체·엘씨디 직업병 피해자·가족 8명 외에 반올림에 제보한 피해자가 170명에 이른다. 삼성의 보상 대상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의 상당수가 배제된다. 실제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엘씨디 노동자 51명 중 21명은 삼성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직 기간 요건도 문제다. 삼성은 혈액암은 1년, 뇌종양·유방암은 5년 이상 일한 노동자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리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방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고 김도은씨도 근무기간이 4년8개월이라 삼성 쪽 기준으론 보상 대상이 아니다.<br/><br/>더구나 삼성은 질병과 근무 기간 요건을 채운 발병자라도 ‘특수건강진단 이력’이 있어야만 보상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정 유해 인자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한다. 그러나 삼성 반도체·엘씨디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아니며, 퇴직자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 실제 조정위에 참여한 직업병 피해자 8명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4명뿐이다. 나머지 4명은 건강검진 자료가 아예 없거나 일반건강검진 내용만 언급됐다.<br/><br/>삼성전자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는 아예 보상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와 반올림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 노동자도 보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4명의 삼성 반도체·엘씨디 협력업체 직원이 산재를 신청한 상태다. <br/><br/>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1'>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화학물질이 발암성, 생식·신경 독성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암, 전암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생식보건 문제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span>”라고 말했다. <br/><br/>이와 관련해 백수하 삼성전자 상무는 “<span class='quot2'>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할 경우 위궤양, 대장 용종까지 해당돼 수천 종류의 질병을 보상하라는 것이라서 무리한 요구다</span>”라며 “<span class='quot2'>의학적 검토를 거쳐 대상 질병 등 6가지 기준을 제시했지만 조정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7.txt

제목: 기업들, 규제보다 행정조사가 더 부담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1910016013358  
본문: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적 조사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행정적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규제 암덩어리’ 및 ‘규제 기요틴’ 표현을 써가며 대대적인 혁파에 나서고 있는 규제 부담은 뜻밖에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기업 56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내놓은 ‘2014년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총 12개 세부 부담항목 가운데 세무·노동·환경·공정거래 조사 등과 관련된 ‘행정 조사’의 부담지수(보통수준=100)가 13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보험(127), 법인세(122), 가업승계 상속증여세(119, 중견·중소기업만 조사), 지방세(116)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행정조사(각각 148 및 141)를, 중소기업은 사회보험(136)을 가장 부담이 큰 항목으로 꼽았다. <br/><br/> 대한상의가 2010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기업부담지수(BBI)는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의무에 대해 기업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매우 부담’ 200점, ‘부담’ 150점, ‘보통’ 100점, ‘부담되지 않음’ 50점, ‘전혀 부담 되지 않음’ 0점)이다. <br/><br/> 세부항목들을 포함한 4개 상위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준조세(사회보험과 각종 부담금 등, 115), 행정조사와 행정지침 등 기타 기업부담(112), 규제(93) 순으로 부담지수가 높았다. 특히 ‘규제’ 부문의 경우 노동규제(113)만 다소 높을 뿐 환경규제(101), 진입규제(75), 입지 및 건축규제(83)는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게다가 2013년 조사에 견줘 진입규제(85→75), 입지 및 건축규제(95→83), 환경규제(105→101)에서 모두 부담지수가 낮아졌고, 결국 전체 규제부담지수는 100(2013년)에서 93(2014년)으로 떨어졌다. <br/><br/> 이에 따라 규제개혁을 ‘기업 살리기’의 핵심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이 기업 현장의 요구와는 사뭇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조사에서 예상 밖으로 규제 항목에 대한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반면, 세무조사 등 각종 행정조사 부담을 기업이 크게 느끼고 있어,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8.txt

제목: ‘삼성 백혈병’ 2차 조정위 보상대상 이견  
날짜: 2015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1610015999953  
본문: 백혈병 등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는 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세 주체가 처음으로 각자의 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보상 대상 질병을 3가지로 제한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와 큰 시각차를 보였다.<br/><br/>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3가지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에 대한 삼성전자, 반올림, 가대위의 입장을 들었다. 각각의 의제들에 대해 세 교섭단위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지만 보상 대상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br/><br/> 삼성전자는 반도체·엘시디(LCD) 공장에서 1~5년 이상 일한 재직자와, 회사를 그만둔 지 10년 이내의 퇴직자가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암, 뇌종양, 유방암에 걸린 경우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가대위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재직자와 회사를 그만둔 지 12년 이내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대상 질환도 백혈병 외에 14가지 암을 포함시켰다. 반올림은 3개월 이상 일한 재직자나 회사를 그만둔 지 20년 이내 퇴직자한테 발생한 모든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불임 등까지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대위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직업병 피해자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자는 반올림 주장에 찬성하면서도, 삼성과의 개별 교섭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br/><br/> 사과 방식에 대한 이견도 드러났다. 조정이 끝나면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사과 여부는 입장이 갈렸다. 반올림은 삼성의 안전관리 부실과 사건 은폐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가대위도 처음엔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조정이 길어져선 안 된다”며 한발 물러섰다.<br/><br/> 재발방지 대책의 쟁점은 ‘제3자 참여’ 여부였다. 삼성은 외부 참여보다는 건강연구소 등 내부 보건관리 조직을 확대해 작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대위는 세 주체가 참여하는 근로자 건강재단 설립, 반올림은 외부 감사 등 삼성을 견제할 수 있는 제3자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위는 세 교섭단위의 입장을 바탕으로 3가지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낼 방침이다. <br/><br/>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09.txt

제목: ‘강남구 스타일’ 아세요?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1510015992450  
본문: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 스타일’로 전세계에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인구는 56만4000명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네번째로 인구가 많다. 평균 연령은 38.5살로 서울시 평균(39.7살)보다 젊지만, 1990년대 ‘오렌지족’으로 유명했던 압구정동은 65살 고령 인구가 13.4%로, 강남구 전체(9.5%)와 서울시(5.2%)보다 높았다.<br/><br/>강남구가 15일 ‘강남의 사회 지표’(2013년 기준)를 펴냈다. 부의 쏠림은 명확히 드러났다.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4%에 달했다. 전년보다 1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전체 비율 19.4%에 견줘 1.8배 높다. 월 평균 소득이 500만~300만원인 가구 비율도 41.3%였다.<br/><br/>사교육 비율도 월등히 높았다. 학원 수는 2018개로, 인구 1000명당 학원 수는 3.6개에 달했다. 서울시 전체의 2.8배다. 가구당 사교육비는 월 122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초등생 67만원, 중학생 81만원, 고교생 121만원이었다.<br/><br/>자녀를 유학 보낸 가구 비율도 17.6%나 됐다. 어학 연수 비용으로 연간 평균 2179만원, 정규 학위 과정에는 연간 평균 1억183만원을 썼다. 강남구 거주 외국인은 5553명(서울시 전체 24만4410명의 2.3%)인데 이 가운데 외국어학원 강사가 549명이었다.<br/><br/>강남은 아파트촌이기도 하다. 2010년 기준 강남구 주택 14만6417가구 가운데 11만5262가구(78.7%)가 아파트였다. 자기 집 비율은 34%로 서울시 전체 자가 비율(41.1%)보다는 낮았다. 전세는 33.7%, 월세가 31.3%였다. 1만430가구(5.2%)는 반지하 등 지하층에 살고 있었고, 옥탑방 거주민도 325가구(0.2%)가 있었다.<br/><br/>비슷한 얼굴의 ‘성형 미인’을 일컫는 ‘강남 미인도’의 동네답게 성형외과가 밀집돼 있다. 서울시 전체 성형외과(428개)의 74.8%인 320개가 몰려 있다. 성형외과·피부과 등 강남구의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4만5535명으로 전년에 견줘 30.9%포인트나 증가했다. <br/><br/>사망 원인 가운데 암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한 자살은 서울 평균(인구 10만명당 25.6명)보다 많은 28명이었다. <br/><br/>서영지 기자 y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0.txt

제목: “암이란 질환 다루는 방식에 대한 담담한 사진 증언”  
날짜: 2015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1410015984200  
본문: 1년에 200여차례 정도 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 주제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사진전의 내용이 충격적이기도 하다. 수술 준비과정, 수술실의 기록인 차트, 수술도구를 담은 장면에다 수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열어놓은 복부 사진도 있다. 세번째 개인전 <서지컬 다이어리>(Surgical Diary)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역삼동 ‘스페이스 22’에서 14일 중앙보훈병원의 외과과장인 노상익(51·사진)씨를 만났다. 노씨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작업을 해왔고 개인전뿐만 아니라 ‘대구사진비엔날레’, ‘아를 사진 축제’ 등 굵직한 국제전시에 참여한 프로 작가다.<br/><br/>암환자 진단·수술·마지막 순간 등 <br/>의학논문 방식의 다큐멘트 전시 <br/>개복 장면 등 충격장면도 그대로<br/><br/>연 200회 암수술 집도하는 전문의 <br/>대학시절 연극하다 사진에 입문 <br/>2007년부터 본격 사진가로 겸업중<br/><br/> 마침 췌장암에 걸린 남성(63)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고 왔다기에 그에게 경과부터 물었다. “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완전절제’는 했다. 결혼이 늦었는지 이제 스물한살 된 아드님이 아버지 수술 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라.”<br/><br/> 의사는 언제 시작했고 사진은 언제 시작했으며 두 작업의 관계는 어디서 비롯됐는가? “처음 수술을 집도한 것은 1998년이다. 사진은 대학 1학년 때 연극반 활동하면서 공연 사진을 자원해서 찍기 시작했다. 가난한 연극반 회원들이니 브로슈어를 만들거나 오디션에 나가거나 사진이 필요한 때가 제법 있었다. 사진 테크닉은 그때 배웠고 2007년쯤에 박형근 작가를 우연히 알게 되어 사진찍기가 아니라 사진작업에 대해 감을 잡았다.”<br/><br/> 이번 전시는 특이한 구성이다. 늘 이런 작업 스타일인가? “그렇지 않다. 다른 방식도 있다. ‘뉴시티’(신도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분당과 판교 신도시에서 땅을 파는 것부터 건물이 올라가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다. 사람이 있는 풍경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번 전시 ‘서지컬 다이어리’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에서 출발한 연대기다. 비공개로 설정된 데이터를 빼고 수술 작업의 기초자료를 전시로 재구성했다고 보면 된다. 어떤 형식으로 풀어나갈까 하다가 내가 가장 잘 아는 방식 즉, 의학 논문의 방식을 따랐다. 서론은 환자가 입원해서 수술하고 퇴원하기까지 밟게 되는 경로를 시간순으로 추적하는 작업이다. 2008년 첫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8장이다. 재료 및 연구방법은 의학 도큐먼트, 환자 본인의 사진, 중환자실 간호일지, 생애 마지막날의 생체징후곡선 등을 트립틱(삼면화)의 형태로 구현한 것이고 병원 내 의학자료가 지닌 조형적 언어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결과는 수술 후 환자의 생존 및 사망 때까지의 여정과 담담한 증언이다. 결론과 고찰은 아직 준비 중이다.”<br/><br/> 전시장에서 보니 도마 같은 게 있던데? “그건 수술방에서 사용하는 도마인데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면 현미경으로 분석하기 위해 잘게 썰어야 할 때 사용한다. 사진에 찍힌 도마는 이제 너무 많이 사용했으니 버려야 하는 상태다.”<br/><br/> 이 전시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인데다 실제 인체 사진들이어서 보기에 힘들다는 반응도 있다.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불특정다수, 즉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길 기대하면서 전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흥미 있어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외면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수용자의 몫이다. 보기에 불편하고 생경하다는 것 이해한다. 이번 전시는 어떤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며 최종 작업에 이르게 되며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결론과 고찰에 이르면 사진이 추가될 것인데 결국 현시대에서 더 이상 감추어야 할 질환이 아닌 암이 다루어져야 하는 방식에 대한 담담한 증언이 될 것이다.”<br/><br/> 전시장을 들어서면 마주보는 벽면에 복부를 절개한, 충격적인 사진들이 보인다. 수술실에서 언제 찍고 언제 수술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직접 수술하면서 찍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개복한 수술 장면은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 수술실에는 기록용 사진을 담당하는 조수가 있다. 수술대 위에서 정면으로 찍힌 사진은 녹화하는 기계가 촬영한 것이다. 그 사진들은 이번 전시 구성에서 2번 재료 및 방법에 해당하는 의학 도큐먼트의 일부다.”<br/><br/> 관람객 중에 본인이나 가족 중 암 경험자가 있었을까? “어떤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처음엔 내 작업을 좋아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했다. 교수의 부친이 (내가 수술한 분은 아니고) 담도암 수술을 받고 회복했다. 그 뒤엔 내 사진을 보더니 노상익 작가의 작업이 달라 보인다. 이제 이 작업의 의미를 알겠다고 하더라”<br/><br/>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시간을 보낸다. 그런 시간도 물론 잘 안나는 편이다.”<br/><br/> 의사이자 사진가로 겸업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 “의사 외의 활동을 최소화시켰더니 할 만하다. 예를 들자면 골프는 안 치고 외국 학회도 필수적인 것 한두번밖에 안 간다.”<br/><br/> 글·사진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1.txt

제목: [왜냐면] 금연 / 구지평  
날짜: 2015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1210015966670  
본문: 검은 유혹에 입술을 내준다 <br/>조용한 입맞춤 춤추는 향연 <br/>살과 뼈는 원금 이자는 오직 현찰 <br/>혼불을 태우는 악마와 거래다<br/><br/>조용히 다가서는 검은 실루엣 <br/>빚 갚고 남는 건 마른 꽁초뿐 <br/>죽음 앞에 몸값은 얼마일까<br/><br/>말기 암 한 달 치료비가 1250만 원이라는데<br/><br/>새해 첫날부터 이자가 너무 올랐다 <br/>곱게 내리는 눈송이가 각질로 보이고 <br/>악덕 고리대금업자 <br/>횡포가 얄밉다<br/><br/>눈 딱 감고 이별해야겠다<br/><br/>구지평 시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2.txt

제목: ‘화’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날짜: 2015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1210015966583  
본문: 분노사회다. 참으면 암이 되고, 못참으면 자살한다는 극단적인 말이 나올 정도다. 자신도 괴롭고, 타인도 괴롭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평화와 행복을 기약할 수 없다.<br/><br/> 화를 다스리기 위해 불교계의 대표적인 치유 명상가 중 한명인 동국대 교법사 마가 스님이 나섰다. 마가 스님은 (사)자비명상이란 단체를 이끌며 내면에 화를 녹이고 자비심을 충만케하는 명상을 이끌왔다. 그가 이번엔 조계종 연수원인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화! 어쩌란 말이냐?’는 마음챙김 캠프를 이끈다. <br/><br/> 이 캠프는 한달에 2박3일씩 진행된다. 매달 주제가 다르다. 1월은 화, 2월은 불안, 3월은 갈등, 4월은 돈, 5월은 상처다. 6월엔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 돼 있다. 7월은 죽음, 8월은 자녀, 9월은 부부, 10월은 퇴직 등의 주제로 이어지며, 11월 사랑, 12월 꿈으로 마무리된다.<br/><br/> 모든 프로그램은 마가 스님을 비롯한 자비명상을 해온 스님들이 이끌게 되며, 상처를 주제로 한 5월 캠프엔 정신과 의사인 이윤영 영주삼봉병원장이 정신상담을 해준다.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6월 캠프 때는 한의사 김동일 동국대한방병원장이 함께 해 체질별 몸 관리를 하도록 도와준다. 또 문진건 캘리포니아대학원 심리학과 교수와 요가 지도자인 민지원 요기, 전 동사섭 지도자인 김연희 박사 등이 프로그램을 함께 이끈다. 음식전문가인 한영용 서울종합예술학교 조리학부 교수가 마음챙김 캠프 참석자들의 식단을 짠다. 몸과 마음, 음식이 별개가 아니라 모두 ‘나’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는 기조에 따라 세가지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진용을 구축한 셈이다.<br/><br/> 마가 스님은 “<span class='quot0'>‘화병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게 화를 다스리는 일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동, 말, 생각이 바로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인데, 화의 노예가 되어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화가 나는대로 했다가간 후회만 남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가꿀 수가 없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는 화나 불안, 돈, 상처, 죽음, 실직 등 문제들을 회피하지않고 그 근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도록 도울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첫 프로그램은 오는 30일~2월1일 열린다.<br/><br/> 마가 스님은 일반 대중들에게 일상에서 분노해소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가 스님의 속풀이’란 팟캐스트도 열 계획이다. (02)3666-0260. jurira.net.<br/><br/>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3.txt

제목: [특별기고] 생태론적 영성과 영적 치매 / 김경재  
날짜: 2015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0810015943316  
본문: 종교나 이념을 떠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로마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의 연말 좋은모임 자리에서, 바티칸 관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초심을 잃고 어리석음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영적 치매’를 닮은 병증을 나타내고 있다고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했다. ‘영적 치매’에 걸린 증상이라는 파격적 은유를 사용한 것이다. ‘정신적 치매’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영적 치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그 모임이 종교적 모임이었기 때문일까?<br/><br/> 가족 중 치매를 앓는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몹쓸 병이 암보다 더 비극적인 질병임을 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 혹은 반려자를 바라보는 가족 구성원들은 고통에 시달리며 절망에 빠진다. 오늘의 화두를 ‘생태론적 영성과 영적 치매’라고 내세웠지만 ‘영성’이라는 개념과 ‘영적 치매’라는 단어가 금방 와닿는 어휘는 아닌 것이다. 영성(靈性)이라는 어휘는 우리 생활문화 속에 존재해 왔고 그 개념도 우리 조상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근대사회가 점차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기계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br/><br/> 서양철학 2000년은 ‘존재망각’ 시대였다고 하이데거가 지적했는데, 달리 말하면 ‘영적 치매’ 증상을 앓아왔다는 뜻과 같다. 그러나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근대 이후 시대) 상황을 감지하는 현대인들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회상하게 되었다. 사람다운 품성의 세가지 특징으로서 지성, 감성, 덕성을 꼽아왔는데 왜 영성을 추가하거나 덕성 자리에 영성을 넣는가? 21세기의 성숙한 시민이란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조화롭게 갖춘 사람이라고 인문학자들이 앞장서서 말하고 있다.<br/><br/> 영성이란 지성, 감성, 그리고 덕성을 아우르면서 세계를 전일성과 상호관계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마음의 능력이다. 사람이 자연의 자녀이지만, 몸 중심에로 진입해 오는 새로움의 빛과 영기를 받아 시천주(侍天主·하느님을 모심) 사인여천(事人如天·사람을 하늘처럼 섬김) 하는 사람의 초월성과 개방성이 영성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 그 셋이 구별되면서도 상호 내주하고 회통관계 속에 있음을 자각하는 깨어난 의식이 영성이다. 하늘과 땅의 공능(功能) 매개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의 존재론적 용기와 신명나는 역동성이 영성이다. 우주에 편만하면서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신비한 실재가 자비, 사랑, 충서(忠恕)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능력이 영성이다.<br/><br/> ‘생태론적 영성’을 이해하려면 생태계 근본질서와 그것의 지속가능한 조건을 통찰해야 한다. 생태계의 모든 구성적 참여자는 생태적 자리와 적정 규모가 있다는 조건과 종의 다양성을 수락하는 조건이다. 생태적 자리, 적정 규모, 그리고 종의 다양성이 생태계를 지속시키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균형, 절제, 관용의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세계와 생명체를 보는 눈에 두가지 모델, 곧 기계론 모델과 유기체 모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br/><br/> 기계론 특징은 자동차나 시계로 설명된다. 기계론적 합리주의자들의 신념에 따르면, 자동차가 수많은 부품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듯이, 몸과 자연도 원자나 분자들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부분은 독립적이고, 부분 안에 전체는 깃들일 수 없다. 부품이 고장 날 땐 교체하면 되고, 교체할 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기계론적 실재관에서는 힘의 크기, 수량, 능률성, 실효성이 가치평가의 척도가 된다.<br/><br/> 그와 대조되는 유기체적 실재관은 동양적 세계관에서 주류를 이뤄왔고, 서양에서도 중세기까지는 대세를 이루었다. 근대 이후에도 낭만주의, 생의 철학, 그리고 과정철학은 유기체적 실재관을 주장하면서 기계론적 실재관에 저항했다. 유기체적 실재관 특징은 몸으로 설명된다. 사람 몸도 손상된 장기를 이식하거나 인공심장을 부착하듯이 기계론적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유기체로서 몸의 단위세포 유전자 안에는 그 생명체 전체가 담겨 있다. 몸의 일부분이 아프거나 기뻐하면 전체가 통증과 환희를 느낀다. 창조적 진화는 물질계, 생명계, 정신계를 출현시킨 과정을 거쳐왔지만, 한번 출현한 생명은 물질과 질적으로 다르고, 사람의 정신현상과 영성은 단순한 분자생물학 수준으로 환원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br/><br/> 생태계에서 유기체 생물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창발시키면서 질적으로 공진화(共進化)하고 있다. 지구를 유기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인류 지성사의 큰 흐름은, 20세기 중반기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 유기체적 생태주의로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생태론적 영성을 각성하게 된 것이다. 생태론적 실재관은 환경운동가와 여성주의자들만의 특별난 세계관이 결코 아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 지성인들이 파악한 생태계의 특징들은 생명종의 다양성, 공생하는 상보성, 자발성과 포용성, 지속가능성, 생명체들의 존재론적 평등성이라고 강조한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생태론적 영성’을 지닌 사람이다.<br/><br/> 지금은 생태론적 영성 시대요, 유기체적 생태계가 생명과 사회의 진실된 참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가치관은 명백해진다.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 연장과 해고를 쉽게 하는 기업체 관행,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를 빌미로 정당을 해산시켜 다양성을 인정 못 하는 민주주의 역주행, 남북 군부 실세들의 시대착오적 이념논쟁과 위험한 전쟁놀음의 집단자살적 광기 증상, 한줌도 안 되는 청와대 비서진의 국민 기만과 국정 농단, 인간 영성을 스스로 상품화하는 종교 마피아들의 물신숭배적 성공신화, 그것들은 모두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는 빈껍데기요 녹슨 기계들이다.<br/><br/> 공동선을 향해 함께 전진할 수 있다는 신념과 더불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굳게 확신해야 한다. 겉으로 보면 기계론과 유기체론, 자유와 평등,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기업 이윤과 보편복지가 상호충돌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보면 그 양극적 요소들은 ‘모순의 역설’로서 항상 동시적이고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깨어 있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도 <경영은 사람이다>(2014)에서 시장은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들의 약육강식 정글이 아니라, 적정 규모와 다양성 존중 원리를 따라야 하는 시장생태계임을 눈떠서 보자고 강조한다. 창과 방패 관계가 아니라 손바닥과 손등 관계인 것이다. 양자택일하거나 적당히 타협해야 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고 두 요소를 동시에 인정하고 협력해가야 하는 것이다.<br/><br/> 올해는 한민족이 영적 치매 상태에서 홀연히 깨어나는 해방과 분단 70주년이다. 민족사의 새로운 전환이 이뤄지는 시운(時運)이 돌아왔다. 남북한 두 정상이 만기친람하는 군주시대의 후진적 통치 스타일을 버리고, 민주시대의 큰 정치, 곧 민족화해와 공생공영의 정치를 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백성이 있지 않고 백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모든 문제발단의 장본인이자 해결 책임자이다. 남북이 서로 의심하고 비방하기보다 피차 진의를 수용하고 신뢰하는 올해가 되어야 한다. 통일을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먼저 해원상생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정치적 수사(修辭)는 피차 그만두고 작은 실천 행동이 중요하다.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 교류협력, 민간인 상호방문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고 동족으로서 너무 당연한 필수사항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 <br/><br/>김경재 목사·한신대 명예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4.txt

제목: [유레카] 금연 / 김종구  
날짜: 2015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0710015900821  
본문: “<span class='quot0'>만약 천국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을 테다</span>” 등의 숱한 ‘담배 명언’을 남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8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골초였다. 그런 그도 1870년에 결혼한 뒤 담배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3주 동안 고작 6챕터밖에 쓰지 못했다. 그래서 금연을 포기하고 한 달에 시가 300개를 피웠더니 석 달 만에 책을 다 써버렸다.” 그는 74살 숨질 때까지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도 건강했다.<br/><br/> 언론계의 원로인 최일남·김중배 선생도 여전히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경우다. 두 분은 예전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에 함께 근무할 때 “<span class='quot1'>요즘 세태가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는 추세지만 우리는 치사하게 그러지 말자</span>”고 약조를 한 모양이다. 몇 년 전 한 모임에서 최 선생이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나도 그렇지만 김 선생도 아직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흐뭇’하게 말해 좌중에 폭소가 터진 적이 있다.<br/><br/> 그렇지만 대세는 역시 금연이다. 애연가로 유명한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위는 “<span class='quot2'>나는 ‘담배 한 대 빌릴 수 있을까요’라는 말을 모든 외국어로 할 수 있다</span>”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으나 2007년에 금연했다. “<span class='quot0'>평생 말보로 라이트와 코카콜라로 살아왔다</span>”고 토로한 적이 있는 여배우 미셸 파이퍼 역시 담배를 끊고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span class='quot0'>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테이블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들</span>”이라고 말해 담배에 대한 ‘의리’는 지켰다.<br/><br/>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담배를 줄여봤더니 딱 하나 효과가 있었다. 은행 잔고 상태가 좋아졌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요즘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건강이 걱정인지 세수 감소가 걱정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게다가 세상 돌아가는 꼴은 또 어떤가. “<span class='quot0'>담배 자체보다는 담배 피우고 싶게 만드는 상황이 암의 원인일지 모른다</span>”(미국의 극작가 윌리엄 사로얀)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br/><br/> 김종구 논설위원 kj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5.txt

제목: 화에 대한 명상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0610015900703  
본문: 화는 자기 욕심대로 안 되기에 일어나는 불같은 마음입니다. 이 불같은 화는 자신도 태우고 남도 태워 버립니다. 불교에선 탐진치(貪嗔痴)를 파멸과 불행으로 이끄는 독으로 봅니다. 진(성냄)을 탐(탐욕), 치(어리석음)와 함께 가장 경계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br/><br/> 진심(嗔心)은 작게는 짜증에서부터 미움, 원망, 분노, 증오 등 화나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워낙 순간적으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라서 통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만 잘 다스려도 인생살이가 한결 편안하련만, 이것을 잘못 다스려서 엄청난 고통을 자초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br/><br/>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진심을 경계해 이르기를, ‘화 한번 내면 백만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또 ‘분노의 불길은 오랜 세월 동안 애써 쌓아온 공덕의 숲을 한순간에 태워버린다’고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럭 화를 내고 바로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을걸’ 하면서 말입니다. 화를 내면 도움 되는 건 별로 없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기 십상입니다.<br/><br/> 저는 1월30일부터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화! 어쩌란 말이냐?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상처(죄)가 되고 알아차림하면 사라진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br/><br/> 화를 참으면 우울증, 답답증, 심장 계통의 병, 심지어 암까지 발병한다 하지요. 그렇다고 화를 내버리면 시원하고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찜찜하고 서로 상처가 되고 마음이 무겁고 습관화가 된답니다.<br/><br/> 부처님께서는 “1차 화살을 맞을지언정 2차 화살을 맞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 화살이란 이미 발생한 일이고 상대방이 내게 쏜 화살이고, 2차 화살이란 1차 화살을 맞고 나서 홧김에 다른 곳으로 쏘아대고 내가 나 자신에게 쏘아대는 화살을 의미합니다.<br/><br/>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화는 사라집니다. 둘째,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셋째, 객관화시켜 봅니다.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넷째, 이해해 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다섯째, 자비의 마음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고 행복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섯째, 이렇게 하면 내게 이로운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화를 내는 순간 화내는 자신의 몸에 독소가 먼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상대방의 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대가 낸 화는 다시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요.<br/><br/> ‘일소일소 일노일로’(一笑一少 一怒一老)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번 늙는다는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답니다. 오늘도 웃음꽃을 피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br/><br/> 마가 스님(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6.txt

제목: 암수술 뒤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 다 못받을수도  
날짜: 2015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0510015900577  
본문: ㄱ씨는 넉달전 유방암으로 대학병원에서 2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최근 한달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ㄱ씨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 나온 입원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받았지만 요양병원에 머문 동안의 입원비는 일부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해당 보험사에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ㄱ씨는 입원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까?<br/><br/> 5일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접수 사례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분쟁 유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ㄱ씨처럼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약관상 ‘입원’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택 등에서 치료받기 곤란하고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택 및 통원 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과 같이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선 입원비를 전액 지급받기 어렵다.<br/><br/> 금감원은 또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없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자필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더라도 일단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만큼,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한 등을 잘 알아둬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기예금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변경되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만기 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하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지급 예상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br/><br/>황보연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7.txt

제목: 현대중공업 노조에 작업중지권  
날짜: 2015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0410015900458  
본문: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으로 회사가 미흡한 안전시설을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br/><br/>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단체협약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 미비 보완 요구를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제101조 안정상의 조치)라는 문구를 넣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1명이 숨졌다.<br/><br/> 단협에 작업중지권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노조에서는 작업장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또 노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노조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br/><br/>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span class='quot0'>지난해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요구해 회사가 수용해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지만 만일 회사가 작업중지권과 관계없이 작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 이를 지키려는 양쪽의 의지가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31일 기본급 3만7000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등을 뼈대로 한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 노조의 작업중지권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으면 일반 보험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도 합의했다. 대장암과 위암 등 10대 암은 3000만원, 나머지 암은 1000만원이다. 노조는 7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br/><br/>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8.txt

제목: 부산 국제시장 르포 /펄펄 끓는 현대사의 용광로에서 팥죽 한 그릇  
날짜: 20150103  
기자: 박유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03100000050  
본문: 1945년생은 여섯살에 한국전쟁, 열일곱살에 5·16 쿠데타, 스무살에 베트남전 파병을 겪으며 격동의 시대를 살아냈다. 해방둥이 세대 아버지들의 삶을 담은 영화 이 흥행 중인 가운데 국제시장을 비롯해 한국전쟁부터 민주화운동까지 근현대사가 빼곡히 남아 있는 부산시 중구 일대를 돌아봤다.<br/>　<br/>“와(왜) 입을 쪼장거려샀노. 카메라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 해사코. <span class='quot0'>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을 우째 막을 낀데</span>. 우째 막을 낀데?”<br/>　장삿집 여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해가 뉘엿뉘엿 진 시장 바닥에서 소리를 높였다. 2014년 12월30일 오후 6시. 추운 겨울 저녁, 상점들은 불을 밝혔지만 부산 신창동 국제시장 ‘꽃분이네’만은 일찍 문을 닫았다. 화를 내는 여자는 꽃분이네 가게 여주인의 언니다. 영화 에서 주인공 덕수(배우 황정민) 가족의 터전이자 영화 촬영 장소인 꽃분이네에 사진 찍는 관광객들이 몰리자 이 가게 맞은편 상점 주인이 볼멘소리를 했던 모양이다. 꽃분이네 가게 여주인의 언니가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자 근처 이불가게 아저씨가 다독였다. “영화 덕분에 시장 알리고 좋지. 상인들 다 좋아한다 아이가. 그만 참으소.”<br/>　여자가 큰소리를 내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발길을 멈추고 서서 구경을 하거나 지나가며 고개를 돌렸다. 꽃분이네 앞에서 서 있으니 친구 팔짱을 끼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던 한 여자가 처음 보는 내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묻는다. “와? 싸웠나?”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듯 코를 찡끗 웃으며 지나갔다. 씩씩대는 여주인의 언니를 옆에 두고 꽃분이네 가게를 찾은 관광객들은 그래도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버튼을 눌러댔다.<br/>　맞은편 가게를 향해 큰소리를 내던 꽃분이네 여주인의 언니는 이내 시장 골목길로 사라졌다. 그는 꽃분이네 근처에서 따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한다. 다시 국제시장 골목길은 발걸음을 옮기는 행인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뒤섞이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시장 여자들이 벌이는 싸움이나, 남의 싸움에 관심을 갖는 구경꾼이나, “무슨 일 있냐”며 고개를 들이밀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로 묻는 행인이나. 국제시장의 풍경이었다. 길거리 좌판에 앉아 이쑤시개를 이빨 사이로 집어넣고 입을 웅얼거리는 상인이나, 장사를 하다 길거리에 앉아 국수 한 그릇 말아 먹는 상인이나. 계층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절되거나 격리되지 않은 국제시장에서는 일상의 풍경이 길거리에서 쉽게 노출된다.<br/>　<br/>　 “<span class='quot0'>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을 우째 막을 낀데</span>”<br/>　국제시장 일대는 당면국수, 씨앗호떡, 팥죽 같은 길거리 음식으로도 유명하다. 시장을 싸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졌다. 국제시장과 부평동시장은 사실상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은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국제시장을 지나 부평동시장 입구에서 누빔옷을 입은 할머니와 젊은 여자가 길거리에서 팥죽을 팔았다. 3000원을 내니 할머니가 콩고물떡을 얹은 팥죽을 꽃무늬 사기그릇에 담아준다. 얼굴 모르는 사람들은 추운 겨울 좌판을 빙 둘러싸고 서서 뜨끈한 팥죽을 한입 넣는다. 뜨거운 기운을 넘기다가 맞은편에 선,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 한입 떠 먹으며 한마디씩 하는 옆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이 집 할머니 팥이 제일 좋데이.” “여기까지 찾아온다 아이가. 팥 색깔 봐라. 이 일대에서 색깔이 제일 좋다.”<br/>　할머니가 팥죽을 한 국자 떠서 더 준다. “더 드실래예?” 팥죽을 다 먹으면 종이컵에 식혜를 담아 건넨다. “입가심하이소.” 한 그릇 더 먹거나 후식을 먹는다고 돈을 더 낼 필요는 없다. 국제시장에선 모르는 이들과 둥그렇게 서서 평등하게 한 그릇씩 입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다. 낯선 사람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원테이블 레스토랑’,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며 관계를 맺는 ‘소셜 다이닝’ 같은 개념이 생기기 전에도 국제시장 좌판에선 낯선 이들이 함께 한끼를 먹었다.<br/>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산동네로 대표되는 서민성, 그리고 항만과 물류 중심지로서의 유동성,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 있는 왜색성. 부산발전연구원이 펴낸 를 보면 부산의 풍경은 이렇게 요약된다. 일제때는 항만 하역 노동자들이, 해방 뒤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됐다가 돌아온 재일조선인들이,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민들이, 산업화 시대에는 탈농촌 노동자들이 부산에 유입됐다. 부산은 한국 근현대사의 ‘멜팅팟’(용광로)이었다. 전쟁이 나자 정부는 1950년 8월18일 수도를 부산으로 옮겼고, 부산 문화극장에서는 9월1일 국회가 개원했다. 정부의 각종 기관과 서울의 주요 대학도 부산으로 내려왔다. 전쟁 속에 물밀듯이 밀려온 피난민들은 산 중턱에 무허가 판잣집을 지었다.<br/>　“전쟁의 막다른 골목에서 출신 지역과 빈부의 구별을 넘어 피난의 용광로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살았다. 전쟁 이전의 사회적 지위나 위계를 떠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난리 가운데 돕고 살아남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평등한 서민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부산발전연구원, 187쪽)<br/>　부산에는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범일동, 수정동, 초량, 영주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산 중턱을 지나는 도로)와 산비탈에 몸 하나 누일 땅을 차지한 판잣집. 살 곳을 찾아 떠난 피난민들은 무덤이 있는 우암동 산189번지와 문현동 돌산마을로도 파고들었다. 태풍이 불면 날아갈 법한 집들 사이로 지금도 무덤이 남아 있다.<br/>　국제시장 또한 피난민들이 깃들인 곳이다. 국제시장과 이어진 부평동시장은 일제강점기 때인 1910년 조선에 세워진 최초의 공설시장이다. 해방 전 일제는 조선 전통 재래시장과 달리 일정 설치 조건을 갖춘 공설시장을 만들어 일본인에게 운영권을 줬다. 부평동시장에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물품이 거래됐다. 지금 국제시장 자리는 태평양전쟁 때 연합군의 공세에 대비하여 일제가 주택가와 상가를 강제 철거한 공터였다. 해방 이후 일본에 강제징용됐다가 돌아온 동포, 한국전쟁 피난민 등이 이 자리에 흘러들어오면서 국제시장이 형성됐다.<br/>　1945년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이들이 비축했던 전시 통제 물자와 미군 물자도 국제시장 일대로 흘러들어갔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식품 등이 많다는 뜻에서 부평동시장은 ‘깡통시장’, 물건 종류가 많고 규모가 큰 국제시장은 ‘도떼기시장’으로도 불렸다. 지금도 국제시장과 부평동시장에는 일제나 미제 물건을 파는 가게나 중고 옷가게들이 많다. 과거 우유가 귀하던 시절, 분말 형태로 만들어 먹던 우유 가루가 지금도 국제시장에서 유통된다.<br/>　판매 품목별로 1~6공구로 나뉜 국제시장은 1만2095㎡ 연면적에 1489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잦은 대형 화재가 상인들의 재산과 눈물을 훔쳐간 곳도 국제시장이다. 1953년, 56년, 60년, 68년, 92년에 화재가 났다. 1953년 1월30일 발생한 화재에는 가게 1000여곳이 불탔고, 2만2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br/>　<br/>　천막교실과 책이 몰렸던 보수동 골목<br/>　사실 국제시장이 자리한 부산 중구는 한국전쟁부터 시작해 군사정권 당시 일어난 민주화운동까지 근현대사를 빼곡히 담은 공간이다. 피난민들이 판자촌을 오르던 40계단, 1980년대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가톨릭센터도 중구에 있다. 대청동에 자리한 부산근대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때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해방 이후 미국 해외공보처의 부산문화원으로 쓰인 건물이다. 1982년 고신대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및 독재정권 비호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으며 불을 지른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 발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이 건물은 2003년 부산근대역사관으로 탈바꿈했다.<br/>　국제시장과 부평동시장을 구경한 다음 큰길을 건너면 한국전쟁 당시 형성된 보수동 헌책방 골목이 나타난다. 1950년 이북에서 피난온 손정린 부부가 보수동 사거리 골목 안 목조건물 처마 밑에서 박스를 깔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 잡지, 만화, 고물상으로부터 모은 갖가지 헌책으로 노점을 연 게 보수동 책방골목의 시작이었다. 전쟁 중 보수동 뒷산에 천막 교실이 열렸고 학생들은 보수동 골목을 지나 학교에 갔다. 1950년대 부산에는 전시 연합 대학이 생겼고 대학생들이 보던 책들이 보수동에 쌓였다. 갖가지 동인지, 잡지들도 ‘전시판’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만들어졌다.<br/>　1960~70년대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는 70여개의 점포가 밀집했다. 가난한 학생, 지식인들이 책을 내다 팔고 헌책을 싸게 사들이던 이곳은 군사정권 시절 부산 민주화운동의 모태가 됐다. 보수동에 자리한 중부교회는 부산 민주화운동의 집결지였다. 중부교회 김형기 전도사의 제안으로 1978년 만들어진 양서협동조합은 누구든 출자금 1000원과 가입금 1000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었다. 군사정권은 그러나 1979년 11월19일 독서모임을 하는 양서협동조합 회원들을 부산, 마산에서 벌어진 유신반대 시위 사건인 ‘부마사태의 배후’로 몰아 강제 해산했으며 불온서적이라는 이유로 책을 압수했다. 당시 조합원 가운데 30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1981년 대표적 공안 사건인 ‘부림사건’으로 구속됐다. 2013년 개봉된 영화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장도 없이 감금돼 고문당한 대학생의 변호를 맡은 사건이 부림사건이다. 부산시는 2010년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을 세우고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30일, 영화 개봉을 기념하는 펼침막을 내걸고 북적이는 국제시장과 달리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상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은 한 명뿐이었다.<br/>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근처에 있는 ‘우리글방’의 문을 열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실내 벽면을 채운 엘피(LP) 판들이 진열된 우리글방은 헌책방인 동시에 카페다. 가게 점원은 차를 만드느라 한적하게 생강을 썰며 말했다. “영화 덕분에 보수동 책방골목에 사람들이 늘거나 하진 않아요. 원래 이곳을 찾던 손님들이 오세요.”<br/>　<br/>　돌아와요 부산항에<br/>　 영화 속 덕수는 베트남전쟁에 기술자로 파병된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64~1973년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미국에 적극 협력하면서 경제개발의 기초를 닦는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격과 500여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한 ‘밀라이 학살’ 등으로 세계적인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매해 5만여명의 군인을 파병한 한국군도 ‘민간인 학살’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산항은 한국군의 베트남군 파병과 철수가 이뤄진 곳이다. 가수 조용필이 1972년 발표한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애절함도 이런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br/>　역대 대통령들은 국빈으로 베트남을 방문할 때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가 있는 하노이의 바딘광장을 찾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호찌민 묘에 헌화하고 2001년 쩐득르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는 “<span class='quot1'>베트남 국민에게 본의 아니게 고통을 준 데 미안하게 생각한다</span>”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호찌민 묘를 헌화, 참배하고 “<span class='quot2'>우리 국민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span>”고 미안함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9일 헌화만 하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br/>　영화 은 한국 근현대사의 명과 암을 오롯이 담아내지 않았다. 그 시대의 ‘덕수들’이 ‘기억하는 과거’를 그렸다. 영화 속 덕수와 아내 영자가 ‘기억하는 과거’는 가난을 헤쳐나간 시간들이었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 양담배 같은 양키 물건이나 미제 화장품을 팔던 아줌마들, 베트남전에 파병된 군인, 파독 광부, 국기에 대한 배례를 하던 국민. 이런 풍경들이 1950~70년대 사회상이었다. 베트남 파병이나 군사정권의 정당성보다 오늘 먹고사는 것, 내 가족을 굶기지 않는 것이 이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였다. 독재나 인권 침해 등 시대의 아픔은 이들에게 기억되지 않았다. 잘못된 역사를 평가하고 반성 없는 앞선 세대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갔던 개개인의 삶을 판단할 순 없다. 영화는 그 시절 덕수와 영자들이 기억하는 분절된 역사를 가족이라는 소재로 그렸다. 오늘날의 덕수와 영자들은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 영정을 부여잡고 “진짜 힘들었습니다”라며 우는 장면을 보며 자신들을 위로하고 추억한다.<br/>　감독은 자기 취향과 관점에 따라 영화를 만들고, 관객은 선택을 해 영화를 본다. 관람한 뒤 좋고 나쁨에 대한 입소문을 내는 것도 관객의 몫이다. 영화평론가는 자기 시각에 따라 공개적으로 평가를 한다. 을 언급하며 애국심을 강조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제외하면 감독, 관객, 평론가 다들 자기 자리에서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br/> 부산/글·사진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19.txt

제목: ‘국제시장’ 르포…펄펄 끓는 현대사의 용광로에서 팥죽 한 그릇  
날짜: 2015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0210015900365  
본문: 1945년생은 여섯살에 한국전쟁, 열일곱살에 5·16 쿠데타, 스무살에 베트남전 파병을 겪으며 격동의 시대를 살아냈다. 해방둥이 세대 아버지들의 삶을 담은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 중인 가운데 국제시장을 비롯해 한국전쟁부터 민주화운동까지 근현대사가 빼곡히 남아 있는 부산시 중구 일대를 돌아봤다.<br/><br/><br/><br/><br/><br/>“와(왜) 입을 쪼장거려샀노. 카메라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 해사코. <span class='quot0'>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을 우째 막을 낀데</span>. 우째 막을 낀데?”<br/><br/> 장삿집 여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해가 뉘엿뉘엿 진 시장 바닥에서 소리를 높였다. 2014년 12월30일 오후 6시. 추운 겨울 저녁, 상점들은 불을 밝혔지만 부산 신창동 국제시장 ‘꽃분이네’만은 일찍 문을 닫았다. 화를 내는 여자는 꽃분이네 가게 여주인의 언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덕수(배우 황정민) 가족의 터전이자 영화 촬영 장소인 꽃분이네에 사진 찍는 관광객들이 몰리자 이 가게 맞은편 상점 주인이 볼멘소리를 했던 모양이다. 꽃분이네 가게 여주인의 언니가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자 근처 이불가게 아저씨가 다독였다. “영화 덕분에 시장 알리고 좋지. 상인들 다 좋아한다 아이가. 그만 참으소.”<br/><br/> 여자가 큰소리를 내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발길을 멈추고 서서 구경을 하거나 지나가며 고개를 돌렸다. 꽃분이네 앞에서 서 있으니 친구 팔짱을 끼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던 한 여자가 처음 보는 내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묻는다. “와? 싸웠나?”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듯 코를 찡끗 웃으며 지나갔다. 씩씩대는 여주인의 언니를 옆에 두고 꽃분이네 가게를 찾은 관광객들은 그래도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버튼을 눌러댔다.<br/><br/> 맞은편 가게를 향해 큰 소리를 내던 꽃분이네 여주인의 언니는 이내 시장 골목길로 사라졌다. 그는 꽃분이네 근처에서 따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한다. 다시 국제시장 골목길은 발걸음을 옮기는 행인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뒤섞이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시장 여자들이 벌이는 싸움이나, 남의 싸움에 관심을 갖는 구경꾼이나, “무슨 일 있냐”며 고개를 들이밀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로 묻는 행인이나. 국제시장의 풍경이었다. 길거리 좌판에 앉아 이쑤시개를 이빨 사이로 집어넣고 입을 웅얼거리는 상인이나, 장사를 하다 길거리에 앉아 국수 한 그릇 말아먹는 상인이나. 계층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절되거나 격리되지 않은 국제시장에서는 일상의 풍경이 길거리에서 쉽게 노출된다.<br/><br/><br/><br/> “<span class='quot0'>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을 우째 막을 낀데</span>”<br/><br/> 국제시장 일대는 당면국수, 씨앗호떡, 팥죽 같은 길거리 음식으로도 유명하다. 시장을 싸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졌다. 국제시장과 부평동시장은 사실상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은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국제시장을 지나 부평동시장 입구에서 누빔옷을 입은 할머니와 젊은 여자가 길거리에서 팥죽을 팔았다. 3000원을 내니 할머니가 콩고물떡이 얹혀진 팥죽을 꽃무늬 사기 그릇에 담아준다. 얼굴 모르는 사람들은 추운 겨울 좌판을 빙 둘러싸고 서서 뜨끈한 팥죽을 한입 넣는다. 뜨거운 기운을 넘기다가 맞은편에 선,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 한입 떠 먹으며 한마디씩 하는 옆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이 집 할머니 팥이 제일 좋데이.” “여기까지 찾아온다 아이가. 팥 색깔 봐라. 이 일대에서 색깔이 제일 좋다.”<br/><br/> 할머니가 팥죽을 한 국자 떠서 더 준다. “더 드실래예?” 팥죽을 다 먹으면 종이컵에 식혜를 담아 건넨다. “입가심하이소.” 한 그릇 더 먹거나 후식을 먹는다고 돈을 더 낼 필요는 없다. 국제시장에선 모르는 이들과 둥그렇게 서서 평등하게 한 그릇씩 입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다. 낯선 사람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원테이블 레스토랑’,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며 관계를 맺는 ‘소셜 다이닝’ 같은 개념이 생기기 전에도 국제시장 좌판에선 낯선 이들이 함께 한끼를 먹었다.<br/><br/>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산동네로 대표되는 서민성, 그리고 항만과 물류 중심지로서의 유동성,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왜색성. 부산발전연구원이 펴낸 <부산 도시 이미지>를 보면 부산의 풍경은 이렇게 요약된다. 일제시대에는 항만 하역 노동자들이, 해방 뒤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됐다가 돌아온 재일조선인들이,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민들이, 산업화 시대에는 탈농촌 노동자들이 부산에 유입됐다. 부산은 한국 근현대사의 ‘멜팅팟’(용광로)이었다. 전쟁이 나자 정부는 1950년 8월18일 수도를 부산으로 옮겼고, 부산 문화극장에서는 9월1일 국회가 개원했다. 정부의 각종 기관과 서울의 주요 대학도 부산으로 내려왔다. 전쟁 속에 물밀듯이 밀려온 피난민들은 산 중턱에 무허가 판잣집을 지었다.<br/><br/> “전쟁의 막다른 골목에서 출신 지역과 빈부의 구별을 넘어 피난의 용광로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살았다. 전쟁 이전의 사회적 지위나 위계를 떠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난리 가운데 돕고 살아남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평등한 서민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부산발전연구원, <사건과 기록으로 본 부산의 어제와 오늘> 187쪽)<br/><br/> 부산에는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범일동, 수정동, 초량, 영주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산 중턱을 지나는 도로)와 산비탈에 몸 하나 누일 땅을 차지한 판잣집. 살 곳을 찾아 떠난 피난민들은 무덤이 있는 우암동 산189번지와 문현동 돌산마을로도 파고들었다. 태풍이 불면 날아갈 법한 집들 사이로 지금도 무덤이 남아 있다.<br/><br/> 국제시장 또한 피난민들이 깃든 곳이다. 국제시장과 이어진 부평동시장은 일제강점기 때인 1910년 조선에 세워진 최초의 공설시장이다. 해방 전 일제는 조선 전통 재래시장과 달리 일정 설치 조건을 갖춘 공설시장을 만들어 일본인에게 운영권을 줬다. 부평동시장에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물품이 거래됐다. 지금 국제시장 자리는 태평양전쟁 때 연합군의 공세에 대비하여 일제가 주택가와 상가를 강제 철거한 공터였다. 해방 이후 일본에 강제징용됐다가 돌아온 동포, 한국전쟁 피난민 등이 이 자리에 흘러들어오면서 국제시장이 형성됐다.<br/><br/> 1945년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이들이 비축했던 전시 통제 물자와 미군 물자도 국제시장 일대로 흘러들어갔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 식품 등이 많다는 뜻에서 부평동시장은 ‘깡통 시장’, 물건 종류가 많고 규모가 큰 국제시장은 ‘도떼기 시장’으로도 불렸다. 지금도 국제시장과 부평동시장에는 일제나 미제 물건을 파는 가게나 중고 옷가게들이 많다. 과거 우유가 귀하던 시절, 분말 형태로 만들어 먹던 우유 가루가 지금도 국제시장에서 유통된다.<br/><br/> 판매 품목별로 1~6공구로 나뉜 국제시장은 1만2095㎡ 연면적에 1489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잦은 대형 화재가 상인들의 재산과 눈물을 훔쳐간 곳도 국제시장이다. 1953년, 56년, 60년, 68년, 92년에 화재가 났다. 1953년 1월30일 발생한 화재에는 가게 1000여곳이 불탔고, 2만2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br/><br/>부평동시장과 이어진 국제시장 <br/>해방 뒤엔 징용서 돌아온 이들이, <br/>전쟁 땐 피난민들이 유입돼 형성 <br/>‘도떼기시장’으로도 불리는 곳 <br/>미제물건과 중고옷가게 성업중<br/><br/>국제시장 속한 부산 중구는 <br/>근현대사 빼곡히 담긴 공간 <br/>동양척식주식회사서 변신한 <br/>부산미문화원은 방화사건 겪고 <br/>보수동 책방골목선 ‘부림사건’이… <br/><br/> 천막교실과 책이 몰렸던 보수동 골목<br/><br/> 사실 국제시장이 자리한 부산 중구는 한국전쟁부터 시작해 군사정권 당시 일어난 민주화운동까지 근현대사를 빼곡히 담은 공간이다. 피난민들이 판자촌을 오르던 40계단, 1980년대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가톨릭센터도 중구에 있다. 대청동에 자리한 부산근대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때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해방 이후 미국 해외공보처의 부산문화원으로 쓰인 건물이다. 1982년 고신대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및 독재정권 비호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으며 불을 지른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 발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이 건물은 2003년 부산근대역사관으로 탈바꿈했다.<br/><br/> 국제시장과 부평동시장을 구경한 다음 큰길을 건너면 한국전쟁 당시 형성된 보수동 헌책방 골목이 나타난다. 1950년 이북에서 피난온 손정린 부부가 보수동 사거리 골목 안 목조건물 처마 밑에서 박스를 깔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 잡지, 만화, 고물상으로부터 모은 갖가지 헌책으로 노점을 연 게 보수동 책방골목의 시작이었다. 전쟁 중 보수동 뒷산에 천막 교실이 열렸고 학생들은 보수동 골목을 지나 학교에 갔다. 1950년대 부산에는 전시 연합 대학이 생겼고 대학생들이 보던 책들이 보수동에 쌓였다. 갖가지 동인지, 잡지들도 ‘전시판’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만들어졌다.<br/><br/> 1960~70년대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는 70여개의 점포가 밀집했다. 가난한 학생, 지식인들이 책을 내다 팔고 헌책을 싸게 사들이던 이곳은 군사정권 시절 부산 민주화운동의 모태가 됐다. 보수동에 자리한 중부교회는 부산 민주화운동의 집결지였다. 중부교회 김형기 전도사의 제안으로 1978년 만들어진 양서협동조합은 누구든 출자금 1000원과 가입금 1000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었다. 군사정권은 그러나 1979년 11월19일 독서모임을 하는 양서협동조합 회원들을 부산, 마산에서 벌어진 유신반대 시위 사건인 ‘부마사태의 배후’로 몰아 강제 해산했으며 불온서적이라는 이유로 책을 압수했다. 당시 조합원 가운데 30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1981년 대표적 공안 사건인 ‘부림사건’으로 구속됐다. 2013년 개봉된 영화 <변호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장도 없이 감금돼 고문당한 대학생의 변호를 맡은 사건이 부림사건이다. 부산시는 2010년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을 세우고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30일, 영화 개봉을 기념하는 펼침막을 내걸고 북적이는 국제시장과 달리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상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은 한 명뿐이었다.<br/><br/>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근처에 있는 ‘우리글방’의 문을 열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실내 벽면을 채운 엘피(LP) 판들이 진열된 우리글방은 헌책방인 동시에 카페다. 가게 점원은 차를 만드느라 한적하게 생강을 썰며 말했다. “영화 <국제시장> 덕분에 보수동 책방골목에 사람들이 늘거나 하진 않아요. 원래 이곳을 찾던 손님들이 오세요.”<br/><br/> <br/><br/> 돌아와요 부산항에<br/><br/> <국제시장> 영화 속 덕수는 베트남전쟁에 기술자로 파병된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64~1973년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미국에 적극 협력하면서 경제개발의 기초를 닦는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격과 500여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한 ‘밀라이 학살’ 등으로 세계적인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매해 5만여명의 군인을 파병한 한국군도 ‘민간인 학살’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산항은 한국군의 베트남군 파병과 철수가 이뤄진 곳이다. 가수 조용필이 1972년 발표한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애절함도 이런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br/><br/> 역대 대통령들은 국빈으로 베트남을 방문할 때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가 있는 하노이의 바딘광장을 찾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호찌민 묘에 헌화하고 2001년 쩐득르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는 “<span class='quot1'>베트남 국민에게 본의 아니게 고통을 준 데 미안하게 생각한다</span>”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호찌민 묘를 헌화, 참배하고 “<span class='quot2'>우리 국민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span>”고 미안함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9일 헌화만 하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br/><br/> 영화 <국제시장>은 한국 근현대사의 명과 암을 오롯이 담아내지 않았다. 그 시대의 ‘덕수들’이 ‘기억하는 과거’를 그렸다. 영화 속 덕수와 아내 영자가 ‘기억하는 과거’는 가난을 헤쳐나간 시간들이었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 양담배 같은 양키 물건이나 미제 화장품을 팔던 아줌마들, 베트남전에 파병된 군인, 파독 광부, 국기에 대한 배례를 하던 국민. 이런 풍경들이 1950~70년대 사회상이었다. 베트남 파병이나 군사정권의 정당성보다 오늘 먹고사는 것, 내 가족을 굶기지 않는 것이 이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였다. 독재나 인권 침해 등 시대의 아픔은 이들에게 기억되지 않았다. 잘못된 역사를 평가하고 반성 없는 앞선 세대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갔던 개개인의 삶을 판단할 순 없다. 영화는 그 시절 덕수와 영자들이 기억하는 분절된 역사를 가족이라는 소재로 그렸다. 오늘날의 덕수와 영자들은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 영정을 부여잡고 “진짜 힘들었습니다”라며 우는 장면을 보며 자신들을 위로하고 추억한다.<br/><br/> 감독은 자기 취향과 관점에 따라 영화를 만들고, 관객은 선택을 해 영화를 본다. 관람한 뒤 좋고 나쁨에 대한 입소문을 내는 것도 관객의 몫이다. 영화평론가는 자기 시각에 따라 공개적으로 평가를 한다. <국제시장>을 언급하며 애국심을 강조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제외하면 감독, 관객, 평론가 다들 자기 자리에서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br/><br/> 부산/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0.txt

제목: 55년생 ‘잿빛 양’의 공포는 시작되었다  
날짜: 2015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010110015898646  
본문: 2015년 만 60살이 되는 1955년생 4명의 자화상 <br/>106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절반을 짊어졌으나, <br/>청춘을 바친 기업이, 나라가 쥐어주는 건 쥐꼬리만 한 연금<br/><br/><br/><br/> 1955년 그들이 태어났다. 아기 울음소리가 전쟁의 상흔을 덮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렀다. 1975년 스무 살의 청춘은 잿빛이었다. 유신 체제 아래에서 숨죽였다. 그들 대부분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떠받쳤던 기둥이었다. 2015년, 그들이 만 60살이 된다. 직장에서 밀려나지만 노후 대책은 막막하다. 그들의 노년은 청춘처럼 잿빛이다. <br/><br/>‘청양’(靑羊)의 해를 맞아, ‘늙은 양’(gray sheep)인 1955년생 4인의 초상을 그려봤다. 대기업 퇴직자,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를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삶에는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106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절반을 짊어진 세대는 50~60대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50만 명이 매년 은퇴하는데, 이들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월 42만원에 불과하다. 자녀들도 노후의 버팀목이 못 된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에 신음한다. 경제도, 사람도 신음 소리가 점점 커진다. 1955년생들에게 닥친 위기를 통해 2015년 맞이할 한국 경제의 단면을 들여다봤다. \_편집자<br/><br/> <br/><br/>#12월19일 아침 8시20분, 서울 강남역 근처 <br/><br/>“아메리카노 한 잔이오.” 첫 손님이다. “추운데 들어오세요.” 컨테이너에 출입문 삼아 꽁꽁 막아놓은 비닐을 열어젖혔다. 찬바람이 손님을 따라 들어온다. 삐까뻔쩍한 강남 한복판, 서초구 서초동 1309-8 서울빌딩은 을씨년스럽다. 건물 곳곳에는 철거촌처럼 현수막이 붙어 있다. ‘5년, 10년 장사하라더니 말 바꿔 재건축으로 2년 만에 알몸으로 나가라?’<br/><br/>그가 알몸으로 내쫓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도 2015년 1월5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던 술집, 치킨 프랜차이즈 등 다른 가게 9곳은 이미 나갔거나, 그때까지 나가기로 했다. 1층 커피숍 주인인 엄홍섭씨만 남았다. 건물주는 4층짜리 건물을 17개 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하수도 도관 생산업체 ‘회장님’인 건물주는 빌딩 여러 채를 소유한 자산가다. 서울빌딩 세입자들에게 받은 권리금만 40여억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내줄 의무는 없다. 다른 세입자들은 포기했지만 엄씨는 버티기로 했다. 버티지 않을 도리가 없다. <br/><br/> <br/><br/>어제는 대기업 직원, 오늘은 내일이 두렵다<br/><br/> <br/><br/>어제까지 그는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이른바 명문대를 졸업해 해운회사에서 6년, 코엑스에서 23년을 근무했다. 내 집도 있고, 두 아이의 학자금은 회사에서 대줬다. 큰 걱정 없이 살았다. 2010년 퇴직 뒤에는 달라졌다. 노후를 책임져줄 벌이가 필요했다. 아내(54)는 평소 꿈이던 커피숍을 해보자 했다. 아들(29)은 군 제대 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탐앤탐스 매장 경험을 쌓았다. 서울 풍납동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고 퇴직금을 보탰다. 10평 남짓한 커피숍을 차리는 데 권리금 1억6200만원, 보증금 4800만원 등 총 2억8천만원이 들었다. 건물 1층 부동산 주인은 “재건축은 걱정하지 마라. 5년이고 10년이고 장사해도 된다”고 장담했다. 2011년 7월, 라떼킹 강남역점이 문을 열었다. 꿈은 2년 만에 깨졌다. 2013년 6월 말,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엄씨가 거부하자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냈다. 1년여의 법정다툼 끝에 법원은 2014년 9월25일까지 가게를 건물주에게 넘기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내왔다. 2014년 10월 어느 날 법원 집행관과 용역 직원 등 10여 명이 들이닥쳤다. 아내는 그날 이후 혼자 있질 못한다. 가게 앞에는 ‘바리케이드’처럼 컨테이너를 갖다놨다. 가게 안에는 간이침대가 놓였다. 엄씨는 지난주 가게에서 밤을 지새웠다. <br/><br/>그는 오늘이 두렵다. 내일은 도시 하층민으로 추락할지 모른다. 회사에 다니는 딸을 제외한 가족 세 사람의 삶이 이곳에 달려 있다. 가족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30분까지 교대로 가게를 쓸고 닦으며 애지중지 가꿨다.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어 이사도 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5곳이 생겨서 매출이 떨어져도 버틸 만했다. 그런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다. 그는 5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을 상견례까지 마친 아들은 결혼을 미뤘다. <br/><br/>오후 3시, 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로 향했다. 건물 공동소유주인 건물주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9월22일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그처럼 쫓겨날 위기에 처한 다른 지역 상인 5명이 함께했다. “<span class='quot0'>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정년퇴직자, 청년창업가를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span>” 칼바람 속에 40여 분간 확성기 소리가 울려퍼졌다.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br/><br/> <br/><br/>#12월17일 오전 10시, 울산 현대중공업<br/><br/>쌩쌩. 바람 소리가 칼날처럼 귓등을 때렸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7℃.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울산의 수은주는 영하 5℃를 가리켰다. 서울보다 울산의 공기는 매서웠다. 피부가 시리다 못해 아렸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7시간 파업에 들어간 날이었다. 1994년 이후 20년 만의 파업이다. 바닷바람이 여의도 2배 면적의 조선소를 휘감았다. 노동자 3천여 명 앞에 늘어선 붉은 깃발들이 쉴 새 없이 펄럭거렸다. <br/><br/> <br/><br/>‘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며…’<br/><br/> <br/><br/>두꺼운 잠바를 껴입은 동료들과 달리, 그는 단출했다. 작업복 잠바에 모직 바지 차림. 붉은 머리띠를 묶은 모자 밑으로 희끗희끗 귀밑머리가 삐죽했다. “<span class='quot0'>들어가 일하문 하나도 안 춥심더.</span>” 최도철씨는 의장생산부에서 배관, 사다리 등을 용접하는 일을 한다. 1984년 5월28일부터 만 30년 넘게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정규직이었다. 지난해부터는 촉탁직이다. 현대중공업은 만 58살이 지나면 기본급의 60~80%만 받고 2년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적 정년연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r/><br/>사실 그의 내일은 파업과 큰 상관이 없다. 내년이면 그는 어차피 회사를 떠난다. 당장 오늘이 손해다. 중간관리자들이 파업 참가자를 ‘NW’(No Work)로 분류해 특근을 시키지 않는 탓이다. “<span class='quot0'>지 혼자 살자고 하는 기보다야, 여러 사람이 같이 살자는 겁니더.</span>” 회사는 내년 기본급 3만7천원 인상안을 내놨다. 내년엔 담뱃값이 한 갑당 2천원씩 오른다. 그는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운다. 월 6만원의 지출이 늘어난다. 찔끔 오르는 임금으로 담뱃값도 못 댈 판이다. 지난해 기본급은 7천원 올랐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 인상 속도만 더디다. 2008~2013년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평균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4년 2분기부터는 상승률이 0%대다. <br/><br/><br/><br/>‘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될 수 있는 길이다.’ 대문짝만한 글자들이 조선소 건물 외벽에 걸려 있다. “마, 틀린 말은 아닌데 회사가 우리한테 뭐 해준 기 있어야 말이지. 회사는 잘나가면서 이리 박봉으로 해놓고. 간판 떼내야지.” 그는 회사가 괘씸하다. 세계 1위 조선업체라면서, 안으로는 노동자들을 홀대한다고 느껴서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은 지난 10년간 31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갔다. 32년차인 그의 11월치 정기급여 명세서에는 실지급액 200만8천원이 찍혔다. 의료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그렇다. 회사가 그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500만~1천만원가량의 일시금이 없으면 생활비 대기에도 빠듯하다. 평균연봉(18년차 기준) 7200만원은 부풀려진 숫자다. 저가 수주 등 경영 실패로 인해 회사가 올해 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놓고선 만날 고임금만 탓한다. <br/><br/>그는 양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선박 블록을 조립할 때 ‘함마’(해머) 때리는 소리에 시달린 탓이다. 업무상 재해다. 회사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결과다. 그에게 지금 남은 건 난청과 20평짜리 아파트, 5천여만원의 은행 대출금이다. 혈액암으로 투병한 어머니 병원비, 강원도 삼척 고향집이 태풍으로 망가지는 바람에 들어간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1억6천여만원의 퇴직금은 빚 갚고, 막내아들(17) 학자금을 떼어놓으면 모래알처럼 산산이 흩어져버릴 게다. 대학 졸업 뒤 보험설계사를 하다가 결혼한 큰딸(23), 실업고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전자제품 생산공장에 취직한 둘째딸(20)의 뒷바라지를 마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노후를 걱정하는 아내(53)는 지난달부터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다. <br/><br/> <br/><br/>젊은 시절 선박을 조립하며 생긴 난청<br/><br/> <br/><br/>이제 대기업 정규직도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노조 사무실 앞에 붙어 있는 ‘4년차 조합원 아내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10일 이후 13일까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 뒤론 전화 받는 것도 두렵고 누군가에게 손 벌리는 것도 두렵습니다.” 4년차 정규직의 월 실수령액은 140만원이 채 안 된다. 현대중공업의 월급날은 매달 10일이다. <br/><br/> <br/><br/> <br/> #12월19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br/><br/>그의 월급날도 매달 10일이다. 11월치 ‘보수내역’에는 97만8610원이 실지급액으로 찍혔다. 10월에는 131만9955원, 9월에는 166만5174원. 3월에만 딱 한 번 217만원을 받았을 뿐, 그의 월급은 180만원 밑이었다. 그는 ‘월급’이라 부르지만, 회사는 ‘보수’라고 부른다. 그는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그를 ‘개인사업자’ 취급하기 때문이다. <br/><br/>그의 보수 명목은 ‘회수 금액’이다. 사람들이 인터넷, 인터넷 전화, IPTV 등을 해지하면 단말기, 셋톱박스를 회수해오는 게 그의 일이다. 그는 모닝을 타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합정동, 상수동 일대를 누빈다. 기름값이나 주차 위반 범칙금, 고객과 회수 일정을 정하기 위해 전화 통화하는 요금(월 7만~8만원)도 그의 몫이다.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모뎀 4천원, 셋톱박스 5천원. 회수 1건당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br/><br/>이홍열씨는 SK브로드밴드 마포홈고객센터에서 일하는 ‘회수 기사’다. 2007년부터 이곳에서 일했지만,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쓴 일이 없다. 개인사업자로서 도급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 그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다. SK브로드밴드는 하청업체에 고객센터 운영을 위탁했고, 하청업체는 이씨에게 회수 업무를 맡겼다.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이다. 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소속 개통·수리 기사 가운데 일부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2014년 9월 판정했다. 이들은 회사 쪽에 임·단협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 중이다. <br/><br/><br/><br/>그는 요즘 대중교통비도 부담스럽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집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내를 매일 오간다. 다음달엔 아예 월급이 안 나올지 모른다. 그래도 그는 매일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한다. 묵주 한 알을 돌릴 때마다 꽃 한 송이씩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노사가 화합해서 힘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개인적인 소망도 보탠다. 앞으로 10년은 더 일하고 싶다고. 그는 마포홈고객센터 동료 중 최연장자다. <br/><br/> <br/><br/>“<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미래가 뭣도 안 돼 있는데 10년은 더 일해야죠!</span></span>” <br/><br/> <br/><br/>지금까지 그는 버티는 삶을 살았다.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맨몸으로 혼자 상경했다. 영등포 쪽방에서 기숙생활을 하며 공장을 다녔고, 극장이 있는 술집에서 군무를 추기도 했다. 23년 전 그는 서울 시내 호텔 시설과의 목수였다. 어느 날 철제 구조물이 그의 몸을 덮쳤다. 큰 사고였다. 4번 요추가 으스러졌다. 몇 년을 누워만 있었다. 아내는 리본접기로 생계를 꾸렸다. 겨우 몸을 추스른 뒤에는 개인용달차로 퀵서비스 배달일을 했다. 아내가 백화점 판매 점원으로 맞벌이해서 간신히 버텼다.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시절이다. <br/><br/>더 버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대출한 2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살고 있는 집도 주인이 매매로 내놓아서 언제 이사해야 할지 모른다. 자동차 할부금도 아직 1년을 더 부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뒤 간호학원에 다녀 이비인후과에 취직한 딸(22)과 내년에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할 아들(26)이 자기 앞가림은 할 터다. 하지만 6년 전에 자궁경부암 수술을 한 아내(51)와 그의 앞날은 누가 책임지나. 비정규직은 은행 대출 받는 것도 더 까다롭다. 그런데 정부는 55살 이상 고령자를 비정규 파견노동자로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단다.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미래가 뭣도 안 돼 있는데 10년은 더 일해야죠!</span></span>” 웃으며 농반진반 외치는 그의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진다. <br/><br/> <br/><br/>#12월24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 통복시장 <br/><br/>그도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다. 먹고사느라 바빠 건강검진 한번 못 받고 56년을 버텼다. 시장 2층에 있는 병원에선 혈압이 높다고 했다. 한 달 뒤엔 목소리까지 쉬었다. 갑상선암 3기였다. 수술받고 나서 생애 첫 휴가를 받았다. 1년7개월 동안 장사를 접었다. <br/><br/>김연숙씨는 통복시장 채소 노점상이다. 충남 광천에서 농사를 짓던 그는 30년 전 남편, 딸 셋과 무작정 상경했다. 언니한테 빌린 130만원이 전 재산이었다. 경기도 평택에 터 잡고, 시장에서 처음 판 물건은 고운 소금. 그의 삶도 짜디짠 소금 같았다. 짠순이처럼 독하게 살았다. 두 살짜리 막내딸을 업고 종일 채소를 팔았다. 울다 지친 아이는 종이상자를 이불 삼아 잠들었다. 배고프다고 보채도 요구르트 하나 사먹이지 못했다. 자기 끼니를 못 챙긴 건 물론이다. 시장 상인들이 “징그럽게 독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br/><br/> <br/><br/>배춧값은 올라도 벌이는 줄어<br/><br/> <br/><br/>그의 휴일은 1년에 달랑 이틀뿐이다. 설날과 한가위 명절 당일. 막차를 타고 시골에 내려갔다가 첫차를 타고 올라와 채소 좌판을 다시 펼쳤다. 여름엔 새벽 4시30분, 겨울엔 아침 8시. 통복시장 출근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저녁 7~8시에 퇴근해 쓰러지듯이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신용카드니, 자동차는 아예 구경도 못했다. 안 했다. 32평짜리 아파트도 사고, 딸 셋의 대학 교육과 결혼까지 뒷바라지했다. 노가다로 목수 일을 했던 남편도 월 150만원은 벌어다줬다. 그래도 장사 대물림은 절대 안 한다. “<span class='quot0'>일확천금을 번다 해도 사람 노릇 못하고 사니까.</span>” 큰딸 현미(36)씨는 엄마의 만류로 옷가게 대신 어린이집을 열었다. <br/><br/>‘33호 현미네 야채’. 시장 통로에 좌판을 벌인 노점상이지만, 어엿한 문패도 걸려 있다. 배추, 감자, 시금치, 당근. 갖가지 채소가 얌전하게 진열돼 있다. 그의 성격이다. 5천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살지언정, 화장과 머리 손질을 거르진 않는다.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다. 목장갑을 낀 손은 한시도 쉴 틈이 없다. 뽀얗게 먼지 앉은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쪽파를 깐다. 다듬은 쪽파 한 단은 1천원 더 비싸게 팔린다. <br/><br/><br/><br/> 그는 예전보다는 일이 덜 고되다고 했다. 3년 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에 지붕이 씌워졌다. 눈 오면 쓸어내느라, 비 오면 비닐 덮느라 동동거리지 않아도 된 것만도 감지덕지다. 공동 전기·수도 시설도 놓였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치 않다. 그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한 통에 500원이던 배춧값은 3천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그의 벌이는 되레 줄었다. 시장 근처에 대형마트, 아파트 상가가 하나둘 늘어난 탓이다. 평택시에 이미 대형마트가 4곳이나 있는데, 걸어서 15분 거리에 이마트 2호점이 또 입점을 준비 중이다. “<span class='quot0'>대형마트 주말에 영업해도 괜찮대매요?</span>” 최근 판결로 인해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안 할까봐 또 걱정이다. 그는 무를 1천원에 판다. 대형마트에선 1700원에 판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찾는다. 재래시장 살리기의 상징인 온누리상품권도 올 추석엔 지난해의 20%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br/><br/> <br/><br/>암 수술 하고 다시 일선으로<br/><br/> <br/><br/>“<span class='quot0'>직장을 30년 다녔으면 퇴직금이라도 받지, 장사는 암것두 없어.</span>” 그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다시 장사에 나선 이유다. 남편(69)은 8년 전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한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생활비도 보태야 한다. 노후 대책이라고는 월 17만원 받게 될 국민연금이 전부다. “생활대책이 안 서잖아. 헐 수 있는 때까지 장사해야 혀. 병이 재발되기 전에 10원이라도 더 벌어놔야 혀.” 그는 웃으며 말했다. 웃음 한구석이 헛헛하다. 2015년, 그들은 아마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날지 모른다. <br/><br/> 평택·울산=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br/><br/><br/><br/>▷ 한겨레21 기사 더보기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1.txt

제목: 12월 31일 알림  
날짜: 2014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3010015896838  
본문: ◇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학장 김영인)는 새달 5일까지 제2인생설계·준비과정의 ‘스와힐리어와 아프리카 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누리집(prime.knou.ac.kr)또는 전화(02)3668-4433~4.<br/><b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이화여대 통일연구원은 새달 2일 오후 3시 서울 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를 연다.<br/><br/>◇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사장 남궁원)·한국영화배우협회(이사장 거룡)·한국영화인원로회(이사장 이해룡)는 31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원로 배우 신영균씨에게 감사의 뜻이 담긴 백자를 헌정한다.<br/><br/>◇ 공군은 30일 항공과학고 3학년 이도민 군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4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교육부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br/><br/>◇ 한국거래소는 30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이전 기념과 연말 연시를 맞아 저소득계층 1천가구와 사회복지시설 50곳에 1억원어치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했다.<br/><br/>◇ 던롭스포츠코리아는 29일 국제구호개발기구인 굿네이버스에 아동복지사업 후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2014년 한해동안 던롭에서 판매한 골프공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됐다. <br/><br/>◇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서울연탄은행(대표 허기복 목사)은 30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마을을 방문해 기초생활수급 70여 가정에 연탄 1만장과 쌀·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br/><br/>◇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제17대 감사로 황인경 전 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 회장을 선임했다.<br/><br/>◇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0일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3개 사업장을 ‘올해의 편한 일터’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LG유플러스가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위드유가 받았다. 행복한웹앤미디어,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는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br/><br/>◇ 제주문화서포터즈(회장 양의숙)·상명대 영상·미디어연구소(소장 양종훈)·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29일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진전시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마음으로 보는 제주’의 개막식을 열었다. 전시회는 내년 1월11일까지 제주 방송총국 전시실에서 열린다.<br/><br/>◇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한국경제학회(회장 김정식)·한미경제학회(회장 최재필)는 새달 3일 오후 2시 미국 콜로네이드 보스턴 호텔에서 ‘2015년 아시아 및 세계경제 전망’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연다.<br/><br/>◇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유영학)은 내년 1월 겨울방학 기간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을 위해 대학생이 지역으로로 찾아가 교육기부를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온드림스쿨 다빈치교실’을 진행한다.<br/><br/>◇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과 인실리코젠(대표이사 최남우)은 최근 암과 당뇨 분야의 연구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br/><br/>◇ 국회도서관 (관장 이은철)은 30일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를 발간했다.<br/><br/>◇ 이화여대 경영대학과 경영전문대학원은 최근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가 부여하는 경영교육인증(Business Accreditation)의 재인증을 받았다. 이화여대 경영대학은 이번 재인증으로 앞으로 5년간(2015~2020년) 국제적 경영교육인증을 유지하게 된다.<br/><br/>◇ 부경대(총장 김영섭)는 최근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재학생 1만 명 이상)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2.txt

제목: 암 투병으로 ‘깨달음’ 얻은 페미니스트  
날짜: 20141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2510015870691  
본문: 절망의 끝에서 세상에 안기다 <br/>이브 엔슬러 지음/자음과모음·1만3000원<br/><br/>콩고에서 여성들이 집단강간을 당한 뒤 고통에 신음하는 풍경, 어릴 적 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에 대한 기억, 자궁암에 걸린 자신의 몸을 감당해야 하는 투병생활…. <br/><br/> 여성의 성을 거침없이 이야기한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극작가 이브 엔슬러는 평생 여성운동가로 일하며 전쟁과 폭력 속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 직접 콩고로 건너가 현장의 처참한 모습을 전달하던 중 자신도 자궁암 판정을 받는다. 책은 7개월간 경험한 수술과 치료 과정을 모두 기록하며 얻은 자신의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담았다. 암을 겪으며 세계 곳곳에 있는 여성들의 신체적 고통을 공감한 이브 엔슬러는 이 땅의 만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 몸이 결국 모든 자연만물과 하나이며, 전쟁과 폭력, 약탈과 비극과도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에겐 세계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br/><br/> 쉽지 않은 경험들을 담담히 묘사한 책의 구절구절은 때론 읽기 버거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하지만 10억여명의 여성이 일생에서 적어도 한번 이상 폭행이나 강간을 당한다는 유엔 통계를 기억한다면 이 책이 전하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이브 엔슬러가 ‘브이데이’라는 단체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다. <br/><br/>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3.txt

제목: ‘세월호’ 충격에 글과 몸으로 맞선 한국문학  
날짜: 20141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2510015871307  
본문: ‘세월호’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한 해였다. 말을 잃게 만드는 사태 앞에서도 작가들은 글을 써야 했고, 글이 막히면 몸으로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다. 엄혹했던 유신의 한복판에서 태동한 한국작가회의는 ‘신 유신’의 광풍 속에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정지용과 신석정의 미발표 시들이 발굴되었고, 문인들의 타계와 투병 소식도 들려왔다.<br/><br/> <br/><br/> 세월호와 문인들의 대응 <br/><br/> “<span class='quot0'>지금 나라초상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상감마마 승하가 아닙니다/ 두 눈에 넣어둔/ 내 새끼들의 꽃 생명이 초록생명이/ 어이없이 몰살된 바다 밑창에/ 모두 머리 박고 있어야 할 국민상 중입니다</span>”(고은 <이름짓지 못한 시> 앞부분)<br/><br/> <한겨레> 4월28일치에 실린 고은 시 <이름짓지 못한 시>를 필두로 강은교·백무산·신현림·안상학 등 시인들이 세월호 사태를 시로 울었다. 이들을 비롯해 시인 69명이 참여한 추모시집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가 책으로 묶여 나왔으며, 서울광장에서 열린 참사 100일 추모공연에서 유족들에게 전달되었다. 문인들은 정부의 세월호 사태 처리 방식과 누적된 부정·부패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754명의 명의로 발표하는가 하면 릴레이 단식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9월부터는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수를 가리키는 ‘304 낭독회’로 그 취지를 이어 갔다. 10월3일에는 소설가 김훈·김애란, 시인 송경동·김행숙·권현형, 평론가 권희철·양경언, 희곡작가 최창근 등 문인 20여명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었다.<br/><br/> 외국소설 강세 속 한국문학의 분투 <br/><br/>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올 한해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꼽혔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집 <여자 없는 남자들>도 베스트셀러 최상위를 오르내리며 여전한 인기를 과시했다. 한국 소설과 작가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잘 팔린 책이 꼭 좋은 책은 아닌 법.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성석제의 <투명인간>은 올곧은 역사의식과 깊은 인간 이해로 문학의 본령을 다시금 확인시킨 역작이었다. 황정은의 <계속해보겠습니다>와 정세랑의 <이만큼 가까이>, 김선재의 <내 이름은 술래>, 박솔뫼의 <도시의 시간>은 어리거나 젊은 주인공들을 등장시켜 삶과 죽음의 비밀을 한꺼풀 벗겨 보였다. 서정인의 <바간의 꿈>, 한승원의 <사랑아, 피를 토하라>와 <사람의 맨발>, 서영은의 <꽃들은 어디로 갔나>, 박범신의 <소소한 풍경>, 최인석의 <강철 무지개> 같은 중진·원로들의 신작이 그에 보조를 맞추었다. 은희경의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전경린의 <천사는 여기 머문다>, 김경욱의 <소년은 늙지 않는다>, 백수린의 <폴링 인 폴>은 단편 미학의 폭과 깊이를 다각도로 보여주었다.<br/><br/> 이성복은 1970, 80년대에 썼으나 책으로 묶지는 않았던 시들을 모은 책 <어둠 속의 시: 1976~1985>를 독자들에게 깜짝 선물처럼 내놓았다. 시집과 함께 나온 산문집 <고백의 형식들: 사람은 시 없이 살 수 있는가>와 대담집 <끝나지 않는 대화: 시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문다>는 이성복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았다. ‘대책없는 낭만주의자’ 박정대가 시집 <체 게바라 만세>로 권위있는 대산문학상을 받은 일도 이채로웠다. 여성적 생명력을 거침없이 구가한 문정희 시집 <응>, 생태적 사유의 역설적 진보성을 강조한 이문재 시집 <지금 여기가 맨 앞>, 조사가 주어의 자리로 올라서는 장관을 연출한 정끝별의 <은는이가>, 고통과 슬픔의 연대를 모색한 김행숙의 <에코의 초상>, 언어의 자율적 존재와 운동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인 이제니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의고적 어투로 독특한 효과를 낸 김근의 <당신이 어두운 세수를 할 때>, 퀴어 정체성을 장르적 문법에 실어 나른 김현의 <글로리홀> 등도 기억할 만했다.<br/><br/> 글을 쓰기만 할 뿐 책으로 묶어 내는 데에는 뜻이 없어 보였던 원로 평론가 도정일이 칼럼집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과 <별들 사이에 길을 놓다>를 내놓아 그의 책을 기다려 온 독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시를 쓰지 않는 시인 안도현은 <한겨레>에 연재한 짧은 산문을 모은 <안도현의 발견>과 1930년대 시인 백석의 삶을 재구성한 <백석 평전>으로 글쓰기의 갈증을 달랬다. 윤대녕이 지나온 공간들을 글로 되살려낸 <사라진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시인 마종기와 가수 루시드폴이 주고받은 편지 모음 2탄 <사이의 거리만큼, 그리운>, 평론가 이광호의 용산 산책기 <지나치게 산문적인 거리>와 소설가 강석경의 경주 이야기 <이 고도를 사랑한다>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문학의 정치성을 파고든 시인 진은영의 논문 모음 <문학의 아토포스>, 소설가 김연수의 ‘작업’ 고백 <소설가의 일>, 평론가 신형철의 영화 이야기 <정확한 사랑의 실험>도 올해의 산문으로 꼽을 만하다.<br/><br/>추모시와 낭독회, 현장 방문까지 <br/>안 팔려도 제몫 다한 시와 소설 <br/>정지용, 신석정 미발표 시 발굴<br/><br/> 기념과 발굴 <br/><br/> 1974년 11월18일 문학인 101인 선언으로 고고성을 울린 한국작가회의가 출범 40주년을 맞았다. 작가회의는 <한국작가회의 40년사>와 원로 문인 회고록 <증언: 1970년대 문학운동> 두 단행본으로 40년 역사를 기리는 한편, 11월22일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젊은 회원들이 작성한 ‘젊은 문학 선언’을 통해 창립 정신의 발전적 계승 방향을 밝혔다. 김주영 대하소설 <객주>를 테마로 삼아 개관한 경북 청송 객주문학관에서는 한국과 중국 문인들이 참여하는 제8회 한중작가회의가 6월에 열렸으며,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하는 2014 서울국제작가축제는 한국과 해외 작가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9월 하순 서울과 제주에서 행사를 치렀다.<br/><br/> 정지용이 일본 교토 유학 시절인 1920년대 중반에 발표한 시와 산문 40편이 <한겨레>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일과 ‘전원 시인’ 신석정이 해방 공간에 써 놓고도 발표하지 않았던 진보적·참여적 시 13편이 역시 <한겨레> 지면을 통해 처음 공개된 일은 한국 문학사를 새롭게 쓸 필요를 제기했다.<br/><br/><br/><br/> 타계와 투병 <br/><br/> 출판인이기도 했던 김종철 시인이 7월5일 타계했다. 암 수술 뒤 상태가 호전된 뒤 한국시인협회장을 맡아 여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터여서 안타까움이 더했다. 황지우와 함께 1980년대 해체시의 양날개로 꼽혔던 박남철도 해를 넘기지 못하고 이른 죽음을 맞았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작가 네이딘 고디머 역시 역사로 편입되었다. 작가 복거일은 에세이 형식 소설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에서 암 발병 사실을 밝히고 수술 치료 대신 글쓰기를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설가 이외수도 위암 발병과 수술 및 항암 투병 과정을 에스엔에스에 공개했다. <br/><br/>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4.txt

제목: 진중권 허지웅 정유민의 ‘2014 욕 나오는 사건사고 총정리’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2410015865869  
본문: 하필이면 ‘그날’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을 결정한 19일 오후. <한겨레> esc ‘욕봤다 2014’ 대담을 통해 ‘욕본 한 해’를 정리해보려던 이들은 이 욕 나오는 상황 앞에 어쩔 줄 몰랐다.<br/><br/>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국내 톱클래스 논객답게 “욕 나온다”는, 주제에 딱 떨어지는 표현으로 대담의 문을 열었다. 올 한 해 가장 뜬 방송인이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글쓰는 허지웅’이라 소개해 달라던 허지웅 평론가는 “<span class='quot0'>화병 나는 이런 기획 왜 하는 거냐</span>”고 그린라이트 끄듯 책상을 퉁 쳤다. 정유민 웅진지식하우스 3팀 편집장(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오라질년’)은 “<span class='quot1'>올해는 ‘아무리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도 설마…’ 하던 게 죄다 현실이 됐다</span>”고 했다.<br/><br/> 맞다. 그러고 보면 올해, 하필이면 ‘그날’이 아닌 날이 있었나. 겨우 숨쉴 만하면 사건이 또 터졌고, 울화가 치미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 서럽던 한 해 이야기를 하자고 둘러앉았다.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욕해보자고 다짐하면서. 대담은 두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대담이 끝날 즈음, 서울광장에서는 ‘못 살겠다’는 피켓이 가득한 집회가 시작됐다. <br/><br/>8 대 1이면 인민재판이지 <br/>8명이 헌법을 새로 정한 거라고 <br/>12월19일이 새 제헌절이야 <br/><br/>임지선(이하 임): 아무리 좋은 기억만 남겨보려 해도 욕 나오는 연말입니다. 하필 대담이 오늘이라서 더 욕이 나오네요.<br/><br/>진중권(이하 진): 아, 욕 나오죠. 정말. <br/><br/>허지웅(이하 허): 이렇게 압도적일 순 없어.<br/><br/>진: 8 대 1이면 이건 뭐 인민재판이지. 솔직히 말하면 8명이 헌법을 새로 정한 거라고. 오늘, 12월19일이 제헌절이야. <br/><br/>허: 서독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으로 정당을 해산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들이밀더라도 우리 상황이랑은 맞지 않는데. ‘방어적 민주주의’란 말이 한국에 와서 참 고생한다.<br/><br/>정유민(이하 정): 맞아요. 저도 되게 순진한 게,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아무리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도 설마!’ 한 거죠. 근데 매번 이래. 올해는 계속 그랬어. ‘설마 이렇게까지…’ 하면 언제나 그 불안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 <br/><br/>허: 거의 모든 분야에서. <br/><br/>진: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도 못한 일을 한 거죠. 조봉암 사건은 이승만 정권 때일걸? 그 당시만 해도 정부가 해산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사법부가 한 거예요. 망조가 들었다고 봐요. 나라에. <br/><br/>정: 그럼 우리 ‘욕봤다’가 아니라 ‘망했다’ 해야 되는 건가요? <br/><br/>허: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많이 믿었어요.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비판도 했던 건데. 앞선 세대들이 힘들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굴러가니까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겠지 했는데. 세월호 때 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한 거 없었잖아요. 이제는 무서워요. 망조 들었다는 말에 동의하기도 해요. <br/><br/>임: 시스템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직관조차 없는 것 같더라고요. <br/><br/>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열 가지 중에 두 개만 작동돼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근데 이건 하나도 작동 안 했잖아요. 애들이 다니는 학원버스가 전복이 됐어요. 어른들이 그걸 둘러싸고 애들 죽을 때까지 구경한 꼴이라니까. 애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누구를 종북이라고 몰고, 사고라고 부정했지만 모두에게 이 사건, 유전자에 새겨졌다고 생각해. <br/><br/>정: 세월호 사건 이후 이 나라에선 목숨이 정말 ‘랜덤’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불안이 아니라 공포예요. 이 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언제 어디에서 죽어도 아무것도 손쓸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더 깽판 치면서 살자 싶고.<br/><br/>임: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세월호 사건 이후 단식하는 유족들 앞에서 일부러 치킨을 먹는다든지, “시체 장사”, “지겹다” 등의 엄청난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예요.<br/><br/>진: 변태적이죠. 유족들 앞에서 왜 폭식 투쟁을 합니까. 피해자에 대한 이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거죠. <br/><br/>허: 그게 다 관통하는 건 다들 알다시피 ‘일베’잖아요. 일베라는 이름으로 표면화된 ‘억눌리고 좌절된 개인’들은 어떤 역사에서든지 결국 극우화되는 노선을 걷잖아요. 심지어 정권을 잡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인터넷상에서 유머러스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게 더 끔찍한 거예요. <br/><br/>임: 일베도 일베지만 “지겹다”는 말을 많이 하는 동네 이웃들도 많이 만나요. 주위에 팽배한 이 분위기는 뭘까요.<br/><br/>허: (이념 대립이) 집권 시스템의 공식처럼 되니 정말 잘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는 누가 봐도 끔찍한 일인데 거기 왼쪽 오른쪽이 어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나고 그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지치지.<br/><br/>진: 얼마 전 정윤회 사건 당시 발견된 쪽지 “여야 대결로 몰고 갈 것” 이게 중요한 비결이죠.<br/><br/>허: 집권 공식에 ‘완전 순결한, 100% 순결한 피해자’라는 판타지가 추가된다. 이 나라에서 피해자는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농성을 했는데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돌출 행동 하나라도 나오면 이거 봐라 하니. <br/><br/>정: 단식 농성을 한 김영오씨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흠잡을 게 없는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거예요.<br/><br/>허: 공포스러운 게 멀쩡한 사람도 순백의 피해자가 아니면 인간말종으로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쓰는데 만약에 나를 털면? 나는 완전 연쇄살인범 수준일거야.(웃음)<br/><br/>진: 정권이 위기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건 뭐 세월호 유가족이 사과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br/><br/>전원: 맞아요, 맞아. <br/><br/>허: 이게 말이 돼? 이건 교통사고 같은 거다, 사고는 누구나 당한다는 논리가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게 끔찍하고 슬픈 차원을 떠나 맥이 빠져요. <br/><br/>진: 사회를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면 정신이 병든 거예요. 유가족보고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진공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담론, 정치적인 대결 구도 안에서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병이 든 거죠. ‘아이덴티티’(정체성)로 따지면 유가족에 가까운 이들이 왜 박근혜랑 ‘아이덴티파이’(일체감을 갖다)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br/><br/>어떻게 테러를 옹호해? <br/>미성년자 테러사건 <br/>제대로 처벌 안하면 <br/>서북청년단 더 큰일 할 것 <br/><br/>허: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고, 불쌍한 고아’로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일베라는 화장실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고. 일베 주축은 사실 신물 난 사람이거든요. 보통 그들이 ‘씹선비’에 대한 환멸로 뭉쳐진 사람들인데 개그화를 떠나서 정치세력화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br/><br/>임: 얼마 전엔 한 토크콘서트에서 고등학생이 폭탄 테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종북콘서트’를 호명했어요. <br/><br/>허: 테러를 옹호하면 과격분자지! 테러가 일어났는데도 종북콘서트 얘기만…. 그렇게 급진적인 사람이랑 같이 살기 싫어. 어떻게 테러를 옹호해? 미성년자 테러 사건 이거 제대로 처벌 안 되면, 지탄받지 않으면 내년엔 서북청년단이 더 큰 일 할 거예요. <br/><br/>진: 일베의 테러는 게임화되어 있어요. 가상과 현실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나게 게임을 했고 여기서 자기는 열사고. 사회 전체는<br/><br/>안 보이는 거죠.<br/><br/>임: ‘동아, 조선의 두 종편,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진중권 교수가 트위터에도 썼지만 올해 보수 신문이 보유한 종<br/><br/>합편성채널의 활약도 대단했죠.<br/><br/>진: 채널에이, 티브이조선은 북한 방송 같아. 인민재판도 하는 것 같고 여기가 남조선이야 북조선이야. <br/><br/>허: 티브이조선 디자인도 웃겨요. 화면 톤도 이상하고. 남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포르노 같아.<br/><br/>진: 김정은의 사생팬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갖고.<br/><br/>임: 티브이조선에서 김정은보다 더 살이 찐 앵커가 “<span class='quot2'>더 뚱뚱해진 김정은… 건강 적신호?</span>”라는 뉴스를 내보내는 장면은 올해의 인기 짤방이었죠. (일동 웃음) <br/><br/>정: 전 그런 거 나오면 누구나 우리처럼 웃을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방송 할 때 시청률 낮으면 돈 없어서 곧 문 닫겠지, 그런데 식당에 가면 전부 다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을 틀어 놓는 거예요. 거기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br/><br/>허: 우리 스스로도 상식인이라고 자처하는 패거리들 안에서 자족해서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 ‘방송평가 종편부문’ 1위가 티브이조선이라는 게 팩트고 현실이죠.<br/><br/>진: 종편 입장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면 망해요. 아무리 못해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타깃을 해가지고 특화를 한 거야. 박근혜 지지층이 노년층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미래 결정권이 그들한테 있다는 거죠.<br/><br/>허: 머리를 잘 썼어. 어른 세대가 공동의 반성이 없는 게 영화 <명량>수준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국제시장>을 보면 아예 대놓고 “이 고생을 우리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다행이다”라는 식이거든요. 정말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신 승리하는 사회라는 게.<br/><br/>진: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정치구조도 옛날로 바꾼 거고. 이 정부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이 많아요. 과거로 혁신하는, 그게 파시즘이거든.<br/><br/>티브이조선은 <br/>김정은 사생팬 같아 <br/>사장님도 부장님도 <br/>자기가 장그래라고 생각해<br/><br/>허: 이 기획 안 좋다. 너무 성질나네. 최근에 제가 슬프게 유의미한 자료를 봤는데 서울시 집계로 10~30대 사망률 1위는 자살이고 40~60대 사망률 1위는 암이야. 못 버티면 자살하는 거고 버티면 암이야.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이런 화병 나는 기획을 왜 하는 거야.<br/><br/>진: 무기력한 거 같아요. 외환위기 때만 해도 확신이 있었죠,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안 좋은 신호는 오는데 돌파할 수 있다, 내 말이 먹힌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피드백이 없는 거야, 그래 정치권, 니네들 알아서 해라,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다 싶은 거죠.<br/><br/>허: 이명박씨 같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조리를 부조리라 얘기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겠냐고. 내부고발자의 이야기도 가십거리처럼 소비되는 사회예요. 대한항공 건만 해도 ‘사무장 좆대써’ 이런 거지.<br/><br/>정: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싶은 거죠. 토론 프로그램 안 본 지 오래됐어요.<br/><br/>임: 땅콩 회항 사건은 어떻게 보셨나요?<br/><br/>진: 사건도 사건이지만 해명하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 거죠. 해명하는 방식, 그게 더 사람들을 열받게 했죠.<br/><br/>정: 조양호 회장이 사과할 때 자기 부덕의 소치라고,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 아비인 나를 비난하라고 사과하는 거예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회사 임원의 행동에 대해서 왜 ‘오너’가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지. 우리 임원이 이런 걸 잘못했다고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 운운만….<br/><br/>허: 마침 우리 사회에 잘못된 사과 방식에 대한 피로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사람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일에 질려 있었던 거거든요. 갑질에 대한 분노도 있고. 언론도 사건을 더 가십화해서 아주 뭐 경쟁적으로 내놓고. 그러니 조현아 귀신 사진도 나오고, 화장실 청소하랬다는 칼럼도 나오는 거죠.<br/><br/>임: 갑에 분노하고 을에 공감하는 흐름은 드라마 <미생>의 인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죠. <br/><br/>진: 근데 모든 갑들이 자기가 미생이라고 생각해. 그게 황당한 거예요.<br/><br/>허: 그게 데이터로도 있어요. 당신은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내가 장그래”라고 답했대요. 사장님도 부장님도 자기가 장그래라는 거예요.<br/><br/>진: 내가 그렇게 컸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br/><br/>허: 사람들은 장그래가 정규직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완생’이 되려면 수반되는 고통이란 담론 자체에 을은 싫고 갑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투영되는 거죠.<br/><br/>정: 사람들은 오히려 <미생>을 개인의 처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세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래서 <미생>자체를 자기계발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네요.<br/><br/>임: 실제로 드라마 밖에서는 이 추운 날씨에도 쌍용차 해고자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미생>의 장그래가 정규직이 됐으면 하는 관심과 현실 속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에는 차이가 커요.<br/><br/>정: 그것과 이것이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드라마랑 쌍차랑. 주변 사람들과 쌍차 이야기를 하면 ‘기업은 살아야지 그래야 다른 노동자들도 살지 않겠냐’란 얘기를 해요.<br/><br/>허: 결국 못났던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는, 을이 갑이 되는, 모두가 장그래의 결말처럼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관료제 판타지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원작과는 달리 드라마에서는.<br/><br/>진: 네가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런 관점이 있죠. <br/><br/>허: 웃겨요. 보면 본인들한테 결핍되어 있는 것들, 취업·연애·출산·육아 등을 예능으로 해결하는 시대예요. 현실에서 포기해버린 것들을 이제 그냥 예능으로 봐요. <br/><br/>임: 군대에서 잠 못 자는 고문 같은 훈련 받는 장면도 예능으로 나오죠.<br/><br/>허: 올해 윤 일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사나이>가 인기를 끌었고. 군대 시스템 자체가 암덩어리고 부패의 온상이어서 군대 간 청년들을 반쯤 부패하게 만들어서 사회로 내보내는 시스템인데. 그걸 비난하면 “우리 군대는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것처럼 건강해, 윤 일병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나” 이래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윤 일병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는 이해를 못하고.<br/><br/>정: <진짜 사나이>든 <우정의 무대>든, 저는 군대를 어떤 형식으로라도 방송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해요. 왜곡하고 미화시켜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br/><br/>임: 그나저나 ‘허니버터칩’은 먹어보셨나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난리죠?<br/><br/>허: 아주 어렵게 일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경험, 그걸 자랑하는 거죠. 경험 소비라고 해야 하나.<br/><br/>진: 희소성이 생긴 거야.<br/><br/>정: “유명해지기 전에 사먹어 봤는데 별거 없었어”와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나도 먹어보고 싶어”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하는 거예요.<br/><br/>진: 남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죠.<br/><br/>허: <인터스텔라>아이맥스관 앞에서 허니버터칩 먹고 있으면 ‘나는 왕이다’ 이런 거지.<br/><br/>임: 자, 그럼 ‘올해 우릴 제일 욕보인 ×’ 남녀 부문을 선정해보죠.<br/><br/>진: 아니, 여성 부문은 우리가 누굴 뽑든 누군지 다 알잖아요. 조현아씨를 애써 뽑더라도 다들 진짜 주인공을 아는데. 올 한 해 패션쇼만 하신 그분. 그분의 패션만으로 달력을 만들어도 되겠다. 정무적 해결은 김기춘씨나 비서진, 문고리 등이 하고 각하는 삘 나오는 데만 돌리는 건지…. 이건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걸 시키는 거야.<br/><br/>정: 인형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처럼. <br/><br/>허: 영국 여왕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잖아.<br/><br/>진: 입헌군주제의 군주야. 유체 이탈 화법이 이래서 나오는 거야. 당신들 뭐 하는 거야. 타이 국왕이 정치권 꾸짖듯이.<br/><br/>임: 전여옥씨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마이피플’로 청와대를 ‘마이 하우스’로 여긴다고 비판했던 책 내용이 새삼 화제가 되며 전여옥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있었죠.<br/><br/>사죄인듯 사죄 아닌 <br/>사죄 같지도 않은 <br/>너님들만 넘쳤던 한해 <br/>주체도 내용도 삑사리<br/><br/>일동: (정색하며) 그립지는 않습니다.(웃음)<br/><br/>임: 남성 부문은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br/><br/>진: 문창극씨 있지 않나? 윤창중씨도 올핸가요?<br/><br/>정: 1~3월 일은 옛날 일 같아요.<br/><br/>허: 나는 엠비 특검 할 때까지 매년 엠비를 뽑을 거야. 엠비는 반드시 불행해져야 돼. 상징적으로라도. 그래야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갖지. 언젠가는 그래도, 라는.<br/><br/>정: 맞아, 우리 사회는 아주 나쁜 놈들이 벌을 받은 적이 없어.<br/><br/>진: 제가 박근혜 정부 딱 하나 평가하는 건, 쓸 돈이 없어서 돈 못 쓰는 거. 그거 하나는 내가 높이 평가해요. 우리 경제가 한 건을 해야 하는 타이밍, 예를 들어 김대중씨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벤처’를 했거든요. 거품이 많긴 하지만 끌고 온 거야. 그런데 또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엠비가 삽질을 한 거야.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돈을 4대강에 다 써버린 거죠.<br/><br/>정: 동료들끼리도 말해요. 예산을 4대강 같은 데 다 써버리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br/><br/>진: 손녀 같아서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박희태씨를 뽑을까도 했는데 말이죠. 이명박씨는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얼마 전 “구름 같은 이야기”라는 발언 한마디에….<br/><br/>허: 로봇물고기, 이건 무슨 터미네이터야.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분께서 웃고 있더라고요. 이 ××, 편하게 늙는 거 못 보겠어. 아니, 근데 무슨 욕보인 인물 남녀 부문에 전·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뽑히나, 아오~!<br/><br/>임: 그럼 욕본 2014년, 세 분이 뽑은 올해의 단어는?<br/><br/>진: 멘붕. 올해 정말 심하네요. 세월호가 멘붕을 주고, 신해철이 멘붕을 주고. 세월호 당시 악몽을 세 번이나 꿨어요. 아이들을 못 구하는. 신해철씨와는 <속사정 쌀롱>이란 예능 프로그램 막 함께 시작했는데. 다음주에 또 보는 사람인데 죽었대. 안 믿어져요.<br/><br/>정: 사죄. 아니, ‘사죄인 듯 사죄 아닌 사죄 같지도 않은 너’가 넘쳤던 한 해. 사과의 주체도 내용도 다 틀렸던 한 해예요.<br/><br/>허: 죽음.<br/><br/>임: 예능으로 가려 해도 다큐로 가네요. 그럼 2015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br/><br/>진: 허지웅씨가 책 냈잖아. 버텨야죠. 예능을 보면서 버티는 거죠.(웃음)<br/><br/>허: 안 그래도 예능에서 진중권 선생님 캐릭터 만드느라 힘들어요.(웃음) 버틴다는 게 귀 닫고 사는 게 아니라 버티려면 계속 싸워야죠. 안 싸우고 버티면 도태돼, 나자빠져. 계속 싸워야죠.<br/><br/>정: 요즘 국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문제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냉소가 심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최근 출판계에 쌤앤파커스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나섰던 건 그 때문이에요. 이 작은 문제조차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야죠. <br/><br/> 진행·정리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br/><br/> 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장소 협찬 더 플라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5.txt

제목: 검진 확대·금연 확산에…암 발생률 12년만에 감소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2310015858791  
본문: 2000년 이후 꾸준히 늘던 암 발생률이 2012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암 검진이 보편화되고 점진적인 금연 확산 등이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br/><br/>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모든 암을 연령표준화발생률(암 발생률)로 따져보니, 2012년 암 발생률이 10만명당 319.5명으로 2011년보다 3.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남성의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9.8명이나 줄었다. 여성은 전년 대비 1.2명 늘었지만 이전 해 16.4명 증가한 것에 견주면 증가 폭이 크게 낮아졌다. <br/><br/>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은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배제하려고 전체 연령별 인구 비율을 2000년 기준으로 맞춘 것으로, 실제 암 발생률(조발생률)과 차이가 있다. 조발생률로 보면 2012년 10만명당 암환자 발생 수는 이전 해보다 5.7명 증가했다. <br/><br/>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span class='quot0'>단기간의 암 발생률 감소 추세만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1990년대 중반 이후 암 검진 사업과 금연 사업을 추진한 게 효과를 낸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br/><br/> 실제 암 종류별로 발생률 추이를 따져보면 암 검진 확대와 금연, 예방접종 등이 암 발생률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음이 드러난다. 예컨대 간암과 폐암 발생이 줄어든 건 각각 B형 간염 예방접종으로 B형 간염에 의한 암 발생자가 감소했고, 흡연율이 낮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위암 감소는 암 검진 과정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에 따른 유병률을 낮췄고, 자궁경부암·대장암은 검진을 통해 암 전 단계에서 치료가 이뤄진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암은 1년 새 10만명당 남성은 4.4명, 여성은 2.0명 줄었다. 간암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8명, 0.9명 감소했다. <br/><br/> 암환자를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은 위(18.5%)·대장(15.5%)·폐(13.7%)·간(10.8%) 차례다. 여성은 갑상선암(32.2%)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유방(14.8%)·대장(10.3%)·위(9%)가 뒤를 이었다. 2000년대 이후 연평균 22.6%씩 증가하던 갑상선암 환자는 2012년엔 7.3% 늘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갑상선암 환자는 2012년 암환자 5명 중 1명(19.6%)꼴이다. <br/><b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6.txt

제목: 로봇 수술, 기존 수술보다 합병증 못줄인다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2310015858608  
본문: 로봇 수술이 자궁내막암 등 일부 암을 제외하고는 개복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보다 합병증을 줄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수술은 원격 장치로 수술칼 등이 달린 로봇 팔을 조종해 수술을 하는 방법이다.<br/><br/>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자궁암, 결장암(대장암의 한 종류), 방광암, 폐 및 기관지암, 구강 및 인후두암, 식도암, 부신 및 신우요관암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7개 암에 대해 로봇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br/><br/> 이번 연구는 수술 뒤의 합병증 발생, 수술 뒤 입원 기간, 상처 회복 등의 지표를 통해 로봇 수술과 기존 수술법의 효과를 비교했다. 7개 암 가운데 로봇 수술이 로봇을 이용하지 않은 기존 수술 방식에 견줘 합병증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은 경우는 자궁내막암뿐이었다. 나머지 암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만 있었다. 자궁내막암의 경우 로봇 수술은 개복 수술에 견줘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는데, 특히 상처 관련 합병증 발생이 적었다. 복강경 수술과 비교할 때에도 로봇 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다. 자궁경부암은 로봇 수술이 개복 수술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지만, 복강경 수술과 비교할 때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br/><br/> 인후두암은 로봇 수술을 받으면 수술 뒤 폐로 들어간 관을 제거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6.4일, 입원 기간을 8.4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대장암(결장암)의 경우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 식사 시작일 0.7일, 방귀(가스) 배출일 0.5일, 배변 시작일 0.6일을 단축시켰다. 방광암의 경우에는 로봇 수술은 개복 수술과 비교해 수술 뒤 패혈증, 농양, 호흡부전의 발생률이 낮았지만 수술 뒤 협착 발생률은 오히려 더 높았다.<br/><br/> 조사 대상 가운데 폐 및 기관지암, 식도암, 부신 및 신우요관암에서는 로봇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쌓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br/><br/> 보의연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전립선암·신장암·직장암·위암·갑상선암 등 5개 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위암의 경우 로봇 수술은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에서 다른 수술 방법과 큰 차이가 없었고, 전립선암은 로봇 수술이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견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7.txt

제목: 인문학 대중화 위해 ‘종횡무진’ 저술가 남경태씨 별세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2310015858441  
본문: <개념어 사전> 등 대표적인 인문학 저술·번역가로 꼽혀온 남경태(사진)씨가 암 투병 끝에 23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3.<br/><br/>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1980년 사회과학 출판사 백산서당 편집장을 시작으로 출판계에 몸담은 고인은 94년 <셜록 홈즈의 추리학>을 낸 이후 20여 년간 스테디셀러 종횡무진 시리즈 등 역사·철학뿐만 아니라 추리·고고학 분야까지 아우르는 35종 39권 저서와 99종 106권의 번역서를 써내면서 뛰어난 번역가요 역량있는 대중교양서 저술가라는 평을 얻었다. 2004년부터 올 입원 직전까지 <문화방송> 라디오의 ‘타박타박 세계사’, 2013년부터 1년간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진행을 맡는 등 그는 방송 활동에도 열심이었다.<br/><br/> 남씨는 새해 2월 출간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종횡무진~ > 시리즈의 한국사·서양사·동양사편 개정 작업을 해왔고, 유작이 된 인문지리역사서 <지구본 갖고 놀기> 초고를 마무리한 상태였다. “지은이의 향기가 나지 않는 책은 가치가 없고, 좋은 텍스트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지은이의 향기가 진하다. 앞으로도 독자들이 이 종횡무진 시리즈에서 지은이의 체취를 느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는 종횡무진 시리즈 개정판 서문은 그의 유언이 됐다.<br/><br/> 유족으로는 부인 성광일씨, 아들 한결(국군 상병)씨가 있다. 빈소는 일산백병원이며, 발인은 25일 오전 9시이다. (031)910-7444.<br/><br/>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8.txt

제목: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관리들에 직격탄…“첫 마음 잊고 영적 치매 앓고 있다”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2310015858704  
본문: “<span class='quot0'>(바티칸 관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만났던 기억을 잃고, 자신이 만든 우상의 노예가 되어 오직 현재와 욕망에 매달리는 ‘영적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span>”<br/><br/> 프란치스코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22일 교황청 관료들의 재산 축적과 위선적 이중생활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교황은 성탄절에 앞서 교황청 관리들에게 한 연설에서 교황청을 15가지 질병에 걸린 몸으로 진단하며 이같이 비판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교황은 ‘영적 치매’, ‘실존적 정신분열증’ 등 15가지 질병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성직자들이 회개하고 새해부터는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br/><br/> 교황은 추기경, 주교와 사제들이 바티칸 경력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잡고, 위선적인 이중적 삶을 살고 있으며 신을 위해 봉헌하는 자신의 삶을 잊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교황은 연설에서 “<span class='quot1'>일부 교황청 관리들은 다른 사람이나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지구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톨릭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그는 또 “<span class='quot1'>가십(험담) 테러리즘이 어떻게 동료들의 평판을 해치는가</span>”, “<span class='quot1'>파벌들이 어떻게 구성원들을 복속시키고 전체의 조화를 깨는 암적 존재가 되는가</span>” 등의 직설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교황의 연설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전했다.<br/><br/> 교회역사가 알베르토 멜로니는 “이것은 역사적인 선례가 없는 연설”이라며 “교황이 강한 어조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에이피> 통신에 말했다. 또 다른 바티칸 전문가도 교황이 이처럼 강력하고 격렬하게 연설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는 2012년 교황청 집사가 기밀문서를 폭로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결과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사단은 교황청의 권력투쟁과 음해 등 온갖 비리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베네딕트 전 교황과 프란치스코 교황만이 알고 있다. <br/><br/>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29.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성형사고와 의료산업 / 김양중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2310015858408  
본문: 성형외과 병·의원한테는 무척 반갑지 않은 소식이겠다. 수술하기 좋은 겨울인데다 대학생들의 방학도 시작됐는데 성형수술 사망 사고가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끝나서 ‘잠재 고객’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이다. 이번에도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광대뼈를 깎아 얼굴 크기를 줄이고 턱선을 바꾸는 수술을 받은 직후 숨졌다. 사고가 난 성형외과 병원은 정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즉 명성이 없는 곳도 아니다. 병원들이 성형수술을 얼마나 안전하게 잘하느냐에 대한 믿을 만한 평가 결과가 없으니 그곳 성형외과의 실력을 알 수 없기는 하다. 하지만 이른바 소문난 병원에서도 성형수술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br/><br/> 성형수술 도중 혹은 수술 뒤 사망 사고는 이제 ‘뉴스’가 아닐 정도로 자주 듣는 소식이다. ‘외모 지상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말하거나 ‘성형수술 부추기는 사회’라는 어구도 이제는 구시대의 유행어처럼 들린다. ‘예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자신의 얼굴에 수술칼을 대어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br/><br/>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들을 돌아보자. 이런 사고가 날 때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비성형외과 전문의들을 탓하기도 한다. 성형외과 전문의들 얘기로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절반가량이 비성형외과 전문의들이라는 것이다. 비록 손기술이 좋아 성형수술을 잘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작 수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잘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해도 사고가 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힘들다. 오히려 성형외과 전문의와 그렇지 않은 전문의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br/><br/> 이달 초 끝난 성형외과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77명을 모집했는데, 110명이 지원해 26개 전문진료 과목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배 성형외과 의사들은 다른 과 전문의가 성형수술 시장에 침투해 오는 등 과다한 경쟁으로 병원 경영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후배 의사들은 성형외과에 몰리고 있다. 대신 필수 진료과로 부르는 내과·외과나, 폐암이나 방광암 등 목숨을 위협하는 암 수술 등을 해야 하는 흉부외과나 비뇨기과는 미달됐다.<br/><br/> 이 현상을 두고 수입이 많으면서 개업이 쉬운 진료과를 찾는 의사들을 탓해야 할까? 물론 가난한 환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진료하는 게 옳다는 윤리적 당위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성자’와 같은 의사들도 실제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히 4년의 다른 전공과목을 마치고 한 학기 10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낸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면 더더욱 수입이 많고 개업이 쉬운 진료과를 전공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br/><br/> 연예계 소식을 보면 과거와 다른 풍속도가 있다. 과거에는 성형수술 의혹 기사는 연예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제는 상당수 연예인들이 텔레비전 각종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받은 성형수술을 공개한다. 성형수술을 받으면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며 미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br/><br/> 이런 성형수술의 활성화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의료산업을 돈벌이로 여기는 정부 정책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 필수 진료 과목이나 공공의료가 무너지든 말든 간에 의료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고 그래서 의료관광 우수 기관도 선정해 주는 정부 정책에 따라, 환자가 희생되는 것은 물론 의사도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0.txt

제목: 암 완화의료·호스피스 내년 하반기 건보 적용  
날짜: 20141220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20100000050  
본문: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 등의 통증 관리 등을 통해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를 말한다. <br/>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에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내년 4월까지 완화의료 수가 최종 모델을 만들고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한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 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br/>　아울러 이날 열린 건정심위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 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에이치아이브이(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어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나 혈전용해제를 사용 중인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산정 특례를 받게 돼 전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환자는 5%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산정 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천명의 심장·뇌혈관 질환자한테 240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내다봤다.<br/>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1.txt

제목: 암 완화의료·호스피스 내년 하반기 건보 적용  
날짜: 2014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910015835562  
본문: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 등의 통증 관리 등을 통해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를 말한다.<br/><br/>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에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내년 4월까지 완화의료 수가 최종 모델을 만들고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한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 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br/><br/> 아울러 이날 열린 건정심위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 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에이치아이브이(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어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나 혈전용해제를 사용 중인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산정 특례를 받게 돼 전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환자는 5%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산정 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천명의 심장·뇌혈관 질환자한테 240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내다봤다.<br/><br/>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2.txt

제목: ‘친구 이두환 위해’ 김광현·양현종 일일호프 개최  
날짜: 2014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810015828364  
본문: 김광현(SK), 양현종(KIA) 등은 20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치킨더비 자곡점에서 암 투병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 일일호프를 연다. 김광현, 양현종을 비롯한 김선빈(KIA), 김강(두산), 이재곤(롯데) 등은 2006년 쿠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88년생 동기들로, 2012년 대퇴골두육종 판정을 받고 8차례 수술 끝에 세상을 떠난 친구 이두환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선행사를 열고 있다. 이두환 또한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우승 멤버였다.<br/><br/> 자선행사에서 선수들은 ‘DH’(이두환의 영어 이니셜)를 새긴 모자를 착용해 직접 서빙을 하며, 간단한 경매 행사도 진행된다. 자선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암환자 치료를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br/><br/>김양희기자 whizzer4@hani.co.kr 사진 스포스타즈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3.txt

제목: 꽁꽁 언 쪽방 “밥이 돌처럼 차가워”…한파 속 쪽방촌 가보니  
날짜: 2014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710015820360  
본문: ‘악’ 소리가 나는 추위였다. 매서운 칼바람에 비닐봉지가 찢어질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펄럭였다.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찾아온 17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 쪽방촌도 얼어붙었다. 쪽방촌 주민 김아무개(56)씨는 “점심과 저녁을 일회용 도시락으로 때우는데 음식이 돌처럼 차갑게 식었다”고 했다.<br/><br/> 김씨는 지난달 말 쪽방촌으로 왔다. 식당 일을 하다 노숙인이 됐다. 명치에 ‘선인장꽃이 피듯’ 삐죽 나와 있던 덩어리를 없애는 수술을 지난 10월 받았다. 암이었다. 약초를 캐다가 넘어져 얼굴뼈 일부도 깨졌다. 그렇게 쪽방으로 들어왔다.<br/><br/> 이제 막 쪽방 생활을 시작한 ‘초보자’ 김씨는 이날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가스, 코펠을 샀다. 비용 10만5000원은 서울시복지재단 희망온돌 지원금에서 댔다. 7년째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해온 전익형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실장이 “<span class='quot0'>추워도 가스레인지로 불을 쬐면 안 된다</span>”고 신신당부했다. 쪽방촌에서 난방을 해준다지만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이기려면 두툼한 양말을 신어야 한다.<br/><br/>암수술 받아 일못하는 50대 김씨 <br/>월세·식사는 복지기관 도움 받고 <br/>난방기구조차 없이 강추위 견뎌<br/><br/>지자체 위탁받은 지역상담센터 <br/>직원 4명이 주민 760여명 보살펴 <br/>“<span class='quot1'>정부, 취약계층 직접 지원 부족</span>”<br/><br/> 남대문지역상담센터는 서울 중구청의 위탁을 받아 이 지역 주민 760여명의 건강과 복지를 돌본다. 겨울철에는 빙판길에 넘어진 사람들과 결핵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센터가 있는 건물 지하 목욕탕은 한파가 닥치면 ‘쉼터’로 변한다. 이럴 때는 전 실장과 직원들의 퇴근시간도 늦어진다. 곽경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서울시에 있는 복지시설이 약 1000개인데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정도다. 대부분 지자체가 민간 복지시설에 위탁해 간접지원한다”고 했다.<br/><br/> 초겨울 한파에 서울시와 각 구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새벽 노숙인 이아무개(65)씨가 술에 취한 채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출입구 근처에서 신문지를 쌓아놓고 불을 피우다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br/><br/> 종로구는 밤 11시까지 5개조 20명이 지하철역과 지하보도, 공원 등을 돌며 노숙인들을 연계 시설이나 상담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관내 경로당 53곳과 노인복지관 3곳은 ‘한파 쉼터’로 지정했다. 한파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어르신 돌보미’ 596명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이들이 독거노인과 고령자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한다.<br/><br/> 동작구도 한파에 대비해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청송·송학경로당 등 17곳을 ‘한파 쉼터’로 지정했다. 또 따로 팀을 꾸려 관내 독거노인과 고령자 안부 전화와 방문 횟수를 늘렸다. 마포구 역시 노인정을 한파 쉼터로 지정해 밤 10~11시까지 난방을 지원한다. 노숙인들이 지내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특별점검 순찰도 실시한다. 동대문구도 밤 10시까지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등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자는 노숙인이 없는지 야간순찰을 강화했다.<br/><br/>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직원은 “<span class='quot2'>추위에 노숙인들이 줄기는 했지만 매일 밤 순찰에서 20명 정도 마주친다</span>”고 했다. <br/><br/> 최우리 박기용 김규남 기자 ecowoor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4.txt

제목: 세종대왕님, 이 고을이 마음에 드시나요  
날짜: 2014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710015821103  
본문: “여기 유명한 관광지가 뭐 있간디. 별다른 경관이랄 것도 별로 없구.” 세종시에서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디냐는 물음에, 담당 공무원도 문화관광해설사도 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새로 건설되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구경하러 찾아오는 사람은 많다고 했다. 볼거리 없다는 세종시는 건설되고 있는 도시 자체가 볼거리로 떠오른 셈이다.<br/><br/>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공사중이다.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도심예정지구’와 그 주변 지역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 건물이 솟고 새 길이 닦인다. 9부2처2청 35개 정부기관이 들어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다. 오는 26일까지 마지막 3차 행정기관 이전(법제처 등 6개 기관 2680명)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30년 인구 80만의 대도시로 특별자치시가 완성되면 세종대왕님도 흡족해하실까. 건설이 한창인 세종시를 찾아, 도심 안팎에 숨고 드러난 겨울 경치와 선인의 발자취를 더듬었다.<br/><br/> <br/><br/> 길이 3.5㎞ 용틀임하는 정부청사 옥상 산책 인기<br/><br/> 세종시의 도심 볼거리 중에서 주민·공무원들이 한목소리로 자랑하는 핵심 볼거리가 정부청사 건물이다. 문화관광해설사 임재한씨는 “<span class='quot0'>정부청사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로, 생긴 모습이 특이해 단체로 견학 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span>”고 자랑했다.<br/><br/> 정부세종청사는 길이가 무려 3.5㎞에 이르는, 성곽 형태(용이 몸을 트는 모양)의 기다란 건물(4~7층)이다. 18개의 독립 건물들이 용의 모습으로 이어져 있다. 지상에서 보면 느낌이 잘 안 오고, 항공사진을 봐야 “승천을 앞둔 용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태양열로 일부 전력을 공급하고, 빗물을 받아 정원용·화장실용으로도 쓰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추진중이라고 한다.<br/><br/> 용의 모습으로 보자면 국무총리실이 머리 쪽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꼬리 쪽이다. 옥상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까지 옥상정원을 따라 1.5㎞ 거리를 산책하며 주변 경관을 둘러보는 관광코스가 마련돼 있다. 조선시대의 성곽 걷기 행사인 ‘순성놀이’를 본뜬 탐방 코스다. 평일 하루 두 차례(오전 10시, 오후 1시), 예약(청사 누리집)을 통해 45명만이 참가할 수 있다.<br/><br/> 도심 한복판에 조성된 호수공원도 인기 탐방지다. 녹음이 우거지는 철이면 이웃 도시 주민들까지 소풍을 온다는 곳이다.<br/><br/>세종시 도심 최고 전망대 전월산 <br/>높이 260m 작은 산이지만 <br/>금강 물길·아파트숲·공원 한눈에 <br/>비암사·고복저수지도 들러볼만 <br/><br/> 금강변 전월산 전망과 도심 속 선인 발자취<br/><br/> 건설중인 세종시 윤곽을 한눈에 가늠해볼 수 있는 곳이 전월산 정상이다. 금강 본류와 미호천이 합류하는 합강머리 가까이 솟은 산이다. 해발 260m에 불과하지만, 주변에선 가장 높은 산이어서 탁 트인 전망을 펼쳐 보인다.<br/><br/> “요 일대에서 전망 좋기로 여기 따라올 데가 없지요. 다 보이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아침, 밤새 내린 눈으로 근사한 경치를 이룬 산 정상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매 주말 운동 삼아 전월산을 찾는다고 했다.<br/><br/> 전망이 좋은 곳은 나무의자 4개가 놓인 맨 꼭대기가 아니라, 정상 밑 상여바위 부근 능선이다. 능선 좌우로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해 형성된 광대한 합강습지와 건설중인 금빛노을교, 도심예정지구를 관통해 흘러가는 금강 물줄기와 물길에 걸린 한두리대교, 그리고 ‘첫마을’의 고층아파트 무리와 호수공원 등이 펼쳐진다.<br/><br/> 상여바위(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임난수 장군이 이곳에 올라 고려를 생각하며 슬퍼했다는 바위)에서 정상을 지나 조금 내려서면 용천이란 샘(우물)을 만난다. 산 정상 부근에서 솟는 샘이어서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이 샘에서 100년 기도 끝에 승천하던 이무기가 떨어져 버드나무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우물 옆에 작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나무엔 길이 2m가 넘는 기다란 손잡이를 한 국자(물바가지)가 걸려 있다. 우묵한 자리에 땅을 파 석축까지 쌓은 우물 형태의 샘이지만, 낙엽이 쌓이고 물도 흐려 식수로는 적합지 않은 듯하다.<br/><br/>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1.2㎞, 40분이면 오를 수 있다. 전반부는 완만하고, 후반부는 가파르다. 정상 가까이엔 등산로를 따라 난간식으로 밧줄이 설치돼 있다.<br/><br/> 세종시 도심의 아파트숲 사이에도 볼거리들이 숨어 있다. 조선 태조의 친필 등을 모셔두었던 비각인 아름동의 어서각,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한솔동의 백제 고분 무리(백제고분역사공원), 금강변 나성길의 독락정·기호서사 등이다.<br/><br/> 어서각은 태조 이성계가 이 지역 강순용에게 내린 친필 교지를 보관하던 곳이다. 조선 건국 전 이성계가 이곳 우물가에서 한 처녀에게 물을 얻어 마셨는데, 처녀는 표주박에 버드나뭇잎을 띄워 급히 마시는 걸 막았고, 이에 감동한 이성계가 건국 뒤 이 처녀를 왕비로 맞이하며 오빠인 강순용에게 친필 교지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뒤에 이런 사정을 듣고 영조도 친필을 하사하고, 고종도 친필을 내려 이곳에 보관했다고 한다. 원본들은 규장각에 보관돼 있고, 지금 어서각에선 태조의 친필 교지 사진을 볼 수 있다.<br/><br/> <br/><br/> 백제 유민 한 서린 비암사와 고복저수지 설경<br/><br/> 연기군에다 공주시·청원군(현 청주시) 일부 지역을 포함해 만든 세종시에서 가장 이름난 절이 비암사다. 뱀(비암)이 많아 ‘비암사’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빗돌(비암)을 뜻하는 비암사(碑巖寺)다. 백제가 망한 뒤 백제 유민들이 부흥을 꿈꾸며 역대 백제 왕과 대신들을 모시고 제를 올렸다는 절이다. 세종시에선 해마다 4월 백제의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백제대제를 이곳에서 지낸다.<br/><br/> 1960년 극락보전 앞 고려시대 삼층석탑 윗부분에서 ‘계유명 전씨 아미타삼존불비상’(국보 106호)이 발견됐다. 불비상은 빗돌 형태의 석불을 말한다. 통일신라 초기인 673년 백제 유민이 만든, 섬세한 조각 솜씨가 돋보이는 사면석상이다. 불비상 진본은 청주박물관에 소장돼 있고, 비암사에선 대웅전 불단에 올려놓은 모조품을 만날 수 있다.<br/><br/> 평일 비암사는 찾는 이가 적어 매우 한적하다. 눈 내린 뒤 찾으면 더욱 적적한 산사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옛것으로는, 삼층석탑과 극락보전 외에 800년 됐다는 느티나무와 소박한 부도 2기를 볼 수 있다. 해우소 옆 나무계단길을 잠시 오르면 비암사 경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br/><br/> 비암사 들머리 도로 메타세쿼이아숲 옆엔 도로에 물을 부으면 물이 언덕 위쪽으로 흐르는 듯이 보인다는 ‘도깨비도로’도 있다.<br/><br/> 비암사 가는 길에 들를 만한 곳이 고복저수지다. 30여년 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미호천 상류의 저수지다. 둘레를 따라 나무데크 산책로가 설치(일부 구간 작업중)돼 있어 거닐어볼 만하다. 눈이 내린 뒤 호수를 오가는 철새들과 어우러진 설경이 아름답다.<br/><br/> 이밖에 세종시에서 찾아가볼 만한 곳으로 반달곰과 정원 주제의 테마파크인 베어트리파크, 1000여개의 항아리를 만날 수 있는 뒤웅박고을 세종전통장류박물관 등이 있다. 세종대왕의 눈병을 낫게 한 약수물 ‘전의 초수’, 세종 때 인물인 김종서의 묘와 성삼문 사당도 있다.<br/><br/> 세종/이병학 선임기자 leebh99@hani.co.kr<br/><br/> 세종시 여행 정보<br/><br/>가는 길 수도권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해 정안나들목에서 나가 세종시로 간다. 공주교차로에서 당진대전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유성 쪽으로 가다 서세종나들목에서 나가도 된다. 현재 세종시청은 조치원읍에 있다. 조치원읍은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에서 나가는 게 빠르다.<br/><br/><br/><br/>먹을 곳 고복저수지 둘레에 식당들이 많다. 구름나그네의 도토리산채비빔밥(8000원·사진)·능이계탕(1만5000원) 등, 도가네매운탕의 메기·새우매운탕(3만원부터), 복사골의 잡어매운탕(3만원)과 어죽국수(7000원) 등. 전동면 배일길 뒤웅박고을 전통장류박물관의 장향관은 고가의 한정식집(1인 2만5000원부터).<br/><br/><br/><br/>묵을 곳 세종시 예정지구 도심엔 아직 숙박업소가 없다. 10여분 거리의 공주시 신관동이나 조치원읍의 모텔, 대전 유성 지역의 호텔 등을 이용한다.<br/><br/><br/><br/>여행 문의 세종시청(조치원읍)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42, 세종정부청사관리소 관리과(청사 관광 문의) (044)200-1148. <br/><br/><br/><br/> 여행공책<br/><br/>부천 웅진플레이도시가 어린이 기부 체험행사 ‘웅플 어린이 기부데이’를 19~21일 진행한다. 참가할 어린이는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3점 이상을 매표소 기부 상자에 넣으면 된다. ‘아름다운 웅플 어린이’ 임명장·배지를 주고, 당일 워터파크·스파 무료 이용 기회를 준다. 기증 물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돼 소외아동 돕기에 쓰인다. 1577-5773.<br/><br/><br/><br/>한화호텔·리조트는 내년 1월11일까지 ‘패기 넘치는 워터피아 광고 카피’를 모집하는, ‘신입사원 강소라(드라마 ‘미생’ 안영이 역)의 파트너를 찾습니다’ 응모 행사를 진행한다. 광고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댓글로 광고 카피를 작성하면 된다. 당첨자 및 추첨자 500명에게 상품권 등을 준다. (02)729-3840.<br/><br/><br/><br/>용인 에버랜드의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가 지난 13일 개장했다. 2인용 코스를 늘려 대기시간을 줄이고, 2인용 썰매도 플라스틱보다 가벼운 우레탄 소재로 바꿨다. 3개 코스 중 가장 긴 200m짜리의 아이거 코스는 19일부터 운영된다. 튜브리프트를 타고 편리하게 이동하며 즐길 수 있다. (031)320-5000.<br/><br/><br/><br/>우리테마투어는 오는 31일 밤 영덕 강구항으로 무박2일 일출여행을 떠난다. 버스로 서울을 출발해 울진 백암온천에서 새해 새벽 온천욕을 즐기고 영덕 강구항 해돋이를 감상한다. 대게시장, 청송 주왕산과 주산지도 들른다. 온천욕 포함 6만3000원. (02)733-0882.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5.txt

제목: 새해부터 ‘금연’ 결심?…성공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날짜: 2014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610015812375  
본문: 새해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른다. 이와 함께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흡연자로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담배 피울 공간이 줄어드는 만큼 금연을 고민해볼 만한 기회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흡연은 백해무익하다. 특히 폐암 등 각종 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을 크게 높인다. 금연학회 등은 새해를 맞아 담배를 끊으려면 지금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을 찾아 자신의 담배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금연 치료제’ 등을 처방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br/><br/><br/><br/> 주변 사람들한테 금연 결심 알려라 <br/><br/> 금연에 성공하려면 금연하기로 한 날을 정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새해 첫날이나 자녀 생일, 결혼기념일 등의 계기를 잡은 뒤,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과 약속을 하고,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한테도 공표를 하는 게 좋다. 이후에는 담배를 비롯해 라이터, 성냥 등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집은 물론 직장 사무실, 자동차 등에서 없애야 한다. 금연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금연 성공에 자신이 없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을 찾아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거나,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싶거나, 몸이 아플 때에도 담배를 찾게 되는 이들도 금연클리닉을 찾는 것이 좋다.<br/><br/><br/><br/> 금단 증상을 미리 알고 있어야 대처 가능 <br/><br/> 흡연은 습관이자 우리 몸에 니코틴 중독을 일으킨다. 담배를 끊으면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며 각종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참지 못하면 금연에 실패하게 된다. 증상 중의 하나가 공복감이다. 이 때문에 사탕이나 초콜릿 등 간식을 먹다 보면 몸무게가 늘기 쉽다. 이보다는 물이나 열량이 적은 무가당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 기침이 나거나 몸이 쑤시는 등과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기침이 나면 따뜻한 물이나 녹차 등을 마시고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좋다. 몸이 쑤시는 느낌이 나면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해당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면 개선된다.<br/><br/> 정신적으로는 불안하거나 신경질이 날 수 있으며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심호흡이나 스트레칭 등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익히면 이런 증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 사람들과 가볍게 운동을 즐기거나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는 것도 권장된다. 위장 등 소화기계 쪽에서도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변비나 소화장애가 대표적인데 변비는 물을 자주 많이 마시고 채소나 과일, 현미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 맵고 짜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을 멀리하면 소화장애도 피할 수 있다.<br/><br/><br/><br/> 식사 뒤 칫솔질 등 새로운 습관 만들어야 <br/><br/> 금단 현상과 함께 담배를 끊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흡연 습관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울 때의 습관을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금연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식사 뒤 곧바로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다면 대신에 칫솔질을 함으로써 흡연 욕구를 줄일 수 있다. 화가 날 때 담배를 피웠다면 심호흡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열까지 세며 화를 진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 물을 마시며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도 좋다.<br/><br/> 보통 술을 마시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되며 금연 결심이 약해진다. 금연 초기에 술자리를 피하는 게 필요한 이유다. 외롭다고 느낄 때에 흡연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운동이나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방법이다. 금연도 다른 일처럼 실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연 중에 담배 한두 개비를 피웠다고 금연 실패로 여겨서는 안 된다. 대신 곧바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했는지 파악해 다시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 도움말: 대한금연학회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6.txt

제목: 원전 주변 갑상선암 301명, 공동소송 나섰다  
날짜: 2014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610015812476  
본문: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원전) 4곳 근처에서 살다가 갑상선암이 발병한 주민과 그 가족 1336명이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등을 냈다.<br/><br/>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 사람들 등 8개 반핵 단체는 16일 “부산 고리원전, 경북 월성원전, 경북 울진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중심의 반지름 10㎞ 안에서 5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갑상선암 발병 주민 301명이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br/><br/> 이번 공동소송에는 고리원전에서 191명, 월성원전에서 46명, 울진원전에서 30명, 한빛원전에서 34명의 원고가 참여했다. 또 갑상선암 발병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원고의 가족 1035명이 한수원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br/><br/>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와 가족들은 모두 1336명이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원고 한 사람당 1500만원이다. 원고의 배우자는 300만원, 원고의 부모·자녀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br/><br/> 공동소송은 지난 10월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고리원전 근처 주민 박아무개(48)씨의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한겨레> 10월18일치 9면)에 따른 것이다.<br/><br/> 소송대리인인 변영철 변호사는 “갑상선암 발병 피해만 따지는 이번 공동소송에 전국에서 가동 중인 4개 원전 근처에 사는 301명의 주민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번 공동소송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국 원전 근처 주민 301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원전과 갑상선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실질적 증거라는 것이다.<br/><br/> 변 변호사는 “<span class='quot0'>한수원이 검진기술의 발달 때문에 원전 근처 주민의 갑상선암이 급격히 발견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발병한 뒤 검진을 늦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span>”고 말했다.<br/><br/> 반핵 단체들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갑상선암 발병 주민들까지 고려하면 전국 원전 근처 주민 상당수가 갑상선암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r/><br/> 최수영 반핵부산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소송 원고를 모으면서 부산 고리원전 근처의 일부 마을에는 한 집 걸러 한 집꼴로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가 나란히 암에 걸리는 등 한 집에서 2명 이상의 가족이 갑상선암에 걸린 사례도 10건이나 됐다”고 말했다. <br/><br/> 박용수 반핵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한수원은 갑상선암 발병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위를 파악한 뒤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수원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공동소송 2차 원고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br/><br/>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7.txt

제목: [2030 잠금해제] 일터는 왜 지옥이 되었는가 / 희정  
날짜: 2014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410015794786  
본문: 산업재해를 다룬 르포를 썼고, ‘일터는 왜 지옥이 되었는가’는 그 책 리뷰 제목 중 하나이다. 우리의 일터가 지옥인가. 지옥이란 표현은 과장되더라도, 직장이 지긋지긋한 곳임은 분명하다. 직장인들이 바둑 수를 배우려고 <미생>에 열광하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br/><br/> 새벽 3시 택시를 탔는데 술 냄새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정보기술(IT) 업계 직원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철야가 일상인 곳. 화장품 샘플 더 내놓으라 진상 부리는 고객 앞에서 웃어라, 입가에 경련 일게 웃어라 요구하는 곳.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안도가 끝나기도 전에 마흔만 넘어도 우후죽순 책상을 빼앗기는 선배들을 보며 전력질주를 다짐해야 하는 곳. 우리의 직장이다. 지긋지긋하다.<br/><br/> 문제는 감정 소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주 77시간을 일해온 아이티 노동자는 폐암으로 사망했다. 위암으로 목숨을 잃은 대기업 부장은 암 선고를 받은 날마저 자정에 퇴근을 했다. 판매원과 같은 감정노동자의 30%가 자살충동 경험을 고백했다.<br/><br/> 내 목숨을 노리는 곳이 지옥이 아닐 리 없다. 내가 만난 산업재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일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들은 ‘안 돼요, 싫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권한이 없었다. 장난전화에 시달리는 콜센터 상담원은 전화를 끊을 권한이 없다. 야근에 찌든 회사원은 퇴근시간을 지킬 권한이 없다.<br/><br/> 폭설이 퍼붓던 날 야간작업을 하던 19살 산업훈련생 머리 위로 지붕이 무너졌다. 전부터 야간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청소년 야간노동 금지라는 조항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법전 어딘가에 있었다.<br/><br/> 연륜이 있다면 달라질까? 철도청 시절부터 근무했다는 베테랑 노동자는 철로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인지 안다고 했다. 그런 그가 선로를 제대로 고칠 시간이 없었다. 설비 작업은 외주화되고, 수많은 동료가 잘려 나갔다. 그는 언젠가는 사고가 날 거라 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나이 든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br/><br/> 놀랍도록 우리는 우리 일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 밥줄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다. 월급 주는 이가 줄을 잡아당기며 요구하면, ‘그건 못 합니다’ 반대편에서 그 줄을 같이 당길 수가 없다. 팽팽한 줄이 끊어질까 두려워서다. 그게 내 밥줄이다.<br/><br/>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것은 옛말. 나는 비행기도 다시 돌리는 것이 한국의 오너다. 그런 권력이 저편에서 내 밥줄을 쥐고 있다. 밥줄은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수록 가늘다. 정규직에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 ‘노’(no)라는 소리 한두 번은 해보지. 협력/파견업체 직원이면 원청 오너가 이맛살만 구겨도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야 한다. 비행기 회귀를 기다릴 시간도 없다. 가늘디가는 줄이 조금만 힘주어 당겨도 툭 하고 끊어질까 봐. 지금 위험이 문제인가, 야금야금 좀 먹는 내 건강이 문제인가. 저쪽에서 당기는 대로 질질 끌려간다.<br/><br/> 그런데 ‘중규직’이라는 말이 들린다. 해고는 정규직보다 손쉽되,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나은 고용형태란다. 중규직 손에 들린 밥줄 굵기는 얼마만 할까? 고용이 불안정한 가는 줄을 쥐고는 무엇 하나 제대로 요구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br/><br/> 중규직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에는 고용의 경직성이 있다. 힘들게 취직해 열심히 일해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욕구가 누군가의 눈에는 경직으로 보이나 보다. 우리의 일터가 천국으로 보이는 걸까. 그래서 우리의 일터를 자꾸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br/><br/>희정 기록노동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8.txt

제목: 의사 찾아 ‘서울행’…‘5분 진료’ 위해 기차 타는 지방 환자들  
날짜: 2014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410015795777  
본문: “4년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충남 예산에는 수술을 할 병원이 없었어요. 천안의 대학병원이 그나마 가깝긴 하지만 기왕 움직이는 거 더 믿을 만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죠. 오늘은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후유증은 없는지 검사하려고 왔고요. 새벽부터 서둘러도 병원 일 보고 예산 집으로 돌아가려면 하루를 다 보내게 돼요. 솔직히 차비도 부담이 커요.”<br/><br/>지난 10일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외래진료 대기실에서 만난 김아무개(71)씨는 암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병원을 찾았다. 이틀 전에도 혈액과 소변 검사를 하느라 서울에 다녀갔다. 그는 예약 시간보다 30분 더 기다려 5분가량 진료를 받고 병원 문을 나섰다. 이렇듯 많은 환자가 ‘5분 진료’에 하루의 시간과 적잖은 돈을 들여야 한다.<br/><br/>환자들 <br/>충남 예산 김씨·전남 순천 김씨 <br/>수술할 병원 없어 ‘철새 환자’ 돼 <br/>수년째 서울 오가는 데 부담 커<br/><br/>김아무개씨도 2년째 이 병원 비뇨기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김씨를 보살피느라 늘 남편이 동행한다. 부부는 전남 순천시에 사는데, 서울을 한번 다녀가려면 교통비만 15만원이 더 든다. “병명은 알려줄 수 없어요”라며 손사래를 치던 김씨는 “<span class='quot0'>순천 주변의 병원을 모두 다녀봤지만 치료가 잘 안돼 결국 서울대병원까지 왔다</span>”고 말했다. 같은 병원 외과에서 5년 전 간암 수술을 받은 정아무개(59)씨는 강원도 철원에 거주한다. 암 수술 뒤 추적검사차 여섯달에 한번꼴로 승용차와 지하철을 이용해 2시간30분이 걸리는 이 병원을 오간다.<br/><br/>비수도권 환자의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첨단의료시스템, 많은 병상수 따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강한 하드웨어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맨 밑바닥에 의료 전문인력의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몸은 힘들고 돈벌이는 안되는데 수술 위험은 높은 진료과를 전공의들이 기피하는데다, 그마저도 전문인력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이 대부분 흡수해 빚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br/><br/>의사들 <br/>수술 도울 전공의 없어 서울행 권유 <br/>“<span class='quot0'>몇달 일하다 힘들다고 그만둬</span>” <br/>대전 충남 충북 전북 강원 지원자 ‘0’ <br/> <br/><br/>예컨대 비뇨기과 전공의가 모자란 비수도권 종합병원에선 방광암이나 신장암 수술처럼 까다로운 치료를 아예 포기하고 환자한테 서울행을 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비뇨기과는 전공의 92명 모집에 24명만 지원했다. 지원율 26.1%. 진료과 가운데 최하위다. 올해엔 정원을 87명으로 줄였는데도 지원율(33.3%, 29명)이 도 꼴찌다. 그나마 소수인 지원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몇몇 비수도권 대학병원엔 1년차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 비뇨기과는 2008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처음으로 채우지 못하더니, 2012년엔 지원자가 정원의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요즘은 정원을 채운 병원을 찾기가 더 어렵다. “암이 많이 퍼진 방광암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도 소변을 모을 인공 방광을 만들어야 한다. 수술은 8시간 이상 걸릴 만큼 복잡하고 힘들다. 신장암 수술도 4시간 넘게 걸린다. 수술 뒤 입원환자를 돌볼 전공의도 턱없이 모자란다. 그러다보니 전공의나 전임의를 일부라도 확보한 서울 주요 병원에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다.” 호남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의 고백이다.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거주 신장암·방광암 환자가 각각 24%, 25%인데,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비율은 54%와 44%나 됐다. 지방 환자의 절반가량이 서울행을 택했다는 뜻이다.<br/><br/>적은 인력으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비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의 고군분투는 눈물겹고 위태롭다. “우리 병원엔 비뇨기과 전공의가 4년차까지 연차별로 2명씩 모두 8명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론 나 혼자뿐이다. 환자 20명을 혼자 돌봐야 해 병원에서 살다시피 한다. 지난해엔 전공의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몇달 일하다 힘들다며 그만뒀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뇨기과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의사의 말이다. 사정이 이러니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br/><br/>병원들 <br/>돈벌이 안돼 환자 붙잡지 않아 <br/>“경영진은 천덕꾸러기로 여겨” <br/>정원 8명인데 1명뿐인 병원도 <br/><br/>병원으로선 비뇨기과 수술이 돈벌이가 되지 않아 굳이 환자를 붙잡을 이유가 없다.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부회장은 “신장암이나 방광암 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원가 이하로 보상이 되는 수술이라는 얘기다. 결국 병원 경영진이 비뇨기과를 천덕꾸러기로 여기게 된다”고 짚었다.<br/><br/>환자들의 서울 쏠림 현상이 개선될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 반면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 예보하는 지표는 많다. 대전·충남·충북·전북·강원 등의 수련병원(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병원)에서는 올해 비뇨기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병원이라고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올해 비뇨기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한곳도 없다. 사상 최악의 구인난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6명 정원에 1명, 서울대병원 4명 모집에 1명, 서울아산병원 4명 모집에 2명, 삼성서울병원 3명 모집에 2명, 세브란스병원은 5명 모집에 2명이 지원했다. 건국대병원과 경희대병원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손환철 서울시보라매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1'>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장암·방광암 등 각종 비뇨기 질환 환자는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span>”고 우려했다.<br/><br/>외과나 흉부외과 처지도 비뇨기과와 다르지 않다. 흉부외과는 2004년 이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다 2006년부터는 지원율이 50% 밑을 맴돈다. 지난해 62.7%로 반등하더니 올해 다시 39.6%로 꼬꾸라졌다. 외과는 2007년 지원율이 80%대로 내려앉은 뒤 올해는 59%까지 떨어졌다. 외과 전공의를 12명 뽑으려던 서울대병원에 3명만 지원했을 정도다. 이 병원 정승용 외과 교수는 “전공의 지원율엔 의사의 수입을 좌지우지하는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끼친다. 원가도 보상받지 못하는 수술을 의사의 책임감만으로 견디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를 계속 방치한 결과가 외과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짚었다.<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39.txt

제목: ‘암 투병’ 70대 노인, 어려운 이웃에게 40만원 남기고 떠나  
날짜: 2014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410015794288  
본문: ‘암 투병’을 하던 70대 노인이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4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br/><br/>광주 서구는 지난 12일 광주보람장례식장에서 무연고자 최아무개(75)씨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공영장례는 동네에서 함께 생활하던 분의 뒷모습을 배웅하는 마을 장례사업이다. 광주 서구는 지난 7월부터 공영장례를 하고 있으며, 최씨가 6번째이다. <br/><br/>최씨는 ‘장수 노트’를 통해 “<span class='quot0'>어려운 이웃 분들을 위해 드리고 싶다</span>”며 40만원을 남겼고, 자신의 장례를 금호1동장에게 부탁했다. 장수노트는 광주 서구에서 홀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홀몸 노인이 생전에 장례 계획 등을 직접 작성하도록 한 일종의 ‘임종 기록부’다. 홀몸 노인이 장수노트에 공영장례를 원하는 뜻을 남기면 서구에서 장례를 치러준다. <br/><br/>최씨가 남긴 40만원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면서 모은 돈이었고, 최씨는 자신을 보살펴준 봉사자 이순자(56)씨에게 쌍가락지를 남겼다. 최씨는 지난해 위암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고 한다. 봉사자 이씨는 주말도 쉬지 않고 최씨 집을 방문해 밥을 제대로 못먹는 그에게 죽을 쑤어주는 등 정성껏 보살폈다.<br/><br/>최씨는 20년 넘게 자신이 살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최씨가 남긴 마지막 말은 “고맙고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허약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혈변을 한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매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도와줬던 이씨의 손길에 고마움을 전한 것이다.<br/><br/>병원 치료를 거부하던 최씨가 발병 1년여 만인 지난달 25일, 병원에 입원할 당시 최씨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간과 담낭 등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br/><br/>봉사자 이씨는 “<span class='quot1'>가신 분의 마음이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가길 바란다</span>”며 그가 남긴 쌍가락지를 금호1동 동복지협의체에 기부했다. 장례에 함께한 이호준 금호1동장은 “<span class='quot2'>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믿음이 마지막 걸음을 앞둔 최씨의 마음을 열게 한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br/>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0.txt

제목: ‘진료의 기초’ 내과마저 미달…성형외과·피부과로 몰려  
날짜: 2014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410015795095  
본문: 지난 3일 마감된 2015년 전공의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내과 미달 사태다. 전국 수련병원(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병원)이 모집한 내과 전공의 정원이 588명인데, 46명 모자라는 542명만 지원했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은 정원을 채웠지만 비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했다. 충북과 대전의 대학병원 2곳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경남과 강원 원주의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도 각각 7명 모집에 지원자가 2명, 3명뿐이었다.<br/><br/> 예견된 일이긴 하다. 최근 5년 새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가파르게 낮아져서다. 내과는 2011년까지만 해도 성형외과·피부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에 이어 5위(1.39 대 1)를 차지할 만큼 나름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론 2012년 1.34 대 1, 2013년 1.29 대 1, 2014년 1.09 대 1로 쉼없이 추락했다.<br/><br/>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내과는 대부분의 진료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수익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이 동네의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리라는 우려가 겹쳐 벌어진 현상”이라고 짚었다. 강원 원주의 한 수련병원 내과 전공의는 “내과·외과 기피 현상의 원인을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려는 세태 탓으로 보는데 이는 피상적 진단”이라며 “병원을 차렸다가 파산한 선배가 숱한데 누가 내과 전공의를 쉽게 선택하겠느냐”고 되물었다.<br/><br/> 내과는 각종 암을 비롯해 심장·호흡기계·소화기계·감염 질환 등 대부분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분야다. 가장 기초가 되는 진료과다. 내과 미달 사태를 두고 의료계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진료의 첫 단계인 내과가 기피과가 된 건 의료 자원 배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뜻한다</span>”고 짚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네 내과 의원이다. 내과 전문의가 줄어들면 환자의 병원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 공급체계 왜곡에 따른 의료시스템 혼란을 막을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br/><br/> 내과뿐만 아니라 외과·방사선종양학과도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흉부외과·비뇨기과 등은 지원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성형외과는 77명 모집에 110명이 몰려 1.43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피부과(1.38 대 1), 정신건강의학과(1.34 대 1), 정형외과(1.34 대 1), 영상의학과(1.31 대 1)도 정원을 채웠다. 다만 한동안 기피과로 꼽혀온 산부인과에 올해 158명이 지원해 정원(150명)을 넘겼는데, 의대생 가운데 여성 비율이 크게 높아져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1.txt

제목: ‘돈되는 환자 찾아 전과’ …전문의 간판 내리는 의사들  
날짜: 2014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410015795093  
본문: 일부 진료과에 전공의가 몰리거나 반대로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배경엔 의료시장의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의사는 예전처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개업을 해도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다. 특정 전문과목을 선택하면 구직이나 돈벌이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 중소병원은 간단한 수술환자마저 대형병원에 빼앗기고, 대형병원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쉼 없이 덩치를 키워야 한다. 전공의 지원 쏠림 현상은 이런 복잡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에 따른 의료시스템의 왜곡은 현재진행형이다. 외과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영난 탓에 자신의 전공을 감춘 채 다른 진료과 환자를 돌본다. 상당수 대형병원의 수술 진료과 전문의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수술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의 수익이 높은 비급여 수술을 하도록 압박받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한테 전가된다.<br/><br/> ■ 전공과목 숨기고 개업하는 외과 의사들 <br/><br/> 대한의사협회가 낸 ‘2013 전국회원 실태보고서’를 보면, 서울에서 개원한 성형외과 전문의 731명 가운데 540명(74%)이 서울 강남구에 병·의원을 열고 있다. ‘손님’이 많은 강남에선 성형외과 전문의 말고 다른 진료과 전문의도 성형수술을 한다.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span class='quot0'>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강남구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병원의 절반가량은 비성형외과 전문의로 추정된다</span>”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주로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이런 흐름에 합류하고 있으리라고 본다.<br/><br/> 외과 등 비인기과 전문의가 자기 전문과목을 밝히지 않고 성형외과 등 다른 진료과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통계 수치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사협회의 자료를 보면 전체 외과 전문의 6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이 외과 간판을 달지 않고 ‘○○○의원’ 등의 이름으로 병원을 열고 있다. 이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내과 분야 등을 진료한다. 상당수의 산부인과(602곳), 비뇨기과(348곳), 흉부외과(240곳), 가정의학과(1727곳) 전공의도 ‘○○과 의원’이 아닌 ‘○○○의원’으로 ‘화장’을 했다.<br/><br/> 차 회장은 “<span class='quot1'>‘전문의=진료를 잘하는 의사’라는 자존심을 버렸다는 건 해당 전공 분야로 개원해서는 먹고살기 힘드니 간판을 내려서라도 버티겠다는 궁여지책</span>”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해도 평소엔 별문제가 없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사정이 달라진다. 최근 3년간 언론에 보도된 성형외과 의료사고의 80%가 비성형외과 전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br/><br/> ■ 대학병원 교수도 수익 남는 비급여 수술 해야 <br/><br/>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아무개(46·여)씨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다 갑상선에 혹이 발견됐다. 의사의 권유로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진단됐다. 이씨는 “<span class='quot2'>담당 의사가 수술칼로 절개하는 전통적인 수술을 받으려면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로봇수술은 1주일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span>”며 “<span class='quot2'>수술비가 부담이 됐지만, 하루라도 빨리 불안감을 털고 싶어 로봇수술을 택했다</span>”고 말했다. <br/><br/> 로봇수술은 수술칼 등을 장착한 로봇 팔을 의사가 원격장치로 조종해 하는 수술법이다. 장비 값이 30억원을 넘지만 웬만한 대학병원은 모두 갖추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은 1건당 수십만원의 수당을 의사한테 따로 주며 로봇수술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가 있다. 로봇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 비용이 보통 500만~1500만원가량이다. 기존 수술법보다 수배나 비싸다. 그만큼 병원 수익이 커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3'>로봇수술이 환자한테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수술법이라면 비용이 더 들어도 권장하겠지만, 아직은 개복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에 견줘 효과와 안전성이 우위에 있다는 근거가 없다</span>”고 말했다. <br/><br/> ■ 수익 내는 일자리 안 남아, 내과도 기피과로 전락 <br/><br/> 외과에 이어 최근엔 내과까지 전공의 지원이 줄어드는데, 이는 돈이 되는 내과 일자리가 주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병원협회의 관계자는 “예컨대 소화기내과에선 기본 진찰료만으론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이를 내시경 검사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메꾼다. 병원이 내시경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는 건강검진센터 건립에 줄지어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센터에 내과 전문의가 꽉 들어차 추가 고용이 어려워졌다. 파산 위험이 상당한 개원 말고는 다른 마땅한 출구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자 전공의들이 내과를 기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br/><b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2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 진찰에 지급되는 수가는 병원이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을 운영하는 데 드는 총비용의 50.9% 정도다. 반면 내시경 검사나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과 같은 검사는 수익률이 180%에 이른다. 병원 쪽이 내과 기본 진료에 충실하면 손해를 보고, 내시경 같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다. <br/><br/> 개원 의사의 상황도 좋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개업하려면 각종 시설·장비를 갖추는 데 5억 이상이 드는데, 대부분 빚으로 충당한다. 더구나 이미 개업한 병원이 차고 넘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대형병원에 환자가 더 몰리게 할 원격의료까지 허용한다니 내과 기피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2.txt

제목: 경매 나온 노벨상 메달…다시 제 주인 찾아간다  
날짜: 2014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1010015775111  
본문: 러시아 억만장자가 노벨상 수상자가 직접 경매에 내놓은 노벨상 메달을 낙찰 받은 뒤,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br/><br/> 러시아 거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가 미국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사진)의 노벨상 수상 메달을 410만 달러에 낙찰 받았지만, 메달을 왓슨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9일 보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우스마노프는 재산이 158억 달러에 이르며, 러시아 통신회사와 일간지 등을 소유한 인물이다. 영국 프로축구 구단인 아스널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우스마노프는 “왓슨 박사의 연구가 암 치료 연구에 공헌했다. 내 아버지도 암으로 사망했다”며 “내가 노벨상 메달을 사는 데 쓴 돈은 과학 연구에도 쓰일 것이다. 메달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br/><br/> 욋슨은 디엔에이(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공로로 프랜시스 크릭, 모리스 윌킨스와 함께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으나, 최근 메달을 크리스티 경매에 내놓았다. 노벨상 수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자기 손으로 메달을 경매에 내놓은 일은 사상 처음이었다. 왓슨이 메달을 경매에 내놓은 이유는 과거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사회적 위신 추락과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br/><br/> 왓슨은 2007년 영국 <선데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인은 아이큐(IQ)가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 <br/><br/> 왓슨은 당시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우리의 모든 아프리카 정책은 아프리카인들의 지적 능력이 우리와 같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실제 테스트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 뒤 왓슨은 재직 중인 연구소들에서 쫓겨났다. <br/><br/> 왓슨은 최근 메달을 경매에 내놓은 뒤 <파이낸셜 타임스>에 “당시 사건 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기업에서 나오는 수입도 끊겨서 학교에서 나오는 적은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며 “경매로 받게되는 돈의 일부는 과학 연구에 기부하고 일부는 미술작품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br/><br/> 우스마노프는 왓슨의 인종차별적 발언 경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br/><br/> 조기원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3.txt

제목: 20대가 감동한 ‘76년 동안의 사랑’  
날짜: 2014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0910015766334  
본문: 영화 <인터스텔라>의 흥행 돌풍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몇몇 작은 영화들도 의미있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76년째 함께한 노부부의 사랑을 담은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꾸뻬씨의 행복여행>이 주인공이다. 두 영화 모두 사랑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br/><br/> 9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을 보면, <님아…>는 전날 2만9000여명을 모으며 일일 박스오피스 3위에 올라 한국영화 가운데 최고순위를 기록했다. 1위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7만여명), 2위는 <인터스텔라>(5만3000여명)다. <님아…>의 스크린 수가 <엑소더스>(797개), <인터스텔라>(675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3개인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선전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님아…>의 누적 관객수는 27만여명이다. 개봉 12일 만의 성적으로, 300만명 가까이 모으며 한국 독립영화 사상 최고 관객수를 기록한 <워낭소리>보다 20일 빠른 속도다. 한국영화 중 예매율(6%)이 가장 높은데다, 9일부터 스크린 수가 더 늘어 흥행 속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br/><br/> 극장에 가보면 의외로 20대 관객이 많다고 한다. 진모영 감독은 “<span class='quot0'>영화를 만들 때 40~50대를 주관객으로 예상했는데, 관객 인사를 다녀보니 젊은 층이 많아서 놀랐다</span>”고 말했다. 진 감독이 한 20대 관객에게 물었더니 “우리 세대는 연애 주기가 짧다. ‘밀당의 시대’가 너무 힘들다. 우리도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맞벌이 시대에 조부모 손에서 자란 경우가 많은 지금의 20대가 영화를 보며 할머니·할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br/><br/> 70대 이상 노년층 관객과 가족 단위 관객도 많다고 한다. “젊은 층도 대부분 커플로 오는데, 노년층도 거의 부부가 같이 온다. 또 영화를 한 번 본 관객들이 부모나 자녀를 데리고 가족 단위로 또 다시 극장을 찾는 사례도 많다”고 진 감독은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시대가 각박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span>”고 덧붙였다.<br/><br/> <님아…>와 같은 날인 지난달 27일 개봉한 <꾸뻬씨…>도 개봉 12일 만에 10만 가까운 관객을 모으며 선전하고 있다. 불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는 정신과 의사 헥터(사이먼 페그)가 문득 ‘진정한 행복은 뭘까’라는 질문을 품고 훌쩍 세계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다. 돈과 지위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상하이의 은행가,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아프리카의 마약 밀매상,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난 말기암 환자, 가슴 깊이 품어둔 첫사랑까지, 많은 인연을 만나며 자신만의 행복 리스트를 완성해간다.<br/><br/> <꾸뻬씨…>를 수입·배급한 그린나래미디어의 유현택 대표는 “사랑과 행복은 보편적이고 통속적인 주제이면서도 늘 감동을 준다. 특히 요즘처럼 팍팍하고 추운 연말이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영화를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br/><br/>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사진 아거스필름·그린나래미디어 제공 <br/><br/>[잉여싸롱]‘카트’, ‘거인’, ‘님아’... 강추 한국영화 3인방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4.txt

제목: ‘심장 울려준 따뜻한 영혼’ 진보의 메아리로 남으리  
날짜: 2014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0910015766313  
본문: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값진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고 김기원 교수는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던 분이었다. 학문적 스승으로서, 시민운동의 선배로서, 그리고 인생의 벗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주셨다. 비단 나뿐이겠는가. 우리 모두 그 분께 너무나 많은 것을 빚졌다.<br/><br/> 무엇보다 먼저, 엄정한 경제학자로서 김 교수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미군정기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 자본주의의 출발점에 내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종합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오늘날 한국경제의 명이자 암인 재벌의 축적과정을 생생하게 해부하면서 그 진보적 대안 모색에 천착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통일경제 연구에 몰두하면서 그 선례가 되는 독일로 안식년 연수를 떠났던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시대적 과제를 인식했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현실을 분석해 균형감 있게 대안을 제시한, 우리 시대의 탁월한 경제학자였다.<br/><br/> 물론 김 교수는 연구실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치열하게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동시에 그는 도그마를 거부하고 금기에 도전하는 지식인이었다. 그랬기에 가장 신랄한 재벌개혁 주창자였지만, 재벌을 타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의 거듭남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랬기에 가장 열렬한 노동조합 지지자였지만, 노동운동의 타성에 침묵하기보다는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항상 진영논리가 빚어내는 갈등의 한 가운데에 있었으되, 모두가 그의 비판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헌신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다. <br/><br/> 그럼에도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가장 또렷이 남아 있는 것은 그의 맑고 따뜻한 영혼이다. 병약하다 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육신을 간신히 곧추세우면서 천진한 미소로 사람들을 위로했다. “<span class='quot0'>김용철 변호사, 기운 내시오</span>”라며 건네는 술 한 잔이 천군만마의 울림이었음을 목도했다. 당신의 육신을 무너뜨릴 만큼 자신에게는 엄격했으나 선량한 눈빛으로 사람들에 용기를 주었다. “<span class='quot0'>김상조 교수, 희망을 잃지 마시오</span>”라는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다시 고동침을 경험했다. 그는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br/><br/> 나는, 아니 우리 모두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그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그는 홀연히 우리를 떠났다.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기에,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연을 억지로라도 끊으려는 듯이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 그러나 김 교수가 남긴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는 여전히 반향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경제학 논리로, 치열한 실천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밑그림을 그린 참된 진보의 세상을 구현하는 것은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고, 편히 쉬소서. <br/><br/>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5.txt

제목: 고소득층은 방광암, 저소득층은 백혈병  
날짜: 2014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0810015757804  
본문: 소득 수준에 따라 많이 발견되는 암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습관과 주거 환경 등의 차이가 원인으로 꼽힌다.<br/><br/>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료 분위별 상위 20대 암 유형별 발병 현황’ 자료를 보면, 소득이 높은 상위 10%에서 많이 발견된 암은 전립선암·방광암·갑상선암·췌장암·비호지킨림프종·담낭암·담도암·피부암·위암 등이다. 이에 견줘 소득 하위 10%는 자궁경부암·백혈병·뇌암·난소암 등으로 나타났다. 백혈병이나 자궁경부암 등의 발생은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이나 주거 환경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고소득층에 전립선암이나 신장암 발견이 잦은 건 암 검진을 더 많이 받은 때문으로 추정된다.<br/><br/> 암이 발병하더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건강 형평성 현황 및 대책’ 보고서를 보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소득 상위 20%는 60.8%였지만 소득 하위 20%는 24%다. 저소득층은 ‘병원비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했거나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비율이 21.5%였지만 고소득층은 15.5%였다. 김현숙 의원은 “<span class='quot0'>조기진단 등을 통해 암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생존율도 그만큼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경제적 이유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의 암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6.txt

제목: 사랑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이야기  
날짜: 2014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0810015757955  
본문: 꽁꽁 언 손을 녹여줄 연인의 따뜻한 온기가 절실한 겨울. 이맘때면 항상 극장가를 점령하는 ‘러브 스토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들을 찾아왔다. 마음은 포근하게, 코끝은 찡하게 만들어줄 독특한 사랑 영화 두 편을 소개한다. 색깔은 서로 다르지만 두 영화 모두 ‘진정한 사랑’이라는 고전적인 주제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든다.<br/><br/> ■ 사랑과 우정, 그 사이 어디쯤 <러브, 로지> “과연 남녀 사이에 우정이 성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답하기 힘든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오죽하면 그룹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는 1992년 발표 이래 20여년 동안 ‘만인의 노래방 18번’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을까. 영화 <러브, 로지>는 바로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관계를 12년 동안이나 지속해 온 두 남녀의 이야기다.<br/><br/><br/><br/>영화 ‘러브, 로지’ <br/>사랑과 우정 사이 줄타기 12년 <br/>서로가 운명임을 둘만 모르네 <br/>‘사랑은 타이밍’ 일단 고백을<br/><br/><br/><br/>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낸 앨릭스(샘 클라플린)와 로지(릴리 콜린스)는 ‘단짝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주위를 맴돈다. 둘은 고교 졸업 뒤 함께 미국 보스턴의 대학으로 떠나자고 약속하지만, 졸업파티 날에도 어김없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긴 채 각자 다른 파트너와 함께 즐긴다. 하룻밤으로 덜컥 임신을 한 로지. 이날부터 홀로 고향에 남아 아이를 키우는 로지와 보스턴에서 미모의 여성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는 앨릭스의 운명과 사랑은 꼬여가기 시작한다. 둘은 서로를 그리워하다가도 각자에게 연인이 생기면 애써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친구’로 돌아간다. 둘의 반복되는 엇갈림은 속이 터지다 못해 암을 유발할 정도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함께 ‘대체 언제까지 썸만 타다 말 거야? 네 마음을 고백하란 말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민다. <해리와 샐리가 만났을 때>(1989) 이후 ‘서로가 운명임을 둘만 모르는’ 최강 답답 커플의 등장인 셈이다. <br/><br/> 상대에 대해 너무 많은 배려를 한 나머지 ‘때’를 놓치는 많은 연인들에게, 그리고 사랑을 욕심내다 우정마저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남녀에게 이 영화는 무척이나 당연한 진리를 설파한다. 바로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고백을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용기백배하여 사랑을 이루기를. <br/><br/> 12년의 세월을 가로지르는 대표 음악들은 보너스다. 비욘세의 ‘크레이지 인 러브’, 릴리 앨런의 ‘리틀리스트 싱스’, 엘턴 존의 ‘타이니 댄서’ 등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10일 개봉. ■ 사랑, 어디까지 해봤니?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영화는 <어바웃 타임>, <러브 액츄얼리> 등을 만든 로맨틱 코미디의 명가 워킹타이틀의 신작이다. 하지만 제목에서 풍기는 달달한 느낌처럼 ‘판타지풍 러브 스토리’를 기대했다가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br/><br/>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72) 박사와의 결혼생활을 담은 제인 호킹의 회고록 <무한으로의 여행: 스티븐 호킹과 함께한 인생>을 원작으로 한 실화 영화다. <br/><br/><br/><br/>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br/>‘시한부 선고’ 스티븐 호킹 박사 <br/>그 곁을 지켜준 헌신과 사랑 <br/>파국으로 끝나도 아름답네 <br/><br/><br/><br/> 고지식한 물리학도 스티븐(에디 레드메인)과 낭만파 문학소녀 제인(펄리시티 존스)는 케임브리지 댄스파티에서 첫눈에 반한다. 스티븐은 제인과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며 동시에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단일 공식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정점에서 루게릭병으로 살날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는다. 제대로 걸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그에게 제인은 “남은 시간을 함께하자”며 손을 내민다. <br/><br/> 제인의 헌신 덕으로 삶과 연구 의욕을 불태우는 스티븐. 여기까지만 보면 ‘제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만들어 낸 위대한 호킹 박사의 업적’을 상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영화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보여준다. 녹록지 않은 현실로 인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우주의 법칙에 통달한 스티븐도 여자 맘을 헤아리는 데는 서툰 남자일 뿐이다.<br/><br/> 제목처럼 영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예쁘게 싹틔우고, 화려하게 피어나고, 갈등의 찬바람이 불고, 파국의 눈보라가 치는, 사랑의 ‘봄·여름·가을·겨울’이 전부 담겼다. 그럼에도 영화는 마지막 장면까지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span class='quot0'>나와 함께 보낸 시간도 빛이 나는 순간이었냐</span>”는 제인의 물음에 미소 짓는 스티븐의 모습은 사랑의 결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br/><br/> 영화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스티븐 호킹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에디 레드메인의 연기다. 진짜 루게릭병 환자가 아닌가 싶을 만큼 손가락 하나하나, 표정과 입술의 뒤틀림 하나하나까지 복제해낸다. 그의 명연기만으로도 이 영화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10일 개봉. <br/><b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7.txt

제목: 다시 붙은 대자보…‘최경환 아저씨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  
날짜: 2014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0410015733695  
본문: 대학가에 다시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은 대자보가 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려대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붙었던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거의 1년 만이다.<br/><br/>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운영하는 20대 대안 미디어 ‘미스핏츠’(misfits.kr)는 지난 3일 서울 신촌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과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최씨 아저씨’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일컫는다. 편지는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중심이다.<br/><br/>이들은 글에서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돼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저씨,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누가 제일 힘들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내복 한 벌 못 사드릴 거라고요.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라고 덧붙였다.<br/><br/>　<br/><br/> 대자보 글 전문<br/><br/>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br/><br/>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신 말 때문에요. 총리 대 찌질이 대학생을 말하지 말고, 계급장 떼고, 우리가 그냥 포장마차에서 만났다고 상상해봅시다. 요즘 욕 많이 드시느라 힘들다고 소주 한 잔 따르신다면, 저는 그거, 냅다 뺏어 제 잔부터 채우렵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만, 제가 체감하는 삶은 아저씨 생각이랑 많이도 다릅니다.<br/><br/>작년 서울시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은 암으로 죽고, 20대는 자살로 죽었답니다. 장년층이 속 곪아 암으로 죽는다면, 청년층은 애쓰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저씨, 제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천 삼백만원어치 빚을 지고 대학을 나갑니다. 요즘엔 취업도 힘들어서, 1년 정도 ‘취준’하는 건 찡찡댈 축에도 못 끼고요. 기업들은 ‘스펙초월’이다 뭐다 하는데, 주변에 토익점수 하나 없이 이력서 쓰는 애들, 본 적 없습니다.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 두 명이 야근하는 분량을 합치면 일자리 하나는 거뜬히 나오는데 왜 채용 인원은 그렇게 적습니까.<br/><br/>고생 대결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잘 좀 해보자고요. 우리도 부모한테 빚 안 지고, 독립해서 멀쩡히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이 고생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 데 가고 싶어 한다고요. 이 빚, 본인이 못 갚으면 부모 빚 되고 형제 빚 되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못 만들면 청년만 손해가 아니라고요. 안 그래요, 또 하나의 부모, 최경환씨? 우리가 취업 못하고, 창업 망하고, 집 못 사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죽어난다고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가진 부동산들 안 사주면 집은 누가 사고, 부모님 받으실 연금은 누가 내요. 청년이 이 사회의 허리입니다. 허리를 이렇게 끊으면, 달릴 힘이 어디서 날까요?<br/><br/>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돈 낸다고 저희 미래 책임져 주시지도 않잖아요. 제가 60살 되면 남는 연금이 없을 테니까요. 예? 그러면서 20만원 지원하고 다자녀 낳으라고 하고요. 택도 없네요. 자꾸 이렇게 헛소리하시면 우리는 순순히 애를 낳아주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청년을 ‘봉’으로 알고 선거 때만 빛 좋은 개살구를 던지면, 우리는 순순히 연금을 내주지도, 집을 사주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br/><br/>맞습니다. 협박입니다. 제가 협박을 하는 이유는 아저씨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br/><br/>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 돼서 불안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아니, 트렌드 따라 ‘창조적’이라고 해드릴게요.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요?<br/><br/>아저씨,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누가 제일 힘든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내복 한 번 못 사드릴 거라고요.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 설마, 애 기를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을 저에게 뭔가 막 기대하고, 그러실 거 아니죠?<br/><br/>정말,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래를 갉아먹고 지금 당장 얼마나 배부를 수 있습니까? 정규직 갉아먹고 ‘노동자 모두’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청년세대에게 짐을 미뤄두고, 장년 세대는 얼마나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br/><br/>아저씨,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이건 권유나 애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우리, ‘같이’ 좀 살길을 찾아봅시다.<br/><br/>▷ 대자보 글 원문 전문 링크<br/><br/><br/><br/><br/><br/>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8.txt

제목: 계단 오를 때 심한 호흡 곤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300만명  
날짜: 2014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0210015720217  
본문: 심할 땐 계단을 오를 수 없을 정도로 호흡 곤란이 심해지거나 만성 기침이 나타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약 300만명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 폐질환은 흡연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최근 40%대에서 더는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도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br/><br/> 1일 질병관리본부가 2007~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300여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25만2천명(2011년 기준)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폐기능 검사를 해 이 질환이 의심되는 사례를 종합한 결과다.<br/><br/>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주로 60살 이상 노인층에서 많았는데, 환자의 평균 나이는 70.3살이었으며 60~79살 비중이 전체 환자의 약 65%를 차지했다.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은 고혈압·당뇨·허혈성 심장질환 등 다른 만성질환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아직까지 이 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이 없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012년 기준 세계 사망 원인 4위이며, 2030년에는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에 이어 사망 원인 3위에 오르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비롯해 천식 등 만성호흡기질환을 심장 및 혈관질환, 당뇨, 암과 더불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주요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br/><br/> 국내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숨지는 사람이 10만명당 15.6명으로 사망 원인 7위다. 70대에선 사망 원인 6위, 80살 이상에서는 5위까지 상승한다.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주요 국가들에 견줘 크게 높은 40%대 수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중장년층이 노인이 될 때쯤 이 질환을 앓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적절히 관리하면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예방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49.txt

제목: ‘의약품 부작용 구제’ 제약사 부담금 12억 확정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0110015711673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내년도 상반기 보상금으로 쓸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천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처방·조세·투약했음에도 환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br/><br/> 부작용 보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내년엔 사망보상금만 지급하고, 2016년에는 장애보상금과 장례비를 더하고, 2017년부터는 입원 진료비까지 확대해 피해구제급여를 준다고 밝혔다. 내년도 사망보상금은 5년치 최저임금인 약 680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등급은 사망보상금과 똑같이 지급하고 2등급은 사망보상금의 75%, 3등급은 50%, 4등급은 25%를 적용한다. 장례비는 지급 기준 시점의 최저임금 3개월치를 제공하고,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실비를 지급한다. <br/><br/>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4개월 안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의 원인규명과 심의를 거쳐 부작용 결론이 나면 30일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거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은 제외된다.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정보태스크포스 팀장은 “모든 약은 부작용의 개연성이 있는데 개인이 보상을 받기 굉장히 어려웠다. 앞으로 국가가 판단을 해서 소송 없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br/><br/>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조제 가능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하고서 합산한 것이다. <br/><br/>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0.txt

제목: 무슨 예감이 들었던 거니…수학여행 안 가겠다는 널, 추억 만들라고 보냈는데…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20110015711708  
본문: 책과 바람을 좋아했던 상준에게<br/><br/>목이 터져라 애타게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내 아들 상준이에게.<br/><br/> 상준아, 비가 와서 무섭고 힘들지? 예민한 내 아들. 먹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체력도 바닥이어서 항상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큰 탈 없이 함께 오래오래 평범하게 잘 살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이제 상준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안아볼 수도 없게 됐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br/><br/> 그 춥고 어두운, 무섭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엄마를 얼마나 불렀을까? 엄마랑 헤어지기 싫었지? 그곳을 바라만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못난 엄마가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br/><br/> 수학여행 떠나기 전날에도 수학여행 가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무언가 나쁜 예감이 들었던 거니? 엄마도 널 수학여행에 보내기 싫었어. 정말이지 보내기 싫었어. 그런데 친구들이 모두 수학여행 다녀와서 재미있게 웃고 떠들면서 추억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할까 봐 가기 싫어하던 수학여행을 보냈단다. 지금에 와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만, 하나뿐인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구나.<br/><br/> 상준아, 엄마가 널 사랑한 건 알고 있지? 너와 함께했던 시간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어. 사랑해 상준아. 이제는 편히 쉬렴.<br/><br/><br/><br/> <br/><br/>지상준군은<br/><br/>단원고 2학년 8반 지상준(17)군은 책을 좋아했다. 늘 집에서 혼자 책을 읽었다. 용돈을 줘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좋아하는 책을 샀다. 엄마가 용돈을 주면서 좀 밖에 나가 놀라고 할 정도였다. 가끔은 소설을 쓴다며 글을 끼적이기도 했다.<br/><br/> 상준이는 겉으로 보면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생각이 깊었다. 가끔씩 철학적인 말을 툭툭 던져 가족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아빠, 엄마, 2살 어린 여동생을 항상 생각했다. 중학생이었을 때 엄마에게 다가와 갑자기 세 번이나 “사랑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상준이는 쑥스러워하며 “사람이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세 번 들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여동생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이불을 덮어주던 오빠였다.<br/><br/> 상준이는 바람을 좋아했다. 초저녁에 부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볼을 스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바람을 느낄 수가 있다며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겨 탔다. 상준이는 4월30일 가족 품에 돌아왔다. 엄마는 장례를 치른 뒤, 상준이를 경기도 평택 서호추모공원으로 데려갔다. 탁 트인 높은 곳에 있는 납골당이라서 상준이가 좋아하는 바람이 잘 불어오는 곳이다. <br/><br/> 김일우 김기성 기자 cooly@hani.co.kr, 그림 박재동 화백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1.txt

제목: ‘생로병사’의 바다를 헤쳐가는 ‘희로애락’  
날짜: 2014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29100000029  
본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당한 가장 엄청난 스포일러.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生老病死). 나는 ‘생로병사’가 ‘아주 보통의 인생’을 조금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짐작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디에서 읽었는지 이제는 잊어버린 누군가의 글에서 대략 이런 요지의 천기누설을 보고 말았다. “<span class='quot0'>이미 태어난(生)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건 늙고(老), 병들고(病), 죽는(死) 일뿐이다.</span>” 젠장.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내 인생의 남은 러닝타임이 오직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채워진다니. 정말 가혹한 새드엔딩. 실로 맥빠지는 스포일러. 한동안 날 시무룩하게 만들었다. <br/>　축 처진 내 어깨를 토닥인 건 또 다른 네 글자. 희로애락(喜怒哀樂). 늙고 병들고 죽는 일만 남은 인간이라면 기쁘고 즐거울 리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로애락.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의 시작과 끝에 ‘기쁨’과 ‘즐거움’이 두 기둥처럼 버티고 선 모양새가 작은 위안이 되었다. ‘희’(喜)와 ‘락’(樂), 웃는 표정의 두 감정이, ‘노’(怒)와 ‘애’(哀), 슬픈 표정의 두 감정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게 괜히 듬직해 보였다. 0 대 4로 지는 줄 알았던 경기가 뒤늦게 2 대 2 무승부로 정정되는 걸 보며 조금 안도하는 기분이었달까. <br/>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슬프고 노여운 운명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낸다. ‘희’와 ‘락’에 의지해 ‘노’와 ‘애’를 견디어 낸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고 나는 믿는다. 좋은 이야기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인생의 생로병사를 담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br/>　영화 에서 (大渡海), 즉 ‘큰 바다를 건너다’라고 이름 붙인 사전을 기획하면서, 사전 감수를 맡은 백발의 마쓰모토 선생이 말했다. “단어의 바다는 끝없이 넓지요. 사전은 그 넓은 바다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인간은 사전이라는 배로 바다를 건너고 자신의 마음을 적확히 표현해줄 말을 찾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길 바라며 광대한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전. 그것이 바로 ‘대도해’입니다.” <br/>　‘단어의 바다’를 ‘인생의 바다’로, ‘사전’을 ‘이야기’로 바꾸어 다시 읽어도 말이 된다. 우리 모두에겐 배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필요하다. ‘생로병사’의 거친 바다 위 작은 조각배처럼 흔들리며 떠 있는 이야기. 뱃전을 넘어온 파도가 ‘슬픔’과 ‘노여움’을 퍼부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의 노를 쉼없이 저어 나아가는 한, 이야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에 의지해 생을 건너는 우리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세상엔 다행히, 그렇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사진) 같은 이야기가. <br/>　“<span class='quot0'>완치가 어려운 환자가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남은 삶의 의미를 찾는 곳.</span>” 호스피스의 뜻을 풀이하는 첫 자막 뒤에 이 문장 하나를 덧붙이며 영화는 시작된다. “<span class='quot0'>호스피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은 21일이다.</span>” 그 뒤 영화는 생로병사의 최전선에서 암환자들이 치르는 마지막 전투를 보여준다. 의 탱크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서로를 쳐다보며 웃는다. 어쩔 수 없는 슬픔과 노여움으로 종종 흐느낄 때도 있지만, 이내 찌푸린 미간을 풀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만 기억하려 애쓴다. 무기력하게 0 대 4로 완패하지 않는, 기어이 2 대 2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희로애락의 미소. 그 미소 앞에서 생로병사의 비명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순간들이 영화에 담겼다. <br/>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가 말했다. “여하튼 인간 세상은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든 것이 심해지면 살기 편한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진다. 어디로 옮겨가도 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가 태어나고 그림이 태어난다.”<br/>　살기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생의 벼랑 끝에서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가 된다. 남은 이들에게 보내는 눈짓 하나하나가 그림이 된다. 어차피 중력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근사한 포즈로 그 중력에 이끌리겠다며 뛰는 다이빙 선수의 몸짓처럼, 다큐 영화 의 주인공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즈로 다가간다. 그게 힘이 된다. 의지가 된다. 더 힘차게 내 삶의 노를 젓게 만든다. 김세윤 방송작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2.txt

제목: ‘생로병사’의 바다를 헤쳐가는 ‘희로애락’  
날짜: 2014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2810015697676  
본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당한 가장 엄청난 스포일러.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生老病死). 나는 ‘생로병사’가 ‘아주 보통의 인생’을 조금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짐작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디에서 읽었는지 이제는 잊어버린 누군가의 글에서 대략 이런 요지의 천기누설을 보고 말았다. “<span class='quot0'>이미 태어난(生)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건 늙고(老), 병들고(病), 죽는(死) 일뿐이다.</span>” 젠장.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내 인생의 남은 러닝타임이 오직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채워진다니. 정말 가혹한 새드엔딩. 실로 맥빠지는 스포일러. 한동안 날 시무룩하게 만들었다.<br/><br/> 축 처진 내 어깨를 토닥인 건 또 다른 네 글자. 희로애락(喜怒哀樂). 늙고 병들고 죽는 일만 남은 인간이라면 기쁘고 즐거울 리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로애락.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의 시작과 끝에 ‘기쁨’과 ‘즐거움’이 두 기둥처럼 버티고 선 모양새가 작은 위안이 되었다. ‘희’(喜)와 ‘락’(樂), 웃는 표정의 두 감정이, ‘노’(怒)와 ‘애’(哀), 슬픈 표정의 두 감정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게 괜히 듬직해 보였다. 0 대 4로 지는 줄 알았던 경기가 뒤늦게 2 대 2 무승부로 정정되는 걸 보며 조금 안도하는 기분이었달까. <br/><br/>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슬프고 노여운 운명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낸다. ‘희’와 ‘락’에 의지해 ‘노’와 ‘애’를 견디어 낸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고 나는 믿는다. 좋은 이야기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인생의 생로병사를 담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br/><br/> 영화 <행복한 사전>에서 <대도해>(大渡海), 즉 ‘큰 바다를 건너다’라고 이름 붙인 사전을 기획하면서, 사전 감수를 맡은 백발의 마쓰모토 선생이 말했다. “단어의 바다는 끝없이 넓지요. 사전은 그 넓은 바다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인간은 사전이라는 배로 바다를 건너고 자신의 마음을 적확히 표현해줄 말을 찾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길 바라며 광대한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전. 그것이 바로 ‘대도해’입니다.” <br/><br/> ‘단어의 바다’를 ‘인생의 바다’로, ‘사전’을 ‘이야기’로 바꾸어 다시 읽어도 말이 된다. 우리 모두에겐 배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필요하다. ‘생로병사’의 거친 바다 위 작은 조각배처럼 흔들리며 떠 있는 이야기. 뱃전을 넘어온 파도가 ‘슬픔’과 ‘노여움’을 퍼부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의 노를 쉼없이 저어 나아가는 한, 이야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에 의지해 생을 건너는 우리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세상엔 다행히, 그렇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목숨>(사진) 같은 이야기가. <br/><br/> “<span class='quot0'>완치가 어려운 환자가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남은 삶의 의미를 찾는 곳.</span>” 호스피스의 뜻을 풀이하는 첫 자막 뒤에 이 문장 하나를 덧붙이며 영화는 시작된다. “<span class='quot0'>호스피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은 21일이다.</span>” 그 뒤 영화는 생로병사의 최전선에서 암환자들이 치르는 마지막 전투를 보여준다. <퓨리>의 탱크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서로를 쳐다보며 웃는다. 어쩔 수 없는 슬픔과 노여움으로 종종 흐느낄 때도 있지만, 이내 찌푸린 미간을 풀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만 기억하려 애쓴다. 무기력하게 0 대 4로 완패하지 않는, 기어이 2 대 2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희로애락의 미소. 그 미소 앞에서 생로병사의 비명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순간들이 영화에 담겼다. <br/><br/>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가 말했다. “여하튼 인간 세상은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든 것이 심해지면 살기 편한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진다. 어디로 옮겨가도 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가 태어나고 그림이 태어난다.”<br/><br/> 살기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생의 벼랑 끝에서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가 된다. 남은 이들에게 보내는 눈짓 하나하나가 그림이 된다. 어차피 중력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근사한 포즈로 그 중력에 이끌리겠다며 뛰는 다이빙 선수의 몸짓처럼, 다큐 영화 <목숨>의 주인공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즈로 다가간다. 그게 힘이 된다. 의지가 된다. 더 힘차게 내 삶의 노를 젓게 만든다. <br/><br/>김세윤 방송작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3.txt

제목: 위장조영검사 방사선 피폭량 높다  
날짜: 2014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2510015673615  
본문: 국가건강검진 항목 가운데 검진을 받는 이들이 방사선 피폭을 가장 많이 입는 검사는 위장조영술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 김원동·박종혁 충북대의대 교수팀은 2011년 국가건강검진(일반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에 참여한 약 2036만명이 받은 여러 종류의 방사선 검사 자료를 토대로 수검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분석해보니 수검자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이 평균 0.57ｍ㏜(밀리시버트)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방사선은 진단 기구나 먹는 음식을 비롯해 자연에서도 노출되는데, 보통 한해 1ｍ㏜가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진 때문에 받는 전체 피폭량 평균은 권고치보다 낮았지만, 검진을 받는 이들 가운데 방사선 피폭량이 많을 땐 11.08ｍ㏜나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별 방사선량에서는 위장조영검사가 전체의 82.6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방사선 피폭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방사선방어학회지> 9월호에 실렸다.<br/><br/> 이번 연구에서 각종 방사선 검사에서 방사선 피폭량은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보고서(2008년) 기준으로 가슴방사선촬영은 0.02ｍ㏜, 골밀도 검사 0.001ｍ㏜, 위장조영검사 3.4ｍ㏜, 대장이중조영검사 7.4ｍ㏜, 유방촬영검사 0.26ｍ㏜를 적용했다. 검사 자체로는 위장 및 대장조영검사가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많고, 대장이중조영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는 2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위장조영검사는 위암의 1차 검사로 검사 건수가 1년에 약 153만건이어서, 대장이중조영검사 건수인 3900여건에 견줘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이런 사정 탓에 위장조영검사가 방사선 피폭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위장조영검사가 우리 국민의 방사선 피폭량을 크게 높이는 검사여서 진료에서 꼭 필요할 때를 빼고는 위장내시경검사로 위암 검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종혁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건강검진 상품을 통해 검진을 받을 때에는 시티(컴퓨터단층촬영·CT)도 포함돼 있어 부위에 따라 방사선 피폭량이 최대 10ｍ㏜나 된다. 방사선 피폭량을 고려할 때, 무조건 비싼 검진을 받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4.txt

제목: 장애 아마추어화가 작품 품은 도립미술관  
날짜: 2014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2510015673738  
본문: 전북도립미술관이 장애를 앓는 아마추어 미술작가의 작품을 처음으로 소장했다.<br/><br/> 전북도립미술관은 유방암이 재발해 손이 불편한 이영신(66)씨의 작품 <감할매>, 다리와 손이 불편한 김쌍순(46·지체장애 1급)씨의 <공감> 등 2점을 올해 소장품에 포함시켰다. 치유와 소통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이들의 작품을 소장품 다양성을 위해 구입한 것이다. 이들의 작품은 비장애인이 못 보는 시각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성을 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그림이 뛰어나지 않은데도 미술관이 구입해줘 감사한 마음이다.<br/><br/> 이씨의 작품 <감할매>는 초가집 지붕 위에서 할머니가 막대기로 감을 따는 모습이다. 이씨는 “2년 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렸다. 암 투병 때문에 손에 힘이 없어 처음에는 서예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의 권유로 5~6년 전 그림을 시작하면서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br/><br/> 김씨의 작품 <공감>은 어두운 커튼 사이로 빼꼼히 밖을 내다보는 여성의 얼굴이 눈에 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장애인으로서, 여자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제약받는 부분을 표현했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공감하도록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이들은 장애인미술센터 ‘한마음 미술’에서 활동하고 있다. 옛 전북도청 건물에서 그림을 그리며 회원 30여명이 소통한다. 도립미술관은 이들의 작품을 100만원씩에 구입했다. 호당 중견작가 10만~20만원, 청년작가 5만~10만원대이므로, 이들 작품은 호당 3만원 선인 셈이다. 김현정 학예사는 “<span class='quot0'>판매보다는 자신들의 작품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들의 작품을 포함해 54점이 다음달 22일부터 전북도청 1층에서 전시된다.<br/><br/> 장석원 관장은 “<span class='quot1'>앞으로 계속 소장품 예산의 1%가량을 장애인을 비롯한 아르 브뤼(다듬지 않은 거친 형태의 미술) 작가들의 작품에 투자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5.txt

제목: “서로 인정하면 천국이고 미워하면 지옥이다”  
날짜: 2014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2510015673570  
본문: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의 길일까. 누구는 돈만 많으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건강이 최고라고 한다. 박재갑(66)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말하는 행복의 방법은 뭘까.<br/><br/> 박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서 국내 대장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그는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을 개원시키며 초대 원장을 지냈다. 의사로서 정부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다.<br/><br/> 그는 원래 한국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를 주장한 금연 전도사다. 서울시 금연공원 내 흡연구역 설치계획 철회, 지상파 방송에서 흡연 장면 없애기 등이 그의 작품이다. 그는 또 운출생운(운동화로 출근하는 생활 속 운동)의 주창자로도 유명하다.<br/><br/> 그처럼 의사로서 평생 ‘몸건강’에 집중하며 살았던 그가 5년 전부터 ‘마음건강’까지 눈을 돌렸다. 그는 2009년 한국종교발전포럼을 결성해 영성과 인문학까지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 이 포럼은 그의 연구실이 있는 서울 대학로 서울대학병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다. 매달 한번씩 새벽 6시 반에 만나 가볍게 도시락을 먹은 뒤 한 시간 동안 대강당에서 강의를 듣고,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을 하고 헤어진다. 지금까지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이슬람 등 수많은 종교인들과 인문학자 등이 초청돼 강연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한 분야만 공부하다 보니 너무 인문학적 교양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포럼을 시작했다</span>”고 밝혔다. 그는 연간 60~70차례 강연을 하는 유명 강사다. 이렇게 종교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그의 강연 주제도 금연과 운출생운 일변도에서 전인적인 행복 쪽으로 폭넓어졌다. 그가 공개하는 7가지 행복 비법이다.<br/><br/>국내 대장암 권위자에 <br/>금연·걷기운동 전도사 이어 <br/>5년 전 종교발전포럼 만들어 <br/>영적·정신적 영역 행복까지 추구<br/><br/>호기심 늘리고 욕심은 줄이고 <br/>자족하는 삶이 행복의 길<br/><br/> 1. 지구가 천국이니 다른 천국 찾지 말라 <br/><br/> 인류가 우주의 혜성을 찾아 나섰지만 아마 때가 되면 곡식이 무르익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이런 파라다이스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미 이 아름다운 천국에 있는데 여기서 아름다움을 지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천국만을 그리워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유전자를 통해 과거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으니 돌아가신 부친 모친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이 몸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통해 모습은 없어지지만 유전자를 통해 후손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본다. 다른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것이다.<br/><br/> 2. 인정하면 천국이고, 미워하면 지옥이다 <br/><br/> 박 교수의 부친은 제사 문화를 철저히 지키며 유교적 삶을 살았다고 한다. 모친은 개신교계 학교에 다니며, 부친이 연세가 드신 뒤엔 교회도 나갔다고 한다. 중매로 결혼한 부인은 가톨릭 신자로서 지금도 성당에 나간다고 한다. 다양한 종교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종교만 아는 것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것’이라는 종교학자의 말대로 여러 종교를 알고 싶었다. 그는 “<span class='quot0'>‘왜 저 사람은 저런 종교를 믿나’ 하지만, 그 종교도 공부를 해보니 진리와 장점들을 지니고 있었다</span>”며 이렇게 말한다.<br/><br/> “이 세상에서 천시하는 똥도 식물에 거름이 된다. 바이러스와 균도 생명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것 없이는 생명이 지속될 수 없다. 이 우주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 세상은 함께 사는 것이다.”<br/><br/> 3. 욕심이 적을수록 행복해진다 <br/><br/> 박 교수는 젊은 날로 되돌려준대도 싫다고 한다. 현재의 자신이 될 확률은 로또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적을 만큼 자신의 능력보다 현재 과도하게 잘 돼 있다는 것이다.<br/><br/> ‘아침마다 눈을 떠 밝은 세상 바라보며, 종일 즐겁게 일하네. 무얼 먹든 맛있고, 깊은 잠 잘 수 있으니 더없이 행복하구나’ 그가 지은 시다. 자족감이 담겨 있다. 건강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기에 무얼 먹든 맛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span class='quot0'>행복을 더 높은 기준에만 두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span>”며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부친은 ‘배곯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라’고 했단다. 출세하라는 말은 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span class='quot0'>지금 배는 안 곯으니 아버지 희망을 이뤘고 그래서 더 바랄 게 없이 행복하다</span>”며 웃는다.<br/><br/> 4. 담배 귀신을 멀리하라 <br/><br/> 그는 몸 건강을 위해 금연은 필수라고 한다. 시판되는 음식물에서 발암물질이 한두 가지만 검출되면 난리를 치면서 15종의 A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62종의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4000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독극물을 흡입한다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암 발병 원인의 20%, 사망 원인의 30%가 담배에 있으므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는 팔아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명을 죽였는데, 담배는 매년 세계에서 600만명 이상을 죽이고 있는 치명적 독이라는 것이다.<br/><br/> 5. 차 타지 말고 걸어라 <br/><br/> 박 교수가 금연과 함께 몸 건강을 위해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운출생운’이다. ‘앞으로 수명이 연장돼 지금 중년 세대는 100세, 젊은 세대는 120세까지 살아야 한다. 그러면 60년가량을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건강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간다면 수명 연장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다. 따라서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려면 특별히 힘 안 들이고 30분 이상 걷는 게 최고’라는 게 그의 논리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혈관과 심혈관 사망률 1%를 낮추기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하루 30분 이상 빨리 걷는 것만으로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20~30%, 암 사망률 1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례를 볼 때도, 청와대에 갈 때도 운동화를 신고 간다고 한다.<br/><br/> 6. 새로운 것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br/><br/> 남들이 보면 굉장히 아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전문가라는 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 같은 빛을 비춰도 볼록렌즈로 한 곳만 비추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오목렌즈로 여러 군데 비추는 사람들에 비해 삶도 단조롭고 아는 것도 없다는 것이다. 종교발전포럼을 만든 것도 평소 인문학 서적을 거의 보지 않은 탓에 사고의 폭이 좁아 대화할 때 부끄러워서였단다. 그는 지난해엔 상생이란 주제로 그가 근무하는 서울대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 사진을 전시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다. 집 쓰레기통 주변에 핀 꽃, 야생화 등이다. 그는 지금도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눈을 반짝인다.<br/><br/> 7.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하다 <br/><br/> 그는 그렇게 바쁘지만 핸드폰을 늘 켜놓는다. 그의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응답하기 위해서다. 퇴원환자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만큼이나 된 것은 남의 도움 때문이라고 본다. 인간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유학대학원에 갔을 때 유학을 두 글자로 말하면 상생이라고 했는데 공감했다. 우리들은 그렇게 서로의 덕에 살아가는 존재라서 그렇게 할 때 더욱 행복하다는 것이다. <br/><br/>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br/><br/><br/><br/> <br/><br/>박재갑 교수는<br/><br/>• 충북 청주 출생 (1948년)<br/><br/>• 서울대 의대 졸업 (1973년)<br/><br/>•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원 (1981~87)<br/><br/>• 서울대 의대 교수 (1994~2013)<br/><br/>• 서울대 암연구소 소장 (1995~2000)<br/><br/>• 국립암센터 초대 및 2대 원장 (2000~2006)<br/><br/>• 국립중앙의료원 초대 원장 겸 이사회 의장 (2010~2011)<br/><br/>•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br/><br/>•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6.txt

제목: 진보당 해산심판 마지막 공개변론…황교안 VS 이정희 재격돌  
날짜: 2014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2510015673692  
본문: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다.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황교안 법무부 장관)<br/><br/> “<span class='quot0'>정치적 의견의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span>”(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br/><br/> 마지막까지 상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진행된 2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멀찌감치 마주보고 앉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암적 존재’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충돌했다. 지난 1월 같은 곳에서 초유의 공방을 벌인 지 10개월 만이다. 그사이 헌재 재판관들 앞에 놓인 서류는 크게 불어났다. A4 용지 약 17만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이 법대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원고인 법무부가 제출한 게 2907건, 피고인 진보당이 낸 게 908건이다. 18명의 참고인·증인 신문조서도 포함됐다. 300쪽 책자 기준으로 556권 분량이라고 한다.<br/><br/><br/><br/>황교안 법무-이정희 당대표 <br/>1월이어 10개월만에 재격돌 <br/>“<span class='quot0'>주사파, 당 장악…북추종 본거지</span>” <br/>“<span class='quot0'>의혹만 증폭…정치적 기본권 침해</span>” <br/>헌재 재판관들 설득 총력전 펼쳐<br/><br/><br/><br/> ■ 법무부 ‘종북’ 공세에 진보당은 간절함 호소 <br/><br/>이날 마지막 공개변론은 그동안 펼친 양쪽의 주장을 2시간 분량으로 간추려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자리여서, 양쪽 모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법무부는 자극적인 표현을 포탄 삼아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고, 진보당은 이를 반박하면서도 재판관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맞섰다.<br/><br/>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장관은 “<span class='quot1'>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해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 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span>”고 말했다.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한자성어 ‘제궤의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이정희 대표는 “정부는 진보당에 대한 온갖 의혹을 쏟아냈고 언론은 이를 증폭했다. 진보당 활동에 북한의 지령은 없었다. 추측과 의혹으로 청구된 해산심판으로 진보당은 매우 큰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민 당원들의 소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며 “<span class='quot2'>진보당이 해산되면 진보당을 통해 실현돼온 국민 각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span>”고 재판관들에게 호소했다.<br/><br/> 대리인들은 때때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울먹이며 열띤 주장을 펼쳤다. 헌재 바깥은 정문 앞 찬반 집회로 소란했지만, 심판정 안의 방청객들은 엄숙한 분위기를 지키며 이들의 주장을 지켜봤다.<br/><br/> ■ 폭력적 방법에 의한 집권 노렸나? <br/><br/>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당해산의 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다. 정부는 한마디로 ‘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이를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강령에 명시돼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 주석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br/><br/> 진보당은 이 강령이 2011년 6월 정책당대회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을 삭제하는 대신 삽입한 문구로, 오히려 사회주의 색채가 옅어졌다고 주장한다. 진보당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span class='quot3'>진보적 민주주의의 모델로 삼은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미의 좌파 정권</span>”이라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이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br/><br/> 헌재는 진보당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려 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을 두고 정부와 진보당은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법무부는 지하혁명조직 ‘아르오’(RO)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존 세력이 진보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폭력혁명 노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한다. 진보당은 이 의원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아르오의 존재를 부정한 점을 근거로 혁명조직은 실체가 없으며, 당이 이 의원의 행위를 지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해석에다 <br/>이석기 재판 의미 등 팽팽한 공방 <br/>의원직 상실여부·선고 택일 ‘촉각’<br/><br/><br/><br/> ■ 정당해산 되면 의원직 어떻게 되나?<br/><br/> 법무부는 정당해산뿐 아니라 의원직 상실 심판도 함께 청구했기 때문에 진보당 의원들이 자리를 유지할지도 헌재 결정에 달려 있다. 정당의 생존이 절박한 진보당으로서는 우선 해산 결정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만약 해산 결정이 나왔을 때 국회라는 활동 공간을 잃어버리면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가 의원직 상실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에 대비해 비례대표(이석기·김재연) 의원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들을 미리 출당시키는 수가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면서 동시에 당을 버리는 것은 자기모순이 되기 때문이다.<br/><br/> 정당법은 헌재가 당을 해산하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강령·기본정책으로 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선이 비슷한 이들의 자발적 결사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br/><br/>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선고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도 이석기 의원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 날짜를 헌재의 선고 일정과 비슷하게 맞출 가능성이 있다.<br/><br/> 이경미 이유주현 기자 kmlee@hani.co.kr ·사진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7.txt

제목: 파주 장단콩축제 개막…20~30% 싸게 판매  
날짜: 2014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2110015651867  
본문: 경기도 북부지역의 대표적 농산물 축제인 파주 장단콩 축제가 21일 개막돼 23일까지 파주시 임진각 광장에서 열린다.(사진)<br/><br/>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청정지역인 장단반도에서 재배된 파주 장단콩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과 단백질이 풍부해 인기를 끌고 있다. 장단지역은 1913년 한반도 최초의 콩 보급품종인 ‘장단백목’의 시원지로 이름이 높다. 올해 장단콩은 11만2천㎏(1600가마)이 생산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축제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br/><br/> 1997년부터 해마다 장단콩 수확시기인 11월에 축제를 열고 있는 파주시는 올해 장단콩의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7㎏ 기준으로 백태 3만5천원, 쥐눈이콩 5만원, 밤콩·청태·선비콩·올서리태(청자)는 5만5천원, 늦서리태 7만5천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가량 인하됐다. <br/><br/> 파주시는 축제에 앞서 파종부터 수확, 선별까지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봉인작업을 엄격하게 실시해 품질을 관리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수확량이 적어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다행히 작황이 좋아 할인율을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br/><br/> 축제장에는 장단콩 전문 판매장과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장, 재래장터, 장단콩 가공식품 판매장이 마련됐다. 이밖에 꼬마메주 만들기, 전통장 담그기, 콩떡 나누기, 장단콩 힘자랑 대회, 전통 민속놀이 체험, 가마솥 순두부 체험 등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사진 파주시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8.txt

제목: 원전 주변 흙·수산물에 ‘방사성 물질’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2010015645109  
본문: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때문에 원전 주변 흙과 어류·해초류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환경과 자치 연구소’, 경주·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부산 고리, 전남 영광, 경북 월성·울진 등 원전 4곳의 온배수 배출구 반지름 5㎞ 안에서 수산물과 흙을 채취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개 시료 가운데 12개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4·137, 요오드131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br/><br/> 지역별로는 고리원전에서 채취한 시료 22개 가운데 7개, 월성원전 시료 14개 가운데 1개, 울진원전 시료 13개 가운데 2개, 영광원전 시료 10개 가운데 2개에서 세슘·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는 오랫동안 몸속에 쌓이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br/><br/> 고리원전 근처에서 채취한 모래와 어류·해초류에선 1㎏당 세슘134·137은 0.44~6.63베크렐, 요오드131은 0.34~2.59베크렐이 검출돼,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31.8%를 기록했다. 이는 나머지 원전 3곳의 방사성 물질 평균 검출률 13.5%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이다. 특히 요오드131은 고리원전 주변에서 채취한 해초류 시료 4개에서만 검출됐다.<br/><br/>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은 “서식지가 고정된 해초류의 특성과 요오드의 자연반감기(특정 핵종의 원자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8일인 점을 고려할 때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방사능 허용 기준은 1㎏당 세슘이 100베크렐, 요오드가 300베크렐 이하다. 기준에 견줘 미미한 수준이지만, 원전 근처 모래·어류·해초류 등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것은 분명하다. 대조군인 경기 김포지역 흙 시료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br/><br/> 서토덕 ‘환경과 자치 연구소’ 기획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오염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법원에서 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전이 근처 바다로 내보내고 있는 오염수 배출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59.txt

제목: “만병통치약 싸게 팝니다”…어르신 울린 ‘떴다방’ 33곳 적발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910015633597  
본문: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건강식품 판매업체는 계란이나 쌀, 화장지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많은 어르신을 ‘○○ 홍보관'으로 불러모은 뒤,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위염과 속쓰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 업체 관계자의 현란한 말솜씨에 넋을 잃은 많은 어르신들이 약 18만원짜리 프로폴리스 제품을 58만원에 구매했다.<br/><br/> 인천 남구의 한 일반 식품판매업체의 상술은 더 심했다. 전단지를 뿌려 쌀과 소금 등을 파격가에 제공한다며 어르신을 모은 뒤 이 업체 관계자가 내민 건 홍삼 성분이 일부 들어간 식품이었다. 누구나 쉽게 동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홍삼 식품을 갖다놓고 이 업체는 암·치매·중풍을 예방할 수 있고 손저림이나 당뇨병,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며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렇게 해서 약 18만원짜리 홍삼 제품이 정상 가격의 4배가 넘는 73만원에 팔려나갔다.<br/><br/>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르신을 상대로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로 단기 임대상가에 ‘○○○ 노래교실’이나 ‘△△ 체험실’을 차려놓고 어르신을 유인한 뒤, 말주변이 좋은 전문강사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가격을 부풀려 파는 곳들이다.<br/><br/>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br/><br/> 이들 허위·과대광고 업체는 주로 쌀이나 계란, 화장지 등 값싼 미끼상품나 무료 점심식사 등으로 어르신을 각종 체험관이나 홍보관 등으로 모은 뒤, 오락시간이나 선물증정 시간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공산품을 파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홍보관을 차린 뒤 첫 일주일간은 어르신을 유인할 수 있는 미끼상품만 팔거나, 홍보관 출석에 따른 상품교환권을 나눠주는 등 전문적인 수법을 쓰기도 했다.<br/><br/>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식사로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나 사람 몸에 유용한 성분을 활용해 만든 식품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성원료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판매할 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할 수 없다. <br/><br/> 이번 단속은 떴다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는 ‘시니어감시단’이 먼저 현장을 찾아가 정보를 수집한 뒤, 식약처와 경찰청 합동단속반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니어감시단은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속한 어르신 1000여명으로 이뤄져 있다. <br/><br/>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0.txt

제목: 어떻게 죽겠습니까 =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810015627178  
본문: ‘죽음’은 두려운 존재다. 그럴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 하지만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중요한 건 그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 죽음과 가까워진 이들을 담은 두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언뜻 죽음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삶의 이야기이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애초부터 같은 질문이라고 두 영화는 말하는 듯하다. 질문의 답은 오롯이 보는 이의 몫이다.<br/><br/><br/><br/><br/><br/>‘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br/><br/>76년째 함께한 노부부 <br/>신혼부부처럼 오붓하지만 <br/>남편의 죽음으로 이별 맞아<br/><br/><br/><br/>98살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살 강계열 할머니는 76년째 함께한 부부다. 할아버지가 23살 청년 시절 14살 소녀의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가면서 연을 맺었다. 금슬이 좋아 슬하에 12남매를 두었다. 장성해 도시로 나간 자녀가 여섯, 먼저 세상을 뜬 아이가 여섯이다. 노부부는 강원도 횡성 산골마을에서 오붓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br/><br/>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두 사람이 노는 걸 보면 딱 신혼부부다. 마당에서 낙엽을 쓸다 말고 나뭇잎 더미를 서로에게 던지며 장난 친다. 할아버지가 노란 국화를 꺾어다 할머니에게 주면, 서로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하하호호” 웃는다. 한밤중 혼자 화장실 가기 무섭다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는 화장실 문까지 데려다준다. 볼일을 보는 동안 바깥에 지켜서서 노래를 불러준다.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도 만든다. 나란히 서있는 2개의 흰 눈사람은 고운 한복을 커플룩으로 차려입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닮았다.<br/><br/> 진모영 감독은 이 부부 이야기를 방송 프로그램 <인간극장>에서 처음 접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줄 매력적인 이야기다.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에스비에스 스페셜>에서도 다뤄진 소재였다. ‘이미 방송에 많이 노출된 부부를 또 다뤄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고민을 접고 횡성으로 향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 설레었고 눈에서 불꽃이 튄 이 감동의 인물들을 다른 이유로 버려두고 돌아설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br/><br/> 카메라로 지켜본 부부는 방송에 비쳐진 그 이상의 깊은 사랑을 보여준다. 서로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며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끊임없이 표현한다. 버릇이 되어 여전히 서로의 살이 닿아야 잠이 오고, 자다 깨면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정성스레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는 할아버지를 보는 할머니의 눈길이 더없이 그윽하다. 2012년 가을에 시작한 촬영은 해를 넘겼다. 2013년 여름, 할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 제작진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할머니는 수의로 쓸 삼베옷을 빨아 마당에 널며 조용히 이별을 준비했다. 그해 겨울 할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br/><br/> 죽음에 관한 장면은 많지 않다. 입관식 장면과 삼우제 때 눈 덮인 무덤을 찾은 할머니를 멀리서 담담하게 잡은 게 전부다. “죽음의 과정을 크게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까지도 끝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다큐로 만들고 싶었다”고 진 감독은 말했다. 그의 뜻대로 극장을 나설 때 이별과 죽음보다 사랑과 행복에 대해 더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 지난 9월 디엠제트(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여 전석 매진은 물론 관객상까지 받았다. 당시 할머니는 옆자리에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놓고 영화를 봤다고 한다. 27일 개봉.<br/><br/>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br/><br/><br/><br/> <br/><br/>‘목숨’ <br/>호스피스서 죽음 기다리는 4명 <br/>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깨달아 <br/>“가장 행복한 추억은 지금 이 순간<br/><br/>“천국에 들어가려면 두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었는가?’이다.”(인디언 속담 중에서)<br/><br/> 여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균 21일, 삶의 끝자락에 잠시 머물며 이별을 연습하는 호스피스에서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반추한다. 호스피스는 완치가 어려운 환자가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마지막 남은 삶의 의미를 찾는 곳이다. 영화 <목숨>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호스피스의 일상을 담담하지만 뭉클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다.<br/><br/> 영화 속에는 네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남편의 사업 실패 뒤 힘겹게 살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한 달 만에 암 선고를 받은 김정자, 수학 선생님으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다 노년에 병마와 싸우는 할아버지 박진우, 아내와 두 아이 걱정뿐인 40대 가장으로 호스피스와 항암치료 사이에서 갈등하는 박수명, 후두암 수술 뒤 목소리를 잃고 자살을 시도했던 쪽방촌 외톨이 신창열까지. 모두 죽음이 목전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저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열심히 삶을 꾸려가던 평범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br/><br/>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들에겐 순간순간이 소중하다. 특별할 것 없는 짜장면 한 그릇, 막걸리 한 사발, 따뜻한 차 한 잔에 즐거워하며 마치 축제를 즐기듯 노래하고 춤도 춘다. 그리고 평생 왜 그리도 아껴왔는지 모를,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마음껏 표현한다. 행복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삶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꼽으라면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감동이 밀려든다. <br/><br/> 죽음의 공포와 고통으로 시종일관 어둡고 무거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영화는 오히려 매순간 반짝반짝 밝게 빛난다.<br/><br/> 특히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신에 대한 회의와 삶에 대한 의문을 품은 채 호스피스에 실습을 나왔던 신학생 스테파노(정민영)의 변화는 가장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환자들을 위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말벗을 해주던 스테파노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이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스테파노의 변화는 쪽방촌 외톨이 신창열의 닫힌 마음까지 보듬어 삶의 의지를 심어준다.<br/><br/> <목숨>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다루지만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영화는 소소한 행복과 생명의 소중함, 따뜻한 가족애와 사랑을 말한다.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혹시 사는 게 행복한 걸 잊지는 않았나요?’ 12월4일 개봉.<br/><b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1.txt

제목: 언니가 너무 힘들어 해 지난 8월에 이사를 했단다…여기서도 널 항상 기다릴게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810015627611  
본문: 치기공사 되려했던 다혜에게<br/><br/>사랑하는 우리 딸 다혜에게. <br/><br/> 다혜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왜 만져지지 않을까? 다혜 목소리도 들릴 것 같은데 왜 들리지 않을까? 다혜 보고 싶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견딜까? 다혜 없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허전했구나.<br/><br/> 다혜야. 엄마 아빠는 슬픈 날이나 기쁜 날이나, 갠 날이나 흐린 날이나 여기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만약 네가 꽃이 시드는 것처럼 지고 말았다면, 우리는 네가 누울 땅을 찾아 그 자리에 함께할게. 사랑하는 우리 딸 다혜야, 그리고 함께 떠난 친구들 모두 편히 쉬거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br/><br/><br/><br/> <br/><br/>정다혜양은<br/><br/> 단원고 2학년 9반 정다혜(16)양은 어릴 적부터 다섯살 많은 언니와 단짝 친구처럼 지냈다. 고민이 생기면 늘 언니에게 먼저 털어놨다. 언니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면 늘 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줬다. 다혜가 내년 수능시험을 치면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다. 언니는 다혜를 ‘똥강아지’라고 불렀다. 나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해 늘 집에서 단둘이 어울려 놀았고, 그러다 보니 자매 사이가 좋았다.<br/><br/> 다혜는 일을 하느라 힘든 엄마를 대신해 집에서 청소와 설거지, 빨래를 도맡았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늘 퉁퉁 부어 있는 엄마의 손을 주물러주던 마음씨 고운 아이였다. 엄마는 다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보고서 딸의 꿈을 알게 됐다. 다혜는 치기공사가 되고 싶다고 써놨다. 평소 엄마는 다혜에게 건강하고 체격이 좋으니 경찰이나 군인을 하라고 말했지만, 다혜는 혼자서 몰래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br/><br/>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다혜의 가족들은 전남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다혜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하지만 4월이 다 가도록 다혜는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이러다 다혜를 영영 못 찾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언니는 “<span class='quot0'>다혜는 반드시 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돌아온다</span>”고 했다. 다혜는 언니의 생일이었던 5월4일 가족들의 품에 돌아왔다.<br/><br/> 다혜 가족은 8월3일 이사를 했다. 언니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다혜가 두살 때부터 계속 살았던 집이다. 엄마는 다혜가 쓰던 책상과 컴퓨터 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새집에 가져갔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던 다혜의 아빠는 둘째 딸을 잃은 뒤 갑자기 암이 재발했다. 폐까지 암세포가 전이돼, 지금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며 병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경기 평택 서호추모공원에 잠들어 있는 다혜는 아빠의 병문안을 오지 못한다.<br/><br/> 김일우 김기성 기자 cooly@hani.co.kr 그림 박재동 화백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2.txt

제목: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에 서지문 명예교수 등 5명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710015618649  
본문: 한국문학번역원(번역원·원장 김성곤)이 주관하는 ‘제12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로 <마당 깊은 집>(김원일 소설)을 영문으로 번역한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등 5명이 선정돼 17일 저녁 열린 시상식에서 각 1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br/><br/> 앞서 이날 낮 수상자 5명은 ‘제13회 한국문학번역 신인상’을 받은 6명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했다.<br/><br/> 서 교수는 “<span class='quot0'>2008년 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의 고통을 이기고자 번역한 작품으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이 소설은 한국인들의 어렵고 고단하던 시절을 그린 작품이어서 번역자로서 더욱 흐뭇한 마음</span>”이라고 말했다.<br/><br/> 이승우 소설 <식물들의 사생활>을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한 마리야 쿠즈네초바는 “첫 번역작으로 큰 상을 받게 되어 용기가 생긴다”며 “형이상학적 관심을 유지해온 이승우 작가가 철학적인 작품을 좋아하는 러시아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br/><br/>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가파르 이집트 카이로대학 부교수와 함께 <상행>(김광규 시선집)을 아랍어로 옮긴 조희선 명지대 교수는 “<span class='quot1'>아랍인들은 한국을 짝사랑한다 싶을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고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현지 명문 대학 한국어과에 진학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아랍인들에 의한 한국문학 번역이 활기를 띨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 <채식주의자>(한강 소설)를 포르투갈어로 번역해낸 임윤정 브라질 상파울루대학 교수(한국어문학과)는 “<span class='quot2'>10살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가 연세대 국문학과로 역유학해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번역의 길에 들어섰다</span>”며 “<span class='quot2'>20년 동안 고독하게 작업해왔지만 지난해 상파울루대학에 한국어문학과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제자들이 번역의 길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 신인상에는 김혜나·정슬인(영어권), 프랑수아 블로코(프랑스어권), 이다 마리 베버(독일어권), 라우라 에르난데스(스페인어권), 타티야나 모스크비초바(러시아어권), 장연연(중국어권), 김정미(일본어권) 등이 선정돼 각각 500만원씩의 상금을 받았다. <br/><br/>최재봉 기자 bong@hani.co.kr, 사진 한국문학번역원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3.txt

제목: “하늘이 준 약초라 믿고 매달리니 결실 맺네요”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710015618254  
본문: “<span class='quot0'>남들이 실패하는 작물을 고집했어요.</span>” 남들이 모두 잘하는 작물로는 승부를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들이 어렵다고 포기한 작물에 집중했다. 재배 성공률이 25%에 불과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벼랑에 몰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다. 마침내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역축제 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최고의 건강 먹거리로 자리잡았다. ‘하늘에서 떨어진 약초’로 불리는 천마(天麻)를 무주의 간판 특산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조규식(59) 무주천마사업단 대표는 성공한 귀농민으로 꼽힌다. 그가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천마라는 약초를 20여년간 꼭 잡고 놓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바로 남들이 재배하기 힘든, 고가의 약초라는 점이다.<br/><br/><br/><br/>30대 후반 귀향해 22년간 한우물 <br/>“<span class='quot0'>남들이 어렵다고 포기한 작물 승부</span>” <br/>영농교본 없어 전국 돌며 시행착오<br/><br/>재배성공률 65% 이르자 정부도 지원 <br/>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연 200억원 매출 <br/>지역 360 농가 합류 ‘무주 천마축제’도<br/><br/><br/><br/>무주에서 태어난 조씨는 18살 때 서울로 갔다. 30대 중반까지 호프집과 중국음식점을 했다. 그러다가 37살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구완을 해야 했다. 고향 집에는 1000여평의 논밭이 있었다. 뭘 재배할까 고민하던 중 신문 광고를 봤다. 고소득을 보장하는 천마 재배법을 배우라는 광고였다. 고랭지 배추보다 수익이 좋았다. 마을 이장도 맡고 있던 그는 주민 27명을 설득해서 함께 강원도 춘천으로 천마 재배 견학을 갔다. 천마는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꼽혔다. 혈액 순환을 도와줘 뇌질환에 특효로 알려졌다. 피를 맑게 하고 노화억제 효능이 있어 고혈압, 당뇨에도 효능이 좋다고 한다. 특히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노화억제물질은 천마에 버섯보다 30~40배나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br/><br/> 그렇게 천마 재배법을 배운 조씨는 1992년부터 천마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재배가 어려웠다. 기생식물인 천마는 30㎝의 참나무 토막에다 뽕나무버섯균과 자마(子麻)를 땅속에 넣어 재배를 한다. 뽕나무버섯종균이 참나무의 진액을 빨아 먹고 자마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천마는 비료나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재배로 해야만 한다. 난초과에 속하는 식물인 천마는 잎과 잔뿌리도 없다.<br/><br/> 처음엔 낙엽을 땅 위에 두껍게 깔아 양분을 주는 재배를 했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포기했다. 지푸라기와 호밀을 깔아보았으나 종균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그는 아프리카 원산의 식물인 ‘수단그라스’를 바닥에 깔고 천마를 재배하면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단그라스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br/><br/> “그런데 천마가 멀쩡하게 잘 자라다가도 수확하는 2년째가 되면 어김없이 말라죽는 바람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하늘만 쳐다보는 때도 많았어요.”<br/><br/> 그런 사이 함께 천마 재배에 도전했던 이웃들은 모두 포기했다. 오직 조씨만이 외롭게 천마에 매달렸다. “<span class='quot0'>재배에 성공만 하면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span>”<br/><br/> 조씨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천마 재배 농가를 다 찾아다녔다. 변변한 영농교본이 없었기 때문에 선진 농가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배 방식이 농가마다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수차례 실패하면서 재배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나절쯤 그늘이 지는 밭에서 천마가 잘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화학비료 성분이 남아 있는 토질에서는 잘 안된다는 것도 깨달았죠.”<br/><br/> 마침내 재배 성공률을 65%까지 끌어올려 자신을 얻은 조씨는 정부로부터 3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본격적인 천마 생산에 들어갔다. 또 한약재였던 천마에 대해 식품 가공 허가를 받아 다양한 가공제품을 만들었다. 천마를 주원료로 가공한 천마원액류부터 천마분말, 천마환, 무주 천마라면, 말린 건천마, 무농약 생천마, 천마 막걸리, 천마 건빵 등의 제품을 만들어 한해 200억원어치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물론 포기했던 이웃들도 대부분 돌아와, 360여 농가에서 연간 700여톤의 천마를 생산하고 있다. 또 천마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무주 천마축제’는 8년째를 맞으며 이틀 동안 5천명 이상의 외지인들이 무주군 안성면을 찾는 명품 지역축제로 자리잡았다. 그는 천마 재배에 성공하면서 ‘농협문화복지대상’과 ‘임업부문 신지식인 농업인상’ ‘자랑스런 전북인상’ 등 상복도 터졌다.<br/><br/> 조씨는 “<span class='quot1'>무주 천마는 현재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해발 400~600m의 산악지형과 고랭지, 마사토 등의 재배 여건이 천마 자생지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제 인삼 하면 금산이 떠오르듯이, 천마 하면 무주가 떠오르게 됐다</span>”며 환하게 웃었다. <br/><br/>무주/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4.txt

제목: “하늘이 준 약초라 믿고 매달리니 결실 맺네요”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710015958448  
본문: “<span class='quot0'>남들이 실패하는 작물을 고집했어요.</span>” 남들이 모두 잘하는 작물로는 승부를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들이 어렵다고 포기한 작물에 집중했다. 재배 성공률이 25%에 불과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벼랑에 몰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다. 마침내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역축제 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최고의 건강 먹거리로 자리잡았다. ‘하늘에서 떨어진 약초’로 불리는 천마(天麻)를 무주의 간판 특산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조규식(59) 무주천마사업단 대표는 성공한 귀농민으로 꼽힌다. 그가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천마라는 약초를 20여년간 꼭 잡고 놓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바로 남들이 재배하기 힘든, 고가의 약초라는 점이다.<br/><br/><br/><br/>30대 후반 귀향해 22년간 한우물 <br/>“<span class='quot0'>남들이 어렵다고 포기한 작물 승부</span>” <br/>영농교본 없어 전국 돌며 시행착오<br/><br/>재배성공률 65% 이르자 정부도 지원 <br/>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연 200억원 매출 <br/>지역 360 농가 합류 ‘무주 천마축제’도<br/><br/><br/><br/>무주에서 태어난 조씨는 18살 때 서울로 갔다. 30대 중반까지 호프집과 중국음식점을 했다. 그러다가 37살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구완을 해야 했다. 고향 집에는 1000여평의 논밭이 있었다. 뭘 재배할까 고민하던 중 신문 광고를 봤다. 고소득을 보장하는 천마 재배법을 배우라는 광고였다. 고랭지 배추보다 수익이 좋았다. 마을 이장도 맡고 있던 그는 주민 27명을 설득해서 함께 강원도 춘천으로 천마 재배 견학을 갔다. 천마는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꼽혔다. 혈액 순환을 도와줘 뇌질환에 특효로 알려졌다. 피를 맑게 하고 노화억제 효능이 있어 고혈압, 당뇨에도 효능이 좋다고 한다. 특히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노화억제물질은 천마에 버섯보다 30~40배나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br/><br/> 그렇게 천마 재배법을 배운 조씨는 1992년부터 천마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재배가 어려웠다. 기생식물인 천마는 30㎝의 참나무 토막에다 뽕나무버섯균과 자마(子麻)를 땅속에 넣어 재배를 한다. 뽕나무버섯종균이 참나무의 진액을 빨아 먹고 자마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천마는 비료나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재배로 해야만 한다. 난초과에 속하는 식물인 천마는 잎과 잔뿌리도 없다.<br/><br/> 처음엔 낙엽을 땅 위에 두껍게 깔아 양분을 주는 재배를 했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포기했다. 지푸라기와 호밀을 깔아보았으나 종균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그는 아프리카 원산의 식물인 ‘수단그라스’를 바닥에 깔고 천마를 재배하면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단그라스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br/><br/> “그런데 천마가 멀쩡하게 잘 자라다가도 수확하는 2년째가 되면 어김없이 말라죽는 바람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하늘만 쳐다보는 때도 많았어요.”<br/><br/> 그런 사이 함께 천마 재배에 도전했던 이웃들은 모두 포기했다. 오직 조씨만이 외롭게 천마에 매달렸다. “<span class='quot0'>재배에 성공만 하면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span>”<br/><br/> 조씨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천마 재배 농가를 다 찾아다녔다. 변변한 영농교본이 없었기 때문에 선진 농가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배 방식이 농가마다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수차례 실패하면서 재배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나절쯤 그늘이 지는 밭에서 천마가 잘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화학비료 성분이 남아 있는 토질에서는 잘 안된다는 것도 깨달았죠.”<br/><br/> 마침내 재배 성공률을 65%까지 끌어올려 자신을 얻은 조씨는 정부로부터 3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본격적인 천마 생산에 들어갔다. 또 한약재였던 천마에 대해 식품 가공 허가를 받아 다양한 가공제품을 만들었다. 천마를 주원료로 가공한 천마원액류부터 천마분말, 천마환, 무주 천마라면, 말린 건천마, 무농약 생천마, 천마 막걸리, 천마 건빵 등의 제품을 만들어 한해 200억원어치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물론 포기했던 이웃들도 대부분 돌아와, 360여 농가에서 연간 700여톤의 천마를 생산하고 있다. 또 천마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무주 천마축제’는 8년째를 맞으며 이틀 동안 5천명 이상의 외지인들이 무주군 안성면을 찾는 명품 지역축제로 자리잡았다. 그는 천마 재배에 성공하면서 ‘농협문화복지대상’과 ‘임업부문 신지식인 농업인상’ ‘자랑스런 전북인상’ 등 상복도 터졌다.<br/><br/> 조씨는 “<span class='quot1'>무주 천마는 현재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해발 400~600m의 산악지형과 고랭지, 마사토 등의 재배 여건이 천마 자생지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제 인삼 하면 금산이 떠오르듯이, 천마 하면 무주가 떠오르게 됐다</span>”며 환하게 웃었다. <br/><br/>무주/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5.txt

제목: ‘영원한 공주’로 남은 김자옥씨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610015609355  
본문: ‘영원한 공주’ 탤런트 김자옥 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63.<br/><br/> 김씨의 소속사 소울재커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이날 오전 7시40분께 별세했다.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됐으나 최근 암이 재발하여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병인 대장암이 폐 등으로 전이돼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br/><br/> 부산 출신인 김씨는 19살 때인 1970년 <문화방송>(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뽑히면서 배우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그 뒤 40여년 동안 <사랑의 조건> <유혹> <모래 위의 욕망> <인간의 땅> 등 숱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엠비시 드라마의 간판 배우로 활약한 그는 김영애·한혜숙과 함께 ‘70년대 안방극장 트로이카’로 불리기도 했다. 지난 3월 종영한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가 마지막 유작이 됐다.<br/><br/> 영화계에 남긴 자취도 크다. 76년 <보통여자> 주연을 맡으며 스크린에 데뷔해 , <영아의 고백>, <지붕 위의 남자>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흥행배우 이름도 얻었다. 백상예술대상에선 영화부문 여자최우수연기상을 2번이나 탔다.<br/><br/> 중년 들어서 시트콤 코믹 연기는 물론 예능에도 도전하는 등 배우로서 보폭을 크게 넓혔다. 인기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선 이순재와 비밀 연애를 하는 학교 교감 역을 맡았다. 올해 초엔 배낭여행을 소재로 한 <꽃보나 누나>에 출연해 젊은층의 지지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홍상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 출연했고, 지난 5월에는 악극 <봄날은 간다>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br/><br/> 그는 잠시 가수 활동을 하기도 했다. 96년 발표한 <공주는 외로워> 음반은 60만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공주’라는 별명도 이때 생겼다. 나이듦에도 여전히 소녀 같은 느낌의 외모와 나긋나긋한 발성으로 이전 선배들과는 다른 그만의 ‘중년 여배우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br/><br/>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여배우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줌마’로 변해 망가지는 연기를 하는 것이 대세일 때 김씨는 중년 여성의 매력을 보여주었다. 그만이 지닌 차별성이다”라고 말했다.<br/><br/>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남성 듀오 ‘금과 은’ 출신)씨와 아들 영환(회사원), 딸 지연(˝)씨,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이며 발인은 19일 오전 8시30분이다. (02)2258-5940. <br/><br/>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사진 소울재커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6.txt

제목: ‘영원한 공주’ 김자옥씨 별세…‘은막의 여왕’에서 ‘꽃보다 누나’까지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610015608549  
본문: ‘영원한 공주’ 탤런트 김자옥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63살.<br/><br/>김씨의 소속사 소울재커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이날 오전 7시40분께 별세했다.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 암이 재발하여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 병원 중환자실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병인 대장암이 폐 등으로 전이돼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부산 출신인 김씨는 19살 때인 1970년 <문화방송>(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뽑히면서 배우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그 뒤 40여년 동안 <사랑의 조건> <유혹> <모래위의 욕망> <인간의 땅> 등 숱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데뷔 이후 엠비시 드라마의 간판 배우로 활약한 그는 김영애, 한혜숙과 함께 ‘70년대 안방극장 트로이카’로 불리기도 했다. 지난 3월 종영한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가 마지막 유작 드라마가 됐다.<br/><br/>영화계에 남긴 자취도 크다. 1976년 <보통여자> 주연을 맡으며 스크린에 데뷔해 , <영아의 고백>, <지붕위의 남자>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흥행배우라는 이름도 얻었다. 백상예술대상에선 영화부문 여자최우수연기상을 2번(<보통여자> <목마위의 여자>)이나 탔다.<br/><br/>중년이란 수식어를 얻은 뒤엔 시트콤 코믹 연기는 물론 예능에도 도전하는 등 배우로서 보폭을 크게 넓혔다. 인기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선 극중 이순재와 비밀 연애를 하는 학교 교감역을 맡았다. 올해 초엔 배낭여행을 소재로 한 <꽃보나 누나>에 출연해 젊은 층의 지지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개성있는 영화문법으로 국내외 마니아층을 확보한 홍상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 출연했고, 지난 5월에는 연극 <봄날은 간다>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br/><br/>잠시 가수 활동을 하기도 했다. 96년 발표한 <공주는 외로워>란 앨범은 60만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공주’라는 별명도 이 때 생겼다. 나이듦에도 여전히 소녀 같은 느낌의 외모와 나긋나긋한 발성은 이전 선배들과는 다른 그만의 ‘중년 여배우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br/><br/>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여 배우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줌마로 변해 망가지는 연기를 하는 것이 대세일 때 김씨는 중년 여성의 매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고인이 갖는 차별점이다”고 말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이며 발인은 19일이다. 배우자는 가수 오승근씨이며, 자녀로 1남1녀를 두고 있다.<br/><br/>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br/><br/><br/><br/>▶ “믿기지 않아”…배우 김자옥 별세에 문화계 애도 <br/>▶ 김자옥 남편 오승근 “지금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br/>▶ 태진아 “천생 여자였던 착한 배우…안타까워” <br/>▶ 배우 김자옥씨 폐암으로 별세…19일 발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7.txt

제목: 반도체 노동자의 비극, 그 비밀은 말입니다  
날짜: 20141115  
기자: 오승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5100000045  
본문: 안녕들 하신지요?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안녕하시냐 묻는 게 정녕 안녕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설픈 말장난에 안녕~ 하고 독자들이 떠날지 모르니 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친절한 기자들’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탐사기획팀의 오승훈입니다. 전 올봄부터 가을까지 안녕하지 못한 한국의 반도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br/>　지난봄, 대학 후배의 급부름에 마지못한 척(?) 신이 나서(!) 술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동사건 변론을 맡던 변호사 후배가 “<span class='quot0'>형, 하이닉스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거긴 삼성전자보다 더 심각하대</span>”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득 의문이 일었습니다. ‘백혈병 등 반도체 산업 직업병 문제에서 사람들은 삼성만 주목해왔는데 국내 반도체 2위 업체인 하이닉스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br/>　일이 되려고 그랬던 걸까요? 사내 인사이동을 통해 전 올 초에 신설된 탐사기획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반도체 공정에 대한 학습을 하고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사전 조언을 구한 뒤 하이닉스의 백혈병 피해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인 유족 한명과 하이닉스 출신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유족 한명을 접촉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다각도로 수소문했습니다.<br/>　우여곡절 끝에 백혈병, 림프종 등으로 숨졌거나 투병 중인 하이닉스 출신 노동자들을 몇 사람 추가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인터뷰를 극구 거부하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여에 걸친 끈질긴 설득을 통해 상세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끝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기사화할 수는 없었지만, 이들의 증언은 하이닉스 역시 삼성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br/>　취재의 또 다른 트랙은 각종 역학조사 자료와 건강보험 자료를 입수해, 하이닉스와 삼성 노동자들의 발병 및 사망률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간별 10만명당 사망·발병률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하이닉스에서 백혈병 등 림프조절기계 암으로 숨진 인원은 최소 17명이나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 못지않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반도체 직업병을 최초로 밝힌 심층리포트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7월28일치 1·4·5면, 8월4일치 1·4면, 8월11일치 1·8면 참조)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br/>　기사를 마감하고 못 간 휴가를 가려고 맘먹고 있는데 박용현 전 탐사기획에디터가 말했습니다. “어떡하냐? 너 휴가 못 가겠다. 1세대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뤘으니 이번에는 반도체 노동자 2세들의 문제를 파보자.” “휴가라도 갔다 와서 파보면 안 될까요?” “무덤 파고 싶냐?”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노동자 아이들 가운데 2세 기형이 많다는 얘기를 취재 중에 듣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8월 초부터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반도체 노동자 7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선천성 기형 및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었습니다. <br/>　서울로 돌아와 1부 기사 때와 같이 그들의 피해를 입증해 줄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료를 찾다 우연히 2003년 미국에서 아이비엠(IBM) 반도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자녀들의 2세 기형에 대해 집단소송을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알아내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br/> 그는 이틀 만에 상세한 답장과 함께 당시 소송에서 자신이 인과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썼던 미국·프랑스·대만의 연구논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논문들에서 언급한 기형의 유형과 그 원인 물질은 가 만난 피해자들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 2세 기형의 인과성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반도체 2세들의 진료 데이터를 보태 반도체 노동자 2세의 선천기형 및 질환 문제를 처음 제기한 탐사기획 ‘반도체 아이들의 눈물’( 11월13일치 1·4·5면, 11월14일치 1·4·5면 참조)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8개월 삽질의 교훈. 꺼진 말도 다시 듣자.<br/>　<br/>오승훈 탐사기획팀 기자 vin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8.txt

제목: 수년간 불임·유산 끝에 아이 낳았지만…‘엔드팹의 비극’  
날짜: 2014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310015598530  
본문: ‘죽음의 엔드팹’. 한 조에 20여명이 근무했다. 그 가운데 무려 10명이 병에 걸렸다. 2명 가운데 1명꼴이다. 4명은 6년에서 10년까지 불임을 앓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유산, 유방암, 난소낭종, 백혈병, 갑상선암, 뇌질환 등을 각각 앓거나 동시에 앓았다.(표 참조) 그중 한 명이 숨졌다. 2006년 7월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지 한 달 만에 숨진 이숙영씨다. 연락이 닿은 사람이 10명이다. 남은 10명은 근황조차 알 수 없다. 그 가운데 누가 질병에 걸렸는지 알 수조차 없다.<br/><br/> 그들은 모두 1990년대 초부터 말까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 2층 엔드팹에서 한 조로 일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훗날 불임과 유산을 비롯해 이러저러한 몹쓸 병에 걸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br/><br/> 팹(fabrication facility)은 웨이퍼 가공공정을 이르는 말로 3라인 2층 엔드팹은 말 그대로 3라인 2층 끝쪽에 있던 팹을 의미한다. 기흥사업장에서 가장 오래된 반도체 생산라인인 3라인은 고 황유미씨도 일했던 곳으로 반도체 백혈병 논란이 불거진 2008년 1~2라인과 함께 폐쇄조치됐다. 지금은 없어진 3라인 2층 엔드팹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br/><br/>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엔드팹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1년에 한번꼴로 모임을 갖는데, 8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얘길 해보니 저를 포함해 아픈 사람이 9명이나 되는 거예요.” 박정숙(가명·41)씨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만 7년 동안 기흥공장에 다녔다. 주로 3라인 엔드팹의 식각·포토·증착 공정에서 일했다. 퇴사 직전 3년 동안에는 조장 역할도 맡았다. “4조3교대였는데 생산량 압박이 심했어요. 조장이 생산량에 따라 인사고과를 매기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생산물량이 떨어지면 그 조가 전부 닦달을 당하곤 했죠.” 조별로 생산량 경쟁을 한 것은 비단 3라인 엔드팹만은 아니다. “3라인 엔드팹 옆에 신설베이(반도체 제조 공정 구획)가 11베이부터 16베이까지 생겼거든요. 그때 설비엔지니어랑 같이 셋업 업무를 몇달씩 했어요. 신설베이가 생기면서 노후 설비에 더 많은 유해물질이 더해진 거죠.” 신규 설비를 본격 가동하기 전에 여러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 셋업 작업은 집중적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작업으로 꼽힌다.<br/><br/> 1992년부터 1999년 동안 주로 4베이 식각공정에서 일했던 이지영(가명·40)씨는 “업무량 압박 때문에 옆 베이의 오퍼레이터가 비번이거나 월차를 쓰면 그 공정 업무까지 도맡아 하기 일쑤였다”며 “격벽구조라고 말은 하지만 베이별로 다 문을 열어 놓고 일을 했고 내부 공기가 순환되는 ‘클린룸’의 특성상 다른 베이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을 다 같이 맡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 그들이 노출됐던 유해화학물질들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그들의 몸속에서 생식독성으로 자리잡아 반도체 2세의 눈물을 낳았다. 4년 동안의 불임, 한번의 인공유산 끝에 어렵게 아이를 낳은 박씨는 현재 유방암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이지영씨는 4번의 유산 뒤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이는 현재 후두엽성 간질이라는 중추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 시각적인 환상이 보이는 희귀한 뇌질환이다. 이씨 또한 두개강 내 저혈압과 부정맥을 앓고 있다. 친정 식구 중에 유산을 하거나 비슷한 질병은 앓은 사람은 없다고 그는 말한다.<br/><br/> 박정숙씨와 함께 일했던 장미순(가명·41)씨는 7년 동안의 불임을 앓았다. 그는 지금도 몇달에 한번 생리를 할 정도로 월경이상 증상이 심하다. “당시에도 생리가 매우 불규칙했어요. 세달에 한번 생리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생리통도 엄청 심했어요. 너무 아파서 배를 부여잡고 뒹굴 정도였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잘 알죠. 근데 그땐 그러려니 했어요.” 장미순씨와 한 기숙사에서 생활한 이지영씨의 증언이다.<br/><br/> 비극의 크기에서 3라인 엔드팹은 미국 아이비엠(IBM)의 ‘빌딩13’과 고스란히 겹친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있던 아이비엠 반도체 연구소인 빌딩13의 연구원들은 클린룸에서 사용되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다뤘다. 1985년부터 2003년까지 그곳 연구원들 10명 가운데 8명이 암에 걸렸다. 6명이 사망했다. 4명이 뇌종양이었다. 당시 전체 암의 대략 1%에 불과했던 뇌종양은, 이후 미국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직업병이 되었다. 빌딩13은 결국 폐쇄됐다.<br/><br/>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0'>엔드팹의 노동자들이 다뤘다고 하는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등의 생식독성물질들은 현재까지도 반도체 공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과거에 노출된 것이 지금 질병으로 나타나고 지금 노출된 것이 미래의 2세 질환을 낳기 때문에 생식독성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엔드팹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span>”고 강조했다.<br/><br/> 박정숙씨는 말한다. “사실 제가 아는 건 저희 조에서 10명뿐인 거예요. 엔드팹에서 같이 일한 다른 조 사람들은 아프지 않길 바랄 뿐이죠.”<br/><br/> 오승훈 김민경 기자 vin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69.txt

제목: IBM, 반도체노동자 2세 질환에 거액 보상한 까닭  
날짜: 2014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310015598529  
본문: 국내 반도체 노동자의 생식독성과 2세의 건강 영향은 이제 겨우 문제가 제기된 수준이다. 삼성전자 등은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유방암 등도 공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환경과 직접적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노동자 2세의 건강에 대한 책임 문제는 실로 머나먼 쟁점이다.<br/><br/> 하지만 미국에선 이미 10여년 전 2세의 질병에 대한 발빠른 보상 조처가 기업 차원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이었던 아이비엠(IBM)의 ‘2세 기형아 소송’이다. <br/><br/> 2003년 기형아를 둔 아이비엠 출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였다. 뉴욕과 버몬트 소재 생산공장에서 주로 일한 노동자들이 주장한 피해 사례는 60여건이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태어난 아이들의 질병은 다양했다. 눈에 암(망막 모세포종)이 생기거나, 뇌 크기에 견줘 두개골이 지나치게 작거나, 뇌에 물이 차 있었다. 선천성 기형과 중추신경계 희귀 질환들이었다.<br/><br/> 아이비엠은 소송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보상에 나섰다. 보상액은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약속 때문에 현지 언론에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60여건의 집단소송에 앞서 이뤄졌던 단건의 기형아 소송 가액이 4000만달러(400억원가량)였다는 점을 보면, 이들 소송 건 보상액이 천문학적 수준일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br/><br/>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가임기, 임신기에 에틸렌글리콜에테르(EGE) 등의 솔벤트류 유기화합물과 크롬·카드뮴·납 등의 중금속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취급 물질의 유해성을 충분히 공지받지 못했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다. 반도체 회사들이 이미 1970년대 에틸렌글리콜에테르가 2세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미 국립직업안전건강연구소도 80년대 이 물질이 생식독성을 유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이비엠은 이런 점들이 소송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셈이다. 회사가 판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려한 영향도 커 보인다.<br/><br/>당시 노동자들을 대리한 스티븐 필립스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회원사에 에틸렌글리콜에테르가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린 것이 1983년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아이비엠은 에틸렌글리콜에테르의 생식독성을 몰랐을 리가 없다</span>”고 말했다. <br/><br/>에틸렌글리콜에테르의 유해성을 파악했으면서도 1983년부터 10여년 동안 보건안전 관리와 대체 물질을 강구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는 얘기다. 공동대리인 어맨다 호스 변호사는 <한겨레>에 “기업은 물질의 안전성이 불확실할 경우 더 안전한 물질이나 공정으로 대체하거나 임신 여성을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등의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법원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아이비엠 소송 이후 지금까지 반도체 노동자 2세 기형 소송이 줄을 잇는 이유”라고 말했다. 2003년 아이비엠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이후에도 수백 건의 유사 소송이 미국 여러 주에서 모토롤라, 인텔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등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이다.<br/><br/> 한국 반도체 사업장에선 여전히 에틸렌글리콜에테르가 사용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과 생식보건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삼성전자는 두 ‘반도체 회사’ 자녀들(건강보험 피부양자 0~19살)의 선천기형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span class='quot1'>자사의 임직원 40%만이 반도체 직원</span>”이기 때문이란 논리다.<br/><br/>오승훈 기자 vino@hani.co.kr<br/><br/><br/><br/>▷ 관련 기사 : 수년간 불임·유산 끝에 아이 낳았지만…‘엔드팹의 비극’<br/><br/>▷ 관련 기사 : “IBM 외 반도체업체에도 수백건 소송 진행중”<br/><br/>▷ 관련 기사 : 미국은 ‘생식독성물질 EGE’ 사용금지…한국선 규제<br/><br/>▷ 관련 기사 : 생식독성, 이제야 불거진 까닭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0.txt

제목: 미국은 ‘생식독성물질 EGE’ 사용금지…한국선 규제  
날짜: 2014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310015598646  
본문: 한국의 시간은 미국보다 20년 더 늦게 흐른다.<br/><br/> 생식독성물질의 관리와 생식보건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보다 20여년 뒤처져 있다. 미국에선 1990년대 중반에 자취를 감춘 에틸렌글리콜에테르(EGE·이하 에틸렌글리콜)가 한국 반도체 사업장에선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까닭이다. 가임기 여성이 노출될 경우 불임과 유산,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생식독성물질인 에틸렌글리콜은 무색의 단맛이 나는 액체로 먹을 경우 치명적이다. 간이나 신장,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심할 경우 혼수상태나 호흡곤란에 의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자동차 부동액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인다.<br/><br/> 동물실험 결과와 더불어 인간에게도 비슷한 생식독성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드러나 1990년대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퇴출된 에틸렌글리콜은 지금도 한국 반도체 사업장에서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용제로 쓰이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8월에 만난 박민희씨, 이선영씨, 김은지씨(<한겨레> 11월13일치 4면)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했을 당시 에틸렌글리콜을 다뤘다고 말했다. 그들은 4~5년 불임을 앓거나 여러 차례 유산했다. 심지어 중추신경계 질환 및 유방암, 유방섬유선종 등에 시달렸다. 고통은 대물림되는 것일까. 그토록 어렵게 가진 아이들은 태어나서 후두엽성 간질을 앓거나 융모종이 전화되어 태어나지도 못하고 적출되었다.<br/><br/> 에틸렌글리콜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사용금지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지금껏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은 에틸렌글리콜을 반도체 가공라인에서 노출 가능한 물질로 꼽았다. 그렇다면 관리는 잘되고 있을까. 에틸렌글리콜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특별관리물질도, 산보연이 선정한 생식독성 1급 물질도 아니다.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특별관리물질(발암성·생식세포변이원성)과 1급 생식독성물질로 분류돼 규제되고 있는 데 반해, 에틸렌글리콜은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br/><br/>에틸렌글리콜 여전히 사용 <br/>유해성 인정한 정부 <br/>특별관리물로 지정은 안해<br/><br/>관련법엔 생식독성 개념조차 없고 <br/>노동자 특별검진 항목에도 포함 안돼 <br/>산업재해 인정받지도 못해<br/><br/> 1980년대 이미 정부가 에틸렌글리콜의 유해성을 발표했던 미국의 경우 1996년 존스홉킨스대학 보건대학원의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반도체협회 차원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안전한 대체물질로 여겨지던 PGES조차 일부 물질들이 암이나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혀지자, 2004년 6월 캘리포니아주는 주 법률상 이를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화학물질 직업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국립과학도서관은 생식독성물질로 등재해 관리에 나선 것이다.<br/><br/> 사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식보건 문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산업안전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라 할 수 있는 산안법에는 생식독성과 관련한 개념조차 없다. 또 유해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건강검진 항목에도 생식독성 관련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가임기 여성을 방사선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위험한 사업장에 고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근로기준법 65조는, 20~30대 여성이 많은 반도체 사업장을 비춰볼 때 ‘잠꼬대’ 같은 법규가 된 지 오래다. 주로 사고성 재해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안에서 생식보건 문제는 이처럼 간과되고 있다.<br/><br/> 아이비엠(IBM)은 1982년에 이미 임산부 고용 금지와 업무 이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규정을 별도로 두고, 태아의 경우 화학물질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최종 조립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과 노멀헥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5개월 전 미국의 시민단체 ‘그린아메리카’와 ‘차이나레이버워치’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한국처럼 미흡한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처럼 자발적으로 에틸렌글리콜 같은 생식독성물질을 규제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벤젠을 비롯해 에틸렌글리콜 등의 생식독성물질 11종의 사용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면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통해 임직원의 생식보건 문제를 모니터하겠다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시도가 반가운 이유다.<br/><br/>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1.txt

제목: 갓 태어나 대장 잘라낸 아들…엄마는 둘째 낳기를 포기했다  
날짜: 2014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210015589178  
본문: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자녀들의 선천성 질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울며 대개 자신들을 책망하기 여념 없다. 아이들 병을 감추며 장기간 스스로 감당해 나간다.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며 적층하였을 ‘생식독성’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다. 제 병조차 회사 책임은 생각 못하던 이들이, 본인을 뚫고 2세로 전이되기까지의 인과를 추적하기란 더욱 어렵다. 세계적 기업으로 매김한 삼성전자나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반도체 작업 환경과 생식독성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2008년 전후 백혈병 등으로 숨져가던 1세대 노동자들이 처음 ‘반도체 산업병’을 주장했을 때와 다르지 않은 태도다. <한겨레>는 1세대를 넘어, 지금껏 제대로 조명된 적 없는 ‘반도체 2세의 눈물’을 추적했다. 기사 등장 인물은 모두 가명이다.<br/><br/>태변 못본 아이는 배 부풀고 고열 <br/>배를 열고보니 대장이 실타래처럼 <br/>대장이 없는 아들은 화장실이 지옥 <br/>소나기같은 설사가 사방으로 퍼져<br/><br/>엄마는 몰딩공정 발암물질 벤젠 노출 <br/>3교대 근무하면서 아빠 만나 연애 <br/>중2 된 아이는 병원 그만오라는데 <br/>이제는 엄마가 3개월마다 병원행 <br/>갑상선암, 류머티즘, 뇌수막염 등<br/><br/>“아들 돌사진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병실에 누운 애 살려만 달라고 매달리던 때였어요.”<br/><br/> 김희은(42)씨는 키가 175㎝다.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도에서 나고 고교까지 마쳤다. 섬 바람 뚫고 뛰놀았다. 감기도 모르고 자랐던 셋째 딸이다. 그가 울고 있었다. 1999년 태어난 아들 건우(15)에 대해 말하던 때였다. 15년 전 일이 앞으로도 이어질 탓이다. <br/><br/> 가장 예민하다는 중2 건우는 평생 설사를 해야 한다. 언제, 누구와, 무엇을 먹든 그 음식은 건우의 몸을 지나 헐겁고 허망한 변이 된다. 그래서 건우는 공중화장실, 특히 학교 화장실 이용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변기 사방에 소나기처럼 퍼지는 탓이다. 등교 전, 저녁 학원 가기 전 집 화장실을 들러야 한다. 가장 내밀하여 가장 자유로울 일이, 건우에겐 가장 음밀하여 제일 서럽고 고통스런 일이다. 합병증은 알 수 없는 또다른 미래다.<br/><br/> <한겨레>는 지난 8월12일에 이어 11월3일 충남 온양에 사는 건우 가족을 만났다. 그사이 계절은 시리었고, 반도 곳곳은 한파주의보로 움츠렸다. 0살 건우가 사투하던 바로 그 계절이다.<br/><br/> “1999년 4월○○일 아침 9시6분. 몸무게 3.2㎏” 희은씨는 기록했다. “4시간 진통 끝에 태어난 아이. 신기하고 마냥 신기할 뿐이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빌 뿐이었다.”<br/><br/> 엄마의 오직 하나 소원은 그러나 마침표와 함께 무참해진다. 건우는 사흘간 태변이 없었다. 배가 부풀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 천안 순천향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한달가량 입원했다. 병원은 건우의 배를 찢기로 했다. 실타래처럼 대장이 꼬였다는 것이다. 일주일 뒤 병원은 다시 건우의 배를 15㎝ 갈랐다. 생후 8개월째인 11월 한달 두차례의 큰 수술을 마친 건우는 똥주머니를 매단 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은 다시 아이 배를 갈라 대장을 모조리 잘랐다.<br/><br/> “생후 7개월 정도까지 젖을 먹였는데 거의 다 토했어요. 분유에 약을 타서 먹여도 토하고…. 대장을 자른 뒤 7살 될 때까지 속옷에 대변을 지렸으니까 어떻게 그때를 말로 다 하겠어요.”<br/><br/> 서울대병원은 건우가 13살이 될 때까지 장기·정기 검진했다. “<span class='quot0'>대장 전체를 드러낸 경우가 처음</span>”이었기 때문이다. 온양에서 서울 혜화동 병원으로 오간 13년 노정의 마지막날, 그러니까 2013년 12월 주치의가 건우에게 말했다. “건우는 엄마한테 감사해야 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지?” 희은씨가 되레 울음을 터뜨렸다. “<span class='quot0'>저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건데요.</span>”<br/><br/> 희은씨는 1991년부터 98년까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했다. 아버지는 “딸이 삼성반도체에 입사했다”고 좋아했다. 15명씩 25평 아파트에서 기숙하며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다 93년께부터 3조3교대로 한달씩 근무했고, 몇년 뒤 4조3교대로 완화되었다.<br/><br/> 3교대 체제가 되어서야 희은씨는 남편을 만나 연애했다. “회사에서 명절 같은 때 선물 많이 받았어요.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같은 거. 그런 거 받으면 몸은 힘들지만 내가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했거든요. 동료들은 많아야 25살이라 아이 문제가 얘기될 리 없고, 생리불순 같은 건 오히려 너도나도 겪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죠.”<br/><br/> 2년 전부터 인식이 변화했다. 2012년 말 엄마가 된 과거 동료들과 다시 만나며 사망·질병 소식, 불임·유산 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다. 산재 가능성까지 의식한 계기다. 그리고 올여름 반도체 산업병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보며 “내가 저기 있었는데”라면서 또 목을 놓아 울었다.<br/><br/> 희은씨가 기억하는 작업 환경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들이 적지 않다. 기흥공장에서 6개월 교육받은 뒤 배치된 온양공장은 상주한 일본인 엔지니어들이 설비 고장을 수시로 고쳐가며 가동을 갓 시작한 상태였다. 몰딩공정은 반도체 칩을 보호하기 위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EMC)를 180℃로 가열해 코팅하는 과정이다. 희은씨처럼 키 크고 건강한 여성이 도맡은 공정이다. 화학물질을 들어 직접 키높이 설비에 들이붓고, 또다른 화학물질(멜라민)로 씻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가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같은 부산물이 발생(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설명)한다. EMC가 새까맣게 묻은 방진복도 직접 빨아 입었다는 희은씨는 퇴사 1주일 전 건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br/><br/> “빨리 교대하려고 점심도 40분 만에 해결했어요. 등에 늘 땀이 차 있도록 하루 12시간씩 일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땐 몰랐죠. 그 흔한 마스크 쓰라는 교육도 못 받았는데 정말 묻고 싶어요. 유해물질 발생사실을 삼성은 몰라서 안 가르쳐준 건가요?”<br/><br/> 현재 희은씨도 갑상선암, 류머티즘, 뇌수막염, 상피내암을 앓고 있다. 6개월에 한번씩 갑상선암을, 3개월마다 뇌수막염, 2개월마다 류머티즘을 치료받는다. 13년 만에 ‘아들은 그만 와도 된다’던 서울대병원을 거의 한달에 한번씩 그녀가 찾는다. “<span class='quot0'>하루라도 고통 없이 자고 싶다</span>”는 게 소원이 되었다. 최근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지난 10년치 진료기록을 떼자 담당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냐’ 물었다고 한다. <br/><br/> 실은 건우네 통째 ‘보험 불가’ 가족이다.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재해보험과 일부 암보험밖에 되지 않는다. 남편도 제지회사에 다니다 손가락을 프레스에 눌려 더는 같은 일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은 기억은 없다. 건우 치료에만 1500만원이 들었다는 희은씨는 본인의 병원비를 고민해야 한다. 당장 갑상선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간(5년)이 내년에 끝난다. <br/><br/> 건우는 동생이 있었다. 2007년 엄마가 임신 26주 만에 하혈과 함께 유산하기 전까지였다. 42살 희은씨는 아이가 또 아프고 다칠까봐 더는 아이를 제 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br/><br/> 온양/임인택 오승훈 기자 imi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2.txt

제목: 또하나의 비극…희귀질환 앓는 반도체 노동자 2세들  
날짜: 2014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210015589220  
본문: 올해 5월 한 사내아이가 경기도 이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30대 초중반 부모가 잉태한 첫아이다. 부모는 ‘반도체 산업역군’이라 불릴 만하다. 청춘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사랑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하이닉스 하청 노동자로, 이천공장 내 설비 전반을 유지보수한다. 그의 회사는 본래 하이닉스의 일부였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 분사됐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천공장 반도체 생산직(패키징 오퍼레이터)이었다.<br/><br/> 탯줄을 끊고, 오뉴월의 하얀빛을 보고,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상민(이하 모두 가명). 그러나 엄마 품 아닌 서울성모병원에 상민은 도로 눕는다. 병원은 상민에게 ‘선천성 면역결핍증’을 확정진단한다. 아이는 3주에 한번씩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 쪽은 <한겨레>에 “부모가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했으나 워낙 희귀질환이라 현재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br/><br/> 상민이네처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질환과 다투는 반도체 노동자 가족은 모두 일곱이다. 지난 8월부터 <한겨레>가 찾아나서 겨우 만난 이들이 그렇다. 일곱 가족에겐 공통점이 많았다. 세 가족의 부모 모두 반도체 노동자였고, 네 가족은 엄마만 반도체 산업에서 종사했다. 6쌍이 재직 중 또는 퇴사 직후 임신을 했다. 최소 120가지 안팎의 화학물질과 방사선을 사용하는 반도체 가공·조립 라인에서도 유해물질을 가장 많이 다룬다고 분류되는 포토·박막·증착·몰딩 등의 공정에서 주로 일했다. 그들 누구도 근무 당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교육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부모가 위험에 노출된 순간, 아이가 왔다.<br/><br/> 2006년 태어난 지선(9)은 4살에 소아당뇨, 5살에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인 국훈 교수(전남대 의대)는 “유아기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1년에 50명이 걸릴 정도로 희귀한 병이다. 더욱이 소아당뇨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동시에 앓고 있는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br/><br/> 지선 엄마(28)는 2004~2008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포토공정 오퍼레이터, 아빠(32)는 2004~2011년 아내와 같은 라인의 설비엔지니어였다. 아내가 지선을 임신하던 2005년 아빠는 에스(S)1라인 셋업 업무를 맡고 있었다. 가동 전 신규 설비에 다양한 화학물질을 혼합, 배분, 투입하며 설비를 최적화하는 일이다. 부부 모두 생식독성의 대표적 물질인 시너(벤젠 포함)나 아이피에이(IPA), 시클로헥사논 등 솔벤트류 유기화합물질을 주로 다뤘다고 말한다. 반도체 가공·조립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된 물질이다.<br/><br/>재생불량성 빈혈·소아당뇨 지선 <br/>소화기계 이상 대장 들어낸 건우 <br/>올봄 태어난 상민이 면역결핍증<br/><br/>선천성 기형·희귀 질환 ‘7가족’ <br/>엄마 혹은 부모가 반도체공장서 <br/>벤젠 등 위험물질 취급 ‘공통점’<br/><br/> 지선의 병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1976년부터 2012년까지 보고된 학계 논문들1)은 벤젠을 비롯한 유기화합물이 태반을 통과해 2세에게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따위 림프조절기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짚는다.<br/><br/> 국내 최고로 간주되는 병원의 한 교수(소아청소년과)도 “<span class='quot0'>임신 시기 엄마가 벤젠 등과 같은 유기화학물질에 집중 노출됐을 경우 2세의 재생불량성 빈혈 발병 가능성은 충분하다</span>”고 말했다.<br/><br/> 솔벤트류 유기화합물이 2세의 선천기형, 특히 구강·소화기·비뇨기계 기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외 연구2)도 있다. 공교롭게 장형웅(38)씨의 아들(9)이 거구증, 요도관 기형을 동시에 갖고 태어났다. 아이는 왼쪽 관자놀이뼈도 없다. 장씨는 하이닉스(구미사업장)와 삼성에스디아이(SDI)에서 설비 엔지니어나 생산직으로 일했다. 아내도 하이닉스 구미사업장의 박막 공정 오퍼레이터로 6년 일했다. 전자과 출신인 장씨는 사용물질을 정확히 기억한다. “아내나 저나 솔벤트를 많이 다뤘죠. 아이피에이를 세척액으로 많이 썼지만 위험하다는 얘길 들은 적은 없습니다.” 2009년부터 갑상선암과도 투병 중인 장씨는 지난달 본인의 산재 신청을 했다.<br/><br/> 에틸렌글리콜에테르(EGE)도 경계되는 화학물질이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물질의 사용을 금했으나 한국 산업현장에선 사용 중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3라인 엔드팹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지영(40)씨가 1992~1999년 일한 곳이다. 한 차례 유산 끝에 2.7㎏ 저체중으로 태어난 이씨의 아들은 이후 중추신경계인 후두엽성 간질3)을 오래 앓았다. 지영씨는 이후 세 차례 더 유산했다. 그가 기억하는 사용물질 중 하나가 에틸렌글리콜에테르다. 임신 기간 동안 에틸렌글리콜에테르에 잠재적으로 가장 높게 노출된 여성노동자의 경우 불임과 자연유산의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분석4) 외에 이씨가 제 고통의 연원을 따져볼 재간은 없다. 이씨 후임이었던 남미경(39)씨의 아이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니고 태어났다.<br/><br/> <br/><br/> 2012년 인공수정으로 한 아이가 잉태됐다. 태명이 ‘튼튼이’다. 임신 두 달도 안 돼 튼튼이를 둘러싼 태반이 암덩어리로 변했다. 융모암이었다. 튼튼이는 사라졌다. 튼튼이의 엄마가 아이를 갖기 전 받은 특수건강검진표에도 엄마가 취급한 물질로 에틸렌글리콜에테르가 기록되어 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디에스(EDS·칩 검사)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5년간 일했던 김은지(36)씨의 이야기다. 사라진 ‘반도체 2세’의 소식이 이제 겨우 들려오는 셈이다.<br/><br/> <br/><br/> <br/><br/> 1) 식품의약품안전청, ‘벤젠 리스크 프로파일’, 2012; E.G 크녹스, ‘소아암과 대기 발암 물질’, 영국, 2005; BJ 도우티 외, ‘태반을 통과하는 휘발성 유기성분의 이동과 축적’, 미국, 1976<br/><br/> 2) S.코디에 외, ‘여성 직장인 노출과 선천성 기형’, 프랑스, 1992<br/><br/> 3) 김선희·이정수·박중채·김흥동, ‘소아 후두엽 기시 간질의 임상적 고찰’, 2001<br/><br/> 4) R.H. 그레이 외, ‘에틸렌글리콜에테르와 반도체 노동자의 생식건강’, 미국, 1996<br/><br/> <br/><br/> 오승훈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br/><br/> ‘반도체 2세’ 질환<br/><br/><br/><br/> △선천성 구순기형(거구증)<br/><br/> : 물고기 같은 입모양을 보여 대구증으로도 불림.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받는 0살 피부양자 41만4417명 가운데 591명(0.0014%)이 치료받을 만큼 대표적인 희귀 유전 질환. 원인 불명. <br/><br/> <br/><br/> △선천성 요로계 기형<br/><br/> : 콩팥에서 생식기로 연결된 요로에 생기는 기형. 선천성 기형의 10% 가량을 차지. 임부의 환경 조건, 유전적 요인, 임신중 화학물질 남용 등이 원인일 수 있음. <br/><br/> <br/><br/> △선천성 거대결장<br/><br/> : 장 운동을 담당하는 장관신경절세포와 관련된 질환. 4000~5000명 출생에 1명꼴로 발생. 수술 안 할 경우 장염 등이 진행,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br/><br/> <br/><br/> △재생불량성 빈혈<br/><br/> : 적혈구·백혈구·혈소판 모두가 감소하는 조혈 기능 장애질환. 방사선, 벤젠 등에 의한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 발생 가능. 발병 빈도에 견줘 선천성은 비교적 드뭄. 15살 이하 100만명당 4.5명꼴. <br/><br/> <br/><br/> △소아당뇨병<br/><br/> :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 당뇨병을 통상 이름. 소아기에는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1형 당뇨병이 가장 흔함. <br/><br/> <br/><br/> △선천성 면역결핍증후군<br/><br/> : 10만명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성 불치병. 많은 경우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 <br/><br/> <br/><br/> △선천성 심장질환<br/><br/> : 심장 기형 및 기능장애. 태아기에 진단되거나 출생 후 수년 뒤 진단되는 경우도 있음. 유전자 변이, 임부의 환경 요인이 원인인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원인 불명. <br/><br/> <br/><br/> △후두엽 간질<br/><br/> : 발생 빈도는 낮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선 보고가 많지 않은 병. 시각적 환각현상이 흔한 증상. 출생시 질식에 의한 뇌손상, 산전 손상, 선천성 기형 등을 원인으로 추정. <br/><br/> <br/><br/> 자료: 국가건강정보 포털,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암정보센터, 서울대학교병원, 희귀난치성 질환센터 누리집<br/><br/><br/><br/> <br/><br/>[관련기사]<br/><br/>▷ 갓 태어나 대장 잘라낸 아들…엄마는 둘째 낳기를 포기했다 <br/>▷ 2세 선천성 질환 증가추세…정부차원 상세한 조사 필요 <br/>▷ 반도체업체 “자료신뢰성 의문…인과성 발견못해”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3.txt

제목: 진료비 많은 ‘4대 중증 질환’…‘산정 특례’ 기억하세요  
날짜: 2014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110015579669  
본문: Q: 암 등 중증질환자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다른 질환에 견줘 크게 낮은 것으로 들었는데요?<br/><br/><br/><br/>A: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료비가 매우 높아 환자들이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암,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춘 제도입니다. 혜택 내용은 이들 질환과 이들 질환을 앓다 생긴 합병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외래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의 5%(희귀난치 질환은 1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환의 경우 20~50%를 부담하는 것에 견줘 큰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인 비급여는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암 및 희귀난치성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하지만,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습니다.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되며, 진단 확진일(병·의원에서 병명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을 하면 확진일부터 적용이 되고,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날부터 적용되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의원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암 환자의 재등록은 특례기간인 5년이 끝난 시점에 아직 암이 남아 있거나 전이된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방사선·호르몬 치료가 필요하거나 항암제를 계속해 투여해야 할 암 환자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br/><br/><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4.txt

제목: 갑상선암 20년새 15배 급증…‘과다 검진 탓’ 학술연구 드러나  
날짜: 2014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110015579668  
본문: 우리나라 갑상선암(갑상샘암) 환자가 최근 20여년 새 15배나 늘었다. 전국 단위의 암 등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암 환자 수가 2배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국내 갑상선암 환자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10배나 된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인 갑상선암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br/><br/> 갑상선암의 급격한 증가를 설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탓에 의료계에선 그 원인을 과다검진에서 찾아왔다. 지난 3월 예방의학 전문의나 갑상선암 진료 전문의 등이 모여 만든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과다검진의 실상과 이를 막을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br/><br/> 갑상선암 과다검진이 이번에는 전문적인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안형식·김현정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갑상선암의 검진과 진단율’이라는 논문이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렸다. 이 논문집은 피인용지수가 54.4로 <사이언스>의 31.4나 <네이처>의 42.4보다 훨씬 높다.<br/><br/> 안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 국내에서 갑상선암이 진단된 환자는 4만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18년 전인 1993년에 견줘 15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사이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명당 약 0.7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안 교수팀은 조기검진을 통해 갑상선암 환자가 많이 발견돼 전체적인 환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그다지 생명을 위협하는 암은 아니어서 사망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진이 효과적이었다면 사망률이 감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br/><br/> 또 안 교수팀은 갑상선암의 발생을 지역별로 나눠 검진 비율과 환자 발생 비율을 비교 분석했다. 전국 20만명을 조사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19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갑상선암 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 결과와 국가암등록자료에서 지역별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분석해보니 갑상선암 검진과 갑상선암 발생 사이에 상관성이 뚜렷했다.<br/><br/> 많이 발견한 만큼 갑상선암 수술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 병원이 시행한 갑상선암 수술 자료를 보면 1㎝보다 작은 종양을 수술한 비율이 1995년 14%에서 2005년에는 56%로 4배나 많아졌다. 이는 갑상선학회에서 초음파 검사 등으로 발견된 0.5㎝ 미만의 혹은 아예 추가적인 검사도 필요 없고 관찰만 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br/><br/> 안 교수팀은 논문에서 암을 절제하려고 갑상선을 통째로 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평생 갑상선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 불편을 견뎌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활용해 1만5000명의 갑상선암 수술 환자 자료를 분석해보니, 수술 뒤 환자의 11%는 갑상선 옆에 있는 부갑상선의 기능 저하가 나타났다. 전체의 2%는 수술 후유증으로 성대 마비가 일어나기도 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면 핏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져 손이나 발 등이 저릴 수 있고,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며 심한 경우 전신 경련과 발작, 의식 소실까지 생긴다.<br/><br/> 안 교수팀은 갑상선암의 조기검진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들 국가에선 지난 20년 동안 증가율이 두배에 그친다고 밝혔다. 한국만큼 가파르지 않은 것이다. 안 교수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는 갑상선암의 조기검진 혹은 과다검진은 환자한테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하고, 국가 전체로도 의료비를 불필요하게 쓰게 만든다. 갑상선암의 유행을 예방하려면 갑상선암 조기검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5.txt

제목: 비난받고 왔다가 ‘건보 지킴이’ 박수받고 떠난다  
날짜: 2014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110015579428  
본문: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로 나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00년 7월 통합됐다. 이로써 지역에 따라, 직장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상태의 격차가 컸던 문제가 해결됐다. 건강보험공단 통합(건보통합) 논의는 1980년대 초반부터 격렬했고, 89년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합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런 건강보험 통합 20년사의 핵심에 김종대(사진) 건보공단 이사장이 있었다.<br/><br/> 이른바 건보통합을 반대한 ‘의료보험 조합주의자’의 대표주자였던 그는 보건복지부 재직 시절인 77년 당시 의료보험이 도입될 때 담당 사무관이었고 80년대 후반 건보통합 법안이 통과될 때는 담당 국장을 지냈다. 99년 건보통합 직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통합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벗어던졌던 그는 3년 전 이맘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동안 그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의 논의를 촉발했다. 질병 예방을 위해 흡연피해 소송을 시작했으며, 비만 관리 사업에도 나섰다. 오는 14일 퇴임해 강원도 영월로 귀농하는 김 이사장을 만났다.<br/><br/>1999년 지역·직장 의보통합 반대 앞장 <br/>3년전 건보 이사장에 취임하자 <br/>노조 “조합주의자 반대” 거세게 반발<br/><br/>흡연소송·비만관리 등 추진해 호평 <br/>“<span class='quot0'>보험료 기준 개선 못하면 민원대란</span>” <br/>떠나면서도 정부 적극 대책 촉구<br/><br/>2011년 11월 그가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건보공단 앞에서는 노조원들이 ‘조합주의자 김종대 이사장 취임 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토론회까지 열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보 체계를 크게 흔들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떠난다. 조합주의자라는 별칭은 사라졌고, 건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 인물이라는 호평이 생겼다. 노조의 한 인사도 “<span class='quot1'>처음엔 건보공단을 다시 지역과 직장 등으로 분리하려 시도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오히려 건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그려줬다</span>”고 평가했다.<br/><br/> 그동안 건보공단은 국내 처음으로 기관 차원에서 흡연피해 소송에 나섰고 비만 관리 사업도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흡연과 비만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만든다. 사후에 질병 치료비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br/><br/> 지난 4월 시작된 흡연피해 소송은 정부나 흡연자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담배산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도 신중한 반응이었다. 흡연자단체는 흡연자들이 내는 건강증진기금을 받는 건보공단이 그 돈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 우선을 내세워 정부와 대립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담배회사의 판촉 전략 탓에 흡연에 가장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이 심각한 폐해를 겪고 있다. 국내외 연구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미국·캐나다 주정부의 흡연피해 소송 사례를 연구해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왜곡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br/><br/> 지난 7월 건보공단은 각종 암을 비롯해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높여 한해 진료비만 2조7000억원에 이르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만관리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br/><br/> 하지만 김 이사장이 꼭 이루고자 했던 두 가지 목표는 후임에게 넘기게 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재 60% 초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0%로 높이는 것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장과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복지부 시절부터 그에게는 숙명이었다. 특히 부과체계 개선은 공무원을 떠나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고, 건보공단으로 돌아온 목표이기도 했다.<br/><br/>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하면 소득이 줄어드니 건보료도 적게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물론 집이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오히려 높아지는 사례가 많다. 건보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해 5800만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는 2~3년 뒤에는 민원 대란이 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br/><br/> 김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이른바 ‘세 모녀’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지역 가입자도 한달에 5만원씩 보험료를 내지만, 자신은 퇴임 뒤 아내의 피부양자가 되면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제도의 모순을 알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리긴 했지만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때가 중요하다. 건강보험이 갈 길이라면, 비록 지금 실행하기 어려울지라도 정부는 개선안을 내놓고 국민과 논의를 해야 한다.”<br/><br/> 벌써 넉달 전부터 후임자 선정을 서둘러줄 것을 자청해온 그는 “<span class='quot1'>못다 한 일이 많지만 남은 이들이 잘해낼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3년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실었던 건강보험의 역사와 나아갈 길을 담은 책인 <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 설(說)>도 최근 펴냈다.<br/><br/>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영월에서 농사도 짓고, 아내의 일을 도와야 한다. 아내에게 쫓겨나지(?) 않으려면 청소라도 해야죠.(허허)”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6.txt

제목: 비난받고 왔다가 ‘건보 지킴이’ 박수받고 떠난다  
날짜: 2014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1110015958435  
본문: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로 나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00년 7월 통합됐다. 이로써 지역에 따라, 직장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상태의 격차가 컸던 문제가 해결됐다. 건강보험공단 통합(건보통합) 논의는 1980년대 초반부터 격렬했고, 89년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합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런 건강보험 통합 20년사의 핵심에 김종대(사진) 건보공단 이사장이 있었다.<br/><br/> 이른바 건보통합을 반대한 ‘의료보험 조합주의자’의 대표주자였던 그는 보건복지부 재직 시절인 77년 당시 의료보험이 도입될 때 담당 사무관이었고 80년대 후반 건보통합 법안이 통과될 때는 담당 국장을 지냈다. 99년 건보통합 직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통합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벗어던졌던 그는 3년 전 이맘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동안 그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의 논의를 촉발했다. 질병 예방을 위해 흡연피해 소송을 시작했으며, 비만 관리 사업에도 나섰다. 오는 14일 퇴임해 강원도 영월로 귀농하는 김 이사장을 만났다.<br/><br/>1999년 지역·직장 의보통합 반대 앞장 <br/>3년전 건보 이사장에 취임하자 <br/>노조 “조합주의자 반대” 거세게 반발<br/><br/>흡연소송·비만관리 등 추진해 호평 <br/>“<span class='quot0'>보험료 기준 개선 못하면 민원대란</span>” <br/>떠나면서도 정부 적극 대책 촉구<br/><br/>2011년 11월 그가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건보공단 앞에서는 노조원들이 ‘조합주의자 김종대 이사장 취임 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토론회까지 열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보 체계를 크게 흔들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떠난다. 조합주의자라는 별칭은 사라졌고, 건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 인물이라는 호평이 생겼다. 노조의 한 인사도 “<span class='quot1'>처음엔 건보공단을 다시 지역과 직장 등으로 분리하려 시도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오히려 건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그려줬다</span>”고 평가했다.<br/><br/> 그동안 건보공단은 국내 처음으로 기관 차원에서 흡연피해 소송에 나섰고 비만 관리 사업도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흡연과 비만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만든다. 사후에 질병 치료비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br/><br/> 지난 4월 시작된 흡연피해 소송은 정부나 흡연자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담배산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도 신중한 반응이었다. 흡연자단체는 흡연자들이 내는 건강증진기금을 받는 건보공단이 그 돈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 우선을 내세워 정부와 대립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담배회사의 판촉 전략 탓에 흡연에 가장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이 심각한 폐해를 겪고 있다. 국내외 연구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미국·캐나다 주정부의 흡연피해 소송 사례를 연구해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왜곡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br/><br/> 지난 7월 건보공단은 각종 암을 비롯해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높여 한해 진료비만 2조7000억원에 이르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만관리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br/><br/> 하지만 김 이사장이 꼭 이루고자 했던 두 가지 목표는 후임에게 넘기게 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재 60% 초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0%로 높이는 것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장과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복지부 시절부터 그에게는 숙명이었다. 특히 부과체계 개선은 공무원을 떠나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고, 건보공단으로 돌아온 목표이기도 했다.<br/><br/>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하면 소득이 줄어드니 건보료도 적게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물론 집이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오히려 높아지는 사례가 많다. 건보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해 5800만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는 2~3년 뒤에는 민원 대란이 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br/><br/> 김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이른바 ‘세 모녀’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지역 가입자도 한달에 5만원씩 보험료를 내지만, 자신은 퇴임 뒤 아내의 피부양자가 되면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제도의 모순을 알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리긴 했지만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때가 중요하다. 건강보험이 갈 길이라면, 비록 지금 실행하기 어려울지라도 정부는 개선안을 내놓고 국민과 논의를 해야 한다.”<br/><br/> 벌써 넉달 전부터 후임자 선정을 서둘러줄 것을 자청해온 그는 “<span class='quot1'>못다 한 일이 많지만 남은 이들이 잘해낼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3년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실었던 건강보험의 역사와 나아갈 길을 담은 책인 <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 설(說)>도 최근 펴냈다.<br/><br/>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영월에서 농사도 짓고, 아내의 일을 도와야 한다. 아내에게 쫓겨나지(?) 않으려면 청소라도 해야죠.(허허)”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7.txt

제목: 그는 죽기 전까지도 ‘한민족 상생화해 제전’을 생각했다  
날짜: 2014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910015562494  
본문: 연재 회고록 ‘길을 찾아서’의 16번째 이야기 ‘용태 형과 문화운동시대’는 지난 5월 작고한 김용태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이 끝내지 못한 구술을 그와 더불어 한 시대를 헤쳐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대신 들려주는 기획이다. 헌정 문집 <산포도 사랑, 용태 형>의 필진 가운데 20여명이 기꺼이 나섰다. 열일곱번째 주자인 작가 황석영씨가 1989년 방북 파동과 민주화운동사에서 민중문화운동의 의미 등으로 대미를 장식한다.<br/><br/> <br/><br/><br/><br/>노태우 정부가 ‘7·7선언’을 발표하자 <br/>‘남북 민간교류’의 주도권을 <br/>정부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br/>나와 문 목사의 방북을 논의했다 <br/><br/><br/>내가 방북 이후 10여년을 <br/>망명과 투옥으로 보내는 동안 <br/>그는 끝까지 남아 민예총을 지켰다 <br/><br/><br/><br/><br/>■ 돈 문제는 서툴고 머뭇거렸던 민예총의 살림꾼<br/><br/> 1988년 12월 나와 김용태가 민예총을 꾸리면서 가장 걱정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결국 돈 문제였다. 번듯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무집기라도 마련해야 하고, 당장은 출범식 비용부터 적어도 서너 달은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했다. 우선 형편이 좀 나은 각 분과위원장과 화가·작가들이 특별 찬조금을 내도록 했고 그림도 기증을 받아 팔아 쓰도록 했다. 그래도 자금은 터무니없이 모자랐다.<br/><br/> 우리는 예전 광주에서 현대문화연구소를 열 때나 작가회의 기금 마련을 위해, 소장 고서며 미술품을 내놓고 도자기를 제작하고, 유명 화가와 문인들의 글과 그림을 도자기에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저절로 생겨난 인맥과 호의적인 시민들과 정치권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나는 김용태에게 김상현 민주당 부총재를 소개했는데, 그는 김영삼-김대중 양쪽의 다리 노릇을 하던 처지라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모두에 닿는 접점이기도 했다. 양쪽에서는 미술품을 사주는 형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는 남도의 의제·남농 등 서화 대가들의 병풍과 대형 그림 등을 모아주었고 일부 구매자까지 소개해 주었다. <br/><br/> 그렇게 해서 출범 기금은 가까스로 마련됐지만 자금 문제는 내내 우리를 괴롭혔다. 김용태는 행정 실무나 조직 관리에는 따를 자가 없었지만 항상 돈 문제에서는 서툴고 수줍었다. 성격 자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했다. 그러면 나 같은 외향적인 친구들이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때로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주위에서 누군가 수익사업 아이디어라도 내놓으면 그는 ‘야, 그걸 차마 어떻게 하냐’고 머뭇거렸다. 그러니 아무리 자원봉사라 해도, 사무국은 늘 지역에서 올라온 활동가들에게 숙박은커녕 밥 한 끼 사줄 수 없을 정도로 쪼들렸다. 물론 그가 집에 한푼도 보태줄 수 없던 것은 당연했고, 단골술집이래야 인사동 점포 종업원들의 밥집이던 부산식당에서 술국에 소주를 마시는 게 고작이었다. <br/><br/> ■ ‘딴따라’ 자처한 현장 문화활동가들의 자부심<br/><br/> 민중문화운동사를 돌이켜보면, 70~80년대 유신독재의 검열과 문화독점 상황 아래서 학생·시민·노동자·농민들에게 독재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을 알리고 고취하고자 전통 연희 양식을 빌려 공연했던 마당극 운동이 그 시원이었다. 그러다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벗어나 공장에 들어가거나 공장지대에서 야학을 열게 되고, 농활이라든가 현지 교회들과 연계해 농촌에서도 문화교육을 할 필요가 생기면서 활동가들이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다.<br/><br/> 초기에는 공장과 농촌 지역의 성당이나 교회가 문화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선교를 앞세운 노동자나 농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우선은 마당극 공연에 참가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활동가 그룹으로 조직할 수가 있었고 분야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서 장르가 통합되었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나 현지에서 도와준 사람들로 현지 활동가와 지원세력도 저절로 형성되었다. <br/><br/> 독서 모임이니 학습이니 의식화 과정이니 하는 정치적 모임은 우선 장기적인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위험한 데 비해서 효과는 제한적이고 소그룹 단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서 마당극은 공연 자체가 효과를 단기간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유리했다. 초기에 민주화운동권 안에서는 문화운동에 대해서 식민지 시대의 ‘개량적 문화주의’를 떠올리고 경원하거나 낮춰 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문화활동가들이 ‘딴따라’를 자처한 것은 자기 일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70년대 말에 이르러 대학과 현장의 연결이 가능했던 것은 대부분 문화운동 단체들 덕분이었고 각 운동 현장에서 문화교육은 필수적이 되었다. <br/><br/> 80년대 들어 광주항쟁 전후 문화운동권의 경험은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에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우선 도시에 문화운동 거점을 만들고 공장과 농촌 현장에서는 자생적으로 조직된 현장 문화활동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은 거의가 노동자나 농민들이었고, 도시의 지원 세력은 교사, 종교인, 중산층 주부들, 의사, 약사 등이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은 팸플릿을 제작해 다른 지역과 현장으로 퍼뜨렸다. ‘마당극’이라는 느슨한 매체가 계속해서 일감을 재생산해냈던 것이다. <br/><br/> 이를테면 마당극판에서 형성된 노래패가 생겨나자 카세트테이프의 제작이 가능해졌고, 그림패는 단기간에 찍어서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판화 작업에 나서고, 이 작업이 자연스럽게 8㎜ 단편영화나 현장 다큐를 찍는 비디오 작업으로 발전해 나아갔다. 이른바 미디어로의 확산과 함께 남미에서의 경험인 카세트 작업은 아시아 각처로도 퍼져 나갔다. 국외동포와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현지에서도 같은 방법의 활동이 번져 나갔다. <br/><br/> 김용태는 민예총을 결성해 각 지역 활동가들과 국외의 문화운동 단체를 연결하는 구심점 노릇을 했고, 시민과 전문가의 연결도 모색했다. 그 토대 위에서 남북을 잇는 ‘통일문화운동’에도 나서게 된다. 90년대 이르러 민예총이 독보적인 문화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국내외 인맥과 연대 속에서 가능했다.<br/><br/>병원에 실려가기 전 통화를 했다 <br/>“<span class='quot0'>용태야 궂은 일만 시켜 늘 미안해</span>” <br/>그러자 그는 웃으며 답했다 <br/>“<span class='quot0'>내가 받아줘야지 누가 받아주냐?</span>” <br/><br/> ■ 민예총이 방북 파동을 피할 수 있었던 묘수<br/><br/> 88년 7월 서울올림픽을 한달 남짓 앞두고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즈음 전국 단위의 연합 운동조직이 다섯개쯤 있었는데 노동·농민·교사·대학생·종교계 및 재야 등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이 상승기에 올라올 때마다 북한을 빌미로 공안사건을 터뜨려 탄압하던 숱한 경험을 겪었으므로, ‘남북 민간교류’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북교류 문제를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br/><br/> 그리하여 재야를 중심으로 종교인인 문익환 목사(전민련 상임고문)와 예술인인 황석영 작가(민예총 대변인)가 방북을 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며 목사와 작가를 간첩으로 조작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태와 나는 깊이 의논했는데, 문제는 이제 막 출범한 ‘민예총’ 조직의 안전이었다. 우리는 현실 정치권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또다시 ‘정치권의 마당발’ 김상현 부총재와 의논하기로 했다. 김용태와 나는 홍대 앞 서교호텔에서 이른 아침에 김 의원과 만났다. 조찬이 끝나갈 즈음 김용태가 나의 방북 의사를 밝혔다. 이런 의견을 양김 쪽에도 전해주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까지 곁들였다. 그 이틀 뒤 김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김용태가 내게 알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속으로 애가 달았을 것’이라고 했다. ‘북에 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미 국가보안법의 현행법상 ‘불고지죄’가 성립되기 때문이었다. <br/><br/> 김 부총재는 당시 집권 민정당 당사가 있던 인사동의 한 음식점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다. 다시 셋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그는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민정당 사무총장인 이종찬 의원을 불렀다고 했다. 그렇게 이 의원과 넷이서 저녁을 함께하면서 방북 의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당국의 허가를 받을 거냐’고 물었고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는 답했다. 그는 얼굴이 밝아지면서 ‘민족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덕담을 했다. 그러고는 헤어졌다. <br/><br/> 그 며칠 뒤 89년 3월20일 나는 도쿄와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 뒤이어 3월25일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화되자 김상현은 이종찬에게 미루었고, 이종찬 쪽은 ‘그때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지만 끝내 사무총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쳤다’며 사과하자 그는 ‘정치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면서 웃어넘겼다. 어쨌든 김용태의 치밀한 기획으로 민예총과 재야의 책임은 모면한 셈이었다. 내가 이후 10여년을 망명과 투옥으로 보내는 동안 그는 끝까지 남아 집(민예총)을 지켰다. <br/><br/> ■ 알타이 연합, 동학혁명 120돌 제전…못다 한 꿈 <br/><br/>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와 정치적 지향은 다르지만 남북 문제에 좌우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엠비(MB)에게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조언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왔다. 김용태·조성우·최열 등 후배들과 만나서 ‘유라시아 평화열차’와 ‘알타이 문화·경제 연합’에 대한 나의 기획을 검토했다. 아다시피, 2009년 나는 엠비의 중앙아시아 방문길에 동행했고 이 일로 진보·보수 양쪽으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북쪽에도 의사 타진이 이루어진 때여서 나는 해명보다는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br/><br/> 그사이 몽골에서는 우리보다 적극적이어서 남쪽에 대통령 특사도 보냈고 북쪽도 방문했다. 북쪽에서도 응답이 있어 2010년 여름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남과 북 그리고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5개 나라가 모여서 ‘초원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쯤 나는 정부 안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다. 2010년 들어 나는 청와대 쪽으로부터 북한을 빼고 초원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일에서 빠졌다. 그해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몇달쯤 뒤 열린 초원문화제는 규모를 크게 줄여 세미나 정도에 그쳤다. <br/><br/> 김용태는 암 투병 중이던 지난봄에도 내게 ‘알타이 연합’의 재추진 가능성을 물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갑오동학혁명 120돌 한민족 상생화해 제전’을 열었을 것이다. 주위의 화단 후배들이 그의 유고를 미뤄 짐작하고 전시회를 열던 지난 3월 그는 내게 ‘한민족 상생화해 제전’을 열자고 얘기했다. ‘몸 괜찮겠느냐’고 묻자 그는 ‘올가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br/><br/> 그 뒤 외국 행사를 다녀온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실려 가기 며칠 전 통화했다. 그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나는 늘 일만 벌여놓고 그에게 뒷설거지를 맡겨왔던 일이 새삼 생각나서 ‘용태야, 궂은일만 하라고 그래서 늘 미안했다’ 했더니, 그는 웃으며 답했다. “형은 늘 잘났잖아. <span class='quot0'>내가 받아줘야지 누가 받아주냐?</span>” <br/><br/> 젊은 날,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게는 늘 짝패가 있었는데, 김남주, 윤한봉 그리고 김용태가 그들이었다. 특히 김용태는 화가로 출발해 문화운동에 투신하고는 활동가이자 기획가로 생을 마쳤다. 그는 아무런 욕심도 없었고 다만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마주앉아 소주 몇 잔 마시고는 ‘산포도 사랑’으로 기분을 달래주던 민초였다. <끝> <br/><br/>황석영 소설가·전 민예총 이사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8.txt

제목: [길을 찾아서] 그는 죽기 전까지도 ‘한민족 상생화해 제전’을 생각했다  
날짜: 2014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910017110195  
본문: 연재 회고록 ‘길을 찾아서’의 16번째 이야기 ‘용태 형과 문화운동시대’는 지난 5월 작고한 김용태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이 끝내지 못한 구술을 그와 더불어 한 시대를 헤쳐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대신 들려주는 기획이다. 헌정 문집 <산포도 사랑, 용태 형>의 필진 가운데 20여명이 기꺼이 나섰다. 열일곱번째 주자인 작가 황석영씨가 1989년 방북 파동과 민주화운동사에서 민중문화운동의 의미 등으로 대미를 장식한다.<br/><br/> <br/><br/><br/><br/>노태우 정부가 ‘7·7선언’을 발표하자 <br/>‘남북 민간교류’의 주도권을 <br/>정부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br/>나와 문 목사의 방북을 논의했다 <br/><br/><br/>내가 방북 이후 10여년을 <br/>망명과 투옥으로 보내는 동안 <br/>그는 끝까지 남아 민예총을 지켰다 <br/><br/><br/><br/><br/>■ 돈 문제는 서툴고 머뭇거렸던 민예총의 살림꾼<br/><br/> 1988년 12월 나와 김용태가 민예총을 꾸리면서 가장 걱정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결국 돈 문제였다. 번듯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무집기라도 마련해야 하고, 당장은 출범식 비용부터 적어도 서너 달은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했다. 우선 형편이 좀 나은 각 분과위원장과 화가·작가들이 특별 찬조금을 내도록 했고 그림도 기증을 받아 팔아 쓰도록 했다. 그래도 자금은 터무니없이 모자랐다.<br/><br/> 우리는 예전 광주에서 현대문화연구소를 열 때나 작가회의 기금 마련을 위해, 소장 고서며 미술품을 내놓고 도자기를 제작하고, 유명 화가와 문인들의 글과 그림을 도자기에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저절로 생겨난 인맥과 호의적인 시민들과 정치권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나는 김용태에게 김상현 민주당 부총재를 소개했는데, 그는 김영삼-김대중 양쪽의 다리 노릇을 하던 처지라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모두에 닿는 접점이기도 했다. 양쪽에서는 미술품을 사주는 형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는 남도의 의제·남농 등 서화 대가들의 병풍과 대형 그림 등을 모아주었고 일부 구매자까지 소개해 주었다. <br/><br/> 그렇게 해서 출범 기금은 가까스로 마련됐지만 자금 문제는 내내 우리를 괴롭혔다. 김용태는 행정 실무나 조직 관리에는 따를 자가 없었지만 항상 돈 문제에서는 서툴고 수줍었다. 성격 자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했다. 그러면 나 같은 외향적인 친구들이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때로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주위에서 누군가 수익사업 아이디어라도 내놓으면 그는 ‘야, 그걸 차마 어떻게 하냐’고 머뭇거렸다. 그러니 아무리 자원봉사라 해도, 사무국은 늘 지역에서 올라온 활동가들에게 숙박은커녕 밥 한 끼 사줄 수 없을 정도로 쪼들렸다. 물론 그가 집에 한푼도 보태줄 수 없던 것은 당연했고, 단골술집이래야 인사동 점포 종업원들의 밥집이던 부산식당에서 술국에 소주를 마시는 게 고작이었다. <br/><br/> ■ ‘딴따라’ 자처한 현장 문화활동가들의 자부심<br/><br/> 민중문화운동사를 돌이켜보면, 70~80년대 유신독재의 검열과 문화독점 상황 아래서 학생·시민·노동자·농민들에게 독재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을 알리고 고취하고자 전통 연희 양식을 빌려 공연했던 마당극 운동이 그 시원이었다. 그러다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벗어나 공장에 들어가거나 공장지대에서 야학을 열게 되고, 농활이라든가 현지 교회들과 연계해 농촌에서도 문화교육을 할 필요가 생기면서 활동가들이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다.<br/><br/> 초기에는 공장과 농촌 지역의 성당이나 교회가 문화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선교를 앞세운 노동자나 농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우선은 마당극 공연에 참가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활동가 그룹으로 조직할 수가 있었고 분야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서 장르가 통합되었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나 현지에서 도와준 사람들로 현지 활동가와 지원세력도 저절로 형성되었다. <br/><br/> 독서 모임이니 학습이니 의식화 과정이니 하는 정치적 모임은 우선 장기적인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위험한 데 비해서 효과는 제한적이고 소그룹 단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서 마당극은 공연 자체가 효과를 단기간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유리했다. 초기에 민주화운동권 안에서는 문화운동에 대해서 식민지 시대의 ‘개량적 문화주의’를 떠올리고 경원하거나 낮춰 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문화활동가들이 ‘딴따라’를 자처한 것은 자기 일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70년대 말에 이르러 대학과 현장의 연결이 가능했던 것은 대부분 문화운동 단체들 덕분이었고 각 운동 현장에서 문화교육은 필수적이 되었다. <br/><br/> 80년대 들어 광주항쟁 전후 문화운동권의 경험은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에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우선 도시에 문화운동 거점을 만들고 공장과 농촌 현장에서는 자생적으로 조직된 현장 문화활동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은 거의가 노동자나 농민들이었고, 도시의 지원 세력은 교사, 종교인, 중산층 주부들, 의사, 약사 등이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은 팸플릿을 제작해 다른 지역과 현장으로 퍼뜨렸다. ‘마당극’이라는 느슨한 매체가 계속해서 일감을 재생산해냈던 것이다. <br/><br/> 이를테면 마당극판에서 형성된 노래패가 생겨나자 카세트테이프의 제작이 가능해졌고, 그림패는 단기간에 찍어서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판화 작업에 나서고, 이 작업이 자연스럽게 8㎜ 단편영화나 현장 다큐를 찍는 비디오 작업으로 발전해 나아갔다. 이른바 미디어로의 확산과 함께 남미에서의 경험인 카세트 작업은 아시아 각처로도 퍼져 나갔다. 국외동포와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현지에서도 같은 방법의 활동이 번져 나갔다. <br/><br/> 김용태는 민예총을 결성해 각 지역 활동가들과 국외의 문화운동 단체를 연결하는 구심점 노릇을 했고, 시민과 전문가의 연결도 모색했다. 그 토대 위에서 남북을 잇는 ‘통일문화운동’에도 나서게 된다. 90년대 이르러 민예총이 독보적인 문화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국내외 인맥과 연대 속에서 가능했다.<br/><br/>병원에 실려가기 전 통화를 했다 <br/>“<span class='quot0'>용태야 궂은 일만 시켜 늘 미안해</span>” <br/>그러자 그는 웃으며 답했다 <br/>“<span class='quot0'>내가 받아줘야지 누가 받아주냐?</span>” <br/><br/> ■ 민예총이 방북 파동을 피할 수 있었던 묘수<br/><br/> 88년 7월 서울올림픽을 한달 남짓 앞두고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즈음 전국 단위의 연합 운동조직이 다섯개쯤 있었는데 노동·농민·교사·대학생·종교계 및 재야 등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이 상승기에 올라올 때마다 북한을 빌미로 공안사건을 터뜨려 탄압하던 숱한 경험을 겪었으므로, ‘남북 민간교류’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북교류 문제를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br/><br/> 그리하여 재야를 중심으로 종교인인 문익환 목사(전민련 상임고문)와 예술인인 황석영 작가(민예총 대변인)가 방북을 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며 목사와 작가를 간첩으로 조작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태와 나는 깊이 의논했는데, 문제는 이제 막 출범한 ‘민예총’ 조직의 안전이었다. 우리는 현실 정치권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또다시 ‘정치권의 마당발’ 김상현 부총재와 의논하기로 했다. 김용태와 나는 홍대 앞 서교호텔에서 이른 아침에 김 의원과 만났다. 조찬이 끝나갈 즈음 김용태가 나의 방북 의사를 밝혔다. 이런 의견을 양김 쪽에도 전해주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까지 곁들였다. 그 이틀 뒤 김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김용태가 내게 알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속으로 애가 달았을 것’이라고 했다. ‘북에 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미 국가보안법의 현행법상 ‘불고지죄’가 성립되기 때문이었다. <br/><br/> 김 부총재는 당시 집권 민정당 당사가 있던 인사동의 한 음식점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다. 다시 셋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그는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민정당 사무총장인 이종찬 의원을 불렀다고 했다. 그렇게 이 의원과 넷이서 저녁을 함께하면서 방북 의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당국의 허가를 받을 거냐’고 물었고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는 답했다. 그는 얼굴이 밝아지면서 ‘민족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덕담을 했다. 그러고는 헤어졌다. <br/><br/> 그 며칠 뒤 89년 3월20일 나는 도쿄와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 뒤이어 3월25일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화되자 김상현은 이종찬에게 미루었고, 이종찬 쪽은 ‘그때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지만 끝내 사무총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쳤다’며 사과하자 그는 ‘정치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면서 웃어넘겼다. 어쨌든 김용태의 치밀한 기획으로 민예총과 재야의 책임은 모면한 셈이었다. 내가 이후 10여년을 망명과 투옥으로 보내는 동안 그는 끝까지 남아 집(민예총)을 지켰다. <br/><br/> ■ 알타이 연합, 동학혁명 120돌 제전…못다 한 꿈 <br/><br/>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와 정치적 지향은 다르지만 남북 문제에 좌우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엠비(MB)에게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조언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왔다. 김용태·조성우·최열 등 후배들과 만나서 ‘유라시아 평화열차’와 ‘알타이 문화·경제 연합’에 대한 나의 기획을 검토했다. 아다시피, 2009년 나는 엠비의 중앙아시아 방문길에 동행했고 이 일로 진보·보수 양쪽으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북쪽에도 의사 타진이 이루어진 때여서 나는 해명보다는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br/><br/> 그사이 몽골에서는 우리보다 적극적이어서 남쪽에 대통령 특사도 보냈고 북쪽도 방문했다. 북쪽에서도 응답이 있어 2010년 여름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남과 북 그리고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5개 나라가 모여서 ‘초원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쯤 나는 정부 안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다. 2010년 들어 나는 청와대 쪽으로부터 북한을 빼고 초원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일에서 빠졌다. 그해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몇달쯤 뒤 열린 초원문화제는 규모를 크게 줄여 세미나 정도에 그쳤다. <br/><br/> 김용태는 암 투병 중이던 지난봄에도 내게 ‘알타이 연합’의 재추진 가능성을 물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갑오동학혁명 120돌 한민족 상생화해 제전’을 열었을 것이다. 주위의 화단 후배들이 그의 유고를 미뤄 짐작하고 전시회를 열던 지난 3월 그는 내게 ‘한민족 상생화해 제전’을 열자고 얘기했다. ‘몸 괜찮겠느냐’고 묻자 그는 ‘올가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br/><br/> 그 뒤 외국 행사를 다녀온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실려 가기 며칠 전 통화했다. 그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나는 늘 일만 벌여놓고 그에게 뒷설거지를 맡겨왔던 일이 새삼 생각나서 ‘용태야, 궂은일만 하라고 그래서 늘 미안했다’ 했더니, 그는 웃으며 답했다. “형은 늘 잘났잖아. <span class='quot0'>내가 받아줘야지 누가 받아주냐?</span>” <br/><br/> 젊은 날,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게는 늘 짝패가 있었는데, 김남주, 윤한봉 그리고 김용태가 그들이었다. 특히 김용태는 화가로 출발해 문화운동에 투신하고는 활동가이자 기획가로 생을 마쳤다. 그는 아무런 욕심도 없었고 다만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마주앉아 소주 몇 잔 마시고는 ‘산포도 사랑’으로 기분을 달래주던 민초였다. <끝> <br/><br/>황석영 소설가·전 민예총 이사장 <br/><br/> <br/><br/><br/><br/> <br/><br/>“<span class='quot0'>평생토록 석영 형 때문에 세 번이나 잡혀갔어</span>”<br/><br/>용태 형이 기억하는 ‘황석영 방북기’ <br/><br/>“민예총 만들고 얼마 안 된 1989년 어느 날이었을 거야. 황석영 형이 갑자기 사무실에 와서는 ‘나, 평양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가시라고 그랬지. 나랑 제일 가까우니깐 의논하러 온 거야. 누구하고 연결됐나 하니깐 일본에 계시는 정경모 선생이라고 해. 총련 쪽은 아니고, 일찍이 군사독재 정권에 쫓겨나 통일운동 해온 지사이자 논객이지. 석영 형이 일본에 가서 만나고 왔다는 거야.” <br/><br/> 고 김용태 선생은 <산포도 사랑, 용태 형>의 구술 대담에서 당시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큰 파문을 던졌던 ‘문익환 목사, 황석영 작가의 방북’을 이렇게 회고했다.<br/><br/> “아, 그래 가지고 평양에 들어간 거야. ‘문목’보다 석영 형이 먼저 들어갔지. 그러다가 며칠 뒤 문목이 평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발표되니깐 다들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석영 형은 황해도 해주인가에 있다가 문목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으로 바로 올라갔다고 해. 아무튼 그날 저녁 때 신학철 선배와 홍선웅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같이 술 먹고 있는데 새벽에 안기부에서 쳐들어온 거야. 날 잡아갈라고.”<br/><br/> 그렇게 그 악명 높은 남산 지하실로 끌려간 ‘용태 형’은 며칠 동안 고초를 겪어야 했다. “취조를 받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깐 나 혼자, 내가 보낸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수사관에게 말했어, 사실대로. ‘가기 전부터, 집권 여당의 이종찬 사무총장도 알고 있었고 야당의 김상현 부총재도 같이 있었다.’ 그랬더니 안기부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 총장은 애초 육사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간부를 지냈어. 자기네 선임의 이름이 등장하니깐 골치 아프게 된 거지. 3일간 잡아두더니 풀어줬어. 물론 이 총장과 김 부총재 다 조사를 받았어. 그래서 이 총장은 요즘도 나만 보면 ‘야, 용태 이××, 내가 대통령 될 뻔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고 농을 치곤해.(ㅎㅎㅎ)”<br/><br/> 그렇게 용태 형과 민예총은 무사했지만, 방북 파동의 주역들도 고초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그는 안타까워했다. 문 목사는 김일성 주석과 2차례 회담을 통해 이른바 ‘4·2 선언’을 발표한 뒤 4월13일 김포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구속되었다. 또 고은 시인과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재오(현 새누리당 의원)도 구속되는 등 공안정국이 덮쳤다. “만약 그때 문목이 곧바로 귀환하지 않았으면, 안기부에서도 잡아넣지 않고 싶었던 것도 같아. 노태우 정부에서도 북방정책을 시작하고 했으니깐. 그런데 아무튼 공안서슬이 퍼렇게 도니까, 석영 형은 그 뒤 4년 넘게 독일로 미국으로 떠돌아다녀야 했어. 그러다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니까 형한테 연락이 왔어. 난 지금 들어오면 구속이라고, 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청와대 쪽과 얘기를 했나봐, 괜찮지 않겠느냐고. 결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잡혀가서 5년이나 옥살이를 했지.”<br/><br/> “<span class='quot0'>평생토록 석영 형 때문에 세번이나 잡혀갔다</span>”는 용태 형은 “<span class='quot0'>나나 석영 형은 물론이고 누구든 잡혀가면 예술인들이 철야농성에 기자회견도 열어 지지를 해줬다</span>”며 그 시절의 연대의식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br/><br/>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79.txt

제목: 여기까지  
날짜: 20141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8100000018  
본문: 김형경 지음, 민예당, 1994<br/>　<br/>“<span class='quot0'>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어?</span>” “미쳤냐, 또 태어나게!” 버스 안 두 사람의 대화. 다들 살기 힘든가 보다. 그래도 이런 가정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말로는 “한번뿐인 인생”이라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사는 게 고달파도 계절 가는 것이 서운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살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br/>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자살은 우울증과 대뇌 장애(brain disorder)라는 신체적 고통 때문이지만 모든 자살이 그렇지는 않다. 에 그런 죽음이 나온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7년 만에 다시 만난다. 가장 치열하게 노동현장에서 활동했던 최민화가 죽었기 때문이다.<br/>　그녀는 여느 자살자와 달리 단정한 필체의 긴 유서를 남긴다. “…나에 관한 이야기, 나의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니 무척 어색하구나… 내 선택을 패배나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단순한 충동도 아니야. 그저 내 삶이 여기까지라는 거야. 여기까지.”(1권, 88~89쪽)<br/>　알려졌다시피 이 작품은 김형경의 첫번째 장편소설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1억원의 고료로 유명했던 제1회(1993년) 국민일보 문학상 수상작이다. “<span class='quot0'>1980년대의 고뇌와 좌절을 절제력과 탄력 있는 신선한 문체, 집요한 자의식적 글쓰기로 성취했다</span>”는 절찬을 받았다. <br/>　이 소설을 읽은 지 20년이 되었다. 그간 나는 한번도 “내 삶이 여기까지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 구절을 잊은 적이 없다. 10년은 인상적인 여운으로 남았고, 나름 인생의 쓴맛을 들이켠 이후로는 작가(당시 33살)가 죽음과 자살에 대해서 잘 안다는 생각이 들었다.<br/>　이 작품에서 자살의 이유는 “패배, 절망”, ‘제정신이 아님’이 아니다. 어느 정도 자기 충족적 만족감과 이성적 판단에서의 “여기까지”라는 인식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삶이 완결되었다는 것이다. 게임 이즈 오버. 끝났다는 의미의 오버는 의미심장하다. 오버는 넘치는 상태.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는데 계속 살아야 하는 것. 단지 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 넘치는 술잔에서 계속 버려지는 맥주와 비슷하다. 이건 모두 엑스트라의 시간, 왜 하는지 모르는 연장전이다.<br/>　죽음뿐 아니라 일이나 재능, 관계에서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때가 있다. 슬프지 않다. 최선을 다했고 행복했고 이룰 만큼 이루었고, 잃을 만큼 잃었고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시점. 살기 싫은 것이 아니다. 삶이 좋은 의미에서 소진(消+盡)된 것이다. 아프거나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br/>　만일 80대 후반의 말기 암 환자가 반복적인 수술 끝에 자살했다면 비난하는 사람, 드물 것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상당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낙인은 젊음에 대한 욕망,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하나의 극(劇)이 끝났다. 사는 기간을 국가, 신, 절대자만이 판단해야 하는가? 이 소설의 죽음은 자연스러웠다. 설득력 있다.<br/>　의학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교정되어야 할 인지 장애다. 삶과 죽음의 유일한 차이는 행이든 불행이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도 매우 좋아한다. “<span class='quot0'>골목이 꺾이는 곳마다 그대 만나리.</span>”(237쪽) 죽음의 반대는 호기심,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설렘이지 당위로서의 생명이 아니다.<br/>　“여기까지”라는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자? 개인의 자유 이슈가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다. 생각해본다. 나는 타인의 삶에 호기심을 주는 사람인가. 인간에 대한 혐오로 죽고 싶은 마음을 부채질하는 사람인가.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어쨌든 살아보자는 의욕을 일으키는 매력적인 곳인가.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뿐이다. 생사의 갈등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은 미지라는 기대가 있는 사회다.<br/>정희진 여성학 강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0.txt

제목: 토요판에 연재하는 김보통 작가 /탈영병 쫓던 만화가가 청춘에게 던지는 질문  
날짜: 20141108  
기자: 박유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8100000063  
본문: ▶ 토요판이 새 만화 (D.P)를 15일부터 연재합니다. 매주 전면 2쪽에 걸쳐 실리는 이 만화는 헌병 군탈체포조가 탈영병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대가 20대 청춘에게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작가 김보통은 생애 첫 만화인 로 ‘2014년 오늘의 우리 만화’에 공동 선정된 무서운 신인입니다.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군 문제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연재를 앞둔 김보통씨를 만났습니다.<br/>　<br/>돈을 번다는 것 외에 의미가 없었다. 암에 걸린 아버지가 병원에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사투를 벌일 때에도 회식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3차를 갔다. 직장생활은 노동을 팔아 월급을 받는 물물교환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4년간의 직장생활을 때려치웠다. 계획은 없었다. 이직할 회사가 확정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이제부터 알기 위해 30대에 사표를 썼다.<br/>　퇴직한 뒤로 수많은 밤이 지나갔다. 방바닥에 누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며 잠 못 자는 시간을 5, 6개월쯤 보냈다. “만화 그려 볼래요?” 어느 날 밤, 만화가인 트친(트위터 친구)이 뜬금없는 쪽지를 보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그는 그때부터 만화가들을 찾아다니며 작업하는 모습을 한두시간씩 지켜봤다. 첫 만화를 지난해 9월 올레웹툰에 연재했다. 마감 날짜는 닥쳐오는데 말풍선을 제대로 그리지 못해 1회는 말풍선 없이 큰따옴표 안에 글을 썼다. 이 엉성함과 불안함이 지난달 3일 한국만화가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 오늘의 우리 만화’로 공동 선정한 김보통 작가 의 시작이었다. 1년 전 김보통씨에게 만화 그리기를 제안했던 최규석 작가도 으로 ‘2014 오늘의 우리 만화’에 선정돼 한국만화가협회장상을 받았다. 는 암을 생애 가장 큰 불행이 아닌, 새로운 모험으로 그린다. 눈물 펑펑 짜내는 최루 대신 가슴 먹먹한 여운과 동화 같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만화다. <br/>　첫 만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 작가가 오는 15일부터 토요판에 새 만화 (D.P)를 연재한다. 연재를 앞두고 지난달 13일 서울 공덕동에서 김 작가를 만났다. 다들 도톰한 가을옷을 입고 다니는 날이었음에도 김 작가는 혼자 반팔 피케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해가 질 때부터 뜰 때까지 이야기를 창작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집 밖에 비가 오는지, 날이 추운지, 따뜻한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던 그는 “춥지 않다”며 몇 차례 부인하다 바람이 계속 불자 커피숍 실내로 들어갔다. 여름 내내 만화를 그리다 가을날 문득 집 밖에 튀어나온 그는 아직 혼자 여름이었다.<br/>　<br/>　군견보다는 양치기 개가 되기로 했다<br/>　<br/>　-데뷔 만화가 왜 하필 암 환자였습니까?<br/>　“암 환자 만화를 거치지 않으면 내면에서 그다음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는 제 아버지에 대한 반성문이기도 했어요. 병원에 가면 아버지는 구토를 하시면서도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저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뇌에 물이 차니까 점점 못 알아보시고, 의식이 흐릿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환각 상태에 빠지셨어요. 남겨진 몇 개월 동안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그놈의 회사는 다녀도 안 다녀도 그만인데. 저는 술집을 가고 노래를 부르고 회사 사람들과 등산을 가고.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느낌이 들었어요.”<br/>　-두번째 만화인 도 독특한 소재입니다.<br/>　“만화로 그리고 싶었던 조직이 군대, 회사, 학교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직이잖아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경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설프게 발을 걸치는 사람이었죠. 보통 ‘디피(DP)라고 부르는’ 탈영병을 잡는 헌병 군탈체포조였어요. 바깥에서 탈영병 잡다가 한달 만에 군대에 들어와 이틀 자고 나가는 생활을 했는데, 중간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가끔 군대에 돌아와 보면 저번에 맞던 애가 이번에는 다른 애를 때리고 있어요. 섬뜩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게 올바른 군대이고 조직일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필터링을 거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고. 군인이면서 군인 아닌 내가 군대를 도망친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어요.”<br/>　는 탈영병을 쫓는 헌병 군탈체포조의 추적 과정을 통해 군대에 저당잡힌 20대 청춘들의 자화상을 그린다. 김 작가는 탄탄한 취재를 바탕으로 군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그린다. 자신의 경험은 모티브로만 삼고 대다수 상황은 새롭게 창작했다.<br/>　-탈영병들을 쫓으면서도 그들을 이해했습니까?<br/>　“이해해요.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탈영을 했다는 것이고 나는 아니라는 건데. 군필자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간부다.’ 군대는 뭐예요? 지금 군대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투 조직이 아니에요. 가혹행위, 성추행…. 가둬두고 서열 체계를 학습화시켜요. 만화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이 조직은, 군대는 괜찮은 걸까. 엠비시 예능 프로그램 를 보면서 다들 웃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탈영을 하고 있고, 서로 패고 죽이고 있다는 걸 숨기지 말고 보여주자.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2년 내내 뭐하고 있느냐고. 나는 개였어요. 개. 냄새를 맡으라고 주면 그 냄새 맡고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개, 충실한 군견. 그런데 탈영병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찾았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주저앉아 우셨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는 군견이지만 또 충실한, 양치기 개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는. 어차피 개일 거면 군견보다 양치기 개로 마음을 먹고 찾자. 그 생각을 하며 군 생활을 했어요.”<br/>　<br/>　탈영은 과연 나약한 청춘의 문제일까<br/>　<br/>　-윤 일병 사건 등 군대 문제가 끊임없이 수면 위에 드러나지만 해결책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는 왜 바뀌지 않을까요?<br/>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침묵해요. 왜 침묵하느냐. 편하니까요. 폭력이 있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청소가 잘되고, 깨끗하고, 말을 잘 듣고, 빠릿빠릿해요. 고참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무너뜨리기가 싫죠. 무서운 게 뭐냐면요. 무너뜨리면 또 재건이 되어요. 소름끼치는 광경이지요. 무한 증식하는 생물 같은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20대 수컷들을 가둬 놓으면 자연발생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기수, 서열을 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수컷들은 그런 존재인 건지. 제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 회사에 들어갔어요. 눈이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여기가 또다른 군대구나. 그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세운 조직이 여기구나. 학교와 군대, 사회가 일맥상통한 것이죠.”<br/>　-사람들은 왜 폭력을 묵인하거나 폭력에 전염될까요?<br/>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후임을 데려다 놓고 애들을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폭탄선언이 이어졌어요. ‘당신은 (주로 밖에 있으니까) 안 맞지 않았냐. 맞지 않는 자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왜 때려야 하는지 모른다.’ 폭력의 피해를 받은 자가 그걸 납득하고 정당한 폭력이라고 말해요.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제야 폭력을 반대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당할 일이 없거든. 군대에서 폭력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위해를 입힐 수 없는 오락이에요. 폭력을 가했을 때의 편리함과 우월감, 엄청난 쾌감을 하지 말라니까 싫은 것이죠. 부대에서는 폭력의 전이를 보고, 밖으로 나가면 도망다니는 탈영병들 보고. 탈영은 과연 나약해지는 젊은이들의 문제일까, 가학적 조직의 문제일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br/>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br/>　“잘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누군가 뭘 주면서 ‘이게 제일 맛있는 거다’ 말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훨씬 단순하고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정말 맛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질 때 삶이 괴롭고 피곤해지겠죠. 하지만 제 직업의 좋은 점은 그런 질문을 던져 놓고 만화로 풀어간다는 거죠.”<br/>　-전작 만화 를 보면 그림이나 구성에서 여백이 많아요. 그런 점이 더 여운을 줬어요.<br/>　“능력 부족인 것도 있겠지만 일부러 설명을 안 해요. 만화에서 주인공이 다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악당이 나타나서 나의 의도와 약점, 지금의 상황과 의미, 총체적인 배경을 다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전 뭘 설명해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질문이 될 수 있는 만화, 사람들이 생각한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br/>　만화가 김보통은 말을 할 때 힘주어 주장하거나 논리의 장황함을 떠벌리지 않았다. 조금 눌변이었음에도 듣게 하고 곱씹게 하고 뒤돌아보게 했다. 김보통이 군대와 20대 수컷에게, 사회를 떠받치는 조직의 당위성에 대해 던지는 조용한 질문이 다음주 독자를 찾아갈 것이다. <br/>　<br/>■ 토요판 새 연재 만화 의 등장인물<br/><br/>안준호: 군탈체포조장. 탈영병을 쫓는 업무를 하며 탈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인물.<br/>박성준: 군탈체포조원. 조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탈영병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는 명랑한 인물.<br/>오봉건: 군탈체포과장. 진급을 위해 체포율을 높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전형적 직업군인.<br/>김장수: 특경대. 내무 생활을 하지 않는 안준호와 박성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임.<br/>이영준: 수송부. 헌병 대장의 운전병으로 안준호의 동기.<br/>　<br/>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1.txt

제목: 여기까지  
날짜: 2014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710015558190  
본문: “<span class='quot0'>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어?</span>” “미쳤냐, 또 태어나게!” 버스 안 두 사람의 대화. 다들 살기 힘든가 보다. 그래도 이런 가정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말로는 “한번뿐인 인생”이라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사는 게 고달파도 계절 가는 것이 서운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살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br/><br/>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자살은 우울증과 대뇌 장애(brain disorder)라는 신체적 고통 때문이지만 모든 자살이 그렇지는 않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에 그런 죽음이 나온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7년 만에 다시 만난다. 가장 치열하게 노동현장에서 활동했던 최민화가 죽었기 때문이다.<br/><br/> 그녀는 여느 자살자와 달리 단정한 필체의 긴 유서를 남긴다. “…나에 관한 이야기, 나의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니 무척 어색하구나… 내 선택을 패배나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단순한 충동도 아니야. 그저 내 삶이 여기까지라는 거야. 여기까지.”(1권, 88~89쪽)<br/><br/> 알려졌다시피 이 작품은 김형경의 첫번째 장편소설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1억원의 고료로 유명했던 제1회(1993년) 국민일보 문학상 수상작이다. “<span class='quot0'>1980년대의 고뇌와 좌절을 절제력과 탄력 있는 신선한 문체, 집요한 자의식적 글쓰기로 성취했다</span>”는 절찬을 받았다. <br/><br/> 이 소설을 읽은 지 20년이 되었다. 그간 나는 한번도 “내 삶이 여기까지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 구절을 잊은 적이 없다. 10년은 인상적인 여운으로 남았고, 나름 인생의 쓴맛을 들이켠 이후로는 작가(당시 33살)가 죽음과 자살에 대해서 잘 안다는 생각이 들었다.<br/><br/> 이 작품에서 자살의 이유는 “패배, 절망”, ‘제정신이 아님’이 아니다. 어느 정도 자기 충족적 만족감과 이성적 판단에서의 “여기까지”라는 인식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삶이 완결되었다는 것이다. 게임 이즈 오버. 끝났다는 의미의 오버는 의미심장하다. 오버는 넘치는 상태.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는데 계속 살아야 하는 것. 단지 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 넘치는 술잔에서 계속 버려지는 맥주와 비슷하다. 이건 모두 엑스트라의 시간, 왜 하는지 모르는 연장전이다.<br/><br/> 죽음뿐 아니라 일이나 재능, 관계에서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때가 있다. 슬프지 않다. 최선을 다했고 행복했고 이룰 만큼 이루었고, 잃을 만큼 잃었고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시점. 살기 싫은 것이 아니다. 삶이 좋은 의미에서 소진(消+盡)된 것이다. 아프거나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br/><br/> 만일 80대 후반의 말기 암 환자가 반복적인 수술 끝에 자살했다면 비난하는 사람, 드물 것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상당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낙인은 젊음에 대한 욕망,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하나의 극(劇)이 끝났다. 사는 기간을 국가, 신, 절대자만이 판단해야 하는가? 이 소설의 죽음은 자연스러웠다. 설득력 있다.<br/><br/> 의학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교정되어야 할 인지 장애다. 삶과 죽음의 유일한 차이는 행이든 불행이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도 매우 좋아한다. “<span class='quot0'>골목이 꺾이는 곳마다 그대 만나리.</span>”(237쪽) 죽음의 반대는 호기심,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설렘이지 당위로서의 생명이 아니다.<br/><br/> “여기까지”라는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자? 개인의 자유 이슈가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다. 생각해본다. 나는 타인의 삶에 호기심을 주는 사람인가. 인간에 대한 혐오로 죽고 싶은 마음을 부채질하는 사람인가.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어쨌든 살아보자는 의욕을 일으키는 매력적인 곳인가.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뿐이다. 생사의 갈등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은 미지라는 기대가 있는 사회다.<br/><br/>정희진 여성학 강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2.txt

제목: 탈영병 쫓던 만화가가 청춘에게 던지는 질문  
날짜: 2014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710015558065  
본문: ▶<한겨레> 토요판이 새 만화 <디피>(D.P)를 15일부터 연재합니다. 매주 전면 2쪽에 걸쳐 실리는 이 만화는 헌병 군탈체포조가 탈영병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대가 20대 청춘에게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작가 김보통은 생애 첫 만화인 <아만자>로 ‘2014년 오늘의 우리 만화’에 공동 선정된 무서운 신인입니다.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군 문제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디피> 연재를 앞둔 김보통씨를 만났습니다.<br/><br/>돈을 번다는 것 외에 의미가 없없다. 암에 걸린 아버지가 병원에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사투를 벌일 때에도 회식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3차를 갔다. 직장생활은 노동을 팔아 월급을 받는 물물교환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4년간의 직장생활을 때려치웠다. 계획은 없었다. 이직할 회사가 확정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이제부터 알기 위해 30대에 사표를 썼다.<br/><br/> 퇴직한 뒤로 수많은 밤이 지나갔다. 방바닥에 누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며 잠 못 자는 시간을 5, 6개월쯤 보냈다. “만화 그려 볼래요?” 어느 날 밤, 만화가인 트친(트위터 친구)이 뜬금없는 쪽지를 보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그는 그때부터 만화가들을 찾아다니며 작업하는 모습을 한두시간씩 지켜봤다. 첫 만화를 지난해 9월 올레웹툰에 연재했다. 마감 날짜는 닥쳐오는데 말풍선을 제대로 그리지 못해 1회는 말풍선 없이 큰따옴표 안에 글을 썼다. 이 엉성함과 불안함이 지난달 3일 한국만화가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 오늘의 우리 만화’로 공동 선정한 김보통 작가 <아만자>의 시작이었다. 1년 전 김보통씨에게 만화 그리기를 제안했던 최규석 작가도 <송곳>으로 ‘2014 오늘의 우리 만화’에 선정돼 한국만화가협회장상을 받았다. <아만자>는 암을 생애 가장 큰 불행이 아닌, 새로운 모험으로 그린다. 눈물 펑펑 짜내는 최루 대신 가슴 먹먹한 여운과 동화 같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만화다. <br/><br/> 첫 만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 작가가 오는 15일부터 <한겨레> 토요판에 새 만화 <디피>(D.P)를 연재한다. 연재를 앞두고 지난달 13일 서울 공덕동에서 김 작가를 만났다. 다들 도톰한 가을옷을 입고 다니는 날이었음에도 김 작가는 혼자 반팔 피케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해가 질 때부터 뜰 때까지 이야기를 창작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집 밖에 비가 오는지, 날이 추운지, 따뜻한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던 그는 “춥지 않다”며 몇 차례 부인하다 바람이 계속 불자 커피숍 실내로 들어갔다. 여름 내내 <아만자> 만화를 그리다 가을날 문득 집 밖에 튀어나온 그는 아직 혼자 여름이었다.<br/><br/> <br/><br/> 군견보다는 양치기 개가 되기로 했다<br/><br/> -데뷔 만화가 왜 하필 암 환자였습니까?<br/><br/> “암 환자 만화를 거치지 않으면 내면에서 그다음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만자>는 제 아버지에 대한 반성문이기도 했어요. 병원에 가면 아버지는 구토를 하시면서도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저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뇌에 물이 차니까 점점 못 알아보시고, 의식이 흐릿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환각 상태에 빠지셨어요. 남겨진 몇 개월 동안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그놈의 회사는 다녀도 안 다녀도 그만인데. 저는 술집을 가고 노래를 부르고 회사 사람들과 등산을 가고.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느낌이 들었어요.”<br/><br/> -두번째 만화인 <디피>도 독특한 소재입니다.<br/><br/> “만화로 그리고 싶었던 조직이 군대, 회사, 학교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직이잖아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경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설프게 발을 걸치는 사람이었죠. 보통 ‘디피(DP)라고 부르는’ 탈영병을 잡는 헌병 군탈체포조였어요. 바깥에서 탈영병 잡다가 한달 만에 군대에 들어와 이틀 자고 나가는 생활을 했는데, 중간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가끔 군대에 돌아와 보면 저번에 맞던 애가 이번에는 다른 애를 때리고 있어요. 섬뜩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게 올바른 군대이고 조직일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필터링을 거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고. 군인이면서 군인 아닌 내가 군대를 도망친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어요.”<br/><br/> <디피>는 탈영병을 쫓는 헌병 군탈체포조의 추적 과정을 통해 군대에 저당잡힌 20대 청춘들의 자화상을 그린다. 김 작가는 탄탄한 취재를 바탕으로 군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그린다. 자신의 경험은 모티브로만 삼고 대다수 상황은 새롭게 창작했다.<br/><br/> -탈영병들을 쫓으면서도 그들을 이해했습니까?<br/><br/> “이해해요.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탈영을 했다는 것이고 나는 아니라는 건데. 군필자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간부다.’ 군대는 뭐예요? 지금 군대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투 조직이 아니에요. 가혹행위, 성추행…. 가둬두고 서열 체계를 학습화시켜요. 만화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이 조직은, 군대는 괜찮은 걸까. 엠비시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보면서 다들 웃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탈영을 하고 있고, 서로 패고 죽이고 있다는 걸 숨기지 말고 보여주자.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2년 내내 뭐하고 있느냐고. 나는 개였어요. 개. 냄새를 맡으라고 주면 그 냄새 맡고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개, 충실한 군견. 그런데 탈영병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찾았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주저앉아 우셨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는 군견이지만 또 충실한, 양치기 개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는. 어차피 개일 거면 군견보다 양치기 개로 마음을 먹고 찾자. 그 생각을 하며 군 생활을 했어요.”<br/><br/>아버지가 암과 싸우는 시간에 <br/>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3차를 갔다 <br/>사표 쓰고 불면의 밤을 보냈다 <br/>우연히 시작한 첫 만화 ‘아만자’ <br/>2014 오늘의 우리 만화로 선정<br/><br/>폭력에 전염된 군대 경계인으로 <br/>탈영병을 쫓는 군탈체포조였다 <br/>전염되는 폭력과 순응하는 청춘 <br/>김보통의 두번째 만화 ‘D.P’ <br/>군대는 무엇이냐고 되묻는다<br/><br/> 탈영은 과연 나약한 청춘의 문제일까<br/><br/> -윤 일병 사건 등 군대 문제가 끊임없이 수면 위에 드러나지만 해결책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는 왜 바뀌지 않을까요?<br/><br/>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침묵해요. 왜 침묵하느냐. 편하니까요. 폭력이 있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청소가 잘되고, 깨끗하고, 말을 잘 듣고, 빠릿빠릿해요. 고참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무너뜨리기가 싫죠. 무서운 게 뭐냐면요. 무너뜨리면 또 재건이 되어요. 소름끼치는 광경이지요. 무한 증식하는 생물 같은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20대 수컷들을 가둬 놓으면 자연발생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기수, 서열을 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수컷들은 그런 존재인 건지. 제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 회사에 들어갔어요. 눈이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여기가 또다른 군대구나. 그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세운 조직이 여기구나. 학교와 군대, 사회가 일맥상통한 것이죠.”<br/><br/> -사람들은 왜 폭력을 묵인하거나 폭력에 전염될까요?<br/><br/>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후임을 데려다 놓고 애들을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폭탄선언이 이어졌어요. ‘당신은 (주로 밖에 있으니까) 안 맞지 않았냐. 맞지 않는 자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왜 때려야 하는지 모른다.’ 폭력의 피해를 받은 자가 그걸 납득하고 정당한 폭력이라고 말해요.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제야 폭력을 반대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당할 일이 없거든. 군대에서 폭력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위해를 입힐 수 없는 오락이에요. 폭력을 가했을 때의 편리함과 우월감, 엄청난 쾌감을 하지 말라니까 싫은 것이죠. 부대에서는 폭력의 전이를 보고, 밖으로 나가면 도망다니는 탈영병들 보고. 탈영은 과연 나약해지는 젊은이들의 문제일까, 가학적 조직의 문제일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br/><br/>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br/><br/> “잘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누군가 뭘 주면서 ‘이게 제일 맛있는 거다’ 말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훨씬 단순하고 만족스럽지 않았까 생각해요. 그게 정말 맛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질 때 삶이 괴롭고 피곤해지겠죠. 하지만 제 직업의 좋은 점은 그런 질문을 던져 놓고 만화로 풀어간다는 거죠.”<br/><br/> -전작 만화 <아만자>를 보면 그림이나 구성에서 여백이 많아요. 그런 점이 더 여운을 줬어요.<br/><br/> “능력 부족인 것도 있겠지만 일부러 설명을 안 해요. 만화에서 주인공이 다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악당이 나타나서 나의 의도와 약점, 지금의 상황과 의미, 총체적인 배경을 다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전 뭘 설명해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질문이 될 수 있는 만화, 사람들이 생각한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br/><br/> 만화가 김보통은 말을 할 때 힘주어 주장하거나 논리의 장황함을 떠벌리지 않았다. 조금 눌변이었음에도 듣게 하고 곱씹게 하고 뒤돌아보게 했다. 김보통이 군대와 20대 수컷에게, 사회를 떠받치는 조직의 당위성에 대해 던지는 조용한 질문이 다음주 독자를 찾아갈 것이다. <br/><br/>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3.txt

제목: 삼성행복대상 시상식 열려  
날짜: 2014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610015551520  
본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6일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콘퍼런스홀에서 ‘2014년 삼성행복대상’ 시상식을 열고 3명의 수상자에게 각 5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br/><br/> ‘여성선도상’을 받은 정진성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결혼이주여성·불가촉천민(인도 최하층 신분)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여성창조상’은 암 발생·전이 유전자와 이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규명해 암 조절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를 선도해온 백성희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가 받았다. 2002년부터 270여명의 단원이 130여명의 홀로 사는 노인과 일대일 결연을 맺어 돌보고 있는 이(e)세대 가정봉사단은 ‘가족화목상’을 차지했다.<br/><br/> ‘청소년상’의 주인공 김솔비(제주여상고 3)·박세은(관양고 3)·송은혜(해남공고 3)·이준영(부평공고 2)·정다영(전주사대부고 3) 학생은 각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4.txt

제목: 국가 건강검진부터 먼저 챙겨 받으세요…암 검진 등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어야  
날짜: 2014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410015535275  
본문: Q: 건강보험의 건강검진도 종류가 많네요<br/><br/>A: 개인이 원해서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와 함께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검진의 목적은 심장 및 뇌혈관 질환과 위암을 포함한 5대 암 등 중증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흔히 받게 되는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당뇨·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생활습관병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비사무직은 해마다, 사무직은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만 40살 이상 피부양자는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올해는 짝수해 출생자, 내년에는 홀수해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40살 이상 세대원이 격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39살은 세대주만, 만 40~64살은 모두가 격년으로 검진 대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올해는 짝수해 출생자, 내년엔 홀수해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검진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br/><br/> 다음으로 5대 암 검진인데, 위·대장·간·자궁경부·유방암 등 한국에서 흔하면서 적절한 검진 방법 및 치료법이 있는 암이 대상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무료지만, 나머지는 검사비의 10%를 냅니다. 이밖에도 만 40살·66살에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살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검진도 있습니다. <br/><br/> 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5.txt

제목: “기준치 내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노출 땐 암 발병 가능성 높다는 사실 알리려 항소”  
날짜: 2014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310015527981  
본문: 최근 법원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이진섭(48)씨가 3일 항소했다.<br/><br/> 이씨는 이날 부산지법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pan class='quot0'>기준치 이내의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항소했다</span>”고 밝혔다. 이씨는 “한수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서 주민에게 건강상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원인을 법원을 통해 꼭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인 서은경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인 이씨의 아내 박아무개(48)씨의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이씨 가족의 위자료 청구까지 더해 항소심을 진행한다. 원전과 근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앞서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이씨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인 박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의 책임을 인정해 “<span class='quot0'>한수원은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span>”고 판결했다. 한수원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했다.<br/><br/> 한편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낮 1시 기장군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계획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br/><br/>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span class='quot1'>갑상선암의 원전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한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의 원고를 모집하자 10여일 만에 기장군에서 40여명,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30여명 등 고리원전 근처 주민만 80여명이 참여했다</span>”고 밝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6.txt

제목: ‘당뇨 특효약입니다’…과장광고로 105억원 챙긴 일당  
날짜: 2014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310015525704  
본문: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을 당뇨병 치료와 성기능 장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100억대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br/><br/> 경기 포천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김아무개(55)씨 등 37명을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반식품인 ‘씨알엑스골드’ 등을 성기능 개선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해 팔아 10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br/>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면 이른바 ‘바지사장’을 자수시켜 부당이득금을 축소 신고해 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벌고, 그 기간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면 ‘이미 자수했다’고 둘러대며 영업을 계속 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br/><br/> 이들은 조아무개(49)씨 등 의사·한의사 등과 짜고서 이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를 속였으며,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구매를 유도했다.<br/><br/> 김씨 등은 포천시 인근에 소규모 작업장을 차려 놓고 직접 제품을 만들기도 했으며, 원가 1만5000원인 식품 ‘파워엠’을 19만8000원에 파는 등 가격을 10배 안팎 부풀려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br/><br/> 이들이 만든 제품은 건강보조식품도 아닌 일반식품으로 제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약효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김아무개(56)씨를 쫓고 있다.<br/><br/> 한편,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일반식품과 정수기를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광고해 팔아 억대를 챙긴 장아무개(37)씨 등 3명을 이날 식품위생법위반과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br/><br/> 장씨 등은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동두천시에 홍보관을 차려 놓고 일반식품인 말굽버섯과 정수기의 일종인 수소환원수기 등을 암과 당뇨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br/> 이들은 원가가 3㎏당 6만원인 말굽버섯을 39만원에, 원가 50만원인 수소환원수기를 150만원에 파는 등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 말굽버섯과 쾌청환 등은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수소환원수기 또한 정수와 이온 생성 기능만 있을 뿐 암과 당뇨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 장씨 등은 젊은 사람과 견줘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60∼70대를 주로 노렸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50∼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br/>포천·동두천/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7.txt

제목: 5살 소아암 해민이, ‘꿈에 그리던 엘사 공주 됐어요’  
날짜: 2014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210015518489  
본문: 거울 속 소녀의 볼이 발갛게 상기됐다. 자원봉사에 나선 헤어디자이너 박수진(31)씨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김해민(5)양의 머리카락이 고불고불 물결을 그렸다. 하얀색 드레스와 털 망토를 입으니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가 됐다. 시녀와 집사 분장을 한 자원봉사자들이 ‘공주님’ 곁을 지켰다.<br/><br/> <br/><br/> 해민이는 소아암을 앓았다. 열이 나고 호흡이 거칠어지길래 감기나 약한 폐렴인 줄 알았다고 한다. 세상에 나오고 19개월째인 2011년 4월 소아혈액암인 악성림프종 3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몸 안 림프가 부어오르며 장기를 눌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다. 만 4살이 되기 한달 전인 지난해 6월까지 작은 몸으로 20번의 항암치료를 버텨냈다. 여느 백혈병 아이들처럼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칫솔질도 어려웠다. 입안이 헐어 피가 날까봐 면봉에 묻은 야채 세척제로 이를 닦았다. 치료를 마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치는 아니다. 별일 없이 5년이 지나야 한다. 매달 한차례 병원에 다닌다. 면역력이 약해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서 엄마, 동생이랑 지낸다.<br/><br/> “해민이한테 딱 맞네. 정말 멋지다.” 신이 난 해민이를 보고 엄마 윤송미(33)씨와 아빠 김민석(33)씨가 환하게 웃었다. 해민이를 따라 아빠와 엄마는 왕과 왕비로, 동생 해승(3)이는 엘사 공주의 동생 안나로 변신했다.<br/><br/> 지난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는 난치병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의 ‘위시 데이’(wish day) 행사가 열렸다. 이 재단은 1980년 경찰관이 꿈이었던 7살 미국 백혈병 어린이의 꿈을 이뤄준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37개 나라에 재단이 꾸려졌고, 한국에서도 이제까지 2200여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이 저마다의 소망을 이뤘다.<br/><br/> 재단은 ‘공주가 되고 싶다’는 해민이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지난여름부터 대본을 쓰고 파티를 기획했다. 해민이가 일주일에 한번씩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원데이 프로그램’의 소아암 친구 12명도 초대했다. 해민이처럼 머리칼이 빠진 아이들은 두건을 두르고 마스크를 썼지만 다들 드레스를 입고 이웃나라 공주로 변신했다. <br/><br/><br/><br/> 어른들은 기쁜 마음으로 연극을 했다. 행사를 후원한 의류수입업체 브룩스브라더스 코리아 신종섭(51) 지사장이 해민이를 주인공으로 재단과 함께 직접 쓴 동화를 읽어줬다. 해민 공주 곁을 검은 그림자(병)가 떠나지 않자, 윌리엄 왕자가 “사랑해”라고 외쳐서 공주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업체 직원들은 시녀와 집사가 돼 해민이의 시중을 들었다. 배우 이우성(34)씨가 윌리엄 왕자로 변신해 해민이에게 유리구두를 신겨주고 손에 입을 맞추고 함께 춤을 췄다. 세바스찬경 역을 한 자원봉사자 장용휘(32)씨는 “<span class='quot0'>선물을 하나 사주기보다 이렇게 아이의 꿈을 이뤄줄 때 더 뿌듯함을 느낀다</span>”고 했다. 이날 해민이와 친구들은 풍선으로 만든 호박마차를 탔다.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춤추는 게 제일 좋았어요.” 해민 공주가 사람들에게 감사인사를 했다. 해민이의 소원은 아빠 김씨의 소원이기도 하다. 김씨는 뇌종양이 발견돼 이달 초에 수술을 받는다. 김씨 부부는 “해민이가 병원과 집에만 있느라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 더 좋아한 것 같다”고 했다. 파티에 초대받은 소아암 어린이의 아버지 홍아무개(40)씨는 “해민이 가족들이 오늘을 떠올리면서 지난 힘든 시간들을 잊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br/><br/>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8.txt

제목: 5살 소아암 해민이, ‘꿈에 그리던 엘사 공주 됐어요’  
날짜: 2014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10210015519443  
본문: 거울 속 소녀의 볼이 발갛게 상기됐다. 자원봉사에 나선 헤어디자이너 박수진(31)씨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김해민(5)양의 머리카락이 고불고불 물결을 그렸다. 하얀색 드레스와 털 망토를 입으니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가 됐다. 시녀와 집사 분장을 한 자원봉사자들이 ‘공주님’ 곁을 지켰다.<br/><br/> 해민이는 소아암을 앓았다. 열이 나고 호흡이 거칠어지길래 감기나 약한 폐렴인 줄 알았다고 한다. 세상에 나오고 19개월째인 2011년 4월 소아혈액암인 악성림프종 3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몸 안 림프가 부어오르며 장기를 눌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다. 만 4살이 되기 한달 전인 지난해 6월까지 작은 몸으로 20번의 항암치료를 버텨냈다. 여느 백혈병 아이들처럼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칫솔질도 어려웠다. 입안이 헐어 피가 날까봐 면봉에 묻은 야채 세척제로 이를 닦았다. 치료를 마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치는 아니다. 별일 없이 5년이 지나야 한다. 매달 한차례 병원에 다닌다. 면역력이 약해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서 엄마, 동생이랑 지낸다.<br/><br/> “해민이한테 딱 맞네. 정말 멋지다.” 신이 난 해민이를 보고 엄마 윤송미(33)씨와 아빠 김민석(33)씨가 환하게 웃었다. 해민이를 따라 아빠와 엄마는 왕과 왕비로, 동생 해승(3)이는 엘사 공주의 동생 안나로 변신했다.<br/><br/> 지난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는 난치병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의 ‘위시 데이’(wish day) 행사가 열렸다. 이 재단은 1980년 경찰관이 꿈이었던 7살 미국 백혈병 어린이의 꿈을 이뤄준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37개 나라에 재단이 꾸려졌고, 한국에서도 이제까지 2200여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이 저마다의 소망을 이뤘다.<br/><br/> 재단은 ‘공주가 되고 싶다’는 해민이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지난여름부터 대본을 쓰고 파티를 기획했다. 해민이가 일주일에 한번씩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원데이 프로그램’의 소아암 친구 12명도 초대했다. 해민이처럼 머리칼이 빠진 아이들은 두건을 두르고 마스크를 썼지만 다들 드레스를 입고 이웃나라 공주로 변신했다.<br/><br/> 어른들은 기쁜 마음으로 연극을 했다. 행사를 후원한 의류수입업체 브룩스브라더스 코리아 신병섭(51) 지사장이 해민이를 주인공으로 재단과 함께 직접 쓴 동화를 읽어줬다. 해민 공주 곁을 검은 그림자(병)가 떠나지 않자 윌리엄 왕자가 “사랑해”라고 외쳐서 공주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업체 직원들은 시녀와 집사가 돼 해민이의 시중을 들었다. 배우 이우성(34)씨가 윌리엄 왕자로 변신해 해민이에게 유리구두를 신겨주고 손에 입을 맞추고 함께 춤을 췄다. 세바스찬경 역을 한 자원봉사자 장용휘(32)씨는 “<span class='quot0'>선물을 하나 사주기보다 이렇게 아이의 꿈을 이뤄줄 때 더 뿌듯함을 느낀다</span>”고 했다. 이날 해민이와 친구들은 풍선으로 만든 호박마차를 탔다.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춤추는 게 제일 좋았어요.” 해민 공주가 사람들에게 감사인사를 했다.<br/><br/> 해민이의 소원은 아빠 김씨의 소원이기도 하다. 김씨는 뇌종양이 발견돼 이달 초에 수술을 받는다. 김씨 부부는 “해민이가 병원과 집에만 있느라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 더 좋아한 것 같다”고 했다. 파티에 초대받은 소아암 어린이의 아버지 홍아무개(40)씨는 “해민이 가족들이 오늘을 떠올리면서 지난 힘든 시간들을 잊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br/><br/>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89.txt

제목: 노인 사망 원인 ‘폐렴’ 급부상…‘고령화’ 탓  
날짜: 2014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3110015514095  
본문: 10여년 전만 해도 노인들의 사망 원인 질병 5위 안에도 들지 못했던 폐렴이 지난해 4위까지 올라서는 등 폐렴으로 사망하는 노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31일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2014년 10월호)’에 발표한 ‘건강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들의 사망 원인 질병들 가운데 가장 순위가 높은 질환은 암이었으며, 이어 뇌혈관질환·심장질환·폐렴 순이었다. 2000년에는 1~3위까지는 지난해와 같고, 4위가 당뇨, 5위가 만성하기도질환으로 폐렴은 5위에 들지 못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폐렴 사망이 늘어나 2010년에는 5위에 만성하기도질환이 빠지고 폐렴이 올라섰다. 이후 지난해에는 당뇨보다 많아져 4위까지 부상한 것이다.<br/><br/>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봐도 폐렴 사망자는 2010년 127.6명에서 지난해 16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장질환 사망자가 358.9명에서 367.1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다른 질환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암 사망자는 929.7명에서 852.9명, 뇌혈관질환 사망자는 785.3명에서 372.9명으로 줄었다. 당뇨 사망자도 218.4명에서 163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br/><br/>폐렴 사망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는 노인 인구의 고령화가 꼽힌다. 암이나 뇌혈관질환을 앓지 않았거나 이런 질병에 걸렸어도 치료가 된 노인들이 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는 것이다. 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노인들의 건강 행태를 보면 건강검진 수검률이나 규칙적 운동의 실천율은 다소 개선됐다. 하지만 하루에 6~8시간 적정하게 자고,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0.txt

제목: [특파원 칼럼] 안 그래도 사는 게 혐이다 / 길윤형  
날짜: 2014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3010015508215  
본문: 눈 뜨면 스트레스고 숨을 쉬면 혐(嫌)이다.<br/><br/> 며칠 전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격주로 진행하는 브리핑에 참석하러 갔다가 정문 앞에서 동료 특파원을 만났다. 그에게 “눈을 뜨면 스트레스”라고 아침 인사를 건네자, “길윤형씨도 그래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우린 앞뒤로 선 채 걸으며 낄낄 웃었다. 그러고선 그 일을 잊었는데 지난 28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돌아가는 길에 그때 일이 화제에 올랐다. “<span class='quot0'>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 위안이 됐다</span>”는 얘기였다. 우린 다시 나란히 선 채 걸으며 다시 한번 낄낄 웃었다.<br/><br/>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지 3년이 되어간다. 그 탓이겠지만, 도쿄 특파원들의 하루하루 생활은 괴롭기 짝이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을 읽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일본 주요 정치인이 출연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다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며, 책을 사러 서점에 갈 때마다 ‘혐한’을 조장하는 책들로 마음에 멍이 든다. 현재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살펴볼 때, 이런 흐름을 단숨에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br/><br/> 2009년쯤 영화 잡지 <씨네21>에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에 관해 짧은 칼럼을 썼던 기억이 난다. 부산을 덮친 지진해일(쓰나미)은 해운대의 마천루를 덮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긴다. 그러나 영화가 잊고 있는 대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부산을 뒤덮은 지진해일의 반대편에 살고 있을 쓰시마, 이키, 후쿠오카 사람들이었다. 부산 사람들이 거대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영화를 만들며 그 반대편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게 될 이웃들에 대해 눈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얘길 적었다.<br/><br/> 지난 8월이다. 그 칼럼을 쓴 지 5년이 지나 한국인 절도범 일당이 쓰시마의 절과 신사에서 훔쳐낸 불상을 돌려주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 쓰시마를 방문했다. 후쿠오카의 하카타역에서 배를 타고 두시간쯤 설핏 잠에 들었더니 어느새 이즈하라항이었다. 그곳에서 한·일 두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백년을 생존해온 섬사람들의 얘길 들었다. 특히 고려시대 관세음보살좌상을 도둑맞은 관음사의 본사인 서산사(西山寺·세이잔지)엔 1590년 조선통신사의 부사로 참여했던 학봉 김성일(1538~1593)의 시비가 세워져 있었고, 쓰시마에서 한-일 사이의 외교를 담당하던 승려 겐소(?~1612)의 목상도 마련돼 있었다. 이는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일까. 아니다. 김성일은 귀국 후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고, 겐소는 임진왜란 당시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봉대의 침략 길에 길잡이를 한 인물이다. 쓰시마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했던 섬에서 느낀 것은 교류란 본질적으로 양면적이라는 것과 역사에 대한 해석은 간단치 않다는 것이었다.<br/><br/> 쓰시마인들이, 그리고 일본인들이 기억하는 역사는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본의 식민지배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은 한국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정신이다. <비정상회담>이라는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는 이유로 제작진이 거듭 사과를 해야 하는 한국의 사정을 떠올려 본다. 아마,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일본 특파원들도 나와 비슷한 감정은 아닐까. 텔레비전을 켜면 쏟아지는 뉴스들로 안 그래도 숨쉬는 순간순간이 모두 혐인데 한국도 일본도 서로에게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말자. <br/><br/>길윤형 도쿄 특파원 charism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1.txt

제목: 인체 유해한 인조잔디 운동장 수두룩  
날짜: 2014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3010015509007  
본문: 전교생 150여명의 경북 영천 영화초등학교에는 2008년 8월부터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다.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이곳에서 중금속 납 성분이 5500㎎/㎏ 검출돼 기준치의 61배를 웃돌았다. 소식을 들은 학부모와 주민들은 “인조잔디가 이렇게 해로운 줄 미처 몰랐다.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1년이 넘도록 인조잔디는 철거되지 않고 있다.<br/><br/> 학교 쪽은 납 성분 검출 직후 학생들에게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체육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학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내년이면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아 친환경으로 바꾸겠다</span>”고 밝혔다.<br/><br/> 경북지역에서 이처럼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린 곳은 초등학교 65곳, 중학교 30곳, 고등학교 30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26곳이나 된다. 전체 초·중·고교 965곳의 13%를 웃돈다. 교육부에서 정한 내구연한 7년이 지난 잔디구장이 있는 학교도 13곳에 이르러 환경오염이 우려된다.<br/><br/>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인조잔디가 오래돼 낡으면 아토피 등 피부 염증과 납 등 유해물질이 훨씬 많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span>”고 밝혔다.<br/><br/> 경북녹색당 김수민 사무처장은 “한여름에는 인조잔디의 표면이 너무 뜨거워져 어린이들이 운동하다 넘어질 때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 또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유출수나 화학물질이 하천수를 오염시킬 가능성도 높다.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즉시 뜯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 미국에서는 뉴욕시가 2008년 각종 체육시설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27년 동안 근무한 축구 코치가 최근 암에 걸린 사례가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br/><br/> 송건수 경북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span class='quot2'>앞으로는 가급적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대신 마사토나 천연잔디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span>”이라고 밝혔다. <br/><br/>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2.txt

제목: ‘나노 알약’ 삼키면 암세포 발견?  
날짜: 2014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910015499930  
본문: 적혈구 크기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나노 입자들이 혈액 흐름을 타고 돌아다니며 ‘질병 순찰’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br/><br/> 구글의 첨단기술연구소인 구글 엑스(X)의 생명과학팀이 자성 산화철로 이뤄진 나노 입자와 웨어러블(착용형) 전자기기로 구성된 질병 조기경보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28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다. 알약으로 삼킨 나노 입자가 몸 속을 돌아다니며 암, 심장발작, 뇌졸중 등 여러 질환의 징후를 탐지해 손목에 장착한 센서로 신호를 보내준다는 것이다. 초기 암 세포는 건강한 세포와는 다른 생화학적 신호를 방출한다는 점에 착안해, 병든 세포를 일찌감치 포착하는 원리다.<br/><br/> 나노 입자는 암이 발병한 세포와 디엔에이(DNA) 조각에만 달라붙어 상태를 파악하고, 혈액 성분의 생화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혈관 내벽의 지방 덩어리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몸에 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이상 징후를 알아냄으로써, 조기진단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췌장암 등 난치성 질환 검진에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된다.<br/><br/> 예컨대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신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칼륨이 통과하면 색깔이 바뀌는 다공성 나노 입자를 만들어 미리 대응할 수 있다. 구글은 또 현재 개발 중인 나노 입자가 종양세포 표면의 단백질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항체 구실도 하도록 구상하고 있다.<br/><br/> 연구팀을 이끄는 앤드루 콘래드 박사(분자생물학)는 “<span class='quot0'>우리 목표는 의료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꾸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나노 입자는 분자와 세포 수준에서 인체를 탐사할 수 있게 해준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병원에서 받는 모든 검사를 이 시스템 하나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꿈</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 영국 런던 암연구소의 폴 워크먼 소장은 <비비시>(BBC) 방송에 “원칙적으로 말해, 이런 기술은 대단하다. 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찍 진단할 수 있다면 생활방식을 바꾸거나 적절한 치료법으로 미리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이 실용화하기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br/><br/>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3.txt

제목: 부산서 유통되는 홍게·낙지서 카드뮴 검출  
날짜: 2014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910015500302  
본문: 부산에서 유통되는 홍게와 낙지 등 일부 수산물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하지만 홍게 등 일부 갑각류는 함유 중금속의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br/><br/>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환경과 자치연구소’와 안동대 환경위해연구실은 지난 4월6~10일, 8월21~25일 부산의 대형할인점 3곳, 재래시장 3곳, 수산물 전문점 1곳에서 파는 대게·홍게·꽃게·낙지 등 수산물 4종 32점을 조사한 결과 카드뮴이 홍게 2마리의 내장에서 ㎏당 6.0~9.97㎎, 낙지 1마리에서 ㎏당 6.925㎎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br/><br/> 홍게 내장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꽃게류 내장 기준치(㎏당 5㎎)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홍게, 대게, 킹크랩 등 일부 갑각류는 내장에 함유된 카드뮴의 기준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낙지 내장에서 검출된 카드늄 농도는 연체류 기준치인 ㎏당 3.0㎎보다 2.3배 높은 것이다.<br/><br/> 카드뮴은 몸에 흡수되면 신장과 뼈에 손상을 주고 암을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이다.<br/><br/> 서토덕 ‘환경과 자치연구소’ 기획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대게·홍게·킹크랩 내장에 밥을 비벼 먹는다. 하지만 갑각류 내장의 중금속 기준치는 꽃게에만 있고, 대게·홍게·킹크랩 등엔 없다. 중금속은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곧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r/><br/>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4.txt

제목: 10월 29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810015491051  
본문: 오대산의 풍성한 가을<br/><br/>티브이 한국기행(교육방송 밤 9시30분) ‘가을 트레킹 베스트’의 3부로, 가을빛 오대산을 찾아간다.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홍천군에 걸쳐있는 오대산은 동서남북 중앙으로 다섯 축대가 있어 오대산이라 불린다. 오대산 소금강은 노인봉 정상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이 만든 구룡폭포와 마의태자가 밥을 먹었다는 식당암이 절경을 이룬다. 해마다 가을이면 이곳 연곡마을에선 등산객과 마을 주민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청학제를 지낸다. 산자락 깊숙이 숨어 있는 부연동마을은 3년 걸러 한번씩 찾아오는 잣 풍년과 가을비로 촉촉해진 숲에서 솟아나는 표고버섯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는다. <br/><br/><br/><br/>유재하 27주기 특집<br/><br/>황금어장-라디오스타(문화방송 밤 11시15분) ‘유재하이기 때문에’ 특집 편. 1987년 11월1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싱어송라이터 유재하. 그와 생전에 친분이 두터웠던 피아니스트 김광민, ‘빛과 소금’의 멤버인 장기호와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의 1회 금상 수상자 조규찬, 19회 대상 수상자 박원(원모어찬스)이 27주기를 맞아 함께 출연한다. 이들은 유재하와 얽힌 다양한 일화들을 풀어놓는다. 유재하와 함께 ‘김현식과 봄여름가을겨울’의 멤버로 절친한 사이였던 장기호는 유재하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고, 유재하의 여러 명곡을 출연자들이 편곡해 열창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5.txt

제목: 신해철 3년 전 유언장…“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날짜: 2014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710015483629  
본문: 가수 신해철(46)씨가 27일 끝내 숨을 거두자 그가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긴 유언장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br/><br/>신씨는 2011년 7월 MBC에브리원의 ‘부부가 엉켜사는 이야기 : 부엉이 시즌 2’에서 유언장 형태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신씨는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다 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 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못한다”며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br/><br/>신씨는 동영상에서 “결혼 전 자살 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아내에 대한 사랑을 밝혔다 <br/><br/>부인 윤원희씨는 당시 “<span class='quot0'>예전에 암 선고를 받고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줘 감사하다</span>”고 말했다. 신씨는 2002년 당시 암 투병중이던 부인과 결혼해 9살 딸과 7살 아들을 두고 있다.<br/><br/>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br/><br/> <br/><br/>▶ <br/> ▶ “지성 갖춘 강심장이었다”…신해철 애도 이어져 <br/>▶ 서태지 “신해철은 내게 산과 같은 존재” 추도문 <br/>▶ 신해철 “내 장례식에서 퍼질 곡”…‘민물장어의 꿈’ 화제 <br/>▶ “제발 아프지 말아요”…‘마왕’ 신해철 끝내 지다 <br/>▶ 마주한 풍경이 같아 우리 안에 있는 교주, 라젠카 신해철 <br/>▶ 서태지는 흉내 못낼 존재를 성찰한 마왕, 라젠카 신해철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6.txt

제목: “제발 아프지 말아요”…‘마왕’ 신해철 끝내 지다  
날짜: 2014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710015484447  
본문: “<span class='quot0'>하나만 약속해줘/ 어기지 말아줘/ 다신 <span class='quot0'>제발 아프지 말아요</span>.</span>”<br/><br/>가수 신해철씨가 지난 6월 발표한 정규 6집 <리부트 마이셀프> 타이틀곡 ‘단 하나의 약속’ 노랫말이다. 앨범 발표 당시 그는 이 노래를 두고 “<span class='quot0'>결혼 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만든 사랑 노래를 15년 동안 다듬고 매만져 이제야 내놓았다</span>”고 설명했다. 2002년 결혼 당시 암 투병 중이었던 아내는 이제 완치돼, 9살 딸과 7살 아들을 잘 키우고 있다. 신씨는 “<span class='quot1'>‘어찌 되든 아프지만 마라’는 게 가족과 우리 사회에 해주고 싶은 말</span>”이라고 했다.<br/><br/>하지만 정작 아픈 건 그였다. 신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가슴, 복부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20~21일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22일 또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그날 저녁 3시간여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았다.<br/><br/>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누워 있는 신씨를 향해 많은 이들이 “<span class='quot0'>제발 아프지 말아요</span>”라는 노랫말을 읊조리며 쾌유를 기원했다. 하지만 신씨는 많은 이들의 염원을 뒤로하고 27일 저녁 끝내 숨을 거뒀다. 향년 46.<br/><br/>소속사 케이시에이(KCA)엔터테인먼트는 “신해철씨가 이날 저녁 8시19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빈소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의 담당 의료진은 “<span class='quot2'>신씨가 22일 오후 2시께 혼수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와 응급수술을 포함한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span>”고 밝혔다.<br/><br/>신씨는 1988년 문화방송 <대학가요제>에 밴드 무한궤도로 참가해 ‘그대에게’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으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무한궤도 이후 솔로 가수, 밴드 넥스트로도 활동하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인형의 기사’, ‘날아라 병아리’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 한국 록 음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대중화에도 성공한 음악인으로 꼽힌다. 신씨는 최근 6년여 만에 가수 활동을 재개해 정규 6집 <리부트 마이셀프>를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넥스트를 재결성해 콘서트를 연 데 이어 새 앨범도 발표할 예정이었다.<br/><br/>신씨의 죽음에 많은 동료 음악인들이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더 클래식의 김광진씨는 트위터에 “신해철님이 세상을 떠났군요. 우리 모두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투에이엠(2AM)의 진운씨는 “아…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이럴 수가”라고 애도했고, 가수 나윤권씨는 “좋은 음악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편히 쉬세요”라는 글을 남겼다.<br/><br/>시나위의 신대철씨는 페이스북에 “너를 떠나보내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만 해철아 복수해줄게”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25일 “병원의 과실이 명백해 보인다. 문 닫을 준비 해라. 가만있지 않겠다. 사람 죽이는 병원. 어떤 이야긴지 짐작하시라”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바 있다. 신씨의 입원이 의료사고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시중에 돌자 해당 병원이 이를 부인했다. <br/><br/>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7.txt

제목: ‘세월호 참사 전 괜찮으시던 분이…’ 아들 잃은 아버지 끝내 아들 곁으로  
날짜: 2014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710015479334  
본문: 유경근님의 글<br/><br/><br/><br/> “참담합니다. 5반 태범이 아버지 인병선님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안산 한도병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br/><br/>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암투병 끝에 아들 곁으로 떠났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원고 2학년 5반 고 인태범군의 아버지 인병선씨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인병선씨는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투병하다 26일 밤 10시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씨는 세월호 참사 뒤 암 판정을 받았지만, 아들을 만나지 못해 치료를 잠시 미뤘다가 6월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br/><br/> 유경근 대변인은 인씨의 사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인터뷰에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사 전에 암진단 받은 적도 없던 분이 참사 후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보니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밝혔다. 또 “태범이 아버지, 어찌 눈을 감으셨어요. 어찌. 우리 남은 가족들이 그 한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태범이와 함께 편히 쉬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남겼다.<br/><br/>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인씨의 빈소를 찾고 있다. 2학년 5반 고 이창현 학생의 아버지 이남석씨는 27일 빈소를 찾은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span class='quot0'>태범이를 보내고 태범이 아버지가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져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span>”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세월호 참사 이후에 아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후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나 거리로 나가면서 부모들이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만 안 터졌어도 치료를 받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씨는 같은 반 유족으로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도울 예정이다. 장례는 안산 한도병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발인은 28일이다.<br/><br/> 인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애도도 이어졌다. <br/><br/>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한 꼭 풀어주겠습니다. 출장길 싱가폴에 같이 도착한 한국 여학생의 배낭에 붙여진 노란 리본에 울컥했더랍니다.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잊지 않았어요.” (Daehong\*\*\*),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식 잃은 아픔에 병환이 더 깊어지셨을텐데, 맘이 너무 아픕니다. 무엇보다 태범이 어머님, 한꺼번에 많을 슬픔이 밀려와 뭐라 위로 해드려야 할지” (현진\*), “안타깝습니다. 아들 가슴에 묻고 본인까지 병마에 소천하셨군요. 한을 품고 하늘에서도 특별법 생각하시겠지요. 현생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슬프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규\*) 등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br/><br/> 현재 남은 실종자는 안산 단원고 2학년 남현철·박영인·조은화·허다윤·황지현 학생과 단원고 교사인 양승진·고창석씨, 일반인 승객인 이영숙(51)·권재근(52)씨와 권씨의 아들 권혁규(6)군 등 모두 10명이다. 세월호 참사 뒤, 195일이 지나고 있다. <br/><br/>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8.txt

제목: [단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보험회사 배만 불렸다  
날짜: 2014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410015463953  
본문: 김아무개(42)씨는 2010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그해 아버지의 암 치료비로 1천만원이 넘는 돈이 나간 게 계기였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내는 병원비의 90%까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씨와 부인은 각각 한달에 7만원씩 모두 14만원가량을 보험료로 낸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건강보험료도 매달 12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만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중병에 대비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span>”고 말했다.<br/><br/>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김씨처럼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858만여명(올해 3월 기준)이다. 전체 인구의 56%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보전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보험사가 지출해야 할 돈도 줄게 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지난해부터 이뤄져 암이나 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등에 지출하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고 있다. <br/><br/> 23일 김용익·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올해에만 2900여억원에 이른다. 2013~2017년 5년간 누리는 이익은 모두 2조5379억원으로 추산됐다. 각 가구가 지출하는 의료비와 실손보험 가입 통계 등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지난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등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로 실손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약 616억원의 보험금 지출을 줄였고,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을 더하면 보험사들은 2900여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렸으리라 추산된다. <br/><br/> 문제는 정부가 이를 예측하고도 ‘보험료 할인’ 등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2011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건강보험 적용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실손보험사가 누리는 반사이익을 두고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발표된 지 반년이 지난 올해 1월에 첫 회의를 열었고, 지난 6월에야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변화 폭을 고려해 추후 보험료를 할인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건강보험 확대가 실손보험료에 적시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과거에 판 보험상품 가운데 일부는 갱신주기가 길어 아직 정확한 손해율을 계산할 수 없어 보험료 할인 조처가 늦어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보험 가입자한테 모두 돌려줘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이 한해 4조5693억원이므로 보험사는 한해 평균 최대 11.1%의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가입자가 당장 내년부터 실손보험료를 더 내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짚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799.txt

제목: [단독] 방사능 오염 우려에도…원전 마을 보건 대책 ‘사각지대’  
날짜: 2014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310015455245  
본문: 최근 원자력발전소(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와 방사능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같은 종류의 암으로 투병 중인 원전 인근 주민들의 무더기 소송도 곧 제기될 전망이다. 하지만 원전 운영 과정에서 상시 발생하는 환경성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할 보건 대책은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br/><br/> 환경부는 방사능오염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과 같은 환경오염의 하나로 분류하고도, 방사능오염 관련 대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소관이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의 조처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고 한 환경정책기본법 조문이 이런 해석의 근거다. 환경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환경부는 라돈과 같은 자연 방사성 물질은 관리하고 있으나 원전에서 나오는 인위적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관리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원안위에도 방사능 환경 오염에 대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원자력안전법과 방사능방재법 등은 사고로 방사능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등 재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우리는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도 배출기준 관리나 영향평가 심사와 같은 사업자 규제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방사능오염에 따른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영향 예방·관리 등은 환경부 책임이라는 법 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span class='quot1'>환경정책기본법이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보건 문제에 대한 환경보건법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환경보건법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환경부가 방사능 관련 환경 보건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span>”고 밝혔다.<br/><br/> 장하나 의원은 “<span class='quot2'>환경부가 환경보건법에 방사능오염이 환경유해인자로 규정돼 있는데도 왜곡된 법률 해석으로 상시적 보건 대책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왔다</span>”며 “<span class='quot2'>환경부는 방사능오염 관련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 관련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0.txt

제목: [전문] ‘판교 참사’ 생존자 이메일·전화 인터뷰 구술 내용  
날짜: 201410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210015453751  
본문: 저는 이번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참사 당시 그 위에 같이 올라가 있다 간신히 난간을 잡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환풍구 올라선 사람들 탓이라고?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보면…’라는 기사(▶ 바로 가기)를 보고 메일 보냅니다. 지금도 여러 장면이 떠올라 일을 할 수가 없네요. 그 40대 중년 부부(▶ 관련 기사 : “암 수술한 아내와 바람 쐬러 나갔다가 그만…”)가 바로 제 옆에 있었으니 더 가슴이 아픕니다.<br/><br/><br/><br/> 사고 직후 사무실 와서 사고 뉴스를 보니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벌써부터 ‘올라간 사람들이 잘못이다’라는 글들이 베플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내려오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 “(관람객들이) 그 위에서 방방 뛰었다”라고 잘못된 말들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올라가면 안 될 곳에 올라간 대죄를 전제로 잘못된 사실들을 추가하여 희생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라는 제지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내려오지 않았다던지, 사람들이 소리치고 방방 뛰며 춤까지 췄다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br/><br/>저는 그날(지난 17일) 오후 5시쯤부터 환풍구 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낮 12시부터 공연장 근처에 천막과 부스가 설치돼 여러 기업이나 한의원, 야구단, 과학기술진흥원 등에서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근처 회사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행사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br/><br/> 행사는 오후 5시 시작이었지만, 5시 10분~20분께에야 처음으로 사회자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사회자가 나온 후 분위기를 띄우고 간단히 행사 소개를 하면서 “오늘 행사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 한 마디 빼고는 환풍구 쪽에 대해 이렇다 할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요,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안전요원들이 와서 내려오라는 말을 한 적은 아예 없었습니다.<br/><br/>제가 화단과 환풍구 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난간 쪽에 초등학생을 비롯해 10명 남짓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포미닛 공연이 시작되고 급속히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와중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남자분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중간에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br/><br/>제가 올라오고 얼마 안 되어 그 40대 중년 부부가 올라오신 걸 기억합니다. 남편분이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의자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부인분을 앉히셨어요. 보통 부부의 모습보다도 다정한 모습이라 신기해서 유독 기억에 선명히 남았고… 뉴스를 보니 돈독했던 부부라고 알게 되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도 요 근처 경비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경비원처럼) 잘 아는 사람들도 거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br/><br/>특히 위에서 사람들이 뛰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 같은 데서 전문가들이 나와 ‘안전기준을 지켰더라도 성인 남성 여럿이 방방 뛰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환풍구 위에서 뛴 것을 전제하고 말하곤 하는데, 당시 사고 현장은 차분히 구경하는 분위기였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근처 구경을 나온 30~40대 직장인들이었는데요. 방방 뛰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만약 성인 남성들이 방방 뛰는 분위기면 그 와중에 의자 가져오고 부인 앉히고 앉아있고 그럴 수 있었겠어요?<br/><br/>그래도 사람들이 점점 늘어서 전 환풍구 가장자리로 옮겨 가게 됐어요. 까치발 들며 보는 사람들 때문에 가리기도 하고, 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들 때문에 휘청거릴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같이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기엔 공연이 한창 진행중이라서 제 말을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아서 혼자 조금 떨어져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에 왼쪽 뒤를 보니, 희생자들이 환풍구로 빨려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조금씩 쓸려 내려갔지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br/><br/>저는 사무실이 가까워서 평소 그곳이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평소에도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어요. 사고나서 다친 분들이 근처 직장인이거나 경비원이시거나 그 장소를 잘 아는 분들이시던데, 주변에 계신 분일수록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풍구 쪽은 상가 안쪽으로 연결된 방향은 어른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았고요, 화단도 연결돼 있어서 아이들도 자주 올라가던 곳이었거든요. 판교 와보셨나요? 이 근처에는 그런 식으로 생긴 화단들이 많아요.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br/><br/>그리고 <한겨레> 기사에도 쓰여 있듯이, 거기가 전철 환풍구와 뭐가 다른지 잘 몰랐어요. 평지보다야 신경쓰이긴 했지만, 평소에 전철 환풍구는 사람들이 인도로 통행하듯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서 있는 정도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 와서 지목하면서 내려가라고 했으면 전 내려갔을 거에요. 올라간 쪽 맞은편, 그러니까 공연장이 바라보이는 방향은 좀 높아서, 어린 학생들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니 난간에 앉은 학생들은 길 쪽으로 잘못해서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겠다 걱정되어서 내려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br/><br/>하지만 길 쪽이 아니라 환풍구 안으로, 그냥 서 있는데 그 아래로 수십 미터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누가 올라갔겠어요? 전 거기가 환풍구인지, 그 안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주최쪽이 알기나 했는지부터 의문이에요. (\*사회자는 “환풍구와 화단 쪽에 올라선 사람들이 길로 떨어질까봐 내려오라고 한차례 당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r/><br/>물론 그렇다고 해서 환풍구에 올라간 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조직적이고 정치적으로 일관된 어조로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 제가 그분들(희생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약하겠지만요.<br/><br/>정리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1.txt

제목: 유방암 발생률 동아시아 1위…사망률은 OECD 최저, 왜?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110015444738  
본문: 국내의 유방암 환자 발생률이 일본보다 높아져 동아시아 1위로 올라섰다. 다만 유방암으로 숨지는 비율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유방암 검진이 활성화돼 조기 진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유방암에 대한 과다 검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br/><br/>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의 국내외 최근 현황’을 조사해보니,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2012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52.1명으로 일본의 51.5명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2008년 인구 10만명당 38.9명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건 ‘국제 암 등록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중국·몽골·북한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균 유방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7명 수준이다.<br/><br/> 유방암 발병은 급증하고 있지만 유방암 사망률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유방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6.1명으로 일본의 9.8명이나 미국의 14.9명보다 크게 낮다. 유방암학회는 사망률이 낮은 데에는 유방암 1기 이전에 발견되는 비율이 2012년 기준 56%에 이르는 등 조기 진단 덕분이라고 밝혔다. 유방암은 1기 이전에 발견되면 치료 뒤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97% 이상에 이른다. 송병주 유방암학회 이사장은 “식생활 등 생활습관이 서구화되고, 과거에 견줘 초경이 빨라지는 반면 폐경은 느려져 여성 호르몬에 더 많이 노출된 탓에 유방암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나이대에 맞는 방식의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br/> 하지만 유방암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식생활 등이 비슷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유방암이 더 많이 생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발생률이 높은 것은, 과도한 검진으로 발견을 많이 하기 때문이며 이 검진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근거 중심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의학전문지 <코크란리뷰>를 보면, 여성 2000명이 10년 동안 유방방사선촬영 검사(맘모그래피)로 유방암 검진을 받을 때 조기 진단 덕택으로 생명을 구한 경우는 1명꼴에 그쳤고, 10명은 불필요한 수술이나 항암제·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명가량은 암이 아닌데도 맘모그래피에서 양성으로 나와 조직 검사 등 여러 검사에서 암이 아님을 확인할 때까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2.txt

제목: 초진과 재진 진찰료 달라…30일내 같은 질환땐 ‘재진’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2110015444739  
본문: Q: 진찰료에서 초진과 재진 가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br/><br/>A: 환자가 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의 발행과 관계없이 진찰료를 냅니다. 해당 질병으로 처음 방문한 경우는 초진이라 하고, 같은 질환으로 같은 의사를 만나 거듭 진찰을 받으면 재진이라 합니다. 재진은 조건이 있는데, 해당 질병의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병원을 찾으면 병원을 방문한 간격과 관계없이 재진인데요.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문 뒤 90일 안에 병원을 찾아야 재진이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 그 질병이 30일 안에 다시 생기면 재진이지만, 30일 뒤에 발병하면 새롭게 그 질병이 생긴 것으로 봐 초진 환자가 됩니다. <br/><br/>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로 계산됩니다. 같은 질병에 대해 2명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에 진찰을 해도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합니다. 다만 암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의가 진료하면 진찰료를 별도로 받는 제도가 지난 9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매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같은 질병에 대해 전문 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의사가 각각 진찰하면 진찰료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진찰을 맡은 의사가 방사선 진단 및 여러 검사 등을 처방 및 지시했으나 병원 사정 때문에 당일에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방사선 진단 등 검사를 한 날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3.txt

제목: “형수 암 수술 잘 됐다고 좋아했는데…”  
날짜: 2014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910015428018  
본문: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참사로 숨진 이들의 빈소에는 주말 내내 가족과 친지, 직장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br/><br/> 경기 성남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에는 부부 합동 빈소가 차려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정아무개(47)·권아무개(46)씨 부부는 산책길에 우연히 공연을 보다가 변을 당했다. 군 입대를 앞둔 20살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 딸 둘만 남기고 한날한시에 세상을 떠났다. 이날은 남편 정씨가 일을 쉬는 날이었다. 18일 장례식장에서 만난 정씨의 아버지(74)는 “쉬는 날이면 늘 찾아와 안부를 묻던 착한 아들, 싹싹한 며느리였다”고 했다. 아버지 정씨는 처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span class='quot0'>며느리라도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 전화를 계속 걸었다</span>”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 미상의 주검’이 며느리 권씨라는 소식을 접해야 했다. 정씨의 사촌 동생 노아무개씨는 “형수가 유방암으로 고생하다 최근 수술을 받았다. 형님이 수술이 잘됐다고 좋아하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으니 바람이나 쐬자’고 해 나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안타까워했다.<br/><br/> 사고 현장 근처 영어교육 업체에서 일하던 강아무개(24)씨는 퇴근길에 공연을 보다 사고를 당했다. 안양 한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강씨의 이모(59)는 “조카가 오후 5시52분에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포미닛 공연 사진 3장을 보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답장을 해도 읽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계속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씨는 어머니와 둘이 사는 외동딸이었다. 이모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졸업한 뒤 회사에 취직했다. 공연장이 바로 회사 앞이라 가방도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나갔더라”며 오열했다. 이날 강씨와 함께 공연을 보러 나간 김아무개(27)씨도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br/><br/> 희생자들 가운데는 강씨처럼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 초년생이 많았다. 18일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에는 희생자 손아무개(30)씨의 대학 친구와 후배 6명이 찾아왔다. 손씨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한 후배는 “판교 근처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br/><br/> 희생자 정아무개(39)씨의 이모 이아무개(69)씨는 “<span class='quot1'>4남매 중 결혼 안 한 막내딸이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span>”며 안타까워했다.<br/><br/> 19일 오전에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16명 가운데 처음으로 홍아무개(29)씨의 발인이 있었다. 사고 현장 근처 정보통신업체에서 일하던 홍씨 역시 동료들과 공연을 보다가 사고를 당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회사 동료는 “사회자가 공연 전에만 환풍구에 걸터앉아 있는 초등학생을 보고 내려오라고 주의를 줬을 뿐이다. 여럿이 같이 공연을 봤는데 홍씨만 환풍구 위에 있었다”고 했다.<br/><br/> 성남/최우리 이재욱 서영지 기자 ecowoor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4.txt

제목: 임성한·문영남·김순옥표 ‘막드 월드’의 필수요소 세 가지  
날짜: 2014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910015426028  
본문: “<span class='quot0'>뭐 이런 한국드라마 같은 일이 다 있어!</span>” 2007년 방영한 일본드라마 <친애하는 아버님>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친아버지를 찾던 남자 주인공이 현재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선배가 놀라서 하는 말이다. 그만큼 출생의 비밀, 얽히고설킨 관계, 근친상간 등의 내용은 한국드라마의 공식처럼 여겨진다.<br/><br/> 이런 장치들이 개연성 없이 난무할 경우 드라마는 ‘막장’이 된다. ‘막장’은 ‘갱도의 막다른 곳’이란 뜻이다. ‘막장드라마’를 ‘막드월드’라 불리게 하며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게 한 공신들이 있다. 바로 임성한, 문영남, 김순옥 작가다. 막장의 대모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작품에는 온갖 극단적이고 황당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지만, 논란만큼 시청률도 높다. <br/><br/> ‘막드월드’는 2002년 <인어아가씨>로 최고시청률 57％를 찍은 임 작가가 본격적으로 터를 다졌다. 여기에 문 작가가 2006년 <소문난 칠공주>로 막드 필력을 발휘하며 양강체제가 됐다. 2008년 <아내의 유혹>으로 김 작가가 혜성처럼 등장하며 현 삼강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밥줘> 서영명 작가, <루비반지> 황순영 작가 등이 이들의 아성에 도전했지만, 세 작가는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는 필력을 과시하며 3인 체제를 다지고 있다. 2013년 임 작가가 <오로라 공주>로 화제를 모으자, 이에 질세라 문 작가가 그해 평균시청률 33％의 <왕가네 식구들>을 내놨고, 다시 2014년 김 작가가 평균시청률 20％의 <왔다 장보리>로 치고 나왔다. 임 작가는 6일부터 <압구정 백야>를 방영 중이다. <br/><br/>세가지 막드 색깔 <br/><br/>세 작가의 막드는 색깔이 다르다. 5분만 봐도 누구 작품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막드월드’ 안에서도 자신만의 마을을 구축하고 산다. <br/><br/> 윤석진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문 작가는 현실 세태를 풍자하려고, 김 작가는 욕망의 밑바닥을 드러내려고 막장 상황을 이용하고, 임 작가는 작가만의 독특한 세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span>”고 했다. 그래서 셋 다 해피엔딩 가족드라마를 표방하면서도 주목하는 부분은 다르다. 문 작가는 서민대가족을 중심으로 가족끼리 벌어지는 통속적인 막장을 쓴다면, 김 작가는 권선징악의 복수가 중심이다. 임 작가는 대게 가난한 여자주인공이 결혼을 통해 상류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을 그린다. <br/><br/> 전개 방식도 차이가 있다. 문 작가는 불륜, 고부갈등, 이혼 등을 키워드로 일반 가정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의 민낯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는 며느리, 바람 피는 남편 등이 공식처럼 등장한다. 등장인물이 많다보니 식구들이 순서대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건이 다발적으로 펼쳐진다. <왕가네 식구들>에서 둘째 사위가 바람을 피다가 가정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다시 첫째딸이 불륜을 저지르는 식이다. <br/><br/> 김 작가는 선과 악으로 대변되는 두 주인공의 대립각이 회를 거듭할수록 증폭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거짓말, 분노, 협박, 저주 등 악녀의 감정이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시도하는 식이다. 선악 구도가 명확하고, 이런 감정이 행동으로 보여지다 보니 주로 감정의 표출은 악녀가 도맡는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선 착한 여주인공보다 강한 악녀가 더 사랑받는다. <문화방송>의 한 피디는 “한 사건이 한 회를 넘어가지 않고 바로 해결되는 식의 몰아가는 빠른 전개가 70분을 5분처럼 느끼게 한다”고 했다. <br/><br/> 임 작가는 어머니가 친딸을 며느리로 들이려고 하는(하늘이시여) 등 기본 설정 자체가 막장인 경우가 많지만, 두 작가에 견줘 갈등의 강도는 크지 않다. 대신 환타지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설정이 자주 등장한다. <신기생뎐>에서 중견 배우가 귀신에 빙의되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식이다. <오로라 공주>에서는 암에 걸린 설설희가 “내가 잘못해 생긴 암세포 나 살자고 죽일 수 없다. 암세포도 생명”이라며 치료받기를 거부한다. <br/><br/> 욕하며 보는 이유도 삼색 <br/><br/> 막드 속 주인공들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한다. <수상한 삼형제>에서 시어머니에게 억눌려 살던 며느리가 속내를 토해내는 장면은 쾌감을 준다.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은 현실 속 우리가 지르고 싶은 소리를 대신 질러준다. <에스비에스>의 한 피디는 “현실에서 못하는 막말 등을 속시원히 내뱉으며 가슴 속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했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2'>문 작가의 작품은 아줌마들이 모여 남편, 시댁, 옆집 흉보며 하는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나오니 맞장구치며 뒷담화하는 수다의 쾌감을 주고, 김 작가의 작품은 착한 사람의 편에 서서 악한 사람을 욕하는 기본적인 욕망을 따른다</span>”고 했다. 임 작가의 작품은 황당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보게 된다. 윤석진 교수는 “<span class='quot3'>막장드라마는 드라마 자체를 소구한다기보다 욕을 하려고 보는 ‘도구’로서의 기능도 있다</span>”고 했다. <br/><br/> 폐해에 대한 지적도 조금씩 결이 다르다. 문 작가의 작품에서 여성들은 참고 살며 희생해야 하는 존재다. 작품마다 바람핀 남편이 오히려 당당하고, 아내가 울며 매달린다. 김 작가는 인물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가둔다. 연민정은 전 남편에 대한 사랑마저 불구덩이에 손을 넣어 결혼반지를 꺼내는 섬뜩함으로 보여준다. 임 작가는 캐릭터 위에 군림한다. 주인공의 입을 통해 시청자들을 가르친다. “딸기는 칫솔로 씻어야 한다”는 식의 생활·건강정보 등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또, 수시로 인물도 하차시킨다. <오로라 공주>에서는 유체이탈로 돌연사하는 등 한 작품에서만 12명이 하차했다. <한국방송>의 한 피디는 “이들 세 작가는 인간은 악하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같아 불편하다”고 했다. <br/><br/> 윤석진 교수는 “막장의 강도가 강해지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둔화될 수 있다. 현실의 그악스러운 사건의 폐해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그렇구나’ 하는 식의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송사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br/><br/>[잉여싸롱#13] '임성한 월드', 보고또봐도 '막장이시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5.txt

제목: 법원 “주민 갑상선암 발병은 원전 책임” 첫 인정  
날짜: 20141018  
기자: /김영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8100000064  
본문: 법원이 원자력발전소(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원전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원전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br/>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17일 이진섭(48)·이균도(22)씨 부자와 아내 박아무개(48)씨가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pan class='quot0'>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span>”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 가족은 2012년 7월 “<span class='quot1'>고리원전 때문에 가족 3명이 암과 장애에 걸렸다</span>”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b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암이 발병한) 박씨는 원전 6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부터 7.6㎞가량 떨어진 곳에서 20년가량 살면서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br/>　재판부는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한 연간 유효선량한도(0.25mSv~1mSv·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유가 있지만 방사선 연간 유효선량은 국민 건강의 최소한도 기준이다. 국민의 건강은 재산상 이익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희생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br/>　하지만 재판부는 한수원이 방사선량을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 2억원 가운데 1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장암과 발달장애 1급의 책임이 원전 때문이라며 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씨 부자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기각했다.<br/>　이번 판결로 부산뿐만 아니라 원전 근처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법원이 원전의 방사능과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원전과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 관련 소송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　반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한수원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원전 근처 주민에 대한 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일본에도 없는 획기적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본 언론이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r/>　이진섭씨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방사능에 대해 역학조사를 해 원전 근처가 안전한지 제대로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우리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기장군민들이 비슷한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　판결에 대해 고리원자력본부는 “갑상선암은 검진기술 발달로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암이다. 원전 때문에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최근 서울대의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방사능과 암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6.txt

제목: 법원 “주민 갑상선암 발병은 원전 책임” 첫 인정  
날짜: 2014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710015422655  
본문: 법원이 원자력발전소(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원전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원전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br/><br/>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17일 이진섭(48)·이균도(22)씨 부자와 아내 박아무개(48)씨가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span class='quot0'>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span>”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 가족은 2012년 7월 “<span class='quot1'>고리원전 때문에 가족 3명이 암과 장애에 걸렸다</span>”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br/><b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암이 발병한) 박씨는 원전 6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부터 7.6㎞가량 떨어진 곳에서 20년가량 살면서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br/><br/> 재판부는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한 연간 유효선량한도(0.25mSv~1mSv·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유가 있지만 방사선 연간 유효선량은 국민 건강의 최소한도 기준이다. 국민의 건강은 재산상 이익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희생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br/><br/> 하지만 재판부는 한수원이 방사선량을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 2억원 가운데 1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장암과 발달장애 1급의 책임이 원전 때문이라며 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씨 부자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기각했다.<br/><br/> 이번 판결로 부산뿐만 아니라 원전 근처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법원이 원전의 방사능과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원전과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 관련 소송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br/> 반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한수원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원전 근처 주민에 대한 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일본에도 없는 획기적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본 언론이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r/><br/> 이진섭씨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방사능에 대해 역학조사를 해 원전 근처가 안전한지 제대로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우리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기장군민들이 비슷한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r/><br/> 판결에 대해 고리원자력본부는 “갑상선암은 검진기술 발달로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암이다. 원전 때문에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최근 서울대의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방사능과 암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br/>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7.txt

제목: 2. 날마다 사표 쓰는 여자 /‘분리 불안증’ 아들 보며…마음으로 또 사표를 쓴다  
날짜: 20141017  
기자: torani@hani.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7100000072  
본문: 불규칙한 퇴근과 심야근로로 일과 가정을 함께 가져가지 못하고 사직을 고민하는 서비스직(40), 공무원(39), 사무직(35) ‘워킹맘’ 3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사례를 엮어 날마다 사표를 고민하는 워킹맘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다.<br/><br/><br/>ㄱ성형외과 상담실장인 김수영(40)씨는 원래 자신감이 충만한 여성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부모와 동생에게 경제적 도움도 아끼지 않았다.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하고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해 사교모임에도 빠지지 않았다. 화려한 ‘골드미스’의 삶을 살던 그도 결혼해 아이를 둔 친구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결심’을 했다.<br/>　36살에 만난 남자와 100일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1년 뒤엔 남편을 닮은 첫아이를 낳았다. 친정엄마의 ‘육아 지원’ 아래 병원 상담실장으로 재취업에도 성공했다. 친정엄마의 ‘24시간 보육’ 덕분에 다른 워킹맘들처럼 마음 졸이지 않고도 오전 10시 출근, 밤 9시 퇴근을 할 수 있었다.<br/>　그런데 친정아빠가 암에 걸리면서 모든 게 엉클어졌다. 친정엄마는 ‘남편’ 병간호에 나서며 더 이상 육아를 대신 해줄 수 없게 됐다. 친정엄마가 사라진 집은 곧바로 ‘전쟁터’로 변했다. 제때 퇴근할 수 없는 남편과의 싸움도 잦아졌다. 이러다 가정 전체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에 김씨는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br/>　#전쟁<br/>　수영: “좀 일어나봐! 아니, 왜 애 옆에서 씻지도 않고 자?”<br/>　남편: “이제 왔어? 율이 재우다가 같이 잠들었네….”<br/>　수영: “안 씻고 자면 애가 감기 걸린다는 거 몰라? 좀 씻고 자!”<br/>　남편: “왜 늦게 들어와서 사람 보자마자 짜증이야.”<br/>　수영: “이번에 율이 감기 든 것도 자기가 안 씻고 재워서 그런 거 아냐!”<br/>　남편: “내가 지금까지 씻을 시간이 어딨어! 밥도 못 먹었어!”<br/>　밤 9시30분. 퇴근한 나는 양말을 신은 채 세살 난 아들 율이와 함께 침대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는 남편에게 싸움부터 건다. 전쟁의 시작이다. 율이는 아침에 열이 39도가 넘는데도 갈 데가 어린이집밖에 없었다. 율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동안 나는 또다시 죄인이 된 심정이었다. 일하는 내내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찾아낸 화풀이 상대는 남편의 더러운 양말, 아니 남편이었다.<br/>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눈 밑에 ‘다크서클’을 드리운 남편은 배가 고파 보였다. 식탁에는 아이가 먹은 뒤 남긴 작은 그릇과 수저만 어지러울 뿐 남편이 밥을 먹은 흔적은 없다. 남편은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 저녁 7시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 전에 율이를 데려오고, 집에 와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재우는 시간만 있을 뿐이다.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챙겨주는 따뜻한 저녁밥을 떠올리는 순간, 나는 또 지고 말았다.<br/>　밤 9시30분은 우리 부부에게 퇴근시간이 아니라 ‘교대시간’이다. 내가 퇴근하면 남편은 야근을 하러 ‘출근’한다. 야근하는 팀장의 눈도장을 받으러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건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일단 ‘칼퇴근’하는 남편의 처세술이자 생존법이었다.<br/>　남편은 새벽 1~2시에나 진짜 퇴근을 한다. 나는 아직도 남편을 보면 마음이 설레는데,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나와 아이가 자고 있는 이불 속에 조용히 들어와 죽은 것처럼 잠을 잔다. 남편의 지친 숨소리를 들으면 참았던 눈물이 흐른다. 일하는 아내, 일하는 엄마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br/>　#갈등 <br/>　수영: “엄마, 오늘 하루만 와주면 안돼? 율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br/>　엄마: “아빠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니.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시어머니는?”<br/>　수영: “시어머니도 오십견 때문에 시조카만 겨우 봐주시는데 어떻게 또 부탁해?”<br/>　엄마: “그러니까 시댁 근처로 이사가라고 했잖아!”<br/>　친정엄마가 율이의 보육에서 손을 뗀 지 1년이 넘었지만 ‘비상상황’에서 1순위 도우미는 여전히 친정엄마다. 그동안 친정엄마를 능가하는 보육 대안은 찾지 못했다. 열이 나는 아이를 또래 아이들 틈에 보내고 싶지 않은 워킹맘을 위한 보육 서비스는 찾을 수 없었다. 어린이집은 저녁 7시에 문을 닫지만, 일하는 엄마들은 전업주부 엄마들이 아이를 찾아가는 오후 5시에 맞추느라 ‘하원 도우미’를 따로 쓰는 출혈을 감내하기도 한다. 5시 후에도 남겨놓으면 어린이집한테나 애한테나 미안하기 때문이다.<br/>　결혼 전 부모 생활비와 동생 대학 등록금까지 대가며 당당히 독립했던 나는 출산과 동시에 친정엄마에게 종속됐다. 엄마가 율이를 봐줬던 2년은 평화로웠다. 밤 9시에 퇴근해도 집은 깨끗했고, 율이는 즐거워 보였다. 육아휴직이나 어린이집 등 정부의 수십 가지 보육 정책도 친정엄마보다 낫지 않았다. 남편의 잦은 야근과 지방 출장이 아쉽긴 해도 삶을 위협한 적은 없다.<br/>　율이가 두돌 되던 때 친정아빠가 위암으로 쓰러졌다.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데, 그때까지 나는 한번도 칠순을 앞둔 부모가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친정엄마에 기댄 육아의 평화로움은 엄마가 아빠 간병을 위해 집을 떠나면서 산산이 깨졌다. 율이와 나, 남편은 어린이집만이 유일한 대안인 척박한 보육 환경 속에 내던져졌다.<br/>　남편이 지방 출장이라도 가야 할 때면 시어머니가 ‘두 탕’을 뛰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시조카를 받아와 택시에 태우고 30분을 달려 율이를 하원 시켜야 한다. 그런 날이면 시어머니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이런 사정도 모르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하라는 친정엄마에게도 원망이 쌓인다. 육아는 돈보다 사람이 필요한 일인데, 정부는 어린이집 비용만 대신 내줄 뿐이다.<br/>　#후회<br/>　원장: “<span class='quot0'>실장님, ㄴ 환자는 그래서 어떤 시술을 하고 싶대요?</span>”<br/>　수영: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집에 빨리 가봐야 해서요.”<br/>　원장: “나 뭐 하나 부탁할 거 있었는데…. 알았어요. 가보세요.”<br/>　수영: “죄송해요, 원장님. 내일 제가 다 할게요.”<br/>　제때 하는 퇴근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퇴근시간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들키는 날엔, 원장이 ‘앞으로 결혼한 여자는 절대 실장으로 쓰지 않겠다’는 말이라도 뱉을까봐 식은땀이 난다. 사람을 만나서 그의 어려움과 필요를 읽어주고 맞춤 처방을 안내하는 상담실장의 일은 사람 좋아하는 내게 딱 맞는 일이다. 지금 나의 자존감을 지탱해 주는 건 일에서 오는 성취감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퇴근 무렵에는 실종되기 일쑤다.<br/>　이런 서비스직에 적성이 있는 줄은 몰랐다. 결혼하기 전에는 작은 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했고 화이트칼라 이외의 직업은 생각해보질 못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할 때 보니 여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 사무직은 많지 않았다. 반면 보육 제도는 화이트칼라 직장인만을 위한 것이 너무 많았다.<br/>　돌봐주던 외할머니가 떠난 뒤 율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였다. 율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었다.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안내하면서 직무 특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대신 급여를 적게 받겠다’는 말이 1년째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도 그 단서 탓이다.<br/>　#결심<br/>　수영: “율아, 엄마 왔어. 율아….”<br/>　율: “….”<br/>　수영: “율아, 엄마 늦었지? 미안해, 율아. 율아, 이리 와. 응?”<br/>　율: “….”<br/>　율이는 자기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아동발달검사에서는 ‘사회성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아동발달센터를 찾았더니 상담 선생님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린아이를 두고 밤 9시까지 일한 죄로 ‘기소’된 나는 법정에서 ‘아들의 발달 지연’이라는 벌을 받았다.<br/>　외할머니와 24시간을 같이 보내던 율이는 외할머니와 헤어진 뒤로 누구와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나와 남편은 율이와 먹고 씻고 자는 최소한의 시간만을 보낼 뿐이다.<br/>　남편이 회식을 빠지지 못한 날, 율이는 밤 9시30분까지 낯선 어린이집에서 낯선 선생님과 함께 나를 기다린다. 율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야간보육을 하지 않는다. 저녁 7시에 하원을 못 하면 야간보육을 하는 근처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진다. 저녁도 먹지 않고 내내 울기만 했다는 율이는 퇴근한 나를 보고도 다가오지 않은 채 서서 울기만 했다.<br/>　율이에게 나는 항상 떠나는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표를 쓴다.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나는 마음으로 사표를 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8.txt

제목: ‘분리 불안증’ 아들 보며…마음으로 또 사표를 쓴다  
날짜: 2014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610015416266  
본문: 불규칙한 퇴근과 심야 근로로 일과 가정을 함께 가져가지 못하고 사직을 고민하는 서비스직(40), 공무원(39), 사무직(35) ‘워킹맘’ 3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사례를 엮어 날마다 사표를 고민하는 워킹맘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다.<br/><br/><br/><br/> ㄱ성형외과 상담실장인 김수영(40)씨는 원래 자신감이 충만한 여성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부모와 동생에게 경제적 도움도 아끼지 않았다.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하고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해 사교모임에도 빠지지 않았다. 화려한 ‘골드미스’의 삶을 살던 그도 결혼해 아이를 둔 친구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결심’을 했다.<br/><br/> 36살에 만난 남자와 100일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1년 뒤엔 남편을 닮은 첫아이를 낳았다. 친정엄마의 ‘육아 지원’ 아래 병원 상담실장으로 재취업에도 성공했다. 친정엄마의 ‘24시간 보육’ 덕분에 다른 워킹맘들처럼 마음 졸이지 않고도 오전 10시 출근, 밤 9시 퇴근을 할 수 있었다.<br/><br/> 그런데 친정아빠가 암에 걸리면서 모든 게 엉클어졌다. 친정엄마는 ‘남편’ 병간호에 나서며 더 이상 육아를 대신해 줄 수 없게 됐다. 친정엄마가 사라진 집은 곧바로 ‘전쟁터’로 변했다. 제때 퇴근할 수 없는 남편과의 싸움도 잦아졌다. 이러다 가정 전체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에 김씨는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br/><br/>3살아들 체온 39도 넘는데 <br/>맡길 곳은 어린이집뿐 <br/>친정엄마가 봐주던 2년은 평화 <br/>아빠 돌보러 떠난 뒤엔 전쟁터<br/><br/> #전쟁<br/><br/> 수영: “좀 일어나봐! 아니, 왜 애 옆에서 씻지도 않고 자?”<br/><br/> 남편: “이제 왔어? 율이 재우다가 같이 잠들었네….”<br/><br/> 수영: “안 씻고 자면 애가 감기 걸린다는 거 몰라? 좀 씻고 자!”<br/><br/> 남편: “왜 늦게 들어와서 사람 보자마자 짜증이야.”<br/><br/> 수영: “이번에 율이 감기도 자기가 안 씻고 재워서 그런 거 아냐!”<br/><br/> 남편: “내가 지금까지 씻을 시간이 어딨어! 밥도 못 먹었어!”<br/><br/> 밤 9시30분. 퇴근한 나는 양말을 신은 채 세살 난 아들 율이와 함께 침대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는 남편에게 싸움부터 건다. 전쟁의 시작이다. 율이는 아침에 열이 39도가 넘는데도 갈 데가 어린이집밖에 없었다. 율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동안 나는 또다시 죄인이 된 심정이었다. 일하는 내내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찾아낸 화풀이 상대는 남편의 더러운 양말, 아니 남편이었다.<br/><br/>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눈 밑에 ‘다크서클’을 드리운 남편은 배가 고파 보였다. 식탁에는 아이가 먹은 뒤 남긴 작은 그릇과 수저만 어지러울 뿐 남편이 밥을 먹은 흔적은 없다. 남편은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 저녁 7시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 전에 율이를 데려오고, 집에 와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재우는 시간만 있을 뿐이다.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챙겨주는 따뜻한 저녁밥을 떠올리는 순간, 나는 또 지고 말았다.<br/><br/> 밤 9시30분은 우리 부부에게 퇴근시간이 아니라 ‘교대시간’이다. 내가 퇴근하면 남편은 야근을 하러 ‘출근’한다. 야근하는 팀장의 눈도장을 받으러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건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일단 ‘칼퇴근’하는 남편의 처세술이자 생존법이었다.<br/><br/> 남편은 새벽 1~2시에나 진짜 퇴근을 한다. 나는 아직도 남편을 보면 마음이 설레는데,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나와 아이가 자고 있는 이불 속에 조용히 들어와 죽은 것처럼 잠을 잔다. 남편의 지친 숨소리를 들으면 참았던 눈물이 흐른다. 일하는 아내, 일하는 엄마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br/><br/> #갈등 <br/><br/> 수영: “엄마, 오늘 하루만 와주면 안돼? 율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br/><br/> 엄마: “아빠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니.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시어머니는?”<br/><br/> 수영: “시어머니도 오십견 때문에 시조카만 겨우 봐주시는데 어떻게 또 부탁해?”<br/><br/> 엄마: “그러니까 시댁 근처로 이사가라고 했잖아!”<br/><br/> 친정엄마가 율이의 보육에서 손을 뗀 지 1년이 넘었지만 ‘비상상황’에서 1순위 도우미는 여전히 친정엄마다. 그동안 친정엄마를 능가하는 보육 대안은 찾지 못했다. 열이 나는 아이를 또래 아이들 틈에 보내고 싶지 않은 워킹맘을 위한 보육 서비스는 찾을 수 없었다. 어린이집은 저녁 7시에 문을 닫지만, 일하는 엄마들은 전업주부 엄마들이 아이를 찾아가는 오후 5시에 맞추느라 ‘하원 도우미’를 따로 쓰는 출혈을 감내하기도 한다. 5시 후에도 남겨놓으면 어린이집한테나 애한테나 미안하기 때문이다.<br/><br/> 결혼 전 부모 생활비와 동생 대학 등록금까지 대가며 당당히 독립했던 나는 출산과 동시에 친정엄마에게 종속됐다. 엄마가 율이를 봐줬던 2년은 평화로웠다. 밤 9시에 퇴근해도 집은 깨끗했고, 율이는 즐거워 보였다. 육아휴직이나 어린이집 등 정부의 수십 가지 보육 정책도 친정엄마보다 낫지 않았다. 남편의 잦은 야근과 지방 출장이 아쉽긴 해도 삶을 위협한 적은 없다.<br/><br/> 율이가 두돌 되던 때 친정아빠가 위암으로 쓰러졌다.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데, 그때까지 나는 한번도 칠순을 앞둔 부모가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친정엄마에 기댄 육아의 평화로움은 엄마가 아빠 간병을 위해 집을 떠나면서 산산이 깨졌다. 율이와 나, 남편은 어린이집만이 유일한 대안인 척박한 보육 환경 속에 내던져졌다.<br/><br/> 남편이 지방 출장이라도 가야할 때면 시어머니가 ‘두 탕’을 뛰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시조카를 받아와 택시에 태우고 30분을 달려 율이까지 하원을 시켜야 한다. 그런 날이면 시어머니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이런 사정도 모르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하라는 친정엄마에게도 원망이 쌓인다. 육아는 돈보다 사람이 필요한 일인데, 정부는 어린이집 비용만 대신 내줄 뿐이다.<br/><br/>근로시간 단축제 쓰고싶지만 <br/>사업자엔 근로자 요청 거절권 <br/>발달지연 판정 아들 앞에서 <br/>나는 날마다 죄인이 된다<br/><br/> #후회<br/><br/> 원장: “<span class='quot0'>실장님, ㄴ환자는 그래서 어떤 시술을 하고 싶대요?</span>”<br/><br/> 수영: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집에 빨리 가봐야 해서요.”<br/><br/> 원장: “나 뭐 하나 부탁할 거 있었는데…. 알았어요. 가보세요.”<br/><br/> 수영: “죄송해요, 원장님. 내일 제가 다 할게요.”<br/><br/> 제때 하는 퇴근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퇴근시간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들키는 날엔, 원장이 ‘앞으로 결혼한 여자는 절대 실장으로 쓰지 않겠다’는 말이라도 뱉을까봐 식은땀이 난다. 사람을 만나서 그의 어려움과 필요을 읽어주고 맞춤 처방을 안내하는 상담실장의 일은 사람 좋아하는 내게 딱 맞는 일이다. 지금 나의 자존감을 지탱해 주는 건 일에서 오는 성취감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퇴근 무렵에는 실종되기 일쑤다.<br/><br/> 이런 서비스직에 적성이 있는 줄은 몰랐다. 결혼하기 전에는 작은 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했고 화이트컬러 이외의 직업은 생각해보질 못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할 때 보니 여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 사무직은 많지 않았다. 반면 보육 제도는 화이트칼라 직장인만을 위한 것이 너무 많았다.<br/><br/> 돌봐주던 외할머니가 떠난 뒤 율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였다. 율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었다.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안내하면서 직무 특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대신 급여를 적게 받겠다’는 말이 1년째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도 그 단서 탓이다.<br/><br/> #결심<br/><br/> 수영: “율아, 엄마 왔어. 율아….”<br/><br/> 율: “…….”<br/><br/> 수영: “율아, 엄마 늦었지? 미안해, 율아. 율아, 이리 와. 응?”<br/><br/> 율: “…….”<br/><br/> 율이는 자기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아동발달검사에서는 ‘사회성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아동발달센터를 찾았더니 상담 선생님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린 아이를 두고 밤 9시까지 일한 죄로 ‘기소’된 나는 법정에서 ‘아들의 발달 지연’이라는 벌을 받았다.<br/><br/> 외할머니와 24시간을 같이 보내던 율이는 외할머니와 헤어진 뒤로 누구와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나와 남편은 율이와 먹고 씻고 자는 최소한의 시간만을 보낼 뿐이다.<br/><br/> 남편이 회식을 빠지지 못한 날, 율이는 밤 9시30분까지 낯선 어린이집에서 낯선 선생님과 함께 나를 기다린다. 율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야간보육을 하지 않는다. 저녁 7시에 하원을 못 하면 야간보육을 하는 근처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진다. 저녁도 먹지 않고 내내 울기만 했다는 율이는 퇴근한 나를 보고도 다가오지 않은 채 서서 울기만 했다.<br/><br/> 율이에게 나는 항상 떠나는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표를 쓴다.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나는 마음으로 사표를 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09.txt

제목: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날짜: 2014101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5100000023  
본문: 암 등 4대 중증질환자한테 주어지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로 소득 상위층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은 전체 진료비의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만 환자가 부담한다. 통상 20~30%를 부담하는 다른 질환에 견줘 상대적으로 환자 부담이 적다. <b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7월~올해 3월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159만295명을 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이들이 66만535명(전체의 41.5%)으로 소득 하위 30%의 31만6294명(19.9%)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br/> 질환별로 살펴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암은 소득 상위 30%가 47만6938명(53%), 소득 하위 30%는 17만912명(19%)이었다. <br/> 안 의원은 “<span class='quot0'>가난한 이들이 중병에 더 많이 시달리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span>”고 말했다.<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0.txt

제목: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날짜: 20141015  
기자: 종교전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5100000083  
본문: ‘돈과 권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인명인가 보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 이건희(72) 회장이 지난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다. 이건희 회장이나 70살을 못 넘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돈이나 의술이 없어서 그리되었겠느냐는 것이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3년 전 56살로 생을 마감했다. 돈과 권력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세상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결국엔 자신의 생명은 어쩌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세계대왕 알렉산더도 33살로 생을 마감했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천하의 불로초를 구해 먹던 진시황도 50살을 채 넘기지 못했다.<br/>　그러나 한 시대의 걸물인 이들은 이름을 남겼다. 그리스 에서 ‘반신반인’으로 태어난 절륜의 전사 아킬레우스(아킬레스)는 ‘신으로서 무사태평하게 영원히 살 것이냐’, ‘젊은 날 죽어서라도 영원히 이름을 남기느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한다. 그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은 모래에서 황금을 찾는 것만큼이나 드물다.<br/>　최근 개봉해 잔잔한 감동을 불러온 이란 영화는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10대 남녀의 사랑과 죽음 이야기다. 폐를 점령한 암세포 때문에 항상 산소통과 호흡기를 몸에 달고 다니는 16살 소녀 헤이즐은 골육종을 앓아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의족을 달고 다니는 어거스터스를 암환자 모임에서 만나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암이 갑자기 온몸에 퍼지는 바람에 헤이즐을 제치고 먼저 죽음을 맞게 된 어거스터스가 말한다. “난 내가 영웅이 될 줄 알았어. 내 이야기가 책이나 신문에 실리게 될 줄 알았어.”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이토록 허망하게 떠날 줄은 몰랐다며 비탄하는 어거스터스에게 헤이즐이 말한다. “<span class='quot0'>넌 나에게 한정된 나날 속에서 영원함을 줬다</span>”고.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새겨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해준다.<br/>　내게도 역사책엔 씌어지지 않은 나만의 위인전이 있다. 내 가슴에만 살아 있는 나만의 영웅들이다. 내 친구 채희동 목사도 그중 한명이다. 충남 아산에 코딱지만한 교회를 세우고, 들판에서 시골 아이들과 공을 차고, 시를 읊다가, 이란 잡지를 펴내던 채 목사는 4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떴다. 그는 신문 부고란에 날 만한 직함이나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날이면 많게는 수백명, 적게는 수십명이 그와의 따뜻했던 만남을 되새길 만큼 사랑의 불꽃을 심어준 이였다. 그가 떠난 지 10년이 되는 오는 11월10일 마지막 추모예배가 열린다. 이제는 그런 행사조차도 없어질 것이지만, 그의 잔잔한 평화와 기쁨은 여전히 내 가슴에 살아 있다.<br/>　역사책엔 살아 있지만 단 한 명의 가슴에도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한 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채 목사 같은 사람은 아닐까.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사자의 물음 같은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듣고도 회한보다는 자족의 미소를 지을 그런 사람을. “<span class='quot0'>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span>” <br/> 종교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ch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1.txt

제목: “회사가 부담스런 분들로 위원 선정 /객관적 검증 막는 외부 영향 차단”  
날짜: 20141015  
기자: 오승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5100000113  
본문: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반도체 직업병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연(사진) 아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운영안을 14일 내놓았다. 가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공론화(‘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7월28일치 1면)한 뒤, 사쪽이 두달여에 걸쳐 마련한 해법이다. <br/>　일체의 조사 및 보상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를 이끌 장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시민환경연구소 등에서 활동해온 ‘환경보건 전문가 1세대’다.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 등 반도체 직업병을 줄곧 연구해온 가톨릭대 김형렬 교수(보건대학원), 이혜은 교수(직업환경의학),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환경보건학), 여성 노동권을 살필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등 모두 7명의 민간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장 교수는 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회사가 부담 돼서 수용 못할 정도의 분들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객관적 검증을 막는 모든 외부 영향을 차단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위원회 구성 기준은? <br/> “위원회 활동이 신뢰를 받으려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모두 산업보건 전문가들로, 노동계도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br/>　-위원회의 권한은?<br/> “이천·청주공장 내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작업환경을 실태조사한다. 회사는 5~6개월을 제안했으나, (위원회 결정으로) 1년을 조사기간으로 잡았다. 동시에 회사는 12월 중 ‘건강지킴이 콜센터’를 열어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건강 상담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위로금 등 보상 대책을 위원회가 결정한다. 결정 사항은 모두 공개한다.” <br/>　-협력사 임직원도 보상 대상인가?<br/> “본사 직원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항목에 1급 발암성 병원체, 암유전자 검사 등 10여종의 암 검진 항목을 추가 적용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사측과의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이다.” <br/>　-피해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br/> “일단 위원회의 보상은 현행 산재보험과는 달라야 한다. 산재 제도처럼 운영할 거라면 위원회를 꾸릴 이유가 없다.” <br/>　-회사 쪽과 마찰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br/> “회사가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부당한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나 노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br/>　장 교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피해 노동자 간 협상 과정에 대한 평가는 애써 마다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미래지향적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사실상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2.txt

제목: 바나나 총파업과 신성동맹  
날짜: 20141015  
기자: 조효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5100000103  
본문: 중남미에 온 지 몇달밖에 안 되었는데 평생 먹을 바나나를 다 먹은 것 같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코스타리카 경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인데 이것을 바나나와 커피가 양분하고 있다. 프리미엄급 수출용 바나나 1㎏에 우리 돈으로 1300원이 채 안 되니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즐긴다. 하지만 바나나가 싸다는 말은 노동자의 인건비가 낮다는 뜻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뿐이다. 이들은 사설 하청업체에 속해 있어 불안정 고용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바나나는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를 많이 투입하는 작물이다. 네가몬이라는 살충제에 노출되어 불임, 암, 유산, 유전적 기형을 겪었던 1만2000명의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배상을 해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현재 농업노동자 문제는 이곳의 주요 노동 현안이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바나나 노동자들이 국가를 크게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다.<br/>　지금부터 꼭 80년 전인 1934년 가을의 일이다. 바나나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 중남미의 바나나 산업을 독점했던 미국계 다국적기업 유나이티드 푸르트사를 상대로 한 노동 대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은 6시간 교대근무, 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임금 지급, 산재 인정 등을 요구했다. 유나이티드는 정부와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분열, 회유, 협박했고 결국 총파업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파업은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큰 유산을 남겼다. 파업의 선두에 섰던 카를로스 파야스는 라는 노동 소설을 써서 ‘40년대 문학세대’를 주도하기도 했다.<br/>　총파업이 왜 발생했었는가. 바나나는 원래 소농들이 소량으로 재배하던 작물이었다. 그런데 1872년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단일작물 재배가 시작되었고 곧 해외수출이 이루어졌다. 산업발전이 낙후되어 있어 노동조직은 변변치 않았고 주로 수공업 장인들과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운동만 있었다.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은 이 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안겼다. 3년 사이 수출은 절반 이하, 수입은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금융은 몰락했으며 도시 중산층과 농업노동자들은 빈곤의 늪에 빠졌다. 1933년 수도 산호세에서 일어난 실업자들의 시위가 유혈사태로 이어졌고 그 이듬해 바나나 총파업이 일어났던 것이다.<br/>　일단 파업은 끝났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턱대고 막을 순 없었다. 정부는 커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1935년에는 농업노동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뉴딜정책을 본떠 공공근로를 대폭 늘렸다. 이 때문에 레온 코르테스 대통령은 ‘시멘트와 강철 정부’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공황을 계기로 국가의 경제 개입이 늘어났지만 그런 조류가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다. 19세기 말부터 정부 주도의 사회정책 흐름과 1920년대 기독사회주의 운동의 경험이 있었다.<br/>　또한 중남미 대륙 중 예외적으로 급진좌파 정당이 허용되었고 이들이 소수이긴 하나 선거 때마다 의회에 진출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처럼 작더라도 확실하게 노동자 편에 선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코스타리카는 대공황 시대에도 개도국 중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한 드문 사례에 속한다. 또한 좌파의 약진에 자극받은 우파가 가톨릭교회의 지원을 받아 국민공화당을 창당해서 극좌파 세력과 개혁 경쟁을 벌인 점도 특이했다.<br/>　1940년에 새로운 대선이 실시되었다. 개혁의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할 중대한 선거였다. 이 무대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 첫째, 여당의 칼데론 과르디아 대통령 후보. 개혁 의지가 있던 보수 포퓰리스트. 집권을 위해서라면 막후거래도 서슴지 않고,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노회한 정치인. 둘째, 젊은 변호사 마누엘 모라. 투철한 마르크스주의자. 1931년 노동자농민당의 창설을 주도. 노동운동 원칙과 정치적 수완을 겸비한 전략가로서 타이밍과 과단성을 갖춘 인물. 셋째, 빅토르 사나브리아. 훗날 산호세 교구의 대주교. 원래 정치색이 옅고 가톨릭교회의 입지에만 관심이 있던 전형적인 고위 성직자. 그러나 19세기 말 레오13세 교황이 발표한 회칙 ‘새로운 사태’라는 노동헌장이 중요한 사회교리로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에 코드를 맞출 줄 알았던 감각의 소유자. 자신의 성향과 관계없이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노동운동을 지지했던 인물.<br/>　칼데론이 먼저 패를 꺼냈다. 두 건의 거래를 물밑에서 성사시켰다. 대통령 코르테스에게 이번에 자신을 밀어주면 4년 뒤 그를 다시 밀겠다는 언약을 한다. 또한 사나브리아 주교에겐 교회의 지원을 호소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나라에서 교회의 지지는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사나브리아는 지원의 대가로 반성직주의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에서 종교 교육 실시, 수도원 신설 허용 등 교회에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가톨릭이 대세지만 정교분리 이념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한 나라가 많았다. 그레이엄 그린의 에도 이런 상황이 잘 그려져 있다. 밀약을 성사시킨 칼데론은 좌파정당의 공약 중 비교적 온건한 것들을 자기 공약에 대거 포함시켰다. 보수가 진보 노선을 귀신같이 선점한 것이다. 결과는 80%를 득표한 칼데론의 압승이었다.<br/>　대통령 자리에 오른 칼데론은 약속대로 코스타리카대학 설립, 사회보장법 제정, 사회부조 원칙을 담은 헌법 개정 등 개혁 조치를 밀고 나갔다. 그 결과 대농장주와 엘리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과 손잡고 칼데론 정권을 흠집 내는 데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코르테스 일파는 대통령과 결별하는 분당을 감행했고 칼데론은 지지세력의 대거 이탈로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br/>　여권의 분열로 정정이 불안해지자 모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수개혁 정권의 약화를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정 중단에 일조하느냐, 아니면 이 틈을 타 개혁을 심화하느냐를 놓고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모라가 내부 비판을 무릅쓰고 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급진 좌파에 대한 의구심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실천이 쉽지 않았다. 이때 사나브리아 대주교가 교회 내의 극심한 반대를 뿌리치고 양측 사이 중재에 나섰다. 당시 코스타리카 주재 미국대사 핼릿 존슨의 회고다. “대주교는 모라가 똑똑하고 신실하며 진정으로 빈곤층을 염려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모라와 그 추종자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건 사실이지만 외부세력과 결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안심시켜 주었다.”<br/>　양측의 공조로 1943년 종합적인 노동법이 제정되었고, 사회보장부가 신설되어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이때 삼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 옅은 미소의 깡마른 공산당수, 작고 온화한 인상의 대주교, 근엄한 표정의 대통령. 모라 당수는 훗날 의회에서 ‘조국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국립병원 본관 앞에는 칼데론의 흉상과 어록, 사회보장의 상징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사나브리아 대주교는 종교를 떠나 지금껏 국민의 큰 어른으로 추앙된다. 사회적 대타협의 효과는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br/>　도대체 어떻게 이런 타협이 가능했던가. 우선 절박했던 시대 상황이 있었다. 또한 협상을 통해 결과를 꼭 도출하겠다는 민주적 유연성이 정치문화로 깔려 있었다. 대농장주와 자본가들의 결속이 약했던 점도 한몫했다. 2차대전 중 미국과 소련이 연합하고 있던 배경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주제로 이라는 책을 쓴 유진 밀러는 세 사람이 각각 자기 진영 내 반대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한다. 여기 사람들 말대로 “오직 코스타리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까.<br/>　코스타리카의 노동조건은 나중에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다시 악화되긴 했지만 대타협의 의미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역사학자 이달리아 히메네스는 코스타리카 국민의 인권의식이 바나나 총파업과 삼자 동맹의 경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세계 노동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적 교훈이다. <br/>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3.txt

제목: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날짜: 2014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410015397986  
본문: ‘돈과 권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인명인가 보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 이건희(72) 회장이 지난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다. 이건희 회장이나 70살을 못 넘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돈이나 의술이 없어서 그리되었겠느냐는 것이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3년 전 56살로 생을 마감했다. 돈과 권력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세상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결국엔 자신의 생명은 어쩌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세계대왕 알렉산더도 33살로 생을 마감했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천하의 불로초를 구해 먹던 진시황도 50살을 채 넘기지 못했다.<br/><br/> 그러나 한 시대의 걸물인 이들은 이름을 남겼다. 그리스 <오디세이아>에서 ‘반신반인’으로 태어난 절륜의 전사 아킬레우스(아킬레스)는 ‘신으로서 무사태평하게 영원히 살 것이냐’, ‘젊은 날 죽어서라도 영원히 이름을 남기느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한다. 그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은 모래에서 황금을 찾는 것만큼이나 드물다.<br/><br/> 최근 개봉해 잔잔한 감동을 불러온 <안녕, 헤이즐>이란 영화는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10대 남녀의 사랑과 죽음 이야기다. 폐를 점령한 암세포 때문에 항상 산소통과 호흡기를 몸에 달고 다니는 16살 소녀 헤이즐은 골육종을 앓아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의족을 달고 다니는 어거스터스를 암환자 모임에서 만나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암이 갑자기 온몸에 퍼지는 바람에 헤이즐을 제치고 먼저 죽음을 맞게 된 어거스터스가 말한다. “난 내가 영웅이 될 줄 알았어. 내 이야기가 책이나 신문에 실리게 될 줄 알았어.”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이토록 허망하게 떠날 줄은 몰랐다며 비탄하는 어거스터스에게 헤이즐이 말한다. “<span class='quot0'>넌 나에게 한정된 나날 속에서 영원함을 줬다</span>”고.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새겨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해준다.<br/><br/> 내게도 역사책엔 씌어지지 않은 나만의 위인전이 있다. 내 가슴에만 살아 있는 나만의 영웅들이다. 내 친구 채희동 목사도 그중 한명이다. 충남 아산에 코딱지만한 교회를 세우고, 들판에서 시골 아이들과 공을 차고, 시를 읊다가, <샘>이란 잡지를 펴내던 채 목사는 4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떴다. 그는 신문 부고란에 날 만한 직함이나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날이면 많게는 수백명, 적게는 수십명이 그와의 따뜻했던 만남을 되새길 만큼 사랑의 불꽃을 심어준 이였다. 그가 떠난 지 10년이 되는 오는 11월10일 마지막 추모예배가 열린다. 이제는 그런 행사조차도 없어질 것이지만, 그의 잔잔한 평화와 기쁨은 여전히 내 가슴에 살아 있다.<br/><br/> 역사책엔 살아 있지만 단 한 명의 가슴에도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한 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채 목사 같은 사람은 아닐까.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사자의 물음 같은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듣고도 회한보다는 자족의 미소를 지을 그런 사람을. “<span class='quot0'>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span>” <br/><br/> 조현 종교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ch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4.txt

제목: 건보료의 효율적 사용과 노인 건강  
날짜: 2014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4100000064  
본문: 며칠 전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을 무사히 끝내고 잠시 지나니 건강하다는 얘기보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떠오른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4만2790원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효율적 사용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다. 평소 생활하며 느낀 부분들을 제도와 접목하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언을 해본다.<br/>　첫째,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제’의 도입이다. 40살 이상이 되어 1년, 3년, 5년, 7년 등의 단위로 각 기간 동안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에 따라 1%, 3%, 5%, 7% 등을 할인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br/>　둘째,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2006년 407만명(8.6%)에서 2013년 574만명(11.5%)으로 늘었으며, 노인진료비도 7조3504억원에서 18조852억원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 중 주요한 지출 내용이 고혈압, 당뇨, 치매, 암 등이다. 하지만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60살 이상에 대해선 헬스장 이용 장려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또 지자체마다 건강검진센터를 지금보다 더 확대 운영해, 도서·산간지역에 사는 노인들도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br/>　셋째, 개개인의 질병 자료를 좀더 체계화하는 것이다. 개인 질병의 전체 항목을 통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개인이 자주 발병하는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의 체계화는 필요하다. 기존 이용 병원이 아닐 경우, 자신의 병력에 대한 자료가 없어 치료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 개인 의료 기록에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인의 건강을 좀더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 간의 기초적인 진료기록 체계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비밀 유지를 위해 개인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주면 어떨까 한다. 이를테면 개인이 자기 건강 앱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방식 말이다.<br/>장수방 경찰교육원 체육학과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5.txt

제목: “회사가 부담스런 분들로 위원 선정…객관적 검증 막는 외부 영향 차단”  
날짜: 2014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410015398276  
본문: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반도체 직업병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연 아주대 교수(사진)를 위원장으로 한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운영안을 14일 내놓았다. <한겨레>가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반도체 직업병’문제를 공론화(‘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한겨레> 7월28일치 1면)한 뒤, 사측이 두달 여에 걸쳐 마련한 해법이다.<br/><br/> 일체의 조사 및 보상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를 이끌 장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시민환경연구소 등에서 활동해온 ‘환경보건 전문가 1세대’다.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 등 반도체 직업병을 줄곧 연구해온 가톨릭대 김형렬 교수(보건대학원)·이혜은 교수(직업환경의학),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환경보건학), 여성 노동권을 살필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등 모두 7명의 민간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장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회사가 부담돼서 수용못할 정도의 분들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객관적 검증을 막는 모든 외부 영향을 차단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 -위원회 구성 기준은? <br/><br/> =위원회 활동이 신뢰를 받으려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모두 산업보건 전문가들로, 노동계도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br/><br/> -위원회의 권한은?<br/><br/> =이천·청주공장 내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작업환경을 실태조사한다. 회사는 5~6개월을 제안했으나, (위원회 결정으로) 1년을 조사기간으로 잡았다. 동시에 회사는 12월중 ‘건강지킴이 콜센터’를 열어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건강 상담 및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위로금 등 보상 대책을 위원회가 결정한다. 결정 사항은 모두 공개한다. <br/><br/> -협력사 임직원도 보상 대상인가?<br/><br/> =본사 직원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항목에 1급 발암성 병원체, 암유전자 검사 등 10여종의 암 건진 항목을 추가 적용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사측과의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이다. <br/><br/> -피해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br/><br/> =일단 위원회의 보상은 현행 산재보험과는 달라야 한다. 산재 제도처럼 운영할 거라면 위원회를 꾸릴 이유가 없다. <br/><br/> -회사 쪽과 마찰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br/><br/> =회사가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부당한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나 노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br/><br/> 장 교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피해 노동자간 협상 과정에 대한 평가는 애써 마다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미래지향적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사실상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br/><br/>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6.txt

제목: 바나나 총파업과 신성동맹  
날짜: 2014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410015397821  
본문: 1934년 바나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다. 중남미 바나나 산업을 독점했던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대투쟁이었다. 파업 뒤 코스타리카 정부는 농업노동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뉴딜정책을 본떠 공공근로를 대폭 늘렸다. <br/><br/><br/><br/>1940년 새 대선이 실시되었다. 개혁의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할 선거였다. 이 무대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 첫째는 여당의 칼데론 과르디아 대통령 후보. 개혁 의지가 있던 보수 포퓰리스트. 둘째는 젊은 변호사 마누엘 모라. 투철한 마르크스주의자. 셋째는 빅토르 사나브리아. 훗날 산호세 교구의 대주교.<br/><br/><br/><br/>중남미에 온 지 몇달밖에 안 되었는데 평생 먹을 바나나를 다 먹은 것 같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코스타리카 경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인데 이것을 바나나와 커피가 양분하고 있다. 프리미엄급 수출용 바나나 1㎏에 우리 돈으로 1300원이 채 안 되니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즐긴다. 하지만 바나나가 싸다는 말은 노동자의 인건비가 낮다는 뜻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뿐이다. 이들은 사설 하청업체에 속해 있어 불안정 고용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바나나는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를 많이 투입하는 작물이다. 네가몬이라는 살충제에 노출되어 불임, 암, 유산, 유전적 기형을 겪었던 1만2000명의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배상을 해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현재 농업노동자 문제는 이곳의 주요 노동 현안이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바나나 노동자들이 국가를 크게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다.<br/><br/> 지금부터 꼭 80년 전인 1934년 가을의 일이다. 바나나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 중남미의 바나나 산업을 독점했던 미국계 다국적기업 유나이티드 푸르트사를 상대로 한 노동 대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은 6시간 교대근무, 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임금 지급, 산재 인정 등을 요구했다. 유나이티드는 정부와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분열, 회유, 협박했고 결국 총파업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파업은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큰 유산을 남겼다. 파업의 선두에 섰던 카를로스 파야스는 <마미타 유나이>라는 노동 소설을 써서 ‘40년대 문학세대’를 주도하기도 했다.<br/><br/> 총파업이 왜 발생했었는가. 바나나는 원래 소농들이 소량으로 재배하던 작물이었다. 그런데 1872년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단일작물 재배가 시작되었고 곧 해외수출이 이루어졌다. 산업발전이 낙후되어 있어 노동조직은 변변치 않았고 주로 수공업 장인들과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운동만 있었다.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은 이 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안겼다. 3년 사이 수출은 절반 이하, 수입은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금융은 몰락했으며 도시 중산층과 농업노동자들은 빈곤의 늪에 빠졌다. 1933년 수도 산호세에서 일어난 실업자들의 시위가 유혈사태로 이어졌고 그 이듬해 바나나 총파업이 일어났던 것이다.<br/><br/> 일단 파업은 끝났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턱대고 막을 순 없었다. 정부는 커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1935년에는 농업노동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뉴딜정책을 본떠 공공근로를 대폭 늘렸다. 이 때문에 레온 코르테스 대통령은 ‘시멘트와 강철 정부’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공황을 계기로 국가의 경제 개입이 늘어났지만 그런 조류가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다. 19세기 말부터 정부 주도의 사회정책 흐름과 1920년대 기독사회주의 운동의 경험이 있었다.<br/><br/> 또한 중남미 대륙 중 예외적으로 급진좌파 정당이 허용되었고 이들이 소수이긴 하나 선거 때마다 의회에 진출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처럼 작더라도 확실하게 노동자 편에 선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코스타리카는 대공황 시대에도 개도국 중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한 드문 사례에 속한다. 또한 좌파의 약진에 자극받은 우파가 가톨릭교회의 지원을 받아 국민공화당을 창당해서 극좌파 세력과 개혁 경쟁을 벌인 점도 특이했다.<br/><br/> 1940년에 새로운 대선이 실시되었다. 개혁의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할 중대한 선거였다. 이 무대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 첫째, 여당의 칼데론 과르디아 대통령 후보. 개혁 의지가 있던 보수 포퓰리스트. 집권을 위해서라면 막후거래도 서슴지 않고,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노회한 정치인. 둘째, 젊은 변호사 마누엘 모라. 투철한 마르크스주의자. 1931년 노동자농민당의 창설을 주도. 노동운동 원칙과 정치적 수완을 겸비한 전략가로서 타이밍과 과단성을 갖춘 인물. 셋째, 빅토르 사나브리아. 훗날 산호세 교구의 대주교. 원래 정치색이 옅고 가톨릭교회의 입지에만 관심이 있던 전형적인 고위 성직자. 그러나 19세기 말 레오13세 교황이 발표한 회칙 ‘새로운 사태’라는 노동헌장이 중요한 사회교리로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에 코드를 맞출 줄 알았던 감각의 소유자. 자신의 성향과 관계없이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노동운동을 지지했던 인물.<br/><br/> 칼데론이 먼저 패를 꺼냈다. 두 건의 거래를 물밑에서 성사시켰다. 대통령 코르테스에게 이번에 자신을 밀어주면 4년 뒤 그를 다시 밀겠다는 언약을 한다. 또한 사나브리아 주교에겐 교회의 지원을 호소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나라에서 교회의 지지는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사나브리아는 지원의 대가로 반성직주의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에서 종교 교육 실시, 수도원 신설 허용 등 교회에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가톨릭이 대세지만 정교분리 이념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한 나라가 많았다. 그레이엄 그린의 <권능과 영광>에도 이런 상황이 잘 그려져 있다. 밀약을 성사시킨 칼데론은 좌파정당의 공약 중 비교적 온건한 것들을 자기 공약에 대거 포함시켰다. 보수가 진보 노선을 귀신같이 선점한 것이다. 결과는 80%를 득표한 칼데론의 압승이었다.<br/><br/> 대통령 자리에 오른 칼데론은 약속대로 코스타리카대학 설립, 사회보장법 제정, 사회부조 원칙을 담은 헌법 개정 등 개혁 조치를 밀고 나갔다. 그 결과 대농장주와 엘리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과 손잡고 칼데론 정권을 흠집 내는 데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코르테스 일파는 대통령과 결별하는 분당을 감행했고 칼데론은 지지세력의 대거 이탈로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br/><br/> 여권의 분열로 정정이 불안해지자 모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수개혁 정권의 약화를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정 중단에 일조하느냐, 아니면 이 틈을 타 개혁을 심화하느냐를 놓고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모라가 내부 비판을 무릅쓰고 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급진 좌파에 대한 의구심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실천이 쉽지 않았다. 이때 사나브리아 대주교가 교회 내의 극심한 반대를 뿌리치고 양측 사이 중재에 나섰다. 당시 코스타리카 주재 미국대사 핼릿 존슨의 회고다. “대주교는 모라가 똑똑하고 신실하며 진정으로 빈곤층을 염려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모라와 그 추종자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건 사실이지만 외부세력과 결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안심시켜 주었다.”<br/><br/> 양측의 공조로 1943년 종합적인 노동법이 제정되었고, 사회보장부가 신설되어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이때 삼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 옅은 미소의 깡마른 공산당수, 작고 온화한 인상의 대주교, 근엄한 표정의 대통령. 모라 당수는 훗날 의회에서 ‘조국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국립병원 본관 앞에는 칼데론의 흉상과 어록, 사회보장의 상징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사나브리아 대주교는 종교를 떠나 지금껏 국민의 큰 어른으로 추앙된다. 사회적 대타협의 효과는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br/><br/> 도대체 어떻게 이런 타협이 가능했던가. 우선 절박했던 시대 상황이 있었다. 또한 협상을 통해 결과를 꼭 도출하겠다는 민주적 유연성이 정치문화로 깔려 있었다. 대농장주와 자본가들의 결속이 약했던 점도 한몫했다. 2차대전 중 미국과 소련이 연합하고 있던 배경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주제로 <신성동맹>이라는 책을 쓴 유진 밀러는 세 사람이 각각 자기 진영 내 반대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한다. 여기 사람들 말대로 “오직 코스타리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까.<br/><br/> 코스타리카의 노동조건은 나중에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다시 악화되긴 했지만 대타협의 의미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역사학자 이달리아 히메네스는 코스타리카 국민의 인권의식이 바나나 총파업과 삼자 동맹의 경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세계 노동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적 교훈이다. <br/><br/>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7.txt

제목: [왜냐면] 건보료의 효율적 사용과 노인 건강 / 장수방  
날짜: 201410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1310015389132  
본문: 며칠 전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을 무사히 끝내고 잠시 지나니 건강하다는 얘기보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떠오른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4만2790원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효율적 사용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다. 평소 생활하며 느낀 부분들을 제도와 접목하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언을 해본다.<br/><br/> 첫째,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제’의 도입이다. 40살 이상이 되어 1년, 3년, 5년, 7년 등의 단위로 각 기간 동안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에 따라 1%, 3%, 5%, 7% 등을 할인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br/><br/> 둘째,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2006년 407만명(8.6%)에서 2013년 574만명(11.5%)으로 늘었으며, 노인진료비도 7조3504억원에서 18조852억원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 중 주요한 지출 내용이 고혈압, 당뇨, 치매, 암 등이다. 하지만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60살 이상에 대해선 헬스장 이용 장려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또 지자체마다 건강검진센터를 지금보다 더 확대 운영해, 도서·산간지역에 사는 노인들도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br/><br/> 셋째, 개개인의 질병 자료를 좀더 체계화하는 것이다. 개인 질병의 전체 항목을 통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개인이 자주 발병하는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의 체계화는 필요하다. 기존 이용 병원이 아닐 경우, 자신의 병력에 대한 자료가 없어 치료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 개인 의료 기록에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인의 건강을 좀더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 간의 기초적인 진료기록 체계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비밀 유지를 위해 개인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주면 어떨까 한다. 이를테면 개인이 자기 건강 앱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방식 말이다. <br/><br/>장수방 경찰교육원 체육학과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8.txt

제목: 남편 생일 다음날 하늘로 떠나기로… /29살 말기암 미 여성 ‘선택’에 먹먹  
날짜: 20141009  
기자: 김창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9100000049  
본문: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br/>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는 29살 미국인 브리터니 메이너드(사진)가 고통스런 연명 대신 약을 먹고 편안히 눈감는 ‘존엄사’를 결정하고, 그 심경을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br/>　2012년 결혼한 메이너드는 최근 남편의 생일(10월31일) 이튿날인 11월1일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먹고, 남편과 부모,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남편과 함께 지냈던 침대에서 세상과 작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너드는 존엄사 인정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 ‘연민과 선택’의 도움으로 심경을 담은 영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br/>　‘100살 시대’라지만, 인공적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항생제를 투여받으며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메이너드 역시 그런 ‘기로’에 섰었다. 올해 1월 심한 두통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 진단과 함께 길게는 1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검사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가 나왔다. 악성 뇌종양이 환자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메이너드는 고통 속 연명보다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담하게 죽음을 맞기로 마음먹었다.<br/>　그러고는 거주지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리건주로 옮겼다. 오리건주는 1994년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을 제정한 미국의 5개 주 가운데 하나다. 워싱턴·몬태나·버몬트·뉴멕시코주에도 존엄사법이 있다. 존엄사를 택하려면 6개월 이하 시한부 환자이면서 두 차례 구두 신청과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복수의 의사에게 진료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미국 언론들은 오리건주가 1997년 존엄사를 합법화한 뒤 1170명이 이 ‘허가’를 받았고, 그 가운데 반이 안 되는 수가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다.<br/>　메이너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절대 자살이 아니다. 나는 살고 싶었지만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했다. 그는 동영상에서 “옐로스톤과 알래스카 등 많은 곳을 여행했다. 죽기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랜드캐니언에 가보고 싶다”며 “삶을 반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즐기라”고 했다.<br/>　한국에선 연명치료 중단 법률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존엄사를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9년 식물인간 상태인 김아무개(당시 77살)씨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span class='quot0'>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span>”며 존엄사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씨는 200여일 더 생존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br/> 사진 출처: 브리터니 메이너드 기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19.txt

제목: 금연해야 할 종교적 이유 2가지  
날짜: 2014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8100000069  
본문: 현재 한 갑에 2500원 하는 담뱃값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여 찬반 논란이 뜨겁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 건강에 좋다고 찬성하는 쪽과, 결국 서민들의 조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반대하는 쪽이다.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는 한국이니 흡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br/>　최근 한국의 ‘금연 전도사’로 알려진 박재갑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및 암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로서 세계적 암 연구의 권위자다. 이분에 의하면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암 예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금연이라고 한다. 어느 물질이든 그 속에 발암물질이 한가지만 있어도 금해야 하는데, 담배에는 그것이 무려 60여가지나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br/>　담배는 암뿐 아니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담배로 죽는 사람 수가 하루에 150여명, 1년에 줄잡아 5만8000명,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10배나 된다. 따라서 담배는 ‘우리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적’이라고 단언하면서, 한국도 흡연을 불법화한 부탄처럼 정부가 나서서 흡연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br/>　물론 모든 일에 양지와 음지가 있기 마련이다. 천국에도 파이프가 없으면 갈 마음이 없다고 한 어느 유명한 독일 신학자의 경우처럼 담배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흡연에는 분명 음지가 더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　왜 금연해야 하는가? 물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다. 그 외에도 남에게 연기를 피우지 않으니 윤리적으로도 좋고, 꽁초를 함부로 버려 지저분해지는 일이 없으니 미화에도 좋고, 돈을 절약하니 경제적으로도 좋고, 화재나 산불의 위험이 적어지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좋고 등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br/>　그러나 이런 것 이외에 ‘종교적’ 이유 두가지를 들어본다. 첫째, 정신적 자유를 위해서다.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손에서 뗄 수 없는 상태, 담배가 없으면 눈에 담배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는 흡연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다. 내가 담배를 즐기는 것이라기보다 담배가 나를 조절하는 셈이다. 완전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 아닌가?<br/>　둘째,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중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인가? 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한 것처럼, 우리 몸은 부모님의 연장이다. 부모뿐 아니라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다. 동시에 나는 내 뒤로 수많은 후손들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나는 말하자면 영원을 이어주는 황금 고리다. 이런 몸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br/>오강남 경계너머 아하! 이사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0.txt

제목: 29살 새댁이 선택한 ‘존엄사’ 사연…세계가 ‘울컥’  
날짜: 2014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810015361259  
본문: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br/><br/>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는 29살 미국인 브리터니 메이너드가 고통스런 연명 대신 약을 먹고 편안히 눈감는 ‘존엄사’를 결정하고, 그 심경을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br/><br/> 2012년 결혼한 메이너드는 최근 남편의 생일(10월31일) 이튿날인 11월1일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먹고, 남편과 부모,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남편과 함께 지냈던 침대에서 세상과 작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너드는 존엄사 인정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 ‘연민과 선택’의 도움으로 심경을 담은 영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br/><br/> ‘100살 시대’라지만, 인공적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항생제를 투여받으며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메이너드 역시 그런 ‘기로’에 섰었다. 올해 1월 심한 두통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 진단과 함께 길게는 1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검사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가 나왔다. 악성 뇌종양이 환자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메이너드는 고통 속 연명보다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담하게 죽음을 맞기로 마음먹었다.<br/><br/> 그러고는 거주지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리건주로 옮겼다. 오리건주는 1994년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을 제정한 미국의 5개 주 가운데 하나다. 워싱턴·몬태나·버몬트·뉴멕시코주에도 존엄사법이 있다. 존엄사를 택하려면 6개월 이하 시한부 환자이면서 두 차례 구두 신청과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복수의 의사에게 진료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미국 언론들은 오리건주가 1997년 존엄사를 합법화한 뒤 1170명이 이 ‘허가’를 받았고, 그 가운데 반이 안 되는 수가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다.<br/><br/> 메이너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절대 자살이 아니다. 나는 살고 싶었지만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했다. 그는 동영상에서 “옐로스톤과 알래스카 등 많은 곳을 여행했다. 죽기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랜드캐니언에 가보고 싶다”며 “삶을 반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즐기라”고 했다.<br/><br/> 한국에선 연명치료 중단 법률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존엄사를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9년 식물인간 상태인 김아무개(당시 77살)씨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span class='quot0'>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span>”며 존엄사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씨는 200여일 더 생존했다. <br/><br/>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사진 출처: 브리터니 메이너드 기금　<br/><br/>▷ ‘브리트니 재단’ 업로드 유튜브 영상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1.txt

제목: 10월 9일 알림  
날짜: 2014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810015364754  
본문: 　<br/><br/>◇ 한신대 정신분석대학원과 한국정신분석가전문가협회는 11일 오전 9시 대학로 서울대 어린이병원 제1강의실에서 ‘꿈은 지금도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준호 한신대 교수와 정신분석가 맹정현 박사가 강연한다. 누리집(kicp.co.kr) 자료실 참고.<br/><br/>◇ 서강대(이사장 김정택)와 화성시 시립도서관(관장 강신하)은 7일 업무 협약을 맺었다.<br/><br/>◇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는 8일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올해 그룹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서 1264장을 전달했다. 헌혈증서는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희귀난치병 어린이의 치료 등에 쓰이게 된다.<br/><br/>◇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일본인 부녀회(회장 사토 미도리)는 11일 오전 10시30분 독립공원내 독립관에서 ‘제14회 순국선열정신 선양대회 및 한·일 합동 위령제’를 연다.　<br/><br/>◇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89차 여성정책포럼을 연다.　<br/><br/>◇ 코리아DMZ협의회는 10일 오후 1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실천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2014년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br/><br/>◇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과 아시아금융학회(회장 오정근)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KB금융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현주소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연다. <br/><br/>◇ 아이들과미래(이사장 송자)는 7일 ‘FC말라위와 50인의 구단주 파티’를 열었다. ‘FC말라위’는 축구를 매개로 아프리카의 빈곤아동 교육을 지원하는 스포츠 국제 개발 사업이다. 　<br/><b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충호)은 7일 제19호 ‘일터나눔 허그(HUG)기업 인증식’을 열었다. 제19호 허그 인증 기업으로 거림공업이 선정됐다.<br/><b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대표 이제훈)은 10일 오후 7시 서울 무교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빌딩 앞에서 ‘제10회 기부콘서트-이홍렬의 락락(樂樂) 페스티벌’을 연다. <br/><br/>◇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영재 청주대 교수)는 10~11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 호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제네바 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br/><br/>◇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슬로푸드 생물다양성 미디어데이’를 연다.<br/><br/>◇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6~13일 부천 영상문화단지 등 경기도 내 6개 경기장에서 열린다.<br/><br/>◇ 가천대 길병원 인친지역암센터는 벽화그리기를 통한 미술치유 치유프로그램에 동참할 여성암환자 및 암생존자를 모집한다. 작업은 20일부터 새달 17일까지 주1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누리집(ircc.re.kr) 참고.<br/><br/>◇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와 CJ E&M(대표이사 김성수)은 8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br/><br/>◇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김현택)와 서울아트시네마는 10~26일 ‘모스필름 90돌 특별전’ 러시아영화제를 연다.<br/><br/>◇ 숭실대는 9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에게 1995년 일제의 만행에 대해 정직하게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아베 내각에 대한 견해도 밝힐 예정이다.<br/><br/>◇ 한국광해관리공단은 8일 신임 이사장으로 김익환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2.txt

제목: 금연해야 할 종교적 이유 2가지  
날짜: 2014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710015356689  
본문: 현재 한 갑에 2500원 하는 담뱃값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여 찬반 논란이 뜨겁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 건강에 좋다고 찬성하는 쪽과, 결국 서민들의 조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반대하는 쪽이다.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는 한국이니 흡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br/><br/> 최근 한국의 ‘금연 전도사’로 알려진 박재갑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및 암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로서 세계적 암 연구의 권위자다. 이분에 의하면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암 예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금연이라고 한다. 어느 물질이든 그 속에 발암물질이 한가지만 있어도 금해야 하는데, 담배에는 그것이 무려 60여가지나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br/><br/> 담배는 암뿐 아니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담배로 죽는 사람 수가 하루에 150여명, 1년에 줄잡아 5만8000명,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10배나 된다. 따라서 담배는 ‘우리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적’이라고 단언하면서, 한국도 흡연을 불법화한 부탄처럼 정부가 나서서 흡연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br/><br/> 물론 모든 일에 양지와 음지가 있기 마련이다. 천국에도 파이프가 없으면 갈 마음이 없다고 한 어느 유명한 독일 신학자의 경우처럼 담배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흡연에는 분명 음지가 더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br/> 왜 금연해야 하는가? 물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다. 그 외에도 남에게 연기를 피우지 않으니 윤리적으로도 좋고, 꽁초를 함부로 버려 지저분해지는 일이 없으니 미화에도 좋고, 돈을 절약하니 경제적으로도 좋고, 화재나 산불의 위험이 적어지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좋고 등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br/><br/> 그러나 이런 것 이외에 ‘종교적’ 이유 두가지를 들어본다. 첫째, 정신적 자유를 위해서다.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손에서 뗄 수 없는 상태, 담배가 없으면 눈에 담배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는 흡연 습관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다. 내가 담배를 즐기는 것이라기보다 담배가 나를 조절하는 셈이다. 완전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 아닌가?<br/><br/> 둘째,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중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인가? <효경>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한 것처럼, 우리 몸은 부모님의 연장이다. 부모뿐 아니라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다. 동시에 나는 내 뒤로 수많은 후손들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나는 말하자면 영원을 이어주는 황금 고리다. 이런 몸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오강남 <br/><br/> 오강남 경계너머 아하! 이사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3.txt

제목: 폐암 발생 억제하는 단백질 밝혀졌다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610015347908  
본문: 국내 연구진이 디엔에이(DNA)의 정확한 복제를 돕는 암억제단백질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밑돌을 놓았다.<br/><br/>　이화여대는 6일 권종범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암억제단백질로 알려진 ‘비에이피1’(BAP1)이 유전체의 안전성을 돕는 기능을 하며 이 과정에 암 발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6일치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　세포가 분열할 때 디엔에이의 복제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이때 문제가 생기면 유전체가 불안정해져 암이 발생한다. 곧 유전체를 구성하는 염색체가 없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br/><br/>　연구팀은 BAP1 단백질이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체 구조인 크로마틴을 조절하는 데 관여해 유전체의 안정성을 돕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AP1은 크로마틴을 조절하는 단백질 ‘아이엔오80’(INO80)과 결합해 이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고 복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왔다. 연구팀은 동물실험 등을 통해 INO80이 정상적인 디엔에이 복제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복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실제 폐암의 일종인 흉막중피종 환자의 종양조직 샘플을 분석해 BAP1이 없는 종양세포에서는 INO80 발현도 함께 줄어들어 있음을 밝혀냈다. <br/><br/>　BAP1은 최근 흉막중피종, 흑색종, 신장암 등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하는 기능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내면 항암제로 응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권종범 교수는 “<span class='quot0'>BAP1과 INO80의 작동이 다른 암종에도 작용하는 일반적인 경로인지 동물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연구를 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4.txt

제목: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인가  
날짜: 20141006  
기자: 이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6100000082  
본문: 질병, 영원한 추상성 /최은주 지음/은행나무·8000원<br/><br/><br/>“과거에는 근력 감소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질병의 일종으로 병명이 붙여져 치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은 시대마다 탄생하고 유행하는 것이다.” <br/>　은 질병과 비정상, 건강과 정상성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다. 영미문학을 전공하고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중인 최은주 박사는 15편의 문학작품들과 영화나 그림 등을 통해 질병이 어떻게 표현되고 역사적으로 구조화해 왔는지 분석한다. ‘건강’이란 말은 정확하게 정의될 수 없다. 건강은 ‘영양’이나 ‘위생’일 수도 있고, 진단이나 선언 같은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은이는 우선 문학에 나타난 질병을 검토한다. 소포클레스의 에서 질병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하늘의 징벌이었다. 샬럿 브론테의 에서 독신녀들은 현모양처나 순결한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불능’의 여성이 된다. 19세기 여성의 몸은 가부장적 질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질병도 사회질서가 규범화한 ‘정상’과 ‘비정상’의 틀에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0'>여성의 몸 자체가 비정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다</span>”고 지은이는 설명한다. <br/>　병리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원래는 병에 대한 이론이었지만 비정상적 상태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사회적 낙인을 찍은 타자들을 일컬어 ‘암적 존재’, ‘피로감을 주는 존재’로 풀이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볼 수 있겠다. 질병은 국민 건강에 위협적 존재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다. 지은이는 이때 개인 감정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국민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집단이 돼버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버지니아 울프의 에서 1차 대전 참전 뒤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셉티머스는 환영받지 못하는 광인이 된다. 알베르 카뮈의 를 보면, 병의 확산은 질병의 추상성을 행정에 따른 구체적 수치로 바꿔놓는다. 건강한 몸만을 필요로 하던 도시는 폐쇄되고 만다. <br/>　지은이는 “<span class='quot1'>우리가 사회적 주체로 구성되기 위해서 경계의 설정은 필수적</span>”이라고 말한다. 타자와 경계가 있어야만 ‘나’가 성립되는 원리와 같다. 비정상에 맞선 정상, 질병에 맞선 건강이라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끝없는 노력은 사실 담론의 효과이며 그 경계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이데올로기의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개인적 완성’을 위한 의료적 검사, 건강 상품, 운동 담론을 소비하고 수용하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은이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와보라”고 권한다. 질병에 대한 위험천만한 우려와 담론은 실제 내 몸이 아니라 ‘조성된’ 세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진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5.txt

제목: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인가  
날짜: 2014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510015339511  
본문: 질병, 영원한 추상성 <br/> 최은주 지음 <br/>은행나무·8000원<br/><br/>“과거에는 근력 감소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질병의 일종으로 병명이 붙여져 치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은 시대마다 탄생하고 유행하는 것이다.” <br/><br/> <질병, 영원한 추상성>은 질병과 비정상, 건강과 정상성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다. 영미문학을 전공하고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중인 최은주 박사는 15편의 문학작품들과 영화나 그림 등을 통해 질병이 어떻게 표현되고 역사적으로 구조화해 왔는지 분석한다. ‘건강’이란 말은 정확하게 정의될 수 없다. 건강은 ‘영양’이나 ‘위생’일 수도 있고, 진단이나 선언 같은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은이는 우선 문학에 나타난 질병을 검토한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에서 질병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하늘의 징벌이었다. 샬럿 브론테의 <빌레트>에서 독신녀들은 현모양처나 순결한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불능’의 여성이 된다. 19세기 여성의 몸은 가부장적 질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질병도 사회질서가 규범화한 ‘정상’과 ‘비정상’의 틀에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0'>여성의 몸 자체가 비정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다</span>”고 지은이는 설명한다. <br/><br/> 병리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원래는 병에 대한 이론이었지만 비정상적 상태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사회적 낙인을 찍은 타자들을 일컬어 ‘암적 존재’, ‘피로감을 주는 존재’로 풀이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볼 수 있겠다. 질병은 국민 건강에 위협적 존재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다. 지은이는 이때 개인 감정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국민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집단이 돼버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에서 1차 대전 참전 뒤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셉티머스는 환영받지 못하는 광인이 된다.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보면, 병의 확산은 질병의 추상성을 행정에 따른 구체적 수치로 바꿔놓는다. 건강한 몸만을 필요로 하던 도시는 폐쇄되고 만다. <br/><br/> 지은이는 “<span class='quot1'>우리가 사회적 주체로 구성되기 위해서 경계의 설정은 필수적</span>”이라고 말한다. 타자와 경계가 있어야만 ‘나’가 성립되는 원리와 같다. 비정상에 맞선 정상, 질병에 맞선 건강이라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끝없는 노력은 사실 담론의 효과이며 그 경계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이데올로기의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개인적 완성’을 위한 의료적 검사, 건강 상품, 운동 담론을 소비하고 수용하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은이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와보라”고 권한다. 질병에 대한 위험천만한 우려와 담론은 실제 내 몸이 아니라 ‘조성된’ 세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br/><br/>이유진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6.txt

제목: 목사 임락경 /우리 함께 ‘돌파리’<突破理: 이치를 돌파>가 되자  
날짜: 2014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4100000024  
본문: 목적지는 ‘시골교회’. 내비게이션에 꼬불꼬불 외줄기 산길이 그려진다. 갈비집 즐비한 포천을 지나 가파른 광덕산 고개를 타고 넘어 강원도 화천군으로 들어서자, 주변을 에워싼 높은 고갯마루를 넘어서지 못한 비구름이 산중턱에 걸린 채 운무로 피어오른다. 신선이라도 나타날 듯 고즈넉한 산간마을인데, 사방을 둘러봐도 교회 비슷한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차를 돌려 지나온 길을 다시 더듬어 내려가다가 어렵사리 발견한 ‘시골집’ 나무 팻말, 그 아래 ‘시골교회’라고 작은 글씨가 새겨진 목판이 부록처럼 달려 있다. 십자가도 종탑도 없는 한옥건물이라, 언뜻 봐선 닭백숙이나 막걸리를 파는 시골 밥집 같기도 하다.<br/>　“오죽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여기까지 왔을 거여? 찾다 찾다 없으니까 나한테까지 왔을 거 아녀?”<br/>　짧고 진한 눈썹과 작은 눈에, 웃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그가 말했다. 평생을 장애인, 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음식을 통한 자연치유법을 전파해 온, 자칭 ‘돌파리(突破理)’ 목사 임락경(69)이다. 순창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이 공식학력의 전부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 농민단체, 정농회(正農會) 회장을 역임했고 상지대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올바른 섭생법을 가르치는 임락경의 건강교실을 14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그의 교회엔 별도의 예배당이나 강대(講臺)도 없다. 그가 안내해 들어간 넓은 온돌방이, 시골집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 식당이자 손님을 맞는 사랑방이면서 주일엔 예배당이 된다고 했다. 십자가 대신 한쪽 벽면에 걸려 있는 자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br/>　“<span class='quot0'>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소서…</span>”<br/>　<br/>　‘할렐루’의 대한예수팔아장사회 목사님<br/>　시골교회 뒤 비스듬한 경사지를 따라 콩과 깨, 고추와 배추, 수세미와 박, 당근 같은 채소가 올망졸망 여물어 가고 있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절 받지 않는 시골집은, 필요한 대부분의 식재료를 이 밭에서 직접 키워 먹는다. 유기농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된장, 간장 담가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소규모로 판매도 한다. 커다란 가마솥 여섯 개가 나란히 걸렸고,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옹기항아리들이 양지바른 마당에 가지런하다. 옹기장수가 잘못 만들어 우글쭈글한 항아리도 여기선 소중한 된장, 간장독으로 쓰인다.<br/>　-한옥집 2층에 누각이 널찍하다. 여름엔 무척 시원하겠다.<br/>　“거기서 작업도 하고 놀기도 한다. 경회루, 광한루 하듯이, 우리는 저걸 ‘할렐루’라고 부른다.”<br/>　-(웃음) 원래 이름을 잘 지으시나 보다. 시골교회라는 이름도 참 특이한데.<br/>　“원래 붙이려고 했던 이름은 ‘망할 교회’였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교회를 꾸려나가는데, 장애인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니까. 그 이름으로 교단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노회 서기가 불같이 성질을 내서 못하게 되었지만….”<br/>　-목사님 교단이 어딘데 그러나?<br/>　“대한예수팔아장사회.”<br/>　-대한예수…?(받아적다가 웃음 터지며) 난 또 정말인 줄 알고….<br/>　“예전에 기독교방송 나가서도 그렇게 말한 적 있다. 그랬더니 피디가 ‘이거 그대로 방송 나가도 되겠어요?’ 묻더라. 항의하는 사람 있으면 내게 전화하게 하라 했지. ‘예끼, 당신들은 예수 팔아 장사 안 하냐?’ 하고 묻게. 근데 한명도 항의전화가 없었다.”<br/>　-언제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사시게 되었나?<br/>　“<span class='quot0'>그냥 살면서 하나둘 모이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밖에서는 이걸 복지시설이라고 보던데, 난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span>”<br/>　임락경은 여기서 15명의 식구들과 함께 지낸다. 장애인도 있고 요양을 위해 찾아온 암환자도 있다. 들고 나는 게 자유로우니, 법정 수용시설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같이 기대어 사는 식구들일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모양도 크기도 비뚤비뚤 제각각이지만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장독대 옹기들처럼, 그의 식구들도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얼크러져 섞여 산다.<br/>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br/>　“<span class='quot0'>낮에는 농사일하거나 강연 다니고 잠은 열시부터 새벽 두시까지 잔다.</span>”<br/>　-두시에 일어나 뭐 하시나?<br/>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갔으니 교과서는 봐야 하고. 대학도 안 다녔으니 전문은 아니지만 필요한 건 봐야 하고. 난 평생 낮에는 책상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없다.”<br/>　-그럼 두시부터 날 밝을 때까지 책 읽고 공부하고?<br/>　“책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다. 내 일생에 사 본 책은 열권이 안 되고, 읽은 책은 백권 넘었나 모르겠다.”<br/>　-그럼 어떤 공부를 한 건가?<br/>　“공부란 자연에서 원리를 찾고 사람에게서 원리를 찾아야지, 책은 다 짜깁기다. 짜깁기의 원본은 사실 몇권 안 되는데 팔만대장경, 사서삼경, 노자, 장자, 성경… 그런 책들은 원문 그대로 읽었다.”<br/> 임락경이 순창 유등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는 그에게 중학 진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학교 대신, 결핵환자요양소를 찾아가 십대를 보냈다. 66년 군 입대를 했는데 그때 배치받은 곳이 강원도 화천이었다. 제대 후 다시 결핵환자요양소인 동광원에 돌아가 일을 하는 한편, 크리스찬아카데미, 가톨릭농민회 활동 등을 하다가 80년 다시 화천으로 들어와 이곳에 터를 잡았다.<br/><br/>　사랑의 침은 해독제, 증오의 침은 독약<br/>　-평생 세속적인 명예나 권력에 거리를 두고 사셨다. 종교적인 신념인가?<br/>　“종교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배운 자연의 이치다. 미국은 글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나는 사내, 너는 계집’인데, 우린 처음 배우는 말이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를 황’이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우주홍황(宇宙洪荒).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커서 끝이 없다. 일월영측(日月盈<br/><br/>),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점차 이지러진다. 돈 좀 벌었다, 지위 있다, 명예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일곱살 때 이런 우주의 진리를 배운 거다.”<br/>　-돈이나 권력이 없어서 아쉬울 때는 없었나?<br/>　“없었다. 어릴 때부터 ‘커서 교회 집사도 하지 말아야겠다. 사회에선 반장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산기슭에 초가집 3칸 짓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그게 희망의 전부였다. 근데 정농회 회장까지 했으니….”<br/>　-어릴 때라는 게 몇살 땐가?<br/>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한 거다. 3학년 때 곱하기 배우다가 계산해보니 인생이 100년이면 36500일이다. 70살까지 산다고 쳐도 60년 남았는데, 그게 2만일. 하, 2만일을 어떻게 사나, 직업을 뭘 가질까 고민했는데. 공무원은 없어도 살겠더라. 목사가 없으면 더 잘 살겠고. 근데 농사짓는 사람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난 평생 농사짓겠다’ 결심했다.”<br/>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 나이에.(웃음) 곱셈 배웠다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br/>　“그때 교회에서 훌륭한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현필 선생, 유영모 선생 같은 분들. 무작정 집을 나와 광주의 이현필 선생을 찾아 나섰다가 최흥종 선생을 만난 것도 내겐 큰 행운이었다.”<br/>　오산학교 교장으로 유불선과 성서 연구에 큰 획을 그은 사상가 유영모, 거지와 고아, 결핵환자들을 돌보며 ‘맨발의 성자’로 불린 이현필, 자기 땅을 희사해서 한국 최초의 나환자 치료시설인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고 걸인과 병자를 구제하는 데 일생을 바친 최흥종의 가르침은, 소년 임락경을 가슴 부풀게 한 구원의 빛이었다. 이들 선각자들의 공통점은 엄격한 기독교적 청빈과 금욕, 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생적 신앙공동체를 이루되, 교파와 형식, 조직에 얽매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상은 함석헌, 원경선, 류달영, 임락경 등으로 이어지며 이후 개혁적 사상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의 주요한 원류가 되었다.<br/>　-어린 마음에 큰 스승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광주까지 찾아간 건 이해가 된다. 그렇다 해도 결핵환자를 돌보면서 살아야지, 결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치료약이나 위생시설이 변변치 못해서 폐결핵환자라면 가까이하기 두려워하고 외면하던 시절 아닌가? <br/>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기로 한 거다. 겁이 난들 어떡하나. 사람이 죽어 가는데.”<br/>　-겁나면 자리를 피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br/>　“그냥 전염되면 죽어야지 했다. 3년 후 군대 갈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 생각 못했다.”<br/>　-종교적 결단이 아니고서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br/>　“<span class='quot0'>그냥… 그쪽엔 그런 사람이 많았으니까.</span>”<br/>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한 것도 아니었다.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으니 할 만큼 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다는, 담담한 마음이었다.<br/>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예사로운 일이었다?<br/>　“그랬다. 내가 요즘 일생을 정리하면서 통계를 내봤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결핵환자들한테 봉사했던 사람 중에 아직 한명도 안 죽었다. 나보다 열살 이상 많은 형님도 있었는데 지금 모두 살아 있다. 즐거울 때 나오는 침은 결핵균도 이길 수 있다. 난 그렇게 본다.”<br/>　-의사들이 들으면 펄쩍 뛸 소리다.<br/>　“사랑할 때 나오는 침은 나병도 물리친다니까. 나병이 침으로도 전염되는데, 부부간에 전염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사랑할 땐 침이 해독이 돼버리는지… 사랑할 때는 할머니가 손자한테 음식을 씹어줘도 괜찮다. 그 침은 해독을 시키니까. 근데 미워할 때 나오는 침은 독이 되는 거지. 옛말에 침 뱉고 싸우지 말라고 한다. 버짐 생긴다고. 결핵환자를 무서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니 결핵균도 이겨낸 게 아닐까?”<br/>　그가 결핵균을 이겨낸 전설 같은 일화는 그때 말고도 또 있다. 70년대 임락경이 경기도에서 크리스찬아카데미의 농민 조직사업을 할 때였다. 같은 마을 사람 하나가 폐결핵을 앓다가 죽었는데, 전염될까 겁이 나서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 그 소식을 들은 임락경은 망설임 없이 혼자서 농약통을 짊어지고 가서, 시신 주변에 뿌리고 혼자서 염을 했다. 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으로 이우재, 한명숙, 신인령, 김세균 등과 같이 그가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서 “임락경 같은 사람이 간첩일 리 없다”고 조사 나온 중정요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임락경은 기소를 면하고 풀려났다.<br/>　인터뷰는 중간중간 끊겼다. 임락경 목사에게 10분이 멀다 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왔기 때문이다.<br/>↗<br/>↘<br/>대개 어디가 안 좋은데 어쩌면 좋겠냐는 문의 전화였다. 그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바로바로 민간처치요법을 일러줬다. 어떤 이에게는 녹두 삶은 물을 마시라 하고, 어떤 이에게는 고기를 끊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다. 어떤 이에게는 마가목으로 담근 술을 마시라 했고 꿀을 큰 종지로 벌컥벌컥 삼키라고도 했다. 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싶은데, 임락경의 자연치유요법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매년 20여차례, 2박3일 혹은 3박4일에 걸쳐 열리는 임락경의 건강교실은 14년째 성황을 이루고 있다. , , 등 그는 건강 관련 지침서도 몇권 내놓았다.<br/><br/>　평생 번 돈, 병원에 바치고 포도당 꽂고 죽을래?<br/>　-이런 건강 관련 지식은 다 어디서 배운 건가?<br/>　“몇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깨치고 나면 처방이 바로 나온다. 한문을 쓸 때 처음엔 어려운데 갑자기 쉬워질 때가 있다. 무슨 변에, 무슨 자 합치면 무슨 자가 된다… 그 기본자만 익히면 한문이 아주 편해지는 것처럼 건강 원리도 그렇다. 그래서 내 별명이 ‘돌파리(突破理)’ 아닌가. 이치를 돌파한다고.(웃음)”<br/>　-몇가지 기본 원리의 예를 든다면?<br/>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걸렸다 그럼 새우젓. 소고기 먹고 병났다 그럼 배를 먹어야 된다. 개고기 먹고 병났다 하면 살구, 복숭아는 안 되고. 해산물은 미나리를 먹어야 하는데 처음에 회 시킬 때 파슬리부터 먹는 게 좋다. 꼭 와사비에 찍어 먹고. 미나리같이 생긴 채소가 서양에선 파슬리, 일본에선 와사비니까. 모든 약초, 약물에서 병이 났다고 하면 녹두를 먹어야 한다.”<br/>　-고기는 왜 먹지 말라고 하시나?<br/>　“사람에 따라 다른데 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도 요즘 좋은 고기가 없으니까. 배합사료에 항생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성장촉진제다. 내가 직접 양계를 해봐서 아는데, 닭이 정상적으로 1.5㎏ 되기까지 1년이 걸린다. 근데 요즘은 한달 안에 1.5㎏ 못 만들면 양계장 망한다. 1년 클 것을 한달 안에 키운단 얘긴데, 농약, 비료, 제초제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거다. 성장촉진제 먹고 자란 육계(肉鷄)나 양식 물고기들….”<br/>　-병의 원인이 다양할 텐데 너무 단순화하는 것 아닌가?<br/>　“70년대 이전에는 나병이나 결핵같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았다. 70년대는 단군 이래 가장 건강한 때였다. 영양결핍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전면화되기 전이라. 80년대부터는 암, 관절염, 아토피 같은 병이 무섭게 늘어났다. 오염된 음식과 너무 많이 먹은 음식이 문제였던 거다. 몸 안에 독이 들어오면 처음엔 땀으로 빠지고 나중엔 소변으로 빠진다. 몸이 차가워지면 이 독이 빠져나오질 못해 아토피가 되고 암이 된다.”<br/>　-유기농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중산층 이상이 아니면 사먹기가 힘들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나?<br/>　“그걸 비싸다고 하면 안 된다. 병원에 갈 돈이면 한달 먹을 수 있는데. 커피는 오천원짜리 마시면서 이런 걸 비싸다고 하면 되겠나? 평생 일해서 30년간 학교에 돈 갖다 바치고, 30년간 병원에 돈 갖다 바치고, 죽을 때 5% 포도당 꽂고 죽는다. 그러려고 생을 사나? 학교 안 가고 병원 안 가면서, 안 아프고 유기농 포도 맛있게 먹다 죽는 게 낫지.”<br/>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여쭙겠다. 원래 얼굴이 그런 표정이셨나? 40대 이후 얼굴을 자기가 만드는 거라는데, 가만히 계셔도 웃는 얼굴이다.<br/>　“웃고 살아야지. 웃기지 않으면 심심하고. 사바세계에는 어쩔 수 없이 희로애락이 있는데, 희하고 락이 40%, 애와 로가 60%이다. 자기랑 가족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즐거움이 커진다. 그럼 희하고 락이 60, 애와 로가 40이 되지. 이것만 바뀌어도 세상이 아주 편해진다.(웃음)”<br/>　40 대 60을 60 대 40으로 바꾸기. 아주 조금만 훌륭해져도 되는 일이, 범인(凡人)에겐 왜 이리 어려울까. 한숨을 내쉬며 임락경 목사를 쳐다보니, 빙긋이 웃는 얼굴로 덤덤하니 앉아 있다. <br/>녹취 김연지(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br/><br/><br/>■ 임락경을 만든 시간들<br/><br/>1960년대 유영모 선생님<br/>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젊은 시절에 틈만 나면 찾아뵀습니다. 1972년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뵈니 내게 “당신이 1만날 사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br/><br/><br/>1980년대 상쇠잡이<br/>축제만 되면 상쇠잡이가 되니 거룩한 목사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으려면 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br/> <br/><br/>2002년 장애인 공동체<br/>장애인을 돌보며 지내다 식구가 열명이 넘었고, 이들과 함께 살 궁리를 하다 보니 집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신학교에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죠.<br/><br/><br/>2002년 농사꾼<br/>강원도 화천군 광덕리에서 장애인 아이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지냅니다. 화학비료 없이 농사짓고, 된장과 간장을 담그고, 양봉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br/><br/><br/>2014년 우리 영성가<br/>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찾아다니며 만난 스승들을 책에 적었습니다. 유영모, 이현필, 최흥종, 이세종 선생님 등입니다.<br/><br/><br/>▶ 이진순 언론학 박사. 희망제작소 부소장.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하다가 사직하고 귀국해 시민운동 현장에 합류했다. 경험과 논리에 갇히지 않고 즐겁게 소통하고 진화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7.txt

제목: 시골목사의 행복 비결…‘우리 함께 돌파리가 되자’  
날짜: 2014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22152718335  
본문: ▶ 이진순 언론학 박사. 희망제작소 부소장.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하다가 사직하고 귀국해 시민운동 현장에 합류했다. 경험과 논리에 갇히지 않고 즐겁게 소통하고 진화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br/><br/><br/><br/>목적지는 ‘시골교회’. 내비게이션에 꼬불꼬불 외줄기 산길이 그려진다. 갈비집 즐비한 포천을 지나 가파른 광덕산 고개를 타고 넘어 강원도 화천군으로 들어서자, 주변을 에워싼 높은 고갯마루를 넘어서지 못한 비구름이 산중턱에 걸린 채 운무로 피어오른다. 신선이라도 나타날 듯 고즈넉한 산간마을인데, 사방을 둘러봐도 교회 비슷한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차를 돌려 지나온 길을 다시 더듬어 내려가다가 어렵사리 발견한 ‘시골집’ 나무 팻말, 그 아래 ‘시골교회’라고 작은 글씨가 새겨진 목판이 부록처럼 달려 있다. 십자가도 종탑도 없는 한옥건물이라, 언뜻 봐선 닭백숙이나 막걸리를 파는 시골 밥집 같기도 하다.<br/><br/> “오죽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여기까지 왔을 거여? 찾다 찾다 없으니까 나한테까지 왔을 거 아녀?”<br/><br/> 짧고 진한 눈썹과 작은 눈에, 웃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그가 말했다. 평생을 장애인, 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음식을 통한 자연치유법을 전파해 온, 자칭 ‘돌파리(突破理)’ 목사 임락경(69)이다. 순창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이 공식학력의 전부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 농민단체, 정농회(正農會) 회장을 역임했고 상지대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올바른 섭생법을 가르치는 임락경의 건강교실을 14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그의 교회엔 별도의 예배당이나 강대(講臺)도 없다. 그가 안내해 들어간 넓은 온돌방이, 시골집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 식당이자 손님을 맞는 사랑방이면서 주일엔 예배당이 된다고 했다. 십자가 대신 한쪽 벽면에 걸려 있는 자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br/><br/> “<span class='quot0'>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소서…</span>”<br/><br/>십자가도 종탑도 없는 한옥건물 <br/>강원도 화천의 산간마을에서 <br/>시골집과 시골교회를 운영 <br/>장애인 15명과 기대어 살며 <br/>14년째 섭생법 건강교실 열어<br/><br/>유영모 이현필 최흥종에 감화 <br/>학교 대신 보낸 결핵환자요양소 <br/>폐결핵 전염을 두려워하던 시절 <br/>“<span class='quot0'>즐거울 때 침은 결핵균 이긴다</span>” <br/>신념으로 죽을 때 죽자고 일해 <br/><br/> ‘할렐루’의 대한예수팔아장사회 목사님<br/><br/> 시골교회 뒤 비스듬한 경사지를 따라 콩과 깨, 고추와 배추, 수세미와 박, 당근 같은 채소가 올망졸망 여물어 가고 있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체 받지 않는 시골집은, 필요한 대부분의 식재료를 이 밭에서 직접 키워 먹는다. 유기농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된장, 간장 담가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소규모로 판매도 한다. 커다란 가마솥 여섯 개가 나란히 걸렸고,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옹기항아리들이 양지바른 마당에 가지런하다. 옹기장수가 잘못 만들어 우글쭈글한 항아리도 여기선 소중한 된장, 간장독으로 쓰인다.<br/><br/> -한옥집 2층에 누각이 널찍하다. 여름엔 무척 시원하겠다.<br/><br/> “거기서 작업도 하고 놀기도 한다. 경회루, 광한루 하듯이, 우리는 저걸 ‘할렐루’라고 부른다.”<br/><br/> -(웃음) 원래 이름을 잘 지으시나보다. 시골교회라는 이름도 참 특이한데.<br/><br/> “원래 붙이려고 했던 이름은 ‘망할 교회’였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교회를 꾸려나가는데, 장애인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니까. 그 이름으로 교단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노회 서기가 불같이 성질을 내서 못하게 되었지만….”<br/><br/> -목사님 교단이 어딘데 그러나?<br/><br/> “대한예수팔아장사회.”<br/><br/> -대한예수…?(받아적다가 웃음 터지며) 난 또 정말인 줄 알고….<br/><br/> “예전에 기독교방송 나가서도 그렇게 말한 적 있다. 그랬더니 피디가 ‘이거 그대로 방송 나가도 되겠어요?’ 묻더라. 항의하는 사람 있으면 내게 전화하게 하라 했지. ‘예끼, 당신들은 예수 팔아 장사 안 하냐?’ 하고 묻게. 근데 한명도 항의전화가 없었다.”<br/><br/> -언제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사시게 되었나?<br/><br/> “<span class='quot0'>그냥 살면서 하나둘 모이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밖에서는 이걸 복지시설이라고 보던데, 난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span>”<br/><br/> 임락경은 여기서 15명의 식구들과 함께 지낸다. 장애인도 있고 요양을 위해 찾아온 암환자도 있다. 들고 나는 게 자유로우니, 법정 수용시설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같이 기대어 사는 식구들일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모양도 크기도 비뚤비뚤 제각각이지만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장독대 옹기들처럼, 그의 식구들도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얼크러져 섞여 산다.<br/><br/>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br/><br/> “<span class='quot0'>낮에는 농사일하거나 강연 다니고 잠은 열시부터 새벽 두시까지 잔다.</span>”<br/><br/> -두시에 일어나 뭐하시나?<br/><br/>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갔으니 교과서는 봐야 하고. 대학도 안 다녔으니 전문은 아니지만 필요한 건 봐야 하고. 난 평생 낮에는 책상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없다.”<br/><br/> -그럼 두시부터 날 밝을 때까지 책 읽고 공부하고?<br/><br/> “책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다. 내 일생에 사 본 책은 열권이 안 되고, 읽은 책은 백 권 넘었나 모르겠다.”<br/><br/> -그럼 어떤 공부를 한 건가?<br/><br/> “공부란 자연에서 원리를 찾고 사람에게서 원리를 찾아야지, 책은 다 짜깁기다. 짜깁기의 원본은 사실 몇권 안 되는데 팔만대장경, 사서삼경, 노자, 장자, 성경… 그런 책들은 원문 그대로 읽었다.”<br/><br/> 임락경이 순창 유등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는 그에게 중학 진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학교 대신, 결핵환자요양소를 찾아가 십대를 보냈다. 66년 군 입대를 했는데 그때 배치받은 곳이 강원도 화천이었다. 제대 후 다시 결핵환자요양소인 동광원에 돌아가 일을 하는 한편, 크리스찬아카데미, 가톨릭농민회 활동 등을 하다가 80년 다시 화천으로 들어와 이곳에 터를 잡았다.<br/><br/><br/><br/> 사랑의 침은 해독제, 증오의 침은 독약<br/><br/> -평생 세속적인 명예나 권력에 거리를 두고 사셨다. 종교적인 신념인가?<br/><br/> “종교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배운 자연의 이치다. 미국은 글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나는 사내, 너는 계집’인데, 우린 처음 배우는 말이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를 황’이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우주홍황(宇宙洪荒).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커서 끝이 없다. 일월영측(日月盈昃),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점차 이지러진다. 돈 좀 벌었다, 지위 있다, 명예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일곱살 때 이런 우주의 진리를 배운 거다.”<br/><br/> -돈이나 권력이 없어서 아쉬울 때는 없었나?<br/><br/> “없었다. 어릴 때부터 ‘커서 교회 집사도 하지 말아야겠다. 사회에선 반장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산기슭에 초가집 3칸 짓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그게 희망의 전부였다. 근데 정농회 회장까지 했으니….”<br/><br/> -어릴 때라는 게 몇살 땐가?<br/><br/>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한 거다. 3학년 때 곱하기 배우다가 계산해보니 인생이 100년이면 36500일이다. 70살까지 산다고 쳐도 60년 남았는데, 그게 2만일. 하, 2만일을 어떻게 사나, 직업을 뭘 가질까 고민했는데. 공무원은 없어도 살겠더라. 목사가 없으면 더 잘 살겠고. 근데 농사짓는 사람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난 평생 농사짓겠다’ 결심했다.”<br/><br/>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 나이에.(웃음) 곱셈 배웠다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br/><br/> “그때 교회에서 훌륭한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현필 선생, 유영모 선생 같은 분들. 무작정 집을 나와 광주의 이현필 선생을 찾아 나섰다가 최흥종 선생을 만난 것도 내겐 큰 행운이었다.”<br/><br/> 오산학교 교장으로 유불선과 성서 연구에 큰 획을 그은 사상가 유영모, 거지와 고아, 결핵환자들을 돌보며 ‘맨발의 성자’로 불린 이현필, 자기 땅을 희사해서 한국 최초의 나환자 치료시설인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고 걸인과 병자를 구제하는 데 일생을 바친 최흥종의 가르침은, 소년 임락경을 가슴 부풀게 한 구원의 빛이었다. 이들 선각자들의 공통점은 엄격한 기독교적 청빈과 금욕, 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생적 신앙공동체를 이루되, 교파와 형식, 조직에 얽매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상은 함석헌, 원경선, 류달영, 임락경 등으로 이어지며 이후 개혁적 사상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의 주요한 원류가 되었다.<br/><br/> -어린 마음에 큰 스승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광주까지 찾아간 건 이해가 된다. 그렇다 해도 결핵환자를 돌보면서 살아야지, 결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치료약이나 위생시설이 변변치 못해서 폐결핵환자라면 가까이 하기 두려워하고 외면하던 시절 아닌가? <br/><br/>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기로 한 거다. 겁이 난들 어떡하나. 사람이 죽어 가는데.”<br/><br/> -겁나면 자리를 피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br/><br/> “그냥 전염되면 죽어야지 했다. 3년 후 군대 갈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 생각 못했다.”<br/><br/> -종교적 결단이 아니고서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br/><br/> “<span class='quot0'>그냥… 그쪽엔 그런 사람이 많았으니까.</span>”<br/><br/>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한 것도 아니었다.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으니 할 만큼 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다는, 담담한 마음이었다.<br/><br/>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예사로운 일이었다?<br/><br/> “그랬다. 내가 요즘 일생을 정리하면서 통계를 내봤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결핵환자들한테 봉사했던 사람 중에 아직 한명도 안 죽었다. 나보다 열살 이상 많은 형님도 있었는데 지금 모두 살아 있다. 즐거울 때 나오는 침은 결핵균도 이길 수 있다. 난 그렇게 본다.”<br/><br/> -의사들이 들으면 펄쩍 뛸 소리다.<br/><br/> “사랑할 때 나오는 침은 나병도 물리친다니까. 나병이 침으로도 전염되는데, 부부간에 전염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사랑할 땐 침이 해독이 돼버리는지… 사랑할 때는 할머니가 손자한테 음식을 씹어줘도 괜찮다. 그 침은 해독을 시키니까. 근데 미워할 때 나오는 침은 독이 되는 거지. 옛말에 침 뱉고 싸우지 말라고 한다. 버짐 생긴다고. 결핵환자를 무서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니 결핵균도 이겨낸 게 아닐까?”<br/><br/> 그가 결핵균을 이겨낸 전설 같은 일화는 그때 말고도 또 있다. 70년대 임락경이 경기도에서 크리스찬아카데미의 농민 조직사업을 할 때였다. 같은 마을 사람 하나가 폐결핵을 앓다가 죽었는데, 전염될까 겁이 나서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 그 소식을 들은 임락경은 망설임 없이 혼자서 농약통을 짊어지고 가서, 시신 주변에 뿌리고 혼자서 염을 했다. 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으로 이우재, 한명숙, 신인령, 김세균 등과 같이 그가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서 “임락경 같은 사람이 간첩일 리 없다”고 조사 나온 중정요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임락경은 기소를 면하고 풀려났다.<br/><br/> 인터뷰는 중간중간 끊겼다. 임락경 목사에게 10분이 멀다 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왔기 때문이다. <br/><br/> 대개 어디가 안 좋은데 어쩌면 좋겠냐는 문의 전화였다. 그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바로바로 민간처치요법을 일러줬다. 어떤 이에게는 녹두 삶은 물을 마시라 하고, 어떤 이에게는 고기를 끊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다. 어떤 이에게는 마가목으로 담근 술을 마시라 했고 꿀을 큰 종지로 벌컥벌컥 삼키라고도 했다. 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싶은데, 임락경의 자연치유요법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매년 20여차례, 2박3일 혹은 3박4일에 걸쳐 열리는 임락경의 건강교실은 14년째 성황을 이루고 있다. <흥부처럼 먹어라, 그래야 병 안 난다>, <먹기 싫은 음식이 병을 고친다>, <돌파리 잔소리> 등 그는 건강 관련 지침서도 몇권 내놓았다.<br/><br/><br/><br/> 평생 번 돈, 병원에 바치고 포도당 꽂고 죽을래?<br/><br/> -이런 건강 관련 지식은 다 어디서 배운 건가?<br/><br/> “몇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깨치고 나면 처방이 바로 나온다. 한문을 쓸 때 처음엔 어려운데 갑자기 쉬워질 때가 있다. 무슨 변에, 무슨 자 합치면 무슨 자가 된다… 그 기본자만 익히면 한문이 아주 편해지는 것처럼 건강 원리도 그렇다. 그래서 내 별명이 ‘돌파리(突破理)’ 아닌가. 이치를 돌파한다고.(웃음)”<br/><br/> -몇가지 기본 원리의 예를 든다면?<br/><br/>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걸렸다 그럼 새우젓. 소고기 먹고 병났다 그럼 배를 먹어야 된다. 개고기 먹고 병났다 하면 살구, 복숭아는 안 되고. 해산물은 미나리를 먹어야 하는데 처음에 회 시킬 때 파슬리부터 먹는 게 좋다. 꼭 와사비에 찍어 먹고. 미나리 같이 생긴 채소가 서양에선 파슬리, 일본에선 와사비니까. 모든 약초, 약물에서 병이 났다고 하면 녹두를 먹어야 한다.”<br/><br/> -고기는 왜 먹지 말라고 하시나?<br/><br/> “사람에 따라 다른데 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도 요즘 좋은 고기가 없으니까. 배합사료에 항생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성장촉진제다. 내가 직접 양계를 해봐서 아는데, 닭이 정상적으로 1.5㎏ 되기까지 1년이 걸린다. 근데 요즘은 한달 안에 1.5㎏ 못 만들면 양계장 망한다. 1년 클 것을 한달 안에 키운단 얘긴데, 농약, 비료, 제초제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거다. 성장촉진제 먹고 자란 육계(肉鷄)나 양식 물고기들….”<br/><br/> -병의 원인이 다양할 텐데 너무 단순화하는 것 아닌가?<br/><br/> “70년대 이전에는 나병이나 결핵같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았다. 70년대는 단군 이래 가장 건강한 때였다. 영양결핍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전면화되기 전이라. 80년대부터는 암, 관절염, 아토피 같은 병이 무섭게 늘어났다. 오염된 음식과 너무 많이 먹은 음식이 문제였던 거다. 몸 안에 독이 들어오면 처음엔 땀으로 빠지고 나중엔 소변으로 빠진다. 몸이 차가워지면 이 독이 빠져나오질 못해 아토피가 되고 암이 된다.”<br/><br/> -유기농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중산층 이상이 아니면 사먹기가 힘들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나?<br/><br/> “그걸 비싸다고 하면 안 된다. 병원에 갈 돈이면 한달 먹을 수 있는데. 커피는 오천원짜리 마시면서 이런 걸 비싸다고 하면 되겠나? 평생 일해서 30년간 학교에 돈 갖다 바치고, 30년간 병원에 돈 갖다 바치고, 죽을 때 5% 포도당 꽂고 죽는다. 그러려고 생을 사나? 학교 안 가고 병원 안 가면서, 안 아프고 유기농 포도 맛있게 먹다 죽는 게 낫지.”<br/><br/>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여쭙겠다. 원래 얼굴이 그런 표정이셨나? 40대 이후 얼굴을 자기가 만드는 거라는데, 가만히 계셔도 웃는 얼굴이다.<br/><br/> “웃고 살아야지. 웃기지 않으면 심심하고. 사바세계에는 어쩔 수 없이 희로애락이 있는데, 희하고 락이 40%, 애와 로가 60%이다. 자기랑 가족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즐거움이 커진다. 그럼 희하고 락이 60, 애와 로가 40이 되지. 이것만 바뀌어도 세상이 아주 편해진다.(웃음)”<br/><br/> 40 대 60을 60 대 40으로 바꾸기. 아주 조금만 훌륭해져도 되는 일이, 범인(凡人)에겐 왜 이리 어려울까. 한숨을 내쉬며 임락경 목사를 쳐다보니, 빙긋이 웃는 얼굴로 덤덤하니 앉아 있다. <br/><br/>녹취 김연지(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8.txt

제목: 시골목사의 행복 비결…‘우리 함께 돌파리가 되자’  
날짜: 2014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310015334034  
본문: ▶ 이진순 언론학 박사. 희망제작소 부소장.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하다가 사직하고 귀국해 시민운동 현장에 합류했다. 경험과 논리에 갇히지 않고 즐겁게 소통하고 진화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br/><br/><br/><br/>목적지는 ‘시골교회’. 내비게이션에 꼬불꼬불 외줄기 산길이 그려진다. 갈비집 즐비한 포천을 지나 가파른 광덕산 고개를 타고 넘어 강원도 화천군으로 들어서자, 주변을 에워싼 높은 고갯마루를 넘어서지 못한 비구름이 산중턱에 걸린 채 운무로 피어오른다. 신선이라도 나타날 듯 고즈넉한 산간마을인데, 사방을 둘러봐도 교회 비슷한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차를 돌려 지나온 길을 다시 더듬어 내려가다가 어렵사리 발견한 ‘시골집’ 나무 팻말, 그 아래 ‘시골교회’라고 작은 글씨가 새겨진 목판이 부록처럼 달려 있다. 십자가도 종탑도 없는 한옥건물이라, 언뜻 봐선 닭백숙이나 막걸리를 파는 시골 밥집 같기도 하다.<br/><br/> “오죽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여기까지 왔을 거여? 찾다 찾다 없으니까 나한테까지 왔을 거 아녀?”<br/><br/> 짧고 진한 눈썹과 작은 눈에, 웃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그가 말했다. 평생을 장애인, 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음식을 통한 자연치유법을 전파해 온, 자칭 ‘돌파리(突破理)’ 목사 임락경(69)이다. 순창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이 공식학력의 전부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 농민단체, 정농회(正農會) 회장을 역임했고 상지대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올바른 섭생법을 가르치는 임락경의 건강교실을 14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그의 교회엔 별도의 예배당이나 강대(講臺)도 없다. 그가 안내해 들어간 넓은 온돌방이, 시골집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 식당이자 손님을 맞는 사랑방이면서 주일엔 예배당이 된다고 했다. 십자가 대신 한쪽 벽면에 걸려 있는 자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br/><br/> “<span class='quot0'>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소서…</span>”<br/><br/>십자가도 종탑도 없는 한옥건물 <br/>강원도 화천의 산간마을에서 <br/>시골집과 시골교회를 운영 <br/>장애인 15명과 기대어 살며 <br/>14년째 섭생법 건강교실 열어<br/><br/>유영모 이현필 최흥종에 감화 <br/>학교 대신 보낸 결핵환자요양소 <br/>폐결핵 전염을 두려워하던 시절 <br/>“<span class='quot0'>즐거울 때 침은 결핵균 이긴다</span>” <br/>신념으로 죽을 때 죽자고 일해 <br/><br/> ‘할렐루’의 대한예수팔아장사회 목사님<br/><br/> 시골교회 뒤 비스듬한 경사지를 따라 콩과 깨, 고추와 배추, 수세미와 박, 당근 같은 채소가 올망졸망 여물어 가고 있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체 받지 않는 시골집은, 필요한 대부분의 식재료를 이 밭에서 직접 키워 먹는다. 유기농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된장, 간장 담가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소규모로 판매도 한다. 커다란 가마솥 여섯 개가 나란히 걸렸고,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옹기항아리들이 양지바른 마당에 가지런하다. 옹기장수가 잘못 만들어 우글쭈글한 항아리도 여기선 소중한 된장, 간장독으로 쓰인다.<br/><br/> -한옥집 2층에 누각이 널찍하다. 여름엔 무척 시원하겠다.<br/><br/> “거기서 작업도 하고 놀기도 한다. 경회루, 광한루 하듯이, 우리는 저걸 ‘할렐루’라고 부른다.”<br/><br/> -(웃음) 원래 이름을 잘 지으시나보다. 시골교회라는 이름도 참 특이한데.<br/><br/> “원래 붙이려고 했던 이름은 ‘망할 교회’였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교회를 꾸려나가는데, 장애인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니까. 그 이름으로 교단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노회 서기가 불같이 성질을 내서 못하게 되었지만….”<br/><br/> -목사님 교단이 어딘데 그러나?<br/><br/> “대한예수팔아장사회.”<br/><br/> -대한예수…?(받아적다가 웃음 터지며) 난 또 정말인 줄 알고….<br/><br/> “예전에 기독교방송 나가서도 그렇게 말한 적 있다. 그랬더니 피디가 ‘이거 그대로 방송 나가도 되겠어요?’ 묻더라. 항의하는 사람 있으면 내게 전화하게 하라 했지. ‘예끼, 당신들은 예수 팔아 장사 안 하냐?’ 하고 묻게. 근데 한명도 항의전화가 없었다.”<br/><br/> -언제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사시게 되었나?<br/><br/> “<span class='quot0'>그냥 살면서 하나둘 모이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밖에서는 이걸 복지시설이라고 보던데, 난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span>”<br/><br/> 임락경은 여기서 15명의 식구들과 함께 지낸다. 장애인도 있고 요양을 위해 찾아온 암환자도 있다. 들고 나는 게 자유로우니, 법정 수용시설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같이 기대어 사는 식구들일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모양도 크기도 비뚤비뚤 제각각이지만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장독대 옹기들처럼, 그의 식구들도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얼크러져 섞여 산다.<br/><br/>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br/><br/> “<span class='quot0'>낮에는 농사일하거나 강연 다니고 잠은 열시부터 새벽 두시까지 잔다.</span>”<br/><br/> -두시에 일어나 뭐하시나?<br/><br/>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갔으니 교과서는 봐야 하고. 대학도 안 다녔으니 전문은 아니지만 필요한 건 봐야 하고. 난 평생 낮에는 책상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없다.”<br/><br/> -그럼 두시부터 날 밝을 때까지 책 읽고 공부하고?<br/><br/> “책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다. 내 일생에 사 본 책은 열권이 안 되고, 읽은 책은 백 권 넘었나 모르겠다.”<br/><br/> -그럼 어떤 공부를 한 건가?<br/><br/> “공부란 자연에서 원리를 찾고 사람에게서 원리를 찾아야지, 책은 다 짜깁기다. 짜깁기의 원본은 사실 몇권 안 되는데 팔만대장경, 사서삼경, 노자, 장자, 성경… 그런 책들은 원문 그대로 읽었다.”<br/><br/> 임락경이 순창 유등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는 그에게 중학 진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학교 대신, 결핵환자요양소를 찾아가 십대를 보냈다. 66년 군 입대를 했는데 그때 배치받은 곳이 강원도 화천이었다. 제대 후 다시 결핵환자요양소인 동광원에 돌아가 일을 하는 한편, 크리스찬아카데미, 가톨릭농민회 활동 등을 하다가 80년 다시 화천으로 들어와 이곳에 터를 잡았다.<br/><br/><br/><br/> 사랑의 침은 해독제, 증오의 침은 독약<br/><br/> -평생 세속적인 명예나 권력에 거리를 두고 사셨다. 종교적인 신념인가?<br/><br/> “종교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배운 자연의 이치다. 미국은 글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나는 사내, 너는 계집’인데, 우린 처음 배우는 말이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를 황’이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우주홍황(宇宙洪荒).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커서 끝이 없다. 일월영측(日月盈昃),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점차 이지러진다. 돈 좀 벌었다, 지위 있다, 명예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일곱살 때 이런 우주의 진리를 배운 거다.”<br/><br/> -돈이나 권력이 없어서 아쉬울 때는 없었나?<br/><br/> “없었다. 어릴 때부터 ‘커서 교회 집사도 하지 말아야겠다. 사회에선 반장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산기슭에 초가집 3칸 짓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그게 희망의 전부였다. 근데 정농회 회장까지 했으니….”<br/><br/> -어릴 때라는 게 몇살 땐가?<br/><br/>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한 거다. 3학년 때 곱하기 배우다가 계산해보니 인생이 100년이면 36500일이다. 70살까지 산다고 쳐도 60년 남았는데, 그게 2만일. 하, 2만일을 어떻게 사나, 직업을 뭘 가질까 고민했는데. 공무원은 없어도 살겠더라. 목사가 없으면 더 잘 살겠고. 근데 농사짓는 사람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난 평생 농사짓겠다’ 결심했다.”<br/><br/>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 나이에.(웃음) 곱셈 배웠다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br/><br/> “그때 교회에서 훌륭한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현필 선생, 유영모 선생 같은 분들. 무작정 집을 나와 광주의 이현필 선생을 찾아 나섰다가 최흥종 선생을 만난 것도 내겐 큰 행운이었다.”<br/><br/> 오산학교 교장으로 유불선과 성서 연구에 큰 획을 그은 사상가 유영모, 거지와 고아, 결핵환자들을 돌보며 ‘맨발의 성자’로 불린 이현필, 자기 땅을 희사해서 한국 최초의 나환자 치료시설인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고 걸인과 병자를 구제하는 데 일생을 바친 최흥종의 가르침은, 소년 임락경을 가슴 부풀게 한 구원의 빛이었다. 이들 선각자들의 공통점은 엄격한 기독교적 청빈과 금욕, 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생적 신앙공동체를 이루되, 교파와 형식, 조직에 얽매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상은 함석헌, 원경선, 류달영, 임락경 등으로 이어지며 이후 개혁적 사상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의 주요한 원류가 되었다.<br/><br/> -어린 마음에 큰 스승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광주까지 찾아간 건 이해가 된다. 그렇다 해도 결핵환자를 돌보면서 살아야지, 결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치료약이나 위생시설이 변변치 못해서 폐결핵환자라면 가까이 하기 두려워하고 외면하던 시절 아닌가? <br/><br/>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기로 한 거다. 겁이 난들 어떡하나. 사람이 죽어 가는데.”<br/><br/> -겁나면 자리를 피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br/><br/> “그냥 전염되면 죽어야지 했다. 3년 후 군대 갈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 생각 못했다.”<br/><br/> -종교적 결단이 아니고서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br/><br/> “<span class='quot0'>그냥… 그쪽엔 그런 사람이 많았으니까.</span>”<br/><br/>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한 것도 아니었다.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으니 할 만큼 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다는, 담담한 마음이었다.<br/><br/>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예사로운 일이었다?<br/><br/> “그랬다. 내가 요즘 일생을 정리하면서 통계를 내봤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결핵환자들한테 봉사했던 사람 중에 아직 한명도 안 죽었다. 나보다 열살 이상 많은 형님도 있었는데 지금 모두 살아 있다. 즐거울 때 나오는 침은 결핵균도 이길 수 있다. 난 그렇게 본다.”<br/><br/> -의사들이 들으면 펄쩍 뛸 소리다.<br/><br/> “사랑할 때 나오는 침은 나병도 물리친다니까. 나병이 침으로도 전염되는데, 부부간에 전염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사랑할 땐 침이 해독이 돼버리는지… 사랑할 때는 할머니가 손자한테 음식을 씹어줘도 괜찮다. 그 침은 해독을 시키니까. 근데 미워할 때 나오는 침은 독이 되는 거지. 옛말에 침 뱉고 싸우지 말라고 한다. 버짐 생긴다고. 결핵환자를 무서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니 결핵균도 이겨낸 게 아닐까?”<br/><br/> 그가 결핵균을 이겨낸 전설 같은 일화는 그때 말고도 또 있다. 70년대 임락경이 경기도에서 크리스찬아카데미의 농민 조직사업을 할 때였다. 같은 마을 사람 하나가 폐결핵을 앓다가 죽었는데, 전염될까 겁이 나서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 그 소식을 들은 임락경은 망설임 없이 혼자서 농약통을 짊어지고 가서, 시신 주변에 뿌리고 혼자서 염을 했다. 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으로 이우재, 한명숙, 신인령, 김세균 등과 같이 그가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서 “임락경 같은 사람이 간첩일 리 없다”고 조사 나온 중정요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임락경은 기소를 면하고 풀려났다.<br/><br/> 인터뷰는 중간중간 끊겼다. 임락경 목사에게 10분이 멀다 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왔기 때문이다. <br/><br/> 대개 어디가 안 좋은데 어쩌면 좋겠냐는 문의 전화였다. 그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바로바로 민간처치요법을 일러줬다. 어떤 이에게는 녹두 삶은 물을 마시라 하고, 어떤 이에게는 고기를 끊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다. 어떤 이에게는 마가목으로 담근 술을 마시라 했고 꿀을 큰 종지로 벌컥벌컥 삼키라고도 했다. 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싶은데, 임락경의 자연치유요법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매년 20여차례, 2박3일 혹은 3박4일에 걸쳐 열리는 임락경의 건강교실은 14년째 성황을 이루고 있다. <흥부처럼 먹어라, 그래야 병 안 난다>, <먹기 싫은 음식이 병을 고친다>, <돌파리 잔소리> 등 그는 건강 관련 지침서도 몇권 내놓았다.<br/><br/><br/><br/> 평생 번 돈, 병원에 바치고 포도당 꽂고 죽을래?<br/><br/> -이런 건강 관련 지식은 다 어디서 배운 건가?<br/><br/> “몇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깨치고 나면 처방이 바로 나온다. 한문을 쓸 때 처음엔 어려운데 갑자기 쉬워질 때가 있다. 무슨 변에, 무슨 자 합치면 무슨 자가 된다… 그 기본자만 익히면 한문이 아주 편해지는 것처럼 건강 원리도 그렇다. 그래서 내 별명이 ‘돌파리(突破理)’ 아닌가. 이치를 돌파한다고.(웃음)”<br/><br/> -몇가지 기본 원리의 예를 든다면?<br/><br/>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걸렸다 그럼 새우젓. 소고기 먹고 병났다 그럼 배를 먹어야 된다. 개고기 먹고 병났다 하면 살구, 복숭아는 안 되고. 해산물은 미나리를 먹어야 하는데 처음에 회 시킬 때 파슬리부터 먹는 게 좋다. 꼭 와사비에 찍어 먹고. 미나리 같이 생긴 채소가 서양에선 파슬리, 일본에선 와사비니까. 모든 약초, 약물에서 병이 났다고 하면 녹두를 먹어야 한다.”<br/><br/> -고기는 왜 먹지 말라고 하시나?<br/><br/> “사람에 따라 다른데 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도 요즘 좋은 고기가 없으니까. 배합사료에 항생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성장촉진제다. 내가 직접 양계를 해봐서 아는데, 닭이 정상적으로 1.5㎏ 되기까지 1년이 걸린다. 근데 요즘은 한달 안에 1.5㎏ 못 만들면 양계장 망한다. 1년 클 것을 한달 안에 키운단 얘긴데, 농약, 비료, 제초제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거다. 성장촉진제 먹고 자란 육계(肉鷄)나 양식 물고기들….”<br/><br/> -병의 원인이 다양할 텐데 너무 단순화하는 것 아닌가?<br/><br/> “70년대 이전에는 나병이나 결핵같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았다. 70년대는 단군 이래 가장 건강한 때였다. 영양결핍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전면화되기 전이라. 80년대부터는 암, 관절염, 아토피 같은 병이 무섭게 늘어났다. 오염된 음식과 너무 많이 먹은 음식이 문제였던 거다. 몸 안에 독이 들어오면 처음엔 땀으로 빠지고 나중엔 소변으로 빠진다. 몸이 차가워지면 이 독이 빠져나오질 못해 아토피가 되고 암이 된다.”<br/><br/> -유기농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중산층 이상이 아니면 사먹기가 힘들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나?<br/><br/> “그걸 비싸다고 하면 안 된다. 병원에 갈 돈이면 한달 먹을 수 있는데. 커피는 오천원짜리 마시면서 이런 걸 비싸다고 하면 되겠나? 평생 일해서 30년간 학교에 돈 갖다 바치고, 30년간 병원에 돈 갖다 바치고, 죽을 때 5% 포도당 꽂고 죽는다. 그러려고 생을 사나? 학교 안 가고 병원 안 가면서, 안 아프고 유기농 포도 맛있게 먹다 죽는 게 낫지.”<br/><br/>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여쭙겠다. 원래 얼굴이 그런 표정이셨나? 40대 이후 얼굴을 자기가 만드는 거라는데, 가만히 계셔도 웃는 얼굴이다.<br/><br/> “웃고 살아야지. 웃기지 않으면 심심하고. 사바세계에는 어쩔 수 없이 희로애락이 있는데, 희하고 락이 40%, 애와 로가 60%이다. 자기랑 가족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즐거움이 커진다. 그럼 희하고 락이 60, 애와 로가 40이 되지. 이것만 바뀌어도 세상이 아주 편해진다.(웃음)”<br/><br/> 40 대 60을 60 대 40으로 바꾸기. 아주 조금만 훌륭해져도 되는 일이, 범인(凡人)에겐 왜 이리 어려울까. 한숨을 내쉬며 임락경 목사를 쳐다보니, 빙긋이 웃는 얼굴로 덤덤하니 앉아 있다. <br/><br/>녹취 김연지(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29.txt

제목: 정진성·백성희 교수 등 /삼성행복대상  
날짜: 2014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2100000126  
본문: 여성 권익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효행을 실천한 여성·단체·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삼성행복대상의 올해 수상자로 정진성(왼쪽·서울대 사회학과), 백성희(오른쪽·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이 선정됐다.<br/>　삼성은 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2014년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6일 삼성생명 콘퍼런스홀에서 열려 수상자에게 5000만원의 상금(청소년상 500만원)이 지급된다. <br/>　여성선도상 수상자 정진성 교수는 여성 권익 전도사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혼이주여성, 불가촉천민(인도 최하층 신분)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성창조상을 받는 백성희 교수는 생명과학자로 암 발생·전이 유전자와 이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규명해 암 조절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를 선도했고, 연구 결과가 국제 과학 전문지에 소개돼 암 치료제 개발의 기초자료로 인용되고 있다.<br/>　가족화목상은 ‘이(e)세대 가정봉사단’이 받는다. 이밖에 폐암 투병 중인 부친을 간호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활발한 교내활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김솔비(18·제주여상고 3) 학생 등이 청소년상을 받는다. 연합뉴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0.txt

제목: 4대 중증질환 보장 늘린다더니 /부족한 ‘암환자 지원 예산’ 더 깎아  
날짜: 2014100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1100000027  
본문: 정부의 2015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보면 암이나 치매 치료 진료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확충, 양육수당 등에서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깎였다. <br/>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기자재 마련 및 노후 시설 개선 등 기능 보강 예산은 약 22억원이 삭감됐다. <br/> 내년도에 확충될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와 같은 171곳인데, 여기에 들어갈 교재교구·복사기·냉장고·싱크대 등 기자재 단가를 낮춰 잡는 방식으로 올해 예산 28억8천만원에서 18억4200만원이 줄어든 10억3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어린이집의 노후 시설이나 석면 제거, 안전 진단 등을 위한 기능 보강 예산도 3억5700만원이 삭감됐다. 이 분야 업무를 맡은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내년에 확충될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올해와 같은데 기자재나 기능 보강 예산이 많이 깎여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안전 진단 등에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정부가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금액 비율(보장성)을 올해 90%에서 내년에는 9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암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암환자 지원사업 예산을 약 50억5천만원이나 줄였다. 올해 예산이 약 237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86억4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암 환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의 암 환자가 낸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100만원까지, 건강보험 비적용 부분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분야 복지부 관계자는 “암 환자가 계속 증가해 암 환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약 30억원이 부족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 부족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br/>　치매나 백내장 등 노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의 진료비 지원 예산도 깎였다. 치매는 진찰비나 약값으로 한해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대비 11억3500만원이 삭감됐다. 백내장 등의 수술비 지원액도 1억1천만원이 줄었다. 해당 분야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치매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에서 이 분야 예산은 올려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양육수당도 올해 대비 1135억원가량이 삭감됐다. 지원 대상이 올해엔 101만2천명이었는데, 출산율 저하를 이유로 내년에는 91만9천명으로 책정한 탓이다. 하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선 0~5살이 2014년 274만1309명, 2015년 274만1321명으로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분야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양육수당은 법정수당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span>”고 말했다. 아울러 출생아가 줄고 있다며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약 11억원이 줄어든 5억원만 남게 됐다.<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br/> 세종/김소연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1.txt

제목: 건보료와 담뱃값  
날짜: 2014100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1100000134  
본문: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가? 지난 2월 서울에서 일어난 이른바 ‘세 모녀 사건’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는 스스로 생을 끝내면서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합쳐 70만원을 남겼다. 그저 착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 세 모녀는 무려 한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 모녀가 내던 월세와 가족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br/>　가난한 이들조차 수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무려 21억4000만원으로 평가된 부동산 19건을 가진 부자에게 단 한푼의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았다. 또 집을 5채 이상 가진 15만8000여명도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30여만원의 월세를 내는 집에 살면서 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그 월세를 받는 어느 누군가는 보험료 한푼 내지 않았다.<br/>　소득이 투명하다고 ‘유리지갑’이라고는 하지만 직장인들도 보험료 차등은 심각하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 다른 소득을 통해 수천만원을 벌어도 월급만 같으면 보험료는 똑같다.<br/>　이러다 보니 보험료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한해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는 5000만건이 넘게 쏟아진다고 한다. 상황이 이 정도이면 벌써 10년 넘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br/>　보험료를 내는 과정만 불공평한가? 그렇지도 않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결과를 봐도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혜택을 더 많이 본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서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내준 병원 진료비를 보자.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한달에 병원을 이용한 뒤 11만7000원가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했다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는 23만8000원을 지급했다. 보통 가난한 사람이 암 등 각종 질환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지만, 병원 이용만큼은 부자가 더 많이 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혜택도 더 많이 본 것이다.<br/>　이런 데에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금액 비율이 전체 진료비 가운데 60%대 초반으로 낮기 때문에, 환자가 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이들은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 만들어진 보험료 부과 체계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에 견줘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가난한 이들이 정작 아플 때는 병원 이용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다.<br/>　보험료가 나온 마당에 보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건강증진기금이 붙어 있는 담뱃값 이야기도 해보자. 만약 세 모녀 가운데 한 사람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웠다고 치면, 한갑에 세금을 1550원이나 낸다. 한달이면 4만6000원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세금은 한갑당 3318원으로 커지고, 한달이면 10만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한 이들이 부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br/>　정부가 고소득층의 재산이나 소득을 충실히 평가해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는 개선 노력은 더디 하면서, 저소득층이 중독이 돼 끊기가 어려운 담배에만 세금을 더 붙여, 가난한 이들을 더 가난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2.txt

제목: 늘려도 모자랄 판에…‘싹둑’ 잘렸습니다 /가정양육수당1135억 삭감 /저소득 암환자 지원50억 삭감 /신생아집중치료20억 삭감 /영유아 건강관리17억 삭감  
날짜: 2014100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1100000010  
본문: 내년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지만, 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분이 복지예산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탓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면<br/>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안을 보면, ‘저체중 아기’의 치료실 마련을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내년 예산이 86억4000만원으로 올해(107억800만원)보다 20억6800만원 삭감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강원을 제외한 전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해 아기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저체중 출생아 수가 2만5870명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2035명이었지만 병상 수가 421개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0개 줄어든 40개의 치료실을 지을 수밖에 없다.<br/>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도 내년에 17억4900만원 줄어들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3인 642만2000원) 이하 가구에서 미숙아(저체중, 조산)나 선천성으로 이상징후를 보이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장애를 막고 사망을 예방하는 사업이다.<br/>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내년에 50억원 깎이도록 짜여 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0~5살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 10만~2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장애아 포함)도 1135억5100만원 줄었다.<br/>　이처럼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은 법적 복지의무 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 전체 재정 규모는 크게 늘지 않은 탓이다. 내년에 복지 관련 예산이 9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기초연금 등 정부의 의지와 별 상관없이 이미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이다. 정부가 빠듯한 재정상황 탓에 의무지출 증가 속도에 맞춰 전체 복지예산 규모를 늘리지 못해, 의무지출 외의 다른 복지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span class='quot0'>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 등 세입을 확충해 전체 재정 규모와 복지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span>”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br/> dand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3.txt

제목: 2015년 취약계층·저출산 복지예산 삭감 현황 자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건복지부  
날짜: 2014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1100000116  
본문: 2015년 취약계층·저출산 복지예산 삭감 현황 자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건복지부사업명2015년 예산(정부안)2014년보다 삭감된 액수양육수당1조1017억6800만원1135억5100만원암환자 지원 사업186억4000만원50억4800만원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86억4000만원20억6800만원국공립어린이집 확충334억4600만원18억4200만원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157억3700만원17억4900만원노인 건강관리125억9700만원14억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4.txt

제목: 취약계층 배려에 소홀한 내년 복지예산  
날짜: 2014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1100000036  
본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 비중(30.7%)이 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는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8.5%로 전체 예산 증가율(5.7%)을 크게 앞선 데 따른 결과다. ‘30% 돌파’는 복지정책 역사에서 평가할 만한 의미있는 수치다. 그럼에도 복지예산의 세부항목에서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출산 해소와 일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쪽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br/>　먼저 가정양육수당 사업예산이 올해보다 1135억원이나 줄어든다. 이 수당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0~5살 아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 실적과 출산율 감소를 고려해 삭감했다고 하지만 규모가 적정한지 의문이다. 정부가 며칠 전 ‘정부 3.0 발전계획’을 통해 양육수당 신청서를 미리 만들어 보내는 등 ‘선제적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보면 더 그렇다. 예산이 줄면 사업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br/>　또 저체중 출생아 치료와 관리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예산이 20억원,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여부를 출생 뒤 조기 검진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이 17억원 삭감됐다. 암환자 지원(50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29억원), 노인 의치·틀니 지원(67억원) 예산 등도 줄어들게 돼 있다.<br/>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된 반면, 써야 할 곳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계층·집단에 꼭 필요한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기도 한다.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출산·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삭감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출산 해소는 중요한 국가 과제다. 이런 예산을 줄인 채 어떻게 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br/>　그런 만큼 저출산·취약계층 예산을 늘려야 한다. 복지예산 증대에 가려진 이런 그늘을 줄일 수 있게 예산을 재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9.8%인 복지예산 비중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21.9%, 201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세부담률을 보면 비중을 높일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제대로 된 복지가 없으면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수 없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5.txt

제목: 태양과 지구는 왜 둥글까 /중력이 크면 천체는 공 모양이 된다  
날짜: 2014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1001100000076  
본문: 화살처럼 날아간다 하여 ‘살별’이라고도 불린 혜성은 독특하게 긴 꼬리를 남기며 날아가는 천체이다. 태양에 가까이 날 때 혜성의 중심핵 표면에서 증발한 기체와 먼지가 태양풍에 밀려 날아가는 혜성의 뒤쪽에 꼬리를 남긴다. 그런 혜성은 45억년 전 태양계와 지구의 초기 역사를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지구 행성에 물이 풍부한 것은 주로 얼음덩어리인 혜성이 초기 지구에 충돌해 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학설도 있고, 유기분자를 지닌 혜성이 지구에 생명의 씨앗을 주었을 것이라는 학설도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br/>　이런 수수께끼를 풀 단서들이 인류 최초의 혜성 착륙선에서 날아올 전망이다. 2004년 발사된 유럽우주국(ESA)의 혜성 탐사선 ‘로제타’가 10년 만에 목적지인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이하 67P)에 접근해 11월엔 혜성 표면에 착륙선 ‘파일리’를 내려보낸다. 착륙선은 혜성 표면에서 여러 과학 조사 활동을 벌인다.<br/>　<br/>　제멋대로 울퉁불퉁 갖가지 작은 천체들<br/>　그런데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 혜성의 모양이다. 로제타 탐사선이 8월에 보내온 사진을 보면, 최대 길이가 5㎞ 정도인 이 작은 천체는 둥근 공 모양과 거리가 먼 울퉁불퉁한 모양을 하고 있다. 사실 이 혜성뿐 아니라 수십㎞ 길이의 소행성들도 둥근 공과는 다른 모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졌다. 태양과 행성, 달은 둥근데, 혜성이나 소행성은 울퉁불퉁 제멋대로인 이유는 뭘까?<br/>　유력한 태양계 형성 이론에 의하면, 태양계는 기체와 먼지구름에서 비롯했다. 그 중심에선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인 태양이 만들어졌다. 주변에선 먼지가 모여 덩어리를 이루고, 덩어리들이 뭉쳐 점점 더 커지는 과정을 거치며 크고 작은 여러 천체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 천체는 울퉁불퉁한 모양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이런 천체가 어떤 조건에서 둥근 공 모양이 됐을까.<br/>　2006년 국제천문연맹(IAU) 총회는 명왕성을 행성의 목록에서 제외하고, 비슷한 크기인 케레스(세레스)·에리스와 함께 새로운 분류인 왜행성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때 새로 확립된 행성과 왜행성의 정의가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질량이 충분히 커서 자체 중력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공통 조건이 담겼는데, 이는 질량이 충분히 크면 둥근 모양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둥근 모양이 되지 않는다는 중력과 모양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br/>　중력 때문에 물체는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중력이 천체 중심을 향하는 힘임을 고려하면, 이는 천체 중심에서 먼 곳에 있는 물체가 중심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아감을 의미한다. 만약 표면의 높이가 모두 같다면, 더 이상 중력에 의해 물체나 물질이 움직이지 않는 안정적인 모양이 된다. 천체 중심에서 표면까지 그 거리가 모두 일정한 공 모양이 이런 경우다.<br/>　중력 약한 화성엔 에베레스트 2.5배 산<br/>　공 모양에서 벗어나면 천체 내부에서는 중력의 균형이 깨진다. 쉽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동체인 기체와 액체로 만들어진 태양과 목성류 행성은, 이런 경우에 내부 물질이 이동해 내부 중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결국에 공 모양으로 변한다. 물이 든 유(U)자 형 유리관의 한쪽에 물을 더 부으면 관 밑부분으로 물이 이동해 양쪽 물 높이가 같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br/>　그런데 지구나 화성은 주요한 내부 물질이 단단한 암석인데도 어떻게 둥근 공 모양을 이루었을까? 지구의 예를 보자. 지구의 중력은 공기를 끌어당겨 수십㎞ 두께의 대기권 공기는 해수면을 누르는데, 그 평균 압력이 1기압이다. 대략 1㎏의 물체가 지구 중력에 의해 손톱 넓이 정도의 표면을 누르는 압력의 크기다(물론 우리는 이런 공기 압력에 잘 적응해 살아간다).<br/>　지구 중력은 물도 끌어당긴다. 물속에서는 10m 깊이마다 압력이 약 1기압씩 커진다. 같은 부피의 물보다 더 무거운 암석으로 이뤄진 땅속에서는 압력이 더 빨리 커진다. 대륙 지각의 평균 질량밀도로 계산한 압력은 지하 3.8m마다 1기압씩 증가한다. 지하 3.8㎞의 땅속에서는 1000기압, 38㎞의 땅속에서는 무려 1만기압 정도의 압력을 받는다.<br/>　외부의 힘에 대항해 모양을 바꾸지 않고 버티는 정도를 그 물질의 ‘강도’라 한다. 그중에서 누르는 압력으로 측정한 강도를 ‘압축강도’라 부른다. 콘크리트는 수백 기압, 암석은 수십~수천 기압의 압력에 버티는 압축강도를 지닌다. 따라서 1000기압의 압력은 콘트리트 구조물을 부술 수 있는 압력이고, 1만기압의 압력은 강도가 매우 큰 암석 구조물도 부술 압력이다. <br/>　이 때문에 산도 무한정 높아질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닌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의 높이에도 이런 한계가 반영돼 있다. 한편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화성 표면에는 에베레스트산보다 2.5배 높은 올림푸스산이 존재한다.<br/>　<br/>　긴 시간 걸쳐 유동체처럼 움직이는 고체<br/>　지구 내부엔 지하 수십㎞에서 2900㎞ 지점까지 ‘맨틀’이라 불리는 구조가 존재한다. 맨틀의 바닥 부분에서는 무려 140만기압의 압력을 받고 온도는 섭씨 4000도에 이른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 대부분 고체 상태인 맨틀도 기나긴 지질학적 시간에서 보면 마치 유동체처럼 움직인다. 여기에 더해, 맨틀 아래의 구조인 ‘외핵’은 유동체인 액체 상태다. 이 때문에 천체의 형성 과정에서 울퉁불퉁하게 모양이 변해도, 내부 물질이 오랜 시간에 걸쳐 유동체처럼 움직여 내부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공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이다.<br/>　같은 암석 천체인데도 둥근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예컨대, 평균 지름 950㎞의 둥근 왜행성 ‘케레스’와 둥글지 않은 평균 길이 525㎞의 소행성 ‘베스타’가 그렇다. 밀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중심부의 압력은 각각 1350기압과 1100기압 정도다. 이렇게 보면, 암석 천체가 둥글거나 그렇지 않은 모양을 형성하는 데 갈림길이 되는 내부 압력의 기준이 두 천체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br/>　암석보다 무른 물질로 만들어진 천체는 더 작은 크기여도 둥근 공 모양이 될 수 있다. 주로 얼음으로 이뤄진 평균 지름 396㎞인 토성의 위성 ‘미마스’가 그 예로, 소행성 베스타보다 더 작은데도 더 둥근 편이다. 균일 밀도를 가정하면 미마스 중심부의 압력은 70기압 정도여서, 얼음이 암석보다 강도가 훨씬 작은 것도 알 수 있다.<br/>　하지만 길이가 수십㎞ 이하인 천체는 구성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부분 공 모양이 아니다. 중력에 의한 내부 압력이 물질 강도에 비해 너무나 작아 내부 물질이 이동하기가 어렵다. 한 예로 7000만년 전 지구에 충돌해 공룡을 멸종시킨 것으로 알려진 길이 10㎞의 암석 소행성은 중심부 내부 압력이 1기압에도 못 미쳤을 것이다. 이 정도의 압력은 소행성 모양을 둥글게 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아무리 천문학적인 시간이 흘러도 울퉁불퉁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다. 로제타가 알려준 혜성 67P의 독특한 모양도 이런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br/>　45억년 전 태양계가 형성되고서 남은 물질을 간직하고 있을, 태양계의 외곽에서 만들어지는 혜성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의 비밀을 품고서 긴 꼬리의 자태를 뽐내며 날아든다. 11월에 혜성 표면에 내려앉을 착륙선 파일리가 혜성의 수수께끼를 풀 어떤 단서를 지구에 보내올지 궁금하다.<br/>　 윤복원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원(물리학)<br/>※과학웹진 사이언스온에 실린 글을 필자가 줄이고 다듬어 다시 썼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6.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건보료와 담뱃값 / 김양중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3010015309419  
본문: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가? 지난 2월 서울에서 일어난 이른바 ‘세 모녀 사건’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는 스스로 생을 끝내면서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합쳐 70만원을 남겼다. 그저 착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 세 모녀는 무려 한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 모녀가 내던 월세와 가족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br/><br/> 가난한 이들조차 수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무려 21억4000만원으로 평가된 부동산 19건을 가진 부자에게 단 한푼의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았다. 또 집을 5채 이상 가진 15만8000여명도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30여만원의 월세를 내는 집에 살면서 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그 월세를 받는 어느 누군가는 보험료 한푼 내지 않았다.<br/><br/> 소득이 투명하다고 ‘유리지갑’이라고는 하지만 직장인들도 보험료 차등은 심각하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 다른 소득을 통해 수천만원을 벌어도 월급만 같으면 보험료는 똑같다.<br/><br/> 이러다 보니 보험료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한해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는 5000만건이 넘게 쏟아진다고 한다. 상황이 이 정도이면 벌써 10년 넘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br/><br/> 보험료를 내는 과정만 불공평한가? 그렇지도 않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결과를 봐도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혜택을 더 많이 본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서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내준 병원 진료비를 보자.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한달에 병원을 이용한 뒤 11만7000원가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했다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는 23만8000원을 지급했다. 보통 가난한 사람이 암 등 각종 질환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지만, 병원 이용만큼은 부자가 더 많이 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혜택도 더 많이 본 것이다.<br/><br/> 이런 데에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금액 비율이 전체 진료비 가운데 60%대 초반으로 낮기 때문에, 환자가 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이들은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 만들어진 보험료 부과 체계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에 견줘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가난한 이들이 정작 아플 때는 병원 이용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다.<br/><br/> 보험료가 나온 마당에 보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건강증진기금이 붙어 있는 담뱃값 이야기도 해보자. 만약 세 모녀 가운데 한 사람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웠다고 치면, 한갑에 세금을 1550원이나 낸다. 한달이면 4만6000원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세금은 한갑당 3318원으로 커지고, 한달이면 10만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한 이들이 부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br/><br/> 정부가 고소득층의 재산이나 소득을 충실히 평가해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는 개선 노력은 더디 하면서, 저소득층이 중독이 돼 끊기가 어려운 담배에만 세금을 더 붙여, 가난한 이들을 더 가난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7.txt

제목: 한화생명 여성 중대질병 보험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30100000138  
본문: 한화생명은 여성전용 중대질병(CI)보험인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을 선보였다. 기존 시아이보험처럼 암,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을 보장하고 여기에 더해 여성에게 발병하기 쉬운 유방암, 특정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질병에 대한 보장도 늘렸다. 사망보장을 극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일반적인 시아이보험은 보장하는 질병이 발병했을 때 가입금액의 80%를 진단자금으로 주고, 20%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사망 때 최대 40%까지 사망보험금을 얹어준다. 노후대비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8.txt

제목: 9년 투병한 아내의 모습…그리고 무덤  
날짜: 20140930  
기자: 곽윤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30100000061  
본문: 윤철중(1935~)씨의 사진전 가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류가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윤철중씨의 아내가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 끝내 세상을 떠 장례를 치르는 장면과 그 뒤까지를 기록한 25점으로 구성되었다. 윤철중씨는 성균관대학교와 상명대학교에서 고려가요와 향가, 한국 신화를 가르치고 연구해온 국문학자다. 주요 논문으로 , , 등이 있다. <br/> 2000년 8월에 정년퇴임한 뒤 한국 신화의 현장을 발굴하고 지형적 특성을 발표하거나 논문을 책으로 엮기 위해 카메라를 접했던 윤씨는 2004년에 12살 아래 띠동갑이었던 아내 유씨가 암에 걸리자 외부활동을 포기하고 간병을 시작했다. 현장을 기록하려던 윤씨의 카메라는 이후 9년간 병실을 기록하게 되었다. 발병 첫해 아내가 병원에 다니는 모습. 어둠에 잠긴 병실의 창문 바깥을 내다보는 모습. 황량한 복도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는 아내의 사진은 초점이 흐릿하다. 보온병 뚜껑에 따른 커피 한 잔이 놓인 아내의 무덤 등이 순서대로 이어진다. <br/> 윤씨는 “투병 당시 아내가 ‘죽기 전에 사진전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역량 미달임을 뻔히 알면서도 2009년에 갤러리 브레송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내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데 병원에 늘 붙어 있으니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나가서 사진 찍고 하시라고 자주 권하곤 했다”고 회상했다.<br/> 윤씨는 이번 전시의 작가노트를 통해 “정성인가 본데…. 인색해라~ 꽃 한 송이가 없네. 살던 게 모두 투정이었어. 투정하고 싶어 찾아왔더니 오늘도 그저 미소뿐인가. (중략) 투정이었지. 그려 투정이었지. 가여운 얼굴로 미소 지으며 그저 그렇게 넘겨주었지. 춘분이 지났다고 새 풀이 돋고, 낙엽은 바람이 쓸어 가고, 바람은 또 이리 날려서 세월처럼 여기 또 데리고 왔네”라는 시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br/> 인터뷰에서 윤씨는 “<span class='quot0'>늦게 시작한 사진이고 예술성이 있는 사진은 기대할 수 없지만 80년대부터 찍어둔 한국 신화의 현장 사진에 새로운 사진을 더해서 신화 자료사진의 새 영역과 자료사진집 완성에 힘을 쏟고 싶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br/>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39.txt

제목: ‘핑크아카데미’로 여성 유방건강 의식 높여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3010015308316  
본문: “저는 유방암 환우입니다. 지난 2006년 한창일 때 찾아온 유방암은 저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br/><br/> 지난 8월27일 현대백화점 대구점 문화센터에서 열린 핑크아카데미에서 유방 자가검진법 강의를 맡은 한규미 강사가 말문을 열자 실내가 술렁였다. “<span class='quot0'>나처럼 여성 누구나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span>”고 경고한 한규미 강사는 “<span class='quot0'>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스스로 만져 보면 멍울, 피부 변화, 유두 분비물 등 이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질병에 비해 조기에 발견하기 쉬운 질병</span>”이라며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br/><br/> 핑크아카데미는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부터 유방건강의식 향상을 위해 개설했다. ‘유방 자가검진과 핑크리듬’, ‘핑크푸드’, ‘핑크아트’ 등 3가지 주제로 3일에 걸쳐 유방건강을 위한 다채로운 내용의 강좌가 선보였다. ‘거울을 보면서 눈으로 관찰하기’, ‘서거나 앉아서 촉진하기’, ‘누워서 촉진하기’ 등 3단계로 구성된 유방 자가검진법 실습에 이어 핑크리듬 시간에는 여성들에게 좋은 필라테스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밴드와 롤러를 이용한 고난도 동작까지 다양한 필라테스 동작을 통해 건강법을 익혔다.<br/><br/> 2일차 ‘핑크푸드’ 시간에는 유방건강에 좋은 재료와 요리법을 활용한 쿠킹클래스가 펼쳐졌다. 오징어먹물 치아바타 샌드위치, 단호박 두유 냉수프, 방울토마토 올리브 마리네이드 등 간편하면서도 건강을 고려한 양식 조리법(레시피)을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3일차에는 핑크아트와 수료식을 했다. 핑크아트 시간은 지난 이틀 동안 배운 강좌를 통해 느낀 점 또는 자가검진 실천 서약서를 나만의 캘리그래피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캘리그래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강의를 들은 뒤, 핑크아카데미 노트 표지를 나만의 캘리그래피로 만들었다. 박경배 강사는 “<span class='quot1'>유방건강에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한 만큼 캘리그래피 강의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스트레스도 푸는 시간으로 의미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 이번 핑크아카데미에는 엄마와 딸, 친구 등 20~50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약 30명이 참여했다. 유방건강강좌뿐 아니라, 수강생 1인당 참가비 1만원에 핑크리본 캠페인의 후원 브랜드인 헤라의 1만원 매칭 기부가 더해져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는 기회도 제공해, 나눔문화 확산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아카데미를 수강한 이은주씨는 “<span class='quot2'>단순히 유방건강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span>”며 “<span class='quot2'>핑크아카데미 덕분에 지난 사흘 행복했다</span>”고 소감을 전했다. 핑크아카데미는 10월14, 15, 17일 사흘 동안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문화센터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br/><br/>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한 아모레퍼시픽은 유방건강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기 몸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돌보는 습관 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동반자인 남성과 가족 모두에게 여성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특히 유방건강강좌 ‘핑크투어’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60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유방 자가검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방건강 정보 제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r/><br/>원낙연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yann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0.txt

제목: 산간도서벽지 어린이들 학습 환경 개선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3010015304850  
본문: 지난 5월27일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11인승 승합차 60대가 일렬로 줄지어 섰다. 잠시 뒤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달려오더니 자동차 구경에 한창이다. 승합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산간도서벽지의 지역아동센터 60곳에 한 대씩 기증한 것이다. 이 차량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문화체험 등에 사용된다.<br/><br/> 한국수력원자력은 학습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승합차를 지원하고 희망도서관을 설치해주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사랑을 전해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행복더함 희망나래 사업’ 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11인승 차량 40대를 도서벽지 등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희망나래 도서관도 총 32개 지역의 아동센터에 설치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8억원 상당의 승합차 60대를 지원한 데 이어 연말까지 지역아동센터 40곳에 희망도서관을 마련하고 각 도서관에 600권의 책과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을 선물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에너지 공기업이 어린이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사회공헌 비전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span>”이라고 말했다.<br/><br/>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과 수력 및 양수발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최대 전력회사다. 원자력발전소가 지역은 대부분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발전소 주변 마을을 방문해 종합병원 수준의 무료 건강검진 및 필수 의약품 지원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년층 농어민의 최대 고민인 관절염, 류머티즘 등에 대한 치료는 물론 각종 암을 조기발견해 치료받도록 돕고 있다. 수혜인원은 매년 3000여명에 이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1.txt

제목: 주민 반대한 27년 노후유람선 ‘세월호’ 직후 취항…참사 날뻔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3010015309889  
본문: 만들어진 지 27년 된 유람선이 전남 신안군 홍도 부근 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는 사고가 났다. 승객과 선원 110명이 모두 구조됐으나,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를 낼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br/><br/> 30일 오전 9시1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동쪽 110ｍ 해상에서 관광객 105명과 승무원 5명 등 110명을 태우고 홍도를 일주하던 유람선 바캉스호가 슬픈여 부근에서 암초에 부딪혔다.<br/><br/> 이 충격으로 배 밑바닥 기관실 부분에 길이 1m 이상 구멍이 생기고, 기관실에서 연기가 발생하며 좌초해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br/><br/><br/><br/>암초 부딪혀 1층 선실 침수돼 <br/>승객 “꽝 하는 소리에 중심 잃어” <br/>뒤따르던 유람선·민간어선 나서 <br/>사고 20여분만에 신속 구조 <br/><br/>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아 <br/>주민들 탄원서까지 냈지만 <br/>해경, 선령제한 완화 따라 운항허가 <br/><br/><br/><br/> 승객 마복자(49)씨는 “2층 선실에 앉아 바위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몸이 앞으로 급격하게 쏠려 중심을 잃었다. 이 순간 선체에서 연기와 불꽃이 솟기도 했다”고 말했다.<br/><br/> 바캉스호는 지난 5월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홍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해경의 허가를 받아 운항을 하다 약 5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이 배는 1987년 일본에서 건조돼 선령이 27년에 이르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한 조처에 따라 국내에 도입될 수 있었다. 이 배는 선령 20년인 세월호보다 7년 많다.<br/><br/> 홍도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들어 낡은 배를 들여오는 데 반대하는 탄원서를 해경에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 사고 다음날인 4월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에서 선박검사를 마쳤다며 운항을 허가했다. 면허기간은 지난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년 동안이었다.<br/><br/> 이날 사고로 복층 구조인 이 배의 1층 선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승객들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배에는 주로 부산과 경기 등지에서 가족이나 단체로 홍도의 가을 풍광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다. 승객 동옥연(56)씨는 “세월호 사고가 번득 떠올랐다. 다행히 선원들이 안내방송을 통해 ‘구명조끼를 입으라’ ‘2층으로 올라가라’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다독여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br/><br/>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신고를 받은 인근의 유람선·어선들이 신속하게 구조에 나선 덕분에 이날 오전 9시30분 탑승인원 모두가 무사히 구조됐다. 바캉스호를 뒤따르던 다른 유람선 썬플라워호는 선체를 접근시켜 80여명을 구조했고, 홍도항에서 출동한 민간어선 10여척이 20여명을 태워 홍도항으로 이송했다.<br/><br/> 해경은 세월호 사고 때 초기대응에 실패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이날은 신고 즉시 민간어선에 상황을 전파하고 24㎞ 떨어진 지점의 513함을 이동시키고 목포에서 항공구조 헬기·특공대를 출동시키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br/><br/> 좌초 당시 충격으로 승객 10여명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 해경은 바캉스호 선장 문아무개(58)씨 등 승무원 5명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지점의 기상조건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운항 부주의에 의한 항로 이탈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문 선장이 보름 전인 16일부터 운항해 홍도의 지형에 익숙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경은 수사를 위해 바캉스호를 홍도항으로 예인했다.<br/><br/> 김재인 서해해경청 홍보계장은 “사고 선박을 검사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체 두께 등을 계측한 결과 안전운항 저해 요인은 없다는 결과를 내놔 운항을 허가했다. 27년 선령과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br/><br/> 반면 김정남 홍도청년회장은 “<span class='quot0'>지난 3~4월 배가 들어올 때 탄원서를 냈다</span>”며 “<span class='quot0'>해상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면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뜻하지 않게 이런 사고가 나 마음이 아프다</span>”고 말했다.<br/><br/>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후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br/><br/>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2.txt

제목: 9년 투병한 아내의 모습…그리고 무덤  
날짜: 2014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2910015299453  
본문: 윤철중(1935~)씨의 사진전 <꽃 한 송이가 없네>가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류가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윤철중씨의 아내가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 끝내 세상을 떠 장례를 치르는 장면과 그 뒤까지를 기록한 25점으로 구성되었다. 윤철중씨는 성균관대학교와 상명대학교에서 고려가요와 향가, 한국 신화를 가르치고 연구해온 국문학자다. 주요 논문으로 <단군신화의 환웅과 신웅의 변별>, <혜성가 연구>, <서동요의 신고찰> 등이 있다.<br/><br/> 2000년 8월에 정년퇴임한 뒤 한국 신화의 현장을 발굴하고 지형적 특성을 발표하거나 논문을 책으로 엮기 위해 카메라를 접했던 윤씨는 2004년에 12살 아래 띠동갑이었던 아내 유씨가 암에 걸리자 외부활동을 포기하고 간병을 시작했다. 현장을 기록하려던 윤씨의 카메라는 이후 9년간 병실을 기록하게 되었다. 발병 첫해 아내가 병원에 다니는 모습. 어둠에 잠긴 병실의 창문 바깥을 내다보는 모습. 황량한 복도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는 아내의 사진은 초점이 흐릿하다. 보온병 뚜껑에 따른 커피 한 잔이 놓인 아내의 무덤 등이 순서대로 이어진다. <br/><br/> 윤씨는 “투병 당시 아내가 ‘죽기 전에 사진전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역량 미달임을 뻔히 알면서도 2009년에 갤러리 브레송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내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데 병원에 늘 붙어 있으니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나가서 사진 찍고 하시라고 자주 권하곤 했다”고 회상했다.<br/><br/> 윤씨는 이번 전시의 작가노트를 통해 “정성인가 본데…. 인색해라~ 꽃 한 송이가 없네. 살던 게 모두 투정이었어. 투정하고 싶어 찾아왔더니 오늘도 그저 미소뿐인가. (중략) 투정이었지. 그려 투정이었지. 가여운 얼굴로 미소 지으며 그저 그렇게 넘겨주었지. 춘분이 지났다고 새 풀이 돋고, 낙엽은 바람이 쓸어 가고, 바람은 또 이리 날려서 세월처럼 여기 또 데리고 왔네”라는 시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br/><br/> 인터뷰에서 윤씨는 “<span class='quot0'>늦게 시작한 사진이고 예술성이 있는 사진은 기대할 수 없지만 80년대부터 찍어둔 한국 신화의 현장 사진에 새로운 사진을 더해서 신화 자료사진의 새 영역과 자료사진집 완성에 힘을 쏟고 싶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br/><br/>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3.txt

제목: 9월 30일 금융 새상품  
날짜: 2014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2910015299548  
본문: 통일 우대이율 연 0.1%p 제공케이비(KB)국민은행은 정부의 통일정책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출연하는 ‘케이비통일기원적금’을 판매하고 있다.1000원 이상 단위로 매달 100만원 이내에서 적립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금리는 계약기간별로 1년에 연 2.5%, 2년은 연 2.7%, 3년은 연 2.9%의 기본이율을 제공한다. 우대이율로는, 예금신규 때 통일희망 메시지를 작성할 경우, 연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통일희망우대이율’과 드레스덴 선언을 기념해 가입기간별 우대이율(1년 연 0.1%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통일물결우대이율’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br/><br/><br/><br/>직장인을 위한 23.5도·S라인체크 <br/><br/>신한카드는 직장인을 위한 신용카드로 ‘23.5˚’와 ‘에스-라인(S-Line) 체크’를 선보였다. ‘23.5˚’는 젊은 세대를 위한 신용카드로, 전달 이용금액과 적립한도 등의 제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생활친화가맹점(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1%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에스-라인 체크카드는 전달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 가맹점에서 0.2%를 적립해주고, 3개월 이상 연속 50만원을 이용하면 전 가맹점에서 0.5%를 적립해주는 등 포인트 적립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br/><br/><br/><br/>‘대우 배당성장지수 랩’ 판매<br/><br/>케이디비(KDB)대우증권은 ‘KDB대우 배당성장지수 랩(주식형)’을 판매하고 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잡기 위해 개발한 배당주 투자 상품이다. 케이디비대우증권 리서치센터가 개발한 ‘대우 배당성장지수’ 구성종목에 투자한다. 대우 배당성장지수는 재무정보와 전문 에널리스트의 기업평가를 바탕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300위 안에 있는 배당투자 유망종목을 선정해 산출한 지수다. 현재는 주식형 상품만 판매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월지급형, 적립형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다.<br/><br/><br/><br/>한화생명 여성 중대질병 보험<br/><br/>한화생명은 여성전용 CI(중대질병)보험인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을 선보였다. 기존 CI보험처럼 암, 뇌졸중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을 보장하고 여기에 더해 여성에게 발병하기 쉬운 유방암,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같은 질병에 대한 보장도 늘렸다. 사망보장을 극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일반적인 CI보험은 보장하는 질병이 발병했을 때 가입금액의 80%를 진단자금으로 주고, 나머지 20%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사망 때 최대 40%까지 사망보험금을 얹어준다. 노후대비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br/><br/><br/><br/>‘생활의 자신감’ 종신보험 내놔<br/><br/>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생명 종합보장보험 생활의 자신감’이라는 종신보험 상품을 내놨다. 주계약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지만 다양한 특약을 마련해 원하는 질병이나 재해 보장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암, 입원치료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 76개에 이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계약인 종신보험 가입료를 낮게 하고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강화하는 등 원하는 보험료로 질병, 재해, 사망 보장을 오가며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다. 기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유병자를 위한 전용 특약도 갖춰져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4.txt

제목: “지금은 우리 모두 한바탕 ‘지랄발광’할 때”  
날짜: 20140926  
기자: 김경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26100000094  
본문: “<span class='quot0'>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바탕 ‘지랄발광’해야 합니다.</span>”<br/>　당대 독보적인 전위예술가 무세중(78·사진)씨가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31갤러리에서 도깨비 난장굿판을 벌인다. 이번 굿판의 제목이기도 한 ‘지랄발광’의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대뜸 두루마리 족자를 풀어내리며 자작시 ‘천서─단군의 후손들아 들으라’를 읊었다.<br/>　“<span class='quot0'>조선 역사에서 탐욕은 죄악이었도다/ 탐욕은 부패를 낳고/ 부패가 은폐를 낳고/ 은폐가 폭력을 낳는다/ 너희 손에 남의 피를 가득 묻히었으니/ 천벌을 맞을 일이로다/ 손을 빌어라 검은 피를 씻어내라/ 살길은 오직 근본을 밝혀야만 한다/ 병든 마음을 수술해야 한다/ 혁명이다 명을 쇄신해야 산다/ 두 손 들어 밝은 태양을 맞이하라/ 본심본 태양 앙명인중 천지일/ 사람이 천하에 제일 으뜸이니라/ 삼인 하나님의 말씀을 삼신할머니가 전하노라.</span>”<br/>　지난 10년 새 두번의 간암 수술을 받은 후유증에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 등으로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그를 이처럼 다시금 ‘포효’하게 만든 사건은 바로 ‘세월호’였다. 그는 지난달 14일 에 ‘세월호는 아직도 민족의 가슴에 침몰하고 있다’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br/>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이 문제를 풀어 해법을 찾지 못하면 민족의 분단 문제나 민생의 해결도 어려울뿐더러, 정치·경제·산업·문화 전반에 고질적인 암처럼 전이되어 나라가 죽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br/>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 부패의 상징이자 탐욕에 대한 경고’라고 짚은 그는 ‘민족 참사의 무게로 받아들여 혁명의 기운으로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n class='quot0'>유족들의 슬픔을 눈물로 나누고 굶으며 위로하는 동정도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 같은 사법 수단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수많은 억울한 희생의 분노를 풀어주고,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우리 마음을 반성하고 새로 깨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span>”는 것이다.<br/>　이를 위해 그가 택한 지랄발광의 방법은 바로 ‘탈’이다. 하지만 탈을 얼굴이나 몸에 쓰는 것이 아니다. 그와 부인 무나미씨, 그가 이끄는 대동전위극회 회원들의 몸 전체가 탈로 변신한다. 바로 ‘통미(統美) 보디페인팅’을 공연한다. 통미는 머리·미용·의상·액세서리·소도구와 함께 온몸이 통일된 아름다움을 뜻한다. 통미분장예술연구소의 김선미 감독을 비롯한 분장가들이 참여했다. 굿판에 등장하는 도깨비는 이 땅 터줏대감들의 지킴이들로, 귀신이 아닌, 귀신을 다스리고 은폐의 탈을 퇴치하는 존재들이다.<br/>　한가지 아쉬운 것은 행동예술에 맞는 공간을 구하지 못해 작은 지하 갤러리를 빌린 공연이어서 30명 남짓이 겨우 함께할 수 있다. 공간만 제공된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굿판을 펼치겠다는 그는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지랄발광을 하고 싶다. 제발 낮은 곳으로 내려와 함께 손잡고 ‘화’와 ‘독’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도 살고 우리 민족 모두 살 수 있다”고 당부했다.<br/>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br/> 사진작가 장성하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5.txt

제목: “세월호 해법 위해 지금 모두 난장굿판 벌입시다”  
날짜: 2014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2510015275902  
본문: “<span class='quot0'>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바탕 ‘지랄발광’해야 합니다.</span>”<br/><br/> 당대 독보적인 전위예술가 무세중(78·사진)씨가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31갤러리에서 도깨비 난장굿판을 벌인다. 이번 굿판의 제목이기도 한 ‘지랄발광’의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대뜸 두루마리 족자를 풀어내리며 자작시 ‘천서─단군의 후손들아 들으라’를 읊었다.<br/><br/> “<span class='quot0'>조선 역사에서 탐욕은 죄악이었도다/ 탐욕은 부패를 낳고/ 부패가 은폐를 낳고/ 은폐가 폭력을 낳는다/ 너희 손에 남의 피를 가득 묻히었으니/ 천벌을 맞을 일이로다/ 손을 빌어라 검은 피를 씻어내라/ 살길은 오직 근본을 밝혀야만 한다/ 병든 마음을 수술해야 한다/ 혁명이다 명을 쇄신해야 산다/ 두 손 들어 밝은 태양을 맞이하라/ 본심본 태양 앙명인중 천지일/ 사람이 천하에 제일 으뜸이니라/ 삼인 하나님의 말씀을 삼신 할머니가 전하노라.</span>”<br/><br/> 지난 10년 새 두번의 간암 수술을 받은 후유증에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 등으로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그를 이처럼 다시금 ‘포효’하게 만든 사건은 바로 ‘세월호’였다. 그는 지난달 14일 <한겨레>에 ‘세월호는 아직도 민족의 가슴에 침몰하고 있다’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br/><br/>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이 문제를 풀어 해법을 찾지 못하면 민족의 분단 문제나 민생의 해결도 어려울뿐더러, 정치·경제·산업·문화 전반에 고질적인 암처럼 전이되어 나라가 죽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br/><br/>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 부패의 상징이자 탐욕에 대한 경고’라고 짚은 그는 ‘민족 참사의 무게로 받아들여 혁명의 기운으로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n class='quot0'>유족들의 슬픔을 눈물로 나누고 굶으며 위로하는 동정도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 같은 사법 수단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수많은 억울한 희생의 분노를 풀어주고,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우리 마음을 반성하고 새로 깨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span>”는 것이다.<br/><br/> 이를 위해 그가 택한 지랄발광의 방법은 바로 ‘탈’이다. 하지만 탈을 얼굴이나 몸에 쓰는 것이 아니다. 그와 부인 무나미씨, 그가 이끄는 대동전위극회 회원들의 몸 전체가 탈로 변신한다. 바로 ‘통미(統美) 보디페인팅’을 공연한다. 통미는 머리·미용·의상·액세서리·소도구와 함께 온몸이 통일된 아름다움을 뜻한다. 통미분장예술연구소의 김선미 감독을 비롯한 분장가들이 참여했다. 굿판에 등장하는 도깨비는 이 땅 터줏대감들의 지킴이들로, 귀신이 아닌, 귀신을 다스리고 은폐의 탈을 퇴치하는 존재들이다.<br/><br/> 한가지 아쉬운 것은 행동예술에 맞는 공간을 구하지 못해 작은 지하 갤러리를 빌린 공연이어서 30명 남짓이 겨우 함께할 수 있다. 공간만 제공된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굿판을 펼치겠다는 그는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지랄발광을 하고 싶다. 제발 낮은 곳으로 내려와 함께 손잡고 ‘화’와 ‘독’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도 살고 우리 민족 모두 살 수 있다”고 당부했다.<br/><br/>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6.txt

제목: 충북 초등생 ‘중간고사’ 없앤다  
날짜: 20140924  
기자: 오윤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24100000094  
본문: 충북지역 초등학생들은 이번 학기부터 기말고사 한 차례만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br/>　충북교육청은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협력·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평가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학기마다 선다형(객관식) 위주로 중간, 기말 두 차례씩 시험지를 통해 이뤄졌던 지필평가는 기말고사 한 차례만 치르는 것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류봉순 충북교육청 초등장학담당 장학사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2학기부터는 기말고사 한 차례만 치르도록 지필고사를 축소하려 한다. 대신 수업 과정까지 평가에 담는 수행평가 비중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미술·체육 등 예체능과 과학 등의 과목에서 주로 수행평가가 이뤄졌지만 국어·영어 등의 과목에서도 수행평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부분에 학생들의 실제 수학 능력을 세분화해 기록하기로 했다.<br/>　암기식, 문제풀이식 수업 개선을 위해 선다형 평가보다 논술·서술형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류 장학사는 “통상 선다형 70%, 단답형 20%, 서술·논술형 10% 등으로 짜인 지필고사에서 서술·논술형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험 횟수와 문제 유형 비율을 따로 강제할 뜻은 없고 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br/>　중등은 정기 고사 출제 때 실제 문제의 1.5~2배 가까이 제출하게 했던 예비 문항 출제 관행을 학교 자율적으로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등 평가가 서술·논술형, 수행평가 등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에 맞춰 중등 평가 또한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7.txt

제목: 12개 대형병원 곳곳에 ‘석면 천장’…뽀얀 먼지 떠다닌다  
날짜: 20140924  
기자: 박기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24100000095  
본문: 2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본관에서 어린이병원으로 가는 지하통로 천장은 낡아 보였다. 천장재는 이음매가 군데군데 틀어져 있거나 가장자리가 부서진 곳이 여럿 눈에 띄었다. 천장에 전선길을 내기 위해 구멍을 뚫은 곳에서는 환풍기 바람을 타고 뽀얀 먼지가 떠다녔다. 이곳 복도에는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3%)이 들어간 천장재가 사용됐다. 2009년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기 전에 시공된 것이다.<br/>　석면이 들어간 낡은 천장재 가루는 에어컨이나 환풍기 바람, 복도를 울리는 가벼운 진동만으로도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쉽다. 전기배선 등을 손보기 위해 천장재를 고정한 나사를 풀 때도 석면 가루가 날릴 수 있다. 천장재가 깨져나간 경우에는 선풍기 바람(초속 5m 정도)에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석면이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고 한다.<br/>　어린이병동 5층 복도 천장에도 백석면이 들어간 자재가 사용됐다. 군데군데 금이 가거나 깨져 있었다. 심리치료실로 환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갔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span class='quot0'>오래된 건물인데다 천장재를 뜯고 재설치하는 일을 반복해 많이 훼손된 것 같다</span>”고 했다. 5살짜리 아이를 안고 본관에서 어린이병원으로 가던 김아무개(35)씨는 “이런 곳에 석면이 떠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병원 쪽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br/>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서울대병원과 고려대 안암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서울·경기 지역 대형병원 12곳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함께했다.<br/>　조사 결과, 서울대병원과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경우 각각 어린이병동과 모자병동에서 백석면(2~5%)이 들어간 천장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려대 안암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환자 입원실에도 백석면을 포함한 천장재가 사용됐다. 을지대 을지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도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br/>　특히 서울대병원은 시료 채취를 통해 기준농도 0.1%를 30~50배 초과하는 백석면이 확인된 천장재 208곳이 파손된 상태였다. 시료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천장재가 사용된 다른 층에서도 61곳이 깨져 있었다. 을지병원은 93곳,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은 69곳의 천장재가 부서져 있었다.<br/>　석면은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뒤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은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다. 특히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지만, 시작 단계여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br/>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전국 병원에 사용된 석면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병원은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입원실과 어린이병동은 비석면 자재로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span class='quot1'>석면 천장재를 전면 교체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수시로 리모델링이나 환경 개선 공사를 하면서 석면 천장재를 교체하고 있다</span>”고 했다.　<b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br/><br/><br/>석면이 발견된 병원 12곳 (2014년 8~9월)<br/>(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br/><br/>서울대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을지대 을지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8.txt

제목: 가난한 사람 살리는 ‘담뱃값 인상’ 돼야  
날짜: 2014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23100000060  
본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말바꾸기가 횡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span class='quot0'>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span>”고 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에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참여정부에 대해 “<span class='quot1'>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킨다</span>”고 반대하였다. <br/>　말바꾸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시절인 2004년에는 담뱃값을 500원 올렸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여러 번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된 이번에는 담뱃값 인상이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주장이다. <br/>　나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인상 액수가 얼마이든지,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담뱃값 인상도 담배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인상 폭에 따라 담배 소비 감소 정도가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br/>　또 하나 명확한 것은 담뱃값을 올리면 가난한 사람과 청소년의 담배 소비가 부유한 사람이나 성인보다 더 많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인상 반대론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니 담뱃세는 역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 흡연을 더 많이 해서 질병에 더 많이 걸리고 수명이 더 짧아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자가 1년에 121만원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이 담배를 끊으면 이런 세금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명이 10년 늘어나고 암 발생을 30% 줄일 수 있으며 1년 동안 담배 사는 데 드는 16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 <br/>　나는 ‘서민을 죽이는’ 담뱃값 인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담배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담배회사다. 정치권이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데 진짜 관심이 있다면 담뱃세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가난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리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br/>　나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반대하며, 법인세나 근로소득세의 누진성 강화에 찬성한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단순히 ‘서민증세’라고 내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단순히 찬반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담뱃세가 가지는 공중보건학적 장점을 받아들이고, 담뱃세 인상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금연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br/>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대한금연학회 회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49.txt

제목: 12개 대형병원 곳곳에 ‘석면 천장’…뽀얀 먼지 떠다닌다  
날짜: 2014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2310015257142  
본문: 2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본관에서 어린이병원으로 가는 지하통로 천장은 낡아 보였다. 천장재는 이음매가 군데군데 틀어져 있거나 가장자리가 부서진 곳이 여럿 눈에 띄었다. 천장에 전선길을 내기 위해 구멍을 뚫은 곳에서는 환풍기 바람을 타고 뽀얀 먼지가 떠다녔다. 이곳 복도에는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3%)이 들어간 천장재가 사용됐다. 2009년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기 전에 시공된 것이다.<br/><br/> 석면이 들어간 낡은 천장재 가루는 에어컨이나 환풍기 바람, 복도를 울리는 가벼운 진동만으로도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쉽다. 전기배선 등을 손보기 위해 천장재를 고정한 나사를 풀 때도 석면 가루가 날릴 수 있다. 천장재가 깨져나간 경우에는 선풍기 바람(초속 5m 정도)에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석면이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고 한다.<br/><br/> 어린이병동 5층 복도 천장에도 백석면이 들어간 자재가 사용됐다. 군데군데 금이 가거나 깨져 있었다. 심리치료실로 환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갔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span class='quot0'>오래된 건물인데다 천장재를 뜯고 재설치하는 일을 반복해 많이 훼손된 것 같다</span>”고 했다. 5살짜리 아이를 안고 본관에서 어린이병원으로 가던 김아무개(35)씨는 “이런 곳에 석면이 떠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병원 쪽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br/><br/>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서울대병원과 고려대 안암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서울·경기 지역 대형병원 12곳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함께했다.<br/><br/> 조사 결과, 서울대병원과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경우 각각 어린이병동과 모자병동에서 백석면(2~5%)이 들어간 천장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려대 안암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환자 입원실에도 백석면을 포함한 천장재가 사용됐다. 을지대 을지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도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br/><br/> 특히 서울대병원은 시료 채취를 통해 기준농도 0.1%를 30~50배 초과하는 백석면이 확인된 천장재 208곳이 파손된 상태였다. 시료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천장재가 사용된 다른 층에서도 61곳이 깨져 있었다. 을지병원은 93곳,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은 69곳의 천장재가 부서져 있었다.<br/><br/> 석면은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뒤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은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지만, 시작 단계여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br/><br/>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전국 병원에 사용된 석면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병원은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입원실과 어린이병동은 비석면 자재로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span class='quot1'>석면 천장재를 전면 교체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수시로 리모델링이나 환경 개선 공사를 하면서 석면 천장재를 교체하고 있다</span>”고 했다. <br/><b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0.txt

제목: [왜냐면] 가난한 사람 살리는 ‘담뱃값 인상’ 돼야 / 조홍준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2210015245491  
본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말바꾸기가 횡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span class='quot0'>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span>”고 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에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참여정부에 대해 “<span class='quot1'>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킨다</span>”고 반대하였다.<br/><br/> 말바꾸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시절인 2004년에는 담뱃값을 500원 올렸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여러 번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된 이번에는 담뱃값 인상이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주장이다. <br/><br/> 나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인상 액수가 얼마이든지,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담뱃값 인상도 담배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인상 폭에 따라 담배 소비 감소 정도가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br/><br/> 또 하나 명확한 것은 담뱃값을 올리면 가난한 사람과 청소년의 담배 소비가 부유한 사람이나 성인보다 더 많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인상 반대론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니 담뱃세는 역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 흡연을 더 많이 해서 질병에 더 많이 걸리고 수명이 더 짧아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자가 1년에 121만원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이 담배를 끊으면 이런 세금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명이 10년 늘어나고 암 발생을 30% 줄일 수 있으며 1년 동안 담배 사는 데 드는 16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 <br/><br/> 나는 ‘서민을 죽이는’ 담뱃값 인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담배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담배회사다. 정치권이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데 진짜 관심이 있다면 담뱃세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가난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리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br/><br/> 나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반대하며, 법인세나 근로소득세의 누진성 강화에 찬성한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단순히 ‘서민증세’라고 내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단순히 찬반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담뱃세가 가지는 공중보건학적 장점을 받아들이고, 담뱃세 인상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금연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br/><br/>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대한금연학회 회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1.txt

제목: 고개를 숙이라 /말하는 세상서 /고개 든 김부선  
날짜: 201409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20100000007  
본문: 시작은 1983년이었다. 대입 재수를 하겠다며 상경했다가 패션모델로 활동하게 된 스물한살의 제주도 아가씨는, “모델 역할이니 연기를 못해도 된다”는 감독의 말에 속아 에 출연하며 은막의 스타가 된다. 여기까지도 이미 스펙터클한데, 같은 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평범했던 처녀는 졸지에 대중의 관심사 한가운데로 성큼 들어왔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고개를 푹 숙이거나 옷깃을 잔뜩 세워 얼굴을 감추는 여느 연예인들과는 달리, 그는 경찰서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클로즈업을 들이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지그시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이라 말하는 세상에서, 이상하리만치 고개를 든 여배우 김부선의 행보는 그렇게 시작됐다.<br/>　의 저자 유현은 2004년 김부선을 옹호하는 글에서 그를 ‘불굴의 대마적 여배우’라고 표현한 바 있다. 참 얄궂게도, 벌금형으로 풀려난 이 ‘대마적 배우’의 다음 작품은 ‘말을 사랑하는(愛馬) 여인’이라는 뜻의 제목으론 심의를 통과할 수 없자 한 자만 살짝 비틀어 ‘대마를 사랑하는(愛麻) 여인’으로 심의를 통과한 3편(1985)이었다. 김부선은 안소영과 오수비의 뒤를 이으며 뭇 남성들의 꿈의 여인인 ‘애마’가 되었고, 몇 편의 성인멜로물에 더 출연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허나 그도 오래가진 않았다. 1986년 여름, 청와대 파티에 초대받은 김부선은 “내가 기생이냐”며 초대를 거절했고, 얼마 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 본인은 “재벌가의 파티에는 몇 차례 갔는데 청와대를 안 갔다는 이유로 권력자들에게 밉보인 탓에 보복성 밀고를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지만, 세상은 이른바 ‘벗는’ 여배우의 상습적인 마약 복용을 향해 조소를 날렸다. 심지어 신문조차 ‘육체를 앞세운 여배우’, ‘무절제한 사생활’ 운운하며 비아냥에 일조했다.<br/>　“소위 벗기는 영화 붐에 편승, 84년 데뷔한 김부선양은 그동안의 출연작 , , , 를 보더라도 정통 연기자라기보다 육체를 앞세운 여배우. (중략) 결국 ‘김양은 무절제한 사생활과 함께 뜬구름을 쫓는 쾌락에 몸을 내던진 결과’라고 연예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1986년 10월23일, 김양삼 기자. ‘연예계 또 독버섯 쇼크 마약 왜 상습 복용하나’ 중)<br/>　본인은 “어처구니없이 외로웠다. 섹시한 건 연기일 뿐인데 그걸 강요하는 분위기가 싫었”으나, 세상은 작품의 이미지로만 그를 판단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span class='quot0'>말 타는 것 외에는 뭐 하나 연기다운 연기를 하지 못했다</span>”고 회고할 정도로 성인영화만 찍던 그였고, 밤에는 심야 상영을 즐기다가도 낮에는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며 밤에 봤던 여배우들을 멸시하던 시대였으니까. ‘마약 하고 집단 혼음이라도 한 것 아니냐’는 비웃음을 들으며, 김부선은 1986년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이들을 만난다. 건대 사태로 구속된 운동권 학생들과 같은 교도소를 쓰게 된 것이다.<br/>　학생들 앞에서 김부선은 부끄러웠다고 한다. 자신은 재벌가의 파티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동안, 누군가는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겐 생경했던 것이다. 첫 경찰 출두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청와대의 부름에 기분이 나쁘다며 ‘등청’을 거부했다는 일화만 봐도 김부선은 원래도 쉽게 수그리는 이는 아니었다. 여기에 사회를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시야가 더해지면서, 자신이 옳다 믿는 사안에 있어선 좀처럼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 오늘날의 김부선이 완성됐다. 과장 같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단칸방에 살던 시절 수배 중이던 학생을 3개월간 숨겨주었다거나, 여성주의 운동권 영화에 무료로 출연했던 일화는 훗날 보여지는 ‘액티비스트’ 김부선의 면모를 예고하는 것이었다.<br/>　연기 서적을 읽고 독학해가며 견딘 오랜 단역 생활 끝에, 김부선은 유하 감독의 (2004)로 다시 대중의 시야로 들어왔다. 그의 팬을 자처한 유하 감독이, 주인공 현수(권상우)의 첫 경험을 앗아가다시피 하는 떡볶이집 여주인 역할에 김부선을 캐스팅한 것이다. 감독은 김부선이 몸풀기 차원으로 임한 첫 테이크에 오케이 사인을 냈고, 배우 본인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그 장면만으로도 관객들은 전율했다. 인터뷰가 쇄도했고, 점차 과거의 성인영화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는 역할들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위선덩어리 상류층 귀부인을 연기한 문화방송(MBC) (2004), 전도연의 우체국 동료 직원을 연기한 (2004), 정우성의 철없는 엄마 역할로 출연한 (2004)까지, 배우로의 재기는 순탄해 보였다. 같은 해 다시 대마초 투약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br/>　오랜 무명 끝에 간신히 은막으로 복귀하려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여배우라면 보통 어떤 선택을 내릴까? 어떻게든 기회를 다시 잡아보기 위해 납작 엎드리지 않을까? 놀랍게도 김부선은 선처를 요구하는 대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하는 쪽을 택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와 수많은 학자들이 ‘대마보다 담배나 술이 더 위험하다’고 증언해 왔지만, 아무도 김부선처럼 소리 높여 대마초 비범죄화를 주장하진 않았던 시절이었다. ‘죄를 지었으니 네 죄를 알라’는 세상에 대고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치는 초유의 여배우. 그의 투쟁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한국마약범죄학회 학술이사 문성호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대마관리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론화의 포문을 연 것이 김부선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br/>　수많은 대중문화 인사들의 지지 속에 시작한 대마초 비범죄화 투쟁은 결국 위헌법률심판 기각과 헌법소원 기각으로 끝나고 만다. 이쯤 되면 지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김부선은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투쟁에 동참했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호적엔 양모로 올라가 있어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며 ‘최진실법’ 제정 촉구 투쟁에 나섰다. 제주 4·3 사건 때 첫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잃었다는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하며 4·3 위원회 폐지 반대에 앞장섰으며, 고 장자연씨 사건으로 연예계 성상납이 이슈가 되었을 때는 자신이 겪었던 일화들을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br/>　아무래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배우를 선뜻 쓰기는 어려웠던 걸까. 2007년 를 마지막으로 그의 장편 상업영화 출연작은 7년 가까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늘 입버릇처럼 자신은 투사가 아니라 연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김부선은, 그럼에도 자신이 보기에 정의롭지 못하다 싶은 사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싶은 사안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왜 그렇게 싸움을 멈추지 않느냐며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왔을 뿐인데, 그런 내가 생업인 연기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로 사회의 암적인 존재냐”고 반문하면서.(문화방송 , 2011)<br/>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신념과 생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잠시 고민하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곤 한다. 그리고 그게 세상 사는 법이라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곤 한다.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나라고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다. 하지만 문화평론가 허지웅의 지적처럼, 한국의 현대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은 건 많은 경우 “꼴사납게 자기 면 깎아가며” 시민의 권리를 지켜준 “드센 사람들”이다. 그러니 최근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밝히려다 동네 주민과 시비가 붙어 뉴스에 오르내린 김부선에게 대중이 보내는 지지는, 어쩌면 온통 ‘가만히 있을 것’을 강요하는 세상에 질린 사람들이 보내는 조금 늦은 감사 인사인지도 모른다. 그토록 원하는 배우의 삶을 위해서라면 한번쯤 눈을 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꾸준히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말이다.<br/>이승한 티브이 칼럼니스트<br/>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2.txt

제목: “고개를 숙이라” 말하는 세상에서 고개 든 김부선  
날짜: 2014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1910015231024  
본문: 시작은 1983년이었다. 대입 재수를 하겠다며 상경했다가 패션모델로 활동하게 된 스물한살의 제주도 아가씨는, “모델 역할이니 연기를 못해도 된다”는 감독의 말에 속아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에 출연하며 은막의 스타가 된다. 여기까지도 이미 스펙터클한데, 같은 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평범했던 처녀는 졸지에 대중의 관심사 한가운데로 성큼 들어왔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고개를 푹 숙이거나 옷깃을 잔뜩 세워 얼굴을 감추는 여느 연예인들과는 달리, 그는 경찰서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클로즈업을 들이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지그시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이라 말하는 세상에서, 이상하리만치 고개를 든 여배우 김부선의 행보는 그렇게 시작됐다.<br/><br/> <대마를 위한 변명>의 저자 유현은 2004년 김부선을 옹호하는 글에서 그를 ‘불굴의 대마적 여배우’라고 표현한 바 있다. 참 얄궂게도, 벌금형으로 풀려난 이 ‘대마적 배우’의 다음 작품은 ‘말을 사랑하는(愛馬) 여인’이라는 뜻의 제목으론 심의를 통과할 수 없자 한 자만 살짝 비틀어 ‘대마를 사랑하는(愛麻) 여인’으로 심의를 통과한 <애마부인> 3편(1985)이었다. 김부선은 안소영과 오수비의 뒤를 이으며 뭇 남성들의 꿈의 여인인 ‘애마’가 되었고, 몇 편의 성인멜로물에 더 출연하며 스타덤에 올렸다. 허나 그도 오래가진 않았다. 1986년 여름, 청와대 파티에 초대받은 김부선은 “내가 기생이냐”며 초대를 거절했고, 얼마 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 본인은 “재벌가의 파티에는 몇 차례 갔는데 청와대를 안 갔다는 이유로 권력자들에게 밉보인 탓에 보복성 밀고를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지만, 세상은 이른바 ‘벗는’ 여배우의 상습적인 마약 복용을 향해 조소를 날렸다. 심지어 신문조차 ‘육체를 앞세운 여배우’, ‘무절제한 사생활’ 운운하며 비아냥에 일조했다.<br/><br/> “소위 벗기는 영화 붐에 편승, 84년 데뷔한 김부선양은 그동안의 출연작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 <여자가 남자를 쏘았다>, <애마부인3>, <토요일은 밤이 없다>를 보더라도 정통 연기자라기보다 육체를 앞세운 여배우. (중략) 결국 ‘김양은 무절제한 사생활과 함께 뜬구름을 쫓는 쾌락에 몸을 내던진 결과’라고 연예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1986년 10월23일, <경향신문> 김양삼 기자. ‘연예계 또 독버섯 쇼크 마약 왜 상습 복용하나’ 중)<br/><br/> 본인은 “어처구니없이 외로웠다. 섹시한 건 연기일 뿐인데 그걸 강요하는 분위기가 싫었”으나, 세상은 작품의 이미지로만 그를 판단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span class='quot0'>말 타는 것 외에는 뭐 하나 연기다운 연기를 하지 못했다</span>”고 회고할 정도로 성인영화만 찍던 그였고, 밤에는 <애마부인> 심야 상영을 즐기다가도 낮에는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며 밤에 봤던 여배우들을 멸시하던 시대였으니까. ‘마약 하고 집단 혼음이라도 한 것 아니냐’는 비웃음을 들으며, 김부선은 1986년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이들을 만난다. 건대 사태로 구속된 운동권 학생들과 같은 교도소를 쓰게 된 것이다.<br/><br/> 학생들 앞에서 김부선은 부끄러웠다고 한다. 자신은 재벌가의 파티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동안, 누군가는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겐 생경했던 것이다. 첫 경찰 출두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청와대의 부름에 기분이 나쁘다며 ‘등청’을 거부했다는 일화만 봐도 김부선은 원래도 쉽게 수그리는 이는 아니었다. 여기에 사회를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시야가 더해지면서, 자신이 옳다 믿는 사안에 있어선 좀처럼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 오늘날의 김부선이 완성됐다. 과장 같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단칸방에 살던 시절 수배 중이던 학생을 3개월간 숨겨주었다거나, 여성주의 운동권 영화에 무료로 출연했던 일화는 훗날 보여지는 ‘액티비스트’ 김부선의 면모를 예고하는 것이었다.<br/><br/>세상은 이른바 ‘벗는 여배우’의 <br/>마약 복용에 조소를 날렸지만 <br/>그는 옳다 믿는 일에서 <br/>싸움을 멈추지 않았다<br/><br/>‘대마초 비범죄화’ 투쟁에 나서고 <br/>‘최진실법’ 등에도 목소리를 냈다 <br/>‘난방비 비리’로 대중이 보낸 지지는 <br/>치열하게 싸워온 사람에게 보내는 <br/>조금 늦은 감사인사일지 모른다<br/><br/> 연기 서적을 읽고 독학해가며 견딘 오랜 단역 생활 끝에, 김부선은 유하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2004)로 다시 대중의 시야로 들어왔다. 그의 팬을 자처한 유하 감독이, 주인공 현수(권상우)의 첫 경험을 앗아가다시피 하는 떡볶이집 여주인 역할에 김부선을 캐스팅한 것이다. 감독은 김부선이 몸풀기 차원으로 임한 첫 테이크에 오케이 사인을 냈고, 배우 본인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그 장면만으로도 관객들은 전율했다. 인터뷰가 쇄도했고, 점차 과거의 성인영화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는 역할들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위선덩어리 상류층 귀부인을 연기한 문화방송(MBC) <불새>(2004), 전도연의 우체국 동료 직원을 연기한 <인어공주>(2004), 정우성의 철없는 엄마 역할로 출연한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까지, 배우로의 재기는 순탄해 보였다. 같은 해 다시 대마초 투약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br/><br/> 오랜 무명 끝에 간신히 은막으로 복귀하려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여배우라면 보통 어떤 선택을 내릴까? 어떻게든 기회를 다시 잡아보기 위해 납작 엎드리지 않을까? 놀랍게도 김부선은 선처를 요구하는 대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제기하는 쪽을 택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와 수많은 학자들이 ‘대마보다 담배나 술이 더 위험하다’고 증언해 왔지만, 아무도 김부선처럼 소리 높여 대마초 비범죄화를 주장하진 않았던 시절이었다. ‘죄를 지었으니 네 죄를 알라’는 세상에 대고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치는 초유의 여배우. 그의 투쟁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한국마약범죄학회 학술이사 문성호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대마관리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론화의 포문을 연 것이 김부선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br/><br/> 수많은 대중문화 인사들의 지지 속에 시작한 대마초 비범죄화 투쟁은 결국 위헌법률심판 기각과 헌법소원 기각으로 끝나고 만다. 이쯤 되면 지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김부선은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와 한-미 자유무역 협정 체결 반대 투쟁에 동참했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호적엔 양모로 올라가 있어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며 ‘최진실법’ 제정 촉구 투쟁에 나섰다. 제주 4·3 사건 때 첫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잃었다는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하며 4·3 위원회 폐지 반대에 앞장섰으며, 고 장자연씨 사건으로 연예계 성상납이 이슈가 되었을 때는 자신이 겪었던 일화들을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br/><br/> 아무래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배우를 선뜻 쓰기는 어려웠던 걸까. 2007년 <황진이>를 마지막으로 그의 장편 상업영화 출연작은 7년 가까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늘 입버릇처럼 자신은 투사가 아니라 연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김부선은, 그럼에도 자신이 보기에 정의롭지 못하다 싶은 사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싶은 사안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왜 그렇게 싸움을 멈추지 않느냐며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왔을 뿐인데, 그런 내가 생업인 연기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로 사회의 암적인 존재냐”고 반문하면서.(문화방송 <놀러와>, 2011)<br/><br/>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신념과 생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잠시 고민하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곤 한다. 그리고 그게 세상 사는 법이라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곤 한다.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나라고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다. 하지만 문화평론가 허지웅의 지적처럼, 한국의 현대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은 건 많은 경우 “꼴사납게 자기 면 깎아가며” 시민의 권리를 지켜준 “드센 사람들”이다. 그러니 최근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밝히려다 동네 주민과 시비가 붙어 뉴스에 오르내린 김부선에게 대중이 보내는 지지는, 어쩌면 온통 ‘가만히 있을 것’을 강요하는 세상에 질린 사람들이 보내는 조금 늦은 감사 인사인지도 모른다. 그토록 원하는 배우의 삶을 위해서라면 한번쯤 눈을 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꾸준히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말이다.<br/><br/>이승한 티브이 칼럼니스트 우석균 “<span class='quot1'>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span>” [한겨레담]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3.txt

제목: 무엇이 그들을 ‘아픈 사람’으로 만들었나  
날짜: 2014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17100000075  
본문: 지난봄, 인지심리 실험에 참여한 학부생들의 설문 응답을 정리하다가 놀랐다. 사회공포증이나 우울증 등을 이유로 치료와 처방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나눈 대화를 떠올릴 때 그들은 별다른 치료나 처방 기록이 없는 ‘정상적인’ 학생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정말 그들은 모두 아픈 학생들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아픈 학생으로 만들었을까? 작지만 마음속에서 쉽게 지울 수 없는 의문이었다.<br/>　오진은 오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DSM-5)의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심리학자 앨런 프랜시스는 그의 저서에서 정신장애의 과잉진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심리학자 게르트 기거렌처도, 실제로는 질병이 없는데도 질병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가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에 대해 경고했다. 암이나 자폐증 같은 육체적·정신적 질병은 사회적 낙인과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도 함께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신장애가 지닌 사회적 성격 탓에 무엇이 ‘장애’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br/>　심리학적 지식에 근거할 때, 비정상과 정상, 혹은 장애와 능력의 이분법은 생각 외로 모호한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섣불리 경계를 나누려는 시도는 위험하다.<br/>　일찍이 푸코는 ‘권력/지식’(power/knowledge)이라는 개념을 들어 지식을 통제하는 권한은 곧 타자에게 가하는 권력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누군가를 정상 혹은 비정상으로 지칭하는 일은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정해주는 ‘권력’의 행사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누구의 무엇을 가리켜 비정상 혹은 장애라 판단을 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쉬워서도 안 된다.<br/>　문득 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신문 칼럼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겨냥하며 했던 말, ‘감정조절 장애에 함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말과 그에 따른 논란이 떠오른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마주할 때 개인은 죄책감, 무력감, 우울증 등 심한 심리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고통에서 회복돼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은 생각 이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지는 이런저런 사회적 판단과 낙인은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악화시킬 뿐이다.<br/>　너무나 멀쩡해 보이던 학부생들이 설문지에 기록한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병력을 보며 놀랐던 일을 다시 떠올린다. 정신장애 진단이 어쩔 수 없이 수반하는 사회적 낙인에 대해, 또한 비정상 혹은 장애라는 단어의 남발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에게 입힐 크고작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무엇이 그들을 아프게 만들었을까? 정말 그들은 모두 아픈 사람들일까? 혹은 무엇이 그들을 아픈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김서경 <br/> 미국 어배나-섐페인 일리노이대학 박사과정(인지신경과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4.txt

제목: 무엇이 그들을 ‘아픈 사람’으로 만들었나  
날짜: 201409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1610015203628  
본문: 지난봄, 인지심리 실험에 참여한 학부생들의 설문 응답을 정리하다가 놀랐다. 사회공포증이나 우울증 등을 이유로 치료와 처방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나눈 대화를 떠올릴 때 그들은 별다른 치료나 처방 기록이 없는 ‘정상적인’ 학생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정말 그들은 모두 아픈 학생들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아픈 학생으로 만들었을까? 작지만 마음속에서 쉽게 지울 수 없는 의문이었다.<br/><br/> 오진은 오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신질환 진단과 통계 편람 제5판>(DSM-5)의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심리학자 앨런 프랜시스는 그의 저서에서 정신장애의 과잉진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심리학자 게르트 기거렌처도, 실제로는 질병이 없는데도 질병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가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에 대해 경고했다. 암이나 자폐증 같은 육체적·정신적 질병은 사회적 낙인과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도 함께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신장애가 지닌 사회적 성격 탓에 무엇이 ‘장애’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br/><br/> 심리학적 지식에 근거할 때, 비정상과 정상, 혹은 장애와 능력의 이분법은 생각 외로 모호한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섣불리 경계를 나누려는 시도는 위험하다.<br/><br/> 일찍이 푸코는 ‘권력/지식’(power/knowledge)이라는 개념을 들어 지식을 통제하는 권한은 곧 타자에게 가하는 권력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누군가를 정상 혹은 비정상으로 지칭하는 일은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정해주는 ‘권력’의 행사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누구의 무엇을 가리켜 비정상 혹은 장애라 판단을 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쉬워서도 안 된다.<br/><br/> 문득 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신문 칼럼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겨냥하며 했던 말, ‘감정조절 장애에 함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말과 그에 따른 논란이 떠오른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마주할 때 개인은 죄책감, 무력감, 우울증 등 심한 심리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고통에서 회복돼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은 생각 이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지는 이런저런 사회적 판단과 낙인은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악화시킬 뿐이다.<br/><br/> 너무나 멀쩡해 보이던 학부생들이 설문지에 기록한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병력을 보며 놀랐던 일을 다시 떠올린다. 정신장애 진단이 어쩔 수 없이 수반하는 사회적 낙인에 대해, 또한 비정상 혹은 장애라는 단어의 남발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에게 입힐 크고작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무엇이 그들을 아프게 만들었을까? 정말 그들은 모두 아픈 사람들일까? 혹은 무엇이 그들을 아픈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br/><br/>김서경 미국 어배나-섐페인 일리노이대학 박사과정(인지신경과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5.txt

제목: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 제2회 ① 검사와 원장  
날짜: 2014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1210015179142  
본문: 등장인물<br/><br/>1984년 5월11일, 박인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고 있다. 박인근이 2010년 발간한 회고록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에 수록된 사진이다. “신앙 양심을 앞세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형제원 운영 실정을 기록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지인 부탁을 받고 사건을 해명하기로 했다.” 그가 1987년 원생들을 감금하고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23년 만에 회고록을 낸 이유다. 박인근이 말하는 진실은 사실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신만의 입장이자 조작된 기억이었다. 1987년 대한민국의 민낯은 박인근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도시 정화를 위해 부랑인 감금을 합법화했으며, 박인근이 구속되자 정부, 사법권력, 정치인들은 사건을 덮고 진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전국 36곳의 부랑인 수용 시설에서 제2의 박인근들이 벌이는 원생에 대한 인간 모독은 제도로써 보호됐다. 복지원 사건을 무마하려 한 권력들은 1990~2010년대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 등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 1987년, 국가는 없었다. 박인근은 지금도 단죄받지 않고 있다. <br/><br/><br/><br/>▶ 형제복지원 2부는 박인근 회고록, 800여쪽의 검찰 기록, 야당 진상 보고서, 1987년 언론 보도,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정부는 전국 36곳의 수용시설에서 박인근 원장과 제2의 박인근들을 양산했습니다. 박인근은 지금껏 자신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지만, 유일한 가해자로 자신이 인식된 측면은 억울할 것입니다. 형제복지원은 인간에 대한 국가 폭력이자 부랑인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자들을 배제했던 1987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br/><br/><br/><br/>대한민국 거지를 소탕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br/><br/><br/><br/>“나, 박인근이 출소할 때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완전히 내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 임 권사가 놀라서 영적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형제원 사건을 이야기하면 무감각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2일부터 이러한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분은 하나님께 그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이라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 아내와 자녀들을 호주 학교에 보내고 호주 시드니에서 휴양하며, 교회에 나가면서 과거를 회복시켜 달라며 기도하였습니다. (…) 호주에 있을 때 형제원 사건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마음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박인근 회고록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 310쪽)<br/><br/> 2010년 여든한살의 노인이 회고록을 펴냈다. 대통령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두번이나 상을 받고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의 소재가 됐던 그는 1980년대 대한민국 복지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었다. 성공 가도를 달렸던 이 노인의 인생은 1987년 1월16일 첫 실패를 경험한다. 갈 곳 없는 부랑인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노인은 쉰여덟살의 나이에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며 구속됐다. 세상은 그때부터 자신이 일군 부산 형제복지원을, 12년간 원생 513명이 숨진 지옥으로 기억했다. <br/><br/> 인간은 타인에게 던져준 깊은 고통보다 자기 몸에 난 작은 생채기가 가장 쓰라리다. 노인은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다. 진실은 사실에서 비롯되지만, 때로 신념에서 잉태된다. 노인은 자신의 신념에서 발견한 진실을 믿었다. 신념 안에 자리잡은 형제복지원과 그곳에 수용된 부랑자들은 타인들의 기억과 달랐다. 그에게 형제복지원은 1970~80년대 정부 시책에 맞추어 능력 없고 쓸데없는 부랑인들을 격리하고 적극 계도한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시설이다. 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들이 사라졌다며 한때는 국가가 훈장을 주더니 나중에는 그들을 감금했다며 세상이 손가락질을 한다. 자신이 왜 구속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23년 만에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을 알리고 과거 사건을 해명하기로 작심했다. 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작가가 대신 집필한 것인지 모를 회고록에 담긴 내용은 기록자의 시점과 시간 순서가 오락가락했다. 노인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성공과 추락, 사진과 각종 자료들을 모은 방대한 분량의 회고록은 1885쪽에 달했다. 노인, 박인근은 회고록을 준비하며 기억하고 싶지 않던 1987년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br/><br/><br/><br/> “박인근 원장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빨리 석방해야 합니다.”<br/><br/>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젊은 검사 김용원은 1987년 1월18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이는 김주호 부산시장이다. 농수산부 출신으로 경남지사에 발탁됐다가 부산시장 자리로 옮긴 김주호 시장은 당시 잘나가는 관료였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인 1987년, 지역단체장들은 선출직이 아닌 제5공화국에서 임명된 공무원이었다.<br/><br/> 김용원은 김주호 시장의 제안을 거절한 뒤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첫 발령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6개월을 보낸 서른두살의 김용원은 울산지청으로 내려와 일생일대의 거대한 수사를 벌였다. 성공한 사회복지 사업가의 추악한 이면을 드러내는 일이다. 박인근은 만만찮은 상대였다.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감금당했다고 고소한 자가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을 만큼 거물이었다. 1월17일 박인근을 구속한 다음날부터 그를 비호하는 세력은 빠르게 움직였다. 진실을 막으려는 권력들과 검사 한 명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br/><br/> 비슷한 시기, 서울대생 박종철의 고문 살인 사건이 터졌다.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여론이 악화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중들의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br/><br/><br/><br/>전두환 정권은 박종철 고문 살인 사건을 무마하면서, 동시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이 연일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정권으로서는 없던 일로 덮을 수만은 없었다. 울산지청은 검찰 수뇌부에 박종철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없음을 해명해야 했다.<br/><br/> <br/><br/> 2월4일 울산지청 정보보고<br/><br/> ○검찰에서 수사 착수 당시 박종철군에 대한 고문 치사 사건을 염두에 두었는가.<br/><br/> -당 지청에서 먼저 복지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므로 박종철군에 대한 고문 치사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br/><br/> -당 지청에서 내사 착수한 것이 1986년 12월 초이고 일단의 자료를 수집 완료한 것이 1987년 1월12일이며 직접 피의자 임의 동행을 염두에 둔 것은 1월13일인바 이에 반하여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87년 1월14일이고 고문 치사의 혐의가 있다고 발표된 일자도 1987년 1월18일이며 고문치사가 명백하다고 발표된 것은 1987년 1월19일임.<br/><br/> <br/><br/> 울산지청의 해명은 일정 부분 사실이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숨지기 약 한달 전인 1986년 12월21일 일요일, 우연한 기회로 포착됐다. 이날 사냥꾼의 차를 타고 꿩을 잡으러 울주군의 산속을 헤맨 김용원은 저녁까지 한 마리도 찾지 못했다. 허탈한 심정으로 숲 속을 다니던 사냥꾼은 김용원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졌다.<br/><br/> “멀지 않은 곳에 이상한 작업장이 하나 있는데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인부들을 지키고 있어요. 경비원들이 개 패듯이 인부를 때리는 걸 본 적이 있지요.”<br/><br/> “거기가 어디요? 한번 가봅시다.”<br/><br/> 김용원은 사냥꾼과 함께 알 수 없는 숲 속 길을 따라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자동차 교습소 건설 현장이었다. 사냥꾼의 말은 사실이었다. 김용원이 차에서 내려 작업장 안으려 들어가려 하자 몽둥이를 든 청년들이 몰려와 그를 에워쌌다. 사나운 개들이 컹컹 짖었다. 청년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김용원을 주시했다. 김용원은 작업장을 얼른 빠져나갔다.<br/><br/> 김용원은 다음날인 22일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운전 교습소 건설이 한창인 경남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97 지번은 아직 정식으로 초지 훼손 허가가 난 곳이 아니었다. 김 검사는 경찰관들에게 쇠창살로 가로막힌 인부들의 숙소와 몽둥이를 든 경비원들을 사진기로 촬영하도록 했다. 인부들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원생으로 이곳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다.<br/><br/> 김용원은 차를 타고 형제복지원을 찾아가 주위를 빙빙 돌았다. 단단한 철문, 성곽 같은 담장이 에워싼 건물은 교도소를 연상시켰다. 단 한번에 치밀하게 덮치지 않으면 손안에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br/><br/> 김용원은 1월13일 오후, 조사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들고 부산지검 박희태(2010~2012년 18대 국회의장, 1993년 42대 법무장관 등을 지냈다) 검사장실을 찾아갔다. 영장을 발부받아 원장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다. 마침 송종의 차장검사는 자리에 없었다. 김용원은 검사장의 허락을 받은 뒤 다시 형제복지원 외곽을 둘러보며 출입문의 위치를 확인했다. 정문으로 쳐들어갔을 때 원장이 후문으로 빠져나갈지도 몰랐다. 다행히 정문은 하나밖에 없었다.<br/><br/> 1987년 1월16일 금요일, 대어를 낚을 날이 다가왔다. 김용원 검사는 경찰 100여명을 동원해 정문을 뚫고 복지원 안으로 들어섰다. 출입문은 이중 장금이 돼 있는 완벽한 감금시설이었다. 원장은 마침 복지원에 없었다. 김 검사는 복지원 간부들을 붙잡아 차에 태우고 나무 몽둥이 13개, 1985년 경리 장부 17권, 86년 경리 장부 14권, 지출 증빙 자료, 도망자 명단, 사망 관계 서류, 퇴원자 명부, 각종 차용증서, 원생들의 1일 작업 현황, 수익 사업 대장 17권, 원생들의 임금을 강제 저축시킨 적금 관계 노트 5권 등을 압수해 차에 실었다.<br/><br/> 박인근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용원이 원장실에 들어가 대형금고를 산소 용접기로 열자 대충 계산해도 20억원이 넘는 예금증서와 달러, 엔화가 쏟아졌다. 복지원 직원으로부터 검사가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박인근은 금고가 털리자 그제야 복지원에 나타났다. 그는 김용원 검사 앞에서 적개심을 드러냈다. “<span class='quot0'>왜 남의 금고를 부수는 거요?</span>”<br/><br/> 김용원은 박인근을 호송 차량에 실었다. “<span class='quot0'>이 복지원에 사고 나면 당신 책임질 거야?</span>” 박인근은 거만한 자세로 김 검사에게 소리를 쳤다.<br/><br/> 복지원 간부, 원생들까지 100명이 넘는 인원을 불러들인 울산지청은 그날 발 디딜 틈 없이 미어터졌다. 박인근은 “검사장을 불러오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br/><br/> 법원은 다음날인 17일 박인근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인근은 복지원 수용자들을 동원하여 산속 초지를 훼손하고 동물 축사를 수용자 숙소로 불법 용도 변경했으며 당시 법률상 정부 허락 없이 외화를 소지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검사는 부산지검, 대검찰청, 법무부에도 사건 내용을 보고했다.<br/><br/>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끊임없이 드러났다. 김용원은 박인근이 구속되기 약 5개월 전 울주 작업장에서 마흔살 원생 김계원이 소대장 김충식(가명)에게 두드려 맞아 숨진 뒤 암매장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1986년 8월1일 오전 10시, 김충식은 도망치려다 붙들린 김계원을 꿇어앉힌 채 작업장에서 일하던 원생 180여명을 집합시켰다. 김충식은 180여명이 보는 앞에서 김계원을 발과 주먹으로 후려치고 짓밟았다. 김계원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어갔다. 폭력에 익숙한 원생들도 주검이나 다름없는 처참한 김계원의 몸을 보지 못해 눈을 돌려야 했다.<br/><br/>박인근에게 형제복지원은 <br/>정부시책 맞춰 부랑인 격리한 <br/>대한민국 최고 복지시설이었다 <br/>국가에 훈장까지 받지 않았는가 <br/>그는 억울해서 회고록을 썼다<br/><br/>1987년 1월16일 금요일 <br/>김용원 검사는 경찰 100여명과 <br/>복지원 정문을 뚫고 들어갔다 <br/>“<span class='quot0'>사고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span>” <br/>박인근이 거만하게 소리질렀다.<br/><br/>김계원은 두드려맞아 숨진 뒤 <br/>암매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br/>1975~1986년 숨진 것으로 된 <br/>원생 513명도 미스터리였다 <br/>사망 서류는 의혹투성이였다<br/><br/> 다음날인 2일 김충식은 정신을 잃은 김계원을 목욕탕에 끌고 가 찬물을 끼얹으며 물을 길으라고 작업을 지시했다. 김계원은 몸을 가누지 못했다. 울주 작업장의 동료 원생 윤우택은 생명을 잃어가는 김계원의 가슴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었다. 그날 밤 김계원은 피를 토하며 죽었다. 차마 감지 못한 두 눈은 허공을 향했다. 원생 이용완은 자신의 손으로 김계원의 눈을 감겨 주었다. 3일 밤 11시, 형제복지원 사무장 주영은이 김계원의 주검을 차에 싣고 갔다.<br/><br/> 그의 죽음은 심부전증으로 조작되었다. 형제복지원 촉탁의사인 정명국은 4일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부산의료원 영안실에서 김계원의 주검을 형식적으로 검안했다. 다음날인 5일 오전 11시, 의사 정명국은 직접 사인은 심부전증, 선행 사인은 전신 쇠약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했다.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정명국은 부산 북구 의사협회장이었고 영세민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보건사회부 장관 표창과 대통령 국민 포장을 수상한 인물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선도위원, 부산시청 위민실 위민위원으로도 활동한 의사 정명국은 1983년 1월부터 형제복지원 촉탁의로 활동해왔다.<br/><br/> 관련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김계원의 죽음을 이렇게 진술했다. 그들의 진술은 일정 부분 일치했고, 어느 지점에서는 달랐다.<br/><br/> <br/><br/> 김충식: “8월3일, 부산에 가서 구타 사실을 보고했고 다음날 원장으로부터 김계원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r/><br/> 김준은: “김계원이 죽어서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주영은이 김계원은 폐결핵 3기인데 그 때문에 죽었다고 소대원에게 이야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br/><br/> 사인을 바꾼 의사 정명국은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 상부는 김용원에게 의사 정명국에 대한 불구속 지시를 내렸다. 정명국의 형이라는 자가 당시 서동권 검찰총장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했다. 매번 상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자칫하면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 자체를 덮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 검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조사실에 앉아 있던 의사 정명국을 발로 걷어찼다.<br/><br/> “불구속 수사하라네. 그렇게 할 테니까 한 대 맞자.”<br/><br/> 의사 정명국이 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br/><br/> 김계원의 죽음뿐만이 아니었다. 1975~1986년 숨진 것으로 처리된 원생 513명의 죽음도 미스터리였다. 형제복지원은 1986년 사망한 96명 가운데 56명을 연고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사망 서류에 적힌 것과 달리 연고가 없거나 주소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br/><br/> “1986년 사망자 96명 가운데 김천박(남·22살), 전남일(남·15살) 구일동(남·6살) 구포남(남·20살) 구일순(여·30살) 6명이 연고자에게 사체가 인계됐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적, 주소가 또한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김상택(38살) 김영슬(53살) 이방구(65살) 김덕순(38살) 등 11명은 사체 처리가 불분명하고, 연고자에게 사체 처리를 인계했다는 이천용(48살 86년 3월3일 입소, 86년 9월19일 사망)의 경우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사체가 병원에 실험용으로 팔려간다는 면담자(원생)들의 주장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적어도 (사망자 현황 등을 기록한) 새마음지에 기재된 사인과 사체 인계 등의 기록은 많은 경우 허위 기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신민당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진상조사단. 1987년 1월29일~2월1일 조사 결과 1차 보고서)<br/><br/> 김 검사는 울주 작업장 관련 수사를 마친 뒤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려고 했다. 경찰관 30명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주고 부산으로 내려보냈다. 이를 보고받은 부산지검 송종의 차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노발대발했다. “<span class='quot0'>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수사를 해?</span>”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 실태는 물론이고 12년간 사망한 513명에 대한 수사는 진척될 수 없었다.<br/><br/> 검찰 상부는 김 검사에게 박인근의 외환관리법 위반 등 이미 언론에 드러난 범죄만 수사하고 더 이상 파헤치지 말 것을 강요했다. 김용원은 1월21일 법무부에 정보보고를 했다. “<span class='quot0'>명에 의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수사를 중단하였음.</span>” <br/><br/> 그러나 물밑으로 수사가 지속됐다. 김용원은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뒤에 박인근의 국고지원금 횡령 액수가 11억4254만원임을 파악했다. 횡령 추정액은 1985~1986년 정부와 부산시 보조금 39억원 가운데 삼분의 일에 가까운 돈이었다. 1987년 서울 강남 압구정동 50평형 현대아파트 1채가 1억5000만원~1억6000만원에 거래되었으므로 박인근의 횡령 추정액은 강남의 50평형 아파트 7채를 사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박인근은 고급 아파트, 골프 회원권, 콘도 미니엄을 소유하고 있었다. 횡령 방법은 치밀하고 꼼꼼했다. 주로 백지 영수증을 받아 허위로 기록했다. 영수증에 기록된 피복 상점이나 식료품 상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형제복지원의 증빙 영수증에 적힌 가게 주인들은 거래 사실이 없거나 과장됐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br/><br/> 김용원은 애초 횡령액을 3억6893만6460원으로 공소장에 기록했다가 뒤늦게 추가 횡령 사실을 밝혀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부산지검에 신청했다. 법률상 횡령 액수가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부산지검은 공소장 변경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br/><br/> 김 검사는 5월15일 오전 6시30분께 호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박희태 부산지검장 관사에 찾아갔다. 지검장은 김 검사의 요구를 거절했다.<br/><br/> “<span class='quot0'>전두환 대통령이 5월20일 소년체전 참가차 부산에 오니 그 이후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세.</span>”<br/><br/> “<span class='quot0'>검사장님, 그럼 제가 사직하겠습니다.</span>”<br/><br/> “<span class='quot0'>사건 하나 해가지고 영웅이 되려고 하지는 마.</span>”<br/><br/> 박희태 검사장과 김 검사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사를 막으려는 권력과 사건을 놓지 않으려는 김 검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희태 검사장은 송종의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건 뒤 김 검사에게 바꿔주었다. 차장검사가 김용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br/><br/> “<span class='quot0'>꼭두새벽에 검사장 관사에 왜 갔어?</span>”<br/><br/>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 듣는데 신물 났습니다.”<br/><br/> 검찰 상부의 수사 방해는 매번 집요하고 끈질겼다. 부산지검은 이후 공소장 변경에 결국 동의해주었는데 횡령 액수를 7억원 이하로 맞추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 검사는 공소장 목록 가운데 일부를 가위로 잘랐다. 공소장의 횡령 액수는 11억4254만원에서 6억8178만원으로 바뀌었다.<br/><br/> 전두환 대통령은 5월20일 전국 소년체전을 참관하러 부산을 방문했다. 김주호 부산시장은 복지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김주호 시장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1993년 나온 김용원 검사의 <브레이크 없는 벤츠> 30쪽)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6.txt

제목: 해관의 다섯 가지 맛과 어른의 조건  
날짜: 20140910  
기자: 곽병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10100000048  
본문: “예수께서 선생을 만나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저기 오는 저 사람은 참한국인이다. 마음이 순진무구하구나.’”(신학자 이정배 감신대 교수) 이 교수에게 해관 장두석 선생의 분노는 의롭고, ‘거룩’했다. 암도 스님(전 백양사 주지)은 ‘해인(불가의 근본진리)을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했다.<br/>　그런 선생이지만 처음 대면하면 대개 기겁한다. ‘제국주의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민초들을 병들게 하고, 민족정신과 문화를 망하게 하고….’ 다짜고짜 제국주의 비판을 쏟아낸다. ‘좌빨’? 하지만 선생은 정효자 기념사업을 주도한 동복향교 장의였고, 배달문화선양회 대표로 해마다 천제를 올리며, 호주제 폐지 반대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러면 ‘수꼴’? 선생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독재정권에서 체포, 투옥을 거른 적이 없다.<br/>　선생에게 좌·우, 혹은 진보·보수는 무의미하다. 민족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야 민중이 건강하다는 신념에 따를 뿐이다. 인체와 자연, 자연과 사회, 민족과 국가는 둘이 아니다.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체 자연 사회가 유기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span class='quot0'>병은 역천(逆天)하기에 생기는 것, 순천(順天)만이 나라와 개인의 건강을 되찾게 한다.</span>”<br/>　순천의 요체는 민족의 식의주 생활을 잘 살려 잘 먹고 잘 싸는 것. 나쁜 음식 먹고 배설을 제대로 못해 체내에 찌꺼기가 쌓이고, 쌓인 찌꺼기가 썩어서 독소를 내고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만병의 근본이다. 5가지 잡곡과 오신채 식단으로 찌꺼기를 줄이고, 짜게 먹어 썩거나 염증이 생기는 걸 막고, 맵게 먹어 기혈이 잘 돌도록 하고, 물을 많이 마셔 찌꺼기를 배출하게 해야 한다. 금수목화토(金水木火土) 오행과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 오색, 산함신감고(酸鹹辛甘苦) 오미가 조화된 밥상이야말로 건강의 으뜸이다. 그래야 성정 또한 바르고 뚜렷하다. 불의에는 맵고, 무원칙에는 쓰고, 약한 것에는 달고, 강한 것에는 시고, 기름진 것에는 짜다. 선생이 그렇다.<br/>　맵다<br/>　매운맛은 기혈을 순환시키고, 몸 안 독소를 내보낸다. 선생은 걸어온 길 자체가 고초, 당초보다 더 매웠다. 학력은 초등학교 2년이 고작. 그때 책들을 불태운 뒤 ‘이 더러운 일본 놈 학교 다니지 말자’며 자퇴했다. 6·25전쟁 전 마을 청년 8명이 서북청년단에 총살당하는 걸 보고는 전쟁이 나자 소년 빨치산이 되어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얻은 폐수종과 간장질환으로 죽음이 지척이었다. 먹거리라곤 소금만 들고 옹성산 옹성사 토굴로 들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다산의 ‘민간요법’과 의약서 ‘약성가’도 뀄지만, 그가 그때 체득한 것은 자연치료의 이치였다. 안 먹으면 낫고, 똥 잘 싸면 무병하다. 탐욕과 미움이 없어야 건강하다.<br/>　이승만 시절 진보당원으로 활동했고, 3·15 부정선거 때 고향 전남 화순군 이서면 지서에서 난리를 치다가 체포됐다. 5·16 쿠데타와 함께 수배자로 쫓겨 다녔다. 1974년 유신 땐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여하고, 1976년 가톨릭농민회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고, 1979년엔 명동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사건, 광주와이더블유시에이 사건으로 체포됐다. 1980년 5·18항쟁 땐 내란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5·18항쟁 때 보안사에서 “나라를 전복하고 살인을 한 것은 너희들이지 광주 시민이 아니”라고 맞서다가 정강이뼈가 으스러지는 고문을 당했고, 재판 최후진술에서는 “이 재판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개두환이 받아야 한다”고 호통쳤다. 그런 ‘불호령’은 지금도 다름없다.<br/>　쓰다<br/>　쓴맛은 기열을 배출해 몸속의 염증을 억제하고 몸 안의 습을 말린다. 막힌 기를 뚫는다. 이 나라는 허리가 잘리면서 기가 막혀버렸다. 원흉은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나라만 동강 낸 게 아니라, 생로병사 모든 과정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출산의 상업화는 그 상징. 의료자본은 자연분만을 없앴다. 강제분만을 위해 척추 마비주사를 놔, 아기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옥시토신 분비를 봉쇄한다. 유도분만이라지만 아기는 강제로 끌려나온다. 산모의 자궁경부가 온전할 수 없으며, 태아가 건강할 수도 없다. 아기는 50시간 정도 굶어야 배내똥을 모두 눈다. 그래서 엄마도 그만큼 젖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소젖을 먹이니, 아기는 평생 똥을 몸 안에 담고 산다. 당뇨 등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br/>　제국주의적 식의주, 사고방식에 대한 쓴소리가 저주에 가까운 건 그런 까닭이다. ‘대학물 먹으면 버린다. 공부를 할수록 불한당, 거지가 된다.’ ‘주부가 대학을 나오면 가정이 죽는다.’<br/>　시다<br/>　선생의 반찬은 감식초와 군소금만으로 버무리면 끝. 식초는 나쁜 균을 없애 부패를 막고, 발효를 증진시킨다. 신맛은 몸 안 진액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br/>　거의 마지막으로 민족생활관을 찾아온 이들에게 선생은 이렇게 요구한다. “<span class='quot0'>생사의 주체는 바로 당신들이니 스스로 목숨 걸고 결단해야 한다.</span>” “<span class='quot0'>병은 스스로 다스려야지 다른 사람이 치료해줄 순 없다.</span>” 충고는 시큼하다. “장독대를 살려라. 장독대를 없애 가족이 병들었다.” 면역력은 몸속 발효균이 얼마나 왕성한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발효의 원천이 장독대다. 그러나 장독대 있는 집이 어디 있나. “요즘 여성 모두가 삼각팬티 입는데, 꼭 조이는 팬티는 자궁이 숨 쉬는 걸 막아 자궁을 병들게 한다. 배꼽에 걸쳐야 할 허리띠를 골반에 걸쳐 자궁을 옥죈다. 브래지어로는 유방을 압박하니 몸이 건강할 수 없다.” <br/>　짜다<br/>　짠맛은 뭉친 것을 풀어준다. 변을 부드럽게 해주며, 담을 없애준다. 염증은 억제하고 발효 혹은 소화를 촉진한다. 물을 많이 섭취하게 해 체내 찌꺼기 배설을 돕는다. 저염식은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대표적인 식습관이라고 선생은 확신한다.<br/>　가톨릭농민회와 함께했던 농민운동, 서민의 삶을 부축하는 신용협동조합 운동, 지식인 학생들의 구심점 노릇을 했던 양서조합, 민초들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민족생활의학 운동 등 선생이 걸어온 자취는 하나하나가 소금 구실을 했다. 1960년대 광주·전남지역에 신협운동의 씨를 뿌려 밀알신협, 와이더블유시에이신협, 와이엠시에이(YMCA)신협, 삼애신협, 계림신협 등을 탄생시켰고, 1970년대 농민운동의 금자탑이었던 함평 고구마 투쟁에도 앞장섰다. <br/>　민족생활의학 운동은 1975년 세운 자연건강대학 설립과 함께 본격화해, 1989년 민족생활학교로 개편을 거쳐 지금까지 정규과정 이수자만도 4만명에 이른다. 1999년엔 사단법인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를 세웠고, 전국에 민족생활관 24곳을 운영하며, 스스로 병을 다스리는 법을 전파한다. 그는 1994년 월간 가 꼽은 ‘생활을 통한 국내 명의사 7인’에 선정됐다.<br/>　달다<br/>　‘풍류에 달통’(시인 김준태)했다. 신명이 오르면 장구를 두드리며 진도아리랑과 양산도를 열창하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 천지인 합일에서 나오는 것이 신명, 신명의 드러남이 춤. 그런 선생을 두고 김준태 시인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샤먼’이라고 했다. 그가 주관하는 자리는 맵고 쓰고 짜지만, 결국 달다. 단맛은 몸 안의 여러 기능을 조화롭고 평안하게 한다.<br/><br/>　담소하던 선생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 큰절을 한다. 매무새가 어찌나 정갈하고 지극한지 큰절 한 번 하는 데 2~3분이나 흐른 것 같다. ‘선생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오. 몸 잘 다스리시고….’ 보름 전 실려 오다시피 했다가 돌아가는 여인이라고 한다. 눈짓으로 배웅하고는 마주한 이에게 술잔을 권한다. “병이란 건 없어. 제가 만든 것이니 제가 스스로 다스리면 돼.”<br/>　어른. 때론 불호령이 매섭고, 쓰고 짜며 감싸안는 품이 따듯한 사람. 노년을 비루하고 처량한 난폭자로 만드는 탐욕스런 도시 비열한 거리에서 더욱 그리워진다. 박몽구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의 얼굴에는 늘 젊은 느티나무 한 그루 겹칩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깊게 뿌리내린 느티나무.” 시대의 당산목이다. 그 나무는 멀리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무등산 자락(양현당)에 있지만, 그늘은 남북 삼천리에 걸쳤다. <br/>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7.txt

제목: 해관의 다섯 가지 맛과 어른의 조건  
날짜: 201409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0910015156747  
본문: “예수께서 선생을 만나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저기 오는 저 사람은 참한국인이다. 마음이 순진무구하구나.’”(신학자 이정배 감신대 교수) 이 교수에게 해관 장두석 선생의 분노는 의롭고, ‘거룩’했다. 암도 스님(전 백양사 주지)은 ‘해인(불가의 근본진리)을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했다.<br/><br/> 그런 선생이지만 처음 대면하면 대개 기겁한다. ‘제국주의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민초들을 병들게 하고, 민족정신과 문화를 망하게 하고….’ 다짜고짜 제국주의 비판을 쏟아낸다. ‘좌빨’? 하지만 선생은 정효자 기념사업을 주도한 동복향교 장의였고, 배달문화선양회 대표로 해마다 천제를 올리며, 호주제 폐지 반대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러면 ‘수꼴’? 선생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독재정권에서 체포, 투옥을 거른 적이 없다.<br/><br/> 선생에게 좌·우, 혹은 진보·보수는 무의미하다. 민족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야 민중이 건강하다는 신념에 따를 뿐이다. 인체와 자연, 자연과 사회, 민족과 국가는 둘이 아니다.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체 자연 사회가 유기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span class='quot0'>병은 역천(逆天)하기에 생기는 것, 순천(順天)만이 나라와 개인의 건강을 되찾게 한다.</span>”<br/><br/> 순천의 요체는 민족의 식의주 생활을 잘 살려 잘 먹고 잘 싸는 것. 나쁜 음식 먹고 배설을 제대로 못해 체내에 찌꺼기가 쌓이고, 쌓인 찌꺼기가 썩어서 독소를 내고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만병의 근본이다. 5가지 잡곡과 오신채 식단으로 찌꺼기를 줄이고, 짜게 먹어 썩거나 염증이 생기는 걸 막고, 맵게 먹어 기혈이 잘 돌도록 하고, 물을 많이 마셔 찌꺼기를 배출하게 해야 한다. 금수목화토(金水木火土) 오행과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 오색, 산함신감고(酸鹹辛甘苦) 오미가 조화된 밥상이야말로 건강의 으뜸이다. 그래야 성정 또한 바르고 뚜렷하다. 불의에는 맵고, 무원칙에는 쓰고, 약한 것에는 달고, 강한 것에는 시고, 기름진 것에는 짜다. 선생이 그렇다.<br/><br/> 맵다<br/><br/> 매운맛은 기혈을 순환시키고, 몸 안 독소를 내보낸다. 선생은 걸어온 길 자체가 고초, 당초보다 더 매웠다. 학력은 초등학교 2년이 고작. 그때 책들을 불태운 뒤 ‘이 더러운 일본 놈 학교 다니지 말자’며 자퇴했다. 6·25전쟁 전 마을 청년 8명이 서북청년단에 총살당하는 걸 보고는 전쟁이 나자 소년 빨치산이 되어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얻은 폐수종과 간장질환으로 죽음이 지척이었다. 먹거리라곤 소금만 들고 옹성산 옹성사 토굴로 들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다산의 ‘민간요법’과 의약서 ‘약성가’도 뀄지만, 그가 그때 체득한 것은 자연치료의 이치였다. 안 먹으면 낫고, 똥 잘 싸면 무병하다. 탐욕과 미움이 없어야 건강하다.<br/><br/> 이승만 시절 진보당원으로 활동했고, 3·15 부정선거 때 고향 전남 화순군 이서면 지서에서 난리를 치다가 체포됐다. 5·16 쿠데타와 함께 수배자로 쫓겨 다녔다. 1974년 유신 땐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여하고, 1976년 가톨릭농민회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했고, 1979년엔 명동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사건, 광주와이더블유시에이 사건으로 체포됐다. 1980년 5·18항쟁 땐 내란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5·18항쟁 때 보안사에서 “나라를 전복하고 살인을 한 것은 너희들이지 광주 시민이 아니”라고 맞서다가 정강이뼈가 으스러지는 고문을 당했고, 재판 최후진술에서는 “이 재판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개두환이 받아야 한다”고 호통쳤다. 그런 ‘불호령’은 지금도 다름없다.<br/><br/> 쓰다<br/><br/> 쓴맛은 기열을 배출해 몸속의 염증을 억제하고 몸 안의 습을 말린다. 막힌 기를 뚫는다. 이 나라는 허리가 잘리면서 기가 막혀버렸다. 원흉은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나라만 동강 낸 게 아니라, 생로병사 모든 과정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출산의 상업화는 그 상징. 의료자본은 자연분만을 없앴다. 강제분만을 위해 척추 마비주사를 놔, 아기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옥시토신 분비를 봉쇄한다. 유도분만이라지만 아기는 강제로 끌려나온다. 산모의 자궁경부가 온전할 수 없으며, 태아가 건강할 수도 없다. 아기는 50시간 정도 굶어야 배내똥을 모두 눈다. 그래서 엄마도 그만큼 젖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소젖을 먹이니, 아기는 평생 똥을 몸 안에 담고 산다. 당뇨 등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br/><br/> 제국주의적 식의주, 사고방식에 대한 쓴소리가 저주에 가까운 건 그런 까닭이다. ‘대학물 먹으면 버린다. 공부를 할수록 불한당, 거지가 된다.’ ‘주부가 대학을 나오면 가정이 죽는다.’<br/><br/> 시다<br/><br/> 선생의 반찬은 감식초와 군소금만으로 버무리면 끝. 식초는 나쁜 균을 없애 부패를 막고, 발효를 증진시킨다. 신맛은 몸 안 진액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br/><br/> 거의 마지막으로 민족생활관을 찾아온 이들에게 선생은 이렇게 요구한다. “<span class='quot0'>생사의 주체는 바로 당신들이니 스스로 목숨 걸고 결단해야 한다.</span>” “<span class='quot0'>병은 스스로 다스려야지 다른 사람이 치료해줄 순 없다.</span>” 충고는 시큼하다. “장독대를 살려라. 장독대를 없애 가족이 병들었다.” 면역력은 몸속 발효균이 얼마나 왕성한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발효의 원천이 장독대다. 그러나 장독대 있는 집이 어디 있나. “요즘 여성 모두가 삼각팬티 입는데, 꼭 조이는 팬티는 자궁이 숨 쉬는 걸 막아 자궁을 병들게 한다. 배꼽에 걸쳐야 할 허리띠를 골반에 걸쳐 자궁을 옥죈다. 브래지어로는 유방을 압박하니 몸이 건강할 수 없다.” <br/><br/> 짜다<br/><br/> 짠맛은 뭉친 것을 풀어준다. 변을 부드럽게 해주며, 담을 없애준다. 염증은 억제하고 발효 혹은 소화를 촉진한다. 물을 많이 섭취하게 해 체내 찌꺼기 배설을 돕는다. 저염식은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대표적인 식습관이라고 선생은 확신한다.<br/><br/> 가톨릭농민회와 함께했던 농민운동, 서민의 삶을 부축하는 신용협동조합 운동, 지식인 학생들의 구심점 노릇을 했던 양서조합, 민초들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민족생활의학 운동 등 선생이 걸어온 자취는 하나하나가 소금 구실을 했다. 1960년대 광주·전남지역에 신협운동의 씨를 뿌려 밀알신협, 와이더블유시에이신협, 와이엠시에이(YMCA)신협, 삼애신협, 계림신협 등을 탄생시켰고, 1970년대 농민운동의 금자탑이었던 함평 고구마 투쟁에도 앞장섰다. <br/><br/> 민족생활의학 운동은 1975년 세운 자연건강대학 설립과 함께 본격화해, 1989년 민족생활학교로 개편을 거쳐 지금까지 정규과정 이수자만도 4만명에 이른다. 1999년엔 사단법인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를 세웠고, 전국에 민족생활관 24곳을 운영하며, 스스로 병을 다스리는 법을 전파한다. 그는 1994년 월간 <신동아>가 꼽은 ‘생활을 통한 국내 명의사 7인’에 선정됐다.<br/><br/> 달다<br/><br/> ‘풍류에 달통’(시인 김준태)했다. 신명이 오르면 장구를 두드리며 진도아리랑과 양산도를 열창하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 천지인 합일에서 나오는 것이 신명, 신명의 드러남이 춤. 그런 선생을 두고 김준태 시인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샤먼’이라고 했다. 그가 주관하는 자리는 맵고 쓰고 짜지만, 결국 달다. 단맛은 몸 안의 여러 기능을 조화롭고 평안하게 한다.<br/><br/><br/><br/> 담소하던 선생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 큰절을 한다. 매무새가 어찌나 정갈하고 지극한지 큰절 한 번 하는 데 2~3분이나 흐른 것 같다. ‘선생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오. 몸 잘 다스리시고….’ 보름 전 실려 오다시피 했다가 돌아가는 여인이라고 한다. 눈짓으로 배웅하고는 마주한 이에게 술잔을 권한다. “병이란 건 없어. 제가 만든 것이니 제가 스스로 다스리면 돼.”<br/><br/> 어른. 때론 불호령이 매섭고, 쓰고 짜며 감싸안는 품이 따듯한 사람. 노년을 비루하고 처량한 난폭자로 만드는 탐욕스런 도시 비열한 거리에서 더욱 그리워진다. 박몽구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의 얼굴에는 늘 젊은 느티나무 한 그루 겹칩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깊게 뿌리내린 느티나무.” 시대의 당산목이다. 그 나무는 멀리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무등산 자락(양현당)에 있지만, 그늘은 남북 삼천리에 걸쳤다. <br/><br/>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8.txt

제목: 음악영화 좋아한다면 /아이들과 같이간다면 /‘비긴 어게인’ ‘하늘의 황금마차’ /‘마야’ ‘쿰바’  
날짜: 2014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05100000074  
본문: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영화들을 취향에 맞게 골라 보는 것도 좋겠다. 개봉관이 많지 않아 평소엔 찾아보기 힘들었다면 시간 여유가 있는 추석 연휴를 잘 이용해보자.<br/>　음악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에겐 최근 90만명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안성맞춤이다. 음악영화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의 존 카니 감독의 신작이다. 남자친구 데이브(애덤 러빈)의 변심에 상처받은 그레타(키라 나이틀리)와 잘나가는 음반 프로듀서였지만 이젠 추락해버린 댄(마크 러팔로)이 음반을 만들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간다는 줄거리다.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 주인공들의 세밀하고 잔잔한 교감이 마음을 울린다. 영화 속 노래를 담은 오에스티(OST) 음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br/>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로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오멸 감독의 신작 도 있다. 돈도 없이 밴드를 조직한 뽕똘(이경준)이 암과 치매가 동시에 찾아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큰형(문석범)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상황을 그린 음악영화이자 로드무비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실제 스카 음악을 하는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흥겨운 음악이 흐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영화로, 올여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됐다.<br/>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있다. 는 사고뭉치 마야가 로열젤리를 훔쳐 여왕벌을 위태롭게 하려는 2인자 버즈리나에 맞서 꿀벌왕국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그린다. 단순한 필치로 그려낸 귀여운 꿀벌 캐릭터가 일품이다. 반쪽 무늬로 태어나 따돌림을 당하던 얼룩말 쿰바가 온전한 무늬를 얻기 위해 마법의 연못을 찾아 나선다는 모험담을 담은 도 눈에 띈다. 아프리카에 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북돋을 만큼 동물들과 초원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돋보인다. <br/>　선택이 힘들다면 기획전을 찾는 것도 좋겠다. 서울 광화문 인디스페이스에서는 6~10일 ‘한가위 맞이: 독립영화 삼색전 영문자막 상영회’가 열린다. 한국 대표 단편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과 10대 왕따 문제를 다룬 , 등 세 편을 상영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사진 각 회사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59.txt

제목: 26일부터 충북 오송서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날짜: 2014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0510015147931  
본문: 　모든 이의 꿈인 무병장수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뭘까? 오는 9월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케이티엑스 오송역 근처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리는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그 비밀의 문을 연다.<br/><br/>　오송 바이오엑스포는 충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청주시 등이 함께 연다. 사업비 249억여원이 들었으며,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동안 70여만명이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br/><br/>　오송 바이오엑스포는 2002년에 처음 열린 뒤 멈췄다가 12년만에 다시 열린다. 오송은 바이오와 인연이 깊다. 다섯 소나무 마을이라는 오송의 유래가 신라시대 대학자 최치원이 전국을 주유하다 이곳에 들러 소나무 다섯 그루를 심은 데서 출발한다. 공교롭게 소나무는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의 하나이기도 하다.<br/><br/>　오송은 이미 바이오의 메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 관련 6대 국책기관이 들어섰으며 인체자원은행, 의과학지식센터, 줄기세포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등도 둥지를 틀었다. 엘지생명과학, 시제이헬스케어, 녹십자 등 보건 의료 생명 분야 기업체 60여곳이 들어서는 등 바이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충북은 오송을 중심으로 오송·오창(의약), 제천(한방), 옥천(의료기기), 괴산(유기농식품), 진천·음성(화장품·화학) 등 충북 전역을 국가 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br/><br/>　이차영 오송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2002년 엑스포 이후 급성장한 충북바이오 산업의 재도약 기회가 될 것이다. 엑스포를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해 2030년 충북을 세계 3대 바이오 밸리로 도약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br/><br/>　■ 피 한방울이면 끝 오송바이오엑스포에서는 최첨단 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피 한방울로 암·심장·갑상선 질환 등 지금 몸 속에 있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생체신호진단기를 통한 우울증·치매 검사 체험도 할 수 있다. ‘스마일라이프, 질병없는 바이오’를 주제로 한 바이오 건강 체험관에서는 120살에 도전하는 바이오 미래 치료 기술을 소개한다. 바이오센서, 유전자 분석 모바일 건강관리, 건강 힐링센터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전시와 체험이 이뤄진다. 자신과 가족 등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미래 질병을 예측하는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br/><br/>　의료 로봇, 원격진료 및 화상 수술, 스마트 생체 재료, 초소형 생체진단, 바이오 3디 조직 배양 프린팅 기술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기계·소재·정보통신·바이오 기술 등의 융복합도 보여준다.<br/><br/>　바이오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는 ‘바이오 미래관’에서 살필 수 있다. 현재 바이오 경제 시대의 성과는 물론 미래 바이오 사회를 구성하는 의료·의약·식량·에너지·융합기술 등 다양한 바이오 기술과 비전을 살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복제 동물들도 만날 수 있다.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천연기념물 동경이, 검색 탐지견 큐피, 형질전환 복제돼지, 유전자 변형 기술로 태어난 형광 물고기 등을 볼 수 있다.<br/><br/>　무병장수의 꿈을 살핀 뒤 영원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엿볼 수 있다. ‘뷰티체험관’이다. 이곳에선 한류의 새 물결 로 떠오른 ‘케이 뷰티’의 진화와 확산을 체험할 수 있으며, 피부 진단·컨설팅과 맞춤 화장법 안내, 바이오와 만난 화장품 등을 볼 수 있다.<br/><br/>　■ 첨단 바이오 산업의 경연 미국 머크, 독일 지멘스, 중국 상하이 제약 등 세계적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경연장이 펼쳐진다. 오송바이오엑스포에는 국내 기업 274곳, 국외 기업 72곳 등 바이오 관련 기업 346곳이 참여한다. 애초 223곳 정도민 참가할 것으로 봤지만 예상을 훌쩍 뛰어 넘었다. 엑스포기간동안 국외 구매자 초청 무역 상담회가 8차례 열리는 등 바이오 기업간 비즈니스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세계 20대 글로벌 제약기업 가운데 3곳을 초청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 합작 투자 등을 유도하고 오송 일대에 조성된 충북 바이오 밸리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 참이다. 의약품 분야 기업인 미국의 머크와 암젠, 이스라엘의 테바, 치과기자재 업체인 미국 헨리샤인 등과 접촉하고 있다.<br/><br/>　충북발전연구원은 오송바이오엑스포가 생산유발 2383억원, 부가가치 1089억원, 고용창출 4176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br/><br/>　■ 세계적 바이오 석학들도 오송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0월7~8일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이 학술회의에는 2004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이스라엘 학자 아론 치에하노베르 등 나라 안팎에서 석학 18명과 바이오 의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와 국제제약공학회는 10월10~11일 퇴행성 관절염, 암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한다. 글로벌 제약사인 암젠과 코오롱 생명과학 등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나라 안팎의 연구팀이 참여한다.<br/><br/>　국내 학술대회도 이어진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의료기기 상생협력 세미나’(9월26일), 세명대 산학협력단의 ‘한방 바이오 제품 개발과 산업화’ 학술회의(9월29일). 한국제약협회의 ‘바이오 의약품 포럼’(9월30일), 한국바이오칩학회 학술회의(10월1~2일), 대한화장품협회 학술회의(10월6일) 등이 열린다.<br/><br/>　■ 할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도 풍성 오송바이오엑스포는 어렵고 생소한 행사만 있는 게 아니다. 볼거리, 할거리, 즐길거리가 다채롭다. 에듀체험관에서는 인체 장기 모형 조립, 초음파 장기 탐색, 세포 현미경 관찰 등 놀이·체험을 통해 바이오를 체험할 수 있다. 폐자재 공룡, 세포 그네, 세포 트램플린, 세포 정글짐 등도 눈에 띈다. 인간의 뇌를 본떠 만든 바이오 게임장에선 뇌파 사격, 경주 등의 놀이를 즐길 수 있다.<br/><br/>　엑스포 기간 내내 3디 입체 영상 상영, 기획 공연, 바이오 적성검사, 시골의사 박경철, 이병천 서울대 교수 등의 바이오·의학 강연도 이어진다.<br/><br/>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인천~오송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선수·임원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도 준비했다.<br/><br/>　이시종 오송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장(충북지사)은 “<span class='quot0'>오송바이오엑스포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흐름과 성과는 물론 미래 가치 등을 집대성해 유익한 정보와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0.txt

제목: 이게 빠지면 추석이 아니지…송편 같은 영화들  
날짜: 2014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0410015140196  
본문: 추석 연휴는 전통적인 극장 성수기다. 특히 올해는 주말에다 대체휴일까지 껴 무려 5일간의 황금연휴다. 극장을 찾을 관객들을 위해 성찬이 차려진다. 1700만 관객을 모은 <명량>이 극장에서 빠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흥행 열풍의 바통을 이어받으려는 국내외 대작 영화 세 편이 이미 결전에 들어갔다.<br/><br/> 흥행 청신호가 가장 밝아 보이는 영화는 지난 3일 개봉한 <타짜-신의 손>이다. 2006년 추석 시즌 개봉해 684만 관객을 모으며 작품성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타짜>의 후속편이다. 전편이 허영만의 원작 만화 가운데 1부 ‘지리산 작두’ 편을 옮긴 것이라면, 이번 영화는 2부 ‘신의 손’ 편을 옮긴 것이다. <과속스캔들>(830만 관객)과 <써니>(740만 관객)로 흥행감독의 입지를 확실히 다진 강형철 감독이 전편의 최동훈 감독에 이어 메가폰을 잡았다.<br/><br/> 전편의 조승우 대신 주인공으로 낙점된 배우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이다. 전편 주인공 고니의 조카인 대길로 출연해 고스톱, 섰다 등 화투 노름으로 승부를 벌인다. 정마담(김혜수)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건 미나(신세경)와 우사장(이하늬)이다. 각각 대길과 얽히면서 김혜수와는 또다른 치명적이고 화끈한 매력을 발산한다. 전편의 주요 인물이었던 고광렬(유해진)과 아귀(김윤석)도 모습을 보인다. 전편의 무게감에서 벗어나 밝고 경쾌한 터치로 그려나가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어른들의 오락영화로 합격점을 받았다. 전편의 흥행 성적을 넘어 얼마의 관객을 동원할지 관심을 모은다.<br/><br/> 같은 날 개봉한 <두근두근 내 인생>도 추석 시즌 관객몰이에 나선다. <타짜-신의 손>이 청소년관람불가인 반면 <두근두근 내 인생>은 12살 관람가여서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 제격이다. <정사>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여배우들> 등을 연출한 이재용 감독이 김애란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열일곱 어린 나이에 자식을 낳은 부모, 열일곱살을 앞두고 불치병(조로증)으로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다.<br/><br/> 십대에 아버지가 된 대수 역을 강동원이 맡았다. 걸그룹에 열광하고 아들의 게임기를 탐내는 철부지 아빠이자, 택시 운전에 온갖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와 아들의 병원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한때 아이돌 스타를 꿈꿨지만 열일곱살에 아이를 낳게 된 미라 역은 송혜교가 연기했다. 주로 청순한 역을 맡아왔던 그는 사투리·욕설 연기 등 의외의 모습을 선보인다. 가슴 아픈 사연을 담았지만,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모은 <7번방의 선물>처럼 눈물샘을 자극하는 최루성 가족영화는 아니다. 오히려 관객들의 폭소를 터뜨리는 웃음 코드가 쉴 새 없이 등장한다. 그런 가운데 은은하면서도 짙은 감동과 여운을 느끼게 한다.<br/><br/> 올해는 <군도> <명량> <해적> <해무> 등 한국 영화 대작들이 쏟아지면서 유독 할리우드 영화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그랑블루> <니키타> <레옹> <제5원소> <택시> 등 화제작을 만든 프랑스 거장 뤼크 베송 감독의 신작 <루시>가 3일 개봉해 추석 시즌 흥행전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마약운반책으로 이용당하던 루시(스칼릿 조핸슨)가 뇌의 활용도를 높여가며 초능력을 갖게 되면서 겪는 상황을 그린 액션물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액션보다 철학적 내용을 사유하는 분위기로 흐른다. 북미에서 개봉하자마자 2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고, 4주 만에 수익 1억달러를 올려 흥행에 성공했다.<br/><br/> 최근 <명량>의 이순신으로 크게 주목받은 배우 최민식의 출연으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한국말을 쓰며 루시를 끝까지 괴롭히는 악당 미스터 장으로 출연하는데, 영화에서 주인공인 루시 다음으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가 쓰는 한국말이 영어 자막으로 표기되지 않는데도 외국 관객들이 표정과 분위기만으로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다. <올드 보이>를 본 뤼크 베송 감독이 최민식을 섭외하려고 한국으로 와 몇 시간에 걸쳐 설득했다고 한다. 피가 튀는 잔인한 장면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br/><br/>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사진 각 영화사 제공 <br/><br/> <br/><br/>음악영화 좋아한다면, 아이들과 같이간다면<br/><br/>‘비긴 어게인’ ‘하늘의 황금마차’ <br/>‘마야’ ‘쿰바’<br/><br/>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영화들을 취향에 맞게 골라 보는 것도 좋겠다. 개봉관이 많지 않아 평소엔 찾아보기 힘들었다면 시간 여유가 있는 추석 연휴를 잘 이용해보자.<br/><br/> 음악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에겐 최근 90만명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긴 어게인>이 안성맞춤이다. 음악영화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원스>의 존 카니 감독의 신작이다. 남자친구 데이브(애덤 러빈)의 변심에 상처받은 그레타(키라 나이틀리)와 잘나가는 음반 프로듀서였지만 이젠 추락해버린 댄(마크 러팔로)이 음반을 만들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간다는 줄거리다.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 주인공들의 세밀하고 잔잔한 교감이 마음을 울린다. 영화 속 노래를 담은 오에스티(OST) 음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br/><br/>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지슬>로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오멸 감독의 신작 <하늘의 황금마차>도 있다. 돈도 없이 밴드를 조직한 뽕똘(이경준)이 암과 치매가 동시에 찾아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큰형(문석범)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상황을 그린 음악영화이자 로드무비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실제 스카 음악을 하는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흥겨운 음악이 흐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영화로, 올여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됐다.<br/><br/>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있다. <마야>는 사고뭉치 마야가 로열젤리를 훔쳐 여왕벌을 위태롭게 하려는 2인자 버즈리나에 맞서 꿀벌왕국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그린다. 단순한 필치로 그려낸 귀여운 꿀벌 캐릭터가 일품이다. 반쪽 무늬로 태어나 따돌림을 당하던 얼룩말 쿰바가 온전한 무늬를 얻기 위해 마법의 연못을 찾아 나선다는 모험담을 담은 <쿰바: 반쪽 무늬 얼룩말의 대모험>도 눈에 띈다. 아프리카에 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북돋을 만큼 동물들과 초원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돋보인다. <br/><br/> 선택이 힘들다면 기획전을 찾는 것도 좋겠다. 서울 광화문 인디스페이스에서는 6~10일 ‘한가위 맞이: 독립영화 삼색전 영문자막 상영회’가 열린다. 한국 대표 단편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과 10대 왕따 문제를 다룬 <야간비행>, <하늘의 황금마차> 등 세 편을 상영한다. <br/><br/>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사진 각 회사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1.txt

제목: 2차례 암수술이 무색한 팔십 노인의 ‘수박치기’  
날짜: 2014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03100000121  
본문: 맨손 무술인 수박은 무인들이 즐겨 수련하던 한민족 전통무술이다. 어린 시절 개성의 보부상들 사이에 퍼져 있던 ‘송도 수박’을 배운 송창렬씨가 한복 차림으로 수박을 보여주고 있다. 두차례 암 수술에서 살아난 송씨는 아직도 살아 있는 눈빛으로 손바닥에서 기를 내뿜는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2.txt

제목: 꼬부랑 할머니 ‘세월봉’에 머무른 시선  
날짜: 20140903  
기자: 노형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03100000041  
본문: 시골에서 허리 구부린 채 밭일하는 꼬부랑 할머니. 그의 모습을 마냥 정겨운 풍경으로 볼 일은 아니다. 세월과 맞서다 곧추설 힘을 잃은 몸이 땅으로 치닫는 중력에 굴복해가는 과정인 까닭이다. 수년간 전국 사방을 돌며 꼬부랑 어르신들의 사연과 만났던 사진부 선임기자 강재훈씨는 그네들 등허리를 ‘세월봉’(歲月峯)이라 부른다.<br/>　다큐사진으로 일가를 이룬 그가 서울 통의동 류가헌갤러리에서 2일 시작한 개인전 ‘꼬부랑 사모곡’은 오랜 노동 시간이 쌓여 빚어낸 꼬부랑 어르신들의 일과 삶에 초점을 맞춘다. 전시에 등장하는 하늘과 척진 듯한 ‘꼬부랑 어르신’의 옆과 뒤태는 온전한 의지로 삶을 추스르며 손발을 열심히 놀려 생활해온 몸 풍경이다. 등허리에 봉우리를 쌓은 고달픈 세월을 작가 시선으로 성찰한 흔적이기도 하다.<br/>　경북 청도, 전남 청산도, 강원도의 고성 등에서 사진가의 눈길과 닿은 꼬부랑 어르신들과의 만남은 깊은 정, 깊은 한을 깨닫는 길이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밭에서 고추를 따거나 짚단을 엮는 그네들 허리는 한결같이 깊숙하게 땅 쪽으로 향했다. 그 깊은 포물선, 땅의 인력에 끌린 그 몸의 선이 절실하게 사진기를 이끌고 다녔던 셈이다.<br/>　강씨는 1998년 ‘분교/들꽃 피는 학교’를 시작으로, ‘산골분교 운동회’(2006) 등 시골 분교들의 따뜻한 일상을 포착한 전시로 ‘분교사진가’란 별명이 붙었다. 고향 땅을 지키는 부모들 모습을 담아낸 (2010), (2012)을 통해 연출하지 않은 다큐사진의 본령을 지키며 인간·자연의 풍경을 찍어왔다. 14일까지(추석 연휴에도 개관) 열리는 그의 전시는 사실 흐뭇한 시작이다. 뒤이어 그가 가르쳐온 강재훈사진학교 수강자들이 꾸린 사진집단 ‘포토청’의 노장년 제자 4명이 9월 말까지 잇따라 류가헌에서 릴레이 전시를 열게 된다. 16~21일 김정용씨가 이주노동자들의 일상과 삶을 3년여간 찍어온 작업을 모아 ‘개망초의 꿈’전을, 23~28일 오인숙씨가 중년의 번민에 휩싸인 남편의 일상을 수년간 관찰해 찍은 사진들을 담아 ‘서울염소’전을 차린다. 전 상명대 교수로 신화학 권위자였던 윤철중(80)씨도 얼마 전 사별한 부인의 암 투병 간병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작품들을 모아 역시 이달 말부터 전시할 예정이다. 강씨의 신문사 선배로 부사장을 지낸 언론인 성한표씨도 강씨의 지도로 닦은 사진 내공을 펼친다. 이달 29일부터 류가헌 부근의 갤러리메타포에서 소싸움의 소를 포착한 사진들로 여는 첫 개인전이다. 강씨에겐 이번 한달이 내내 잔칫날일 듯하다. 노형석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3.txt

제목: 운동할 시간이 없다? 계단만 오르내려도 건강 지킨다  
날짜: 2014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03100000065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계단 오르내리기의 놀라운 효과를 알아본다. 귀찮고 힘들어 잘 이용하지 않는 계단은 우리 몸에 가장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한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계단만 오르내려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운동량이 부족해 생기는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암의 후유증도 계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실제로 전세계 비만율 1위인 미국 뉴욕에서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권장하고 있다. 전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계단 걷기를 장려했다. 뉴욕의 한 대학교에서는 건물마다 보이는 곳에 계단을 설치했고,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공동 공간이 계단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유도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바람이 분다. 서울 시민청 입구에는 ‘가야금 건강 계단’이 설치됐고, 최근에는 서울 신도림역에도 건강 계단이 완성됐다. 제작진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고통받는 4명을 대상으로 3주간 계단 걷기를 제안했다. 체성분 분석과 하체 근육량 검사, 폐활량과 근력 검사를 통해 개인의 몸에 맞는 계단 활용법을 처방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4.txt

제목: 전통무술 ‘수박’ 전수 송창렬씨 /2차례 암수술이 무색한 팔십 노인의 ‘수박치기’  
날짜: 20140903  
기자: 이길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03100000062  
본문: 일제강점기 개성의 일본인 학교에 입학한 소년은 일본 학생들에게 항상 ‘조센진’이라며 놀림을 받았다. 그 학교엔 조선인 학생은 두명 뿐. 덩치도 크지 않아 일본 학생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개성에서 큰 주물공장을 했다. 그 공장엔 천 서방(천일룡)으로 불리는 공장장이 있었다. 그 공장장은 무술에 뛰어났다. 천 서방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몸싸움으로 유명한 개성 보부상을 했다. 보부상들은 산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술을 익혔다. 천 서방은 그런 ‘송도(개성) 수박’의 고수였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술을 가르쳐주라고 천 서방에게 부탁했다. 개성 숲 속에서 무술을 익힌 소년은 자신을 괴롭혔던 일본인 학생들을 혼내줄 수 있었다. 소년이 배운 송도 수박(手拍)은 바로 고려시대 무인들이 무과시험을 치러야 했던 무술.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머리로 박치기하며 전쟁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익혔던 맨손 무술이다. 해방이 되고 서울로 이사를 온 소년은 한국전쟁이 날 때까지 개성을 오가며 스승에게 무술을 배웠다.<br/>　이제는 팔십이 넘은 소년은 아직도 그 무술을 몸으로 보여준다. 송창렬(82)씨는 어릴 때 자신이 배운 수박을 꼼꼼히 공책에 적어 이제는 나이 50이 된 자신의 아들에게 수박을 가르친다. 문헌으로만 남아 있던 수박이 아직 생생히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br/>　지난달 19일 부산 광복동에서 만난 송씨는 불과 석달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상태. 이미 두차례 암 수술을 받았고, 척추 수술도 받았다. 평생 네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그럼에도 송씨는 매일 산책을 하며 병마를 이겨내고 있다. “<span class='quot0'>내가 어릴 때부터 수박을 했기에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어.</span>”<br/>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초리가 고향인 송씨가 1940년대 초에 개성에서 배운 수박은 한민족 전통무술 가운데 몇 안 되는, 문헌에 남아 있는 귀중한 무술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인 무용총엔 두 남자가 마주서서 수박의 견주기 동작을 취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 삼실총 벽화에도 수박의 기본자세인 제몸치기 동작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석굴암 입구의 금강역사상은 수박의 주먹질 막기와 견주기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시대의 ‘고려사’에는 수박(手搏)이나 수박희(手搏戱)라 기록하였고, 당시 장군인 이의민과 두경승이 임금 앞에서 수박으로 맞붙는 구체적인 장면도 등장한다. 조선에서도 수박을 무인 등용의 과목으로 법률로 정했다. 세조 때는 노비들도 수박을 잘하면 관리로 등용했다고 한다. 이렇듯 수박은 잘만 하면 벼슬길도 열리는 무예였으며, 무인의 특기였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평양의 날파람, 박치기, 함경도의 주먹치기와 개성의 수박치기, 제비치기, 서울 택견 등이 맨손 무술로 이름을 떨쳤다. 1921년에 간행된 에는 ‘수벽치기’라 하여, 무술 수박이 아이들의 놀이로 변한 손뼉치기를 소개하고 있다. 손뼉치기가 원래는 장사들의 무예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언하고 있다.<br/>　송씨는 자신이 배울 당시, 스승이었던 천일룡이 ‘수박타’라고도 했다고 한다.<br/>　송씨는 자신이 평생 간직하고 있던 수박을 온전히 보여주었다. 우선 몸풀기. 수박에서는 이를 ‘제몸치기’라고 한다. 그 시작은 절구질. 팔짱을 끼거나 허벅지에 두 손을 올려두고 무릎과 상체를 숙였다 폈다 한다. 허리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동작이다. 두 손으로 발목과 무릎을 쓰다듬으며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이어지는 운동은 ‘학춤’. 온몸을 유연하게 한다. 마치 들판의 학이 춤추듯 좌우로 오가며 두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쓴다. 언뜻 보면 춤을 추는 동작이다. 어깨를 들썩이고, 오금을 폈다 굽혔다 한다<br/>　다음은 본격적인 무술이다. 그런데 수박에는 다른 무술처럼 정형화된 품새(투로)가 없다. 전쟁에서 적군과 몸으로 맞붙었을 경우 그대로 실전용으로 쓰는 동작이 투박하게 이어진다. ‘소뿔잡기’는 늠름하게 서서 양손으로 마치 큼직한 황소의 두 뿔을 움켜쥔 형세이다. <br/>　“<span class='quot0'>이것은 마주친 상대에게 겁을 주는 모습이야.</span>” 송씨는 30여년 전부터 써 온 수박 공책에는 ‘손등치기’ ‘한 손으로 걸고 차기’ ‘칼싸움 겁주기’ ‘박치기’ ‘돌려치기’ ‘어깨로 넘어치기’ ‘안다리 차기’ 등 우리말로 된 용어들이 빼곡히 쓰여 있다.<br/>　“길거리 싸움에는 무조건 이겨야 해. 그러니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목을 휘감고, 어깨를 감싸고, 그리고 박치기도 해.” 송씨는 맞선 아들의 고개를 휘어 감은 뒤, 공중으로 차올라 팔꿈치로 내리찍는 시범을 보여준다.<br/>　“전쟁 통에 부산에 왔어. 가족들과 헤어지고 거지처럼 살았어. 하지만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했어. 부산 국제시장에서 한가락했지. 다 수박 덕분이야.”<br/> 송씨는 “<span class='quot1'>당시 개성 사람들은 서울이었던 한양도 ‘내려간다’고 표현할 만큼 자존심이 있었고, ‘개성상인 건드리면 죽는다’는 속어도 개성상인들이 수박을 배워서 강했기 때문이야</span>”라고 어릴 적을 추억한다. <br/>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은 송씨는 골목길에서 두 아들에게 수박을 가르쳤다. 막내가 아버지를 이어 수박의 전수자가 됐다. 아들 준호씨는 아버지가 몸에 익히고 있는 수박을 고스란히 배웠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를 만들었고, 수박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br/>　송씨는 2001년 국립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전통무예제’에서 수박을 공개적으로 선보이며 수박을 알리기 시작했다. “고려 때 기록을 보면 맨손으로 돌을 깨기도 하고, 호랑이를 때려잡기도 했다고 해. 그러니 수박은 매우 위력적이고 위험한 무술인 셈이지.”<br/>　“내 소원은 하나야. 수박이 교과서에 실리는 거야.”<br/>　송씨는 11년 전 중국 연변에서 온 한 무술인을 만났다. 그는 조선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수박춤을 송씨에게 보여줬다. “어릴 때 북청 물장수들이 추던 수박춤이었어. 물동이 위에 바가지를 올려놓고 박자를 쳐주면 물장수들이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쳐가며 춤을 추곤 했어. 평소 무술을 춤으로 만들어 수련한 것이지.”　 부산/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br/> 영상 이규호 피디 pd295@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5.txt

제목: 2차례 암수술이 무색한 팔십 노인의 ‘수박치기’  
날짜: 2014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0210015119122  
본문: 일제강점기 개성의 일본인 학교에 입학한 소년은 일본 학생들에게 항상 ‘조센진’이라며 놀림을 받았다. 그 학교엔 조선인 학생은 두명 뿐. 덩치도 크지 않아 일본 학생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개성에서 큰 주물공장을 했다. 그 공장엔 천 서방(천일룡)으로 불리는 공장장이 있었다. 그 공장장은 무술에 뛰어났다. 천 서방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몸싸움으로 유명한 개성 보부상을 했다. 보부상들은 산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술을 익혔다. 천 서방은 그런 ‘송도(개성) 수박’의 고수였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술을 가르쳐주라고 천 서방에게 부탁했다. 개성 숲 속에서 무술을 익힌 소년은 자신을 괴롭혔던 일본인 학생들을 혼내줄 수 있었다. 소년이 배운 송도 수박(手拍)은 바로 고려시대 무인들이 무과시험을 치러야 했던 무술.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머리로 박치기하며 전쟁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익혔던 맨손 무술이다. 해방이 되고 서울로 이사를 온 소년은 한국전쟁이 날 때까지 개성을 오가며 스승에게 무술을 배웠다.<br/><br/> 이제는 팔십이 넘은 소년은 아직도 그 무술을 몸으로 보여준다. 송창렬(82)씨는 어릴 때 자신이 배운 수박을 꼼꼼히 공책에 적어 이제는 나이 50이 된 자신의 아들에게 수박을 가르친다. 문헌으로만 남아 있던 수박이 아직 생생히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br/><br/> 지난달 19일 부산 광복동에서 만난 송씨는 불과 석달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상태. 이미 두차례 암 수술을 받았고, 척추 수술도 받았다. 평생 네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그럼에도 송씨는 매일 산책을 하며 병마를 이겨내고 있다. “<span class='quot0'>내가 어릴 때부터 수박을 했기에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어.</span>”<br/><br/>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초리가 고향인 송씨가 1940년대 초에 개성에서 배운 수박은 한민족 전통무술 가운데 몇 안 되는, 문헌에 남아 있는 귀중한 무술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인 무용총엔 두 남자가 마주서서 수박의 견주기 동작을 취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 삼실총 벽화에도 수박의 기본자세인 제몸치기 동작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석굴암 입구의 금강역사상은 수박의 주먹질 막기와 견주기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시대의 ‘고려사’에는 수박(手搏)이나 수박희(手搏戱)라 기록하였고, 당시 장군인 이의민과 두경승이 임금 앞에서 수박으로 맞붙는 구체적인 장면도 등장한다. 조선에서도 수박을 무인 등용의 과목으로 법률로 정했다. 세조 때는 노비들도 수박을 잘하면 관리로 등용했다고 한다. 이렇듯 수박은 잘만 하면 벼슬길도 열리는 무예였으며, 무인의 특기였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평양의 날파람, 박치기, 함경도의 주먹치기와 개성의 수박치기, 제비치기, 서울 택견 등이 맨손 무술로 이름을 떨쳤다. 1921년에 간행된 <해동죽지>에는 ‘수벽치기’라 하여, 무술 수박이 아이들의 놀이로 변한 손뼉치기를 소개하고 있다. 손뼉치기가 원래는 장사들의 무예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언하고 있다.<br/><br/> 송씨는 자신이 배울 당시, 스승이었던 천일룡이 ‘수박타’라고도 했다고 한다.<br/><br/> 송씨는 자신이 평생 간직하고 있던 수박을 온전히 보여주었다. 우선 몸풀기. 수박에서는 이를 ‘제몸치기’라고 한다. 그 시작은 절구질. 팔짱을 끼거나 허벅지에 두 손을 올려두고 무릎과 상체를 숙였다 폈다 한다. 허리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동작이다. 두 손으로 발목과 무릎을 쓰다듬으며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이어지는 운동은 ‘학춤’. 온몸을 유연하게 한다. 마치 들판의 학이 춤추듯 좌우로 오가며 두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쓴다. 언뜻 보면 춤을 추는 동작이다. 어깨를 들썩이고, 오금을 폈다 굽혔다 한다<br/><br/><br/><br/> 다음은 본격적인 무술이다. 그런데 수박에는 다른 무술처럼 정형화된 품새(투로)가 없다. 전쟁에서 적군과 몸으로 맞붙었을 경우 그대로 실전용으로 쓰는 동작이 투박하게 이어진다. ‘소뿔잡기’는 늠름하게 서서 양손으로 마치 큼직한 황소의 두 뿔을 움켜쥔 형세이다. <br/><br/> “<span class='quot0'>이것은 마주친 상대에게 겁을 주는 모습이야.</span>” 송씨는 30여년 전부터 써 온 수박 공책에는 ‘손등치기’ ‘한 손으로 걸고 차기’ ‘칼싸움 겁주기’ ‘박치기’ ‘돌려치기’ ‘어깨로 넘어치기’ ‘안다리 차기’ 등 우리말로 된 용어들이 빼곡히 쓰여 있다.<br/><br/> “길거리 싸움에는 무조건 이겨야 해. 그러니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목을 휘감고, 어깨를 감싸고, 그리고 박치기도 해.” 송씨는 맞선 아들의 고개를 휘어 감은 뒤, 공중으로 차올라 팔꿈치로 내리찍는 시범을 보여준다.<br/><br/> “전쟁 통에 부산에 왔어. 가족들과 헤어지고 거지처럼 살았어. 하지만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했어. 부산 국제시장에서 한가락했지. 다 수박 덕분이야.”<br/><br/> 송씨는 “<span class='quot1'>당시 개성 사람들은 서울이었던 한양도 ‘내려간다’고 표현할 만큼 자존심이 있었고, ‘개성상인 건드리면 죽는다’는 속어도 개성상인들이 수박을 배워서 강했기 때문이야</span>”라고 어릴 적을 추억한다. <br/><br/>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은 송씨는 골목길에서 두 아들에게 수박을 가르쳤다. 막내가 아버지를 이어 수박의 전수자가 됐다. 아들 준호씨는 아버지가 몸에 익히고 있는 수박을 고스란히 배웠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를 만들었고, 수박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br/><br/> 송씨는 2001년 국립극장에서 열린 ‘대한민국전통무예제’에서 수박을 공개적으로 선보이며 수박을 알리기 시작했다. “고려 때 기록을 보면 맨손으로 돌을 깨기도 하고, 호랑이를 때려잡기도 했다고 해. 그러니 수박은 매우 위력적이고 위험한 무술인 셈이지.”<br/><br/> “내 소원은 하나야. 수박이 교과서에 실리는 거야.”<br/><br/> 송씨는 11년 전 중국 연변에서 온 한 무술인을 만났다. 그는 조선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수박춤을 송씨에게 보여줬다. “어릴 때 북청 물장수들이 추던 수박춤이었어. 물동이 위에 바가지를 올려놓고 박자를 쳐주면 물장수들이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쳐가며 춤을 추곤 했어. 평소 무술을 춤으로 만들어 수련한 것이지.” <br/><br/> 부산/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영상 이규호 피디 pd295@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6.txt

제목: 9월 3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4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90210015118924  
본문: 운동할 시간이 없다? 계단만 오르내려도 건강 지킨다<br/><br/><br/><br/>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계단 오르내리기의 놀라운 효과를 알아본다. 귀찮고 힘들어 잘 이용하지 않는 계단은 우리 몸에 가장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한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계단만 오르내려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운동량이 부족해 생기는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암의 후유증도 계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실제로 전세계 비만율 1위인 미국 뉴욕에서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권장하고 있다. 전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계단 걷기를 장려했다. 뉴욕의 한 대학교에서는 건물마다 보이는 곳에 계단을 설치했고,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공동 공간이 계단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유도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바람이 분다. 서울 시민청 입구에는 ‘가야금 건강 계단’이 설치됐고, 최근에는 서울 신도림역에도 건강 계단이 완성됐다. 제작진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고통받는 4명을 대상으로 3주간 계단 걷기를 제안했다. 체성분 분석과 하체 근육량 검사, 폐활량과 근력 검사를 통해 개인의 몸에 맞는 계단 활용법을 처방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br/><br/><br/><br/>‘추억의 가수’ 이범학 산골 콘서트<br/><br/>웰컴 투 두메산골(티브이엔 저녁 7시50분) 한때 잘나갔지만 지금은 잊힌 연예인 7명이 1주일간 산골에서 생활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4회. 찬란했던 시절도 곱씹고, 현재의 고민도 공유하며 힘을 얻는다. 이동통신사 광고에 출연해 신비 소녀로 화제를 모았던 임은경과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달’로 주목받은 김성은, 12살에 데뷔한 쌍둥이 가수 량현량하, 댄스 그룹 잉크의 멤버였던 만복, 예능프로그램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에서 옥상 소년으로 이름을 알린 판유걸, ‘이별 아닌 이별’을 부른 이범학이 나온다. 출연자들은 김성은의 제안으로 물놀이를 간다. 이범학은 미니콘서트도 연다.하루 5시간밖에 안 자는 8개월 아기 <br/><br/>육아를 부탁해(교육방송 오전 9시40분) ‘우리 아이 좀 재워주세요’ 편. 8개월인 김하엘은 눈웃음이 예쁘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잘 웃어주는 미소 천사인데, 엄마는 하엘이 걱정이다. 바로 잠투정. 도통 잠을 자지 않는다. 많이 자야 하루에 5시간 잔단다. 안아줘도 안 자고, 자는가 싶어 눕히려고 하면 바로 깬다. 8개월 된 아이가 피로누적이란 진단까지 받았다. 잠을 못 자면 성장에도 영향을 줘 엄마의 한숨은 커진다. 전문가들이 나섰다. 하엘을 위해 잠 잘 자기 처방전을 제공한다. 하엘이 왜 잠을 안 자는지, 어떻게 해야 잘 자는지 등을 알려준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7.txt

제목: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날짜: 2014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30100000041  
본문: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자책과 자학, 분노와 냉소로 똘똘 뭉친 윌(맷 데이먼)을 품에 안고 숀(로빈 윌리엄스)은 같은 말을 정확히 10번 반복한다. 해줄 말이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결국 그 한마디가 윌을 구했다. 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윌이 듣고 싶은 유일한 말이기도 했던 것이다. “네 잘못이 아니야.” 영화 (1997)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최고의 위로이자 최선의 격려.<br/>　그건 작가 존 그린이 에스더에게 해주고 싶던 말이기도 했다. 12살 때 몸 안의 암세포를 처음 발견하고 16살 생일을 넘긴 직후 세상을 떠난 아이. 15살의 어느 날, 한 행사장에서 작가의 팬이라며 다가와 밝게 웃던 소녀의 입술 위에는 이미 거추장스러운 호흡기 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에스더는 바쁘게 자기 인생을 살았다. 마지막까지 예쁜 미소만 보여주다 떠났다. 그녀와 맺은 특별한 인연이 새로 쓰는 소설에 영감을 주었다. 에스더가 미처 다 살아내지 못한 16살이 주인공의 나이가 되었다. <br/>　“<span class='quot0'>브루투스여, 우리가 노예인 것은 우리(의 운명을 말해주는) 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네.</span>”(The fault, dear Brutus, is not in our stars, but in ourselves, that we are underlings) 셰익스피어의 희곡 에 나오는 대사를 거꾸로 뒤집어 책의 제목을 지었다. (The fault in our stars). 그 책을 영화로 만든 게 이다. <br/>　암으로 한쪽 폐를 잃은 16살 소녀 헤이즐(셰일린 우들리)이 역시 암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18살 소년 오거스터스(앤설 엘고트)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스무살을 함께 맞이하지 못할까 두려워도, “너를 만나 나의 삶은 무한대가 되었어” 하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끝까지 예쁘게 사랑하는 커플. 내내 위태롭지만 결국 위대한 사랑을 하고야 마는 두 사람에게 영화는 이렇게 말해준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그 뒤에 생략한 말은 이것이다. “<span class='quot0'>너희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span>”<br/>　내 거 하고 싶은 만남, 내 거 하고 싶은 키스, 심지어 내 거 하고 싶은 이별까지. 온통 내 거 하고 싶은 순간들로 가득한 이 하이틴 로맨스를 보고 나오면서 친구들과 쉴 새 없이 수다 떨 게 틀림없는 10대 관객들. 을 보았다면 분명 며칠 동안 설레고 들떴을 헤이즐 또래의 아이들이 그날,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span class='quot0'>내가 죽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내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이다.</span>” 영화 속 헤이즐의 대사 앞에서 또 한번 억장이 무너질 부모들을 유족으로 남긴 채, 250개의 무한대가 황망하게 사라졌다. 지금 나에게 세월호 참사를 정의하라면 이렇게 말하겠다. 헤이즐을 응원해야 할 아이들이 헤이즐보다 먼저 별이 되어 떠난 비극.<br/>　“네 잘못이 아니야.” 지난 넉달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말해주려 애썼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진짜 누구의 잘못인지 이제 밝혀낼 차례다. 그 당연한 일도 빨리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가리켜 누구는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종된 건 ‘정치’가 아니라 ‘염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충분히 ‘위로’를 하기도 전에 서둘러 ‘피로’를 들먹이는 자들의 사라진 염치 앞에서라면, 잘못은 우리 별에 있지 않다. 우리 ‘법’에 있다. <br/>　영화에서 헤이즐이 좋아하는 작가 피터 반 호텐(윌럼 대포)이 말한다. “삶은 삶으로부터 온다.” 유민 아빠의 삶은 유민이의 삶으로부터 올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삶은 대통령의 삶으로부터 오는 모양이다. 그럼 나의 삶은 누구의 삶으로부터 오는가.<br/>　로빈 윌리엄스가 죽었다. 흐느끼는 타인의 삶을 끌어안고 다독이던 숀이 떠났다. 우리 모두 한번은 맷 데이먼이었다. 외로워서 괴롭고 괴로워서 외롭던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 모두 한번은 그의 품에 안겨 위로받는 윌이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토닥이는 손길이 줄고, 나의 잘못이 아니야, 큰소리치는 자들이 늘어난 지금. 우리의 삶은 결국 숀의 삶으로부터 와야 하지 않을까. “네 잘못이 아니야.” 그에게서 건네받은 한마디에 이 문장을 더하기 위해 다른 이의 삶에 가닿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br/>김세윤　방송작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8.txt

제목: 1. 빛의 시작 /눈이 있으라  
날짜: 2014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30100000004  
본문: ▶ 하리하라. 본명 이은희. 생물학을 전공해 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우연히 인터넷 블로그에 썼던 글들이 책으로 묶여 나오면서 과학언론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현재는 과학 작가이자 강연자로 살고 있다. ‘하리하라’라는 인터넷 아이디를 필명으로, 세상에 퍼져 있는 과학에 대한 선입관과 오해를 걷어내는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토요판에서 격주로 인간의 눈과 본다는 것의 의미를 탐구한다.<br/><br/><br/>아홉살 때의 일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는 아버지의 지방 발령으로 어느 바닷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야 했다. 이삿짐을 내린 곳은 작은 마을 가장 안쪽에 새로 지어진 단층 양옥집이었다. 집 뒤 야트막한 언덕을 넘으면 바로 바닷가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곳. 집은 깨끗했고, 아이에겐 동생과 나눠 쓰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방이 생겼으며, 주변 풍광은 신기했다. 아이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고, 만족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이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까지 아이는 완벽한 어둠을 접해 본 적이 없었다. 인공조명이 위력을 발하는 대도시의 밤은 완벽하게 어둡지 않다. 대도시의 어둠은 처음 불을 껐을 때만 잠시 위력을 나타낼 뿐, 곧 암적응이 된 눈은 사물의 형태 정도는 너끈히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이곳의 밤은 달랐다. 눈을 떴으되 감았을 때와 다르지 않은 깜깜한 어둠. 평소 악몽을 꿨을 때처럼 베개를 들고 엄마 아빠 방으로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암흑. 아이가 현실로 돌아온 건,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부모님이 전등 스위치를 누른 순간이었다. 세상은 다시 밝아졌고, 그 환하고 밝은 빛에 밀려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졌다.<br/><br/>　 아무리 빛이 넘쳐도 감지할 수 없다면…<br/>　“빛이 있으라.”<br/>　이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하다. 전등빛이 아이의 마음에서 어둠의 공포를 밀어냈듯이 빛이 있으라는 말 한마디로부터 영겁의 혼돈이 끝나고 세상은 시작되었다. 비단 창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록되거나 구술되어 내려오는 거의 모든 창조 설화에서 ‘빛의 탄생’ 혹은 그와 대비되는 어둠의 파괴는 태초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집트에서도 혼돈의 바다 아비스(Abyss)에서 태어난 창조신 아툼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것은 빛이었으며, 중국의 반고는 칠흑처럼 깜깜한 어둠이 너무도 갑갑해 이를 깨뜨리며 세상의 시원(始原)을 고했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빛이 가득 넘친다 해도 그 빛을 감지할 수 없다면, 빛이 존재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진정한 ‘빛의 세계’의 탄생은 우리가 그 빛을 감지하는 감각기관, 즉 ‘눈’을 가지게 되었을 때부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br/>　화석상의 기록을 보면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것은 적어도 35억년 이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초의 생명체 출현 이후 진화와 종간 분화는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나서,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축약해서 볼 수 있는 존재에게조차도 생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최초의 생물 발생 이후 30억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동물계에서는 겨우 3문①의 동물들이 발생했을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지루한 영화도 결국 끝이 나고, 불이 켜진다. 지구의 역사에도 바로 그렇게 ‘불이 켜지는 순간’이 존재했다. 바로 5억4300만년 전에서 5억3800만년 전까지의 500만년. 지질학적 시간 개념으로는 하룻밤에 불과한 500만년 사이에 그동안 갑작스레 수많은 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종류는 순식간에 38개의 문으로 늘어났다. 생물 다양화라는 폭탄의 뇌관이 드디어 작동한 것인가?<br/>　하지만 이 시기 이후 이처럼 역동적인 생물계의 변동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진화는 계속되었지만, 이 시기의 변화가 지각변동이라면 이후는 여진에 불과했다. 500만년의 폭발 순간 이후, 다시 5억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38개의 동물문에는 하나의 새로운 문도 추가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수십억년 동안에도 제자리걸음이었던 생물종이 이렇게 다양하게 늘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새로운 동물문이 추가되지 않은 것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5억년 전에 처음 생겨나 지금까지 지속되는 무언가, 이후 그 변화를 능가할 만한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지 않은 무언가가 말이다.<br/>　이처럼 진화상에서 갑작스레 많은 동물문들이 추가된 것을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고 부른다. 학자들은 저마다 증거들을 해석해 캄브리아기의 생물 대폭발을 일으킨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했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빛 스위치 이론’이다. 빛, 정확히 말해서는 빛을 식별할 수 있는 기관인 ‘눈’의 존재가 수많은 생명체를 진화시킨 원동력이라는 것이다.<br/>　‘빛 스위치 이론’을 주장한 앤드루 파커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를 이렇게 비유한다.<br/>　“상이 있으라! 동물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 들어왔다. 더구나 이 감각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 어떤 감각보다 막강해지게 될 감각이었다. 그리고 최초의 눈이 눈을 떴을 때, 세상 모든 것이 처음으로 빛에 노출되었다. 지구에 빛의 스위치가 켜졌고, 그 빛은 이전 시대를 특징지었던 점진적 진화에 종지부를 찍었다.”<br/><br/>　동물들의 구조를 다양하게 변모시키다<br/>　물론 캄브리아기 이전에 살던 동물들도 빛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꼭 눈이 있어야만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눈은커녕 그와 비슷한 것조차 없는-사실 가지기에는 너무 작은- 미생물조차도 빛을 따라 움직이는 주광성(走光性)을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빛을 ‘느끼는’ 것과 빛을 이용해 사물을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빛을 느끼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을 구별하고 빛과 동반하는 열기를 피부감각으로 느끼는 것에 불과하지만, ‘보는’ 것은 빛을 이용해 주변 사물의 존재와 위치를 감지하고, 상대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시각이 없는 경우, 나는 내 앞의 상대가 내 먹잇감인지 나를 먹잇감으로 삼을 천적인지 알 수 없다. 문득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일순간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오물과 배설물이 널려 있는 더러운 거리에서 잠을 자고 깨어 있을 때는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 뿐이다. ‘보지 못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이들에게서 판단 가능한 정보를 대부분 앗아갔기 때문이었다. 반면 눈먼 자들 속에서 오로지 홀로 눈을 뜨고 있던 여자는 홀로 경악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이들을 구원한다. 그녀의 인도에 따라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줄을 선 이들은 앞사람의 어깨가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꼭 붙잡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고 갓 태어난 어린 오리들처럼 그녀의 뒤만 졸졸 쫓는다. 그녀는 단지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이들을 구원하는-혹은 구원해야만 하는- 절대적이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다. 본다는 것의 위력을 이토록 실감나게 묘사하다니.<br/>　캄브리아기 동물들도 비슷한 충격을 겪었으리라. 여기 갑자기 ‘눈’이 뜨인 동물이 있다. 이전까지는 고만고만한 다른 동물들과 비슷했지만, 눈을 가진 이후 이들의 운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들에게 천적을 피하고 먹이를 구하는 일은 이전보다 수월해졌으며, 이로 인해 생존하고 번식하라는 유전자의 명령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변화는 다른 생물체들에게는 변화의 필요성을 뼛속 깊이 자각시키는 진화적 압력이 된다. 눈이 없는 존재는 눈을 가진 존재들과 먹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어 멸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변해야만 했다. 외골격을 바꿔 단단한 외피를 만드는 것이든, 보호색이나 위장색으로 몸을 감추는 것이든, 몸의 구조를 바꿔 물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든 가리지 않아야 했다. 개중에는 상대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택한 존재들도 있었다. 물론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과 같은 척추동물의 눈은 수정체를 가진 단안 구조이지만, 곤충과 같은 절지동물들은 작은 눈을 여러개 겹쳐 커다란 눈을 만드는 복안으로, 둘의 발생 방법은 전혀 다르다. 이렇듯 눈의 탄생을 계기로 등장한 진화적 압력은 너무도 강력해서 오랜 세월 완만하게 이루어져 왔던 동물들의 구조를 다양하게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br/>　세상은 빛에 의해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생물들의 진화는 눈에 의해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생물체에게 있어 더욱 강한 메시지는 ‘눈이 있으라’였을지도 모른다.<br/><br/><br/>① 생물체는 계(界, Kingdom)-문(門, Phylum)-강(綱, Class)-목(目, Order)-과(科, Family)-속(屬, Genus)-종(種, Species)으로 나뉘는데, 이 분류에 따르면 사람은 동물계-척삭동물문(척추동물아문)-포유강-영장목-사람과-사람속-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69.txt

제목: 찜질방의 맛  
날짜: 20140830  
기자: 권보드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30100000049  
본문: 여러 해 전 찜질방에 처음 가 보곤 아연실색했다. 이건 마치 돈 내고 골목길에 나앉은 꼴이잖아! 한국인의 연면한 골목 사랑에 감탄하긴 했지만, 내 식구끼리 오붓한 내 집 두고 수십명이 무더기무더기 누워 있는 그곳에 갈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찜질방을 잊고 살았다.<br/>　올여름 오랜만에 찜질방에 갔다. 한 번 가보곤 재미나서 또 갔다. 핑계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다는 것이었지만, 매트에 벌렁 드러누워 만화책 보는 재미가 더 좋더라. 도 보고 도 읽고 를 복습하고 도 만지작거려 본다. 나를 키운 건 8할이 만화책인데, 책 대신 웹툰이 대세가 되면서 내가 너무 신의를 지키지 못했지, 암. 영어책씩이나 끼고 갔지만 한두 쪽 읽곤 팽개쳐둔 채다.<br/>　진지하게 수험서를 들여다보는 젊은 부부도 있긴 하나 찜질방 분위기는 난만하다. 누워 잠들고 엎드려 스마트폰에 매달리고 안마의자 위에서 꾸벅꾸벅 존다. 구석 노래방에서 어울리잖게 백지영 노래를 열창하고 운동기구실에선 중년 몇이 맨발로 러닝머신 위를 걷는다. 기 쓰고 살던 맥이 풀린다. 난데없이 그 사람들을 껴안고 싶은 친근감을 느낀다. 아아 이 찌질함이라니, 아 이 평안함이라니.<br/>　곁에선 내 새끼들도 낄낄대며 만화책을 본다. “뭐 그런 걸 보노.” 남편이 한심하다는 표정이지만 지금은 괜찮다. 수험서에 밑줄 긋는 옆자리 부부를 보면서도 태평하다. 다 똑같은 찜질복을 입고 삶은 계란을 까는 이웃들이 정겨울 뿐이다. 어쩐지 쿨하고 시크해야 할 것 같은 카페의 과시적 분위기와 이 공기는 얼마나 다른가. 여기서라면 육아에서도 좀 불량해져도 될 것 같다. 애들은 어느새 컴퓨터방을 기웃거리며 이용 가능 시간이 남아 있는 컴퓨터를 탐색 중이다.<br/>　갈수록 개그 프로가 좋아지더라니. 티브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개그 프로가 스쳐가면 눈길이 간다. 예전엔 한두 코너가 재미없으면 자리를 떴는데 이제 다음 건 재밌겠지, 기다려 본다. 개그맨 중 어떤 이들에 대해 거의 사표 삼고 싶어지는 경탄을 느낀다. 자기풍자를 중요한 가락으로 하는 그 세계가 자주 뭉클해진다. 전 이런 사람입니다만. 키 작고 뚱뚱하고 못났습니다만. 뾰족하게 똑똑하지도 못합니다만. 내가 못마땅해 힘들 때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나 자신인 채 살아 봐야지요.<br/>　티브이 앞 웃음소리를 지나 한증막에도 가 본다. 다들 가마니 덮어쓰고 묵언수행 중이다. 하악. 뭣들을 참고 계신가요. 물어보면 노폐물 뽑고 살 빼기 위해서라고 답할 그 사람들이, 그러나 잠깐 동안은 경건한 수도자 같다. 1초 1분을 더 견뎌내면서 조용히 땀을 흘린다. 하악하악. 참는다는 사실 자체의 쾌미를 2분, 3분… 채 헤아리지 못하고 먼저 뺑소니치고 만다. 멧돼지, 멧돼지를 쫓아야 하는데. 몇 달 전 일이다. 집 앞 초등학교 운동장에 길 잃은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놀던 아이들이 와와 몰려가 쫓아버리고 말았다나. 가만, 저기 스마트폰 게임에 한창인 초등학생들이 혹시 그때 그 녀석들이려나?<br/>　남편은 자고, 만화 덕분에 애들은 조용하고, 소르르 졸음이 온다. 홀가분하다. 미모마저 평준화되고 여긴 참 좋구나. 보잘것없어도 편하구나. 옆자리 사람들과 한바탕 수다라도 붙으면 그야말로 옛날 골목길 풍경이겠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더니. 그러곤 어느새 잠이 들었나 보다. 애들이 배고프다며 잡아 흔든다. 그래, 얘들아, 라면 먹으러 가자. 오늘치 피서는 이제 끝이다.<br/>권보드래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0.txt

제목: 형제복지원 조장 태길이 /선옥이 떠난 거리에서…태길은 다시 길 잃은 개가 되었다  
날짜: 20140830  
기자: 박유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30100000001  
본문: ▶ 1984~1987년, 형제복지원에 갇힌 박태길의 삶을 전합니다. 3년의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었고 그가 사는 오늘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형제복지원은 파문을 일으키며 세간에 알려졌다 잊혀지기를 반복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복지원에 갇혔던 수만명의 인생과 기억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박태길씨는 현재 부산 참다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사는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취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쓰여졌습니다.<br/><br/><br/>푸른창문<br/><br/><br/>쇠창살 밖으로 검은 하늘에 흰 달이 걸려 있다. 희미하게 달빛을 받은 캄캄한 쇠창살 안에는 칼로 자른 듯 엄격하게 줄지은 2층침대마다 아이들이 반듯하게 누워 있다. 낮의 노동과 잔혹한 질서를 잊고 80명의 아이들은 허공을 향해 눈을 감았다. 방문은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이중 잠금장치로 막혔고 쇠창살이 창문을 빽빽하게 감쌌다. 누구도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평화롭진 않지만 안전한 시간, 폭력과 욕망 착취마저 잠 드는 시간에도 이 공간은 통제돼 있다.<br/>　모두 잠이 들어버린 시간에 열다섯살 태길은 홀로 깨어 있다. 이곳 복지원의 원생들은 길거리를 다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차에 태워져 잡혀오거나 가족들이 위탁해 맡겨졌다. 가족이 있든 없든 복지원은 평등하며 불평등하다. 원생들은 모두 푸른색 운동복과 실내화를 신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짧은 커트 머리를 했다.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같은 식판에 같은 음식을 담아 먹었고 같은 교육을 받고 노동했으며 똑같은 취침 시간이 주어졌다. 복지원 원장 밑으로 중대장, 소대장, 조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원생은 가장 밑바닥 계층이다.<br/>　이 거대한 감옥을 지키는 관리자들 또한 처음에는 복지원에 붙들려 왔다가 도망치지 않게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복지원 입구의 높고 단단한 철문을 지키는 경비원, 원장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충직한 중대장, 중대장의 아래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원생들을 때리는 소대장, 그리고 소대장 밑에서 청소를 하거나 물을 긷고 소대장 흉내를 내는 조장들은 24시간 원생들을 통제한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복지원은 철공소, 식당, 병동, 교회, 목욕탕, 학교, 작업장 같은 시설이 모두 갖춰진 작은 사회다.<br/>　태길은 수천명의 원생 가운데 남자 아동 소대의 소대장 김충식을 돕는 조장이다. 그 또한 처음부터 야만적인 질서를 만드는 요원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창살 밖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 꿈꾸지 않는다기보다 헛된 희망 같은 건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집어넣고 꺼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탈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고 희망의 대가는 잔혹했다.<br/>　소대장 충식의 충직한 부하가 되기 두어달 전, 태길은 탈출을 시도했다가 형제원 원장 박인근한테 죽도록 얻어터졌다. 탈출을 시도한 그날, 이곳 관리자의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다. 태길과 복지원 야간중학교 1학년 친구들 다섯명은 몰래 철공소에 들어가 연장을 훔쳤다. 탈출하기 위해 도구가 필요했다. 태길과 아이들은 형제원 담장을 넘으면 갈아입을 사복과 신발도 챙겼다. 그 시간, 야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빼고는 모두들 복지원 내부의 교회에서 저녁 6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희망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적어도 ‘얼빵한’ 한 놈이 자기 키만한 쇠막대를 들고 철공소를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아이들이 철공소를 나왔을 즈음 때마침 멀리서 다가오는 철공소 반장과 눈이 마주쳤다.<br/>　반장은 철공소와 떨어진 곳에서 태길 쪽을 주시하며 명령했다. “<span class='quot0'>이번 일은 없는 일로 할 테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손들어.</span>” 태길과 아이들은 가방 안에서 연장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들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반장의 눈빛 신호를 받은 철공소 저 아래의 경비원들이 달려와 아이들을 순식간에 잡아챘다.<br/>　아이들은 복지원 꼭대기에 있는 새마음교회로 끌려갔다. 예배당 앞쪽에서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진행되었고 태길과 아이들은 뒤쪽에 꿇어앉았다. 박인근 원장이 태길 앞에 나타났다. 원장이 바지 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장갑을 천천히 꺼내 장갑 안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복서의 전조였다. 복지원의 링 위에서는 심판이나 규칙, 경쟁자가 없었다. 승리자는 언제나 원장 박인근이다. 예배당에 꿇어앉은 태길과 아이들은 박인근이 날리는 주먹과 발차기를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태길과 아이들은 바닥에 쓰러졌다. 원장의 주먹과 발이 아이들의 머리나 가슴팍에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나긋나긋한 임영수 목사의 설교가 들렸다.<br/>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다. 태길은 정신을 잃어갔다. 자비와 용서, 회개의 설교가 예배당 앞쪽에서, 학대와 응징이 예배당의 뒤쪽에서 벌어졌다. 목사를 향해 앉은 원생들은 등 뒤에서 구타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공포스러운 순간에 고개를 돌려 똑바로 응시하는 것은 복지원에서 위험한 일이었다.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는 일은 안전했다.<br/>　태길과 아이들은 근신 소대에 끌려갔다. 태길처럼 도망을 치려 했거나 복지원의 질서에 반항한 자들이 소집된 곳이다. 어른 원생들은 식사와 취침 시간을 빼곤 미용실, 목공소, 포클레인, 가구, 나전칠기, 미장, 용접, 선반, 뜨개질, 봉제실에서 일을 했다. 철문 밖에서 트럭이 들어와 복지원 안에서 생산한 물건을 싣고 갔다. 그러나 이 물건을 만든 원생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주로 작업에서 배제됐지만 도망치다 걸리면 그때부터 개고생이 시작됐다.<br/>　태길은 근신 소대에 배정된 날부터 온종일 커다란 돌을 깨고 손바닥 위에 놓으면 훅 날아오를 만큼 부수었다.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돌을 깨는 일은 성인 남성에게도 힘에 부쳤다.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면 손이 덜덜 떨렸다. 쉬고 싶을 때에도 등 뒤에서 소대장들이 감시를 했다. 연장은 부실하고 조악했으며 돌은 단단했다. 태길처럼 탈출에 실패한 어른들은 쌀포대를 뒤집어쓰고 식당 앞에 서 있는 벌을 받았다. ‘나는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쓰인 쌀포대를 입고서 식당 앞에 서 있으면 원생 수천명이 식사 시간마다 지나쳐 갔다. 탈출 실패자들은 화장실마다 똥을 푸러 다녔다.<br/>　한달간의 혹독한 교화 작업을 끝내고 태길은 남자 아동이 사는 27소대에 배정을 받았다. 군인들처럼 각을 잡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제식훈련을 하던 태길을 소대장 김충식은 눈여겨봤다. 소대장 충식은 태길을 조장으로 발탁했고 태길은 거절하지 않았다. 완장을 찬 태길은 달라졌다. 소대장들의 상징인 각 잡힌 야구모자와 팔에 끼는 토시, 몽둥이는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기합을 주거나 괴롭혔다. 소대장 충식이 두드려 팬 꼬맹이들의 얼굴에서 피를 닦으며 뒤처리를 했다. 태길은 소대장 충식의 충직한 동료이자 하수인이 되었다. 소대장 충식은 악독하기로 유명했지만 조장 태길에게는 관대했다.<br/>　태길이 오늘 밤, 홀로 깨어 있는 것도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였다. 물론 태길 혼자 밤을 새우는 건 아니다. 원생들은 1시간에 한번씩 교대를 바꾸며 탈출자들을 서로 감시했다. 밤교대 근무자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소대장이 매일마다 그날의 야간 근무자를 지정했다. 그날도 태길에겐 특별할 것 없는 지루한 근무였다. 적어도 ‘곰’ 녀석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br/>　밤 열두시쯤 됐으려나. 아니, 새벽 한시였는지도 모르겠다. 느려터진 행동으로 사람 답답하게 만들던 곰 녀석이 부스스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를 쳐들었다. 이 밤에 깨어나는 아이들은 변기에 똥을 싸거나 오줌을 갈기러 가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이 없다. 한데 녀석이 변기가 아닌 태길에게 다가왔다. “한번만 봐주세요.” 녀석이 태길에게 다가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하고 덥석 사정을 한다. 곰은 태길보다 두세살 어렸다. 정확한 나이나 이름은 몰랐다. 어차피 친해져 봤자 이 소대에서 저 소대로 끊임없이 옮겨지며 헤어질 사이. 게다가 서로를 감시해야 했기에 우정이라는 것이 복지원에서 깊게 자라날 일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곰이 머리를 조아리며 태길에게 속삭였다.<br/>　“한번만 봐주세요.”<br/>　“뭘 봐줘? 말해봐라.”<br/>　“도망치려고요.”<br/>　태길은 갑자기 할 말을 잃었다. 일반 원생도 아닌 조장에게 도망을 갈 테니 봐달라고 말하는 겁대가리 없는 행동이라니. 곰 같은 녀석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태길은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대답을 해버렸다.<br/>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보든가.”<br/>　만에 하나 곰이 도망친다면 탈출을 방조한 태길도 무사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길이 왜 그렇게 쉽게 승낙을 했는지 스스로 설명이 안 됐다. 늘 탈출을 꿈꾸고 도모하던 사람들도 이곳에 순응하고 관리자로 변모하지 않았던가. 사실 곰 같은 미련한 녀석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복도로 향하는 이중 잠금은 어떻게 뚫을 것이며, 창에는 쇠창살이 있어 나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무엇보다 이 방에 소대장 충식이 같이 누워 자고 있었다. 어쩌면 충식이 이불 속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 거란 생각에 오싹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br/>　태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곰은 유령처럼 소대장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냈다. 드라이버였다. 바보 같은 곰은 소대장 책상에 드라이버가 있다는 사실을, 태길도 몰랐던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곰이 살금살금 환풍기로 걸어가 드라이버를 갖다댔다. 툭, 환풍기가 뜯겨 나가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태길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다. 소대장 충식이 깬다면 모두 살아남기 어려웠다. 소대장 충식을 보니 아직은 미동이 없었다.<br/>　그때야 어둠 속에서 다른 아이들 셋이 이불 밖으로 머리를 쳐들었다. 곰과 같이 탈출하려고 약속했던 아이들은 태길과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태길이 허락하면 환풍기 밖으로 도망칠 것이고 태길이 곰을 작살내면 잠을 자는 척, 모른 척하려고 했다. 바보 같은 곰은 아이들을 대표해 그 모든 위험 부담을 졌을 것이다.<br/>　쉽게 뜯어진 환풍기 사이로 밤의 공기가 밀려들었다. 곰이 환풍기로 머리를 집어넣더니 허리가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곰이 환풍기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이 지옥 같은 감옥을, 곰은 간단한 드라이버 하나로 뚫고 도망쳐버렸다. 나머지 아이들 셋도 차례차례 환풍구 사이로 사라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태길은 허망하게 뜯어진 환풍구를 바라봤다. 탈출을 연료 삼아 태웠던 의지가 지난번 실패로 사그라지고 소대장 충식의 충직한 동료로 살던 태길에게 쉽게 뚫린 환풍구는 자극을 주었다.<br/>　태길도 환풍기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어깨를 대었다. 열다섯 태길이 나가기엔 너무 작은 크기다. 태길은 뜯긴 환풍기를 대충 걸쳐놓고 다음 당번을 예정 시간보다 10분 일찍 깨웠다. 곰과 약속을 했던 것인지 우연히 환풍기를 목격한 것인지 다음 당번도 침대에서 일어나 구멍 사이로 사라졌다. 태길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불 위에 너부러져 뒤척이다 코를 고는 척 드르렁거렸다. 태연한 척 노력했지만 심장을 방망이질하는 소리만은 진실했다.<br/>　20분쯤 지났을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대장 충식의 또 다른 충직한 조장, ‘똥개’였다. 똥개는 환풍기를 보고 고함을 질렀다. 잠든 소대장이 일어나 상황을 파악하고 중대장을 불렀다. 한밤에 아이들은 모두 깨고 중대장은 27소대에 달려왔다. 심문이 시작됐다. 곰과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걸 본 사람은 없느냐, 탈출 낌새는 없었느냐. 태길은 졸린 눈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뗐다. 소대장 충식은 태길에게 더는 따지지 않았다. 태길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날 밤이 새도록 기합을 받았다. 곰과 아이들을 창살 밖으로 내보낸 후회는 들지 않았다. 아이들을 때릴 때 저버렸던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1985년 어느 날 밤.<br/><br/><br/>굶주림<br/><br/><br/>　생명은 질기다. 지옥 끝으로 떨어져도 악마들에게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때리고 맞는 장면을 매일 보다 보면 어느덧 견디게 되고 무뎌졌다. 시간은 사람을 익숙하게 만들었다. 식당에서 수용자들이 맞는 걸 보아도 배가 고팠고 배가 고프면 숟가락을 들고 식판에서 밥을 떠먹었다. 복지원에서 사람이 두들겨 맞는 일은 은밀하지 않다. 복지원의 세세한 규칙은 헌법보다 존엄했고 이를 어길 때에는 학대와 폭력이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원장 박인근이나 그의 하수인들은 원생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수용자를 때릴 권한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처럼 굴었다.<br/>↗<br/>↘<br/>이곳 형제복지원은 거대한 성이다. 부산시 북구 주례동 산18-1번지, 6820평의 복지원에는 각종 시설들이 질서 있게 배치돼 있다. 교회, 내무반, 직원 사택, 선도실, 회의실, 작업보도공장, 식당, 창고, 취사장, 세탁소, 이발소, 개금국민학교 분교, 야간중학교, 목욕동, 사무실, A·B·C병동, 지하 냉동실 1~4호실이다. 수용자들이 등에 돌을 지고 꼭대기를 오르내리며 만든 건물이다. 원장 박인근의 경비원들은 24시간 복지원의 철문을 지키며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했다.<br/>　복지원의 생활은 매일이 반복적이다. 새벽 5시 기상, 5시30분 예배, 6시 점호, 6시30분 구보, 7시 아침 식사, 8시 노동…. 원생들은 그곳의 질서에 순응케 하는 각종 기합을 받았다. 한강철교, 히로시마 타기, 원산폭격, 통닭구이, 김밥말이. 한강철교는 두 팔을 바닥에 짚고 엎드려뻗쳐서 뒷사람의 어깨에 다리를 올리는 기합이다. 두번째 사람이 세번째 사람에게, 세번째 사람이 네번째 사람에게, 네번째 사람이 다섯번째 사람에게. 원생들이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 소대에는 사람 다리로 연결된 긴 철교가 형성됐다. 한 사람이라도 철교를 무너뜨리면 기합의 강도는 더 세졌다. 히로시마 타기는 물구나무를 서서 발을 2층침대에 올리는 일이다. 기합을 받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머리에 피가 쏠리고 위 안의 음식물이 쏠려 구토가 나올 것 같은 증세가 나타났다. 김밥말이는 원생들이 나란히 누워서 김밥을 말 듯 돌돌 구르는 것인데 김밥의 상단을 차지하는 원생들이 오래 있으면 밑에 깔린 사람은 숨이 막혔다. 한강철교, 통닭구이, 원산폭격…. 조장들은 가만히 앉아 이 자세에서 저 자세로, 저 자세에서 이 자세로 바꿔가며 벌을 줬다.<br/>　기합의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토요일 오전마다 원장 박인근이 각 소대를 돌며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는 내무 사열을 하는데 그때 금주의 실천사항을 외우지 못했다거나 위생 상태를 지적받으면 그날로 끝장이었다. 소대장들은 원장 박인근에게 벌벌 기었다. 그들 또한 원장 박인근으로부터 체벌을 받았다. 이불을 제대로 개지 않았다거나 행동이 굼뜨거나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대장이나 조장들은 원생들을 구타했다.<br/>　복지원에 갇혀 받아먹는 것들은 매일 똑같았다. 전어젓과 양념된장은 늘 식판에 올랐다. 말이 전어였지 썩은 전어를 가져와서 삭힌 희멀건 액체였다. 양념된장에서 된장 맛은 나지 않았다. 딱히 어떤 맛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 원장은 수용자들의 식사가 1식 3찬이나 된다며 외부 세계에 자랑했지만 3찬 가운데 2찬은 양념된장, 전어젓이었다. 선짓국도 신물나게 나왔다. 선지를 넣었다는 물에선 아무 맛이 나지 않았다. 원장 사택 근처에 있는 밭에서 쬐그만 월남고추가 자랐다. 가끔 태길이 그 고추를 손에 쥐게 되는 날이면 밥 한그릇을 꿀처럼 먹었다. 된장이라고 할 수 없는 양념된장이나 전어젓에 비해 월남고추는 복지원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음식이었다. 그나마 먹을 만한 게 콩국과 빵이었다. 빵을 받는 시간에 원생들은 긴 줄을 섰다. 빵 한 개를 손에 더 넣으려다 들키면 혼쭐이 났다. 소대장들은 빵을 더 가져가도 괜찮았다.<br/>　몇몇 수용자는 쥐나 지네를 잡아먹었다. 달고 단 고기 맛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굶주림을 덜어보려고 했다. 산에 지어진 복지원 꼭대기에는 교회와 원장 박인근의 사택이 붙어 있었다. 가끔 사택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 나왔다. 사택에서 풍겨 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며 복지원 꼭대기에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면 손에 닿을 것 같았다. 저 아래 슈퍼마켓과 목욕탕 굴뚝, 주택과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한발 내디디면 닿을 것 같은데 소리치면 들을 것 같은데 철창 밖 세상은 우리가 이유도 없이 이곳에 감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br/>　세상은 우리들이 감금된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외부 손님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접촉하지 못했다. 복지원 직원들은 손님들을 데리고 다니며 다양한 건물들을 보여주었고, 손님들은 그 무한한 질서에 감탄을 금치 않았다. 외부 손님들이 올 때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우리들을 보내기도 했고, 늘 입는 추리닝이 아닌 사복을 입혀 전시하기도 했다. 어린이날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손님들이 가고 나면 귤, 사탕, 초코파이가 담긴 비닐봉지를 한 개씩 받았다. 그 봉지에 든 음식을 아껴 먹으려고 침대 같은 곳에 숨겨두었다가 없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는 원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br/>　손님들이 올 때만 잠깐 입혔다 뺏어가는 옷들은 복지원 내부 봉제공장에서 원생들이 만든 것이었다. 원장은 복지원 내부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바깥세상에 내다 팔았는데 우리는 얼마에 팔리는지 알지 못했다. 태길도 국민학교 운동회장에서 아이들이 박을 터뜨릴 때 쓰는 콩주머니나 텐트를 만들었다.<br/>　우리들은 1년 365일 늘 같은 파랑 추리닝을 입었다. 신기하게도 매일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하루를 살다 보면 시간개념이 흐릿해졌다. 지나간 사건은 기억이 났지만 그게 어느 계절이었는지, 몇 월이었는지는 잘 기억에 남지 않았다. 하루는 사라진 아이가 우리에게 먹을 걸 던져주고 달아났다. 쥐도 새도 모르게 복지원을 탈출했던 은희가 형제원 담벼락에 갑자기 나타났다. 열살쯤 됐으려나, 그 애가 어떤 경로로 뒷동산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복지원을 둘러싼 산을 타고 왔을 것이다. 흰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은 은희는 복지원 담벼락 너머에서 초코파이가 가득 담긴 봉지를 던졌다.<br/>　“배고프재? 너거 먹어라!”<br/>　은희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한 편의 영화 같은 것이어서 초코파이라면 환장하는 아이들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만 봤다. 정신을 차리고는 떨어진 초코파이를 줍느라 정신없었지만. 복지원 경비원들이 화들짝 놀라 달려갔다. 누구도 날쌘 은희를 잡지는 못했다. 그 아이가 어떤 경로로 복지원에 나타났다 사라졌는지는 지금도 모를 일이다.<br/>　굶주림은 사람을 동물로 만들었다. 낮은 비루했고 밤은 악랄했다. 남자들은 성욕에 굶주렸다. 수천명의 수용자들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됐다. 멀리서 지켜만 볼 뿐 서로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다. 유일하게 여자들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곳은 복지원 내부의 국민학교 분교와 야간중학교, 식당이었다.<br/>　성에 굶주린 소대장들은 밤이 되면 아이들이 누운 침대 위에 기어 올라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끄집어내어 엉덩이에 밀쳐넣었다. 화장실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밤에 일을 치른 아이들은 낮이 되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룩거렸다. ‘후장 따였다.’ 복지원 사람들은 그렇게들 표현했다. 아침에 누군가 절뚝거리면 후장을 따였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 묻지 않았다. 그저 짐짓 모르는 체 넘어가는 게 편했다. 후장 따인 엉덩이 밖으로 괄약근이 삐져나왔고 며칠이 지나도록 쉽게 낫지 않았다. 태길은 우연히 잠에서 깨어 옆 침대에서 후장이 따이는 걸 보기도 했다.<br/>　일주일에 한번 복지원 꼭대기의 새마음교회에서는 인민재판이 열렸다. 재판장도 검사도 원장 박인근이다. 공정할 수 없었다. 후장을 따인 아이가 어른을 유혹한 죄를 뒤집어쓰고 고백하기도 했다. 소대장에게서 후장을 따인 어떤 아이는 중대장에게 신고했다가 뺨을 얻어맞았다. 짱구 소대장, 개눈깔 소대장은 아이들 엉덩이에 성기를 집어넣는 것으로 유명했다.<br/>　배고픔은 우리를 비굴하게 했다. 박인근 원장의 아들은 이따금 사택 창문 밖으로 라면 수프(스프)나 십원짜리를 던지는 장난을 쳤다. 그 아이는 수프 하나를 받으려고 날뛰는 원생들을 관찰했다. 간혹 사택 1층 문 앞에서 수프를 던져놓고 급하게 문을 잠갔다. 아이들은 떨어지는 수프를 잡아채려다 부딪치고 뒤엉켰다. 수프가 던져지면 배고픈 우리는 자동적으로 먹기 위해 뛰어올랐고 서로 가지려고 싸워야 했다. 하늘에서 라면 수프가 내릴 때마다 태길도 두 발을 들어 뛰어올라 잡아채었다.<br/><br/><br/>프로야구와 장례식<br/><br/><br/> 불행은 지극히 평범한 날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살던 집이 사라지며 믿었던 관계들이 파괴된다. 불행이 뿌리째 뽑아버린 인생들은 토양을 잃고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나 도시의 아무 곳에 내던져진다. 헐벗은 것들이 다시 뿌리를 내려 보지만 쓰레기나 아스팔트를 뚫으려 할수록 상처가 생긴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보라고 말하는 신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날이 있다.<br/>　태길의 불행은 1983년 프로야구 시즌에 찾아왔다. 그가 복지원에 납치되기 1년 전, 부산은 프로야구로 물들었다. 가게마다 프로야구 중계가 나왔다. 식당 구석 텔레비전에서 야구 중계가 나오면 모르는 사람들도 롯데를 응원하며 한 팀을 이루던 시절이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롯데와 해태가 경기를 치르는 날 태길과 친구들은 국민학교 6학년 수업을 마치고 길을 걸으며 경기 결과를 예측했다.<br/>　“<span class='quot0'>롯데하고 해태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노?</span>”<br/>　“롯데가 이기지. 인마, 말이라고 하나? 내기할까?”<br/>　그날 롯데와 해태가 프로야구 경기를 벌이지 않았다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아주 평범한 토요일이었다. 가방을 멘 태길과 친구들 곁으로 흰색 병원 응급차가 급하게 달렸다.<br/>　“저 차 봐라. 사람 죽은 거 아니가?”<br/>　“그런갑다, 야.”<br/>　태길이 친구들과 헤어져 아파트 앞에 다다랐을 때 식육점 가게 아주머니가 태길을 급하게 불러 세웠다. “느그 어머니 병원에서 오셨다. 빨리 들어가 봐라.”<br/>　방금 전 태길을 지나쳐 가던 흰 차, 누가 죽는가 보다 말했던 차는 영도구 영선동 ‘미니아파트’로 도착해 엄마를 내려주고 떠난 뒤였다. 태길은 아파트 301호로 뛰어올라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와 이모들이 있다. 눈을 감은 엄마는 힘없이 바닥에 누워 있다.<br/>　“엄마, 엄마.”<br/>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눈을 뜨지 않았다. 얼굴을 만져도 미동이 없다. 엄마는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1년 만에 집을 찾아와 아들에게 말 한마디를 뱉지 않았다. 엄마는 1년 전부터 백혈병을 앓았다. 부산 중구의 메리놀병원이라는 곳에 1년간 입원했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태길은 일주일에 한번씩 두 시간을 걸어 메리놀병원에 갔다. 손에는 버스비가 없었다. 함부로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기에 병실 창문에서 엄마 얼굴만 물끄러미 쳐다보다 발길을 돌렸다. 창문에 얼굴을 대어서라도 엄마를 느끼고 싶었다.<br/>　오늘은 병원 창문에서 보던 엄마가 영원히 먼 곳으로 갈 것 같다. 태길은 밤이 되도록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엄마 냄새를 맡아보고 팔을 잡아보고 얼굴을 매만지다 잠이 들었다.<br/>　“언니! 언니! 아이고, 언니!”<br/>　잠결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눈을 뜨니 가족들이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 울부짖는다. 태길이 잠든 시간에 엄마는 말 한마디 없이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 엄마의 장례는 다음날 아파트 옥상에서 치러졌다.<br/>　어머니가 없는 집은 적막했다. 10개월쯤 지났을까. 버스 기사였던 아버지가 아가씨를 하나 데려왔다. 천일관광 고속버스 안내원이라고 했다. 태길이 어머니를 아직 떠나보내지 못할 때였다. 새어머니는 태길의 마음을 얻어 보려고 학교 앞에 빵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다. 태길은 이유 없이 새어머니가 미웠다. 그렇게 일찍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br/>　이듬해인 1984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다. 우산을 쓰고 나가도 금세 옷이 다 젖어버릴 만큼 장대비가 내리던 날에 새어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태길은 문 앞에 선 새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새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그날 이후 새어머니는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모와 친할머니가 숨진 어머니의 패물이 사라졌다며 새어머니를 의심할 때였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패물은 새어머니가 사라진 뒤 집 안 어딘가에서 뒤늦게 나왔다.<br/>　어머니와 새어머니를 잃은 뒤 태길의 가출이 시작됐다. 중학교 1학년 때 퇴학을 당했다. 학교에 갈 일 없는 태길은 1984년 여름 어느 날, 집을 나와 남포동 용두산공원 등나무 아래에 누웠다. 머리 위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날도 따스하고 바람도 적당했다. 잠이 쏟아졌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누군가 태길의 허리끈을 달랑 들었다. 열네살 소년이 버둥거려도 소용없었다. 태길은 짐짝처럼 가리개로 덮인 트럭에 실렸다. 트럭에 ‘형제 복지원’이란 글씨만 없었더라도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종종 집을 나갔다 들어오던 동네 친구들은 형제복지원이 사람을 감금한다고 말해주었다. 어른들은 믿지 않았지만.<br/>　트럭에는 사람이 스무명쯤 타고 있었다. 그날 밤 가리개로 덮인 복지원 트럭은 길을 달리다 중간중간 섰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올라탔다.<br/>　“<span class='quot0'>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span>”<br/>　트럭에 탄 아저씨 한명이 소리치며 반항했다. 복지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둘이 아저씨를 개 패듯이 지근지근 짓밟고 때렸다. 아저씨는 피를 흘리며 복지원 직원의 발밑에서 신음 소리를 냈다. 이윽고 종잇장처럼 구겨진 아저씨가 트럭 구석에 머리를 숙인 채 처박혔다.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탄 사람들은 아저씨의 패배를 보며 공포심에 몸을 떨었다. 개처럼 맞기 싫으면 겁에 질린 얼굴로 꼬리를 내려야 했다.<br/>　새벽 세시쯤 지났을까. 트럭은 한곳에 정차했고 태길은 사람들을 따라 내렸다. 쇠막대를 들고 똑같은 옷을 입은 복지원의 직원들이 돌아다닌다.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문이 찌그덩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닫혔다. 차에서 내려 신입 소대라는 건물에 끌려갔다. 복지원 직원들은 팬티 한 장 남기지 않고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태길도 사람들을 따라 옷을 벗었다. 나체의 남자들이 지시에 따라 신입 소대에 두 줄로 정렬하자 직원이 나와 몸을 수색했다. 신체검사가 끝나자 파란색 추리닝을 배급해 준다. 옷을 갈아입자 취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태길은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의 곁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이곳에 왜 끌려왔을까, 빠져나갈 수는 있을까, 살 수는 있을까…. 닥쳐온 불행이 이해되지 않았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이불 속에서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1984년 어느 여름밤.<br/><br/><br/>은영의 사탕<br/><br/><br/>　유혹의 순간이 다가왔다. 태길이 아동 소대 조장이 되기 전, 그러니까 탈출에 실패하고 원장에게 실컷 두드려 맞은 뒤 근신 소대에 배치돼 온종일 돌을 깨는 고역을 하던 때였다.<br/>　“오늘 밤 한번 대주면 근신 소대에서 나가게 해 줄게. 화장실로 따라온나.” <br/>　태길처럼 부산 영도가 고향이라던 6소대(근신 소대) 조장이 그에게 슬며시 제안을 해왔다. 태길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그 덫이 밀물처럼 다가와 빠져나가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돌 깨는 작업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돌을 깨는 손은 감각을 잃을 만큼 얼얼해졌고 조금이라도 꾀를 부리면 관리자들로부터 얻어터졌다. 화장실에 갈 때만 손에 쥔 망치를 놓았다. 엉덩이를 대준다면, 잠깐 내가 아닌 내가 된다면 이 지옥에서 자유롭게 될 것 같았다.<br/>↗<br/>↘<br/>소대의 불이 꺼지고 모두들 자리에 누웠다. 철제 침대에 누운 태길도 눈을 감았다. 화장실로 따라오라던 조장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되풀이된다.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팬티를 벗어 편해지고 싶지는 않았다.<br/>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전날 잠이 든 모양이다. 태길은 조장 표정을 살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소대장은 오늘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다. “<span class='quot0'>84-4218번, 아동 소대로 이동!</span>” 84-4218번은 태길의 수용 번호다. 알고 보니 태길이 오늘 근신 소대에서 아동 소대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조장이 미리 알고 유혹한 것이다. 어젯밤 엉덩이를 까든 안 까든 이 무시무시한 근신 소대에서 떠날 수 있었다.<br/>　소대장 충식은 아이들을 때리다가도 살갗을 쓰다듬는다. 소대장 충식이 남자 아동을 담당하기 전에는 여자 아동 소대를 관리했다. 충식은 열살짜리부터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는 열 몇 살짜리까지 여자아이들을 불러 침대에 앉혔다. 아이의 추리닝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여기저기를 만졌다. 어린 나이에 복지원에 납치된 아이들은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 충식이 무엇을 하는지, 왜 옷에 손을 넣는지 아이들은 알지 못했다.<br/>　폭행이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듯 성추행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60여명이 함께 쓰는 여자아이들의 소대에서 충식이 아이의 옷에 손을 넣을 때마다 다른 수십개의 눈동자들이 그를 바라보았다.<br/>　어느 날 아침에 보면 충식의 침대에서 여자아이와 충식이 함께 누워 있었다. 충식은 아이의 살을 만지다가도 심드렁한 표정으로 명령했다. “가.” 아이는 시키는 대로 충식의 침대에서 자기 자리로 이동했다. 소대장들은 자신들의 구역에서 작은 박인근이었다.<br/>　은영은 열살이던 1982년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엄마 심부름을 하러 길을 나섰다. 그리고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검은 차가 다가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기에 싫다고 했더니 억지로 태웠다. 복지원에 처음 들어온 날 어른 한명이 다가와 몽둥이를 들고 엉덩이와 어깨를 내리쳤다. 여자 아동 소대로 옮겨져 몇날 며칠을 울자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다. 국방색 모포를 뒤집어씌우고는 발길질을 해댔다. 나중에는 때리면 때리나 보다 그렇게 되었다.<br/>　하루는 은영이 사택 앞 흙바닥에 앉아 쉬고 있었다. 복지원의 새마음교회 주일학교 교사 박봉석이 다가와 은영의 옆에 앉았다.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교사 박봉석은 은영의 볼에 입을 맞추고선 옷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가슴을 더듬더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기를 반복했다. 박봉석은 손을 빼더니 눈깔사탕 하나를 은영의 손에 쥐여 주었다. “이거 먹어.” 은영은 눈깔사탕을 손에 쥐었다.<br/>　폭력은 여자아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충식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소대장들은 매번 바뀌었는데 어떤 소대장은 여자아이들을 어른 군인처럼 대했다. 심하게 맞아 다쳐서야 때리지 않았다. 소대장이 아이들을 때리고 “일어서”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움직이지 못하면 가만히 놔뒀다. 그조차 상황에 따라 매일 달라졌다. 소대장은 바닥에 엎드려 기진맥진한 여자아이를 발로 툭툭 쳤다.<br/>　“이 새끼가 꾀병을 부리네.”<br/>　소대장은 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세차게 뺨을 후려쳤다.<br/>　“너 아파, 안 아파?”<br/>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br/>　“안 아프지?”<br/>　“네.”<br/>　“똑바로 서. 새꺄.”<br/>　악마의 발길질은 또다시 시작됐다. 소대장들은 모두 복지원의 수용자 출신이었다. 일부는 여자, 남자 짝을 이뤄 복지원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원장 박인근의 눈에 든 일부 소대장은 원장의 사택에서 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다.<br/>　어떤 언니들의 배는 달처럼 둥글게 부풀었다가 가늘어졌다. 둥근 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은영은 듣지 못했다. 배가 볼록 나온 언니가 소대장 발에 걷어차여 바지 밑에서 피가 나오는 걸 보았다. 여자 아동 소대에서 가장 바보 같았던 영숙 언니의 배는 몇 번이나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기를 반복했다고 했다.<br/>　조장 엄기자와 엄기자의 ‘꼬붕’인 서지예는 늘 붙어 다녔다. 덩치가 크고 무서운 얼굴의 조장 엄기자도 소대장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다. 시키는 것은 모두 수행하였다.<br/>　“어서 벌려 봐.”<br/>　엄기자와 서지예는 영숙 언니에게 팬티를 벗고 성기를 보이라고 명령했다. 엄기자가 소대장에게 그러하듯, 영숙 언니는 사람들이 시키는 것을 무엇이든 했다. 엄기자와 서지예는 막대기로 영숙의 성기를 툭툭 치며 키득댔다. “이게 걸레지, 사람 거냐?” 영숙의 성기는 쭈그러진 할머니 것처럼 축 벌어져 있다.<br/>　영숙 언니가 정신을 놓는 날이 많아졌다. 아무 데서나 훌훌 옷을 벗어던지며 괴성을 질렀다. 여자아이들은 옷을 벗는 영숙 언니에게 발길질을 했다. 영숙은 아이들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면서도 자꾸 옷을 벗는다. 살결에 붉은 피가 돋아난 영숙 언니가 꽃처럼 웃는다.<br/><br/><br/>투견<br/><br/><br/>　“때려.”<br/>　여자 아동 소대에 신입 아이가 한명 들어왔다. 은영이 몇 달 전 들어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울며 내보내 달라고 떼를 쓴다. 아직 형제복지원이 어떤 곳인지 감을 잡지 못한 것 같다. 작고 힘없는 은영에게 조장 엄기자가 명령한다. “저 애 때리라고.”<br/>　은영은 주춤거리며 주먹을 들지 못했다. 복지원에 들어오기 전 동네 아이들과 싸움을 하기는 했지만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린 적은 없다. 저 아이를 왜 괴롭혀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br/>　“개새끼.” 덩치 큰 조장 엄기자가 은영에게 성큼 다가와 손으로 머리를 후려쳤다. “때리라고. 이년아.” 머리에 불꽃이 일며 머리가 후끈거린다.<br/>　열살 은영은 맞아 부은 얼굴로 울부짖는 아이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다. 맞지 않기 위해선 때려야 한다.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국방색 모포 속 아이는 처음 복지원에 와서 내보내 달라던 은영의 과거였다.<br/>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을 때리는 일이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신입 소대원이 들어와 서럽게 울고 발버둥 칠 때마다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국방색 모포를 뒤집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때렸다. 처음 들어왔다고 우는 아이들은 가엾지 않고 시끄럽게만 보였다. 동정이나 자비, 공감, 이해, 용서 같은 감정들은 복지원에서 순식간에 기화되었다. 조그만 자극에도 분노와 증오가 타올랐다.<br/>　우리들은 모두 홀로였다. 어둡고 깊은 계곡 사이를 쫄쫄거리며 흘러가다 손바닥만한 흙바닥으로 모이면 스며들고 마는 한 줌 물이었다. 우리는 댐이나 저수지로 모여들지 않았기에 위험하지 않은 존재였다. 우리들은 타인과 비밀을 공유하기 어려웠다.<br/>　“<span class='quot0'>외부인한테 쓸데없는 말 하면 죽는다.</span>”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도록 강요받았다. 외부 손님이 다녀갈 때나 복지원 내 야간중학교나 개금 분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늘 그런 지시가 있었다.<br/>　여자 아동 소대의 한 아이는 분교 선생님에게 집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가 소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편지를 전하는 장면이 또 다른 학생의 눈에 포착되었고 금세 소대장에게 보고되었다. 은영이 속한 소대는 밤새 기합을 받았다. 편지를 주는 걸 본 또 다른 아이가 있느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협박과 위협이 반복됐다. 소대장에게 고자질을 한 아이만은 체벌을 받지 않고 편하게 앉아 있다. 은영은 고자질을 한 아이만큼 부모에게 편지를 전달하려 한 아이도 미웠다. ‘조용히 살 것이지.’<br/>　우리들은 수용자 번호나 별명으로 불리어졌다. 제대로 된 이름은 갖지 못했다. 도망을 치거나 죽으면 명단에 줄이 그어졌다. 복지원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탈출자가 있는지 인원을 점검했다. 매년 복지원 인원은 증가했다. 1975년 12월 516명이던 수용자는 816명, 1111명, 1325명, 1293명, 1221명, 1713명, 1985명, 2525명, 2861명, 301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86년 말에는 수용자가 3128명이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2년간 513명이 숨졌다. 사실 누구도 검증하지 못한 장부상의 숫자다.<br/>　형제복지원 꼭대기에는 작은 무덤들이 듬성듬성 있었다. 누군가는 이 무덤 속에 수용자들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죽어서도 가족들이 찾지 못할 것이며 이 공간에서 벌어진 감금과 학대를 알릴 수 없다. 나간다고 해도 부랑자로 낙인찍은 시선들이 우리들이 당한 일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철창 밖 사람들이 탄생과 동시에 매우 느린 속도로 사망에 다가서는 그 시간에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br/>　외부 병원으로 나가는 절차는 까다로웠다. 운동장에서 숨이 넘어가려는 한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있었다. 복지원 관리자들은 외부 출입을 시키느니 마느니 옥신각신했다. 할머니는 결국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회 병원으로 보냈다가 도망을 치는 사례가 생기자 외부 병원으로 가는 조건은 점차 까다로워졌다. 의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를 만나기는 어려웠다. 간호사 자격증도 없는 복지원의 아이들이 어깨너머 배운 기술로 찢겨진 부위를 찢고 실로 깁고 소독했다.<br/>　정신과 병동은 비밀스러웠다. 가짜 외과 의사나 간호사 노릇을 하며 병동을 관리하던 수용자들도 정신과 병동에는 들어갈 수 없다. 누가 사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복지원 내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계단으로 올라갈 때면 창문 너머로 정신과 병동 내부가 보였다. 한 여자가 그곳에 있다. 벌거벗은 젊은 여자가 침대에 묶여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고함을 친다. 누구도 듣지 않았다. 어제도 오늘도 그 여자는 늘 그랬다.<br/><br/><br/>원장님<br/><br/><br/>　“원장님께옵서는 이러한 전상서를 바라지도 않는 분이시오나 한 수용자의 마음이오니 이해하시고 받아주옵길 비옵나이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옵니다. 소문에 듣기로 한국에서 최대의 부랑인 보호 시설이 있다기에 형제복지원에서 보호받으면서 의료보험 혜택,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곳 형제복지원으로 와서 (84년 11월10일) 지금은 건강한 인간으로 탄생한 것이나 다름없이 형제복지원의 혜택을 보호받고 있는 수용자의 몸입니다.<br/>　현재 부산에 있는 복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 천하에 더러운 거지, 도둑, 가정 파괴자, 악질, 인간 사회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자, 미친 자, 정부 비방자, 공산주의, 길거리의 고아, 김일성 노래 부르는 자 등 잡초 같고 쓰레기 같고 사회와 가정에 악질적이며 암적인 부랑인들이 꼴불견으로 경찰에 의뢰되어 복지원의 혜택으로 의식주 해결하고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br/>　전두환 대통령 각하.<br/>　박인근 원장님의 신앙심과 애국심에 감명을 받고 있사오며 그 기백과 희생 봉사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사옵나이다. 이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경위는 병든 탄원인이 빛도 이름도 없이 희생 봉사하는 불굴의 사회사업가 원장님께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는 원장님께 용기와 신념을 주시옵길 비옵나이다. 1986년 10월31일. 탄원인 함천수.”<br/>　함천수라는 이름의 수용자가 편지를 써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냈다. 수용자 함천수가 자진해서 쓴 것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그의 이름이 도용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밌고도 신기한 점은 이 거짓투성이 편지를 세상 모두가 믿는다는 사실이다.<br/>　박인근은 신화였다. 몇 차례 복지원이 수용자들을 때린다는 신고가 경찰서에 들어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박인근은 1981년 보사부 장관 추천과 부산시장의 제청에 의해 국민표창을 받았고 84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85년 11월에는 기독교 잡지의 표지 인물로 나와 주리고 목마른 이들과 함께함은 주께서 내게 명령한 사명이라며 장황하게 말하였다. 박인근은 전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이었고 텔레비전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큼 스타 사회복지 사업가였다.<br/>　“MBC TV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수요 드라머 제2화 이 오는 11월3일 방영된다. 2시간짜리 대형 드라머인 은 부산시 북구 주례동에 있는 형제복지원 부설 부랑아 임시보호소를 무대로 한 작품. 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인간애를 거부하는 비뚤어진 밑바닥 인생의 실상을 작가 심영식씨와 연출의 이병훈씨가 현지 취재를 통해 실감 있게 구성한 이 작품은 등장인물도 대부분 그들의 실명을 사용했다. 연출자 이씨와 총무 역을 맡은 임문수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곳 원생들과 이틀 밤을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전운 김무생 길용우 김윤경 엄유신 박은수 이계인 등이 출연한다.”(경향신문 1982년 10월30일)<br/>　1980년대에는 정부와 언론이 만든 신화가 무척이나 강력하며 권위적이었다. 수용자 몇 명이 바깥에 나가서 떠드는 말들은 땅에 떨어지기 일쑤였다.<br/>　원장 박인근의 얼굴은 복지원 철문 안과 밖이 달랐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높은 철창 안에서 성주이며 재판장이자 독재자였다. 원장 박인근의 권위와 기에 모두가 눌렸다. 박인근은 1년에 한번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운동장 스탠드 높은 저 끝에 앉아서 3000명의 수용자들로부터 차례차례 경례를 받았다. 성벽의 저 높은 끝에서.<br/><br/><br/>붕괴<br/><br/><br/>　원장 박인근이 한순간 사라졌다. 1987년 1월16일이다. 성주가 증발한 복지원은 혼란에 휩싸였다. 무자비한 권력자가 사라진 공간에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다. 복지원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고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용자들을 사회는 불안해했다. 자유는 비싼 대가를 요구했다.<br/>　검찰에 끌려간 원장 박인근은 다음날 구속되었다. 박인근이 울산에 짓고 있던 자동차 교습소 건설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검찰 수사로 원장은 붙잡혀 들어갔다. 원장실 대형 금고에서는 22억원의 예금 증서와 달러, 엔화가 쏟아졌다. 이 돈과 예금 증서는 압수되었다. 야당인 신민당 의원이 복지원에 들어와 실태 조사를 하였다. 장시간 가두어진 사람들은 쉽게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거나 말하기를 주저했다.<br/>　맞아 죽은 마흔살 수용자 김계원의 죽음은 검찰 수사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1986년 8월2일 탈출을 시도했던 김계원은 발각되어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데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태길과 은영의 소대장이었던, 여자아이들의 살결을 만지곤 하던 충식은 몽둥이를 들고 김계원의 몸을 가리지 않고 두들겼다. 김계원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었다. 찬물을 들이부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숨을 멈추었다. 복지원 촉탁 의사 정명국은 김계원의 죽음을 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했다. 소대장 충식은 검찰 조사에서 “<span class='quot1'>김계원이 쓰러지자 원장 박인근에게 보고했고, 이후 원장에게서 김계원이 사망했음을 듣게 되었다</span>”고 진술했다.<br/>↗<br/>↘<br/>한동안 신문과 방송은 복지원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복지원생 강제노역 폭행치사 원장 등 5명 구속’ ‘공포의 복지원 12년, 원생 513명 병사’ ‘원생 사망 허위진단서 복지원 사건 의사 입건’ ‘부산 복지원 사건 신민 조사단 파견’ ‘복지원 사건 국회서 다뤄야’ ‘살상원이 된 복지원’ ‘국민훈장 받은 평통위원 박인근은 누구인가’ ‘행정 부처끼리 책임 회피’ ‘대공 관계 혐의자도 일부 수용, 사체 의학 실험용 판매 가능성’ ‘부산시 복지원 사태 터지자 은폐로 일관’.<br/>　언론은 기사 경쟁을 하며 이야깃거리를 찾아다녔다.<br/>　“85년 5월16일 울산시 학성동 소재 학성공원 부근에서 약취된 김진희양은 울산역에서 부산진역으로 옮겨졌다. 부산진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인계돼 그 집에서 4일간 식모살이 중 부모가 보고 싶다고 울자 매질하여 그 집에서 도망을 나왔다. 진희양은 밤새 배회를 하다가 다시 파출소에 인계되었고 경찰은 형제복지원에 보냈다. 진희양은 집 주소를 몰랐지만 소속 초등학교 선생 앞으로 편지를 썼다. 수용소에서 우편을 보내지 않아 수용생활을 이어갔다. 진희양의 아버지 김무송은 85년 10월 형제복지원에 찾아갔으나 경비원이 제지하여 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br/>　신문들은 점차 흥미를 잃었다. 1987년 여름, 전국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다. 서울대 학생 박종철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고문과 최루탄으로 숨지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졌고 독재 타도를 외쳤다. 민주화의 깃대조차 되지 못했던 복지원의 감금자들은 잊혀졌다. 박인근의 성 안에 갇혀 살았던 태길과 은영은 거리로 나왔다. 12년간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할 바 없는 513명의 사망자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잊혀졌다.<br/><br/><br/>거리에서<br/><br/><br/>　태길은 원장이 잡혀간 1987년 겨울 복지원 정문을 걸어 나왔다. 경비원 누구도 잡지 않았다. 연고자가 없는 이들은 복지원 철문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굶주림과 부랑자를 보는 냉대를 견뎌야 한다. 태길은 복지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1984년 여름 납치된 뒤 한달도 안 돼 복지원에서 만난 이웃집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미 한번 돌아온 적 있는 집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해 겨울 태길을 다시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 아버지의 세번째 배우자, 즉 태길의 두번째 새어머니에게 자꾸 반항한다는 이유였다. 3년 만에 돌아온 집에 그 새어머니는 그대로 있었다.<br/>　다시 돌아간 집은 따스할 수 없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앞에서 돼지국밥 식당을 차렸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태길의 동생은 식당과 조금 떨어진 곳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다시 거리에 나섰다. 병원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간에 내렸다. 충무동이었다. 충무동을 쏘다니다 극장 앞에 앉아 있는 한 무더기의 아이들과 만났다. “하나, 둘, 셋, 더듬아!” 아이들이 외쳤다.<br/>　더듬이는 태길의 별명이었다. 태길이 뒤돌아보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이미 복지원에 끌려가기 전 학교에서 퇴학은 당했고 할 일 없이 느려터진 시간을 보내던 태길은 거리에서 복지원 아이들을 만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다. 그날로 집을 나왔다.<br/>　공장엔 취직하기 무서웠다. 복지원에서의 기억 때문에 창문이 작거나 밀폐된 공간은 공포스러웠다.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잠을 자고 거리를 헤매던 시절 숙식 제공을 해주겠다는 낯선 사람을 우연히 만나 봉고차를 탔다. 그 봉고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목포 선착장이었다. 태길은 선착장에서 인신매매되었고 배에서 잡일을 하는 노예가 되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전국적으로 유괴와 납치, 인신매매가 들끓었다. 태길은 섬에서 섬으로 팔려 다녔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전남 신안군 평사도였다. 작은 섬에는 파출소가 있고 이웃들도 태길이 노예로 팔려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모두 묵인했다.<br/>　은영은 박인근이 구속된 뒤 다른 고아원에 보내졌다가 그곳을 탈출했다. 형제복지원처럼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지만 또다시 가두어지는 것이 공포스러웠다. 숙식을 제공한다는 가발공장에 취업했지만 어느 날 밤, 사장이 성폭행을 시도했다. 은영은 몇만원을 손에 쥔 채 거리로 다시 나왔다. 길거리나 교회, 아파트 옥상, 버스에서 잠을 잤다. 배가 고픈 나머지 슈퍼마켓에 가서 빵 한 개를 훔치려다 들켰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판사는 은영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고 그를 풀어주었다. 또다시 떠돌다 양말공장에 들어갔지만 열여섯 은영에게 사장은 월급을 주지 않았다. 거리에서 2만원이 든 한 여자의 가방에 손을 대려다 붙잡혔다. 은영은 다시 법정에 섰고 안양 소년원으로 옮겨졌다.<br/>　복지원을 나온 아이들이 가는 곳은 비슷했다. 은영은 안양 소년원에서 형제복지원 시절 자신을 때렸던 조장 엄기자, 서지예를 만났다. 두 사람을 보자 옛날의 공포심이 타올랐다. 그러나 소년원은 복지원보다 훌륭한 감옥이었다. 적어도 엄기자와 서지예가 함부로 사람들을 때리지 않게 간수가 관리를 해주었고 밥도 먹을 만했다. 은영은 1년6개월 이후 소년원을 출소해 공장을 전전했다.<br/>　태길은 섬 노예가 된 지 2년6개월 만에 탈출해 정식으로 뱃사람이 되었다. 벌이도 괜찮았다. 복지원을 나와 몇 년이 흘렀다. 하루는 친구를 만나러 용두산공원에 나갔다 막걸리를 마시던 거지 떼를 만났다. 그를 때리고 호령하던 소대장(10소대장 이태희, 6소대장 아무개, 3소대장 합죽이, 합죽이랑 결혼했던 여자 소대장 아무개 등 총 6명)들이었다. 박인근에게 붙어 아이들을 괴롭히며 살던 그들이 거리의 거지가 되어 술에 취해 있다. 행색은 더럽고 엉망이다. 복지원에 있을 때 태길에게 발가락 사이 무좀을 긁으라고 지시했던 6소대장과 눈이 마주쳤다. 태길이 소대장의 손에 10만원을 쥐여 주었다. “태길아, 고맙데이.”<br/>　소대장들이 불쌍했다. 인간은 가여웠다.<br/><br/><br/>선옥이<br/><br/><br/>　1992년 어느 밤 태길은 부산 길을 헤맸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보름씩 잠을 자며 고등어나 조기를 잡았다. 뱃사람 태길이 한바탕 전쟁을 치르면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생선들이 배 위에 실렸다. 바다와 물고기는 태길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다. 태길이 육지에 돌아올 때면 맞고 때리고 피 흘리며 사라진 사람들, 갇혀 살던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다.<br/>　그날 밤 태길은 간절하게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다. 여자 생각이 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범천동 대양고무 공장 근처의 큰길가 양쪽으로 술집 4, 50개가 모여앉아 불빛을 번쩍였다. 술에 취한 남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싸고 허름한 술집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br/>　바다에서 부산으로 돌아온 태길은 그날 밤 범천동 술집 거리를 쏘다녔다. 한 상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신사동 그 사람.’ 가수 주현미의 노래 제목이다. 태길은 문을 열고 ‘신사동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으니 아가씨 한명이 따라 나온다. 한눈에 보아도 선술집에 있기에는 아까운 미인이다. 아가씨가 태길의 옆자리에 앉아 술잔에 술을 따랐다.<br/>　“<span class='quot0'>아가씨, 내 이야기 좀 들어 볼라요?</span>”<br/>　무슨 생각이었는지 태길은 처음 보는 아가씨에게 복지원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가씨는 아무 말이 없다. 이야기는 길어지고 술잔에 들이붓는 술은 많아졌다.<br/>　“<span class='quot0'>내가 거기 복지원 야간중학교를 다녔거든.</span>”<br/>　말없이 듣고 있던 아가씨는 태길의 두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br/>　“나야, 선옥이. 나 모르겠어?”<br/>　“선옥이?”<br/>　태길은 짙은 화장을 한 아가씨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다. 형제복지원에서 함께 야간중학교를 다니던 선옥이였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 8명 가운데 가장 예뻤던 선옥이는 같은 반 남자아이들이 한번씩 짝사랑했던 여자였다. 어린 태길도 말 한번 붙이지 못했지만 선옥이를 좋아했다. 술기운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태길은 선옥을 보자 이상하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복지원을 뛰쳐나와 섬에 끌려갔고 사람 아닌 노예로 살았다.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었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머리에 고통의 기억이 밀려올 때면 혼자 어찌해야 할지 몰라 술을 들이부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마음껏 울어본 적이 없었다. 태길이 엉엉 울자 선옥도 따라 울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이 지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껴안고 울다 이야기하다 다시 술을 마셨다.<br/>　그날 이후 바다에서 보름씩 물고기를 잡고 부산으로 돌아오면 선옥의 술집을 찾았다. 술집을 나와 선옥의 손을 잡고 거리에서 데이트를 했다. 영화를 보고 서면 태화백화점에서 선옥에게 새 옷을 입혀 주었다. 선옥을 만나던 어느 날, 태길은 여관에 가자고 했다. 선옥은 거절했다. 선옥에게 술집을 그만두고 함께 살자고도 했다. 달세방을 하나 구할 테니 술집 일을 그만두고 고기 잡아 번 돈으로 다른 부부들처럼 살자고 했다. 선옥은 태길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br/>　한동안 바다에 나간 태길이 부산으로 돌아와 다시 술집을 찾았다. 바다에서도 선옥이 생각에 일이 고되지 않았다. 어디서 데이트를 할까 생각하니 심장이 설렜다. ‘신사동 그 사람’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선옥이 없다. 주인은 선옥이 남긴 쪽지를 전해 주었다.<br/>　‘복지원에서 당했던 일들 때문에 오빠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빠를 좋아하지만 떠날게.’<br/>　술집 주인은 태길에게 쪽지를 주며 선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선옥은 술집 손님들이 몸에 손을 대면 다른 아가씨들과 달리 유달리 예민하게 굴며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한 술집에 정착하지 못하고 범천동 술집 일대를 거의 전전했다고 했다. 이번엔 어느 술집으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br/>　태길은 짐작이 되었다. 예쁘장한 여자애들이 소대장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던 얘기, 임신했다가 낙태가 됐다는 이야기는 복지원 어느 곳에서도 쉽게 들리던 소문이었다. 태길은 선옥이 왜 여관으로 가길 거부했는지, 남자들이 손만 대어도 예민하게 굴었는지도 알 것 같았다. 함께 여관으로 가려던 그날 일이 후회되었다.<br/>　태길은 그날 밤 선옥이 남기고 간 쪽지를 손에 쥐고 ‘신사동 그 사람’을 나와 거리를 헤맸다. 같은 기억을 가진 채 이해하고 이해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던 선옥이 꿈같이 사라졌다. 아무 술집에나 들어가 엉망이 되도록 술을 마셨다. 태길은 다시 반길 곳 없는 길 잃은 개가 되었다. 완벽한 혼자다. 술집의 불빛들과 거리를 달리는 차들,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 사이로 태길이 홀로 걸어 들어갔다. 깊은 밤 달은 위로하지 않았다. 태길은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선옥아, 잘 지내냐? 여자는 계속 말이 없었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br/><br/>▶ 제2부에서는 내무부 훈령 410조를 통해 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도록 정당화한 국가의 폭력과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1.txt

제목: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날짜: 2014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910015092097  
본문: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자책과 자학, 분노와 냉소로 똘똘 뭉친 윌(맷 데이먼)을 품에 안고 숀(로빈 윌리엄스)은 같은 말을 정확히 10번 반복한다. 해줄 말이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결국 그 한마디가 윌을 구했다. 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윌이 듣고 싶은 유일한 말이기도 했던 것이다. “네 잘못이 아니야.” 영화 <굿 윌 헌팅>(1997)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최고의 위로이자 최선의 격려.<br/><br/> 그건 작가 존 그린이 에스더에게 해주고 싶던 말이기도 했다. 12살 때 몸 안의 암세포를 처음 발견하고 16살 생일을 넘긴 직후 세상을 떠난 아이. 15살의 어느 날, 한 행사장에서 작가의 팬이라며 다가와 밝게 웃던 소녀의 입술 위에는 이미 거추장스러운 호흡기 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에스더는 바쁘게 자기 인생을 살았다. 마지막까지 예쁜 미소만 보여주다 떠났다. 그녀와 맺은 특별한 인연이 새로 쓰는 소설에 영감을 주었다. 에스더가 미처 다 살아내지 못한 16살이 주인공의 나이가 되었다. <br/><br/> “<span class='quot0'>브루투스여, 우리가 노예인 것은 우리(의 운명을 말해주는) 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네.</span>”(The fault, dear Brutus, is not in our stars, but in ourselves, that we are underlings)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대사를 거꾸로 뒤집어 책의 제목을 지었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The fault in our stars). 그 책을 영화로 만든 게 <안녕, 헤이즐>이다. <br/><br/> 암으로 한쪽 폐를 잃은 16살 소녀 헤이즐(셰일린 우들리)이 역시 암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18살 소년 오거스터스(앤설 엘고트)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스무살을 함께 맞이하지 못할까 두려워도, “너를 만나 나의 삶은 무한대가 되었어” 하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끝까지 예쁘게 사랑하는 커플. 내내 위태롭지만 결국 위대한 사랑을 하고야 마는 두 사람에게 영화는 이렇게 말해준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그 뒤에 생략한 말은 이것이다. “<span class='quot0'>너희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span>”<br/><br/> 내 거 하고 싶은 만남, 내 거 하고 싶은 키스, 심지어 내 거 하고 싶은 이별까지. 온통 내 거 하고 싶은 순간들로 가득한 이 하이틴 로맨스를 보고 나오면서 친구들과 쉴 새 없이 수다 떨 게 틀림없는 10대 관객들. <안녕, 헤이즐>을 보았다면 분명 며칠 동안 설레고 들떴을 헤이즐 또래의 아이들이 그날,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span class='quot0'>내가 죽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내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이다.</span>” 영화 속 헤이즐의 대사 앞에서 또 한번 억장이 무너질 부모들을 유족으로 남긴 채, 250개의 무한대가 황망하게 사라졌다. 지금 나에게 세월호 참사를 정의하라면 이렇게 말하겠다. 헤이즐을 응원해야 할 아이들이 헤이즐보다 먼저 별이 되어 떠난 비극.<br/><br/> “네 잘못이 아니야.” 지난 넉달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말해주려 애썼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진짜 누구의 잘못인지 이제 밝혀낼 차례다. 그 당연한 일도 빨리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가리켜 누구는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종된 건 ‘정치’가 아니라 ‘염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충분히 ‘위로’를 하기도 전에 서둘러 ‘피로’를 들먹이는 자들의 사라진 염치 앞에서라면, 잘못은 우리 별에 있지 않다. 우리 ‘법’에 있다. <br/><br/> 영화에서 헤이즐이 좋아하는 작가 피터 반 호텐(윌럼 대포)이 말한다. “삶은 삶으로부터 온다.” 유민 아빠의 삶은 유민이의 삶으로부터 올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삶은 대통령의 삶으로부터 오는 모양이다. 그럼 나의 삶은 누구의 삶으로부터 오는가.<br/><br/> 로빈 윌리엄스가 죽었다. 흐느끼는 타인의 삶을 끌어안고 다독이던 숀이 떠났다. 우리 모두 한번은 맷 데이먼이었다. 외로워서 괴롭고 괴로워서 외롭던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 모두 한번은 그의 품에 안겨 위로받는 윌이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토닥이는 손길이 줄고, 나의 잘못이 아니야, 큰소리치는 자들이 늘어난 지금. 우리의 삶은 결국 숀의 삶으로부터 와야 하지 않을까. “네 잘못이 아니야.” 그에게서 건네받은 한마디에 이 문장을 더하기 위해 다른 이의 삶에 가닿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br/><br/>김세윤 방송작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2.txt

제목: “칼리프여, 아들을 풀어 주세요”  
날짜: 20140829  
기자: 김창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9100000099  
본문: “<span class='quot0'>칼리프여, 내 아들을 보내 주시오.</span>”<br/>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참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 기자 스티븐 소틀로프(31)를 풀어달라고 그의 어머니가 절박하게 호소했다. 소틀로프의 어머니 셜리는 27일 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작은 사진)에서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바그다디여, 당신이 우리 아들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무함마드가 했던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겸손하고 관대한 내 아들은 죄가 없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 껴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할 땐 목소리가 떨리는 듯했다.<br/>　교사인 소틀로프의 어머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암 덩어리’로 규정한 이슬람국가의 수장 바그다디를 ‘칼리프’라고 불렀다. 아들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국가는 지난주 미국의 폭격에 대응해, 미국 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한 바 있다. 이때 소틀로프를 공개했으며, 그도 참수하겠다고 위협했다.<br/>　셜리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함께 비밀리에 석방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서 직접 호소에 나섰다. 아들이 실종된 뒤 코란(꾸란)을 공부한 셜리는 “이슬람교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책임질 수 없다는 교리가 있지 않으냐. 아들은 기자에 불과한 만큼 미국 정부의 죄를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br/>　그의 소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시리아의 이슬람국가 반군을 정찰하는 등 공습이 임박했고, 이슬람국가의 반미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br/>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3.txt

제목: [삶의 창] 찜질방의 맛 / 권보드래  
날짜: 2014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910015092053  
본문: 여러 해 전 찜질방에 처음 가 보곤 아연실색했다. 이건 마치 돈 내고 골목길에 나앉은 꼴이잖아! 한국인의 연면한 골목 사랑에 감탄하긴 했지만, 내 식구끼리 오붓한 내 집 두고 수십명이 무더기무더기 누워 있는 그곳에 갈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찜질방을 잊고 살았다.<br/><br/> 올여름 오랜만에 찜질방에 갔다. 한 번 가보곤 재미나서 또 갔다. 핑계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다는 것이었지만, 매트에 벌렁 드러누워 만화책 보는 재미가 더 좋더라. <호문쿨루스>도 보고 <영혼의 안내자>도 읽고 <모카커피 마시기>를 복습하고 <오디션>도 만지작거려 본다. 나를 키운 건 8할이 만화책인데, 책 대신 웹툰이 대세가 되면서 내가 너무 신의를 지키지 못했지, 암. 영어책씩이나 끼고 갔지만 한두 쪽 읽곤 팽개쳐둔 채다.<br/><br/> 진지하게 수험서를 들여다보는 젊은 부부도 있긴 하나 찜질방 분위기는 난만하다. 누워 잠들고 엎드려 스마트폰에 매달리고 안마의자 위에서 꾸벅꾸벅 존다. 구석 노래방에서 어울리잖게 백지영 노래를 열창하고 운동기구실에선 중년 몇이 맨발로 러닝머신 위를 걷는다. 기 쓰고 살던 맥이 풀린다. 난데없이 그 사람들을 껴안고 싶은 친근감을 느낀다. 아아 이 찌질함이라니, 아 이 평안함이라니.<br/><br/> 곁에선 내 새끼들도 낄낄대며 만화책을 본다. “뭐 그런 걸 보노.” 남편이 한심하다는 표정이지만 지금은 괜찮다. 수험서에 밑줄 긋는 옆자리 부부를 보면서도 태평하다. 다 똑같은 찜질복을 입고 삶은 계란을 까는 이웃들이 정겨울 뿐이다. 어쩐지 쿨하고 시크해야 할 것 같은 카페의 과시적 분위기와 이 공기는 얼마나 다른가. 여기서라면 육아에서도 좀 불량해져도 될 것 같다. 애들은 어느새 컴퓨터방을 기웃거리며 이용 가능 시간이 남아 있는 컴퓨터를 탐색 중이다.<br/><br/> 갈수록 개그 프로가 좋아지더라니. 티브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개그 프로가 스쳐가면 눈길이 간다. 예전엔 한두 코너가 재미없으면 자리를 떴는데 이제 다음 건 재밌겠지, 기다려 본다. 개그맨 중 어떤 이들에 대해 거의 사표 삼고 싶어지는 경탄을 느낀다. 자기풍자를 중요한 가락으로 하는 그 세계가 자주 뭉클해진다. 전 이런 사람입니다만. 키 작고 뚱뚱하고 못났습니다만. 뾰족하게 똑똑하지도 못합니다만. 내가 못마땅해 힘들 때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나 자신인 채 살아 봐야지요.<br/><br/> 티브이 앞 웃음소리를 지나 한증막에도 가 본다. 다들 가마니 덮어쓰고 묵언수행 중이다. 하악. 뭣들을 참고 계신가요. 물어보면 노폐물 뽑고 살 빼기 위해서라고 답할 그 사람들이, 그러나 잠깐 동안은 경건한 수도자 같다. 1초 1분을 더 견뎌내면서 조용히 땀을 흘린다. 하악하악. 참는다는 사실 자체의 쾌미를 2분, 3분… 채 헤아리지 못하고 먼저 뺑소니치고 만다. 멧돼지, 멧돼지를 쫓아야 하는데. 몇 달 전 일이다. 집 앞 초등학교 운동장에 길 잃은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놀던 아이들이 와와 몰려가 쫓아버리고 말았다나. 가만, 저기 스마트폰 게임에 한창인 초등학생들이 혹시 그때 그 녀석들이려나?<br/><br/> 남편은 자고, 만화 덕분에 애들은 조용하고, 소르르 졸음이 온다. 홀가분하다. 미모마저 평준화되고 여긴 참 좋구나. 보잘것없어도 편하구나. 옆자리 사람들과 한바탕 수다라도 붙으면 그야말로 옛날 골목길 풍경이겠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더니. 그리곤 어느새 잠이 들었나 보다. 애들이 배고프다며 잡아 흔든다. 그래, 얘들아, 라면 먹으러 가자. 오늘치 피서는 이제 끝이다. <br/><br/>권보드래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4.txt

제목: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 제1회 ⑥ 원장님  
날짜: 2014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910015092624  
본문: “원장님께옵서는 이러한 전상서를 바라지도 않는 분이시오나 한 수용자의 마음이오니 이해하시고 받아주옵길 비옵나이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옵니다. 소문에 듣기로 한국에서 최대의 부랑인 보호 시설이 있다기에 형제복지원에서 보호받으면서 의료보험 혜택,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곳 형제복지원으로 와서 (84년 11월10월) 지금은 건강한 인간으로 탄생한 것이나 다름없이 형제복지원의 혜택을 보호받고 있는 수용자의 몸입니다.<br/><br/> 현재 부산에 있는 복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 천하에 더러운 거지, 도둑, 가정 파괴자, 악질, 인간 사회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자, 미친 자, 정부 비방자, 공산주의, 걸거리의 고아, 김일성 노래 부르는 자 등 잡초 같고 쓰레기 같고 사회와 가정에 악질적이며 암적인 부랑인들이 꼴불견으로 경찰에 의뢰되어 복지원의 혜택으로 의식주 해결하고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br/><br/> 전두환 대통령 각하.<br/><br/> 박인근 원장님의 신앙심과 애국심에 감명을 받고 있사오며 그 기백과 희생 봉사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사옵나이다. 이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경위는 병든 탄원인이 빛도 이름도 없이 희생 봉사하는 불굴의 사회사업가 원장님께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는 원장님께 용기와 신념을 주시옵길 비옵나이다. 1986년 10월31일. 탄원인 함천수.”<br/><br/> 함천수라는 이름의 수용자가 편지를 써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냈다. 수용자 함천수가 자진해서 쓴 것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그의 이름이 도용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밌고도 신기한 점은 이 거짓투성이 편지를 세상 모두가 믿는다는 사실이다.<br/><br/> 박인근은 신화였다. 몇 차례 복지원이 수용자들을 때린다는 신고가 경찰서에 들어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박인근은 1981년 보사부 장관 추천과 부산시장의 제청에 의해 국민표창을 받았고 84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85년 11월에는 기독교 잡지의 표지 인물로 나와 주리고 목마른 이들과 함께함은 주께서 내게 명령한 사명이라며 장황하게 말하였다. 박인근은 전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이었고 텔레비전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큼 스타 사회복지 사업가였다.<br/><br/> “MBC TV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수요 드라머 제2화 <탄생>이 오는 11월3일 방영된다. 2시간짜리 대형 드라머인 <탄생>은 부산시 북구 주례동에 있는 형제복지원 부설 부랑아 임시보호소를 무대로 한 작품. 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인간애를 거부하는 비뚤어진 밑바닥 인생의 실상을 작가 심영식씨와 연출의 이병훈씨가 현지 취재를 통해 실감 있게 구성한 이 작품은 등장인물도 대부분 그들의 실명을 사용했다. 연출자 이씨와 총무 역을 맡은 임문수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곳 원생들과 이틀 밤을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전운 김무생 길용우 김윤경 엄유신 박은수 이계인 등이 출연한다.”(경향신문 1982년 10월30일)<br/><br/> 1980년대에는 정부와 언론이 만든 신화가 무척이나 강력하며 권위적이었다. 수용자 몇 명이 바깥에 나가서 떠드는 말들은 땅에 떨어지기 일쑤였다.<br/><br/> 원장 박인근의 얼굴은 복지원 철문 안과 밖이 달랐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높은 철창 안에서 성주이며 재판장이자 독재자였다. 원장 박인근의 권위와 기에 모두가 눌렸다. 박인근은 1년에 한번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운동장 스탠드 높은 저 끝에 앉아서 3000명의 수용자들로부터 차례차례 경례를 받았다. 성벽의 저 높은 끝에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5.txt

제목: ‘생물 대폭발’의 비밀, 바로 ‘눈’에 있었네!  
날짜: 2014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910015092365  
본문: 아홉살 때의 일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는 아버지의 지방 발령으로 어느 바닷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야 했다. 이삿짐을 내린 곳은 작은 마을 가장 안쪽에 새로 지어진 단층 양옥집이었다. 집 뒤 야트막한 언덕을 넘으면 바로 바닷가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곳. 집은 깨끗했고, 아이에겐 동생과 나눠 쓰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방이 생겼으며, 주변 풍광은 신기했다. 아이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고, 만족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이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까지 아이는 완벽한 어둠을 접해 본 적이 없었다. 인공조명이 위력을 발하는 대도시의 밤은 완벽하게 어둡지 않다. 대도시의 어둠은 처음 불을 껐을 때만 잠시 위력을 나타낼 뿐, 곧 암적응이 된 눈은 사물의 형태 정도는 너끈히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이곳의 밤은 달랐다. 눈을 떴으되 감았을 때와 다르지 않은 깜깜한 어둠. 평소 악몽을 꿨을 때처럼 베개를 들고 엄마 아빠 방으로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암흑. 아이가 현실로 돌아온 건,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부모님이 전등 스위치를 누른 순간이었다. 세상은 다시 밝아졌고, 그 환하고 밝은 빛에 밀려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졌다.<br/><br/><br/><br/>‘캄브리아기의 대폭발’ 가설들 중 <br/>눈에 띄는 ‘빛 스위치 이론’ <br/>빛, 정확히 말해서 빛을 식별하는 <br/>기관인 눈의 존재가 수많은 <br/>생명체 진화시킨 원동력이란 것<br/><br/>동물세계의 완전히 새로운 감각 <br/>그 무엇보다 막강한 ‘본다’는 감각 <br/>캄브리아기 이전에도 빛을 느꼈다 <br/>빛을 느끼는 것과 빛을 이용해 <br/>사물을 보는 것은 차원이 달랐다<br/><br/><br/><br/> 30억년간 이 세상은 암흑이었나<br/><br/> “빛이 있으라.”<br/><br/> 이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하다. 전등빛이 아이의 마음에서 어둠의 공포를 밀어냈듯이 빛이 있으라는 말 한마디로부터 영겁의 혼돈이 끝나고 세상은 시작되었다. 비단 창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록되거나 구술되어 내려오는 거의 모든 창조 설화에서 ‘빛의 탄생’ 혹은 그와 대비되는 어둠의 파괴는 태초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집트에서도 혼돈의 바다 아비스(Abyss)에서 태어난 창조신 아툼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것은 빛이었으며, 중국의 반고는 칠흑처럼 깜깜한 어둠이 너무도 갑갑해 이를 깨뜨리며 세상의 시원(始原)을 고했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빛이 가득 넘친다 해도 그 빛을 감지할 수 없다면, 빛이 존재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진정한 ‘빛의 세계’의 탄생은 우리가 그 빛을 감지하는 감각기관, 즉 ‘눈’을 가지게 되었을 때부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br/><br/> 화석상의 기록을 보면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것은 적어도 35억년 이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초의 생명체 출현 이후 진화와 종간 분화는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나서,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축약해서 볼 수 있는 존재에게조차도 생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최초의 생물 발생 이후 30억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동물계에서는 겨우 3문(아래 주석 참조)의 동물들이 발생했을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지루한 영화도 결국 끝이 나고, 불이 켜진다. 지구의 역사에도 바로 그렇게 ‘불이 켜지는 순간’이 존재했다. 바로 5억4300만년 전에서 5억3800만년 전까지의 500만년. 지질학적 시간 개념으로는 하룻밤에 불과한 500만년 사이에 그동안 갑작스레 수많은 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종류는 순식간에 38개의 문으로 늘어났다. 생물 다양화라는 폭탄의 뇌관이 드디어 작동한 것인가?<br/><br/> 하지만 이 시기 이후 이처럼 역동적인 생물계의 변동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진화는 계속되었지만, 이 시기의 변화가 지각변동이라면 이후는 여진에 불과했다. 500만년의 폭발 순간 이후, 다시 5억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38개의 동물문에는 하나의 새로운 문도 추가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수십억년 동안에도 제자리걸음이었던 생물종이 이렇게 다양하게 늘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새로운 동물문이 추가되지 않은 것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5억년 전에 처음 생겨나 지금까지 지속되는 무언가, 이후 그 변화를 능가할 만한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지 않은 무언가가 말이다.<br/><br/> 이처럼 진화상에서 갑작스레 많은 동물문들이 추가된 것을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고 부른다. 학자들은 저마다 증거들을 해석해 캄브리아기의 생물 대폭발을 일으킨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했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빛 스위치 이론’이다. 빛, 정확히 말해서는 빛을 식별할 수 있는 기관인 ‘눈’의 존재가 수많은 생명체를 진화시킨 원동력이라는 것이다.<br/><br/> ‘빛 스위치 이론’을 주장한 앤드루 파커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를 이렇게 비유한다.<br/><br/> “상이 있으라! 동물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 들어왔다. 더구나 이 감각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 어떤 감각보다 막강해지게 될 감각이었다. 그리고 최초의 눈이 눈을 떴을 때, 세상 모든 것이 처음으로 빛에 노출되었다. 지구에 빛의 스위치가 켜졌고, 그 빛은 이전 시대를 특징지었던 점진적 진화에 종지부를 찍었다.”<br/><br/><br/><br/> 동물들의 구조를 다양하게 변모시키다<br/><br/> 물론 캄브리아기 이전에 살던 동물들도 빛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꼭 눈이 있어야만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눈은커녕 그와 비슷한 것조차 없는-사실 가지기에는 너무 작은- 미생물조차도 빛을 따라 움직이는 주광성(走光性)을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빛을 ‘느끼는’ 것과 빛을 이용해 사물을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빛을 느끼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을 구별하고 빛과 동반하는 열기를 피부감각으로 느끼는 것에 불과하지만, ‘보는’ 것은 빛을 이용해 주변 사물의 존재와 위치를 감지하고, 상대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시각이 없는 경우, 나는 내 앞의 상대가 내 먹잇감인지 나를 먹잇감으로 삼을 천적인지 알 수 없다. 문득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일순간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오물과 배설물이 널려 있는 더러운 거리에서 잠을 자고 깨어 있을 때는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 뿐이다. ‘보지 못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이들에게서 판단 가능한 정보를 대부분 앗아갔기 때문이었다. 반면 눈먼 자들 속에서 오로지 홀로 눈을 뜨고 있던 여자는 홀로 경악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이들을 구원한다. 그녀의 인도에 따라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줄을 선 이들은 앞사람의 어깨가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꼭 붙잡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고 갓 태어난 어린 오리들처럼 그녀의 뒤만 졸졸 쫓는다. 그녀는 단지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이들을 구원하는-혹은 구원해야만 하는- 절대적이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다. 본다는 것의 위력을 이토록 실감나게 묘사하다니.<br/><br/> 캄브리아기 동물들도 비슷한 충격을 겪었으리라. 여기 갑자기 ‘눈’이 뜨인 동물이 있다. 이전까지는 고만고만한 다른 동물들과 비슷했지만, 눈을 가진 이후 이들의 운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들에게 천적을 피하고 먹이를 구하는 일은 이전보다 수월해졌으며, 이로 인해 생존하고 번식하라는 유전자의 명령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변화는 다른 생물체들에게는 변화의 필요성을 뼛속 깊이 자각시키는 진화적 압력이 된다. 눈이 없는 존재는 눈을 가진 존재들과 먹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어 멸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변해야만 했다. 외골격을 바꿔 단단한 외피를 만드는 것이든, 보호색이나 위장색으로 몸을 감추는 것이든, 몸의 구조를 바꿔 물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든 가리지 않아야 했다. 개중에는 상대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택한 존재들도 있었다. 물론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과 같은 척추동물의 눈은 수정체를 가진 단안 구조이지만, 곤충과 같은 절지동물들은 작은 눈을 여러개 겹쳐 커다란 눈을 만드는 복안으로, 둘의 발생 방법은 전혀 다르다. 이렇듯 눈의 탄생을 계기로 등장한 진화적 압력은 너무도 강력해서 오랜 세월 완만하게 이루어져 왔던 동물들의 구조를 다양하게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br/><br/> 세상은 빛에 의해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생물들의 진화는 눈에 의해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생물체에게 있어 더욱 강한 메시지는 ‘눈이 있으라’였을지도 모른다. <br/><br/>이은희 과학 작가<br/><br/> <br/><br/> 생물체는 계(界, Kingdom)-문(門, Phylum)-강(綱, Class)-목(目, Order)-과(科, Family)-속(屬, Genus)-종(種, Species)으로 나뉘는데, 이 분류에 따르면 사람은 동물계-척삭동물문(척추동물아문)-포유강-영장목-사람과-사람속-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6.txt

제목: “칼리프여, 아들을 풀어 주세요”  
날짜: 2014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810015084422  
본문: “<span class='quot0'>칼리프여, 내 아들을 보내 주시오.</span>”<br/><br/>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참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 기자 스티븐 소틀로프(31)를 풀어달라고 그의 어머니가 절박하게 호소했다. 소틀로프의 어머니 셜리는 27일 <뉴욕 타임스>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여, 당신이 우리 아들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무함마드가 했던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겸손하고 관대한 내 아들은 죄가 없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 껴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할 땐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다.<br/><br/> 교사인 소틀로프의 어머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암 덩어리’로 규정한 이슬람국가의 수장 바그다디를 ‘칼리프’라고 불렀다. 아들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국가는 지난주 미국의 폭격에 대응해, 미국 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한 바 있다. 이때 소틀로프를 공개했으며, 그도 참수하겠다고 위협했다.<br/><br/> 셜리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함께 비밀리에 석방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서 직접 호소에 나섰다. 아들이 실종된 뒤 코란(꾸란)을 공부한 셜리는 “이슬람교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책임질 수 없다는 교리가 있지 않으냐. 아들은 기자에 불과한 만큼 미국 정부의 죄를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br/><br/> 그의 소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시리아의 이슬람국가 반군을 정찰하는 등 공습이 임박했고, 이슬람국가의 반미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br/><br/>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7.txt

제목: 백혈병 산재 판결과 기울어진 법정  
날짜: 2014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7100000156  
본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하고 있다.<br/>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200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지 7년이 지났고, 2011년 1심에서 산재 인정 판결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여 다시 3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상고를 제기한다면, 이는 신속·공정하게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공단의 존재 의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공단은 이제라도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br/>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다만 법원이 함께 소송을 낸 3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법원은 이들이 업무 수행 중 벤젠, 삼염화에틸렌 등 유해요인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노출의 수준이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br/>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소송법상 ‘입증책임’을 근거로 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그 인과관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임상실험 등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은 유해요인 노출로부터 발생까지 1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재 발생 시점에서 과거의 유해요인 노출 여부 및 노출량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br/>　빠르게 발전하는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즈음에는 작업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김경미씨의 산재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런 점을 인정해 “<span class='quot0'>발암물질 혹은 발암의심물질에의 노출 여부 및 그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span>”고 판단한 바 있다.<br/>　게다가 현대의학으로도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질병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의 재활과 생존을 지원하는 산재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법정’에서 싸울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br/>　이와 같이 기울어진 법정을 바로 세워야 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32조에 따라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개인적 질병’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은 입증책임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법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된 3명의 사례에 대하여는, 유해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해온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해 본다.<br/>정정훈 변호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8.txt

제목: 3. 안전한 비즈니스 /작업 5분만에 공장건물 와르르…“폴리, 폴리” 동생이 안보였다  
날짜: 20140827  
기자: /유신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7100000034  
본문: 1990년 이후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건물붕괴 사고만 23건에 이른다. 이 사고들로 1750여명의 의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쉽게 불이 붙는 원단이 가득한 공장에 소방설비는 갖춰지지 않았고, 대피로는 잠겨 있었다. 부실하게 지은 건물에 무거운 발전기와 기계들을 밀어넣었다. 비슷한 원인,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는 인명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수십~수백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방글라데시의 공장주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비극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이다.<br/><br/><br/>2013년 4월24일, 공장 앞은 어수선했다. 전날 휴가중인 달리아에게 조장 슈문이 전화를 걸어와 건물 벽에 금이 많이 가 수리하느라 공장이 하루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이날은 공장 문을 열지 어쩔지 몰랐지만, 노동자들은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일단 8시까지 출근을 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건물 안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br/>　웅성거리는 노동자들에게 팬텀어패럴 생산책임자 이무란이 소리를 쳤다. “<span class='quot0'>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출근 보너스’를 못 받는다.</span>” 방글라데시 의류공장들은 노동자들의 지각과 결근을 막기 위해 ‘출근 보너스’를 준다. 보통 월 200타카(약 2600원)인 출근 보너스를 받으려 달리아와 동생 폴리는 매일 아침 30분씩 부지런히 걸었고, 늦잠이라도 잔 날이면 아깝지만 15타카를 내고 릭샤를 탔다. “월급에서 지각 벌금으로 1000타카(약 1만3000원)를 깔 수 있다.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무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건물주 소헬 라나까지 나타났다. “건물은 안전하다. 작은 금이 있었고, 어제 기술자들이 와서 고쳤다. 문제없으니까 들어가라.” 공장장들과 마스탄(폭력배)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왔다. 팬텀어패럴 공장장 자말이 “대량선적물량 마감이 닥쳤다. 빨리 일해야 된다”고 소리쳤다.<br/>　나흘 전 토요일 잔업까지 마친 자매는 3일짜리 휴가를 받았다. 폴리의 맞선을 위해 아버지와 두 자매는 네프로코나의 고향 마을로 향했다. 달리아 가족이 고향을 떠나 다카 교외 사바르로 이사한 것은 2008년이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구점이 망했고 15만타카(약 200만원)나 되는 큰 빚을 얻었다.<br/>　이사온 다음날부터 달리아는 이모의 손을 잡고 의류공장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눈치가 빠르고 손이 야무진 달리아는 일을 빨리 배웠다. 한달 반 만에 보조를 그만두고 재봉틀을 잡았다. 2000타카(약 2만6000원)로 시작한 월급은 공장을 옮길 때마다 올라 팬텀어패럴에서는 9000타카를 받았다. 2010년 폴리도 언니를 따라 팬텀어패럴에 합류했다. 폴리도 일을 시작한 지 한달 만에 재봉틀을 잡았다.<br/>　야채 노점상을 하던 아버지도 “알라의 도움으로” 곧 집 근처 시장에 야채가게를 냈다. 가족은 4년을 부지런히 일해 빚을 모두 갚았다. 이제 각각 스물셋, 스물둘이 된 딸들의 결혼을 생각할 만큼 여유가 생겼다. 폴리의 신랑감은 같은 고향 출신의 군인이었다. 유엔 작전에 자원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군인은 방글라데시에서 선망의 대상이다. 그제껏 사진 속 폴리만 본 군인은 다행히 신붓감을 마음에 들어했다.<br/>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달리아와 폴리는 팬텀어패럴, 뉴웨이브, 에더텍스 등 3개 공장 노동자 3000여명과 함께 상점과 은행 등이 모두 대피한 건물 안으로 떠밀리듯 들어갔다. 건물 4층, 약 130명이 일렬로 앉아 일하는 C라인에서 자매는 약 25미터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재봉틀 앞에 앉았다. 영국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프라이마크’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 재봉틀을 돌렸다. 재봉틀은 곧 멈췄다. 정전이었다. 전력 사정이 안 좋은 방글라데시에서는 매일 서너번씩 전기가 나간다. 이윽고 건물 층마다 설치된 발전기가 커다란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며 돌아가기 시작했다.<br/>　작업이 재개되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굉음과 함께 뿌연 먼지가 달리아의 시야를 가렸다.<br/>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바깥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색 먼지를 뒤집어쓴 몸 곳곳이 욱신거렸다. 팔과 무릎에서 피가 났다. 눈을 들어보니 공장이 있던 8층 높이 라나플라자 건물이 주저앉아 있었다. 아수라장 속에서 달리아를 발견한 낯선 사람들이 달려와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 달리아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아직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잔해 주위를 기어다니며 외쳤다. “폴리, 폴리.”<br/><br/>코린트식 기둥 위에 돔형 지붕을 얹은 현관, 긴 회랑으로 둘러싸인 정원, 흰 대리석 바닥이 특징인 다카 고등법원은 유럽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충실히 따른 건축물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05년 동벵골(지금의 방글라데시)과 아삼(지금의 인도 북동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의 관저로 지어졌다. 1858년부터 1947년까지 이 나라에서 홍차와 황마 등을 헐값에 가져간 서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된 옷을 헐값에 가져간다.<br/>　라나플라자 붕괴 나흘 뒤인 지난해 4월28일 사이디야 굴룩을 비롯한 세 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고등법원을 찾았다. 타즈린패션 화재사건 피해자들을 돕던 이들은 라나플라자 붕괴를 목격하면서 사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만이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br/>　라나플라자 붕괴로부터 꼭 5개월 전인 2012년 11월24일 다카 외곽 아슐리아 지역에 자리한 타즈린패션 공장에서 불이 났다. 3층까지만 짓도록 허가를 받은 건물은 9층까지 지어졌다. 1층에는 쉽게 불이 붙는 원단이 가득 쌓여 있었다. 비상탈출 계단은 없었다. 각 층 입구마다 설치된 철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5층까지 집어삼켰다. 쇠창살이나 대형 환풍기를 간신히 뜯어내고 뛰어내린 노동자들은 부상을 입었다. 그러지 못한 최소 112명의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다.<br/>　여성 활동가들은 이날 고등법원에 타즈린패션 화재 책임자들을 신속히 재판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이들의 청원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리를 연 5월30일, 화재 발생 반년여 만에 타즈린패션의 모기업인 투바그룹의 소유주 델와르 호세인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법무장관 출신 변호사 피다 모하마드 카말이 변호를 맡았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에 나온 델와르 호세인은 의기양양했다. 그는 사이디야와 친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br/>　델와르 호세인의 태도는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의류기업인들의 이익단체인 방글라데시의류제조수출협회(BGMEA) 회원이었다. 현지 최대 규모 의류기업 중 하나인 모함마디 그룹의 루바나 헉 사장은 “델와르는 협회 고위층과 매우 가깝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타즈린 화재 직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타즈린패션 화재 하루 뒤 아슐리아 경찰서는 ‘신원미상’의 가해자들을 입건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까지 나서서 신속한 수사를 장담했지만,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수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br/>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0%를 의류산업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협회와 기업인들의 힘은 막강하다. 다카 시내 하티르질 호숫가에 서 있는 협회 본부 건물은 의류업계의 힘을 상징한다. 2008년 완공된 15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국유지 위에 지어졌고, 건축과 환경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 2011년 고등법원은 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굳건히 버티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식적으로 방글라데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9명이 의류기업 소유주다.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까지 합하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의류산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현지 노동단체들은 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의류공장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조사해온 현지 여성단체 우비니그의 파리다 악터 사무처장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대부분 의류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다. 대다수 언론사도 의류산업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br/>　여성 활동가들의 청원에 따라 고등법원이 경찰을 압박했지만 델와르 호세인에 대한 수사는 더디기만 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13개월 만인 2013년 12월22일에야 델와르 호세인을 비롯한 13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델와르 호세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br/><br/>지난 2월9일 아침, 여성 활동가 사이디야는 타즈린패션 생존자 수마야와 함께 병원에서 의료진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마야는 화재 당시 2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다쳤다. 그 직후 코에서 발생한 근섬유종양이 눈과 뇌까지 퍼졌고,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오전 9시30분께 사이디야는 법원에 출입하는 기자 친구로부터 델와르 호세인이 법원에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도주한 뒤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보석을 신청하러 온 것 같다는 게 기자의 설명이었다. 사이디야는 다른 활동가들에게 재빨리 소식을 알리고 릭샤에 올라탔다.<br/>　법정 안에는 거의 10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델와르 호세인을 변호하러 나왔다. 변호사 가운데 한명이 갑자기 외국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치켜들었다. 노란색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 하늘색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 파란색 이탈리아 대표팀 유니폼이었다. 변호사는 “투바그룹이 피파(FIFA·국제축구연맹)로부터 브라질 월드컵대회 계약을 따냈다. 회장이 구속되면 계약대로 납품할 수 없을 것이다. 방글라데시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껏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공장주들이 구속된 적이 없는데 왜 호세인만 구속되어야 하느냐’, ‘호세인이 아니라 공장 관리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잇따랐다.<br/>　그사이 언론사들은 인터넷으로 델와르 호세인의 보석신청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법정 안에 50여명의 기자가 모여들었다. 법정 밖에서 “사주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한참 동안 굳은 표정을 짓고 있던 판사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보석을 기각한다.” 델와르 호세인은 법정구속됐다. 화재 발생 후 약 15개월 만이었다. 법정 안에서 환호성이 울렸다. 법정 밖으로 나온 사이디야의 눈에 수백명의 시민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사주 처벌”을 끝없이 외쳤다.<br/>　사이디야는 “경찰과 지방법원은 워낙 부패가 심하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청원한 것이다. 그래도 솔직히 델와르 호세인이 보석으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다. 1990년 사라카가먼츠 화재 이후 계속된 사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공장주가 처벌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br/>　하지만 라나플라자 사건을 계기로 공장주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관행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것이었다. 라나플라자 건물주 소헬 라나는 사건 나흘 만에 이웃나라 인도로 탈출을 시도하다 국경 지역에서 체포됐다. 집권 여당인 아와미연맹의 지구당 간부인 그는 건축기준을 무시한 건물을 지어올렸다. 지난 3월24일 법원은 소헬 라나의 건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보석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보석신청도 받아들여지면 소헬 라나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br/>↗<br/><br/><br/>↘<br/>등을 떠밀다시피 노동자들을 위험한 건물로 밀어넣은 라나플라자 입주 공장 소유주 2명은 진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5일에는 타즈린패션 소유주 델와르 호세인이 수감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방글라데시의류제조수출협회는 사건 직후부터 델와르 호세인과 소헬 라나 등의 보석을 청원해왔다.<br/><br/>라나플라자 건물 잔해 속에서 달리아의 동생 폴리의 주검이 발견된 것은 사고 8일 뒤였다. 그사이 달리아의 가족은 폴리를 찾기 위해 신랑감에게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을 수천장 인쇄했다. 고향 마을에서 올라온 친척과 친구들까지 라나플라자 붕괴 현장과 병원, 수많은 주검이 안치된 학교 운동장을 뒤지고 다녔다.<br/>　희생된 의류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더디기만 하다. 지금까지 달리아의 가족은 지방정부로부터 장례비 2만타카(약 26만원), 총리실로부터 긴급지원금 10만타카, 바이어인 프라이마크로부터 4만5000타카 등 모두 16만5000타카(약 216만원)를 받았다. 폴리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은 언제 얼마를 받게 될지 모른다. 사건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체 사망자가 몇 명인지 불분명하다. 현지 노동단체인 의류노동자연대 활동가 타슬리마 악터는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많다. 노동부, 군, 경찰이 저마다 다른 숫자를 내놓고 있다. 신원확인을 못하고 매장한 주검도 291구나 된다. 사망보상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좀처럼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br/>　21개월 전 일어난 타즈린패션 화재 사망자들의 보상금도 아직 다 지급되지 않았다. 최소 112명의 사망자 가운데 주검이 확인된 99명의 유족들은 70만타카(약 910만원)씩 받았다. 진화에 17시간이 걸린 불길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주검은 재로 변했다. 유전자 감식으로 13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노동자 가족들을 상대로 2년 가까이 조사를 벌여온 사이디야 굴룩은 최소 12명에서 최대 23명의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아사두자만은 이 화재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고용주의 잘못으로 일어난 게 명백한 만큼 70만타카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타즈린패션 공장의 불길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왔지만 암을 얻은 수마야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지난 3월21일 숨졌다. 라나플라자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달리아는 지난해 9월부터 또다른 의류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덕분에 팬텀어패럴에서보다 약 1000타카 많은 1만타카(약 13만원)를 월급으로 받는다. <br/> 하루아침에 1129명의 사망자와 2500여명의 부상자가 나온 마을에서 아버지의 야채가게는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br/> <br/> 다카/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79.txt

제목: [세상 읽기] 백혈병 산재 판결과 기울어진 법정 / 정정훈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610015060796  
본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하고 있다.<br/><br/>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200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지 7년이 지났고, 2011년 1심에서 산재 인정 판결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여 다시 3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상고를 제기한다면, 이는 신속·공정하게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공단의 존재 의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공단은 이제라도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br/><br/>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다만 법원이 함께 소송을 낸 3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법원은 이들이 업무 수행 중 벤젠, 삼염화에틸렌 등 유해요인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노출의 수준이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br/><br/>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소송법상 ‘입증책임’을 근거로 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그 인과관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임상실험 등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은 유해요인 노출로부터 발생까지 1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재 발생 시점에서 과거의 유해요인 노출 여부 및 노출량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br/><br/> 빠르게 발전하는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즈음에는 작업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김경미씨의 산재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런 점을 인정해 “<span class='quot0'>발암물질 혹은 발암의심물질에의 노출 여부 및 그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span>”고 판단한 바 있다.<br/><br/> 게다가 현대의학으로도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질병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의 재활과 생존을 지원하는 산재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법정’에서 싸울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br/><br/> 이와 같이 기울어진 법정을 바로 세워야 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32조에 따라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개인적 질병’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은 입증책임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법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된 3명의 사례에 대하여는, 유해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해온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해 본다. <br/><br/>정정훈 변호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0.txt

제목: 작업 5분 만에 공장 건물이 와르르…동생이 안 보였다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610015061095  
본문: 1990년 이후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건물붕괴 사고만 23건에 이른다. 이 사고들로 1750여명의 의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쉽게 불이 붙는 원단이 가득한 공장에 소방설비는 갖춰지지 않았고, 대피로는 잠겨 있었다. 부실하게 지은 건물에 무거운 발전기와 기계들을 밀어넣었다. 비슷한 원인,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는 인명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수십~수백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방글라데시의 공장주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비극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이다.<br/><br/><br/><br/><br/><br/> 2013년 4월24일, 공장 앞은 어수선했다. 전날 휴가중인 달리아에게 조장 슈문이 전화를 걸어와 건물 벽에 금이 많이 가 수리하느라 공장이 하루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이날은 공장 문을 열지 어쩔지 몰랐지만, 노동자들은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일단 8시까지 출근을 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건물 안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br/><br/> 웅성거리는 노동자들에게 팬텀어패럴 생산책임자 이무란이 소리를 쳤다. “<span class='quot0'>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출근 보너스’를 못 받는다.</span>” 방글라데시 의류공장들은 노동자들의 지각과 결근을 막기 위해 ‘출근 보너스’를 준다. 보통 월 200타카(약 2600원)인 출근 보너스를 받으려 달리아와 동생 폴리는 매일 아침 30분씩 부지런히 걸었고, 늦잠이라도 잔 날이면 아깝지만 15타카를 내고 릭샤를 탔다. “월급에서 지각 벌금으로 1000타카(약 1만3000원)를 깔 수 있다.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무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건물주 소헬 라나까지 나타났다. “건물은 안전하다. 작은 금이 있었고, 어제 기술자들이 와서 고쳤다. 문제없으니까 들어가라.” 공장장들과 마스탄(폭력배)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왔다. 팬텀어패럴 공장장 자말이 “대량선적물량 마감이 닥쳤다. 빨리 일해야 된다”고 소리쳤다.<br/><br/> 나흘 전 토요일 잔업까지 마친 자매는 3일짜리 휴가를 받았다. 폴리의 맞선을 위해 아버지와 두 자매는 네프로코나의 고향 마을로 향했다. 달리아 가족이 고향을 떠나 다카 교외 사바르로 이사한 것은 2008년이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구점이 망했고 15만타카(약 200만원)나 되는 큰 빚을 얻었다.<br/><br/> 이사온 다음날부터 달리아는 이모의 손을 잡고 의류공장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눈치가 빠르고 손이 야무진 달리아는 일을 빨리 배웠다. 한달 반 만에 보조를 그만두고 재봉틀을 잡았다. 2000타카(약 2만6000원)로 시작한 월급은 공장을 옮길 때마다 올라 팬텀어패럴에서는 9000타카를 받았다. 2010년 폴리도 언니를 따라 팬텀어패럴에 합류했다. 폴리도 일을 시작한 지 한달 만에 재봉틀을 잡았다.<br/><br/> 야채 노점상을 하던 아버지도 “알라의 도움으로” 곧 집 근처 시장에 야채가게를 냈다. 가족은 4년을 부지런히 일해 빚을 모두 갚았다. 이제 각각 스물셋, 스물둘이 된 딸들의 결혼을 생각할 만큼 여유가 생겼다. 폴리의 신랑감은 같은 고향 출신의 군인이었다. 유엔 작전에 자원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군인은 방글라데시에서 선망의 대상이다. 그제껏 사진 속 폴리만 본 군인은 다행히 신붓감을 마음에 들어했다.<br/><br/>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달리아와 폴리는 팬텀어패럴, 뉴웨이브, 에더텍스 등 3개 공장 노동자 3000여명과 함께 상점과 은행 등이 모두 대피한 건물 안으로 떠밀리듯 들어갔다. 건물 4층, 약 130명이 일렬로 앉아 일하는 C라인에서 자매는 약 25미터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재봉틀 앞에 앉았다. 영국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프라이마크’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 재봉틀을 돌렸다. 재봉틀은 곧 멈췄다. 정전이었다. 전력 사정이 안 좋은 방글라데시에서는 매일 서너번씩 전기가 나간다. 이윽고 건물 층마다 설치된 발전기가 커다란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며 돌아가기 시작했다.<br/><br/> 작업이 재개되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굉음과 함께 뿌연 먼지가 달리아의 시야를 가렸다.<br/><br/>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바깥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색 먼지를 뒤집어쓴 몸 곳곳이 욱신거렸다. 팔과 무릎에서 피가 났다. 눈을 들어보니 공장이 있던 8층 높이 라나플라자 건물이 주저앉아 있었다. 아수라장 속에서 달리아를 발견한 낯선 사람들이 달려와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 달리아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아직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잔해 주위를 기어다니며 외쳤다. “폴리, 폴리.”<br/><br/><br/><br/>2013. 4. 24 라나플라자 붕괴 <br/><br/>8일만에 폴리는 주검으로 발견 <br/>주검 못찾은 실종자 많아 <br/>아직도 전체 사망자 수 불분명 <br/>공장주는 풀려나고 <br/>건물주 보석 신청도 수용돼<br/><br/> 코린트식 기둥 위에 돔형 지붕을 얹은 현관, 긴 회랑으로 둘러싸인 정원, 흰 대리석 바닥이 특징인 다카 고등법원은 유럽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충실히 따른 건축물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05년 동벵골(지금의 방글라데시)과 아삼(지금의 인도 북동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의 관저로 지어졌다. 1858년부터 1947년까지 이 나라에서 홍차와 황마 등을 헐값에 가져간 서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된 옷을 헐값에 가져간다.<br/><br/> 라나플라자 붕괴 나흘 뒤인 지난해 4월28일 사이디야 굴룩을 비롯한 세 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고등법원을 찾았다. 타즈린패션 화재사건 피해자들을 돕던 이들은 라나플라자 붕괴를 목격하면서 사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만이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br/><br/> 라나플라자 붕괴로부터 꼭 5개월 전인 2012년 11월24일 다카 외곽 아슐리아 지역에 자리한 타즈린패션 공장에서 불이 났다. 3층까지만 짓도록 허가를 받은 건물은 9층까지 지어졌다. 1층에는 쉽게 불이 붙는 원단이 가득 쌓여 있었다. 비상탈출 계단은 없었다. 각 층 입구마다 설치된 철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5층까지 집어삼켰다. 쇠창살이나 대형 환풍기를 간신히 뜯어내고 뛰어내린 노동자들은 부상을 입었다. 그러지 못한 최소 112명의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다.<br/><br/> 여성 활동가들은 이날 고등법원에 타즈린패션 화재 책임자들을 신속히 재판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이들의 청원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리를 연 5월30일, 화재 발생 반년여 만에 타즈린패션의 모기업인 투바그룹의 소유주 델와르 호세인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법무장관 출신 변호사 피다 모하마드 카말이 변호를 맡았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에 나온 델와르 호세인은 의기양양했다. 그는 사이디야와 친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br/><br/> 델와르 호세인의 태도는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의류기업인들의 이익단체인 방글라데시의류제조수출협회(BGMEA) 회원이었다. 현지 최대 규모 의류기업 중 하나인 모함마디 그룹의 루바나 헉 사장은 “델와르는 협회 고위층과 매우 가깝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타즈린 화재 직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타즈린패션 화재 하루 뒤 아슐리아 경찰서는 ‘신원미상’의 가해자들을 입건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까지 나서서 신속한 수사를 장담했지만,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수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br/><br/>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0%를 의류산업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협회와 기업인들의 힘은 막강하다. 다카 시내 하티르질 호숫가에 서 있는 협회 본부 건물은 의류업계의 힘을 상징한다. 2008년 완공된 15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국유지 위에 지어졌고, 건축과 환경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 2011년 고등법원은 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굳건히 버티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식적으로 방글라데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9명이 의류기업 소유주다.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까지 합하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의류산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현지 노동단체들은 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의류공장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조사해온 현지 여성단체 우비니그의 파리다 악터 사무처장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대부분 의류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다. 대다수 언론사도 의류산업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br/><br/> 여성 활동가들의 청원에 따라 고등법원이 경찰을 압박했지만 델와르 호세인에 대한 수사는 더디기만 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13개월 만인 2013년 12월22일에야 델와르 호세인을 비롯한 13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델와르 호세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2012. 11. 24 타즈린패션 공장 화재<br/><br/>3층 건축허가 받고 9층까지 지어 <br/>각층 철문 잠기고 비상계단 없어 <br/>최소 112명 노동자 참변당해 <br/> 기업주 “구속되면 수출 타격” <br/>수감 6개월 만에 풀려나<br/><br/> 지난 2월9일 아침, 여성 활동가 사이디야는 타즈린패션 생존자 수마야와 함께 병원에서 의료진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마야는 화재 당시 2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다쳤다. 그 직후 코에서 발생한 근섬유종양이 눈과 뇌까지 퍼졌고,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오전 9시30분께 사이디야는 법원에 출입하는 기자 친구로부터 델와르 호세인이 법원에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도주한 뒤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보석을 신청하러 온 것 같다는 게 기자의 설명이었다. 사이디야는 다른 활동가들에게 재빨리 소식을 알리고 릭샤에 올라탔다.<br/><br/> 법정 안에는 거의 10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델와르 호세인을 변호하러 나왔다. 변호사 가운데 한명이 갑자기 외국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치켜들었다. 노란색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 하늘색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 파란색 이탈리아 대표팀 유니폼이었다. 변호사는 “투바그룹이 피파(FIFA·국제축구연맹)로부터 브라질 월드컵대회 계약을 따냈다. 회장이 구속되면 계약대로 납품할 수 없을 것이다. 방글라데시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껏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공장주들이 구속된 적이 없는데 왜 호세인만 구속되어야 하느냐’, ‘호세인이 아니라 공장 관리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잇따랐다.<br/><br/> 그사이 언론사들은 인터넷으로 델와르 호세인의 보석신청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법정 안에 50여명의 기자가 모여들었다. 법정 밖에서 “사주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한참 동안 굳은 표정을 짓고 있던 판사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보석을 기각한다.” 델와르 호세인은 법정구속됐다. 화재 발생 후 약 15개월 만이었다. 법정 안에서 환호성이 울렸다. 법정 밖으로 나온 사이디야의 눈에 수백명의 시민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사주 처벌”을 끝없이 외쳤다.<br/><br/> 사이디야는 “경찰과 지방법원은 워낙 부패가 심하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청원한 것이다. 그래도 솔직히 델와르 호세인이 보석으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다. 1990년 사라카가먼츠 화재 이후 계속된 사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공장주가 처벌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br/><br/> 하지만 라나플라자 사건을 계기로 공장주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관행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것이었다. 라나플라자 건물주 소헬 라나는 사건 나흘 만에 이웃나라 인도로 탈출을 시도하다 국경 지역에서 체포됐다. 집권 여당인 아와미연맹의 지구당 간부인 그는 건축기준을 무시한 건물을 지어올렸다. 지난 3월24일 법원은 소헬 라나의 건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보석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보석신청도 받아들여지면 소헬 라나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등을 떠밀다시피 노동자들을 위험한 건물로 밀어넣은 라나플라자 입주 공장 소유주 2명은 진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5일에는 타즈린패션 소유주 델와르 호세인이 수감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방글라데시의류제조수출협회는 사건 직후부터 델와르 호세인과 소헬 라나 등의 보석을 청원해왔다.<br/><br/><br/><br/> 라나플라자 건물 잔해 속에서 달리아의 동생 폴리의 주검이 발견된 것은 사고 8일 뒤였다. 그사이 달리아의 가족은 폴리를 찾기 위해 신랑감에게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을 수천장 인쇄했다. 고향 마을에서 올라온 친척과 친구들까지 라나플라자 붕괴 현장과 병원, 수많은 주검이 안치된 학교 운동장을 뒤지고 다녔다.<br/><br/> 희생된 의류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더디기만 하다. 지금까지 달리아의 가족은 지방정부로부터 장례비 2만타카(약 26만원), 총리실로부터 긴급지원금 10만타카, 바이어인 프라이마크로부터 4만5000타카 등 모두 16만5000타카(약 216만원)를 받았다. 폴리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은 언제 얼마를 받게 될지 모른다. 사건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체 사망자가 몇 명인지 불분명하다. 현지 노동단체인 의류노동자연대 활동가 타슬리마 악터는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많다. 노동부, 군, 경찰이 저마다 다른 숫자를 내놓고 있다. 신원확인을 못하고 매장한 주검도 291구나 된다. 사망보상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좀처럼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br/><br/> 21개월 전 일어난 타즈린패션 화재 사망자들의 보상금도 아직 다 지급되지 않았다. 최소 112명의 사망자 가운데 주검이 확인된 99명의 유족들은 70만타카(약 910만원)씩 받았다. 진화에 17시간이 걸린 불길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주검은 재로 변했다. 유전자 감식으로 13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노동자 가족들을 상대로 2년 가까이 조사를 벌여온 사이디야 굴룩은 최소 12명에서 최대 23명의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아사두자만은 이 화재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고용주의 잘못으로 일어난 게 명백한 만큼 70만타카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br/> 타즈린패션 공장의 불길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왔지만 암을 얻은 수마야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지난 3월21일 숨졌다. 라나플라자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달리아는 지난해 9월부터 또다른 의류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덕분에 팬텀어패럴에서보다 약 1000타카 많은 1만타카(약 13만원)를 월급으로 받는다. 하루아침에 1129명의 사망자와 2500여명의 부상자가 나온 마을에서 아버지의 야채가게는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 <br/><br/>다카/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1.txt

제목: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배우 김진아씨 별세  
날짜: 20140822  
기자: duck@hani.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2100000020  
본문: 등으로 1980년대를 풍미한 배우 김진아(사진)씨가 20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0.<br/>　김씨의 동생인 탤런트 김진근씨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span class='quot0'>김진근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br/>　1998년 세상을 뜬 배우 김진규씨와 김보애씨의 딸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봄 말기 암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원아트미디어는 “고인의 정확한 병명은 확인이 안 된다. 말기 암이었다는 사실만 안다”며 “김진근씨와 가족들이 지난 두달 하와이에서 김진아씨와 함께 보냈고 임종도 지켰다. 김진근씨는 장례를 치르고 내달 중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br/>　1983년 영화 로 데뷔한 김씨는 이후 등의 작품에 쉼없이 출연하며 섹시한 이미지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01년에는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방송에서도 활동했으며, 극 중 산부인과 의사 역을 맡았던 2010년 가 가장 마지막으로 출연한 영화가 됐다. 김씨는 미국인 남편, 아들과 함께 그동안 하와이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2011년 에스비에스 ‘스타 부부쇼-자기야’에 출연하고 올해 초에도 방송을 통해 연예계 복귀 계획을 밝히는 등 연예계와 계속 끈을 이어왔다. <b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2.txt

제목: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배우 김진아씨 별세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110015027616  
본문: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등으로 1980년대를 풍미한 배우 김진아(사진)씨가 20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0.<br/><br/> 김씨의 동생인 탤런트 김진근씨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span class='quot0'>김진근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br/><br/> 1998년 세상을 뜬 배우 김진규씨와 김보애씨의 딸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봄 말기 암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원아트미디어는 “고인의 정확한 병명은 확인이 안 된다. 말기 암이었다는 사실만 안다”며 “김진근씨와 가족들이 지난 두달 하와이에서 김진아씨와 함께 보냈고 임종도 지켰다. 김진근씨는 장례를 치르고 내달 중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김씨는 이후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내시> <연산일기> 등의 작품에 쉼없이 출연하며 섹시한 이미지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01년에는 드라마 <명성황후> <사랑> 등에 출연하며 방송에서도 활동했으며, 극 중 산부인과 의사 역을 맡았던 2010년 <하녀>가 가장 마지막으로 출연한 영화가 됐다. 김씨는 미국인 남편, 아들과 함께 그동안 하와이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2011년 SBS ‘스타 부부쇼-자기야’에 출연하고 올해 초에도 방송을 통해 연예계 복귀 계획을 밝히는 등 연예계와 계속 끈을 이어왔다. <br/><b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3.txt

제목: 이 화장실이 그 화장실인 줄 알았지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1100000127  
본문: 때는 늦가을이었고 단풍이 절정을 이뤘다는 뉴스가 지나간 지 열흘쯤 되어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사람 많은 건 싫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 나는 혼자 설악산에 다녀오던 참이었다. 숙박업소도 한산했고 관광지 주차장도 거의 비어 있었다. 철 지난 노래를 빌리면 철 지난 바닷가를 홀로 걷는 기분이랄까. 그게 괜찮았다. 조금 더 노래를 따라가자면 ‘달빛은 모래 위에 싱그러운데 아 소리치며 우는 저 파도와 같이 무척이나 당신을 그리워했지’에 어울릴 날씨였다. 누릴 것을 다 누렸으니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br/>　장기에 불순물이 많이 쌓였다, 쓸모를 다한 짐을 바깥으로 배출하라는 신호를 계속 내부에서 보내오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에 드는 ‘철 지난 바닷가 같은’ 풍경의 휴게소가 없다는 이유로 나타나는 내면의 요구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었다. 내가 운전하는 차의 연료통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배출’에 반대되는 ‘투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연료 단가가 주유소마다 달랐고 마음에 드는 단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또한 내가 신체의 절박한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이유가 되었다.<br/>　마침내 더 이상은 무도한 주인의 전횡적인 무시를 참지 못하겠다는 신체 최말단기관의 요구, 그리고 최저는 아니지만 차차차최저가는 되겠다는 연료 단가가 맞아떨어져서 나는 차를 끌고 어느 휴게소에 들어갔다. 일단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이에 차를 대고 사방을 둘러보니 나 말고는 여행객 차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다. 주유기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가 눈이 빠져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으로 사방은 적막했다. 나는 지체 없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모두 문이 열려 있는 다섯 개의 칸에서 가까운 칸으로 들어갔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칸을 사용하는 확률은 2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기 때문이었다.<br/>　화장실 내부는 비교적 깨끗했고 휴지도 충분했다. ‘선주민’의 흔적은 시각적, 후각적으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웃의 칸에도 사람이 있다는 신호는 없었다. 나는 최대한 느긋하게 앉아서 최근의 일 가운데 가장 기억해둘 만한 것에 대해 떠올리려 했다. 또한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만남에 대해서도 상상하려고 애썼다. 시간이 남아서 우주가 앞으로 언제까지 더 확장될 것이며 언제 수축을 시작할 것인지 계산했다. 화장실에서 하는 일이 대개 그런 일이니까. 당신들은… 아닌가?<br/>　그런데 갑자기 나의 엄숙한 명상을 깨뜨리며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것이 존재의 속성이 된 듯한 사람들이 화장실 안으로 밀어닥쳤다. 그들은 짐작하건대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 사이의 여성들이었으며 두 대의 관광버스에 나누어 타고 설악산으로 단풍관광을 다녀오는 사람들이었다.<br/>　‘아니 동방예의지국에서 남녀가 유별한 법이거늘, 아무리 화장실이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 때문에 부족하기로서니 어찌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제집인 양 활개를 치며 쓸 수가 있단 말인가?’<br/>　그거야 내 마음속의 어떤 고리타분한 캐릭터의 소리이고 실제로 발음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들이 내 얼굴을 보고 자신들의 몰염치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이 걱정되기도 했다.<br/>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한 공공장소의 화장실은 칸수로 보면 남녀가 비슷한데 남성은 대소변 변기가 구분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비민주적이거나 불평등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지는 오래되었다. 새로 생긴 화장실들은 그런 점에 유의해서 여성 화장실의 칸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있던 휴게소하고도 화장실은 지은 지 20년은 된 곳으로 그런 배려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무튼 사람 없는 휴게소의 사람 없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많은 여성 사용자를 만나고 그들 때문에 화장실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br/>　“아까부터 이 앞칸에 들어앉아 있는 문디 가시나는 누고? 누길래 아까부터 이래 안 나오고 안에서 끽소리도 안 내고 앉아만 있나? 혹시 담배 피우는 거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마 벌금이 얼만지 아나?”<br/>　거센 경상도 사투리로 나를 질타하며 심지어 발로 문을 걷어차는 여자가 나타났다. 나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고 맞서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적어도 십 대 일은 될 상황에서 상대는 사정이 급하고 나는 볼일을 다 보았으니 전의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br/>　“야야, 담배 다 피았으마 좀 나와라카이! 여 기다리는 사람이 및인데, 니는 미안토 안 하나? 신고해서 벌금 안 물리꾸마 후딱 나오기나 해라.”<br/>　어떤 여자는 아예 나를 공중화장실에서 담배나 피우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정말 홧김에 나가버릴 뻔했다.<br/>　“언니야, 일로 와라. 여기 자리 ?뭅? 그 칸은 아까부터 암 소리도 안 나는 기 문이 고장난 거 겉다.”<br/>　다행히 어떤 자비로운 여성이 나를 구원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옆칸, 아니 화장실 전체적으로 특정한 향기를 품은 기체, 액상물질, 고형물질을 신체 밖으로 배출하는 인간들의 생리현상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음향이 그치지 않고 나고 있었고 물 내리는 소리, 물이 다시 고이는 소리 등으로 내 한숨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br/>　“<span class='quot0'>그런데 이 공무원 자슥들은 세금 받아가 다 어데다 쓰길래 여자 변소를 이래 좁아터지기 만들고 기다리다가 오줌 다 싸게 만드는가 모르겠다.</span>”<br/>　“그랜께 이럴 때는 옆에 남자 변소 같은 데라도 개방해서 쓰기 해줘야 한다 칸께네. 아까도 보이 버스 기사 혼자 들어가서 일분도 안 걸리가 나오더라. 지금도 저쪽은 텅텅 비아 있다.”<br/>　내 머리가 하얘졌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부가, 과도한 조명이 비친 무대처럼.<br/>　“<span class='quot0'>강간버스는 언제 간다 카더노?</span>”<br/>　“아직 한 오분은 남았어예.”<br/>　“<span class='quot0'>한 칸은 고장까지 난 변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쓸 수나 있을랑가 모르겄다.</span>” “<span class='quot0'>암만 급해도 똥 누는 사람 놔두고 가기야 할라꼬.</span>”<br/>　“나는 일주일째 변비라카이. 클났어.”<br/>　여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허벅지가 저려왔고 쥐가 내렸지만 나는 비명조차 내지 못했다.<br/>　“<span class='quot0'>이 칸은 끝까지 속 씩인다.</span>”<br/>　마지막 여자가 내가 들어 있는 칸의 문을 부서져라 걷어차는 바람에 문짝이 떨어져나가는 줄 알았다. 나는 온몸으로 문짝을 붙들고 버텼다.<br/>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서 이십여 분이 흐른 뒤 밖으로 나와 보니 주차장에 서 있는 버스로 단풍에 질세라 알록달록하게 옷을 차려입은 손님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였다. 그들은 손에 뜨거운 음식이 든 종이컵이며 상대적으로 싸고 맛있어 보이는 지역 특산 과일을 사들고 있었다. 멍청하게 서 있는 내 머리 위에 있는 화장실 표시에는 치마를 입은 사람 모양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br/>　나는 버스에 가까이 갔다. 거의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은 어두워오기 시작한 늦은 가을날의 황홀한 저녁놀, 부드러운 바람에 대해 조용조용 담소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br/>성석제<br/>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4.txt

제목: 희망이 떠난 후, 다시 길 위에서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1100000036  
본문: “<span class='quot0'>교황님이 우리나라의 <span class='quot0'>유일한 희망</span>이라 확신합니다.</span>”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오기 직전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김유정(가명)양이 교황에게 보낸 공개편지에 쓴 말이다. 안타깝게도 살아남은 그에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는 없었다. 정치도 언론도 종교도 그들의 비통한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대한 그들의 절망과 교황에 대한 그들의 희망은 정비례했다.<br/>　희망은 무게가 아니라 거리로 잰다. 바티칸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9000㎞. 그 먼 거리를 날아온 교황은 장기 단식 중이던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에게 직접 걸어 다가와 두 손을 잡고 그의 한 맺힌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다. 그때 김영오씨 등에는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대통령님! 힘없는 아빠 쓰러져 죽거든 사랑하는 유민이 곁에 묻어 주세요!” 도대체 청와대는 얼마나 먼 곳에 있는 걸까?<br/>　‘무한책임’을 느낀다던 대통령은 유민이 아빠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곳이 지척인데도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로 찾아간 유가족과 시민을 경찰력을 동원해 막기까지 했다. 그런데 교황은 그 짧은 방한 기간에도 세월호 유가족을 여러번 만나 진심으로 아파해 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었다. 그러니 유가족이 ‘5년’ 임기의 자기 나라 대통령보다도 단지 ‘5일’ 방문했을 뿐인 외국인 교황에게 더 큰 희망을 걸 수밖에.<br/>　하지만 그 “<span class='quot0'>유일한 희망</span>”이 떠났고, 우리는 다시 익숙한 절망을 마주한다. 김영오씨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사십일 가까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물 밑에서 서서히 죽어간 딸의 아빠가 땅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정략적 이해타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말 김수영의 시구처럼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희망이 떠나간 자리의 절망은 얼마나 아픈가, 반성하지 않는 절망은 얼마나 잔인한가!<br/>　절망 속에 남게 될 우리가 너무 안쓰러웠던 것일까? 교황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수차례 희망을 힘주어 말했다. 그중 한마디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작은 촛불처럼 힘과 용기를 준다. “<span class='quot0'>희망은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입니다.</span>” 그가 우리에게 준 것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지도와 나침반이었다. 그것을 들고 절망의 해독제를 찾아 길을 떠나야 하는 이는 교황이 아닌 우리 자신이다.<br/>　루쉰은 “희망은 길과 같다”고 한다. 길이 원래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나는 이들의 무수한 발걸음으로 다져져 나듯이 희망도 그런 부단한 노력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걸어야 한다. 팽목항으로, 안산으로, 국회로,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우리의 삶 속으로… 절망이 반성할 때까지, 절망이 해독될 때까지 몇번이고 몇십번이고 걷고 또 걸어야 한다. 우리의 그 걸음이 ‘<span class='quot0'>유일한 희망</span>’이다.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고쳐 묶자. 갈 길이 멀고 험하다.<br/>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5.txt

제목: 삼척 바다에 꼭 다시 가고 싶다!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1100000026  
본문: 지난 주말 식구들과 간신히 날짜를 맞춰 동해안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사실 이젠 더위가 풀리는 시점이라 피서라는 말은 별로 어울리지 않았지만 광복절 연휴 때문인지 도로는 차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우리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장호항에 짐을 풀었다. 입구에는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이란 문구가 펄럭였다. 그냥 관광객이 눈길 한번 더 주길 바라는 마음이겠거니 하고 별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뿐더러 해가 진 이후여서 확인할 길도 없었다. 식구들과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를 나오니 모두 들떠서 다음날 무엇을 하고 놀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자막 문구가 있었다. ‘8월26일 삼척 원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그랬다. 요즘 하도 이 일 저 일 힘들고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많아서 잊고 있었다. 정부에서 삼척에 새로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을…. ‘투표가 잘되어야 할 텐데’ 걱정을 하면서도 ‘휴가를 어찌 보낼까’ 그 생각이 더 컸다.<br/>　아침을 먹고 부랴부랴 항구에 나가보았다. 작은 어시장에서 생선을 구경하고 투명 카누를 빌려 바닷속을 보면서 뱃놀이를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바다는 참 좋지만 맑고 투명하다는 생각을 해보진 못했다. 그런데 내 눈에 비친 삼척의 바다는 참으로 투명했다. 뱃놀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해변에서 물놀이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바로 바다로 직행하였지만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는 그늘막을 펼치고 앉아 책을 읽고 남편은 잠을 청했다. 한참을 읽다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에 발이라도 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바닷물이 닿는 순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물빛이 참으로 맑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겹쳤다. 물빛이 너무도 투명해서 발밑의 모래가 한 알 한 알 다 보였다.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내 발이 그렇게 오롯이 보인 적이 있었던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다 다시 생각이 떠올랐다. 지난밤 뉴스 자막 한 줄로 지나가던 삼척 원자력발전소…. 어쩌면 이 바다를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참으로 슬프고도 무서웠다.<br/>　정부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체에너지인 것처럼 선전을 해왔다. 더군다나 원전을 가동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아서 청정에너지라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는 데 가장 기초적인 우라늄을 캐낼 때부터 방사능이 나와서 우라늄 광산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곳에 비해 백혈병과 암에 걸리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자료도 이미 공개되었다. 방사능이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깨끗하게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br/>　또한 정부는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예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아주 작은 실수로도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해내기 힘들 거라고들 한다. 눈앞에 작은 이익보다 다가올 미래의 손실이 너무도 클 것임이 자명하다.<br/>　이제 공은 삼척 주민들에게 넘어가 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본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다. 이 아름다운 곳에 꼭 다시 오고 싶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꼭꼭 믿어본다.<br/>김효숙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6.txt

제목: 피검사 한번으로 /암·치매 진단한다  
날짜: 20140820  
기자: /길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0100000024  
본문: 한번의 피검사로 위암이나 대장암을 비롯해 치매까지 진단하는 기술이 일본에서 개발된다.<br/>　일본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국립암센터가 암이 혈액 속에 만들어내는 특이한 물질을 분석해 위암, 대장암, 폐암 등 13가지 암을 진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2018년까지 개발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br/>　이번에 개발되는 신기술이 주목하는 것은 인간 혈액에 포함돼 있는 ‘마이크로아르엔에이(RNA)’라는 물질이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는 모두 2500여종류의 마이크로아르엔에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한 병에 걸리면 혈액 속에 분비되는 마이크로아르엔에이의 종류와 양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각 질병과 특정 마이크로아르엔에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만 있으면, 핏속에 어떤 마이크로아르엔에이가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된다. <br/>　국립암센터 등은 자체 보관중인 환자 7만여명의 혈액을 조사해 각각의 질병과 관련이 있는 특유의 마이크로아르엔에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예비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기법을 통해 유방암의 90%를 잡아낼 수 있었고, 대장암, 췌장암 등 다른 암과의 관련성이 유력한 마이크로아르엔에이 후보를 특정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에는 모두 79억엔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br/>　이 진단법의 또다른 장점은 암의 조기 진단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암에 걸리면 혈액 속에서 분비가 늘어나는 특정 단백질 등을 조사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 등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 검사법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으면 검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아르엔에이는 암의 초기 단계에서도 반응을 해, 조기 진단에 기여할 전망이다. <br/> 오치야 다카히로 국립암센터연구소 분자세포치료연구분야장은 인터뷰에서 “채혈만으로 다양한 암을 검사할 수 있게 되면 환자의 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적어진다. 하루빨리 실용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7.txt

제목: 이 화장실이 그 화장실인 줄 알았지  
날짜: 2014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010015017546  
본문: 때는 늦가을이었고 단풍이 절정을 이뤘다는 뉴스가 지나간 지 열흘쯤 되어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사람 많은 건 싫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 나는 혼자 설악산에 다녀오던 참이었다. 숙박업소도 한산했고 관광지 주차장도 거의 비어 있었다. 철 지난 노래를 빌리면 철 지난 바닷가를 홀로 걷는 기분이랄까. 그게 괜찮았다. 조금 더 노래를 따라가자면 ‘달빛은 모래 위에 싱그러운데 아 소리치며 우는 저 파도와 같이 무척이나 당신을 그리워했지’에 어울릴 날씨였다. 누릴 것을 다 누렸으니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br/><br/> 장기에 불순물이 많이 쌓였다, 쓸모를 다한 짐을 바깥으로 배출하라는 신호를 계속 내부에서 보내오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에 드는 ‘철 지난 바닷가 같은’ 풍경의 휴게소가 없다는 이유로 나타나는 내면의 요구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었다. 내가 운전하는 차의 연료통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배출’에 반대되는 ‘투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연료 단가가 주유소마다 달랐고 마음에 드는 단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또한 내가 신체의 절박한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이유가 되었다.<br/><br/> 마침내 더 이상은 무도한 주인의 전횡적인 무시를 참지 못하겠다는 신체 최말단기관의 요구, 그리고 최저는 아니지만 차차차최저가는 되겠다는 연료 단가가 맞아떨어져서 나는 차를 끌고 어느 휴게소에 들어갔다. 일단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이에 차를 대고 사방을 둘러보니 나 말고는 여행객 차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다. 주유기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가 눈이 빠져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으로 사방은 적막했다. 나는 지체 없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모두 문이 열려 있는 다섯 개의 칸에서 가까운 칸으로 들어갔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칸을 사용하는 확률은 2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기 때문이었다.<br/><br/> 화장실 내부는 비교적 깨끗했고 휴지도 충분했다. ‘선주민’의 흔적은 시각적, 후각적으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웃의 칸에도 사람이 있다는 신호는 없었다. 나는 최대한 느긋하게 앉아서 최근의 일 가운데 가장 기억해둘 만한 것에 대해 떠올리려 했다. 또한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만남에 대해서도 상상하려고 애썼다. 시간이 남아서 우주가 앞으로 언제까지 더 확장될 것이며 언제 수축을 시작할 것인지 계산했다. 화장실에서 하는 일이 대개 그런 일이니까. 당신들은.... 아닌가?<br/><br/> 그런데 갑자기 나의 엄숙한 명상을 깨뜨리며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것이 존재의 속성이 된 듯한 사람들이 화장실 안으로 밀어닥쳤다. 그들은 짐작하건대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 사이의 여성들이었으며 두 대의 관광버스에 나누어 타고 설악산으로 단풍관광을 다녀오는 사람들이었다.<br/><br/> ‘아니 동방예의지국에서 남녀가 유별한 법이거늘, 아무리 화장실이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 때문에 부족하기로서니 어찌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제집인 양 활개를 치며 쓸 수가 있단 말인가?’<br/><br/> 그거야 내 마음속의 어떤 고리타분한 캐릭터의 소리이고 실제로 발음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들이 내 얼굴을 보고 자신들의 몰염치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이 걱정되기도 했다.<br/><br/>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한 공공장소의 화장실은 칸수로 보면 남녀가 비슷한데 남성은 대소변 변기가 구분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비민주적이거나 불평등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지는 오래되었다. 새로 생긴 화장실들은 그런 점에 유의해서 여성 화장실의 칸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있던 휴게소하고도 화장실은 지은 지 20년은 된 곳으로 그런 배려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무튼 사람 없는 휴게소의 사람 없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많은 여성 사용자를 만나고 그들 때문에 화장실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br/><br/> “아까부터 이 앞칸에 들어앉아 있는 문디 가시나는 누고? 누길래 아까부터 이래 안 나오고 안에서 끽소리도 안 내고 앉아만 있나? 혹시 담배 피우는 거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마 벌금이 얼만지 아나?”<br/><br/> 거센 경상도 사투리로 나를 질타하며 심지어 발로 문을 걷어차는 여자가 나타났다. 나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고 맞서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적어도 십 대 일은 될 상황에서 상대는 사정이 급하고 나는 볼일을 다 보았으니 전의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br/><br/> “야야, 담배 다 피았으마 좀 나와라카이! 여 기다리는 사람이 및인데, 니는 미안토 안 하나? 신고해서 벌금 안 물리꾸마 후딱 나오기나 해라.”<br/><br/> 어떤 여자는 아예 나를 공중화장실에서 담배나 피우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정말 홧김에 나가버릴 뻔했다.<br/><br/> “언니야, 일로 와라. 여기 자리 빘다. 그 칸은 아까부터 암 소리도 안 나는 기 문이 고장난 거 겉다.”<br/><br/> 다행히 어떤 자비로운 여성이 나를 구원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옆칸, 아니 화장실 전체적으로 특정한 향기를 품은 기체, 액상물질, 고형물질을 신체 밖으로 배출하는 인간들의 생리현상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음향이 그치지 않고 나고 있었고 물 내리는 소리, 물이 다시 고이는 소리 등으로 내 한숨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br/><br/> “<span class='quot0'>그런데 이 공무원 자슥들은 세금 받아가 다 어데다 쓰길래 여자 변소를 이래 좁아터지기 만들고 기다리다가 오줌 다 싸게 만드는가 모르겠다.</span>”<br/><br/> “그랜께 이럴 때는 옆에 남자 변소 같은 데라도 개방해서 쓰기 해줘야 한다 칸께네. 아까도 보이 버스 기사 혼자 들어가서 일분도 안 걸리가 나오더라. 지금도 저쪽은 텅텅 비아 있다.”<br/><br/> 내 머리가 하얘졌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부가, 과도한 조명이 비친 무대처럼.<br/><br/> “<span class='quot0'>강간버스는 언제 간다 카더노?</span>”<br/><br/> “아직 한 오분은 남았어예.”<br/><br/> “<span class='quot0'>한 칸은 고장까지 난 변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쓸 수나 있을랑가 모르겄다.</span>” “<span class='quot0'>암만 급해도 똥 누는 사람 놔두고 가기야 할라꼬.</span>”<br/><br/> “나는 일주일째 변비라카이. 클났어.”<br/><br/> 여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허벅지가 저려왔고 쥐가 내렸지만 나는 비명조차 내지 못했다.<br/><br/> “<span class='quot0'>이 칸은 끝까지 속 씩인다.</span>”<br/><br/> 마지막 여자가 내가 들어 있는 칸의 문을 부서져라 걷어차는 바람에 문짝이 떨어져나가는 줄 알았다. 나는 온몸으로 문짝을 붙들고 버텼다.<br/><br/>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서 이십여 분이 흐른 뒤 밖으로 나와 보니 주차장에 서 있는 버스로 단풍에 질세라 알록달록하게 옷을 차려입은 손님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였다. 그들은 손에 뜨거운 음식이 든 종이컵이며 상대적으로 싸고 맛있어 보이는 지역 특산 과일을 사들고 있었다. 멍청하게 서 있는 내 머리 위에 있는 화장실 표시에는 치마를 입은 사람 모양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br/><br/> 나는 버스에 가까이 갔다. 거의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은 어두워오기 시작한 늦은 가을날의 황홀한 저녁놀, 부드러운 바람에 대해 조용조용 담소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br/><br/>성석제 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8.txt

제목: [왜냐면] 희망이 떠난 후, 다시 길 위에서 / 정경일  
날짜: 2014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010015017648  
본문: “<span class='quot0'>교황님이 우리나라의 <span class='quot0'>유일한 희망</span>이라 확신합니다.</span>”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오기 직전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김유정(가명)양이 교황에게 보낸 공개편지에 쓴 말이다. 안타깝게도 살아남은 그에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는 없었다. 정치도 언론도 종교도 그들의 비통한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대한 그들의 절망과 교황에 대한 그들의 희망은 정비례했다.<br/><br/> 희망은 무게가 아니라 거리로 잰다. 바티칸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9000㎞. 그 먼 거리를 날아온 교황은 장기 단식 중이던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에게 직접 걸어 다가와 두 손을 잡고 그의 한 맺힌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다. 그때 김영오씨 등에는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대통령님! 힘없는 아빠 쓰러져 죽거든 사랑하는 유민이 곁에 묻어 주세요!” 도대체 청와대는 얼마나 먼 곳에 있는 걸까?<br/><br/> ‘무한책임’을 느낀다던 대통령은 유민이 아빠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곳이 지척인데도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로 찾아간 유가족과 시민을 경찰력을 동원해 막기까지 했다. 그런데 교황은 그 짧은 방한 기간에도 세월호 유가족을 여러번 만나 진심으로 아파해 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었다. 그러니 유가족이 ‘5년’ 임기의 자기 나라 대통령보다도 단지 ‘5일’ 방문했을 뿐인 외국인 교황에게 더 큰 희망을 걸 수밖에.<br/><br/> 하지만 그 “<span class='quot0'>유일한 희망</span>”이 떠났고, 우리는 다시 익숙한 절망을 마주한다. 김영오씨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사십일 가까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물 밑에서 서서히 죽어간 딸의 아빠가 땅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정략적 이해타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말 김수영의 시구처럼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희망이 떠나간 자리의 절망은 얼마나 아픈가, 반성하지 않는 절망은 얼마나 잔인한가!<br/><br/> 절망 속에 남게 될 우리가 너무 안쓰러웠던 것일까? 교황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수차례 희망을 힘주어 말했다. 그중 한마디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작은 촛불처럼 힘과 용기를 준다. “<span class='quot0'>희망은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입니다.</span>” 그가 우리에게 준 것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지도와 나침반이었다. 그것을 들고 절망의 해독제를 찾아 길을 떠나야 하는 이는 교황이 아닌 우리 자신이다.<br/><br/> 루쉰은 “희망은 길과 같다”고 한다. 길이 원래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나는 이들의 무수한 발걸음으로 다져져 나듯이 희망도 그런 부단한 노력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걸어야 한다. 팽목항으로, 안산으로, 국회로,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우리의 삶 속으로… 절망이 반성할 때까지, 절망이 해독될 때까지 몇번이고 몆십번이고 걷고 또 걸어야 한다. 우리의 그 걸음이 ‘<span class='quot0'>유일한 희망</span>’이다.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고쳐 묶자. 갈 길이 멀고 험하다.<br/><br/>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89.txt

제목: [왜냐면] 삼척 바다에 꼭 다시 가고 싶다! / 김효숙  
날짜: 2014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2010015017649  
본문: 지난 주말 식구들과 간신히 날짜를 맞춰 동해안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사실 이젠 더위가 풀리는 시점이라 피서라는 말은 별로 어울리지 않았지만 광복절 연휴 때문인지 도로는 차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우리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장호항에 짐을 풀었다. 입구에는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이란 문구가 펄럭였다. 그냥 관광객이 눈길 한번 더 주길 바라는 마음이겠거니 하고 별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뿐더러 해가 진 이후여서 확인할 길도 없었다. 식구들과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를 나오니 모두 들떠서 다음날 무엇을 하고 놀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자막 문구가 있었다. ‘8월26일 삼척 원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그랬다. 요즘 하도 이 일 저 일 힘들고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많아서 잊고 있었다. 정부에서 삼척에 새로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을…. ‘투표가 잘되어야 할 텐데’ 걱정을 하면서도 ‘휴가를 어찌 보낼까’ 그 생각이 더 컸다.<br/><br/> 아침을 먹고 부랴부랴 항구에 나가보았다. 작은 어시장에서 생선을 구경하고 투명 카누를 빌려 바닷속을 보면서 뱃놀이를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바다는 참 좋지만 맑고 투명하다는 생각을 해보진 못했다. 그런데 내 눈에 비친 삼척의 바다는 참으로 투명했다. 뱃놀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해변에서 물놀이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바로 바다로 직행하였지만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는 그늘막을 펼치고 앉아 책을 읽고 남편은 잠을 청했다. 한참을 읽다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에 발이라도 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바닷물이 닿는 순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물빛이 참으로 맑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겹쳤다. 물빛이 너무도 투명해서 발밑의 모래가 한 알 한 알 다 보였다.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내 발이 그렇게 오롯이 보인 적이 있었던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다 다시 생각이 떠올랐다. 지난밤 뉴스 자막 한 줄로 지나가던 삼척 원자력발전소…. 어쩌면 이 바다를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참으로 슬프고도 무서웠다.<br/><br/> 정부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체에너지인 것처럼 선전을 해왔다. 더군다나 원전을 가동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아서 청정에너지라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는 데 가장 기초적인 우라늄을 캐낼 때부터 방사능이 나와서 우라늄 광산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곳에 비해 백혈병과 암에 걸리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자료도 이미 공개되었다. 방사능이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 깨끗하게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br/><br/> 또한 정부는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예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아주 작은 실수로도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해내기 힘들 거라고들 한다. 눈앞에 작은 이익보다 다가올 미래의 손실이 너무도 클 것임이 자명하다.<br/><br/> 이제 공은 삼척 주민들에게 넘어가 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본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다. 이 아름다운 곳에 꼭 다시 오고 싶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꼭꼭 믿어본다. <br/><br/>김효숙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0.txt

제목: 피검사 한번으로 암·치매 진단한다  
날짜: 201408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910015007953  
본문: 한번의 피 검사로 위암이나 대장암을 비롯해 치매까지 진단하는 기술이 일본에서 개발된다.<br/><br/> 일본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국립암센터가 암이 혈액 속에 만들어내는 특이한 물질을 분석해 위암, 대장암, 폐암 등 13가지 암을 진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2018년까지 개발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br/><br/> 이번에 개발되는 신기술이 주목하는 것은 인간 혈액에 포함돼 있는 ‘마이크로아르엔에이(RNA)’라는 물질이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는 모두 2500여종류의 마이크로아르엔에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한 병에 걸리면 혈액 속에 분비되는 마이크로아르엔에이의 종류와 양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각 질병과 특정 마이크로아르엔에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만 있으면, 피 속에 어떤 마이크로아르엔에이가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된다. <br/><br/> 국립암센터 등은 자체 보관중인 환자 7만여명의 혈액을 조사해 각각의 질병과 관련이 있는 특유의 마이크로아르엔에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예비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기법을 통해 유방암의 90%를 잡아낼 수 있었고, 대장암, 췌장암 등 다른 암과의 관련성이 유력한 마이크로아르엔에이 후보를 특정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에는 모두 79억엔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br/><br/> 이 진단법의 또다른 장점은 암의 조기 진단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암에 걸리면 혈액 속에서 분비가 늘어나는 특정 단백질 등을 조사하는 ‘종양 표시자 검사’ 등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 검사법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으면 검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아르엔에이는 암의 초기 단계에서도 반응을 해, 조기 진단에 기여할 전망이다. <br/><br/> 오치야 다카히로 국립암센터연구소 분자세포치료연구분야장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채혈만으로 다양한 암을 검사할 수 있게 되면 환자의 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적어진다. 하루빨리 실용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br/><br/>도쿄/길윤형 특파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1.txt

제목: 14. ‘88국제여단’의 항일유격전 /소련 거점 ‘김일성의 88여단’은 북한 인민군 모체가 됐다  
날짜: 20140819  
기자: 김명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9100000112  
본문: 북-중 우호관계의 출발점은 동북항일연군과 88국제여단이다. 1937년부터 8년간 전개된 중국 항일전쟁의 지도자는 국민당 군사위원회 위원장 장제스였다. 장제스나 국민당 원로들은 북한의 지배층과는 별 인연이 없었다. 당시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놀던 동네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br/>　1928년 12월28일, 동북 전역에 중국 국민당의 상징인 청천백일기가 펄럭였다. 이날을 계기로 50만에 육박하던 동북군도 국민당군에 편입됐다. 1931년 가을, 일본 관동군이 무력으로 동북을 강점했을 때 장제스는 일본과의 충돌을 피했다. 동북군에게 철수를 명령했다. 막강 전력을 자랑하던 동북군은 하루아침에 왜적의 침입에 저항을 포기한 군대로 전락했다. 국민당 중앙군의 공세에 쫓겨 옌안(延安)에 안착한 중공 중앙 홍군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였다. 장제스는 동북에서 철수한 동북군을 시안(西安)에 배치한 뒤, 옌안의 홍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라고 명령했다. 시안과 옌안은 거기서 거기였다. 위기에 몰린 중공은 선전전과 동북군과의 연합에 치중했다. <br/>　동북을 총 한방 안 쏘고 일본한테 내주자 온 중국이 들썩거렸다. 중공의 지하당원이나 지지자들 중에는 선전의 고수들이 많았다. 중공은 국민당 통치에 염증을 느낀 진보적 지식인들도 적절히 활용했다. 말로만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회유도 수월했다. 동북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항일 무장세력의 기개를 찬양하는 글과 영화가 쏟아져 나왔다. 현재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동북의 엄동설한에서 흰 눈에 붉은 피를 뿌린 항일의용군의 처절한 투쟁을 영화화한, (風雲兒女)의 주제곡인 것을 보면 당시 중국인들의 정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br/>　대도시를 중심으로 항일전쟁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span class='quot0'>제 나라 땅에 들어온 남의 나라 군대를 내쫓자</span>”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부의 암덩어리인 중공 홍군을 먼저 정리하고 일본과 일전을 겨루겠다는 장제스의 기본전략인 ‘안내양외’(安內攘外)는 더이상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민심이 따르지 않다 보니 정책의 옳고 그름은 둘째 문제였다. 중공 지도부는 공공외교에도 능했다. 미국 언론인 에드거 스노 등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정당성과 존재 이유를 외부세계에 알리는 데도 성공했다.<br/>　근거지 동북을 떠나 유랑민 신세가 된 동북군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장제스는 이들에게 무기나 군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장제스의 옌안 공격 명령에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니, 고향에 돌아가 일본군과 싸우다 죽겠다”며 머뭇거렸다. 이 틈을 중공이 파고들었다. 훗날 6·25전쟁 휴전회담과 제네바 회담을 막후에서 지휘한 리커눙(李克農) 등이 동북군의 고급 지휘관과 접촉했다. 일선 지휘관들이 호응할 기색을 보이자 전국의 2인자나 다름없던 동북군 최고사령관 장쉐량(張學良)과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국·공이 연합해 항일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저우언라이의 의견에 장쉐량도 동의했다.<br/>　1936년 12월 장쉐량이 시안에서 장제스를 감금해 항일전쟁을 요구했다. 저우언라이의 주선으로 국공합작이 성사됐다. 국공 양당의 최고지도자로 추대된 장제스는 일본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 자신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장쉐량은 연금하고 동북군도 해산시켰다. 동북인들의 장제스와 국민당에 대한 불만은 해소할 방법이 없을 지경으로 악화됐다.<br/>　중국과 일본이 전면전에 돌입하자, 동북의 일본 관동군은 긴장했다. 만주군과 합세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열을 올렸다. 조선인 항일무장세력들은 관동군의 큰 골칫거리였다.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조선 출신들로 구성된 특설대까지 만들 정도였다. 자의건 타의건, 훗날 후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인물들이 속출했다. <br/>　땟국이 줄줄흐르는, 개털 옷을 걸친 항일연군 소속의 조선인 전사들과 일본 군복을 뽐내는 조선인 청년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영광과 치욕의 개인사를 만들어 나갔다. 박한종, 이홍광, 이민환의 뒤를 이어 유만희, 이복림, 서광해, 황옥청, 장흥덕 등 조선팔도에서 몰려온 열혈 청년들이 동북의 눈밭에서 숨을 거두고, 다른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견장은 점점 무거워졌다. <br/>　1939년 늦가을, 동북 목단강변의 허름한 상가에서 동북항일연군의 역사에 남을 회의가 열렸다. 70여개 현에 달했던 항일연군의 활동무대가 10개에도 못 미칠 정도로 위축돼 있던 때였다. 신중국 설립 후, 중앙군사위원과 윈난(운남)성 부주석을 겸하게 되는 저우바오중(周保中)과 항일연군 총정치부 주임 리자오린(李兆麟), 중공 만주성 위원회 상무위원 펑중윈(馮仲雲; 신중국 수리부 부부장과 하얼빈공업대학 총장, 베이징도서관 관장 등을 역임), 동북항련 제3방면군 사령관 천한장(陳翰章), 경북 선산 출신 허형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저우바오중은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현재 동북항일연군은 2천명도 채 남지 않았다. 마오쩌둥이 (論持久戰)에서 설파한 전략사상을 행동에 옮기자.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강 건너 소련으로 가서 원동(遠東)지역에 야영을 설치하고 전력을 재정비하자.”<br/>　1940년 3월19일, 소련군 원동변방군 사령부는 중국 손님 3명을 맞이했다. 저우바오중은 소련 쪽 정치위원에게 곤경에 처한 동북항일연군의 실정을 설명하며 중-소 국경지역에 야영 설립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련 쪽도 동북에 주둔하는 일본 관동군의 전략과 군사정보에 정통한 동북항일연군의 협조가 절실했다.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었다. 11월 하순, 동북항일연군 부대들은 흑룡강을 건너 소련 경내로 들어갔다.<br/>　김일성도 저우바오중과 함께 소련행을 택했다. 동북항일연군의 총지휘자 양징위(楊靖宇)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양징위는 고집이 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을 떠나지 않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1940년 2월18일, 양징위는 끝까지 곁을 지키던 조선인 경호원과 함께 일본군 토벌대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소련에서 소식을 들은 김일성은 양징위와 억지로라도 함께 오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한다. <br/>　소련 생활을 시작한 동북항일연군은 남북 두곳에 야영(野營)을 건설했다. 북야영은 강신태(1945년 강건으로 개명), 남야영은 중국인 지칭(季靑)을 책임자로 선출했다. 소련 쪽의 보급은 부족함이 없었다. 항일연군들은 오랜만에 따듯하게 입고 편한 신발을 신었다. 빵과 고기도 실컷 먹었다. 소련 교관들은 별 이상한 교육을 다 시켰다. 유격전에 대비한 교량폭파와 적진 침투에 필요한 낙하산 훈련은 필수였다. 촬영, 측량, 정찰까지 익히며 동북항일연군의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됐다. <br/>　1942년 8월, 동북항일연군은 하바롭스크에서 정식으로 ‘항일연군 교도여단’을 출범시켰다. 정식 명칭은 ‘소련 원동방면군 제88보병여단’, 혹은 ‘8641보병특별여단’이었다. ‘88국제여단’이라고도 불렀다. <br/>　동북에 흩어져 있던 김책, 안길, 최석천(1945년 최용건으로 개명), 김일성, 최현, 강신태 등이 몰려 있던 88여단은 북한 인민군의 모체나 다름없었다. 김일성은 이곳에서 “<span class='quot1'>작렬하는 폭파음에 산하가 진동하면, 도처에서 왕샤오밍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span>”던 왕샤오밍(王效明)을 비롯해, 펑중윈, 차이스룽(柴世榮) 등과 인연을 맺었다.<br/>　88여단의 동북항일연군들은 틈만 나면 동북에 침투해 소규모 유격전을 벌였다. 중국 쪽 통계에 의하면, 1260여차례에 걸친 유격전에서 인명 희생은 200여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여단 내에는 4명의 영장(營長)이 있었다. 제1영장이 김일성이었다. 차이스룽, 왕밍구이(王明貴), 왕샤오밍 등 나머지 세명의 영장 중 차이스룽은 1944년 소련에서 세상을 떠났고, 왕밍구이와 왕샤오밍은 1955년 소장 계급장을 받았다. 각 영의 정치위원 중 세명이 안길, 강신태, 김책 등 조선인이었다. 직급은 최석천이 여단의 부참모장으로 제일 높았다. <br/>　1945년 8월, 일본이 투항하자 88여단의 동북항일연군 소속 중국인 선발대는 57개 소조로 나뉘어 동북의 중소도시로 잠입했다. 소련 군복에 소련군 군관 계급장을 착용한 선발대원들은 러시아어에 능했다. 동북의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킨 소련군과 협조가 잘됐다. 국민당이 발 빠르게 소련과 우호조약을 맺었지만 중공의 홍군과 신4군이 동북으로 밀려오는 것을 묵인하기까지는 이들의 도움이 컸다. 이쯤 되면 동북에서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 중공이 김일성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김일성이 중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br/>김명호 성공회대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2.txt

제목: 차 여덟번 멈추고 환영인파 속 아이 머리 만지며 ‘축복’  
날짜: 20140816  
기자: /송인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6100000041  
본문: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개를 돌려 앞자리에 탄 수행원에게 차를 멈추도록 지시했다. 조금 전 차량이 한 아기를 지나쳤기 때문이다.<br/>　아기와 10여ｍ 떨어진 곳에 차가 멈추자 교황은 경호원에게 아기를 데려오게 해 얼굴을 쓰다듬으며 강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이틀째인 15일 오전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하려고 대전월드컵경기장에 들어서면서 모두 여덟번 자신이 탄 차를 멈춰 세웠다. 환영 인파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였다.<br/>　교황은 어린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거나 이마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늘어선 신자들과 악수를 하고 축복해주느라 경기장 입구에 들어서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교황은 신자들과 가깝게 눈을 맞춰 인사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해왔다.<br/>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전 10시10분께 하얀색 무개차를 타고 행사장인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입장했다. 5만명이 넘는 신도들은 교황이 제의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20여분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흰 손수건을 흔들며 “비바 파파”(교황 만세)를 연호했다. 축구경기 단체응원처럼 파도타기를 하며 교황을 열렬히 환영했다. 교황은 밝은 표정으로 환호하는 신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으며, 무개차 옆에 서 있던 어린이와 장애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 이어 교황은 제의실에서 15분 동안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등 10명을 만나 위로했다.<br/>　“<span class='quot0'>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span>”<br/>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기도문을 읽자, 대전월드컵경기장을 가득 채운 5만여 천주교 신도들은 한목소리로 “아멘” 하며 하느님에게 기도를 청원했다.<br/>　이날 오전 10시50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집전으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가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봉헌됐다. 교황은 강론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주의의 유혹과 무한경쟁의 시대 흐름에 맞서 싸우고, 새로운 가난을 만들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을 거부하길 바란다. 생명인 하느님을 경시해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길 빈다”고 말했다. 교황은 “한국 천주교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희망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희망은 외적으로 부유해도 내적으로 고통과 허무를 겪는 사회에서 암처럼 자라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라고 말했다.<br/>　이날 미사는 1시간40분여 동안 거행됐으며, 미사가 진행되는 내내 대전월드컵경기장은 경건하고 엄숙한 성전이 됐다.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 땅에 있나이다. 평화를 빕니다.” 낮 12시20분 영성체 의식이 시작되면서 서로 인사하는 평화의 인사가 진행되자 신도들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기쁨과 희망을 나눴다.<br/>　프란치스코 교황은 삼종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늘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 희망을 봉헌한다. 특별히 세월호 희생자와 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평화 안에 맞아주시고,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모님께서 우리 중에서 병든 이들과 가난한 이들, 존엄한 인간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갖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달라”고 기도했다.<br/>　세례명이 스콜라스티카라는 40대 여성은 “영적 지도자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뵙게 돼 기쁘고 행복하다. 구름이 걷히고 날이 맑아진 오늘 날씨처럼 교황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깃들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br/>　신도들은 교황을 만나는 기쁨과 설렘에 미사 시작 10여시간 전인 14일 밤 12시께부터 대전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15일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사이 경기장에 입장해 교황 방한 관련 영상물을 보고 기도하며 교황을 기다렸다. 미사에 앞서 오전 9시 문화행사 ‘한마음대축제’가 시작돼 가수 인순이가 ‘거위의 꿈’, ‘친구여’를 불렀다. 인순이는 “<span class='quot1'>교황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으며 그분들을 위해 서로 힘이 되어주자</span>”고 말했다. 소프라노 조수미씨는 금색 수를 놓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나와 천상의 목소리로 ‘넬라 판타지아’, ‘아베 마리아’를 열창해 감동을 더했다. 조수미씨는 “<span class='quot2'>많은 무대를 서봤지만 교황님 앞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하니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span>”고 떨리는 마음을 고백했다.<br/>　교황은 미사를 마친 뒤 세종시 대전가톨릭대로 옮겨 오후 1시30분부터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자 가운데 17개 나라를 대표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아시아청년대회 홍보대사인 가수 보아, 유흥식 대전교구장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겸한 대화를 나눴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span class='quot3'>이날 점심식사는 한식과 양식을 섞은 평범한 가정식</span>”이라고 소개했다. 메뉴는 쌀밥,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갈비, 콩국수, 닭죽, 각종 전류, 샐러드 등이다.<br/>　교황은 오후에는 충남 당진 솔뫼성지에서 아시아청년대회 참가자 6000여명을 만났다. 교황은 솔뫼성지에 도착해 한국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의 생가 터에 헌화한 뒤 아시아청년대회 행사장인 대형 텐트로 이동해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br/>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3.txt

제목: 차 여덟번 멈추고 환영인파 속 아이 머리 만지며 ‘축복’  
날짜: 20140816  
기자: /송인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6100000037  
본문: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개를 돌려 앞자리에 탄 수행원에게 차를 멈추도록 지시했다. 조금 전 차량이 한 아기를 지나쳤기 때문이다.<br/>　아기와 10여ｍ 떨어진 곳에 차가 멈추자 교황은 경호원에게 아기를 데려오게 해 얼굴을 쓰다듬으며 강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이틀째인 15일 오전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하려고 대전월드컵경기장에 들어서면서 모두 여덟번 자신이 탄 차를 멈춰 세웠다. 환영인파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다.<br/>　교황은 어린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거나 이마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늘어선 신자들과 악수를 하고 축복해주느라 경기장 입구에 들어서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교황은 신자들과 가깝게 눈을 맞춰 인사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해왔다.<br/>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전 10시10분께 하얀색 무개차를 타고 행사장인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입장했다. 5만명이 넘는 신도들은 교황이 제의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20여분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흰 손수건을 흔들며 “비바 파파”(교황 만세)를 연호했다. 축구경기 단체응원처럼 파도타기를 하며 교황을 열렬히 환영했다. 교황은 밝은 표정으로 환호하는 신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으며, 무개차 옆에 서 있던 어린이와 장애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 이어 교황은 제의실에서 15분 동안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등 10명을 만나 위로했다.<br/>　“<span class='quot0'>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span>”<br/>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기도문을 읽자, 대전월드컵경기장을 가득 채운 5만여 천주교 신도들은 한목소리로 “아멘” 하며 하느님에게 기도를 청원했다.<br/>　오전 10시50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집전으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가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봉헌됐다. 교황은 강론에서 “한국 천주교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희망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희망은 외적으로 부유해도 내적으로 고통과 허무를 겪는 사회에서 암처럼 자라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라고 말했다.<br/>　미사는 1시간40분여 동안 거행됐으며, 미사가 진행되는 내내 대전월드컵경기장은 경건하고 엄숙한 성전이 됐다.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 땅에 있나이다. 평화를 빕니다.” 낮 12시20분 영성체 의식이 시작되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 ‘평화의 인사’가 진행되자 신도들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기쁨과 희망을 나눴다.<br/>　세례명이 스콜라스티카라는 40대 여성은 “영적 지도자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뵙게 돼 기쁘고 행복하다. 구름이 걷히고 날이 맑아진 오늘 날씨처럼 교황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깃들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br/>　신도들은 교황을 만나는 기쁨과 설렘에 미사 시작 10여시간 전인 14일 밤 12시께부터 대전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15일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사이 경기장에 입장해 교황 방한 관련 영상물을 보고 기도하며 교황을 기다렸다. 미사에 앞서 오전 9시 문화행사 ‘한마음대축제’가 시작돼 가수 인순이가 ‘거위의 꿈’ ‘친구여’를 불렀다. 인순이는 “<span class='quot1'>이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으며 그분들을 위해 서로 힘이 되어주자</span>”고 말했다. 소프라노 조수미씨는 금색 수를 놓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나와 ‘넬라 판타지아’ ‘아베 마리아’를 열창해 감동을 더했다. 조수미씨는 “<span class='quot2'>많은 무대를 서봤지만 교황님 앞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하니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span>”며 떨리는 마음을 고백했다.<br/>　교황은 미사를 마친 뒤 세종시 대전가톨릭대로 옮겨 가 오후 1시30분부터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자 가운데 17개 나라를 대표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아시아청년대회 홍보대사인 가수 보아, 유흥식 대전교구장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겸한 대화를 나눴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span class='quot3'>이날 점심식사는 한식과 양식을 섞은 평범한 가정식</span>”이라고 소개했다. 메뉴는 쌀밥,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갈비, 콩국수, 닭죽, 각종 전류, 샐러드 등이다.<br/>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4.txt

제목: 교황 “노동자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경제모델 거부해야”  
날짜: 2014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510014982252  
본문: 방한 이틀째를 맞은 15일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들려준 이야기는 한결 같았다. 자본과 권력보다 사람을 아끼고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 중심 사회’에 대한 호소였다.<br/><br/>교황은 이날 오전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강론을 통해 일반 신자와 일반인들에게 “<span class='quot0'>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빈다</span>”고 호소했다. 또한 “생명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br/><br/>그는 방한 첫날인 어제도 청와대 연설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세계화되는 세상 안에서 공동선과 진보와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사람 중심 사회’를 강조했다. <br/><br/>이날 미사에서 교황은 일반 신자와 일반인 5만여명과 마주했다. 이들은 직접 교황을 만나기 위해 이날 새벽 4시부터 월드컵경기장에 입장했다. 이들을 위해 교황은 진심어린 충고도 남겼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제시하는 희망은 외적으로는 부유해도 내적으로는 쓰라린 고통과 허무를 겪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은총을 간청합시다. 아멘.”<br/><br/>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br/><b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5.txt

제목: 차 여덟번 멈추고 환영인파 속 아이 머리 만지며 ‘축복’  
날짜: 2014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510014983830  
본문: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개를 돌려 앞자리에 탄 수행원에게 차를 멈추도록 지시했다. 조금 전 차량이 한 아기를 지나쳤기 때문이다.<br/><br/> 아기와 10여ｍ 떨어진 곳에 차가 멈추자 교황은 경호원에게 아기를 데려오게 해 얼굴을 쓰다듬으며 강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이틀째인 15일 오전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하려고 대전월드컵경기장에 들어서면서 모두 여덟번 자신이 탄 차를 멈춰 세웠다. 환영인파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다.<br/><br/> 교황은 어린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거나 이마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늘어선 신자들과 악수를 하고 축복해주느라 경기장 입구에 들어서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교황은 신자들과 가깝게 눈을 맞춰 인사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해왔다.<br/><br/>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전 10시10분께 하얀색 무개차를 타고 행사장인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입장했다. 5만명이 넘는 신도들은 교황이 제의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20여분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흰 손수건을 흔들며 “비바 파파”(교황 만세)를 연호했다. 축구경기 단체응원처럼 파도타기를 하며 교황을 열렬히 환영했다. 교황은 밝은 표정으로 환호하는 신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으며, 무개차 옆에 서 있던 어린이와 장애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 이어 교황은 제의실에서 15분 동안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등 10명을 만나 위로했다.<br/><br/> “<span class='quot0'>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span>”<br/><br/>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기도문을 읽자, 대전월드컵경기장을 가득 채운 5만여 천주교 신도들은 한목소리로 “아멘” 하며 하느님에게 기도를 청원했다.<br/><br/> 오전 10시50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집전으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가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봉헌됐다. 교황은 강론에서 “한국 천주교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희망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희망은 외적으로 부유해도 내적으로 고통과 허무를 겪는 사회에서 암처럼 자라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라고 말했다.<br/><br/> 미사는 1시간40분여 동안 거행됐으며, 미사가 진행되는 내내 대전월드컵경기장은 경건하고 엄숙한 성전이 됐다.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 땅에 있나이다. 평화를 빕니다.” 낮 12시20분 영성체 의식이 시작되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 ‘평화의 인사’가 진행되자 신도들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기쁨과 희망을 나눴다.<br/><br/> 세례명이 스콜라스티카라는 40대 여성은 “영적 지도자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뵙게 돼 기쁘고 행복하다. 구름이 걷히고 날이 맑아진 오늘 날씨처럼 교황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깃들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br/><br/> 신도들은 교황을 만나는 기쁨과 설렘에 미사 시작 10여시간 전인 14일 밤 12시께부터 대전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15일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사이 경기장에 입장해 교황 방한 관련 영상물을 보고 기도하며 교황을 기다렸다. 미사에 앞서 오전 9시 문화행사 ‘한마음대축제’가 시작돼 가수 인순이가 ‘거위의 꿈’ ‘친구여’를 불렀다. 인순이는 “<span class='quot1'>교황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으며 그분들을 위해 서로 힘이 되어주자</span>”고 말했다. 소프라노 조수미씨는 금색 수를 놓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나와 ‘넬라 판타지아’ ‘아베 마리아’를 열창해 감동을 더했다. 조수미씨는 “<span class='quot2'>많은 무대를 서봤지만 교황님 앞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하니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span>”며 떨리는 마음을 고백했다.<br/><br/> 교황은 미사를 마친 뒤 세종시 대전가톨릭대로 옮겨 가 오후 1시30분부터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자 가운데 17개 나라를 대표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아시아청년대회 홍보대사인 가수 보아, 유흥식 대전교구장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겸한 대화를 나눴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span class='quot3'>이날 점심식사는 한식과 양식을 섞은 평범한 가정식</span>”이라고 소개했다. 메뉴는 쌀밥,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갈비, 콩국수, 닭죽, 각종 전류, 샐러드 등이다.<br/><br/>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br/><br/><br/><br/> 성모승천대축일<br/><br/>8월15일 성모승천대축일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희망을 표상하는 날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살았던 마리아가 죽은 뒤 몸이 썩어 사라지지 않고 부활해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사건은 신자들에게도 같은 구원의 날이 오리라는 약속과 같다. 1950년 11월1일 교황 비오 12세가 성모승천을 교리로 공식 선포하며 천주의 성모마리아대축일(1월1일)과 예수부활대축일(매년 날짜가 바뀜), 예수성탄대축일(12월25일)과 함께 천주교회의 4대 의무 축일이 됐다.<br/><br/>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강론에서 인용한 복음서 <루카>와 <묵시록>의 내용은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때 읽도록 지정된 성경 구절들이다. 이 미사에선 마리아의 탄생과 승천이 인간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론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날 교황은 “<span class='quot4'>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고 비인간적인 경제모델을 거부하기를</span>” 간청했다. <루카> 복음서에서 교황이 인용한 ‘마리아의 노래’(마니피캇) 다음 대목에 나오는 마리아가 믿는 하느님의 모습은 이렇다. “<span class='quot0'>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span>”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6.txt

제목: [강론 전문] “죽음의 문화 배척해야”  
날짜: 2014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510014982311  
본문: 교황은 15일 오전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강론을 통해 일반 신자와 일반인들에게 “<span class='quot0'>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빈다</span>”고 호소했다. 또한 “생명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br/><br/>다음은 강론 전문. <br/><br/><br/><br/>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br/><br/><br/><br/>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는 성모님께서 육신과 영혼을 지니신 채 천국의 영광 안으로 올라가신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의 숙명을 보여 줍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또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온전히 동참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br/><br/>　<br/><br/>제1독서에서 선포된, “태양을 입고 ……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묵시 12,1)이라는 “큰 표징”은 하느님이신 아드님 곁에 영광스럽게 앉으신 마리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시는 미래를 알아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 국가의 역사와 민족의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모님의 사랑과 전구를 인식하면서, 전통적으로 이 대축일을 거행하고 있습니다.<br/><br/>　<br/><br/>오늘 제2독서에서는,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죄와 종살이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자유와 생명의 나라를 여셨다는 성 바오로 사도의 말씀(1코린 15,24-25 참조)을 들었습니다. 참된 자유는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자유입니다. 하느님과 형제자매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유이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쁨이 가득한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br/><br/>　<br/><br/>오늘 하늘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우리는 또한 한국 교회의 어머니이신 그분께 간청합니다. 세례 때에 우리가 받은 존엄한 자유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하느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변모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교회가 한국 사회의 한가운데 에서 하느님 나라의 누룩으로 더욱 충만히 부풀어 오르게 도와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쇄신을 가져오는 풍성한 힘이 되기를 빕니다. 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생명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빕니다.<br/><br/><br/><br/>고귀한 전통을 물려받은 한국 천주교인으로서 여러분은 그 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 이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회개하여야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br/><br/><br/><br/>이 대축일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희망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성모의 노래’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운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루카 1,54-55 참고). 성모 마리아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이기에 복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모든 약속은 진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영광 속에 앉으신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희망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희망은 “우리 생명을 위한 안전하고 견고한 닻과 같아”(히브 6,19 참조) 그리스도께서 영광 속에 앉으신 곳에 닿게 합니다. <br/><br/><br/><br/>이 희망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제시하는 이 희망은, 외적으로는 부유해도 내적으로 쓰라린 고통과 허무를 겪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이러한 절망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br/><br/>　<br/><br/>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가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다스림이 곧 섬김인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바로 그 희망의 표징으로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의 은총을 간청합시다. 아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7.txt

제목: 서울대병원, UAE 왕립병원 5년간 위탁운영  
날짜: 20140814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4100000072  
본문: 보건복지부는 1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서울대병원과 아랍에미리트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에서 약 1조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받아 진료를 포함한 병원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br/>　국내 병원이 아랍권을 비롯해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진출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종합병원 규모의 큰 의료기관을 위탁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br/>　셰이크 칼리파 병원은 248개의 병상을 갖춘 공공병원인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지어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올해 11월부터 암·심장질환 등의 진료부터 시작해 내년 4월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의사를 포함해 1400여명의 병원 인력 가운데 15~20%를 국내에서 선발해 파견한다고 밝혔다. <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8.txt

제목: 재벌총수들 병 깊어도 진두지휘 /후계수업 정도따라 경영승계 변수  
날짜: 20140814  
기자: 곽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4100000078  
본문: 이건희 회장의 장기입원으로 삼성의 ‘총수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이는 현대·에스케이·엘지 등 다른 4대 그룹들도 과거 총수의 와병 사태를 맞았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4대 그룹은 후계구도의 사전정비 여부나 후계자 경영수업 상태에 따라 총수 와병 이후 경영 혼란을 겪은 곳과, 차기회장 체제로 연착륙에 성공한 곳으로 갈렸다.<br/>　이 회장은 지난 5월10일 심장마비로 입원한 지 석달째를 맞고 있으나 병세가 얼마나 위중한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회복되더라도 경영 복귀가 가능한지 등 핵심 사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13일 “이 회장의 건강이 상당히 호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병세나 치료 상황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가 있고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br/>　삼성은 이 회장 자녀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사장의 3세 후계구도에 대해서도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과 후계구도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커지는 이유다. 지난 11일에는 삼성 고위 임원들의 삼성병원 집결설 및 이건희 회장 위독설이 퍼져 확인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삼성의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br/>　삼성·현대·에스케이·엘지 등 4대 그룹이 총수의 와병 이후 경영 승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비교한 결과 공통점은 모든 총수들이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이었다. 삼성 이 회장은 1999년 림프절 암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건강이상설에 휩싸였고, 지난해 여름에는 한때 위독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지 2년 만인 2010년 다시 복귀한 이후 출근 횟수를 늘리는 등 경영에 더 매진했다.<br/>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은 타계 열달 전인 2000년 5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함께 3부자 동반 퇴진 선언을 했으나, 석달 전인 그해 3월 두 아들 간에 ‘왕자의 난’이 벌어졌을 때 이미 치매 증세를 보였다. 에스케이 최종현 회장도 타계하기 1년반 전인 1997년 봄에 폐암 발병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은 뒤에도 주위의 만류를 마다하고 마지막까지 경영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엘지그룹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도 1969년 12월 뇌종양으로 작고하기 다섯달 전부터 병원에 입원했으나, 사망 보름 전까지 경영 현안을 직접 챙겼다.<br/>　후계구도 사전정리와 후계자 경영수업 수준은 그룹별로 차이를 보인다. 현대와 에스케이는 총수 와병에도 불구하고 후계구도 사전정리나 후계자 경영수업을 제대로 못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쟁이나 혼란을 겪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치매 상태였던 2000년 3월까지도 정몽구 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불안한 공동회장 체제를 방치하다가 결국 ‘왕자의 난’을 자초했다.<br/>　최종현 회장도 친자녀들과 창업주이자 친형인 고 최종건 회장의 자녀들 간 후계구도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는 결국 그의 사후 에스케이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전문경영인인 손길승 그룹회장과 오너인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의 파트너십 체제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태원 회장의 그룹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수업도 부친의 폐암 발병 사실을 알기 직전인 2007년 1월 지주회사 격인 유공의 상무를 맡으면서 시작될 정도로 늦었다.<br/>　반면 엘지는 엄격한 장자승계 가풍에 따라 이미 장남인 구자경 회장이 후계자로 확고하게 인식됐다. 또 구자경 회장은 부친 밑에서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경영수업을 거쳤다.<br/>　삼성의 후계구도 정리와 후계자 경영수업은 현대·에스케이와 엘지의 중간 수준이다. 삼성의 승계구도는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심이라는 인식이 그룹 안팎에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지만, 두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사장이 여전히 경쟁 상대로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상무보를 맡은 2001년 이후 14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부친 밑에서 경영수업을 했다.<br/>　한국 재벌 총수들이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고, 후계구도 정리와 후계자 경영수업을 미루다 혼란을 자초한 것은 선진국 주요 기업들과 많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플은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2011년 초 세번째로 발병하자 바로 병가를 내고 최고운영책임자인 팀 쿡 대행체제로 전환해 경영 공백을 차단했다. 가족소유 경영으로 유명한 독일 히든챔피언은 총수들이 생전에 경영 2선으로 물러나고, 엄격한 선발 과정과 경영수업을 거친 후계자에게 최고경영자 자리를 넘긴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span class='quot0'>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삼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고, 더구나 최근 삼성전자는 물론 다른 계열사 실적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장의 건강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899.txt

제목: 다이어트한다고 맵게 먹었다간…되레 ‘암 예방’ 기능 저하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310014967411  
본문: 너무 맵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 김헌식 울산대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팀은 위암 등 여러 종류의 암 세포에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을 투여한 결과 우리 몸에서 암 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즉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억제됨으로서 암 세포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암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핏 속에 있는 자연살해세포는 온 몸을 돌아다니다가 암 세포 등과 같이 정상 세포가 아닌 경우 이를 죽이는 구실을 하는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그동안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피부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나왔지만, 캡사이신이 암 발생을 억제하는 자연살해세포와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인 <발암> 최근호에 실렸다.<br/><br/> 김 교수팀은 위암 등 여러 암 세포에 캡사이신을 10~100마이크로몰(μmol)까지 투여했다.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맵다’고 느끼는 수준은 캡사이신이 1~2마이크로몰인데, 이번 실험은 고용량을 투여해 진행했다. 그 결과 위암 세포의 경우 50마이크로몰의 캡사이신을 투요하면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가 투여 전 15%에서 투여 뒤에는 10%로 줄었다. <br/><br/> 혈액암 세포는 50마이크로몰을 투여한 경우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가 투여 전 32%에서 16%로, 100마이크로몰을 투여하면 4%로 감소했다. 하지만 캡사이신의 농도를 낮춰 혈액암 세포에 각각 10, 20마이크로몰을 투여하면 투여 전 활성도가 32%에서 각각 28%, 27%로 낮아져 큰 차이가 없었다. <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캡사이신이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인 것은 아니나, 많이 먹으면 암 세포를 억제하는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억제해 암 발생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낸 연구</span>”라며 “<span class='quot0'>캡사이신의 경우 적당량을 먹으면 항암 및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만큼 지나치게 매운 고추를 피하고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span>”고 권고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0.txt

제목: 첨단 의학기술 맹신의 위험성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3100000089  
본문: 과학소설에 등장할 법한 최첨단 진단 장비와 다국적 제약기업의 상호가 찍힌 알약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반면 동네의원의 의사가 청진기 하나 달랑 들고 진료하면 마음이 불안하다. 심지어 약 처방도 해주지 않고 술이나 담배를 끊으라는 잔소리만 하는 의사라면 더욱 그렇다. 첨단 의학 기술일수록 질병 예방과 치료에 더 효과적이리라는 기대는 세계적으로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다.<br/>　그런데 카를로스 스페인 나바라대학 교수팀은 지난 6월 국제 학술지인 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생각을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연구팀은 폐암·자궁경부암을 비롯해 암이나 심장 및 혈관질환, 당뇨, 비만 등 대표적인 공중보건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검토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우선 핏속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스타틴이라는 약은 일부 심장 및 혈관질환자들한테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심장병이 없는 성인들에게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스타틴이라는 약은 임상 지침을 통해 점차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다. 심장병 발생의 80%가 식사습관·흡연·운동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음에도, 전체 성인의 거의 30%가 약을 먹게 해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 난센스다.<br/>　메트포민이라는 약과 생활습관 개선이 당뇨 개선에 끼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도 인상적이다. 메트포민을 먹은 집단에서 3년, 10년 동안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 감소 효과는 30%, 18%이다. 반면, 생활습관을 바꾼 집단의 효과는 각각 58%, 34%로 나타났다. 습관 개선이 약보다 월등하게 효과가 좋다. <br/>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이 백신은 자궁경부암 문제가 덜 심각한 주요국의 중산층 이상에서 접종이 활발히 이뤄진다. 가격이 비싸서 발생하는 역설적 현상이다. 3번이나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처럼 비싸고 번거로운 예방백신에 견줘,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생활은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br/>　이른바 첨단 예방법은 사람들이 안전을 과신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폐암 조기 검진을 꾸준히 받고 있으니 담배를 계속 피워도 괜찮다고 여기거나,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으니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의 상업화 경향이 이런 기술 맹신 문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생활습관 개선과 공중보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어려우니 약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한 개인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정책결정자라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대중이 원한다며 복잡하고 값비싼 의학기술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시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보기술(IT) 융합 또는 원격의료 같은 그럴싸한 이름의 첨단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다. <br/>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health.re.kr) 연구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1.txt

제목: 서울대병원, UAE 왕립병원 5년간 위탁운영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310014970074  
본문: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병원을 5년 동안 맡아 운영하게 됐다. 국내 병원이 아랍권을 비롯해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진출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종합병원 규모의 큰 의료기관을 위탁운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 보건복지부는 13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서울대병원과 아랍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 정식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에서 약 1조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받아 진료를 포함한 병원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서울대병원을 쉐이크 칼리파 왕립병원 위탁운영자로 선정해 통보했는데, 이후 두달 가까이 현지 실사와 협상을 통해 서울대병원 쪽과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다.<br/><br/> 쉐이크 칼리파 병원은 248개의 병상을 갖춘 공공병원인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지어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올해 11월부터 암이나 심장질환 등에 대한 진료부터 시작해 내년 4월에 공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진료 분야는 암·심장질환·소아질환·신경계질환과 응급 및 재활 진료 등이다.<br/><br/> 서울대병원 쪽은 병원의 탁월한 의료 기술이 아랍권은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0'>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 6개 병원에 7백억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계약에 이은 성과로, 서울대병원의 의료 수준 및 병원 경영 역량을 아랍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span>”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의사를 포함해 1400여명의 병원 인력 가운데 15~20%를 국내에서 선발해 파견한다고 밝혔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2.txt

제목: 독도바다 꿰찬 자리돔·망상어  
날짜: 20140813  
기자: 김경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3100000104  
본문: 지난 10년 동안 독도 주변 바다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br/>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span class='quot0'>독도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자망’(刺網: 걸그물을 물속에 옆으로 쳐놓아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그물로,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음)으로 10년 동안 조사한 결과, 자리돔·용치놀래기·말쥐치·망상어 등 아열대 어종 출현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했다</span>”고 밝혔다.<br/>　독도 주변 표층 수온이 상승한 때문이다. 표층 수온은 기후변화로 동해 전체의 경우 지난 46년 동안(1968~2013년) 약 1.3℃ 높아진 반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독도는 최근 10년(2004~2013년) 약 1.5℃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 동해 전체가 매년 0.028℃ 상승하고 있는 반면, 독도 주변은 0.148℃씩 올라가고 있다.<br/>　이런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 어종이 기존의 연어병치·빨간횟대·참홍어 등을 밀어내고 독도 앞바다에 정착했다는 분석이다. 2002~2005년에는 연어병치, 참홍어, 빨간횟대, 성게, 문어 등이 주로 분포했다. 2006년 이후에는 자리돔, 망상어, 용치놀래기 등 아열대 어종이 우점종(優占種·dominant species: 생물군집에서 그 군집의 성격을 결정하고 군집을 대표하는 종류를 가리킴)으로 나타났다.<br/>　올해 7월 조사에서는 어류 36종, 해조류 125종, 대형저서동물 76종 등 총 237종의 수산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5종의 해조류 가운데 총 31종(25%)이 약용으로 활용 가능하고, 방석청각·감태·우뭇가사리 등 18종은 한국인 5대 질환(고혈압, 당뇨, 암, 심장병, 뇌졸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1년 이후 독도의 어류와 해조류의 출현 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해조류의 번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양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br/>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독도 해역의 지형·어족 등 생태 환경과 수중 경관을 생생하게 그린 독도 바닷속 생태지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완성했다고 밝혔다. 수중 경관이 빼어나고 해양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큰가제바위, 독립문바위, 해녀바위, 혹돔굴, 동도연안 등 5곳이 대상이다. 큰가제바위는 하늘창, 독립문바위는 천국의 문, 해녀바위는 녹색정원이라는 수중 명칭을 부여했다.<br/>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3.txt

제목: 재벌총수들 병 깊어도 진두지휘…후계수업 정도 따라 경영승계 변수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310014970023  
본문: 이건희 회장의 장기입원으로 삼성의 ‘총수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이는 현대·에스케이·엘지 등 다른 4대 그룹들도 과거 총수의 와병 사태를 맞았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4대 그룹은 후계구도의 사전정비 여부나 후계자 경영수업 상태에 따라 총수 와병 이후 경영 혼란을 겪은 곳과, 차기회장 체제로 연착륙에 성공한 곳으로 갈렸다.<br/><br/> 이 회장은 지난 5월10일 심장마비로 입원한 지 석달째를 맞고 있으나 병세가 얼마나 위중한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회복되더라도 경영 복귀가 가능한지 등 핵심 사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13일 “이 회장의 건강이 상당히 호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병세나 치료 상황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가 있고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br/><br/> 삼성은 이 회장 자녀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사장의 3세 후계구도에 대해서도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과 후계구도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커지는 이유다. 지난 11일에는 삼성 고위 임원들의 삼성병원 집결설 및 이건희 회장 위독설이 퍼져 확인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삼성의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br/><br/> 삼성·현대·에스케이·엘지 등 4대 그룹이 총수의 와병 이후 경영 승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비교한 결과 공통점은 모든 총수들이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이었다. 삼성 이 회장은 1999년 림프절 암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건강이상설에 휩싸였고, 지난해 여름에는 한때 위독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지 2년 만인 2010년 다시 복귀한 이후 출근 횟수를 늘리는 등 경영에 더 매진했다.<br/><br/>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은 타계 열달 전인 2000년 5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함께 3부자 동반 퇴진 선언을 했으나, 석달 전인 그해 3월 두 아들 간에 ‘왕자의 난’이 벌어졌을 때 이미 치매 증세를 보였다. 에스케이 최종현 회장도 타계하기 1년반 전인 1997년 봄에 폐암 발병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은 뒤에도 주위의 만류를 마다하고 마지막까지 경영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엘지그룹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도 1969년 12월 뇌종양으로 작고하기 다섯달 전부터 병원에 입원했으나, 사망 보름 전까지 경영 현안을 직접 챙겼다.<br/><br/> 후계구도 사전정리와 후계자 경영수업 수준은 그룹별로 차이를 보인다. 현대와 에스케이는 총수 와병에도 불구하고 후계구도 사전정리나 후계자 경영수업을 제대로 못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쟁이나 혼란을 겪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치매 상태였던 2000년 3월까지도 정몽구 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불안한 공동회장 체제를 방치하다가 결국 ‘왕자의 난’을 자초했다.<br/><br/> 최종현 회장도 친자녀들과 창업주이자 친형인 고 최종건 회장의 자녀들 간 후계구도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는 결국 그의 사후 에스케이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전문경영인인 손길승 그룹회장과 오너인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의 파트너십 체제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태원 회장의 그룹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수업도 부친의 폐암 발병 사실을 알기 직전인 1997년 1월 지주회사 격인 유공의 상무를 맡으면서 시작될 정도로 늦었다.<br/><br/> 반면 엘지는 엄격한 장자승계 가풍에 따라 이미 장남인 구자경 회장이 후계자로 확고하게 인식됐다. 또 구자경 회장은 부친 밑에서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경영수업을 거쳤다.<br/><br/> 삼성의 후계구도 정리와 후계자 경영수업은 현대·에스케이와 엘지의 중간 수준이다. 삼성의 승계구도는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심이라는 인식이 그룹 안팎에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지만, 두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사장이 여전히 경쟁 상대로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상무보를 맡은 2001년 이후 14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부친 밑에서 경영수업을 했다.<br/><br/> 한국 재벌 총수들이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고, 후계구도 정리와 후계자 경영수업을 미루다 혼란을 자초한 것은 선진국 주요 기업들과 많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플은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2011년 초 세번째로 발병하자 바로 병가를 내고 최고운영책임자인 팀 쿡 대행체제로 전환해 경영 공백을 차단했다. 가족소유 경영으로 유명한 독일 히든챔피언은 총수들이 생전에 경영 2선으로 물러나고, 엄격한 선발 과정과 경영수업을 거친 후계자에게 최고경영자 자리를 넘긴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span class='quot0'>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삼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고, 더구나 최근 삼성전자는 물론 다른 계열사 실적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장의 건강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말했다. <br/><br/>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4.txt

제목: 수명 연장·의료비 절감 효과 전무…조기 진단 웬말?  
날짜: 2014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210014955864  
본문: 건강과 질병의 경계는 어디인가를 둘러싼 의학계의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두루 밝기는 어렵다. 무지는 공포를 부른다. 적잖은 이들이 가벼운 증상만 있어도 새로운 첨단 의료기술을 적용해 치료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전에 없던 질병이라도 걸리면 패닉에 빠지지 않기가 어렵다. ‘공포 마케팅’이 번성할 토양이다. <br/><br/>한국에서도 과잉 진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이 과잉 진료를 부르는 것일까. ‘공포 마케팅’ 및 과잉 진료와 관련한 반성을 이 기획 연재물에서 담으려 한다. 이 기획 연재물은 어찌어찌하면 건강해진다는 ‘정답’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다만 질병과 건강, 그 흐릿한 경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글이고자 한다.<br/><br/><br/><br/><br/><br/>의사 기자 김양중의 ‘쉿, 그거 아세요?’ <br/><br/>③ 증상도 없는데 갑상선암 진단 꼭 해야 하나? <br/><br/><br/>200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 인구 10만명당 81명…미국·영국보다 높아 <br/>한해 평균 23.7%씩 증가해 암 평균 증가율의 6배 달해…과잉검진 논란 <br/>‘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 출범…합리적 해결책 기대<br/><br/><br/><br/>지난 3월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 연대’가 만들어져 최근 갑상선암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배경에는 과잉검진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뒤 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이 한창입니다. 나아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갑상선암마저 검진으로 찾아낸 뒤 수술까지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갑상선에서 조직 일부를 떼내 암으로 확진이 되면 이를 가만히 두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환자에게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의사도 없을 겁니다. 의사들 입장에선 ‘환자들이 서둘러 암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열심히 수술한 것도 죄가 되나요?’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br/><br/> 암을 곧 사망진단서로 받아들이는 환자들을 위해 몸에 해가 없는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암을 찾아낸 게 되레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하니 의사로선 억울할 법도 합니다. 갑상선암 치료를 하다보면 크기는 작아도 이미 주변 조직에 전이돼 조기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과다검진으로 내몰리니 더 그럴 겁니다. <br/><br/> 주변의 다른 의사들을 둘러봐도 갑상선암 조기진단이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예컨데 항암제를 써서 암을 치료하는 종양내과 의사라면 암 세포가 조금만 남아 있어도 항암제를 씁니다. 항암제 치료로 늘어나는 생존기간이 단 몇일에 불과하고, 한달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도 항암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br/><br/> 항생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의 항생제 소비량은 1000명당 하루 28.4단위(일일상용량)로 오이시디 평균인 20.3단위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써 댔으면 8종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폐렴구균이 발견됐겠습니까? 이런 폐렴구균이 가져올 문제는 정작 항생제를 많이 먹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은 항생제 탓에 내성을 지닌 세균이 나에게 감염돼 치료를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br/><br/> 우리 사회의 세태로는 세균·기생충 한마리도 몸안에 두지 못합니다. 하물며 아무리 생존율이 높다고 해도 갑상선암을 그냥 둘리 있겠습니까. 발견 즉시 박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덕에 환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수명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누렸을 겁니다. 항생제 치료도 다르지 않습니다. <br/><br/> 하지만 이제는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의료계에서 흔히 ‘수술 또는 항암제 치료는 잘 됐는데, 정작 환자는 장애를 얻거나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질병만 볼 게 아니라 환자의 건강 전체에 이로운 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암 검진만 열심히 받으라고 했지 정작 검진효과를 검증한 조사결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진을 늘린 덕에 수명이 연장되거나 의료비가 줄었는지 그래서 삶의 질은 높아졌는지를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의미 있는 결과 말입니다. <br/><br/> 왜 하필 갑상선암을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바라냐고요? 갑상선암이 이런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81명 꼴로 영국의 17.5배, 미국의 5.5배나 됩니다. 세계 평균 보다 10배나 높습니다. 갑상선암은 1999~2011년 한해 평균 23.7%씩이나 증가해 모든 암의 평균 증가율 3.6%보다 약 6배나 됩니다. 역으로 갑상선암 수술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없애는데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 대한갑상선학회가 갑상선에 생긴 5㎜ 이하의 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권고안이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감히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 연대’와 손잡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5.txt

제목: 첨단 의학기술 맹신의 위험성  
날짜: 2014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210014960285  
본문: 과학소설에 등장할 법한 최첨단 진단 장비와 다국적 제약기업의 상호가 찍힌 알약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반면 동네의원의 의사가 청진기 하나 달랑 들고 진료하면 마음이 불안하다. 심지어 약 처방도 해주지 않고 술이나 담배를 끊으라는 잔소리만 하는 의사라면 더욱 그렇다. 첨단 의학 기술일수록 질병 예방과 치료에 더 효과적이리라는 기대는 세계적으로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다.<br/><br/> 그런데 카를로스 스페인 나바라대학 교수팀은 지난 6월 국제 학술지인 <역학과 지역사회 건강>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생각을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연구팀은 폐암·자궁경부암을 비롯해 암이나 심장 및 혈관질환, 당뇨, 비만 등 대표적인 공중보건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검토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우선 핏속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스타틴이라는 약은 일부 심장 및 혈관질환자들한테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심장병이 없는 성인들에게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스타틴이라는 약은 임상 지침을 통해 점차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다. 심장병 발생의 80%가 식사습관·흡연·운동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음에도, 전체 성인의 거의 30%가 약을 먹게 해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 난센스다.<br/><br/> 메트포민이라는 약과 생활습관 개선이 당뇨 개선에 끼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도 인상적이다. 메트포민을 먹은 집단에서 3년, 10년 동안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 감소 효과는 30%, 18%이다. 반면, 생활습관을 바꾼 집단의 효과는 각각 58%, 34%로 나타났다. 습관 개선이 약보다 월등하게 효과가 좋다. <br/><br/>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이 백신은 자궁경부암 문제가 덜 심각한 주요국의 중산층 이상에서 접종이 활발히 이뤄진다. 가격이 비싸서 발생하는 역설적 현상이다. 3번이나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처럼 비싸고 번거로운 예방백신에 견줘,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생활은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br/><br/> 이른바 첨단 예방법은 사람들이 안전을 과신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폐암 조기 검진을 꾸준히 받고 있으니 담배를 계속 피워도 괜찮다고 여기거나,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으니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의 상업화 경향이 이런 기술 맹신 문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생활습관 개선과 공중보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어려우니 약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한 개인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정책결정자라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대중이 원한다며 복잡하고 값비싼 의학기술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시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보기술(IT) 융합 또는 원격의료 같은 그럴싸한 이름의 첨단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다. <br/><br/>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health.re.kr) 연구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6.txt

제목: 0에서 1사이 수많은 숫자처럼…넌 내게 영원함을 줬어  
날짜: 20140812  
기자: 서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2100000120  
본문: 10대 소녀 헤이즐(셰일린 우들리)은 늘 산소통을 캐리어처럼 끌고 다닌다. 코에 매단 호스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다. 어릴 때부터 폐암을 앓은 그는 한때 목숨을 잃을 뻔도 했지만, 기적적으로 호전됐다. 그래도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말기암 환자다.<br/>　혼자 지내길 좋아하는 헤이즐은 어느 날 부모의 권유에 못 이겨 암환자 모임에 나간다. 거기서 만난 키 크고 훤칠한 또래 소년 어거스터스(앤설 엘고트)의 미소에 헤이즐은 가슴이 뛴다. 어거스터스는 골육종을 앓고 한쪽 다리를 잘라낸 상태다. 둘은 헤이즐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 을 나눠 읽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진다.<br/>　(사진)은 회복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두 10대 남녀의 연애담을 그린 영화다. 존 그린의 베스트셀러 소설 (The Fault In Our Stars)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영화 원제는 소설과 같지만, 국내에선 로 제목을 바꿨다. 앞서 개봉한 미국에서 등 쟁쟁한 블록버스터들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화제작이다.<br/>　두 남녀의 이야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행에 이르면서 극적으로 치닫는다. 암스테르담은 의 작가 피터 반 호텐(윌럼 대포)이 머무는 곳이다. 그 작가를 만나고 싶다는 헤이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어거스터스는 자선단체 프로그램인 ‘지니의 소원’을 쓴다. 하지만 힘들게 만난 작가는 술에 절어 독설을 내뱉는다. 크게 실망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가까워지고, 어거스터스는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br/>　은 단순한 하이틴 로맨스 영화에 머물지 않는다. 극한 상황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두 남녀의 사랑은 한없이 순수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결국엔 거대한 감동을 안긴다. “0에서 1 사이엔 수많은 숫자가 있어요. 0.1, 0.12, 0.112…, 무한대로 많죠. 저는 제게 주어진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갖고 싶어요. 내 사랑, 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작은 무한대가. 넌 내게 한정된 나날 속에서 영원함을 줬어.” 어거스터스를 향해 헤이즐이 한 말에는, 짧은 삶 속에서도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빛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진실이 함축돼 있다.<br/>　이전에 로 얼굴을 알린 셰일린 우들리와 어릴 적부터 연극 무대에 섰고 역시 에 출연했던 앤설 엘고트는 이 영화를 통해 할리우드 차세대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 에서 인상적인 죽음을 맞는 엘리어스 상사 역으로 존재감을 알린 윌럼 대포는 짧은 출연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에드 시런, 그룹러브, 버디, 찰리 엑스시엑스(XCX) 등 요즘 뜨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이 참여한 사운드트랙은 영화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13일 개봉.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br/> 사진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7.txt

제목: 0에서 1사이 수많은 숫자처럼…넌 내게 영원함을 줬어  
날짜: 2014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110014951766  
본문: 10대 소녀 헤이즐(셰일린 우들리)은 늘 산소통을 캐리어처럼 끌고 다닌다. 코에 매단 호스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다. 어릴 때부터 폐암을 앓은 그는 한때 목숨을 잃을 뻔도 했지만, 기적적으로 호전됐다. 그래도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말기암 환자다.<br/><br/> 혼자 지내길 좋아하는 헤이즐은 어느날 부모의 권유에 못 이겨 암환자 모임에 나간다. 거기서 만난 키크고 훤칠한 또래 소년 어거스터스(안셀 엘고트)의 미소에 헤이즐은 가슴이 뛴다. 어거스터스는 골육종을 앓고 한쪽 다리를 잘라낸 상태다. 둘은 헤이즐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 <거대한 아픔>을 나눠 읽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진다.<br/><br/> <안녕, 헤이즐>(사진)은 회복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두 10대 남녀의 연애담을 그린 영화다. 존 그린의 베스트셀러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The Fault In Our Stars)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영화 원제는 소설과 같지만, 국내에선 <안녕, 헤이즐>로 제목을 바꿨다. 앞서 개봉한 미국에서 <엣지 오브 투모로우> <말레피센트> 등 쟁쟁한 블록버스터들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화제작이다.<br/><br/> 두 남녀의 이야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행에 이르면서 극적으로 치닫는다. 암스테르담은 <거대한 아픔>의 작가 피터 반 호텐(윌렘 대포)이 머무는 곳이다. 그 작가를 만나고 싶다는 헤이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어거스터스는 자선단체 프로그램인 ‘지니의 소원’을 쓴다. 하지만 힘들게 만난 작가는 술에 쩔어 독설을 내뱉는다. 크게 실망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가까워지고, 어거스터스는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br/><br/> <안녕, 헤이즐>은 단순한 하이틴 로맨스 영화에 머물지 않는다. 극한 상황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두 남녀의 사랑은 한없이 순수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결국엔 거대한 감동을 안긴다. “0에서 1 사이엔 수많은 숫자가 있어요. 0.1, 0.12, 0.112…, 무한대로 많죠. 저는 제게 주어진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갖고 싶어요. 내 사랑, 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작은 무한대가. 넌 내게 한정된 나날 속에서 영원함을 줬어.” 어거스터스를 향해 헤이즐이 한 말에는, 짧은 삶 속에서도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빛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진실이 함축돼 있다.<br/><br/> 이전에 <디센던트> <다이버전트>로 얼굴을 알린 셰일린 우들리와 어릴 적부터 연극 무대에 섰고 역시 <다이버전트>에 출연했던 안셀 엘고트는 이 영화를 통해 할리우드 차세대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 <플래툰>에서 인상적인 죽음을 맞는 엘리어스 상사 역으로 존재감을 알린 윌렘 대포는 짧은 출연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에드 시런, 그룹러브, 버디, 찰리 엑스시엑스(XCX) 등 요즘 뜨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이 참여한 사운드트랙은 영화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13일 개봉. <br/><br/>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br/><br/> 사진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8.txt

제목: 하이닉스 “발병·작업환경 실태조사 하겠다”  
날짜: 20140811  
기자: 오승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11100000007  
본문: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 의혹이 있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정밀한 실태조사, 작업환경 개선 등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발병 현황과 작업환경 실태 등을 다룬 심층리포트(7월28일치 1·4·5면, 8월4일치 1·5면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이후 2주 만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br/>　박성욱 에스케이하이닉스 대표이사는 10일 사내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span class='quot0'>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 회사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구성원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span>”며 실태조사와 발병·사망자 지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br/>▶8면으로 이어짐<br/><br/><br/>▶1면에서 이어짐<br/>하이닉스는 실태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기로 하고, 학계와 산업보건 전문의 등을 포함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쪽은 “과거에 고통받은 분들과 앞으로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해 오는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br/>　발병·사망자 지원과 관련해선, 사내에 ‘건강지킴이 콜센터’를 설치해 관련 질환 발병 시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잠복기가 있는 질병을 고려해 퇴직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 및 퇴직자 가운데 특수질환 발병자를 추적관리하고 경제적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있는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br/>　하이닉스는 또 유해물질을 국내 법적 기준보다도 더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제적 기준인 ‘직업 건강·안전 관리 시스템’(OHSMS)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br/>　하지만 하이닉스 쪽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백혈병 등과 작업환경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쪽은 “(직업성 암 등의 입증·보상 문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회사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br/>　하이닉스가 이날 밝힌 대책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등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신속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이닉스 쪽은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발표하고, 각종 지원·보상 프로그램은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br/>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예방의학전문의)은 “<span class='quot1'>과거 삼성의 행태에 비추어본다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로 보인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업무상 질병의 인과성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은 거슬리는 대목</span>”이라고 말했다. 김인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산업보건전문의)는 “<span class='quot2'>누가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평가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span>”고 짚었다.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는 “<span class='quot3'>협력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는 점, 법적 기준 이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겠다는 점 등이 삼성이 내놓은 대책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span>”이라고 평가했다.<br/><br/>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09.txt

제목: “가족들 모두 감옥 간다” 진언하자 “회사 나가라”  
날짜: 20140809  
기자: 곽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09100000015  
본문: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가 계열 회사의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재계 전체의 뜨거운 관심사다. 는 사건의 정확한 실상을 듣기 위해 조 변호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정중한 거절의 답을 들었다. 조 변호사는 대신 고발 이유 등이 담긴 메일을 에 보냈고, 측근을 통해 보충설명까지 했다. 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고, 지난해 말 조 변호사가 기자와 만나 솔직하게 털어놓은 얘기를 덧붙여 효성 사태의 전말을 소개한다.<br/><br/>“효성의 잘못된 경영 행태에 대해 반대하다가 밉보여 쫓겨났는데, 이후에도 (효성이 계속) 언론과 찌라시 등을 동원해 내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내가 계속 (효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 다물고 있다가는, 나중에라도 (효성이) 나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내가 효성의 부정행위와 비정상적인 경영과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혀달라.”<br/>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6)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가 지난달 25일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한 말이다. 이에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6월10일 효성 계열의 부동산 관리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이하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최현태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대고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들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은 부동산 매매·임대 회사로, 효성가 3형제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br/>　자산 기준 재계 25위인 효성그룹의 총수 일가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현문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효성 주식을 팔고 떠난 지 1년 반 만이다. 이번 고발사건의 당사자는 최현태 대표다. 최 대표의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 화살은 자연스럽게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최대주주인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에게 겨눠질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 사장인 최 대표가 제멋대로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도 고발장에서 “<span class='quot0'>트리니티와 신동진이 갤럭시아, 골프포트, 더프리미엄효성에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은 최대주주인 조현준과 조현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주장했다. 트리니티는 조현준 사장이 80%의 지분을, 신동진은 조현상 부사장이 8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br/>　<br/>　“<span class='quot1'>등기이사일 때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span>”<br/>　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효성은 “<span class='quot2'>(트리니티와 신동진의 투자는) 적법한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투자활동으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span>”며 “<span class='quot2'>(회사의) 이사로 경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한 뒤 몸담고 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span>”고 밝혔다. 효성은 한발 더 나아가 강온작전을 병행하며 조 변호사를 압박한다. 만약 회사 경영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10년 이상 효성에 몸담았고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등기이사까지 맡았던 조 변호사는 깨끗하냐는 ‘물타기’부터, 부모형제도 몰라보는 패륜을 저지른다는 ‘도덕적 비난’, 피는 물보다 진하니 지금이라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라는 ‘호소’까지 다양하다. 또 효성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고발 문제와는 별개로, 암에 걸린 아버지(조석래 회장)에 대한 문병을 한번이라는 하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냐</span>”고 말했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조 변호사의 고발을 ‘형제의 난’으로 부르고,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재벌가 분쟁이라고 비난한다.<br/>　조 변호사는 단호하다. 측근을 통해 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룹을 떠나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 하지만 저들은 한쪽에서는 나의 진의를 왜곡하고 음해해왔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나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등 내가 정당하게 독립해서 바르게 새 출발 하는 삶을 살려는 것을 방해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번에 모든 불법행위들을 바로잡고 정리하려 고발을 결정했다.” 조 변호사는 그룹과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도 일일이 답했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등기이사로 이름만 있었지 실상은 조현준, 조현상이 독단적으로 경영했고 나는 완전히 배제됐다. 경영진이 나에게 어떠한 경영정보도 공유한 적이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불법 혐의도 장부 열람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됐고, 그 이전에는 철저히 은폐하고 속여왔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또 “나는 신동진, 트리니티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고 이사회 자체가 열린 적이 없다. 만약 이사회 회의록에 나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허위날인 막도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br/>　조 변호사의 이메일에는 그동안 세간의 궁금증을 낳았던 효성과의 결별 이유가 언급돼 있어 각별한 관심을 모은다. “<span class='quot1'>그룹 내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려고 해왔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그룹을 떠났다.</span>” 그동안 효성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br/>　조 변호사는 재벌가 출신으로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서울대 재학 시절 고교 동창인 신해철씨와 보컬그룹 ‘무한궤도’의 멤버로 활동했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란 노래로 대상을 탔다. 2011년 1월 신입사원 입문교육 강연 도중에 즉석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하버드에서 유학하며 조 변호사를 지켜봤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스마트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1998년에 미국의 한 유명 법률회사에서 일했다. 그때 부친으로부터 귀국해서 그룹 경영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조 변호사는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로서 그냥 미국에 정착하는 길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의 요청을 수용해 1999년 효성에 들어왔다. 입사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했고, 2006년부터는 부사장 승진과 함께 중공업 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 중공업 사업은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졌다. 조현문 부사장은 자정 무렵에 혼자서 창원공장을 불쑥 방문해 임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br/>　<br/>　검찰 조사 이후 집 아닌 곳에서 생활<br/>　조 부사장은 중공업 사업을 맡으면서 회사 내 뿌리 깊은 부정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부정비리는 중공업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조 부사장은 부정을 색출하고, 관련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었다. 그때부터 조 부사장에 대한 내부 견제가 본격화됐다. 조 부사장은 조석래 회장에게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돌아온 말은 “형(조현준 사장)이나 잘 보필하라”는 것이었다. 그즈음 조현준 사장의 해외 부동산 불법매입 사건이 터졌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조 부사장은 형과 회사를 위해 뛰었다. 그 덕분인지 조현준 사장 사건은 2010년 12월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조 부사장은 사건 직후 형인 조 사장에게 비장한 각오로 말했다. “앞으로 개인보다 회사를 위해 일한다면 평생 형 옆에서 충성하겠다. 하지만 회사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함께할 수 없다.”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실과 달리 자신을 음해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져 조석래 회장에게 올라갔다는 게 조현문 변호사 쪽의 주장이다.<br/>　결정적 사건은 2011년 여름에 터졌다. 조현문 부사장은 회사의 구매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조석래 회장에게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히 진언했다. 돌아온 답은 차가웠다. “내 회사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형의 자리를 다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냐? 차라리 (회사를) 나가라.” 사실상 파문 선언이었다. 조 부사장은 2011년 9월 회사를 떠났다. 효성은 이에 대해 “(조 부사장의)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문제가 있었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비정상 행태’를 보였다. 조석래 회장도 그런 둘째에 대해 점점 기대를 접었다”고 해명했다.<br/>　조 변호사는 2013년 2월 갖고 있던 효성 주식 대부분을 팔았다.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임직원들에게는 “그룹이 잘되길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세간에서는 후계자 다툼 과정에서의 갈등설 등의 소문이 난무했다. 일부 언론은 조 회장이 장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반발해 나갔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실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이미 2011년 말부터 조 변호사와 효성의 관계는 끝났고, 주식만 1년여 뒤에 정리한 것이다.<br/>　조 변호사와 효성 간의 갈등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아니 더욱 증폭됐다. 조 변호사의 지분 매각 뒤 효성과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5월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9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국내 및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 등 5명을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6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조 회장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몇년 전 치료했던 암이 재발했다.<br/>　효성은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에 조 변호사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사자인 조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뛴다. 조 변호사는 지난 2월 자신이 국세청과 검찰에 그룹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효성그룹 임원과 한 인터넷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br/>　조 변호사는 이메일에서 효성이 자신에게 불법행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 쪽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수년 전 미국 펀드에 불법투자한 사건을 조 변호사가 한 짓으로 돌리려고, 효성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사실과 달리 증언을 했다. 내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 혐의를 벗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이메일에서 자신의 진의를 음해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달 조석래 회장이 지난해 조 변호사의 집을 3번이나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조 변호사 쪽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조석래 회장이 방문했을 당시 조 변호사는 집에 없었다. 지난해 검찰 조사 이후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 조 변호사는 이 매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조 변호사의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조 변호사의 재산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떠돌았다. 조 변호사는 이런 소문들의 배경에 효성이 있다고 의심한다.<br/>　<br/>　“별나라 사는 재벌 3세”…정의선은 높이 평가<br/>　효성은 1966년 설립된 동양나이론(현재의 효성)이 모체다. 창업자인 조홍제 회장의 장남인 조석래 회장은 1982년 효성의 2대 회장에 취임했다. 조 회장은 돌다리도 두드릴 정도의 신중한 경영 스타일로 유명하다. 이를 바탕으로 타이어코드지, 나일론, 스판덱스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2007년에는 재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았다.<br/>↗<br/>↘<br/>조 회장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에게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효성의 주식을 골고루 나눠 주었다. 세 아들은 각기 국내외 유명 대학을 졸업한 뒤 10년 이상 효성에서 근무하며 효성의 핵심사업인 무역과 섬유, 중공업, 산업자재 등을 나눠 맡았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효성은 일찍부터 장남인 조현준 사장 중심의 승계구도가 명확히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세간에서 제기하는 경영권 승계 경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조 변호사는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형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말을 마르고 닳도록 들었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br/>　돈이나 경영권 장악 목적이 아니라면 조현문 변호사가 그룹 내 불법행위를 들추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우선 조 변호사의 성향에서 답을 찾는다. 하버드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조 변호사는 평소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조 변호사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조 변호사는 보유중이던 효성 계열의 두미종합개발 지분(49%)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도 했다.<br/>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재벌에 대한 조 변호사의 문제의식이 꼽힌다. 조 변호사는 지금껏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재벌 체제가 어느덧 3세 체제로 접어들면서 수명(유효성)을 다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바깥에서 보면 대부분의 재벌 3세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경영수업을 받아 유능한 경영자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와 달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가정신이나 헌신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온실 속의 화초 같아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생각이 없다.” 재벌 3세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부동산 투자, 외제차 수입 같은 손쉬운 돈벌이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편법과 불법까지 마다 않는다. 또 새로운 파이를 만들지 못하니까, 가족 간에 서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조 변호사는 효성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조 변호사는 또래의 다른 재벌 3세들과 폭넓은 교분을 갖고 있다. “<span class='quot1'>이런 재벌 3세들이 총수를 맡는 재벌 체제는 미래가 없다.</span>”<br/>　조현문 변호사는 재벌 3세들의 행태도 냉정하게 평한다. “재벌 3세들은 별나라에 사는 황태자다. 선악이나 질서는 남들 얘기일 뿐이다. 내가 곧 법이라고 생각한다. 회삿돈과 내 돈을 구분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조현준 사장은 해외 부동산 불법매입 사건이 터진 뒤 “많은 기업들이 하는데, 나만 억울하게 됐다”고 불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가 드물게 높이 평가하는 재벌 3세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다. “<span class='quot1'>경영자로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겸손하며, (경영능력을) 검증까지 받았다</span>”는 게 이유다. 정 부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현대그룹 창업자이자 조부인 정주영 회장과 일대일 맞상으로 식사를 하며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br/>　<br/>　재벌가의 패륜아인가, 재벌개혁의 순교자인가<br/>　조현문 변호사는 재벌 체제의 위기요인으로 전문경영인 문제를 함께 꼽는다. “이른바 가신으로 불리는 전문경영인의 진실 왜곡과 잘못된 의사결정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룹 회장이 회사의 문제점을 가장 늦게 알게 된다.” 재벌 창업주와 2세 시절에는 기업 규모가 작아, 총수 1인에게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이 집중되고, 총수의 직접적인 조직장악이 가능했다. 규모가 수십배 커지고 사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총수 1인지배 체제가 불가능해지고, 효율적이지도 않게 됐다. “자연스럽게 전문경영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문경영인들이 사익을 추구하고, 심지어 총수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지만 지금의 기업 구조와 규모, 변화된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종전의 총수 1인지배 체제로 계속 재벌의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길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 기업 내부의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br/>　조 변호사가 다시 효성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을까? 조 변호사는 “내가 원하는 것은 효성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효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외아들도 결코 재벌로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span class='quot1'>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span>” 조 변호사는 앞으로 효성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자신은 불법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조 변호사는 트리니티와 신동진 외에 또 다른 효성 계열사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이번달 안에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br/>　역사는 조현문을 어떻게 평가할까? 일부의 시각처럼 재벌가의 패륜아로 볼까, 아니면 한국 재벌의 개혁을 위한 순교자로 평할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숱한 재벌개혁론이 나왔지만 정작 재벌 안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사람은 조현문 변호사가 재벌의 50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는 점이다. <br/>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0.txt

제목: 삼성화재배 본선 진출자 32명 명단  
날짜: 2014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08100000092  
본문: (사진·에스비에스)는 노희경 작가와 김규태 감독이 이후 다시 만나 만든 16부작 로맨틱 코미디이다. 조인성, 공효진 주연에 성동일, 이광수 등 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썩 잘 어울리는 남녀 주인공들의 세련된 매력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거니와, 장르에 걸맞게 티격태격하며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보는 것도 흥미롭다. 는 정신과 의사인 해수(공효진)를 중심으로 메디컬드라마의 속성을 띠며, 정신병이나 성관계 등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br/>　드라마는 정신질환의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며,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촉구한다. 드라마는 해수가 일하는 병원의 환자들뿐 아니라, 주인공과 주변인물을 강박증, 불안장애, 투레트증후군 환자로 설정한다. “<span class='quot0'>인구의 80%가 신경증을 앓고 있다</span>”는 드라마 속 대사처럼,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드라마는 외과 의사도 암에 걸리듯이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알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문다.<br/>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아서, 정신질환자들은 추문과 배제와 격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 때문에 급격히 늘고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관한 논의로 흐르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공포와 이질감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는 정신질환자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고통을 지닌 존재이자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로 그린다.<br/>　또한 드라마는 성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그린다. 오히려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해수의 상태를 병적으로 본다. 그가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불륜으로 인한 외상 때문이다. 성을 더럽게 여기고 거부하는 행위를 가부장적 순결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된 상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신경증의 증상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는 성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성관계에서 어떠한 도구와 체위가 활용되든 그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잣대가 되지 못하며, 소통과 동의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도 일깨운다. 또 트랜스젠더나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들이나 그들의 박해에 저항하지 않는 상태를 병적으로 판단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성은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감을 나누는 소통행위로 전유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것이다.<br/>　드라마는 정신질환과 성관계에 대한 진보적인 사고를 경유하여, 사랑에 대한 독특한 정의를 내린다. 주인공들은 겉으론 번드르르해 보이지만, 자신들만의 결핍을 지닌다. 유명작가인 재열(조인성)은 강박증과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으며, 친족살인의 의혹에 휩싸여 있다. 해수 역시 불안장애와 관계기피증을 앓고 있으며, 모성콤플렉스를 지닌다. 드라마는 이들이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정신적인 문제를 알아가고, 관계를 통해 해소시켜주는 과정을 그린다. 즉 사랑이란 그 사람의 ‘정신병’을 아는 것이자, 그것을 용납하고 보듬으며, 마침내 완화시키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정의를 드라마가 역설하는 것이다. 정신병과 성관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며, 드라마가 내리는 사랑의 정의가 이만하면 꽤 급진적이지 않은가.<br/>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1.txt

제목: 효성 재벌 3세 조현문은 말한다“가족들 모두 감옥 간다” 진언하자 “회사 나가라”  
날짜: 2014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0810014939137  
본문: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가 계열 회사의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재계 전체의 뜨거운 관심사다. <한겨레>는 사건의 정확한 실상을 듣기 위해 조 변호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정중한 거절의 답을 들었다. 조 변호사는 대신 고발 이유 등이 담긴 메일을 <한겨레>에 보냈고, 측근을 통해 보충설명까지 했다. <한겨레>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고, 지난해 말 조 변호사가 기자와 만나 솔직하게 털어놓은 얘기를 덧붙여 효성 사태의 전말을 소개한다.<br/><br/><br/><br/>“효성의 잘못된 경영 행태에 대해 반대하다가 밉보여 쫓겨났는데, 이후에도 (효성이 계속) 언론과 찌라시 등을 동원해 내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내가 계속 (효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 다물고 있다가는, 나중에라도 (효성이) 나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내가 효성의 부정행위와 비정상적인 경영과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혀달라.”<br/><br/>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6)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가 지난달 25일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한 말이다. 이에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6월10일 효성 계열의 부동산 관리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이하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최현태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대고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들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은 부동산 매매·임대 회사로, 효성가 3형제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br/><br/> 자산 기준 재계 25위인 효성그룹의 총수 일가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현문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효성 주식을 팔고 떠난 지 1년 반 만이다. 이번 고발사건의 당사자는 최현태 대표다. 최 대표의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 화살은 자연스럽게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최대주주인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에게 겨눠질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 사장인 최 대표가 제멋대로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도 고발장에서 “<span class='quot0'>트리니티와 신동진이 갤럭시아, 골프포트, 더프리미엄효성에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은 최대주주인 조현준과 조현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주장했다. 트리니티는 조현준 사장이 80%의 지분을, 신동진은 조현상 부사장이 8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br/><br/><br/><br/>계열사 대표 고발한 조현문 <br/>혐의 인정될 경우 다음 화살은 <br/>형제들인 조현준과 조현상 <br/>그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br/><한겨레>에 이메일로 밝혔다<br/><br/>2011년 여름에 터진 결정적 사건 <br/>구매입찰 등 비리에 제동 걸며 <br/>“가족들 모두 감옥 간다” 해도 <br/>“<span class='quot1'>형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이냐</span>”며 <br/>오히려 사실상의 파문선언 들어<br/><br/> <br/><br/> “<span class='quot1'>등기이사일 때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span>”<br/><br/> 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효성은 “<span class='quot2'>(트리니티와 신동진의 투자는) 적법한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투자활동으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span>”며 “<span class='quot2'>(회사의) 이사로 경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한 뒤 몸담고 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span>”고 밝혔다. 효성은 한발 더 나아가 강온작전을 병행하며 조 변호사를 압박한다. 만약 회사 경영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10년 이상 효성에 몸담았고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등기이사까지 맡았던 조 변호사는 깨끗하냐는 ‘물타기’부터, 부모형제도 몰라보는 패륜을 저지른다는 ‘도덕적 비난’, 피는 물보다 진하니 지금이라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라는 ‘호소’까지 다양하다. 또 효성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고발 문제와는 별개로, 암에 걸린 아버지(조석래 회장)에 대한 문병을 한번이라도 하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냐</span>”고 말했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조 변호사의 고발을 ‘형제의 난’으로 부르고,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재벌가 분쟁이라고 비난한다.<br/><br/> 조 변호사는 단호하다. 측근을 통해 <한겨레>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룹을 떠나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 하지만 저들은 한쪽에서는 나의 진의를 왜곡하고 음해해왔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나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등 내가 정당하게 독립해서 바르게 새 출발 하는 삶을 살려는 것을 방해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번에 모든 불법행위들을 바로잡고 정리하려 고발을 결정했다.” 조 변호사는 그룹과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도 일일이 답했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등기이사로 이름만 있었지 실상은 조현준, 조현상이 독단적으로 경영했고 나는 완전히 배제됐다. 경영진이 나에게 어떠한 경영정보도 공유한 적이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불법 혐의도 장부 열람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됐고, 그 이전에는 철저히 은폐하고 속여왔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또 “나는 신동진, 트리니티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고 이사회 자체가 열린 적이 없다. 만약 이사회 회의록에 나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허위날인 막도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br/><br/> 조 변호사의 이메일에는 그동안 세간의 궁금증을 낳았던 효성과의 결별 이유가 언급돼 있어 각별한 관심을 모은다. “<span class='quot1'>그룹 내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려고 해왔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그룹을 떠났다.</span>” 그동안 효성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br/><br/> 조 변호사는 재벌가 출신으로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서울대 재학 시절 고교 동창인 신해철씨와 보컬그룹 ‘무한궤도’의 멤버로 활동했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란 노래로 대상을 탔다. 2011년 1월 신입사원 입문교육 강연 도중에 즉석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하버드에서 유학하며 조 변호사를 지켜봤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스마트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1998년에 미국의 한 유명 법률회사에서 일했다. 그때 부친으로부터 귀국해서 그룹 경영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조 변호사는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로서 그냥 미국에 정착하는 길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의 요청을 수용해 1999년 효성에 들어왔다. 입사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했고, 2006년부터는 부사장 승진과 함께 중공업 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 중공업 사업은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졌다. 조현문 부사장은 자정 무렵에 혼자서 창원공장을 불쑥 방문해 임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br/><br/> <br/><br/> 검찰 조사 이후 집 아닌 곳에서 생활<br/><br/> 조 부사장은 중공업 사업을 맡으면서 회사 내 뿌리 깊은 부정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부정비리는 중공업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조 부사장은 부정을 색출하고, 관련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었다. 그때부터 조 부사장에 대한 내부 견제가 본격화됐다. 조 부사장은 조석래 회장에게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돌아온 말은 “형(조현준 사장)이나 잘 보필하라”는 것이었다. 그즈음 조현준 사장의 해외 부동산 불법매입 사건이 터졌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조 부사장은 형과 회사를 위해 뛰었다. 그 덕분인지 조현준 사장 사건은 2010년 12월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조 부사장은 사건 직후 형인 조 사장에게 비장한 각오로 말했다. “앞으로 개인보다 회사를 위해 일한다면 평생 형 옆에서 충성하겠다. 하지만 회사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함께할 수 없다.”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실과 달리 자신을 음해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져 조석래 회장에게 올라갔다는 게 조현문 변호사 쪽의 주장이다.<br/><br/> 결정적 사건은 2011년 여름에 터졌다. 조현문 부사장은 회사의 구매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조석래 회장에게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히 진언했다. 돌아온 답은 차가웠다. “내 회사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형의 자리를 다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냐? 차라리 (회사를) 나가라.” 사실상 파문 선언이었다. 조 부사장은 2011년 9월 회사를 떠났다. 효성은 이에 대해 “(조 부사장의)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문제가 있었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비정상 행태’를 보였다. 조석래 회장도 그런 둘째에 대해 점점 기대를 접었다”고 해명했다.<br/><br/> 조 변호사는 2013년 2월 갖고 있던 효성 주식 대부분을 팔았다.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임직원들에게는 “그룹이 잘되길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세간에서는 후계자 다툼 과정에서의 갈등설 등의 소문이 난무했다. 일부 언론은 조 회장이 장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반발해 나갔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실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이미 2011년 말부터 조 변호사와 효성의 관계는 끝났고, 주식만 1년여 뒤에 정리한 것이다.<br/><br/> 조 변호사와 효성 간의 갈등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아니 더욱 증폭됐다. 조 변호사의 지분 매각 뒤 효성과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5월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9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국내 및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 등 5명을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6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조 회장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몇년 전 치료했던 암이 재발했다.<br/><br/> 효성은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에 조 변호사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사자인 조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뛴다. 조 변호사는 지난 2월 자신이 국세청과 검찰에 그룹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효성그룹 임원과 한 인터넷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br/><br/> 조 변호사는 이메일에서 효성이 자신에게 불법행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 쪽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수년 전 미국 펀드에 불법투자한 사건을 조 변호사가 한 짓으로 돌리려고, 효성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사실과 달리 증언을 했다. 내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 혐의를 벗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이메일에서 자신의 진의를 음해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달 조석래 회장이 지난해 조 변호사의 집을 3번이나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조 변호사 쪽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조석래 회장이 방문했을 당시 조 변호사는 집에 없었다. 지난해 검찰 조사 이후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 조 변호사는 이 매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조 변호사의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조 변호사의 재산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떠돌았다. 조 변호사는 이런 소문들의 배경에 효성이 있다고 의심한다.<br/><br/><br/><br/>조현문이 지분을 매각한 뒤 <br/>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로 <br/>효성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 <br/>제보자로 조현문을 지목했지만 <br/>그는 자신의 무관함 입증했다며…<br/><br/>숱한 재벌개혁론 나왔지만, <br/>재벌 안에서 개혁 필요성을 <br/>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br/>사람은 재벌 50년사에서 <br/>조현문 변호사가 처음이다<br/><br/>효성도 반론을 제기했다 <br/>“조현문은 부사장 시절 <br/>정상적 마케팅 활동 등에 <br/>사사건건 반대하고 이의 제기 <br/>조석래 회장이 기대 접을 정도”<br/><br/> <br/><br/> “별나라 사는 재벌 3세”…정의선은 높이 평가<br/><br/> 효성은 1966년 설립된 동양나이론(현재의 효성)이 모체다. 창업자인 조홍제 회장의 장남인 조석래 회장은 1982년 효성의 2대 회장에 취임했다. 조 회장은 돌다리도 두드릴 정도의 신중한 경영 스타일로 유명하다. 이를 바탕으로 타이어코드지, 나일론, 스판덱스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2007년에는 재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조 회장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에게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효성의 주식을 골고루 나눠 주었다. 세 아들은 각기 국내외 유명 대학을 졸업한 뒤 10년 이상 효성에서 근무하며 효성의 핵심사업인 무역과 섬유, 중공업, 산업자재 등을 나눠 맡았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효성은 일찍부터 장남인 조현준 사장 중심의 승계구도가 명확히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세간에서 제기하는 경영권 승계 경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조 변호사는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형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말을 마르고 닳도록 들었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br/><br/> 돈이나 경영권 장악 목적이 아니라면 조현문 변호사가 그룹 내 불법행위를 들추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우선 조 변호사의 성향에서 답을 찾는다. 하버드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조 변호사는 평소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조 변호사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조 변호사는 보유중이던 효성 계열의 두미종합개발 지분(49%)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도 했다.<br/><br/>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재벌에 대한 조 변호사의 문제의식이 꼽힌다. 조 변호사는 지금껏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재벌 체제가 어느덧 3세 체제로 접어들면서 수명(유효성)을 다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바깥에서 보면 대부분의 재벌 3세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경영수업을 받아 유능한 경영자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와 달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가정신이나 헌신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온실 속의 화초 같아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생각이 없다.” 재벌 3세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부동산 투자, 외제차 수입 같은 손쉬운 돈벌이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편법과 불법까지 마다 않는다. 또 새로운 파이를 만들지 못하니까, 가족 간에 서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조 변호사는 효성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조 변호사는 또래의 다른 재벌 3세들과 폭넓은 교분을 갖고 있다. “<span class='quot1'>이런 재벌 3세들이 총수를 맡는 재벌 체제는 미래가 없다.</span>”<br/><br/> 조현문 변호사는 재벌 3세들의 행태도 냉정하게 평한다. “재벌 3세들은 별나라에 사는 황태자다. 선악이나 질서는 남들 얘기일 뿐이다. 내가 곧 법이라고 생각한다. 회삿돈과 내 돈을 구분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조현준 사장은 해외 부동산 불법매입 사건이 터진 뒤 “많은 기업들이 하는데, 나만 억울하게 됐다”고 불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가 드물게 높이 평가하는 재벌 3세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다. “<span class='quot1'>경영자로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겸손하며, (경영능력을) 검증까지 받았다</span>”는 게 이유다. 정 부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현대그룹 창업자이자 조부인 정주영 회장과 일대일 맞상으로 식사를 하며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br/><br/> <br/><br/> 재벌가의 패륜아인가, 재벌개혁의 순교자인가<br/><br/> 조현문 변호사는 재벌 체제의 위기요인으로 전문경영인 문제를 함께 꼽는다. “이른바 가신으로 불리는 전문경영인의 진실 왜곡과 잘못된 의사결정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룹 회장이 회사의 문제점을 가장 늦게 알게 된다.” 재벌 창업주와 2세 시절에는 기업 규모가 작아, 총수 1인에게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이 집중되고, 총수의 직접적인 조직장악이 가능했다. 규모가 수십배 커지고 사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총수 1인지배 체제가 불가능해지고, 효율적이지도 않게 됐다. “자연스럽게 전문경영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문경영인들이 사익을 추구하고, 심지어 총수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지만 지금의 기업 구조와 규모, 변화된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종전의 총수 1인지배 체제로 계속 재벌의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길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 기업 내부의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 조 변호사가 다시 효성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을까? 조 변호사는 “내가 원하는 것은 효성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효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외아들도 결코 재벌로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span class='quot1'>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span>” 조 변호사는 앞으로 효성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자신은 불법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조 변호사는 트리니티와 신동진 외에 또 다른 효성 계열사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이번달 안에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br/><br/> 역사는 조현문을 어떻게 평가할까? 일부의 시각처럼 재벌가의 패륜아로 볼까, 아니면 한국 재벌의 개혁을 위한 순교자로 평할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숱한 재벌개혁론이 나왔지만 정작 재벌 안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사람은 조현문 변호사가 재벌의 50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는 점이다. <br/><br/>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2.txt

제목: 그 사람의 ‘정신병’도 괜찮아, 사랑이야  
날짜: 2014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0710017108383  
본문: <괜찮아, 사랑이야>(사진)(에스비에스)는 노희경 작가와 김규태 감독이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 다시 만나 만든 16부작 로맨틱 코미디이다. 조인성, 공효진 주연에 성동일, 이광수 등 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썩 잘 어울리는 남녀 주인공들의 세련된 매력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거니와, 장르에 걸맞게 티격태격하며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보는 것도 흥미롭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정신과 의사인 해수(공효진)를 중심으로 메디컬드라마의 속성을 띄며, 정신병이나 성관계 등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br/><br/> 드라마는 정신질환의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며,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촉구한다. 드라마는 해수가 일하는 병원의 환자들뿐 아니라, 주인공과 주변인물을 강박증, 불안장애, 뚜렛 증후군 환자로 설정한다. “<span class='quot0'>인구의 80%가 신경증을 앓고 있다</span>”는 드라마 속 대사처럼,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드라마는 외과 의사도 암에 걸리듯이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알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문다.<br/><br/>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아서, 정신질환자들은 추문과 배제와 격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 때문에 급격히 늘고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관한 논의로 흐르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공포와 이질감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괜찮아, 사랑이야>는 정신질환자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고통을 지닌 존재이자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로 그린다.<br/><br/> 또한 드라마는 성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그린다. 오히려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해수의 상태를 병적으로 본다. 그가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불륜으로 인한 외상 때문이다. 성을 더럽게 여기고 거부하는 행위를 가부장적 순결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된 상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신경증의 증상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는 성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성관계에서 어떠한 도구와 체위가 활용되든 그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잣대가 되지 못하며, 소통과 동의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도 일깨운다. 또 트랜스젠더나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들이나 그들의 박해에 저항하지 않는 상태를 병적으로 판단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성은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감을 나누는 소통행위로 전유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것이다.<br/><br/> 드라마는 정신질환과 성관계에 대한 진보적인 사고를 경유하여, 사랑에 대한 독특한 정의를 내린다. 주인공들은 겉으론 번드르르해 보이지만, 자신들만의 결핍을 지닌다. 유명작가인 재열(조인성)은 강박증과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으며, 친족살인의 의혹에 휩싸여있다. 해수 역시 불안장애와 관계기피증을 앓고 있으며, 모성콤플렉스를 지닌다. 드라마는 이들이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정신적인 문제를 알아가고, 관계를 통해 해소시켜주는 과정을 그린다. 즉 사랑이란 그 사람의 ‘정신병’을 아는 것이자, 그것을 용납하고 보듬으며, 마침내 완화시키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정의를 드라마가 역설하는 것이다. 정신병과 성관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며, 드라마가 내리는 사랑의 정의가 이만하면 꽤 급진적이지 않은가. <br/><br/>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3.txt

제목: 그 사람의 ‘정신병’도 괜찮아, 사랑이야  
날짜: 2014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0710014931237  
본문: <괜찮아, 사랑이야>(사진)(에스비에스)는 노희경 작가와 김규태 감독이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 다시 만나 만든 16부작 로맨틱 코미디이다. 조인성, 공효진 주연에 성동일, 이광수 등 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썩 잘 어울리는 남녀 주인공들의 세련된 매력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거니와, 장르에 걸맞게 티격태격하며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보는 것도 흥미롭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정신과 의사인 해수(공효진)를 중심으로 메디컬드라마의 속성을 띄며, 정신병이나 성관계 등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br/><br/> 드라마는 정신질환의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며,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촉구한다. 드라마는 해수가 일하는 병원의 환자들뿐 아니라, 주인공과 주변인물을 강박증, 불안장애, 뚜렛 증후군 환자로 설정한다. “<span class='quot0'>인구의 80%가 신경증을 앓고 있다</span>”는 드라마 속 대사처럼,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드라마는 외과 의사도 암에 걸리듯이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알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문다.<br/><br/>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아서, 정신질환자들은 추문과 배제와 격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 때문에 급격히 늘고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관한 논의로 흐르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공포와 이질감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괜찮아, 사랑이야>는 정신질환자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고통을 지닌 존재이자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로 그린다.<br/><br/> 또한 드라마는 성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그린다. 오히려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해수의 상태를 병적으로 본다. 그가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불륜으로 인한 외상 때문이다. 성을 더럽게 여기고 거부하는 행위를 가부장적 순결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된 상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신경증의 증상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는 성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성관계에서 어떠한 도구와 체위가 활용되든 그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잣대가 되지 못하며, 소통과 동의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도 일깨운다. 또 트랜스젠더나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들이나 그들의 박해에 저항하지 않는 상태를 병적으로 판단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성은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감을 나누는 소통행위로 전유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것이다.<br/><br/> 드라마는 정신질환과 성관계에 대한 진보적인 사고를 경유하여, 사랑에 대한 독특한 정의를 내린다. 주인공들은 겉으론 번드르르해 보이지만, 자신들만의 결핍을 지닌다. 유명작가인 재열(조인성)은 강박증과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으며, 친족살인의 의혹에 휩싸여있다. 해수 역시 불안장애와 관계기피증을 앓고 있으며, 모성콤플렉스를 지닌다. 드라마는 이들이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정신적인 문제를 알아가고, 관계를 통해 해소시켜주는 과정을 그린다. 즉 사랑이란 그 사람의 ‘정신병’을 아는 것이자, 그것을 용납하고 보듬으며, 마침내 완화시키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정의를 드라마가 역설하는 것이다. 정신병과 성관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며, 드라마가 내리는 사랑의 정의가 이만하면 꽤 급진적이지 않은가. <br/><br/>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4.txt

제목: 갑상선암 과다검진의 늪 /건보 진료비 4년새 2배로  
날짜: 20140805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05100000045  
본문: 과다검진으로 불필요한 수술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갑상선암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br/>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제출한 2009~2013년 갑상선암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보면, 갑상선암 진료비가 2009년 1224억원에서 2013년 2211억원으로 4년 새 81%가량 증가했다. 갑상선암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가 내는 의료비도 같은 기간 163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었다. 이목희 의원은 “<span class='quot0'>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갑상선암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엄격히 집행했는지, 일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는 건 아닌지를 조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에 81명꼴이다. 이는 영국의 17.5배, 미국의 5.5배에 이른다. 세계 평균에 비교할 때에도 10배가 넘는다. <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5.txt

제목: 갑상선암 과다검진의 늪 건보 진료비 4년새 2배로  
날짜: 2014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0410014906280  
본문: 과다검진으로 불필요한 수술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갑상선암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br/><br/>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제출한 2009~2013년 갑상선암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보면, 갑상선암 진료비가 2009년 1224억원에서 2013년 2211억원으로 4년 새 81%가량 증가했다. 갑상선암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가 내는 의료비도 같은 기간 163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었다. 이목희 의원은 “<span class='quot0'>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갑상선암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엄격히 집행했는지, 일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는 건 아닌지를 조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에 81명꼴이다. 이는 영국의 17.5배, 미국의 5.5배에 이른다. 세계 평균에 비교할 때에도 10배가 넘는다. <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6.txt

제목: 유해물질 경보 월평균 52회…삼성의 17배  
날짜: 2014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80310014898061  
본문: 반도체 산업의 대표적 산업재해로 꼽히는 림프조혈기계 질환의 사망·발병자 비율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관련기사 : ▷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 1995~2007년 사망·발병률 삼성보다 높아) 하이닉스 공장의 작업환경과 취급 화학물질의 위험성도 삼성 못지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이런 사실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의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결과 보고서’(2012년 2월)를 통해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산보연이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 삼성전자·하이닉스·페어차일드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반도체 산업의 작업환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일한 연구 자료다. 보고서에는 각 사를 A·B·C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겨레>는 여러 경로를 통해 A사가 페어차일드, B사가 삼성전자, C사가 하이닉스라는 것을 확인했다.<br/><br/>산보연 ‘2009년 실태 보고서’ <br/>맹독성 아르신·포스핀 자주 유출 <br/>기준치 자체도 삼성보다 느슨<br/><br/> ■ 알람 발생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작업장 내 유해물질 누출을 경고하는 ‘알람’이 울린 현황이다. 삼성전자 8인치 웨이퍼(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가공라인의 알람 발생은 2009년 1~12월 사이 총 38건으로 월평균 3건 정도였던 데 견줘, 하이닉스 12인치 웨이퍼 가공라인에선 2009년 1~9월 사이 468회 알람이 울려 월평균 52회를 기록했다.<br/><br/> 특히 맹독성 기체인 아르신이 누출됐을 때 울린 알람이 삼성에선 1~12월 4건이었던 반면, 하이닉스에선 1~9월에만 129건이었다. 월평균치로 따지면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43배 더 자주 아르신에 노출된 셈이다. 알람 발생 시 농도 수준은 삼성이 7~550ppb, 하이닉스가 25~200ppb로, 모두 노출 기준(5ppb)보다 높았다. 아르신은 간·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미국화재예방협회(NFPA)가 보건 4등급(숫자가 높을수록 위험)으로 분류한 유해물질이다. 또 흡입 때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물질인 포스핀(노출 기준 0.3ppm, 미국화재예방협회 보건 4등급)의 경우 삼성은 알람 발생이 없었던 반면, 하이닉스는 186회(농도 수준 0.05~1ppm)나 알람이 울렸다.<br/><br/><br/><br/>웨이퍼 라인 공기중 암 유발 벤젠·포름알데히드 검출<br/><br/><br/><br/> 이에 대해 하이닉스 쪽은 “8인치와 12인치 생산라인은 장비가 완전히 달라 알람 발생 횟수만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알람장치를 설치한 위치도 달라 알람 발생 횟수에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또 “예방정비를 위해 장비를 해체하기 전에 잔류물질을 배출하는 단계에서 알람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잔류물질 배출 시의 알람 발생은) 전체 알람 발생 중 일부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예방정비 작업 시 알람이 울렸다”며 “심지어는 예방정비 작업 시에 (누출된 가스가 확산돼) 인접 장비의 검출기에서 감지된 경우도 있었다”고 적고 있다. 하이닉스의 해명과 달리 작업자가 유출 가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r/><br/> 한편 하이닉스는 알람이 울리는 기준치 자체가 삼성전자에 비해 느슨한 경우도 많았다. 극인화성 유해물질인 실란(미국화재예방협회 보건 2등급)의 경우 삼성전자의 8인치 가공라인 1차 알람 설정 기준이 0.6ppm일 때, 하이닉스는 2.5ppm이었다. 달리 말해, 하이닉스에서는 실란이 누출돼도 2.5ppm이 되기 전까지는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극인화성 독성물질인 디보란(미국화재예방협회 보건 4등급)도 삼성전자의 8인치 가공라인 1·2차 알람 설정 기준이 각각 10ppb와 50ppb일 때, 하이닉스는 각각 50ppb와 100ppb로 큰 차이를 보였다.<br/><br/>유해성 드러난 것은 일부 불과 <br/>“<span class='quot0'>2~3년마다 정보업데이트 필요</span>”<br/><br/>하이닉스쪽 “규격별로 장비 달라 <br/>경보 횟수로 비교는 적절치않아”<br/><br/> ■ 발암물질 검출 산보연이 2009~2010년 매해 4~10월에 걸쳐 직접 웨이퍼 가공라인의 공기 중 유해물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백혈병, 악성 림프종을 유발하는 대표적 물질인 벤젠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벤젠의 경우 삼성전자는 측정되지 않은 반면, 하이닉스는 8인치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0.00038ppm, 12인치 공정에서 0.00028ppm이 측정됐다. 노출 기준 1ppm보다는 훨씬 낮았지만 3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포름알데히드는 삼성전자가 평균 0.0018ppm 측정됐고, 하이닉스는 8인치와 12인치 공정에서 각각 0.0017ppm, 0.0028ppm이 측정됐다. 노출 기준은 0.5ppm이다.<br/><br/> 측정치가 노출 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백도명 교수(산업보건전문의)는 “<span class='quot1'>발암물질에는 역치(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백혈병 유발물질의 수치가 낮더라도 누군가는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산업보건전문의)도 “<span class='quot2'>노출 기준이라는 것은 95%의 노동자가 건강할 수 있는 수치를 말할 뿐</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그 물질이 한 개인의 발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전혀 다른 영역</span>”이라고 짚었다.<br/><br/> 시민단체에서는 애초 이 측정이 업체의 협조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3'>산보연이 작업환경을 측정하러 갈 때 해당 사업장에 미리 통보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불시에 이뤄지는 작업환경 측정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span>”고 말했다. <br/><br/><br/><br/> ■ 미지의 화학물질들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쓰이는 수많은 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드러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새로운 공정이 개발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이 쓰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때문에 많은 수의 물질이 그 유해성 여부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쓰이고 있는 형국이다.<br/><br/>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09년 10월에 내놓은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의견서’에는 이런 실태의 단면이 드러난다.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한 라인씩 선정해 사용중인 화학제품 수를 따져 봤더니 삼성전자가 99종, 하이닉스가 125종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자체적으로 유해성분을 확인한 제품 수는 두 회사 모두 0종에 그쳤다. 전적으로 화학제품 공급자가 제공한 유해성 정보에 의존할 뿐 반도체 회사에서 직접 유해성 여부를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이다.<br/><br/> 또 단일 화학물질로 볼 때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83종,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107종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측정 방법이 존재하는 물질은 두 회사 모두 28종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55종, 하이닉스의 79종은 측정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노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얘기다.<br/><br/>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새로운 화학물질이 유입되는 반도체 공정의 특징을 고려해 “2~3년에 한번씩 각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br/><br/>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7.txt

제목: 4살부터 병원신세…24시간 링거 맞는 21살 ‘홀로서기’ 안간힘  
날짜: 20140731  
기자: ecowoori@hani.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31100000090  
본문: 내가 전하는 한송이 ‘나눔꽃’이 이웃과 사회를 밝고 행복하게 합니다. 나눔꽃 캠페인은 2009년부터 해마다 진행한 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바보의 나눔’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 단체와 함께 여섯번째 나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br/>　이번 나눔꽃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과 함께하는 ‘소외 없는 모든 생명을 위하여’입니다. ‘생명사랑·생명존중’이 목표입니다.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주인공입니다. 가족 중 한명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가족이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은 단단했던 처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br/>　도움이 필요한 사연이 실린 기사 속 계좌 또는 ARS로 성금을 보내시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이들의 ‘보도 이후’ 모습은 다음 사연을 보도할 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작은 기부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 나눔꽃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개인 기부는 나눔 문화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br/><br/><br/>박민아(가명·21)씨는 그룹 제이와이제이(JYJ)의 10년 팬이다. 김준수를 특히 좋아한다. “<span class='quot0'>표가 생겨서 8월에 준수가 나오는 뮤지컬을 보러 갈 거예요.</span>”<br/>　2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박씨는 좋아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하며 수줍게 웃었다. 환한 웃음 뒤로 긴 갈색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파란색 페디큐어가 발가락 끝에서 반짝였다. 박씨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클래식을 주제로 한 일본 만화 가 재밌어 최근에는 클래식을 찾아 듣기 시작했다. 여느 20대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 박씨가 말을 이어갔다. “<span class='quot0'>저보다 더 많이 아프고 다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절 보고 아픈 사람인 줄 몰라보는 건 당연해요.</span>”<br/>　박씨는 어릴 적부터 장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었다. 신경과 근육 이상으로 장이 쉽게 딱딱해졌기 때문이다. 4살 때 진단받은 병명은 ‘만성 가성 장폐색’이다. 일본에서는 10만명당 0.2명이 발병하고, 국내 발병률은 아예 보고가 없는 희귀병이다. 장이 아플 때면 구토를 할 만큼 속이 울렁거리고 복부 팽만감을 느꼈다. 음식을 먹기도,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도 힘들었다. 6살 작은 몸으로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 <br/>　학교생활은 짧았고 병원 생활은 길어졌다. 초등학교가 박씨에게는 유일한 학교였다. 초등학교 때도 몸이 아파 등교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박씨의 장이 유착됐다. 배를 여는 큰 수술을 받은 뒤로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다. 소장만 조금 남았는데도 이 역시 잘 움직이지 않는다. 3년 전에는 위 절제술까지 받아 박씨의 위는 10%밖에 남지 않았다. 소화 기능은 더 떨어졌고 입으로 음식을 거의 못 먹게 됐다. 지금은 하루에 음식 100g을 채 먹지 못한다. 2009년에는 담석이 생겨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도 받았다. <br/>　박씨는 밥을 먹지 못해 팔에는 24시간 주삿바늘이 꽂혀 있다. 움직임이 적은 저녁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1300~1400㎖의 영양제(TPN)를 정맥을 통해 공급한다. 박씨가 또 하루를 살아낼 1700㎉의 에너지다. 영양제를 오래 맞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 영양제를 맞지 않는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수액과 항생제 등을 맞으며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장운동이 약해 장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항생제가 꼭 필요하다. <br/>　“<span class='quot0'>이제는 이거 없으면 허전하죠.</span>” 자기보다 큰 주사액 걸이대(링거대)를 손으로 만지며 박씨가 말했다. 자신은 먹지 못하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링거대에 두는 건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이나 간호사, 의사에게 건네기 위해서다. <br/>　친구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거나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나이에 박씨의 걱정은 하나다. 바로 병원비다. 영양제 값만으로 한달에 100만원 정도가 든다. 몸 상태에 따라 약제 성분을 달리해야 하는데, 비타민이나 아연을 섞은 약은 120만원으로 더 비싸다. 퇴원해 있는 동안에도 집에서 매일 12시간씩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한다. 박씨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고재성 교수는 “학회에서 희귀난치병 등록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아직 희귀난치병으로 지정하지 않아 진료비 감면을 못 받고 있다. 장기간 정맥영양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했다. <br/>　의료장비 값도 다달이 든다. 입원하지 않고 혼자 집에 있을 때 몸 관리는 고스란히 박씨의 몫이다. 박씨는 링거대에 매달고 다니는 영양제나 수액 등이 투입되는 속도와 양을 표시해주는 ‘인퓨전 펌프’를 따로 샀다. 의료용 주삿바늘, 바늘을 고정하는 의료용 테이프, 의료용 거즈, 소독약품 등 일회용 의료용품을 매번 새로 사서 쓴다. 한달에 한번꼴로 의료기 판매업체에 대량 주문하는데, 그 돈만도 한달 평균 20만~30만원이 든다. <br/>　언제까지 이렇게 영양제를 투약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장이 마비되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통증을 완화하는 주사를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span class='quot0'>토할 것만 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span>” <br/>　하루이틀 지나 상태가 나아지면 다행이지만, 호전되지 않으면 입원을 해야 한다. 운동을 자주 해야 장도 활발히 움직이는데, 오랜 투병으로 면역력과 체력이 약해져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가장 밝아야 할 10대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냈다.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br/>　이제 갓 스무살을 넘긴 박씨의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 어머니가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받는 월 140만원이 가족 4명 수입의 전부다. 아버지는 2009년 발병한 뇌졸중 후유증으로 일을 못한다. 올 8월에 학교를 졸업하는 오빠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 만 18살 미만 환아의 경우 후원받을 곳이 많지만, 박씨 같은 성인 만성질환자들은 후원처를 찾기 어렵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 17평 빌라에 드리운 것은 생활고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다. 병원비까지 겹쳐 빚만 1억원에 이른다.<br/>　박씨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느라 철이 빨리 들었다. 몸이 아픈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아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느라 가족들의 삶까지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렇게 수년간 방송사 후원 프로그램의 방송 제의를 여러 차례 거절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용기를 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다.<br/>　“앞으로도 병원비나 약값이 많이 들 거란 거 알아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됐는데, 계속 부모님이랑 오빠한테 의지하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가 이제 곧 취업을 하겠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br/>　박씨는 요즘 다인실 병상에 앉아 공부를 한다. 중등 검정고시는 이미 통과했다. 내년 4월 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 후원 재단에서 만난 자원봉사자가 1주일에 2시간씩 수학을 가르쳐 준다. 박씨도 자신과 같은 질환을 가진 11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아픈 아이들을 보면 박씨가 어렵게 통과한 시간과 앞으로 지낼 시간이 떠올라 마음이 더 쓰인다고 했다. <br/>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성격이 조금 소심한 편인데, 앞으로는 성격도 조금 바꾸고 싶고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br/>　아직은 자신이 없다. 어떤 날은 박씨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퇴근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만, 언제 아플지 모를 몸 때문에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박씨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싶다. 기회가 되면 대학도 가고 싶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이름과 얼굴 공개를 바라지 않아 가명을 썼습니다)<br/>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8.txt

제목: 4살부터 병원신세…24시간 링거 맞는 21살 ‘홀로서기’ 안간힘  
날짜: 2014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31100000092  
본문: 내가 전하는 한송이 ‘나눔꽃’이 이웃과 사회를 밝고 행복하게 합니다. 나눔꽃 캠페인은 2009년부터 해마다 진행한 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바보의 나눔’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 단체와 함께 여섯번째 나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br/>　이번 나눔꽃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과 함께하는 ‘소외 없는 모든 생명을 위하여’입니다. ‘생명사랑·생명존중’이 목표입니다.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주인공입니다. 가족 중 한명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가족이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은 단단했던 처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br/>　도움이 필요한 사연이 실린 기사 속 계좌 또는 ARS로 성금을 보내시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이들의 ‘보도 이후’ 모습은 다음 사연을 보도할 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작은 기부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 나눔꽃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개인 기부는 나눔 문화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19.txt

제목: 주목받는 유전자 ‘잡음’ 현상 /쌍둥이 유전자, 태어날 땐 같아도 ‘가는 길’ 다르다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30100000057  
본문: 미국의 인기 배우인 앤절리나 졸리가 지난해 일간 에 ‘나의 의학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칼럼에서 그는 자신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이유와 수술 과정을 전하며 비슷한 ‘의학적 선택’을 할지 모를 여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br/>　칼럼이 알려지자 다양한 논쟁이 일어났다. 초점은 주로 의학적으로 유방 절제술이 유방암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맞춰졌다. 또한 졸리도 지적했듯이, 유방암 유전자의 비싼 검진 비용도 문제로 불거졌다. 유전자 검사가 비싼 이유는 기업체인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주요 유전자 브래카1(BRCA1)과 브래카2의 돌연변이를 검진할 수 있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정 유전자의 검진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결국 “특허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다. <br/>　졸리의 칼럼이 일으킨 여러 논쟁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면 논쟁의 바탕을 이루는 유전질환의 또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 졸리가 의학적 선택을 한 이유는 자신이 브래카1 유전자 변이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 외할머니, 이모가 유방암으로 숨진 가족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흔히 브래카1 돌연변이를 지닌 여성의 75%가 70살 전에 유방암에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왜 브래카1 변이를 지닌 여성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만 실제 유방암이 발병하는 걸까?<br/>　<br/> 조리법·재료 같아도 음식맛 다르듯이<br/> 이는 일부 개체만 돌연변이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런 현상은 흔히 개인마다 유전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곤 한다. 실제로 다른 유전자(TNRC9)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그런 변이가 없는 사람에 비해 브래카1 돌연변이에 의한 유방암 발병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유전자가 ‘똑같은’ 개체 간의 유전질환 발병 확률은 똑같을까? <br/>　2012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빅터 벨쿨레스쿠 교수 연구팀은 일란성 쌍둥이 수만 쌍의 데이터를 분석해 쌍둥이 중 한 명에 나타나는 유전질환이 다른 한 명에도 똑같이 나타나는지 조사했다. 연구팀이 조사한 24가지 유전질환 중 브래카1의 문제로 발병한 유방암을 비롯해 23가지 유전질환이 쌍둥이 중 한쪽에만 불일치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유전자가 같아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불일치를 ‘생활환경이 달라 생긴 것’이라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와 환경이 완전히 통제된 실험실 모델 생물에서도 이런 불일치는 곧잘 나타난다. 간단하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실험용 생물인 대장균에서도 불일치는 어김없이 나타난다. <br/>　대장균은 자신과 ‘유전정보가 완전히 같은’ 수많은 개체를 낳을 수 있고, 그 개체들은 ‘완전히 같게 통제된 환경’에서 배양된다. 대장균이 완전히 똑같은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가져도 개체마다 나타나는 형광 빛의 세기는 서로 다르다. 즉, 유전자와 환경이 같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br/>　같은 유전정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결과물은 같은 조리법과 재료를 이용해 조리한 음식이 다른 맛을 내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같은 조리법에 따라 한 숟가락의 소금을 넣더라도 그 양이 매번 미세하게 달라지듯이, 유전정보라는 조리법을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화학반응에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성’이 내재해 있다. 완전히 같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를 생물학에선 ‘잡음’(노이즈)이라고도 부른다.<br/>　<br/> 무작위성의 ‘잡음’ 끼어드는 유전질환<br/>　잡음이 있더라도 쌍둥이에는 분명 쌍둥이다운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는 잡음이 일정 수준 내에서 통제되기 때문이다. 소금을 넣을 때 매번 같은 크기의 숟가락을 사용하면 소금의 양을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듯이, 유전정보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도 단백질의 양을 일정한 범위로 통제하는 숟가락이 존재하는 셈이다. <br/>　유전자의 세계를 생각해보자. 그 세계는 마치 거미줄과 같은 복잡한 연결망이다. 유전자는 홀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다른 유전자들과 얽히는 특정한 관계 속에 놓인다. 이런 관계는 그 유전자가 어떤 맥락에서 작동할지 결정할 뿐 아니라 유전자가 만드는 산물의 양을 통제하는 숟가락 구실을 한다.<br/>　많은 유전질환은 유전자 자신의 기능뿐 아니라 자신이 속하는 관계, 즉 숟가락을 함께 파괴한다. 그 결과 잡음이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 숟가락이 파괴되더라도 유전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요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잡음을 통제할 수 없기에, 숟가락 없이 손으로 대충 소금의 양을 맞추기에 음식 맛이 매번 크게 달라진다. 어떤 때는 많이 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싱거워지며, 어떤 때는 간이 딱 맞기도 한다. <br/>　유전정보와 환경이 동일한 개체에 동일한 돌연변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무작위성 때문에 어떤 개체는 요리에 성공하게 된다. 실제로 똑같은 유전정보를 지니고 똑같은 환경에서 배양되는 실험동물인 예쁜꼬마선충에서 대장 기관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대부분 대장을 만들지 못해 죽지만, 우연히 적당한 양의 산물을 만들어 내는 개체는 정상적으로 태어난다. 즉, 유전자나 환경에 차이가 전혀 없어도 관계망의 통제에서 벗어난 ‘잡음’ 때문에 개체마다 유전질환의 발병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br/>　<br/> 잡음인가 다양성인가?<br/>　최근 유전정보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전체 유전정보를 해독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고 있다. 올해 안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노포어 염기분석’ 기술은 100만원대의 비용으로 전체 유전체를 해독하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한다. <br/>　유전정보 분석은 당신의 유전자에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이 정보를 통해 사람들은 암을 비롯해 유전질환이 실제 발생할지 알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졸리의 경우처럼 ‘확률적 경향성’을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향성에 바탕을 두어 ‘의학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br/>　유전자 돌연변이가 빚는 미래의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선 유전정보뿐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전자 산물의 양도 예측해야 한다. 또한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을 때 여러 유전자의 관계망에서 일어나는 잡음 현상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개체 수준에서는 생명 현상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br/>　그렇다면 잡음은 예측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신호일 뿐일까? 달리 생각하면, 유전자가 동일한 개체들은 잡음을 통해서만 서로 다른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자주 변하는 환경에선 균일한 개체들의 군집보다는 다양한 개체들의 군집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잡음은 어떤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생명체의 현명한 전략이다. 또한 최근 연구에선 개체의 발생 과정에도 잡음이 관여한다는 여러 사례가 보고된다. 에컨대, 초파리에선 눈의 발생 과정에서 잡음 현상 때문에 하나가 아닌 여러 파장을 인지하는 광수용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청국장 같은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초균의 경우에는 어느 유전자 변이가 일으키는 잡음이 새로운 형질의 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물은 다양할 여지를 언제나 남겨두고 있다. 　 김천아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사과정 <br/>※과학웹진 사이언스온에 실린 글을 필자가 줄이고 다듬어 다시 썼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0.txt

제목: 4살부터 병원 신세…24시간 링거 맞는 21살 ‘홀로서기’ 안간힘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3010014875861  
본문: 내가 전하는 한 송이 ‘나눔꽃’이 이웃과 사회를 밝고 행복하게 합니다. 나눔꽃 캠페인은 2009년부터 해마다 진행한 <한겨레>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바보의 나눔’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 단체와 함께 여섯번째 나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br/><br/> 이번 나눔꽃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과 함께 하는 ‘소외 없는 모든 생명을 위하여’입니다. ‘생명사랑·생명존중’이 목표입니다.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주인공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가족이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은 단단했던 처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br/><br/> 도움이 필요한 사연이 실린 기사 속 계좌 또는 ARS로 성금을 보내시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이들의 ‘보도 이후’ 모습은 다음 사연을 보도할 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작은 기부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겨레>가 나눔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개인 기부는 나눔 문화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br/><br/><br/><br/> 박민아(21)씨는 그룹 제이와이제이(JYJ)의 10년 팬이다. 김준수를 특히 좋아한다. “<span class='quot0'>표가 생겨서 8월에 준수가 나오는 뮤지컬을 보러 갈 거예요.</span>”<br/><br/> 2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박씨는 좋아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하며 수줍게 웃었다. 환한 웃음 뒤로 긴 갈색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파란색 매니큐어가 발가락 끝에서 반짝였다. 박씨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클래식을 주제로 한 일본 만화 <노다메 칸타빌레>가 재밌어 최근에는 클래식을 찾아 듣기 시작했다. 여느 20대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 박씨가 말을 이어갔다. “<span class='quot0'>저보다 더 많이 아프고 다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절 보고 아픈 사람인 줄 몰라보는 건 당연해요.</span>”<br/><br/> 박씨는 어릴 적부터 장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었다. 신경과 근육 이상으로 장이 쉽게 딱딱해졌기 때문이다. 4살 때 진단 받은 병명은 ‘만성 가성 장폐색’이다. 일본에서는 10만명당 0.2명이 발병하고, 국내 발병률은 아예 보고가 없는 희귀병이다. 장이 아플 때면 구토를 할 만큼 속이 울렁거리고 복부 팽만감을 느꼈다. 음식을 먹기도,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도 힘들었다. 6살 작은 몸으로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 <br/><br/> 학교 생활은 짧았고 병원 생활은 길어졌다. 초등학교가 박씨에게는 유일한 학교였다. 초등학교 때도 몸이 아파 등교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박씨의 장이 유착됐다. 배를 여는 큰 수술을 받은 뒤로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다. 소장만 조금 남았는데도 이 역시 잘 움직이지 않는다. 3년 전에는 위 절제술까지 받아 박씨의 위는 10%밖에 남지 않았다. 소화 기능은 더 떨어졌고 입으로 음식을 거의 못 먹게 됐다. 지금은 하루에 음식 100g을 채 먹지 못한다. 2009년에는 담석이 생겨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도 받았다. <br/><br/><br/><br/>장 딱딱해지는 희귀병 판정 <br/>수차례 대장·위 절제 수술뒤 <br/>밥 대신 정맥 영양주사로 끼니　<br/><br/>텔레마케터 어머니 홀로 가장 노릇 <br/>약값·병원비 생활고에 빚만 1억 <br/>희귀난치병 지정 안돼 진료비 부담<br/><br/>고등 검정고시 목표로 병상 공부 <br/>“<span class='quot0'>성인 됐는데…스스로 책임지고파</span>”<br/><br/><br/><br/> 박씨는 밥을 먹지 못해 팔에는 24시간 주사바늘이 꽂혀 있다. 움직임이 적은 밤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1300~1400㎖의 영양제(TPN)를 정맥을 통해 공급한다. 박씨가 또 하루를 살아낼 1700㎉의 에너지다. 영양제를 오래 맞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 영양제를 맞지 않는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는 수액과 항생제 등을 맞으며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장 운동이 약해 장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항생제가 꼭 필요하다. <br/><br/> “<span class='quot0'>이제는 이거 없으면 허전하죠.</span>” 자기보다 큰 주사액 걸이대(링거대)를 손으로 만지며 박씨가 말했다. 자신은 먹지 못하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링거대에 두는 건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이나 간호사, 의사에게 건네기 위해서다. <br/><br/> 친구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거나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나이에 박씨의 걱정은 하나다. 바로 병원비다. 영양제 값만으로 한달에 100만원 정도가 든다. 몸 상태에 따라 약제 성분을 달리해야 하는데, 비타민이나 아연을 섞은 약은 120만원으로 더 비싸다. 퇴원해 있는 동안에도 집에서 매일 12시간씩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한다. 박씨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고재성 교수는 “학회에서 희귀난치병 등록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아직 희귀난치병으로 지정하지 않아 진료비 감면을 못 받고 있다. 장기간 정맥영양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했다. <br/><br/> 의료장비 값도 다달이 든다. 입원하지 않고 혼자 집에 있을 때 몸 관리는 고스란히 박씨의 몫이다. 박씨는 링거대에 매달고 다니는 영양제나 수액 등이 투입되는 속도와 양을 표시해주는 ‘인퓨전 펌프’를 따로 샀다. 의료용 주사바늘, 바늘을 고정하는 의료용 테이프, 의료용 거즈, 소독약품 등 일회용 의료용품을 매번 새로 사서 쓴다. 한 달에 한번꼴로 의료기 판매업체에 대량 주문하는데, 그 돈만도 한 달 평균 20만~30만원이 든다. <br/><br/> 언제까지 이렇게 영양제를 투약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장이 마비되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통증을 완화하는 주사를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span class='quot0'>토할 것만 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span>” <br/><br/> 하루이틀 지나 상태가 나아지면 다행이지만, 호전되지 않으면 입원을 해야 한다. 운동을 자주 해야 장도 활발히 움직이는데, 오랜 투병으로 면역력과 체력이 약해져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가장 밝아야 할 10대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냈다.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br/><br/> 이제 갓 스무살을 넘긴 박씨의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 어머니가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받는 월 140만원이 가족 4명 수입의 전부다. 아버지는 2009년 발병한 뇌졸중 후유증으로 일을 못한다. 올 8월에 학교를 졸업하는 오빠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 만 18살 미만 환아의 경우 후원받을 곳이 많지만, 박씨 같은 성인 만성질환자들은 후원처를 찾기 어렵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 17평 빌라에 드리운 것은 생활고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다. 병원비까지 겹쳐 빚만 1억원에 이른다.<br/><br/> 박씨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느라 철이 빨리 들었다. 몸이 아픈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아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느라 가족들의 삶까지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렇게 수년간 방송사 후원 프로그램의 방송 제의를 여러 차례 거절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용기를 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다.<br/><br/> “앞으로도 병원비나 약값이 많이 들 거란 거 알아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됐는데, 계속 부모님이랑 오빠한테 의지하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가 이제 곧 취업을 하겠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br/><br/> 박씨는 요즘 다인실 병상에 앉아 공부를 한다. 중등 검정고시는 이미 통과했다. 내년 4월 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 후원 재단에서 만난 자원봉사자가 1주일에 2시간씩 수학을 가르쳐 준다. 박씨도 자신과 같은 질환을 가진 11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아픈 아이들을 보면 박씨가 어렵게 통과한 시간과 앞으로 지낼 시간이 떠올라 마음이 더 쓰인다고 했다. <br/><br/>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성격이 조금 소심한 편인데, 앞으로는 성격도 조금 바꾸고 싶고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br/><br/> 아직은 자신이 없다. 어떤 날은 박씨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퇴근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만, 언제 아플지 모를 몸 때문에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박씨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싶다. 기회가 되면 대학도 가고 싶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이름과 얼굴 공개를 바라지 않아 가명을 썼습니다)<br/><br/>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br/><br/><br/><br/> 한겨레 나눔캠페인 참여하려면<br/><br/>박민아씨를 응원하고 싶은 분들은 계좌이체(기업은행 060-700-1226, 예금주: 바보의나눔)나 전화(ARS 060-700-1226, 한 통에 5000원)를 하면 된다. <br/><br/> 박씨의 모금 목표액은 25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7월 말 현재까지 내지 못한 대학병원 입원·진료비 1100만원과 정맥영양공급 등 약제비 800만원, 의료소모품 비용 240만원에 월세(50만원)와 교통비 등을 포함한 생계 유지비도 포함돼 있다.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당당해지고 싶은 박씨의 꿈이 발 딛고 설 희망의 토대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1.txt

제목: 암투병 아내와 함께 첫 공식 음반 낸 윤민석 /“마음속 희망의 섬 ‘그래도’를 생각해요”  
날짜: 20140729  
기자: 서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9100000111  
본문: 민중가요 작곡가 윤민석(49·왼쪽 사진)씨는 2012년 8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누가 1억만 빌려주세요. 아내 좀 살려보게요. 아내가 낫는 대로 집 팔아서 갚을게요.”<br/>　한양대 재학 시절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을 보고 노래운동에 뛰어든 윤씨는 ‘전대협 진군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헌법 제1조’ 등을 만들었다. 아내 양윤경씨도 노래패 ‘조국과 청춘’ 출신 가수다. 윤씨는 아내가 유방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했다. 수술받고 나은 줄 알았으나 2012년 초 암이 재발했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불어났다.<br/>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아프고 나서 딱 한번 후회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내가 원망스러웠죠.” 28일 전화 수화기 너머 윤씨가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br/>　윤씨의 도움 요청에 시민들은 “윤민석의 노래에 진 빚을 돌려주자”며 성금을 모았다. 윤씨는 자신이 만든 노래의 저작권료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다. 보름 만에 1억5000만원이 모였다. 동료 가수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윤민석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br/>　“윤민석 음악회가 열리던 날 아내가 기적처럼 미음 세 숟가락을 떴어요. 이전 한달간은 상태가 안 좋아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음악회에 모인 많은 분들의 염원이 전해졌나봐요.”<br/>　이후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아내의 앨범 하나 못 만들어준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윤씨는 아내와의 앨범 작업을 준비했다. 아내는 지난겨울 힘겹게 녹음을 마쳤다. 그 결과물이 지난 23일 발매됐다. 윤민석 1인 프로젝트 밴드 ‘그래도(島)’ 1집 (위 사진)이다. ‘우리 아가는 1’, ‘우리 아가는 2’, ‘윤민석의 자장가’, ‘사랑하는 딸들에게’ 등 아기를 주제로 한 동요풍 노래 4곡과 피아노 연주곡 1곡을 담았다.<br/>　“중1이 된 딸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들이에요.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내에게 보내준 희망의 기운을 이 세상의 모든 아가들에게 축복으로 전하고자 이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딸 설(13)양은 앨범 표지 손글씨로 엄마와 아빠의 작품에 힘을 보탰다.<br/>　세월호 참사 이후 윤씨는 한달을 폐인처럼 지냈다고 한다. “<span class='quot0'>나름 열심히 싸워서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무너져내린 듯 허망해졌어요.</span>” 그는 당시 이번 앨범에 실릴 노래들을 들으며 위안을 얻었다고 했다. ‘약속해’, ‘잊지 않을게’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노래들을 만들어 공개했다.<br/>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집회 때 유가족들이 거리행진을 하면서 ‘잊지 않을게’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한 유가족분은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노래 만들길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죠.” <br/>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노래 10곡을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기증했다. 대책위는 이를 음반으로 제작할 예정이다.<br/>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던 최악의 상황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윤씨의 아내는 여전히 암 4기다. 척추까지 전이돼 최근 수술을 받았다. 시민들이 모아준 성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바닥난 지 오래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마음속 희망의 섬 ‘그래도’를 생각하며 힘을 내려 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br/>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br/> 자료사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2.txt

제목: 쌍둥이 유전자, 태어날 땐 같아도 ‘가는 길’ 다르다  
날짜: 2014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910014866247  
본문: 미국의 인기 배우인 앤절리나 졸리가 지난해 <뉴욕 타임스>에 ‘나의 의학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칼럼에서 그는 자신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이유와 수술 과정을 전하며 비슷한 ‘의학적 선택’을 할지 모를 여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br/><br/> 칼럼이 알려지자 다양한 논쟁이 일어났다. 초점은 주로 의학적으로 유방 절제술이 유방암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맞춰졌다. 또한 졸리도 지적했듯이, 유방암 유전자의 비싼 검진 비용도 문제로 불거졌다. 유전자 검사가 비싼 이유는 기업체인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주요 유전자 브르카1(BRCA1)과 브르카2의 돌연변이를 검진할 수 있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정 유전자의 검진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결국 “특허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다. <br/><br/> 졸리의 칼럼이 일으킨 여러 논쟁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면 논쟁의 바탕을 이루는 유전질환의 또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 졸리가 의학적 선택을 한 이유는 자신이 브르카1 유전자 변이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 외할머니, 이모가 유방암으로 숨진 가족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흔히 브르카1 돌연변이를 지닌 여성의 75%가 70살 전에 유방암에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왜 브르카1 변이를 지닌 여성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만 실제 유방암이 발병하는 걸까?<br/><br/> <br/><br/> 조리법·재료 같아도 음식맛 다르듯이<br/><br/>이는 일부 개체만 돌연변이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런 현상은 흔히 개인마다 유전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곤 한다. 실제로 다른 유전자(TNRC9)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그런 변이가 없는 사람에 비해 브르카1 돌연변이에 의한 유방암 발병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유전자가 ‘똑같은’ 개체 간의 유전질환 발병 확률은 똑같을까? <br/><br/> 2012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빅터 벨쿨레스쿠 교수 연구팀은 일란성 쌍둥이 수만 쌍의 데이터를 분석해 쌍둥이 중 한 명에 나타나는 유전질환이 다른 한 명에도 똑같이 나타나는지 조사했다. 연구팀이 조사한 24가지 유전질환 중 브르카1의 문제로 발병한 유방암을 비롯해 23가지 유전질환이 쌍둥이 중 한쪽에만 불일치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유전자가 같아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불일치를 ‘생활환경이 달라 생긴 것’이라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와 환경이 완전히 통제된 실험실 모델 생물에서도 이런 불일치는 곧잘 나타난다. 간단하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실험용 생물인 대장균에서도 불일치는 어김없이 나타난다. <br/><br/> 대장균은 자신과 ‘유전정보가 완전히 같은’ 수많은 개체를 낳을 수 있고, 그 개체들은 ‘완전히 같게 통제된 환경’에서 배양된다. 대장균이 완전히 똑같은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가져도 개체마다 나타나는 형광 빛의 세기는 서로 다르다. 즉, 유전자와 환경이 같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br/><br/> 같은 유전정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결과물은 같은 조리법과 재료를 이용해 조리한 음식이 다른 맛을 내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같은 조리법에 따라 한 숟가락의 소금을 넣더라도 그 양이 매번 미세하게 달라지듯이, 유전정보라는 조리법을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화학반응에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성’이 내재해 있다. 완전히 같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를 생물학에선 ‘잡음’(노이즈)이라고도 부른다.<br/><br/> <br/><br/>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 있어도 <br/>실제 발병하지 않는 이들 많고 <br/>같은 환경 자랐어도 불일치 발생 <br/>유전자는 정해진 길만 가지 않아 <br/>이 생물학적 차이가 ‘유전자 잡음’<br/><br/>유전정보 분석은 확률을 말할 뿐 <br/>개체별 완벽한 미래 예측 어려워 <br/>환경에 대응하는 생명체 전략 때문 <br/>이게 바로 생명 다양성 원천 아닐까<br/><br/> 무작위성의 ‘잡음’ 끼어드는 유전질환 <br/><br/>잡음이 있더라도 쌍둥이에는 분명 쌍둥이다운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는 잡음이 일정 수준 내에서 통제되기 때문이다. 소금을 넣을 때 매번 같은 크기의 숟가락을 사용하면 소금의 양을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듯이, 유전정보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도 단백질의 양을 일정한 범위로 통제하는 숟가락이 존재하는 셈이다. <br/><br/> 유전자의 세계를 생각해보자. 그 세계는 마치 거미줄과 같은 복잡한 연결망이다. 유전자는 홀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다른 유전자들과 얽히는 특정한 관계 속에 놓인다. 이런 관계는 그 유전자가 어떤 맥락에서 작동할지 결정할 뿐 아니라 유전자가 만드는 산물의 양을 통제하는 숟가락 구실을 한다.<br/><br/> 많은 유전질환은 유전자 자신의 기능뿐 아니라 자신이 속하는 관계, 즉 숟가락을 함께 파괴한다. 그 결과 잡음이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 숟가락이 파괴되더라도 유전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요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잡음을 통제할 수 없기에, 숟가락 없이 손으로 대충 소금의 양을 맞추기에 음식 맛이 매번 크게 달라진다. 어떤 때는 많이 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싱거워지며, 어떤 때는 간이 딱 맞기도 한다. <br/><br/> 유전정보와 환경이 동일한 개체에 동일한 돌연변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무작위성 때문에 어떤 개체는 요리에 성공하게 된다. 실제로 똑같은 유전정보를 지니고 똑같은 환경에서 배양되는 실험동물인 예쁜꼬마선충에서 대장 기관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대부분 대장을 만들지 못해 죽지만, 우연히 적당한 양의 산물을 만들어 내는 개체는 정상적으로 태어난다. 즉, 유전자나 환경에 차이가 전혀 없어도 관계망의 통제에서 벗어난 ‘잡음’ 때문에 개체마다 유전질환의 발병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br/><br/> <br/><br/> 잡음인가 다양성인가? <br/><br/>최근 유전정보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전체 유전정보를 해독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고 있다. 올해 안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노포어 염기분석’ 기술은 100만원대의 비용으로 전체 유전체를 해독하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한다. <br/><br/> 유전정보 분석은 당신의 유전자에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이 정보를 통해 사람들은 암을 비롯해 유전질환이 실제 발생할지 알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졸리의 경우처럼 ‘확률적 경향성’을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향성에 바탕을 두어 ‘의학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br/><br/> 유전자 돌연변이가 빚는 미래의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선 유전정보뿐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전자 산물의 양도 예측해야 한다. 또한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을 때 여러 유전자의 관계망에서 일어나는 잡음 현상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개체 수준에서는 생명 현상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br/><br/> 그렇다면 잡음은 예측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신호일 뿐일까? 달리 생각하면, 유전자가 동일한 개체들은 잡음을 통해서만 서로 다른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자주 변하는 환경에선 균일한 개체들의 군집보다는 다양한 개체들의 군집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잡음은 어떤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생명체의 현명한 전략이다. 또한 최근 연구에선 개체의 발생 과정에도 잡음이 관여한다는 여러 사례가 보고된다. 에컨대, 초파리에선 눈의 발생 과정에서 잡음 현상 때문에 하나가 아닌 여러 파장을 인지하는 광수용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청국장 같은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초균의 경우에는 어느 유전자 변이가 일으키는 잡음이 새로운 형질의 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물은 다양할 여지를 언제나 남겨두고 있다. <br/><br/>김천아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사과정 <br/><br/>※과학웹진 사이언스온에 실린 글을 필자가 줄이고 다듬어 다시 썼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3.txt

제목: 95년~현재 공식·비공식 17명 사망 확인 /공식조사 2차례…발병·사망 더 많을수도  
날짜: 20140728  
기자: 오승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8100000079  
본문: 하이닉스(현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 일했거나 일하다가 백혈병을 비롯한 림프조혈기계 질환 등으로 숨진 이들은 27일 현재 최소한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참조). <br/>　이 가운데 13명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두차례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1995~2007년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조사 자료(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는 그동안 개괄적인 수치만 공개된 상태였으나, 는 사망자 10명의 병명, 업종, 직무, 생년월일, 성별, 입사·퇴사일, 공정 내역, 사망일 등이 상세히 수록된 ‘부록’을 단독 입수했다. 2008~2010년을 대상으로 한 두번째 조사 자료(반도체 사업장 추적연구 암 사망자와 발생자 집계현황)도 처음 공개된 자료다. 여기에는 사망자 3명의 병명과 성별만 나와 있다.<br/>　이와 별도로, 2008년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숨진 정철모(당시 42살)씨와 2011년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김진기(당시 38살)씨는 유족들의 산재 신청과 소송 과정에서 신원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씨는 사망 시기와 병명에 비춰볼 때 정부의 두번째 조사 자료상의 사망자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br/>　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2명이 더 있다. 지난해 5월28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37살의 여성과 2011년 7월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30대 여성이 그들이다. 악성 뇌종양은 림프조혈기계 질환은 아니지만, 전자산업 종사자들의 발병 위험도가 높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 질병이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0'>두 분 모두 유족이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남겨서 이후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　 취재 과정에서 하이닉스 쪽은 이천공장 엔지니어로 일하던 송아무개(당시 40살)씨가 지난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br/>　발병자는 사망자보다 많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진단받은 이들이 28명에 이른다. 2011년 이후 발병자는 정부의 공식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가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의뢰해 입수한 건강보험공단의 ‘반도체 회사 직장가입자들의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하이닉스 직원 가운데 2011년 11명, 2012년 10명이 림프조혈기계 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 수치는 각 연도에 해당 질환으로 치료받은 노동자 수로, 발병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br/>　정부 조사 결과가 발병·사망자의 전모라고 보기는 힘들다. 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 경우 정부 조사를 통해 집계된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 수는 1995~2010년 11명(백혈병 7명)인 데 비해, 반올림에서 파악한 것은 16명(백혈병 13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조사의 바탕이 되는 회사 인사자료나 고용보험 데이터에서 누락되거나 우리가 자료를 제공받는 암등록센터에 등록이 안 된 발병·사망자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span>”고 설명했다.<br/>　또 정부 조사는 림프조혈기계 질환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밖의 각종 암까지 합치면 산재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 경우 폐암 4명, 유방암 2명, 위암 1명, 뇌종양 1명, 난소암 1명, 대장암 1명, 심장병 1명 등이 반올림에 제보됐다. 유방암은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았고, 난소암은 현재 산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이닉스의 경우 림프조혈기계 이외의 암 발병자는 뇌종양 1명만 파악된 상태다.<br/>　 오승훈 임인택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4.txt

제목: 1995~2007년 사망·발병률 삼성보다 높아…백혈병 발병자 40% 더 많아  
날짜: 20140728  
기자: 임인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8100000078  
본문: 국내 양대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반도체부문)와 하이닉스의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발병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는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입수·분석했다. <br/>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1995~2007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대외비로 일부만 공개)와 2008~2010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사업장 추적연구 암 사망자와 발생자 집계현황’(비공개)이 그것이다.<br/>　먼저 첫번째 자료를 보면, 1995~2007년 하이닉스에서 최소 10명, 삼성전자에서 최소 8명이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삶을 접었다. 백혈병 사망자만 하이닉스 5명, 삼성 6명이다. 역학조사 모집단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들로 삼성 5만2329명, 하이닉스 5만4954명(고용보험 자료로 구성한 모집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따져보면 삼성 15.3명, 하이닉스 18.2명이 된다. 발병자도 하이닉스에서 많았다. 이 기간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암센터에 등록된 이가 삼성 19명(백혈병 10명), 하이닉스 25명(백혈병 14명)으로 확인된다. 10만명당 발병자 수는 삼성 36.3명, 하이닉스 45.7명이다(이때 모집단은 암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해 삼성 5만2315명, 하이닉스 5만4653명으로 보정함).<br/>　두번째 2008~2010년치 조사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에만 양사에서 최소 3명씩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더 숨졌다. 하이닉스에선 남성 2명, 여성 1명(모두 비호지킨 림프종)이, 삼성 반도체부문에선 여성 2명(백혈병·비호지킨 림프종)과 남성 1명(비호지킨 림프종)이 사망통계에 올랐다. 이 기간 림프조혈기계 암 등록(확정 진단) 건수는 삼성이 많았다. 하이닉스에선 3명(여성 2명)이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고, 삼성은 백혈병 4명(여성 2명), 비호지킨 림프종 5명(여성 2명)이 발병했다.<br/>　이 기간의 사망·발병률 산출은 좀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모집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995~2007년치 조사 때는 고용보험 자료로 구성한 모집단과 각 회사 인사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한 모집단 중에서 더 포괄적인 고용보험 모집단을 기준으로 회사별 현황을 집계했다. 하지만 2008~2010년치 조사에서는 직무 구분이 더 명확한 인사기록 모집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1995~2007년치 조사 때의 인사기록 모집단(삼성 5만7482명, 하이닉스 4만6004명)에 2008년 이후 입사·퇴사자를 반영한 수치가 최종 모집단이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양사의 모집단 비율은 계속 비슷하다”고만 밝혔다.<br/>　따라서 현재 파악 가능한 근접치(1995~2007년치 조사 때의 인사기록 모집단)를 바탕으로 2008~2010년 사망률을 계산하면 10만명당 삼성 5.2명, 하이닉스 6.5명으로 여전히 하이닉스가 높게 나온다. 10만명당 발병자 수는 삼성(16.5명)이 하이닉스(6.7명)보다 2.5배 많다. <br/>　그런데 두 회사의 사망·발병자 비율을 따질 때 한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다. 실제 근무하는 직원 규모는 삼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2008~2010년 평균 하이닉스 직원 수는 1만7771명인 데 비해, 삼성 반도체부문은 2009년 4만6298명(2008년·2010년엔 비공개)으로 갑절 이상이다. 정부 조사에서 모집단 수가 비슷하게 나온 것은 하이닉스의 이직률이 삼성전자보다 높고, 현대전자와 엘지반도체의 합병을 거치는 등 퇴사자도 많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쪽의 실질적인 사망·발병률은 조사 결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br/>　 임인택 오승훈 기자 imi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5.txt

제목: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발병<림프조혈기계 질환> 줄기는커녕 늘어나…여성 악성 림프종 비율 높아  
날짜: 20140728  
기자: 임인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8100000111  
본문: “삼성 백혈병 얘기를 듣고 솔직히 걱정은 돼요. 케미컬(화학물질) 다루는 데 뭐 몸에 좋겠어요? 병에 안 걸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설마 하며 다니는 겁니다.”<br/>　오후 2시 퇴근길에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 공장에서 14년째 반도체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공장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와 상업지구가 형성된 이곳은 3교대로 일하는 공장 직원들이 아침 6시, 오후 2시, 밤 10시께 무리 지어 출퇴근하는 풍경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소도시의 일상 그대로였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건 그저 평범한 일은 아닌 듯했다. 지난달 초 가 만난 하이닉스 노동자들은 마음속에 담아뒀던 불안감을 조심스레 털어놨다. 10년 넘게 오퍼레이터로 일하는 30대 초반 여성의 얘기다. ▶관련기사 4·5면<br/>　“1년 전쯤인가 누가 암에 걸려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또 개인 질병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삼성 백혈병 논란을 보니까 산재일 수 있겠구나 많이들 그럽니다. 하지만 쉬쉬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찍히면 안 되잖아요.”<br/>　최근까지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한 남성 노동자는 “1990년대 중반 입사한 뒤 10여년 동안은 일하면서 마스크 같은 것도 한번 써본 적 없다”며 “자동화 설비도 자주 오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몇시간씩 사람이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게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이닉스 노동자는 “지금 새 설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는 대부분 일본에서 쓰던 중고품을 수입한 것들이다. 그만큼 공정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양대 반도체 사업체이지만, 2007년 황유미(당시 23살)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뒤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과 달리 하이닉스는 백혈병 등 반도체 산업재해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한 적이 없다.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병으로 연구되는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용어설명 참조) 실태조차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다.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그저 기우일까? 취재 결과,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br/>　가 정부 조사 자료와 자체 취재 등을 통해 파악한 하이닉스 출신의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는 27일 현재 최소한 17명에 이른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백혈병 사망자로 파악되는 송아무개(40·장비 정비업무·2013년 1월 사망)씨도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의 22년차 재직자였다. 　 <br/>▶4면으로 이어짐<br/><br/><br/>▶1면에서 이어짐<br/>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는 지난해 5월 37살 여성 오퍼레이터가 악성 림프종으로 숨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또한 하이닉스 출신이었다. 현재 퇴사 뒤 홀로 투병중인 노동자들도 확인된다.<br/>　정부의 공식 조사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반도체부문)와 비교한 결과, 하이닉스는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 규모 및 비율에서 삼성에 뒤지지 않았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하이닉스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노동자 가운데 최소 13명(백혈병 5명, 비호지킨 림프종 5명 등)이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숨졌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선 최소 11명이 같은 질환(백혈병 7명, 비호지킨 림프종 3명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고 암센터에 등록된 이들은 하이닉스와 삼성 모두 28명씩이었다. 이들과 사망자는 대부분 겹치지 않아, 지난 15년 동안 두 회사에서 80명 안팎이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쓰러진 셈이다.<br/>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995~2007년, 2008~2010년 두 기간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전·현직 노동자들의 사망·질환 내역을 조사한 연구물을 종합분석한 결과다. 사망 비율을 따지면, 1995~2007년 삼성의 10만명당 사망률은 15.3명, 하이닉스는 18.2명에 이른다. 2008~2010년에는 10만명당 사망률이 하이닉스 6.5명, 삼성 5.2명이다.(아래 기사 참조)<br/>　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08년 11월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숨진 정철모(당시 42살·13년차)씨도 삼성과의 사망 격차를 벌린 이 가운데 한명이다. 유족들은 엔지니어였던 정씨가 생산라인과 연구소에서 각종 실험·연구 중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을 사인으로 꼽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수년 전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처럼 길고 외로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br/>　하이닉스와 매그나칩(하이닉스 비메모리 사업부가 분리된 업체)에서 일하다 2011년 5월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숨진 김진기(당시 38살·14년차)씨는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첫번째 반도체 백혈병 환자였다. 하지만 유족들은 회사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br/>　와 만난 이들 유족은 한결같이 산재 신청과 소송 과정에서 회사 쪽의 철저한 무관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삼성을 통해 반도체 산재 논란이 불거진 지 7년이 지났는데도 하이닉스 노사는 여전히 ‘감추기’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발병·사망자 현황 파악조차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 13일 에 “<span class='quot0'>건강보험 진료 내역이 개인정보여서 퇴직자는 물론 재직자의 질환 발생 현황도 파악하기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2007년까지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자료만 갖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 회사 박아무개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에 “현재까지 노조가 파악한 백혈병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 이 사안에선 회사와 노조의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쉬쉬하는 사이 사망자·환자가 이어지고, 가족 몇이 온전히 병과 죽음을 감당하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수년간 문제를 제기한 끝에 겨우 대화에 나선 삼성의 초기 대응을 닮은 셈이다.<br/>　더 주목할 문제는 하이닉스와 삼성 모두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발병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95~2007년 조사에서 두 회사의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연평균 1.38명인 데 비해, 2008~2010년 조사에선 양사 6명으로 연평균 2명꼴이다. 림프조혈기계 암 발병 건수도 1995~2007년 한해 평균 3.38명(총 44명)에서 2008~2010년 4명꼴(총 12명)로 늘었다.<br/>　특히 여성 노동자의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2007년 두 회사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여성 환자는 최소 8명이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발병률이 일반인 집단보다 2.7배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2008~2010년 3년간 발병자는 이전 13년간 발병자의 절반(4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전체 여성 가운데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자가 2008년 346명에서 2010년 199명으로 크게 감소해온 추세와 대조된다.(발병자 자료는 따로 없음)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산업보건전문의)는 “<span class='quot1'>2008~2010년 사이 일반인의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자는 줄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에선 발병자가 늘고 있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현재 진행 중인 사과·배상·재발방지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br/>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산업의학전문의)은 “삼성은 삼성이라서 주목을 받았다. 이제 에스케이하이닉스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인권경영 측면에서라도 반도체 공정의 건강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예방의학전문의)은 “ 취재 결과는 대기업간 비교를 떠나,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어느 기업도 숨어선 안 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br/>　하이닉스 쪽은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 비율은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 또한 (작업 환경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br/><br/> 임인택 오승훈 기자 imit@hani.co.kr<br/><br/><br/>에스케이(SK)하이닉스<br/>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983년 창립된 현대전자가 모태다. 1999년 엘지반도체에 흡수·합병된 뒤 2001년 3월 하이닉스로 사명을 바꿨다. 2012년 3월 에스케이텔레콤이 인수해 지금의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됐다. 2012년 세계 반도체업계 시장점유율에서 7위(1위 인텔, 2위 삼성전자)를 차지했던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13년에는 매출액 14조1650억원을 달성해 세계 5위(1위 인텔, 2위 삼성전자)로 두 단계 뛰어올랐다. 올 상반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매출 7조6660억원에 영업이익 2조14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50%가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공장이 있다.<br/><br/><br/>림프조혈기계 질환<br/>대표적인 ‘반도체 직업병’으로 불리는 림프조혈기계 질환은 피를 만드는 뼛속 조직인 조혈 모세포가 정상적인 분화를 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군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 따르면 림프조혈기계 암과 기타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나뉜다. 림프조혈기계 암에는 백혈병, 호지킨·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이 포함되며, 그밖에 재생불량성(무형성) 빈혈,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등은 기타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불린다. <br/>　백혈병과 더불어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발병 빈도가 높은 비호지킨 림프종은 종양이 온몸에 나타날 수 있고 어디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악성 림프종으로 불린다. 몸의 한정된 림프절(임파선)을 침범하고 종양이 퍼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호지킨 림프종에 비해 치료가 더 힘든 질병이다.<br/><br/>제보를 기다립니다<br/>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업체 재직자나 퇴직자 가운데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이나 각종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들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전자우편: tamsa@hani.co.kr 전화:(02)710-0649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6.txt

제목: 암투병 아내와 함께 첫 공식 음반 낸 윤민석 “마음속 희망의 섬 ‘그래도’를 생각해요”  
날짜: 2014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810014856761  
본문: 민중가요 작곡가 윤민석(49·왼쪽 사진)씨는 2012년 8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누가 1억만 빌려주세요. 아내 좀 살려보게요. 아내가 낫는 대로 집 팔아서 갚을게요.”<br/><br/> 한양대 재학 시절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을 보고 노래운동에 뛰어든 윤씨는 ‘전대협 진군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헌법 제1조’ 등을 만들었다. 아내 양윤경씨도 노래패 ‘조국과 청춘’ 출신 가수다. 윤씨는 아내가 유방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했다. 수술받고 나은 줄 알았으나 2012년 초 암이 재발했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불어났다.<br/><br/>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아프고 나서 딱 한번 후회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내가 원망스러웠죠.” 28일 전화 수화기 너머 윤씨가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br/><br/> 윤씨의 도움 요청에 시민들은 “윤민석의 노래에 진 빚을 돌려주자”며 성금을 모았다. 윤씨는 자신이 만든 노래의 저작권료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다. 보름 만에 1억5000만원이 모였다. 동료 가수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윤민석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br/><br/> “윤민석 음악회가 열리던 날 아내가 기적처럼 미음 세 숟가락을 떴어요. 이전 한달간은 상태가 안 좋아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음악회에 모인 많은 분들의 염원이 전해졌나봐요.”<br/><br/> 이후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아내의 앨범 하나 못 만들어준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윤씨는 아내와의 앨범 작업을 준비했다. 아내는 지난겨울 힘겹게 녹음을 마쳤다. 그 결과물이 지난 23일 발매됐다. 윤민석 1인 프로젝트 밴드 ‘그래도(島)’ 1집 <우리 아가는>(위 사진)이다. ‘우리 아가는 1’, ‘우리 아가는 2’, ‘윤민석의 자장가’, ‘사랑하는 딸들에게’ 등 아기를 주제로 한 동요풍 노래 4곡과 피아노 연주곡 1곡을 담았다.<br/><br/> “중1이 된 딸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들이에요.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내에게 보내준 희망의 기운을 이 세상의 모든 아가들에게 축복으로 전하고자 이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딸 설(13)양은 앨범 표지 손글씨로 엄마와 아빠의 작품에 힘을 보탰다.<br/><br/> 세월호 참사 이후 윤씨는 한달을 폐인처럼 지냈다고 한다. “<span class='quot0'>나름 열심히 싸워서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무너져내린 듯 허망해졌어요.</span>” 그는 당시 이번 앨범에 실릴 노래들을 들으며 위안을 얻었다고 했다. ‘약속해’, ‘잊지 않을게’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노래들을 만들어 공개했다.<br/><br/>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집회 때 유가족들이 거리행진을 하면서 ‘잊지 않을게’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한 유가족분은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노래 만들길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죠.” <br/><br/>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노래 10곡을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기증했다. 대책위는 이를 음반으로 제작할 예정이다.<br/><br/>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던 최악의 상황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윤씨의 아내는 여전히 암 4기다. 척추까지 전이돼 최근 수술을 받았다. 시민들이 모아준 성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바닥난 지 오래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마음속 희망의 섬 ‘그래도’를 생각하며 힘을 내려 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br/><br/>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br/><br/> <한겨레> 자료사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7.txt

제목: ★<1회>4면/제보 바랍니다  
날짜: 2014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8100000080  
본문: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업체 재직자나 퇴직자 가운데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이나 각종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들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전자우편: tamsa@hani.co.kr 전화: (02)710-0649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8.txt

제목: 흑삼·천마 효능 과장해 노인들에게 판 12명 적발  
날짜: 2014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810014855468  
본문: 전북 남원경찰서는 28일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허위로 과장해 노인 300여명에게 판매한 뒤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방문판매업체 대표 우아무개(39)씨를 구속하고, 이아무개(3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검사받지 않은 흑삼 등을 제공한 혐의(사기 등)로 제조업체 총괄이사 김아무개(57·여)씨를 구속했다.<br/><br/> 우씨 등은 지난 5월11∼14일 전북 남원시 상교동 한 임대건물에 노인 300여명을 데려와 “평생 한 번만 먹으면 되고, 암이나 질병에 효능이 있다. 수출단가 600만원의 제품을 180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효능이 검증 안 된 5000여만원 상당의 흑삼·천마·누에가루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 익산, 남원, 부안 등에 속칭 ‘떴다방’을 개설해 경품 등을 주고 노래와 오락으로 분위기를 띄운 뒤 1개당 80만원의 제품을 180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 이사 김씨는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의 검사필증 750장과 도장을 위조한 뒤 검사품에 부착해 7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우씨를 비롯한 방문판매업자에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 경찰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우씨 등이 전국에서 ‘떴다방’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불량식품 시민감시단과 함께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노인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br/><br/>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29.txt

제목: 95년~현재 공식·비공식 17명 사망 확인 공식조사 2차례…발병·사망 더 많을수도  
날짜: 2014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710014848603  
본문: 하이닉스(현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 일했거나 일하다가 백혈병을 비롯한 림프조혈기계 질환 등으로 숨진 이들은 27일 현재 최소한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참조).<br/><br/> 이 가운데 13명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두차례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1995년~2007년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조사 자료(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는 그동안 개괄적인 수치만 공개된 상태였으나, <한겨레>는 사망자 10명의 병명, 업종, 직무, 생년월일, 성별, 입사·퇴사일, 공정 내역, 사망일 등이 상세히 수록된 ‘부록’을 단독 입수했다. 2008년~2010년을 대상으로 한 두번째 조사 자료(반도체 사업장 추적연구 암 사망자와 발생자 집계현황)도 처음 공개된 자료다. 여기에는 사망자 3명의 병명과 성별만 나와 있다.<br/><br/> 이와 별도로, 2008년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숨진 정철모(당시 42살)씨와 2011년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김진기(당시 38살)씨는 유족들의 산재 신청과 소송 과정에서 신원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씨는 사망 시기와 병명에 비춰볼 때 정부의 두번째 조사 자료상의 사망자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br/><br/> 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2명이 더 있다. 지난해 5월28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37살의 여성과 2011년 7월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30대 여성이 그들이다. 악성 뇌종양은 림프조혈기계 질환은 아니지만, 전자산업 종사자들의 발병 위험도가 높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이 나와있는 질병이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0'>두 분 모두 유족이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남겨서 이후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한겨레> 취재 과정에서 하이닉스 쪽은 이천공장 엔지니어로 일하던 송아무개(당시 40살)씨가 지난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br/><br/> 발병자는 사망자보다 많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진단받은 이들이 28명에 이른다. 2011년 이후 발병자는 정부의 공식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한겨레>가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의뢰해 입수한 건강보험공단의 ‘반도체 회사 직장가입자들의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하이닉스 직원 가운데 2011년 11명, 2012년 10명이 림프조혈기계 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 수치는 각 연도에 해당 질환으로 치료받은 노동자 수로, 발병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br/><br/> 정부 조사 결과가 발병·사망자의 전모라고 보기는 힘들다. 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 경우 정부 조사를 통해 집계된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 수는 1995년~2010년 11명(백혈병 7명)인 데 비해, 반올림에서 파악한 것은 16명(백혈병 13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조사의 바탕이 되는 회사 인사자료나 고용보험 데이터에서 누락되거나 우리가 자료를 제공받는 암등록센터에 등록이 안된 발병·사망자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또 정부 조사는 림프조혈기계 질환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밖의 각종 암까지 합치면 산재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 경우 폐암 4명, 유방암 2명, 위암 1명, 뇌종양 1명, 난소암 1명, 대장암 1명, 심장병 1명 등이 반올림에 제보됐다. 유방암은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았고, 난소암은 현재 산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이닉스의 경우 림프조혈기계 이외의 암 발병자는 뇌종양 1명만 파악된 상태다.<br/><br/> 오승훈 임인택 기자 vin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0.txt

제목: 1995~2007년 사망·발병률 삼성보다 높아…백혈병 발병자 40% 더 많아  
날짜: 2014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710014848599  
본문: 국내 양대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반도체부문)와 하이닉스의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발병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한겨레>는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입수·분석했다.<br/><br/>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1995~2007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대외비로 일부만 공개)와 2008~2010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사업장 추적연구 암 사망자와 발생자 집계현황’(비공개)이 그것이다.<br/><br/> 먼저 첫번째 자료를 보면, 1995~2007년 하이닉스에서 최소 10명, 삼성전자에서 최소 8명이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삶을 접었다. 백혈병 사망자만 하이닉스 5명, 삼성 6명이다. 역학조사 모집단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들로 삼성 5만2329명, 하이닉스 5만4954명(고용보험 자료로 구성한 모집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따져보면 삼성 15.3명, 하이닉스 18.2명이 된다. 발병자도 하이닉스에서 많았다. 이 기간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암센터에 등록된 이가 삼성 19명(백혈병 10명), 하이닉스 25명(백혈병 14명)으로 확인된다. 10만명당 발병자 수는 삼성 36.3명, 하이닉스 45.7명이다(이때 모집단은 암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해 삼성 5만2315명, 하이닉스 5만4653명으로 보정함).<br/><br/> 두번째 2008~2010년치 조사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에만 양사에서 최소 3명씩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더 숨졌다. 하이닉스에선 남성 2명, 여성 1명(모두 비호지킨 림프종)이, 삼성 반도체부문에선 여성 2명(백혈병·비호지킨 림프종)과 남성 1명(비호지킨 림프종)이 사망통계에 올랐다. 이 기간 림프조혈기계 암 등록(확정 진단) 건수는 삼성이 많았다. 하이닉스에선 3명(여성 2명)이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고, 삼성은 백혈병 4명(여성 2명), 비호지킨 림프종 5명(여성 2명)이 발병했다.<br/><br/> 이 기간의 사망·발병률 산출은 좀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모집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995~2007년치 조사 때는 고용보험 자료로 구성한 모집단과 각 회사 인사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한 모집단 중에서 더 포괄적인 고용보험 모집단을 기준으로 회사별 현황을 집계했다. 하지만 2008~2010년치 조사에서는 직무 구분이 더 명확한 인사기록 모집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1995~2007년치 조사 때의 인사기록 모집단(삼성 5만7482명, 하이닉스 4만6004명)에 2008년 이후 입사·퇴사자를 반영한 수치가 최종 모집단이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양사의 모집단 비율은 계속 비슷하다”고만 밝혔다.<br/><br/> 따라서 현재 파악 가능한 근접치(1995~2007년치 조사 때의 인사기록 모집단)를 바탕으로 2008~2010년 사망률을 계산하면 10만명당 삼성 5.2명, 하이닉스 6.5명으로 여전히 하이닉스가 높게 나온다. 10만명당 발병자 수는 삼성(16.5명)이 하이닉스(6.7명)보다 2.5배 많다. <br/><br/> 그런데 두 회사의 사망·발병자 비율을 따질 때 한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다. 실제 근무하는 직원 규모는 삼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2008~2010년 평균 하이닉스 직원 수는 1만7771명인 데 비해, 삼성 반도체부문은 2009년 4만6298명(2008년·2010년엔 비공개)으로 갑절 이상이다. 정부 조사에서 모집단 수가 비슷하게 나온 것은 하이닉스의 이직률이 삼성전자보다 높고, 현대전자와 엘지반도체의 합병을 거치는 등 퇴사자도 많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쪽의 실질적인 사망·발병률은 조사 결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br/><br/> 임인택 오승훈 기자 imi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1.txt

제목: [단독]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날짜: 2014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710014848581  
본문: “삼성 백혈병 얘기를 듣고 솔직히 걱정은 돼요. 케미컬(화학물질) 다루는 데 뭐 몸에 좋겠어요? 병에 안 걸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설마 하며 다니는 겁니다.”<br/><br/> 오후 2시 퇴근길에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 공장에서 14년째 반도체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공장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와 상업지구가 형성된 이곳은 3교대로 일하는 공장 직원들이 아침 6시, 오후 2시, 밤 10시께 무리 지어 출퇴근하는 풍경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소도시의 일상 그대로였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건 그저 평범한 일은 아닌 듯했다. 지난달 초 <한겨레>가 만난 하이닉스 노동자들은 마음속에 담아뒀던 불안감을 조심스레 털어놨다. 10년 넘게 오퍼레이터로 일하는 30대 초반 여성의 얘기다. <br/><br/> “1년 전쯤인가 누가 암에 걸려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또 개인 질병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삼성 백혈병 논란을 보니까 산재일 수 있겠구나 많이들 그럽니다. 하지만 쉬쉬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찍히면 안 되잖아요.”<br/><br/> 최근까지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한 남성 노동자는 “1990년대 중반 입사한 뒤 10여년 동안은 일하면서 마스크 같은 것도 한번 써본 적 없다”며 “자동화 설비도 자주 오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몇시간씩 사람이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게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이닉스 노동자는 “지금 새 설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는 대부분 일본에서 쓰던 중고품을 수입한 것들이다. 그만큼 공정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br/>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양대 반도체 사업체이지만, 2007년 황유미(당시 23살)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뒤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과 달리 하이닉스는 백혈병 등 반도체 산업재해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한 적이 없다.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병으로 연구되는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용어설명 참조) 실태조차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다.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그저 기우일까? 취재 결과,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br/><br/>발병 줄기는커녕 늘어나…여성 악성 림프종 비율 높아<br/><br/>2010년까지만 13명 사망…28명 발병 <br/>삼성 공론화 이후에도 눈길 안줘<br/><br/>하이닉스 “림프조혈기계 사망 <br/>일반인과 비슷한 수준” <br/>악화 막으려면 정밀조사·대처 시급<br/><br/><br/><br/><한겨레>가 정부 조사 자료와 자체 취재 등을 통해 파악한 하이닉스 출신의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는 27일 현재 최소한 17명에 이른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백혈병 사망자로 파악되는 송아무개(40·장비 정비업무·2013년 1월 사망)씨도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의 22년차 재직자였다. <br/><br/>‘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는 지난해 5월 37살 여성 오퍼레이터가 악성 림프종으로 숨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또한 하이닉스 출신이었다. 현재 퇴사 뒤 홀로 투병중인 노동자들도 확인된다.<br/><br/> 또 정부의 공식 조사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반도체부문)와 비교한 결과, 하이닉스는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 규모 및 비율에서 삼성에 뒤지지 않았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하이닉스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노동자 가운데 최소 13명(백혈병 5명, 비호지킨 림프종 5명 등)이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숨졌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선 최소 11명이 같은 질환(백혈병 7명, 비호지킨 림프종 3명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고 암센터에 등록된 이들은 하이닉스와 삼성 모두 28명씩이었다. 이들과 사망자는 대부분 겹치지 않아, 지난 15년 동안 두 회사에서 80명 안팎이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쓰러진 셈이다.<br/><br/>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995~2007년, 2008~2010년 두 기간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전·현직 노동자들의 사망·질환 내역을 조사한 연구물을 종합분석한 결과다. 사망 비율을 따지면, 1995~2007년 삼성의 10만명당 사망률은 15.3명, 하이닉스는 18.2명에 이른다. 2008~2010년에는 10만명당 사망률이 하이닉스 6.5명, 삼성 5.2명이다.(상자기사 참조)<br/><br/> 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08년 11월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숨진 정철모(당시 42살·13년차)씨도 삼성과의 사망 격차를 벌린 이 가운데 한명이다. 유족들은 엔지니어였던 정씨가 생산라인과 연구소에서 각종 실험·연구 중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을 사인으로 꼽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수년 전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처럼 길고 외로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br/><br/> 하이닉스와 매그나칩(하이닉스 비메모리 사업부가 분리된 업체)에서 일하다 2011년 5월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숨진 김진기(당시 38살·14년차)씨는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첫번째 반도체 백혈병 환자였다. 하지만 유족들은 회사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br/><br/> <한겨레>와 만난 이들 유족은 한결같이 산재 신청과 소송 과정에서 회사 쪽의 철저한 무관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삼성을 통해 반도체 산재 논란이 불거진 지 7년이 지났는데도 하이닉스 노사는 여전히 ‘감추기’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발병·사망자 현황 파악조차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 13일 <한겨레>에 “<span class='quot0'>건강보험 진료 내역이 개인정보여서 퇴직자는 물론 재직자의 질환 발생 현황도 파악하기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2007년까지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자료만 갖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 회사 박아무개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9일 <한겨레>에 “현재까지 노조가 파악한 백혈병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 이 사안에선 회사와 노조의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쉬쉬하는 사이 사망자·환자가 이어지고, 가족 몇이 온전히 병과 죽음을 감당하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수년간 문제를 제기한 끝에 겨우 대화에 나선 삼성의 초기 대응을 닮은 셈이다.<br/><br/> 더 주목할 문제는 하이닉스와 삼성 모두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발병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95~2007년 조사에서 두 회사의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연평균 1.38명인 데 비해, 2008~2010년 조사에선 양사 6명으로 연평균 2명꼴이다. 림프조혈기계 암 발병 건수도 1995~2007년 한해 평균 3.38명(총 44명)에서 2008~2010년 4명꼴(총 12명)로 늘었다.<br/><br/> 특히 여성 노동자의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2007년 두 회사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여성 환자는 최소 8명이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발병률이 일반인 집단보다 2.7배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2008~2010년 3년간 발병자는 이전 13년간 발병자의 절반(4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전체 여성 가운데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자가 2008년 346명에서 2010년 199명으로 크게 감소해온 추세와 대조된다.(발병자 자료는 따로 없음)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산업보건전문의)는 “<span class='quot1'>2008~2010년 사이 일반인의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자는 줄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에선 발병자가 늘고 있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현재 진행 중인 사과·배상·재발방지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br/><br/>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산업의학전문의)은 “삼성은 삼성이라서 주목을 받았다. 이제 에스케이하이닉스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인권경영 측면에서라도 반도체 공정의 건강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예방의학전문의)은 “<한겨레> 취재 결과는 대기업간 비교를 떠나,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어느 기업도 숨어선 안 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br/><br/> 하이닉스 쪽은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 비율은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 또한 (작업 환경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br/><br/> 임인택 오승훈 기자 imit@hani.co.kr <br/><br/><br/><br/> <br/><br/>에스케이(SK)하이닉스<br/><br/>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983년 창립된 현대전자가 모태다. 1999년 엘지반도체를 흡수·합병한 뒤 2001년 3월 하이닉스로 사명을 바꿨다. 2012년 3월 에스케이텔레콤이 인수해 지금의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됐다. 2012년 세계 반도체업계 시장점유율에서 7위(1위 인텔, 2위 삼성전자)를 차지했던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13년에는 매출액 14조1650억원을 달성해 세계 5위(1위 인텔, 2위 삼성전자)로 두 단계 뛰어올랐다. 올 상반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매출 7조6660억원에 영업이익 2조14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50%가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공장이 있다.<br/><br/>림프조혈기계 질환<br/><br/>대표적인 ‘반도체 직업병’으로 불리는 림프조혈기계 질환은 피를 만드는 뼛속 조직인 조혈 모세포가 정상적인 분화를 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군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 따르면 림프조혈기계 암과 기타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나뉜다. 림프조혈기계 암에는 백혈병, 호지킨·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이 포함되며, 그밖에 재생불량성(무형성) 빈혈,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등은 기타 림프조혈기계 질환으로 불린다. <br/><br/> 백혈병과 더불어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발병 빈도가 높은 비호지킨 림프종은 종양이 온몸에 나타날 수 있고 어디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악성 림프종으로 불린다. 몸의 한정된 림프절(임파선)을 침범하고 종양이 퍼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호지킨 림프종에 비해 치료가 더 힘든 질병이다.<br/><br/><br/><br/><br/><br/> <br/><br/>제보를 기다립니다<br/><br/>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업체 재직자나 퇴직자 가운데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 질환이나 각종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들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전자우편: tamsa@hani.co.kr 전화: (02)710-0649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2.txt

제목: 종기 /조선의 왕들이 덜덜덜 떨던 바로 그것  
날짜: 201407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6100000021  
본문: ▶ 현대에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을 겁니다. 각종 환경오염과 지나친 경쟁 등을 생각하면 ‘순수한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기와 관련해서는 현대인이 조선의 임금보다 행복합니다. 현대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종기가 항생제가 없던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질환이었습니다. 종기로 본 역사는 흥미진진합니다.<br/><br/>현대인들은 차곡차곡 쌓인 시간의 더미 위에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옛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 만약 시간의 혜택을 받은 현대인들이 현재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진 채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페니실린의 제조법을 알고 있는 의사가 종기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어린 환자 앞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할까, 아니면 역사적 혼란을 막기 위해 눈과 귀를 닫을까. 어쩌면 그는 이름없는 어린아이 하나 살리는 것은 큰일이 아닐 거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인물이 필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이라면? 더 나아가 조선의 역사적 흐름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낸 문종이나 정조였다면?<br/>　세균이나 항생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종기(腫氣)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였다. 현대인들에게 종기란 피부가 감염되어 고름이 생기고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증상을 의미한다. 종기의 원인은 박테리아의 유입에 의해 발생된 염증반응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의 땀샘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화농땀샘염(hidradenitis suppurativa),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의 엉덩이 근처에서만 발생하는 모발둥지낭(pilonidal cyst)도 종기의 일종이며, 사춘기 청소년들의 고민거리인 여드름 중에서도 극강의 위력(?)을 자랑하는 낭포성 여드름(cystic acne) 역시도 종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br/><br/>　문종의 등창은 붉게 부어오른 부위가 30㎝<br/>　천연두를 박멸하고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을 코너에 몰고 있는 현대 의학의 위력에도 종기는 여전히 살아남긴 했어도, 과거에 비하면 그 위세는 영 변변치 않다. 예나 지금이나 일단 상처가 생겨나면 그 부위가 세균들의 집중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독약과 항생제 연고, 살균 처리된 일회용 밴드가 손 닿는 곳에 늘 놓여 있기에 가벼운 상처가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아졌으며, 설사 감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내외과적 처치를 통해 종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 종기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현대인들은-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시계를 겨우 100년 전으로만 돌려보아도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당시에는 종기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감염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종기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거니와 지위 고하도 막론했기에, 당대 최고의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왕조차도 종기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br/>　(방성혜 지음, 시대의 창 펴냄)에 따르면, 문종과 정조는 종기가 원인이 되어 숨진 대표적인 ‘귀하신 몸’들이다. 세종 31년인 1449년에 당시 세자였던 문종은 등에 생긴 화농성 종기, 즉 등창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 당시 문종의 등창은 붉게 부어오른 부위가 한 자(약 30㎝)에 이를 정도로 컸고 그 증상도 심각했다. 세자의 등창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비였던 세종은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span class='quot0'>도죄(徒罪) 이하의 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유와 판결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사면하라</span>”는 왕명을 내렸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정성에도 불구하고, 문종은 수시로 재발하는 종기로 인해 즉위 2년 만에 사망했으며, 겨우 열두살인 어린 세자의 즉위는 결국 계유정난과 사육신의 처형으로 이어졌다.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끈 임금으로 평가받는 정조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정조 24년(1800년)에 머리와 등에 발생한 커다란 종기였다. 종기의 병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의들이 총동원되어 임금의 환부를 살폈지만 종기는 낫지 않았고, 결국 정조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승하하고 만다. 종기가 발생한 지 겨우 24일 만의 일이었다. 정조 사후, 아버지의 큰 뜻을 이어받기에 열한살의 순조는 너무 어렸고, 그렇게 정조가 꿈꾸었던 조선의 미래도 스러져 버리고 말았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지만, 만약 페니실린의 제조법을 쥐고 미래에서 온 의사가 종기로 고생한 문종과 정조가 살던 15세기 중반이나 18세기 후반에 떨어졌다면, 그리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더라면 어땠을까?<br/>　문종과 정조 이외에도 조선의 임금들은 크고 작은 종기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실록 곳곳에 심심치 않게 드러나며, 비록 정식 기록에는 없지만 세조 역시도 현덕왕후(단종의 어머니)가 저주하고 침을 뱉는 꿈을 꾸고 난 뒤, 종기에 시달렸다는 야사도 유명하다. 당대 최고의 의료진을 상시 대기시켜 두었던 임금이 이 정도였다면 당시 일반 백성들은 말해 무엇하랴.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 종기는 차라리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신체의 일부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흔하면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종기 치료법을 전문적으로 다룬 치종학서들이 다수 편찬되었고, 종기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종의들을 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양성할 정도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증거이다.<br/><br/>　그 끈적한 그림자를 몸에서 지우다<br/>　심지어 숙종 대 명의 백광현은 원래는 말의 병을 치료하던 마의(馬醫)였으나, 종기를 치료하는 그의 의술이 너무도 뛰어났기에 궁중으로 불려가 지존인 숙종과 인선왕후의 종기를 치료하는 일을 맡게 되었으며 세간에서는 그의 신묘한 종기 치료에 감탄하며 그를 ‘신의’(神醫)라 부를 정도였다고 한다. 종기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고, 게다가 그 하나만으로 신의로 불렸다니 뜻밖의 일이지만 당시의 종기는 지금과는 개념이 조금 달랐다. 현대 의학에서는 피부에 생긴 염증만을 종기로 다루지만, 조선시대에는 종기(腫氣), 즉 ‘부어오르는 증상’을 통칭하는 개념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봉와직염이나 관절에 고름이 차는 관절염은 물론이거니와 오장육부에 생기는 염증에 암과 같은 악성 종양도 일종의 종기로 바라보았다. 즉, 인간의 몸에서 어딘가가 붓고 아프고 열과 고름을 동반한다면 그 모든 것이 종기의 일종이라 여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기를 치료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병변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염성 질환과 염증 질환, 심지어 암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분야의 질병을 다뤄야 했기에 종기를 다루는 일을 그토록 중요히 여겼던 것이다.<br/>　다행스럽게도 시간의 더해짐은 플레밍에게 푸른곰팡이의 항균 효과를 깨닫게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더한 노력은 페니실린을 푸른곰팡이로부터 분리하여 치료제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다양한 항생물질의 개발이라는 쾌조로 속속 이어졌다. 그리고 그 항생물질의 비호 아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종기의 끈적한 그림자를 몸에서 거의 지워버렸다.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신체의 일부처럼 자리잡고 있던 불청객을 털어버리는 것은 전혀 아쉽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다시 재정립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br/>　(여담이지만, 타임슬립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예방접종법을 가르쳐 주었던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에스에프(SF) 단편선이 떠오른다. 그는 후대의 인물들이 자신을 인류의 구원자로 여길 거라 상상하지만, 그는 허무하게도 과거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미래에서 온 이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가 고대인들에게 알려준 예방접종법 때문에 인구가 너무 이른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후손의 대부분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었고, 생태계는 모조리 파괴되었기에 미래의 의회에서는 그를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킨 ‘인류 최대의 적’으로 판결하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이다!) <br/>이은희 과학 칼럼니스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3.txt

제목: 조선의 왕들이 덜덜덜 떨던 바로 그것  
날짜: 2014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510014843281  
본문: ▶ 현대에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을 겁니다. 각종 환경오염과 지나친 경쟁 등을 생각하면 ‘순수한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기와 관련해서는 현대인이 조선의 임금보다 행복합니다. 현대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종기가 항생제가 없던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질환이었습니다. 종기로 본 역사는 흥미진진합니다.<br/><br/><br/><br/>현대인들은 차곡차곡 쌓인 시간의 더미 위에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옛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 만약 시간의 혜택을 받은 현대인들이 현재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진 채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페니실린의 제조법을 알고 있는 의사가 종기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어린 환자 앞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할까, 아니면 역사적 혼란을 막기 위해 눈과 귀를 닫을까. 어쩌면 그는 이름없는 어린아이 하나 살리는 것은 큰일이 아닐 거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인물이 필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이라면? 더 나아가 조선의 역사적 흐름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낸 문종이나 정조였다면?<br/><br/> 세균이나 항생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종기(腫氣)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였다. 현대인들에게 종기란 피부가 감염되어 고름이 생기고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증상을 의미한다. 종기의 원인은 박테리아의 유입에 의해 발생된 염증반응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의 땀샘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화농땀샘염(hidradenitis suppurativa),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의 엉덩이 근처에서만 발생하는 모발둥지낭(pilonidal cyst)도 종기의 일종이며, 사춘기 청소년들의 고민거리인 여드름 중에서도 극강의 위력(?)을 자랑하는 낭포성 여드름(cystic acne) 역시도 종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br/><br/><br/><br/>항생제 없던 100년 전만 해도 <br/>종기에 의해 사람들 죽어나가 <br/>문종·정조도 종기로 인해 사망 <br/>세조 역시 현덕왕후가 침 뱉는 <br/>꿈 꾼 뒤 종기 시달렸다는 야사 <br/><br/>현대의학에서 종기란 ‘피부 염증’ <br/>조선시대엔 ‘붓는 증상’ 통칭 <br/>봉와직염이나 관절염은 물론이고 <br/>암 같은 악성종양도 종기로 봐 <br/>종기 전문의사가 있었을 정도<br/><br/><br/><br/> 문종의 등창은 붉게 부어오른 부위가 30㎝<br/><br/> 천연두를 박멸하고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을 코너에 몰고 있는 현대 의학의 위력에도 종기는 여전히 살아남긴 했어도, 과거에 비하면 그 위세는 영 변변치 않다. 예나 지금이나 일단 상처가 생겨나면 그 부위가 세균들의 집중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독약과 항생제 연고, 살균 처리된 일회용 밴드가 손 닿는 곳에 늘 놓여 있기에 가벼운 상처가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아졌으며, 설사 감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내외과적 처치를 통해 종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 종기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현대인들은-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시계를 겨우 100년 전으로만 돌려보아도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당시에는 종기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감염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종기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거니와 지위 고하도 막론했기에, 당대 최고의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왕조차도 종기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br/><br/>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방성혜 지음, 시대의 창 펴냄)에 따르면, 문종과 정조는 종기가 원인이 되어 숨진 대표적인 ‘귀하신 몸’들이다. 세종 31년인 1449년에 당시 세자였던 문종은 등에 생긴 화농성 종기, 즉 등창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 당시 문종의 등창은 붉게 부어오른 부위가 한 자(약 30㎝)에 이를 정도로 컸고 그 증상도 심각했다. 세자의 등창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비였던 세종은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span class='quot0'>도죄(徒罪) 이하의 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유와 판결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사면하라</span>”는 왕명을 내렸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정성에도 불구하고, 문종은 수시로 재발하는 종기로 인해 즉위 2년 만에 사망했으며, 겨우 열두살인 어린 세자의 즉위는 결국 계유정난과 사육신의 처형으로 이어졌다.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끈 임금으로 평가받는 정조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정조 24년(1800년)에 머리와 등에 발생한 커다란 종기였다. 종기의 병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의들이 총동원되어 임금의 환부를 살폈지만 종기는 낫지 않았고, 결국 정조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승하하고 만다. 종기가 발생한 지 겨우 24일 만의 일이었다. 정조 사후, 아버지의 큰 뜻을 이어받기에 열한살의 순조는 너무 어렸고, 그렇게 정조가 꿈꾸었던 조선의 미래도 스러져 버리고 말았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지만, 만약 페니실린의 제조법을 쥐고 미래에서 온 의사가 종기로 고생한 문종과 정조가 살던 15세기 중반이나 18세기 후반에 떨어졌다면, 그리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더라면 어땠을까?<br/><br/> 문종과 정조 이외에도 조선의 임금들은 크고 작은 종기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실록 곳곳에 심심치 않게 드러나며, 비록 정식 기록에는 없지만 세조 역시도 현덕왕후(단종의 어머니)가 저주하고 침을 뱉는 꿈을 꾸고 난 뒤, 종기에 시달렸다는 야사도 유명하다. 당대 최고의 의료진을 상시 대기시켜 두었던 임금이 이 정도였다면 당시 일반 백성들은 말해 무엇하랴.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 종기는 차라리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신체의 일부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흔하면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종기 치료법을 전문적으로 다룬 치종학서들이 다수 편찬되었고, 종기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종의들을 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양성할 정도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증거이다.<br/><br/><br/><br/> 그 끈적한 그림자를 몸에서 지우다<br/><br/> 심지어 숙종 대 명의 백광현은 원래는 말의 병을 치료하던 마의(馬醫)였으나, 종기를 치료하는 그의 의술이 너무도 뛰어났기에 궁중으로 불려가 지존인 숙종과 인선왕후의 종기를 치료하는 일을 맡게 되었으며 세간에서는 그의 신묘한 종기 치료에 감탄하며 그를 ‘신의’(神醫)라 부를 정도였다고 한다. 종기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고, 게다가 그 하나만으로 신의로 불렸다니 뜻밖의 일이지만 당시의 종기는 지금과는 개념이 조금 달랐다. 현대 의학에서는 피부에 생긴 염증만을 종기로 다루지만, 조선시대에는 종기(腫氣), 즉 ‘부어오르는 증상’을 통칭하는 개념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봉와직염이나 관절에 고름이 차는 관절염은 물론이거니와 오장육부에 생기는 염증에 암과 같은 악성 종양도 일종의 종기로 바라보았다. 즉, 인간의 몸에서 어딘가가 붓고 아프고 열과 고름을 동반한다면 그 모든 것이 종기의 일종이라 여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기를 치료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병변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염성 질환과 염증 질환, 심지어 암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분야의 질병을 다뤄야 했기에 종기를 다루는 일을 그토록 중요히 여겼던 것이다.<br/><br/> 다행스럽게도 시간의 더해짐은 플레밍에게 푸른곰팡이의 항균 효과를 깨닫게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더한 노력은 페니실린을 푸른곰팡이로부터 분리하여 치료제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다양한 항생물질의 개발이라는 쾌조로 속속 이어졌다. 그리고 그 항생물질의 비호 아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종기의 끈적한 그림자를 몸에서 거의 지워버렸다.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신체의 일부처럼 자리잡고 있던 불청객을 털어버리는 것은 전혀 아쉽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다시 재정립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br/><br/> (여담이지만, 타임슬립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예방접종법을 가르쳐 주었던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에스에프(SF) 단편선이 떠오른다. 그는 후대의 인물들이 자신을 인류의 구원자로 여길 거라 상상하지만, 그는 허무하게도 과거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미래에서 온 이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가 고대인들에게 알려준 예방접종법 때문에 인구가 너무 이른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후손의 대부분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었고, 생태계는 모조리 파괴되었기에 미래의 의회에서는 그를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킨 ‘인류 최대의 적’으로 판결하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이다!) <br/><br/>이은희 과학 칼럼니스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4.txt

제목: 대학병원들, 펫시티 방사선 피폭 축소·은폐  
날짜: 2014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310014824920  
본문: 암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양전자단층촬영’(PET-CT·펫시티)에 대해 대학병원들이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해온 사실이 23일 드러났다.<br/><br/>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이날 내놓은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ㄱ대학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은 펫시티 촬영 사전동의서, 안내문,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한겨레>가 23일 조회한 한 대학병원 누리집에서도 펫시티 촬영에 대해선 “암의 조기 발견, 전이 여부의 판별, 악성 여부 판정 및 치료방법뿐 아니라, 암 세포의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홍보할 뿐 피폭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br/><br/> 펫시티는 촬영 비용이 100만원을 호가하는데도 암세포 조기 발견 등의 ‘효능’ 덕에 국내에서 ‘꿈의 검진’이란 별칭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해 양전자를 방출시키도록 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탓에, 체내에 13~25밀리시버트(m㏜)의 방사선 피폭을 발생시킨다. 감사원은 “<span class='quot0'>이는 일반 엑스선 촬영 시 노출량의 200배를 웃도는 양으로, 연간 피폭 한계랑의 13배를 넘어서는 수치</span>”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증상이 없는 성인에겐 펫시티 촬영을 권하지 않는다.<br/><br/> 감사원은 “<span class='quot0'>일부 병원은 심지어 펫시티 촬영 시 방사선 피폭이 미미하다고 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span>”고 밝혔다.<br/><br/>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5.txt

제목: 말 없는 5분 지식동영상이 교실을 바꿨어요  
날짜: 2014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2110014805844  
본문: “화면이 까맣게 되면서 알파벳 ‘e’가 날아왔다. 신기했다.”<br/><br/> 지난 11일에 만난 경기 고양시 서정초 4년 한지원양은 지난해 수업시간을 통해 접했던 ‘이비에스(EBS) 지식채널e’에 대한 첫인상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양이 3학년이던 지난해 담임을 맡은 서우철 교사는 수업시간에 지식채널e를 활용한 수업을 자주 진행했다. 혁신학교인 이 학교에서는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분리되어 있는 여러 교과목을 개념·생활문제 등 하나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수학·경제·언어·환경·진실 등 60여개 주제로 이루어진 지식채널e는 이런 주제별 수업을 할 때 유용한 콘텐츠였다. <br/><br/> 한양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겨준 수업은 ‘나의 동물농장’이라는 주제의 수업이었다. 멸종 위기 동물들의 현실, 동물실험에 대한 찬반 논란 등을 다룬 ‘나는 2억5천만원입니다’, ‘동물실험’ 편을 보고 동물실험에 대한 찬반 글쓰기 활동을 했다. 한양은 “<span class='quot0'>동물도 생명체인데 생명체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글로 썼다</span>”고 설명했다. 글을 쓰기까지 영상으로 만났던 동물들의 현실은 교과서나 책에서 본 것과는 다른 여운을 남겨줬다.<br/><br/> “멸종 위기 동물이 처한 현실을 짧은 시간 안에 기억에 남도록 소개했다. 집에 와서도 생각이 나서 컴퓨터를 켜서 영상을 다시 봤었다.”<br/><br/> 이 수업은 지식채널e 방송 콘텐츠에 서 교사의 글쓰기·토론 수업 설계가 더해져 완성된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br/><br/> 지식채널e연구회 소속 서 교사가 지식채널e 콘텐츠를 교과수업에 적극 활용해보기로 한 건 2010년. 지식채널e를 그냥 보여주고 말 게 아니라 교과수업에 적극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본래 활동하고 있던 ‘협동학습연구회’의 교사들에게 전했다. 곧 ‘지식채널e연구회’가 꾸려졌다. 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각자 영상을 본 다음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관련 교과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작업들이 쌓이면서 지식채널e 영상을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연수가 만들어졌다. 지난 4월, 티처빌(teacherville.co.kr) 원격교육연수원에서 개설한 연수는 초등교과와 연관되어 있지만 중등교사에게까지도 인기다. <br/><br/> 지식채널e가 첫 방송을 한 건 2005년. ‘암기하는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으로서의 지식을 다룬다’는 기획의도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그동안 9년 역사를 거치며 학교 현장에 유용한 교육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다. 한지원양 말처럼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메시지를 남겨준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br/><br/><br/><br/>2005년부터 쌓인 60여 주제 자료 <br/>암기정보 아닌 생각하는 지식 담아 <br/>해설 없이 글·음악·영상으로 구성 <br/>영상 익숙한 아이들에게 큰 효과 <br/>정답만 가르치는 기존 수업 대신 <br/>다양한 화두 던져 ‘열린 수업’ 유도<br/><br/> 지식채널e는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교사들은 무엇보다 ‘동기 유발’ 콘텐츠로서 수업에 활기를 준다고 강조한다. 지난 15일, 서울 경원중 2학년 10반의 5교시 도덕 수업 주제는 ‘안락사’였다. 강웅용 도덕교사는 안락사에 대한 개념과 찬반 논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고, 지식채널e ‘남겨진 논쟁’ 편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br/><br/> 강 교사는 지난해 거의 매 수업시간에 지식채널e를 활용했다. 강 교사는 “<span class='quot1'>영상에 민감한 요즘 아이들에게 매 수업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몇 개의 단어와 사진 등으로 알려줄 수 있는 콘텐츠</span>”라고 평하면서 “<span class='quot1'>5분 안팎의 러닝타임이라 수업 도입에 동기부여를 하기 좋다</span>”고 했다. 신우석군은 “교과서로 뭘 할지 설명을 들으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데 아무 말 없이 글과 음악, 영상으로만 수업 주제를 말해줘서 집중하게 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br/><br/> 영상은 배경설명 자료로도 유용하게 쓰인다. 강 교사는 나치 시대 부도덕한 의료 살인 행위가 이루어지던 장면이 나오자 “<span class='quot1'>아까 내가 설명한 ‘미끄러운 경사길’(가파른 경사에서 조금만 미끄러지기 시작해도 결국 바닥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처럼, 남용의 여지를 허용하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 사례를 말해주네</span>”라고 설명했다.<br/><br/> 영상을 다 본 학생들은 강 교사의 설명에 따라 ‘○×퀴즈’를 풀었다. “<span class='quot2'>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다</span>”, “<span class='quot2'>최초의 존엄사는 미국의 카렌양의 경우다</span>” 등 퀴즈는 영상을 봤다면 누구나 풀 수 있게 되어 있었다.<br/><br/> 서우철 교사의 교실에서는 ‘지식채널e 노트’도 활용한다. 수업을 진행하다 지식채널e를 활용해 수업 소재와 관련한 심화 영상을 보여주고 노트에 영상에 대한 생각 몇 줄을 써보게 하는 것이다. 한지원양이 쓴 동물실험에 대한 생각들 등이 그 경우다. 안락사 문제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한 주제일 경우,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 교사는 “<span class='quot3'>교과 수업을 마친 다음 관련 영상을 보고 더 깊은 내용에 대해 조사해오는 ‘점프과제’라는 것도 내준다</span>”고 덧붙였다.<br/><br/> 이런 현장의 다양한 반응은 애초에 “지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시청자에게 ‘화두’를 던진다”는 프로그램 기획의도가 정답 있는 수업에 지친 교사들의 요구와 잘 맞아떨어졌다는 뜻도 된다. 프로그램이 던지는 메시지가 ‘A는 항상 A이고, A는 항상 옳다’는 식으로 정답을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끌어내 ‘열린 수업’을 해보려는 교사들에게 호응을 끌어냈다.<br/><br/><br/><br/> 지식채널e연구회 소속 경기 서정초 정시연 교사는 “<span class='quot4'>그동안 우리가 봐온 동영상들은 지식이나 관점을 설명하려 들어서 어떻게 보면 바보상자 역할을 했지만 이 영상은 사람들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존 동영상과 달랐다</span>”고 했다. <br/><br/> “현재 초등 대상으로 나오는 디지털 멀티 교과자료의 경우, ‘이게 답이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가는 식의 설명형 영상이다. ‘확산적 사고’를 하긴 어렵다. 한데 지식채널e는 결론이 있더라도 그 결론에 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게 한다.” <br/><br/> 서울시 노원구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최아무개 교사는 “<span class='quot5'>나는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에 근무하는데 상대적으로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에게 입을 열 기회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콘텐츠</span>”라고 했다. <br/><br/> “늘 엎드려 있던 아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편을 틀자마자 어깨를 펴고 앉는 모습을 봤다. 콤플렉스가 많은 아이인데 박지성 선수가 축구선수치고는 키 175센티미터로 덩치가 작은 조건에서도 성공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 이야기에 자기 상황을 대입하며 몇 줄 감상도 적었다. 어려운 영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영상은 수업에 의지가 없던 꼴찌에게도 생각을 말해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br/><br/> 현재 지식채널e 연출을 맡고 있는 황정원 프로듀서는 “<span class='quot6'>9년 역사를 거치며 연출진 등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답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화두를 던져주고, 머릿속에 생각의 여백을 남겨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span>”고 설명했다. <br/><br/> “‘이 프로그램은 이래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가능하면 시의성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템을 선정하되 가치중립적인 접근을 하자는 공통된 생각은 있다.” <br/><br/> 지식채널e가 애초부터 수업용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살펴야 할 점도 물론 있다. 서우철 교사는 “<span class='quot7'>짧은 순간에 강한 화두를 던지고 있어 아이들 인상에 오래 남는 게 장점이자 단점</span>”이라고 했다. <br/><br/> “한 예로 ‘동물실험’ 편은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쪽에 서 있다.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걸 보고 동물실험을 무조건 반대한다. 한데 현실적으로 동물실험을 어느 정도 안 하면 의약품 개발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과학재단 등에서 나온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균형 있게 사고할 수 있게 했다. 이젠 그냥 보여주기만 할 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교과 공부와 연계하도록 수업설계를 하는 교사의 노력도 필요하다.”<br/><br/> 글·사진 김청연 기자 carax3@hanedui.com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6.txt

제목: 쌓이면 병 되는 활성산소, 생활 습관속 조절법  
날짜: 2014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16100000074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해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필요 이상이 생성되면 몸 안의 세포막과 유전자를 공격해 정상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조절이 중요한데, 나쁜 생활습관을 버리면 가능하다. 활성산소는 비만, 과식과 흡연 등 다양한 요인으로 몸에 쌓인다. 오랫동안 반복되면 체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담배를 끊고 체중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등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건강한 음식 섭취도 도움된다. 항산화 능력을 높여 활성산소의 과도한 생성을 막는 데는 복분자와 각종 딸기류가 특히 좋다. 꾸준히 먹으면 신체 내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혈관 기능이 개선된다. 복분자는 암 발생 억제 효과와 성 기능 개선 효과도 있다. 꾸준한 운동도 활성산소를 없애는 지름길이다.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걷기, 달리기, 줄넘기, 수영 등 가볍게 땀을 흘리는 수준이 좋다. 실제 나이에 견줘 신체 나이가 건강한 사람들을 살펴 활성산소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7.txt

제목: 7월 16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1510014764430  
본문: 쌓이면 병 되는 활성산소, 생활 습관속 조절법<br/><br/>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해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필요 이상이 생성되면 몸 안의 세포막과 유전자를 공격해 정상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조절이 중요한데, 나쁜 생활습관을 버리면 가능하다. 활성산소는 비만, 과식과 흡연 등 다양한 요인으로 몸에 쌓인다. 오랫동안 반복되면 체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담배를 끊고 체중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등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건강한 음식 섭취도 도움된다. 항산화 능력을 높여 활성산소의 과도한 생성을 막는 데는 복분자와 각종 딸기류가 특히 좋다. 꾸준히 먹으면 신체 내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혈관 기능이 개선된다. 복분자는 암 발생 억제 효과와 성 기능 개선 효과도 있다. 꾸준한 운동도 활성산소를 없애는 지름길이다.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걷기, 달리기, 줄넘기, 수영 등 가볍게 땀을 흘리는 수준이 좋다. 실제 나이에 견줘 신체 나이가 건강한 사람들을 살펴 활성산소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본다.<br/><br/>바다 사나이들의 제주 자리돔 잡이<br/><br/>극한직업(교육방송 밤 10시45분) 제주 바다 사나이들의 자리돔잡이 항해를 따라간다. 매년 4월부터 7월이면 제주 항구는 자리돔 잡기가 한창이다. 자리돔은 1년 중 단 넉달만 조업할 수 있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 생선’이란 뜻처럼 서식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 자리 선점이 특히 중요하다. 깊은 바다 밑 암초에서 무리 지어 생활해 잡는 방법도 독특하다. 사방 23㎡에 이르는 그물을 바다 바닥에 정사각형으로 넓게 편 뒤, 자리돔이 지날 때를 맞춰 정확하게 그물을 들어 올리는 ‘들망 어법’을 쓴다. 기계가 발달한 요즘에도 100％ 수작업으로 그물질한다. 변덕스러운 제주 바다의 날씨도 변수다. <br/><br/>연쇄살인 생존자는 정신병원에<br/><br/>크리미널 마인드 시즌9(오시엔 밤 11시) 19회 ‘허수아비’ 편. 1년 전에 발생한 기이한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힌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는 공범이 잡히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 수사관 모건은 생존자를 만나러 간다. 그러나 어떤 말도 듣지 못한다. 다행히 생존자는 조금씩 당시의 기억을 되찾는다. 미국연방수사국(FBI) 심리수사대원들이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해 사건을 풀어가는 수사드라마로 미 <시비에스>(CBS)에서 지난 5월14일 종영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8.txt

제목: 7월 12·13일 본방사수  
날짜: 2014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1110014740987  
본문: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사랑한 에바<br/><br/>세계의 명화 ‘에비타’(교육방송 토 밤 11시) 아르헨티나 농부의 사생아로 태어난 에바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한다. 한때 탱고 가수의 정부로 생활하던 그는 모델 겸 배우로 활동했고, 한 자선 파티에서 후안 페론 대령을 만나게 된다. 당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던 에바는 방송에서 페론을 알리는 데 힘쓴다. 결국 페론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페론뿐 아니라 에바 역시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 에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세우는 등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그러나 곧 암에 걸리고, 에바는 슬픔에 잠긴 국민들에게 마지막 라디오 방송을 한 뒤 곧 세상을 떠난다. 감독 알란 파커, 주연 마돈나, 1996년 미국 제작. 15살 이상 관람. <br/><br/><br/><br/>레이서 데뷔한 유재석의 눈물<br/><br/>무한도전(문화방송 토 오후 6시25분) 멤버들의 눈물의 레이서 데뷔전이 공개된다. 지난 2월 자동차 경주 도전을 시작해, 자체 선발전을 거쳐 최종 출전자로 선발된 유재석, 정준하, 노홍철, 하하가 약 5개월 동안의 고된 연습을 마치고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을 통해 레이서로 데뷔한 것이다. 오랜 기간 노력을 쏟아 준비한 대회였지만, 돌발 상황과 충돌 사고로 안타까운 성적을 내는 데 그쳤다고 한다. 유재석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br/><br/><br/><br/>‘발칸의 장미’ 불가리아<br/><br/>걸어서 세계속으로(한국방송1 토 아침 9시40분) ‘산, 장미, 수도원 그리고 불가리아’ 편. 발칸 반도 동부에 위치한 불가리아는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다. 500년간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불가리아는 1989년 공산 정권이 붕괴된 뒤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 수도 소피아에서 중세 유적지를 만나 보고, 최대의 장미유 생산지로 유명한 도시 카잔럭, 장수마을 스몰랸 산촌을 둘러본다. 파나기르 의식과 네스티나르스트보 축제 현장도 가본다.<br/><br/><br/><br/>혁명 55돌 맞은 쿠바의 오늘<br/><br/>에스비에스 스페셜(에스비에스 일 밤 11시15분) ‘안녕하십니까? 아바나’ 편. 음악과 정열의 나라, 가난하지만 행복도는 높은 나라, 올해로 쿠바 혁명 55주년을 맞았다.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오늘을 통해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찾아보고 저성장 시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쿠바는 옛 소련 해체 뒤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고난의 시기(Periodo Especial)를 견디면서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무료, 의료비 전부가 무료다.<br/><br/><br/><br/>전북여고에서 탄생한 100대 골든벨<br/><br/>도전 골든벨(한국방송1 일 오후 7시10분) 727회 전북여고 편. 1999년 제1대 골든벨 탄생 이후 15년 만에 제100대 골든벨이 탄생했다. 15년 동안 이어진 방송에서 600여개 학교가 참여했다. 골든벨에 도전한 학생 수만 6만여명이다.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거나 작은 섬마을에서 마지막 문제를 푼 학생도 있었다. 이번 100대 골든벨의 주인공 김희주양은 50문제 가운데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았다. 희주양은 그 비결을 독서로 꼽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39.txt

제목: 1999명 vs 1명, 유방암 예방 검사의 ‘비밀’  
날짜: 2014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910014721242  
본문: 건강과 질병의 경계는 어디인가를 둘러싼 의학계의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두루 밝기는 어렵다. 무지는 공포를 부른다. 적잖은 이들이 가벼운 증상만 있어도 새로운 첨단 의료기술을 적용해 치료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전에 없던 질병이라도 걸리면 패닉에 빠지지 않기가 어렵다. ‘공포 마케팅’이 번성할 토양이다. <br/><br/> 한국에서도 과잉 진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이 과잉 진료를 부르는 것일까. ‘공포 마케팅’ 및 과잉 진료와 관련한 반성을 이 글에 담으려 한다. 이 글은 어찌어찌하면 건강해진다는 ‘정답’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다만 질병과 건강, 그 흐릿한 경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글이고자 한다.<br/><br/><br/><br/>의사 기자 김양중의 ‘쉿, 그거 아세요?’ <br/>① 유방암 국가 검진 바람직한가?<br/><br/><br/><br/>국가암검진에 포함된 맘모그래피 검사 정확도 고작 0.6% <br/>10%는 가짜양성으로 드러나…추가 검진·암 공포 시달려<br/><br/><br/><br/>한국 여성 사이에 최근 발생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암은 갑상선암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 암 등록센터’의 ‘2011년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1999~2011년 갑상선암이 여성의 경우 한해 평균 23.5%씩 증가한다. ‘국가 암 등록 통계’는 한국에서 암에 관해서는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통계이며, 2011년까지 모아진 것이 가장 최근 자료다. <br/><br/> 의학계에서는 한해 23.5%씩 갑상선암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발암 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질 사건이 없고서는 불가능한데, 이런 환경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복지부와 암등록센터에서도 갑상선암을 비롯해 각종 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점, 암 진단 기술 발달, 조기검진 활성화 등 암 검사를 감상선암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암 검진 및 검사를 많이 받게 돼 과거에는 찾지 못한 암마저 세세하게 찾아냈다는 것이다. <br/><br/> 이에 지난 3월부터 의료계 안에서는 갑상선암의 과잉 검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의사들이 나오고 있다. 생명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 내버려둬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암마저 불필요하게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갑상선암은 영국에선 여성한테 많이 발생하는 암 순위 10위에도 들지 못한다. 미국에선 4위, 일본에선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인구 10만명당 갑상선암 발생 숫자를 보면 한국이 96.8명으로 일본의 6.5명에 비해 15배나 많다. 검사가 간단해 치료가 불필요한 갑상선암마저 발견해 치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하지만 작은 크기의 암도 주변 조직에 전이를 일으키는 등 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기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다. <br/><br/> 이런 갑상선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성들이 둘째로 많이 걸리는 암인 유방암을 두고도 조기 검진이 필요한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방암은 한국에서 1999~2011년 사이 한해 평균 6.1%씩 늘어나 증가율이 빠른 암 가운데 하나다. 유방암의 조기 검진법은 맘모그래피 검사라는 유방촬영술인데, 이는 한국에서는 국가암검진에도 포함돼 있는 검사다. <br/><br/> 유방암 검진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근거중심의학으로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코크란 리뷰>가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 2014년 1월호에 실린 ‘유방암 검진과 맘모그래피’를 보면, 그동안 60만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8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온다. 여성 2000명이 10년 동안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맘모그래피 검사를 받으면 1명이 유방암을 미리 발견해 사망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유방암 검진을 하면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악이 만만치 않다. 해를 입는 사람의 숫자만 생각하면 이익을 보는 1명보다 크게 많았다. 우선 평소 건강하던 10명은 유방암이 없는데도 맘모그래피 검사와 이후 추가 검사에서 유방암이 있는 것으로 나와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됐다. 이들은 유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며, 심지어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까지 투여받았다. 또 2000명 가운데 10%에 속하는 건강한 200명은 맘모그래피에서 가짜 양성이 나와, 추가 검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밝혀지기까지 암이라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 기간 지속됐다. <br/><br/> 맘모그래피로 유방암 검진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분명 존재하지만 불필요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생기고, 검사를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가짜 암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면 ‘검진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고를 수 있다면 모를까 모든 이들을 상대로 검사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br/><br/> 그렇다면 한국의 유방암 검진의 효과는 어떨까? 한국도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유방암 검진 방법으로 맘모그래피 검사와 의사의 유방촉진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맘모그래피 검사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 2011년 5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등이 주최한 ‘암정복포럼’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난다.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1999년 국가암검진 사업이 시작된 뒤 암 검진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맘모그래피 검사로 유방암이 있다는 판정이 난 이들 가운데 실제 암 환자는 0.6%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br/><br/> 실제 암 환자가 아닌 나머지 99.4%는 어떻게 됐을까? <코크란 리뷰>에 나타난 것처럼 드물지만 일부는 유방암이 아닌데도 유방암 수술을 받았을 것이고, 상당수는 암이 아닌 양성 종양 등을 확인하려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을 것이고, 또 상당수는 추가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올 때까지 암이라는 고통에 떨었을 것이다. 유방암 검진을 위한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았다. 40살만 되면 전체 여성이 받아야 하는 유방암 검진 사업을 통해 유방암 환자 1명을 발견하려고 한국이 쓴 돈이 1억9200여만원이나 됐다는 추정도 나왔다. 유방암 검진은 다른 암 검진에 견줘서도 그 효과가 분명 떨어졌다.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다른 암은 1차 검사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나와 최종 암으로 진단된 비율이 유방암보다 높았다. 위암은 3.3%, 간암은 5.7%, 대장암은 1.7%, 자궁경부암은 1.3%로 나타났다. <br/><br/> 외국처럼 한국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분명 그 누군가는 유방암 검진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본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다. 전문가들은 유방암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지 못하면 이 검진 사업을 통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만 더 늘어나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가족 가운데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평생 유방암이 생기지 않을 사람은 불필요한 검사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유방암 검진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유방암 검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0.txt

제목: ‘통전적 선교’ 창시 레네 파딜랴 목사 인터뷰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살며 행동하는 것”  
날짜: 2014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9100000003  
본문: 1970~80년대 이후 기독교에서 자유주의 및 진보 교회의 성장은 정체된 반면 복음주의 및 보수 교회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성장의 열매를 소수 목사 및 대형 교회가 독식하고, 이들이 윤리의식 부재로 끊임없이 부패 스캔들을 낳으면서 한국 기독교에 큰 짐이 되고 있다. 복음주의 진영 교회들이 오직 말뿐인 믿음만 강조하고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다.<br/>　고 옥한흠(1938~2010) 목사는 지난 2007년 암 투병 중 서울 상암동에 10만여명이 운집한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집회’에서 “한국 교회는 미신화되고, 개인화되고, 탈역사화되었다. 가장 큰 정치집단이 되었지만, 기득권자들의 편에만 서 있는 가장 보수적이고 반성경적인 집단이 되었다”며 한국 교회에 사망을 선고했다. 제자도 훈련을 통해 목사와 신자 교육에 가장 앞장선 그 자신의 방식도 실패했음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었다.<br/>　믿음과 행동 가운데 한쪽으로만 치우친 근본주의 신학에서 벗어나 1974년 로잔 언약 등을 통해 신앙과 삶을 동시에 추구한 중심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복음주의 진영의 양심적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을 창립한 것도 이런 노력이다.<br/>　이런 한국 기독교에 큰 영감을 준 인물이 레네 파딜랴(82) 목사다. 그는 복음주의 진영의 지침으로 통하는 로잔 언약에 ‘사회적 책임’을 명기하도록 한 인물로,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창시자로 꼽히는 학자이기도 하다. ‘통전적 선교’는 선교를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전도하는 것’에서 ‘전체적인 사회 구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복음주의 기독교가 세 확장만 꾀할 뿐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한다는 마르크시즘과 해방신학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에 맞서 기존의 선교 개념에서 ‘사회적 복음’을 강화한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수많은 사역자를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길러낸 카이로스 센터에서 그 대학자이자 노목사를 만났다.<br/>　그가 태어난 곳은 에콰도르였다. 개신교에 대한 가톨릭의 종교 탄압을 피해 에콰도르로 이주한 부모를 따라간 그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란 부모의 근본주의 신앙 속에서 자랐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근처의 명문 사립대학인 휘턴칼리지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국제학생운동에 가담해 라틴아메리카 책임자로서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을 다니며 학생운동을 했다. 휘턴대학 동창으로 그와 결혼한 ‘캐서린 파딜랴’(카티)는 라틴아메리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였다. 그 미국인 부인과 4년 전 사별한 파딜랴 목사 곁엔 얼마 전 콜롬비아에서 변호사를 하던 베아트리스가 함께하고 있다. 인터뷰 도중 파딜랴 목사가 대학 시절 연애담을 들려주자 베아트리스는 노트북을 켜 파딜랴와 카티가 다정하게 찍은 옛 흑백사진을 보여주며 활짝 웃었다.<br/>　부에노스아이레스 침례교신학대학(IBBA) 교수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침례교회에서 목회한 파딜랴 목사는 1980년대 카이로스센터를 설립해 구체적으로 가정, 일터, 사회,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적 책임과 윤리를 다할 것인지 설파하는 130여권의 책을 출간하고 남미 곳곳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내는 이들을 길러냈다.<br/>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한다. 행동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br/>　노목사는 자비스럽고 평화로운 영성이 넘치면서도 말엔 강단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은 소리만 요란하고, 허공에 떠도는 것 같은 공허한 소리를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다.<br/>　“성서를 보라. 이사야서 58장, 미가서 5~6장 등 수백번씩이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수백번이나 착취와 억압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br/>　그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 더욱더 분명히 말했다. 그는 “행위로 인해 구원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설명했다.<br/>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예수께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이를 보여주라는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직설적인 명령이다. 디모데전서에 얘기한 것처럼 ‘너의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너의 행실로 너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믿음의 결과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선택적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다.”<br/>　그는 또 “성서를 회복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수천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서를 현장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서 지식을 축적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내 가정, 일, 사회, 교회에 어떻게 성서의 정신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할 것인지 질문하라는 것이다. 그는 “신학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현하게 하는 게 신학”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1.txt

제목: 전남 화순 정청라·박상아씨 부부 /불편하지만 즐거운 ‘나다운 삶’을 찾아서  
날짜: 2014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9100000119  
본문: 마을 끝자락 같아 보이는데, 끝난 듯 보이는 길 옆으로 덧댄 듯한 길이 나 있다. 산비탈을 따라 켜켜이 펼쳐진 다랑이 논밭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서야 집이 나타났다. 이렇게 외진 첩첩산골에도 마을이 있구나. 전남 화순 무림마을. 서른여섯살 정청라씨와 그의 남편 박상아(39)씨가 두 아이와 더불어 삶을 가꾸는 곳이다.<br/>　“앞을 못 보시거나,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할머니, 손자만 데리고 살거나 홀로 사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70대는 젊은 축에 끼죠.” 농사를 짓더라도 구태여 이렇게 기력이 달려 보이는 곳에 들어와 살다니, 특별한 맥락이 있는 것일까.<br/>　“오래된 마을에서 살고 싶었어요. 노인들의 삶의 지혜가 무르녹아 있는….” 시골에 살면서 발견한 보물 중의 보물은 할머니들, 그들 속에 살아 숨쉬는 지혜였다. 처음에는 그도 ‘빈집 같아 보이는 집에서 유령처럼 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할망구’의 이미지가 꺼려졌다. 몇년 겪어보니 할머니들은 ‘오래된 미래’이고, ‘우리 안에 되살려야 할 골동품’이었다. 자신도 그들을 닮은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어졌단다. 귀농자 4가구가 살던 황매산 자락에서 이사 올 때 그래서 서슴없이 이 마을을 선택할 수 있었다. ‘마을 안에서는 절대 못 사니 외딴곳에서 살자’던 남편도 이제는 마을 일을 돌보며 사는 일에 능숙하다.<br/>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사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뒤엉켜 살아보고 싶었어요. 싫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만 고르다 보면 삶이 앙상해지고 내 생각만 견고해지는 것 같아서요.” 밤나무, 참나무, 소나무 온갖 크고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숲처럼 다른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자연을 닮아가고 싶다니. 독선과 경쟁을 부추기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만만찮은 꿈을 좌표로 삼은 ‘새댁’이다.<br/>　그들의 살림살이가 눈에 띄게 다른 만큼 속이 부대끼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비료를 넣어야지, 비닐 씌워야지, 농약 쳐야지’ 농사법에서부터 ‘벌을 키우든 특수작물을 키우든 돈을 좀 벌어야지’ 살림법까지…. 동네 분들의 눈총과 참견, 시도 때도 없는 잔소리를 받아내야 해서다. 배울 건 귀담아듣고 한 귀로 흘릴 건 흘리다 보니 이제는 살 만하다. “<span class='quot0'>아무것을 안 해도 먹을 건 나온다며 신기하게 봐주고, 불 때서 밥해 먹으면 ‘별나게, 편한 세상 거꾸로 살려 한다’ 눈살 찌푸리던 분들이 ‘가스 값이 들지 않아서 좋겠네, 밥이 맛나겠네’ 하며 좋은 쪽으로 바라봐</span>” 주는 마을 분들이 고맙다. 바깥에서 들어온 이들이 다르면 미움이요, 잘 살아도 시샘받기 일쑤인데 그만하면 3년 만에 마을에 뿌리를 내린 셈이다.<br/>　한때 정씨도 광고회사와 출판사 등 버젓한 직장을 다니던 도시인이었다. 하지만 도시적 삶에 대한 회의를 멈출 수가 없었다. “제품 출시 일정에 맞추느라 새벽까지 야근을 하기도 했지요. 성과급이랍시고 몇백만원씩을 받아도 즐겁지 않더라고요. 혼을 다해서 쓴 글들이 상품의 일부가 될 뿐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의미없이 사는 게 힘겨웠지만 그 생활을 털어버리는 데에는 몇년이나 뜸을 들여야 했다.<br/>　엄두가 나지 않던 귀농을 실행하게 된 계기는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 “촛불 꺼지듯 스러져가는 생명 참 덧없구나, 어디 휘둘릴 거도 없고, 내가 꼭 어찌해야 하는 것도 아니구나, 잘 살다 가는 게 뭘까. 하루를 살더라도 생명의 소리에 충실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죽음의 경계를 허물면서 실천할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까맣게 때가 끼고 거칠었지만 정겨웠던 외할머니의 손길이며, 불내가 풍겨나오는 품을 그리워하는 자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가는 것에 황홀해하고, 텃밭 갈 때면 천국으로 들어가듯 신바람이 나던 자신의 기운에 맞게 살기로 했다. 1년을 살고 나서야 “시골에서도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자신감이 생겼다.<br/>　그들이 짓는 농사는 논 600평, 밭 600평. 더 늘릴 생각은 없다. 네 식구 먹고살 만큼만 나오면 더 바랄 게 없는데 그만큼은 되어서다. 지난해 가을걷이로 밥이랑 떡 해먹고, 조청이랑 식혜 만들어 두 아이 간식 해먹이고, 술 빚어 마시고도 남았다. 손으로 모를 내고, 땅도 갈지 않고, 거름도 넣지 않고, 맨땅에 물만 댄 채 벼를 길렀는데 그랬다. “<span class='quot0'>기계를 안 쓰겠다기보다, 이 정도의 농사에서는 내 몸 좀 움직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니 그리해요.</span>” 남편의 말을 정씨가 이어받는다. “기계로 농사지으면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참 많아요. 논에서 개구리랑 물방개랑 거머리가 노는 걸 보기도 하고요. 아이는 거기 들어가 텀벙대며 물놀이를 하고요. 우리도 놀이하듯 모를 내요. 기계로 모를 낸다면 어림없는 일이죠.” 그래선가, 열흘 남짓 논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끝으로 땅을 파가며 모를 꽂았을 부부가 “농사일의 백미는 모내기”라고 꼽는다.<br/>　“이렇게 농사지으면 돈을 벌 수는 없죠. 하지만 생활할 수는 있어요. 게다가 또 다른 즐거움도 생기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즐거움들이란 어떤 것일까. “한달에 두번꼴로 읍내 나가서 도서관에도 가고 목욕탕에도 가고 생협 매장에도 들러요. 한 아이를 업고, 한 아이는 걸려 1시간을 걸어 나가 버스를 타고 또 1시간을 가요. 불편하죠. 그렇지만 걸어가면서 길섶에서 익어가는 산딸기 몇 개라도 따먹을 수도 있고, 같이 타는 할매라도 있으면 친해질 수도 있으니 참 좋아요.”<br/>　피서만 해도 그렇다. 뒷산 물웅덩이에 가서 발을 간질이는 물고기를 느끼며 목욕도 하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푸르름을 즐기면 그만이다. 운 좋으면 다람쥐나 청설모가 나무를 타는 모습도 눈길로 좇고, 풀숲 벌레소리를 들으며 ‘지금 여기 여러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하며 다른 생명체의 기척을 느낄 수 있다. 농사일이 몰아치는 요즘 같은 때는 가스불을 쓰지만 겨울엔 아궁이에 불 때서 밥상을 차린다. 더디니 불편하다. 하지만 딱히 무엇을 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그 계절에 불 때는 일만큼 재미있는 놀이도 없다.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나무를 해오랴 고달프겠지만 겨울산에서는 또 어떤 경이로움을 만날지 설렌다. 속도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 대다수가 살아가는 생활양식의 변방에서 만나는 이런 즐거움들은 그들의 일상에 널려 있다. 돈은 안 되지만 즐겁게 사는 그런 삶, 그들은 그런 삶을 선택했다. 느끼는 만큼 사는 것이니 그 또한 풍성한 삶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br/>　그들이 만질 수 있는 현금은 다달이 30만~40만원 정도. 정부와 군청에서 나오는 육아수당과 정씨가 신문에 쓰는 글의 원고료다. 1년에 두 번 인세로 들어오는 200만~300만원 목돈을 보태도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미친다. “이렇게 사는 게 가난하구나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처럼 느낄 때가 더 많아요.” 한두 해 실험 삼아 산 것도 아니고 벌써 8년가량 그리 살아왔으니 그 세월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을 터. 겉보기에 좋고 크고 번지르르한 것만 찾는 세상이 부추기는 두려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시간들, 돈 없이도 살 수 있을지 의심과 불안이 슬그머니 찾아들던 시간들을 살아낸 뒤의 답변이니 흘려들을 수가 없다.<br/>　“<span class='quot0'>농사는 배부름만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성스러움도 느끼게 해주잖아요.</span>” 고달픈 노동에서 그런 느낌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감수성과 안목이 있다면 그이에게 ‘가난’은 시시콜콜한 관념에 불과할 수 있겠다. 텃밭에서 난생처음 새싹을 보았을 때의 감동과 경이를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 그 자신이 그 누구보다 부자라고 느끼고 있으면 됐지 달리 우리 삶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나.<br/>　“<span class='quot0'>나다운 삶이 무엇일까 더듬어온 것인데 길을 잘 찾아 들어온 것 같아요.</span>” 규격화되고 평균화된 삶 너머의 삶, 거기 깃든 또다른 즐거움을 찾아 삶을 어루만지는 그이를 보면서 “행복하기를 두려워 말라”는 덕담이 떠오른다.<br/> 　화순/글·사진 이현숙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2.txt

제목: 설명 잘하는 의사  
날짜: 20140709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9100000129  
본문: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좋아하는 의사’를 물으면 가장 많은 답이 ‘설명 잘해 주는 의사’다. 즉 어떤 원인으로 해당 질병이 생겼는지, 치료 뒤 회복될 가능성은 얼마인지, 혹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잘 알려주는 의사다. 의사들도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환자의 치료 동기를 북돋아 경과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설명 잘할 것을 교육받는다. 특히 환자 스스로 질병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암이나 심장병 등 각종 만성질환이 많아지면서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의사들 입장에서도 환자와의 소통을 잘하면 치료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의료분쟁의 가능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보고도 많다.<br/>　설명 잘해 주는 의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나라 의사들은 설명을 잘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큰 대학병원 외래를 찾으면 30분~1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의사와 얘기하는 시간은 채 3분도 되지 않는 것은 이미 고착된 풍경이다. 또 외래 진료실이 2~3개가 있어 의사가 이를 번갈아 가며 진료하는 것도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의사에게 물어보고 설명 들을 것은 많으나, 그럴 시간이 없다.<br/>　이런 현실에서는 의사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3~4시간의 외래 진료에서 많게는 200~300명까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전인적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의 부작용을 놓쳐 의료사고를 내지는 않을지 걱정도 해야 한다. 결국 자세한 설명보다는 잦은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사나 병원 입장에서 효율적이며,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보다는 검사 수치에 의존하게 된다.<br/>　지난 2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 2014’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먼저 의사 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환자 진료를 하는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오이시디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간호사 수 역시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가 4.8명(간호조무사 포함)으로 오이시디 최저 수준이며, 회원국 평균 수치인 9.3명의 절반가량이다. 게다가 환자들의 외래 진료 방문 횟수는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한해 평균 14.3번의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오이시디 평균 횟수인 6.9번보다 2.1배 높다. 병원을 한번 찾더라도 의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환자는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괴로움이 줄 것이고, 의사들도 짧은 진료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괴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br/>　여러 의학적인 검사는 의사나 환자나 많이 하고 받아야 안심할 수 있다 보니 고가의 영상촬영장비는 우리나라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쪽에 속한다. 엠아르아이(자기공명영상촬영·MRI)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23.5대로 오이시디 평균인 14대보다 70% 더 많다. 보유 대수의 증가 폭도 엄청나다. 엠아르아이 보유 대수는 최근 5년 동안 47%나 증가했다. 그사이 우리나라의 의사도 환자도 아닌, 값비싼 엠아르아이 등을 제조해 수출하는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만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br/>　한 가정도 그렇듯 한 나라가 쓸 수 있는 의료비는 한정돼 있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말이다. 환자나 의사 모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진료시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각종 검사만 받게 하고 다른 나라의 거대 의료기기 회사만 배불려 주는 의료 체계는 ‘정상’이 아니다. <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3.txt

제목: 불편하지만 즐거운 ‘나다운 삶’을 찾아서  
날짜: 2014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810014713111  
본문: 마을 끝자락 같아 보이는데, 끝난 듯 보이는 길 옆으로 덧댄 듯한 길이 나 있다. 산비탈을 따라 켜켜이 펼쳐진 다랑이 논밭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서야 집이 나타났다. 이렇게 외진 첩첩산골에도 마을이 있구나. 전남 화순 무림마을. 서른여섯살 정청라씨와 그의 남편 박상아(39)씨가 두 아이와 더불어 삶을 가꾸는 곳이다.<br/><br/> “앞을 못 보시거나,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할머니, 손자만 데리고 살거나 홀로 사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70대는 젊은 축에 끼죠.” 농사를 짓더라도 구태여 이렇게 기력이 달려 보이는 곳에 들어와 살다니, 특별한 맥락이 있는 것일까.<br/><br/> “오래된 마을에서 살고 싶었어요. 노인들의 삶의 지혜가 무르녹아 있는….” 시골에 살면서 발견한 보물 중의 보물은 할머니들, 그들 속에 살아 숨쉬는 지혜였다. 처음에는 그도 ‘빈집 같아 보이는 집에서 유령처럼 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할망구’의 이미지가 꺼려졌다. 몇년 겪어보니 할머니들은 ‘오래된 미래’이고, ‘우리 안에 되살려야 할 골동품’이었다. 자신도 그들을 닮은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어졌단다. 귀농자 4가구가 살던 황매산 자락에서 이사 올 때 그래서 서슴없이 이 마을을 선택할 수 있었다. ‘마을 안에서는 절대 못 사니 외딴곳에서 살자’던 남편도 이제는 마을 일을 돌보며 사는 일에 능숙하다.<br/><br/>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사는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뒤엉켜 살아보고 싶었어요. 싫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만 고르다 보면 삶이 앙상해지고 내 생각만 견고해지는 것 같아서요.” 밤나무, 참나무, 소나무 온갖 크고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숲처럼 다른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자연을 닮아가고 싶다니. 독선과 경쟁을 부추기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만만찮은 꿈을 좌표로 삼은 ‘새댁’이다.<br/><br/> 그들의 살림살이가 눈에 띄게 다른 만큼 속이 부대끼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비료를 넣어야지, 비닐 씌워야지, 농약 쳐야지’ 농사법에서부터 ‘벌을 키우든 특수작물을 키우든 돈을 좀 벌어야지’ 살림법까지…. 동네 분들의 눈총과 참견, 시도 때도 없는 잔소리를 받아내야 해서다. 배울 건 귀담아듣고 한 귀로 흘릴 건 흘리다 보니 이제는 살 만하다. “<span class='quot0'>아무것을 안 해도 먹을 건 나온다며 신기하게 봐주고, 불 때서 밥해 먹으면 ‘별나게, 편한 세상 거꾸로 살려 한다’ 눈살 찌푸리던 분들이 ‘가스 값이 들지 않아서 좋겠네, 밥이 맛나겠네’ 하며 좋은 쪽으로 바라봐</span>” 주는 마을 분들이 고맙다. 바깥에서 들어온 이들이 다르면 미움이요, 잘 살아도 시샘받기 일쑤인데 그만하면 3년 만에 마을에 뿌리를 내린 셈이다.<br/><br/><br/><br/>암으로 작고한 아버지 죽음 계기 <br/>“잘 살다 가는 게 뭘까” 귀농 결심 <br/>농사는 네 식구 먹고살 만큼만 <br/>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생활이지만 <br/>돈 주고 살 수 없는 즐거움 만끽<br/><br/>“<span class='quot0'>고된 <span class='quot0'>농사일의 백미는 모내기</span></span>” <br/>8년 세월 돌아보니 “길 잘 찾은듯”<br/><br/> 한때 정씨도 광고회사와 출판사 등 버젓한 직장을 다니던 도시인이었다. 하지만 도시적 삶에 대한 회의를 멈출 수가 없었다. “제품 출시 일정에 맞추느라 새벽까지 야근을 하기도 했지요. 성과급이랍시고 몇백만원씩을 받아도 즐겁지 않더라고요. 혼을 다해서 쓴 글들이 상품의 일부가 될 뿐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의미없이 사는 게 힘겨웠지만 그 생활을 털어버리는 데에는 몇년이나 뜸을 들여야 했다.<br/><br/> 엄두가 나지 않던 귀농을 실행하게 된 계기는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 “촛불 꺼지듯 스러져가는 생명 참 덧없구나, 어디 휘둘릴 거도 없고, 내가 꼭 어찌해야 하는 것도 아니구나, 잘 살다 가는 게 뭘까. 하루를 살더라도 생명의 소리에 충실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죽음의 경계를 허물면서 실천할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까맣게 때가 끼고 거칠었지만 정겨웠던 외할머니의 손길이며, 불내가 풍겨나오는 품을 그리워하는 자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가는 것에 황홀해하고, 텃밭 갈 때면 천국으로 들어가듯 신바람이 나던 자신의 기운에 맞게 살기로 했다. 1년을 살고 나서야 “시골에서도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자신감이 생겼다.<br/><br/> 그들이 짓는 농사는 논 600평, 밭 600평. 더 늘릴 생각은 없다. 네 식구 먹고살 만큼만 나오면 더 바랄 게 없는데 그만큼은 되어서다. 지난해 가을걷이로 밥이랑 떡 해먹고, 조청이랑 식혜 만들어 두 아이 간식 해먹이고, 술 빚어 마시고도 남았다. 손으로 모를 내고, 땅도 갈지 않고, 거름도 넣지 않고, 맨땅에 물만 댄 채 벼를 길렀는데 그랬다. “<span class='quot0'>기계를 안 쓰겠다기보다, 이 정도의 농사에서는 내 몸 좀 움직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니 그리해요.</span>” 남편의 말을 정씨가 이어받는다. “기계로 농사지으면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참 많아요. 논에서 개구리랑 물방개랑 거머리가 노는 걸 보기도 하고요. 아이는 거기 들어가 텀벙대며 물놀이를 하고요. 우리도 놀이하듯 모를 내요. 기계로 모를 낸다면 어림없는 일이죠.” 그래선가, 열흘 남짓 논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끝으로 땅을 파가며 모를 꽂았을 부부가 “<span class='quot0'>농사일의 백미는 모내기</span>”라고 꼽는다.<br/><br/> “이렇게 농사지으면 돈을 벌 수는 없죠. 하지만 생활할 수는 있어요. 게다가 또 다른 즐거움도 생기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즐거움들이란 어떤 것일까. “한달에 두번꼴로 읍내 나가서 도서관에도 가고 목욕탕에도 가고 생협 매장에도 들러요. 한 아이를 업고, 한 아이는 걸려 1시간을 걸어 나가 버스를 타고 또 1시간을 가요. 불편하죠. 그렇지만 걸어가면서 길섶에서 익어가는 산딸기 몇 개라도 따먹을 수도 있고, 같이 타는 할매라도 있으면 친해질 수도 있으니 참 좋아요.”<br/><br/> 피서만 해도 그렇다. 뒷산 물웅덩이에 가서 발을 간질이는 물고기를 느끼며 목욕도 하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푸르름을 즐기면 그만이다. 운 좋으면 다람쥐나 청설모가 나무를 타는 모습도 눈길로 좇고, 풀숲 벌레소리를 들으며 ‘지금 여기 여러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하며 다른 생명체의 기척을 느낄 수 있다. 농사일이 몰아치는 요즘 같은 때는 가스불을 쓰지만 겨울엔 아궁이에 불 때서 밥상을 차린다. 더디니 불편하다. 하지만 딱히 무엇을 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그 계절에 불 때는 일만큼 재미있는 놀이도 없다.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나무를 해오랴 고달프겠지만 겨울산에서는 또 어떤 경이로움을 만날지 설렌다. 속도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 대다수가 살아가는 생활양식의 변방에서 만나는 이런 즐거움들은 그들의 일상에 널려 있다. 돈은 안 되지만 즐겁게 사는 그런 삶, 그들은 그런 삶을 선택했다. 느끼는 만큼 사는 것이니 그 또한 풍성한 삶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br/><br/> 그들이 만질 수 있는 현금은 다달이 30만~40만원 정도. 정부와 군청에서 나오는 육아수당과 정씨가 신문에 쓰는 글의 원고료다. 1년에 두 번 인세로 들어오는 200만~300만원 목돈을 보태도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미친다. “이렇게 사는 게 가난하구나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처럼 느낄 때가 더 많아요.” 한두 해 실험 삼아 산 것도 아니고 벌써 8년가량 그리 살아왔으니 그 세월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을 터. 겉보기에 좋고 크고 번지르르한 것만 찾는 세상이 부추기는 두려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시간들, 돈 없이도 살 수 있을지 의심과 불안이 슬그머니 찾아들던 시간들을 살아낸 뒤의 답변이니 흘려들을 수가 없다.<br/><br/> “<span class='quot0'>농사는 배부름만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성스러움도 느끼게 해주잖아요.</span>” 고달픈 노동에서 그런 느낌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감수성과 안목이 있다면 그이에게 ‘가난’은 시시콜콜한 관념에 불과할 수 있겠다. 텃밭에서 난생처음 새싹을 보았을 때의 감동과 경이를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 그 자신이 그 누구보다 부자라고 느끼고 있으면 됐지 달리 우리 삶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나.<br/><br/> “<span class='quot0'>나다운 삶이 무엇일까 더듬어온 것인데 길을 잘 찾아 들어온 것 같아요.</span>” 규격화되고 평균화된 삶 너머의 삶, 거기 깃든 또다른 즐거움을 찾아 삶을 어루만지는 그이를 보면서 “행복하기를 두려워 말라”는 덕담이 떠오른다.<br/><br/> 화순/글·사진 이현숙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4.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설명 잘하는 의사 / 김양중  
날짜: 2014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810014712885  
본문: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좋아하는 의사’를 물으면 가장 많은 답이 ‘설명 잘해 주는 의사’다. 즉 어떤 원인으로 해당 질병이 생겼는지, 치료 뒤 회복될 가능성은 얼마인지, 혹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잘 알려주는 의사다. 의사들도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환자의 치료 동기를 북돋아 경과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설명 잘할 것을 교육받는다. 특히 환자 스스로 질병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암이나 심장병 등 각종 만성질환이 많아지면서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의사들 입장에서도 환자와의 소통을 잘하면 치료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의료분쟁의 가능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보고도 많다.<br/><br/> 설명 잘해 주는 의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나라 의사들은 설명을 잘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큰 대학병원 외래를 찾으면 30분~1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의사와 얘기하는 시간은 채 3분도 되지 않는 것은 이미 고착된 풍경이다. 또 외래 진료실이 2~3개가 있어 의사가 이를 번갈아 가며 진료하는 것도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의사에게 물어보고 설명 들을 것은 많으나, 그럴 시간이 없다.<br/><br/> 이런 현실에서는 의사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3~4시간의 외래 진료에서 많게는 200~300명까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전인적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의 부작용을 놓쳐 의료사고를 내지는 않을지 걱정도 해야 한다. 결국 자세한 설명보다는 잦은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사나 병원 입장에서 효율적이며,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보다는 검사 수치에 의존하게 된다.<br/><br/> 지난 2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 2014’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먼저 의사 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환자 진료를 하는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오이시디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간호사 수 역시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가 4.8명(간호조무사 포함)으로 오이시디 최저 수준이며, 회원국 평균 수치인 9.3명의 절반가량이다. 게다가 환자들의 외래 진료 방문 횟수는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한해 평균 14.3번의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오이시디 평균 횟수인 6.9번보다 2.1배 높다. 병원을 한번 찾더라도 의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환자는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괴로움이 줄 것이고, 의사들도 짧은 진료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괴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br/><br/> 여러 의학적인 검사는 의사나 환자나 많이 하고 받아야 안심할 수 있다 보니 고가의 영상촬영장비는 우리나라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쪽에 속한다. 엠아르아이(자기공명영상촬영·MRI)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23.5대로 오이시디 평균인 14대보다 70% 더 많다. 보유 대수의 증가 폭도 엄청나다. 엠아르아이 보유 대수는 최근 5년 동안 47%나 증가했다. 그사이 우리나라의 의사도 환자도 아닌, 값비싼 엠아르아이 등을 제조해 수출하는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만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br/><br/> 한 가정도 그렇듯 한 나라가 쓸 수 있는 의료비는 한정돼 있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말이다. 환자나 의사 모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진료시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각종 검사만 받게 하고 다른 나라의 거대 의료기기 회사만 배불려 주는 의료 체계는 ‘정상’이 아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5.txt

제목: “변화 빠른 과학 분야, 여성 경력단절 없애야”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7100000003  
본문: 최근 암 발생과 아르엔에이(RNA)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업적으로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학술진흥상을 받은 정선주(52·사진) 단국대 교수(분자생물학)는 여성 과학자로 인정받기까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br/>　“1981년 서울대 자연대에 입학해보니 여학생은 열에 한명에 불과했고 여성 교수는 한명도 없었어요. 나도 여자여서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교수가 될 수 없는 걸까 걱정했습니다.”<br/>　그나마 미국에 유학을 가 소수나마 여성 교수들을 만나 조언을 받으며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는 그는 여성이자 아시아인이라는 이중의 약점을 극복해야 했다. “스탠퍼드에서 박사후연구원을 할 때 지도교수도 연구원들도 저 빼고 모두 남성이었어요. 자동차나 미식축구, 야구 얘기를 할 때면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br/>　정 교수는 1993년 말 유학에서 돌아와 자리를 잡지 못하던 1년을 인생에서 가장 좌절한 순간으로 꼽았다. 교수 자리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어떤 면접에서는 “아기가 돌도 안 됐는데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면박도 들었단다. 겨우 잡은 대학의 연구원 월급은 아이를 맡기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스스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기였다.<br/>　비슷한 궤적을 밟아왔기에 정 교수는 고용 불안과 낮은 월급으로 고민하는 후배 여성 과학자들을 염려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업적을 내기도 전에 그만두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과학 분야는 학문의 흐름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길어질수록 다시 따라잡기 벅차요. 빠른 복귀를 돕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그는 고정관념 때문에 여학생 스스로 과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지난 3월 로레알그룹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세계 여성 과학자 현황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4개 나라의 과학자 가운데 여성이 29%뿐이라며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학 진학 때부터 여성들이 과학 분야 관련 자신의 학업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이 과학 분야에 더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에 여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어린 여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 과학자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를 체험해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span>”고 조언했다. 글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b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6.txt

제목: 대변 기증하실 분~ 저요, 저요!  
날짜: 20140707  
기자: 서영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7100000043  
본문: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대변을 제공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특이한 공고를 내걸었다. 왠지 참여를 꺼릴 것 같은 공고지만, 지원자가 몰려 하루 만에 모집이 마감됐다.<br/>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미생물연구실은 지난 1일 대변 시료를 제공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원 자격은 20~40대 건강한 성인으로 최근 6개월 동안 항생제를 투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연구실은 제공받은 시료는 3년간 보관되지만, 모든 개인정보는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 제공자에게는 3만원어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부대조건도 내걸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연구팀은 원래 오는 7일까지 지원자를 받겠다고 했지만, 공고 하루 만에 필요한 인원 30명을 모두 채웠다.<br/>　연구팀이 대변 시료를 구하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 때문이다. 연구팀은 사람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비만, 당뇨, 암, 우울증 같은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런 질병을 고칠 치료제를 개발하는 실험에 착수했다. 사람의 장에는 100조 가지 이상의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어떻게 조성돼 있느냐에 따라 비만, 당뇨, 대장암 등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 시료에서 미생물을 채취한 다음 이를 배양·분리해 인체에 유용한 장내 미생물을 확보하고 이 미생물의 질환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br/>　연구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신청자들은 다음주 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시료를 제출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7.txt

제목: “변화 빠른 과학 분야, 여성 경력단절 없애야”  
날짜: 2014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610014694439  
본문: 최근 암 발생과 아르엔에이(RNA)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업적으로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학술진흥상을 받은 정선주(52·사진) 단국대 교수(분자생물학)는 여성 과학자로 인정받기까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br/><br/> “1981년 서울대 자연대에 입학해보니 여학생은 열에 한명에 불과했고 여성 교수는 한명도 없었어요. 나도 여자여서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교수가 될 수 없는 걸까 걱정했습니다.”<br/><br/> 그나마 미국에 유학을 가 소수나마 여성 교수들을 만나 조언을 받으며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는 그는 여성이자 아시아인이라는 이중의 약점을 극복해야 했다. “스탠퍼드에서 박사후연구원을 할 때 지도교수도 연구원들도 저 빼고 모두 남성이었어요. 자동차나 미식축구, 야구 얘기를 할 때면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br/><br/> 정 교수는 1993년 말 유학에서 돌아와 자리를 잡지 못하던 1년을 인생에서 가장 좌절한 순간으로 꼽았다. 교수 자리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어떤 면접에서는 “아기가 돌도 안 됐는데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면박도 들었단다. 겨우 잡은 대학의 연구원 월급은 아이를 맡기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스스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기였다.<br/><br/> 비슷한 궤적을 밟아왔기에 정 교수는 고용 불안과 낮은 월급으로 고민하는 후배 여성 과학자들을 염려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업적을 내기도 전에 그만두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과학 분야는 학문의 흐름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길어질수록 다시 따라잡기 벅차요. 빠른 복귀를 돕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br/> 그는 고정관념 때문에 여학생 스스로 과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지난 3월 로레알그룹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세계 여성 과학자 현황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4개 나라의 과학자 가운데 여성이 29%뿐이라며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학 진학 때부터 여성들이 과학 분야 관련 자신의 학업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이 과학 분야에 더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에 여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어린 여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 과학자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를 체험해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span>”고 조언했다. <br/><br/>글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br/><br/>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8.txt

제목: 대변 기증하실 분~ 저요, 저요!  
날짜: 2014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610014693681  
본문: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대변을 제공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특이한 공고를 내걸었다. 왠지 참여를 꺼릴 것 같은 공고지만, 지원자가 몰려 하루 만에 모집이 마감됐다.<br/><br/>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미생물연구실은 지난 1일 대변 시료를 제공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원 자격은 20~40대 건강한 성인으로 최근 6개월 동안 항생제를 투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연구실은 제공받은 시료는 3년간 보관되지만, 모든 개인정보는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 제공자에게는 3만원어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부대조건도 내걸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연구팀은 원래 오는 7일까지 지원자를 받겠다고 했지만, 공고 하루 만에 필요한 인원 30명을 모두 채웠다.<br/><br/> 연구팀이 대변 시료를 구하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 때문이다. 연구팀은 사람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비만, 당뇨, 암, 우울증 같은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런 질병을 고칠 치료제를 개발하는 실험에 착수했다. 사람의 장에는 100조 가지 이상의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어떻게 조성돼 있느냐에 따라 비만, 당뇨, 대장암 등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 시료에서 미생물을 채취한 다음 이를 배양·분리해 인체에 유용한 장내 미생물을 확보하고 이 미생물의 질환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br/><br/> 연구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신청자들은 다음주 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시료를 제출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br/>서영지 기자 y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49.txt

제목: 60만원 받고…생후 7개월 딸 넘긴 아빠  
날짜: 20140703  
기자: 오윤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3100000038  
본문: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br/>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 ㅇ(2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r/>　ㅇ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포털 입양 블로그에 ‘딸을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일주일 만에 입양 의사를 전해온 ㄱ(30)씨한테서 60만원을 받고 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r/>　ㅇ씨는 또다른 ㅇ(21·여)씨와 동거를 하다 지난해 10월께 딸이 태어나자 길러왔지만 변변한 직업이 없는데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 입양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사내아이 셋을 낳은 뒤 딸 하나를 입양해 키우던 ㄱ씨가 이 글을 보고 접근했고 입양이 성사됐다. ㅇ씨는 “아이 엄마가 암에 걸렸다.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까지 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br/>　ㄱ씨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이 경찰에 이런 사실을 제보해 범행이 밝혀졌다. 돈을 주고 아이를 입양하려 한 ㄱ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아이는 지금 한 아동복지기관에서 기르고 있다. 오윤주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0.txt

제목: 고강도 운동이 뜬다 /심장이 튀어나와도 멈출 수 없어  
날짜: 2014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3100000087  
본문: 더운 해가 기울라치면 서울 을지로의 번화한 빌딩숲이나 홍대앞 골목으로 웃통을 벗은 남자들이 뛰어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동네를 달리는 이들은 근처에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는 수강생들이다. 해가 진 서울 한강 뚝섬 인공암벽장에서 줄에 의지해 맨손으로 벽을 오르는 이들도 있다. 더욱 세게, 더욱 고되게. 지금 운동의 화두는 ‘강도’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강도를 높이는 대표적 고강도 운동 크로스핏과 스포츠 클라이밍 현장을 찾았다.<br/> 힘짱 만드는 크로스핏<br/>　“3, 2, 1, 고!” 지난 6월20일 서울 홍대 리복크로스핏 센터. 코치의 신호가 떨어지자 수강생들이 역기를 들었다. 20대 여자들도 5~20㎏ 무게의 역기를 번쩍 들어올렸다. 오늘 처음 크로스핏 수업을 받는 수강생들은 빈 봉을 붙잡고 열심히 자세를 배웠다. 모인 사람의 목표는 킹콩을 드는 것, 아니 킹콩 같은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근육은 자연스레 얻어진다고 코치님은 말씀하셨다.<br/>　크로스핏은 심폐지구력, 정확성, 협응력, 밸런스, 민첩성, 스피드, 힘, 유연성, 스태미나, 근지구력 등 10가지 신체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키기 좋은 운동을 매일 과제로 정하는데 이를 오늘의 운동(WOD·Workout of the Day)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푸시업(팔굽혀펴기), 런지(한쪽 발을 최대한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뒤쪽 무릎을 굽혀 앉는 자세), 풀업(턱걸이), 로잉(노젓기), 싯업(윗몸일으키기), 쪼그려 앉기(스?), 역기 들기 등을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많이 해내도록 연습한다. 운동 초보자들은 오늘의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 초보자 프로그램에서 한달 이상 수련해야 한다. “<span class='quot0'>10분을 운동하기 위해 30분을 준비하라</span>”고 코치들은 당부했다. 본운동에 들어가기 전 부상을 입지 않도록 동작을 배우는 데 공을 들였다. 크로스핏 체험교실에서 몸풀기 30분을 거쳐 런지와 팔굽혀펴기, 봉들기를 단 10분 했지만 그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웠다. 온몸의 근육이 모두 성을 내고 있는 기분이었다.<br/>　“<span class='quot0'>몸짱을 원한다면 힘짱이 되어라.</span>” 2011년 미 해병대의 실전운동 크로스핏이 한국에 상륙했음을 알린 책 의 구호였다. 몇년 새 한층 도도해진 크로스핏은 이렇게 말한다. “<span class='quot0'>당신의 본운동이 우리의 워밍업이다.</span>” 크로스핏은 1970년대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2012년 리복코리아가 전국 12곳에 크로스핏 센터를 열면서 기구 운동 일색이던 우리나라 헬스클럽에도 맨몸으로 하는 고강도 운동 붐이 일게 됐다.<br/>　서울 을지로 리복 크로스핏센터에서 만난 고성현 매니저는 “몸의 부피를 늘리고 근육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운동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체력을 최대한 키우고 기능을 높이는 코어 운동이 각광받는 시대다. 결국은 헬스기구가 없던 1970년대 복고적 운동 방식이 다시 돌아온 셈”이라고 했다. 보디빌딩이 득세하던 시절은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시절이라 불린다. 지금의 운동 아이콘은 무거운 타이어를 끌고 다니며 무술 실력을 선보이는 배우 제이슨 스테이섬이나 영화 의 용사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br/>　이곳에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6주 동안 여름을 맞아 고강도 크로스핏을 개인지도하는 ‘비치 보디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었다. 6월25일 이 프로그램의 과제는 운동시간 1시간 동안 노젓기 50ｍ, 스? 40번, 싯업 30번, 푸시업 20번, 풀업 20번을 해내는 것이었다. 6주 동안 고강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6명을 보니 몸무게는 평균 8~10㎏, 체지방은 5~10㎏ 줄었다. 고강도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br/>　한국 크로스핏의 원조로 불리는 서울 자양동 삽짐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경하 관장은 “<span class='quot1'>그룹운동은 크로스핏의 장점이지만 기록 경쟁 때문에 무리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다</span>”고 전한다. 크로스핏은 시간마다 그룹을 만들어 운동하는데 덕분에 포기하지 않게 되지만 옆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리하기도 쉽다. 처음 크로스핏을 해본 사람들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고들 한다. 실제로 운동 중에 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쯤 되면 크로스핏을 하는 이유를 몸만들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탈진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다시 힘을 키우고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만족감이 찾아온다고들 한다. 사람만이 고통을 즐긴다. 고강도 운동은 고통으로 희열을 얻는 운동이다.” 김 관장의 말이다.<br/><br/> 몸과 마음에 ‘고강도’ 스포츠 클라이밍<br/>　“<span class='quot0'>처음 벽을 타고 난 다음날 냉장고 손잡이도 열 수 없었어요.</span>” 6월27일 서울 광진구 조규복 클라이밍 센터에서 만난 이곳 회원들은 다른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호소했다. 그래도 매일 이곳을 찾아 벽을 올랐더니 손가락에도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몇달이 지나면 남자들은 어깨가 단단해지고 상체가 발달한다. 여자들은 다리가 가늘어진단다. 몸이 암벽타기에 맞춰지는 것이다.<br/>　지난해부터 스포츠 클라이밍 붐이 일면서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들이 급히 늘었다. 어림잡아 전국에 300곳 되는 센터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이들은 날씨가 좋을 때면 뚝섬 유원지, 당고개, 수락산, 보라매공원 등에 설치된 인공암벽장을 찾아 벽을 타고 평상시에는 실내 센터에서 연습한다. 노스페이스, 케이2(K2) 등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매장에 15ｍ 높이의 실내 암벽장을 설치해두기도 했지만 실내 센터 대부분은 3ｍ 정도 높이의 벽에서 각도를 다양하게 하며 즐기는 볼더링 클라이밍장이다. 초보자는 110도 각도의 벽에서 시작한다.<br/>　암벽을 탈 때 발을 딛거나 붙잡을 수 있도록 튀어나온 것을 홀더라고 부른다. 발레리나가 신는 토슈즈보다도 더 발을 조이는 암벽등산화를 신고 홀더를 밟았다. 밑에서는 제법 넓게 보였던 홀더가 작기만 하다. 옆으로 가려면 먼저 오른손을 움직여 새로 붙잡을 것을 찾고 그다음에 발을 움직이는데 항상 무게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다.<br/>　초보자는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4ｍ 길이의 벽을 두어번 왕복하기가 힘들었다. 이 센터에선 클라이밍 수련 2시간 중 벽에 매달리는 시간은 30분. 나머지 시간은 턱걸이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을 키운다. 암벽은 내 체력과 몸의 균형을 테스트하는 곳이다.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근력과 비례한다면 옮겨가는 능력은 균형이다. 온몸을 써서 벽을 오르고 균형을 잡기 때문에 다른 운동보다 강도가 높다. 체중이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만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br/>　조규복 코치는 클라이밍의 매력으로 성취감과 연대, 두가지를 꼽는다. 암벽을 함께 오르는 사람들은 각별한 동료의식으로 엮이게 된다.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의 벽을 넘어 120, 130도 각도의 점점 험한 벽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문제를 푼다”고 부른다. 이 센터에서 2년 넘게 훈련중이라는 박예원(38·회사원)씨는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때 성취감이 말도 못한다. 몸의 변화는 알게 모르게 천천히 온다”고 했다. 15ｍ 높이 벽을 올랐을 땐 높이 공포를 이겨냈다는 생각에 성취감은 갑절로 커진다. 매일 고된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다.<br/>　 글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br/> 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br/> 무게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다.<br/>　초보자는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4ｍ 길이의 벽을 두어번 왕복하기가 힘들었다. 이 센터에선 클라이밍 수련 2시간 중 벽에 매달리는 시간은 30분. 나머지 시간은 턱걸이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을 키운다. 암벽은 내 체력과 몸의 균형을 테스트하는 곳이다.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근력과 비례한다면 옮겨가는 능력은 균형이다. 온몸을 써서 벽을 오르고 균형을 잡기 때문에 다른 운동보다 강도가 높다. 체중이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만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br/>　조규복 코치는 클라이밍의 매력으로 성취감과 연대, 두가지를 꼽는다. 암벽을 함께 오르는 사람들은 각별한 동료의식으로 엮이게 된다.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의 벽을 넘어 120, 130도 각도의 점점 험한 벽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문제를 푼다”고 부른다. 이 센터에서 2년 넘게 훈련중이라는 박예원(38·회사원)씨는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때 성취감이 말도 못한다. 몸의 변화는 알게 모르게 천천히 온다”고 했다. 15ｍ 높이 벽을 올랐을 땐 높이 공포를 이겨냈다는 생각에 성취감은 갑절로 커진다. 매일 고된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다.<br/>　 글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br/> 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1.txt

제목: 60만원 받고…생후 7개월 딸 넘긴 아빠  
날짜: 2014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210014671967  
본문: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br/><br/>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 ㅇ(2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r/><br/> ㅇ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포털 입양 블로그에 ‘딸을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일주일 만에 입양 의사를 전해온 ㄱ(30)씨한테서 60만원을 받고 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r/><br/> ㅇ씨는 또다른 ㅇ(21·여)씨와 동거를 하다 지난해 10월께 딸이 태어나자 길러왔지만 변변한 직업이 없는데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 입양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사내아이 셋을 나은 뒤 딸 하나를 입양해 키우던 ㄱ씨가 이 글을 보고 접근했고 입양이 성사됐다. ㅇ씨는 “아이 엄마가 암에 걸렸다.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까지 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br/><br/> ㄱ씨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이 경찰에 이런 사실을 제보해 범행이 밝혀졌다. 돈을 주고 아이를 입양하려 한 ㄱ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아이는 지금 한 아동복지기관에서 기르고 있다. <br/><br/>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2.txt

제목: 생후 7개월 딸 60만원에 판 비정한 아버지  
날짜: 2014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210014670508  
본문: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br/><br/>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 ㅇ(2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r/><br/>ㅇ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포털 입양 블로그에 ‘딸을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일주일 만에 입양 의사를 전해온 ㄱ(30)씨한테서 60만원을 받고 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r/><br/>ㅇ씨는 또다른 ㅇ(21·여)씨와 동거를 하다 지난해 10월께 딸이 태어나자 길러왔지만 변변한 직업이 없는 데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 입양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사내 아이 셋을 나은 뒤 딸 하나를 입양해 키우던 ㄱ씨가 이 글을 보고 접근했고, 입양이 성사됐다. ㅇ씨는 “아이 엄마가 암에 걸렸다.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까지 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br/><br/>ㄱ씨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이 경찰에 이런 사실을 제보해 범행이 밝혀졌다. 돈을 주고 아이를 입양하려 한 ㄱ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아이는 지금 한 아동복지기관에서 기르고 있다.<br/><br/>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3.txt

제목: 심장이 튀어나와도 멈출 수 없어  
날짜: 2014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210014671396  
본문: 더운 해가 기울라치면 서울 을지로의 번화한 빌딩숲이나 홍대앞 골목으로 웃통을 벗은 남자들이 뛰어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동네를 달리는 이들은 근처에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는 수강생들이다. 해가 진 서울 한강 뚝섬 인공암벽장에서 줄에 의지해 맨손으로 벽을 오르는 이들도 있다. 더욱 세게, 더욱 고되게. 지금 운동의 화두는 ‘강도’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강도를 높이는 대표적 고강도 운동 크로스핏과 스포츠 클라이밍 현장을 찾았다.<br/><br/><br/><br/>운동기구 사용 거의 없이 <br/>맨몸으로 하는 크로스핏 <br/>고강도 운동 붐 이끌어 <br/>실내에서 암벽등반하는 <br/>스포츠 클라이밍 센터<br/><br/>지난해부터 급속도로 늘어<br/><br/><br/><br/>힘짱 만드는 크로스핏<br/><br/> “3, 2, 1, 고!” 지난 6월20일 서울 홍대 리복크로스핏 센터. 코치의 신호가 떨어지자 수강생들이 역기를 들었다. 20대 여자들도 5~20㎏ 무게의 역기를 번쩍 들어올렸다. 오늘 처음 크로스핏 수업을 받는 수강생들은 빈 봉을 붙잡고 열심히 자세를 배웠다. 모인 사람의 목표는 킹콩을 드는 것, 아니 킹콩 같은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근육은 자연스레 얻어진다고 코치님은 말씀하셨다.<br/><br/> 크로스핏에선 심폐지구력, 정확성, 협응력, 밸런스, 민첩성, 스피드, 힘, 유연성, 스테미너, 근지구력 등 10가지 신체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키기 좋은 운동을 매일 과제로 정하는데 이를 오늘의 운동(WOD·Workout of the Day)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푸시업(팔굽혀펴기), 런지(한쪽 발을 최대한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뒤쪽 무릎을 굽혀 앉는 자세), 풀업(턱걸이), 로잉(노젓기), 싯업(윗몸일으키기), 쪼그려 앉기(스쿼트), 역기 들기 등을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많이 해내도록 연습한다. 운동 초보자들은 오늘의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 초보자 프로그램에서 한달 이상 수련해야 한다. “<span class='quot0'>10분을 운동하기 위해 30분을 준비하라</span>”고 코치들은 당부했다. 본운동에 들어가기 전 부상을 입지 않도록 동작을 배우는 데 공을 들였다. 크로스핏 체험교실에서 몸풀기 30분을 거쳐 런지와 팔굽혀펴기, 봉들기를 단 10분 했지만 그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웠다. 온몸의 근육이 모두 성을 내고 있는 기분이었다.<br/><br/> “<span class='quot0'>몸짱을 원한다면 힘짱이 되어라.</span>” 2011년 미 해병대의 실전운동 크로스핏이 한국에 상륙했음을 알린 책 <남자는 힘이다>의 구호였다. 몇년 새 한층 도도해진 크로스핏은 이렇게 말한다. “<span class='quot0'>당신의 본운동이 우리의 워밍업이다.</span>” 크로스핏은 1970년대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2012년 리복코리아가 전국 12곳에 크로스핏 센터를 열면서 기구 운동 일색이던 우리나라 헬스클럽에도 맨몸으로 하는 고강도 운동 붐이 일게 됐다.<br/><br/> 서울 을지로 리복 크로스핏센터에서 만난 고성현 매니저는 “몸의 부피를 늘리고 근육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운동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체력을 최대한 키우고 기능을 높이는 코어 운동이 각광받는 시대다. 결국은 헬스기구가 없던 1970년대 복고적 운동 방식이 다시 돌아온 셈”이라고 했다. 보디빌딩이 득세하던 시절은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시절이라 불린다. 지금의 운동 아이콘은 무거운 타이어를 끌고 다니며 무술 실력을 선보이는 배우 제이슨 스테이섬이나 영화 <300>의 용사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br/><br/> 이곳에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6주 동안 여름을 맞아 고강도 크로스핏을 개인지도하는 ‘비치 보디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었다. 6월25일 이 프로그램의 과제는 운동시간 1시간 동안 노젓기 50ｍ, 스쿼트 40번, 싯업 30번, 푸시업 20번, 풀업 20번을 해내는 것이었다. 6주 동안 고강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6명을 보니 몸무게는 평균 8~10㎏, 체지방은 5~10㎏ 줄었다. 고강도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br/><br/> 한국 크로스핏의 원조로 불리는 서울 자양동 삽짐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경하 관장은 “<span class='quot1'>그룹운동은 크로스핏의 장점이지만 기록 경쟁 때문에 무리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다</span>”고 전한다. 크로스핏은 시간마다 그룹을 만들어 운동하는데 덕분에 포기하지 않게 되지만 옆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리하기도 쉽다. 처음 크로스핏을 해본 사람들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고들 한다. 실제로 운동 중에 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쯤 되면 크로스핏을 하는 이유를 몸 만들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탈진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다시 힘을 키우고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만족감이 찾아온다고들 한다. 사람만이 고통을 즐긴다. 고강도 운동은 고통으로 희열을 얻는 운동이다.” 김 관장의 말이다.<br/><br/><br/><br/>몸과 마음에 ‘고강도’ 스포츠 클라이밍<br/><br/> “<span class='quot0'>처음 벽을 타고 난 다음날 냉장고 손잡이도 열 수 없었어요.</span>” 지난 6월27일 서울 광진구 조규복 클라이밍 센터에서 만난 이곳 회원들은 다른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호소했다. 그래도 매일 이곳을 찾아 벽을 올랐더니 손가락에도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몇달이 지나면 남자들은 어깨가 단단해지고 상체가 발달한다. 여자들은 다리가 가늘어진단다. 몸이 암벽타기에 맞춰지는 것이다.<br/><br/> 지난해부터 스포츠 클라이밍 붐이 일면서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들이 급히 늘었다. 어림잡아 전국에 300곳 되는 센터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이들은 날씨가 좋을 때면 뚝섬 유원지, 당고개, 수락산, 보라매공원 등에 설치된 인공암벽장을 찾아 벽을 타고 평상시에는 실내 센터에서 연습한다. 노스페이스, 케이2(K2) 등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매장에 15ｍ 높이의 실내 암벽장을 설치해두기도 했지만 실내 센터 대부분은 3ｍ 정도 높이의 벽에서 각도를 다양하게 하며 즐기는 볼더링 클라이밍장이다. 초보자는 110도 각도의 벽에서 시작한다.<br/><br/> 암벽을 탈 때 발을 딛거나 붙잡을 수 있도록 튀어나온 것을 홀더라고 부른다. 발레리나가 신는 토슈즈보다도 더 발을 조이는 암벽등산화를 신고 벽을 붙잡았다. 밑에서는 제법 넓게 보였던 홀더가 작기만 하다. 옆으로 가려면 먼저 오른손을 움직여 새로 붙잡을 것을 찾고 그다음에 발을 움직이는데 항상 무게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다.<br/><br/> 초보자는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4ｍ 길이의 벽을 두어번 왕복하기가 힘들었다. 이 센터에서 2시간 남짓한 클라이밍 수련 중 벽에 매달리는 시간은 30분. 나머지는 턱걸이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을 키운다. 인공암벽은 내 체력과 몸의 균형을 테스트하는 곳이다.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근력과 비례한다면 옮겨가는 능력은 균형이다. 온몸을 써서 벽을 오르고 균형을 잡기 때문에 다른 운동보다 강도가 높다. 체중이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만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br/><br/> 조규복 코치는 클라이밍의 매력을 성취감과 연대, 두가지로 꼽는다. 암벽을 함께 오르는 사람들은 각별한 동료의식으로 엮이게 된다.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의 벽을 넘어 120, 130도 각도의 점점 험한 벽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문제를 푼다”고 부른다. 이 센터에서 2년 넘게 훈련중이라는 박예원(38·회사원)씨는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때 성취감이 말도 못한다. 몸의 변화는 알게 모르게 천천히 온다”고 했다. 15ｍ 높이 벽을 올랐을 땐 높이 공포를 이겨냈다는 생각에 성취감은 갑절로 커진다. 매일 고된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다.<br/><br/>글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4.txt

제목: 장애인에게 디지털기기란 /스마트폰, 더 밝아진 장애인 눈과 귀…문제는 정보격차  
날짜: 20140701  
기자: 권오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701100000096  
본문: 고등학교 2학년 신나라양은 스마트폰을 쓴 지 올해로 3년째다. 신양에게 카카오톡은 친구와 연락하는 통로이고, 페이스북은 온라인 친구를 만나는 광장이다. 여느 고등학생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신양이 시각장애를 지녔다는 점이다. 청각장애를 지닌 손우호(36)씨는 스마트폰이 국내 처음 도입된 2009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비장애인이 휴대전화를 쓰며 느낀 편리함을 손씨는 그때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전에는 주변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거쳐 3자 통화만 할 수 있었죠. 직접 이야기하니 얼마나 좋던지요.” 그는 손말로 기쁨을 표현했다. <br/>　성별·나이는 물론 장애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은 인터넷 공동체가 초창기 꿈꿨던 이상이었다.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눈과 귀 노릇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미디어의 광범한 보급과 빠른 기술혁신은 이를 적극 수용해 능숙하게 활용하는 집단과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집단 간에 소통의 기회를 늘린 것과 함께 우려도 만들고 있다. 두 집단 사이의 정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br/>　6월27일 서울 한빛맹학교에서 만난 신나라양은 스마트폰 이후의 가장 큰 변화로 ‘뉴스 습득’을 꼽았다. “전에는 공부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뉴스를 듣는 게 다였어요. 씻고 하다 보면 듣기 쉽지도 않았죠.”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아이폰의 보이스오버, 갤럭시의 토크백 등)으로 원하는 때에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quot0'>먼저 알고 친구들에게 새 소식을 전해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span>”<br/>　같은 학교의 이재석(중1)군은 정보기술 블로그를 운영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가 꼽은 장점은 인터넷 다이어리 기능이다. “어머니와 함께 다이어리 앱을 쓰는데 서로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도 알 수 있어 좋아요. 얼마 전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머니가 무서웠다는 글을 쓰셨는데, 밖에서 알고 위로해 드릴 수 있었죠.” 신양도 메신저가 서로의 감정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말한다. “보이스오버가 이모티콘도 읽어주거든요. 친구의 마음을 듣는 거 같아요.”<br/>　장애인은 작은 차이 때문에 비장애인이 생각지 못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129 콜센터’에서 일하는 수화 상담사 조정순씨가 들려준 사례다. “재작년 성남의 한 50대 농아인 남자분이 통화상담을 해왔어요. 부인이 암 진단을 받아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데, 병원에 상담을 해줄 적절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어 영상전화를 걸려고 집까지 택시 타고 혼자 왔대요. 아내를 둔 채 말이죠.” 당시만 해도 수화 영상상담을 하려면 ‘시토크’라는 이름의 전용 집전화기를 써야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모바일 영상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지금은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상담할 수 있다.<br/>　하지만 예로 든 사례들은 전체 현황에서 보면 예외에 가깝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13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더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 처음 도입된 ‘스마트 정보화 지수’에서 장애인의 점수는 49.2점이었다. 비장애인의 경우를 100으로 놓았을 때 비교 점수다. 개인용컴퓨터(PC) 기반에서 장애인의 정보화 지수가 83.8점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치다. 기존 피시 환경에서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었으나 모바일 시대가 열리며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는 양상인 셈이다.<br/>　주된 원인은 장애인은 새 기술의 존재나 장점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다는 데 있다. 한빛맹학교의 김해동 교사(교육정보부장)는 “<span class='quot1'>콘텐츠 부족도 문제지만 새로운 기술의 장점 자체를 알기 쉽지 않은 환경이 문제</span>”라고 말했다. 정보화진흥원 조사에서도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구입비 부담’(31.1%)이었지만, ‘용도 모름’도 28.5%로 비슷하게 높았다. 김 교사는 “<span class='quot1'>현행 교과과정에는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애인에게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주의를 비롯한 안전 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이는 예전 장애인 학생이 학습 교재를 구하면서 겪었던 애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서울맹학교 강민영(고3) 학생은 “<span class='quot2'>비장애인은 서점에서 여러 참고서들을 보다 하나 고르지만, 우리는 원하는 교재를 꼽아 장애인용 대체 교재 제작을 의뢰해야 하는 식</span>”이라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임정윤 연구사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장애인들이 정보 습득과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점”이라고 말했다.<br/>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등 사회 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비장애인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기술기업인 ‘엑스비전테크놀로지’ 이사인 김정호씨는 “어떤 기술이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는 얼마나 많은 이들을 끌어안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좋은 사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라고 말했다.<br/> 글·사진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5.txt

제목: 스마트폰, 장애인 눈과 귀 역할 ‘척척’…문제는 정보격차  
날짜: 2014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3010014651523  
본문: 고등학교 2학년 신나라양은 스마트폰을 쓴 지 올해로 3년째다. 신양에게 카카오톡은 친구와 연락하는 통로이고, 페이스북은 온라인 친구를 만나는 광장이다. 여느 고등학생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신양이 시각장애를 지녔다는 점이다. 청각장애를 지닌 손우호(36)씨는 스마트폰이 국내 처음 도입된 2009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비장애인이 휴대전화를 쓰며 느낀 편리함을 손씨는 그때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전에는 주변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거쳐 3자 통화만 할 수 있었죠. 직접 이야기하니 얼마나 좋던지요.” 그는 손말로 기쁨을 표현했다.<br/><br/> 성별·나이는 물론 장애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은 인터넷 공동체가 초창기 꿈꿨던 이상이었다.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눈과 귀 노릇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미디어의 광범한 보급과 빠른 기술혁신은 이를 적극 수용해 능숙하게 활용하는 집단과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집단 간에 소통의 기회를 늘린 것과 함께 우려도 만들고 있다. 두 집단 사이의 정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br/><br/> 6월27일 서울 한빛맹학교에서 만난 신나라양은 스마트폰 이후의 가장 큰 변화로 ‘뉴스 습득’을 꼽았다. “전에는 공부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뉴스를 듣는 게 다였어요. 씻고 하다 보면 듣기 쉽지도 않았죠.”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아이폰의 보이스오버, 갤럭시의 토크백 등)으로 원하는 때에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span class='quot0'>먼저 알고 친구들에게 새 소식을 전해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span>”<br/><br/> 같은 학교의 이재석(중1)군은 정보기술 블로그를 운영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가 꼽은 장점은 인터넷 다이어리 기능이다. “어머니와 함께 다이어리 앱을 쓰는데 서로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도 알 수 있어 좋아요. 얼마 전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머니가 무서웠다는 글을 쓰셨는데, 밖에서 알고 위로해 드릴 수 있었죠.” 신양도 메신저가 서로의 감정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말한다. “보이스오버가 이모티콘도 읽어주거든요. 친구의 마음을 듣는 거 같아요.”<br/><br/>보여주고 읽어주고 감정까지 표현 <br/>성·나이·장애 불문 누구나 소통하는 <br/>인터넷공동체 꿈 한발 더 가까이 <br/><br/>정보화 지수는 비장애인 절반 ‘뚝’ <br/>모바일시대 열리며 다시 벌어져 <br/>활용법 교육 확대 등 기반 닦아야 <br/><br/>장애인은 작은 차이 때문에 비장애인이 생각지 못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129 콜센터’에서 일하는 수화 상담사 조정순씨가 들려준 사례다. “재작년 성남의 한 50대 농아인 남자분이 통화상담을 해왔어요. 부인이 암 진단을 받아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데, 병원에 상담을 해줄 적절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어 영상전화를 걸려고 집까지 택시 타고 혼자 왔대요. 아내를 둔 채 말이죠.” 당시만 해도 수화 영상상담을 하려면 ‘시토크’라는 이름의 전용 집전화기를 써야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모바일 영상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지금은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상담할 수 있다.<br/><br/> 하지만 예로 든 사례들은 전체 현황에서 보면 예외에 가깝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13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더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 처음 도입된 ‘스마트 정보화 지수’에서 장애인의 점수는 49.2점이었다. 비장애인의 경우를 100으로 놓았을 때 비교 점수다. 개인용컴퓨터(PC) 기반에서 장애인의 정보화 지수가 83.8점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치다. 기존 피시 환경에서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었으나 모바일 시대가 열리며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는 양상인 셈이다.<br/><br/> 주된 원인은 장애인은 새 기술의 존재나 장점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다는 데 있다. 한빛맹학교의 김해동 교사(교육정보부장)는 “<span class='quot1'>콘텐츠 부족도 문제지만 새로운 기술의 장점 자체를 알기 쉽지 않은 환경이 문제</span>”라고 말했다. 정보화진흥원 조사에서도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구입비 부담’(31.1%)이었지만, ‘용도 모름’도 28.5%로 비슷하게 높았다. 김 교사는 “<span class='quot1'>현행 교과과정에는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애인에게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주의를 비롯한 안전 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이는 예전 장애인 학생이 학습 교재를 구하면서 겪었던 애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서울맹학교 강민영(고3) 학생은 “<span class='quot2'>비장애인은 서점에서 여러 참고서들을 보다 하나 고르지만, 우리는 원하는 교재를 꼽아 장애인용 대체 교재 제작을 의뢰해야 하는 식</span>”이라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임정윤 연구사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장애인들이 정보 습득과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점”이라고 말했다.<br/><br/>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등 사회 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비장애인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기술기업인 ‘엑스비전테크놀로지’ 이사인 김정호씨는 “어떤 기술이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는 얼마나 많은 이들을 끌어안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좋은 사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라고 말했다.<br/><br/> 글·사진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6.txt

제목: 7. 자기애 /한국축구 패배로 굴욕감 느끼는 당신에게  
날짜: 2014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28100000014  
본문: 2014년 6월23일은 우리 축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날로 남을 것 같습니다. 38분 동안에만 세 골. 경기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날 경기의 전반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5분 내내 우리 선수들은 넋이 나간 듯 우왕좌왕했고 알제리 선수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우리를 유린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그 경기를 봤습니다. 경기가 시작될 때 채팅창에 표현되던 승리에 대한 기대는 한 골, 한 골을 허용하면서 실망과 분노, 탄식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 골을 허용하자 ‘이제 그만하자’는 표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고통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br/>　경기가 끝날 무렵 사이버 공간의 다른 한쪽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류 선수는 6이닝의 호투 끝에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채팅창이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 보다가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 받으러 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자 인터넷에는 ‘류현진, 축구 패배 달랜 위로의 9승’ ‘류현진 시즌 9승 달성… 월드컵 패배 아픔 위로한 역투’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유에스오픈 여자 골프에서 미셸 위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엮은 ‘치유 기사’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br/>　<br/>　부모에게 배워 가지게 되는 일종의 능력<br/>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즉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를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마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욕망의 만족 하나로 환원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욕망, 리비도는 몸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에너지였습니다. 마음을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한 그의 이론에는 자연과학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19세기의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욕망의 만족 하나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후의 분석가들은 욕망 외에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동기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애입니다.<br/>　자기애의 개념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그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죽었다는 나르시스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자기애는 성적 도착의 한 형태를 일컫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에 개념이 확장되어 현재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의미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 글에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존심 내지는 자존감도 비슷한 의미의 용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br/>　이렇게 정의되는 자기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얼핏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이기심을 생각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가슴 서늘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br/>　축구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한 것은 자기애가 얼마나 손상되기 쉬운 것인지, 그 손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제발 그만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알제리의 슛이 우리의 그물을 가를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과 자기애도 쩍쩍 갈라졌고, 그렇게 손상된 자기애를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류현진 선수를 찾았습니다. 한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셸 위 선수마저 끌어들이고 싶었을 정도로 축구에서 받은 자기애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내가 직접 굴욕을 당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축구 시합에서 패배했을 뿐인데도 그만큼의 굴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애의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br/>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생각하면 남과 상관없을 듯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기애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화에 대한 글에서 건강한 자기애가 생기려면 이상화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부모의 역할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자기애가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가 뭘 해도 예뻐하고 무조건 최고라고 치켜세워주는 부모가 있어야, 아이는 자신이 얼마든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는 부모로부터 학습되는 것입니다. 불운하게도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에게 배워서 가지게 되는 일종의 능력입니다.<br/>　<br/>　부러움을 유발해 지갑을 털어 가는 방법<br/>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자기애가 건강하게, 충분히 발달한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남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당연히 남으로부터 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싫어해도 지그시 무시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돌림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애에 관한 한 누구나 평생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br/>　남의 인정을 바라는 경향이 유독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애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정신분석에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남의 인정만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인정받으려면 남이 좋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아주 민감합니다. 남이 원하는 것이 중요해질수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갑니다. 가치의 판단 기준이 인기와 남의 부러움이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은 점점 세속적이고 공허해집니다. 남이 탐낼 명품, 외제 차, 남이 부러워할 잘생긴 얼굴과 멋진 몸매, 남이 질투할 멋진 배우자. 남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고, 남이 욕망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잘나고 행복한 사람이 된 듯 보이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남의 욕망을 끝없이 살피고 그것에 맞추어 사는 삶 속에서 자발적 욕망을 가진 주체는 사라지고 남의 욕망으로 규정되는 텅 빈 객체만이 남습니다. 이들의 삶은 남의 욕망에 종속됩니다.<br/>　명품, 외제 차, 멋진 몸매.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이들의 자기애는 심한 상처를 받게 되고, 이들은 심한 굴욕감과 고통에 빠집니다.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들은 부러움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질투와 적개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경멸감을 가집니다.<br/>　자기애적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자기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두드러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보듯, 우리 자신을 좀더 잘 볼 수 있습니다.<br/>　자기애의 만족을 위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남의 인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의해 착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의 상당 부분은 소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의 자기애적인 측면을 십분 활용해서 우리의 지갑을 털어 갑니다. 사실, 부러움을 유발해 돈을 쓰게 만드는 수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1세기 자본주의는 전보다 훨씬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기애에 상처를 내어 부러움이 아니라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br/>　대표적인 예로 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비쩍 마른 여자, 식스팩의 남자가 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남의 사랑과 인정은 꿈도 꾸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아름다운 몸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라며 죄인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몸에 대한 강박에 시달립니다. 방송에서는 살찐 사람, 못생긴 사람을 대놓고 조롱합니다. 남의 호감을 얻으려면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옷도 차려입어야 하고 사랑을 얻으려면 이벤트도 해야 합니다. 미용 성형이 덕목이 되어가고, 학자보다는 부자가 존경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입니다.<br/>　윤리의식이나 역사의식 같은 것들은 정치인들이 서로 헐뜯을 때나 거론될 뿐,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관심은 오로지 돈뿐입니다. 우리의 지갑을 열기 위해 자본주의는 ‘남의 욕망’을 끝없이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면 ‘루저’가 될 거라고 우리를 협박합니다.<br/>　<br/>　자본주의에 조롱당하며 스스로를 비하<br/>　자본주의의 협박과 농간의 가장 큰 폐해는, 우리가 그것을 내면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자기애에 상처를 내는 방식을 내면화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기애에 상처를 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의해 조롱당한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br/>　전에 없던 자기애가 21세기에 새로 생겼을 리는 없습니다. 자기애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잘난 사람은 늘 잘난 체했고, 못난 사람은 늘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우선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에 있습니다. 자기애의 결핍을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소비를 유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자기애가 중요해진 데에는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br/>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을 추구합니다. 하나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옳게 살지 못하면 죄스럽고, 못나 보이면 창피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과 잘난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옳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이 확실한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br/>　1980년대까지의 우리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고, 그 의무감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엄숙하고 진지했습니다. 옳게 사는 것만도 매우 힘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애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br/>　세상은 달라졌고 이제 우리는 옳은 것에 대한 강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듯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은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잘난 것은 자기애의 영역이고, 수치심의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조롱하고 비하합니다.<br/>　옳고 그름에는 절대적이고 거시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것만 지키면 되지만 잘나고 못난 것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잘난 것에 대한 강박은 옳은 것에 대한 강박보다 훨씬 미시적으로 우리의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남과 나를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높은 곳을 보면서 열등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자기애의 세상입니다.<br/><br/>▶ 최병건 정신과전문의. 연세대학교 졸업. 미국 엘에이 정신분석연구소 수련. 초등학교 시절에 그냥 하나 골라잡았던 ‘너 자신을 알라’가 언제부턴가 진짜 좌우명이 됐다. 사람의 마음이 줄기차게 궁금한데 공부를 계속해도 어렵기만 하다. 그나마 아는 것이라도 제대로 표현할 글재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요즘의 바람이다. 라는 책 한 권에 그동안의 생각을 일부 담아내기는 했다. ‘신경정신과 공감’에서 진료하다가 지금은 다시 뉴욕에서 공부 중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7.txt

제목: 한국 축구 패배로 굴욕감 느끼는 당신에게  
날짜: 2014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2710014635978  
본문: 2014년 6월23일은 우리 축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날로 남을 것 같습니다. 38분 동안에만 세 골. 경기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날 경기의 전반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5분 내내 우리 선수들은 넋이 나간 듯 우왕좌왕했고 알제리 선수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우리를 유린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그 경기를 봤습니다. 경기가 시작될 때 채팅창에 표현되던 승리에 대한 기대는 한 골, 한 골을 허용하면서 실망과 분노, 탄식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 골을 허용하자 ‘이제 그만하자’는 표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고통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br/><br/> 경기가 끝날 무렵 사이버 공간의 다른 한쪽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류 선수는 6이닝의 호투 끝에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채팅창이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 보다가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 받으러 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자 인터넷에는 ‘류현진, 축구 패배 달랜 위로의 9승’ ‘류현진 시즌 9승 달성… 월드컵 패배 아픔 위로한 역투’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유에스오픈 여자 골프에서 미셸 위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엮은 ‘치유 기사’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br/><br/><br/><br/>남에게 인정받는 자신의 가치 <br/>온 세상이 다 나를 싫어해도 <br/>스스로를 사랑하는 이 없습니다 <br/>자기애에 관한 한 누구나 평생 <br/>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br/>남과 나를 끝없이 비교하고 <br/>끝없이 높은 곳을 보면서 <br/>열등감에 젖어들게 합니다 <br/>그것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br/>강요하는 자기애의 세상입니다<br/><br/> <br/><br/> 부모에게 배워 가지게 되는 일종의 능력<br/><br/>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즉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를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마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욕망의 만족 하나로 환원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욕망, 리비도는 몸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에너지였습니다. 마음을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한 그의 이론에는 자연과학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19세기의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욕망의 만족 하나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후의 분석가들은 욕망 외에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동기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애입니다.<br/><br/> 자기애의 개념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그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죽었다는 나르시스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자기애는 성적 도착의 한 형태를 일컫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에 개념이 확장되어 현재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의미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 글에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존심 내지는 자존감도 비슷한 의미의 용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br/><br/> 이렇게 정의되는 자기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얼핏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이기심을 생각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가슴 서늘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br/><br/> 축구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한 것은 자기애가 얼마나 손상되기 쉬운 것인지, 그 손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제발 그만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알제리의 슛이 우리의 그물을 가를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과 자기애도 쩍쩍 갈라졌고, 그렇게 손상된 자기애를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류현진 선수를 찾았습니다. 한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셸 위 선수마저 끌어들이고 싶었을 정도로 축구에서 받은 자기애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내가 직접 굴욕을 당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축구 시합에서 패배했을 뿐인데도 그만큼의 굴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애의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br/><br/>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생각하면 남과 상관없을 듯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기애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화에 대한 글에서 건강한 자기애가 생기려면 이상화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부모의 역할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자기애가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가 뭘 해도 예뻐하고 무조건 최고라고 치켜세워주는 부모가 있어야, 아이는 자신이 얼마든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는 부모로부터 학습되는 것입니다. 불운하게도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에게 배워서 가지게 되는 일종의 능력입니다.<br/><br/> <br/><br/> 부러움을 유발해 지갑을 털어 가는 방법<br/><br/>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자기애가 건강하게, 충분히 발달한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남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당연히 남으로부터 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싫어해도 지그시 무시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돌림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애에 관한 한 누구나 평생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br/><br/> 남의 인정을 바라는 경향이 유독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애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정신분석에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남의 인정만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인정받으려면 남이 좋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아주 민감합니다. 남이 원하는 것이 중요해질수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갑니다. 가치의 판단 기준이 인기와 남의 부러움이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은 점점 세속적이고 공허해집니다. 남이 탐낼 명품, 외제 차, 남이 부러워할 잘생긴 얼굴과 멋진 몸매, 남이 질투할 멋진 배우자. 남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고, 남이 욕망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잘나고 행복한 사람이 된 듯 보이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남의 욕망을 끝없이 살피고 그것에 맞추어 사는 삶 속에서 자발적 욕망을 가진 주체는 사라지고 남의 욕망으로 규정되는 텅 빈 객체만이 남습니다. 이들의 삶은 남의 욕망에 종속됩니다.<br/><br/> 명품, 외제 차, 멋진 몸매.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이들의 자기애는 심한 상처를 받게 되고, 이들은 심한 굴욕감과 고통에 빠집니다.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들은 부러움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질투와 적개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경멸감을 가집니다.<br/><br/> 자기애적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자기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두드러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보듯, 우리 자신을 좀더 잘 볼 수 있습니다.<br/><br/> 자기애의 만족을 위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남의 인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의해 착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의 상당 부분은 소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의 자기애적인 측면을 십분 활용해서 우리의 지갑을 털어 갑니다. 사실, 부러움을 유발해 돈을 쓰게 만드는 수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1세기 자본주의는 전보다 훨씬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기애에 상처를 내어 부러움이 아니라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br/><br/> 대표적인 예로 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비쩍 마른 여자, 식스팩의 남자가 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남의 사랑과 인정은 꿈도 꾸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아름다운 몸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라며 죄인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몸에 대한 강박에 시달립니다. 방송에서는 살찐 사람, 못생긴 사람을 대놓고 조롱합니다. 남의 호감을 얻으려면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옷도 차려입어야 하고 사랑을 얻으려면 이벤트도 해야 합니다. 미용 성형이 덕목이 되어가고, 학자보다는 부자가 존경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입니다.<br/><br/> 윤리의식이나 역사의식 같은 것들은 정치인들이 서로 헐뜯을 때나 거론될 뿐,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관심은 오로지 돈뿐입니다. 우리의 지갑을 열기 위해 자본주의는 ‘남의 욕망’을 끝없이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면 ‘루저’가 될 거라고 우리를 협박합니다.<br/><br/> <br/><br/> 자본주의에 조롱당하며 스스로를 비하<br/><br/> 자본주의의 협박과 농간의 가장 큰 폐해는, 우리가 그것을 내면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자기애에 상처를 내는 방식을 내면화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기애에 상처를 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의해 조롱당한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br/><br/> 전에 없던 자기애가 21세기에 새로 생겼을 리는 없습니다. 자기애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잘난 사람은 늘 잘난 체했고, 못난 사람은 늘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우선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에 있습니다. 자기애의 결핍을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소비를 유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자기애가 중요해진 데에는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br/><br/>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을 추구합니다. 하나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옳게 살지 못하면 죄스럽고, 못나 보이면 창피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과 잘난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옳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이 확실한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br/><br/> 1980년대까지의 우리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고, 그 의무감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엄숙하고 진지했습니다. 옳게 사는 것만도 매우 힘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애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br/><br/> 세상은 달라졌고 이제 우리는 옳은 것에 대한 강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듯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은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잘난 것은 자기애의 영역이고, 수치심의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조롱하고 비하합니다.<br/><br/> 옳고 그름에는 절대적이고 거시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것만 지키면 되지만 잘나고 못난 것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잘난 것에 대한 강박은 옳은 것에 대한 강박보다 훨씬 미시적으로 우리의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남과 나를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높은 곳을 보면서 열등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자기애의 세상입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8.txt

제목: 암 투병 여성들 지원에 주력  
날짜: 2014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2610014624739  
본문: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라는 슬로건처럼, 주로 여성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 쪽은 “여성이 주요 고객인 만큼 이익을 다시 여성에게 돌려준다는 기업 이념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한다.<br/><br/> 2008년부터 진행중인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으로 투병중인 여성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외모의 변화로 인해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해소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2013년까지 2000여명의 상담사와 교육강사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참가해 여성 암 환자 8000여명의 심신을 위로해왔다.<br/><br/>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로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했다. 여성의 유방 건강에 대한 의식 향상을 목표로 한 ‘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이 있다. 2001년에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이 대회는 유방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24만여명이 참가해 26억원이 넘는 기부금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됐다. 아울러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유방암 수술치료비 지원, 학술연구비 지원 등 유방 건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59.txt

제목: 한의학의 해부학적 전통에 대한 몰이해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24100000025  
본문: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의 진단, 검진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의학에는 해부학적인 인식이 없으므로 인체를 검사할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의학에는 해부학적인 인식이 없었을까?<br/>　동양에서 인체 해부에 대한 기록은 이미 2000년 전 한의학의 최고서인 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의 ‘경수편’(經水篇), ‘위양편’(胃腸篇), ‘평인절곡편’(平人絶穀篇)에서는 사람의 형태적 구조가 서술되어 있고 이는 고대 동양의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인식이 어느 수준까지 발달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중국의 송대에서 최초로 사체를 해부한 기록은 있지만 후세에 전해져 내려오지 않으며, 해부학 분야 최고의 의학자로 평가되는 청대의 왕청림에 와서야 사실적인 해부에 의해 오류가 시정되었다. 허준의 에는 인체 장부를 그린 ‘신형장부도’가 수록되어 있다.<br/>　또한 당시 해부학을 기반으로 한 외과 처치에 관련된 내용도 각종 의서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의서인 에는 칼에 찔린 상처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배가 파열되어 장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보리 끓인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 뽕나무 껍질에서 실을 뽑아 꿰매주라고 하였으며, 지혈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혈시킬 수 있는 한약재를 으깨거나 가루 내어 상처 부위에 붙여 놓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br/>　임진왜란 중에는 허준과 같이 함경도 일대까지 선조와 광해군을 수행하여 공신이 된 이공기가 명나라 장수의 상처를 치료해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골절상에 뼈를 맞추고 상처를 소독한 후 약을 바르고 부목을 대어 묶어주는 치료법, 암이나 궤양, 종기 등이 생겨 환부를 칼과 비슷한 침을 사용해서 째고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외과적 처치들이 각종 한의학 서적마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br/>　근대에 들어오면서 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해부학 내용이 보충 및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1953년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으며, 1995년의 ‘시체해부 허가 사항’의 법 개정으로 한의과대학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br/>　한의학에 해부학이 존재했다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증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해부학 용어가 모두 한의학 용어에 기인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해부학이 한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양의학에서만 존재했다면 해부학 용어는 모두 다 한글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영어로 사용해야 함에도 우리는 현재 해부학 용어들을 한의학 용어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br/>　이렇듯 한의학에는 해부학적 인식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인체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의사들은 현대 해부학을 교육받으면서 과거의 한의학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가 진단 및 검진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야 할 것이다.<br/>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0.txt

제목: [왜냐면] 한의학의 해부학적 전통에 대한 몰이해  
날짜: 2014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2310014595604  
본문: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의 진단, 검진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의학에는 해부학적인 인식이 없으므로 인체를 검사할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의학에는 해부학적인 인식이 없었을까?<br/><br/>동양에서 인체 해부에 대한 기록은 이미 2000년 전 한의학의 최고서인 <황제내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영추>의 ‘경수편’(經水篇), ‘위양편’(胃腸篇), ‘평인절곡편’(平人絶穀篇)에서는 사람의 형태적 구조가 서술되어 있고 이는 고대 동양의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인식이 어느 수준까지 발달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중국의 송대에서 최초로 사체를 해부한 기록은 있지만 후세에 전해져 내려오지 않으며, 해부학 분야 최고의 의학자로 평가되는 청대의 왕청림에 와서야 사실적인 해부에 의해 오류가 시정되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인체 장부를 그린 ‘신형장부도’가 수록되어 있다.<br/><br/>또한 당시 해부학을 기반으로 한 외과 처치에 관련된 내용도 각종 의서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의서인 <향약구급방>에는 칼에 찔린 상처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배가 파열되어 장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보리 끓인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 뽕나무 껍질에서 실을 뽑아 꿰매주라고 하였으며, 지혈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혈시킬 수 있는 한약재를 으깨거나 가루 내어 상처 부위에 붙여 놓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br/><br/>임진왜란 중에는 허준과 같이 함경도 일대까지 선조와 광해군을 수행하여 공신이 된 이공기가 명나라 장수의 상처를 치료해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골절상에 뼈를 맞추고 상처를 소독한 후 약을 바르고 부목을 대어 묶어주는 치료법, 암이나 궤양, 종기 등이 생겨 환부를 칼과 비슷한 침을 사용해서 째고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외과적 처치들이 각종 한의학 서적마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br/><br/>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마의>를 보더라도 한의학은 음양오행만으로 진단해야 하며 해부학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얼마나 한의학을 폄훼하는 억측인지 잘 알 수 있다. 더불어 현재는 일본 교토대학에 보관중인 조선 명종 때 임언국이 지은 <치종지남>이라는 책을 보면 이미 당시에 현재의 외과수술에 맞먹는 대담한 수술을 한 기록과 치료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br/><br/>　근대에 들어오면서 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해부학 내용이 보충 및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1953년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으며, 1995년의 ‘시체해부 허가 사항’의 법 개정으로 한의과대학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br/><br/>한의학에 해부학이 존재했다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증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해부학 용어가 모두 한의학 용어에 기인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해부학이 한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양의학에서만 존재했다면 해부학 용어는 모두 다 한글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영어로 사용해야 함에도 우리는 현재 해부학 용어들을 한의학 용어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br/><br/>이렇듯 한의학에는 해부학적 인식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인체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해부학은 서양의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발전해온 과학과 관찰의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의사들은 현대 해부학을 교육받으면서 과거의 한의학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가 진단 및 검진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야 할 것이다.<br/><br/>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1.txt

제목: 치유를 선물하는 축령산 편백나무숲  
날짜: 2014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20100000060  
본문: 하나뿐인 지구(교육방송 밤 8시50분) ‘나는 매일 편백숲으로 간다’ 편. 전라남도 장성의 축령산은 우리나라에서 편백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다. 250만그루가 꽉 차 있다. 치유의 숲으로 알려지면서 암환자는 물론이고 각종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올해 초 간의 17.7㎝가 암세포로 뒤덮였다는 진단을 받은 권승옥씨는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축령산을 찾는다. 수술할 단계가 지나버린 그에게 편백숲은 마지막 희망이다. 위가 딱딱하게 굳는 위경화증을 앓는 박성일씨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효과를 본 이들이 있다. 2년 전 직장암 수술을 받은 신은석씨는 편백숲을 찾은 뒤 항암치료를 받았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편백숲을 걷고 나면 건강해지는 이유는 뭘까. 편백나무는 보통 나무보다 10배나 많은 피톤치드를 내뿜는다. 피톤치드는 병원균·해충·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분비하는 물질로,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흡입하면 장과 심폐기능이 활발해지고 좋아진다. 1주일에 한번만 찾아도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아토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각종 증세에 좋다고 한다. 실제 실험에서도 편백숲을 2시간 걸은 직장인의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졌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2.txt

제목: 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 1260원 올라  
날짜: 20140620  
기자: 최성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20100000104  
본문: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4290원(본인 부담액 기준)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 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늘어나게 된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1.35%다.<br/>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결정했다.<br/>　건정심 결정 내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내년부터 월평균 급여(보수월액)의 6.07%를 건보료로 내야 한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건보료율은 5.99%다.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서 책정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1.35%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2013년과 2014년엔 건보료 인상률이 각각 1.6, 1.7%였다.<br/>　암과 심장병, 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암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등 값비싼 의약품이나 방사선치료, 심장이나 뇌수술 재료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면, 환자 본인은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4~5인 입원실에 대한 보험 적용,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70살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보장 확대 등 3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건보 적용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보 재정은 모두 2조500억원 규모다.<br/>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에 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국민 부담의 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8조2203억원이다. <br/>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3.txt

제목: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말자  
날짜: 2014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20100000042  
본문: 나만의 일일까, 이제는 신문 지상이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들의 표정을 보는 일조차 식상하다. 인사청문회 덕일까, 전횡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후보자들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말지어지는 스펙터클을 멈출 날은 언제쯤 올까?<br/>　“<span class='quot0'>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span>”<br/>　귀국하기 전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나?”라는 내 물음에 대한, 프랑스의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한 교수의 거침없는 대답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반역사적 역사관을 드러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때문만이 아니다. 강자의 논리에 기댄 그의 언설은 6만여 조합원 중에서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와 힘의 논리만을 따른다는 점에서 같은 뿌리에 있다. 국제적인 보편규범을 모른 체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노동 탄압에 앞장서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운운하니 할 말을 잃게 된다.<br/>　우리가 기억투쟁을 게을리해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잊기 때문인데, 후보 시절 “<span class='quot1'>증세하여 재원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냐?</span>”라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span class='quot1'>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span>”라고 응수했던, 그리고 당선에 성공한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게 규제에 대한 적개심이다. 그에게 모든 규제가 암 덩어리에 불과하듯이, 이 땅의 사회귀족이 되기 위한 일차적 조건은 절제를 저 멀리 내던지는 데 있다. 탐욕의 추구, 경쟁과 효율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신의 구현이다. 자본에게 그것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뜻한다면, 개인에게 그것은 “명리는 나에게, 책임과 윤리는 개에게나”라고 할 만하다.<br/>　그리하여, 자본의 끝없는 이윤 추구를 위해 구성원들의 안전을 비롯한 공공성의 요구로 사회에 적용돼온 규제를 없애야 하듯이, 입신출세를 목표로 하는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져야 할 덕목의 하나인 절제를 버려야 한다. 2기 박근혜 정부를 구성할 새 총리와 교육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교육수석 내정자를 비롯한 인물들에게서 예외 없이 드러나는 뻔뻔스러움이나 구림은 우리 사회에서 절제의 미덕이 사라졌음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실상,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웃는 표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두려운 진실을, 또 이 땅에 사회귀족 체제가 그만큼 견고해졌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들의 특징은 사회 각 부문에서 군림하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다는 점이다.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려도 계속 찍어주고 지지해주고 선망하고 따르는데 왜 그런 거추장스런 의무를 스스로 지겠는가.<br/>　동양에서 미덕의 하나로 존중되었던 절제는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이 절제는 세 방향에서 작용한다. 각자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되는 자기절제, 상호 견제와 비판에 의해 작용하는 절제, 그리고 민중의 비판력으로부터 작용하는 절제가 그것이다. 가장 고급한 자기절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령 언론이 정치권력을 비판하거나 학문이 언론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행위자들에게 절제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횡적 견제에 의한 절제라면, 투표 등의 행위를 통하여 당선 또는 낙선시킴으로써 위정자들에게 절제하도록 작용하는 것을 민중의 비판력에 의한 절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방향의 절제는 따로 작용한다기보다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한다. “<span class='quot0'>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부 없다</span>”는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중의 비판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여기서도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기계적으로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경구는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의 무지와 무관심이 결코 중립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br/>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가로채고 연구비를 착복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횡행하는 현실은 약자의 몫을 빼앗는 갑을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허탈감마저 안겨준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짚어야 할 점은 그들에게서 절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게 그들만의 탓이라기보다 사회부문 간 횡적 견제와 특히 민중의 비판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온 귀결이라는 사실이다. 행정, 사법, 언론, 기업, 학문, 종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횡적 견제는 사회귀족들 사이의 유착과,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로 힘을 잃은 지 오래다. 상호 비판이나 견제가 이루어지는 대신 부패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신처럼 부패한 사람과 “우리가 남이가”라면서 동패를 이루면서 청렴한 사람을 멀리하거나 조직에서 내쫓는 데 힘을 모은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셤의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은 그 무엇보다 민중의 비판력이 취약하다는 서글픈 진실의 반영물인 것이다. 권력이든 자본이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때(루소가 일찍이 말했듯이, 민중은 4년이나 5년 중에 투표하는 하루만 자유롭다), 없는 사람이 기득권 세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오히려 걱정해준다면 왜 그들이 절제의 미덕을 가지겠는가.<br/>　한편, 우리는 염치나 절제 없이 명리만을 좇은 인물을 비난할 줄 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되기를 스스로 거부한 것일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일까? 사회 안에 절제의 미덕이 살아 숨쉬지 않을 때, 나만큼은 절제를 지킬 것이라는 확신은 대개 절제할 거리나 기회조차 없는 사람의 몫일 가능성이 크다.<br/>　따라서 관건은 사회 환경과 세력관계에 있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이다. 이 점을 주류 지배세력이 더 잘 알고 있다. 조선, 동아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전교조를 부정하고 붉은 색깔을 입혀 깎아내리는 데 부심해온 점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에 큰일이나 난 듯이 호들갑을 떨며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세력관계 형성에서 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던 세력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br/>　아! 이 글을 쓰는 중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니… 이 땅에서 노동의 권리는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br/>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금 절감한다. 하지만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말자.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의 하나는 개탄하는 것으로 자신의 윤리적 우월감을 확인하면서 자기만족에 머무르는 데 있다. 실상 세상이 혐오스럽다고 개탄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개탄을 넘어 분노할 줄 알아야 하고 분노를 넘어 참여하고 연대하고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기존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설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모두 설득하기를 포기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다시금 되새기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다.<br/>홍세화 공동발행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4.txt

제목: 4. 교사론 /교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없으면 교육개혁 없다  
날짜: 2014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20100000025  
본문: 인문학 르네상스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는 1학년 정원 35명 중에서 6개의 자리를 특별히 대안학교 출신의 학생들에게 수능점수에 관계없이 배당한다고 한다. 처음에 3명만 받았다가 그들의 성적이 너무 우수하고 또 인간적으로 성숙되어 있어 6명으로 늘렸는데, 이들의 존재는 과의 면학 분위기를 놀랍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한다. 자유로운 사색과 억압받지 않는 삶, 그리고 목전의 당면한 성취 스트레스에 오염되지 않은 여유로움을 지닌 어린 생령의 정신능력이 철학을 공부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한 토양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br/>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입학 내규가 국립대학 과 교수들 자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혁명은 바로 이렇게 로칼하고도 자율적인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중·고교의 현실태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좋은 사례로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성공회대학교에도 대안학교·혁신학교 출신들을 따로 배려하는 입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엄선된 대안학교·혁신학교 출신의 우수학생들을 대학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br/>　<br/>나는 앞서 시민의 제1의 덕성을 자유 아닌 “코오퍼레이션”(cooperation)이라는 영어단어를 써서 말했는데, 그것을 “협동”이라 번역하지 않고 “협력”이라고 번역했다. 협동이라는 단어는 전체우선주의에 의하여 개체가 말살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협력”이란 대등한 개체 간의 협조양식을 의미한다. 민주는 법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도 우리 인생이란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했고, 사회질서를 법으로 유지하게 되면 민중이 피하는 것만 배우고 염치를 상실한다고 했다(民免而無恥). 민주는 인간개체 내면의 덕성의 공통분모가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다.<br/>　여기 협력과 대극점에 있는 “자유”라는 말은 “freedom”의 번역술어이다. “自由”라는 단어는 선진문헌에는 나오지 않는다. “freedom”은 “free”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인데, “free”는 반드시 “from”이라는 전치사를 수반한다. 자유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반드시 “……로부터의 자유”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절대적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란 결국 억압으로부터 풀려날 때 느끼는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다. 이러한 일시적 느낌을 인생의 지고의 목표로 삼거나, 보편교육 즉 대중교육의 주제로 삼을 수는 없다.<br/>　인간은 자유에 탐닉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파멸을 가져오게 되거나, 향유하던 자유를 헌납하게 된다. 이 자유의 헌납이 인간이 사악한 종교에 굴종하게 되는 이유다. 인류가 자유를 처음으로 흠뻑 누리게 된 20세기 벽두에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창궐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br/>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는 일시적인 느낌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는가? 물론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 어떻게? 존재모드를 자유에서 “자율”로 전환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자율(自律)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규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인간은 욕망의 주체이다. 욕망은 공생의 진리를 부정하는 강렬한 유혹성을 가지고 있다. 사적인 욕망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법정 스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 우리의 존재모드를 소유모드에서 무소유모드로 전환하는 것, 이 전환을 나는 “협력”(cooperation)이라고 부른 것이다.<br/>　<br/>칸트는 이 자율의 궁극적 원리를 나의 주관적 의지의 격률이 항상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같이 지킬 수 있는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한다고 하는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두었다. 그리고 인간은 수단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적의 왕국에서 같이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교육 즉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피교육자인 학생을 입시나 여타 사회적 경쟁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자체의 인격을 목적의 왕국에 안치하는 것이다.<br/>　그런데 이러한 진보교육의 원리가 왕왕 서구적 시장중심주의적 자유주의와 혼효되고 있다는 것을 나의 공부이론과 협력이론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이란 인간 존재의 소유모드를 근원적으로 단절시키는 “무아”(無我, an<br/><br/>tman)의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유란 쉬운 것이나 자율이란 어려운 것이다. 자율이란 반드시 “교육”을 통하여 달성되는 “교양”이며 이 교양의 집합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civilization”이라는 단어는 “civilized”(교양 있다)라는 단어와 상통하며, 시민(civit<br/><br/>s)이라는 말과도 어원이 상통한다. 시민, 교양, 문명, 협력, 무아가 결국 동일한 가치관의 내재적 맥락을 갖는 것이다.<br/>　그런데 진보주의교육이 왕왕 자유주의로 오해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상의 테제로 삼는 성향이 있다. 개체지상주의는 결국 방종으로 귀결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 미국 교육철학의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그의 리버랄리즘적 교육관의 계승자들이 시행한 교육방법론의 파탄은 미국의 공교육을 망쳐버리고 미국 사회를 근원적으로 해체시키는 데 공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br/>　<br/>듀이 철학이 역동적 과정을 중시하지만, 교육이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신화적 예찬에만 머물게 되면 아무런 목표설정이나 “휴먼빌딩”의 결실이 부재하게 된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초창기의 대안학교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던 제1의 이유였다. 어설프게 혁신교육을 외치는 자들이 흔히 말한다: 학생은 온전한 개체이므로 그 온전한 개체의 가능성이 스스로 발현되도록 돕는 것이 <span class='quot0'>교사</span>의 임무이다. 말인즉 매우 근사하게 들린다. 그러나 학생의 현실태는 온전한 개체가 아니다. 학생은 교육받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것이다. 목가적인 에밀(<br/><br/>mile)의 체험을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온전한 개체라는 것은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설정의 이데아티푸스적 좌표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학생의 현실태일 수는 없다.<br/>　맹자도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 했고, 나는 성인과 동류(同類)라고 말했다. 그리고 왕양명의 제자들은 “길거리에 가득찬 것이 모두 성인이다”(滿街人都是聖人)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19세기 조선의 유자 최한기(崔漢綺, 1804~1877)의 말대로, 인간의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현실태의 승인은 아니다. 인간은 교육되어야 한다. 혁신학교의 자발성은 교육적 계기의 효율적 방법론을 말한 것이지 자발성 그 자체에 절대적 가치를 두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무아적 자기규율의 난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력하는 인간”(homo cooperativus)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br/>　이러한 교육의 수행자가 바로 “<span class='quot0'>교사</span>”이다. 모든 낭만주의 교육, 열린 교육, 자유 교육의 낭패는 바로 <span class='quot0'>교사</span>와 학생을 완벽하게 평등한 개체로 설정하는 천진스러운 낙관주의에 있다. 나의 “공부론”은 이러한 낙관론을 거부한다. 모든 성공적인 대안학교·혁신학교는 자율적 규율성을 강조한다.<br/>　<br/>프랑스가 인류의 인문주의세계에 자랑하는, 세계지성계를 선도한 위대한 사상가들을 배출한 걸출한 교육기관으로서 에꼴 노르말 쉬페리외르(<br/><br/>cole Normale Superieure)라는 것이 있다. 앙리 베르그송, 에밀 뒤르껭, 사르트르, 보봐르, 메를로 퐁티, 알튀세르,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알랭 바디우 …… 이 셀 수 없는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한 교육기관에서 쏟아져 나왔다. 참으로 경이롭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프랑스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관이 고등학교 <span class='quot0'>교사</span>를 배출하기 위한 “사범학교”로서 출발한 기관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프랑스에서는 중·고등학교 <span class='quot0'>교사</span>도 “프로페쇠르”(professeur)라고 부른다. 에꼴 노르말을 거친 사람들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논문을 써서 대학으로 가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던 사람이 고등학교 <span class='quot0'>교사</span>를 택하여 전근가기도 한다. <span class='quot0'>교사</span>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다른 것이다.<br/>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나는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제도와 <span class='quot0'>교사</span>임용고시제도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대학에 문리과 대학의 국문과, 물리학과와 사범대학의 국문과, 물리학과가 2원적 구조로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대학에서는 무전제의 순수학문을 전공하고, <span class='quot0'>교사</span>의 임용은 대학원 레벨의 고등교육기관의 심오한 훈도를 받은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허락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수준의 에꼴 노르말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 미래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br/>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새 질서는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상황이므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육개선을 이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br/>　<br/>교육의 주체는 <span class='quot0'>교사</span>이지 학생이 아니다. 학생은 피교육자이며, 입학하여 졸업하는 과객(過客)이다. 객(客)에 대하여 주(主)의 자리는 선생이 지키는 것이다. 학교의 주체도 <span class='quot0'>교사</span>이지 교장·교감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교육개혁의 주체도 결국 <span class='quot0'>교사</span>이다. <span class='quot0'>교사</span>는 교육의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span class='quot0'>교사</span>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교육개혁을 실현할 수 없다. 교육개혁이란 결국 <span class='quot0'>교사</span>가 학생들의 교육 그 자체에 헌신할 수 있는 존귀함의 입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학교를 학부형이 좌지우지하고 <span class='quot0'>교사</span>는 그 하수인인 꼴, 교장·교감은 교육청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달하며 <span class='quot0'>교사</span>를 닦달하고 있는 꼴, 이것은 도무지 한참 잘못된 판국이다. 「존사」(尊師)편에는 중국의 모든 고래 성인이 스승을 존귀하게 섬기지 않은 자가 없었다(未有不尊師者也)고 말한다. 스승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br/>　나는 <span class='quot0'>교사</span>의 존엄성과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현실적 개선방향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테제를 제시한다. 첫째, <span class='quot0'>교사</span>는 교육의 커리큘럼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주체적으로 시험문제를 내고 자기가 채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개성있는 교육이 가능해지는 첩경이다. 수학자·물리학자로서 20세기의 가장 완정한 형이상학적 우주론을 수립한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는 <span class='quot0'>교사</span>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의 교과과정을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상황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문·과학교육의 기본여건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입시교육의 전체주의적 엄격성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span class='quot0'>교사</span>에게 허락하지 않는다.<br/>　둘째, <span class='quot0'>교사</span>에게는 체벌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span class='quot0'>교사</span>가 체벌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법규적으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인 것이다. 요즈음처럼 민주화된 사회에서 <span class='quot0'>교사</span>가 체벌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체벌의 어려움을 감내할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공부는 몸의 공부이며 교육은 몸의 교육이다. 말의 한계를 느낄 때 각성의 계기로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은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단지 체벌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감정의 표출이 아니며 객관화된 제식(objectified ritual)이라는 것, 그리고 신체적 상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체벌에 관해서는 학생들과의 자율적 약속의 전제가 있으면 그만이며, 시나 고전 구절을 외우게 한다든가 운동장을 몇 바퀴 뛰게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이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br/>　셋째, 학부형이 학교에 항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학부형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는 전반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학생의 본질적 인권이 훼손당하는 중대사 이외로, 점수나 학교행정상의 사소한 문제에 학부형이 개입하는 행위는 차단되어야 마땅하다.<br/>　넷째, 교감·교장의 평가기준이 <span class='quot0'>교사</span>들의 창의적인 교육적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현금의 교육개혁은 혁신학교 운운하기 전에 이미 교장 한 사람만이라도 위대한 인격체로서 <span class='quot0'>교사</span>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헌신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학교분위기의 많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장학사가 되기 위하여 일제식 관변주의사고의 악순환을 영속시키고 있는 교장의 행태는 정죄되어야 한다.<br/>　다섯째, 교육청 자체 내의 수많은 비리가 깨끗이 척결되어야 한다.<br/>　<br/>나와 대학동기인 이재정 교육감에게 나는 이런 말을 건넸다.<br/>　“<span class='quot0'>여보게, 혁신학교에서는 교장을 공모한다는데 내가 한번 응모해보면 어떨까?</span>”<br/>　한참 생각해보더니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br/>　“<span class='quot0'>자격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당신은 나이가 많아 실격일 것 같구만.</span>”<br/>　그래서 내가 말했다.<br/>　“그럼 한 3개월 공석을 메우는 기간제 <span class='quot0'>교사</span>를 신청해보면 어떨까?”<br/>　“그건 될 수 있겠는데. 암 되구말구!”<br/>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중·고교 교육현장에서 내가 한 말들을 차분하게 검증하고, 새롭게 “교육함”을 배워가는 체험을 해보고 싶다. <span class='quot0'>교사</span>의 덕성은 「학기」(學記)에 나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이 한마디! 「학기」는 말한다: “아름다운 요리가 앞에 있어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길이 없고, 지극한 도리가 앞에 있어도 배워보지 않으면 그 위대함을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배우고 난 연후에나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가르쳐 보고 난 연후에나 비로소 교육의 곤요로움을 깨닫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연후에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반성할 수 있고, 교육의 어려움을 깨달은 연후에 교육자는 자신의 실력을 보강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노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서로를 키운다!”<br/> 　김용옥 철학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5.txt

제목: 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 1260원 올라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910014568597  
본문: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4290원(본인 부담액 기준)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 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1.35%다.<br/><br/>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결정했다.<br/><br/> 건정심 결정 내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내년부터 월평균 급여(보수월액)의 6.07%를 건보료로 내야 한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건보료율은 5.99%다.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서 책정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1.35%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2013년과 2014년엔 건보료 인상률이 각각 1.6, 1.7%였다.<br/><br/> 암과 심장병, 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암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등 값비싼 의약품이나 방사선치료, 심장이나 뇌수술 재료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면, 환자 본인은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4~5인 입원실에 대한 보험 적용,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70살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보장 확대 등 3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건보 적용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보 재정은 모두 2조500억원 규모다.<br/><br/>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에 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국민 부담의 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 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8조2203억원이다. <br/><br/>최성진 기자cs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6.txt

제목: 6월 20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910014567727  
본문: 치유를 선물하는 축령산 편백나무숲<br/><br/>하나뿐인 지구(교육방송 밤 8시50분) ‘나는 매일 편백숲으로 간다’ 편. 전라남도 장성의 축령산은 우리나라에서 편백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다. 250만그루가 꽉 차 있다. 치유의 숲으로 알려지면서 암환자는 물론이고 각종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올해 초 간의 17.7㎝가 암세포로 뒤덮였다는 진단을 받은 권승옥씨는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축령산을 찾는다. 수술할 단계가 지나버린 그에게 편백숲은 마지막 희망이다. 위가 딱딱하게 굳는 위경화증을 앓는 박성일씨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효과를 본 이들이 있다. 2년 전 직장암 수술을 받은 신은석씨는 편백숲을 찾은 뒤 항암치료를 받았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편백숲을 걷고 나면 건강해지는 이유는 뭘까. 편백나무는 보통 나무보다 10배나 많은 피톤치드를 내뿜는다. 피톤치드는 병원균·해충·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분비하는 물질로,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흡입하면 장과 심폐기능이 활발해지고 좋아진다. 1주일에 한번만 찾아도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아토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각종 증세에 좋다고 한다. 실제 실험에서도 편백숲을 2시간 걸은 직장인의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졌다.<br/><br/><br/><br/>루체른에서도 혼자는 외로워<br/><br/>나 혼자 산다(문화방송 밤 11시5분) 출연자들이 여행을 떠난다. 노홍철은 스위스로 갔다. 패러글라이딩을 한 뒤 루체른의 명물 벼룩시장을 찾았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상인들과 가격 흥정을 한다. 혼자 특별한 저녁을 먹겠다며 정장을 차려입고 레스토랑에 간다. 혼자만의 우아한 시간도 잠시, 레스토랑을 가득 메운 다정한 연인을 보며 다시 외로움에 몸부림친다. 미래의 아내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긴다. 전 출연자가 함께 캠핑장에서 회포를 푼다. 인맥을 동원해 여자 연예인을 초대한다. 탤런트 백진희와 유인나, 가수 아이유와 씨스타의 소유에게 전화를 걸지만 모두 난색을 표했다는데 과연 누가 왔을까. <br/><br/><br/><br/>‘음모 공포증’ 제리의 고군분투<br/><br/>명화극장 <컨스피러시>(한국방송1 밤 12시10분) 1997년에 제작한 리처드 도너 감독의 미국 영화.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다. 음모의 희생양인 주인공이 추악한 진실을 밝히려고 고군분투한다. 제리 플레처(멜 깁슨)는 음모설에 대해 떠들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택시기사다. 알 수 없는 과거의 폭력에 상처받은 듯 냉장고의 주스에도 자물쇠를 채워놓을 정도로 음모 공포증에 시달린다. 그는 승객들에게 베트남 전쟁, 우주선 발사와 지진의 연관관계 등 갖가지 음모를 늘어놓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줄리아 로버츠는 제리의 주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변호사 앨리스 서턴을 연기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7.txt

제목: [특별기고]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말자 / 홍세화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910014567397  
본문: 나만의 일일까, 이제는 신문 지상이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들의 표정을 보는 일조차 식상하다. 인사청문회 덕일까, 전횡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후보자들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말지어지는 스펙터클을 멈출 날은 언제쯤 올까?<br/><br/> “<span class='quot0'>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span>”<br/><br/> 귀국하기 전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나?”라는 내 물음에 대한, 프랑스의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한 교수의 거침없는 대답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반역사적 역사관을 드러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때문만이 아니다. 강자의 논리에 기댄 그의 언설은 6만여 조합원 중에서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와 힘의 논리만을 따른다는 점에서 같은 뿌리에 있다. 국제적인 보편규범을 모른 체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노동 탄압에 앞장서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운운하니 할 말을 잃게 된다.<br/><br/> 우리가 기억투쟁을 게을리해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잊기 때문인데, 후보 시절 “<span class='quot1'>증세하여 재원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냐?</span>”라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span class='quot1'>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span>”라고 응수했던, 그리고 당선에 성공한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게 규제에 대한 적개심이다. 그에게 모든 규제가 암 덩어리에 불과하듯이, 이 땅의 사회귀족이 되기 위한 일차적 조건은 절제를 저 멀리 내던지는 데 있다. 탐욕의 추구, 경쟁과 효율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신의 구현이다. 자본에게 그것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뜻한다면, 개인에게 그것은 “명리는 나에게, 책임과 윤리는 개에게나”라고 할 만하다.<br/><br/> 그리하여, 자본의 끝없는 이윤 추구를 위해 구성원들의 안전을 비롯한 공공성의 요구로 사회에 적용돼온 규제를 없애야 하듯이, 입신출세를 목표로 하는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져야 할 덕목의 하나인 절제를 버려야 한다. 2기 박근혜 정부를 구성할 새 총리와 교육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교육수석 내정자를 비롯한 인물들에게서 예외 없이 드러나는 뻔뻔스러움이나 구림은 우리 사회에서 절제의 미덕이 사라졌음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실상,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웃는 표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두려운 진실을, 또 이 땅에 사회귀족 체제가 그만큼 견고해졌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들의 특징은 사회 각 부문에서 군림하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다는 점이다.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려도 계속 찍어주고 지지해주고 선망하고 따르는데 왜 그런 거추장스런 의무를 스스로 지겠는가.<br/><br/> 동양에서 미덕의 하나로 존중되었던 절제는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이 절제는 세 방향에서 작용한다. 각자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되는 자기절제, 상호 견제와 비판에 의해 작용하는 절제, 그리고 민중의 비판력으로부터 작용하는 절제가 그것이다. 가장 고급한 자기절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령 언론이 정치권력을 비판하거나 학문이 언론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행위자들에게 절제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횡적 견제에 의한 절제라면, 투표 등의 행위를 통하여 당선 또는 낙선시킴으로써 위정자들에게 절제하도록 작용하는 것을 민중의 비판력에 의한 절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방향의 절제는 따로 작용한다기보다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한다. “<span class='quot0'>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부 없다</span>”는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중의 비판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여기서도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기계적으로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경구는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의 무지와 무관심이 결코 중립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br/><br/>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가로채고 연구비를 착복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횡행하는 현실은 약자의 몫을 빼앗는 갑을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허탈감마저 안겨준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짚어야 할 점은 그들에게서 절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게 그들만의 탓이라기보다 사회부문 간 횡적 견제와 특히 민중의 비판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온 귀결이라는 사실이다. 행정, 사법, 언론, 기업, 학문, 종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횡적 견제는 사회귀족들 사이의 유착과,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로 힘을 잃은 지 오래다. 상호 비판이나 견제가 이루어지는 대신 부패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신처럼 부패한 사람과 “우리가 남이가”라면서 동패를 이루면서 청렴한 사람을 멀리하거나 조직에서 내쫓는 데 힘을 모은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셤의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은 그 무엇보다 민중의 비판력이 취약하다는 서글픈 진실의 반영물인 것이다. 권력이든 자본이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때(루소가 일찍이 말했듯이, 민중은 4년이나 5년 중에 투표하는 하루만 자유롭다), 없는 사람이 기득권 세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오히려 걱정해준다면 왜 그들이 절제의 미덕을 가지겠는가.<br/><br/> 한편, 우리는 염치나 절제 없이 명리만을 좇은 인물을 비난할 줄 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되기를 스스로 거부한 것일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일까? 사회 안에 절제의 미덕이 살아 숨쉬지 않을 때, 나만큼은 절제를 지킬 것이라는 확신은 대개 절제할 거리나 기회조차 없는 사람의 몫일 가능성이 크다.<br/><br/> 따라서 관건은 사회 환경과 세력관계에 있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이다. 이 점을 주류 지배세력이 더 잘 알고 있다. 조선, 동아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전교조를 부정하고 붉은 색깔을 입혀 깎아내리는 데 부심해온 점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에 큰일이나 난 듯이 호들갑을 떨며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세력관계 형성에서 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던 세력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br/><br/> 아! 이 글을 쓰는 중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니… 이 땅에서 노동의 권리는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br/><br/>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금 절감한다. 하지만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말자.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의 하나는 개탄하는 것으로 자신의 윤리적 우월감을 확인하면서 자기만족에 머무르는 데 있다. 실상 세상이 혐오스럽다고 개탄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개탄을 넘어 분노할 줄 알아야 하고 분노를 넘어 참여하고 연대하고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기존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설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모두 설득하기를 포기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다시금 되새기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다. <br/><br/>홍세화 <말과 활> 공동발행인 <br/><br/><br/><br/>조희연·이재정·이청연 교육감 '교육 변화의 열망'을 나누다 [한겨레담 특집]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8.txt

제목: 교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없으면 교육 개혁 없다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910014568727  
본문: 인문학 르네상스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는 1학년 정원 35명 중에서 6개의 자리를 특별히 대안학교 출신의 학생들에게 수능점수에 관계없이 배당한다고 한다. 처음에 3명만 받았다가 그들의 성적이 너무 우수하고 또 인간적으로 성숙되어 있어 6명으로 늘렸는데, 이들의 존재는 과의 면학 분위기를 놀랍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한다. 자유로운 사색과 억압받지 않는 삶, 그리고 목전의 당면한 성취 스트레스에 오염되지 않은 여유로움을 지닌 어린 생령의 정신능력이 철학을 공부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한 토양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br/><br/>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입학 내규가 국립대학 과 교수들 자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혁명은 바로 이렇게 로칼하고도 자율적인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중·고교의 현실태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좋은 사례로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성공회대학교에도 대안학교·혁신학교 출신들을 따로 배려하는 입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엄선된 대안학교·혁신학교 출신의 우수학생들을 대학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br/><br/> <br/><br/>나는 앞서 시민의 제1의 덕성을 자유 아닌 “코오퍼레이션”(cooperation)이라는 영어단어를 써서 말했는데, 그것을 “협동”이라 번역하지 않고 “협력”이라고 번역했다. 협동이라는 단어는 전체우선주의에 의하여 개체가 말살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협력”이란 대등한 개체 간의 협조양식을 의미한다. 민주는 법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도 우리 인생이란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했고, 사회질서를 법으로 유지하게 되면 민중이 피하는 것만 배우고 염치를 상실한다고 했다(民免而無恥). 민주는 인간개체 내면의 덕성의 공통분모가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다.<br/><br/> 여기 협력과 대극점에 있는 “자유”라는 말은 “freedom”의 번역술어이다. “自由”라는 단어는 선진문헌에는 나오지 않는다. “freedom”은 “free”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인데, “free”는 반드시 “from”이라는 전치사를 수반한다. 자유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반드시 “……로부터의 자유”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절대적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란 결국 억압으로부터 풀려날 때 느끼는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다. 이러한 일시적 느낌을 인생의 지고의 목표로 삼거나, 보편교육 즉 대중교육의 주제로 삼을 수는 없다.<br/><br/> 인간은 자유에 탐닉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파멸을 가져오게 되거나, 향유하던 자유를 헌납하게 된다. 이 자유의 헌납이 인간이 사악한 종교에 굴종하게 되는 이유다. 인류가 자유를 처음으로 흠뻑 누리게 된 20세기 벽두에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창궐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br/><br/>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는 일시적인 느낌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는가? 물론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 어떻게? 존재모드를 자유에서 “자율”로 전환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자율(自律)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규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인간은 욕망의 주체이다. 욕망은 공생의 진리를 부정하는 강렬한 유혹성을 가지고 있다. 사적인 욕망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법정 스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 우리의 존재모드를 소유모드에서 무소유모드로 전환하는 것, 이 전환을 나는 “협력”(cooperation)이라고 부른 것이다.<br/><br/><br/><br/>교육의 주체는 학생 아니라 <span class='quot0'>교사</span> <br/><span class='quot0'>교사</span> 존엄성과 학교 면학분위기 위해 <br/>다섯 가지 테제를 제시한다 <br/>첫째 <span class='quot0'>교사</span>가 커리큘럼 조정하고 <br/>주체적으로 시험 내어 자기가 채점 <br/>둘째 체벌의 권한 <br/>셋째 학부형 개입의 차단 <br/>넷째 교장·교감 평가기준을 조정해 <br/><span class='quot0'>교사</span> 창의적 교육에 대한 기여도 반영 <br/>다섯째 교육청 비리 척결<br/><br/> <br/><br/>칸트는 이 자율의 궁극적 원리를 나의 주관적 의지의 격률이 항상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같이 지킬 수 있는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한다고 하는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두었다. 그리고 인간은 수단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적의 왕국에서 같이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교육 즉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피교육자인 학생을 입시나 여타 사회적 경쟁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자체의 인격을 목적의 왕국에 안치하는 것이다.<br/><br/> 그런데 이러한 진보교육의 원리가 왕왕 서구적 시장중심주의적 자유주의와 혼효되고 있다는 것을 나의 공부이론과 협력이론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이란 인간 존재의 소유모드를 근원적으로 단절시키는 “무아”(無我, anātman)의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유란 쉬운 것이나 자율이란 어려운 것이다. 자율이란 반드시 “교육”을 통하여 달성되는 “교양”이며 이 교양의 집합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civilization”이라는 단어는 “civilized”(교양 있다)라는 단어와 상통하며, 시민(civitas)이라는 말과도 어원이 상통한다. 시민, 교양, 문명, 협력, 무아가 결국 동일한 가치관의 내재적 맥락을 갖는 것이다.<br/><br/> 그런데 진보주의교육이 왕왕 자유주의로 오해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상의 테제로 삼는 성향이 있다. 개체지상주의는 결국 방종으로 귀결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 미국 교육철학의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그의 리버랄리즘적 교육관의 계승자들이 시행한 교육방법론의 파탄은 미국의 공교육을 망쳐버리고 미국 사회를 근원적으로 해체시키는 데 공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br/><br/> <br/><br/>듀이 철학이 역동적 과정을 중시하지만, 교육이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신화적 예찬에만 머물게 되면 아무런 목표설정이나 “휴먼빌딩”의 결실이 부재하게 된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초창기의 대안학교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던 제1의 이유였다. 어설프게 혁신교육을 외치는 자들이 흔히 말한다: 학생은 온전한 개체이므로 그 온전한 개체의 가능성이 스스로 발현되도록 돕는 것이 <span class='quot0'>교사</span>의 임무이다. 말인즉 매우 근사하게 들린다. 그러나 학생의 현실태는 온전한 개체가 아니다. 학생은 교육받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것이다. 목가적인 에밀(Émile)의 체험을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온전한 개체라는 것은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설정의 이데아티푸스적 좌표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학생의 현실태일 수는 없다.<br/><br/> 맹자도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 했고, 나는 성인과 동류(同類)라고 말했다. 그리고 왕양명의 제자들은 “길거리에 가득찬 것이 모두 성인이다”(滿街人都是聖人)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19세기 조선의 유자 최한기(崔漢綺, 1804~1877)의 말대로, 인간의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현실태의 승인은 아니다. 인간은 교육되어야 한다. 혁신학교의 자발성은 교육적 계기의 효율적 방법론을 말한 것이지 자발성 그 자체에 절대적 가치를 두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무아적 자기규율의 난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력하는 인간”(homo cooperativus)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br/><br/> 이러한 교육의 수행자가 바로 “<span class='quot0'>교사</span>”이다. 모든 낭만주의 교육, 열린 교육, 자유 교육의 낭패는 바로 <span class='quot0'>교사</span>와 학생을 완벽하게 평등한 개체로 설정하는 천진스러운 낙관주의에 있다. 나의 “공부론”은 이러한 낙관론을 거부한다. 모든 성공적인 대안학교·혁신학교는 자율적 규율성을 강조한다.<br/><br/> <br/><br/>프랑스가 인류의 인문주의세계에 자랑하는, 세계지성계를 선도한 위대한 사상가들을 배출한 걸출한 교육기관으로서 에꼴 노르말 쉬페리외르(École normale supérieure)라는 것이 있다. 앙리 베르그송, 에밀 뒤르껭, 사르트르, 보봐르, 메를로 퐁티, 알튀세르,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알랭 바디우 …… 이 셀 수 없는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한 교육기관에서 쏟아져 나왔다. 참으로 경이롭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프랑스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관이 고등학교 <span class='quot0'>교사</span>를 배출하기 위한 “사범학교”로서 출발한 기관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프랑스에서는 중·고등학교 <span class='quot0'>교사</span>도 “프로페쇠르”(professeur)라고 부른다. 에꼴 노르말을 거친 사람들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논문을 써서 대학으로 가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던 사람이 고등학교 <span class='quot0'>교사</span>를 택하여 전근가기도 한다. <span class='quot0'>교사</span>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다른 것이다.<br/><br/>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나는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제도와 <span class='quot0'>교사</span>임용고시제도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대학에 문리과 대학의 국문과, 물리학과와 사범대학의 국문과, 물리학과가 2원적 구조로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대학에서는 무전제의 순수학문을 전공하고, <span class='quot0'>교사</span>의 임용은 대학원 레벨의 고등교육기관의 심오한 훈도를 받은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허락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수준의 에꼴 노르말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 미래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br/><br/>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새 질서는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상황이므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육개선을 이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br/><br/> <br/><br/>교육의 주체는 <span class='quot0'>교사</span>이지 학생이 아니다. 학생은 피교육자이며, 입학하여 졸업하는 과객(過客)이다. 객(客)에 대하여 주(主)의 자리는 선생이 지키는 것이다. 학교의 주체도 <span class='quot0'>교사</span>이지 교장·교감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교육개혁의 주체도 결국 <span class='quot0'>교사</span>이다. <span class='quot0'>교사</span>는 교육의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span class='quot0'>교사</span>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교육개혁을 실현할 수 없다. 교육개혁이란 결국 <span class='quot0'>교사</span>가 학생들의 교육 그 자체에 헌신할 수 있는 존귀함의 입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학교를 학부형이 좌지우지하고 <span class='quot0'>교사</span>는 그 하수인인 꼴, 교장·교감은 교육청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달하며 <span class='quot0'>교사</span>를 닦달하고 있는 꼴, 이것은 도무지 한참 잘못된 판국이다. <여씨춘추> 「존사」(尊師)편에는 중국의 모든 고래 성인이 스승을 존귀하게 섬기지 않은 자가 없었다(未有不尊師者也)고 말한다. 스승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br/><br/> 나는 <span class='quot0'>교사</span>의 존엄성과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현실적 개선방향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테제를 제시한다. 첫째, <span class='quot0'>교사</span>는 교육의 커리큘럼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주체적으로 시험문제를 내고 자기가 채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개성있는 교육이 가능해지는 첩경이다. 수학자·물리학자로서 20세기의 가장 완정한 형이상학적 우주론을 수립한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는 <span class='quot0'>교사</span>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의 교과과정을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상황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문·과학교육의 기본여건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입시교육의 전체주의적 엄격성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span class='quot0'>교사</span>에게 허락하지 않는다.<br/><br/> 둘째, <span class='quot0'>교사</span>에게는 체벌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span class='quot0'>교사</span>가 체벌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법규적으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인 것이다. 요즈음처럼 민주화된 사회에서 <span class='quot0'>교사</span>가 체벌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체벌의 어려움을 감내할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공부는 몸의 공부이며 교육은 몸의 교육이다. 말의 한계를 느낄 때 각성의 계기로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은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단지 체벌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감정의 표출이 아니며 객관화된 제식(objectified ritual)이라는 것, 그리고 신체적 상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체벌에 관해서는 학생들과의 자율적 약속의 전제가 있으면 그만이며, 시나 고전 구절을 외우게 한다든가 운동장을 몇 바퀴 뛰게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이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br/><br/> 셋째, 학부형이 학교에 항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학부형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는 전반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학생의 본질적 인권이 훼손당하는 중대사 이외로, 점수나 학교행정상의 사소한 문제에 학부형이 개입하는 행위는 차단되어야 마땅하다.<br/><br/> 넷째, 교감·교장의 평가기준이 <span class='quot0'>교사</span>들의 창의적인 교육적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현금의 교육개혁은 혁신학교 운운하기 전에 이미 교장 한 사람만이라도 위대한 인격체로서 <span class='quot0'>교사</span>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헌신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학교분위기의 많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장학사가 되기 위하여 일제식 관변주의사고의 악순환을 영속시키고 있는 교장의 행태는 정죄되어야 한다.<br/><br/> 다섯째, 교육청 자체 내의 수많은 비리가 깨끗이 척결되어야 한다.<br/><br/> <br/><br/>나와 대학동기인 이재정 교육감에게 나는 이런 말을 건넸다.<br/><br/> “<span class='quot0'>여보게, 혁신학교에서는 교장을 공모한다는데 내가 한번 응모해보면 어떨까?</span>”<br/><br/> 한참 생각해보더니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br/><br/> “<span class='quot0'>자격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당신은 나이가 많아 실격일 것 같구만.</span>”<br/><br/> 그래서 내가 말했다.<br/><br/> “그럼 한 3개월 공석을 메우는 기간제 <span class='quot0'>교사</span>를 신청해보면 어떨까?”<br/><br/> “그건 될 수 있겠는데. 암 되구말구!”<br/><br/>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중·고교 교육현장에서 내가 한 말들을 차분하게 검증하고, 새롭게 “교육함”을 배워가는 체험을 해보고 싶다. <span class='quot0'>교사</span>의 덕성은 <예기> 「학기」(學記)에 나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이 한마디! 「학기」는 말한다: “아름다운 요리가 앞에 있어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길이 없고, 지극한 도리가 앞에 있어도 배워보지 않으면 그 위대함을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배우고 난 연후에나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가르쳐 보고 난 연후에나 비로소 교육의 곤요로움을 깨닫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연후에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반성할 수 있고, 교육의 어려움을 깨달은 연후에 교육자는 자신의 실력을 보강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노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서로를 키운다!”<br/><br/>김용옥 철학자 <br/><br/><br/><br/> 도올의 교육 입국론 ① “진보교육감 13석, 노무현 당선보다 더 큰 의미” <br/><br/>도올의 교육 입국론 ② 공부란 몸, 그 인격 전체를 닦는 것이다 <br/><br/>도올의 교육 입국론 ③ 공교육 전체가 혁신학교 되면 대입이 저절로 바뀐다 조희연·이재정·이청연 교육감 '교육 변화의 열망'을 나누다 [한겨레담 특집]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69.txt

제목: ‘한국사회, 사회적 타살을 묻다’ 토론회 /급증하는 자살, 심리치료 앞서 예방적 복지 펼쳐야  
날짜: 2014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8100000113  
본문: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는 올해 초 “죄송합니다”를 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지난 5년간 ‘쌍용차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은 25명에 이른다. 이 죽음의 행렬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세 모녀나 쌍용차 해고자의 자살을 두고 단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이제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br/> 지난 13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이런 물음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열띤 토론이 있었다. 진보 성향 사회복지 학자들의 학술모임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회장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가 주최하고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가 후원한 ‘한국 사회, 사회적 타살을 묻다’란 제목의 토론회다. 실업과 저임금, 질병, 빈곤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요소에 의한 자살 등 이른바 ‘사회적 타살’의 의미를 경제·노동·보건복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살핀 토론회였다.<br/><br/> ■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았나 한국은 2004년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과 함께 한국인의 4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br/> 1995년 사망원인 9위에 있던 자살이 15년 만에 4위로 뛰어오른 까닭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백인립 연세대 교수는 개인심리적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를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며, 이런 사회적 타살은 98년 이후 급증한 실업, 저임금, 빈곤, 불평등 등 사회구조적 모순이 개인과 가정에 농축돼 나타난 결과로 진단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발생한 실업과 빈곤의 증가가 자살률 급증으로 표출되었다는 분석이다. 1995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0명 안팎에 머물렀지만, 2012년 현재 28.1명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한 데는 이런 구조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것이다.<br/> 특히 2000년대 들어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노령층의 자살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대 이상 노령층의 ‘자살충동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7.4%)과 질환(36.2%), 고독(11.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노인일수록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백 교수가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살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조사 결과, 노인 인구가 많은 강원·충남·충북의 노인자살률은 각각 35.7%, 41.9%, 34.9%로 서울(23.3%)이나 울산(16.7%)보다 크게 높았다. 백 교수는 “이들 지역은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징과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자살하는 노인도 함께 많아진다”고 설명했다.<br/> 잇따른 노동자들의 자살을 두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배제, 모욕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노동 강도와 업무 스트레스, 모욕적인 감정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이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있고 결국 자살로 이어지게 했다는 설명이다. 장 박사는 “<span class='quot0'>노동자들의 자살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경종</span>”이라고 말했다.<br/> ■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었던 바는 아니다. 정부는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제정했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br/> 문제는 ‘사회적 타살’을 단지 개인의 ‘심리 문제에 따른 자살’로만 규정하고, 우울증 등 정신보건 쪽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지선 성북구청 복지연계팀장은 “보건소 관계자들은 ‘자살을 줄이려면 우울증 약을 뿌리면 된다’고 한다. 정부의 대책은 치료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접해보니 많은 이들이 우울증으로 가기 전에 소외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다. 예방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명호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도 “<span class='quot1'>자살 직전에 개인이 극도의 우울감 등에 빠져 있긴 하지만, 국가가 이를 스트레스·정신과적 문제 등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span>”이라고 우려했다.<br/>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타살’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교성 중앙대 교수가 조사한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와 소득 10분위 배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득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자살자 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난폭한 기업이 불평등과 사회적 타살의 주요 용의자라는 설명이다.<br/> 이창근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국가가 해고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일은 교육과 의료지원이 아니고 더 나은 일자리라는 권고사안이 있다. 일자리는 단순 생계의 공간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공간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사회적 타살은 은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상지대 교수는 “빈곤한 사람에게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야 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외에 각 개인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 최혜정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br/> id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0.txt

제목: 전립선암 환자 ‘희망고문’ 언제까지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7100000136  
본문: 아버지는 3년 전 말기 전이성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다. 말기 전립선암 선고 뒤 아버지는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채로 2년간 호르몬 치료와 고환 제거 수술, 항암 치료를 받았다.<br/>　독한 약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과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불확실성으로 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삶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불안감과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셨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절망스러웠던 점은 힘든 치료 과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금방 내성이 생기고 혈액검사 수치는 내려가지 않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br/>　그러던 중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부작용도 거의 없고 치료 효과도 좋은 약이 있다며 복용을 권하셨다. 아버지와 우리는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마지막 선택이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다.<br/>　그동안의 치료가 너무 힘들었기에 이 약의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 반신반의했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약 복용을 시작한 뒤 그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떨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인 수준까지 내려갔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으셨던 아버지의 상태는 놀라울 만큼 나아지셨다. 3년 전 처음 말기 전립선암을 선고받았을 때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길어야 2년 이상 살기 힘들다고 했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하루하루 상태가 나아지고 계신다.<br/>　단 한가지 문제가 있다. 치료제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아버지 병간호와 치료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빚까지 졌지만 나아지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치료를 후회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값 때문에 당신 아들이 빚까지 진 것을 아시고는 죄책감에 치료를 포기하려 하신다.<br/>　이 약이 비싼 이유는 현재 이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은 한 달치 생활비를 쏟아부어도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약임에도, 왜 자꾸만 보험급여 결정이 연기되는지 이제는 궁금함을 넘어서 억울하고 화가 나기까지 한다.<br/>　답답한 마음에 정부기관 등 여기저기 문의를 해보아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약의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지고 얼마나 더 많은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br/>　다른 암 치료제들 중에선 보험급여가 되는 약제들이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안다. 전립선암 환자들은 영영 정책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불안감에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은 점점 엉망이 되어 고통의 연속이다. 보험급여가 곧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이 ‘희망고문’을 끝내고 싶다.<br/>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암 중 하나라고 한다.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말기 전립선암 환자들에겐 이 치료제가 유일한 대안이다. 환자들이 이렇게나 절실히 원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하루속히 이 약의 보험급여를 결정해 주시길 소망한다.<br/>정영재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1.txt

제목: 급증하는 자살, 심리치료 앞서 예방적 복지 펼쳐야  
날짜: 2014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710014545556  
본문: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는 올해 초 “죄송합니다”를 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지난 5년간 ‘쌍용차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은 25명에 이른다. 이 죽음의 행렬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세 모녀나 쌍용차 해고자의 자살을 두고 단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이제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br/><br/> 지난 13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이런 물음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열띤 토론이 있었다. 진보 성향 사회복지 학자들의 학술모임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회장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가 주최하고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가 후원한 ‘한국 사회, 사회적 타살을 묻다’란 제목의 토론회다. 실업과 저임금, 질병, 빈곤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요소에 의한 자살 등 이른바 ‘사회적 타살’의 의미를 경제·노동·보건복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살핀 토론회였다.<br/><br/><br/><br/> ■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았나 한국은 2004년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과 함께 한국인의 4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br/><br/> 1995년 사망원인 9위에 있던 자살이 15년 만에 4위로 뛰어오른 까닭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백인립 연세대 교수는 개인심리적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를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며, 이런 사회적 타살은 98년 이후 급증한 실업, 저임금, 빈곤, 불평등 등 사회구조적 모순이 개인과 가정에 농축돼 나타난 결과로 진단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발생한 실업과 빈곤의 증가가 자살률 급증으로 표출되었다는 분석이다. 1995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0명 안팎에 머물렀지만, 2012년 현재 28.1명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한 데는 이런 구조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것이다.<br/><br/><br/><br/>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br/>한국인 4대 사망원인에 꼽혀 <br/>실업·빈곤 등 사회경제 모순이 <br/>개인·가정에 농축돼 나온 결과 <br/><br/>2000년 들어 노령층 자살 급증 <br/>가난하고 외로울수록 벼랑끝에 <br/>정부 5개년 종합대책 내놨지만 <br/>정신보건쪽 치료에만 집중 잘못<br/><br/> 특히 2000년대 들어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노령층의 자살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대 이상 노령층의 ‘자살충동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7.4%)과 질환(36.2%), 고독(11.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노인일수록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백 교수가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살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조사 결과, 노인 인구가 많은 강원·충남·충북의 노인자살률은 각각 35.7%, 41.9%, 34.9%로 서울(23.3%)이나 울산(16.7%)보다 크게 높았다. 백 교수는 “이들 지역은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징과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자살하는 노인도 함께 많아진다”고 설명했다.<br/><br/> 잇따른 노동자들의 자살을 두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배제, 모욕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노동 강도와 업무 스트레스, 모욕적인 감정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이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있고 결국 자살로 이어지게 했다는 설명이다. 장 박사는 “<span class='quot0'>노동자들의 자살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경종</span>”이라고 말했다.<br/><br/> ■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었던 바는 아니다. 정부는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제정했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br/><br/> 문제는 ‘사회적 타살’을 단지 개인의 ‘심리 문제에 따른 자살’로만 규정하고, 우울증 등 정신보건 쪽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지선 성북구청 복지연계팀장은 “보건소 관계자들은 ‘자살을 줄이려면 우울증 약을 뿌리면 된다’고 한다. 정부의 대책은 치료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접해보니 많은 이들이 우울증으로 가기 전에 소외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다. 예방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명호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도 “<span class='quot1'>자살 직전에 개인이 극도의 우울감 등에 빠져 있긴 하지만, 국가가 이를 스트레스·정신과적 문제 등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span>”이라고 우려했다.<br/><br/>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타살’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교성 중앙대 교수가 조사한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와 소득 10분위 배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득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자살자 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난폭한 기업이 불평등과 사회적 타살의 주요 용의자라는 설명이다.<br/><br/> 이창근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국가가 해고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일은 교육과 의료지원이 아니고 더 나은 일자리라는 권고사안이 있다. 일자리는 단순 생계의 공간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공간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사회적 타살은 은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상지대 교수는 “빈곤한 사람에게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야 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외에 각 개인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 최혜정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id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2.txt

제목: [왜냐면] 전립선암 환자 ‘희망고문’ 언제까지 / 정영재  
날짜: 2014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610014535923  
본문: 아버지는 3년 전 말기 전이성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다. 말기 전립선암 선고 뒤 아버지는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채로 2년간 호르몬 치료와 고환 제거 수술, 항암 치료를 받았다.<br/><br/> 독한 약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과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불확실성으로 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삶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불안감과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셨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절망스러웠던 점은 힘든 치료 과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금방 내성이 생기고 혈액검사 수치는 내려가지 않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br/><br/> 그러던 중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부작용도 거의 없고 치료 효과도 좋은 약이 있다며 복용을 권하셨다. 아버지와 우리는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마지막 선택이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다.<br/><br/> 그동안의 치료가 너무 힘들었기에 이 약의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 반신반의했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약 복용을 시작한 뒤 그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떨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인 수준까지 내려갔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으셨던 아버지의 상태는 놀라울 만큼 나아지셨다. 3년 전 처음 말기 전립선암을 선고받았을 때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길어야 2년 이상 살기 힘들다고 했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하루하루 상태가 나아지고 계신다.<br/><br/> 단 한가지 문제가 있다. 치료제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아버지 병간호와 치료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빚까지 졌지만 나아지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치료를 후회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값 때문에 당신 아들이 빚까지 진 것을 아시고는 죄책감에 치료를 포기하려 하신다.<br/><br/> 이 약이 비싼 이유는 현재 이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은 한 달치 생활비를 쏟아부어도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약임에도, 왜 자꾸만 보험급여 결정이 연기되는지 이제는 궁금함을 넘어서 억울하고 화가 나기까지 한다.<br/><br/> 답답한 마음에 정부기관 등 여기저기 문의를 해보아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약의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지고 얼마나 더 많은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br/><br/> 다른 암 치료제들 중에선 보험급여가 되는 약제들이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안다. 전립선암 환자들은 영영 정책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불안감에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은 점점 엉망이 되어 고통의 연속이다. 보험급여가 곧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이 ‘희망고문’을 끝내고 싶다.<br/><br/>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암 중 하나라고 한다.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말기 전립선암 환자들에겐 이 치료제가 유일한 대안이다. 환자들이 이렇게나 절실히 원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하루속히 이 약의 보험급여를 결정해 주시길 소망한다. <br/><br/>정영재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3.txt

제목: ‘담배 피우면 빨리 늙는다’ 과학적 입증  
날짜: 20140612  
기자: /구대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2100000097  
본문: 담배를 피우면 빨리 늙는다는 속설이 사실일까.<br/>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현(45) 교수가 11일 20대 청년 가운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교조사를 통해 담배를 피우면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br/>　담배를 하루 평균 10개비 이하씩 3년 이상 피워온 24살 청년 20명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같은 나이의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다. 실험 결과를 보면, 흡연 청년들의 피 속에 있는 ‘고밀도지단백질’(HDL)에서 비흡연 청년들에 견줘 산화 및 당화 현상이 현저하게 많이 일어나면서 피부 세포 노화가 진행됐다. 그동안 흡연이 암과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켜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왔지만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br/>　고밀도지단백질은 피 속 불순물을 간으로 옮기는 구실을 한다. 고밀도지단백질의 수치가 높아야 혈관이 깨끗해지며, 40㎎/㎗ 이하로 떨어지면 심근경색 등이 나타날 수 있다. <br/>　흡연 청년들은 나이는 20대 초반이지만 젊음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고밀도지단백질의 크기가 감소했고, 이 단백질이 부서지고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형은 70대 노인의 혈청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비슷한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자의 고밀도지단백질 변형은 피부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고 동맥경화와 당뇨 등 혈관 질환의 가능성도 높였다.<br/>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흔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만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루 10개비 이하를 피우는 20대 청년들마저 피부 노화와 당뇨, 심근경색 등을 일으킬 만큼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2014년 5월호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br/>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4.txt

제목: ‘담배 피우면 빨리 늙는다’ 과학적 입증  
날짜: 2014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110014504815  
본문: 담배를 피우면 빨리 늙는다는 속설이 사실일까.<br/><br/>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현(45) 교수가 11일 20대 청년 가운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교조사를 통해 담배를 피우면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br/><br/> 담배를 하루 평균 10개비 이하씩 3년 이상 피워온 24살 청년 20명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같은 나이의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다. 실험 결과를 보면, 흡연 청년들의 피 속에 있는 ‘고밀도지단백질’(HDL)에서 비흡연 청년들에 견줘 산화 및 당화 현상이 현저하게 많이 일어나면서 피부 세포 노화가 진행됐다. 그동안 흡연이 암과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켜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왔지만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br/><br/> 고밀도지단백질은 피 속 불순물을 간으로 옮기는 구실을 한다. 고밀도지단백질의 수치가 높아야 혈관이 깨끗해지며, 40㎎/㎗ 이하로 떨어지면 심근경색 등이 나타날 수 있다. <br/><br/> 흡연 청년들은 나이는 20대 초반이지만 젊음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고밀도지단백질의 크기가 감소했고, 이 단백질이 부서지고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형은 70대 노인의 혈청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비슷한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자의 고밀도지단백질 변형은 피부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고 동맥경화와 당뇨 등 혈관 질환의 가능성도 높였다.<br/><br/>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흔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만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루 10개비 이하를 피우는 20대 청년들마저 피부 노화와 당뇨, 심근경색 등을 일으킬 만큼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독성과학저널> 2014년 5월호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br/><br/>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5.txt

제목: 보건감이 있었다면  
날짜: 20140611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1100000084  
본문: 지난주 6·4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등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크게 놀란 결과가 있었다. 바로 교육감 선출 결과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이다. 여론의 반응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났듯이 학생의 안전이나 생명은 소홀히 하고 오로지 대학입시에만 매달려온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가 투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br/>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은 당명을 걸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이나 생명 등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을 가진 이들을 뽑는다는 것이다. 부산이나 인천, 경기 등 보수 쪽 시도지사가 선출된 곳에서도 진보 정책을 가진 교육감이 선출됐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br/>　교육의 영역에선 정쟁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권자들이 엇비슷한 사고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　교육과 함께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보건의료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 나라의 밝은 미래가 있듯이, 보건의료가 잘 받쳐줘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과 의료 모두가 민간 중심이라 공공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 학교는 민간 대 공공의 비율이 8 대 2로 압도적인데 병원은 9 대 1로, 교육보다 의료가 더 민간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교육감보다는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쉽게 동의하게 된다.<br/>　만약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처럼 보건감(이름은 제대로 지어야겠지만)을 별도로 뽑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프면 질병의 원인부터 설명해주고 무조건 약이나 검사를 처방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나의 의사인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후보를 뽑았을 것이다. 또 암 등 중병에 걸리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무조건 달려가지 않고, 각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나왔을 것이다. 물론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을 것이다.<br/>　이런 정책 이전에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고 보건의료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각종 정책들이 발을 못 붙일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보건감이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반대로 공공병원을 더 짓겠다고 공약했을 것이다. 또 인천시나 제주시 보건감은 돈 좀 벌겠다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크게 올릴 영리병원을 짓겠는가? 이밖에도 지역별로 운동 실천율, 흡연율, 올바른 식사 실천율 등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사망률도 차이가 나는 현실을 두고만 봤을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불평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건감이 발벗고 나섰을 것이다.<br/>　원래 보건의료 정책은 당파성에 관계없이 입장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했다. 지금처럼 지역색으로 무장된 당명을 걸지 않고 교육감처럼 보건감을 뽑는다면 자본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후보가 당선된다.<br/>　보건감에 대해 다소 엉뚱한 상상이라는 비판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겠는가? 새누리당에서는 교육감 선거마저 없애자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서는 교육감에 더해 보건감을 뽑게 되길 기대해본다. <br/>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6.txt

제목: 4~5인 병실도 9월부터 건보 적용  
날짜: 20140610  
기자: 최성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0100000068  
본문: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쪽이 모두 내던 4~5인 병실 입원료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br/>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건강보험이 환자 입원료의 70~80%를 대신 내주는 ‘일반 병상’의 범위를 기존 6인실에서 4~6인실로 넓힌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이 10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1일부터 적용된다.<br/>　정부 입법예고안을 보면 그동안 하루 4만2000~11만1000원의 입원료(상급종합병원 기준)를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입원 환자는 앞으로 하루 입원료의 20%만 내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본인 부담액은 이보다 적은 5~10%다. 다만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을 뺀 상급종합병원(전국 43개) 4인실에 입원하면 본인 부담액이 30%로 올라간다.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4~5인실 입원료 본인 부담액은 1만2700~2만3450원이 될 전망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7.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보건감이 있었다면 / 김양중  
날짜: 2014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1010014495243  
본문: 지난주 6·4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등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크게 놀란 결과가 있었다. 바로 교육감 선출 결과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이다. 여론의 반응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났듯이 학생의 안전이나 생명은 소홀히 하고 오로지 대학입시에만 매달려온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가 투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br/><br/>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은 당명을 걸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이나 생명 등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을 가진 이들을 뽑는다는 것이다. 부산이나 인천, 경기 등 보수 쪽 시도지사가 선출된 곳에서도 진보 정책을 가진 교육감이 선출됐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br/><br/> 교육의 영역에선 정쟁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권자들이 엇비슷한 사고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br/> 교육과 함께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보건의료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 나라의 밝은 미래가 있듯이, 보건의료가 잘 받쳐줘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과 의료 모두가 민간 중심이라 공공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 학교는 민간 대 공공의 비율이 8 대 2로 압도적인데 병원은 9 대 1로, 교육보다 의료가 더 민간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교육감보다는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쉽게 동의하게 된다.<br/><br/> 만약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처럼 보건감(이름은 제대로 지어야겠지만)을 별도로 뽑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프면 질병의 원인부터 설명해주고 무조건 약이나 검사를 처방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나의 의사인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후보를 뽑았을 것이다. 또 암 등 중병에 걸리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무조건 달려가지 않고, 각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나왔을 것이다. 물론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을 것이다.<br/><br/> 이런 정책 이전에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고 보건의료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각종 정책들이 발을 못 붙일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보건감이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반대로 공공병원을 더 짓겠다고 공약했을 것이다. 또 인천시나 제주시 보건감은 돈 좀 벌겠다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크게 올릴 영리병원을 짓겠는가? 이밖에도 지역별로 운동 실천율, 흡연율, 올바른 식사 실천율 등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사망률도 차이가 나는 현실을 두고만 봤을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불평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건감이 발벗고 나섰을 것이다.<br/><br/> 원래 보건의료 정책은 당파성에 관계없이 입장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했다. 지금처럼 지역색으로 무장된 당명을 걸지 않고 교육감처럼 보건감을 뽑는다면 자본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후보가 당선된다.<br/><br/> 보건감에 대해 다소 엉뚱한 상상이라는 비판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겠는가? 새누리당에서는 교육감 선거마저 없애자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서는 교육감에 더해 보건감을 뽑게 되길 기대해본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8.txt

제목: 4~5인 병실도 9월부터 건보 적용  
날짜: 2014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0910014486428  
본문: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쪽이 모두 내던 4~5인 병실 입원료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br/><br/>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건강보험이 환자 입원료의 70~80%를 대신 내주는 ‘일반 병상’의 범위를 기존 6인실에서 4~6인실로 넓힌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이 10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1일부터 적용된다.<br/><br/> 정부 입법예고안을 보면 그동안 하루 4만2000원~11만1000원의 입원료(상급종합병원 기준)를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입원 환자는 앞으로 하루 입원료의 20%만 내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본인 부담액은 이보다 적은 5~10%다. 다만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을 뺀 상급종합병원(전국 43개) 4인실에 입원하면 본인 부담액이 30%로 올라간다.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4~5인실 입원료 본인 부담액은 1만2700원~2만3450원이 될 전망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79.txt

제목: 국가 개조? 당신만 바뀌면 됩니다  
날짜: 2014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0910014484000  
본문: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61<br/><br/>6·4지방선거 이후 쏟아져 나온 충고는 이렇게 압축됩니다. ‘남의 말을 들어라.’ ‘혼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 요컨대 당신부터 바뀌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세월호 참사’ 초기 ‘대통령은 열심히 잘 하는데,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딸랑대던 언론들마저, 이제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br/><br/>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하지 못하는 말도 있습니다. 당신의 ‘무지’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 지식은 물론 상식에도 무지하고, 세상 물정에도 무지하고, 인간관계에도 무지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감정에도 무지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조차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무지하면서도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br/><br/>물론 뛰어나게 밝은 것도 있습니다. ‘권력형 인간의 생리’입니다. 오로지 생식만 하는 여왕벌 옆에 본능적으로 꼬이는 수벌과 같은 인간들의 생리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 땅의 사람들을 그런 수벌이거나 아니면 오로지 순종하고 일만 하는 일벌로 간주해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그렇지 않은 부류들 때문이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을 수벌형 혹은 일벌형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국가 개조의 정체일 겁니다.<br/><br/>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새 홍보수석에 윤두현씨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pan class='quot0'>윤 신임 수석은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 있는 사고를 발휘해온 분.</span>” “<span class='quot0'>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개조 작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했다.</span>” 균형감? 그는 후배 기자들이 취재한 비비케이(BBK) 조작 편지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과 당신의 수벌들이 아우성치는 국가 개조의 정체가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br/><br/>지방선거 이후 청와대발 ‘국가개조론’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민 대변인은 선거 결과가 나오자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span class='quot0'>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개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span>” 두 번째는 당신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튿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적폐를 바로잡아서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받아쓰기 전용 홍보수석 인사도 국가 개조 소통용이라고 했습니다. 똥이나 된장이나 국가 개조로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br/><br/>당신의 가장 기괴한 모습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말과 실제가 상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오른손이라면서 왼손을 내밀고, 준법을 말하면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고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리고, 경제 민주화를 말하고는 경제 독점을 강화하고, 불공정 관행 철폐를 말하면서 공정 관행마저 깨버리고, 복지를 말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파괴했죠. <br/><br/>당신의 국가 개조에 꼭 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적폐입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말이지요. 솔직히 말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대통령이 되고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적폐란 걸 알았습니다. ‘침몰 사건’을 ‘참사’로 만들어버린 저 거대한 무능을 저에게서 확인하고서야 적폐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무지했으면 그랬겠습니다. 사고가 참사로 된 것은 이 정부의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적폐 탓으로 돌렸으니, 이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br/><br/>게다가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일갈하고, 없앨 수 없다면 다 내게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으면, 사고는 그 직후 터졌습니다. 그러고도 본인이 그런 적폐를 바로잡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은 무지와 비겁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br/><br/>이에 대해 눈 밝은 누군가는 ‘당신 자신이 적폐’라고 돌직구를 날리고, 누군가 신중한 이는 ‘당신이 적폐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적폐의 꼭대기에서 적폐의 덕을 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br/><br/>당신이 대통령이 된 것도 그 적폐 위에서였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경찰의 공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당신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계승돼온 정치공작의 적폐는 일등공신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정권을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도 바로 그 적폐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발언을 왜곡해 공개하는 공작이 없었다면 취임 후 1년을 어떻게 넘겼을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검찰총장의 사생활이나 뒤져 쫓아내는 따위의 정치 사찰의 적폐를 악용하지 않았다면, 나라는 이미 상당히 바로 세워졌을 겁니다. <br/><br/>하긴 그럴 만한 언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는 신파극 한 편으로, 과적이 아니라 적폐로 침몰하던 정부여당을 살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걱정이 앞설 겁니다. 비전이나 정책이 아니라 지질한 눈물로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치마말기를 부여잡고 있던 후보들이 뇌까리던 구호와 정책은 오로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박근혜를 지켜주세요’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개한 신생 국가도 아니고, 당신은 세월호 탑승객도 아니며 더군다나 당신은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선장과 같은 입장인데, 당신의 눈물부터 닦아주고, 당신부터 구해달라고요?<br/><br/>당신이 꿈꾸는 세상이란 게 그런 세상입니까. 그게 당신이 개조하고 싶은 대한민국입니까. 대부분 생산 현장을 떠난 노장년층들의 상실감과 소외감 그리고 공연한 분노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개조 말입니다. 눈물 몇 방울이면 영혼을 내놓고 주술에 걸리는 사람들, 당신의 말대로라면 그들 역시 오랜 ‘적폐’입니다.<br/><br/>드론이라고 있죠. 영어의 우리 말 뜻은 수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인폭격기, 무인정찰기 등 원격조종 되는 비행기를 두고 드론이라고 합니다. 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선악 판단도 없이, 조종자의 지시에 따라 살상을 하니까요. 드론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페르몬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드론으로는 쇄신이건 개조건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이만큼 발전시키고, 품격을 갖추게 한 것은 생식 본능, 권력욕으로만 가득찬 수벌이 아니라, 깨어있고 사고하고 고뇌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br/><br/>이런 아우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드론을 선택해왔고, 당신 주위엔 그런 수벌형 인간들로 득시글대고, 당신은 국민을 수벌이나 아니면 일벌로 만드는 걸 국가 개조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국무총리로 염두에 둔 사람들이 손사래 치는 건 바로 그런 변함없는 ‘박근혜 스타일’ 때문일 겁니다. <br/><br/>당신은 일전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동독의 몰락을 떠올리며 대북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독이 어떤 나라였는지 알고나 있었습니까? 시인 브레히트는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span class='quot0'>6월17일 인민봉기가 일어난 뒤/ 작가동맹 서기장은 스탈린가에서/ 전단을 돌리도록 했다./ 그 전단에는 인민들이/ 어리석게도 정부의 신뢰를 잃었으니,/ 이것은 오직 2배의 노동을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다고 씌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가 인민을 해산하고/ 다른 인민을 선출하는 것이/ 더욱 간단하지 않을까.</span>”(‘해결 방법’)<br/><br/>왜 국민을 바꾸려 합니까. 왜 국민을 괴롭힙니까. 당신만 바뀌면 되는데.<br/><br/>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br/><br/><br/><br/>표창원 “분노와 그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폭 넓게 가졌으면...” [한겨레담]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0.txt

제목: 뇌와 심장을 꺼내면…  
날짜: 20140607  
기자: 정민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07100000001  
본문: 세계의 3대 체육 행사를 꼽으라면, 여름 올림픽과 축구 월드컵을 먼저 꼽는다. 나머지 하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꼽는다. 겨울 올림픽, 육상 선수권대회, 포뮬러 원, 엑스포(다른 행사이지만)…. 세계의 3대 박물관을 꼽으라면, 대영 박물관(런던)과 루브르(파리)를 먼저 꼽는다. 나머지 하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꼽는다. 바티칸 박물관(로마), 에르미타주(예르미타시) 박물관(상트페테르부르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뉴욕), 고궁 박물원(타이베이)….<br/>　의사한테 사람 몸의 3대 기관을 꼽으라면, 뇌와 심장을 먼저 꼽는다. 나머지 하나는 의사마다 다르게 꼽는다. 허파, 간, 이자, 콩팥, 내분비샘, 골수…. 의사마다 자기가 다루는 기관을 꼽으려고 한다. 하여튼 이 기관을 모두 생명기관이라고 부른다. 크게 다치면 생명을 잃기 때문이다. 생명기관이 아닌 기관도 있는데, 보기를 들면 위이다. 수술로 위를 다 떼어내면, 밥을 조금씩 먹어야 하므로 힘들지만 생명을 잃지는 않는다.<br/>　생명기관의 대표는 역시 뇌와 심장이다. 뇌와 심장이 다쳐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특히 뇌와 심장에 분포하는 동맥 탓에 죽는 사람이 많다. 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 원인이다.<br/>　뇌는 몸무게의 2%뿐인데, 심장이 뿜어낸 혈액의 20%나 차지하는 욕심쟁이다. 숨을 안 쉬면 산소 없는 혈액이 온몸으로 퍼진다. 다른 기관은 웬만큼 견디는데, 뇌는 견디지 못해서 금방 다치고 따라서 생명을 잃는다. 숨을 안 쉬고 3분 동안 참을 수 있다고 치자. 뇌가 산소 없이 3분 동안 참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물고기 회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span class='quot0'>바다에서 잡으면 금방 죽는 물고기, 즉 뭍에서 활어로 먹기 어려운 물고기가 뇌와 비슷하구나.</span>”<br/>　뇌에 분포하는 뇌동맥은 잘 막히거나 터진다. 막히거나 터지면 그 뇌동맥이 퍼져 있는 뇌 부분이 다친다. 이런 병을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부른다. 뇌졸중은 ‘뇌에 졸지에 생긴 중풍’을 뜻한다. ‘증’으로 끝나는 병이 많아서 뇌졸증이라고 틀리게 적는 사람이 많은데, 뇌졸중이 맞다.<br/>　심장에 분포하는 심장동맥의 다른 이름은 관상동맥이다. 나는 옛날에 관상을 ‘대롱(管)처럼 생긴’이라고 잘못 알았다. “이상하다. 모든 동맥이 대롱처럼 생겼는데, 왜 이것만 관상동맥일까?” 알고 보니까 관상은 ‘왕관(冠)처럼 생긴’이었다. 나는 심장을 해부할 때마다 되새긴다. “아! 관상동맥의 줄기가 심장을 감싸는구나. 왕이 왕관을 쓴 것처럼 심장이 관상동맥을 썼구나.” 관상동맥은 심장에서 일어난 대동맥의 첫째 가지이다. “심장이 자기한테 필요한 혈액을 챙기고 나서, 나머지 혈액을 다른 기관한테 나누어 주는구나. 사람이 자기한테 필요한 돈을 챙기고 나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듯이 그렇구나.”<br/>　관상동맥은 터지지 않는 대신에 잘 막힌다. 막히면 그 관상동맥이 퍼져 있는 심장근육이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완전히 죽는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병이 협심증이고, 완전히 죽는 병이 심근경색증이다.<br/>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주로 고혈압 때문에 일어난다. 고혈압 환자한테 혼날 각오로 하는 말이다. “고혈압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준비하라는 고마운 신호이다. 교통사고처럼 준비하지 못한 채로 갑자기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죽기 싫으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려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은 살을 빼고 담배를 끊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많이 먹거나 담배를 피우면 즐겁다. 그런데 즐거운 만큼 일찍 죽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br/>　해부학 실습실에서 뇌를 해부하면 뇌졸중이 가끔 나타난다. 뇌동맥이 터져서 뇌가 피범벅인 시신도 있다. 심장을 해부하면 관상동맥에 넣은 내관(스텐트)이 때때로 나타난다. 그 시신의 사망 원인을 찾아보면 역시 심근경색증이다. 해부학 실습실 밖에 나와서 뚱뚱하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면, 뇌와 심장의 끔찍한 모습이 떠오른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한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으로 많이 죽는데, 저 사람은 죽을 것을 준비해 놨나? 저 사람의 가족도 이것저것을 준비해야 될 텐데.” <br/>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1.txt

제목: 뇌와 심장을 꺼내면…  
날짜: 2014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0610014474184  
본문: 세계의 3대 체육 행사를 꼽으라면, 여름 올림픽과 축구 월드컵을 먼저 꼽는다. 나머지 하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꼽는다. 겨울 올림픽, 육상 선수권대회, 포뮬러 원, 엑스포(다른 행사이지만)…. 세계의 3대 박물관을 꼽으라면, 대영 박물관(런던)과 루브르(파리)를 먼저 꼽는다. 나머지 하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꼽는다. 바티칸 박물관(로마), 에르미타주(예르미타시) 박물관(상트페테르부르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뉴욕), 고궁 박물원(타이베이)….<br/><br/> 의사한테 사람 몸의 3대 기관을 꼽으라면, 뇌와 심장을 먼저 꼽는다. 나머지 하나는 의사마다 다르게 꼽는다. 허파, 간, 이자, 콩팥, 내분비샘, 골수…. 의사마다 자기가 다루는 기관을 꼽으려고 한다. 하여튼 이 기관을 모두 생명기관이라고 부른다. 크게 다치면 생명을 잃기 때문이다. 생명기관이 아닌 기관도 있는데, 보기를 들면 위이다. 수술로 위를 다 떼어내면, 밥을 조금씩 먹어야 하므로 힘들지만 생명을 잃지는 않는다.<br/><br/> 생명기관의 대표는 역시 뇌와 심장이다. 뇌와 심장이 다쳐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특히 뇌와 심장에 분포하는 동맥 탓에 죽는 사람이 많다. 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 원인이다.<br/><br/> 뇌는 몸무게의 2%뿐인데, 심장이 뿜어낸 혈액의 20%나 차지하는 욕심쟁이다. 숨을 안 쉬면 산소 없는 혈액이 온몸으로 퍼진다. 다른 기관은 웬만큼 견디는데, 뇌는 견디지 못해서 금방 다치고 따라서 생명을 잃는다. 숨을 안 쉬고 3분 동안 참을 수 있다고 치자. 뇌가 산소 없이 3분 동안 참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물고기 회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span class='quot0'>바다에서 잡으면 금방 죽는 물고기, 즉 뭍에서 활어로 먹기 어려운 물고기가 뇌와 비슷하구나.</span>”<br/><br/> 뇌에 분포하는 뇌동맥은 잘 막히거나 터진다. 막히거나 터지면 그 뇌동맥이 퍼져 있는 뇌 부분이 다친다. 이런 병을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부른다. 뇌졸중은 ‘뇌에 졸지에 생긴 중풍’을 뜻한다. ‘증’으로 끝나는 병이 많아서 뇌졸증이라고 틀리게 적는 사람이 많은데, 뇌졸중이 맞다.<br/><br/> 심장에 분포하는 심장동맥의 다른 이름은 관상동맥이다. 나는 옛날에 관상을 ‘대롱(管)처럼 생긴’이라고 잘못 알았다. “이상하다. 모든 동맥이 대롱처럼 생겼는데, 왜 이것만 관상동맥일까?” 알고 보니까 관상은 ‘왕관(冠)처럼 생긴’이었다. 나는 심장을 해부할 때마다 되새긴다. “아! 관상동맥의 줄기가 심장을 감싸는구나. 왕이 왕관을 쓴 것처럼 심장이 관상동맥을 썼구나.” 관상동맥은 심장에서 일어난 대동맥의 첫째 가지이다. “심장이 자기한테 필요한 혈액을 챙기고 나서, 나머지 혈액을 다른 기관한테 나누어 주는구나. 사람이 자기한테 필요한 돈을 챙기고 나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듯이 그렇구나.”<br/><br/> 관상동맥은 터지지 않는 대신에 잘 막힌다. 막히면 그 관상동맥이 퍼져 있는 심장근육이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완전히 죽는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병이 협심증이고, 완전히 죽는 병이 심근경색증이다.<br/><br/>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주로 고혈압 때문에 일어난다. 고혈압 환자한테 혼날 각오로 하는 말이다. “고혈압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준비하라는 고마운 신호이다. 교통사고처럼 준비하지 못한 채로 갑자기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죽기 싫으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려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은 살을 빼고 담배를 끊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많이 먹거나 담배를 피우면 즐겁다. 그런데 즐거운 만큼 일찍 죽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br/><br/> 해부학 실습실에서 뇌를 해부하면 뇌졸중이 가끔 나타난다. 뇌동맥이 터져서 뇌가 피범벅인 시신도 있다. 심장을 해부하면 관상동맥에 넣은 내관(스텐트)이 때때로 나타난다. 그 시신의 사망 원인을 찾아보면 역시 심근경색증이다. 해부학 실습실 밖에 나와서 뚱뚱하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면, 뇌와 심장의 끔찍한 모습이 떠오른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한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으로 많이 죽는데, 저 사람은 죽을 것을 준비해 놨나? 저 사람의 가족도 이것저것을 준비해야 될 텐데.” <br/><br/>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2.txt

제목: 민주화운동 버팀목 ‘인쇄장이’의 한평생  
날짜: 20140605  
기자: 박임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05100000107  
본문: 평생 ‘인쇄장이’로서 민주화운동의 버팀목 구실을 한 고 강은기씨의 평전이 나왔다. (자유문고·사진)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 만에 발간됐다. <br/>　1942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강씨는 64년부터 서울 을지로 인쇄골목에서 인쇄공으로 일했다. 그는 박정희 유신체제가 출범하던 72년 세진인쇄를 차렸다. 그때부터 독재정권의 감시를 피해가며 각종 시국선언물, 광주항쟁 화보집, 재야단체 기관지와 소식지 등 ‘불온한 인쇄’를 도맡았다. 70·80년대 민주화 투쟁의 현장에는 늘 세진인쇄에서 찍은 인쇄물이 뿌려졌다. 민주화운동 인사들은 “<span class='quot0'>언론의 입이 닫혀 있던 그때 세진인쇄는 ‘민주화운동의 펜’이었다</span>”고 입을 모은다. <br/>　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형선고를 받은 뒤 제기한 ‘김재규 항소 이유서’를 인쇄해줬다는 이유로 80년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행·구속을 반복한 그는 서울시내에서 잡혀가 보지 않은 경찰서나 정보기관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그 시절 지인들에게 ‘송구영신’ 대신 ‘송군영민’(送軍迎民)이란 연하장을 늘 보냈다. 군사독재가 어서 물러가고 민주주의가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다. <br/>　그는 2002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 김근태 민주당 고문의 아내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그는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누구도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소명감으로 해낸 강단 있는 분이다. 수없이 많은 연행과 구속, 사업상 스트레스가 결국 암 발병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회상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도 “그의 헌신은 이 나라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것이다. 광기에 휘둘리던 이 땅을 민주세상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특이한 역할 분담을 자임했다. 독자들이 그를 기억하고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평전 저자인 김영일(56)씨는 강씨가 투병중인 2002년 병상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해두었다가, 최근 주변 인물 인터뷰 등을 보태 책으로 엮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인사 평전사업에 지난해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씨는 “강 선생은 민주화운동 인쇄물을 거의 모두 외상으로 찍어줬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미안한 마음을 제대로 갚지도 못했는데 저세상으로 떠나셨다. 책 제목에 ‘숨은 지사’를 넣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br/>　11일 저녁 6시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b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3.txt

제목: 민주화운동 버팀목 ‘인쇄장이’의 한평생  
날짜: 2014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0410014458323  
본문: 평생 ‘인쇄장이’로서 민주화운동의 버팀목 구실을 한 고 강은기씨의 평전이 나왔다. <민주화운동의 숨은 지사, 인쇄인 강은기 평전>(자유문고·사진)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 만에 발간됐다.<br/><br/> 1942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강씨는 64년부터 서울 을지로 인쇄골목에서 인쇄공으로 일했다. 그는 박정희 유신체제가 출범하던 72년 세진인쇄를 차렸다. 그때부터 독재정권의 감시를 피해가며 각종 시국선언물, 광주항쟁 화보집, 재야단체 기관지와 소식지 등 ‘불온한 인쇄’를 도맡았다. 70·80년대 민주화 투쟁의 현장에는 늘 세진인쇄에서 찍은 인쇄물이 뿌려졌다. 민주화운동 인사들은 “<span class='quot0'>언론의 입이 닫혀있던 그때 세진인쇄는 ‘민주화운동의 펜’이었다</span>”고 입을 모은다. <br/><br/> 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형선고를 받은 뒤 제기한 ‘김재규 항소 이유서’를 인쇄해줬다는 이유로 80년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행·구속을 반복한 그는 서울시내에서 잡혀가보지 않은 경찰서나 정보기관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그 시절 지인들에게 ‘송구영신’ 대신 ‘송군영민’(送軍迎民)이란 연하장을 늘 보냈다. 군사독재가 어서 물러가고 민주주의가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다. <br/><br/> 그는 2002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 김근태 민주당 고문의 아내 인재근 의원(새정치연합)은 “그는 엄혹한 군사독재시절 누구도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소명감으로 해낸 강단있는 분이다. 수없이 많은 연행과 구속, 사업상 스트레스가 결국 암 발병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회상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도 “그의 헌신은 이 나라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것이다. 광기에 휘둘리던 이땅을 민주세상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특이한 역할 분담을 자임했다. 독자들이 그를 기억하고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br/> 평전 저자인 김영일(56)씨는 강씨가 투병중인 2002년 병상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해두었다가, 최근 주변인물 인터뷰 등을 보태 책으로 엮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인사 평전사업에 지난해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씨는 “강 선생은 민주화운동 인쇄물을 거의 모두 외상으로 찍어줬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미안한 마음을 제대로 갚지도 못했는데 저 세상으로 떠나셨다. 책 제목에 ‘숨은 지사’를 넣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br/><br/> 1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회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br/><br/>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4.txt

제목: 새책  
날짜: 2014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02100000090  
본문: 내 인생의 데자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모은다고 책이 될까. 그것도 댓글까지. 답은 ‘된다’이다. 연세대 경영학과 76학번으로 군사독재 치하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공유상씨는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모아 책을 냈다. 솔직하고 수수한 글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 /동문통책방·1만5000원.<br/>비이성적 과열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의 2000년 저작. ‘닷컴 버블’을 경고한 이 책이 출간된 직후 실제로 버블이 붕괴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실러는 2005년 부동산 시장 붕괴도 전망했는데 이 또한 현실이 됐다. 이강국 옮김/알에이치코리아·1만8000원.<br/>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에 관한 50가지 질문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기독교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가?’ 유엔인간개발지수(UDI) 상위권을 차지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저널리스트 출신의 작가 가이 해리슨은 답한다. 정명진 옮김/엑스오북스·1만8000원.<br/>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사람들. 종교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평화주의 신념, 반군사주의 및 반국가주의 신념, 또는 소수자 운동, 인권운동, 생명사상 등의 맥락에서 군대를 거부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3명의 소견서. 2001년 이후 14년간의 기록들. 전쟁없는세상 엮음/포도밭·1만원.<br/>파테이 마토스 니체 연구자인 지은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한 투병일기이자 철학자로서 인간의 삶과 고통을 사유한 철학 에세이이기도 하다. 공부에만 파묻혀 살던 그는 암을 공부하며 스스로 자신의 주치의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백승영 지음/책세상·1만4000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5.txt

제목: 6월 2일 교양 새책  
날짜: 2014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60110014427580  
본문: 내 인생의 데자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모은다고 책이 될까. 그것도 댓글까지. 답은 ‘된다’이다. 연세대 경영학과 76학번으로 군사독재 치하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공유상씨는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모아 책을 냈다. 솔직하고 수수한 글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 /동문통책방·1만5000원. <br/><br/>비이성적 과열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의 2000년 저작. ‘닷컴 버블’을 경고한 이 책이 출간된 직후 실제로 버블이 붕괴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실러는 2005년 부동산 시장 붕괴도 전망했는데 이 또한 현실이 됐다. 이강국 옮김/알에이치코리아·1만8000원. <br/><br/>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에 관한 50가지 질문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기독교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가?’ 유엔인간개발지수(UDI) 상위권을 차지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저널리스트 출신의 작가 가이 해리슨은 답한다. 정명진 옮김/엑스오북스·1만8000원. <br/><br/>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사람들. 종교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평화주의 신념, 반군사주의 및 반국가주의 신념, 또는 소수자 운동, 인권운동, 생명사상 등의 맥락에서 군대를 거부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3명의 소견서. 2001년 이후 14년간의 기록들. 전쟁없는세상 엮음/포도밭·1만원. <br/><br/>파테이 마토스 니체 연구자인 지은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한 투병일기이자 철학자로서 인간의 삶과 고통을 사유한 철학 에세이이기도 하다. 공부에만 파묻혀 살던 그는 암을 공부하며 스스로 자신의 주치의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백승영 지음/책세상·1만4000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6.txt

제목: 30년전 ‘신의 형벌’이라는 편견과의 싸움 아직도…  
날짜: 201405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31100000064  
본문: 1981년, 파이어섬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파티를 즐기던 게이 한 명이 쓰러진다. 그는 곧 정신을 되찾지만 뉴욕으로 돌아온 뒤 급작스럽게 사망한다. 곧이어 또다른 게이들이 정체 모를 질병으로 정신을 잃어간다. 작가이자 게이인 네드 위크스(마크 러펄로)는 동성애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희귀 전염병을 연구 중이라는 의사 에마 브루크너(줄리아 로버츠)를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1980년대 에이즈 대위기의 시작이었다. <br/>　미국 케이블채널 (HBO)의 는 에이즈에 아직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던 시절, 괴질환의 공포와 정부의 외면에 저항해 싸우던 게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실제로 초기 에이즈 운동을 주도한 작가 래리 크레이머의 자전적 동명 희곡에 기초하고 있다. 토니상 3관왕에 빛나는 원작의 유명세에 더해 의 흥행술사 라이언 머피 연출, 마크 러펄로, 줄리아 로버츠, 맷 보머 등 호화 캐스팅 소식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br/>　시간적 배경은 극심한 에이즈 암흑기였던 1981년부터 1984년까지다. 에이즈 운동 선구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는 편견을 질병 위에 덧씌운 주류사회, 그리고 ‘세상이 우릴 보균자로 보고 억압할 것’이라며 무시하려 했던 게이 사회 양쪽과 갈등하던 시절이었다. 수많은 죽음에도 ‘게이의 암’이라며 철저히 방관한 레이건 정부가 마침내 에이즈라는 말을 처음 공식 언급한 1985년의 작은 성과마저 자막으로 처리됐을 정도다. <br/>　는 이 암울했던 시기의 치열한 싸움과 함께, 외롭게 죽어간 이들을 향한 애도에 초점을 맞춘다. 앞에서 투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네드의 분노 못지않게 뒤에서 묵묵히 게이들의 유언을 들어주는 토미(짐 파슨스)의 위로가 가슴을 울리는 것도 그래서다. 토미가 그들의 죽음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은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마저 거부해 몰래 화장되는 일이 빈번했던 게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추모였다.<br/>　네드와 펠릭스(맷 보머)의 로맨스가 애도의 드라마로 마무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의 사랑 이야기는 행복했던 시기보다 에이치아이브이(HIV)에 감염된 펠릭스의 긴 투병과 최후의 순간에 집중되어 있다. ‘울고, 더는 울 수 없을 때까지 울다가, 조금 더 울게 되는’ 시간들을 견디며 마지막까지 펠릭스의 곁을 지키는 네드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과 외면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수많은 게이들에 대한 못다 한 애도를 대신한다. <br/>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대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승인 취소 사건이 화제였다. 서울 서대문구청이 민원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한 행사 반대자들의 항의를 핑계로 개최 일주일 전에 승인을 취소한 사건이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확산될 것’이라는 반대자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아직 이곳은 에이즈가 신의 형벌이라 인식되던 속 시대의 편견으로부터 그리 멀리 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br/>김선영 티브이 칼럼니스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7.txt

제목: 암 확율 낮은수록 보험료 적게  
날짜: 2014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30100000073  
본문: 미래에셋생명은 ‘예방하자 암보험’ 상품을 내보였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의 암 건강체 할인을 내세웠다. 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 건강한 가입자일수록 적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다. <br/> 예를 들어 비흡연자는 3%,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한 여성의 경우 3%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모든 가입자는 암 예방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건강콘텐츠와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의 분류를 ‘백혈병, 뇌암, 골수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까지 총 7개 암으로 분류해 최대 1억원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8.txt

제목: 30년전 ‘신의 형벌’이라는 편견과의 싸움 아직도…  
날짜: 2014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3010014420035  
본문: 1981년, 파이어섬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파티를 즐기던 게이 한 명이 쓰러진다. 그는 곧 정신을 되찾지만 뉴욕으로 돌아온 뒤 급작스럽게 사망한다. 곧이어 또다른 게이들이 정체 모를 질병으로 정신을 잃어간다. 작가이자 게이인 네드 위크스(마크 러펄로)는 동성애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희귀 전염병을 연구 중이라는 의사 에마 브루크너(줄리아 로버츠)를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1980년대 에이즈 대위기의 시작이었다.<br/><br/> 미국 케이블채널 <에이치비오>(HBO)의 <노멀 하트>는 에이즈에 아직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던 시절, 괴질환의 공포와 정부의 외면에 저항해 싸우던 게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실제로 초기 에이즈 운동을 주도한 작가 래리 크레이머의 자전적 동명 희곡에 기초하고 있다. 토니상 3관왕에 빛나는 원작의 유명세에 더해 <글리>의 흥행술사 라이언 머피 연출, 마크 러펄로, 줄리아 로버츠, 맷 보머 등 호화 캐스팅 소식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br/><br/> 시간적 배경은 극심한 에이즈 암흑기였던 1981년부터 1984년까지다. 에이즈 운동 선구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는 편견을 질병 위에 덧씌운 주류사회, 그리고 ‘세상이 우릴 보균자로 보고 억압할 것’이라며 무시하려 했던 게이 사회 양쪽과 갈등하던 시절이었다. 수많은 죽음에도 ‘게이의 암’이라며 철저히 방관한 레이건 정부가 마침내 에이즈라는 말을 처음 공식 언급한 1985년의 작은 성과마저 자막으로 처리됐을 정도다. <br/><br/> <노멀 하트>는 이 암울했던 시기의 치열한 싸움과 함께, 외롭게 죽어간 이들을 향한 애도에 초점을 맞춘다. 앞에서 투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네드의 분노 못지않게 뒤에서 묵묵히 게이들의 유언을 들어주는 토미(짐 파슨스)의 위로가 가슴을 울리는 것도 그래서다. 토미가 그들의 죽음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은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마저 거부해 몰래 화장되는 일이 빈번했던 게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추모였다.<br/><br/> 네드와 펠릭스(맷 보머)의 로맨스가 애도의 드라마로 마무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의 사랑 이야기는 행복했던 시기보다 에이치아이브이(HIV)에 감염된 펠릭스의 긴 투병과 최후의 순간에 집중되어 있다. ‘울고, 더는 울 수 없을 때까지 울다가, 조금 더 울게 되는’ 시간들을 견디며 마지막까지 펠릭스의 곁을 지키는 네드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과 외면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수많은 게이들에 대한 못다 한 애도를 대신한다. <br/><br/>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대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승인 취소 사건이 화제였다. 서울 서대문구청이 민원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한 행사 반대자들의 항의를 핑계로 개최 일주일 전에 승인을 취소한 사건이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확산될 것’이라는 반대자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아직 이곳은 에이즈가 신의 형벌이라 인식되던 <노멀 하트> 속 시대의 편견으로부터 그리 멀리 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br/><br/>김선영 티브이 칼럼니스트 <br/><br/>김선영·서정민·이승한의 선택 2014, 무한도전·잉여싸롱의 리더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89.txt

제목: ‘한 말들이’ 세상을 바꿔야  
날짜: 2014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9100000063  
본문: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살아남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란 문구를 적어 전달했다고 한다. “<span class='quot0'>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span>”란 뜻이다. 놀랍다. 김기춘씨가 ‘선비’로 자처하는 것도 그렇고, ‘충성’의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임명권자라는 데 놀랍다. 마치 왕조국가 신하의 인식이다.<br/>　김기춘씨가 ‘선비’로 자처하는 것은 선비에 대한 모독이다. 자공(子貢)이 물었다. “<span class='quot0'>어떻게 하면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span>” 공자의 답이다. “<span class='quot0'>언제나 수치심을 가지고 자기의 언행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span>”(‘논어 자로’ 편) 민주공화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유신헌법의 기초자, 부산지역 기관장들에게 지역감정을 조장하라며 ‘우리가 남이가’를 서슴지 않는 언행의 그가 선비라서 놀랍다.<br/>　자공이 다시 물었다. “<span class='quot0'>그 다음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span>” 공자는 말한다. “<span class='quot0'>일가 친족들로부터 효자란 칭찬을 받고 온 고을 사람들로부터 우애롭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span>”<br/>　‘효자’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우애’는 아닌 것 같다. 입법·사법·행정부 수뇌부를 비롯하여 권력의 핵심부서장 대부분이 피케이(부산경남) 출신으로 채워진다. 그의 고향 사람들과만 우애하고 지역안배나 국민통합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물론 최종 인사권자의 책임이지만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왕실장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br/>　자공이 또 물었다. “<span class='quot0'>오늘날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span>” 공자는 정색을 하고 말한다. “아! 한 말들이밖에 안 되는 작은 기량을 가진 사람이야 논할 바 못 된다” ‘한 말들이’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은 공자의 시대만은 아닌 것 같다.<br/>　세월호 참사는 인재로 시작하여 관재로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다.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매도하고, ‘관피아’ 척결을 공언하면서 산하기관장에 줄줄이 낙하산을 투하하는 몰염치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예비하고 있다.<br/>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재가동, 그것도 이명박 관리들의 ‘원전비리’로 가득 찬 고리 1호기 수명 10년 연장 등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다. 세월호 참사는 300여명의 고귀한 인명을 잃었지만, 원전의 재난은 300만명 이상의 참사를 가져온다는데도 정녕 ‘한 말들이’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불안하다.<br/>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근혜’ 정권 역주행의 종합편이다. 국가기관이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정보기관이 간첩을 조작했다. 세계적 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4년도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68위로 지난해보다 네 단계나 추락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139개국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산출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최하위 5등급에 속한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국격과 선진화를 구호로 내건 위정자와 추종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사전과 국민이 보는 사전은 다른가?<br/>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 쓰레기’로 불리던 언론인들이 궐기하고 있다. 더 이상 청와대 나팔수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공영방송의 자율성 회복에 나섰다. 야당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선거가 제기능을 못하면 인재와 관재는 되풀이된다. ‘한 말들이’들이 국정을 전횡하게 놔두면 나라의 운명은 암담하다. 이런 의미에서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다.<br/>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0.txt

제목: [시론] ‘한 말들이’ 세상을 바꿔야 / 김삼웅  
날짜: 2014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810014396691  
본문: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살아남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란 문구를 적어 전달했다고 한다. “<span class='quot0'>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span>”란 뜻이다. 놀랍다. 김기춘씨가 ‘선비’로 자처하는 것도 그렇고, ‘충성’의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임명권자라는 데 놀랍다. 마치 왕조국가 신하의 인식이다.<br/><br/> 김기춘씨가 ‘선비’로 자처하는 것은 선비에 대한 모독이다. 자공(子貢)이 물었다. “<span class='quot0'>어떻게 하면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span>” 공자의 답이다. “<span class='quot0'>언제나 수치심을 가지고 자기의 언행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span>”(‘논어 자로’ 편) 민주공화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유신헌법의 기초자, 부산지역 기관장들에게 지역감정을 조장하라며 ‘우리가 남이가’를 서슴지 않는 언행의 그가 선비라서 놀랍다.<br/><br/> 자공이 다시 물었다. “<span class='quot0'>그 다음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span>” 공자는 말한다. “<span class='quot0'>일가 친족들로부터 효자란 칭찬을 받고 온 고을 사람들로부터 우애롭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span>”<br/><br/> ‘효자’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우애’는 아닌 것 같다. 입법·사법·행정부 수뇌부를 비롯하여 권력의 핵심부서장 대부분이 피케이(부산경남) 출신으로 채워진다. 그의 고향 사람들과만 우애하고 지역안배나 국민통합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물론 최종 인사권자의 책임이지만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왕실장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br/><br/> 자공이 또 물었다. “<span class='quot0'>오늘날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span>” 공자는 정색을 하고 말한다. “아! 한 말들이밖에 안 되는 작은 기량을 가진 사람이야 논할 바 못 된다” ‘한 말들이’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은 공자의 시대만은 아닌 것 같다.<br/><br/> 세월호 참사는 인재로 시작하여 관재로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다.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매도하고, ‘관피아’ 척결을 공언하면서 산하기관장에 줄줄이 낙하산을 투하하는 몰염치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예비하고 있다.<br/><br/>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재가동, 그것도 이명박 관리들의 ‘원전비리’로 가득 찬 고리 1호기 수명 10년 연장 등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다. 세월호 참사는 300여명의 고귀한 인명을 잃었지만, 원전의 재난은 300만명 이상의 참사를 가져온다는데도 정녕 ‘한 말들이’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불안하다.<br/><br/>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근혜’ 정권 역주행의 종합편이다. 국가기관이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정보기관이 간첩을 조작했다. 세계적 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4년도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68위로 지난해보다 네 단계나 추락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139개국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산출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최하위 5등급에 속한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국격과 선진화를 구호로 내건 위정자와 추종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사전과 국민이 보는 사전은 다른가?<br/><br/>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 쓰레기’로 불리던 언론인들이 궐기하고 있다. 더 이상 청와대 나팔수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공영방송의 자율성 회복에 나섰다. 야당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선거가 제기능을 못하면 인재와 관재는 되풀이된다. ‘한 말들이’들이 국정을 전횡하게 놔두면 나라의 운명은 암담하다. 이런 의미에서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다. <br/><br/>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1.txt

제목: “딸 승희 생각하면…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날짜: 2014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510014347462  
본문: 딸은 스무살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딸에게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지? 자주 좀 봐야 하는데….” 딸은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 건강하셔야 해요.” 딸의 손을 잡으려다가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br/><br/> 박심배(70·사진·전남 목포시)씨는 “요즘 부쩍 딸의 꿈을 많이 꾼다”고 했다. 딸 승희는 23년 전인 1991년 4월29일 훌쩍 떠나버렸다.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2학년 때였다. 전남대 교지 <용봉>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딸은 전남대 도서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분신했다. 그 해 4월 26일 당시 명지대 1학년생이던 강경대(당시 20살)씨가 시위 도중 경찰 ‘백골단’에 의해 쇠파이프로 집단구타 당해 숨져 정국이 들끓던 때였다. “살인정권을 규탄한다”며 분신했던 딸은 21일만인 5월25일 숨을 거뒀다. 딸은 유서와 함께 코스모스 씨앗을 남겼다. 딸을 가슴에 묻었지만, 코스모스를 볼 때면 딸이 더욱 그리워진다. <br/><br/> “<span class='quot0'>내 몸이 안 좋응께, 딸이 자주 꿈에서 보이는가 봐요.</span>”<br/><br/> 지난 24일 오후 광주시 망월동 5·18 구묘역에서 열린 ‘박승희·조성만·윤용하·정상순 합동 추모제’에서 만난 박씨는 “<span class='quot1'>아빠에게 힘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분신정국’에서 세상을 떴던 고인들을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의 첫 합동 추모제였다. <br/><br/> 박씨는 “<span class='quot1'>지난 2월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상증세를 발견해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span>”고 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도 못할 정도를 악화된 상태여서, 지금은 항암치료만 받고 있다. “나의 의지로,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해요. 암이라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고요….” 그는 항암주사를 맞으면서 난생 처음 만난 환자들에게 말을 붙여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낙천적이다. 새까맣게 타 버린 딸의 주검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span class='quot1'>그래,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span>”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br/><br/>딸 묻고도 15년간 사망신고 못해 <br/>폐암 투병…“세월 갈수록 더 생각” <br/>민주화 보상금 전액에 동문뜻 보태<br/><br/> “부모 마음이 그러네요. 지금이나 그 때나 똑같고, 세월이 흐를수록 생각이 더 나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는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사실 박씨는 오랫동안 딸을 보내지 못했다. 딸을 땅에 묻은 뒤에도 주민등록증을 없애질 못했다. 딸의 여운마저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2005년 9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지만,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지 않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주변에서 “이제, 딸을 보내라. 보상금을 받아 좋은 곳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2006년 그는 결국 딸의 사망신고를 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위해 써달라”며 딸의 보상금 전액을 2011년 추모사업회에 기부했다. <br/><br/> 추모사업회는 박승희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합동 추모식은 박승희장학재단의 설립을 선포하는 날이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 기부액 1억4000만원에 딸의 출신학교인 정명여고 동창생과 전남대 동문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2억원이 마련돼 지난 13일 광주시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았다. 새달 1일 장학재단 설립 등기가 나온다. <br/><b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해 해직됐다가 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대변인을 맡아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었던 홍광석(65·소설가)씨가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는다. 박승희의 고교 동창 전민제(43)씨는 “<span class='quot2'>승희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김명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은 “박승희 동지가 남긴 정신은 ‘비겁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투병중인데도 지팡이를 짚고 추모식에 참석한 오종렬 진보연대 총의장은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간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됩시다”라고 말했다.<br/><br/> 광주/글·사진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2.txt

제목: “딸 승희 생각하면…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날짜: 2014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510016011692  
본문: 딸은 스무살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딸에게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지? 자주 좀 봐야 하는데….” 딸은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 건강하셔야 해요.” 딸의 손을 잡으려다가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br/><br/> 박심배(70·사진·전남 목포시)씨는 “요즘 부쩍 딸의 꿈을 많이 꾼다”고 했다. 딸 승희는 23년 전인 1991년 4월29일 훌쩍 떠나버렸다.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2학년 때였다. 전남대 교지 <용봉>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딸은 전남대 도서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분신했다. 그 해 4월 26일 당시 명지대 1학년생이던 강경대(당시 20살)씨가 시위 도중 경찰 ‘백골단’에 의해 쇠파이프로 집단구타 당해 숨져 정국이 들끓던 때였다. “살인정권을 규탄한다”며 분신했던 딸은 21일만인 5월25일 숨을 거뒀다. 딸은 유서와 함께 코스모스 씨앗을 남겼다. 딸을 가슴에 묻었지만, 코스모스를 볼 때면 딸이 더욱 그리워진다. <br/><br/> “<span class='quot0'>내 몸이 안 좋응께, 딸이 자주 꿈에서 보이는가 봐요.</span>”<br/><br/> 지난 24일 오후 광주시 망월동 5·18 구묘역에서 열린 ‘박승희·조성만·윤용하·정상순 합동 추모제’에서 만난 박씨는 “<span class='quot1'>아빠에게 힘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분신정국’에서 세상을 떴던 고인들을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의 첫 합동 추모제였다. <br/><br/> 박씨는 “<span class='quot1'>지난 2월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상증세를 발견해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span>”고 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도 못할 정도를 악화된 상태여서, 지금은 항암치료만 받고 있다. “나의 의지로,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해요. 암이라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고요….” 그는 항암주사를 맞으면서 난생 처음 만난 환자들에게 말을 붙여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낙천적이다. 새까맣게 타 버린 딸의 주검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span class='quot1'>그래,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span>”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br/><br/>딸 묻고도 15년간 사망신고 못해 <br/>폐암 투병…“세월 갈수록 더 생각” <br/>민주화 보상금 전액에 동문뜻 보태<br/><br/> “부모 마음이 그러네요. 지금이나 그 때나 똑같고, 세월이 흐를수록 생각이 더 나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는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사실 박씨는 오랫동안 딸을 보내지 못했다. 딸을 땅에 묻은 뒤에도 주민등록증을 없애질 못했다. 딸의 여운마저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2005년 9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지만,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지 않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주변에서 “이제, 딸을 보내라. 보상금을 받아 좋은 곳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2006년 그는 결국 딸의 사망신고를 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위해 써달라”며 딸의 보상금 전액을 2011년 추모사업회에 기부했다. <br/><br/> 추모사업회는 박승희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합동 추모식은 박승희장학재단의 설립을 선포하는 날이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 기부액 1억4000만원에 딸의 출신학교인 정명여고 동창생과 전남대 동문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2억원이 마련돼 지난 13일 광주시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았다. 새달 1일 장학재단 설립 등기가 나온다. <br/><b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해 해직됐다가 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대변인을 맡아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었던 홍광석(65·소설가)씨가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는다. 박승희의 고교 동창 전민제(43)씨는 “<span class='quot2'>승희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김명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은 “박승희 동지가 남긴 정신은 ‘비겁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투병중인데도 지팡이를 짚고 추모식에 참석한 오종렬 진보연대 총의장은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간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됩시다”라고 말했다.<br/><br/> 광주/글·사진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3.txt

제목: 터무니없이 평범한 /그래서 비범한 /‘그냥 형돈이’  
날짜: 2014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4100000015  
본문: “벌써 2년 동안 이걸 계속 하셨다고요? 대체 왜…?” 엠비시(MBC) 에브리원 채널의 토크쇼 에 출연한 가수 지나는, 왜 2년 만에 출연할 정도로 활동이 뜸했느냐는 질문에 경악을 하며 이렇게 되물었다. 방학 특수를 노린 8주짜리 아이템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졸지에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어 3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그렇게 되물을 만도 하다. 아무 장식도 없이 온통 흰색 천지인 벽면과 바닥인 세트는 3년이 되도록 나아진 게 없고, 비싼 몸값의 아이돌들을 모셔놓고는 짓궂은 질문과 까칠한 태도로 요리하는 엠시 정형돈과 데프콘도 여전한데 말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이 오래갈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초라한 세트를 누비는, 일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삼촌들 같은 엠시들, 개중에서도 정형돈의 평범함 말이다.<br/>　흔히 아이돌 산업은 환상을 파는 사업이라고들 말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아이돌은 화장실도 안 갈 거라 믿던 순진한 팬들의 시대는 90년대와 함께 지나갔다. 그 시절 아이돌 팬질을 하던 이들은 세월이 흐르며 자신이 지지하던 아이돌 멤버들이 결혼을 해 애를 낳거나,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법적 갈등을 겪거나, 팀 내 불화로 과거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를 욕하는 꼴까지 보아야 했다. 마약이나 도박, 성추문 따위에 휩쓸리지 않으면 다행인 마당에, 뻔한 환상을 사고파는 건 이제 아이돌 산업의 핵심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 아이돌조차 달콤한 환상은 잠깐이고 나머지 시간은 화식하는 인간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단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버렸으니 말이다.<br/>　새 시대의 아이돌 팬덤 중 적잖은 수는 이처럼 아이돌 산업의 명과 암을 모두 목격한 누나팬·삼촌팬들이고, 이제 이들은 막연한 환상에 위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지갑 열어 키운 내 새끼들 평소엔 어떻게 지내나 보자’라는 구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며 위안을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 일상을 중계하는 아이돌들은 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팬들과의 유대감 또한 더욱 강해진다. 아이돌들이 무대 위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그런 무방비하고 내밀한 모습을 공유하면, 팬들은 그들과 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은 환상을 소비하는 것이다. 과거 신비주의와 카리스마를 사고팔던 아이돌 산업은, 점점 소소하지만 구체적이고 동시에 관음증적인 욕망을 거래하는 산업이 되었다.<br/>　그래서 아이돌을 게스트로 모시는 과 같은 토크쇼엔 뻔뻔스레 짓궂고 깨알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엠시가 필요한데, 정형돈(과 데프콘)이야말로 그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인 것이다. 정형돈은 아이돌을 무조건 찬양하거나 띄워주는 대신, 솔직하고 직설적인 농담들로 게스트들을 쥐고 흔든다. 평소 방송인이라기보단 동네 한심한 삼촌 같은 캐릭터를 꾸준히 밀어온 정형돈은, “<span class='quot0'>신곡의 안무가 굉장히 격렬한데, 점점 나이를 먹고 있는 팀 내 맏이의 뻣뻣한 관절은 괜찮은가</span>”처럼 평범하지만 노골적인 누나팬·삼촌팬의 호기심을 밉거나 어색하지 않게 대리충족시켜 줄 수 있다. 출연한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중 누구의 엉덩이가 가장 탄력이 좋은지 알려달라는 시청자의 리퀘스트에, “<span class='quot1'>내가 직접 만져보고 판단할 테니까, 대신 너희들도 내 엉덩이 만져도 돼</span>”라는 정신 나간 해법을 제시하며 자신의 엉덩이를 내미는 동네 삼촌 같은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br/>　처음부터 정형돈이 이렇게 평범함을 뻔뻔스레 무기로 내미는 사람은 아니었다. 한국방송(KBS) 로 데뷔할 때만 해도 그는 절대 평범하진 않은 캐릭터였으니 말이다. 그때만 해도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체구와 우악스러운 태도로 마초적인 개그를 선보이던 코미디언이었다. ‘유치 개그’나 ‘봉숭아학당’과 같은 코너에서 보여줬던 특유의 기름지고 선 굵은 개그와 억센 경상도 사투리, 고도비만의 체형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던 청순한 단발머리까지. 정형돈은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운 캐릭터를 힘주어 밀어붙이던 ‘센 캐릭터’였다. 오죽했으면 처음 문화방송 의 한 꼭지였던 ‘무모한 도전’(현 의 전신)에 출연할 때만 해도 캐릭터가 ‘건방진 뚱보’였겠는가.<br/>　그러나 이 점차 상황 위주의 예능에서 캐릭터 중심의 쇼로 자리를 잡으며 정형돈은 점점 캐릭터를 잃어갔다. 건방진 면모는 하하가, 뚱뚱함과 식탐은 정준하가, 안하무인의 독한 캐릭터는 박명수가 가져가면서 자신만의 캐릭터가 희석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형돈이 상황정리를 유재석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발음이나 멘트가 노홍철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캐릭터가 사라진 정형돈은 점점 위축됐고, 은 그에게 ‘웃기는 것만 빼곤 다 잘하는, 못 웃기는 개그맨’이라는 캐릭터를 안겨주었다. 물론 그때의 정형돈에게도 ‘진상’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은근히 뛰어난 운동신경도 있었지만, ‘못 웃기는 코미디언’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 프레임 안에서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미처 몰랐던 정형돈은 아주 긴 슬럼프를 겪어야 했다.<br/>　정형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평범하다 못해 시대착오적인 촌스러움을 무기로 삼은 ‘그냥 형돈이’ 캐릭터를 선보이면서였다. 통 넓은 정장바지에 후줄근한 여름 반팔 셔츠, 큼지막한 은테 안경과 고수머리의 ‘그냥 형돈이’ 캐릭터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평범했다. 빅뱅의 ‘하루하루’를 패러디했던 의 ‘하루하루’ 뮤직비디오에 다른 멤버들은 모두 빅뱅처럼 꾸민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그중 누구도 ‘그냥 형돈이’ 캐릭터로 출연한 정형돈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평범한 것이 죄악시되는 시대, 메뚜기, 탈모인, 식신, 키 작은 꼬마, 돌아이 등 화려한 캐릭터들이 난무하는 안에서 그저 평범한 것이 특징이라고 내세운 ‘그냥 형돈이’ 캐릭터는 너무 평범한 탓에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한 것이다.<br/>　이 평범함에 팬들의 호응으로 얻은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역설적으로 ‘비범하리만치 평범한 남자’라는 정형돈 특유의 캐릭터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촌스러운 은갈치색 슈트에 꺾어 신은 신발, 오래되어 버클이 녹이 슬 지경인 가방을 멘 ‘형돈이 패션’을 선보이며 뻔뻔스레 “보고 있나 지드래곤?”이라고 말하며 패션의 아이콘 지드래곤을 도발한다거나, 엄청난 가창력이 필요한 조관우의 ‘늪’을 형편없이 불러 참극을 빚어내고도 당당하기 짝이 없는 그의 태도는 특출나지 않은 걸 부끄러워하던 모든 평범한 장삼이사들에게 미묘한 통쾌함을 주었다. 평범한 걸 비범한 것이라 뻔뻔스레 들이미는 그 자신감으로 정형돈은 스스로를 구원했고, 친구인 데프콘을 예능의 기대주로 성장시켰으며, 8주짜리 아이템 을 해당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며 멤버들 중 유일하게 유재석 없이도 메인 엠시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한국방송 에서, 동네 조기축구 수준의 실력을 지닌 정형돈이 이영표에게 축구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밉지 않은 웃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함을 이유로 위축되지 않는 특유의 뻔뻔스러움 덕분이었다.<br/>　그래서 그가 최근 방영된 ‘선택 2014’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회의 절대다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 한 사람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절대다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 평범한 것이 결코 주눅 들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당당함과 뻔뻔함이야말로 그 스스로를 구원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그의 말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를 볼 가능성은 희박할지 모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정형돈의 지지율은 최하위이고, 설령 그가 ‘ 차세대 리더’로 당선된다 해도 그 변화는 안에 국한된 변화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정형돈처럼 평범한 이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어떨까. 정형돈이 악몽 같던 슬럼프에서 스스로를 구원한 것처럼, 어쩌면 평범한 우리도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br/> 이승한 티브이 칼럼니스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4.txt

제목: 박근혜의 눈물  
날짜: 2014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4100000046  
본문: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크나큰 사건이니만큼 갖가지 반응이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어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중 하나가 유명인들의 눈물이다. 최근 손석희, 박원순, 정몽준, 박근혜 등의 눈물이 뉴스가 되었던 일은 대표적이다.<br/>　웃음과 달리 눈물은 ‘감정이 격해져야만’(感激) 발생한다. 슬픔과 분노, 기쁨과 환희처럼 반대되는 감정이라도 그것이 격해질 때는 눈물로 귀결된다. 격한 감정의 표출은 그래서 차분한 이성의 반대편, 곧 ‘비이성’의 영역에 놓인다. 하지만 비이성은 달리 말해 합리적 이성의 저편, 곧 ‘계산 없는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눈물이 ‘진정성’을 표상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게다가 눈물은 영혼을 상징하는 ‘눈’에서 나온다.)<br/>　진정성에 대한 애착이 심한 한국 문화에서 눈물은 대개 한 인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적 기호로 통용된다. 눈물 흘리는 인간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키고야 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성의 기호로서 눈물은 역설적으로 가장 진부한 ‘연극성’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성과 연극성을 감별하는 기준은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유명인의 눈물은 언제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손석희와 박원순의 눈물이 진짜고, 정몽준과 박근혜의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으며, 따라서 눈물은 많은 경우 자기편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기 일쑤다.<br/>　그런데 과연 눈물이 ‘감정’의 표상이기만 할까? 감정은 그저 ‘비이성’의 영역이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 눈물을 비롯한 여러 감정은 지각 혹은 인식을 전제하는 기호다. 법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라는 책의 3장에서 감정이 법적 판단과 분리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기도 하다. 감정은 대상에 대한 인식 속에서만 발생하며, 그 인식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가치판단을 전제한다. 세월호 소식을 접하며 흐르는 내 눈물은 세월호에서 죽은 이들이 무고하다는 인식, 그들의 죽음이 이윤을 생명 위에 놓는 자본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국가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각, 나와 내 가족도 언제든 그런 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다.<br/>　따라서 눈물은 진정성의 차원으로만 한정될 수 없으며, 눈물 뒤에 놓인 인식과 가치판단에 대한 ‘이성적’ 점검과 연결될 때 그 진면모가 드러난다. 눈물 흘리는 이와 그의 행적을 연결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다. 가령, 손석희의 눈물은 변질된 지상파에 비해 훨씬 더 꼼꼼하고 공정한 뉴스를 만들어낸 그의 언론행위가 있었기에 감동을 줄 수 있었다. 반면, 막내아들의 발언을 사과하는 정몽준의 눈물은 무고하게 죽은 단원고 학생들과 달리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난 그의 “철없는 막내아들”이라는 존재,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이라는 현실 앞에서 실체를 드러낸다. 박근혜의 눈물은 어떤가. 안전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실, 여러 규제를 ‘암덩어리’이자 ‘원수’로 부르며 풀었던 사실, 희생자 가족을 사찰하고 시위자를 연행하는 경찰의 존재, 분향 장면을 연출했던 전력, 한반도 전체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무지, 대국민 담화 당일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원자로 건설을 응원하는 행위 등은 그의 눈물 뒤에 놓인 처참한 인식 상태를 ‘증명’해준다.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했지만, 사실 눈물은 인식의 씨앗이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의 눈물 앞에서 감동 대신 끔찍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br/>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5.txt

제목: 세월호 의인 ‘박지영 강의실’ 만든다  
날짜: 20140524  
기자: /김기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4100000054  
본문: “누나는 왜 구명조끼를 안 입어요?” “누난 너희들 다 탈출하고 나갈 거야. 선원은 마지막이야.”<br/>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며 급히 대피시킨 뒤 자신은 안타깝게 숨진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22·사진)씨를 기리는 강의실이 수원과학대학교에 마련된다.<br/>　박씨가 다녔던 수원과학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관계자는 23일 “<span class='quot0'>침몰하는 배 안에서 목숨을 걸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세월호의 영웅’ 박지영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모두가 함께 기리기 위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span>”고 밝혔다.<br/>　고운학원 쪽은 가장 깨끗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강의실을 골라 가칭 ‘박지영 룸’을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는 박씨의 동판 등 박씨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각종 소품 등을 갖출 예정이다.<br/>　수원과학대와 같은 재단인 수원대 우창훈 교수(건축공학)는 “박씨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박지영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　박씨는 2011년 수원과학대 산업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휴학을 했다. 이후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 다시 복학하려 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br/>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의사자로 지정했다. 화성 안산/김기성 김일우 기자<br/> player009@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6.txt

제목: 아빠는 정씨, 나는 김씨 /새아빠 정말 사랑하지만 /꼭 성을 갈아야만 하나  
날짜: 2014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4100000009  
본문: ▶ 2005년 호주제 폐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새아버지 성(姓)을 따를 수 있어 엄청난 환영을 받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란 거죠. 바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성씨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해보시죠.<br/><br/>일곱살 가을, 오랜 투병생활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엄마는 혼자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고, 어린 나는 손을 타지 못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엄마가 없다는 건 견디기 힘들었다. 비 오는 날이면 교문 앞에서 우산을 든 친구 엄마를 보며 ‘나도 엄마가 데리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 내 소원은 엄마의 남편이 생기는 것이었다. 엄마에게 남편이 생긴다면 내 곁으로 돌아올 것만 같았다.<br/>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니 현관문에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그게 새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다. 엄마의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엄마가 못되게 말하는데도 ‘허허’ 하고 소탈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는 내게 친절하게 대할뿐더러 엄마에게도 다정했다. 사랑받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가 물었다. “아빠가 갖고 싶지 않니?” “엄마가 좋으면 나도 좋아.” 엄마는 아빠가 생겨도 되겠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엄마는 어린 딸이 새아버지가 생김으로써 받을 상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다. 나는 아빠란 존재보다는 엄마에게 남편이 생긴다는 사실에 기뻤다.<br/>　다만 거슬리는 일이 하나 생겼다. 아빠는 정씨이고, 나는 김씨다. 학교에서 호구조사를 할 때마다 남들의 시선이 싫었다. 새아빠란 사실이 부끄러워서다. 친구들이 “왜 너네 아빠는 정씨고, 너는 김씨야?” 물어볼 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돌돌 말아서 들고 가곤 했다.<br/>　우리집은 화목하다. 아빠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 되어 우리 곁을 지킨다. 부정의 부재라는 지난 몇 년간 나의 어두운 과거는 아빠의 사랑으로 말끔히 지워졌다. 아직도 사람들은 나의 밝은 성격 탓에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놀라곤 한다. 아빠는 나를 ‘공주님’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한다.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아빠를 뒀다”며 부러워했다.<br/>　첫번째 위기가 닥쳤다. 2005년 무렵일 게다. 호주제 폐지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호주제 폐지는 우리 가족에게 중대한 일이었다. 내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 엄마는 작명소에서 내 이름을 만들어봤다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도희’, ‘윤지’, ‘경현’…. 이게 뭔가. 내가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오다니! 엄마는 지금의 내 이름이 ‘정씨’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웬 점쟁이의 말을 듣고 새 이름을 만들어 왔다. 부계 사상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해 나온 호주제 폐지가 되레 가부장적인 생각을 내게 강요한 셈이다.<br/>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나서 공세를 퍼부었다. “<span class='quot0'>너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아빠 성을 따르기가 싫으냐</span>”, “<span class='quot0'>나중에 결혼해서 사람들이 아빠랑 성이 다르게 적힌 네 청첩장을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span>” 등등 온갖 얘기를 쏟아냈다. 그 근거들은 이후로도 내 성을 갈기 위한 작전(?)에 동원됐다. 나는 “갑자기 성까지 통째로 이름이 바뀌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릴 것”이라며 “나중에 대학 가면 바꾸겠다”는 거짓말로 이름을 지켰다.<br/>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게 될 때마다 내 성을 갈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은 끈질겼다. 가족들의 노력은 고래 힘줄 같은 내 고집을 끊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직까지 내 성과 이름에는 변화가 없으니 말이다.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든다. 우리집의 가족계획은 아빠가 “열 아들보다 우리 딸 하나가 최고”라는 선언을 한 후로 끝났다. 결국 아빠는 자신의 성을 가진 친자식을 가지지 못했다.<br/>　그만큼 아빠가 날 아끼는데 성씨를 바꾸지 않겠다는 건 당신에게 온전한 자식이 되기 싫다는 의사로 비칠까 두려웠다. 여태까지 아빠는 단 한번도 “성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는 의미를 담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나에게 부담이 될까 말은 안 하셔도 내심 서운하셨을 게다. 참 고맙게도 아빠는 본인을 위해 성씨를 바꾸지도 않는 딸을 사랑으로 안아주셨다. 성을 바꿨더라면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아빠가 좋아했을지도 모른다.<br/>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 대학 시절 양성이 한창 유행일 때 엄마, 아빠 성을 따서 지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런데도 왜 안 바꿨느냐고? 말 그대로 성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서 성씨에 집착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갔다. 하지만 성씨가 부녀간의 애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건 여전히 내겐 이상한 얘기다. 계모, 계부라면 아이에게 못되게 군다는 편견과 뭐가 다른가. 이제 나는 남들이 우리 아빠가 새아버지란 사실을 알고, 내가 친자식이 아니란 걸 사람들이 안다 해도 상관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br/>　아빠는 돌아가신 지 18년이 지난 나의 친아버지 제사를 본인이 직접 챙기신다. 나는 제기를 닦는 것 외에는 도와드린 게 거의 없다. 명절이면 “이제 그만하고 절에 모시자”고 큰소리치지만 아빠는 제사를 더 지내 드리고 싶단다. 당신에게 좋은 아내와 딸을 줬기 때문이란다. 내 생각만 했던 이기적인 딸이었던 것 같아 죄송스러웠다. 성씨가 우리 부녀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앞으로도 모를 것 같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성씨가 같은 부녀 사이보다도 우리는 완벽하다는 것. 나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도 나를 사랑한다. <br/> 성씨가 달라도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7.txt

제목: 터무니없이 평범한…그래서 비범한 ‘그냥 형돈이’  
날짜: 2014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310014340379  
본문: “벌써 2년 동안 이걸 계속 하셨다고요? 대체 왜…?” 엠비시(MBC) 에브리원 채널의 토크쇼 <주간 아이돌>에 출연한 가수 지나는, 왜 2년 만에 출연할 정도로 활동이 뜸했느냐는 질문에 경악을 하며 이렇게 되물었다. 방학 특수를 노린 8주짜리 아이템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졸지에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어 3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그렇게 되물을 만도 하다. 아무 장식도 없이 온통 흰색 천지인 벽면과 바닥인 세트는 3년이 되도록 나아진 게 없고, 비싼 몸값의 아이돌들을 모셔놓고는 짓궂은 질문과 까칠한 태도로 요리하는 엠시 정형돈과 데프콘도 여전한데 말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주간 아이돌>이 오래갈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초라한 세트를 누비는, 일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삼촌들 같은 엠시들, 개중에서도 정형돈의 평범함 말이다.<br/><br/><br/><br/>방학용 8주 기획 ‘주간 아이돌’을 <br/>3년 이어온 비결은 그의 평범함 <br/> <br/>한심한 삼촌 같은 캐릭터로 <br/>주눅들지 않는 뻔뻔함이 <br/>특출나지 않아 부끄럽던 <br/>장삼이사에 미묘한 통쾌함 선사 <br/><br/><br/><br/><br/> 흔히 아이돌 산업은 환상을 파는 사업이라고들 말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아이돌은 화장실도 안 갈 거라 믿던 순진한 팬들의 시대는 90년대와 함께 지나갔다. 그 시절 아이돌 팬질을 하던 이들은 세월이 흐르며 자신이 지지하던 아이돌 멤버들이 결혼을 해 애를 낳거나,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법적 갈등을 겪거나, 팀 내 불화로 과거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를 욕하는 꼴까지 보아야 했다. 마약이나 도박, 성추문 따위에 휩쓸리지 않으면 다행인 마당에, 뻔한 환상을 사고파는 건 이제 아이돌 산업의 핵심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 아이돌조차 달콤한 환상은 잠깐이고 나머지 시간은 화식하는 인간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단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버렸으니 말이다.<br/><br/> 새 시대의 아이돌 팬덤 중 적잖은 수는 이처럼 아이돌 산업의 명과 암을 모두 목격한 누나팬·삼촌팬들이고, 이제 이들은 막연한 환상에 위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지갑 열어 키운 내 새끼들 평소엔 어떻게 지내나 보자’라는 구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며 위안을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 일상을 중계하는 아이돌들은 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팬들과의 유대감 또한 더욱 강해진다. 아이돌들이 무대 위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그런 무방비하고 내밀한 모습을 공유하면, 팬들은 그들과 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은 환상을 소비하는 것이다. 과거 신비주의와 카리스마를 사고팔던 아이돌 산업은, 점점 소소하지만 구체적이고 동시에 관음증적인 욕망을 거래하는 산업이 되었다.<br/><br/> 그래서 아이돌을 게스트로 모시는 <주간 아이돌>과 같은 토크쇼엔 뻔뻔스레 짓궂고 깨알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엠시가 필요한데, 정형돈(과 데프콘)이야말로 그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인 것이다. 정형돈은 아이돌을 무조건 찬양하거나 띄워주는 대신, 솔직하고 직설적인 농담들로 게스트들을 쥐고 흔든다. 평소 방송인이라기보단 동네 한심한 삼촌 같은 캐릭터를 꾸준히 밀어온 정형돈은, “<span class='quot0'>신곡의 안무가 굉장히 격렬한데, 점점 나이를 먹고 있는 팀 내 맏이의 뻣뻣한 관절은 괜찮은가</span>”처럼 평범하지만 노골적인 누나팬·삼촌팬의 호기심을 밉거나 어색하지 않게 대리충족시켜 줄 수 있다. 출연한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중 누구의 엉덩이가 가장 탄력이 좋은지 알려달라는 시청자의 리퀘스트에, “<span class='quot1'>내가 직접 만져보고 판단할 테니까, 대신 너희들도 내 엉덩이 만져도 돼</span>”라는 정신 나간 해법을 제시하며 자신의 엉덩이를 내미는 동네 삼촌 같은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br/><br/> 처음부터 정형돈이 이렇게 평범함을 뻔뻔스레 무기로 내미는 사람은 아니었다. 한국방송(KBS) <개그콘서트>로 데뷔할 때만 해도 그는 절대 평범하진 않은 캐릭터였으니 말이다. 그때만 해도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체구와 우악스러운 태도로 마초적인 개그를 선보이던 코미디언이었다. ‘유치 개그’나 ‘봉숭아학당’과 같은 코너에서 보여줬던 특유의 기름지고 선 굵은 개그와 억센 경상도 사투리, 고도비만의 체형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던 청순한 단발머리까지. 정형돈은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운 캐릭터를 힘주어 밀어붙이던 ‘센 캐릭터’였다. 오죽했으면 처음 문화방송 <강력추천 토요일>의 한 꼭지였던 ‘무모한 도전’(현 <무한도전>의 전신)에 출연할 때만 해도 캐릭터가 ‘건방진 뚱보’였겠는가.<br/><br/> 그러나 <무한도전>이 점차 상황 위주의 예능에서 캐릭터 중심의 쇼로 자리를 잡으며 정형돈은 점점 캐릭터를 잃어갔다. 건방진 면모는 하하가, 뚱뚱함과 식탐은 정준하가, 안하무인의 독한 캐릭터는 박명수가 가져가면서 자신만의 캐릭터가 희석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형돈이 상황정리를 유재석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발음이나 멘트가 노홍철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캐릭터가 사라진 정형돈은 점점 위축됐고, <무한도전>은 그에게 ‘웃기는 것만 빼곤 다 잘하는, 못 웃기는 개그맨’이라는 캐릭터를 안겨주었다. 물론 그때의 정형돈에게도 ‘진상’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은근히 뛰어난 운동신경도 있었지만, ‘못 웃기는 코미디언’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 프레임 안에서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미처 몰랐던 정형돈은 아주 긴 슬럼프를 겪어야 했다.<br/><br/> 정형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평범하다 못해 시대착오적인 촌스러움을 무기로 삼은 ‘그냥 형돈이’ 캐릭터를 선보이면서였다. 통 넓은 정장바지에 후줄근한 여름 반팔 셔츠, 큼지막한 은테 안경과 고수머리의 ‘그냥 형돈이’ 캐릭터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평범했다. 빅뱅의 ‘하루하루’를 패러디했던 <무한도전>의 ‘하루하루’ 뮤직비디오에 다른 멤버들은 모두 빅뱅처럼 꾸민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그중 누구도 ‘그냥 형돈이’ 캐릭터로 출연한 정형돈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평범한 것이 죄악시되는 시대, 메뚜기, 탈모인, 식신, 키 작은 꼬마, 돌아이 등 화려한 캐릭터들이 난무하는 <무한도전> 안에서 그저 평범한 것이 특징이라고 내세운 ‘그냥 형돈이’ 캐릭터는 너무 평범한 탓에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한 것이다.<br/><br/> 이 평범함에 팬들의 호응으로 얻은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역설적으로 ‘비범하리만치 평범한 남자’라는 정형돈 특유의 캐릭터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촌스러운 은갈치색 슈트에 꺾어 신은 신발, 오래되어 버클이 녹이 슬 지경인 가방을 멘 ‘형돈이 패션’을 선보이며 뻔뻔스레 “보고 있나 지드래곤?”이라고 말하며 패션의 아이콘 지드래곤을 도발한다거나, 엄청난 가창력이 필요한 조관우의 ‘늪’을 형편없이 불러 참극을 빚어내고도 당당하기 짝이 없는 그의 태도는 특출나지 않은 걸 부끄러워하던 모든 평범한 장삼이사들에게 미묘한 통쾌함을 주었다. 평범한 걸 비범한 것이라 뻔뻔스레 들이미는 그 자신감으로 정형돈은 스스로를 구원했고, 친구인 데프콘을 예능의 기대주로 성장시켰으며, 8주짜리 아이템 <주간 아이돌>을 해당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며 <무한도전> 멤버들 중 유일하게 유재석 없이도 메인 엠시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한국방송 <우리동네 예체능>에서, 동네 조기축구 수준의 실력을 지닌 정형돈이 이영표에게 축구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밉지 않은 웃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함을 이유로 위축되지 않는 특유의 뻔뻔스러움 덕분이었다.<br/><br/> 그래서 그가 최근 방영된 <무한도전> ‘선택 2014’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회의 절대다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 한 사람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절대다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 평범한 것이 결코 주눅 들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당당함과 뻔뻔함이야말로 그 스스로를 구원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그의 말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를 볼 가능성은 희박할지 모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정형돈의 지지율은 최하위이고, 설령 그가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로 당선된다 해도 그 변화는 <무한도전> 안에 국한된 변화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정형돈처럼 평범한 이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어떨까. 정형돈이 악몽 같던 슬럼프에서 스스로를 구원한 것처럼, 어쩌면 평범한 우리도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br/><br/>이승한 티브이 칼럼니스트 <br/><br/><br/><br/>[이승한·서정민·김선영의 잉여싸롱] “공동주거는 핑크빛 엠티가 아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8.txt

제목: [크리틱] 박근혜의 눈물 / 문강형준  
날짜: 2014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310014340262  
본문: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크나큰 사건이니만큼 갖가지 반응이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어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중 하나가 유명인들의 눈물이다. 최근 손석희, 박원순, 정몽준, 박근혜 등의 눈물이 뉴스가 되었던 일은 대표적이다.<br/><br/> 웃음과 달리 눈물은 ‘감정이 격해져야만’(感激) 발생한다. 슬픔과 분노, 기쁨과 환희처럼 반대되는 감정이라도 그것이 격해질 때는 눈물로 귀결된다. 격한 감정의 표출은 그래서 차분한 이성의 반대편, 곧 ‘비이성’의 영역에 놓인다. 하지만 비이성은 달리 말해 합리적 이성의 저편, 곧 ‘계산 없는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눈물이 ‘진정성’을 표상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게다가 눈물은 영혼을 상징하는 ‘눈’에서 나온다.)<br/><br/> 진정성에 대한 애착이 심한 한국 문화에서 눈물은 대개 한 인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적 기호로 통용된다. 눈물 흘리는 인간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키고야 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성의 기호로서 눈물은 역설적으로 가장 진부한 ‘연극성’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성과 연극성을 감별하는 기준은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유명인의 눈물은 언제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손석희와 박원순의 눈물이 진짜고, 정몽준과 박근혜의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으며, 따라서 눈물은 많은 경우 자기편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기 일쑤다.<br/><br/> 그런데 과연 눈물이 ‘감정’의 표상이기만 할까? 감정은 그저 ‘비이성’의 영역이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 눈물을 비롯한 여러 감정은 지각 혹은 인식을 전제하는 기호다. 법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시적 정의>라는 책의 3장에서 감정이 법적 판단과 분리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기도 하다. 감정은 대상에 대한 인식 속에서만 발생하며, 그 인식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가치판단을 전제한다. 세월호 소식을 접하며 흐르는 내 눈물은 세월호에서 죽은 이들이 무고하다는 인식, 그들의 죽음이 이윤을 생명 위에 놓는 자본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국가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각, 나와 내 가족도 언제든 그런 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다.<br/><br/> 따라서 눈물은 진정성의 차원으로만 한정될 수 없으며, 눈물 뒤에 놓인 인식과 가치판단에 대한 ‘이성적’ 점검과 연결될 때 그 진면모가 드러난다. 눈물 흘리는 이와 그의 행적을 연결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다. 가령, 손석희의 눈물은 변질된 지상파에 비해 훨씬 더 꼼꼼하고 공정한 뉴스를 만들어낸 그의 언론행위가 있었기에 감동을 줄 수 있었다. 반면, 막내아들의 발언을 사과하는 정몽준의 눈물은 무고하게 죽은 단원고 학생들과 달리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난 그의 “철없는 막내아들”이라는 존재,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이라는 현실 앞에서 실체를 드러낸다. 박근혜의 눈물은 어떤가. 안전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실, 여러 규제를 ‘암덩어리’이자 ‘원수’로 부르며 풀었던 사실, 희생자 가족을 사찰하고 시위자를 연행하는 경찰의 존재, 분향 장면을 연출했던 전력, 한반도 전체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무지, 대국민 담화 당일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원자로 건설을 응원하는 행위 등은 그의 눈물 뒤에 놓인 처참한 인식 상태를 ‘증명’해준다.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했지만, 사실 눈물은 인식의 씨앗이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의 눈물 앞에서 감동 대신 끔찍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br/><br/>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1-999.txt

제목: 새아빠 정말 사랑하지만…꼭 성을 갈아야만 하나  
날짜: 2014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310014340401  
본문: ▶ 2005년 호주제 폐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새아버지의 성(姓)을 따를 수 있게 돼 큰 환영을 받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란 거죠. 바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성씨란 무엇인가’에 관해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해보시죠.<br/><br/><br/><br/>일곱살 가을, 오랜 투병생활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엄마는 혼자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고, 어린 나는 손을 타지 못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엄마가 없다는 건 견디기 힘들었다. 비 오는 날이면 교문 앞에서 우산을 든 친구 엄마를 보며 ‘나도 엄마가 데리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 내 소원은 엄마의 남편이 생기는 것이었다. 엄마에게 남편이 생긴다면 내 곁으로 돌아올 것만 같았다.<br/><br/>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니 현관문에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그게 새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다. 엄마의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엄마가 못되게 말하는데도 ‘허허’ 하고 소탈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는 내게 친절하게 대할뿐더러 엄마에게도 다정했다. 사랑받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가 물었다. “아빠가 갖고 싶지 않니?” “엄마가 좋으면 나도 좋아.” 엄마는 아빠가 생겨도 되겠냐고 재차 되물었다. 엄마는 어린 딸이 새아버지가 생김으로써 받을 상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다. 나는 아빠란 존재보다는 엄마에게 남편이 생긴다는 사실에 기뻤다.<br/><br/> 다만 거슬리는 일이 하나 생겼다. 아빠는 정씨이고, 나는 김씨다. 학교에서 호구조사를 할 때마다 남들의 시선이 싫었다. 새아빠란 사실이 부끄러워서다. 친구들이 “왜 너네 아빠는 정씨고, 너는 김씨야?” 물어볼 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돌돌 말아서 들고 가곤 했다.<br/><br/> 우리집은 화목하다. 아빠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 되어 우리 곁을 지킨다. 부정의 부재라는 지난 몇 년간 나의 어두운 과거는 아빠의 사랑으로 말끔히 지워졌다. 아직도 사람들은 나의 밝은 성격 탓에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놀라곤 한다. 아빠는 나를 ‘공주님’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한다.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아빠를 뒀다”며 부러워했다.<br/><br/><br/><br/>엄마에게 남자가 생겨 좋았다 <br/>그 남자를 우리 아빠로 맞았다 <br/>처음에는 성이 달라 거슬렸다 <br/>쥐구멍 숨고 싶을 때가 많았다 <br/> <br/>외할머니·외할아버지까지 나서 <br/>내 성을 바꿔라 공세 퍼부었다 <br/>성씨 집착하는 그분들 맘 안다 <br/>그것도 하나의 편견에 불과할 뿐 <br/><br/><br/><br/><br/> 첫번째 위기가 닥쳤다. 2005년 무렵일 게다. 호주제 폐지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호주제 폐지는 우리 가족에게 중대한 일이었다. 내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 엄마는 작명소에서 내 이름을 만들어봤다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도희’, ‘윤지’, ‘경현’…. 이게 뭔가. 내가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오다니! 엄마는 지금의 내 이름이 ‘정씨’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웬 점쟁이의 말을 듣고 새 이름을 만들어 왔다. 부계 사상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해 나온 호주제 폐지가 되레 가부장적인 생각을 내게 강요한 셈이다.<br/><br/>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나서 공세를 퍼부었다. “<span class='quot0'>너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아빠 성을 따르기가 싫으냐</span>”, “<span class='quot0'>나중에 결혼해서 사람들이 아빠랑 성이 다르게 적힌 네 청첩장을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span>” 등등 온갖 얘기를 쏟아냈다. 그 근거들은 이후로도 내 성을 갈기 위한 작전(?)에 동원됐다. 나는 “갑자기 성까지 통째로 이름이 바뀌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릴 것”이라며 “나중에 대학 가면 바꾸겠다”는 거짓말로 이름을 지켰다.<br/><br/>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게 될 때마다 내 성을 갈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은 끈질겼다. 가족들의 노력은 고래 힘줄 같은 내 고집을 끊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직까지 내 성과 이름에는 변화가 없으니 말이다.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든다. 우리집의 가족계획은 아빠가 “열 아들보다 우리 딸 하나가 최고”라는 선언을 한 후로 끝났다. 결국 아빠는 자신의 성을 가진 친자식을 가지지 못했다.<br/><br/> 그만큼 아빠가 날 아끼는데 성씨를 바꾸지 않겠다는 건 당신에게 온전한 자식이 되기 싫다는 의사로 비칠까 두려웠다. 여태까지 아빠는 단 한번도 “성을 바꿀 생각이 없냐”는 의미를 담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나에게 부담이 될까 말은 안 하셔도 내심 서운하셨을 게다. 참 고맙게도 아빠는 본인을 위해 성씨를 바꾸지도 않는 딸을 사랑으로 안아주셨다. 성을 바꿨더라면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아빠가 좋아했을지도 모른다.<br/><br/>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 대학시절 양성이 한창 유행일 때 엄마, 아빠 성을 따서 지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런데도 왜 안 바꿨냐고? 말 그대로 성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서 성씨에 집착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갔다. 하지만 성씨가 부녀간의 애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건 여전히 내겐 이상한 얘기다. 계모, 계부라면 아이에게 못되게 군다는 편견과 뭐가 다른가. 이제 나는 남들이 우리 아빠가 새아버지란 사실을 알고, 내가 친자식이 아니란 걸 사람들이 안다 해도 상관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br/><br/> 아빠는 돌아가신 지 18년이 지난 나의 친아버지 제사를 본인이 직접 챙기신다. 나는 제기를 닦는 것 외에는 도와드린 게 거의 없다. 명절이면 “이제 그만하고 절에 모시자”고 큰소리 치지만 아빠는 제사를 더 지내 드리고 싶단다. 당신에게 좋은 아내와 딸을 줬기 때문이란다. 내 생각만 했던 이기적인 딸이었던 것 같아 죄송스러웠다. 성씨가 우리 부녀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앞으로도 모를 것 같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성씨가 같은 부녀 사이보다도 우리는 완벽하다는 것. 나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도 나를 사랑한다. <br/><br/>성씨가 달라도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딸